[텍스트 입력]

참부모님 말씀집
天 聖 經

CHEON SEONG GYEONG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머리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 생명 혈통을 말씀에 담아서 창조하셨기에 인간과 만물이 존재하는 데는 일정한 원칙과 법도, 곧 천도(天道)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은 말씀의 실체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인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상속받아 말씀을 지킴으로써 본연의 인간의 창조 본성을 갖게 됩니다.

인간시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 죄악의 속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사랑의 부모이기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귀섭리를 전개하십니다. 그 방법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어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말씀의 실체로 오시어 창조가 그랬듯이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섭리를 완성시킵니다.

2 천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실체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말씀을 불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고, 예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2 천년 후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님도 말씀의 실체로 오시고 인류를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창조이상을 완성하게 합니다. 곧 하늘로부터 온 분명한 징표는 이 세계를 구원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의 실체로 오시어 그 말씀으로 복귀의 성업을 완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의를 따라 '하나님 해방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오시며 신과 인간, 세계와 역사, 영계 그리고 사탄의 정체와 천상의 모든 비밀을 밝혀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실현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현재 412 권의 <<말씀선집>>을 비롯한 500 여권의 저서 속에 나타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 및 세계평화'를 위해 밝혀 나오신 천상의 비밀인 500 여권의 저서 가운데서 주제별로 발췌 정리한 16 권을 한 권으로 합본한 본서를 <<천성경(天聖經)>>이라 명명해 주셨습니다.

본서는 제 1 권 참하나님, 제 2 권 참부모, 제 3 권 참사랑, 제 4 권 참가정, 제 5 권 지상생활과 영계, 제 6 권 인간의 삶과 영혼의 세계, 제 7 권 예절과 의식, 제 8 권 죄와 탕감복귀, 제 9 권 축복가정, 제 10 권 성약인의 길, 제 11 권 우주의 근본, 제 12 권 환태평양 섭리, 제 13 권 참하나님의 조국광복, 제 14 권 참효의 생활, 제 15 권 천일국 주인의 생활, 제 16 권 참가정과 가정맹세 순으로 편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에는 소생급 재창조를 위한 구약(舊約)말씀, 장성급 재창조를 위한 신약(新約)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2001.1.13)을 기점으로 천일국(天一國)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사랑과 평화의 신천지가 <<천성경>>의 말씀으로 안착되게 됩니다. 곧 천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제별로 엄선된 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본 <<천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참사랑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속성이 실체화된 참부모님의 숭고하신 삶은 곧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류 조상의 타락 이후 자녀 잃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슬픈 하나님의 부모의 심정과 복귀섭리의 한 맺힌 역사를 온 몸으로 실현해 오신 참부모님의 삶이 형상화된 말씀이기에 생명의 영원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일평생을 오직 하나님 해방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권을 안착시켜 드리고 인류를 창조본연의 참된 자녀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해 오신 참부모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양위분께서는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 훈독회(訓讀會)를 안착시키어 본서의 말씀이 실천적 삶으로 결실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독자제위께서 본서를 매일 훈독해 나감으로써 숭고하신 참부모님의 사랑과 심정 그리고 삶의 가르침을 깊게 이해하시고, 하늘 앞에 참된 자녀로서 천일국의 전통을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천일국 5 년(2005 년) 1 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목 차례>

머리말 1

제 1 권 참하나님 43

제 1 장 하나님의 본체 43

1)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시다 43

①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 43

② 본래는 자연히 알게 되어 있었다 46

2) 무형의 하나님은 체가 필요하다 47

① 체를 쓰기 위해 아담 해와 창조

② 아담은 종지조상, 유형의 하나님이다

3)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 52

①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신

② 신인일체의 인격신을 요구한다

4)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56

①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

② 하나님은 제일 가깝게 계신 분

5) 법도 안에서의 전지전능이다 64

① 원칙적 기반 위에서 전지전능하다

② 사랑만이 절대 기준이다

③ 하나님도 사랑 앞에는 절대복종이다

6) 사랑으로 무소부재하신다 72

① 사랑만이 경계를 넘나든다

② 우주에는 사랑이 없는 곳이 없다

7) 기존 신관들의 문제점 7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기성신관은 이율배반적이다
제 2 장 하나님과 창조역사 81
1) 하나님의 창조 동기는 사랑 81
① 창조의 역사는 완전 투입
② 사랑을 통한 창조이상 실현
2)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86
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
② 사랑과 생명의 핵심을 모두 투입
3) 아담 해와를 통한 사랑이상 89
① 아담을 무형이신 하나님의 체로 지었다
② 부부는 제 2 창조주의 자리
4) 사랑이상은 가정 중심으로 완성된다 95
①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4 위기대 완성
② 창조이상은 가정 완성으로 이뤄진다
5) 하나님이 만물세계를 지으신 뜻 99
① 만물을 지으신 목적
② 신비의 우주, 그 규모와 구조
③ 자연은 사랑이상을 가르쳐주는 교재
④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⑤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제 3 장 복귀섭리역사와 신관의 변천 109
1) 구약시대 하나님은 천사였다 109
①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였다
②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하나님 대신 사역했다
③ 왜 천사가 인간 구원에 가담하는가?
2)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 114
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② 종교에는 신부 종교와 천사장 종교가 있다
3) 예수님이 부자관계 신관 천명 116
① 신약시대는 양자의 시대
② 양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4) 성약 완성시대는 신인 일체의 시대 120
① 참자녀는 혈통 전환, 중생을 거쳐야 한다
5) 창세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 현현 123
① 비로소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신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제 4 장 참아버님이 본 하나님 126
1) 역사적인 원과 한과 고통의 하나님 126
① 인간 타락으로 부모의 자리를 잃어
② 복귀의 한, 자녀 찾아 6 천 년
2) 아들딸 잃은 충격, 슬픔의 하나님 132
① 영원한 독자를 잃은 하나님
② 하나님의 역사적 비참상
3) 구속되신 하나님, 영어의 하나님 135
①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었다
②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못하고 있다
4) 사탄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 139
① 사탄이 참소하는 이유
② 하나님은 법도를 지키신다
5)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자 146
① 하나님은 영어에 구속된 입장
② 하나님 해방은 인간이 해야 한다
6) 하나님의 해원성사와 효자의 길 152
① 참아버님이 걸어오신 복귀의 길
② 하나님의 해방을 위한 한평생
제 2 권 참부모 167
제 1 장 참부모란 167
1) 참부모라는 말의 의미 167
2) 참의 기원 167
①'참'이란
② 참의 기원
3) 참의 원기(原器) 171
4) 참과 참사람 174
5) 참부모가 뭐냐 176
① 두 석판과 참부모
② 참부모의 정의
③ 참부모는 인격의 실체
6) 우리가 알아야 할 '참부모'의 어의(語義) 182
① 참부모란 말은 귀하다
② 참부모란 말은 자랑스럽고 엄청나다
③ 참부모란 말은 놀라운 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④ 참부모란 말은 무서운 말
제 2 장 메시아와 참부모 186
1) 역사와 참부모 186
① 타락과 참부모
② 역사의 소원
③ 역사와 참부모
④ 복귀섭리 역사는 참부모를 찾기 위한 역사
2) 메시아는 참부모 191
① 메시아는 참부모이다
② 메시아의 현현 과정
③ 메시아의 사명
3) 예수님과 참부모 195
4) 재림과 참부모 196
① 준비해야 할 메시아 맞이
② 재림주의 할 일
제 3 장 참부모의 필요성 199
1) 보편적 부모도 필요 99
2) 세상 부모와 참부모 200
3) 참부모가 와야 할 이유 202
4) 참부모 출현의 전제 조건 203
5) 참혈통은 참부모를 통해야 203
6) 참부모가 절대 필요한 이유 204
7) 참부모의 결정은 선견적 예지 예정권 205
8) 선거로 선출될 수 없는 참부모 206
제 4 장 참부모의 사명 207
1) 참부모의 입장 207
2) 참부모의 길 208
3) 참부모가 되기 이전의 과정 210
4) 참부모의 권한과 사명 213
5) 참부모의 사랑 215
제 5 장 천국과 참부모 217
1) '천(天)'자와 '부모(父母)'자의 또다른 의미 217
2) 땅에서 참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유 218
3) 천국은 참부모를 통해야 가능 219
4) 천국과 참사랑 22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5) 참부모와 영생 222
6) 참부모와 나라 223
제 6 장 참부모와 우리 226
1) 통일교회의 가르침의 핵심 226
① 부모 철학
② 참된 가정-우주의 중심을 결정
③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
④ 부모와 식구
2) 참부모 재세시 동참하는 가치 230
3) 참부모의 수고와 우리 233
① 참부모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
② 우리는 참부모에 접붙인 가지
③ 우리를 위한 참부모님의 수고
④ 우리에 대한 참부모님의 기대
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수준
4) 은총과 자각 237
① 참부모란 말은 처음 나타난 말
② 참부모란 말은 복음 중의 복음
③ 참부모로 미래가 보장
④ 참부모의 가치
⑤ 감사해야 할 우리
⑥ 참부모와의 인연은 숙명적인 업(業)
⑦ 책임해야 할 우리
5) 우리의 할 일 235
① 우리의 책임
② 우리의 사명
6) 생명시해야 할 것 248
① 자기주장 불가
② 하나돼야
③ 참부모를 사랑해야
④ 참부모를 모셔야
⑤ 순종해야
⑥ 전통을 이어받아야
⑦ 참부모를 자랑해야
⑧ 참부모에게 진 빚을 갚아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제 7 장 참부모 중심한 생활 256
1) 참부모의 날과 참부모 256
2) 참부모란 말을 완전히 알아야 257
3) 참부모의 언어를 배우라 258
4) 민요(民謠) 속의 계시 260
5)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 262
6) 참부모 이름의 위력 263
7) 참부모 이름으로 영영세세 영광을 누린다 263
8) 참부모의 심정 전수와 상속 264
① 심정의 전수
② 아들딸은 부모 것을 상속 받는다
9) 유의할 내용 266
제 8 장 3 대 주체사상과 참부모 선포 268
1) 3 대 주체사상과 부모주의 268
① 3 대 주체사상은 우리의 소원
② 3 대 주체사상은 참부모사상
③ 3 대 주체사상의 골자
④ 부모주의
2) 참부모 선포 271
① 참부모 선포 배경
② 참부모 선포의 기준
③ 참부모 선포 장소
④ 참부모 선포 후 나타나는 현상
㉮ 팔정식 발표로 급변해지는 오늘의 세계
㉯ 악마의 세력은 사망권으로 진입
㉰ 통일의 운세권 도래
㉱ 장래에는 싸움이 없다
⑤ 참부모 선포는 놀라운 사실
⑥ 참부모 선포 후 우리의 처신 방향
⑦ 참부모 선포 후 우리의 할 일
㉮ 선포 앞에 감사하자
㉯ 실적 쌓기
㉰ 참부모 환영대회 개최
⑧ 북쪽 부모와 남쪽 참부모
⑨ 종주들과 참부모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참부모 선포와 왕권 291
① 본래는 아담 가정이 왕궁 출발지
② 왕권 설정
③ 왕권 복귀
4) 부모님 사진 모시기 297
① 부모님 사진을 모시는 이유
② 부모님 사진의 위력
제 3 권 참사랑 307
제 1 장 참사랑이란 307
1) 사랑은 평화와 행복의 원천 307
2) 사랑은 무한히 주고 또 주는 것 312
3) 사랑이 개재될 때 조화가 이뤄진다 316
4) 사랑의 특권은 동위권, 동참권, 상속권 321
5) 사랑으로 완성된다 323
제 2 장 사랑의 실제 328
1) 하나님의 사랑 328
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② 사랑의 목적은 신인애(神人愛)일체 이상
2) 참부모의 사랑 338
① 원죄 없는 참조상, 인류의 구세주
② 참사랑으로 인류를 낳아 주신다
3) 부모의 사랑 344
① 부모의 사랑은 본질의 사랑이다.
② 나누고 또 나누어도 완전한 부모의 사랑
4) 부부의 사랑 351
① 부부사랑은 만우주의 꽃이다
② 부부사랑은 나누어지면 불완전
5) 성애(性愛) 359
① 성(性)은 사랑의 본궁, 하늘의 지성소
② 사랑법은 배워야는 것이 아니다
6) 자녀의 사랑 366
① 자녀는 부모 사랑의 결집체
② 참된 자녀의 도리는 '효'
7) 형제의 사랑 369
① 형제사랑은 만민동포애의 모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8) 애국, 애세(愛世), 인류애 371
① 효자-충신, 성인-성자의 길로
9) 자연사랑 (自然愛) 373
① 하나님이 만물세계를 지으신 뜻
② 자연은 사랑이상을 가르쳐 주는 교재
제 3 장 사랑과 결혼 381
1) 참결혼은 우주적 합일의 사랑을 이루는 것 381
2) 남녀의 사랑, 서로가 필요로 하는 사랑 384
3) 축복 결혼식은 하나님 사랑의 전수식이다 388
제 4 장 사랑과 가정 391
1) 사랑이상 실현은 가정에서 이뤄진다 391
2) 가정은 천국생활을 위한 사랑의 훈련도장 395
제 5 장 사랑과 영계 399
1) 영계의 공기는 사랑, 사랑이 생명요소다 399
2) 사랑의 인격체는 지상생활에서 구비해야 406
제 4 권 참가정 417
제 1 장 창조 본연의 참가정 417
1) 아담과 해와를 통한 하나님의 뜻 417
2) 하나님께서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 418
3)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자 419
4)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 420
5) 아담과 해와의 첫사랑의 시기 421
6) 모든 존재는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422
7) 인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 424
8) 참가정으로서 전통을 세웠어야 할 아담가정 425
제 2 장 가정을 중심한 사랑의 법도 427
1)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427
2) 가정에 3 대가 공존해야 하는 이유 428
3) 부모는 곧 사랑의 기원 419
4) 형제자매가 필요한 이유 430
5)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하나님 위치 431
6) 조부모와 손자와의 관계 432
7)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참된 의미 433
제 3 장 가정은 천국의 중심모형 435
1) 가정은 모든 존재의 중심모델 43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2) 가정은 우주 사랑을 접할 수 있는 사랑의 교재 436
3) 사랑의 왕국에 입적하기 위한 사랑의 수련장 437
4) 가정은 천국의 모형 교과서 438
5) 가정은 3 시대의 사랑이 결집된 핵심체 440
6) 가정은 심정적인 훈련장소 441
7) 인간의 영원한 본향은 가정 442
8) 가정은 천주주의를 완결시키는 최종기준 443
제 4 장 사랑을 중심한 인생행로 445
1)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445
2) 사랑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삶 446
3)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요소는 사랑 447
4)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448
5) 사랑과 기쁨의 상속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449
6) 사랑의 센터를 찾아가는 인생행로 451
7) 3 시대를 가는 인생노정 452
8) 지상생활은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한 훈련장소 453
제 5 장 창조 본연의 남녀사랑 456
1) 창조 본연의 남녀사랑 456
2)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이유 457
3) 남자와 여자는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458
4) 사랑은 상대로부터 온다 459
5) 이성간에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 460
6) 참사랑에 취한 본연의 인간 461
7) 사랑은 극히 자연스러운 데서 이루어진다 462
제 6 장 사춘기의 변화와 참된 결혼 464
1) 결혼의 의의 464
2) 결혼은 왜 하는가 465
3) 참된 결혼관 466
4) 사춘기란 어떤 때인가 467
5)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468
6) 사춘기의 첫사랑 469
7) 결혼의 적기-사랑은 어느 때부터 연결되는가 471
8)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사랑 472
제 7 장 참된 부부의 사랑 474
1) 창조 본연의 부부관계 47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2) 부부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 475
3)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 477
4) 하나님도 취할 수 있는 참된 부부의 사랑 478
5) 보면 볼수록 더욱 보고 싶은 게 부부의 사랑 479
6) 부부사랑의 발전과정 481
7)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왜 슬픈가 482
8)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할 부부의 사랑 483
제 8 장 참된 부모의 사랑 486
1) 무엇이든 주고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 486
2) 자식이 더 낫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487
3) 부모의 사랑은 만고불변의 사랑 489
4)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 490
5)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491
6) 끝이 없는 부모의 사랑 493
7) 부모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준이요, 전통이 된다 494
제 9 장 참된 자녀교육 496
1)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는가 496
2)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497
3)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 줘야 한다 498
4) 부모는 친구 중의 친구요, 스승 중의 스승 500
5) 사랑의 채찍 501
6)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502
7) 참된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 504
8) 세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 505
제 10 장 복귀해야 할 인류의 참가정 507
1)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목적 507
2) 사탄의 소유물이 된 아담가정 508
3) 타락인간의 소원 509
4) 복귀의 최종 목표는 아담가정을 복귀하는 것 510
5)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복귀의 가정 512
6) 재림주님을 중심한 복귀의 가정 513
7) 통일교회는 본연의 참가정을 찾기 위한 곳 514
8) 참가정주의와 참부모종교 516
제 11 장 가정은 영원한 행복의 터전 518
1) 가정이 왜 좋은가 51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2) 가정은 영원한 행복의 터전 519
3)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단위 520
4) 사랑의 이상 실현은 가정에서부터 522
5) 천국은 가정단위로 들어가는 곳이다 523
6) 천리법도가 사위기대 원칙으로 되어 있어 524
7) 가정을 통해 인간이 가야 할 천도 526
8) 통일교회는 가정천국을 이루자는 것 527
제 12 장 참가정을 찾아서 529
1)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529
2)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지성소 530
3) 남자의 주인은 여자, 여자의 주인은 남자 531
4) 사랑에는 발전도 혁명도 없다 533
5) 여자는 절개, 남자는 지조 534
6) 타락은 프리섹스의 뿌리요, 개인주의의 조상 535
7) 절대순결과 참가정운동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 536
제 5 권 지상생활과 영계 543
제 1 장 유 무형세계에서의 인간의 존재 543
1) 인생 노정 543
① 인생 노정에 대한 기도문
② 사람이 원하는 목적
③ 태어난 이유
④ 순간(하루)과 일생 관계
⑤ 유아기와 3 단계 질서
⑥ 우리들의 인생길
⑦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향
⑧ 인생 최고의 갈 길
⑨ 출생의 기준과 생애의 기준
´u 잘못된 출생의 기준
´v 생애(生涯)의 기준
2) 인간의 위격(位格) 550
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② 인간은 영계와 육계의 매개체
③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인체
④ 완전작동과 공명
3) 인간 생명의 본질 55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영적인 것이 인간의 본질
② 만물의 영장이란 뜻
③ 속사람과 겉사람
④ 지상생활의 목적은 영육 완성
4) 육신생활의 고귀성 555
① 육신생활은 영계생활을 위한 준비
② 육신생활의 귀중성
③ 습관성이 중요하다
④ 육신생활의 표준
⑤ 육신 쓰고 기록된다
⑥ 땅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⑦ 육신 쓰고 책임분담
5) 축복과 영생 560
① 영생문제를 알아야 할 이유
② 영생의 길
㉮ 일생과 영생문제
㉯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
㉰ 영생과 종교
㉱ 영생해야 하는 이유
㉲ 영생을 위한 삶
㉳ 영생논리란
㉴ 제일 중요한 영생문제
㉵ 결국 인간은 영생에 귀결돼야
㉶ 믿음과 영생 문제
㉷ 통일교인과 영생
㉸ 영생에 필요한 관념
③ 사랑과 영생
㉮ 사랑과 직결된 영생
㉯ 참사랑과 영생
㉰ 절대 필요한 참사랑
㉱ 사랑과 관계된 사후의 세계
㉲ 위해서 살아야 영생
④ 축복과 영계
㉮ 사랑의 위력
㉯ 부부의 영인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결혼과 영계
㉱ 축복가정의 영계 입장
㉲ 축복은 약속
㉳ 축복의 영광
제 2 장 죽음과 영계 574
1) 인생필연지도(人生必然之道) 574
① 영생과 거리가 먼 몸
② 대부분의 생애들
③ 죽음은 인생필연지도
④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2) 죽음에 대한 이해 577
① '돌아간다'는 말 뜻
② 우리가 가야 할 곳
③ 돌아가는 날은 귀한 날
④ 두 가지의 죽음
⑤ 죽음의 의미
⑥ 죽음은 3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
⑦ 죽기 전에 해야 할 것
㉮ 최후의 경계선을 넘으라
㉯ 형상과 심정과 신성을 본받으라
㉰ 죄를 짓지 말라
㉱ 세계를 위해 살고 죽어야
㉲ 많은 일을 하라
㉳ 공적 일을 하라
㉴ 사랑을 체휼(體恤)해야
⑧ 영계 가기 전에 남겨야 할 것들
㉮ 사랑의 무덤을 남겨야
㉯ 영계의 소유권은 전도로 결정
㉰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 할 이유
⑨ 죽음 앞에서의 자세
⑩ 영계에 들어갈 때
㉮ 죽음이 임박했을 때
㉯ 영계에 들어갈 때
㉰ 영계 수속에 필요한 증명서
⑪ 죽어 봐야 확실히 알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⑫ 위해 살면 하나님 가까이 간다
⑬ 심 판
3) 높은 영계에 가자면 606
① 종교인들의 표준은 영계
② 영계에서의 소유권 결정기준
③ 사람을 사랑해야
④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⑤ 가정의 기대를 이루어야
⑥ 심정권 전통을 중심삼고 살아야
⑦ 저나라에 패스하는 티켓
제 3 장 영계 610
1) 육신 갖고 체휼 가능한 영계 610
① 영계와 때
② 앞으로의 시대
③ 영적 체험도 필요
④ 영적 체휼의 과정
⑤ 영적 감각의 발전 방법
⑥ 군림(실체역사)
2) 영계는 어떤 곳이냐 620
① 영계와 육계
㉮ 영계, 육계의 중심
㉯ 영계와 육계의 일체
② 분명히 실존하는 영계
③ 영계는 믿음의 원동력
④ 영계를 창조하신 때
⑤ 영계가 어디냐
⑥ 영계는 어떤 곳인가
3) 영계의 내용과 상황 625
① 타락으로 생긴 영계에 대한 무지
② 영계는 즉각적 감지 가능권
③ 영계의 중심
④ 영계의 조직(계급체계)
⑤ 영계에서의 의식주
⑥ 영계에서의 지식과 권력의 쓸모
⑦ 영계에서의 사람 관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⑧ 영계의 중심은 사랑
㉮ 영계의 공기는 사랑
㉯ 영계는 사랑 중심의 삶을 사는 곳
⑨ 영계는 심정의 세계
⑩ 영계의 상황
⑪ 영계의 생활
⑫ 영계에서 할 일
4) 영계의 입장과 실상 638
① 영계의 입장
② 영계의 실상
③ 영계의 자랑
④ 통일교회와 영계
⑤ 한국 풍습과 영계
⑥ 한국말과 영계
⑦ 영계의 활동무대
⑧ 영계의 소유
⑨ 하나님과 영계
제 4 장 천국 643
1) 천국에 대한 이해 643
① 천국의 소재지(所在地)
② 기독교와 천당
③ 예수님과 낙원
④ 심정과 천국
⑤ 육신과 지옥
⑥ 지옥인도 천국을 소원
⑦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⑧ 천국에 대한 바른 관
2) 천국 가기 위한 준비 658
① 천국의 거점(據點)
② 천국 가는 기준
③ 천국의 시발
④ 천국의 본질
⑤ 천국의 틀
3) 천국 갈 수 있는 요소와 조건 662
① 천국 갈 수 있는 요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고생이 필요
㉯ 사랑이 필요
㉰ 실적을 가져야
㉱ 위해서 살아야
② 천국 갈 수 있는 생활
㉮ 우리의 입장
㉯ 천국 못 가는 경우
㉰ 천국을 위한 우리 생활
㉱ 우리와 천국
③ 4 위기대와 천국
㉮ 천국은 가정이 들어간다
㉯ 예수님과 가정
㉰ 4 위기대와 천국
4) 천국문과 천국 입성 675
① 인간의 심문(心門)
② 개천문이란 무엇인가
㉮ 개천문해야 할 이유
㉯ 개천문의 시원(始原)
㉰ 참부모와 천국문
㉱ 개천문 앞에 선 우리의 자세
③ 책임분담을 통한 천국행
④ 천국과 지옥은 자신이 선택한다
5) 천국과 지옥에 관계된 지시 말씀 681
① 천국과 지옥관 설정
② 영생과 지상생활의 중요성
제 5 장 메시아와 영계 683
1) 예수님과 영계 683
2) 재림주와 영계 684
3) 참부모와 영계 685
① 육신의 부모와 참부모의 차이
② 참부모가 축이다
③ 참부모 중심
④ 참부모와 맺어진 인연의 강도(强度)
4) 선생님과 영계 691
① 선생님의 영적 조건 성립과 그 기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영계로 가는 특허권
③ 영계의 통일과 지상세계 통일
④ 심정과 실적에 따른 영계에서의 대우
⑤ 영적 체험의 생활화
⑥ 사랑을 남기고 가야 하는 영계
5) 참부모 가정과 영계 697
① 영계의 장자권 성립
② 영계에 세운 사랑의 센터
③ 지상과 영계의 왕권 확립
제 6 장 우리와 영계의 입장 702
1) 인생의 결실과 생령체(生靈體) 702
2) 심판과 공인(증명서) 705
① 심판의 종류
② 천국 가는 패스포트를 준비하라
3) 영계 입적(入籍) 711
① 천국 시민이 누리는 자유
② 영계 갈 때 갖고 가는 예물
③ 3 대 주체사상을 통한 천국
④ 입적의 조건
⑤ 영계의 족장이 되는 사람
제 7 장 우리와 영인과의 관계 718
1) 영적 현상과 영인 해원(解怨) 718
① 선영계와 악영계
② 영적 현상
③ 영계에서 온 편지
④ 영인의 소원
⑤ 영인 해원(解怨)
⑥ 영계 통일
2) 지상인과 영인과의 관계 725
① 지상인과 영인
② 영인들의 영계에서의 입장
③ 영인의 수가 지상인보다 많다
④ 유리영(流離靈)들
⑤ 영인 구분은 마음이 알고 한다
⑥ 지상인의 삶의 가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조상들과 우리 731
① 우리를 굽어보는 조상들
② 우리가 조상보다 나아야
③ 성묘도 해야 한다
④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계의 조상들
4) 영적 새시대 도래(到來) 734
① 초감각시대 도래(到來)
② 천승일 발표로 새로운 시대 진입
③ 통일식(統一式)과 영계 협조
④ 일심식(一心式)과 조상 협조
5) 재림부활과 영인 협조 738
① 과거 선인(先人)들의 영계 위치
② 영계 동원과 협조
③ 영계와 조상
④ 영인들의 소원
⑤ 재림부활과 중생
㉮ 재림부활
㉯ 중생론에 대한 답변
제 6 권 인간의 삶과 영혼의 세계 751
제 1 장 인생이 가야 할 길 755
1) 우리들의 인생길 755
①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살이
②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③ 일생은 영계로 가는 준비기간
④ 생애는 너무 짧다
2)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765
① 죽음은 인생 필연의 길
② 죽음은 3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
③ 죽음은 더 좋은 세계로 옮겨가는 것
④ 죽음은 새 차원으로의 승화(昇華)다
⑤ 죽음 앞에서의 자세
⑥ 축복으로 영생의 길이 열린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문제
㉯ 사랑에서 영생개념이 나온다
㉰ 축복과 영생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지상생활의 가치 790
① 지상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곳
② 지상은 천국백성의 생산지
③ 저나라 소유권은 지상에서 결정
④ 육신을 쓴 지상생활이 낱낱이 기록된다
⑤ 육신 쓰고 지은 죄는 지상에서 탕감해야
⑥ 자연속으로의 순응적 삶이 귀하다
4)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811
① 천국은 황족의 명예를 갖고 들어가는 곳
② 4 대 심정권의 사랑의 실체가 천국 간다
③ 마음에 동화된 생활을 해야 한다
④ 절대성을 중심삼고 천국 · 지옥이 갈라진다
⑤ 부부사랑이 사랑이상의 중심 꽃
⑥ 천국은 가정단위로 들어간다
⑦ 위해서 살면 천국 간다
제 2 장 영계는 어떤 곳인가? 839
1) 영계의 실상과 법도 839
① 영계는 시공을 초월한 무한의 세계
② 영계는 사랑전능의 세계
③ 영계의 공기는 사랑이다
④ 영인들의 삶, 영인들의 상호관계
⑤ 영계에서의 의식주 문제는 자유자재
⑥ 영계의 권력은 사랑의 권력이다
⑦ 영계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의 세계
2) 천국과 지옥 866
① 천국은 사랑이상의 세계
② 천국은 서로 위하며 사는 세계
③ 천국은 지상천국을 거쳐가는 곳
④ 예수님과 낙원
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곳
⑥ 천국과 지옥은 자신이 선택한다
3) 영인과 지상인의 관계 890
① 영계는 선영계와 악영계로 갈라져 있다
② 영인들의 영계에서의 입장
③ 영인들의 완성도 지상인을 통해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④ 영계의 협조와 확신
⑤ 유리(流離)하는 영들
4) 조상들과 우리 902
① 우리는 조상들의 결실체
② 조상들의 구원은 우리가 한다
③ 축복가정과 제사
5) 영계를 알아야 한다 909
6) 심판(審判) 910
① 하나님에게는 원수의 개념이 없다
② 참부모님은 사랑의 치리법으로 심판
③ 죄 지으면 가정재판에, 일족이 심판한다
제 3 장 참부모님과 영계 925
1) 참부모님의 권한과 사명 925
① 참부모님은 체(體)를 쓰신 하나님
② 우주의 축(軸), 지상·천상의 통치자
③ 참부모님을 통해 천국 간다
2) 참부모님과 천국 건설 934
① 참부모가 되기 위해 어인(御印)을 받아야
② 천국 건설과 지상·천상세계의 통일
3) 참부모님과 사랑의 역사 942
① 성인과 살인마도 한자리에서 축복
② 참축복의 천주화로 영계?육계 평준화
③ 지상, 천상지옥, 참사랑으로 해방
④ 천국 입적과 축복가정의 영계
㉮ 입적을 하려면
㉯ 통일권 영계도 중간영계, 감옥이 있다
4) 참부모님 가정과 영계역사 956
① 흥진님과 영계 장자권 성립
② 조상해원식과 청평역사(淸平役事)
5) 단 하나의 소원이 남아 있다면 961
제 7 권 예절과 의식 973
제 1 장 하나님에 대한 모심의 예법 773
1)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773
①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
② 일체된 생활을 해야 한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2) 모심의 마음가짐과 태도 977
① 모심으로 생활의 천국화 이룩
② 법도를 어기면 노여워하신다
3) 참아버님의 하나님 섬기는 법 980
① 지성감천(至誠感天)
② 효자의 길
제 2 장 참부모에 대한 모심의 예법 986
1) 참부모님은 축복가정의 중심 986
① 참부모님의 아들딸이 되려면
② 참부모님을 얼마나 모셔 봤는가?
2)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자 990
① 참부모님은 인류 전체의 소망
② 가정마다 참부모님 존영 모시기
3) 참부모님 모시는데도 법도가 있다 993
① 시의시대의 법은 최고의 법
② 인간이 귀한 것은 인륜도덕 때문
제 3 장 예배와 교회 생활예절 997
1)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997
① 교회는 말씀, 인격을 종합하는 곳
② 교회는 가정의 연장이다
2)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외의식 1001
① 예배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② 밤예배, 새벽집회, 철야정성
3) 교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 1005
① 교역자는 공적(公的)이어야 한다
② 식구 지도는 정성으로
③ 남녀 문제와 공금에 엄격해야 한다
4) 설교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1011
① 설교의 실제
② 참아버님의 설교
5) 헌금은 법도에 맞게 드려야 한다 1014
① 십일조 드리는 법
② 생활에도 십일조가 있다
③ 탕감기금
6) 하나님은 공적 기도를 받으신다 102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인사하는 데도 인사법이 있지 않느냐?
② 참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7) 전도는 사랑찾기 운동이다 1023
① 전도는 제 2 의 나를 만드는 것
② 수련과정과 7 일 금식
8) 탕감과 봉사와 헌신 생활 1027
① 탕감길을 가야 한다
② 봉사와 헌신
9) 식구간의 법도와 예절 1031
① 식구는 천정으로 맺어진 인연
② 식구간에 가인 아벨 관계가 있다
③ 누가 아벨이고 누가 가인인가
10) 타인과의 인간관계 1036
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② 타인과의 관계
제 4 장 축복가정의 전통과 생활예절 1040
1) 축복가정의 생활법도 1040
① 가법과 예절이 바로서야 한다
②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2) 신앙생활로 본이 되는 가정 1043
① 신앙생활이 자녀 교육이 된다
② 기도생활은 밥먹는 일보다 더 중요
③ 축복가정은 족장
3) 참사랑으로 위해 사는 생활 1048
① 왜 위해 살아야 되는가?
② 위해 사는 자가 중심이다
4) 부모가 세워야 할 사랑의 법도 1050
① 부모는 친구보다 가깝게
② 전통을 상속해 주는 부모
5) 부부가 지켜야 할 예절 1053
① 부부는 생활의 동반자
② 부부는 신앙의 동역자
6)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운다 1057
① 품에 품고 천법을 가르쳐야
② 신앙교육이 더 중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7) 형제간의 우애 1060
8) 근검절약, 검소한 가정생활 1062
① 검소한 생활
② 절약정신
9) 일상생활의 예절 1065
① 옷
② 얼굴
③ 머리
④ 손톱과 발톱
⑤ 걷는 것
⑥ 앉는 모양
⑦ 자는 것
⑧ 건강
⑨ 말
10) 순결에 대한 가르침 1068
① 사춘기에는 계율을 잘 지켜라
② 나는 하늘의 자녀다
11) 성별의식의 생활화 1071
① 성염
② 성초
㉮ 심정초
㉯ 해산초
㉰ 애천초
㉱ 통일초
12) 축복가정의 일상 생활 의례 1075
① 경배식
② 가정예배
③ 훈독회
④ 가정맹세
13) 축복가정의 제사 1077
① 조상숭배법은 본래 하늘법
14) 축복가정의 평생의례 1079
① 출산
② 축복
③ 승화식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5) 기념일을 맞는 마음자세 1083
① 기념의식의 의의
② 의식을 위한 예복은 단정히
제 8 권 죄와 탕감복귀 1089
제 1 장 탕감, 복귀원리의 근거 1089
1)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 1089
① 간접주관권
② 직접주관권
2) 인간에게 책임분담이 있다 1094
① 책임분담을 주신 이유
② 책임분담을 못한 결과
3) 책임분담을 완성하면 1099
① 책임분담 자유화권이 필요
② 완성한 자리는 천지일체화 가정
4) 책임분담의 발견과 그 중요성 1104
5) 책임분담을 수행하는 자세 1106
① 책임분담은 모든 분야의 과정에 있다
② 책임분담 수행 자세
제 2 장 죄, 인간 타락의 내적 의미 1110
1) 환부역조(換父易祖)가 곧 타락 1110
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
② 타락하지 않았다면
2) 타락은 사탄 중심한 혈통 전환 1116
① 원수의 혈통을 받았다
② 혈통적인 원죄는 유전한다
3)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 1120
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
② 사탄은 사랑의 원수
4) 선악과는 해와의 생식기 1124
① 하체를 가린 것이 죄의 표시다
② 선악과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5) 타락의 한, 하나님의 복귀의 심정 1129
① 사랑의 원수, 타락의 한
② 사탄의 참소조건
6) 참부모의 축복과 혈통 복귀 113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메시아로서 참부모가 필요하다
② 재림사상의 핵심은 혈통 복귀
제 3 장 탕감과 복귀의 공식 1141
1) 모성복귀로 본 리브가, 다말, 마리아의 역사 1141
① 해와의 타락과 리브가, 다말의 속임의 역사
② 다말을 중심한 복중 근본복귀
③ 예수 노정에서의 마리아의 사명
2) 참아버님의 역사적 탕감노정 1149
① 탕감노정을 가는 사람의 마음자세
② 참어머님의 간택
3) 8 단계 탕감노정과 8 정식 1157
① 종, 횡의 8 단계 탕감복귀노정
② 사탄의 활동과 8 단계의 승리
③ 8 정식(八定式)
4) 장자권 승리와 부모권, 왕권 복귀 1163
① 장자권 복귀
② 부모권 복귀
③ 왕권 복귀
5) 복귀역사 전개와 섭리국가의 사명 1170
① 2 차 대전 이후 기독교문화의 흐름
② 해와국가 일본의 사명
③ 세계적인 로마국가 미국의 사명
④ 탕감복귀 역사는 돌아오는 운세
제 4 장 탕감노정과 우리의 생활 1179
1) 복귀의 길은 인지당행지도 1179
① 탕감복귀는 재창조의 길
② 탕감길을 가야 하는 이유
2)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 1182
① 메시아를 위한 기대
② 결국은 혈통복귀가 문제
3) 왜 탕감복귀가 필요한가 1185
① 탕감복귀해야 할 두 가지
4) 탕감조건은 자신이 세워야 한다 1189
①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워줄 수 없다
② 책임분담하는데의 마음가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5) 탕감법 없이는 사탄분립 안된다 1192
① 나는 분수령에 서 있다
② 사탄권(타락권)을 벗어나려면
6) 신앙은 탕감법을 지켜나가는 것 1196
① 신앙과 탕감
7) 탕감길은 절대복종, 절대순종의 길 1200
제 9 권 축복가정 1209
제 1 장 참부모와 축복 1209
1) 축복의 의의와 가치 1209
① 축복이란 무엇인가 1209
㉮ 축복의 의의 1209
㉯ 축복의 가치
㉰ 축복은 인류가 거쳐가야 할 공식노정
② 축복으로 본 참된 결혼관
㉮ 참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한 것
㉯ 결혼은 사랑 완성을 위해 한다
㉰ 결혼은 천지합덕, 우주합일의 길
③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 타락으로 거짓부모에서 태어났다
㉯ 원수의 혈통을 받았다
㉰ 메시아로서 참부모가 필요하다
2) 참부모와 중생과 혈통전환 1231
① 참부모는 어떤 분이신가? 1231
㉮ 참부모는 원죄 없는 종지조상 1231
㉯ 참사랑으로 인류를 낳아주신다
② 중생섭리의 핵심
㉮ 거듭남의 참된 의미
㉯ 중생을 하려면
③ 참부모의 중심사상은 혈통전환
④ 혈통전환의 3 단계 과정
㉮ 성주(聖酒)식
㉯ 축복 결혼식
㉰ 3 일 행사－실체복귀식
3) 축복가정의 책임 1248
① 참부모와 일체권을 이뤄야 124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성(性)의 절대적인 가치관 확립
③ 이상적 부부생활이 중요
④ 축복은 이상가정 완성에 있다
제 2 장 참부모와 축복의 역사 1263
1) 참부모와 제 3 선민권 1263
① 축복가정은 축복가정은 참부모의 새로운 종족권 1263
② 축복가정을 통한 제 3 이스라엘권의 편성
③ 제 3 이스라엘 입적은 축복으로
2) 축복가정의 역사 1267
① 36, 72, 124 가정의 역사 1267
② 430 가정은 민족을 대표한 것
③ 777, 1800, 6000, 6500 가정의 역사
④ 소생적 국제결혼－3 만가정
⑤ 장성적 국제결혼－36 만가정
⑥ 완성적 국제결혼－360 만가정
제 3 장 축복가정의 섭리적 의의 1290
1) 36 가정 1290
① 3 가정을 먼저 축복 1290
② 36 가정을 세운 뜻
③ 3 차에 걸쳐 축복… 별별 일화가 많아
2) 72 가정 1298
① 72 가정 축복의 의의 1298
3) 124 가정 1302
① 124 가정을 찾아 세운 뜻 1302
② 헌공식과 120 개국 성지택정
4) 430 가정 1306
① 430 가정의 수리적인 의의 1306
② 430 가정은 종족적 메시아의 가정
5) 777 가정 1313
① 777 가정은 세계를 대표하는 가정 1313
6) 1800 가정 1321
① 1800 쌍을 축복하게 된 배경 1321
7) 6000 가정 1324
① 6000 가정은 종횡의 종교권을 열어 놓은 것 1324
8) 6500 가정 132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6500 가정은 교체축복 케이스 1326
9) 3 만가정 1328
① 3 만가정은 3 시대 3 수를 대표한 가정 1328
10) 36 만가정 1337
① 36 만가정은 세계적인 등뼈가정 1337
11) 360 만가정 1344
① 360 만가정 축복으로 해방시대 맞아 1344
② 360 만쌍이 3600 만쌍으로
12) 3 억 6 천만가정 1352
① 3 억 6 천만가정 축복으로부터 제 4 차 아담권시대 출발 1352
13) 기성가정의 축복의의 1358
14) 독신가정의 축복의의 1363
제 4 장 축복가정과 입적 1370
1) 축복가정 입적과 우리의 조국 1370
① 입적이란 무엇인가? 1370
② 입적은 나라 축복시대에 있다
③ 입적하려면 주권국가가 필요
④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
2) 입적을 위한 조건 1379
① 소유권-혈통권-심정권 전환 1379
㉮ 소유권전환 1379
㉰ 심정권전환
②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해야 한다
㉮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
③ 하늘나라 지파와 족보 편성
④ 민족 대이동 시대가 온다
3) 사위기대 입적 통일축복 1394
① 3 시대 대전환 일체권 통일축복식 1394
② 사위기대 입적
③ 입적가정에 대한 참부모님 훈시
㉮ 순결한 혈통을 사수하라
㉯ 일심정착(一心定着)
㉰ 자녀에 대한 참사랑 실천 교육
㉱ 국경철폐와 교체결혼
㉲ 조국광복과 천국창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훈독경, 원리 암기

㉦ 가정맹세 실현화

㉧ 정오정착(正午定着)

④ 축복가정 부인 동원과 조국광복

4) 입적 시대와 우리의 책임 1399

① 입적과 참부모님의 은사 1399

② 축복가정의 전통을 세우자

제 10 권 성약인의 길 1409

제 1 장 인생관 1409

1) 인생이 무엇이냐 1409

① 지금까지 인생문제는 미로 1409

②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2) 인간은 원인되는 존재가 아니다 1412

① 본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태어난 인간 1412

②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목적

③ 사랑 때문에 산다

3) 인간의 가치는 위대하다 1418

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적 가치 1418

② 인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4) 인간본성의 참된 생활 1423

① 마음에 동화된 생활을 해야 1423

② 심신일체 이루어야 완성인간 1145

③ 마음이 곧 스승이요, 가까운 하나님

5) 참된 인간이 가는 길 1431

① 인간이 찾아가야 할 길 1431

② 참된 인간의 갈 길

③ 위하는 법도를 세운 이유

제 2 장 가정관 1440

1)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1440

① 가정이 왜 좋은가? 1440

② 가정에서 사회애, 민족애, 인류애가 싹터

2)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 1447

① 가정은 지상천국-천상천국의 초석 1447

② 가정은 참사랑의 훈련도장

3) 참가정의 이상과 가치 145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참부모, 참부부, 참사람
② 참가정의 이상과 가치
4) 천국은 가정단위로 들어간다 1463
5) 가정맹세 1467
① 가정맹세를 할 수 있는 자 1467
② 가정맹세의 내용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제 3 장 국가 - 세계관 1478
1) 인류가 추구해 온 하나의 국가, 세계 1478
① 아담주의, 아담국가, 아담의 세계 1478
② 그 나라는 우리 모두의 소원
2) 이상사회-국가-세계의 구조 1484
① 인류 대가족 사회 1484
② 공생-공영-공의의 사회
③ 언어도 하나
3) 인류의 중심사상은 참사랑주의 1489
① 아담주의는 부모주의 1489
② 부모주의는 참사랑주의
4)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미래 149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하나로 1495
② 종교와 철학을 수습할 두익사상
5) 하나님 중심한 주권이 복귀되면 1500
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 1500
② 그 나라를 찾아가야 한다
제 4 장 성약인의 길 1506
1) 참부모님의 승리권 확정 1506
① 8 정식(八定式)-장자권, 부모권, 왕권복귀 1506
② 천부주의로 부모권, 왕권으로 넘어가
2) 섭리적 총결산과 참부모님의 대선포 1509
① 참부모(메시아) 선포 1509
② 하나님축복 영원 선포식(7-1 절)
③ 탕감해소 선포식
④ 천지부모 천주안식권 선포(7-8 절)
⑤ 지옥 해방과 천국 개문을 위한 선포
⑥ 총영계 영인 해방식 - 전체 해방 통일식의 기도
⑦ 참축복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해방 선포식
⑧ 성약시대와 천상지상천국 완성 선포
⑨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 축하 선포
⑩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
⑪ 천지부모 천주통일해방 선포(9.9 절)
⑫ 제 4 아담시대(이십절) 선포
3) 자르딘 7 대선언과 새 에덴 창건 1532
① 제 1 선언 : 새소망 농장(New Hope Farm) 선언 1532
② 제 2 선언 :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이상가정
③ 제 3 선언 : 제 1, 제 2, 제 3 의 창조주 선언
④ 제 4 선언 : 숙명적 제안 해원(자르딘 새소망농장) 선언
⑤ 제 5 선언 : 가정적 4-4 절 선포
㉮ 영계에도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고 지상에도 사위기대가 이루어졌다.
㉯ 부모와 자녀가 사위기대를 찾았고 이상가정의 씨를 부렸다.
㉰ 1 세대와 2 세대가 하나되었다.
㉱ 남(판타날)과 북(알래스카)이 하나되었다.(하늘과 땅이 하나됨)
㉲ 사탄혈통이 단절되고 하나님 편으로 혈통이 전환되었다." (1998 년 9. 8(4-4 절) 알래스카 코디악)
⑥ 제 6 선언 : 총영계 영인 해방식 - 전체 해방 통일식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⑦ 제 7 선언 : 천주적 4?4 절 선언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
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539
5) 타락의 고개를 넘으려면 1541
① 부모의 길과 자녀의 길은 다르다 1541
② 자녀의 길은 절대 순종의 길이다
③ 의무와 수칙
6) 제 4 아담권 자유자주의 시대 1547
① 제 4 아담시대는 자연복귀시대 1547
②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
③ 제 2 창조주격, 자기를 창조하는 시대
7) 사랑의 황족이 되라 1550
① 천국은 황족의 명예를 갖고 가는 곳
② 사랑의 사람이 되라
제 11 권 우주의 근본 1561
1)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전개 1561
①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본체 1561
㉮ 하나님은 중화적인 사랑의 본체 1561
② 피조세계는 이성성상을 닮아 나왔다
③ 하나님의 우주 창조 동기는 사랑
2) 우주는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다 1574
① 쌍쌍제도가 우주 존재 원칙 1574
② 주체와 대상은 사랑의 관계
3) 우주의 근본은 사랑이다 1584
① 우주의 중심은 사랑이다 1584
② 인간은 만우주의 사랑의 중심
㉮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
㉯ 인간성장의 길은 하나님 자신의 전개과정
㉰ 인간은 피조만물의 중심
③ 피조세계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박물관
㉮ 피조세계를 지으신 뜻
㉯ 만물세계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교재
4)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1605
① 진화론의 근본적인 오류 1605
㉮ 종의 구분은 엄격, 절대 제 3 자 개입 배척 1605
㉯ 힘의 작용 법칙과 진화론의 허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사랑의 논리로 볼 때 진화론은 틀린 것
② 진화론은 이미 시대에 뒤진 사상
제 2 장 인간 창조와 사랑이상의 완성 1627
1) 사랑의 절대 가치 1627
① 인간의 남과 여 1627
② 남자와 여자를 완성시키는 것은 생식기
③ 생식기는 근본문제 해결의 출발점과 종착점
2) 생식기는 3 대 본궁 하늘의 지성소 1639
①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본궁 1639
②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완성시키는 기관
③ 생식기는 하늘이 임재하는 지성소
3) 신인일체와 사랑이상 완성 1653
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랑의 결착점 1653
② 신인애 이상(神人愛理想)의 근본원리
㉮ 신인일체를 어떻게 해명할까
㉯ 신인일체의 거점
㉰ 참혈통의 뿌리는 하나님
③ 왜 결혼이 중요한가?
㉮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
㉯ 부부 사랑과 절대성
4) 생식기는 최고의 신비, 최대의 관심 1676
① 생식기는 제일 정성들여 만든 곳 1676
② 생식기의 주인이 서로 바뀌었다
③ 참사랑은 더러운 것도 소화
④ 생식기를 중심으로 종횡의 균형을 맞춰야
⑤ 사랑은 배워 아는 것이 아니다
5) 생식기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1690
제 3 장 인간 타락과 복귀 1695
1) 인간 타락의 내적 의미 1695
① 인간 타락은 사랑의 사고였다 1695
② 선악과는 해와의 생식기다
③ 사탄마귀는 음란으로 타락했다
④ 타락으로 사탄의 혈통을 받았다
⑤ 뱀이 꼬였다는 말의 뜻
2) 타락의 결과 171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타락인간과 타락한 세계의 모습 1713
㉮ 청소년 문제와 프리섹스 1713
㉯ 성도덕의 문란
㉰ 동성애
㉱ 근친상간
② 잘못된 성개방문화, 어떻게 수습할까?
㉮ 사랑의 질서가 문란한 끝날
㉯ 절대순결, 혈대를 더럽히지 말라
3) 참부모와 근본복귀 1734
① 근본문제 해결은 타락의 기원을 알아야 1734
② 왜 참부모가 필요한가?
③ 혈통 복귀는 축복을 통해 이뤄져
④ 최후의 목표는 참가정 이상 실현
제 12 권 환태평양 섭리 1749
제 1 장 21 세기는 해양의 시대 1749
1) 바다는 미래 인류의 보고(寶庫) 1749
① 바다는 인류 식량난의 해결처 1749
② 해저 개발, 무한자원이 거기 있다
③ 미래는 수중시대, 바다공간을 개척한다
④ 에너지 보급원은 바다밖에 없다
⑤ 해양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2) 참부모님이 행하신 해양섭리 1762
① 북미 중심한 해양섭리 1762
㉮ 미국 수산업 1762
㉯ 세일로 유통조직
㉰ 알래스카 수산업
㉱ 오션 처치와 해양훈련
② 남미 중심한 해양섭리
㉮ 자르딘 새에덴 건설
㉯ 판타날 성지
㉰ 동물박물관
③ 한국 중심한 해양섭리
㉮ 천승호(天勝號)
㉯ 일흥수산
㉰ 조선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제주도를 국제 낚시터로 개발

3) 바다에는 배울 것이 많다 1805

① 바다처럼 천하를 품고 살아야 1805

② 바다 생활은 굉장하고 신기해

③ 바다는 위대한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다

제 2 장 해양레저산업과 취미산업 1816

1) 해양레저산업의 개발 1816

① 레저산업에는 낚시와 사냥이 적격 1816

② 가라앉지 않는 배, 원-호프

③ 각광받을 미래 레저산업—낚시

㉮ 바다낚시의 재미와 맛

㉯ 바다 낚시할 때의 요령

㉰ 낚시를 배우면 굶어 죽지 않는다

㉱ 바다 낚시는 정신적인 것

2) 인간과 취미생활 1835

① 미래세계는 취미생활의 시대 1835

② 취미산업은 평화세계로 이끌어 가는 지름길

③ 취미산업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제 3 장 환태평양시대와 도서국가연합 창설 1842

1) 지금은 환태평양시대 1842

① 왜 태평양시대가 오는가 1842

② 태평양시대의 중심국은 한국과 일본

2) 도서국가연합의 창설 1853

① 도서국가연합 창설 배경 1853

② 창설대회 개요

③ 참부모님의 창설대회 기조연설

3) 하와이 중심한 해양섭리 1859

① 일본과 하와이 1859

② 하와이가 해양섭리의 중심이 되는 이유

제 4 장 하나님섭리로 본 해양문명 1862

1) 인류문명사와 발전 추이 1862

① 문명권을 중심한 세계역사의 흐름 1862

② 이스라엘, 로마, 영국이 실패한 이유

③ 미국은 20 세기의 로마국가

2) 도서문명이 갖는 의미 187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최대의 해양도서국가인 영국 1871
② 영국 문명과 일본 문명의 차이
3) 해와국가로서의 일본의 사명 1876
① 일본은 해와국가다 1876
② 일본을 해와국가로 택한 이유
③ 어머니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명
제 5 장 모든 문명의 결실은 반도에서 1891
1) 반도문명과 한국 1891
① 세계문명의 조류 1891
② 원리적으로 본 반도문명의 역할
2) 한반도와 섭리적 사명 1897
① 한반도는 세계의 축소체 1897
② 한반도 중심한 통일문화권
③ 한반도 통일은 세계통일의 모형
④ 아담국 복귀를 위한 섭리적 전개
㉮ 일본, 미국, 독일을 중심한 섭리
㉯ 2 차대전 전후의 탕감복귀섭리
㉰ 아담, 해와, 천사장국가의 섭리
⑤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
㉮ 조국광복은 인류 모두의 소원
㉯ 새로운 조국의 정초석을 놓자
제 13 권 참하나님의 조국광복 1923
제 1 장 참하나님의 조국광복 1923
1) 참하나님이 소망하는 조국 1923
2) 우리의 조국을 찾아가야 한다 1925
3) 조국광복의 기수 1929
4)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군 1931
5) 조국광복은 참사랑으로 1933
6) 조국광복을 위해 가져야 할 신념과 자세 1936
제 2 장 가정교회는 섭리의 내적 기반 1936
1)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1936
2) 가정교회 활동의 시초 1942
3) 가정교회의 활동 전개 1945
① 종족적 메시아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 1945
② 심방, 봉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전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4) 360 호 가정교회 완성 1966
① 360 호의 수리적인 의미 1966
② 가정교회는 섭리의 종착지
제 3 장 통, 반 격파 운동을 왜 해야 하나? 1955
1) 통, 반 격파 운동을 다시 하는 이유 1955
2) 승패의 마지막 보루는 통반 1958
3) 남북통일 방안도 통반 격파 운동 1962
4) 통반 격파는 가정 중심삼고 해야 1966
5) 통반 격파 활동의 조직 확대 1971
① 사회인사 중심으로 조직 확대 1971
② 지역봉사활동으로 조직 확대
③ 교육 강화로 조직 확대
④ 교학통련과 2 세 중심의 섭리
⑤ 종족적 메시아 활동과 통반 격파
6) 통일운동과 여성의 역할 1984
제 4 장 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하라 1988
1) 지금은 동서남북 통일의 시대 1988
2) 종족적 메시아 선포의 의의 1994
3)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준 이유 1995
4) 참된 심정을 본향땅에 심자 2001
5)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2003
① 참부모님을 증거하자 2003
② 가정마다 부모님 존영 모시자
③ 종족 부흥회를 하자
④ 훈독회를 조직화하라
제 5 장 재출발을 위한 우리의 자세 2010
1) 재출발의 결심 2010
2) 참부모님의 전통 상속의 자세 2011
3) 참사랑을 심자 2015
4) 사랑의 뿌리를 고향에 내려라 2018
5) 영계의 협조와 확신 2019
6) 우리의 본향과 천국 입적의 길 2024
① 고향은 창조본연의 세계 2024
② 천국에 입적 하려면
제 6 장 참부모가 전수하는 세계와 남북통일 교본 203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 세계와 남북통일은 참사랑으로 2032
2)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 2041
3) 참사랑은 누구나 원한다 2048
4) 종말시대 인류와 미국(세계)이 나아갈 길 2055
5)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가야 할 생애 노정 2063
제 14 권 참효의 생활 2083
제 1 장 충효의 의의 2085
1) 충효사상은 한국인의 중심사상 2083
2) 성인 성자는 충효의 완성자 2085
제 2 장 참된 충성과 효도 2089
1) 참된 충효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스로 행하는 것 2089
2)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나라를 완성시키는 참충효 2091
3) 참된 충효는 순종하며 위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 2092
제 3 장 충효의 도리 2096
1)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진정한 충효 2096
2) 대상의 마음을 읽고 참사랑을 베푸는 참충효 2100
3) 무조건 순종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참효자 2103
제 4 장 하나님에 대한 충효 2107
1) 하나님의 소망 2107
2)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절대 충효 2112
3) 예수의 충효 2115
제 5 장 효도와 충성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 2118
1) 효도와 충성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 2118
제 6 장 충효와 참사랑의 유무는 천국행과 지옥행의 척도 2122
1) 충효와 참사랑의 유무가 천국행과 지옥행의 척도 2122
제 7 장 하나님과 참부모님 2125
1) 참부모님은 충효의 표본 2125
2) 참부모님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2127
제 15 권 천일국 주인의 생활 2137
1) 참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중심 2137
2) 하나님과 참부모와 일체를 이루기 위한 참사랑 2140
3) 하나님 사랑의 절대대상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 2144
4) 참사랑의 첫무대는 참가정 2153
제 2 장 천국과 참가정 2156
1)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사위기대와 참가정 215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2) 참가정은 천국 백성의 생산공장 2161
3) 천국 백성의 교육은 참가정에서 2165
4) 천국의 기반은 참가정으로부터 2167
제 3 장 하나님과 참부모 2175
1) 참부모는 하나님과 인류의 소망 2175
2) 하나님은 종적 부모, 참부모는 횡적 부모 2185
3)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참부모 2189
4) 참부모는 천국의 통로 2193
제 4 장 천일국 백성이 되는 길 2203
1)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2203
2) 천일국은 본연의 고향 2207
3) 천일국 백성의 태도와 자격 2213
4) 천국의 소유권을 얻으려면 하늘백성을 많이 데려가야 2223
5) 천일국 주인의 생활 2229
① 일심-일체-일념-일화 2229
② 순결 8 단계
③ 하나님과 참부모를 위한 모심의 삶
6) 천주천지참부모님 승리권 상속 2237
① 이름 2237
② 말씀
③ 실적
7)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과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 2244
①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2244
②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 축도
③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 기도
④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 축도
제 16 권 참가정과 가정맹세 2255
제 1 장 가정맹세 선포와 전제조건 2255
1) 가정맹세가 나오게 된 배경 2255
① 지금은 개인이 아닌 가정시대 2255
② 성약시대 안착과 가정시대의 출발
③ 가정연합 창립… 세계가정화시대로
④ 가정맹세를 세운 이유
2) 가정맹세의 의의와 가치 2268
① 가정맹세의 중요성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가정맹세는 복귀의 총론을 집약시킨 것
③ 가정맹세의 중심사상은 '참사랑'
④ 가정맹세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⑤ 가정맹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3) 가정맹세와 축복가정의 전통 2280
① 모심으로 생활의 천국화 이룩 2280
② 참부모님과 일체된 생활을 해야 한다
③ 전통과 가법을 바로 세워야
제 2 장 가정맹세 각절 해설 2288
1) 가정맹세 1 절 해설 2288
① 천일국 주인 2288
㉮ 천일국이란 2288
㉯ 천일국 주인의 모습과 생활
②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 가정맹세 전제조건은 '참사랑을 중심'
㉯ 참사랑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된 사랑
㉰ 참사랑의 기반은 참가정
③ 본향 땅을 찾아
㉮ 본향 땅의 참된 의미
㉯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향 땅
④ 본연의 창조이상
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
㉮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출발기지는 가정
㉯ 천국 창건은 축복가정의 임무
㉰ 환고향과 종족적 메시아 사명 완수
2) 가정맹세 2 절 해설 2315
① 대표적 가정, 중심적 가정이 되어 2315
㉮ 아담가정이 대표적 가정, 중심적 가정 2315
㉯ 축복받은 가정은 본연의 가정과 같은 가치
②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
㉮ 필연적으로 가야 할 효자, 충신, 성인,
㉯ 성인과 성자의 차이
㉰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
3) 가정맹세 3 절 해설 2335
① 4 대 심정권과 233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3 대 왕권과
㉮ 3 대 왕권은 창조 이상의 기본 틀
㉯ 장자권, 부모권, 왕권복귀
③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 천국은 사랑의 황족권이 가는 곳
㉯ 황족권이란?
㉰ 황족권은 직계 자녀가 아니다
㉱ 황족권을 중심하고 국가 편성 시대로
4) 가정맹세 4 절 해설 2361
① 하나님의 창조 이상 2361
② 천주대가족
㉮ 천주대가족의 기본은 가정
㉯ 공생-공영-공의사회의 핵심은 사랑
③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
㉮ 우리 이념은 통일된 하나의 세계
㉯ 사랑만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요소
5) 가정맹세 5 절 해설 2372
①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 2372
㉮ 천상세계가 주체다 2372
㉯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통일시켜야
②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 매일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하라
㉯ 참사랑의 하이웨이로 닦자
6) 가정맹세 6 절 해설 2385
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 2385
② 천운(天運)을 움직이는 가정
③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
7) 가정맹세 7 절 해설 2391
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가정 2391
②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③ 심정문화세계를 완성
8) 가정맹세 8 절 해설 2398
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2398
㉮ 성약시대란 무엇인가 2398
㉯ 참부모님의 승리로 성약시대 선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 하나님의 창조원칙과 절대신앙, 절대복종
㉯ 절대신앙, 절대복종하면 천국으로 직행
㉰ 일체의 기준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③ 신인애 일체 이상을 이루어
㉮ 신인애 일체 이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 신인일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신인애 일체이상을 정착화해야
④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
㉮ 지상과 천상천국 건설은 참사랑으로
㉯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자
찾아보기 2424

제 1 권
참하나님

차 례

제 1 장 하나님의 본체 43
1)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시다 43
2) 무형의 하나님은 체가 필요하다 47
3)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 52
4)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56
5) 법도 안에서의 전지전능이다 64
6) 사랑으로 무소부재하신다 72
7) 기존 신관들의 문제점 75
제 2 장 하나님과 창조역사 81
1) 하나님의 창조 동기는 사랑 81
2)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86
3) 아담 해와를 통한 사랑이상 89
4) 사랑이상은 가정 중심으로 완성된다 95
5) 하나님이 만물세계를 지으신 뜻 99
제 3 장 복귀섭리역사와 신관의 변천 109
1) 구약시대 하나님은 천사였다 109
2)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 114
3) 예수님이 부자관계 신관 천명 116
4) 성약 완성시대는 신인 일체의 시대 120
5) 창세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 현현 12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제 4 장 참아버님이 본 하나님 126
1) 역사적인 원과 한과 고통의 하나님 126
2) 아들딸 잃은 충격, 슬픔의 하나님 132
3) 구속되신 하나님, 영어의 하나님 35
4) 사탄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 139
5)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자 146
6) 하나님의 해원성사와 효자의 길 152
Top

제 1 장
하나님의 본체

1)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시다

①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형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크다고 하면 무한대요, 작다고 하면 무한히 작은 분이십니다. (35-156, 1970.10.13) p.43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누가 꼬집어서 '아야'하고 소리치는 것보다도, 배가 고파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심장 가운데에 있느냐? 마음은 내 몸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 몸 가운데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보여요?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볼 수 없습니다. (89-72, 1976.7.11) p.43

지혜로운 하나님,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은 중앙에서 마음대로 거동할 수 있는 무형적인 존재로 계시면서 주관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형이니만큼 존재세계를 마음대로 뚫고 오더라도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뚱이로 하나님이 와서 마음대로 지나가더라도 여러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마음대로 밟고 지나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 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제일 편리할 것이다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됐다 하는 논리는 가당한 논리입니다. (138-167, 1986.1.21) p.43

우리는 공기가 통하는 것을 모릅니다. 공기가 통하고 있지만 그걸 못 느낍니다. 공기가 통하는 것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통하는 것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신으로 계시는 것이 최고의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우주를 보자기로 싸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무형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우주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8-167, 1986.1.21) p.44

여러분! 사랑 가지고 있어요? 생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정자나 난자 다 가지고 있지요? 양심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본 적이 있어요? 생명, 혈통, 양심을 봤어요? 그 존재의 현상은 알지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느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또는 하나님을 봤느냐 못 봤느냐 물을 때, 못 봤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75-13, 1995.10.30) p.44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마음이 압니다. 하나님이 마음 속에 들어오면 바람벽도 뚫어볼 수 있고, 가만히 앉아 몇천 년 전에 죽은 성인들을 운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마음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시간으로는 포착할 수 없지만 영원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보여도 마음은 압니다. (41-285, 1971.2.17) p.44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할 때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하나님은 무형의 신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씨의 눈 속에도 들어가고, 심장 속에도 들어가고…. 어디든지 안 가는 데 없이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사느냐? 집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는 집은 우리 마음의 한복판입니다. 남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남성적 심정이 머무르고, 여자의 마음에는 여성적 심정이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128-325, 1983.10.2) p.4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를 요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힘으로 말하자면 태백산도 날려 버리고 지구성도 구멍을 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길 잘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면 여러분은 신경쇠약에 걸려서 한 시간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내가 그러한 문제를 중심삼고 심각하게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남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더듬어 나온 경력 보고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38-244, 1971.1.8) p.44

만일 이 세계에 공기가 한 되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짖궂은 분이라면 세계 통일은 문제없습니다. 아마 5분 이내에 통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몽땅 끌어 가면서 '너희들 통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게 되면 세계 인류가 합창으로 '통일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에 통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공기 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기는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공기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도둑놈같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38-244, 1971.1.8) p.45

천주의 대주재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을 서로 빼앗겠다는 싸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싸움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를 잘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였다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기 하나님이라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사, 이런 싸움이 있을까봐 무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라는 것은 망령된 행위입니다. 안 보이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41-260, 1971.2.17) p.45

이 우주는 신비에 싸여 있습니다. 그 크기가 210억 광년이나 되는 대우주입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1초 동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인데, 이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것이 1광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은 얼마나 크겠느냐? 키가 크다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 자신이 거추장스러운 몸을 끌고 다닐 수 있겠느냐? 철커덕 철커덕 다닌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한번 움직이면 우주가 전부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주인이 되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38-167, 1986.1.21) p.45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수로 달면 몇 근이나 될까요? 몇 억만 톤이 될까요? 무겁다면 그 몸으로 다니려면 큰일이지만 하나님은 무형이시기 때문에 이상적입니다. 지갑에 넣고 다녀도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또 무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좁은 바늘귀로도 오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 하면 크고 작다면 무한히 작기도 하여 이 우주 어디든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6-106, 1985.12.22)

제일 귀한 물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한시도 그 물건과 떨어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보물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갖고 있다면, 그분을 어디에 모시고 싶어하느냐?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창고가 있다면 어디일 것이냐? 그 창고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이기 때문에 유형의 존재를 자기보다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자기 몸뚱이보다도 보이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1-40, 1981.1.18) p.45

Top p.45

② 본래는 자연히 알게 되어 있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본성의 선한 부모를 통해 태어났던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자연히 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젖먹는 법을 배워 가지고 나옵니까? 나오자마자 눈앞에 젖이 있으면 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알고,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자동적으로 가야 할 입장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결과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사실입니다. (20-306, 1968.7.14) p.46

사람은 이 우주의 피조만물 가운데에서 걸작품입니다. 얼마나 걸작품이냐 하면,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멋진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셔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말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을 사람이 모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53-51, 1972.2.8) p.46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다면, 그 모습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인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언제나 볼 수 있고, 부르면 곧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이 된다면 누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하는 것은 말뿐이 아닙니다. 원리를 통해 주체와 대상 관계를 중심삼고 볼 때,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 전에 있었던 분이요, 내 모든 감각, 나의 일체를 주관하는 분이다 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인식하고 아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추우면 춥다 하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것을 느껴 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계시다면 신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세포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 경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휼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짓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58-291, 1972.6.25) p.46

여러분이 자다가도 '아버지!' 할 수 있고, 혼자말로도 '아버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그 생활 이면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게 되면, 아버지 손이 잡힙니다. 꿈같은 사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하면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러한 표현적 권에서 체휼적 감정을 어떻게 체득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체휼의 감도, 느끼는 그 도수, 그 양의 여하가 그 사람의 신앙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심정을 가졌다면 어디에 옮겨 가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게 될 때는, '하늘이여, 같이해 주시옵소서.'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때는 '고마우신 하나님' 하게 되는 것입니다. (58-299, 1972.6.25) p.47

통일교회 원리는 하나님을 무형의 절대적 주체로, 이성성상(二性性相)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분성적 실체(分性的實體)로 아담과 해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장성하여 사랑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연결될 때, 종적인 입장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과 해와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남성 성품은 아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여성 성품은 해와의 마음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마음 속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8-245, 1986.1.24) p.47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라고 말하지요? 중화적 입장에서 사랑을 중심삼은 통일적 존재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중심삼고 통일적 존재라는 그것을 첨부해야 됩니다. (223-268, 1991.11.12) p.47

Top p.47

2) 무형의 하나님은 체가 필요하다

① 체를 쓰기 위해 아담 해와 창조

하나님은 어째서 아담과 같은 형(形)을 필요로 하는가. 만물은 형상적인 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다고 하면 무한대(無限大)요, 작다고 하면 무한히 작은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어떤 표준적인 형을 형성하고 형체를 나타낸다 하여도 실체를 가진 만물은 그 하나님에게 직접 주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가진 피조세계에 는 실체를 가진 주인적 인격과 형을 갖춘 존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 만물의 주관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계도 주관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사장이나 여러 형체를 가진 실체, 그리고 무형의 실체까지도 주관하려면 그 중심적인 타입, 곧 형상(形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35-156, 1970.10.13) p.47

아담을 중심으로 영육 양면의 세계, 무형실체세계(無形實體世界)와 유형실체세계(有形實體世界)를 주관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인격적인 실체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 완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 완성, 곧 형(形)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그의 형태, 인상(人相), 인격 등이 무형세계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형(形)이 없으면 형(形)의 세계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5-158, 1970.10.13) p.48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해와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실체의 형상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돼 가지고는 형상의 자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체(體)를 입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창조목적은 첫째, 아담이 몸으로써 무형의 하나님이 체를 입는 것이고, 둘째는 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진동적인 충격이 옵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충동적인 자극에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중심축을 가진 수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면적이 없습니다. 면을 찾자는 것입니다. (232-210, 1992.7.6) p.4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힘이 보여요?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볼 수 없습니다. 체(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세계를 지도하고 주관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 지상에 살다가 천상에 가면 아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아담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이 '하하하' 웃는 것은 하나님이 '하하하' 웃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주가 '하하하' 웃는 것이 됩니다. (105-193, 1979.10.21) p.48

무형의 신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는 이 우주를 상대로 자극을 못 느낍니다. 마음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리 자극을 해도 무형만으로는 감동이 없습니다. 같은 것이니까, 같아서 자극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충된 것, 더운 물과 찬물이 합하면 폭발하지요? 그런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1-37, 1986.2.16) p.48

하나님은 영계에서도 무형입니다. 모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가진 인간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모양을 갖지 않으면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22-337, 1991.11.7) p.48

하나님의 최후의 창조목적은 체(體)를 쓰는 것입니다. 실체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민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체를 쓰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을 가지고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주체와 대상으로 서기 위해서는 체를 입어야 됩니다. (25-342, 1969.10.12) p.48

실체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형이 되어 가지고는 실체세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가 필요합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도 실체를 씀으로써 실체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아담과 해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마음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중심한 왕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왕권이 성립됨과 더불어 부모권이 성립되는 것이요, 부모권과 더불어 본연의 아담은 장자권이 됩니다. 오늘날의 차자권이 필요없습니다. 아담 자체가 장자 중의 장자이고, 해와도 장녀 중의 장녀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아들딸은 인류의 부모 중의 부모가 됩니다. 부모인 동시에 영원한 세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214-39, 1991.2.1) p.49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체를 가지게 했느냐? 체 없는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좋을 텐데, 체를 왜 지어 가지고 문제가 되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무형의 신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체를 입은 인간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체를 입고 오는 아들딸을 대하려니까 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이 하나님의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과 같은 자리보다 한층 더 차원이 높은 세계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223-183, 1991.11.10) p.49

하나님은 무형이어서 형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체를 입고 나타나야 합니다, 또 형체를 가진 인간과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형체를 입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해와와 하나님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마음과 같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가지고 하나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의 내적인 주인, 내적인 아담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90-194, 1977.1.1) p.49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이 우주는 실체가 있으니 실체 주인인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관리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계에서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배할 수 없으니 실체의 탈을 쓰고 실체의 몸을 씀으로 말미암아 저나라에서, 지구성에서 생산되어 오는 자기 아들딸 되는 후손들을 실체를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 왕의 얼굴이 아담의 얼굴입니다. 왕을 만들었으니 왕후가 필요합니다. 왕후가 누구예요? 해와가 왕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지상의 조상인 동시에 천상세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99-144, 1990.2.16) p.4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p.49

② 아담은 종지조상, 유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첫째, 체(體)를 입기 위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고, 둘째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둘이 하나될 수 있는 사랑의 실체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인류 앞에 사랑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부모가 된 아담과 해와가 실체의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통해 영계와 지상세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영계와 지상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저나라에 가면 영계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체를 쓰시고 부모의 자리에 현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으로 만든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실체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의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실체의 몸뚱이가 있어야만 보고 듣고 하겠기에, 하나님의 실체로 지은 이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는 누구냐? 해와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실체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실체를 쓴 하나님이라면 해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아내를 얻는다니 기가 막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뚱이요, 해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아내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22-279, 1969.5.4) p.50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필요로 하는 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이상을 성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형의 하나님이 형상을 쓰고 나타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형상을 쓰고 유형세계와 관계맺을 수 있는 기초, 그 핵심이 아담과 해와라는 것입니다. (92-147, 1977.4.1) p.50

하늘나라에 무형의 하나님이 혼자 있어 가지고 뭘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부모가 되려면 체를 갖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간과 같은 체를 입어야 되겠기 때문에, 체를 입으려니 부득이 아담과 해와를 이중적 존재로 짓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3-91, 1984.7.10) p.50

체(體)를 가진 아버지가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무형과 유형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하나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체를 갖출 수 있는 모습으로 아담과 해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해와를 하늘나라의 왕궁에, 왕좌에 오르게 하여, 그 왕과 왕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상세계와 무형세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왕국은 사랑의 왕국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만이 영과 육이 합하게 되어 있지 다른 것 가지고는 합할 수 없습니다. (143-93, 1986.3.16) p.50

해와는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녀입니다. 왕녀인 동시에 장래 하나님의 상대였습니다. 해와를 사랑의 상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을 나눠 주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합니다. 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나라에 가보면 하나님은 무형입니다. 공중에서 태양 같은 빛이 24 시간 언제나 떠 있습니다. 공중에서 하나님이 전부 무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를 가진 인간의 사랑의 대상으로는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이 사랑이상의 절대 작품이요, 파트너로서 체를 가진 아담과 해와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모양이냐 하면 아담과 해와의 모양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아버지요, 하나는 외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부모요, 하나는 외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199-361, 1990.2.21) p.5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사랑을 같이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무형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실체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심 실체로 등장시키는 것이 인류의 선한 참조상, 참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를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일교회에는 참부모의 교리가 있습니다. (38-173, 1971.1.3) p.51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왜 만들었느냐? 무형의 신 가지고는 이 실체세계를 주관하지 못 합니다. 무형의 신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신 가지고는 이 보이는 세계, 창조물, 우주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중심삼고 체(體)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를 한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체를 입으면 내적 외적 자극이 벌어집니다. 자극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66-232, 1987.6.7) p.51

무형의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니 그 형체를 대신한 것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는 개인적인 부모요, 가정적인 부모요, 종족적인 부모요, 민족적인 부모요, 국가적인 부모요, 영계에 가서도 앞으로 참부모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위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버런 문이 위대한 것이 뭐냐 하면, 레버런 문의 형상을 하나님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98-224, 1978.8.1) p.51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형의 하나님이 뭐예요? 타락하지 않은, 우리가 말하는 참부모입니다. (201-83, 1990.3.4) p.51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이고 무형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중생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인물을 세워 인간이 그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중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형, 무형의 참부모입니다. (91-101, 1977.2.3) p.51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형상을 보면 체(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하나님은 체가 없습니다. 체를 입지 않고는, 체를 갖지 않고는 영계나 지상세계를 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체를 입은 대표가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해와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시조인 동시에 천지를 주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실체를 가진 하나님, 즉 영원한 무형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입고 나타난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세계를 통치할 책임이 아담과 해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33-191, 1984.7.10) p.52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주체와 대상으로서 종적인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종적인 사랑을 완성하여 아담과 해와의 횡적 사랑의 결실을 가져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적 부모이신 하나님이 외적 부모인 아담과 해와와 완전 일체를 이루기 위해 임재하시는 사랑이상 성취의 순간입니다. 무형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형상을 쓰고 유형세계에 영존하시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해와는 참부모, 참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35-10, 1985.8.20) p.52

Top p.52

3)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

① 하나님은 지 · 정 · 의를 가진 인격신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요, 절대적인 분이요, 창조주요, 지고지선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피조 인간, 즉 피조물과 창조주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피조물은 속된 것이고, 창조주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개념을 중심삼고 볼 때, 아무리 지고지선하신 하나님이요, 아무리 저속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맺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심정적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과 성품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8-245, 1986.1.24) p.52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냐? 인격적 신입니다. 지•정•의를 합한 내용을 갖춘 인격적 신입니다. 그런 인격적 신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143-149, 1986.3.17) p.52

하나님은 제일원인적인 존재인데 그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그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를 닮은 동시에 아버지는 누구를 닮았겠어요? 나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색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나 같은 분이다 하면 이건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127-233, 1983.5.15) p.53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겠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닮은 것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과 닮지 않은 동물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은 좋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상대라면 인간을 중심삼고 볼 때 신은 인격적인 신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는 모든 요소가 백 퍼센트 화합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소성에 있어 전부가 화합할 수 있는 신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정의(知情意)를 가진 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2-271, 1987.4.17) p.53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인격적 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신이 되려면 인간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성이 있느니만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인간과 더불어 공동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 본체라면 인간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167-243, 1987.7.21) p.53

하나님은 사람같은 인격을 가졌을까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남성이겠어요, 여성이겠어요? 그러면 남성같이 달린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성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성상의 주체인데 오목 볼록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하나님이 웃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도 눈이 있겠어요, 코가 있겠어요, 입이 있겠어요, 귀가 있겠어요, 몸뚱이가 있겠어요?

기성교회 신자들 가만 보면 엉터립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 진짜 봤어 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 닮았어? 누구 닮긴 하나님 닮았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닮았어요? 아들딸 닮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어야 합니다. 인격적 신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 최고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최고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182-59, 1988.10.14) p.53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도 인격적 신이어야 됩니다.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인격적 신이라는 것은 지•정•의(知情意)를 갖추어 감정이라든가 또는 뜻을 중심삼고 목표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174-162, 1988.2.28) p.53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지식의 대왕이시고, 능력의 대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무소부재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황금? 보석?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아이구, 나 사랑있어 좋다.'하며 '히히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도 인격적 신이라 하면 입이 있겠지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도 있고, 마음도 있고,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 신이라면 말입니다. (142-30, 1986.3.3) p.5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 전지전능하고, 뭐 무소부재해 가지고 그저 한마디면 세계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심은 어떠한 하나님을 원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내 어머니 아버지 이상 되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나라에 의로운 국왕이 있으면, 의로운 대통령이 있으면 그 국왕 이상, 그 대통령 이상 되는 분이구나.' 이런 분을 원합니다. 대통령은 4년마다 갈리기 때문에 얼룩덜룩하여 그거 뭐 존경할 것이 못 되지만 말입니다. (147-271, 1986.10.1) p.54

오늘날 이 세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진대, 그 하나님은 지•정•의(知情意)를 갖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왜? 인간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륜을 중심삼은 지정의가 아니라 천륜을 중심삼은 지정의입니다. (9-291, 1960.6.12) p.54

절대적인 하나님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슬픈 자리를 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슬픔을 상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슬픔이 없어야 된다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도 더 많은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 (203-288, 1990.6.27) p.54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증거하는 종교 단체는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써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지•정•의(知情意)를 겸비한 하나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신인일체(神人一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227-112, 1992.2.11) p.54

통일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똑히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신인 동시에 사랑의 주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신은 천정(天情)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천정의 중심자리는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210-314, 1990.12.27)
Top p.54

② 신인일체의 인격신을 요구한다

하나님도 지•정•의(知情意)를 가진 분이시니만큼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고 사정이 있고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이냐? 인간의 사정보다도 먼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기 때문에 맞먹습니다. 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소원을 잘 알고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1-177, 1962.12.15) p.55

사랑을 논하려면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정서와 인격적으로 사람과 같은 소성을 가진 신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을 제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내적 아버지와 외적 아버지로 보고 실체에 일치하는 사랑으로 통일적인 권한을 만들려고 하는 그 기준, 확실히 이 기준까지는 발견 못 했지만 그런 내용을 암암리에 해명할 수 있는 표제를 걸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신(唯一神)을 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세계적 종교요, 세계가 이 종교를 중심삼고 뭉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길을 세워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39-239, 1986.1.31) p.5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수많은 도(道)가 있지만, 심정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도가 역사노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도가 기필코 나타나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주는 도도 있고, 무한한 영계를 가르쳐 주는 도도 있지만, 윤리도덕과 무형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합하여 하나의 심정의 골자 위에 올려 놓는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종교를 찾아보니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심정의 종교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실체를 갖춘 참부모를 잃어버렸는데, 기독교는 그 참부모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종교입니다. (9-140, 1960.5.1) p.55

철학의 최후의 종착점은 신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신은 어떠한 신이냐? 절대적인 신, 불변의 신, 유일의 신입니다. 신을 발견하는 데 있어 그 신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인격적 신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안팎을 갖추고, 뜻을 갖추고, 이상을 갖춘 인격적 신이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통할 수 있는, 정서적인 면이나 뜻적인 면이나 혹은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 인간과 통할 수 있는, 완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이 아니고는 아무리 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완전히 상관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격적 신이 되어야 한다는 표제 밑에서 철학은 신을 숭상하지 않아왔다는 것입니다. (138-142, 1986.1.21) p.56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어요? 아들딸 닮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 신입니다. 하나님이 두리뭉수리하면 되겠어요?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인격, 사랑을 중심삼고, 지정의를 중심삼고 정서적인 인격적 신을 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유일신을 논했습니다. (177-274, 1988.5.20) p.56

하나님이 인격적 신이라면 하나님에게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딸로 태어나 하나님을 대해 아버지라 하면, 아버지가 필요하듯이 나도 필요한 것이요, 내가 필요하듯이 아버지도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184-199, 1989.1.1) p.56

인격적인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중심삼고 무엇이 연결돼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하게 되면 높은 걸 말하잖아요? 거기에 내 몸뚱이가 연결되겠어요? 아닙니다.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 되시는 제 1 원인이신 존재 하나님을 중심삼고 인간이 수직과 같은 마음을 중심삼고 살아가는 것이고, 지구성이 태양계를 중심삼고 그 각도를 맞추고 축을 이뤄 공전하면서 하루 이틀, 365 일을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94-154, 1989.10.22) p.56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 않으면 세계가 미래의 희망을 남길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논리로서 결론을 짓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일교회가 나와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실존성과 지(知)·정(情)·의(意)의 완성 기준에 선 인격적 신을 인정하고 심정권을 중심으로 한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처음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3-302, 1991.1.21) p.56

Top p.56

4)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①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맺어졌느냐?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이 우주의 중심이 뭐냐고 묻게 되면, 부자지관계(父子之關係)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 뭐냐? 한마디로 부자의 관계입니다. (48-208, 1971.9.19) p.5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지의 중심과 우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딸의 관계, 부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육친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과의 관계인 줄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근본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9-158, 1968.1.1) p.57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혼자 있으면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상대 관계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기쁨의 자극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대적 위치에 서면 비로소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상이 그대로 실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슬퍼지면 인간도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결론은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69-78, 1973.10.20) p.57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의 관계라고 했는데, 부자의 관계가 가진 특정한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사랑이 교차되는 그 중심, 생명이 교차되는 그 중심, 이상이 교차되는 그 중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과 생명과 이상은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사랑이요 나도 사랑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이상이요 나도 이상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초의 인연이 부자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게 될 때, 얼마만큼 주고 싶어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한계를 두고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주고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몽땅 주고도 '너로 말미암아 네 안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는 종살이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밥상 위에 올라가 똥을 싸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은 법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다 주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 이럴 수 있느냐?'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주고 싶은 사랑을 다 못 주어 안타까워합니다. 자아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고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으니 인간세계에 대해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생각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는 다 줬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져와라.'하는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36-77, 1970.11.15) p.57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골수 중의 골수를 몽땅 투입하여 창조한 인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끌면 끌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7, 1968.6.9) p.58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세계 앞에 나타날 때 사랑의 본질로 나타납니다. (86-82, 1976.3.7) p.58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실현체요 투입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체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이상의 구현체입니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과 이상의 기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생명이 약동하고, 보면 볼수록 이상적인 상대입니다. (69-78, 1973.10.20) p.58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적인 상대로서 사랑 관계를 중심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딸이 되는 자리입니다. 만일 그 이상의 자리가 있다면 인간의 욕망은 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응당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무가치하게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지었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에 무엇이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모르고 지었다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절대적인 상대로 지었습니다. (54-87, 1972.3.20) p.58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지극히 선한 분이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분이요, 사랑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후 온 우주의 귀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귀한 것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들딸을 짓는 데에 있어서 시시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요, 동위(同位)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최고의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53-224, 1972.2.28) p.58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라면 그 절대적인 분이 왜 인간을 지었느냐? 돈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지식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권력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아들딸이라는 것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축이 만일 연결됐더라면,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를 그 어떤 것이 작용하더라도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7-57, 1985.12.18) p.59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완전히 투입함으로써 보다 가치있고 이상적인 완전형으로 전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고 그들을 위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던 때에서 상대를 위하는 때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남을 위하는 데에, 대상을 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원칙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69-81, 1973.10.20) p.59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절대자이고, 전지전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좋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명사, 혹은 좋다는 말은 혼자서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갖춘 자리에 있어야 좋고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혼자 있어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성악가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노래를 불렀다고 합시다. 그래서 행복하겠느냐?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좋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투입해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서는 못 합니다. 아무리 절대자라도 그 절대자 앞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아무렇게나가 아닙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1 백 20 퍼센트, 몇백 배를 투입해서 지었습니다.

기성교인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말씀으로 지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술 부리듯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지성을 다하고 자기 일신을 전부 투입해서 아들딸을 창조했습니다. (65-20, 1972.11.13) p.59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정성을 안 들이고, 피와 살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내 사상 중의 사상, 내 전체 중의 전체를 투입했기 때문에 희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이상적 출발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한테 와서 달라붙어라' 하는 흡수가 아닙니다. 투입입니다. '달라붙어라'가 아니라 투입입니다. 그 말을 돌이켜 하면, '위해 존재하는 원칙'에 이상적 출발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78-111, 1975.5.6) p.5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밤에도 좋아하고, 낮에도 좋아하고, 일하면서도 좋아하고, 쉬면서도 좋아하고 춤추면서도 좋아하고, 울면서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 몽땅 있다.'고 한 것입니다. '몽땅'이라는 말은 그 속에 전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랑을 몽땅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에 그 사랑을 맛보면 죽더라도 놓을 수 없습니다. (44-188, 1971.5.7) p.60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아까울 것이 없고, 갖추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전부의 가치보다도 귀하게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외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08-223, 1980.10.16) p.60

창조이상 완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이상 완성이기 때문에 창조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물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완성이 없는 한 하나님의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인일체(神人一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9-268, 1980.11.2)

신과 일치될 수 있는, 신의 뜻에 일치될 수 있는, 신의 뜻을 중심삼고는 과정적 뜻이 아니라 완성적 뜻의 중심의 핵과 일치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全能性)이냐? 전능성가지고도 안됩니다. 전권(全權)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무소부재한 소성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자신도 살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물론 영계가 있어서 시공의 관계를 초월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무엇을 중심삼고 살아가느냐? 무한한 힘이 있다, 무소부재하다, 전권적인 권한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중심삼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참된 사랑의 대상을 갖추게 되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126-223, 1983.4.24) p.60

하나님은 절대적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사랑을 그저 주고 주고 또 나누어 주더라도 자꾸 보충할 수 있는 사랑의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고에서 사랑을 많이 도적질해 가지고서, 밤이고 낮이고 자꾸 사랑을 빼다가 나눠주고 나눠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도둑놈, 사랑 도둑놈!'하며 처벌하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해라, 해도 좋다. 얼마든지 해봐라. 네가 영원히 해봐라. 네가 들어오고도 남는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체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객체에게 주고도 남아야 주체다. 너희들 객체 되는 사람에게 주고도 남아야 주체로서의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된다. 내가 그렇다!'하시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랑을 도적질해다가 하나님의 사랑 발전소와 같이 자꾸 나누어 준다면 얼마든지 보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없어지면 내가 또 가져오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 파이프에 나를 연결하면 어때요?'할 때 '그것도 하려면 하라.'한다는 것입니다. (116-240, 1982.1.1) p.61

Top p.61

② 하나님은 제일 가깝게 계신 분

진리 중의 최고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요, 부부요, 자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중심삼고 볼 때, 최고의 진리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요, 선의 본체요, 사랑의 본체요, 생명의 본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가 성립되려면 사랑과 생명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생명의 본체, 사랑의 본체, 진리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입니다. 핵심은 부모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간단한 분이 되십니다. (21-183, 1968.11.20) p.61

하나님은 흰 수염이 났을 것입니다. 그게 어울립니다. 그 하나님이 수염을 쓱 만지는데 아들이 '나긴 수염이 좋아요.'하게 되면 그 수염이 길어질 것이고, '짧은 수염이 좋아요.'하면 짧은 수염이 될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남자를 대할 때는 우락부락하게 보이고, 남성격을 좋아하는 아담에게는 남성같이 보이고 해와 같은 여자에게는 여성이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110-281, 1981.1.1) p.61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래요. 70 밖에 모르는 사람은 70 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허, 나 70 이다.' 그럽니다. 다섯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몇 살이오?' 하면 하나님도 '허허, 다섯 살이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모르니까요.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수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 이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 기분 좋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73-252, 1988.2.1) p.61

하나님도 농을 참 좋아합니다. 유머를 좋아합니다. 유머의 대왕님이 누구냐 하게 될 때,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니까 유머도 잘 하십니다. 웃을 때도 떼굴떼굴 구르며 웃고, 또 떼굴떼굴 구르며 웃고, 틀어지게 웃고 나동그라지게 웃게 만들 수 있는 대왕님이 누구시라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런 대왕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71-148, 1988.1.1) p.61

하나님은 외적으로 남성을 닮았으면 내적으로는 여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전지전능하기도 하지만, 석가모니의 웃는 웃음에 꽃을 수놓을 수 있는 자비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 중의 여자 같은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면이 다 사는 것입니다. (206-49, 1990.10.3) p.62

하나님이 우주의 대주재이고 전지전능하셔서 갖지 않은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랑의 인연을 가지고 효자의 자리에 선 아들이 물어보지 않고 가슴을 쓱 헤친다고 해서 '에이! 야야! 너 언제 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겠어요? 언제 봤느냐고 말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자꾸 헤쳐 가지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 젖 만지듯이 이렇게…. '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 젖 만지듯이 만지고 싶어서 그래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 하겠어요?

아버지가 참 행복해 할 것입니다. 점점 크면 자기 무릎 앞을 떠나 담 넘어가고, 강 건너가고, 산 넘어 가려고 하는데 넘어갔던 자식이 담을 넘고, 문턱을 넘고, 옷을 넘어 옛날같이 자기 젖 만지려 할 때,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곧 죽을 할아버지라도 '어서 만져라, 어서!'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그럴 것입니다. (169-76, 1987.10.25) p.62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보탤 게 어디 있고, 끌어당길 게 어디 있어요? 크려면 흡수해 가지고 끌어당기든가 누가 보태 주든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흡수하든가 제 3 의 존재가 갖다 보태 주든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에 있어 붙일 것도 없고 끌어당길 것도 없는데 자체가 어떻게 클 수 있는 개념을 세우느냐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이 함부로 얘기해 가지고 곤란하겠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지, 연구해 보세요. 숙제를 내 주니까 연구해 보라구요. 논문들 써 봐요, 내가 점수 매겨 줄게. (218-263, 1991.8.19) p.62

본래 절대자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됐겠어요? 왕창 한꺼번에 후닥닥 뛰쳐나와 태어났겠어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면 기성교인들은 '우우-. 창조주는 성스러운 분인데 그 모독도 이만저만한 모독이 아니다.' 수작 그만두라구! 하나님이 생겨났겠나, 그냥 그대로 있었겠나? 궁금하지 않아? 그 문제를 대하려면 논리적 배경을 갖춰야 됩니다.

윤박사? 어떻게 생겨났겠어? 물리학 박사님이 그것 알아야 되잖아? 박사님이 그렇게 얼굴 가리면 창피하잖아? 통일교인도 할 수 없이 '자연히 계신다?'하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발전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218-263, 1991.8.19) p.62

조화무쌍한 힘을 가진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으로서 사람과 같다면, 전지전능한 그분도 그것을 대할 때 그 속에 가셔서 안식의 잠을 자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눈을 바로 뜨고 '이 멍청한 자식아, 밤낮 쉬지 말고 탕감복귀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치가 그렇잖아요? 숨쉬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내쉬면 들이쉬어야 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했으면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전부 다 쉬는 기쁨을 느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이 상대적 수수관계의 인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64-70, 1987.4.26) p.63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한 분, 무소부재한 분, 그것도 좋아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러나 아무리 능치 못함이 없는 힘을 갖고 있고, 아무리 모든 것에 무불능통한 이런 입장에 섰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수많은 인류 아마 수천억이 될 텐데, 그 인류들이 모여 사는 그런 영계가 있다면 영계에서 하나님이 '아, 나는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존재이니 너희들은 나를 절대적으로 위해야 된다.'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만을 위해야 되는 입장에 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양심의 본질로 볼 때, 그걸 영원히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상충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때든 안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8-75, 1986.1.19) p.63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상대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 똑같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밥을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손질하게 되면 같이 손질하고, 또 일어서게 되면 같이 일어서고 따라다니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앉게 되면 같이 앉고 이렇게 억천만 년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살아가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루도 안 가서 눈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또,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되면 며칠이나 말할 것 같아요? 사흘이나 가겠나? '저것, 저, 똑같잖아! 죽겠다.'고 할 것입니다. (141-26, 1986.2.16) p.63

종교의 중심은 뭐냐? 신(神)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신에 대한 이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은 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입니다. 하나의 신을 두고 말하게 될 때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을 표시하는 명사는 달리 나타나지만 그 본체(本體)는 하나인 것입니다. (210-199, 1990.12.23) p.63

하늘과 땅 자체도 스스로 있고 싶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게 한 동기와 근원을 통해, 어떠한 힘의 원천에 입각하여 생겨났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여기에서도 더 한층 올라가 반드시 중심적인 주체를 갖추어 가지고 하늘땅을 움직이든가, 혹은 여기에 창조를 하든가 하는 힘의 작용체, 근본의 작용체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다르게 표현하는 그 호칭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우주에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전체 이 존재세계 앞에서, 존재가 작용하고 이동하더라도 그 이동하는 데에 따라 이동하지 않고, 이 움직이는 상대적인 세계의 중심에서 억천만 년 움직이지 아니하는 중심적인 본체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4-298, 1964.10.5) p.64

Top p.64

5) 법도 안에서의 전지전능이다

① 원칙적 기반 위에서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근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 때문도 아닙니다. 지식 때문도 아니며 알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무슨 권력 때문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능력의 왕이고 황금의 왕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없어야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식이라는 것 역시 이 우주의 모든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운동하고 작동하는 하나의 구성체를 전부 컨트롤 할 수 있는 법리, 법도를 만드신 그 지식에 비하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무리 연구해 봤자 자연계의 법칙 하나 찾아서 그것 가지고 박사 됐다고 야단하고 큰소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술도 그렇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다 자연에서 배워 온 것입니다. 전부 자연에서 배워 온 것이지, 자연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182-121, 1988.10.16) p.64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힘이 뭐 필요해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이신데, 안 그래요? 힘의 대왕이시니까 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제아무리 영웅 호걸이 잘났다 하더라도, 역사에 있어서 대국들을 치리하던 모든 군왕, 제왕들이 흘러갔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춤추다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돈도 지식도 필요없습니다. (176-165, 1988.5.9) p.64

하나님 자신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고, 능치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주체로서 절대적인 자리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체라고 하더라도 주체 자체가 주체가 되는 동시에 상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동쪽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쪽이 있으면 서쪽이 필요하고 동서가 있으면 남북이 필요하고 남북이 있으면 전후 상하가 필요해 가지고 하나의 구형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구형을 표준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201-12, 1990.2.28) p.65

저 별나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지었다면 다이아몬드 별 하나만 만들어 놨겠어요? (49-298, 1971.10.17) p.65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학자, 유명한 학자? 유명한 학자도 별거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연구하고 뭐 어떻다 해도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계의 어떤 공식이라든가 원칙을 발표했을 뿐이지 그것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학자도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세계 대통령? 우주 대통령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신데 뭐가 필요해요? 권력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뭐예요? 돈이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1-247, 1986.2.26) p.65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성이 나서 한번 이 땅을 치시면 옥살박살 다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고 세계의 잘났다는 사람들도 한번 소리치면 국물도 없이 다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분에게 권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졸개새끼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악마가 좋아합니다. (210-18, 1990.11.30) p.65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힘을 자랑하느라고, 전지전능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지!' 하면 그게 멋져요? 그럴 때 힘에 의해 생겨난 물건들이 '하나님 고맙소. 힘으로 쳐갈겨 만들어 줘서!' 이러면서 고맙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많아서 너를 만들었지`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능력이 많아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능력이나 지혜로 만들었으면 내게 기쁨이 뭐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야? 하나님의 지혜지 내 지혜야? 나를 보면 무력하기 짝이 없는 나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75-150, 1988.4.16) p.65

오늘날 기독교에서 뭐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원칙적 기반 위에서 전지전능이지, 무원칙적 기반 위에서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법을 세워 놓았으면, 영원하신 분이 제정한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가 세워 놓은 것을 마음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응하고 넘어가려는 그 하나님의 권위,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다 천리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공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먼저 밟고 넘어간 후에 만민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우주가 따라가게 되어 있지, 그것을 제2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 창조의 이상적 기준이 있습니다. (162-184, 1987.4.12) p.6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언제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럴지도 모르지만 천만에요. 천지의 모든 존재물들은 법칙, 대원칙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제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원칙을 파괴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주하여 제정한 모든 법, 입법을 통해 제정한 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단 아니예요? (166-99, 1987.5.30) p.66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싶으면 만들면 되지 왜 사랑을 못 만들었느냐? 그건 마음대로 만들었다가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만드니까, 그건 못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못 만들다니….' 그러면 이원론이나 다신론으로 결론이 떨어질 텐데…. 하지만 의심하면 그렇습니다. (173-211, 1988.2.18) p.66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적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불변하다고 하는데, 절대적이어서 뭘 하는 거예요? 유일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것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전지전능하면 뭘 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원불변하면 뭘 해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좋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하등의 관계가 없다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가려 주어야 됩니다. (223-261, 1991.11.12) p.66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전권자이시고, 무소부재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 전권이 있으니 나를 지배하기에 좋겠구만, 무소부재하니 어디서든지 나를 감찰하기에 좋겠구만, 모르는 것이 없으니 나를 다 세밀히 분석하고 꼼짝못하게 만들겠구만.' 하나님이 나를 전지전능으로 지배만 하신다면 좋을 거 있어요? (130-209, 1984.1.22) p.66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주관하느냐? 법으로 주관하는데, 그 법도 사랑으로 치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치리의 방향을 후원하기 위해 우주의 법도 존속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한 이유는 사랑이 그리워서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21-103, 1982.10.24) p.66

Top p.66

② 사랑만이 절대 기준이다

하나님이 한 가지 꼼짝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전지전능하시지만 한가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같아 보여요? 금을 못 만들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못 만들겠어요? 아, 힘이 없나? 전지전능하신 그 분이 한 가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선생님 마음에도 사랑이 있겠어요? 있다고 봐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자기 혼자 '내 사랑, 나혼자 내 사랑, 내 사랑!' 이러고 있으면 미친놈이 됩니다. (142-269, 1986.3.13) p.67

하나님 혼자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혼자서 '아이고, 기분 좋구나!`' 그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런 문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혼자서 '아이구 좋아라! 아이구, 내 사랑이야!' 그러면 저거 미친 녀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되는 종이 짜박지 하나라도, 이런 손수건을 중심삼고라도 '사랑하는 그대 손수건!' 이러면 누가 욕을 해요? 우주를 대신하여 등장할 수 있는 상대적 가치와 권위가 사랑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142-31, 1986.3.3) p.67

아무리 절대자 하나님이라 해도 혼자서는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 관계에서만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사랑만은 하나님 혼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소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자극과 사랑의 신호는 상대를 통해서만이 재현되는 것이지 자체만으로써는 현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138-245, 1986.1.24) p.67

과부 홀아비를 불쌍하다고 하는데 왜 불쌍하다고 해요? 사랑이 그 속에 있지만 발동할 무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 해도 상대가 없을 때는 사랑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천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삼고 상대하고 싶어 하느냐?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사랑의 작용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30-21, 1983.12.11) p.67

하나님이 사랑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참사랑입니다. 그런데 참사랑이란, 어떤 것이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이란 사랑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얘기하느냐?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한 말이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참사랑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뿌리를 심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77-269, 1988.5.20) p.67

하나님이 천지를 누구 때문에 창조했느냐? 하나님 자신 때문에 했느냐, 상대적인 창조물 때문에 했느냐? 하나님은 물론 자기를 위해 지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를 중요시하는 데 모든 창조의 기준을 두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대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인간입니다. 인간을 중심삼고, 모든 인간의 행복을 중심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야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109-268, 1980.11.2) p.68

하나님은 절대적이요, 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지 못하지 않소?'하면 '나는 전능하기는 하지만 사랑에는 전능하지 못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요? (98-38, 1978.4.8) p.68

하나님 혼자서는 하나님 노릇 못 합니다. 그게 무슨 재미예요? 먹을 것이 걱정이에요? 잘 것이 걱정이에요? 입을 것이 걱정이에요? 뭐 든지 마음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돈댔자 한 시간 돌고 나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아무리 잘났다고 뻐기는 하나님이라도 재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귀하다고 하는 것을 창조해 두고 가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1-116, 1987.1.11) p.68

하나님이 무엇이 그리워서 창조를 했느냐? 절대자인데 그가 무엇이 그리워서 창조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분은 황금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인데, 무엇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없었겠느냐? 사랑의 기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혼자 있어 서는 사랑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동기, 알파적 기원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49-149, 1986.11.21) p.68

하나님에게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 하나님도 사랑을 갖고 있지만 상대가 있어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내 사랑이야!' 그러는게 좋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타나야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사랑의 상대가 없게 될 때에는 고독한 하나님이요, 슬픈 하나님인 것입니다. (94-262, 1977.10.1) p.6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시고, 아무리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명사, 혹은 좋다라는 말은 혼자 있어 가지고 설정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갖춘 자리에 있어야 좋고 행복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혼자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음악가가 혼자 노래를 불렀다고 합시다. 그게 행복해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좋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5-20, 1972.11.13) p.69

하나님 자신을 존재하게 한 기원이 뭐냐? 무엇에서 생겼겠느냐?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기원이 뭐냐? 전지전능이에요? 절대적 권한이에요? 절대적 권한이 있으면 뭘 해?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양반이 절대적 권한이 있어서 뭘 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절대자 되어 있으면 지식이 있어서는 뭘 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위하라는 사랑이 아니고 위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218-263, 1991.8.19) p.69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참사랑 앞에는 꼼짝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참사랑의 자리에서는 꼼짝못합니다.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 할 때는 아내 앞에 경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경배하고도 남습니다.

우주 가운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내가 어디서 왔노? 그거 없다고 생각할 때는 사지가 다 마비됩니다. 사실 없다고 생각할 때는 큰일납니다.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좋으니까 대통령인들 할 수 없이 궁둥이를 하늘로 하고 '임이여, 사랑하소서! 사랑하나이다!' 합니다. 그럴 때 뭐 조그마한 여자가 앉아서 볼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211-83, 1991.12.29) p.69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하더라도 사랑을 혼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니까 사랑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할 지 모르지만 그러면 문제가 큽니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없다는 논리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절대적인 중심존재로서 자기 스스로의 사랑, 하나님적 사랑에 대한 자극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랑의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208-233, 1990.11.20) p.69

하나님 자신도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혼자는 못 이룹니다. 내가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아이고. 오늘 참 좋구만.' 이렇게 열렬히 말한다면 미쳤다고 할 것 아니예요?

그러나 상대가 있어서 열렬히 말해도 그것이 사리에 맞고 환경 여건에 부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혼자 '좋아, 좋아! 아이고, 내 사랑 좋아!' 하고 춤추면 그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세워 놓아야만 자극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141-106, 1986.2.19) p.70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며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불멸하고 자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닌 그 무엇을 바라고 계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도 절대 필요한 것으로 참사랑입니다.(축복과 이상가정-302)

Top p.70

③ 하나님도 사랑 앞에는 절대복종이다

하나님도 사랑을 좋아하시니까 사랑에 미칠 수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훌륭한 하나님이 사랑에 미칠 수 있어요?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가 집 안에서는 조그마한 할머니에게 꼼짝 못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코에 걸려서 그러느냐? 사랑의 코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137-84, 1985.12.24) p.7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인간들보다 낫기 때문에 사랑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영원 전부터 영원히 위하는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0-86, 1976.12.19) p.70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들이 되는 데는 무엇을 중심삼고 되고 싶으냐? 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큰 권력을 중심삼고 부자의 관계가 돼야지.' 그래요? 지식? 그건 다 곁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중심삼고, 그 사랑과 나는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제일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 사랑을 완전히 점령하는 날에는 천하에 아무리 권능이 많은 하나님이라도 '음, 음' 그런다는 것입니다. (69-181, 1973.11.12) p.70

제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사랑에 절대복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나도 참사랑에는 절대복종하니 나처럼 너희들도 참사랑에 복종해라!' 이래야 아버지 되는 하나님으로서 당당한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은 지키지 않고 '야! 아들딸 너희들은 사랑에 절대 복종해라!'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참사랑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독재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참사랑에 영원히 절대복종 하듯이 아들과 딸도 참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히 복종할지어다!' 할 때, 아들딸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버지는 제 맘대로 하고 우리만 복종하라고 해? 푸-!'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도 참사랑에는 절대복종한다는 논리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211-84, 1990.12.29) p.71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참사랑 앞에는 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 말이 듣기 좋아요, 듣기 나빠요? 그 참사랑은 동쪽에서 들으면 좋고 서쪽에서 들으면 나쁠까요? 서쪽에서 들어도 좋고 남쪽에서 들어도 좋고 북쪽에서 들어도 좋고, 위에서 들어도 좋고 아래서 들어도 좋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사시장철 넘어가서, 청년시대와 노년시대를 넘어서 참사랑은 영원히 듣기에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211-75, 1990.12.29) p.71

절대적인 힘을 주장하는 하나님도 사랑이 정착할 수 있는 자리, 사랑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절대 좋아하는데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절대적 전지전능 무소부재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 복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아버지 자신이 사랑을 중심삼고 살지 않으면서 아들딸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사랑에 절대 복종하고 살아라.'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도 사랑에 절대 복종하며 살 때 '내가 이렇게 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7-261, 1990.11.11) p.71

절대적인 하나님도 '아이고 내가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나도 절대적인 그 무엇에 순종하고 살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라고 하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위하라는 사랑을 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201-115, 1990.3.27) p.71

통일은 무엇을 중심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했으니까 전지성을 중심삼고? 지식을 중심삼고? 아닙니다. 그러면 뭣 중심삼고? 힘 가지고? 힘 가지고도 안됩니다. 아무리 봄이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꽃필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름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을 맞게 되면 그게 전부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가을이 아무리 결실의 시기라 하더라도 겨울을 극복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태양을 언제나 중심에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곳에서 춘하추동을 극복할 수 있지, 그 외에는 못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아들딸, 누나, 동생,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판국에 부모의 전통 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해라!' 할 때, 통일이 안 되겠어요? 통일 안된다고 하는 녀석은 미친 녀석이지. (221-190, 1991.10.24) p.72

오늘날 현대신학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 그분은 사랑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녀석은 미친 녀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209-81, 1990.11.27)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것이 또 있어서 그 둘이 사랑하게 되면, 그 세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고 도리어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둘 가운데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빠져 버립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로 가고 강한 것은 약한 것에게로 들어가야 딱 가운데 끼어서 꼼짝못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을,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원합니다.

여자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죽어 버려라 이겁니다. 여자 같은 남자를 사랑하겠다는 여자는 죽어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 손을 만지면 기분 좋아요? 여자끼리 손을 잡으면 기분 좋아요? 부드러운 여자 손이 부드러운 손을 잡으면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두 부드러운 손의 느낌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건 죽기보다 더 싫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167-300, 1987.8.20) p.72

Top p.72

6) 사랑으로 무소부재하신다

① 사랑만이 경계를 넘나든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도 있습니다. 하늘 땅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즉 무소부재(無所不在)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기를 원할진대, 여러분이 바라보는 물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 물건을 내것으로, 천지의 모든 존재물을 내것으로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최고의 도(道)를 통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소유된 사람입니다.

나는 새 한 마리나 향기를 풍기는 꽃 한 포기를 보고도 마음으로 영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8-180, 1959.12.13) p.72

그러면 하나님의 편재성(遍在性)을 어떻게 느끼느냐? 공기를 하나님의 입김과 같이 느껴라. 태풍이 불어오거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위해서 수난길을 극복해 나오시면서 흘리신 땀과 같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태양를 바라보거든 그 태양이 이 우주 전체의 생명의 요인을 상징하였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태양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데 하나의 교본이요 교재로 전개시킨 것, 사랑하는 아들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교재로 세워 놓은 것이 자연입니다. 나뭇잎을 보고 자기 아들딸같이 여기고 혼자 중얼거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59-101, 1972.7.9) p.73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니 우리도 무소부재한 것을 닮고 싶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 우리도 전지전능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시니 우리도 유일무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닮았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닮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비슷비슷하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26-167, 1969.10.25) p.7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을 통해 체휼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에 내가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효자는 천만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그 효자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있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지식적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과 극을 넘어서 편재를 타당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통하는 그 길에 부모의 사랑은 무소부재(無所不在)입니다.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사랑만이 그 아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권한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101, 1972.7.9) p.73

사랑에는 위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불변적인 참사랑과 일치된 입장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동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눈을 감지 않고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체휼한 자는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 통곡을 하는 그런 체휼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만일 자식이 외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아! 아무개야' 하고 소리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356, 1990.4.30) p.73

그래 동맥(動脈)이 위대하냐, 정맥(靜脈)이 위대하냐? 어떤 게 위대해요?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냐? 사람이 위대하냐? 그것 역시 같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보면 하나님이 동맥적이라면 우리 인간은 정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닌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이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게 무엇을 중심삼고 그러냐? 사랑을 중심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말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109-148, 1980.11.1) p.74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욕심장이 중에도 대왕 욕심장이입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 얼마나 욕심장이에요? 욕심꾸러기라고 하거나 뭐 욕심장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욕심이 많으시다는 말입니다. (121-70, 1982.10.24) p.74

하나님은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절대, 독재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님이 절대 복종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높은 것은 주관할 수 있으되 낮은 것은 주관할 수 없습니다. 무소부재라는 말 자체가 모순된 말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닮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딸 닮았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절대 복종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192-29, 1989.7.2) p.74

자기가 그린 작품을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취해 바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린 화가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안방에 모시고 '왜 그랬소?' 하면서, 사연을 얘기하게 할 것이 아니예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그리워, 아이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고 해서 미쳤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만우주에 꽉 차 있는 편재성을 지식적인 주체로 계시기보다는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랑의 동감권(同感圈)을 각 분야에서 체휼할 수 있느냐?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재인식하고 재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59-103, 1972.7.9) p.74

Top p.74

② 우주에는 사랑이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왜 절대적이냐? 사랑에 절대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223-246, 1991.11.10) p.7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품고도 남습니다. 중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반을 포용하는 사랑의 중심자가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할 경우에는 작은 것도 전부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의 큰 원 안에 전부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세계, 전우주를 커버한다고 해도 이론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205-33, 1990.7.7) p.74

하나님이 없게 될 때는 우주는 다 빈 것입니다. 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게 된다면 우주는 꽉 찬 것입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될 때는 우주는 꽉 찬 것입니다. 어디나 계신다는 말입니다. 어디나 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가운데서는 무소부재의 감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빈 것입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91-323, 1977.3.1) p.75

사랑의 주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찹니다. 사랑이 꽉차야 모든 것이 차기 때문에 무한히 줄 수 있고, 참되게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고받는 것은 이상의 실현이요, 이상의 번식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거리를 초월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 빛도 못 따라갑니다. 제일 빠른 것이 사랑입니다. 제일 밝은 것도 사랑입니다. 제일 완전한 것도 사랑입니다. 제일 완전히 차는 것도 사랑입니다. (95-39, 1977.9.11) p.75

사랑이란 뭐냐? 돌아갈 수 있는 윤활작용(潤滑作用)과 궤도작용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윤활역할(軌道役割)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움직이게 하려면 기름을 쳐야 합니다. 운동하는데는 윤활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운동하려면 윤활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의 윤활작용을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신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당기면 몸 전체가 끌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만 당기면 우주가 끌려오고, 사랑만 움직이면 우주가 다 화해 돌아가게 됩니다.(180-161, 1988.8.22) p.75

이 우주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 줄 수 있는 하나의 주체가 있을 때 그건 어떤 주체냐? 절대적인 하나의 중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을 어떠한 마음의 자리에도 꽉꽉 채워 줄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한한 절대자라야 됩니다. 오늘날 수십 억이 되는 인류의 마음을 다 채워 줘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라는 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단어다 이겁니다. (116-240, 1982.1.1) p.75

Top p.75

7) 기존 신관들의 문제점

① 기성신관은 이율배반적이다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반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고 지선(至善), 지미(至美)하고, 사랑이며, 심판의 주이며, 인류의 아버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만 있어도 좋을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였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 '창조에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 '절대선(絶對善)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왜 약육강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등이 그것입니다. (122-302, 1982.11.25) p.76

하나님이 문제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요? 십자가의 도리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구원할 수 없다면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인간 앞에서 추방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믿긴 뭘 믿어요? (136-128, 1985.12.22) p.76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게 해놓고 왜 슬퍼하는가 하는 근원을 파헤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33-216, 1984.7.19) p.76

지금까지 신학자들이나 영계를 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사탄을 왜 방어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영계를 통해 가지고도 문제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편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탄이 방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방면에서, 일방이 아닌 팔방에서 반대하게 되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고 제재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수수께끼입니다. 영계를 통해도 그것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133-86, 1984.7.10) p.7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만 년 역사를 통해 인류를 이끌어 나왔는데 어찌하여 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세계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종국에 와서는 이와 같이 낙망과 절망의 세계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이상이라든가 혹은 평화의 세계, 인간들이 추구해 나가는 유토피아적 내용이 미래에 가능한 것으로 인간들 앞에 맞아질 것이냐? 지금까지 오랜 역사노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 혹는 무수한 철인들이 그와 같은 세계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미달해서 현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미래에 우리들에게 그런 희망의 세계를 가져다 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30-18, 1983.12.11) p.76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사탄을 그렇게 두는 걸까요? 하루 저녁에 모가지를 잘라서 처단해 버리면 될 것인데 왜 그냥 둘까요? 그거 왜 둬요? 그게 종교에 있어서 제일 난문제인데, 그게 간단한 내용이예요? (127-79, 1983.5.5) p.76

지금 수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하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고통이니 슬픔이니 그러한 개념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모든 신자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를 해야 되고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자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이율상반(二律相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3-154, 1983.1.1) p.77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공의의 심판주로 보좌에 앉아서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장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재판장이 좋아요? 재판장을 10년 했다가는 병이 들어 죽습니다. 죽는다기보다 병이 들어 나가 자빠집니다. 병이 안 들면 그건 가짜들입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선고를 내리기도 했을텐데, 자기가 내린 판결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논법이, 해설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자기 판결에 의해 그 사람의 생사문제를 결정짓는 놀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주의 공법에 비추어 보게 될 때 법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은 10년 판사 하면 병이 나야 된다 이겁니다. (198-285, 1990.2.5) p.77

자, 그러면 이 천지의 대주재 되는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물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보좌에 앉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로 오셔서 나쁜 놈은 지옥 보내고 좋은 놈은 천국 보내고…. 그거 보고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 미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초월한 절대선의 자리에 계십니다. (194-32, 1989.10.15) p.7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성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가지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무슨 재미예요? 보좌에, 왕좌에 몇만 년 그냥 앉아 있으면 궁둥이가 다 물러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 있는 걸 좋아하거든 한 3일 동안만 앉아 있어 보라구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하고 있느냐? 기독교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영원히 영광 가운데…. 혼자 앉아 서 무슨 영광이예요? 영원 전부터 오늘날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오 내 권력 좋구만. 내 이 전지전능하고 요사스러운…. 그거 뭐해요? 하나님도 사랑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1-22, 1989.6.24) p.77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수만 년 역사, 인류역사를 말하게 되면 85만 년에서 150만 년까지 잡고 있는데, 그런 기나긴 장구한 세월 동안 왜 인간을 요꼴로 만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허황한 논법입니다. 왜 못 하느냐 이겁니다. 왜 못 하느냐? 조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162-186, 1987.4.12) p.77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속되다고 하지만, 잘못 알았습니다. 저나라에 가 보라구요.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기들도 하면서…. 그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고 상대할 수 없는 관계에서 아버지란 말이 벌어져요? 그건 벌써 처음부터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모순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총재가 말하는 것은 사리에 닿습니다. (240-191, 1992.12.13) p.78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아들딸로 지었는데, 그 아들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것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날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성교회 신자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있으면서 전지전능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줄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인간을 구원 못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는 것도 인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226-304, 1992.2.9) p.78

하나님이 절대 바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 능력이에요? 오늘날 기성교회, 기성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공의(公義)의 심판주로 와서 선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악한 사람은 지옥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재판장이 좋아요? 세상에 재판장이 좋아요? 무슨 고약한 하나님이 돼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 보내게끔 만들었어요? 논리적으로 전부 부당한 처사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211-75, 1990.12.29) p.78

기성신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은 속된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주 생성의 본성적 원리에 위배되는 논리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적 주류 사상이 사랑이라 했는데 속된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될 수 있어요? 이론적 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이론을 못 대면 허무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절대적인 하나님 자신이 절대 복종하고, 절대자인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위하고 싶고 갖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4-100, 1990.7.1) p.78

오늘날, 기성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앙 전체를 우리는 비판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의 신관, 인생관에 대한 모든 것을 재검토할 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신학사조는 피조물은 '거룩하신 창조주와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혼자서 사랑하겠느냐? 평화니 행복이니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혼자 하겠느냐? 묻게 된다면 대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77-317, 1975.4.30) p.79

이 피조세계가 생겨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오늘날 기성신학의 신관(神觀)이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힘의 하나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힘만 가지면 다 된다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문화가 거쳐가는 데는 피를 흘려 왔습니다. 서구 문명이 기독교문화를 따라 발전해 왔지만 이제 기독교문화는 종말세계에 파탄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논리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9-29, 1990.11.25) p.79

역사는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을 파악하고 종의 기원을 탐구해 가지고 근본을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종교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주체적인 관을 가지고 세계가 어떻고 창조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가지고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종교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종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있는 한 그런 종교의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1-139, 1990.12.30) p.79

인간이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되고 절대자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지음받았다면 인간의 창조에 동기와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밝혀지려면 절대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 즉 올바른 신관(神觀)이 우선 세워져야 합니다. 올바른 신관이 세워짐으로써 그분의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밝혀질 것이고, 따라서 평화를 위해 절대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110-253, 1980.11.27) p.79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유일하며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견지에서 참된 사랑, 참된 이상,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의 기원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신관,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인생관,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물질관,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행복의 세계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77-260, 1975.4.14) p.79

종교분쟁의 근본원인도 역시 본체론의 애매성에 있습니다. 절대자는 오직 하나이며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절대자만이 바른 신이며 그 외의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종교마다 절대자가 있는 셈이 되어 절대자가 여럿이라는 배리(背理)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의 신은 상대적인 신에 불과하였다는 결론이 되어 각 종교를 통해 세워지기로 되었던 절대적 가치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관한 이론은 상대적인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이때까지의 종교는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관을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절대자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122-302, 1982.11.25) p.80

각 종교마다 그 교리가 성립되는 근거로서의 절대자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절대자는 여호와신이요, 기독교의 절대자는 갓(God), 즉 하나님이요, 회회교의 절대자는 알라신입니다. 유교나 불교는 절대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교의 덕목의 근본인 '인(仁)'은 천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천(天)'이 유교의 절대자라고 볼 수 있으며, 불교에서는 제법(諸法)은 항상 변화하며 진리는 제법의 배후에 있는 '진여(眞如)'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진여가 불교의 절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2-300, 1982.11.25) p.80

새로운 종교를 위한 본체론은 종래의 모든 절대자가 각각 별개의 신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신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신의 속성 일부를 파악한 것이 각 종교의 신관이었음과 그 신의 전모를 옳게 파악하여 모든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형제적 종교임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체론은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창조의 동기와 창조의 목적과 법칙을 밝혀 그 목적과 법칙이 우주 만물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도 결국 이 우주의 법칙, 즉 천도와 일치함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122-303, 1982.11.25) p.80

통일교회 원리가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성이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는 실질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과정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방치해 두지 않고 재창조하시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하는

[텍스트 입력]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적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헤쳤다는 것입니다. (208-296, 1990.11.20) p.80

Top p.80

제 2 장
하나님과 창조역사

1) 하나님의 창조 동기는 사랑

① 창조의 역사는 완전 투입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생명의 접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상을 동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88-196, 1989.2.26) p.81

과학자들은 우주가 힘으로 형성돼 있고, 이 힘에 의해 우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는 힘이 먼저 있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을 통해 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작용이 있기 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작용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야 작용을 하고, 그 작용을 통해 전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힘도 주체와 대상이 작용을 해야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힘으로부터 우주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힘이 먼저가 아니라 작용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다고 생명이 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생명에서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의 발원지(發源地), 동기는 사랑입니다. 생명이 생겨난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아무리 절대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기쁨을 느낄 수 없으며, 설령 기쁘다 하더라도 기쁨의 자극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창조를 했습니다. 절대자가 아무리 '나는 절대자다. 나는 사랑의 주인공이다. 생명의 주인공이다.'라고 한다 해도 절대자 혼자서는 사랑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천지가 내 몸 속에 있다는 생명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38-152, 1971.1.3)

하나님이 자신만 생각했다면 천지를 창조 했겠어요? 창조는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예술가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술가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투입합니다. 다 투입하는 데서만이 완전한 걸작품이 나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했을 때 비로소 걸작품이 생겨납니다.

창조는 자체를 투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힘을 투입해야 창조가 가능합니다. 힘을 투입하지 않고는 어떤 물건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투입하는 데서 완전한 대상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은 주체로서 대상을 만들기 위해 완전히 투입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위해 있겠다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 창조입니다. (78-111, 1975.5.6) p.82

창조한다는 것은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투입을 했는데, 얼마나 투입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을 때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하고 장난식으로 창조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참된 생명을 완전히 투입하고, 참된 사랑을 완전히 투입하고, 참된 이상을 완전히 투입했습니다. 우리도 정성 안 들이고 피와 살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기 전과 창조하고 난 후가 다릅니다. 창조하기 전에는 자기를 생각했지만 창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상을 위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다, 아들딸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81, 1973.10.20) p.82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질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를 투입했다는 것이고, 에너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자기 본질의 감소를 말합니다. 대상세계 창조는 사랑으로

[텍스트 입력]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투입했습니다. 투입한 그것이 자기에게 열매 맺히게 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열매 맺히게 했습니다. 투입함으로써 하나님이 소원(疎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60-85, 1972.8.6) p.82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도 힘든 노동을 하게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빨리 피곤해집니다. 왜 그러냐? 힘을 투입하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에 손해 보아 가면서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플러스 되어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지만물을 지은 것은 좋기 위해서 반드시 플러스 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플러스 될 수 있는 것을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여기에 피조물의 완성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투입하면 그때부터 돌아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그 한계점을 밀고 넘어가게 될 때 반드시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힘을 투입한 것입니다. 힘을 투입했습니다. 자기 자체를 소모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투입해서 사람을 창조했으면 그 완성된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데 있어서 1백을 투입했는데 1백보다 적은 가치의 것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더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65-20, 1972.11.13) p.83

우주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나님을 두고 볼 때 전부가 위하는 데서부터, 투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자기를 소모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소모해 가지고 상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둘 다 소모하는데, 소모하고 얻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만 가지면 아무리 소모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투입하는 것은 손해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소모시켜서 투입했지만 그 대신 사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투입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참사랑이 작아진다는 원리라면 하나님 자체가 투입해가지고 소모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커가는 것입니다. (237-124, 1992.11.13) p.83

사랑에는 창조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투입해도 소모된 에너지 이상 언제나 보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싫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사랑을 위하는 길에는 싫은 마음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위하는 길에는 영원히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는 원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악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237-130, 1992.11.13) p.83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투입, 투입,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투입을 하면 돌고 돌게 됩니다. 공기를 예로 들면, 절대 저기압과 절대 고기압이 있다면 그 중간의 기압이 생깁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하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퍼센트 이상 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항상 하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데는 영원한 운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영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지 않으면 통일원칙을 어디에서 끄집어 낼 거예요? 위하게 되면 빙빙 돌지요? 빙빙 돌아서 어디로 가요? 점점 작아져서 올라갑니다. 빙글빙글 돌아 넓게 퍼지면 내려가지만, 이것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아담과 해와의 어깨 위에 양쪽 발을 올려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5-95, 1990.7.7) p.83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왜 지었느냐? 지었다는 말은 힘을 투입했다는 뜻입니다. 힘의 투입입니다. 힘의 투입이라는 것은 자체의 소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힘을 잔뜩 뽑아냈는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65-20, 1972.11.13) p.8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인간의 창조를 위해 온갖 힘을 투입하셨습니다. 전부를 투입하고 또 투입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투입하면 전부 소모되지만 참사랑만은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번성하고 생산됩니다. 참사랑은 100 을 투입하면 120 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번성하며 영생하는 것입니다. (219-118, 1991.8.28) p.84

하나님이 왜 계시느냐? 무엇 때문에 계시려고 하느냐? 사랑 때문에 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를 창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본질적 이상으로 사랑을 중심삼고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몰랐습니다. 사랑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208-231, 1990.11.20) p.84

하나님의 소원은 참되게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발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가 참소할 수 없고, 받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자리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리를 세계적으로 넓혀서 온 만민을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두려는 소기의 목적입니다. (13-249, 1964.4.12) p.84

Top p.84

② 사랑을 통한 창조이상 실현

사랑의 실현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화기애애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참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참된 사랑의 가정과 종족, 민족,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인간과 사랑으로 하나됨으로써 사랑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을 중심삼고 사랑할 수 있는 본마음의 바탕, 이것이 바로 심정입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논하려면 이 사랑을 붙들고 논해야 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 여건이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인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는 인간의 심정에서 현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지닌 인간이 횡적으로 뻗어 나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이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생육하고 번식하라는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천주주의는 생육하고 번식해서 만물을 주관하는 그 바탕 위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27-28, 1969.11.15) p.85

하나님께서 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자라 하지만 기쁨을 홀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기쁨은 상대가 있어야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돈도 아니며,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이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과학이 제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따라가거나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방대한 우주는 질서 속에 법도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과학이 미칠 수 없는 방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운행하시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127-10, 1983.5.1) p.85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에다 줄을 매고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 갈라질 것 같습니까? 꿀을 빨고 있는 벌의 꽁무니를 잡아당기면 그것이 빠지더라도 그 벌은 꿀에서 입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맛을 느낀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다가도 되돌아와서 또다시 거기에 붙으려고 할 것입니다. (137-57, 1985.12.18) p.85

하나님의 사랑은 통일교회의 원리에 의하면, 사위기대 완성이라 결론짓습니다. 그렇다면 사위기대 완성(四位基臺完成)이란 뭐냐?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위기대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중심인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자녀와 하나되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하나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되는 것이 사위기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존재세계의 평면적인 대표자는 인간이며, 입체적인 대표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결부시키는 중심점이 바로 사랑이라는 끈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될 때, 그의 심정과 감정은 무한한 체휼경(體恤境)과 행복감에 취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 인간과 세계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창조목적 이상세계의 실현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새 사랑, 즉 창조 법도에 의한 사랑이 결정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이 출발됩니다. (35-356, 1970.10.13) p.85

우리 인간들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나 나가서 일하는 것, 전세계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밤이나 낮이나 춘하추동 변함없이, 일생동안 변함없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성, 그런 여성들이 완전히 수평선을 이루어 종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90 각도에 연결될 수 있는, 인정과 천정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사랑, 그런 사랑의 이상경,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13-156, 1981.1.20) p.86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사랑을 위해 투입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본질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상대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투입하고, 아래에서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가 합덕, 하나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대한 힘이 오는 것입니다. (237-130, 1992.11.13) p.86

사랑을 점령하려면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하느냐? 사랑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학세계에서의 자연현상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작아지지요? 자연계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작아지지만, 참사랑의 세계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커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창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7-127, 1992.11.13) p.86

Top p.86

2)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 때문에 지었습니다. 인간은 왜 지음받았느냐? 사랑 때문에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만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딸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지음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특권입니다. (132-244, 1984.6.20) p.86

완전한 플러스인 하나님은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주체 입장에 선 하나님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무형의 내적인 상대적 실체존재(相對的實體存在)다 이겁니다. (129-138, 1983.10.9) p.86

사람을 창조하여 길러 가지고 천주의 주인인 하나님 대신 사랑을 가진 자로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끔 해 가지고 주인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204-221, 1990.7.11) p.86

만유(萬有)의 중심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앞에 상대적 가치로 등장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유의 사랑의 표상체로, 하나의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춰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심으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115-182, 1981.11.15) p.8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이 뭐라구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이니 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이성성상의 주체로 되어 있느니 만큼 그 주체 앞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이성성상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 형태라는 것은 주체의 성품에 반대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모든 성품의 상대성을 지니고 사랑이라는 본질에 딱 들어 맞을 수 있는 상대적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존재인데 그것이 딴 것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랑에만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지식이나 딴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것은 사랑 이상을 이루기 위해 피조세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 앞에 첫 번으로 중심 자리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132-244, 1984.6.20) p.87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 때문에 창조했느냐? 아들딸의 생명을 보기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딸과 더불어 사랑을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그 바탕에서 생명이 창조된 것이지 생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을 유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생명이 시작하고, 그 생명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도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끝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빼면 우리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57-22, 1972.5.21) p.87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생명도 필요없습니다. 생명의 주체이신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안 되어 가지고는 이 창조세계와 인간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고는 존재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표준으로 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121-100, 1982.10.24) p.87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데 왜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관계에서만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자리에, 사랑의 대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3-309, 1986.3.21) p.88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었느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로 부터 찾아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귀한 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상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상대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게끔 상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이라는 것은 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태어나기를 어디에서부터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이 기원입니다. (143-310, 1986.3.21) p.88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기 위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대상권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절대 필요하니만큼 피조만물을 짓고 피조만물을 대표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 사랑 대상권의 가치를 준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 그 대상적 존재로 지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된 아담과 해와 둘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세계에 가서는 아담과 해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 되어 영계와 지상세계를 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8-212, 1986.1.21) p.88

Top p.88

② 사랑과 생명의 핵심을 모두 투입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주인공으로 인간 시조를 에덴동산에 지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희롱거리로 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미로 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지어 만물을 대표하는 중심으로 세우게 될 때까지의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온갖 정성을 다 들이시고, 또한 심혈과 당신의 생명의 핵심을 다 기울여 지으셨으며, 사랑과 애정을 몽땅 퍼부어 지으셨습니다. 어떠한 힘 가지고도 떼려야 뗄 수 없고, 갈라지려야 갈라질 수 없는 인연 가운데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으신 인간이기에 그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는 비로소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정과 행복은 그 인간을 통하여만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20-207, 1968.6.9) p.89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골수 중의 골수를 몽땅 부어 지은 인간이기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끌면 안 끌려 오실 수 없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끄시면 안 끌려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연 가운데서 내용과 목적이 일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지어 놓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이나 시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시인이나 문인도 표현하지 못하는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요, 만물도 아니요, 오직 만물을 대표한 인간입니다. (20-207, 1968.6.9) p.89

하나님이 피조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전체를 투입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우주에 사랑의 핵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이상이었습니다. (166-147, 1987.6.5) p.89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있어도 마음 속에 내적으로 있지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뭘 해요?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인간인 아담에게 있고 해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6-125, 1990.10.3) p.89

인간이 욕망의 최종착점, 욕망의 최대의 완성기준을 향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대한 말입니다. 제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사랑의 대상권이 되면, 그 사랑의 대상권과 하나되면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원칙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 영계, 무형세계, 실체세계, 이 전부가 우주의 상속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137-67, 1985.12.18) p.89

Top p.89

3) 아담 해와를 통한 사랑이상

① 아담을 무형이신 하나님의 체로 지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해와를 필요로 했느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이상을 성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형의 하나님이 형상을 쓰고 나타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형상을 쓰고 유형세계와 관계맺을 수 있는 그 기초, 그 핵심이 아담과 해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영계에 가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과 같고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마음과 같은 자리에서 보좌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람, 하나의 영적 세계에 완성한 사람을 실체세계의 몸뚱이와 마음과 같은 하나의 결과로 이루어 놓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92-147, 1977.4.1) p.90

하늘나라에 무형의 하나님이 혼자 있어서는 뭘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가 되려면 체를 갖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과 같은 체를 입어야 되겠기 때문에, 체를 입으려니 부득이 아담과 해와를 이중적 존재로 짓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3-91, 1984.7.10) p.90

아담과 해와는 왜 이중구조(二重構造)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느냐? 무형의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니 마음과 몸이 일생을 거쳐 살면서 저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되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는 저나라에 나타나면 그 형상이 하나님과 하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적 왕권을 가진 부모가 무형의 부모인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상세계에 체를 입은 왕권을 현현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이중구조로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와 연결짓지 않고는 세상과 관계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와 관계를 맺어야만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133-91, 1984.7.10) p.90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는 같은 부모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것이요, 체를 입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부모의 자리라는 것은 안팎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요, 하나님은 내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몸적인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이고, 마음적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입니다. 본래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여러 명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이니까 그 한 분이 들어와 계실 수 있는 아담과 해와, 남성 여성의 이성성상을 가진 분성전과 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작용해야 아담과 해와 둘이 이상적 작용을 하지, 하나님이 작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뭣이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133-91, 1984.7.10)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선 분입니다. 인간은 땅의 하나님으로 세우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종적인 하나님으로 세워 가지고 이것이 천지합덕, 이래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는 외롭습니다. (221-113, 1991.10.23) p.90

창조주는 종적인 참사랑을 중심삼은 종적인 아버지이고,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해와는 완전히 90각도로 하나될 수 있는 자리에 선 완성된 부모, 횡적인 몸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참사랑을 중심삼은 마음의 부모요,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몸뚱이의 부모인데, 이 둘이 합해 하늘 부모와 땅 부모가 하나되어, 천(天), 인(人)이 합해 가지고 아들딸이 나왔더라면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타락 때문에 복잡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몸뚱이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210-139, 1990.12.17) p.91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둘이 사랑하여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은 아담을 위해, 해와는 해와를 위해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해와를 위해, 해와는 아담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기쁨을 위해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은 것은 지식, 권력,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지은 것은 지식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며, 많은 재물을 주어 잘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의 실체로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가정을 통해 사랑의 기반을 만들고자해서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피조세계는 지옥이며, 당신 또한 존재가치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 창조의 절대법(絶對法)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남자는 동쪽이요 여자는 서쪽인데, 종적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동서사방, 평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360 도이기 때문에 무한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면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산하는 공장, 출발지가 이 지구성(地球星)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 지구성에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가 보라구요, 이 다음에 지구성 외에 딴 나라는 없습니다. 뭐 우주에 사람이 산다고 그러는데 살긴 뭘 살아요? 우주는 전부 다 사람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206-209, 1990.10.7) p.91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나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종적인 아담과 해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들딸을 낳게 되면 스무 명도 더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 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왜? 종적인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남자 하나, 절대적인 여자 하나 밖에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236-259, 1992.11.8) p.91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속에 있던 쌍태가 실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형의 남성 여성의 쌍태가 유형의 남성 여성의 실체로 나타난 것이 아담과 해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형의 심정권의 내용을 실체 심정권으로 완성시켜 무형과 유형이 하나되기 위한 것이 창조이상입니다. 창조이상은 사랑을 중심삼고 대상권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237-160, 1992.11.16) p.92

아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재적 성품의 절반을 실체로 전개한 표시체다. 해와는 무엇이냐? 여성성품을 실체로 전개해 놓은 표시체다, 드러낸 존재다. 드러냈다는 것은 실체를 가졌다, 표시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전에 드러나지 않은 동기가 있어서 그것을 드러냈다 이겁니다. 그 드러나지 않은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무형의 실체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40-123, 1986.2.9) p.92

1 남과 1 녀는 무형이신 하나님의 실체대상으로 나타난 아들딸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을,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 성품을 대신할 실체대상(實體對象)입니다. 창조이념은 양성(兩性)의 중화체(中和體)로 계신 하나님의 성상(性相)을 이성(二性)으로 분립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본성상(本性相)을 닮은 모습으로 합성일체화(合性一體化)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일성(一性)을 닮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1 남 1 녀의 결합은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과 마이너스(-) 성품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중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두 사람, 즉 부부는 하나님의 전체를 표상하는 결합체입니다. (9-83, 1960.4.16) p.92

Top p.92

② 부부는 제 2 창조주의 자리

부부가 하나되어 아들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 아들딸을 낳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기쁨을 평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는 아들딸과 같아야 됩니다. 아들딸과 형제의 자리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함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들딸은 이런 모든 전통을 밟아 거쳐간 후에 낳아야, 하나님이 본래 창조이상으로 바라던 본연적 기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223-24, 1991.11.7) p.9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렇게 부부가 아들딸을 낳아 부모의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대주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체휼적 환경을 체휼적 내용으로 전수시켜 주는 것이 아들딸의 생산입니다. 아들딸을 생산해서 고이 키워 결혼시키기까지가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길러 가지고 결혼시켜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도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결혼을 못 시켰습니다. 이 한을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의 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223-196, 1991.11.10) p.93

인간은 횡적인 부모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자식인 동시에 형제입니다. 형제인 동시에 부부요, 부부인 동시에 아들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기뻐하던 모든 전부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223-267, 1991.11.12) p.93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입장에서 그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담과 해와로 말미암은 제 2 창조물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은 유형의 실체로서 아담과 해와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하나님의 유형실체의 완성으로서 사랑의 중심 대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기쁨을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자녀입니다. (238-62, 1992.11.19) p.93

하나님이 이상적인 우주의 원만한 가정이상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자녀와 형제와 부부와 부모의 자리를 갖춰 자기의 사랑을 상속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제 2 의 창조주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딸입니다. 아들딸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238-40, 1992.11.19) p.93

여자들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생겨납니다. 그 아기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꿈이 많습니다. 여자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꿈, 꿈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아기가 자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아담과 해와를 준비하던 그 마음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입체적 꿈이 그러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천하가 내 아들딸의 손아귀에 있고 내 품에서 자라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사랑을 중심삼고 천하를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228-263, 1992.7.5) p.93

아기를 낳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결혼으로부터 상현세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내연을 체휼시키는 놀음입니다. (224-28, 1991.11.21) p.93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담 제멋대로 하고 해와 제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완전히 하나 돼야 무형의 하나님이 여기에 왕래 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투를, 사랑의 보자기를 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사랑의 냄새를 킁킁 맡는다는 것입니다. (112-103, 1981.4.5) p.94

그러면 하나님도 키스하는 걸 좋아하겠나? 무형의 하나님은 둘이 함께 붙어 있으니 자극을 모릅니다. 사랑할 때도 하나 됐다 떨어졌다 이러지요? 부처끼리 맨 처음에 죽자사자 사랑할 때는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 온 후에 구름이 개이는 것과 같이 사랑이 한번 불탔다가는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24-36, 1991.11.21) p.94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체인 동시에 격(格)으로는 남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격 사랑을 대해 상대적 입장에 있는 것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직관계입니다, 수직관계. 여자는 수직관계가 아닙니다. 여자는 뭐냐? 수직의 상대되는 횡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인격을 중심삼고 격에 따라 볼 때 남자는 종적 관계인 상하관계이고 여자는 좌우관계인 횡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종(縱)이 먼저예요, 횡(橫)이 먼저예요? 종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의 자리에 가까이 하려는 것은 모든 자연의 이치가 추구하고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딸보다 아들입니다. 이래야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177-324, 1988.5.22) p.94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있지요? 누구 때문이지요? 후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를 지은 목적은 하늘나라 백성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계에는 생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사랑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적인 것에는 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점밖에 없습니다. 한 점에서는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횡적인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되어 하늘나라의 백성을 많이 번식해서 이양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입니다. (222-252, 1991.11.3) p.94

하늘나라 백성의 생산지가 부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엮어질 수 있는 하늘 황족을 중심삼고 연결을 확대해 하늘나라의 백성을, 이 땅 위에 우리 인류 시조의 육신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산하기 위한 기지였다는 걸 누가 알아요? (219-40, 1991.8.25) p.94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속에 내재된 사랑의 소성이라는 것이 이다지도 강력한 것이었던가 하고 상대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겠나, 안 보겠나? 천하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세계 50 억 인류가 사랑하는 밤이 되면 눈을 감겠나, 어쩌겠나?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나? 좋은 부인, 좋은 남편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라구요. 천만사가 다 벌어질 텐데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여편네 놀음하고, 할 수 없이 끌려가고, 할 수 없이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세상이 전부 하나님이 바라던 창조이상대로 꽃향기가 풍기는 에덴동산같이 나비와 벌이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천지에 화동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취해 잠이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 생각해 봤어요? 한번 그렇게 살아 봐요. (222-252, 1991.11.3) p.95

하나님은 부부의 자리에 못 갔고 부모의 자리에 못 갔습니다. 이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와야 됩니다. 참부모가 와서 종적인 부모와 횡적인 부모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이상적 자녀를 번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전부가 여기에서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 창조만 했지만, 영육 실체가 완성된 자리에 있는 아담은 횡적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딸 둘 밖에 창조를 못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실체 부모의 자리에 선 사람은 아담과 해와를 무수히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 명도 낳을 수 있고, 스무 명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 횡적인 확대의 길을 중심삼고 많은 백성이 태어남으로써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236-146, 1992.11.4) p.95

참부모님은 수많은 종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위업을 대표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역사의 종착점이요, 종교의 목적점이요, 인류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모든 전부가 여기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유입니다. 개인 해방, 천상천하가 다 여기에서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통일천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220-221, 1991.10.19) p.95

Top p.95

4) 사랑이상은 가정 중심으로 완성된다

①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4 위기대 완성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무엇이냐?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그냥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늙어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장성하여 서로 이성에 대한 상대적인 심정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성인 아담은 하늘을 대표하고 여성인 해와는 땅을 대표합니다. 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둘이지만 그들이 횡적으로 하나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두 사람이 통일하고 나면 천주(天宙)는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21-43, 1968.9.1) p.96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그 당시보다도 그를 통해 펼쳐질 미래에 더 큰 뜻을 두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것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창조목적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한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체의 품성을 중심삼고 플러스적 성품의 대표로 아들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데는 여성적인 사랑을 합해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딸인 해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남성적인 사랑을 합해 가지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립된 둘이 하나됨으로써 제 3 의 출발의 기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보다 새로운 희망을 촉발시켜 주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대신한 실체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딸들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아담도 좋아하고 해와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대상목적(三對象目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삼대상목적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2-238, 1970.7.19) p.96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창조목적을 완성하여 창조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창조이상 실현은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후에는 아들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지 이치는 상하 전후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연결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끼리만 가지고는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위라면 아래(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가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이치는 상하가 겸해야 좌우가 됩니다.

부모들은 그 아들딸들을 결혼시켜 놓고야 내 책임 다했다고 합니다. 부부된 부모와 그리고 아들딸이 결혼해야 상하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하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좌우로서 남편과 아내가 합했지만 상하관계의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종횡이 연결돼 가지고 이 우주의 이상적 구형세계(球形世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형제자매가 겸해야 드디어 구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상 실현을 완성하게 되면 횡적으로 종적으로 연결되는 십자적 원형을 그려야 됩니다. 그 두 이상 실현권을 남자와 여자가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스스로 이상적인 자리에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사위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이상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로부터 삼단계를 거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상대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나와 상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사위기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입니다.

사위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의 심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심정을 가질 수 있고 부모의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5-178, 1976.3.3) p.97

Top p.96

② 창조이상은 가정 완성으로 이뤄진다

인간 조상을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의 중심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가정이란 부모와 자녀,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인데, 그 묶어진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은 만고불변의 기원이며 기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도 고칠 수 없고, 형제도 고칠 수 없으며, 어느 나라 어떤 제도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고치지 못하며, 하늘 땅도, 하나님께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에는 영원히 혁명이라는 명사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25-85, 1969.9.30) p.97

인간은 부자지관계가 있어야 되고, 부부관계, 형제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세 관계가 한 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점은 하나입니다. 상하, 좌우, 전후의 중심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점이 틀리게 되면 상하, 좌우, 전후관계의 균형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하·좌·우·전·후 그리고 하나의 중심점까지 모두 7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수를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중심삼고 완전한 참사랑으로 하나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완전히 구형을 이루어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모두 참사랑을 중심으로 합하기를 원하는 곳이 우리의 이상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세계적 평준화가 시작됨으로써 지상천국이 출발되는 것이요, 또한 천상천국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이므로 참사랑과 연결되면 모두가 같은 몸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고, 아들딸은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3대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조직이 천국의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우주의 중심입니다. 가정 완성은 우주 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지 무사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전체 우주의 부모로서 사랑의 복합적인 중심자리에 계십니다. (298-306, 1999.1.17) p.97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가정적 기대에는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아들의 사랑, 딸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된 자리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딸을 사랑하면 누구나 천국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사회의 윤리적 기반이며, 인간 세계에서 가장 본이 되고, 근원적이고, 일차적인 조직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사랑이 최선의 자기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냐 하면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입니다. 그러면 날 때는 어떻게 나야 하느냐? 잘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이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사위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공법을 지구상에 세워 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법도가 지향하는 내용을 갖추고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 가정입니다. (24-230, 1969.8.17) p.98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가 선한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하였습니다. 한 가정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완성한 가정은 평화의 가정이요, 이것은 천국의 기초입니다.

가정의 원동력은 참사랑입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대상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참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19-118, 1991.8.28) p.98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아담을 중심한 단일문화권(單一文化圈)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민족이 각기 다른 문화와 문명을 형성해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을 중심으로 한 단일문화, 단일사상, 단일문명을 가진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문화·역사·풍습·언어·전통 등이 모두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고, 더 확대되어서 아담의 이상이 실현되는 하나의 이상적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줄기·잎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랑을 중심삼고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래로는 만민을 형제와 같이 하나의 생명체, 사랑의 생명체로 화(化)하게 해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영원한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러한 세계의 인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치 않고 메시아도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아들딸이기 때문입니다. (110-213, 1980.11.18) p.98

Top p.98

5) 하나님이 만물세계를 지으신 뜻

① 만물을 지으신 목적

본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놀이거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취미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어떤 이념적인 내용도 없이 그저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크나큰 목적과 대우주의 이념을 두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미물(微物)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물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이념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념을 두고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이념의 세계, 즉 사랑과 더불어 통하고, 사랑과 더불어 즐기고, 사랑과 더불어 살고, 사랑과 더불어 죽는 세계를 목적하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눈앞에 펼쳐진 만상(萬象)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그 만상을 통해 무엇인지 모를 간접적인 인상을 받고 그 반응되는 감각으로 생활에서의 감각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미물이라도 반드시 우리와 인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그 미물은 그날 그날 천륜의 이념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며 인간과 더불어 인연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극히 작은 존재에서부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존재목적을 중심삼고 보면, 하나님의 대우주의 이념을 통할 수 있는 사랑의 이념권내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대우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큰 분야를 맡고 있는 것에 흡수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큰 것에 흡수되어 그것의 재료가 되고, 한 요소가 되어 대이념을 중심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전되어 나오는 것이고, 존재세계는 천륜이란 원칙의 궤도에 따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여 나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9-164, 1960.5.8) p.99

하나님이 왜 만물을 지었느냐?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대상자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먹고 살다가 자기의 본연의 세계로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국에 들어와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42-76, 1986.3.1) p.99

성경을 보면 천지 창조한 것을 간단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써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별이 생겨라' 하면 별이 생겨났고, '지구성아, 생겨나라' 하면 지구성이 생겨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무한한 질서와 법도를 따라 전진적인 원칙을 계승시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발전시켜 나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지어 놓고 만물의 정수로서 집약시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담과 해와, 인류의 조상입니다. (65-21, 1972.11.13) p.100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이러한 천지가 되라'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투입했습니다. 있는 정력을 다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랑의 힘을 다 투입해 가지고 미래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 자기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한 예물로, 선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12-306, 1981.4.25) p.100

창조할 때 무엇으로 했느냐?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더불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인간세계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6-92, 1975.2.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는 환경을 먼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환경 창조를 먼저 했다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주체 대상을 중심삼고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합해서 작용하는 현상세계로 자연계는 전개되어 있습니다. (131-217, 1984.5.4)

천지 창조의 이치를 보게 될 때, 핵심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상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핵심을 만들어 놓기 전에 상대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 흙을 먼저 만들어 놓고…. 외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내적인 것을 세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지창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것보다 더 큰 것, 무가치한 데서 더 가치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이치가 그렇다 이겁니다. 인간창조를 보게 될 때에도, 인간을 짓게 될 때에는 몸뚱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152-319, 1963.8.18)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지은 만물을 바라보시고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게 될 때에 무한히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선한지라 선한지라.' 하고 거듭거듭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느냐. 만물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대해 그렇듯 간절한 마음을 품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5-238, 1959.2.8) p.100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실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어 놓고는 보기에 선한지라 하셨습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내재되어 있기에 창조된 만물을 놓고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귀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삼라만상의 개체 개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정적인 인연을 입체적으로 갖춘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하늘이 보시는 인격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 프란체스코 같은 양반이 동물을 보고, 혹은 새를 보고 설교했다는 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꿈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9-168, 1960.5.8) p.101

사랑은 혼자 있을 때에도 있지만, 사랑의 작용은 상대가 있기 전에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없고, 사랑의 충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대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고 나서 그 우주의 주인으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143-81, 1986.3.16)

Top p.101

② 신비의 우주, 그 규모와 구조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이 사랑의 이상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구조입니다. 광물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하고 원자도 양자 전자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작용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영속과 존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을 중심삼고 그 중심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137-59, 1985.12.18) p.101

우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몸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관념이 성립됩니다. 우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실감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러지요? 옷도 뭐가 묻으면 털지요? 그거 왜 그럽니까? 내 것이니까,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이 하나되고, 몸이 하나되고, 만물이 하나되고, 이런 통일의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86-174, 1976.3.28) p.10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몇억 광년입니다.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 30만 킬로미터가 얼마냐 하면,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1초 동안에 달리는 빛이 1년 걸려서 가는 거리를 천문학에서는 1광년이라 합니다. 그런 광년을 단위로 삼아 출발한 빛이 몇억 광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렇게 큰 우주입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는 지금까지 100억 광년 떨어진 저 세계의 별까지 발견했는데, 이제는 150억 광년 떨어진 저 세계 별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 이상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그것도 원리적 수입니다. 210억 광년,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게 출발해서 1초 동안에 3억 미터, 빛의 속도가 3억 미터 갑니다. 거리로 말하면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거리입니다. 일곱 바퀴 반이나 되는 거리입니다. 딱 하면 벌써 일곱 바퀴 반을 돌아요. 그렇게 빠른 빛이 하루 걸려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생각이 다 둔해 가지고 '나 모르겠다.'할 텐데 백년이 아니고 백의 몇 만 배입니다. 백의 백만 배, 그게 1억인데 1억 광년. 출발해 가지고 1억 광년이니다. 아직 가고 있는데 사람이 백 살 산다면 백만 사람이 죽어갑니다. 1억 광년이니까 백 사람이 나서 계속해서 백년을 살다 죽어가기를 백만 사람이 죽을 그때에 가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럼 210억 광년하면 얼마예요? 그 사람들이 이어서 살고 죽고 또 살고, 백 살까지 살고, 백 살까지 살고 이렇게 2억 천만 명이 살아서 그만큼 가는데 또 계속 갑니다. 그 먼 거리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둥글둥글둥글 돌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우주라는 거입니다. (181-195, 1988.10.3) p.102

도대체 우주의 완성이 뭐냐? 우주를 완성하려면 내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완성 못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외적 세계가 좋아 춤을 춘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고통에 사무쳐 있다면 그 모든 외적 세계의 기뻐하는 환경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166-210, 1987.6.7) p.102

우주의 완성은 외적인 세계도 좋아야 하지만 내적인 나 자신, 나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데는 마음도 좋고 몸도 좋아야 됩니다. 내 세포로 보면 세포가 다 좋아야 됩니다. 눈의 세포와발바닥에 있는 세포는 다르지요?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세포들이 다 좋아하고 손의 세포도 좋아하고 모든 세포들이 좋아하고, 몸과 마음 어디 하나 남기지 않고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연체적(連體的)인 내용을 중심삼고 공명적(共鳴的)인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라야 우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66-210, 1987.6.7) p.102

Top p.102

③ 자연은 사랑이상을 가르쳐주는 교재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제1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제2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엮어 온 성경을 보면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선생님이 얼마나 머리를 흔들었는지 알아요? 그것은 점장이들이 점하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내용을 판단하고 전후사정을 가려내려면 힘이 들기에 성경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세계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20-271, 1968.7.7) p.103

인연(因緣)이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체도 4백조 개나 되는 세포로 인연되어 있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창조이념세계, 즉 대우주의 모든 존재물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심정 밖에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시인은 위대한 시인일 것입니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천주적(天宙的)인 심정을 느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인이 있다면 그는 우주적인 시인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도 모르게 벌어져 있는 천하만상(天下萬象)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령한 경지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 모래 한 알에도 우주의 이치가 들어 있고, 하나의 원자(原子)에도 무궁무진한 우주의 조화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복합적인 힘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분자를 지나 원자, 원자를 지나 소립자….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과 목적을 갖추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쳐 나온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9-168, 1960.5.8) p.103

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풀 한 포기를 붙들고도 '하나님!' 할 수 있는, 심정으로 자기의 가치와 동등하게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도인입니다. 그렇게 그 가치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예술가일 것입니다.

각양각색으로 존재하는 만상을 보고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사랑과 심정의 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과 친구가 되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런 감정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는 만우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물의 영장(靈長)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겠습니까? (9-168, 1960.5.8) p.103

어린애들을 가만히 보면 강아지 새끼니 무슨 뭐 벌레니 하는, 날짐승이나 들짐승처럼 움직이는 것들을 중심삼고 좋아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본래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이 자연계나 이 지구의 움직임을 보고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걸 감상하는 데서 인간은 참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자기 자체의 사랑의 속성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벌레들이 살고 곤충들이 살고, 혹은 동물들이 사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쌍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연은 뭐냐 하면, 인간 하나를 사랑의 대상으로서 상대이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개시켜 놓은 교재 박물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들딸이 사랑이상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상대구조(相對構造)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작용합니다. 물질의 구성단위(構成單位)인 원자도 양자와 전자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작용합니다. 작용하지 않고서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영속하고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작용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커가면서 자연을 보고 습득합니다. '곤충세계가 이렇구나!' 하고 배웁니다. 달빛이 비추고 별이 빛나는 가을 밤에 가만히 들어보면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하나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곤충들이 그렇게 우느냐? 그것은 상대를 찾아 이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새나 다른 모든 동물들도 슬픈 소리, 기쁜 소리를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를 따라서 소리를 냅니다. 급은 낮지만, 축에서 먼 거리에 있지만 그 축을 중심으로 평행선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의 노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가 고플 때 신호하는 노래가 있고,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위험할 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보통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들 세계에서는 다 압니다. 배가 고파서 울면 벌써 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이 무엇을 중심삼고 돼 있느냐? 배고픈 그거야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래는 무엇을 중심삼고 하느냐 하면, 상대와 주고받는 관계에서 노래가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137-211, 1986.1.3) p.104

인간은 주체와 대상, 즉 상대적인 쌍으로 지은 바 되었고, 또 인간을 위하여 있는 온 만물세계도 사랑의 원리 아래 조화를 이루고, 또 인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이상을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세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자라나는 아담과 해와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교과서요, 사랑의 진수가 무진장으로 진열된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135-12, 1985.8.20) p.104

모든 새나 동물은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중심으로 화동합니다. 꽃과 나비는 극(極)과 극이지만 서로 화합합니다. 이것은 천지조화입니다. 우주의 극과 극이 사랑을 중심으로 화동이 벌어집니다. 철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있던 새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북쪽에 있던 새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쪽으로 날아가서, 지역을 넘나들면서 사랑을 이룹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돕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지은 박물관의 교재를 통해서 배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면 천하의 모든 만물들은 거기에 박자를 맞춰 화동(和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천사세계도 좋아하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좋아 박수를 보내고 찬양을 보냅니다. 노래할 줄 아는 새는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아름다운 꽃은 향기를 풍기며 찬양합니다.

최고 사랑의 주인공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향취의 분위기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이 피조세계입니다. 보기에 흉측스러운 두꺼비도 사랑을 할 때는 '욱욱욱'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리를 척척 치고 뒷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것은 최고의 예술입니다. (142-273, 1986.3.13) p.105

아담과 해와는 성숙해 감에 따라서 '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세계를 인간 사랑의 이상을 성숙시킬 수 있는 교재로 펼쳐 놓았습니다. 그걸 배워 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커감에 따라 '아하, 옛날에는 동생과 같이, 오빠와 같이 지냈는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달라집니다. '아, 이렇구나!' 하며 배워 갑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죽더라도 안 만나면 안 되겠다. 딴 데 못 간다.' 하고 평형선으로 직행하면서 부딪치게 됩니다. (137-59, 1985.12.18)

맨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의 보호권내에서 어렸을 적부터 자라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피조세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피조세계를 통해 교육해 나오는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시조, 본래의 조상이 되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교재였습니다. 완성된 아담과 해와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표본이요, 하나의 박물관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137-128, 1986.1.1) p.105

Top p.105

④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아침에 눈을 뜨고 자연을 바라보면 그 자연이 은은하게 내 본성과 인연되어 새로운 이상의 감정을 싹트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세상은 바라보면 볼수록 절망과 슬픔의 감정을 돋구어 준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인간의 가치는 그렇게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슬픔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와 같은 정도의 가치로 지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피조만물의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모습으로 천상을 대신하여 나서야 할 인간이었습니다. (9-97, 1960.4.24) p.105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의 왕,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갖고 있는 훌륭하다는 물건에 비할소냐, 골동품에 비할소냐, 어떤 유명한 부인이 입고 있는 호화로운 옷에 비할소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세계 앞에 자신도 모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볼 때,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에 비할소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훌륭하겠는가.'하며, 하나님이 심정을 기울여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느끼는 자가 있다 할진대,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필요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인간을 그러한 자리까지 내모는 것입니다. (9-175, 1960.5.8) p.106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귀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귀여워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요? 탄식하는 만물의 한을 해원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진 여러분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서도 6천년 전 그것들을 지으실 때의 하나님의 심정과 창조의 손길을 체휼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풀 한 포기를 보고도 눈물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를 붙들고 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외로웠느냐?'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사람은 많이 울어 보았습니다. 바위를 붙들고도 울어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도 울어 보았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해할 것입니다. (9-175, 1960.5.8) p.106

하나님이 지으신 가치있는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인연을 맺은 귀한 만물이, 오늘날 어떠한 왕궁에서 국보니 보물이니 하며 귀하게 여기는 물건만큼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서글픔을 나는 알아줘야지, 나만은 알아줘야지.'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세계 인류가 전부 몰라주어도 나는 알아줘야지.'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이 민족은 앞으로 세계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만물을 놓고,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가문의 보물보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라 하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여겨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것을 심정적으로 알아주고 그것을 붙들고 눈물짓는 사람을 보고 '오냐' 하십니다. (9-175, 1960.5.8) p.106

자연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하는 사랑을 가진 아들딸이 태어날 때 위할 수 있는 만물이며, 선물받은 전시품입니다. 새소리 하나, 자라고 있는 풀 한 포기라도 사랑의 아들딸들의 생활의 미화를 위해 만들어진 장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구르는 바위도 아들딸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장식품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우면 안 되겠으니 조화무쌍한 화합의 동산, 사랑을 위하는 그러한 세계를 보고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꿈의 왕자, 희망의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수놈과 암놈이 짹짹 거릴 때는, 이것을 주인되는 아주머니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는 세계를 향해 자기 일생을 생명을 걸고 사는 본연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 울타리에 새 새끼까지도 와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새끼를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75-187, 1988.4.16) p.107

박물관에 있는 어떤 작품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살아 있는 작품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이 지구성 만물 박물관을 누가 하나님 이상 사랑했느냐 이겁니다. 자기 나라의 박물관 이상 사랑했느냐 이겁니다.

길가에서 밟히는 민들레 한 포기가 박물관에 있는 신라시대의 금관에 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너를 본연의 하나님이 위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 사랑을 받던 그 자리에서 사랑을 못 하는 나 자신이 미안하다. 부끄럽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위하는 그런 왕이 있다고 할 때는 풀포기도 그 왕을 따라가서 영원불변 같이 있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인간입니다. (175-187, 1988.4.16) p.107

Top p.107

⑤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상징적 존재요 인간은 실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과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70-182, 1974.2.9) p.107

언제나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하고, 또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 가운데서도 오색인종 전부를 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 나는 백인들만 좋아.'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러면 전부 흰옷만 입어야 됩니다. 백인들은 전부 다 흰옷만 입어야 됩니다. 색깔있는 옷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정옷은 왜 입어요? 색깔이 있는 옷은 왜 입어요? 그건 모순입니다. (133-30, 1984.7.1) p.107

모든 원소들도, 미물들도 사랑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 될 수 있는 사랑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세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투입해야 됩니다. 생명과 재산을 다 투입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급이 낮은 것은 급이 높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라 사랑을 중심삼고 흡수하는 논리입니다. 제 2 의 가치적인 내용을 창조하는 데 창조 요소로서 적용될 때는 현재의 미물보다도 얼마나 가치적인 내용이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204-129, 1980.7.1) p.108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느껴야 됩니다. 모든 미물까지 사랑하며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하늘에 있는 무형의 것, 유형의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새가 짹짹짹짹 할 때는 '야, 요놈의 참새야, 내가 늦잠 자려는데 왜 짹짹짹 해?'하지 말고, '아이고, 너 고맙구나. 아이고, 나를 깨워 주러 왔지 하하, 귀한 손님이 나를 맞으러 오는 걸 네가 알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112-219, 1981.4.12) p.108

하나님께서 인간세계를 지음과 동시에 천사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천사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인간이 하나의 결실을 위해서 꽃과 같은 존재로서의 미를 다 갖추고 향기를 풍기며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보금자리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력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고, 모든 생명의 인연을 가진 존재들이 거기에서부터 화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동할 수 있게 되는 기원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중심삼고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들이 나비와 벌같이 인간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화동의 주체권을 이루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간이 기뻐하고 천사가 기뻐하며 온 피조만물이 사랑에 잠긴 화동의 꽃동산이 되었을 것이고 봄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31-124, 1970.5.3) p.108

Top p.108

제 3 장
복귀섭리역사와 신관의 변천

1) 구약시대 하나님은 천사였다

①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였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무원리권 내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종인 천사보다도 더 못한 세계에 떨어졌습니다. 주인되어야 할 왕자 왕녀가 종보다도 못한 자리에 떨어졌으니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의 종의 도리로부터 시작하여 종의 도리, 양자, 서자, 이래 가지고 직계 자녀까지,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 아담(아버지)의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귀입니다. 구원섭리는 병나기 전의 건강했던 기준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병나지 않았던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섭리(救援攝理)는 복귀섭리(復歸攝理)입니다. 복귀섭리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222-144, 1991.11.3) p.109

인간은 타락했으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기에 종의 종의 자리에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종의 종'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주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종의 종'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사탄은 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 앞에 끌려갔던 인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종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17-73, 1966.11.12) p.109

구약시대는 제물을 희생시켜 하나님이 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구약역사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꺼꿀잡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이 만물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사람이 만물보다 더 악하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만물을 둘로 갈라 가지고 네 소유물, 내 소유물로 가려 이런 것을 중심삼고 분별적인 제물을 내세워야 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 때문도 아니요, 사탄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이 책임분담(責任分擔)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은 인간이 책임분담을 못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6-228, 1985.12.29) p.109

섭리적으로 본다면 구약시대 전, 야곱 이전은 종의 종 시대요, 야곱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종의 시대요, 예수님 이후는 양자시대요, 재림(再臨)의 시기는 아들의 시대입니다. 아들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들은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시대를 거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74-121, 1974.11.25) p.110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였습니다. 종의 종 자리에 있는 인간을 종의 자리로 복귀시켜 나온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도 종이었지 아들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종을 세워 충성의 도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역사적인 세계 인류를 끌어다가 규합시켜 세계적인 악한 무대를 하늘 편으로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전시켜 나왔던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종의 종으로부터 종의 위치로 복귀시키고, 종의 위치에서 양자의 자리로 복귀시키면서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15-325, 1965.12.7) p.110

역사적인 복귀노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소생, 장성, 완성의 3 단계를 통해 섭리해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종의 시대, 신약시대의 양자의 시대, 성약시대의 참자녀 시대를 넘어 참부모 시대로 들어가는 복귀노정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전인류에 대한 구원섭리는 종의 입장으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남아 승리할 수 있는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종으로의 복귀기대(復歸基臺)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나 아브라함 등 중심인물을 세우시어 4 천 년이라는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15-49, 1965.2.7) p.110

구약시대에는 뭘 했느냐? 이 세상이 사탄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만물을 희생시켜 하늘편 사람을 세워 종을 찾는 놀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양자도 못 찾습니다. 종의 종을 찾는 것입니다.

사탄세계 사람들이 전부 사탄의 아들딸이 돼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탄세계에서 낙망한 사람을 끌어모아 나오는 것입니다. 처량하지만 폐물을 수습해 나오는 겁니다. 폐물을 수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제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36-222, 1985.12.29)

하늘은 사탄세계의 종도 못 되는 인간을 데려다가 하나님 세계의 종의 종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게 구약역사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싸우게 한 것도 그겁니다.

노아도 그겁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 끌어다가 격리된 자리에서, 지쳐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탄세계의 종의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154-334, 1964.10.5) p.110

사탄은 인간을 원수처럼 취급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종도 못 됩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역사를 한 때가 구약시대입니다. 여기서 다시 종을 양자로, 양자를 직계 자녀로, 자녀를 형제로, 형제를 신랑 신부로 축복하여 참부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참가정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찾는 것이 복귀입니다. 예수를 참부모의 자리에 등장시키는 것이 어린양 잔치입니다. (12-29, 1962.7.15) p.111

하나님은 종을 세워 내가 네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을 시키고 천사를 시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다음에는 아들을 시켜서 역사하였습니다. 그 시대가 신약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신을 시켜서 역사해 나오셨습니다. (10-197, 1960.10.2) p.11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이 만물과 인연을 맺고 하나님과 인연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종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양자의 자리를 거쳐 자녀의 자리, 그리고 부모의 자리까지 끌어 올리는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한스러운 타락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만물과 인간과 하나님이 일체의 인연을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의 기쁨이요, 인간의 기쁨이 만물의 기쁨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딸을 만물세계와 천사세계에까지 자랑하고 보여주고 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1-279, 1962.1.3) p.111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4 천 년입니다. 그때에 축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종의 시대였기 때문에 종인 천사장권 내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독신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못 갖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결혼을 못 했는데 종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90-97, 1976.12.19) p.111

Top p.111

②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하나님 대신 사역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땅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천사들을 통해 인간과 관계를 맺는 구원섭리를 해 나오고 계십니다.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한 입장에 있는 인간들, 만물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지없이 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대하시기 위해 구원섭리를 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참소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위해 다리를 놓아 역사해 나오신 것이 구약시대를 거치고 신약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82, 1956.12.16) p.111

구약시대에는 원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써 인간을 대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섭리가 완성되지 못했으므로 슬픔을 품고 제 2 차로 천사들을 통해 인간들을 대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온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 역사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천사 역시 신적 존재이므로 예수가 오기까지의 방편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나타나 중보의 사명을 한 것입니다. (1-283, 1956.12.16) p.112

구약시대를 보면,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세워 하나님의 자유의 동산, 해방의 천국을 건설해 나왔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해방되는 은사권에 들어가려면 생명을 잃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유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종의 자리를 넘어서서 아들의 자리를 찾아 들어 갈수 있습니다. (4-321, 1958.10.12) p.112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영계에 있는 천사장을 시키고, 아들을 시키고, 성신을 시켜서 역사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정을 접속시키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천사를 시켜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세워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천적으로 볼 때에 백성을 수습하기 위한 시대요, 신약시대는 자녀를 수습하기 위한 시대였습니다. (10-170, 1960.9.25) p.112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천상세계의 천사들이 와서 일했습니다. 종이 와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이 와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옵니다. 여러분, 오시는 주님은 아버지로 오십니다. 참부모로 오셔서 참자녀를 거느리고 사랑할 것이거늘, 그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뇨? 여러분은 한 사람을 붙들고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타락한 세계의 인류보다 더 사랑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온 인류보다 더 사랑하시고, 예수 한 사람을 온 인류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10-354, 1960.11.27) p.112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신도 천사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창세기에 보면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타나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 가고 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창 18:1-18). 그러나 그들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요, 천사를 세워 방편으로 하나님같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1년 간 도를 닦아 가지고 한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세일 땅 형님이 있는 고향산천을 찾아가는데, 21년 동안 그 한날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잘 가라. 잘 가라.'고 해야 할 텐데 천사를 보내 얍복강가에서 '야, 이놈의 자식아!'하고 씨름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천사한테 지는 날에는 21년 동안의 고생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악착같이 붙잡고 내 손이 빠지기 전에는 놓을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팔이 꺾어지더라도 못 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지독합니까? (51-344, 1971.12.5) p.113

이삭의 손길을 통해 축복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이 어찌하여 야곱이 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지 않으셨는가! 또 얍복강가에서 밤을 새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늘앞에 호소하는 야곱에게 권고의 말씀은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야곱을 치게 하는 이러한 비정한 환경이 벌어지게 하셨던가! (3-334, 1958.2.9) p.113

구약시대에 왔다 갔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무형의 신이므로 나타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 그 시대에 알맞게끔 그 역사를 재현시켜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해 보내 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역사적 인연을 연결해서, 개인적인 세계 대표, 가정적인 세계 대표, 혹은 종족적인 세계 대표, 민족적인 세계 대표, 국가적인 세계 대표, 이와 같은 많은 수를 거쳐 올라와 종착점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로서 전부 결속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77-132, 1975.4.6) p.113

Top p.113

③ 왜 천사가 인간 구원에 가담하는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의 도리를 다하고 아담과 해와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세토록 하늘세계에 영광된 분위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장은 아담과 해와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아담과 해와를 위해서 였다는 것입니다. (15-238, 1965.10.17) p.113

천사장이 타락하여 아담과 해와가 인류세계를 이렇게 망쳤기 때문에 천사세계가 그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세계가 사탄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과 선한 천사가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선한 천사편이 승리하고 난 후에야 일보 전진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109-18, 1980.10.26) p.113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 앞에 종으로 세 천사장을 지어 놓고, 아담과 해와를 천사장에게 맡겨 보육하고 보호하면서 기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주체자와 상대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주체이고 천사세계가 상대가 되는 주체와 대상 관계입니다. 이중적인 환경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참사랑 앞에 평형적 상대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 천상천하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208-256, 1990.11.20) p.113

아담은 누가 교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장들이 교육해야 됩니다. 보호 육성해야 됩니다. 시집 장가 갈 때 고이 상처 안 입게끔 관리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천사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칙을 통일교회도 따르지 않으면 탕감복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36가정을 세워 내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121-240, 1982.10.27) p.114

하나님은 생명의 모체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생명을 키워 줍니다. 생명의 모체요, 사랑의 모체요, 보호의 모체입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고 키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호권이 성립 안 되면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협받으면 사랑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죽게 되었는데 사랑이 성립되겠어요? 안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보호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권을 만들었는데 보호해야 할 것이 누구냐 하면 천사장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생명의 기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랑의 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던 것입니다. (51-173, 1971.11.21) p.114

Top p.114

2)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

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모세가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권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어 율법으로 하늘 백성을 보육하기 위함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몰아가기 위한 복귀의 뜻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5-260, 1970.10.25) p.114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광야에서 십계와 율례를 받고 법궤를 맨 거듭난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들이 말씀대로 행치 않을 때 무섭게 초달(楚撻)하고 형벌을 가하는 두려운 신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던 구약시대는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마귀가 권세잡은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포의 신, 복수의 신, 질투하는 신으로 나타나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율법으로 초달하고 법도를 어기면 용서없이 형벌을 가하던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질투가 강한 신으로 '나'이외 다른 신을 섬기면 무서운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7족을 아낌없이 진멸하라 지시한 잔인한 하나님이었고 율법과 법도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목전에서 쓸어버린 무자비한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투와 복수와 공포심과 가나안 7족을 무자비하게 진멸시키는 성품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천사가 중보가 되어 하나님 노릇을 대신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데인 것은 데인 것, 상한 것은 상한 것,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고 하는 복수에 찬 율법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모세 앞에도 여러 번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 모세를 소명했고, 시내산 영봉에서도 나타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날까지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가 천사인 줄 모르고 있지만, 신약 사도행전 7장에 두루 보면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보이거늘….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천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아닌 종에게 아버지로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민족 앞에 나선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천사입니다. 구약은 종의 시대였으므로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싸움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겨놓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기 때문에 벌받은 거 알아요? 그거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사탄 남자를 놔두면 사탄세계가 다시 침범하기 때문에 그런 놀음하게 한 겁니다.

사탄 남자가 있으면 자기 여편네를 데리고 가 그 놀음 그대로 하니까 그 제도가 남지만, 맥을 잘라 버리면 아기와 여편네는 하늘편에 속하니까 그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안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모든 음란한 풍이 들어와서 하늘나라가 침범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벌받은 것입니다. (124-202, 1983.2.15) p.115

Top p.11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종교에는 신부 종교와 천사장 종교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기 전에 천사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사세계권을 지상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세계입니다. 그 종교세계권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아담을 만들어내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 중에서 세계적 중심은 뭐냐? 그것은 유대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냐? 신랑을 소개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요, 구주사상(救主思想)입니다. (50-56, 1971.10.31) p.115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게 될 때까지는 그 전통적 사상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하면 천사장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풍조와 전통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 종인 천사장이 주인의 아들딸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딸들이 잘못 나가는 것을 제지하고 잘 나가게끔 선두에 서서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나이 많은 종의 책임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50-181, 1971.11.6) p.116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냐? 해와의 종교와 천사장의 종교를 세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해와와 천사장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는 해와와 천사장의 종교를 가지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복귀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천사장권의 종교입니다. 백 개, 천 개가 있더라도 다 천사장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을 크게 나누면 4 대 종교입니다. 그 중심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주된 사상은 신부(新婦)의 사상입니다. (239-136, 1992.11.24) p.116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존재는 신적 존재인 천사들입니다. 유일신과 다신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하려면 다종교는 신적인 존재, 천사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들 종교 중에 선한 천사들이 인간의 심령과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고등종교이며 하나님은 이 선한 종교들을 통해 인류의 심전(心田)을 개간해 왔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장 종교는 근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세에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단지 외적인 수행 개념만을 중심으로 지도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보자기를 둘러싸고 주인집에 시중들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7-186, 1992.11.17) p.116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에는 원시적인 종교 형태를 갖고 나왔고, 신약시대에는 시대적인 종교를 갖고 나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신약시대는 근대의 20 세기 문명까지 연결되어 온 그러한 종교시대입니다.

통일교회는 무슨 종교냐? 통일교회는 원시적인 종교, 시대적인 종교보다 새로운 차원의 미래적인 종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22-9, 1982.10.31) p.116

Top p.116

3) 예수님이 부자관계 신관 천명

① 신약시대는 양자의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이 승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서 종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래서 종의 종으로부터 종의 위치로 복귀하고, 종의 위치로부터 신약시대에는 양자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 23 절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아무리 잘 모시고 잘 믿던 신앙자들도, 목사, 장로, 학박사를 물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자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양자가 되자 그겁니다. 양자라는 것은 혈통이 다릅니다. (154-257, 1964.10.3) p.11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가 무엇으로 한 단계 올라가느냐? 이 땅 위에 인간이 타락함하여 인류의 조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상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양자의 자리에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상속권을 대할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 장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양자입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릅니다. (154-337, 1964.10.5) p.117

양자는 직계의 아들과 다른 것입니다. 양자는 만약 직계 아들이 오게 되면, 밤이나 낮이나 어느때나 서슴지 않고 자기의 모든 전체의 소유물을 직계아들에게 갖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유물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의 입장에 서 가지고도, 양자로 택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계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요놈의 자식이 왜 태어났노?'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근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천사장이 그 아담을 보고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해야 할 텐데 '왜 태어났노?'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자는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계 아들이 복중에 있을 때에도 '아이구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해서는 안 됩니다. (49-135, 1971.10.9) p.117

양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보다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편의 종보다 나아야 되고, 사탄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보다도 낫지 않은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원리적입니다.

그러면 그 양자는 어떤 양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더라도 그것은 내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의 아들딸 앞에 돌려줘야 할 상속이라는 사상을 가진 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양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앞으로 올 아들딸을 위해 자기가 죽더라도 생명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계의 아들딸이 태어나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을 언제나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이름을 세우지 않고는 아들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천사장보다도 한 단계 높은 중간적인 존재로 출생한 것이 양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89-203, 1976.11.22) p.118

양자라는 것은 혈통이 다른 것입니다. 원래 신약의 출발에 있어 양자로 세워진 것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장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 앞에서 반대한 천사장이 아니라 아담을 끝까지 위할 수 있는 천사장편 땅 위의 대표자로 세운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받들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되지 못함으로써 비운의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48-92, 1971.9.5) p.118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연결되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종으로서 양자의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즉 메시아로 말미암아 종의 서글픈 신세를 넘어 양자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양자의 자리는 직계 아들딸이 없게 될 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성립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종의 입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를 바라면서 나오도록 한 것이 종의 구약시대를 지도해 나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종의 신세를 면하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내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적인 한 때를 바라고 나온 것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입니다. (42-281, 1971.3.27) p.118

만물에서부터 양자적 승리권을 거치고 아들의 승리권을 거쳐 부모의 자리까지 복귀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못 됩니다. (48-95, 1971.9.5) p.11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에는 만물을 제물시했습니다. 만물을 희생시켰습니다. 만물을 희생시킨 그 목적을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인간의 부활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물을 희생시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만물을 제물삼았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세계의 부활권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중심삼은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개인, 가정, 혹은 민족, 국가들이 지금까지 희생되면서 제물적 과정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166-276, 1987.6.14) p.118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시켜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벌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시대에는 자비의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예수가 병자를 안 고쳤으면 몰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병나서 죽는 것은 다 세상의 조상들이 잘못해 그 죄값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왜 살려 놓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생이 병 고치는 일 했으면 수십만의 병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병을 안 고쳐도 우리 말씀 듣고 좋아하게 되면 문둥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별의별 병이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194-344, 1989.10.30) p.119

Top p.118

② 양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의 새아침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선언했고, 타락인간들을 양자의 자리로 올려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지어 주셨습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으므로써 아들의 명분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자관계의 수립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룩할 수 없는 천비(天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당시 구약의 관념에 젖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람한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아버지 신관(神觀)은 혁명적인 신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단계 높여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사랑의 하나님은 소개하지 못하고 권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소개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했고 사랑의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당시의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였으므로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므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던 구약시대의 율법은 사라지고 예수님에 의해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의 허물을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찌 자식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니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 달라 하느냐?" 하고 하나님과 일체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 - 39)"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4-296, 1958.10.5) p.119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늘이 열린 때부터 승천하기까지는 3년이란 짧은 세월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지관계의 신관을 천명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 못하고 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유대교의 메시아로 와서 세계적 메시아 노정을 개척하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유대교만을 위하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뭐냐? 구약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가르쳐 줘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적 차원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위해 공들이는 터전을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메시아로 온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생애를 바쳐 세계적 메시아의 권위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105-213, 1979.10.26) p.120

Top p.120

4) 성약 완성시대는 신인 일체의 시대

① 참자녀는 혈통 전환, 중생을 거쳐야 한다

복귀도상에서 종의 종 시대에서부터 종의 시대를 거쳐 양자의 시대, 직계의 시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종의 종 시대를 거치고, 종의 시대, 양자의 시대를 거쳐 직계시대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느냐? 직계의 시대와 인연을 맺는 데는 그냥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리에 의해 믿음의 기대를 거치고 실체기대를 거쳐 메시아를 맞이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아들입니다. 양자와 참아들은 혈통적인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5-192, 1972.5.9) p.120

에덴동산에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니, 이제 참부모가 바르게 결혼시켜 줌으로써 다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저질러 놓은 일을 참부모가 청산함으로써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억의 영계의 조상들마저 축복 결혼시켜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지상의 후손들의 가정기반을 통해 영계의 조상과 지상의 후손이 종적으로 하나로 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기반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 인간은 혈통적으로 사탄의 핏줄을 받았으니 그 자체로서는 하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절대 혈통복귀를 해서 사탄이 더럽힌 핏줄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혈통복귀가 안되는 것입니다. 혈통복귀를 해야 됩니다.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세계의 뿌리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릇된 생명을 돌이켜 놓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왜 나와야 되느냐? 사탄세계는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당시 이상으로 바랬던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중심삼고 인간과 사랑관계를 맺어 하나될 수 있는 신인애일체(神人愛一體)의 이상을 이루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염려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이렇게 3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물을 희생삼아 자녀를 구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부모를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시대를 맞이하여 신랑 신부를 세워 부모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성약시대에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참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40여 년 간 고생해 온 것은 하나님을 지상에 맞이하기 해서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인일체(神人一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원래 부자관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양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하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요,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무서운 것은 이러한 부자의 인연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물질을 희생시킨 것은 참된 아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닦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아들로 와서 희생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평면상에 와서 수난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자리에 오느냐? 본연의 수직의 자리입니다. 천지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대도의 기원이 여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 근본 뿌리를 시정하지 않는 한 평화의 기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200-55, 1990.2.23) p.121

여러분이 문총재를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총재의 사명은 무엇이냐? 구약시대는 만물을 희생시켜 아들딸을 찾는 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아들딸을 희생시켜 부모가 올 길을 닦는 것입니다. 부모가 와 가지고 이 땅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종적 아버지의 수평세계를 만민세계를 넘어서 닦아야 할 것이 참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의 아버지 심정권이 벌어지게 될 때는 종적인 아버지 심정권은 자연히 여기에 와서 정착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적, 횡적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비로소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핵의 자리에 가서 본연의 이상권한을 재차 편성한 것으로써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77-345, 1988.5.22) p.122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약시대에는 참부모를 모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340, 1968.7.20) p.122

여러분의 아들딸은 앞으로 같은 나라 사람끼리 결혼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 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3 대 이후에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혼은 구약시대입니다. 그 다음이 신약시대와 성약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들인 2 세가 결혼하여 낳은 3 대에서 전통이 설 것이다 이겁니다. (146-275, 1986.7.20) p.122

성약시대에는 참부모가 희생함으로써 종적인 하나님을 지상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앞에 참사랑을 중심삼은 종적인 아버지이고, 참부모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그 종적인 아버지 앞에 횡적으로 90 각도를 맞춘 횡적인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횡의 사랑을 중심삼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격동되는 것입니다. 신인합덕(神人合德)이 격동되어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새로운 혈족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 가운데 비로소 본연적 원리 기준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출발한 생명의 씨가 지상에 현현하는 것입니다. (208-339, 1990.11.21) p.122

이제는 소유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만물을 희생하고,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희생하고, 성약시대에는 부모를 희생해 하나님을 모셨으니,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의 대신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들딸은 신약시대이고 만물은 구약시대입니다.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가 몽땅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인이 됐던 것을 전부 다 탕감해 가지고 본연의 주인에게 돌아와서 이것을 바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08-345, 1990.11.21) p.122

성약시대는 이루는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루고, 가정적으로 이루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단일 혈통, 단일 사랑, 단일 생명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떠나야 됩니다. 접붙이는 놀음을 함으로써 사탄의 혈통적 인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26-275, 1992.2.9) p.122

Top p.122

5) 창세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 현현

① 비로소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신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 시대는 부모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심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177-157, 1988.5.17) p.123

최후에 남아질 것은 뭐냐? 하나님 플러스 인간, 신인(神人), 신인의 삶의 길, 신인 생활관입니다. 인생관도 마찬가지로 신인 인생관, 신인 세계관 그것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대해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은 본래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었던 자리 그 이상의 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신인(神人)이 하나된 생활적인 무대, 세계적인 무대를 요구하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65-127, 1972.11.5) p.123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존재이므로 그 앞에 가까이 가면 천년만년 주관받더라도 더 주관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모심의 도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도 그러한 자리에서 주관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77-328, 1975.4.30) p.123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시는 데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더불어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버지이고, 절대 참부모이고, 유일·불변·영원한 참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절대 아들 유일·불변·영원한 부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딸들은 절대 부부, 유일 부부, 불변 부부, 영원한 부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착하기 위한 가정은 절대 가정, 유일 가정, 불변 가정, 영원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의 영원한 기지입니다.

시의(侍義)라고 하는 것은 생활화 천국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복귀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161-218, 1987.2.15) p.123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인간이 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될 수 있는 기원을 만들지 않고는 이 악마의 세계를 청산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심의 시대, 시의의 구원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심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공중에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권 내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144-274, 1986.4.25) p.124

하나님은 망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활적인 주체성을 지니고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주인으로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심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공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168-111, 1987.9.11) p.124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형상을 보면 체(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하나님은 체가 없습니다. 체를 입지 않고는, 체를 갖지 않고는 영계나 지상세계를 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체를 입어야 할 텐데, 그 체를 입는 대표가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해와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시조인 동시에 천지를 주재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실체를 가진 하나님, 즉 영원한 무형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입고 나타난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세계를 통치할 책임이 아담과 해와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133-91, 1984.4.10) p.124

무형의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니 그 형체를 대신한 것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개인적인 부모요, 가정적인 부모요, 종족적인 부모요, 민족적인 부모요, 국가적인 부모입니다. 앞으로 영계에 가서도 참부모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위대한 것이 그겁니다. 레버런 문이 위대한 것이 뭐냐 하면, 레버런 문의 형상을 하나님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98-224, 1978.8.1) p.12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억천만 인간들의 부모가 한꺼번에 살아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참부모의 영광을 갖춘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천만대의 선조들이 다 부활해 가지고 부활된 영광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락권을 벗어나지 못한 영광이요 찬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라는 말은, 여러분의 자리는 비참하더라도 천천만 선조들과 더불어, 혹은 이 땅에 승리를 가져와서 만민 해방권을 갖춘 영광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자랑스러운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연결되고, 통일교회를 만난 이 자리는 불원한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모님이 원하는 조국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38-105, 1986.1.19) p.124

성약의 시의시대는 하나님을 직접 생활가운데 모시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에게 거하는 때이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 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참하나님의 모습이 인간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아담 타락 이후 미완성급 역사 위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p.125

Top p.125

제 4 장

참아버님이 본 하나님

1) 역사적인 원과 한과 고통의 하나님

① 인간 타락으로 부모의 자리를 잃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사탄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 장 44 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 한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피를 받은 분통한 사실을 알았으면 분한 마음이 솟구쳐 내 몸을 칼로 찔러 더러운 거짓 피를 빼 버리고 싶은 의협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이놈의 고깃덩이!'하며 몸을 치면서 분통해 하는 사람이 하늘의 충신입니다. (11-243, 1961.10.29) p.126

최후의 심정의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종교라면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다는 것을 세밀히 가르쳐 주는 종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훌륭한 것만은 아닙니다. 불쌍하고 억울한 하나님, 분통하고 한이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세밀히 가르쳐 주는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1-102, 1962.10.28) p.126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하냐 하면, 왕좌를 원수한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못 되어 설움의 역사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살아 있는데도 죽었다고 천대를 받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상을 겁탈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딸이 다 겁탈당하고 완전히 원수의 농락터로서의 지구성이 돼 버렸습니다. (105-199, 1979.10.21) p.126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통일된 민족이나 주권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위신을 가려 행차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 드려야 할 것이 통일가의 아들딸의 도리요, 통일가의 효자의 도리요, 통일가의 충신의 도리요, 열녀의 도리인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놓아 줄 것이다! 아는 사람은 해방이다! 이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56-327, 1972.5.18) p.126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려 봤느냐? 하나님이 하신 수고 앞에 대신 수고하기 위해 사지가 찢기는 길이라도 찾아가려고 발버둥쳐 봤느냐? 못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는 그 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인 나를, 혹은 우리 조상을 잃어버렸을 때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텍스트 입력]

사무쳤습니까? 그 후손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과정에서 당하시던 수욕과 고통과 극난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라고 위로해 드리면서 무한히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권한으로 온 세계와 사탄까지도 심판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고하는 입장에서 손을 대려야 댈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이 가져야 할 환경을 갖지 못한 채 고독단신으로 사탄 앞에 참소받고 사탄세계에 발판을 몽땅 빼앗기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될 때,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을 동정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봤느냐? 문제는 여기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51-111, 1971.11.18) p.127

세상의 부모도 자기 아들딸이 죄를 지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된다면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살려줄 수 있으면 백 번 천 번 살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마음이 더 그렇지요? 타락한 세계의 여인의 마음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대관절 무엇 때문에 끝날에 가서 심판을 해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용서를 못해 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예수가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일흔 번 씩 칠천 번 이상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48-235, 1971.9.19) p.127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복귀섭리인데, 복귀섭리의 출발이 아담과 해와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입니다. 선생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담 복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 전지전능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남자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천만 년을 피조세계에 얼굴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한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237-27, 1992.11.10) p.127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이상 완성인데, 창조이상은 우리 인간세계에 삼대상권 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중심삼고 이상이 실현될 때 하나님이 '아이고! 나 행복하다.'이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갖고 행복하다 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보좌 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시니 '여보게'할 때 '예이'하면 만사가 통할 줄 알지만 언제나 혼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해요? (170-95, 1987.11.8) p.127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딱한 사정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딱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기독교의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모이는 것도 비참한 일입니다.

모든 선민의 편이 돼야 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는 곳마다 피를 흘리고 모가지가 떨걱떨걱 떨어지지 않나, 기름에 튀겨 죽이지를 않나…. 이러한 운명에 부딪치는 것을 보고 '아이구, 하나님은 막을 수 있지 않소?' 하겠지만 전지전능하면서도 그 권한의 행사를 참아야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냐 이겁니다. 언젠가 한번 깨끗이 청산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64-222, 1972.11.12) p.128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투입하고서라도 보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래 창조이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아들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투입해야 되는 슬픈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206-24, 1990.10.3) p.128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대부의 집 담 안에 숨어 있던 딸이라 하더라도 그 동네의 깡패 자식이 겁탈해서 사랑관계를 맺었다면 그 딸이 누구의 것이 돼요? 깡패 것이 되지요? 딱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아담이었고, 하늘나라의 왕후가 될 수 있는 해와였습니다. 이것을 복귀하는 데는 창조의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해야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영원한 사랑의 법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법도를 부정하게 되면 천리를 파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물론 하나님 자체까지 부정당할 수 있는 입장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재창조 과정을 통해서 수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한많은 역사노정을 누가 알았습니까? (207-272, 1990.11.11) p.128

오늘날 기성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심판주로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낸다.' 하지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일 비통하게 몸부림치면서도 광명한 천지가 흑암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몸을 가누어 눈을 뜨고 의식을 갖추어서, 죽었지만 이놈의 자식들을 다시 살려 놓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의 능력, 절대자의 힘이 있었으니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232-114, 1992.7.3) p.128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본연적 참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부모가 되어야 할 하나님이 부모의 자리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창조이상의 본연적 기준에서는 없었던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생겨난 것을 창조주되신 하나님은 간섭할 수도 없고 그걸 책임지고 소화할 수 있는 입장에도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40-164, 1992.12.13) p.129

Top p.129

② 복귀의 한, 자녀 찾아 6 천 년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원죄를 뭐라고 그러나요? 사랑을 잘못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되어야 될 것인데, 악마의 사랑과 악마의 생명과 악마의 혈통이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악마의 생명체가 돼 가지고 악마의 핏줄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스러운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근본부터 창조하여 모든 자주적인 권한을 소유하신 분이 어찌하여 악마 앞에, 역사를 통해 인간을 요모양 요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결론은 당연한 것입니다. (211-21, 1990.12.28) p.129

지난날은 사연이 많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사연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에 참을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사연이 많았지만, 혀를 깨물고 가인의 세계를 점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개인이 아니요, 가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가인의 세계를 소화해야만 됐습니다. 써! 얼마나 쓰냐 이겁니다. 빙산만한 쓴 것을 녹여야 됩니다. 입에 넣고 하나님을 망하게 하고 인류를 망친 억천만세 원한의 대원수인 악마, 이 악마를 말없이 굴복시켜야 됩니다. (163-163, 1987.5.1) p.129

타락한 인류의 시조는 악마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사탄의 사랑, 사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역사가 힘듭니다. 기독교에서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왜 무력한 하나님같이 되어 인류가 망살이 뻗쳤는데도 손 못 대고 있어요? 죽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방권을 갖추지 않고는 하나님은 인간을 해방해 줄 수 없습니다. 해방해 줄 수 있으면 애초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24-46, 1991.11.21) p.129

하나님이 찾는 참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다운 사랑을 찾아오십니다. 구원섭리역사, 복귀섭리역사 전선에서 찾아 나오는 참된 아들로서, 지금까지 때묻고 상처 입고 비통한 하나님의 가슴을 활짝 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여유만만한 순결한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와, 하나님이 그를 안고 만사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타락이 있었기에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겠는가? 남자라면 누구든지 그래야 됩니다. (127-39, 1983.5.1) p.129

악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사랑의 절대권 이상인 참된 단일 종족권을 만들기 위한 사랑의 혈통권이 이와 같이 다 망해서 파괴상태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창조이상적 논리가 적용된다고 하시겠습니까?'하고 비웃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본래 주인의 아들이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아들이 되어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도탄중에 빠져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얼마나 비통해 하시는가를 확실히 아는 기성교회 사람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201-235, 1990.2.25) p.130

인류의 부모로 오셨는데 부모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위해 피흘려 죽으러 왔다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잔치를 베풀어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가정이야 나라야!'하며 천하가 다 화합할 때 하나의 평화와 영광의 한날을 찬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과 상봉해야 할 텐데, 만나서는 자식의 손에 의해 칼침을 맞아 죽어 갔다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통한가. 무지한 이 인류를 대해 가르쳐 줄 수 없는 사연 가운데 묻혀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145-152, 1986.5.1) p.130

분통한 역사적 한이 선생님께 있습니다. 나의 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숱한 사연을 남긴 역사과정에 하나님의 뼛골이 녹아나는 비통한 눈물과 흘린 핏자국이 이 땅에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해원성사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137-175, 1986.1.1) p.130

타락한 세계를 책임지고 복귀해 나오시는 하나님은 높고 귀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비참하고 비통하고 참혹한 배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21-73, 1968.10.14) p.130

여러분은 자기보다 더 분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게 될 때는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비통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자신이요, 끝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맺혀 있는 원한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내정적인 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정을 품고 지금까지 복귀섭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29-294, 1970.3.12) p.130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울어 봤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목젓이 처지도록 울어 봤어요? 그렇게 눈물 나오는 억울하고 비통한 자리에 들어가 봤어요? 이게 다 심정세계를 넘어가는데 한 고개가 되는 것입니다. (49-291, 1971.10.17) p.130

인간과 영원히 같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인간과 갈라설 때 그 비통함과 억울함과 분함과 서러움이 얼마나 크셨겠느냐? 인간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기지를 바라 성숙해 가지고 평형선상(平衡線上)에서 종횡이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을 이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천지의 모든 존재, 모든 만물의 측정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랑에 인연된 모든 것은 어디서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149-213, 1986.11.23) p.131

악마는 4 대를 유린했습니다. 왕후로부터 그 위로 대비마마, 그 다음에 또 왕의 할머니, 그 다음에는 딸, 이렇게 4 대가 전부 살아 있는데, 그들을 왕의 눈앞에서 시퍼런 대낮에 발가벗기고 다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그들을 다 때려죽였습니다. 딸까지 유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를 처단 못하는 하나님의 비통한 사연을 알아야 됩니다. (200-68, 1990.2.23) p.131

하나님이 원통한 게 뭐냐? 그릇된 핏줄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 혈통을 여러분이 물려받았습니다. 기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존재는 모든 피조물을 망쳐 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주, 그와 같은 소유권, 그와 같은 핏줄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고, 생각하고, 냄새맡고, 말하고, 만지고 하는 모든 오관의 뿌리는 사탄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주 나쁜 부모의 열매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구하겠다니 하나님이 참 불쌍하지요? 아담과 해와를 집어치우고 아담과 해와를 다시 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지만 본래 영원한 참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한 인연으로 지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216-36, 1991.3.3) p.13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한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저렇게 안되었을 것을, 사랑 찾아서 영광의 천국을 바라 나가던 것이 이럴 수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악마의 피살을 받았습니다.

악마의 사랑이 뿌려졌고, 악마의 생명, 악마의 핏줄이 거기에 있으니 이걸 빼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소유할 수 없는데, 그걸 빼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걸 놓고 서서히 새로운 혈관과 생명과 사랑을 주입하여 제 2 의 창조물, 구원물로 하나님과 같은 대신자를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 원수를 참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2-42, 1991.1.1) p.131

하나님이 언제 해가 떠오른다고 쉬고, 기후가 좋고 계절이 좋다고 해서 쉴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천지의 배후에 있던 사탄을 사랑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의 거룩함을 내가 찬양하고 그 놀라운 가치를 지닌 것을 알진대, 그 가치 앞에 비참하고도 쓰라리고도 원통하지만 가야 할 한 길이 있나니 그것이 대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7-119, 1983.5.5) p.131

Top p.131

2) 아들딸 잃은 충격, 슬픔의 하나님

① 영원한 독자를 잃은 하나님

순수한 본질적인 사랑을 지닌 하나님 앞에 이상적 대상으로 그리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떤 인간보다도 지극히 슬펐을 것입니다. 지극히 지극히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깊고 가치있는 내용일수록 비참 중의 비참이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들을 다시 찾기 위해 복귀의 길을 더듬어 나서는 것입니다. (127-18, 1983.5.1) p.132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자식이 배반할 때, 그 믿음에 비례해서 부모가 받는 충격과 고충, 그리고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배척하여 불신할 때도 역시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겪는 고통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말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일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비참해졌느냐?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구체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최고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과 더불어 기쁨으로 출발해서 끝이 없는 영원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의 기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의 기점을 인간으로 인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해와의 타락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가 환갑이 넘어 낳은 만득자(晩得子)인 7 대 독자(七代獨子)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절망 중의 절망일 것입니다. 젊으면 또 낳을 수 있지만 만득자로 태어난 7 대 독자가 죽는다면 7 대권을 계승하려던 조상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조상들은 자기의 후손, 자기의 핏줄을 통해 세계에 없는 만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죽는다면 부모는 따라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7 대 독자가 아니라 영원한 독자(獨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담을 가정을 이루게 하여 창조의 대업을 이룬 자리에 세우려 하였는데, 그 아담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틀어졌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6 천년 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원래 창조원칙을 보면, 사랑 일체 이상권 내에 나가게 되면 영원한 소유주가, 사랑을 중심삼은 주체자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중심이 되어야 했는데 사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천지(天地)가 지천(地天)이 되고 전부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참된 이상으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바라던 사랑이상,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된, 한 몸이 된 것은 가를 수 없어야 할 것인데, 그 핏줄도 하나님의 직계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반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상을 매일매일 시간시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내 아들이 그렇게 병신이 됐다 할 때, 왕자 왕녀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존재가 똥구덩이가 돼 가지고 지옥으로 거꾸로 꽂혀 버렸다 할 때,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의 위신이 뭐가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신이 뭐가 돼요? 그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218-227) p.133

아들이 희생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으라고 내버려 두던가요? 이런 관점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죽을 자리에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이상적 세계를 만들어서 부활시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두고 볼 때 그것은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럴 수 있는 자리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이상적인 부활권으로 옮겨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곳, 비참한 곳에 우리 인간을 살도록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고차원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그런 곳을 두었다면 야, 그거 멋진 일이다 이겁니다. (67-219, 1973.6.21) p.133

창조주의 위신까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신까지도,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하나님의 실존성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런 심정으로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291, 1959.10.11) p.133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울어도 본체만체 합니다. 아무리 슬퍼해도 본체만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탄의 혈육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을 보면 좋아하며 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놓고 지도하고 개척의 방향을 가르쳐 주려니 얼마나 수고로우실 것이냐? 하나님에게 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섭리역사를 붙들고 나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42-257, 1971.3.21) p.133

Top p.133

② 하나님의 역사적 비참상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분개하겠는가? 이 만민은 자신의 혈통적 후손이어야 하는데, 악마가 비참한 경지에 밀어 넣고서 '당신의 후손은 이렇게 처참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해 조소(嘲笑)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환경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 척하고, 냄새를 맡으면서도 맡지 않는 척하고, 느끼면서도 느끼지 않은 척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비참상을 여러분 생각한 적이 있어요? (183-19, 1988.10.29) p.133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믿듯이, 전지전능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라면, 자기 아들딸이 죽어가는데 그 보좌 위에서 '야, 이리 올라오너라. 내가 자리를 뜰 수 없다!' 그러겠어요, 보좌고 뭐고 집어던지고 내려가겠어요? 어떤 거예요? 그냥 있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왕관을 벗고 뛰어 내려가겠어요? 어떻게 하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123-159, 1983.1.1) p.134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 울부짖으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르시기를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을 해 나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아버지이-!' 하고 목이 쉬도록 불러 봤어요? 혀가 말리고, 숨이 막히고, 눈이 감겨 뜰 수 없을 만큼 간절히 아버지를 불러 봤어요? 생명의 주체되는 그 가치를 품기 위해서 얼마나 뒤넘이쳤느냐 이겁니다. 그 뒤넘이친 비례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격의 기준이 측량되는 것입니다. (184-219, 1989.1.1) p.13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대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눈은 속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관 감정은 전부 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만, 공의의 법을 가지고는 상대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없지만, 사랑의 법을 가지고는 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한이 깊어갈수록 사랑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사랑의 철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0 년이 지나고 20 년, 30 년의 생을 거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149-37, 1986.11.1) p.134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복귀섭리를 하시면서 수난길을 거쳐온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 참고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수만 년 동안 구원섭리를 해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사랑의 길을 찾아 나오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딸을 찾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와 같이 수난길을 넘고 넘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사랑이었느니라!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109-281, 1980.11.2) p.134

하나님이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불쌍하시냐고 하겠지만 아무리 전지전능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어버린 충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6 천 년의 역사노정을 거치시면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5-88, 1970.10.4) p.134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야, 이놈아,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지은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사정은 생각지 않고, 인간의 사정을 알아주려는 하나님입니다. 슬픈 자에게는 슬픈 사정을 갖고 찾아 오셨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고통의 사정을 갖고 찾아 오셨고, 억울하고 분통한 자에게는 억울하고 분통한 사정을 갖고 찾아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사정을 통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환경 가운데도 그렇게 찾아 오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심정을 갖고 찾아 오셨습니다.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네 아버지라는 마음이 있기에 6 천 년이란 세월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9-231, 1960.5.29) p.135

통일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자 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그런 말 한다고 우리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난 대통령이라도 자식이 죽었다면 그 죽은 자식 앞에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이 죽었으나 대통령은 눈물 흘릴 수 없다.' 그래요? 구석에 들어가서 코를 박고 통곡하고 나와서 쓱 쓸고 그러면 통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은 아들 영이 '애비 이거… 애비가 아니었구만.'할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 있다면 그 애비를 도와주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세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다 그래야 됩니다. (196-18, 1989.12.24) p.135

인간의 창조본연의 특권적인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타락의 구덩이가 되어 허덕이는 무가치한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내정적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놈의 자식들이 본래는 내 사랑과 내 생명과 내 혈통을 통해서 직계 자식이 되어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것인데, 패자의 탈을 쓰고 신음과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다 생명을 끊는 자리에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슬픈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총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몇날 몇 주일을 통곡했습니다. 통일교회의 출발에는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11-207, 1990.12.30) p.135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고통이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상에 나타나시고 지금 여기에 선생님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 깊은 사명을 밝혀 냈으니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몰랐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또한 종교 지도자 중 그 누구도 그와 같이 숨겨진 우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앞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우주의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215-171, 1991.2.17) p.135

Top p.135

3) 구속되신 하나님, 영어의 하나님

①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었다

나의 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노릇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숱한 사연을 남긴 역사과정에 하나님의 뼛골이 녹아나는 비통한 눈물과 흘린 핏자국이 이 땅에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을 해원성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137-175, 1986.1.1) p.136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을 중심삼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을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이루시려던 이상세계를 사탄에게 빼앗겼으니, 하나님도 심정적인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적 해방기반이 이 우주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구속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8-261, 1986.1.24) p.136

하나님을 내 손으로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방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속된 하나님입니다. 아들딸을 잃어버린 부모, 더더욱 효자가 죽고 난 후에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그 효자 이상의 모든 면을 갖추어 십 배 이상 공을 들여 효를 하더라도 그 본래의 마음을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이 그런 하나님을 해방하려는 것입니다. (135-283, 1985.12.15) p.136

분통한 하나님, 하나님이 왜 분통할까요? 인간 세계에는 청춘시절에 수고를 하면 반드시 미래에는 희망이 보장되는데, 하나님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언제 희망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젊은 하나님이 됐겠나요? 지금은 늙은 하나님이 됐겠나요? 하나님이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하기야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연령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성같이 태양계를 일년에 한 바퀴씩 도나요? 그 바깥에 있으니 셀 것이 없습니다. 계산할 게 있어요? (105-184, 1979.10.21) p.136

만민이 탄식권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부모의 입장에 선 하나님은 탄식권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근심하고 있는데 부모가 편안한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민을 사랑하지 못하는 구속권내에 있기 때문에 만민을 대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해방권을 하나님 앞에 찾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으로 저끄러졌기 때문에 타락선을 넘어선 승리한 아들딸이 되어 해방시켜 드려야 됩니다. (65-100, 1972.11.13) p.136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무엇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운 하나님이 못 됐습니다. 구속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류 시조가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천사세계까지 구속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수많은 종교인들이 구속권 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9-26, 1975.6.16) p.137

불효자식을 가진 어버이는 그 불효자식으로 말미암아 구속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버이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불효된 이상의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 공인을 받아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됩니다. 그래야 옛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리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뭐 '선생님만 위해서….'하는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은 불쌍한 무리들입니다.

5천 년 동안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양친부모 모신다는 말은 고맙지만 천년만년 초가삼간에 살아요? 불쌍한 민족이란 것입니다. 이 불쌍한 민족을 올바로 지도해야 됩니다. 돈 없고 갖추지 못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마저 못 가지면 어디에 가서 살 거예요? (85-263, 1976.3.3) p.137

Top p.137

②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못하고 있다

통일교회는 언제까지 남아지느냐? 지구성을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심정으로 해방할 때까지 통일교회는 가야 됩니다. 결국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듣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해 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우리가 해방해야 됩니다.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5-270, 1976.3.3) p.137

사랑하는 부모 앞에 불효자식이 있으면, 그 불효자식이 부모님이 바라는 소망의 기준까지 해방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그 부모의 심정의 해방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상대로 지은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동시에 종적인 면에서는 부자지관계요, 횡적인 면에서는 부부적인 내연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삼고 천지의 모든 사랑 이상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구속의 하나님이 돼버린 것입니다. (210-308, 1990.12.27) p.137

천국을 이루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쇠고랑을 차는 자리에 서더라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잠을 못 자는 자리에 있을 때 밤에 일어나면 손에서 빛이 나더라 이겁니다. 왜 빛이 나요? 하나님이 품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방에서도 빛이 나더라 이겁니다. 내가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고는 감방 저 밑에서 숙연히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전부가 미싯가루 보따리를 나에게 갖다 주더라 이겁니다. 거리를 넘어서 '아무 감방 아무개 몇 호한테 네가 이걸 갖다 주지 않으면 이 감방 전체가 편안치 않고 너의 집안이 편안치 않으니 갖다 주라'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이런 하나님을 박대하는 배은망덕한 통일교회 무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137-202, 1986.1.1) p.138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받고 있구나. 나라는 한 개체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예수도 죽었구나. 나 때문에 성신이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붙안고 뒤넘이쳐 나오는구나.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안식시켜 해방의 자리에 옮겨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성신도 해방의 자리에 옮겨 드리겠습니다.'할 수 있는 신앙에 주린 자, 소망에 주린 자, 사랑에 불타는 자를 하나님이 6천 년 동안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162, 1959.8.30) p.138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말릴 수 있어요? 그냥 싸움이 끝나요? 하나님 앞에 효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충신의 도리, 성인의 도리, 성자의 도리를 다하면서 하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주류 사랑의 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어(囹圄)의 몸으로 연금상태에 머무른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비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302-226, 1999.6.14) p.138

그래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 봤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못 만나 봤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만나 봤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아내 남편 만나 봤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아들딸 만나 봤어요? 이 한스러움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심정을 구속하는 철망을 누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끊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209-106, 1990.11.27) p.138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인데, 비법적인 사랑이라는 조건 때문에 손댈 수 없는, 그 한스럽고 슬픈 하나님의 마음, 기가 막히게 지루함을 누가 알아요? (197-327, 1990.1.20) p.138

기성교회에서는 '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오! 영광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참한 하나님입니다. 구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잘 낳아가지고 해방받아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명은 처량한 운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도가 바로잡히지 않게 되니, 이 땅 위에 이상세계가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가 통일교회의 역사요, 통일교회의 사명입니다. (22-151, 1969.2.2) p.139

통일교회 말씀. 통일교회 내용, 귀로 듣는 내용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심정적인 구속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탄식의 역사는 출발부터 세계적으로 온 것이요, 세계적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만물이 탄식하고 우리 조상들도 탄식하고 전인류까지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뭇아들딸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탄식권을 벗어날 것을, 가려갈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65-100, 1972.11.13) p.139

Top p.139

4) 사탄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

① 사탄이 참소하는 이유

오늘날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본래부터 사탄 마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일에 본래부터 사탄이 있었다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6천 년 동안 반항하면서 그것을 막아나온 능수능란한 사탄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이 사탄을 퇴치하고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문제가 됩니다. (54-56, 1972.3.11)

사탄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본래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본연의 인류 시조를 타락시킨 사탄이 본래부터 있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사탄이 있는 한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구원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원론이 되고 두 목적을 가진 세계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53-328, 1972.3.6) p.139

원래 하나의 뜻으로 세웠던 창조이상 세계를 타락으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외적인 세상이 변하더라도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마한테 아담과 해와를 빼앗기고 모든 만물은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본래 천사장인 사탄 마귀까지도 자연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칠 수가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0-340, 1990.12.27) p.13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탄을 대번에 치워 버리지 못하느냐? 그걸 치워 버리려면 아담과 해와 창조한 것까지 다 치워 버려야 된다는, 사랑 이상권을 폭파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인에게는 한 번 하겠다고 한 것은 절대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책임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스러운 악마가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핍박한다 하더라도 세우신 도리를 회복해 놓기 위해서 역사를 품고 나오시는 주인된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208-236, 1990.11.20) p.140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인류가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하고 사탄의 발 아래 희생시키면서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행사조차 못하는 하나님이 되었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종족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개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개인이 성립되고, 그 가정이 성립되고, 그 종족이 성립되고, 그 민족이 성립되고, 그 국가 주권이 성립되면 일시에 악한 나라, 악한 국민, 악한 종족, 악한 가정, 악한 개인을 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56-247, 1972.5.18) p.140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도 사탄의 참소에 걸리면 꼼짝 못했지요? 일국의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에 걸려서 국민이 와와 데모하면 어때요? 모가지 자를 수 있어요? 조건만 걸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꼼짝 못합니다. 장관도 조건만 걸리면 하루 저녁에 모가지가 짤까닥…. 그러니 조건방어(條件防禦)를 해야 됩니다. 조건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생사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76-58, 1975.1.26) p.140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사랑을 중심삼고 사탄의 생명, 사탄의 혈통으로 인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무능력한 하나님이 됐느냐? 원수되는 입장에 사탄이 서고, 원수가 무엇을 빼앗아 갔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권, 하나님의 생명권, 하나님의 혈통권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언제나 가져야 됩니다. (206-236, 1990.10.14) p.140

본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나는 타락하여 사탄이 됐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므로 당신이 세운 법도를 중심삼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요? 나는 법을 어겨서 사탄이 됐을망정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시니만큼 당신이 설정한 법을 중심삼고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니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39-88, 1971.1.10) p.140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을 넘어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리책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천사장은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가 세우신 법칙, 또는 규칙에 따라 주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 이전의 천사장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타락 이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저를 완성기까지, 완성기 이후까지라도 사랑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87, 1971.12.22) p.141

아담이 되려면 세 천사장을 거느려야 됩니다. 천사장은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절대 복종하고 절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고 절대 복종하지 못한 사탄은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할 천리원칙이 남아있는 한, 원리원칙이 남아 있는 한 그 원리원칙을 사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원리원칙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리원칙에 어긋나면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없으면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172-66, 1988.1.7) p.14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의 문선생이라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악마를 하루 저녁에 청산해버리지 않고 그냥둬요? 욥기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무력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깨쳐야 됩니다. 그러려니 얼마나 심각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신을 교수대에 내놓고 투쟁을 해 가려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본연의 생명을 찾아와야 됩니다. (187-122, 1989.2.5) p.141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왜 악마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느냐? 위하는 사랑을 가진 본체이기 때문에 악마까지도, 악마에 대해서 악마의 행동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입니다. (144-161, 1986.4.12) p.141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창조력을 활용해 가지고 사탄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자연굴복입니다. (207-315, 1990.11.11) p.141

지금 악마가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다 망쳐 놓았습니다. 프리섹스니 뭐니…. 미국을 보면 근친간(近親間)의 성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비가 딸이 세 자매면 세 자매를 다 데리고 삽니다.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프리섹스니까 삼촌이 엄마하고도 하나되고, 아들이 자기 어머니하고도 하나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런 판국에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사랑이상을 세울 수 있소. 하나님? 하하하!'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222-230, 1991.11.3) p.142

Top p.142

② 하나님은 법도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구요? 우주의 마음 같은 분입니다. 이 우주는 몸 같은 것인데, 그 몸 가운데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악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가지고 쳐 버릴 수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의 본질이 사랑이었고, 우주의 역사적 전통이 사랑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틀린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원칙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이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질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창조하셨던 참사랑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투입하던 본연적 기준을 영원히 계속하지 않고는 절대자인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까. (210-229, 1990.12.23) p.142

타락은 사탄 중심한 사랑의 인연을 부모의 자리에서 맺은 것입니다. 선악과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사랑, 사탄 생명, 사탄 혈통을 이어받은 혈족이 이때까지 남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사탄은 사랑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상으로 만년 꿈꾸어 온 사실들을 파탄시킨 것입니다. 사대부 가문의 외동딸을 종새끼가 잡아다가 유린해 버렸으니 그 집 주인이 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지요. 천지대도의 궤도를 떠난 것은 사랑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18-230, 1991.8.19) p.142

악마의 새끼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 이상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나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혈족은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만은 천리의 도리를 지키고 가야만 할 하나님 아니오?' 이렇게 제창(提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208-291, 1990.11.20) p.142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 참소하기를 '당신은 영원불멸의 주체되신 하나님이요, 천지창조의 대주재이신 것을 내가 알아요. 진리의 본체요, 사랑의 본체요, 원칙의 본체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법칙, 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원칙대로 변할 수 없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락했을망정 당신은 당신이 세워 온 원칙은 실행해야 될 것이 아니오. 그러려면 당신은 원칙적인 존재로서 타락한 천사를 사랑하지 않고는 본연의 세계에 아들딸을 데려갈 길이 없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타락 전 천사장에 대해 당신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타락했더라도 당신은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해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참하나님이 될 수 없고 참아들딸이 될 수 없소.'하고 딱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129-215, 1983.11.5) p.143

악마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변하는 악마의 괴수이고 변할 줄 아는 조상이 되어 있지만 당신은 천지의 대주재요, 진리의 본체요, 불변의 주인공이 아니오? 생명의 불변의 원칙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을 지닌 분이 아니오? 나는 타락해서 망나니가 되어버렸지만 당신에게는 당신이 세운 본래의 이상 기준이라는 것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상의 문까지…. 그 세계까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들어갔다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 말이 옳다'하는 것입니다. (191-244, 1989.6.25) p.143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이 녀석은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가야 됩니다.' 당장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이 사탄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는데, 이 사탄 마귀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한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권한을 중심삼고 볼 때, 사탄 마귀는 우리 인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이러한 악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이러한 악한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만 나온다면 죄지은 사탄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탄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54-134, 1972.3.22) p.143

사탄은 천사장이므로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서 천국 들어갈 때는 천사장도 아담과 해와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담과 해와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천사장과 더불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원리요, 창조원칙입니다.

사탄은 중간에서 실수했지만 사탄이 '나는 종으로서 배반자가 되었지만 주인되는 당신은 천리의 대도를 정하고 그 위에 본질적 전통을 세워서 당신이 세운 원칙 위에서 완성한 아담과 천사장을 사랑하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당신은 그 원칙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하면, 딱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와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러면서 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11-177, 1990.12.30) p.143

악마는 천사장이기 때문에, '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딸들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소? 하나님도, 아담 자신도 나를 사랑하고 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본래의 창조원리가 아니오?' 악마는 또 그러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 참소조건(讒訴條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되는 아담도 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하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심삼고 종교인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219-36, 1981.3.25) p.144

하나님과 부자지관계가 되면 아들이 통곡하는 자리에서는 아버지되는 하나님도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28-217, 1992.4.3) p.144

인간으로서 자기 본연의 권위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즉 사탄 마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는 이 세상을 하늘편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탄을 끌고가서 '하나님, 사탄 마귀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왜 심판해 버리지 않으십니까?'하고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53-327, 1972.3.6) p.14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한테 주관을 당해서 끌려왔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사탄을 포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탄을 끌고 가 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지라도 사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죄를 지은 사탄을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권한을 가지고 처단해 주소서'라고 하며 참소한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51-88, 1972.2.10) p.144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천사장을 때려잡지 못해요? 왜 사탄 악마를 때려 치우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사탄을 때려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탄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세웠던 천사장이 악마가 되었을망정 하나님은 그를 본래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언제든지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담과 해와도 사탄을 사랑해야 됩니다. (175-14, 1988.4.6) p.144

하나님이 6천 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딸의 목을 자르는 것을 수천만 번 자행해 온 사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천사장 입장에서 그를 완전히 사랑해 주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잘못하면 '하나님! 저 아무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참소하는 사탄의 역사가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통일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35-95, 1970.10.4) p.144

만일 사탄 마귀를 끌고 가서 하나님앞에 고소한다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라고 하시겠소, 좋아하시겠소? 하나님은 두말할 것 없이 '오냐, 내 아들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아!'하며 만세에 내세워서 축복해 주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고 싶으신 하나님의 내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것을 얼마나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사탄 마귀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54-60, 1972.3.11) p.145

아담과 해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자기 아들딸들이 살인을 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대신 책임질 수 있고, 형제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나? 없습니다. 그게 하늘의 법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죄를 지었느냐? 사탄과 더불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사탄이 어떻고 아담과 해와가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쫓아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 구원섭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받으면서도 심판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신학적으로 볼 때 큰 문제들입니다. 왜 처리하지 못하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악마를 처리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223-304, 1991.11.17) p.145

하나님은 싸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권, 그 이상권 내에는 전쟁, 투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투쟁의 개념이 있으면 이원론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이상세계,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와는 관계없는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세계권 내에는 투쟁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24-224, 1991.11.24) p.145

사탄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느냐?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큰 것, 내려간 것을 전부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내려간 것을 다 합해 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입니다. 우주의 원칙, 우주의 생성의 원칙으로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참된 사랑을 찾겠다는 우주 근본에 입각해서 볼 때 이 근본에 순응하는데 있어 사탄은 근본을 반대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고 유일무이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본성은 백퍼센트 위해 주는 것입니다. (179-52, 1988.7.3) p.14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통해 사랑의 원수를 갚는 데 있어 힘과 능권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도를 통해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굴복하여 종의 자리에서 세계 인류에게 심판을 받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 원수를 그런 자리에까지 끌고 나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를 탕감할 수 없습니다. (42-279, 1971.3.27) p.145

Top p.145

5)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자

① 하나님은 영어에 구속된 입장

악신과 선신의 싸움을 누가 끝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사탄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참사랑에서 출발하여 참사랑을 가지고 가는, 세계 만민이 따라 갈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싸움과 사탄의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인간역사세계에 있어 평화라는 말은 망상적인 말입니다.

이상이란 말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사랑의 대표자를 보내는데, 그 주류사상을 메시아사상, 구세주사상이라 합니다. 구세주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해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을 처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악을 결산짓기 위한 총책임자가 구세주입니다. (136-219, 1985.12.29) p.146

구세주의 사명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요 사탄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물어 제끼면서 참소하던 원한의 이 원흉을 누가 청산하느냐? 하나님이 못합니다. 메시아만이, 구세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136-219, 1985.12.29) p.146

우리들이 바라는 통일교회는 무엇이냐? 부모의 종교를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달콤한 생활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된 사랑의 도리를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해방하자 이겁니다. 사랑의 원칙조건이 결부되지 않고는 해방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136-222, 1985.12.29) p.146

아버님이 사랑하고 그 아버님이 찾겠다는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감옥의 길을 마다 않고 가는 길엔 뭔가 길이 있습니다. 그 생사의 기로를 개척해 나온 것이 민족이 갈 수 있는 길이요, 암흑의 구렁텅이를 넘어 희망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세계만민이 해방될 수 있는 굴을 뚫기 위해서 그러한 사연을 품고 수고한 사연을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데는 중심을 모신 가운데 조심하면서, 사랑을 귀히 간직하면서 모셔야 할 분으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만세에 이 길은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입니다. (163-304, 1987.5.1) p.146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섭리의 총결산입니다. (136-263, 1985.12.29) p.146

통일교회는 하나님 해방을 위한 해방군입니다. 세계 해방이 아닙니다. 세계 해방은 쉽습니다. 인간들이 단결하면 세계 해방은 되지만 하나님의 해방은 심정권을 단결시켜야 됩니다. 사랑권을 단결시킬 수 있는 원리와 사상체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영계를 풀어 지상에 심정권의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혁명보다 무서운 혁명이요, 어려운 혁명입니다.

인류의 해방은 쉽지만 하나님의 해방은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없는 어려운 그 일을 레버런 문이 기수가 되어 오늘날 섭리사의 총결산이라는 표제를 걸고 나섰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136-285, 1985.12.29) p.147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복받겠다고 하지만 난 복받겠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하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해방하자" 이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구약시대는 만물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한 시대요, 신약시대는 아들딸을 희생시켜 부모를 찾기 위한 시대요, 성약시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가정을 희생시켜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한 시대입니다.

본연의 부모를 이 땅 위에 모셔 그분과 천년만년 살고…. 한국 민요 가운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하는 게 있지요? 계수나무 박혔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것이 다 한민족의 계시적인 얘깁니다. 하늘 부모를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나는 그 노래를 생각할 적마다 언제나 사무친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137-185, 1986.1.1) p.147

하나님이 미국에 200년 동안 세계적인 축복을 몽땅 갖다 맡겼는데, 이것을 다 자기들을 위한 복으로 알고, 자기 기독교의 복으로 알고, 미국만의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기독교를 희생시켜서 세계 만민을 해방하고 만민의 복지를 건설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해 버리고 미국 제일주의, 미국 단일주의, 개국주의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세계주의적 미국을 위해 자기 자체 일개국을 희생시키고 일개 기독교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적 기반 판도를 닦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배되고 반대된 자리에 나가니 미국 자체도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져 나가고, 교회가 깨져 나가고, 나라가 깨져 나가고 전부 엉망진창입니다. 다 병이 났습니다. (143-189, 1986.3.18) p.147

하나님과 참부모를 해방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 밑창만 뚫고 나가면 천국입니다. 가까운 길이 그것입니다. 지옥 밑창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하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통일교회 믿는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건 빵점입니다. 그건 절대 세계무대에 못나갑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참부모를 해방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 간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148-163, 1986.10.8) p.147

죽으나 사나 이 길을 바로잡지 않고는 못 갑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생 동안 이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을 찾아 다니면서도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해방을 위해, 사탄세계를 해방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탕감복귀의 길을 가지 않고는 해방권이 안 나오니, 무사안일 속에서는 사탄을 분립시킬 수 없으니 탕감복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148-168, 1986.10.8) p.148

책임분담 해방권은 심정의 해방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부모가 생겼고 악한 부모를 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러한 효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까지 고생을 하고 있고…. 하늘 부모를 고통받게 해 놓고 내가 잘살겠다고? 자기 아들딸 잘먹이고 잘살겠다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148-222, 1986.10.9) p.148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할 우리의 생활노정에 있어서 섭리의 뜻을 대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통곡에 사무치는 심정을 가지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섭리의 뜻을 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무례했고 얼마나 체면없고 뻔뻔스러웠느냐 이겁니다. 자기만이라도, 세계에 있어서 해방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61-113, 1987.1.11) p.148

세계를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해방을 어떻게 하느냐? 사탄권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영계와 육계로 갈라진 것이 하나됩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만 있게 되면 영계(靈界)도 해방이 벌어지고 육계(肉界)도 해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에게 해방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해방돼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방이 필요한 것은 사람을 해방하려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해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해방 안 되어서 사람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방하려니 하나님이 해방조건에 걸려 있을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해방 못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61-243, 1987.2.22) p.148

기독교사상은 재림사상입니다. 예수가 재림해서 뭘 할 것이냐?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천년 잔치해? 알고 보면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와서 뭘 할 것이냐? 예수가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세워 달라고 항거하는 사탄, 그 녀석을 잘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항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주가 와서 할 일이 뭐예요? 기독교인들, 요것 몇 억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재림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공의의 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책임을 하는 주역으로 오시는 분이 재림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62-186, 1987.4.12) p.149

Top p.149

② 하나님 해방은 인간이 해야 한다

세계를 구하는 데는 먼저 하나님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되어야 세계를 해방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해방해 놓고 세계를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를 땅끝까지 전파해 가지고 심정적 유대를 틀고 말뚝을 박아서 세상을 다 사랑으로 녹여내자 이겁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162-221, 1987.4.12) p.149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이 가는 최후의 종착점을 향해 동조하는 무리가 구름같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개인에서부터 가정이 이어나갈 것이고, 가정에서부터 종족이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종족과 민족, 국가가 희생된 제물적 가치를 상대적인 세계, 제 2 차 부모님을 모신 세계에 재현시킴으로써 역사적으로 희생된 모든 성인들을 부활권의 실체로 대신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구덩이를 메워야 합니다. 이것은 숙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갈 수 없습니다. 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66-74, 1987.5.28) p.149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이 땅 어떠한 모퉁이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창조이상이 밤에나 낮에나 역사를 통해 다 이루어졌구나. 감사하고 놀랍다.'고 찬양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세계무대가 되고, 우주가 되고, 영계나 육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늘의 보좌 아래까지 사탄의 어둠권세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해방하려면 영계를 해방해야 됩니다. (166-78, 1987.5.28) p.149

'나'라는 사람은 해방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좋아합니다. 또 통일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죽고 못살 만큼 좋아합니다. 통일의 문, 해방의 문은 문 아무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만유의 대주재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뭐 많겠지마는 대충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요?'하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방이다.' 답변이 간단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방이지!'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해방을 못합니까?'했더니 '혼자는 할 수 없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게 병입니다.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166-99, 1987.5.30) p.150

나라를 사랑했어요? 아들딸을 사랑했어요? 아들딸의 길을 열어 놓고 민족을 사랑했어요? 세계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세계를 사랑했어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그럴 수 있는 데서만이 완전한 해방의 동이 터 오는 것입니다. 동이 터 올 때 그 햇살은 골짝골짝 스며들어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모든 구속된 인간들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고 해방과 더불어 통일의 세계가 우리 앞에 왔다고 해야 천년사를 다 무시하고 해방의 왕자가 되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의 기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잠겨 영원무궁한 행복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 있어요? (166-121, 1987.5.30) p.150

인류의 해방도 필요하지만 인류 해방보다 먼저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의 해방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누구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있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망권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166-150, 1987.6.5) p.150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그 다음엔 완성시대입니다. 완성은 사랑을 중심삼은 완성입니다. 완성은 부모의 해방, 자녀의 해방, 만물의 해방,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지옥에 갔던 것을 하늘땅을 걸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6-326, 1987.6.14) p.150

민족적 배경과 민족을 대표한 사람, 혹은 단체가 나온다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단체일 것이냐? 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시대상을 대표해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미래적인 사명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레버런 문과 통일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회의 진리에는 침략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구해 주자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자는 것입니다.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만민을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합해서 하나님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168-55, 1987.9.1) p.150

내가 칭찬받고 환영받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통일교의 사상은 통일교를 희생시켜 민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해 가지고 세계 인류를 구하고, 세계 인류를 구해 가지고 하늘땅을 해방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수한 모든 전체를 다시 투입해서 완전히 타락이 없는 차원 높은 별동세계, 천국 대이동 판국을 원할 것입니다. (227-272, 1992.2.14) p.150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류역사가 150만 년이라 하지만, 숱한 역사과정에서 자기의 위신과 권위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 불쌍한 부모의 처지를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자식이 나와서 그걸 풀어주기 전에는 그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없고 박힌 못을 뺄 수 없습니다. 못을 빼고 사랑의 눈물로써, 피와 살로써, 그것을 살이 되게끔 풀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원한의 심정을 누가 해방해 드릴 거예요? 나의 해방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이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해방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7-273, 1989.2.11) p.151

행복의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타락해서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참된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복귀의 하나님입니다. 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한에 사무친 하나님, 불쌍한 하나님입니다. 기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낙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원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복귀의 하나님을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돈으로가 아닙니다. 권력으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도 아닌 참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174-248, 1988.3.1) p.151

출발을 고생으로 했으니 고생으로 종착점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레버런 문의 이름은 비참했다.'고 결론을 지으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내게는 돈이 필요없고 명예도 필요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하고 사탄까지도 해방하여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기지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조국을 찾아가는 희망봉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고, 가는 길에 어떠한 험산준령이 가로막혔다 하더라도 아침을 잊어버리고, 점심을 잊어버리고, 저녁을 잊고, 낮과 밤을 잊으면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애가 길면 길수록 원한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이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 가정과 더불어, 여러분 일족과 더불어, 여러분 나라와 더불어 같이하는 것이 천리원칙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174-53, 1988.2.23) p.15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위대하다는 것은 얼굴이 위대한 것이 아니요, 몸뚱이가 위대한 것도 아니요, 사상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신,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하나님을 나는 사랑을 가지고 해방하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을 성사하지 못한 한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 레버런 문을 만나 해방됐다는 말은 이론에 의한 것입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이론,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한 실증적 결과에 의해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165-185, 1987.5.20) p.151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됐지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전권 전능의 행사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태평왕국이 아니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아-멘'이지요. (221-25, 1991.10.20) p.152

Top p.152

6) 하나님의 해원성사와 효자의 길

① 참아버님이 걸어오신 복귀의 길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의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걸 알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용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터지더라도 해방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원한에 사무친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고문에 쓰러져 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나를 구해 달라고, 내가 몰려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지켜 달라고, 날 구해 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나이로서의 내 여력을 갖고 있고 내 기백을 갖고 있고 싸울 수 있는 자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부족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나를 구해 주겠지,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앞에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38-358, 1986.1.24) p.152

통일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저놈의 자식 저거!'하며 분을 참지 못해 입을 다물고 '두고 봐라. 몇 개월만 두고 봐라.' 그러면 옥살박살되고 터져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걸 보면 이상하지요? 그래서 혀를 깨물면서 내가 많이 참습니다. 내 입으로 저주를 못 합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내가 내 입으로 저주를 할 수 없어서 입을 물고 있어도 그 원한을 다 하늘이 풀어 주더라 이겁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162-205, 1987.4.12) p.152

주인된 국권을 가지고 아시아의 5천 년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백의 단일민족의 권위를 갖추어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방 후에 나는 그런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런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시아는 우리 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세계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향하는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틀림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원한의 씨를 품고 있는 내가 안식이 어디 있어요? 갈 길이 바쁩니다. 천년사를 전부 풀며 가야 할 갈 길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40평생 눈물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 걸음을 걸어온 사나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녘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동산을 맞이하여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싹터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배반한 싹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 얼굴을 돌이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공산세계도 고마워해야 하고, 민주세계는 더더구나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전진할지어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떤 전도부인이 통일교회에 죽자 사자 나오다가 내가 자기 역성대로 안 하니까 떨어져 나가서 '잘됐군. 하나님의 아들이 저 꼴이야?'하더라구요. '그래, 내가 감옥에서 사라질 사나이가 아니야. 나는 해방의 세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다.'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놈의 얼굴이. 요전에 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됐구나 했어요. 나는 그러고 사는 사람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5 대 주권자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니까. 내가 한번 만나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다 하고 나서 청산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204-118, 1990.7.1) p.153

선생님 자신은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입장에 섰느냐? 하나님의 원한의 심정이 남겨진 아들로서 완성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 형제로서 완성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 부부로서 완성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 부모로서 완성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의 고개를 탕감하여 풀어 주는 자리에 섰습니다. (234-140, 1992.8.10) p.153

타위적(他爲的)인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타위적인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투입, 투입, 투입해 가지고 참사랑을 번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커버하고 본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데는 원수로서 발길로 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랑으로써 자연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굴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자리를 못잡습니다. 내가 술수를 쓰려면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참아온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에 지금까지 40 년 참자니 오죽했겠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할 텐데 오죽했겠나 이말입니다. (219-93, 1991.8.25)

한번은 내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의 중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따르겠습니다.'하면서 돌아보니 또 그렇게 나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주시듯이 이제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215-341, 1991.3.1) p.153

역사를 회고해 볼 때, 40 년 전 선생님은 나라에 몰리고 기성교회에 몰리고 전부 몰려 광야에 쫓겨난 고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역사적인 기준을 다시 찾아 세계적인 판도를 만들어야 할 뜻을 앞에 놓고, 이 뜻을 이루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2 차대전 이후 하늘편으로 확정해 놓은 승리적 기독교 문화권과 자유세계를 통치하는 미국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된 입장에서 이걸 잃어버린 비통함과 다시 40 년 탕감복귀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이래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걸려 가지고도 못한 인간의 역사를 종결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135-187, 1985.11.13) p.154

나는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을 모르고, 밤을 아침같이, 새벽같이 느끼면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놀음 해온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죄, 누구보다도 비통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일신이 갈갈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가루가 되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든 날아가는 세포는 하나님의 한 점의 세포라고 울부짖을 수 있다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보람있는 죽음이라고 하면서 죽음길을 찾아 뒤넘이치고 있습니다. 뒤넘이치다 보니 망할 줄 알았는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137-178, 1986.1.1) p.154

하늘땅의 사무친 원한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라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참부모의 입장에 서야 할 비통한 사연을 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알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통일교회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레버런 문의 사상에 하나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통일가라는 것이, 오늘날 해방권에 선 통일가라는 것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축복받았다는 패들이 움직이는 그 거동거리가 오늘날 악마의 사촌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145-332, 1986.6.1) p.154

내 싸움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다 하고, 내가 서러워할 때 아버지께서 눈물 흘릴 것을 염려하면서, 내가 매맞는 자리에서 참기 어려운 비통한 자리에 설 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처참한 자리에 설까봐 염려하여 ‘내 비통함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하고 이를 악물고 내 눈물이 떨어질 때 하늘의 눈물이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울부짖고 원수를 갚기 위한 도상에서 선봉장으로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서는 용자가 있다 할진대 그 용자 앞에 하나님이 백배 사례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름을 충신이라 할까, 네 이름을 효자라 할까, 네 이름을 열녀라 할까? 지상의 역사상에 어떠한 귀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너 이상 귀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머리를 숙여 사례한다는 것입니다. (153-269, 1964.3.26) p.154

나 문총재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외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외롭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시대에 외로운 자리에서 비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삼고 그곳을 저주하면서 자기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했습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시련 때문에 후퇴할 사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시련을 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죽겠다는 사나이가 개인적인 과정에서 항서를 쓸 수 없습니다. 비겁할 수 없습니다. 여편네가 반대해도 잘라 버렸습니다. 자식이 반대해도 잘라 버리고, 부모가 반대해도 잘라 버리고, 나라가 반대하는, 4 천만, 6 천만이 반대하는 길을 간 사람입니다. (175-257, 1988.4.24) p.155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일생에 이것을 고치고 또 채워 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보면 선생님의 생애는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십니까?'하고 한번 물어 봐요. 선생님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비통함을 체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상에서 비참한 남자입니다. 그러한 고생을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잘난 체하고 으스대고만 있지, 선생님의 고생을 모릅니다. 어머님도 모릅니다. (213-278, 1990.1.21) p.155

하나님이 6 천 년 간 수고해서 남긴 공적을 다 잃고, 흥남수용소를 찾아간 선생님의 비통한 사연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땅의 미래의 소망으로서 해방의 민족이 되어 나를 환영하려 했던 그 무리가 구름속 지옥으로 꺼져 가는, 암흑세계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다시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너희들은 꺼져 갔지만 나는 다시 내 갈 길을 가서 광명한 아침 해를 안고 너희들을 다시 찾아가서 해방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소리를 지르던 그 소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적마다 기도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20-205, 1991.10.19) p.155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셨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할 때 하나님이 손을 잡고 통곡을 하며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느냐? 내 아들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목을 놓고 통곡하는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인연은 천년 역사에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눈물을 닦고, 곡소리를 그치고 ‘내 아들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아들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한 하나님의 입장을 알아야겠습니다. (176-263, 1988.5.11) p.155

‘나는 하나님의 참용사가 될 것이다. 그 어떤 하나님을 위한 전장이 비참할지라도 나는 그 전선에 참여할 것이다.'하는 것이 선생님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세계의 핍박이 몰려와도. 고독단신의 핍박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에게 불평 한번 안 했어요. 이것이 레버런 문의 자랑입니다. (193-73, 1989.8.20) p.156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왼쪽으로도 믿을 수 없고, 바른쪽으로도 믿을 수 없고, 동서남북 전후좌우 전부 다 믿을 수 없더라도 절대적으로 믿다 보니 중앙선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하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독재성이 많습니다. 의논할 수 없습니다. 틀어져 있으니 강제로라도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 인류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겁니다. (188-225, 1989.2.26) p.156

Top p.156

② 하나님의 해방을 위한 한평생

내가 분하다면 얼마나 분에 사무치겠나요? 역사 이래 나 이상 분에 사무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통곡하라면 나 이상 통곡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천년 역사를 품고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통곡하는, 문총재가 가슴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통곡하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런 뿌리를 전부 우겨싸고 앉아 거기서 자기가 잘먹고 잘살겠어요? 그런 간나 자식들이 죽어 자빠진 사체는 개도 안 뜯어먹습니다. (180-50, 1988.8.20) p.156

언제나 기분 좋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어려운 탕감의 고개를 태연하게 넘고, 하나님을 계속 모시며 하나님을 위로하며 고개를 넘지 않으면 평화의 지상천국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자, 공적인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문선생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고…'라고 한마디 할 때 선생님은 통곡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물이 모두 메마른 70 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그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3-86, 1988.10.29) p.156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옥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5 년 이상 감옥생활을 했지만 비가 내리는 처마 끝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사랑의 눈물방울이 하나님의 가슴속에 엉클어진 한의 바위를 뚫을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면…'하면서 그런 물방울을 보고 통곡한 사정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길을 바라보면서 '이 물줄기가 하나님을 모셔 가지고, 그분이 찾아와 목욕할 수 있는 맑은 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 보금자리, 안식처를 하나님께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심정의 깊은 세계를 여러분이 체험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85-45, 1989.1.1) p.157

분을 얼마나 참아 왔어요? 기가 막혀 이 오관이 다 한꺼번에 막혀 통곡한 사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주권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몸뚱이와 총칼이 아닙니다. 사랑의 핏줄을 통해서 그들을 감화시켜 자연굴복시키지 않으면 천지에 하나님이 바라는 평화의 동산이 오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국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197-348, 1990.1.20) p.157

이 한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이거 오늘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 공포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공포의 환경과 혼란 가운데 있는 나를 가르쳐 줄 스승이 누구냐? 스승이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 때문에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스승 노릇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사랑을 원칙으로 한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203-228, 1990.6.26) p.157

요전에 한번은 피곤해서 저녁 때 들어와서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 세수하고 면도하니까 그걸 보고 '아침에 일어나야 세수하고 면도하는데, 왜그래요.' 그러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정성도 하나입니다. 하나님한테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고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혓바닥이 나와서 들어가지 않을 만큼 통곡을 하십니다. 그런 사연을 갖고 사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21-163, 1991.10.23) p.15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타락한 인간 편에서는 구세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태초에 잃어버린 참사랑의 창조이상을 이룰 참아들이요 참부모가 됩니다. 구세주는 타락으로 초래된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생애를 바쳐 희생의 길을 개척해 오신 분입니다. 영광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정과 더불어 통곡하고,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분입니다. (232-225, 1992.7.7) p.157

누구의 하나님 만들 거예요? 미국 하나님 만들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 만들 거예요, 내 하나님 만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욕심들은 많구만. 내 하나님을 만들려면 민족 이상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총재를 좋아한다면 문총재 이상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문총재 이상 여러분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공식이 아닙니까? 거기엔 이의가 없습니다.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봉사하고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만약 나보다 못한 사람을 원한다면 그건 독재자입니다. (184-224, 1989.1.1) p.158

마라톤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서 80 퍼센트 와 가지고 백 미터, 천 미터 앞섰으면 뭘 해요? 거기서 넘어지면 그만입니다. 마라톤 챔피언이 뛰게 되면 관중들이 '야, 천천히 뛰어!' 그러겠어요? '빨리 뛰어. 빨리!' 쓰러질 때까지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이 최고의 기록을 지녀야 하나님이 최고의 상을 줄 때 떳떳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는 것입니다. (230-186, 1992.5.3) p.158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출생이 잘못되다니! 아이고, 내가 자라나서 보니까 양자도 거지떼 중에서, 고아원에서 거지새끼를 갖다가 길렀다' 이겁니다. 이건 거지새끼보다 더 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자라고 보니 내가 거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지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집에서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길러 준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 친어머니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자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우리 인간세계에서도 이렇게 기가 찬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늘나라의 왕궁의 황태자가 똥개새끼와 붙어 가지고 이렇게 되다니! 지옥의 왕이 되다니! (216-107, 1991.3.9) p.158

문총재와 통일교회의 부부 이념은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고 태어난 아들딸로서 천년만년 영원한 그 부모를 모시고, 영원히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아들의 자격, 딸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과해야 하나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타락의 상처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해야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복장이 터지는 통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맙구나, 내가 수천 년 역사를 이런 놀음했다.'하는 것입니다. 인류 창조역사가 몇천만 년 됩니다. 6 천 년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문화사를 중심삼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섭리를 착수하기 위한 뜻을 중심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몇천만 년 됐습니다. (232-138, 1992.7.3) p.158

자기 욕심 중심삼고 통일교회 이용하겠다는 사람, 별의별 짓 다 한 사람을 역사에서 내가 다 보면서도, 다 알면서도 속아 줬습니다. 그거 왜 속아 주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배신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 기가 차 '저놈의 자식 벼락을 쳐 가지고 모가지를…. 일본도가 있으면 한번에 모가지를 쳐 버리고 싶다.'하는 분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폭발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불쌍한 하나님을 붙들고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오다 보니, 그럴 때마다 마디가 생겨요. 알겠어요? 통일교회의 한 마디가 생깁니다. 참대에 마디가 있는 것처럼 마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적 매듭, 종족적 매듭, 민족적 매듭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197-312, 1990.1.20) p.159

역사적 스승이 살던 고통, 하나님의 역사적 고통을 흘려보내서는 안됩니다. 내 마음 깊은 사랑을 고이 담고 저나라에서 만나거든 목을 안고, '당신이 슬펐던 사정을 다 알고 나도 그 도수를 맞춰 살려고 했지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통곡하는 마음이 앞서게 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울며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날이 없으면 해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해도 그 자리에 못미칠 것이고,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해도 그 자리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해방하기 위해서 곁눈을 팔 수 없고 곁길을 더듬을 수 없는 놀음을 한 것입니다. (184-246, 1989.1.1) p.159

다시 만날 때까지 불철주야, 밥이 먹고 싶거든 선생님을 생각하고, 밥을 안 먹고라도 뜻을 위해 선생님이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잠이 오거든 잠자지 않는 선생님을 생각하고 뜻을 위해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참고 나가는 스승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마음의 뼈를 가지고 내일의 승리욕을 가지고 자연 굴복하는 원수의 무리를 보기 위해 스스로의 실적을 갖고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여러분이 살 길이 있는 것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82-48, 1975.12.30) p.159

어떤 때에는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통일교회 교주된 이 사람이 어떻게 눈물도 없이 밤을 새울 수 있었겠습니까? 불쌍도 하지. 나라는 사람을 몰랐더라면 그렇게는 안 되었을 텐데…. 국경을 넘고 또 넘어 한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스승을 따르다가 동녘의 한국을 향하여 '나는 갑니다.'하고 축수를 드리며 최후에 길을 가는 그들을 붙들어 주지 못하고 살려 주지 못한 심정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악마 앞에 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포로되어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밤이나 낮이나 전진을 해야 한다고 내몰았던 것입니다. (201-152, 1990.3.30) p.159

내가 통일교회 교주 되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주라는 관념을 갖지 않습니다. 평민입니다. 오늘도 양복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맸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한 단장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왜? 통일교회 식구들은 전세계에 퍼져서 이 시간에도 비오는 거리의 처마끝에서 젖은 옷을 입고 스승을 그리면서 선생님 만수무강하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고 있는 자리를 유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잠자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죄인 같은 교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들이 문총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97-162, 1990.1.13) p.160

Top p.159

제 2 권

참부모

차 례

제 1 장 참부모란 167
1) 참부모라는 말의 의미 167
2) 참의 기원 167
3) 참의 원기(原器) 171
4) 참과 참사람 174
5) 참부모가 뭐냐 176
6) 우리가 알아야 할 '참부모'의 어의(語義) 182
제 2 장 메시아와 참부모 186
1) 역사와 참부모 186
2) 메시아는 참부모 191
3) 예수님과 참부모 195
4) 재림과 참부모 19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제 3 장 참부모의 필요성 199
1) 보편적 부모도 필요 99
2) 세상 부모와 참부모 200
3) 참부모가 와야 할 이유 202
4) 참부모 출현의 전제 조건 203
5) 참혈통은 참부모를 통해야 203
6) 참부모가 절대 필요한 이유 204
7) 참부모의 결정은 선견적 예지 예정권 205
8) 선거로 선출될 수 없는 참부모 206
제 4 장 참부모의 사명 207
1) 참부모의 입장 207
2) 참부모의 길 208
3) 참부모가 되기 이전의 과정 210
4) 참부모의 권한과 사명 213
5) 참부모의 사랑 215
제 5 장 천국과 참부모 217
1) '천(天)'자와 '부모(父母)'자의 또다른 의미 217
2) 땅에서 참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유 218
3) 천국은 참부모를 통해야 가능 219
4) 천국과 참사랑 220
5) 참부모와 영생 222
6) 참부모와 나라 223
제 6 장 참부모와 우리 226
1) 통일교회의 가르침의 핵심 226
2) 참부모 재세시 동참하는 가치 230
3) 참부모의 수고와 우리 233
4) 은총과 자각 237
5) 우리의 할 일 235
6) 생명시해야 할 것 248
제 7 장 참부모 중심한 생활 256
1) 참부모의 날과 참부모 256
2) 참부모란 말을 완전히 알아야 257
3) 참부모의 언어를 배우라 258
4) 민요(民謠) 속의 계시 260
5)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 262

[텍스트 입력]

6) 참부모 이름의 위력 263
7) 참부모 이름으로 영영세세 영광을 누린다 263
8) 참부모의 심정 전수와 상속 264
9) 유의할 내용 266
제 8 장 3 대 주체사상과 참부모 선포 268
1) 3 대 주체사상과 부모주의 268
2) 참부모 선포 271
3) 참부모 선포와 왕권 291
4) 부모님 사진 모시기 297

제 1 장

참부모란

1) 참부모라는 말의 의미

우리 통일교인들이 평소 쓰는 말 중에는 '참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그 내용은 참 놀랍습니다. 역사 이래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참부모라는 말이 가장 쉬운 말이지만, 그 말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말이고, 우리만이 쓰는 말입니다. 인류 조상이 타락했다고 하면, 기독교가 2 천 년 역사를 거쳐 나오면서 타락한 부모는 거짓부모, 나쁜 부모이고 타락하지 않은 부모는 선한 부모요 참부모다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았을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이 때를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시대에 참부모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 배후가 어떻다는 것까지는 풀 도리가 없었습니다. 통일교회의 방대한 원리강론의 전체 내용을 갖추지 않고는 그것을 확실하게 풀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간단히 참부모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리 말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회의 역사관, 또 인류의 근원에 대한 사실을 밝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부모라는 말을 확실히 앎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인류 시조의 타락이 불륜한 관계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창조이상으로 세우려던 참된 부모와 관계없는 혈통적 인연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릇된 핏줄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라는 말은 인류 시조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그릇된 혈통 가운데 살던 것을 청산해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새로운 본연의 뿌리를 중심삼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이어진다는 뜻을 중심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입니다. (201-60, 1990.3.1) p.167

Top p.167

2) 참의 기원

①'참'이란

이 천지간(天地間)에 참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일 것이냐? 절대자입니다. 이 절대자를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 분밖에 없는 주인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인 양반을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한 분밖에 없는 주인 양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땅 위의 좋은 사람도 좋아하고, 나쁜 사람도 좋아합니다. 죄를 지어서 사형장에 나가 죽게 되는 사형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짓을 해서 죽어 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회생해서 희망의 재출발을 다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최고로 기여하고, 또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텍스트 입력]

있고 싶어하고, 내심으로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가까이에서 사정을 통하고 싶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참된 분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으라고 하는 원수까지도 좋아해야 합니다. 그 앞에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의논도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바랄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라 나오는 과정에서 미운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된 사람입니까, 거짓된 사람입니까? 거짓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거짓된 사람입니다. 이 세계에는 거짓된 사람이 많습니다.

참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양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통일교회의 패들 중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면 좋은 패입니까, 나쁜 패입니까? 나쁜 패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좋아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 번 이상 좋게 대해 주면 그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만 잘 해주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39-302, 1971.1.16) p.168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좋은 사람이 많지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인(偉人)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위인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위인' 하면 대개 이순신 장군을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순신 장군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참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러니까 '이상하다. 저 분이 왜 저래? 우리나라의 충신을 싫어하다니! 그러면 저 사람은 공산당인가, 민족 반역자인가?' 할 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이순신 장군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한국 사람은 모두 충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원수로 압니다. 일본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책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사람 앞에는 원수요, 한국 사람 앞에는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영국에 가도 참이요, 독일에 가도 참이요, 미국에 가도 참이요, 한국에 와도 참이요, 아프리카에 가도 참이요, 일본에 가도 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은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 편에서는 좋아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싫어하는 것은 완전한 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완전한 '참사람'이라면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과 같이 위인, 참사람으로 숭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은 완전한 참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참사람이 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참사람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異議)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참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덜 참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도 좋아하고 좋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은 제일 미워해야 합니까? 나쁜 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지만,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를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 좋아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도 좋아하는 것이요, 나쁜 사람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나빠하면 참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최고로 좋아하고 좋은 사람도 최고로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람의 정의입니다. 참된 사람이란, 나쁜 사람도 제일 좋아하고 좋은 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양반이 있으면, 그 양반이 참된 분입니다. (39-301, 1971.1.16) p.169

Top p.169

② 참의 기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넘고 넘어서 적용되고, 전체를 넘고 넘어서 가치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것이 참입니다. 참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63-89)

우리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인보다 가정을 위하고 가정보다 민족, 민족보다 국가, 국가보다 세계를 먼저 위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개인이 참되기 전에 가정이 참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세계가 참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개체로서는 모든 복의 동기가 될 수 없는 복귀노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기는 무엇이냐? 참입니다. 인간이 참된 모습을 이루려면 모든 생사화복(生死禍福)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간 개체 내에서는 참된 모습을 이룰 수 없습니다. (p.170)

참은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전체적으로 수습하고 주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을 갖게 될 때 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반을 갖지 못하면 '참'이라는 명사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될 때 참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참이 아닌 악의 기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이 있어야 참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니, 선이니 하는 명사는 인간을 위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주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참은 인간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타락한 인간이 마음대로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참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참을 세우고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활이나 양심을 살펴보더라도 참은 완전히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참된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막연히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의 기원은 인간들이 걸어 온 역사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즉, 그 기원은 환경을 초월한 자리에서부터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을 중심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주를 중심삼고 신앙의 표준을 세워 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개재시켜 참을 추구해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역사과정을 거쳐 온 수많은 인간들의 생활노정에서나 현실 사회에서도 참의 기원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들로 연결된 자리에서는 참의 기원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참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자, 혹은 신(神)이라는 명사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까지 땅 위에 참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 자체로서는 참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종교나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최후의 중요한 분기점(分岐點)에 가서는 신이 등장합니다. 절대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추구하는 목표, 즉 진리를 통하여 최후의 목표를 두고 추구해 나가거나, 존재의 기원을 파고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신이나 초월자, 절대자라는 명사가 개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절대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어떠한 학문이나 존재 가치도 그 기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심각한 자리에 가서는 반드시 참을 통해서 해결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의 기원은 인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자, 하나님이 개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을 주장하는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을 주장하는 인륜 도덕도 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p.171)

그러기에 공자도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 했습니다. 천(天)을 중심하고 한 말입니다. 반드시 하늘을 개재시켜야 합니다.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 하늘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동기가 될 수 있는 기원이 마련되지 않고는 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참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참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물론, 하늘을 기원으로 해서 참의 자리를 땅 위에 세우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나라인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는 깊디깊은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을 분석해 보면 지·정·의(知情意)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 머무를 것이냐? 지·정·의(知情意) 중에서 무엇이 근본이냐? 그것은 의(意)도 아니요, 지(知)도 아닌 정(情)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에게 제일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 두고 싶습니까? 자기만이 아는 곳에 두고 싶을 것입니다. 거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즉 자기만이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어 두는 것입니다. '이곳이라면 안심하겠다!' 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흔히 귀중품을 넣어 두는 장롱 같은 곳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참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자신의 마음 깊은 자리입니다. (24-317, 1969.9.14) p.171

Top p.171

3) 참의 원기(原器)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공증(公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뿌리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되는 그 존재는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미터(meter) 같은 것도 원기(原器)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맞고 틀린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면 여기에 맞춰 보아서 딱 맞으면 만세에 불평하던 사람도 일시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186-65, 1989.1.29) p.172

사랑에는 혁명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굳기에 있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물 취급을 받는 것이요, 황금은 누런 색깔이 변하지 않는 특이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또 진주는 조화된 우아한 색깔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귀하다는 보물들을 왜 변치 않는 특성을 중심삼고 책정했느냐? 그것이 우주 만물의 존재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에서 제일 가는 기준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금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겠습니까? 그것은 변치 않는 사랑, 깨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깨질 것 같은데, 깰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정당하지 내가 책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그러한 원인 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도량형(度量衡)이나 원기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어떤 측정기의 원기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표준을 변경시킬 수 없고, 인간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영원불변하면서 보화의 가치를 지니고, 땅 끝이나 지옥이나 천상세계나 어디나 밤낮을 극복하고, 지역을 극복하고, 거리를 극복하여 절대적인 측정의 기준,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지구에도 위도(緯度), 경도(徑度)의 영점기준(零點基準)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그것의 영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변하게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질서의 세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서 측정될 수 있는 모든 존재가 그 등차와 위치를 결정하고 싶은 본래의 기준, 하나님도 거기에 따를 수 있고 전체가 거기에 안 따를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돈, 황금덩어리,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도 물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사랑을 소유한다는 것은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둘이서, 둘이서 소유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도 혼자서는 못 찾는 것입니다. 그 기준, 측정 원기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뭐냐? 우주 만상의 존재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원기가 무엇이겠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춘하추동,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37-235, 1986.1.3) p.172

여러분은 거리를 재는 척도(尺度)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약에 1 센티미터가 단위라면, 그 모델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같으면 그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더라도 원형과 비교해 봐서 안 맞으면 불합격자입니다.

또, 1 센티미터는 10 밀리미터입니다. 거기서 1 밀리미터라는 것도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열이면 1 센티미터가 되고, 백이면 10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연결되고, 어디에서든지 그것은 공통적이고 통일적인 내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사람들의 세계가 통일되려면 원칙적인 기준에서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고 하나된 폼(형태, 모양), '이래야 된다.'는 폼이 있을 것입니다. (128-78, 1983.6.5) p.173

여러분! 미터가 있으면 그 미터가 1 미터, 100 미터, 아무리 크더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미터의 기본 단위가 뭐냐 하면 1 밀리미터입니다. 1 밀리미터는 너무 작으니까 대개 1 센티미터로 합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그 단위는 1 밀리미터에서부터 전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맞아 떨어져서 모든 것이 1 밀리미터라고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세계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 밀리미터, 한국의 1 밀리미터, 혹은 영국의 1 밀리미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참입니다. 참이 뭐냐? 그 이상의 기준으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자리에 선 것을 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리학 박사도 와 있지만,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자연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것이 막연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방대한 지구가 1 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순회하는데, 그게 1 분도 차이가 없습니다. 1 초도 차이가 없이 딱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으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으면 자꾸 작아지든가, 자꾸 커지든가 하는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지와 바다가 전부 다 갈라진다 이겁니다.

지구의 연령을 45 억 년으로 잡는데, 45 억 년 동안 이상 없이 공식 기준 위에 연결된 운동과 작동을 해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리라는 것, 공식이라는 것, 공리(公理)라는 것을 중심삼고 측정하는 단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이라는 것이 뭐냐? 참이란 것은 하나에도 맞지만, 천만을 맞추더라도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금 중에서 순금은 24 금입니다. 24 금은 참금입니다. 25 금, 26 금은 없지요? 중앙에 세워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 시각적으로 최소 단위로 돌아갈 때 수직적인 평행선상에 맞아야 참입니다. 이게 수직이면 이것이 평행이 되는데,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참이 아닙니다.

그래도 24 금까지는 이것이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권 내에 서 있기 때문에 24 금이 참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는 수직을 갖다 맞춰도, 종적인 기준 앞에 갖다 맞춰도 전부 다 맞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 앞에 평행선으로 서고 우주적인 횡 앞에도 평행선을 이룹니다. (p.174)

우주의 대운동을 보면, 그것은 막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법도를 중심삼고 움직입니다. 주체와 대상 관계의 운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수직입니다.

그 수직이 변경되는 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수직이 딱 자리를 잡아야 공간세계에 자기의 자리를 잡고 존속의 기반을 갖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좀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잼대가 뭐냐? 사람도 잼대가 있어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수리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푸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합격된 공통적인 기반이 세계적인 무대에 서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진리 가운데는 반드시 동서남북의 사방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먼저냐, 진리 자체가 먼저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환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참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겁니다. 종횡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종으로 봐도 맞다. 찌그러지지 않았다. 횡으로 봐도 맞다.'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종횡이 일치되어야 공식적인 법도상에 있어서 전후·좌우·상하의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갖다 맞추더라도 맞아떨어진다 이겁니다. 동에도 맞고, 서에도 맞고, 북에도 맞고, 남에도 맞고, 지상세계에도 맞고, 영계에도 맞다고 하게 될 때, '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더라도, 밀리미터로 측정해서 남은 것이 반 밀리미터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0-14, 1988.8.20) p.174

Top p.174

4) 참과 참사람

여러분! 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동그란 것이냐, 모진 것이냐, 넙적한 것이냐? 그것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무엇을 중심삼고 그 정의를 내릴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사람' 할 때, 그 참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사람도 눈, 코, 입, 몸뚱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장소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까, 일정한 장소를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까?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 제한선을 넘어가야 되느냐?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것을 대표해서 쥘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공식을 말하고, 물리에서는 공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공식이라는 것, 그것이 조그마한 것입니까? 공식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그 공식적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을 비교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식이나 단위의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틀리면 이 방대한 우주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척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십이진법이라든가, 십진법 같은 것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형태는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물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체가 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만, 전체가 맞지 않게 될 때에는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존재의 성립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사람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스케일과 척도와 같은 것이 있어서 힘을 연결시켜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균형이 맞게끔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살이,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도 그러한 공식적인 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33-9, 1984.7.1) p.175

지금 인간세계에는 수십억 인류가 사는데,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의 선조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상에서 살다 갔을까요?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적어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몇백 배, 몇천 배의 사람들이 살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인류가 바라는 참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참되다는 것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참입니다.

'순금' 하면 24금입니다. 그건 공간이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에 처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왕의 손에 가나, 어떤 불량배의 손에 가나, 어떠한 변화무쌍한 환경에 가더라도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황금색을 참된 빛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금색을 좋아하지요? 빛은 무엇을 닮았느냐? 황금색을 닮은 것입니다. 밝은 빛은 황금색에 가까운 빛입니다. 태양빛도 황금색입니다. 저녁 노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천년만년, 억만년 변할 수 없는 색깔을 가진 그런 참된 남자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참된 여자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세계에서는 인간을 타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배경이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전부 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치 있는 새로운 인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참된 본연의 인간, 참된 본연의 인간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나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 전이나, 억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후에도 인류가 존속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 참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남자, 참된 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남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 살게 되면, 그 마을에서 제일가는 참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177-99, 1988.5.17) p.17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p.176

5) 참부모가 뭐냐

① 두 석판과 참부모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에 인도한 것이 구름기둥이고, 밤에 인도한 것이 불기둥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자 여자를 대표해서 끝날에 부모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심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40 년 동안 유리고객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 민족이 멸망할 것을 염려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40 일 금식을 하게 하고 두 석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해와, 참부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어찌하여 두 석판을 넣었느냐? 두 석판은 하나님의 뜻을 종결지을 수 있는 중심으로서 아담과 해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134-174, 1985.4.7) p.176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요,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부모인데 그 종횡의 부모가 하나되어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된 것이 한입니다.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다 갖고 있다 이겁니다. 종교도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종적인 하나님과 횡적인 면에서 하나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이 땅 위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인류의 첫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거짓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참부모가 역사상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대행하는 하나의 명사를 씌워서 부르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이것이 구주라는 존재요, 메시아라는 존재입니다. 구해 주는 데는 무얼 구해 주느냐? 몸뚱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랑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면,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와야 되느냐? 틀림없이 참부모로 와야 됩니다. 메시아는 참부모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구주로 믿습니다. 참부모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아비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는 하나의 남자를 찾아 나왔습니다. 남자 중에서도 생활을 잘하는 남자를 찾아 나온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 영계를 위주한 남자를 찾아 나온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독생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 살다가는 큰일나는 것입니다. 독생녀(獨生女)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독생자와 독생녀가 서로서로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적인 부모로서 기뻐하고, 그 독생자와 독생녀가 횡적인 부모로서 기뻐할 수 있는 신랑 신부가 되어서 지상에서 아들딸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일족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저버리더라도, 유대교를 저버리더라도 제일 필요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자입니다. 남자 앞에 여자가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 가면서도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래서 기독교에서는 2 천 년 동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독교 신자들이 신부 되겠다고 허덕이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준이 뭐냐? 그것이 메시아인데, 참된 부모의 자리를 갖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양 잔치입니다, 어린양 잔치. (58-218, 1972.6.11) p.177

Top p.17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참부모의 정의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가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종적인 사랑이 되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뼈와 같고, 아담과 해와는 몸과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자리에서 내적인 부모가 되고, 아담과 해와는 외적인 자리에서 외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적인 부모와 외적인 부모가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결탁되어 참부모, 완성한 인간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결탁되지 않으면 완성한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본연의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한테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신성을 지닌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神性)을 띤 하나님의 성품도 갖고, 인성(人性)을 띤 부모의 성품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묶어져야 완성이 나오지, 이게 묶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과 횡적인 육적 사랑이 한 점에서 묶어진 것이 바로 우리 조상의 혈통의 뿌리입니다. 거기가 우리 조상의 혈통입니다. 거기에서 전인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때문에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갈라졌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묶어지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동적으로 묶어집니다. 남자 여자는 자동적으로 사랑으로 묶어집니다. 왜 남자 여자가 하나되려고 하느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후에 뭘 하려고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184-71, 1988.11.13) p.178

섭리의 시대를 보면, 복귀섭리는 끝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종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후의 때가 부모님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참부모인데, 참부모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참부모라는 분은 우리 원리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리결과주관권과 직접주관권, 즉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을 다 거쳐서 책임분담을 완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의 이상을 이룬 부모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의 이상을 이룬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상이 비로소 지상에 참부모의 가정을 중심삼고 착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참부모의 이상이 깨져 나갔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책임분담이라는 사명을 앞에 놓고 원리결과주관권, 즉 간접주관권에서부터 직접주관권에 다리를 놓아서 이것을 다 완결지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간접주관권 내를 침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저나라에 가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43-75, 1986.3.16) p.178

참된 부모가 도대체 뭐냐? 이 우주가 생겨난 이래 비로소 참된 사랑, 이상적인 사랑이 스파크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부모 앞에는 무슨 아들딸이 있어야 하느냐? 참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자녀는 어떤 자녀냐? 참된 부모의 첫번째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안팎의 미를 갖춘 아들딸이다 이겁니다. (125-164, 1983.3.20) p.178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참부모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인간세계에 착륙했다 이겁니다. 참부모가 기점이다 이겁니다. (130-111, 1984.1.1) p.17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핵으로 한 그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되어서 출발할 수 있었던 최초의 우리 인간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를 모르면 참자녀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135-160, 1985.11.12) p.179

역사의 핵심이 되고, 시대의 핵심이 되고, 미래의 핵심이 될 사상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역사를 두고 볼 때는 역사적인 열매요, 시대를 두고 볼 때는 시대의 중심이요, 미래를 두고 볼 때는 미래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세계의 사상의 중심은 무엇일 것이냐? 그것은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의 생활관은 무엇일 것이냐? 세계를 위하여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둘이 사랑하는 것은 세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딸을 낳는 것도 세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세밀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횡적인 모든 입체적인 세계를 보나, 종적인 세계 역사 전반을 보나 기필코 역사는 그 기준에서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동적인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5-145, 1969.10.3) p.179

타락의 기원이 되는 곳이 어디냐? 아담과 해와, 즉 한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거짓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정문제, 혈통문제, 인격문제, 언어문제, 생활문제, 국가문제, 세계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축적시킬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총합할 수 있는 참된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은 어떠한 종족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사회권 내라든가 국가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권 내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기원이 거짓된 부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참된 부모의 인연을 중심삼고서만 복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본연의 혈통이 시작되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본연의 인격이 시작되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언어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생활이 본연의 형태로 돌아가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본연의 국가가 형성되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총집약한 핵심적인 모체가 무엇이냐? 참부모입니다. 참부모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사상을 내가 전부 인계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심정, 그의 인격, 그의 생활관, 그의 국가관, 그의 세계관을 전부 인계받지 않고는 중심된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28-247, 1970.1.22) p.179

참부모를 빼놓고는 교육도 없어야 되는 것이요, 생활 터전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완전히 하나돼야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생활이 내 생활이요, 참부모의 이념이 내 이념이요, 참부모의 일이 내 일이요, 참부모의 사랑권이 내 사랑권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44-142, 1971.5.6) p.180

Top p.180

③ 참부모는 인격의 실체

역사상의 성현들 가운데 '나는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을 대표해서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고 완전히 통일을 이루었으니 내 본을 받아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몸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 마음의 통일권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세계가 통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142-324, 1986.3.14) p.180

지금 여러분은 몸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하나될 것이냐? 지금까지 인류역사 노정에서 몸과 마음이 싸우는 이것을 통일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탄식했습니다. '마음의 법과 몸의 법, 이 두 법이 있어 서로 싸우니,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 것이냐?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으로…' 했는데, 바로 봤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입니다. (164-41, 1987.5.3) p.180

마음과 몸이 하나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우주의 근본 되는 종적인 사랑의 추입니다. 그 추가 땅에 내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랑을 내리려면 수평선에서 이 기준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강하면, 마이너스 전기가 지상에 가까이 오게 되면 가까운 데서 벼락을 치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높은 데 있더라도 내려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사랑이 내려오려면 땅 위에 마이너스 사랑이 먼저 생겨나야 됩니다. 마이너스 사랑이 먼저 생기면 플러스 사랑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용하는 세계에는 반드시 대응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대응하고 서로서로 작용하는 반면, 반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반작용이 대응하는 힘의 작용을 반대한다고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반작용이라는 것은 대응된 존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이래야 이론적으로 선악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선을 중심삼고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찾지 않고는 선악 대결의 역사를 치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왕림하느냐? 종적인 사랑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 종적인 사랑이 종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횡적인 기반이 닦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남자 여자도 그렇잖아요? 철없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크게 되면 여자도 세계를 가지려고 하고, 남자도 세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 만나야 되느냐? 다 커서, 성숙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계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세계를 점령하겠다고 하지만, 점령하는 데는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이상과 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계 전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요? 또 하늘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종적인 욕망, 횡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횡적인 욕망은 횡적인 세계인 지구성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종적인 욕망은 이 우주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구성의 한계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적인 세계는 얼마든지 커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의 자리를 대표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몸의 자리를 대표할 수 있는 아버지가 타락하지 않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역사시대에 몰랐던 이러한 사실을 캐 가지고 참부모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횡적인 참부모의 자리가 본래 창조했던 이상관으로 본 하나님의 아들딸의 자리입니다. 즉 아담과 해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뭐냐? 몸과 같은 것이 아담과 해와라면, 종적인 마음과 같은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마음과 같은 하나님과 몸과 같은 이 분이 하나되는 데는 무엇으로 하나되어야 되느냐? 힘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적인 인격, 몸적인 인격이 본래 하나될 수 있는 원칙적인 모델을 닮아 난 것이 내 개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근본을 찾아가 볼 때에, 몸 같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마음 같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적인 아버지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고, 몸적인 아버지의 자리가 인류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시조와 마음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될 것이냐? 어디에서 하나되겠어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의 구형 가운데, 핵의 자리에서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적인 것을 중심삼고 남자 여자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177-337, 1988.5.22) p.181

Top p.181

6) 우리가 알아야 할 '참부모'의 어의(語義)

① 참부모란 말은 귀하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참부모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요, 얼마나 귀한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대통령, 선생님, 부모, 형제는 못 믿더라도 참부모만은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관념 가운데는 지옥이라든가, 악한 사탄세계를 구할 구원의 관념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세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부모가 여러분의 죽음 앞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힘이 되어 줌으로써, 하늘땅이 공인하고, 역사가 공인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고 역사가 보장하는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레버런 문이 참부모가 되겠다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레버런 문이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6-113, 1981.12.27) p.182

Top p.182

② 참부모란 말은 자랑스럽고 엄청나다

지금까지 우리 계대(繼代)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 천만대(千萬代)의 선조들이 다 부활해서 그 부활된 영광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락권(墮落圈)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광이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자리는 비참하더라도 천천만 선조들, 혹은 만민의 해방권을 갖춘 영광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자랑스러운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연결되고, 통일교회를 만난 이 자리에는 불원한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모님이 원하는 조국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문화 배경이 다르고, 국경이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의 조국이라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후손들도 살겠지만 그것은 전부가 타락권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 타락권을 박차고 나가서 오늘의 승리를 선조들과 더불어, 자기의 일족과 더불어 미래의 후손들 앞에 자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랑의 조국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조국 가운데서 사랑의 부모를 가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조국의 중심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할 때는 그 이상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38-105, 1986.1.19) p.182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아담격이기 때문에 본연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중심삼고 어머니가 센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은 그 터전을 중심삼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기준까지의 소유권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메시아의 것으로 된 이후에 국가의 것이요, 국민의 것이요, 가정의 것이요, 개인의 것이라는 소유권 판도가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 본연의 사랑이 비로소 개인에서부터 국가까지 형성되어서 로마와 세계까지 그 파문이 전파되었더라면, 오늘날의 재림 사상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하나님의 사랑권에 속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과정을 통과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삼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원칙에 일치된 소유권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지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부모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타락권 사탄세계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 참부모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만을 천 번 듣고, 만 번 듣고도 감사해 하고 남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29-193, 1983.11.5) p.183

Top p. 183

③ 참부모란 말은 놀라운 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는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나라를 잃어버렸고,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대하고 엄청난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소원해 오신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참부모 기준입니다. 인류가 타락 이후 지금까지 탕감역사를 해 나온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한날의 소원을 바라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요, 수많은 종교가 전부 이 한 날을 바라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참부모가 태어난 것은 무섭고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가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중심삼고 연결된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향을 품고 있는 나라, 그런 고향의 사랑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사람들은 자기의 조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볼 때, 우리에게는 고향도 없고, 조국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악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67-226, 1973.6.27) p.183

통일교회의 참부모라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거짓부모는 사탄의 사랑을 중심삼고 떨어졌지만, 참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올라가니, 사랑의 세계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찾아가려고 하느냐?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영원히 평등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라도 한꺼번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144-241, 1986.4.25) p.184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참부모가 뭐냐? 거짓부모가 생겨났으니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세계의 뿌리가 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릇된 생명을 돌이켜 놓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169-37, 1987.10.4) p.184

선생님이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목적의 기준, 그 정착점이 뭐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뭐냐? 창조이상의 완성이 뭐냐? 아담과 해와가 사랑이상을 이루어서 직접주관권 내에서 부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상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뜻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이 땅 위에 참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라는 말! 세상의 말 중에 제일 복된 말이 무엇일 것이냐?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나라를 잃었다가 찾는 것보다도, 세계를 잃었다가 찾는 것보다도 참부모라는 말이 제일 복된 말입니다. 그것은 천지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말입니다. (127-220, 1983.5.8) p.184

Top p.184

④ 참부모란 말은 무서운 말

통일교회에서의 무서운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부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말이요, 사탄도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권 내에 있기 때문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볼 때, 그 참부모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왔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왜 참부모라는 말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믿고 따라가는 날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고 파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극히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참부모의 가는 길을 막으며 쓰러지기를 바라고, 나빠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가는데 얼마만큼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이 그런 첨단의 자리에 섰다면 한 발짝 한 발짝, 행동 하나를 천년 이상의 정성을 다해서 감격하면서 가려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65-276, 1973. 1.1)

저는 참부모의 이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온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삶의 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뜻의 사명을 완결짓기 위하여 지금까지 싸워 나왔사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 사연도 많고 억울함도 많았습니다만, 당신의 사연, 당신의 억울함에 비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당신 앞에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아옵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저의 마음을 아시사, 이 날을 기하여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문을 여시옵소서! (134-112, 1985.2.25)

참부모가 무엇이냐? 참부모란 말이 그리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참부모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가 좌우됩니다. 이 말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의 길을 갔습니다. 연속적인 피의 투쟁을 거치고 몸부림치며 절규하면서 소망을 품고 찾아 세운 이름이 참부모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참부모 앞에는 참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자녀가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참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33-109, 1970.8.9) p.185

Top p. 185

제 2 장

메시아와 참부모

1) 역사와 참부모

① 타락과 참부모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참부모를 모셨지만, 이 땅에는 참부모의 아들딸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부모의 아들딸도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참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될 것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들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시조가 잘못한 그것을 해원성사해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부모가 재림주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는 미리 낳아 놓은 장자를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 장자가 서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본연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핏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서자와 같습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이 돌감람나무 밭을 악마가 지배하니,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제로 겁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굴복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심삼고 천대받고 매맞으며 하나 둘 씩 빼앗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판도를 이루기까지 얼마만한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순교의 제단에서 끊임없이 희생되던 비참한 제물의 비명이 지구상에 안 울려 퍼진 곳이 없는 그러한 역사를 거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제단이 연속되어서 오늘날 목전에까지 도달한 역사적인 한이 엉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어받아 해원해야 할 엄숙한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기독교를 재차 해방해야 됩니다. (210-360, 1990.12.27)

타락이 뭐냐? 악마의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생명과 거짓된 혈통이 뿌려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핏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역사 이래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사랑의 결실이요, 생명의 결실이요, 혈통의 결실이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면, 사탄의 사랑과 사탄의 생명과 사탄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치고 벗어 던져 버리지 않으면 지상의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버런 문이 참부모의 이상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참부모는 뭘 하느냐? 이 거짓된 사랑을 깨끗이 청산하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분립될 수 있도록 평화와 반대되는 악마의 요소를 깨끗이 청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217-185, 1991.5.27)

Top p. 187

② 역사의 소원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타락한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이 세계에는 타락한 부모가 태어났다, 타락한 부모가 태어나서 타락한 세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타락한 부모와 인연된 세계이지 참부모나 하나님이 이상했던 본연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인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그들 가운데 행복을 노래하면서 '아!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 행복했고, 인간으로서 모든 면에서 성공한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주 앞에 자랑하고 살고 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고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애의 역사, 전쟁의 역사, 질병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원은 무엇이냐? 인간이 어떻게 완성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성한 사람. 신(神)이 있다면 그 신 앞에, 완전한 절대자가 있으면 그 절대자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고, 어디서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인간들이 그걸 찾고 찾았지만, 그 해결점을 다 보지 못하고 이제는 모두 포기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이 현세의 인간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137-81, 1985.12.24)

지금까지 인간들의 역사적인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참부모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참부모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를 세우신 것은 메시아를 맞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문화권을 만든 것은 재림주를 맞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림주는 누구냐 하면, 제 3 차 아담으로 오시는 참부모입니다. 참부모가 오실 때가 되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형제의 인연을 가지기 때문에 제 2 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가들이 패전국가들을 전부 다 해방시키는 놀음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역사적 현상이 벌어져 나온 것입니다. 역사가 바라면서 찾아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참부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가 나오는 것도 참부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가 나오는 것도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 나라가 나오는 것도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참부모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51-354, 1971.12.5)

Top p. 188

③ 역사와 참부모

지금까지 종교는 무엇을 해 왔느냐? 참된 아들 하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아들 하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도주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습니다. 종교의 도주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이것은 참된 아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시켜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 백 단계, 이렇게 올라가 최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주인공, 그 아들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41-27, 1971.2.12)

하나님이 종교를 만들어서 뭘 할 것이냐? 뭘 하자는 거냐? 하나님이 종교를 왜 만들었느냐? 세계의 누더기 짜박지, 큰 누더기 판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환경적인 요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 가지고 상대적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173-33, 1988.2.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복귀역사는 참부모를 세우기 위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 아벨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늘은 내적으로 참부모를 복귀하기 위해서 섭리해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근본섭리에 대적(對敵)하거나 훼방하면, 그는 천도(天道) 앞에 버림받게 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10, 1960.3.27)

역사를 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해방은 참부모와 하나되어서 모든 사탄의 참소조건을 청산해야 가능합니다. 그걸 청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적인 소유권(所有圈)에 봉착하느냐?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과 만물이 평행선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될 수 있는 자리를 지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137-268, 1986.1.3)

Top p.188

④ 복귀섭리 역사는 참부모를 찾기 위한 역사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이 땅 위에 나타나셔야 할 참부모는 어떤 분이냐?

사탄세계와 싸워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을 수습하고, 인간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을 궤멸시켜야 하며, 영계와도 대결하여 수많은 영인들까지 주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리를 구축해야 할 분입니다. 참부모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인간, 하늘까지 연결된 하나의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부모를 보낼 수 있는 길을 닦아 나오신 것입니다.

참부모가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참된 아들딸이 있어야 하고, 참된 아들딸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참된 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역사 노정을 보면, 종의 시대를 거치고 자녀의 시대를 거쳐서 부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종의 시대로부터 양자의 시대, 자녀의 시대를 거쳐서 부모의 시대까지 복귀해 나오는 동안 영계에 있는 영인들도 협조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한 국가의 기준을 넘어서 세계적인 발판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참부모가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치는 2천 년 섭리역사의 기간이 있은 후 야곱으로 하여금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국가를 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까지 수많은 역사노정을 거쳐 오면서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대신 사탄과 대결하여 이겨야 하고, 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대신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고, 직계 아들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대신 사탄세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부모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역사는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거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의 입장을 복귀하고 양자의 입장을 복귀한 터전 위에서 직계 아들딸의 입장을 복귀하여, 즉 승리의 기반을 닦아 놓은 후 참부모의 인연을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하나님이 4천 년 동안 준비하신 종의 기반이 무너졌고, 양자의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입장에서 싸워 승리하시고, 양자의 입장에서 싸워 승리하셔서 직계 아들의 입장으로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자의 입장과 직계 아들의 입장을 거친 후, 이스라엘 민족을 기반으로 하여, 참부모의 인연을 세워 놓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셔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기준에서 승리의 기반을 닦지 못하고, 영계를 중심하고 참부모의 인연을 개척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인적인 자리, 가정적인 자리, 민족과 국가적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의 뜻을 대하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를 세워서 지금까지 돌고 돌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세계적인 시대를 맞이하여 하늘은 기필코 약속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택하셔서 참된 승리의 기반을 닦으실 것입니다. 참부모의 자리는 본연의 창조목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닦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6 천 년 동안 싸워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 천 년 복귀섭리 역사는 이 참부모를 찾기 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참부모는 6 천 년의 섭리사 전체를 대신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참부모를 찾지 못한 것이 인류 전체의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비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류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면, 참부모를 복귀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부모를 복귀하지 않고는 참된 자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참된 자녀의 인연을 세우기 전에 참된 가정과 참된 종족과 참된 민족, 국가, 세계, 천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6 천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수고해 나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 천 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처음으로 참부모의 영광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부모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즉 참부모는 역사적인 결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결실체로 서시기 위해서는 일면적인 승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사명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육적으로는 아들의 입장을 복귀하는 노정을 거쳐 나가야 했고, 영적으로는 부모의 입장을 복귀하는 노정을 거쳐 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양면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다 하여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기점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기점은 개인적인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고, 가정적인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고…. 이렇게 되었더라면 영적 육적으로 참부모의 기준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본래, 참부모는 창조원리로 보면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인해서 참부모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계에 가셔서도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적인 부모의 입장을 복귀해야 되고, 육적인 부모의 입장을 복귀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까지 2 천 년 동안 영계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영계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영적인 사회, 국가, 세계적인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가 아니라 영계에서 섭리해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영적인 부모와 인연을 맺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상속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영계에서 닦아 놓으신 영적인 개인, 가정, 국가, 세계적인 기반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 입장을 거치지 않고는 참부모의 인연을 이 땅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영적인 상속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영적인 기반을 상속하시게 될 때, 지상의 기독교인들이 그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하나되면, 지상에서 상속의 기준이 닦아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준을 세워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의 터전이 오시는 참부모 앞에 고스란히 옮겨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참부모님은 재차 영적인 상속의 기준을 복귀하고, 육적인 상속의 기준을 복귀하는 투쟁의 역사를 거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6 천 년 동안 섭리하신 것은 오시는 참부모의 터전을 마련하고 당대에 승리의 기반을 닦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부모의 명령에 일치 단결하여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에 보조를 맞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영적인 기반이 다시 오시는 주님께 상속되는 기준이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참부모가 되실 분은 다시 영적인 세계에서 개인적인 시험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인 시험을 당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않고는, 내적 승리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지상에 실체적인 승리의 기준을 세울 수 없기에 내적인 싸움을 해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280, 1964.4.1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복귀섭리를 왜 하시느냐? 본연의 부모, 즉 참부모의 인연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참부모는 어떤 분이냐? 참부모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실체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실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자기 집의 장롱 속에 들어 있는 패물보다도 못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22-43, 1963.1.19) p.191

Top p. 191

2) 메시아는 참부모

① 메시아는 참부모이다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전부를 걸어 놓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체로 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자리에 서야만 비로소 인류의 역사상에 남아 있는 믿음이 결실될 수 있는 것이요, 소망이 결실될 수 있는 것이요, 사랑이 결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실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외치게 될 때, 그 말은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로되 세계사적인 내용과 인연을 갖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냐? 세계적인 때, 소망의 때를 먼저 구별할 줄 아는 지각(知覺)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실천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때 그분은 개인으로 오시되 개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치는 온 세계 인류가 믿고 있는 신앙의 결실체요, 온 세계 인류가 바라고 있는 소망의 결실체요, 온 세계가 바라고 있는 사랑의 결실체입니다.

그 결실체에는 모든 역사노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땅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13-142, 1964.1.1) p.192

메시아는 참부모입니다. 우리들은 참자녀입니다. 같은 운명권에 서서 거기에 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55-97, 1972.4.22) p.192

Top p.192

② 메시아의 현현 과정

지금까지 많은 종교가 나와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한 사람을 찾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구원을 얻고 뭐 어쩐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추려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자리를 넘어선 그 한 사람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종교의 중심은 한 사람인데, 그런 존재가 누구냐 하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가 한 사람을 찾아 나오는데 그 한 사람, 중심존재가 누구냐 하면 메시아, 구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데는 그 자리에 대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7년노정을 거쳐야 됩니다. 메시아는 남자입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사탄세계에서 혈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이긴 그 남자를 중심삼고 가정적으로 이겨야 되고, 종족적으로 이겨야 되고, 민족적으로 이겨야 되고, 국가적으로 이긴 터전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즉, 사탄세계보다도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에 속한 가정보다 우위에 서지 않고는 메시아는 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사탄세계의 최고의 기준이 뭐냐 하면 국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국가를 중심삼고 반대해 나왔습니다. 사탄은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중심삼고 개인적으로도 하늘을 때렸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적으로도 하늘을 때렸고, 종족적으로도 하늘을 때렸고, 민족적으로도 하늘을 때렸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 나라를 중심삼고 하늘이 닦아 나온 길을 방해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받고 핍박받는 것은 못하기 때문이지, 나으면 도리어 핍박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사탄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사탄편 개인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 가정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 종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 국가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편은 없다 이겁니다. 개인은 있지만 그 기준에 올라온 가정이나 종족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 개인으로서 가정을 이기고, 메시아 개인으로서 종족을 이기고, 메시아 개인으로서 국가를 이길 수 있는 터전이 없어 가지고는 일반 사람이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메시아를 따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권(圈)을 개인으로부터 가정을 거쳐서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선(線)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의 소망이 뭐냐 하면, 이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야지 넘어서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을 넘어서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넘어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 즉 구주를 보낸다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국가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를 중심삼고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는 입장이 되어서 사탄이 떼려야 뗄 수 없게끔 온전히 하나되면, 거기서부터 개인적으로 접붙이고, 가정적으로 접붙이고, 종족적으로 접붙이고, 민족적으로 접붙이고, 국가적으로 접붙여서 그들을 일시에 다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선민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민이 있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으로 볼 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냐? 그게 문제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부모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부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부모의 자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다시 낳아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에 사탄의 피가 있으니까, 그 피를 빼내어 사탄의 아들딸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우리를 접붙여서 다시 낳아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 하면, 메시아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종새끼로 만들어서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 앞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굴복시켜서 종으로 만들 수 있는, 사탄을 굴복시켜서 그를 처단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첫째는 부모를 잃어버렸고, 둘째는 사탄의 피를 받았고, 셋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보면, 믿음의 기대가 있고 실체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이루고 실체기대를 이루어야 메시아를 바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까지 이루자는 것입니다. (54-182, 1972.3.24) p.194

메시아는 그 자체가 믿음의 목적체요, 소망의 목적체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진 목적체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위주로 하여 목적을 달성한 그때에는 무엇만이 남을 것이냐? 목적이 다 달성되었으니 사랑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로 최후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믿음의 완성실체를 통한 사랑이요, 소망의 완성실체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를 위주한 대표자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13-140, 1964.1.1) p.194

Top p.194

③ 메시아의 사명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메시아의 뜻은 뭐냐? 종적인 기반의 완결을 봐 가지고 횡적인 기반의 출현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뭐냐? 천륜의 모든 것, 하나님과 인류가 가야 할 공의의 목적을 종적인 기준에 일치시켜 가지고, 개인적인 종적완성 표준, 가정적인 종적완성 표준, 국가적인 종적완성 표준, 세계적인 종적완성 표준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내적인 계획을 전부 다 장악해서 오시는 분이 재림주다 이겁니다. (71-79, 1974.4.28) p.194

우주를 가만히 보니까 잘났다고 하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입니다. 선악의 주인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삼고 선악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지금까지의 인간 역사를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150 만 년이라고 하는데, 역사 이래 악의 투쟁을 하는 총수로서 하나님까지 골탕먹여 나오고, 하나님을 꼼짝못하게 만든 사탄이 얼마나 잘났느냐 이겁니다.

이 싸움을 누가 끝내야 되느냐? 하나님도 그 싸움을 못 끝내고, 사탄도 못 끝냅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을 겁니다. 악신과 선신의 싸움을 누가 끝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사탄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끝낼 수 있느냐? 인간은 인간인데, 참된 인간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세계 만민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싸움과 사탄의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역사세계에서 평화라는 말은 망상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란 말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표자를 보냈는데, 그 주류사상을 메시아사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해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악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악을 결산짓기 위한 총책임자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의 '세(世)'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지, 기독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달달 잘 외우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기독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세주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요, 사탄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물어 제끼면서 참소하던 원한의 원흉을 누가 청산하느냐? 하나님이 청산하지 못합니다. 메시아, 구세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136-219, 1985.12.29) p.195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역사상에 처음으로 한 나라의 주권과 국토와 백성을 찾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횡적인 세계를 빼앗기 위한 싸움을 코치하는 사령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사탄을 굴복시키려면 국가만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세계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주권까지도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지구성에 해방권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구성 어디를 가든지 사탄이 반대하는 그늘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유와 평화의 동산으로 지은 에덴동산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지구성에 사탄이 반대할 수 있는 그림자가 없어져야만 지상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 일이 완료되어야 천상세계의 해방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식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57-128, 1972.5.29) p.195

메시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의 혈통을 제거하여 개인적으로 승리의 길을 닦아야 되고, 가정, 국가, 세계적으로 승리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갈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개인이 갈 길을 닦아야 되고

둘째는, 가정이 갈 길을 닦아야 되고

셋째는, 국가가 갈 길을 닦아야 되고

넷째는, 세계가 갈 길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긴 다음에 세계적인 사탄이 동원되어서 국가와 민주세계가 합하여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전세계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사와 싸워 이긴 것과 마찬가지요, 아벨이 가인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대일(一對一)의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탄세계 전체를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맨 첨단의 대표적인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한국입니다. (54-197, 1972.3.24) p.195

Top p.195

3) 예수님과 참부모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부모가 되어서 거짓자손을 낳았으니, 이를 다시 복귀하기 위한 참부모로 오셨던 분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참부모가 못 된 동시에 참부부도 못 되었고, 참부부가 못 되었으니 참자녀도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참자녀의 복귀, 참부부의 복귀, 참부모의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109, 1959.11.22) p.196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날에는 주님이 신부를 맞으러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양 잔치'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의 신랑과 하나의 신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를 이루는 잔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지조상(宗之祖上)은 선한 부모가 아니라 악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상하신 자리, 우리 인류의 조상이 타락하지 않고 이루어야 했던 본연의 부모의 자리, 참되고 선한 부모의 자리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계 22:13)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루려고 하시던 목적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못 이루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왔느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일치될 수 있는 완성한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 장 45 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산 영(靈)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번 아담으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참된 아들의 자리, 부부의 자리, 부모의 자리를 결정짓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독교만이 4 대 요건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신랑 신부를 맞아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념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삼은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54-108, 1972.3.20) p.196

Top p.196

4) 재림과 참부모

① 준비해야 할 메시아 맞이

여러분이 살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천국이 대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메시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왔지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가 나오기 전에 하늘나라의 민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민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꺼번에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씨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씨족이 나와서 민족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씨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친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족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이 있고 부모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나오려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남자가 부모가 되려면 상대를 찾아서 그 상대와 하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떨어졌던 것을 세계적인 기독교의 터전 위에 2천 년 동안 예수를 중심삼고 반대로 영적인 복귀를 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맞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림주가 온다 이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세계가 하나되고, 국가들끼리 하나되고, 전부 하나돼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국가 가운데 기독교의 종파들이 하나되고, 종파 가운데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종파들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모셔 들여서 하나되게 되면, 일시에 세계가 복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천 년 동안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66-277, 1973.5.16) p.197

Top p.197

② 재림주의 할 일

오시는 주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사탄한테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영인들한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날 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천하에 무엇이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타락권을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때만 바라고 정성만 들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탄권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영계권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투쟁을 해서 사탄한테 승리하지 못하면 영계에 진전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영계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가더라도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권에서 승리권을 갖추고 그 다음에는 영계에 들어가서 승리권을 갖추어서 잡도(雜道)로부터 전부 다 거쳐서 최고의 종교, 기독교가 최고의 주류 종교라면 기독교까지 굴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 과정을 거쳐서 하늘땅에 승리했다는 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사탄과 영계의 승리자다!' 하는 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실천 노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사탄 마귀를 굴복시켜야 되고, 수많은 영인, 수많은 도주, 수많은 지도자들을 전부 다 일대일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종교와 이 우주가 어떻다는 것을 전부 다 납득시킴으로 말미암아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의 더 높은 사랑의 주인공 앞에 흡수되려고 하는 것이 이 만유의 존재들이다 이겁니다. 새나 개들까지도 자기를 더 사랑해 주는 동네, 자기를 위해 줄 수 있는 동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굴복시켜서 그들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통일권의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

대번에 기독교만 하나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기독교만 지상에서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계의 배경인 불교 문화권, 회회교 문화권 등 전체적인 문화권은 불가능합니다. 지상에 이 경계선이 남아 있는 한, 이것을 전부 다 타파하지 못하는 한, 그 뿌리가 되는 영계에 가서 하나될 수 있는 기원을 형성하지 못하는 한 지상에서 그러한 모든 색다른 문화권의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16, 1978.10.4) p.198

본연의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하늘땅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런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도 못 하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메시아가 가지고 나와야 할 종교, 하나님이 세워야 할 종교가 어떤 종교일 것이냐? 사랑을 중심삼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를 통일하겠다는 강력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힘을 가진 종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목적이 아니겠소? 그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목적이 아니겠소?' 하는 것입니다. (130-174, 1984.1.15) p.198

Top p.198

제 3 장
참부모의 필요성

1) 보편적 부모도 필요

본래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그 속에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열매를 가짐과 동시에 자식도 부모에 대한 열매를 가지게 함으로써 둘 다 완성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둘 다 거두어 가질 수 있다는 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가 필요하고, 왜 자식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영적이고 아들은 땅적입니다. 부자지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보이는 하나님의 가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열려서 아들의 열매도 맺히고, 또 아버지의 열매까지도 아들 가운데 옮겨 줄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매도 맺히고, 부모의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왜 필요로 하고, 자식을 왜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이라도 사랑을 가졌으면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라도 사랑을 가졌으면 상대가 필요한데, 이 상대적인 관계가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의 관계입니다. 수직 조건입니다.

이 절반을 자르면 절반은 영적인 세계요, 절반은 육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딸로 태어나서 역사해 보면 상대적인 극입니다. 극에서 태어나서 이게 커 가는 것입니다. 더 커 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찾아내야 되겠다고 해서 비로소 신랑 신부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현(上弦)하고 육적인 하현(下弦)이 통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점령하기 위함이요,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원하는 것은 땅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 하늘의 마음을 언제 아느냐? 자식 때는 모릅니다. 부모가 되어야 안다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점령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부자지관계는 영광스런 부자지관계다 이겁니다. 같습니다. 어느 누구를 뒤로 돌릴 수 없고, 어느 누구를 앞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럴 때 영광스러운 부자지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계와 육계를 점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없으면 불쌍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자식과 부모가 합해서 천주를 사랑으로 묶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등 모델에 불합격 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고 부모가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222-309, 1991.11.6) p.200

Top p.200

2) 세상 부모와 참부모

세상에서 여러분을 낳아 준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입장에 있느냐? 타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어, 저건 내 아들딸이야'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아들딸이 있었습니까? 하나의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옛날의 어머니 아버지를 버려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이 에덴동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 운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거기서 사탄은 전부 갈라놓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갈라놓고, 아들딸을 갈라놓고, 가정을 갈라놓고, 국가를 갈라놓고, 세계 전부를 산산조각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놓는 날이 끝날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말세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되면 새로운 일이 출발합니다. 우리 원리대로 말해서, 끝날이자 새로운 이상이 출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갈라진 것을 전부 통합해 나오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125-166, 1983.3.20) p.200

그러면 참부모가 뭐냐? 육신 부모와 참부모가 무엇이 다르냐? 사랑을 중심삼고 말할 때, 육신 부모와 참부모가 무엇이 다르냐?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부모는 육신을 중심삼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영적인 부모는 영적인 세계를 중심삼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만 있으면 될 텐데 영적인 부모가 왜 필요합니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면, 자기를 중심삼고 자꾸 내려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사탄세계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금이 그어졌습니다. 이것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129-99, 1983.10.1) p.200

참부모가 생겨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부모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세계에서 태어났지만, 참부모를 따라가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우리 집보다도, 우리 아들딸보다도 참부모의 나라와 그 가정이 더 좋아. 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면서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참부모가 사랑하게 된다면 아무리 사탄이 끌어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권은 본래 세계의 이상권이기 때문에 이 아들딸을 사탄이 못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통일교인들 가운데는 오색 인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통상의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회의 참부모가 있습니다. 특별한 부모입니다. 참부모는 여러분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통상의 부모는 레버런 문한테 가는 여러분을 납치해 가려고 하고, 여러분은 특별한 부모한테 가려고 아주 야단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부모는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상의 부모는 극성을 부리면서 '레버런 문은 사탄이다, 이단이다!' 하고 야단하지만, 참부모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우리는 특별한 부모다.' 그럽니까? (128-137, 1983.6.11) p.201

선생님은 뭐냐 하면, 3 시대의 부모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의 부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낳아 준 부모하고 참부모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한 시대의 부모의 자리에 있지만 선생님은 3 시대, 영계나 현세나 앞으로 올 시대, 이 3 시대권 내의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순과 뿌리입니다. 여기에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가지 부모입니다. 가지를 따라 순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 시대의 가지 부모지만 선생님은 3 시대의 부모라는 겁니다. 뿌리 시대의 부모도 되고, 줄기와 가지, 잎의 시대의 부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부모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전부 다 선생님을 따라한다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원리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라고 하니, 자식이 '우리 부모는 누구야?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1 대에 대한 부모이고, 선생님은 3 시대의 부모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종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할아버지도 부모, 아버지도 부모, 손자도 부모, 3 시대, 3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뿌리를 떠나서는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구, 가지 모양으로 돌아다니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뿌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순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가지가 그립다는 겁니다. 억천만 년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자리에 말라 죽도록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지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141-226, 1986.2.22) p.202

Top p.202

3) 참부모가 와야 할 이유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든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자녀만 되면, 하늘나라는 자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입니까? 민주주의 세계입니까? 민주주의는 앞으로 주님이 와서 정권교체를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과도기적인 주의입니다. 앞으로 지상에 주님이 나타나면, 전세계의 백성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백성은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계의 국가조직을 하나의 국가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가지고는 세계가 하나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실험이 끝났습니다. 미국 자체가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느냐? 미국 자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미국을 살리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통일교회의 사상, 레버런 문 주의를 중심삼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미국이 살길이 없고, 미국 국민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영계가 되어 있는데, 육계에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둘째는 참부모가 나타나고, 셋째는 참자녀가 나타나고, 넷째는 참국민을 통한 참국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고대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상에 나타나서 본연의 뜻을 이루기를 영계에 간 영인들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고대해 왔겠느냐 이겁니다.

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세계는 첫째는 사탄을 중심삼은 세계요, 둘째는 거짓부모, 즉 타락한 부모, 악한 부모를 중심삼은 세계요, 셋째는 악한 자녀를 중심삼은 세계요, 넷째는 악한 국가를 중심삼은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나 앞으로의 이상세계는 이것을 전부 부정해야 합니다.

통일교회에서 참부모라고 하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는 무엇이냐?' 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참아들딸이 되겠다는 자식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반대하고 내쫓았지만, 이제는 반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싸워 봐야 레버런 문을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탄권 내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총동원하여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결전입니다. (161-222, 1987.2.15) p.203

Top p.203

4) 참부모 출현의 전제 조건

참부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사장을 복귀하지 않고는 참부모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복귀하지 않고서는 참부모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신부를 복귀하지 않고서는 참부모가 나올 수 없습니다. 종교세계에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귀섭리를 해 나오는 데 있어서 모든 난관을 해결지은 자리에서 새로이 등장한 명사가 뭐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는 껄렁껄렁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부모는 천사장 복귀가 안 되면 안 나옵니다. 아담 복귀가 안 되면 안 나옵니다. 또 신부, 즉 해와 복귀가 안 되면 안 나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46-214, 1971.8.15) p.203

Top p.203

5) 참혈통은 참부모를 통해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거짓부모로부터 출발한 것을 참부모로부터 출발시켜야 됩니다. 거짓부모는 거짓 사랑에서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과 참혈통을 어떻게 이어받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본연의 씨를 받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참부모가 없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씨, 참부모의 새로운 생명의 씨를 재차 주입해서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본연의 참감람나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요, 참부모는 횡적인 부모로서 이상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218-223, 1991.7.29) p.203

민주주의는 형제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된다. 부모가 있어야 싸움을 그만둘 수 있다. 이러한 비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부모주의다. 하나님주의, 하나님을 중심삼은 주의다!' 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부모는 어떤 부모냐? 그 부모는 사탄세계에는 없습니다. 사탄세계에 있는 부모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게 소위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참부모가 필요하냐? 사탄의 사랑·생명·혈통 기반을 청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남자 여자가 그런 자리에 떨어졌느냐? 그것은 생식기 때문입니다. 본래 생식기는 사랑의 왕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의 왕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인 것, 그렇게 귀한 것이 인간의 생식기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생명, 사랑, 그리고 혈통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것을 사탄이 더럽혔습니다. (218-176, 1991.7.28) p.204

Top p.204

6) 참부모가 절대 필요한 이유

통일교인들은 선생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참부모라고 합니다. 이 참부모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또, 참부모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태로 한 가정을 모델로 하지 않고는 종족이나 민족, 국가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확대시켜 종족, 민족, 국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마의 세계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참된 가정의 모델을 중심삼고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악한 부모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타락권 내의 부모입니다. 그 말은 뭐냐? 타락한 전통권 내의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부모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도대체 참부모는 왜 필요하냐? 본연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심정 일치권을 중심삼고 모든 것이 하나되고,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환경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던 보금자리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일체 이상을 이룬 사랑권입니다. 그 사랑권이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랑권을 이루려니 참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권이 세계에 나오는 날에는 통일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세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 세계를 버리고, 그 나라를 버리고, 나중에는 이 가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38-277, 1986.1.24) p.204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는 누구냐? 친구보다도, 스승보다도 더 귀한 분입니다. 친구를 버리더라도 참부모를 따라가야 되고, 스승을 버리더라도 참부모를 따라가야 됩니다. 통일교회에 간다고 해서 친구가 '아이구, 너 나하고 이별이다.' 해도 이 길을 가야 되고, 스승이 '너하고 사제간 이별이다.' 해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이별이다.' 해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좋다고 할 수 있는 길을 갔다면, 거기에 역사적인 새로운 천지개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3-336, 1970.8.23) p.20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류는 참부모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축에 연결될 수 있는 원칙적인 이 일이 역사 이래 처음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축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 축이 무엇이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137-107, 1985.12.24) p.205

왜 참부모가 필요하냐? 참부모가 개인 책임분담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붙어 있는 세계적인 사탄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 탕감조건, 책임분담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자동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세계적인 탕감복귀, 책임분담을 완성하지 않으면 탕감복귀가 안 됩니다. 책임분담 완수하여 사탄을 떨어지게 하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됩니다. (137-106, 1985.12.24) p.205

부모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땅 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이 땅 위에서 고생하는 이유입니다. (217-354, 1991.6.12) p.205

여러분에게 참부모가 왜 필요하냐? 새로운 핏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는 믿음의 기대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실체기대의 시대이고, 성약시대는 새로운 이상시대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시대로서 하늘나라의 선한 핏줄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핏줄이 달랐습니다. 종합적인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본연의 전통적인 핏줄을 상속받아서, 이런 모든 진리를 알고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참감람나무의 새 순입니다. 여러분은 다 잘라 버리고, 참부모의 순을 접붙여야 됩니다. 부모의 순과 하나님의 순을 접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뚱이는 없지만 사상은 하나님, 참부모님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열매, 선한 아들딸을 낳을 수 있다 이겁니다. 사탄세계를 중심삼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아들딸을 낳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125-208, 1983.3.20) p.205

Top p.205

7) 참부모의 결정은 선견적 예지 예정권

끝날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타락으로 인해 악마의 사랑, 악마의 생명, 악마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흘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참부모'라는 이름을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종교가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압니까?

<격암유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정감록> 이후에 나온 것인데, 거기에 벌써 선생님의 이름이 예언되어 나오더라 이겁니다.

선생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생님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선생님을 봤겠습니까? 영계는 선생님이 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야 땅 위에서 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영계에서는 선생님의 치리권 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후에 나왔더라도 모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낳기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다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제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 세계 사람에게 밤중이나 새벽에 한마디 하더라도 백주(白晝)에 듣는 것같이 그렇다고 하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13-27, 1991.1.13) p.206

Top p.206

8) 선거로 선출될 수 없는 참부모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은 여태까지 가정을 찾기가 힘들었고, 교회를 찾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고, 자유세계가 망해 가는 것을 바로잡기 힘들었고, 공산세계가 망해 가는 것을 바로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문총재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복귀되었습니다. 장자권이 복귀되었다 이겁니다. 본래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자신이 장자권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아담 자신이 참된 참부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 자신이 왕 중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느냐?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땅의 대기업을 상속받을 그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악마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삼고 천지의 창조주 되는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영원한 혈족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참부모가 되어야 할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아담의 문화입니다. 아담 일족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왕권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민주세계는 지팡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형제주의입니다. 형제가 많으니 이것을 상속받게 대표를 세우려니 형제들이 전부 다 모여서 보다 희생하고, 보다 봉사하고, 보다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 식입니다.

민주주의는 세계주의이지만, 그 위가 부모주의입니다. 앞으로 부모주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선거로 선출합니까? 재림주를 선거로 뽑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불신풍조를 조성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전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별의별 놀음을 다 합니다. 금력을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모략 중상 등 별의별 놀음을 다 합니다. (211-343, 1991.1.1) p.206

Top p.206

제 4 장
참부모의 사명

1) 참부모의 입장

이 세상을 보면 제국주의 시대와 제왕시대 그리고 왕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 자녀 시대와 공산주의 종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사랑의 법을 중심삼고 치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가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마음을 중심삼고 본연의 세계가 생겼다면, 본연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연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하면 여자와 남자가 다 들어갑니다.

이 세계가 틀림없이 사탄세계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본연의 사랑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십억의 세계 인류가 참세계를 지도하고 하늘땅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연의 지도자는 어떻게 오느냐? 타락한 세계의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넘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본연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사람입니다. 그 참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사람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사랑이 뭐냐? 완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참부모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참사람의 대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큰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것 작은 것,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크고 작은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124-116, 1983.2.1) p.20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의 목적지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야 됩니다. 세계를 위해서 가야 하고, 세계를 위해서 주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주어야 됩니다.

참부모는 주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인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47-142, 1986.9.7) p.208

여러분은 레버런 문을 참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여러분도 제일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길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127-328, 1983.5.22) p.208

여러분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참부모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참부모는 사탄이 참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인하고 사탄이 사인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사장이 사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사인해야 됩니다. (117-160, 1982.2.28) p.208

Top p.208

2) 참부모의 길

지금 세계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손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산당과 싸우고, 윤리 파탄도 방어해야 되고, 종교가 무너지니 그것도 방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세계의 학자와 신학자들을 모아서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토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꿈도 안 꾸는 것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활동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렵겠습니까, 선생님이 어렵겠습니까?

부모는 자식보다 더 고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으니, 선생님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서 가정을 통하고, 종족을 통하고, 민족을 통하고, 국가를 통하고, 세계를 통하고, 우주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인류를 사랑해야 되고, 아들딸을 사랑하듯이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나 그것이 즉각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118-240, 1982.6.6) p.208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원무궁토록 같이 살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마를 한번 맞대면 천년만년 가도 떼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한테 손끝을 한번 댔으면 천년만년 가도 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런 원칙에 의한 부자의 관계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 원칙에 의한 부부의 관계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또, 그런 원칙에 의한 가정을 논하고, 그런 원칙에 의한 형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도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형제가 아니라, 천년만년 같이 있어도 싫지 않은 그런 형제 말입니다.

그것이 오색인종을 통해서 실천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내가 먹을 밥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 가지고 설거지까지 하고, 잠자는 것까지 다 보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참부모는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부모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점심 때도 잊어버리고 얘기하려고 하고 저녁 때가 지났는데도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선생님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년만년 너와 내가 살더라도 싫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너를 발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두 시가 되고, 새벽 두 시가 되고, 새벽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닭이 울고, 동이 터 오더라도 밤을 새워 가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들과 딸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형제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27-284, 1983.5.15) p.209

만일에 참된 인간이 있다면, 그 참된 인간은 오늘날 역사를 대표해 '인류여, 그대들이 가야 할 참된 표준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참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류를 대신하여 모진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찾아 나설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개척해 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만일에 그 길을 알고 있는데도 자기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된 사람이 아닙니다. (163-88, 1972.10.8) p.209

역사 노정에 참부모라는 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참부모까지 가려면 몇 급까지 거쳐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먼저 참된 종의 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거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참된 노동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참된 박해자도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싫다고 하면 참부모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도 참된 죄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되고,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의 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리입니다. 한 급 한 급, 참 종의 종에서부터 참 양자로 올라가고, 참 아들로 올라가고, 참 가인으로 올라가고, 참 아벨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의 종의 길, 양자의 길, 이런 길을 누가 가느냐? 그 길은 선생님이 가야 합니다. 선생님은 그 길을 가며 싸워서 살아 남아 승리했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선생님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입장에서 공산당한테 밟히고, 고문받고 채이고 할 때에 분했겠습니까, 안 분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에게 벼락을 내려서 전부 다 죽여 버리소!' 하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는 입장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던 겁니다. (116-113, 1981.12.27) p.210

Top p.210

3) 참부모가 되기 이전의 과정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부모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탄을 중심삼은 이 세계 위에, 하늘나라 참부모의 자리를 닦기 위한 수난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부모가 복귀해야 됩니다. 저끄러진 것을 부모가 전부 다 책임지고 탕감해야 됩니다. (131-62, 1984.4.1) p.210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인세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가인세계는 맏아들의 세계입니다. 가인세계는 타락한 맏아들의 세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반대할지언정 하늘의 사랑을 다해줬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사탄세계가 복귀 안 되는 것입니다.

장자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탄이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려면 장자인 사탄을 먼저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사탄에게 보이지 않고는 차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해와가 갈 길은 가인과 아벨을 하나 만들어서 아담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무리 우주적인 사랑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랑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124-73, 1983.1.23) p.210

선생님은 사랑의 관계에서는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에 있어서는 천주사적인 기록을 가질 수 있는 무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탄에게는 얼마나 위협이고,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희망적이냐 이겁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과 레버런 문, 하나님과 참부모가 이 길을 닦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가시철망을 뚫고 헤쳐 나오며 닦아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핏자국과 눈물 자국은 말할 것도 없고, 비참한 고문의 채찍 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와 땅 부모를 상심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보물창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옥을 없애고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216-325, 1991.4.15) p.210

참부모는 두 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분이 없으면 참부모의 기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기준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실체의 참부모가 세워지지 않으면 실체세계에서 승리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계에서 승리의 조건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참부모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영적인 세계의 발판에 해당되는 발판을 이 지상에 닦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시는 참부모는 이것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땅과 하늘을 대신하여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의 기간이 40 년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40 년 기간에 오시는 참부모는 어떤 싸움을 거쳐야 하느냐? 우선 영계에서 영적인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 실체적인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영육 합하여 참부모의 인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6 천 년 섭리역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960 년에 부모의 날을 설정했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영육 합하여 참된 승리의 기점을 잡은 날이요, 참부모의 이념이 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루에 지나지 않고 그날의 인연은 부분적인 인연에 지나지 않지만, 이 인연은 천주사적인 인연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하여 영계와 육계에서 동시에 계획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계와 호응할 수 있는 기반, 비로소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는 터전이 닦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기반이 닦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일치되는 가정적인 기반, 종족적인 기반, 민족적인 기반, 국가적인 기반, 세계적인 기반만 닦아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대로 전체적인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시고 낙원에 가셔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수습하여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 계십니다. 참부모가 세계적인 승리의 판도를 지상에 닦을 수 있는 노정이 어떤 노정이냐 하면, 4 년 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4 년 노정에 영계와 육계가 일치하여 승리의 기점을 세우는 날에는 온 세계의 인류가 낙원 이상의 영계로 행군할 수 있는 시대적인 혜택권 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과정을 거쳐 나가는 데 있어서 오시는 참부모는 개인적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단계에서 세계 인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고, 가정적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단계에서 세계 인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고,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단계에서도 세계 인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야곱은 에서와의 개인적인 투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귀의 조건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 가서 하늘이 협조하는 가운데 가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야곱의 후손은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탄세계인 애급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늘의 협조로 구출되어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7 족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복귀노정 40 년을 거쳐 나가면서 비로소 사탄세계에 대하여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40 년 광야노정 이전에는 3 일 노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 일 노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복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다시 40 수를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복귀섭리가 이런 노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40 년 노정을 거친 후 3 년 노정을 걸어야 하고, 4 년 노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년 노정과 4 년 노정을 합하면 7 년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복귀역사를 종결짓고 하늘의 주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래는 33 세부터 7 년 노정을 걸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부모의 기준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만물복귀의 기준을 세워서 40 세에 모든 것을 종결짓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으나, 예수님이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다시 오시는 참부모가 내적 외적인 싸움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40 년 준비 기간, 혹은 투쟁 기간을 거쳐 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40 년 준비 기간이었지만, 이것이 내적으로는 투쟁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영적으로 승리의 기반을 닦아서 비로소 지상에 영육을 합한 실체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참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3 년 노정을 거치고 만물복귀의 기간, 즉 사방성을 갖추기 위한 4 년 노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년 노정으로서 탕감복귀를 종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찾기까지의 3 년 노정, 4 년 노정, 40 년 노정은 짧은 노정이지만 역사적인 모든 슬픔을 전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요, 역사적인 분함을 총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요, 역사적인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입니다. 역사적인 모든 슬픔과 고통과 분함에도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참부모의 날, 참부모의 승리의 날은 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대신하여, 참부모의 인연을 대신하여 뜻을 책임지고 받들어 나오는 우리 통일교회는 그래서 이런 시련을 자초해서 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세계와 분별된 자신을 세우고, 참부모가 승리의 한 본보기를 취해 사탄세계를 심판할 수 있는 참자녀의 기준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종족, 민족, 국가의 기준을 세워 놓지 않고는 참부모에 대한 본연의 뜻을 지상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나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여러분은 참부모의 개인적인 대신자요, 가정적인 대신자요, 민족적인 대신자요, 국가적인 대신자들입니다. 이런 부모의 대신자로서 지금까지 한국은 물론이요, 세계 무대에서 책임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영계와 육계의 슬픔이 무엇이었느냐? 본래는 참부모가 이 땅에 나타나면, 그날부터 하늘땅이 평화를 노래해야 되고, 온 천주가 행복권 내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상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3-285, 1964.4.12) p.213

선생님이 참부모를 선포할 때까지 고생을 얼마나 하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감옥살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여섯 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참부모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불쌍한 왕 중의 왕이 선생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 어떻고 어떻고 하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211-161, 1990.12.30) p.213

선생님은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입했는지 모릅니다. 피눈물을 얼마나 쏟았고, 땀을 얼마나 흘리고, 얼마나 한숨을 쉬었겠어요? 내가 밥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상세계, 천상세계,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역사시대에 문총재 외에는 없습니다. 참부모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배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념만이 아닙니다. 실전무대에서 실제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 기반을 닦아 나왔기 때문에 세계 만국이 숙연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210-363, 1990.12.27) p.213

Top p.213

4) 참부모의 권한과 사명

참부모가 이 땅 위의 인간들 앞에 뭘 하려고 찾아오느냐?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을 참부모, 작은 참부모로 만드는 일입니다. (125-117, 1983.3.14) p.213

참부모님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사이에 막힌 길을 다 열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지상세계에서부터 영계의 지옥, 천상의 자리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4-127, 1985.2.5)

참부모는 영계와 육계를 중심한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계에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영계에 통일기반을 닦아서 영계의 왕권기반, 소생적 장성기반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않고는 참부모가 지상에서 완성기준을 이룬 자리에 영계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140-53, 1986.2.1)

여러분은 선생님을 참부모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을 낳아 주지도 않았는데 부모입니까? 한 가지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본래의 사랑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뭐냐? 여러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듣는 이게 사회의 정의입니까, 악입니까? 정의입니다. 천주의 원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118-147, 1982.5.23) p.214

참부모는 뭘 하는 사람이냐? 거짓자녀들을 끌어다가 참자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들이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편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는 아들딸을 소화해서 단계적으로 가정 기준, 종족 기준, 세계 기준까지 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149-279, 1986.12.7) p.214

선생님은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종의 종과 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서 하나되어야 하는가를 보여 주기 위한 일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전부 다 이루어 놓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135-140, 1985.10.4) p.214

참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책임적인 조건을 세울 수 있어야 참부모가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에는 기독교, 천주교·불교·유교·모슬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불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종교가 하나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색 인종이 하나될 수 있다 이겁니다. (118-270, 1982.6.13) p.214

원리결과주관권(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 사이에 담이 생긴 것을 탕감해야 됩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하늘땅의 담을 전부 다 탕감해야 됩니다. 원리결과주관권이 사탄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중간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고, 인간이 밑에 있고, 사탄은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담을 뚫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이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거기서 사탄은 언제나 간접주관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결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종교를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그게 유대교였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독교까지 내려온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참부모는 이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을 연결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걸려 있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담을 어떻게 부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사탄대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 역사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대결해 나오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사탄이 하나님에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탄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언제나 사탄을 제거하는 일을 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리에서 이 일을 진척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탕감노정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인간의 책임분담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책임분담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책임을 메워 갈 것이냐 이겁니다.

사탄은 그것이 메시아의 책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총출동시켜서 참부모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탄의 담을 부수는 일을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영계까지 거쳐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길을 모두 거쳐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원리를 딱 내세우고 나온 것입니다. 사탄의 혈통을 받아서 타락한 부모로 시작한 것을 어떻게 인류의 참부모의 자리로 복귀시키느냐 하는 것을 고심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960 년 부모님의 성혼식이 역사상에 처음 벌어진 것입니다. 타락한 부모에서 복귀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을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전부 다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1-70, 1984.4.16) p.215

Top p.215

5) 참부모의 사랑

여러분이 진짜 '나'를 찾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나는 해방권에 있는 것입니다. 본연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본연적인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본연적인 혈통의 역사를 이어서 태어난 것이 본연의 나입니다. 그 나를 찾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부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를 찾았을 때 내 속에는 이미 두 사랑의 본연상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빼 버릴 수가 없고 참부모에게서 빼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지체(肢體)인데, 그 지체 된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포를 예로 들어 봅시다. 세포는 잎의 세포나 뿌리의 세포나 같습니다. 요즈음은 세포 번식을 해서 식물도 번식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잎에도 뿌리의 요소가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은 우주의 모든 주관성의 핵입니다. 주체성의 영원한 표준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전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고, 형제가 있으면 형님을 대표할 수 있고 동생을 대표할 수 있고, 누나를 대표할 수 있고, 누이동생을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일족이 환영하게 되어 있지 싸우지 않습니다. 반발이 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흡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것이 원리의 핵입니다.

나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것도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완성의 자리에 가려면 결국 하나님을 찾고, 참부모를 찾아 가지고 접붙여야 됩니다. 다 커 버려서 다시 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본연의 사랑, 참부모의 사랑을 완성한 남자로 오는 분입니다. 본연의 이상적인 대신자로 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말을 할 적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해방, 생활권에서 해방, 혈통권에서 해방받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악마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문화권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생활권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한 아담의 자리에 서니, 태어난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는 참부모의 사랑이 깃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조화의 근본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혈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202-283) p.216

Top p.216

제 5 장
천국과 참부모

1) '천(天)'자와 '부모(父母)'자의 또다른 의미

하늘 천(天)을 풀어 보면 두 사람입니다. 인(仁)도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은 어떠한 두 사람이냐? 완전한 사랑을 중심삼고 천지가 종적으로 하나되고 횡적으로 완전히 하나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입니다. 천지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겁니다. (186-60, 1989.1.29) p.216

천지(天地)간에 있어서 하늘(天)이 먼저냐, 땅(地)이 먼저냐? 지천(地天)이냐, 천지(天地)냐? 부모(父母)도 부모(父母)냐, 모부(母父)냐? 부부(夫婦)도 '지아비 부(夫)' 자하고 '며느리 부(婦)' 자가 거꾸로 된 부부(婦夫)냐, 올바로 된 부부(夫婦)냐? 올바로 된 부부여야 됩니다. 지천(地天)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천지(天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하늘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父母)는 왜 어머니가 먼저 안 되고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버지 부(父)' 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모(母)' 자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집 녀(女)' 자를 둘 갖다 거꾸로 뭉쳐 놓은 것입니다. 그거 참 재미있습니다. 그게 '어머니 모(母)' 자입니다. 여자를 두 사람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거꾸로 갖다 맞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땅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마음을 가진 여자가 되고, 땅의 여자를 대표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되어서, 그 두 마음을 맞추어 놓아야만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부(父)' 자를 봅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떼어 놓으면 '사람 인(人)' 자가 두 개입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갖다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자는 남자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혼자가 아니라 둘을 갖다가 묶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묶어져서 한 가지로 행동할 줄 알아야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걸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또, '하늘 천(天)' 자는 무엇이냐? 하늘이란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二)이 있어야 하늘(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천(天)'은, 두 사람을 갖다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지아비 부(夫)' 자는 무엇이냐? 이게 꼴불견입니다. 감투를 쓰고 하늘보다도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두 사람이 서로가 좋아하면 하늘 꼭대기까지도 뚫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말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미남이요, 이만큼 훌륭한 남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아버지가 필요 없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대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만 남으소!' 하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안에서 여자 가장이 되려고 하니,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만 혼자 사소!' 하는 그런 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둘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9-182, 1972.7.16) p.218

Top p.218

2) 땅에서 참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유

영계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아담을 중심삼고 컨트롤하는 나라입니다. 또, 지상천국은 그 후손들을 중심삼고 세계가 컨트롤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틀림없이 조상권 내를 찾아가는데, 그 조상들이 몇천만 명이 되겠습니까? 그 조상들을 다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그들에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패스하는 원칙이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선조들의 가정에 가서 패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저나라에서도 수많은 조상, 수많은 가정, 수많은 민족들이 연결되고 세계가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할 때, 내가 걸리지 않고 패스될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간단한 말로 하면, 참부모의 이상 전통입니다. 참된 가정은 참된 부모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참된 부모는 가정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대통령은 뭐냐? 그 나라의 참된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면 미국이 참된 부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므로 국민은 그 대통령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모시고 더 하나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가정을 넘고, 자기의 아내를 넘고, 자기의 부모를 넘어서 나라하고 하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보다 더 큰 것이 이상입니다. 자기 가정의 참부모보다도 나라의 참부모를 더 위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갈 길이 막혀 버립니다. 거기에서 환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닥터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가정의 참부모권을 능가하는 국가의 부모를 더 위해야 되는 것이 본래 이상세계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부모권은 세계 부모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부모가 세계 부모를 더 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세계적인 참부모권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곳입니다. 인간 세상의 최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의 참부모, 국가의 참부모까지도 희생하는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운동입니다. 세계의 참부모권을 위한 가정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는 것이 통일교회운동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부모, 국가부모를 모두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의 중심이 될 때는 개인과 가정을 얼마나 희생시키고, 나라와 국민을 넘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전통적인 요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18-234, 1982.6.6) p.219

Top p.219

3) 천국은 참부모를 통해야 가능

여러분 스스로는 천국을 못 이룹니다. 그건 부모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신(聖神)과 하나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 화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편의 감람나무에 접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이니까 접은 못 붙입니다. 재림시대에 참부모가 와서 접붙여 주는 것입니다.

천국 건설은 그게 기본입니다. 공식이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그걸 누가 가를 수 없습니다. 부자의 관계를 누가 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되면 그 사랑을 누가 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가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부부가 둘이 하나되어서 아담과 해와와 마찬가지로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부부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느냐, 그 사랑권 내에서 아들딸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족 천국이 개문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37-185, 1986.1.1) p.219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부모를 거쳐야 됩니다. 참부모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나왔습니다. 참부모가 나왔으면 그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된 가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에서도 이 참가정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것을 전부 다 부정해야 됩니다. (44-140, 1971.5.6) p.219

여러분은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가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려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 나라의 공인된 시민권을 새로이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인받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탄이 동서남북을 통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도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민권을 갖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48-288, 1986.10.25) p.220

전세계의 인간들은 참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상세계의 본연적인 고향땅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지옥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하는 나라와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 가지고 통일교회는 세계적인 메시아권의 승리를 이어받고, 국가적인 메시아권을 넘어서 종족적인 메시아권으로 찾아 내려온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종족권을 중심삼고 사탄의 가정에 들어가서 세계와 교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통반 격파는 가정의 기준에서 참부모의 아들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참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부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남편, 자녀의 기준을 중심삼고 일족, 일국, 일세계를 잃어버렸던 것을 재현시켜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 만민을 내 아들딸로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고 선포해야만 지상에 해방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10-42, 1990.11.30) p.220

성경을 보면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린애들에게는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밥 먹어도 엄마 아빠, 잠을 자도 엄마 아빠, 그저 엄마 아빠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철이 들어 가지고 아무리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도 그 아빠 엄마라는 건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종적인 아버지요, 참부모는 횡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배우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풍습을 배우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고향에도 가고, 어디 가든지 그 나라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탕감을 부모님이 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만민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인류를 해방해야 하나님이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5-19, 1992.1.1) p.220

Top p.220

4) 천국과 참사랑

참부모를 중심삼은 데서부터 이상적인 역사의 출발, 새로운 문화의 출발, 새로운 사랑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이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 새로운 가정의 출발, 새로운 국가의 출발,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부모라는 말은 그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의 말이 아닙니다. 이런 후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라도 망했고, 개인도 망했고, 가정도 망했습니다. 이 자리는 수억천만의 희생된 제물의 피가 호소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벨이 가인한테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참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전부 다 해원성사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런 놀라운 탕감의 길을 똑바로 놓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바로 통일교인들입니다. 그것을 진짜 알게 된다면 내 생명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는 불평은 꿈에도, 천 번 죽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67-226, 1973.6.27) p.221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뭐냐 하면,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왕국과 지상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안 가지고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자이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 가 있소?' 하고 물어 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은 참부모의 완성과 사랑의 기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영계에 가서 왕국을 통일하는 것은 참부모의 사명이지,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부모가 못 되었으니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에는 아직까지 참부모의 사랑을 받아 본 물건도 없거니와 받아 본 사람도 없고, 나타난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그런 기반이 생겨나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적이고 횡적인 원리 기준, 공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31-182, 1984.5.1) p.221

천국은 남자 여자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수직선을 센터로 해서 수평선이 통일되어 있는 곳이 본연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남자 여자가 싹 그 가운데서 핵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같이 딱 둥글어지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거기서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수직적인 나입니다. 몸은 뭐냐 하면, 수평적인 나입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수직적인 마음은 하나님이고, 수평적인 몸은 뭐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그것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수직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수직적입니다. 몸은 보이지만 수평적입니다. 90 각도, 이것은 남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대우주의 축소체입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영계가 있습니다. 영(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보이는 몸은 세계의 대표입니다. 둘이 센터를 중심삼고 완전히 사방을 돌아다녀도 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이 참사랑의 핵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 개인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언제 무엇으로 하나된다는 것입니까? 참사랑으로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참사랑이냐? 수직적인 참사랑과 수평적인 참사랑입니다. 두 종류의 사랑입니다. 이건 90 각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과 핏줄을 이어받아서 구성된 열매가 나입니다. 이것이 참사랑, 종횡의 참사랑을 핵으로 해서 하나되어야 됩니다. (217-150, 1991.5.19) p.222

Top p.222

5) 참부모와 영생

여러분이 상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녀를 얻었으면 '아, 내가 하늘나라를 거느리고, 하늘나라 전체를 거느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따라간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지상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통일종족을 받고, 통일세계를 받고, 통일의 하늘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 참부모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 우주 전체를 상속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부모주의입니다. 참부모주의가 이렇게 훌륭한 것이다 이겁니다.

뜻을 위해서 충성하려는 통일교회 패들은 한국에 가도 통일교회가 우리 것이고, 남미에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 어디든지 우리 것입니다. 참부모가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을 만나서 영원히 하나되겠다고 결심하고 영원히 하나되게 되면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저 별나라에 가 있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지지직' 하고 방향을 맞춥니다. 방향을 맞춰 '선생님, 아버지!' 이러면 대번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참부모의 자리에 휙 온다는 겁니다. 그게 참부모의 사랑주의입니다. 그러면 째까닥 방향이 들어맞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눈물지을 수 있는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때우기 위해서 오늘날 참부모가 나온 것입니다. 참부모가 그 운동을 재현시켜서 조건을 세웠다는 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124-41, 1983.1.16) p.222

우리 통일교회에서 주인이 누구냐 하면 선생님입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위했습니다. 또, 스승입니다. 누구도 내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나만 못합니다. 한 달을 못 가서 평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에 가서 땅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있으면 땅구덩이를 파서라도 모셔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 문선생 같은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참부모라는 말을 중심삼고 볼 때, 세상 하늘땅의 복을 전부 갖다 주고 영생을 보증할 수 있는 증서를 줍니다. 사탄과 하나님 앞에 입증서를 줍니다. 그걸 압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자기 조상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것을 받고 난 그날에 자기의 3 대조가 와서 경배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200-73, 1990.2.23) p.223

Top p.223

6) 참부모와 나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가 여태까지 왜 희생을 했느냐? 그건 종족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희생해서 나라가 통일되고 세계가 통일되면 뭘 하느냐? 통일된 그곳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한 그곳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항상 희생봉사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기분 좋습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습니다. 레버런 문이 지금까지 미국을 대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하나 만들게 될 때는 부모의 뜻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에서는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부모가 이 자리에 들어와도 오 케이, 이 자리에 들어와도 오 케이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연결된 부모의 자리로서 종적인 심정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수직은 수직인데 이러한 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이고, 그 다음에는 가정의 부모고, 그 다음에는 종족의 부모고 민족의 부모입니다. 더 커집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맨처음에 이 참부모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센터를 중심삼고 볼 때 부모는 부모인데 하나는 가정의 부모요, 종족의 부모요, 민족의 부모요, 국가의 부모요, 세계의 부모입니다. 나중에는 이 부모권을 중심삼고 나라가 센터가 되어서 부모권의 나라를 중심삼은 세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18-267, 1982.6.13) p.223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가 되었으니 장자권과 부모권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장자권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부모권을 이어받고, 그다음에는 왕권을 연결할 수 있는 나라를 찾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찾으면 세계의 나라는 다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리적으로 이론적인 결론이 여기에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없습니다.

앞으로 그 자리에 축대로서 세울 것이 있다면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입니다. 이 세 분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어머니 아버지는 참된 스승입니다. 이 세상이 모르는 것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을 샅샅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 스승 중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선생님도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왕권을 복귀하게 되면 주인 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3 대 주체사상이 뭐냐 하면 참부모의 사상, 참스승의 사상, 참주인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참부모의 패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에도 대통령을 중심삼고 계열이 있습니다. 국가 조직을 보면 교육부처인 교육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스승의 패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행정부처는 신경의 주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올라가기 때문에 행정부처는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3 대 주체사상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언제나 종적인 자리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과 행정부처는 상대적입니다. 이게 가인 아벨과 같습니다. 이 가인 아벨이 완전히 하나되게 될 때는 그 왕권은 영원불멸의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3 대 주체사상은 자주성(自主性), 창조성(創造性), 의식성(意識性)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론(人間論)을 중심한 것이지 사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신을 모릅니다. 거기에는 본체론(本體論)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은 힘있게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208-241, 1990.11.20) p.224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나라를 볼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독립 용사로서 일선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대표하고 우주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걸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느냐 이겁니다.

이 땅 위에 참부모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짓부모로서 이렇게 나오던 것을 절반을 잘라서 이 터전을 중심삼고 여기서부터 이 반대의 부모의 문을 통해서 전부 다 몰아넣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옥으로 가던 길을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부모의 문이 없습니다. 통일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의 지난날을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친구 이름까지도 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집간 여자들이 과거 첫사랑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가 생각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 모두어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참부모님하고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딴 것이 끼어서는 이 직선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도 교회의 축복, 나라의 축복, 세계의 축복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3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영(零)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아들딸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딸이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영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아들딸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참부모의 소유입니다. (208-342, 1990.11.21) p.225

Top p.225

제 6 장

참부모와 우리

1) 통일교회의 가르침의 핵심

① 부모 철학

여러분이 효자가 되려면 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는지, 참으로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통일교회에 나와서 효자 효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어린애였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깨물고 빨고 하는 어린애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철학이 있다면 부모 철학일 것입니다. 부모 철학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배를 통해 태어났지만 양자 양녀들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 앞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만으로는 절대로 하늘의 자녀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자녀를 두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늘의 부모가 먼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맏아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었던 가인이 천도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배반했던 가인의 노정을 거꾸로 밟아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은 전부 다 애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무엇이 어떻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애기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뱃속과 아버지의 뼛속을 통하여 다시 나와야 됩니다. (16-191, 1966.3.22) p.226

종교의 차이는 있을망정 어차피 좋은 길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굴러가게 마련입니다. 교파를 주장하던 종교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주관의 심정권에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을, 완성기 소생급에서 시작하여 완성기 장성급, 완성기 완성급까지 7 년노정에 해당하는 기간을 남긴 여기에서 부모님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탕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래의 선상에서 간접주관권 내로 떨어져 타락한 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직접주관권의 평형선상에 접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참부모를 중심삼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상은 참부모의 사상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의 요사스런 사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의 사상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사상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참부모의 사상 하나뿐입니다. (136-51, 1985.12.20) p.227

Top p.227

② 참된 가정-우주의 중심을 결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된 부모가 나오면 참된 가정이 성립되는 것이요, 참된 사람의 목적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영원히 찬양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참된 부모, 참부모입니다. 참부모가 이 땅 위에 현현했다는 사실, 참부모가 이 땅 위에 계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기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사악한 인간들 앞에, 악이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갖추지 못하고 사망권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에 참된 부모의 인연이 성립된 것은, 하나님의 6 천 년 역사적인 수고의 공적의 열매입니다. 또한 많은 인간들이 갈 곳을 모르고 방향을 가리지 못하는 이 시대 앞에 갈 곳을 찾아 주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모델로서 나타난 것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이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 에덴동산에서 출발되어야 했던 영원한 미래의 천국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역사적이요, 시대적이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보게 될 때, 이 땅 위에 현현한 참부모는 우주의 중심을 결정하는 중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열매맺히고, 여기에서부터 수습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여기에서 열매맺히기 때문에 과거가 여기에서 부활되는 것이요, 세계가 여기에서 하나의 세계로 수습되는 것이요, 하나의 세계가 기원이 되어 새로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시대에서 인류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소망은 미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소망을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의 세계를 향해서 갑니다. 미래를 두고 하나의 세계를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류 가운데에서 참된 부모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인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된 부모를 맞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인간들의 최고의 희망이기 때문에, 참부모가 현현하면 역사적 전통은 미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가 현현한 현실권 내에서 성사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나타나면 참부모가 나타난 거기가 역사의 완성의 출발점이지 완성을 바라는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이 출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원성사가 출발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44-132, 1971.5.6) p.228

참부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참부모의 가정은 역사적인 열매요, 시대의 중심이요, 미래의 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소망의 천국이 될 때, 거기에 전통의 본국은 참부모님이 살아가신 그 생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사상적인 모체가 뭐냐 할 때, 이것이 국가의 사상적인 모체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를 창건할 수 있는 기원이 뭐냐 할 때 이것이 세계를 창건할 수 있는 기원입니다.

언제든지 참부모와 더불어 참부모의 자녀 된 인연을 중심삼고 3 대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모,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3 대입니다. 횡적으로 보면, 선생님, 선생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3 대입니다. 이 3 대권을 갖추어서 완성하지 않으면 하늘땅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4-169, 1971.5.6) p.228

하늘의 기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착지해야 됩니다. 가정에 착지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은 부모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삼은 사진을 걸고 거기에 사위기대가 경배해야 됩니다. 3 대가 경배해야 됩니다. 사위기대는 3 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이렇게 3 대가 경배를 해야 됩니다.

참부모의 이름과 더불어 사위기대권을 이루어 경배하는 곳은 타락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해방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에 간 모든 영인들이 지상에 와서, 천사장이 아담 가정을 보호하듯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인권이 영계가 되어 있고, 아벨권이 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할 때였기 때문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장자권을 복귀했으니 영계가 천사세계이고, 오늘날 통일교회를 중심삼은 가정이 아담권이기 때문에 아담권을 후원하게 되어 있지, 이용해 먹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개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은 추방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두 기준을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전진적 자세와 평형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준을 갖추어 가지고 전진해 가면 악마의 세력권은 벼랑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가정마다 불을 붙이자 이겁니다. (211-349, 1991.1.1) p.228

Top p.228

③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종적인 부모의 사랑이고, 참부모의 사랑은 횡적인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인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종적인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받은 전통적인 열매이고, 몸은 횡적인 참부모의 사랑을 받은 전통적인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서로서로가 횡적 가정 기반이 되어 종적 중심을 중심삼고 구형을 이루려니까 부부를 이루어 아들딸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딸을 안 낳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뼈가 없는 살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리가 안 잡힙니다. (184-309, 1989.1.1) p.229

해와는 여성 성품, 아담은 남성 성품을 중심삼고 분립해서 무엇으로 또 하나되느냐? 갈라졌다가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내적으로 품고 있던 사랑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게 사랑이 있지만 사랑을 모릅니다. 상대를 만남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이고,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참사랑을 중심삼은 부모입니다. (185-187, 1989.1.8) p.229

하나님은 사랑의 뼈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뼈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살사랑'입니다. 뼈와 살이 하나돼서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뼈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은 뼈사랑입니다. 참부모의 사랑은 살사랑입니다. (181-206, 1988.10.3) p.229

Top p.229

④ 부모와 식구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의 역사도상에서 이 식구라는 명사를 깨우쳐 준 자가 없었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가정을 떠나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식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이 있어야 하고, 그 가정이 있기 위해서는 형제가 있어야 하고, 형제가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교인이나 신자라는 명사는 썼지만 식구라는 명사는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외적인 면에서 세계 대가족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대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모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식구 가운데 참식구가 있고, 그와 반대되는 식구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 입장에 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천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식구라는 명사를 가진 참식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가져야 됩니다. 형제가 되기 위해서도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는 여럿이지만 부모는 하나인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식구는 여럿이어도 주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나 주인은 누구를 중심삼은 부모요, 주인이냐? 나를 중심삼은 주인이 아니요, 나를 중심삼은 부모가 아닙니다. 형제를 중심삼은 부모요, 식구를 중심삼은 주인인 것입니다. 악한 세계에서 악과 접할 수 있는 주인이요, 악과 접할 수 있는 부모일 것인가? 악과는 상관없는 주인이요, 부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으로 계시는 부모요, 주인이라 할진대, 그 부모는 가정이나 한국 백성이면 한국 백성을 위주로 한 부모요, 주인일 것인가? 아닙니다. 온 세계 인류 전체의 부모요, 하나의 대가족을 위주로 한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요, 부모요, 중심의 자리에는 누가 서야 하느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서야 되느냐? 악한 세상을 세계적으로 수습할 하나님의 대신자, 즉 구세주가 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일체 된 구세주를 부모로 지상에 모실 수 있어야만 비로소 참다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구세주를 참되게 모시는 자만이 참다운 자녀와 참다운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15-294, 1965.12.7) p.230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만을 걸어야 되고, 형제 아닌 형제가 되어야 되고, 부모 아닌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부모 아닌 부모를 모시고, 형제 아닌 형제들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혈육지정(血肉之情)을 넘어가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족을 초월하고, 세계를 초월하여 신문화 창조가 벌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생명력 중심삼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중심삼고? 하나님의 지혜 중심삼고? 지식 중심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아야만 가능합니다. (83-177, 1976.2.8) p.230

Top p.230

2) 참부모 재세시 동참하는 가치

이 세상에 참부모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하고, 통일교회에서도 선생님을 '아버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아버님하고 북한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둘이 맞섰습니다. 이 둘이 서로 자기가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부모는 내 것이라고 하고, 사탄도 그 부모를 내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누가 공판지어야 되느냐? 인간이 지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부모는 이런 분이라야 됩니다.' 하고 부모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부모는 이래서 악한 부모요, 선한 부모는 이래서 선한 부모입니다. 선한 부모를 찾아 나오는 것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부모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서서 결정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디에 귀결되느냐? 참부모를 만나는 데입니다.

부모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죽은 부모가 천년 후에도 다시 나타납니까? 인류의 부모가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소원이요, 국가의 소원이요, 사상의 소원이요, 섭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타나는 때는 전무후무한 때요,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제일 꼭대기입니다. 좁다면 얼마나 좁을까요? 영원한 세계를 두고 보면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숨 한 번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재수가 있어 그런 건지 복이 있어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살면서 이 한때를 만나 통일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선조들이 정성을 들이고 또 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선이 밟히는 자리에서 죽어 갔지만, 그 천 사람 만 사람의 인연을 거쳐서 돌고 돌아 그 인연이 하늘에 이어져서 해가 떠오르는 높은 산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햇빛을 바라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랑이라는 인연이 나온다면, 그건 처음 나오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이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세계의 주권을 보다 가치 있는 내용으로 긍정시킬 수 있는 때도 이 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는 역사의 기원이요, 희망의 초점이요, 만복의 출발점이요, 영원한 생명의 발원지입니다.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는 미래의 소망을 찾아 나왔지만, 미래에는 이 때가 영원한 소망의 기준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때를 중심삼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이 때의 심정을 체득해서 나가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이 때가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상의 실체로 온 참부모는 참부모의 심정의 자리에 속할 수 있는 규범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모를 것입니다.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부모이기 때문에 악한 부모와 달라야 됩니다. 악한 자식을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후덕(厚德)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한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입장에 있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도리어 울면서 쫓아가 천만세의 한을 풀기 위해 애원하고 비록 서로가 잘못했지만 이별하기 싫어 통곡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 돼야 될 참부모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다릅니다. 부모로서 지녀야 할 심정적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맞을 수 있는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심정적인 자세와 규범은 어떠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효자를 대표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계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각국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챔피언과 마찬가지로 자기 종족에서 선출된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챔피언이냐? 효도하기 위한 챔피언이요, 충성하기 위한 챔피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챔피언의 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래야 되고, 부모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통일교회 선생이란 사람은 뿌리가 다릅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억천만세의 한을 남길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자신의 그 무엇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걸려 있는 세계, 자기가 걸려 있는 민족, 자기가 걸려 있는 종족, 자기가 걸려 있는 가정에 있는 짐을 한꺼번에 진다고 해서 그 자리를 인계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공산세계를 망하게 하고 민주세계를 망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를 전부 다 희생시키더라도 이것을 침해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초점상에 있는 여러분인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효자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충신이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51-354, 1971.12.5) p.232

현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참부모를 중심삼고 동시대에 처한 때입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흐름 가운데, 고기 토막으로 말하면 맨 가운데 토막과 같은 기간입니다. (46-167, 1971.8.13)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의 교회당(敎會堂)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축수를 드리길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눈 위에 꿇어 엎드려서 예배 대신 통곡하면서 불쌍한 이 교회, 이 전당을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 신세가 돼 있습니다. 이 통일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비통한 역사의 섭리적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각 나라가 환영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조야에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가정이 비로소 인류의 가정으로서 가정의 붕괴를 방어할 수 있는 길이요, 청소년 윤락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소망적인 하나의 등대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선생님의 피살이 얼마나 깎이고 한의 눈물과 곡절을 얼마나 많이 거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축복가정 커플들을 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한 쌍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늘은 많은 혈족의 손길을 거쳐 한때에 선생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참부모가 사는 당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시대에 지구상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에 앞서 축복의 기반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백만장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같았으면 오늘의 통일교회가 생겨났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감옥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감옥 정문을 통해서 뒷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살 수 있는 가정, 선생님이 머물 수 있는 교회, 선생님이 머물 수 있는 일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세계 판도를 다 닦았습니다. 거기에 대비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다 닦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학자세계의 모임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백 곳 이상, 언론계 조직,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상 회담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마음을 대표한 종교권 연합, 몸을 대표한 정치권 연합으로 세계평화종교연합과 세계평화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내 개인에서 몸 마음의 투쟁역사로 갈라진 것을 이제 끝날에 와서 수습하지 않고는 인류의 살길을 수습할 도리가 없는 것이요, 평화의 세계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받으면서도 혼자 하는 것입니다. (211-336, 1991.1.1)

Top p.232

3) 참부모의 수고와 우리

① 참부모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가 필요한 것은 탕감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된 기준에서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137-116, 1985.12.24) p.233

미국이 선생님의 원수와 같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섯 개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로부터. 세상 같았으면 복수를 다 할 텐데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탕감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또,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있어야 되고, 혈통적으로 중생하는 데도 참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37-113, 1985.12.24) p.233

Top p.233

② 우리는 참부모에 접붙인 가지

본래 인간은 횡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을 종적인 부모로 삼고 종횡의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아 기쁨의 출발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빼서 붙여 가지고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감람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받아 접붙여야 됩니다.

종교는 접붙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이 땅 위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58-218, 1972.6.11) p.233

인류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역사적 결실이 뭐냐 하면 참부모를 만나는 것이요, 시대의 중심이 뭐냐 하면 참부모를 만나는 것이요, 미래의 출발의 기지가 뭐냐 하면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접붙인 여러분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시대의 소원은 전부 다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일생을 중심한 참부모와의 인연은 영원토록 한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조들도 못 가졌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못 가지는 겁니다. (46-167, 1971.8.13) p.234

타락으로 인해 사탄이 인류를 전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지옥으로 전부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 둘 갈라내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사탄세계의 돌감람나무였는데, 거기서 하늘편의 감람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세계 기독교를 중심삼고 하늘편 돌감람나무를 만들어서 세계를 리드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탄편 세계가 약화되고 기독교문화권이 서게 되면, 재림주가 와서 한꺼번에 잘라서 완전히 접붙여서 하나로 만들어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좌익이 망했고, 우익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참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된 부모와 하나된 가정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지금까지 참부모가 해 나오던 길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우주가 선생님을 보호하듯이, 그 가정들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소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 신도(信徒)냐고 물으면 통일교회 신도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부모께 속한 자다 이겁니다. 우리는 참부모의 자녀다 이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는 것은 사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넘버 원 무니! 넘버 원 하나님의 자녀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201-128, 1990.3.27) p.234

우리 뜻의 귀착지(歸着地)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착지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참부모를 중심삼고 번성하기 때문에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줄기를 중심삼고 가지가 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꺾어서 삽목(揷木) 하면 그 나무는 번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줄기에서 쭉 동서남북으로 뻗어서 크게 됨으로써 중심 뿌리도 크게 됩니다. 그 중심 뿌리가 크게 되는 데는 가지가 크게 됨으로써 비례적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횡적으로 크게 되면 종적으로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횡적인 기준을 희생해서 쭉 이렇게 뿌리가 크게 되면 가지도 쭉 올라갑니다. 뜻을 중심삼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따라옴과 동시에 횡적으로 확대된 힘이 압축되기 때문에, 위하는 삶으로써 천주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를 중심삼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삼고 종적인 기준에서 횡적으로 봉사의 생활을 하면, 거기서 천주통일권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반드시 돕니다. 돌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횡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축을 중심삼고 도는 겁니다. 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하나됨으로써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無)의 경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돕니다. 돌기 시작하면 축도 올라가고, 내려오게 되면 저절로 반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성형과 같은 인간이 천상세계에서 가정을 이루면 천국가정의 기반이 되고, 그런 기반을 닦게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는 데서 함께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심정적 공명권을 이루고, 그 생활의 체휼 기준이 영원한 심정세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인은 참부모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참부모의 사랑과 함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인연을 맺기 때문에, 사랑의 인연은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을 못 잊는 것입니다.

부모는 죽어 갈 때도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아들딸을 사랑하면서 죽어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고 죽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한 생명권을 이어받은 자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근본인 부모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뿌리이고 자기 자신은 줄기라고 한다면 아들딸은 순입니다. 그것이 함께 크게 되면 종족권, 민족권, 국가권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218-127, 1991.7.14) p.235

Top p.235

③ 우리를 위한 참부모님의 수고

참부모가 참자녀를 낳기가 쉬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겁니다. 개인이 반대하고, 가정이 반대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 · 하늘땅 · 영계가 전부 반대하는데 이걸 끌고 왔습니다. 장사속으로 그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는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백 번 찾아와도 문전에서 차 버리고, 천 번 찾아와도 차 버릴 것인데,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핍박을 도맡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전부 다 선생님한테 갖다가 뒤집어씌웁니다. 선생님은 미국에서 욕먹을 일, 반대받을 일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선생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세상 같으면 여러분을 버리고 갈 텐데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정에도 선생님이 안 나가도 됩니다.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찢기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맞으며 여러분을 지켜 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116-113, 1981.12.27) p.235

Top p.235

④ 우리에 대한 참부모님의 기대

통일교회에는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 얼룩덜룩한 사람들, 참 많이 모였습니다. 뭘 하러 다 모였습니까? 뭘 하러 찾아왔습니까? 선생님을 만나도 줄 것은 욕밖에 없습니다. 꿀밤밖에 줄 게 없는데, 그래도 좋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을 찾아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안다는 것입니다. 일벌이 꿀맛을 안 다음에 꽃향기를 맡고 천리길도 멀다 않고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참부모의 권한을 인계해 줄 테니 인계받겠다는 대표자가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참부모 되겠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 통일교회를 책임지고 안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참부모가 된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내가 참부모가 되겠다는 걸 알았다면 만민이 다 알았다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모르고 인생의 근본문제를 파헤치고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곡절이 이렇게 된 것을 다 풀다 보니, 참부모의 모든 해원성사도 벌어지고, 하나님이 해방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참부모를 만나서 뭘 했습니까? 해 놓은 게 뭐냐 이겁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악마 세계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가정을 거치고 종족과 민족을 거치면서 개인 편성, 가정 편성, 종족 편성을 해 나왔습니다. 우리 축복가정은 종족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계적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사탄세계가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것이 멋지다는 것입니다. 동양사람하고 서양사람하고 싸움이나 하고, 만난다 해도 얼마 살지 못하고 후다닥 이혼하고 그러는 판국인데, 우리 축복가정은 10 년도 그만이고 20 년도 그만이고 잘산다는 것입니다. (211-323, 1991.1.1) p.236

Top p.236

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수준

여러분 가정에서 3 대 주체사상의 실체를 갖춘 참형제 참부부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실체 존재입니다. 참형제가 되어야 참부부가 나오지요? 참부부가 나와야 참부모가 나옵니다. 참부모의 자리에 서면, 참부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참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식, 주체사상을 중심삼고 그대로 대상적인 입장에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소들도, 미물들도 사랑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 될 수 있는 사랑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세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입해야 됩니다. 생명과 재산을 다 투입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급이 낮은 것은 급이 높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라, 사랑을 중심삼고 흡수하는 논리입니다. 제 2 의 가치적인 내용을 창조하는 데에 창조 요소로서 적용될 때는 미물인 현재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높아지겠느냐 이겁니다. (204-129, 1990.7.1) p.237

앞으로 최후에 남을 종교는 어떤 종교냐? 그것은 부모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모 종교가 나와야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부모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의 종교다! 서자의 종교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공식 연설 내용이 그것입니다. '부모 종교의 사명을 받은 책임자는 이 단상에, 이 대회의 주제 연설을 하는 레버런 문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해도 세계가 조용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는 선생님이 재림주라고 소문이 났다 해서 야단하는 것입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사람으로 주님이 온다면 선생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문총재가 재림주래, 나하고 똑같은데. 한국말 하고 말이야. 말은 왜 그렇게 빠른고?' 이러고 있지요? 바쁜 세월을 치리하려니 말까지 빨라졌습니다. 말이 빨라야 도망가는 것도 후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할 수 있게 연구해서 빨리 하는 겁니다. 일본말을 해도 그렇고, 영어를 해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나를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잘 만났으면 잘 만난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 (214-175, 1991.2.2) p.237

Top p.237

4) 은총과 자각

① 참부모란 말은 처음 나타난 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와야 됩니다. 타락한 부모가 아니라 참부모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부모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입장에서 찾아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에 처음 나타난 말입니다. 이 사실은 혁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없는 기적적인 대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라는 말을 배우게 된 것은, 참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왔다갔던 수많은 부모들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단 한번밖에 있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지녔기 때문에 참부모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비로소 처음 받는 최고의 기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그 예수님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최고로 이상적인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올 때는 역사과정에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참부모의 기준이 나오면 자기는 근본적으로 패배할 것을 아는 사탄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 때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부모의 자리에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수많은 피의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끔찍한 희생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모든 신앙자들을 대해서 개인적으로 희생시켰고, 가정적으로 희생시켰고, 혹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희생시켜 나온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희생된 우리의 선조들, 선을 추구하며 참 길, 부모의 길을 찾아 나온 선한 우리의 형제들이 얼마나 끔찍한 피의 대가를 치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67-225, 1973.6.27) p.238

Top p.238

② 참부모란 말은 복음 중의 복음

여러분들이 유토피아 세계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본연의 가정의 사랑권을 거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원리주관권 내와 직접주관권 내를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으로 연결한 기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육계가 그 사랑의 다리를 통해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대로 직접주관권과 간접주관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그것은 참사랑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되는 때는 인간 아담과 해와가 성숙할 때뿐입니다.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수평적 참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 당신은 나의 동반자요!' 하고 끌어안게 될 때, 참사랑이 그 쌍의 중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플러스 사랑이 완성해서 나타나면, 마이너스도 곧장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 사랑이 마이너스 사랑에 내려와서 운행하게 되면 참사랑의 표준을 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참사랑만이 모든 것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유토피아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참사랑이 출발하느냐? 참부모에서부터입니다. 이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무슨 좋은 말이 있다 해도, 남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고, 아내라는 말이 좋은 말이라 해도, 타락한 세계는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고는 참된 남편과 아내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참부모 이상 좋은 복음이 없다 이겁니다. (131-187, 1984.5.1) p.238

역사 과정에서 슬픔이 있으면 최고의 슬픔, 어려움이 있으면 최고의 어려움, 피의 대가를 치렀다면 최고의 대가를 치른 그 결과로 찾아진 것이 이 참된 가정입니다.

이 참된 가정이 찾아짐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슬픔이 해원성사될 수 있겠기 때문에, 역사적인 죽음의 대가가 해원성사될 수 있겠기 때문에 역사는 이런 비참한 탕감의 조건을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참된 가정이 이 땅에 현현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의 기쁨이 없는 기쁨이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부모가 있어야 됨과 동시에 참된 부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부가 이루어져서 참된 자녀가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부모는 사탄 앞에 어떤 참소의 조건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참된 부부는 사탄 앞에 어떤 참소조건에 걸려서 신음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 또한 사탄세계에 참소조건을 남길 수 있는 자리에 서 가지고는 참된 가정의 아들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참부모라는 명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참부모라는 말은 역사시대의 그 누구도 불러 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부를 수 있고, 알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역사시대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역사시대의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이름과 더불어 역사는 지금까지 수고해 나왔고, 참부모의 승리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부모라는 명사야말로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는 복된 말씀 중의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참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치리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원이 생겨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이 결정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외적인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해원성사해 드릴 수 있는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와 더불어 살고, 참부모의 명령을 받들어 행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에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일생을 다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참부모의 가는 길에 동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인류 앞에 이 이상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명령을 따라 적진을 향하여 행진하는 병사가 있다면, 그는 인류가 바라는 최고의 희망의 정상 가운데서 하늘과 땅이 직시하고 역사가 주목하는 거룩한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의 심정을 대신하여, 혹은 국가와 민족을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입장이 됐다면 그 심정으로 말미암아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이 비로소 행복의 동산의 문을 열 수 있고, 행진해 들어가서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소망의 국민과 국가가 현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참부모의 심정의 깃발을 들고 나서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망의 세계를 다시 한 번 심판할 수 있는 기수인 것을 여러분은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43-142, 1971.4.29) p.240

Top p.240

③ 참부모로 미래가 보장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라는 말은 위대한 명사입니다. 물론 원리의 내용도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무대에서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원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하느냐? 자기를 중심삼고 하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끌어다가 하나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참부모 앞에 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데는 자기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모면 부모,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도 끌고 가야 되고, 가정에 있는 물질까지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35-274, 1970.10.25) p.240

Top p.240

④ 참부모의 가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는 자리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부모, 잃었던 참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바로 그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 자리, 그것이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많은 자리가 있었지만, 이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인들이 이 기대, 이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의 모든 인류도 이것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개의 땅덩어리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땅덩어리만한 다이아몬드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그 자리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모든 영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첫 조상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 이후에는 어떠한 역사도, 타락한 어떠한 역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내용이 출발됩니다. 즉,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내용, 그리고 모든 것의 결과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지상의 첫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탄의 주권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새로운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전세계의 중심점입니다.

이 자리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과거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역사의 완성이 보전될 것이며, 미래 세계의 완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정복한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멋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사랑할 것이며,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또한 얼마나 좋아하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최고로 높은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위대한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에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기뻐서 감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꿈속에서 춤을 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 이 위치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갖게 되어서 잠을 자면서도 춤을 출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여러분의 생명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에 마음이 더 끌려야 합니다. 다시 보고 싶어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52-95, 1971.12.23) p.241

부모가 되려면 하늘땅이 화답해야 됩니다. 천상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이기고 와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스'라고 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으니,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긍정시키지 않고는 본연의 기준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지간에 참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실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천지를 밝히는 것이요, 모든 역사적인 곡절을 해방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중에 박혀 있는 못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해방은 이러한 아들딸을 품고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웃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환희에 차서 천세만세 외치는 그 함성이 피조만물에서부터 온 천지에 꽉차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거기에 긍정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는 지상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천상세계에서 공자 석가모니 예수가 모여서 이런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걸 다 깔아뭉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담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에는 말못할 심정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아담이 완성기에 스스로 깨쳐서 악마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의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국의 통치자요, 구원의 주인이요, 만형제의 장남권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사탄세계가 반대함으로 해서 40 일 동안 영계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관(審判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문총재의 승리를 판결받고 지상에 오는 것입니다. (215-86, 1991.2.6) p.242

Top p.24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⑤ 감사해야 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 참부모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을 재창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

내가 거쳐 나온 뒤에는 참가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참종족이 나타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참국가가 나타납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참세계가 나타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참우주가 나타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참천주가 나타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수천만 대에 걸쳐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이 사탄의 혈통을 청산할 것이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어받은 더러운 혈통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청산짓기 위해서 참사랑 · 참생명 · 참혈통을 중심삼고 나타나신 분이 참부모입니다. 사탄의 혈통을 비료 삼아서 생명을 키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활의 시대에는 몸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중심삼고 참사랑을 거름삼아 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편은 사라지고 한 편은 번창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사탄과는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고통이 있는 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나시고 지금 여기에 선생님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 깊은 사명을 밝혀냈으니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 중 그 누구도 그와 같이 숨겨진 우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앞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우주의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 기반이 아니라 국가적 기반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도 과거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새로운 전통에 속하는 것이고, 새로운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분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통일교회의 축복식 이전에 있는 혈통전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타락하면서, 참사랑 · 참생명 · 참혈통이 타락세계의 더러운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참사랑 · 참생명 · 참혈통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0 도 전환된 것입니다. 사탄편과 연결된 미국이나 이 세계에는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전세계 인류가 처음부터 가장 악독한 사탄편 부모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처음으로 그 방향이 180 도 전환됐다 이겁니다. 그곳은 시작점인데 영점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의미도, 존재도, 관념도, 전통도, 문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환경적인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흙과 물과 공기로 하나 만들어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아무런 관념이 없었습니다. 영점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전통에서 180 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 도 돌아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나라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 다음은 형제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 남편과 아내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3 세대를 원하시는데, 이 3 세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1 대는 하나님, 2 대는 아담과 해와, 3 대는 아직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중심삼고 인류가 번성하지 못하고 오직 사탄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사랑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이 혈통을 청산지을 수 있느냐? '나'는 일본인도 아니고, 그 어떤 나라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핏줄, 이 세 가지의 근원이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데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잘살게 되는 걸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진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이 피흘리며 쓰러져 썩어 냄새 나고 있다면 그걸 누가 장사지냅니까? 누가 패잔병을 교육해서 다시 정규군으로 만듭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기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큰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건설하고 난 다음에야 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새 가정을 세우고, 새 국가를 세우고, 새 세계를 세우고 나서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무리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계, 본고향에 기차 레일이 있다면 이 레일하고 이 땅에 사는 레일하고 같아야 됩니다. 영계에 들어가는 레일과 마찬가지로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레일이 영계의 레일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 레일을 같도록 하기 위해서 참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215-171, 1991.2.17) p.243

Top p.243

⑥ 참부모와의 인연은 숙명적인 업(業)

우리 인간은 백 퍼센트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만, 백 퍼센트 이상 지혜로운 하나님이 친구가 되고 무한한 영계의 선조들이 나의 동반자가 되고 후원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고맙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일선에서 모험의 자리,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설 때의 그 기분을 참 잘 압니다.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면 네가 갈라지지 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진짜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이렇게 기른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자(智者)가 되어야 된다는 숙명적인 과업을 상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연적인 과업이 아닙니다. 숙명적인 과업입니다.

참부모와 참부모의 자식이라는 것은 영원불변의 숙명적인 업(業)입니다. 이걸 누구도 가를 수 없습니다. 천년만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갈 길은 두 길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법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203-192, 1990.6.24) p.244

Top p.244

⑦ 책임해야 할 우리

영계에 가서 열두 진주문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상에서 얼마만큼 하늘의 백성을 사탄으로부터 찾아 가지고 돌아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과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재창조의 참사랑의 심정을 중심삼고 사탄의 부모 이상, 사탄의 남편, 아내, 아들딸 이상의 심정을 투입해서 눈물과 더불어, 피땀과 더불어 교차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자기 백성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수의 비례에 따라서 저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든 조건이 가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일생을 거쳐서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참부모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댄버리 감옥에 가서 2 월 초하룻날 지옥과 하늘 문을 여는 식을 했습니다. 그걸 개문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감옥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한의 고개를 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양이 넓다 하면 그것을 헤엄쳐서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이 높다 하면 맨발로라도 백설이 쌓여 있는 히말라야 산정을 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넘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역사의 비참 그 자체를 넘어 모든 승리의 패권적 기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악마 자체가 따라오려야 따라올 수 없어서 떨어지지 않을래야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수난길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내 아들딸이 엄숙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 2 의 하나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을 대표한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 시대를 대표하고, 아들딸은 미래를 대표합니다. 이 3 시대의 대표를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현현자로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들딸을 속여 먹고, 아내를 속여 먹고, 남편을 속여 먹고, 부모를 속여 먹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위하는 사랑, 생명까지도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참사랑의 핵을 중심삼고 가정과 국가와 하늘땅이 연결되게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핵을 통한 심정적 내용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얼마나 복귀하느냐 하는 것이 내 나라 통일의 해결 비결입니다. 다른 데 가서도 내 나라를 통일한다는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그 나라를 있는 정성을 다하여 어느 나라에 지지 않게끔 먼저 하늘 앞에 봉헌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구약시대는 물건, 신약시대는 아들딸, 성약시대는 자기 부부, 그 다음에는 하나님입니다. 타락으로 하나님을 지상에 모셔 놓지 못하고 사탄을 모셔 놓고 하나님과 이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 놓고 전부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건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물건은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것이요, 아들딸은 신약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물건을 희생시켜 아들딸의 갈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주,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땅에서 모셨으니,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것은 참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재창조는 투입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던 참사랑의 기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물질과 자녀와 자기 실체 전부를 참사랑으로 결탁시켜서 이 모든 것이 참사랑과 연결된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 설정된 이후에 다시 분배받아서 자녀 소유시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소유, 자녀의 소유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211-352, 1991.1.1) p.245

Top p.245

5) 우리의 할 일

① 우리의 책임

복귀의 길을 가는 여러분은 개개인이지만 여러분 개인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귀의 길을 가는 여러분은 참부모를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종족적, 민족적, 혹은 국가적인 참부모의 승리의 터전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참부모를 대신해서 가기 위해서는, 참부모는 세계적인 영적 승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국가적인 승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참부모의 승리의 기준이 세워졌기에 지상에 참부모의 승리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이 민족적인 기준을 넘어가야 할 참부모의 책임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면에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민족적인 기준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준을 향하여 간다면 오시는 참부모는 영적으로 천주적인 승리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인연을 갖고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영적으로 개척하고, 실체적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복귀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과 인간을 돌아보게 될 때, 하늘이 어느 한때 승리의 참부모를 모셨느냐? 아직까지 모시지 못했습니다. 땅이 모셨느냐? 아직까지 모시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모셨느냐? 아직까지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부모만 모시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부모를 모신 다음에는 참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복귀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준비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참부모 앞에 참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자녀의 개인적인 복귀노정이 있는 것이요, 자녀의 가정적인 복귀노정이 있는 것이요, 자녀의 종족적인 복귀노정이 있는 것이요, 자녀의 민족적인 복귀노정이 있는 것이요, 자녀의 국가적인 복귀노정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인 복귀노정과 자녀의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인 복귀노정을 완결하여, 부모와 자녀가 일체 되어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워 놓고서야 비로소 민족복귀를 종결짓고 세계적인 무대를 향해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여기에 입교한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느냐? 선생님을 중심한 이 통일교회에 불려온 여러분은 서러운 6천 년 종적 역사를 횡적으로, 실체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결심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어디냐? 세계적인 기반 위에 참부모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참부모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아직까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하루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교회가 맡고 있는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가야 할 길을 나섰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던 때와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그래야 하고, 몸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이냐? 하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참부모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것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모시는 데는 승리의 터전이 이루어진 후에, 만민이 우러러보고 만민이 공경하게 된 자리에서 모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를 거치시는 참부모를 모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를 거쳐온 참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것을 선조들은 한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진정으로 모시는 것을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자리에서 모시려고 하기보다 비참한 자리에서 모시는 참효자 참효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참효자 참효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자리, 낙망할 수 있는 자리, 비참하여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자리에 서더라도 '하늘이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늘이여, 참부모님은 예수님보다도 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 부모를 모시는 나로서는 어떤 가중된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도 당연합니다. 나는 그것을 찬양하오니 하늘은 나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미쳐지는 근심과 고통과 슬픔을 하늘 앞에 짊어지우지 말고 스스로 탕감하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기준에서 개인적인 부모의 승리의 인연에 접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축복가정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널려 있습니다. 왜 축복가정들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널려 놓았느냐? 하늘은 삼천만 민족과 삼천리 반도를 중심삼고 섭리하시고, 참부모는 이 삼천만 민족 삼천리 반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참부모님을 삼천리 반도가, 모든 마을 마을이, 골짝 골짝이, 산과 들은 물론이요 전부가 모시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부모를 모시는 것이 역사적인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탕감기준을 세우고 가정적인 탕감기준을 세워 참부모의 대신자로서, 그 마을이 후회 없이 모시고 싶어할 수 있는 참부모의 실체 대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신 참부모는 물론 중심의 자리에 계셔서 영적으로 전부와 관계를 맺으시지만 실체는 하나이시기에 전체를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실체를 대신하여 만민을 대하는 입장에 세워진 것이 축복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부모에게는 이 민족을 넘어 세계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십자가는 지방에 널려 있는, 참자녀의 입장에 있는 축복가정들이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 전체가 하나의 종족적인 발판, 민족적인 발판이 되어야만 하늘의 역사는 이 민족을 중심삼고 승리의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288, 1964.4.12) p.247

부모님을 사랑해서 본연의 사랑의 기준을 중심삼고 사탄을 분별하여 책임분담, 세계완성기준을 넘어가야 합니다. (137-116, 1985.12.24) p.247

Top p.247

② 우리의 사명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터전을 닦고 그분 앞에 세계의 형제를 규합하는 일입니다. 또, 이런 책임을 짊어진 선조들로서 후손들이 짊어질 십자가와 핍박의 길을 없애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세계에 통일된 부모의 자리, 아벨적 세계와 가인적 세계가 서로서로 하나된 기반 위에서야 비로소 만유의 주인공으로서, 부모로서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부모 없이 살고 있는 자식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나타나서 비로소 이들을 교육해서 '너와 지금 싸우고 있는 저 사람이 너의 형이요, 너의 동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로 말미암아 참다운 이상적 부모가 떠나 버리고, 이상적 자녀의 인연을 잃어버린 기반에서 사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적 부모가 나와야 되고, 이상적 자녀의 교육을 하늘이 다시 해 줄 수 있는 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이어받을 하나의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종교가 통일교회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참부모의 역사를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다운 자녀가 결속되어야 됩니다. 참부모라 하면 자기 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우주적이어야 됩니다. 참자녀란 뭐냐 하면 '나는 미국 국민밖에 몰라'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민족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락은 누구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락선 이상을 점프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아담 머리 위에 있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분이 직접 지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와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다운 혈육을 세계적으로 규합해서 새로운 세계로 편성해 나가는 것이 통일교회의 길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종족이 될 것이고, 종족이 민족이 될 것이고, 민족이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새로이 출발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 세계와 이렇게 된 세계적 기준에서 접선되는 이 접선지(接線地)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한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선에 접속되는 때가 어느 때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86-229, 1976.3.31) p.248

우리 통일교회는 참부모가 있지만 그 참부모는 어떤 입장의 참부모냐? 통일교회 안에서 참부모지, 나라를 넘지 않고 세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세계 사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총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교회에 참부모를 모신 것을 국가와 세계와 영계까지 확대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교회 운동입니다. 지금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부모로 맞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4-309, 1983.3.1) p.248

Top p.248

6) 생명시해야 할 것

① 자기주장 불가

여러분이 가진 것은 금싸라기는 금싸라기인데 모래 속에 들어 있는 금싸라기, 무슨 광석이나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금싸라기이므로 이것들을 전부 다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 버려야 됩니다. 구워내야 합니다. 그게 표준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몸이 녹아 물이 되어 없어지는데 '아이구 좋다' 하겠습니까, '아이구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하며 야단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 다 죽는다고 해도 금싸라기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하려면 98 퍼센트까지는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은 2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니의 생활이 비참한가, 행복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니의 센터인 레버런 문은 행복합니까, 비참합니까? 처음에는 불행해도 나중에는 행복하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핍박하면 용광로에 들어간다. 내가 아직 덜되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려면 오라는 겁니다. 핍박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순금이 될 때까지 용광로에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순금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 퍼센트를 버리고 100 퍼센트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한 길을 가는 사람은 참음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100 퍼센트 순금이라고 감정했는데, 하나님이 핀셋으로 집어 가지고 감정할 때 100 퍼센트가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순금이라는 100 퍼센트하고 내가 순금이라는 100 퍼센트를 비교할 때에 내가 100 퍼센트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크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더 컸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주장하는 불순분자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자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소성이 있습니다.

내가 더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 퍼센트 순금이 되어 하나님이 감정하는 순금 이상의 자리에 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장하는 마음이, 자기가 센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영원히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100 퍼센트 이상 순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금은 뭐냐? 불순한 요소가 하나도 개입하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없이 백 년, 천 년 사랑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사랑에 있어서 순금 중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소유자는 위대한 여왕이나 왕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아내, 그러한 남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순금이 됐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벌써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8-206, 1983.6.26) p.249

여러분은 진짜 순금입니까, 가짜입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게 될 때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댓 사람을 합쳐서 두들겨 패 가지고 다시 빚으면 진짜가 될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내가 진짜 시장, 진짜 상점에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진짜라고 하면서 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시련, 제련 과정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순금이냐?' 할 때, 순금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연마를 당하여야 할 과정이 남아 있으니, 싫든 좋든 제련소에 전부 처넣어야 됩니다. 처넣어서 나쁜 것은 태워 버리고 순수한 것, 하나의 결정체로 연합된 것, 겉이나 속이나 틀림없는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형태를 마련하기 전에는 통일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38-200, 1986.1.21) p.250

우리에게는 나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장치, 조정하는 기간, 조정하는 때,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표준시계와 같게 맞춰 놔야 됩니다. 저울도 표준저울이 있습니다. 그건 세계에 하나 있습니다. 미터면 미터의 원기라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래는 인간의 조정 기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그 절대 기준하고, 현재 제멋대로 된 내 기준이 영점 조정으로 자연스럽게 맞는 나입니까, 억지로도 맞지 않는 나입니까? 억지로 맞추어도 안 맞습니다.

이런 내가 본래의 원기, 미터면 미터 원기와 같이 인정해 달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인정해 주는 사람이 미친 녀석입니다. 그런 녀석은 때려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너 생긴 꼴이 그런데 인정해? 부정하고 때려잡아야 할 텐데, 동정하고 협조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축복가정들은 가정이라는 명사는 존중하고 가정의 내용은 무시하는 패들이 많습니다. (127-202, 1983.5.8) p.250

Top p.250

② 하나돼야

여러분이 참부모의 심정적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혈통 문제, 인격 문제, 말씀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리고 국가관, 세계관, 천주관이 참부모와 얼마나 하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참아들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만 가지고는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을 참부모와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즉, 그 핵심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247, 1970.1.22) p.250

참부모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대신입니다. 본래의 부모가 참부모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참부모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부모는 자기 아들딸을 할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는 길입니다.

참부모가 복귀의 길을 갔으면, 여러분도 복귀의 길을 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의 책임분담 5 퍼센트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이상, 부모를 사랑하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을 사랑하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에 확대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이상세계입니다. 본연의 세계입니다. (128-30, 1983.5.29) p.25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은 벌써 1차 아담 뿌리, 2차 아담 뿌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1아담과 제2아담, 제3아담을 접붙이기만 하면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입니다, 뿌리가. 그래서 사랑, 생명, 그 다음엔 혈통입니다. 종횡의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교류를 함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선생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참부모와 하나돼야 됩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은 혈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속권이 있고 동위권이 있고 동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9-223, 1989.4.6) p.251

Top p.251

③ 참부모를 사랑해야

참부모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누구라도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부모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상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참부모를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계에 있는 영인들에게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부모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인들에게 '나는 참부모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 영인들은 무엇을 했소?' 하면서 그들을 참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일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참부모를 서로 더 사랑하겠다고 식구들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싸움을 보시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만일에 하나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교수대로 끌고 가실 것 같습니까?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참부모를 사랑하는 모델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참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인, 모든 사람들은 참부모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준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p.252

참부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정이 밝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52-97, 1971.12.23) p.252

Top p.252

④ 참부모를 모셔야

여러분이 광야노정을 걷고, 요단강을 건넜더라도 가나안 7족과 싸우는 도상에서 쓰러지면, 그것은 승리의 죽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을 굴복시켜 놓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 놓아야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수 있는 본연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원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296, 1964.4.12) p.252

우리가 알고 있는 참부모는 뭐냐? 인간 조상입니다, 인간 조상. 그러니 참부모를 자기 부모와 같이 모셔야 됩니다. (118-147, 1982.5.23) p.252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는 데는 가정이 모시고, 그 다음에는 국가가 모시고, 세계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귀권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수를 중심삼고 볼 때 3년 이상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은 부모님을 중심삼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평화스럽고 행복스럽고,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만 하고, 서로가 기뻐하면서 사는 3 년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169, 1971.5.6) p.252

Top p.252

⑤ 순종해야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온 부모 앞에 자식은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그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부모가 되어 사랑하는 자녀를 자연, 절대 굴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끌고 나가야 천국기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101-282, 1978.11.7) p.252

Top p.252

⑥ 전통을 이어받아야

지금까지 인류는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역사를 몰랐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가 어디에서 무엇이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목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참된 부모, 조상을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부모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 나는 역사를 알았다, 하나님과 나와 어떻다는 역사를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았다 이겁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역사를 이기고, 미래를 이길 수 있는 전통을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로부터? 왜? 참부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을, 그분이 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그분이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서 이것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걸 인계받는다는 것입니다. (71-21, 1974.3.24) p.253

지금까지 이 우주에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자식을 이용해 먹고 망치는 악한 부모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깨졌느냐? 완전한 형제가 깨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엔 완전한 신랑 신부가 깨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한 부모가 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가정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가정은 우주사적인 대표입니다. 세계를 대표했고, 하늘나라를 대표했고, 나라를 대표했고, 가정 전체를 대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중심점을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도 그것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중심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바라는 공동목적이 이것 하나요, 과거, 현재, 미래가 결속될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아담과 해와가 해야 될 것을, 참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사탄이 갖지 못한 것으로서 악한 세계에는 없는 형제 중의 형제, 사탄세계에는 없는 형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20 대(代), 결혼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한 전통을 여러분이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딸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전통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각국에 가서 힘들게 싸움을 하며 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후손 앞에 전통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일했단다.' 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전통적 자료를 수습하는 훌륭한, 한 번밖에 없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전통입니다, 영원한 전통.

우리는 세계를 초월한 사람들이니 백인과 흑인이 한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타락하지 않은 인류, 아담과 해와의 형제지권(兄弟之圈)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전통을 세우는 기본 사상은 무엇이냐? 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아들딸은 이러한 환경에서 고생하지 않고 자라서 하늘나라로 직행할 수 있는, 사탄세계를 능가하는 하나의 실적권을 가진, 하늘과 직통하는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형제들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혼이란 초국가적입니다. 흑인과 하라면 하고, 백인과 하라면 하고, 황인과 하라면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내(圈內)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제부터 성립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후손과 세계를 지도해야 합니다. 그 대신 둘이 하나돼야 합니다. 아들딸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아들딸을 낳으려니 부처(夫妻)가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되지 않고서는 선한 아들딸이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1-19, 1974.3.24) p.254

여러분은 선생님을 평면적으로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배후에서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는 모릅니다.

이 길을 출발할 적부터 확실한 신념이 없이 그저 따라와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이고 틀림없는 길로 알고, 틀림없는 승리를 다짐하고 출발해서 이런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꺾고 이런 길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반대하고, 세계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여러분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가지고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것을 이어받을 때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어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달려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놀랍도록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세를 보고 그것을 상속해 주고 싶은 것이 하늘의 마음이요, 스승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들을 데려다가 가르쳐 주는 이 자체가 처량하다는 것입니다. (67-228, 1973.6.27) p.254

Top p.254

⑦ 참부모를 자랑해야

여러분이 자랑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참부모의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것, 나라 것, 세계 무엇보다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하나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직접주관권이라는 사랑의 이념을 중심삼고 가정이라는 터전 위에 하나될 수 있는 출발을 지상에 실현하고 있는 것이 통일교회이요, 부모님이 가는 발등상, 판도입니다. 직접주관권입니다. (131-48, 1984. 4.1) p.254

Top p. 254

⑧ 참부모에게 진 빚을 갚아야

참부모란 관념이 명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부모한테 빚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그 빚을 갚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빚진 것을 계산하면 갚을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저 조그만 사랑의 표시만 하나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116-121, 1981.12.27) p.255

Top p. 255

제 7 장

참부모 중심한 생활

1) 참부모의 날과 참부모

여러분은 다들 선생님에게 관심이 있지요? 선생님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전부 전화줄을 달고 다니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참부모의 날을 맞아, 이제 부모님의 수고가 얼마나 컸더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통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131-62, 1984.4.1) p.256

본래 참부모의 날의 이념은 하나님의 창조이념 가운데 중심이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 만물을 주관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하신 목적도 바로 참부모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일체가 되어 참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날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우주가 부모의 이름과 더불어 송영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부모의 날은 온 우주가 부모의 이름과 더불어 송영을 드리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참부모의 날을 하늘도 잃어버렸고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계획하셨던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참부모의 날을 찾으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륜해 나오신 것입니다. 참부모의 날을 맞이하려면 먼저 참부모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 참부모는 역사를 심판하고, 현재를 주관하고, 미래를 개척하셔야 할 중심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적으로 선망해 온 것도 참부모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13-280, 1964.4.12) p.256

우리가 민족을 찾으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민족으로 하여금 승리의 참부모를 모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탄세계로부터 참소받지 아니하고,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하고, 인류를 대신하여 국가기준 위에서 만천주 앞에 효자 효녀로서 자유천지를 이루어 참부모를 참되게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슬픈 자리에서 모셨고, 고통의 자리에서 모셨지만, 이제부터는 기쁨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자리에서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실 수 있어야만,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오냐, 네 기쁨이 내 기쁨이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인류가 '당신들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입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참부모의 날입니다. 이 참부모의 날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참부모의 날로 세워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참부모의 날로 세워야 되고, 사회의 참부모의 날로 세워야 되고, 국가의 참부모의 날로 세워야만 세계의 참부모의 날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계의 참부모의 날로 세워 가지고 천주의 참부모의 날로 세워야 원래 하나님이 참부모를 세우시려던 창조이상이 완결되는 것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의 날을 세우지 못했던 한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온 천상 천하에 참부모의 날을 세워야만 복귀의 한이 완전히 해원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부모의 날을 세우고 참자녀의 날을 세웠지만, 개인적인 참부모의 날로부터 가정적인 참부모의 날,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인 참부모의 날로 세워져 있지 못합니다. 참자녀의 날도 그렇습니다. 참만물의 날 역시 그러한데 참부모의 날과 참자녀의 날과 참만물의 날이 세계성을 지니고, 승리했다는 기준 앞에 주관받을 수 있는 권내에 들어가야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목적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참부모의 날이 인간의 참부모의 날이 되는 동시에 하늘의 참부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참자녀의 날과 참만물의 날도 인간의 참자녀의 날과 참만물의 날이 되는 동시에 하늘의 참자녀의 날과 참만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 될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 참만물의 날을 세우고, 가정적인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 참만물의 날을 세우고, 민족 국가적인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 참만물의 날을 세워야 합니다.

한 국가의 기준에서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 참만물의 날을 설정해야만 이 날들이 그 국가의 중심 날이 되고 세계적인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13-294, 1964.4.12) p.257

Top p. 257

2) 참부모란 말을 완전히 알아야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귀하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참부모라는 말입니다. 우리 참부모님!' 합니다. 예수님 앞에 참부모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못 가진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님에게 참부모가 있었습니까? 자식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까? 부모라면 자식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울타리가 되어 '너는 내 품 안에서 행복할지어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30 평생을 불쌍한 의붓자식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참부모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참부모, 참형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 통일교회 용어입니다. 그건 선생님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본래 천리원칙에 있던 것을 찾아낸 말입니다.

우리는 참부모라는 말을 하고 참자녀라는 말을 합니다. 참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자녀의 인연을 통해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76-73, 1975.1.26) p.258

우리는 참부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를 모시고 나가자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형제가 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그것은 예수를 중심삼고 한 말입니다.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모시지 못했던 것을 탕감복귀해서 모실 수 있는 부모, 그 이상의 부모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67-326, 1973.7.22) p.258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라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선생님에 대해서 부모라고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얼마나 담이 많고,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를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허덕이다 전부 다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선생님을 이론적으로 볼 때 '아, 그분 참부모구나!'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부모란 걸 선생님이 알 때의 기쁨하고, 여러분이 알 때의 기쁨하고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선생님이 고생을 죽도록 해서 아버지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고생도 안 했는데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거 참부모 알았소, 그저 그래!' 하는 겁니다.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을 부자관계에서 만났을 때에 기뻐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선생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커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고생해서야 만났지만 여러분은 고생을 안 하고 만났으니 더 기뻐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억천만 달러를 주고 샀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한 푼도 안 줬으니 기쁘지요? 여러분이 뭘 지불했습니까? 와서 원리 말씀을 들어 보면 다 알고, '참부모' 하면 '그렇게 됐구만.' 하고 다 아는 것입니다. (116-121, 1981.12.27) p.258

Top p.258

3) 참부모의 언어를 배우라

무엇보다도 언어가 제일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 있으면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참 기가 막힙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도 미국에 처음와서 책을 통해 공부했지만, 예스 노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언어통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 말씀을 통역을 통해 듣고 싶습니까, 선생님에게 직접 듣고 싶습니까? 한국어로 듣고 싶을 것입니다. 어째서? 한국어가 원어(原語)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리공부 하는 데에 있어서 원어를 모르면 그 말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 '나는 선생님 말씀을 그냥 듣고 하고 살았다!' 하는 것이 자랑이겠습니까, '통역을 통해서 나는 말하고 들었다!' 하는 것이 자랑이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더구나 사랑의 이상세계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말을 통역을 놓고 속삭이면 그게 통합니까?

우리가 전에 외우던 맹세문을 보면 다섯째 번에 '하나의 문화를 자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심정세계에서는 하나 안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의 심정세계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해서 이렇게 가서 터치할 때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보다 벌써 다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다리가 먼저지 사랑한다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고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상가정의 전통과 정신이 없어 가지고는 이상세계가 현현할 수 없습니다. (118-238, 1982.6.6) p.259

영계에 가서도 전부 다 참부모, 참할아버지가 쓰는 말을 씁니다. '아이고, 나 그거 모른다!' 한다고 통합니까? 동양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선생님도 나이가 예순이 넘어서 영어를 배웠는데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길거리를 다니며 중얼중얼하면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한국말을 화장실에 갔다왔다하면서 반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한국말을 배우라는 것은, 선생님이 참부모가 되었으니 할 수없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떻다 해도 할 수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통일이 되면 '참부모의 영광이야! 세계 언어를 순식간에 통일해 버렸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창을 한다면 무슨 표창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말을 세계 어떤 나라의 말보다도 제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은 이 언어 때문입니다. 한국말로는 발음을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일본말은 발밑에도 못 갑니다. 맥도날드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마구도나루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새로운 문화를 통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원칙에 통하지 않는데 한국말을 배우라면 아예 쫓겨나는 것입니다. 원리원칙을 얘기하니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론에 맞으니 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자들에게는 원어가 한국말이 될 것입니다. 한국말이 원어가 되는 것입니다. (130-272, 1984.2.5) p.260

Top p.260

4) 민요(民謠) 속의 계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노래에도 있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지어 양친 부모 모셔다가…' 이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양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자기 욕심을 위한 부모면 다 흘러갑니다. 천지의 대도를 밝혀서 전통을 심어 놓을 수 있는 양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민요에 있는 그런 노랫가락과 같은 길을 세계 앞에 만들어 놓고 죽어 보자 하는 것이 레버런 문의 생애입니다. (127-281, 1983.5.15) p.260

종교 지도자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복받겠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복받겠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만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한 시대요, 신약시대는 아들딸을 희생시켜서 부모를 찾기 위한 시대요, 성약시대는 부모님의 가정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한 시대입니다. 본연의 부모를 이 땅 위에 모셔서 그분과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노래 가운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계수나무 박혔으니 뭐 어떻고 어떻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것이 다 한민족의 계시적인 얘기입니다. 하늘 부모를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나는 그 노래를 생각할 적마다 언제나 사무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137-185, 1986.1.1) p.260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절대로 서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서러워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못 사는 한국 백성, 5천 년 역사를 지나 왔다고 자랑하지만, 저 초가삼간에 태어났나' 하고 말입니다.

또, 노래를 봐도 그렇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뭐 어떻고 어떻고, 초가삼간 집을 짓고 뭐 어떻고 어떻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어떻고 어떻고…. 초가삼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겠다구요? 선생님은 그런 노래를 듣게 될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겨우 초가삼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민족의 소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할 때, 그 양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이상적인 부모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재림사상과 통하는 것입니다. 만민, 만국을 통해서 보면, 구세주사상과 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5-80, 1976.3.2) p.261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 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천년만년 뭘 모시고? 양친 부모 모시고. 그건 민족의 숙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의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참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양친 부모를 모시고서 살자 이겁니다. (126-190,4.19) p.261

참부모가 하나님의 챔피언 권위를 가진 남성을 대표하고 여성을 대표한 그런 표상적인 인물이라면 참부모의 아들딸의 권위도 그 그림자만큼은 되어야 됩니다. 사탄세계에서 주워 먹던 습관성을 그냥 가지고, 욕심 보따리를 그대로 가지고 통일교회에 들어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성교회와 다릅니다. 사랑의 제단을 모으고, 사랑의 화살을 겨누어 가면서 생사지권을 전부 판가름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공중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문총재와 더불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파란만장한 곡절과 환난시대에 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살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 패권을 다 처리하고 나라에 돌아와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으니 이것을 통일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통일국을 만듦과 동시에 여러분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백성을 세워야 되고, 종족을 세워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부모님이 모든 탕감의 사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간단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참부모님을 알고, 진짜 참아내와 참남편을 알고, 진짜 참아들딸을 알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을 알려니, 아내와 남편을 알려니 나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사탄편 형제, 열두 제자, 120 문도를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딸을 천년만년 살고 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 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게 다 한국 백성이 선민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선민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영원을 걸고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초가삼간에서. 초가삼간이 어디인 줄 알아요? 밑창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초가삼간에서 부모를 못 모셔 가지고는 왕 부모를 못 찾습니다. 초가삼간 가정에서부터 모셔 가지고 종족을 편성하고, 종족에서 민족을 편성하고, 민족을 편성하고서야 왕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이미 세계와 나라에서는 선생님이 승리의 팻말을 갖고 수직의 자리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옆으로 갈 수 없습니다, 수직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중삼삼고는 개인적 수직, 가정적 수직, 종족적 수직, 민족적 수직, 국가적 수직, 세계적 수직, 천주적 수직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일체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212-51, 1991.1.1) p.262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합덕 기지가 어디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 혼자서는 고독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겁니다.

초가삼간이더라도 양친부모 모셔 놓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런 겁니다. 이상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가삼간보다 더 작은 데 들어가서도 천하를 품고 숨을 쉬고 사는 것이 놀라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그 집이 작은 집입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하늘나라의 왕궁이요, 우주의 왕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4-106, 1990.7.1) p.262

Top p.262

5)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스승 중의 제일 큰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중의 대왕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로 말하자면 부모 중에서도 첫째 부모입니다. 즉, 참된 부모입니다. 왕으로서는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선생님 중에서 첫째 가는 선생님이요, 부모 중에서 첫째 부모입니다. 첫째 부모라면 그 부모가 가짜 부모이겠습니까, 참부모이겠습니까?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부모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못 되었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기도를 마칠 때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볼 때 맨 처음 참부모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빌 때에 누구를 통해서 빕니까? 무엇을 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 있을 때 누가 구해 주기를 원합니까? 구주가 와서 구해 준다고 할 때, 이웃 동네의 할아버지가 구주가 되어 구해 주기를 원합니까, 자기 동생이 구주가 되어 구해 주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구해 주는 구주가 형님이면 좋겠어요, 동생이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구해 주기를 바랍니까? 자기 부모가 와서 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주 중에서도 일등 구주인 부모가 와서 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자기 뼛골에 사무치는 고통으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되는 구주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참부모가 뭐냐? 그 말을 선생님과 어머니만을 두고 생각지 마십시오.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세계를 품고 민족 감정이나 국가 감정을 넘어서 만민을 진실하게 하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경지의 참부모 기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41-307, 1971.2.17) p.263

Top p.263

6) 참부모 이름의 위력

성경에서 보면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 소유의 아들딸, 자기 부부, 나라와 세계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걸 참부모가 와서 물건과 자녀와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수습해서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소유주가 하나님이었던 것이 사랑의 도리에서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거짓 사랑이 돼 버렸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소유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지었지만, 패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파탄되었던 것을 참부모의 사랑으로 수습해서 물질과 자녀와 부부와 나라와 세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주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돌이켜졌느니라!' 이렇게 승리를 찬양하면서 그 바쳐진 물건을 참부모 앞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 가지고 참부모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 소유를 중심삼고 참아들딸의 소유가 되고, 이것을 동서사방에 다시 분배받는 세계가 되기 전에는 지상에 천국은 현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통반격파는 뭐냐? 남북을 통일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의 이름으로 만국의 승리의 판도를 중심삼고 대한민국을 온 인류의 조국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전부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니 거지패라는 겁니다. 왜 거지패입니까?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바쳤습니다.

이제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모든 소유권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본연적 부모의 자리로 소유권을 반환해서 거기서부터 역사적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최초의 조상국으로서 등장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자는 것이 문총재의 종착적 사랑의 목적입니다. (211-126, 1990.12.29) p.263

Top p.26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7) 참부모 이름으로 영영세세 영광을 누린다

바쳤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참부모에게 와야 됩니다. 참부모만 가지고 안 됩니다. 창조주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참부모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의 소유가 돼야 합니다. 다시 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 가정을 중심하고 상속이 벌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첫째로 재분배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탄의 분립이 없습니다.

둘째는 창조이상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투쟁이라든가 결렬이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완전히 통일된 체제에서 창조이상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완전한 지상천국이 벌어지고, 여기서 살다가 그냥 천상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셋째는 뭐냐 하면, 참사랑을 위한 천상천국 지상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영영세세 영광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참부모의 이름, 우리의 이름으로 영영세세 영광을 누릴지어다! 영원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누릴지어다! 거기에는 종교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212-143, 1991.1.2) p.264

Top p.264

8) 참부모의 심정 전수와 상속

① 심정의 전수

여러분이 참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심정을 어떻게 체휼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경지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려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럼 사탄세계에서 어떻게 해방받느냐?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야곱도 열 번 속았고, 모세도 열 번 속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속았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 앞에 승리 못 하는 한,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선에 가야 됩니다. 전부가 일선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편한 생각을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부모의 심정권, 하나님의 심정권을 찾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내보내야 합니다. 전부 다 핍박받고, 멸시받고, 맞고, 별의별 일을 당해야 거기에서 심정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전수식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같이 언제나 선두에 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당하는 핍박이 얼마나 심하더냐! 그렇지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소화하면 하나님이 보호할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같은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어떻게 체휼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참부모가 진짜 참부모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 뼈살이 아느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 세포, 고깃덩이가 아느냐 이겁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체휼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세계적 무대에서 사탄에게 승리한 본연의 아담과 해와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피땀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사탄 앞에 참소를 받겠습니까? 탕감노정을 거쳐서 승리하고 나서야 그것이 벌어질 수 있으니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그 자리가 싫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못 갑니다. 직접 체휼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곧장 체험한다 이겁니다. 직접 지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일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승리하기 전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안 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의 송전소를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개인적,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천주적?하나님까지 이러한 탑을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정의 전선을 걸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걸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125-204, 1983.3.20) p.265

Top p.265

② 아들딸은 부모 것을 상속 받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세계 앞에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이 인류의 조상이 되고, 참어머니 참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장관이나 대통령도 다 못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참부모가 되면 참자녀가 나오고, 참가정이 나오고, 참종족이 나오고, 참나라, 참세계가 여기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름이 뭐냐? 참부모라는 이름이, 참부모라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125-117, 1983.3.14) p.265

타락이 뭐냐? 자기들 멋대로 한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버님의 분신이 되어야 하고, 여자들은 어머님의 분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 속으로 들어가나, 어디로 들어가나 여러분이 반겨 줘야지, '아이고, 못 들어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담을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연구해야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 참부모면 참부모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와서 상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118-271, 1982.6.13) p.266

지금까지 참된 부모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참된 자녀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땅 위에 참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부모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를 인정하고 그 참부모를 발견해서 모시자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이 되면 무엇을 하느냐? 참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갖고 있는 상속권은 하늘땅 하나님까지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상속받자는 것입니다. 하늘땅이 주인이 없다면, 그 하늘땅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 하늘땅의 가치를 백퍼센트 인정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공인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의 상속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참부모의 상속권이 무엇이냐? 하늘땅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상속되는 것입니다. (24-323, 1969.9.14) p.266

우리가 가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앞에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종족을 대표해서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를 대표해서, 더 나아가서는 삼천만 민족을 대표하고 세계 인류를 대표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그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참부모가 지상에서 해야 할 책임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들은 왜 그것을 상속받아야 되느냐? 축복가정들이 민족복귀의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다면 참부모는 세계적인 복귀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단계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복귀의 승리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참부모는 세계적인 노정을 갈 수 없으므로, 참부모님이 세계적인 노정을 가시게 하기 위해 민족복귀의 책임을 상속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기까지, 이 민족의 한이 제거될 때까지 민족복귀의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13-293, 1964.4.12) p.266

Top p.266

9) 유의할 내용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는 심정권에 들어가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귀의 책임자는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참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부모를 중심축으로 해서,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딱 수평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136-67, 1985.12.20) p.266

여러분은 참부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를 여러분의 마을에 있는 유명한 돈 많은 부모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하는 데는 참부모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를 하나로 하는 길을 인간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부모라고 하는 분은 역사의 희망의 결실체입니다. 소망의 결실체입니다. 모든 것을 탕감한 승리의 결실체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는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55-155, 1972.5.7) p.267

Top p.267

제 8 장

3 대 주체사상과 참부모 선포

1) 3 대 주체사상과 부모주의

① 3 대 주체사상은 우리의 소원

인간의 소원이 뭐냐? 타락한 인간의 소원이 뭐냐? 아들딸을 낳되 그 아들딸이 사탄세계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하도록 키울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되었습니다. 참아들딸을 낳아서 하늘나라로 직행시킬 수 있는 참부모의 대신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전부 좋은 아들딸을 낳고 싶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자녀를 낳고 싶을 것입니다. 그걸 못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딸인 아담과 해와를 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딸로 길러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교육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다 선생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본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의 대신자가 되고 싶고, 그 나라의 회사라든가 모든 행정부처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출세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참된 주인이 되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3 대 소원입니다. 하나는 참된 부모, 그 다음에는 참된 스승, 참된 주인입니다. 출세해서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집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전통을 상속해서 선조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과 나라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참된 부모, 참된 스승, 참된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참된 부모가 되어야 되고,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되고, 참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3 대 주체사상입니다. 이 3 대 주체사상의 뿌리가 뭐냐? 참사랑입니다. 이 참사랑은 뭐냐 하면 백 퍼센트 자기의 이상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부모요, 스승이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할 때는 반드시 그 오른쪽에 스승이 오고 왼쪽에는 주인이 와야 됩니다. 언제나 따라다니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들딸을 낳는다고 참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길러야 됩니다. 아들딸이 엄마 아빠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205-19, 1990.7.15) p.269

Top p.269

② 3 대 주체사상은 참부모사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대 주체사상의 중심사상은 참부모사상입니다. 여기에 왜 참부모가 중심이 되느냐? 수직을 통한 종적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의 수직은 하나이기 때문에 참부모와 종적인 하나님의 결착점을 가진 가정을 중심삼은 대리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본뜬 스승, 부모의 사랑을 본뜬 주권자는 하늘나라의 환경적 여건을 지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마의 사랑권의 내용을 가지고 침범 못하기 때문에 해방권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천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13-124, 1991.1.16) p.269

Top p.269

③ 3 대 주체사상의 골자

거짓 부모가 사랑의 천리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망조가 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참부모로 말미암아 돌아섬으로 해서 본연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따라 이동해서 전진적인 노정에 돌아가기 위한 총결산시대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기독교도 끝이요, 불교, 유교, 전부 다 끝입니다. 정치도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여 종교권을 중심삼고는 세계평화종교연합을 결성하고, 정치권을 중심삼고는 세계평화연합을 결성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진 것을 하나 만들어 세계적으로 열매 맺힌 것을 거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거두었느냐?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거두었습니다.

참부모와 참스승과 참주인이 3 대 주체사상의 골자입니다. 이 3 대 주체사상을 지니고 세계의 잘났다는 사람들까지도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도해 주십시오!'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던 세계 정치가들, 이 가짜 주인들이 선생님과 전부 인연돼 있습니다. 그 3 대 주체사상은 선생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사는 데는 어디에서 사느냐? 스승의 자리에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에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의 총장도 저녁이 되면 부모로서 집으로 돌아가고, 대통령도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조백관(滿朝百官)을 거느리더라도 잘 때는 집에 들어가 자야 됩니다. 아버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부모가 중심입니다. 부모적 학교요, 부모적 주인의 자리입니다. 다 나갔다가도 부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란 부모를 모신 곳입니다. 그것이 모두 참사랑을 중심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도 거기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참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승 중의 스승입니다.

주권자 중에 사랑을 중심삼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마음이 선생님과 방향을 맞추어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진짜 통일교회를 사랑하고, 또 통일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의 근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생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심정권, 스승의 심정권, 주인의 심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통하면 부모의 자리에도 갈 수 있고, 주인의 자리에도 갈 수 있고, 스승의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215-78, 1991.2.6) p.270

Top p.270

④ 부모주의

예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성이 그를 대할 수 있는 하나의 여성을 만나서 비로소 애기를 낳았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중심삼은 새로운 직계 자녀가 이 땅 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오늘날 기독교라든가 로마 교황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아들딸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비로소 하나의 왕권이 시작돼서 하나의 세계가 되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왕권이라는 것이 전세계를 대한 왕권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부터의 왕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의 왕, 종족의 왕, 국가의 왕, 세계의 왕, 천주의 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장로교니 감리교니 하는 교파가 필요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필요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형제주의입니다, 형제주의. 그러니 싸우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주의가 부모주의로 돌아가고, 부모주의는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주의는 뭐냐? 지상에 있어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야 하는 참부모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주의는 뭐냐? 참부모가 횡적인 부모이니 종적인 부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부모주의가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두익사상이라고 하는 말은 참부모주의요, 종적인 하나님주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횡적 참부모주의와 종적 하나님주의, 종횡이 하나돼서 하늘 생명 땅 생명, 하늘 사랑 땅 사랑, 하늘 혈통 땅 혈통이 연결되어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이중 존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 사람과 외적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내적 사람은 종적인 나요, 몸적 사람은 횡적인 나다 이겁니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224-277, 1991.12.15) p.270

민주주의는 어떠한 주의냐? 이것은 형제주의입니다. 형제가 많으니까 그 많은 형제 가운데 누가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 언제나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저 아들은 엄마를 닮았다, 저 아들은 아빠를 닮았다 해서 자기 닮은 아들딸을 중심삼고 어머니 패 아버지 패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차대전 후에 전승국이 패전국을 독립시키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형제주의권 내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편 주의가 나타나기 위한 제일 가까운 거리에 가면 한 분 하나님 앞에 두 형제가 싸우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시대에 통일적 기반인 미국의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미국이 주체가 되어서 그 가외의 세상을 전부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패전국을 독립시켰다는 사실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버려졌던 아들딸, 탕자를 수습할 수 있는 하늘의 섭리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형제주의입니다. 이 형제주의가 끝난 다음에는 부모주의가 오고 부모주의가 와야만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섭리사가 그렇습니다. (213-10, 1991.1.13) p.271

Top p.271

2) 참부모 선포

① 참부모 선포 배경

참부모를 왜 선포할 수 있느냐?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는 가인 아벨 형제입니다.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두 아들과 마찬가지인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 아들이 싸우던 것을 화해시켜서 환영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비로소 부모의 특권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참부모 선포를 거국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세계에 소문이 납니다. 레버런 문이 움직이는 것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서는 일일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소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참부모가 선포됐다는 것은 세계적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갖추어진 전부가 한국에서 접붙으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 나라 통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통일된 기반 위에 접붙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4-187, 1990.7.8) p.271

Top p.271

② 참부모 선포의 기준

엄격히 말하면, 선생님의 고향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가지와 순과 잎은 다 같지만, 가지가 있는 위치가 자기 고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종족복귀 결정을 못 하면 여러분의 고향이 없는 것입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복귀. 3 대를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권을 완성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책임분담 완성권, 직접주관권과 간접주관권이 일체화할 수 있는 기반을 누군가가 마련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너와 나와 이 피조세계가 사랑의 것이라는 선포식을 해야 할 것인데, 그걸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이 결정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선포식을 해야 할 것이, 원리형 가짜 입장의 사탄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서 선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소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213-123, 1991. 1.16) p.272

민주주의도 싸움을 합니다. 형제끼리 싸움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끼리 싸움하는 것은 이웃 동네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가 동쪽이면 하나는 서쪽인데 동서의 자리가 안 맞으면 그 옆이 동쪽도 남쪽과 북쪽이, 서쪽도 남쪽과 북쪽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움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끼리는 싸움해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보따리 싸서 도망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싸움 중에서 제일 요사스런 싸움이 형제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주의 시대에 둘이 싸움하는 나라는 망하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도 싸움을 합니다. 형님이 누군지 모르고, 동생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후레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후레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버이가 나타나야만, 부모가 나타나야만 싸움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구세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는 싸움이 끝나지 않지만, 부모주의 시대에 와서는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참부모를 발표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참부모고 아담과 해와도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참부모고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참부모입니다. 종횡이 일치된 참부모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이 다 같습니다. 위를 아래 갖다 놓고 아래를 위에 갖다 놓고 서쪽을 동쪽, 동쪽을 서쪽, 어디 갖다 놓더라도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미국을 위하는 입장이 돼 가지고는 세계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전환시키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도 공산주의를 위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를 위한 공산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세계도 찬양하는 공산주의가 되고, 공산주의 자체도 찬양하는 공산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좋소!' 할 수 있는 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주의냐? 형제끼리 싸우던 패들이 싸움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사스러운 싸움판이 벌어진 잘못된 이 세상에 선생님이 참부모를 선포했습니다. 참부모를 세계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참부모, 가정적 참부모, 종족적 참부모, 민족적 참부모, 국가적 참부모, 세계적 참부모, 천주적 참부모·하나님과 인간을 중심삼고 하나님도 참부모, 참부모 자신도 참부모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참부모를 선포할 때 세계 인류의 3분의 1은 거느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3분의 2는 조건을 걸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나에게 걸렸지, 미국도 나에게 걸렸지, 중국도 나에게 걸렸습니다. 다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부모의 시대가 오면 싸움은 끝납니다. 80이 되고 100살 난 형제끼리도, 90살 난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어머니 아버지가 오면 뛰어 나가야 됩니까,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까? 천년만년 기다리던 부모가 온다는데 어떻게 뛰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문총재는 사랑을 통해서 점령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사랑을 가지고. (202-165, 1990.5.20) p.273

Top p.273

③ 참부모 선포 장소

여러분은 문총재가 왜 고생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라면 선생님이 왜 고생합니까? 선생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국 풍속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하려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이 40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했습니다. 나한테 죄가 많아요. 형제의 짐을 내가 지고, 부모와 사돈의 팔촌으로 인연된 모든 한국 백성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다 갖춘 것을 이번에 와서 축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 선포를 한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 선포를 어디서 했느냐? 모스크바에서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부터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204-187, 1990.7.8) p.273

Top p.273

④ 참부모 선포 후 나타나는 현상

㉮ 팔정식 발표로 급변해지는 오늘의 세계

여러분은 팔정식(八定式)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1989 년 8 월 31 일,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팔정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자신도 그 내용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부터 세계가 급변해 들어간다는 말을 했을 때에도 '뭐, 또 그럴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9 월에는 부모주의를 선포했습니다, 부모주의. 이것을 맨 나중에 세계적인 정상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주의가 이 땅 위에 나타났으면, 사탄도 없고 오늘날과 같은 죄악세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는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 1989 년 11 월 9 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1990 년 4 월에 선생님이 모스크바 대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공산주의의 수뇌부로부터 천재적인 똑똑한 2 세들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완전히 180 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최고 수뇌부와 똑똑한 2 세들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180 도 돌아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소련에서 영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3 천 명을 뽑아다가 교육을 다 완료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포기한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단 하나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앞으로 그 체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념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주의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인간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주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귀착하는 것입니다. (218-157, 1991. 7.28) p.274

Top p. 274

㉯ 악마의 세력은 사망권으로 진입

지금까지 장자가 악마가 돼 있었습니다.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들이 지상의 아들적 자리에 있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영통하는 사람들이 전부 지상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장자권 · 부모권 · 왕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일교회를 반대하다간 급살 맞습니다. 두고 보라는 겁니다.

장자권이 복귀됐기 때문에, 땅에서 아담이 완성됐기 때문에 영계의 천사장을 명령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입니다. 문총재를 중심삼고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를 했으므로 전세계에 참부모를 발표한 것입니다. 악한 부모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악마의 세계가 됐으니,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세력권은 공산권이고 뭣이고 다 물러간다 이겁니다.

악한 면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입니다. 남자도 인신매매하고 여자도 인신매매합니다. 아이들은 물론입니다. 세계적 정상의 자리, 제일 악한 자리로 왔습니다. 이걸 누구로 말미암아 청산짓느냐? 현정권이 아닙니다. 선생님 손으로 청산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손을 통해 전부 청산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깨끗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210-246, 1990.12.23) p.274

Top p. 274

㉰ 통일의 운세권 도래

무엇을 중심삼고 정착하느냐? 아담과 해와,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정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적 사랑과 참부모의 횡적 사랑을 중심삼고 여기서 정착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본연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자녀의 혈연적 인연이 생겨나서 개인, 가정, 종족이 횡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종족편성 민족편성이 돼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찾기 위해 선생님이 지금까지 싸워 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사탄세계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으로 가게 되면 사탄세계의 개인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가면 사탄세계의 가정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통일교회 종족편성을 할 때도 전부, 민족편성 할 때도 전부 반대한 것입니다. 조건적 기준에서 전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승리하게 되니, 미국이 굴복하고, 소련이 망해 떨어지게 됐으니 공격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싸움터에서 승리해서 돌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꼭대기를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돌아 들어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사탄세계의 패권을 쥐고 환고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좌우가 다 무너지니까 누가 득세하느냐? 하늘편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입장에 서고 사탄은 이제부터 급추락하는 것입니다. 올라간 각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급추락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길은 사탄이 갈 길이 아닙니다. 참부모가 갈 길입니다. 사탄세계에서 이겨 가지고 넘어가서 평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점령할 것이 아니고 참부모가 만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물질 만능시대라고는 하나, 정신에 있어서는 영(零)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중심삼고 물질을 끌고 내려가야 할 것이 통일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학교도 기술교육은 하지만 인격교육을 안 합니다. 신이고 인간이고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탱해서 이 길을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을 출발해서 하나의 순환 법도로서 이걸 갖다 대야 하는 것입니다. 환고향해서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좌우, 민주와 공산세계로 갈라진 것을 대표한 제물입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갈라져 있고 가정이 갈라져 있습니다. 전부 두 패입니다. 싸우는 패입니다. 이게 종적인 입장에서 상하로 맞추지 못하고 전후로 갈라져 싸우는 패가 돼 있습니다. 상원 하원은 수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민주와 공산을 통일할 수 있는 곳이요,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세상도 통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땅을 통일해야 하는 천리의 대도 앞에 책임을 지고 왔는데 전부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이것은 내려가야 합니다. 포화상태가 되어서 힘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나라도 2 세, 3 세에 대한 자신을 갖는 나라가 없고, 2 세, 3 세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소련에까지 갔다 오고 이럼으로 말미암아 공산세계가 끝장이 났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우습게 알았습니다. 저절로 흘러가고 꺼져 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들이 득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대한민국도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해도 안 됩니다. 전부 포화상태에서 까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본연의 기준이 뭐냐? 참부모의 사상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가정적 참부모고 종족적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가정이지만 참부모의 조상입니다. 국가가 형성되면 국가의 조상이 누구냐? 참부모입니다. 가정의 조상이 누구냐? 참부모입니다. 세계의 조상이 누구냐? 참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이 땅 위에 현현함으로써 하늘나라의 가정이 편성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전체가 참부모의 소속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해 나간다는 것이 뭐냐? 참부모권 하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백방으로 포위해서 크지 못하게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러나 43 년 동안 이 싸움을 다 끝내고, 미국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가인 아벨 문제를 중심삼고 볼 때 미국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선생님 앞에 가인이 됩니다. 이 가인을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 민주와 공산, 좌익과 우익이 다 포화상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두익이 서는 것입니다.

두익사상이 뭐냐 하면 완성한 아담주의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아담이 못 되었기 때문에 아담을 키워 내기 위해 사탄편 아들, 하늘편 아들을 키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서로 주인 되겠다고 싸운 것입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두익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완성한 아담주의입니다. 아담주의, 두익사상은 무엇을 중심한 사상이냐? 원리로 보면 간접주관권 직접주관권이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책임분담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주관권 직접주관권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되느냐? 10 단계를 넘어서면서입니다.

그러면 10 이 뭐냐? 수평선입니다. 10 이 비로소 수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9 만 해도 수평선이 안 됩니다. 10 수에 올라가서 수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하늘과 땅, 마음과 몸이 수평선상에서 완전히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정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참부모를 발표해야 됩니다. 참부모를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 세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승공연합, 국민연합이 그것입니다. 국민연합은 남북통일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승공연합을 세운 것은 공산세계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산세계를 방어해야 남북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세운 것은 정신적인 것을 위해서입니다. 자리잡지 못한 양심을 자리잡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리잡지 못하게 통일교회를 패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탕감조건을 다 넘어서서 환고향해 가지고 참부모를 선포한 것입니다. 참부모를 선포하는 데는 통일그룹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엔 관계되어 있는 사람, 친척을 중심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는 이미 선포됐지요? 여기에 관계돼 있는 통일그룹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가인 아벨이 하나돼야 됩니다. 이걸 타고 나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선포하면 가인 입장에서 반대하던 것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통하는 사람들은 참부모를 선포하는 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다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이 악한 부모로부터 시작했으니 악한 부모의 모든 인연이 전부 굴복하고 참부모의 출발이 벌어지면 새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름판에서 챔피언하고 도전자하고 싸울 때에는 넘어지기 전까지는 챔피언이 챔피언입니다. '꽝!' 하고 넘어진 다음에는 땅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2-270, 1990.5.25) p.277

참부모를 선포했습니다. 참부모를 선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에덴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참부모가 되었더라면 거기엔 악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은 먼저 가 있는 천사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통일교회 여러분 뒤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다 영계에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신을 갖고 선생님의 말만 믿고 행동하면 별의별 일이 벌어집니다. 요전에 시 군 구 참부모 환영대회 할 때도 교역장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그릇대로 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지부장들에게 3 천명 대회 하자니까 다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믿어라! 선생님 말을 믿고 실천해라!' 그대로 하니까 됐습니다. (203-242, 1990.6.26) p.277

Top p.277

㉱ 장래에는 싸움이 없다

한국인은 지금까지 외국을 침략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인은 인정이, 인류애가 깊은 민족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희생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심정권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 인류 타락세계에서 가장 높고 귀중한 것은 참부모이고, 장자권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권이고, 그 다음에 왕권입니다. 이건 고유의 권한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하늘의 왕권을 상속하는 장남의 권위를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문해 온 역사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끝날에 천황을 잇는 것은 장자권입니다. 장자는 참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본연의 인류의 장자는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은 반드시 참부모를 맞이해야 하고, 장자권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부모의 입장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러시아에서 돌아와 참부모 선포를 했습니다, 참부모 선포. 장자권을 복귀한 다음 세계적으로 참부모가 서야 됩니다. 참부모가 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종족 왕권, 국가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의 국가적 기준이 있으면 참왕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될 때 참왕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래의 왕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이 생겨난 경우의 나라라는 것은 주권 · 영토 · 국민, 3 대 국가 구성의 요소가 모두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권, 국토, 국민, 그것이 없으면 왕권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세계적인 국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권은 있지만 국민과 국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을 한 국민은 통일교회에 맞춰 천지 국민으로서 왕권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장래는 싸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쓸모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빼앗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통일세계는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져서 위하여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주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살게 되면 그냥 통과입니다. 하숙 같은 것은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법률도 뭣도 다 없어집니다. 사랑의 자치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법률이 자동적으로 완성됩니다. 위하는 사랑, 그것을 이룩한 곳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상하가 하나가 되고, 전후 좌우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224-171, 1991.11.24) p.278

Top p. 278

⑤ 참부모 선포는 놀라운 사실

선생님은 좌익 우익을 수습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 나오기까지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두익사상을 중심한 하나님주의가 학교로부터 모든 지도층의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공인할 수 있는 판도를 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 미국 정부가 이제 레버런 문을 중심삼고 살게 되면 미국도 살고, 공산당도 산다고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스크바에 들어갈 때에,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한눈으로 보았지만, 레버런 문이 공산당을 소화했으면 했지 공산당에게 소화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에서 6 개월 이내에 갈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나입니다. 군사력을 삭감하자는 소련 정책을 미국이 염려하여 주저하고 있는 판국을 전부 다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개를 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돌아서니까, 돌아서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계로 다시 환고향하여 나라를 넘어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 가정에서부터 타락의 조상이 시작됐으니 이 탈을 벗겨야 됩니다. 3 대 시대에 3 대 조상의 허물을 벗겨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악마가 인류의 참조상을 죽여 버렸습니다. 1 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엔 제 2 차 참부모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로서 온 이 메시아를 인류 백성들이, 자기 아들딸들이, 사람이 잡아죽였습니다. 참부모를 잡아죽였으니 나라의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2 천 년 동안 유리고객(流離孤客)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배후를 더듬어 보면, 수많은 사람이 칼에 찔리고 말굽에 차이고 원한과 저주의 이슬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근이 2 천 년 역사가 지나 비로소 미국의 후원 아래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마가 우리의 부모를 죽여 버렸고, 악마의 아들딸들이 제 2 차 참부모를 죽여 버렸고, 제 3 차로 오는 참부모를 온 세계의 악마가 모든 사상과 모든 체제를 동원해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 남아서 이제는 부모의 도리를, 참부모를 지상에 선포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 얼마나 하늘이 소원했던 사실입니까? (219-333, 1991.10.13) p.279

Top p. 279

⑥ 참부모 선포 후 우리의 처신 방향

선생님이 고르바초프에게 레닌의 동상과 마르크의 동상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공산당 역사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레버런 문밖에 없습니다. 소련 공산당 간부들은 모두 '우리 앞에서 하나님주의를 말해? 어떻게 저렇게 오만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생님을 미워하더라도 지금 공산세계는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워하던 존재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 하고 선생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소련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싶었는데, 훌륭한 내 아들이로구나!' 하시면서 레버런 문을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온 인류 위에 세우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생님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지도자가 '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유럽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공산세계가 '크렘린궁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거 재미있구나!'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참부모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참부모를 찾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코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왜? 참부모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모든 자연도 참부모를 원합니다.'참부모님, 제발 여기에 계속 계셔 주세요.' 합니다. 자연이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가 참부모를 좋아합니다. 참부모라는 소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나 참부모님 만났다.' '어디서?' '따라와 봐' 하면 모두가 따라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부모입니다.
참어머니 · 참남편 · 참아내 · 참자녀 · 참손자 · 참애국자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희망찬 복음입니다. 우리한테는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참부모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의 이름이 제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부모의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게 문제입니다. 참부모를 나무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어디에 꽂아도 잘 삽니다. 이 가지는 어디에 가든지 사랑만 있으면 밤에 꽂든, 낮에 꽂든, 겨울에 꽂든, 봄에 꽂든, 장마 때 꽂든 그것에 상관 없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사탄권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참부모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관입니다.

또, 만물들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여러분을 보고 '만세!'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만물이 환영하고 인류가 환영합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본연의 세계에는 만물들의 참사랑의 소리로 가득차 있습니다. 참사랑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하는 데는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동참할 수 있는 동참권이 있습니다. 이 참사랑은 이 세 가지 권한을 갖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자동적으로 참사랑을 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속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낮같이 환합니다. 이것이 통일교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통일교인이 가는 데는 사탄의 반대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외치는 대로 흡수되고, 외치는 대로 부활하고, 외치는 대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반대가 있었느냐? 올라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익 우익이 다 없으니까 두익이 생겨났습니다. 두익이 더 높습니다. 더 높으니까 다 좋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종하고 주인주의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형제주의입니다. 형제주의이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두익사상은 뭐냐 하면 부모주의입니다. 미국을 보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싸우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이 자식아, 왜 싸워?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부모가 제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것보다 형제끼리 서로 부모를 사랑하는 이상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게 되면 절대적으로 영원히 하나입니다. 거기서부터 선생님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인연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도 참부모의 노정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앞으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되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앞으로 참부모가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여기를 봐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주인이냐!' 하고 외쳐 보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서도 '당신은 메시아이신 예수와 같이 참사랑을 중심삼은 구세주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한이 없어지고 종교를 중심삼고 투쟁하던 모든 탕감법도 없어집니다. 선한 영들이 천사세계와 맞먹기 때문에 타락 없는 세상이 되어 마음대로 지상 협조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통일교회를 반대하다가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 말은 주체적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없어져!' 하면 없어집니다. 금방 내려갑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것은 안 원해!' 하면 즉시 없어집니다. 모든 주위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중심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산천초목의 모든 중심이 그 태양을 향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 사랑의 본질입니다.

참부모는 우주적인 참사랑의 중심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부모가 나타나면 아침에 모든 산천초목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듯이 모든 피조세계가 참부모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잎이나 가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리 통일교회에서도 선생님이 어디를 가면 식구들의 모든 신경이 자동적으로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참사랑이고 세계의 센터가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부모입니다. 거기서 모든 해방이 벌어집니다. 그런 자리에 서면 사방의 문들이 자동문같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계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서 참사랑의 주인이 가는 데는 문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자동으로 열립니다. 어디든지 환영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얼마나 멋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주인이 됩니다. 스승이 되고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스승, 주인과 부모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장래에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202-351, 1990.5.27) p.282

지금까지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지상의 사람의 마음과 수직으로 연결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참부모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대하지 않는 친척 환경은 가인권이 아닙니다. 하늘편에 선 아벨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교권 타파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선민을 중심으로 종교권을 통해 영계와 육계가 주류적인 관계를 맺어 연결시켜 왔는데, 이제는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가 완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서 종교권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인 아벨 환경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중심삼은 반대하지 않는 가정들은 하늘 편 아벨적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휘젓는 대로, 미는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혈통적 부모는 다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사탄세계와 싸워서 다 갖추어 올라와서 민주세계 공산세계가 쓰러질 단계에 왔기 때문에 승리적 조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세계가 끝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세계의 문화권과 그 환경 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탄세계와 사탄생활권과 사탄의 혈통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탄에게서 해방되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추방한 인본주의가 됐습니다. 인본주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몸입니다. 몸은 몸인데 자기 중심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향락을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사탄의 생활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생활은 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권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혈통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서 해방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공산당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속적 인본주의도 하나님에게 돌아갈 줄 모릅니다.

또, 생활은 어디서 하느냐? 자기 멋대로 동물같이 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생활은 본래부터 참부모를 중심삼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은 세계적 이념권 내의 판도를 중심삼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접붙이지 못한 가지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275, 1990.5.25) p.283

여러분은 지방에 나가서 참부모의 기반을 닦아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는 하늘의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부모보다 먼저 참부모의 갈 길을 닦으시고, 참부모는 여러분이 갈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부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참부모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를 보게 될 때 복귀기대섭리시대, 복귀섭리시대, 복귀섭리완성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부모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 참부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기반을 닦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기준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준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천주사적인 기준을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국가적인 기준을 넘어서면, 참부모는 세계적인 기준을 넘어서고, 하나님은 천주사적인 기준을 넘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주해서 온 인류가 천주적인 기준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두 단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여러분은 그래서 낙망하고 지치는 입장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앞에 나를 위해 참부모가 가시고, 그 참부모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참부모의 수고는 어떠한 것으로도,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수고입니다. 그런 빚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부모가 상속받고 참부모의 뜻을 여러분이 상속받아서 그 전통적인 사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통적인 사상은 무엇이냐? 인간이 원수 사탄의 혈통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수 사탄의 혈통을 제거한 후,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부모를 중심한 혈통적인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심정적인 일치를 기반으로 해서 하늘의 혈통을 받아 하나님을 뿌리로 하는 나무의 하나의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하나님의 대신 실체가 되어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지상에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귀의 역사가 추진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13-296, 1964.4.12)

Top p.284

⑦ 참부모 선포 후 우리의 할 일

㉮ 선포 앞에 감사하자

참부모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위하던 영계의 모든 선한 영과 사탄을 중심삼고 있던 악한 영이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으면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입장이 되는데 완성한 아담은 천사장이 언제나 보호하고 키워주고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완성한 아담권에 서면 협조뿐만 아니라 사랑이상에 의해서 실체적인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입니다. 사탄세계의 거짓 부모의 사랑으로 시작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새로운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은 새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름삼아 새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것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우리 통일교회를 무조건 반대하다가는 시름시름 하면서 전부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진액이 끊어진 나무같이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번에 벌레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생명의 생활권을 중심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기원은 새 사랑입니다. 새 사랑이 뭐냐? 참부모의 사랑입니다. 창조이상적 새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생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사탄에게서 해방됐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서 해방됐느냐? 사탄의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사탄의 혈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생활에는 문화배경이 있고 습관성이 동반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사탄의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문화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영국은 영국 사람 문화를 중심삼고 살고, 미국은 미국 문화를 중심삼고 사는 것입니다. 전부 다릅니다. 생활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그 다음엔 뭐냐? 핏줄입니다. 3 대 해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화가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방받으면 뭣 하느냐? 사탄에게서 해방받았으니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해방받으면, 거짓 부모와 인연되어 구속됐던 것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자유스러운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데는 사탄세계의 생활권 습관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참부모' 하게 되면 종적 참부모인 하나님하고 횡적인 참부모인 참부모가 있는데, 이 둘이 하나된 사랑을 중심삼고 지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자리, 사랑이 없는 곳에서 비로소 주체성을 지니니까 사랑을 찾고자 하면 영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원을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역설적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세계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입니다. 문화권이 배경이 되어 역사와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혈통입니다. 혈통은 사랑을 중심삼고 뒤넘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혈통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에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이고 잎입니다. 참부모를 모시고 뿌리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공기 1 기압을 중심삼고 모든 것이 밀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모릅니다. 못 나가게 전부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모르지, 조금만 뜻 앞에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면 우주의 힘이 '이 녀석아!' 하고 들이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가려 해도 몸이 휙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고 부모님은 내 살에 들어와 있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십자에 들어와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의 도수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3 대 사탄권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종적인 대표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육적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문화권, 생활전통입니다.

한국이면 한국민족 문화가 있고, 미국 문화, 별의별 오만가지 문화가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전부 뻗어 있는 것입니다. 멀수록 전부 잡동사니라는 것입니다. (202-273, 1990.5.25)

Top p.285

㉯ 실적 쌓기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미국 제일의 방송국인 엔비시(NBC), 시비에스(CBS), 에스비시(SBC)가 모두 문총재를 때려잡자고 별의별 악독한 짓을 다 하고, 신문이 두들겨 저들이 선전하기 전에 레버런 문이 벌써 다 알고 있으니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신문에 내고 북을 치고 그랬지만, 춤 추는 사람이 없으니 북 치는 녀석도 기운이 빠져서 다 집어치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사를 갖고 있으니 신문사로부터 들이대는 겁니다. 편집국의 책임자를 불러다가 내가 껍데기를 벗겨 놓았습니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니 실적이 문제입니다.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력은 없더라도 실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적은 천하의 힘을 버는 것입니다. 문총재에게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대의 실적, 비즈니스로서 나를 비교할 바가 없으니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후대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계에 가려면 선물을 갖고 가야 됩니다. 시집가려면 시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족에게 버선 한 켤레라도 갖다 줘야 며느리를 자랑하고 다그러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면 조상들이 앞에 불러다 놓고 '너 우리 조상들 공을 통해서 통일교회에 들어갔는데 뭘 하고 왔어? 종족적 메시아 노릇 했어?' 하면서 조상들이 닦아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조상 72 대가 해방되는데, 안 닦아세울 것 같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사탄세계에 빼앗겨 잃어버린 하늘 백성들을 전부 하늘세계에 접붙여서 돌이켜 놔야 됩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늘 백성을 얼마나 찾아오느냐? 그 다음에 자기 아들딸을 연결시켜서 자기 혈족과 더불어, 복귀된 백성과 더불어 영원한 창조이상적 전통을, 사랑의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나라에 가서는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권위, 생명의 위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족을 처리하여 120 가정 이상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발가벗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에 선생님이 이미 다 선포했습니다. 세계의 선민권 시대는 지나가고 문총재를 환영할 시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세계가 이스라엘권에 들어가는 만민권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편성하는 겁니다. (213-139, 1991.1.6)

Top p.286

㈐ 참부모 환영대회 개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에 참부모 환영대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왁싹왁싹 쑥덕쑥덕 공론이 전국에 파급됐습니다. '야! 참부모가 뭐야, 참부모?' 하는 겁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참부모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를 기원으로 했으니, 거짓 부모의 종착점을 넘어서서 참부모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원리요,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타락했으니 거짓 부모가 되었습니다. 쫓겨났으니 거짓 부모입니다. 쫓겨나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양친 부모 모셔 놓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자리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렇습니다.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런 노래를 갖고 있습니다. 예시적인 민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계시적인 민족입니다. 앞으로 인공위성이 나타나서 세계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풍류적인 민족이냐 이겁니다. 그러한 문화적 배경, 그러한 고차원적인 사상의 풍자적인 배경을 가졌다는 사실은 위대한 것입니다. (206-80, 1990.10.3) p.287

문총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족 앞에 참부모 환영대회를 통해 참부모를 선포했습니다.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사탄이 물러가게끔 하늘이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금후의 갈 길을 두고 보라는 겁니다.

참부모 환영대회를 전국에서 했는데, 그거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문총재가 미쳐서 한 게 아닙니다. 참부모 환영대회를 통해 참부모를 선포함으로써 악의 집단을 대체할 수 있는 하늘편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204-144, 1990.7.6) p.287

전국적으로 부모님 환영대회를 통해 참부모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생님이 세계적 판도 위에 국가와 세계가 연결된 그 기반 위에서 부모님 환영대회를 했으니, 이제는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들이 종족적 부모 환영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중심삼고 세계적 메시아를 완성한 후에 종족권을 수습해야 합니다. 종족은 세계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형성은 자연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민주세계도 다 실험 필했습니다. 공산세계도 실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필했고, 기독교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도 실험 필했습니다. 왜 실험 필했다고 하느냐? 통일교회를 반대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전부 쳤다는 것입니다. (202-270, 1990.5.25) p.287

전국에 부모님 환영대회 끝내고부터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영계를 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새 세계로 간다는 것을 계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재림합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인데, 옛날에는 주류 종교를 통해 종교를 믿어서 선한 이름을 남기고 선한 영계에 가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상의 섭리를 도와 왔습니다.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이 이 땅에 나와서 개인, 가정, 민족, 국가, 세계적 전통을 세우고 전부 다 싸워 승리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권 해탈입니다. 참부모시대에는 종교가 없어집니다. 세계적인 승리의 판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해와 자체가 타락하지 않고 참부모가 됐으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 자체를 중심삼고 영원히 하늘과 일체로 합덕하게 되고, 그 일체적 이상을 중심삼고 선조들이 언제든지 지상에 사는 자기 후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막혔기 때문에 이 길을 트기 위해서는 선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민권, 기독교의 세계적 선민권, 통일교회의 천주적 선민권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탕감복귀했기 때문에 종교권 해탈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전부 다 지상세계와 평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민권을 통해서 종교를 거쳐 영계와 연결되어 과거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참부모 승리로 말미암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주류권 내에서 구약완성시대·신약완성시대·성약완성시대로 접해 들어가서 영계에 간 모든 선조들이 언제나 지상의 자기 후손들을 찾아와서 협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교회를 안 믿으면, 선조들이 와서 가위 누르고, 약 주고, 병 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지상세계를 사탄이 분할 점령하고 있었는데, 선한 천사장권 내의 선한 영들과 종교권에 있던 선한 영들 전체가 들어와서 지상에서 악한 세계를 완전히 몰아내기 때문에 김일성이든 누구든 지금까지 악마의 그늘이 되었던 것이 전부 걷어치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만 통일교회와 연결되면 전세계는 완전한 해방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1988 년에서 2 천 년까지가 이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시대입니다, 선생님 80 세까지.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설정된 것입니다. 세계적 메시아, 그 다음에 국가적 메시아권을 향하기 위해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 메시아권 앞에 종족적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국가적 메시아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한 주와 마찬가지요, 도와 마찬가지의 설정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255, 1990.5.24) p.288

Top p.288

⑧ 북쪽 부모와 남쪽 참부모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듯이, 구약시대는 물질을 희생시켜서 아들딸이 오는 길을 닦고, 신약시대에는 아들딸이 제물이 되어서 부모님이, 재림주가 오는 길을 닦은 것입니다. 성약시대에 부모님이 고생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모셔 들이기 위해 수난길을 걸은 것입니다.

선생님의 일대 소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고향에서 하나님을 못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고향에 가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악의 재림주입니다. 악마의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라는 말이 뭡니까? 남한에 참부모가 나올 것을 알고, 북한이 참부모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고서 목을 지키고 목을 자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총재를 잡아죽이려고 고르바초프하고 김일성하고 약속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1987 년 2 월에 25 명의 적군파를 미국에 파송했는데, 그들이 우리 별장 주소를 적어 가지고 다니던 것을 전부 영계에서 잡아낸 것입니다. 중앙정보국(CIA)이 잡아 조사하는 중에 나는 모스크바로 입성한 것입니다.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원성사하는 데 역사를 단축하고 하루라도 짧게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총재가 가는 길은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일신의 모든 자본을 태평양에 투자하고 산골짜기에 투자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거와 마찬가지로 투신하면서 이 길을 닦아 온 것입니다. 그러한 데에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은 몸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둘이 하나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을 통일해야 됩니다. 우선 남한에서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 모시기를 북한에서 김일성 모시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 이상 통일교회에서는 세상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전부 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철석 같은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은 3 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북한이 상관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그러한 길을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12-56, 1991.1.1) p.289

김일성은 가짜 아버지입니다.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하지요? 그게 왜 역사시대에 나타나느냐?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제일 악랄한, 악마 중의 대악마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총재도 참부모라고 합니다. 참부모는 거짓 부모를 자연굴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힘으로 때려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섭리와 하나님의 승패의 결정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면 그 즉석에서 다 끝났을 것입니다. 공산당식으로 했다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지상세계에 투쟁 역사를 연결지은 군대를 가지고 힘을 과시하던, 사탄의 전통을 계승하던 타락한 세계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연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 하고픈 대로 다 해 봐라 이겁니다. 다 하게 하고 나서 하늘은 맞고 빼앗아 나옵니다.

네가 정의편을 쳤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끝에 가 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세계 끝에 가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상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날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210-231, 1990.12.23) p.289

Top p.289

⑨ 종주들과 참부모

본래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통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자는 것입니다.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원래 참부모가 뿌리가 아닙니다. 참부모도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 만물이 아담과 해와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더 속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인간 앞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내 대신 죽어 주는 것입니다.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자리를 바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모든 제물을 희생시켜서 아들딸이 가는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와서 아들딸로서 희생해서 부모님의 길을 닦은 것입니다.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 가지고 재림시대에 부모님이 오는 길을 닦은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은 아들의 자리고, 부모님은 부모의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언젠가 석가모니가 내 제자고, 예수가 내 제자고, 공자가 내 제자고, 마호메트가 내 제자라고 했을 때, 이란의 호메이니는 나에게 사형선고라는 언도를 내렸습니다. '문총재 잡아죽여야 된다!' 이랬습니다. 똑똑한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계를 통하는 사람이 기도해 보면 다 압니다.

두고 보십시오. 통일교회가 맨 나중에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온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 잘났다는 위정자들을 기준 잡아 줄 것입니다. 그게 선생님입니다. 그건 강제가 아닙니다. 자연굴복시키는 것입니다. (211-312, 1991,1.1) p.29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종교권의 교조주의자들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시리아는 회회교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는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회교 지도자가 기독교권 집회에 참석했다 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문총재는 시리아의 맨 꼭대기 패들을 잡아다가 미국 이스트가든에 모아 놓고 성경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기독교의 분파가 아니라 주파(主派)입니다. 예수가 죽어서 구원받았으니 예수 어머니 아버지가 와야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부모 되는 자리의 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참부모라는 말이 그렇게 위대한 말입니다.

선생님이 '예수는 내 제자다.'라는 말을 했다고, 기성교회에서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영계에 가 보면 다 압니다. 그런 말을 하면 욕 바가지가 굴러 들어올 걸 훤히 알면서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호메이니는 레버런 문에 대해 사형선고를 해 놓고 죽었습니다. '우리 마호메트 거룩한 성주님을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하면서 사형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더라 이겁니다.

기성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뒷방에 똥 싸 뭉개서 더럽혀 놓은 것을 통일교회 식구들을 통해 깨끗하게 치워 가지고 교단을 초월해서 예배 본 후에 내가 영계에 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필하고 난 후에 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미 우리 원리를 활용하는 목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불 포대기 위에 원리강론을 내놓고 보고 있다가 집사 장로가 들어오면 슬쩍 감추고, 나간 다음에는 다시 꺼내서 그저 밤을 새워 가면서 쑹얼쑹얼 외워서 써먹습니다.

낙엽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낙엽이 떨어질 때 한꺼번에 전부 다 떨어집니까? 한꺼번에 안 떨어집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지 와르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지만, 얼마 안 가서 푸른 옷 입었던 큰 나무도 한 잎도 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213-34, 1991.1.13) p.291

Top p.291

3) 참부모 선포와 왕권

① 본래는 아담 가정이 왕궁 출발지

본연의 아담을 중심삼고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은 장자입니다, 장자. 첫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장자권입니다. 아담은 첫사랑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중심삼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적인 사랑으로 이어받아서 횡적 사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권 복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시대는 부모가 등장할 수 있는 터전이 없었습니다. 싸움입니다. 가인 아벨 싸움의 역사입니다. 인류역사는 전쟁 역사로 엮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형제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알고 보니 원수가 형제입니다. 형님이었고 동생이었다 이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조상이 갈라진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화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중심삼은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합해야 부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권 복귀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대해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모 출발의 이상은 뭐냐? 왕궁 출발입니다. 아담은 뭐냐 하면, 장자권을 부모권 왕권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정착해야 됩니다. 그 정착한 것이 왕궁의 기원지요, 부모의 기원지입니다.

그 다음엔 장자권의 기원지입니다. 천하는 이 전통에 따라서 전부 다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정되면 천사장도 머리 숙여야 됩니다.

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는 가인 아벨 관계입니다. 가인 아벨이 싸웠지요? 종교권하고 정치권은 종적인 면의 가인 아벨입니다. 이 종적인 면을 횡적인 것이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권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란 것은 부모권을 자동적으로 내포하는 것입니다. 장자 위에 부모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권이 설정되면 왕권이 자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 가정은 왕궁의 출발지입니다. 황족으로부터 많아지면 백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중심삼고, 종족을 중심삼고 그 종족이 왕권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 방계적 종족들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황족들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황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아담 가정 본연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냐 하면,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라는 것은 부모이고 또 그것은 왕입니다. 장자권을 대표하고, 그 종족 왕권, 종족 부모, 종족 장자까지 상속하는 것입니다.

소생아담, 장성아담은 완성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났습니다. 그건 뭐냐? 장자권, 종족적 메시아권은 예수가 부활한 가정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소생아담은 예수가 부활을 못 시킵니다. 예수 자신이 부활을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완성한 재림주가 와서 예수의 사명을 세계적인 권에서 완성할 수 있는 승리적 권을, 사탄 앞에 승리적 패권을 쥐어왔기 때문에 재림주만이 예수 권한을 병행(竝行)할 수 있고, 아담 권한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서 승리한 아담 완성한 대표, 예수 완성한 대표가 재림주입니다. 소생 장성을 전부 다 연합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3차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3차 아담 완성 기반이라 하면 예수도, 아담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아담 완성 기반을 중심삼고 승리적 패권 위에서 세계적 메시아권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218-69, 1991. 7.2) p.292

Top p. 292

② 왕권 설정

참부모의 날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형제권 복귀가 끝나고, 둘째는 부모권 복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셋째로 왕권 복귀가 남았습니다.

이제 부모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림주를 보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와 마찬가지로 종족적 메시아를 보내서 전부 다 수습하는 것입니다. 종적인 기준을 닦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종적으로 아담시대, 예수시대, 재림주시대의 세 기준을 닦았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싸워 이겨서 닦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재림주 시대에 여기서 뻗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셋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 부모, 예수 부모, 재림주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재림주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을 다시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3차 아담이 온 것은 2차 아담, 1차 아담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3차 아담이 와서 2차 아담을 찾았으니, 1차 아담인 자기 부모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담 자리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종교권 전통이 없어집니다. 종교가 필요 없게 됩니다. 전세계가 선민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벌어지느냐? 횡적으로 보면, 자기를 낳은 부모가 종족적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낳은 혈통이 국가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횡적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한 부모를 통해 연결된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부모입니다. 3차 아담도 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태어난 땅, 자기 고향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가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상이 되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구요? 하나님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이 하늘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부모님을 중심삼고 세계적 판도가 전부 연결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원래의 고향은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지만, 모든 종족의 고향이 정주(定州)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고향이 틀리고 사탄이 점령했었는데, 여러분 고향에서 하늘을 중심삼은 부모가 태어나니 그곳이 에덴동산이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동산을 중심삼고 태어난 여러분의 선의 후손은 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간다 이겁니다. 이 수직선을 중심삼고, 선생님 일족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전부 다 연결되어서 묶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종적인 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자기의 일족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점령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왕권 복귀가 가능한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래 아담이 완성하면 천국의 아버지가 완성되고, 해와가 완성하면 천국의 어머니가 완성되고,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되면 가정적 천국의 왕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개인적 왕이고, 가정적 왕이고, 종족적 왕이고, 민족적 왕이고, 국가적 왕이고, 세계적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때에 왔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왕권을 뺏고 하늘세계의 왕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1990 년 3 월 27 일이다 이겁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레버런 문이 바람을 일으키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130, 1990.3.27) p.293

Top p.293

③ 왕권 복귀

부모권이 왜 필요합니까? 왕권복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왕권을 복귀하려면 동서남북 사방에 거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왕이 오게 될 때 24 시간 365 일 언제든지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발 되는 장대를 휘젓더라도 360 도 어디든 걸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나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일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사랑의 종족입니다. 무슨 사랑? 참사랑.

무엇이 참사랑이냐? 영원히 투입하고도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는 사랑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랑의 상대가 나보다 잘나기를 바라고, 아들이 나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그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자기 이상 투입해야 되겠으니, 투입하고 잊어버리지 않고는 자기 이상 투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고 잊어버리는 참사랑의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통일이, 천지의 통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투입하고 '나 하나님 때문에, 통일교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교회에서 몰라주고, 내가 통일교회 수십 년 믿었는데 선생님이 몰라준다.'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일생 동안 고생했어도 하나님이 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몰라주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같이 맞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끝까지 투입하다 보니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쌓여서 나는 자연히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자꾸 투입하다 보니 나는 산꼭대기가 되고 세계의 정상의 자리에서 가지고, 장자권으로부터 부모권, 왕권은 자동적으로 복귀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재창조 논리에 일치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206-268, 1990.10.14) p.294

이제 참부모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문총재는 참부모가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성교회 목사들 내 앞에 와 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정당 당수 중에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나타나 봐라 이겁니다. 미국 대통령이든지 이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며 큰소리하는 사람 나타나서 문총재가 참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내 말을 들어 보면 백발백중 꼼짝못하게 돼 있습니다. (204-84, 1990.7.1) p.294

선생님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날개 치는 패들을 전부 날개 아래 품고 거느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세계평화교수협의회만 하더라도 120 개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벨상 수상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월드 앤 아이(The World and I)>를 4 년도 못 되어서 세계의 이름 있는 잡지로, 세계의 챔피언 잡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울타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204-84, 1990.7.1) p.294

선생님은 참부모라는 간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총재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길을 똑똑히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참부모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망권 내에 있는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길로 이양시키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세계적, 역사적 인류의 대표자가 문총재요, 그분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는 참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내용이 통일적으로 일치되는 귀결점, 귀일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거짓 사랑을 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은 한 번이라도 투입할 줄 모릅니다. 받아 가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참사랑은 투입하면 전부 다 해소할 수 있고 구속이 가능합니다. 참사랑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총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부모는 참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참사랑. 그게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203-360, 1990.6.28) p.295

이제는 세계에서 문총재를 집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선생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악선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대한민국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좌경 학생들을 누가 수습해 주었는지 압니까? 언젠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제일 혼란기라는 때에 고르바초프 간판으로 싹 전국을 휩쓰니까 '아이고, 정부 못 믿겠구만! 문총재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방향을 딱 수습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뭘 했느냐? 참부모 선포를 했습니다. 참부모로 왔으면 참부모라고 선포해야지, 안 하고 어떻게 천상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겠습니까? 진짜 참부모의 사명을 갖고 왔다면, 민족 앞에, 세계 앞에 참부모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갑니까?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선포했다면 기독교가 피를 안 흘렸습니다. 피 흘리는 것의 십 배를 탕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기준이 드러날 때까지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북한에서는 사탄편 참부모 자리를 점령해서 김일성이라는 거짓 부모가 나왔습니다. 약탈입니다. 전부가 약탈입니다. 기독교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참부모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김일성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잡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내가 평양에 입성해서 평양대회를 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천사장하고 싸웁니까? 아담은 천사장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했으니 천사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계의 천사장인 소련을 시키고, 지금까지의 아시아의 천사장인 중국을 시키고, 해와인 일본을 통해서, 해와 중심삼고 천사장과 하나 만들어서 김일성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 만들어 내가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세계평화연합을 선포해 버리면 얼마나 멋집니까! 고르바초프를 오게 하고, 강택민을 오게 하고, 일본 총리를 불러 놓고, 부시 대통령을 불러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한국에 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무엇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기반을 다 닦았다는 것입니다. (204-178, 1990.7.8) p.296

선생님은 흘러가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역사시대에 어느 위정자의 배후의 모든 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성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지극히 어리석은 대표자로 낙인 찍혔던 통일교회와 문총재가 망국지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망합니까? 문총재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참부모가 뭡니까?

문총재가 참부모라고 선포했습니다. 참부모 아닌데 참부모라고 선포하면, 영계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이 칼침을 놓고, 선한 영들이 칼침을 놓을 텐데, 그렇게 무서운 일을 모르고 참부모라고 선포하겠습니까?

참부모가 뭐냐? 어떤 단체 책임자가 원불교하고 우리하고 교리 토론을 하는데 원불교는 구세주 논리를 말하지만 통일교회는 참부모 논리를 말한다, 구세주는 믿다가 버려도 되지만 부모는 숙명적인데 어떻게 버리느냐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버려 보라는 것입니다. 만우주 하늘땅 모든 것이 '이놈! 지옥 갈 패당아' 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자리가 참부모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악마가 알기 때문에 전세계를 동원해 나를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공산당이 가담했고, 모든 교파라는 교파, 종파라는 종파가 나를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마피아로부터 테러단까지 전부 다 합해서 추방하려 했습니다. 별의별 놀음을 다해서 사격을 했습니다. (203-144, 1990.6.24) p.296

문총재를 두고 참부모라고 하는데, 나는 그 참부모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겁니다. 참부모가 되었으면 참아들딸을 낳아야 되고 참아들딸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가 되었으면 참된 가정을 거느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족속이 붙으면 참족속을 거느려야 되고, 이것이 민족으로 확장될 때에는 민족을 거느려야 되고, 국가로 확장될 때는 국가를 거느려야 되고, 세계로 확장될 때는 세계를 거느려야 되고, 하늘땅 앞에 영계와 육계에 꽉찬 인류로 확장되었다 할 때에는 그것을 거느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참부모라는 말을 발표했느냐? 나도 발표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를 안 하면 통일교회 교리가 틀려집니다. 이 발표를 안 하면 통일교회 교리가 거짓말이 됩니다. 진리가 거짓이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리가 진리답기 위해서는 내 몸이 찢기고 밟히고 무슨 추태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단연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문총재가 다른 종파의 종단장, 교주들과 다른 점입니다. (203-324, 1990.6.28) p.296

Top p.296

4) 부모님 사진 모시기

① 부모님 사진을 모시는 이유

이제는 여러분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일족을 복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부흥회를 했을 것입니다. 부흥회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면 단위 중심삼고 활동해야 합니다. 이제 종족적 메시아가 되려면 선생님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사진첩을 몇 백 개를 만들어서 좋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나눠 주고는 승낙받는 것입니다. 사진을 나눠 주고 승낙받은 사람 집에는 방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곳에다 자리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 그 집 주인에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형님이 됩니다. 종적으로 보면 아버지 자리이고, 횡적으로 보면 형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종적인 아버지 자리에서, 횡적인 형님의 자리에서 그 집 주인에게 '이건 여기에 걸어야 되겠소!'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진을 나눠 주는 사람이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120 가정 이상에서 사진을 빨리 걸어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사진을 120 개 이상 걸도록 해야 됩니다. 사진 건 집은 통반 격파도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그겁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조상들이 매일 새벽에 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 시 두 시 세 시 이후에 불 켜 놓으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와서 경배를 다 끝내면, 다시 두 시간 동안 있다가 다섯 시에는 여러분이 경배하라는 겁니다.

영계 영인들은 참부모를 못 모셨습니다. 영계에 간 사람은 형이고, 여기는 동생입니다. 장자권을 동생이 가졌기 때문에, 거꿀잡이 됐기 때문에 영계에서 내려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후손들 잘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일에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투입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영계에서 협조하는데, 사랑하는 자기 친척이 협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웃 동네 어느 영감이 와서 협조하는 게 좋겠습니까? 영감이 와서 협조하게 되면, 협조하는 분량의 몇 퍼센트를 나눠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들어와서 손댈까 봐 밤을 새워 가면서 달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 걸 설명하면 서로 사겠다고 할 것입니다. 문총재가 파란만장한 역사적 혼란의 와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남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상에서 다 망하고 흔적도 없을 텐데 남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남아졌다! 문총재를 하나님이 역사 이래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제일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그건 이론에 맞는 것입니다.

사진을 모신다면, 부모를 대신 모시게 되면, 가정이 보호를 받는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설명도 안 했는데 사진을 사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진을 사려고 그러시오?' 하니까, '맘이 자꾸 그래요. 사진 사 가면 모든 악운이 도망갈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사진을 사 갔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선생님 사진을 갖고 다닙니다. 요전에 소련에서 온 카메라맨이 호주머니 안에 하나의 비밀스런 보물을 갖고 다닌다고 그러더랍니다. 뭐냐고 하니까 종이로 만든 주머니에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스럭부스럭하고 선생님 사진을 꺼내더라는 겁니다. 왜 이걸 갖고 있느냐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사진을 갖고 있으면 참부모 아들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형상·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소생-장성-완성의 소생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진을 종족적 메시아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통반 격파는 부모님 사진을 갖다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진만 갖다 올려놓으면 수련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련받고 감화받으면 '엄청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사진값은 그 가치에 비례해서 내소!' 해서 통반 격파 비용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미국에 가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212-108, 1991.1.2) p.298

Top p.298

② 부모님 사진의 위력

지금까지는 장자권 복귀를 중심삼고 아벨이 가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때였기 때문에 영계가 지상세계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 31 회 자녀의 날을 중심삼고 영계와 육계를 전부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자권이 복귀되었기 때문에 아담권이 중심이 되고 장자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은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류가 문총재를 반대하고 죽일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문총재를 존경하는 기준에 있기 때문에 악마가 와서 협조하라고 해도 협조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총재를 소개해 주고 안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돌아서야 되느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세계적인 탕감을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을 중심삼고 세계적 판도의 가인 아벨에 승리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승리한 이 모든 가치를 어디에 세우느냐? 아담은 전체 가치의 중심입니다. 아담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천주, 하나님의 사랑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전부 다 탕감해서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만민 평등한 가정 기준에 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중심삼고 돌아갈 때 누구를 중심삼고 돌아가느냐? 전부 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마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악마는 혈통적으로 더럽혔지만, 이쪽은 타락세계의 혈통을 맑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축복받은 가정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 하늘나라의 장자권이 되어 있으니, 가정 하늘나라의 차자권은 무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이제 그 가정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가정들이 기지가 되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모든 비용, 저금통장에 있는 것을 전부 털어 써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우주와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밑감입니다. 그 날을 잡기 위해서는 비싼 밑감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밑감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다 피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집에 선생님의 사진만 있으면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새벽에 와서 인사하고, 그 집을 영인들이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213-121, 1991.1.16)

앞으로 세 가지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입회원서 쓰고, 그 다음에는 참부모님 사진 모시고, 교회 깃발을 달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깃발은 통일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존영은 참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입회원서는 입적하는 것입니다. 입적할 수 있는 나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부모를 모신다는 건 참부모와 우리 집이 하나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깃발은 뭐냐? 세계적 통일교인을 가리키는 환경적 대표입니다. 상대적 대표입니다. 깃발은 내 개인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부부도 대표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대표했지만, 우리 종족도 대표하고, 우리나라도 대표한다 이겁니다. 통일교회 전체, 초인류를 대표한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 깃발을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깃발을 달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에서 나올 때 장자권이 전부 다 학살당하던 것을 양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회생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딱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뱀에 물려 죽어 갈 때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지요? 마찬가지로 사탄세계가 망해 들어가는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 사탄이 가진 모든 권한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깃발 달고, 참부모 사진 모시고, 입적만 하면 그만입니다. 소속이 벌써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 부모님 사진 모시는 것하고 깃발 다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벌써 3년째입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회원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회원서 받을 때에는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해야 됩니다. 사탄이 아담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참부모를 모시지 못했지만, 참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사진보다도, 조상들 사진보다도 참부모 사진을 제일 좋은 곳에 모셔야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 사진을 먼저 놓고 그 옆에 참부모를 모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조상입니다. 조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평면 가족 기반에서부터 전통적 기반을 중심삼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탄과 관계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잖습니다.

이 종족적 메시아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자기 일족이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후손들이 이걸 안 하면 저나라에 가서 조상들이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저주하는 것의 몇백 배 더한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건 선생님이 책임 안 집니다. 참소하는 걸 하지 말라고 못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참소받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5퍼센트의 책임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 책임분담을 못 하면 완성이 없습니다. (220-90, 1991.10.15) p.300

사탄세계에서도 부모의 사진을 겁니다. 끝날이 왔으니 하늘 부모를 모시고 교육의 자료로 쓰자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유명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나라를 위한 애국자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또, 선생님이 이룬 공적에는 천하가 다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을 건 이상 저분 앞에서는 부처끼리 싸움도 함부로 못 해! 문총재의 가르침이 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딸 앞에서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야 야, 저 문선생 앞에선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자기 부모 사진 이상 모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와서 조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와서 그 집을 모실 수 있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의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새벽 세 시가 되면 자기들은 자지만 일가 주변의 사탄 악마를 모두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깃발을 달아야 합니다. 사진 붙이고, 깃발을 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방안에 선생님 사진을 붙이고, 통일교회 깃발을 달면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권속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깃발 다는 것에 대해 저주하다가 벼락 맞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선생님을 손가락질하다 손에 병이 나서 손을 쳐들고 며칠 밤을 기도하고 회개하고야 낫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천운이 찾아오는데 개인 운세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숙명적인 길입니다, 이게. 운명적인 길은 동서남북을 엇바꿔서 대할 수 있지만, 숙명의 길은 상하는 상하고 좌우는 좌우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사진을 걸게 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타락한 세계는 거짓 부모와 인연됐습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모시면 횡적으로 접붙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를 거치고 세계를 거쳐 이쪽 편으로 돌아와서 접붙여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만민 구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접붙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 얼마나 복입니까! 말 안 들으면 욕을 해서라도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통일교회 깃발을 바라보고 갈 적마다 경배하고 올 적마다 경배하고, 사진 보고 갈 적마다 경배하고 올 적마다 경배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219-91, 1991.8.25) p.301

Top p.301

[텍스트 입력]

제 3 권 참사랑 307

차 례

제 1 장 참사랑이란 307

1) 사랑은 평화와 행복의 원천 307

2) 사랑은 무한히 주고 또 주는 것 312

3) 사랑이 개재될 때 조화가 이뤄진다 316

4) 사랑의 특권은 동위권, 동참권, 상속권 321

5) 사랑으로 완성된다 323

제 2 장 사랑의 실제 328

1) 하나님의 사랑 328

2) 참부모의 사랑 338

3) 부모의 사랑 344

4) 부부의 사랑 351

5) 성애(性愛) 359

6) 자녀의 사랑 366

7) 형제의 사랑 369

8) 애국, 애세(愛世), 인류애 371

9) 자연사랑 (自然愛) 373

제 3 장 사랑과 결혼 381

1) 참결혼은 우주적 합일의 사랑을 이루는 것 381

2) 남녀의 사랑, 서로가 필요로 하는 사랑 384

3) 축복 결혼식은 하나님 사랑의 전수식이다 388

제 4 장 사랑과 가정 391

1) 사랑이상 실현은 가정에서 이뤄진다 391

2) 가정은 천국생활을 위한 사랑의 훈련도장 395

제 5 장 사랑과 영계 399

1) 영계의 공기는 사랑, 사랑이 생명요소다 399

2) 사랑의 인격체는 지상생활에서 구비해야 406

참사랑

제 1 장
참사랑이란

1) 사랑은 평화와 행복의 원천

[텍스트 입력]

사랑은 가지면 가질수록 기쁘고 한 번 가지면 좋아서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생명의 근원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동기나 과정, 생명의 종말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참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났으니 사랑의 길을 가다가 죽을 때도 사랑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깔은 어떤 색일까요? 밤에는 까맣고, 낮에는 하얗고, 저녁 때쯤이면 노랗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빛깔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의 중심 빛깔에는 평화와 통일, 인류의 평등사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통일세계 1984. 2-19) p.307

사랑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얼굴에 꽃이 핍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총이 아닙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우주의 주인되는 사랑, 우주의 중심되는 사랑, 우주의 원천되는 참사랑입니다.

사랑은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요체입니다. 세계 인류를 위한 공동의 재산이요, 하나님의 의지와 힘의 상징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참사랑만 끌고 가면 하나님도 따라오고, 세계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사랑의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95-39, 1977.9.11) p.307

참사랑이란 영원히 같이 있더라도 좋기만 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같이 있더라도 같이 살더라도, 같이 보더라도, 같이 말하더라도, 같이 느끼더라도, 같이 듣더라도 좋기만 한 사랑입니다. (통일세계 1980. 2-10) p.307

사랑은 만민이 좋아하는 사랑이요, 만민이 환영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고싶고 살고싶고 죽고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193-138, 1989.10.3) p.307

사랑은 작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요, 크다면 지극히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눈만 한 번 깜박여도, 그것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방긋 한 번 웃는 표정만 지어도 천지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민하다면 그렇게 예민하고, 작다면 그렇게 작고, 크다면 그렇게 크고, 보인다면 보이고, 안 보인다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점령되어 있음으로 말 한 마디 하더라도 사랑을 중심삼고 하려 합니다. (51-163, 1971.11.21) p.308

사랑의 힘은 원자탄의 위력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사랑은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힘을 부여하지만, 원자탄은 인간에게 오직 죽음만을 안겨 줄 뿐입니다. 원자탄은 창조가 아니라 심판이며, 파멸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은 무력을 수반한 힘이 아니라 참사랑인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850) p.308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문화배경이 있고 풍습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참사랑밖에 없습니다. (205-250, 1990.9.9) p.308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사랑을 완성하면 정치·경제·문화 문제는 물론이고 모든 분쟁과 갈등 문제도 깨끗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난문제들은 참사랑의 완성으로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9-16) p.308

참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참사랑은 어디 가야 만날 수가 있느냐? 참사랑은 밤낮없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참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사랑이 나 개인의 소유일 수만은 없습니다. 참사랑은 만인의 것이며, 우주 공유의 것입니다. 참사랑은 가정·사회, 국가, 세계·우주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9-16) p.30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사랑이 완성됐다면 감응의 하나님께서는 그 참사랑에 홀딱 빠져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사랑 가운데서라면 어떤 일이 생겨나도 마냥 좋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사랑의 세계에서 인류가 산다고 한다면 일생동안 후회없는 행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전쟁의 역사도 없을 것이며, 불만이나 불행이 없는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9-15) p.308

일생 동안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만물도 축복을 보낼 것입니다. 꽃도 그 집 뜨락에서 피기 원할 것이며, 한 마리 새도 그 집 정원수에 집을 짓고 노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가치를 알고 만물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통일세계 1982. 8-16) p.308

하나님도 사랑을 소망하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도 소망으로 바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보다 큰 것입니다. 모든 생명력의 중심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상적인 요건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남아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사랑의 권력이 만년 권력입니다.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202-86, 1990.5.6) p.309

참사랑이 뭐냐? 참사랑은 종횡을 통해 90 도 각도를 가지고 어디든지 각도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양 집에도 맞고, 서양 집에도 맞고, 오색인종, 문화 배경, 모든 종교 배경이 전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180-86, 1988.8.7) p.309

우주는 축소되었다가 확장되는 작용을 합니다. 숨을 쉬는 겁니다. 축소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작용을 무엇이 조정하느냐.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121-104, 1982. 10.24) p.309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아 저 새는 왜 지지배배 하지? 아,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가 읊어지고 문학작품이 나옵니다. 우리들 인생살이의 역사도 자연속에 어울려 사랑의 교향곡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입김도, 사랑의 손길도, 사랑의 노랫소리도, 사랑의 말소리도 모두 좋은 것입니다. (112-258, 1981.4.19) p.309

참사랑 앞에는 어떠한 악한 힘도 녹아납니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좋고 스치기만 해도 좋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요소는 생명보다 앞서 작동하고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랑임에 틀림없습니다. (통일세계 1980. 2-10) p.309

사랑을 위해 사는 일생은 생산적인 결실의 삶이요, 사랑을 모르고 사는 일생은 소모적인 멸망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도 우주도 사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2. 7-18) p.309

참된 사랑은 절대적이요, 불변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19) p.309

사랑에는 발전도 없고 그 어떤 혁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원형 그대로가 완전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2-18) p.309

사랑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최고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53) p.309

인간이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은 우주 속에서 입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미소를 짓게 되며, 봄동산에 피어나는 꽃 속에 아름다움을 가누어 보고 싶어 한송이 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2-28) p.30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작용은 사랑의 작용입니다. 이 땅 끝과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땅 끝을 넘어서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112-204, 1981.4.12) p.310

은혜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통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사랑의 감정을 중심으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여러 기관들도 사랑이란 한 목적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눈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코는 사랑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귀는 사랑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서 들어도 들어도 싫지 않고 좋은 소리는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좋아할 수 있는 주제는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란 대우주가 환영할 수 있는 참사랑입니다. (298-298, 1999.1.17)

사랑의 속성은 좋은 것만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낮은 것도 높은 것 이상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에는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사랑냄새를 맡는다면 얼굴 가득히 웃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298-298, 1999.1.17) p.310

하나님도 사랑을 소망하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도 소망으로 바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보다 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참사랑의 길이며, 참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보고 듣고 먹고 만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132-113, 1984.5.27) p.310

사랑을 통해 살게 될 때 인간세계는 행복이 시작됩니다. 인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완성이라든가 이상 실현은 사랑의 기준을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근원되는 사랑을 중심삼고 시작되었습니다. (137-207, 1986.1.3) p.310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번 주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 수 있고 채울 수 있어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돈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고나면 없어지고,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쓰면 닳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주면 줄수록 무한정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121-105, 1982.10.24) p.310

참사랑이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영원히 죽어도 놓고 못사는 것입니다. 그걸 잡기만 하면 영원히 좋아서 놓고 못사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늙은이는 물론이고 남자 여자도, 물론이고 청소년도 물론입니다. (171-67, 1987.12.6) p.311

할아버지들이 사랑의 맛을 보고는 '아이구, 옛날에 먹던 것 싫어! 오늘날 문명의 향취와는 달라! 싫어! 사랑 냄새 집어치우고 다른 냄새면 좋겠다!' 이러겠습니까? 모든 세포가 '하, 맛있다!' 할 수 있는 맛은 빵도 아니고 밥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핵을,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수(精髓)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상대하면 어디든 무사통과입니다. (139-197, 1986.1.31) p.311

참사랑이란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봄에도 그 사랑, 여름에도 그 사랑, 가을에도 그 사랑, 겨울에도 그 사랑, 소년시대에도 그 사랑, 장년시대에도 그 사랑, 노년시대에도 그 사랑, 영원한 세계인 영계에 가서도 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194-303, 1989.10.30) p.31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나 인간에게나 사랑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 원형운동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으로 일체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내려오고 인간은 올라가게 되어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형의 구심점이 되어 구형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심점은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생명이 태동하는 자리이며, 평등주의와 공동주의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작용과 포용하는 힘은 사랑인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2. 7-26) p.311

사랑은 혼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라는 것도 한 나라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와의 사이에서 성립되는 상대적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동등한 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유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진정한 자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 속에서 사랑과 더불어 얻어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참된 사랑 속에서는 설사 채찍을 가지고 독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속이 아니고 더 진한 기쁨과 희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이고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주인공-198) p.311

사랑이란 내 몸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그 중심 자리의 기둥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이 같은 점, 국가, 세계, 천주·하나님이 같은 중심, 한 기둥에 자리합니다. 그 중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의 자리는 영원한 정착점입니다. (230-135, 1992.5.1) p.31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고 한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해야 되는데 사랑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오, 불경스러운지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 보면 '그렇고 말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 중에서도 참사랑을 좋아합니다. (149-15, 1986.11.1) p.312

Top p.312

2) 사랑은 무한히 주고 또 주는 것

사랑은 자기를 백퍼센트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랑 때문에 모두 백퍼센트 투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은 위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189-202, 1989.4.6)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있는 것은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만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위하는 천리의 존재세계 앞에 자기 스스로 존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위하는 데서만 동서양을 통할 수 있고 고금을 통할 수 있습니다. (187-89, 1989.1.6) p.312

남을 위해 주고 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시에 자체를 소모시키던 입장과 일치됩니다. 나를 투입한다는 것은 제2의 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신을 투입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조역사는 탕감복귀노정이고, 탕감은 재창조역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자신을 투입하는 데서만이 재창조가 벌어집니다. 투입하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데서 참사랑 논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하는 데는 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큰 것으로 해 가지고 큰 것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25-15, 1992.1.1) p.31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은 주고 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도 더 주고 싶은데 못 주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진정한 사랑의 주인입니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큰 것으로 보태집니다. 또한 작용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힘보다 나오는 힘이 더 큽니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흥하는 법은 없습니다. (38-326, 1971.1.8) p.312

사랑에는 소모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커집니다. 역학의 원칙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소모되는 것이지만, 참사랑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소모가 안 되고 커갑니다. (219-18, 1991.8.25) p.312

사랑의 본질은 위하려고 할 때는 커지지만 자기를 위하라고 할 때는 점점점 더 작아집니다. (164-321, 1969.5.17) p.312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240-298, 1992.12.13) p.313

사랑의 세계는 주고 주고 주더라도 무한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121-173, 1982.10.24) p.313

사랑이란 말은 참 위대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탕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억만금의 빚이 있다고 해도 사랑의 말 한마디면 탕감하고도 남습니다. (227-254, 1992.2.14) p.313

무한대의 이 우주를 중심삼고 주름잡고 살 수 있는 권한은 참사랑의 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위하는 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주재자이시고 위대하지만 사랑앞에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48-149, 1971.9.12) p.313

사랑은 하나님도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자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42) p.313

참사랑이란 뿌리를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분이라도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참사랑의 주인공인데도 그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뿌리를 심겠다고 하십니다. (177-269, 1988.5.20) p.313

사랑은 주면 줄수록 생기는 것이요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더 가중적으로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모두 끝이 납니다. 돈도 끝이 나는 것이요, 지식도 끝이 나는 것이요, 권력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인간 사정, 인정을 통한 것은 다 끝이 나지만, 영원한 참사랑은 아무리 주더라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무한에 가까울 수 있는 내용이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121-242, 1982.10.27) p.313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45-215, 1986.5.11) p.313

사랑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더라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있으면 대상과의 관계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이룬다면 자극과 충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219-15, 1991.8.25) p.31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주의 근본은 인간이고, 인간의 근본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본은 사랑이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 있어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지라면 그 사랑에 상대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통일세계 1970. 10-14) p.314

사랑이란 말은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희망이란 말도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도 혼자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입장에서 나옵니다. (69-61, 1973.9.10) p.314

자, 하나 물어 봅시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히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생명과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 가지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먼저이고 사랑이 두 번째이고, 인간에게는 사랑이 첫 번째이고 생명이 두 번째입니다. (165-75, 1987.5.20) p.314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유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사랑의 상대권을 갖추어 남자를 지었고 여자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서 나서 사랑에서 커서, 사랑에서 살다가 사랑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되시는 하나님이 영원, 불변, 유일하니까 그 앞에 대상적 사랑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영생하는 겁니다. (142-143, 1986.3.8) p.314

아담과 해와를 지은 목적은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서 기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하고서 기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만져보고서 기쁘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을 중심으로 기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을 성사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114-12, 1981.5.14) p.314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시지만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대자는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자로서 인간이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 기쁨의 이상을 찾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145-267, 1986.5.15) p.314

하나님의 꿈은 단 한가지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 이상의 실현은 하나님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이나 행복, 기쁨 등은 한 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권이 없이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02) p.314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상대로부터 나타납니다. 상대가 못생기고 미우면 사랑도 후퇴하려 하고, 상대가 곱고 좋으면 사랑의 작용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상대의 말•아름다움•냄새•맛 등 상대의 요소에 따라 사랑의 작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1982. 10. 29)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상대를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살라' 고 하는 천리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고귀한 것이 나에게로 찾아오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높이고 위해야 한다는 '위하는 철학'을 이루어야 합니다. (1986. 3. 14) p.315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구현 때문에,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참사랑의 구현에 있으니 인간의 존재가치도 이 참사랑에 의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몇천 배 아니 무한대의 가치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인 인간이 무한한 가치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완성하면 신성(神性)을 이루고 하늘아버지의 온전함같이 온전하여 하나님적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227-196, 1996.4.16) p.315

참사랑이란 무엇인가? 상대를 만나서 백년 천년 같이 있고 싶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그곳에는 지옥이 있을 수 없고, 사탄이 넘볼 수도 없습니다. (사보 42-8) p.315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의 파트너를 구한다고 하면 누구를 갖다 세울 것이냐?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된 사랑의 파트너는 영생한다는 논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중심삼고 영생논리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종교에서 지극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남자에게 영생이 있고 여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18-210, 1991.7.29) p.315

사랑의 주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참입니다. 사랑이 꽉 차야 모든 것이 차기 때문에 무한히 줄 수 있고 참되게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고받는 것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요, 그 이상을 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거리를 초월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빠르냐하면 빛도 못 따라갑니다. 제일 빠른 것이 사랑입니다. 제일 밝은 것도 사랑입니다. 제일 완전한 것도 사랑입니다. 제일 완전히 차는 것도 사랑입니다. (95-39, 1977.9.11) p.315

생명을 찾아 사랑을 희생시키겠다는 사람과, 사랑을 찾아 생명을 희생시키겠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보다 중심이냐? 어떤 것이 보다 참에 가까우냐? 사랑을 찾아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보다 중심이요 참에 가깝습니다. 생명을 찾아 사랑을 희생시키는 것은 자기 중심이지만, 사랑을 찾아 생명을 바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32-153, 1984.5.31) p.316

내가 오대양 육대주를 헤매면서 절절히 외쳐댄 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막과 같은 인류 앞에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사랑의 피안이라고 한다면, 인류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등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등대만이 인간을 본향 땅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982. 10. 29) p.316

하나님과 하나될 때는 천태만상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일원화된 가정은 가정애가 꽃핍니다. 이것이 또 사회애가 되고, 더 나아가 민족애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나아가면 세계애가 됩니다. (28-168, 1969.8.3) p.316

하나님은 사랑에 취해서 억천만세를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는 게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을 갖고 생활하다가 사랑의 열매로 거두어집니다. 죽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자녀의 사랑을 받았고, 부부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내적인 사랑의 세계에 뿌린 모든 것을 일생을 거쳐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저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81-9, 1975.7.27) p.316

하나님은 참사랑의 바탕 위에서 생명을 지니고 있고, 참사랑의 바탕 위에서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역사를 초월한 입장에 선 이상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의 힘만 가지고 주체적 입장에 선다면 모든 만물이 하나 안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동물 새끼도, 식물들도 전부 다 사랑의 주인이 자기를 가꿔 주길 바라고 사랑의 손길이 오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강해, 너는 내 맘대로 해야 돼, 이 자식아!"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 내포된 거기에 생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사랑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존속하기 시작한 기원이 생명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173-86, 1988.2.7) p.316

Top p.31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사랑이 개재될 때 조화가 이뤄진다

사랑은 생각으로도 좋고, 모양으로도 좋고, 맛으로도 좋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통일세계 1980. 2-10) p.316

사랑이란 동서가 합하는 것이요, 남북이 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지가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구형을 이루게 됩니다. (225-45, 1992.1.1) p.316

참사랑이란 수직과 수평이 연결된 중심 사랑이다. (195-244, 1989.12.1) p.317

입이 참사랑에 빠져 있다면 미소짓는 그 입술이 얼마나 황홀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오감이 참사랑에 취해 움직이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오감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움을 통한 기쁨은 하나님 혼자서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상대가 있어야 체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내용을 소유한 인간의 심정세계를 여행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9-16) p.317

하나님도 숨을 쉽니다. 참사랑의 호흡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주의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우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호흡권내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201-191, 1990.4.1) p.317

우주는 둥급니다. 태양도 둥급니다. 모든 둥근 것은 무엇을 중심삼는가. 자기 혼자서는 둥글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중심삼고 관계되어 있어야 둥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권을 집약시킬 하나의 물체, 하나의 존재물로 등장하는 세계는 원형권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원형을 만들 수 있는 모체가 뭐냐. 조화의 모체는 사랑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164-78, 1987.4.26) p.317

사랑은 신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당기면 몸 전체가 끌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만 당기면 우주가 끌려오고, 사랑만 움직이면 우주가 다 화해 돌아가게 됩니다. (89-90, 1976.3.2) p.317

사람은 취해 살아야 합니다. 취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술가들은 예술에 취해 삽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상하는 책을 쓴다든가, 어떤 명작에 취해 삽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지백체는 입체적인 하나님의 이상적인 사랑에 취해 살아야 하고 그분만 따라 다녀야 합니다. (59-316, 1972.7.30) p.317

남자가 찾고 여자가 찾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도 영원히 좋아하고 하나님도 영원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온 우주가 영원히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142-109, 1986.3.6) p.317

사랑이란 보이지는 않으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불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불변의 빛깔, 다이아몬드는 불변의 굳기, 진주는 불변의 조화의 빛깔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은 생명이 없지만 참사랑은 생명이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201-143, 1990.3.30) p.317

사랑이란 다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좋아지는 것입니다. (206-205, 1972.8.6) p.31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은 개인의 마음에도 통하고, 가정의 복판도 통하고, 그 민족 복판으로도 흘러가고, 어디나 주류로 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더라도 전부가 환영하는 겁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더 높이, 더 높은 것을 바라지요. 사랑의 힘을 따라서 인연되어 질 수 있게끔 지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줄을 따라서 우주와 호흡하고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궁전에 가서도 인사는 무슨 인사, 마음대로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하면, 하나님이 '오냐, 너 왔구나'하는 것입니다. (164-47, 1968.8.11) p.318

인간 세계에서 단 하나의 문제는 뭐냐? 사랑의 빛이 밝아야 합니다. 사랑의 빛이 밝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타야 됩니다. 무엇에 타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한 발동력으로 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볼 때 세상만사는 지나가는 하나의 여행집입니다. (194-56, 1989.10.15)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데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는 무소부재입니다. 나도 사랑을 중심삼고는 무소부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소유하면 그런 특권이 있는 겁니다. (143-24, 1986.3.15) p.318

평등이라는 말은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위해 줄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는 남자와 여자가 대등할 수 있고, 사랑을 가지고는 아들이 대통령이라 해도 그 아들과 어머니는 대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모든 것은 평등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129-49, 1983.10.1) p.318

만물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중심은 뭐냐?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선 한 선입니다. 천지의 중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남자의 사랑선이요 여자의 사랑선인데, 여자는 남자에게로 가고 남자는 여자에게로 가서 그 선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참사랑을 갖고 나타나게 될 때에 완전한 마이너스 사랑입니다. 완전한 참된 마이너스 사랑이 생기게 될 때에는 종적인 하나님의 플러스 사랑은 자동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주의 원칙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210, 1982.10.16) p.318

내가 우주와 주고 받는 관계에 놓이려면 사랑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영원히 주고 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라고 한 것도 저항 없이 그것을 더 많이, 완전히 운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면 어디든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저항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희생이 아닙니다. 저항 없이 작용하기 위한 하나의 비법이 위해서 살고 희생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희생 봉사해야 되느냐. 제 2 의 생의 호흡기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번식하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쌍쌍이 연합해서 번식하는데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화를 일으키는 그 내용이 사랑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존재물의 번식은 다 그렇습니다. 물도 보면 암물이 있고 숫물이 있는데, 암물하고 숫물이 섞어진 데에는 고기가 잘 삽니다. 한수(寒水)와 온수(溫水)가 화합하는 곳에는 고기가 많이 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입니다. 화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77-274, 1988.5.20) p.319

북쪽에 사는 새가 남쪽에 가서 새끼를 치고, 남쪽에 살던 새가 북쪽에 가서 새끼치면서 교류하는 것도 다 리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났으니 거기 가서 새끼를 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의 물고기는 따뜻한 물에 가서 새끼를 치고, 따뜻한 물의 물고기는 차가운 물을 접해야 새끼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음양 일치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132-74, 1984.5.20) p.319

사랑은 상대적 관계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사랑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상대자를 세우지 않고는 만날 수 없기에 절대적 창조주 앞에 절대적 상대의 자격자를 갖추어 놓기 위한 것이 창조요, 창조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찾기 위해, 사랑이 필요해서입니다. (140-288, 1986.2.14) p.31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게 되면 모래알 하나를 놓고 천년을 들여다봐도 싫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의 우주 가운데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무한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83-198, 1976.2.8) p.319

참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기쁜 가운데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주고 받는 작용이 되어야 이상적인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누구든지 그릴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형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돼 있다면 그런 사랑은 하루도 못 가서 싫증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좋고, 좋다고 생각하면 나쁜, 천태만상의 기괴한 신기루 같은 내용을 작동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175-198, 1988.4.17) p.319

우주 통일 이상을 완성시키는 내용이 참사랑입니다. 아무리 명작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참사랑의 맛이 없게 되면 뱉어 버리게 됩니다. 부부간의 참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통일세계 1981. 5-26) p.319

인간이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 전체를 통일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면 할수록 기쁨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꽃 속에 들어 있는 벌들은 꿀을 먹느라고 궁둥이를 위로 쳐들고 머리를 처박고 있습니다. 그걸 핀셋으로 잡아당겨서 빼도 안 나옵니다. 세게 잡아당겨서 꽁무니가 쑥 빠져도 안 나옵니다. 그 꿀맛이 얼마나 좋아 그러겠습니까? 꿀맛이 그렇다면 사랑의 맛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맛과 꿀맛 중에서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1985. 12. 18) p.320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둘을 하나 만드는데는 말 가지고 안 됩니다. 둘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물질 가지고 하나되었다면 물질이 떠나면 도망가는 겁니다. 제삼자의 소개로 말미암아 무슨 사연을 통해서 하나됐다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떠나 버린다는 겁니다. 둘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하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오색 가지의 자극을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사람이 싫다 하는 영감님 냄새가 할머니의 코에는 구수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얼굴과 손에 가죽만 남아도 할머니는 그 얼굴과 손이 좋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천하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의 보따리를 집어 넣으면 시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풍류객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48-319, 1986.10.26) p.320

사랑의 맛이라는 것은 오미자 맛입니다. 오미자는 시고 또 시큼털털 껄렁껄렁합니다. 난 오미자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맛이라, 다섯 가지 맛이 합쳤으니 그 뭐 시큼털털하고, 껄렁껄렁하고, 울툴불툴한 맛이지요. 그렇지만 한 번 넘겨 보면, 넘길 때는 기분 나쁘지만 넘기고 나서는 자꾸 넘기고 싶다는 겁니다. (173-89, 1988.2.7) p.320

봄절기를 품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넘쳐 흐르는 사랑, 차고 냉랭한 겨울절기에 있어서는 눈과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랑, 높이로 보나 넓이로 보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그런 사랑이 나와 관계를 맺어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안정된 중심의 자리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사랑이 무한히 감촉되고 감각될 때 그 사랑이야말로 우주와 겨루고도 남음이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그 사랑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다. 시작과 끝이 동일한 절대적인 사랑을 내 심지의 복판에 정한 사람은 비록 개인이로되 우주와 겨룰 수 있다. (33-76, 1970.8.9) p.320

우리는 하나의 풀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꽃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한 입장, 하나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곤충이나 새, 혹은 어떤 동물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심정과 인연 맺어지는 그런 내적인 감정을 체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늘을 주관할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고 땅을 주관할 수 있는 온 천주의 주인공입니다. 인간이 이런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사랑입니다.

심정으로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클 수 있으나 지식으로는 무한히 클 수 없습니다. 사랑의 심정은 우주를 포괄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본연지를 개발하면 하나님도 그 속에 와서 낮잠자고 싶어합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의 심정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1053) p.321

사랑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색 인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흑인종?백인종?황인종이라 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흐름에 있어서 환경을 개의치 않고 흘러가면 환경이 동화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상적인 내용을 갖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164-93, 1987.4.26) p.321

Top p.321

4) 사랑의 특권은 동위권, 동참권, 상속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상대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노력으로 돼요? 힘을 써서 돼요? 무엇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인연을 맺고 나가면 대번에 동등한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핵을 장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남편의 아내가 비록 못났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사랑의 인연을 가지고 틀게 되면 훌륭한 박사도 할 수 없이 걸려들어 컨트롤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천국 I-384) p.321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 동위권의 자리에 서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145-269, 1986.5.15) p.321

사랑에는 동참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높으면 자식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즉각 아버지의 자리로 뛰어올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참권이 사랑에 내재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비록 떨어져 나와 있더라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143-277, 1986.3.20) p.321

참사랑을 체화(體化)한 사람은 하나님 본래의 이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한 자격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동포를 사랑한다든가, 세계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84) p.322

하나님과 사랑의 인연을 맺게 되면 반드시 주관성과 독립권, 그 다음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43-277, 1986.3.20) p.322

사랑권 내의 최대의 인격을 구성한 사람은,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상생활과 영계 상-184) p.322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2. 8-46) p.322

생명과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가?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지성소(至聖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생명이, 여자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생명에는 지성소가 연결 안 되어 있지만 사랑에는 지성소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랑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132-72, 1984.5.20) p.32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누가 주인이 되느냐? 보다 위하는 사람입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주관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에게 상속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리입니다. 사랑에는 동참권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딸 방에 허락받고 들어가요? 자기 안방에 허락받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작용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0-199, 1987. 11.15) p.322

참사랑과 권세는 무엇이 다른가. 참사랑은 사랑하고 잊어 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악은 주고 이익을 전부 받으려 하는 것이고, 선은 자기 것을 주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어서도 보다 위하는 사람이 선한 편입니다. 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집안의 주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열 친구가 있다고 할 때 그 중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냐? 열 친구를 위해 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열 사람이 위하는 그 친구를 중앙에 갖다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상속돼 나갑니다. (141-253, 1986.2.26) p.322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히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이 생명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 가지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먼저이고 사랑이 두 번째이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첫 번째이고 생명이 두 번째입니다. (105-75, 1979.9.23) p.322

모든 원소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전체를 두고 "너는 어디의 무엇을 가진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어"? 하고 물으면 한결같이 모두 다 사랑을 가진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다고 답합니다. 모든 만물은 사랑의 주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인간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일체이상(一體理想)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일체이상이 창조이상입니다. (138-246, 1986.1.24) p.323

인간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쓴 몸이기에 인간은 외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하려고 합니다. (1981. 5. 14) p.323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느냐. 선한 일을 하려면 희생을 해야 되고, 희생은 자기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투입하면 왜 좋은가. 천운의 근본, 원인과 결과, 모든 힘의 주체, 주류에 접속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힘을 보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무한한 힘을 보급받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만사형통입니다. (164-323, 1987.5.18) p.323

Top p.323

5) 사랑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신인애일체(神人愛一體)의 사랑이상 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고로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입은 대상입니다. 인간은 무형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완성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언제나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유형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이상은 인간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종적 관계로 실현 완성됩니다. (277-198, 1996.4.16) p.323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겠느냐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2. 7-19) p.323

태어난 것은 사랑의 열매를 지상에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사람이 지상에 온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것입니다. 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계절입니다. 짧다는 겁니다.인간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 의하여 완숙해지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9-14) p.323

인생이 사랑에서 태어났으니 사랑의 길을 가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이 공인하고 천사세계가 공인하고 만물이, 더 나아가 우리 부모가 공인할 수 있는 대우주애 가운데 나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천국 I-1062) p.324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과 일치하는 자리에 섰을 때 몸과 마음이 일체를 이루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몸과 마음을 일체화 시켜 들어가게 되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타락하지 않는 본연의 인간으로서 개인 완성이 출발하게 됩니다. (통일세계 1986. 2-14) p.324

하나님은 참사랑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만일 참사랑의 왕이 되시며 신랑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상대자되는 왕후가 필요하다는 말이 절대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분 앞에 참사랑의 상대될 수 있는 분이 누구겠느냐 하고 묻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일체가 될 아담과 해와였다는 것입니다. (149-9, 1986.11.1) p.324

남자나 여자가 가는 길은 사랑 때문에 있으며, 사랑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환경권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2. 8-16) p.324

사람이 목적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주관할 주체적인 사랑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게 될 때에는 또다시 새로운 목적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계점이 사랑보다 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9-130, 1970.2.26) p.324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존재세계의 평면적인 대표자는 인간이며, 입체적인 대표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결부시키는 중심점이 바로 사랑이라는 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9) p.324

가난한 촌부로서 시골에서 김을 매고 농사를 짓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촌부에게 마음과 몸에 부풀어오르는 사랑의 정열이 타오르게 된다면, 마음의 오관(五官)과 육(肉)의 오관이 완전히 합해져서 더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안착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시계추의 진동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한 번 출렁 하면 여러분 가슴이 한 번 출렁,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자꾸 돌아갑니다. 갈수록 가중된 힘은, 원심력이 작용해서 가정을 사랑해라, 사회를 사랑해라, 국가를 사랑해라, 세계를 사랑해라 하고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82. 10. 29) p.324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체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맞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사랑을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9-16) p.325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 사랑 앞에는 절대 지식, 절대 능력, 절대 권한을 가진 하나님도 절대 복종합니다. (123-136, 206-7) p.325

참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360 도를 다 돌아서 딱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사랑입니다. 닿기 전에는 참사랑이 못 됩니다. (178-309, 1988.6.14) p.32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무리 소망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이룬 게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8-326, 1971.1.8) p.325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참사랑의 길이며, 참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보고 듣고 먹고 만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입맞춤을 받았다면 내부가 폭발할 것 같은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소유했다고 해서 기쁘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통일세계 1986. 9-21) p.325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즉 내가 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사랑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구현 때문에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참사랑의 구현에 있으니 인간의 존재가치도 이 참사랑에 의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미래의 주인공 231) p.325

하나님 사랑의 본질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주하고 나가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투입하고, 자기가 모든 정성을 투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면서 주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위인도 그랬고 성인도 그랬습니다. (46-36, 1971.7.18) p.325

하나님의 사랑은 위하는 사랑, 위하려고만 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 참사랑이 있으면 돌게 마련입니다. 우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도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돌게 되어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영원히 가느냐.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것, 영원한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히 주려고 하는 사랑이 영원히 도는 것입니다. 주는 힘과 받는 힘이 하나되어 자꾸 주려고 하니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의 기원되신 하나님을 부모로 하여 인간은 아들딸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사랑의 최고 주인입니다. 부자지관계(父子之關係)가 종적인 수직관계인데 비해 부부관계(夫婦關係)는 횡적인 수평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지관계와 부부관계가 서로 직각(90도)을 이루고, 여기에 전후관계인 형제관계가 합함으로써 사랑의 관계는 구형(球形)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구형입니다. 우주 전체가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34-215, 1970.9.13) p.326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듯이, 하나님도 참된 인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남자나 여자 어느 편을 먼저 보고 싶다고 하면 서로가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만 내세우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만질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은 서로 다투면서 가지려 하겠지만, 사랑이란 둘이 서로 하나되어 위하며 가지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만이 욕망을 고르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섭리(救援攝理)도 가능한 것입니다. 참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참사랑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느냐? 참사랑은 밤낮 없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참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참사랑이 나 개인의 소유일 수 만은 없습니다. 참사랑은 만인의 것이며, 우주 공유의 것입니다. 참사랑은 가정?사회, 국가, 세계?우주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9-17) p.326

참사랑이란 뿌리를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분이라도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참사랑의 주인공인데도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뿌리를 심겠다고 생각합니다. (177-269, 1988.5.20) p.32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이상상대가 필요해서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천지 창조도 사랑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213-79, 1991.1.14) p.326

마음의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고 받아서 생기는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께 연결만 시키면 그것은 몇백 배, 몇천 배도 통일할 수 있는 것이요, 세계 만민이 고대하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동시에 천국도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될 때, 그의 심정과 감정은 무한한 체휼경(體恤境)과 행복감에 취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 인간과 세계가 하나되며, 하나님의 창조목적 이상세계의 실현도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60) p.326

인간이 신령한 경지에 들어가면 조그만 모래알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가 들어 있고, 하나의 원자에도 무궁무진한 우주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복합적인 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자를 지나 원자, 원자를 지나 소립자에 이르기까지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과 목적을 갖고 존재합니다.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쳐 나왔고, 반드시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느낍니다. 지은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내재되어 있기에 창조된 만물을 놓고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강한 사랑이어야 하느냐. 오늘날 인간세계의 그릇된 사랑은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사랑은 사탄이 침입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권에서 태어나 살면서 사랑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야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질서도 없고 방향도 없는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에는 더러운 것만이 모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맺으면 그 사랑의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새 사랑, 즉 창조 법도에 의한 사랑이 결정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이 출발합니다. (성화학생의 길-33) p.327

사랑을 왜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완전히 하나로 얽어매는 그것은 사랑의 밧줄입니다. 쇠로 만든 줄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 끊어지지만 사랑의 밧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는 밥으로도 돈으로도 얽어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얽어맬 수 있습니다. (18-329, 1967.8.13) p.327

인간의 완성은 지식이나 권력, 혹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속화된 사랑이 아닌 본래의 사랑이며, 그 사랑에 의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97) p.327

Top p.326

제 2 장 사랑의 실제

1)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누가 끊을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원천이요, 행복의 원천이요, 평화의 원천입니다. 영적 체험을 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324, 1969.9.14) p.32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보다 강합니다. 아침에 햇빛이 나면 모든 식물의 순은 태양을 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기원이요, 우리 본심의 기원이요, 이상적 요소의 주체적 기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9-230, 1978.9.25) p.328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 사랑의 중심존재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작과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정의 세계에서 한 시간 사는 것은 천년사에 자랑할 수 있고, 하루 사는 것은 만년 역사에 자랑할 수 있게끔 고귀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세포가 팽창하는 기운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마치 화창한 봄날에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황홀한 세계요, 모든 세포가 춤추는 듯한 기분이 나는 세계입니다. (20-25, 1968.3.31) p.328

하나님의 사랑을 무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따스한 봄날에 하늘에는 흰구름이 두둥실 떠있고, 땅에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벌레가 나돌고, 개미들도 세상 구경하겠다고 발랑발랑 기어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졸졸졸 흐르는 개울가에는 버들강아지가 움트고, 개구리가 봄날의 새노래를 부르고, 떼를 지어 날아드는 벌나비를 반기는 그런 환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에 취해서 잠이 드는것 같은데 잠은 들지 않고 기분 좋아서 영원히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상상대를 중심삼고 느끼는 기분은 나비가 날고 벌이 날아드는 꽃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 둔한 남자들은 그것을 잘 모를 겁니다. (37-29, 1970.12.22) p.329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고,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천만 배 더하여 주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예요, 지옥이예요? 거기에서는 더 주고 더 받을 수 있으니 폭발적인 자극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포가 터져 나가는 듯한 자극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39-335, 1971.1.16) p.329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지극히 선한 분이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분이요, 사랑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 우주의 귀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귀한 것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맛을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냄새를 맡는다면 무슨 냄새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듣는다면 뭘 듣기를 좋아하고, 느낀다면 뭘 느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오관을 집중시킬 수 있고 기쁨을 충만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밖에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의 파트너를 구한다고 하면 누구를 갖다가 세울 것이냐 그것은 틀림없이 인간이다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지중 유인최귀(萬物之衆 唯人最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218-211, 1991.7.29) p.329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대표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형제의 사랑도 들어가고, 이것을 확대하면 국가나 세계의 사랑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요, 부부의 사랑이요, 자녀의 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최고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절대적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사랑, 유일한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세계 앞에 나타날 때 사랑의 본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다 주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 이럴 수 있느냐?'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주고 싶은 사랑을 다 못 주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안타까워합니다. 자아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으니 인간세계에 대해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생각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는 다 줬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져와라'하는 하나님이라면 필요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게 될 때, 얼마만큼 주고 싶어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한계를 두고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주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몽땅 주고도 '너로 말미암아 네 안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는 종살이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밥상 위에 올라와 똥을 싸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은 법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아까울 것이 없고, 갖추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전부의 가치보다도 귀하게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랑 외에는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사랑 이외에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108-223, 1980.10.16) p.330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밤에도 좋아하고, 낮에도 좋아하고, 일하면서도 좋아하고, 쉬면서도 좋아하고, 춤추면서도 좋아하고, 울면서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 몽땅 있다'고 한 것입니다. '몽땅'이라는 말은 그 속에 전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랑을 몽땅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에 그 사랑을 맛보면 죽더라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요, 선의 본체요, 사랑의 본체요, 생명의 본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가 성립되려면 사랑과 생명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생명의 본체, 사랑의 본체, 진리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입니다. 핵심은 부모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간단한 분이 되십니다. (21-183, 1968.11.20) p.330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이 형제를 이루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는 인간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단계의 사랑의 주인으로서 자리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의 주인되게 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보다 몇 천만 배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뼈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은 '뼈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살사랑'입니다. 알겠어요? 뼈와 살이 하나돼 가지고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가 돼 있습니다. (181-206, 1988.10.3)

사랑이란 뭐냐? 돌아갈 수 있는 윤활작용과 궤도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윤활작용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움직이게 하려면 기름을 쳐야 합니다. 운동하는 데 윤활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운동하려면 윤활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의 윤활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용하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161, 1988.8.22) p.331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의 터전 위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먹는 것도 그 사랑을 위해서 먹고, 자는 것도 그 사랑을 위해서 자고, 활동하는 것도 그 사랑을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기준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의 공약 전부가 헛된 것입니다. (83-179, 1976.2.8) p.331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자식이 침해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보호해 주고, 또 어떤 반대의 요건이 나타날까봐 방어해 주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의 본질을 찾아 나아가는 길이 선의 길, 사랑의 길입니다. 인간은 아들딸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57-85, 1972.5.29) p.33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과 가까운 편에 있는 사람들과 종족, 나라에까지 사랑을 주었습니다. 작다고 받지 않을까봐 보태고 또 보태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나서도 또다시 사랑을 보태어 주려고 하십니다. 때문에 그 사랑이 돌아오는 날에는 천지가 몽땅 이상적인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이 갚아 주는 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백의 사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천의 사랑, 만의 사랑으로 돌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하나님의 코를 잡아도 되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경계선이 없습니다. 어디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입맞춤을 받았다면 내부가 폭발할 것 같은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쁘다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어디서 연결되느냐? 생명이 교류하는 곳, 사랑이 교류하는 곳, 이상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그 점이 어떤 점이냐? 부자지관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요, 이상의 주체이므로 자녀에 대해서는 위신과 체면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죄인 된 못난 자식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안고 비벼 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체험한다면 뼈살이 녹아날 것입니다. (118-285, 1982.6.20) p.332

하나님은 천년만년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주고 나서 '야, 요거 몇 냥 몇 전이다' 하는 장사꾼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카락도 춤추고 세포도 춤춘다는 것입니다. 백 퍼센트 그 사랑에 취하면 나가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만년 살고지고가 됩니다. 누가 깨우려고 하면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요지경 판이 벌어집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 그만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차적인 사랑에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고,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천만 배 더하여 주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서는 더 주고 더 받을 수 있으니 폭발적인 자극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포가 터져 나가는 듯한 자극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으로는 어디든지 채울 수 있고, 사랑으로는 어디든지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껴안으면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아, 사랑한다' 이럽니까? 아마 눈알이 다 튀어 나오고 콧물, 입물이 나오도록 껴안아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껴안고는 가만히 서있지 않고 빙빙빙 돕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우주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골수 중의 골수를 몽땅 투입하여 창조한 인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끌면 끌려오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끌면 끌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천년만년 모든 것을 주고 또 주면서도 부끄러워하며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것을 줄 터이니' 하면서, 오늘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도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6-290, 1970.12.31) p.332

인간은 왜 영생하느냐? 왜 누구나 영생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절대적 주체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권의 가치를 지닐 수 있고, 사랑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위에나 아래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자 내가 됩니다. 사랑으로 일체만 되면, 하나님을 내 포켓 안에 넣으면 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보다 강합니다. 아침에 햇빛이 나면 모든 식물의 순은 태양을 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생명의 기원이요, 우리 본심의 기원이요, 이상적 요소의 주체적 기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권을 통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봄날 향기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동산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향기란 향기를 다 맡아 취한 기분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모든 세포가 춤을 춥니다. (99-193, 1978.9.25) p.333

하나님의 사랑이 종적인 사랑이라면 남녀간의 사랑은 횡적인 사랑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려면 횡적인 사랑을 종적인 사랑 위에 접붙여야 됩니다. 90 각도로 맞춰야 됩니다. 이걸 맞추지 않는 사랑, 종적인 기준과 연결되지 않은 사랑은 떠돌이 사랑으로 파괴되고 맙니다. 때문에 종횡이 일치된 사랑권내에 들어가 지면 사랑을 중심삼고 만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우주와 관계를 맺게 되면, 지식도 권력도 돈도 생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그 안에서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188-219, 1989.2.26) p.333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사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바라는 종착점은 무엇이냐. 아들딸을 만나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종착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딸로서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담은 자기 중의 자기요, 미래의 이상적인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또한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이요, 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몸에 상대되는 영적 상대요, 해와는 육적 상대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 사랑하는 것은 누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지극히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식이 필요없습니다. 지식을 창조한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권력이 필요없습니다. 전지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없습니다. 다이아몬드나 황금도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사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참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137-52, 1985.12.18) p.333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게 될 때 무한정으로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몽땅 주고도 '너로 말미암아 네 안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는 종살이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법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맛이냐. 모든 것을 종합한 최고의 맛입니다. 좋아서 쥐면 끝없이 쥘 수 있고, 펴면 끝없이 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으로는 얼마든지 채울 수 있고, 어디든지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체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사랑이 우러나왔고, 부부의 사랑이 우러 나왔고, 자녀의 사랑이 우러나왔고, 형제의 사랑이 우러나왔고, 친척의 사랑, 민족의 사랑이 우러나왔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보인다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고로 높을 수 있으며, 최고로 넓을 수 있으며,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로키산맥과 같다, 사랑은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이처럼 귀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도 귀하신 분입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무아의 경지에, 즉 내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조용한 세계에 계십니다.

남녀지간에 사랑하게 되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맛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그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떠한 슬픔도 그를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해방권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다른 데 모실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가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살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같이 살고 싶어하느냐? 하나님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되어 같이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마음이 좁아요, 넓어요? 마음의 생김새를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지만 마음은 무한히 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좋으냐? 세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몇백억 원씩 주고도 또 주고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멋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무한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크냐? 이건 측정할 수 없으리만큼 크다는 겁니다. 또 작다면 그거 형편없이 작습니다. 바늘 끝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마음은 크게 넓히면 무한히 넓힐 수 있고, 좁히면 무한히 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을,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제일 가까운 거리를 통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귀한 말입니다. 왜 수직이 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수평이 되고 평형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수직이 되려면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찾아갈 때 이웃동네 찾아가듯이 슬슬 가나요, 쏜살같이 직행하나요? 밤이든 낮이든 할 것 없이, 춘하추동, 아무리 역사가 길다 해도 사랑은 제일 직단거리를 통하려고 합니다. (187-50, 1989.1.6) p.334

사랑만은 만유에 있어서 직단거리를 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건이 아래로 내려오게 될 때 직단거리로 내려오는데 그 자리가 수직입니다. (187-50, 1989.1.6) p.335

Top p.335

② 사랑의 목적은 신인애(神人愛)일체 이상

천지의 중심과 우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아버지와 아들딸의 관계, 즉 부자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육친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과의 관계인 줄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근본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9-160, 1965.10.7) p.335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사랑이 교차되는 중심, 생명이 교차되는 중심, 이상이 교차되는 그 중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과 생명과 이상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사랑이요 나도 사랑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이상이요 나도 이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최초의 인연과 최초의 통일의 장소가 부자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69-78, 1973.10.20) p.335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시라면 그 절대적인 분이 왜 인간을 지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지식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권력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아들딸이라는 것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축이 만일 연결됐더라면,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를 무엇이 작용해도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아담과 해와가 서로 최고로 기쁜 가운데서, 최고의 생명력이 발휘되고, 최고의 힘이 합하고, 전체의 이상력까지 합한 가운데서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래서 꽃과 같이 피어 가지고 그 향기가 온 천하를 덮고도 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꽃을 바라보고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스스로 거기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꿈꿨던 것입니다. (104-45, 1979.3.28) p.335

하나님이 창조 당시 이상으로 바랐던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중심삼고 인간과의 사랑관계를 맺어 하나 될 수 있는 신인애일체(神人愛一體)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염려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참사랑입니다. 그러면 참사랑은 사랑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얘기하느냐?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한 말이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참사랑의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될 수 있는 사람에게 뿌리를 심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77-269, 1985.5.20) p.336

그래 동맥이 위대하냐, 정맥이 위대하냐? 어떤 게 위대해요?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냐? 사람이 위대하냐? 같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동맥적이라면 우리 인간은 정맥적인 존재이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게 무엇을 중심삼고? 사랑을 중심삼고. 그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109-146, 1980.11.1) p.336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다고 생명이 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생명에서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의 발원지, 동기는 사랑입니다. 생명이 생겨난 것은 사랑때문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서게 되면 우주의 모든 것에 연결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참사랑으로 내자신이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내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손자가 할아버지 안에, 할아버지가 손자 안에 있다는 말이 여기서 생긴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중심삼고 정을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랑의 수직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세운 다음에 횡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완성은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면 그 분이 왜 인간을 지었느냐?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아들딸이라는 것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이 축이 연결됐더라면,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를 무엇이 작용해도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에다가 줄을 매고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 갈라질 것 같습니까? 벌은 봄에 꿀맛을 보게 됩니다. 꿀을 빨고 있는 벌의 꽁무니를 잡아당기면 꽁무니가 빠지더라도 꿀에서 입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자리는 바로 아들의 자리요, 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천정(天情)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人情)이 있습니다. 이 인정과 천정이 서로 합할 수 있는 귀결점은 어떤 자리냐. 그 자리는 절대자인 하나님도 원하고 인간도 원하는 단 하나의 자리, 즉 한 부모를 중심으로 한 아들딸의 입장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의 둥지 가운데 품겨 사랑의 둥지 가운데서 태어나는 아들딸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구경하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속삭이고 싶은 우주의 주인공이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되어, 서로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아담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될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거(居)합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적인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도 영원한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생해야 되고, 영생해야 그 걸작품의 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靈長)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인간에 의해 횡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고받으면 반응하는 극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다른 데에서 또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횡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참사랑의 길이며, 참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보고 듣고 먹고 만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입맞춤을 받았다면 내부가 폭발할 것 같은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소유하고 기쁘다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9-21) p.33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류는 세계 무대에서 제일이 되는 것을 바라기 이전에, 본연적인 아담과 해와의 가정에서 제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앞에 직계 왕자와 왕녀의 자리를 갖추게 되면, 그들은 남자로서 최고요, 여자로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차지해야 할 장자권 왕자, 장자권 왕녀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한으로 남아졌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다시 찾고자 첫째 아들과 첫째 딸의 자리를 찾아나오는 인생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몸은 하나님이 거(居)할 수 있는 집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참사랑으로 영원히 통일된 사랑의 체(體), 생명의 체, 혈통의 체가 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이란 악마의 사랑을 중심삼고 악마의 생명체와 핏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핏줄을 개조해야 됩니다.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개조해야만 구원섭리의 완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26-48, 1992.2.1) p.338

Top p.338

2) 참부모의 사랑

① 원죄 없는 참조상, 인류의 구세주

참부모가 뭐냐?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종적인 사랑이 되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뼈와 같고, 아담과 해와는 몸과 같은거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자리에서 내적인 부모가 되고 아담과 해와는 외적인 자리에서 외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적 외적 부모가 하나된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엮어져 내적 부모를 모시게 되고 외적 부모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결탁에 의해 참부모, 즉, 완성한 인간이 성사될 것이었다 이겁니다. 사랑과 결탁 안 되게 되면 완성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역사는 무엇을 찾아 나왔느냐? 시대는 무엇을 찾아 나왔느냐? 미래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참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여기에 귀결되지 않고는 행복의 기준은 역사과정이나 우주 가운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6-199, 1969.10.25) p.338

참부모란 어떠한 존재냐? 참부모는 전체의 소망의 상징입니다. 타락한 인류 앞에 절대적인 소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결실체요, 시대적인 중심이요, 인류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미래선상에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35-236, 1970.10.19) p.338

참부모라는 그 이름 세 자(字)를 생각할 때, 참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치리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원이 생겨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이 결정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외적인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해원성사해 드릴 수 있는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와 더불어 살고, 참부모의 명령을 받들어 행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에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43-144, 1971.4.29) p.338

인간의 소원은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길을 가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시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후손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부모를 만난다면 역사를 찾는 것이요, 시대를 찾는 것이요,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참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5-236, 1970.10.19) p.339

여러분은 하나님과 참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누구도 복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눈물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163) p.33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선생님이 이 땅 위에 참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말, 세상의 말 중에 제일 복된 말이 무엇일 것이냐?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를 잃었다가 찾는 것보다도, 세계를 잃었다가 찾는 것보다도 참부모라는 말이 제일 복된 말입니다. 그것은 천지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7-221, 1983.5.8) p.339

참부모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가 좌우됩니다. 이 말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의 길을 갔습니다. 연속적인 피의 투쟁을 거치고 몸부림치며 절규하면서 소망을 품고 찾아 세운 이름이 참부모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참부모 앞에는 참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참자녀가 되었습니까? 참이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33-109, 1970.8.9) p.339

하나님의 복귀역사는 참부모를 세우기 위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 아벨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늘은 내적으로 참부모를 복귀하기 위해서 섭리해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근본섭리에 대적(對敵)하거나 훼방하면, 그는 천도(天道)앞에 버림받게 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10, 1960.3.27) p.339

메시아는 참부모입니다. 우리들은 참자녀입니다. 같은 운명권에 서서 거기에 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55-99, 1972.4.23) p.339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때 그분은 개인으로 오시되 개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치는 온 세계 인류가 믿고 있는 신앙의 결실체요, 온 세계 인류가 바라고 있는 소망의 결실체요, 온 세계가 바라고 있는 사랑의 결실체입니다. 그 결실체에는 모든 역사노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현재-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땅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3-143, 1964.1.1) p.339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대행해야 할 자리가 참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참부모는 뭐냐? 종적인 참아버지 대신으로 횡적인 참사랑을 중심삼은 횡적인 부모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참아버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길로 못 갑니다. 메시아는 횡적인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186-40, 1989.1.24) p.340

참부모가 이 땅에 출현하기까지에는 그 배후에 여러분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눈물겨운 사정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449) p.340

우리가 알고 있는 참부모는 뭐냐? 인간 조상입니다, 인간 조상. 그러니 참부모를 자기 부모와 같이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18-147)

참부모가 이 땅 위의 인간들 앞에 뭘 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참부모, 작은 참부모로 만드는 놀음입니다. (125-117, 1983.3.14) p.340

어디서부터 참사랑이 출발하느냐? 참부모에서부터. 이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무슨 좋은 말이 있다 해도, 남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고, 아내라는 말이 좋은 말이라 해도, 타락한 세계는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고는 참된 남편과 아내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참부모 이상 좋은 복음이 없다 이겁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31-187, 1984.5.1) p.340

인류는 참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축에 연결될 수 있는 원칙적인 일이 역사 이래 처음 벌어진 겁니다. 역사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축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 축이 무엇이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137-107, 1985.12.24) p.340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는 자리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부모, 잃었던 참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바로 그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基臺)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 자리, 그것이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자리가 있었지만, 이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성인들도 이 기대, 이 문제를 위해 싸웠습니다. (52-95, 1971.12.23) p.340

인류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6천 년 전에 아담과 해와가 성혼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사탄의 후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천 년 전에 잃어버린 하늘 편인 참부모를 다시 이 땅 위에 찾아 세워 참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통하여 중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203, 1968.1.7) p.340

하나님은 참부모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참부모가 없이는 섭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계에 가 있는 수억의 영인들도 참부모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부모가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천사장계(天使長界)의 영인(靈人)들은 지상에서 뜻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역사한 보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도 참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454) p.341

모든 역사는 참부모를 맞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도 참부모를 찾아 나왔고, 세계도 참부모를 찾아 나왔고, 국가도 참부모를 찾아 나왔습니다. 참부모를 찾는 길을 모색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75) p.341

인간은 역사시대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될 길이 없었습니다. 본연의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분이 참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770) p.341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소원이 무엇이냐? 참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를 세우신 것도 메시아를 맞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또, 기독교와 기독교문화세계를 만든 것은 재림주를 맞기 위한 것인데, 재림주는 제3아담으로 오시는 참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134) p.341

모든 것은 어디에 귀결되느냐? 참부모를 만나는 데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소원이요, 국가의 소원이요, 사상의 소원이요, 섭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나타나는 때는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정점을 이루는 때요, 전무 후무한 때인 것입니다. (51-354, 1971.12.5) p.341

참부모가 뭐예요? 육신의 부모가 참부모와 무엇이 달라요? 참부모가 뭐예요? 뭐하는 것이 참부모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말할 때, 그 육신의 부모와 참부모와 무엇이 달라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적 부모는 육신을 중심삼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영적 부모는 영적인 세계를 중심삼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29-99, 1983.10.1) p.341

민주주의는 세계주의이지만, 그 위가 부모주의입니다. 앞으로 부모주의 시대가 찾아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선거로 선출해요? 재림주를 선거로 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거로 채택할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어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불신 풍조를 조성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전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별의별 놀음을 다 합니다. 금력을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모략 중상 등 별의별 놀음을 다 한다는 겁니다. (211-343, 1991,1.1) p.341

Top p.341

② 참사랑으로 인류를 낳아 주신다

여러분은 참된 부모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하늘 앞에서 쫓겨난 거짓된 부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으니, 이 핏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핏줄을 밟고 밟고, 뽑아 버리고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혈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22-271, 1969.5.4) p.342

혈통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골수까지, 골육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장래의 아이가 될 그 씨에 하나님의 사랑과 결속된 승리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장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그렇게 해온 기록이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5-163, 1970.10.13) p.342

타락한 인간이 요구하는 구주는 어떠한 구주냐? 타락한 부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부모의 자리에서 인류를 낳아 줄 구주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원죄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22-269, 1969.5.4) p.342

혈통을 전환하는 것은 메시아가 할지 모르나, 전환하도록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이룩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하는 경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40 일 단식기도라든가 피를 토하는 죽음의 경지에 가야 혈통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62) p.342

참부모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심정권을 중심삼고 그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뿌리가 다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줄기와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여기에서 새로이 뿌리가 참부모로부터 시작되어 무엇이 나왔느냐? 여기서 줄기와 가지가 나와 가지고 접붙이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접붙이는 겁니다. 접붙여 가지고 그것이 우주의 큰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모든 것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뿌리까지 잘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64-155, 1987.5.10) p.342

오늘날 만민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계 국가를 맞기 전에 참부모를 맞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후손들은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의 아들딸은 여러분의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의 핏줄을 통해 태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35-237, 1970.10.19) p.342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세계의 뿌리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릇된 생명을 돌이켜 놓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왜 나와야 되느냐? 사탄세계는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69-39, 1987.10.4) p.343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서 재창조되어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참부모의 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부모에 의해서만 영육이 함께 구원되는 완전한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우리의 자녀들은 원죄가 없으므로 구원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135) p.34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와 참부모의 자식이라는 것은 영원불변의 숙명적인 업(業)입니다. 이걸 누구도 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갈 길은 두 길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법이 없습니다. 그길을 가야 됩니다. (203-192, 1990.6.24) p.343

참부모는 세계 사람들을 불러 부모의 입장에서 결혼시켜 줍니다. 여기에는 인종 차이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선인(善人)과 악인(惡人)도 같이 결혼시켜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악한 사랑·악한 생명·악한 혈통은 다 부정하지만, 아벨을 죽인 가인은 제거해 버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축복해 줍니다. 바다의 조수 물을 볼 때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이 만나 수평을 이룬 때와 같이, 구원섭리(탕감복귀)가 종결되는 선악의 전환기에서 선인과 악인을 함께 다 축복해 줌으로써 사탄을 완전히 추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니, 이제 참부모가 바르게 결혼시켜 줌으로써 다시 뒤집어놓은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저질러 놓은 일을 참부모가 청산함으로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억의 영계의 조상들마저 축복 결혼시켜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지상의 후손들의 가정기반을 통해 영계의 조상과 지상의 후손이 종적으로 하나로 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기반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연결됩니다. (22-239)

양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아들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돌감람나무를 잘라 버리고 참감람나무 순을 접붙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돌감람나무들이 참감람나무가 되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바라는 것은 참부모이고, 예수와 성신이 바라는 것은 어린양 잔치입니다. (19-164, 1968.1.1) p.343

먼저는 부모를 진심으로 그리워해야 됩니다. 내 생명의 동기도 부모요, 내 소망의 일체도 부모요, 내 모든 이상과 행복의 근원도 부모라고 하는 기준을 중심삼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셔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부모와 영원히 하나될 수 있는 아들딸이다'라는 신념을 자신의 존재의식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30-238, 1970.3.23) p.344

육적인 부모만 있으면 될 텐데 영적인 부모가 왜 필요하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절반 이상 더 큰 것을 다 따버리고 자기를 중심삼고 자꾸 내려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사탄세계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금이 그어졌습니다. 이것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부모는 뭐냐? 그런 기반에서 점점 더 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맞게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박자가 맞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지장이 없게끔 가르치는 것입니다. (129-99, 1983.10.1) p.344

Top p.344

3)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본질의 사랑이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실현체요 투입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체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이상의 구현체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이는 내 사랑의 실체요, 생명의 연장체요, 이상의 구현체다. 제 2 의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69-78, 1973.10.20) p.344

자식은 사랑과 생명과 이상적 기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생명이 약동하고, 보면 볼수록 이상적인 상대로 등장되는 것입니다. (69-78, 1973.10.20) p.34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가 변할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혁명하는 것은 역사시대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혁명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혁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히 존속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 그러한 사랑의 주체 되는 부모가 나를 절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유일적으로 필요로 하고, 불변적으로 필요로 하고, 영원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74-18, 1974.11.10) p.344

자식은 왜 부모를 그리워 해요? 거기에 나의 사랑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137-141, 1986.1.1) p.344

부모의 사랑을 왜 존중시하느냐? 보답을 바라지 않고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써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받는 것으로써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6-36, 1971.7.18) p.345

부모가 자식에 대해 하는 사랑은 그냥 그대로 생활적인 인연만을 통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뼛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끊을래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부모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과 생명의 인연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에게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32-15, 1970.6.14) p.345

참사랑은 무엇이냐? 위하는 사랑인데 주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어 주어도 지치질 않습니다. 70이 된 아들보고 '얘야! 차 조심해라'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고, 몇십 년 동안 그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하더라도 싫증나거나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부모가 이렇거늘 하물며 본질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지칠 리가 있겠습니까? (139-103, 1986.1.28) p.345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권한을 가지고 언제나 당당한 자리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변하지 않는 사랑의 주인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천태만태로 변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만은 변함 없습니다.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59-293, 1972.7.30) p.345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뼛골이 녹아나도록 고생을 하지만 힘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피살을 깎아주고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장부에 치부해 둡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몽땅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39-335, 1971.1.16)

부자관계는 어떤 것이냐? 사랑을 중심삼고 무슨 관계겠느냐? 부자관계는 부모의 사랑이 원인이면 그 자식은 사랑의 열매요 결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실과 원인이 동떨어진 자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출발을 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원인인데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결실로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현재 사랑하는 자리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더불어 일체화한 원인과 결과의 자리를 대등하게 갖고 태어난 것이 부자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127-13, 1983.5.1)

부자관계는 종적인 면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관계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상에도 그렇잖아요? 부부의 사랑은 횡적인 면의 인연이기 때문에 사방성을 갖춘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145-275, 1986.5.25) p.346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를 대하는 기쁨은 그야말로 세계를 대표한 기쁨이 되어야 되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대하는 기쁨은 세계를 대표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의 관계는 그야말로 우주의 근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본이 거기에서부터 싹틀 것이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슬픔이 시작된다면 그 이상의 슬픈 자리가 없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62-18, 1972.9.10) p.346

부자의 관계는 뭘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핏줄이 연결된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 가운데는 사랑이 개재돼 있고 핏줄이 개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직계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한몸이 돼야 됩니다. 핏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는 생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전통을 이어받은 생명을 지니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142-266, 1986.3.13) p.346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느냐, 나는 부모의 사랑이 지극히 꽃피는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꽃이 피는 데는 아름답게 피고, 아름답게 필 뿐만이 아니라 향기가 풍기고, 그 향기는 어머니 아버지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만우주도 좋아하는, 이상적인 꽃으로 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겁니다. (83-162, 1976.2.8) p.346

우주를 종합한 남자요, 여자로 태어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의 꽃을 피우는 그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의 씨로 심어진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83-162, 1976.2.8) p.346

나는 누구냐? 부모의 사랑의 출발 근원에 동참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한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원인적인 부모의 사랑과 결과적인 내 생명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을 중심삼고 부자일신(父子一身)이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27-13, 1983.5.1) p.346

사랑을 빼놓고는 일신이나 일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복중에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의 본질로 말미암아 복중에 잉태된 그 시간에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모든 관심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에서 생명의 인연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랑을 받으면서 커 가지고 상대를 맞을 수 있는 때가 되면 상대를 취하는 겁니다. (127-13, 1983.5.1) p.346

부자의 관계는 어떤 무엇으로도 깰 수 없습니다. 원자탄으로도 깰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깰 수 없고, 헤어질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21-69, 1968.9.9) p.346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사랑과 내 생명의 주체성을 가진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끊으면 나를 부정하고 내 생명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사랑의 결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다 하는 논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83-162, 1976.2.8) p.347

부처끼리 살면서 아무리 재미있게 사랑한다 해도 자식이 없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자식이 있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자식이 없는 것은 미완성품입니다. 미완성 부부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92-219, 1977.4.17) p.347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칠 법이 없습니다.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안고 좋아하는 그 자리는 이 우주의 법이 공격할 수 없고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130-152, 1984.1.8) p.347

자식이 병자가 되어 있고 병신이 되어 있을 때에는 높고 깊은 부모의 심정은 그 병신 자식에게로 흐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틀렸어요? 그런 불구자의 심정은 계곡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꼭대기의 큰 자리와 같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 꼭대기로부터 그 깊은 골짜기로 흘러갑니다. (147-166, 1986.9.7) p.34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품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옷이 누더기면 누더기일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것이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파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173-263, 1988.2.21) p.347

여러분, 애기가 똥싸는 걸 부끄러워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똥을 싸놓고 오줌을 싸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머니가 똥 치우는 것 보고 벌쩍벌쩍 웃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순진해요, 그것은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에서는 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116-84, 1981.12.20) p.347

품 안에서 젖을 먹여 키우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자식이 똥 싸고 오줌을 싸서 냄새가 나더라도 사랑으로 그 환경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본연의 심정을 통해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09, 1968.6.9)

부모의 마음은 주고도 부족함을 느끼고, 사랑하고도 덜 사랑한 것이 있지 않겠나 하여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고 나서 섭섭하고 안된 마음,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과 통하는 본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출발의 전통적 동기입니다. (60-82, 1972.8.6) p.347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칼로 자식을 절반으로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공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부모는 어디를 가든지 화를 받고 불행이 따르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오면 어머니의 젖이 불어납니다. 젖이 불어 가지고 아파오면 안 조이는 데가 없습니다. 배고파하는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기분이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불었던 젖이 줄어들면 어머니는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건 어머니가 아니고는 모릅니다. 또 아기가 쪽쪽 빨아 먹으면서 젖을 만지는 걸 볼 때는 사랑이 듬뿍 우러나는 것입니다. (187-100, 1989.1.6) p.348

자식을 가진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 중에 누구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겠느냐고 묻게 되면, 그 어머니가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면 내놓았지 자식은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그거 뭐 자식이야 죽으면 또 낳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부가조건이고, 원칙을 따지고 들어가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부부라는 것은 횡적이요 맨 나중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의 역사가 그렇다구요, 사랑의 역사가. (48-214)

본연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을 넘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본래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은 생명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부합될 수 있는 생명이지, 생명에 사랑이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희생해서 생명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사랑이요, 우주와 통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2-153)

연어의 일생을 보면, 연어는 알을 낳고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알을 배기 위해서 수놈 암놈이 그저 하나되어…, 그거 보면 죽을 날을 정한 사형수의 입장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이상의 사랑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암놈이 알을 낳게 되면 수놈은 땅을 파서 보호해 줍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한 쌍입니다. 그리고 알을 낳게 되면 죽는 겁니다. 죽어가는 암놈 수놈들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볼 때 참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어미의 몸은 새끼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128-269)

창조주가 있다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보면 새끼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것이요, 새끼가 최고의 것이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표본으로 연어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이론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연어의 일생은 참 놀라운 인간의 교재입니다. (128-260) p.34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p.348

② 나누고 또 나누어도 완전한 부모의 사랑

자녀는 왜 사랑하는가? 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업을 우리가 횡적인 실체권에서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그 기쁨을 우리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창조적 권한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128-260)

자식을 많이 키워 본 부모는 무엇인지 모르게 사랑의 심정이 넓고 크고 깊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기른 사람은 악한 원수도 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무엇인지 모르게 넓은 터전에 서 있고 넓은 법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132-5)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사랑의 전파를 따라 자동적으로 젖꼭지를 찾아갑니다. 추녀이든 미녀이든 상관없이 어머니면 그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화무쌍하고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93-146)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큽니다. '나' 라는 존재는 부모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 열매로 보여 준 것이 '나'입니다. 부모님은 사랑의 열매인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이 다시 열매맺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랑, 가정적 사랑, 종족적 사랑, 세계적 사랑?우주적 사랑?그리고 본질적 하나님의 사랑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앞에 둘도 없는 사랑의 동참자요 동반자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와 대등할 수 있고 대등한 자리에 올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권입니다. 부모는 참되게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상속은 사랑의 전통상에서 동등한 사랑의 가치적 위치를 찾게 될 때, 모든 것을 마음놓고 백 퍼센트 상속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효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효자란 부모의 영원한 사랑의 동참자로 사랑의 상속을 이어 주는 것입니다. (190-118)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짓을 해도 밉지가 않고 마냥 좋은 것은 그 아기가 자기의 피와 살로,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분신체이기 때문입니다. 오줌을 싸고, 똥을 누고, 코를 흘려도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것들 속에는 사랑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175-113)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은 부모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여 횡적인 부부의 사랑을 하게 되고, 부부의 사랑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또 자녀를 낳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어야만 참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의 사랑만으로는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 부모로 돌아가봐야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37-67)

나에게는 어머니, 부모의 사랑줄과 이상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모든 힘이 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딜 가든지 부모는 따라오게 됩니다. 저 영계에서까지도 부모는 언제나 함께하려 합니다. 때문에 부모가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자기 몸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로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은 부모의 사랑에서입니다. 부모의 사랑에서 접붙여서 나온 겁니다. 생명의 연결을 말하기 전에, 핏줄을 말하기 전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핏줄이 이어지고 생명이 이어진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왜 귀하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 동참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부모가 했지만 사랑의 열매는 '나'입니다. 시작과 결실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190-11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된 부모는 사랑의 전통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것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종족을 초월해서 모든 부모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랑의 전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화목하게 결합하여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통은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만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세계 1978. 11-11)

부부간의 사랑과 부자지간의 사랑 중에 어느 것이 크냐? 서양 사람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보다 자식을 위하는 사랑이 더 큽니다. 부부끼리의 사랑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싸움이 벌어지지만 부모와 자식간에는 사랑해야 한다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부자의 사랑이 중심이요 종적인 것으로 하늘의 법도에 가까운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하는 사랑이, 위해 주는 사랑이 보다 참된 사랑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남자도, 아무리 독한 여자도 그 사랑 앞에는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90-85, 1976.12.19) p.350

부모가 귀한 것은 자식을 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꿔치는 겁니다. 부모가 나이 많아지면 어린애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의 선생이 되었지만, 나이가 70,80 이 되면 부모는 도리어 애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키워 주었던 것처럼 그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지의 이치입니다. (137-96, 1985.12.24) p.351

Top p.351

4) 부부의 사랑

부부사랑은 만우주의 꽃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양성적 형상을 지닌 존재요,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적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부부는 천하를 한 보자기에 싼 것과 같습니다. 고로 부부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사랑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67, 1963.10.17) p.351

하나님은 종적 이성성상을 가진 분이요, 인간은 횡적 이성성상을 가진 실체로서 둘이 합해서 완전한 둥그런 사과모양을 이루어 가지고 네 개의 성상형태를 가진 동서남북에 사랑이상을 끌어붙일 수 있는 모체를 삼자는 것이 부부의 이상입니다. (1982. 5. 5)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 위에서 폭발될 듯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취하고 우주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요, 인류를 위한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요, 인류의 사랑이 근원인 것입니다. (35-240, 1970.10.19) p.351

이상적 부부란 어떠한 부부냐? 최고의 예술을 실체로 전개시킬 수 있는 부부, 최고의 문학을 전개시킬 수 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최고의 이상, 최고의 문화세계를 접하기 전에 최고의 사랑으로 부부가 주고 받는 달콤한 사랑이 세계 최고의 예술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생활 자체가 최고의 문학작품이요, 그 자체가 문학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270, 1969.5.4) p.351

사람에게는 항상 자극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자극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먹는 밥도 먹을 때마다 배가 고파야 맛이 새로운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부인과 남편이 서로 보면 볼수록 더욱 보고 싶고 온종일 함께 있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23-57, 1969.5.11) p.35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3대 사랑을 중심삼고 같이 꽃필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세계의 소원이요, 인류의 소원이요, 미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천지의 법도 앞에 역사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새로운 꽃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5-240, 1970.10.19) p.351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지면 지상에서 백년해로를 해야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둘이지만 하나되어 돌아감으로써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몸이 하나되면 하나님과 돌게 되어 사랑의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이상세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 사랑이 침범할 수 없으며, 오직 참사랑만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44) p.352

심정적인 사랑에 의해 맺어진 부부는 그 애정이 생활권을 타고 넘고 생애를 타고 넘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었음에 틀림없다고 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35-180, 1970.10.13) p.352

남자와 여자의 사랑 완성이 우주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이 깨어지는 날에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종적인 세계가 다 결딴나게 됩니다.
(통일세계 1982. 7-21) p.352

부부의 사랑을 통해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창조능력을 이룬 것이 자녀입니다. (1973. 2. 3) p.352

순수한 남성 여성으로서 붉은 사랑의 정열의 마음을 지니고 천지를 대표할 수 있는 남성 여성, 그렇게 묶어진 부부를 하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부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에서 아들딸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회보 172-3) p.352

남자 여자가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은 평면적 극에서 사랑을 찾아가기 위한 충돌의 빛이 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흰 빛이 나면 색깔을 가해서 오색찬란한 빛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빛이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섞어질 때 무지개 빛깔 같은 이상적인 찬란한 광명의 세계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4-170, 1985.4.7) p.352

요즈음 인스턴트 식품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향수탕에 들어가 목욕한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에 살면서 냉수에 몸을 담가 씻어내고 잠자리에 드는 부부의 사랑이 더욱 순수하고 오래 가며 깊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통일세계 1986. 2-34) p.352

신랑 신부는 돈이나 권력, 명예를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꾸며 나가야 합니다. (1983. 5. 1) p.352

남성은 참아버지의 분신이요 여성은 참어머니의 분신입니다.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참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면 참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 어떠한 힘도 남녀간에 상호 주관할 수 없으며, 오직 사랑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34) p.353

여자와 남자를 힘으로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지만 사랑이 개재된다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밀고 끌어당기며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상적인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4-22) p.35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최고로 좋아하는 멜로디가 무엇이냐 하면,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서 기뻐하는 부부의 웃음소리인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우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삶을 영위할 때 그 웃음은 자연발생적이 됩니다. 그런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한 송이 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나 추상이 아닙니다. 본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887) p.353

사랑하는 부부간의 대화는 세상의 어떤 시나 그림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우리끼리, 우리 둘이서' 하는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말입니까? (통일세계 1986. 2-28) p.353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아서 완전한 사랑을 주고 받으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상에 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화만상은 하나님에게는 향취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향취 속에 하나님은 살고 싶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 터전이 곧 부부의 사랑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만물과 우주가 화동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887) p.353
Top p.353

② 부부사랑은 나누어지면 불완전

인간은 본성적으로 상대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부간의 횡적인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간의 종적인 사랑의 관계와 달리, 나누어지면 벌써 그 온전성이 파괴됩니다.
부부간에는 절대적인 사랑의 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창조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대를 절대로 위해야 할 사랑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성약말씀 · 구원섭리의 원리관) p.353

사랑의 강력한 힘으로 맺어진 부부라면 상대가 무슨 짓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기쁘고 사랑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한다거나, 부인이 하는 몸짓이 싫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은, 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부는 목적을 위해 이해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통일세계 1983. 3-22) p.353

부부가 함께 사는데 있어서 일생 동안 편안히 사는 것보다 사랑을 중심삼고 곡절을 겪으면서 태풍도 불고, 폭풍우도 내리고, 벼락도 치는, 그러한 다양한 느낌을 느끼면서 이상의 사랑을 추구하는 게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돈이나 지식이 아닌 사랑이 필요합니다. (167-213, 1987.7.19) p.354

사람의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자의 말소리가 남자의 말소리보다 높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높게 만들었느냐? 힘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약하지만 정에 있어서는 여자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떤가. 남자는 넓은 사랑을 합니다. 자기 남편과 아들딸만을 생각하는 사랑에 있어서는 여자가 높지만 친척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자들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사랑하거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배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불안하지만 이것을 엮어 놓음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29-55, 1983.10.10) p.354

맨 처음 한 3년 동안은 접붙이려면 안 맞습니다. 집안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예절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맞을 것이 뭡니까? 하나될 때까지는 맞추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맞게 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89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을 통해서만 더 큰 것이 나옵니다. 위하는 사랑에서만 수가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사랑에서는 망국지종(亡國之種)이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위하는 사랑에서는 천지의 모든 정수(精髓)를 뺀 하나님 같은 지혜의 왕자 왕녀가 태어납니다. (204-106, 1990.7.1) p.354

부부가 왜 싸움을 하느냐? 서로가 사랑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패들은 오래 못 갑니다. 서로가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가정은 깨집니다. 그러나 서로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가정은 깨지라고 제사를 지내도 안 깨집니다. 서로가 위해주려고 하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36-76, 1970.11.15) p.354

사랑은 우둔하고 미욱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옆에서 누가 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볼 것을 의식하는 사랑은 한계권 내의 사랑입니다. 누가 보든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경지의 사랑이니 얼마나 우직하고 미욱합니까? (33-113, 1970.8.9) p.354

경제문제를 중심삼은 어려움이 부부의 인연에 금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유식과 무식이 부부의 사랑을 흐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순수한 남성, 여성으로서 붉은 사랑과 정열의 마음을 지니고 천지를 대표할 수 있는 남성 여성, 그렇게 묶어진 부부를 하늘은 찾고 있습니다. (통일세계 1986. 2-28) p.354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왜 이혼문제가 생겨나게 될까요? 이혼한 사람이나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 모두가 처음에는 죽자살자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결국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둘 사이가 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지키고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2-28) p.355

세상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돈을 벌어 올 때에 힘이 생겨납니다. 부인은 남편이 벌어온 돈을 보고 힘이 나고, 남편도 힘이 나는 부인을 보고 힘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 불안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참된 부부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세계 1982. 7-26) p.355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가 있어도 예쁜 여자를 보면 자기 아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 가진 남자를 가리켜 도둑 심보를 가졌다고 합니다. 두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사탄이니 두 마음 가진 남자를 가리켜 사탄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48) p.355

부부는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사람의 운도 다릅니다. 일생의 운명이 다릅니다. 남편의 운명이 나쁘더라도 아내의 운명이 좋으면 그로 인해 남편의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운명이 나쁘더라도 남편의 운이 좋으면 그도 역시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운명은 산과 골짜기를 허물어서 평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지를 만들어 거기에 부부의 이상을 가지고 나무를 심고 밭을 갈고 여러 가지 사랑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생각해 볼 때, 상대를 외면적으로만 보고 결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544) p.355

남편을 만나면 좋을 줄 알았더니 나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바라면 안됩니다. 24 시간 계속 햇빛만 쬐면 되겠어요? 밤도 있어야지. 높으면 낮아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30-143, 1970.3.21) p.355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면 밖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내와 더불어 상의하고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가정입니다. 서로가 힘을 합해 연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어 우리도 이러한 가정을 만들자고 하며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2-28) p.35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하는 부부끼리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이 어떻다고 규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상대의 얼굴이 한 모양으로만 느껴진다면 그것처럼 싫증나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되면 기쁜 상태로 나타나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이 흐를 때 굽이치는 것과 같이 한 굽이 돌 때마다 새로운 모양이 나타나듯 늘 상대의 얼굴을 새롭게 느껴야 됩니다. (1976. 3. 3)

p.356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것은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 팔방에서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공과 같이 입체적인 것입니다. 위에서 보아도, 옆에서 보아도,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자기 나름의 완성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얼굴을 함부로 평해서는 안 됩니다. 미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덕이나 복을 지니고 있는 여성은 다릅니다. 얼굴이 예쁜 미인도 아이를 두세 명만 낳으면 벌써 얼굴이 이상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아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543) p.356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데도 하나님 대신자로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자리에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부족한 면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이혼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1983. 5. 1) p.356

사랑은 서로 그리워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입이 있으면 입을 벌리고, 눈이 있으면 눈을 벌리고, 사랑을 달라고 해야 사랑을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멍청하게 있으면 사랑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887) p.356

부부가 키스를 하기 위해서 이를 닦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며, 치약 냄새 때문에 사람만이 갖는 고유한 체취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닦고 키스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의 맛을 보기 위한 것인지, 치약냄새를 맛보기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요즈음 세태를 보면 인간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혼동할 정도로 계산적이고 인위적이며 가식적인 사랑이 만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이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주범이라 하겠습니다. (통일세계 1986. 2-34) p.356

된장국은 뚝배기에 담아야 제 맛을 냅니다. 텁텁하고 구수한 된장국 맛은 한 번 맛들이면 어디 가나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구수하면서 텁텁한 맛 같은 사랑에 한 번 맛들이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기만 한 인스턴트 식품은 금방 싫증을 느끼는 것처럼, 사랑도 인스턴트 식품처럼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2-34) p.356

에덴동산에서 벌거벗고 춤추는 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에서 부부가 벌거벗고 춤춘다고 그것이 걱정할 일입니까? 부부끼리야 벌거벗고 춤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부부끼리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21-242, 1968.11.24) p.356

비둘기도 서로들 '구구구'소리를 내면서 좋아하는데 부부끼리 만날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데, 만나는 소리가 있다면 어떤 소리일까요. 벼락치는 소리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세계 1979. 6-15) p.357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서 속삭이는 밀어는 세상의 모든 피로와 미움을 녹이는 청량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속삭이는 말 가운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연스럽듯이 사랑의 밀어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통일세계 1986. 2-26) p.35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옆에서 자건 시어머니가 옆에서 자건 클라이막스가 될 땐 솔직하게 소리질러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 집은 얼마나 부부의 의가 좋은지 밤에 요지경 소리가 나면 동네 쥐들이 깜짝 놀라고 울던 닭들도 뚝 그치더라' 할 정도로 동네방네 사랑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쥐들이 놀라고 닭들이 울다가 그치게끔 소리가 나는 변이 왜 일어나느냐'고 물으면 '왜 그러긴 왜 그래? 천지가 진동하는 사랑의 함성이 울려 나오니까 그렇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136-34, 1985.12.20) p.357

부부 사랑의 자리는 만우주의 꽃입니다. 역사시대 종합실체로 나타난 신랑신부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신방자리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정주(定住)하십니다.

그러니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방자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무서운 자리입니까? 하나님과의 길을 이어 놓고 완전한 사랑의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천지 사랑의 태양이 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보금자리, 이상의 보금자리로 화해 가지고 아내의 방을 찾아야 됩니다. (179-91, 1988.7.22) p.357

요즘에는 버선을 안 신지만 옛날에 버선 신을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발가락이 나오도록 신었어요. 그러면 구린내가 나고, 시큼털털한 오만가지 냄새가 다 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코에서는 '그 냄새가 향기보다도 더 좋다'는 겁니다. 구린내나는 발가락도 사랑할 때는 가서 핥는다는 겁니다. 가서 핥아도 맛이 알알하고, 달콤하고, 시큼하고, 얄궂다는 겁니다. 사랑의 안테나를 달고 측정하면 측정치가 싫다는 계수보다도 좋다는 계수가 쑥 올라간다는 겁니다. (194-49, 1989.10.15) p.357

아들딸 재창조한다는 것이 쉬워요? 별짓 다해야 새로운 아들딸이 태어나지. 지독한 일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침이 더러워요, 더럽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 손에다 침을 뱉아 놓았다고 할 때,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어서 문지를 데가 없으면 그거 핥아서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구요. '먹고 싶지요' 해야 참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더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부부 사랑이 불붙으면 두 생명이 하나되고, 그 다음에 혈통이 합해 가지고 사랑으로 끓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내 생명이 주인으로 씨가 심어지는 겁니다. 남자 생명체, 여자 생명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원심력 구심력이 합해져 사랑으로 운동하기 시작하면 전부 돌아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자리에 싹이 트면 아들이 되고, 내려가는 자리에 싹이 트면 딸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 이론적으로 맞으니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연구해서 맞추면 박사학위 노벨상 수상감이 될 겁니다. (300-53, 1989.2.21) p.358

아기를 낳는 자리는 하나님의 상현세계(上弦世界)를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내연(內緣)을 체휼시키는 놀음입니다. (224-28, 1991.11.21) p.358

사랑을 중심삼은 생활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욕심 많은 영감의 호랑이 같은 눈도 사랑을 하게 되면, 그림의 달님 같은 모습이 되고, 얼어붙었던 입도 히죽 벌어집니다. 얼었던 것이 완전히 녹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요, 녹았던 것이 얼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극과 극을 포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을 호(好)자를 가만히 보면 남자 여자 합해 놓고 '좋을 호(好)' 이렇게 썼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칼로 물을 베면 자국이 남느냐? 남지 않습니다. 한 번 싸우고도 이마를 맞대고 웃고 나면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까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127-245, 1983.5.15) p.358

진짜 사랑은 온 몸이 하나되고 심정과 핏줄이 전부 다 하나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 없는 세상이라면 사는 맛이 있어요? (26-151, 1969.10.25) p.358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아, 전기가 통한다'고 합니다. 그때 생기는 전기는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단세포적인 것입니다. 본연의 세계에서 생겨나는 사랑의 전기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주적인 사랑의 번개로 강도에 있어서 수천 배를 넘어설 뿐 아니라 인체의 각 기관 세포가 움직이는 소리도 천둥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본연의 세계에서 참사랑을 하는 남녀는 사랑의 번개가 만나는 접촉점을 향해 총력을 결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랑의 원리관입니다. 그것이 창조목적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통일세계 1986.9-26) p.358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겠나, 안 보겠나? 천하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세계 50 억 인류가 사랑하는 밤이 되면 눈을 감겠나, 어쩌겠나?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나?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천만사가 다 벌어질 텐데 말입니다. 할 수 없이 여편네 놀음하고, 할 수 없이 끌려가고, 할 수 없이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예요? 그게 인생살이예요?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바라던 창조이상대로 꽃향기가 풍기는 에덴동산같이 나비와 벌이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천지에 화동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취해 잠이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 생각해 봤어요? 한 번 그렇게 살아 봐야 합니다. (222-252, 1991.11.3) p.359

여자는 왜 수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수염을 기른 모습을 보시고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와를 만드실 때는 수염이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걸작품은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걸작품인데 누구를 위한 걸작품이냐? 바로 남자를 위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38-181, 1971.1.3) p.359

Top p.359

5) 성애(性愛)

① 성(性)은 사랑의 본궁,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디냐? 사랑이 깃드는 남녀의 성기관(性器關)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132-247, 1984.6.20)

남자 여자의 사랑의 상징이 무엇이냐? 사랑의 종착지점이 어디냐? 남녀를 한몸 이루게 하는 성기관(性器官)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984. 5. 31) p.359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서로 다릅니까? 성기관(Sexual Organ)을 포함한 그 몸이 우선 다릅니다. 그러면 남자의 성기관은 누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까? 남자의 성기관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기관이 하나는 오목하고 하나는 볼록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둘 다 뾰족하게 하든가, 둘 다 납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생겼습니까? 모두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남자의 것은 여자가 절대 원하고, 여자의 것은 남자가 절대 원합니다. 절대로 여자 것이 남자 것이고, 남자 것이 여자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약말씀 ·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359

남자 여자들 생식기는 왕궁의 보고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궁의 보고입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 열쇠는 제사장만이 열 수 있습니다. 여자로 생겨나 가지고 옷을 두 번 벗으면 안됩니다. 주인 앞에서 옷 벗는 것은 허락되지만 딴 것은 악마입니다. 요즘 남자 녀석들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194-345, 1989.10.30) p.359

생식기가 뭐냐면 사랑의 왕궁이요, 영생의 생명이 탄생하는 왕궁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전통을 이어받을 혈족을, 혈통을 이어받는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왕궁, 참된 사랑의 왕궁, 참된 혈통의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곳입니다.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인이 없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면 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주의 공인받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6-207, 1991.3.31) p.360

생식기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132-112)

생식기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생명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혈통을 중심삼은 왕궁입니다. 제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원입니다. (216-218, 1991.4.1) p.360

생식기를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세계가 된다면 그 세계가 좋은 세계일까요, 나쁜 세계일까요? 흥하는 세계일까요, 망하는 세계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정성들여 만드신 곳이 어디겠어요? 눈이요? 코요? 심장이겠어요? 아니면 두뇌일까요? 이것들은 전부 죽어 없어집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약말씀 ·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생식기는 사랑의 왕궁입니다. 지금 그 사랑의 왕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인 것, 그렇게 귀한 것이 인간의 생식기입니다.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연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생명 · 사랑 · 혈통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것을 사탄이 더럽혔습니다. (218-176, 1991.7.28) p.360

내 생식기는 사랑의 본궁입니다. 내 생식기는 생명의 본궁이다, 왕궁이다 이겁니다. 내 생식기는 혈통의 왕궁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왕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본궁에 찾아가서 거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사랑의 본궁이 되어야 하고, 생명의 본궁이 되어야 하고, 혈통의 본궁이 되어야 되고, 양심의 본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한 대로 되어지이다. 아멘. (280-197, 1997.1.1) p.360

사랑이 중심이 되어, 둘이 생명의 합일체가 되어 합하는 자리, 남자의 피, 여자의 피가 한 도가니에서 하나되는 자리가 생식기입니다. 그 자리는 아들딸보다 귀하고, 남편보다 하나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 하니까 이단자라 하겠지만…. 그 자리가 어떻다구요? 자식보다 귀하고, 남편보다 귀하고, 부모보다 귀한 자리야. 그것이 없으면 부모도 무가치한 것이고, 부부도 무가치한 것이고, 아들딸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보화 중의 보화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일생 동안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남자의 것은 여자가 갖고, 여자의 것은 남자가 지니고 있는데 각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키만 가져야 합니다. 프리섹스처럼 열 개 스무 개 가지고 싶습니까? 문을 열어 주인이 없는 집처럼 지나가는 사람 모두 들락날락하는 폐허의 집과 같이 되고 싶습니까? (280-199, 1997.1.1) p.361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본궁, 생식기가 뭐예요?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것 붙들고 살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것 붙들고 살고, 자기 부부도 그것 붙들고 살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딸도 전부 다 그것 붙들고 살지요? 그것 안 붙들고 사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나쁜 것이 됐어요? 쌍소리라고 하지요? 왜 쌍소리예요? 거룩한 소리입니다. 거룩한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사랑이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혈통이 나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210-101, 1990.12.1) p.361

여자 남자의 정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우주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의 질서가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176-221, 1988.5.11) p.36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 남자와 여자가 지구상에 태어났느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대왕이시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의 기관을 서로 바꿔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것이라고 해서 그 주인이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남겨 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은 사랑을 위반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법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 아내를 두고 감히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부인들은 남편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37) p.361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네 것, 내 것하며 싸우면 안 되겠으니까 남자의 것은 여자에게 갖다 심어 놓고, 여자의 것은 남자에게 갖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흉측한 것 같지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205-193, 1990.9.1) p.361

사랑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식기를 보더라도 생식기는 가장 귀한 것인데 인체에 제일 더러운 데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화합하는 것이 천지의 조화 이치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그곳에 갖다 배치한 것이 남자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지 않은 더러운 부분에 좋게 장치한 것입니다. (194-49, 1989.10.15) p.361

남자 여자의 생식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곳은 제일 안전지역, 제일 안전지인 동시에 제일 더러운 곳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참 지혜의 왕입니다. 인간 세상에 가르쳐 주기를 '사랑은 그러한 더러운 것도 지배하느니라'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항문 가까운 자리에 있거든. 소변 나오는 길하고 또 다른 길하고 똑 같습니다. (194-175. 1989.10.22) p.362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자를 거예요, 생식기 자를 거예요? 그거 웃을 게 아닙니다. 종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지는 횡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가운데에 종(縱)이 달린 겁니다. 삼위기대 아니예요? 그게 하나님 대신입니다. 남자의 그것 중에서 둘은 아담과 해와 이성성상이고, 뻗친 하나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205-348, 1990.10.2) p.362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203-255, 1990.6.26) p.362

머리보다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머리에는 참사랑의 기원이 없습니다. 머리에 참생명의 기원이 없습니다. 머리에 참혈통의 기원이 없습니다.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생식기입니다. 그거 틀림없지요? 생식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혈통이 있습니다. 그곳이 사랑의 본궁인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인간세계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제일 귀한 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류의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203-104, 1990.6.17) p.362

인간에게 사랑의 안테나는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볼록이고 여자는 오목입니다. 이 둘이 합하게 되면 둥그렇게 되면서 없어집니다. 그것은 음전기와 양전기가 합해서 벼락을 치고 나면 영(零)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187-54, 1989.1.6) p.362

생식기를 만약에 남자가 남자의 것을 자기것으로 가졌다면 절대로 안 주려고 할 것이고, 여자도 여자의 것을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그냥 그대로 맞서 가지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버틸 수밖에 없지만, 사랑을 중심삼고 서로 엇바뀌졌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해 주고 받아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작용을 반드시 엇바꿔 가지고야 가치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40-245, 1986.2.12) p.362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천하가 깨지고 뒤집어지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이 왜 거짓되고 추하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것은 참사랑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44) p.362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남녀의 생식기가 이 요사스러운 사망의 물결, 사망의 법, 멸망의 지옥을 개문시킨 본궁이 되고, 천도를 파탄시킨 요물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197-175, 1990.1.13) p.363

사랑의 왕궁이 어디예요? 이런 얘기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바로 못 잡으면 세상이 다 틀어집니다. 아구가 안 맞으면 천하가 다 요사스러움이 벌어집니다. 문총재가 지금까지 고심해 가지고 인간의 근본문제, 우주의 근본을 파헤치다보니 딱 도착한 곳이 생식기였습니다. 생식기에 도착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지의 조화가 여기에서 소용돌이치더라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197-175, 1990.1.13) p.363

사랑할 때 왜 남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래야 종(縱)이 되기 때문입니다. 씨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로부터 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그 하나가 전부 증명합니다. 그리고 씨라는 것은 아버지에서, 종적인 사랑의 볼록을 통해서 옵니다. 볼록이 오목과 맞추게 되면 천지가 진동합니다. (187-52, 1989.1.6) p.363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사랑에 취해서 느끼는 감정은 요지경이라고 해서 빨리 경험해 보겠다고 달려든다면 그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문은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이고, 문이 열리는 때를 기다려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의 주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당당하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2-27) p.363

남자 여자가 왜 사랑을 좋아하느냐? 인간의 몸뚱이는 대략 4 백조 개나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언제 전체가 작동을 하느냐 하면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를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바로 남녀가 사랑을 하는 때입니다. (통일세계 1982. 7-18) p.363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아, 전기가 통한다' 고 합니다. 그때 생기는 전기는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단세포적인 것입니다. 본연의 세계에서 생겨나는 사랑의 전기는 우주적인 사랑의 번개로 강도에 있어서 수천 배를 넘어설 뿐 아니라, 인체의 각 기관의 세포가 움직이는 소리도 천둥소리와 같습니다. 본연의 세계에서 참사랑을 하는 남녀는 사랑의 번개가 만나는 접촉점을 향해 총력을 결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랑의 원리관입니다. (통일세계 1986. 9-26) p.363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겠어요? 남자 혼자서일까요? 여자 혼자서만 파트너가 될까요? 하나님은 무슨 파트너를 원하시겠습니까? 돈의 파트너입니까, 지식의 파트너입니까, 권력의 파트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파트너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성기관을 통해 하나되는 그 자리를 중심삼고 현현하시어 인간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약말씀 ·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364

자기 몸뚱이를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사랑만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 상대의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성소니 지성소니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성소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요, 지성소는 사랑의 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소를 갖고 있고 지성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특권적 사랑의 주관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은 절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옛날 해와 앞에 그 지성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는 아담이었고, 아담의 지성소 열쇠를 갖는 이는 해와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2-246, 1984.6.20) p.3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 여자의 입은 성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은 소생이고, 여자에게는 젖이 장성이고, 그 다음에 음부가 완성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몸뚱이의 성소라는 겁니다. 그 성소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천도에 의해 상속받지 않으면 열쇠를 가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23-195, 1983.1.1) p.364

종교는 수난길을 가야 됩니다. 몸뚱이와 싸워야 됩니다. 제일 원수가 뭐냐 하면, 악마의 피가 격동하는 색(色)입니다. 음란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사탄의 피로 엮어진 혈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음란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생명에 접붙이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의 전통적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조상도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에 제일 무서운 것이 남녀문제입니다. (194-345, 1989.10.30) p.364

사랑하게 되면 피가 끓지요? 후루루 떨리지요? 그거 왜 떨리는지 알아요? 섞어지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섞어지고 아래 위가 섞어져서 후루룩 하나되어 가지고 모든 초점이 사랑의 불꽃 튀는 방향에 행렬의 방향성을 갖추어 남자를 위해서 완전투입이요, 여자를 위해서 완전투입, 내 생명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투입 또 투입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그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영원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204-100, 1990.7.1) p.364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선물 주는데 나쁜 선물 주었겠나요? 좋은 것 중에도 제일 좋은 선물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어디에 있는 것, 깊은 곳에 있는 것. 자기 속속들이 깊은 곳에서 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좋은 것입니다. (194-175, 1989.10.22) p.364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책임성이 없이 개개인의 사랑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지고한 사랑 이상을 이룰 인간의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277-200, 1996.4.16) p.365

인간은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장으로 자유의 주체가 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종적 관계 속에서 자아 주관, 자기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약말씀 ·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생식기를 눈먼 장님처럼 방향을 잃은 채 사용하게 되면 지옥행이요,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사랑에 기준을 맞추어 쓰게 되면 천국 높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결론입니다.
(성약말씀 ·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청소년기에 그늘 아래서 음란으로 타락을 하여 프리섹스를 심었기 때문에, 추수기인 끝날에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프리섹스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약말씀 ·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365

Top p.365

② 사랑법은 배워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까. 또 어머니도 자녀에게 어머니한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까. 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누구로부터 신랑 신부는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배운 바가 없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23-20, 1969.5.11) p.36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랑합니까? 여기에 있는 아주머니들,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디에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학박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나 그 기준은 만점입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손 댈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감이 필요하지 않을수록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변치 않는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38-228, 1971.1.8) p.365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 보았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주체나 대상권에서 행동의 일치점을 갖출 수 있는 데서, 그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데서, 그의 일체가 내 일체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상대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이나, 동물들이 태어나면서 어미의 젖을 찾는 것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행위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세계 1983. 9-19) p.366

진실한 사랑은 천리 법도이기에 교육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태어난 자식의 얼굴이 밉고 예쁜 것에 따라 크고 작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에 따라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달리하는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밉게 생겼으니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너는 내가 비록 낳았다고는 하지만 얼굴이 못생겼으니 나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부모나 자식이 있다면 그들을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3. 9-19) p.366

참사랑은 경험을 통해 얻고, 체휼을 통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말이나 글, 혹은 일반 교육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만 완전히 체득하는 것입니다. 아기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는 성장하면서 참된 자녀의 심정, 참된 형제의 심정, 참된 부부의 심정, 참된 부모의 심정을 단계적 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체휼함으로써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체적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약말씀 ·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366

Top p.366

6) 자녀의 사랑

① 자녀는 부모 사랑의 결집체

사랑하는 부모들 앞에 자식이라는 것은 지극히 세계적인 대표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934) p.366

자식이 없으면 왜 고독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사랑을 중심삼고 만우주를 지으신 주체되신 하나님의 심정적 사연을 체휼하기 위한 것이 자식입니다. 자식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동기가 되어 태어났지만, 그 자식을 낳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36-202, 1985.12.29) p.366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바램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체휼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연의 발로인 것입니다. 자식을 가져 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깨달을 수 없기에, 그가 가진 사랑은 항상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1984. 7. 10) p.366

천국에 남아질 수 있는 자식은 어떠한 자식이냐? 부모의 사랑으로 진 빚을 자기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노망을 했을 때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똥싸고 오줌쌌던 것을 닦아 주던 그 부모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참고 부모를 모셔야만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35-241, 1970.10.19) p.367

사랑을 가진 부모에게 채찍을 맞거나 꾸중을 듣더라도 그 자식은 기쁜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1. 4-8) p.367

부모가 자식을 위해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야 합니다. 생명이 사랑에서 생겨났으니 본질적 사랑 앞에 생명을 희생하고 가는 것이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모순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985. 12. 18) p.367

자식이 부모에게 빚 안 지겠다고 노력하게 될 때 부모도 보람을 느낍니다. (통일세계 1975. 10-12) p.367

사랑을 중심삼고 채찍이 오가더라도, 때리고 나서 통곡하는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덤벼들고 욕할 수 있습니까? 참사랑은 조화의 양면적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1. 6-22) p.367

훌륭한 어머니는 자식을 품에 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떤 어려운 입장에서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어머니는 선은 망하지 않는다는 천리를 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며 귀엽다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귀여워합니까? 그것은 하늘 땅을 대신하여 귀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세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귀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천륜의 운세는 세계를 넘어 천지를 포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식을 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하늘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을 품는다는 사무친 심정으로 아들딸을 품어야 됩니다. (8-105, 1959.11.22) p.367

자녀들의 사랑과 행복의 기지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참사랑으로 화합 일체된 부모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한 사랑 속에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가장 귀한 책임은 외적인 양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靈性)을 온전하게 해줄 참사랑의 생명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에는 못 당합니다. 어머니가 정성을 들였다면 누구보다도 정성을 들였고, 고생을 했다면 누구보다도 고생했으니, 사랑한다면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여자들이 정서적인 분야에 있어서 높고 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아기를 사랑한다 해도 애기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만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여자들이 심정의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5-166, 1976.3.3) p.368

Top p.368

② 참된 자녀의 도리는 '효'

부모를 알았으면 부모 앞에 뭘해야 됩니까? 효도를 해야 됩니다. 효자가 되어야 해요. 또 부모를 중심삼고 그 나라의 충신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나라를 거느리고 세계를 거느려 왔기 때문입니다.
충신이 되기 전에 효자가 되어야 하고, 효자가 되기 전에 참된 형제를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식구는 형제지간에 찬양할 수 있는 권을 내세운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220, 1970.3.23) p.36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효자가 귀한 것은 변함 없는 사랑으로, 어릴 때나 장성할 때나 노년시대나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언제나 부모의 마음 방향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모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서로 가면 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 번 갔다가 열 번 돌아서라 하더라도 또 돌아서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효도해라' 하는데 이것은 부모를 중심삼고 부모가 가야 할 사랑의 길에 동참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모의 참된 사랑의 길에는 천륜이 따라갑니다. 부모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종적인 천륜이 여기에 인연되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와 하나되라는 것은, 종적인 역사와 횡적인 역사의 심정권을 이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앞에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이 아들딸로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 효도해야 되느냐? 효도하는 길은 나라에 대한 충신의 길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대나무와 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충신, 나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세계에 대해 성인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직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효도는 못하더라도 나라에 충신이 된다면 그 부모가 '아, 너, 나한테 효도를 안 했다'고 못하는 겁니다. '너, 참 잘했다' 하는 겁니다.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불효를 했더라도 나라의 충신이 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서 영계에 갔더라도 '야, 너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뭐냐? 효자는 부모의 슬픔을 대신 책임지기 위해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열만큼 일을 하는데 자식은 열 다섯만큼 노력하였다면 부모는 다섯에 해당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야를 어떻게 보충하여 부모를 위해 드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효자인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식을 영원무궁토록 사랑하기에 끝이 없는 부모입니다. 그러면 참된 자녀는 어떤 자녀냐? 참된 자녀는 참된 부모의 사랑 앞에 영원무궁토록 부모를 사랑하고 또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녀다. 그런 자리가 참된 효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번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최고 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들딸인 아담과 해와에게 바라신 것은 그들이 자라서 효자-충신-성인-성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효자가 되겠다는 생각, 나라에서 충신이 되겠다는 생각, 세계에서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늘 땅 앞에 성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성인들은 효자가 되고 충신-성인-성자가 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의 전통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만일 부모가 이혼을 원한다면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나는 부모님들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결합체입니다. 나를 위해 부모님은 어떠한 타협이라도 해야 하며, 나에게 훌륭하신 부모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필요해요'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부모란 그들의 자녀들 때문에 이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 p.369

Top p.369

7) 형제의 사랑

① 형제사랑은 만민동포애의 모형

형제를 왜 주었느냐? 형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남자는 여동생이나 누나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 자라는 걸 보는 겁니다.

또 여자는 오빠나 남동생의 자라는 것을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자라고 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애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 가지고 하나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184-60, 1988.11.13) p.36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한테 아들딸 둘밖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두고 볼 때 그에게는 누나가 필요하고 또 형이 필요하지요? 또 딸에게는 오빠가 필요하고 언니가 필요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남동생과 누이동생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있어야 되고, 누나가 있어야 되고, 남동생 누이동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동생, 남동생, 누나, 오빠 다 갖추어져 완전히 하나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씨족과 민족과 국가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과 누나는 동서를 말하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남북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이 완성되면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법도가 자리를 잡게 될 때 평화의 기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40, 1968.3.11) p.370

오빠의 자리에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의 자리에서 오빠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를 개재시켜 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의 품에서 자라던 것을 중요시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된 기반에서 연결된 형제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커 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를 쭉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암만 돌아다녀 봐도 가정에 있는 형제의 사랑, 피를 나누어 갖고 태어난 형제애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 가지고 자기 형제 이상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까워졌다가도 갈라집니다.

왜 형제가 필요하냐? 종횡을 중심삼고 연결되는 것이 형제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횡적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는 종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평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전후가 필요합니다. 가정애(家庭愛)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형제애밖에 없습니다. 만민동포애란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구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36-11, 1992.11.2) p.370

동포애, 형제애를 가지고 세계를 품어야 모든 것이 이상적인 구형이 되는데 부딪치더라도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하던 모든 실체가 여기에 와 가지고 결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상이 여기에 와 가지고 결실되어서 합함으로 자녀의 사랑 결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결실체, 부부의 사랑 결실체, 부모의 사랑 결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구상했던 모든 실체를 다 이루면, 하나님과 상하 전후 좌우가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국민이 형성되고 인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전후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납작하게 있다가 살이 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만드는 것이 형제요 국민인 것입니다. 형제가 확장되어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애라는 것은 세계애와 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자라는 가정은 세계의 인류를 품고 이상적인 천국,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드는 모델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여기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많으면 밥을 먹어도 한 그릇 가지고 둘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밖에 없다고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많아 어렵게 살더라도 '내가 밥을 굶더라도 누나 줘야겠다, 동생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좋다는 겁니다. (112-195, 1981.4.12) p.370

Top p.370

8) 애국, 애세(愛世), 인류애

효자-충신, 성인-성자의 길로

하나님과 하나될 때는 천태만상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일원화된 가정은 가정애가 꽃핍니다. 이것이 또 사회애가 되고, 더 나아가 민족애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나아가면 세계애(世界愛)가 됩니다. (28-168, 1970.1.11) p.371

인류의 공동적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류애를 중심삼고 하나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조국애를 갖고 있다면 애국사상을 중심삼고 하나될 것입니다. 애국하는 마음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강하면 강할수록 국가를 이루기 위해 애국사상을 중심삼고 하나될 것입니다. 애국운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면 횡적인 인연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동지 규합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정착할 수 있는 기지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정은 우주애를 장악하고 우주의 보호 양상을 체득하면서, 우주애권(宇宙愛圈)을 확대시켜 가정을 넘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을 가야 하고,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 세계를 사랑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효자 또는 열녀라고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한다면,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바로 성인(聖人)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2. 10. 29) p.371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륜도덕만을 중심삼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만을 중심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중심삼고는 나라를 넘지 못합니다. 나라를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천주사상을 갖지 않고는 나라를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무엇을 소개했느냐 하면 인간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신을 소개했습니다. 성인의 반열에 동참한 사람들을 보면 신을 숭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을 빼놓고 성인이 된 사람 있어요? 또, 성인들은 인륜의 도리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천륜의 도리를 겸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33-291, 38-260, 1971.1.8) p.371

가정에서 부모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효자요,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자요,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계와 우주를 사랑하는 성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될 거예요? 성자가 될 거예요, 효자 효녀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129-99, 1981.10.1) p.371

사랑은 생활과 역사에서 뺄 수 없는, 실재 내용을 움직이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사회제도라든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내적 힘의 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할 때도 국가애를 가르칩니다. 형제애?부모애?부부애, 세계적인 박애, 전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류의 생활권이라든가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을 더듬지 않고는 역사를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87-45, 1989.1.6) p.372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충신이 돼야 됩니다. 충신이라는 것이 뭐냐? 나랏님에 대해서 정성들이는 것이 충신이냐? 아닙니다. 백성을 나랏님같이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충신인 걸 알아야 됩니다. 효자가 뭐냐? 부모를 위해서 정성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를 위하듯이 형제를 위해 정성들이는 사람이 효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은 뭐냐? 성인은 세계 인류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간 사람입니다. 성자는 뭐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계로 가자, 세계 사람을 하나님같이 위해 가는 사람이 성자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성인은 지금까지 세계 사람을 위해서 죽어 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뭐냐? 하나님에게도 충성을 하지만 하나님같이 만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33-242, 1984.7.19) p.372

그렇기 때문에 효자-충신-성인. 성인 다음에는 뭐예요? 성인이라고 해서 성자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못되는 겁니다. 성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나랏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더라도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왕궁법을 알아야 됩니다. 왕궁법의 치리를 받아 거기에 박자를 맞출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47-281, 1986.10.1) p.372

본래 효자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부모에게 똑바로 가는 사람이요, 충신은 마음이 군왕에게 똑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똑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자리에 나가더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똑바로 가야 효자요, 충신이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880) p.372

가정에서 부모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효자요,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자요, 세계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와 우주를 사랑하는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효자는 집안이 망하더라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효자비가 있고, 충신의 비가 있고, 성인의 비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는 성인과 다릅니다. 성자는 인간세계의 나라법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궁법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효자의 길, 충신의 길, 성인의 길과 직통할 수 있는 것이 성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굵고 둘레가 크지만 그 핵의 흐름은 수직입니다. (175-213, 1988.4.17) p.372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 인생 항로의 그 골자를 추린다면 효자가 가는 길, 충신이 가는 길, 성인이 가는 길, 성자가 가는 길의 근본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 위 아래를 막론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전후좌우 주야를 초월하고 생애를 넘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사무친 삶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때는 쓸모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 또한 무엇을 중심삼고 연결되느냐, 사랑입니다. 형제지간, 친구지간, 동포지간, 인류지간, 천지지간 등 이 모든 것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우주의 법도를 세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위해 사는 대표적인 자리에 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식의 대왕이지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대왕이지만 능력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주인이요 대왕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해서 오면 전부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33-16, 1984.7.1) p.373

하나님이 인간 앞에 있는 것은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만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위하는 천리의 우주의 존재세계 앞에 자기 스스로의 존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위하는 데 있어서 동서양을 통할 수 있고 고금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같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양 서양을 극복할 수 있고 과거-현재-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극복할 수 있으니 언제나 발전할 수 있다, 동서양을 극복하니 동서양을 통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사랑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187-89, 1989.1.6) p.373

Top p.373

9) 자연사랑 (自然愛)

하나님이 만물세계를 지으신 뜻

하나님이 왜 만물을 지었느냐?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대상자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먹고 살다가 자기의 본연의 세계로 돌아와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국에 들어와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42-76, 1986.3.1) p.373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로 '이러한 천지가 되라.'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있는 정력을 다 투입했다는 겁니다. 있는 사랑의 힘을 다 투입해 가지고 미래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 자기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한 예물로, 선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12-306, 1981.4.25) p.374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실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어 놓고는 보기에 선한지라 하셨습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내재되어 있기에 창조된 만물을 놓고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귀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이뇨? 한마디로 말한다면 삼라만상의 개체 개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정적인 인연을 입체적으로 갖춘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하늘이 보시는 인격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옛날에 성 프란체스코 같은 양반이 동물을 보고, 혹은 새를 보고 설교했다는 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꿈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9-168, 1960.5.8) p.374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이 사랑의 이상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구조입니다. 광물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하고 원자도 양자 전자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을 하는 거라구요. 작용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영속, 존속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을 중심삼고 그 중심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137-59, 1985.12.18) p.374

우주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장난거리나 놀음거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정성들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지극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산을 거닐고, 초목과 꽃을 바라보고, 새를 바라보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7-319, 1976.6.27) p.374

우주의 완성은 외적인 세계도 좋지만 내적인 내 자신, 나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데는 마음도 좋고 몸도 좋아야 됩니다. 내 세포로 보면 세포가 전부 다 좋아야 됩니다. 눈의 세포하고 발바닥에 있는 세포하고는 다르지요? 다르다구요. 다르지만 그 세포들이 다 좋아하고 손의 세포도 좋아하고 모든 세포들이 좋아하고, 몸과 마음 어디 하나 남기지 않고,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연체적인 내용을 중심삼고 공명적인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라야 우주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66-210, 1987.6.7) p.374

인연이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체도 4 백조 개나 되는 세포로 인연되어 있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창조이념세계, 즉 대우주의 모든 존재물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심정 밖에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시인은 위대한 시인일 것입니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천주적인 심정을 느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인이 있다면, 그는 우주적인 시인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도 모르게 벌어져 있는 천하만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들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령한 경지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 모래 한 알에도 우주의 이치가 들어 있고, 하나의 원자에도 무궁무진한 우주의 조화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복합적인 힘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자를 지나 원자, 원자를 지나 소립자….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과 목적을 갖추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쳐 나온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9-168, 1960.5.8) p.375

도인은 어떤 사람이뇨? 풀 한 포기를 붙들고도 '하나님!' 할 수 있는 심정으로 자기의 가치와 동등하게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도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치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예술가일 것입니다. 각양각색으로 존재하는 만상을 보고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사랑과 심정의 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과 친구가 되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런 감정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는 만우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겠습니까? (9-168, 1960.5.8) p.375

Top p.375

② 자연은 사랑이상을 가르쳐 주는 교재

인간은 커가면서 자연을 보고 습득합니다. '곤충세계가 이렇구나!'하고 배웁니다. 달이 비치고 별이 빛나는 가을 밤에 가만히 들어 보면,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하나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립니다. 무엇

[텍스트 입력]

때문에 곤충들이 그렇게 우느냐? 그것은 상대를 찾아 이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새나 다른 모든 동물들도 슬픈 소리, 기쁜 소리를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를 따라서 소리를 냅니다. 급은 낮지만, 축에서 먼 거리에 있지만 그 축을 중심으로 평형선을 취하며 돌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의 노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가 고플 때 신호하는 노래하고,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는 위험할 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보통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들 세계에서는 다 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울면 벌써 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이 무엇을 중심삼고 돼 있느냐? 배고픈 거야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뭐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래는 무엇을 중심삼고 하느냐 하면, 상대와 주고받는 관계에서 노래가 오고 간다는 겁니다. (137-211, 1986.1.3) p.376

인간은 주체와 대상, 즉 상대적인 쌍으로 지은 바 되었고, 또 인간을 위하여 있는 온 만물세계도 사랑의 원리 아래 조화를 이루고 또 인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이상을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세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자라나는 아담과 해와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교과서요, 사랑의 진수가 무진장으로 진열된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135-12, 1985.8.20) p.376

모든 새나 동물은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중심으로 화동합니다. 꽃과 나비는 극과 극이지만 서로 화합합니다. 이것은 천지 조화입니다. 우주의 극과 극이 사랑을 중심으로 화동이 벌어집니다. 철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있던 새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북쪽에 있던 새가 남쪽으로 날아가서, 지역을 넘나들면서 사랑을 이룹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돕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지은 박물관의 교재를 통해서 배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좋아 사랑하면 천하의 모든 만물들은 거기에 박자를 맞춰 화동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천사세계도 좋아하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좋아 박수를 보내고 찬양을 보냅니다. 노래할 줄 아는 새는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아름다운 꽃은 향기를 풍기며 찬양합니다. 최고 사랑의 주인공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향취의 분위기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이 피조세계입니다. 보기에 흉측스러운 두꺼비도 사랑을 할 때는 '욱욱욱'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리를 척척 치고 뒷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것은 최고의 예술입니다. (142-273, 1986.3.13) p.376

봄이 되어 새가 노래를 하면, 그 새의 노래를 듣자마자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자기 자식을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새는 새들끼리만 생각하지만 인간은 관계성을 갖습니다. 동물세계 · 식물세계 · 천상세계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관계성을 가진 것이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전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131-125, 1984.4.22)

아담과 해와는 성숙해감에 따라서 '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세계를 인간 사랑이상을 성숙시킬 수 있는 교재로 펼쳐 놓았습니다. 그걸 배워 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커감에 따라 '아하, 옛날에는 동생과 같이, 오빠와 같이 지냈는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달라집니다. '아, 이렇구나!'하며 배워 갑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죽더라도 안 만나면 안 되겠다. 딴 데 못 간다.'하고 평형선으로 직행하면서 부딪치게 됩니다. (137-59, 1985.12.18) p.377

사랑은 신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당기면 몸 전체가 끌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만 당기면 우주가 끌려오고, 사랑만 움직이면 우주가 다 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춤도 추게 됩니다. 춤은 왜 생겨났느냐? 사랑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또 노래도 사랑 때문에 생겨났고, 웃음도 사랑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사랑을 빼게 되면 전부 다 굳어집니다. (115-237, 1981.11.22) p.377

사람은 벌보다는 나비를 좋아합니다. 나비가 춤을 추며 날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는 것은 박자에, 가락에 맞추어서 납니다. 빨리 나는 놈도 박자에 맞추어서 날고, 느리게 나는 놈도 박자에 맞추어서

[텍스트 입력]

납니다. 나는 형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전부 박자에 맞춰서 납니다. 또 산에서 사슴이 뛰어다니고 토끼가 노는 것도 음악적입니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이 하나의 리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도 음악적입니다. 사람도 무엇을 먹을 때 아주 음악적입니다. 그게 다 음악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이 우주를 영원히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를 위해서 장치했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경꾼처럼, 이웃 동네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산도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 것이 좋으냐, 밋밋하고 평평한 것이 좋으냐?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 것이 좋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그 모양이 춤추려고 하는 어떤 형을 갖기 때문입니다. 별의별 모양의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가지각색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형성되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춤입니다. 자연 가운데는 멋진 춤이 있고, 멋진 음악이 있습니다. 멋진 예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87-321, 1976.6.27) p.377

맨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남을 입은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의 보호권내에서 어렸을 적부터 자라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피조세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피조세계를 통해 교육해 나오는 겁니다. 피조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시조, 본래의 조상이 되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교재였습니다. 완성된 아담과 해와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표본이요, 하나의 박물관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137-126, 1986.1.1) p.377

아침에 눈을 뜨고 자연을 바라보면, 그 자연이 은은하게 내 본성과 인연되어 새로운 이상의 감정을 싹트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세상은 바라보면 볼수록 절망과 슬픔의 감정을 돋구어 준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 하면, 인간의 가치는 그렇게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슬픔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나 꽃 한송이, 나무 한 그루와 같은 정도의 가치로 지어진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피조만물의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모습으로 천상을 대신하여 나서야 할 인간이었습니다. (9-97, 1960.4.24) p.378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의 왕,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갖고 있는 훌륭하다는 물건에 비할소냐. 골동품에 비할소냐. 어떤 유명한 부인이 입고 있는 호화로운 옷에 비할소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세계 앞에 자신도 모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볼 때,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에 비할소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훌륭하겠는가.'하며, 하나님이 심정을 기울여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느끼는 자가 있다 할진대, 이는 틀림없이 하늘의 아들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인간을 그러한 자리까지 내모는 것입니다. (9-176, 1960.5.8) p.378

자연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길가에 값없이 서 있는 나무 하나도 유명한 화가가 그린 어떤 그림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꽃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린 그 화폭에서는 아무리 쳐다보아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또 씨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길가에 서 있는 나무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씨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으면 그 나무보다도 더 좋은 나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귀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귀여워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요? 탄식하는 만물의 한을 해원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진 여러분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서도 6천년 전 그것들을 지으실 때의 하나님의 심정과 창조의 손길을 체휼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풀 한 포기를 보고도 눈물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를 붙들고도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외로웠느냐?'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많이 울어 보았습니다. 바위를 붙들고도 울어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도 울어 보았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해할 것입니다. (9-176, 1960.5.8) p.37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지으신 가치있는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인연을 맺은 귀한 만물이, 오늘날 어떠한 왕궁에서 뭐 국보니 보물이니 하며 귀하게 여기는 물건만큼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서글픔을 나는 알아줘야지, 나만은 알아주어야지.'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세계 인류가 전부 몰라주어도 나는 알아줘야지.'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이 민족은 앞으로 세계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만물을 놓고,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가문의 보물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라 하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여겨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것을 심정적으로 알아주고 그것을 붙들고 눈물짓는 사람을 보고 '오냐.' 하십니다. (9-177, 1960.5.8) p.379

자연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하는 사랑을 가진 아들딸이 태어날 때 위할 수 있는 만물로, 선물로 준 전시품입니다. 새 소리 하나, 자라고 있는 풀 한 포기라도 사랑의 아들딸들의 생활의 미화를 위해 만들어진 장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굴러가는 바위도 아들딸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을 알고 그 나라의 장식품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우면 안 되겠으니 조화무쌍한 화합의 동산, 사랑을 위하는 그러한 세계를 보고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꿈의 왕자, 희망의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수놈 암놈이 '짹짹'할 때는, 이것을 주인되는 아주머니도 배우라는 겁니다. 서로 위하는 세계를 향해 자기 일생을, 생명을 걸고 사는 본연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 울타리에 새 새끼도 와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새끼를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75-187, 1988.4.16) p.379

박물관에 있는 무슨 작품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살아 있는 작품에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이 지구성 만물 박물관을 누가 하나님 이상 사랑했느냐 이겁니다. 자기 나라의 박물관 이상 사랑했느냐 이겁니다. 길가에서 밟히는 민들레 짜박지 한 포기도 박물관에 있는 신라시대의 금관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너를 본연의 하나님이 위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 사랑을 받던 그 자리에서 사랑을 못 하는 내 자신이 미안하다. 부끄럽다.'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위하는 그런 왕이 있다고 할 때는 풀포기도 그 왕을 따라가서 영원불변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인간인 것입니다. (175-187, 1988.4.16) p.379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상징적 존재요, 인간은 실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과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 가운데서도 오색인종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 나는 백인들만 좋아.'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러면 전부 흰옷만 입어야 됩니다. 백인들은 전부 다 흰옷만 입어야 됩니다. 색깔있는 옷은 전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정옷은 왜 입어요? 색깔이 있는 옷은 왜 입어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133-28, 1984.7.1) p.380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느껴야 됩니다. 모든 미물까지 사랑하고,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까지 무형의 것, 유형의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새가 짹짹짹짹 할 때는 '야, 요놈의 참새야, 내가 늦잠 자려는데 왜 짹짹짹 해?'하지 말고, '아이고, 너 고맙구나. 아이고, 나를 깨워 주러 왔지 하하, 귀한 손님이 나를 맞으러 오는 걸 네가 알려 주는구나.'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112-219, 1981.4.12)

Top p.380

제 3 장 사랑과 결혼

1) 참결혼은 우주적 합일의 사랑을 이루는 것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二性性相)으로 계신 분으로서 각 일성(一性)이 합체화한 일체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분성적(分性的) 인격들이 남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성일체화하여 씨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최고 신성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결혼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닮느냐? 하나님을 닮습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돼야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138-97, 1986.1.19) p.381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평형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세계 1984. 7-15) p.381

남녀가 합하는 것은 천지가 합하는 것입니다. (1963. 4. 7) p.381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여 포옹하는 그것 자체가 우주가 일체를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본연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8) p.381

결혼은 왜 하는 것이냐? 세계를 사랑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만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37-109, 1970.12.22) p.381

결혼식이란 것은 사랑의 현현을 말하는 동시에 창조권과 주관권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세계 1975.4-15) p.381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마음 세계를 일치시키자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것은 그러한 증거를 보이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사랑의 완성과 마음의 완성을 이루었다면 가정의 이상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이것을 이루었다면 틀림없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97-276, 1978.3.26) p.381

결혼은 무엇입니까? 왜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까? 결혼은 사랑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는 길, 생명을 창조하는 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일체가 되는 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혈통이 혼합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역사가 생겨나고, 여기서부터 나라가 생겨나고, 이상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약말씀•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382

결혼은 누구 때문에 하느냐,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류의 공동이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혼은 세계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 남자는 세계를 대표한 남자이고, 여자 또한 세계를 대표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세계를 대표한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뜻은 인류가 공적으로 바라는 뜻을 위한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61) p.382

누이동생처럼 키워서 아내와 같이 사랑하고 어머니와 같이 섬겨 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누이동생으로부터, 즉 누이로 사랑하기 시작해서 아내로 사랑해야 하고
동생 · 누나 · 신부 · 어머니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이 다 못 하신 사랑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37-88, 1970.4.20) p.382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느냐. 먼저 남자는 한 여자를 이 나라의 대표적인 여자로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 그냥 한 사람의 남자로서가 아니라, 온 세계 남성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빼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표자의 입장에 선 남자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가정은 하늘나라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869) p.382

[텍스트 입력]

여자에게 진정한 행복은 사랑의 주체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동등한 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느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40) p.382

결혼할 때는 그 남자가 미남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한 주일이 지난 후 사고가 나서 몸이 병신이 됐을 때 이혼하자고 하며 나서는 것은 참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절대적이요, 불변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51) p.382

결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신조를 가져야 합니다. 결혼할 때 잘난 사람, 예쁜 사람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알았다면, 결혼을 할 때에도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인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인 결혼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상대를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인류같이 사랑하고, 이 세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서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한 남성으로서 한 여성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과 인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통일세계 1978. 6-14) p.383

결혼은 행복한 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의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륜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것이며, 결혼은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 2-26) p.383

결혼하는 데는 미녀의 남편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녀의 남편이 되어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남편이 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미인도 추앙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관(觀)을 가지고 여자를 잘 대해 나가야 합니다. (26-332, 1969.10.3) p.383

어떠한 아내, 어떠한 남편을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겠느냐? 제일 못난 사람을 만나 열녀가 되어 사랑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시집 장가를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도수가 높을수록 무한한 우주의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참가정 3-16) p.383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맺어지면 지상에서 백년해로를 해야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둘이지만 하나되어 돌아감으로써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몸이 하나되면 하나님과 같이 돌게 되어 사랑의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니,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이상세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 사랑이 침범할 수 없으며, 오직 참사랑만이 임재하게 됩니다.

개체 완성, 상대 완성을 이룬 후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 공인을 받아야 진정한 이상이 이루어집니다.

신랑 신부는 돈이나 권력, 명예를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요 초월적인 사랑이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이요, 사랑 중의 대표적인 사랑이요,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상권을 가져야 하는데,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사랑을 위한 절대적 남자와 여자는 일심노력에 의하여 맺어지며, 절대적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맺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두 사람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40) p.383

전세계의 인종이 하나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국제결혼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문화권과 환경으로부터 선택된 남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텍스트 입력]

조화와 통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거대한 사랑의 힘을 찾아야 합니다. 최고의 사랑만이 국경을 넘고, 인종의 경계를 넘고, 문화의 경계를 넘고, 지식의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목회 22-16) p.384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이유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34) p.384

천국은 독처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독처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절망강산입니다. 적막강산은 희망이 있으나 절망강산은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948) p.384

남성은 여성을 위해서 태어났고,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주장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며, 남을 존중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우리들은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려고 태어났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려고 태어났지요? 그것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축복권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최고의 진리권을 이탈하는 것은 최고의 악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를 보면 서로가 큰절을 합니다. 왜 큰절을 하는 줄 알아요? 서로 위(爲)하자고 큰절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지 않으면 사랑은 도망가고 맙니다. (1982. 10. 29) p.384

한국의 민법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하고 이족결혼을 장려하는데, 이것은 통일을 사모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6, 1968.3.10) p.384

Top p.384

2) 남녀의 사랑, 서로가 필요로 하는 사랑

자라면서 제일 꽃다운 시절, 제일 아름다운 시절이 청춘시절입니다. 그 청춘시절의 모습이 최고의 꽃봉오리 같은 시기입니다. 그걸 흠뻑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방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안방에 초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153, 1968.6.4) p.384

인간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 돈이 많아 다이아몬드를 몸에 걸치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느냐? 진실한 행복이란 상대자와 함께 사랑에 취해서 웃고 노래하며 속삭이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속삭이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귓볼에 대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은 꼭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때는 연령적으로 볼 때 젊음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때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한껏 부풀어 하나될 수 있는 때가 청춘시절입니다. (통일세계 1986. 2-19) p.384

내 일생일대에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난 나머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상대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607) p.385

여자에게 진정한 행복은 사랑의 주체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통일세계 1983. 7-29) p.385

남자가 혼자 앉아서 아무리 사랑을 찾아봤자 그 사람은 미친사람으로 밖에 취급되지 않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40)

남자 여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전부 다 반대입니다. 여자들은 일방적인데 비하여 남자들은 삼방 사방적입니다. 또 여자들은 집안에 있지만 남자들은 이리저리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이와 같은 성격이 전부 다 반대입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남성과 상대적인 여성이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38-256, 1971.1.8) p.385

하나님은 사랑이상 완성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최고의 사랑을 중심한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 완성되느냐? 남자나 여자가 사랑의 인연을 맺고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리에 나아가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 남자가 미남이고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여자가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모나 건강에 취해서 사는 남자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남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는 역사가 비극으로 흘러온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기도취에 빠져 돌아가는 세상을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랑은 남자의 것이 아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랑도 여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혼자 있을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40) p.385

남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사랑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했다.' 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또 여자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꽁꽁 잘 봉해야 됩니다. 함박꽃처럼, 수많은 꽃잎이 겹겹으로 싸여 있듯이 꽁꽁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봄절기라는 천지의 조화를 맞아 거기에 화합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26-152, 1969.10.25) p.386

여러분은 꽃 중에서 아름다운 꽃을 무엇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나팔같이 생긴 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팔같이 생긴 꽃은 향기를 멀리 풍깁니다. 나팔 같이 생긴 꽃은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팔같이 생겨야 향기가 멀리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꽃형일수록 향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꽃이라면, 깊은 사랑의 심정을 여자들이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꽃은 만민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꽃은 단조롭지만 우아한 멋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우아한 백합꽃은 잎인지 줄기인지 알 수 없으리 만큼 같은 색으로 피어 있는 것을 보면, 감상적이고 정서적인 꽃이라고 봅니다. 그와 같이 아가씨들은 나팔꽃, 혹은 백합꽃같이 되어야겠습니다. 우아하고 깨끗한 꽃이 돼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614) p.386

아무리 어여쁜 아가씨도 사춘기는 단 한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꽃중의 꽃이요, 일생에서 가장 귀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살지'하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건 여자가 아닙니다. 또한 남자들 중에서도 허우대가 멀쩡해 가지고 좋고 좋은 이팔청춘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녀석 있어요? 그런 때에는 반드시 상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생의 가장 귀한 때인 사춘기때 상대를 찾아 나서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32-248, 1970.7.19) p.386

남자는 왜 생겨났습니까? 남자들이 흔히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들 하지만,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필요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32-248)

우리 오관을 볼 때 내 눈이 내 눈을 보기 위해서 생겨났습니까? 코나 귀, 입, 손도 모두 상대를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오관을 총동원해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눈·코·귀·입 그리고 손은 참사랑을 위해 생겨난 참사랑의 도구입니다.

여자에게는 제일 귀한 게 무엇이냐?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가 필요하냐? 잘나고 못나고 병신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남자에게서 가치있는 사랑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99-119, 1999.2.7) p.38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자가 있고, 여자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자가 있어서 함께 기리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며, 만물도 서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포옹하는 기쁨의 내용이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가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며 포옹하는 그것 자체가 우주가 일체를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 본연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28) p.387

본래 남자가 태어난 본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천지창조의 대주재이신 하나님이 창조의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라가지 않고는 선하고 참되고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세계 혹은 사랑과 이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75. 2-16) p.387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더라도 곁눈질해서는 안 됩니다. 절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할 수 있고, 아들딸이 사랑할 수 있고, 나라가 사랑할 수 있고, 세계가 사랑할 수 있는, 청사에 남을 길이 여성에 의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의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정서적인 전통이 빛날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내려가는 엄숙한 과제 앞에 여러분은 진실과 참된 모습으로 있는 성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39-218, 1971.1.10) p.387

제일 꽃다운 시기, 꽃이 활짝 핀 청춘시대가 언제냐 하면 사춘기 때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18 세부터 24 세까지의 7 년 간입니다. 이 7 년 간은 일생에 둘도 없는 꽃다운 사랑의 꽃이 필 시기입니다. 한번밖에 없는 꽃다운 시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66) p.387

함박꽃을 알지요? 꽃봉오리는 수십 꺼풀로 꽁꽁 싸여 있는 그것을 쉽게 헤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붉은 사랑, 노란 꽃과 같은 그 사랑의 봉오리를 어느 때에 활짝 피울 것이냐? 천지의 조화 가운데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청춘시기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도 최고로 피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제일 중심의 절정으로서 반짝이는 기간이 청춘시기인데, 그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활짝 피워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66) p.387

청춘시대에 순정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의 한을 밟고, 탕감할 수 있는 귀한 때인 사춘기에 순정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순정을 깨끗하고 귀하게 보존해 가지고 '천세만세 혼자 가더라도 사랑이 유린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지조와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37-108, 1970.12.22) p.387

청소년으로서 타락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물들지 않은 거룩한 순정을 고이 보관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늘이 제일 기뻐할 수 있는 제단에 올려놓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한 순정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지고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64-84, 1972.10.24) p.388
Top p.388

3) 축복 결혼식은 하나님 사랑의 전수식이다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결혼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1975. 1. 21) p.388

축복은 참부모와 참자녀가 상봉하여 창조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3, 1967.12.27) p.388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면 전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받는 셈이 됩니다. (통일세계 1982. 8-21) p.38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아직까지 참부모와 완전한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맺어 주기 위해 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23-333, 1969.6.15) p.388

축복받은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선생님이 영원히 책임을 집니다. 선생님이 주관하고 지도합니다. 축복이란 이와 같이 선생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538) p.388

축복은 천국 문을 여는 것이며, 자녀를 갖추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12-266, 1963.5.25) p.388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이 하나될 수 있는 비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목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하나의 결실적인 가정의 기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원이 나타나 씨를 뿌리면 새로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결혼식입니다. (31-191, 1970.5.31) p.388

축복 결혼식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혼례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식은 자기를 중심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결혼식은 하나님께 기쁨을 되돌릴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탕감하는 귀한 조건으로, 성스럽고 성대하게 거행돼야 합니다. 우리들의 결혼식이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한(恨)을 해원해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신랑 신부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임을 원리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37) p.388

하나님의 섭리로 믿음을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된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관계없는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아담과 해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밟고 넘어서서, 즉 원죄와 인연이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40) p.389

거듭나는 데는 아담과 해와보다 못해 가지고는 안 되며, 또한 근본복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데도 개인이 거듭나야 되고 가정, 민족, 국가, 세계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80 살이 넘은 할머니들도 축복 못 받고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몇 천리 밖에 남자가 있고 몇 천리 뒤에 남자가 있어도 둘이 명주실을 매어서 축복의 조건이라도 받고 싶어합니다. 축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해내야 하니 팔자가 사나운 사람입니다. (22-16, 1969.1.1) p.389

참부모라는 뜻은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라는 겁니다. 종적 횡적으로 90 각도가 된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접붙이기 위해서 처녀 총각들을 모아 가지고 모가지를 잘라 버리고, 어머니 순과 아버지 순을 갖다 심어 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종족적 메시아-50) p.389

축복식은 바로 사랑의 전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살 듯이 여러분들도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대신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랑의 전수식이 축복식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장이 해주는 결혼입니다. 이름있는 사람이 외짝으로 와 가지고 결혼식해 주는 것은, 전부 다 천사장으로부터 받는 결혼식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557) p.389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하늘의 전권을 옮겨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328, 1967,4.16) p.389

축복은 역사가 추구해 온 만민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32) p.38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23-317, 1969.6.8) p.389

하나님을 중심한 새 사랑, 즉 창조 법도에 의한 사랑이 결정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이 출발됩니다. (19-314, 1968.3.17) p.389

혈통이 다르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다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부모에 의하지 않고는 죄를 탕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역사는 타락하지 아니한, 종지조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한 분이 올 때까지 종교의 이념을 중심으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20-115, 1968.5.1) p.389

축복받았다는 것은 메시아가 2 천 년 동안의 수고로 땅 위에 기반을 닦아 선택받은 민족과 교단과 자기 종족을 중심하여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출발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족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선생님과 부자(父子)의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사탄도 꼼짝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21-14, 1968.8.13) p.390

천주주의는 어떤 주의냐? 참부모주의입니다. 결국 이 두 주의는 부모의 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집 주의요, 우리나라 주의요, 여러분 개인의 주의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세계는 누구의 주의가 되느냐? 아담의 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 아담주의가 바로 참부모주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다른 주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심정적인 문제를 본연의 이상적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참부모라는 이념을 중심삼고 하늘주의와 결부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념으로 제도화된 가정의 인연이 남아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201, 1969.10.25) p.390

천주주의는 무엇이냐? 가정을 두고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금은보화가 천하를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들의 것은 부모의 것이요, 부모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스란히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35-281, 1970.10.25) p.390

참가정주의는 무슨 주의입니까? 참가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주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아무리 세계 제일이라고 배통을 내밀고 다녀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가정주의는 부모가 가면 아들딸은 부모의 뒤를 영원히 따라가는 주의, 또 형님이 가면 동생이 영원히 따라가는 주의, 동생이 가면 형님이 영원히 따라가는 주의입니다. 그러니 동생의 나라가 있으면 형님의 나라가 따라가고, 형님의 나라가 있으면 동생의 나라도 따라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21-50, 1968.9.1) p.390
Top p.390

제 4 장 사랑과 가정

1) 사랑이상 실현은 가정에서 이뤄진다

가정은 만고불변의 기원이며 기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도 고칠 수 없고, 형제도 고칠 수 없으며, 어느 나라 어떤 제도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고치지 못하며, 하늘 땅도, 하나님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에는 영원히 혁명이라는 명사가 필요없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혁명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25-85, 1969.9.30) p.391

왜 부모가 좋은 것이 될까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녀가 왜 좋은 것이 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이것은 자식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부의 사랑,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효성의 마음도 한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 169) p.391

가정이 왜 좋은가? 가정에서는 사랑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어서 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가정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38-328, 1971.1.8) p.391

참된 가정은 자기 어머니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며, 자기 아버지같이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며, 동생 오빠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계가 이상가정이 사는 천국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 지구성에 세워져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924) p.391

하나님을 중심삼은 영원한 부모의 사랑, 영원한 부부의 사랑, 영원한 자녀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 것이 이상적 가정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913)

부모와 자녀, 부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모두 참사랑을 중심으로 합하기를 원하는 곳이 우리의 이상가정(理想家庭)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세계적 평준화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地上天國)이 출발되는 것이요, 또한 천상천국(天上天國)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172) p.392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콧노래를 부르며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정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심정, 사랑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121, 1969.5.18) p.392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사랑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게 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집에 울타리가 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위로는 하늘을 대표한 부모를 모시고, 횡으로는 부부를 묶어 이 부부들이 천륜의 법도를 받들며 그 계대를 이으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19-305, 1968.3.10) p.392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천국이 생겨나고 가정천국을 이뤄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돼 사랑하게 되고, 아들딸도 어머니 아버지같은 대상을 얻어야 가정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플러스가 되고 아들딸이 마이너스가 되면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96-28, 1978.1.1) p.392

부모, 부부, 자녀로 형성된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입니다. 가정적 사랑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류가 살아갈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같이, 중년은 아버지 어머니 같이, 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은 형님 누나같이, 적어 보이는 사람은 동생같이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24) p.392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주의냐? 가정주의입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천주주의(天宙主義)는 하늘 천(天)자에 집 주(宙)자, 즉 하늘집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천주라는 뜻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26-103, 1969.10.18) p.392

가정은 작은 사회에 입각한 작은 국가입니다. 작은 국가요, 작은 세계요, 작은 천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은 사회의 윤리적(倫理的) 기반이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 세계에서 가장 본이 되고 근원적이고 일차적인 조직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사랑이 최선의 가치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169) p.392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때냐 하면,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입니다. 그러면 날 때는 어떻게 나야 하느냐? 잘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이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사위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공법을 지구성에 세워 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법도가 지향하는 내용을 갖추고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 가정입니다. (24-230, 1969.8.17) p.393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천국은 한 번 가보면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열 번 백 번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민이 공통으로 그곳을 가고 싶어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분과 같이 살고 싶어한다면 세계는 통일될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기대가 서고, 다음에 가정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민족, 국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180, 1963.4.1) p.393

천국이 어디 있느냐?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지간에 주고 받는 생활적인 무대를 키우고, 또 모든 피조물을 우리의 생활에 이용하고 우리의 이상의 조건으로 이용하는 재미, 그 재미를 백 퍼센트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942) p.393

천국은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축복은 천국문을 훌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정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3 대의 인연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12-266, 1963.5.25) p.393

종교는 마루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마루되는 가르침은 인류를 가르치고 인류를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세계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나무의 순은 태양을 향합니다. 초목까지도 스스로 방향성을 갖고 돌아가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의 갈 길을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75-42, 1975.1.1) p.393

천국은 사랑의 세계요, 중심자인 하나님을 위해 있는 세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세계입니다. (98-33, 1978.4.8) p.393

천국은 사랑의 궤도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나지요? 그 사랑의 줄은 당기면 당길수록 고무줄처럼 가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무줄은 당기면 당길수록 가늘어지지만, 사랑의 줄은 당기면 당길수록 반대로 굵어집니다. (57-162, 1972.5.31) p.393

인간은 부자지관계가 있어야 되고, 부부관계, 형제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세 관계가 한 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점은 하나입니다. 상하•좌우•전후의 중심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점이 틀리게 되면 상하, 좌우, 전후관계의 균형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하·좌·우·전·후 그리고 하나의 중심점까지 모두 7 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 수를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중심삼고 완전한 참사랑으로 하나되어 이 모든 전부가 완전히 구형을 이루어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부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들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 종류냐 하면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전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교재로서, 경전으로 삼아진 것이 우리 가정이라는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130-267, 1984.2.5) p.39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과 인연맺게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교육의 텍스트 북(text book:교과서)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축을 중심삼고 나라에 적용하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요, 세계에 적용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요, 하늘땅을 중심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딸,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1985. 12. 18) p.394

가정은 죽을 때 하늘나라, 평화의 왕궁에 입적할 수 있는 수속권을 탈 수 있는 사랑의 교과서요 사랑의 수련장입니다. 이것을 확대한 것이 세계입니다. 할아버지 같은 세계가 있고, 할머니 같은 세계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 세계가 있고, 남편 같은 세계가 있고, 아내 같은 세계가 있고, 아들딸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곧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142-242, 1986.3.11)

사랑의 왕국을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의 이상세계를 발전시켜 세계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국민학교 졸업으로부터 대학 학박사 졸업까지 패스할 수 있는 실험장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확대하면 세계입니다. 세계를 가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아저씨 아줌마들이 사는 세계, 오빠 누나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사는 세계, 아이들이 사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으로부터 장년·중년·청년·소년들이 사는 이곳이 모양이 클 뿐이고, 수가 많을 뿐이지, 가정을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147-281, 1986.10.1) p.394

가정의 중심은 부모인데, 왜 부모가 되느냐? 부모는 가정의 모든 전체를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정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하고, 세계가 필요하고, 본연의 세계와 우주가 필요합니다. (141-302, 1986.3.2) p.394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에서 부모는 나라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제 1 단계의 훈련 무대가 가정입니다. 지상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제 1 교화장(弟一敎化場)이 가정이고, 그리고 국가가 제 2 교화장입니다. 거기에 애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제 3 교화장이 세계입니다. 거기에 성인이 필요합니다. 영계는 제 4 교화장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되어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141-302, 1986.3.2) p.395

Top p.395

2) 가정은 천국생활을 위한 사랑의 훈련도장

천국은 사랑의 세계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세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세계입니다. (98-35, 1978.4.8) p.395

가정은 역사를 압축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직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90 각도 수직으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것을 인수한 대신입니다. (216-262, 1991.4.7) p.395

그러니까 조상을 압축한 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역사시대의 선조들을 대표한 상속자요,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역사를 연결시키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214-268, 1991.2.3) p.395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 지나간 시대의 대표자요, 어머니 아버지는 현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아들딸은 미래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고,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고, 나는 미래를 대표합니다. 여기에 아들딸이 있게 된다면 아들딸은 과거-현재-미래의 총화(總和)이기 때문에 세 부모, 세 조상들의 3 사랑을 연해서 4 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자를 못 본 것이 타락입니다. (211-206, 1990.12.30) p.39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 대신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 대신이고, 아들딸은 미래입니다. 과거-현재-미래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을 대표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의 하나님 자리요,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의 하나님 자리요, 앞으로의 아들딸은 미래의 하나님 자리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는 동등합니다. 평등 동등한 내용의 가치, 본질적인 일체 이상관을 형성할 수 있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그 하나의 위하는 사랑을 핵으로 하여 동서사방이 하나로 엉클어질 때, 그 자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운세가 보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사랑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영원불멸,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211-289, 1990.12.30) p.395

하나님과 내가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도(道)의 목적은 자기 가정을 완성해 가지고 거기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자는데 있습니다. (33-68, 1970.8.8) p.396

가정이 무엇이라구요? 이상의 나라와 이상의 세계를 사랑으로 점령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와 하나님까지도 점령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106-25, 1979.11.4) p.396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저나라에 가서 질식합니다. 호흡이 맞질 않습니다. 지상생활은 그 세계에 들어가서 호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교재입니다. 할아버지 연령의 사람이 있으면 자기 할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겠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연령이 된 사람이 있으면 외부의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국가를 넘어 어디에 가든지 환영해야 합니다. 젊은이가 있거든 자기 아들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121-294, 1982.10.29) p.396

천국이 뭐냐? 자기 가정과 같이 세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내, 형제, 자녀 이 4 대가 뭐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우주의 참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교재로서의 가정입니다. 교재로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기반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9-96, 1983.10.1) p.396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만물에 나타납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식에게 나타납니다. 또 남편이 있는 곳에는 아내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식을 보아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남편의 옷끝을 보아 아내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타난 사실을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서에 따라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부모의 사랑, 다음으로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입니다. 사랑만 가지면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낼 수도 있고, 아버지 같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인생행로는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는 종횡의 사랑을 체휼하고 가야 됩니다. 참부모의 사랑, 참부부의 사랑, 참형제의 사랑, 참아들딸의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을 이룬 후, 이를 횡적으로 확대하여 사방으로 많은 가정을 벌여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횡을 연결시킬 수 있는 참가정의 형태를 이루어 종족권, 국가권, 세계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참사랑으로 연결된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5. 12. 18) p.396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75-55, 1995.10.31) p.396

헤쳐 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것은 죄 중의 죄입니다. 원수 중에서도 제일 지독하고 미운 원수는 사랑을 파탄시킨 원수입니다. 한 가정을 중심으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부부끼리 사랑할 수 없게 깨뜨려 버린 악마 이상의 악마가 없습니다. 인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첫째는 형제의 사랑을, 둘째는 부부의 사랑을, 셋째는 자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재현시켜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되어 살다가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참사랑의 혈족을 준비해 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참사랑을 점령하지 못하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날을 위하여 수천만 년을 기다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이므로 참사랑과 연결되면 모두가 같은 몸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고, 아들딸은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3 대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조직이 천국의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우주의 중심입니다. 가정완성은 우주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지 무사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전체 우주의 부모로서 사랑의 복합적인 중심 자리에 계십니다. (298-306, 1999.1.17) p.397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가정적 기대에는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아들의 사랑, 딸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된 자리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딸을 사랑하면 누구나 천국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생활은 어디서부터냐? 가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정을 입체적으로 확대시킨 것뿐이지, 가정권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품을 때 이것은 세계의 남성과 여성이 하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942) p.397

여러분의 혈족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의 왕권을 대신한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많다고 천대받는 패가 됐지요? 그래 놓고 뭐 세대차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말이라구요. 세대차이가 어디 있어요? 사랑에 세대차이가 있어요? 천년 전에 사랑하는 방법하고 천년 후, 지금 사랑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방법도 같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랑의 내용은 공식이 돼 있기 때문에 억만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만 번의 천지개벽이 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의 3 대가 하나되어 철옹성같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하나님을 핵으로 모시면, 어디든지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요, 생명의 씨로서 혈통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천국, 평화의 천국, 행복과 자유의 세계라 할 수 있는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225-300, 1992.1.26) p.398

천국이란 무엇이냐? 극락 또는 천당 간다고 하지만 자기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가 다 같이 가야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15-278, 1965.10.30) p.398

Top p.396

제 5 장 사랑과 영계

1) 영계의 공기는 사랑, 사랑이 생명요소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으로 살다가 아들딸을 낳아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일생이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무르익어 사랑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298-311, 1999.1.17) p.399

죽음이란 인간이 육신생활을 마친 다음 제 2 의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제 2 의 출생을 하는 곳, 죽어서 가는 세계가 바로 영계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제 3 의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전체를 대표한 참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계는 사랑을 호흡하고 사랑을 중심삼고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참사랑의 인격을 이루지 못하면 왔다갔다 하는 길이 제한받고 사방을 통하지 못합니다. 문을 통하더라도 하나의 문만을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춘하추동 언제 어디서든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맞추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지상생활에서 완전한 사랑의 인격을 구비해야 됩니다. (298-311, 1999.1.17) p.399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죽는 것인데 인간세계에서는 '아이구, 죽는다' 하고 야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껄껄하고 웃으십니다. 인간세계에서 울고불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볼 때 슬퍼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제한된 사랑권 내에서 무제한의 사랑권 내로 돌입할 수 있는 기쁨을 맞을 수 있는 순간이 제 2 의 출생의 순간인 죽음길을 통하는 그 순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길은 승화의 길입니다. (116-172, 1982.1.1) p.399

죽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 2 의 생을 촉진시키는 변화 과정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비약하는 것이요 승화(昇華)하는 것입니다. (139-214, 1986.1.28) p.399

세상에서는 죽음이 생명의 끝남을 의미하지만 죽음은 다른 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때문에 침울해 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대신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한 생을 살다가 영적인 승리 가운데서 다시 태어남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매우 슬픔에 잠기거나 비통해 한다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사람을 땅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같이 되고 맙니다.
아기가 제 1 의 어머니의 태내에서 나오는 것같이, 제 2 의 우주적 어머니의 태내에서 또 다른 세계로 탄생하는 승화식은, 실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그 식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전혀 슬픔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곤충이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고 고치에서 나와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본질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49-285, 1971.10.17) p.400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육신으로 제한된 사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대상적 실권을 가지고 나타나려면 제한된 육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영으로 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참사랑의 이상을 온 천지와 더불어 동일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죽음의 순간은 고통길이 아니라 우주적 참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의 문을 개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89-311, 1998.2.2) p.400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일생에 걸쳐 뿌려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거두어서 저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되면 하나님과 닮게 됩니다. 부부가 합해서 3 단계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고 영계에 가게 되면, 영원한 주체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상대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부부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289-311, 1998.2.2) p.400

지상의 생활과 영계의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지상의 생활도 중요하고 영계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영계의 생활은 지상생활에서부터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생개념을 모릅니다. 이 땅 생활이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도 현재의 생활이 영생을 보장하는 기반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상생활과 영계 하-100) p.400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 일정기간을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늙어 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늙어 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1062) p.400

영계는 사랑의 성분으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지구는 공기로 뒤덮여 있지만, 영계는 사랑으로 싸여 있는 곳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가스를 뿜어내지만 영계는 사랑을 마시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에서 주고 받는 사랑은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145-267, 1986.5.15) p.40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 인간의 일생은 복중시대 10 개월, 육신시대 1 백년, 그리고 영혼시대 천년만년을 영원히 살아갑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음과 동시에 콧구멍으로 숨을 쉬게 되어 제 2 세계, 즉 공기세계에 연결됩니다. 복중에서 공기세계에 연결되어 나올 때는, 복중세계에서 살던 탯줄과 물주머니를 다 파괴시키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들은 죽음(파괴됨)과 동시에 지구성 어머니한테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는 입으로 먹고 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먹는 음식은 육신이 사는데 필요한 영양분이지 본질적 생명요소는 아닙니다. 생명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공기를 들이 마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공기를 들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139-212, 1986.1.31) p.401

영계에서는 사랑의 궁전이 참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계에 궁전이 있더라도, 참부모가 가서 '여기를 궁전으로 합니다'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것을 중심삼고 온 영계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계에서도 참부모를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5-255, 1990.9.9) p.401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영계에 가게 되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완성한 사람을 실체세계의 몸 마음과 같은 하나의 결과로 이루어놓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영계의 뒷골목까지 다니면서 알아보니 천지 이치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둘이 절대적인 힘으로 합하여 진공상태가 된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골수처럼 심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남자사랑과 여자사랑의 두 조각이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핵입니다. 사랑의 이상적 실체가 합하여 사랑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170-171, 1987.11.15) p.401

지상세계와 영계는 서로 마주보고 움직입니다. 지상세계가 올라가면 영계도 올라가고, 지상세계가 내려가면 영계도 내려갑니다. 한쪽이 돌면 다른 쪽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현세에 그것을 실감하고, 영생에 플러스시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생과 현세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217-85, 1991.4.16) p.401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영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후의 세계라고 대개는 말하지만, 사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 사후의 세계가 될 수 없느냐? 사랑과 관계돼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계돼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된 사랑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는 지금 여기가 영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144-198, 1986.4.24) p.401

하나님은 사랑에 취해서 억천만세를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는 게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을 갖고 생활하다가 사랑의 열매로 거두어집니다. 죽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자녀의 사랑을 받았고, 부부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내적인 사랑의 세계에 뿌린 모든 것을 일생을 거쳐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저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83-198, 1976.2.8) p.402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봤습니까? 지금 영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한 사람당 3 천 3 백 2 십여 명 꼴의 영인들이 붙어다닌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86-193, 1976.3.28) p.402

영계를 가게 되면, 수많은 선지선열들과 수많은 선조들과 만나 공론하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서 왔소? 지구성 어디요? 어느 나라요?'라고 묻고 회상하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끼리 만나게 되면 자기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모든 옛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계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종지(宗之) 할아버지, 수천 수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놈의 자식아, 어떻게 살았어?'하고 반말할 때 기분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48-321, 1986.10.26) p.402

여러분은 천국갈 때에 예물로 가져갈 것이 있느냐? 영계에 가면 순교당한 공신들이 앞에 쭉 늘어서 있는데,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보따리를 펼쳐 놓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통일교회가 무슨 고생을 했으며, 여러분이 무슨 고생을 했느냐? 그만한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다고 하겠느냐? '고생을 하긴 했지만 나는 고생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래야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영계에 가서 보따리를 풀어 놓고 '이것은 일생 동안 제가 장만한 선물이오니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는 한 보따리씩 해 가면서 천국갈 때는 달랑달랑 몸만 갈 수 있느냐? (32-71, 1970.6.21) p.402

이 땅 위에서 육신의 껍데기는 점점 늙어가지만 부부생활을 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영인체는 더욱 젊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내적 인간인 영인체는 최고의 원숙한 미남미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생활은 어떠냐? 먹을 걱정, 살 걱정, 입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의 심령상태대로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나라에서도 먹습니다. 저나라에서도 자기를 만져 보면 핏줄이, 맥박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몸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194-42, 1989.10.15) p.402

영계에는 없는 것이 없어서 그리울 것이 없지만, 가장 그리운 것이 있다면 참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공을 들인 그 공신은 천상세계에서 당연히 영광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147, 1970.3.21) p.403

여러분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영계는 마음 같은 체(體)가 화(化)한 생활의 세계인데, 이는 시공을 초월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음료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옷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자동차 공장이 있겠어요? 식품공장, 옷공장, 직조공장이 있겠습니까? 다 없습니다. 거기서는 억천만 리를 순식간에 왕래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을 가지고? 사랑의 힘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면 쭉 나타납니다. (210-225, 1990.12.23) p.403

영계에 가면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영계의 움직임을 막을 물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본성품의 존재성인데 그걸 막게 안 돼 있습니다.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있으니까 몇억 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연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194-133, 1989.10.17) p.403

영계에 가보면 영계 전체가 사람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체되는 하나님과 큰 한 사람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영계와 육계가 다 흐물흐물해집니다. 하나님이 뛰면 땅도 뛰고, 하나님이 웃으면 땅도 웃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에 가보면, 한 사람과 같은 조직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91-280, 1972.2.27) p.403

영계는 설명이 필요없고,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척 하면 벌써 알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래인지 옆인지 높은 자리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계(位階)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위계는 절대적입니다. 그 위계가 높은 사람은 자연히 그 위계를 맞춰서 자기가 설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상세계하고 다릅니다. 모략중상해 출세하고 그러는 사람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도(正道)를 봐라, 정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194-134, 1989.10.17) p.403

나의 생애에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무덤 가운데에서 살면 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살이는 영원을 두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죽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고, 영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들딸을 데리고 환영나올 것입니다. (97-167, 1978.3.12) p.403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먹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보면서도 먹을 수 없고,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지상에서 영육이 하나된 천국생활을 한 사람 외에는 영원한 이상적 세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세계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권 내의 최대의 인격을 구성한 사람은,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행사가 가능합니다. (지상생활과 영계 상-183) p.404

저나라는 사랑의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 모든 것이 나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위할 수 있는 사랑의 도리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바라던 소망의 실체를 완성했다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 천국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향하는 수련소입니다. (지상생활과 영계 상-259) p.404

가정에서 수련된 것을 사방으로 확대시켜 위할 수 있는 사랑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143-72, 1986.3.15) p.404

영계라는 곳은 무한히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몇백만 리의 거리도 순식간에 사랑을 중심삼고 오고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랑은 최대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216-192, 1991.3.31) p.404

영계에서는 천지라는 것, 지구라는 것은 먼지 한 점 같은 것입니다. 영계는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시공을 초월한 무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이러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상에서 태어나 살다가 간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직접 나와 봐라!'하면 그 사람이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직감적 감각이 현실화되는 세계입니다. (224-105, 1991.11.23) p.404

영계는 어느 부분을 찾아 응시해도, 천 년을 바라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계의 한 모서리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이 갖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이 지상이 선생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15-154, 1965.10.7) p.404

영계에서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등불이 점점 커집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이아몬드 빛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한 그 빛은 맛이 있고, 보면 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3-28, 1979.1.28) p.404

영계의 공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생명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는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 꼭대기로도 숨쉬고, 세포 전체가 숨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영계 생활을 하려면, 지상생활에서 완전히 사랑의 인격을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12-221, 1981.4.12) p.405

영계에 가보면 부모·부부·형제자매·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정생활에서 깊은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는 어디든지 아무 제한없이 어느 방향으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속이 좁고, 영계에서도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1062) p.405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법입니다. (98-35, 1978.4.8) p.405

영계란 영원한 요소를 원하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한 영인체는 틀림없이 자동적으로 자석에 끌려가듯 그 세계로 가게 됩니다. 영계는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으로 꽉 찬 조화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누구든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이는 영계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힘에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없고, 사랑의 힘에 대상이 안 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말로 물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토록 부를 수 있고, 재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계는 직감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유자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122-16, 1981.3.15) p.405

영계를 결속해야 할 텐데 영계를 수습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통일 못하는 것입니다. 천운의 뿌리가 하늘인데, 하늘을 수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통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을 통일하기 전에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191-205, 1989.6.24) p.405

여러분은 전부 선조들의 얼굴을 대신 쓰고 나온 역사적인 부활체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몇십만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역사과정을 결국은 나 하나 만들기 위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김씨면 김씨라는 나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적인 결실체입니다. (46-155, 1971.8.13) p.405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성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덤에 묻혔다고 하고 성묘를 해야 됩니다. (220-350, 1991.10.20) p.405

지금까지 영계에 간 영인들이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횡적으로는 안 통합니다. 종적으로는 이 정도로 통합니다. (218-125, 1991.7.14) p.405

저나라에 가면 살인한 자, 죽임을 당한 자, 별의별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칼부림도 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 수많은 담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원수 자식들을 찾아가 사고를 당하게 해서 데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다 풀어야 됩니다.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세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푸는 데는 더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풀리질 않습니다. (191-205, 1989.6.24) p.406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영계로 향해 가는 겁니다. 영계는 바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다에도 흐름이 있는 것처럼 조화무쌍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조류의 흐름을 중심삼아 가지고 담수에는 없는 조화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수많은 어족이 있듯이, 거기에는 수많은 새로운 천지가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라에 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141-306, 1986.3.2) p.406

Top p.406

2) 사랑의 인격체는 지상생활에서 구비해야

지상에 있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상생활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인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상생활을 영생에 비유하면 이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이 기간에 육신생활을 넘어 영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일체를 컨트롤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207-99, 1990.11.1) p.406

사람이 이 일생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사람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기는 좋은데 큰일났습니다. 사람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영계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 아담에서부터 몇천 년 전까지의 조상들을 다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159-277, 1968.5.19) p.40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육신을 쓴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활시킬 수 있고, 우주도 부활시킬 수 있고, 모든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쓰고 있는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합하더라도 이 육신세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이 우주를 합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의 '우주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하는 말도 그래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91-191, 1972.2.13) p.406

만일 생애 가운데서 3분의 2 이상을 죄의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3분의 2의 생활을 모두 떼어버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떼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34-139, 1970.8.30) p.406

여러분의 마음을 필름에 찍어서 그 사진을 자신이 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19-25, 1967.12.10) p.407

완성은 지상에서 하는 것이지 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가능한 것입니다. 영계가 아닙니다. (217-130, 1991.5.12) p.407

잠자리에 들 때 벗어 놓은 신발을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신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영생 문제 이상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 문제를 결정짓는 것 이상 심각한 게 없습니다. (10-249, 1960.10.21) p.407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탕감법을 모릅니다. 무책임한 자리에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걸 책임지고 탕감해서 역사적인 죄를 청산짓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는 지상생활에서 책임지고 역사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청산짓는 조건을 세워 놓고 가야 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죄를 탕감하지 못하고 영계에 간 사람들은 탕감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 가지고 탕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다 갔던 역사시대의 모든 영인들은 탕감복귀를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법에 걸려 영계에 갔다가 다시 와서 탕감조건을 세워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계의 사람보다 한 가지 유리한 것은 뭐냐? 직접 탕감조건을 세우고 갈 수 있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80-93, 1975.10.19) p.407

여러분이 천국 갈 패인지 지옥 갈 패인지 확실히 알아야됩니다. 레버런 문은 영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살다가 가는 곳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가는데, 나를 위한 사람은 이 세계로 가서 뼁 돌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남을 위해 산 사람은 빙 돌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죽음의 자리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203-100, 1990.6.17) p.407

지옥이라는 곳은 한 번 걸려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척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하고는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가 진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감옥에만 들어간다고 해도 울고불고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정이거늘, 하물며 천정으로 맺어진 아들딸이, 자기의 부모와 친척, 형제와 자매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34-266, 1970.9.13) p.407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익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본성이 한 번 찌그러지면 수정하는 데 반 년에서 3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행동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 중의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204-304, 1990.7.11) p.40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거리의 거지나 병신들을 흉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인체(靈人體)가 그 모양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결혼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하냐? 사랑의 공기가 충만한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느끼고 가는 사람은 저나라에 가서 박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의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1062) p.408

부자간의 사랑은 종적인 관계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횡적인 관계이고, 형제 자매간의 사랑은 선회하며 에워싸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 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깊은 사랑의 경험을 가져야만 영계에 가서 제한없이 종적, 횡적, 원으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일찍 돌아감으로 인해 부모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랑의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다소 비극적인 사람이며, 부부관계를 경험 못 한 자는 생의 중요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매우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은 모든 분야의 결핍으로 완전한 생을 살 수 없으므로 영계에서 외로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1062) p.408

여러분이 영계에 가보면, 그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부모 · 형제 자매 · 부부 · 자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가진 자, 즉 가정생활에서 깊은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디든지 아무 제한없이 어느 방향으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속이 좁고, 영계에서도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고,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1062) p.408

지상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길러 남기고 가야 합니다. 장래 그 자녀들 모두 영계에 간다구요. 영계에 가서 천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몇 사람을 천국의 국민으로서 바쳤는가 하게 될 때, 지상에서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영원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고귀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218-319, 1991.8.22) p.408

저나라에 가보면, 영계에 간 모든 차원 높은 사람들 일이 땅의 일입니다.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늘나라의 국민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입니다. 알겠어요? 광대 무변한 천국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너무나 넓어요. 사람들이 수억 년 동안 왔다 갔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넓어요. 한 사람이 자식을 한 백 명씩 낳더라도 하늘나라가 넓어서 과잉생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나라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산아제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저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거느리고 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참된 하늘나라의 아들딸을 많이 거느리고 올 때, 그게 자기의 권익이 되고, 천상세계에서 표창받을 수 있는, 등급의 등차를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40, 1990.5.1) p.409

앞으로 영계에 가서는 자기 소유권이 뭐냐하면,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나 데리고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재산입니다. 영원한 재산인 것입니다. (218-227, 1991.8.19) p.409

영계에 가면 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의 자리에 서 있고, 축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21-204, 1991.10.24) p.409

잘못하면 영계에 가 가지고 보호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벗어나려면 몇천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도 앞으로 아들딸들이 전부 다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아 놓았어? 왜 여기 끌고 왔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들의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는 데도 자기 급에 맞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들딸들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 그게 뭐야?'하면서 참소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당되는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땅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근본적인 것은 어머니 뱃속을 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부모를 통하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참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통과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참된 부모를 만나러 가는 환희의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부모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을 천상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구성요소는 사랑이며,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원칙 아래 법도를 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상생활은 그러한 사랑을 위한 훈련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이 우주의 근본인 것을 알고, 살아생전 이러한 관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여 합격한 뒤에 그곳으로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625) p.409

영계에 가면 꼭 행한 대로 갚아 줍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은 선생님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천국가는 문은 열리지만,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심정의 궤도를 타고 가면, 저쪽에서 끌어당겨 줘야 합니다.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심정이 그와 화동할 수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세계가 드러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심판을 거쳐야 할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통일세계 1982. 8-16) p.410

사람이 태어난 것은 사랑의 열매를 지상에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지상에 온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것입니다. 한 계절입니다. 짧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100 살까지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70 살을 살더라도 3 배 일하게 되면, 210 살까지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10 배 하게 되면 7 백 년을 사는 것입니다. 20 배를 하게 되면 1,400 년을 사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24 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계에 가서 열매맺어 사랑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고 활동무대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102-39, 1978.11.19) p.410

고기는 물의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강물에 사는 고기가 강물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에도 왔다갔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담수의 고기는 해수와 접하는 그 물을 맛보지 않고는 새끼를 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요? 바다에 사는 것은 반드시 담수에 와서 맛을 보아야 새끼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세계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과 영계도 두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두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한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77-274, 1988.5.20) p.410

Top p.410

제 4 권 참가정 417

차 례

제 1 장 창조 본연의 참가정 417

1) 아담과 해와를 통한 하나님의 뜻 417

2) 하나님께서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 418

3)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자 419

4)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 420

5) 아담과 해와의 첫사랑의 시기 42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6) 모든 존재는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422
7) 인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 424
8) 참가정으로서 전통을 세웠어야 할 아담가정 425
제 2 장 가정을 중심한 사랑의 법도 427
1)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427
2) 가정에 3 대가 공존해야 하는 이유 428
3) 부모는 곧 사랑의 기원 419
4) 형제자매가 필요한 이유 430
5)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하나님 위치 431
6) 조부모와 손자와의 관계 432
7)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참된 의미 433
제 3 장 가정은 천국의 중심모형 435
1) 가정은 모든 존재의 중심모델 435
2) 가정은 우주 사랑을 접할 수 있는 사랑의 교재 436
3) 사랑의 왕국에 입적하기 위한 사랑의 수련장 437
4) 가정은 천국의 모형 교과서 438
5) 가정은 3 시대의 사랑이 결집된 핵심체 440
6) 가정은 심정적인 훈련장소 441
7) 인간의 영원한 본향은 가정 442
8) 가정은 천주주의를 완결시키는 최종기준 443
제 4 장 사랑을 중심한 인생행로 445
1)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445
2) 사랑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삶 446
3)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요소는 사랑 447
4)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448
5) 사랑과 기쁨의 상속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449
6) 사랑의 센터를 찾아가는 인생행로 451
7) 3 시대를 가는 인생노정 452
8) 지상생활은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한 훈련장소 453
제 5 장 창조 본연의 남녀사랑 456
1) 창조 본연의 남녀사랑 456
2)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이유 457
3) 남자와 여자는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458
4) 사랑은 상대로부터 온다 459
5) 이성간에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 46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6) 참사랑에 취한 본연의 인간 461
7) 사랑은 극히 자연스러운 데서 이루어진다 462
제 6 장 사춘기의 변화와 참된 결혼 464
1) 결혼의 의의 464
2) 결혼은 왜 하는가 465
3) 참된 결혼관 466
4) 사춘기란 어떤 때인가 467
5)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468
6) 사춘기의 첫사랑 469
7) 결혼의 적기-사랑은 어느 때부터 연결되는가 471
8)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사랑 472
제 7 장 참된 부부의 사랑 474
1) 창조 본연의 부부관계 474
2) 부부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 475
3)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 477
4) 하나님도 취할 수 있는 참된 부부의 사랑 478
5) 보면 볼수록 더욱 보고 싶은 게 부부의 사랑 479
6) 부부사랑의 발전과정 481
7)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왜 슬픈가 482
8)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할 부부의 사랑 483
제 8 장 참된 부모의 사랑 486
1) 무엇이든 주고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 486
2) 자식이 더 낫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487
3) 부모의 사랑은 만고불변의 사랑 489
4)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 490
5)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491
6) 끝이 없는 부모의 사랑 493
7) 부모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준이요, 전통이 된다 494
제 9 장 참된 자녀교육 496
1)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는가 496
2)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497
3)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 줘야 한다 498
4) 부모는 친구 중의 친구요, 스승 중의 스승 500
5) 사랑의 채찍 501
6)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50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7) 참된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 504
8) 세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 505
제 10 장 복귀해야 할 인류의 참가정 507
1)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목적 507
2) 사탄의 소유물이 된 아담가정 508
3) 타락인간의 소원 509
4) 복귀의 최종 목표는 아담가정을 복귀하는 것 510
5)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복귀의 가정 512
6) 재림주님을 중심한 복귀의 가정 513
7) 통일교회는 본연의 참가정을 찾기 위한 곳 514
8) 참가정주의와 참부모종교 516
제 11 장 가정은 영원한 행복의 터전 518
1) 가정이 왜 좋은가 518
2) 가정은 영원한 행복의 터전 519
3)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단위 520
4) 사랑의 이상 실현은 가정에서부터 522
5) 천국은 가정단위로 들어가는 곳이다 523
6) 천리법도가 사위기대 원칙으로 되어 있어 524
7) 가정을 통해 인간이 가야 할 천도 526
8) 통일교회는 가정천국을 이루자는 것 527
제 12 장 참가정을 찾아서 529
1)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529
2)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지성소 530
3) 남자의 주인은 여자, 여자의 주인은 남자 531
4) 사랑에는 발전도 혁명도 없다 533
5) 여자는 절개, 남자는 지조 534
6) 타락은 프리섹스의 뿌리요, 개인주의의 조상 535
7) 절대순결과 참가정운동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 536
처음으로 다음장으로

제 1 장
창조 본연의 참가정

1) 아담과 해와를 통한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까지 많은 신앙자들이 '하나님이시여,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현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298) p.417

통일교회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 곧 레버런 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창조이상(創造理想), 즉 창조목적(創造目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만물을 창조할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적의 중심이 누구냐?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곧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실현(理想實現)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위기대(四位基臺)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위기대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권에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그들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기대를 말합니다. 이 사위기대가 조성되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부부의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권(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298) p.417

인간조상을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는가? 그 이상은 이상적인 남자와 이상적인 여자가 결합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가정이란 결국 부모와 자녀,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인데, 그 묶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아 부부가 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아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1) p.418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무엇이냐?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그냥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늙어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장성하여 서로 이성에 대한 상대적인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의 참된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남성인 아담은 하늘을 대표하고, 여성인 해와는 땅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둘이지만 그들이 횡적으로 하나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두 사람이 통일하고 나면, 천주는 당연히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299) p.418

Top p.418

2) 하나님께서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절대자라 하지만 기쁨을 홀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기쁨은 상대가 있어야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돈도 아니며,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이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제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따라가거나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방대한 우주는 질서 속에 법도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과학이 미칠 수 없는 방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운행하시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지전능하며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불멸한 자존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닌 그 무엇을 바라고 계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께서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도 절대 필요한 것, 바로 참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혼자서 사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참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4) p.418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시라면 그 절대적인 분이 왜 인간을 지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지식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권력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아들딸이라는 것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축이 만일 연결됐더라면,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를 무엇이 작용해도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에다가 줄을 매고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 갈라질 것 같습니까?

벌은 봄에 꿀맛을 보게 됩니다. 꿀을 빨고 있는 벌의 꽁무니를 잡아당기면 그것이 빠지더라도 그 벌은 꿀에서 입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맛을 느낀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다가도 되돌아와서 또다시 거기에 붙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축의 사랑에 연결된 만유가 작용하는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인간의 가정은 개인적으로 완성된 남성과 여성이 하나되어서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의 현현히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랑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종족의 현현, 민족의 현현, 세계의 현현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5) p.419

Top 처음으로 4)으로 p.419

3)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아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좋아서, 곧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상태, 곧 기쁨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하면, 사랑의 형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실현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현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화기애애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의 참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하나의 참된 사랑의 가정과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인간과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2) p.419

하나님의 꿈은 단 한 가지,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이상실현은 하나님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행복, 기쁨 등은 한 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없이는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3) p.419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시지만,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자는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상대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 기쁨의 이상을 찾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3) p.42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인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끼리 영원히 보고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좋아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그 날부터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아담과 해와를 보고 보고 또 봐도 더 보고 싶고, 있고 있고 또 있더라도 더 있고 싶고, 살고 살고 또 살더라도 더 살고 싶은 대상들로 사랑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대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6) p.420

Top 처음으로 5) 으로 p.420

4)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일남 일녀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추리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남성과 하나의 여성을 합한 분이시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대상을 필요로 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하나의 남자요, 하나의 여자인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7) p.420

하나님은 첫째, 체(體)를 입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고, 둘째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둘이 하나될 수 있는 사랑의 실체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臨在)하여 인류의 완전한 사랑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부모가 된 아담과 해와가 실체의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세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영계와 지상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서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저나라에 가면 영계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체(體)를 쓰시고 부모의 자리에 현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8) p.420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상을 갖기 위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은 내적인 아버지가 되고 아담은 외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을 완전히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다면, 그 모습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인지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9) p.421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둘이 사랑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은 아담을 위해서, 해와는 해와를 위해서 지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해와를 위해서, 해와는 아담을 위해서 지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기쁨을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은 것은 지식·권력·돈 때문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식·돈·권력 등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8) p.421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지은 것은 지식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며, 많은 재물을 주어 잘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의 실체로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8)

Top p.42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5) 아담과 해와의 첫사랑의 시기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보고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0) p.421

인간은 사춘기를 바라보면서 한 때를 중심삼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곧바로 남자 여자가 하나되어 사랑을 하면 되는데 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할 수 있는 사춘기 시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과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2) p.421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교육받을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는 부모 자식지간이니까 그 부모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따라가야 하고 주관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자세를 이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복종했어야 했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1) p.421

아담과 해와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준 기간, 즉 영육기간과 아울러 성숙해지는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해와에게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와 영인체가 온전히 성장한 다음에 부부가 되어 사랑하고 아들딸을 번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함께 다니다가 깜짝 놀랄 광경을 보면, 해와가 '어마, 무서워!' 하면서 아담의 품에 안기거나 뒤에 숨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해와는 아담 품에 안기면서 무섭던 마음이 놓이고 편안함과 함께 아담으로부터 강렬한 이성적 충동을 받게 됩니다. 아담 또한 그 느낌이 싫지 않으면서 해와로부터 자신과는 다름에서 오는 성적 충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아담과 해와 가운데 성적인 동작은 어느 쪽이 먼저 취했느냐? 무섭다고 아담 품으로 뛰어든 해와였습니다.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그들의 사랑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피조세계를 사랑의 조직체로 만들어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했습니다. 그런 임무를 가진 아담과 해와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공유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는 지극히 중대한 것으로서 그들의 생사를 가름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1) p.422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개성을 완성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원리로 보면 개성을 완성한 후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춘기를 거쳐 이성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천지의 조화에 일치하고 통과할 수 있는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랑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느냐? 천지의 모든 만물을 통일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주체적이고 필연적인 사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연적인 사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7) p.422

Top p.422

6) 모든 존재는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개체 완성이란 마음과 몸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의 바탕 위에서 완전히 하나된 가운데 성장하여 성숙하도록 수수작용을 영속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중심하여 출발하고 사랑을 중심하여 성숙되고, 그 위에 사랑의 싹이 터서 열매를 맺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의 기대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사랑의 연분을 가지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숙되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법도를 따라 창조되었고 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을 보더라도 꽃이 피면 꽃 속의 수술과 암술이 수수작용 즉, 순환운동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동물세계도 그렇고 인간세계도 사랑의 순환운동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의 관계를 거쳐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과 일치하는 자리에 섰을 때 몸과 마음이 일체를 이루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몸과 마음을 일체화시켜 들어가게 되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타락하지 않는 본연의 인간으로서 개인 완성이 출발하게 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4) p.423

마음과 몸에 있어서, 마음은 하늘을 중심삼고 몸은 세상을 중심삼고 있는데, 이런 마음과 몸이 하나되었다고 할 때, 그 이념을 무슨 이념이라고 합니까? 천주주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천주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 즉 무형세계와 유형세계가 일체가 되는 자리를 이루어 가자는 주의가 천주주의입니다.

이 천주를 지배하려면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지 않고 되겠습니까? 일체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될 때, 하나님은 내적 하나님이고 자기는 외적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하면,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4) p.423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존재세계의 평면적인 대표자는 인간이며, 입체적인 대표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결부시키는 중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끈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될 때, 그의 심정과 감정은 무한한 체휼경(體恤境)과 행복감에 취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인간과 세계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창조목적 이상세계의 실현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07) p.423

아담과 해와는 16, 17, 18 세가 되면 자연히 사춘기가 되어 이성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사람이 그 향기에 취하듯이 아담과 해와가 성숙하면, 이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취에 하나님도 함께 걸려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과 해와의 몸과 마음, 이 셋이 하나되면 우주의 핵이 생겨나고, 모든 사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본 궤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선했습니다. 탈선하지 않았으면 완전히 하나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되었으면 하나님도 떠나실 수 없고, 아담과 해와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연결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뤘을 것입니다. 여기가 멋있는 세계,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2) p.424

Top p.424

7) 인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한 상태에 이른 후에야 그들로 하여금 하늘적인 결혼생활을 하게 하고 한 쌍의 하늘적인 부부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로 하여금 최초의 남편과 최초의 아내가 되게 하여 천국 건설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실현되었더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그 때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의 자녀도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9) p.42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들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죄는 절대로 인류에게 계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둠으로써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참아버지와 참어머니가 되어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완성의 자리까지 나갔다면 아담과 해와는 개인 완성뿐만 아니라 우주사적인 완성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새 가정이 출발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씨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대가족 사회가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족 사회의 중심은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가정의 생활이나 일생의 노정이 역사적 전통으로 남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풍습·관습, 그리고 생활적인 배경이 역사적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얽혀진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이상의 원천이기에 그 품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고, 떠난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이 세계에서도 부모 밑에 살다가 그 품을 떠나거나 형제의 곁을 떠나면,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명과 이상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엉켜 있다면, 그 품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나면 외로워지고 슬퍼져 기쁨이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서 하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인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라는 것이요, 셋째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상속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사람들은 부잣집 사위만 되어도 크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19) p.425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을 이루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을 것이고, 아담가정은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래로는 인류 조상의 입장에서 하나의 결합된 사랑의 기점(基點)을 마련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해와의 이상(理想)의 완성을 위해 사랑의 결합으로써 일체를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20) p.425

Top p.425

8) 참가정으로서 전통을 세웠어야 할 아담가정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딸로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딸로 태어났을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딸이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원수들 앞에 농락당하고 원수들에게 지배당할 수 있는 종족이 아니며, 원수들 앞에 참소받을 수 있는 무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전권 전능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그 가정은 온 우주의 존재가 굴복하여야 할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을 이룬 종족이 움직여나가는 데 있어서는 온 피조만물 전체가 그들을 옹위하고 그들에게 흡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연고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는커녕 원수들에게 농락받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본래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일체 되었으면, 그 일체된 사랑의 인연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들딸로 태어났고, 또 이미 장성한 후에 그들을 보고 '야,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설명을 하고 그것을 부정시킬 수 있는 이론이나 학설이 없는 것입니다. 총칼을 들이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약 1-330) p.425

만일 타락이 없었더라면 에덴동산에 하늘의 첫가정이 세워졌을 것이며, 그 가정은 사탄의 참소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번영하였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30) p.42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합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아들딸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남편으로서의 전통, 아내로서의 전통, 아들로서의 전통, 딸로서의 전통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의 전통이 확립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성사되었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31) p.425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서 축복을 받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완성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아담과 해와가 횡적인 상태를 이루었다면 창조목적의 세계가 출발했을 것이고, 그 세계는 확장되어 우주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부부일체를 이루어 하나되는 전통 속에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32) p.426

Top 처음으로 다음장으로 p.426

제 2 장 가정을 중심한 사랑의 법도

1)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이 땅 위에 역사가 벌어진 이후에 어느 누가 부모를 중심삼은 참다운 사랑, 부부를 중심삼은 참다운 사랑, 형제를 중심삼은 참다운 사랑을 해 보았습니까? 참다운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3 대 사랑이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관을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실존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 대 사랑이 결합하게 될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면 행복도 완전한 것이요, 이것이 결여되면 불행이 깃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어머니가 없는 만큼 불행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없는데 행복합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은 아버지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부러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도 부러운 게 없어야 합니다. 부러운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행복할 수 없고, 어머니가 없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배포가 크고 큰소리쳐도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끼리 재미있게 살다가 남편이 훌쩍 가게 되면 부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가 없어도 안 되고 여자가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끼리 아무리 정이 있게 산다 하더라도 아들딸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아들만 필요합니까? 아들딸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모한테 아들딸 둘밖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두고 볼 때에 그에게는 누나가 필요하고 또 형이 필요합니다. 또 딸에게는 오빠가 필요하고 언니가 필요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남동생과 누이동생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있어야 되고, 누나가 있어야 되고, 남동생과 누이동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동생 · 남동생 · 누나 · 오빠 다 갖추어져 완전히 하나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씨족과 민족과 국가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하고 아버지 · 어머니 · 형님 · 누님 · 그 다음엔 남동생 · 여동생, 거기다 나까지 합하면 7 명입니다. 그래서 7 수가 완성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이란 사랑을 두고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7 수가 완성수냐? 무엇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지창조가 7 수를 중심삼고 완성되었느냐?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수는 하늘 수요, 4 수는 땅 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3 수는 아버지 · 어머니 · 나 해서 3 수입니다. 그러면 4 수는 무엇을 말하느냐? 형제자매들을 합한 것이 4 수입니다. (20-40, 1968.3.31) p. 428

7 수가 완성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아담과 해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상하, 즉 종적인 인연을 말하는 것이요, 부모의 사랑은 하늘땅을 대신한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볼 때, 형과 누나는 동서를 말하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남북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이 완성되면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모든 법칙도 수리에 입각한 공식법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에서 근원된 창조원리적인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법도가 자리를 잡게 될 때 평화의 기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적인 자녀지도-18) Top p. 428

2) 가정에 3 대가 공존해야 하는 이유

할아버지 · 할머니 · 시어머니 · 시아버지 · 시누이 · 손자까지 같이 살자는 겁니다. 사는 데는 센터를 중심삼고 소생-장성-완성, 3 대가 정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사랑하지 말고 할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위에 할아버지를 놓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느냐? 왜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느냐? 왜 아들딸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그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되고, 아들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부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엔 부부가 필요하고, 아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왜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왜 부모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한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아래에도 가야 되고, 센터에도 가야 되고, 위에도 가야 되고, 옆으로도 가야 되고, 사방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손자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면 '아이구, 좋아라! 좋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본연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런 가정편성을 표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종교세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비로소 교육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128-17, 1983.5.29) p. 428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왜 우느냐? 아들딸이 없으면 왜 우느냐? 섭섭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원칙은 동서사방을 전부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 존재의 힘은 상대이상을 옹호하는 힘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주고 받습니다. 남북이 주고 받고, 북극과 남극이 주고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과 별이 주고 받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어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된 이상적인 존재는, 즉 완전히 주고 받는 존재는 이 우주가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유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옹호하는 천운이 감도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것을 협조하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없어도 안 됩니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아들딸이 필요 없다는 주의로 나가고 있지만 정말 필요 없는지 두고 보십시다. 영계에 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데에는 반드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것입니다. 3 수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3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3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모셔야 되고, 부부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 가지고는 천리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갈라 놓으면 남성 3 단계, 여성 3 단계인데, 이것을 합해 가지고 통일적인 3 수의 형태를 갖추어 이상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기가 있어야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가정윤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70-76, 1974.2.8) p. 429

Top p. 428

3) 부모는 곧 사랑의 기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고아는 부모와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사랑의 이상형은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또 부모에 대해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아보다도 백 배 천 배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고아들에게 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어머니 아버지 있니? 없지. 얼굴이 잘생겼으면 뭘 해? 부모도 없으면서' 하고 으스대는 거라구요. 또 '나는 못나고 병신이 됐지만 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지 않니?'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232, 1971.1.15) p. 429

부모가 대관절 뭐냐? 힘으로도 세계 챔피언이고 머리도 세계적인 챔피언인 아들이, 혹 같은 존재인 아버지 어머니쯤이야 한 손가락으로 그어 버리고 마음대로 다 하면 될 텐데 왜 무엇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으로도 제일이고, 머리로도 제일이니 힘 가지고 '야 이놈들아' 할 수 있고, 머리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기원이 어디냐?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자기에서부터냐? 아닙니다. 그건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의 기원은 자기가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몰라보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는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앞에 와서는, '예, 어머님 아버님,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네가 아무리 이름이 높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 하면 '예 예 예, 어머님 아버님,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주체요, 자식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체는 대상을 위하고, 대상은 주체를 따라야 하는 것이 천리원칙입니다. 이것을 파탄시키는 날에는 그 집안은 몽땅 무가치한 결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리원칙이라는 것은 아무리 무식한 인간이라 해도 천성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외적으로 힘이 센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50-135, 1971.11.6) p.430

인간세상은 힘의 싸움이 계속 되고 있고, 지식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랑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말세가 되면 자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세가 되면 주먹의 힘이나 지식의 힘은 다 지나가고 사랑의 힘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 최후의 세계적인 패권시대, 그때가 바로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힘센 형님이 집에 들어와서 대장 노릇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형님도 집에 들어와서는 대장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링에서는 세계적인 챔피언이 될 수 있어도 집에 들어와서는 대장이 못되는 것입니다.

또 박사학위를 몇 백 개 가진 형님이라도 집에 들어와서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부모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50-135, 1971.11.6) p.430

Top p.430

4) 형제자매가 필요한 이유

형제가 왜 있느냐? 형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남자는 계집애 동생이나 누나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여자는 오빠나 남동생의 짓궂은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란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형제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어머니 아버지가 자라던 그때의 모습으로 알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나라에 가서도 어느 때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 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그들 형제끼리 더 사랑하는 게 좋으냐, 덜 사랑하는 게 좋으냐? 더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 그러냐? 아들딸한테 어머니 아버지의 자랄 때의 모습을 보여 줘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입장을 세우기 위한, 사랑을 중심삼고 인연된 그런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들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사내애들이 저렇게 짓궂게 자라는 걸 보면서 '아, 우리 남편이 자랄 때 저랬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들을 사랑하는 것은 만나기 이전의 남편을 사랑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자는 '아이고, 저 계집애를 보니까 아내가 저랬겠구나! 어렸을 적 아내의 모습을 보여 주는구나' 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내의 전체를 사랑했다는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남자 아기만 사랑하고 여자 아기는 사랑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딸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차등 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형제를 두는 것은 가정에 아름다운 사랑의 원화(圓和), 둥근 구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형제들을 똑같이 대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제 1 조입니다. (184-60, 1988.11.13) p.431

지금까지 여러분들 형제끼리 싸움하고 '뺑' 해서 나왔으면 가서 잔치라도 해 흐뭇하게 해주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듯이 사랑하자고 그래야 합니다. 형제가 어머니 아버지 대신이니까 남아진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형제가 못살면 내가 도와주고 어머니를 위해 주던 것같이 위해 준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184-65, 1988.11.13) p.431

Top p.431

5)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하나님 위치

오늘날 미국 제도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의 천국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이 아닙니다. 어린애들의 천국이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천국이 아니요, 젊은 청년 남녀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망하는 지옥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연의 형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107-328, 1980.6.8) p.431

미국 가정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갈 때 전화를 하고 갑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좋아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며느리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스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보다 더 좋은 것을 사 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쁜 며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쭈글쭈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다 주는 것 이상의 기쁨으로 사다 주는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감추어 둔 모든 것을,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위하는 사랑을 자기 할아버지한테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배워 하나님 할아버지의 모든 비밀창고에 있는 사랑의 보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냐는 것입니다. (107-329, 1980.6.8) p.432

세상에서 제일 경험 많고, 경력이 많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잠을 많이 안 잡니다. 그러므로 '야,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는 자지 않고 지켜 주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지켜 주니 그렇게 늙으셨구나! 주름살을 보니 늙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다면 불도 안 나고 도둑도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 안 자면 뭘 할 것이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딸에게 복 주시오, 복 주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야, 아무개야! 너 오늘 나다니다가는 위험하다. 말 들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가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아들아 어디 가지 말고, 딸아! 며느리야! 오늘은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자들에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가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춤추고, 어머니 아버지도 춤추고 형제끼리도 춤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사는 사람은 우주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죽이려 하면 자동적으로 우주가 막아 준다는 것입니다. (107-327, 1980.6.8) p.432

부모는 손자를 어디에 보내려면 반드시 할아버지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107-326, 1980.6.8) p.432

Top p.432

6) 조부모와 손자와의 관계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손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구,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갔어?' 하면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도 앉아 있고, 자기 형제들도 많은데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갔어!' 한다면 그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도 반말로 합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생각해 볼 때, 지금 80 세가 넘어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녀석이 대담하게 버티고 서서, 아버지 어머니도 다 있고 형님 누나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분인데, 거기서 버티고 서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갔어!' 해도 전부 다 눈이 휘둥그래져서 '야, 요놈아! 요 녀석아! 뭐야?' 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왜이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말이에요,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 할아버지께 대고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야단칠 텐데 손자가 버티고 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 그래.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묻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디 갔어?' 하는 것이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천하가 보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은 동시에 그 다음엔 무엇 때문이에요? 가만히 사방을 둘러보면, 형님을 가만 보고 누나도 다 가만 보면 지금 그 무릎에 가서 좀 앉고 싶은데, 요리 바라보고 저리 바라봐도, 형님 눈치를 가만히 보고 가서 3 분만 앉게 되면 밀어낼 것이 뻔합니다. 또, 아버지도 가만히 보니까 바쁘고 피곤한 아버지…. 그거 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서 궁둥이를 대고 10 분만 앉아 있어도 싫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감각이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가만히 보면, 할아버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무릎에 앉으면 한 시간을 앉아도 가만 있고 두 시간을 앉아도 가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앉더라도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제일 자기를 많이 품어 주는 겁니다. 품어 주고 '요 녀석 코가 어떻고, 요 녀석 귀가 어떻고…' 하면서 만져 주는 것이 싫지 않습니다. 다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만져주고, 어떤 때는 안 만져보는 데 없이 다 만져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싫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근사해요? 얼마나 멋지냐 말입니다. 그건 나무 맨 꼭대기가, 나무 종대 꼭대기가 뿌리와 하나되겠다는 그 말과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대 뿌리하고 종대 순하고 좋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달린 모든 뿌리와 모든 가지는 좋아하지 않으려 해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대 순하고 종대 뿌리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뿌리 중에서 종대 뿌리가 집안에서 누구라구요? 손자, 장손이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장손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본다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139-15, 1986.1.26) p.433

Top p.43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7)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참된 의미

우리 동양 교훈 가운데에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 참 좋은 말입니다. 집이라 하게 되면 거기는 물론 사람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할아버지 · 할머니 · 부모 · 자식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집 자체는 만물을 축소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집 하면 보통 '거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처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집 하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밖에도 집이 있고, 뜰이 있고, 모든 것을 축소시킨 것 가운데 환경이 잘 어울려 있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기분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마주보면서 웃는 모습은 젊은 부부가 좋아서 '꽥꽥꽥' 하고 '헤헤헤' 하며 웃는 모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허허허' 하며 주름살 잡힌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는 웃음은 멋지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화합하는, 서로가 상응하는 입장에서 웃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화동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웃음은 깊은 웃음으로 '허허허'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손짓을 해도 동작은 굼뜨지만 넓고, 높고, 깊고,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중?하의 3 단계로 연결되어서 모든 조화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라는 것은 일선상의 두 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두 점만으로는 조화의 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선인데 조화는 무슨 조화가 있겠어요? 까부라지고 꼬부라지고 이래야 조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점 이상을 거치는, 여기에 조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아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 가정을 두고 4 대로 잡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엔 자기 부부, 그 다음엔 아들딸이 있습니다.

층층시하(層層侍下)라는 말이 있잖아요? 층층시하가 몇 층이 되느냐? 암만 하더라도, 물론 4 대, 5 대까지 사는 집안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4 대에요, 4 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딸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통일교회 원리는 3 단계에요, 3 단계. 소생, 장성, 완성. 그래서 '화(和)'하는 집안,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는데 가화면 왜 만사성이냐?

가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말하기 좋아서? 시적으로 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화'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한 4 대가 위로 아래로, 동서남북으로, 전후좌우상하로 화합해 가지고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9-12, 1986.1.26) p.434

Top p.434

제 3 장

가정은 천국의 중심모형

1) 가정은 모든 존재의 중심모델

사람은 반드시 공간의 세계에 서게 되면 상하가 필요하고, 좌우가 필요하고, 전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존재 위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하를 바로 갖추고 있느냐, 좌우 · 전후를 바로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하 · 좌우 · 전후관계, 그리고 가정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공식은 하나입니다.

개인을 중심삼고 상하 · 좌우 · 전후가 있듯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하고, 형제자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에도 나라의 주인을 중심삼고 모든 가정이 동서의 문명, 남북의 문명을 다 품고, 그 다음에 세계의 만민을 형제 자매와 같이 품어 결국 하나의 가정모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델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모델의 중심입니다. 자기가 있은 후에는 자기 가정이 있어야 되고, 나라와 세계와 하늘 땅, 그리고 하나님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있어 그 핵과 같은 것이 가정 개념입니다. 하늘을 부모로 보게 되면 땅은 자녀입니다. 동서를 보게 되면 동쪽은 남자를 상징하고 서쪽은 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는 결혼함에 따라 어디든지 남편의 위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쪽이 태양빛을 받아 빛날 때 동쪽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인 형님을 중심삼고 역사할 때 동생들이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자지관계에 있어야 되고, 부부관계, 그리고 형제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세 관계가 한 점에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점은 하나입니다. 상하 · 좌우 · 전후의 중심이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점이 틀리게 되면 상하 · 좌우 · 전후관계의 균형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 · 하 · 좌 · 우 · 전 · 후 그리고 하나의 중심점까지 모두 7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수를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중심삼고 완전한 참사랑으로 하나되어 이 모든 전부가 완전히 구형을 이루어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한 이 중심핵도 변치 않고 영원히 돌게 되어 참가정 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핵으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이 중심핵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다 동등입니다. 할아버지가 원하면 손자가 반대하지 않고, 아들딸도 그것을 원하게 되어 3대가 모두 함께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 할머니 · 부부 · 아들 · 딸 전부 중심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중심삼고 볼 때, 부자지관계도 하나이어서 일체라고 말하고, 부부관계도 일체라고 말하고, 형제지간도 일체라고 합니다. 한 몸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이러한 관계를 일체라고 하느냐 하면 사랑의 중심인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부부도 한 몸이 되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가치가 동등해 집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57) p.436

Top p.436

2) 가정은 우주 사랑을 접할 수 있는 사랑의 교재

우주는 뭐냐?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이 사랑의 이상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상대적 구조입니다.

광물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합니다. 원자도 그렇습니다. 양자와 전자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합니다. 작용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영속, 존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을 중심삼고 그 중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137-59, 1985.12.18) p.436

우주는 무엇이냐? 가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가정의 사랑을 완전히 이룬 가정을 보게 되면, 상중하(부모 · 부부 · 자녀)가 있고, 좌우가 있고, 전후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하를 말할 때는 부모와 자녀를 말하고, 좌우를 말할 때는 남편과 아내를 말하고, 전후를 말할 때는 형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체가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중하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무엇이냐? 사랑의 교재입니다. 우주 사랑을 접할 수 있는 사랑의 교재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사회에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막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할아버지를 대할 때는 여러분의 할아버지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머니같이 대하고, 아버지같이 대하고, 아들과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게 되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중하와 전후좌우의 사람이 세계라는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 박람회가 세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128-23, 1983.5.29)

천국이 뭐냐? 자기 가정과 같이 세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어머니 아버지?자기 아내?형제?자녀, 이 4 대가 뭐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우주의 참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교재로서의 가정입니다. 교재로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기반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129-98, 1983.10.1) p.437

우리는 우주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본이나 경전과 같은 걸 만들어 '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라. 지상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표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전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해주마' 하고 공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가 어머니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이 세계의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를 대표하는 교본과 같이 사랑하는 모델로 삼았으니 전체를 사랑했다는 조건으로 삼아 주마. 또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은 세계의 남자가 세계의 여자를 대표적로 묶어 사랑했다는 것으로 세워주마'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은 '네 아들딸을 사랑한 것으로 전체 아들딸을 전부 다 사랑했다고 해주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 훈련을 받는 훈련소입니다.

경전에 의한 세계 사랑의 훈련과정인데, 그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세상에 한 번 나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세상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할 때 '예스'한다면 그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0-273, 1984.2.5) p.437

Top p.437

3) 사랑의 왕국에 입적하기 위한 사랑의 수련장

사랑의 왕국을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의 이상세계를 발전시켜 세계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국민학교 졸업으로부터 대학 학·박사 졸업까지 패스할 수 있는 실험장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확대하면 세계입니다. 세계를 가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아저씨 아줌마들이 사는 세계, 오빠 누나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 청소년들이 사는 세계, 아이들이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으로부터 장년, 중년, 청년, 소년들이 사는 이곳이 모양이 클 뿐이고 수가 많을 뿐이지 가정을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147-281, 1986.10.1) p.437

가정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수련소요, 교재입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급, 어머니급, 부부급, 형제급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어머니 아버지 연령, 그 다음엔 자기 연령, 아들딸 연령으로 확대시킨 것이 세계 인류입니다. 이 인류를 자기 아내와 같이 사랑하고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아들딸과 같이 위해 살 수 있는 가정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143-285, 1986.3.20) p.438

가정은 죽을 때 하늘나라나 평화의 왕궁에 입적할 수속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가정이 사랑의 수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확대한 것이 세계입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세계가 있고, 할머니와 같은 세계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세계가 있고, 남편과 같은 세계가 있고, 아내와 같은 세계가 있고, 아들딸과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곧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사랑하듯이, 그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전세계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똑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아무리 수양을 해도 다 헛된 것입니다. 종교가 도를 아무리 닦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인류를 사랑할 줄 모르고, 만우주를 사랑할 줄 모르면 전부 다 낙제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전체 우주를 축소시킨 수련소와 같은 공식 과정의 사랑을 체험해 가지고 확산시켜 세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훈련장으로 이어받은 것이 여러분이 자란,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들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느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려거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42-242, 1986.3.11) p.438

Top 처음으로 5) 으로 p.438

4) 가정은 천국의 모형 교과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운세를 받아야 되느냐? 조부모와 부모의 운세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조부모는 왜 필요하냐? 과거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는 과거의 산 역사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현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거기엔 동서도 들어가 있고, 남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중심입니다. 조부모의 중심, 부모의 중심, 자녀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이 모든 게 참사랑을 중심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과거를 전부 다 이어받고 과거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는 현재를 배우는 것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미래를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어받느냐? 참사랑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는 많지만 두 분이 참된 사랑에 하나되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되어 있으니 우리들도 저와 같이 되어서 미래를 이어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참가정이 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 셋을 볼 때, 그것은 우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사랑은 현재와 미래를 대표한 참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동물세계를 보더라도 암놈을 사랑하고 숫놈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우주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불안정합니다. 할아버지가 없어도 불안정하고, 어느 쪽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조부모,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참조부모를 사랑하고, 참부모를 사랑하고, 참자녀?참가정?참국가?참우주를 사랑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형 교과서가 가정입니다. (162-140, 1987.4.5) p.439

가정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교재입니다. 하늘이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세계에 있는 할아버지 연령의 사람을 전부 자기 할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부모 연령과 같은 사람을 자기 부모와 같이 사랑하면 어디를 가도 통합니다. 만국공통입니다. 영계에 가도 경계선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젊은 사람을 자기 아들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열두 진주문이 있고 방향이 있어도 천국 어디든지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과 인연맺게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그걸 나라에 적용하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요, 세계에 적용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요, 하늘땅을 중심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딸,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137-78, 1985.12.18) p.43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오색 인종의 아들딸을 품고 그 손자손녀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부모로서 세계인을 사랑하는 가정의 주인이 됐다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본연의 부모의 인연 가운데서 참사랑의 가정기준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6-210, 1988.5.9) p.440

Top 6) 으로 p.440

5) 가정은 3 시대의 사랑이 결집된 핵심체

역사를 품고, 시대를 품고, 미래를 품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 천년을 거쳐오면서 찾아온 최후의 기점은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사랑이 연결된, 사랑으로 전부 다 결속된 가정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다 여기에 주관을 받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해와에게 준 본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아담, 여자 해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한 새로운 가정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세우신 제 일차적인 출발의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찾아 가정권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 세상에서 충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천국도 무사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30-86, 1970.3.17) p.440

사랑의 가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요, 부부는 시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는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시대에서 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일치하여 천주를 대표해서 우리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고,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를 따르라고 할 수 있고, 내심으로나 외심으로 주장할 수 있는 마음의 본향, 천정이 통하는 그곳은 천지에 기억될 것입니다. (30-80, 1970.3.17) p.440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찾아오셨느냐? 주체를 찾아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았고, 당신이 지은 세계의 안팎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이런 결과적인 하나의 기점이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가정보다 우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되는 것은 역사와 현실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부모를 사랑하므로 과거를 사랑할 수 있고, 상대를 사랑하므로 현실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하므로 미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3 시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가지 사랑이 결집된 핵심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30-80, 1970.3.17) p.440

그러면 천국생활은 어디서부터냐? 가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정을 입체적으로 확대시킨 것 뿐이지, 가정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품을 때에는 이것은 세계의 남성과 여성이 하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역사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존재와 시대적인 나를 연결시키는 것, 즉 과거와 현재를 하나 만드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중심삼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현실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천년만년 찬양하게 하려는 사상이 통일사상입니다. (30-83, 1970.3.17) p.441

Top 7) 으로 p.441

6) 가정은 심정적인 훈련장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는 심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혹은 세계적인 모든 권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심정적인 기쁨을 표시 할 곳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이나 각료들, 혹은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정적인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느껴야 합니다. 가정에 돌아와 가지고 부부가 서로를 통하여 기쁨을 느끼고, 또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제 1차적인 기쁨이지 2차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를 전부 복귀했다 하더라도 가정이 없는 하나님은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86, 1969.9.30) p.441

가정에서는 부모를 중심삼아야 하고, 사회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선생을 중심삼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를 젖 먹여서 키우고, 즉 생리적인 발전을 돕고 이래서 정서적인 면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뭐냐? 사회적인 생활, 앞날의 생활무대를 중심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서적인 훈련장이라면 학교는 사회에 있어서의 실험적인 훈련장입니다.

사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 가서 귀결되느냐? 나라에 귀결됩니다. 나라에는 나랏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가정으로부터 사회까지 모든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더 큰 데로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하게 되면 소생 장성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 단계의 열매입니다. 씨가 뿌리에서부터 시작해 순환작용을 해서 갈라집니다. 갈라져 여기서 종합해 가지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나라를 위한 귀중한 동량, 인재를 양성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뭐냐?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훈련장소, 실험장입니다. 훈련은 실전이 아니라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뭐냐? 심정적인 훈련장소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심정적으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을 가지고 형제와 같이 학교에서 살아야 되고, 정을 가지고 나라에서도 형제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런 교육은 학교를 위한 교육이요, 사회를 위한 교육이요, 나라를 위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정서적인 모든 것을 자식들 앞에 전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산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서적 바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180-130, 1988.3.22) p.442

여러분이 가정을 두고 볼 때, 집이 좋고 그 주위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집이 초라하더라도 그것을 안식처로 삼고, 거기에 자기의 사연과 생애와 생활의 모든 기준을 인연맺고자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위해 주는 심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억의 본향이요, 모든 생활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29-17, 1970.2.15) p.442

Top 8) 으로 p.442

7) 인간의 영원한 본향은 가정

가정, 가정은 좋은 곳입니다. 왜 좋으냐? 엄마 아빠가 있어서 좋은 곳이며, 누나 오빠가 있어서 좋은 곳이며, 동생이 있어서 좋은 곳이며, 친척이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향 땅,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보다도 고향을 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리워하는 곳은 고향입니다. 대한민국을 좋아하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하면서 또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리워하는 곳은 어디냐? 고향입니다. 고향. 고향입니다.

고향은 어떤 곳이냐? 내 심정을 사방으로, 입체적으로 몽땅 끌어올려 놓는 곳입니다. 그 심정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얽어매는 것입니다. 위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얽어매고, 좌우로는 부부의 인연이 얽어매고, 아래로는 아들딸, 친척이 입체적인 사랑으로 꽁꽁 얽어매고 있는 곳이 본향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은 사랑을 중심삼은 행복의 기점을 최고로 바라보기 때문에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향은 어디일 것이냐? 이 지구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향 땅은 어디일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땅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점을 반드시 마련하였을 것인데, 그 기점이 어디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 나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마련할 수 있는 본향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 것이냐? 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아는 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아들, 독생자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러한 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딸이 결혼을 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곳입니다. (23-151, 1969.5.18) p.443

그러면 그 본향 땅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계셔야 되고,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는 같이 살고 싶은데, 일순간만 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잠깐 만나 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들을 만나 보고 그들과 같이 사는데는 영원히 영원히 같이 살더라도 싫증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오늘날 종교에서 지향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23-81, 1969.5.11) p.443

오늘날 우리가 본향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고향에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어서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고, 또한 내가 언제 어느 때 찾아가더라도 나를 옛날과 같이 맞아 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사정을 동정하며 위로해 주고 나를 기쁘게 맞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본향이 그립고 좋아서 찾아가더라도 간절히 사모하던 당시의 심정은 없어지고 도리어 탄식의 조건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향 땅에는 반드시 맞아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3-80, 1969.5.11) p.443

Top 다음 장으로 p.443

8) 가정은 천주주의를 완결시키는 최종기준

모든 것은 하나에서 많은 것으로 갈라져 가지고 결국 하나의 큰 것으로 종합됩니다. 곧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갈라져 가지고 보다 더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정이 있는데 형태는 통합되기 전과 같습니다. 가정은 부부를 이룬 곳이요, 그 부부를 하나로 만드는 곳입니다. 종족은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곳이요, 민족은 씨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곳입니다.

민족들이 합해서 하나의 국가 앞에 전부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가정이 중심이 됩니다. 이 가정을 전개시키면 횡적인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정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복귀할 수 없으면 세계를 복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정을 중심으로 천주주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천주는 하늘땅을 총합한 것입니다. 하늘땅은 인간에 있어서 몸과 마음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주체가 있으면 하나의 상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의 남자에게는 하나의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하나의 가정을 중심삼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26-189, 1969.10.25) p.444

천주주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합한 후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되는 가정을 이루어 그 이념을 영계와 육계에 연결시키는 주의입니다. 천주의 주자는 집 주(宙)자입니다. 집 주. 그래서 천주주의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천주는 무형세계와 실체세계를 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되지 못하고서는 천주주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이 천주주의를 완결시키는 최종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행복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나 영계에 가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6-189, 1969.10.25) p.444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주의냐? 가정주의입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천주주의(天宙主義)는 하늘 천(天)자에 집 주(宙)자, 즉 하늘집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천주라는 뜻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 권은 전부 다 이상적인 가정을 소원한 말씀입니다. 또 만민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상적인 아내를 전부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로 태어나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이상적인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서 세계에 큰소리를 친다 해도 그의 소원은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서 복스러운 아들딸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뿌리입니다. 통일교회의 이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도 가정이요, 결론도 가정입니다. (26-103, 1969.10.18) p.444

그러면 천주주의는 어떤 주의냐? 참부모주의입니다. 결국 이 두 주의는 부모의 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집 주의요, 우리나라 주의요, 여러분 개인의 주의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세계는 누구의 주의가 되느냐? 아담의 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 아담주의가 바로 참부모주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다른 주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심정적인 문제를 이 본연의 이상적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참부모라는 이념을 중심삼고 하늘주의와 결부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이념으로 제도화된 가정의 인연이 남아 있는 한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502) p.444

Top 다음 장으로 p.444

제 4 장

사랑을 중심한 인생행로

1)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할 때 서로 먼저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존재 기원에 앞서서 사랑의 유통이 없어서는 존재가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62)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부턴가를 보게 되면,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가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이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먼저 된 것 앞에 다음 되는 것은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수습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참되게 살 길이 어디냐가 나옵니다. 인생이 사랑에서 태어났으니 사랑의 길을 가야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이 공인하고, 천사세계가 공인하고, 만물이, 더 나아가 우리 부모가 공인할 수 있는 대우주의 가운데로 나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기가 희망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희망에 의해서 태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난 것이 '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전체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사랑 모두를 받아 전우주의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나'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사랑에 의해서 키워지고, 사랑에 의해서 살고, 또 사랑을 남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가정에서 우주의 중심인 사랑의 명을 다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지식이나 권력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또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것이냐?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난 것입니다. 돈을 세거나 지식을 추구하는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 가운데 태어났으니 사랑으로써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되어 아들딸이라는 상대가 있을 때 완전한 것입니다. 인간 자신도 사랑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는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도 그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존재가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할진대, 피조세계의 중심존재인 인간은 더더욱 사랑으로 출발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 의하여 완숙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62) p.446

Top 다음으로 p.444

2) 사랑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삶

인간 존재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원인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존재의 목적은 사랑의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을 원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니, 사랑의 기대를 이루어서 확장시키고 연결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출발이 사랑이니 목적도 사랑으로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되어 전후 좌우 상하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대적인 존재를 확정하고, 아무리 절대적인 목적을 확립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고 생활하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생활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했다 할 때 거기에는 존재 그 자체 이상의 새로운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를 중심삼고 볼 때에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행복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주관할 주체적인 사랑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게 될 때에는 또다시 새로운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목적의 한계점이 사랑보다 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일하기 위해서, 또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겠느냐 말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 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64) p.447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 가운데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떠나 상대의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소생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부부의 사랑을 장성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사랑의 완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거치는 과정이 인생살이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 이상의 근본 길입니다. (48-12, 1971.8.31) p.447

[텍스트 입력]

생명은 사랑에서부터 태어납니다. 사랑에서부터 태어나 가지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다가 사랑으로 성장해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또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죽어가니,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본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우주의 근본 자리는 사랑을 중심삼고 종합적으로, 종횡으로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기준이 됨으로써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결합할 수 있는 근본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는 온 우주가 집중하는 자리가 되며, 온 우주 세포의 방향이 집중하는 자리가 됩니다. 영계의 모든 신(神)들이 전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파괴당하면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가 필요한 것인데, 그 형태가 통일교회의 용어로서 사위기대(四位基臺)라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66) p.447

Top 다음으로 p.447

3)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요소는 사랑

인간은 태아로 있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공급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도 우주(자연)로부터 물질적인 영양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생명의 본질적 요소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태양빛을 생명의 요소로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에게는 사랑이 생명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사랑과 더불어 흠모하면서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이나 천상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사랑으로 태어났으며, 태어나서는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쯤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며, 형제간의 사랑과 종족의 사랑을 중심하고 횡적인 사랑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천지간의 모든 사랑을 받으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P.448

특히 사춘기 때에 접어들면 이성간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데, 이성간의 사랑을 함으로써 종합적인 사랑권에 진입하게 되어 비로소 사랑의 센터를 찾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가는 길은 사랑 때문에 있으며, 사랑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환경권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화장을 하거나 맛사지를 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모두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고귀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가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66) p.448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부모가 생존해 있는 한 소년시대 · 청년시대 · 장년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 성장(成長)하게 되면 횡적인 부부(夫婦)의 사랑이 각자에게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결혼이 뭐겠습니까? 남자는 여자에 대해 몰랐던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요, 여자는 남자에 대해 몰랐던 것을 배우기 위한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점이 A 플러스가 되어야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할 것입니다. 아들딸을 낳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딸이 없으면 미래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의 재료로 아들딸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효도하는 것은 영계로부터의 교육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남편과 아내, 아들딸이 한 사랑을 중심으로 전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인체의 혈관같이 영계의 천만 대 조상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고, 먼 후손까지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영계의 조직이요, 우주의 조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사랑의 종이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66) p.448

Top 다음으로 p.448

4)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무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따스한 봄날에 하늘에는 흰구름이 두둥실 떠있고, 땅에는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벌레가 나돌고, 개미들도 세상 구경하겠다고 발랑발랑 기어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졸졸졸 흐르는 개울가에는 버들강아지가 움트고, 개구리가 봄날의 새노래를 부르고, 떼를 지어 날아드는 벌나비를 반기는 그런 환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에 취해서 잠이 드는 것 같은데 잠은 들지 않고 기분 좋아서 영원히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상상대(理想相對)를 중심삼고 느끼는 기분은 나비가 날고 벌이 날아드는 꽃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 둔한 남자들은 그것을 모를 겁니다. 기분 좋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손을 꽉 쥐고 악수를 합니다. 악수할 때 반갑다고 '아하, 이거 오래간만이군' 하면서 손을 꽉 잡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라, 이자식아'하면서 발로 차버리라는 것입니다. 반가우면 손을 꽉 쥐어요, 안 쥐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싶은 것이지 좋아하기는 뭘 좋아해요? 알아야 좋아하는 것이지 모르면서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렇게 좋아하며 잡으면 손을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가씨들, 시집가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면 기분이 어떨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람은 솔직해야 합니다. 사랑해 준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남편 옆에 딱 붙어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남자가 소 앞발 같은 손으로 여자 손을 꽉 잡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를 보아도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아이구, 당신 손은 참으로 곱소' 하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커플(Couple;한쌍)을 이루어 사랑을 하면 딱 맞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이상의 심정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지간에 사랑하게 되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맛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그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떠한 슬픔도 그를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해방의 권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68)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3 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입니다. 이 3 대 사랑이 하나로 일치되는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3-278, 1975.11.23) p.449

Top 다음으로 p.449

5) 사랑과 기쁨의 상속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영광의 새아침은 육(體)을 쓸 수 있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부부)을 갖는 때이고, 그 다음에는 손자를 사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들딸보다 손자를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더 영광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놓고 얼마나 좋았더냐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좋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지만,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가 생기게 되면 부모의 사랑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울 때 사랑했구나 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배우자를 얻는 날이 영광의 날이고, 그 다음엔 그 아들이 자녀를 보는 날이 영광의 날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36) p.450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모실 줄 알아야 하며 남편의 사랑을 알고 남편을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의 사랑을 알고 자식을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셔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가지고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또 남편이 못 되어 보고서는 아내를 알 수 없고, 아내가 못 되어 보고는 남편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될 때까지는 부모의 사랑이 어떤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딸 없으면 참된 부모가 못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37) p.450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원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모두 상속해 주고 싶고 전수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는 죽어 가면서 후손에게 그 실체를 남겨 놓습니다. 그러므로 후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최고 원망(願望)이므로 만민이 쌍수를 들고 상속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을 남겨 놓음으로써 영계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완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곧 사랑의 일체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리 원칙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자기 내심에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재봉춘하게 되면 또다시 이것이 심어질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 여러분과 같은 아들딸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을 여러분과 같이 키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딸이 없으면 왜 섭섭합니까. 그것은 서클라인(circleline)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면, 어미의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서양인들은 모르겠지만 동양에서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어른들을 향해서는 깍듯이 공경하지만 아들딸들에게는 지극한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들딸을 낳고 길러 봄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결혼을 한 후에 자녀들을 낳고 길러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딸을 낳고 기르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들딸이 자신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식 갖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서 사위기대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심정을 알지 못하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37) p.451

Top 다음으로 p.451

6) 사랑의 센터를 찾아가는 인생행로

인간은 사랑으로 낳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크다가 횡적으로 사랑을 넓혀가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횡적인 사랑은 이성의 상대를 만나 일 단계 완성하게 되는데, 천지의 사랑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면, 그 열매로 자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핵심적 심정의 자리에서 생겨난 사랑의 결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심정적 사랑을 주고 받을 때 태어난 아들은 사랑의 핵심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그 센터로 통해서 가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나아가 인간을 창조하셨던 사랑을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받았던 사랑을 자식을 사랑해 봄으로써 부모의 심정을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 나온 사랑은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역사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여 오셨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되고,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늙은 부모에 대해 더욱 공경하고 사랑으로 효도의 도리를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의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도 위선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여 왔는가를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다 진실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늙은 부모를 더욱 사랑해야 하고, 늙은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랑의 질서이고 법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사랑으로 태어났으며, 태어나서는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쯤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며, 형제간의 사랑과 종족의 사랑을 중심하고 횡적인 사랑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천주간의 모든 사랑을 받으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 때에 접어들면 이성간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데, 이성간의 사랑을 함으로써 종합적인 사랑권에 진입하게 되어 비로소 사랑의 센터를 찾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구형세계이기에 횡적인 사랑을 주고 받아 돌면서 원형을 일차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성을 상대자로 택해서 사랑을 주고 받을 때, 결실을 보게 되어 자식을 갖게 되고 부모가 되는데, 이때 서로가 상호간에 사랑을 주고 받아 돌게 되면, 횡적인 사랑에 이어 종적인 사랑도 이루게 되어, 구형세계를 이룸과 동시에 사랑의 센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사랑의 센터는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의 핵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 이 사랑의 센터를 중심하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센터는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모인 곳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구형을 통해서 생겨나는 센터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창조되고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센터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용광로이신 것입니다. (126-243, 1983.4.24) p.452

Top 다음으로 p.452

7) 3 시대를 가는 인생노정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 일정기간을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10 개월을 보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어린 태아의 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양을 탯줄로 이어받고 자라면서 두 손가락을 폈다 움츠리거나 입을 벌렸다 오무렸다, 두 발로 버둥대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태아는 어머니 뱃속이 자유천지이며 생의 전 영역일 것입니다. 그 태아가 10 개월 만에 세상에 태어나 자라게 되는데, 그 이후의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지상세계이며 인간 사회인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천국-1071) p.452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모의 사랑에 뿌리를 박고 복중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의 품인 복중에서 자라다가 20 세까지 철모르고 부모로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다 탓하지 않고 추한 것을 추한 것인 줄 모르고 다 기쁨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랑 가운데서 자라다가, 사랑의 상대자를 만나서 서로 위하는 천리의 사랑에 접붙여야 합니다. 그런 일생 과정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실체권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143-285, 1986.3.20) p.453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우주를 태아적 어머니의 뱃속에 비유되는 삶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 어머니 품속에서 인간 백 년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 밖의 인간 세상을 몰랐듯이 오늘 지상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죽음 이후의 무형 실체 세계에 대한 실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짐작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 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실재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사후세계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심증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사후세계에 대한 심증적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세계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오관 작용 밖에 있기에 종교를 통한 믿음으로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7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에게는 3 시대가 있습니다. 동물계에도 수중시대가 있고, 육지시대가 있고, 공중시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3 시대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사람도 수중시대가 있어서 어떤 존재보다도 완전한 생활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육지시대가 있어서 어떤 동물보다도 최고의 자격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그 다음엔 공중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 날아 다니는 어떠한 새보다도, 어떠한 곤충보다도 높이 날 수 있고 멀리도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것은 실체인 육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암만 뛰어봐야 얼마 못 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관권이라든가 상대적 자리에 서려면 그 활동무대가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기나 빛으로 말하자면, 빛의 속도는 1 초 동안에 30 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빠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인체입니다. (112-202, 1981.4.12) p.453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 영계입니다. 영계란 사랑의 공기가 충만한 영원한 세계입니다. 때문에 일생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40-121, 1986.2.9) p.453

Top 다음으로 p.453

8) 지상생활은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한 훈련장소

본인은 영계의 체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영계는 사랑의 성분으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지구는 공기로 뒤덮여 있지만 영계는 사랑으로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가스를 뿜어내지만 영계는 사랑을 마시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는 오늘날 인간의 속된 사랑을 중심삼고 주고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가보면 그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부모 · 형제 자매 · 부부 · 자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가진 자, 즉 가정생활에서 깊은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디든지 아무 제한없이 어느 방향으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속이 좁고, 영계에서도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고,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간의 사랑은 종적인 관계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횡적인 관계이고, 형제 자매간의 사랑은 선회하며 에워싸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 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깊은 사랑의 경험을 가져야만 제한없이 종적, 횡적, 원으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일찍 돌아감으로 인해 부모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랑의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다소 비극적인 사람이며, 같은 식으로 가정생활, 즉 부부관계를 경험 못 한 자는 생의 중요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매우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은 모든 분야의 결핍으로 완전한 생을 살 수 없으므로 영계에서 초라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결혼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한 사랑의 공기가 충만한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못 느끼고 가는 사람은 저나라에 가서 박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67) p.454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 어머니 뱃속을 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부모를 통하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참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통과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은 참된 부모를 만나러 가는 환희의 시간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거기에는 참된 부모의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을 천상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구성요소는 사랑이며, 그곳은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원칙 아래 일방적인 법도를 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상생활은 그러한 사랑을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72) p.454
)

이 땅 위에 있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인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상생활을 영생에 비유하면 이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의 때에 육신생활을 넘어 영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7-99, 1990.11.1) p.455

Top 다음으로 p.455

제 5 장

창조 본연의 남녀사랑

1) 창조 본연의 남녀사랑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려던 뜻과 일치하느냐,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했던 그 기준에 일치하느냐가 문제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델적인 사랑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최초의 남자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됐다면, 그것은 사랑을 중심삼은 우주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인간 앞에 그러한 사랑을 원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대에게 그러한 사랑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참사랑은 우주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터법과 같은 하나의 표준형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35) p.456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된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36)

이성성상의 모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의 존엄한 가치를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더더욱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자가 있고, 그의 대상인 여자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자가 있어서 함께 기리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며, 온갖 만물도 서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포옹하는 기쁨의 내용이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가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여 포옹하는 그것 자체가 우주가 일체를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 본연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원래 남자는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여자를 맞이하고, 여자 역시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남자를 맞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만물이 기뻐하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이 그 부부를 위해 동원되고 그들에 의해 주관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새들은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나비는 기뻐하며 나풀나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며, 온갖 만물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이루어 인간 조상이 역사를 출발시켰더라면 그야말로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36) p.457

Top 이전으로 다음으로 p.457

2)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이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래 남자가 태어난 본뜻이 어디에 있느냐!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여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천지 창조의 대주재이신 하나님이 창조의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라가지 않고는 선하고, 참되고,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세계 혹은 사랑과 이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려고 태어났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려고 태어났지요? 이것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축복권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최고의 진리권을 이탈하는 것은 최고의 악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38) p.457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전부 다 반대입니다. 여자들은 일방적인 데 비하여 남자들은 삼방 사방적입니다. 또, 여자들은 집 안에만 있지만 남자들은 이리저리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이와 같이 성격이 전부 다 반대입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남성과 상대적인 여성이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남자가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학문이나 돈,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에 남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골격이 여자보다 큰 것은 자기만 벌어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아내를 벌어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남자가 갖고 있는 기관과 여자가 갖고 있는 기관은 서로 틀립니다. 그것을 누구 때문에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것은 여자 때문에 생겨났으므로 여자의 것입니다. 여자의 것은 물론 역으로 남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웃음 ….)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상징이 무엇이냐? 사랑의 종착지점이 어디냐? 남녀를 한몸으로 이루게 하는 성기관(性器官)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의 것이 아니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의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의 것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남자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자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상대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지구상에 태어났느냐?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대왕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기관을 서로 바꿔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것이라고 해서 그 주인이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남겨 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은 사랑을 위반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법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 아내를 두고 감히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부인들은 남편을 놔두고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0) p.458

Top 이전으로 다음으로 p.456

3) 남자와 여자는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사랑에 절대 필요한 요소는 인간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대한민국보다도, 세계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없으면 백 년 이내에 인류는 전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무리 천하를 통일했다고 으스대더라도 여자가 없다면 백 년 이내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절대 필요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0) p.458

'사람' 하게 되면 남자, 여자를 말하게 됩니다. 한 남자를 두고 보면 여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여자를 두고 봐도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 스스로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그 남자 앞에 필요한 그 여자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 남자가 됐고 여자가 된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날 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가지고 보니 남자 혼자라면 기분이 나쁠 것 아니예요? 또, 여자로 태어나고 보니 여자 혼자라면 기분 나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자가 태어날 때 남자가 있는 것을 알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났어요? 나는 비록 모르고 태어났지만, 나를 낳아 준 분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남자로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 알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0) p.458

남자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필요로 하기 전에 여자란 상대적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가 불행했던 것은 남자들이 절대 필요의 존재로서 여자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남자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참사랑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상권을 가져야 하는데,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참사랑을 위한 절대적 남자와 여자는 일심노력에 의하여 맺어지며, 절대적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맺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두 사람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적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영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절대적 존재도 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미남이고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여자 없이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모나 건강에 취해서 사는 남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흉물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남자가 세상에 많다는 것이 문제이고, 역사가 비극으로 흘러 온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돌아가는 세상을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1) p.459

Top 다음으로 p.459

4) 사랑은 상대로부터 온다

사랑은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상대를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살라'고 하는 천리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고귀한 것이 나에게로 찾아오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높이고 위해야 한다는 '위하는 철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것은 자기 혼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자 앞에 상대가 되는 여자가 나타나야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가 나타나야 비로소 사랑이 생겨납니다.

부모의 사랑이 좋고 부부의 사랑이 좋다 할 때, 진짜 사랑은 자기를 중심삼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요, 아들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상대가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천국-342) p.459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상대로부터 나타납니다. 상대가 못생기고 미우면 사랑도 후퇴하려고 하고, 상대가 곱고 좋으면 사랑의 작용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상대의 말(言語), 아름다움(美), 냄새, 맛 등 상대의 요소에 따라 사랑의 작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랑의 근거지는 어디냐? 사랑의 근거지는 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명사는 상대적 관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게 될 때는 제아무리 미남자라도 혼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랑의 근거지는 내가 아닙니다. '사랑은 나로부터다' 하는 것은 사탄이 지금까지 이용한 말입니다. 사랑의 근거지는 내가 아닙니다. 사랑의 근거지가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전부 다 뜯어고치지 않고는 미래의 역사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가 중심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중심이라고 해 가지고 서로가 위하라 하니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지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 사랑 앞에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극복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 사탄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천지간에 딴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랑의 원칙을 따라 가지고만 찾을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비라는 말도 사랑이 없이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인(仁)이라는 말도 혼자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비나 인이라는 말도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3) p.460

Top 다음으로 p.460

5) 이성간에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릅니다. 남자의 근육은 울퉁불퉁하고 여자는 미끈합니다. 남자는 수염이 나는데 여자는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다릅니다. 남녀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인 것이 어울립니다. 조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육적 구조를 볼 때 좌우로 상대적입니다. 반반을 딱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기만 하거나 낮기만 한 것이 좋습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선을 중심으로 아래는 어류가 살고, 위에는 포유류, 조류 등이 살고 있습니다.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합니다. 달을 중심삼고 조수가 바뀌는 것 같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작용과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어 평형선(平衡線)을 이루어야 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도는 각종 시설이 구비된 디즈니랜드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느냐 하면, 우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남자끼리 화동(和動)하는 것과 남자와 여자가 화동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화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화동하기 때문에 박자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4) p.460

이성간에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원형운동을 이루게 됩니다. 이성이 사랑으로 일체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내려오고 인간은 올라가게 되어 중앙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형의 구심점이 되어 구형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심점에서는 사방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심점은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생명이 태동하는 자리이며, 평등주의와 공동주의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작용과 포용하는 힘은 사랑인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5) p.461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지면 지상에서 백년해로를 해야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둘이지만 하나되어 돌아감으로써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몸이 하나되면, 하나님과 같이 돌게 되어 사랑의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니,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이상세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 사랑이 침범할 수 없으며, 오직 참사랑만이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아 완성된 자리를 이루면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게 됩니다.

사랑의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면 상대편을 몸을 통하여 마음까지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사랑하게 되면 몸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6) p.461

Top 다음으로 p.461

6) 참사랑에 취한 본연의 인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참사랑의 길이며, 참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보고 듣고 먹고 만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입맞춤을 받았다면 내부가 폭발할 것 같은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기쁘다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81) p.461

인간의 일신을 본다면 인체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감의 인식에 의하여 참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참사랑을 향해 있다면, 그 눈은 참사랑에 물들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한 눈동자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겠습니까? 참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미소짓는 입술은 얼마나 황홀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오감이 참사랑에 취해 움직이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오감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아름다움을 통한 기쁨을 하나님 혼자서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은 상대가 있어야 체험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참사랑에 취한 눈동자를 매만져 보고 싶고, 입술에 입맞춤하고 싶으며, 마음의 선율을 한 번 켜 보고 싶은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참사랑의 해와가 있다면 해와의 심정세계를 한 번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아름다운 해와의 심정세계, 심정권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내용을 소유한 아담과 해와의 심정세계를 여행하시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인간에 대하여 우주를 여행하는 것 이상으로 그 심정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 확실하며, 참사랑의 아담과 해와의 심정세계를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후 인간의 참사랑에 빠져 사랑의 미아가 되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것이니,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되어 만들어낸 세계는 기쁨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세계일 것이 분명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82) p.462

참사랑이 완성됐다면 감응의 하나님께서는 그 참사랑에 홀딱 빠져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참사랑 가운데서라면 어떤 일이 생겨나도 마냥 좋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사랑의 세계에서 인류가 산다고 한다면 일생동안 후회 없는 행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전쟁의 역사도 없을 것이며, 불만이나 불행이 없는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83) p.462

Top 다음으로 p.462

7) 사랑은 극히 자연스러운 데서 이루어진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새를 한 쌍 잡아다가 둘의 부리를 입맞추는 놀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둘이 입맞추는 것을 보기 위해 울타리를 마련하고 먹이도 주면서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보고싶은 어린 마음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연의 이치를 밝히 알기 위한 하나의 호기심어린 실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냥 짓궂기만 한 행동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랜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런 가운데, 최고의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기는 오랜 실험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3) p.462

사랑의 가치를 잃은 사람을 대학교육을 시킨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지식을 쌓을 뿐이고, 개인주의자가 될 것이고, 물질주의 신앙자만 만들어 낼 뿐인 것입니다.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담아야 제 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수양도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문명의 꽃은 미술적 조화를 갖춘 바탕 위에 꽃피워야 합니다. 구운 갈비는 접시에 담아야 하고, 된장국은 뚝배기에 담아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텁텁하고 구수한 된장국 맛은 한 번 맛들이면 어디 가나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구수하면서 텁텁한 맛 같은 사랑에 한 번 맛들이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기만 한 인스턴트 식품은 금방 싫증을 느끼는 것처럼, 사랑도 인스턴트 식품처럼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향수탕에 들어가 목욕한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에 살면서 냉수에 몸담가 씻어내고 잠자리에 드는 부부의 사랑이 더욱 순수하고 오래가며 깊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부가 키스를 하기 위해서 이를 닦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며, 치약냄새 때문에 그 사람만이 갖는 고유한 체취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닦고 키스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의 맛을 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치약냄새를 맛보기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4) p.463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포옹하고 싶고 입맞춤도 하고 싶은 것은 자연적인 이성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내가 환경과 접하고 있는 것은, 이 우주를 좋아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찾아 세우기 위한 인간의 자연스런 행위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상대적 이념 아래서 남자는 여자를 대하고, 여자는 남자를 대할 때 여기에는 사랑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나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질서는 상대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5) p.463

Top 다음으로 p.464

제 6 장

사춘기의 변화와 참된 결혼

1) 결혼의 의의

결혼은 행복한 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의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륜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것이며, 결혼은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왜 결혼식을 축복받는다고 하느냐? 우리 원리를 두고 볼 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였더라면 축복의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실체대상(實體對象)으로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그들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랑의 주체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상적인 입장의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터전으로서 개성을 완성하여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성은 결국 결혼을 말하는 것이요,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 세상에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하나님적 사랑으로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관계가 형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을 이루려면 남자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해와가 비로소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6) p.4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지간의 모든 이치가 주체와 대상으로 이루어졌듯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천지간의 이치인 것입니다. 남자가 오른쪽이라면 여자가 왼쪽이 되므로 우주간의 횡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함이요, 남자가 주체라면 여자가 그의 대상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종적인 상하관계를 이루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남자만을 위함도 아니요, 또 여자만을 위함도 아닌 천리의 법도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리의 법도를 맞출 수 있도록 생겨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외로울 때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상대적 위치에서 주고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결혼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늘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땅 위에 만든 것은 평면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횡적으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조성하여 횡적으로 하나되게 될 때는 주체되는 하나님과 둘이서 하나된 사랑이 종적인 사랑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7) p.465

Top 다음으로 p.465

2) 결혼은 왜 하는가

남자는 여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둘이 합하여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혼자는 그 사랑에 접하지 못합니다. 혼자 접하더라도 그것은 일방적입니다. 입체적이고 구형적인 사랑에 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보다 높은 차원의 입체적인 사랑권 내에 점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 남자 여자가 하나되면 될수록 그 힘의 작용에 있어서는 위대한 중심이 생겨나 구형이 되는 것입니다. 횡적으로 연결되면 될수록 종적인 힘의 사랑의 모체가 연결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9) p.465

결혼은 왜 하는 것이냐? 천국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 가려면 결혼하지 않으면 못 가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자격이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닮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내 말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계를 대해서 '인류야! 너는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같이 내가 인류를 사랑해 가지고 데려간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편의 사람이요, 천국 갈 수 있는 후보자다 하는 결론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결혼할 자격이 된다 그말입니다. 자! 결혼을 왜 한다구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남자 앞에 있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요, 인류의 딸인 것을 남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서 사랑할 수 있으면 남편될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그 반대입니다. '저건 내 남자야'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남자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남성을 대표한 남자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사랑하는 이상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로서의 오른발이 되고 여자로서의 왼발이 돼 가지고 인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발자국을 가정을 통해서 옮겨 놓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마음의 세계를 일치시키자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것은 그러한 증거를 보이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과 마음의 완성을 이루었다면 가정의 이상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이것을 이루었다면 틀림없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60) p.46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다음으로 p.466

3) 참된 결혼관

본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된 아담과 해와가 종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어 신랑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기쁠 수 있는 대상권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적 사랑에 의한 가정이 형성되었다면, 그것이 본래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고 이루었을 완성권이었습니다.

그 완성권에 나타난 아담과 해와가 되었더라면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복 중에서 제일 귀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창조의 권한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던 것같이 창조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녀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위업을 횡적으로 실체권에서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그 기쁨을 대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것과 같이 만물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횡적인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관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질서적인 단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상적인 천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고 재창조의 권한과 주관권을 완성권에 서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란 것은 사랑의 현현을 말함과 동시에 창조권과 주관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6) p.466

우리 결혼관은 우주 방석을…. 우주 방석 알아요? 우주에서 제일 좋은 비단이 뭔가? 양단인가? 양단 이불 포대기를 펴 놓고 신혼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우주 양단 이불을 펴 놓고 그 가운데서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소유권을 내 일대에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 당대에 소유가 오나니 여자라는 동물의 소유가 결정된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우주의 반이다! 이놈을 잡아채는 날에는 내 꽁무니에 우주가 달려온다. 생각해 봐요. 또 여자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남자한테 붙어 가지고 절반(180 도)과 절반이 합해 가지고 둘이 우주의 가치에 대등한 작용권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통일교회 사상이 멋지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신조를 가져야 합니다. 결혼할 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얻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알았다면, 결혼을 할 때에도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인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인 결혼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상대를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인류같이 사랑하고, 이 세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관념이 서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복귀되지 못합니다. 한 남성으로서 한 여성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과 인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누구 때문에 하느냐 하면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인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세계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 남자는 세계를 대표한 남자이고, 여자는 세계를 대표한 여자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63) p.467

Top 다음으로 p.467

4) 사춘기란 어떤 때인가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는 천하의 왕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삼고 뒤집어 가지고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이렇듯 사춘기 시대는 반박하는 시대이기에 자기를 몰라주면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중심삼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 해도 신난다는 것입니다.

20 세 전후 되는 아가씨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괜히 '히히히히…' 하고 웃습니다.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에서 홍시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하하하 웃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것은 뭔지 모르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최고의 감정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것은 모든 것에 접해 가지고 인연맺을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아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백 퍼센트 하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본성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여쁜 아가씨도 사춘기는 단 한 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꽃 중의 꽃이요, 일생에 가장 귀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살지' 하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건 여자가 아닙니다.

또한 남자들 중에서도 허우대가 멀쩡해 가지고 좋고 좋은 이팔청춘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녀석 있어요? 그런 때에는 반드시 상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생의 가장 귀한 때인 이팔청춘에 상대를 찾아 나서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꽃다운 시기, 꽃이 활짝 핀 청춘시대가 언제냐 하면 사춘기 시대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18 세부터 24 세까지의 7 년 간입니다. 이 7 년 간은 일생에 둘도 없는 꽃다운 사랑의 꽃이 필 시기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꽃다운 이 시절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함박꽃을 알지요? 그 꽃봉오리에 색다른 노란 꽃송이가 있지요? 그것이 몇 꺼풀로 되어 있겠어요? 꽃잎으로 전부 다 꽁꽁 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칠 수 있어요? 쉽게 헤칠 수 없도록 꽁꽁 싸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붉은 사랑, 노란 꽃과 같은 그 사랑의 봉오리, 그 사랑의 봉오리를 어느 때에 활짝 피울 것이냐? 천지의 조화 가운데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그 시기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에도 최고로 피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제일 중심의 절정으로서 반짝이는 기간입니다. 자라면서 제일 꽃다운 시절, 제일 아름다운 시절이 청춘시절입니다.

그 청춘기의 모습이 최고의 꽃봉오리 같은 시기입니다. 그걸 흠뻑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방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안방에 초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은 남자면 남자로서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67) p.468

Top 다음으로 p.468

5)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소년기에는 막연한 꿈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만 바라지만, 사춘기가 되어 신체적으로 생리적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눈동자는 호기심과 아름다움으로 반짝 빛나게 됩니다.

몸도 멋을 부리기 위해 옷을 맵시있게 차려입게 되고 얼굴을 보다 예쁘게 하기 위해 다듬기에 여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입술을 보면 그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도 사춘기에 접어들면 월경이 시작되고,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엉덩이가 커지고,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입술이 붉어지며, 눈동자가 신비스럽게 빛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자들의 변화는 왜,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것이냐? 여자의 신체적 변화는 직행하던 길을 빙글빙글 돌아가기 위한 변화인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변화란 것입니다. 직행하는 길에는 아무런 조화가 없는 것입니다. 직행길은 두 번 왔다갔다 하면 모든 것이 소모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직행길을 왔다갔다하고 나면 환경을 파괴할 뿐이지, 환경의 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의 조화와 보존을 위해서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데는 자기 혼자 돌아갈 수 없으므로 상대를 중심삼고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데는 상대와 부딪쳐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자와 부딪치면 자동적으로 반작용이 일어나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천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상대자와 만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부딪치면 돌아가기 위한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자가 화장을 하고 예쁘게 단장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기보다 상대를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름답게 차려 입은 여자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남자를 보는 눈이 유달리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상대를 찾기 위해, 자신을 다듬고, 가꾸기 때문에 자연적 현상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멋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기 위해 가슴 조이며 쏘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만한 사춘기의 처녀와 총각이 서로 만나 이야기 할때는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뛰죠? 뛰어요, 안 뛰어요? 몰라요? 뛴다고 하면 안 뛴다고 할래요? "뜁니다."

그것 보세요. 흥분하지요? 그리고 흥분하게 되면 심장에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삼지 않고 반대의 입장에 서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누구를 중심삼느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삼은 마음과 심정이 하나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입장에서 한 생애를 지내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중심한 이상과 희망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67) p.469

Top 다음으로 p.469

6) 사춘기의 첫사랑

사춘기에는 사랑을 찾아 몸과 마음이 충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마음의 눈과 몸의 눈이 하나되어 움직입니다. 또 사랑의 코를 가지면 평소에 싫어하던 냄새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사랑의 입을 가지면 평소에 싫어하던 맛까지도 좋아지게 됩니다. 밤을 새우면서까지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만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춘기가 되어 사랑의 감정에 휩싸일 때는 눈이 이상해지고,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사랑의 총을 쏘면 사랑이라는 탄알이 상대의 심장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그런 사랑, 여자의 그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사랑은 소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가졌다면 아무리 추남이라 할지라도 미남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사춘기 시절에 맺은 첫사랑을 남자든 여자든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애인이 있는 여자가 부모의 반대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면 그 여자는 일생동안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처음 사랑을 했던 남자가 설령 코가 찌그러지고 눈이 못생겼다 하더라도 꽃과 같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해 준 남자는 외모로 보나 학벌로 보나 천 사람이면 천 사람이 다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옛날에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사랑하던 남자는 지지리도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의 남자가 좋은 것입니다.

첫사랑은 몽땅 점령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첫사랑은 하나님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해와가 누구하고 사랑했습니까? 천사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면서 사랑해야 하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울면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할 때 해와가 '아이구 좋아라! 선악과를 따 먹으니 참 맛있다, 맛있어' 했겠습니까? 해와가 천사장한테 겁탈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싫어하면서 천사장의 유혹에 끌려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가 기뻐가지고 꽃이 상춘을 바라듯 사랑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포가 사그라지고 심정이 사그라진 자리에서 찡그리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타락하지 않았다면 첫사랑을 누구하고 했겠어요?첫사랑을 하나님과 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한 첫사랑에는 첫사랑이 전부 다 응어리져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중심삼은 부모의 사랑, 첫사랑을 중심삼은 부부의 사랑, 첫사랑을 중심삼은 자녀의 사랑,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뿌리가 딱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몇 천 년의 역사적인 거리를 두고 개인복귀니 가정복귀니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왕창 달라붙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한꺼번에 다 달라붙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74) p.471

Top 다음으로 p.47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7) 결혼의 적기-사랑은 어느 때부터 연결되는가

전지 전능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화려하게 꽃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으니, 그 시기가 청춘시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청춘시대를 중심하고 자신의 행복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동일이상적 인간 세계에 있어 남녀가 화려한 청춘시기에 행복해질 수 있는 관문으로 결혼이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 이상을 거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성장한 후에 축복을 받아 결혼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섭리인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71) p.471

사랑은 어느 때부터 연결되느냐? 사랑의 힘은 언제부터 밀어 주느냐? 남녀도 사춘기를 맞아 모든 기관이 백 퍼센트 완성권에 도달하게 될 때 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화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포화선을 거칩니다. 그러한 후에 정지하던가 더 돌던가 하게 됩니다. 그런 포화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정지합니다. 그러면 포화상태로 들어가기 전단계가 뭐냐 하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 발육에 있어서 모든 기관이 왕성한 시기를 말합니다. 기구로 말하면 공기가 없어 찌부러진 상태에서 공기를 집어넣어 팽팽하게 돼 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터집니다.

그 터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 완성돼 가지고 터지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18 세 쯤 되면 고무풍선같이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터지기 직전 입장에 가서 거기에서 멋지게 영원히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영육이 완전한 일체를 이룰 때는 본연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인간들의 경우도 사춘기 때란 영과 육체의 세포가 화합하는, 평형선상에서 설 수 있는 시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의 영과 육체의 세포들은 모든 문을 열고 반겨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춘기 때는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사랑에 취해서 느끼는 감정은 진짜 요지경이라고 해서 빨리 경험해 보겠다고 달려든다면 그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문은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이고, 문이 열리는 때를 기다려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의 주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당당하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적령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마음과 몸이 가장 왕성한 힘을 가질 때가 결혼 할 수 있는 최적기라 하겠습니다. 청년기를 넘어서면 점차 기운이 쇠퇴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순정을 지녔다고 해도 상대자를 구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69) p.472

그러면 완성한 사람, 즉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있게 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하늘의 공적인 뜻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되어 하나님을 주체로 모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게 될 때, 완성된 아담과 해와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 출발하는 것이 역사적인 출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인생행로의 첫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78) p.472

Top 다음으로 p.472

8) 몸과 마음이 일치된 사랑

여러분, 3 점 알아요? 3 점. 이 3 점이 하나될 수 있는 점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하나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와 하나될 수 있는 자리는 그들의 마음과 몸이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남자는 마음과 몸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마음과 몸은 종과 횡의 작용을 계속함으로써 존재의 힘을 발생시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자 역시 마음과 몸이 종과 횡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존재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종과 횡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마음과 몸의 이상적 관계를 영원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촌부로서 시골에서 김을 매고 농사를 짓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촌부에게 마음과 몸에 부풀어 오르는 사랑의 정열이 타오르게 된다면 마음의 오관(五官)과 육(肉)의 오관이 완전히 합해져서 더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안착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시계추의 진동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한 번 출렁하면 여러분 가슴이 한 번 출렁,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자꾸 돌아갑니다. 갈수록 가중된 힘, 원심력이 작용해서 가정을 사랑해라, 사회를 사랑해라, 국가를 사랑해라, 세계를 사랑해라 하고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된 가운데 사랑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때가 가까워지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우주에 공명되어서 소설가나 시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시나 소설을 쓸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엮어 가는 자질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은 우주 속에서 입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집니다.

그리하여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미소를 짓게 되며, 봄동산에 피어나는 꽃 속에 아름다움을 겨누어 보고 싶어 한 송이의 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왜 사랑을 좋아하느냐? 인간의 몸뚱이는 대략 1억조 개나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언제 전체가 작동을 하느냐 하면 사랑을 할 때인 것입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를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바로 남녀가 사랑을 하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돼 가지고 그리워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면 뼈가 울어댑니다.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암소가 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모든 신경이 그것 하나만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하나된 자리에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게 되면 몸 속에 움직이지 않는 세포가 없습니다.

세포 일체가 본래의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로 집중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를 만나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 폭발하는 힘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을 닮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느끼자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78) p.473

Top 다음으로 p.473

제 7 장

참된 부부의 사랑

1) 창조 본연의 부부관계

하나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성성상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플러스로 분립시킨 것이 남자인 아담이요, 마이너스로 분립시킨 것이 여자인 해와입니다.

1남과 1녀는 무형이신 하나님의 실체대상으로 나타난 아들딸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플러스(+)성품을,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성품을 대신한 실체대상입니다.

창조이념은 양성(兩性)의 중화체(中和體)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상(性相)을 이성(二性)으로 분립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본성상(本性相)을 닮은 모습으로 합성일체화(合成一體化)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일성(一性)을 닮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1남 1녀의 결합은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과 마이너스(－)성품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중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두 사람, 즉 부부는 하나님의 전체를 표상하는 결합체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는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을 대신함으로써 참아버지의 분신이 되고,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 성품을 대신함으로써 참어머니의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대신자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은 천주(天宙)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상봉입니다. 남편은 많은 남성을 대표하여 나타난 존재인즉 남편인 동시에 아버지의 대신이요, 오빠의 대신이며, 아내는 많은 여성을 대표하였은즉 부인인 동시에 또한 어머니를 대신하며, 동시에 누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려 해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양성적 형상이요,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적 형상입니다. 부부는 천하를 한 보자기에 싼 것과 같습니다. 고로 부부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사랑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평행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68) p.474

부부라는 것은 자기 하나에 국한된 부부가 아닙니다. 하늘 땅을 대표한 부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완성이 우주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이 깨지는 날에는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종적인 세계가 다 결딴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여 포옹하는 그것 자체가 우주가 일체를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 본연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인간이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부부가 되어 하나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성성상에 의해 분립된 실체이므로, 분립된 실체가 합성일체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동위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위권이란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된 터 위에 하나님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되게 되면, 그 부부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소유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참적 권위를 허락함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전체의 소유권한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소원은 천주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품고 사랑한 부부의 가치는 세계의 중심가치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지은 본연의 사람, 즉 본연의 남자와 여자를 중심한 그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69) p.475

Top p.475

2) 부부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참된 사랑을 지닌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그 참사랑을 지닌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의 완성이 지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두고 볼 때,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완성된 사랑의 주체성을 지닌 남성과 여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51) p.475

참가정은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면 틀림없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미래의 천국에 대한 실감을 현재의 입장에서 자극시키려니 불가피하게 상대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상대로 말미암아 그 자극을 받음으로써 미래의 천국이념을 오늘의 생활 감정에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부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극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발전은 자극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이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기쁨을 현재권내로 끌어다가 자극을 주어 가지고 추진력을 보급시켜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는 나라의 사랑도 들어가 있고, 세계의 사랑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은 어디든지 무사통과입니다. 결국 천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언제나 천국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네 마음 속에 있다'했지요? 그렇지만 오늘날 통일교회에서는 '네 가정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이룰 수 없다 할 때는 통일교회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 할 때는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원리를 중심삼고 정도의 길을 가려 가야 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75) p.476

앞으로 천국을 이루려면, 그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한 남자는 세계의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 모든 여성 가운데서 대표적인 반려자로서 내가 아내를 빼낸 것이다'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면 남편에 대해 그냥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온 세계 남성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빼낸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 남자를 사랑하되 그 남자 한 사람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남성을 대표한 남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남성은 아버지를 대표하고, 오빠를 대표하고, 남편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남편을 아버지와 같이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할아버지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엔 오빠같이 생각하고 동생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연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오빠를 좋아하고 사내 동생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자라야만 상대를 얻을 수 있지, 아버지도 싫고, 오빠도 싫고, 할아버지도 싫고, 동생도 싫고, 다 싫고 그저 내 남편만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의 공약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 세계 인류 남자도 전부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포해 가지고 그 결실과 같은 남성을 내가 품고 사랑하는 것은 인류 남성을 대표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어버이와 같이 내 오빠와 같이 내 동생과 같이 만국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고 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사상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75) p.476

Top p.476

3)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

참된 남편은 '나는 태어나기를 당신을 위해 태어났으니 당신을 위해서 살고, 죽기를 당신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상응하면서 스스로를 넘어서 상대를 위하는 원칙을 지닌 가정이라면, 이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요, 행복의 가정이요, 평화의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남자가 태어나게 된 동기는 남자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여자는 무슨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내가 미국의 무슨 배우라고 자랑해 봤자, 그 여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깨가 크고 여자는 궁둥이가 커야 잘 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의 아내, 참된 이상적인 행복한 그 아내와 남편은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서로를 위하고, 또 그런 마음이 일치될 때 이상적인 부부가 나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칙을 두고 볼 때, 이상적인 사람 또는 행복하고 선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데서는 찾을 수 없으며 남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데에 근거를 두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편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연결되어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타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82) p.477

남자들은 자기 부인 사랑하기를 세상의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자기 남편 사랑하기를 세상의 어떤 여자가 남편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가정을 이룬 부부가 지켜야 할 사랑의 윤리인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고 죽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사랑의 아내와 남편, 행복한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으로 하나될 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이상적인 부부입니다.

신랑 신부는 돈이나 권력, 명예를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돈을 벌어 올 때에 힘이 생겨납니다. 부인은 남편이 벌어 온 돈을 보고 힘이 나고, 힘이 나는 부인을 보고 남편도 힘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 불안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참된 부부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참된 부부는 사랑을 중심삼고 점진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두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꾸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데도 하나님 대신자로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자리에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부족한 면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이혼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제주도 색시들이 시집갈 때 논 밭을 주게 되면 가져가서 수속할 때 색시 이름으로 한다나요, 언제나 남편과 헤어지면 내 것이라 주장하기 위해서. 그거 참 이상적 부부지요? 돈을 써도 이것은 남편 돈, 이것은 내 돈, 돈을 가져도 빤질빤질한 것은 내 돈, 구겨진 돈은 남자 돈….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돈 보따리를 펼쳐 놓고 쓰더라도 '어떻게 됐소?' '내가 썼지' '그래? 좋은 데 썼구먼. 쓸수록 좋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바르르 떨면서 에이구 또 썼구만…. 이것은 낙제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더라도 무한히 줄 수 있고, 언제나 마음대로 깊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려야 줄 수 없게 될 때는 불행한 것이요, 받으려야 받을 수 없게 될 때도 불행한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82) p.478

Top p.478

4) 하나님도 취할 수 있는 참된 부부의 사랑

우리 개개인은 몸과 마음이 상충되어 있으니, 마음을 중심삼고 몸을 하나로 만들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상대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아서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상에 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조화 만상은 하나님께 향취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꽃과 향취 속에 하나님은 살고 싶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 터전이, 곧 부부 사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모든 만물과 우주가 화동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통일교회요, 통일교회의 원리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89) p.47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아하는 멜로디가 무엇이냐 하면,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서 기뻐하는 영원한 부부의 웃음소리인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세상을 이해하여 품을 수 있고, 우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삶을 영위할 때 웃음은 자연발생적이 됩니다.

그런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한 송이 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나 추상이 아닙니다. 본래의 세계를 말할 뿐입니다.

부부끼리는 앞산을 바라보면서도 저 산이 생겨난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물어 보고, 온 우주를 생각하면서도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물어 봅니다. 그러면 나 때문인 동시에 너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우주가 생겨난 목적을 성사시키는 것이, 주체적인 목적을 중요시하는 것이 부부가 하나되는 길입니다. 부부는 마음을 중심삼고, 인격을 중심삼고, 사랑을 중심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골뜨기 아가씨라도 장관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시골뜨기 여자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장관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그대 사랑이 따로 있고 내 사랑이 따로 있습니까? 그대 사랑이자 내 사랑인 것입니다. 네 사랑이자 내 사랑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온 몸이 하나되고, 심정과 핏줄이 전부 다 하나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부입니다. 부부 없는 세상이라면 사는 맛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간의 대화를 볼 것 같으면, 세상의 어떤 시나 그림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우리 둘이서' 하는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말입니까? 좋기는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야'하고 부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네에'하고 대답하고, '야'하고 부르면 '응'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다정스럽고 부드럽게 '여보오' 부르면 다정하고 부드럽게 '왜 그래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퉁명스럽게 부르면 똑같이 '왜 불러'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산울림과 마찬가지로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취한 사람들의 웃음을 보면 그것도 상대적입니다. 남자는 웃을 때 눈을 더욱 크게 뜨는데, 여자는 웃을 때 지그시 감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지고 아내의 눈이 점점 작아지면 그들 부부는 사랑에 취한 행복한 부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88) p.479

Top p.479

5) 보면 볼수록 더욱 보고 싶은 게 부부의 사랑

남자가 행복한 때는 어느 때이고, 여자가 행복한 때는 어느 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둘이 상대를 이루어 사랑을 주고받을 때를 행복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물리적 힘을 동원한다면 그들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힘으로 품안에 안고 보호하면서 사랑할 때 여자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간의 사랑은 힘만으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힘으로 확인해 주었을 때, 여자는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자가 남자를 대해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돌려줄 때 진실로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90) p.480

사람에게는 항상 자극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자극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먹는 밥도 먹을 때마다 배가 고파야 맛이 새로운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항상 새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과 남편이 서로 보면 볼수록 더욱 보고 싶고 온종일 함께 있고 싶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 그리워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입이 있으면 입을 벌리고, 눈이 있으면 눈을 벌리고 사랑을 달라고 해야 사랑을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멍청하게 있으면 사랑이 오다가도 도망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작용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먹는 것입니까? 배고플 때 밥을 보면 좋다고 먹지만 그런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컷 먹고 나서 또 먹을 것을 주게 되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잊어버릴래. 싫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도 봐도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네가 앞에 서고 내가 뒤에 서고 하면서 수레바퀴같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난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오수를 즐기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행복에 취해서 정신을 바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무섭고 징그럽게 보이던 남자가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나서는 보고 싶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여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다녀가라고 불러내기도 합니다. 사랑을 안 남자도 마찬가집니다. 틈만 있으면 아내의 무릎을 베개삼아 잠자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커피를 마실 시간이나 할 것 없이 시간만 나면 집으로 달려오곤 합니다.

또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야 여자가 할 일이지, 어디 사내 대장부가 할 일이야' 하면서 안 하던 짓도 아내가 원하기만 하면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을 알고 난 남자와 여자에게 흔히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해 주실 때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선 부부는 둘이 속삭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기다려 왔습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을 통해서 그 가치를 꽃피울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또 오늘을 위해 기다려 왔습니다' 등등. 서로가 찬양하는 달콤한 이야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밀어만큼 달콤한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속삭이는 밀어는 세상의 모든 피로와 미움을 녹이는 청량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94) p.481

Top p.481

6) 부부사랑의 발전과정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중보로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느냐? 사랑의 발전과정을 보게 되면 첫째 입이고, 둘째 가슴이며, 셋째가 생식기입니다. 여자가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숨기는 것은 입이기에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입맞춤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점차 성숙해지면 그 결실로 아들딸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 생식기는 사랑의 성소인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남편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의 사랑의 성소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두 개나 그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 남편은 사탄입니다.

또 부인의 성소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만 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쇠를 가지고도 열린다면 그 역시 사탄인 것입니다. 남편이 가진 사랑의 열쇠가 부인의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아들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의 가치는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아들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던 심정을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들딸을 보면서'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하고 노래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짓을 해도 밉지가 않고 마냥 좋은 것은 그 아기가 자기의 피와 살로,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분신체이기 때문입니다. 오줌을 싸고, 똥을 누고, 코를 흘려도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 사랑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94) p.48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편과 부인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강력한 힘으로 맺어졌다면, 상대가 무슨 짓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기쁘고 사랑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한다거나 부인이 하는 몸짓이 싫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은 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부는 목적을 위해, 이해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의 가정생활은 하나님을 한가운데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서로 사랑하는 일은 본래 부끄러워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존엄한 일이며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율을 범하였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는 죄악으로 인해 수치스런 방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에덴동산에서 벌거벗고 춤추는 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에서 부부가 벌거벗고 춤춘다고 그것이 걱정할 일입니까? 그러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다면 그것은 사회에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부부끼리야 벌거벗고 춤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가정들도 둘이 벌거벗고 춤도 추라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에 남자 여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성들이는 그 여자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정성들이는 것이 원리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91) p.482

진실한 행복이란 상대자와 함께 사랑에 취해서 웃고 노래하며 속삭이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속삭이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귓가에 대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71) p.482

Top p.482

7)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왜 슬픈가

남편을 잃게 되면 여자는 왜 우느냐? 그리운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서 울게 된다는 그런 막연한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방성(四方性)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서 입체적으로 전후 좌우와 상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남편은 그 여인과 좌우 편에서 상대로서 사랑의 사방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아내는 남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전우주가 보호하는 그 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니, 우주로부터 받는 힘이 고통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 왜 좋으냐? 혼자만 있을 때는 우주의 구형적(球形的)인 사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에 서지 못했는데, 상대가 있음으로써, 그 상대와 주고받는 횡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종적인 우주의 힘과 접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우주의 보호력에 의해서 그 상대를 갖는 자는 무한히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 온 정신이 통일되고 그 아내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함께 어우러져 돌아가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는 그런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보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런 문을 반대하지만, 그런 레버런 문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젊은이들과 밤을 새워가며 그들을 교육시키고 운동을 시키면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즐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보호권 확대가 나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보호권 확대작용이 나와 더불어 시작하기 때문에 반대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을 노래하고 뭐가 어떻다고 해도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슬프다고 엉엉 웁니다.

혼자서 자기의 갈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짝이 없으면 불쌍하다고 합니까? 천지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날들 앞에 불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지 법도의 규율 앞에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법도를 통해서만 천지의 운세는 돌아가고, 행복의 요건과 그 동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슬프다는 것은 그만큼 법도에 멀어졌기 때문이며, 그러한 슬픔의 기준에 한해서는 천지 법도가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세계에서 환영해 주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쫓겨나는 자리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그렇게 갈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울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우주의 공법 앞에 불합격한 기준에 해당하면 이 우주의 공적인 힘이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슬픔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쁨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한 우주 공법에 일치되는 자체가 되면 우주의 힘이 그를 안으려고 합니다. 그 힘이 크면 클수록 강하게 부여안게 되고, 강하게 안으면 안을수록 그는 그 내적인 중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기쁨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여러분 자신에게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원칙, 즉 우주의 공법을 중심삼고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우주의 공법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맨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일치되어 가는 길이요, 또한 이 길이 천운이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일치되어, 즉 부부가 일심이 되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말 들어 봤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싸우고, 울고불고, 죽겠다고 야단법석인 사람들은 빨리 제거당합니다. 공적 법도권 내에서 합격품이 아닌 불합격품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02) p.483

Top p.483

8)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할 부부의 사랑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있어서 언제까지 사랑하겠느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젊었을 때까지만 사랑하겠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느 때까지 사랑하기를 바라느냐? '영원히'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영원은 미래를 중심삼고 전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주어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원히'는 전체적이요, '죽을 때'까지는 몽땅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가씨들은 이제 시집가게 되면 남편에게 틀림없이 '당신, 날 사랑하오?'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몽땅 사랑하오, 조금 사랑하오?' 이렇게 물었을 때 몽땅 사랑한다고 대답해야 기분 좋아한다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서로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냥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죽 -'하고 10 년, 100 년, 억만 년 하다가 '도록 사랑한다'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합니까? 그냥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원합니까?

여기 여자들 대답해 보세요. 그냥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보다 '죽 -'하고 억만 년 하다가 '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 년, 백 년, 이렇게 길수록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만나 가지고 '죽 -' 그 다음에 10 년이 지나 가지고도 '죽 -' 또 50 세가 넘어 가지고도 '죽 -도록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아내는 자기 영감님이 어찌나 좋은지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배가 나와서 뒤뚱거리더라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84) p.484

참된 아내, 참된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어느 정도 성숙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자기의 상대를 영원한 사랑의 상대로 생각하고 첫사랑과 더불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첫사랑에 플러스되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가정적인 사랑이 확대되어 종족을 이루어 영원히 사랑을 확대시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실체들로서 묶어지게 될 때, 그러한 부부는 참된 부부요, 참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82) p.484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최고이며 제일로 보여야 합니다. 남편의 눈에도 아내가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최고의 인연입니다. 남이야 무슨 소리를 하든지 최고입니다. 이런 것은 몇 억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따르고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학 작품이나 영화의 한 장면에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역사와 최고의 문화가 엎질러졌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런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왔던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이상적 부부란 어떠한 부부냐? 최고의 예술을 실체로 전개시킬 수 있는 부부입니다. 최고의 문학을 실체로 전개시킬 수 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최고의 이상, 세계 최고의 문화세계를 접하기 전에 최고의 사랑으로 부부가 주고받는 달콤한 사랑이 세계 최고의 예술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최고의 문학작품이요, 그 자체가 문학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84) p.485

Top p.485

제 8 장

참된 부모의 사랑

1) 무엇이든 주고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낳아 길러 본 부모들은 알 것입니다.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딸을 통하여 복을 받고 싶고 행복도 느끼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고 복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 아들딸에게 영원히 남겨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딸이 고이 자라, 만국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만세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되기를 타락한 인간도 바라고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 아들딸이 상처를 입을까 보호하고, 애달픈 심정으로 초조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품 안에서 젖을 먹여 키우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자식이 똥 싸고 오줌을 싸서 냄새가 나더라도 사랑으로 그 환경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본연의 심정을 통하여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여러분들이 애기를 품고 키울 때에 잠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혼잣말로 애기도 해주며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부모라도 그 자식에게 결함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그 가슴이 몽땅 젖도록 최고의 고통을 겪는 것이요, 이것이 풀어지면 그 고통에 비례한 만큼 기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이야 어떠하시겠습니까? (20-209, 1968.6.9) p.486

부모는 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이놈의 자식 잘 갔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이 사형수가 되어서 죽는 시간이라면, 아들이 사형받는 시간을 어머니가 안다면 통곡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변경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무슨 모험이라도 생명을 바쳐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치고 자기 몸을 잃어가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91-148, 1977.2.6) p.48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주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며칠 날 고무신 사 주고 옷 사 주고 너를 위해서 피땀을 흘렸는데, 그 가치는 몇천 몇백 몇십 원이다'하며 치부(置簿)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세상의 왕궁의 왕자 왕녀 이상 해주고 싶지만, 그 이상 해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자리에서, '내가 정성을 다해도 이것밖에 없으니 미안하다' 한다는 것입니다.'그 이상 더 좋은 것 해줄게' 하는 마음을 부모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고도 부족함을 느끼고, 사랑하고도 덜 사랑한 것이 있지 않겠나 하며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고 나서 섭섭하고 안된 마음,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사랑과 통하는 본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출발의 전통적 동기입니다. (60-84, 1972.8.6) p.487

부모는 자식을 대함에 자기의 제일 좋은 것을 전부다 주고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식 되는 사람이 진짜로 나타나면 그에게는 자기보다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56-147, 1972.5.14) p.487

Top p.487

2) 자식이 더 낫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여기 중년 이상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옛날 젊은 시절에 자기의 상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구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구하고 싶었습니까?'하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못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동서양의 누구를 대해서 물어도 그러한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그 자식이 부모 된 자기보다도 못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미남 미녀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얼굴이, 그 부모의 얼굴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생기고 싶은 대로 생긴 얼굴이라 해도, 그 부모에게 당신의 아기는 당신보다도 잘생겼다고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그 부모는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란, 아주머니의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아주머니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야! 그 녀석 엄마보다 몇천만 배나 더 잘생겼군'하면 좋아합니다. 그건 엄마는 그 아기보다 몇천만 배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뭐라고? 나보다 몇천만 배 잘생겼어? 그럼 나는 몇천만 배 더 못생겼다는 얘기 아니야?'라고 하면서 대드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누굴 닮았겠느냐? 어머니는 결과적 존재이지 동기적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집안이 있다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통령인데 아들은 그보다 못하게 될 때는 그런 형태로 몇 대를 가게 되면 그 집안은 점점 망하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는 쥐구멍을 찾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 자식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아버지가 '예끼 이놈!'하겠느냐, '오냐 그래라'하겠느냐? 후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41-283, 1971.2.17) p.488

어떤 부모도 가정의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자기의 후계자를 내세울 때는 자기보다도 못한 자를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식이 자기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를 중심삼고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주권자는 자기 이상의 후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보다 훌륭하고, 자기보다 모든 것을 더 갖추고 있는 후계자가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변천을 초월하여 영원에 가까운 요구조건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전통을 계승한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러한 전통의 상속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전통을 보다 높은 가치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세대마다 기존 전통의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그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전통은 항상 자기의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낫기를 열망하는 부모들이 있는 참된 가정에서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가진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며, 심지어는 자녀들을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기꺼이 강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나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다가 자기보다 못한 아들딸을 낳게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상 자기 아들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자동적으로 사랑의 세계는 나타나고 천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07) p.488

Top p.488

3) 부모의 사랑은 만고불변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기원적인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남자 여자를 중심삼은 사랑은 변하는 사랑인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딸을 중심삼은 사랑은 왜 변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 남녀를 중심하는 사랑에서 되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횡적인 부부의 인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종적인 어떠한 흐름의 기원을 통하여서 관계되어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종적인 주체가 누구냐? 그런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부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입장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횡적인 인연으로서 어떻게 터치(touch)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만고불변입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한 이 때에, 자식들이 하는 말이 신시대와 구시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변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구시대니 신시대니 부르짖는다고 해서 '너 그러니 나 그러자'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도 그렇습니다. 새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48-155, 1971.9.12) p.489

그러면 그런 사랑은 어디에서 왔느냐? 나 자신이 제1의 어떤 상대적인 결과의 존재라면, 그것은 제1의 어떤 힘의 인연 가운데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혁명하자! 혁명의 기수가 되자!'하는 사람 보았어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이 사랑을 혁명해서 인류역사를 개조해 버리겠다 해 가지고 '나는 부모는 부모지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자식의 배꼽이 떨어지는 순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어떠한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생명을 투입해서, 생명을 고임돌 삼아 가지고도 하고 싶어하는 작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만고불변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절대성(絶對性)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 그 자체는 못 되지만, 인간 앞에 제일 가까운 고임돌은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인간세상에 있어서 그래도, 역사를 보게 될 때 영원한 발판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아버지에게 어떠한 권고를 받아서 배운 것도 아니요, 자기 상대에게 충고를 받아 배운 것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 그래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연히 그리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히 그리 되는 데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48-156, 1971.9.12) p.49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질적인 사랑을 분석해 보면 사랑에는 혁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참사랑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시조 때부터 사람이 자식을 사랑한 마음이나 수 천 년 후의 후손인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수 천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발전도 없고, 종식도 없습니다. 혁명의 요건이 필요치 않은 순수한 것이 참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절대적인 기준의 자리에 세워 놓고, 그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혁명이 필요치 않는 사랑입니다. (18-12, 1967.5.14) p.490

Top p.490

4)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

사랑은 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이 투입되지 않고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관계의 사랑을 두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생명의 인연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인연이 남아 있는 한, 생명의 인연 속에서 소원을 갖고 있는 한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인연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인연을 떠나 가지고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생명의 인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얼마만큼 투입해 가지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보다 가치있게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2-15, 1970.6.14) p.490

예를 들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냥 그대로 생활적 인연만을 통해서 하는 사랑이 아닌, 뼛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부모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여력이 남아 있는 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생명의 인연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에게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저 애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겠다는 의식적인 마음이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보다도, 그 인연보다도 앞선 자기의 생명력이 자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가정생활에서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32-15, 1970.6.14) p.490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할 때, 천년만년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주고 나서 '야, 요거 몇 냥 몇 전이다'라고 하시는 장사꾼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없습니다. 만민은 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왜 좋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면서도 부끄러워 하시며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것을 줄 터이니…' 하시면서 오늘 현재에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도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과 더불어 있으면 비록 못 먹고 못 살더라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못 먹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미래의 소망 된 자극이 현실권 내에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리어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자리, 그런 부모를 가진 자식이 '엄마'하고 끌어안게 되면 몸만 끌어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자리는 미래를 위해 서로 위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절망이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현재의 자극으로 여기고, 서로 결의하고, 서로가 맞부딪쳐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폭발적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자극을 끌어들여 가지고 현실권내에서 가치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는 그러한 사랑권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권내에 사는 사람은 불행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6-291, 1970.12.13) p.49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전체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있겠다는, 상대를 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겠다고 하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전부 다 자식한테 희생해 가지고 그 자식과 더불어 있겠다고 하는 데서 사랑이, 생명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9-62, 1973.9.10) p.491

Top p.491

5)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새 둥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새 둥지를 보려고 올라가 보게 되면 어미가 와서 쪼아댑니다. 결사적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쳐 버리면 맞고 날아가면서도 또 옵니다. 이걸 볼 때, 자기 생명을 넘어서 사랑하는 새끼를 보호하려는 동물세계의 힘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뿌리로 해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주체적 선이 있는 것이요, 상대적 선의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입니다. (186-18, 1989.1.14) p.492

내가 미국 댄버리교도소에 있을 때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탈길을 테니스 코트로 닦기 위해 매일 불도저로 미는 작업을 했는데, 오랫동안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중지하기도 하고, 또 우기(雨期)가 되면 건기(乾期)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두서너 주일 우기가 지난 후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물새가 새끼를 쳤습니다. 그 곳에는 죄수들이 운동 삼아 걷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에 물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물새 빛깔이 얼른 봐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보호색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릅니다. 알을 낳아 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몰랐습니다. 엎드린 모습을 옆에서 보면 까만 자갈돌 빛깔 같은 보호색이어서 몰랐습니다. 그러다 새끼가 부화되어 뭘 물어다 먹이다 보니 소리가 '찍찍' 나게 되어 다 알게 됐습니다. 짓궂은 녀석들은 별의별 놀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물새가 자기 새끼들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력이 있는가 하면, 먹이를 구해서 물고 올 때 절대 자기 새끼 가까이 날아오지를 않습니다. 딴 곳에 내려서 새끼 있는 곳까지 기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방향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끼를 키웁니다.

이 새끼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 사람이 그 옆에만 가도 어미가 쪼아대며 야단입니다. 새끼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게 우주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으로 하여 모든 물이 평면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낮지만 그 평행선상의 기준은 변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136-23, 1985.12.20) p.492

꿀벌이 꽃송이를 찾아다니다가 꿀맛을 봤다 하게 될 때에는, 다리로 파고 들어가서 꽁무니를 떡 내밀고 빨아먹습니다. 선생님은 벌에 대해 잘 압니다. 꿀맛을 보는 벌을 핀셋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꽁지가 쑥 빠지더라도 안 떨어집니다. 참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얼마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잊어버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참사랑의 길입니다.

부모는 그 길을 갑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사지에 들어가게 되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사랑 앞에 자기 목숨을 묻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금은보화를 가졌고, 피땀 흘려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자식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면,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희생시켜서라도 살리려고 합니다. (34-161, 1970.9.6) p.493

Top p.49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6) 끝이 없는 부모의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볼 때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한계점은 어디일 것이냐?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에만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를 통해서, 더 나아가 영원을 통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자관계가 맺어진다면, 무한한 힘과 무한한 자극과 무한히 새로운 그 무엇이 그 관계권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19) p.493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세계에 있어 가장 위대한 사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 앞에 있어 무조건적이고 무한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사랑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고아들은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들은 잠자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그들 가슴 속에 항상 부족함과 그리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부모는 그 자식을 언제나 사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 70 세가 된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 자기가 기르던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연령은 많아져도 심정은 점점 가까워지고, 아들 대한 책임이 커질수록 아들을 위하는 마음은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자식 대하는 인연을 보게 될 때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20) p.493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뼛골이 녹아나도록 고생을 하지만 힘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피살을 깎아주고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장부에 치부(置簿)해 둡니까? 안 하지요? 오히려 몽땅 주지 못해서 안타까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머니들도 그렇지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먹지 않으면 왜 안 먹는가 하고 안타까와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호스를 갖다 대고 자기의 피와 살을 뽑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 중에서 최고의 도둑이 아니예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좋아하느냐? 사랑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21) p.493

어머니의 젖가슴을 파고드는 아기들을 볼 때 부모는 사랑을 중심삼아서 사랑을 촉감하고, 또 그 아기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복보다도 천지가 평화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의 분위기가 좋은 자리에서 싹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가 아무리 극성스러워도 어서어서 해라 할 수 있는 아량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기가 호스를 갖다 대고 피와 살을 빨아가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소망의 자극, 남편에 대한 새로운 자극, 그 아기로 말미암아 찾아지는 새로운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통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경지는 누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21) p.494

Top p.494

7) 부모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준이요, 전통이 된다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이 처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동기로 해서 그 사랑에서 원만히 자란 사람이라면,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사이에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부모를 두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을 체휼하는 것은 부모를 가진 자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녀 사이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해야 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듯이 형제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할 때, 그것은 부모에게 배워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18) p.494

아들딸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분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변함없는 마음과 사랑이 한결같은 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 사랑을 본받아 자녀 된 우리도 하나되자!' 할 때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어린이가 성장하여 사춘기가 되면 마음과 심정이 하나되는 상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극히 존중하고 사랑과 심정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남자가 가야 할 길이요, 여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일치되고 자식들도 부모를 닮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일치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형의 자리에 선 사람이 자기를 희생시켜 가며 부모 대신 동생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질서요, 전통입니다. 형님이란 자리는 형제들 가운데 제일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대신해 가지고 자식들보다 더 고생하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중심삼고 자식을 위해서는 눈물이 교차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부모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되게 될 때 천태만상으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사랑을 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일원화된 가정은 가정애가 꽃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회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아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면 세계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부인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동기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그 동기를 중심삼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생활할 때, 올바른 사회 환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그 가정이 소생이요, 사회가 장성이요, 국가가 완성입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정과 가정을 전부 다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사랑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범위에서도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는 여러 계층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장이란 대표자가 있지요? 그렇지요? 국가의 책임자가 지금 몇이에요? 하나지요? 하나의 책임자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은 통일되는 것이고 형체만 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져 있으면서도 하나되는 것이 사위기대의 원칙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17) p.495

Top p.495

제 9 장

참된 자녀교육

1)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는가

부모는 아들딸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느냐? 지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지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어머니고, 둘 다 좋아하는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나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기원이 어디냐?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아담과 해와의 가치기준 설정은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교육에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사랑교육을 받는 데는 어느 때까지냐? 아버지가 아는 모든 가치의 기준을 헤아릴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숙할 때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기록이 성서에 없습니다. 사랑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기분 나쁘게 타락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산통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랑의 교육을 받아야 했던 아담과 해와는 사랑의 기준이 있었느냐?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교육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그런 교육을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교육을 받고 살다가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교육을 안 하면 큰일나는 것이요, 안 받으면 큰일난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이 무엇이냐? 천국은 심정의 세계입니다. 교리의 천국이 아니요, 교파의 천국이 아니라 심정의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백성과 교인을 찾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들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아들딸을 만들기 위해서냐?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아들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교육을 받으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부모와 자식간이니까 부모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게 되면 어디까지나, 언제나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가 산에 오르면 산으로 따라가고, 골짜기로 내려가면 골짜기로 따라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면 굴 속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부모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아들과 떨어져야 한다면 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분이기에 좋아해도 절대적으로 좋아합니다. '뭐 하나님,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거 어디 있겠으면 있고 말겠으면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51-171.11.21) p.497

만일 하나님과 안팎으로 하나된 자리에 있으면 배우지 않고도 전부 박물군자(博物君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해 가지고 아는 것보다도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생살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태어나는 모든 곤충 새끼도 나면 먹을 것을 찾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 배움으로 먹을 것을 찾고, 죽을 것 살 것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척 벌써 대하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못 된 것은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을 했을망정 주체와 대상 관계에서 본성은 역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하는 이 사이에는 지금까지 쌓여 온 더러운 것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어 버리면 점점 작용이 강해질 것입니다. 완전히 빼내 버렸다 하는 날에는 확 터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을 지금까지 인간들은 추구해 나왔습니다. (56-153, 1972.5.14) p.497

Top p.497

2)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진리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고, 진리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남편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자기의 처나 아들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리 중의 최고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요, 부부요, 자녀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중심삼고 볼 때, 최고의 진리의 중심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요, 선의 본체요, 사랑의 본체요, 생명의 본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가 성립되려면 사랑과 생명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생명 안에 진리에 대한 의욕과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욕망은 자신의 인격 기준과는 상대적인 입장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생명의 본체, 사랑의 본체, 진리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입니다. 핵심은 부모입니다. (21-183, 1977.6.17) p.498

또 우리의 가장 귀한 유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이 세상에 없는 상속입니다. 하나님을 잘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잘 소개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 부모로 대신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93-336, 1977.6.17) p.498

우리 통일교회는 뭘 하자는 것이냐? '최고의 사랑을 위해서 죽자. 하나님과 인류와 세계를 위해 죽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도 사랑을 위해서 시작됐고, 이런 방향도 사랑을 위해서 시작됐고, 이런 목적도 사랑을 위해서 시작됐다. 남자 여자도 사랑을 위해서 시작됐고,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을 위해서 시작됐고, 아들딸도 사랑을 위해서 시작됐고, 우주의 모든 것도 사랑의 선물을 위해서 시작됐다'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 이상의 교육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간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기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93-191, 1977.5.29)

축복가정들을 보면 자기 2세들에게 '공부해라'합니다. 자기 아들딸에게 공부하라고 해서 그 아들딸이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통일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고생을 했지만 나는 그런 길을 안 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딸을 끌고 다니며 밥을 굶으면서도 동네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짓고, 이런 것이 철모를 때는 나쁜 줄 알았지만, 철들게 될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버리고라도 나라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인류를 구하겠다고 한 사실을 철이 들면 들수록 안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염려한다고 그 자식들이 잘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양식을 먹여서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방향 감각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기에서 황금판을 발견할 때, 한 점의 금밖에 없는 산인 줄 알았는데,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산 자체가 금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9-77, 1986.1.26) p.498

Top p.498

3)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 줘야 한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어 뜻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일언반구도 대꾸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가르쳐 주는 데는 부모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효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늘의 법도에 따라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야만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전통적 효의 인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효도하듯이 너도 효도해야 되고,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몰리면서도 투쟁의 역사를 엮어 온 것과 같이 너도 충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30-113, 1970.3.17) p.499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어 가지고 효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기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식이 따라올 수 있도록 생활로써 자식에게 본을 보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29-99, 1970.2.25) p.499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는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만 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을 거쳐서 뭐가 되라고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책임을 다하고 형은 형으로서 책임을 해야 합니다. 누나는 누나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참된 남성, 참된 여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인연을 가려 나갈 줄 아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순리적인 노정을 거쳐, 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겨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41) p.499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가르치는 동시에 내가 나라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른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하니 내 자식도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표준이 된 후에야 자식을 그러한 위치에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러한 위치에 서면 하나님은 자연히 그 자식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하고 그 방향을 돌려놓지 못하면, 영계에 가서도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40) p.499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세계의 어떤 왕궁의 왕이나 왕후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이가 천하에 없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축복가정 여러분이 그런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도록 자식들의 골수에 그 전통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을 보면 자식들이 그 옆에서 '엄마 아빠 왜 싸워! 왜 싸워?' 하는데도 난장판을 벌입니다.

그때에 눈물을 보이지 않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이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이구나! 참으로 훌륭하고 거룩하신 분이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식들의 뼛골에서 흘러나오는 심정을 통하여 동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인연을 세워 가지고 말없는 가운데 하늘의 가훈, 가법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도 후대에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입장에 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42) p.500

Top p.500

4) 부모는 친구 중의 친구요, 스승 중의 스승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랑은 자기로부터 오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게 될 때는 사랑도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중심삼고 보면 남자 앞의 여자도 상대적이요, 또 부모 앞의 자식도 상대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삼대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삼대상 사랑을 체휼하지 못한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만들어 놓고 좋아했듯이, 나도 아들딸을 낳아 놓고 그 만큼 기뻐하자' 이것이 통일교회 원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이제부터 세계를 주관하겠구나. 우리 집이 세계 중심 가정이 되겠구나. 어서 커라 어서 커라'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보호 육성하는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서, 그들이 자라서 결혼할 날을 바라시던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딸을 잘 길러 훌륭한 상대를 골라 좋은 부부를 맺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를 맺어 주면 그 집이 흥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친구 중의 친구가 누구냐? 이웃 동네의 더벅머리 총각이 자기 아들딸의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 중의 친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보다도 더 좋아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친구 중의 친구요, 스승 중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야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고, 선생님은 '야 이놈아, 안 하면 종아리 때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교육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야 야, 너 그러면 되겠니?'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슬퍼하니까 안 되겠지'라고 할 수 있게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의 친구 중의 친구요, 스승 중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동산에 있는 아담과 해와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아담에게 친구가 있었다면 해와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장하고는 친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천사장은 종입니다. 그런데 잘못 친구 삼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스승 중의 스승이요, 친구 중의 친구요, 사랑 중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 사랑도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면, 부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야 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은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할 때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러 이런 상대를 얻어 주지 않았다면 큰일날 뻔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결혼은 낙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육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부모로부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되어 비둘기같이 재미있게 구구구구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나 혼자는 외로워.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같이 구구구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 부모는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들딸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놀음을 반복하게 되니 세계는 선한 세계가 되는 것이요, 인류역사는 선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57-119, 1972.5.29) p.501

Top p.501

5) 사랑의 채찍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미지근한 태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매를 들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를 때 사랑을 주었는데도 잃어버렸을 때는 차갑게 대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꾸지람을 안 해주면 자식들은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선생님이 좋아 보여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선에 대해서는 몇천 도의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미국은 이제 망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진해서 때려서라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의 속담에 미운 사람에게는 떡 한 개 더 주고, 예쁜 사람에게는 매를 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전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채찍이 아픈 것을 잊고,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녀석아, 왜 그랬어?' 하고 도리어 혼을 내게 됩니다.

이웃 동네 총각 같으면 잘못해도 모르는 체 하겠지만 자기 자식 같으면 '종아리 걷어!' 해 놓고 때리면서 '이 녀석아 그것 잘한 거야, 못한 거야?'라고 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리는 것보다도 더 많이 생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주는 것보다 더 때리면 그것은 죄입니다. 자기가 생각해 주는 것보다 더 때리면 원수가 됩니다. 원수 중에도 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몽둥이를 든 것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때렸다가는 전부 다 깨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사랑하는 자리에서 때리면 괜찮습니다. 즉 사랑을 열만큼 하고 다섯만큼 채찍으로 때리면, 다섯만큼의 사랑이 남아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텍스트 입력]

자식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옛날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갖고 나타나서 사랑하게 되면, 그 불량배 같은 자식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에 대해서 자기가 길러온 공을 자랑하면서 자식을 세 번만 나무라면, 그 자식은 보따리를 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식에 대해서 뼛골이 녹아나는 눈물을 흘리며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자식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은 작은 사랑을 전부 다 소화 통합시킬 수 있는 주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식이 피곤해 한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부모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잘되자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잘되자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큰 꿈을 걸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에 있어서 참사랑으로 낳고 길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하나되고, 가정을 중심삼고 나라를 사랑하면 그를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교육을 시키고 올바르게 크라고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았다고 하여 불만을 갖거나 항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은연중 자중하면서 반성하고 고군분투 노력하여 잘못된 점을 고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센터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27) p.502

Top p.502

6)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가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처음에는 할 수 없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부모가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다니는 것이지, 공부하고 싶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맛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느끼고,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공부하는 데에 재미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미라는 한 자체를 두고 볼 때는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부해 보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맛을 들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부함으로써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36-120, 1970.11.22) p.503

학교 가는 학생을 대해 부모는 말하기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예고입니다. 교수들이 단에 서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농부가 논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 나라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147-205, 1986.9.21) p.503

여러분은 학교에 무엇 때문에 갑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여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을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가는 것은 사랑의 길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부는 참사랑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녀들이 대학에 가서 학사가 되려는 그 이유가 뭐냐? 좋은 신랑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가정이 하나되지 않았다면, 그 남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72) p.50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공부하는 것도 참된 남성을 만나 참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하며, 남편을 참된 남편으로 모셔 참된 남편을 모시는 참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가 되지 못하면 참된 남편을 모실 수도 없고, 참된 아들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자는 참된 아내가 되어 한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과 백년해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집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대학 출신들은 전부 다 부부가 백년해로해야 되지요?

그런데 백년해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알아보나마나입니다. 일자 무식자들이 더 오래 잘 산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태어나서 오랜 교육기간을 거쳐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것도 사랑의 이상적 상대자를 만나 행복한 생활을 갖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즈음 세상에서는 결혼의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훌륭한 상대자를 갖기 위한 것이고, 상대자와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 재물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73) p.504

Top p.504

7) 참된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

부모는 자기의 아들딸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 일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많은 부모가 농촌에서 혹은 노동판에서 힘든 일을 할 때, 가난하지만 지게를 짊어지고 김을 매고 밭고랑, 혹은 논에서 호미질을 하는 것은 천년만년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의 이마에서 흐르는 수고의 땀방울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땀의 결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엉키게 되면,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밭에서 김을 매고, 노동판에서 지게질을 해도,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역사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25-97, 1969.9.30) p.504

우리나라에 사천만 민중이 살고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10년, 20년 이상 지속되는 부모가 있다면, 거기에는 효자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아들과 딸들은 그 부모의 얼굴만 봐도, 손만 봐도 자기들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뼛골에서 우러나오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거기에서 오랜 세월의 깊은 사연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식으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공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는 국가적인 부모, 혹은 세계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는 심정에 사무쳐서 공부하게 될 때, 새로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감정과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공부를 한다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애쓰고, 너를 위해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것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를 더 사랑하라는 뜻에서이다' 하는 애국지사의 심정을 가지고 교육하면, 그런 부모 밑에서 사랑의 교육을 받은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애국지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회상할 때마다 사천만 민족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할 것이며, 자기의 민족이 비참함을 당할 때는 자기의 부모 이상으로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에 선다고만 해서 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입장에 서서 이루어 놓은 터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국민이 천년만년 흠모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자기 제자들에게 올바른 사상을 인계시키기 위해 애쓰는 스승이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권고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순응하지 말고 나라에 대해 순응하라. 나를 위해 잘하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잘하기를 바란다' 하고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그 스승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은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제자들을 위하여 정성들이고, 부모는 자신의 가치보다도 국가와 세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식을 위해 정성을 들이면, 그 스승의 제자와 그 부모의 아들딸들은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될 것입니다. (25-98, 1969.9.30) p.50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p.505

8) 세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

종교는 마루 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마루 되는 가르침은 인류를 가르치고 인류를 사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세계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륜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 때문에 부부끼리 사랑해야 하며, 누구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것을 책임져주시는 주인공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에 남아질 것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워하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랑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자, 죽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며 귀엽다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귀여워합니까? 그것은 하늘땅을 대신하여 귀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세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귀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천륜의 운세는 세계를 넘어 천지를 포용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을 통해 태어난 아들딸을 나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용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품고 젖을 먹이는 아주머니들, 하늘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을 품는다는 사무친 심정으로 자기 아들딸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영생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내 아들딸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제물적인 아들딸로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는 이 지구상의 인류를 대표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인류를 대표한 어린아기에게 젖을 준다는 마음으로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만 예쁘다고 젖을 먹일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내 자식 같다는 심정으로 대하는 어머니가 되어 보십시오. 그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아기들은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1 대, 2 대를 거쳐 나가는 동안 반드시 그 후손 가운데 세계를 지배할 수 인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은 자식을 품에 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입장에서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이 선은 망하지 않는다는 천리를 통했기 때문입니다.

선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겠습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다. 밥을 먹는 것도 나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천주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장가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뜻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는 것도 세계를 중심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멋이 없는 사람 같지만 멋이 있는 사람입니다. 70 년 내지 80 년의 눈깜짝하는 일생을 넘어서면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세계의 시간권 내에 들어가서 그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안다면 그 영원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밥은 조밥을 먹고 옷은 비록 허름한 보자기 같은 것을 둘러쓰고 앉았더라도 세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옛날에 집이 이랬을 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폭 넓고 끊임없는 화제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우수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047) p.506

Top p.506

제 10 장

복귀해야 할 인류의 참가정

1)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목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참사랑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만일 참사랑의 왕이 되시며 신랑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상대자 되는 황후가 필요하다는 말이 절대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분 앞에 참사랑의 상대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겠느냐 하고 묻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일체가 될 아담과 해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필요로 하고, 지식을 필요로 하고, 권력을 필요로 하지만, 아내가 없다면 다 허사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대상이 사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양심의 욕망을 꽉 채울 수 있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어, 그 사랑 안에서 아들딸을 가져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지상천국의 첫 출발의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몇 천만배, 무한대의 가치있는 존재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가 무한한 가치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야 할 바로 아담과 해와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79) p.507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정의 참어머니와 아들딸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참아들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혈통적인 인연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과 거짓 혈통의 인연을 맺음으로써 우리 몸 마음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딸들 간에 살육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을 복귀하기 위한 구원섭리는 복귀섭리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참된 몸 마음이 하나된 아들딸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되는 부부, 아들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참가정을 이루어, 신부종교격인 기독교와 연결시켜 하나님과 혈연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통일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완성인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0) p.508

하나님이 종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딸, 하나님의 뼈와 살이 하나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딸 중심삼은 사랑하는 가정, 종족,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뿌리로 하고 비로소 지상에 찾아오셔서, 모든 종교들이 바라는 이상을 완성할 분이 재림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부모가 되어, 잃어버렸던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된 생명과 참된 혈통을 온 땅 위에 이상가정으로서 찾자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80) p.508

Top p.508

2) 사탄의 소유물이 된 아담가정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참다운 인류의 조상으로, 인류의 부모로, 당신의 아들딸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아들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딸로 대할 수 없는 자리에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해와가 장성한 후에는 부부로 축복하여 위로의 대상으로 삼으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딸로서의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랑 신부로서도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던 소원이 큰만큼 그들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바라보셨던 것인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 위로해 드리는 심정을 느끼지 못했고, 신랑 신부로서, 즉 부부로서 위로해드리는 심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가 미래에 소망의 조상으로서, 만인류 앞에 하나의 군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효의 도리를 세우는 입장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27) p.508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가정에서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가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생겨요?

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는데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천대 만대 후손이 죄인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혈통적 관계입니다. 혈통적으로 죄의 뿌리를 심어 놓으면 유전 법칙에 의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랑 문제뿐입니다.

그릇된 사랑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불륜(不倫)한 행음관계(行淫關係)에 의하여 해와는 천사장과 하나가 되었고, 아담은 다시 천사장과 하나된 해와와 하나됨으로써 아담과 해와는 결국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천사장을 중심한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아담과 해와의 아들은 하나님의 장자와 차자가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와가 불륜(不倫)한 정(情)으로 천사장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장자와 차자는 사탄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래 창조이상 가운데에서 사랑은 소유(所有)를 결정짓게 만듭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랑을 중심한 주체와 대상은 반드시 서로서로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적인 기준에서 살펴볼 때, 해와가 천사와 불륜한 사랑의 인연으로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해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의 소유권은 천사장인 사탄에게 있게 되었던 것이고, 사탄은 그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타락한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원죄 있는 자녀를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발전해 나온 것이 인류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완성한 입장에 선 참된 부모의 이상이 남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부모를 중심삼은 참된 가정과 참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는 아직까지도 이상(理想)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25) p.509

Top p.509

3) 타락인간의 소원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혈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본연의 이상세계, 타락하지 않은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직계혈통을 받아 아들딸을 낳아야 할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사탄과 인연을 맺어 죽은 자식을 낳은 사탄의 괴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인류는 전부 거짓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부모의 혈통을 부정하고 참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타락인간의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로 태어난 억울함을 지니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참아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하나님의 아들, 가정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려면 인류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적 기준의 아들권을 대표한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메시아를 맞는 날에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아들,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인 하나님의 아들까지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국가적인 아들까지 찾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한 것이 메시아의 강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인연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들은 사탄의 참소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부모는 가졌지만 타락하지 않은 참된 부모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엔 부모의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가정을 찾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형제를 찾아야 되고,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어머니를 찾아야 되고, 내 집을 찾아야 되고, 내 고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게 이 땅의 인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동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민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러한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그러한 가정의 기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찾기 전에는 종족이나 민족, 국가, 세계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상·소원·희망이 무엇이냐고 할 때,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최대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딸이 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전부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큰 인간의 소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80) p.510

Top p.510

4) 복귀의 최종 목표는 아담가정을 복귀하는 것

복귀의 목표는 아담가정 복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즉시 구원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여 아담 가정을 중심한 구원섭리는 노아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 멸망시키고, 사탄의 침범조건을 넘어선 가정을 세워 지상섭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시 아브라함·이삭·야곱을 거쳐 모세 시대로 옮겨지고 예수께로 이어져서 우리의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섭리의 최종 목표는 잃어버린 아담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찾아 오셨느냐? 주체를 찾아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았고, 당신이 지은 세계의 안팎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이런 결과적인 하나의 기점이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가정보다 우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하면, 물질과 자녀와 부모, 다시 말하면 가정의 기준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부모가 없어 가지고는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부모를 중심삼고 만물을 주관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도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복귀섭리를 하신 것이 무엇을 찾기 위한 것이냐? 한 나라를 찾기 전에, 혹은 민족과 교회를 찾기 전에 뭘 찾아야 했느냐? 가정입니다. 즉 자기의 상대를 찾고 가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의 근본이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가정이 파괴되었으니 이것을 복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 대신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류의 첫째 조상인 아담은 타락한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연의 뜻을 세우기 위해 타락하지 않은 참조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참조상을 중심삼고 아담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시조가 타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조가 타락할 때 혼자만 타락했습니까, 둘이 타락했습니까? 둘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타락을 하더라도 혼자만 타락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혼자만 타락했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모든 사건이 가정에서부터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과 해와의 가정에서부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천사세계를 추방한 것도. 만물세계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모두가 아담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에서 목표로 하여 신앙해 온 개인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첫 단계의 시작에 불과한 원초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가정 구원을 단위로 하는데, 그 가정 구원의 기반이라는 것은, 세계를 지도할 수 있고, 세계의 구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권이 확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84) p.512

Top p.512

5)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복귀의 가정

예수님은 무엇 하러 오셨느냐? 가정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복귀역사입니다. 병이 났으니 병을 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인간이 가정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찌하여 가정을 찾으러 와야 되느냐? 이것은 본래의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이 났으니 병을 고쳐야 합니다. 즉 타락을 했으니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84) p.512

하나님은 원리 원칙을 따라 운행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을 잃어버렸으니 사탄세계에서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아담이 잘못하여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해와를 지배하고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와를 사탄세계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세계에서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를 다시 찾아오려면 싸우지 않고 되겠어요?

나라의 기반으로부터 교회의 기반, 종족의 기반, 가정의 기반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정을 세우셨고, 사가리아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가정의 예수와 사가리아 가정의 세례 요한이 하나되었다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세례 요한의 누이동생을 예수님이 신부로 맞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당장 반대하겠지요? 큰일났다고 야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대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영계(靈界)에 가 보면 레버런 문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원래는 아담과 해와가 실체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가정완성, 즉 사랑의 가정이상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신랑의 자리에서 신부를 맞이하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어 가지고,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완성할 수 있었던 본연의 아담의 자리를 복귀하여, 그 사랑으로 묶어지는 날에는 그 누구도 다시는 타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남성 완성의 기준과 여성의 기준을 세워 놓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나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예수님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4 천 년 역사의 기반과 유대교가 무너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예수님의 사정을 지금까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니 여러분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 되시는 참어머니를 찾아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정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가정을 찾지 못하면, 나라도 찾을 수 없고 세계도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신랑으로 신부를 찾아야만 합니다. 한 남자를 중심삼고 참부모도 생겨나고, 참된 부부도 생겨나며, 참된 형제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루겠다고 예언한 것이 어린양 잔치 때 신랑 신부를 맞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90) p.513

Top p.513

6) 재림주님을 중심한 복귀의 가정

복귀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역사적인 소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6 천 년 동안 이 한 가정을 찾기 위해 섭리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소원의 실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이 현세의 현실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소원의 기준이요, 현세 만민의 소원의 기준입니다. 인류의 과거-현재-미래의 소원의 기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왔다 갔던 수많은 성인 현철들도 이 가정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신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귀의 가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찾아야 할 복귀의 가정, 그것은 인류가 소망하는 가정입니다.

6 천 년 역사 속에서 믿고 나오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원수의 집권자들이나 위정자들에게 희생당하면서도 간절히 소망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한과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수를 갚는 데는 주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가정이 나와야 합니다.

하늘 가정이 편성되어 땅 위에 새로운 발판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심정의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사탄세계를 폭파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94) p.514

복귀의 가정이라 했으니 그 복귀된 가정의 중심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아들딸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이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재림주입니다. 그 재림주가 와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참된 아버지 어머니로서 참된 가정을 이루어 역사를 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그러한 가정을 세워 가지고 이 지상에 평화의 왕국을 창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깨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6 천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한을 품으시고, 복귀의 역사를 되풀이해 오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의 고빗길을 수없이 밟고 넘어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책임지고 해결짓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재림주입니다.

그러면 재림주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도 공중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종족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며, 국가가 나오고 세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을 세워야 하는데, 그 가정은 참가정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참된 사랑을 추구해 나왔습니다. 어차피 거짓된 사랑의 형태가 가정이나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민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인류 전체가 바라는 최대의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의 참된 가정이 출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한 가정이 나오지 않고는 종족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한 민족이 나오지 않고는 국가나 세계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류 앞에 제시한 구원섭리에서 인간이 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과 신으로서 바라는 최고의 이상적 기준점은 가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94) p.514

Top p.514

7) 통일교회는 본연의 참가정을 찾기 위한 곳

역사시대의 모든 종교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가? 지금까지 남자 하나를 다시 찾아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종교는 상대의 인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 하나를 찾아 나오는 역사시대에 있어서 남자를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까지 가게 되면, 그 후에는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가정을 찾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목적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개인의 구원보다 가정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되 가정을 구원하고, 천국을 가되 자기 혼자 안 간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구원관은 남편은 천국에 보내고, 부인은 지옥에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또 아들딸도 데리고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 자기가 사랑하는 종족까지 몽땅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종교는 독신생활을 강조했지만, 통일교회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세계를 위한 가정이요, 하나님을 위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요, 금후에 여러분이 생활해 나가야 할 길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85) p.515

법을 초월하고, 제도를 초월하고, 환경의 모든 배경을 초월하고, 자신까지 초월하여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인연을 맺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부부의 사랑이요, 자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사회 제도가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을 무시한 국가는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개인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개인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구원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이 점이 다릅니다. 모든 인간들이 최후에 가져야 할 공통적인 목표요, 가야 할 공통적인 관문이 무엇이냐? 나라도 아니요, 세계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세계도 아니요, 민주주의 세계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세계가 있기 전에 본연의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세계가 있기 전에 민주주의 세계를 창건할 수 있는 본연의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질서가 어디에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교육이 어디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목적 기준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런 결정적인 기준이 이 땅 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평화의 왕국, 평화의 이상국가, 평화의 나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이상적 가정, 본연의 가정, 살아야 할 가정, 만나야 할 가정, 찾아야 할 가정이 이 지구상에 반드시 나타나 인류 역사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할 수 있는 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안식의 복지, 안식의 보금자리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88) p.516

우리 통일식구 소원은 무엇이냐? 복귀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여기요, 만국의 평화의 기원도 여기요, 천상천하의 행복의 기점도 여기요, 하나의 섭리의 기점도 여기요, 하늘 땅이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의 기점도 여기요, 모든 인생의 가치의 근원도 여기요, 소망의 출발점도 여기입니다. 전부 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복귀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참조상입니다. 참조상은 참부모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96) p.51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p.516

8) 참가정주의와 참부모종교

타락한 부모의 인연으로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전통을 받아 이 세계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니 참부모가 와서 새로운 주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주의이겠습니까? 세계주의겠습니까? 천주주의겠습니까? 참가정주의입니다. 참가정주의가 나오지 않고서는 세계주의가 못 나옵니다. 이 참가정주의의 대표자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정적인 모든 것을 상속받는 내정적인 상속자요, 외형적인 상속자, 그리고 만물 소유권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요, 몸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요,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대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와야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가정주의는 무슨 주의입니까? 참가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주의입니다. 간단하지요? 사랑이 없으면 제아무리 세계 제일이라고 배통을 내밀고 다녀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참가정주의는 부모가 가면 아들딸은 부모의 뒤를 영원히 따라가는 주의, 또 형님이 가면 동생이 영원히 따라가는 주의, 동생이 가면 형님이 영원히 따라가고, 형님의 나라가 있으면 동생의 나라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주의인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501) p.516

하나님의 사랑주의는 어떤 주의냐? 국경을 초월하고 이 모든 평면적인 세계를 초월하여 서로 주고 받는 데 있어서, 서로가 주는 것을 먼저 하려 하고, 받는 것을 나중에 하려 하는 주의입니다. 그런 주의의 세계가 앞으로 올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는 무슨 큰 권세를 가지고 '이놈들아!' 하고 호령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상세계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화할 수 있는 만민 형제주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정구세주 종교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참부모주의입니다. 참부모 종교입니다. 참부모 종교라는 것은 사위기대를 이루는 참부모 생활종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정 아들딸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맨 나중을 보게 되면, 복귀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끝장에 복귀의 내용을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 장 17 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대가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부와 성신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신부는 주님의 아내 되는 것이며 성신은 영적인 것이니, 여기에서 영육이 합한 어머니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아버지로서 남성이므로 여성 가운데서 어머니를 찾아서 새로운 세계로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모릅니다. 가르쳐 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도리어 이단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502) p.517

천주주의는 무엇이냐? 가정을 두고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금은 보화가 천하를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들의 것은 부모의 것이요, 부모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스란히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천주주의는 어떤 주의냐? 참부모주의입니다. 결국 이 두 주의는 부모의 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 주의요, 우리나라 주의요, 여러분 개인의 주의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503) p.517

Top p.517

제 11 장

가정은 영원한 행복의 터전

1) 가정이 왜 좋은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이 왜 좋으냐? 가정에서는 사랑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어서 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곳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38-238, 1971.1.8) p.518

가정은 좋은 곳입니다. 왜 좋으냐? 엄마 아빠가 있어서 좋은 곳이며, 누나 오빠가 있어서 좋은 곳이며, 동생이 있어서 좋은 곳이며, 친척이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향 땅,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보다도 고향을 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리워하는 곳은 고향입니다. (23-151, 1969.5.18) p.518

여러분! 가정이 왜 좋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자유활동의 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에는 아무리 초라해도 빛나는 사랑의 핵을 지닌 그런 내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면 부자연스럽지요? 왜 그래요? 그것은 사랑의 인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인연이 사방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격의 길입니다.

한 가정을 중심삼고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자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최상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부모(父母)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권력이나 지식, 또는 명예나 돈도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을 테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부모'이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모가 좋은 것이 될까요?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왜 좋은 것이 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이것은 자식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友愛)라든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효성의 마음도 한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112-290, 1981.4.25) p.519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은 분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왜 부모가 제일 좋습니까? 사랑을 중심으로 한평생을 관계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비록 절대적으로 하늘이 준 영원한 사랑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랑이 아니더라도 부부간의 상대적 관계에서 맺어질 수 있는 사랑이 된다면, 그 사랑이 그 가정에 행복과 화목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 부모를 위한 자식의 사랑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으로 싹틀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그리워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자식의 사랑은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한 순수하고 진실한 가치로서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의 참된 사랑과 부부의 참된 사랑, 그리고 자녀의 참된 사랑이 완벽하게 구비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우리 인간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14) p.519

Top p.519

2) 가정은 영원한 행복의 터전

인간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외적인 어떠한 능력·권세·권위를 가졌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또한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또 세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것만으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23-11, 1969.5.11) p.519

어떤 사람이 이만하면 천상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행복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런 외적인 것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결정되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없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례적인 슬픔을 느낄 것이요, 비례적인 불만이 그 가슴 가운데 남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13) p.519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행복의 터전은 가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모 없는 자식을 고아라고 부르며, 그 고아는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는 동시에 부부의 인연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것도 불쌍한 것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없는 것도 불쌍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게 지내던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게 될 때는 더없이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자녀를 갖지 못하면, 그것 역시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3-11, 1969.5.11) p.520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찾아 나오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행복의 터전을 찾아 나오는 데에는 인간을 떠난 자리에서는 그러한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야 그 일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서적인 모든 내용을 갖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그러한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콧노래를 부르며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정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심정, 사랑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자녀가 없게 될 때는 부모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없어도 자녀의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남성이 있으면 상대 되는 여성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부부가 있으면 그 부부의 소원은 그들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놓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앞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위로는 부모가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또한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가정은 종과 횡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중심삼고 하나가 될 것인가?

인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들만으로는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의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를 중심삼아 부모는 하나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거기서 부부와 자녀가 그 주체를 중심삼아 사랑으로 일체를 이룬 자리가 행복의 자리이며,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귀결시키고 보다 가치적이요, 자극적인 면으로 통괄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절대적인 입장에서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13) p.520

Top p.520

3)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단위

우리 가정과 천국은 유형이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사랑으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일이 이뤄질 수 있고, 생명이 연결될 수 있고, 이상을 실현시킬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는 부모 앞에 사랑을 상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사랑을 부정해도 천국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부끼리 사랑하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천국의 핵심이 되고 이상적 모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6) p.521

천국의 기점은 개인이 아니요, 국가가 아닙니다.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 신부의 인연을 찾아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천국의 기점입니까? 가정이 천국의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완성의 기본단위입니다.

천국은 한 번 가보면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열 번 백 번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인이 공통으로 그곳을 가고 싶어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분과 같이 살고 싶어한다면 세계는 통일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가정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민족, 국가,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2) p.521

천국이 어디 있느냐?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지간에 주고받는 그 생활적인 무대를 키우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의 생활에 이용하고 우리의 이상의 조건으로 이용하는 재미, 그 재미를 백 퍼센트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5) p.521

여러분의 가정은 하늘나라의 주권을 대신한 입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주권을 대신하는 것이요, 자녀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요, 물질은 그 나라의 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나라에 충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성인의 도리를 다하는 길과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 별의별 추태스러운 것의 기원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바라보고 나오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반드시 가정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에 있어서의 종적인 역사 전체를 횡적으로 전개시켜서 대신할 수 있는 실체가 무엇이냐? 만물과 자녀와 부모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과 그들의 소유물입니다. 이것들은 가정의 한 울타리 안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3) p.521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둘이 하나되는 데서만 부부천국은 이뤄집니다. 하나된 것을 그 누구도 뗄 수 없으며, 갈라지거나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천국이 생겨나고, 가정천국을 이뤄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돼 사랑하게 되고, 그 아들딸도 어머니 아버지 같은 대상을 얻어야 가정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플러스가 되고, 딸이 마이너스가 되면,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3) p.522

Top p.522

4) 사랑의 이상 실현은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이상 실현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통일교회에서부터? 나라에서부터? 세계에서부터? 세계를 아무리 통일했다 하더라도 자기 가정을 통일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이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실현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려 오셨던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고 하신 것도 가정을 표준하고 한 말입니다.

가정에는 누가 있느냐? 첫째는 부모가 있고, 둘째는 자녀가 있고, 셋째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무엇으로 얽혀 있느냐? 사랑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무엇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느냐?

사랑으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부모의 사랑이 하나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이 하나될 수 있고, 부부의 사랑이 하나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통일성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에는 사람의 생명의 동기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명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부모는 부모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조부모의 자녀는 부모요, 부모의 자녀는 우리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중심삼은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것을 부정해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요, 과거-현재-미래를 통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부부끼리 사랑하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남자는 주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자는 사랑하기보다도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는 것은, 우주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써만 우주를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써만 우주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기 상대를 우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지상에서 사랑으로 엮어진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세계가 영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개개인이 완전히 하나되면 자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되게 되어 있고, 완전한 부부가 생겨나게 되면 하늘땅은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싶어하느냐 하면, 사랑은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가 사랑하는 곳에 계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한 이상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찾는(잡는) 자는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이루어진 가정의 목적은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가 하나되기 위한, 이런 목적에 일치하기 위한 표준을 중심삼아서 가정에서부터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48-10, 1971.8.31) p.523

Top p.523

5) 천국은 가정단위로 들어가는 곳이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극락 또는 천당 간다고 하지만 자기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가 다 같이 가야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천국은 개인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단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 단위로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족속을 거느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족속을 가졌다는 것은 복받은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딸이 많고, 재물이 풍성하면, 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러지요? 이처럼 복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개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절대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알아보니 천국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망상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천국은 가정단위로 가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이 같이 가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같이 살 수 있는 곳이 이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데 아버지는 지옥 가고, 어머니는 천국 가고, 누나는 지옥 가고, 동생은 천국 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천국 갔다고 해서 좋겠습니까? 천국은 가정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8) p.523

천국이란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성혼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들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손자들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그 가족이 모두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식이 못 들어가도 자신만 들어가면 천국입니까?

그러나 낙원은 아무리 정다운 부부나 부모 자식이라도 헤어져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가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천당입니까? 부모를 모시고 온 가족 모두가 들어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아들은 지옥에서 죽겠다고 야단하고 있는데, 부모는 천국에서 잘살면 되겠어요?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혼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볼 때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냐? 아닙니다. 둘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면 어머니도 들어가고, 부모가 들어가면 자식도 같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엄마 아빠가 같이 가야지, 아빠는 천국가는 데 엄마는 지옥 가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9) p.524

본래 창조원칙에 의한 천국은 가정을 중심삼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부모가 들어가고 자식도 들어가고 자기 일가 전체 문중이 들어가야 행복한 것이지. 부모는 지옥 가고 자식만 천국 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통일교회가 앞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데 있어서 가정적인 기준을 닦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역사적인 참소 기준, 시대적인 참소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50) p.524

본래 하나님은 남편은 천국에 들어가고 부인은 지옥에 들어가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 당시의 이상의 주인공들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종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이 생긴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9) p.524

Top p.524

6) 천리법도가 사위기대 원칙으로 되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왜 슬픈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이 우주에 가득차 있는 초인적인 힘의 작용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 힘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우주적인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힘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결과를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통한 사실입니다. 내가 완전한 합격품이 되어야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불합격품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불합격 요소를 갖게 될 때는 거기에 비례하는 요건을 우주의 힘이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01) p.525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리면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껴야 효자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잃어버리면 비통함을 느낍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슬퍼할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냐하면 우주의 원칙은 부모와 부부와 자녀 3 단계가 하나되어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위기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원칙에 의해 불합격자는 합격권 내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제 3 목적인 아들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못 다 이루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요.

전기를 보면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는데, 이 둘 중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것도, 아무 작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03) p.525

자기 아들딸이 없으면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없으면 부부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리법도가 사위기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되었으면, 반드시 아들딸을 낳아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공법입니다. 사위기대를 이루지 못하면 합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들만 있으면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맛은 알지만, 딸에 대한 사랑의 맛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맛이 어떻다고 누가 설명을 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직접 입을 벌려 가지고 먹여주고 나서 이것이 꿀맛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왜 섭섭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딸만 가진 사람은 아들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세상에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둔합니다. 그들은 개인주의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감정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동양사상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딸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완전히 하나되어 처음부터 목적지점까지 천운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게 되면 이 가정은 영생한다는 것이지, 혼자서는 영생 못 하는 것입니다. 설령 영생을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고생이라는 보따리를 싸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요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04) p.526

Top p.526

7) 가정을 통해 인간이 가야 할 천도

인간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듯이 이웃 동네의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 할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이웃 동네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 아들딸을 사랑하듯이 이웃 동네의 아들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하관계가 벌어지고, 좌우가 벌어지고, 전후관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어져야 이 종적인 심정의 기준이 자리잡아 가지고 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그걸 실천하기 때문에 이상적 가정건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 종적인 기반을 횡적으로 사방화시킬 수 있게끔 해나가는 곳입니다. 그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많으면 좋으냐? 가정시대에서 종족권으로 넘어가고, 종족권에서 민족권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수록 천적인 기반이 자기를 통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 가치의 기준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적 중심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횡적으로 재현시키자는 것입니다. (70-152, 1974.2.9) p.526

엄마와 아빠가 하나되는 날에는 그 가정은 발전하는 것이요, 자식과 부모가 하나되는 날에는 보다 차원 높은 가정으로 발전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과 친척간에 하나되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는 새로운 민족 정기가 발발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을 향해 가자고 할 때는 환경적으로 전부 결속되어 국가 기준까지 충신의 혈족으로 남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21) p.52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제 선생님도 오래 안 가서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늙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딸로 태어나 결혼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가는 그 것이 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엔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엔 자기 부처, 그 다음엔 아들딸, 이것이 인생이 가는 공식적 노정이니, 이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도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묶어 놓지 않으면 세계를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서양에 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쌍합니다. 그들은 동양풍습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 동양사상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하나님과 같이 모시고, 칠십 팔십 노인한테 아들이 가서 전부 다 문의하고, 그러니 그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요, 애기들보다도 더 젊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 전체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이가 많다면 제일 많은 분이요, 미래에 대한 청춘이라면 누구보다도 청춘입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하려니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인류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역사시대에 영계에 가 있는 그분들도 그 권내에서 지금 희망을 찾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 하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70-152, 1974.2.9) p.527

Top p.527

8) 통일교회는 가정천국을 이루자는 것

내가 지금 교회를 안 짓는 것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정 즉 신랑 신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기 위해서 태어났고, 남자는 여자를 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잠에서 깨어 처음 눈을 뜨면서 부르는 것이 '엄마'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남편은 아내를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불러 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부인도 남편 이상으로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서로가 그럴 수 있는 부부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실지락(琴瑟之樂)의 부부로서 서로를 그렇게 부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년 만 년 산다면 늙어도 청춘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4) p.527

남자와 여자는 말씀의 시대를 거치고 실체의 시대를 거친 후에야 상봉의 한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봉의 한날이 이루어진 후에야 천국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봉의 그날에는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의 심정이 내 심정이요,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그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요,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로 느껴질 수 있는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도 내 마음이요, 그의 심정도 내 심정으로 되어야 천국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완결되어야 천국가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무엇이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서로가 희생하는 전통을 갖추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깨지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인연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들딸이라면 자기 부모에게 절대로 불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대해 '당신은 나를 위했다'는 입장에서 서로가 더 위해 주고 더 희생하는 자리가 넓어지게 될 때, 그 가정에는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지인 것입니다.

천국생활은 어디서부터냐? 가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정을 입체적으로 확대시킨 것뿐이지, 가정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품을 때에 이것은 세계의 남성과 여성이 하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제 선생님은 가정에 대한 규범, 천국가정으로서 가져야 할 생활에 대한 규범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조직은 가정조직입니다. 가정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통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설교 형식이 아니라 보고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그 가정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전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한 가정을 보고는 본을 받고 못한 가정을 보고는 잘 되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천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먼저 이루지 못하면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945) p.528

Top p.528

제 12 장

참가정을 찾아서

1)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개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만을 주장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자로부터 자라서 태어날 때 99.999%는 어머니의 뼈와 피, 살입니다. 그리고 0.001%인 아버지의 정자 하나가 합해져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자기 자신만이란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는 사람도 자기 혼자 잘나게 됐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뼈나 피, 살 전부가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몸의 중요한 부분들은 어머니 몸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요소는 난자와 정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란 있을 근거가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61) p.529

위라는 말이 생겨날 때에는 아래를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위라는 것만 가지고 개인주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개인만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전후를 보더라도 전(前) 하게 되면 후(後)를 먼저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라는 말도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를 선유조건으로 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실입니다. 남자는 왜 생겨났습니까? 남자들은 흔히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들 하지만,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필요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관을 보십시오. 내 눈이 내 눈을 보기 위해서 생겨났습니까? 코나 귀?입?손도 모두 상대를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오관을 총동원해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눈?코?입, 그리고 손은 참사랑을 위해 생겨난 참사랑의 도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써먹는 사람이 도둑 아닙니까? 그러니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남자의 오관과 몸을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서로 다릅니까? 성기관(Sexual Organ)을 포함한 그 몸이 우선 다릅니다. 그러면 남자의 성기관은 누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까? 남자의 성기관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기관이 하나는 오목이고 하나는 볼록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둘 다 뾰족하게 되든가, 둘 다 납작하게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생겼습니까? 모두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남자 것은 여자가 절대 원하고, 여자 것은 남자가 절대 원합니다. 절대로 여자 것이 남자 것이고, 남자 것이 절대로 여자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걸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만 최고 높은 경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둘이 완전히 하나되는 그 자리에서 이상적인 부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절대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62) p.530

Top p.530

2)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분이며 영원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나 인간에게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사랑, 유일한 사랑,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

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디냐? 사랑이 깃드는 타락 이전의 남녀의 성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타락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타락한 것은, 인간이 사춘기를 잘 넘겨야 하는데 그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탈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 조상 해와가 먼저 천사장과 영적으로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타락했고, 그로 인하여 해와가 아담과의 육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육적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혈통이 후대 인간들에게까지 유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임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두 번째 결혼했을 때, 전 남편을 못 잊어하는 아내를 좋아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탕감복귀를 통해서 인간들이 죄를 청산짓게 하여 구원섭리를 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깔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밤에는 까맣고, 낮에는 하얗고, 저녁 때쯤이면 노랗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빛깔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중심 빛깔에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인류의 평등사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불에 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사랑의 이념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 사회에 있어서 사랑의 빛깔은 한마디로 역겨운 죽음의 빛깔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창조이상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남녀가 사랑의 지성소를 정결하게 지켜야 하고, 한 번 사랑을 하면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하는데, 미국인들은 사랑의 지성소를 침범하는 악당들이요, 악녀들인 것입니다.

결혼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의 남녀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 뿐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대로 나간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절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성이 상실된 인간들로 말미암아 자멸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7) p.531

통일교회는 6천 년 간 감춰진 사랑의 섭리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창조이상을 완성하기 위해 축복의 발판을 넓혀 나온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사랑의 지성소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6) p.531

Top p.531

3) 남자의 주인은 여자, 여자의 주인은 남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체와 대상 즉 양성과 음성이 하나되는 데도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겠습니까? 키스하는 것으로 입니까? 사랑은 개념이지 실재가 아닙니다. 사랑이 정착할 수 있는 실재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 되고, 여자가 여자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식기입니다. 그것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이제부터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생식기를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세계가 된다면, 그 세계가 좋은 세계일까요, 나쁜 세계일까요? 흥하는 세계일까요, 망하는 세계일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정성들여 만드신 곳이 어디겠어요? 눈이나 코요? 심장이겠어요? 아니면 두뇌일까요? 이것들은 전부 죽어 없어진다구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통일을 위한 가정연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덕과 종교 등 모든 분야를 완전히 초월하고 생식기가 하나되어 하나님까지도 박수로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 그들의 생식기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아내이고, 아내 것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생식기의 주인이 서로 엇바뀌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그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여자들도 그것이 자기들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들 주인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들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며 꿈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 뒤바뀐 것을 확실히 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박사, 수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이것 하나 생각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 조부모 또 증조부모 그리고 인류의 조상 되는 분과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아도 전부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주가 억만 년 지나도 원리 원칙으로 남기 때문에 철칙입니다.

그리고 이 철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의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도 알고 보면 바로 이 철칙을 어긴 데서부터 연유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자신들의 생식기가 자신들의 소유인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틀어져 우주의 어디에서도 공인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광물계나 식물계나 동물계의 수컷과 암컷도 모두 사랑의 상대를 위하여 자기의 성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해와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식기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처럼 수놈과 암놈으로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모든 남녀가 자기들에게 소속된 생식기가 알고 보니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자기의 상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머리를 숙이고 겸허한 자세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상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하지 않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위하는 곳에서 절대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53)

Top p.533

4) 사랑에는 발전도 혁명도 없다

사랑에는 발전도 없고 어떤 혁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원형 그대로가 완전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발전도 없고 혁명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여 시험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을 생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그런 미국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리 없으며, 미국 스스로가 망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사랑의 폭탄을 터뜨려서라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이 생활의 한 방편이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1) p.533

남편은 아내가 처음 사랑했던 모습으로부터 어떠한 혁명이나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편에 대해 바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처음 사랑을 출발하던 그 순수한 모습을 간직하기 바라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 모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에 그 어떤 색깔이 가미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 그 자체가 영원토록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왜 이혼이란 문제가 생겨나게 될까요? 이혼한 사람이나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 모두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사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결국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둘 사이가 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을 지키고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2) p.533

한 남녀가 부부를 이루었다면 너와 나 사이에 불변적인 통일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자리에서 행복을 노래하게 될 때 그것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상적인 애정도 역시 변치 않는 주체적인 무엇을 갖는 데서만이 그러한 기준이 설정될 것입니다.

결혼한 때에는 그 남자가 미남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한 주일이 지난 후에 사고가 나서 몸이 병신이 됐을 때, 이혼하자고 하며 나서는 것은 참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오늘날 선진국가의 백인들은 세계를 주도하고 움직이는 높은 자리에 있고, 흑인들은 대부분 피지배자로서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그 농도에 있어 백인과 흑인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끼리끼리의 사랑하는 마음은 역사가 아무리 변동되고, 발전하고, 혁명의 과정을 거쳐오고, 거쳐간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1) p.534

Top p.534

5) 여자는 절개, 남자는 지조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없게 돼 있나요? 길거리에서 남자가 휙 부르는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게 게 돼 있지요? 그런 소질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때가 올 때까지 자기 몸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순정을 도깨비같은 남성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꺼떡꺼떡거리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남자들은 전부 다 도깨비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그런 남자에게 맡기겠어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발짝 잘못 딛는 날에는 자기의 일생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남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자에게 절개를 지키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남자도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복귀될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더라도, 여러분은 가야 할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춘시대에 순정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의 한을 밟고 탕감할 수 있는 귀한 때인 사춘기에 순정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정을 깨끗하고 귀하게 보존해 가지고 '천세 만세 혼자 가더라도 사랑이 유린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하는 지조와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있어도 예쁜 여자를 보면 자기 아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남자를 가리켜 도둑의 심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두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사탄이니 두 마음을 가진 남자를 가리켜 사탄이라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탄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49) p.534

남자도 절개를 지켜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남자가 절개를 지키지 않고 잘못하게 되면 그 문중이 뜻 앞에 중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님들이라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괜찮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잘못하면 그 문중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을 알게 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자도 절개를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남자도 절개를 지켜 역사적인 순결의 전통을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의식은 그의 순결한 피와 살의 전통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자는 절개, 남자는 지조(배짱)'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뜻(사랑)을 이루기 위한 절개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절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사랑밖에는 몰라야 되고, 남자는 지조라고 했으니 한 목적만을 위해서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볼 때,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사랑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또 여자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꽁꽁 잘 봉해야 합니다. 함박꽃처럼 수많은 꽃잎이 겹겹으로 싸여 있듯이 꽁꽁 묻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봄절기라는 천지 조화의 때를 맞아 거기에 화합하여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350) p.535

Top p.535

6) 타락은 프리섹스의 뿌리요, 개인주의의 조상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생식기를 함께 허락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그들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혼시켜 주겠어요, 안 시켜 주겠어요?

문제는 그들의 타락에 있습니다. 타락 때문에 핏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몸이 되고 부인격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의 몸과 이상을 병들게 만들고 원수가 되었으니,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타락은 스스로를 매장하는 무덤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은 프리섹스의 뿌리가 되었고, 개인주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극도의 개인주의, 분수에 넘치는 사생활 추구, 프리섹스까지 넘쳐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극도의 개인주의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말대로라면 하늘과 땅, 세계, 국가·사회, 가정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부모와 형제도 잃어버린 채 집시나 히피가 되어 멋대로 방황하다가 비 오고 눈 오면 갈 데가 없으니, 자살하여 일생을 마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의 본심은 극도의 개인주의나 어처구니없는 사생활 보장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와 국가, 동네와 마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반대의 길을 가다보니 양심이 불타버리고 본심과의 상충을 느끼게 되어 차라리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이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셈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무슨 씨를 심었습니까? 프리섹스 시드(Free Sex Seed), 즉 절제 없는 성관계의 씨를 심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체를 가렸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숨겨놓은 귀한 과자를 훔쳐먹다 들키면 숨기는 게 본성의 작용이 아닙니까? 만일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 따먹은 손이나 입을 가려야지 왜 하체를 가렸느냐는 말입니다. 타락은 음란으로 저질러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지 알아봅시다. 공중입니까? 어디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생식기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텍스트 입력]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레버런 문이 발표한 원리책의 타락론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로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과 이론을 갖고 체계를 잡아 놓은 레버런 문의 원리책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식기를 눈먼 장님처럼 방향을 잃은 채 사용하게 되면 지옥행이요,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사랑에 기준을 맞추어 쓰게 되면 천국 높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결론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49) p.536

그러므로 앱솔루트 섹스(절대순결)는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고, 프리섹스는 자기와 사탄을 중심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학작품이나 미디어를 통해 프리섹스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 문인 · 언론인들과 하나가 되어 앞장서서 프리섹스를 막아야 합니다. 프리섹스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63) p.536

Top p.536

7) 절대순결과 참가정운동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청소년기에 그늘 아래서 음란으로 타락을 하여 프리섹스를 심었기 때문에, 추수기인 끝날에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프리섹스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날에 하나님은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프리섹스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전 인류를 완전히 망가뜨려 지상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상지옥이 되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이처럼 지상지옥이 된 이 세계와 180 도 다른 정반대의 길을 찾아가면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와서 이 세상을 구해주는 데도 바로 이러한 180 도 반대의 길을 가르쳐 주어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리섹스의 길과 180 도 다른 정반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거짓 부모가 나타나서 만들어 놓은 길이 프리섹스의 길이기 때문에 참부모가 나타나서 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실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주권이나 군사력 · 경제력 · 정치력을 가지고도 손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참부모가 칼을 들어 수술해 내지 않으면, 인류는 구제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탕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결혼을 잘못하여 혈통이 180 도 틀어졌기 때문에 참부모가 와서 결혼시켜 가지고 180 도 원상으로 돌려줌으로써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참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사랑을 어떻게 되찾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즉 생식기를 중심삼고 그릇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찾으려면 그 반대로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사랑이 에덴동산에서 심어졌기에 끝날 추수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sex) 혼란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은 절대순결(absolute sex)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앱솔루트 섹스 개념으로만 가정파괴를 방지하고 청소년 윤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절대순결, 사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앱솔루트 섹스가 있는 곳에는 절대순결 부부가 탄생하게 되며, 자동적으로 프리섹스, 호모,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순결 사랑찾기 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레버런 문은 일생을 바쳐 수난길을 극복해 왔고, 이제는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며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 앞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세계평화를 향해 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도 가정이요, 세계평화로의 길을 파괴할 수 있는 것도 가정입니다. 인류의 희망과 행복의 기틀이 파괴된 곳이 아담 가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처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창설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는 사탄세계와 180 도 다른 각도로 갈 수 있는

[텍스트 입력]

길을 열게 된 것을 하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자유도 행복도 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절대순결 생식기 · 유일 생식기 · 불변 생식기 · 영원 생식기를 중심삼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이 사랑의 기반, 생명의 기반, 혈통의 기반, 양심의 기반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부터 참된 가정이 참된 국가와 참된 세계로 연결됨으로써 평화세계, 이상세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TV 나 기타 언론기관을 통하여 레버런 문의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된 이 세계를 과연 무슨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즉 절대 · 유일 · 불변 · 영원의 기준에 세워 살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생식기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51) p.538

본 훈독 성약말씀은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233 권 중에서 각 장의 주제에 맞는 말씀들을 부분 발췌하여 편집해 놓은 것으로 인용되어진 말씀 단락의 근거는 아래 범례와 같이 기록하였다.

<범 례>

· (축복가정과 이상천국-298) :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제 I 권 298 페이지
· (선집 181-85) :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제 181 권 85 페이지
· (정선 12-138) : 《문선명 선생 말씀 주제별 정선》 제 12 권 138 페이지

Top p.536

제 5 권

지상생활과 영계

차 례

제 1 장 유 · 무형세계에서의 인간의 존재

1) 인생노정 · · · · · 543
2) 인간의 위격(位格) · · · · · 550
3) 인간 생명의 본질 · · · · · 553
4) 육신생활의 고귀성 · · · · · 555
5) 축복과 영생 · · · · · 560

제 2 장 죽음과 영계

1) 인생필연지도(人生必然之道) · · · · · 574
2) 죽음에 대한 이해 · · · · · 577
3) 높은 영계에 가자면 · · · · · 606

제 3 장 영계

1) 육신 갖고 체휼 가능한 영계 · · · · · 610
2) 영계는 어떤 곳이냐 · · · · · 620
3) 영계의 내용과 상황 · · · · · 625
4) 영계의 입장과 실상 · · · · · 638

제 4 장 천국

1) 천국에 대한 이해 · · · · · 643

2) 천국 가기 위한 준비 · · ·

[텍스트 입력]

전체를 몽땅 옮겨 드릴 수 있는 자신이 못 된 것을 탄식할 줄 아는 아들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동화될 수 있는 인연을 갖추어 거기에 완전히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사옵니다.

그래야 비로소 봄을 맞이하여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사옵니다. 일생에서 어느 한때에 봄을 맞이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간 불쌍한 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의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름과 가을을 거쳐야 하듯이, 저희도 하나의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사옵니다.

하나의 생명이 투입되어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여름절기를 거치고 그 뿌리와 줄기와 가지 전체에서 생명요소를 흡수해야만, 완전한 생명력을 지니고 제 2 의 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몸은 죽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부풀어 오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스스로 살필 줄 아는 아들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고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더라도, 내적인 생명력은 그 환경의 침범을 받지 않고 꾸준히 발전의 노정을 가야만, 봄을 맞이하여 다시 뿌려질 수 있는, 제 2 의 생명의 모체인 씨가 되는 것임을 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적으로 모습은 처량하지만 무한한 생명력을 집약할 수 있는 모체요, 결실체로서 다시 무한한 세계에 심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옵니다. 그 외적인 모습이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내적인 가치는 더욱 더 충실해지는 것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32-37, 1970.6.14) p.544

아버님, 아버지를 모시고 겸손히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저나라에서 아버지와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사옵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당신의 음성을 들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몸을 찾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나 하나를 찾기 위하여 내 배후에서 환난과 수고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것을 느껴 스스로 머리 숙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280, 1958.9.14) p.544

Top p.544

② 사람이 원하는 목적

하나님은 체(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체로, 아담을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적인 초점이고, 아담은 본래 육적인 초점입니다. 그 두 초점이 90 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요, 사람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저나라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로 영원히 나타날 것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기 부모를 하나님같이 모시면, 누구나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119- 109, 1982.7.4) p.544

Top p.544

③ 태어난 이유

오늘날 이 세계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도 둥글고, 땅도 둥글고, 별도 둥글고, 입도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둥글둥글 돌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둥글게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느냐? 이 대우주와 박자를 맞추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바다의 물결이 출렁거리면 내 마음도 출렁거리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면 내 마음도 기분 좋고, 꽃이 피어서 향기를 풍기면 내 마음도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4- 122, 1979.4.22) p.54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에서 태어나고, 사랑에서 자라 가지고, 사랑에서 살다가, 사랑에서 죽게 될 때는 낳는 것도 감사한 것이요, 사는 것도 감사한 것이요, 죽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동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꽂아 놓은 깃발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도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 주고, 아버지를 봐도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 주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103- 258, 1979.2.25) p.545

Top p.545

④ 순간(하루)과 일생 관계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고는 생명체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현상 세계에서 벌어집니다. 생명의 분기점은 긴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순간에 있습니다.

순간을 무시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왕좌와 왕관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을 빛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해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용이 세계와 관계되는 현상으로 남는다는 신념으로 해결짓는 데에서만이 승리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권이 결정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승리권, 천주적인 승리권도 순간에 결정됩니다. 순간을 빛낼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느끼며 생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도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딸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사의 분기점은 순간에 달렸습니다. (31-218, 1970.5.31) p.545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먼저 뜻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자체가 어떻게 하면, 뜻과 더불어 일치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뜻과 더불어 하나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뜻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뜻을 계승할 수 있는 개인적인 환경, 가정적인 환경, 종족적인 환경, 민족적인 환경을 이루어야 뜻의 나라와 관계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루의 생활권 내에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어떻게 뜻과 더불어 관계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귀섭리역사를 보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세 가정과 예수님 가정까지 4 천 년의 역사가 내려오고 있지만, 그들이 실수하게 된 동기는 어느 한 해를 중심삼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도 1 년이나 10 년 혹은 몇십 년을 계획하여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는 한 순간에 초래되었으며, 한 순간의 실수가 억천만세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순간의 실수로 역사시대에 도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난의 보응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은 수많은 민족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탕감 제물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한 시간 똑딱 하는 순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한 순간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출발은 내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출발은 내가 뜻을 알고 난 순간부터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순간이라도 시간 관계를 두고 비약이 있든가 구렁텅이가 생겨나면 영원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애노정을 중심삼고 신앙길을 가는데 금년에 못 가면 명년에 가고, 명년에 못 가면 내명년에 가고, 10 대에 못 가면 20 대에 가고, 20 대에 못 가면 30 대에 가고, 30 대에 못 가면 40 대에 가고, 40 대에 못 가면 50 대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일생 동안 뜻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하루의 생활도 가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좋다 하더라도, 하루의 승리기준을 갖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며, 일년의 승리기준을 갖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신앙자는 영원을 꿈꾸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악을 청산하고 선의 기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담의 순간적인 실수가 억천만세 한을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이 부모의 한을 풀고 형제의 담벽을 무너뜨려 하나의 가정 기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복귀섭리의 대표로 세워졌던 아벨이 죽었던 것도 순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20 년 걸려 방주를 짓던 노아의 수고노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성취할 날이 왔으니 배에 오르라!'고 하신 명령도 한 순간에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에 동조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권 내에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성(昌盛)하여 만국을 덮고도 남으리라'고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명령도 똑딱 하는 한 순간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낸 시간도 몇십 년 동안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는 시간권이었습니다. 제물을 쪼개어 제사 드리는 시간은 한 시간 미만이었지만 여기서 역사적인 모든 생사화복의 기원이 짜여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끝날에 찾아오는 심판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권 내에서 찾아오는 시간을 어떻게 뜻과 일치시키느냐, 어떻게 뜻과 더불어 교차로를 형성하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37-219, 1970.12.27) p.547

Top p.545

⑤ 유아기와 3 단계 질서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이 지었다면 어떻게 지었을까? 흙으로 빚어서 지었다면 어떤 흙으로 지었을까? 어디서 출발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장성한 사람으로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기로부터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밴 어머니가 품어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지었다는 논리를 세우지 않고는, 이 모든 3 단계의 질서를 통한 존재 형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에게도 유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천리입니다. 그 다음에 완성기가 있었습니다.

유아기는 어떤 유아기였겠느냐? 무형의 하나님이 무형의 세계에서부터 유형의 과정을 거쳐올 수 있는 아기의 존재를 품고 키웠다는 논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25- 198, 1992.1.20) p.547

Top p.547

⑥ 우리들의 인생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국가, 세계는 내 뜻에 부합되는 환경이 돼 있지 못하기에 온갖 고충이 벌어지고 있고, 선악의 분기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이면 백 사람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하루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환경과 투쟁하고 있고, 환경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계획한 하루의 일을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잘 느끼게 됩니다. 더우기 그 환경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하루 생활을 승리로 결과짓기 위해서는 그것에 비례해서 결의와 추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한 달이 되는 것이요, 한 달 한 달이 더해져서 일년이 됩니다.

그 한 달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달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한 달의 환경에 갖추어진 복잡한 모든 사연들, 모든 여건들을 타파할 수 있는 추진력과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한 달의 계획을 승리로 끝맺을 수 없습니다.

일년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삼백예순 날을 극복할 수 있는 투지력 혹은 추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1 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없습니다. 이런 1 년에 10 년이 가해지고, 20 년 혹은 30 년이 가해진 날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31-30, 1970.4.12) p.548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시간성을 못 벗어납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도 그와 같은 시간권 내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중심삼고 10 년, 20 년, 30 년, 70 년, 일생 동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크면 클수록 내적으로 더욱 강하게 다짐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능가할 수 있는 내적인 결의를 계속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 149, 1970.5.24) p.548

Top p.548

⑦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향

여러분은 영계(靈界)의 사실을 모를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입어 미지의 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근본을 헤쳐 보니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천지원칙인 위하여 산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형성된 세계가 이상천국입니다.

그곳이 우리 인간이 찾아가야 할 본향(本鄕)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인생으로서 본향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본향 땅을 향하여 돌아가야 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인간 자체로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역사과정에 설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문화 배경, 풍습 혹은 전통에 따라서 수많은 종교를 세워 수습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습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세운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 종교는 본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자를 연마시키는 훈련장소입니다. 동서 사방의 문화 배경에 따라 높은 데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종교세계로 이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본향의 곳으로 지도하여야 할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위하여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해야 되겠기에 온유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뭇사람을 높이고 그들을 위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희생봉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법도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8- 117, 1975.5.6) p.548

Top p.548

⑧ 인생 최고의 갈 길

인생의 갈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이 인생의 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이 인생이 가야 할 최고의 종착점입니다. 이 길은 남자도 여자도 다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 길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죽을 고비를 거쳐서라도, 죽어서라도 끊임없이 찾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갈 길입니다.

욕망의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더 귀한 사랑을 점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해야 됩니다. 사랑만 점령하면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그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안팎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상하의 등급이 없는 이상의 본국(本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놉게 되면, 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갈 천상세계 즉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된 곳입니다. (39-210, 1971.1.10) p.549

Top p.549

⑨ 출생의 기준과 생애의 기준

㉮ 잘못된 출생의 기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박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출생이 틀렸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사랑과 생명과 핏줄을 타고났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사탄의 사랑에 의해 태어난 것입니다. 사탄의 사랑이 그 부모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어머니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에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 피가 오늘 나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 종류의 결실체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탄혈통에 속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탄은 자기의 이상적인 결실을 맺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남녀를 본연의 순수한 완성 인간으로 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 혈통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짓부모로 시작했으니 돌아가서 참부모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핏줄을 다시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때 혈통전환식을 합니다. 그걸 내 생명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하나의 예식이라고 해서 그저 일반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입장에서 회생(回生)하는 주사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독주사입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가는 것입니다. 타락 천지에 불륜한 사랑을 남김으로써 역사를 통해 얻은 그 대가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사회, 국가, 세계에 미친 영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216-109) p.550

Top p.550

㉯ 생애(生涯)의 기준

여기서 생애는 영원한 생애를 말합니다. 영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영원한 삶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절대적이고 주체적인 하나님의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사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생명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은 더 영원한 것인데, 그 이상의 중심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상대가 나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주체와 대상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나 동참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전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비참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그 기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숭엄하고 고귀합니다.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사랑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세계는 제한된 지구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한된 곳에서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지만, 저세계는 차원이 높은 세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무엇이든 바라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생체로 지음받았습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대상체인 나는 영원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계에 가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기준으로 첫째가 선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첫째이고, 둘째가 본연의 출발점이고,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216-115, 1991.3.9) p.550

Top p.550

2) 인간의 위격(位格)

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부모의 입장에 서기 위함입니다. 부모는 영계에서도 무형입니다. 모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가진 인간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모양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직선은 한 점에 머무릅니다. 면적이 없습니다. 즉 영계에서는 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직 차원에서 그것을 횡적으로 전개하여 360 도 구체(球體)가 되어야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상대권의 영원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상대되는 것은 아담과 해와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상대의 위치에 섬과 동시에 그 자녀들도 상대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대위치를 영속적으로 보존시키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를까요, 할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상대란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횡적으로 번식하여 그 사랑의 가치를 완성해야 합니다. 완성된 사랑의 가치는 하나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태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아담의 아버지와 같은 얼굴로 영적으로 그 형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국민의 생산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생산공장입니다. 생산공장이라면 대량생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소량생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량생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공장이 자동화되어 명확하게 대량생산하게 되면, 천국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많은 아기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222-338, 1991.11.7) p.551

Top p.551

② 인간은 영계와 육계의 매개체

본래 하나님의 창조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짓고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평형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이 피조세계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적 입장에 선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계와 육계를 접촉시킬 수 있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67-143, 1973.6.1) p.551

Top p.551

③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인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는 축이 있습니다. 그 축(軸)도 두 축이 있습니다. 보이는 축과 보이지 않는 축,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체를 중심삼고 돌아가는데 그 주체 자신도 돌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주고받으면 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존재물은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타락한 인간세계에서 복귀의 길도 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을 고쳐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몸의 중심이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마음을 중심삼고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마음을 중심삼고 도는 것입니다. 마음의 명령에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야 되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야 됩니다. 몸을 제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136-14, 1985.12.20) p.552

인간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고, 마음 위에 영이 있으며, 영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되어야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작은 하나의 개체지만 전체의 역사를 대신한 존재요, 미래의 모든 인연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애의 인연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앞에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천륜입니다. 마음의 명령에 복종치 않는 자는 하늘이 때립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역사노정에서 인간에게 양심대로 살되 물질적인 악의 조건에 걸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면 인간의 양심은 천륜을 100 퍼센트 닮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천국 관문 앞에 곡절의 문이 가로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의 관문입니다. 오늘날의 사조(思潮)는 공포와 불안과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몸과 영인체로 지었는데, 영(靈)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4-268, 1958.8.3) p.552

Top p.552

④ 완전작동과 공명

공명(共鳴)이란 진동할 때 주파수가 같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내적 사람과 지상천국에 살 수 있는 외적 사람이 사랑을 중심삼고 공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명할 때는 음파가 같아야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돕니다. 도는 데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핵을 중심삼고 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인체와 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어울리게 될 때는 영적 세포, 육적 세포가 완전히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완전작동할 때는 천상천하, 지상천하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도 그렇잖습니까? 성능이 좋으면 100 퍼센트 울려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힘으로 육신과 영인체가 일치되어 폭발할 수 있는 경지가 되면 천상세계, 지상세계, 하나님 할 것 없이 다 공명하게 되는 겁니다. (171-103, 1987.12.13)

인간을 보게 되면 마음과 몸,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마음사람과 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합하면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놓으면 네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되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는 완전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사람,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영인체가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영인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인체하고 육신이 언제 하나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음차(音叉)와 마찬가지입니다. 음차의 하나를 울리면 다른 쪽도 진동수가 같게 공명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 사랑의 작용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자동적으로 몸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100 퍼센트 공명시키게 할 수 있는 권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눈이나 코 같은 육적 오관이 영적인 오관과 바라는 하나의 초점, 이상적 표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초점, 표준점입니다. (138-254, 1986.1.24) p.553

Top p.553

3) 인간 생명의 본질

① 영적인 것이 인간의 본질

어떤 하나의 핵심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상대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양자(陽子)를 중심하고 전자(電子)가 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전자와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양자와 같은 하나님 마음의 핵심과 관계를 맺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여 복귀섭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화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길을 거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찾아나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내가 된 것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불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면서 진리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자신을 중심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성서에서도 높고자 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는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라에 가면 그러한 인간의 본질이 남을 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찌하여 자기만을 위하려는 마음으로 만사에 임하고 있는가? 이것은 모든 인간이 천륜을 배반한 천사, 다시 말하면 사탄과 혈통적인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137, 1957.3.17) p.553

이제 우리는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밥과 영적인 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맛있어야 되느냐? 내가 살아남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밥맛이 육적인 밥맛보다도 더 좋아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중심삼고 사는 생활의 맛이 육적인 힘을 갖고 사는 생활의 맛보다도 더 맛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1-211,1984.5.4) p.554

Top p.554

② 만물의 영장이란 뜻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만물의 영장이 누구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물의 근본된 영장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영(靈)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인간에겐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영(靈) 중의 장(長)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직결시켜서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란 상대적 결과체입니다. 피조물만 되어 가지고는 원인을 통할 수 없고, 원인을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원인에게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과적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영장하게 되면, 장(長)은 영(靈) 가운데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된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장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영장이 아닙니다. 영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영장이 될 수 있는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자는 적어도 개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중심삼고 소원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천국이 되느냐?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32-136, 1970.7.5) p.554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80년 정도 사는데, 개가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이 다를 게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늙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순금도 변합니다. 풍화작용에 의해서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159-278, 1968.5.19) p.554

만물의 영장이라 함은 무엇을 중심삼고 영장이라고 하느냐? 돈을 중심삼고, 지식을 중심삼고, 권력을 중심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중심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0-309, 1990.12.27) p.554

Top p.554

③ 속사람과 겉사람

인간 본연의 인연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권 내에서 서로 서로가 완성애로서 즐길 수 있고, 찬양과 존경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본연의 인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늘의 인연과 땅의 인연이 몽땅 화합하여 하나로 조화되어 나타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보이는 몸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인연을 갖고 태어났다면, 몸과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 것이냐, 한 십년쯤 지나면 끝날 것이냐, 죽어도 안 끝날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두 목적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혼돈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은 전후 좌우가 엇갈림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볼

[텍스트 입력]

때, 사람은 본래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집어던지고 본연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44-194, 1971.5.7) p.555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70, 80 년의 시간권, 한계권 내에서 살다가 사라지고 말지만 영은 시간권을 초월하고 공간권까지 초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책임을 깨닫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본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을 중심삼고 잘살더라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 중에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육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영을 위하여, 영은 육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입장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육을 구원했다는 입장에서 영육이 합한 실체를 갖추어 보다 보람있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326, 1968.7.14) p.555

Top p.555

③ 지상생활의 목적은 영육 완성

뜻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영육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중심삼고 볼 때 과거는 영적이고 현재는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세계가 침범을 당했습니다. 현재의 입장이 사탄세계이니까 사탄세계를 이긴 육이 되어야 되고, 과거에 사탄세계를 이겼던 영적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승리하면 영육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미래에 대한 축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73-96, 1974.8.4) p.555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계가 주체가 아니고 육계가 주체라는 것입니다. 완성시키는 데는 영계가 주체가 아니고 육계가 주체입니다. 육계의 완성은 영계와 육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육신 생활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91-178, 1977.2.6) p.555

Top p.555

4) 육신생활의 고귀성

육신생활은 영계생활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선하라고 하신 것은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을 쳐서 마음 앞에 굴복케 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은 사탄까지도 완전히 뿌리뽑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탄을 정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은 육신을 벗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땅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고치는 것도 육신을 쓰고 땅에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 편의 선한 입장에 서게 되면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65-294, 1973.2) p.556

이 육신세계는 짧은 기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잠 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밥도 걸어가면서 먹고, 잠도 걸어가면서 자고, 노는 것도 걸어가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계의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80-226, 1975.10.23) p.556

내가 비록 제한된 이 땅에서 80 년 정도 있는다고 해도 우리의 무대는 세계의 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만물은 세계의 만물이요, 내 몸은 세계 인류의 몸이요, 내 마음은 세계 인류의

[텍스트 입력]

마음입니다. 그런 심정은 하나님과 하나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제단입니다. (75-166, 1975.1.2) p.556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라는 것은 쉬운 준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두고 볼 때에, 소년시대는 청년시대를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장년시대는 노년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노년시대는 영계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생은 대우주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 하나의 훈련과정을 거치고 있는 수련기간입니다. 준비기간이라는 것입니다. (147-188, 1986.9.21) p.556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가 있습니다. 세상과 영계는 두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 물론 우리는 육신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 청춘시대를 지나고, 장년시대를 지나고, 노년시대를 거쳐 지는 해와 같이 일생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일생이라는 것이 잠깐이고 죽은 다음에 맞이해야 할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때문에 일생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학생을 예로 들어 말하면, 한 학년에 학점을 따야 할 학교에서 제정한 학점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얼마만큼 도달하였느냐 하는 비준에 의해서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점에 미달하게 되면, 학교가 세운 가치기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측정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육신세계에서 사는 것은 마치 학교에서 정한 학점기준에 맞게 준비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쌓아야 할 실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추구하는 어떤 기준 앞에 얼마만큼 일치되느냐 하는 기준치를 중심삼고 생애노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140-121, 1986.2.9) p.557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소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소화하고, 내 나라와 내 종족과 내 가정과 내 상대를 위해서 소화한다, 하는 생각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한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자기 중심삼고 살면 전부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위해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내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위하다 보면, 나는 진공상태로 되기 때문에 참이 찾아들어옵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자랑이 뭐냐? 첫째가 참사랑이고 둘째가 참부모입니다. 이것은 통일교회에만 있는 말입니다. 사전에도 없습니다. 셋째가 참자녀이고, 넷째가 참종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4 대 목표입니다. (203-101, 1990.6.17) p.557

Top p.557

② 육신생활의 귀중성

내가 해방받으면 하나님이 해방받습니다. 가정이 해방받으면 하늘나라의 가정이 그렇고, 이 지상이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중구조의 일체성으로 해명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쓴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활시킬 수 있고, 우주도 부활시킬 수 있고, 모든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쓰고 있는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합하더라도 이 육신세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이 우주를 합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의 '우주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도 그래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91-191, 1972.2.13) p.557

육신생활은 80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생애노정에서 역사적으로 엉클어진 모든 선의 권을 수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육신생활에 인연맺어야 할 선한 권이 방대하다는 것을 아는 이 마음, 양심이 얼마나 재촉하겠습니까? 죽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동안 본향 땅을 찾아야 하고, 조국 광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주권자를 모시고 그 나라에서 살다가야만 천상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155-27, 1964.10.6) p.557

영계, 무한한 세계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육신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이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잡는 것은 절대 나를 위해서 바로잡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바로잡는 법이 있다면 통일교회 문선생이 지금까지 절대 고생 안 했습니다. (59-50, 1972.7.2) p.558

통일교회가 제시한 원리의 길은 천년만년 지나도 가야 합니다. 살아생전에 못가게 되면, 영원한 영계에 가서도 가야 합니다. (135-297, 1985.12.15) p.558

Top p. p.558

③ 습관성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사탄세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자 하는 것입니다. (213-19, 1991.1.13) p.558

습관성을 타파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탄세계에서 자기 중심삼은 습관성을 지니고 살았는데, 그 습관성이 고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착되어 버린 그 습관성은 한국 사람들이 김치?된장?고추장을 먹는 습관성보다도 더 고질적입니다.

이것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가 출발한 그날부터 뿌리가 박힌 습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 버리느냐? 구덩이를 파고 뿌리까지 묻으려 해도, 묻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중심삼은 습관성을 지녀야 됩니다. (213-20, 1991.1.13) p.558

Top p.558

④ 육신생활의 표준

선생님의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 세계를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참부모, 인류를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와 인류를 묶기 위해서는, 자기를 중심삼고 사위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참사랑을 원하고, 참부모도 참사랑을 원하고, 인류도 참사랑을 원합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된 이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언제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늘이 바라는 생활과 일치되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대표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대표한 내가 되고, 하나님을 대표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영계에 가나 세상 어디를 가나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 명의 친구와 같이 먹고 싶을 경우 그러한 환경도 사랑을 통한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을 행사할 때 그 사랑을 중심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세계에서는 참사랑이 연결되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상향입니다. 참사랑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147-115, 1986.8.31) p.558

Top p.558

④ 육신 쓰고 기록된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3분의 2 이상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3분의 2의 생활을 모두 떼어 버릴 수 있느냐? 떼어 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34-139, 1970.8.30) p.559

탕감이 왜 필요하냐?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복귀란 재창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생애를 남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늙으면 무엇이든지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무 살에 들어오는 것보다 열다섯 살에 들어오는 것이 좋고, 열다섯 살 때보다도 아기 때부터 알고 컸다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물이 꽉 차 있다면 맑은 물이겠습니까, 흙탕물이겠습니까? 거기에 모래알이 끼어 있고, 돌멩이가 끼어 있습니다. 큰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강이나 하천에 별의별 더러운 것들이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속에도 별의별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저어 다 걸러내야 합니다. 여과장치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있으면 걸립니다. 물 자체에 모래알같이 더러운 건더기가 있으면 흘러 보지도 못하고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그런 장치, 엑스레이 사진기 같은 것에 비칠 것이라고 생각 안해봤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여과장치를 거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97-60, 1978.2.26) p.559

Top p.559

⑥ 땅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은 영계에 가 가지고 보호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몇천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가정들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는 데도 다 자기 급에 맞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들딸들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 그게 뭐야?'하면서 참소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볼트가 있으면 이것에 맞는 너트를 만들어서 채워야 합니다. 너트가 맞아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 하고 있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인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상생활을 영생에 비유하면, 이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생활을 넘어 영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주류사상을 가지고 센터에 서서 일체를 조절하고, 일체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성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7-99, 1990.11.1) p.560

Top p.560

⑦ 육신 쓰고 책임분담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에 의해서 심신이 원만한, 안정된, 만족스러운 권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은 영계에 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내면적으로 확대된 생활이 있는데, 내면적으로 확대된 그 기준은 영계에 가면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가 한 몸의 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세포들 중 하나가 되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자기의 마음속에서 '어떤 녀석이 나를 불러? 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책임분담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책임분담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남자로서 여자로서 책임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관이 책임분담을 완성한 사랑에 취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각의 모든 것은 사랑의 실체권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218-128, 1991.7.14) p.560

책임분담을 수행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분담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의 정, 사탄의 핏줄을 받아서 태어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139-256, 1986.1.31) p.560

인간이 영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닮아지느냐? 책임분담 완성단계에 이르러 하나님이 임해 일체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0-22, 1983.12.11) p.560

Top p.560

5) 축복과 영생

영생문제를 알아야 할 이유

왜 지금 세상 가정들이 깨져 나가고 있느냐? 또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원수가 되느냐? 참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영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해도 안 삽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성교회를 믿든, 무슨 종교를 믿든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에 못 가는 것입니다. 참사랑, 생명을 투입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5-261, 1990.9.9) p.561

우리 교회가 원리로 무장해 놓으면 영생문제가 확실해집니다. 이 영생문제와 연결 안 되면 사회혁명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피폐(疲弊)하고 몰락된 환경으로 떨어진다면, 누구나 그 자리를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문제, 영원한 생명문제라고 하게 될 때는 환경적 여건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영생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개념만 딱 지어 놓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습관성으로 엮어진 문화배경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영생이라는 개념을 지어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환경이 변하면 변할수록 왜 흔들리느냐?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문제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다 거기에 소속되어 사방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생활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생개념을 안 집어 넣으면 중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개념을 집어넣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이건 통일교회만이 완전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신앙길은 육신생활의 준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생활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런 신념만 가지게 되면, 그건 내버려두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40이 넘고 50이 넘어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 영생문제에 대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희박해지지만, 영생개념을 집어넣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이념만이 앞으로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빈번히 변하며 희비극이 부딪쳐 오더라도, 영생개념만 철저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만이 아니고 실감해야 됩니다. 또 체휼해야 됩니다.

참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개념만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어넣는데도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 때에는

[텍스트 입력]

마음에 꽝 울리고, 몸뚱이까지 제일 가까운 급으로 하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청소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여섯 살 이전에는 타락 전의 본성 기준을 100 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열여섯 살 이전에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본성기준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시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앎으로써 자기와 하나님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영생개념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집어넣게 되면 우리 통일교회 2 세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구해 모두 하늘나라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져간 모든 것으로 저나라에서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지금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230-22, 1992. 4. 15.) p.562

Top p.562

② 영생의 길

㉮ 일생과 영생문제

여러분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전부 다 '70 년, 80 년은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쟁이입니다. 일생을 사는데 80 살에 죽거나 100 살에 죽을 거라고 믿는다 해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 내가 젊었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40 년, 50 년은 산다' 그런 욕심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한테 보증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1 년 이내에 죽을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기간에 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관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잡을수록 행복합니다. 짧게 잡을수록 손해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참되게 준비하는 그 내용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사랑해 봤느냐? 하나님과 하나돼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하길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 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공동묘지도, 장사(葬事)지내는 데도 가 보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뜻을 위해 죽겠다고, 하늘을 위해 죽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총각 때 죽는다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남자가 부활해 결혼할 수 있는 날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다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당장에 죽을 자리로 나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무어가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자는 시간이 아깝고, 먹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됩니다. 걱정할래야 걱정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일생과 영원의 문제에서 일생을 짧게 잡을수록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씨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교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저세계에 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교재라는 것입니다. (102-122, 1978.11.27) p.563

Top p.563

㉯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과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결착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개체가 얼마만큼 전진적 사랑과 생명력을 지니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관을 통하여 느끼는 감각 일체가 생명, 사랑과 어느 정도로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데에 따라, 인간으로서 얼마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명력과 가중된 사랑의 마음으로 사회 생활을 해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텍스트 입력]

합니다. 만일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 할진대, 그것은 정지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32-19, 1970.6.14) p.563

Top p.563

㈐ 영생과 종교

사람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지금까지 지구성에서 없어지지 않고, 문화배경과 풍습이 다른 모든 환경을 거쳐오면서 세계적인 판도를 확대시켜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생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데는 우주와 더불어 생활해야 합니다. 일생이 100 년 정도의 짧은 생애이지만 생애의 한계로써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선을 극복하면 한계로 삼던 지구촌을 넘어 초연한 자리에서 생존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영생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사는 인류를 동정해 돕기 위해서는 가상적인 영생이라도 주장해야 하고, 가상적인 신을 중심삼은 이상국가 형태를 추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문제와 더불어 하나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제반 문제가 연결돼 있습니다. (162-264, 1987.4.17) p.563

Top p.563

㈑ 영생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유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즘 한 인간의 생명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몇 푼 안 됩니다. 본래 그런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학세계를 두고 보더라도 그 골자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에서 나서 사랑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불변·유일하니까 그 앞에 대상 사랑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이론이 여기에서 발발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42-143, 1986.3.8) p.564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안팎으로 하나되어 자녀 입장에서 완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을 참다운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최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자신도 되니, 우주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 혹은 10 년이나 100 년쯤 같이 지낸 후에 집어던지게끔 지었겠어요, 영원히 같이 있게끔 지었겠어요? 영원히 같이 있게끔 지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영생해야 됩니다. 왜냐?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나 이틀 혹은 10 년, 100 년 좋아하다 던져 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의 손수건을 갖고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네루 같은 분은 자기 아내가 젊어서 죽었는데, 그 아내가 장미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생 동안 장미꽃을 차고 다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지극히 귀한 아들딸을 지을 때 100 년 쯤 산 다음 망하게 지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생하려면 보다 강한 힘이 배출될 수 있는 작용의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시일이 가면 갈수록, 주고받으면 주고받을수록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뻤다면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확장되어 무한한 기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우리가 이상하는 나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막연하게나마 영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귀한 물건이 있으면 피난가게 될 때 그것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가져갑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까, 안 하고 싶어합니까?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루이틀 자랑하다가 말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면, 그것을 자기 후대에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절대자라면, 그분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영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고로 영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은 영생의 가치를 지닌 사랑하는 아들딸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9-342, 1971.1.16) p.564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도 영원한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늙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해야 됩니다. 영생해야 그 걸작품의 존재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靈長)입니다. 여기서 영(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생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80 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159-281, 1968.5.19) p.565

Top p.565

㉮ 영생을 위한 삶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 나름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란 하루하루 사는 것을 말하고, '생애'는 일생의 삶, 일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일생이 아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애노정을 영생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생애의 책임입니다. 또 일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연결시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것은 나날들이 연결된 것입니다.

생애의 가치적인 내용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생애를 다 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의 날들이 결정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잘 사는 것은 생애의 모든 노정을 대표할 수 있는 나날들을 뜻 있게 보내는 생활입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생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억의 날입니다. '잘 산다' 하게 되면 생애노정에 있어서 반드시 제일 가치 있게 사는 날일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산 날이 있다면, 생애에서 그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197-186, 1990.1.14) p.565

Top p.565

㉯ 영생논리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 이념을 안 세웠으면, 하나님은 고독 단신이 됩니다. 희로애락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이 사랑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은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심각하고도 기막힌 자리에, 절대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히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연의 바라던 아들딸을 희생시켜 당신이 꿈꾸던 소원의 이상형태를 재현시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천리만리 이동하면서 더 빛나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우주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204-101, 1990.7.1)

대기가 100 퍼센트 절대 저기압권이 되면, 고기압권이 자동적으로 생겨 순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 자동적 순환원리를 통해서 영원 회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생논리가 논리적으로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데서 영생의 논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하는 데는 망하지 않습니다. (204-107. 1990.7.1) p.566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의 파트너를 구한다고 하면, 그 대상은 틀림없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지중에 유인최귀(萬物之衆 惟人最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된 사랑의 파트너도 영생한다는 논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인 산물입니다. 영생은 여기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중심삼고 영생 논리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종교에서 지극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남자에게 영생이 있고 여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218-211, 1991.7.29) p.566

Top p.56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제일 중요한 영생문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합니다. 영생하려면 계속적인 작용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인생길을 영원히 가려면 심장의 동맥과 정맥 같은 순환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대뇌와 소뇌의 모든 작용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막대한 소모가 벌어집니다. (121-172, 1982.10.24) p.566

잠자리에 들 때 벗어 놓은 신발을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신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영생 문제 이상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 문제를 결정짓는 것 이상 심각한 게 없습니다. (10-249, 1960.10.21) p.566

Top p.566

㉯ 결국 인간은 영생에 귀결돼야

새로운 조수 물결인 참부모의 사랑의 도리를 심어 타락의 한을 해소하고, 하나님이 군림할 수 있는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천국에 직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레일이 같아야 합니다. 레일이 같아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과 천상세계의 레일이 맞아야 합니다. 지상천국에서 천상천국을 연결시키기 위한 길이 참사랑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는 길, 가정이 가는 길이 전부 연결되어야 합니다. 방향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참사랑을 위한 실적으로서, 자기 뒤꽁무니에 영원히 고착되기 때문에, 저나라에 가게 되면, 일생 동안 남겨진 공적에 맞는, 그 급에 자연히 머무는 것입니다. (211-288, 1990.12.30) p.566

Top p.566

㉰ 믿음과 영생 문제

어떻게 영생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원칙으로 볼 때에 참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참사랑을 가지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권 내에 들어가 있으면 영계나 지상에 살게 될 때에 자기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대양을 다니는 큰 배가 파손될 위험이 생기게 되면, 그 배 안에 살던 쥐들은 전부 육지로 도망갑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동물도 자기 생사권을 가려갈 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타락 때문입니다. 이 타락의 탈을, 악마의 사랑과 악마의 생명과 악마의 핏줄을 어떻게 해탈하느냐? 해탈이란 말은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벗어나 관계없는 자리에, 자주적인 입장에 선다는 말입니다. (215-53, 1991.2.6) p.567

90 살이 넘은 어머니는 70 살이 넘은 아들이 어디 나가게 되면 '차조심 해라. 잘 갔다 와라.' 합니다. 70 살 난 아드님이 있는데 아들보고 어디 나갈 적에 '얘, 오늘 차 주의 해라.' 그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0 살의 노년이 되도록 그렇게 매일같이 되풀이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부모 사랑도 그런데 본연의 세계인 하나님 사랑에 속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대상권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불변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생의 논리를 타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143-280, 1986.3.20) p.567

Top p.567

㉱ 통일교인과 영생

선생님이 통일교회 교인들을 고생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고생시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 안 가느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4-82, 1990.7.1) p.56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들에게는 다 욕망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려고 합니다. 손자도 싫고, 하나님 사위도 싫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욕망을 성취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221-25, 1991.10.20) p.567

Top p.567

㉮ 영생에 필요한 관념

여러분은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다.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생을 위한 것이다, 영생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과 참사랑이라는 관념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216-127, 1991.3.9) p.567

Top p.567

③ 사랑과 영생

㉮ 사랑과 직결된 영생

우리는 영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생을 바라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환경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왜 변하지 않느냐? 사랑은 모든 생명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상적인 요건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그 주위가 전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과 하나되면 하나님이 남아 있는 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57-267, 1967.4.10) p.568

Top p.568

㉯ 참사랑과 영생

참사랑이 무엇이냐? 결혼할 때 결혼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딸이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거 누구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행치 않고, 그 아들딸에게만 절대적으로 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시는 원칙으로 볼 때에 인간의 가치가 최대의 가치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최고의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 평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높고 귀한 자리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고 관리하고 주도하게 돼 있지, 끌려다니고 복종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다. 해방된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민 평등입니다. 참사랑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 하늘나라의 보좌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간을 지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절대적이므로 인간 자체도 영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생하려면 그 참사랑권 내에서 살아야 합니다. (211-272, 1990.12.30) p.568

참사랑에 의해서 영생이 가능합니다. 왜냐? 창조의 출발 동기·과정·목적 등 모든 것이 사랑을 중심삼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몸 마음의 완성은 참사랑에 의해 근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결실을 맺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참사랑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에 의해서 하나님도 영존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사랑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환경을 이루는 데는 사랑의 환경을 중심삼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실체권을 갖는 데는 사랑을 중심삼고 실체적인 체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18-134, 1991.7.14) p.568

Top p.56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절대 필요한 참사랑

하나님은 영계 어디에 계시느냐? 절대적인 센터, 사랑의 센터에 계십니다. 그 사랑은 참사랑이고,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둘째 영생을 알아야 되고, 셋째 참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투입입니다. 100 퍼센트 이상 투입입니다. 100 퍼센트 이상 투입하는 데에 영생이 있습니다. 참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205-129, 1990.7.29) p.569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첫째는 이타주의(利他主義), 둘째는 참사랑, 셋째는 영생으로 세계가 수습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뭐냐? 자기의 생명 이상 투입해야 됩니다. 생명 이상 투입하지 않는 곳에는 참사랑이 없습니다. 생명 이상을 투입하는 데서부터 참사랑이 성립됩니다. 참사랑이 성립 안 되면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사탄의 피를,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한 것은 생명까지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1 계명입니다.

제 2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뭐냐?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느냐? 첫째는 사탄을 굴복시킬 수 없고, 둘째는 사탄의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 셋째는 사탄의 혈통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환경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탄의 혈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참사랑은 생명을 초월합니다.

남자 여자가 태어난 것도 이타주의입니다. 남자가 태어난 것은 여자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 생겨났느냐? 참사랑 때문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둘이서 영원히 하나되고 싶다.'고 하는데 둘이 하나되어서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 집안 전체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중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부모 대신 중심자가 됩니다. 100 명의 친구가 있다 할 때, 그 100 명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면, 친구 100 명의 추앙을 받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위하는 주인이 있으면 영원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가 '나'와 더불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음을 넘어서야지 넘어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205-258, 1990.9.9) p.569

Top p.569

㉱ 사랑과 관계된 사후의 세계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영계입니다. 사후의 세계라고 말하지만 사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 사후의 세계가 될 수 없느냐? 사랑과 관계돼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계돼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된 사랑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는, 지금 여기가 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구형운동을 해야만 상하·전후·좌우가 화합할 수 있습니다. 종은 종이고, 횡은 횡이 되어 화합이 안 되면 상하·전후·좌우 전체가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참사랑을 중심삼은 통일이상세계를 논하는 것도 원리관에 있어서 일치된 결론입니다. (144-199, 220, 1986.4.24) p.570

하나님이 인간을 끌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숨을 쉽니다. 사랑의 호흡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우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도 숨을 쉽니다. 우주의 맥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아! 나, 싫어!' 할 수 없습니다. 박자가 어울리려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한 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201-191, 1990.4.1) p.570

Top p.570

㉮ 위해서 살아야 영생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년만년 후대의 후손도,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도 영생할 수 있는 그 공식적 노정은 같습니다. 영생은 위해서 살던 사람들만이 패스할 수 있습니다. (203-193, 1990.6.24) p.570

Top p.570

④ 축복과 영계

㉮ 사랑의 위력

영계도 육계도 사랑을 따라 움직입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환경적 여건은 박자를 자동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185-20, 1989.1.1) p.570

과거 사람도, 현재 사람도 영원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욕구의 요인이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데데한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종횡을 통해 어디든지 90 도가 맞는 것입니다. 동양 집에도 맞고, 서양 집에도 맞고, 남쪽 형 집에도 맞고, 북쪽 형 집에도 맞고, 오색 인종?문화 배경?모든 종교 배경이 전부 다 다르더라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참사랑입니다. (180-86, 1988.8.7) p.570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통일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말이고, 그 말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축복행사를 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류는 축복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성교회를 믿지만, 그 기성교회 자체도 축복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성교회에서는 통일교회 레버런 문은 독선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타락한 인류가 필시 가야 할 길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영계와 육계를 연결해 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날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은 '구원' 하게 되면 개인구원만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하나님의 이상을 두고 볼 때, 천국은 혼자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43-235, 1986.3.19) p.571

Top p.571

㉯ 부부의 영인체

우리는 사랑이상을 찾아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대변자로 서기 위해서 사랑이상을 횡적인 세계에 부식시켜야 합니다. 씨로서 뿌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크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 부부가 영계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권 내에 품겨 하나님과 한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144-224, 1986.4.24) p.571

여러분은 참사랑의 논리를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영신(靈神)들은 50 살이 됐는데도 얼굴을 보면 40 대 같습니다. 50 살이 넘었는데 사람들로 치면 한 30 대밖에 안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사랑할수록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 위에서 껍데기가 늙어가지만 부부생활을 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영인체는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사랑으로 오래 살면 살수록 내적 인간인 영인체는 최고의 원숙한 미남 미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는 옷과 같이 벗어 버려야 하는데, 젊어서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니까 늙으면 외적인 껍데기는 전부 다 망쳐지지만, 내적인 알맹이는 단단해져 미래의 상속자가 되고, 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의 밤송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단단하던 밤송이가 익으면, 껍질은 물렁물렁해지고 갈라져서 밤알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164-102, 1987.4.26) p.571

Top p.571

㉰ 결혼과 영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둘째 되는 계명이다.'고 했습니다. 그거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물을 사랑하고, 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 1 의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 준 부모지만, 제 2 의 부모는 지구입니다. 이 땅입니다. 여러분은 땅으로부터 여러분의 몸이 클 수 있게끔 요소를 공급받습니다. 땅이 몸의 제 2 의 부모입니다. 제 2 부모를 거쳐서 제 3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제 3 부모에게로 가는 데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3 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본래의 부모였던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야 됩니다.

따라서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이 합체화(合體化)한 일률적인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분성적(分性的) 자체들이 남녀이기 때문에 그들도 합성일체화하여, 씨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면서도 사랑받고, 자라면서도 사랑을 목표로 해서 자라고, 살면서도 사랑을 중심삼고 살며, 가면서도 사랑에 돌아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위하는 목표를 중심삼고 찾아가지 않으면 방향이 틀려집니다. (138-98, 1986.1.19) p.572

Top p.572

㉱ 축복가정의 영계 입장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영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체험을 통해서 부정하려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통일교회가 세계적인 기반을 형성할 때까지 많은 영적 체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회 교인들입니다.

영계는 절대적 신을 중심삼고 구성된 세계입니다. 그 절대적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우주의 기원이 되는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전체는 그와 더불어 느끼고, 그와 더불어 인연을 갖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권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세계는 자기 중심삼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늘이 제일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입니다. 하늘을 부정하고 땅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늘을 인정하고, 땅을 인정하고, 부모의 평균적 사랑 밑에서 하나되면, 사탄이 주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아담의 자리입니다. 그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동네에 축복가정 부처가 살게 되면 그 동네에서 화제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디 가든지 화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부는 이 동네에 참 잘 왔다. 저 색시는 이 동네의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고 아줌마들이 다 좋아해. 아이들까지 좋아해!'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영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데는 선생님이 사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이 땅에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기도를 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이 다 매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 축복가정들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문제입니다. (140-123, 1986.2.9) p.573

Top p.573

㉲ 축복은 약속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은 축복받을 때 영원한 가정으로 살겠다고 선생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가정을 치리하는 사람이요, 영원한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가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가정은 물론이고, 영원한 나라를 인계받는 것입니다. (205-359, 1990.10.2) p.573

Top p.573

㉦ 축복의 영광

참된 여자는 어떠해야 하느냐? 참된 남자를 중심삼고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봉사하고, 종족을 위해 봉사하게 되면 그 주위가 전부 박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고생하면서도 여러분을 살려 주고 인류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고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계에 가서 억만 년을 기다려도 축복을 못 받습니다. 불가능한 것인데, 선생님이 고생해서 가치 있는 축복의 판도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계와 이 지상세계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162-68, 1987.3.27) p.573

Top p.573

제 2 장

죽음과 영계

1) 인생필연지도(人生必然之道)

① 영생과 거리가 먼 몸

지구도 숨을 쉬고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세포도 숨을 쉽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영원히 살래요, 무형의 사랑의 실체가 된 곳에서 영원히 살래요? 무형의 사랑의 실체가 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인체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의 중심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은 상대적 존재인 인간에게 자기가 창조한 영원한 모든 이상권을 전부 주고 싶을 것입니다. (111-112, 1981.2.1) p.574

Top p.574

② 대부분의 생애들

지금 우리는 알든 모르든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시간에도 가고 있는 것이요, 쉬고 있는 시간에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나뿐만 아니고 이 민족 혹은 이 세계, 더 나아가 하늘과 땅까지도 어떠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생을 거친 후에 나는 어떠한 곳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학도 역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이런 운세에 사로잡혀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가야 할 내 자신이라 할진대, 이 몸은 어디로 가려고 하고, 이 마음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또, 이 생명은 어디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있으며, 내 심정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내 소원 혹은 소망과 이념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죽는 날, 이 몸은 흙에 묻힘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묻히는 그날 이 마음도, 이 생명도, 이 심정도, 이 이념도, 혹은 소원까지도 같이 묻혀 버리고 말 것인가? 여기에 내용과 해결점과 확실한 목적관을 제시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걸음을 붙잡아 놓고, 움직이는 마음과 기울어지는 심정을 막아 놓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 나오는 사람들이 성현 현철이요 수많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도주(道主)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지금까지 '내 몸은 이러한 곳으로 갔으며, 내 마음과 내 심정, 내 생명과 내 이념은 이런 곳을 향하여 달렸노라. 그러니 온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이곳으로 가라!'고 자신있게 명령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8-194, 1959.12.20) p.575

종교는 사적인 욕망에서 출발된 이 세상이 망하기를 소원합니다. 공적인 세계, 하나로 통일된 평화의 세계를 수천 년 전부터 고대해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부부가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적 거리를 단축시켜 세계와 연결시키고, 천주와 연결시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해방된 가정입니다. 또한 그 가정은 절대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동거리를 지나다 보면 젊은 남자 여자들이 깨가 쏟아집니다. 그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한 번밖에 없는 청춘시대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즐기는 데 주인이 누구냐?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즐길 수 있느냐? 20 대부터 즐겨 60, 70, 80 살이 지나가게 되면 즐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식은 다릅니다. 먹는 것도 무엇 때문에 먹습니까? 세계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악한 세계를 없애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악한 세계를 소탕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악의 편이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소탕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걷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세상과 다릅니다. (36-72, 1970.11.15) p.575

만일 사람을 며칠 동안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일진대,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인간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80 년 살았으면 됐지. 죽어 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노정을 통해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을 품은 사람일수록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은 왜 왔다가 나그네같이 가느냐?' 하며, '인생은 고해'니 '초로(草露)의 인생'이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생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9-229, 1971.1.15) p.576

Top p.576

③ 죽음은 인생필연지도

여러분은 언젠가는 영계에 가야 합니다. 틀림없이 영계에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찾아오는데, 김포공항에 내린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다 온 게 아닙니다. 김포공항에서 어디로 가느냐? 전라남도로 갈 것이냐, 경상남도로 갈 거냐, 평안도로 갈 것이냐? 평안도에 가서 또 어디로 갈 거냐? 군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 군에서도 어디로 갈 것이냐? 면을 찾아가야 됩니다. 면에 가서 또 어디로 찾아갈 것이냐? 리(里)입니다. 리에서도 어느 반을 찾아가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처를 확정짓지 못한 인간들이 출세해서 뭘 하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영계에서 호출 명령을 하게 되면 문선생님도 오늘 잘났다 하더라도 내일 저녁에 데려가면 가는 거지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소리 해야 가는 겁니다. 내가 큰소리 하면서 가는 데는 올바른 말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갈 길을 제시해야 되고, 세계가 갈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잘못 해먹다가는 죽습니다. (177-42, 1988.5.15) p.576

Top p.576

④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생명의 기원이 뭐냐? 내가 아닙니다. 생명의 기원도 나를 초월한 것이어야 되고, 목적도 나를 초월한 것이어야 됩니다. 내 생명은 부모나 사회나 민족, 국가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동기를 절대적인 입장에 있는 초월적인 동기와 결부시켜야 합니다. 시대적인 인연이라든가, 환경적인 인연, 혹은 사회적인 여건에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초월적인 원인에 결부시키고, 초월적인 목적에 결부시켜야 비약하고 초월하고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초월적인 동기에 결부시켜야 합니다. 내 생명의 출발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초월적인 동기에 결부시키게 되면 죽더라도 초월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36-64, 1970.11.15) p.576

인간이 몇천, 몇백 년 사는 게 아닙니다. 100 년 정도 살다 다 죽습니다. 수많은 역사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우리 조상들이 죽어 갔지만 전체에 좋을 수 있는 것, 전체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100 년 살던 것이 1 천 년이 지나가더라도 그대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중심삼고 나오다가 전부 다 망했습니다. 전체를 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살이를 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중심삼은 모든 측정방향을 어떻게 전체 측정방향으로 대체하느냐, 자기 제일주의를 강조하던 것을 전체에 이익 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행로의 출발을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는 데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옷을 입었는데, 이걸 누가 벗기려고 하면 죽어도 안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춘하추동 옷을 해놓고, 봄에 겨울옷을 입었으면 봄옷을 갖다놓고 '이건 겨울옷이야, 벗어' 하고, 여름에 봄옷을 입었으면 여름옷을 갖다놓고 벗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200-91, 1990.2.24) p.577

이 땅 위에는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인연을 맺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영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계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위치가 전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올 수도 없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본래는 지상에서 완성해야 영계에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세상에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습니다.

생애(生涯)의 노정은 너무 짧습니다. 일생은 너무 짧은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80 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시간으로는 여덟 시간도 안 됩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여덟 시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참사랑의 속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205-65, 1990.7.7) p.577

Top p.577

2) 죽음에 대한 이해

① '돌아간다'는 말 뜻

틀림없이 영계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영계는 있고, 우리 인간은 어차피 영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영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공동묘지로 가는 것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출발하였던 본처(本處)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공동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고 먼 역사의 기원을 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돌아간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으로 죽었지만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의 근원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창조주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했으니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주는 순환작용을 합니다. 산에 쌓여 있던 눈이 녹게 되면 조그만 계곡을 통해서 흘러가고, 많은 지류를 통해서 대해로 흘러들어갑니다. 대해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돌아갑니다.

순환운동을 합니다.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더 높을 수 있는 곳으로, 더 좋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작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계의 운동법칙이라는 것은 작용하면 작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용하면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굴려 보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구르지 않습니다. 빨리 구르다가 점점 약해져 정지하게 됩니다. (114-269, 1986.3.2) p.578

Top p.578

②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가 있습니다. 세상과 영계는 두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그곳이 어디냐? 물론 우리는 육신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10 대 · 20 대 · 30 대 · 중년 · 장년 · 노년시대를 거쳐갑니다. 청춘시대를 지나 장년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한 고개를 넘어서 그 다음엔 노년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는 해와 같이 일생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일생이라는 것이 잠깐이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생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140-121, 1986.2.9) p.578

Top p.578

③돌아가는 날은 귀한 날

아담이 태어난 날과 성혼한 날 그리고 돌아간 날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통일권이 형성되었더라면, 그러한 날들을 기념하는 인류는 한 형제가 되고, 한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아담이 생활하던 모든 풍습은 인류 역사에 계승되었을 것이며, 그때 형성된 문화는 영원히 계승되었을 것입니다. (31-231, 1970.6.4) p.578

Top p.578

④ 두 가지의 죽음

여러분이 아무리 죽지 않겠다고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는 사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명대로 살고 가는 사람과 자기의 명대로 못 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대로 못 살고 가는 사람에도 벌을 받아서 빨리 죽은 사람과 민족이나 세계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 빨리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동네에 손꼽히는 젊은이 세 사람만 죽게 되면, 그 동네에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중이면 문중에서 기대를 받던 젊은이 세 사람만 죽게 되면, 그 문중에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탕감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그렇습니다. 인과법칙은 어디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천 사람의 가치를 지닌 한 존재를 중심적인 자리에 세워서 대신 죽음의 길을 가게 했을 때, 천 사람이 그 사람의 은덕 앞에 감동하여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의 생애를 본받고, 그 사람처럼 살겠다고 하게 되면, 그 민족은 그 사람과 같은 혜택권 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신의 사상을 본받으려 하고, 성현의 사상을 본받으려 하는 것도 그들과 같은 혜택권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사람이 영계에 갔지만 금년에도 여러 사람이 영계에 갈 것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선생님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한 단계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탕감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33-10, 1970.7.28) p.57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땅 위에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인간을 중심삼은 소망과 하늘을 중심삼은 소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날부터 어머니 품속이 그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자라지만, 어머니의 품을 떠나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친구들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지냅니다. 그러나 결국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점점 자라면서 사랑하는 부모도 자기 소망의 전체가 못 되고, 사랑하는 부부도 자기 소망의 전체가 못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자녀도 자기 소망의 전체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많은 것을 소망하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소망, 혹은 국가에 대한 소망,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그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 중에는 그 소망을 자기 전체 소망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최후에는 죽음과 싸워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온갖 소망을 품고 살지만, 나중에는 죽음에 부딪쳐 자기가 품었던 소망 전부를 다 버린 채,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기를 바라고 내일도 살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망을 찾아 헤매고 있으나, 죽음에 부딪치게 될 때에는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절망하면서 최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중심삼고 볼 때는 소망을 가진 듯하나 죽음의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본으로 알고 죽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음도 비웃고 하나의 소망을 찾아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만사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지나가고 국가도 지나가고 세계 혹은 어떤 주의도 다 지나가는데, 최후에 남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일체의 소망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것 일체를 거부하고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무리도 있습니다.

하늘은 인간적인 소망을 중심삼고 살고 있는 지상의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고 죽음의 고개도 넘을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흠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한히 애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땅 위의 어떤 소망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꿈꾸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44, 1959.3.22) p.580

Top p.580

⑤ 죽음의 의미

죽음이라는 낱말을 쓴 목적은 삶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삶의 가치는 누가 잘 아느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죽을 궁지에 들어가 생사의 기로에서 하늘을 붙들고 삶의 가치를 타진해 본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74-243, 1974.12.31) p.580

오늘 세상에는 수면제 같은 것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가 많겠어요,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습니다. 왜 여자가 많으냐? 여자는 일방적으로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남자는 아무리 못 생겨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여자는 결심이 하나밖에 없지만 남자는 이렇게 저렇게 걸러서 죽을 수 있는 길을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보다 남자가 자살을 덜하는 것입니다. (222-70, 1991, 10.28) p.580

Top p.580

⑥ 죽음은 3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도 하나님 닮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닮게 하고 싶다는 관념을 갖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닮을 수 있는 체(體)를 입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날을 하나님도 고대할 것이고, 인간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죽음을 환영해야 되겠느냐, 환영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환영해야 됩니다. 죽는 데 뭣 때문에 죽을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위해서 죽겠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벗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권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죽는 것인데, 인간세계에서는 '아이구, 죽는다' 하고 야단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사랑권 내에서 무제한의 사랑권 내로 돌입할 수 있는 기쁨을 맞을 수 있는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순간이 제 2 의 출생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이 난 날을 기뻐하겠어요, 제 2 의 무한세계의 사랑을 위해서 활동할 아들로 태어나는 그 시간을 기뻐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탈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생-장성-완성시대를 거칩니다. 복중 물세계, 지상 지구성 세계, 천상 공중세계에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복중 물시대, 지상에 태어나서 사는 100 년 땅시대, 날아가는 공중시대, 이렇게 3 시대를 거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제일 깊은 물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중시대는 물속시대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물 가운데 떠 있습니다. 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을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놀음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아기는 호스를 배에다가 연결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기가 영양분을 어디로 해서 공급받느냐? 배꼽으로 공급받습니다. 배꼽이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천대해서는 안 됩니다. '배꼽아, 너 옛날 수고했다.' 하며 두드려 주라는 것입니다. 배꼽을 많이 두드려 주면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배꼽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방에서 자더라도 배꼽만 잘 감싸고 자면 뱃증(설사)이 나지 않습니다. 복중에서 여러분의 입은 배꼽입니다. 이 숨쉬는 기관이 배꼽을 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입은 뭐냐? 이 입입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배꼽에 달린 탯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의 세상에서는 영인체가 몸뚱이에 붙어 태아처럼 육신을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늙게 되면 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태아가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 앞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영인체가 영적 아버지인 영원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원리원칙입니다.

태아가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지상세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사랑을 같이할 수 있는 지상세계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한한 세계를 통할 수 있는 부모 되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계에 태어나야 합니다.

물 안의 시대가 있고, 육지의 시대가 있고, 날아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날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날아간다 하면 세계의 제일 주목거리가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사랑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입니다. 복중에서 호흡할 때는 파이프 장치를 통해 했습니다. 살아 있지만 배꼽에 연결된 태를 파괴하고 태어나게 될 때는 새로운 차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차원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기를 공급받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중에서 나와 무엇을 발전시키느냐? 공기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의 요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밥 먹는 것은 죽어 가는 것입니다. 물 마시고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전부 다 주머니, 물주머니입니다. 전부 다 죽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2 의 존재입니다. 지상생활에서는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이 기간에는 새로운 사랑의 인격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를 왜 고아라고 하느냐? 저 영계와 영원히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독신살이 하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제 2 의 호흡을 하던 육체에 연결된 기관을 깨뜨리고 사랑의 요소를 이어받는 겁니다. 사랑은 안 보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의 내적인 구조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태 안에서 정상적인 아기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잘 자라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잠자리가 처음에 유충이 되어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다가 땅 위에 올라와서는 한동안 기어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훌훌 날아다니며 땅에서 기어다닐 때에 먹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하던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천하를 자기 무대로 삼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곤충류 가운데는 3 단계 세계를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곤충 하게 되면 대개 날개가 있습니다. 곤충도 물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날개가 있느냐, 차원이 높은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제 2 출생의 복된 관문입니다.

죽는 것은 무엇이냐? 지상생활은 공기 중에서 '태 안에서 헤엄치고 다니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보자기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제 3 의 인생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죽는 시간입니다. (116-172, 49-285, 1982.1.1) p.582

Top p.582

⑦ 죽기 전에 해야 할 것

㉮ 최후의 경계선을 넘으라

어차피 일생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최후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 경계선 앞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계선에 서 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통일교회에 들어오기는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겼지만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 뛰어가도 끝까지 갈지 모르는데 허둥지둥하다가는 가다가 마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승점까지 경계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해볼 만한 일입니다. 뒤에서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내 갈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반대하는 것을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운명의 길을 거쳐 나아가야겠다는 사람이 최후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24-77, 1969.6.29) p.582

Top p.582

㉯ 형상과 심정과 신성을 본받으라

우리는 어느 땐가 육신을 벗고 영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 자아를 영원한 세계에 제 2 의 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교를 잘 받아야만 건강하고 선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세계에서의 생활은 복중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본받으며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또 생명을 걸고 넘어가야 됩니다. (14-17, 1964.4.19) p.582

Top p.582

㉰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이 마음이 곧다는 말을 합니다. 전신주가 곧다고 할 때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곧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서 다니는 것입니다. 수직이 돼야 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수직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수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직에서 당겨주는 힘과 돌아가는 힘이 균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나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야 하고, 참부모가 그렇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 · 일족 · 일국이 옳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탄받는 자는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대륙을 중심삼고 한대지방과 온대지방을 가르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북극으로 보내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202-280, 1990.5.25) p.583

Top p.583

㉱ 세계를 위해 살고 죽어야

선생님은 아시아 정세나 한국 민족을 중심삼고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세계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합니다. 세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죽어야 되느냐? 세계적인 입장에 서서 사랑하는 아내를 안고, 가정을 안고, 종족을 안고, 민족을 안고 죽어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지금 종족을 편성하고 민족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 선생님은 죽되 어떤 자리에서 죽을 것이냐? 민족과 대한민국까지 안고 세계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한민족이 하나되어 세계를 위해 죽고자 할 때는 세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있겠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34-193, 1970.9.6) p.583

Top p.583

㉮ 많은 일을 하라

여러분들은 어느 판도에서 일할 것이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기르기 위해 안 자고 안 먹고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부에도 그러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다. 보통사람의 3 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70 년을 산다 하더라도 210 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100 살까지 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70 살을 살더라도 3 배 일하게 되면 210 살까지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10 배 하게 되면 7 백 년을 사는 것입니다. 20 배 하게 되면 1,400 년을 사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24 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계에 가서 열매맺어 사랑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고 활동무대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102-38, 1978.11.19) p.584

Top p.584

㉯ 공적 일을 하라

하늘의 법도는 무엇이냐? 공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적인 것은 사탄 것이요, 공적인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의를 위하여 가야 됩니다. 그런 노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거기에 침해를 받지 않고 어려운 길도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봄을 맞이하는 천국사람이 될 것입니다. (47-272, 1971.8.29) p.584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보더라도 가게주인이 자기 욕심만 부리게 되면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 가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만 부리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을 중심삼고 보더라도 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천국에 못 가게 되었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공적이냐, 사적이냐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누나와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다 먹고 누나는 먹지 않고 정성껏 보관해 두었던 것을 잠을 자다 살짝 일어나 혼자 먹으려고 하면 마음이 '이놈아! 이 자식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마음은 공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본래 천법을 따라가면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것을 방비해 주고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본래 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 본래부터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인간에게도 본래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다' 그럽니까?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양심이 작용합니까? 어디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공사(公私)문제를 중심삼고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1-241, 1970.6.4) p.584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중심삼고 선악의 분기점과 공사의 분기점에서 안팎으로 뒤넘이치고 왔다갔다하다가 결국에는 사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사적인 생활이었다고 회개하며 다시 공적인 생활을 위해 이를 악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적인 생활, 공적인 생활로 왔다갔다하다가 사적인 쪽으로 들어서는 때가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적인 선과는 멀어지는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31-241, 1970.6.4) p.58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영생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교육하는 데 내 아들딸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제물적인 아들딸로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는 이 지구성의 인류를 대표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인류를 대표한 어린 아기에게 젖을 준다는 마음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만 이쁘다고 하며 대할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내 자식 같다는 심정으로 대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기들은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1 대, 2 대를 거쳐 가는 동안 반드시 그 후손 가운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물이 탄생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31-168, 1970.5.24) p.585

그러면 여러분은 사적인 탕감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투입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적인 탕감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투입하겠습니까? 일생을 투입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공적인 탕감을 위하여 공적인 환경에 일생을 투입하겠다고 생명을 걸고 나서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는 창건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간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는 남아진 때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것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야 할 시련노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의 생활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느냐, 공적인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또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공적인 생활이냐 사적인 생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사적인 감정이냐 공적인 감정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길을 가기 위해 맹세해야 합니다. 역사를 탕감시켜야 할 사명을 짊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고로 생활 속에서 사적인 감정을 초월하여, 공적인 감정을 어떻게 체득하느냐 하는 문제가, 신앙자가 중요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사적인 곳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사적인 기준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것이 도수를 넘게 되면 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으면 악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선할 수 있고, 영원히 흥할 수 있고,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리, 죄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리, 악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공적인 자리입니다. 밥을 먹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먹어야 합니다. 일을 해도 공적인 일로, 말을 해도 공적인 말로 소화해야 됩니다. 이처럼 일체를 공적인 것과 연관지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31-164, 19) p.586

Top p.586

㈏ 사랑을 체휼(體恤)해야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만이야!'라고 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만 있느냐? 여러분에게서 어머니 아버지의 요소를 빼내고, 공급된 모든 만물 원소를 빼 가면 여러분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뭐냐?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한 입장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생긴 복중시대를 거쳐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살을 이어받아, 공급받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상시대에는 '우주 어머니, 만물 어머니'입니다. 이게 땅입니다. 지구성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원소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줍니다. 다른 단계의 원소를 공급해 주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자라게 될 때에, 복중에서 호흡을 하는데, 무엇으로 호흡하느냐? 배꼽으로 호흡합니다. 배꼽이 어머니의 몸과 연결된 호스입니다.

그렇지만 제 2 세계, 공기세계에 연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중에서 살다가 차버리고 나오면 파괴입니다. 그때는 울음과 동시에 무엇에 연결되느냐 하면 숨구멍, 콧구멍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있는 공기세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콧구멍이 절대 보급로입니다. 그런 콧구멍을 막고 살 수 있느냐? 숨을 못 쉬면 죽게 됩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중에서 공기세계로 나올 때는 복중세계에서 살던 모든 탯줄과 물주머니를 다 파괴하고 나와야 됩니다. 복중의 배꼽과 태는 파괴되어 죽는 것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무엇이 나오느냐? 이 우주, 지구성 어머니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입으로 원소를 보급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복중에서 나와 이 몸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중에서 탯줄로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 파이프인 콧구멍을 준비해 가지고 터져 나올 때에 바꿔서 숨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태어나서 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체휼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공기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공기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사랑의 공기를 공급받아 거쳐가야 됩니다. 한 가정에 아기로 태어났다가 사인 커브와 마찬가지로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아기로 태어났다 성장해 늙게 되어 죽으면 분해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났다가 아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 2 복중세계를 차버리고 제 3 사랑의 호흡기관에 연결돼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차버리고 대우주의 하나님 본체에 화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계는 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지상세계에서 사랑의 숨을 쉴 수 있는 파이프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계의 체험이 필요하고, 영적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성 어머니의 뱃속을 차버리고 나섰을 때 여러분은 사랑의 호흡기관으로 숨쉰다는 것입니다. 제 3 의 사랑을 이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연결시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호흡기관에 연결되어 영계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본체로 돌아갈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나왔으면 그것이 본체에서 나왔으니까, 결과를 맺어서 본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행로는 나그네 행로인데 여기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체휼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것이 타락이니까 참부모의 사랑, 참형제의 사랑, 참부부의 사랑, 참아들딸의 사랑을 중심삼고 종적인 가정을 이루어 횡적인 환경을, 동서남북으로 많은 가정을 벌여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횡을 연결시킬 수 있는 참가정의 형태를 이루어 종족권, 민족권, 국가권, 세계권으로 연결되게 할 때, 사랑으로 연결된 그 세계를 천국이라 합니다. (139-212, 1986.1.31) p.587

Top p.587

⑧ 영계 가기 전에 남겨야 할 것들

㉮ 사랑의 무덤을 남겨야

보편적으로 사람은 영생을 중심삼고 십 년, 백 년뿐만 아니라 천 년, 만 년, 억천만 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물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남겨서 뭘 하느냐? 요즈음에는 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 명예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데 그 명예를 남겨서 뭘 하느냐? 미국의 애국자가 되어 기념관에 가 있어도 미국이 망하게 될 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남겨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역사 시대에 아무리 남겼댔자 그 좋다는 것도 나쁘게 취급받는 것입니다. (103-16, 1979.1.28) p.587

땅 위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을 남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계의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땅 위에 산 하나님의 아들딸을 남기는 입장이 될 때는 나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146-223, 1986.3.11) p.587

생애에 뭘 할 것이냐? 사랑의 무덤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 사랑의 무덤 가운데에서 살면 한이 없습니다. 무덤 같은 데서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살더라도 사랑 가운데에서 살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의 무덤을 남기면 인생살이는 영원을 두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때는 영계에서 하나님이 아들딸을 데리고 환영나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락지를 못 낀 손이라면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를 끼워 줄 것이고, 옷을 못 입었다면 하늘나라의 황족들이 입는 최고의 옷을 입혀 줄 것입니다. (97-169, 1978.3.12) p.588

Top p.588

㉯ 영계의 소유권은 전도로 결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서 자기 소유권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나 데리고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재산입니다. 영원한 재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따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뭐 하루에 몇 백만이 전도될 때가 옵니다. 통일교회에 그런 굉장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죽느니 사느니, 인생이 무엇이니, 공중에 떠돌아다니며, 자리를 못 잡고 미친듯이 돌아가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218-227, 1991.8.19) p.588

영계에 가면 사랑의 품이 클수록 그 품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저나라에서 존경받습니다. 천 사람 만 사람에게 둘러싸여 '아!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영토가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나라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위해 투입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전도란 복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을 걷는 것입니다. 하늘 것을 빼앗아 간 사탄세계의 도적놈들에게 주인이 사랑으로 찾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더 사랑한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사랑에 인연된 모든 복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입니다.

천대받는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천천만 성도가 따르고, 만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니 자연히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205-347, 1990.10.2) p.588

영계에 들어갈 때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아들딸을 수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120 명 이상 수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접붙여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의 열두 진주문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사탄으로부터 하늘백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과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재창조의 참사랑의 심정을 중심삼고 사탄의 부모 이상, 사탄의 남편과 아내 이상, 아들딸 이상의 심정을 투입해서 눈물과 피 땀과 더불어 교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자기 백성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수의 비례에 따라서 저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211-252, 1991.1.1) p.588

앞으로 영계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회 이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아들딸을 얼마만큼 많이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몇 사람밖에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귀과정에서 거쳐가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이 사탄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아들딸을 만들게 될 때, 그 공로는 선조와 연결되고, 또 선조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노정에 있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교구장을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아들딸이 없게 되면, 저나라에 갈 때 깡통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삼고 한 사람도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무한한 세계인데, 그곳에서는 사랑의 심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펼쳐져 있으면 영계에 가서는 그만큼 넓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부가 자기와 인연 맺으려고 합니다.

땅에서 풀고 저나라에 가게 되면, 영계에서 풀 수 있는 상대적 관계가 돼 있는 만큼 방대한 활동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무대는 그 기준을 중심삼고 전 영계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게 되면 코너에 몰려서 활동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 보내며 쉴 사이가 없습니다.

밥 먹고 살고, 아들딸 먹여 키운 것은 저나라에 가게 되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세계 인류를, 이 세상을 소화해야 됩니다. 빨리 소화하면 영계의 모든 영들도 재림부활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자권이 사탄 기반인데 하나님 기반으로 거꾸로 되면, 아담이 장자권이 되면 천사장은 아담 말을 듣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 복종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아담 사랑권 내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천국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이 이 일을 책임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끌렸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저끌린 것을 다시 풀어야 됩니다. 탕감복귀해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전도라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사람을 영생권 내에 접수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붙여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봤는데, 열매가 없어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나무가 말라죽었다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허울만 좋으면 뭘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가정 몇 가정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120 명, 몇백 명 해야 합니다. 그것도 못하고 자기 아들딸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리로 보게 되면 120 명을 해야 됩니다. 120 수는 예수님의 세계국가를 대표한 것입니다. 430 가정은 한 나라를 중심삼고 그 안에 있는 성씨와 마찬가지입니다, 4 천 3 백 년 중심삼은 430 가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씨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문을 열어 놓은 것이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론(空論)이 아닙니다. 이론입니다. 세월을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춘시대에 아들딸을 낳아 길러야만 후대에 자랑할 수 있는 기반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역사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이 없게 되면, 자기 일가나 동네에서는 축에 끼지만, 나라에서는 못 끼는 것입니다. 나라에 끼기 위해서는 전통으로 남을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나라에 무엇을 남기기를 바라고, 세계에 무엇을 남기기를 바라고, 하늘땅에 무엇을 남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유 판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필생의 목적이라는 관념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길에서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을 혼자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환경에서 자기들이 이익될 수 있으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수확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갈 때 이것을 전부 공적인 것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국민교육을 잘하면 그 나라가 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권을 중심삼고 이것을 얼마만큼 깨우치고 정신을 바로잡아서 자기 이상의 실적을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계는 빠른 시일 내에 복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길러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하게 되면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골자는 간단합니다. 15 분 이야깃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중심삼고 다방면의 사람들에게,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예를 들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서, 그 사람들을 그 권 내에 같이 동참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적은 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씨를 많이 뿌리자는 것입니다. 씨를 많이 뿌려 놓으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려야 하느냐? 숫터에 뿌려야 합니다. 숫터가 어디냐? 청소년들입니다. 그때 한 번 심어 놓으면 일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심어 놓으면 빼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느 때가 제일 예민한 때냐? 초등학교 때가 제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점점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 그 이웃 동네를 거쳐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와서 무얼 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 다음이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동요도 가르쳐 주고, 얘기도 해주고 하면, 그것이 자기 앞날을 위한 영원한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보기만 하면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열 사람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서 친해지면, 다시 한 번 만나 얘기하자고 해서 다시 만나면 원리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재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통근 시간에 한 코스만 가더라도 일년 열두 달을 매일 다니다 보면 얼굴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인사하게 되면 서로가 화답할 수 있는 인맥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뚫려 있는데, 왜 세월만 보내느냐는 겁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직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본업입니다. 생애에 해야 할 일 중에 그 이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귀한 게 없습니다. 취직해서 출세하거나 돈을 모았던 것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나라에서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나라에서는 물질이 필요없고, 지식이 필요없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1주일 이내에 무엇이든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나라에서는 권력이 필요없습니다. 영계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을 중심삼은 화합력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감화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중심삼은 감화력을 못 가진 사랑은 사랑으로 감화될 수 있는 본연의 세계에 가서는 본질적으로 화합을 못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들어와 살면서 일한다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서 일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방향이 어디고 위치가 어느 자리인가를 언제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벌써 눈만 감으면 압니다. 기도를 안해도 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려면 말이 술술 나옵니다. 양심 있는 사람에게 가면 내가 쭉 끌려 들어갑니다.

전부가 상대적입니다. 꽃도 자기와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체나 대상이 되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다고 해서 상대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남철이 그렇습니다. 그 본질은 영원한 불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데에 가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경지에 들어가면 말을 안 하려 해도 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나라에 가서 복귀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아담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아담 완성자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건 수천 수만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칠 수 없어서 모르는 가운데 섭리하셨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지상에서 하나님 이상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리로 수백 수천의 아담을 교화시켜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영생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봄이 되면 처녀들이 나물을 캐러 찾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나타나면 밤을 새워 그를 위해서 원리말씀을 전해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아들딸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천만금을 가지고 잘 살아도 그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물질과 지식과 생명까지 투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입하는 전체가 가중함에 따라서 그 가치는 비례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통일교회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몇 생명이나 구해 왔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영원히 하늘 앞에 칭송받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하늘나라 백성을 수확하고 거두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거둘 수 있는 쟁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지게가 있습니다. 열렬히 말씀을 전하게 되면, 폭발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적인 실력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벼락을 치고 싶으실 겁니다.

밤 12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새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데 '아이구 나 잠자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직행하는 자리입니다.

영생문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통일교회 반대하는 사람을 저주 못합니다. 하늘은 나와 관계맺어 결정짓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떨어지면 우리 통일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반대하게 됐지만, 그 반대받는 환경을 빨리 극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모든 환경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 젖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러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면 절대 박대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도 일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밤 12시에 여기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이 가고 싶어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앉아 있지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은 일생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절대 사무적이 아닙니다. 영계는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교인들끼리 싸워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그 피해가 큽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뜻을 알고 하늘 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해 몇천 명, 몇만 명을 구할 수 있는, 자기보다 나을 수 있는 놀라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조치 잘못하면 전부 다 걸려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낮은 데 있고, 다 높은 데 두려고 하면 걸릴 데가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내려갑니다. 밤에 아내와 아기들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 아버지로 책임해야 하고 남편으로 책임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하면 저나라에서 아내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이 있지만,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으면 빠릅니다. 저나라는 용서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굶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 먹고 와서 하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폭발하게 생겼는데 밥 먹고 그럴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기로 말하면 전부 다 송전소를 거쳐 배선기구에 연결돼야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발전소의 전기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연결돼야 남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딸을 자기 아들딸보다도 더 사랑하고, 믿음의 아들딸은 믿음의 부모를 자기를 낳은 부모보다도 더 위해야 됩니다. 자기를 낳아 준 건 사탄세계의 부모지만, 믿음의 부모는 하늘세계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보다도 더 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딸들은 전부 자기를 구해 준 사람의 자식들을 정성스럽게 길러 결혼시켜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전부 키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문제와 연결 안 시키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채근하고 채근해서 축복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축복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아 전도하게 되면 그건 자연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사탄세계에서 핍박을 넘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생명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때까지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하더라도, '나'라는 것이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마르게 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230-25, 1992. 4. 15) p.593

Top p.593

㉰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 할 이유

통일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계를 믿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노정입니다.

영계에 가면 참으로 일심동체가 된 부부는 언제라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일체(一體)라고 합니다. 여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성상과 형상, 그것이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본체로 돌아가는 데는 사랑의 사다리를 타지 않으면 안됩니다. 창조의 기준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종착점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아기를 안 낳습니다. 영계는 종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원형을 이룬 세계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횡적인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몸으로 만든 것입니다. 번식하는 밭입니다. 영계의 백성은 전부 이 지구에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산아제한을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천명에 의한 것입니다. 악한 혈통을 더 이상 번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축복가정은 얼마나 천국 국민을 번식시키느냐 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믿음의 아들딸보다 자기가 낳은 아들딸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딸은 축복이라고 하는 관계를 모릅니다. 그런 아들딸을 얼마나 남기고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자기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05-99, 1990.7.7) p.59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완성은 지상에서 하는 것이지 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가능한 것입니다. 영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들딸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딸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이상적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원래는 열두 방향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열두 방향 이상을 원합니다. (217-130, 1991.5.12) p.594

아들딸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번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축복가정들은 지상에서 산아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굶어죽어도 전부 다 영계에 갑니다. 굶어죽더라도 사랑 가운데서 굶어죽으면 천국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세계는 산아제한을 하지만 통일교회에서는 산아제한 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이 뜻을 위해 고생했지만 굶어죽지 않았습니다. 굶어죽는 자리에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도 조절할 수 있고, 사탄세계도 조절할 수 있고, 천운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절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오고, 이 세계가 따라오고, 천운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201-133, 1990.3.27) p.594

여러분은 지상에서 자녀를 훌륭하게 잘 길러 남기고 가야 합니다. 장래 그 자녀는 모두 영계에 갑니다. 영계에 가서 천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몇 사람을 천국 국민으로 바쳤는가 하게 될 때, 지상에서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영원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고귀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교육이라든가 먹이는 일이라든가 하는 문제로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영계에서는 먹는 것이 문제없습니다. 입는 것이 문제없습니다. 사는 것이 문제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18-319, 1991.8.22) p.595

영계에 가면 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한 점밖에 없는 것입니다. (221-204, 1991.10.24)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구하는 일입니다. 영계에 간 모든 차원 높은 사람들 일이 땅의 일입니다. 땅은 어떤 곳이냐? 하늘나라의 국민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입니다. 광대무변한 천국입니다.

한 사람이 자식을 한 백 명씩 낳더라도 하늘나라는 넓어서 과잉생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나라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산아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저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거느리고 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참된 하늘나라의 아들딸을 많이 거느리고 올 때, 그게 자기의 권익이 되고, 천상세계에서 표창받을 수 있는 등급의 등차를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202-40, 1990.5.1) p.595

Top p.595

⑨ 죽음 앞에서의 자세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엉터리같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는 데는 왜 죽느냐? 죽는 목적이 뭐냐?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는 데도 무슨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이 전부 다 다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그 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죽어야 되느냐? 저 밑창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죽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큽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하늘나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죽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죽는데도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죽는데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한국적인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국적인 것 가지고는 아무리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심정의 나라를 중심삼은 최고의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복판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제일입니다. 천하가 깃발을 들고 환영하는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34-184, 1970.9.6) p.596

오늘날 우리는 최후의 부활의 한날, 소망의 한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의 때는 만민이 즐길 수 있는 소망의 때로되, 그때는 쉽사리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죽음을 이긴 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탄과 싸운 자만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핍박을 받은 자라야만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생활환경을 넘어서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 소망의 한날을 여러분의 생활권 내에 끌어들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 것인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80년 살다가 죽는 그 시간에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최후의 한날을 장식할 것이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의 자리에 가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분은 인생행로에 승리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느 한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놓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때 어떠한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은 친구도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없는 길이요, 사랑하는 형제도 없는 길이요,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자녀도 없는 길입니다. 오로지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다시 가 볼 수도 없고, 갔다가 올 수도 없고,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가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갈 것인가? 여러분이 죽음에 봉착하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거기서 마지막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죽음의 길 앞에서 후퇴한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비웃고 죽음을 늠름하게 넘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길을 세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넘고 나면, 나는 하늘 앞에 떳떳이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마음으로 동경하던 본향을 향해 기쁨으로 달음질 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해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사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죽음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지나가 버리게 하는 승리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하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고통의 길이나 슬픔의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쁨의 장면이 있으면 그 기쁨의 장면이 지나가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리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슬픔과 기쁨이 뒤넘이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은 죽음과 더불어 사라지는 기쁨, 즉 죽음을 넘어서 남아질 수 있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죽음과 더불어 사라지고 즐거움도 죽음과 더불어 사라진다면, 인간이 기쁨을 찾고 더 좋은 것을 바라며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그 마음도 죽음과 더불어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심정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런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영적존재인고로 그 생명이 영원합니다. 하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늘을 위하여 죽음의 길도 가고, 많은 사람이 싫다 하는 길도 소망을 품고 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고, 보통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죽음의 길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경하는 마음이 현실생활에서 부딪치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 혹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후회할 자요, 슬픔과 고통 앞에서 후퇴할 자밖에 되지

[텍스트 입력]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개를 넘어 영원한 세계를 가셨기에, 부활의 세계를 건설하였기에, 오늘날 우리도 어차피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이 슬퍼하는 죽음의 고개도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음을 앞에 놓고 세상만사를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 앞에 서서 자기의 죽음의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이러한 소망의 아들딸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리에 서서 하늘의 기쁨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늘을 대하여 울부짖는 무리가 있다면 하늘이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53, 1959.3.22) p.597

뜻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뜻을 위해 죽어야 할 자리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기 전까지는 내 것이지만, 죽은 후에는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혈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사탄 편의 인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연맺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두고 볼 때 어느 것이 강하냐?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냐? 생명보다 죽음이 더 강하냐? 사탄세계에서는 생명보다 죽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기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에서는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한 시대를 지내지 않고는 다른 시대를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세계의 타락한 혈통을 이어받은 생명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역설 같지만 타락과 복귀의 내용을 중심삼고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귀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귀의 정상적인 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 길을 출발할 때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는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역사해야 되겠기 때문에 죽을 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죽을 자리라면 어디일 것이냐? 원수와 대결하는 자리, 즉 원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원수의 본거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중심삼은 뜻의 기반이 사탄 편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하여 사탄의 소굴인 북한으로 간 것입니다.

선생님이 금후에 세계적인 공산당과 싸워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북한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영어의 몸이 될 것을 각오하고 철천지원수의 나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시련이 덮쳐오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극한 굶주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생활권 내에서 아무리 조이는 생활을 하더라도 하늘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일이 구속당하더라도 그 구속당하는 기준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의 동기와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별의별 중노동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안 꺾인다, 다른 사람은 다 죽더라도 나는 안 죽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살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통일교회의 뜻을 알고 나서 죽음을 각오했습니까? 자유당 시대의 특무대장 김창룡 살해사건의 주모자인 허대령이 사형을 당할 때에, 이번 일을 계획하고 지시한 자로서 한이 없느냐고 물으니 그는 아무런 한이 없다고 하면서 사내답게 죽어갔습니다. 그런 살해사건이나 총살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자신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함으로 국가의 대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을 것이요, 동지의 모해나 친구의 모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해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는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원수를 맺지 말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 죽을 바에는 원수를

[텍스트 입력]

맺지 말고 무엇인가를 심어 놓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가 아닌 친구로서 사랑하면서 죽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34-47, 1970.8.29) p.599

Top p.599

⑩ 영계에 들어갈 때

㉮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생의 승패는 몇십 년의 기간을 두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태어나기 전까지의 복중시기가 있지만, 그 복중의 10 개월이라는 기간은 출생하는 한 순간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그런데 10 개월 동안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한 순간을 잘 넘기지 못하면 태어나는 그 아기는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10 개월의 기간을 안전한 생명체로서 꾸준히 길러 나온 것은 탄생하는 그 한 순간을 장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을 바라보는 목적의 한 순간을 위해서 복중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중시대가 아무리 훌륭했다 하더라도 태어나는 한 순간에 잘못하게 되면 비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31-185, 1970.5.30) p.599

이 땅 위에 왔다가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최후의 자리에서 과거를 뉘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과거의 모든 사실들이 영상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생명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인연된 환경과 남겨 놓은 사연 등 지난 날의 모든 것이 일생의 최후 순간에 자기 마음에 영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참이 있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그 무엇을 남겼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비록 이 땅에 왔다 가더라도 보람있는 한때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왔다 가는 이 인생행로가 행인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든 과거의 사연을 회상해 볼 때, 그 모든 사연이 머리를 흔들며 회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가졌으면 그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자기 얼굴에 환희가 넘치며 자기의 모든 문제가 이상에 잠길 수 있다면, 죽음의 공포도 그에게는 위로의 한 장면으로 장식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거를 회상하는 순간이 공포의 순간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을 남겼다면 그의 과거도 죽지 않은 것이요, 현실도 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과거를 지닌 사람은 반드시 민족이 따라올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사람이요, 세계 만민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인연을 남긴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사연일 것인가? 어떠한 민족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하고 비정한 때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거기에 부딪친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과거지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한때일 것입니다.

생애노정에서 자기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보다 형제면 형제, 친족이면 친족, 남이면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 그들을 구했다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 부딪친 때가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들이 최후의 운명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 선상에 영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중심삼은 행복한 때가 있었고, 수많은 군중으로부터 환영받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찬양받은 거룩한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순간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였느냐, 참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참과 선은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남에게서 결과를 맺게 하든가, 남에 의해서 시작되어 나에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만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에서 천지의 모든 존재는 주고받는 인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생활이 주는 생활이었으면 죽음길에서도 공포가 없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남을 위해 희생했으며, 참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눈물도 남으로 말미암아 흘렸고, 내 생명도 남으로 말미암아 투입했고, 내 소원도 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내 맥박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력을 끌어모아 남을 위해서 투입했다고 한다면 그 과거는 빛날 수 있는 과거일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민족을 생각하게 될 때, 소망의 민족은 이런 민족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과거를 그리워하게 될 때, 남을 위해 희생하며 소망하는 본연의 선은 이래야 된다는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싸워 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럴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발판이 됩니다.

성현이 가는 길과 범인(凡人)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성현은 역사와 더불어 살려고 했고, 세계와 더불어 살려고 했고, 미래와 더불어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인은 자기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고, 세계도 자기로 말미암아 있게 하려던 사람입니다. (31-308, 1970.6.7) p.601

Top p.601

㉯ 영계에 들어갈 때

우리 인간이 사는 생활을 보면 태어나 다 같은 생활을 합니다. 굴러가고 있는데 점점 약해지느냐, 점점 강해지느냐?

자기를 알고 어떠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한 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의 생애노정을 거쳐 50, 60, 70, 80년, 노후의 생활권에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작용하면 점점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자연역학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중심삼고 작용하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들어오는 힘, 전기로 말하면 들어오는 힘이 어떠한 모터를 돌리든가 작용을 해 나갈 때에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소모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일생 동안 정지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생 동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데도 바로 움직이느냐, 그릇되게 움직이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야 할, 자기가 굴러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모르고 구르고 있습니다. 바윗돌에 부딪칠지 혹은 어느 시궁창에 빠질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굴러가는 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얼마나 불안정한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공간과 시간권 내의 내용을 갖고 측정하던 모든 것으로는 상관관계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141-270, 1989.10.15) p.601

영계에 가게 되면 어떠냐? 심령기준이 있습니다. 1도면 1도, 한계 내에 있어서 심령기준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나라에 갈 때는 축복받은 사람들도 한때는 갈라집니다. 왜냐? 심령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64-62, 1989.10.15) p.601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무엇이 되겠느냐? 대사가 되겠느냐? 그 대사관에서 심부름하는 종이 되겠느냐?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는 일이 있으면 그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세계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구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입니다. (107-56, 1980.1.20) p.601

여러분은 천국갈 때에 예물로 가져갈 것이 있느냐? 영계에 가면 순교당한 공신들이 앞에 쭉 늘어서 있는데,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보따리를 펼쳐 놓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통일교회가 무슨 고생을 했으며, 여러분이 무슨 고생을 했느냐? 그만한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다고 하겠느냐? '고생을 하긴 했지만 나는 고생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래야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영계에 가서 보따리를 풀어 놓고 '이것은 일생 동안 제가 장만한 선물이오니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는 한 보따리씩 해 가면서 천국갈 때는 달랑달랑 몸만 갈 수 있느냐? (32-71, 1970.6.21) p.602

여러분 자신이 자주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영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계에도 영계대로의 세계가 있고, 나라가 있고, 종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을 중심삼고 볼 때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할 수 있는 자주성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볼 때도 종족을 중심삼고 볼 때도, 역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주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자주성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19-45, 1967.12.24) p.602

영계에서는 천지라는 것, 지구라는 것은 먼지 한 점 같은 것입니다. 영계는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시공을 초월한 무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이러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상에서 태어나 살다가 간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직접 나와 봐라!' 하면 그 사람이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직감적 감각이 현실화되는 세계입니다.

한꺼번에 백만 명 연회를 한다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내가 이런 이상적 사랑의 기쁨을 모두에게 나누고 싶어서 만찬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여자는 이런 옷, 남자는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나라!' 하면 즉시 나타납니다. 식사도, 과일도 문제없습니다. 순식간에 원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남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취사장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거기에는 식량을 만드는 공장도 없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은 여러 꽃이 있습니다. 집도 사랑의 심정 기준에 상응하는 그런 집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224-105, 1991.11.23) p.602

범인은 과거를 생각하면 흑암이지만, 성인은 과거를 생각하면 광명입니다. 그 광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민족을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출발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험상스런 환경을 갖춘 이 타락권 내에서 자신이 가는 모습을 도표로 그려 보게 될 때, 1년은 이렇게 가고 1년은 저렇게 갈 것이다, 혹은 10년은 이렇게 가고 10년은 저렇게 갈 것이다 하며 자기 나름대로 일생 행로를 계획하면서 높고 낮음을 예측할 것입니다. 그 높고 낮음이 자기를 중심삼아 가지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사람은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때, 자기를 위해 살면서 남을 희생시킨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얽어맬 것입니다. (31-308, 1970.6.7) p.602

여러분이 '칠십 살이 되더라도 나는 이렇게 간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느냐? '나이 80살이 되고 죽는 순간에도 나는 이렇게 간다.' 하는 걸 생각해 봤느냐? 죽는 자리에서도 '나는 이렇게 역사를 밝혔고, 지금까지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죽지만 너희들이 대신 해 다오!' 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3-116, 1974.8.16) p.603

Top p.603

㉩ 영계 수속에 필요한 증명서

여러분은 최초로 어디에서 증명서를 받아올 것이냐? '나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 승리의 증명서다.'라고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증명서를 자기 자신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쓰느냐? 처음에는 사탄이 씁니다.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그 승리의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년 공생애노정의 출발 때에 40일 간 사탄을 불러내어 증명서를 받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3대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대시험을 승리하자 사탄은 말하기를 '당신은 민족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증명서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활동무대를 모두 하늘 편으로 즉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사탄에게 증명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5-121, 1965.10.3) p.603

Top p.603

⑪ 죽어 봐야 확실히 알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이 기도로 영계와 통하게 되면 영계에서는 후손들을 하늘 앞에 가까이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상이나 욕하고 나만 잘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죽어 보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죽어 보면 압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통일교회 문선생이 공갈을 해도 아주 근사한 공갈을 한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멋진 공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어 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뭐 할 짓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2-338, 1969.5.11) p.603

하나님의 최고 사랑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왕궁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저 지옥 밑창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공산치하 감옥에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영계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 생명을 각오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제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악당 같았으면 감옥을 폭파하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합니다. (91-175, 1977.2.6) p.603

Top p.603

⑫ 위해 살면 하나님 가까이 간다

영계는 3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누가 높은 데에 올라가느냐? 보다 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던 사람은 반대의 세계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입니다. '흥! 우리는 너같은 것은 싫어!' 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전부 반대하고, 남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전부 환영합니다.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가면 높은 데 가는 사람들은 전부 남을 위했던 사람들입니다. 세계 40 개국이면 40 개국을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와 가정을 확대한 것과 같은 심정으로 위한 사람들, 세계 사람들을 전부 악에서 구해주는 성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한 남자로서 역사시대의 효자를 대표한 총수요, 애국자의 총수요, 성인의 총수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지었던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승리한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절대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고 잊어버리고, 위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만이 그 세계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패인지 지옥 갈 패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레버런 문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남을 위해 산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죽음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203- 100, 1990.6.17) p.604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 재산을 하늘 것으로 바치기 위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전체를 위하고, 보다 큰 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 해방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핏줄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핏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력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환시기에 들어왔으니 자유천지가 찾아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선한 씨를 심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메시아의 일족, 하늘나라의 국민, 영원한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영생을 지닌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203-187, 1990.6.24) p.604

앞으로는 무슨 경쟁이 벌어지느냐? 서로가 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나라에서는 위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을 내가 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타고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프 케네디타운에 가게 되면 인공위성 발사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상대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권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서 위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을 위하는 것은 선생님을 이용해 먹자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도약해 하나님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 나온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도약해 하늘나라에 어떻게 간다, 몇천 리 몇만 리를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본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세상 고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본연의 고향에, 영원한 고향에 돌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것입니다. 축에 못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알 것입니다. (213-194, 1991.1.20) p.605

지금까지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가정 조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문화 배경이 다르고, 심정적 배경이 다르고, 사는 풍습이 전부 다르니 다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풍습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습관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없으니 사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사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나라가 없고 세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불교권이니 기독교권이니 해서 여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끼리는 같이 못 있지만, 같은 종교권은 같이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권은 하나의 세계를 바라 나오고 하나의 신을 믿고 나오기 때문에 같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하나님권에 속해 있는데 반해 모든 나라는 하나님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통일교회로부터 개인이 생겨나고, 가정이 생겨나고,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는 길이 가정이 가는 길로 연결되고, 가정이 가는 길이 종족이 가는 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는 어떤 세상이냐? 참사랑을 중심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곳이 영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사는 곳입니다. 여기 지상에서도 100 퍼센트 남을 위하는 사람은 '나를 밟고 넘어가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더라도 미국의 대통령보다 그 나라 백성을 더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더라도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을 취하게 될 때는 전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큰 것을 위해 살겠다고 할 때는 자연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것을 위하게 되면 자연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 사는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 가운데에 미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정도 그냥 지나가고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그 방향의 내용이 뭐냐? 그건 위하여 가는 사랑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상 사탄세계에서도 막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탄세계도 절대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독한 부모, 아무리 나쁜 녀석이라도 참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주려는 사람은 모두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215-174, 1991.2.17) p.606

Top p.606

⑬ 심 판

여러분에게 영계의 대심판 법정으로 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언젠가는 대심판 법정에 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법정을 관리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있어야 되고, 검사가 있어야 되고,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판사는 누구이며, 검사는 누구이고, 변호사는 누구이겠느냐? 판사는 하나님이요, 검사는 사탄이며, 변호사는 예수님입니다. (17-177, 1966.12.18) p.606

Top p.606

3) 높은 영계에 가자면

① 종교인들의 표준은 영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그들은 일생 동안 영계를 표준하고 믿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생활하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주들이 남기고 간 경서(經書)의 내용은 인간 살림살이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 초연한 세계의 내용을 중심삼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삼고 우리가 관계맺을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187-286, 1989.2.12) p.606

Top p.606

② 영계에서의 소유권 결정기준

옛날 우리가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고 찬방에서 떨던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날이 하나님 앞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때는 나라를 염려했고, 세계를 염려했습니다. 모든 것이 커지고 모든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나'라는 사람을 뭇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 것이냐를 생각한 것입니다.

지식이 많든, 권세가 있든, 돈을 가졌든, 그런 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최후에 남아 저나라의 소유권 결정기준이 됩니다. (127-38, 1983.5.1) p.606

복귀의 길에는 에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혼자서 왔지만 갈 때는 혼자서 못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14-105, 1964.6.20) p.607

여러분이 영계에 가면 전도한 사람 수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계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자기가 책임자였다고 하는 간판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125-17, 1983.3.1) p.607

Top p.607

③ 사람을 사랑해야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보면서도 먹을 수 없는 곳이요,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계와 육계가 하나될 수 있는 이런 가치적인 중심을 세워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지상에서 영육이 하나된 천국생활을 한 사람 외에는 영원한 이상적 세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91-173, 1972.2.6) p.607

영계에 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영계에 갔는데, '너 지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게 되면, '돈을 많이 쓰고 왔습니다.'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187-310, 1989.2.12) p.607

Top p.607

④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저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아들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저나라에 가면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억만 년 잠을 자겠습니까? 억만 년 잠자는 것도, 돈벌이도 필요없습니다. 자기 정도에 따라서 먹을 것은 언제나 먹을 수 있습니다. (126-142, 1983.4.12) p.607

Top p.607

⑤ 가정의 기대를 이루어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 아들딸이 없으면 안 되느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부부가 있어야 되고,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피가 혼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 사랑의 피, 종적인 피, 횡적인 피가 혼합되어 태어난 것이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을 갖지 않게 되면 저나라에 가서도 놀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夫妻)가 80 이 되고 90 이 될 때까지 둘이서만 이마를 맞대고 살면서 행복하다고 하느냐? 재미있게 살 수 없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있어야 되고, 손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갖다 안겨 주면 그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손자 손녀를 못 가진 사람은 영계에 가서 천지조화를 못 이루고, 동서남북으로 박자를 못 맞춥니다. (197-32, 1990.1.7) p.607

일하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잠을 못 자서 고단하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가 열립니다. 영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영계를 보고, 영적으로 밥을 먹으면 하루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가볍고, 종일 뛰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면 세상이 재미없습니다. 횡적으로 아들딸 낳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지, 사실 세상에 있을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저세계에 가정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91-176, 1972.2.6) p.608

Top p.608

⑥ 심정권 전통을 중심삼고 살아야

영계에서 종교가 필요할까요? 필요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장로교니 천주교니 하는 것이 필요없습니다. 하나님의 생활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귀한 것이 필요한데, 그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에서는 심정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심정권의 기지가 어디냐?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부모의 사랑, 참부부의 사랑, 참형제의 사랑이 보편화할 수 있는 세계가 심정권의 세계입니다.

그런 본연의 세계에서는 부부를 위주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땅, 천주를 위주로 한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를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 사랑을 하되 세계를 위주로 한 부부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세계에 합격될 수 있는 사랑의 기반을 어디서 닦느냐,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 지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닦아 가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수많은 그 무엇과 달리 세상에서 이런 일을 비로소 시작한 곳이 통일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얼 가르쳐 주느냐? 심정권 세계의 합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나라에 가게 된다면 민족을 사랑한 수많은 사람, 수많은 부부, 애국자 · 충신 · 열녀 · 성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연의 심정권 전통을 중심삼고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26-139, 1983.4.12) p.608

Top p.608

⑦ 저나라에 패스하는 티켓

이제부터라도 무슨 일을 출발시킬 때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영계에 가면 그런 원칙에 얼마만큼 동화되고, 얼마만큼 일치됐느냐 하는 것이 지옥에서부터 중간영계 · 낙원 · 천국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영계에 가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귀한 거냐? 하늘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눈물 흘렸느냐 하는 것이 저나라를 패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기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머리도 없는, 그저 상식 밖의 패들입니다. 제일 슬픈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우주를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97-172, 1978.3.15) p.609

Top p.609

제 3 장

영계

1) 육신 갖고 체휼 가능한 영계

① 영계와 때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하면, 영계와 육계를 세계적 무대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세계적으로 하나될 수 있는 자리는 조용한 자리가 아니라 세계가 요동하는 자리, 하늘땅이 요동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못하게 하고, 하늘은 하려고 하고, 둘이 악착같이 싸움을 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워싱턴대회 때입니다.

1976 년을 기점으로 사탄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직접 하나님을 참소하지 못합니다. 영계에 간 선조들을 참소하면 했지, 하나님을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계의 모든 영인들을 동원해 지상에 있는 사탄세력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이 하던 이상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공자가 나타나고, 석가모니가 나타나고, 마호메트가 나타나고, 자기 조상이 나타나서 통일교회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영적으로 제재를 하고, 영적으로 벌을 주면서 들이몬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지금까지 갈라졌던 것을 전부 다 수습하고, 오늘날 세계가 갈라진 것을 전부 다 심정적으로 묶어가는, 초민족적 기준을 중심삼고 여기에 세계적 대표를 모아 심정적으로 하나 만드는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영계도 하나되어 접선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빛을 발하여 세계적인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서양의 영계와 동양의 영계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었느냐? 하나의 사랑으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동?서양의 사람들을 통일교회 합동결혼식을 통하여 민족으로 묶어 놓고 종족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기준, 가정적 기준, 종족적 기준, 민족적 기준, 국가적 기준, 세계적 기준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천국, 영계는 완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91-162, 1977.2.6) p.610

Top p.610

② 앞으로의 시대

요즘 통일교회에 새로 들어온 식구들을 보면 영적으로 선생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원한 장래에 일국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국 같은 나라에는 혼자 다니면서 중얼중얼 말을 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영계가 전부 지구상으로 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누가 총지휘하겠느냐? 이건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67-77, 1973.5.20) p.611

여러분은 앞으로 얼렁뚱땅해서는 선생님 앞에 절대 못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는 선생님이 영계의 문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문 앞에 와 있다가 그런 자가 나타나면 '이 녀석, 뭘 하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왔어?'하면서 문전에서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문적인 면을 중심삼고 세계를 요리할 때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의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복귀시대이니만큼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면 아직은 안 되겠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지만 선생님 대신 별의별 일을 다 할 사람들이 세계에는 많습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도 있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천리만리를 순식간에 가는 사람이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래 안 가서 선생님이 그런 사람들을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불러오고, 도의 세계에서 불러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세계가 통일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나님의 전권이 평면화돼 재창조역사에 이상적인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는 일체의 모든 요건은 전부 다 파탄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보는 금후에 있어서 초감각시대의 세계관입니다. 사랑만이 초감각시대의 세계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초감각세계에서 사랑하게 되면 그저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신경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평면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세계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 실체 몸으로 영계를 완전히 지배할 때입니다. 선생님이 영계의 내용을 가지고, 진리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도 굴복해야 되고, 천사세계도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도통한 사람이라든가, 기독교에 도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선생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영통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야 실체 완성권이 이루어져 지상천국을 개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일할 때가 있겠느냐? 그때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되었나? 어쩌면 내가 저렇게 했나?'그럴 때가 옵니다. 농담이 아니고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60-194, 1972.8.17) p.612

Top p.612

③ 영적 체험도 필요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 얼굴로는 그냥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 돌아갑니다. 죽기보다도 더 비참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적체험을 많이 하면 부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앞서서 늘 그런 심정으로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고 가르치는 모든 말 앞에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합니다. 말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 앞에 하나님의 심정이 앞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없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앞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 나를 자꾸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면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도 다 교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인지 모르게 전부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자기가 말하는 소리니까 자기 귀에도 들립니다.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신기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말하면서 제스처를 해도 참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표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생명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96-168, 1978.1.3) p.612

영적세계를 체험한다는 것은 4 차원의 세계를 통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럴 때에 몇천 년 전에 왔다갔던 선지선열들도 오늘의 나와 인연을 맺어, 대화도 하고 의논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실제 생활적인 시간권 내에서 내가 경험하고 또한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4-225, 1958.5.4) p.612

Top p.612

④ 영적 체휼의 과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가 신앙의 주체되는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호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주체가 확정돼 있지만 내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관으로 알 듯이 그렇다 하는 것을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살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주체로부터 살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살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로부터 살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을 중심삼고는 이것을 살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중심삼고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볼 때 그 마음 자체가 천 사람이면 천 사람, 만 사람이면 만 사람이 전부 다 같으냐? 그 바탕은 같을지 모르지만 마음 자체는 소성(素性)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전부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얼굴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도수를 그릴 수 있는 평형선과 수직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도수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이 주체라면 그 주체 앞에 내가 대상적인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주체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상으로서 감응할 수 있는 바탕을 반드시 주었기 때문에 평면적인 마음 바탕의 기준 앞에 수직으로 향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선을 보게 된다면, 이건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수직으로 서게 되면 이 수직선의 기준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점기준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영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발전소에 가보면 미터기가 많이 있습니다. 미터기에 영점기준과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가감의 조정을 해서 그 방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양의 비준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영점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점기준은 어떤 자리냐?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선하는 사람들이 무아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 기준에 접근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되면 반드시 자기의 수평선 기준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보면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심문(心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이 언제나 한 면으로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자체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문도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플러스를 중심삼고 마이너스 입장에서 관계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심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 보면 시간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새벽 한 시에 기도하는 것과 세 시에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이 체험해 보면 압니다. 신비스런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느끼는 것과 낮에 느끼는 것과 저녁에 느끼는 것과 밤에 느끼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도 느끼는 그 기준이 우리가 육체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느끼는 감도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도 어떤 시간에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감응의 도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 하는 거기를 점점 들어가게 되면 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문과 인간의 마음 문이 딱 맞아서 어느 기준까지만 맞추어 돌아가는 날에는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체휼하는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벌어진 종교도 있지만 사탄의 뜻을 중심삼고 벌어진 종교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 가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선한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아!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 자체도 선하지 않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악한 마음권, 악한 사탄권에 감염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선한 권 내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 문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음 문이 열리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때를 알아서 하늘의 마음 문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나 수시로 찾아 맞추는 생활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심도를 가려 가면서 마음 문을 열게 하고, 그러면서 하늘이 향하는 문과 어떻게 일치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 상대적 입장에 서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입체적인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지 모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겨울과 같은 기분만 느꼈는데 가을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가을과 같은 기분만이 아니라 여름과 같은 기분도 느껴지고 봄과 같은 기분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우주는 돌고 있습니다. 마음도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면서 춘하추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세계도 돌면서 그와 같이 변화하는 감도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일 년을 두고 보면 춘하추동이지만, 일 년을 축소한 것이 하루인데 하루에도 춘하추동이 있습니다. 아침은 봄에 해당하는 것이요, 낮은 여름에 해당하는 것이요, 저녁은 가을에 해당하는 것이요, 밤은 겨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춘하추동 계절적 형태가 하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봄에 해당하는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봄과 같은 것을 느끼고, 여름과 같은 것을 느끼고, 가을과 같은 것을 느끼고, 겨울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것은 큰 것을 중심삼고 단위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작은 것도 상대적인 그 단위의 형태를 각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이 언제나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절을 따라서 자기가 봄이다 하는 것을 알면 좋지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겨울이다 하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체험을 통해서, 많은 기도생활을 통해서 '아! 지금 때가 어떤 때에 처해 있구나'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말에 암시(暗示)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길을 무심코 쓱 가는데 어떤 좋은 집 담벽에 앉아 있던 새가 날아가는 걸 보았을 때, 새는 날아갔지만 퍼뜩 새가 날아가는 그 자체를 통해서 암암리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런 형태가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암시적 조건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말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벌어지느냐? 몽시(夢示)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꿈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꿈도 깊은 잠 가운데서의 꿈이 아닙니다. 바울도 비몽사몽간에 3층천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걸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종합해 어떤 방향의 인연을 나에게 연결시키기 위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인 면에서 데이터를 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몽시 같은 것은 100 퍼센트 적중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떠한 사람이면 사람, 물건이면 물건이 인연되었는데 그것이 사실 가운데서 실체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 가운데서 누구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꿈 가운데 노래가 아니고 옆에서 누가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였다, 이런 사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영적 차원에 있어서 마음 상태가 공명(共鳴)할 수 있는 권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음차(音叉:소리굽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명할 수 있는 권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지극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공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마음이 아직까지 존재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몸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존재성을 확립해 또 다른 하나의 주체다 하는 그런 인격적인 차원의 자리가 형성되면 그것은 반드시 다릅니다.

기도를 해서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마음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명(共鳴)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 높은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로 발전해 나갑니다. 맨 첫 단계에서는 암시와 같은 사실들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자는 이런 막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심코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줄 것이냐? 언제나 배고픈 자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줄 것이냐? 그렇게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자체는 뭐냐? 내가 언제나 주체가 되든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적인 주체요, 확정적인 대상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고, 대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대번에 압니다. 내가 누굴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대번에 안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저 마음이 좋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심파(心波)라고 합니다. 마음의 파장이 있습니다. 고기 장사하는 사람은 푸주 냄새가 나고, 천(옷감) 장사하는 사람은 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몸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 마음의 냄새를 맡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촉각 같은 것이 있어 전부 접선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파 같은 것을 발사해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의 태도는 전부 다 나와 더불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타락이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관계, 본연의 인간에 대한 관계, 신에 대한 관계를 전부 절단해 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절단된 관계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접속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자체가 접속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작용을 해야만 관계가 개척되지, 접속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개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엇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아, 오늘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일이 나타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생활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체휼과 실천이라는 것은 생명의 인연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이런 사실이 벌어집니다.

그 단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啓示)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벌어집니다.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지시라는 것은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계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데는 음성으로 들려 주기도 하지만 환상으로도 보여 줍니다. 좋은 봄날을 맞이하여 사슴 한 쌍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먼 산을 바라본다, 이런 환상은 지극히 행복스러운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이 우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밭을 계발하기 위한 하늘의 역사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밭이라는 것이 유리판같이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뚝불뚝하다는 것입니다. 형은 수평 같은 면을 가졌지만 그 자체는 울뚝불뚝하다는 것입니다. 울뚝불뚝한 여기에 하늘의 감도가 반사되어 오게 되면 빛의 굴절과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반사돼 나갑니다. 그러니 전부 다릅니다. 부분 부분을 계발하려니 그런 역사를 합니다.

계시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묵시(默示) 단계입니다. 하루 종일 영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활적인 감정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체휼적인 신앙을 안 가지고는 위대한 하늘 뜻의 결과 세계를 우리의 생활장, 생활무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갖지 않는 신앙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체휼적인 신앙이 고귀하기 때문에 계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役事)를 합니다.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전기작용과 마찬가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고압에 접한 것과 같이 우리 의식보다 강한 힘이 들어옵니다.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감정이 찾아들게 되면, 우리 몸이 타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발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과는 반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앞에 어떤 신의 성품이 강력하게 들어와도 자연적으로 순화되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데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이, 음파도 강약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것과 같이 반드시 그 힘도 한꺼번에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들어왔다 약하게 들어왔다 이러면서 개척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동이 벌어지고, 자기의 의식이 없어지고 영적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 육성(肉性)이라는 것이 타락성이 순화되어 자연히 100 퍼센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도 역사 이상의 자리에 들어가 하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다 받으면서도 감쪽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과정을 거쳐 순화되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시라든가 지시라든가 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체휼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야 할 텐데 책망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가끔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미치광이로 취급받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체휼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마음으로 느낀 것을, 체휼한 것으로 실험을 통한 체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체휼과 실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 우리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지성적인 사람으로 진리로써 뭘 탐구해 이치에 맞으면 인정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부정하는 타입의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이치보다는 감으로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 통일교회 술어로 말하면 지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적인 면에서부터 느껴 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지적인 사람은 외적인 면에서부터 느껴 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나가는 종류요, 하나는 들어오는 종류입니다.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성적인 사람은 대개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미신 같고, 믿을 수 없고, 자기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론을 따져 가지고 무엇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동시에 나면서부터 '하나님' 하는 말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그저 좋습니다.'아버지' 하게 되면 밥을 안 먹더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영적인 운동에 있어서 혁명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성적인 사람은 못합니다. 대개 신앙세계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식하고 미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이야 어떻든 느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 그것이 실천하는 환경에 백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늘의 영적 벼락을 한 번 맞고 나서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탐구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폭발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전부를 부정하고 존중시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기독교 혁명의 기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종교적인 심령세계에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나는 어떠한 타입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개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크지만 진리면에서는 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굵지만 뾰쪽해지면 시종여일(終始如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못 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반드시 굴러떨어집니다. 또 진리는 크지만 영적인 면이 작다면 영원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와 진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평형을 만들어 화(和)하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계와 육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영적세계의 중앙에 서야 되고, 진리세계의 중앙에 서서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간이 되지 않고는 완전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76-125, 1975.2.2) p.618

Top p.618

⑤ 영적 감각의 발전 방법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게 담을 막아 놓더라도 그 담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계에서 그 간격을 메워 줍니다. 선생님이 흥남감옥에 있을 때도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전도했습니다. 영계가 동원되어 협조해 주었습니다. 안 해주면 큰일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방에 나가더라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1960 년대에 이름난 곳은 다 가 봤습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며'아버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입니까?'하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그 기준과 딱 맞아떨어진다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적 촉감이 발달됩니다.

그렇게 되면 길을 나서면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무한정으로 통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 사람을 대하게 되면'아이쿠!'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영계에서 가르쳐 준 영감이 실제의 사실로 들어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체험을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30-150, 1970.3.21) p.619

Top p.619

⑥ 군림(실체역사)

영과 육은 본래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게 되어 있지, 거짓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의 기원을 찾지 않고는 이것이 하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넘어 하늘의 축복을 바라고 가야 됩니다.

외로운 자리에 갈수록 왜 하늘이 가까이 계시느냐? 세상의 사랑을 잊고 하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니 하늘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주관권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주관을 받는 권내에서 살아야 됩니다. (91-184, 1977.2.6) p.619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느냐? 기도 가운데 혹은 꿈 가운데에 선생님을 매일 보아야 됩니다. 세계의 통일교인은 그런 체험을 다 해야 됩니다. 영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눈을 뜨고도 선생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이래 세계에 처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한테 간섭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활권을 선생님이 간섭하면서 전부 다 지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신이 나서 움직이면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것, 하지 못할 것을 시켰지만 선생님보다 더 기쁘게 하겠다고 하면, 그 세계에 대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치고 그 자리를 나서면 대번에 선생님이 지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91-174, 1977.2.6) p.620

우리 통일교인들은 기도나 몽시 가운데서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직접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선생님의 지시를 직접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 이상으로 실감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인들은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산다는 입장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예수님 때보다 더한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통일교회와 하나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망권을 지나가려면 결사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에는 한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4 시간 해야 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직접 모시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본래 그런 기준과 경험이 있어서 그런 내용에 전부 다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선생님과 영적으로 접붙여 하나되어야만 축복대상자로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1-331, 1970.6.7) p.620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가운데서 음성을 들어 보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라. 선생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잠을 안 자고 그러다 보면 영계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휼이 없으면 안 됩니다. (76-152, 1975.2.2) p.620

Top p.620

2) 영계는 어떤 곳이냐

[텍스트 입력]

① 영계와 육계

㉮ 영계, 육계의 중심

여러분은 영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이 가는 길은 영계와 관계맺어 영생하는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 즉 하나님과 같이 사는 세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종교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종교가 어떻게 되었느냐? 점점 탈락돼 '종교는 약자들이 믿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없는 것이다. 그건 도의적인 하나의 표상으로서 인간들이 조작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내리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종교의 중심이 되는 기독교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기독교국가의 대표국인데, 그러한 미국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요, 모든 이상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를 중심삼고 이상을 그리던 그러한 기독교에 있다가 왜 나오게 되었느냐? 첫째 원인은 영계가 있는 것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능을 가진, 비교의 능력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곳을 버리고 그곳에 가게 되어 있고, 보다 차원 높고 가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원인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셋째 원인은 영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사랑으로서 엮어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았더라도 사랑을 중심삼은 세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가운데 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보다 높다고 해서 싫어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보다 낮다고 해서 그걸 미워하느냐? 하나가 되면 마음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수도 있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올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여야 되겠다. 통일의 세계여야 되겠다. 평화의 세계여야 되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계와 육계,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계는 다릅니다. 영계와 육계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개재하지 않고는 영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영계라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과 영계는 어떻게 다르냐? 마음과 영계는 어떻게 다르냐? '내 마음도 영이지 뭐야?'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혼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영계가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은 영적 세계와 관계맺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뼈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뼈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실감납니다. 뼈 없는 사람과 같은 형태가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인체를 보게 되면 영인체도 몸적인 요소가 있고, 마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인체의 마음과 같은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영인체의 마음과 같은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변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세계, 영적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히 하나의 목표를 세워 꾸준히 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인간 내에 속해 있습니다. 왔다갔다하는 인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배워서 알겠지만 생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이 합쳐져서 새로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우리의 양심과 하나되어 이상적 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동기적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심이 없어서 영계와 참된 사랑과 관계맺을 수 있는 자체의 근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심이 나에게 생겨나면 몸도 좋아하고, 전부 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이 하나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여 생심적 기원만 되게 되면, 마음과 몸이 자연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에서 혁명이

[텍스트 입력]

벌어지고, 근본에서 시정하는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상을 찾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동기가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종교는 생심을 심어 놓자는 것입니다. 생심을 중심삼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별의별 형태가 다 있습니다. (91-140, 1972.2.6) p.622

Top p.622

㉯ 영계와 육계의 일체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계와 육계는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참사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계와 육계가 통일되지 못한 것이고, 참사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과 몸이 갈라진 것이고, 참사랑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갈라진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전부 하나되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사회, 국가, 세계, 천주가 다 연결됩니다. 우리 손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본연의 천상천국 지상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영계와 육계 일치를 어떻게 하느냐? 참사랑으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216-106, 1991.3.9) p.622

Top p.622

② 분명히 실존하는 영계

세계 인류 가운데 영계를 모르는 사람이 80 퍼센트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영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영계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부자가 이제부터 행복의 동산을 만들려고 할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라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사실 곳을 어떻게 지으셨겠느냐?

영계는 어느 부분을 찾아 응시해도, 천 년을 바라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계의 한 모서리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이 갖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이 지상이 선생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15-154, 1965.10.7) p.623

일반 사람 대부분은 지금도 영계를 생각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니 그저 부모님 모시고 가정에 산다, 이렇게 났으니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 모든 생활의 중심이 뭐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을 의식주로 잡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먹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차리고 사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중심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인간관계에 인륜도덕이 있어 향상하는, 서로가 발전하고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 도덕기준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세계 모든 문화 배경의 다름의 차이에 따라서 도덕기준이라든가 사회제도가 전부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오늘날 역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가야 할 본연의 기준, 본래의 기준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표준으로 세워 나가는 인륜도덕이 여러 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수습되어 있지 못합니다. 본연의 세계에 근거해서 우리가 태어나 살다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영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많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가 이만큼 세계적인 기반을 형성할 때까지 그 배후를 살펴볼 때 많은 체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회 교인들입니다. (140-122, 1986.2.9) p.623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천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의가 뭐냐? 개인이 가야 할 천의의 길이 있고, 가정이 가야 할 천의의 길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영계가 가야 할 천의의 길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선생님입니다. 영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121-146, 1982.10.24) p.623

하나님이 있고 영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영계가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없다'는 말은 마치 내가 가정의 한 사람으로 나라가 필요없고, 세계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이 있고, 더 큰 영계가 있다면 더 큰 것하고 나는 관계맺기를 원합니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돼야 됩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104-119, 1979.4.22) p.624

Top p.624

③ 영계는 믿음의 원동력
(사도 바울이 본 3층천)

성경에 보면 바울이 14년 전에 본 3층천을 말했습니다. 14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3층천을 본 것, 그것이 힘이 되어 14년 동안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3층천을 말하더라도 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47, 1972.9.10) p.624

사도 바울이 영계의 3층천 세계를 보고 체험한 것은 그가 14년 동안 꾸준히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27-128, 1969.11.31) p.624

선생님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사랑입니다. 옥중에 아무리 처넣더라도 문선생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반대하는 환경을 소화하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 손으로 전부 굴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202-27, 1990.5.1) p.624

Top p.624

④ 영계를 창조하신 때

영계는 천사세계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아담과 해와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계는 아담과 해와를 짓기 전에 지었습니다.

영계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함으로써 사탄세계가 생겼기 때문에 영계가 하나님의 뜻을 환영해야만 그 세계가 복귀되는 것입니다. 또 영계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지상세계에 주님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영계를 굴복시켜 나온 것이니 영계는 통일교회를 협조해야 됩니다. (25-233, 1969.10.4) p.624

Top p.624

⑤ 영계가 어디냐

영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영계를 지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갈 수 없습니다. (162-116, 1987.3.30) p.624

영계는 있습니다. 영계는 이 세계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 세계도 영원한 세계를 위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고, 영계가 어디 있어?'하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계입니다. (117-307, 1982.4.11) p.624

Top p.62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⑥ 영계는 어떤 곳인가

우리의 인생살이가 70, 80 년으로 끝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영원한 문제를 중심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러면 영계가 있다, 사후에 영계에 가게 된다면 무엇 갖고 생각할 것이냐? 영계는 광대한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광대무변한 세계입니다.

이 땅에 민족간 차별이 있고, 문화적인 격차라든가 상충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부대끼며 살면서도 자기 주장과 자기 가치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계에 가서도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187-285, 1989.2.12) p.625

오늘날 전기니 우주니 해서 야단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내적인 윤활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계라는 곳은 사랑의 전기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사랑의 전기 가지고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치리할 수 있는 가능권이 영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계는 무엇이냐? 영원한 요소를 원하는 곳입니다. 영계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꽉 찬 조화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보턴을 누르면 우주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이 무엇이냐? 모든 사랑의 밸브에 불이 켜지는 곳이 지상천국입니다. 천상천국이 무엇이냐? 사랑의 밸브에 불이 완전히 켜질 수 있는 곳이 천상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만 품고 사랑의 줄만 당기면 다 끌려갑니다. 뒤로 당기면 뒤로 가고 옆으로 당기면 옆으로 갑니다. 마음대로 조종됩니다.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라는 곳은 '사랑의 공기로 충만한 곳'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 인류를 한꺼번에 전부 다 먹이고 싶고, 좋아하게 하고 싶어서 '밥 생겨나라!' 하면 생겨납니다.

영계는 사랑의 음식을 먹습니다. 서로 보는 것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롭기가 형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들어도 자꾸 더 듣고 싶고, 잠이니 피곤이니 하는 관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계는 사랑의 전기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무엇이든 전부 다 사랑에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 사랑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영계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물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에 선생님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를 희생시키라는 말입니다.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공상태가 된 다음엔 저항이 없는 황금이 되든가 해야 합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딴 요소가 없습니다. 순수한 그대로입니다. 황금을 왜 보물이라고 하느냐? 황금은 저항력이 없습니다. (112-17, 1981.3.15) p.625

Top p.625

3) 영계의 내용과 상황

① 타락으로 생긴 영계에 대한 무지

우리 몸에는 1 백조에 달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조상들은 죽어서 영계에 갔지만 우리 몸 가운데 일부분에는 선조들의 사랑을 받았던 세포가 전수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중심삼고 연결된 세포가 전수돼 있고, 피가 연결된 세포가 전수돼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봄이 오면 새싹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푸른 동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자기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선조들의 혈연적 인연을 거쳐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후손적 입장에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은 그 조상들을 대표하여 사는 것입니다. 조상의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조상의 생명력을 따라 조상의 핏줄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압축한 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하늘 앞에 우리 종족의 대표로, 우리 가정의 대표로 연결된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뭐냐? 어머니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 세계 모든 가정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표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거시대라면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시대입니다. 아들딸은 뭐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세계, 천국과 일체화될 수 있는, 천주통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후손으로 우리 가정의 출발 존재로 품고 있는 것이 아들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세계의 대표자, 현재 세계인류 가정의 대표자, 미래의 후손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품어 한 곳에 압축시켜 놓은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가정은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영계와 육계를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지상세계가 부자관계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갖고 살았더라면 천상세계도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아들딸과 같은 입장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214-268, 1981.2.3) p.626

Top p.626

② 영계는 즉각적 감지 가능권

영계에서는 무엇이든지 대번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안 해도 몇억만 년 전에, 몇천만 년 전에, 몇백만 년 전에 살던 아무개구나 하는 그런 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세계입니다.

선생님도 어려운 문제를 놓고 삼각지대에서 '요 점이다' 할 때, 그 점이 어디인지 손가락이, 몸이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점을 맞춰 바른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익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본성이 한번 찌그러지면 수정하는데 반년에서 3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행동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 중의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204-304, 1990.7.11) p.626

우리 근원에는 아직도 사탄의 피가 준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랑이 내 몸에 뿌려졌습니다. 그 사랑이 내 생명의 핏줄을 통하고 신경을 통해 엮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1백조 정도 되는 세포로 이루어진'나'라는 몸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탄의 피와 더불어 생존권을 유지하는 이 비참상을 스스로 자탄하고 파괴시키기 위한 행동을 일생 동안 몇백 배 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을 붙안고 사랑할 수 있느냐? 배가 고프다고 미친 개처럼 주둥이를 끌고 다닐 수 있느냐? 이런 몸을 중심삼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찾아갈 수 있느냐?

영계에 가게 되면 인사가 필요없습니다. 척 만나게 되면 알게 됩니다. 몇천 년 전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몇백만 년 전의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역사가 6천 년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역사는 몇백만 년, 몇천만 년입니다. 그 시대의 우리 조상을 부르면 대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척 보면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알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높여 주어야 할 사람인지 낮추어도 될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필요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질서가 유지됩니다.

모든 질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으로 위(位)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작용과 의식하는 전체를 합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할 때,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세계입니다. (208-142, 1990.11.17) p.627

Top p.627

③ 영계의 중심

영계의 중심은 뭐냐? 그건 하나의 절대적 신을 중심삼고 구성된 세계입니다. 그 절대적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이 태초의 우주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전체는 그와 더불어 느끼고, 그와 더불어 인연을 갖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은 1백조 정도 되는 세포를 갖고 있는데, 모든 세포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건 느끼기만 하면 직접 두뇌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주를 중심삼고 연결되는 모든 존재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인간으로 태어나 의식하며 살고 있고, 선하고 보다 차원 높은 가치의 것을 추구하면서 비애를 느끼는 전부가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 근원과 통할 수 있는 결과의 세계에 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140-123, 1986.2.9) p.627

Top p.627

④ 영계의 조직(계급체계)

영계는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왜 미완성이냐? 본래 영계의 계급 체계는 하나님과 참부모, 참된 자녀를 중심삼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지상도 역시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주의, 아담주의인 동시에 참부모를 중심삼은 계급체계가 영계의 체계인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중심 안에는 불교를 중심삼은 석가모니 클럽이 있고, 공자 클럽이 있고, 이슬람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는 참부모주의와 아담주의가 나타나기를 모슬렘이나 유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적인 방향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도 참부모의 역사가 세계적인 기준을 찾아 올라가게 되면 모든 종교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통합운동이 영계의 움직임을 따라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가 세계주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계의 영인들이 영계에 있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적이 지상에서 완성해 거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재림하게 됩니다. 전부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수천 억 영계 영인들의 소원입니다.

영계 조직체계의 센터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참부모님, 셋째는 참아들딸, 넷째는 참된 나라입니다. 여기서 참자녀는 참부모의 직계 계통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기서 나라를 중심삼고 전부 다 갈라져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궁에서 제일 먼저 살아야 할 분이 누구냐? 하늘나라 왕궁의 자리에 앉아 통치할 분이 누구냐? 본래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가 된 아담과 해와가 하늘나라의 왕권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것이었는데, 타락함으로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참부모가 나와서 옮겨야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영계가 되어 있는데, 육계에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가 나타나고, 참자녀가 나타나고, 참국민을 통한 참국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61-223, 1987.2.15) p.628

Top p.628

⑤ 영계에서의 의식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는 안 먹어도 되느냐? 여러분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아! 밥아!' 하면서 죽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나라에 가서도'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보십시오. 저나라에 빵 공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코카콜라나 주스를 만드는 공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나라에 가서'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 하면서 이러고 다닐 겁니까? 여기서는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어떻고 어떻다고 자랑하고 하지만 말입니다. 거기선 그거 다 필요없습니다.

저나라에 가서 뭘 할 것이냐?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먹어야 됩니다. 먹는데 무엇을 중심삼고 먹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서 먹으려고 해도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안 되어 있으면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젓가락으로 먹을 것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려고 해도 젓가락이 딴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계는 참사랑을 가져야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이지 참사랑을 안 가지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레버런 문이 가르치는 것은 심정의 조류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심정까지 거쳐 만국과 통할 수 있고 전체와 관계맺을 수 있는 심정의 조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좋은 집이 있다 할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보다 급이 낮으면 자기 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 찾아가면 자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 방대한 우주가 전부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가면 선생님을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심정의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은 큰 문이나 작은 문이나 자유자재로 갈 수 있습니다. 참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207-94, 1990.11.1) p.629

영계가 우리의 고향 땅입니다. 본연의 고향 땅입니다. 이 땅은 본연의 몸의 고향 땅이고, 영계는 본연의 마음의 고향 땅입니다. 이 다음에 가는 곳이 마음의 세계, 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계에 맞추어 훈련해야만 영계에 가도 지장이 없습니다. (207-72, 1990.11.1) p.629

영계에는 자동차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같이 온갖 종류의 것들을 참사랑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어떤 것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공구 나타나라!' 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또 만찬장에 수십, 수백만 명이 참석했을 때 어떤 음식이든 원하기만 하면 준비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빛 정장을 원하면 즉시 그런 정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영계에서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영계는 잠이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내 몸을 통과하며 모든 부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러는 것은 영원히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사랑의 공기, 음식도 사랑의 음식, 옷도 사랑의 의복을 참부모님께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주시는 것입니다. (217-293, 1991.6.2) p.629

지상에서는 밥 먹고 사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니 자동차공장 · 비료공장 · 옷공장 · 음식 만드는 공장 등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음식 때문에 야단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가 필요없고 비행기가 필요없습니다. 순식간에 억만 리(里)라도 갈 수 있습니다. 태양빛보다 더 빠른 것이 영력(靈力)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태양빛만 해도 1초 동안에 3억 미터를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연적인 사랑의 힘,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몇천 배 더 빠르다는 겁니다. 누가 보고 싶다 하면 몇억만 리, 몇백만 리 떨어져 있다 해도 바로 나타납니다. 넓은 천국에 가 있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상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몇백만 년 전에 산 사람도 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과 지금 때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금 사는 사람보다 마음으로 하늘을 잘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생활 면에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문화생활과 더불어 영적세계의 계발이 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하게 되면 지식의 축도에 따라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예민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감을 섭취할 수 있는 터전이 더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히 그런 지식이 많고, 세계의 흐름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영계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영파(靈波)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가게 되면 끝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6-138, 1990.10.3) p.630

Top p.630

⑥ 영계에서의 지식과 권력의 쓸모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서는 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왕입니다. 지식과 돈과 권력은 일생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적인 것의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교수들의 지식을 천년만년 자랑할 수 있느냐? 갖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느냐? 일생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더불어 있는 것은 일생뿐입니다. 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식을, 돈을,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봅니다. 영계에서는 전부 무가치한 것입니다. (203-291, 1990.6.27) p.630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구체적이요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사람이라면 그 주체되시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 가운데 제일 중심이 무엇이냐? 정(情)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는데 사랑이 제일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계를 몰라서 그렇지, 영계에 가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 이내면 다 끝납니다. 마음을 거울같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영계는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일주일 이내에 능가할 수 있는 직감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빛을 통해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돼 있는 인연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情)의 심정을 통해서 봐야만 나와 상대적 관계를 갖든가 주체적 관계를 갖지, 지식이라든가 다른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안 됩니다. (210-312, 1990.12.27) p.631

영계에서는 몇억만 리의 거리에 있는 세계의 사람이라도 사랑의 마음이 강해서 보고 싶다 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면'당신이 불러서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얼마나 멀리서 왔느냐?' 하면 몇억만 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초월합니다. 우주가 내 활동기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없는 물질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돈·지식·권력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돈·지식·권력이 필요하지만, 그 세계에는 그런 것이 필요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영계는 권력의 진공상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계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고, 영계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되려 해도 여러분은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적인 것, 본질과는 반대의 것, 그것은 하나될 수 없습니다. 영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205-128, 1990.7.29)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어 보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필요없고, 지식도 필요없고, 권력도 필요없습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뭐가 필요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가운데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사랑의 권력이 만년 권력입니다.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락날락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동서남북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 정거장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는 동서남북의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나옵니다. 낮던 나라도 그 중앙을 통해서 나올 때는 높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지식이 뭐냐? 지식이 있음으로, 앎으로 모든 환경적 여건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인 사랑만 가지면 천하가 다 연결됩니다. 아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있는 사람이 지배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지식이 필요없습니다. 저나라에서는 배우지 않고도 다 압니다.

선생님이 그런 것을 환히 알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방대한 세계가 사랑을 중심삼고 전부 다 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화(和)한 하나님의 심정권을 소지하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면 모두 끝납니다. 창조역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에 화해 가지고 구상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결심하고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86, 1990.5.6) p.632

Top p.632

⑦ 영계에서의 사람 관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존재기원이 되는 가장 모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존재가치의 기원입니다. 그분이 계시므로 오늘날 이 현상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분은 어떤 시대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제한을 초월한 자리에서 모든 제한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라고만 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낳아 준 아버지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에 다시 낳는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은 본래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다리 놓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영계에 가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부가 기독교에서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손자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집안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은 서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가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영계에 가면 참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서로 형제라고 했으니 영계에서 제일 가까운 형제가 누구냐? 영계에서 제일 가까운 형제는 횡적인 형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관계와 형제관계 중 어떤 관계가 더 가까우냐? 형제관계보다 부자관계가 더 가까우니까 영계에 가서도 내 아버지가 제일 가깝고, 다음은 할아버지, 그 다음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위의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종지 할아버지가 누구겠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할 것 없고, 혼자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영계에 가면 위를 봐도, 옆을 봐도 가까운 형제가 무진장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갖추어야만 이 모든 분들 하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형님 삼고 할아버지를 형님 삼았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라 불렀는데, 영계에 왔다고 해서 형님이라 부르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런 자리에서만이 종가집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가집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다 종가집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영계에서는 전부 다 종가집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으면 전부 종가집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잣집 주인이 죽으면 그의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해 줍니다. 그때에 종손이 될 장남에게 재산을 절반 주고 그 외의 아들들은 나머지를 받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전부 종가집 자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형제간이 하나만 되면 형님의 것이 되는 동시에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하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선조의 대수를 따져 보면 대수(代數)는 서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종가집 조상들이 완전히 하나되는 날에는 그 이후의 후손들은 우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종가집 자손을 중심삼고 천상세계를 치리(治理)한다는 것입니다. (21-249, 1968.11.24) p.633

저나라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보다 더 예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런 세계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통일된 세계이고 아주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자기 조상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제일 첫 번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216-180, 1991.3.10) p.63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가게 되면 남자 여자가 하나의 큰 사람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의 세포와 같습니다. 전우주가 전부 다 남자 여자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합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7-98, 1990.11.1) p.633

Top p.633

⑧ 영계의 중심은 사랑

㉮ 영계의 공기는 사랑

영계는 무슨 조직으로 돼 있느냐? 저나라는 공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공기로 돼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런 지상에서 사랑의 감촉을 받아 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체휼돼야 됩니다. 체휼권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냥 그대로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진액이 나무순과 나무뿌리를 통하는 것과 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연히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동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62-287, 1987.4.17) p.634

영계에는 사랑의 나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계가 있으면 축이 있습니다. 모터로 말하면 돌아가는 모터의 축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을 전부 다 풀면 사랑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사랑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조화라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살아가면 그 세계는 어디를 가나 다 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126-240, 1983.4.24) p.634

영계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도리를 다해야만 하나님이 역사시대에 바라던 소망의 실체를 완성했다는 격을 갖추게 되어 천국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갈 수 있는 훈련소입니다. 수련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도 삽니다.

확대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연령급, 자기 남편 아내의 연령급, 아들딸의 연령급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가정에서 수련된 것을 사방으로 확대시켜 위할 수 있는 사랑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수련소입니다. 케이프 케네디타운과 같이 인공위성을 날릴 수 있는 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원자탄을, 사랑의 위성을 쏠 수 있는 기반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143-72, 1986.3.15) p.634

Top p.634

㉯ 영계는 사랑 중심의 삶을 사는 곳

저나라에서는 영인들이 사랑을 중심삼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복을 많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웃는 것과 우는 것이 몇 퍼센트 차이가 있느냐? 웃는 것은 눈 뜨고 웃지만, 우는 것은 눈을 감고 웁니다. 웃을 때 너무 웃으면 눈물이 납니다. 얼굴 모양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눈 하나 차이입니다. (212- 166, 1991.1.6) p.634

앞으로 예술만 남습니다. 사랑에 대한 시를 읊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낙제입니다. (211-246, 1990.12.30) p.634

우주의 핵, 사랑의 핵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핵이 있습니다. 요전에 미국에서 입실런(Upsilon)이라는 하나의 소립자를 발견했는데, 그 소립자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영계를 자동적으로 공인해야 할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좋은 계기가 아니냐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4차원 세계의 기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물질의 세계가 한계선에 옴으로 영계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한계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계하고 우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마음속에 한계가 있느냐? 우리 마음도 영계와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물(靈物)이라는 것입니다. (83-209, 1976.2.8) p.635

우리가 영계에 가게 되면 참사랑의 힘으로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만날 수 있고,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도 사랑 때문에 찾아갈 때는 순식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는 무한히 방대한 세계지만 몇백만 리, 몇천만 리의 거리도 순식간에 사랑을 중심삼고는 오고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 마음의 통일적 사랑의 기대를 못 갖게 될 때엔 그 세계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통일의 기원이 상대세계로부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216-192, 1991.3.31) p.635

Top p.635

⑨ 영계는 심정의 세계

영계가 어떠한 곳이냐? 영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신병자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영계가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심정과 동급에 설 수 있는 심정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세계입니다.

심정의 세계는 무한한 행복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천층 만층 훈련의 계단을 밟고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무한한 시련을 받아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몇억만 년을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운명의 걸음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사람이나 동양사람이나 다 가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물어물하지 말고 '자, 해라. 나는 죽는다. 죽어도 간다. 어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 심정 안에서 죽겠다' 하고 대들고, 네가 죽이더라도 내 심정이 살아 있는 한 못 죽인다. 나는 영계에 이 심정을 가지고 가서 접붙일 것이다' 하고, '네가 하나님의 심정권을 침범해? 사탄의 심정권을 침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권은 침범 못하는 것이 천리원칙 아니냐?'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세계의 심정권은 주관하지만 하늘의 심정권은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권을 중심삼고 사탄세계를 동화시키고 왔다면 영계도 동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의 왕국이 되어 동서남북 열두 진주문 중에 어느 진주문을 통하더라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전부 다 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6-229, 1979.12.30) p.635

세상의 '주의'라는 것은 양심기준에서 의식혁명의 단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숙명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인류의 심정을 혁명하여 천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역사관이 나와야 합니다. 이 역사관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창건할 수 있는 심정적인 주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의는 무슨 주의냐? 그것은 심정적인 인생관, 심정적인 세계관, 심정적인 우주관을 중심한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6-252, 1966.6.19) p.636

Top p.636

⑩ 영계의 상황

사랑이상으로 화한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실현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몇천만 명이 연회를 한다고 할 때 순식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내가 옷을 호화찬란하게 하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한 번 즐겁게 해드리겠다 할 때는 호화찬란하게 됩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를 아는 사람은 지상에서 살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감옥에 갖다 처넣더라도 선생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숨 한 번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11-244, 1990.12.30) p.63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가면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최고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대한 220 억 광년이나 되는 이 우주도 참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껑충껑충 한 걸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같습니다. 영계에서는 아무리 큰 우주체가 있어도 그곳은 내 자신의 활동무대입니다. (213-277, 1991.1.21) p.636

영계에 가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사랑의 화신체를 다이아몬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슨 황금덩이에, 진주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석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에 화한 화신체는 더 아름답습니다. 저나라에서는 예술가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예술적 모든 소질을 순식간에 계발하여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사가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러니 저나라에 가게 되면 노래하는 곳에서는 노래하고 춤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일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작품 그림을 갖다 붙이고 바라보느냐? 걸작으로 행동하는 창조물을 바라보겠느냐? 어떤 것을 좋아하겠느냐? 창조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사랑의 마음에 취하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언제나 맑은 날만 있게 되면 지루한 것입니다. 거기에 안개도 끼고 달무리도 지고 그래야 지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미술세계입니다. 예술세계입니다. 지상에서 언제나 맑고 구름이 끼고 별의별 변화무쌍한 기후를 볼 때 그것이 예술적인 것입니다. (201-101, 1990.3.11) p.636

Top p.636

⑪ 영계의 생활

영계의 생활은 어떠냐? 먹을 걱정, 살 걱정, 입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의 심령상태대로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나라에서도 먹습니다. 저나라에서도 자기를 만져 보면 핏줄이, 맥박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몸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하면 먹고 싶은 것들이 먹을 수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근원세계를 동원할 수 있는 능동적 자주성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권을 가진 것이 뭐냐?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돈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면 '오냐'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오',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 네 마음 근본에 있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마음의 뿌리 근본에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에 취해 직감으로 느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명령하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나라에 가게 된다면 처녀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나 남자 혼자 살다가 간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화합을 못 합니다. 여자들 세계에 가서도 그렇고, 남자들 세계에 가도 그렇고, 갈 데가 없습니다. (194-41, 1989.10.15) p.637

Top p.637

⑫ 영계에서 할 일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랑을 인계받은 아들은 그 집안이나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도 모두 환영입니다. 영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일생 동안 사랑하기에 고달픈 사람이 늙어 죽더라도 저나라에서 사랑의 젊은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미남자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춘기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나라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돈 벌이를 하겠느냐?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계는 자기 사랑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원하는 것은 전부 다 나타나라 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타나라고 암만 죽겠다고 큰소리하고 야단해도 안 됩니다. 반대로 하늘나라의 왕자의 입장에서 왕을 모시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필요하니 나타나라 하게 되면 즉각적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한 세계가 영계입니다. (129-100, 1983.10.1) p.637

영계에 가서 뭘 할 것이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영계에서는 상대가 오페라식으로 말하면 나도 오페라식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춤으로 말하면 춤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저 영원히 좋아하고 싫증나지 않습니다. 한 군데서 춤추면 천국이 전부 다 춤추고, 한 군데서 노래하면 전부 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언제나 모든 기관이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영원히 자지 않고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이상만 지니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빼 놓으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 거기에서는 사랑을,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사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은 그런 세계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고, 좋던 일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못하는 것을 무자비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준삼고 측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107-331, 1980.10.15) p.638

Top p.638

4) 영계의 입장과 실상

① 영계의-331, 1980.10.15) p.638¶ T 영계의 입장

여러분이 이 시대에 생각해야 할 것은 영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영계는 천사세계와 맞먹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즉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계로 보게 된다면 이 지상에 나타난 낙원과 마찬가지입니다. (54-229, 1972.3.24) p.638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6천 년 전의 슬픔도 역사시대권 내에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제물로 드렸다는 체험으로 기쁨을 느꼈다면, 그것이 생활권의 내용이든지 간에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폭과 넓이가 커져 추앙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무한한 근원과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하여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하신 슬픔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9-294, 1970.3.12) p.638

인간 세계에서 되어지는 단 하나의 문제는 뭐냐? 사랑의 빛이 밝아야 합니다. 사랑의 빛이 밝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타야 됩니다. 무엇에 타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한 발동력으로 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볼 때 세상만사는 지나가는 하나의 여행집입니다. (194-56, 1977.2.27) p.638

Top p.638

③ 영계의 실상

영계에 가 보면 영계 전체가 사람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체되는 하나님과 큰 한 사람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영계와 육계가 다 흐물흐물해집니다. 하나님이 뛰면 땅도 뛰고, 하나님이 웃으면 땅도 웃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에 가 보면 한 사람과 같은 조직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91-280, 1977.2.27) p.638

영계에 가면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영계의 움직임을 막을 물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본성품의 존재성인데 그걸 막게 안 돼 있습니다.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으니까 몇억 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연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없고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척 벌써 알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래인지 옆인지 높은 자리인지 아는 것입니다. 몇억 사랑의 위계(位階)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위계는 절대적입니다. 그 위계가 높은 사람은 자연히 그 위계를 맞춰서 자기가 설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상세계하고 다릅니다. 모략중상해 출세하고 그러는 사람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도(正道)를 봐라, 정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194-133, 1989.10.17) p.639

Top p.639

③ 영계의 자랑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뜻길을 가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이 노쇠하면 생리작용에서도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강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중심삼고 활동해야 할 시대에 자꾸 약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이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오자가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낙심을 안 합니다. 도리어 재미가 나는 겁니다.

영계에 가면 자랑할 것 뭐냐? 생명을 얼마만큼 살려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갑이면 갑, 을이면 을, 혹은 종족을 초월하여 수많은 민족을 새로운 생명과 관련시켜 얼마만큼 살려 주었느냐 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재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계에는 없는 것이 없어서 그리울 것이 없지만, 가장 그리운 것이 있다면 참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공을 들인 그 공신은 천상세계에서 당연히 영광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147, 1970.3.21) p.639

영계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등불이 점점 커집니다. 이 빛은 오색찬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이아몬드 빛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볼수록 좋습니다. 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취해 버립니다. 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느냐, 사랑의 애달픔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103-28, 1979.1.28) p.639

Top p.639

④ 통일교회와 영계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우주를 창조한 분입니다. 이 태양계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세계의 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대사(大使)입니다. 대사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철천지 원수와 담판할 때에는 천명에 따라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사탄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고 사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통일교회가 배후에 영계라는 방대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살다가 피해를 받으면 미국 국무성에 직접 문제가 되고 백악관에 직접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산골 비참한 자리에서 희생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면 하늘나라에 문제가 되고 통일교회에 문제가 돼 손해배상 청구가 논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당당히 먹고 당당히 가야 됩니다. (96-85, 1977.12.18) p.640

통일교회는 영적인 개인을 동원할 수 있고, 선조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종교는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정성을 들여 종적인 면에 박자와

[텍스트 입력]

파동이 맞아야 접선을 했지만 이제는 그 방송국 자체에 들어왔습니다. 진동판과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파동이 아니고 파동을 일으키는 송신기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송국을 가졌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와서 나에게 협조하소서. 선한 조상이여, 와서 협조하소서. 그런 진동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개인을 불러 움직일 수 있고, 가정을 불러도 움직일 수 있고, 종족권, 민족권, 세계권을 중심삼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발판이 지상에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 몸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162-105, 1987.3.30) p.640

하늘 앞에 갈 때는, 죽게 될 때는 잘 한 것부터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부터 보고하고 잘한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세상은 '너 뭘 했니?' 하면 '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쁜 건 다 감춥니다. 그렇지만 영계는 아닙니다. 영계는 나쁜 것부터 보고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뭘 했느냐 할 때, 나쁜 것부터 보고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일단 지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변호사를 세워 전부 다 뽑아 와야 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뜻을 중심삼고 부모님시대에 어떠 어떠한 일을 했다고 변호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해도 된다면 선생님이 감옥을 뭘 하러 찾아다니고, 일생 동안 저 녀석 때려죽일 녀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쩍슬쩍 안 됩니다. (196-285, 1990.1.2) p.640

우리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하늘땅이 부러워하고, 영계의 모든 성인과 현철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의 생애를 걸어가고 있는, 하늘이 버릴 수 없고, 하늘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사랑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내용을 지니고 사는 멋진 사나이들입니다. (171-29, 1987.12.5) p.641

Top p.641

⑤ 한국 풍습과 영계

한국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특수한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맞아 왔습니다.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남아진 것이 기적입니다. 하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졌습니다.

한국의 모든 풍습은 유대민족의 풍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영계를 알고 보니까 그 영계의 풍습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라든가, 시집 장가를 가는 것이라든가 또는 생활태도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영계의 원리형과 같은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식탁을 보면 젓가락이 두 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드시 숟가락이 있습니다. 식탁에는 언제든지 그것이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 위에 놓인 그릇을 보더라도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대적 관계, 즉 음양으로 조화시켜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그리고 7 수를 중심삼은 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3 일 성별기간이 있고, 결혼 후에도 3 일의 성별기간이 있고, 죽은 후에도 3 일의 성별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것을 상당히 존중시하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54-237, 1972.3.24) p.641

Top p.641

⑥ 한국말과 영계

천국 들어갈 때'조국어'라는 것이 한 타이틀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조국어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건 원리관입니다. 원리원칙에 들어가서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이 아담과 해와가 하던 말을 하게 돼 있지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영어는 천사장의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의 것입니다. 그건 수치입니다. 그게 원리관입니다. 여러분은 영계에 가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선생님을 모시고 살면서 한국말을 못 배웠느냐?' 하면서 손가락질받고 참소받게 됩니다.

한국말은 참부모 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할 수 없습니다. (128-245,1983.6.27) p.642

Top p.64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⑦ 영계의 활동무대

우주는 영계의 활동무대입니다. 이 지상도 영계의 활동무대인 동시에 방대한 이 우주도 영적 활동무대입니다.

이 지상에서 그러한 외적인 세계, 우주와 연관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지상에 살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저 대우주에 확대되어 있는 천천만 선조들과 언제나 연락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위성을 통한 우주탐색입니다. (196-215, 1990.1.1) p.642

Top p.642

⑧ 영계의 소유

대우주를 바라볼 때 다이아몬드별과 같은 보석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 내 소유입니다. 그 재미에 사는 것입니다. 우주를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떼거리들이 대이동하면서 살 수 있는 이상세계입니다. 거기에 동반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로서 희생을 자처해서 나설 수 있으면 저나라의 주역, 담당하는 책임자가 될지 모르지만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저나라에서 탈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126-145, 1983.4.12) p.642

Top p.642

⑨ 하나님과 영계

영계에 가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계에 가도 하나님이 절대 안 보입니다. 음성도 듣고 하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 대신 형상적인 실체로 나타나느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주님이 있으면 그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하면 맏아들,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55-320, 1965.11.1) p.642

Top p.642

제 4 장

천국

1) 천국에 대한 이해

① 천국의 소재지(所在地)

성경에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계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사망의 모든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의 생명이 파급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천국은 육신의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기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실현되는 한 곳입니다. 그 한 곳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떠한 종말의 세계를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리는 하나의 기점과 더불어 오는 것입니다. 저울대를 수평으로 만들 수 있는 지지점(支持点)과 같은 것입니다. 저울은 수평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이것은 수평에서 바른쪽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무게가 왼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디서부터냐? 세상을 이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악하고, 그것을 그릴 수 없고, 거기에 동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천국이 와도 그 천국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지주, 지지하는 그 지지점이 어디냐 하면 환경이기에 앞서 내 마음입니다. (46-23, 1971.7.18) p.643

예수님은 따르던 제자들이 현실을 청산짓지 못하고 앞으로 올 천국에서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출세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근본을 격파해 버리라고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그리지 못한 사람은 천국 환경이 되어도 그 천국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을 못하고서는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심에서 완전한 행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이 선을 얼마나 동경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적 선을 동경하면서 그 선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무리 피눈물나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아무리 외로운 환경 가운데 투쟁의 노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격파하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일로(一路)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일체가 될 수 있는 몸의 생활환경을 개척하겠다고 결의하고 다짐하는 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지, 마음과 몸이 따로 행동하는 데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일체된 자리에서부터 천국을 향한 전진이 벌어지는 것이지, 마음과 몸의 행동이 갈라지는 데서는 천국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마음과 몸이 일치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좌우로 기우는 환경을 제거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갖추어야만 천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천국은 타인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천국을 제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천국을 제시한 사람과 하나되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가 동으로 가면 나도 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동으로 가는데 나는 서로 가겠다, 그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6-24, 1971.7.18) p.644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환경권을 설정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권(圈)에 가서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주하고 나가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투입하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투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면서 주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위인도 그랬고 성인도 그랬습니다. (46-36, 1971.7.18) p.644

Top p.644

② 기독교와 천당

교회에 골백 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를 중심하는 마음 갖고 다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참된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참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78-118)

영계에 가 보면 옛날에 순교한 신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순교해야만 천당에 갈 수 있지' 했던 사람은 천국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기 위해 수난길을 걸으셨고, 피를 흘렸고, 주님의 은덕을 갚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이라도 가겠다.'고 하면서, '그 은덕을 갚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한때를 맞은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면서 죽은 사람은 영락없이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땅을 위해 죽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죽어야 천당가지' 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주장해서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41-355, 1971.2.18) p.64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성경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둘째 계명은 뭐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 1 로 사랑하고, 이웃을 제 2 로 사랑하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198-259, 1990.2.4) p.645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상대이상(相對理想)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니 다시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름 타고 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는 현실적 내용을 다 눈으로 헤아릴 수 있고 잴 수 있는 이 민족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76-210, 1988.5.9) p.645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데도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앞으로는 종교가 개인만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 놓은 참된 종교라면, 우주적이고 최후까지 남을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소망하는 최후의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개인만 천국 가는 것이 뜻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개인에게만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개하여 족장까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한꺼번에 따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1-341, 1971.2.18) p.645

Top p.645

③ 예수님과 낙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자고 하는데 누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까? 자기 개인이 간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정이 함께 천국 가자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종교는 개인권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종교가 나와야 합니다. 가정이 일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이념이 나와야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종교는 혼자 줄에 매달려 대롱대롱 올라가는 것과 같은 개인구원의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세계에서는 독신생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다 올라와 가지고는 땅의 주권을 잡아야 하고, 처녀 총각들은 축복행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본래 아들딸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본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야 할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영계에 혼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낙원으로 간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에 가기 위한 대합실입니다. 낙원은 이상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부부가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와서 신랑 신부를 맞아 새로 편성된 가족과 민족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낙원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지상에 와서 그 원칙적인 내적기반을 닦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전부 천국 갈 수 있는 종교, 그런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종교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 못 간 처녀 총각을 모아 놓은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신부하고 수녀들을 여러분은 봤지요?

이 땅 위에 기독교 국가가 많지만 그 국가의 주권자는 기독교 지도자 즉 교구장이나 목사가 아닙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땅 위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땅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땅 위에 주권이 있었다면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유리고객(流離孤客)하며 밀려 다니고, 떼거리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합해 가지고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내 집, 내 나라, 내 세계를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41-346, 1971.2.18) p.64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영(靈)과 육(肉)이 완성되었다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붙안고 사랑해 보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해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직도 낙원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 온 전체를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한 권 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세워 만물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세계가 하나님이 복귀하시려는 주관세계요, 안식의 동산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개체의 문제로 돌아가 복귀의 운명에 놓인 우리는 새로운 이념을 찾아 헤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인생관 문제, 우주관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5-49, 1958.12.14) p.646

예수님이 어찌하여 천국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천국은 타락하지 않은 산 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의 원칙적인 기준에 세워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인류의 부모인 아담과 해와의 자리에서 아들딸을 거느리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왔다갔으니 자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대합실 같은 데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와서 신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신랑 신부가 되어야 천국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류시조가 타락했을망정 그 원칙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꽃피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갔으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와 가지고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41-300, 1959.2.22) p.647

타락이 없었다면 천국은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다가 이사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가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개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대합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낙원입니다. 낙원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대합실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천국은 비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슬픈 복귀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잃어버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담과 해와의 일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일족이 확대되어서 민족이 되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하나의 세계로 확대되었을 것인데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 하나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왕권을 중심삼은 왕국을 잃어버리게 됐고, 하늘나라의 민족을 잃어버렸고, 하늘나라의 종족을 잃어버렸고, 하늘나라의 남자?여자, 독생자?독생녀까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143-25, 1986.3.15) p.647

Top p.647

④ 심정과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이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곳이요, 모시는 생활을 한 것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가는 곳인가? 주를 믿고 복을 받겠다고, 복을 앞세워 나가는 자가 가는 곳이냐? 아닙니다. 천국은 모시기 위하여 심정적으로 준비하는 생활을 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죽는다 해도 모심의 생활을 남기고 기쁘게 갈 수 있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내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모시는 생활 가운데 생각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8-304, 1960.2.14) p.647

천국이라는 곳은 심정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본연의 나라요, 본성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사정을 가지고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깊이 스며드는 심정의 인연을 갖추어야만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사정을 통하는 교회가 아니요, 심정을 통하는 교회입니다. 사정의 인연을 넘어서 심정을 노래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에 땅을 대하여 섭리하시는 하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타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정을 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논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딸을 대할 수 있는 심정은 갖고 있으되, 그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역사요,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보내심을 입은 자가 구주(救主)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기 전에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모시는 심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높고 귀한 것을 대하여는 머리를 숙이고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했을망정 높고 귀한 하늘의 심정을 대하여, 모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심정입니다. 심정을 통할 수 있는 모심의 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과 하등의 인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시기 위해서는 모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모시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모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모심의 생활을 거친 후에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심정으로 모시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실 수 있는 준비와 모시는 생활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내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의 세계를 향하여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전세계 인류가 심정을 다하여 하늘을 모셨던 한날이 있었는가 하면 없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해와는 창조이상을 통하여 자랐으되, 심정의 인연을 세워 놓고 하나님을 모셔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가? 심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인간이 모실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것이요, 심정을 중심삼고 모심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모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없는 것이 한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것이 한이 아닙니다.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의 한입니다. (8-290, 1960.2.14) p.648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은 천국은 자기 종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망상적인 말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각기 그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만 보더라도 수십 개의 종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기 종파가 아니면 이단시하고 사탄시하는 현실에서, 그 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그런 말을 한다면 모르지만, 단지 자기 종파를 세우고 자기 종파를 남기기 위한 욕심에서 그런다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종단은 모두 망하게 됩니다. 만약 통일교회가 그렇다면 통일교회부터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교의 선결문제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이 나오기 전에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의 특정한 민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선민을 세우신 것입니다. 역사상에 이런 선민사상이 있다는 사실은 악의 세상에 선의 일파(一派)를 남기기 위한 주도적인 사조가 역사의 배후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계에서 선민이 나오게 되면 하늘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나오려면, 먼저 하늘나라의 자손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백성과 나라가 나오기 전에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남성이 나와야 되고, 하나의 여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남성과 여성만 나오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아들딸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딸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이 종족과 민족을 이룰 수 없고, 그런 민족 없이 국가와 세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 나오시는 거점은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는 개인구원을 목적으로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개인구원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가정의 기반을 찾아 세우기 전에 천국 종족?천국 민족?천국 국가?천국 세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47-250, 1971.8.29) p.648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부터 갈라지느냐 하면, 성경을 잘 알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과 심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은 심정의 경계선, 실적의 경계선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32-231, 1970.7.19) p.649

Top p.64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⑤ 육신과 지옥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 장에 '너희 몸이 성전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듯이, 이 몸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은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고장나서 수리공장을 거쳐 온 몸에 하나님이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첫사랑을 지닌 창조이상적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권내에서 벗어난 인간인 것입니다.

지옥은 뭐냐? 악마의 지배권 내를 말합니다. 악마는 증오와 질투와 시기와 분열과 파탄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권은 그런 것들만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악마는 없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이 박힌 연유가 무엇인가? 악마가 생겨난 때문입니다. 악마의 피살을 사랑으로 심었다는 사실, 악마의 씨를 심었다는 이 원통한 사실, 악마의 가정을 봤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리 하에서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가정이 악마가정의 현현과 더불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악마의 종족을 중심한 가정이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180 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종족들이 서로 싸워서 약자들이 강자에게 흡수되었으니 이 정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가운데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에 근거지를 세웠느냐? 사탄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본성의 기원이요, 악마는 본래 그 기원을 통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상대적 기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 이 기원적 기준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이라고 합니다. 몸은 누구를 닮았느냐? 악마를 닮았기 때문에 사탄 편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당했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나를 관리하기에 피곤한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몸이 나쁜 행동을 하려 하면 막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제일 가까운, 부모 대신 하나님 대신 스승 대신의 존재가 양심입니다. 마음 자체에게는 교육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몸에게는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지옥과 통하는 것이요,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천국과 통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분기선이 나입니다. 삼팔선을 중심하고 남북으로 갈라, 사탄이 타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걸 갈라놓지 않고 죽으면 개인적인 삼팔선, 영계가 막혀 버립니다. 가정적 삼팔선, 국가적 삼팔선이 전부 막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 삼팔선, 우주사적인 삼팔선을 어떻게 넘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분통히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의 몸이 악마의 무도장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마들의 사랑의 자리가 돼 있습니다. 악마의 사랑을 통해서 악마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피가 지금 내 몸에서 본연적 인격을 유린하기 위하여 힘의 세력권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데는 나라에서도 청산할 길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해야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뭐냐? 죄의 뿌리와 싸우는 것이 종교의 본질적 투쟁역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부 지옥갈 판도가 돼 있으면서, 자신이 악마의 무도장이 돼 있으면서, 종교의 깃발을 들고 사회를 구하겠다고 야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미워해야 됩니다. 내 몸에 원수의 피가 준동(蠢動)하는데, 이것을 칼로 끊을 수도 없고, 불사를 수도 없는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서 가지고 만물을 소화하고 소모하는 소모공장이 돼 있다는 비통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14-281, 1991.2.3) p.651

복귀섭리로 보아 이것이 마지막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순간순간을 심각히 여기는 자신이 되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다니는 자세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심각한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한 순간도 심각한 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천지공법을 잘 지키고 천지가 공인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죽음에 임박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고 자문했을 때, 생애를 통해서 선하게 살았다는 마음이 60 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지옥행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몸은 제한을 받더라도 마음은 제한받지 않으려는 투쟁의 역사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역사와 현실을, 그리고 후손을 대해서도, '나는 해방이 되었노라. 그러니 나의 전통을 이어받아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용서 없이 지옥행입니다. (19-27, 1967.12.10) p.651

세계도 혼란합니다. 그러면 영계는 어떠냐? 혼란한 인간상들이 영계에 가서 뭉쳐 있으니 영계도 혼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둑질도 습관이 되면 언제나 도둑질 해먹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구성에서 도둑질 해먹던 것들이 천상세계에 가서도 공짜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치곤란하니 지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생겨난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 짓고 살다 보니 쓰레기통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인들은 근본을 다 모릅니다. (148-28, 1986.10.4) p.651

만일 가짜 보따리를 갖고 있다면 언제 청산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면 그 눈을 뽑아 버리든가 고쳐 놓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심이나 질투가 많아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생겨나서 가짜를 처리할 처치창고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쓰레기통을 먼저 만들고 집을 짓겠습니까? 김치를 담그려고 좋은 배추를 사 왔는데, 담다 보니 벌레먹은 우거지 같은 것이 나오니 쓰레기통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의 종지조상(宗之祖上)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하여 죄를 청산짓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자격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20-118, 1968.5.1) p.651

우주의 최고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를 하나 만드는데, 온 천지를 하나 만드는데, 그 끝 자손이 누구냐 하면 미래의 후손입니다. 이걸 연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연결하느냐 하면 가정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가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후진국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 주류, 가정 조직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과거-현재-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모델형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열매를 갖다가 저장하는 창고가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지옥행이었습니다. 벌레가 먹고 구더기가 붙었지만, 그거 돼지라도 먹이고 다른 것에 쓸까 해서 할 수 없이 갖다 저장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과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은 비어 있다 하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5-118, 1985.10.4) p.652

영계에 가 보면 사람들이 여러 단계의 처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사랑의 도리를 따라 효도를 다했느냐, 나라에 충성을 했느냐, 세계에서 성인의 도리를 다했느냐 하는 도수의 차이에 따라 해당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은 정도입니다. 정도에는 개인의 정도가 있고, 가정의 정도가 있고, 씨족의 정도가 있고, 민족의 정도가 있고, 국가의 정도가 있고, 세계의 정도가 있고, 우주의 정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자신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단 하나의 길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본연의 사랑의 길입니다. (147-183, 1986.9.20)

저나라에 가게 되면 사랑의 이상에 부합될 수 있는, 훈련된 소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반발작용이 미쳐 옵니다. 누가 지옥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원수에게 그 사랑이 미쳐서 1차, 2차, 3차, 4차만 지나가게 되면 원수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런 위대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원수가 개인의 원수인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사랑의 법도를 어긴 자입니다.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간부(姦夫)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영계에 가 들춰내어 알아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단 괴수니, 기독교 세계를 망친다느니, 죽어야 된다느니 하는 별의별 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으라고 욕하던 목사가 죽어가는 것은 봤어도, 나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 무엇에 의해서? 천의에 의해서입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121-173, 1982.10.24) p.652

자 여러분! 자기 자식 중에 살인강도가 되든가, 국가의 범죄를 짓고 사형을 받는 아들이 있다 합시다. 아들이 죽을 자리에 갈 때에 그 부모가 따라가서 '너 죽을 자리에 갔으니 잘 죽어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아들을 붙들고 죽는 자리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의 죽음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부모가 그걸 바라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원을 걸려서 죽어 간다 하면 영원을 걸려서 살려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이고, 자식을 살리려고 온갖 수고를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쌍한 분입니다.

인간이 지옥에서 죽어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영원히 살려 주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부모의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에이! 다 쓸어 버리자!'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까지 해방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아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정경을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며 천만번 죄를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식은 뼈가 녹고 살이 여위도록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참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 못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통해서 지옥까지도 해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효자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니냐?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지옥까지도 구원해 준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62-51, 1972.9.10) p.653

지옥이라는 곳은 한번 걸려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척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가 진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감옥에만 들어간다고 해도 울고불고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정이거늘, 하물며 천정으로 맺어진 아들딸이, 자기의 부모와 친척, 형제와 자매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고 희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죽어 보면 대번에 알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부모들이 영적으로 나타나 전도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통일교회에 다니는 아들을 반대하다가 죽어서 영계에 가 보니 큰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전도하는 영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 세계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들딸이 통일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여 못가게 만들면 3 세계에서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세계에서 있는 정성을 다 들여 선한 선조의 이름으로 특사를 받아 가지고 자기의 자식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계에 가서야 통일교회가 엄청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저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지는 곳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금을 그으면 영원히 그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을 닫으면 영원히 열 자가 없고, 열면 다시 닫을 자가 없습니다. 땅에서 맨 것은 땅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맨 것은 여러분 자신이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4-266, 1970.9.13) p.654

Top p.654

⑥ 지옥인도 천국을 소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죽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했습니다만, 내 마음으로는 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탕감조건을 세운 걸로 해주소!' 하면 하나님도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가려고 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갖다 놓느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천국가려고 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가긴 가는데 천국가려고 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는 낙원 이하의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57-265, 1972.6.4) p.654

Top p.654

⑦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개인이 안식하려면 가정의 안식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식하려면 종족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언제나 침범당합니다. 종족이 안식하려면 민족이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이 안식하려면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안식하려면 세계가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울타리, 세계 울타리를 쳐 놓고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이 세계가 안식하려면 영계(靈界)와 육계(肉界)를 통일시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지상의 온 세계 어디에나 미칠 수 있는 지상의 천국이 완성되고, 천상천국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68-20, 1973.7.23) p.654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두 가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딸이니까 전부 형제이고, 지상천국을 중심삼고 보면 모두 백성입니다. 지상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형성하는 데에는 3 대 요인이 있습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주권과 백성, 그리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온 지구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고, 세계 백성들이 한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은 이런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인 아벨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요, 우리는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귀과정에서 살고 싶지 않고 천국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이루겠다는 것은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천국을 만들어 놓아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만들면 우리의 후손은 늘 쫓기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정성을 다해서 후손에게 그러한 짐을 남겨 주지 않는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66-281, 1973.5.16) p.655

천국에 가려면 죄짓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구주가 필요없다 하는 아들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하나님의 이상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혈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것을 해원성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여는 조건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땅에다 남기고 갔습니다.

예수님과 열두 사도가 가정을 못 이뤘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에서 축복가정을 통해 70 문도, 120 문도의 가정을 다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열립니다. (160-89, 1968.8.11) p.655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 놓고 혼인잔치를 해주려고 성숙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은 거짓부모가 되었습니다. 4 천 년 만에 타락하지 않은 자리에서 예수와 예수의 신부가 합하여 거짓 부모가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참부모의 기준을 다시 찾는다 이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된 부모가 낳은 아들딸은 거짓 아들딸이 아니라 참된 아들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이 나오고, 참된 종족이 나오고, 참된 민족이 나오고, 참된 나라가 나오고, 참된 나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참된 세계가 됩니다.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정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종족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민족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세계에서 천국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 위에서 몸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곳이 영계의 천국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개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탄혈통을 받고 태어난 인간은 혈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 장을 보면 '양자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직접 못 부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만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의 인연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한 것입니다. (160-44, 1968.8.11) p.656

이제 재림의 한날이 오면, 천국이 아닌 낙원과 지옥의 밑창에 새로운 이상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옥의 밑창에서 가인 아벨을 찾아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종족권,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권, 새로운 하나님의 국가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권을 이루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가인 아벨을 탕감복귀해 모든 것을 흡수?소화해서 통일된 세계를 지상에서 편성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해원성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는 천상세계에 천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땅 위에 하늘나라의 주권을 세우지 않고는 영계에서 선한 주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엄청난 사연이 내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143- 30, 1986.3.15) p.656

여러분은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건설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천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인이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고, 주님과 선조들의 마음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95, 1958.1.19) p.656

Top p.656

⑧ 천국에 대한 바른 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고 망하더라도 '이 신념만은 틀림없다. 내가 틀렸으면 틀렸지 뜻은 틀림없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의 신앙과 저녁의 신앙이 다른 신앙자세를 지니고 있으면서 천국을 그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천국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를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라는 것을 타파해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데서만이 천국, 혹은 간접적인 천국이라도 개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자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자기에게 적응시키려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주체적 입장에 놓고 상대방을 끌고 가려는 사람은 천국과 관계를 못 맺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나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상대적 천국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천국이 부를 때에 화답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못 되어 있으면, 그 천국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탄을 극복한 자리입니다. 자신을 극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체만을 극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권, 습관적인 환경권 혹은 상습화한 자리에는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습화한 환경을 사탄이 고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기에 우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환경을 극복하고 나야만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탄세계의 내용과 상반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그것은 환경을 농락하기 위한 속임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이라는 개념은 사탄을 극복한 자리에서,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일체의 요인을 부정한 자리에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청산지은 자리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부정적 여건이 남아 있는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생활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청산지은 터전에서 천국이 긍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남기고는 천국의 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에 일치될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천국의 개념은 너무나 혼잡합니다. 너무나 사(邪)된 입장에서 천국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환경에서 절대적인 신앙기준을 가지고 극복하는 데서부터 천국이 비롯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만으로 천국이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 터전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수고시켰고, 수많은 인류를 농락한 사탄을 극복해야만 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순히 믿고만 가는 자리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이 언제나 싸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싸움노정을 극복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권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국가면 국가 체제를 이루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로서로 상충이 없이 주체와 더불어 어느 때, 어떤 곳에서라도 화합하고 화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믿는 자리에서는 마음에 임재하는 천국을 느낄런지 모르지만 실체적인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천 년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순교와 수난의 대가를 치르고도 현실무대에서 천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간단히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영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절대적인 내용을 갖춘 자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믿는 데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미급했고 원칙에 도달하기에 얼마나 먼 거리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처음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을 중심하고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개인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개인을 중심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천국이 되느냐? 그것이 개인의 천국은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 천국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개인의 천국이 아닙니다. 개인이 성립시킨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천국이 다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그를 중심으로 만국을 횡적으로 연결시켜서 전체 천국을 모색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킨 것입니다. (46-74, 1971.7.25) p.658

Top p.658

2) 천국 가기 위한 준비

① 천국의 거점(據點)

우리가 진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리에 심취될수록 그 진리는 더욱 더 어느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천만번 혼란되는 땅일지라도, 우주가 불시에 파괴될지라도, 중심을 마음에 확실히 세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고, 동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중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참된 진리가 나타나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참된 생명이 나타나도 알지 못하며, 참된 사랑이 나타나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 그리고 참된 사랑을 찾고자 한다면 끝까지 자기를 버리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지구는 새로운 대륙들이 발견되어 점점 더 넓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때에는 세계가 넓은 것같이 느껴졌지만 역사가 흐르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계는 점점 좁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진리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역사를 거쳐 이루어질 이상세계는 모든 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우주적인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인의 기준, 즉 천국의 생명과 천국의 사랑은 우리 자체에서 결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와 생명과 사랑은 한 가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는 반드시 사랑과 생명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도 생명과 진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놓고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사랑과 진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사랑은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의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물을 중심하고 상하 · 전후 · 좌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러한 3 수의 권(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기본형태입니다.

이렇게 셋이 만나서 하나의 통일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힘이 역순(逆順)으로 진행하면 본래와는 다른 힘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타락한 이후 인간이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균형잡힌 삼각형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2-133, 1957.3.17) p.659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제국을 일시에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면 자기들은 한자리씩 해먹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반을 닦아야 되고, 그 마음을 중심삼고 몸이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거점은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47-273, 1971.8.29) p.659

천국의 거점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인 가운데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거점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 천국의 거점이 어디일 것이냐? 슬퍼하는 마음이 천국의 거점이 되겠느냐, 자기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천국의 거점이 되겠느냐, 사회를 부정하는 마음이 천국의 거점이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내용의 거점이 아니요, 하나님이 찬동할 수 있는 천국의 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거점을 찾는 사람은 이 땅 위의 그 누구보다도 고독한 자리에 부딪쳐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고독하기 때문에 사람도 고독해야 되고, 하나님이 극복의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극복의 역사노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땅에 슬픔이 가득하다고 해서 인간이 그 슬픔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만을 흘린다면 그 자리가 천국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를 바라면서 교단을 섬기는 반면, 이 세상의 죄악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다짐하는 하나의 방향이 없고는 하늘의 거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는 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천국은 자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선과 악이 같이 출발한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동시에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이 동쪽으로 가면 선은 서쪽으로 가야 되고, 악이 움직이면 선은 정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이 욕망을 가지면 선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반대입니다.

하늘나라를 찾기 위한 출발은 인간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생활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된 종교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사가 엇갈리는 운명에 부딪쳐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절망에 빠질 때 습관적인 생활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부정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데서부터 참된 선이 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 인격이 하늘의 거점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가정이 하늘의 거점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도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종족은 이러이러한 선의 공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종족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종족이 이 세계에 어디 있으며, 그러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국가가 어디 있느냐, 주의 사상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악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천 년 이상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야 천 년 살겠다는 꿈을 꿀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만 년 이상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만 년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원을 목표하고 현시점을 극복해야 되며, 현시점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서야만 영원한 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47-247, 1971.8.29) p.660

Top p.660

② 천국 가는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탄권 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보다 자기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된 인류가 사탄권 내의 사랑의 함정에서 가장자리까지 나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1-299, 1971.2.17) p.660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중심삼고 영원한 이상을 그려 나가는 분이시라면 영원을 두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한 십 년쯤 맞다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히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아들이 되려면 슬픔의 대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몸에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몸이라 하면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사방의 중심점을 대신하지만 몸은 방향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몸이 동으로 간다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더불어 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찬 것을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웃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고 싶다 하면 되겠습니까? 외적인 몸을 중심삼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순도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괄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순도순할 때는 오순도순해야 합니다. 안팎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만 맞으면 다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7-257)

천국은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있나 없나 천국에 가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7-250, 1970.12.27) p.661

Top p.661

③ 천국의 시발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슬픔을 풀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래 지금까지 슬픈 역사를 엮어 나왔기 때문에, 슬픈 역사의 모든 인연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로부터 6천 년 역사에서 그 인연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통일교회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이 있으면 다 싫다고 도망갑니다. 그 어떠한 슬픈 사연보다도 더 비참한 하나님의 슬픔을 가르쳐 주는 것이 통일교회 원리입니다. 세상 같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회피하고 도망가지만, 통일교회의 원리는 이 슬픈 곳을 거쳐 가자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세상에서는 슬픈 일이 있으면 전부 피해 가려고 하는데, 원래 인간은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비참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실제에 있어서의 통일교회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것을 풀어드리려는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힘은 무한히 폭발작용을 일으키는 동기가 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가 지닌 위대한 힘입니다. (21-113, 1768.11.17) p.661

Top p.661

④ 천국의 본질

천국은 어떤 세계냐? 그곳은 본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참소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종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개인과 가정과 자기의 친척인 종족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3 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아담 가정을 두고 볼 때, 아담이 1 대, 가인 아벨이 2 대, 가인 아벨의 아들이 3 대, 이렇게 3 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1 대, 아담과 해와가 2 대, 가인과 아벨이 3 대가 됩니다. (21-54, 168.9.1) p.662

천국은 위해 주는 세계이기 때문에 위하겠다는 관념만 위주해 나가야 합니다. 위함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위하고 절대 복종하고 희생봉사하라는 것인데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패들이 하는 놀음 같지만 천법을 알지 못하고도 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탄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암호작전이었습니다. (46-42, 1971.7.18) p.662

Top p.662

⑤ 천국의 틀

우리는 본향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향 땅을 못 찾았으니 본향의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본향의 조국은 지상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라 하면 지상천국이 있고, 천상천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 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주관할 수 있는 주권이 없습니다. 주관할 수 있는 인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연의 인간이 살아야 할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5-26,1964.10.6) p.662

Top p.662

3) 천국 갈 수 있는 요소와 조건

① 천국 갈 수 있는 요소

㉮ 고생이 필요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공적인 고생입니다. 공적인 고생을 하고 영계에 갔는데 거기서 망하거든 선생님에게 항의해도 됩니다. 민족과 세계, 하늘땅을 위하여 일하다가 맞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9-30, 1967.12.10) p.662

한 나라의 책임자가 원수에게 잡혀가서 우대를 받게 되면 책임자를 잃은 나라의 사람들은 단결이 안 됩니다. 잡혀 간 책임자가 비참하게 죽으면 죽을수록 그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철석같이 단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계와 결속할 수 있는 내용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영계는 우리와 관계가 되어서 단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그럭저럭하고 있으면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작전하시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고생시키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자체는 불쌍하지만 반작용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49-108, 1971.10.9) p.66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라, 비참하게 죽어라, 비참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도록 나가 전도하라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대우주의 주인으로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만물과 인간과 하나님인데, 이 세계를 선한 자리에서 품겠다고 생명을 걸고 희생한 사람은 그 세 가지를 걸고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이상의 것으로 갚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에서 '네 집안식구가 원수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복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비싸고, 제일 귀하고, 제일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 오게 되면 땅 위에서 잘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지리 못살고, 지지리 고생하다가 죽어 길가에 쓰러져 개도 안 물어갈 주검을 남겼더라도 그 자리에는 꽃이 필 날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성을 만들 것입니다. 통일교회 무리들을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시켜서 효자, 충신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안 가겠다면 후려갈겨야 되겠습니다. 발길로 차서라도 현재의 비참함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 가는 계명이 아니고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세계 만민이 이웃이요, 형제입니다. 세계 만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다한 것입니다. 뜻을 위해서 한번 죽어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을 것이냐? 내가 죽을 곳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폭탄으로 태어났으면 깨끗이 바윗돌에 떨어져 폭파되어야지 시궁창에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쏴 버린 폭탄이다. 반석 위에 떨어지자. 지긋지긋한 것끼리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 문선생이 오십이 넘어서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노력과 정성을, 열과 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하나의 귀일점, 그 한 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릴 각오를 하고 가자는 것이 통일교회 선생이 가진 주류사상입니다. 여기에는 모험이 안팎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혈투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터전이 된다면, 이것은 인류역사에 본이 될 것이요, 만민의 행복의 기조가 될 것입니다. 온 천하가 그것을 화동의 기점으로 하여 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축이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인류의 소망을 결속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동하면 전체가 동하고 내가 정하면 전체가 정하도록 하겠다는 우주사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나이라면 결코 졸장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49-303, 1971.10.17) p.664

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음길을 가야 합니다. 죽어서 할 고생을 살아서 탕감하려니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억천만 년 고생할 것을 축소시켜 생전에 탕감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의 길은 영원히 가야 할 수난의 노정을 이 땅 위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탕감하자는 것입니다. (31- 320, 1970.6.7) p.664

Top p.664

㉯ 사랑이 필요

천국은 사랑의 궤도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나지요? 그 사랑의 줄은 당기면 당길수록 고무줄처럼 가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무줄은 당기면 당길수록 가늘어지지만, 사랑의 줄은 당기면 당길수록 반대로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뜻을 위하여는 고생의 왕초가 되는 것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비법인 것입니다. 고생 왕초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57-167, 1972.5.31) p.664

오늘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가자'고 하는데, 천국을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먼저 땅 위에서 천국을 맞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천국을 맞기 위해서는 사랑의 법도를 거쳐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랑해야 할 십자가가 가중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가정에 아들딸을 많이 보내는 것은 짊어질 십자가가 많다는 것이므로 나라를 위해 바쳐야 할 책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이라야 그 가정에 후대를 상속받을 수 있는 운세를 가진 아들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32-232, 1970.7.19) p.664

어떻게 천국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베드로·야곱·요한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참사랑의 상대권을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복귀하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들딸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십 년 이십 년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태산준령도 오르게 됩니다. 나는 점점 내려가면서 고생만 하는 것 같지만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맞으면서 큽니다. 한 집안에서 열 사람이 산다면, 공적 목적을 위해서 열 사람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참고 참는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142-289, 1986.3.13) p.665

여러분은 오색 인종의 아들딸을 품고 그 손자손녀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부모로서 세계인을 사랑하는 가정의 주인이 됐다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본연의 부모의 인연 가운데서 참사랑의 가정기준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참된 하나님과 참된 부모의 참사랑에 하나되어야 됩니다. 그 혈통적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딸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곳이 천국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176-210, 1988.5.9) p.665

천국에 가는 길은 형제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그 마음으로 형제를 따라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에 제일 높게, 빠르게, 좋게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도 아니요, 선생님도 아니요, 형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66-125, 1973.4.18) p.665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천국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개인천국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세계천국을 향하여 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선생님도 욕심이 많아서 세계천국으로 가는 사랑줄을 휘어잡기 위해서 40 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랑줄을 넘어서 가정의 사랑줄, 종족의 사랑줄, 민족의 사랑줄, 국가의 사랑줄, 세계의 사랑줄을 휘어잡기 위해서입니다. 휘어잡아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세계의 사랑줄을 찾은 다음에는 복을 받아 출세했으니 환고향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143-141, 1986.3.17) p.665

Top p.665

㉰ 실적을 가져야

과거에는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도 그 순간밖에는 그 종교의 교주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났다가는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부 종교권을 중심삼고 지상에 재림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는 실적을 갖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과거시대는 천사와 선한 영인(靈人)들의 시대였고, 현재시대는 부모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래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동원하고, 부모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동원한 실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천사가 움직여 협조했고, 하나님이 움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주는 아담과 해와가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삼고 3 세계, 즉 과거-현재-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본연의 세계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161-199, 1987.2.3) p.66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갈 수 있는 조건은 자기 아들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보다도 성신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10-100, 1960.7.17) p.666

그럼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아들딸이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명사가 생겨난 이후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인류가 팽창, 번식됐습니다. 그렇게 번식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43-23, 1986.3.15) p.666

여러분은 통일교회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이 땅에서 실적을 쌓지 못하면 설혹 천국에 간다고 해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 가겠다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무리입니다. 이것을 반대하거나 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환경까지 전부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운명까지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22-226, 1969.5.2) p.666

Top p.666

㉱ 위해서 살아야

여러분이 50 평생 중에서 25 년 이상을 이 우주를 위하고 천륜(天倫)을 따라서 살았다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라에 가서 좋은 영계에 머물 수 있지만, 자기를 위주하고 산 적이 많았다면 섭섭하겠지만 선한 본향의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악의 본향,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산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여생을 전체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하늘땅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다면 여기서부터 지옥이 아니라 천상의 이상세계로 향진(向進)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78-119, 1975.5.6) p.666

영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체험을 했고, 또 영계는 나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저 영계의 질서적 기원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어차피 그곳으로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느냐, 남을 위하는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 따라 남을 위해 산 적이 많다 할 때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요, 그 반대가 될 때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 자리에서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죽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세워 섭리해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그 본향의 뜻과 본향의 원칙에 일치되는 교훈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희생하라, 봉사하라!' 하는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와 종교의 배후에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두고 볼 때 위하려는 종교는 발전할 수 있지만, 자기를 위주로 하여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주체적인 입장에 서려는 종교는 내려간다는 결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74-51, 1974.11.27) p.667

천국은 사랑의 세계요, 중심자인 하나님을 위해 있는 세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세계입니다. (98-35, 1978.4.8) p.667

Top p.667

② 천국 갈 수 있는 생활

㉮ 우리의 입장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성숙한 다음, 가정을 이루어 세계적인 사랑을 연결하는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근본적으로 파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오려 해도 올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벽이 생기고 국경이 생긴 것입니다.

그 벽은 하나님도 넘을 수 없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인간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벽이 우리 개인의 마음과 몸 사이에 들어와 끼이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벽이 들어와 끼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그러하고,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 온 영계의 천국과 지옥 사이에도 이런 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담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더라도 땅에 있는 우리는 포위된 이 담의 고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어떻게 타파하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활을 지도받아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혹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죽었다. 우리 인간세계에서 하나님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비참한 역사적인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135-267, 1985.12.15) p.667

Top p.667

㉯ 천국 못 가는 경우

뜻이 동기가 되느냐, 내가 동기가 되느냐? 내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뜻을 뒤에 두고 자신을 동기로 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의 인간들입니다. 뜻은 수난길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라는 것은 그것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상반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뜻은 오른편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왼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만큼 고생을 못 했느냐?' 하는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자기를 해명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변명당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일언반구, 무엇을 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변명당하는 입장입니다. 잘 했어도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100 퍼센트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입니다. 내가 백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자기를 중심하고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절대적인 신앙을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자기를 절대 부정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절대적인 신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만사를 긍정하면서 신앙길을 간다고 할 때에는 절대적인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본문제를 놓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을 보게 되면, 하루의 생활권 내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는 습관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당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당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공인하는 상대적인 요인이 없어 가지고는 절대적인 신앙기준도 못 갖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앙기준도 갖지 못했는데, 절대적 신앙기준을 극복하고 난 후에야 이뤄질 천국이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리에는 사탄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46-79, 1971.7.25) p.668

지금까지의 역사상에 하나님 앞에 불리운 사람들은 전부 50 대 이상, 60 대 이상이었습니다. 나이 많고 찌들어 멀지 않아 공동묘지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장송곡을 부를 날이 가까운 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후에서 하나님은 오늘은 이렇게 찌들고 마른 노년층을 붙들고 섭리하지만, 앞으로는 장년층을 붙들고 섭리해야 하는데,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섭리를 전개시킬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연을 부여안고 역사노정을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노년시대가 지나가고 장년시대로, 장년시대가 지나가고 청년시대로, 청년시대가 지나가고 소년시대로, 소년시대가 지나가고 유아시대로, 그렇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귀여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즉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습하는 역사로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구원역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사연입니까? (20-95, 1968.4.28) p.669

Top p.669

㈐ 천국을 위한 우리 생활

여러분이 70 년 또는 80 년을 산다고 볼 때, 그 가운데 3 분의 2 가 슬픈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3 분의 2 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기쁜 생활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면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나서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34-141, 1970.8.30) p.669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생 동안 포를 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느냐? 이 싸움에서 몸이 이기느냐, 마음이 이기느냐? '나는 틀림없이 마음이 이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이기는 사람은 선한 편이요, 몸이 이기는 사람은 악한 편입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는 전장에서 마음이 몸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는 비법 또는 몸이 마음을 때려잡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전법이 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기와 모든 장비를 어떠한 방향을 거쳐서 동원되느냐 하는 문제가 선하게 되느냐, 악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선이 성립될 수 있는 필요요건이 무엇이냐, 악이 성립되는 요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 취하거나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이 요건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36-61, 1970.11.15) p.669

잘났다는 남자, 잘났다는 여자가 있다 할 때 남자가 남자의 권리를 가지고 축복을 나 혼자 받겠다, 또 여자가 여자의 권리를 가지고 나 혼자 축복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절대시하고 인류의 소망으로 제시된 모든 조건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지상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부부가 세계적인 환영을 받고 세계의 존중을 받는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천국에서 사는 생활방법입니다. (162-69, 1987.3.27) p.669

'나'라는 한 사람은 선(善)만을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선이 차지하든가, 악이 차지하든가 해결이 되는데, 선이 차지할 때는 살지만, 악이 차지할 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계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흥망의 길을 달음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역사의 소산물입니다. 가정도 역사의 소산물이요, 국가와 세계도 역사의 소산물입니다. 그 역사의 소산물 가운데 선의 소산물이 얼마나 되느냐? 나 개체를 두고 비중을 따져 볼 때 선의 소산물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 가운데 선의 소산물이 몇 퍼센트나 되며, 개체의 인격 가운데 몇 퍼센트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에 접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선에 접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전체가 악에 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악이 가는 길에는 교육이 필요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도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고도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길을 가게끔 교육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인륜도덕을 중심삼고 양심의 표준을 가려 가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한 교육이냐? 선을 중심하고, 양심을 중심하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표준에 입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악한 것은 배우지 않고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만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양심은 언제나 선(善)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선한 사람이 되라고 쉬지 않고 나를 자극하고 나에게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내가 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도 탄식이요, 내일도 탄식이요, 이해도 탄식이요, 청춘시대도 탄식이요, 중년시대도 탄식이요, 노년시대도 탄식이니, 탄식으로 일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악한 것으로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지을 수밖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없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났기 때문에 악에서 꿈틀거리다가 악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다간 수많은 인간들의 생애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의 행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악하게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냐? 그렇다면 통일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의 길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가는 것입니다. (36-56, 1970.11.15) p.670

Top p.670

㉱ 우리와 천국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죽어 가면서도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크기에 더 큰 희생도 응당 바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치는 사람은 즉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누구에게 몇천만 원을 주었으니 그에 대한 이자를 얼마 가져와야 할 텐데 하면서, 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준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몇 냥 몇 전을 투자했으니 그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주고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준 것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부모 없는 사람을 고아(孤兒)라고 하고, 고아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36-85, 1970.11.15) p.671

영계(천국)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위하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유명한 목사라 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가 보면 압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원수까지 구해 주고 공산당까지 구하려고 하는데 공산당들은 통일교회를 전부 다 목을 잘라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상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공산당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 강하면 안 됩니다. 위하는 사랑을 중심삼고 강하게 되면, 세계를 구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활이 얼마나 계속될 것 같습니까? 오늘 끝나는 것이냐, 십 년, 백 년 걸릴 것이냐?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뚝 잘라 버리고 접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91-173, 1977.2.6) p.671

최후에 어떤 세계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은 가면서 '선생님! 나 도와주소!' 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선생님! 어서 오소!'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 가지고 잘살겠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잘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부부가 되려면 변하는 세계에 가서 같이 수련을 받고, 남북이 갈라지고 사방으로 갈라져 사는 세계에 가서도 갈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자리에 서야 됩니다. (129-182, 1983.10.30) p.671

Top p.671

③ 4 위기대와 천국

㉮ 천국은 가정이 들어간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정적으로만 이 일을 해 나왔다면 핍박을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은 아버지 · 어머니 · 문중 일가 ·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감동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문중이나 일가 전체를 뜻 앞에 세울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척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모든 때를 지낸 입장이기에 친척을 전도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를 붙들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자신의 간곡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텍스트 입력]

입장에서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울고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동시킬 수 있는 때입니다. 형님은 아무래도 대하기가 좀 어렵지만 동생쯤은 '이 자식아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쥐어박아 강제로라도 믿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했는데도 여러분이 책임 못해 가지고는 하늘 앞에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가정을 이루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21-66, 1968.9.1) p.672

통일교회에서 개인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둘이 같이 천국가게 되어 있지, 남편 또는 아내만 천국가게 돼 있습니까? 부부가 합하고, 가정이 합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理想)이지, 아버지는 지옥가고 어머니는 천국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은 부부가 가야 되는 것이요, 가정이 가야 되는 것이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일족이 가야 되는 것이요, 국가 전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50-63, 1971.10.30) p.672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신이 태어난 심정적 기원까지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독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림주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구원을 위주로 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재림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간다고 하지만 전부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본래 천국에는 혼자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권에 머물렀다면 그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지옥이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부부가 아들딸을 거느리고 가는 곳입니다. 아들딸, 손자들과 더불어 그 족속을 거느리고 가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41-300, 1971.2.17) p.672

혼자 앉아서 '여기가 천국이다' 하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좋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볼 때, 종교의 세계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96-71, 1977.12.18) p.673

우리 통일교인은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하느냐? 석가모니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나 공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종교의 목적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개인구원보다도 가정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구원을 하되 가정을 구원하고, 천국을 가도 자기 혼자 안 간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구원관은 남편은 천국에 가고 부인은 지옥에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딸도 데리고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 자기가 사랑하는 종족까지 몽땅 데리고 천국갈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종교는 독신생활을 강조했지만, 통일교회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세계를 위한 가정이요, 하나님을 위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34-359, 1970.9.20) p.673

가정에서 행복의 대상자가 누구냐 할 때, 남편에게는 아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부모에게는 자식이요, 자식에게는 부모입니다. 이 기지에서부터 천국 건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이 네 개인에게 있다는 말은 하셨지만, 천국이 네 가정에 있다는 말을 못 한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고독하셨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가정을 가지고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한 순간이라도 있는데, 천하를 구하기 위한 구도자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환경천국기지를 꿈도 꾸지 못하고,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마음에서 천국을 회생시키려고 돌아다니다가 3년도 못 채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분의 생애가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던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라면, 마음의 천국을 넘어서 환경의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가정천국을 넘어서 사회천국을 이루고, 국가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세계천국은 언제 이루어지고 천상천국은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메시아에게는 만민을 구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쓰러지면 하늘 앞에 면목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상, 이상사회에 패자로 서게 되니, 면목을 감출 수 있고 덮어 줄 수 있는 보자기가 있다면, 찾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 번 죽어도 그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누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120-48, 1982.10.3) p.674

천국이라는 곳은 혼자는 못 갑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반드시 상대이상을 결정짓고야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명사를 세워 닫혀 있는 천국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가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갖추어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모든 실적을 갖춘 역사적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6천 년 복귀역사가 1차 아담, 2차 아담, 3차 아담 시대를 거쳤으니, 가정에서도 세 아들을 거치고, 그 세 아들까지 상대를 세워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52-240, 1963.5.25) p.674

Top p.674

㉯ 예수님과 가정

하나님을 중심삼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랑의 가정을 표준으로 하여 가르쳐 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 이상의 소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신랑 신부의 이름을 남겨 놓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린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이상적인 가정을 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부모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자리에서 참자녀를 낳아 가지고 참형제를 이루고, 이런 참가정을 중심삼고 참씨족과 참민족을 이루어,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39-344, 1971.1.16) p.674

Top p.674

㉰ 4위기대와 천국

복귀라 하면 사위기대(四位基臺)의 복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위기대 복귀를 하려면 아버지를 복귀하고, 어머니를 복귀하고, 아들딸을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여러분은 부부가 완전히 복귀되어 아들딸을 낳아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통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성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8-35, 1972.6.6) p.674

가정천국을 이루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상하는 지상천국이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위기대가 돼야 합니다. 통일원리 창조이상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3단계를 거쳐 종적 세계와 횡적 세계가 벌어지면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이 있어야 횡적인 세계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종적인 세계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몸을 중심삼은 몸의 횡적 기준이 아들딸이요, 마음의 횡적 기준이 영계다 이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96-29, 1978.1.1) p.675

Top p.67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4) 천국문과 천국 입성

① 인간의 심문(心門)

석가모니 같은 분도 신비한 경지에 들어가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도하면서 정신을 통일해 가지고, 영적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상의 자리에 들어가면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꽉 쥐면, 세상이 이 주먹 안에서 녹아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적기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일은 자연히 신앙생활의 부속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문(心門)에 맞추어 심전(心田)을 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밭을 계발하고 방향기준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체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체 되시는 하나님은 모호합니다. 모호한 하나님과 연결하려면, 정신을 집중시켜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밝혀 놓으면 반드시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지요?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신비의 경지에 들어가면 벌써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을 들여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방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하나의 중심에는 동서남북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또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산에 가더라도 기도가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사탄이 모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음지입니다. 음지와 양지라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번 체험하면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암시나 몽시나 계시나 묵시가 벌어지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벌어지는 개척적이고 발전적인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마음 밭을 계발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밭이 계발되는 날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대적인 세계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76-143, 1975.2.2) p.675

Top p.675

② 개천문이란 무엇인가

㉮ 개천문해야 할 이유

왜, 개천문일(開天門日)이 있게 되었는가? 아담과 해와가 실수를 했지만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진 것입니다. 책임진 하나님이 문을 열어 줘야 됩니다. 개인이 가는 문을 열어야 되고 가정이 가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종족이 가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모든 문이 막혀 있습니다. 민족이 가는 문이 막혔습니다. 국가가 가는 문이 막혔습니다. 세계가 가는 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다 열어 놓아야 됩니다. 레버런 문이 통일교회 가정을 통해서 막힌 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찾기 위해 작은 것을 준비하여 나오는 작전을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그 다음 천주?영계까지도 지옥과 천국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참된 부모가 됐다면, 이것이 하나의 세계가 되었을 것인데, 타락하여 거짓부모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천국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원한의 담을 누가 헤쳐 버려야 되느냐? 참부모가 헤쳐 버려야 됩니다. 그 일은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보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상의 지옥에 살고 있고 영인들이 영계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지상지옥 문과 천상지옥의 문을 모두 열어 지상의 개인으로부터 국가와 세계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천상세계까지 통할 수 있게끔 길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이웨이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주류와 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되고, 하나된 기준에서 가정을 거치고 종족을 거치고 민족, 국가, 세계를 넘어 천상세계에 가더라도 막는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헤쳐 버려야 됩니다.

최후의 문제가 막혀 있는 영적인 지옥문과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상지옥의 문을 열고, 천상지옥의 문을 열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을 이긴 사람만이 천국으로 갈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레버런 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지상을 거쳐서, 천상세계의 지옥문까지 열어 가지고 지상에서 천상까지 갈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국제평화고속도로란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자, 독생자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탄세계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계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세계도 담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불교권이 있고, 유교권이 있고, 전부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다 높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터 놓아야 합니다. 천상세계의 높은 보좌로부터 담을 헐어 버리고 거꾸로 내려와야 합니다. 몇만 년 우리 조상의 담으로부터, 몇천 년 우리 조상의 담, 몇백 년 이 시대의 담, 이제 몇 년 전에 간 모든 사람들의 담까지 전부 헐고, 지상의 모든 담을 헐어, 이것을 지옥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닦지 않으면 개천문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0-43, 1986.2.1) p.677

Top p.677

㉯ 개천문의 시원(始原)

선생님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이 댄버리에 있는 동안 누차 깊은 차원의 심정 골짜기를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철없던 시절에 만나 가지고 그때부터 평형선으로 올라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준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심정의 깊은 골짜기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댄버리를 놓고 갈라져 보니, 선생님의 귀한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에 대한 외로운 사연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 월 1 일을 기해서 천상세계와 지옥의 문을 여는 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의 자리에 세워 놓고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만 비로소 하나의 해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1985 년 2 월 1 일 오전 3 시(미국시간) 댄버리와 이스트 가든에서 그러한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힘이 연결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뻔뻔스러운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구해주어야 하는 자리에서 가려고 하느냐, 이 수직선에서 가려고 하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어서 가야 하는데, 어디서 하나되느냐? 축에서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에서 하나되어서 축을 따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축을 향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축을 향해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권, 민족권, 국가권, 세계권까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길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 하면 타락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136-47, 1985.12.20) p.677

선생님은 일생 동안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개인단계에서 그 일을 했고, 가정단계에서 그 일을 했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단계, 그 다음 천주단계에서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댄버리에 왜 들어갔느냐? 영계와 육계가 담이 막혀 있습니다.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저끄러진 것을 풀기 위해서 영계와 지옥에 길을 닦아 놓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1985 년 2 월 1 일 오전 3 시를 기해서 어머니와 특별기도를 함으로써 그런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의 모든 담이 무너져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또 영계에서 자기 친척들 중에서 선한 영이 있으면 와서 교육해 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영계의 구세주 역할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역할이 영계에는 있지 않고 이 땅에만 있었는데, 이런 길을 닦아 줌으로써 저나라의 선한 영들이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을 교육해서 선한 조상이 구세주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36-187, 1985.12.22) p.677

Top p.677

㉰ 참부모와 천국문

통일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통일교회는 과거의 종교와는 달리 개인적인 구원만을 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이상세계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본연의 이상세계는 완성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부의 인연을 맺어 그 아들딸을 낳아서 천국에 가는 곳을 말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버지는 지옥가고 어머니는 천국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부모는 천국가고 자식이 지옥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모와 자녀, 종족, 민족, 국가가 다 들어가는 하늘나라입니다.

인류가 거짓부모로 출발했으므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도 스스로는 천국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천국문을 열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안 하겠습니까? 타락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천국을 잃어버렸으니 인간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천 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개문(開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 직계 아들과 인연맺게 하여 그 직계 아들에게 절대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 아들이란 누구냐 하면 타락하기 전 아담입니다. 양자는 누구냐 하면 타락하기 전의 천사장입니다. 본래 양자는 종의 입장이므로 직계 아들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42-286, 1971.3.27) p.678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계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의 핵에 연결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역사 이래 그런 인연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행이 전부 보류되었습니다. 어디서 보류되었느냐 하면, 지옥에서 보류되어 있고, 그 다음엔 낙원에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비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참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이 비어 있다고 하면 레버런 문을 보고 망령된 말을 한다고 하겠지만, 예수님도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은 혼자 못 들어갑니다. 인간 조상이 사춘기를 지나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상을 이루고 살다가 참된 사랑의 씨를 남기고 부모가 되어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부모로서 이 땅에 사랑의 씨를 남긴 부모가 없고, 그런 후손을 남긴 기반이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지옥을 거쳐야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지옥을 이겨야 합니다. 지옥을 이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넘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가에 머물고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인류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40 억 인류가 있다면, '40 억 인류의 절반인 20 억 인류는 남자요, 20 억 인류는 여자다. 20 억 개의 세포를 가진 남자가 생겨났고, 20 억 개의 세포를 가진 여자가 생겨났다. 나는 이것을 사랑하겠다.'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 억 인류를 심어 가지고 아담 재창조와 해와 재창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 억 인류 중에서 첫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남성을 뽑아 내고, 20 억 인류 중에서 첫사랑 가지고 묶어질 수 있는 하나의 여성을 뽑아 내기 위한 것이니, 이런 대표자를 20 억 인류의 사랑의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억 인류의 사랑의 열매되는 실체를, 나를 낳아 준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고, 40 억 인류를 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사랑한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권을 중심삼고 하나됐다고 하는 하나된 자리에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탄세계와는 무관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참아버지라 하는 분이요, 참어머니라 하는 분입니다. 참부모를 사랑하는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천상 지옥문도 열리고 지상 지옥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하이웨이입니다. 그 대신 가스값은 여러분이 내야 됩니다.

본연의 세계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참부모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원리가 아닙니다. 참부모님이 길을 닦아 놓았으니, 참부모를 사랑하면 이 길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참부모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인류를 참부모 이상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만사형통입니다. 막히는 길이 없고 소로가 없다는 겁니다. 하이웨이로 직통하는 주류 심정노선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상에서 천국까지 직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은 사탄권을 초월한 심정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걸리는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이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생을 거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책임지고 다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참부모와 하나되어 수평선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락한 심정권은 아래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직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일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개천문일 선포입니다. (140-45, 1986.2.1) p.679

Top p.679

㉱ 개천문 앞에 선 우리의 자세

참부모가 지상에 하이웨이를 만들어 놓고 천상에 있어서 승리의 패권을 가져와 전수해 주었으니, 전수해 준 그 자리에서 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뿌리를 박고 참부모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여러분을 떼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참부모와 세계를 위해서 대표로 가인의 아들딸을 구해 주는 탕감복귀 역사를 해왔으니, 여러분도 참부모를 사랑하는 이상의 심정을 가지고 세계를 사랑했다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상세계나 천상세계로 가는 길을 사(邪)된 것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넘어 천상세계, 하늘나라에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 가는 길이 첩첩 태산준령이 됩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을 바쳐 준비해 오늘 여러분에게 개천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니, 부디 그러한 심정권을 이루어 여러분이 무사통과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0-62, 1986.2.1) p.680

Top p.680

③ 책임분담을 통한 천국행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인간의 책임분담 수행 여부를 놓고 '이건 당신 것이고 이건 내 것이오!' 하고 가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놓고 책임분담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이 못 됩니다. 이건 내 것이오!' 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부부의 이상적 사랑, 자녀의 이상적 사랑을 사모하면서 책임분담을 하게 되어 있지, '돈이 필요하고 뭣이 필요하다, 자식 교육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책임분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지기가 책임분담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 책임분담을 다 했느냐?' 타락세계에는 절대 천국갈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예수님의 시대를 거치고 재림시대를 맞아 3차 아담을 세워 가지고 책임분담 기준을 격파하기 위한 운동을 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전부 천국을 가기 위해 책임분담을 하려는 것입니다. 책임분담을 놓고 사탄은 모든 종교인들을 다 한꺼번에 불살라 제물로 바치더라도 책임분담이라는 것을 인류에게 내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종교인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분담을 찾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49-323, 1986.12.21) p.680

Top p.680

④ 천국과 지옥은 자신이 선택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할 수 있는 여기에서 내용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며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안 하면 그걸 어떡하느냐?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선생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가고 지옥가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지옥이요, 불평할 데를 감사하며 가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96-122, 1978.1.2) p.681

천국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나무의 순은 태양을 향합니다. 초목까지도 스스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방향성을 갖고 돌아가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의 갈 길을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75-42, 1975.1.1) p.681

Top p.681

5) 천국과 지옥에 관계된 지시 말씀

천국과 지옥관 설정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종족권을 복귀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이런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관을 설정하고, '거기로 가면 천국이요, 여기로 가면 지옥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분별하여 지옥 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종족이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주변의 많은 종족, 마을도 다 쫓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7-84, 1991.4.16) p.681

Top p.681

② 영생과 지상생활의 중요성

지상의 생활과 영계의 생활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지상의 생활도 중요하고 영계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영계의 생활은 지상생활에서부터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생개념을 모릅니다. 이 땅 생활이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도 현재의 생활이 영생을 보장하는 기반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지금부터다 하는 천국관을 설정한 기반 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생명의 중요성을 언제든지 느껴라 이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딴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로 인해 영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와 영계는 서로 마주보고 움직입니다. 지상세계가 올라가면 영계도 올라가고, 지상세계가 내려가면 영계가 내려갑니다. 한쪽이 돌면 다른 쪽도 같이 돕니다. 그래서 현세에 그것을 실감하고 영생에 플러스시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생과 현세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영생과 지상 생활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돌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는 천운이 포옹하고, 그 마을을 떠나면 그 마을사람들이 '그 사람 어디 갔을까? 며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아침 저녁으로 듣던 그 목소리가 그립다!' 하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운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방향에, 철분이 자석에 끌리듯이, 모든 생명이 빛을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영생의 관념에는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써 모든 지상적인 표준, 영원의 표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17-84, 1991.4.16) p.682

Top p.682

제 5 장
메시아와 영계

1) 예수님과 영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하는 노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명을 다 못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천사장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천사장을 찾은 다음에 아들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종으로서 갈 길과 양자가 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계 아들의 사명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길, 종의 길과 양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기껏해야 양자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이 양자는 핏줄이 다른 입장에 있는 가인과 마찬가지의 존재입니다. 핏줄을 연결시키지 않은 인연이 천사장급입니다. 지금까지 섭리역사는 그 핏줄을 연결시키기 위한 싸움을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로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靈)과 육(肉)이 하나된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돌려 드리는 자리에서 제물이 되었더라면 재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바쳐지지 못했습니다. 절반밖에 못 바쳐졌습니다. 몸은 잃어버리고 영만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영계의 천사세계와 맞먹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다가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급 이하의 영계에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낙원급 이하의 영계는 천사장이 지배하는 영계, 즉 천사장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계에서 승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상에 승리권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승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왔다간 뜻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계의 승리권과 지상의 승리권을 한꺼번에 찾아 세워서 천사장권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실체적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완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계 위주로 나온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계의 천사장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 가지고는 지상에서의 출발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계승을 받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 승리한 예수님 이하의 영적세계 전체를 계승받는 자리에서 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영적인 계승은 했지만 그 약속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차 이루기 위해 기독교를 세워 나온 것입니다. (47-157, 1971.8.28) p.684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죽어서 3 일 동안 지옥에 갔습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최고의 공포인데, 예수님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이 최고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지옥에서 공포의 주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행복의 주인이 되었느냐?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3 일 동안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34-144, 1970.8.30) p.684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평등한 사상을 가지고 인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타락한 인간을 모두 구하기 위한 구주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지 공평하게 대해 줍니다. 공평한 목적과 공평한 시대적 환경을 갖고 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하나되는 사람은 메시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세상의 맨 밑창 지옥에서부터 제일 영광된 자리까지 간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못 갈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원리로 보면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온다는 것은 다 허황된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영계에 가 보라는 것입니다. 죽어 보면 압니다. 메시아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왜 영인들이 인간 세상과 접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완성의 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이 법도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와 더불어 영계를 전부 터 나갑니다. 이걸 이루려면 땅에서 상대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개인시대가 있고, 가정시대가 있고, 종족시대가 있고, 세계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개인 승리기반, 가정 승리기반, 종족 승리기반, 민족 승리기반, 국가 승리기반, 세계 승리기반까지 닦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모든 영계를 지상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세상에 와 가지고 고생하면서 가야 됩니다. 고생하면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차례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점을, 하나의 세계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91-278, 1977.2.27) p.684

Top p.684

2) 재림주와 영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재림주는 제 3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제 1, 제 2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와야 합니다. 통일교인들은 예수님 당시 제 1 이스라엘이 의심하던 것과 같은 자리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심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뱃속에 있는 자녀와 같은 입장에 서야 합니다.

재림주는 영계(靈界)를 수습해야 합니다. 영계를 수습함으로써 제 1 이스라엘을 세운 기대(基臺)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영계에 있는 사람들은 참부모와의 인연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계에는 12 지파형(十二支派型)이 있지만, 제 2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기독교는 지파를 편성할 수 있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이념을 세워 지파를 편성해야 합니다. (10-218, 1960.10.14) p.685

하나님은 무형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體)를 가진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體)를 가진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형과 유형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하나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체를 입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지었습니다. 체를 입는 데는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체를 갖추게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체를 갖추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상세계와 무형세계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서만 영과 육이 합하게 되어 있지 다른 것 가지고는 합할 수 없습니다. (143-93, 1986.3.16) p.685

Top p.685

3) 참부모와 영계

① 육신의 부모와 참부모의 차이

육신의 부모와 참부모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을 중심삼은 사랑을 가르쳐 주고, 참부모는 영적인 세계를 중심삼은 참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부모만 있으면 될 텐데 참부모가 왜 필요하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부모는 큰 것을 다 따 버리고 자기를 중심삼고 자꾸 내려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 사탄세계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금이 그어졌는데, 이것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부모는 뭐냐? 이런 기반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박자가 맞도록, 호흡에 지장이 없게끔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영계에 가면, 모두 바람벽 같은 코너로 가서 박혀 있어야 됩니다. 돌아다보면 전부 자기를 부정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사람들 뿐이니 질식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와서 해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해방하려면 그냥 그대로 풀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풀어야 됩니다. (129-99, 1983.10.1) p.685

하나님에게 돌아가려면 3 차원의 세계인 영계의 훈련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영계를 사랑하고, 영계와 하나되는 훈련장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를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이 땅 위에서 참부모로서 영계와 실체세계에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참부모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영계가 전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담이 많은 것을 전부 참부모가 실체를 가지고 헐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는 육신세계 뿐만 아니라 영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부모를 모시고 절대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통하는 길을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앞에 절대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어떤 영인에게도 절대복종했다는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복종했다는 조건을 세우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대신 참부모에게 절대복종해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된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백성과 하나될 수 있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참부모를 왜 모셔야 되느냐? 참부모는 영계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참부모와 심정적 유대를 맺어, 참부모가 사랑 가운데 묶어 놓은 심정적 승리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05-112, 1979.9.30) p.686

Top p.686

② 참부모가 축이다

참된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참된 형제가 어디에 있으며, 참된 가정이 어디에 있으며, 참된 사회가 어디에 있으며, 참된 국가가 어디에 있으며, 참된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없다면 불행 속에서 나서 가지고 불행 속으로 갈 인생이지만 이것이 본연의 인생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을 찾아 몸부림치며 허덕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종교나 철학을 동원하여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55-282, 1968.5.19) p.686

우리는 참부모와 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계의 축과 지상의 축이 참부모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영계에서도, 지상에서도 참부모라는 것은 센터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악한 부모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횡적인 면에서 싸움이 벌어져 둘로 갈라졌습니다. 또 종적인 선한 신(神)과 악한 신의 세계로 갈라졌습니다. 거짓부모가 생겨나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 참부모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거짓부모로 말미암아 타락이 생겨났으니 이것을 대치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9-219, 1986.12.7) p.686

Top p.686

③ 참부모 중심

민주세계는 우익을 대표하고, 공산세계는 좌익을 대표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세계에 모두 중심이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익사상(頭翼思想)과 하나님주의입니다. 어떤 인도주의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센터입니다. 두익사상만이 전인류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참부모주의는 진정한 영계(靈界)와 육계(肉界)의 중심이 됩니다.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볼 때 모두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205-263, 1990.9.9) p.687

참부모를 필요로 하는 한계선이 어디냐? 이것은 한계선이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영계도 그렇고 어디든지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의 한계선은 어디냐? 4년에서 8년 후면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나 참부모는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계선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에서 8년만 되면 보따리를 싸야 되지만, 참부모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세계에서만 참부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거기에는 지상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가서 궁전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궁전은 하나님도 만들지 못하고, 영계의 사람도 만들지 못합니다. 참부모가 만들어야 합니다.

영계에서 사랑의 궁전이 참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계에 궁전이 있더라도, 참부모가 가서 '여기를 궁전으로 합니다.' 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것을 중심삼고 온 영계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계에서도 참부모를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5-155, 1990.9.9) p.687

Top p.687

④ 참부모와 맺어진 인연의 강도(强度)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는 인류가 찾아야 할 참된 부모입니다. 그 참부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분입니다. 참부모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과 구렁텅이를 메우기 위한 하나의 제단이요, 사망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할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과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초점입니다. 즉 타락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하나님과 다시 하나될 수 있고, 갈라졌던 두 경계선이 일치될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탕감제물의 입장에 서신 분이 참부모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천 년 사연을 다 잊어버리고 나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세상의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과 인연맺을 수 없는 인류가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과 인연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분이 참부모입니다.

그러면 참부모를 자신에게 무조건 인연지어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준 그 은혜에 환희로 화답하면서 승리를 다짐해야 하는 자신이라는 것을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무궁한 가치를 지니고 재출발한다는 생각을 얼마나 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들딸을 찾아 나오신 역사적인 소원이 참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참부모를 얼마나 동경해 오셨던가? 그런데 참부모를 동경하는 기준과 사망세계에서 구원을 동경하는 우리의 기준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참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있게 느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참부모와 함께할 수 있고, 참부모와 인연맺을 수 있고, 참부모와 상봉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내가 가고, 그런 승리의 기반을 내가 닦겠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그 자리를 내 생애의 가치를 좌우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또 그 인연을 내 생애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흘러가는 바람결처럼 자리를 못 잡고 방황했는가 하는 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주는 어떤 분이냐? 참부모의 인연을 갖춘 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참부모의 인연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입니까? 참부모로 말미암아 내 참된 일생이 시작되는 것이요, 새로운 생명이 인연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정이 출발되는 것이며, 새로운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천 년의 모든 생사의 길을 해결지을 승리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계를 구하기 위해 수난의 길을 걸어야 할 분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를 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인연을 들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복귀의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방이 일치할 수 있는 인연이 한 기점에서 연결되어 사망의 세계를 폭파하고 새로운 광명천지의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여러분의 인연은 어떠한 칼이나 권력을 가지고도 끊을 수 없고, 사탄의 힘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인연은 오늘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여 인간들을 구할 수 있는 승리의 특권을 갖고 있는 인연이요,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소망해 온 힘이 결집되어 있는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시대적인 힘을 결집시켜 가지고는 역사적인 힘이 결집된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연을 갖추어 승리를 위한 출발점에 하나님이 역사적인 제물로 내세운 분이 참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심각한 자리에 계시면 나도 심각한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딱한 사정에 계시면 나도 딱한 사정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정이 나의 사정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 나오지 않고는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동정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정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연을 따라 나온 역사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참부모는 역사적인 소원의 집약체입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대신한 역사적인 실체로 내세운 분이 참부모인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와의 인연은 영계에서부터가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연결되어야 합니다. 참부모는 실체를 갖추어 지상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대답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동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면적인 도상에서 참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승리의 왕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심정에 일체가 되어서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자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 신념, 참부모와 더불어 있다고 하는 신념이 생애노정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동요함이 없이 천년만년 지탱할 수 있는 자아가 되어야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곧 천상의 주인으로 임하는 것이요, 지상의 주인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편안한 자리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극난한 자리, 그 이상 없는 심각한 자리, 죽느냐 사는냐 하는 와중, 가일층 모험하는 자리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착오적인 말 같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복귀의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심정의 세계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자세요, 정상적인 태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지를 추구해 가는 자신임이 분명할진대, 내가 가는 길은 참된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31-74, 1970.4.19) p.690

여러분, 이제 사십이 넘고 오십이 다 된 사람이 많은데,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0 년, 20 년 이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았을 때 뜻을 알고 나왔던 과정을 돌아보고, 내가 악마의 후손으로 남겨진 세계 인류를 복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종과 같이 한스러운 탈을 벗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영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가서 자기 자세를 갖추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박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일하에 100 퍼센트 밑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계에 안 갈 수 없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가난한 집 딸이 자기의 초라한 모습만 보더라도 문중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데, 혼수도 못 갖추고 그 형제 일족만 해도 백 명에 가깝고 층층시하, 4 대조가 모여 사는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가서 그 조롱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우리 집 전통에 의하면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할머니 아줌마 전부 다 이랬고 우리 누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 그랬는데…'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낙제생 같은 신세를 해 가지고 얼굴 들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숟가락을 들 수 있느냐, 젓가락을 들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축에 못 끼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가지고 갈 겁니까? '통일교회 40 년 믿었다면 뭘 가져 왔소?'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계가 여기보다 못한 곳이겠습니까, 나은 곳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여기보다 못한 곳이겠습니까, 여기보다 나은 곳이겠습니까? 천만 배 나은 곳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영계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는 비통함을 실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려면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이라는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문은 열려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못 입었습니다. 잔칫집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로 가는데, 노동복 입고 가서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맞는 단장을 하고 그 자리에 가 서야 그 환경의 환영을 받지, 그렇지 못하면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아, 저리 비켜!' 하는 것입니다.

옛날 목포에 부자가 있었는데, 목포 북부지방의 땅이 전부 그 사람 것이라고 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친구가 그 사람의 외동딸과 결혼해서 그 집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때는 왜정때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모닝코트를 입고, 예복을 입고 신식 서양식 결혼을 못 했습니다. 국방복 입고 가슴에 꽃 하나 꽂고 결혼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에다 한다하는 친구가 많으니까 신식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포함하여 네 사람이 신랑의 들러리로 갔습니다. 들러리의 옷을 신부집에서 준비했는데, 들러리가 모두 자기 사위와 같은 줄 알고 신랑의 키에 맞췄습니다. 선생님 키가 신랑과 같지만 신랑은 선생님같이 몸이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니 맞췄다는 와이셔츠가 단추를 채워도 배꼽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조이는 옷을 입고 등골에 잔뜩 힘을 주다 보니 나중에는 쥐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큰소리할 수 있습니까? 바람벽 있는 데로 가서 엎드려 쥐가 난 걸 풀던 생각이 납니다.

전라남도에서 한다하는 이름 있는 사람은 다 모여든 그 대중 앞에서, 몇천 명이 모인 그 판국에서 들러리가 그러고 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쉽지, 거기 앉아서 배기지 못하겠더라 이겁니다.

축에 못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선생님이 영계를 잘 알고, 성자들이니 뭐니 하는 났다는 교주들을 다 아는데, 너희들한테 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2-224, 1991.1.6) p.691

Top p.691

4) 선생님과 영계

① 선생님의 영적 조건 성립과 그 기반

완전한 마이너스는 완전한 플러스를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하고,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자동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의 창조원칙이요 존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런 원칙에 따라 완전한 운동을 하면, 영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해결하면 영계에서도 해결됩니다.

그럴 때마다 탕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탕감길을 홀로 책임지고 역사와 우주, 그리고 영계(靈界)와 육계(肉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나온 것입니다. 어떤 때에 탕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무너지는 날에는 영계가 어떻게 되고, 지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풀기 위해서는 탕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탕감길을 모릅니다. 개인적 환경에서의 주체 대상 탕감시대, 가정적 환경에서의 주체 대상 탕감시대, 종족적 환경에서의 주체 대상 탕감시대를 거쳐 민족적 주체 대상 탕감시대, 국가적 주체 대상 탕감시대를 거쳐, 세계적 주체 대상 탕감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선생님은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것이 그대로 영계로 반응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131-226, 1984.5.4) p.691

천국은 지상의 제일 비참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상의 제일 비참한 곳이 어디냐? 감옥 중의 감옥, 거기서도 제일 밑창입니다.

영계와 육계의 기반을 통일교회 문선생이 닦았습니다. 지옥 밑창, 감옥 중에서 제일 비참한 감옥에서부터 영계와 협조하면서 기반을 닦아 나온 것입니다. 기반을 넓혀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종족에서 그렇고, 민족에서 그렇고, 국가에서 그렇고, 아시아에서 그렇고, 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세계가 반대했습니다.

선생님은 만인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형수와도 친구가 되고, 절도범과 고랑을 같이 차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전에는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뉴욕의 뉴요커호텔을 산 것도 앞으로 뉴욕의 제일가는 소굴에서부터 소탕을 해서 새로이 기반을 닦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어울려 주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각계 각층, 사탄세계의 망할 사람에게까지도 길을 열어 주고 길을 닦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서 길을 닦아 주어야 영계의 막힌 것이 열리고, 세계가 하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민족적으로 흑인도 결혼시켜 주고, 백인도 결혼시켜 주고, 백인에게도 집을 사 줄 것이고, 흑인에게도 집을 사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세계에 없는 놀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6-160, 1977.2.6) p.692

선생님은 영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 널려 있는 수많은 도인들은 앞으로 선생님에게 와서 배워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반대하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계 인류가 반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계에 있는 수천억 영인들은 전부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13-50, 1963.10.16) p.692

Top p.692

② 영계로 가는 특허권

문명시대의 발전의 요소들은 대부분 특허권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특허권이 전부 다릅니다. 옷 만드는 특허권, 무엇이든 전부 특허권입니다. 특허권만 가지면 어디 가든지 행세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실정입니다. 영계에서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이 백인에게만 통한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흑인은 안 되고 아시아인은 안 된다 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통합니다.

영계에 갈 수 있는 특허권을 따기 위해서 역사상에 고생한 종주들과 종교인들이 많았지만, 그런 종교인들 가운데 챔피언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영계에 갈 수 있는 특허권이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여기에 모인 얼룩덜룩한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되어 어디든지 올라가겠다고 하니 그거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생님 사인(sign)이 없으면 안 된다' 할 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어떤 군왕, 어떤 성자, 어떤 종주라도 선생님 사인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전부 머리 숙이고 선생님한테 안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지도교수의 밑도 씻어 주고, 그 교수가 발길로 차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야 사인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코를 보나 얼굴을 보나 허우대를 보나 무엇을 보나 잘났고, 씨름을 해도 이기고, 밥을 먹어도 많이 먹고, 뭐든지 일등할 수 있고, 열 가지 백 가지 다 나은데 그것 한 가지 쯤 모른다고 박사학위를 안 주느냐?' 해도 안 통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영계의 특허권을 가졌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가고, 요사스런 소문이 나고, 다 망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살아서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안테나를 가지고 전부 보고 듣고 해서 알아 가지고 큰소리를 쾅쾅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생님 사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결재할 것입니다. 선생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선생님 사인이 있으면 '오케이' 하고, 없을 때는 '노' 하실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만일 그런 표딱지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세계, 영계는 전부 선생님의 손 안에 움직일 것이고, 이 육계(肉界)는 어차피 하나의 골짜기로 안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34-17, 1985.1.1) p.693

자연세계에는 진리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선생님은 영계의 전문가입니다. 그곳은 21 세기가 아니라 22 세기, 30 세기에 가더라도 선생님 없으면 개문(開門)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영계를 교시하고 영계를 개문하는데 체계적 내용을 밝혀준 원조(元祖)가 문선생이다 하는 명성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잘났다고 하는 영통인이라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통일교회 교주가 된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만 들었으면 벌써 다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203-325, 1990.6.28) p.693

선생님이 아벨의 입장에서 장자권을 복귀해 가지고 한번 선포해 버리면, 그 동안 영계가 지상을 이용하던 것을 중단합니다. 영계가 지상을 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영계를 대해서 '이제부터 지상을 협조하라, 지상에 굴복하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내용 없이 '이래라!'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것을 설명해서 그게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북이 통일되고 동서가 합하고, 다 수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0-193, 1990.12.19) p.693

Top p.693

③ 영계의 통일과 지상세계 통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를 통일하지 않으면 지상을 통일시킬 수 없습니다. 영계를 통일한 주인이 계시다면 지상의 통일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통(靈通)하는 사람까지 주관해야 합니다. 지금 영계를 통하는 사람들의 대장이 선생님입니다. 그들도 여기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일방향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 가르쳐 준다고 그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리로 해득해서 방향을 가려 가지 않으면 영통인들은 사탄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영계가 선생님을 증거하고 선생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영계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을 잘 가리면서 지금까지 이만큼 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계에는 몇천 억의 영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세계의 인류는 너무나 적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가기준만 넘어서게 되면 영계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류는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우리의 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공산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대개 윤곽이 드러납니다. (54-233, 1972.3.24) p.694

저나라에 가면 살인한 자, 죽임을 당한 자, 별의별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칼부림도 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 수많은 담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원수 자식들을 찾아가 사고를 당하게 해서 데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세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푸는 데는 더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풀리질 않습니다.

무엇 갖고 영계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느냐? 이러한 관계는 인간의 조상이 이루어 놓았고, 천상세계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 후손은 조상들의 잘못을 갚아야 합니다. 참된 효자가 되겠다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빚을 물어야 합니다. 부모가 진 빚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계에 있는 조상의 막힌 담을 헐어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것은 꿈 같은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조상은 어떻고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압니다. 악한 영인의 후손을 바라보면 깜깜해집니다. 그 조상의 얼굴이 쓱 보였다가 휙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 선한 영을 가리는 것입니다. 영계를 결속해야 할 텐데 영계를 수습 못하는 사람은 천하를 통일 못하는 것입니다. 천운의 뿌리가 하늘인데, 하늘을 수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결과를 이 세상의 도리로 만들어 세계를 통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을 통일하기 전에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191-205, 1989.6.24) p.694

여러분, 선생님을 꿈속에서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모두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단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왜 통일교회가 세계적으로 잘 성장하느냐? 어디에 선교사로 보내도 영계를 실감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교사는 석 달이 지나면 그 나라를 떠나서 다시 비자를 받아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나라를 떠나서 딴 나라로 가는 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영계가 가르쳐 줍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 강을 건너라고 말입니다. 그 강에는 악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을 수영하여 건너면 악어가 통째로 삼켜 자취도 없어집니다. 그러한 위험한 데를 통해 국경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계가 잘 가르쳐 줍니다.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 사이에 넘으면 된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계시로 받으면서 국경을 왕래하는 선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산권은 모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반대하는 세계입니다. 공산당은 어느 나라든 다같이 종교가 들어오면 그걸 박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실감하는 감동은 생명을 넘어서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경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를 그리워하면서 통과한 경험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 순간 영계와의 벽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직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게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믿는 것은 사실과 먼 곳에 있고, 아는 것은 사실과 일치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을 생활로 삼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체휼권이 표면화합니다. 내면화가 아니라 표면화한 실체권과 연결되어 생활하고 있다는 긍지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경지도 있습니다.

'영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다, 누가 부정해도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세계에 속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고난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경지에 들어가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고비입니다. 사탄세계의 성벽을 넘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가 실증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성(城)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고도 궁중에 못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성 밖에서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곳에 못 미칩니다. (224-108, 1991.11.23) p.695

Top p.695

④ 심정과 실적에 따른 영계에서의 대우

통일교회 선생님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알고 있는 이상 알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종교인들이 눈물에 젖어 무릎까지 파이게끔 일생 동안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만나 인도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무슨 자격을 주든, 안 주든 선생님은 이미 모든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일이 많습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세계의 학자들을 꿰매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싸우고 있는 종교계도 꿰매고, 민족이면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꿰매 가지고 세계적인 합동결혼식을 했다는 이건 역사 이래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일은 영계의 어떤 사람이 한 것 이상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가 영계의 꽁무니에 있겠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겠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146-333, 1986.8.10) p.696

Top p.696

⑤ 영적 체험의 생활화

선생님이 다 찾아보고 영계의 뒷골목까지 다니면서 알아보니 천지이치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둘이 절대적인 힘으로 합하여 진공상태가 된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골수처럼 심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의 두 조각이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핵입니다. 사랑의 이상적 실체가 합하여 사랑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170-171, 1987.11.15) p.696

선생님이 영계에 대해 많이 알지만 영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영계를 알면 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남편을 보고 '저 사람과 오래 살려고 할 게 뭐 있나, 빨리 천국이나 가지, 선생님 말한 천국이 좋은데, 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교육시켜 거느리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182- 61, 1988.10.14) p.696

선생님은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절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진리로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중용의 길을 가고 언제나 하늘의 섭리관에 방향을 일치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영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지상세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진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알고 영계와 관계맺는 일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리가 반드시 하나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6-138, 1975.2.2) p.697

Top p.697

⑥ 사랑을 남기고 가야 하는 영계

선생님을 따라오다가 영계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저 소련의 위성국가, 소련의 중요 도시에 침투시켰습니다. 어떤 때는 선교활동을 하다가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지도자의 마음은 심각한 것입니다. 자식이 앓아 누워 있더라도 그 자식을 염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세계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줘야 되고, 걱정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편안한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넘어야 할 고개를 넘고 해야 할 책임을 하는 데는, 쉬려야 쉴 수 없고 멈추려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이제 노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이제부터 또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영계에 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생활 이면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인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남겨야 합니다. 딴 것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 통일교회를 사랑했다는 것, 그 외에 남길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역사와 더불어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136-135, 1985.12.22) p.697

Top p.697

5) 참부모 가정과 영계

① 영계의 장자권 성립

흥진이가 영계에 감으로 말미암아 지상과 하늘로 갈라진 아벨과 천사가 쌍둥이같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된 기반 위에 부모가 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원리관(統一原理觀)입니다.

흥진이는 아들격 아벨인데, 그 아들은 참부모의 사랑으로 원리주관권(原理主管圈)의 탕감조건(蕩減條件)을 세운 기반에서 영계에 갔습니다. 사탄주관권에서 승리하고 직접주관권(直接主管圈)을 이룬 자리에서 영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 첫 번째로 완성한 자격을 갖춘 아들로서 천상세계(天上世界)에 갔다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계에 간 사람들이 참부모의 심정권을 중심삼고 원리결과주관권(原理結果主管圈)과 직접주관권이 하나된 가정적 터전에서 사랑을 중심삼은 주인이나 아들의 자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않고는 천상세계에 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이나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 자리를 거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전부 중간영계(中間靈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진이가 감으로써 하나님과 접붙일 수 있는 중심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흥진이는 축복을 받아 자기 상대가 지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다 간 것과 마찬가지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진이 가정을 중심삼고 지상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영계기반(靈界基盤)이 설정됩니다. 이것이 귀합니다. 흥진이의 가정기반을 설정했다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더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그렇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참부모의 심정권에서 결과주관권 내의 사탄을 제거하지 못하고, 직접주관권 내에 사랑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저나라에 가서 재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흥진이는 재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흥진이는 영계 육계, 두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계와 지상이 쌍둥이와 같은데 심정권을 두고 볼 때 부모가 장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계(家系)의 대수로 보면, 종적으로 보면 부모가 앞섰다는 것입니다. 흥진이가 2 대라는 것입니다. 아래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데 영계에서는 이것이 반대입니다. 지상에서 선생님과 흥진이 출생을 두고 볼 때 선생님은 형의 입장에 있고 흥진이는 동생의 입장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인의 자리에 있고 흥진이가 아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에 가서는 흥진이가 장자가 됩니다. 흥진이가 형의 자리에 있고, 그 외의 모든 영인들은 동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심정권을 중심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니까 선생님이 맏아들이고, 흥진이가 작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계로 보면 흥진이가 사랑권을 중심삼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고, 다음에 영계에 있는 사람이 동생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심정기준이 자기 자리로 잡고 들어간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강의 할 때 잘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 앞에,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도 그렇고, 모든 선한 성자들 앞에도 그렇고, 심정권을 중심삼고 누가 장자로 먼저 태어났느냐 하면 흥진이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정권을 중심삼고는 흥진이가 장자고 다른 영인은 다음에 태어날 차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흥진이가 장자권의 복을 차자권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상속 안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상속을 안 해주고 자기가 겁탈하는데, 장자권 흥진이는 지상에 가진 복을 전부 넘겨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사탄세계는 안 넘겨 주려고 하는데 흥진이는 자꾸 넘겨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31-52, 1984.4.1) p.698

Top p.698

② 영계에 세운 사랑의 센터

흥진이는 자신의 생명을, 참부모를 대신해 전세계 사람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대신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이 연결된 것입니다. 흥진이는 참부모 대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진이를 사랑하는 것은 참부모를 사랑하는 조건이 됩니다. 흥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부모를 사랑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계에는 지금까지 센터가 없었습니다. 영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센터가 없었는데, 흥진이가 감으로써 흥진이를 사랑하는 모든 영계의 영인들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조건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교회와 연결됩니다. 통일교회로 보면, 흥진이는 지상에서 생명을 바쳐 싸우는 데에 있어서 표준이 되고, 영계에서는 사랑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역사 이래 없는 영계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통일교인들에게 생명을 바쳐서라도 뜻을 사랑해야 한다는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참부모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계를 위해서 참부모를 사랑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진이가 영계에 감으로 말미암아 영계가 흥진이를 사랑하게 되고, 영계가 흥진이를 사랑함으로써 지상의 참부모와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에서는 흥진이를 맞는 날이 역사 이래 제일 기쁜 날입니다. 흥진이는 사랑의 메시아로서 영계의 문을 열었고, 지상에서는 표본적인 순교의 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인들이 흥진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도 흥진이를 사랑하고 통일교회에서도 흥진이를 사랑하면 참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지상의 사랑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랑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청소년 아담과 해와를 아들딸로서 사랑하지 못했는데, 영계에서나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 자신이 청춘시대에 한국 기반을 닦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하고, 저의 일대에 세계적 기반을 닦아 가지고 탕감한 기반 위에서 당신께 위안 못 해드린 것을 이 아들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영계도 사랑하고 지상도 사랑하니 부모도 사랑하라는 표어를 세워야 됩니다. 선생님은 흥진이가 지상세계와 영계에서 사랑의 부활권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진이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부활시킨다 이겁니다. 영계를 붙들고, 지상을 붙들고 사랑의 부활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권과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때도 슬퍼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130-202, 1984.1.15) p.699

Top p.69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③ 지상과 영계의 왕권 확립

흥진이가 영계에 가기 전날 통일식(統一式)을 끝내고 이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 '너는 지상을 떠나더라도 지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양자를 택해 주고 아들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마!' 하고 기도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상에서 축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을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오늘 참부모는 영계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님 대신 전권대사(全權大使)로 사랑의 왕자를 보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지상에 그런 세계적 기반을 세워야 하느냐? 예수님도 그 자리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 이래 내 아들이라고 하며 사랑할 수 있는 소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로소 영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상에서 참부모가 사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타락사랑권 내, 즉 원리결과주관권(原理結果主管圈) 내에 있기 때문에 참부모의 사랑의 인연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로소 출현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의 선왕(善王)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계의 그런 왕권을 가진 자리가 흥진이의 자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국 선왕들과 비교할 때 흥진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아벨 왕이다 이겁니다. 영계라는 것은 이 지상과 같이 사정을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된다 이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면, 그 위에 하늘부모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부모의 운행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진이의 왕권과 한국의 아벨 왕권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중심삼은 주관권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벨 왕권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아벨권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으니 모르지만 영계에서는 대번에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120 개 국가가 완전히 하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 아벨될 수 있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고 갔다든가 기독교를 믿고 간 사람들은 전부 왕권을 세우는 것은 메시아로 모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숭상하는 모든 종교계의 아벨 백성은 순차적으로 완전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왕권을 세우는 데는 흥진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왕권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왕권을 결합하려면 여왕을 찾아 왕의 상대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왕권이 영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여왕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120 개국의 왕권 백성을 데리고 지상에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영계와 육계의 통일입니다. 이렇게 결혼시켜 줌으로써 흥진이는 마음대로 지상에 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 흥진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왕권을 통일한 모든 왕이 지상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가면 반대하는 사람은 별의별 말을 다 할 것입니다. 흥진이를 사랑의 대표로 보내서 참부모가 영계에 가서 할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진이가 승화한지 50 일이 된 날이 오순절과 마찬가지입니다. 120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신이 강림할 때 불을 받고 세계적 역사가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훈숙양이 결혼함으로써 영계에 있는 120 개 국가의 왕들이 이 땅에 와서 부활해 가지고 세계적 역사를 전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120 개 왕권이 이 땅에 찾아와 지상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 개 국가 중 어디서든지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한 나라만 생겨나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개문되는 것입니다. (131-14, 1984.2.20) p.701

Top p.701

제 6 장
우리와 영계의 입장

1) 인생의 결실과 생령체(生靈體)

우리 생의 일대(一代)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일대가 영원과 순간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장되면 무한히 연장되고, 반면에 이걸 꺾으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천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울과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전부 선조들의 얼굴을 대신 쓰고 나온 역사적인 부활체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몇십만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역사과정을 결국은 나 하나 만들기 위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김씨면 김씨라는 나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는 역사적인 결실체입니다.

이러한 결실체가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뻥 뚫린 과실이라면 좋겠습니까? 벌려 보면 새까만 씨가 도르륵 굴러나오는 사과가 좋습니까, 그 씨가 찐득찐득 붙어 있는 사과가 좋습니까? 여러분을 쩍 쪼개면 잘 익은 씨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2 세가 틀림없는 하늘의 열매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 속을 쪼개보면 잘 익은 통일교회가 나올 것 같습니까?

6 천 년 인류역사의 결실체가 낙과처럼 익지 못하고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아이구 내가 떨어질 것 같다. 바람이 조금만 더 불면 떨어지겠는데, 선생님, 흔들지 말고 가만 놔 둬야 됩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도끼로 들이치고 가지를 마음대로 흔들어도 가지가 찢어져 나가기 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패에 속합니까? (46-155, 1971.8.13) p.702

사람의 일생에서 태어나는 때와 결혼하는 때 그리고 죽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와 인연을 맺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최후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반드시 창건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번성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녁 때와 같은 기간을 반드시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으면, 자체에서 그 생명이 결실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결실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실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어받고, 그 결실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자력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실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새로운 역사과정이라든가 인류사회에 필요로 하는 하나의 결실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그 자체로서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아 결실의 내용을 지닐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올바르게 실효를 나타낼 수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곡식은 씨가 뿌려져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은 다음에야 주인의 손길에 의해 거두어져 창고에 저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떠한 목적에 필요해서 거두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체에 그런 소망을 인계받을 수 있는 내적 요인을 마련하고, 그 내적 요인을 중심삼고 외적인 환경에 다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수세적(守勢的)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공세적(攻勢的)인 입장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감나무를 보게 되면, 봄에 꽃이 핍니다. 감꽃은 다른 꽃처럼 유난스럽게 울긋불긋하지 않습니다. 또 감꽃은 잎사귀의 빛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또 열매가 맺어져서도 잎사귀에 싸여 있을 때에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 잎이 너무나 청청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빛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완숙하게 될 때는 안팎이 전부 다 붉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잎은 다 떨어지더라도 그 열매만이 유난히 빛나면서 나무에 달려 있게 됩니다.

통일교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 자체를 두고 볼 때, 1970 년대가 결실의 시대라고 한다면, 잎과 같은 모든 요인은 전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에 하나의 결실의 가치를 지닌 열매가 전체의 가치로써 드러나는 감나무의 열매와 같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열매는 선전이 필요없습니다. 그 자체를 보고 안팎으로 갖추어진 그 가치를 누구든지 100 퍼센트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감나무면 감나무 자체가 열매로서 완성할 때까지 얼마나 수고의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완숙한 열매로 되기까지 그 열매 자체는 어떠한 수많은 가지에서 피어난 꽃의 열매보다 더 투쟁을 했고, 더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름을 거치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험난한 환경과 영양이 부족하여, 미숙한 자리에서 열매가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무가 열매를 많이 지니지 못하여 하나의 열매만 남겼다면, 그 열매는 나무 전체의 진액과 외적인 투쟁력을 종합한 내용을 지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만이 남게 됩니다. 나무에 단 하나의 열매가 남았다면, 그 하나의 열매가 그 나무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나무라면 그 한 알의 감으로 말미암아 가을을 맞을 때 스스로의 보람과 위신과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나무에 꽃도 많이 피었고 열매도 많이 맺혔지만, 그것들이 전부 떨어져 버리고 가을이 되었는데도 하나의 결실도 맺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면, 그 나무가 얼마나 처량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더라도, 어떤 나무의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숙한 하나의 열매를 가졌다면, 그 한 알의 열매를 가지고 수천 수만의 열매 앞에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사회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면 기독교 자체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결실의 시대를 맞이한 통일교회 자체를 중심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한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의 열매만을 남겼더라도, 그 열매가 그 나무로서는 그 이상 낼 수 없는 완전한 열매라면 그 나무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가을을 맞이한 가치와 권위와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통일교회도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교회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모진 풍파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의 결실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나는 정상적인 봄을 맞이했느냐, 정상적인 여름을 맞이했느냐, 그리고 정상적인 가을을 맞이해서 완숙한 열매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열매 자체를 보면 거기에는 나뭇가지도 있는 것이요, 나뭇잎도 있는 것이요, 뿌리도 있는 것이요, 또 씨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전체를 가졌다 하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열매에는 씨가 많기 때문에 그 열매를 중심삼고 수십 혹은 수백 그루의 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가 십 년이 지났든지, 이십 년이 지났든지, 그 나무가 인계해 주려는 전체적인 생명의 요인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 그 요인을 한 번이라도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생명이 시작된 그날부터 열매로서 거두어져 주인의 손을 거쳐 창고에 들어가 저장될 때까지 그 요인이 어느 한때라도 끊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나, 혹은 그보다 더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나, 어떠한 시련의 과정이 있더라도 이 요인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요인은 시종일관 연면하여 그 자체에 보유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자신들은 신앙의 길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생명이 발생하는 것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나무가 되고, 이러한 인격자가 되고, 세계 앞에 이러한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나선 그날부터는 가을의 수확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내적인 요인이 끊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시일이 가면 갈수록 다짐하고 거기에 플러스시킬 수 있는 과정이 없어 가지고는 완숙된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6-10, 1970.11.8) p.705

Top p.705

2) 심판과 공인(증명서)

심판의 종류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원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날에 심판을 통해 세계 인류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불심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불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31-167, 1970.5.24) p.705

사제지간에도 선생이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제자가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도 통일교회 선생님이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심판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활동이 뭐냐? 실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실체를 이루어야 할 텐데, 실체를 이루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는 실체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말씀심판이 있고, 실체심판이 있고, 심정심판이 있습니다. 3 대 심판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리말씀이 심판을 하고, 다음에는 실체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느냐? 헌드레이징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모든 법도를 지켜 실체를 이룬 사람들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말씀대로 안 할 때는 사탄까지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실체들이 참소합니다. 통일교인들은 선생님이 심판하고, 통일교회 간부들이 심판하고, 통일교회 뜻을 따라온 사람들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사탄세계에서 식구를 거쳐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영계를 거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 길이요, 법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참소조건이 있으면 이들이 합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실체심판입니다. 거기에서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알맹이와 선생님의 알맹이가 그 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밤송이에 알맹이가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인은 하나님과 선생님과 식구들이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까 보면 알밤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참부모를 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생활하려면, 이곳에서 박자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실체 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심정적 기반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헌드레이징하며 고생하는데 왜 욕을 먹고 핍박받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심정이 없으니 심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리 하늘나라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세계의 사랑이상의 사랑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사랑을 찾아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은 사람이 천국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주는 누구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될 것이고, 선생님이 심판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면 과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3-236, 1979.3.1) p.706

Top p.706

② 천국 가는 패스포트를 준비하라

누구에게나 최후의 날이 옵니다. 사탄세계에서 최후의 이상세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갖 체험을 하고, 거기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갈 패스포트를 가져야 합니다. 패스포트를 받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패스포트를 가진 국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늘땅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창조이상입니다.

패스포트는 사탄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못 온다 이겁니다. 생활 속에서 사탄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분립해야 합니다. 개인 분립, 가정 분립, 종족 분립, 민족 분립, 국가 분립, 세계 분립, 천주까지 분립해야 합니다. 통일원리(統一原理)에서 사탄 분립 역사를 배웠지요? 무엇 가지고 분립하느냐? 탕감길을 통하여 분립해야 됩니다.

학자든 대통령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탕감길은 찾아가야 됩니다. 탕감길은 가르쳐주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걸 안 했다가는 지옥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쇠사슬이 여러분의 눈에, 코에, 생각에 다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타락이라는 것을 뒤집어 엎으려니 필요한 것입니다.

백지에다 써 놓은 글자를 지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탄이 쓴 글씨를 지우기는 잉크글씨보다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우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남아 있는 한 사탄이 '내 것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129-183, 1983.10.30) p.706

영계에는 성현들, 예수님이라든가 공자, 석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현들도 많고 위인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로마 박해시대에 순교를 당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공적(公的)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엇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미국 군대의 한 소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계라는 고차원의 자리까지 밟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수천 억이 모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 환영한다'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영계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나는 문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계 변소의 휴지만도 못합니다.

내가 왜 이 타락세계에서, 이 악한 세계에서 반대하는 것을 뚫고 올라가야 되느냐?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갔다면, 누구 부럽지 않은 출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146-330, 1986.8.10) p.707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상속받았지만 세상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가 상속받았느냐? 가인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가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다음에 세상의 가인이 보증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사탄의 증명서를 받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 인간은 이 두 원칙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6천 년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 :32)'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았으니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인 가인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34-278, 1970.9.13) p.707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입회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니 타락권을 벗어나려면 사탄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사탄, 이놈아! 너하고 짝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너를 굴복시키고 나는 돌아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굴복시킨 증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3대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승리했다는 사탄의 사인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3대 시험을 받고 승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탄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과 나는 영원히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24-337, 1969.9.14) p.708

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가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사탄의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탄의 증명서란 무엇이냐? 죄인이 석방되려면 먼저 검사를 통하고, 변호사를 통한 다음 판사에 의해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으로 볼 때, 사탄은 검사와 같고 하나님은 판사와 같고 예수님은 변호사와 같습니다. 사탄이 '너 이렇게 이렇게 했지?' 해 가지고 딱 올가미를 씌워 하나님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소!' 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변호사 입장에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선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본래 혈통이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걸렸으니 그 조건에 해당된 탕감조건을 세워 가지고 죄를 벗겨 주어야 됩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사탄의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사랑했다는 인정을 받지 않고는 영영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원수로 대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다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지 않으면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48-316, 1971.9.2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독교는 역사시대의 수많은 인류와 더불어 비참한 운명을 개척하면서 참감람나무를 찾는 역사를 거쳐 나온 것입니다. 참감람나무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오면 그분의 진액을 받고 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가지에 자신을 접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시대의 모든 선조들이 탕감조건을 제시했다가 사탄에게 걸려 넘어져서 지금까지 맺혀 있는 역사적인 조건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옥토, 포근한 보금자리와 같은 터전이 아니라 자갈밭과 같은 곳에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세계에 없는 본성을 갖추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사탄에게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실 것 같으면 6천 년 전에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형무소에서 나오려면 판사가 공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해주느냐? 검사가 공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공판정에서는 검사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정에서 검사의 공인을 받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인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다. 내가 살려 주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의 공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공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사탄의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교회냐? 사탄에게 공인을 받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사탄에게서 공인을 받되 영적으로만 공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육을 합한 실체로 공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7-124, 1966.12.11) p.709

천국가는 패스포트는 그냥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험도 안 치르고, 논문도 안 써 놓고 받은 학위는 가짜입니다. 통일교회에도 진짜 가짜가 있습니다. 정확한 척도를 거치고 난 후에야 진짜가 됩니다. (129-186, 1983.10.30) p.709

천국은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못 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을 내야지요? 아무리 '나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이오!' 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통과할 수 있는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망해 가는 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비자니 무엇이니,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미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모든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가 아니고 통일대학입니다. 천국의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지상에서 지시한 모든 것이 저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됩니다. 이것 못 하고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다 실천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참부모라면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의논할 상대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한테도 복귀섭리(復歸攝理)에 대해서 의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닥터 더스트가 와 있지만 복귀섭리노정을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의논하게 되면 천사장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은 인간을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선생님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교회가 세계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교회를 누가 없앨 수 없고, 선생님을 누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생활하고 아들딸 낳는 것이 바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영계에 갈지도 모릅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갈지 모릅니다.

축복받은 가정이 앞으로 영계에 가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살다가 영계에 간다면, 통일교회 선생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은 장성기 완성급(長成期完成級)내에 있기 때문에 세계권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에 있기 때문에 세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영계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고 가만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으로 보더라도 누구한테 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선생님은 밟히는 걸 싫어하지만 밟히며 살아왔고, 반대받는 것이 싫지만 반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터전에서 통일교회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빨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라와 세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시집가는 것이 바쁩니까, 살림하는 것이 바쁩니까, 영계에 갈 준비가 바쁩니까?

내가 사는 것은 영계에 박자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계에 박자를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를 믿는 사람은 영계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조건이 영계의 문전에 딱 박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이 조건이 되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답을 못 하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쯤의 영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영계에 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선생님이 영계에 빨리 오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지만, 선생님이 영계에 가더라도 선생님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다 못 들어갑니다. (146-337, 1986.8.10) p.710

'악마를 추방하자!' 이것이 선생님의 표어입니다. 인류역사의 수많은 인류를 유린해 온 악당, 사탄의 모든 행동을 공의의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검사가 되어 참소합시다. 우리가 검사가 되어 사탄 악마를 참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마가 검사한테 굴복하겠느냐? 굴복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악마에게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나라에 가서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믿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선하려고 했고 공리의 법도를 지킨 사람은 악마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은 악마와 하나님과 협정한 조약이 아니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옳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자리에 세웠던 사람들은 악마가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내가 영계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엎드려 '나 문선생이 이런 분인 줄 몰랐소!' 하는 꼴을 많이 봤습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선생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고차원의 세계 5차원 세계 이상의 이론을 갖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149-98, 1986.11.17) p.710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가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공인받은 시민권을 새로이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인받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탄이 동서남북을 통해서도, 과거-현재-미래를 통해서도 참소할래야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8-287, 1986.10.25) p.711

Top p.711

3) 영계 입적(入籍)

① 천국 시민이 누리는 자유

여자가 미인으로 생기면 틀림없이 외적으로 따라갑니다. 못난 여자는 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외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탄세계에 물든 사탄의 누더기판이 되지만, 내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편에 가까워집니다. 내적인 쪽으로 갈 줄 아는 사람은 외적인 쪽으로도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외적인 쪽으로 갔던 사람은 내적인 쪽으로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내적세계에도 들어갈 줄 알고, 외적세계에도 나갈 줄 알고, 또 나갔다가 들어올 줄도 알고, 동서남북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내적세계가 주체가 되어 외적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외적인 세계는 악이 침범했기 때문에, 그 세계로 가면 지옥에 가고, 내적인 세계로 가면 선한 영계인 천국으로 가는데, 이 외적인 세계와 내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면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자 하는 것이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수속을 밟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 왕궁에 가는데도 수속을 밟지 않고 가십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가십니다. (116-177, 1982.1.1) p.711

Top p.71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영계 갈 때 갖고 가는 예물

영계의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요, 학?박사의 명예도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좋고, 잘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세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독생자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세계를 사랑하니 세계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교파의 이름으로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계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는 것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 교파와 자기 나라만을 사랑하다 망해 가는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교파를 넘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98- 329, 1978.8.13) p.712

아무리 살인강도라 하더라도 증거물이 없을 때는 판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도가 '내가 살인한 것을 언제 봤소?'하고 들고 나서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증거를 들이대면 꼼짝 못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찬송가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받았다고 으스대며 전도를 나가는데 그런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 증거를 해서 뭘 합니까? 전도해서 남은 사람도 없으면 아무 관계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갈 때에 예물로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까? 영계에 가면 순교당한 공신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보따리를 펼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지발싸개 같은 것을 펼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통일교회가 무슨 고생을 했으며, 여러분이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그만한 고생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다고 하겠습니까? '고생을 하긴 했지만 나는 고생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야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영계에 가서 보따리를 풀어 놓고 '이것은 일생 동안 제가 장만한 선물이오니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는 한 보따리씩 해 가면서, 천국갈 때는 달랑달랑 몸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통일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림살이를 하게 됩니다. 독립성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과 매일 생활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또 하나님이 늘 여러분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리권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절대시해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를 만민의 것으로, 후대 후손의 것으로, 천상세계의 보물로 영원히 보장받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임명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거지보다 더 불쌍해집니다. 거지들은 때가 되면 얻어서라도 밥을 먹지만, 책임을 못하는 사람은 시간 맞춰 죽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완수하는데 하나님께서 10 년 동안에 하라고 했다면, 10 년 동안 충성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를 빛낼 수 있는 자녀의 길을 가치있는 길로 복귀시켜 나오는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키느냐? 하나님이 계획한 10 년이라는 기간을 7 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내 땀이 필요하고, 내 피가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소모의 대가를 통하여 양과 질을 거기에 보충하지 않고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판도를 흡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이런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미 기초를 닦고 외부공사는 다 끝나서 이제는 단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내부장식은 주인의 손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벽 같은 것은 직접 관계가 안 되지만, 직접 관계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계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시대?실천시대?성사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시기에 맞춰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준비시대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실천시대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실천하고, 성사시대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성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장식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 장식을 누가 보더라도 그 정교함에서 정성들인 도수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뜻생활에서 준비시대가 되어 준비하라는 임명을 받고도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천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사시대가 오는데, 그 성사시대는 소망이 깃드는 시기입니다. (32-71, 1970.6.21) p.713

Top p.713

③ 3 대 주체사상을 통한 천국

마음은 하나님 대신입니다. 마음은 열조(列祖), 선조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스승을 대표하고, 마음은 나랏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 마음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습니까? 우주의 중심으로서 참된 부모의 자리에 있고, 참된 스승의 자리에 있고, 참된 주인의 자리에 있고, 참사랑의 주체로 계시는 분을 대신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나 하나를 수습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천대받고 끌려다니면서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도둑질이라도 하게 되면 '이놈의 자식아!'하고 또다시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얼마나 농락했습니까? 마음은 부모 대신이요, 스승 대신이요, 주인 대신입니다. 마음세계에는 공판이 필요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3 자, 증인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당당하지 못한 나, 스승 앞에 부끄러운 나, 나라의 임금님 앞에 부끄러운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향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요, 나라의 왕이요, 종족의 왕이요, 가정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스승이요, 나라의 스승이요, 종족의 스승이요, 가정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요, 나라의 주인이요, 종족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삼대 주체사상(三大主體思想)입니다. 여기에는 위하는 사랑, 위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삼대 주체사상이 하늘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삼대 사상을 전부 다 갖춘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을 전부 못 갖추더라도 참부모의 자리에 서면 스승은 오른쪽, 주인은 왼쪽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의 어느 하나만이라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가 되든가, 참된 스승이 되든가, 참된 주인이 되든가, 어느 한 자리에만 서게 되면 천국입적(天國入籍)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209-154, 1990.11.28) p.714

Top p.714

④ 입적의 조건

타락이 뭐냐 하면, 말씀과 실체와 심정의 인연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부모의 심정을 갖추어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탕감복귀할 수 있는 실체적인 행동을 거치고 난 자라야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뿐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하늘의 족속,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현상에 영형체(靈形體)와 생명체(生命體)와 생령체(生靈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계의 반응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형체?생명체?생령체와 마찬가지의 인연을 거치는 것입니다. 생령체가 되면 그 자리에서 입적해 자기의 위치를 찾아들어가는 것이 복귀의 노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입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게 연결되어 입적이 되는 날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탄세계에서 세워 놓은 법 가지고는 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을 한국 국법 가지고 치리할 수 있습니까?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권내에 들어가면 그 권내의 법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세계의 법은 일단 넘어서기만 하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적용이 안 됩니다. 사탄세계의 법이 적용 안 되니, 결국은 이 땅 위의 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한 탕감조건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 지옥은 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공식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통일교인은 영인체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영인체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때가 되면 전체가 자기의 자서전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때가 옵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뭘 했느냐, 그 기록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기에 어떤 회사에 취직해 생활했던 내용은 아무 조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회사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옵니다.

앞으로 입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입적을 해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라는 명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과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런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앞으로 자기의 영원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탕감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 위해 마음으로 체휼하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노력뿐만이 아니라 실적을 얼마만큼 남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냥 그대로의 습관적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탕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섭리(救援攝理)는 복귀섭리(復歸攝理)이고, 복귀섭리는 재창조섭리(再創造攝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타락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본연의 자리, 영(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식도 없고, 습관도 없고, 김씨라든가 이씨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姓)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의 창조본연의 기준에서 보면 지음받은 만물은 영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 길에 반대되는 그 일들이 인간세계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탄 사랑을 중심삼고 사탄 생명, 사탄 혈통에 인연되어 모든 민족이 걸어나온 역사적 문화배경이 서로 다른 습관성 혹은 풍습이 얼룩덜룩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세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탕감해서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세계에서 소유하고 있던 습관성이라든가 죄악성이 남아 있는 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213-97, 1991.1.16) p.715

여러분들이 영계에 갈 때 일주일 이상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저나라에 가서 입적을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6천 년 복귀역사노정에서 수고했으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는 7일 금식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고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쳤다는 조건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7-183, 1966.12.18) p.715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개인은 가정을, 가정은 종족을, 종족은 민족을, 민족은 국가를, 국가는 세계를, 세계는 하늘땅을, 하늘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전통이 딱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전통을 안 세우면 저나라에 가서 입적할 곳이 없습니다. 저나라가 그런 조직으로 돼 있으니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입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래의 사람으로 재현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통일원리관(統一原理觀)입니다. (131-56, 1984.4.1) p.716

여러분은 천국에 입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제단 위에 자신과 더불어 만물을 바쳤습니다. 만물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의 조건으로 하고,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아벨의 위치에 서서, 만물을 아벨 입장에 세우고 가인에게 조건을 세우게 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15-153, 1965.10.7) p.716

여러분이 입적하기에 앞서 절대적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확실히 모르고서는 절대적으로 완성품에 대신할 수 있는 자리, 모든 것을 이기고 자기 주체성을 하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태어났습니다. 어디까지나 출생의 동기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창조주의 무엇에 의해서 태어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창조주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서 다이아몬드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냐, 권력을 좋아해서 권력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상속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지식을 좋아해서 모든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시작의 기원, 출발의 기원이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인연되어 태어난 나를 주장하더라도 앞으로 본향땅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정확히 모르면 그 진행상의 모든 것은 미완성으로 결론짓게 마련입니다.

내 출생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어머니의 생명이 나를 엮어서 출생시켰는데 두 분의 인격을 전수받는데 있어서는, 생명끼리 부딪쳐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앞서 이 일을 연결하는 근원적인 작동이 있었는데 그 작동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한 것이냐, 사랑이 귀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생명은 제 2 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 1 의 위치입니다.

입적을 위하여 본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본향 땅에 돌아가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수속을 밟아 완전히 합격해야 합니다. 어느 창구에 가든지, 어느 땅에 가든지,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든지 입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별의별 남자 여자들이 입구에 앉아 있더라도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77-305, 1988.5.22) p.716

Top p.716

⑤ 영계의 족장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되었으면 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섰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족과 민족과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상의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하늘나라의 계명이 아니라 지상천국의 계명입니다. 천상천국의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 : 37)'는 것이지만, 지상천국의 제 1 의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나라와 네 민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식(扶植)시키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늘나라의 경외성에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중심삼고 횡적으로 넓은 무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계에 가서 하나님의 위업을 영원히 상속받을 수 있는 지파장이나 족장,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34-70, 1970.8.29) p.717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삼고 입적시대가 옵니다. 14 만 4 천 무리에 들어가겠다고 하지요? 14 만 4 천이 무엇인지 압니까? 입적시대를 향해서 가려면 자기 종족권이 하늘나라의 고향 땅과 같은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입적시대에 종족적으로 입적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통일교회에 입교해서 선서하면 그나라 사람들도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고, 교회가 제시하는 예식만 거쳐 나가면 다 사탄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219-100, 1991.8.25) p.717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내 몸 마음을 통일해 가지고 아내와 일족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소생이라면, 부부는 장성, 종족은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족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그 다음엔 입적이 벌어집니다. 그런 시대에 부끄럽지 않게끔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들어온 이후의 역사를 다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틀리게 되면 저나라에서 걸립니다. 뭘 했다는 모든 것을 샅샅이 밝혀 놓고 그걸 밟고 넘어갈 때 이 사실이 나를 붙들지 않아야 됩니다.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게끔 기록을 남겨 놓고 넘어가서야 비로소 입적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13-206, 1991.1.20) p.717

Top p.717

제 7 장
우리와 영인과의 관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 영적 현상과 영인 해원(解怨)

① 선영계와 악영계

영계는 두 패로 되어 있습니다. 영계는 사탄세계하고 하나님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계의 사탄세계에서 선한 하나님 세계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만 내놓으면 지상은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것이냐? 영계의 사탄세계에 가서 개인·사탄가정·사탄종족·사탄나라를 전부 다 하늘편으로 인계받는 비법만 가졌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그런 때가 오면, 지상에도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변천이 빨라 그 세계로 굴러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34- 15, 1985.1.1) p.718

우리가 실천하는 새로운 운동은 무슨 주의냐? 하나님이 있다면 신의(神意)에 의한 주의입니다. 신이 있다면 영계가 있을 것입니다. 영계가 있다면, 영계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의 수많은 우리 조상들,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 앞으로 올 수많은 인간들이 다 가서 머무르는 곳입니다.

영계에도 선한 영계, 악한 영계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영계에 가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이 남아질 수 있는 하나의 집합체가 영계라면, 그 영계도 불가피하게 두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종류, 선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악한 종류가 무엇이고, 선한 종류가 무엇이냐? 하나님도 악한 영계와 선한 영계가 화합하고 인간세계가 화합할 수 있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닌 목적도 달성하는 동시에 각자가 전체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 이중결과의 자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중목적, 개체목적과 전체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역사는 무엇을 추구해 나왔느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도탄중에 살아야 되고 벽에 부딪쳐야 되느냐? 그 가는 출발점부터 가는 과정, 종착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분석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126-83, 1983.4.12) p.718

영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움직여서 이 지상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는 영계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영계라 하게 되면, 선한 영계와 악한 영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실재하는 세계입니다. 지상세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곳은 확실히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도 선한 영인들과 악한 영인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도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은 악한 영을 선도하여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악한 영은 선한 영을 어떻게든지 좋은 곳에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중심삼고 악한 영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악한 영의 통치권 내에 오늘날 지구성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간 선조들은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나 전부 다 영계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영도 타락한 세계에서 구별되었다는 조건을 이 땅 위에서 세워 가지고 선한 편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완전한 선의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이상세계, 본연의 인간이 갈 수 있는 이상적 선권을 향해서 가는데 있어서 선한 영들은 그곳으로 전진하려고 하고 악한 영들은 그곳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계하고 악한 세계라는 것은 무시로 통합니다. 무시로 연락됩니다. 선한 영은 악한 세계에서 대립되어 반대받는 자리에서 살다 간 영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입니다. (134-9, 1985.1.1) p.719

Top p.719

② 영적 현상

최후에 만약 종교끼리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방비하기 위해서 통일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통일교회는 그것을 막기 위한 방비재(防備材)입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시대에는 영육 함께 방비하는 것입니다. 영계는 지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는 영인이 몇천억쯤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1억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 아래 먼지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수천억 수만억의 영인들이 지상을 점령하기 위한 공략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노이로제현상이 그 하나입니다.

2천년대를 넘으면 그때는 다 영적으로 통할지도 모릅니다. 악령에 통하든가 선영에 통하든가 영적으로 통하게 되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비해야 할 것이 통일원리의 사명입니다.

높은 안테나에는 삐익삐익 소리가 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노이로제현상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악령만 동원하여 지상공략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전지구성에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악령에 공략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영들을 중심으로 하여 영계의 기대를 넓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5-30, 1972.4.23) p.720

Top p.720

③ 영계에서 온 편지

요전에 이상헌씨 사모인 한숙씨로부터 영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영계가 얼마나 좋은지,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줄 몰랐습니다. 하늘나라의 황족권 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꿈같은 얘기입니다. 하도 좋아서 당신보다 내가 먼저 온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보다 먼저 죽어서 영계에 가보니까, 통일교회 믿다가 갔기 때문에 호화찬란한 꿈같은 사실이 벌어졌으니 당신보다도 먼저 온 것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같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일생 동안 사는 것 아닙니까? 근원에서 왔으니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다에 모여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대기중으로 올라가 비로 내려 강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본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환운동을 통하여 생명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순환하지 않게 되면 전부 원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우주 존재세계의 마음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마음같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영계는 마음같은 체(體)가 화(化)한 생활의 세계인데, 이는 시공을 초월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밥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물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음료수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옷 걱정이 필요없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자동차공장이 있겠어요? 식품공장?옷공장?직조공장이 있겠습니까? 다 없습니다. 거기서는 억천만리를 순식간에 왕래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을 가지고? 사랑의 힘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면 쭉 나타납니다.

사랑의 속도라는 것은 최고로 빠른 것입니다. 사랑이 가는 길은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적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권 내에 들어가게 되면, 직단거리를 통한 최고의 속도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우주를 자기 생각권 내의 무대로 삼아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세상만사 슬픈 고통의 골짜기 길을 혼자 가면서도, 평생 개척자의 생애를 거쳐오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죽을 날까지 직행하려고 결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영계의 궤도가 있습니다. 레일이 있습니다. 지상 레일과 영계 레일은 국경을 넘는 철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좁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종교 가운데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제아무리 기독교가 뭐라 해도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계 얘기를 했습니까?

20세기 후반기 첨단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공식적인 발달논리를 추구하는 현시대에 공식적 과정을 통한 종교적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증할 수 있는 내용을 지닌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210-225, 1990.12.23) p.72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은 예수님이 반대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 전체가 세계적인 판도를 가진 역사성을 중심삼고 선생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일족들은 순식간에 사돈의 팔촌까지 복귀되는 것입니다. 6 개월에 120 가정은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형님의 입장에 섰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손자가 군왕이 되게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조상들이 모셔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메시아가 왕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재림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종족적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세계의 판도권에 왕권이 동참할 수 있는 해방권이 되는 것입니다.

광활하고 영원한 세계의 본향 땅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활동지역을 제한받아 방향감각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행동을 하는 사나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넓은 대우주라도 동서남북 사방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분명한 해방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후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남겨 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 좋은 것을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 사람들이 보호하게 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남겨 놓지 말고, 애국적인 공적을 남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망하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철석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3-146, 1991.1.16) p.721

Top p.721

④ 영인의 소원

영계에 가 있는 인간들은 무엇을 원할 것이냐? 영계는 자기가 처해 있는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급받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원한다면 즉각적입니다. 소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가능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선생님이 얘길 안 합니다.

만약 백만인의 잔치를 한다면 생각과 동시에 백만인이 광장에 나타나고, 모든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만인의 잔치를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세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즈음의 한국 사회를 보면 실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세계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겠어요? 원자력의 분열작용에 있어서 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랑의 분열작용을 하면 순식간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거 있을성싶지 않습니까? (141-278, 1986.3.2) p.722

저세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가느냐? 저세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입장보다 내일의 입장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 사는 인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심리입니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옛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심리다 이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체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나아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상생활하던 때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41-269, 1986.3.2) p.722

지금까지의 6 천 년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아담 하나를 재창조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해와는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창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담, 단 하나의 남자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복귀섭리 도상에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이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억천만 영인들의 원한이 여기에 뭉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실체가 등장하는 날에 비로소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피를 뿌리며 죽어 간 순교자들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영계에 있지만 지상에 있는 실체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도 해방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념적으로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29-271, 1970.3.11) p.72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는 옆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먹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상관없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 앞에 수천 명이 한결같이 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을 당기면서 쉬지 않고 정성들이고 몸부림치면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줄을 감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뛰다 보면 1등도 생기고 2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인들이 그 줄에 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등을 하고 저나라에 가서 그 감는 장치와 인연맺어 가지고 통째로 감아 쥐게 되면 영계와 육계가 복귀되는 것입니다. (32-145, 1970.7.5) p.722

Top p.722

⑤ 영인 해원(解怨)

우리는 3시대의 사명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을 해방시키고, 오늘날 이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앞으로 올 후대의 사람들도 여기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3시대의 해방권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대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이처럼 꿈같은 내용이 사실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눈이 휘둥그래지고 입은 하염없이 벌어지고 귀는 쫑긋하겠지만 머리는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28-201, 1970.1.11) p.723

통일교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냐? 평화를 만들기 위한 단체요, 화해를 붙이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화해를 붙이느냐? 예수님과 성신이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신이 해야 할 사명은 아들딸을 해산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해산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해산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도 기성교인들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기 낳는 기관을 왜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자를 대표한 해와를 대신해 다시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영(靈), 체(體)를 입지 못한 본연의 어머니 성품을 결실해야 할 본성적 주체성을 가진 해와가 상대적 기준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예수시대에 주체 앞에 대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체(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체가 있지만 성신은 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을 불 같은 성신, 기름 같은 성신, 바람 같은 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적 사명을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고 죄를 씻는 역사를 하게 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이 되어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신이 지금까지 쉬어 본 적이 있습니까? 못 쉬어 봤습니다. 기독교가 쉬어 봤습니까? 못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6천 년 동안 타락한 인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쉬어 본 적이 있습니까? 못 쉬어 봤습니다. 다 못 쉬었습니다. 그러면 통일교회는 쉬어 봤어요? 통일교회 선생님이 쉬어 봤습니까? 지금도 놀란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판입니다.

왜 그러느냐? 화해를 붙여서 하나님을 쉬게 하고, 예수와 성신을 쉬게 하고, 우리 조상들 전부 다 편안하게 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조상이지요? 기독교로 말하면, 왔다 갔던 선지 선열들이 전부 다 조상들입니다. 종교로 말하면, 옛날부터 왔다간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전부 조상들입니다. 그런 조상들을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조상의 원한을 해원성사해 줘야 됩니다. (75-38, 1975.1.1) p.723

선생님이 자다가 눈만 뜨면, 벌써 변소를 가면서도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24시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빚을 지는 사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책임자가 빚을 지고 사느냐 이겁니다.

선생님이 젊은 사람에게 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배에 매일같이 나갑니다. 미국에 있어서 앞으로 바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무한한 경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바다에서 죽은 영계의 영인들을 해원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태풍이 분다는 경보를 듣고도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은 영들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1975 년에 캐이프 코드(Cape Cod)에 가서 뭘 했느냐 하면, 영인들을 해원시켜 주었습니다. 해방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반대를 받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영계의 해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93-96, 1977.5.15) p.724

Top p.724

⑤ 영계 통일

육적세계는 사탄의 활동무대이고, 영적세계는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되어 언제나 엇갈려 나왔습니다. 이것이 복귀섭리시대에 한의 요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엇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마음권과 하나님을 중심삼고 치리받는 몸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권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데서 통일기반의 기준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45-213, 1971.7.1) p.724

통일교회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영계부터 통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계를 압니까? 우리 통일교회 패들은 영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영계를 통일하는 게 쉬울 거 같습니까? 영계의 통일 없이는 지상의 통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의 싸움이 참 힘들지요? 지상의 싸움이 힘듭니다. 그러나 영계의 싸움은 지상의 싸움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날 통일교회 교인들은 힘들다는 명사를 입을 열고 말할 수 없습니다. (153-56, 1963.10.13)

이상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냐? 영적인 세계는 영계이고 육적인 세계는 지상세계인데, 영적세계와 지상세계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바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줘야 저쪽이 오고, 또 저쪽에서 전부 다 줘야 이쪽이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147-94, 1986.8.31) p.724

우리가 앞으로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키는 데는 먼저 세계적인 신념의 자각, 통일적인 이념의 자각을 하고 세계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수난의 길을 감수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영계와 육계가 자동적으로 하나되고, 여기서부터 통일이 벌어집니다. 통일의 길을 가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9-285, 1970.3.11) p.724

통일교회가 영계를 통일하기 전에 육계를 통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선생님은 영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육계에 있는 통일교회 패들을 사지(死地)에 몰아넣는 것이요, 무자비하게 때려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계는 여러분에게 협조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참한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을 중심삼고 영계는 영계대로 단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삼천만 민족 가운데에 천국권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은 옛날에 지옥에 가 있는 패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49-109, 1971.10.9) p.725

Top p.725

2) 지상인과 영인과의 관계

① 지상인과 영인

이 세계는 악마의 세계입니다. 악마의 세계를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 왕래할 수 있는 터전을 땅에 닦고 가지 않으면 지상천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이 안 되면 천상천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계에 가서도 이 지상에 마음대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상천국에 살고 천상천국이 이루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갔다가 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상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지상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망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전부 다 책임분담과 탕감조건에 걸려 영계에 가서 갈 길을 못 가고 땅에 다시 내려와 탕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길을 여러분이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거기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146-223, 1986.7.1) p.725

종교로서 가야 할 길 혹은 일반 세계가 가야 할 길에서 서로 담이 막혀 있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신앙하는 사람과 화합할 수 있으며, 또 신앙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기말시대에 와서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는 두 갈래로 갈라져 새로운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갈래가 하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세계가 두 갈래 세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상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상세계에 둘 다 도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잡다단한 세계적 사건이 문제 해결의 초점이 아니라 자기 자체의 몸 마음을 어떻게 하나 만들어 목적을 향해 도약해 갈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세계 통합을 나 자신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통일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종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통일교회는 이 세상과 일치화해 종교적 활동기반이 사회적 활동기반에 동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고, 또 세상이 종교분야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서 이것이 하나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큰 담이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사회가 하나되는 데에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영계까지 담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을 어디서부터 헐어내느냐? 고장은 어디에서부터 났느냐? 세계 끝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서부터 났습니다. 개인이 자신을 중심삼고 고장이 난 결과 몸과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갈라져서 여러 갈래로 지향하는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목적을 어떻게 하나로 귀일시키느냐 하는 문제, 갈라진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복귀섭리를 해 나오고 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도의 섭리를 지도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편인 하나님은 섭리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이상세계를 목적삼고 매일매일 가려 나가면서 그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추진시켜 나가는 반면, 악신인 사탄은 그리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의 길로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계선, 하나의 담을 중심삼고 하나님은 '담을 넘어가지 말라, 너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틀고 있고, 사탄은 '너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른 쪽으로 가기 위한 인간의 출발이 열매맺은 것이 우익이요, 왼쪽으로 가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전개시켜 놓은 것이 좌익입니다. 이 좌익과 우익의 세기말적인 역사시대를 대하게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이 우익과 좌익은 마음과 몸이 싸우는 결과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가 문제입니다. 세계가 하나되고, 국가가 하나되고, 종족이 하나되고, 가정이 하나되어 가지고 개인이 하나되느냐? 아닙니다.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개인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그냥 놔 두고 서둘러야 할 문제는 개인에서부터 하나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가운데 현실이 연결되고 현실 가운데 종교가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가 부정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악신이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신의 뿌리는 내 몸을 중심삼고 있고, 선신의 뿌리는 내 마음을 중심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사관과 유심사관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적 때가 되어 옴에 따라서 죄인은 죄인임을 직고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하는 사실을 직고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계적 무대를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결과적 사실은 선신과 악신이 세계의 기준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포괄되어 있고 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측정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선신과 악신은 그러한 입장에서 세계 무대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140-15, 1986.2.1) p.727

Top p.72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영인들의 영계에서의 입장

오늘날 지상에는 40 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영계에는 수천억의 영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이 세계와 우리가 바라보는 주체되는 영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중심삼고 연결되어 있느냐, 지식을 중심삼고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상에서 중요시하는 권력 같은 내용을 중심삼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세계는 물질세계를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저세계는 지식의 세계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시공을 초월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본질의 세계는 오늘날 인간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중요시하는 내용을 중심삼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계생활의 모든 가치적인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계에 사는 사람들은 각 개인이 영계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영계에도 인간세계와 마찬가지로 영계가정이 있고, 족속이 있고, 한 나라가 있고, 세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좋으나 싫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돌아가서 머무를 곳이 영계입니다. 거기에는 미개인으로부터 문명인까지 역사시대에 왔다갔던 천태만상의 인간 군상들이 집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역사가 평화를 중심삼은 인류역사가 못 되고, 행복을 중심삼은 인류역사가 못 되고, 이상을 중심삼은 인류역사가 못 되었다면,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치리받을 것이냐?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저 세계에 가서 갑자기 변할 수는 없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타고난 성격은 고치기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나라에 가 있는 영인체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던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이냐? 갑자기 달라질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던 그 모양 그대로 수확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체들은 결국은 지상에 살던 사람들의 영인체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별다름이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141-268, 1986.3.2) p.727

영계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인들은 마음대로 여기 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만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로 다리를 놓지 않으면 특정한 사람 외에는 재림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 가운데도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영계에서 내려올 때 그 주류가 직선이 안 됩니다. 유대교의 다른 계통이 정성들이게 되면 그 주류가 옮겨져서 왔다갔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데는 직선에 해당되는 사람 외에는 못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재림역사 협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 세기가 되면 그 사람도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이 다음 시대에 오려면 역시 이와 같은 원칙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에 특정한 영인들 외에는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담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의 세대가 전부 다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담벽입니다.

지금 때는 세계적 시대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것 찾아오려면 얼마나 돌고 돌아서 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돼 가지고는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내려오는 길과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일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102-29, 1978.11.19) p.728

지금까지 영계에 간 영인들이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횡적으로는 안 통합니다. 종적으로는 이 정도로 통합니다. (218-125, 1991.7.14) p.728

Top p.72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③ 영인의 수가 지상인보다 많다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영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한 사람 앞에 3천3백2십여 명 꼴의 영인들이 붙어다닌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영인들이 원자탄을 무서워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총탄을 무서워하지 않고, 원자탄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라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절대 안 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대하지만 가라고 하고, 나는 뒤로 따라간 다음에 문을 잠그고 주인 노릇을 하겠다 이겁니다. 다 지나가면 문을 잠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86-193, 1976.3.28) p.728

Top p.728

④ 유리영(流離靈)들

굶어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패들이 신(神)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굶어죽는 사람은 자기 선의의 도리에 따라 저나라에 가게 돼도 급이 있지만, 신이 없다는 사람은 영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발판이 없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구름떼같이 떠돌아 다닙니다. 떠돌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뭉쳐서 비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결해 전부 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옥에 찾아가 지옥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이들을 살려 줘야 되겠기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루에도 6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죽고 있으니까 하루에 6만 명입니다. 6만 명이 죽어 가는 것을 부모, 자식, 형제들이 볼 때 가슴조이고 통곡할 수 있는 사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라는 사람이 동정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지상에서 재세 당시 자기들과 같이 살았다는 조건이 원한이 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양사업을 중심삼고 만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고생하더라도 통일교회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세계적 선전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텔레비전 센터를 만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모금 운동할 것입니다

사람이 백 년을 못 사는 걸 생각할 때, 50억 인류 중에 1년에 5천만이 영계로 갑니다. 지옥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뿌려 놓은 씨를 전부 다 하늘로 거두기를 하나님이 바라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얼마나 지옥에 갔습니까? 수십억이 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저나라에 가서 영들을 만나게 되면 '선생님이 재세 당시에 우리에 대해 책임 못하지 않았소.'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마음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소행을 중심삼고 가게 될 때 '당신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셨소.' 한다는 것입니다. (213-355, 1990.10.2) p.729

Top p.729

⑤ 영인 구분은 마음이 알고 한다

심각한 심정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땀을 흘리고 돌아나와서 마시는 물 맛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 맛이 어떻더냐? 콜라니 무슨 꿀맛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맛이 다릅니다. 매번 다릅니다.

그런 것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으면 영감(靈感)을 감득할 수 없습니다. 영계에 대한 모든 것을 감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면, 귀가 예민해져서 저기서 말하면 벌써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분석해 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누가 지나가는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려 냅니다. 영감(靈感)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 가지고는 영계의 악신인지 선신인지를 분간 못하는 것입니다.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압니다. 마음의 눈은 보고 아는 눈보다도 고차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다 통하는 말입니다. (96-170, 1978.1.3) p.730

Top p.730

⑥ 지상인의 삶의 가치

우리는 아담과 해와를 대해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수많은 인류가 참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대 앞에 참소받을 수 있는 조상이 되느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상이 되느냐? 이 두 길에 선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공적인 자리에 못 섬으로 말미암아 참소의 조건을 남겼는데, 보다 공적인 자리에서 희생의 길을 극복했더라면, 오늘날 인류 후손 앞에 참소를 받지 않았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3 시대를 대표한 나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현재-미래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둘을 겹쳐서 끌고 가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내 손에 달렸고, 친척이 내 손에 달렸고, 친척뿐만 아니라 나라가 내 손에 달렸고, 앞으로 올 후손 앞에 올바른 전통을 세워 놓아야 할 것도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영계에 간 여러분의 선조들도 해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친척들도 해방할 수 있고, 여러분의 후손들은 해방의 선민으로 책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6-76, 1973.3.17) p.730

하나님이 표적을 6 천 년 동안 맞추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표적도 안 맞았는데, 이제 몇만 년을 쏘고서야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맞는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졸음이 올 때입니다. 제일 졸음이 오고, 제일 기진맥진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졸거나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쏠 때 기진맥진하고 졸음이 올락말락할 때 정신을 차려서 쏘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쏘고 나서 졸리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체면이고 뭐고 '우와!' 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천사세계에서 볼 때 '천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하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서 맞으라고 바라던 것이 몇만 년 계속됐는데, 그것이 딱 들어맞았다면 영계가 어떻겠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런 멋진 곳이 있다면, 입장권 하나에 1 만 달러 한다고 해도 사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곳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가 '아이구 티켓만 손해봤다!' 하고 불평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그 동네 어느 거지가 돈을 빌어 가지고 동냥을 해서 티켓을 사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표적을 맞추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거지가 거기서 춤을 추겠습니까, 안 추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서 자랑할 것입니다. '야, 맞았다, 맞았다 ! 사람 없니? 사람 없니?' 이렇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거지를 보았다면 '야, 이놈의 거지야!' 그러겠어요? '아이구, 좋다' 하며 춤추실 것입니다. (103-87, 1979.2.4) p.731

Top p.728

3) 조상들과 우리

① 우리를 굽어보는 조상들

여러분들이 영계에 간다면 조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손자손녀들이 통일교회에 들어가 문선생님을 만났대!' 하는 데서 하늘나라의 궁전, 황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나라에는 궁이 없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저 우둔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손자하고, 자기 생각대로 뱀장어처럼 살살 빠져나가는 손녀를 영계에서 조상들이 볼 때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토끼같이 하는 손녀를 칭찬할까요, 거북이같이 하는 손자를 칭찬하겠습니까? 거북이같이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토끼는 오줌을 잘 쌉니다. 거북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북이가 오줌 싸는 건 못 봤으니까. 토끼는 조금 가다가 오줌 싸고 조금 가다가 오줌 싸고 그럽니다. 그거 왜 그러냐? 다른 토끼들이 못 오도록 자기 영토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줌을 싸는 것입니다. 거북이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고, 밤이 오나 낮이 오나, 세월이 가나, 그저 춘하추동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가는 사람은 다 환영합니다. 저나라의 모든 조상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 숨길 데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바람벽도 다 통하는 것입니다. 지구덩이도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도 영원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대가 안 되어 가지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저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느냐? 천년만년 내가 또다시 태어나 하나님같이 인류를 위하고 하나님을 동정하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갑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인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갈 날이 가까우면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아들딸 앞에 넘겨 주지요? 자기가 노력한 모든 대가를 넘겨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세계인류 앞에 넘겨 주겠다고 하고 세계 앞에 남겨 주겠다고 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13-196, 1991.1.20) p.732

Top p.732

② 우리가 조상보다 나아야

조상이 살아 나온 이 집안에, 자기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살던 그 방에, 우리 할아버지를 낳고, 우리 아버지를 낳고, 나를 낳은 그 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볼 때 사랑의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백 볼트, 천 볼트, 만 볼트, 몇억 볼트의 빛이 쭉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 비치는 빛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상, 조상, 조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삼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본래 우리의 본연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본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부모이고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횡적인 몸을 벗어 버리고 종적으로 환고향해서,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몸으로 화해서 그 체(體)를 입고 완성해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접주관권과 간접주관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책임분담을 한 사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담 마음에 계시고 아담의 영(靈)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일신(一身)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같이 나눠 가지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엔 조상된 아담과 해와의 사랑을 중심삼고 누가 더 본질적 사랑에 가까우냐 하는 것이 저나라에 가서 도를 닦아 가는 영원한 노정입니다. (213-190, 1991.1.20) p.732

Top p.732

③ 성묘도 해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성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덤에 묻혔다고 하고 성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면 통곡을 하고 웁니다. 내 일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지 못한 한을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내 울음소리를 듣고 천상세계의 하나님이 전부 다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고 '옳다. 됐다!' 할 수 있는 전령이 올 때까지 정성들여야 됩니다.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냥 남겨 두면 안 됩니다. 춘하추동 사계절 전부 찾아가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회 귀신된 줄 알고, 흘러간 도깨비새끼인 줄 알았더니, 왕손이 태어났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 이 땅의 어떤 왕보다도 가정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왕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보다도, 왕보다도 더 높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거 다 허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궁 도리의 법을 지켜서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세계의 어떤 왕보다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왕손의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부모들이 입을 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선조들도 찬양하고 후손들도 찬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부모를 중심삼고 통일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중심삼아 통일권이 벌어지고, 할아버지 중심삼아 모시는 데 통일권이 벌어지고, 전부가 통일권이 벌어지게 됩니다. 손자 통일권, 어머니 아버지 효자 통일권, 아들딸 모시는데 장래에 전부 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주류 통일권이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통일 씨를 완전히 뿌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게 되면 꿈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220-350, 1991.10.20) p.733

지금까지 장자권 복귀했으니 조상들은 전부 다 3 대 중심삼아 가지고 — 3 대는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입니다 — 장자권 · 부모권 · 왕권 자리에 굴복해 가지고 손자를 조상으로 할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고, 자기 동생을 형님으로 모실 수 있는 천지개벽, 180 도 뒤집어지는 길이 벌어짐으로써 지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160 가정을 해야 됩니다. 고향을 중심삼고 왔다갔다하면서 말씀 듣게 해야 됩니다. 조상의 뿌리인 장손이 좋다고 하면 방계손이 전부 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60 집 찾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잔치하고, 통일교회 선서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왕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고 해서 선산에 모여 가지고 조상 무덤 앞에서 즉위하는 왕같이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 혈대를 이을 수 있는 조상이 됨으로써 해방권이 벌어지는 축복받은 종족이 되었나이다! 이 종족은 영원불변 하나님의 권속이요 혈족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되면 사탄하고 완전히 작별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통일교회는 이제 그 전통을 이어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전통이 아닙니다.
하늘부모 · 하늘나라 · 하늘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계대를 이은 종족적 메시아권, 전통적 혈족들을 천년만년 모실 수 있는 왕토가 되는 것입니다. 왕을 모시고 영원한 태평성대를 부를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살다가 가야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일가, 일족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220-222, 1991.10.19) p.733

Top p.733

④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계의 조상들

내 집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집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일생 사는 집들 중에 대표적인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대표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은 자연히 근본 본향의 세계, 고향에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기에는 상충이 없습니다.

저나라에 가게 되면 수천 대의 조상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옥간 조상들이 있습니다. 몇대조는 지옥 가고, 또 몇대조는 어디 가고, 조상마다 전부 급이 다릅니다. 위해 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세 번만 위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못한 것을 압니다.

모세가 애급에서 이적기사를 행하면서 위해 주려고 한 것이 몇 번씩이냐? 몇 번씩, 일곱 번, 열 번, 열두 번 이상 전부 다 위하려고 했습니다. 위하려고 했는데도 안 받아 주면 하늘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인도해 줍니다. 내가 위하던 모든 공적인 터전을 딴 세계에 가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세계인 이 땅 위에서 신앙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위해 살던 사람들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상에서는 반대받고 핍박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권으로 택함받아 광야를 지나 본향 땅에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본향 땅인 하나님 나라에서 잘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센 할머니를 잘 모셨습니까? 하나님은 흰 하나님입니다. 높은 산에는 백설이 쌓이지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또 그런 할머니는 자기 시어머니 시할머니를 잘 모셨느냐? 시어머니 시할머니가 저나라에 갈 때 '내가 먼저 가서 네가 하던 것과 같이 저나라에서 너 올 길을 고이 준비하리라.'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213-182, 1991.1.20) p.734

Top p.734

4) 영적 새시대 도래(到來)

① 초감각시대 도래(到來)

한 고개만 넘어가면 영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초감각적인 시대가 옵니다. 영통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구성을 습격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영인들이 습격합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습격하고 있지만, 선한 영들이 습격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닦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식을 대한 부모의 입장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리,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부정하더라도 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죽음길은 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혼자 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황량한 영계가 벌어지면 어디로 갈 겁니까? 국적이 없는 민족이 어디로 갑니까? 제일 무서운 세계가 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올 것이고, 거기에는 천사도 올 것입니다.

죽고 나서 눈을 번쩍 뜨고는 영계가 있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사탄이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야, 네가 앞장서라' 하며 이러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잠이 옵니까? 그것은 필연적인 길입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계에 가는 날에는 누구 누구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공자니, 석가니, 예수니, 그들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이래서 죽지 않았어요?' 하면, '그렇고 말구. 어쩌면 통일교회 선생님이 그런 것을 다 알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할런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친구지간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지만, 누가 이단인가 가 보면 알 겁니다. 그거 다 닦아 놓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영계에 갈 때는 말 그대로 대소동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거든 당장 기도해 봐서 알아보십시오. 이게 통일교회의 하나의 협박 같은 말입니다. 기도해 봤다가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판 틀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 내용이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기란 힘들지만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래요? 준비돼 있습니까? 죽게 될 때에는 '아이고 선생님, 내가 죽어서 영계에 가니까 부탁합니다' 하는데 그때 가서 준비 안 됩니다. 그 준비는 땅에서 해야 됩니다. (61-327, 1972.9.3) p.735

Top p.735

② 천승일 발표로 새로운 시대 진입

예수님을 중심삼고 보면, 예수님은 소생, 12 제자는 장성, 72 문도는 완성입니다. 3 단계입니다. 이것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본래는 이것을 해 놓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장가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족이 전부 다 믿게 될 때, 할아버지 할머니 · 아들딸 · 손자 3 대가 이리 맡고 저리 맡으면 3 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벌어지면 부모를 복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부모, 부모, 부모 수천 수만 대의 조상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땅에 재림할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는 시대가 됩니다. 지상의 조직이 영계의 조직까지도 편성합니다.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영계에서 얼마나 좋아하겠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승리의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영계의 승리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96-251, 1978.1.22)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선생님의 말씀과 더불어, 천승일인 10 월 4 일(1976 년)과 더불어 우리 선한 영들은 재림해서 이 지상에 있는 악한 후손들을 선한 당신의 품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소!'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이 가능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시대권 내에서 사는 것이요, 영인들은 천사세계권 내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천사가 협조해야 할 원리원칙 때문에 안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89-113, 1976.10.4) p.736

정신적인 세계가 얼마나 통일권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 하며 24 시간 기다리면 그 사람이 옵니다. 그게 실현됩니다. 집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향성 전파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신기와 같은 자기 마음 바탕이 있기 때문에 괜히 궁금하고 가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76-142, 1975.2.2) p.736

Top p.736

③ 통일식(統一式)과 영계 협조

오늘 부모님 탄신일(1976 년 음력 1 월 6 일)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번에 선생님이 돌아와 음력 2 월 초하룻날 뭘 했느냐 하면 '통일식(統一式)'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통일식이란 건 여러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입니다.

복귀의 노정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 개인완성하고, 가정완성하고, 종족완성하고, 국가완성하고, 세계완성하고, 이것이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지상에서 선생님이 개인기준을 중심삼고, 가정기준, 종족기준, 민족기준, 국가기준을 중심삼고 해왔지만 영계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영계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와도 연결 안 되어 있고, 통일교회 가정 중심삼고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길은 닦아 놓았지만 이 길을 중심삼고 영계와 연결시켜야 되고, 지상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의 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통일의 식이라는 건 언제 벌어지느냐? 지금 기독교가 세계적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삼고 발전해 나왔기 때문에, 세계적 기반이 닦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통일할 수 있지, 그 길이 닦아지지 않으면 통일의 기준을 연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국가적 기준을 중심삼고 세계기준까지 향할 뿐이지, 이걸 갖다 결정은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걸 고착시켜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미국 가서 닦은 기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와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한 세계적 기준을 중심삼고 이 영적기준이 세계기반에 연결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영계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계는 대한민국 영인이나 일본 영인이나 다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각국 나라 영인들이 자기 나라에만 연결돼 있지, 세계적인 한길로 몰아 가지고 '어디로 가라!' 하면 전체가 동원하게 안돼 있습니다. 지상에서 해결해 주기 전에는 영계에 이러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보게 되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과 전부 다 원수입니다. 국가 국가간에 얼마나 원수의 영들이 많습니까? 그 원수 영들이 전부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1975 년) 5 월 초하룻날 뭘 했느냐 하면 총해원식을 했습니다. 전체를 해방해 주고, 전체를 용서해 주는 해원식을 한 것입니다. 사탄까지도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총해원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원수로 대할 수 없고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 보게 된다면 사탄이 원수인데, 사탄까지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지 않듯이 그 이상 원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지상과 영계가 하나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이 영계하고 지상하고 갈라진 것이지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해와하고 갈라진 것이지요? 아담하고 해와 사이에 심정적 결렬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하고 영계하고 하나된 자리에 아담과 해와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을 중심삼고, 민족을 중심삼고, 국가를 중심삼고, 세계를 중심삼고, 초민족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구성형태가 벌어지면 세계적인 통일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중심삼고 개인기준을 닦았고, 가정기준을 닦았고, 종족기준을 닦았고, 민족기준을 닦았고, 국가기준을 닦아 세계로 왔기 때문에, 한국이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랴부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식을 해 놓고 보니, 금년 선생님의 생일은 역사적인 생일이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입장에서 영적세계에 있는 영인들이 저나라에 갔지만 참부모의 생일을 한 번도 못 맞아 봤습니다. 한 번 축하할래야 축하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에 있는 만민들, 세계에 있는 후손들이 참부모의 탄신을 축하할 수 있는 혜택권 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기준과 육적기준이 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육을 중심삼고 그러한 혜택권이 벌어져서 영계가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통해 복귀하지요? 그건 원리적 입장에서 선조는 천사장형이요, 후손은 아담형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아담 창조하는 일에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영계에 가 있는 선조들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아담을 창조하는 걸 협조할 수 있는 권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간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금번에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생일 축하하는 이날은 역사적인 하나의 기원을 마련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계에 간 수많은 영인들이 참부모의 탄신을 축하할 수 있는 동참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아직까지 통일교회를 모르는 후손들까지도 재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협조를 통해 하나님이 아담을 짓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조들을 동원해서 후손 아담과 같은 입장에 있는 지상 사람들을 재창조해 출발할 수 있는 시대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전세계 만민도 부모님의 탄신을 축하할 수 있는 혜택권 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83-109, 1976.2.5) p.738

Top p.738

④ 일심식(一心式)과 조상 협조

선생님 자신이 문중, 문씨 종중에서 종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제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중이 자진해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알기나 했어요? 만나기를 처음 만난 것입니다. 하여튼 인연이 되어 종씨 문중들이 선생님을 한국의 하나의 부모로서 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의 자리는 한국 백성에게만이 아닙니다. 본래는 인류 전체, 먼저 간 선조들에게까지도 참부모의 혈족으로서 천상세계 영계에 가야 할 것인데, 타락으로 전부 저끄러졌습니다. 아벨적 입장이 지상이기 때문에, 아벨들이 장자권 복귀해 가는 길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상이 장자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영계는 우리 움직임을 밀어 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확정지어 선포하는 식이 '일심식(一心式)'입니다.

여러분은 영계의 사실을 모르지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한 선조들이 종중 회장들을 통해 협조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엑스(X), 와이(Y)와 같이 지상에 연결됩니다. 타락한 세계는 지상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영계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영계가 이렇게 가려면 지상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쳐 나가느냐?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190-314, 1989.6.23) p.738

Top p.738

5) 재림부활과 영인 협조

① 과거 선인(先人)들의 영계 위치

역사적인 서러움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을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아들딸이 되기 위하여 싸우게 될 때 그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서러움은 우리의 일신에 있는 동시에 이 나라, 이 세계, 이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산짓고 하나님의 기쁨을 복귀해 드리는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중심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체휼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영계의 영인들을 동원하여 증거케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영계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 위에 그러한 사람이 호소하면 영인들을 동원하여 천국이념의 실현을 위한 지상의 일에 협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영인들이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원인은 이 땅이 탄식의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60, 1958.3.2) p.739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옛날 아담이 타락했던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고개를 넘어선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때요, 직접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직행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3 차 7 년노정이 되기 전의 역사와 3 차 7 년노정이 된 후의 역사는 판이한 것입니다. 3 차 7 년노정을 중심삼고 악의 세력은 내려가야 되고, 선의 세력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차 7 년노정은 영계와 육계가 교차하는 시기도 되는 것입니다.

영계를 중심삼고 보면, 악한 영이 있음과 동시에 중간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습니다. 소생-장성-완성 3 단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3 차 7 년노정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들이 지상에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생권 장성권이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판도권 내에 있는 악한 영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악한 사람이 세계를 전부 요리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영들이 교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차할 때는 영계가 내려오는데 악한 영부터 내려옵니다. 교차되는 때는 중간 영계를 넘어 선한 영계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이것이 넘어가는 날에는 선한 영들과 선한 사람들은 올라가고,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악이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교차하면서 뒤범벅으로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선과 악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75-193, 1975.1.5) p.739

영계에 가 보면, 옛날 신약상에 나타났던 훌륭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높은 곳에 갈 줄 알았더니 제일 비참한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광증에 걸려 천국을 위하여 자살한 것과 마찬가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순교는 안 했을망정 고생을 하면서 '나 하나 희생되어서 나라를 천국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천국가게 하겠다.'며 믿고 간 사람은 천국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뜯어고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그러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풍파가 생겼습니다. 이 풍파를 타파해 버리겠다는 것이 통일교회 사상입니다. 때려부수지 않아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때려부숴야 되느냐? 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저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때려부숴 가지고 구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64-110, 1972.10.29) p.739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는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전부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부모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부모를 따라가야 할 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우리를 협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협조하고, 가정적으로 협조하고, 종족적으로 협조하고, 민족적으로 협조하고, 한꺼번에 협조하여 통일운세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세계만 통일하게 되면 영계는 자동적으로 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영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선령보다도 악령들이 먼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인에게는 노이로제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악령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인간세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중심삼은 사상의 혼란시대가 오는 것과 더불어 영계의 악령들이 내려와 영육이 혼란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한 영들이 내려오게 되면, 악령들 주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땅 위에 내려와서 악령들을 헤치고 악령들이 점령한 땅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령들이 이 지구성을 점령하게 될 때는 악령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굴복하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탄이 지상에 와서 굴복하게 되면 악령까지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는 사탄까지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4-228, 1972.3.24) p.740

Top p.740

② 영계 동원과 협조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될 때에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바닷물을 다 메우고 산이 될 때까지 한정없이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정적으로 자란다 이겁니다. 몸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지만 심정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동네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책임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지어야 합니다. 그 길은 심정적이면서 영계와 영적인 인연을 맺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네를 내려다보면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력(共鳴力)이 들어가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동적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맙구나!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 옛날의 아담과 해와보다 낫구나!' 하는 감동을 받아 눈물지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영계와 안 통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으로서 하늘을 배반한 후손인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야 영계가 협조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영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영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이하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96-282, 1978.2.13) p.741

여러분은 영계 가는 게 좋습니까? 지상의 여러분이 영계에 가겠다는 마음과 영계의 사람들이 지상에 재림하겠다는 마음 중에 어느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더 열렬해야 되겠습니까, 영계가 더 열렬해야 되겠습니까? 영계는 천사장 세계이고, 여기는 아담과 해와의 세계, 아들딸의 세계입니다. 아들딸이 더 열렬해야지 종이 더 열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계를 협조하게 돼 있습니까, 영계가 여러분들을 협조하게 돼 있습니까? 영인들이 협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느냐? 지상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데 협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먹고 잘살게 하는 데 협조하겠습니까? 지상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데 협조하는 것입니다. (161-227, 1987.2.15) p.741

영계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습니까? 형성 못 합니다. 천국은 참부모로부터 시작되게 돼 있지, 지금까지의 타락한 후손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전부 다 지상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부활원리가 그렇지요? 부활원리가 그냥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야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2-115, 1987.3.30) p.741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못살게 하고 다 고생시키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을 살려 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고생을 시킨다는 걸 알고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심정세계, 새로운 심정세계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정적 유대를 가져야 하늘의 명령이면 그저 어디든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세계를 끌고 가는 기관차 같은 책임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영계가 협조합니다. 그런 생각 하면 영계가 틀림없이 협조합니다. (96-279, 1978.2.13) p.741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 통일교회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게 된다면, 국가적인 운세를 따라서 움직였던 영계에 있는 선한 영인들이나 선조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보기에 얼굴이 납작하고 귀가 쑥 들어가서 박복하게 보이지만 영계에서는 여러분들을 복동이로 압니다. 더욱이 10 대권 내에 있는 선조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귀역사는 10 대를 중심삼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악한 후손이 나타나면 10 대권 내에 있는 선조들이 '이 녀석아! 네가 우리를 망치려 하는구나.' 하며 심판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선한 조상을 가진 후손이 여기에 있으면 선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여러분이 신나고 멋지게 싸워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의 전적을 세울 때에 영계에서는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면 잡신이 나오다가도 놀라 자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조들은 여러분을 상감마마 모시듯이 모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전통을 더럽힐소냐! 하나님의 위신을 더럽힐소냐!' 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전통을 세울 것이냐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복된 때입니다. (14-20, 1964.4.19) p.742

Top p.742

③ 영계와 조상

선생님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선조가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압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선조가 있어서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선조가 있어서 지지리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하러 임지에 나가서도 지지리 고생만 합니다. (37-144, 1970.12.23) p.742

내 성격의 짧은 면을 메우기 위해서는 간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체험담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말한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사탄 편이 되든가 하늘 편이 되든가 둘 중의 하나의 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판했다 할 때는 사탄 편이 되든가 하늘 편이 되든가 둘 중의 하나로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내가 발전하는 데 암(癌)입니다. 사탄 편이 됐던 녀석이 하나님 편에 갈 수 없고 하나님 편이 됐던 녀석이 사탄 편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직행을 못 합니다. 지그재그로 간다는 것입니다.

선조도 선한 선조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선조들도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 자체가 소성적으로 볼 때 선한 선조의 소성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가지만, 악한 선조의 소성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비판했다가는 큰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다 그런 이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76-139, 1975.2.2) p.742

참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이 잔치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계에 수천 조상들이 있더라도 한눈에 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참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길은 사랑의 길에만 있다는 참사랑을 가진 사람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전부 다 기뻐하지 반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가 환영합니다. 저나라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늘세계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늘세계에서 호흡할 수 있고 박자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춤추는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자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이제 영계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선생님 뒤엔 사탄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147-116, 1986.8.31) p.743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정신을 통해 하나돼야 됩니다. 인간이 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주체에서부터 동기가 되어 과정적 인간 육체까지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연결시켜 나와야 완전한 통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한 통합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영계에서 제동을 걸고, 가르쳐 주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수습해 나가는 배경이 확실한 현실생활권 내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인 한 사람을 중심삼고 볼 때, 몸은 정신을 중심삼고 조상들이 전부 다 뿌리가 돼 있습니다. 선한 조상들이 전부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조상들은 몸이 악한 세계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선한 세계로 갈 수 있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162-104, 1987.3.30) p.74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땅에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참된 부모와 참된 가정과 참된 사회와 참된 국가와 참된 세계가 되었더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겠느냐? 그런 세상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보면 참되지 못한 동기를 지니고 출발하여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가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일생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사람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기는 좋은데 큰일났습니다. 사람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영계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 아담에서부터 몇천 년 전까지의 조상들을 다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159-277, 1968.5.19) p.743

영계를 가게 되면 수많은 선지선열들과 수많은 선조들과 만나 공론하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서 왔소? 지구성 어디요? 어느 나라요? 어디요?'라고 묻고 회상하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끼리 만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옛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계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종지 할아버지, 수천 수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놈의 자식아, 어떻게 살았어?'하고 반말할 때 기분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48-321, 1986.10.26) p.743

Top p.743

④ 영인들의 소원

우리 무니들이 '아이고, 어떻게 내 일생에 부모님을 한번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을까?'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저나라와 박자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무엇을 하나 먹어 주는 것을 안 보고 싶겠어요? 영인들이 여러분보다 더 열심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영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반대로 저세계는 확실히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인들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관 전부는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자극적인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때는 선생님한테 연결되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01-98, 1990.11.1) p.744

Top p.744

⑤ 재림부활과 중생

㉮ 재림부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선한 조상들이 영형체급 영계에서 생명체급 영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조상들도 지상 위에 있는 여러분을 조건으로 하여 재림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권 내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뜻을 알고 승리의 가지가 되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을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수천 대의 선한 조상들이 재림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영계에서 조건적으로 생명체급 부활을 위한 협조를 한 시대였으나, 이제는 영계가 무조건적으로 생령체급 부활을 위한 협조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계에서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14-22, 1964.4.19) p.744

세계가 선생님을 반대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통일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를 가려 나온 것은 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천지의 도리를 따라 높은 줄을 하나님에게 매었는데, 그 줄을 가지고 잡아채려니 걸리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싸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 교회 싸움으로 벌어졌고, 나라 싸움으로 벌어졌고, 망국지노정으로 탈락해 버렸습니다. 통일교회를 반대하던 기성교회와의 싸움, 통일교회 반대하는 정당과의 싸움, 통일교회 반대하는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와의 싸움에서 전부 다 쓰러뜨린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높은 데서 줄을 달아 놓으니까, 여기서 걸려 있는 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자기 힘 가지고 끊어지나요? 통일교회를 끊을 수 있습니까? 철학이건 종교건 영계를 통하든 이론적으로 우리를 못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일입니다. 미국에 영통인협회가 있는데 거기의 우두머리 되는 아서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시아에 레버런 문이라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우리 선교사가 가서 선교할 때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영계와 통하는 사람에게 원리책을 갖다 주면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보시오. 일주일 후에 오겠습니다.' 해놓고, 일주일 후에 가면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게 돼 있었습니다. (208-195, 1990.11.18) p.745

우리는 영계가 굴복할 수 있는 이론적 체제와 실전적 기대를 중심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리는 식이 오늘 아침 경배식(1990 년 11 월 17 일, 제 31 회 자녀의 날)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기도한 내용은 때가 다 되었으니 지금까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거꾸로 흐르던 조류가 바로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장자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차자들과 지금의 모든 차자들은 하늘의 치리권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 이후의 차자권 시대에는 악마의 활동무대를 천법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계에 간 모든 영들이 지금까지 지상 위의 아벨권을 이용했습니다. 장자가 차자를 죽여 제물로 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장자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영계까지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협조해야 자기들이 복 받게 되어 있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자꾸 구렁텅이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천운이 급변해 들어갑니다. 앞으로 집집마다 선생님의 사진을 걸려고 야단할 것입니다. 영계에서 자기 조상이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걸고, 선생님 사진을 걸고, 그 앞에 매일같이 인사하는 사람은 자기 조상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역사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삼고 절대복종하라고 하는 교육 같아서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잡된 영계를 통하는 영인들은 통일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석가모니, 예수, 공자, 마호메트도 통일교회에 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천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이 말하는 종교는 부모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208-154, 1990.11.17) p.745

Top p.745

㉯ 중생론에 대한 답변

아시아에서 말하는 것은 중생론이 아니고 윤회설입니다. 윤회설은 불교사상입니다. 그것은 재림현상을 그 한때만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지상의 인간을 통해 자신이 혜택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인들의 요구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래의 사람은 천사세계와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가치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몇 단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데도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단계를 거쳐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복귀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이 세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찾아가는 데는 한꺼번에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를 개척하면서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종족으로, 종족에서 민족으로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보면 구약시대, 즉 개인을 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섭리시대 이전에 죽은 영인(靈人)들은 그 시대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탕감이 벌어집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인 아벨의 경우와 같은 탕감역사가 반드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영인이 이 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여기까지 협조해 왔더라도 한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탕감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7 년이라든가 40 년, 70 년, 혹은 몇 세기를 거쳐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협조하던 영인은 그 탕감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영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인은 지상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기반을 다 닦아 주기를 바라는데, 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탕감을 못 하고 죽게 되면 그 영인은 제 2 차로 을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을에게 재림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재림하는 영인은 갑에게 재림했던 영인인 것입니다.

그 영인이 바울이라면, 바울이 시대적으로 단계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 1 차로 재림했던 갑이라는 사람이 탕감기간 내에 탕감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제 2 차로 을이라는 사람에게 재림하여 협조해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탕감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탕감기간은 원리적인 기간을 중심삼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2 차로 택한 을이라는 사람이 탕감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병이라는 사람을 취해 가지고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병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재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을이 어떤 글을 써 놓든가 무엇을 하게 되면 '나는 바울 영의 협조를 받아 지금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글을 쓰게 되면, 그도 역시 '바울 영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역사한다. 내가 바울이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은 전세계에 바울의 영이 을에게 나타나고 다시 병에게 나타난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을 보고서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인카네이션(reincarnation) 현상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천주시대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래의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주관권 내에서 살아야 할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권에 살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탕감하고 가정으로 탕감해야 합니다. 이것을 탕감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인은 반드시 그 시대시대마다 재림현상을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단계 단계가 윤회, 즉 환생하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믿다가 죽게 되면 가정을 못 가졌기 때문에 가정기준, 종족기준, 민족기준, 국가기준, 세계기준 등 단계를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억만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에 해당합니다. 예수님도 나라의 기준을 못 넘었기 때문에, 나라의 고개를 넘기 위해서 다시 와서 나라의 고개를 넘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낙원에 있는데,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어떤 사람에게 재림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지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임재한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될 때는 옛날의 예수님이 자기로 환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회설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선주권 내에서 살아야 할 텐데, 타락권 내에 살기 때문에 악주권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영적으로 그 일을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교회의 부활론은 영계의 사실과 그대로 들어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회의 부활론은 영계의 공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미지의 영계의 사실을 체험은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 자체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원리를 배우지 마십시오. 이 원리 자체를 찾기에도 힘이 들지만, 이것을 실천하여 승리의 터전을 만들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가정의 내용을 알고, 아브라함 가정의 내용을 알고, 야곱 가정의 내용을 알고, 모세 시대의 내용을 알고, 세례 요한의 내용과 예수시대의 내용을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을 알아 가지고 전부 다 탕감시켜서 복귀한 승리의 터전을 갖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터전이 갖추어지게 될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탄에게 졌던 것을 이긴 입장으로 복귀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섭리를 담당해 나온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모세 같은 양반들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개인으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되고, 가정으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되고, 종족으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되고, 민족으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되고, 국가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앞으로 올 그 세계를 찾을 때까지 전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대표자입니다. 실천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나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시대를 중심삼고 완성할 때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개인, 가정, 종족, 민족시대의 혜택을 입고 국가시대와 더불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시대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를 맞이하여

[텍스트 입력]

가정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계에 있는 영인들과 마찬가지로 육계에서 탕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시대에서 종족시대로 올라갈 때에도 탕감노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통일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탕감을 많이 했다는 말이 됩니다. 오래 되었을수록 선생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국가시대까지 찾아 올라가는 데는 종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국가체제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될 때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계의 현상이란, 아무리 높은 단계까지 올라와 역사하더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탕감이란 가고자 하는 데 대해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떨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4천 년 동안 준비해 나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한 기대가 왕창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류 섭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방계적으로도 세계의 수많은 민족을 중심삼고 이러한 작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탕감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류로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것을 따라 전세계적으로 어떤 것은 다른 입장에서 탕감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탕감을 해 가지고 수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많은 희생을 해 나오면서 복귀의 노정을 가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영인이나 종교인이 최고 선의 기준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다시 말하면 국가기준을 넘어 어떻게 자리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는 그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탕감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만약 국민이 아직 탕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하나되면 탕감기간이 짧습니다. 만일 메시아와 더불어 나라가 자리잡으면, 모든 개인은 전부 여기에 적용됩니다. 국가가 탕감을 했다면 가정은 가정대로 세계적으로 되고, 종족은 종족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그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국가를 찾으면 세계복귀가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를 세워 놓아야만 낙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가기 위한 대합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 노아 · 아브라함 · 야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귀해 나오는 데서 잘못된 것이 남아졌으면 그것을 전부 탕감해야 됩니다. 탕감하지 않으면 횡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만 있으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독일 사람 외의, 외국 사람들은 독일 정부의 간섭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잘못하게 되면 내쫓기는 것입니다. 내쫓길 때 자기 국가가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여 버린다 하더라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세계에서 우리는 그들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이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고 못살게 굴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추방하더라도 혹은 죽이더라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라를 찾아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찾아가는 데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까지 탕감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탕감노정과 가정적인 탕감노정, 종족 민족적인 탕감노정을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계로 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도 중심된 국가를 통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가를 복귀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땅 위에 재림해 가지고는 개인을 후원하고 가정을 후원할 수 있을 뿐이지 당당하게 권세 있는 후원은 못 합니다. 사탄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생겨나야 여러분은 입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적했습니까? 여러분은 통일교회에는 입적했지만,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입적을 못 했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도 그 나라의 사람을 어떻게 협조하느냐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나라만 있게 되면 재림현상은 횡적으로 벌어집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횡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면 수고한 터전이 남습니다. 그 나라를 찾아 올라갈 때는 아무리 탕감을 해놓았더라도 무너지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이 밑창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다가도 무너지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것을 횡적인 기준에서 할 때는 자기의 실적은 횡적으로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귀해 올라갈 때는 탕감해서 없어지는 시대이지만, 나라를 찾고서 횡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탕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남아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54-227, 1972.3.24) p.750

Top p.750

제 6 권

인간의 삶과 영혼의 세계

제 1 장 인생이 가야 할 길

1) 우리들의 인생길 · · ·

[텍스트 입력]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태어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나기는 했으되 무슨 동기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나를 낳게 한 동기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나기는 났으되 내가 나고자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살기는 살되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죽기는 죽되 내가 죽고자 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들어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자기 자신이 나고 싶어 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갖고 살지도 못하고, 죽음길을 피할 수도 없는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해 보아야 처량할 뿐입니다. 났으니 살아야 할 운명이요, 또 그렇게 살다 가야 할 운명입니다. (7-178, 1959,9.6) p.755

지금 우리는 알든 모르든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시간에도 가고 있는 것이요, 쉬고 있는 시간에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나뿐이 아니고 이 민족, 혹은 이 세계, 더 나아가 하늘과 땅까지도 어떠한 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일생을 거친 후에 나는 어떠한 곳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학도 역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이런 운세에 사로잡혀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8-194, 1959.12.20) p.756

가는 걸음을 붙잡아 놓고, 움직이는 마음과 기울어지는 심정을 막아 놓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물어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 나오는 사람들이 성현 현철이요, 혹은 수많은 도주(道主)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이날까지 '내 몸과 내 마음, 내 심정, 내 생명과 내 이념은 이런 곳을 향하여 달렸노라. 그러니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민, 혹은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이곳으로 가라!'고 자신있게 명령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8-194, 1959.12.20) p.756

오늘날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7,80 년 밖에 없습니다. 7,80 년 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생애노정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헝클어진 모든 선의 권을 전부 다 수습하려면 억천만 년 걸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짧은 7,80 년 이 기간에 있어서 선한 권을 인연맺어야 할 것이 그렇게 방대하다는 것을 아는 이 마음, 양심은 얼마나 재촉하겠나 말입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못 하는 겁니다. 살아 있는 동안 인연맺고 땅 위에서 조국 광복을 하고, 본향 땅을 찾아 하늘 주권자를 모시고, 그의 백성과 그 나라에서 살다 가야만 천상천국에 갈 텐데, 그 세계를 가지 못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이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느냐 말입니다. (155-27, 1964.10.6) p.756

어차피 가야 할 내 자신이라 할진대, 이 몸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마음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또 이 생명은 어디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으며 내 심정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내 소원 혹은 소망과 이념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날 이 몸은 흙에 묻힘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묻히는 그날이 마음도, 이 생명도, 이 심정도, 이 이념도, 혹은 소원까지도 같이 묻혀 버리고 말 것인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인가? 여기에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해결점과 확실한 목적관을 세워 놓지 않는 한, 이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8-194, 1959.12.20) p.756

우리는 무엇을 중심삼고 태어났으며, 무엇을 중심삼고 가야 될 것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동기 없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거두어 질 수 없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자가 설계한 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설계의 원본도 없이 지어진 건축물은 설계자가 목적한 건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1-100, 1968.11.17) p.757

출발을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대해(大海)를 항해하더라도 출발한 항구에서부터 나침반을 중심삼고,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성을 그려 놓고야 가는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이 출발한 항구가 어디냐? 모르고 있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피안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를 그려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꼬불꼬불 제멋대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제아무리 해봤댔자 인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172-28, 1988.1.3) p.757

Top p.757

②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기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니 목적도 나만의 것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한 자리를 싫어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호화찬란한 자리에서 살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남아지고 싶은 나입니다. 이런 심정의 교차점을 지닌 나라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가 왔다는 사실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은 다 여기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새로운 사랑을 중심삼은 새로운 주의와 사상, 그리고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겨울 절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겨울 절기를 통과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통과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봄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35-68, 1970.10.3) p.757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영계는 두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그 곳이 어디냐? 우리는 육신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10 대, 20 대, 30 대를 지나 청춘시대를 지나 가지고 장년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점 한 고개를 넘어서 그 다음엔 노년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는 해와 같이 일생을 끝마칩니다. (140-121, 1986.2.9) p.757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일생이라는 것이 잠깐이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생 기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140-121, 1986.2.9) p.758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영계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영계는 바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겁니다. 바다에 흐름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조화무쌍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주류의 흐름을 중심삼아 가지고 담수에는 없는 조화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수많은 어족이 있듯이 거기에는 수많은 새로운 천지가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라에 가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141-306, 1986.3.2) p.758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그뿐만 아니라 기르던 개새끼는 어디로?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피난갈 때, 이북에서 상당히 잘 사는 부잣집인데, 상당히 비싼 개라고 자랑하던 그런 개인데 피난간다 하니까 개를 떡 문에다 매놓고는 '야! 잘 있거라. 나만 갔다 올게!' 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도 천국으로, 모든 만물도 천국으로, 주인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8-336, 1975.6.10) p.758

영계와 육계, 인간의 착잡한 사상계의 모든 복잡한 것을 전부 타개해 놓고, 이렇게 단조롭고 간단한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어 가지고 뚜렷한 하나의 가치관을 내가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단계 단계마다 내가 분립되지 않습니다. 단계가 발전하면 발전한 만큼 힘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동력이 내 생활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나서 사랑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받고 사랑하다가 사랑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원인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러니 하나님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사선(死線)을 넘어서라도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모셔 놓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날, 내 마음세계에서 '이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어려움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분함을 참으면서 이 세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넘어갈 자신이 못 되어 있는 한, 세계와 더불어 사라질 것입니다. (8-202, 1959.12.20) p.758

왜 인간이 이렇게 어영부영 살면서 죽기를 싫어하고, '왜 살아야 돼? 근원이 어떻게 돼서?' 등등의 의문이 많지요? 그 모든 의문은 인간의 철학 서적만을 통해서는 해결 못합니다. 철학이라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길을 개발한 겁니다.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186-12, 1989.1.24) p.758

영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암만 잘난 사람도 그 원칙에 맞게끔 이 땅위에 살아 가지고 일체이상, 균형적인 평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상대적 평면입니다. 균형을 취해 가지고 도는데 90 도를 중심삼고 걸리지 않고 수평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360 도를 돌면서도 여기서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이 조금만 뭐라 해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데 돌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지닌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본격적인 재검토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검토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본연의 시대입니다. (271-277, 1995.8.28) p.759

생명권?사랑권?혈통권의 타락, 전세계가 걸려 있는 그것이 같은 조건과 같은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공식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권의, 자기 육체가 요구하는 전체를 포기하고 양심권이 원하는 곳으로 백퍼센트 이동하면 지상천국권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지상천국세계와 천상천국세계를 경계없이 무한대로 통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걸 인간은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얽혀진 배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모르고 살다가 영계에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58-343, 1994.3.20) p.758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한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연기가 사라져 버리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계에 가게 마련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208-109, 1990.11.17) p.758

영계가 있다면 영계가 이랬다저랬다 변할 것 같소? '인심(人心)은 조석변(朝夕變)이요, 산색(山色)은 고금동(古今同)'이란 말도 있지만 영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변하겠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리하는 영계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억천만세 정한 법에 따라 살면서도 불평불만을 느끼지 않고 순응과 순화의 도리를 따라서 엄연히 존속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혁명가가 필요없습니다. 혁명을 했다가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203-326, 1990.6.28) p.759

여러분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구성이 가나안 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외적 세계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지구촌시대라는 게 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앉아서도 천상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상대권의 인공위성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영계에 컴퓨터가 있어서 일생의 모든 기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알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지상지옥 팽창주의 시대에서 지상천국 출발시대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266-296, 1995.11.1) p.76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먹을 것을 돈주고 사 먹었겠어요? 전부 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영계 가서 살 때도 모든 환경적 여건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한한 가치를 거저 주었기 때문에, 영계에 가더라도 무한한 가치의 존재가 전부 다 자연적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영계는 하나님이 사시는 본향 땅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고 사 먹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가능한 보급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본래의 타락하지 않은 후손들이라면 영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263-78, 1994.8.21) p.760

왜 본향을 그리워 하느냐? 부모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그 땅에 대한 사랑, 고향 산천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나라에서도 참사랑이라는 똑같은 공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훌륭한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도 보이는 음식과 보이지 않는 음식이 합해져야 진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고향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찬 영계를 상속받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225-135, 1992.1.5) p.760

고향이란 제한된 이곳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나 고향에서 사는 것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일생을 그립던 고향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4 천만을 중심삼고 화합해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저나라에 가면 영적인 인격의 가치가 커집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고향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영계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인격을 갖춰 가지고 부모와 같이, 형님과 같이, 누나와 같이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과 생명을 투입해 가지고 아들딸들을 키워서 더 훌륭한 후손을 고향 땅에 남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저 영계에 가게 되면, 전부가 내 고향 땅이 되는 것입니다. (209-17, 1990.11.24)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천의(天意)의 길을 따라가자 이겁니다. 천의가 뭐냐? 천의에는 개인이 가야 할 천의의 길이 있고, 가정이 가야 할 천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영계까지…. 여러분은 영계를 모르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여기에 선 이 사람입니다. 영계는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121-146, 1982.10.24) p.760

Top p.760

③ 일생은 영계로 가는 준비기간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 세계의 섭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지 않기를 바라지요? 죽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자연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영계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247-95, 1993.4.25) p.761

영계가 우리의 고향 땅입니다. 본연의 고향 땅입니다. 이 땅은 본연의 몸뚱이의 고향 땅이고, 영계는 본연의 마음의 고향 땅인 것입니다. 이 다음에 가는 곳이 마음의 세계, 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훈련을 해야만 거기에 가도 지장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먹어야 되고, 치즈를 먹어야 되지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고 고추장을 먹어야 됩니다. 영계에도 햄버거가 있고, 김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에 박자를 맞추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저나라에 가서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영계에 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계에 가면 사랑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생활해야 거기서도 자유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생활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없습니다. 영계는 사랑을 호흡하는 세계입니다. 사랑이 공기와 같은 세계라고 자유롭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 2 의 새로운 출발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249-280, 1993.10.11) p.76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가 고향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준을 지상에서 맞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상생활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세상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영계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계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95-120, 1998.8.19) p.761

영계는 사랑의 공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영인체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여기는 공기로 되어 있지만, 저세계는 사랑의 영계입니다. 여러분의 영인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몇천만 년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265-327, 1994.12.1) p.761

여러분은 본연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는 사랑이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사랑화 될 수 있는 것을 체험해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세포가 전부 다 숨쉬지요? 사랑의 세포를 전부 다 어디서 길러 가느냐 하면, 참다운 부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길러 가지고 하나님 세계에 가 사랑의 공기를 영원히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사랑이 근본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실천궁행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전부 만들고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283-267, 1992.4.11) p.762

염수(鹽水)와 담수(淡水)는 뭐가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염수는 짜고, 담수는 아무 맛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계에 가면 맛이 있는 겁니다. 물은 생명을 수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소금은 생명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229-90, 1992.4.11) p.762

물은 바다 깊은 물에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큰 강에 있는 단물(민물)이라 하더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짠물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는 유명한 강물이라고 할지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지체없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색깔과 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전부 다 영계로 가는 것입니다. 담수(淡水)에서 살던 그것이 그냥 통하질 않습니다. 바닷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살아가면서 소금물을 가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계에 가서 상충이 없는 겁니다. 만일 민물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인간도 그대로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244-178, 1993.2.7) p.762

강물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바닷물과 강물은 다릅니다. 지상은 강물과 마찬가지이며, 영계는 바닷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상에서 살았다가 영계에 다 들어갑니다. 민물과 소금물이 섞였을 경우에는, 민물고기는 소금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민물고기는 소금물에서는 죽어버립니다.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 져야 합니다. 물의 색깔도 같고 온도도 같았을 경우에는 어디 있는 물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세계와 영계의 세계가 갑자기 연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물고기가 소금물을 만나 죽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호흡해요? 연어가 소금물에서 민물로 올라가는 데에는 2주일의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익숙하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호흡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면서 보조를 맞추어서 이동해 갑니다. (256-61, 1994.3.12) p.762

바다로 들어갈 때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아,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할까요? 모두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다들 '영계로 가지.' 그러겠지요? 그러면 그 영계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죽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강물이 흘러서 드디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바닷물을 뒤집어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기분 좋다!' 그러겠어요? 모든 것이 작아져 버린 듯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소되어 버렸다고나 할까….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되어버린 듯한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29-209, 1992.4.12) p.763

영계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가야 되지요? 여기에서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아무리 칼을 테이블 위에 꽂아 놓고 맹세하더라도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계에 갑니다. 거기는 큰 강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강이라고 하더라도 흘러가서 전부 다 바다로 가는 겁니다. '바다에 갈 수 없다. 바다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살아 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229-88, 1992.4.11) p.763

우리가 영계에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하고 우리 생활을 한번 쭉 반성해 보게 될 때,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영계는 어차피 가야 할 세계인데, 미지의 세계라는 겁니다. 무한 확대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선조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조상들을 쭉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맞게 될 때 평가하는 것입니다. (142-160, 1986.3.9) p.763

준비라는 것은 쉬운 준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두고 볼 때에, 소년시대는 청년시대를 위한 준비시대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장래성이 있는 겁니다. 장년시대는 노년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노년시대는 영계에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생 자체는 대우주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 하나의 훈련과정을 거치고 있는 수련기간이요, 준비기간이다 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147-188, 1986.9.21) p.763

지금은 비자라든가 국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언어만 통일되면 어디든지 내 고향과 같이, 내 나라와 같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나 미국이나 전부 한집안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텔레비전 같은 것도 지갑같이 조그만 것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포켓에 들어가는 조그만 텔레비전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중심삼고 어디 가든지 전부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약된 작은 세계가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생활이 편리하게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것들을 차 하나에 전부 다 싣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을 떠나 가지고 70,80 세까지 세계일주를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틀림없이 옵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8-361, 1992.11.22) p.763

Top p.763

④ 생애는 너무 짧다

인간의 일생은 매우 짧습니다. 일생에서 10 년이 언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 30 년 이내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다 죽어야지요. 안 죽겠어요? 안 죽을 자신 있어요? 죽어야지요? 죽으면 어디로 갈래요? 영계가 있는 거 알아요? 선생님은 영계 때문에, 영계를 알기 때문에 일생을 다 걸고 이 놀음을 하는 겁니다. 세계를 전부 다 요리하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10 개월 복중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143-333, 1986.3.21) p.763

통일교회는 그 영계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는 영계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합격할 것이냐, 불완전하게 합격할 것이냐 이겁니다. 또, 낙제생이 되어 불합격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영계에 갈 준비를 지상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상이라는 곳은 나그네의 여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자로서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자라서 남자를 만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사랑을 통해 아이도 낳게 됩니다. 마치 힘들게 마차를 끌고 가는 것같이 그런 일을 해나가면서 힘들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가 언제 고장이 날 지 모릅니다. 험한 바윗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할 능력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힘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여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관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들를 곳도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결국은 영계인 것입니다. (229-209, 1992.4.12) p.764

일생이라는 건 정말 빠릅니다. 철들어 가지고 세상 물정 알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사십이고, 오십이고 뭐 10년은 잠깐입니다. 10년이면 육십 잠깐이고, 육십 되면 칠십 잠깐이고,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 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139-153, 1986.1.31) p.764

우리 생의 일대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일대가 영원의 척도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울과 마찬가지로 오르락 내리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6-155, 1986.1.31) p.764

여러분들이 한 80살 살았다고 합시다. 그 가운데 밤에 자는 시간을 제하고 나면 40년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는 것도 사는 건가요? 자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자는 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다면 24시간 가운데 살겠다고 허덕이는 시간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밥먹는 시간을 한 시간씩 빼 버리고 나면 어때요? 밥먹는 시간은 한 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친구 잔칫날, 이웃 동네 어른의 환갑날, 누구 죽은 날, 장사지내는 날, 병들어 누워 있는 날, 별의별 날을 다 제하고 나면 일생에서 산다고 하는 날이 절반이나 될 것 같아요? 요전에 계산하고 보니까 산다고 하는 것이 7년이 나와요, 7년. 그 7년 가운데 진정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나오느냐 말입니다. 며칠은 무슨 며칠입니까? (49-336, 1971.10.24) p.765

이 육신세계는 짧은 기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밥 먹는 것도 가면서 먹는 겁니다. 자는 것도 가면서 자고, 노는 것도 가면서 놀고…. 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럴수록 세계의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80-226, 1975.10.23) p.765

사람의 운은 고무줄과 같아서 늘거나 줄거나 합니다. 자기가 운을 100만큼 타고났는데 120만큼 살고 가는 사람은 후손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80만큼 살고 간다면 20만큼의 복을 남겨 가지고, 그 운세를 후손 앞에 상속해 주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78-333, 1975.6.10) p.765

Top p.765

2)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죽음은 인생 필연의 길

한 7,80년 살았으면 됐지, 죽어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죽는 것을 끝장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노정을 통해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을 품은 사람일수록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은 왜 왔다가 나그네같이 가느냐?' 하며, '인생은 고해'니 '초로(草露)의 인생'이니 하는 말을 하였지만, 영생할 수만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9-229, 1971.1.15) p.76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는 걸음을 붙잡아 놓고, 움직이는 마음과 기울어지는 심정을 막아 놓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물어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 나오는 사람들이 성현 현철이요, 혹은 수많은 도주(道主)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이날까지 '내 몸은 이러한 곳으로 갔으며, 내 마음과 내 심정, 내 생명과 내 이념은 이런 곳을 향하여 달렸노라. 그러니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민, 혹은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이곳으로 가라!'고 자신있게 명령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8-194, 1959.12.20) p.766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래요, 무형의 사랑의 실체가 된 곳에서 영원히 살래요? 하나님이 무한한 창조세계를 보여 주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은 이 몸뚱이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인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망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의 중심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상대적 존재를 필요로 한다면, 인간을 데려다 자기가 창조한 영원한 그 모든 이상권을 전부 다 보여주고 싶고, 주고 싶을 것입니다. (111-112, 1981.2.1) p.766

하나밖에 없는 옷을 입었는데, 이걸 누가 벗기려고 하면 죽어도 안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춘하추동 사시사철의 옷을 떡 해 놓고, 지금은 봄인데 겨울옷을 입었으면 '이건 겨울옷이야, 벗어.' 이제 봄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여름옷을 갖다 놓고 벗으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200-91, 1990.2.24) p.766

하늘은 인간적인 소망을 중심삼고 살고 있는 지상의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고 죽음의 고개도 넘을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흠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한히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땅 위의 소망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꿈꾸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6-44, 1959.3.22) p.766

여러분 모두 다 영계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한 나라예요, 두 나라예요?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 생활하는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물세계의 고기는 물의 세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강물에 사는 고기가 강물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에도 왔다갔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담수의 고기는 해수와 접하는 그 물을 맛보지 않고는 새끼를 못 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것은 반드시 담수에 와서 맛을 보아야 새끼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세계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 마음도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해야 됩니다. (210-128, 1990.12.17) p.766

죽음의 길은 친구도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없는 길이요, 사랑하는 형제도 없는 길이요,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자녀도 없는 길입니다. 오로지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볼 수도 없고, 갔다가 올 수도 없는 길,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인데, 이 길을 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갈 것인가. 여러분이 죽음에 봉착하는 순간 그 죽음을 넘어 설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거기에서 마지막입니다. (6-53, 1959.3.22) p.766

우리 한국말 중에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안 계시느냐고 물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지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영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래 무형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본연의 고향이 무형의 세계입니다. 무형의 세계에서부터 유형의 세계를 거쳐 땅 위에서 번성을 해 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무형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형의 아버지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유형의 아버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서 살다가 유형세계의 몸은 벗어 놓고 본연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242-166, 1993.1.1) p.766

인간은 남자 여자가 모두 오관(五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머리에 사관(四官)이 있습니다. 눈·코·입·귀·손, 이래서 오관이지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에 있습니다. 이 머리에 있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계를 상징합니다. 육체와는 별개의 세계지요? 그 머리는 마음대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왜 돌아가느냐 하면 사방을 보기 위해서, 사방을 듣기 위해서, 사방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사방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될 겁니다. (228-125, 1992.3.27) p.767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이 지상에 살게 될 때, 제 3 세계인 본연의 세계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세계에 있어서 호흡기관과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육신을 터뜨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전부 다 아기집을 터뜨리고 파괴시키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고의 고통을 받지요? 마찬가지로 제 2 산고의 고통이 죽음입니다.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물 안에서 공기와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숨의 기관을 준비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육신 세상에서 준비할 것은 영계에 가 가지고 사랑 기관을 중심삼고 호흡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몸뚱이를 전부 터뜨리고 나가게 된다면 사랑 기관을 중심삼고 호흡해 가지고 제한적 환경에 살던 것을 넘어 무제한으로 자유분방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74-104, 1995.10.29) p.767

나도 하나님 닮고 싶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닮게 하고 싶다는 관념을 갖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고 싶은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닮을 수 있는 체(體)를 입고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날을 하나님도 고대할 것이고, 인간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날, 그런 몸뚱이로 태어나는 날, 그거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죽음을 환영해야 되나요, 환영하지 말아야 되나요? 죽는 데는 뭣 때문에 죽을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위해서 죽겠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벗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권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위해서다 이겁니다. (116-172, 1982.1.1) p.768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죽는 것인데 인간세계에서는 '아이구, 죽는다!' 하고 야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껄껄 웃겠어요, '우-' 하겠어요? 인간세계에서는 울고불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볼 때 슬퍼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제한된 사랑권 내에서 무제한의 사랑권 내로 돌입할 수 있는 기쁨을 맞을 수 있는 순간이 제 2 의 출생의 순간인 죽음길을 통하는 그 순간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죽는 날을 기뻐하겠어요, 제 2 의 무한 확대 세계의 사랑을 위해서 활동할 아들로 태어나는 그 시간을 기뻐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탈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116-172, 1982.1.1) p.768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태어나는 날에는…. 저 무한한 별 가운데 다이아몬드 별 세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갖고 싶지요? 금만으로 된 별이 없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무한한 이 우주를 순식간에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관심 있어요? 진짜 관심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그 법도를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하지, 내 맘대로 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주체이고 몸뚱이는 상대니 몸과 마음이 하나되라! 맞아요, 틀려요? (116-172, 1982.1.1) p.768

하나님의 한이 뭐냐? 참아들딸을 심정적 완성자로 교육하지 못했고, 형제적 심정을 교육 못했고, 부부의 심정을 교육 못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부부가 이래야 된다는 그 심정적 기준에서 교육을 못했고, 부부가 되어 어머니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교육을 못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교본이었는데, 그 교본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인간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계에 갈 때는 지옥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데 있어서도 한 곳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옥에 가서도 방랑하는 별의별 패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습해야 할 것이 아담과 해와인데, 모르고 타락했으니 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섭리를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복귀섭리도 하나님이 주도해야 하고, 재창조섭리도 하나님이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28-268, 1992.7.5) p.769

Top p.769

② 죽음은 3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

우리 인간의 일생은 복중시대 10 개월, 육신시대 1 백년, 그리고 영혼시대 천년만년을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 입?코?눈 3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3 시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입은 물질세계인 복중시대를 상징하고, 코는 사람세계인 지상시대를, 눈은 영계의 천상시대를 나타냅니다. (298-304, 1999.1.17) p.769

여러분, 사람은 맨 처음 태어날 때 제일 깊은 물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중시대는 수중시대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는 물 가운데 둥둥 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어머니의 뱃속시대에는 숨이 막혀서 살기 힘들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기는 태집이 우주입니다. 그곳이 수중이지만 아기에게는 그 세계가 자유천지인 것입니다. 물 속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물을 들이마시고 내 보내는 놀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복중의 어린애들은 호스를 배에다 연결하고 사는 것입니다. (299-69, 1999.2.4) p.769

사람은 3 세계, 소생 · 장성 · 완성시대를 거칩니다. 복중 물세계, 그 다음 지상 지구성 세계, 그 다음에는 천상 공중세계에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복중 물시대, 지상에 태어나서 사는 100 년 땅시대,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공중시대, 이렇게 3 시대를 거칩니다.

복중에 있을 때는 바깥 세계로 나가려고 하겠어요, 여기 붙어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래 요만한 구멍으로 내가 빠져나가야 된다면 '우-'하겠어요, '아이구 좋다!' 하겠어요? '그러려면 네가 있는 집이 다 파괴되고, 네가 살던 곳의 영양 가치와 모든 것이 깨져 나가고, 네 머리도 늘어나야 되고, 몸뚱이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좋아?' 할 때 전부가 '노'하겠어요, '예스'하겠어요? 나오기 전 시간까지, 어머니는 죽겠다고 힘을 주고 자식이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노, 노, 노' 하다가 왈칵…. 몰아내니까 나갑니다. 그러면 한 세계는 왕창 없어지고 한 세계에서 다시 '훅훅' 숨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116-172, 1982.1.1) p.769

이 지구성이 어머니 배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복중시대에는 무엇으로 먹고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쉬고, 코로 숨쉬어요? 어디로 숨을 쉬어요? 먹기도 배꼽으로 먹고, 숨도 배꼽으로 쉬지요? 그러면 배꼽으로 다 하니까 먹을 입도 필요 없고, 숨 쉴 코도 필요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오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는데 왜 달려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왜 있어요? 밖에 나가면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295-321, 1998.9.24) p.770

복중시대에는 오관을 써요? 오관이 필요 없지요? 소변도 안 보고, 똥도 안 싸고, 전부 다 죽어있습니다. 열 달씩 그렇게 있다는 것이 신비스럽잖아요? 오줌이나 똥이 참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줌 똥 자체가 사람보다 먼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나온 다음에 그걸 시작하지, 먼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97-12, 1998.1.1) p.770

인간을 보면 복중시대에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 인간의 4 분의 3 은 물입니다. 인간세계는 공기세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 있을 때는 눈?귀?코 오관이 필요 없지요? 물에서 오관이 필요 없으니까 눈을 감고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중에서 10 개월 자랄 때 코로 숨쉬어 봤어요? 코로 숨쉬었다가는 죽어 버립니다. 완전히 절벽강산입니다.

그런데 코가 왜 필요하냐? 차기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호흡기로 들어간다면 이 모든 걸 파괴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저 이것도 끊어 버려야 되고, 어머니의 자궁이니 뭐 물집 다 파괴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궁과 물주머니, 그 환경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죽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겁니다. 수중 세계에 파괴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2-327, 1982.3.27)

배꼽에 탯줄 달린 것을 다시 써야 되겠어요, 뚝 잘라 버려야 되겠어요? 잘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 남의 생명줄인데 사람과 사람의 생명줄을 끊어 버려? 왜 그 생명줄을 끊어 버려?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걸 볼 때에 아기는 죽겠다고 '앙앙' 울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웃겠어요, 울겠어요? 딱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의 세상에서 지금 영인체가 몸뚱이에 붙어 가지고 태아처럼 육신을 빨아먹다가 육신이 다 늙어서 차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육신이 '아이구 안 죽겠다. 안 죽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보면 스마일 하겠어요, '아이고'하며 동정하겠어요, '이놈의 간나야, 이 자식아' 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사랑의 대상이 되어 어머니 아버지와 사랑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지상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사랑을 같이할 수 있는 지상세계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무한한 세계를 통할 수 있는 부모되신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계에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116-174, 1982.1.1) p.770

지상에서 사랑을 호흡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입니다. 복중에서 호흡을 할 때는 미래 공기세계의 파이프를 장치하여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다 배꼽 줄에 연결된 태를 파괴시키고 죽어서 나오게 될 때는 새로운 차원, 높은 차원으로 얼마나 변화하느냐? 높은 차원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기를 공급받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가지고는 또 무엇으로 발전시키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요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밥 먹는 것은 죽어 가는 겁니다. 물 마시고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전부 다 죽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위해 이 기간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이 기간에는 새로운 사랑의 인격을 형성해야 됩니다. (139-214, 1986.1.31) p.771

복중에서 공기세계로 연결시켜 나올 때는 복중세계에서 살던 모든 탯줄과 물주머니를 다 파괴시키고 나와야 됩니다. 그 기관, 복중의 배꼽줄과 태는 파괴되어 죽는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무엇이 나오느냐? 이 우주, 지구성 어머니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입으로 원소를 보급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139-212, 1986.1.31) p.771

매미가 날기 전에 애벌레로 있을 때, 나 애벌레로 살겠소. 아이고 껍데기 벗는 것 싫소!' 그러다가도 벗어버리면 후루루룩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벌레에서 매미가 될 때에 그거 벗고 싶겠어요? '아이고, 육지고 뭣이고 공기고 뭣이고 다 싫어!' 하겠어요, '나 좋아. 어서 벗게 해 다오.' 하겠나 말입니다. 날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잠자리도 처음에는 유충이 되어 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다가 땅 위에 올라와 가지고 한 동안 기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훌훌 천하를 자기 무대로 삼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곤충류 가운데는 3단계 세계를 거치는 것이 많습니다.

곤충 중에는 날개 없는 곤충이 없습니다. 대개 날개가 있지요? 곤충도 이와 같이 물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싫다고 하지만, 죽어서 벗고 나면 '휘익-' 하는 겁니다. 그거 싫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단계 세계를 거치는 것이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2출생의 복된 관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9-286, 1971.10.17) p.771

곤충도 날고, 새 새끼도 날아다닐 수 있는데 사람이 날아다닐 줄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면 식물의 씨도 날아다닙니다. 민들레 씨 말입니다. 그건 자연히 날게 돼 있습니다. 날아 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새도 날고, 곤충도 날고, 식물 씨도 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못 날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다 나는데 나는 왜 날게 못 했소?' 하고 항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야야! 가만히 있거라. 너희들 몇십 년 지나면 그렇게 될 텐데 기다려라!' 할 때 '아 그래요. 그럼 그렇지!' 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뭘 해야 하느냐? 그때 그 세계에 가서 맞게끔 여기서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좋아해야 하나님을 좋아하고, 신랑하고 좋아해야 저나라 가 가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러는 겁니다. 훈련장이 지상세계다 이겁니다. 그러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걸 바라는데 죽지 않고 가능해요? 죽지 않고 가능한가 말입니다. 이 몸뚱이 벗지 않고 가능해요? 몸뚱이 벗어야 되겠어요, 안 벗어야 되겠어요? (116-163, 1982.1.1) p.772

사람은 물 세계에서 한번 살아 봤고, 땅 세계에서 한번 살아 봤지요? 그러면 공중세계에서 한번 살아 보고 싶겠어요, 안 살아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복중에서 태어날 때 '난 육지 세상에 나가 입으로 꿀도 먹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쇠고기도 먹고 다 먹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이구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다면서 배꼽으로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질식할 정돕니다. 그런데도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까봐 '아이고, 안 나가면 좋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나가야 되겠다고 하겠지만 때가 되면 다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양수가 확 터져 나오는 그곳을 따라 밖으로 나오면 순산이 되는 것입니다. 잘 태어나는 겁니다. (49-286, 1971.10.17) p.772

지상시대에는 '우주 어머니, 만물 어머니'입니다. 이게 땅입니다. 지구성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원소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지요? 다른 단계의 원소를 공급해 주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자라게 될 때에는 복중에서 호흡을 하는데 무엇으로 호흡해요? 배꼽 줄로 호흡하지요? 이것이 어머니의 몸과 연결된 호스입니다.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 2 세계, 공기세계에 연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중에서 살다가 차 버리고 나오면 파괴입니다. 그때는 울음과 동시에 무엇에 연결되느냐 하면, 숨구멍, 콧구멍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있는 공기세계에 연결되는 겁니다. 공기세계에 연결되어 가지고 콧구멍이 절대 보급로입니다. (139-212, 1986.1.31) p.772

물은 복중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코는 공기시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공기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시대입니다. 태양시대, 햇빛시대입니다. 사랑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밝아진다고 했지요? 빛의 세계입니다.

인생은 3 시대를 거쳐 산다는 것입니다. 잠자리도 물에서 살다가, 땅에 와서 살다가, 껍데기를 벗고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먹지요? 3 시대를 거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중시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자기의 살던 살림살이를 부둥켜안고 나와요, 다 파괴시켜 가지고 잘라버리고 나와요? 하나라도 달고 나오면 큰일납니다.

탯줄로 먹기도 하고 숨도 쉬었는데, 그것을 잘라 버리면 죽지요? 그렇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가지고는 그것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무자비하게 잘라 버려야 됩니다. 다 파괴시키고 나오는 것입니다. (299-37, 1992.2.1) p.773

죽는 것은 무엇이냐? 지상 생활은 공기 중에서 태 안에서처럼 헤엄치고 다니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보자기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는 것은 무엇이냐? 죽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제 3 의 인생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죽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 좋지요? (49-286, 1971.10.17)

이 몸뚱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중에서 탯줄로 숨쉴 때와 마찬가지로 공기 파이프인 콧구멍을 준비해 가지고 터져 나올 때에 바꿔서 숨쉬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해야 할 것은 사랑을 체휼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공기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공기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사랑의 공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다 거쳐가야 됩니다.

한 가정에 아기로 태어났다가 사인 커브와 마찬가지로 올라갔으면 다 꺼져 가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났다가 커 가지고, 그 다음에는 분해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났다가 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제 2 복중세계를 차 버리고 제 3 사랑의 호흡기관에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차 버리고 대우주의 하나님 본체에 화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계는 사랑의 공기입니다. 사랑의 공기로 꽉 찼 차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지상세계에서 사랑의 숨을 쉴 수 있는 파이프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의 체험이 필요하고 영적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139-212, 1986.1.31) p.77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들은 어느 땐가 육신을 벗고 영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 자아를 영원한 세계에 제 2 의 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교를 잘 받아야만 건강하고 선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세계에서의 생활은 복중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본받으며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또 생명을 걸고 사랑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4-17, 1964.4.19) p.773

Top p.773

③ 죽음은 더 좋은 세계로 옮겨가는 것

인간이 자기 중심삼고 볼 때는 소망을 가진 듯하나 죽음의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본으로 알고 죽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음도 비웃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을 찾아 그 소망을 즐기면서 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6-45, 1959.3.22) p.774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영계입니다. 그것은 뭘 말해요? 사후의 세계라고 말하지만, 사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왜 사후의 세계가 될 수 없느냐?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된 사랑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는 지금 여기가 영계입니다. 영계 육계, 두 세계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144-199, 1986.1.19) p.774

여러분의 제 1 의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 준 부모지만, 제 2 의 부모는 지구입니다. 여러분은 땅으로부터 몸뚱이가 클 수 있게끔 모든 요소를 공급받는 겁니다. 땅이 몸뚱이의 제 2 의 부모입니다. 제 2 부모를 거쳐서 제 3 부모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제 3 부모에게로 가는 데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3 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본래의 부모였던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야 됩니다. (138-98, 1986.1.19) p.774

여러분이 '70 이 되더라도 나는 이렇게 간다.'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나이 80 이 되고 죽는 순간에도 나는 이렇게 간다.'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죽는 자리에서도 '나는 이렇게 역사를 밝혔고, 지금까지 이 세대에 이런 일을 했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3-116, 1974.8.16) p.774

인생의 갈 길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죽을 고비를 거쳐서라도, 죽어서라도 끊임없이 찾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찾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갈 길입니다. (39-210, 1971.1.10) p.774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중심삼고 10 년, 20 년, 30 년, 70 년, 일생 동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크면 클수록 내적으로 더욱 강하게 다짐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능가할 수 있는 내적인 결의를 계속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149, 1971.5.24) p.774

마음의 종착점, 즉 욕망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더 귀한 사랑을 점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점령하면 하나님은 안 계셔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괜찮다는 겁니다. 그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그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안팎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상하의 등급이 없는 이상의 본국(本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눕게 되면 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늘날 인간이 갈 천상세계, 즉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곳은 사랑으로 충만된 곳입니다.

통일교회 선생님은 죽되 어떤 자리에서 죽을 것이냐? 민족과 대한민국까지 몽땅 안고, 세계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한민족이 하나되어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는 세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있겠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39-210, 1971.1.10) p.775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년만년 후대의 후손도,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도 영생으로 가는 그 공식적 노정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해서 살던 사람들만이 패스할 수 있는 정문이 있고, 거기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패스할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부탁하는 것임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203-193, 1990.6.24) p.775

Top p.775

④ 죽음은 새 차원으로의 승화(昇華)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교회는 죽음을 슬픔으로 맞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승화식이라고 합니다. (199-353, 1990.2.21) p.775

여러분들도 육신을 벗고 죽는 것이 싫다고 하겠지만 막상 죽어서 육신을 벗고 나면 우리는 영인체로서 제 2 출생의 복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휙- 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머니 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 태가 우리를 기르던 보자기입니다. 그 보자기 속에서 나올 때 전부 다 차서 끊어 버리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인체에 대해 육신은 보자기와 같기 때문에 이걸 끊어 버리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물의 세계, 육지의 세계, 공중 빛의 세계를 거쳐 영원한 참사랑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98-311, 1999.1.17) p.775

통일교회는 죽은 후에 장사(葬事)도 그렇게 안 합니다. 승화식(昇華式)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천하에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죄악된 세계, 혼란된 세계에 있어서 자주적인 중심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천지의 도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권 내의 수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수직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 자리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수직의 자리에 그림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돌게 되기 때문에 도는 환경 전체가 수직화 됩니다.

자기의 죽음의 한날을 갈 때에 내가 어떻게 90 각도로 천상에 도약하여 승화되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45 도로 가다가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오로지 90 각도로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하기 때문에 90 각도 외에는 없습니다. 수직밖에 없습니다. (198-124, 1990.1.25) p.775

통일교회에서는 죽어서 장사하는 것을 승화식이라 합니다. 죽은 사람을 붙들고 우는 것을 보면 죽은 영이 탄식한다는 겁니다.'이렇게 무지해 가지고 내 갈 길을 밧줄로 당겨서 못 가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승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비상천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가지고 밀어주어야 됩니다. 잡아당기지 말고 밀어주어야 됩니다. 승화식이 뭐예요? 변화해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겁니다. (199-130, 1990.2.16) p.776

오늘날 인간이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겁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차원이 낮은 세계에서 차원 높은 세계로 사랑의 다리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는 죽음을 승화식이라고 합니다. 차원 높이 승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에서만이 가능합니다. (137-316, 1986.1.5) p.77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계시는가?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사랑의 상대를 찾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중심삼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사랑은 위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생문제를 알기 때문에 교수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죽음을 승화(昇華)라고 하고, 그 식을 승화식(昇華式)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인들은 영계에 가 있는 아내와 얘기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지금 이 세상이 모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것을 돈주고 살 수 있습니까? (209-160, 1990.11.28) p.776

승화식은 우리 흥진이가 갈 적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때 성립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걸 선생님이 떼어야 했습니다. 영계 갈 길을 전부 정리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타락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진이가 요전에 와 가지고 역사하면서도 아버님에게 진 빚은 갚을 길이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참부모의 가정에서 자라던 청소년으로서 영계에 간 것은 처음입니다. 흥진이가 감으로써 영계의 재림주와 마찬가지로 영계의 메시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225-136, 1992.1.5) p.776

영계에 가는 것이 슬픈 게 아닙니다. 해방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 깃발을 들고, 보무(步武)도 당당하게 백전백승해 가지고, 천하에 금의환향하는 깃발을 들고 민족과 인류의 환성을 받으며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환고향 길입니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울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승화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흥진군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담을, 죽음의 담을 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화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낙담이나 낙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약을 하는 겁니다. 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은 이런 자연 순환법도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계에 옮겨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 것입니다. (196-270, 1990.1.2) p.777

사랑으로 모든 사망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사망권을 이기느니라!' 이게 창조원리입니다. 그래서 애승일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흥진군이 그렇게 영계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통일가의 모든 아들딸들은 승화식을 하게 되면 사탄이 참소할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라에 가는 배를 타게 되더라도 의인들이 전부 모시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이고 대혁명적인 차원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242-278, 1993.1.2) p.777

애승일(愛勝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은 흥진이가 돌아간 이후부터 떠나 보낼 때까지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사망권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망을 이겼다는 이런 팻말을 세우지 않고는 승화식(昇華式)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승화식이란 말은 흥진군으로부터 나왔지요? 그렇지요? 그 애승일이라는 것의 그 애승이 뭐냐?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어머니도 몸부림을 치고 배밀이하며 통곡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일 이내에 이 식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겼노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는 승화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을 넘어 기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승화식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영계의 모든 골짜기를 휘익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녀석들은 가서도 중간에 머물지만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승화식이란 것은 흥진군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212-96, 1991.1.2) p.777

통일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승화식을 하지요? 그것은 도약해서 별개의 세계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성을 질러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사람은 영계를 잘 봅니다. 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즐거운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눈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어 몰랐다는 겁니다. (255-294, 1994.3.11) p.77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치매가 오는 것도 세상적으로 양심 자체가 마비되어 육체와 하나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지옥의 영인체와 대화하면서 치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선한 영인을 통해 천국의 이상을 기억시켜 가지고 점차 정화하여 승화, 승천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258-136, 1994.3.17) p.778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을 때 호적지에 신고를 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도 태어나고, 결혼하고, 승화할 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미국 사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디서 왔어?''미국에서 왔다.''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면서 그곳의 문지기가 물어 볼 것입니다. '어디서 왔어?''참부모를 모시던 지상천국에서 왔다.'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컨셉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278-36, 1996.4.28) p.778

Top p.778

⑤ 죽음 앞에서의 자세

사람들이 죽을 때에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최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최고 진실입니다. 죽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죽는 자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죽음의 도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에 가까운 자리에서 그 원칙만 붙들고 죽게 되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자리에 가서는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훈 중에 진실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그래도 옳은 말을 하고 죽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잘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 중의 옳은 말입니다. (26-297, 1969.11.10) p.778

죽을 때도 사위기대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위기대를 갖추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죽음 길도 올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후에도 영혼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칙을 아는 여러분은 죽을 때 누구를 붙들고 죽겠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는 참부모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분을 통해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그분을 통해서 죽어야 영계에서도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나서 그분을 통해 결말 짓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 원칙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효의 도리요, 충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효와 충의 도리를 다한 사람이 인생 행로에 있어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6-297, 1969.11.10) p.778

여러분이 죽을 때 무엇을 중심삼고 죽겠습니까? 사랑을 모두 잊어버리고 죽겠습니까, 꼭 끌어안고 죽겠습니까? 사랑 중에서도 누구의 사랑을 붙들고 죽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사위기대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6-297, 1969.11.10) p.778

앞으로 여러분의 자식에게 무슨 유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언을 할 것이냐? 부모가 하지 않고 자식에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자식을 이용해 먹겠다는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고 나서 죽기 전에 아들딸에게 '나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하고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그렇게 유언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6-300, 1969.11.10) p.779

보편적으로 사람은 역사를 두고, 영생을 중심삼고 십 년, 백 년뿐만 아니라 천년만년, 억천만 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물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남겨서 뭘 해요? 요즈음에는 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 명예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데 그 명예를 남겨서 뭘 해요?

미국의 애국자가 되어서 기념관에 가 있어도 미국이 망하게 될 때는 기념관이 다 깨질 텐데 말입니다. 미국 국민들이나 압니다. 이름을 남겨서 뭘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역사시대에 아무리 남겼댔자 그 좋다는 것도 나쁘게 취급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권자는 한 백 년도 못 살고 다 죽고, 나라도 몇백 년, 몇천 년 못 가서 망하지만 영원히 죽지도 않고 망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름, 명예를 남긴 것을 그 분 앞에 전부 다 맡기고 의탁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103-16, 1979.1.28) p.779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죽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크지요?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하늘나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죽느냐. 죽는 데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시하게 한국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국적인 것 가지고는 암만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 천상천하를 통과한 하나님의 심정의 나라를 중심삼은 최고의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복판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제일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전부 반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턱 버티어 가지고 천하가 다 깃발을 들고 환영하는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34-185, 1970.9.6) p.779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죽음의 길 앞에서 후퇴한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비웃고 죽음을 늠름히 넘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길을 세워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죽음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넘고 나면 나는 하늘 앞에 떳떳이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마음으로 동경하던 세계 그 본향을 향해 기쁨으로 달음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여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6-53, 1959.3.22) p.780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이 슬퍼하는 죽음의 고개도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음을 앞에 놓고 세상만사를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뻐하고 하늘 앞에 서서 자기의 죽음의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은 이러한 소망의 아들딸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서서 하늘의 기쁨을 느낀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늘을 대하여 울부짖는 무리가 있다 할진대 하늘이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54)

뜻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뜻을 위해 죽어야 할 자리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기 전에는 내 것이지만, 죽은 후에는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혈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 전부는 사탄 편의 인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두고 볼 때 어느 것이 강합니까?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합니까? 생명보다 죽음이 더 강합니까? 사탄세계에서는 생명보다 죽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기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4-47, 1970.8.29) p.780

유효원 협회장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 협회장은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는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한 시대를 지내지 않고는 다른 시대를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34-47, 1970.8.29)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세계의 타락한 혈통을 이어받은 생명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역설 같지만 타락과 복귀의 내용을 중심삼고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것은 복귀의 정상적인 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 길을 출발할 때는 어땠는가? 나는 생명을 내 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를 생각했습니다. (34-47, 1970.8.29) p.780

나의 생애에 뭘 할 것이냐?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 이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 사랑의 무덤 가운데에서 살면 한이 없다 이겁니다. 무덤 같은 데서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살더라도, 사랑 가운데에서 살면 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 그러면 인생살이는 영원을 두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고, 영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들딸을 데리고 환영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락지를 못 낀 손이라면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를 끼워 줄 것이고, 옷을 못 입었다면 하늘나라의 황족들이 입는 최고의 옷을 입혀 줄 것입니다.

나의 일생은 뭘 남기는 거라구요? 사랑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들었구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같이할 것입니다. (97-169, 1978.3.12) p.781

Top p.780

⑥ 축복으로 영생의 길이 열린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문제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 나름의 삶의 길을 바라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게 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을 말하고, '생애'하게 되면 일생의 삶, 일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일생이 아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생애노정을 그 영생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생애의 책임입니다. (197-186, 1990.1.14) p.781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전부 다 '칠, 팔십은 다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 전에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은 욕심쟁이입니다. 내가 일생을 사는데 팔십에 죽거나 백 세에 가서 죽을 거라고 절대 믿는다 해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밥 먹다가 죽을지 알아요? 오늘 저녁에 신발 벗고 들어와서 잠 자다가 죽을지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 내가 젊었으니까 이제부터 적어도 사십 년, 오십 년은 산다.' 그런 욕심을 다 갖고 있지요? 하나님한테 보증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일 년 이내에 죽을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 관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잡아야 행복합니다. 짧게 잡을수록 손해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참되게 준비하는 그 내용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는 겁니다. (102-122, 1978.11.27) p.781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벗어 놓은 신발을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신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영생 문제 이상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생문제를 결정짓는다는 심각한 느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10-249, 1960.10.21) p.782

신앙길이라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살이, 육신 생활의 준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생활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신념만 가지게 되면, 그건 내버려두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일이 가면 갈수록 40 이 넘고 50 이 넘을 수록 죽을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영생 개념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희박해지지만, 영생 개념만 집어넣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이념만이 앞으로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환경, 혼란된 변화가 얼마나 빈번해요? 빈번히 변하는 환경을 뚫고 넘어가고, 어떤 곳에서 희비극이 부딪쳐 오더라도 영생 개념만 철저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230-2?, 1992.4.15) p.782

하나님이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유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즘 인간의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돼요? 몇 푼 돼요, 몇 푼? 그런 무가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사랑의 상대권을 갖추어 남자를 지었고 여자를 지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142-143, 1986.3.8) p.782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적인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도 영원한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해야 되고, 영생해야 그 걸작품의 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겁니다. (159-281, 1968.5.19) p.782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최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 것이며, 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자신도 되니, 우주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 혹은 10 년이나 100 년쯤 같이 지낸 후에 집어던지게끔 지었겠어요, 영원히 같이 있게끔 지었겠어요? 영원히 함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만이면 좋겠어요, 영생해야 되겠어요? 영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절대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9-342, 1971.1.16) p.782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절대자라면 그분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영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고로 영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은 영생하는 가치를 지닌 사랑하는 아들딸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9-343, 1971.1.16) p.783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그 아내의 손수건을 갖고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지요? 네루 같은 양반은 자기 아내가 젊어서 죽었는데, 그 아내가 장미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생 동안 장미꽃을 차고 다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지극히 귀한 아들딸들 지을 때 백년쯤 산 다음 망하게 지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9-342, 1971.1.16) p.783

사람은 사랑에서 나서 사랑에서 커 가지고 사랑에서 살다가 사랑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체되시는 그분이 영원, 불변, 유일하니까 그 앞에 대상적 사랑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이론이 여기에서 발발하는 겁니다. 생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2-143, 1986.3.8) p.783

사랑 때문에 인간을 지었다 할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에 일치된 인간 자체는 영생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려면 그 참사랑권 내에 살아야 합니다. (211-272, 1990.12.30) p.783

'우리는 영원할 수 있다!' 영생을 바란다! 영생을 바라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환경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왜 변하지 않느냐? 사랑은 모든 생명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변하지 않느냐? 사랑은 이상적인 요건의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그 주위가 전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57-267, 1967.4.10) p.78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생, 나는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영생과 참사랑을 나는 여기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 공장에서 일하고 하는 전부가 영생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훈련하고 영생을 키우는 이러한 훈련 재료를 생산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참사랑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216-127, 1991.2.9) p.783

자기의 몸 마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참사랑에게 속하는 것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과정, 그것으로부터 이상의 결실을 맺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참사랑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에 의해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도 영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존하는 것은 무엇을 중심삼고 영존하는 거예요? 영생은 사랑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환경을 이루는 데는 사랑의 환경을 중심삼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권을 갖는 데는 사랑을 중심삼고 실체적인 체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18-134, 1991.7.14) p.784

어떻게 영생하느냐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해? 믿으면 구원받아?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원칙의 본질적 원칙으로 볼 때에, 참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참사랑을 가지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권 내에 들어가 있으면 영계나 지상에 살게 될 때에 자기가 어디 가서 살 것인지 다 보고 사는 겁니다. (215-53, 1991.2.6) p.784

Top p.784

㉯ 사랑에서 영생개념이 나온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막연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요, 유일·영원·불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인 행복자요, 유일적인 행복자요, 영원적인 행복자요, 불변적인 행복자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영원한 자유가 있고, 절대적인 자유가 있고, 불변의 자유, 유일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비로소 행복도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은 자동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79-73, 1996.7.24) p.784

사랑을 가졌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도 고단치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나서 시공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랑하는 상대가 올 때는 밤이 되면 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상대가 나타남으로 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생 개념이 나옵니다. 영원한 사랑의 힘이 계속하는 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랑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영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277-22, 1996.3.17) p.784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 앞에 절대적인 상대가 돼서 하나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영존하는 한 인간도 영생한다는 논리가 이론적으로 결정 나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혼자 살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62-137, 1994.7.23) p.784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절대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이 상대주권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 부정을 못 하니까 내가 찾아진 자리를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안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 그런 사랑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논리적인, 이론적인 상대권으로 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부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상세계에서부터 천상세계까지 영생하는 법입니다. 이 이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계에는 참사랑 관계가 없으니 지옥 가는 것입니다. (272-63, 1995.8.30) p.785

사랑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참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떨어지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는 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이겁니다. 사랑은 불변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겁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혈통관계를 맺게 될 때는 인간은 영생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의 주체인데 그 주체와 하나되었으니, 하나님이 변치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니, 그 사랑과 하나되어 가지고 일체 된 그 대상도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이론적입니다. (289-133, 1998.1.1) p.785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한히 투입하고 희생하면, 참사랑이 배후에 있는 한 자식은 그 참사랑에 무한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큰 기쁨으로 그 희생의 자리를 메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적인 참사랑의 힘을 주고받는 작용을 발전시켜 참가정에서, 그리고 참세계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영생의 이상세계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288-199, 1997.11.28) p.785

이 우주는 작은 데서 커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대를 얻어서 무한 운동을 함으로서 생성되어 나왔다 이겁니다. 이 공간에 존재하는 관성에 의해 무한히 운동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대적 기준을 중심삼고 이 태양계면 태양계에 있어서 갖추어 가지고 딱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 무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해와도 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히 위하는 사랑으로 하나되게 되면, 무한 운동을 함으로써 영원,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선에는 영원이 없습니다. 영생권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데서 영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해 가면서 점점 커 가는 것이 역사 발전 현상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입니다. (261-151, 1994.6.9) p.785

우주의 대원칙 기원과 화합할 수 있으면 영존(永存)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는 것은 영멸(永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존하니까 그 대상, 위할 수 있는 대상은 영존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영생 논리는 자동적인 결론입니다. 깨끗해요? (260-254, 1994.) p.786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체적 하나님의 대상의 자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사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생명의 중심이며, 그 하나님의 이상은 더 영원한 것이며, 그 이상의 중심이 바로 참사랑의 이상입니다. 그 사랑의 상대가 나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자리에 어떻게 나가느냐? 영원한 파트너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것은 주체와 대상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나 동참할 수 있고, 어디 가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 그 심정까지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피조만물에 함께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모든 이의 마음에 머물고 싶은 마음까지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그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엄하고 고귀한 자리입니다. 놀라운 은사라는 것입니다. (216-115, 1991.3.9)

대기가 백 퍼센트 절대 저기압권이 되면 고기압권이 생겨 가지고 자동적으로 순환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의 왕입니다. 왜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되느냐? 자동적으로 순환원리를 통해서 영원 회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생논리가 논리적으로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데서 영생의 논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하는 데는 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큰 것으로 해 가지고 큰 것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4-107, 1990.7.1) p.786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의 파트너를 구한다고 하면, 누구를 갖다가 세울 것이냐 할 때에, 그것은 틀림없이 인간이다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지중 유인최귀(萬物之衆唯人最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 창조주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내게 될 때 그 사랑과 하나된 사랑의 파트너는 영생한다는 논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인 산물입니다. 영원한 영생은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중심삼고 영생 논리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종교에서 지극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남자에게 영생이 있고, 여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생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218-211, 1991.7.29) p.786

이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사랑의 자리에 동참한 것입니다. 바깥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영생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죽어서 영계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비약하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지구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한된 곳에서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지만, 저세계는 차원이 높은 세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무엇이든 바라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216-115, 1991.3.9) p.787

영생, 나는 영생한다. 하나님 중심한 참사랑이 나와 연결되고, 하나님 중심한 참생명이 나와 연결되고, 하나님 중심한 참혈통이 나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확실해요. 나는 영생한다, 하나님처럼 참사랑 중심삼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책임분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역시 성공한 것입니다. (216-115, 1991.3.9) p.787

하나님도 숨을 쉽니다. 사랑의 호흡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주의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우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영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호흡권 내에 들어가서 휙 넘어가는 것입니다. (201-191, 1990.4.1) p.787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서 지상 역사와 더불어 움직이는 것은, 영원한 길을 닦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신앙화시키기 쉽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륙시킬 수 있는, 지상기반에서 신앙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한계성을 확실히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착륙할 수 있는 신앙기반이 확정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지상에서 협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저 영계가 우리 현재 실제생활과 관계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생활은 영생할 준비를 하는 생활입니다. 직결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연결 안 되어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198-7, 1990.1.20) p.787

Top p.787

㈐ 축복과 영생

타락인간은 혈통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미지의 사실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풀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 이겁니다. 혈통전환도 개인권, 가정권, 민족권, 국가권, 세계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혈통이 전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이 전부 다 이런 일을 해서 넘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아는 메시아가 와 가지고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161-147, 1987.1.18) p.787

여러분은 새로운 핏줄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어 받으려니 메시아가 아버지로 와서 사탄세계를 이긴, 사탄이 간섭할 수 없는 초세계적인 기반에서 해와를 모시고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부의 인연을 중심삼은 가정을 중심한 아들딸을 세워 횡적으로 접붙이는 놀음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통일교회는 다릅니다. 통일교회는 핏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세계에서 반대해 봐라 이겁니다. 반대하다가는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169-37, 1987.10.4 본부교회) p.78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 인간은 혈통적으로 사탄의 핏줄을 받았으니 그 자체로서는 하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절대 혈통복귀를 해 가지고 사탄이 더럽힌 핏줄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혈통복귀가 안 되는 겁니다. 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172-53, 1988.1.7 본부교회) p.788

끝날에는 무슨 시대가 오느냐? 동족상간 관계가 벌어집니다. 근친상간 관계가 벌어집니다. 동족이나 근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구요? 사가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전부 다 성신으로 잉태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무정란을 알아요? 무정란이 뭐예요? 계란은 마찬가지인데 씨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인간은 무정란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습니다. (274-256, 1995.11.3) p.788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세계의 뿌리 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릇된 생명을 돌이켜 놓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왜 나와야 되느냐? 사탄세계는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혈통적 전환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눈물겨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에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축복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전환의 승리권을 세우는 데는 수천 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노고와, 실체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의 고난의 생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 곳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축복이란 접목하는 것이며, 접목함으로써 혈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참사랑을 중심삼은 종적인 부모와 횡적인 부모가 합덕해야만 거기에 사랑의 정착지, 생명의 기원지, 혈통의 인연지가 교착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아들딸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황족적 계대를 이을 수 있는 황족이 되는 것입니다. (245-94, 1993.2.28) p.789

사랑에 동거하면 영생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요, 영세(永世)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상대자인 인간도 영생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47-223, 1993.5.9) p.789

여러분들 축복받을 때 혈통전환식을 했지요? 그걸 내 생명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하나의 예식이라고 해서 그저 일반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사람 앞에 회생(回生)하는 주사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독 주사라는 것입니다. (216-109, 1991.3.9) p.789

혈통을 전환하는 것은 메시아가 할런지 모르나, 전환하도록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이룩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의 경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40일 단식기도라든가, 피를 토하는 죽음의 경지에 가야 혈통 전환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부모를 진심으로 그리워해야 됩니다. 내 생명의 동기도 부모요, 내 소망의 일체도 부모요, 내 모든 이상과 행복의 근원도 부모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셔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부모와 영원히 하나될 수 있는 아들, 딸이다.'라는 신념을 자신의 존재의식을 초월할 수 있는 정도로 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니, 이제 참부모가 바르게 결혼시켜 줌으로써 다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저질러 놓은 일을 참부모가 청산함으로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억의 영계의 조상들마저 축복 결혼시켜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지상의 후손들의 가정기반을 통해 영계의 조상과 지상의 후손이 종적으로 하나로 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기반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연결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근본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탄세계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랑이 물든 자리에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탄세계에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 처자,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네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네 에미나 애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한 겁니다. 전부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끌고 가는 힘을 누르고 넘어가려니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178-97, 1988.6.1 본부교회) p.790

영계에 가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는, 영원한 아침의 햇빛이 넘치는 겁니다. 하얀빛이 너무 밝아 가지고 보라색 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은빛 금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전기의 빛이 뭐냐 하면, 사랑 빛입니다.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전깃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도 하나되어 가지고 번개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사랑의 빛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292-265, 1998.4.26) p.790

Top p.790

3) 지상생활의 가치

지상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곳

지상생활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지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전부 다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지요? 망상적입니다. 지상에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생활의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지상생활의 중요함을 각성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천년만년 영계에 가서 그 생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씨입니다. 여기에서 씨 뿌린 것이 천상세계에서 열매로 거두기 때문에, 완전한 씨를 잘 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상세계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합니다. (232-322, 1992.7.10) p.790

지상인은 체를 가졌지만 모든 것이 한정된 생활입니다. 그러나 영인들은 체는 없지만 무한의 세계에서 활동합니다. 또한 지상인은 체를 가졌으나 영원한 처소는 못 됩니다. 영인들은 체는 없으나 영원한 처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인과 영인간의 대비점을 나열하면 무한히 많습니다.

또한 지상인과 영인간의 일치점을 살펴보면, 지상생활이나 영인들의 생활은 모두 반쪽씩만 갖고 있기 때문에 반쪽씩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체와 영인의 결실은 각각 어떻게 해야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지상생활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지상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해야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익지 못하고 영계에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93-256, 1998.6.1) p.790

씨의 열매는 모든 기간, 시간권이라든가 시공권을 전부 다 동화시켜 가지고 압축시켜야 됩니다. 거기에는 씨도 있고,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137-330, 1986.1.5) p.790

생애의 목적이 뭐냐?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사랑의 결실. 그 사랑의 결실이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 싫어! 푸우-'해야 되겠나요? 어디를 가든지 '아이구, 나를 이 우주 어디든지 갖다 놓아도 좋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걸 하늘나라 비밀창고 자리에 갖다 놓아도 자기를 중심삼고 모든 전부의 중심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겠느냐 이겁니다. 사랑으로 뿌렸으니 사랑으로 거둬야지요? (139-219, 1986.1.31) p.79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 내가 귀하냐?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핵에, 이 우주의 모든 이상적 힘의 핵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사랑이 귀한 것이고 내가 귀한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연유해서 내가 태어나 연결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확대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왜 존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뿌리를 깊게 해야 됩니다. 종대 뿌리 말입니다. (166-217, 1987.6.7) p.791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남자 여자의 마음과 몸이 수직선과 균형적 90 각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남성 여성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로 한 생명체들로 동과 서로 극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확- 불이 붙어 가지고 우주 본성에 벼락치고 번개가 터졌으면, 거기에는 남자 여자 하나님 할 것 없이 완전히 두루뭉수리하게 달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떼어 내요? 남자가 떼어 낼 수 있어요? 여자가 떼어 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본성의 기준인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남자 여자의 마음의 뿌리가 되어, 그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도 사랑으로 맺혀 가지고, 순환법도를 통한 구형이상을 통해서 나선형으로 발전, 세계로 전진할 것이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부 다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173-109, 1988.2.7) p.791

여러분, 생명을 무엇으로 전수해요? 생명체예요, 피예요? 혈통(血統)이라는 말은 있지만, 생명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통도 없습니다. 혈통이라는 말만 있는 것입니다. 피를 합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남자 여자의 피를 합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합해지고, 그게 투입돼 가지고 사랑의 실체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피하고 어머니의 생명하고, 아버지의 피하고 아버지의 생명이 이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힌 것이 나입니다. 여기 이 사람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의 피가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빼놓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5-52, 1992.1.2) p.791

나는 사랑의 열매인데, 그 열매에는 천년 역사를 통한 중심뿌리 · 줄기 · 가지 · 꽃 · 전체 순을 합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가게 되면, 역사를 운반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것을 심으면 그 역사가 어디서든지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느냐? 사랑을 통해서. 남자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주체 대상의 사랑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침범하는 자는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제일 방종자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226-53, 1992.2.1) p.792

부자지관계의 사랑은 어머니 속에 아들에 대한 열매가 익게 되고, 또 아들 속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익어 가지고, 익은 두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요걸 따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머니 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열매, 자식 속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완숙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완성한 열매를 따서 하나님이 먹을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것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도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자기 속에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열매를 내가 가짐과 동시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열매를 가짐으로 둘 다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 다 거두어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이 성립됩니다. (222-309, 1991.11.6) p.792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랑으로 살면서 아들딸을 낳아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일생이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무르익어 사랑의 열매로 거두어 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적인 사랑의 세계에 뿌려진 모든 것을 내가 일생을 거쳐 열매맺어 거두어서 저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부부가 합해서 이런 3 단계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고 영계에 가게 되면 영원한 주체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상대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부부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298-311, 1999.1.17) p.79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의 열매를 따서 창고에 보내졌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정과 천국 나라와 천국 백성들이 됐을 것인데, 이게 중간에서 썩어 떨어져서 전부 다 썩게 되었으니, 지옥 가정이 되고 지옥 백성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됐고 지옥에 살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싫더라도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 창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의 창고에 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82-15, 1997.2.16) p.792

자녀-형제-부부-부모가 전부 다 한 점에 가서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정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점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완성하였으니 여기서 부모가 나와서 아들딸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느끼던 것을 다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들딸입니다. (244-310, 1993.3.1) p.793

영계라는 것은 참사랑의 결실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지금까지 참사랑의 열매가 안 나왔습니다. 참사랑의 말과 그 결실을 지금 처음 얘기하니까 그것이 영계에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멋진 존재예요? (245-172, 1993.3.7) p.793

가정에서 구석구석을 손대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남자는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만지지 않는데, 여자들은 전부 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땅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배이고 우주의 진액, 핵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절대 사랑해 줌으로써 여자에게 힘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정이라야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창고가 뭐냐? 하나님이 잘된 열매를 넣어 두는 창고가 바로 천국입니다. (244-120, 1993.2.1) p.793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하추동이 있어야 균형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더운 것이 길어지면 추운 것도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을도 있고,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또 뭐예요? 겨울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어야 천상세계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223-180, 1991.11.10) p.793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아들딸에게 '야 아무개야!' 할 때 부끄럽지 않고, 그 아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중심삼고 부끄럽지 않아야 되느냐? 돈 못 번다고, 할아버지의 신세를 진 아버지라 해서 책임 못 한 게 아닙니다.

돈 못 번다고, 지식이 없다고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 혈족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하고, 돈을 통하고, 권력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을 통해서 혈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213-190, 1991.1.20) p.793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왜 했느냐?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무엇 중심삼고 맺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에, 그것은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를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나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살다가 사랑의 결실의 세계, 사랑의 열매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의 세계가 어떤 곳이냐? 그곳이 영계입니다. 그 가는 곳, 사랑의 결실을 수확하는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는 참되게 산 사랑의 내용을 중심삼고 평가받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하는 주인이 누구냐 할 때,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14-8, 1991.2.1) p.794

사랑의 씨가 되라 이겁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사랑의, 참된 사랑의 씨가 될 때는 종교를 통해 역사시대의 통일권을 넘어서는 겁니다. 알겠어요, 씨? 씨에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줄기가 있어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없어요?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꽃이 있어요, 없어요?,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꿀이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씨가 되었어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기후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고대는 열대지방, 중세는 온대문명권입니다. 한때는 시베리아 북풍이…. 이것이 춘하추동 중심삼아 가지고 한 바퀴 도니 그 기간이 60 년 내지 70 년 기간입니다. 요 기간이 세계를 풍비하는 기간입니다. (182-90, 1988.10.14) p.794

인간이 얼마나 멋지냐면 이렇게 사랑의 오케스트라를 하고, 사랑이 모든 맥박을 중심삼고 우주를 전부 다 살려 나갈 수 있는 동물세계, 식물세계를 먹는다는 것은 사랑의 결실을 먹고산다는 겁니다. 열매를 먹고산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빵이 하나 남아 있더라도 '이것이 세계적으로 수많은 손을 거쳐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여행수단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 가지고 왔겠느냐. 모든 사람의 노력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만든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진상한 것인데, 그것을 사랑의 주인 되는 내가 파트너와 같이 생각하면서 먹어줘야 되겠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병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병이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어때요?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의 열매를 따먹은 신선들이 인간들이었더라! 어때요? 사랑의 열매로서 소화하고 먹고산다는 개념을 중심삼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 분모의 내용과 일치된 자리에서 먹고 감사하는 사람은 병도 안 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217-307, 1991.6.12) p.794

Top p.794

② 지상은 천국백성의 생산지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이 지구성입니다. 영계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같이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성인데, 왜 아담과 해와를 갈라놓아 가지고 타락하게 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적 자리에서는 번식의 터가 없습니다. (201-44,) p.795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횡적 기반, 면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면적과 구형에는 무수한 세포가 갈라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세계에 아담과 해와의 몸뚱이를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을 제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 백성 제조공장이 우리의 부부 생활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큰소리치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새빨간 청맹과니가 돼 가지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영계에 가면, 그런 세계가 대번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가르쳐 준 얘기들이 사실로 전개되는 겁니다. (233-89, 1992.7.30) p.795

왜 아담과 해와를 실체로 창조했느냐? 영계라는 것은 수직의 세계입니다. 수직이라는 것은 면적이 없습니다. 영계에 가서는 번식이 없습니다. 천국이란 광대무변한 곳입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 백성을 생산시키기 위한 기지가 아담과 해와 가정, 후손의 가정들입니다. 왜 체를 입은 아담과 해와가 필요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직계 아들딸은 수직에는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면적은 없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직을 중심삼고, 동서를 중심삼고, 전후를 중심삼고 가려서 구형이 되면 무한 우주가 되는 겁니다. 무한 스페이스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아담 후손 가정을 중심삼고 하늘나라를 채우기 위한 백성을 창조하는 분공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분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본공장이고, 분공장이든 본공장이든 생산품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는 마찬가지입니다. (262-229, 1994.7.23) p.795

영계는 방대한 천국입니다. 본향 땅이요, 본궁입니다. 우리가 살 본궁입니다. 방대한 세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을 중심삼고 전후 좌우로 해서 구형을 만들게 되면 무한한 공간이 벌어집니다. 우주와 같은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백성을 생산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이동해 가는데, 이 하늘나라 백성을 생산하는 그 분공장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261-220, 1994.6.19) p.79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서는 생산을 안 합니다. 지상은 천국 백성의 생산지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수직의 자리에서는 번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면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실체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아들딸이지요? 방계적인 차자권이 되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다 따르게 되면, 그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직계 주류는 지상세계 왕권, 천상세계 왕권을 이어 받는 것입니다. (229-349, 1992.4.13) p.795

이 우주는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에서 왕이 되어야 할 존재가 인간입니다.

광물세계도, 식물세계도 전부 다 사랑의 인연을 중심삼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역사가 정지해 버리는 겁니다. 번식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딸을 낳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하나님에게 갈 때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선물이 없으면 자기의 체면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갈 때, 부모 앞에 가서 무엇을 자랑할 거예요? 그때 아들딸을 잘 길러서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을 지상에서 키워서 데리고 가는 그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229-15, 1992.4.9) p.796

땅은 뭐냐 하면 하늘나라의 왕손을, 하늘나라의 국민을 생산하는 생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땅 위에서 아들딸을 많이 낳아서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해 가지고, 동서남북, 전후 좌우 상하로 별의 별 사람을 다 사랑으로 소화시켜서 하나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한 사람은 저 영계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209-99, 1990.11.27) p.796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생산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수직에는 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직의 자리는 한 점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점, 수직의 자리에서 사랑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영계에서는 번식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적인 360 도가 필요합니다. 횡적 세계에는 동서남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남자들이 영계에 가게 되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이라 했지요? 이성성상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말미암아 본연의 하나님을 닮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혼자서는 외로운 것입니다. (206-137, 1990.10.3) p.796

영계에서는 아기를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왜 안 낳아요? 영계는 종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원형을 이룬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횡적인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몸뚱아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산아제한을 왜 하느냐? 그건 천명에 의한 겁니다. 악한 혈통을 더 이상 번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매일, 매주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더러운 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들딸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산아제한을 합니다. (205-97, 1990.7.7) p.797

지상은 어떤 곳이냐? 영계에서는 번식이 없습니다. 가 보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아들딸 없이 가게 되면, 저나라에 가도 아들딸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마련해 가지고 영계에 가야,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삼고 창조한 이상을 대신한 심정권에 동참하여 사랑의 자극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못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또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면 안 됩니다. 결혼은 절대적이요, 아들딸을 절대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264-150, 1994.10.9) p.79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라는 곳은 어떠한 데냐? 영계에서는 생산을 못 합니다. 영계 나라의 백성을 생산하는 곳은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종적으로 계신 분입니다. 종을 모으는 것은 한 점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없습니다.

이 종의 가치가 나오려면 횡을 연결해야 됩니다. 종이 필요한 것은 횡입니다. 횡이 필요한 것은 종입니다. 이것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종은 왜 있느냐? 횡을 위해서 있습니다. 본래 창조이상이 그렇습니다. 종이 생겨난 것은 횡적 상대를 위해 있습니다. 이런 논리의 정착을 가져와야 이론적 체제에 있어서 모순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252-114, 1993.11.14) p.797

영계에 가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은 횡적인 기반을 중심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횡적인 기반을 확대시켜서 수많은 종족을 중심삼고 수많은 민족, 수많은 국가를 통해서 방대한 그 세계를 채우려니까- 영계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횡적 가정 기반을 확대시켜 가지고 생산한 그 사람들을 땅에서 완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한 개인, 완성한 가정, 완성한 종족, 완성한 국가, 완성한 세계 편성을 해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하나님의 혈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땅위에서 생애를 마치고 환고향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영계입니다. (245-188, 1993.3.7) p.797

Top p.797

③ 저나라 소유권은 지상에서 결정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뭐예요? 땅 위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을 남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계에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땅 위에 산 하나님의 아들딸을 남기는 입장이 될 때는, 나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무얼 남기려고 해요? 여러분들 여편네하고 재미있게 살고 아들딸 낳는 것 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146-223, 1986.7.1) p.797

그 동안 여러분은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그거 심각한 문제지요? 오십이 넘도록 몇 년 동안 통일교회서 일했나? 그때부터 몇 사람 전도했나? 1년에 몇 사람이나 했어?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영계에 가서는 자기 소유권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나 데리고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따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뭐 하루에 몇 백만이 전도될 때가 옵니다.

통일교회에 그런 굉장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라구요. 지금 죽느니 사느니, 인생이 무엇이니, 공중에 떠돌아다녀 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미친듯이 돌아가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218-227, 1991.8.19) p.798

영계에 가면 그립니다. 사랑의 품이 클수록 그 품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나라에서 존경받을 사람이다 이겁니다. 천 사람 만 사람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아! 나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영토가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집 문전을 지나가면서 들르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들르면 안 된다고,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마음을 많이 심어준 사람이 저나라의 인격기준이 되고, 사랑을 중심삼고 관계되어 있는 그 무대가 저나라의 소유권이 되는 것입니다. (205-347, 1990.10.2) p.798

저나라의 부자가 별거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을 위해 투입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무리가 서울에만 해도 1천2백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못 사귑니까. 가서 전부 다 복 빌어 주겠다고 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개가 짖으면 '너희들 복 받을 줄 모르는 개로구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복 보따리는 내가 가지고 다닌다. 나는 지남철이야. 복을 전부 다 끌어 붙일 수 있는 완전한 플러스야. 마이너스 요소는 모두 끊어 버리고 사탄의 플러스 요소만 전부 다 남기고 가기 때문에, 그 플러스 요소는 사탄권뿐이기 때문에 지옥밖에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 걷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205-347, 1990.10.2) p.79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가서 열두 진주문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얼마만큼 하늘의 백성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찾아 가지고 돌아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과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재창조의 참사랑의 심정을 중심삼고 사탄의 부모 이상, 사탄의 남편 아내 아들딸 이상의 심정을 투입해서 눈물과 더불어 피땀과 더불어 교차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자기 백성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수의 비례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든 조건의 성립이 가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11-252, 1991.1.1) p.798

앞으로 영계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지구장 했다고 해도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아들딸을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몇 사람밖에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귀 과정에서 거쳐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사탄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아들딸을 만들게 될 때, 그 공로는 선조와 연결되고, 또 선조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노정에 있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30-25, 1992.4.15) p.799

밥먹고 살고, 아들딸 먹여 키운 것은, 저나라에 가게 되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50억 인류를, 이 세상을 소화해야 됩니다. 빨리 소화하면 영계의 모든 영들도 재림 부활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자권이 사탄의 기반이 된 것이 거꾸로 되면, 아담이 장자권이 되면 천사장은 아담 말을 듣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복종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아담 사랑권 내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천국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230-25, 1992.4.15) p.799

내가 들어온 지 몇 년 됐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몇 사람을 교구장 만들고, 몇 사람을 축복받게 하고, 몇 사람을 선생님 일족과 혈연 관계를 맺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선생님의 사돈 되는 박보희, 곽정환, 유정옥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몇 천 배 될 수 있는 종족권 메시아권을 빨리 확장해서 앞으로의 역사시대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230-27, 1992.4.15) p.799

세월을 그냥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청춘시대에 아들딸을 낳아 길러야만 후대에 자랑할 수 있는 기반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역사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이 없게 되면, 자기 일가나 동네에서는 축에 끼워주지만 나라에서는 못 끼는 것입니다. 나라에 끼기 위해서는 역사의 전통에 남을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나라에 무엇을 남기기를 바라고, 세계에 무엇을 남기기를 바라고, 하늘땅에 무엇을 남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유 판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필생의 목적이라는 관념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길에서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230-27, 1992.4.15) p.799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구하는 일입니다. 저나라에 가보면. 영계에 간 모든 차원 높은 사람들 일이 땅의 일입니다.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늘나라의 국민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입니다. 광대무변한 천국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너무나 넓습니다. 사람들이 수억 년 동안 왔다 갔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만큼 그렇게 넓습니다. 한 가정의 자식을 한 백 명씩 낳더라도 하늘나라가 넓어서 과잉생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나라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 산아제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저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거느리고 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참된 하늘나라의 아들딸을 많이 거느리고 올 때, 그게 자기의 권익이 되고, 천상세계에서 표창받을 수 있는 등급의 등차를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2-40, 1990.5.1) p.80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밥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그게 본직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본업입니다. 생애에 해야 할 일 중에 그 이상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직해 가지고 출세하거나 돈을 모았던 것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나라에서는, 돈을 모아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나라에서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압니다. 1주일 이내에 무엇이든 다 통하는 것입니다. (230-28, 1992.4.15) p.800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나라에 가 가지고, 복귀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아담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창세 이후 지금까지 아담 완성자를 찾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건 수천 수만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칠 수 없어서, 모르는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걸 대신해서 지상에서 하나님 이상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리로 수백 수천의 아담을 교화시켜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상 할 일이 어디 있어요? (230-28, 1992.4.15)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아들딸을 몇이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천만금을 가지고 잘 살아 보라구요.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모든 물질과 지식과 자기 생명까지, 타락한 내 생명까지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입하는 전체가 가중함에 따라서 그 가치는 비례해 가는 것입니다. (230-28, 1992.4.15)

천국은 무한한 세계인데, 그곳에서는 사랑의 심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펼쳐져 있으면, 영계에 가서는 그만큼 넓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부가 자기와 관계 맺고 인연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어서 사상을 무장해 가지고 연결시킨 것과 같은 그런 체제가 자기를 중심삼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230-25, 1992.4.15) p.801

아들딸을 많이 기른 사람은 사랑의 내적인 핵이 큽니다. 천국 갈 때는 요것이 가는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돈이니 명예니 잘사느니 하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아들딸을 키우는 데 있어서 춘하추동 사방을 중심삼고 자기 세계가 되면, 땅이 거기에 맞추어 평면적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만족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일방적입니다. (233-247, 1992.8.1) p.801

이 지상은 천국 백성의 무한한 생산지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본래의 부부는, 아들딸을 천국 백성으로 낳아 완성한 인간으로 길러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생애 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도 하나님에게 갈 때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선물이 없으면 자기의 체면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갈 때 부모 앞에 가서 무엇을 자랑할 거예요? 그때 아들딸을 잘 길러서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을 지상에서 키워서 데리고 가는 것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29-15, 1992.4.9) p.801

많은 아들딸을 가진 부모는 많은 사랑의 상대를 맞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더라도 사방팔방 누구든지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딸을 많이 낳은 여자들 가운데 악한 여자는 없습니다. 왜냐? 자기의 아들딸을 귀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딸과 비교해서 생각을 언제든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 내에서 자동적으로 사랑의 경지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딸을 키운 사람은 영계의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 (239-156, 1992.11.24) p.80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로서 천국 백성을 많이 번식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고, 인생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보배로운 소유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영계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곧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백 명 이상, 천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227-208, 1992.2.11) p.801

여러분은 지상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길러서 남기고 가야 합니다. 장래 그 자녀들도 모두 영계에 갑니다. 영계에 가서 천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몇 사람을 천국의 국민으로서 바쳤는가 하게 될 때, 지상에서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영원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고귀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218-319, 1991.8.22) p.802

Top p.802

④ 육신을 쓴 지상생활이 낱낱이 기록된다

여러분 모두 영인체와 육체가 수정같이 맑게 살고 가야 나중에 영계에 가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흠집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살던 그냥 그대로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294-26, 1998.6.5) p.802

저나라에 가면, 김 아무개라면 김 아무개라고 딱, 딱, 딱, 버튼을 누르면, 쫙 순식간에 살아온 역사가 나옵니다. 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걸 잡는 직감이 빠릅니다.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뭐냐 하면,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지상생활의 기록판입니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하나 둘, 전부 다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입력이 됩니다. (275-36, 1995.10.30) p.802

사람의 행동 한 가지, 표정 하나, 모든 것이 비디오 테이프로 찍히듯이 찍히는데, 영계에 가 가지고 숨길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보다도 표면적인 세계가, 드러난 세계가 영계입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변명을 못 합니다. 입을 열면 열수록 우주의 부끄러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후퇴만이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208-37, 1990.11.15) p.802

양심이 압니다. 양심이 아는 한 양심세계의 본궁이 영계니 영계의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하면 후루룩 해서 몇 대조부터 쭉 나옵니다. 이 녀석의 에미 애비가 뭘 했다는 것, 좋은지 나쁜지 전부 다 나옵니다. 자기가 일생동안 뭘 했다는 것이 순식간에, 몇 년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나오는 겁니다. 눈 깜박할 새에 알게 됩니다. 그만큼 확대된 인간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63-127, 1994.8.21) p.802

영계에 가면 자기의 기록이 백 퍼센트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전부 나타나는 겁니다. 양심은 영원의 세계에 전시하는 컴퓨터의 디스켓 같은 것입니다.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겨 젖을 먹을 때부터 일생동안 주욱 무엇을 해 왔는지, 전부 마음의 영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가 여러분의 완전 감정을 위해 날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오냐 하면 죽을 때입니다. 만능이 된 감정 컴퓨터 앞에 서면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영계의 영상이 그림자 같은 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46-188, 1993.4.16) p.803

양심은 자기가 하는 일을 일생 동안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것이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틀림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 보면 압니다. (218-63, 1994.3.16) p.80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잘났다는 사람들은 바람 피우고 별의별 수작을 다 합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영계에 들어가 뒤집어 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아이쿠! 몰랐으면 좋았을 걸' 할 때가 얼마나 있는 줄 알아요? 가니 첩첩태산입니다. 사탄한테 잃어버린 사랑때문에 영원히 포위된 감옥살이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290-17, 1998.2.2) p.803

여러분의 마음, 타락한 마음도 그렇지요? 자기가 일생동안 어떤 놈인지 잘 알아요, 몰라요? 속이질 못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잘난 척 하지만 말입니다.

하늘 영계가서는 백 퍼센트 드러납니다. 나쁜 것이 먼저 드러납니다. 나쁜 것을 먼저 청산해야 영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감고 있다 하더라도 나쁜 것이 드러나서 처단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교육받아야 됩니다. 수련받아야 됩니다. 맹훈련 받아야 됩니다. 영계가 지금 그런 전체적으로, 흥진군을 중심삼고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수련하는 겁니다. (287-203, 1997.10.30) p.803

양심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비디오 테이프와 마찬가지로 기록됩니다. 일생 동안 산 것을 보면, 가게 되면 자기 번호가 영계에 번호가 있습니다. 심령상태의 빛을 벌써 알고 누구 올 때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면 어디 넘버 몇 번 해서 18 번이면 18 번을 꼭 누르면 순식간에 알아요. 나서부터 그때까지를 순식간에 아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양심이 통곡하는 겁니다. 그 비례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런 놀음이 연결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그냥 함부로 주먹구구로써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리적인 세계입니다. 이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과학자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제멋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284-23, 1997.4.15) p.803

습관성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습관 된 것보다도 더 새로운 것을 습관화시키면 땅에서는 청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계에 가 가지고 문제 됩니다. 영계에 가 가지고 걸려 버린다는 겁니다. (289-208, 1998.1.2) p.803

껍데기를 벗기려면 뱀도 통로에 꽁무니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꾸로 죽을힘을 다해, 나무를 감아 들어가서 피를 흘리며 허물을 벗습니다. 역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순리적인 과정을 갈 수 없다는 타락을 인정하는 인간에서는 불가피한 비원리적 공식적 노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리의 입장에서 내 개인 몸 마음이 하나되고, 순리의 입장에서 부부가 되고, 순리의 입장에서 부모가 돼 가지고 산 사람은 역리적 조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계는 타락한 참소조건에 거꾸로 끌려갈 수 있는, 나무가 거꾸로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끌려가면 순리가 될 텐데 가지를 끌고 가면 역리가 되어 모든 게 가면 갈수록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85-74, 1997.4.21) p.804

거기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거짓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보지요? 웃으면 웃는 대로 그 실상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는 비디오의 시간적 관념권 내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거기는 초시간적 세계입니다.

째까닥 하게 되면, 천년 생활이 다 비춰지는 겁니다. 딱 켜보게 되면, 누가 가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찾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밀려가는 겁니다. 밀려가 가지고는 척 어디 가서 자기는 좋은 데에 갈 줄 알지만 자꾸 밀려가는 겁니다. 딱 가서 삼각지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때 가서 탄식할 거예요? 내가 영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하는 겁니다. 영계를 중심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163-308, 1987.5.1) p.804

영계의 윤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얼마나 현세와 연결되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지상의 생활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의 생활이 영원한 자기의 생애권을 좌우한다는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295-127, 1998.8.19) p.80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상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정성들이고, 하루에도 몇십 번 원리 기준을 중심삼고 반성하면서, 이래 가지고 아침·점심·저녁 24 시간 천상 법에 걸리지 않게끔 살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294-26, 1998.6.5) p.804

하늘 앞에 갈 때는, 모든 걸 청산짓고 갈 때는, 잘한 것부터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부터 보고하고 잘한 것은 나중에 해야합니다. 세상은 반대지? '너 뭘했니?'하면 '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쁜 건 다 감춥니다. 그렇지만 영계는 아닙니다. 영계는 나쁜 것부터 보고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뭘 했느냐 할 때 부르르 텔레비전같이 나타납니다. 나쁜 것부터 보고하는 겁니다. 왜? 가인이 먼저입니다. 나쁜 것이 먼저고, 나쁜 것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뭐냐? 아벨은 둘째 번에 나타나서 비교해 가지고 선한 것, 아벨적 기준이 많게 될 때는 재교육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영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196-283, 1990.1.2) p.804

Top p.804

⑥ 육신 쓰고 지은 죄는 지상에서 탕감해야

지상에서 매인 것은 지상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영계에 갔다가는 큰일납니다. 자기 자신이 자극을 통해 거기에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229-27, 1992.4.9) p.805

우리들은 좋든 싫든 간에, 지금부터 죽어도 탕감의 고개를 넘어가야 할 운명적인 타락의 후손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 일생에 있어서 넘지 않고 영계에 간다면, 몇백만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 영계에는 탕감이 없습니다. 그곳은 해방된 완성권이기 때문에 사랑의 물결로 충만한 곳입니다. 탕감이나 재창조는 없습니다. 재생산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고착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229-243, 1992.4.12) p.805

뱀이 허물을 벗으면 벗을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하루에 열 번을 벗을 수 있으면 열 번 벗으라는 겁니다. 영계에 가서는 그러한 자극이 없습니다.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다시 땅 위에 찾아와 가지고 그것을 해원성사할 수 있기를 아무리 바라더라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갔으면 마음대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242-305, 1993.1.2) p.805

저나라 영계에는 사랑의 자극적인 요소는 있지만, 죄악을 벗겨줄 수 있는 탕감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40 년 동안에 다 닦아 치운 것입니다. 밤낮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저녁 한끼 먹고, 아침 한끼 먹는 생활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243-177, 1993.1.3) p.805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할 때는 힘들지만, 함께 안고 통곡하면서 감동시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 육신을 가진 지상의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250-112, 1993.10.12) p.805

이 땅 위에 있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인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상생활을 영생에 비유하면 이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생활을 넘어 영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주류사상을 가지고 센터에 서서 일체를 컨트롤하고, 일체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207-99, 1990.11.1) p.805

영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타락권을 중심으로 한 풍습, 즉 습관성입니다. 풍습에 의해서 습관성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음식은 무엇을 가장 좋아해요? 국과 밥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미국인은 햄버거, 한국인은 고추장과 김치!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그 습관성은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성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자기의 습관성을 없애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고착된 타락성, 고집스런 습관성을 가지고 영계에 간다면 얼마나 어려운 입장이 되겠어요? 그것을 이 지상에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갈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딸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아들딸은 자기의 습관성을 다 해결한 후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28-114, 1992.3.26) p.806

지상에서 맺어진 그것은 지상에서 풀고 가야 됩니다. 영계에 가서 풀려고 하면, 그러한 자극적인 환경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악역이, 선을 반대하는 세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빴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밀어 붙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별시켜 버리는 겁니다. (256-28, 1994.3.12) p.806

여러분은 영계에 가 가지고 보호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몇천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도 앞으로…. 아들딸들이 전부 다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아 놨어? 왜 여기 끌고 왔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들의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는 데도 다 자기 급에 맞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들딸들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 그게 뭐야?' 하면서 참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207-99, 1990.11.1) p.806

여러분, 참된 가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영계 가면 다 갈라집니다. 영계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하늘 나라의 가정을 이루어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영원을 두고 여러분은 돌아가야 됩니다. 지상에 있어서는 7,80 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벌어지지만 영계 가면 영원을 두고, 몇천만 년 걸려도 그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청산해야 됩니다.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잃어버렸으니 땅에서 찾아야 됩니다. (283-184, 1997.4.12) p.806

몸을 때려서 3 년 동안 제재하면, 3 년 내지 5 년 제재할 것 같으면 그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것을 크게 하면 영적인 것은 작아집니다. 육적인 것을 없애 버리면 이게 높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을 무시하고 종적인 것을 중시하게 되면 영계가 가까워져서 본연적 양심적 기준에 접붙이면 전깃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전소의 전기가 통하듯이 폭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변화 작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82-308, 1997.4.7) p.807

성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한 논리도, 이런 이중구조의 일체성을 앎으로 말미암아 해명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육신을 쓴 이 기간이 진정으로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활시킬 수 있고, 우주도 부활시킬 수 있고, 모든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기간은 육신을 쓰고 있는 이 기간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합하더라도 이 육신세계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이 우주를 합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없어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거 멋지지요? (91-191, 1977.2.13) p.807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두 길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을 찾아오는 사람과 지옥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지옥과는 관계없이 천국에 와서, 방대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할 아들딸들이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사지(死地)에 간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영계에 가면, 여러분이 다 알게 됩니다. (244-25, 1993.1.29) p.80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서 다 묻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러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당신은 합격자냐, 불합격자냐? 영적 오감과 육적 오감이 하나되어 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은 아무래도 좋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축복받고도 엉터리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심각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더 심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46-191, 1993.4.16) p.807

영계에 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겠느냐? 누구 만나고 싶은가? 누구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지요? 자기 어머니 만나려 해도 못 만납니다. 참부모가 해방시키기 전에는 못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못 만납니다. 먼발치에서 볼 수 있지만 가까이서는 못 만나는 것입니다. (285-125, 1997.4.21) p.807

인간은 영계에 입적할 때 지상생활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 할 수 있는 생애의 증명서를 말입니다. 그러한 증명서는 자기 자신이 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씁니다. 먼저 사탄에게서 증명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299-77, 1999.2.4) p.808

앞으로 여러분이 자서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서전을 써야 합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삶을 하나도 거짓말 없이 자서전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영계에 들어갈 때 그 자서전을 앞에 놓고 '내가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고 통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상에서 써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160 명, 240 명, 360 명에 해당하는 영통인들 앞에서 줄을 거쳐 나갈 때, 거짓말했다가는 거기서 벼락이 나는 겁니다. 못 속인다는 겁니다. (297-120, 1998.11.19) p.808

여러분이 행동한 전부가 저나라에 가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순식간에 일생이 테이프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비참하겠지요?

여기서 선생님이 다 사(赦)해 주게 되면 그 테이프가 전부 다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알아요? (165-90, 1987.5.20) p.808

Top p.808

⑥ 자연속으로의 순응적 삶이 귀하다

자연을 대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의 세계는 꾸임이 없는 세계입니다. 땅은,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백 퍼센트 내가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거기엔 투기성이 없습니다. 일확천금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도박성이 없습니다. 나이가 50 이 되면 자연에 돌아가 가지고 자연의 흙과 더불어 묻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영계에 갈 준비로는 이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244-322, 1993.3.1) p.808

선생님은 장래에 여기에 농장을 만들어서 세계의 식구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60 세, 70 세가 되면 자연속에서 만물을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은 심정을 체휼하고 하나님의 창조 심정권을 체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계에 가면 높은 영계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 고생한 사람은 만년에 농장에 데리고 가서 별장에서 자급자족하게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향입니다. 선생님은 그와 같은 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6-216, 1993.4.16) p.808

육십이 넘으면 고향 농촌에 돌아가 가지고, 하야해 가지고 땅 파고 영계에 갈 준비해야 하는데, 영계에 갈 준비가 바쁩니다. 그러니 정성을 들여 가지고 선생님같이 농촌에 묻혀가지고,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취미산업, 취미생활을 마쳐가지고 영계에 가야 높은 영계에 갈 수 있고, 정서적인 사람이 되어 가지고 영계의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289-193, 1998.1.2) p.809

만 60 세까지 일하지만, 만 60 세까지 일하고 나서는 그때에는 공적 활동 시대에서 해방되는 데 3 년 동안 공적으로 무보수로 일한다 이겁니다. 영계에 가기 위해서는 보수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실적이 있으면 7 년까지 연장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몇 세까지? 영계에 갈 수 있는 기반을 중심잡고 67 세, 60 세에 끝나고 7 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디 가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 기반을 갖고 가게 되면 '아 공신 양반 오시누만.' 해 가지고 선생님 대신 대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위한 그 기반을 통해서 영계에 간다 생각할 때, 그런 연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멘'. (289-195, 1998.1.2) p.809

육지 여행, 수중 여행, 우주 여행하면서 살다가 영계에 가야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5 인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잠수함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정착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육지 여행, 수중 여행, 우주 여행하면서 살다가 영계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79-200, 1996.8.4) p.809

사슴같은 짐승도 길러서 놓아주고, 고기도 길러서 놓아주고, 그 다음에는 곡식도 자연에 인공을 대입해서 하고,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재생시켜 가지고,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서로서로 돕고 살면서 취미를 갖고 살다가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시 집중의 세계를 전부 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52-210, 1993.12.30) p.809

하나님이 바라는 미래의 가정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은 취미 산업, 취미 세계를 생각한 겁니다. 앞으로 각국에 무슨 조직을 해야 하느냐? 건축을 하는데 콘도미니엄 시스템 건축, 네 가정이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돈 벌어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아들의 교육도 같이 시키고, 한 식구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못 살고 화합 못 하면, 영계에 가서 제한된 환경에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화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78-327, 1996.6.23) p.809

이 재미, 취미 문화라는 것은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복귀 때, 완성 때, 지상생활, 천상세계까지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만 잘 살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도 잘 살기를 원해요? 미국 사람 중에 제일 잘 살던 사람의 집을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을 한 달 동안 살게 해 주라고 하면 어때요? 그것을 못 하면 레버런 문이 할 것입니다. (278-123, 1996.5.1) p.809

고향에 정착할 때는 하늘땅의 모든 것이 고향이 되고, 하늘땅의 모든 것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고 갈 필요 없이 놔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놔두고 영계에 가게 되면, 이걸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것을 여기에 옮겨 올 수 있고, 또 내가 저기 가면 자기 집도 끌어올 수 있고,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289-144, 1998.1.1) p.810

보트만 있으면 혼자 가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조그만 천막만 쳐 놓으면 거기서 잘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같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말입니다. 자연에 파묻혀 가지고 이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되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262-270, 1994.8.1) p.810

영계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천리 만리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우주를 전부 다 행동 반경권 내에 소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자연에 있어서 남미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새가 있고, 전부 다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요전에 큰 구렁이 잡은 것이 8 미터 가까운 그 껍데기가 있습니다. 야, 그것 한번 잡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 이상의 구렁이를 잡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76-77, 1996.2.4) p.810

[텍스트 입력]

일생 동안의 생활 중에, 인생의 취미 생활이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 이상생활과 더불어 화합해 가지고 영계와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적 행복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78-123, 1996.5.1) p.810

지상세계에서 언제나 맑으면, 맑고 구름이 끼고 별의 별 변화무쌍한 기후를 볼 때, 그것이 예술적인 겁니다. 그 환경에서 사랑함을 느끼면, 저 영계의 맑은 세계에 가 가지고 자기가 구름 끼게 하고 싶으면 구름 끼게 할 수 있고, 안개 끼게 하고 싶으면 안개 끼게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 모든 다양한 감응권을 만들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계가 관심을 두는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한테 가야 재미있다.' 하는 겁니다. (201-102, 1990.3.11) p.810

나는 산에 가서 풀을 보면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다 압니다. 순이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소 새끼들 양 새끼들은 순을 다 뜯어먹습니다. 독초를 먹어도 독이 없습니다. 그때는 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배워 둔 겁니다. 산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우거진 데 들어가 가지고 낮잠을 자기도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배를 턱 내놓고 시원하게 뒹굴며 살고, 비가 오더라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배를 내놓고 등나무 아래서 네 활개를 큰 대자로 펴고 방귀도 뿡뿡 뀌면서 코를 골며 자는 사나이의 모습을 지나가는 여승이면 여승이 보고는 나무아미타불…. 그거 왜? 너무나도 훌륭한 겁니다. 돌부처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모르는 여자는 목석입니다. 그건 아들딸도 못 낳고 시집도 못 갑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며 나무아미타불 할 때 젖가슴이 후루룩하고 궁둥이가 다 두드러지고 할 때는 스님들도 한 차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영계에 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스님들은 낙방입니다. 뭐 예수쟁이들 잘 믿고 천국가겠다고, 암만 해 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샅샅이 다 뒤져봤어요. 김활란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요? 환란세계에 가 있습니다. (202-231, 1990.5.24) p.811

Top p.811

4)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천국은 황족의 명예를 갖고 들어가는 곳

도수를 못 맞추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미터의 원기(原器)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은 기후나 온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수많은 미터자가 있어도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되어 가지고 그게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기에 갖다 맞추어 봐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248-299, 1993.10.3) p.811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지요? 천국에 가고 싶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내용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티켓이 필요할까요? 그대로 무사 통행일까요, 무슨 조건을 가지고 체크할까요? 무사 통행이 아닙니다.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컴퓨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영계의 컴퓨터는 살짝만 해도 1분에 한평생 전체를 압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들딸로 태어나서 이런 생활을 했고 하는 것이 전부 나옵니다. 개구쟁이 같은 여자라면, 못된 장난을 해서 좋지 않은 연륜을 많이 남긴 여자라면 그것이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250-110, 1993.10.12) p.811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혈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계의 아들딸이 천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가정이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타락해 가지고 원수의 핏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의 원수가 돼 가지고 원수의 핏줄을 받은 그 원수의 자식을 잊어버리고 타락하지 않은 직계의 자식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지 않고는 본연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혈족인 자기 아들딸을 직접 사랑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탄세계 원수의 자식을 그 이상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을 못 가지면 천국 못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텍스트 입력]

자식을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들어가는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262-304, 1994.8.1) p.811

사탄, 원수의 핏줄을 받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받아 가지고 영계에 직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몸과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되어 가지고 천국 생활을 하다가, 지상천국에서 살다가 천상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창조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서 직계의 1백 퍼센트 참사랑의 인연을 맺어 통일적 개인과 통일적 부부와 통일적 가정 틀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들이 지상에서 살다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원리원칙 기준이 돼 있습니다. (264-168, 1994.10.9) p.812

타락한 이후에 지옥이 생겨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모두 참부모의 사랑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참부모의 사랑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갔으면 만민 가정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본연적 모델의 가정 형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전통적 역사를 이어받은 황족권 사랑을 연결한 모든 가정은 하나의 중심 줄기 앞에 동서남북 가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권 통합의 원칙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일세계가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31-76, 1992.5.31) p.812

여러분의 가정에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부모가 할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참부모가 있으면, 여러분 축복가정은 부모 자리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참자녀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그들이 미래에는 왕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왕가를 만들어 가지고 완성해서 영계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상적 최고의 가정입니다. 그게 하늘의 왕족입니다. 본연의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왕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완성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란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살면 좋겠어요? 왜? 일생을 기꺼이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참부모는 일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즐겁고,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230-110, 1992.4.26) p.812

탕감복귀 원칙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탕감복귀의 원칙은 불변진리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해와가 지은 죄를 후대에 해와 세계에 있어서 탕감하지 않고는 복귀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알지요? 그걸 복귀함으로서 사탄세계는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본연적 기준의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천국,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인류가 바라는 단 하나의 방향으로 찾아 들어가는 평화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262-214, 1994.7.23) p.813

참부모와 하나되어 전통을 상속받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주체적 전통으로써 만국을 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주체성을 지닐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하늘나라에 황족권 내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3대가 결심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아버지·부부·아들딸까지 단계는 4단계이고 계열은, 부부를 갖춘 것은 3대입니다. (228-295, 1992.7.5) p.813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왕자 왕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세계적입니다. 근원인 동시에 맨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에서 선한 부모가 못 나오고 악한 부모가 나왔으니, 이것을 전부 다 따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악한 부모로 시작된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226-319, 1992.2.9) p.813

본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딸이니 만큼 하늘나라의 왕자고, 이 땅 위의 왕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인 동시에 커서는 땅 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손입니다. 그렇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때문에 하늘나라 왕궁에서의 법도를 지켜 가지고 그 도리를 전부 다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종횡·전후·좌우에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겁니다. 동쪽에 가나, 서쪽에 가나, 남쪽에 가나, 북쪽에 가나, 앞쪽에 가나, 뒤쪽에 가나 어디를 가나 이상적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심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라는 것은 중심을 중심삼고 동쪽·서쪽·남쪽·북쪽·상하 관계 어디에서든지 전부 다 핵입니다. 그런 입장을 볼 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6-258, 1992.2.9) p.813

사랑의 소유를 중심삼고는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가정이 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녀의 완성, 형제의 완성, 부부의 완성, 부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본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날 참부모를 통해 재현해 가지고 알게 되고, 그것을 재차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한의 고개를 넘어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 합격자, 합격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계는 이 땅 위의 사랑의 대해가 연결된 세계로서, 그곳이 천상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에는 사랑의 체휼적 심정을 갖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226-73, 1992.2.2) p.813

50 억 인류는 장자권 직계 왕권을 이어받은 왕가의 친족들입니다. 그 황족권의 심정을 체휼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평면화된 왕족권을 중심삼고 그것을 실체화시킨 세계 통일 심정권을 체휼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참부모도, 장자 위의 참부모입니다. 참부모의 왕권이라구요. 이런 왕권을 중심삼고 주변의 왕족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천국은 이런 가정의 형제는 물론 부모를 중심삼고, 왕권을 중심삼고, 왕족을 이끌고, 왕권을 모시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체휼하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곳은 뭐냐? 아담과 해와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성장하고 결혼하여 둘이 부모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심정권을 체휼하고, 왕권을 이루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왕족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왕이 들어간 뒤에 왕족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면적으로 4 대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247-265, 1993.5.9) p.814

이제, 지상천국시대에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이 왕의 집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이 되어야 돼요? 왕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왕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아들딸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왕과 왕비, 왕자 왕녀들은 그 나라의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법이 있습니다. 법 중에 왕궁법이 있습니다. 궁에서 귀족들이 사는 법이 있잖아요? 영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왕손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선생님이 그 길, 복귀의 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안 해 보면 천국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다스릴 왕의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여왕을 모실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남자의 왕이 돼요? 안 그래요? (232-326, 1992.7.10) p.814

이제 여러분들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황족이 되어야 됩니다. 황족인 아담이 그렇게 되면, 아담이 직계자녀라면 방계자녀인 그 형제 누나들은 전부 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의 사랑을 갖추어 그 권위와 위신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본향의 나라 천국인 것을 알지어다! (220-219, 1991.10.19) p.814

Top p.814

② 4 대 심정권의 사랑의 실체가 천국 간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4 대 심정권을 완성한 사랑의 실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보다 몇천 배 낫기를 바라는 사랑의 대상자로서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와 미래의 3 왕권을 대신한 중심 가정이 내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귀된 가정에서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내용을 실천해서 결실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딸을 통해서 번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와 같이 본연의 길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완성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귀의 길이요, 재창조의 길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문총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38-254, 1992.11.22) p.815

여러분, 이런 말은 처음 듣지요?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복귀해 가지고 황족의 사랑을 지니고 가야 할 조국이 천국입니다. 죽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때 가서 '문총재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 가지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화합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할아버지를 하나님 대신 모셔야 됩니다.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는 50 억 인류의 가정을 중심삼은 왕입니다. 그 아들딸은 미래의 왕과 같이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현대 가정을 대표한 왕과 같이 모시는 부모의 도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천세만세에 그 도리를 남기고 가는 세계가 지상천국이 되느니라, 아멘! (239-76, 1992.11.23) p.815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완성한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같고, 부모는 세계 가정의 왕이고, 자기 자신은 천상과 지상의 왕권을 승계하는 미래의 왕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왕권이고, 이것은 지상이지요? 이것을 상속하는 왕입니다. 이와 같은 3 대 왕권이 결실되어야 할 곳이 우리의 이상가정입니다. (239-185, 1992.11.24) p.815

부모권복귀의 목적은 왕권복귀고, 왕권복귀의 목적은 황족권복귀입니다. 그것이 4 대 심정권입니다. 할아버지 · 아버지 · 자기 부부가 3 대 왕권을 상징합니다. 할아버지는 과거를 상징하고, 자기의 부모는 현재를 상징하고, 자기 부부는 미래를 상징하지요? 할아버지는 영계의 특권 대사로서 자기의 집에 보내진 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가정은 번창합니다. (249-306, 1993.10.11) p.815

우리의 지상생활이 그냥 그대로 영계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계에 가 가지고 어떻게 횡적으로 연결되느냐? 내 가정에서 느끼던 것이 우주의 가정에서 느끼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적 부모를 중심삼고, 물론 하나님권을 중심삼고 종적 부모가 돼 있지만 횡적 부모를 중심삼고 가정에서 살다가 영원한 종적 세계, 부모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 세계가 천국이니만큼 그건 일대가 아닙니다. 수천 대가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상에서 할아버지 · 부모 · 자기 아들딸과 살던 것을 확대시켜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살려면 이 땅에서 누나로서, 누이동생으로서, 그 다음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 또 오빠로서, 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가정에서 느끼던 책임을 횡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연이 되어야만 화하는 것입니다. (247-308, 1993.6.1) p.816

남자는 절대로 여자와 하나되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 절대적으로 하나되어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딸이, 하나님과 아들딸이 절대적으로 하나되고, 형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같이 한 가정에서 살고 죽어서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영계입니다. (279-114, 1996.8.1) p.816

아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몸입니다. 나라의 중심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계의 중심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기를 이런 가정에 있어서 가정이 하나되고, 나라가 하나되고, 영계가 하나되는 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78-169, 1996.5.5) p.816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담의 아들딸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의 사랑 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계의 왕권과 지상의 왕권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상천국에서 천상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8-161, 1996.5.5) p.81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대 필요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 필요하고, 부부가 절대 필요하고, 자녀가 절대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는 자기 가정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세계는 그와 같이 4 단계 인류가 분포돼 있는 것을 알고 자기 나라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세계는 하늘땅을 대할 때, 과거-현재-미래가 합해진 그런 영계에 가서 살려면, 그런 4 단계의 모든 사랑했던 사람들이 간 곳이니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을 땅 위에 이룬 것이 지상천국이요, 천상천국은 지상천국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277-192, 1996.4.15) p.816

4 대 심정권은 부부로 말미암아 사랑 일체를 이룬 데서 결실되고, 3 대 왕권은 아담과 해와가 아들딸을 낳아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야 3 대 왕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영계를 대표한 것은 할아버지를 대표한 하나님이고, 아담과 해와는 현재를 대표합니다. 과거-현재-미래입니다. 현재를 대표한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미래를 대표한 아들딸이 나오는데, 정(正)에서부터 분(分)됐던 이것이 합(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270-258, 1995.7.16) p.816

영계에서도 하나님이 과거에 느끼던 모든 나타나지 않던 것을, 아담과 해와가 느낌으로써 결혼 때에 있어서 아담과 해와가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상하 좌우가 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적 구형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구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황족권이고, 부부를 이룬 것이 왕권입니다, 왕권. 3 대 일체권이 벌어지는 겁니다. 3 대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270-268, 1995.7.16) p.816

할아버지는 과거의 왕입니다. 하나님 자리니 영계를 대표한,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특권대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해와권은 이 세상 나라의 왕과 왕후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의 왕과 왕후의 자리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 가정들을 중심삼고 가정 세계의 여왕과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계를 대표한 할아버지 왕권과 현재의 이 지상천국을 대표한 왕권, 이 두 왕권이 합한 그 계대를 받기 위한 것이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아들딸은 부모와 하나 안 되면 안 되고, 할아버지와 하나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할아버지는 언제나 부모를 중심삼고 손자와 하나 안 되면 안 되고, 부모도 역시 할아버지와 하나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는 천국 기틀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246-74, 1993.3.23) p.817

하늘땅이 아무리 높고 낮은 차이가 있고, 넓고 좁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땅에 머무는 것들은 4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연령, 청년과 같은 연령, 소년과 같은 연령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집약하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253-132, 1994.1.23) p.817

4 대 심정권, 3 대 왕권 알겠지요? 여러분 부부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영계에서부터 지상까지 언제든지 왕림할 수 있다 이겁니다. 4 대 심정권의 완성은 결혼해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됨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깨지면 자녀 심정권의 미완성, 형제 심정권의 미완성, 부부 심정권의 미완성, 부모 심정권의 미완성이 되는 겁니다. 영계에 가는 데는 이런 심정권을 완성해서 가야 할 것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심정권을 지금까지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9-289, 1993.10.11) p.817

Top p.817

③ 마음에 동화된 생활을 해야 한다

양심이 하나님 대신 나에게 심어준 제 2 의 하나님, 내 중심존재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도주(道主) 이상, 예수님 이상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던 이상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총재를 믿지 마십시오. 통일교회 문총재의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양심과 완전히 하나되게 된다면, 통일교회 문총재를 따라가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재를 사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심을 개방해 가지고 해방적 자아를 확립시켜서 통일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천국을 다 들추어 보니 그렇게 해서 천국 간 사람이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도 수양과정에 머물러서 낑낑대며, 목사 장로나 잘났다는 사람들 중에 전부 다 거꾸로 꿰어져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253-45, 1994.1.1) p.817

양심을 해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의 초소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지옥의 초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가 마음을 끌고 다녀요, 마음이 몸뚱이를 끌고 다녀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고, 종교 안 믿는 사람은 백발백중 몸뚱이가 마음을 끌고 다닙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삽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출발지가 나요, 천국의 출발지도 나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천국 가는 것이요, 몸뚱이대로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게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면 양심해방을 선언해야 됩니다. (252-257, 1994.1.1) p.818

몸과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주체와 대상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을 위하고 몸은 마음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되면 여러분은 오관이 아니라 십관이 되는 겁니다. 하늘 영계도 다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283-253, 1997.4.13) p.818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는 영통인들이 나서 가지고 싸릿대로 비행(非行)한 사람을 예수의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른 것과 같이 찔러댈 겁니다. 무자비한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민재판이 있었지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건 자기가 원한다고 안 할 수 없고, 거짓말도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252-140, 1993.11.14) p.818

하나님이 하나되어 계신다 하게 되면, 타락하여 다투는 존재는 하나님의 반대의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곳을 가리켜서 영계에서도 지상에서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겠어요? 양심과 몸이 계속 싸워서 일체가 되지 못하면 지옥에 수납됩니다, 천국에 수납돼요? 지옥! 죽기 전에 언젠가는 그걸 하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천국에 간다 하고 생각하는 자는 터무니없는 자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258-309, 1994.3.20) p.818

사탄은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지옥이 있고 자기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양심은 천국, 지옥은 육신입니다. 양심은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에 의하여 양심이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영적, 지적,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영원한 플러스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256-51, 1994.3.12) p.818

몸뚱이가 뭐냐 하면 지옥의 중심 핵입니다. 핵심 중의 핵입니다. 그러면 양심은 뭐예요? 천국의 중심 핵입니다. 이 둘이 싸웁니다. 허구헌 날 싸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게 우리 일생 일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때려잡는 것을 취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반대 영역을 자꾸 점령해서 넓혀 내 소유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영역을 무한한 세계로 넓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육신을 계속 정복해서 영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수평이 될 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는 지상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평면상에서 몸 마음이 하나될 수 있는 기원적 자리를 복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54-221, 1994.2.13) p.819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이 있고 선한 신이 지배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건설하는 것이고, 지옥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건설과 파괴가 내 일신에서 부딪치는 것이 몸 마음의 투쟁입니다. (261-196, 1994.6.19) p.81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몸 마음이 하나돼 있기 때문에 몸 마음이 하나된 이상적인 아들딸로 태어난 사람들이, 지상에서 하나되어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돼 있지, 싸우는 녀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 형태도 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바라는 소원이 뭐냐? 이러한 싸움을 정지시킬 수 있는 주인이, 부모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로 시작돼서 갈라졌기 때문에 참부모가 와 가지고 이런 사실을 확실히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어디서 고장났기 때문에 그 고장난 급소를 떼어 버려 가지고 차 버릴 수 있는 이런 놀음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고는 지상에 천국은 영원히 요원한 것입니다. (261-300, 1994.7.24) p.819

양심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당했어요. 일생동안 유린당하는 양심의 사정을 여러분은 알아요? 밤이나 낮이나 나를 관리하기에 피곤한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몸이 나쁜 행동을 하려 하면 막는 것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 아니냐, 내 말 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지요? 자기 앞에 제일 가까운, 부모 대신 하나님 대신 스승 대신의 존재가 양심입니다. 마음 자체에게는 교육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몸뚱이에게는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214-260, 1991.2.3)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신 속에 가장 소중한 스승을 일생동안 내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잘못 대우하고 짓밟고 남용합니다. 그 스승이 바로 인간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을 하며, 우리를 참사랑과 연결시켜 주고자 합니다. 부모와 같이 우리의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비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는 또한 양심의 소리에 항상 거역하는 반란자가 있습니다. 그 반란자는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201-208, 1990.4.9) p.820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통일도 참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승 중의 스승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파송해 준 내 중심입니다. 종적인 나입니다. (226-60, 1992.2.1) p.820

선생님은 젊었을 때 자기의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뜨고 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만 명의 미인들 가운데서 자더라도 남자의 그 스틱이 미인들의 삼각지대에 닿더라도 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컨트롤 못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263-100, 1994.8.21) p.820

지옥의 뿌리, 천국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세계가 아닙니다. 끝날의 세계가 지옥과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와서 가르쳐 주었지만, 상대적 세계에 적응하려 했지, 자체에서 싸우는 이 근거지를 폭파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통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263-199, 1994.10.4) p.820

사탄세계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적인, 자기 위하는 세계는 악한 세계로 가고, 공적인 세계, 전체를 위하는 세계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악의 분기점이 나에게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는 공적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사적으로 가려고 하는 육과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공적이요, 육은 사적인 입장에서 투쟁하는 겁니다. 거짓 사랑?거짓 생명?거짓 혈통으로 태어난 것을 부정시켜 여기서 잘라 버리고 참사랑을 중심삼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에 접붙여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인류가 가야 할 길이요, 개인 전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종교가 나온 것은 몸뚱이를 정복시켜 하나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참사랑과 하나되어 가지고 이 땅 위에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아들딸들을 여러분이 낳아야 됩니다. 종교를 믿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참된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가 나와 가지고 몸을 정복해 가지고 하나 만들고 참부모와 하나되어 접붙여 가지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돼 가지고 참아들딸을 낳아 이 땅 위에 살다가 영원히 저나라에 올라가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창조이상이라는 겁니다. (263-281, 1994.10.15) p.820

여러분 몸뚱이에서 이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지어야 됩니다. 이 전쟁을 끝마치고 살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영원히 저나라에서 걸리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일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번에 이게 걸리는 겁니다. (264-121, 1994.10.9) p.821

심신이 통일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성립되더라도 다시 가정을 중심삼은 7년 노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자비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바위의 틈새기로 빠져나가는데, 큰 뱀일수록 힘이 듭니다. 작은놈들은 쉽지만, 큰놈은 힘들다는 겁니다. 큰놈이 빠져나가면서 가죽을 벗길 수 있는 그런 틈바구니가 있나? 그러니까 납작하게 이렇게 가면서 전부 다 벗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세계의 통일이 어려워요? 영계의 통일이 어떤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303-264, 1999.9.9) p.821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은 사탄의 혈통이 내 몸에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지시키느냐, 어떻게 이 근원을 청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일일생활에서부터 일생을 거친 생애노정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청산 못 하고는 영원한 세계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걸리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식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전부 다 그 학과를 거쳐서 학점을 따 가지고 졸업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다.'하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데도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263-81, 1994.8.21) p.821

영계에 가면 양심이 영계의 몸같이 되고, 그 몸에 대한 양심의 입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비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하면, 자기 안에서 '여기다, 여기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즉 하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250-156, 1993.10.14) p.821

신비로운 영계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기도하면 뱃속에서 '왜 그러니?' 하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말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갔다가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49-223, 1993.10.10) p.821

Top p.821

④ 절대성을 중심삼고 천국, 지옥이 갈라진다

남녀의 첫사랑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결혼해서 첫사랑하는 순간은 남성으로서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플러스세계, 모든 남성형 우현형을 대표하는 그 안테나로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안테나 꼭대기에 음전기와 양전기가 만나는 딱 그 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그 자리는 남성 완성, 여성 완성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 비로소 천지의 중심으로서 땅 위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랑의 왕궁이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랑의 본원지가 출발하는 것이고, 또 생명이 그곳에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핏줄이 그곳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거기서부터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첫사랑의 문을 여는 그 자리에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261-16, 1994.5.15) p.82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궁, 알겠어요? 그 사랑의 출발지는 지상천국의 출발지요, 천상천국의 출발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절대적으로 하나되는 자리입니다. 그 절대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상과 형상을 분립해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 남자가 사랑으로 하나되어 가지고 아들딸을 낳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던 것을 보이는 실체가 되어서 이루는 것입니다.

피를 섞을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피를 섞을 수 있는 그 축이 어디냐? 어디가 발전소냐 하면, 여자와 남자의 오목 볼록이 첫사랑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첫사랑으로 발전(發電)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발전, 참생명의 발전, 참혈통의 발전, 참지상가정과 더불어 지상천국의 발전, 천상천국의 발전의 진원지가 그곳입니다. 이걸 무시한 자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옥밖에 안 가는 겁니다.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259-229, 1994.4.10) p.822

남자 여자의 그 기관이 얼마나 귀한 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방이 여기서 벌어지고, 하나님의 노래와 춤도 그 위에서부터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왕궁, 영원한 왕궁과 통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첫사랑의 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거짓 같아요?

여러분, 처녀 총각 때 그렇게 귀하게 알았어요? 첫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사랑이 틀리면 천하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왕궁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왕궁을, 혈통의 역사와 모든 전부를 잃어버리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기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요? 원리 원칙이 있는데 어디를 가요? 존속할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인간이지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가지고 거꿀잡이 놀음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61-27, 1994.5.15) p.822

남자 완성, 여자 완성, 하나님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본고장이 어디냐?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고, 어디에서 남자 여자를 완성시킬 수 있느냐? 그 중심 정착지가 어디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지상 위에 사랑이상 천국을 확장,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게 눈이오, 코요, 손이오, 발이오? 어디요? 「오목 볼록입니다.」 (261-167, 1994.6.9) p.823

남자 여자가, 오목 볼록이 하나되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고, 절반 되는 여자, 절반 되는 남자가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오목 볼록이 결혼해 가지고 첫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적 이상이 완성되는 정착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남자 여자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상대적 자리로서의 완성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핵입니다.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 모든 우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상천국의 본거지요, 천상천국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이곳은 사랑의 본연지이니 만큼 사랑의 본궁이라 합니다. 많은 왕궁 가운데 중심 궁을 본궁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요, 그 다음에는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의 출발지요, 인간이 바라고 있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랑·생명·혈통 모든 것의 왕궁이며, 개인, 가정, 종족, 민족이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의 본연지, 출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의 기원지입니다. 여자에게 남자가 없으면 절대 암흑이요, 남자에게 여자가 없으면 절대 암흑입니다. (261-173, 1994.6.9) p.823

남자가 숭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여자의 얼굴입니까? 여자의 가슴입니까? 여자의 몸뚱입니까? 어디예요? 오목이 볼록과 맞출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비적 환경이, 사회가 연결되고, 국가가 연결되고, 세계가 연결되고, 지상·천상천국, 우주가 모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세계의 철칙이고 공식입니다. (262-55, 1994.7.23) p.823

평화의 기지도 그렇고, 지상천국 천상천국 모든 것이 사랑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사랑? 남자의 사랑이에요, 여자의 사랑이에요, 남자 여자가 합한 사랑이에요? 합한 사랑입니다. 그 남녀의 사랑의 어디에서 합해요? 얼굴에서 합해요, 손끝에서 합해요? 오목 볼록에서 합하는 것입니다. (263-52, 1994.8.16) p.82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결혼식이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동시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중심삼고 타락하지 않고 만나는 그 시간이 지상천국 천상천국 출발 기원지입니다. 3 대 왕권을 수립해야 될 그 기지가 거기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263-57, 1994.8.16) p.823

사랑이 이상적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출발지니까 사랑의 왕터입니다.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생식기는 사랑의 왕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궁이 되려면 결혼해야 됩니다. 부부생활로 말미암아 사랑의 왕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연결해요? 남자하고 여자가 키스, 입술이 연결돼요? 무엇이 연결돼요? 오목 볼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위업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모든 전체와 여자의 모든 전체가 섞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남자와 여자의 핏줄이 연결됩니다. 핏줄이 연결되어 가지고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 중앙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중심삼고 역사가 창건되고, 역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1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역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263-122, 1994.8.21) p.824

여자는 남자의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생명 때문에 살고, 아들딸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자는 다 아기를 좋아합니다. 여자는 가슴 큰 것이나 궁둥이 큰 것이 아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걸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대 본궁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근본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근본이요, 사회의 근본이요, 국가의 근본이요, 지상과 영계, 천국세계의 근본 출원지입니다. (252-104, 1993.11.14) p.824

사랑의 본궁은 하나님까지 완성시켜 안식시킬 수 있는 왕궁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하나되느냐 하면 오목 볼록 한 자리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생식기 그 자리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식기는 사랑의 본궁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천지 창조의 전체, 하나님까지 완성시켜서 안식시킬 수 있는 왕궁인데, 본궁입니다. 하늘나라도 첫번이 아니요, 지상나라도 첫번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본궁입니다, 본궁. 놀라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참사랑을 중심삼은 본궁이지만, 참생명을 중심삼은 본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혈통을 중심삼은 본궁이고, 지상천국의 출발지요, 천상천국의 출발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하늘나라와 인간나라가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이 놀라운 곳을 가지고 이것이 쌍소리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망친 망국지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일 나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본래는 거룩한 것입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인사를 할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 중의 조상보다도 조상 중의 조상의 사랑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3-347, 1994.10.27) p.824

사랑의 기관을 함부로 다루면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왕궁이요, 사랑의 조상 동산입니다. 사랑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역사도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상천국의 기원이요, 천상천국의 기원이요, 하나님의 행복의 출발의 기원이 거기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웃음 바탕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을 찾아 가지고 하나님이 춤출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256-199, 1994.3.13) p.825

하나님의 꽃이 사랑에서부터, 인간의 꽃이 사랑에서부터, 지상천국 천상천국은 이 꽃이 사랑에서 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사랑은 모든 완성의 꽃이다.' 이런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부부의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던 제 2 창조를 나에게 주어 가지고 하나님이 느끼던 기쁨을 느끼고, 영원 실존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실체적으로 체휼할 수 있게 한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겁니다. (256-235, 1994.3.13) p.82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서 거기에 화합해 가지고 상대적 세계에서 꽃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꽃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꽃을 통한 새로운 씨를 지닐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영원한 그 세계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56-170, 1994.3.13) p.825

여자의 생식기는 우주적인 본원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하는 그 자리가 사랑의 본궁(本宮)이 되어 있습니다. 본연의 궁중입니다.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 첫날밤의 사랑이 사랑의 본궁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생명, 남자의 생명이 처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생명의 본궁이 그 곳이요, 혈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혈통의 본궁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상천국의 본궁이요, 천상천국의 본궁이요, 인간완성의 본궁이요, 하나님 완성의 본궁이라는 겁니다. (257-324, 1994.3.16) p.825

인간이 타락할 때 사랑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기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간음하는 것을 제일 무서운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의 프리섹스가 악마의 지옥 팽창주의예요, 천국 팽창주의예요? 지옥입니다. 지상지옥이고 천상지옥입니다. 이건 전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261-302, 1994.7.24) p.825

문총재가 모든 진리를 탐구해서 영계 육계 탐사하고 모든 경서를 탐사해도 이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세계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내 놔 주지를 않습니다. 결판 짓기 위해 싸움한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근본원칙이 무엇이고, 왜 태어났느냐? 남자는 여자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체 진리 중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여자 앞에 이상적인 남자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우주 전체를 완성한 이상의 진리의 본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 앞에 그런 여자도 우주의 진리의 본체 중의 본체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체입니다. (267-230, 1995.1.8)

지금까지 인간이 고민한 근본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줄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지지리 고생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옳고 그르고, 뭐 영계에 들어가서 똥싸개까지 뒤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몰랐구나!' 했습니다. 대게 다 있습니다. 기분 좋지요? 우주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주가 다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199-314, 1990.2.21) p.826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배울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걸 찾아 나왔지만, 진리의 세계가 우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니 무엇이니 세상을 다 닦아 가지고 고생해서 전부 다 들춰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전부 다 내게 있었던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263-97, 1994.8.21) p.826

Top p.826

⑤ 부부사랑이 사랑이상의 중심 꽃

하나님은 종적 이성성상을 가진 분이요, 인간은 횡적 이성성상을 가진 실체로서 둘이 합해서 완전한 둥그런 사과모양을 이루어 가지고 네 개의 성상형태를 가진 동서남북에 사랑 이상을 끌어 붙일 수 있는 모체를 삼자는 것이 부부의 이상입니다. (127-98, 1983.5.5) p.826

결혼을 했다면 이미 평면적이 아닙니다. 평면적인 기반밖에 없지만, 높은 것이 낮은 것과 연결될 때는 수직적 개념이 생깁니다. 평면적인 역사는 우주를 수습하고, 천주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90 각도를 이룰 때, 그것은 하늘을 땅으로 해도, 땅을 하늘로 해도, 앞을 뒤로, 뒤를 앞으로 해도, 우현 좌현?상현 하현?전현 후현 어느 면을 붙여도 딱 맞는 것입니다. 지상 완성기준은 영계의 모든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30-259, 1992.5.8) p.82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절대적인 부부의 이상을 그려서 예술적인 부부를 땅에 이뤄 가지고 지상에 없는 사랑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천상세계 영원한 세계에 여행하러 나서기 위한 것이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영계는 무한세계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밥도 필요 없습니다. 옷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주고 싶으면 전부 다 특권적으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금 같은 옷, 세상에 없는 상상만 하던 옷을 입히고 싶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돼서 주고 싶은 마음 있으면 상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여행을, 어디든지 자유입니다. (272-281, 1995.8.28) p.826

가정을 예술화시켜야 됩니다. 재미있는 남편, 예술적인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잡지 같은 데 좋은 것이 있으면, 딱 잡아내 가지고 자려고 하는 부인 앞에 멋진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감동받고 자는 아내의 모습을 꿈에 그리면 그것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영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멋대가리 없는 부처끼리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려면 멋질 수 있는 자세로부터 멋질 수 있는 방향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조건입니다. (271-282, 1995.8.28) p.827

영계에 가면 농사도 안 짓고 먹고 놀기만 하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싸움도 못 하고 사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사느냐 이겁니다. 천년 봐도 싫지 않고, 천년 만져도 좋고, 만년 들어도 좋고, 억만년 좋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밥이야 매일같이 먹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때는 여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279-21, 1996.6.9) p.827

세상살이는 한 달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다 압니다.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거 다 싫증납니다. 그러니까 영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정성들이게 되면, 영계의 환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멋져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춤도 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몇백 년 전의 이름난 사람들도 모여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내가 망상가가 아닙니다. (203-57, 1990.6.14) p.827

본연지에 모든 원소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같으면 진액도 같고, 잎도 같고, 꽃도 같잖아요? 본질의 원소들이 일체화될 수 있는 그 기간만 화하게 된다면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백 퍼센트 못 그리잖아요? 그림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림이 뭐 필요해요? 안 그래요? 남자 여자 둘을 중심삼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상적 부부가 꽃피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는 뭘해요?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리워할 수 있고, 그림이 찬양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옷을 입을 때 알록달록하고 계절에 따라서 이것이 환경적 조화를 이루게 입어요.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이니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202-92, 1990.5.6) p.827

영계에 들어가 영인체가 영원히 살아간다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어머니 아버지? 오빠, 누나? 자녀? 그건 자녀도 아닙니다. 오빠, 누나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아닙니다. 자기 상대자입니다. 왜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기쁨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부부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기를 낳은 기쁨은 가장 자극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첫째 남자애한테 가장 정이 가고, 남편 부인 모두 일심으로 심정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낳은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다. 장남과 차남의 차이는 장남은 사랑을 보다 많이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장녀도 그렇습니다. 그 장남, 장녀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연장, 어머니의 연장임이 틀림없습니다. (258-242, 1994.3.20) p.828

인간이 완성하게 되면 남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상이 들어가고,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실체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영계에 가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알 수 없는 이런 이론이 다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느냐, 부부 중심삼고도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게 자궁입니다.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거기라는 것입니다. 역사이래 문총재로 말미암아 영계가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252-119, 1993.11.14) p.828

여러분이 부부관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아요? 공개적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영계에서도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손바닥에 서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250-244, 1993.10.15) p.828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화와 만상은 하나님께 향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향취 속에 살고 싶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 터전이 부부의 사랑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모든 만물과 우주가 화동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왕궁이라 하면, 영계의 왕궁과 지상의 왕궁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접선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어디서 합해지느냐 그말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의 일체였던 그 생식기라는 것은 본원지입니다. 그것이 본원지니까, 궁으로 보면 본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출발한 궁, 첫번 시작하는 궁입니다. 그것이 본궁입니다. (265-215, 1994.11.21) p.828

남편하고 그렇게 정답게 살다가 돌아갈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언제나 사랑의 기관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얼굴, 키스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 영계에 가서 남는 기억이라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키스하고 사랑하는, 그 생식기를 맞추던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키스하면서 죽어 가고 싶어요? (269-57, 1995.4.7) p.828

사랑으로 하나님 대신 태어나 가지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들딸은 낳아놓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부부가 둘이 합해 가지고 이런 3 단계의 사랑을 완전히 성공하고 영계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주체인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가 같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7-36, 1990.10.21) p.829

남자 여자들은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에 취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에, 가정의 사랑 가운데에 살고 싶어해야 됩니다. 그게 이상이요 행복입니다. 행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영계에 가서 영계가 아무리 좋으면 뭘해요? 문총재로 말한다면, 좋으면 엄마 찾습니다. 엄마,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도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와 아들딸을 낳아 준 어머니. 한 집에 두 어머니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낳아 준 어머니, 그 다음엔? 아들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은 겁니다. 안 그래요? (174-250, 1988.3.1) p.829

나는 하나님을 닮았고 완성한 아담과 해와를 닮았다 이겁니다. 두 부모를 닮았습니다. 이게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몸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싸우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영계와 육계와 하나님과 창조주와 창조물이 하나될 수 있는, 완전한 자리에서 새로운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기점입니다. 평화의 출발입니다. 행복의 출발입니다. 이상의 출발입니다. 희망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잃어버렸으니 다시 찾아야 됩니다. (254-281, 1994.2.15) p.829

영계에 가면, 남자로 태어나 혼자 살다 그냥 달고 간 녀석들 보게 되면, 좋은 데 못 가 있습니다. 좋은 데 못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려다 봅니다. '이 녀석, 왜 내려다 봐?' 하는 겁니다. 남자의 저 끄트머리가 내려다보면 할 수 없이 내려다 본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남자로 태어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지고 천지조화의, 음양의 합덕을 모르고 온, 사랑을 모르고 온 중이 천지 대도의 중심인 사랑의 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197-24, 1990.1.7) p.829

아들딸을 낳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한 편에만 있어야지 마음대로 못 다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생활을 강조하는 패들은 악마의 직계입니다. 끝날에 쫓겨나는 패는 악마, 사탄밖에 없는데, 그들은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패들입니다. 악마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가 되어 오니, 젊은 청소년들은 윤락에 빠지고, 나이 많은 남녀는 사랑에 지치고, 악마의 사랑에 실패해서 독신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독신생활을 하는 패들은 전부 다 지옥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228-263, 1992.7.5) p.830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의의 뜻 앞에 범죄자 입장입니다. 아기를 안 낳겠다고 산아제한을 한 사람은 저나라에 가 가지고 '네 아들딸을 통해서 천하를 치리할 수 있는 왕자 왕녀를 보내려 했는데, 요 꼴이 뭐냐?' 하고 심판받습니다. 영계에 가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대번에 아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한의 역사 가운데서 수고한 선조들의 공을 자기 일대, 일족을 통해서 복을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 목을 잘랐다 이겁니다. (264-150, 1994.10.9) p.830

저나라에 가게 된다면 과부들은 곤란합니다. 과부가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처녀로 살다가 혼자 간 사람들, 남자도 혼자간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몽달 귀신이라고 그러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나요. 몽달 귀신은 죽은 다음에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 없어? 그거 뭐라고 그래요? 독신녀? 이거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화합을 못 해요. 여자들 세계에 가서도 이렇게 서고, 남자들 세계에 가도 이렇게 서고, 갈 데가 없습니다. 방향은 그늘진 데, 그늘의 세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돌아설 수 없습니다. 화합은 사랑을 중심삼고 동서남북을 통하게 되어 있는데, 방향이 딱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으니 죽어 보라구요. (194-42, 1989.10.15) p.830

축복받은 혈통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것은 혈족의 문서, 혈통의 집문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족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결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겁니다. (263-62, 1994.8.16) p.830

Top p.830

⑥ 천국은 가정단위로 들어간다

우리 가정과 천국은 유형이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사랑으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일이 이뤄질 수 있고, 생명이 연결될 수 있고,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는 부모 앞에 사랑을 상속해 주었고, 부모는 부부 앞에 사랑을 상속해 주었고, 부부는 자식 앞에 사랑을 상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사랑을 부정해도 천국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부끼리 사랑하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천국의 핵심이 되고, 이상적 모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48-10, 1971.8.31) p.830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이므로 참사랑과 연결되면, 모두가 같은 몸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고, 아들딸은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3 대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조직이 천국의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우주의 중심입니다. 가정완성은 우주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지 무사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전체 우주의 부모로서 사랑의 복합적인 중심 자리에 계십니다. (298-306, 1999.1.17) p.83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 원리에서 말하는 사위기대는 3 대 사랑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대가 한 집에 살면서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할 때, 천지 창조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보살펴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적으로 이룩되고 횡적으로 연결될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룩됩니다. 사촌과 육촌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비로소 사랑의 원형이 되어 완전하게 됩니다. (101-64, 1978.10.28) p.831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천국은 한 번 가보면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열 번 백 번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민이 공통으로 그 곳을 가고 싶어하고, 그 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 분과 같이 살고 싶어한다면 세계는 통일될 것입니다. 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가정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민족, 국가,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180, 1963.4.1) p.831

천국생활은 어디서부터냐? 가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정을 입체적으로 확대시킨 것뿐이지, 가정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품을 때에, 이것은 세계의 남성과 여성이 하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30-82, 1970.3.17) p.831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참부모권을 통해 가지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기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세계에는 참부모의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타난 흔적도 없습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의 사랑을 받고 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가정적 기대에는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아들의 사랑, 딸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된 자리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딸을 사랑하면, 누구나 천국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통일교회는 과거의 종교와는 달리 개인적인 구원만을 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이상세계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본연의 이상세계는 완성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부의 인연을 맺어, 그 아들딸을 낳아서 천국에 가는 곳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옥가고, 어머니는 천국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부모는 천국가고 자식이 지옥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모와 자녀, 종족, 민족, 국가가 다 들어가는 하늘나라입니다. (42-286, 1971.3.27) p.832

가정천국을 이루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상하는 지상천국이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위기대가 돼야 합니다. 통일원리 창조이상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3 단계를 거쳐 종적세계와 횡적세계가 벌어지면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이 있어야 횡적인 세계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종적인 세계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몸을 중심삼은 몸의 횡적 기준이 아들딸이요, 마음의 횡적 기준이 영계다 이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96-29, 1978.1.1) p.832

통일교회의 구원관은 남편은 천국에 가고 부인은 지옥에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딸도 데리고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 자기가 사랑하는 종족까지 몽땅 데리고 천국갈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종교는 독신생활을 강조했지만, 통일교회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세계를 위한 가정이요, 하나님을 위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34-359, 1970.9.20) p.83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에서 개인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둘이 같이 천국가게 되어 있지, 남편 또는 아내만 천국가게 돼 있습니까? 부부가 합하고, 가정이 합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理想)이지, 아버지는 지옥가고 어머니는 천국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은 부부가 가야 되는 것이요, 가정이 가야 되는 것이요, 가정뿐만 아니라 일족이 가야 되는 것이요, 국가 전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50-63, 1971.10.31) p.832

할아버지를 하나님과 같이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부모로 모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천상세계의 특파원입니다. 전권대사입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의 전권대사입니다. 자기는 두 나라,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전권대사로, 아들딸로서, 후계자로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계에 직행하는 것입니다.

영계는 본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믿으면 천국간다고 하는데, 똥개 같은 얘기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가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기가 찰 겁니다. '이럴 줄이야. 이럴 수가 있어?' 할 겁니다. 이럴 수가 무슨 소리예요? 원칙이 틀리면 다 그런 겁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수만 수천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 되었으면, 전부 다 똥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살라 버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인 기준을 찾아가야 됩니다. (249-265, 1993.10.10) p.833

자기의 조부는 하늘의 특권대사입니다. 만일 아담 가정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이 모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영계에 간 선조들 가운데 가장 최후의 사람으로 남겨진 주인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신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세계 가정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모두 현대 60억 인류 가정의 왕입니다. (246-198, 1993.4.16) p.833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인 영적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전권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류 가정을 대표한 왕과 여왕입니다. 부모는 인류를 대표한 왕과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딸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있어서 영계와 지상세계, 두 세계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 왕녀라는 것입니다. (246-256, 1993.4.18) p.833

할아버지는 과거를 표징하는 겁니다. 지나간 시대의 주체는 천국, 영계입니다. 할아버지는 영계와 지상을 연결한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한 천국의 모든 것을 지상에 있는 자기의 가정에 연결시켜 놓은 하나님의 대사(大使)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누구라구요? 할아버지입니다. (249-304, 1993.10.11) p.833

나라를 형성하는 데는 가정이 모델입니다. 가정이 제1단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3단계가 있지만 이것을 확장할 때는 세 개, 네 개…. 이것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걸 중심삼고 세상에 통하지만 영계도 그냥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보게 되면 세계에도 할아버지 레벨, 그 다음에는 부모 레벨, 그 다음에는 내 레벨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습하는 모든 전부를 세계로 확장하면 어디든지 다 맞습니다. (225-166, 1992.1.12) p.833

가정을 보면,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이 있습니다. 이것이 3대인데, 역사를 두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영계에 가 있는 하늘나라의 우리 조상들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집안에 파송된 전권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누구와 같이 모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같이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출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6-56, 1992.2.1) p.83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는 가정을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아들딸이 없으면 안 됩니까? 후손이란 본래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횡적인 부모의 사랑, 하나님과 부모의 피가 종횡으로 혼합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후손을 못 가진 사람은 영계에 가서 천지 조화를 못 이루고, 동서남북으로 박자를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후손을 갖지 않게 되면, 저나라에 가서도 놀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297-269, 1998.12.19) p.834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정통적인 가정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족을 거느린 장(長)이 되어 가지고 영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계에 들어갈 때는 자녀의 완성, 형제의 완성, 부부의 완성, 부모의 완성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6-156, 1992.2.4) p.834

가정에서는 부모를 중심삼고 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를 중심삼고 충신이 되라고 합니다. 또 세계를 중심삼고는 성인이 되라고 합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궁법과 하늘나라의 궁에 사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중심삼고 사는 사람이니, 사랑의 생명을 존중시하고, 사랑의 혈통을 존중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존중시하면서 세계 어디든지 고향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인간이 찾아가야 할 이상향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계에 가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거리끼지 않고 직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209-16, 1990.11.24) p.834

Top p.834

⑦ 위해서 살면 천국 간다

천국은 희생한 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종족을 위해, 종족은 민족을 위해, 민족은 국가를 위해, 국가는 세계를 위해, 세계는 천주를 위해, 천주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최고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249-49, 1993.10.7) p.834

영계에 가면, 상대를 중요시하고 전체를 위해 봉사, 희생한 사람이 높은 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민의 공통된 성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영계에 가느냐 하면, 모든 것을 투입하여 하나님처럼 투입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 붙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국민을 얼마나 많이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영계에서의 자신의 자리,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49-80, 1993.10.8) p.835

위해 보지 못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지 못한 남자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영계에 가 보면 똑똑히 알게 됩니다. 저 나라는 전부 위하는 사람뿐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살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에게로 쏵 올라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문총재는 지금까지 나타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제자들을 전부 앞세우고 영광된 자리를 다 내어 준 것입니다. (202-249, 1990.5.24) p.835

참을 찾아 나간다면 마음을 절대 위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되어 가지고 하늘땅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90 각도로 연결되면, 동서남북 상하고저 어디에 가든지 압니다. 자동적으로 영계가 통합니다. 배우지 않고도 다 압니다. 문총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지의 비밀을 다 알았겠어요? 그 경지에 들어가니까 다 알게 된 겁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몸과 마음이 공명되는 경지에 딱 들어가 보니 다 보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도 보이고, 천상세계가 다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다 보입니다. 왜? 참된 사랑을 통해서 관계맺고 인연짓고 이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경지에 들어가 보니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영계의 조상도 부르면 재까닥 나와 가지고 만나 뭘 물어볼 수 있습니다. (199-372, 1990.2.21) p.83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우주의 법도를 세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위해 사는 대표적인 자리에 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식의 대왕이지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대왕이지만 능력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주인이요, 대왕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는다구요. 위해서 오면 전부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33-16, 1984.7.1) p.835

우리의 본향(本鄕)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요, 위해서 나고, 위해서 살고,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本鄕)의 이상적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향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역사과정에 수많은 종교를 세워 가지고 훈련시켜 오는 것입니다.

종교가 온유 겸손해야 되며,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영계에 돌아가야 할 인간들에게 영계의 법도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지상생활 과정에서 그 영계에 알맞도록 훈련시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보다 차원 높은 희생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평소의 생활을 통해 그 세계에 일치시키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75-320, 1975.1.16) p.836

돈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영생길을 못 갑니다. 지식 따라가는 사람도 영생길 못 가요. 지식에 학문에 영생이 어디 있어요? 지식은 많을수록,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의 주인이, 교만의 왕초가 사탄입니다. 사탄세계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교수들 미안합니다. 내가 아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죽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른 말 했나 영계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보고 그때 나한테 항의하라는 겁니다. 올바로 가르쳐주니 올바른 선생입니다. 거기서도 선생이고, 여기서도 선생입니다. 데데한 선생이 아닙니다. (200-127, 1990.2.24) p.836

영계에 가면 고집이 큰 원수입니다. 국회의원 해먹던 사람들 영계에 가면 참 곤란합니다. 그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교수들을 재교육해야 할 텐데, 그래서 깝데기를 벗기고 노동자에서부터 땀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며 땅도 파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수들을 전부 엮어 놨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후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영계에 가면 참소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다 알면서 왜 그랬소? 왜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소?'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얘기입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 보라는 겁니다. (205-257, 1990.4.28) p.836

영계에 가 보면 전부 다 위하여 사는 사람이 가지 위하라고 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래서 학자가 되고,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왕 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위해서 살지를 않았거든요. 목사들의 심정을 보게 되면, 자기가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주고 살려고는 안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암만 자식에게 주었더라도 또 다른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기반에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276-303, 1996.3.10) p.836

영계와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 숨길 수 없습니다. 물을 보면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고, 공기는 공간이 있으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계가 움직이는 데에는 빈곳이 없습니다. 채운다 이겁니다. 물을 받으려면 그릇이 비어야 할 텐데, 그릇이 차 있으면 비어 있는 나머지 밖에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기도 비어 있는 부분에는 다 들어가는데, 막혀 있으면 그 막힌 부분에는 공기가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80-11, 1996.10.13) p.836

영계에 쓱 가보면 천년만년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중심삼고 모여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움직이면 무리를 지어서 전부 다 모여 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지요?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보면서 살고 싶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해요?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천운이, 우주의 법칙이 그런 사람을 중심삼고 전부 다 모여들어 하나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255-170, 1994.3.10) p.83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천주 생성, 형성의 근본입니다. 하나님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평화의 세계가 목전에 전개되는 겁니다. 천주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체적, 생성의 근원, 엑기스적, 핵심적인 자리에 선 그 사람은 천주, 하나님까지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감을 못 하는 겁니다. 영계도 선생님을 중심삼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겁니다. (255-176, 1994.3.10) p.837

참사랑을 중심삼고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밤이든 낮이든 천주 만주 어디에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영계의 전시장에 전시되는 겁니다. 인간의 박람회를 하는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에서는 지상에서 어떤 생애를 산 사람인지 금방 전시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꼴찌가 되고 싶어요, 모두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느 쪽입니까? 최고로 찬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고로 찬양을 받으려 하기 전에 최고로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중심자가 되는 겁니다. (255-179, 1994.3.10) p.837

청년들은 그걸 모릅니다. 20 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친구들의 중심으로 남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모두 나를 위해라!' 하게 되면 모두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20 년, 10 년, 일생을 마칠 때까지, 죽어서도 그 친구들을 위했을 경우에는, 영계가 있다면 그곳에 가 모두 그를 중심하고 모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위하여 사는, 더 위하여 사는, 더 희생하는 사람이 중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57-44, 1994.3.13) p.837

위해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위해 사는 사람은 영계에서 자꾸 코치해 줍니다. 자꾸 새 것과 관계 맺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새 것과 관계 맺으니까 그 사람은 자연히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집니다. (292-26, 1998.3.27) p.837

부모는 고생하는 아들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조류라는 것이 뭐냐?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나와 같이 만들 것이냐 하는 놀음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전부 다 나를 반대하고 천대하지만 하나님과 하늘나라는 나를 옹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영계의 영인들이 나를 옹위해 가지고 보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나를 옹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구름이 환경을 전부 다 휩쓸어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투입하고 수고한 대가만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생하고 핍박받지만 천운이 뒤에서 와 가지고 그 기반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당대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후대에 가 가지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영계가, 하늘이, 천운이 그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07-99, 1990.11.1) p.838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라, 비참하게 죽어라, 비참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도록 나가 전도하라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대우주의 주인으로 세워 주는 것입니다. (49-303, 1971.10.17) p.838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공적인 고생입니다. 공적인 고생을 하고 영계에 갔는데, 거기서 망하거든 선생님에게 항의해도 됩니다. 민족과 세계, 하늘땅을 위하여 일하다가 맞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9-30, 1967.12.10) p.838

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음길을 가야 합니다. 죽어서 할 고생을 살아서 탕감하려니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억천만년 고생할 것을 축소시켜 생전에 탕감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의 길은 영원히 가야 할 수난의 노정을 이 땅 위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탕감하자는 것입니다. (31-320, 1970.6.7) p.83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에 오게 되면, 땅 위에서 잘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지리 못살고, 지지리 고생하다가 죽어 길가에 쓰러져 개도 안 물어갈 주검을 남겼더라도 그 자리에는 꽃이 필 날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성을 만들 것입니다.

통일교회 무리들을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시켜서 효자, 충신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안 가겠다면 후려갈겨야 됩니다. 발길로 차서라도 현재의 비참함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49-303, 1971.10.17) p.838

Top p.838

제 2 장

영계는 어떤 곳인가?

1) 영계의 실상과 법도

영계는 시공을 초월한 무한의 세계

영계가 얼마나 광대무변한 세계인지 알아요? 오늘날 이 우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220 억 광년 이상 되는 우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빛이 1 초 동안에 3 억미터, 1 초 동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로 1 년 동안 간 거리를 1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20 억 년 걸린다는 겁니다. 200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활동무대라는 겁니다. (206-83, 1990.10.3) p.839

신은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사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의 시간이라든가 공간세계를 초월해 사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1 년이라는 해가 없습니다. 1 년, 2 년, 하루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편리하겠지요? 자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다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눈을 가졌으면 눈으로 어떤 것을 한번 보고 '좋다'하고 기억하면 천년만년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지요? (176-294, 1988.5.13) p.839

하늘나라는 태양계와 같이 한 해를 365 일로 하고, 지구와 같이 궤도를 돌며 하루는 24 시간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1 년, 2 년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성에서 하는 말입니다. 태양계를 위주하는 행성의 입장에서 1 년을 잡고, 지구가 한바퀴 자전하는 것을 하루로 잡는 겁니다. 영계는 지구가 한바퀴 돌듯이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그 궤도를 따라서 1 년을 도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이면 영원히 아침입니다. 거기는 날과 년의 개념이 없습니다. (175-196, 1988.4.17) p.839

영계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1 초 동안에도 몇억만 리를 갈 수 있습니다. 광대한 세계가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1 초 동안에도 몇억만 리를 갈 수 있습니다. 광대한 세계가 시공을 초월해 있습니다. 천년 전이 보이고 몇만 년 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데,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다른 것 안 봅니다. 무엇을 만나고 싶어하느냐 하면, 남자로 생겼으면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그 사람의 심중에 있는 본연적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측정적 기준이 됩니다. (209-17, 1990.11.24) p.840

영계의 중심은 뭐냐? 그건 절대적 신을 중심삼고 구성된 세계입니다. 그 절대적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태초의 우주의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전체는 그와 더불어 느끼고, 그와 더불어 인연을 갖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은 4 백조 개가 되는 세포를 갖고 있는데, 모든 세포 자체가 어떤 분야에서건 느끼기만 하면, 직접 두뇌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주를 중심삼아 가지고 연결되는 모든 존재들도 그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더구나 인간으로 태어나 선하고 보다 차원 높은 가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신을 근원으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 가지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근원과 통할 수 있는 결과의 세계에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40-123, 1986.2.9) p.840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주 존재 세계의 마음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마음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영계는 마음 같은 생활의 세계인데, 이는 시공을 초월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음료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옷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거기서는 억천만 리를 순식간에 왕래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을 가지고? 사랑의 힘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면 쭉 나타납니다. (210-225, 1990.12.23) p.840

동물들이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날아가고 싶겠어요, 안 날아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는 비행기 없이 몇백 광년 되는 세계를 순식간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거 한번 가 보고 싶지 않아요? (199-128, 1990.2.16) p.840

하나님께 '모든 곤충까지도 날고 비둘기 같은 새도 날고 있는데, 사람은 왜 못 납니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나요? 하나님이 저 영계의 높은 데서 찾아올 때에 발로 걸어오겠나요, 휙 날아오겠나요? 영계는 무한대의 세계입니다. 요즘에 인공위성이 금성에 가는데 14년 동안 인공위성이 달리고 있는 것을 캐치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때인데, 이 영계는 14년이 아닙니다. 순식간입니다. 영인체는 번개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처럼 활동하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랑의 주체의 대상이 되어서 살려면 날아다녀야 되겠나요, 걸어다녀야 되겠나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는 몇 발짝도 못 갑니다. (298-289, 1999.1.16) p.840

저나라의 광대한 대우주를 바라볼 때 다이아몬드별이 없을 것 같아요? 황금별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내 소유라는 겁니다. 그 재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것을 내가 보고….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떼거리들이 전체가 합해 가지고 대이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상세계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반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고 싶어요? (126-145, 1983.4.12) p.841

영계가 있다는 것 알아요? 얼마나 확실히? 이 세계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구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입니다. (107-56, 1980.1.20) p.841

수많은 사람이 가 있는데, 순식간에 그들에게 잔치를 치르고도 남을 수 있는 이상세계입니다. 영계에 가 있는 모든 나라 사람, 몇백 억이 되는 그 사람들을 모아 순식간에 잔치를 치르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상세계입니다. 그런 세계, 레버런 문은 그런 세계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107-56, 1980.1.20) p.841

영계 가 보게 되면, 남자 여자가 하나의 큰 사람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의 세포와 같은 것이 됩니다. 전 우주가 전부 다 남자 여자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합친 겁니다. 이렇게 걷는다면 우주가 걷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7-97, 1990.11.1) p.841

영계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고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척 보면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래인지, 옆인지, 높은 자리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몇억 년 전 할아버지 됐던 사람들도 만나면, 사랑의 그 위계(位階)라는 것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계는 절대적입니다. 그 위계가 높은 사람은 자연히 그 위계를 맞춰서 자기가 설 자리에 서게 돼 있지 함부로 안 됩니다. 세상하고 다릅니다. 뭐 중상모략해 가지고 출세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거 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正道)를 봐라, 정도를 봐라 하는 겁니다. (194-133, 1989.10.17) p.84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가 있는 인간들은 무엇을 원할 것이냐? 영계는 자기가 처해 있는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급받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원한다면 즉각적입니다. 주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가능이 없는 세계입니다. 만약 백만인의 잔치를 한다면, 생각과 동시에 백만인이 광장에 나타나고 모든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만인의 잔치를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하겠어요? 원자력이 분열작용에 있어서 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랑의 분열작용을 하면 순식간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거 있을 성싶지 않아요? (141-278, 1986.3.2) p.841

영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가겠다 할 때는 벌써 가는 겁니다. 저 대우주가 내 활동 무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아이고, 보고 싶어. 아이구 보고 싶어.' 그래야 돼요, 내 상대와 같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같이 보고 싶으면 확- 가는 겁니다. 저나라에서 예술가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예술적 모든 소질을 순식간에 계발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만사가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러니 저나라에 가게 되면, 노래하는 곳에서는 노래하고 춤추는 겁니다. 전부 다 기뻐하여 몸 마음이 화동해서 춤추고 노래한다 이겁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제일 일등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걸작품 그림을 갖다 붙이고 바라보겠어요, 걸작으로 행동하는 창조물을 바라보겠어요? 어떤 것을 좋아하겠어요? 걸작품은 필요 없다구요? 그리고 그 세계는 사랑의 마음에 취하는 이런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늙었지만, 언제나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을 때의 모양입니다. (201-101, 1990.3.11) p.842

언제나 쨍쨍하게 맑은 날만 있게 되면 지루할 겁니다. 거기에 안개도 끼고 달무리도 지고 이래 가지고 달도 안 보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기후를 볼 때 얼마나 예술적입니까. 생각해 보라구요. 하나의 미술 세계입니다. 예술 세계입니다. 저 영계의 맑은 세계에 자기가 구름 끼게 하고 싶으면 구름 끼게 할 수 있고, 안개 끼게 하고 싶으면 안개 끼게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 모든 다양한 감응권을 만들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영계가 관심을 두는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한테 가야 재미있다.' 하는 겁니다. (201-101, 1990.3.11) p.842

영계에서는 거리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대번에 나타납니다. 방대한 천국이 대번에 통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전화도 거리의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어디든지 통화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배후의 동기지(動機地), 발전소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3-126, 1997.4.8) p.842

영계에 가게 되면 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계에 가게 되면, 이 지구성도 통할 수 있고, 이 물질세계도 마음대로 통할 수 있습니다. 물 속에도 갈 수 있고, 땅을 수직으로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우주에 별들이 무수히 많지만 참사랑의 상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데는 길이 뻥뻥 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빛의 속도는 1초 동안에 3억 미터라는 거리,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 수 있다지만, 이건 그보다 몇천 배 빠릅니다. 억천만 리라도 참사랑이 가겠다면 즉각 가는 겁니다. 방대한 그 영계가 순식간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294-310, 1998.8.9) p.842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 할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거기에서 돈벌이를 하겠어요?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즉각 즉각적으로 다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계는 나를 위해서 나타나라고 암만 죽겠다고 큰소리하고 야단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왕자의 입장에서 왕을 모시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필요하니 나타나라 하게 되면 즉각적입니다. 순식간에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이 미치는 것은 다 가능한 세계가 영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9-101, 1983.10.1) p.843

사랑은 열(熱)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열을 말하지요? 가슴이 불탄다고 그러지요? 영계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빛과 열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안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랑의 빛이 얼마만큼 나느냐, 무슨 빛이 나느냐, 얼룩덜룩한 빛이 나느냐, 무지개 빛이 나느냐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합해 가지고 빛나는 별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어야 됩니다. 별들도 전부 다 위성과 같이 되어 가지고 별을 거느리는 별도 있습니다. 태양처럼 말입니다. (303-42, 1999.7.4) p.843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먼저 지어 놨을까요, 제일 싫어하는 색깔을 먼저 지어 놨을까요? 그렇다면 이른봄에 피는 꽃 빛이 무슨 빛일까요? 보라색, 보라색은 빨간 색도 들어가 있고, 분홍색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보라색 좋아하지요? 고상한 것은 다 보라빛입니다. 저 영계에 가 보면 제일 좋은 빛깔은 보라색입니다. (197-49, 1990.1.7) p.843

영계에 가면 색깔이 없습니다. 너무 밝아서 은색같이 보이는 겁니다. 은색같이 보이다가도 너무 밝고 찬란하니까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필라멘트에 전기가 들어오면 본래 검은색이었던 것이 밝은 흰색으로 빛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 가면 흑인이 없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는 흑인으로 보이던 사람이 영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참된 양심을 갖고 살던 선한 사람은 높은 급의 영계에 가는 겁니다. 장애인도 영계에는 없습니다. 절름발이, 병신이던 사람도 그 육신을 벗으면 어떤 장애도 없는 것입니다. (293-223, 1998.5.26) p.843

영계에서는 어떤 나이로 사느냐? 제일 아름다운 나이 때의 모습으로 삽니다. 천국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그 얼굴 모습과 용모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영계를 알면 그냥 그대로 그것이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294-309, 1998.8.9)

영계에 가게 되면 지상 생각 안 납니다. 답답한 이 손바닥만한 지상에서 뭘 할 거예요? 대우주가 있는데, 이 모래알 하나만한 것이 뭐 생각나겠어요? 그렇지만 영계의 백성을 생산하는 공장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금성에도 사람이 산다구요? 사람은 이 우주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198-367) p.844

Top p.844

② 영계는 사랑전능의 세계

참사랑의 개념으로 꽉 차 있는 곳이 영계입니다. 참사랑을 오관으로 느끼듯 골고루 다 체험을 하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생활 환경이 거기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이로운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246-44, 1993.3.23) p.844

영계는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꽉찬 조화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스위치만 누르면 이 스위치 하나 때문에 뉴욕시의 몇 백만 세대에 불이 쫙 들어온다면 이거 믿어져요? 그러면 사랑의 보턴을 한 번 누르면 이 우주가 작동한다 하는 것이 거짓말 같아 보여요, 진짜 같아 보여요? 지상천국은 모든 사랑의 밸브에 불이 켜지는 곳이 지상천국입니다. 그리고 천상천국이 무엇이냐? 사랑의 밸브에 불이 완전히 켜질 수 있는 곳이 천상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만 품고, 사랑의 줄만 당기면, 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뒤로 당기면 뒤로 가고, 옆으로 당기면 옆으로 가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요렇게 당기면 올라가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조종되는 겁니다.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런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이해돼요? (112-17, 1981.3.15) p.844

영계에 가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화신체를 다이아몬드에 비교할 거예요, 무슨 황금덩이에 비교할 거예요, 진주에 비교할 거예요? 보석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광채가 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화한 화신체는 더 아름다운 겁니다.

다이아몬드에 사랑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생명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이아몬드도 감동시킬 수 있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적 존재라는 겁니다. 귀한 사랑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다이아몬드입니다. 귀한 생명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구요.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멋져요? (201-101, 1990.3.11) p.844

영계라는 곳은, 사랑의 전기로 충만한 곳입니다. 내가 아는 영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은 무엇이든 전부 다 사랑에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 사랑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영계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론에 딱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물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2-17, 1981.3.15) p.844

영계에 가면 꿈의 광산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금 · 은 · 보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꽃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잠자고 있던 꽃들도 갑자기 '쩍-' 입을 열고 눈을 떠서 환영합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그냥 가 버리면 '어휴!'하며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213-277, 1991.1.21) p.845

하나님이 웃게 되면 전체가 같이 웃습니다. 영계에 가면 그렇습니다. 영계에 가면 직감의 세계와 마찬가지여서 벌써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기분 나쁜지 좋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상세계에 무슨 일이 있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전체가 훅 부푼다는 겁니다. 붕 뜬다는 겁니다. (193-263, 1989.10.8) p.845

영계에 가서 뭘 할 것이냐?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영계에서는 저기서 오페라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오페라식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춤으로 말을 하면, 춤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영원히 좋아하고, 춤을 추더라도 영원히 싫증나지 않습니다. 한 군데서 춤추면 천국이 전부 다 춤추고, 한 군데서 노래하면 전부 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춤추는 겁니다. 남의 여자하고 춤을 춘다면 '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너보다 백 배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하고 춤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여자하고 손을 잡고 춤을 춘다면,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천 배 만 배 더 자극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107-331, 1980.6.8) p.845

영계에서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람의 종소리가 울려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등불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 빛은 오색찬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이아몬드 빛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는 맛이 있어서 볼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사랑의 종을 울리면 하늘땅을 움직이고, 모든 만민을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도 '아!'하며 움직일 수 있는 종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느냐, 사랑의 애달픔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103-28, 1979.1.28) p.845

우리가 앞으로 영계에 가게 될 때 참사랑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만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찾아갈 때는 순식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영계라는 세계는 무한히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몇백만 리, 몇천만 리의 이런 거리도 순식간에 사랑을 중심삼고 오고 갈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속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 마음의 통일적 사랑의 기대를 못 갖게 될 때엔 그 세계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일의 기원이 상대세계로부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16-192, 1991.3.31) p.845

하나님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면 대번에 '오냐' 자기 마음속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오?'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 네 마음 근본에 있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근본 아니에요? 저 마음의 뿌리 근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94-41, 1989.10.15) p.84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저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세계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전부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말하기를 '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 사랑해 주소.' 그래야 높은 차원의 남편의 하나님적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제발 우리는 놓아두고 저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소. 본래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 부모를 나는 사랑하고 싶소.' 그렇게 애걸복걸해야 된다는 겁니다. (126-142, 1983.4.12) p.846

사랑이상으로 화한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실현화시킬 수 있는 세계입니다. 몇억 천만 명도 순식간에 뱅퀴트(banquet) 준비를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내가 옷을 호화찬란하게 입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한번 즐겁게 해드리겠다 할 때는 호화찬란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하게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상상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를 아는 사람은, 지상에서 살맛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갖다 처 넣더라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숨 한 번 안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11-244, 1990.12.30) p.846

하나님의 심정, 하늘나라의 심정을 통해서는 어디든지 전부 다 하나될 수 있고 어디든지 전부 다 화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문으로 통할 수 있는 계급에 사는 사람은 '와! 만세! 하나님 좋아요!' 한다는 겁니다. 그저 따라 다니고 싶어하고, 전부가 좋아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입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백년 살아도 못 느끼는 것을 한 순간에 살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행복함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106-229, 1979.12.30) p.846

영계가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심정과 동급에 설 수 있는 심정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앞으로 무니가 몇천만 명이 되어도 '오! 너희들 전부 다 이런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하면 휙 새 옷으로 전부 다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뱅퀴트 장소, 이러이러한 장소 나타나라!' 하면 대번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테이블은 금장식, 은장식으로 오색 찬란하게 엮어지고 또한 거기에 있는 의자도 그럴 것이며,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환희에, 기쁨에, 사랑에 취해서 춤을 출 것입니다. 천년을 춤춰도 기쁠 수 있는 곳입니다. (106-229, 1979.12.30) p.847

몇억만 리의 거리에 있는 세계의 사람이라도 사랑의 마음이 강해 가지고 보고 싶다 하면 척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면 '당신이 불러서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서 왔느냐?' 하면 몇억만 리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내 활동기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없는 물질 가지고 목을 매고 있고, 돈, 지식, 권력 가지고 목을 매고 있어요? 그 세계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는 돈, 지식, 권력이 필요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영계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고, 영계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되려 해도 여러분이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본질과는 반대의 것, 반대적인 것, 그것은 하나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205-128, 1990.7.29) p.847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보고 싶다.'하게 되면 금방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오?' '예. 수백, 수천 년 전에 나는 지상의 어떠어떠한 곳에서 살았소. 나를 만나 보고 싶으시오? 나한테 뭐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소?' '예, 있소. 나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소. 나하고 당신이 얼마나 다르오! 알겠소?'하면서 얘기를 후루루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안 걸려요. 시작하자마자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해요! 차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관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참사랑의 관념을 중심삼고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217-131, 1991.5.12) p.84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으로부터 몇백만 년 전, 8 백만 년 전, 1 천만 년 전에 산 사람도 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류역사가 뭐 6 천 년 이라구? 미치광이 같은 소리입니다. 몇천 년 전과 지금 때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금 사는 사람보다 마음으로는 하늘을 잘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생활 면에서는 반대입니다. 문화생활과 더불어 영적 세계의 계발이 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을 통하게 되면 지식의 척도에 따라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예민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감을 섭취할 수 있는 터전이 더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히 그런 지식이 많고, 세계의 흐름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영계에서 가르쳐 줍니다. 영파(靈波)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최고자리에 가게 되면 끝은 하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206-138, 1990.10.3) p.848

누가 보고 싶다 하면 몇억만 리, 몇백만 리 떨어져 있다 해도 바로 나타납니다. 넓은 천국에 가 있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보고 싶다고 딱 정서를 갖춰 가지고 말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상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벌써 쓱 나타나면 자기가 어느 급에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어떤 급이다.'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은지 낮은지 압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늘 앞에 사랑의 급이 높으면 벌써 오자마자 인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그보다 더한 조상이라도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206-138, 1990.10.3) p.848

여기서는 밥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지요? 그러니 자동차공장 · 비료공장 · 옷공장 · 음식 만드는 공장 등 공장이 필요하지요? 집에서도 뭐 음식 때문에 야단하지요? 영계에 가게 되면 그거 다 없습니다. 자동차가 필요 없고, 비행기가 필요 없습니다. 순식간에 억만 리(里)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보다 더 빠른 것이 영력(靈力)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태양빛만 해도 1 초 동안에 3 억 미터를 달리는데 말입니다.

전기도 그렇잖아요? 빛의 속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연적인 사랑의 힘,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몇천 배 더 빠르다는 겁니다. (206-138, 1990.10.3) p.848

영계에 가 가지고 말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급이 자기보다 낮다 할 때는 좋은 집이 있으면 그 좋은 집을 내 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쓱 찾아 들어가게 되면, 주인은 벌써 척 보면 아는 겁니다. 이마를 척 보면, 얼굴을 척 보면 아는 겁니다. 쓱 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면 자기 안방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207-94, 1990.11.1) p.848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되면 그 방대한 우주가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에 가면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싶지요? 못 따라다닙니다. 선생님이 가는 데 여러분은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심정의 문이 좁아요. 참사랑은 큰 문이나 작은 문이나 자유자재로 갈 수 있습니다. 참사랑이 아니면 그게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전체를 대표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207-94, 1990.11.1) p.848

사랑으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지어 준 피조물을 대할 때 하나님같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이 전부 다 측정기준입니다.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이상입니다. 시집간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을 두고 자랑하지요? 저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본연의 참사랑, 이것이 높은 급수의 사랑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급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16-171, 1991.3.10)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심정의 사다리가 있다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헬리콥터 같은 것을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올라가겠어요, 엘리베이터식으로 직선으로 올라가겠어요? 헬리콥터식입니까? 엘리베이터식입니다. 만년 엘리베이터입니다. 수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작용과 의식하는 전체를 합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할 때,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208-142, 1990.11.17) p.849

저나라 영계에 가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90 각도가 되면, 동서남북 어디에 가더라도 째까닥 째까닥 맞습니다. 어느 사회, 수많은 클럽이 돼 있는 그 사회, 천태만상의 그 사회…. 여러분, 여기 몇 명이 있어요? 한 5 백 명 모였다면 5 백 타입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지요? 비슷한 그룹들로 전부 다 모입니다. 그것은 컴퓨터 이상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쓱 가게 되면, 벌써 쓱 지나가게 되면, 자기 각도를 압니다. 일주일 이내에 모든 배후까지, 저 비밀세계의 창고 밑창까지 들여다 봅니다.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서 말하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컴퓨터 할아버지 같은 세계입니다. (211-244, 1990.12.30) p.849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는 거 알겠지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어 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사랑 가운데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사랑의 권력이 만년 권력입니다.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락날락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동서남북 마음대로 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 정거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는 동서남북의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나옵니다. 낮은 나라도 그 중앙을 통해서 나올 때는 높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202-86, 1990.5.6) p.849

나는 오늘날 세계에서 전기니, 우주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야단하는 것이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내적인 윤활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는, 사랑의 전기로 충만한 세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계라는 곳이 사랑의 전기로 충만한 세계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전기를 가지고는 못할 것 없는 조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기를 가지고는 못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가능권이 영계라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계는 무엇이냐? 영원한 요소를 원하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을 체험한 영인체는 틀림없이 자동적으로 지남철에 끌려 그 세계로 갈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느낀 만큼의 영계에 간다 이겁니다. (112-17, 1981.3.15) p.850

Top p.850

③ 영계의 공기는 사랑이다

영계는 무슨 조직으로 돼 있느냐 하면, 저 나라는 공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공기로 돼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런 지상에서 사랑의 감촉을 받아 가지고 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체휼돼야 됩니다. 체휼권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냥 그대로 안 통한다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의 진액이 나무순과 나무뿌리와 통하는 것과 같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연히 내가 느끼는 겁니다. 동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거기 가려면 쓱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유천지입니다. (162-287, 1987.4.17) p.850

영계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기는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 모든 것이 나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위할 수 있는 사랑의 도리로 화해 가지고 그 내용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바라던 소망의 실체를 완성했다는 격을 갖추게 되어 천국 어디든지 가더라도 환영하는 겁니다. (143-72, 1986.3.15) p.850

영계는 사랑의 성분으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지구는 공기로 뒤덮여 있지만, 영계는 사랑으로 싸여 있는 곳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가스를 뿜어내지만, 영계는 사랑을 마시며 살게 되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영계는 오늘날 인간의 속된 사랑을 중심하고 주고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145-267, 1986.5.15) p.850

여러분들을 두드려서 순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순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해라 이겁니다. 내가 없어지게 죽으라는 겁니다. 없어져라, 없어져라, 희생해라, 희생해라, 없어져라, 제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왜 우주시대에 들어오고, 전기시대가 들어왔느냐? 이런 시대가 가까우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원리로 말하면, 참이 오기 전에 외적인 것, 가인적인 것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인적이란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전기학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레버런 문이 조상이 될 것입니다. (112-19, 1981.3.15) p.850

영계에 가면 원칙에 얼마만큼 동화되고 얼마만큼 일치가 됐느냐 하는 것이 지옥에서부터 중간영계, 낙원, 천국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을 하고 세계적인 노벨상도 타고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영계에 가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이겁니다. 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귀한 거냐? 하늘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이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그게 저나라를 패스하는 티켓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절대적이다 이겁니다. 이건 이론에 맞는 것입니다. (97-172, 1978.3.15) p.851

영계를 향해서, 영원한 세계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재생을 위해서 숨막혀 가지고, 질식해 가지고 주사를 맞고 산소호흡하는 여러분들이 될래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권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래요? 여기는 이것을 위하여 이것은 세계를 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애의 가는 길입니다. 장래를 위해 가는 것이 생애의 가야할 필연적인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107-56, 1980.1.20) p.851

Top p.851

④ 영인들의 삶, 영인들의 상호관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의 존재의 기원이 되는 가장 모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존재가치의 기원입니다. 그분이 계시므로 오늘날 이 현상세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분은 어떤 시대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제한을 초월한 자리에서 모든 제한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누구라구요? 하나님이라고만 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한다구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낳아 준 아버지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기에 다시 낳는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은 본래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다리 놓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영계에 가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1-249, 1968.11.24) p.851

영계에 가면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고, 수천만 대의 후손인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지요? '하나님 형님'이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계에 가면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님입니다. 형님이 뭐예요? 나보다 먼저 난 것이 형님입니다. 나 보다 먼저 생긴 것이 형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적인 형님이 하나님이고, 외적인 형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그 이상 세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302-168, 1999.6.13) p.852

부모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부가 기독교에서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손자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집안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버지 되시고 인간은 서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가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영계에 가면 참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1-249, 1968.11.24) p.852

우리 원조상까지 내가 볼 수 있는데, 조상을 지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느냐?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장소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역사시대에 왔다 갔던 모든 선조들은 그 사랑의 치리를 저나라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214-268, 1991.2.3) p.852

모든 가정들이 참사랑으로 하나되어 영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피살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농사도 없고 일이 없습니다. 참사랑의 음식은 냄새를 맡아도 영원히 살 수 있고, 보기만 해도 맛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뚱이, 피살과 사랑을 나눠 받아 가지고 사는 겁니다. (278-286, 1996.5.26) p.852

하나님이 누구라구요? 네 친구다! 가장 높은 친구다 이겁니다. 그리고 형님, 아버지, 왕이요,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계의 방대한 천국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한테 바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거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자리는 하나님 대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간 인간을 하나님이 미워하겠느냐? 아닙니다. '내 아들, 넘버 원 내 아들!'하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293-161, 1998.5.26) p.852

지상세계가 부자지관계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갖고 살았더라면, 천상세계도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아들딸과 같은 입장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하지 않은 가정에서 사는 생활과 마찬가지로 성격 성품이 닮았기 때문에 백방으로 만나는 겁니다. (214-268, 1991.2.3) p.852

타락하지 않은 가정은 영계와 육계를 다 통할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지? 하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4 대조가 누구인지, 5 대조, 백대조, 천대조, 그 다음 조상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생각하면 '요렇게 생겼다!'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내 눈도 아담과 해와와 닮았구만, 내 코도 비슷하구만, 내 입도 비슷하구만!' 하는 겁니다. 윤곽이 비슷하잖아요? 얼굴의 가지 수가 네 가지밖에 더 있어요? 눈·코·귀·입 네 가지지요. '아이고 손발도 같구만! 나와 같이 눈도 깜박깜박하네! 말도 하네! 닮았다! 아, 저렇게 닮았구나!'하는 겁니다. (214-268, 1991.2.3) p.853

저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쪼그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보다 더 이쁩니다.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런 세계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통일된 세계고, 아주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 가지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 얼마나 좋겠나! 손녀딸이 와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려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게 영계의 구경거리입니다.

그럼 할아버지 좋아하면 그 할아버지 이상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 조상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일 첫 번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이구 좋아!' 하면 하나님이 '웰컴(welcome)' 한다는 겁니다. 소리를 치면서 '하하하하!'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한다는 것입니다. (216-180, 1991.3.10) p.853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 보면, 이 땅에서 살던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젊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알아보지만 차츰차츰 얘기를 하다보면, '그래, 그거 맞다.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다!'하면서 얼싸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271-333, 1995.9.3) p.85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은 제일 아름다울 수 있는 20 대의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꽃 피울 수 있고,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시절이 창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본향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얼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늙은 사람이 저나라에 가게 된다면 만나도 몰라 봅니다. 20 대의 청년 얼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80 된 노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도 저나라에 가 있는데 모릅니다. 사진을 보고 그때 죽어간 연령을 알지만 제일 아름다운 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271-124, 1995.8.23) p.853

영계에서 제일 가까운 형제가 누구이겠습니까? 영계에서 제일 가까운 형제는 횡적인 형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의 관계와 형제의 관계 중 어떤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형제의 관계보다 부자의 관계가 더 가까우니까 영계에 가서도 내 아버지가 제일 가깝고, 다음은 할아버지, 그 다음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위의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종지 할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할 것 없고, 혼자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영계에 가면 위를 봐도 옆을 봐도 가까운 형제가 무진장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갖추어야만 이 모든 분들 하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형님 삼고 할아버지를 형님 삼았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것 있겠습니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라 불렀는데, 영계에 왔다고 해서 형님이라 부르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21-249, 1968.11.24) p.854

영계에 가게 되면 흑인이 어떨까요? 흑인이 흑인일까, 어떨까? 자기 원하는 대로, 흑인이 백인 모습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 되어지는 단 하나의 문제는 뭐냐? 빛이 밝아야 됩니다. 무슨 빛이? 사랑의 빛이. 사랑의 빛이 밝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타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한 발동력으로 타야 됩니다. 동서로 많이 뿜어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랑이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볼 때 세상 만사는 지나가는 하나의 여행집입니다. (194-56, 1989.10.15) p.854

천국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서 거기에 화합해 가지고, 상대적 세계에서 꽃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꽃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꽃을 통한 새로운 씨를 지닐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영원한 그 세계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56-170, 1994.3.13) p.854

영계에 가서는 자기 남편과 지상에서 했던 사랑을 보다 확대하고 싶다, 보다 자극하고 싶다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은, 여자가 있으면 그 안에 떡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255-308, 1994.3.11) p.854

부부의 사랑이 어느 경지까지 들어가느냐? 영계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나는 앉아 있어도 남편이 걸어가면 나도 마음으로 걷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마음으로 벌써 돌아오는 걸 압니다. 마음속에서 남편과 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오는 것인가를 다 알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다 압니다. 요즘에 남자들이 술집에 가고 어디에 가는데, 여자는 모르니까 앵앵거리고 언제나 속잖아요? 그러나 영계에 가면 다 아는 것입니다. (238-70, 1992.11.19) p.854

여러분들은 저나라, 영계에 가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 성상과 형상이 딱 하나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이 완전히 하나되어 가지고 그 껍데기를 씌운 것과 같이 되게 될 때, 이 두 사람이 하나된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30-201, 1992.5.3) p.85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가면 참으로 일심동체가 된 부부는 언제라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일체(一體)라고 하지요? 여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성상과 형상, 그것이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본체로 돌아가는 데는 사랑의 사다리를 타지 않으면 안 되지요? 창조의 기준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종착점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205-97, 1990.7.7) p.855

남자가 지상에서 재미있게 살았으면, 영계에 가서 척 보게 되면 남자 속에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 누구요?' 하면 '우리 집사람이오.' 한다구요. 여자 가운데 남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둘이 합하면 동서남북의 방수(方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둘이지요? 남자 여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동서남북 하게 되면, 하나님을 딱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 많아서 백 살 넘으면 팔십 난 아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 알아요? '야, 아들아!' 그러지 않습니다. '야, 임자'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친구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52-105, 1993.11.14) p.855

참된 사랑을 하는 부부는, 하나님이 본성상과 본형상으로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본연적 기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도 참사랑에도 절대 복종하시기 때문에, 그들 부부도 본연적 기준에 가게 되고, 그 점은 한 점이므로 그들은 하나님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들딸은 어머니 아버지로 돌아가지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이 땅 위에서 사이좋게 살던 사람들을 척 보게 되면, 남자로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자가 웃는 얼굴을 하고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던 아내라는 거지요. 그것이 최고의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살지요.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226-141, 1992.2.2) p.855

영계에서는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화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분립된 것을 보게 되면,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되면, 영계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 하나돼 있습니다. 그냥 보게 되면 분명 남자인데, 가만 보면 그 안에 여자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지요, 화해 가지고. 사랑의 눈은 전부 통일입니다. 미운 사람도 곱게 보이고, 고운 사람도 밉게 보여요? 곱게 보이는 겁니다. (205-341, 1990.10.2) p.856

참사랑의 상대가 되려면 영(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오냐 오냐!'하고 지상세계를 보게 될 때는 지상의 태양같이 빛납니다. 그 둘이 폭발되는 순간 영계의 하나님의 눈도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냐'하는 겁니다. 그게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호탄을 받고 영의 자리에서 완전히 피어 태양같이 빛나는 사랑의 불이 훨훨 타는 그 곳에 행차하여 그 가운데 들어가 첫밤을 자고 싶다는 겁니다. (202-34, 1990.5.1) p.856

영계는 몇 천, 몇 억만 리 밖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심정 기준이 맞기 때문에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아이고, 빨리 갔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세계는 밥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직감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직감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든 체휼을 중심삼고 만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대신 심정만 갖게 되면 그 아래 모든 필요한 존재가 모이고, 거기에 천만인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연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225-223, 1992.1.20) p.856

하나님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 데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는 무소부재입니다. 나도 사랑을 중심삼고는 무소부재할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데는 주인이 있습니다. 척척 주인을 아니까 주객이 전도가 안 됩니다. 저 세계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을 기조로 해서 모든 것이 조종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49-23, 1986.11.1) p.85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면 남자는 뭐냐? 이것은 절반뿐입니다. 여자는 뭐예요? 이것도 절반입니다. 또한, 아무리 지고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도 대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는 아래가 필요하고, 아래는 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계는 뭐냐? 영계는 이것의 절반의 세계입니다. 육계도 절반의 세계입니다. (161-320, 1987.3.8) p.856

영계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영계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역사시대의 모든 사람, 앞으로 전세계적인 판도를 넘어 모두 만나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서로 위해 주는 겁니다. 영계에 가서도 역시 이상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이것을 재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에 내가 투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영계는 육계의 연장입니다. 영계에 가 가지고는 재미있는, 하늘의 보다 깊은, 평면적인 면의 사랑 이상을 지상에서 추구했다면, 입체적인 외곽적인 구형만이 아니고 외곽적인 구형과 내각의 핵심까지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깊고 얕고 높고 낮고, 모든 면에 사랑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재창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64-326, 1987.5.18) p.857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대표자가 되고 싶어요? 인종주의자는 절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인본주의자도 효력이 없고, 물본주의자도 효력이 없고, 교파주의자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유니피케이셔니즘(Unificationism;통일주의)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영계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계에서는 먹을 것이 걱정 없고, 입을 것도 걱정 없습니다. 살 것이 걱정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취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뱅퀴트(banquet)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삼고 기뻐할 수 있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잔치에 참석하는 그것만이 최고의 이상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서부터 행복의 기원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162-110, 1987.3.30) p.857

영계에 가면 몇백 리, 몇천만 리에서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쓱 만나게 되면, 이마 보면 아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보고 나서 머리 숙이고…. 이런 건 안 통합니다. 몇백 년 전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사랑의 인격 기준이 높으면 상대가 먼저 머리숙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동하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지어 준 피조물을 대할 때 하나님 같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이 전부 다 측정기준입니다.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이상입니다. 시집간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을 두고 자랑하지요? 저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본연의 참사랑, 이것이 높은 급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급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16-171, 1991.3.10) p.857

본질적 본연의 사랑을 하면, 늙은 사람에게서도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게 되면 전부 다 청춘이 됩니다. 사춘기 제일 예뻤던 그때의 모습으로 가서 머무릅니다. 그러니 사랑이 위대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배를 째고 죽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어지면 참 좋겠지요? (1204-82, 1990.7.1) p.857

Top p.857

⑤ 영계에서의 의식주 문제는 자유자재

저나라의 생활은 어떠냐? 먹을 것 걱정 없습니다. 살 것 걱정 없습니다. 입을 것 걱정 없습니다. 왜? 자기의 심령상태대로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나라에서도 먹습니다. 저나라에서도 자기를 만져 보면 핏줄이, 맥박이 뛰는 걸 다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몸이지만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하면 대번에 벌어집니다. 이러이런 걸 먹고 싶다 하면 대번에 나타납니다. 그거 어디서 오느냐? 근원 세계를 동원할 수 있는 능동적 자주성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권을 가진 것이 뭐냐?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돈 가진 세력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194-41, 1991.6.2) p.858

하나님이 창조한 이 거대한 우주! 그곳에는 자동차도 없고, 음식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계에서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 같이 온갖 종류의 것들을 참사랑의 개념을 중심삼고 창출해 낼 수 있듯이, 사랑을 중심삼고 원래의 힘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중심삼고 이와 같은 것, 저와 같은 것 등을 지적하면 실재물이 완전히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구 나타나라!' 하면 바로 그 공구가 생겨나요. 그게 얼마나 훌륭해요? 또 만찬장에 수십, 수백만 명이 참석했을 때 '이런 음식준비를 해야지!'하고 원하기만 하면 식사가 문제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금빛 정장을 원하면 즉시 그런 정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해요! 그것 참 좋다! (217-293, 1991,6.2) p.858

저나라에 자동차 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것들 타고 순식간에, 1초 동안에 몇억만 킬로를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것을 환히 알기 때문에 지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방대한 세계가 사랑을 중심삼고 전부 다 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화(和)한 하나님의 심정권을 딱 소지하게 되면 모두 끝납니다. 창조역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에 화해 가지고 자기가 구상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일시에 딱 결심하고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202-86, 1990.5.6) p.858

영계에 가면 소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가 보라구요, 이 다음에. 나는 소변본다고 하는데 안 본다고 하는 사람 가 보라구요, 소변 보나 안 보나. 그러면 소변보다 더 큰 것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합니다. 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원소로 돌아갑니다. 우주의 근본 원소가 107개라고 하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그 원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손짓을 하게 되면 깨끗이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뭐 나와라 뭐 나와라 뭐 나와라 하면 주욱 나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의 출동이 가능합니다. (212-30, 1991.1.1) p.858

저나라에 빵 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코카 콜라나 주스를 만드는 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긴 왜 없어요? 모르지 뭐! 거기에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나라에 가서 '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 하면서 이러고 다닐래요? 여기서는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어떻고 어떻다고 자랑하고 하지만 거기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207-94, 1990.11.1) p.858

영원히 눈을 뜨고 영원히 듣고 영원히 안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이 좋은 데 밥 먹으라고 해서 먹겠어요? 밥 먹으라고 하면 먹을래요? 난 안 먹습니다. 옷을 입어도 내가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부 다 황금 옷을 입어라. 자, 다이아몬드로 몇 캐럿짜리를 끼어라. 영국의 왕비는 517캐럿을 가졌지만 그 이상 되는 1만 7천캐럿 짜리를 껴라!' 하면, 삭! 그런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레버런 문은 망상가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론권 내에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2-17, 1981.3.15) p.859

영계라는 곳은 사랑의 공기로 충만한 곳이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인식 구조를 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인류를 한꺼번에 전부 다 먹이고 싶고 좋아하게 하고 싶어서'밥 생겨나라!' 하면 생겨납니다. 영계에서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서로 보는 것도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고 다 그런다는 겁니다. 모두 맞아 터져도 또 맞으려고 합니다. 신비롭기가 형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들어도 자꾸 더 듣고 싶고, 뭐 잠이니, 피곤이니, 무엇이니 하는 관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곤할 여유가 있고, 흥분할 뭐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방해될 무엇이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왜 피곤하겠어요? (112-17, 1981.3.15) p.85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는 의식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식주는 완전히 자유자재입니다. 사랑의 일체권, 하나님의 상대권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몇억만 년의 세월도 한순간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속도는 초스피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갔다 오겠다 할 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대자를 만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곳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선 세계,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무한의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부모에 의해서 그런 걸 알게끔 되었습니다. (259-56, 1994.3.27) p.859

영계에 가면 무엇을 중심삼고 사는지 알아요? 영계에는 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계에 자동차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모품 공장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계에서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옷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이런 것이 영계에는 없지만 자기 인격 구조가 하나님의 대상적 가치 기준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백만 명이 순식간에 뱅퀴트(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가져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먹여야 되겠다.'하는, 하나님과 같이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딱 되어 있으면 만사가 무불능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동산에서, 사랑의 세계에서 헤엄치고, 뭐라고 할까, 사랑의 세계에서 그 모든 파장에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생활의 훈련을 한 사람은 하나님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참사랑의 파장은 같기 때문에 상충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203-340, 1990.6.28) p.860

영계에 가면 먹는 것만 하더라도 '오늘은 이런 음식으로…'하면 바라는 대로 금방 나타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 '휙' 일체화되어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몇만, 몇십만의 뱅퀴트 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이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먹다 남은 것은 원형(原形)으로 되돌아 갑니다. 원상태의 원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는 곳은 천주 전부가 그리워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227-100, 1992.2.10) p.860

창조이상세계에는 천국이 내 집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천국이지만 그것이 내 생활권의 무대가 돼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에는 제도도 많고 직종도 많지요? 그러나 영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경제지원할 수 있는 공장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옷 만드는 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 만드는 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활필수품이나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공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꽃만 피는 이상적 사회라는 겁니다. 먹는 것은 언제든지 먹게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쓰레기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손짓만 하면 원소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204-174, 1990.7.8) p.860

하늘의 영원한 세계, 저나라에 가게 되면 정치체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체제는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건 전부 다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영계에 갈 때, 밥그릇 들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무슨 깡통차고 가는 줄 알아요? 영계는 먹고 싶으면 벌써 밥이 나타납니다. 그걸 먹다 남기면 영(零)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 인격적 능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지, 그게 주체적인 영향은 아무 것에도 미치지 않는 겁니다. (167-52, 1987.6.14) p.860

영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의식주가 염려 없는 곳입니다. 집도 다 있고, 옷도 다 있고, 먹을 것도 다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심정의 가치 내용에 따라 상대적 기준을 자유로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완성한 인격 기준에 따라서 그의 상대적 환경 요건을 자유롭게 보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있더라도 아침, 저녁 먹을 수 있는 장소에 몸뚱이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영계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다는 겁니다. 자면서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48-154, 1993.8.1) p.86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밥 먹을 것이 걱정 없습니다. 밥벌이 안 합니다. 저나라에 가게 되면 밥벌이가 필요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는 언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먹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 하면 원소로 돌아갑니다. 근본의 세계, 원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세계에서 사방팔방으로 기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취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이상(理想)이 백방으로 실현되는 곳이 영계이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취해서 산 사람들이 주도적인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198-298, 1990.2.5) p.861

영계에서는 원소를 마십니다. 물 하게 되면 물 원소를 마십니다. 원소 같은 것 알아요? 그래 가지고 실컷 먹고 손짓만 하면 원소로 돌아갑니다.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211-244, 1990.12.30) p.861

영계에 가면 일이 필요해요? 거기서도 여덟 시간 일해야 되나요? 밤이 있나요? 밤이 없습니다. 언제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모든 기관이 일하고 있는데, 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눈뜨고도, 영원히 자지 않고도 좋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이상만 딱 지녔으면 '야, 뭣이 나와라!' 하면 제까닥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만 명이 모이면 '만 명 식당과 식탁 준비!'하면 재까닥 준비된다는 겁니다. (137-331, 1986.1.5)

영계에도 공기가 있어야 되겠나요, 없어야 되겠나요? 왜 공기가 필요해요? 숨 안 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왜? 어째서? 숨 안 쉬고 살면 클 수가 없습니다. 두 세계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두 세계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육신과 영혼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인체도 크려면 몸뚱이가 커야 됩니다. 고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공기로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원소 공급을 하는 겁니다. (107-331, 1980.6.8) p.861

이 눈이 깜박깜박하는 것은 공기 속에 있는 세상에서 먼지가 들어갈까봐 그러는 겁니다. 영계에는 먼지가 있나요, 없나요? 영계에서는 하나님이 눈을 천년만년 뜨고만 있다면 그거 기분 좋아요? 지상에서 습관성으로 깜박깜박했기 때문에 영계에 먼지가 없더라도 깜박깜박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릴 닮아서. (197-15, 1990.1.7) p.861

영계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문총재가 거짓말하는지 모르지 뭐.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의 말같이 믿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이상의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마가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할 때 악마가 말하는 이상의 것까지 믿고 나가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해서 이루어 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212-30, 1991.1.1) p.862

Top p.862

⑥ 영계의 권력은 사랑의 권력이다

영계에 가 보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돈을 창조하고도 남을 수 있고, 다이아몬드 별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절대자입니다. 지식의 대왕님입니다. 권력의 대왕님입니다. 그걸 언제나 춘하추동 4 계절을 넘어 가지고 영원히 자유자재로 행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196-311)

영계에 가게 되면 천상세계에, 무한한 세계에 수백 억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 보고 싶다!'해서 누구를 불러내게 될 때, 그를 사랑하는 척도가 있어 가지고 불러야 나타나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박사이기 때문에 '지식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만나겠다.'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나타납니다. 못 만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기까지 과거에 고생했던 그 수고의 대가를 알아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동서 사방에 어느 누구라도 다 대할 수 있습니다. (233-140, 1992.8.1) p.86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돈, 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 하나님은 지식의 왕입니다. 권력, 대한민국의 대통령 짜박지? 이런 얘기해서 실례될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나라, 소련의 1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의 대통령이야 뭐…. 지식과 돈과 권력은 일생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적인 것의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교수님들의 지식을 천년만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갖고 다니면서 자랑해요? 일생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더불어 있는 것은 일생뿐입니다. 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났다는 사람들을 보면 지식 가지고 잘났다는 것이고, 돈 가지고 잘났다는 것 아니에요? 권력 갖고 잘났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세계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 가치 없게 보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전부 무가치한 것입니다. (203-291, 1990.6.27) p.862

인간과 역사가 무엇을 중심삼고 해결짓고 완성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체적이요,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사람이라면, 그 주체되시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 가운데 제일 중심이 무엇이냐? 정(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계를 몰라서 그렇지, 영계에 가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 이내면 다 끝납니다. 마음을 거울같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영계는 제아무리 잘나고 제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일주일 이내에 능가할 수 있는 직감의 세계입니다. 마음빛을 통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인연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情)의 심정을 통해서 봐야만 나와 상대적 관계를 갖든가 주체적 관계를 갖지, 지식이라든가 다른 속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0-312, 1990.12.27) p.863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앎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적 여건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인 사랑만 가지면 천하가 다 연결됩니다. 아는 사람이 지배하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지요? 힘있는 사람이 지배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저나라에서는 배우지 않고도 다 압니다. (202-86, 1990.5.6) p.863

우주가 내 활동기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없는 물질 가지고 목을 매고 있고, 돈·지식·권력 가지고 목을 매고 있어요? 그 세계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는 돈·지식·권력이 필요하지만, 그 세계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205-128, 1990.7.29) p.863

영계에서 돈이 필요해요? 먹을 것, 지식, 권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면, 원하게 되면 순식간에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음식공장이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권력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231-270, 1992.6.7) p.863

저나라에서는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영계는 사랑을 중심삼은 화합력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감화력입니다. 그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중심삼은 감화력을 못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감화될 수 있는 본연의 세계에 가서는 본질적으로 화합이 못 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230-28, 1992.4.15) p.863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없으면 벌면 됩니다. 공부는 지금 하지 않아도 영계에 가서 하면 됩니다. 영계에서는 동경대를 졸업하는데 3일도 안 걸립니다. 동경대를 졸업한 기준을 갖추는데 3일도 안 걸립니다. 마음속을 보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하려 하면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편리하지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컴퓨터라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229-95, 1992.4.11) p.8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계도, 만물도 전부 다 사랑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참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머리 숙인다는 겁니다. 영계에 가면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일주일 이내에 동경대를 졸업한 사람보다 수십 배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동경대 나왔다고 해서 목에 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한 순간에 전부 다 통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29-20, 1992.4.9) p.864

영계에 가면 말 같은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에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전부 압니다. 말을 하기 전에 전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은 서치라이트로 비춰 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어떤 문제도 없이 무사통과하여 본래의 자리에 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인생노정에서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5-67, 1990.7.7) p.864

얼마나 이 세상이 불편해요! 밥벌이 필요해요, 안 해요? 공부 필요해요, 안 해요? 공부를 안 해도 다 압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으로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그 세계에 가게 되면 높고 낮은 것이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척 대하면 벌써 안다는 겁니다. 측정하는 건 레벨을 재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는 무(無)에 들어가 가지고 저쪽을 주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을 길러 가지고 엮어지는 저세계입니다. (202-86, 1990.5.6) p.864

영계의 조직이 뭐냐 하면, 생활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계열이 되어 있지, 정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속 사랑을 중심삼은 강력히 군사 확장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경제 평준화 운동을 중심삼고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상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303-192, 1999.8.25) p.864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는 거 알겠지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어 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뭐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가운데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사랑의 권력이 만년 권력입니다.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락날락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동서남북 마음대로 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 정거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는 동서남북의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나옵니다. 낮던 나라도 그 중앙을 통해서 나올 때는 높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202-86, 1990.5.6) p.865

Top p.865

⑦ 영계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의 세계

이 지구 자체가 그렇거니와 태양 자체도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130 만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태양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 질량의 2 천억 배나 되는 광대한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런 은하계를 소우주라고 하는데,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성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대우주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대무변한 대우주의 세계를 마음을 넓혀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경만 해도 수천 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대우주를 변함없는 법도에 의해서 수억 천만 년을 움직여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천체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웅장함과 위대함에 자연히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요, 우리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위대한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을 넓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5-342, 1959.3.8) p.865

사람이 정밀하게 계산해 가지고 레일을 만들어서 가는 데는 기차의 속도가 조금만 틀려도 탈선하고 야단하는데, 대우주는 자연 법도에 들어맞아 가지고 척척 자연히 돌아갑니다.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태양이 광대한 아홉 개의 행성을 안고 이렇게 전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태양계가 일천억 개나 들어 있는 대우주가 지금도 별의별 코스를 거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천억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전부 다. 이게 그저 그냥 됐다 해서 자연이라고 합니다. (94-252, 1977.10.1) p.865

근본을 밝혀야 됩니다. 본연의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어야 됩니다. 유일·불변·영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가 정한 법도는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그 법도에 따라서 천년만년, 몇억만 년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미물인 동물세계라든가, 식물의 세계도 그런 과학적 공식법도에 의한 터전 위에서 존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으로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172-35, 1988.1.3) p.866

사람이 죽게 되면 영계로 가야 됩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어떠냐? 영계는 모든 질서가 짜여진 세계입니다. 영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계는 어떤 세계냐? 이상세계인 동시에 딱 질서가 짜여진 세계인데, 사랑을 중심삼은 세계입니다. 호흡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공기로 호흡하지요? 고기는 물로 호흡하지요? 그럼 영계에서는 무엇으로 호흡한다구요? 사랑호흡입니다. 사랑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132-270, 1984.6.20) p.866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주관하느냐? 법으로 주관하는데, 법도 사랑으로 치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치리의 방향을 후원하기 위해 우주의 법도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왜 했느냐 하면, 사랑이 그리워서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21-103, 1982.10.24) p.866

많은 사람들이 영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영계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원칙에서 기원이 되어 어떠한 결과로 운행한다고 하는 그런 방대한 배경을 깨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통일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원리의 내용을 보면, 영계는 공식적인 법도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권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원칙을 밝혀 냈다는 사실은 금후의 역사시대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53-327, 1972.3.6) p.866

만우주가 움직이는 모든 법도를 주관하셨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재창조하시어서, 그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우주를 주관하는 가치적인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섭리하셨다는 놀랍고도 고마운 사실을 여러분은 뼈살에 사무치도록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5-344, 1959.3.8) p.866

Top p.866

2) 천국과 지옥

천국은 사랑이상의 세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환경권을 설정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권(圈)에 가서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못 가는 것입니다. (46-36, 1971.7.18) p.86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은 위해 주는 세계이기 때문에 위하겠다는 관념만 위주해 나가야 합니다. 위함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위함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위하고 절대 복종하고 희생봉사하라는 것인데,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아무 것도 모르는 거지패들이 하는 놀음 같지만 천법을 알지 못하고도 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탄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암호작전이었습니다. (46-42, 1971.7.18) p.867

천국은 사랑의 궤도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나지요? 그 사랑의 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가늘어지지만, 사랑의 줄은 당기면 당길수록 반대로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뜻을 위하여는 고생의 왕초가 되는 것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비법인 것입니다. 고생 왕초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57-162, 1972.5.31) p.867

천국은 어떠한 세계일 것이냐? 서로 반목질시 하면서, 남이 잘되면 배아파하고, 남이 좋아하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대신해서 좋아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이 좋아하면 전체가 좋아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전체가 따라 기뻐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18-102, 1967.5.28) p.867

천국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공기를 맡는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꽉 차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생명이 약동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혈연적인 인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런 무엇이 있으면, 온 영계가 한 세포와 같이, 한 몸뚱이같이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면, 모든 전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방대한 대천국(大天國)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권이 거기에 화답해 가지고, 모든 만물의 주체 대상을 중심삼고 예술적인 미화(美化)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핏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퍼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6-113, 1992.2.2) p.867

천국에서 싸움이 있겠어요? 싸움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뭘하고 살 거예요? 그 세계가 1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뭘하고 살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영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살 거예요? 뭣 갖고 관계를 맺어요? 참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의 본질은 뭐냐? 먹는 것도 사랑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고, 입는 것도 사랑을 느끼면서 입어야 되고, 사는 것도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되고, 여행하는 것도 사랑의 하나님의 모체가 되어 여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에 가까운 내용을 갖춘 인격이 저나라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런 인격을 중심삼고 모든 영계의 만유의 존재들이 화동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동하는 세계다 이겁니다. (201-97, 1990.3.11) p.868

인간을 중심한 참사랑 그것이 절대 가치의 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느냐 하면, 참사랑 때문에 태어나 참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도 왜 태어났고 왜 사느냐 하면, 참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참사랑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도 불평 없고 사람도 불평 없이 우주의 꽃과 같이 피어서 향기가 진동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사랑을 센터로 해서 양쪽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만세!', 양손을 다 들고 '만세!', 참사람도 '만세!', 영계도 내려다보고 '만세!', 이쪽도 저 위쪽도 '만세!'하는 겁니다. 모두 하나되어 가지고 향기 풍기는데 취해 가지고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201-201, 1990.4.1) p.868

영계가 그렇습니다. 마음 맞는 형제들끼리 모여 삽니다. 여기서 그렇게 사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저나라에 가서 부딪칩니다. 저나라에 가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 가운데 사람 마음 맞추는 것 이상 바른 길이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인 줄 알아요? 원칙에 어긋나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고, 사람과 화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 중에 그 이상 빠른 훈련이 없습니다. (207-353, 1990.11.11) p.868

완성된 사람이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가더라도 친구입니다. 자녀의 자리에 가도 친구, 형제의 자리에 가도 친구, 부부의 자리에 가도 친구, 부모의 자리에 가도 친구로 다 통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나 어디나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5-173, 1993.3.7) p.868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베드로·야곱·요한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참사랑의 상대권을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복귀하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32-232, 142-289, 1986.3.13) p.868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들딸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십 년 이십 년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태산준령도 오르게 됩니다. 나는 점점 내려가면서 고생만 하는 것 같지만,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맞으면서 큽니다. 한 집안에서 열 사람이 산다면, 공적 목적을 위해서 열 사람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참고 참는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142-289, 1986.3.13) p.868

천국은 사랑의 세계요, 중심자인 하나님을 위해 있는 세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세계입니다. (98-35, 1978.4.8) p.869

천국에는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참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이 비어 있다고 하면 레버런 문을 보고 망령된 말을 한다고 하겠지만, 예수님도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은 혼자 못 들어갑니다. 인간조상이 사춘기를 지나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상을 이루고 살다가, 참된 사랑의 씨를 남기고 부모가 되어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부모로서 이 땅에 사랑의 씨를 남긴 부모가 없고, 그런 후손을 남긴 기반이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140-45, 1986.2.1) p.869

여러분은 세계천국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개인천국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세계천국을 향하여 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선생님도 욕심이 많아서 세계천국으로 가는 사랑줄을 휘어잡기 위해서 4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랑줄을 넘어서 가정의 사랑줄, 종족의 사랑줄, 민족의 사랑줄, 국가의 사랑줄, 세계의 사랑줄을 휘어잡기 위해서입니다. 휘어잡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세계의 사랑줄을 찾은 다음에는 복을 받아 출세했으니 환고향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 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143-141, 1986.3.17) p.869

천국에 가는 길은 형제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그 마음으로 형제를 따라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천국에 제일 높게, 빠르게, 좋게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도 아니요, 선생님도 아니요, 형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66-125, 1973.4.25)

오늘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자!'고 하는데, 천국을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먼저 땅 위에서 천국을 맞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천국을 맞기 위해서는 사랑의 법도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랑해야 할 십자가가 가중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가정에 아들딸을 많이 보내는 것은, 짊어질 십자가가 많다는 것이므로, 나라를 위해 바쳐야 할 책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이라야 그 가정에 후대를 상속받을 수 있는 운세를 가진 아들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32-232, 1970.7.19) p.86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얼마만큼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중심삼고 영원한 이상을 그려 나가는 분이시라면, 영원을 두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한 십 년쯤 맞다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히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아들이 되려면 슬픔의 대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47-255, 1971.8.29) p.870

천국이라는 개념은 사탄을 극복한 자리에서, 사탄이 상대할 수 있는 일체의 요인을 부정한 자리에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청산 지은 자리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부정적 여건이 남아 있는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생활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청산 지은 터전에서 천국이 긍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남기고는 천국의 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46-74, 1971.7.29) p.870

천국에 가려고 죄짓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구주가 필요없다 하는 아들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하나님의 이상천국이 이루어집니다. (160-89, 1968.8.11)

우주의 최고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를 하나 만드는데, 온 천지를 하나 만드는데 그 끝 자손이 누구냐 하면 미래의 후손입니다. 이걸 연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연결하느냐 하면 가정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데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후진국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 주류, 가정 조직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과거-현재-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모델형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열매를 갖다가 저장하는 창고가 천국입니다. (135-118, 1985.10.4) p.870

모시기 위해서는 모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모시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모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모심의 생활을 거친 후에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심정으로 모시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실 수 있는 준비와 모시는 생활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내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의 세계를 향하여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8-290, 1960.2.14) p.870

천국이라는 곳은 심정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본연의 나라요, 본성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사정을 가지고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깊이 스며드는 심정의 인연을 갖추어야만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사정을 통하는 교회가 아니요, 심정을 통하는 교회입니다. 사정의 인연을 넘어서 심정을 노래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에 땅을 대하여 섭리하시는 하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8-290, 1960.2.14)

천국은 어떤 곳이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곳이요, 모시는 생활을 한 것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가는 곳인가? 주를 믿고 복을 받겠다고, 복을 앞세워 나가는 자가 가는 곳이냐? 아닙니다. 천국은 모시기 위하여 심정적으로 준비하는 생활을 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죽는다 해도 모심의 생활을 남기고 기쁘게 갈 수 있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내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모시는 생활 가운데 생각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8-304, 1960.2.14) p.871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디나 밝아요. 상헌씨가 말하는 영계의 실상이 그렇잖아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이 우주의 사방을 비춰 가지고 그 품안의 만물은 만세와 같습니다. 무슨 만세예요? 만만세가 아닙니다. '해방 만세!' 해방을 했으면 전부 다 '해원 만세!'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300-203, 1999.3.4) p.871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본연의 부모의 인연 가운데서 참사랑의 가정기준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참된 하나님과 참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의 참사랑에 하나되어야 됩니다. 그 혈통적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딸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곳이 천국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176-210, 1988.5.9) p.871

교회에 골백 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를 중심하는 마음 갖고 다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참된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참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78-118, 1975.5.6) p.871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주하고 나가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투입하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투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면서 주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위인도 그랬고 성인도 그랬습니다. (46-36, 1971.7.18) p.871

Top p.871

② 천국은 서로 위하며 사는 세계

자기 자신을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식구가 전부 다 백 사람이면 백 사람 식구 가운데서, 자기 아들딸보다도 못한 옷을 입고 있으면 잠을 못 자야 됩니다. 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통일교회 주류 사상이 뭐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뭐예요? 아들딸을 데리고 가는 사랑의 세계라구요. 사랑을 가지고 전 우주 앞에 주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영계로부터 여기를 다 잘 안다는 겁니다. (296-120, 1998.11.3) p.871

영계는 지금까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원칙인 위하여 산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형성된 세계가 이상천국입니다. (298-315, 1999.1.17) p.872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타주의여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절대 이타주의, 위해 사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계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대번에 아는 겁니다. 위해 산 사람이 가는 곳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다 위하고, 위하는 성인의 사상을 받아야 되고, 구세주의 사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뭐예요? 절대 위하는 겁니다. (299-217, 1999.2.16) p.872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서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종족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논리입니다. 종족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민족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국가 재산을 취해 가지고 자기 가정에 붙이는 것들은 전부 지옥에 거꾸로 꽂히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망하면 영계에 가서 거꾸로 꽂히는 것입니다. (302-173, 1999.6.13) p.872

지상생활과 천상생활이 반대입니다. 지상에서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영계는 전체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을 부정하고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다! 영원히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303-33, 1999.7.4) p.872

영계는 자기를 위해서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곳입니다. 악한 사람이 뭐냐?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자기를 중심삼고 일원화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독재자, 악당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이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개인은 가정을 위하고, 가정은 종족을 위하고, 종족은 민족을 위하고, 민족은 국가를 위하고, 국가는 세계를 위하고, 세계는 우주를 위하고, 우주는 천주를 위하고, 천주는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느냐?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303-260, 1999.9.9) p.87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향의 곳으로 지도하여야 할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위하여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해야 되겠기 때문에 온유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뭇사람을 높이고 그들을 위하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희생봉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것은 그 나라의 법도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78-117, 1975.5.6) p.872

지상에 살다가 영계 가는데, 높은 데 가는 사람들은 전부 남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40 개국이면 40 개국을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와 가정을 확대한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위하고, 세계 사람들을 전부 악에서 구해 주는 성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데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 남자로서 역사시대의 효자를 대표한 총수요, 애국자의 총수요, 성인의 총수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지었던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승리한 아들딸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고 잊어버리고, 위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만이 그 세계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103-100, 1990.6.17) p.873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가는데, 나를 위한 사람은 이 세계로 가서 삥 돌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남을 위해 산 사람은 빙 돌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죽음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203-100, 1990.6.17) p.873

앞으로는 자기 재산을 하늘 것으로 바치기 위한 줄이 세상에서 제일 긴 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알거지 되라는 것입니다. 다 바쳤습니다. 바칠 것은 콧물과 눈물과 핏물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그렇습니다. 바칠 게 없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들딸을 위한 예금통장이 있으면, 그거 자기 아들딸을 위해 써야 되겠어요, 세계 구도를 위해서 써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만 메시아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하고, 보다 큰 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 해방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핏줄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203-187, 1990.6.24) p.873

앞으로 무슨 경쟁이 벌어지느냐 서로가 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에서는 위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을 내가 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타고 점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프 케네디에 가게 되면 인공위성 발사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13-194, 1991.1.20) p.873

사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상대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권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요? 누구를 따라가서 위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을 위하지요? 선생님을 위하는 것은 선생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점핑해 가지고 하나님을 점령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공위성은 날려야 되지요, 목표물을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위성이 나온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도약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느냐, 몇천 리 몇만 리를 가느냐 하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213-194, 1991.1.20) p.874

영계는 어떤 세상이냐? 참사랑을 중심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곳이 영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기 지상에서도 남을 위하는 사람은, 백 퍼센트 위하는 사람은 '나를 밟고 넘어가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더라도 미국의 대통령보다 그 나라 백성을 더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더라도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을 취하게 될 때는 전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영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큰 것을 위해 살겠다고 할 때는 자연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것을 위하게 되면 자연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 사는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세계 가운데에 미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정도 그냥 지나가고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그 방향의 내용이 뭐냐? 그건 참사랑을 중심삼고 위하여 가는 사랑의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215-174, 1991.2.17) p.874

여러분이 오십 평생 중에서 25 년 이상을 이 우주를 위하고 천륜(天倫)을 따라서 살았다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라에 가서 좋은 영계에 머물 수 있지만, 자기를 위주하고 산 적이 많았다면 섭섭하겠지만, 선한 본향의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악의 본향,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산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여생을 전체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하늘땅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지옥이 아니라 천상의 이상세계로 향진(向進)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78-119, 1975.5.6) p.874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죽어 가면서도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크기에 더 큰 희생도 응당 바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치는 사람은 즉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36-85, 1970.11.15)

영계(천국)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위하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라 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가 보면 압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원수까지 구해 주고 공산당까지 구하려고 하는데, 공산당들은 통일교회를 전부 다 목을 잘라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이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공산당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 강하면 안 됩니다. 위하는 사랑을 중심삼고 강하게 되면 세계를 구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91-173, 1977.2.6) p.875

천국은 주면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나서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34-141, 1970.8.30) p.875

백을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천을 주고도 잊어버릴 수 있는 놀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상대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알아요? 멋진 일입니다. 주체와 대상 관계가 엇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선을 위해 하나님 이상 해보고 살겠다 한 사람이 지옥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살고 있는 아침 식탁의 심부름꾼이 되겠어요, 같이 앉아서 사랑의 밥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머물겠어요? 어떤 거예요? (208-208, 1990.11.18) p.875

영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은 체험을 했고, 또 영계는 나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저 영계의 질서적 기원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74-51, 1974.11.27) p.875

Top p.875

③ 천국은 지상천국을 거쳐가는 곳

지금까지의 역사상에 하나님 앞에 불리운 사람들은 전부 50 대 이상, 60 대 이상이었습니다. 나이 많고 찌들어 멀지않아 공동묘지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장송곡을 부를 날이 가까운 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후에서 하나님은 오늘은 이렇게 찌들고 마른 노년층을 붙들고 섭리하지만, 앞으로는 장년층을 붙들고 섭리해야 하는데,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섭리를 전개시킬 것인가 하는 염려를

[텍스트 입력]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연을 부여안고 역사노정을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20-95, 1968.4.28) p.875

석가모니 같은 분도 신비한 경지에 들어가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도하면서 정신을 통일해 가지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상의 자리에 들어가면,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꽉 쥐면, 세상이 이 주먹 안에서 녹아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적기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일은 자연히 신앙의 부속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76-143, 1975.2.2) p.875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을 보게 되면, 하루의 생활권 내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는 습관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당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당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공인하는 상대적인 요인이 없어 가지고는 절대적인 신앙기준도 못 갖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앙기준도 갖지 못했는데 절대적 신앙기준을 극복하고 난 후에야 이뤄질 천국이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리에는 사탄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46-79, 1971.7.25) p.876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은 천국은 자기 종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망상적인 말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각기 그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만 보더라도 수십 개의 종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기 종파가 아니면 이단시하고 사탄시하는 현실에서, 그 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그런 말을 한다면 모르지만, 단지 자기 종파를 세우고 자기 종파를 남기기 위한 욕심에서 그런다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종단은 모두 망하게 됩니다. 만약 통일교회가 그렇다면 통일교회부터 망해야 됩니다. (47-250, 1971.8.29) p.876

영적세계도 담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불교권이 있고, 유교권이 있고, 전부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다 높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터 놓아야 합니다. 천상세계의 높은 보좌로부터 담을 헐어 버리고 거꾸로 내려와야 합니다. 몇만 년 우리 조상의 담으로부터 몇천 년 우리 조상의 담, 몇백 년 이 시대의 담, 이제 몇 년 전에 간 모든 사람들의 담까지 모두 헐고, 지상의 모든 담을 헐어 이것을 지옥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닦지 않으면 개천문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0-43, 1986.2.1) p.876

우리 통일교인은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하느냐? 석가모니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나 공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종교의 목적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개인구원보다도 가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구원을 하되 가정을 구원하고, 천국을 가도 자기 혼자 안 간다는 것입니다. (34-359, 1970.9.20) p.876

천국이라는 곳은 혼자 못 갑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반드시 상대이상을 결정짓고야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명사를 세워 닫혀 있는 천국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152-240, 1963.5.25) p.876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는 말은 하셨지만, 천국이 네 가정에 있다는 말을 못 한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고독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가정을 가지고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한 순간이라도 있는데, 천하를 구하기 위한 구도자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환경천국 기지를 꿈도 꾸지 못하고,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면서 마음에서 천국을 회생시키려고 돌아다니다가 3년도 못 채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분의 생애가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하냐 이겁니다. (120-48, 1982.10.3) p.877

지상의 천국과 천상의 천국이 레일이 같아 둘이 맞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게 되면, 이 나라 레일하고 저나라 레일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화차가 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과 천상세계의

[텍스트 입력]

레일이 맞게 됩니다. 여기서 달리던 사랑의 화통을 짊어진 가정이 그냥 그대로 천국까지, 하늘 보좌 앞에까지 직행할 수 있는 레일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 길이라는 것은 참사랑의 위하는 길입니다. 개인이 가는 길, 가정이 가는 길, 전부 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방향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211-288, 1990.12.30) p.877

우리는 싫든 좋든 어차피 그곳으로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느냐, 남을 위하는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 따라 남을 위해 산 적이 많다 할 때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요, 그 반대가 될 때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 자리에서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죽어 보면 알게 됩니다. (74-51, 1974.11.27) p.877

영계에 가 보면 사람들이 여러 단계의 처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사랑의 도리를 따라 효도를 다했느냐, 나라에 충성을 했느냐, 세계에서 성인의 도리를 다했느냐 하는 도수의 차이에 따라 해당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은 정도입니다. 정도에는 개인의 정도가 있고, 가정의 정도가 있고, 씨족의 정도가 있고, 민족의 정도가 있고, 국가의 정도가 있고, 세계의 정도가 있고, 우주의 정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자신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단 하나의 길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본연의 사랑의 길입니다. (147-183, 1986.9.21) p.877

최후에는 어떤 세계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은 가면서 '선생님! 나 도와주소' 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선생님! 어서 오소' 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 가지고 잘살겠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잘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부부가 되려면 변하는 세계에 가서 같이 수련을 받고, 남북이 갈라지고 사방으로 갈라져 사는 세계에 가서도 갈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자리에 서야 됩니다. (129-182, 1983.10.30) p.877

참된 부모가 낳은 아들딸은 거짓 아들딸이 아니라, 참된 아들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이 나오고, 참된 종족이 나오고, 참된 민족이 나오고, 참된 나라가 나오고, 참된 나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참된 세계가 됩니다.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정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종족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민족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세계에서 천국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 위에서 몸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곳이 영계의 천국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개관입니다. (160-44, 1968.8.11) p.878

여러분은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건설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천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인이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와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고, 주님과 선조들의 마음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295, 1958.1.19) p.878

죽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했습니다만, 내 마음으로는 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탕감조건을 세운 걸로 해주소!' 하면 하나님도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 가려고 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갖다 놓느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가긴 가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는 낙원 이하의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 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57-265, 1972.6.4) p.878

통일교회는 그저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지는 곳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금을 그으면 영원히 그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을 닫으면 영원히 열 자가 없고, 열면 다시 닫을 자가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땅에서 맨 것은 땅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맨 것은 여러분 자신이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4-266, 1970.9.13) p.878

'20 억 인류의 사랑의 열매되는 실체를, 나를 낳아 준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고, 40 억 인류를 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사랑한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권을 중심삼고 하나됐다고 하는 하나된 자리에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탄세계와는 무관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140-56, 1986.2.1) p.878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사람으로서, 사탄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상적 부부의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직행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본연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이라는 겁니다. 지상천국은 천상천국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천국문 열쇠를 준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지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208-345, 1990.11.21) p.879

Top p.879

④ 예수님과 낙원

타락이 없었다면 천국은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다가 이사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가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개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대합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낙원입니다. 낙원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대합실과 같은 곳입니다. (143-25, 1986.3.15) p.879

예수님이 혈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것을 해원성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여는 조건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땅에다 남기고 갔습니다. 예수와 열두 사도가 가정을 못 이뤘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에서 축복가정을 통해 70 문도, 120 문도 가정을 다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열립니다. (160-89, 1968.8.11) p.879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상대이상(相對理想)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니 다시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름 타고 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는 현실적 내용을 다 눈으로 헤아릴 수 있고 잴 수 있는 이 민족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76-210, 1988.5.9) p.879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데도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앞으로는 종교가 개인만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 놓은 참된 종교라면, 우주적이고 최후까지 남을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소망하는 최후의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개인만 천국 가는 것이 뜻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개인에게만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개하여 족장까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한꺼번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1-341, 1971.2.18) p.879

예수님이 어찌하여 천국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천국은 타락하지 않은 산 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의 원칙적인 기준에 세워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인류의 부모인 아담과 해와의 자리에서 아들딸을 거느리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왔다갔으니 자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대합실 같은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141-300, 1971.2.17) p.88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은 비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슬픈 복귀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잃어버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담과 해와의 일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일족이 확대되어서 민족이 되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하나의 세계로 확대되었을 것인데,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 하나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왕권을 중심삼은 왕국을 잃어버리게 됐고, 하늘나라의 민족을 잃어버렸고, 하늘나라의 종족을 잃어버렸고, 하늘나라의 남자·여자, 독생자·독생녀까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143-25, 1986.3.15) p.880

본래 영계는 가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부생활 안 한 독신입니다. 성인 공자는? 석가는? 마호메트는? 왕들은? 전부 다 천사장권 후손이니 독신생활입니다. 상대이상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했다간 이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자꾸 알아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되겠다고 하는 비법적인 놀음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왕초 되려면 참사랑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6-191, 1998.11.9) p.880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세워 섭리해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그 본향의 뜻과 본향의 원칙에 일치되는 교훈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희생하라, 봉사하라'하는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와 종교의 배후에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두고 볼 때, 위하려는 종교는 발전할 수 있지만, 자기를 위주로 하여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주체적인 입장에 서려는 종교는 내려간다는 결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74-51, 1974.11.27) p.880

성경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둘째 계명은 뭐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이웃을 제2로 사랑하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198-259, 1990.2.4) p.880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제국을 일시에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면, 자기들은 한자리씩 해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반을 닦아야 되고, 그 마음을 중심삼고 몸이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거점은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47-273, 1971.8.29) p.881

하나님은 오순도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괄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순도순할 때는 오순도순해야 합니다. 안팎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만 맞으면 다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7-257, 1971.8.29) p.881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탄권 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보다 자기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된 인류가 사탄권 내의 사랑의 함정에서 가장자리까지 나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1-299, 1971.2.17) p.881

영계에 가 보면 옛날에 순교한 신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순교해야만 천당에 갈 수 있지'했던 사람은 천국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기 위해 수난 길을 걸으셨고, 피를 흘렸고, 주님의 은덕을 갚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이라도 가겠다.'고 하면서, '그 은덕을 갚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한때를 맞은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하면서 죽은 사람은 영락없이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땅을 위해 죽은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내가 이렇게 믿고 죽어야 천당가지'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주장해서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41-355, 1971.2.18) p.881

Top p.881

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곳

타락이 무엇이냐? 타락했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이 되어 버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타야 할 것인데, 지옥 가는 티켓을 타 버렸다 이겁니다. 그거 실감나지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지옥행 티켓으로 변해 버린 것이 타락 때문이다 이겁니다. (132-82, 1984.5.20) p.881

지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 하나님과의 인연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201-97, 1990.3.11) p.882

지옥은 전부 다 막혀 버리고 나 혼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워하면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이 우주의 방대한 행복권을 다 보고 느낄 수 있는데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런 문이 하는 것이 뭐냐? 세계적인 이런 사상을 중심삼고 하늘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미래에 영계에 가지고 가야 할 길을 지금부터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6-308, 1980.1.13) p.882

영계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우리를 포용할 고향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향, 영계는 정말로 거대한 곳입니다. 영계를 좋아해요?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세계적이 되고 우주적이어야 거기에 박자가 맞지, 개인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전체와 통하지 못하니 얼마나 지옥입니까? 독수리를 잡아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덜커덕 움직이지도 못하게 가두어 놓고 밥만 주는 것과 딱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는 새이지요? 먹을 것만 먹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행복해요, 불행해요? 비참한 것입니다. (247-131, 1993.5.1) p.882

자살하는 것은 죄 중의 죄입니다. 우주를 파탄시키기 위한 악독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중의 지옥에 가야 됩니다. (107-36, 1980.1.20) p.882

지금 숨쉬는 십분의 일 콧구멍, 십분의 일 입으로 숨쉬고 산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고 싶을 때에 받지 못하고, 주고 싶을 때에 주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한 번 숨쉬고 싶은데 공기를 받고 싶은데 한 번 참아보라는 겁니다. 몇 분이나 있겠어요? 주고 싶을 때 내쉴 수 없고, 받고 싶을 때 들이 쉴 수 없으면 얼마나 가겠나요? 그게 지옥입니다. (112-210, 1981.4.12) p.882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먹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은 보면서도 먹을 수 없는 곳이요,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계와 육계가 하나될 수 있는 이런 가치적인 중심을 세워 놓고, 지상에서 영육이 하나된 천국생활을 한 사람 외에는 영원한 이상적 세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요, 하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1-173, 1972.2.6) p.882

저나라에 가서 뭘 할 것이냐?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먹으면 좋겠어요, 안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 먹는데 무엇을 중심삼고 먹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서 먹으려고 해도 입이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벌입니다. (209-94, 1990.11.1) p.883

세계도 혼란합니다. 그러면 영계는 어떠냐? 혼란한 인간상들이 영계에 가서 뭉쳐 있으니 영계는 혼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둑질도 습관이 되면 언제나 도둑질 해먹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구성에서 도둑질 해먹던 것들이 천상세계에 가서도 공짜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치곤란하니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 짓고 살다 보니 쓰레기통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인들은 근본을 다 모릅니다. (148-28, 1986.10.4) p.883

지옥은 뭐냐 하면, 폐물 수집장소입니다. 폐물 수집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거짓 사랑에서 출발된 모든 인류라는 것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같이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몸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나 여자나 그 가정 전체 식구가 몸 마음이 절대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체 된 하나님 앞에 그 식구가 대상으로서 같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영계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274-9, 1995.10.25) p.883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영계에 가면 지옥은 자기가 갑니다. 악하게 살던 사람은 선한 데 가면 호흡이 안 맞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어두운 데로 가서 '어어, 여기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지옥 가 있으라고 해도 못 가 있습니다. 호흡이 안 맞습니다. 내가 맡는 냄새가 다르고,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누가 보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옥은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200-192, 1990.2.25) p.883

천국에 가면 지옥에도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계에서 제한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자유천지에 해방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아, 이 사람이 하늘나라 톨게이트(tollgate: 문)의 어떤 사람이다. 파수꾼이다.' 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가 문지기로구나. 너를 녹여 가지고, 너를 감동시켜 가지고 내가 들어갈 때 안내하게 만들겠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115-58, 1981.10.28) p.883

지옥은 뭐냐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천국은 미래가 있는 곳이요, 지옥은 미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미래가 있습니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타락이라는 것은 공적인 의미의 미래를 갖지 않은 자리에서부터, 자기만이 중심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라는 길은 지옥이요, 남을 위하라는 길은 천국입니다. 딱 요런 개념입니다. (111-11, 1981.1.11) p.884

기구(氣球)가 있지요? 수소를 집어넣으면 천천히 쓰윽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무한정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무게와 균형이 취해지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와 같은 동류(同類)의 공기권 내에 머문다는 겁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내려가는 겁니다. 무겁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은 무거운 것들이 모여서 부딪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15-186, 1981.11.15) p.884

만약에 영계에 백인하고 흑인이 가는데, 백인이 천국 들어가는 데는 흑인 파수꾼 세우고, 흑인이 천국 들어가는 데는 백인 파수꾼 세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간다고 욕을 하고 들이차면 '나 죽여주소. 옛날엔 몰랐소!' 하며 그저 붙들고 '살려주소!' 이렇게 사정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자신이 살아생전에 흑인들 반대하던 것 몇천 배, 몇백 배 생지옥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파수꾼을 세울 것입니다. (116-108, 1981.12.27) p.884

여러분은 우주에서 어디에도 갈 수 없다 이겁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법과 질서권 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사랑의 질서, 인륜, 가정?사회, 국가, 세계, 천주?하나님 전체를 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헌법기준을 중심삼은 우주법 치하에 살고 있는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비롯한 모든 법이 지지하고, 옹호하고, 해방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사랑하고 위하여 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인들은 지옥관념이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배너를 들고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더 심하고 더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았지요? 법정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7-312, 1982.4.11) p.884

저나라에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랑의 작동 이상의 힘에 부합될 수 있는 훈련된 소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반발적 작용이 미쳐옵니다. 누가 지옥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121-173, 1982.10.24) p.884

사적인 것과 공적이라는 말은 확실한 겁니다. 공적인 것은 큰 것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사적인 것은 자기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주로 하는 것은 지옥과 통하는 것이요, 공적인 것은 천국과 통하는 것입니다. (121-127, 1982.10.24) p.884

통일교회 교인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성경 끼고 가서 예배보면 천국가고, 뭐 헌금 몇푼 하면 천국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패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시시한 패입니다. 지독한 패가 아닙니다. 믿으면 그저 끝까지 믿는 겁니다. 내가 죽든 살든, 남편이 붙들고 못 가게 하면 얼마나 지독한지 이혼도 불사하고 믿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야 야, 너 이혼하고 나를 따라오면 너 지옥 보낸다!' 하시겠어요? 지독하게 이혼을 하고라도, 차 버리고라도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나서게 될 때, 하나님이 '너 이혼하길 잘했다!'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21-70, 1982.10.24) p.885

지금 고생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옥까지도 천국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옥 가 가지고 재판장 놀음 하더라도, 지옥에서 징역살이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은 다 거쳤기 때문에 참소할 수 없소!' 할 겁니다. 이 자리에 내려올 때, 높은 자리에서 한 단계를 내려올 때, 세상 같으면 얼마나 야단하겠어요? '내가 왜 거기에 가? 내가 왜 가?'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부모의 심정권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옥 밑창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부모예요, 참부모입니다. 자기 얼굴에 상처가 나고 몸이 어떻게 돼도 그렇습니다. (116-115, 1981.12.27) p.885

눈을 부릅뜨고는 '술 먹으면 안 돼. 요것들 망해라!' 이러면 껄렁껄렁한 패들입니다. 거기에는 여유가 없지요. 요런 기독교인들을 보면 내가 따분해 집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몇 장에 걸렸다. 너 지옥 간다.' 하는 걸 보면, 에이 이 녀석아…. 사람 죽이고도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면,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사람 죽인 사람을 석방하는 법이 없는 줄 알아요? 요놈의 자식들! 너희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 산등에 있는 대리석 틈바구니에 뿌리를 박은 저 조막 소나무, 거기엔 지나가던 개도 와서 오줌도 못 쌉니다. 그늘이 있어야 오줌을 싸는데, 오줌 싸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어서 개도 어디 가서 붙어서 싼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보다 낫습니다. 그늘에 가서 싸는 겁니다. 왜? 남이 구경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120-240, 1982.10.17) p.885

천국 들어가는 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나라는 것이 원수다 이겁니다. 지옥이 생기고 사탄세계가 생긴 것은 자아 각성에서 생긴 것입니다. 천사장이 나를 중심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각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역적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 중심삼고 나라와 주권자를 넘어서 생각하는 사람을 역적이라 하느니라. 나를 타고 올라가는 그 꼭대기는 전부 역적의 길과 통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길과 통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에 있어서 패망의 길과 통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터전, 나를 위주하는 이 터전은 사망과 통하는 것입니다. (122-20, 1982.10.31) p.885

내가 사랑 받겠다는 건 지옥 가는 길이요, 사탄편이요, 내가 사랑하겠다 하는 건 천국 가는 길이요, 하늘편입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하나밖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없다 이겁니다. 자식이 받겠다고 안 해도 자꾸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타락했지만 부모의 사랑을 통한 그 길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 되니 그와 같은 사랑이 인간에게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122-234, 1982.11.14) p.886

여러분들 종착점이 어디예요? 어디 가서 머물 거예요? 레버런 문은 저 영계에 가서 모든 사랑의 극점에 있을 것입니다. 북극, 남극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극점에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서 암만 찾아도, 암만 돌아다녀도 레버런 문은 없을 것입니다. 없으니까 '레버런 문은 지옥 갔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쉽겠어요? '북극에서도 얼어죽지 않겠다. 사랑의 불덩이같이!' 이게 멋진 이상이에요, 멋진 사상입니까? 그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또 세계 사람도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의 상속을 받겠다는 사람은 내 족속이다! 거 기분 나빠요? (108-182, 1980.9.28) p.886

하나님은 지옥을 가더라도 지옥의 악마들까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당신 앞에는 머리 숙인다는 겁니다. 사탄도 절대적인 사랑에는 반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이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되면 지옥이 전부 다 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모든 존재의 작용의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5-82, 1983.2.15) p.886

마음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가고 싶으시면,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가시고 싶으시면 지옥에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나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경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124-184, 1983.1.15) p.886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형장에 나갈 때 입는 옷은 지극히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나쁜 옷이라도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아내가 만들어 준 옷은 지극히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내용을 중심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환영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옥을 가더라도 사랑 때문에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같이 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러브 헬(love hell:사랑 지옥)을 딱 붙여 놓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지옥이라도 사랑의 지옥이라면 어때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이-' 이러고 있다가도 '사랑의 지옥!' 이러면 '허허허' 이래요. 그거 알겠어요? 그거 그럴 거 같아요? (129-284, 1983.11.20) p.886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빛나게 하고 더 깊이 인연 맺게 해주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이라는 것은 높게는 하나님까지 깊게는 지옥까지 다 콘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은 사람의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만물 세계, 모든 동물 세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전부 사랑의 노래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들이 서로 사랑하는 노래가 좋아요, 싸우는 노래가 좋아요? 사랑하는 노래가 좋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우주는 참된 사랑을 가진 곳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경계선이 없고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과 지옥까지도 콘트롤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129-284, 1983.11.20) p.887

사랑이 우주를 존재케 하는 기둥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옥을 이루는 기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뜯어고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포를 갖다가 몇백 퍼센트 강한 표백제로 전부 다 씻어 가지고 나오더라도 이것이 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물드는 겁니다. (133-319, 1985.1.1) p.887

참사랑의 힘만이 백 퍼센트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참사랑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도 '으흠'하고, 지옥에 있는 사탄도 '으흠'하고 모든 세상도 '으흠'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하나되게 만드느냐 하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사랑 힘이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선생님 말이 틀려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133-311, 1985.1.1) p.887

최고 정상의 하나님이 계신 곳과 지옥의 제일 밑창에 있는 인간세계 사이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겁니다. 그 케이블카의 줄이 무슨 줄이냐? 돈 줄은 즉석에서 왕창 끊어진다 이겁니다. 돈 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 줄 가지고 돼요? 권력 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상하를 초월한 사랑의 줄을 가지고, 그 줄에다 케이블카를 매서 달아야 합니다. (130-35, 1983.12.11) p.887

광대놀음이 뭐냐? 광대는 놀음도 하고 춤을 춥니다. 그런 때 가서는 춤은 못 추더라도 박자는 맞춰야 합니다. '아이구, 통일교회 교주로서 거기에 박자 맞추면 지옥 가!' 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걸작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발톱보다 작고 개미 앞발 같은 그런 답답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입을 벌리면 공기를 다 들이마시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임을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130-87, 1983.12.26) p.887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에 영계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보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만 구원섭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의 한계가 어디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 지옥의 한계선까지 넘어선 구원섭리의 완성을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이러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1-297, 1982.10.30) p.888

인간의 마음은 차돌이 아니고 얼음입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오만 가지의 잡동사니가 합해 가지고 얼어붙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녹여 가지고 잡동사니는 다 치우고 깨끗한 얼음덩이를 만들자는 겁니다. 깨끗한 물로 얼음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는 얼음이 되게 해보자는 겁니다. '얼음 중에는 사탄이 좋아할 수 있는 얼음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얼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얼음이 되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해야 지옥의 얼음덩이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얼음덩이로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109-28, 1980.10.26) p.888

Top p.888

⑥ 천국과 지옥은 자신이 선택한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레버린 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지옥이요, 불평할 데를 감사하며 가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96-122, 1978.1.2) p.888

하나님은 시기심이나 질투가 많아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생겨나서 가짜를 처리할 처리창고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쓰레기통을 먼저 만들고 집을 짓겠습니까? 김치를 담그려고 좋은 배추를 사 왔는데, 담다 보니 벌레먹은 우거지 같은 것이 나오니, 쓰레기통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의 종지조상(宗之祖上)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하여 죄를 청산짓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자격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20-118, 1968.5.1) p.888

지금까지 인간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지옥행이었습니다. 벌레가 먹고 구더기가 붙었지만, 그거 돼지라도 먹이고 다른 것에 쓸까 해서 할 수 없이 갖다 저장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과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은 비어있다 하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35-118, 1985.10.4) p.888

타락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전세계 인류가 심정을 다하여 하늘을 모셨던 한날이 있었는가 하면 없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해와는 창조이상을 통하여 자랐으되, 심정의 인연을 세워 놓고 하나님을 모셔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8-290, 1960.2.14) p.88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 하나님과의 인연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잘하고, 아무리 지상에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삼은 천국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지상세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땅 위의 비참이요, 비통이라는 겁니다. (201-97, 1990.3.11) p.888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가? 심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인간이 모실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것이요, 심정을 중심삼고 모심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모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없는 것이 한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것이 한이 아닙니다.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의 한입니다. (8-290, 1960.2.14) p.889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미워해야 됩니다. 내 몸에 원수의 피가 준동(蠢動)하는데, 이것을 칼로 끊을 수도 없고, 불사를 수도 없는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서 가지고 만물을 소화하고 소모하는 소모공장이 돼 있다는 비통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14-285, 1991.2.3) p.889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부터 갈라지느냐 하면, 성경을 잘 알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과 심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은 심정의 경계선, 실적의 경계선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32-231, 1970.7.19) p.889

저 나라에 가게 되면 사랑의 이상에 부합될 수 있는 훈련된 소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반발작용이 미쳐 옵니다. 누가 지옥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원수에게 그 사랑이 미쳐서 1 차, 2 차, 3 차, 4 차만 지나가게 되면 원수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런 위대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121-173, 1982.10.24) p.889

인간이 지옥에서 죽어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영원히 살려 주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부모의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에이! 다 쓸어버리자!'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까지 해방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아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부모의 정경을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며 천만번 죄를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식은 뼈가 녹고 살이 여위도록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62-51, 1972.9.10) p.889

사탄도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참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 못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통해서 지옥까지도 해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효자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니냐?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지옥까지도 구원해 준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62-51, 1972.9.10) p.889

지옥이라는 곳은 한번 걸려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척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하고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가 진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감옥에만 들어간다고 해도 울고불고 하면서 별의 별 짓을 다 해서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정이거늘, 하물며 천정으로 맺어진 아들딸이, 자기의 부모와 친척, 형제와 자매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34-266, 1970.9.13) p.890

Top p.890

3) 영인과 지상인의 관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영계는 선 영계와 악 영계로 갈라져 있다

지금까지 영계에 간 영인들은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횡적으로는 안 통합니다. 종적으로는 이 정도로 통합니다. (218-125, 1991.7.14) p.890

영계는 두 패로 되어 있습니다. 영계는 사탄세계하고 하나님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계의 사탄세계에서 선한 하나님 세계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만 내놓으면, 지상은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것이냐? 영계의 사탄세계에 가서 개인 · 사탄가정 · 사탄종족 · 사탄나라를 전부 다 하늘편으로 인계받는 비법만 가졌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그런 때가 오면 지상에도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변천이 빨라 그 세계로 굴러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34-15, 1985.1.1) p.890

영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움직여서 이 지상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는 영계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영계라 하게 되면, 선한 영계와 악한 영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실재하는 세계입니다. 지상세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곳은 확실히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134-9, 1985.1.1) p.890

영계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인들은 마음대로 여기 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로 다리를 놓지 않으면 특정한 사람 외에는 재림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 가운데도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영계에서 내려올 때 그 주류가 직선이 안 됩니다. 유대교의 다른 계통이 정성들이게 되면, 그 주류가 옮겨져서 왔다갔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데는 직선에 해당되는 사람 외에는 못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재림역사 협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 세기가 되면 그 사람도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이 다음 시대에 오려면 역시 이와 같은 원칙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에 특정한 영인들 외에는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2-29, 1978.11.19) p.890

영계의 담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 세대가 전부 다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담벽입니다. 지금 때는 세계적 시대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것 찾아오려면 얼마나 돌고 돌아서 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돼 가지고는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내려오는 길과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일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102-29, 1978.11.19) p.891

하나님의 본연의 이상세계, 본연의 인간이 갈 수 있는 이상적 선권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선한 영들은 그곳으로 전진하려고 하고 악한 영들은 그곳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계하고 악한 세계라는 것은 무시로 통합니다. 무시로 연락됩니다. 선한 영은 악한 세계에서 대립되어 반대받는 자리에서 살아간 영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입니다. (134-9, 1985.1.1)

영계에서도 선한 영인들과 악한 영인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도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은 악한 영을 선도하여 좋은 곳에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중심삼고 악한 영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악한 영의 통치권 내에 오늘날 지구성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간 선조들은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나 전부 다 영계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영도 타락한 세계에 구별되었다는 조건을 이 땅 위에서 세워 가지고 선한 편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완전한 선의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134-9, 1985.1.1)

저 나라에 가면 살인한 자, 죽임을 당한 자, 별의별 사람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칼부림도 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 수많은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악한 영들이 원수 자식들을 찾아가 사고를 당하게 해서 데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세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푸는 데는 더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풀리질 않습니다. (191-205, 1989.6.24) p.891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죽어서 3 일 동안 지옥에 갔습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최고의 공포인데, 예수님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이 최고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지옥에서 공포의 주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행복의 주인이 되었느냐?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3 일 동안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34-144, 1970.8.30) p.891

무엇 갖고 영계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느냐? 이러한 관계는 인간의 조상이 이루어 놓았고, 천상세계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 후손은 조상들의 잘못을 갚아야 합니다. 참된 효자가 되겠다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진 빚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계에 있는 조상의 막힌 담을 헐어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것은 꿈 같은 사실입니다. (191-205, 1989.6.24) p.892

Top p.892

② 영인들의 영계에서의 입장

육적세계는 사탄의 활동무대이고, 영적세계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어 언제나 엇갈려 나왔습니다. 이것이 복귀섭리시대에 한의 요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엇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마음권과 하나님을 중심삼고 치리받는 몸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권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데서 통일기반의 기준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45-213, 1971.7.1) p.892

통일교회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영계부터 통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계를 압니까? 우리 통일교회 패들은 영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영계를 통일하는 게 쉬울 거 같습니까? 영계의 통일 없이는 지상의 통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의 싸움이 참 힘들지요? 지상의 싸움이 힘듭니다. 그러나 영계의 싸움은 지상의 싸움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날 통일교회 교인들은 힘들다는 형용사를 입을 열고 말할 수 없습니다. (153-56, 1963.10.18) p.892

이상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냐? 영적인 세계는 영계고, 육적인 세계는 지상세계인데, 영적세계와 지상세계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바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줘야 저쪽이 오고, 또 저쪽에서 전부 다 줘야 이쪽이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147-97, 1968.8.31) p.892

우리가 앞으로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키는 데는, 먼저 세계적인 신념의 자각, 통일적인 이념의 자각을 하고, 세계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수난의 길을 감수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영계와 육계가 자동적으로 하나되고, 여기서부터 통일이 벌어집니다. 통일의 길을 가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9-285, 1970.3.11) p.892

영계를 통일하기 전에 육계를 통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영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육계에 있는 통일교회 패들을 사지(死地)에 몰아넣는 것이요, 무자비하게 때려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계는 여러분에게 협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이 비참한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을 중심삼고 영계는 영계대로 단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삼천만 민족 가운데에 천국권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은 옛날에 지옥에 가 있는 패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49-109, 1971.10.9) p.893

이 세계는 악마의 세계입니다. 악마의 세계를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 왕래할 수 있는 터전을 땅에 닦고 가지 않으면, 지상천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이 안 되면, 천상천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계에 가서도 이 지상에 마음대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상천국에 살고, 천상천국이 이루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146-223, 1986.7.1) p.893

저 세계는 물질세계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저 세계는 지식의 세계를 초월한 세계입니다. 시공을 초월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본질의 세계는 오늘날 인간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중요시하는 내용을 중심삼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계생활의 모든 가치적인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41-268, 1986.3.2) p.893

우리들은 3시대의 사명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을 해방시키고, 오늘날 이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앞으로 올 후대의 사람들도 여기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3시대의 해방권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대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이처럼 꿈 같은 내용이 사실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눈이 휘둥그래지고 입은 하염없이 벌어지고 귀는 쫑긋하겠지만 머리는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28-201, 1970.1.11) p.893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좋으나 싫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돌아가서 머무를 곳이 영계입니다. 거기에는 미개인으로부터 문명인까지 역사시대에 왔다갔던 천태만상의 인간군상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역사가 평화를 중심삼은 인류역사가 못 되고, 행복을 중심삼은 인류역사가 못 되고, 이상을 중심삼은 인류역사가 못 되었다면,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치리 받을 것이냐?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저 세계에 가서 갑자기 변할 수는 없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타고난 성격은 고치기 힘든 겁니다. (141-268, 1986.3.2) p.893

저 나라에 가 있는 영인체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던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이냐? 갑자기 달라질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던 그 모양 그대로 수확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체들은 결국은 지상에 살던 사람들의 영인체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141-268, 1986.3.2) p.894

저 세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가느냐? 저 세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입장보다 내일의 입장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 사는 인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심리입니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옛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심리다 이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체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나아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상생활하던 때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41-269, 1986.3.2) p.894

Top p.894

③ 영인들의 완성도 지상인을 통해야

지금까지 세계는 사탄세계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는데 선두적 입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 반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천사세계가 조상의 선한 실적을 가진 후손을 찾아와서 협조하려고 하는데, 협조하는 그 대상이 높은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 위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위층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86-194, 1997.8.11) p.89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에, 고달프게 세계를 돌아보면 말입니다. 집에 가면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그들 앞에 심어준 것이 뭐냐 하면, 밤이 오나 계절이 변하더라도 선생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이 커 가더라 이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마을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사모의 마음을 중심삼고 생활하면 천사가 와서 활동할 수 있고, 선한 조상들이 와서 타락과 관계없는 놀이터가 되고, 희망봉이 된다는 겁니다.

영계에 있는 영인들도 지상에 오는 데는 언제나 올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시장철 한 절기를 따라서 자기의 마음 문이 맞는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친구들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심문(心門)이 맞게 되면, 이 땅 위에 영인들이 와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83-291, 1997.4.13) p.894

주류종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류권을 전부 다 바꿔치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협조하여 재림역사를 해 나왔지만 이제부터 통일교회를 믿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류종교권의 모든 권한을 평준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부 다 앞으로는 통일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삼고 하나됩니다. 여러분보다 조상들이 먼저 났으니 천상 천사입니다. 먼저 지은 것은 천사와 마찬가지이고, 나는 아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연히 천상의 자리에 있는 조상들은 지금 아담과 해와의 자리에 있는 후손을 후원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이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상에서 닦아야 됩니다. 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권을 지상에서 닦게 되어 있습니다. (140-200, 1986.2.9) p.895

과거에 아담과 해와를 지키던 천사는 타락시키는 이 놀음을 했지만 이제 선조들은 그런 놀음을 안 한다는 겁니다. 후손들이 전부 다 그 천사장 아들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 조상들이 와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영계에 있어서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 원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원리 원칙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면 영계가 협조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145-116, 1986.4.30) p.895

자, 만났으니 결판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한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하나님이 바라는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 민족을 대한 조상들이 원하는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요, 오늘날 이 4천만 우리 민족이 원하는 뜻이요, 우리 후세들이 원하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점에 있어서 이 책임을 못 하게 될 때는, 모든 선조의 원성과 현시대의 이 민족의 원성과 후대의 후손의 원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조 중의 어떤 선조보다도, 현재 이 시대의 누구보다도, 후대의 어떤 후손 누구보다도, 더 심각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철학을 갖고 삽니다. 그러한 생활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싸워 나오면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협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망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코너에 가는 겁니다. 네가 떨어지느냐, 내가 떨어지느냐? 이만큼 몰고 왔습니다. (138-335, 1986.1.24) p.895

문화권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생명의 연결이라든가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하는 근본이 하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중심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일본인도 한국인도 중국인도 서양인도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살고 있는 지상인들도, 영계에 가 있는 수많은 영인들도 전부 근본은 하나입니다. 출발해서 결국은 영계에 가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192-257, 1989.7.9) p.895

지옥도 문이 열려 가지고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 부모, 조상이 천사장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편을 망치는 천사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를 망치는 천사, 탕감복귀 원칙에서, 반대의 입장에서 옛날과 달리 하늘을 망치는 자리가 아닌 하늘편 천사장의 사명을 해 가지고 자기의 후손, 아담과 같은 자들을 협조해 주는 놀음을 벌이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영인들이 협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영인들도 지상인과 같이 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164-276, 1987.5.17) p.896

영인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해방 받으려면 지상인을 통하지 않고는 고통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지은 죄를 벗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처소로 꼭 찾아갑니다. 자기의 혈육이나 관계되는 이에게 찾아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293-249, 1998.6.1) p.896

영계에 갔다가 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상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지상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망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전부 다 책임분담과 탕감조건에 걸려 영계에 가서 갈 길을 못 가고 땅에 다시 내려와 탕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길을 여러분이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거기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146-223, 1986.7.1) p.896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못살게 하고 다 고생시키는 것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살려 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고생을 시킨다는 걸 알고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심정세계, 새로운 심정세계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정적 유대를 가져야 하늘의 명령이면, 그저 어디든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세계를 끌고 가는 기관차 같은 책임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영계가 협조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영계가 틀림없이 협조합니다. (96-279, 1978.2.13) p.896

여러분은 영계 가는 게 좋습니까? 지상의 여러분이 영계에 가겠다는 마음과 영계의 사람들이 지상에 재림하겠다는 마음 중에 어느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더 열렬해야 되겠습니까, 영계가 더 열렬해야 되겠습니까? 영계는 천사장 세계이고, 여기는 아담과 해와의 세계, 아들딸의 세계입니다. 아들딸이 더 열렬해야지 종이 더 열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계를 협조하게 돼 있습니까, 영계가 여러분들을 협조하게 돼 있습니까? 영인들이 협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느냐? 지상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데 협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먹고 잘살게 하는 데 협조하겠습니까? 지상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데 협조하는 것입니다. (161-227, 1987.2.15) p.896

영계를 중심삼고 보면, 악한 영이 있음과 동시에 중간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습니다. 소생-장성-완성 3단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3차 7년노정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들이 지상에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소생 장성권이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의 판도권 내에 있는 악한 영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악한 사람이 세계를 전부 요리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영들이 교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차할 때는 영계가 내려오는데 악한 영부터 내려옵니다. 교차되는 때는 중간 영계를 넘어, 선한 영계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이것이 넘어가는 날에는 선한 영들과 선한 사람들은 올라가고,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악이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교차하면서 뒤범벅으로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선과 악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75-193, 1975.1.5) p.897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영계의 영인들을 동원하여 증거케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영계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 위에 그러한 사람이 호소하면 영인들을 동원하여, 천국이념의 실현을 위한 지상의 일에 협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영인들이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원인은 이 땅이 탄식의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60, 1958.3.2) p.897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선생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선한 영들은 재림해서 이 지상에 있는 악한 후손들을 선한 당신의 품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소!'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이 가능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시대권 내에서 사는 것이요, 영인들은 천사세계권 내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천사가 협조해야 할 원리원칙 때문에 안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89-113, 1976.10.4) p.897

새벽에 일어나서 그 동네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책임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지어야 합니다. 그 길은 심정적이면서 영계와 영적인 인연을 맺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네를 내려다보면,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력(共鳴力)이 들어가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96-282, 1978.2.13) p.897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될 때에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바닷물을 다 메우고 산이 될 때까지 한정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정적으로 자란다 이겁니다. 몸은 아무 것도 변하는 것은 없지만 심정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96-282, 1978.2.13) p.897

지금까지의 6천 년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아담 하나를 재창조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해와는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창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담, 단 하나의 남자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복귀섭리 도상에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이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억천만 영인들의 원한이 여기에 뭉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실체가 등장하는 날에 비로소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피를 뿌리며 죽어 간 순교자들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영계에 있지만 지상에 있는 실체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도 해방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념적으로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29-271, 1970.3.11) p.898

우리는 옆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먹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상관없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 앞에 수천 명이 한결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을 당기면서 쉬지 않고 정성들이고 몸부림치면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줄을 감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뛰다 보면 1등도 생기고 2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인들이 그 줄에 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등을 하고 저나라에 가서 그 감는 장치와 인연맺어 가지고 통째로 감아쥐게 되면 영계와 육계가 복귀되는 것입니다. (32-145, 1970.7.5) p.898

Top p.898

④ 영계의 협조와 확신

영계가 이제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왔기 때문에 선한 영인들이 지상에 정주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와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탄, 악마들이 지상을 전부 분할해서 주관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선한 영들이 그 지역을 빼앗아 가지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교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며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성들인 이상, 회교·불교,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중심삼고 지상에 실체기반이 복귀됐으니, 영적 기반을 중심삼은 영계권을 통해서 통일교회는 전진할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69-10, 1987.10.1) p.898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야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영계에 간 사람들을 위해 주면 영계의 복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영계를 위해서 탕감 해 주고 회개하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 그 영계가 여러분을 따라 온다는 겁니다. 영계가 여러분을 중심삼고 전부 다 움직여 나간다 이겁니다. 탕감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25-50, 1983.3.1) p.89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영계의 영역은 끝이 없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다 '내가 협조했다. 거기 책임자가 너였을 때, 너의 시대에 가서 협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친구입니다. 한 시대권내에 서 있는 동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영계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어요? 형성 못 합니다.

천국은 참부모로부터 시작되게 돼 있지, 지금까지의 타락한 후손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지상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부활원리가 그렇지요? 부활원리가 그냥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야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계가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62-96, 1987.3.30) p.898

강한 신념만 딱 갖고 나가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머니든 누구든 친척을 눌러 가지고 꼼짝 못하게, 입을 못 떼게 압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내 말 들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타락한 악한 영은 물러가고 선한 권내의 본연의 종족적 기반을 중심삼고 부모와 연결될 수 있는 국가적 기준까지 연결된 부모님과 세계적 기준까지 사탄을 밀어 온 기반 위에 섰기 때문에 사탄들을 물러가고 천사장형 영계의 모든 여러분의 조상들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184-91, 1989.3.19. 세계선교본부)

영계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랑스러운 후손들에게 협조하고 싶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종족을 중심삼은 종파를 초월한 종교세계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따라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협조하는 데 헌신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189-278, 1989.5.1) p.899

오늘날 지상에서는 통일교회에 들어와 기도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선조들이 나타나 가지고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종교들이 지금까지 세계적 판도를 닦아 가지고 심정적 유대로서 종적인 행로를 닦아왔는데, 그것을 횡적 판도를 세계적으로 넓혀 놓았기 때문에, 이 세계 끝까지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영계에 간 선조들이 종족을 중심삼고 비로소 지상에 재림해서 협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홈처치가 그러한 세계적인 판도를 축소시킨 기반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들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왔다가 협조해 주고는 돌아갔지만, 이제는 지상에 정주(定住)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정주, 알겠어요? 정주라고 해서 선생님 고향 정주가 아닙니다. 영계에 간 선한 영들이 비로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교회에 들어와 활동하는데, 선한 조상들이 여러분과 같이 살며 협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복귀가 가능한 겁니다. (163-301, 1987.5.1) p.900

세계적인 시대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입장에 있더라도 세계 최고의 성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심적인 생활을 한 사람은 어디든지 종횡무진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영적으로 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교회 움직임을 두고, 전세계의 각 나라 애국자들은 전부 다 이 땅 위에 통일교회 기반을 중심삼고, 배후에 울타리를 쳐 가지고 재림해서 정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대로 말하면, 그 나라의 민족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사람들이 죽어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확대공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는 국가적인 운동을 해 가지고 총동원 해 가지고, 영계와 더불어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희생을 각오하고 총진군 명령을 내리면, 그 영들이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162-108, 1987.3.30) p.900

지금까지의 종교는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정성을 들여 가지고 종적인 면에 박자와 파동이 맞아야 접선을 했지만, 이제는 그 방송국 자체에 들어왔습니다. 진동판과 같은 자리에 섰다 이겁니다. 파동이 아니고 파동을 일으키는 송신기 자체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몇천 주파수로 하든가, 몇십 주파수로 하든가, 단파로 하든가 갖다 붙이면 파장, 전파를 전부 다 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내가 방송국을 가졌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와서 나에게 협조하소서. 선한 조상이여 와서 협조하소서. 그런 바이브레이션(vibration:진동)이 필요합니다.' 하면 찌익 와서…. 개인을 부르더라도 움직일 수 있고, 가정을 불러도 움직일 수 있고, 종족권, 민족권, 세계권을 중심삼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발판이 지상에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 몸뚱이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돌아 가지고 전부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두 영인체가 와서 하나를 붙들고 끌게 되면, 자신은 그 붙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지, 별 수 있어요? 혼자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이것이 공론(公論)이 아닙니다. 이론적입니다. (162-103, 1987.3.30) p.900

통일교회가 움직이면 마호메트가 협조하고, 유교·불교 대표자들이 전부 다 협조하고 하나님도 협조한다는 말은 이론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인류를 대표하고, 영계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있기에 전체가 협조를 하는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162-15, 1987.3.15) p.900

지금까지 부모님에 대해 영계가 지지를 못하고 협조를 못하는 이유는, 완성한 부모의 자리는 타락한 영계가 협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본래가 그렇잖아요, 원리가? 완성한 부모님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이 후원하게 돼 있지 사탄권 내에 있는 영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모님을 협조 못 하게 돼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은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가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부모를 협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실패하였던 모든 것을 탕감하고 자녀의 자리에서 아담과 해와가 자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빠른 시일 내에 무너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46-312, 1986.7.20) p.901

Top p.901

⑤ 유리(流離)하는 영들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영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한 사람 앞에 3천3백2십여 명 꼴의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편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86-193, 1976.3.28) p.901

사람이 백 년을 못 사는 걸 생각할 때 50억 인류 중에 1년에 5천만이 영계로 갑니다.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뿌려 놓은 씨를 전부 다 하늘로 거두기를 하나님이 바라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얼마나 지옥에 갔습니까? 수십 억이 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저나라에 가서 영들을 만나게 되면 '선생님이 재세 당시에 우리에 대해 책임 못 하지 않았소'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마음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소행을 중심삼고 가게 될 때 '당신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셨소!' 한다는 것입니다. (213-355, 1990.10.2) p.901

지금 하루에도 6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죽고 있으니까 하루에 6만 명입니다. 6만 명이 죽어 가는 것을 부모?자식?형제들이 볼 때 가슴 조이고 통곡할 수 있는 사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라는 사람이 동정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지상에서 재세 당시 자기들과 같이 살았다는 조건이 원한이 됩니다. (213-355, 1990.10.2) p.901

굶어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패들이 신(神)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굶어죽는 사람은 자기 선의의 도리에 따라 저 나라에 가게 돼도 급이 있지만, 신이 없다는 사람은 영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발판이 없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구름 떼같이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뭉쳐서 비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결해 전부 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옥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찾아가 지옥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이들을 살려 줘야 되겠기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213-355, 1990.10.2) p.901

Top p.901

4) 조상들과 우리

① 우리는 조상들의 결실체

여러분은 전부 선조들의 얼굴을 대신 쓰고 나온 역사적인 부활체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몇십만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역사과정을 결국은 나 하나 만들기 위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김씨면 김씨라는 나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선조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적인 결실체입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선조가 좋은지 나쁜지 대개 압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선조가 있어서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선조가 있어서 지지리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하러 임지에 나가서도 지지리 고생만 합니다. (37-144, 1970.12.23) p.902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 통일교회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게 된다면, 국가적인 운세를 따라서 움직였던 영계에 있는 선한 영인들이나 선조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보기에 얼굴이 납작하고 귀가 쑥 들어가서 박복하게 보이지만, 영계에서는 여러분들을 복동이로 압니다. 더욱이 10 대권 내에 있는 선조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귀역사는 10 대를 중심삼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악한 후손이 나타나면 10 대권 내에 있는 선조들이 '이 녀석아! 네가 우리를 망치려 하는구나.' 하며 심판합니다. (14-20, 1964.4.19) p.902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심으로 그 이전의 선한 조상들이 영형제급 영계에서 생명체급 영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조상들도 지상 위에 있는 여러분을 조건으로 하여 재림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권 내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뜻을 알고 승리의 가지가 되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을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수천 대의 선한 조상들이 재림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14-22, 1964.4.19) p.902

영계를 가게 되면 수많은 선지선열들과 수많은 선조들과 만나 공론하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서 왔소? 지구성 어디요? 어느 나라요? 어디요?'라고 묻고 회상하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끼리 만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옛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계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종지 할아버지, 수천 수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놈의 자식아, 어떻게 살았어?' 하고 반말할 때 기분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48-321, 1986.10.26) p.902

이제는 우리를 협조해야 자기들이 복 받게 되어 있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자꾸 구렁텅이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천운이 급변해 들어갑니다. 앞으로 집집마다 선생님의 사진을 걸라고 야단할 것입니다. 영계에서 자기 조상이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걸고, 선생님 사진을 걸고 그 앞에 매일같이 인사하는 사람은 자기 조상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역사가 되살아 나는 것입니다. (208-154, 1990.11.17)

지금까지 수많은 잡된 영계를 통하는 영인들은 통일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석가모니 · 예수 · 공자 · 마호메트도 통일교회에 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천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이 말하는 종교는 부모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208-154, 1990.11.17) p.903

'우리는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 혈대를 이을 수 있는 조상이 됨으로써 해방권이 벌어지는 축복받은 종족이 되었나이다! 이 종족은 영원불변 하나님의 권속이요, 혈족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되면 사탄하고 완전히 작별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독교가 제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통일교회는 이제 그 전통을 이어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전통이 아닙니다. 하늘부모, 하늘나라, 하늘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계대를 이은 종족적 메시아권, 전통적 혈족들을 천년만년 모실 수 있는 왕토가 되는 것입니다. 왕을 모시고 영원한 태평성대를 부를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다가 가야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일가?일족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220-222, 1991.10.19) p.903

여러분들이 기도로써 영계와 통하여 보면 알겠지만, 영계에서는 후손들을 하늘 앞에 가까이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상이나 욕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합니다. (22-338, 1969.5.11) p.903

영인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해방 받으려면 지상인을 통하지 않고는 고통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지은 죄를 벗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처소로 꼭 찾아갑니다. 자기의 혈육이나 관계되는 이에게 찾아가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293-249, 1998.6.1) p.903

Top p.903

② 조상들의 구원은 우리가 한다

조상이 살아 나온 이 집안에, 자기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살던 그 방에, 우리 할아버지를 낳고 우리 아버지를 낳고 나를 낳은 그 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사랑하던 사랑보다 그 큰 사랑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볼 때 사랑의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백 볼트, 천 볼트, 만 볼트, 몇억 볼트의 빛이 쭉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 비치는 빛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조상, 조상, 조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삼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본래 우리의 본연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본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요? (243-190, 1991.1.20) p.903

저 나라의 모든 조상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 숨길 데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바람벽도 다 통하는 것입니다. 지구덩이도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도 영원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대가 안 되어 가지고는 영생이 없습니다. (213-190, 1991.1.20) p.904

영계가 내 손에 달렸고, 친척이 내 손에 달렸고, 친척뿐만 아니라 나라가 내 손에 달렸고, 앞으로 올 후손 앞에 올바른 전통을 세워 놓아야 할 것도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영계에 간 여러분의 선조들도 해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친척들도 해방할 수 있고, 여러분의 후손들은 해방의 선민으로 책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6-76, 1973.3.17) p.904

여러분이 언제든지 '3 시대를 대표한 나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현재-미래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둘을 겹쳐서 끌고 가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해야 됩니다. (66-76, 1973.3.17) p.904

세상이 이제 급변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고로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습니다. 이제는 탕감이 없습니다. 즉결 처단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누가 하느냐? 악마가 탕감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처리합니다. 지금 현재 축복해 준 그 기준이 수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영계에 들어가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조상이 약주고 병 줍니다. 조상이 '참부모의 사진을 모셔라' 이겁니다. (301-164, 1999.4.25) p.90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땅이 바라는 이상 간절한 마음 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3 대입니다. 자기 조상이 1 대, 그 다음에 자기가 2 대, 아들딸이 3 대입니다.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묶어 놓아야 새로이 태어나는 이 지상의 3 대권 후손이 부모와 천상의 조상에까지 미쳐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302-39, 1999.5.18) p.904

영계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랑스러운 후손들에게 협조하고 싶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종족을 중심삼은 종파를 초월한 종교세계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따라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협조하는 데 헌신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189-278, 1989.5.1) p.905

이 지상에 와서 협조하려면 자기가 선생님의 어머니로서 취할 수 있는 자리를 갖추어 가지고 와야 되겠기에 이제 왔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들까지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후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쉬지 말고 일하라는 겁니다. (179-25, 1986.6.15) p.905

여러분이 하나 철칙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 지방에서 태어난 충신 · 애국자 · 효자 · 교회 목사들이 들인 정성 이상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만 하면 그들이 전부 다 협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권 이상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반대하지 않고, 영계의 협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전부 다 통일교회에 들어가라고 영적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협조하러 나타나 가지고 전부 전도하고 다 그런다는 겁니다. (179-17, 1988.6.15) p.905

변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영계에서는 '야 너는 오늘 무엇 무엇을 해라!' 하고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멋진 사실들이 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두에 있으면 연관되는 사람들은 미리 영적으로 전부 다 연락되어 가지고 만나는 사실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협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조상들이 협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는 권의 세계에 아담완성권을 천사가 보호해 가지고 길러서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가 그런 본연의 사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장권 영계가 복귀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상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천사장이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와 가지고 선한 천사장의 놀음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정권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협조하는 울타리 내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타락권이 아닙니다. 본연의 심정권 승리권에 서서 해탈권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탕감복귀원리에 다 맞는 겁니다. 선생님이 적당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178-133, 1988.6.1) p.905

영계가 협조하는 것입니다. 영계가 협조해서 그 일족 친척 전부, 가까운 무리 전부 모아서 여러분 앞에 끌어넣는 겁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중심삼고 영계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영계의 영들이 내려와 가지고 아담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한 영들이 둘러싸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권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중심삼고 본연의 참된 조상의 자리를 심정적 인연에서 이어받아 가지고 새로 심어 놓은 것 같이 그 기반이 되었으니 그 기반을 중심삼고 여러분 문중의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할 것 없이 머리 숙일 수 있습니다. (177-75, 1988.5.15) p.906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이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쁜 조상들이 후손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한 조상들이 내려와서 활약할 수 있는 때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종족권의 십자가를 지고 민족을 대신해서 탕감하고, 국가와 세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탕감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 이념시대에 처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이 국가와 민족의 희망이기 때문에 영인들은 지금까지 높은 자리에 못 서고 저 밑창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적 혜택권 내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싸운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후닥닥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면적인 입장에서 조상대대로 구원할 수 있는 발판이 다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족의 해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72-253, 1988.1.23) p.906

횡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 조상들이 전부 다 와 가지고 조상들이 다리를 놔주는 것입니다. 조상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하는 데 협조를 해 가지고 참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옥도 문이 열려 가지고 천상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 부모, 조상이 천사장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편을 망치는 천사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를 망치는 천사, 탕감복귀 원칙에서, 반대의 입장에서 옛날과 달리 하늘을 망치는 자리가 아닌 하늘편 천사장의 사명을 해 가지고 자기의 후손, 아담과 같은 자들을 협조해 주는 놀음을 벌이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영인들이 협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영인들도 지상인과 같이 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164-276, 1987.5.17) p.906

선한 영들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협조하고 조상들이 전부 다 협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 통일교회를 누가 반대하면 자기 가슴이 섬뜩하고 뭐 떨리고 다 그러던 것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뭐 천하가 떠들어도 마음이 태평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벌써 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와 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조상을 가진 모든 후손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걸 좋아합니다. 또 오게 되면 뭘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마음으로 그 조상들이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 조상들도 혜택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발전하고…. 지금은 재창조시대이기 때문에 아담권을 천사세계가 협조하던 그 이치에 의해서, 조상들이 천사권에서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들을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하는 데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뜻 앞에서 장성해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164-308, 1987.5.17) p.907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다가도 나 때문에 살아오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살아올 수 있습니다. 참사랑에 의해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살아오소'하면 '오냐'하면서 할머니가 나타나고, 죽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참사랑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영계에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협조해 주시오'하면,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들어와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손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하니 이루어 주시오.' 하면 '오냐!'하지 '안 돼!'라고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통하는 것입니다. (162-143, 1987.4.5) p.907

영인들은 영계에서 지상인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지상의 후손들을 찾아오지만 지상의 후손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가는 길이 어려워지는 등의 어려움이 되풀이됩니다. 지상인의 도움으로 승진하는 영인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더 나은 위치로 옮겨감으로 자기의 삶이 편안해지며, 지상에 있는 후손들의 삶 또한 평화스러워 지는 겁니다. (292-287, 1998.4.27) p.907

Top p.907

③ 축복가정과 제사

통일교회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이제 그 전통을 이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참부모를 중심삼고 반대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전통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 하늘 나라, 하늘 조상을 섬기는데 있어서 그 계대를 이은 주류 사상적 전통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혈족들을 천년만년 모실 수 있는 왕토가 되는 겁니다. 왕을 모시는 영원한 태평성대를 부를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다가 가야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일가, 일족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220-221, 1991.10.19) p.907

조상들이 죽은 날이 되면 전부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을 위해 제사상을 차려 놓고 제사합니다. 선생님의 사진을 모신 그 방에서 하게 되면, 절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떡을 하고 제사 지낸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212-100, 1991.1.2) p.907

선민권과 혈통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선민권은 장자권입니다. 한국은 장자의 나라입니다. 한국이 족보를 사랑하는 민족이 된 것도 다 혈통을 받아가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쁜게 아닙니다. 앞으로 유교사상 이상 부모를 존경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26-277, 1992.2.9 p.908)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으면 성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덤에 묻혔다고 하고 성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지 못한 한을 오늘로서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220-268, 1991.10.20) p.908

장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건 누가 못 뽑습니다. 할아버지도 못 뽑고 삼촌도 못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할 때는 아무리 삼촌·사촌·팔촌?증조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장손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런 것 알아요? 한국의 전통적 문화배경에 조상을 존중시하는 데 있어서 장손을 내세운 것을 보게 될 때, 이 민족은 장자권을 존중시하는 민족이었다 이겁니다. 쌍놈 양반이 같이 살았나요? 쌍놈 양반이 같이 막 짝짜꿍했어? 아닙니다. 양반은 얼어죽어도 겻불은 안 쬔다고 했습니다. 그거 놀라운 것입니다. (197-340, 1990.1.20)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온 인류의 참부모가 받아야 됩니다. 윗대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금지해 나왔지만, 이제 복귀시대에 있어서 축복받고 그랬으니 앞으로 조상들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23-210, 1991.11.10)

제삿날이 오게 되면, 제사 드릴 시간은 장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한 시에 하던 것을 아침 다섯 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다섯 시에 하려고 하던 것을 사정에 의해서 아침 일곱 시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하면, 돌아간 할아버지, 조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손이 결정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장손이 결정한 시간에 와야 제삿상이라도 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싫으면 못 대하는 겁니다. 땅이 중심 아니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231-168, 1992.6.2) p.908

조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상을 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세계에서도 조상을 위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조상을 위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늘세계의 조상은 위하고 또 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제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어, 우상인데….' 하고 야단하지요? 그렇지만 타락한 세계에 있는 축복받은 가정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후손들한테 전수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241-127, 1992.12.20) p.908

한국의 역사가 참 멋집니다. 제사 때에는 장손 집에서 삼촌도 장손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손 민족을 만들기 위한 역사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한국 민족의 우월성이 어떤 것인지,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딸들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훤하게 알아야 됩니다. (245-156, 1993.2.28) p.90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장손'하게 된다면, 할아버지도 제사 지낼 때는 장손 앞에서 그 휘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손 혈통, 그 다음엔 족보와 혈통을 존중시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 복귀섭리에 있어서의 그 마음 바탕의 근본을 잊을 수 없는 기록적인 역사성을 대신해 나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290-9, 1998.2.2) p.909

아담의 아들딸이 아무리 많더라도 장자를 중심삼고 나라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자를 중심삼고 옆에 있는 형제들은 퍼져 가지고 종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계통을 잇는 겁니다. 한국으로 보면 장손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한국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손을 지켜 왔다는 것입니다. 첫째 할아버지 아들이 장손이 되면 증조부들은, 할아버지 동생 되는 사람들은 제사 때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장손을 모셔 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301-189, 1999.4.26) p.909

한국 백성이 그렇습니다. 장손 역사, 증조부도 제사 때는 장손을 세우는 겁니다. 그거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다 높은 혈족적인 기준, 보다 높은 생명 기준, 보다 높은 사랑의 기준이 관련성을 갖게 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기준으로서 하늘을 중심삼아 지상에 영향권을 맞추면 그 영향권에 반드시 흡수되기 때문에 지상천국이 이렇게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론적입니다. 망상적이 아닙니다. 이론적입니다. (301-288, 1999.5.5) p.909

성자(聖子)의 도리는 무냐? '성자'하게 되면 이건 종적입니다. 수직개념을 말합니다. '성인'할 때는 동서남북의 횡적입니다. 유교사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天)'하게 되면 천자(天子)만이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적인 것입니다. 한국의 예법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삼촌도 제사 때에는 종손을 내세웁니다. 그거 왜 그래요? 종적입니다. 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196-320, 1990.1.12) p.909

Top p.909

5) 영계를 알아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연구해 보라고 한 것은, 이제 과학이 첨단에 와 있기 때문에 영계와 접선할 수 있는 주파수를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영계의 작용이 전부 다 진동에 의해 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진동수를 통해 영계와 연락할 수 있는, 영통인의 진동수를 발견해 가지고 영계를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영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주니까 눈이 둥그래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심리학 작용이 현상세계에 어떻게 관계돼 있고, 영계가 어떻게 관계돼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심리학이 절대적인 힘의 작용을 한다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 면 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인데, 작용하는 서클권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힘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척을 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미지의 영계를 합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가면 종교시대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 믿지 말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 큰 과제입니다. (134-239, 1985.7.20) p.910

Top p.910

6) 심판(審判)

① 하나님에게는 원수의 개념이 없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좋겠어요, 외롭겠어요, 기쁘겠어요? 오늘날 종교가 그것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대심판주가 돼 가지고, 재판장이 돼 가지고 나쁜 놈은 지옥 보내고, 좋은 놈은 천국 보낸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된다면 하나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격이 돼요? 그렇다면 무서운 하나님이지요. 대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느냐 하면, 인류에 대해서 참사랑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278-197, 1996.5.24) p.910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논리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를 갚는다는 개념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벨을 세워 가인을 강제가 아닌 자연적으로 굴복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233-228, 1992.8.1) p.910

세상에서도 재판장이 사형선고를 다섯 번만 하게 된다면, 밤에 꿈자리가 사납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억천만 인류를 전부 다 심판해 가지고 지옥 보냈으면, 지옥 간 그 영들이 가만있겠어요? 이놈의 하나님 때려잡으라고 그러지요. 꿈자리가 얼마나 사납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221-113, 1991.10.23) p.910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마음대로 심판해서 기독교 믿는 사람만 천국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보내고, 전부 다 마음대로 한다면 거기에서는 이상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과거-현재-미래 언제든지 다 같아야 됩니다. 바닷물이 이상적이란 것은 깊은 데는 메우고, 언제든지 수평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원론, 삼원론이 됩니다. (219-39, 1991.8.25) p.911

하나님이 누구를 칠 수 없습니다. 사랑이상을 가지고 창조한 하나님이, 사랑이상을 실천하려는 하나님이 심판의 철장을 가지고 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칠 수 없습니다. 왜? 지을 때에 사랑이상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치는 놀음이 벌어져 가지고 치는 전통, 치는 습관을 남겨 놓았다가는 이것을 풀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습관성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은 치지 않고도 절대적인 교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3-11, 1991.1.13) p.911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싸워 나오면서 맞고 빼앗아 오는 작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우게 되면, 심판할 수 있는 원칙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논리가 벌어집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고 할 때, 선악의 개념이 하나님 자체 내에 있었다는 논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원론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칠 수 없는 겁니다. (242-108, 1993.1.1) p.911

'하나님이 뭘하고 살겠어요?' 하면 기성교인들은 '보좌에 앉아 가지고 악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선한 사람은 천국 보낸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대법원 판사 5년 동안만 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 해 먹겠나? 자기 아들딸을 심판하고 자기 여편네 자기 어머니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사형선고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미 아비에게 사형선고 해 놓고 잠을 자겠어요? 몸부림치는 그 마음세계의 환난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나라도 못 막고 세계도 못 막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일방통행의 논리를 가지고 세계평화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그 자체가 모순된 겁니다. 그러니 기성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204-100, 1990.7.1) p.911

여러분은 영계를 잘 모르겠지만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관이 돼 가지고 뭐 '땅땅 너 지옥행!'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 있어요? 인류의 어버이시고 선군 중의 선군이신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라고 그 지옥을 만들어 놓았겠어요? 그거 예정론 같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입니다. 내가 영계를 오죽이나 잘 알아요? 예수의 비밀 보따리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을 다 풀고 오늘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막연한 성경체제를 중심삼고 일관된 사상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 대선생이 누구게요? 여기 서 있는 욕 많이 먹는 문총재 아니에요? (205-273, 1990.4.29) p.911

부모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었을 때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세계인류가 망국지종(亡國之種)이 돼 가지고 지옥의 문을 향하여 수직으로 떨어지는 정상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않고 '어- , 너 심판 잘 받아서 망할 자리에 가는 거다!' 하며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벼락맞아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을 대표한 이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정상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법을 무시해서라도 자식을 구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 숨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만 없다면 인간을 용서해서 구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안타까운 심정을 놓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달픔을 누가 아느냐 이겁니다. 그걸 해방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탄을 처치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 줄 수 있는 아들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10-217, 1990.12.23) p.912

빈 달구지 끌고 가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이 세계 인류를 거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순로(順路)가 아닙니다. 거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역로(逆路)의 길을 가기 때문에 거꾸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놀음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불교 사상으로 보나, 기독교의 사상으로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심판하고 벌 주고 복 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이렇게 볼 때, 통일교회는 종교권에 있어서도 차원 높은 세계의 내용을 지녀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고심하는 종교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원 높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겠다는 종교는 통일교회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233-270, 1992.8.2) p.912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불의와 정의를 심판하는 공의의 심판장으로 살아 계시는 하나님'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편안해요? 여기 판사 해본 사람 있어요? 사형수를 죽이게 될 때는 그 형장에 판사가 입회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장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심삼고 살고 싶어요? 심판장? 권력자가 되어 가지고 호령하면 천하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사통과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며칠 동안 살 것 같아요? 한 달쯤 살아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싫증 난다는 겁니다.

쇠고기 백반이라도 매일같이 먹으면 싫증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나오는 가스 냄새도 틀립니다. 사람은 높고 낮음을 따라, 전후좌우를 다 갖춰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327, 1990.2.21) p.912

하나님한테 '당신은 뭘하며 살고 싶소?' 하고 물어 보면…. 여러분들 나는 직접 물어 보고 대답을 들은 장본인입니다. 심판장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물어 볼 게 뭐냐? 사랑에 취해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무엇에 취해서 살고 싶다구요? 사랑에 취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에 취하게 될 때는 눈도 한 곳으로 가고, 냄새 맡는 코도 그곳으로 가고, 말하는 입도 그곳으로 가고, 듣는 귀도 그곳으로 가고, 전부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오관을 완전히 통일할 수 있는 자극적인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199-266, 1990.2.20) p.913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공의의 심판주로 보좌에 앉아서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장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재판장이 좋아요? 재판장을 10년 했다가는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죽는다기 보다 병이 들어서 나가자빠집니다. 병이 안 들면 그건 가짜들입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선고를 내리기도 했을 텐데, 자기가 내린 판결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논법이, 해설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자기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사문제를 결정짓는 놀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공법에 비추어 보게 될 때 한국 법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10년 판사 하면 병이 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198-285, 1990.2.5) p.913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가지고 공의의 심판장으로서 선악을 판별해서 잘한 녀석은 천국 보내고 못한 녀석은 지옥 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취미생활이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죽지 못해 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고 와서는 밤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옳든 그르든 간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심판자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 닮았다면 하나님이 심판장 놀음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싫다는 말이에요? (197-145, 1990.1.13) p.913

하나님이 슬픈 하나님이고, 고통의 하나님인 걸 기독교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왕으로서 심판주로 계셔요? 하나님이 무엇이 안타까워 심판주로 계셔요? 심판주가 좋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활이에요? 타락으로 할 수 없으니 그 놀음하지, 그 청산 방법을 아무도 모릅니다. 종교세계에서도 아무도 몰라요. 통일교회 외에는 아는 곳이 없습니다. (196-172, 1990.1.1) p.913

Top p.913

② 참부모님은 사랑의 치리법으로 심판

구세주가 도대체 뭐냐? 구세주가 뭐 하러 오느냐 이겁니다. 정치하러 오는 분이 아닙니다. 구세주가 뭘 하러 와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주님이 오게 되면, 전부 다 공중에 들려져 가지고 자기들은 떨래떨래 올라가고 지상 사람들은 다 심판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심판한다고 하는데 구세주가 뭘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딸인 동시에 인류의 부모로 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이 병이 나 가지고 죽을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아들딸을 보고 '야, 너 저 지옥으로 가라!'하고 쳐낼 수 있나요? 타락한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죽어 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 그저 목이 메이고 통곡하고 자기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 주기 위해서는 무슨 놀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이 타락한 세계의 부모라 할진대, 본연의 부모의 심정을 갖고 오시는 그러한 구세주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겁니다. 심판이란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222-150, 1991.11.3) p.914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전부 다 외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왔지, 기독교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끝날에 심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정의가 틀립니다. 기독교인들만 사랑하나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 줘 가지고 회개시켜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교파주의자들 가 보라구요! (210-110, 1990.12.1) p.914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 이튿날 다 해 버렸을 것입니다. 쳐서 승리한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세울 수 있는 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210-61, 1990.12.1) p.914

오늘날 기성교회의 철학이 틀린 것이 뭐냐? 하나님을 공의의 심판장이라고 합니다. 심판장을 5년만 해먹으면 허튼 꼽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허리를 펼 수 없으니까. 기독교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추모해 가지고 그와 더불어 하나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중심삼은 서양문화가 힘의 철학을 배양해 나왔기 때문에 서구문명의 배후에는 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8-248, 1990.11.20) p.914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이 땅 위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는, 정리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내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204-60, 1990.7.1)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심판하려 할 때 '조금 기다리소. 하나님, 요것 보소. 참 재미있는 것이 있소.'해 가지고 '그게 뭐야?'하면 '내 손바닥이지요. 손금이 얼마나 잘 생겼소? 당신 손금보다 잘 생겨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소.'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손금을 비교하면서 이런 녀석하고 말하다 보니 분한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 당신 내 손을 잘라 버리겠소? 심판하겠소' 하면 '히히히 이 녀석아, 이 녀석아!' 하는 것입니다. 못생겼지만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양이 있어야 됩니다. 걸작품이 되려면 백그라운드가 입체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양지 음지가 있어 격을 갖추어야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만 노했더라도 '하나님 그러지 마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조거 보소, 저거' 해 가지고 "왜?' 하면 '야 저 독수리가 닭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닭 잡아먹으면 먹었지…' 하면 '그 독수리가 당신 같구만!' 그러면 하나님이 걸려드는 겁니다. '어, 어 이 녀석 뭐야? 내가…' 그러다 보면 말씀 못 하고 '으흐흠…' 이럽니다. (202-219, 1990.5.24) p.915

하나님에게 물어 보면 공의의 심판주가 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안 합니다. 영계를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설교하는 걸 읽어보면 정말이지 황당합니다. 영계를 그렇게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천국에 가요? 가 보라는 겁니다. 뭐가 되나? 그러니까 전부 다 까마귀떼, 독수리떼가 물어 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상대를 안 합니다. 개가 짖는데 같이 짖으면 개새끼 되지 별 수 있어요? 상대를 안 해요. 불쌍하니까 앞으로 굶어 죽게 될 때는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먹여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1-286, 1990.4.29) p.915

전세계 인류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통일교회 문총재의 가르침은 구세(救世)의 진리인 것입니다. 인류가 영원히 필요로 하는 참사랑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재림주가 세상을 구하려고 오신다면, 인류를 철창으로 심판하여서는 안 됩니다. 때려서는 단 한 사람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손이 두꺼비 등처럼 우툴두툴하고,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을 정도로 수고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은 불효자식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몽둥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심판의 대왕이요, 천지를 마음대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참사랑 없이는 천주통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사랑은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참사랑에는 있는 것입니다. (201-339, 1990.4.30) p.915

원수를 녹일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최고의 불효자를 효자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사랑입니다. 역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충신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힘도 사랑에만 있는 겁니다. 그거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인간들은 잘나나 못나나 사랑을 중심삼고 목을 매고 살고 싶어하느니라! 누가 '아멘' 하라 그랬어? 아멘은 내 특허품인데. (195-70, 1989.11.5)

장로교 교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장이 되어 가지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다구요? 그 따위 미친 수작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사기꾼들입니다. 내가 알아보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태어날 때 천국 가게 만들어 놓고 지옥 갈 사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에요? 이론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론에 통해야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상식에 거슬린 진리가 없습니다. 상식에도 안 맞는 것 가지고….

재판장이 살인범을 재판해 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려서 다섯 사람만 죽여 보라는 겁니다. 매번 가서 검진해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 법과 북한의 법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저기에서 애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지의 대도를 중심삼고, 공의의 법을 중심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변호사의 마음이 편해요? (200-192, 1990.2.25) p.916

심판의 대왕이요, 천지를 마음대로 힘을 가지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천주통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권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200-173, 1990.2.25)

악마까지도 하나님이 심판 못 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가 그렇게 따라다니며 지배하게 돼도 그걸 왜 대해 줘요? 안 대해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나를 사랑으로서 소화하지 않고는, 사랑으로 소화해서 본연의 기준을 맞춰 놓지 않고는,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당신의 도리가 아니요. 사랑의 도리를, 원칙적 사랑의 모든 완성적 도리를 넘어서 나를 주관하게 돼 있는데, 그 도리가 차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않겠으니 나를 주관할 수 없소. 나를 주관하려면, 나를 굴복시키려면, 그 도리의 형태를 맞춰 놓은 그 기준에서…. 개인 기준이면 개인, 가정 기준이면 가정, 종족 기준이면 종족, 민족 기준이면 민족, 거기에서 내가 순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오?'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고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88-228, 1989.2.26) p.916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너, 뭘 하고 싶니?' 하면 '나, 대법원 판사 하고 싶다.' 그럽니다. 판사라고 하면 다 좋아하지요?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재인 동시에 선악을 가려 가지고 선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천지를 공의의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재판장이다.' 하는데, 그 재판장이 좋아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 수천억의 사람을 지옥에 보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공의의 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활 목표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은 싫다 하는 겁니다. (201-21, 1990.2.28) p.916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필요없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잘 압니다. 이런 원칙을 두고 볼 때, 해방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나는 몇 퍼센트의 해방의 목적을 갖고 참석했느냐는 사실이 퍼센트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몰라요, 알아요? 모르면 가망이 없습니다. 모르면 그건 공동묘지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너까래로 태평양에 몰아 넣든가 해야 됩니다. 그건 처치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하고 악한 것을 압니다. 말 한마디 하는 데도 내가 나쁜 것을 안다는 겁니다. 보는 시선도 나쁜 것을 알고, 듣는 이 음성도, 느끼는 이 촉각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머리를 이렇게 하면 벌써 자기가 어떠어떠한 사람인지 다 나타납니다. 그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광채가 척 나타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영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아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도 가만히 있고 못난 놀음하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201-270, 1990.4.29) p.917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 하면, 종의 종들이 살고, 종이 살고, 양자가 살고, 서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질서를 잡느냐?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전통적 도리를 이어받아 인수해 나온 종교들이 세계적 종교가 돼야 할 텐데, 그 사랑의 도리에 어긋난 종교와, 이 사랑을 중심삼고 따르지 못한 그 사람은 역사를 걸고 시대를 대표해서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늘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전통이, 세계를 사랑하는 그 전통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전통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전통이,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그 전통이, 부모와 아내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전통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전통이 세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192-75, 1989.7.2) p.917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은 변호사와 같지만, 지금까지 하늘편 검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악마가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늘편 검사가 생겨야 되고, 하늘편 재판장이 생겨야 되고, 하늘편 변호사가 생겨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회는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탄을 영원히, 인본주의를 영원히, 음란주의를 영원히, 파괴주의를 영원히 지구성에서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주의입니다. (192-49, 1989.7.2) p.917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딴 것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끝날에 가서는 뭐가 제일 원수냐? 심판의 제일의 조건이 어떤 것이냐? 끝날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심판의 제일의 조건입니다. 학자들에게는 학자 의식, 공부하겠다는 그 자체가 심판의 요건이 됩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 됩니다.

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됩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됩니다. 여자면 여자의 모든 소성에 따라 가지고, 특정적인 소질에 따라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170-92, 1987.11.8) p.91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욕을 먹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매를 맞고도 잊어버리고…. 선생님은 그런 역사의 사연들이 많지만 내가 그걸 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까지 소화하려고 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조금 해 가지고 대가를 받겠다는 그런 사람을 나는 싫어합니다. 어느 누가 내 앞에서 대가를 받겠다고 할 사람 있어요? 얼굴 들고 나와서 이야기 좀 해보자구요. (148-56, 1986.10.4) p.918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그 치리 법도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생님이 변호사가 돼 주고, 선생님 가족 일족이 변호사가 돼 주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통일교의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어, 하나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가정으로부터 지도자까지 그럴 수 있어 가지고, 변호의 범위가 참소권보다도 많아야만 선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입적이 될 수 있지, 그 참소권보다 작아서는 입적이 될 수 없습니다. (147-331, 1986.10.1) p.918

법의 도리를 나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없이 이 길을 따라와야 됩니다. 말없이 이 길을 따라가는 날에는 거기에 동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언덕을 만들어 놨다가는 심판의 조건에 걸리는 겁니다.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조에 걸렸느냐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국가 전체 법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몇 조에 걸린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몇 조에 걸리게 되면 못 가는 겁니다. (147-317, 1986.10.1) p.918

같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반자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하면 영계에 가 가지고 좋은 입장에 서는 겁니다. 배반자가 안 됐으면 그 배반자가 안 된 그룹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지만, 배반자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에 대한 배반자라든가…. 더 큰 목적을 위한 입장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하게 될 때는 거기에 큰 목적이 나를 언제나 심판하는 자리에서 책임 추궁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144-254, 1986.4.25) p.918

앞으로 세상이 한 곳으로 행차해 가지고 나라를 설정해 들어가게 될 때는, 여러분의 경로를 다 낱낱이 써 가지고 저 공의의 심판정에서 패스해야 됩니다.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국가 축복 자리로 못 나가는 겁니다. 세계 축복까지 나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겁니다.

통일교회가 하는 축복은 교회 축복입니다. 심판은 어디서부터, 통일가에서부터, 축복받은 아들딸서부터, 축복받은 에미 애비로부터 그 다음에…. 이걸 해 놓고 그 비법에 의해 가지고 비례되는 세계의 심판권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축복받았다는 이 엉터리 같은 간나 자식들부터 똑똑히 정신차리라는 겁니다.

원리는 뒷전에 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 원리의 세계가, 뜻의 세계가 여러분들과 관계 맺어질 것 같아요? 천만에.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합니다. (137-259, 1986.1.3) p.919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철추를 가지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본연적 사랑의 질서를 찾아, 본연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혈통의 본궁을 찾아, 행복의 기지를 바로 세우고 그와 연결된 가정과 일족을 넘어서 민족과 국가, 세계 앞에 하나의 사랑의 주도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9-40, 1990.11.25) p.919

하나님의 가정이 뭐냐? 이런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것은 아래에 갖다 맞추어도 되고, 이걸 전부 떼어 어디에 갖다 맞추어도 다 맞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어깨에 손자가 올라가더라도 가법으로 심판 안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이불을 가져 가 가지고 할아버지가 구석에 오그리고 잔다고 해서 불효자식이라고 심판 안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209-102, 1990.11.27) p.91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뭐 부모님이라고 말은 좋게 잘 하지, 부모님을 모셔 본 적 어디 있어요? 내가 밤을 새우면 더 밤을 새워야 모시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면 더 고생해야 모시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기생충이 됐습니다. 기생충은 기생벌레라는 말입니다. 이것들 기생충이란 이름에 딱 맞아요. 가짜 좋아하는 이 쌍것들! 통일교회 패들 그런 것 많습니다. 이제 숙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원한을 가진 문총재는 통일교회의 놀고 먹고 전부 다 교회 뜯어먹는 놈들을 휘발유를 쳐 가지고 내 손으로 불을 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것들부터 심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 준 도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깨끗이 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260-80, 1994.4.11)

이 악마의 세계가 하늘나라를 이루는 데 제공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염을 만들어 가지고 성별시켜서 그것을 대신 쓰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인간까지 전부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 손으로 재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심정을 투입해 가지고 살려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손으로 한 생명도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대는 날에는 무섭습니다. 제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잘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피를 보는 날에는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까지도 내가 살려 주려고 하는 겁니다. (210-73, 1990.12.1) p.920

내가 술을 먹고 여기 와 앉아 가지고 오줌을 싸면서 너희들 왜 왔느냐고 쫓아 버리면 남아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웃어요? 그런 심판이 하늘땅의 그 누구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심판 방법입니다.

참사랑을 하기 위한 참여자를 찾기 위해서는 발가벗고 오줌을 싸면서, 반미치광이가 되어 가지고 옆에 가서 오줌을 싸더라도 남아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나,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거쳐온 길이 얼마나 기가 찬지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도 모릅니다. 지금이 어머니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통한 할머니들이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많이 운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알아요? 어려운 문제를 지금까지 혼자 부딪치고 안팎으로 뒤넘이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210-81, 1990.12.1) p.920

Top p.920

③ 죄 지으면 가정재판에, 일족이 심판한다

여러분의 부모는 무엇이냐 하면, 공의의 법정 앞에 심판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반드시 어머니가 변호사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잘못했으면 그 형제들이 전부 다 검사 노릇을 합니다. '아이구, 누나가 먼저 그랬지,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는 가만 듣고 '그래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잘한 것이 아니야. 얘가 잘했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겁니다. 어머니가 변호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형 누나 동생들이 싸울 때 검사는 누구냐? 누나도 검사가 되고, 오빠도 검사가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판검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147-303, 1986.5.25) p.920

아내 보기에 부끄러운 남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아들딸이 하나님의 특사라는 겁니다. 나를 감시하고 나를 교육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제일 측근자로서의 특사라는 겁니다. 자식 앞에 부끄러운 아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특사들은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하늘을 섬길 수 있어요? 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나라에 가면, 조상이 즉각적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심판을 해서 결국은 세계적 공판정까지 끌어내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거기에서 보고해서 공판정에 끌어내지 않으면, 그 조상들이 선한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리법을 배후에 두고 미래에 소망의 터전을 결정지어야 할, 또 그런 날들을 맞아가야 할 이 생애의 노정이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163-33, 1987.4.18) p.921

앞으로 이상시대에서는 법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과정은 영생의 터전이요, 저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족 중에 누가 잘못됐다가는 문중이 처리하는 겁니다. 제일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심판장이 누구냐?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심판장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애비가 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 공법에 의해 지도를 받아 가지고 그 문중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197-359, 1990.1.20) p.921

앞으로 저나라에 가게 되면 누가 심판하게 되느냐? 자기 조상들이 심판합니다. 앞으로는 나라에 재판소가 없어집니다. 일족이 처단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누가 되느냐 하면 자기의 부모가 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잘못했을 때 누가 재판했어요? 하나님이 했지요? 아버지가 했지요? 자기 일족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누가 되느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참소하는 것입니다. (198-367, 1990.2.11) p.921

누가 심판하느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를 누가 심판했어요? 아담과 해와는 오빠 누이입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누가 원수로 판결했어요? 아담이 해와를, 해와가 아담을 판결했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199-119, 1990.2.16) p.921

천지와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법을 설정해야 할 일이 우리 갈 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법이 설정되게 되면 지금까지 함부로 산 사람은 용서가 없습니다. 자기 일족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안 가요. 자기 종족이 중심이 됩니다. 문씨가 그런다면 8도에 있는 문씨 종중에서 그 문씨 종중법(宗中法)에 따라 가지고 족장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206-140, 1990.10.3) p.921

앞으로 죄를 누가 심판하느냐? 물론 영계에서도 심판하겠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합니다. 잘못하면 동네 사람이 심판하지요? 동네보다 높은 단계의 군이면 군민이 심판합니다. 군민이 잘못하면 도민이, 도민이 잘못하면 나라가, 나라가 잘못하면 세계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적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208-12, 1990.11.13) p.921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법정에 끌고 가서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가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심판해 버리고, 아내가 잘못했으면 자기 남편이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가의 축복가정 2세들이 잘못된 것은 누가 처단하느냐? 에미 애비가 하는 것입니다. (208-86, 1990.11.17) p.922

아담과 해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심판했어요? 그 다음엔 누구야? 그 다음엔 자기 상대입니다. 남편을 아내가 심판해야 되고, 아내를 남편이 심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누구? 아들딸입니다. 사랑의 원천을 중심삼고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아들딸이 제일 싫어하고, 남편이 제일 싫어하고, 아내가 제일 싫어하고,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는 부모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아들딸을 속여 가지고 하늘땅 앞에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형제라고, 부모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남자 여자가 있거들랑 앞으로 너희들끼리 전부 다 불도저로 밀어 버려야 합니다. (215-278, 1991.2.21) p.922

통일교회 가정에 대한 심판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쪽에 서 가지고 바라보면서 못 건너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상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간 것과 딱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228-20, 1992.3.1) p.922

경찰이 필요 없습니다. 형무소가 필요 없습니다. 일족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경찰 대신, 판사 대신, 그 가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부락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242-148, 1993.1.1) p.92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완성한 자녀, 완성한 형제, 완성한 부부, 완성한 부모는 이래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모델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이 있어야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늘나라의 제 1 합격자, 제 2 합격자, 제 3 합격자….'라는 계열을 정할 수 있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랑의 이상상대를 지상에 실천 완성하자 하는 것이 창조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지으신 것입니다. (245-209, 1993.3.7) p.922

앞으로 일족 가운데 만약에 범죄자가 있으면, 아무개 족속, 그 일족 족장을 중심삼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하나님 대신 심판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문중에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벼락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중에서 그러한 악다리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문중 간판에 똥칠하는 겁니다. 부락 자체가 이런 망해 썩어지는 나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되어 가지고 문중을 보호하는 겁니다. 젊은 놈들 가운데 악다리가 생겨나면 잡아다가 '이 자식!'하며 후려갈기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재판장이 되고, 아버지가 검사가 되고, 형님이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 원칙의 대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검사가 되고 형님이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리 원칙의 대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혈족이지만 혈족이 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무자비하게 공적인 심판을 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없어지는 겁니다. 군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52-296, 1994.1.1) p.923

앞으로는 경찰 다 없어집니다. 죄를 짓게 되면 가정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가정이 해결 짓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하게 되면 아내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거짓 사랑의 들거리가 남겨진 것을 참사랑의 상대적 기준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265-223, 1994.11.3) p.923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사적인 곳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사적인 기준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것이 도수를 넘게 되면 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으면 악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선할 수 있고, 영원히 흥할 수 있고, 영원히 복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리, 죄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리, 악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공적인 자리입니다. 밥을 먹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먹어야 합니다. 일을 해도 공적인 일로, 말을 해도 공적인 말로 소화해야 됩니다. 이처럼 일체를 공적인 것과 연관지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31-164, 1970.5.24) p.923

본래 천법의 도리를 따라가는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것을 방비해 주고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본래부터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인간에게도 본래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다.' 그럽니까?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양심이 작용합니까? 어디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공사(公私) 문제를 중심삼고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1-241, 1970.6.4) p.923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점점 북극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왜 먹여 줘요? 곰새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 경계선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잡아먹고 살다가 죽지 않으면 몇 년 후에 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격리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죽겠으면 죽고 말겠으면 말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아먹겠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음집 짓고 살겠으면 살고, 말겠으면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격리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환자는 격리하지요? 그것처럼 완전히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약으로 강조하는 것이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280, 1990.5.25) p.92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p.924

제 3 장
참부모님과 영계

1) 참부모님의 권한과 사명

① 참부모님은 체(體)를 쓰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형이시기 때문에 영계에 가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體)를 가진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體)를 가진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형과 유형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하나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체를 입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지었습니다. 체를 입는 데는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체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체를 갖추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상세계와 무형세계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의 왕국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서만 영과 육이 합하게 되어 있지 다른 것 가지고는 합할 수 없습니다. (143-93, 1986.3.16) p.925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주체와 대상으로서 종적인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종적인 사랑을 완성하여 아담과 해와의 횡적 사랑의 결실을 가져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적 부모이신 하나님이 외적 부모인 아담과 해와와 완전 일체를 이루기 위해 임재하시는 사랑이상의 성취의 순간입니다.

무형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형상을 쓰고 유형세계에 영존하시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해와는 참부모, 참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35-10, 1985.8.20) p.925

하나님이 몸 마음에 들어온 사랑을 가진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그거 누구의 결혼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결혼이 되는 거냐구요? 인간 결혼인 동시에 하나님의 결혼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기성 교인들은 놀라 자빠질 말입니다. '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로구만.' 이런다는 겁니다. 이단이 누구예요? 진짜 이단이 누구인가 영계에 가 보십시오. (248-284, 1993.10.3) p.925

본래 아담과 해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장남 장녀입니다. 하나님은 천주 모두를 창조한 만능의 왕이요, 아담과 해와는 그 왕의 자식들입니다. 왕의 아들과 왕의 딸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기준에 서야 됩니다. 그게 아담과 해와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해와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영계에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 자신의 형(形)을 갖는 겁니다. 모양을 갖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250-37, 1993.10.11) p.926

무형의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니 그 형체를 대신한 것이 참부모다 이겁니다. 참부모는 개인적인 부모요, 가정적인 부모요, 종족적인 부모요, 민족적인 부모요, 국가적인 부모요, 영계에 가 가지고도 앞으로 참부모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통일교회가 위대한 것이 그겁니다. 레버런 문이 위대한 것이 뭐냐 하면, 레버런 문의 형상을 하나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98-224, 1978.8.1) p.926

선생님이 감옥에 가고, 요사스런 소문이 나고, 다 망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살아서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안테나를 가지고 전부 보고 듣고 해서 알아 가지고 큰소리를 쾅쾅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생님 사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결재할 것입니다. 선생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으면 '오케이' 하고, 없을 때는 '노' 하실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세계, 영계는 전부 선생님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손안에 움직일 것이고, 이 육계(肉界)는 어차피 하나의 골짜기로 안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34-17, 1985.1.1)

자연세계에는 진리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선생님은 영계의 전문가입니다. 그곳은 21 세기가 아니라 22 세기, 30 세기에 가더라도 선생님 없으면 개문(開門)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영계를 교시하고 영계를 개문하는데 체계적 내용을 밝혀 준 원조(元祖)가 문선생이다 하는 명성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203-324, 1990.6.28) p.926

영계를 결속해야 할 텐데 영계를 수습 못 하는 사람은 천하를 통일 못 하는 것입니다. 천운의 뿌리가 하늘인데, 하늘을 수습 못 하는 것입니다. 천운의 뿌리가 하늘인데, 하늘을 수습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결과를 이 세상의 도리로 만들어 세계를 통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을 통일하기 전에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191-204, 1989.6.24) p.926

하늘나라에 왕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의 왕은 민주주의 왕이겠어요? 어떤 왕이겠어요? 영계는 참사랑을 중심삼은 곳이기 때문에 영계의 왕은 한번 중심이 되면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낮은 데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구형으로 보지,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7-123, 1987.7.1) p.926

Top p.926

② 우주의 축(軸), 지상, 천상의 통치자

영계에 가게 되면 아담과 해와가 가정의 왕이요, 종족의 왕이요, 민족의 왕이요, 국가의 왕이요, 세계의 왕이요, 천주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에 가서는 하나님 대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세계는 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형의 신이 체를 입을 수 있는 상대적인 존재를 필요로 해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완성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242-166, 1993.1.1) p.927

아담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장래에 아담 일족의 족장이 될 수 있는 자리요, 아담 일국의 왕 될 사람이요, 세계의 왕 중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대신과 일체될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느냐? 땅 위에 인간 아담 후손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담을 지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아담과 해와를 통하지 않고는 자식을…. 영계에서는 자식 번식을 못 합니다. 종적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는 아들딸을 못 낳습니다. 여기는 종적이니 종적인 것은 한 점 위에 서는 것입니다.

면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종적인 기준 앞에 360 도로…. 이건 무한입니다. 무한 면적이 필요한 그 가운데서 태어난 무한한 아들딸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한 몸 될 수 있는, 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체가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해와입니다. (284-132, 1997.4.16) p.927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이 누구예요?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영계에서 몸을 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나라에 가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이 우주는 실체가 있으니 실체 주인인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관리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계에서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배할 수 없으니 실체의 탈을 쓰고, 실체의 몸을 씀으로 말미암아 저 나라에서, 지구성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자기 아들딸 되는 후손들을, 실체를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실체의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 왕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아담의 얼굴입니다. 왕을 만들었으니 왕후가 필요한 겁니다. 왕후가 누구예요? 해와가 황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조상인 동시에 천상세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99-144, 1990.2.16) p.92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전부 치리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뚱이 있는 데 마음이 있지요?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이거 좀더 깊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나가자빠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 줍니다. 나가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 악! 세상에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지극히 가까운 자리에 계신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273-243, 1995.10.29) p.928

영계에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실체적 만물세계, 앞으로 후손들이 전부 다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형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의 형상을 지녀 가지고 저나라에 가서 아버지 노릇, 모든 중심 존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저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고 한 몸이 되어, 전 영계와 이 땅이 하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부모님이 하나님 대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의 여러분의 가정들은 영계의 중심 가정인 부모님의 가정과 하나님이 하나된 그 형태를 작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한 단위로서 열매 맺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48-52, 1996.4.28) p.928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 가지고 인간 책임분담을 했으면 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최초인 동시에 최후가 되는 날은 무엇이냐? 참부모의 날입니다. 참부모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를 말하고, 참부모는 횡적인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적인 하나님은 영계를 대표하고, 횡적인 참부모는 지상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하나되는 세계입니다. 그 둘의 핵심적인 내용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 가운데는 종적 부모와 횡적 부모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48-50, 1996.4.28) p.928

Top p.928

③ 참부모님을 통해 천국 간다

우주의 중심이 뭐냐 하면, 영육의 참부모입니다. 그 기준을 중심삼고 거기서부터 동서남북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종족이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세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영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90 각도, 360 도가 되고, 이 가운데에 우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47-111, 1986.8.31) p.928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영계문제에 부딪히면서 이런 모든 것을 찾아 나오는 가운데 전승적인 기록이 원리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 상헌씨도 이 땅에 살면서는 선생님을 100 퍼센트 다 믿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바른 손은 영계를 붙들고 왼손은 지상을 붙들어 가지고 거꾸로 돌려내야 될 책임이 참부모에게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302-156, 1999.6.13) p.929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타락한 이 세계와 영계가 보기 싫습니다. 새로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을 다시 만들면 좋겠습니다.'해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탄이 해방이 안 되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을 무저갱에 박아 가지고 그림자도 보고 싶지 않고, 원성의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해방되어 가지고도 아직까지 처리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302-257, 1999.6.14) p.929

여러분은 영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이 사람은 영계의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역사 가운데에 영계를 개문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기반으로써 영계를 교시하고, 체계적 내용으로 밝혀 준 원조(元祖)가 문총재다 하고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원조 알지요? 가난해서 돕는다는 뜻의 원조가 아닙니다. '으뜸 원(元)'자 하고 조상 조(祖)'자입니다. 여러분 문총재를 두고 참부모라고 하는데 나는 그 참부모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참부모가 되었으면 참된 가정을 거느려야 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여기에 족속이 붙으면 참족속을 거느려야 되고, 세계로 확장될 때는 세계를 거느려야 되고, 하늘땅 앞에 영계와 육계에 꽉 찬 인류로 확장되었다 할 때에는, 그것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203-324, 1990.6.28) p.929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참부모가 오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수직과 인간의 수평의 90 각도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와서 90 각도를 맞출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영계 가 봐서 내 말이 틀렸으면 목을 떼 버려도 좋습니다. 참부모가 와 가지고 수평 수직을 90 각도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0 각도로 맞출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에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몸뚱이를 잡아 쳐 가지고 90 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201-165, 1990.3.30) p.929

참부모는 우주적인 참사랑의 중심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부모가 나타나게 되면, 아침에 모든 산천초목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듯이 모든 피조세계가 참부모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잎이나 가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도 선생님이 한국으로 가면 식구들의 모든 신경이 자동적으로 선생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360, 1990.5.27) p.929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지도교수의 밑도 씻어 주고, 그 교수가 발길로 차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야 사인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코를 보나 얼굴을 보나 허우대를 보나 무엇을 보나 잘났고, 씨름을 해도 이기고, 밥을 먹어도 많이 먹고, 뭐든지 일등할 수 있고, 열 가지 백 가지 다 나은데 그것 한 가지 쯤 모른다고 박사학위를 안 주느냐?' 해도 안 통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영계의 특허권을 가졌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134-17, 1985.1.1) p.930

하늘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의 존재인 인간이 왜 이렇게 탈락해 버렸느냐? 타락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방하려면 레버런 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레버런 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 원칙을 모릅니다. 아무리 학자요, 아무리 세상에서 난다긴다 뛴다 해도 영계에 갈 때는 레버런 문의 사인을 받고 들어가야 패스하는 것입니다. (280-169, 1996.11.24) p.930

선생님 중심삼고 영계가 협조하는 그게 보통지사예요? 영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는 내가 심각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피를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피를 보게 되면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모든 탕감을 몇 배 곱해 가지고 쳐버리는 것입니다. 피를 보신 하나님을, 역사과정의 그 하나님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눈물로써 막아 보자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207-175, 1990.11.9) p.930

영계에서도 관심은 선생님 외에는 없습니다. 부모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요, 사랑의 근원이요, 양심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크지를 않습니다. (256-28, 1994.3.12) p.930

이 지상세계에서만 참부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거기에는 지상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가서 궁전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궁전은 하나님도 만들지 못하고, 영계의 사람도 만들지 못합니다. 참부모가 만들어야 합니다. 영계에서 사랑의 궁전이 참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계에 궁전이 있더라도, 참부모가 가서 '여기를 궁전으로 합니다!' 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것을 중심삼고 온 영계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계에서도 참부모를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5-255, 1990.9.9) p.930

선생님은 항상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이래 2 백년 동안에 한 세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기간에 여러분이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비밀스러운 내용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해서 영계에 가면, 틀림없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나라가 여러분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참부모가 원래 들어갔어야 될 텐데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249-327, 1993.10.11) p.930

통일교회 선생님의 자랑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영계에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종교인들이 눈물에 젖어 무릎까지 파이게끔 일생 동안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만나 인도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46-335, 1986.8.10) p.931

복귀의 진리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영계 등을 아는데 있어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17 시간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10 시간, 12 시간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두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오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통하게 됩니다. 여기 무릎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250-317, 1993.10.15) p.931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겨울이라도 솜바지가 젖도록 통곡한 사람입니다. 그런 공을 세워 가지고 찾은 원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취급했어요? 영계에 가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선생님 가까이에 어떻게 올 거예요? 어머니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알지 못할 일이 많아요. 알게 되면 그 길을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 한의 고개를 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죽어 가면서도 사랑을 플러스하고 죽겠다고 해야만 하늘의 죽음으로서 가누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망이 간섭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253-325, 1994.1.30) p.931

선생님을 알아 가지고 손해 본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녀석은 도둑놈입니다. 누가 손해 봤어요? 내가 손해 봤어요, 여러분이 손해 봤어요? 내가 일생 동안 손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받겠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신 여러분 후손 앞에 돌려 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에게 전부 다 선생님을 대신한 것과 같은 어미 아비로서 모심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것을 못 하면 선생님의 공을 전부 다 다시 탕감해야 됩니다. 영계에 가 가지고 제까닥 걸려 버립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252-263, 1994.1.1) p.931

참부모라는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계를 통하는 사람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소, 문총재가 높소?' 하고 기도하면 문총재가 높다고 답변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단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266-249, 1995.1.1) p.931

도의 세계에 있어서는 영계에 가서 하나님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원리공부를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전부 파헤쳐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니 그런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더기 보따리를 샅샅이 전부 풀어 가지고 하나의 옷을 만든다면, 군왕이 입고 행차할 수 있는 왕복을 꾸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는 역사 이래에 나보다 낫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3-296, 1990.6.27) p.931

참사랑을 중심삼고 생애를 투입하고 영계에 가게 되면 어디서든지 '선생님!' 하면, 대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랑의 심정에 맞추게 되면, 동참(同參)?동위(同位)?동거(同居)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부르면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좋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이 온 영계를 구경시켜 줄 겁니다. 다이아몬드 별도 있고, 황금 별도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특권으로 하나 정도 줄 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에게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229-164, 1992.4.11) p.932

알겠나, 모르겠나, 쌍것들아? 쌍것이라고 얘기 한 것은 내가 조건을 남겨주는 겁니다. '문총재, 어떻게 그렇게 욕을 했소? 문총재를 내가 처음 보는데 그렇게 욕먹고 전부 다 믿지 못했소.' 그때 가서 용서해 주려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나라에 가 가지고 '당신이 욕을 하니 통일교회를 믿지 못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영계에 가 용서할 조건을 세워 주기 위해 욕도 하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욕먹어도 마음이 아프지를 않습니다.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아이구, 이거 분해!' 그럴 것 같은데 고향 가기 전에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알싸, 모를싸? 알싸! 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정신들 차렸구만. (283-211, 1997.4.12) p.932

하나님은 빚지는 분이 아닙니다. 천 배 만 배 갚아주기 때문에 문총재는 따라지 일병으로 감옥 다니면서도 선생님의 소유 판도는 나라를 넘고, 세계를 넘어서, 하늘땅을 넘어서, 영계와 육계의 통일적인 하나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의 하늘땅에 통일적인 가정적 기반 형태를 만민 앞에 부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시대를 가진 선생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겁니다. 전체 전반입니다. 하나가 빠지지 않고 전체 전반입니다. 그 다음엔 전권 전능의 시대를 향할 수 있는 결과가 선생님의 미래의 세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84-113, 1997.4.16) p.932

천주는 영육세계인데 천상세계의 중간영계에 머물러 있는 영들과 지옥에 간 영들을 전부 해방해 가지고, 문을 다 열어 놓고 나서야 하나님이 해방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된 자리에 서야만 비로소 온 인류가 호흡을 같이 하고, 태평성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의 갈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되는 날까지 통일교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실입니다.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249-248, 1993.10.10) p.932

지금 영계는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부모에 의해서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축복과 더불어 천지종합 지상천국 통일 사랑의 주권세계 선포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영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생님의 부모의 형태를 가지고 영계를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져 버렸던 것이 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빨리 영계에 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일이 끝나면 영계의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계의 왕으로서 서는 겁니다. 지상의 왕이 그대로 영계의 왕이 되어 가지고, 원리원칙에 일치된 본향 땅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295-202, 1998.8.28) p.933

문총재의 소원이 뭐냐 하면, 교주 가운데 참사랑을 위한 대표적인 교주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해요? 여러분은 영계를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영계의 전문가입니다. 죽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훤하게 알기 때문에, 세상만사 아무리 요란스럽게 반대하더라도 그게 내 눈앞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것보다 저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저나라에 박자를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영통인들은 스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천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이 시대에 문총재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박물관에도 없던 기록의 장서가 되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선한 영들이 알아 가지고 지상의 자기 후손들에게 몽시를 통해서 혹은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 지상 도서관에 꽉 차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도서관에도 없는 것입니다. (200-173, 1990.2.25) p.933

하나님의 심정세계까지도 발견한 레버런 문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들어 봐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내용은 세계 어느 도서관 책에도 없고, 영계 도서관에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이러한 내용은 지상의 어디에도 없고, 영계의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영계와 땅의 인간이 구할 수 없는 보배 창고에 있는 기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303-59, 1999.7.4) p.933

지상에서 선생님 본 것만 해도 영계에 가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 선생님 모셨다.' 하고 말입니다. 초목을 보더라도 식물들의 순은 모두 태양빛을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본성이야말로 사랑의 태양빛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태양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142-312, 1986.3.13) p.933

총결론이 뭐냐? 아담 완성입니다. 아담 완성이 뭐냐? 아담이 못 한 것이 뭐냐 하면, 책임분담 완성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분담이 뭐냐? 축복가정 세계의 전통적, 세계의 초석적 기준이, 가정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초석이요, 종족적 초석이요, 민족적 초석이요, 국가적 초석이요, 지상천국 초석이요, 천상천국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그 초석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걸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청소, 지상의 청소,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2-241, 1999.6.14) p.933

Top p.933

2) 참부모님과 천국 건설

① 참부모가 되기 위해 어인(御印)을 받아야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중심삼고 모든 종교관계에 있는 원리의 내용, 하늘땅은 이렇고 모든 원칙이 이렇게 되었다는 도리를 풀어 가지고 영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발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계에서도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전부 다 발표하니 영계에서 반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 일 동안 영계의 혼란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조건을 세워서 반대하니…. 거기에 영계의 절반이 갈라져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참이냐?'하는 것을 가지고 판결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영계를 완전히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어인(御印)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236-323, 1992.11.9) p.934

통일천하 하기 위해서는 영계를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계의 조상으로부터 '문총재 이단자, 반역자!'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그렇다. 내다 버려라!' 한다는 겁니다. 탕감원칙이 그렇습니다. 조건적으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부정했으니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하는 자리에서 긍정해 가지고 내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되고, 내 천국으로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의 어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같이 서서 참소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선생님 성격이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맙니다. 죽기 전에는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어떻다는 걸 내가 확실히 잘 알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들이대는 겁니다. 예수니 공자니 그런 세계를 알게 뭡니까. '와, 내가 배운 건 이런 건데….' 뭐 자기들이 가르친 교리에는 없다고 부정적 사실을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43 일 동안 영계 전체에 대해서 투쟁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최후에는 뭐냐 하면, 40 일째는 하나님까지도 '레버런 문, 이 놈의 자식아. 왜 이 천상세계에 와서 평온한 하늘세계를 혼란시키는 거야, 이 도적놈의 새끼야!' 하는 겁니다. 모두들 '와!' 했어요. 그렇다고 내 후퇴 안 했습니다. (282-168, 1997.3.11) p.934

재림주가 되려면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인을 받고 와야 됩니다. 문총재가 영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43 일 동안 영계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옥 밑창에서 천상까지 전부가 '문 총재는 이단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래서부터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맨 나중에는 성현들입니다.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담판해서 정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판갈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때 제목이 뭐냐? 영계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핏줄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혈통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느냐 이겁니다.

둘째는 뭐냐? 소유권 전환입니다. '땅 위에 살면서 자기 소유권을 가진 것은 하늘나라의 배반자다!' 한 것입니다. 도주들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계에서 싸울 때 자신만만히 '이단이 뭐야?' 하고 버티고 싸운 것입니다. 차후에는 영계에 대혼란이 벌어지겠으니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총재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단자다!'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하늘을 배반했기 때문에 탕감복귀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도 아담 완성자를 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맺혔던 담이 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가 다 반대하고 하나님까지 저편에 서 있는데 단 하나 문총재가 남았던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다고 혼란 와중에 있는 영계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문 아무개가 말하는 혈통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이 사실이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패권자로서 어인을 받고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64-50, 1994.10.9) p.935

여러분, 세상을 수습하려면 영계를 수습하지 않고는 세상이 수습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진리 말씀을 탐구해 가지고 '이래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될 때, 사탄도 반대하고 하나님도 반대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탕감법칙입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40 일 동안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4 대 성인들이 전부 다 와 가지고 '레버런 문, 이단이다!' 이러는 겁니다.

영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나를 반대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나님 어전에서 누가 옳은지 대회해서 전부 다 공방전을 했습니다. 40 일 동안 온 영계가 야단했습니다. '레버런 문, 이단이다!' 하면서 야단했습니다. '영계가 복잡하다. 우리는 그거 싫다. 쫓아내라!' 하면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이 뜻이 아니면 안 되고, 모든 전부가 이렇게 안 하면 모든 세상을 이론적으로 수습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공자는 하나님의 인격체를 모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인격적인 신은 몰랐습니다. 하늘을 말했지만 막연해요. 질문전에서 녹다운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신이 재림론에 대해서 왜 이러이러한 문제를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녹다운 하는 겁니다. 공중에 천년왕국을 이뤄요? 영계에 가면 틀린 것을 다 압니다. 내가 질문하게 될 때 입을 열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신이 판정하라구, 누가 옳은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레버런 문이 옳다!' 한 것입니다. (259-320, 1994.4.24) p.935

영계에 들어가 가지고 43 일 간 맨 아래에서부터 천대를 받는 겁니다. 네가 뭐냐고 말입니다. 종새끼고, 박씨 할머니 떨거지 사기꾼, 이단자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영계에 들어가서 전 종교를 중심삼고 선민들 중심삼고 맨 나중에는 4 대 성인들 중심삼고 면담하고…. 전부 다 반대하는 겁니다. 전부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합해 가지고 '저놈의 역적 자식, 저거 때려 죽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40 일 기간 동안 영계 전체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43 일 간을 싸운 것입니다. 최후에는 하나님까지도 다 반대한 겁니다. 선생님이 후퇴할 수 있어요? 후퇴하면 큰일나지요? 그래, 나중에는 전부 다 하나님까지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계에 대해서 '차렷!'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영계의 싸움에 대해서 내가 판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맞는 증인이 문선명이다.' 하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변하는데 뒤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답변하는데 문선명이 말이 맞다고 하고 '차렷!' 해서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전 영계가 선생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까지 다 끝났지요? 어인을 받고 공인을 받고 지상에 오는 것입니다. (295-293, 1998.9.24) p.936

세상을 통일하는 데는 천상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통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세계에 가서 '천리의 도리는 내가 말하는,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하면 사탄도 알고 하나님이 알지만 그렇다고 답변을 못 합니다. 모든 도주들은 듣는 게 처음입니다. 무슨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그런다는 겁니다. 성인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이래서 43 일 동안 대영계의 혼란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 이단 괴수 레버런 문을 쫓아내라!' 한 겁니다.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통일교회는 못 나와요. 이래서 그 시험 가운데서 43 일을 전부 다 밀어 대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런 데는 전문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의 분별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대번 압니다. 다 보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밀어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하나님도 큰 야단이 벌어졌습니다. 영계가 혼란되어 가지고, 레버런 문 혼자 중심삼고 영계가 다 동요해서 큰일났다는 겁니다. 맨 나중에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 영계가 레버런 문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에게 참소하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서 심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싸움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밝혀야 됩니다. 두 패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선생님은 혼자고 영계는 전부가 반대입니다. 하나님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 놈, 고약한 지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담이 반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대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가 때려야지요? 죄 지은 자식이면 밟고 치고 이러고 용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맨 나중에 문총재를 세워 놓고는 '앞을 바라보라!' 해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왈가왈부가 있었지만 문총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한 것입니다. (273-67, 1995.10.21) p.937

통일교회에도 잡동사니가 많습니다. 더러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레버런 문은 세례 요한이고, 내가 예수다!' 한다구요. 레버런 문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어인을 받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의 영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영계가 선생님을 후원하는 겁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혼돈된 영계가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수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교면 불교권, 유교면 유교권이 울타리가 되어 가지고 별의별 파가 다 많습니다. 이거 다 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방향이 아니고 한 방향입니다. 영계가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의 권한을 가지고 지상에 와 가지고…. 지상에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50억 인류면 50억의 방향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 한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을 중심삼아 가지고 사탄세계가 반대하고 레버런 문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점점점 한 방향의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주의자는 문선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 알아요? 영계의 혼란한 것을 다 수습했으면 지상의 혼란한 것을 전부 한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가들, 세계에 최고 이름난 학자?언론인?경제인,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전부 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해요, 존경 안 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별의별 시험을 다 하고 별의별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혼란을 수습했으니 지상혼란을 수습할 단계가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어때요? 볼 수 있어요? 목전에 한 발짝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다 압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바보들 아니지요? 똑똑한 패라는 여러분이 볼 때, '세계는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참부모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영계가 전부 다 순응해야 되고, 지상이 전부 다 순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입니다. 종착점은 참부모입니다. (259-320, 1994.4.24) p.937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배경이 다르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인류가 기독교 문화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이라구? 천만에 말씀입니다. 영계에 가 보면 공자님과 예수님이 다 친구입니다. 석가모니하고 마호메트하고 친구입니다. 기독교의 이름 있는 성인들이나 불교 믿던 고승들이나 다 친구입니다. 휘장 하나만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님의 족속인 것입니다. 이 휘장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종교가 통일될 때 휘장이 다 벗겨져 가지고 한 식구로 대성통곡할 수 있는 놀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상세계의 한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종교 배경에 무지해 가지고 이런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모든 한을 걸고 각 종단자, 교주로부터 전 역사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시킬 수 있는 양반이 누구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232-20, 1992.7.1) p.938

효자가 뭐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생명을 다하여 부모를 모시는 아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충신이 뭐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을 대신해서 군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희생하며 나가는 사람을 애국자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인은 세계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문화배경이 다르고, 국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만민을 사랑하기에 생명을 바쳐 사랑하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자는 무엇이냐? 세계뿐만이 아니고 저 영계, 무한한 세계까지, 하나님까지 사랑을 중심삼고 자기 생명 이상 위하여 살겠다는 분이 성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랑입니다. (143-151, 1986.3.17) p.938

영계에 가 보면 통일교회 문선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가 레버런 문의 제자라고 했다고 호메이니 같은 사람은 레버런 문 사형식을 한다고 큰소리하더니 다 죽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 성인들을 전부 다 축복해 줬잖아요? 축복해 줬지요? 그래서 영계에서 보내 온 상헌씨의 편지에 의하면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래요? 살아서 축복 받은 여러분은 영계에 가서 부활한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나 그 교주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까지 함부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살아 왔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막 사는 것 같지만 어디에 가서 앉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청소하고 앉고 다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살지요? (304-50, 1999.9.5) p.938

Top p.938

② 천국 건설과 지상, 천상세계의 통일

한 나라를 보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에 천국을 실현한다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만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어디냐? 지구성입니다. (96-14, 1978.1.1) p.938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무얼 해 주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결혼식을 해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들딸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편성하여, 이것을 번식시켜 종족과 민족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넓혀지면 그 세계는 무슨 주의 세계예요? 하나님 주의 세계인 동시에 아담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이념이 있다면 이는 아담주의 이념이요, 거기에 우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우주관이요, 천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천주관이요, 생활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생활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색인종이 알록달록하고 그런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니 수많은 민족 피부 색깔이 다른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수많은 민족의 언어가 달라졌던고? 인류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분립시켰다 이겁니다. (156-202, 1966.5.25) p.939

내가 가고 오는 것도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조국광복을 위한 건국의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혹은 하늘의 밀사로서 지령을 받아 오늘날 악한 세상에 와서 이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50-255, 1971.11.7) p.939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화, 그 무엇 가지고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세계나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바랄 수 없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계문화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심문제가 무엇이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온 인류가 아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곳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 지향하는 뜻을 알게 될 때는 그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요, 이상의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56-131, 1972.5.14) p.939

축복결혼과 영생은 참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부모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참부모가 이런 엄청난 내용을 해결지어 가지고 영계와 육계의 통일, 지상세계의 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나를 반대하다가 전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인(御印)을 받지 않고는 영계를 통일하고 지상 통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이 반대하더라도 문총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천사세계와 영계가 동원해 가지고, 조상들이 동원해 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면 가위를 누르고 모가지를 눌러 가지고 사탄의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290-172, 1998.2.18) p.939

이제 영계의 해방권까지 이루었습니다. 영계와 지상의 평준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봄, 지상의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나라에 봄이 왔지만 지상은 여름이었는데 이제 지상에 있어서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서 하늘나라의 영원히 계속할 행복의 이상, 전부를 소화하고 새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봄의 계절이 지상에 찾아오기 때문에 지상의 시대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선생님이 지금 취한 것이 뭐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비롯해서 전부 다 '평화'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301-288, 1999.5.5) p.94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 육계가 위에 올라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와도 되고, 좌우가 되어도 됩니다. 전후 좌우가 아무리 엇바뀌더라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세계 지상세계를 완성한 이상 사랑권 시대, 천주적 사랑권 시대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지상천국, 천상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해방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01-236, 1999.5.2) p.940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영계에 간 사람도 조국 광복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이 들어와 가지고 통일교회에 안 가면 약 주고 병 주는 놀음이 벌어집니다. 문총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선조들이, 천사세계와 선조가 하나되어 가지고 지상을 전부 코너에 모는 겁니다. 가정 문제를 중심삼고 코너에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문총재만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이 민족이 희망봉으로서 그 나라의, 조국의 기반으로서 환영하게 될 때는 천하에 무적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290-172, 1998.2.18) p.940

영계가 지금까지 형님의 자리에서 지상을 유린해 나왔지만, 이제는 그 형님이 지상을 도울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아벨권이 지금같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속여 가지고 일방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 방향을 못 넘습니다. 동서남북에 있어서 동쪽은 침범을 못 하지만, 서쪽 남쪽 북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상에서 그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희생이 지구성에서 이어져 나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해소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과 천상이 통일권으로 접어든다 이겁니다. (208-85, 1990.11.17) p.940

역사를 통한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선생님의 가르침 이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영계에 가 보십시오. 선생님은 전부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승리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했다 하는 것은 그걸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대결해서 굴복시키고 선생님이 향하는 세계, 전망하는 세계에는 사탄이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평면권에 있어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그것은 천주 영계의 천국까지 평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면화해서 연결하면 지상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에서 산 사람과 그 일족이 그대로 천상 천국에 이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상 천국은 무엇이냐 하면 본가입니다. (256-24, 1994.3.12) p.941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헌 선생이 영계에 간 것입니다. 영계의 사실을 전부 다 지상에 알리기 위해 섭리의 뜻 가운데서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계 전체를 알려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접붙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영계가 그럴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나와 가지고 영계의 사실을 소개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부분이고, 그 종교의 내용을 중심삼고 가르친 것이지, 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약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영계 전체의 양상을 지상에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의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5-120, 1998.8.19) p.941

영계가 완성됐느냐? 영계는 아직까지 미완성이였습니다. 왜 미완성이였느냐? 본래 영계의 하이어라키 시스템(hierachy system:계급 체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된 자녀를 중심삼고 전 영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도 역시 안 돼 있습니다. 요 내용만 지상에 갖다 붙여 놓으면 영계는 자동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주의, 하나님을 중심삼은 아담주의, 아담주의인 동시에 참부모를 중심삼은 하이어라키 조직이 영계인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심 안에는 불교를 중심삼은 석가모니 클럽이 돼 있고, 공자클럽이 돼 있고, 이슬람 클럽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는 참부모주의와 아담주의가 나타나기를 모슬렘 패나 공자 패나 석가 패나 다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니까 통일적인 방향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도 참부모의 역사가 세계적인 기준으로 찾아 올라가게 될 때, 모든 종교의 경계선은 없어지고, 통합운동이 영계의 움직임을 따라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지상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일교회가 세계주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벌어지느냐 하면, 영계의 영인들이 전부 영계에 있지를 않습니다. 목적이 지상에서 완성해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재림하게 됩니다. 전부 다 재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활동하는 겁니다.

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첨단이 돼 가지고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수천 억이 되는 영계의 영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영계에 딱 갖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참부모의 이름 앞에 하나의 통일된 세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161-222, 1987.2.15) p.941

이제부터 국가, 민족적인 그룹이 연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나라와 종족 가정이 연합해 가지고 통일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급속히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사탄들이 와서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까지 지옥 데려 가려고 했지만 천국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위해 협조하고 조상들까지 천국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으니, 해방권이 됨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미래에 세계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98-221, 1999.1.8) p.942

선생님이 영계와 지상세계를 청산할 수 있고, 이상적인 지상천국-천상천국을 완성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때요? 그래서 그런 전체 · 전반 · 전권 · 전능의 시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의 조직이, 여러 나라의 전체 조직이 일반화된다 이겁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모든 능력을 가진 사탄세계는 완전히 하늘의 권한 앞에 무능해지고 하나님의 전권시대 · 전능시대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93-325, 1998.6.7) p.942

영계에서 전부 다 출동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얼싸안을 일도 많을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통일교회를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땅을 치고 그럴 겁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하고 말입니다. (302-71,1999.5.18) p.942

Top p.942

3) 참부모님과 사랑의 역사

① 성인과 살인마도 한자리에서 축복

선생님이 성인하고 살인마까지 용서해 줬지요? 그러면 자기 아들딸이 죄진 것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스탈린이나 히틀러는 사람을 몇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몇백만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악마 중의 악마까지도 용서해 주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걸 안 해주면 지옥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얼마나 못 했는지 불교에서는 '아이구, 우리 석가모니를 데려다 결혼시킨다. 그럴 수 있나?' 하고 '아이구, 예수를 결혼해 준다!' 하고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 전부 다 낙원입니다. 중간 영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축복해 주면 어떻게 돼?' 하니까 '지옥문이 열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반대로 하나 만들려던 것의 10 배 이상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성인들을 뒤에다 끌고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돌아서게 된다면, 사도 바울도 반대하다가 돌아서게 해 가지고 기독교의 충신을 만든 하나님인데, 반대 악당들이 영계에 갔더라도 돌려내 가지고 하나님이 잘 써먹을 수 있는 충신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9-26, 1999.2.1) p.94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성인과 살인마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있어서 통일교회를 극반대하던 남편이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와서 해방시켜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인과 악인을 전부 다 하나 만드는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육축복 일체권을 이루어 3 일식까지 하게 돼 있으니, 나머지 영계에 있어서 지상에서 살지 못하고 결혼도 못 하고 죽었던 애혼들, 16 세 이상 연령 된 모든 사람들까지 이제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지옥문을 열고 영계에 간 모든 사람들 앞에 축복을 해 줌으로 하나님의 혈족적 권한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전히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중에 이런 혁명이 없는 겁니다. 타락으로 모든 죽은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 결혼 못 하고 죽은 애들도 결혼해서 천국 들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기반, 모든 조상들이 축복 받은 권내에서 영계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 기반을 전부 다 탕감복귀했다는 말입니다. (300-305, 1999.4.11) p.943

선생님이 영계를 몰랐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영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피난통에도 배가 고파할 때는 조상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길가의 지나가는 손님을 위해 잔칫상을 준비하게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거짓말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이 과학을 공부했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왜 해요? 전부 다 이론적으로 갖춰서 믿지 못할 얘기도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다 믿지요? (299-46, 1999.2.1) p.943

하나님이 만드신 영계에는 타락한 인간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영계에서는 완성한 축복가정들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담이 완성한 이후에 생활할 천국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받아 가지고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입니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인 2 천년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지상의 일족들은 다 천국행이다.

출애급같이 지상세계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80 세에 출애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참부모, 가정왕으로서 세계 지구성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300-305, 1999.4.11) p.943

선생님이 세계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서 전부 다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지옥까지 내려가서 지옥문을 재까닥 연 것입니다. 살인마까지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상헌씨의 말을 빌리면 상헌씨가 홀로 울고 기도하는데 사자가 같이 돌아가자 해서 하나님한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니 '슬프더냐?' 하는 겁니다. 통곡하니까 하나님 말이, 그런 모든 것을 구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딸들이 잘 살아야 된다.' 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길을 해방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못 하니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영계실상과 지상생활」에 나옵니다. 네가 책임지라는 것은 왜냐 이겁니다. 통일교회 반대하다가 들어갔으니 문총재한테 가르쳐 주고 해방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나 같은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1998 년) 5 월 13 일부터 15 일까지 영계 모든 전부를 뒤집어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배짱도 좋지요? '내가 책임지고 단행합니다.' 이래가지고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301-156, 1999.4.25) p.944

1 차 아담 실패, 2 차 아담 실패, 3 차 부모도 실패해서 광야노정에서 이것을 다 탕감해서 해방되고 제 4 차 아담권 축복시대가 지상천국 출발시대입니다. 이게 이론이 다 맞아야 됩니다. 주먹구구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가 지상이나 선생님이 원리를 중심삼고 해명한 결과적 기준에서 평가할 때 오른손 왼손이 딱 맞아야 됩니다. 이래야 소리가 나지요? 그것 맞추는 것이 사랑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절대 사랑을 중심삼고 말입니다. 지상세계 천상세계가 가인 아벨로 갈라졌던 것을 비로소 형제 인연, 참부모의 사랑, 참혈통의 인연으로 하나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축복을 중심삼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가 아닙니다.

참부모가 있을 때 살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요, 참부모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죽고자 하지 않고는 참부모의 갈 길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계도 해방이요, 지상도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아담과 해와의 역사이래 박혔던 대못을 뽑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시대의 선한 선조들이 전부 다 피를 흘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301-166, 1999.4.25) p.944

선생님이 80 세가 넘으면 천지가 합덕하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이 80 세까지 1 대에 모든 것을, 영계를 완전히 해방하는 겁니다. 지상 천상, 부처면 부처, 가정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끼리 천국 들어가야지 혼자 못 들어갑니다. 지옥문, 천국문을 다 열어 놓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선조들이 줄을 지어서 파수꾼이 되어 안내해 줍니다. 옛날에는 사탄들이 자기가 욕망하던 것을 중심삼고 구덩이를 파놓고 천년만년 못 가게 했습니다. 심부름시켜 먹는 겁니다. 이제 그걸 다 철폐해 버렸습니다. 거짓말 같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영계의 사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후대에 가서 걸리는 겁니다. (300-74, 1999.2.21) p.945

Top p.945

② 참축복의 천주화로 영계, 육계 평준화

참축복 천주화와 그 다음이 뭐예요? 사탄혈통 근절입니다! 뿌리를 끊은 것입니다. 거짓 결혼을 해서 지옥 갔기 때문에 참부모가 결혼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천사장이 지상에 있는 해와를 사랑해서 타락시킨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영계에 있는 가정적 천사장의 자리가 지상에 와서 지상에 있는 아담과 해와의 가정과 마찬가지이니 아담 가정을 재편성하는데 있어서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 주변에 와서 사탄추방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관으로, 그래야 깨끗이 이론적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남았느냐 하면 지상에 있어서 영계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문이 열릴 때가 됐다 이겁니다. 남편이 죽어 갔더라도 지상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교회에 다닌다고 반대받던 사람들을 중심삼고 반대하던 자기 남편들을 용서해 주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축복해 줄뿐만 아니라 요전에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4 억쌍 축복 실천하기 위한 행차하기 전에 영적인 축복을 해준 사람들은 실체 3 일식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3 일식까지 해서 영계에 본격적인 가정출동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뭐냐?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애혼들을 중심삼고 나면서 영계에서 커서 결혼을 기다리는 수천 억이 있으니, 이걸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요전에 4 억 쌍의 4 배인 16 억 쌍을 결혼해 줬습니다. (301-171, 1999.4.25) p.945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뜻길에서 자랑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세계적으로 한 일이 많지만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남았습니다. 땅 위에서 했으면 땅 위에서 정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자 살다가 처녀 총각으로 죽은 사람, 지상에서 처녀 총각으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 사람,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을…. 또, 낳아 가지고 죽은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이 영계에서 자랍니다.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도 울고불고 생각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하는 마음이 크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죽은 상대가 영계에서 큰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아내가 마음에 두고 슬프게 생각하면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301-187, 1999.4.26) p.946

지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어머니 참아버지, 참부모의 혈통을 받지 않고 태어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보면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참부모를 천상천국, 지상천국의 왕권의 주인으로 섬기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친족권 내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참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자기도 결혼해서 후손을 남기고 그대로 옮겨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황족권의 사랑을 중심삼고, 체휼적인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250-49, 1993.10.11) p.946

나는 내 책임했습니다. 할 것이 뭐 있어요? 영계까지 통일권으로 축복해 주고 원수들까지 살려주었는데, 사탄이 내 앞에서 참소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이제 뭘 더해요? 이제는 탕감이 없습니다. (272-121, 1995.8.30) p.946

영계에 수평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왔다가 영계에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멋대로 사랑관계를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바람피우고, 남자나 여자나 제멋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자들도 화냥년들이 많지요? 바람피우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맨 밑창에 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법적인 계약부부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들은 아기를 낳기 싫어합니다. 가정을 갖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시대에는 그런 겁니다. 아기가 없는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요? 계약해서는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떠돌이 패입니다. 영계에 가면 떠돌이 패가 됩니다. 정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패들도 선생님을 통해서 결혼시켜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301-63, 1999.4.16) p.946

영계는 뭐예요? 영계는 천사장 세계고, 지상은 아담 세계입니다. 아들의 세계와 종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러면 영계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이 지상이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 지상의 4 만쌍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축복가정이 4 만쌍이 나왔습니다. 4 만 한 5 천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4 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한 쌍씩만 처녀 총각을 끌어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인데, 전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의 혈통이 영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인 형태가 벌어진 영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을 해 주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영들을 전부 다 모아서 축복시킨 것입니다. 또, 아기로 태어나서 죽은 영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16 세 이상이고, 결혼해 보지 못하고 영계에 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수천 억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1-209, 1999.5.1) p.947

조수(潮水)가 나갈 때는 나쁜 게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맨 나중에 나간 게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탕감복귀하기 때문에 같은 물, 같은 달을 보게 되면, 중간에 서 가지고 이 둘이 들어와서 하나될 때 거기 딱 걸린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딱 한 대에 수평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완전히 추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부모는 쫓아내고 참부모와 하나되는 겁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지옥을 철폐해 가지고 영계에 있는 조상들을 결혼시켜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수억, 수백 억, 수천 억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영계를 천국으로 리드하는 게 우리의 조상입니다. 지상에서 후손들은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종적으로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로 합하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 기반입니다. (300-224, 1999.3.14) p.947

축복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핏줄이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핏줄을 상속받은 사람이 영계나 육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재창조, 복귀역사를 지금도 탕감조건 없이 전권을 가지고 밀어부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신념을 가진 상대적 입장에 서느냐 못 서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심된 그런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과 하나되게 될 때에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수평세계로 금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들이요, 남편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내요, 형님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동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가 없으면,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 형님이 동생이 없으면 각각 사랑의 주인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사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기보다도 높이고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는 몸 마음 일체, 가정에는 부부일체, 형제일체, 국가일체권을 형성하여 8 단계 이상모델인 사랑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복중시대?유아시대?형제시대?사춘기시대(약혼시대)?부부시대?부모시대?참조부모시대?참왕과 왕비의 시대를 거쳐 영원히 변치 않는 참사랑의 전통을 세워 부자지관계인 참사랑의 모델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부부, 그리고 형제(자매) 국가들이 모두 다 이러한 참사랑을 중심으로 8 단계의 모델인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곳이 우리의 이상가정과 국가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세계적 평준화가 시작됨으로 지상천국이 출발되는 것이요, 또한 천상천국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00-303, 1999.4.11) p.948

Top p.948

③ 지상, 천상지옥, 참사랑으로 해방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지옥까지 평준화시켜야 합니다. 그 길을 개척해 가지고 평화의 천국 기지까지, 지옥문을 타파해 버리고 천국문을 개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상세계와 영계 어디든지…. 지옥이라는 한의 그 문턱이 하나님에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다 무너뜨려 놓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면 문 총재가 한 것이 무엇이냐? 개인적 문을,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지옥까지 막혀 있던 것을 '킥!' 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를 닦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지상만이 아닙니다. 영계가 전부 다 평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정적 평준화, 종족적 평준화, 민족적 평준화, 국가적 평준화, 세계적 평준화, 천주적 평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느냐? 남자와 여자의 가정 형성으로 말미암아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2-226, 1999.6.14) p.948

이제, 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기 전에 영계에서는 전부 다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축복이 없었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지상이나 천상세계에서나 선생님이 가기 전에 축복받은 사람이 영계에도 꽉 차야 되고 지상에도 꽉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까지 아담이 뿌려 놓은 타락의 모든 혈통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표어가 뭐예요?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입니다. 완전히 영계는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기 전에 그거 남겨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영계를 전부 다 클린(clean:청산)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들을 근절할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영계를 벌써 정비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전부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를 전부 축복해 주고 선조들을 해원성사해서 축복할 수 있는 페이스(pace)로 들어가고, 영계에 전부 다 아기로 죽던가 결혼하지 못하고 영계에 간 사람들을 전부 다 해원성사 해 줌으로 축복권 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탄 뿌리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계에서 전부 다 3 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20 일 전 여기 돌아오기 전에 영계의 영인들도 전부 다 3 일식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지시한 것입니다. 그거 복잡합니다. 지상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청소년 중심삼고 결혼하니 영계에서도 미혼 남녀를 중심삼고 같은 입장에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301-212, 1999.5.1) p.949

이제 아기들로부터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전 영계가 와 가지고….축복이라는 것은 원리로 보면 뭐예요? 인간 책임분담입니다. 책임분담이 뭐냐 하면, 축복 받는 것입니다. 인간 책임분담을 했다면, 하나님 아들로서 완성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천사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내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인연을 가진 것은 벌써 호적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법에 치리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세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하늘땅을 중심삼고 평준화시켜 가지고 개인의 장손, 종족의 장손, 이것을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개인 장손권, 종족 장손권, 민족 장손권, 국가 장손권, 세계 장손권, 천주 장손권, 영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선생님이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301-189, 1999.4.26) p.94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의 길은 갈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수평입니다. 사랑은 수평이기 때문에 아들이 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계에 가서 수평적인 상대권을 가지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서 죽어도 영계에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계에 간 아이들이 있으면 타락 안 했으면 다시 와서 삽니다.

영계와 축복한 사람들을 3 일식까지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통일교회 믿다 간 사람이,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땅에 와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49 세가 넘었으면 위로축복을 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위로축복을 했지만 이제는 50 전에 사람들부터는, 49 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축복도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영인축복해 준 사람들도 3 일식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301-189, 1999.4.26) p.949

재림주는 조건적인 탕감복귀가 아니라 실체 탕감복귀입니다. 그런 싸움을 거쳐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계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것을 중심삼고 전부 다 실체권을 탕감복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권에서 하나되어 가지고 선생님을 받들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기독교가 받들었으면 그런 핍박도 안 당했습니다. 대번에 하늘이 세운 몇 사람을 찾아서 복귀했을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복잡한 내용을 중심삼고 땜질한 놀음이 없습니다. 그런 식을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 기준을 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그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교회 축복, 국가 축복, 세계 축복입니다. 이것을 못 풀고 영계에 가면 걸리기 때문에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천년만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더라도 활동을 못 하고 전부 다 대합소에서 기다리는 놀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입장이 손자의 입장이 되고, 아버지의 입장이 아들의 입장이 되고, 아들의 입장이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축으로 해서 아담이 제 1 아버지, 예수님이 제 2 아버지, 재림주가 제 3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주가 제 1 아버지, 제 2 아버지의 실패를 탕감하고 완성권에 올라섬으로 말미암아…. 이 세 자녀의 아들딸이 세상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236-330, 1992.11.9) p.950

선생님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가지만, 선생님이 영계에 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후대 통일교회가 어디로 갈 거예요? 앞으로 후대 통일교회는 선생님의 지난날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따라오려고 할 겁니다. 야곱이 가던 길을 이스라엘 족속이 가야 되고, 모세가 가던 길을 이스라엘 나라가 가야 되고, 예수가 가던 길을 기독교가 가야 되었듯이, 오늘날 통일교회에 있어서 문선생이 가던 길을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가면 철새와 마찬가지로, 대양을 건너 가지고 남극과 북극을 통할 수 없는 겁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142-168, 1986.3.9) p.950

이번에도 전부 약혼들을 시켜 주는데 말이에요, 사진을 보낸 여자들 전부 다 내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약혼을 해주다 보니 여자가 모자라서 일본에서부터 한 천 명의 사진을 붙여 놓은 앨범에서 빼 '너의 남편이다.' 하고 뽑아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여자들은 '보지도 않고 약혼하는 법이 어디 있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진 따라가서 삽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회는 세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통해…. 선생님 같은 사람이 언제나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오늘날 선생님의 재세 때, 선생님이 지상에 사는 요때 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영계에 가면 그것 팔아먹는 겁니다. '나 선생님한테 축복받았다.'고. (165-90, 1987.5.20) p.950

지상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영계에 가게 되면 다 갈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갈라져 갔습니다. 영계에 가면 영계의 기준에 맞는 도수에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영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비디오 같은 걸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옵니다.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몇 번이다!' 하면 몇 번에 벌써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겁니다. 가정의 열 사람이 있어도 심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헤어져야 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해방되는 겁니다. 축복 받고 지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계에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대모님도 그렇고 대형님도 그렇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총모님도 다 축복해 준 것입니다. 영계 사람을 축복해 준 겁니다.

그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지옥해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에덴동산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일방적인 통행으로서 천국 편성을 완성했다 할 수 있는 기준을 땅에서 갈라졌던 모든 개인, 가정을 헤쳐 가지고 세계적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일시에 갖다 맞춤으로 말미암아 지상·천상천국의 통일권이 벌어져 하나님이 해방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283-146, 1997.4.8) p.951

참부모님은 실체세계에서 초민족적인 축복의 인연을 중심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됨으로 지상에서 개인해방, 가정해방, 종족해방, 민족해방, 국가의 해방권이 이루어집니다. 그 해방권은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천국사랑의 나라, 천주사랑의 나라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참부모를 중심삼은 모든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어서 통괄적인 면에서 총 청산을 지어 가지고 개인축복, 가정축복, 종족축복, 민족축복, 국가축복, 세계축복, 천주까지 축복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계와 육계의 축복가정 일체화권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아담을 중심삼은 천국 이념의 기반이 역사 이래의 모든 가정들을 중심삼고 동일적인 가치의 자리에서 성립되어 지상천국의 현현과 천상천국이 현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요, 참부모는 지상을 평준화할 수 있는 횡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7·8절을 중심삼고 천지부모 천주안식권을 선포해서 새로운 시대가 출발해서 9·9절을 중심삼고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303-257, 1999.9.9) p.951

여러분들이 이제 9·9절을 중심삼고 <<총탕감헌금>>을 해야 됩니다. <<총탕감헌금>>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원한과 해방식입니다. 해방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해방을 해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를 해방하고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총탕감헌금>>입니다.

이제 해방시대를 맞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지구를 중심삼은 우주가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늘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까지 축하하는 분위기 일색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모든 일은 천운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운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곤 하지만 천운이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돕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계가 수많은 선조들과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땅을 도울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해방권을 이룰 수 있고, 탈바꿈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상적 가정이 되어 부모님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부모님 대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온 메시아, 신약시대를 넘어서 성약시대에 온 메시아, 1차아담, 2차아담, 3차아담의 대신가정이 됨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 만민이 천국 직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제4차 아담권해방 축복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국의 나라에 성주(聖酒)를 뿌려야 됩니다. 성주 먹여 가지고 살아나지요? 타락권 해방이 가중되는 겁니다. 만물까지 먹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부 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계 지구성에 성주를 비행기로 해 가지고 쭉 뿌려 주면서, 전부는 안 하더라도 주요 도시만이라도 뿌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나라 망하라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딱 못 벗어납니다. p.952

Top p.952

④ 천국 입적과 축복가정의 영계

㉮ 입적을 하려면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입적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정도 없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부모고 뭣이고, 열 식구면 열 식구가 전부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머니 아버지와 일족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사랑을 중심삼고, 조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자기 부부?아들딸이 하나 되어서 위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지니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전통에 복종하면서 위하는 사랑만을 갖고 움직이는 그 세계, 위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는 평화의 기지가 생겨나지 않으려 해도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0-354, 1990.12.27) p.952

참부모를 중심삼고 입적하는 사람이 앞으로 조상이 됩니다. 저나라의 조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주류 씨족을 중심삼고, 주류 민족을 중심삼고, 거기에 방계 되는 모든 사람을 중심삼고 이걸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적해야 됩니다. 입적은 그냥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160 가정, 혹은 180 가정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한 사람은 탈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뭐 36 가정이든 뭐든 그걸 주장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평등화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수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통일교회에서 그 씨족이 많으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286-247, 1997.8.11) p.952

혈통이 달라졌기 때문에 혈통을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서 입적할 수 없습니다. 혈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타락의 혈통을 이어받아 모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혈통을 연결함으로써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전환을 해야 합니다. 타락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 피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혈통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혈통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258-287, 1994.3.20) p.953

축복의 날도 교회의 축복, 나라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축복, 천국 가서 영원한 축복의 예식을 거쳐야만 본연의 세계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일교회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간단히, 편리하게, 살짝해서 선생님 모르게 축복받았다고 해도 안 통합니다. 나라 축복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는 경력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축복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에 가 가지고 대입회식과 더불어 입적식을 거쳐 가지고 열두 지파 편성을 끝내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가 저나라에 가서 좌정해야만, 자리를 잡고 앉아야만 모든 만민은 순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요? (185-36, 1989.1.1) p.953

혈대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입니다. 심정권은 종족입니다. 이걸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족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왔다가 입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호적판을 못 꾸며 놨습니다. 그걸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결혼하고도 33 세가 지나기 전에는 생활을 안 시킨 것입니다. 이제는 30 세입니다.

예수님이 출가하기 전 30 세에 생활하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요것 넘어가게 되면, 남북이 통일되는 날에는 그러한 수난길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통일교회 축복은 교회 축복, 남북통일시대 축복, 세계통일시대 축복입니다. 3 대 축복을 거쳐야만 해방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52-140, 1993.11.14) p.953

국가가 없으면 입적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입적할 수 있었지만, 국가에 입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함으로써 입적시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종족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160 가정을 빨리 수습하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통일이 된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 1 대로 입적하여 제 1 의 선조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160 가정을 축복한 사람이 이어집니다. 선조의 순서가 입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1 천 6 백명을 넘는 사람이 앉아서 축복을 받았다 해도 1 천 6 백 대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256-332, 1994.3.14) p.953

앞으로 열두 지파를 중심삼고 세계가 전부 다 입적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할 때는 여러분의 일생, 통일교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서 뭐 하나, 보자기 하나라도 가져갔으면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계에 기록된 컴퓨터 기록과 맞지 않게 될 때는 여러분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12-56, 1991.1.1) p.953

왕족 심정권을 중심삼은 그곳은 환대뿐, 언덕이라든가 벽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전체가 환영하고, 만년의 사랑의 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의 주인으로서 서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자기 일족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족이 모두 모인 그 영계의 가치를 가지고 입적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적하지요? 새롭게 입적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한 해방의 종족장으로서, 메시아로서, 부모로서 내가 끌어당겨 줍니다. (218-358, 1991.8.22) p.954

영계에 가 보십시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여성은 다 나한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팔아먹지 않습니다. 하늘에 입적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딸을 입적시키게 되면, 그 남편도 입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연적 고개를 넘고 삼팔선을 넘어, 통일의 뜻 세계에서 가정이 재축복받아 하늘나라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기준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은 하늘나라의 백성을 낳아서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없는 그 자리에까지 길을 닦아 가지고 여기에 안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행동을 안 하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230-250, 1992.5.8) p.954

입적을 해야 됩니다. 입적을 위하여 어디로 가자구요? 본향 땅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못 하게 되면, 영계에 가서 되돌이 길을 억천만세를 돌고 돌면서 눈물과 더불어 탄식과 더불어 넘어가야 할 타락권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위해서 직행하기를 바래서 소상히 말씀했으니, 그걸 잊지 말고 명심하여 승리의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천국과 본향 땅의 본적을 세워 입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겠다는 사람 쌍수를 들어 선서하십시오. 손을 내리지 말란 겁니다. (177-351, 1988.5.22) p.954

Top p.954

㉯ 통일권 영계도 중간영계, 감옥이 있다

지상에서 축복받은 부부는 영원의 세계인 영계에 가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부, 아들딸은 아무리 많아도 영계에 가서는 흩어져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모두 어디에 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나기가 힘듭니다. 상대적인 관계가 없으면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심령상태의 기준에 따라 모두 영계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되면 그대로 일족이 영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250-334, 1993.10.15) p.954

영계에 가더라도 누가 지옥 가라는 말을 안 합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정도에 맞는 데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만 하더라도 전부 다 같은 권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기 심령상태의 기준에 따라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은 어떤 면에서 다르냐? 축복받은 가정은 떨어지려야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가 책임 못 했으면 공동책임을 지고 남편이 해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해도 걸리고, 남편이 잘못해도 걸리고, 아들딸이 잘못해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242-108, 1993.1.1) p.955

천상세계의 영계에 가면 그 계급에 따라서 머무는 곳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거기에서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타락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권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 죄를 짓더라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법에 저촉이 됐으니, 그 법에 따라 처리를 받고 하늘나라를 침해시켰던 모든 것을 전체 앞에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천국에 낙원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중간영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에 지옥이 생겨난 것입니다. 감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앎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디에 갈지 환하게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어요, 모르게 되어 있어요? 똑똑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295-135, 1998.8.19) p.955

축복받고 편성하는 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담 가정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 들어가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하늘 편의 감옥이 생깁니다. 중간영계가 생깁니다. 축복가정들의 낙원이 생기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상헌씨 증언이 대표자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죄지은 사람은 명찰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달고 다녀야 됩니다. 각도가 틀린 만큼, 90 도에 맞지 않는 그 도수 차이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고, 일체의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틀어내는 겁니다.

모나게 된 것은 깎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될 때는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북극으로, 남극으로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고보라는 것입니다. 영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158, 1999.3.3) p.955

영계에 간 36 가정들 영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상헌씨가 영계의 실상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축복받은 36 가정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명찰을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옥이 생겨요. 낙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사탄세계가 제거되면….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영계, 영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나라가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일생활권에 있다는 겁니다. 지상은 시간권 내에서 생활하는데, 거기는 1 년에 한 번씩이나 생활할 수 있는 이념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299-315, 1999.2.21) p.955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해방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가정을 갖춤과 동시에 아들딸을 다시 볼 수 있고, 손자를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정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탄세계 권에서 벗어난 세계, 사탄의 참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복귀가 빠른 것입니다.

영계에 보면 상헌씨가 축복가정의 최고 자리에 가 있다고 했지요? 이 최고의 자리가 이제부터 생겨날 영계의 모델입니다. 영계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가정적 낙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정적 중간 영계가 생겨나고, 가정적 지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삶의 양심의 그림자로 남아 있는 것이 백주에 전부 다 밑창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에서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거기에도 감옥이 있다고 그러지요? 감옥이 있습니다.

축복가정도 영계, 천국에 들어가서 가정이 하나님에게 가까운 데 가고, 부모님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계층이 생겼다는 겁니다. (295-300, 1998.9.24) p.956

Top p.955

4) 참부모님 가정과 영계역사

① 흥진님과 영계 장자권 성립

흥진이가 영계에 감으로 말미암아 지상과 하늘로 갈라진 아벨과 천사가 쌍둥이같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된 기반 위에 부모가 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원리관(統一原理觀)입니다. (131-52, 1984.4.1) p.956

흥진이는 아들격 아벨인데, 그 아들은 참부모의 사랑으로 원리주관권의 탕감조건을 세운 기반에서 영계에 갔습니다. 사탄주관권에서 승리하고 직접주관권을 이룬 자리에서 영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 첫 번째로 완성한 자격을 갖춘 아들로서 천상세계에 갔다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계에 간 사람들이 참부모의 심정권을 중심삼고 원리결과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이 하나된 가정적 터전에 사랑을 중심삼은 주인이나 아들의 자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않고는 천상세계에 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131-52, 1984.4.1) p.956

흥진이가 가기 전에 통일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선생님이 의사한테 산소 마스크 떼는 것을 오케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다 닦아 놓고 보낸 것입니다. 세상 같으면, 아들이 죽어 가는데 저러니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시대의 삼각지대에 있어서 인류와 한국과 통일교회의 이 패들과 세계를 위해 가지고, 또 영계를 위해 가지고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해 가지고 다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로 보게 된다면, 흥진이가 재림주입니다. 영계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계로 볼 때 참부모로부터 사랑의 메시아로 보낸 것이 흥진님입니다. 그 흥진이가 지상의 부모님을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재림시대와 통일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세가 축복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225-86, 1992.1.2) p.957

통일식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무거나 잡고 식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식기를 잡고 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아들 앞에 사랑의 통일식을 해 줘야 예수님과 직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거 다 모를 겁니다. 그렇게 죽어 가는 환경에서 통일식을 해 줌으로 말미암아 악마들이 바라보는 입장의 모든 전부를 넘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이게 뭐냐고, 전부 다 원망하는 그런 판국 가운데서 그것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갈 길을 수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12-93, 1991.1.2) p.957

흥진이를 산 제물로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적 배경을 중심삼은 천상세계의 다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흥진군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다리를 거쳐야 되잖아요? 비로소 이 땅 위에 참부모의 자식으로 참부모의 사랑을 받고 천상세계에 제물의 승리자로 간 것이 흥진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천상의 전권을 가지고 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0-281, 1997.1.2) p.957

흥진군이 청소년으로써 감으로 말미암아, 참부모의 사랑을 받던 후손이 감으로 말미암아 흥진군과 영계가 하나되는 입장에 서게 되어 이것이 참부모 가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형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사랑권이 영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지상과 관계를 맺지 못하던 영계의 기독교로부터 모든 종교가 흥진이로 말미암아 전부 다…. 예수가 흥진이를 형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상 재림을 함으로 지상에 영적인 후원이 몰아침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급진적인 하강을 해 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타락 후에 생긴 영계와 육계의 경계선이 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흥진이가 감으로 말미암아 참부모의 사랑권을 중심삼고 영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담이 무너져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225-86, 1992.1.2) p.957

이 시대에 있어서 직계자녀와 양자권이 어떻게 교체되느냐? 여기에 흥진이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기 전에 영계를 수습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지금까지 영계에 간 모든 영들은 참부모와 관계가 없고, 참부모의 혈육과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참부모의 사랑과 관계를 못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라에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처녀 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것입니다. 다시 와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225-85, 1992.1.2) p.958

흥진군을 결혼시켰지요? 영계가정 총사령관이라는 입장인데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래 전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계에 대모님하고 충모님을 중심삼고…. 영계에 가면 대모님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교파들, 이슬람이라든가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가 하나되어 가지고…. 대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야만 그걸 중심삼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효자가 되어야 되고, 충신이 되어야 되고,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292-226, 1998.4.17) p.958

이번에 예수님 가정과 흥진 가정을 전부 다 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흥진군하고 예수님하고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자를 맡겨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하늘이 못 합니다. 참부모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 하는 것을 참부모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짓는 대로 되리라.' 그랬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92-327, 1998.4.27) p.95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이제 청평에 가서 예수의 가정을 잘 해 가지고 흥진군하고 형제지관계를 맺어 줘서 기독교의 모든 사도들을 축복해줘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아벨 자리이고 기독교가 가인 자리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영적인 관점에서나 육적인 관점에서나 전부 다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자녀인 흥진군은 아벨 입장입니다. 장자 자리입니다. 가인편 장자는 예수입니다. 지상세계와 영계를 연결해 가지고 통일교회와 기독교 세계를 한꺼번에 축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또, 백인이나 흑인이나 전부 다 축복해 가지고 미래에는 전부 섞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습니다. 미국의 골칫거리인 흑백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그 싸움을 누가 그만두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미국의 그 누구도 못 합니다. 어떤 단체도 못 하는 것입니다. 종교권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레버런 문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292-312, 1998.4.27) p.958

기독교 문화권의 장자권 나라인 미국에 발표했다구요. 흥진군하고 예수님이 하나되어서…. 흥진군은 통일교회를 중심삼은 부모님을 중심삼고, 기독교를 중심삼은 예수님을 중심삼고 이들이 주체 대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입니다. 반대해 나오던 것이 이제는 통일교회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의 자리에 서고 동생이 형의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동생의 자리에 서는 데는 흥진군과 통일교회가 하나된 입장에 섰기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나서, 통일교회를 모시고 나서, 흥진군을 모시고 나서, 통일교회 교인들을 위해 모시고 나서 하나되었기 때문에 둘이 합해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상세계, 지상세계의 장자의 자리에 서 가지고 통일천하, 지상천국 완결, 통일권으로 넘어간다! 아멘! (293-79, 1998.5.24) p.959

영계에서는 흥진이를 맞는 날이 역사이래 제일 기쁜 날입니다. 흥진이는 사랑의 메시아로서 영계의 문을 열었고, 지상에서는 표본적인 순교의 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인들이 흥진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진이가 장자권의 복을 차자권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상속 안 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상속을 안 해주고 자기가 겁탈하는데, 장자권 흥진이는 지상에 가진 복을 전부 넘겨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사탄세계는 안 넘겨주려고 하는데 흥진이는 자꾸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31-52, 1984.4.1) p.959

영계에 흥진이가 있기 때문에, 흥진이가 울타리가 돼서 책임지고 교육을 하고 지상에서 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벗기 위해 노력을 하기로 결심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부모님이 껍데기만이 아닙니다. 영계를 중심삼은 모든 실체적 권한을 중심삼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영계에 부모의 실체권이 있음으로 지상과 영계에 통일적인 축복을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천국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은 비어 있습니다. 천국을 채우려면 지상에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축복이 없이 천상에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302-306, 1999.11.12) p.959

영계에서도 이제 교육체험관을 세우려고 그렇습니다. 신앙세계, 종교세계의 전통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방계된 세상의 사상도 가르쳐야 합니다. 통일사상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교육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영계에 전부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부모이고, 자기는 사랑하는 아들딸이 돼 가지고 이상적 가정을 이루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0-314, 1999.4.15) p.959

선생님 가정에 이번에 신춘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40 명이 되었습니다. 딱 40 을 채웠습니다. 40 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신춘입니다. 신춘이 뭐예요? '새로울 신(新)'자가 아니라 '믿을 신(信)'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통일교회에 봄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탕감수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가정에는 앞으로 아들딸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손자들이 많이 태어날 겁니다. 우리 아들딸이 몇인가? 왜 열둘인가? 열 셋인가 그렇지. 혜진이는 태어난 지 8 일 만에 갔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흥진이도 양자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산아제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탄세계에서는 산아제한을 해야 되지만, 우리 축복받은 패들은 산아제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럽힌 몸이 되어 가지고 '나 이래 가지고는 아들딸을 낳을 수 없다'할 때는 낳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3-189, 1991.1.20) p.96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역사적 전체 승리권을 대신한 참부모의 가정이 이렇게 된 데는 뿌리까지 정화하기 위한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혜진양은 에덴동산의 타락한 여자의 핏줄을 끊어버리고 희생한 것이라면, 희진군은 구약시대입니다. 전부 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래, 희진군이 구약시대에 해당하고, 흥진이는 신약시대입니다. 결혼을 못 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계와 연결해서 기독교의 축복받지 못한 영적인 완성을 펼쳐 나오는 역사에 육적인 완성의 기독교의 기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가정적인 축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304-304, 1999.11.12) p.960

Top p.960

② 조상해원식과 청평역사(淸平役事)

청평에 가는 건 뭐냐? 자기 자체에 영적으로 걸린 것을 청산해야 되고, 자기 조상들을 전부 해원해야 됩니다. 검증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흥진군이 가 있어요, 흥진군이 영계의 최고의 장자예요, 흥진군이. 흥진이가 누구 동생인가? 흥진이 형이 효진이지요? 그런데 흥진이가 효진이보다도 형님 자리에 있습니다. 흥진이가 최고의 형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다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299-309, 1999.2.21) p.960

이제는 국가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계 해방 축복하지요? 120 대까지 축복할 겁니다. 과거에는 4 대입니다. 4 대면 몇 촌인가요? 8 촌까지 나가는 겁니다. 7 대까지 하게 되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수백 가정, 많이 번성한 가정은 수천 가정이 되는 겁니다. 4 대 축복, 그 다음 7 대 축복을 하는 겁니다. 7 대를 했으면 일족을 넘어서지요? 그 다음에는 120 대 세계 판도입니다. 청평에서 그 놀음하기 때문에 모든 축복가정들은 경쟁해서 자기 조상들을 전부 다 해원해 줘야 되고 축복의 문을 열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99-307, 1999.2.21) p.960

조상해원식을 다 했어요? 7 대를 해방해야 됩니다. 7 대가 해방돼야 120 대까지, 7 대에서 자꾸 올라가 120 대까지 해야 됩니다. 그 조상들 중심삼고 하면 가려 가지고 한꺼번에 120 대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부 다 축복 받습니다. 그러면 지옥문이 깨져 나가겠어요, 안 깨져 나가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낙원을, 낙원이니 중간영계가 타락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영계도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영계에 가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걸리면 안 됩니다. 영계를 정리해 놓으면 지상은 언제든지 영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301-205, 1999.4.26) p.960

자기 조상들, 120 대를 해원 성사하기 위해 청평에 가서 수련하라는 것입니다. 4 대를 하라고 했더니, 청평에서 야단하더니만 4 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 대를 하라고 했더니 7 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20 대를 하라고 했더니 '아이고!' '아이고'가 뭐예요? 죽을 수 있는 놀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흥진이니 할머니니 거기에 엎드려서 영계에 가서는 죽을 놀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 대를 하면 전부 다 불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천국에 들어갈 때, 중간 영계에 부부들이 살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들으면 아담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지요? 그러니 해방하는 것입니다. 4·4 절을 코디악에서 선포했지만 우주적인 4·4 절을 푼타 델 에스테에서 1 월 8 일에 선포했습니다. (300-96, 1999.3.1) p.961

대모님 외에 충모님도 있습니다. 대형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일가들인 이제 선생님이 명령하면 어디 가서든지 대모님이 하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흥진이는 대모님의 교육을 안 받았어도 대모님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딸이 많이 있고, 손자까지 하면 40 명 이상 되는데, 그걸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때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농 절반 하니까 다 그렇게 듣고 있어, 이 쌍것들! 심각한 말이야! (298-165, 1999.1.1) p.96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효남씨! 각 주에 청평 같은 수련소를 만들어야 된다구. 자기가 6 대주를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순회하면서 지부를 만들어야 돼. 한 곳에 끌어다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 청평을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럴 필요 없어. 6 대주에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혼자 가서 몇천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비용도 절약하고, 신령역사도 영계를 동원해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원할 수 있는 거야. 청평 같은 것을 6 대주에 만들고, 그 6 대주에 만든 걸 각 나라에 일으켜 놓아야 균형적인 영적 교육 장소가 생기는 거야. 그거 못 하게 되면 내가 청평에서 쫓아낼 거야. 청평에서는 그만하고, 누구에게 대신 맡기고 임자는 구라파로 가라고 하면 흥진군으로부터 대모님 충모님이 같이 가서 한 3 개월만 하면 지부가 생기는 거야. 앞으로 영계를 통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구. (294-197, 1998.6.14) p.961

Top p.961

5) 단 하나의 소원이 남아 있다면

타락한 세계에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상적인, 더 높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면 고귀한 천국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관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머리를 숙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알겠어요? 깨끗해요? (294-96, 1998.6.14) p.961

문총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참고, 참고 숙이고 들어가 보니 그 길이 싸우지 않고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망하지 않고, 망하라는 세상 앞에 승리의 패권을 쥐고, 나라를 넘어 세계를 넘어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지상 세계와 영계까지 평준화 될 수 있는 이런 놀음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302-207, 1999.6.13) p.962

내가 한국에 대해서 피살을 깎아 가지고 봉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겁니다. 국가를 위주해서, 일은 지금 다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세워진 본을 보여 주었으면 '선생님 이상 죽기 전에 일하고 자기의 생애에 남겨야 되겠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천상세계의 부모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상속권을 받았으니 부모님의 그림자 같은 모양이라도 그 나라, 그 땅에서 가정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줄기가 못 되거들랑 가지가 되어야 되고 가지가 못 되거든 잎이라도 되어야 하는 나무의 존재로 소속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계와 접근할 수 있다 이겁니다. (267-279, 1995.1.20) p.962

내가 손에 힘을 주고 밤에 잠을 자면 이게 굳어지니까 하늘이 내 손을 잡아주고 펴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뭐가 걱정이에요? 통일교회 배후에는 그런 이적기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계에 대해서 상헌씨가 증거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걸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못 믿지만 나는 1 백 퍼센트, 1 천 퍼센트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입니다. 인류는 그런 것을 의심하는데, 의심하기 때문에 하늘이 안 도와 줍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헌씨도 통일교회 믿다가 영계에 가면 고생할 줄 알았는데, 최상의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로 이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웃고 지내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거든 옆에 칼을 꽂고 졸면 죽는다고 결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담판기도를 해야 됩니다. 적당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2-270, 1999.6.17) p.962

선생님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한번 딱 기억하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지금…. 무슨 치매?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팔십이 된 할아버지라도 똑똑하고 확실한 할아버지입니다. 컴퓨터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 머리에 집어넣으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계까지 가서도 기억하는 겁니다. 땅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298-129, 1999.1.1) p.96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은 1960 년 이후에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그런 겁니다. 나라를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물세계를 거쳐 가지고 수산사업까지 63 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바다를 점령해야 되고 육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령하는 데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쳐 가지고 아벨적 기반에 서 가지고 가인을 사랑했다는 그런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했다는 인연은 참부모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누가 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갈라진 모든 것을 참부모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를 중심삼고 전부 다…. 그 바다에서 희생한 모든 영인들, 지옥의 땅 위에 살다 간 영인들의 영계 해방이 벌어지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죽은 영인들을 전부 다 축복해 주는 것은 다 그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참하나님이라는 말을 내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298-19, 1998.12.31) p.963

여러분 같은 그런 싸움도 모르는 순결한 사람들 앞에 왕의 자리를 다 물려 주고, 보따리 하나도 없이 홀가분하게 영계에 가려고 합니다. 영계도 준비돼 있으니 땅 위에서 가져갈 게 뭐 있어요? 더 좋은 천국이 바라고 있는데. (299-239, 1999.2.17) p.963

이제는 대개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복잡한 세계에서 지치고 볶이고 닦이던 그것이 이제는 싫습니다. 싫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 소나무 하나를 보고도 10 년도 살고, 바위를 바라보고 10 년을 살고, 이러면서 영계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의 복잡한 모든 것을 수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296-286, 1998.11.10) p.963

선생님은 만인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형수와도 친구가 되고, 절도범과 고랑을 같이 차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전에는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뉴욕의 뉴요커호텔을 산 것도 앞으로 뉴욕의 제일가는 사탄 소굴에서부터 소탕을 해 가지고 새로이 기반을 닦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어울려 주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각계 각층, 사탄세계의 망할 사람에게까지도 길을 열어 주고 길을 닦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서 길을 닦아주어야 영계의 막힌 것이 열리고 세계가 하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민족적으로 흑인도 결혼시켜 주고, 백인도 결혼시켜 주고, 백인에게도 집을 사 줄 것이고, 흑인에게도 집을 사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세계에 없는 놀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6-160, 1977.2.6) p.963

이 나라가 대접한 것을 생각하면 분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용해 먹다가 집어던진 지팡이와 같이 생각해 가지고 똥구덩이를 쑤시려고 하는 통일교회 패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영계에 가 보라는 겁니다. 열조의 심판대 앞에 천년만년 한을 품고 통곡의 눈물을 그칠 수 없는 비운이 깃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레버런 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263-221, 1994.10.4) p.964

편안히 자는 자는 누가 밤에 독약을 뿌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천만 년의 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생애를 걸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음 편히 앉은 적도 없고 잘 수도 없습니다. 옆으로 오그리고 잡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하늘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47-81, 1993.4.21) p.964

여러분은 다 넥타이를 맸지만 나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언제든지 뛰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양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옷을 벗고 삽니다. 왜? 그런 것이 전부 다 예금입니다. 밥 굶은 사람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릇이 되어 가지고 양말만 신어도 귀찮습니다. 어디 가든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생동안 몇 주일 해서 얼마씩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영계에 가면 이것이 몇천 달러가 된다면 예금해 가지고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을 살려줘라 이겁니다. 기금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79-308, 1996.9.22) p.9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뭐냐?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 하늘나라의 왕국과 지상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안 가지고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자이고 아들인데 어떻게 돼서 왜 천국에 안 가 있고 낙원에 가 있소?' 하고 물어 보면 대답 못 합니다.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은 참부모의 완성과 사랑의 기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계에 가서 왕국을 통일하는 것이 참부모의 사명이지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131-182, 1984.5.1) p.964

선생님은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스런 일이란 피할 수 있지만 이 일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완력이나 폭력을 가지고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리원칙에 따라 하지 않으면 사방에서 몰아치는 화살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탕감조건을 세워 내적 기반을 닦아 왔음을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을 터로 하여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것은 천주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선생이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몇백 번 씩이나 넘어온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수백 번이나 울린 사람이 문선생입니다. 역사이래 그 누구도 문선생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나를 없애려고 해도 문선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문선생이 가르치는 진리권 내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보호해 주십니다. (279-256, 1996.9.15) p.965

새로운 개척정신에 살아가면 늙지 않습니다. 내가 성격 때문에 누워서 죽지 않고 안 죽으면 언제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어서라도 움직이고 그러고 보면 다 고생줄입니다. 나이 많아 가지고 주변의 주목을 받고 신세를 질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더 살겠다는 것은 욕 중의 그런 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계를 알기 때문에, 몸을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앞으로는 바다, 물을 점령하는 그런 주장 그런 사상을 가지면 세계를 지배합니다. 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계 가기 전에 큰 지역을 중심삼고 착수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도 많이 하고, 말씀도 다 해놓으면 후세들이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276-296, 1996.3.10) p.965

선생님은 성격적으로 영계에 가서 가만히 보좌에 앉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못 된다 그겁니다. 영계 가게 되면 지금까지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척 못 한 하나님의 마음세계의 차원 높은 그 세계를, 생각지 못한 세계를 레버런 문이 가서 또 개척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276-75, 1996.2.4)

어떤 영통인이 문선생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기도를 하다가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매일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럽니까? 문선생을 알려면 통곡하는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는 문선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게 되면 나는 천년 한을 품고 통곡할 수 있는 사연을 가진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들 그렇게 욕먹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안 죄로…. 나만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2 천년 동안 저끄러진 역사를 20 년 동안에 탕감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워요? 말하기가 쉬워요? (137-183, 1986.1.1) p.965

내가 영계 갔을 때 최고의 희망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사랑하던 최고의 클라이맥스 때에 생각하던 그 심정권 내에서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기준을 바라는 것입니다. (282-311, 1997.4.7) p.965

울음으로 갈라졌으니 통곡한 후에 흐느끼는 그 아들을 붙들고 '네 소원이 이것이 아니었더냐?'고 축복의 말씀을 전수받아야 영원한 승리의 참부모의 패권이 전수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심각합니다. 그 한 날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288-153, 1997.11.27) p.96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게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일했고, 앞으로 올 이상적인 사회와 이상적인 세계를 이룰 수 있는 2 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더라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그대로 연장입니다. 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 가까운 데 가 가지고 그 일을 같이 안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내 나라는 네 나라다!' 하시는 겁니다. 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안 후에 변치 않았다.' 이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입장에서,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감옥에 처넣든 무슨 수모를 받든, 개인의 반대, 가정의 반대 사회의 반대, 국가의 반대, 세계의 반대, 온 영계의 반대를 받더라도 변하지 않고 나와 같은 불변의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랑과 이상을 추구했으니, 네가 이룬 나라는 내 나라요, 네가 인류를 위해서 찾은 것은 내 나라가 아닐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205-212, 1990.9.2) p.966

단 한 가지의 소원은 뭐냐? 내가 영계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 어전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용상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쏜살같이 뛰쳐 내려와서 수고했다고 목을 안고 키스해 주면서 '영원한 축복이 네게 있기를 빈다!' 할 수 있는 그 한날이 소원입니다. 그 일을 땅 위에 남기지 않고는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것이 참부모의 사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4-63, 1994.10.9) p.966

가정을 구했으면 국가를 구해야 되고, 국가를 구했으면 세계를 구해야 되고, 세계를 구했으면 천주를 구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까지도 하나님까지도 해방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자리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영계에 가서 죄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책임을 못 했다는 부끄러움, 그러니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계를 전부 다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고 '내가 너희들은 해방시켜 주었으니 나를 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에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밟고 와서 세계를 위하라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효자의 마음이고, 충신의 마음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1-187, 1999.4.26) p.966

아담이 책임 못 함으로 지옥의 골짜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거꾸로 서 가지고 수치와 모함과 한의 심정을 가지고 붙들고 다시 생명의 길을 개척해야 할 길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은 알 겁니다.

영계를 통하는 사람이 문총재가 누군가 기도할 때 통곡밖에 답할 수 없는 하늘의 심정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아무 것도 아니었는데….' 그럴 때 고마움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겠느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영어의 몸에서 해방되고, 내가 영계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아담의 천 배, 만 배의 가치적 존재로 나를 맞이해 주고, 몇천 배의 기쁨을 가지고 나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유도해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애의 목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302-250, 1999.6.14) p.967

Top p.967

제 7 권

예절과 의식

차 례

제 1 장 하나님에 대한 모심의 해법

1)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 973
2) 모심의 마음가짐과 태도 · 977
3) 참아버님의 하나님 섬기는 법 · 980

제 2 장 참부모에 대한 모심의 예법

1) 참부모님은 축복가정의 중심 · 98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2)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자 · 990
3) 참부모님 모시는 데도 법도가 있다 · · · · · · · · · · · · · · · · · · 993

제 3 장 예배와 교회 생활예절
1)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 997
2)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외의식 · · · · · · · · · · · · · · 1001
3) 교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 · 1005
4) 설교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1011
5) 헌금은 법도에 맞게 드려야 한다 · · · · · · · · · · · · · · · · · · 1014
6) 하나님은 공적 기도를 받으신다 · · · · · · · · · · · · · · · · · · · 1920
7) 전도는 사랑찾기 운동이다 · 1023
8) 탕감과 봉사와 헌신생활 · 1027
9) 식구간의 법도와 예절 · 1031
10) 타인과의 인간관계 · 1036

제 4 장 축복가정의 전통과 생활예절
1) 축복가정의 생활법도 · 1040
2) 신앙생활로 본이 되는 가정 · 1043
3) 참사랑으로 위해 사는 생활 · 1048
4) 부모가 세워야 할 사랑의 법도 · · · · · · · · · · · · · · · · · · 1050
5) 부부가 지녀야 할 예절 · 1053
6)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운다 · 1057
7) 형제간의 우애 · 1060
8) 근검절약, 검소한 가정생활 · 1062
9) 일상생활의 예절 · 1065
10) 순결에 대한 예절 · 1068
11) 성별의식의 생활화 · 1071
12) 축복가정의 일상생활의례 · 1075
13) 축복가정의 제사 · 1077
14) 축복가정의 평생의례 · 1079
15) 기념일을 맞는 마음자세 · 1983

제 1 장
하나님에 대한 모심의 예법

1)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①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

인연 가운데 표준이 되는 인연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부자의 인연입니다. 이 인연에서 비롯된 심정은 어떠한 존재의 권한에 의해서도 굽혀질 수 없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또 이 심정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권한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때 모든 존재물은 그 앞에 머리 숙일 수 밖에 없으며, 이 심정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때 만천하는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7-105, 1959.7.26) p.97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창조 당시 이상으로 삼고 바랐던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중심삼고 인간과의 사랑관계를 맺어 하나될 수 있는 신인애일체(神人愛一體)의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을 염려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사랑이 교차되는 중심, 생명이 교차되는 중심, 이상이 교차되는 그런 중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과 생명과 이상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사랑이요 나도 사랑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이상이요 나도 이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최초의 인연과 최초의 통일의 장소가 부자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69-78, 1973.10.20) p.973

여러분, 부자일신(父子一身)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중심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부자일신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199-266, 1990.2.20) p.973

말로서 맺어지는 부자의 관계, 예약만으로 맺어지는 부자의 관계는 필요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고 뼈살이 녹아나는 고통 속에서도 참고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234, 1957.6.2) p.974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자리는 바로 아들의 자리요, 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천정(天情)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人情)이 있습니다. 이 인정과 천정이 서로 합할 수 있는 귀결점이 되는 자리는 절대자인 하나님도 원하고 인간도 원하는 단 하나의 자리, 즉 한 부모를 중심으로 한 아들딸의 입장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39-9, 1971.1.9) p.974

본래는 아담 해와가 서로 최고로 기쁜 가운데서 최고의 생명력이 발휘되고, 최고의 힘이 합하고, 전체의 이상력까지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래서 꽃과 같이 피어 가지고 그 향기가 온 천하를 덮고도 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꽃을 바라보고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스스로 거기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꿈꿨던 것입니다. (뜻적인 자녀지도-188) p.974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되어 서로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아담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될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거(居)하십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聖殿)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54-21, 1972.3.9) p.974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누구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육친의 사랑이 제일 큰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보다 더 크고 깊으며,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인 사랑보다도 깊고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의 서러움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을 체휼하는 참된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들딸이 되어 하나님을 모신 천국을 소유한다면, 그 천국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2-234, 1957.6.2) p.974

부자일신이라는 사랑의 논리권 내에서는,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남편의 것은 아내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중심삼고는 상속권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인연을 맺은 아들딸이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몸도 내 몸이요, 사랑도 내 사랑인 동시에 지으신 모든 것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천하를 점령하겠다는 본성의 욕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분배해 준, 우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의 권한을 이어 주기 위한 선물이었더라 이겁니다. (199-346, 1990.2.21) p.974

Top p.974

② 일체된 생활을 해야 한다

모든 종교에서는 보는 것을 함부로 보지 말고, 듣는 것을 함부로 듣지 말고, 말하는 것이나 대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해야지, 자기 중심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66-231, 1973.5.13) p.975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기쁠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여러분이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고마움 이상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것을 먹을 때나 입을 때, 그리고 슬플 때나 어려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될 수 있는 사연들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17-291, 1967.2.15) p.975

나의 의식과 직관과 감각기관 일체까지도 아버지의 것이요, 내가 느끼고 의식하는 전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관(觀)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심정을 통해 움직이는 하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8-294, 1960.2.14) p.975

인간은 누구라도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된 인간은 바로 심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03) p.975

우리가 말을 하고, 보고, 느끼고, 또 감정적으로 체감(體感)하는 일체(一切)도 하나님을 중심삼고 인연된 것이어야 합니다. (53-239, 1972.2.29) p.975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자나 깨나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컨셉(concept;개념)만 가지면 24시간 사탄이 침범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61-231, 1987.2.15) p.975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마디 말을 하늘 앞에 바치고, 집을 나설 때도 첫걸음을 오른발로 내디디며, 하늘 앞에 바쳐야 합니다. 평소의 습관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시의생활(侍義生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원칙적인 기준에서 생활태도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17-296, 1967.2.15) p.975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느끼는 모든 감각, 동작이 하나의 목적을 중심삼아 언제나 직선상에 귀일(歸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점을 상실하게 되면 뜻과 나와는 관계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57-231, 1972.6.4)

천국은 모시는 생활을 한 것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떠한 자가 가는 곳인가? 주를 믿고 복을 받기 위해 복을 앞세워 나가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시기 위해 심정적으로 준비하는 생활을 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죽는다 해도 모심의 생활을 남기고 기쁘게 갈 수 있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8-304, 1960.2.14) p.976

이제는 삼합(三合;하나님, 참부모, 여러분)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달려 있기에, 삼자가 일치되는 점에서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점에 생명의 부활권이 있습니다. 그점이 하나되고 참부모와 여러분이 하나되어 일치될 수 있는 연결점입니다. 거기서 일심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뜻과 일치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31-321, 1970.6.7) p.976

하루 24 시간의 생활권내에서 내가 보고 듣고 했던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 보고 들은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보고 들어야 되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천상세계의 생활과 연결시켜 생활해야 합니다. (35-284, 1970.10.25) p.976

매일같이 그리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워하든 항상 그리움에 사무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밤 12 시만 되면 '야야! 자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밤과 낮이 없습니다. 심정의 인연을 안고 나올 때는 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293, 1967.2.15) p.976

본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후에는 나 중심삼고 살고, 나 중심삼고 생각하고, 나 중심삼고 사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삼고 사랑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생각이 되고 하나님 중심삼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92-166, 1977.4.3) p.976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연 맺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들였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입니다. (50-288, 1971.11.8) p.976

여러분들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짓는 자리에서 '아버지' 할 때 '오냐 내가 여기 있으니 참아라', 피 땀 흘리는 고통이 사무치는 자리에서 '아버지여!' 할 때 '내가 참았으니 너도 참아라' 하시고, 죽음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있으니 안심해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모셨으며, 얼마나 아버지와 더불어 의논했으며, 얼마나 아버지와 더불어 살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영광의 자리에서는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봐야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버지께서 영광의 날을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102, 1961.2.12) p.976

'아이고, 나 배고파! 아이고, 밥 밥 밥!' 이러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먹겠다고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먹는 것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배고프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밥을 먹자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 그 밥은 거룩한 밥이라는 겁니다. 밥이 밥님이 되는 겁니다. (92-166, 1977.4.3) p.977

Top p.977

2) 모심의 마음가짐과 태도

① 모심으로 생활의 천국화 이룩

하나님은 망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활적인 주체성을 지니고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주인으로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심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공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168-111, 1987.9.13) p.97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인간이 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될 수 있는 기원을 만들지 않고는, 이 악마의 세계를 청산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심의 시대, 시의(侍義)의 구원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모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공중에 동떨어져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권내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144-274, 1986.4.25) p.977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자각합니까? 24 시간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까? 모심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4 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 정도 모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기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물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밥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져요? (33-230, 1970.8.16) p.977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이었지만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시는 데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더불어 모셔야 됩니다. (161-218, 1987.2.15) p.977

모심의 생활을 해야 할 우리입니다. 소망의 천국은 맞이했으나, 모시고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천국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즉 생활적인 면에서 주체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6-226, 1959.5.17) p.977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듣고 모심의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6 천년 동안 인류가 허덕여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민족이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을 놓고도 부모의 심정을 갖고 대하고, 상처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찢기며 나오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8-252, 1960.1.17) p.978

성약시대는 사랑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종교시대에는 사랑을 허락치 않았기 때문에, 고차적인 종교는 결혼을 허락치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96-117, 1978.1.2) p.978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존재이시므로 그 앞에 가까이 가면 천년만년 주관받더라도 더 주관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모심의 도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도 그러한 자리에서 주관받을 수 있으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77-328, 1975.4.30) p.978

믿음의 의니, 행함의 의니, 모심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왜냐? 의롭지 않고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계와 선한 세계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라이처스니스 스탠다드 포인트(righteousness standard point;선의 기준점)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모시는 것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래야 되느냐?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참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생활하는 모심의 환경에 처해 있으면 사탄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탄권 내에 있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의로운 기준이 벌어지면, 사탄은 거기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161-218, 1987.2.15) p.978

행함의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믿음의 신약시대가 지나가고 모심의 성약시대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약시대가 되더라도 행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모심의 생활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소생, 장성이 있고 장성 위에 완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161-218, 1987.2.15) p.978

통일교회에서는 모심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의(侍義), 즉 모심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춘하추동 양복을 해 입는 남자들이 있으면 아버지께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체(體)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정성을 모았다가 한 절기가 되면, 그 모은 정성을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 혼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연보궤에 드리게 되면, 그 정성은 법궤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념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체화(體化)되고 표현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48-328, 1971.9.26) p.978

모심의 생활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78-30, 1975.5.1) p.979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믿기는 뭘 믿어요? 모시고 생활함으로써 다 되는 겁니다. 모시는데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더불어 모셔야 됩니다. (150-213, 1961.4.15) p.979

이제는 개인이면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가정이면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교회면 교회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혹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심의 기준을 어떻게 새로운 전통으로 설정해 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38-12, 1971.1.1) p.979

통일교회시대는 부모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모심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177-157, 1988.5.17) p.979

모심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슬퍼해 나오셨던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슬픈 정성의 사연에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그에 따르는 탕감조건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나온 것이 복귀원리입니다. (17-245, 1967.1.29) p.979

여러분들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심의 생활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78-30, 1975.5.1) p.979

Top p.979

② 법도를 어기면 노여워하신다

하나님을 모시는 데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어길 때에 하나님은 노여워하십니다. (17-287, 1967.2.15) p.979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법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요구하는 천국의 법도를 지키고, 또 천국 법도를 지킬 줄 아는 동시에 천국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생활을 할 줄 아는 동시에 천국의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1-337, 1956.12.30) p.979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항상 감별하면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려 해도 될 수 없고, 하늘의 법도에 어긋나려 해도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런 남자는 아무리 미인이 유혹하더라도 안 넘어갑니다. 거기에 동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297, 1971.2.7) p.97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가정을 탈피하는 불행한 청년 남녀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륜의 법도에 일치된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 가정에 좌정(座定)시킬 수 있는 천지부모가 현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21-155, 1968.11.17) p.980

주체를 위한 대상의 자리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망동입니다. 파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길은 불평을 불허합니다. 감사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은 언제나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주체와 더불어 상관된 운명을 가지고 그를 이탈하는 생활의 법도, 생활의 형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58-310, 1972.6.25) p.980

천리는 순서를 올바로 지키는 데서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 관계에서 하늘은 절대적인 주체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 주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대상이 못됩니다. 절대적인 주체 앞에 절대적인 대상이 되려니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가정에 들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전부 대상과 주체 입장에서 가지고 하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58-310, 1972.6.25) p.980

최후에 남아질 것은 뭐냐? 하나님 플러스 인간, 신인(神人), 신인의 삶의 길, 신인 생활관입니다. 인생관도 마찬가지로 신인 인생관, 신인 세계관 그것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대해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은 본래 떨어져서는 안 될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어야 할 자리, 그 이상의 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신인(神人)이 하나된 생활적인 무대, 세계적인 무대를 요구하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65-127, 1972.11.5) p.980

승리적인 주관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모심의 생활을 중심삼아 일체적인 입장에서 생활해 나가야만 승리적 기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복귀의 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247, 1965.1.1) p.980

Top p.980

3) 참아버님의 하나님 섬기는 법

① 지성감천(至誠感天)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생명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 이상은 무엇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도, 정성을 다하라는 것도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요? 지성의 한계점, 내마음의 끝이 어디겠어요? 생명을 걸고 정성을 들이라는 겁니다. 목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8-242, 1971.1.8) p.981

생명을 내놓는 데는 억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미칠듯이 좋아하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을 바에는 울면서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좋아서 미칠 것 같고,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내놓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겁니까? (48-114, 1971.9.5) p.981

선생님이 마루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기(무릎)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공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미치리만큼 사무친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땅이라면 뭐 하루에 천만 번 왔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을 보낸 겁니다.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정(情)이 가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동삼(冬三)에 솜바지저고리를 전부 다 눈물로 적실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꽂아 놓고 담판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60-212, 1972.8.17) p.981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 광(鑛)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만 아는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가정도 팔아야 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부인을 팔아 수많은 가정을 구한다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자식을 팔아 나라의 수많은 아들딸을 구한다면 그것 또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광산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세계 만방의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 할 때는 부인과 자식을 팔았다고 해서 역사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세계를 살리기 위해 부인이나 자식을 파는 것은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세계가 찬양할 수 있는 보화의 근원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21-314, 1968.12.8) p.981

밥을 먹으나 물을 마시나 앉으나 서나 누구를 대하나 부모님 앞에, 하늘 앞에 온 심정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만점입니다. 지식이나 학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아무개 박사요!'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단 하나의 길은 '지성이면 감천'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78-38, 1975.5.1) p.981

선생님의 일생 모토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대변인이 되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역자(代役者)가 되고, 하나님의 대신 존재가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대사자(代死者)기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9-7, 1960.3.13) p.982

엄청난 역사적인 종말시대에 누구도 신임할 수 없는 고독한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물이 되어 흘러간들 무슨 한이 있고 가루가 되어 날아간들 무슨 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에는 개돼지처럼 죽어가는 무가치한 인생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개도 안 뜯어 먹는 것입니다. (62-140, 1972.9.17) p.982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평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아플까? 그분의 사정을 내가 알고 그분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한 순간이 내 앞에 찾아들어오면 그것을 이어받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위로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짓는 그 자리에 하늘이 같이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울고, 부모님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제단이요, 통일교회의 모심의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114-281, 1981.10.20) p.982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산다고 하였으니, 이제 여러분의 생활 목표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모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수건을 대해 경배해도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머리 숙이는데 그 무엇이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초월하여 심정으로 경배드리면 사탄이 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의 심정을 통해 나가는데는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9-174, 1960.5.8) p.982

Top p.982

② 효자의 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은 배가 고파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염려하는 그 길을 내가 앞놓아 갈 것이냐,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길을 가려고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모심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13-233, 1964.3.22) p.982

선생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면 밤잠이 안 와서 한밤중에라도 뛰어와서 물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심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그렇게 삽니다. 촌분(寸分)도 방심하지 못합니다. (21-68, 1968.9.9) p.982

여러분은 시의시대, 즉 모심의 생활을 하는 시대에 있어서 정확한 중심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데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어길 때에는 하나님은 무척 노여워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에 못이 박혔다 빠졌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여움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님도 선생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17-287, 1967.2.15) p.983

여러분도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헌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삼고 하나님은 찾아가는 겁니다. (128-172, 1983.6.12) p.983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솜바지저고리가 다 젖도록 기도한 적이 몇 번인지 모르고, 칼을 가지고 뱃가죽을 찌르며 맹세한 적이 몇 번인지 모르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마음을 굳게 다짐한 적이 몇천만 번인지 모릅니다. (19-19, 1967.11.5) p.983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사랑하는데는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까, 일시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래요, 죽도록 사랑하지 않을래요? 벼락을 맞아 죽더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면 죽기 전까지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7-25, 1970.12.22) p.983

여러분은 눈이 뭉그러지고 코가 메이도록 울면서 그리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울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큼 사무치게 그리워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있어 사형장에 끌려가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다른 먼 나라로 떠나는 아들의 입장에서 애절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런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50-288, 1971.11.8) p.983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반석을 갈아 밭을 일궈 가지고 감자를 심어 그 감자로 하나님을 봉양할 수 있어요? 그거 해야 합니다. 그 때는 소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소 삼아 밭을 일구었다면 벼락을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아내를 소 삼아서 밭을 일군다 할 때 하나님이 '야야 ! 그만 둬라!' 한다면 하겠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라!' 했으니 하겠어요? 해야 합니다. (37-25, 1970.12.22) p.983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 가든 선생님과 더불어 보조를 맞추어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은 이 머리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는 방향에 보조를 맞추면서 모든 생명을 다 투입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31-320, 1970.6.7) p.983

선생님은 하루하루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3-33, 1971.4.18) p.98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미욱해야 됩니다. 충신들은 어떻게 보면 미욱한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미련해 보입니다. 곰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팔을 잘리고도 '아이구, 여기 덜 잘랐다, 더 잘라라!' 하는, 그와 같은 미욱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곰이나 멧돼지는 총에 맞아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입으로 잘라 버리고 도망갑니다. 죽음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걸리적거리는 것을 잘라 버립니다. 그런 미욱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충신 열사는 미욱해야 합니다. 조금은 어리석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143, 1969.10.19) p.984

하나님을 해방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중심삼고 이상경에서 인류 시조와 함께 무한한 행복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가운데 모심을 받으면서 지내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제안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종교계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불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유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회회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기독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종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176-242, 1988.5.11) p.984

선생님은 지금까지 뜻을 위해 고생해 나왔고, 지금도 자나깨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모셔 보지 못한 사람은 선생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자다가 눈만 뜨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한밤에도 세계에 널려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성으로 같이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못지 않게 박자를 맞춰 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잠을 잘 때에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자식이 고단해서 잠자게 되면 아버지가 지켜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6-138, 1969.10.19) p.984

레버런 문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재간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미욱하게 그저 똑바로만 가는 사람입니다. 아, 입을 좀 다물고 적당히 돌아가면 될텐데, 왜 자꾸 욕먹게끔 작용을 하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아야 한 고개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 버리고 가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리면 곧게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곧은 길을 찾아 오셨기 때문에 곧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97-257, 1978.3.19) p.984

하나님이 그렇게 외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독한 분이시기에 내가 죽는 날까지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을 하나라도 풀어 주고, 그 분야의 한 터전이라도 확대시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나온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복수할 줄 모르고 사랑으로 참아나온 것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분의 뜻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전통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생각하면서 비틀걸음으로 혹은 허리를 꾸부리고 배밀이를 해 가면서 이것만은 남겨야 된다고 하며 싸워 나온 것입니다. (82-47, 1975.12.30) p.985

인간은 자기가 섰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세워 놓아 봤자 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세워 주지 않더라도 하늘이 세워주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155-242, 1965.10.31) p.985

참부모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승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데까지 찾아 들어가서 한을 해원하고, 그 승리권을 지상에 이루는 겁니다. 그러한 참부모가 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35-21, 1992.8.24) p.98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뜻길을 걸어 나오면서 얼마나 심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일생 동안 그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처자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고독단신 외로운 사나이가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협조해서 놀랄만한 실적을 가지고 오늘날 이 사회에 문제를 제시했고, 또 피폐해 가는 이 민주세계의 사상권 내에 새로운 파급을 제시하는 문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82-45, 1975.12.30) p.985

Top p.985

제 2 장
참부모에 대한 모심의 예법

1) 참부모님은 축복가정의 중심

① 참부모님의 아들딸이 되려면

여러분은 이제 참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할아버지 입장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입장이고, 자기들은 장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3 대가 걸쳐 같이 산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하고, 참부모가 나와 같이하고, 자기 부모가 같이하는 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131-97, 1984.4.16) p.986

일체를 부모와 더불어 상관하고, 부모와 더불어 결정하고, 부모와 더불어 의논하고, 부모와 더불어 해결해야 합니다. (44-173, 1971.5.6) p.986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을 때는, 그냥 먹고 입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돌려 드려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우편에는 아버지를, 좌편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24-181, 1969.8.4) p.986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부모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사랑받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나서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고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전부 다 자기가 왱가당댕가당 마음대로 인수해서는 사랑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하고, 선생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통일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으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선생님이 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 길을 걸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49-214, 1971.10.10) p.986

참부모와 여러분들은 일체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영원히 그 관계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71) p.986

여러분은 선생님의 피와 땀의 대가로 사온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의 몸을 주고 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식구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약합시다. (11-164, 1961.7.20) p.987

사탄이 하늘을 배역(背逆)하고 천지의 법도를 그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을 지지하는 천사의 입장에 서서 하늘 앞에 충신의 도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복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앞장세우는 것입니다. (25-203, 1969.10.4) p.98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고 눈물로 갈라진 아담이기 때문에 눈물로 합해야 하고, 눈물로 갈라진 가인과 아벨의 원한을 눈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합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남자들 중에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한 사람 있어요? 이 엉터리들…. 옛날에는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초창기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통일교회에 다니는 부인들이 선생님을 따르니까 남편들이 자기 옆에 안 온다고 야단하고, 이와 반대로 여자들도 남편들이 선생님을 따르니까 자기 옆에 안 온다고 야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도 선생님이 보고 싶으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통일교회 천국시대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실체의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참부모가 그리워서 울어야 합니다. 자꾸만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지어 놓고, 물이라도 한 그릇 떠 놓고 모시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물이 앞설 수 있는 심정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을 중심삼고 심정일치가 되고 선생님과 같이 호흡함으로써 선생님의 인격 기준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선생님의 과거와 거기에 얽힌 사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상속받고 인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8-75, 1971.1.1) p.987

Top p.987

② 참부모님을 얼마나 모셔 봤는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림으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약시대에는 참부모를 모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340, 1968.7.20) p.987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는 타락을 했고, 그 타락권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모심의 생활을 못해본 겁니다. 모심의 내용을 하지 못한 인간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타락의 혈통을 받아 생활했을망정 복귀의 노정을 탕감해 놓고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아담 해와가 모시지 못한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갔다는 조건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150-233, 1961.4.15) p.988

내가 사랑해야 할 만물의 부모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고, 나를 낳아준 부모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고, 영계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지만 선생님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효자의 자격을 대신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105-112, 1979.9.30) p.988

참부모를 멀리 대하게 될 때에는 나라의 국왕이요, 가까이 대할 때는 부모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150-235, 1961.4.15) p.988

여러분은 선생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진정으로 보고 싶어 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사모하였다면, 이 몸뚱이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3-52, 1969.5.11) p.988

밥을 먹을 때에도 '아버님, 먼저 드시옵소서!' 해야 합니다. (11-218, 1961.8.26) p.988

여러분이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그때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아버님을 모실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17-293, 1967.2.15) p.988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선생님 사진 놓고 천번 만번 경배하라는 겁니다. 옛날 재림주를 모시기 위해 준비하던 허호빈씨 단체 같은 데서는 매일 3천 번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해보라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겁니다. 바느질도 올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했습니다. 재봉틀로 하면 불경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부족한 것입니다. (1988.5.15. 본부교회) p.988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이 눈이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렸고, 이 입이 부모님의 해원성사를 얼마나 외쳐 봤으며, 이 손이 얼마나 부모님의 땅에서 피를 흘리고 일해 봤으며,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모님이 원하는 터전 위에서 일해 왔느뇨?

'그것을 못한 것이 한입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요, 그 길에서 하늘과 더불어 인연을 맺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누가 지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모뿐이요,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도 부모뿐이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부모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부모의 소망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748) p.988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일체로 생각하고, 부모님을 일체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 내가 산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참부모의 것이요, 참부모의 것은 참부모의 나라의 것이요, 참부모의 나라의 것이 되면 내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참부모의 것이요, 이 집도 참부모의 것이요, 나라도 세계도 참부모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참부모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161-231, 1987.2.15) p.989

선생님 드린다고 집에서 쑥떡을 만들어 그 떡이 더러움 탈까봐 풀지도 않고 본부까지 와서 보란 듯이 풀어 보니, 떡이 쉬어 시퍼런 곰팡이가 슬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떡에 시퍼런 곰팡이가 피고 구더기가 생겨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먹지는 못해도 억천만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록 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33-113, 1970.8.9) p.989

사랑은 우둔하고 미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옆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것을 의식하는 사랑은 한계권 내의 사랑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경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직하고 미욱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두메산골에서 캔 도라지를 선생님 앞에 가져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영계에 가면 그를 해방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33-113, 1970.8.9) p.989

여러분은 선생님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내가 당한 것같이 느껴지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억울해 하고, 분해 하고, 이렇게 동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동감시키게 하기 위한 재료가 선생님의 고생입니다. (38-101, 1970.8.29) p.989

선생님을 알았다고 하지 말라. 선생님은 원리밖에 모른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사람만을 안다. (뜻길 · 말씀의 장) p.989

선생님이 한 석 달 동안만 매일같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지겨워!' 하면서 싫어할 것입니다. 안그러겠다는 사람 손들어 봐요? 선생님이 이런 저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트이겠습니까? 기가 막힌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자기 위신도 모르고 처신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26-299, 1969.11.10) p.989

선생님이 살아 있을 때에는 선생님의 역사를 안 쓰지만, 선생님이 죽은 다음에는 선생님의 역사를 쓸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원리에 공인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리적 내용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몽땅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는 어렵다는 겁니다. (33-167, 1970.8.11) p.989

Top p.989

2)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자

① 참부모님은 인류 전체의 소망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가 뭐냐?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종적인 사랑이 되고,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뼈와 같고, 아담 해와는 몸과 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자리에서 내적인 부모가 되고 아담 해와는 외적인 자리에서 외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적 외적 부모가 하나된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엮어져 내적 부모를 모시게 되고 외적 부모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결탁에 의해 참부모, 즉, 완성한 인간이 성사될 것이었다 이겁니다. 사랑과 결탁 안 되게 되면 완성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184-71, 1988.11.13) p.990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세계의 뿌리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릇된 생명을 돌이켜 놓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왜 나와야 되느냐? 사탄세계는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987.10.4. 본부교회) p.990

여러분은 참부모의 진짜 아들딸입니까? 참자녀는 무엇을 중심삼고 말하는 거예요? 참혈통입니다. 물론 참사랑을 통해 인연되지만 이루어지기는 참혈통을 통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혈통을 통해 연결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선생님을 닮았어요?

여러분의 눈은 새파랗고 나는 새까맣고 머리카락도 다릅니다. 머리카락이 전부 하얗습니다. 나는 동양사람이고 얼굴이 판판합니다. 닮는 데에 있어서는 제일 골자만 닮습니다. 골자만 닮는데 뭘 닮느냐 하면, 사탄을 이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것만 닮습니다. 그것만 닮는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탄을 주관하여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1987.11.8. 본부교회) p.990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근본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탄세계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랑이 물든 자리에서 사랑하면 안됩니다. 그 이상이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세계에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 처자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네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네 에미나 애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한 겁니다. 전부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끌고 가는 힘을 누르고 넘어가려니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1988.6.1. 본부교회) p.990

참부모란 어떠한 존재냐? 참부모는 모든 전체의 소망의 상징입니다. 타락한 인류 앞에 절대적인 소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결실체요, 시대적인 중심이요, 50억 인류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계 국가권의 중심입니다. 참부모는 앞으로의 이상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미래선상에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35-237, 1970.10.19) p.991

만민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계 국가를 맞기 전에 참부모를 맞이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싶어하느냐? 여러분의 새로운 아들딸은 여러분의 핏줄을 통해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님의 핏줄을 통해 태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35-237, 1970.10.19) p.99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면, 이 말세 시대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심정적이며 종적으로 복귀된 완성된 사나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 또다시 나타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완성된 아담을 대신하고 완성된 해와를 대신하는 중심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35-237)

성약시대는 하나님 자체가 참부모의 모습을 하고 만민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통일교회가 정치에 의한 어떠한 힘을 투입하더라도 주관당하지 않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감각을 가지고 체휼할 수 있는 권내에서 체험을 거듭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79) p.991

인간의 소원은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길을 가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시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후손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부모를 만난다면 역사를 찾는 것이요, 시대를 찾는 것이요,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참부모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35-237, 1970.10.19) p.991

참부모라는 그 이름 세 자를 생각할 때, 참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치리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원이 생겨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이 결정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외적인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해원성사해 드릴 수 있는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와 더불어 살고, 참부모의 명령을 받들어 행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에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43-144, 1971.4.29) p.991

여러분이 참부모와 완전히 하나될 때 국가가 있는 것이요, 종족도 있는 것이요, 민족도 있는 것이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영광의 가치를 종합한 실체 기준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를 세상의 돈과 바꾸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참부모를 모시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도, 천세 만세의 후손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30-237, 1970.3.23) p.992

모든 것은 어디에 귀결되느냐? 참부모를 만나는 데 귀결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소원이요, 국가의 소원이요, 섭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부모가 나타나는 때는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정점을 이루는 때요, 전무후무한 때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두고 보면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숨 한 번 쉬는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05) p.992

Top p.992

② 가정마다 참부모님 존영 모시기

오늘 이후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해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의 바로왕으로부터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적기사를 행할 때, 장자가 환난을 당해 병들어 죽었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한 집은 그 환난이 모두 피해 갔던 것입니다. 영계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동을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130-290, 1984.2.7) p.992

문총재가 유명합니다. 나라를 위한 애국자란 말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한 공적에는 천하가 다 머리 숙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건 이상 저분 앞에 있어서는 부처끼리 싸움 함부로 못해!' 하고, 아들딸 앞에도 '야야, 저 문선생 앞에선 안돼!' 하게 된다면 그거 나쁠 게 뭐 있어요? 자기 부모 사진 이상 모심으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조상들이 와서 조상으로 모시는 겁니다. 또한 조상들이 와서 그 집을 모실 수 있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천상세계에서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새로 3시가 되면 자기들은 자지만 전부 일가 주변에 삿(邪)된 악마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입니다. (1991. 8. 25. 본부교회) p.992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 화를 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계는 선생님 사진을 암만 포켓에 넣어 두었더라도 압니다. 이렇게 작은 조건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2-190, 1984.6.1) p.992

선생님의 미소는 모나리자 미소만큼이나 신비한 데가 있다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떤 때에는 이렇고, 또 어떤 때에는 저렇고. 수십만 가지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 신비로운 모습이 영계가 여러분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경험을 대부분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계의 영인들은 다 선생님을 잘 아는데, 이 사진을 보면 영계가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재료로 알기 바랍니다. (132-190, 1984.6.1) p.993

이제 레버런 문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도처에 있는 위정자들 가운데는 서재에 레버런 문의 사진을 걸어 놓고 추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윤박사도 내 사진 갖다 걸었나? 매일 인사 하나? 매일 키스해?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키스해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키스를 해줌으로 영계에 간 사람들이 내가 키스하는 바람에 동참권, 동위권을 갖게끔 하기 위해 이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냐, 네 말이 맞다!'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윤세원? 그래 보시지. (171-239, 1988.1.1) p.993

부모님 사진 붙이고 통일교회 깃발만 달면 그것은 하늘나라 권속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권속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깃발 다는 것 저주하다가 벼락 맞은 사람 많잖아. 참 신기하지. 선생님을 손가락질하다 손에 병나 가지고 며칠밤 기도하고 회개하고야 낫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왜? 천운이 찾아오는데 개인 운세로 막을 수 없습니다. 숙명적인 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통일교회 기(旗)를 바라봐 가지고 갈 적마다 경배하고 올 적마다 경배하고 사진보고 갈 적마다 경배하고 올 적마다 경배하면 산다는 겁니다. (1991.8.25. 본부교회) p.993

통일깃발을 다는 것은 지나가던 교인들이 배가 고프거든 여기 들어와서 쉬라는 표시이고, 점심때면 점심이라도 먹고 가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방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부모님이 안 오니 손님을 부모님 대신 모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상은 하늘의 최고의 기준 앞에 평준화 사상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손님을 하나님같이, 부모님같이 모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169-220, 1987.10.31) p.993

Top p.993

3) 참부모님 모시는데도 법도가 있다

① 시의시대의 법은 최고의 법

여러분들이 거동하는 것, 앉는 것, 모든 것이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을 대할 때의 인사법 같은 것도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대할 때의 인사법, 그거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안 그렇겠어요? 사회에도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럴 거 아니예요? (66-267, 1973.5.16) p.99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까지의 인륜 도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는 유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삼강오륜의 초석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으나 이것이 역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관습이나 규범 등이 자연적으로 바뀌어지는 기세가 사회환경에, 생활환경에 침투해 들어오는 날이 끝날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 위에 나타난다 할진대 그분은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11-19, 1960.12.11) p.994

타락한 습관에 대한 모든 것을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법적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66-299, 1973.5.16) p.994

한국의 예법에 어른으로부터 뭘 받을 때에는 양손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수평이 돼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는 것은 수직을 통해 90 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심(人心)은 천심(天心)이라 하지요? 우리의 모든 규례는 양심의 도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빚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평이 돼야 됩니다. (171-236, 1988.1.1) p.994

또 길을 가더라도 동양사상은 어른이 먼저 서야 됩니다. 왜?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게 환경을 맞추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사람은 나중에 서고, 높은 것은 높은 것으로, 낮으면 낮은 것으로, 앞의 것은 앞의 것으로, 뒤의 것은 뒤의 것으로, 위의 것은 위의 것으로서 전후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불변하는 겁니다. (168-252, 1987.9.27) p.994

한 나라의 군왕과 신하 사이에도 매일 아침 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가정을 보면, 아침에 부모가 일어나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 한국의 법도가 아니예요? 여러분은 역사시대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법 중의 법, 효도하는 법이면 효도하는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도를 세워야 하고 , 국가에 있어서도 최고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31-275, 1970.6.4) p.994

세상에는 부모가 죽어 3 년상을 치를 때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영좌(靈座)에 고(告)하여 인사하는 법도가 있지 않으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뜻적으로 볼 때 하늘의 격식(格式)에 딱 맞춘 생활이냐? 어림없다는 것입니다. (31-275, 1970.6.4) p.994

가정의 전통을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은 선생님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매일 아침 목욕재계하고 10 리 밖에서 걸어와 선생님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이런 전통을 세우지 못하면 자기의 후손들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21-88, 1968.11.3) p.995

통일교인들 중에 선생님이 가끔 영화 구경간다고 '우리들도 영화 보러 가야지.' 합니다. 천만에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극장 앞에 돌아다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훈련을 거쳐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자주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내가 지방에 갔는데 어떤 녀석이 내가 반말을 한다고…. 이런 시시껄렁한 패들이 있습니다. 내가 반말 할 때까지는 어린 삼척동자까지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심의 생활을 했던 몸입니다. 뜻을 알고 나면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경어를 쓰면 거북해서 얼굴을 들고 말을 못합니다. 깍듯이 대해 줘보라고요, 얼마나 거북한가? (57-277, 1972.6.4) p.995

Top p.995

② 인간이 귀한 것은 인륜도덕 때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로마법이 현재 세계법의 기초가 되고 있지만, 인륜도덕은 어디까지나 양심을 근거로 합니다. 법보다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기초는 선(善)입니다. 선을 표준하는 것입니다. 선을 벗어나서 잘못될 때는 양심이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해 갑니다. 그리고 양심에 일치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체제를 형성하려니 법령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인륜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천륜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33-44, 1970.8.2) p.995

인륜은 무엇을 통해 형성되느냐 하면, 정(情)을 통해 형성됩니다. 가족 관계라든가, 도덕관념이라든가 사회제도라든가 질서라는 것은 전부 다 정서적인 면입니다. 정을 먼저 느낀 그것이 오래 됐든가, 차원이 높든가 하면 거기에 머리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륜 형성의 동기는 정(情)에서부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인륜은 시작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 참다운 인간관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64-124, 1972.10.29) p.995

여러분은 부모를 좋아하고 필요로 합니다. 언제나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건 왜, 무엇 때문에? 연령으로 봐도 차이가 있고, 질서적 단계를 봐도 상하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예(禮)를 갖춰 존경하고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회생활의 인륜 도덕적인 내용을 갖춰 상하관계에 있어서 하나는 주체요 하나는 대상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효자가 되려면 순종이나 복종이란 내용을 개재시켜 가지고 내가 만나고 싶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관계입니다. (112-251, 1981.4.19) p.995

인간이 귀한 것은 인륜도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륜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두고는 인륜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인륜이란 말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정에서부터 사회의 윤리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윤리는 인간관계의 도리요, 법칙입니다. (136-208, 1985.12.29) p.996

우주의 일월성신의 창조의 법칙, 즉 천도에 의해 종적질서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가정에 있어서도 조부모 · 부모 · 자녀로 이루어지는 종적 질서와 형제 자매로 이루어지는 횡적 질서의 체계가 세워지는 동시에, 상응하는 가치관, 즉 규범이 성립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122-304, 1982.11.25) p.996

우리는 초민족적, 초국가적인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전통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전통의 상대적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성이나 과거의 풍습, 현재 성행하는 유행이라든가 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보면 모든 전체가 하모니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색한 데가 없게끔 자연스러우면서도 전부 다 화합하는 데에서 그것이 하나의 자극적인 동기가 될 수 있게 돼 있지, 그렇게 보기 싫은 데 주목하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66-299, 1973.5.16) p.996

Top p.996

제 3 장
예배와 교회 생활예절

1)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① 교회는 말씀, 인격을 종합하는 곳

교회가 가야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가지신 창조이상은 나라를 중심삼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할 목적지는 그 나라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86-12, 목회자의 길-242) p.99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앞으로 교회시대는 지나갑니다. 인류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타락권내에서 복귀의 운명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때를 맞게 되면 교회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교회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 확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민족, 또는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가 하지 못하는 개척자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28-222, 1970.1.11) p.997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의 본거지입니다. 그런고로 탕감조건을 성립시키는 매개체요,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종합하는 곳이 됩니다. (20-314, 목회자의 길-238) p.997

교회는 천지를 연결하는 지성소입니다. 교회는 세계로 가는 문호이며, 모든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인연을 갖게 하며, 국가 존망의 영적 지주가 됩니다. 교회는 영적 생활의 원천으로써 매일 매일 생활의 힘을 보급해 줍니다. (20-314, 목회자의 길-238) p.997

가정에 충성하기 전에 교회에 충성하고, 사회에 충성하기 전에 교회에 충성해야 원칙입니다. 교회가 주체요 가정과 사회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서느냐? 주체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체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상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어서 360 도 회전이 되어야 하지만, 주체는 중심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내의 자리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중심이 둘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왔다갔다하면 망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25-162, 1969.9.30) p.997

기독교인들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천번 만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기가 무섭게 싸움을 합니다. 교회란 죄 지은 후에 회개하는 회개당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한 번 지은 죄는 용서하지 못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또, 사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회개했을 것입니다. 천번 만번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19-161, 1968.1.1) p.998

교회가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고 둘에서 넷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세 번만 갈라지면 하나님은 떠납니다. 천리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모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가정적으로 모입니다. 교회에 안 갑니다. 가정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나 안되나 두고 보라구요. (9-266, 1960.6.5) p.998

통일교회의 목적이 뭐냐? 인류를 대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메시아하고 지구성에서 춤을 추고 사탄까지도 다 복받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길이니 얼마나 위대해요? 그곳까지 가자는 게 통일교회입니다. 자, 말을 들어 보니까 통일교회가 어떻고, 이단이고, 무슨 사교고 하지만, 우리는 콧방귀도 안 뀝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길 가는데 동네 개가 짖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80-285, 1975.11.2) p.998

끝날인 이 시대에 통일교회가 하여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뇨? 인류의 소원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뇨? 인류의 사정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뇨? 인간들의 심정이 무엇이뇨?'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런 세계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천 사람 만 사람 다 교육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 이념권내의 세계는 통일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151-209, 1962.12.15) p.998

Top p.998

② 교회는 가정의 연장이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딸 때문에 교회에 간다. 혹은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에 간다.' 하는 자들은 다 못 넘어 갑니다. 누구 때문에 가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찾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8-162, 1959.12.6) p.998

공적인 교회는 자기의 집보다 더 귀합니다. (15-271, 1965.10.24) p.998

교회를 통해 천국은 연결됩니다. 가정은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고로 교회는 가정이 승리할 기반이며, 가법(家法)을 결실시키는 곳이며, 인격을 인정받는 곳이며, 천국생활의 훈련장이 됩니다. (21-350, 목회자의 길-238) p.998

'얼굴이 잘 생기고 젊은 사람이라야 전도한다.' 천만에요. 교회라는 것은 가정의 연장입니다. 가정의 연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주머니가 있어야 되고, 아저씨가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 전부 다 젊은 사람만 있다면 이것은 병폐입니다. 이걸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윗사람을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 대신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이고, 자기와 아들딸까지 4 단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나, 이렇게 되면 단계로 보면 3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운명권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부부, 아들딸, 이것이 3 단계를 줄을 넷 그어야 세 단계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7 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묶지 않고는 3 단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묶지 않으면 전부 다 제멋대로 엇갈리는데…. 3 단계가 나오려면 이걸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149, 1974.2.9) p.999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의 공인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관념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교회에 모여 집회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 집회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뜻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희박해지는 겁니다.

내적으로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외적 기준도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22-36, 1969.1.19) p.999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생활은 잘 하는데 사회생활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생활은 잘 하는데 교회생활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생활은 잘 하지만 교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갖출 수 있는 요인과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생활은 잘 하지만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과, 사회생활은 잘 하지만 교회생활을 못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으냐 할 때, 교회생활 잘 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결실의 요인을 갖춘 사람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지만, 결실의 요인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결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36-20, 1970.11.8) p.999

여러분은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딸인 것을 증거하고,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딸인 것을 증거하고,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딸인 것을 증거하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 세워야만 합니다. 이 기준을 찾아 세우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3-40, 1957.9.15) p.999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삼각권(三角圈)을 중심삼고 볼 때, 여러분은 가정을 중심한 생각이 강합니까, 교회를 중심한 생각이 강합니까? 아니면 사회를 중심하고 자기 출세하기 위한 생각이 강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강한 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협조해 주고 동정해 주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42-169, 1971.3.4) p.100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단적인 교회생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전체적인 이념이나 제도를 통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관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9-8, 1960.3.13) p.1000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온 사회생활 전체와 교회를 중심삼고 생활한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내적이냐 하면 교회생활이 내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적 생활의 가치기준을 세워 나왔느냐? 혹자는 뜻을 중심삼고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뜻이 될 것이다.'라며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22-38, 1969.1.19) p.1000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더라도 웃으면서 보내라는 겁니다. 절대 먹는 것 가지고 인색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통일교인이 아닌데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누가 밥을 먹느냐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팔도강산의 그 누구도, 통일교인은 물론이요 통일교인이 아닌 누구라도 여기에 와서 밥을 먹고 갔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애기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다 죽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하늘의 운동이 뭐냐 하면, 극과 극을 포섭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냐는 겁니다. 애들과 하나되려고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와서 놀다가 밥을 먹고도 가고, 이래 놓으면 그곳은 흥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구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한테 미쳐 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자기집 좋은 뜨락, 청마루, 고래등 같은 집을 남겨 놓고 교회 대청마루에 와서 자겠다고 하게 되면 그곳, 그 단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흥청흥청 흥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60-158, 1972.8.17) p.1000

할머니가 찾아와서 '여기 교회장 있소?' 할 때, 바라보면서 '없어요, 없어!' 하면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장 어디 갔어요?' 할 때 '왜 그래요, 할머니? 나이 많은 할머니는 필요 없어요.' 이래 보라구요. 하나님이 볼 때에 '그놈의 자식, 너는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봉양해야 효자입니다. (56-38, 1972.5.10)

Top p.1001

2)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외의식

① 예배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찾고 인류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켜 온 것은, 이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나 자신이 승화돼 가지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즉 구원의 목적을 가중시키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나의 구원의 길을 촉진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전체를 구원하고, 앞으로 하나님 섭리의 나라와 세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책임 높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69-240, 1961.6.24) p.1001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기 과거를 하나님께 속죄해야 합니다. 고로 예배시간은 자유가 없는 시간입니다. (11-163, 1961.6.24) p.1001

예배시간은 밀려오는 사탄의 어떠한 권한도 막아내고 아버지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6-263, 1959.6.7) p.1001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원수와 일격전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자리입니다. (9-296, 1960.6.12) p.100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배시간에 일찍 온 만큼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바친 시간이기 때문에 천금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늦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는 제시간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면목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제보다 나은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늦게 오면 기도할 때 눈을 꿈벅꿈벅거리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처량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36-125, 1970.11.22) p.1001

하나님을 찾아 나가 모시는 자리에 예복을 안 입고 참석할 수 있습니까? 겉모양의 예복이 아닙니다. 심정의 예복입니다.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 말씀과 더불어 찬송과 더불어 감격된 심정이 흘러 나온다면 하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추방될 때 눈물 흘리며 쫓겨났지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웃는 얼굴로 하나님과 상봉해야 합니다. 슬픔의 눈물도 흘려 보지 못한 자가 기쁨의 눈물부터 흘리면 안 됩니다. (9-296, 1960.6.12) p.1001

예배시간을 위해 사흘 전부터 마음을 조여가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만민의 행복을 빌어주고 만민이 소생할 수 있는 부활의 권한과 생명의 인연을 연결시키겠다고 몸부림치며 교회문을 들어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메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텐데 여러분은 오히려 장돌뱅이보다 더 뻔뻔스럽다는 것입니다. (20-284, 1968.7.7) p.1002

주일날 예배 때에는 목욕재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성지에 찾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찾아드는 사람이 없을망정 하나님이 그 부락을 굽어살피고 동역할 수 있는 심정적인 터전을 닦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하시니 절대로 외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3년이상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였는데도 그 동네에서 찾는 자가 없다면 그 동네는 망하는 것입니다. (17-293, 1967.2.15) p.1002

예배에 오더라도 그저 생각없이 오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하고, 하루 이틀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클수록 하늘이 자기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남편을 하루종일 생각하다가 보이는 얼굴로, 입으로 웃게 될 때 영광의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웃는 얼굴은 남편을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228-84, 1992.3.15) p.1002

앞으로는 예배드리는 것도 설교 형식이 아니라 보고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그 가정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전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한 가정을 보고는 본을 받고, 못한 가정을 보고는 잘되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먼저 이루지 못하면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3-62, 1969.5.11) p.1002

먼저 교회생활에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예배시간을 엄수해야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시간에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1-269, 1970.6.4) p.1002

하늘 앞에 나아가는데 약속은 절대적으로 엄수해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사람은 가다가 말아 버립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대로 지도하겠습니다. 싫으면 그만두세요. 누가 망하나 보잔 말입니다.
주일날 공적 집회 출석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출석에 자녀들이 부러워서 따라오고 싶도록 부부가 정답게 같이 와야 합니다. 10시 이전에 교회에 와서 주일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보 1-3) p.100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배시간은 사탄과 싸움하는 때입니다. 단독 결판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서 되겠어요? 그런 자가 있으면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셨듯이, '옆구리에 한방 때려 넣어라.'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예배 때 자는 자가 있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15-121, 1965.10.3) p.1003

정성들여야 할 사람들이 예배시간에 늦게 오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남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도 안 지키면서 '오! 하늘이시여!' 할 수 있어요? 정성은 남이 알게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정성을 들이려면 차를 타고 올 것이 아니라 걸어와야 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와서 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성은 이렇게 들이는 것입니다. (42-235, 1971.3.14) p.1003

하늘은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는 사람을 대해 주십니다. 아무나 막 찾아가서 대해 주시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은 절대로 엄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간을 어기면 앞에 세워 놓고 창피를 줄 겁니다. (11-133, 1961.3.26) p.1003

원래는 예배 시간이 넘으면 문을 잠가버려야 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모아 놓고 어느 기준까지 끌어 올리려니 두 시간 세 시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늘 앞에 기도하고 각오했던 심정적인 기준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132, 1961.3.26) p.1003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못 맞추면 망하는 겁니다. 때를 못 찾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성별된 환경을 요구하고 성별된 마음을 요구하는데, 시간도 못지켜 가지고 뒤꽁무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런 찬송 원치 않으십니다. (11-132, 1961.3.26) p.1003

공식적인 예배시간은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발전합니다. (31-268, 1970.6.4) p.1003

Top p.1003

② 밤예배, 새벽집회, 철야정성

밤예배에 주력하라. (10-249, 1960.10.21) p.1003

토요일 밤엔 교회에서 철야를 해야 한다. (17-347, 1967.5.11) p.1003

앞으로 집회는 밤에 많이 할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선 간절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11-247, 1961.11.1) p.1003

밤예배는 전도를 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위신이 안 섭니다. 예배 시간에는 인도자보다 먼저 와 있어야 합니다. (10-250, 1960.10.21) p.1003

남 잘 때 실컷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편안히 와 앉아 가지고 예배보면 좋을 텐데 왜 새벽같이 예배봐? 왜 새벽같이 예배보겠어요? 남과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어떠한 종교 집단이나 신앙자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84-194, 1976.2.29) p.1004

내가 새벽 세 시에 모아 놓고 일년이고 몇년이고 전통을 세워 잠을 재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편안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세계에서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새로운 부흥이 벌어져 거기에 자만하고 도취하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51-280, 1971.11.28) p.1004

낮에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일은 밤에 해야 됩니다. 밤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르쳐 줘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왔던 사람이 안 올 수 없어서 집에서 도망을 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동기가 없는데 결과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하라는 겁니다. (97-196, 1978.3.15) p.1004

열두 시가 넘어 첫닭이 우는 소리 들을 때까지 말씀을 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조용하고 고요한 밤에 동네의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명한 햇빛을 찾아 새로운 인생 길을 타개하고 가는 것과 같고, 등대빛을 찾아 새로이 항해하는 선장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주위가 온통 신비로 꽉찬 세계를 혼자 가는 듯한 용감한 모습, 씩씩한 모습, 장엄한 모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적인 유대를 가지려면 밤 시간을 중심삼고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밤이나 새벽에 이러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29-196, 1970.2.28) p.1004

밤, 깊은 밤은 신비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를 할 때 낮에 부흥회를 하는 것보다 밤에 부흥회 하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시청각은 오관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이 전부 분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집중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포위해 나를 두드러지게 하고, 그런 권내에 내가 자동적으로 서기 때문에 밤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 역사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196, 1970.2.28) p.1004

새벽에 일어나면 나의 하루 생활이 아버지 앞에 감사의 실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꽃이 피어 있는 봄동산처럼 자유스런 동산에서 아버지께 나를 세워 섭리하실 수 있는 소망의 결실체가 되겠다고 하고, 낮이 되어 일터에 나가면 소망의 결실체가 자라나는 여름절기와 같이 한 발 더 발전하여 하나님께서 같이하는 가치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해야겠습니다.

또 저녁이면 모든 전체를 집약시켜 하나의 결심을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는 가을절기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제물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겠다고 하고, 겨울절기에 해당하는 밤이면 생명력을 지녀서 하나님과 내재적(內在的)인 부자의 기원을 맺어 모든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1년 365일을 승리의 날로 만들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사는 생활이 보람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9-340, 1970.3.14) p.1005

여러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밤새워 말씀을 듣고 말씀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97-209, 목회자의 길-150) p.1005

뭐 잠자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오늘은 못 잤으니 내일은 더 많이 자야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요? '주일 아침은 금식이니 토요일 밤에 밥을 더 많이 먹자.' 그렇게 하는 금식은 하나마나입니다.

오히려 금식을 안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전날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배가 더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어 위를 늘렸다가 별안간 확 비우게 되니 배가 더 고프지 별 수 있어요? (44-161, 1971.5.6) p.1005

Top p.1005

3) 교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

① 교역자는 공적(公的)이어야 한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 사람 이상을 거느리는 사람은 영계의 감정을 받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18-223, 1967.6.9) p.1005

자신을 갖고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 앞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어떻게 갖고 나서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심정만 통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좋게 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0-170, 1974.2.9) p.1005

참목자는 자기가 참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모든 만상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나아갈 뿐이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3-210, 1957.11.1) p.1005

공적인 일을 위해 피곤한 줄 모르고 뛰다 언제 자는지 모르게 축 늘어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얼마나 거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야, 하늘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어저께는 세 시간밖에 못 잤으니 오늘은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은 자야 할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온 몸이 천근 만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4-160, 1971.5.6) p.1006

책임자는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눕는 게 아닙니다. 다 뉘어 놓고 누워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맨 나중까지 해야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서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 책임자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라고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33-169, 1970.8.11) p.1006

선생님은 정성 들이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도해 나오면서 두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잘났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에는 얼굴이 잘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사적이냐 보다 공적이냐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31-260, 1970.6.4) p.1006

아침에 첫발을 내디딜 때에도 공적인 발걸음인지 사적인 발걸음인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끝내고 자리에 누울 때 공적인 하루를 보냈는지 사적인 하루를 보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혹은 일년을 중심삼고 공적인 생활을 했는지 사적인 생활을 했는지, 일생을 중심삼고 공적이었는지 사적이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39-76, 1971.1.9) p.1006

공직에 있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있는 정성을 다 했지만 행여 뜻 앞에 실수를 해 나로 말미암아 천년 공적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심정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46-55, 1971.7.18) p.1006

지나가는 세월과 더불어 흘러가선 안 됩니다. 새로운 날을 준비해 전진하는 무리가 되지 못하면 광야에서 독수리 밥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개척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척자는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내일을 향한 소망 앞에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1986.5.6) p.1006

일단 책임을 지고 나면 다음에는 전투요 투쟁입니다. 네가 꺾이느냐, 내가 꺾이느냐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일대에 적어도 반대 입장에 있는 세 사람 이상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는 터전을 다져야 됩니다. (14-13, 1964.4.19) p.1006

여러분은 우선 이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엔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미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이 미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천을 해서 다져진 기반은, 뿌리를 단단히 박고 이룬 터전은 그 이상의 힘을 가하고, 그 이상의 신념을 가하기 전에는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19-39, 1967.12.24) p.100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책임을 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생명과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해결점이 생기게 됩니다. (19-142, 1968.1.1) p.1007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다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일체의 모든 마음, 지극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 하늘이 봐도 그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다 못했더라도 일한 가치 이상을 하늘은 보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56-33, 1972.5.10) p.1007

교회장은 그 지방의 제사장입니다. 잠을 못 자면서도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뭇사람을 살려 주기 위해 제물(祭物)을 다루어야 하니 정성들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제사에는 실체(교회장)와 주인(하나님)이 하나(一體)되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9-80, 1960.4.12) p.1007

제사는 누가 관리하느냐?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제사는 객(客)이 관리해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회합 자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발전을 못합니다.

제물 앞에 선 제객(祭客)들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이 천법(天法)입니다. 그 제단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오늘 이 제단 앞에 나는 정열과 모든 힘과 노력을 다 바친다 하게 될 때에는, 자기 일생에 없는 성심성의를 다해 가지고 입을 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60-347, 1972.8.18) p.1007

제물은 심각한 자리에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진탕 먹고 웃고 춤추며 살다가 무덤에 가면 복이 될 게 뭐 있어요? 그런 사람의 무덤에는 풀이 날 뿐이겠지만,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의 무덤에는 그 나라가 살아 있는 한 꽃이 필 것입니다. (46-347, 1971.8.17) p.1007

통일교회 선생 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같이 죄수의 옷을 입고 형장길을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지만,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형무소 생활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를 것입니다. 호화스러운 집에 살고 있지만 내가 그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초막에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초막에도 살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습니다. 옷을 벗어 쥐고 노동판에 가면 일등 노동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붙들고, 환경을 전부 다 수습해 가지고 거기에서 눈물을 짓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심정적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85-43, 1976.3.2) p.1007

Top p.1007

② 식구 지도는 정성으로

교인(식구) 그리워하기를 첫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1981.11.19) p.1007

핵심요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정성을 들여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3 일간만 정성들인다면 그 사람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은혜의 인연을 맺습니다. 시간이 늦어 피전도자가 돌아가게 되더라도 전도자가 오히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 영계에서 협조해 줍니다. (23-249, 1969.5) p.1008

먼저 자기 자신이 뜻에 취해야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23-249, 1969.5) p.1008

선생님이 식구를 기르기 위해 천신만고(千辛萬苦)하던 놀음을 여러분도 하라는 것입니다. 밤에 온 손님이 있거든 무릎 꿇고 하늘의 복을 빌어 주고, 낮에 온 손님에 대해서는 안방으로 초대해 자기 친척보다 더 반가운 손님으로 대해 주고, '우리 집은 이런 집이다.' 하는 가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풍을 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겠어요? 다른 사람 대접하는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교역자 밥을 굶기겠어요? 교역자에게 밥을 굶기고 복받겠다는 녀석들은 입에 모래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0-308, 1972.8.18) p.1008

밤을 새워 가며 이야기해도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밤 12 시가 넘어 새벽 2 시, 3 시가 되었는데 '가면 좋겠다. 좀 자야 할텐데 …' 이런 마음 있으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새벽 3 시, 4 시가 되더라도 '안 갔으면 좋겠다. 시계가 멎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인연되었다가 가면 영(靈)은 압니다. 영(靈)은 미안해서 밥을 먹자마자 궁둥이가 돌아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56-51, 1972.5.10) p.1008

누구를 만나도 만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늘을 중심삼고 만난 사람이면 절대 그 인연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버리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도 그 사람과 맺었던 인연만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42-162, 1971.3.4) p.1008

식구가 떨어져 나갔다고 낙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것은 한 식구가 나가면 그 사람과 성격도, 말하는 것도, 걸음걸이까지도 비슷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신기할 정도로 나간 그 사람과 너무도 닮은 사람이면서도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성들인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42-162, 1971.3.4) p.1008

만일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을 당장에 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것이 있더라도 그 나쁜 것을 좋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면서, 나쁜 것을 보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만일에 1 년 전에 잘못된 것을 보고 잘라버렸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었겠지만, 1 년, 2 년, 3 년 잘라버리지 않고 보류해 두어 그것을 가외로 생각하면서 처리하게 된다면 1 년, 2 년, 3 년 이후에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72-313, 1974.7.14) p.1009

새로 들어온 식구를 사랑하면 탕감조건을 빨리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은 식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18-40, 1967.5.15) p.1009

교회 초창기 때 한국에서 식구 기를 때에는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일대일(一對一) 작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강의할 때 백 사람, 천 사람 놓고 강의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수천, 수만 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들여 그럴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96-284, 1978.2.13) p.1009

여러분은 흠모의 심정을 지닌 식구들을 얼마나 만났어요? 선생님은 그런 사람 수두룩하게 만났어요. 땅 끝에서 찾아와 선생님께 경배하잖아요! 그건 왜? 선생님이 땅끝까지 사랑의 심정적 줄을 던졌기 때문에, 벌써 전기를 통해 봤기 때문에 방향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171-30, 1987.12.5) p.1009

지도자가 되려면 진정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의 심령 상태가 저하될 때에는 밤이나 낮이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더불어 눈물을 흘리면서 심령을 치료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 봤느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바쁜 걸음을 해 봤느냐? 그런 것이 앞으로 영계에 가면 표창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인격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69-165, 1973.10.31) p.1009

Top p.100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③ 남녀 문제와 공금에 엄격해야 한다

남녀 문제에서 잘못되면 앞으로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보다도 하늘이 원치를 않습니다. 타락이 뭐예요? 성문제를 자아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남자에게 있어 제일 문제가 의식주 문제, 성욕, 그 다음에는 물질에 대한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걸 주관 못하는 사람은 책임자가 못되는 겁니다. (194-87, 1989.10.17) p.1009

남녀 문제가 큰 원수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망치고 천지법도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파탄시켜 저나라에서 걸리게 될 때에는 난 모릅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걸리는 날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탈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0-220, 1982.10.16) p.1009

앞으로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둘이 좋아한다는 말 남기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 책임자가 못 됩니다. 그건 해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67-55, 1973.5.20) p.1010

남녀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책임자는 이 원칙에 엄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는다는 겁니다. 변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그 문제에 걸려버리면, 영원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66-226, 1973.5.12) p.1010

종교 배후에는 언제나 남녀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집단이 반드시 남녀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그거 왜 부딪치느냐? 해와가 타락할 때 자기 남편 아담과 천사장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와 가지고 여자는 두 남자를 대해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종교에 입문하여 수도하게 되면, 남자에게 최후의 고개에서 미인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넘어가는 날에는 천길 만길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138-286, 1986.1.24) p.1010

교역자들은 지금 아들딸들을 키우고 있는데, 비양심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는 놀음을 하고, 혹은 공금을 함부로 쓰고…. 차라리 굶는 게 낫다는 겁니다. 굶으면 하늘과 땅이 동정합니다. 굶는 사람을 동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도 굶을 때 먹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된 사람을 언제나 동정해 줘야 하는 것이 인정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범이 형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될 때, 그에게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서 그때만은 들어주잖아요? 그러니 슬프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동정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60-162, 1972.8.17) p.1010

통일교회 간부들 가운데 공금이나 물질에 대한 것을 잘못 다루고 인정에 의해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공금을 쓰며 심정적으로 유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딸 앞에 독약을 배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탄세계에서 이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서 처리할 것이냐? 앞으로 통일교회 교역자들은 일대 혁신을 해야 합니다. (46-95, 1971.7.25) p.1010

영계법(靈界法)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게 공금 횡령과 공적인 사람 푸대접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책임자라든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푸대접하면 나라가 걸리고 세계가 걸리는 겁니다. (96-154, 1978.1.3) p.1010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물질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공금을 잘 다뤄야 됩니다. 또 자기가 출세했다고 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인사조치할 수 없는 겁니다. 공금을 잘못 다루면 하늘나라의 헌법에 걸리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기가 출세해서 들어간 곳에 자기 원수의 아들딸이 있다고 해서 딴 데로 뽑아 돌려서 죽을 자리에 보내게 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196-235, 1990.1.1) p.1010

선생님이 공금을 쓸 때에는 전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19-266, 1968.2.19) p.1010

앞으로는 공사(公私)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공금은 사탄이 풀어 놓은 독약입니다. 그런 공금을 잘못 사용하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공금으로 일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간신도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33-172, 1970.8.11) p.1010

내가 피땀을 흘려 벌어놓은 이 돈을 함부로 못 씁니다. 함부로 쓰는 날에는 팔족(八族)이 아니라 자기 선조까지 걸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印)을 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나라의 국고금(國庫金)을 잘라먹으면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공인을 받은 하늘공금을 잘라 먹으면 천벌 받는 겁니다. (85-209, 1976.3.3) p.1010

Top p.1010

4) 설교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① 설교의 실제

설교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설교해야 합니다. 정신을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단상에 설 때는 해산부(解産婦)가 산실(産室)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가면 준비가 필요없습니다. 설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심정이 돼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96-168, 1978.1.3) p.1011

설교하는 시간은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느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경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대해 궁금했는데 한 번 가보자!' 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 설교가 뭐야?'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모가지 자르는 것입니다. 공판정에 판사가 선고하는 그 시간보다 더 심각한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96-169, 1978.1.3) p.1011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앞에 나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주목합니다. 갑(甲)은 갑대로, 을(乙)은 을대로, 병(丙)은 병대로, 혹은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등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가 듣고 비판이나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 말하는 사람은 참 힘들다는 겁니다. (39-150, 1971.1.10) p.1011

교역자는 설교에 대한 것을 늘 보충하고, 특히 교인들에게 필요하고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56-12, 1972.5.10) p.1011

영적 지도자는 체휼신앙이 없어 가지고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책을 봐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책을 봐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신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76-151, 1975.2.2) p.1012

여러분이 설교할 때, 그 제목으로 옛날에 한 번 했다는 것을 식구들이 알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춘하추동 사계절에 따라 변화를 느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라고 해서 기분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걱정 없는데도 유난히 우울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 햇살도 밝고 상쾌한 날씨인데도 자기 스스로 우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 갑자기 이것을 변동시키는 자극적인 것이 없거든 더 우울한 자리로 찾아 들어가라는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적일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을 준다든가, 혹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새로운 자극을 일으켜서 보충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 방안을 세워 하루 하루의 생활을 조절해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뭇 인간들의 심령을 지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30-126, 1970.3.21) p.1012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서라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담판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126, 1970.3.21) p.1012

준비 못한 설교를 해 가지고 은혜를 못 줄 때는, 안간힘을 다하고 안 되게 될 때는 돌아들어와서 그저 대성통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96-168, 1978.1.3) p.1012

아침밥을 먹을 때 새밥 먹지요? 새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할 때에도 새것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새로운 무엇, 보양제(補養劑)라 할까, 그런 것을 공급해 가지고, 거기에 가미(加味)시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미료를 쳐서 신맛이라도 내고, 짠맛이라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쓴맛이라도 내 가지고 새맛을 내야 합니다. (75-176, 1975.1.2) p.1012

은혜를 못 주고는 설교를 한 시간 하고 왔으면 세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잘못해 은혜 못 주고 그럴 때는 3 배 이상 회개해야 됩니다.

한 생명을 위해 생명의 물을 주어야 되고 가꿔 주어야 될텐데,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물을 빼앗고 땅을 뒤집어 놓고 왔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오늘의 말씀을 중심삼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1969.5.12) p.1012

주일날만 되면 '성경은 어디를 볼까? 찬송가 나오너라, 성가 나오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산 재료를 중심삼고, 성경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빼 가지고 그 사람의 일과 성경의 내용을 대조해 가면서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자기 일을 말하니까 홀딱 반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책보고 하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책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책의 원본(原本)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46-284, 1971.8.17) p.1013

교역자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생 수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불쌍한 노동자로부터 거지, 혹은 고급 관리, 혹은 권세권(權勢圈)에 있는 자리까지 한 때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을 중심삼고 그런 때에 공적 입장에서 겪었던 사실, 그런 걸 놓고 자기가 체험한 얘기가 실감이 나는 겁니다. (1969.5.12) p.1013

Top p.1013

② 참아버님의 설교

선생님은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식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이끌어 올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하고 정성을 모은 다음 마음의 명령대로 설교합니다. (9-81, 1960.4.12) p.1013

선생님은 설교를 위해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산 체험으로 사실을 말할 때는 모두 감동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345, 1966.10.14) p.1013

한 때 선생님은 함흥에서 굴을 뚫는 일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가운데 일을 하니 곡괭이를 움켜쥔 손이 올라가지 않고 정신마저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때의 밥! 그 밥을 먹기 위해 곡괭이를 땅에 박고 돌아서는

[텍스트 입력]

그 순간의 기분, 선생님에게는 그와 같은 산 역사의 재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30-152, 1970.3.21) p.1013

비참했던 복귀의 사연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靑史)에 길이 빛날 자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직한 보화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수난의 사실을 세계 만민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다른 내용으로 한 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이 내용으로 10 분만 이야기하면 통곡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좋은 설교 내용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30-152, 1970.2.21) p.1013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설교 준비 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루에 열 번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때는 장소에 따라 다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하나요? 그럴 때의 마음은 완전히 제물로서의 자각을 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소유관념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쳐지는 자리에 서면 하늘이 같이해 주는 겁니다. (60-348, 1972.8.18) p.1013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선생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설교하는 데 있어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은사를 베풀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심정적 기준을 선생님과 일치시키기 위해 내 마음을 끌어올려서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 상대적 입장에서 움직이게 되면 천운(天運)은 거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60-349, 1972.8.18) p.1014

주일날 설교할 때는 심각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같으면 밤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사(注射)를 놓는 것입니다. 강장제 주사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에게 일주일 동안의 약을 주고 강장제 주사를 놓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에게 주사할 때 심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壇)에 나설 때는 형장(刑場)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5-176, 1975.1.2) p.1014

설교할 때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뒷골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과 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철칙입니다. (1969.5.12) p.1014

설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생 동안 설교한 200 권이 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 문답하게 될 때 '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소.' 그러겠어요? 영어로 아예 번역을 안 시킬 것입니다. 이거 안 읽고 가면 큰일납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안 읽으면 큰일나는 겁니다. (173-76, 1988.1.3) p.1014

Top p.1014

5) 헌금은 법도에 맞게 드려야 한다

① 십일조 드리는 법

공금에 대해 엄격해야 합니다. 십일조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기 총수입에서 십(十)의 일조(一條)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11-218, 1961.8.26) p.101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십일조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 중에 십분(十分)의 일(一)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전체를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전체를 바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정성들여 바침으로써 남은 아홉도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십일조를 바치며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창고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1-239, 1970.6.4) p.1014

정성들여 십일조만 해보면 절대 굶어죽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 물질에 대한 궁핍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십일조 드리기 위해 정성을 들여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적당히 하면 되겠거니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내 생명 대신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귀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63-338, 1972.10.22) p.1015

탕감을 하기 위해 물건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하늘 앞에 바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9 수는 타락세계의 수(數)요, 10 수는 이것을 벗는 수요, 하늘세계의 수입니다. (10-217, 1960.10.14) p.1015

레위 족속이 치리(治理)하는 교회 제단 앞에 열한 지파는 전부 다 십일조를 바쳐야 됩니다. 앞으로 십일조 안 바치면 교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십(十)의 삼조(三條)를 바쳐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는 세계를 위해서,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십의 삼조를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는데 생활의 십일조를 내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9 는 삼삼은 구(3×3=9), 이것을 사탄이 지금까지 지배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 위에 이 9 수를 하늘앞에 맡겨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0 수를 찾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9 수를 끌고 들어가면 이 9 수권(九數圈) 내의 모든 소유권을 사탄세계에서 분리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일조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150-218, 1961.4.15) p.1015

복귀도상을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는 십일조가 아니라 십의 삼조까지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라에 바치고,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복귀과정에서는 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바쳐야 됩니다. 십의 일조라는 것은 하늘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150-218, 1961.4.15) p.1015

여러분이 헌금할 때 뭘 사먹다 남은 돈으로 헌금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돈은 더러움을 탄 것입니다. 또, 시장에 가서 뭘 사다가 남은 돈으로 헌금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하시지 않습니다. (48-86, 1971.9.5) p.1015

제물은 남이 남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러움을 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곳에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30-133, 1970.3.21) p.1015

앞으로의 모든 물건은 최후로 세계의 물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하나님의 것이요, 세계적인 참부모의 것이 되고, 세계적인 참자녀의 물건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물건을 그런 물질로 복귀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느껴야 되겠습니다. (23-336, 1969.6.15) p.1015

자기가 쓰는 데서 얼마 헌금해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지탱한다는 것은 지극히 좋은 것 같지만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자기 생활보다, 자기 전체보다도 먼저 해야 될 텐데, 그거 몇 퍼센트 바친다는 그 관념으로 인해 자기 생활이 위주요,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서는 것이 상습화 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째가 되고 맨 꼴래미로 가 버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96-101, 1978.1.2) p.101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이 헌금을 하게 될 때는….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갈 때 '엄마, 아빠, 나 연보, 연보!' 하게 되면 뭐 얼마짜리 주면서 '야야, 연보다. 주일학교 연보 해라!' 이래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교회 목사가 거렁뱅입니까? 그런 목사, 그런 교회는 안됩니다.

헌금은 자기 재산의 핵(核)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금고의 제일 깊은 곳에 넣어두고 정성들여 준비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가을이 되어 모든 곳간에 곡식을 거둬 들일 때도 십일조를 따로 쌓아 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년동안 아들딸 일가가 합해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사랑의 마음을 겸해 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166-71, 1987.5.28) p.1016

제물 드렸다가 제물 찾아가는 법은 없는 겁니다. 찾아가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데를 위해, 그 책임자가 더 높은 데를 위해 쓰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낮은 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안 써도 된다 그 말입니다. (125-188, 1983.3.20) p.1016

우주를 창조하고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거지한테나 던져 주는 그런 돈 가지고 좋아하면서 ' 아, 복받을 패들이여! 너희들은 사랑스런 종교인이다.' 하고 내세울 수 있어요? 사탄 앞에 위신이 서겠느냐 말입니다. 연보대를 돌리면서 돈내라고 합니다. 그건 간판 붙은 거지나 마찬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96-101, 1978.1.2) p.1016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헌금을 하고 그러지만 선생님은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안 받는 주의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으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주체적인 입장에 서지 않고는 못 받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주고 나서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깃드는 것입니다. (51-276, 1971.11.28) p.1016

정성들인 헌금이나 예물을 대할 때 그 가치를 모르고 대하다가는 정성들인 예물에게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군왕도 자기 처신을 잘못하다가는, 즉 정성들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정성드리는 사람을 잘못 대하다가는 하늘의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성 드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143, 1967.6.4) p.1016

사적인 물질을 공적인 물질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천도에 위배되는 사람입니다. 사적인 자기의 인격을 공적 인격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리는 뜻에 위배되는 자리입니다. (51-291, 1971.11.28) p.1016

기성교회에서 헌금하는 걸 뭐라 그러나요? 거 뭐 주머니 가지고 다니지요? 우리 교회도 헌금을 그렇게 받아? 뭐 무슨 조리대 가지고 받아? 나갈 때 다 저 문 앞 헌금함에 모아 놓는 겁니다. 정성들이고 은혜받고 가는 대가로서 감사헌금 하게 말입니다. 안낼 사람들은 돌아가고…. 그 시시한 돈 받아 가지고, 그것 하늘이 원치 않습니다. 정성어린 돈,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 있던 돈 그냥 못합니다. 전부 다 자기 몸에 3일 이상 지녀 가지고 성별하고 헌금해야 됩니다. 점심 한끼 값도 못 되는 것을 어디에 헌금을 해요? 자기 생명 재산을 전부 털어넣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 (166-319, 1987.6.14) p.1017

맨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숫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것이 없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습관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30-133, 1970.3.21) p.1017

십일조는 제일 정성들인 숫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는 숫것을 드려야 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면 어떤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겠어요? 미운 아들? 소망이 없는 아들? 그런 아들은 제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아들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제물은 '나' 대신이기 때문입니다. (48-85, 1971.9.5) p.101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혹은 자기 소유의 재산은 자신이 잠시 관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잘 관리해서 봉헌해 드려야 할 이 만물은 참부모의 품을 거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참부모의 것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3-334, 1969.6.15) p.1017

복귀노정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만물은 먼저 인류 시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 앞에 내려주신 축복의 기준을 중심삼고 볼 때, 인간 시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선(善)의 부모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3-330, 1969.6.15) p.1017

타락은 자기 것을 만들려 하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 데에서 연유됩니다. 하나님과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와 같이 했다가는 반드시 사탄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도리를 통해야 하는데, 언제나 번번히 타락한 세계의 그러한 고질된 사연이 남아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쓰자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꿈에도 내가 벌어들인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30-10, 목회자의 길-207) p.1017

'내 것은 네 것이요, 네 것은 나라의 것이요, 나라의 것은 세계의 것이요, 세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주류사상입니다. 먼저는 물질 축복시대를 거쳐 인간 축복시대가 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위주로 한 심정 축복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2-55, 1962.10.7) p.1018

지금까지 인간이 복귀되는데 만물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만물과 인간이 하나되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20-326, 1969.6.15) p.1018
Top p.1018

② 생활에도 십일조가 있다

교회의 십일조 생활도 식구가 열 가정이 있으면 인도자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천민권(天民權)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열 사람이 살면 하늘 사람 한 사람을 부양(扶養)하여야 합니다.
십일조는 모든 면에 있습니다. 학교도 열 교실 중에 한 교실은 불쌍한 자녀들을 위한 무료 봉사의 교실로 써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까지도 십일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무슨 물질만이 아닙니다. 만일에 가족이 열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을 내 놓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식구는 십일조 못하면 안 됩니다. 십일조 못하는 사람은 식구가 아닙니다. 이건 의무적입니다. 천적인 의무란 말입니다. (150-218, 1961.4.15) p.1018

주일은 십일조의 날이니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명령대로 복종할 날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자식 중의 하나를 하늘 앞에 바쳐야 하며, 그럴 수 없으면 남의 자식이라도 공부를 시켜 하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혼자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로서 혼자 먹기 미안하거든, '동반해 계신 아버지 앞에 나 혼자 먹을 수밖에 없으니 민망합니다' 하며, 아버지가 같이 참여하는 조건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부모를 먼저 대접하는 입장에 세워 놓고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옷을 사 입어도 혼자 못 사입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0-218, 1961.4.15) p.1018
Top p.1018

③ 탕감기금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타락인간이 부모를 죽인 죄, 자녀를 죽인 죄, 만물을 잃어버린 죄를 어떻게 탕감할 것인가. 유다가 예수님의 몸을 팔아 나그네의 묘지를 샀습니다. 고로 탕감기금으로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원래는 본부를 사야 합니다.

열두 제자가 팔았기 때문에 4년에 12,000원을 헌금해야 합니다. 탕감기금은 돈 중에도 제일 귀한 돈을 바쳐야 합니다. 이 기금 헌납은 아버지와 형(아벨)을 죽인 죄를 피 대신 탕감기금(기본적인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형의 피값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기금에 더 보태어 성전(聖殿)을 지어야 합니다. (1964.5.12. 본부교회) p.1019

탕감기금은 정성을 들여서 갚아야 합니다. 탕감기금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정성을 들여, 남의 손을 거치지 말고 자신이 직접 내야 합니다. 이 탕감기금을 전통으로 하여, 우리의 후손들도 전부 이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하게 되면 국가의 운세는 넘어갑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천길 만길 속에 샘이 끓고 있어 구멍만 뚫으면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제관(祭官)으로서의 책임을 지고서 제물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14-97, 1964.6.14) p.1019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참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몰아낸 입장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는 사방 팔방으로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이것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4년간 3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실체 값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4년간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맞먹으며, 한국에서는 1년에 3천원 씩 4년간에 걸쳐 낸다는 조건으로 1만 2천 원을 헌금합니다. (1966.2.2. 동경교회) p.1019

우리는 하늘과 땅의 원한을 풀고 이 땅에 막혀 있는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자리를 닦아 나오며 희생한 도인들을 중심한 본부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 탕감기금은 세계적인 탕감을 하는 것입니다. 탕감기금은 피와 땀을 흘리며 정성을 모은 것으로 내야 합니다. 은행에 저금했던 것을 찾아서 내면 안 됩니다. (14-97, 1964.6.14) p.1019

주님은 역사의 탕감조건을 세우고 피흘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한을 못 풀었으니 이것을 풀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 탕감기금입니다. 부모는 승리하였으나 자녀들이 침범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승리하신 부모의 기반 위에 부모를 팔았던 한을 해원성사해야 합니다. 탕감기금을 납입해야 비약적 발전이 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맞이했고 하늘 땅을 가졌다 하더라도 참부모가 흘린 피의 한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64.6.14. 대구교회) p.1019

식구들은 탕감기금을 솔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눈물과 땀과 피의 한을 탕감할 조건을 세워 승리해야 또 새로운 섭리가 있게 됩니다. 민족적인 기반 위에 국가적인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은 한국 민족이 가장 불쌍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가장 비참한 위치에 있어야 주지 않고 탕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족적인 탕감조건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14-73, 1964.5.23) p.1019

탕감기금은 돈 중에서 제일 귀한 돈입니다. 이 기금에 일화가 많아야 합니다. 비참한 일이 많아야 합니다. (14-69, 1964.5.12) p.1019

Top p.1019

6) 하나님은 공적 기도를 받으신다

① 인사하는 데도 인사법이 있지 않느냐?

신앙자는 보다 큰 것을 위해 공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28-271, 1970.2.8) p.102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은 흥남 감옥에서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에 몇몇 식구들을 위한 기도는 밥먹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안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떨어져 나간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선생님을 찾아와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인사를 하며 떠나는 비참한 정경은 동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갔어도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계승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성의 토대만 남아 있으면 아무리 식구가 떨어져 나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있는 사람을 보내 주십니다. (42-163, 1971.3.4) p.1020

내가 고문을 당해 피를 토하며 쓰러지더라도 '하늘이여, 이 피를 보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부끄러운 피가 될 것이고, 탄식에 젖은 원한의 눈물이 될 것이어늘 여기에 하늘이 동정하는 것을 원치 않사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심정세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20, 1969.10.14) p.1020

세상에서 인사를 하는 데는 법이 있지 않느냐? 기도하는데도 연구를 해서 하라. (뜻길) p.1020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역사적인 심정을 압니다.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훌륭한 뜻을 대신해 싸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타락 이후 아담 해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걸음걸음을 나가면서 '그들에 맺혀진 한을 해원하는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것이 다 끝난 후에 사랑하는 아들딸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천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9.10.8) p.1020

눈물을 흘리며 뼛골이 녹아나는 심각한 경지에 들어가서 일대 일로 판가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지을 때 하나님이 눈물짓고, 하나님이 눈물지을 때 내가 눈물짓는 그런 자리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그래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기도입니다. (31-290, 1970.6.4) p.1021

정성을 들이는데는 '절대 믿습니다'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뜻이면 뜻을 대해 '절대 믿습니다'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협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시시하게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심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버지여! 나만 남았나이다. 내가 아니면 이 나라가 없어지고 이 세계가 없어질 것이온데, 아버지여, 당신이 6천년 동안 수고해 오신 이 한 경지에, 이 경계선에 나 혼자 남았나이다.

당신이 성취시킬 뜻 가까이 있는 자가 나밖에 없잖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저는 아직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저에게 명령하셨으니 제가 그럴 수 있는 조건, 그럴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전체 이 민족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복귀섭리가 아니옵니까?'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목적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31-290, 1970.6.4) p.1021

기도할 때는 맨 처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자리에 계신 줄 알아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운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면서 '오 주님, 나 천국 보내 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14-65, 1964.5.3) p.1021

책임자로서 본질적인 원리적 궤도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또, 식구를 위해 정성을 들여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됩니다. 내가 식구와 더불어 얼마나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둥그래지게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복받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복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좀 살게 되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드리겠다는 관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복을 내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983.5.1) p.1021

스승을 스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딸이 왔사옵니다. 당신이 만나고 싶어하시던 아들딸이 왔사옵니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132, 1961.3.26) p.1021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그것이 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달라지고 제목이 달라지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이면의 생활을 기도생활을 통해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4-111, 1979.4.15) p.1022

선생님도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을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선생님에게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생활의 풍부한 저변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것도 기도 이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4-111, 1979.4.15) p.1022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심정적 자세에 따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게 뭐예요? 정성들이고 '아멘' 하고 나와 가지고, 우는 애기 있으면 궁둥이를 발길로 차고 들이 제기고 이런다면 그 집안을 암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간곡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환경을 처리해 가지고 기도하는 기준의 상대적인 자리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성교인들, 찬송 부르고 예배 보면 하늘나라 가요? 천만에! 교회에 갔다 와 가지고 싸움질하고 주먹질이며 별의별 짓 다 하고는 하늘나라 가겠어요? (233-210, 1992.8.1) p.1022

Top p.1022

② 참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할 때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참부모가 뭐냐? 그 말을 선생님과 어머니만을 두고 생각지 마십시오.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세계를 품고 민족 감정이나 국가 감정을 넘어서 만민을 진실하게 하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경지의 참부모 기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3-143, 1970.8.11) p.1022

지금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때는 이름 구원시대가 아닙니다. 실체 구원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천 개 만 개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하나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하늘나라에는 예수님 실체를 타고 가야지, 이름을 타고 가겠습니까? (13-63, 1963.10.16) p.1022

통일교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일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어이쿠, 참부모가 뭐야? 뭔데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모가 뭔지 알아요? 참부모란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세 만세에 자랑할 수 있는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데 세워진 인류의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상이 있어야 하나님 또한 새로운 조상을 중심삼고 섭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상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딱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는 통하지 않기에, 예수님과 성신을 통해야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신이고 성신은 어머니 신이니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부모의 인연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20-268, 1968.7.7) p.1023

통일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합니다. 부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도 참부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뜯어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뜯어고쳐야 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주춧돌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떡 비뚤게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자고…. 태풍이 불었다간 옥살박살이 납니다. (48-228, 1971.9.19) p.1023

Top p.1023

7) 전도는 사랑찾기 운동이다

① 전도는 제 2 의 나를 만드는 것

전도가 뭐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니 그 얼마나 위대한 겁니다. 본성의 인간을 보고 ' 너 어디로 갈 거야?' 하고 물으면, '아이구! 세계를 통해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개척해 주니 얼마나 멋지냐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그저 뭐 받고 뭐 받고…. 언제나 세계를 통해서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117-102, 1982.2.14) p.1023

내가 생명을 바쳐 악을 굴복시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옵니다. 이것은 공식적입니다. 저울 추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 쪽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악을 많이 제거하면 선이 올라가고, 악을 많이 갖게 되면 선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만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40-243, 1971.2.6) p.1023

여러분이 봄을 맞이하는데, 전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여름날을 맞자는 겁니다. 더 좋은 날에 있어 가지를 뻗게 하고 잎을 뻗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교회는 어때요? '아이구, 나 3 년동안 전도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 가만히 있어도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열매맺더라도 그 열매를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여력을 갖지 않으면, 동삼삭(冬三朔)의 북풍한설(北風寒雪)이 몰아치게 될 때는 말라붙어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1968.3.1) p.1023

전도는 제 2 의 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18-186, 1967.6.6) p.1023

아무리 시대적인 하루의 생활이라도 전도하는 그 하루는 영원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 질서의 기틀 위에 우리의 한 조각 한 조각의 행동이 전체, 혹은 영원과 관계를 맺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152-219, 1963.5.15) p.1023

전도하면 기쁩니다. 반면에 전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이 일을 안 하면 괴롭기 때문에 합니다. 전도를 하면 욕먹고 나서도 기쁜 것입니다. (19-22, 1967.11.5) p.1024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면 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발전할 때, 반드시 나 자신도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30-154, 1970.3.21) p.1024

영계에 가면 자랑할 것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영계는 돈많이 가졌다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안 됩니다. 또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얼마만큼 살려 주었느냐, 이것이 자랑이 됩니다. 갑이면 갑, 을이면 을, 혹은 종족을 초월하여 수많은 민족을 새로운 생명과 관련시켜 얼마만큼 살려 주었느냐? 그것이 재산이 됩니다. 재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30-148, 1970.3.21) p.1024

영계에는 없는 것이 없어서 그리울 것이 없지만, 가장 그리운 것이 있다면 참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공을 들인 그 공신은 천상세계에서 당연히 영광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은 전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148, 1970.3.21) p.1024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밤을 새워 통곡하며 기도해 봤어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혹은 사랑하는 애인이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통곡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해봤으면 해봐야 됩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통곡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옷이나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에 미쳐야 합니다. (34-270, 1970.9.13) p.1024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는 자기 부모 처자를 전부 다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형님 누나 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사촌이나 사돈의 팔촌까지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 봤느냐? 한 생명을 끌어주기 위해 밤을 새우면서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쳐 봤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한 환경에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41-90, 1971.2.13) p.1024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표정이나 걸음걸이만 보고도 저 사람이 좋아하겠는지, 싫어하겠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공식적으로 감정(鑑定)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2-174, 1971.3.4) p.1024

전도 나가게 될 때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돈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복귀역사를 돈 갖고 했어요? 생명을 갖고 한 겁니다. 피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피로 탕감한 역사입니다. 피 갖고, 생명을 갖고 한 것입니다. 돈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하늘이 역사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154-210, 1964.7.17) p.1025

전도 나갈 때에는 돈을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심정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27-267, 1969.12.19) p.1025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나간다 할 때 그냥 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일년, 이년, 삼년은 걸릴 것이다 하면 그 기간 동안 정성들여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을 먹으나, 자나 깨나, 오나 가나, 혹은 쉬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일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완전히 전부 주어 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면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42-228, 1971.3.14) p.1025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의 정성을 통해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데 있어 얼마만큼의 정성을 통해 사랑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에 가서 인격이 되는 것이요, 영광의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42-228, 1971.3.14) p.102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전도하기 위해 밤을 새워 봤어요? 선생님은 밤도 많이 새워 봤습니다. 저나라에서 물어볼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몇 밤이나 새워 봤느냐고. 여러분은 모든 힘을 다 바쳐 전도해야 합니다. (10-252, 1960.10.21) p.1025

투망으로 고기잡을 때, 추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추와 같은 입장이니 사탄권 내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편으로 이끌어오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12-19, 1962.7.4) p.1025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길러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도한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29-196, 1970.2.28) p.1025

정성들여서 얼마나 하늘이 협조하는가 보십시오. 땅에서 자기의 친척과 친지를 전도하지 않으면 저나라에 가서 그들의 참소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18-134, 1967.5.30) p.1025

전도를 하는데도 딱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라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도를 가든가 어디 가더라도 아무 준비 없이 다녔지만 이젠 준비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정성들이고 다녀야 합니다. 옛날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102-45, 1978.11.19) p.1025

여러분은 '산 인간'의 철학을 탐구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선생님한테로 또는 여러분에게 인도해 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끌려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신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52-276, 1972.1.3) p.1026

사람을 찾기 위해서 봄 절기와 같은, 여름 절기와 같은, 가을 절기와 같은, 겨울 절기와 같은 지방에 가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봄 절기의 사람, 여름 절기의 사람, 가을 절기의 사람, 겨울 절기의 사람, 춘하추동의 사람을 사랑하고 가겠다. 또 겨울 절기의 사람, 저 소련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가겠다.' 해야 합니다. 그러고야 자기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귀의 프로세스(process; 과정, 방법)라는 겁니다. (96-152, 1978.1.3) p.1026

정성을 들여 주었는데 그가 말을 안 듣는다고 외로워 하거나 슬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리원칙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서럽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을 들여 주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42-174, 1971.3.4) p.1026

Top p.1026

② 수련과정과 7 일 금식

통일교회는 2 일 수련과 7 일 수련, 21 일 수련, 40 일 수련을 합해서 원칙은 6 개월 이내에 70 일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요, 법 조항입니다. 그래야 통일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120 일 수련을 받으면 통일교회의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정회원이 됩니다. 2 일부터 120 일 수련까지를 제도화해 놓았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공통입니다.

끝날에는 3 대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3 대 심판은 진리 심판과 인격 심판과 심정 심판입니다. 여기서 교리는 진리입니다. 이 3 대 심판을 거쳐야 참부모와 인연을 맺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계에 갈 때, 일주일 이상 하늘을 위한 금식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저나라에 가서 입적을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6 천년 복귀역사 노정에서 수고했으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7 일 금식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고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 육신을 쳤다는 조건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쳐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원수의 몸, 이 놈의 고깃덩이야! 그 속에 피가 준동하고 있구나' 하면서 칼로 찔러야 할 것을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대신 찔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남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182, 축복가정과 이상가정-319) p.1027

Top p.1027

8) 탕감과 봉사와 헌신 생활

① 탕감길을 가야 한다

통일교인들은 탕감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 나는 복귀하는 것은 좋지만 탕감은 싫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예요? 복귀가 먼저예요, 탕감이 먼저예요? 여러분은 복귀를 좋아하고 탕감은 싫어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예요, 사탄 편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귀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복귀를 좋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탕감을 통과한 후에 복귀됩니다. (116-127, 1981.12.27) p.1027

탕감이라는 말을 알면 모두가 제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이 없으면 복도 없습니다. 통일교회에 무한한 황금덩이가 뭐냐 하면 탕감입니다. 탕감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낱말입니다. (1978.2.26) p.1027

책임분담과 탕감은 하나는 오른쪽 입장이고 하나는 왼쪽 입장인데, 하나는 오른다리와 같고 하나는 왼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양다리와 같은 책임분담과 탕감복귀를 연결해 놓지 않고는 전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생각해 봤어요? 탕감 싫지요? 하나님도 섭리도 다 싫지요? 오늘부터는 새로이 밥먹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자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레버런 문도 이걸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세계도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안 통한다는 겁니다. 모두 그냥 통과하고 싶지요? 박사나 교수 자리를 그냥 해먹을 수 있어요? 그 코스를 거쳐서 박사가 돼야 박사를 해먹지, 그냥 해먹을 수 있어요? 거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124-106, 1983.1.30) p.1027

탕감조건은 자기 자신이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주관권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복귀를 위해서는 남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확고한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남들은 어떤 길을 가든지 내 갈 길은 바쁩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밤에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자리잡고 편히 앉아서 밥을 먹을 여유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갖지 않고서는 복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07) p.1027

병난 사람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약이 써서 먹기 싫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살펴보면 좋은 약은 맛이 씁니다. 쓴 것이 진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조건을 세우는 것은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복귀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05) p.1028

천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모시고 그를 통해 사랑의 인연을 맺고 사는 곳입니다. 이 근본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섭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10) p.102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구원의 길은 탕감하여 복귀하는 길입니다. 탕감이란 타락한 경로를 따라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216-16, 축복과 이상가정-306) p.1028

Top p.1028

② 봉사와 헌신

참사랑의 길은 어떻게 닦을 수 있는 것이냐? 헌신, 봉사, 그리고 희생을 통해 닦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창조 코스임을 뜻하는 겁니다. 재창조 코스에서 여러분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 탕감의 길이 봉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을 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탕감의 길을 걸어 가야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탕감의 기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탕감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146-294, 1986.7.20) p.1028

어느 쪽이 주체이고 어느 쪽이 대상이냐? 누가 따라가야 할 자리에 있고 누가 이끌고 가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항상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어느 것이 내 편이 될 것이냐?' 하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음, 허허허…' 하십니다. '내 편이 되는 사람은 항상 희생하고 헌신 봉사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다. 그런 편에 서 있는 쪽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쪽이며, 나는 그 무리를 선택할 것이다' 하십니다. 항상 중심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147-98, 1986.8.31) p.1028

통일교회는 위해서 가는 길을 취해라, 위해서 살라, 위해 태어났다 하는 천리(天理)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133-16, 1984.7.1) p.1028

천국 가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하늘과 땅을 사랑하였다는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생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진정으로 일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1-70, 1961.1.22) p.1028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라!'하는 것이 이익보는 게 아니라 희생입니다. 자기 투입입니다. 투입하는 데는 극단에 달할 수 있는 그 기준까지 투입하라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바치라는 겁니다. (78-61, 1975.5.4) p.1029

통일교회 주류 사상이 무엇이냐? 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해 존재하는 날에는 민족이 반대하더라도 세계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77-302, 1975.4.25) p.1029

손님 대접 많이 하고 외부 사람에게 신세 많이 지워준 사람이 있는 자리는 사탄이 넘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37-329, 1971.1.1) p.1029

여러분을 희생시키고 여러분을 고생시켜서 이 사랑에 공헌할 수 있는 공헌자를 만드는 것은, 세계를 대표한 사랑의 결실을 가져오는데 공헌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만들고 인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통일교회의 목적입니다. 인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82-53, 1975.12.31) p.1029

세계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거지와 같은 모습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교회 무리는 빵떡을 먹든, 보리떡을 먹든, 물을 마시면서도 '아 오늘 아침 냉차가 진수성찬보다 맛있군!' 하며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천하가 운다는 겁니다. 천하를 위해 그런 입장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서면 주체가 없으니까 천하가 자기보다 더 낮은 것이기 때문에 천하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61-223, 1972.8.31) p.1029

옛날에는 소를 붙들고 '이랴 낄낄' 해 가지고 논 갈 때 기분 나쁠 때가 많잖습니까. 소 궁둥이를 갈기며 '이놈의 소야, 너 왜 이래? 내가 있는 정성을 다 해서 요 한 때를 써 먹으려고 길렀는데 이거 왜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회초리로 사정없이 갈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야, 겨우내 잘 쉬던 너를 인사도 하지 않고 봄날에 끌어내어 가지고 잘 먹이지도 않고 일 시켜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소보다 더 참는 마음을 갖고 '철버억 철버억' 하면 도리어 하늘이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약삭빠르게 싹싹하고 임시 처변을 잘하는 것보다도 순정을 가지고 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복된 마음을 갖고 복된 생활을 해야만 복이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127-89, 1983.5.5) p.1029

세계는 보다 더 큰 섭리를 위해 탕감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 자기 일족이 아사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 날에 있어 어떠한 십자가의 길이 오더라도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고생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투입하고 투입하며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29-208, 1992.4.12) p.1030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폭발적이고도 자극적인 힘을 가지고 뜻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여력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32-21, 1970.6.14) p.1030

역사 이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수많은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놀음을 했습니다. '희생 봉사하라!' 이게 왜 그런지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연의 세계가 위할 수 있는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그 곳에 갈 수 있는 훈련과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희생 봉사를 강요한 것은 역사시대에 하나님이 역사과정을 통해 섭리해 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기에서 공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공인할 수 있습니다. (77-270, 1975.4.14) p.1030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치고 인류와 더불어 자기 생명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로되, 자체를 위주한 사랑과 자체의 가치를 자랑하는 생명력으로서 끝난다면 자신에게서 이미 하나님은 이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갈 길은 하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주한 한계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32-21, 1970.6.14) p.1030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탄의 작전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맞고 빼앗아 나오는 길이 아벨이 가는 길입니다. 사탄은 먼저 치기에 이긴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한 것까지 플러스시켜 가지고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편이라는 것은 상대를 쳐서 점령했더라도 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가운데 있는 선한 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찰떡을 쳐 가지고 넘겨 주었다가 그것을 찾아올 때에는 찰떡에 보숭이(고물)가루를 묻혀 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때에는 악이 성해 선을 치는 자리에 서지만 그런다고 하늘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56-85, 1972.5.14) p.1030

한 순간 한 순간 필사의 결의를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찾아 오신 이 한 때를 무의미하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년사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니, 이것을 놓치면 큰일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세상을 모두 잃어버리고 찾았던 것을 다 놓치더라도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이것만은 남기고 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6-141, 1969.10.19) p.1030

Top p.1030

9) 식구간의 법도와 예절

① 식구는 천정으로 맺어진 인연

통일교회 교인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말합니다. 식구라는 것은 형제의 인연을 갖춰야 되고, 부모의 심정을 같이 물고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를 갖고, 같은 형제의 인연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생활과 습관과 전통을 그냥 그대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구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155-211, 1965.10.30) p.1031

오늘날 우리들은 손에 손을 쥐어잡고 모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소한 남남끼리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피가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천정(天情)이 통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거룩했기 때문에 결과도 거룩해야 될 것이 아니냐! (67-325, 1973.7.22) p.1031

우리가 갖고 나온 인연은 입체적인 인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어떠한 사상을 기조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기조로 해서, 본성의 인격을 표준으로 해서 시작된 인연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연의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49-206, 1971.10.10) p.1031

우리는 다른 인연을 따라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육신의 형제들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형제 아닌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형제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과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들에게 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49-209, 1971.10.10) p.1031

식구를 대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18-43, 1967.5.17) p.1031

식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경에 부딪쳐 고난을 당할 때 서로서로 자기가 당한 것과 같은 심정으로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5-291, 1969.10.5) p.1031

선생님은 식구를 비난하고 식구를 모해하는 것을 보고는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가려져 가지고 하나의 인연을 따라 모인 우리 끼리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못사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그래도 이 악한 세상과는 다른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49-62, 1971.10.3) p.1032

우리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하늘땅이 부러워하고 영계의 모든 성인과 현철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의 생애를 걸어 가고 있는, 하늘이 버릴 수 없고, 하늘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사랑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내용을 지니고 사는 멋진 사나이들입니다. (171-29, 1987.12.5) p.103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한 조상을 가진 후손이 여기에 있으면 선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여러분이 신나고 멋지게 싸워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의 전적을 세울 때에 영계에서는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면 잡신(雜神)이 나오다가도 놀라 자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조들은 여러분을 상감마마 모시듯이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14-21, 1964.4.19) p.1032

6 천 년의 결실체가 낙과처럼 익지 못하고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바람 불까 걱정하면서 '아이구, 내가 떨어질 것 같다. 조금만 더 불면 떨어지겠는데, 선생님, 흔들지 말고 가만 놔 두어야 됩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패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도끼로 들이치고 가지를 마음대로 흔들어도 가지가 찢어져 나가기 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패에 속합니까? 바람 불까 봐 걱정하는 패들입니까?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패입니까? (46-155, 1971.8.13) p.1032

여러분이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떠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명하고 절대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확정을 받아 그 절대자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11-224, 1961.9.20) p.1032

Top p.1032

② 식구간에 가인 아벨 관계가 있다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삼고 볼 때 가인 아벨이 누구냐 하면, 횡적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벨이고, 종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벨입니다. 종횡관계를 두고 볼 때, 횡(橫)이 종(縱)을 중요시 해야지, 종이 횡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9-214, 1971.10.10) p.1032

아벨이 되는 비결이 뭐냐?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반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어린양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설사 찔림을 당하더라도 반발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49-214, 1971.10.10) p.1032

아벨은 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야 합니다. 피눈물로써 사랑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랑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굴복시킬 수 없으니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성교회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북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34-283, 1970.9.13) p.1033

아벨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3 대 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번은 가인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부모를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3 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세계를 해방시켜 주지 않고는 부모가 나오지 못하고, 부모를 해방시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방을 못 받습니다. 이 3 대 해방권의 책임을 해야 할 것이 아벨의 사명입니다. (58-68, 1972.6.6) p.1033

교회를 중심삼아 누가 아벨이고, 누가 가인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은 아벨이요 한 사람은 가인이라는 것, 세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은 아벨도 될 수 있고 가인도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아벨과 가인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206, 1957.11.1) p.1033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지 않고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한편은 바른손이고 한편은 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하나님인 동시에 네 하나님이시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입장에서 서로서로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 모시며 가인적인 입장을 피해 최대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느 때든지 한 번은 하늘의 심판에 걸리고 만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3-206, 1957.11.1) p.1033

가인과 아벨은 어떠한 자리에서 결정되느냐? 가인과 아벨은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탕감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탕감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4-91, 1970.8.29) p.1033

하나님은 아벨을 어떠한 자리에서 결정하느냐?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리는 하나님과 일체된 자리인데, 그 자리는 기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슬픈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자 하는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51, 1970.8.29) p.1033

Top p.1033

③ 누가 아벨이고 누가 가인인가

통일교회 교인들 중에 '어, 내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아벨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가인이니, 나를 섬겨라!' 하는 이런 미치광이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어떠한 것이 아벨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보다 공적인 사람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무엇이냐? 사탄편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58-68, 1972.6.6) p.1034

먼저 들어왔더라도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가인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가인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원칙에서 사람을 대합니다. 아무리 오래 된 식구라도 그 심통이 자기를 위하게 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두지만 때가 되면 보따리를 싸게 해서 쫓아낼 겁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아벨이 아닙니다. 사적인 기준이 앞서는 것은 가인이요, 자기보다 공적인 문제, 하늘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벨입니다. (58-68, 1972.6.6) p.1034

여기 통일교인들 끼리끼리 형제를 결정하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아벨의 입장인 동시에 가인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가인의 입장인 동시에 아벨입니다. (24-348, 1969.9.14) p.1034

원리적인 입장에서 아벨은 중심입니다. 이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벨이 되었습니까? 아벨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다 하지 못하면 아벨이 되지 못합니다. 아흔 아홉 가지를 다 했더라도 한 가지를 못하면 아벨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34-46, 1970.8.29) p.1034

통일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인이냐? 머리를 치켜들고 남을 시켜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인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누구냐? 책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본래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가인인데도, 먼저 들어온 녀석들이 아벨 노릇을 하려고 꺼떡거립니다. 그것은 자승자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별의별 놀음을 다 해도 원리원칙대로 안 하면 선생님이 안 써주는 것입니다. (49-214, 1971.10.10) p.1034

아벨은 어떠한 존재이고 가인은 어떠한 존재냐? 원리로 보아 단적으로 말한다면, 가인은 자기에게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요, 아벨은 자기 걱정도 있지만 남의 걱정까지 도맡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입니다. (62-189, 1972.9.25) p.103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떠한 사람이 아벨이고 가인이냐 하면, 침해(侵害)를 받는 사람이 아벨이고 가해(加害)를 하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앞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나이가 많고, 작은아들은 나이가 적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부모의 의논상대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아들은 맏아들뿐이라 하더라도, 이 맏아들이 작은아들이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없는데도 작은아들에게 손을 대면 부모는 큰아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아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적용되는 선악의 비판기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입히는 사람이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56-85, 1972.5.14) p.1035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남달리 유난하게 저게 뭐야?' 하며 흉을 보면 벌써 그는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인 아벨은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리에서 비판받는 사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벨이 되는 것이요, 비판하는 사람, 가해를 하는 사람은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56-85, 1972.5.14) p.1035

말을 하더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벨이 되는 것이요,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이익을 끼친다는 것은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이익 되게 하는 자리는 공적인 자리요, 자기 이익을 위한 자리는 사적인 자리입니다. 이렇듯 공(公)과 사(私)를 중심삼고 아벨과 가인, 선과 악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56-85, 1972.5.14) p.1035

보다 공적인 존재가 아벨입니다. 통일교회 교인 중에 먼저 들어왔으니 아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들어왔어도 공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면 가인입니다. 틀림없이 가인입니다. 가인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아벨보다 공적인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아벨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통일교인 가운데에도 먼저 들어왔다고 떡 버티고 앉아서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아벨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공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면 가인입니다. 아벨적인 존재는 보다 공적인 입장에 선 사람입니다. (31-165, 1970.5.24) p.1035

선생님이 한 생애를 다 바쳐 자기의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했고, 그런 재료면 재료, 양(量)이면 양을 많이 투입한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히 추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이고 천운입니다. (64-81, 1972.10.24) p.1035

아벨의 완성은 개인적 아벨의 완성, 가정적 아벨의 완성, 종족적 혹은 민족, 국가, 세계적 아벨의 완성의 터전을 이어 나가지 않고는 세계천국 복귀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우리들은 밤이나 낮이나 찾아오는 그날그날들을 이 원칙을 적용시키고, 이 원칙의 발전을 연결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왈(曰) 하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64-81, 1972.10.24) p.1035

Top p.1035

10) 타인과의 관계

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970 년까지 본부에서는 누구든지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은 밥먹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얻어 온 밥이라도 나누어 먹는 것이 도리입니다. 쌀독에 쌀을 두고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얻어먹는다고 타박하면, 그 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56-37, 1972.5.10) p.1036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갖게 될 때에는 하나님도 찬양하십니다. 자기만 먹고살겠다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이 아니라 전부가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고통스럽더라도 미래에 잘 살게 해주기 위해 욕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겁니다. (42-168, 1971.3.4) p.1036

공밥 많이 먹여서는 안 됩니다. 공밥을 먹이는 동시에 공적인 마음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받는 놀음입니다. 공밥을 많이 먹임과 동시에 공적인 마음을 많이 쓴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56-37, 1972.5.10) p.1036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지요? 그건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죽을 때 한을 품고 원망하는 그 원망을 받는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56-38, 1972.5.10) p.1036

사람 대하는 것을 시덥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적인 과정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재미가 나야 됩니다. 밤 가는 것도 모르고 밤을 새고, 천국이 이곳밖에 없다 하는 곳에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가치가 발견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무도 완전히 밀착돼야 접붙여지지 않느냐 말입니다. (75-177, 1975.1.2) p.1036

선생님은 우리가 굶더라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잘해 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백 만큼의 기준의 도를 닦았으면 그 백 기준 이하로 해주다가는 우리가 막혀버립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배 이상 삼 배, 오 배, 십 배 이상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었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탄복한다는 겁니다. '저 녀석 하늘보다 낫구만!' 그런다는 것입니다. (56-38, 1972.5.10) p.1036

가만히 보면, 되는 집은 개가 똥을 싸도 그 집 마당 귀퉁이에 와서 쌉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이고 이놈의 개새끼들, 이 동네 개들은 왜 전부 다 우리집 뜰안에 와서 똥을 싸노?'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복을 쫓는겁니다. '어서 와라 싸라, 어서 와!' 그래야 되는 겁니다. (60-158, 1972.8.19) p.1036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좋게 될 때는 싸우는 겁니다. 하나가 망할 때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내 편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 싸워야지, 원수되기 위해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4-33, 1979.3.25) p.1037

줄 때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야심을 가지고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11-268, 1961.12.14) p.1037

사람을 사랑하는데는 아까워 하지 말라, 무엇을 투입했는지 기억하지 말라, 더 주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을 것이 좋은 게 생겼을 때, 숨어 혼자 먹는 사람이라면, 에이, 급살맞을 자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 먹지 않고 두었다가,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주고 싶고, 혼자 못 먹겠다고 하며 식구들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갖춘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70-166, 1974.2.9) p.1037

주는데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 먹다 남은 찌꺼기를 줘서는 안 됩니다. 먹다 남은 찌꺼기를 주면, 먹고 나서도 기분 나빠 침을 뱉습니다. 떡을 주더라도, 다섯 개가 있으면 다섯 개 가운데 이것 저것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줄 때는,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데 다섯 개가 있으면 절반쯤 그냥 집어 주면 그래도 고맙다고 하지, 이것 저것 집었다가 주면 신세를 지는 사람이 신세지고 나서 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데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부모의 마음으로 주라는 겁니다. (60-170, 1972.8.17) p.1037

Top p.1037

② 타인과의 관계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횡적 관계에 있어 횡적인 인연을 중심삼고 서로 존중하는 일이 적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에 대해 전부 다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찮아지면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25-291, 1969.10.5) p.103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이 돼 가지고 만물 세계, 혹은 이 세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자로서 전체를 대해 정서적인 기준에서 횡적 관계를 넓히고 맺어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생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생활에서 이것이 맺어져야 합니다. 생활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82-275, 1976.2.1) p.1037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저 뭣인가 당구를 치게 되면 다마끼리 마주쳐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요? 그것이 재미입니다. 사람 사람의 만남도 그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주치면 잡아당겨 하나되었다가 밀어내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구공을 차더라도 그 공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변화무쌍해야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91-81, 1977.1.30)

우리가 오관을 통해 느끼는 감각의 일체를 통합하여 이 생명, 또는 사랑과 어느 정도로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인간으로서 얼마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생명력과 가중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해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 할진대 그것은 정지하는 것이 아니면 후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32-19, 1970.6.14) p.1038

하나님이 복귀섭리를 해 나오시는 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인류를 다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인 무리라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25-291, 1969.10.5) p.1038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욕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33-143, 1970.8.11) p.1038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악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밤을 새워 가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고, 그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본성의 중심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4-130, 1970.8.30) p.1038

좋은 사람은 소년도 좋아하고, 청년도 좋아하고, 장년도 좋아하고, 늙은 사람도 좋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연을 대해 사람이 주체적인 입장에 섰다면, 그 주체적인 사람은 봄도 좋아하고, 여름도 좋아하고, 가을도 좋아하고, 겨울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72-100, 1974.5.26) p.1038

사랑하는데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되겠지만, 활동하기도 부자유스럽고 힘도 부족해 제삼자의 신세를 져야 할 노인들에게는 사랑도 해주어야 하고 동정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조를 이 사회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25-289, 1969.10.5) p.1038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젊은이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데에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요즈음 청년들을 보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25-289, 1969.10.5) p.1038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데에 있어서 어떠한 단체보다도 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은 모임이라 할진대는 반드시 온 세계에 사랑의 열매로 남아질 겁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동산을 덮었을 때에는 어느 것이 소나무이고, 어느

[텍스트 입력]

것이 사철나무인지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드러납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와 줄기만이 보이는 가운데 푸른 나무가 보인다면 그것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25-287, 1967.10.5) p.1039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인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류가 형제요, 이웃입니다. (136-139, 1985.12.22)

교만은 원수입니다. 교만과 고집은 사탄의 본질이요, 사탄의 요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 대신 겸손, 고집 대신 화합을 해야 합니다. 화이유친(和而有親)입니다. 이 사람도 좋게 해주고, 저 사람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여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더 큰 것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화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본질에는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도 있지만 교만과 고집은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37-132, 1970.12.23) p.1039

Top p.1039

제 4 장
축복가정의 전통과 생활예절

1) 축복가정의 생활법도

① 가법과 예절이 바로서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부로 살아왔고, 말도 함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정에도 규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성이 난다고 자녀에게 마음대로 몽둥이를 들어 때리고 '이놈의 망할 자식아!' 하는, 세상적인 속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일신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말부터, 태도부터, 생활부터 일신된 입장에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8-252, 1970.1.22) p.1040

습관성 있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사위기대를 이룰 수 있는 기점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의 일체화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본래의 기준 앞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21-76, 1968.10.20) p.1040

종가집이 흥하려면 선조로부터 내려온 가법이라든가 예법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까짓 것 뭐 될 대로 되라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은 종가집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은 종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종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1-252, 1968.11.24) p.1040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혈통을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타락할 혈통이 아니라 순수한 혈통을 여하히 보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진심으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에덴동산에서도 타락하였는데, 이 죄악세계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악세계에서 태어난 부모는 고생을 하더라도 축복받아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희생되더라도 2 세들을 위해 그러한 환경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50) p.1040

죄의 세계에서 해방받으려면 한국 국민이지만 내가 한국 국민이라는 관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국민이라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 백성이다. 하늘 사람이다.' 하는

[텍스트 입력]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쓰고 있는 언어, 입고 있는 옷, 신고 다니는 신발, 여자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 이러한 풍습과 습관 속에 스며든 죄의 근성을 무자비하게 끊을 수 있는 비수(匕首)를 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세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생활입니다. 세상의 역사?습관?환경의 악습(惡習)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죄의 세계를 주관할 길이 없습니다. 참된 사람이 되고 싶고, 참된 나라를 찾고 싶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환경적인 모든 악조건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통일세계 1978.6) p.1041

습관적이고 세속적인 가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훗날에는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완전해야 합니다. 현재가 문제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전해야 미래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도 이러한 한날을 갖지 못한 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일치될 수 있는 자리가 이상적인 자리입니다. 현재를 바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땅 위의 영원한 발판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종합점입니다. (21-77, 1968.10.20) p.1041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귀를 이룬 후에 멸망당했던 것은 그들이 기존 환경에 동화되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다 잘살고, 잘먹고, 사치하는 생활에 모든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부잣집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또한 권력을 탐했고,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기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선민의 정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4) p.1041

습관은 제일 고질인 나쁜 버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 후 아이들을 기르면서 습관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굳어 버립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특별한 정성이나 기도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곁에서 떠들어 대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30-125, 1970.3.21) p.1041

이제부터는 비수를 가지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해부할 것은 해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천국을 이루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본이 못 되는 사람은 세계적인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온 천주적인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30-230, 1970.3.23) p.1041

축복이란 책임을 하고야 귀한 것입니다. 남자는 주먹질, 여자는 입질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즉, 가정은 소교회(小敎會)입니다. 하늘의 대행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하늘이 찾아가고 싶은 가정이 돼야 합니다. 최소한 세 가정은 한 살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기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첫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화(人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늘 가정끼리 단결해야 합니다. 최소한 삼위기대 된 가정끼리만이라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65.10.24) p.1042

우리는 개인 위주가 아니고, 가정 위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만 중심삼고 모든 것을 청산짓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 홀로 도(道)의 생활을 하던 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옛날에 노력했던 것의 몇 배 이상 노력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첨부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을 대해 도전해 나가는 생활은 까딱하면 지치고 후퇴하기 쉽습니다. 가정을 가졌을 때는 혼자일 때보다 몇 배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중심을 잡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후?좌우?상하의 관계를 가정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 형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신앙 태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27-85, 1969.11.26) p.1042

가정의 전통을 세우고 축복가정은 가법(家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기준과 가정의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만일 부모가 잘못했다가 자녀들의 추궁을 받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21-87, 1968.11.3) p.104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p.1042

②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개인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규명해야 하고, 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지난날 막연하게 살아온 생활을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18-178, 1967.6.4) p.1042

하나님을 위해 말없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옹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됩니다. (191-15, 축복과 이상가정-733) p.1042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을 중심삼은 공적인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을 중심삼은 사적인 부부나 부모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88, 하나님의 뜻과 세계-645) p.1042

부모가 하늘 가는 길에서 탈선하지 않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 자식들이 절대로 불효하지 못합니다. (27-88, 하나님의 뜻과 세계-645) p.1042

가정을 복귀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전도는 없습니다. 부부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디 가고 없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기다리면서 그리워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88, 1968.11.3) p.1042

혼자일 적에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본연의 기준까지 뚫고 나가야 합니다. 혼자는 객차와 같고 가정은 기관차와 같습니다. 개인이 실수한 것을 복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실수하면 파탄입니다. (27-86, 1969.11.26) p.1042

자식들이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엄마 좋아!'하고 아빠 엄마 좋아하는 걸 볼 때,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자식들의 안식의 보금자리입니다. (회보 18-3) p.1043

가정을 중심삼고 아버지가 '얼' 하면 아들도 '싸', 아들이 '얼' 하면 아버지도 '싸'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다 한들 나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라가 없으면 일등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9-73, 1970.2.24) p.1043

축복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부과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낙망의 가정이 됩니다. (21-87, 1968.11.3) p.1043

Top p.1043

2) 신앙생활로 본이 되는 가정

① 신앙생활이 자녀 교육이 된다

주일날 예배시간 전에 먼저 나와 준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를 다 부르고 설교시간이 딱 되면 그때에 맞추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변명해도 공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걸고 기대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이 뜻 앞에 각성하고, 공적 생활의 철저화, 사적 생활의 모범화를 결의하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31-271, 1970.6.4) p.104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복가정들은 빠짐없이 예배시간 전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은혜를 끼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목회자가 단에 나서기 전에 심정적 기반을 만들어 뒷받침해 주게 되면, 설교를 하는데 있어 식구들의 간절한 표정을 바라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발전합니다. (31-271, 1970.6.4) p.1043

공식적인 기념일이나 집회가 있으면 그것을 생명시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축복가정으로서 낙제가 됩니다. (31-276, 1970.6.4) p.1043

예배시간을 맞이하기 위해 새벽부터 정성을 들여 그날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교육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것 다 하고…. 뜻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나, 정성을 들이나, 원리 공부를 하나, 전도를 하나, 아무 것도 안해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시간이 10 시 30 분이면 10 시 30 분, 그 시간에 맞게 참석하기 위해서는 9 시 30 분이나 10 시에는 출발을 해야 예배시간 전에 도착할텐데, 시간이 다 된 다음에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배중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비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교육해봤자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1-269, 1970.6.4) p.1043

부모가 뜻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생활이라든가 가정예배라든가 어떤 면으로든지 열심있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경배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경배식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뜻을 중심삼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31-269, 1970.6.4) p.1044

축복가정은 하늘을 모시는 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헌금, 경배식, 전도 등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주일은 일주일을 절약하고 계획했다가 식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을 주는 날입니다. 또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각 가정이 서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자랑해야 합니다. (21-88, 1968.11.3) p.1044

새벽경배, 정성, 예배시간을 엄수하지 못하면서 자기 아들딸이 잘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을 중심삼고 사위기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손을 세우려면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27-87, 1968.11.3) p.1044

축복가정은 주일이나 공적 집회 참석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21-87, 1968.11.3) p.1044

식구는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거룩한 곳, 즉 성지나 교회를 먼저 찾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개인이로되 개인에만 머무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각자는 선조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17-86, 1966.11.26) p.1044

각 가정은 흰 방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장소를 준비해서 그 방석에 앉아서 정성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17-87, 1966.11.26) p.1044

자나깨나, 먹으나, 쉬나, 보나 뭘 하든 전부 다 뜻을 중심삼고 해야 됩니다. (73-61, 1974.7.29) p.1044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부모를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뜻 앞에 같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축복가정의 울타리를 만들게 되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16-329, 1966.9.2) p.1044

Top p.104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기도생활은 밥먹는 일보다 더 중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시간을 정할 때는 새벽에 해보고, 아침에 해보고, 점심에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밤에도 열시에 하든지 열두 시에 하든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년간 기도생활을 해봐서 몇시에서 몇시까지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맞는 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시간에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은혜 기준이 높은 사람을 중심삼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받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자기보다 은혜의 기준이 높고 신앙생활도 모범이 되면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남편이 세상에 없는 미남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아내가 그렇게 미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자 중에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부부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바라보고 싶고, 밤을 새워 가면서 속닥속닥 얘기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일이 아니라 흥하는 일입니다. (31-288, 1970.6.4) p.1045

밥먹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한 시간 반은 되지요? 하루에 평균 한 시간 반을 밥을 먹고 삽니다. 영적인 일은 밥먹는 시간보다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지금까지 다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70-171, 1974.2.9) p.1045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벌어진다는 전망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걸 알아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써만이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밥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어차피 헤쳐 나가야 할 길이요, 생활할수록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75.5.5) p.1045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심정의 보급창고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89, 1969.11.26) p.1045

빨래를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창고에 자꾸 쌓여야지 비면 안 되는 것입니다. (27-87, 1969.11.26) p.1045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는 뜻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은 생활하는데 있어 돈을 생각하지 말고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27-88, 1969.11.26) p.1045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빽(back)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습니까 ? 하나님을 빽으로 삼으려면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합니다. 강아지 새끼 모양으로 어미 품을 떠나서 혼자 다니다간 어미의 보호를 못받는 것입니다. (1978.10.8) p.1045

Top p.1045

③ 축복가정은 족장

1968 년도에 430 가정을 축복할 때 선생님이 지시한 바와 같이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협회에 36 가정이 조직되어 있듯이, 김씨면 김씨 가문에서 먼저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김씨 가문의 36 가정형이 있어야 됩니다. 36 가정이 못되면 12 가정형의 조상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씨족의 조상이 되어 새로운 지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2 지파형인데, 그것을 형성하면 그 12 지파권 내에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계 종족입니다. (1985.12.18) p.1046

현재의 축복가정들은 전통의 조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종족 앞에 메시아적 가정이 되어야 전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21-87, 1968.11.3) p.1046

이제부터는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종족이 이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종족적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족장을 중심삼고 이루어집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족장들입니다. (23-62, 1969.5.11) p.1046

이제 새로운 가정과 종족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종족복귀라는 역사적으로 놀라운 혜택권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도할 수 있고, 형님 누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복귀역사가 가정을 찾기 위한 것인데 다른 가정을 복귀시키는 것보다 자기 혈육을 통해 복귀하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나 형제들을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선생님 일대에 있어서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24)

여러분은 그 기반 위에서 여러분 당대에 종족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이 책임추궁을 안 받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제는 그 가정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1-280, 1970.6.4) p.1046

지옥이란 곳은 한 번 걸려들면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척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가 진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감옥에만 들어간다고 해도 울고불고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정이거늘, 하물며 천정으로 맺어진 아들딸이 자기의 부모와 친척, 형제와 자매 모두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34-266, 1970.9.13) p.1046

축복가정의 남자는 예수님의 실체 입장이고, 여자는 성신의 실체 입장입니다. 즉 예수와 성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처럼 살아서 이 민족을 구하겠다고 주저하지 않고 나선 입장이 바로 축복가정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가정은 종족적인 메시아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21-284, 1968.12.1) p.1046

여러분은 가정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찾아가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제 가정을 이끌고 종족적인 터전의 상속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35-302, 1970.10.30) p.1047

여러분들을 종족적 메시아로 보낸 것은 뭐냐? 옛날에는 예수님이 영계에서 이 지상에 종적인 과정을 통해 보냈지만, 오늘날 문총재는 하늘을 대표한 하나님 자리에서 종족을 대표할 수 있는 메시아형의 수만 가정을 세계에 파송한 겁니다. 이제는 안 망합니다. 1989 년 1 월 3 일 오후 2 시 30 분에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1989.1.8. 본부교회) p.1047

종족적인 메시아는 일대(一代)에 있어서 종족을 중심삼고 역사적인 고향을 안내하는 선봉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출애급의 선봉자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이 아닙니다. 모세는 뭘 모르고 했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을 찾지 않고는 고향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1992.1.26. 본부교회) p.104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 종족적 메시아로서 책임분담을 다해야 하는가? 첫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제 1 의 아담의 입장이고, 여러분은 제 2 의 아담의 입장에 있습니다. 부모를 복귀하여, 재창조하여 아담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이유는, 여러분들은 고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 자신의 고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분담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아담가정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족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1991.5.2. 이스트가든) p.1047

개인이 안식하려면 가정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교회는 가정을 찾기 위해 싸워 나온 겁니다. 또 가정이 안식하려면 종족권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족이 울타리가 되어 불어오는 바람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책임을 대신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지 않고는 편안한 가정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친척들을 중심삼고 족장(族長)이 되라는 것입니다. 족장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도 동네방네 친척들이 일선에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족장은 작전을 지휘하면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국가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1972.5.18. 대구교회) p.1047

여러분들은 김씨면 김씨 가문의 메시아와 마찬가지 사명을 해야 됩니다. 김씨 가문(金氏家門)이면 김씨 가문, 박씨 가문이면 박씨 가문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창건하는데 이 종족을 대표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구주(救主)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김씨 가문을 구해주는 구세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김씨 가문을 대신하여 제사장적인 책임을 해야 됩니다. (1965.10.31. 대구교회) p. 1048
이제 최후에 남은 종착지가 뭐냐? 해결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모든 벽을 다 헐고 처방을 하는데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이겁니다, 종족적 메시아. 요것만 끝나면 개인적 참소조건, 가정적 참소조건, 종족적 참소조건, 민족적 참소조건, 국가적, 세계적 참소조건을 제시할 그 무엇도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1989.3.19. 세계선교본부) p.1048
Top p.1048

3) 참사랑으로 위해 사는 생활

① 왜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주를 만든 하나님, 법도를 세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를 통해 누구보다 위해 사는 대표적인 자리에 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식의 대왕이지만 지식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대왕이지만 능력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주인이요, 대왕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해서 살다 오면 전부가 내 곁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33-16, 1984.7.1) p.1048

남을 위해 주고 또 주는 것은, 재창조하는데 있어 하나님이 창조시에 자체를 소모시키던 입장과 일치됩니다. 나를 투입한다는 것은 제 2 의 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신을 투입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조역사는 탕감복귀노정이고, 탕감은 재창조역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자신을 투입해야만 재창조가 벌어집니다.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82-240) p.1048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있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만년 하나님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위하는 천리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주 존재세계 앞에 자기 스스로의 존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위하는 데서만 동서양을 통할 수 있고 고금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7-89, 1989.1.6) p.1048

자기를 위주해 움직이는 것은 악을 가져 오지만, 전체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발전을 가져 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위해 가는 데는 모든 것이 문을 연다는 겁니다. 개인도 문을 열고, 가정도 문을 열고, 종족도 문을 열고, 민족도 문을 열고, 세계도 문을 열고, 하늘나라도 문을 열고, 모든 것이 문을 열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이 가는 길에 하나의 공리로 세워야 할 것은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나 통할 수 있는 원칙이고 이건 만고불변입니다. 과거-현재-미래가 없기 때문에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와 같은 성인이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오?' 하면 '그게 옳습니다!' 하겠어요, '옳지 않습니다!' 하겠어요?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데 있어 참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3-16, 1984.7.1) p.1049

역사적인 전통으로 남길 수 있는 실적은 무엇이냐? 희생정신에 의한 위해서 산 실적만이 오늘날의 세계에 남아져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으로, 역사적인 위인으로, 혹은 충신으로 남아졌습니다. 그러한 희생정신 밑에서만이 공적이 남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은 공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2-239, 1976.1.31) p.1049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왔다 간 과거-현재-미래의 인류를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 영인들까지 해방해 주는 운동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사랑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위하는 기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따라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히 주체가 됩니다. 참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33-30, 1984.7.1) p.1049

레버런 문 사상이 금후 21 세기에 있어 주체사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하라!'는 세계에서 반대로 '위해서 살겠다.'는 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관에 있어 그 반대의 세계가 현현할 가망성이 있는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 세계가 아니고 위해서 살겠다는 이 무리의 뒤를 21 세기 이후의 수천, 수만 년 세계는 따라 갈 것입니다. 위하라고 하는 세계는 안 따라갑니다. 싫다고 하는 겁니다. (169-88, 1987.10.25) p.1049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선생님은 어떻게 통일하느냐? 주먹으로,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아닙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위하는 자리에서 만사는 해결되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하지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위해 가는데 있어서 악마의 세계가 하늘나라로 재창조되어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그거 이론적입니다. (187-134, 1988.10.16) p.1049

Top

② 위해 사는 자가 중심이다

우리 통일교회는 잘먹고 잘살면서 가자는 거예요? 못먹고 고생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잘먹고 잘살자는 거예요, 못먹고 고생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통일교회 문선생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녹여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42-52, 1971.2.19) p.1049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부모의 자리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내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3 년만 위하면 틀림없이 내 말을 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기 안방 문까지 열고 '네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도 좋다.' 전부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한 우주의 원칙적인 작용이 이 본심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03-139, 1979.2.18) p.105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자리와 부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는 나보다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입니다. 둘이 산다고 할 때, '아, 저 식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중심입니다. 위해 주는 사람이 센터가 되는 겁니다. (103-139, 1979.2.18) p.1050

상대가 조그만 것으로 나를 사랑하고 위해 주었으면 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꾸 확대해 들어가는 겁니다. 확대 확대하면서 시일이 가면, 일생 동안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라를 넘고 세계를 넘고 영원한 세계, 천국을 넘어 천상세계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119-326, 1982.9.26) p.1050

사람은 왜 높은 걸 좋아하느냐? 다양한 것과 인연맺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왜 낮은 걸 싫어하느냐? 단순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은 높은 이상, 높은 관, 높은 것과 관계를 맺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하는 개념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129-308, 1983.12.1) p.1050

보다 위해야 합니다. 보다 위하는 것이 뭐냐? 보다 위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 사람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 그 열 사람을 위해 사랑을 하고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열 사람이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하는 게 나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중심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리가 그렇습니다. 위해 사는 것이 나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센터가 되기 위한 것이요, 책임자가 되기 위한 것이요,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해 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 중에 이런 장사가 없습니다. (132-276, 1984.6.20) p.1050

Top

4) 부모가 세워야 할 사랑의 법도

① 부모는 친구보다 가깝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있습니다. 만일 부모를 위해 부모가 있다면 부모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통일교회의 원리를 중심삼고 윤리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윤리의 제일조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아들을 위해 있고자 하는 자리가 불행한 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자리입니다. (141-19, 축복과 이상가정-765) p.1051

자기 자식에게 그릇되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그릇되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입장에 있는 스승이라면 망하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8-85, 1970.1.4) p.1051

여러분 자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이자 아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자녀의 것이 된 후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법도가 땅 위에 남아 있고 인간 생활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고아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 보고 자식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야 '나'라는 사람이 사방(四方)을 가릴 줄 알고 위도 아래도 가릴 줄 아는 것입니다. (18-209, 1967.6.8) p.105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녀들이 '천하에 우리 부모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범가정을 찾아 방문할 것입니다. 그때에 보여 줄 것이 있고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21-87, 1968.11.3) p.1051

아버지는 친구 중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친구보다도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면 친구를 버리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 중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보다도 낫다. 제일이다. 하나님 다음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하고도 못 바꾸는 우리 아버지다. 어떠한 스승을 주고서도 못 바꾸는 우리 아버지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면 버렸지 아버지는 못 버린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148-39, 축복과 이상가정-769) p.1051

선생님은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자는 애기들의 얼굴을 쓰다듬어 줍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아들딸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심어주게 됩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제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22-206, 축복과 이상가정-769) p.1051

사람들은 누구나 훌륭한 아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하면 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은 일생 동안 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부모가 정성들여 키운 자식에게 가문을 맡길 때, 그 대신자로 세울 때는 부모의 마음과 일치되게끔 하여, 그 부모의 인연을 따라가게 하면서 대신자로 세우는 것이 상례(常例)입니다. (24-257, 1969.8.24) p.1052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뼛골이 녹아나도록 고생을 하지만 힘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피살을 깎아 주고,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장부에 치부해 둡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몽땅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39-334, 1971.1.16) p.1052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냥 그대로 생활적인 인연만을 통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뼛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고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부모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여력이 남아있는 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생명의 인연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에게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저애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겠다는 의식적인 마음이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보다 그 인연보다도 앞선 자기의 생명력이 자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이 가정 생활에서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32-15, 1970.6.14) p.1052

가정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是是非非)는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남자는 가정의 중심적 권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21-87, 1968.11.3) p.1052

Top

② 전통을 상속해 주는 부모

선생님이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통일교회의 이름을 후세에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후세에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을 중요시하라는 교육을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5-115, 1970.10.4) p.1052

미래에 대해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거냐? 내가 잘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후손을 교육해야 됩니다. 후손 앞에 남겨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지도하는 나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불쌍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피난민으로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광야노정을 걸어 왔습니다. 이제부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는 정착해야 되겠고 정착하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나안 칠족을 멸하듯이 싸워 이기지 않으면 정착이 없습니다. 이 민족을 중심삼은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통일세계 1975.11) p.1052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너희들은 엄마 아빠처럼 돼야 한다고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기간 중 못먹고 못살더라도, 남루한 옷을 입었더라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게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교육자료가 될 것입니다. (통일세계 1976.12) p.1053

고생은 멋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추만대의 후손이 자랑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14-92, 1964.6.12) p.1053

우리 축복가정의 아들딸들이 3 대를 어떻게 선생님과 같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3 대가 같이 공신이 된다면 천하에 없는 저 천상세계의 공신(功臣)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딸을 안고 지금부터 교육하고 그런 사상을 집어넣기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135-16) p.1053

전통을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엔 선하고 훌륭한 후손을 남겨야 합니다. 졸장부의 후손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훌륭한 후손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운세권에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할 자리에서 새로운 은인이 나타나는 것이요, 쫓기는 자리에서 새로운 승리의 깃발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겨야 할 그 전통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만민이 기뻐할 수 있는 전통이 돼야 하고, 선한 후손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될 때 하늘 앞에 가져갈 예물이 없게 됩니다. (214-22, 축복과 이상가정-779) p.1053

부모는 죽더라도 천도는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 가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자기 자녀를 위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녀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운과 세계의 운과 함께 하고 나라의 운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아 낳은 귀한 자녀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박자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세계와 나라의 운세에 박자를 맞추어야 합니다. (21-87, 1968.11.3) p.1053

여러분은 일대(一代)를 위해 사는 가정이 되지 말고 세계와 영원을 위해 사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또, 사랑의 터전을 넓혀서 만민의 심정을 모아 촛불을 피우고 향불을 피워서 축수를 드리고, 하늘과 땅, 만민과 공동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죽겠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종자로 남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94) p.1053

Top

5) 부부가 지켜야 할 예절

① 부부는 생활의 동반자

한 번 결혼을 한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지닌 운명길은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2.11) p.1053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부부가 되면 독자적인 행동은 할 수 없으며,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544) p.1053

개인이 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가정이 망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 되는 사람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 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로 권고해 주면서 지팡이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27-87, 1969.11.26) p.105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인은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에 대해 저녁상을 차려 주는 것으로 남편에 대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녁상 머리맡에 앉아 사랑의 밀어를 나누며 오순도순한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정하게 속삭이던 그 음성으로, 사랑의 모습 그대로 하루의 노고를 위로해 준다면, 남편의 피로는 씻은 듯 가실 것이며 사랑 또한 깊어갈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2.2) p.1054

여자는 원래 남자의 평균 목소리 이하의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여자는 그 목소리가 사랑의 속삭임 같아야 합니다. (사보 39-5) p.1054

선생님이 칠십이 다 된 몸으로 바다에 나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바다에 나갈 모든 준비와 정성을 다해 줍니다. 바다에 나가 하룻밤 자고 올 준비까지 해주면서 바다에 나가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어 주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내조자의 모습입니까? (통일세계 1986.11) p.1054

남편이 돌아와서 저녁도 들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코를 골고 자 버린다면, 그 코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코고는 소리 이상으로 우는 소리가 자기의 가슴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가정을 보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소원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면 선생님의 고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육천 년의 희생은 헛된 희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35-192, 1970.10.13) p.1054

남편이 순회 간다는데 '갔다 오소. 나는 피곤하니 잠이나 자야겠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순회 갔다 올 때까지 아내도 정성들여야 합니다. 자식들도 그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0-82, 1970.3.17) p.1054

부인은 남편을 출세시켜야 합니다. 내조를 잘해야 합니다. (21-79, 1968.10.20) p.1054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내가 간섭을 안 하면 됩니까? 아내도 남편과 대등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을 때는 아내라도 그 자리에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1-210, 1970.5.31) p.1054

남편을 만나면 좋을 줄 알았더니, 나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24 시간 계속 햇빛만 쬐면 되겠어요? 밤이 있어야지. 높으면 낮아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30-143, 1970.3.21) p.1054

아내는 못산다고 슬퍼하지 말고 못 입었다고 서운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이 못 입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곳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고 다이아몬드보다 값지고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984.1.1. 하나님의 날) p.1055

남편이 누워 자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잠만 자느냐고 하며 일으켜 줄 수 있는 아내가 되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12-89, 1962.11.11) p.1055

조금만 위로해 주면 여자는 금방 화가 풀립니다. (206-4, 축복과 이상가정-671) p.1055

부부가 서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몰라 준다'고 하는 그런 시시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뜻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의 생일이 되거든, 그 동네 아주머니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 그들 앞에 춤이라도 추고 노래라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3.5.5) p.105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기 아내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그에게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아내가 방에 척 들어오면 '당신 왜 기분이 좋지 않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언제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남편이 다 알고 있으니 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잼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42-174, 1971.3.4) p.1055

사랑을 많이 가진 남편은 그 집안에서 욕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 사랑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남편의 한마디 말은 그 한 마디가 살을 에이는 것 같은 파괴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매를 치더라도 좋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싫은 것입니다. (185-16, 축복과 이상가정-671) p.1055

Top

② 부부는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이 농촌에 나가 일할 때에도 혼자 나가서 그냥 일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부처가 함께 그날의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나가서 일을 시작하고, 마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나서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규범화시키는 하나님을 표준한 생활이 얼마나 엄격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자에게도 여자로서 지켜야할 가정생활의 규범이 있고, 남자에게도 남자로서 지켜야할 가정생활의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천적인 규범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야할 노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정을 못가게 되면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31-276, 1970.6.4) p.1055

걷는 데도 남자는 바른발을 먼저 내딛고, 여자는 왼발을 먼저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앉을 때도 남자는 동쪽에 앉고, 여자는 서쪽에 앉는 것이 원칙입니다. 밥상을 놓는 것, 옷을 거는 것 등 모든 일에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1969.11.15) p.1056

남자는 여자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여자는 남자를 아래서부터 차츰차츰 올려다 봐야 합니다. 여자는 물 흐르는 쪽을 올려다보지 말고, 흐르는 아래쪽을 내려다 봐야 합니다. 물 흐르는 쪽을 향해 올려다 보는 여자는 바람 피울 형입니다. 원래 남자가 앉을 자리를 여자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옷장을 쓸 때에도 남자가 바른편이면 여자는 왼편의 것을 써야 하고, 남자가 위면 여자는 아래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저고리(상의) 위에 여자의 치마나 속옷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 옷 위에 여자 옷을 얹어서는 안 됩니다. (사보 39-5) p.1056

책임자의 부인은 남편이 문을 나설 때 절대 바가지를 긁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음으로 인해 남편 한 사람의 가슴을 흐리게 한 파도는 세계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가지를 긁으려면 저녁에 긁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밤사이에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남자는 아침에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비스를 잘해야 합니다. (27-88, 1969.11.26) p.1056

남편에게 맞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 한 번 못때려 보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27-88, 1969.11.26) p.1056

부부간에 한 쪽이 기울면 심정과 정성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21-87, 1968.11.3) p.1056

분을 바르고 향수를 뿌려서라도 여자는 언제든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자는 정서생활에 있어서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몸이나 의복 등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피곤해 보이면 세숫물도 떠다 주고, 양치질할 준비도 해 주고, 발도 씻어 주고, 머리도 빗겨 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웃음은 집안의 꽃입니다. 원만한 가정을 이루려면 여자는 희비극의 일등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기쁠 적에도 완전히 녹여 놓고, 슬플 적에도 완전히 녹여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27-88, 1969.11.26) p.1056

옷은 적어도 3 일에 한 번씩은 갈아입어야 합니다. 머리도 그렇게 자주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미소는 마음의 꽃입니다. 언제나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머리 모양이나 화장으로 상대를 테스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나 모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취미로 그것을 대신해야 합니다. 음악이라든가 모든 예술을 총동원해라도, 잡지같은 것을 보고서라도 여자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좋고, 문학 서적도 읽고 나서 그것을 설명해줘도 좋은 것입니다. 남편이 어린애같이 치마폭에 싸여서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27-88, 1969.11.26) p.1056

부부는 이왕 만났으니 양팔 붙잡고 죽든지 살든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왕에 갈 바에는 멋지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27-89, 1969.11.26) p.1057

결혼한 이후에 있어 여러분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결혼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맡아야 합니다. 인간이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부부가 되어 하나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성성상에 의해 분립된 실체이므로 분립된 실체가 합성일체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야 합니다. (14-209, 축복과 이상가정-730) p.1057

축복가정들이 애기를 품고 사랑할 줄 알거들랑 그 아들딸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해서 비밀리에 무슨 이야기를 하든간에 그 상대가 자기들 끼리 만난 상대가 아닙니다. 공적인 천도를 앞에 놓고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재시켜 놓고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기들이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하나님이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1-30, 축복과 이상가정-731) p.1057

가정적인 기반을 닦는데 있어 남편에게 부인이 마음을 맞춰 주면 복을 받는 것이요, 부인에게 남편이 마음을 맞춰 주면 복을 받는 것이요, 자녀들이 하나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 구원시대인 것입니다. (12-261, 1963.5.22) p.1057

여자는 천도에 따라 순응해서 여자로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남편이 같이 죽자고 하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더라도 저나라에 가서 같이 살면 됩니다. 남편의 명령을 절대시하고 남편의 명령에 순종한 뒤에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륜 세계의 도덕관에 있어서 악한 타락권내에 있다 하더라도 삼강오륜을 중심삼고 순응하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이라는 기준을 세운 사람들은 다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26-265, 1969.11.9) p.1057

Top

6)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운다

① 품에 품고 천법을 가르쳐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딸에게 무엇을 말해 줄 것입니까? 여러분은 공적인 삶, 그것도 모범적인 공적인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의 아들딸에게 보여주고, 그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교육시켜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부모에게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전통을 이어받는 교육은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59) p.105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식들은 모든 가치를 부모를 통해 찾습니다.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는 누구를 닮느냐? 부모를 닮습니다. 그 자녀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 부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4-133, 1969.7.20) p.1058

가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애기들의 교육기준 등 가정의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가 자식의 추궁을 받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회보 1-2) p.1058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 뜻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일언반구(一言半句)도 대꾸하지 않고 경외(敬畏)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녀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뜻과 원리를 중심삼고 볼 때, 교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부모가 본부에서 지시하는 원칙을 등한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원리원칙대로 생활하라고 하면 코웃음을 친다는 것입니다. (31-268, 1970.6.4) p.1058

부모는 무슨 짓을 하든지 아들딸이 통일교회의 정도(正道)를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정도를 가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가고 나서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식을 교육시켜야지, 자기는 하지도 않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천도(天道)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은 선생님이 먼저 실천해서 승리의 기반을 닦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 보세요.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23-322, 1969.6.8) p.1058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하니 내 자식도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표준이 된 후에야 자식을 그러한 위치에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러한 위치에 서면 하나님은 그 자식도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중심하고 그 방향을 돌려놓지 못하면 영계에 가서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103, 1963.11.1) p.1058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너희들도 엄마 아빠처럼 돼야 한다고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30-87, 1970.3.17) p.1058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30-87, 1970.3.17) p.1058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만 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을 거쳐서 뭐가 되라!'고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책임을 다하고 형은 형으로서 책임을 해야 합니다. 누나는 누나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참된 남성과 참된 여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인연을 가려 나갈 줄 아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순리적인 노정을 거쳐 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겨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일세계 1973.9) p.1059

'아버지'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참'이 아니고서는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피의 공적과 선한 것을 먹여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먹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도해 주어야 하고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야 부모는 자식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14-92, 1964.6.12) p.1059

앞으로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식을 품고 천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움에 부대끼며 살더라도, 자식에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12-182, 1969.5.18) p.1059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면 뜻 대한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며 먹여야 합니다. (12-134, 1963.1.25) p.105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이 '그 집안은 괜찮은 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집안의 자식들은 무엇이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난 아들들은 무엇이든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발짝을 옮기더라도 조심해야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법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위엄이 있는 집안에서는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자라는 아이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42-17, 1971.2.19) p.1059

Top

② 신앙교육이 더 중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학교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버님의 생각은 뜻을 중심삼은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창의력이 생깁니다. (사보 42-12) p.1059

축복가정의 자녀는 심정교육을 통해 인격자로 기르고, 규범교육을 통해 자랑스러운 선민으로 기르고, 천재교육을 통해 하늘이 준 재능을 100% 발휘시켜 뜻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왜 피곤을 느끼느냐? 자기를 위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천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한 페이지에 달려 있고 한 문구(文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단어를 가(加)함으로 말미암아 삼천만이 살고 한 단어를 감(減)함으로 삼천만이 망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들여 그 한 단어를 가하겠다는 심각한 마음으로 공부해 보라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쿵쿵거리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느낄 때가 있지요? 심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심각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심한 것을 잊을 수 있어요? 머리 나쁘다는 것도 다 정도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고학을 통해 학업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새끼들에게 야성을 길러 산중의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혹한 시련과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쇳덩이도 불에 달굴수록 강해진다는 원리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일세계 1982.11) p.1060

부모가 생활이 어려워서 마음껏 물질적 혜택을 가질 수 없다면, 뼛속에서 스며 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 자식을 위하게 될 때 그들이 부모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전통을 남겨 놓았기에 그 자식이 빚 안 지겠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때 부모도 보람을 느낍니다. (통일세계 1975.10) p.1060

Top

7) 형제간의 우애

부모한테 아들딸 둘밖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두고 볼 때 그에게는 누나가 필요하고 또 형이 필요하지요? 또 딸에게는 오빠가 필요하고 언니가 필요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남동생과 누이동생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있어야 되고, 누나가 있어야 되고, 남동생 누이동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동생?남동생?누나?오빠 다 갖추어져 완전히 하나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씨족과 민족과 국가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과 누나는 동서를 말하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남북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이 완성되면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법도가 자리를 잡게 될 때 평화의 기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40, 1968.3.31) p.1060

부모의 마음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보다도 형제끼리 더 위하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못하더라도 '어머니 조금 기다려요. 나 동생 사랑하고 오겠소.' 하면 '그녀석, 앞으로 쓸만한 녀석이다.' 이럽니다. 그렇지요? (78-41, 1975.5.1) p.106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형제를 부모 이상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부모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도리의 근본을 깨우쳐 보면 간단합니다. 그것을 몰라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식구식구들끼리 하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 앞에 효도 못하는 자리에 섰으면 부모를 위해 자기가 정성들인 것을 부모 대신 자기 식구를 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한 이상의 것으로써 하늘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받습니다. (78-41, 1975.5.1) p.1060

천국에 가는 길은 형제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데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그 마음으로 형제를 따라 같이 가려고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천국에 제일 높게, 빠르게, 좋게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도 아니요, 선생님도 아니요, 형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부모와 부부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는 최고의 사랑의 주체자로서 상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66-125, 1973.4.18) p.1061

동생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모든 형제들이 붙들어 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후대의 우리 하나님이오!' 이런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으로써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주는 그런 사랑이 되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같이하고, 그 아들딸은 미래에 하나님의 대신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84-63, 1988.11.13) p.1061

형제는 무엇이냐? 같은 사랑의 동참자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같은 동역자란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손 들 때는 아버지 손, 왼손 들 때는 어머니 손, 바른발 들 때는 아버지 발…. 우리 선진이에게 '이 발이 누구 발이냐?'하고 물어보면, 바른발은 아버지 발이고 왼발은 어머니 발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거 참 맞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벌써 사랑을 중심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06-80, 1979.12.9) p.1061

오빠의 자리에서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의 자리에서 오빠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를 개재시켜 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의 품에서 자라던 것을 중요시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된 기반에서 연결된 형제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커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를 쭉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236-11, 1992.11.2) p.1061

세상을 암만 돌아다녀 봐도 가정에 있는 형제의 사랑, 피를 나누어 갖고 태어난 형제애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 가지고 자기 형제 이상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까워 졌다가도 갈라집니다. (228-199, 1992.4.3) p.1061

형제가 많으면 밥을 먹어도 한 그릇 가지고 둘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밖에 없다고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많아 어렵게 살더라도 '내가 밥을 굶더라도 누나 줘야겠다. 동생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좋다는 겁니다. (112-195, 1981.4.12) p.1061

형제를 통해서 국민이 형성되고 인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전후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납작하게 있다가 살이 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형을 만드는 것이 형제요, 형제가 확장되어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애라는 것은 세계애(世界愛)와 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자라는 가정은 세계의 인류를 품고 이상적인 천국,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드는 모델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여기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235-268, 1992.10.11) p.1062

Top

8) 근검절약, 검소한 가정생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검소한 생활

아내 되는 사람은 남편을 위하고, 자식된 사람은 부모를 위하고, 또 부모는 가정을 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정을 위하고, 손자도 가정을 위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위해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식구들이 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 것을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할아버지도 안 쓰고 절약해서 우리 것 만들려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 안 쓰고 절약하고, 아들딸도 그렇고 온 가족이 우리 것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집은 번창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절약하여 전체를 위하는 데서부터 이런 사랑의 보금자리는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을 중심삼고 사회나 세계로 퍼지게 될 때 이상 실현이 가능한 것이지 자기 것, 자기 중심삼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7-214, 1987.7.19) p.1062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가족이 가방 하나 메고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한 성서의 문구가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229-65, 1992.4.9) p.1062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닦아 놓느냐? 우선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책임을 못해 몰리는 날에는 통일교회는 제 2 차 수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24-101, 1969.7.13) p.1062

우리 선교사들은 서구문명 사회의 어떤 호화스런 요소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슬리핑 백 문화'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낯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교회 선교사 집은 호화가구 없이 제일 검소한 살림도구만이 있는 채 발견될 것입니다. (130-280, 1984.2.7) p.1062

Top

② 절약정신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잘먹고 잘살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절대 모범이 아닙니다. 이것을 절제있게 해 가지고 필요 적절하게, 불가피하게 필요 적절한 소모를 하는 것이 모범적 생활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은 주일날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정장을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옷을 입을 때 넥타이를 안 매고 지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재킷을 안 입고 스웨터 같은 것을 간단히 입으려고 합니다. 서구사회에서 넥타이 값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핀까지 전부 다 합치면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못하고 노타이(no tie)로 세계를 생각하며 일생 동안 산 사람하고 넥타이를 하고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산 사람이 영계에 갈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을 해 보니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지요? 세 끼 밥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걸 알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사과 하나 얻어먹겠다고 전부 다 냉장고를 열고 들여다보고, 콜라 하나 마시려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정신적 소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식사 때만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도 안 나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매일같이 목욕하는 걸 찬성 안 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3 일에 한 번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땀을 흘려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매일 하면 그거 얼마나 물이 많이 소모되느냐는 겁니다. 건강에도 나쁘다는 겁니다. '으! 선생님은 야만인이다.' 하겠지만 야만인이라 해도 좋다 이겁니다. 에덴동산의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도 야만인이었습니다. 옛날에 요즘과 같은 변소가 있었어요? 휴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라고도 이 세계를 살려야한다는 겁니다. (131-283, 1984.5.4) p.106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밥을 먹더라도 옛날과 달라야 됩니다. 변소에 가더라도 옛날과 달라야 됩니다. 요즈음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변소에 가게 되면 휴지가 달아매어져 있습니다. '에라 이렇게 쓴다고 누가 보나?' 이러면서 함부로 쓰기도 했을 겁니다. 남의 것이니까 와르륵 와르륵 한꺼번에 쓱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약해 가지고 한 번에 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57-179, 1972.5.31) p.1063

배가 고파 밥을 먹더라도, 식기(食器)에 밥을 가득 담아 먹지 말고 5분의 2를 제해 버린 5분의 3을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절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로 절약해서 얼마 가지고 살겠느냐? 이런 훈련을 해서 최소한 3개월 동안은 각자 기록, 자기 스스로의 최대 한계점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겁니다. (57-197, 1972.5.31) p.1063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나라의 복귀를 위해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관리에 있어 일층 더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개척해야 되겠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71-31, 1975.3.23) p.1063

선생님은 앞으로 생활비 절반만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합니다. 코카콜라 같은 것, 과일도 못 먹게 하려고 그럽니다. 식당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은 먹는 것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 그저 무엇이든지 갖다 먹더구만. 돼지처럼 먹습니다. 절약에는 별거 없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에 있어서 절약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96-134, 1978.1.3) p.1064

우리 식구들은 저런 넥타이는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외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까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면에서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으로 거기서 위대한 혁명의 기지(機智)가 폭발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4-195, 1977.9.1) p.1064

내가 돈이 많다고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라고 그러지만, 나는 24시간 쉬지 않고 피땀을 흘려 단 한 닢이라도 절약하여 모은 돈을 다 세계에 펼쳐 놓고는, 뭐 문서짜박지 하나 나한테는 없습니다. 인감도장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정성껏 모은 이 돈을 누가 갖다 마음대로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101-161, 1978.10.29) p.1064

남 잘 때 자지 않고 남 쉴 때 쉬지 않고, 남 먹을 때 먹지 않고 절약을 해 가지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생각은 본시 그렇습니다. (103-241, 1979.3.1) p.1064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고생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후대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사상을 지니자는 겁니다. 십년 그런 사상의 전통을 남기고, 백년 동안 그런 사상의 전통을 남기고, 천년 동안 그런 사상의 전통을 남기게 될 때에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추대받는 민족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으로 지도하려는 것이 선생님의 사상입니다. 당하고 있는 현재에서는 제일 나쁜 사상으로 볼 수 있지만 두고두고 보면 이 사상만이 남아지고 이 사상만이 승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길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09-104, 1980.10.26) p.1064

'돈을 아껴라!' 할 때 내가 부자되기 위한 것보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아끼는 게 공적(公的)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아끼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절약해라! 아껴라!' 하는 것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걷는 나라인데, 세계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걷었으면 세계 앞에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미국 국민을 위해 했다면 미국 국민도 정부를 반대하고 세계도 반대하는 겁니다. 세계를 망치는 유행이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위해 내가…. '반대를 받더라도 레버런 문이 가는 길이 정당한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듣고, 말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111-256, 1981.2.22) p.10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9) 일상생활의 예절

① 옷

옷을 거는 것도 전부 다 원리적으로 걸어야 됩니다. 남자의 옷은 오른쪽, 여자의 옷은 왼쪽. 옷을 넣더라도 남자의 옷은 위에 넣고, 여자의 옷은 아래에 넣고, 그게 원리적입니다. 전부 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처음 듣지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옷을 전부 다 밑창에 넣고 여자의 옷만 위에 넣게 되면 그게 뭐예요,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984.5.3. 이스트가든) p.1065

자, 옷을 벗을 때도 바지를 먼저 벗고 재킷을 위에 놓아야지 웃옷을 먼저 놓는 거 아닙니다. 그런 원리적 생활로써 환경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신발은 오른쪽, 여자 신발은 왼쪽, 또 두 칸 밖에 없는 한 집에 살 때는, 남자 신은 위에 여자 신은 아래, 그걸 전부 다 원리적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4.5.3. 이스트가든) p.1065

여자들은 옷을 입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입나요? 웃옷을 먼저 입나요, 아래옷을 먼저 입나요? 여자는 아래옷부터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리가 아래옷부터 입는 겁니다. 남자도 물론 그렇지만…. 남자는 가끔 웃옷을 먼저 입어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원리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생활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생활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84.5.3. 이스트가든) p.1065

Top

② 얼굴

얼굴은 생긴대로 그냥 있는데 그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 ? 이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이빨이 옥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자꾸 웃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래야 되느냐? 여자가 그러면 독사의 이빨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 절대 입을 벌리고 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벌리지 말고 웃으라는 것입니다. (1984.5.3. 이스트가든) p.1065

여자들이 '하하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꽃입니다. 꽃이 필 때에는 소리없이 피지 활짝 피나요? 살랑살랑 핍니다. 그런 여자가 여성답지 '하하하'가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허허허' 하는데, 남자라면 또 몰라도 여자는 꼴불견입니다. 진짜 꼴불견입니다. 암만 서양 여자들이라도 우리 무니(Moonie)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131-283, 1984.5.4) p.1065

웃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살짝 웃는 것도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둥글어져 나갑니다. 영감이 크게 웃게 될 때, '허허허' 하고 계속 올라가지 않고 꼬부라지면 '걸걸걸' 합니다. 왜 꼬부라져요? 이상하잖아요? 올라가면서 웃지, 왜 꼬부라지느냐는 겁니다. 둥글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쭉 웃게 될 때에는 입이 살짝 웃지만, '하하하' 하고 웃게 될 때에는 입이 둥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둥글게 웃는 사람 중에는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관상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지요? (173-242, 1988.2.21) p.1066

자, 여러분들은 웃을 때 눈 따로 코 따로 웃나요, 다 같이 웃나요? 눈이 웃고 코가 웃는데, 입이 이런 사람은 먹는 것이 궁(窮)합니다. 또, 코가 안 웃고 뻣뻣이 있으면 아들딸과 손(孫)이 귀합니다. 또, 웃기는 웃는데 이렇게 눈이 안 웃는 사람은 정(情)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활짝 웃고, 크게 웃어야 됩니다. (96-232, 1978.1.22) p.1066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③ 머리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머리를 잘해야 됩니다. 화장을 하는 것도 그렇고, 머리도 자기가 봐 가지고 가르마를 왼쪽을 타느냐 오른쪽을 타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전부 다 왼쪽을 탑니다. 서양풍이지만 대개 왼쪽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걸 여자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1-283, 1984.5.4) p.1066

Top

④ 손톱과 발톱

선생님이 서양에 와 가지고 제일 무서운 것이 여자 앞에 가는 겁니다. 손톱만 보면 이건 뭐 위험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손톱이 언제나 이렇게 짧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길면 손톱과 발톱을 자릅니다. 손톱과 발톱 자르는 것이 취미입니다. 손톱 기르는 여자들은 일을 안하겠다는 여자들입니다. 아, 그것 가지고 타이프를 칠 때 어떻게 치겠나 ? 난 그걸 볼 때 '그건 거리의 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안 주면 손톱을 가지고 '확!' 돈 달라고 말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131-283, 1984.5.4) p.1066

여자들이 양말을 벗을 때 발톱이 길어서 늘어나면 안되는 겁니다. 서양 여자들은 발톱이 길면 아파서 안되겠구만. 하이힐 신을 때 아플 겁니다. (131-283, 1984.5.4) p.1066

Top

⑤ 걷는 것

걸음은 단정히 걸어야 됩니다. 서서 걷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 걷는 것이 균형이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고…. 척 서 있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31-283, 1984.5.4) p.1066

여자가 등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남자들도 그렇지만. 침대생활하는 여자들 보면 가슴이 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을 때에도 언제나 똑바로 앉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자는 앉을 때에 궁둥이를 깊숙히 앉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전부 다 허리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걷는 모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걷는 모양.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31-283, 1984.5.4) p.1067

Top

⑥ 앉는 모양

여자들이 어디에 가서 앉을 때 동양같은 데서는 절대 기대 앉지 못하게 합니다. 남자는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궁둥이가 커서 앉으면 자동적으로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궁둥이가 작고 상체가 크기 때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앉을 때, 특히 여자들이 기대어 앉게 되면 애기에게 지장이 있는 겁니다. 임신하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131-283, 1984.5.4) p.1067

Top

⑦ 자는 것

서양에서는 잠자는 매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려서 자요, 옆으로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자는 게 고와야 된다는 겁니다. 코를 고는 것도 덩치가 큰 남자들이 코를 골아야지 여자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코를 골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는 건 '쌕쌕쌕' 작게 그래야 됩니다. 여자가 골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목을 숙일수록 소리가 더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베개를 이렇게 목이 높아지도록 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131-283, 1984.5.4) p.1067

여자들이 남편이 자는데 들어와야 할 때는 옆으로 삭 들어와야 됩니다, 옆으로 돌아서 말입니다. 남편이 먼저 자는데 여자들이 '왁' 하고 들어오면 큰일난다는 것입니다. 살짝 옆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131-283, 1984.5.4) p.1067

Top

⑧ 건강

건강이 제일입니다. 아무리 아픈 데가 있어도, 감기가 들어도 건강한 기분을…. 자기의 표정을 봐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뭘 알 수 없는 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만 감기가 걸려도 아픈 표정 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어려운 표정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걱정스러워 해도 그거 왜 그러시느냐고 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언제나 건강한 표정이 필요합니다. (131-283, 1984.5.4) p.1067

Top

⑨ 말

동양에서는 여자의 말이 담을 넘게 되면 그 집안 망한다고 그럽니다. 남자가 '왕왕' 하면 자연적으로 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자는 말이 작습니다. 본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게 되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여자 데리고 살다가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써 여자가 말하는 소리 들으면, 대번에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다, 고달프게 살지, 복받고 살지, 사랑받고 살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자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 생각들 안 해봤지요? (131-283, 1984.5.4) p.1067

말은 말만으로, 행동은 행동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아들딸 위(位)에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딸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1-89, 1977.1.30) p.1068

여러분들은 심정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걸립니다. 천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91-97, 1977.1.30) p.1068

여러분이 말은 순식간에 하지만 그 한 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1년까지 갑니다. 한 순간 잘못 말한 것을 1년동안 청산시키는 놀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43-111, 1971.4.25) p.1068

사랑을 중심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욕을 해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흥할 뿐이요, 발전할 뿐이요, 전부가, 우주가 좋아할 뿐이라는 겁니다. (91-91, 1977.1.30) p.1068

Top

10) 순결에 대한 가르침

① 사춘기에는 계율을 잘 지켜라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 눈을 뜨게 되고 전체의 생각이 그리로 집중되지요? 모든 세포작용이 그리로 다 집합되는 것입니다. (108-233, 1980.10.16) p.106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춘기가 된 청소년들을 보면 눈이 '깜짝깜짝' 하고, 오색의 옷을 입고 궁둥이 싸매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궁둥이 크면 큰일납니다. 흉이 될까봐 그저 작게 하고 나가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모든 육적 작용을 백 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세포 전부가 작용하는데 백 퍼센트 합니다. 그 때만이 백 퍼센트 활동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예쁘장한 것, 알록달록한 것을 왜 입으려고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신호등과 마찬가지입니다. (144-202, 1986.4.24) p.1068

요즘 세상에는 별의별 바람이 다 부는데, 이 천지에서 통일교회 패들은 절대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요놈의 사춘기(思春期)가 '생각 사(思)'자 사춘기(思春期)가 아니라 '죽을 사(死)'자 사춘기(死春期)입니다. 여러분, 요걸(思春期) 택할래요, 요걸(死春期) 택할래요? (57-159, 1972.5.31) p.1068

예수님은 사춘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사춘기가 있었겠지요? 예수님에게도 사춘기가 있었는데 무슨 사춘기? 이 ('생각 사'자) 사춘기를 걸어갔겠어요, 이 ('죽을 사'자) 사춘기를 걸어갔겠어요? 어떤 사춘기를 걸어갔겠어요? 아무한테나 휘파람을 '휙' 불고 신호하는 그런 사춘기가 아닙니다. '생각 사'자 사춘기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57-159, 1972.5.31) p.1068

우선 여러분들은 사춘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이것(思春期)이요, 죽고자 하는 것은 이것(死春期)입니다. 죽고자 해서 이것을 벗어나면, 한 바퀴 뒤집어 놓으면, 180 도 돌려 놓으면 사춘기(死春期)가 변해서 사춘기(思春期)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춘기를 통해서 소망의 봄날, 새로운 산 봄날인 신랑 신부의 사춘기를 향해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랑 신부의 역사입니다. (57-159, 1972.5.31) p.1069

인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봄날을 못 맞이한 것입니다. 봄날이 오게 되면 효자 되겠다는 녀석들이 자기들만 봄날을 맞이해요? 부모를 중심삼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봄입니다. 우리 같이 나가서 오늘을 즐깁시다' 이래야 효자지,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봄인데 봄에는 낮잠 자는 것이 적당합니다.'라고 해놓고, 떡 낮잠 자게 해 놓고 자기들 끼리끼리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녀석들이 효자예요?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때려죽일 자식입니다. 그렇지요? (57-159, 1972.5.31) p.1069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삼아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사춘기(死春期)로 시작한 것입니다. 죽을 사(死)자 사춘기입니다. 사춘기(死春期)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봄이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놀음을 지금까지 해 나오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57-159, 1972.5.31) p.1069

오늘날 틴에이저(teenager;십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건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어디든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돌아다니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사회에 파탄을 가져오고 자기 자체에 파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또, 사춘기에는 변하는 때이기 때문에 누가 한 마디만 해도 '에이!'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막 변할 때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꼼짝도 안 하는 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선악 가운데 악은 뭐냐?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런 보호작용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8-197, 1982.6.1) p.1069

사춘기 때는 여자나 남자가 위험한 때입니다. (124-120, 1983.2.1) p.1069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에 자리를 잘못 선택하면 일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요, 잘 선택하면 일생을 흥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50-270, 1971.11.8) p.106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청소년들이 부모를 반대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은, 이 법도에 있어서 질서를 파탄시키기 때문에 악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되니 이것은 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춘기 때는 힘을 내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그 스릴 있는 장면을 실천해보고 싶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나쁘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종이 벌어져 환경을 파탄시켜버리는 놀음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이 다 밝아져 사회의 체험과 환경적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때에는 되어도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117-184, 1982.3.1) p.1070

여러분은 지금 한창 피어나려고 하는 꽃봉오리가 좋아요, 활짝 핀 꽃이 좋아요? 선생님은 활짝 핀 꽃이 좋은데? 여러분이 바로 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피어나는데 있어서는 네 마음대로 활짝 피라는 것입니다. 남의 힘에 의해 피지 말고 네 마음대로 그리하여 활짝 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자라 자연스럽게 사춘기를 지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활짝 피어서 사랑하고 싶은 남편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지도 못한 채 찌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잎이 떨어지고 가루가 떨어져 피는 꽃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활짝 피어야 됩니다. (47-88, 1971.8.19) p.1070

아직 피지도 않은 봉오리인데 편지하고 연애질이나 하는 그런 못된 녀석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활짝 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때, '야! 순수히 본성적으로 피었구나. 향기를 맡아보니 숫것이구나'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희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숫것을 원하시겠어요, 찌그러진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숫것을 원해요, 찌그러진 것을 원해요? 타락한 여러분도 숫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원할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정을 가지고 활짝 피어서 오늘날 타락한 세계에서 슬픔의 고비에 걸리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47-88, 1971.8.19) p.1070

Top

② 나는 하늘의 자녀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저희의 심정과 인연 맺고 아버지의 심장의 동맥이 저희의 심장의 동맥과 인연되는 일체적인 관계를 이루어, 아버지가 가시는 길이 저희의 길이요, 아버지의 사정이 저희의 사정이요,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7-270, 1969.12.21) p.1070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 대에 가까운 청소년으로서 더럽혀지지 않고 물들지 않은 거룩한 순정을 고이 꽁꽁 싸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 하늘이 제일 기뻐할 수 있는 그 제단 앞에 놓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같은 순정을 가진 사나이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같이 묶어질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런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64-84, 1972.10.24) p.1071

자기의 몸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럽히지 말고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몸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사탄의 사망권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목적이며 또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창조원리로서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5-202, 1965.10.9) p.1071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純種)이 못 되었으니까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順從)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패서라도 순종하는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모든 종교의 중심이 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33-332, 1970.8.23) p.107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제 순종의 씨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씨를 쪼개면 그 씨의 중심은 배젖입니다. 배젖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골통을 쪼개보면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씨의 중심, 즉 뿌리가 될 수 있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비록 보기에는 초라하고 육신은 5, 6 척도 못 되지만, 이 사나이의 붉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그래 봤어요? (33-332, 1970.8.23) p.1071

지상이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몸을 정히 보전(保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깨끗한 마음, 순종하는 깨끗한 몸이 어버이에 대해 참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15-201, 1965.10.9) p.1071

첫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129-149, 1983.10.9) p.1071

저나라에서 첫사랑과 더불어 간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간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129-135, 1983.10.9) p.1071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천국갈 수 있는 사람은 첫사랑을 중심삼고 살고,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첫사랑 때문에 죽고 살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잘해야 됩니다. (128-85, 1983.6.5) p.1071

Top

11) 성별의식의 생활화

① 성염

※ 성염은 1960 년 3 월 16 일(음력) 참부모님의 성혼하신 날을 기점으로 처음 성염을 만들어 사용함. 이로부터 모든 가정은 성염을 사용하여 생활과 환경을 성별하는 생활을 했다.

성염(聖鹽)은 누룩과 같습니다. 물건을 샀을 때에 성별(聖別)하고,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에도 울타리에서(대문에서) 성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78, 1960.4.11) p.1072

성별한 것은 사탄세계에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단 불가피할 때에는 왼손으로 주어야 합니다. (9-78, 1960.4.11) p.1072

성별할 때에는 '성부 · 성자 · 성신과 참부모와 나의 이름으로 성별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성염을 십자(北南 東西의 順)로 뿌린다. (9-78, 1960.4.11) p.1072

성별한 부동산 등을 처분해야 할 때에는 단계를 통해 허락을 받고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78, 1960.4.11) p.1072

우리 식구들이 성별해 들어가는 땅으로 모든 땅을 점점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9-78, 1960.4.11) p.1072

여러분은 어디 가서 앉을 때 소금을 뿌리고 앉아요? 속으로 '후 후 후' 하고 세 번 부는 조건을 세우면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에 미남자가 있으면, '아이구, 미남자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미남자가 손을 한 번 쥐었더라도 '후' 하고 불어버려야 됩니다. 소금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후후후' 하고 세 번 불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세 번 뿌리라는 겁니다. (170-233, 1987.11.21) p.107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 식구들은 모든 것을 성별해야 됩니다. 성별하는데 성염을 뿌려 가지고 성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고 국수를 먹고 물을 먹고, 그럴 때에 언제 성염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훅-'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담을 지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실체의 새생명을 탄생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여러분도 생명의 실체를 대신하여 물을 먹든가 밥을 먹든가 할 때에는 불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풍습이 묘하다는 겁니다. 물 같은 것 먹어도 불어서 먹습니다. 또 불고 앉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 민족 앞에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양심을 움직여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풍습으로 남아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언제나 그런 성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3 시대, 소생-장성-완성, 6 천 년의 기나긴 시대를 3 시대로 거쳐오면서 더럽힌 것을 성별하기 위해 세 번 불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소변을 보더라도 한결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0-222, 1961.4.15) p.1072

Top

② 성초

㉮ 심정초

※ 심정초는 1961 년 1 월 5 일에 만드시어 축복가정에게 전수. 심정초는 참부모님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고 뜻 성취를 다짐하는 기도를 할 때 사용한다. p.1073

"아담은 타락 이후 참된 생명과 사랑(심정)의 원천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당신을 심정적으로 계속 실망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말미암아 당신은 타락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노고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들 각자는 복귀된 아담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만물을 복귀하기 위한 우리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하옵소서.

이 심정초가 탈 때마다 이 불꽃이 당신의 심정을 위로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당신에게 기억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 심정초에 불을 붙이고 기도할 때마다 복귀역사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결심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p.1073

Top

㉯ 해산초

※ 해산초는 예진님의 탄생시로부터 시작. 36 가정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후 참부모님이 각 가정으로 전수해 주셨다.

"저는 이제 참부모님께서 36 가정들에게 전수해 주신 전통적인 해산초를 각 가정에 다시금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해산초를 본래 참부모님께서 가지셨던 해산초의 상징으로 사용했사오니, 이 가정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닐 수 있는 해산초를 갖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자녀들을 해산하는 동안 이 해산초가 타게 될 때 영적인 분위기를 성스럽게 해주시고, 사탄이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p.1073

Top

㉰ 애천초

※ 애천초는 1984 년 5 월 16 일에 참부모님이 만드셨고, 5 월 20 일에 축복가정에게 전수해 주셨다. 애천초는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심정초와는 달리 한 쌍으로 되어 있다.

초는 자체가 희생하여 빛을 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류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는 것은 초도 아니요, 심지도 아닙니다. 초와 심지가 합해서 불을 붙여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마찬가지로 주체와 대상인 부부가 서로 희생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132-104, 1984.5.20) p.1073

애천초를 중심삼고 통일심정권에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132-107, 1984.5.27) p.1073

"사랑하는 하나님! 애천일을 정한 이 승리의 표적을 꺼지지 않는 촛불로써 상징하였사오니, 여기에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옵고, 이 초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그 자리의 불과 더불어 하나된 그 가정에는 평화가 깃들고 당신의 사랑의 주관권이 연결되어서 어두운 세력을 막아내고, 모든 불의의 조건들을 막아내고, 불화의 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승리의 거룩한 초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사랑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곳곳마다 당신이 언제나 같이 하시고 부모님이 같이 하시고 온 영계와 육계가 사랑의 통치권을 가지고 임하시어 보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애천초 위에 당신의 영광과 더불어 역사에 길이길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리하여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게끔 축복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이름으로써 기도하며 선포하였나이다, 아멘." (132-105, 1984.5.20) p.1074

Top

㉮ 통일초

※ 통일초는 1995 년 9 월 5 일부터 1996 년 1 월 2 일까지 참어머님께서 참자녀님과 함께 밤 12 시에 통일초를 켜 놓고 120 일 동안 정성드린 것이 기원이 된다.

이번에 아버님께서 9 월 5 일부터 미국 순회강연을 하시고, 나도 일본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집을 나올 때 모일 수 있는 아이들을 모두 모아 놓고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아버님이 다시 인류를 끌어안기 위해 아메리카를 상대로 제일선에 나가셔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 우리들도 함께 정성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모두 한 마디 이의도 없이 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따로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밤 12 시가 되면 촛불을 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1 월 2 일까지 120 일간 정성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참어머님 말씀) p.1074

내가 오늘 가지고 온 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합니다. 이 초를 전수받고 여러분은 참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딸로서, 이 지상에서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정성을 드리는 기대를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확대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워도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같은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는 하나이지만 이것은 3 개의 초가 하나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자녀님들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패밀리 1995.11) p.1074

"이 통일초를 연결하고 난 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심정으로 당신 앞에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전인류를 불태울 때까지 사랑의 마음 변치 않기를 거듭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님, 격려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훌륭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p.1074

Top

12) 축복가정의 일상 생활 의례

① 경배식

초하루는 새벽 다섯 시에 각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본부를 향해 경배해야 합니다. 기쁜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일요일에도 새벽 다섯 시에 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생활을

보고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13-104, 1963.11.1) p.1075

경배식은 일요일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본부를 향해 경배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하다보면 부작용이 있기에 부작용을 피하려니 그 조건을 걸어 놓고 주일과 초하루 새벽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1-274, 1970.6.4) p.1075

새벽경배시간만이라도 하늘과 직선상에 서야 합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심각한 자리입니다. 그 시간에 1초만 늦어도 회개해야 합니다. 또 그 시간엔 마치 성만찬 때 하는 것같이 성물로 사탕 한 알씩이라도 준비했다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27-85, 1969.11.26) p.1075

새벽경배, 정성, 예배시간을 엄수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아들딸이 잘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세우려면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21-86, 1968.10.27) p.1075

Top

② 가정예배

부모가 뜻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기도생활이라든가, 가정예배라든가 어떤 면으로든 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경배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경배식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뜻을 중심삼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31-266, 1970.6.4) p.1075

자기 일족을 중심삼고 가정예배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환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236-72, 1992.11.2) p.1075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식집회 참석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는 공식 활동에서의 책임 수행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엔 가정 생활에서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모범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31-268, 1970.6.4) p.1075

Top

③ 훈독회

훈독회는 모든 축복가정의 부처끼리라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한 시간씩. 만일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12시에라도, 1시에라도 해야 합니다.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미 순회할 때에도 12시가 넘어서 고단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한 겁니다. 하루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축복가정과 이상천국》을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은 축복가정의 내용을 전부 다 가르쳐 주고, 이상천국의 내용을 전부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두고 싸워 나온 승리의 기반을, 하이웨이를 닦아 놨으니, 여기에 고속도로를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다 자동차가 되고, 휘발유가 되고… .자동차로 이것을 최고의 스피드로 달려야 되겠어요.

시간만 나면 훈독회를 해야 합니다. 혼자라도, 화장실에 있어도 훈독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어디를 읽었는지 기록해 두고, 주머니에 말씀책을 넣어두고 항상 훈독회를 해야 합니다.

훈독이란 말을 다시 써봐요. 말씀 언(言)변에 이렇게 해 놓고는 이게 뭐야? 강(川)이야. 말씀이 강 옆에 가면 뭐요? 하나님 말씀이 곧 내를 만난겁니다. 이것을 보면 소생-장성-완성입니다. 독(讀)자는 말씀 언(言)변에 팔 매(賣)자입니다. 팔아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큰일납니다. 팔지 않으면 주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쌓아 놓고 썩히면 벌받는다는 겁니다.

《뜻길》을 읽고 《원리》를 읽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축복과 이상가정》이라든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사탄세계와 대치해 가지고 싸워 나왔던 승리의 기록이기에 모두 다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하나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사적 기념인 과거, 현재에 싸워오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하나될 수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 상대적인 기분을 닦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중심삼고, 가정을 중심삼고, 자기 일족 7 대까지, 그리고 이것을 횡적으로는 160 가정, 180 가정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어서 말씀을 정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이 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선생님을 통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서 언제 듣더라도 마음이 동(動)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감동받으면 몸뚱이에 일대 혁명적 변화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1998.2.1. 본부교회) p.1076

모임이 있을 때에는 공부해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시간만 있으면 공부해야 합니다. 몇백 번, 몇천 번 읽어 가지고 내것이 될 때까지 내가 그 상대적 실체권을 가질 때까지…. 이제부터 그런 놀음을 하는 겁니다.

통일교인들은 앉아 있으면 병납니다. 병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시험치고 노력하는 겁니다. (1997.10.31. 이스트가든) p.1076

훈독회는 내가 천신만고 일생에 쌓은 모든 보물함을 민족 앞에 풀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전부 다. 번역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번역 못합니다. 내 민족 앞에 통고할 때까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290-29, 1998.2.2) p.1077

Top

④ 가정맹세

인간은 본래 맹세한 내용(가정맹세문)의 인연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이 맹세 안에서 살고 죽어야 합니다. 아무런 가책 없이 이 맹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164, 1961.7.20) p.1077

앞으로 여러분은 자기 가정에서 일요일에는 전부 다 경배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축복받은 사람들의 선언식입니다. 이 가정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맹세를 외우는 겁니다. 가정맹세, 그건 뭐냐 하면 사탄세계와 관련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별의별 놀음을 다 한 전부를 청산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선포식입니다. 그러니 빠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10-280, 1990.12.25) p.1077

Top

13) 축복가정의 제사

① 조상숭배법은 본래 하늘법

옛날 충신들 가정에서는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나랏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충신들의 생활법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예법은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천국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공자의 가르침을 중심한 예법을 보면 천법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러 분들을 대해 제사 지내게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생활규범이나 장사지내는 절차 등이 우리 원리를 중심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예법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무슨 내용이든 하나님이 같이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뿌리를 깊이 박아 어떤 풍상에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31-292, 1970.6.4) p.1077

고향에 가서 뭘 할 거예요? 우선 무덤부터 정성들여 가꿔야 됩니다. 고향 가서 종손 책임을 못 했으면, 한국 풍습이 조상들을 잘 모시는 것이니까 비석도 해 세우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동산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와서 이 황폐된 땅 위에 나무를 심고,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던 이상동산을 만들고,

[텍스트 입력]

동네를 깨끗이 단장하고, 나로 말미암아 고향산천이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겠다 할 때,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해 놓으면 고향에서 왕초가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왕초란 말이 나쁜 말이지만 지금 이 뜻은 좋은 의미의 선한 일에 왕이 되고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1991.8.29. 국제연수원) p.1077

여러분은 전부 선조들의 얼굴을 대신 쓰고 나온 역사적인 부활체입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몇십만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역사과정을 결국은 나 하나 만들기 위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김씨면 김씨라는 나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적인 결실체입니다.

조상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조상들이 나라를 사랑한 것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100 퍼센트를 주게 되면 120 퍼센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면 할수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움직여 나온 것입니다. (1988.7.22. 한남동공관) p.1078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성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덤에 묻혔다고 하고 성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지 못한 한을 오늘로서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220-349, 1991.10.20) p.1078

조상들이 죽은 날이 되면 전부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을 위해 제사상을 차려 놓고 제사합니다. 선생님의 사진을 모신 그 방에서 하게 되면 절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떡을 하고 제사 지낸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212-100, 1991.1.2) p.1078

통일교회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이제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참부모를 중심삼고 반대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 전통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 하늘 나라, 하늘 조상을 섬기는데 있어서 그 계대를 이은 주류사상적인 전통적 혈족들을 천년만년 모실 수 있는 왕토가 되는 겁니다. 왕을 모시는 영원한 태평성대를 주가할 수 있는 그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라에서 살다가 가야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일가, 일족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220-221, 1991.10.19) p.1078

선민권과 혈통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선민권은 장자권입니다. 한국은 장자의 나라입니다. 한국이 족보를 사랑하는 민족이 된 것도 다 혈통을 받아가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유교사상 이상 부모를 존경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226-277, 1992.2.9) p.1078

우리 통일교회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아요? 해방이로구만! 이제부터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사 지내는 걸 하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한국의 법이 하늘의 법입니다. 세계에서 독특한 민족입니다. 한국만이 그런 것입니다. (240-94, 1992.12.11) p.1078

제사 드릴 시간은 장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한 시에 하던 것을 아침 다섯 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다섯 시에 하려고 하던 것을 사정에 의해 아침 일곱 시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하면 돌아간 할아버지, 조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손이 결정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장손이 결정한 시간에 와야 제삿상을 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싫으면 못 대하는 겁니다. 땅이 중심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231-168, 1992.6.2) p.1079

제사할 때에는 삼촌, 사촌, 팔촌, 증조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장손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한국의 전통적 문화배경에 조상을 존중시하는데 있어서 장손을 내세운 것을 보게 될 때, 이 민족은 장자권을 존중시하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197-340, 1990.1.20) p.107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 앞에 효도했으면 죽은 다음에 제사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사진 놓고 산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그날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영계에 무슨 경계선이 있어요? 이제는 묘지까지 안 가고 집안에 모여 산 부모와 같이 모시고 잔치하고 축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묘지에 안 가더라도 축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무덤은 자기가 사는 동산에 만들어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교회당에다 묻지요? 그 어머니 아버지 무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충고하는 겁니다. 사랑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직접 조상들이 쫓아와서 책하는 것입니다. (206-294, 1990.10.14) p.1079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온 인류의 참부모가 받아야 됩니다. 윗대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것을 지금까지는 금지해 나왔지만, 이제 복귀시대에 있어서 축복받고 그랬으니, 앞으로 조상들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23-210, 1991.11.10) p.1079

Top

14) 축복가정의 평생의례

① 출산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은 지극히 귀한 것입니다. 하늘 땅의 지극히 귀한 보물입니다. 그건 돈 주고도 못 사고 세상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들딸을 바꿀 수 있어요? 아들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165-100, 1987.5.20) p.1079

아기를 보면 신비롭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신비롭다는 겁니다. '야! 이 녀석이 어떻게 나왔나?'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몇천 년 걸려도 못 만든다는 겁니다. (118-289, 1982.6.20) p.1079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복중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낳게 했어요? 그저 쉽게, 말하듯 쉽게, 맛있는 음식을 먹듯 쉽게, 향수 냄새가 나듯 쉽게, 뭐 그저 좋아서 입을 벌리고 '하하하' 하고 애기를 낳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안 낳고 땀을 흘리며 죽는다 산다 하는 경계에서 낳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째서? 빛나는 사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107-43, 1980.1.20) p.1080

그 죽을 경지에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천지에 이거 야단났구나 하는 경지에서 아기가 '으앙' 하고 울며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아픈 것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 아이고'이러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7-43, 1980.1.20) p.1080

딸은 낳은 지 7일 째 되는 날에 봉헌하고, 아들은 8일 째 되는 날에 봉헌식을 행합니다. (11-82, 1961.2.2) p.1080

Top

② 축복

여러분은 참부모와 완전한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맺어 주기 위한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369) p.1080

축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면 전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받는 것이 됩니다. (통일세계 1982.11) p.108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축복의 자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는 누구와 관계맺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자기 자체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부모의 형태를 닮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 중의 복입니다. (35-236, 1970.10.19) p.1080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하늘의 전권을 옮겨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328, 1967.4.16) p.1080

축복은 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지극히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유린하는 것이 됩니다. (35-67, 1963.10.17) p.1080

여러분들로부터 먼저 선한 조상, 땅,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로 축복받은 사람은 눈만 뜨면 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은 남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타락으로 더럽혀진 혈통을 계승한 것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원죄를 벗을 수 없고, 원죄를 벗지 않으면 참자녀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원죄를 벗는 혈통 전환, 즉 혈육을 교환하는 식이 성주식(聖酒式)입니다. (35-301, 1970.10.30) p.1080

성주(聖酒)에는 사탄의 참소가 없는 만물의 요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성주를 받고, 참부모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면 사탄보다도 더 두려운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탄은 장성기 완성권을 더럽히고 유린하였는데, 축복받은 자가 잘못되면 완성기 완성권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범한 죄가 남게 되므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29-308, 하나님의 뜻과 세계-543) p.1081

결혼식은 바로 사랑의 전수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살듯이 여러분도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대신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라!' 하는 사랑의 전수식이 결혼식입니다. (31-279, 축복과 이상가정-296) p.1081

축복받은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선생님이 영원히 책임을 집니다. 선생님이 주관하고 지도합니다. 축복이란 이와 같이 선생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33) p.1081

축복을 받고 잘못되면 반드시 탕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는 무서운 곳입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7) p.1081

선생님은 지금까지 새로운 축복, 새로운 가정을 위한 탕감조건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책임지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책임을 수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천법을 범하였다고 한다면, 그 죄는 몇십 대의 자손에까지 걸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22-211, 1969.2.4) p.1081

축복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과 이미 영계로 간 많은 사람과의 가치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천적(天的)인 은혜를 저버리게 될 경우에는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하게 됩니다. 천사장은 장성 기준에서 사탄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완성 기준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9) p.1081

Top

③ 승화식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인간이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겁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차원이 낮은 세계에서 차원높은 세계로 사랑의 다리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는 죽음을 승화(昇華)라고 합니다. 차원 높이 승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에서만이 가능합니다. (137-316, 1986.1.5) p.1081

타락하지 않았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죽음을 슬픔으로 맞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화식이라고 합니다. (199-353, 1990.2.21) p.1081

통일교회에서는 죽어서 장사하는 것을 승화식이라 합니다. 죽은 사람을 붙들고 우는 것을 보면 죽은 영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해 가지고 내 갈 길을 밧줄로 당겨서 못가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승화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비상천(飛翔天)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가지고 밀어 주어야 됩니다. 잡아당기지 말고 밀어 주어야 됩니다. (199-130, 1990.2.16) p.1082

승화식이란 말은 흥진군으로부터 나왔지요? 애승일이라는 것의 그 애승(愛勝)이 뭐냐?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어머니도 몸부림을 치고 배밀이하며 통곡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일 이내에 이 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겼노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승화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을 넘어 기쁨을 향해 가는 겁니다. 승화식을 거쳐 가는 사람들은 영계의 모든 골짜기를 휘익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녀석들은 가 가지고 중간에 머물지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승화식이란 흥진군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212-96, 1991.1.2) p.1082

흥진군이 감으로 이 사망의 담을, 죽음의 담을 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승화식입니다. 죽음이 낙담이나 낙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약을 하는 겁니다. 승화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은 이런 자연순환 법도에 의해 오는 겁니다. 더 좋은 세계로 옮겨 주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196-270, 1990.1.2) p.1082

내 아들 흥진이가 돌아갔는데도 눈물 안 흘렸습니다. 영계에 가는 것이 슬픈 게 아닙니다. 해방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국 깃발을 들고, 보무(步武)도 당당하게 백전백승해 가지고 천하의 금의환향하는 깃발을 들고 민족과 인류의 환성을 받으며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환고향(還故鄕) 길입니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울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승화식이라고 합니다. (227-260, 1992.2.14) p.1082

우리 장모되는 분도 돌아갔지만 통일교회는 장례식이라고 안합니다. 뭐라 그러나요? 승화식. 승화되는 겁니다. 횡적인 세상에서 살다가 종적(縱的)인 세계의 활동무대로, 무한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사탄세계에서는 울고불고하면 악령들이 오고 그러지만 그런 자리는 악령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195-160, 1989.11.15) p.1082

그래, 통일교회에서 장사를 뭐라고 그러나요? 승화식이 뭐예요? 변화해서 한 단계 올라간다 그겁니다. 이번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에도 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갈 길을 가려 주기에 바빴지 울지 않았습니다. 효자라면 그 이상의 효자가 어디 있어요? (196-55, 1989.12.24) p.1082

통일교회는 죽은 후에 장사(葬事)도 그렇게 안 합니다. 승화식(昇華式)입니다. 어디에 갈 줄 알고 삽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천하에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죄악된 세계, 혼란된 세계에 있어서 자주적인 중심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천지의 도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권 내의 수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수직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 자리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돌게 되기 때문에 도는 환경 전체가 수직화 됩니다. 남자 중심삼고 여자가 하나되면 그 남자와 여자를 중심삼고 그 환경은 전부 다 행복권(幸福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98-124, 1990.1.25) p.108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15) 기념일을 맞는 마음자세

① 기념의식의 의의

공적인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전통을 세워 놓아야 후손들의 생활의 전통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날은 하늘이 기뻐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고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이 날은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하늘적인 법도를 세워나가는 날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역사과정을 통한 이 인간세계에 나타난 기념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날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독립한 날을 기념한다든가 세계적인 무슨 행사를 하는 모든 날들은 모두 타락권 내에서 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2-250, 1977.4.18) p.1083

원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가장 바랄 수 있는 축하의 날, 희망의 날이 있다면 그날은 자기가 난 날도 아니요, 자기가 결혼한 날도 아니요, 자기 나라를 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찾은, 혹은 국가가 독립한 날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희망하는 날, 바라는 날이 있다면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입니다. 그날들이 땅 위에 생겨나는 그것만이 우리의 전체 소원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참부모의 날이 시작되게 되면 그다음엔 자녀의 날도, 만물의 날도 자연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92-252, 1977.4.18) p.1083

오늘날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날을 본 사람이 없고, 참부모의 날을 본 사람이 없고, 참자녀의 날을 본 사람이 없고, 참만물의 날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년 365 일이라면 365 일이 연결되는 모든 날들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지금 말하는 섭리사에 나타난 이런 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날은 날 중에 왕같은 날이요, 그런 해가 있다면 해 중에 왕같은 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92-252, 1977.4.18) p.1083

통일교회에서 우리가 기리고 있는 명절이나 기념일들은 사탄세계와 싸워 피나는 투쟁을 통해 성취한 섭리적인 승리의 날인 겁니다. 절대적인 승리의 성취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하나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을 맞아야 합니다. p.1084

Top

② 의식을 위한 예복은 단정히

선생님은 최상의 높은 자리, 하늘 보좌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다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문은 열려 있지만 가려야 갈 수 있는 예복을 못 입었습니다. 잔칫집에 가는데 예복 입고 가야 할 것 아니예요? 신랑의 들러리로 가는데 촌 농부 바지 입고 가서 돼요? 거기에 맞는 단장을 하고 그 자리에 가 서야 그 환경의 환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지, 그것에 반대되면 추방당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아, 저리 비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복을 갖추고 와야 합니다. (212-226, 1991.1.6) p.1084

제물은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 사람의 이념을 대신합니다. 제물로 드릴 물건을 살 때에는 값을 깎지 말고 조금이라고 더 주어야 합니다. 예복감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7-279, 1970.12.30) p.1084

Top

[텍스트 입력]

차 례

제 1 장 탕감·복귀원리의 근거
1)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 · · · · · 1089
2) 인간에게 책임분담이 있다 · · · · · 1094
3) 책임분담을 완성하면 · · · · · 1099
4) 책임분담의 발견과 그 중요성 · · · · · 1104
5) 책임분담을 수행하는 자세 · · · · · 1106

제 2 장 죄·인간 타락의 내적 의미
1) 환부역조(換父易祖)가 곧 타락 · · · · · 1110
2) 타락은 사탄 중심한 혈통전환 · · · · · 1116
3)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 · · · · · 1120
4) 선악과는 해와의 생식기 · · · · · 1124
5) 타락의 한, 하나님의 복귀의 심정 · · · · · 1129
6) 참부모의 축복과 혈통복귀 · · · · · 1134

제 3 장 탕감과 복귀의 공식
1) 모성복귀로 본 리브가, 다말, 마리아의 역사 · · · · · 1141
2) 참아버님의 역사적 탕감노정 · · · · · 1149
3) 8단계 탕감노정과 팔정식 · · · · · 1157
4) 장자권 승리와 부모권, 왕권복귀 · · · · · 1163
5) 복귀역사 전개와 섭리국가의 사명 · · · · · 1170

제 4 장 탕감노정과 우리의 생활
1) 복귀의 길은 인지당행지도 · · · · · 1179
2)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 · · · · · 1182
3) 왜 탕감복귀가 필요한가 · · · · · 1185
4) 탕감조건은 자신이 세워야 한다 · · · · · 1189
5) 탕감 법 없이는 사탄분립 안 된다 · · · · · 1192
6) 신앙은 탕감 법을 지켜 나가는 것 · · · · · 1196
7) 탕감 길은 절대복종, 절대순종의 길 · · · · · 1200

제 1 장
탕감, 복귀원리의 근거

1)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

① 간접주관권

통일교회 원리를 보면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간접주관권에 있게 되었고, 직접주관권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책임분담을 못함으로 연결 못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도 책임분담 때문에 자꾸 연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직접주관권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권에 가기 위해서는

[텍스트 입력]

간접주관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책임분담을 완수해야 됩니다. (139-231, 1986.1.31) p.1089

인간이 자랄 수 있는 간접주관권을 둔 것은 인간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리결과주관권을 왜 만들었느냐? 이걸 안 만들면 성숙할 수 있는 한계, 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춘기라는 때를 어디에 정하느냐 이겁니다. (135-314, 1985.12.15) p.1089

그래서 원리결과주관권, 사춘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이 전부 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148-150, 1986.10.8) p.1089

통일교회의 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원리라고 해요? 원리결과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의 한계선을 만드는 것, 그게 원리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장자로서 소생-장성-완성권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그게 원리입니다. 이 간접주관권 내에서도 인간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책임분담을 해야 됩니다. 절대 성숙할 때까지는 사랑의 인연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철 나기 전에 아담과 해와가 그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선을 정해 놓고 '기다려라, 따먹지 말라!' 한 겁니다. (137-252, 1986.1.3) p.1089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접주관권을 지나 직접주관권과 연결될 수 있는 사춘기가 되면, 모든 우주의 힘이 여기에 동화될 수 있고 여기에 응결되어 작용할 수 있는 그 초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남과 동시에 하늘과 영계와 육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초점에 조준되어서 사진 찍고 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사진과 마찬가지로 초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평면적 초점과 함께 수직의 초점이 딱 중앙점에 맞아 가지고 째까닥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사진을 못 찍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적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지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런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부부가 되어 있느냐 이거야. (136-37, 1985.12.20) p.1090

직접주관권은 아담과 해와가 사랑을 중심삼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주관권은 아직까지도 책임분담 미완성권입니다. 책임분담 완성과 동시에 아담과 해와가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내적 아버지가 되고 아담과 해와는 외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안팎으로 하나되게 될 때에 비로소 직접주관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결혼이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신으로는 못 넘어가는 겁니다. (139-262, 1986.1.31) p.1090

천국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사탄 분립하는 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분담 완성권에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주관권 간접주관권이 책임분담 완성한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천상애가 지상애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막는 겁니다. 하늘의 사랑의 길을 막는 것이 사탄입니다. (148-204, 1986.10.9) p.1090

아무리 기독교문화권이 크다고 하더라도 신부와 더불어 참된 하나님이 사랑과 결탁될 수 있는 아담 완성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분담을 완성하여 직접주관권내에 들어와서 사랑을 중심삼고 상하·전후·좌우에 일체화될 수 있는 가정적 참사랑의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220-93, 1991.10.15) p.1090

참부모는 전체 책임분담을 완성한 자리에서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의 심정권을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천국화 시킬 수 있는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나오지 않고는 천국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조이상입니다. (148-212, 1986.10.9) p.109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책임분담을 다 하게 돼 있는데, 타락함으로 사탄이 생겨났으니 부모님은 타락한 후손들 앞에 세계적인 기준에서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탕감기준을 세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분담권을 세움으로 한꺼번에 탕감기준을 세워 간접주관권 내에서 직접주권관 내로 비약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의 선생님의 일생의 일이었다 이겁니다. (131-97, 1984.4.16) p.1090

Top

② 직접주관권

책임분담을 완성함으로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이 연결되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될 수 있지, 그것이 없으면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분담을 완성한 사랑의 실체, 사랑의 화신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우주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공식입니다. (149-318, 1986.12.21) p.1091

책임분담권은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된 자리입니다. 완성을 향해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었을 때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이 연결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없는 겁니다. 간접주관권이 연결되면 심정권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타락되었기 때문에 문제지요. (172-198, 1988.1.9) p.1091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현현하게 될 때 사탄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책임분담 완성입니다. 책임분담을 완성했더라면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에서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적 사랑과 아담과 해와의 횡적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173-286, 1988.2.21) p.1091

본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책임분담을 완수해서 하나님과 사랑 일체권 내에서 천지가 합덕돼 가지고 승리적 기반을 닦았다 할 때는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된 그 사랑권 내에 천사장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197-286, 1990.1.20) p.1091

책임분담은 성숙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해서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권 내에 들어가게 되면 직접주관권 내입니다. (198-371, 1990.2.11) p.1091

원리에서 책임분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책임분담 완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인간은 상대의 자리에서 영원한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212-14, 1991.1.1) p.1091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직접주관권과 간접주관권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간접주관권을 두었느냐? 직접주관권과 간접주관권이 언제 하나되느냐? 본래의 참된, 인류시조인 아담과 해와가 성숙해서 서로 횡적인 입장에서 사랑으로 하나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가지고 종적인 사랑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를 횡적인 사랑으로 접붙이기 위한 놀음이 아담과 해와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합덕을 이루는 겁니다. (135-304, 1985.12.15) p.1091

직접주관권이 왜 필요하냐? 직접주관권을 연결시키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랑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연결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사랑을 중심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나 모든 가정도 사랑하는 자식을 중심삼고 상속하려고 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5-324, 1985.12.15) p.1092

책임분담이라는 말은 선생님 시대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접주관권이니 직접주관권이니 하는 말은 문선생이 머리가 좋으니까 맞게끔 꾸몄지 뭐' 할지 모르지만 꾸몄으면 내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 고생해요? 적당히 꾸몄으면 내가 일생 동안 뭐 하러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고생할꼬? 말도 말라는 겁니다. 꾸몄으면 내가 편하게 왜 못 가요? 편안한 길을 갈 텐데 왜 그렇게 꽃다운 청춘을 흘려 보내고 누더기 보따리 차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버런 문이 꾸몄다는 말은 성립 안 되는 겁니다. 꾸미는 데 앞서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고개라도 가려고 했고 핍박의 길도 자진해서 간 것입니다. 핍박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그 사정을 모를 겁니다. (139-247, 1986.1.31) p.1092

축복받고 부정하는 것은 사탄보다 더 나쁩니다. 사탄이 참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주관권 내에 들어와서 타락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원칙, 그 천리의 법도는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전통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128-110, 1983.6.5) p.1092

그 세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내 피부에 부딪혀 오고 내 정신에 부딪혀 옵니다. 마음의 감동이 폭발하여 나를 자극하는 것을 느끼면 그는 이미 천국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척 사람을 대하면 압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직접주관권 내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리라 보는 것이 원리관입니다. 그렇게 살아 보라는 것입니다. (78-35, 1975.5.1) p.1092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책임분담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분담 완성이라는 건 남자가 성숙이 되고, 여자가 성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완성했다는 건 뭐냐, 에덴동산에서의 완성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제2로 알고 여자는 남자를 제2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책임분담 완성함으로써 전부 다 간접주관권에서 직접주관권 내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165-105, 1987.5.20) p.1092

책임분담은 직접주관권?간접주관권을 극복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적 심정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자기 종적인 면의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횡적인 면만 딱 결정되면 거기서부터 사탄은 없는 겁니다. 직접주관권입니다. 아직까지 책임분담권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5-126, 1989.1.3) p.1093

타락한 인간세계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타락권을 넘어선 참부모입니다. 우리 원리로 말하면 책임분담을 완성한 그 권내를 넘어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접주관권 내에서 직접주관권 내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직접주관권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에 일치된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딴 주인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사랑에 딱 일치가 되면 두 주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딴 주인을 원치 않고, 사람도 딴 주인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연결됐으면 그것으로 영원한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가정으로 확대되고, 종족, 민족, 국가로 확대되어 그 사랑의 축을 중심삼아 천운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149-154, 1986.11.21) p.1093

하나님을 중심삼고 책임분담을 완성한 기준에서 사랑을 중심삼아 통일되어 천운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회전권 내에 누가 와서 부딪치겠어요? 사탄은 그림자도 못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만 되면 지상천국은 자연히 형성되는 겁니다. (149-172, 1986.11.21) p.1093

원리결과주관권을 통과하여 인간 책임분담을 완성함으로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되니까 직접주관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적인 역사도 횡적으로 할 수 있고, 횡적인 역사도 종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리 누르면 횡적이고 잡아당기면 종적이 됩니다. 그 말이 그겁니다. 잡아당기면 종적으로 되는 것이고 내리 누르면 횡적이 되는 것. 그러므로 종적으로도 점령할 수 있고 횡적으로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3-217, 1989.10.4) p.109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현현하게 될 때 사탄은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분담 완성입니다. 책임분담을 완성했더라면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에 있어서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횡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이, 혈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핏줄이 생깁니다. 그 핏줄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된 종횡의 사랑과 인연돼 가지고 태어난 핏줄은 사탄이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과 인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심정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본연의 전통적 혈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173-285, 1988.2.21) p.1093

책임분담 통일적 직접주관권의 일치점이라는 것은 이상적 부모의 사랑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183-89, 1988.10.29) p.1094

책임분담 완성은 결과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의 과정을 통과하여 사랑을 가지고 일체화합니다. 일체화하여 직접 하나님의 지도권에 들어갑니다. 주관권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정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183-89, 1988.10.29) p.1094

Top

2) 인간에게 책임분담이 있다

① 책임분담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온 천하가 몽땅 굴복할 수 있는 사랑, 권위를 주시되 온 우주가 그를 따르고 온 천주가 완전히 고개 숙일 수 있는 권위, 그런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권위를 생각하고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20-209, 1968.6.9) p.1094

하나님은 어찌하여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세우셨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그 전지전능한 창조성까지 부여하고, 또 영원불변한 사랑의 주체이시니 그 사랑의 주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책임분담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요,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것이기에 이것을 안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분담이 문제가 되어 타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209, 1968.6.9) p.1094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위업에 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타락해 가지고 인간 책임분담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타락하지 않아도 인간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95 퍼센트 창조이상적 형태를 다 갖추었더라도 자기의 5 퍼센트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 자체의 완성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보태 가지고 완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115-65, 1981.11.4) p.1094

우리는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해야 합니다. 하나님 책임분담 95 퍼센트에 인간 책임분담 5 퍼센트 합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24-307, 1969.9.7) p.1094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왜 주었느냐? 창조의 위업에 가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어 하나님 앞에 대상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109-65, 1980.10.4) p.1094

원리에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원리는 용서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합니다. 죽어서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을 두고라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복귀섭리의 노정에서 수난 길을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제정해 놨기 때문에 책임분담적 한계선 때문에, 하나님도 그 코에 걸려 지금까지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수많은 수난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아도 그렇다 이겁니다. (115-65, 1981.11.4) p.109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이 책임분담을 하지 못함으로 탕감복귀라는 원한의 술어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탕감복귀 과정에는 절대 하나님도 후원하지 않고, 본부도 후원하지 않고 혼자 해야 됩니다. 도와주게 될 때에는 탕감이 안 됩니다. 어째서? 인간책임분담이라는 원칙이 있으니 그 원칙에서 도와주는 것은 탕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도울 수 있었으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간섭해 타락 안 하게 합니다. 책임분담이 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책임분담이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124-304, 1983.3.1) p.1095

레버런 문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인간 책임분담하는 과정에 탕감노정을 가는 데는 하나님이 협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사탄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세계를 이기고 나가야 할 것이 본래의 아담에게 허락된 이상권이었는데, 그 이상권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4-304, 1983.3.1) p.1095

결국 책임분담이 있기 때문에 탕감도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책임분담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할 때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책임분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87-120, 1976.5.23) p.1095

아담과 해와가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장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답변했을 겁니다. 이 물어보는 것이 책임분담 5 퍼센트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물어보지 않고 횡적 관계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분담 5 퍼센트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없으면서 날뛰는 별의별 귀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언제 통일시키겠습니까? (33-242, 1970.8.16) p.1095

인간에게는 책임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준 목적은 창조의 위업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95 퍼센트는 하나님이 만들고 5 퍼센트는 인간이 만듦으로 말미암아 창조하는데, 하나님만이 창조하지 않고 인간도 스스로 창조했다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동등한 가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책임분담입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인간만이 책임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이래 책임분담을 완성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분담,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139-230, 1986.1.31) p.1095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상에 당신이 소원하는 천국을 실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셨으면 벌써 순식간에 전부 다 이것을 해결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을 인간이 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분담이 남아 있으므로, 인간이 그 책임을 다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실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82-89, 1976.1.1) p.1096

아담과 해와는 사랑을 중심삼고 완성해야 되는데 사랑을 잘못 해 그 책임분담에 문제가 걸렸습니다. 책임분담은 모든 분야의 과정에 있습니다. 목적을 완성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에는 반드시 책임분담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한적인 과정을 거칠 때에는 반드시 책임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133-175, 1984.4.10) p.1096

아담과 해와가 왜 타락을 했느냐 하면 책임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분담은 아담 혼자 할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기 전에는 책임분담을 완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원리와 하나되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87-122, 1976.5.23) p.109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책임분담을 완성해야 됩니다. 책임이라는 내용을 상실해 버린 그 세계에 살지 못한 게 한입니다. 혈통전환이라는 원통한 이 비운의 운명을 지닌 타락의 후손이 된 것이 기가 막히게 비통한 사실입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다해서 책임 다 한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으로 나서서 하나님 대해 서슴지 않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7-115, 1990.1.7) p.1096

선생님이 가는 길은 태산준령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손이라도 한 번 붙들어 주며 '야야, 너 힘들겠다.' 한 줄 알아요? 밤이나 낮이나 보호하며 반겨줄 것 같아요? 보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책임분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연의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지, 사랑 찾아가는 과정의 인간을 사랑하려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202-301, 1990.5.25) p.1096

책임분담을 완성한 자리에 선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95 퍼센트를 창조했지만 인간이 함께 100 퍼센트 완성한 창조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인간 완성이자 하나님 창조위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위업의 완성이자 뜻의 완성이요, 뜻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202-301, 1990.5.25) p.1096

책임분담 완수 못한 우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연, 구렁텅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탄 사랑의 영역이 하늘나라의 문전 경계선까지 연결되었고, 직접주간권내와 간접주관권내의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137-251, 1986.1.3) p.1096

책임분담을 완성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없어집니다. 참소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 기준을 못 넘게 되면 참소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상세계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참소조건의 내용을 가지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불변·유일·영원한 사랑의 내용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은 기준에 서게 되면 사탄이 거기에 참소조건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면 사탄이 우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사탄이 있다가도 도망가야 됩니다. (169-84, 1987.10.25) p.1097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몸으로 화해서 그 체(體)를 입고 완성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접 주관권과 간접주관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책임분담을 한 사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담 마음에 계시고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일신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같이 나눠 가지고 그걸 호흡하는 것입니다. (213-190, 1991.1.20) p.1097

인간이 책임분담을 완수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려는 것은, 참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대등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이고, 같은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서 중심이 되고, 같은 자리에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119-125, 1982.7.11) p.1097

타락하지 않았으면 책임분담이 쉬운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자라면 사춘기가 오게 돼 있으니 쉬운 겁니다. 그건 자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자연히 오니 어려울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릇된 사랑으로 책임분담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면 책임분담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95 퍼센트 책임을 하고, 인간이 5 퍼센트 책임을 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위업을 상속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하는데 그 센터가 뭐냐? 참사랑입니다. (124-94, 1983.1.30) p.1097

Top

② 책임분담을 못한 결과

통일교회가 말하는 책임분담이란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책임분담 못 한 입장에 있지요? 인류 시조가 책임분담을 못 한 그 자리는 사탄 지배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책임분담 못 한 그 자리 이하에서부터 악주권 세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복귀시대에 있어서의 선주권 세계는 책임분담을 완성한 선(線) 이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책임분담선 이하에는 악주권이고 책임분담선 이상에는 선주권이 시작하는데, 악주권의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타락한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39-231, 1986.1.31) p.1097

책임분담 미완성으로 사탄세계가 형성되었고, 이 땅이 사탄주관권 내에 남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분담 미완성으로 하나님도 수고의 길을 지금까지 가려 나오고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껴야 합니다. (63-315, 1972.10.22) p.1098

책임분담권을 침범 받음으로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또 다른 부모가 생겼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모가 사탄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37-247, 1986.1.3) p.1098

책임분담은 아담과 해와가 못했습니다. 책임 못 한 것이 아담과 해와 자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해와가 뿌리가 되어 가지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어, 온 인류는 결국 책임 못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87-120, 1976.5.23) p.1098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 책임분담권 이상의 자리에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하에 떨어진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다리를 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 권에 모든 인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걸려 있고, 역사가 걸려 있고, 과거에 영계에 간 사람, 현재 이 세계 인류, 금후에 올 후손 전체가 이 운명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원한의 타락권입니다. (115-67, 1981.11.4) p.1098

타락한 인간은 인간 책임분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창조의 97 퍼센트를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를 해야 되는데, 창조과정 전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97 퍼센트에 해당될 수 있는 책임을 해주지 않고는 책임분담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다 이겁니다. 재창조해야 됩니다.

복귀섭리는 재창조역사인데 재창조가 왜 반드시 필요하냐? 인간 책임분담 때문입니다. 인간 책임분담을 하여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창조 과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탕감해야 됩니다. 탕감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수난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5-67, 1981.11.4) p.1098

탕감복귀하여 해원성사한 후에야 비로소 책임분담이 벌어집니다. 한을 남긴 책임분담,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녹아 났고, 지금까지 인류가 이 책임분담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한 때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의 역사는 거듭되어 내려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많은 책임분담의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63-347, 1972.10.22) p.1098

아담이 책임분담을 못함으로 천지에 이렇게 수많은 담을 만들어 놨으니 아, 담을 어찌하겠느뇨! 담을 만들어 놨으니 해와는 어떻게 해와야 되겠느냐?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여자의 길은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찢기고, 저기 가서 밟히고, 깨진 조롱박처럼 차면 깨져서도 또 굴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뱅- 차서 구둣발이 들어간 자국이 나더라도 또 굴러가야 됩니다.

또 저쪽에서 뱅- 차서 구멍이 열 개 뚫어져서 굴러가야 할 신세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굴러가야 되는 길을 걸어온 것이 여자입니다. 왜? 해오기 위해서, 해와가 되기 위해서. (122-40, 1982.10.31) p.1099

아담과 해와를 욕할 때에 아담부터 욕해요, 해와부터 욕해요? 해와라는 것입니다. 해와라는 말은 한국 말로 '일을 해서 복귀해 와라!' 이겁니다. 기억해둬야 합니다. 참말입니다. '아담'은 타락해서 담이 생겼다 이겁니다. 책임분담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을 헐고 가야 됩니다. (227-324, 1992.2.16) p.1099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책임분담을 완성하면

① 책임분담 자유화권이 필요

아담과 해와가 책임분담을 했으면 후손은 책임분담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통치법적 가정윤리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상에 참부모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평면적인 면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60 도의 평면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중심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36-316, 1985.12.29)

참부모님은 개인 · 가정 · 종족 · 민족 · 국가 · 세계 · 천주 탕감노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책임분담을 완수해서 사탄을 분별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침범을 못 합니다. 자기 중심삼은 사랑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탄은 자기 중심삼고 사랑을 시작한 것이니, 이것을 제거하는 데는 자기 중심한 사랑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7-113, 1985.12.24) p.1099

탕감복귀는 책임분담의 자유화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책임분담 자유환경을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 코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세계적인 반대를 받는 겁니다. 세계적인 핍박을 받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 세계적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사탄을 분립하는 겁니다. (148-199, 1986.10.9) p.1099

탕감복귀는 불가피한 겁니다. 왜 탕감복귀해야 되고 왜 사탄을 분립해야 되느냐? 자연스러운 본연의 책임분담, 자유 환경 기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참소할 수 없고, 사탄이 인연지을 수 없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감복귀, 책임분담 완성이라는 기준은 논리적으로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굶고 앉아 있더라도 사탄세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분수령입니다. 그게 경계선입니다. (148-204, 1986.10.9) p.1100

책임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탕감복귀는 뭐냐? 책임분담 완성할 수 있는 자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이 침범하니 사탄을 방어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인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류를 미워하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인류를 더 사랑한다.'고 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지니고 가야 할, 책임분담 완성권을 넘어서서 가야 할 그 기준을 중심삼고 일방 통행시킬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서지 않고는 사탄을 분립시킬 수 없습니다. (148-154, 1986.10.8) p.1100

책임분담 완성을 위해서는 탕감조건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탕감조건을 치렀으니 여러분은 선생님이 걸어온 생애의 목적관을 중심삼고 그것을 이어받은 자로서 사랑의 기수로서 당당히 나라에 나타나게 되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요,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요, 부부의 자리에 서면 열남 열녀가 되는 것이요, 세계를 향해서는 성인의 도리를 가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왕궁법에 보조를 맞추는 왕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사랑을 위해 살겠다고 모든 것을 바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169-94, 1987.10.25) p.110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의 책임분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아프게 했던 그 원한의 고개에 50억 인류가 다 걸려 있고, 영계에 간 수많은 선조도 다 걸려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 속에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기준을 어떻게 다시 회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더 빨리빨리 탕감길을 가고 이 모든 책임분담을 완수하여 세계인이 해원성사할 수 있는 길을, 그 길을 향해 '시간아 가라!', '세월아 가라!', '해방의 날이여 어서 오라' 이러면서 온 겁니다. (197-104, 1990.1.7) p.1100

하나님은 지금까지 탕감복귀의 과정을 기다리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고개, 사랑이상을 이루어 만민 앞에 해방의 종소리와 더불어 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자리까지 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고 나왔던 마음을 풀고 눈물과 더불어 복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림주가 이 땅에 와서 그 뜻을 이루어 사탄세계 전체의 소유권을 상속해 가지고 하늘 앞에 돌려 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평화통일의 세계를 땅 위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소유권 전수를 해 가지고 하늘 앞에 돌려 드려야 됩니다. (197-96, 1990.1.7) p.1100

Top

② 완성한 자리는 천지일체화 가정

지상과 천상을 통일하고 심신을 통일하는 것은 책임분담 완성입니다. 종적인 하나님과 횡적인 참부모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일된 사랑,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사랑, 몸과 마음이 하나된 사랑, 남자와 여자가 하나된 사랑이 문제입니다. 통일된 사랑의 기반을 닦을 수 있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혈통이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의 횡적인 확대가 팔방으로 전개됨으로써 왕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218-124, 1991.7.14) p.1101

남자 여자는 천주의 압축된 핵입니다. 부부가 참사랑을 하는 데는 온 우주가 걸려듭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인간은 종적 횡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분담을 완성함으로써 종적인 주인이 설정되고, 다음에 횡적인 주인이 설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사랑에 의해 성립되는 것입니다. (218-136, 1991.7.14) p.1101

아담과 해와가 책임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종적인 존재가 되고,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에 의해 일체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종적인 것이 횡적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된 자리는 우주적인 사랑의 뿌리가 내리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착할 수 없으면 축이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 축을 바르게 세우는 데는 메시아 사상, 부모의 사상이 축이 되어서 섰다고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축과 하나됨으로써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이 영원히 고착이 되는 것입니다. (218-136, 1991.7.14) p.1101

책임분담은 첫째는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참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참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딸로 태어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 부모가 돼 가지고 하나님 대신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짓고 좋아하던 그 사실을 내적 외적으로 체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225-126, 1992.1.5) p.1101

참부모님의 승리권은 제1은 개인, 제2는 가정, 제3은 국가, 제4는 세계, 제5는 천주, 제6은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그 다음은 일체이상 실현으로 이 모든 것이 참사랑으로 하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사랑의 주인인데, 이 참사랑으로 전부가 연결됩니다. 일체이상 실현으로 하나님 사랑이 하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이상입니다. 가정이나 개인이나 떨어진 게 없다 이겁니다. 일체이상 실현으로 천상, 지상이 통합되어 본연의 아담과 해와가 장자권 취득으로 말미암아 영계가 지상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을 중심 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참사랑으로. 우리 원리로 다시 말하면 책임분담 완성하는 것입니다. (212-137, 1991.1.2) p.110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심정권을 어떻게 전수받느냐 하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은 책임분담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종적 사랑의 핵을 중심삼고 좌우에 아담과 해와의 사랑이 연결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어 아들딸이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거기서부터 심정권이 발발되어 뿌리를 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혈통 기반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173-302, 1988.2.21) p.1102

하나님의 섭리는 4 천만이, 6 천만이 전부 다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둘기 쪼개는 것에 의해 나라가 왔다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175-20, 1988.4.6) p.1102

무엇보다도 먼저 책임분담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책임분담을 완성하기 위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하나된 사랑을 중심삼은 공명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가 전부 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들고 나오는데 있어서 아내가 들고 나올 때는 남편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어머니가 들고 나올 때는 아버지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손자나 아들딸이 들고 나올 때는 조부모, 부모, 형제들이 모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된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늘의 사랑, 땅의 사랑, 친족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8-124, 1991.7.14) p.1102

하늘의 사랑은 종적이고 땅의 사랑은 횡적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은 전후의 사랑입니다. 입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아들딸이 하나의 통일체가 되면 하나님이 지상에 임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조상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자녀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비로소 천지일체화의 가정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책임분담을 완성한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 위의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218-124, 1991.7.14) p.1102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말합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혈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을 복귀하는 그 자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연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리가 재창조 완성의 자리입니다. (217-106, 1991.5.12) p.1102

혈통복귀는 근본 복귀입니다. 조건 가지고는 복귀 안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적 사랑 가지고 돼요? 근본적인 사랑이지요? 혈통은 근본적인 사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에서는 전체 복귀가 안 됩니다. 탕감복귀는 고생한 것, 무슨 뭐 소 도둑질한 것, 남의 참외 따먹은 것, 호박 따먹은 것, 수박 따먹은 것, 그런 것처럼 탕감복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근본을 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215-98, 1991.2.6) p.1103

아담이 책임분담을 완성하면 장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지요? 부모권 복귀입니다. 왕입니다. 천지의 왕입니다. 지금까지 쭈욱 사탄세계와 싸워서 장자권을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권 복귀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왕권 복귀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민주주의 세계의 한가운데서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얘기할 수 있었겠는지. 그러나 지금은 '아, 문선생이 그러한 것을 얘기하니까 훌륭한 데가 있다.' 할 수 있을 환경이 되었습니다. (217-45, 1991.4.16) p.1103

완성기준에 선 참남성, 완성된 주체 되는 본연의 아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책임분담을 다 했을 경우에는 자녀의 씨, 인류 원래의 자녀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입장의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씨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틀려져 있다는 겁니다. (215-303, 1991.1.21) p.110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부모이고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횡적인 이 몸뚱이를 벗어 버리고 종적으로 환고향해 가지고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영원한 왕으로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몸으로 화해서 그 체를 입고 완성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접주관권과 간접주관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책임분담을 한 사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213-190, 1991.1.20) p.1103

책임분담이라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책임분담이 뭐냐? 남녀에게 맡겨진 책임분담이라는 것은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에서 서로서로 성숙해 가지고… 남자가 태어난 것은 여자 때문이요, 여자가 태어난 것은 남자 때문이므로 성혼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만나느냐? 중앙선, 수직선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선하면 사랑이 폭발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적 기반이 됨으로써 이것이 뿌리가 되어 뽑으려야 뽑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기원, 절대적인 생명의 기원, 절대적인 혈통의 기원을 중심삼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겁니다. (196-222, 1990.1.1) p.1103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듯이 책임분담, 탕감복귀라는 것이 남아야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본연의 기준을 어떻게 찾느냐 이겁니다. 탕감복귀, 그 다음엔 혈통, 참사랑 중심삼은 혈통!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책임분담, 탕감복귀, 혈통. 탕감복귀가 쉬워요? 핏줄을 돌려 맞춰야 됩니다.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사탄세계와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다 잊어버려야 복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197-100, 1990.1.7) p.1104

Top

4) 책임분담의 발견과 그 중요성

책임분담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통일교회에서는 어떠한 말보다도 중요시하는 단어입니다. 통일교회에 있어서 이 책임분담과 탕감이라는 말, 책임분담과 탕감복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역사적인 모든 내용을 깨칠 수 없고, 그릇된 역사, 혹은 역사의 미지의 사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169-45, 1987.10.25) p.1104

책임분담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역사의 곡절을 몰랐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다 희생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되게 돼요?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왜 세상을 지배하고 선군이 나와 가지고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건 못 이루고, 역사를 들춰 보면 전부 다 독재자의 세계 통일의 꿈만 기록된 겁니다.

그건 사탄세계이기 때문에, 책임분담권을 침범받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모든 피조물, 그 이하의 인간 전체, 지상세계의 만민, 이전에 왔다 갔던 모든 영계에 있는 조상들까지 보더라도 전부 다 책임분담 완성권을 넘어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문선생이 적당히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이 책임분담이라는 말을 모르게 될 때는 역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역사의 곡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전쟁사예요? 책임분담이라는 선의 조건이 악한 세계의 조건을 극복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타락해서 사탄세계가 되어 떨어진 것을 뒤넘이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선악의 투쟁사입니다. (137-266, 1986.1.3) p.1104

이 우주의 모순된 사실과 역사의 비운의 곡절, 이 모든 것이 역사상의 책임분담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책임분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책임분담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분담은 원리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선생님이 책임분담이란 이 말을 발견했다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임분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알았어요? 여기 책임분담에는 우주가 걸려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124-94, 1983.1.30) p.1104

오늘날 통일교회에서 인간 책임분담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사실은 우주적인 발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원자탄 발명한 것,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원리를 발견한 것은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역사의 모든 것이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책임분담이라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진리를 알았다는 사실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인간책임분담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인데도 인간 책임분담을 제일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4-303, 1983.3.1) p.1105

탕감복귀를 모르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안 풀리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반드시 인과원칙에 의해 악한 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몰랐습니다. 또, 인류의 이상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할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랐습니다. 학자의 머리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건 본연의 부모의 골수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본연의 부모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은 천국의 기원이 이 땅 위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참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이 나올 수 없습니다. (148-212, 1986.10.9) p.1105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동시에 그 사랑은 절대적인 책임분담 위에 서지 않고는 그 사랑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먹는 것과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근본입니다. 책임분담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발견했는데 여러분들같이 그냥 앉아 가지고 책임분담이라는 말을 발견한 것 같아요? 투쟁해 가지고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사탄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감추어 놓고, 덮어놓고, 그저 산을 갖다 놓고 태산같이 해서 그걸 전부 다 숨겨 놨다는 겁니다. (149-318, 1986.12.21) p.1105

통일교회에서 책임분담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나요? 나는 발견한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기 전에 그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49-318, 1986.12.21) p.1105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책임분담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 책임분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완성됩니다.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 완성과 더불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창조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책임분담을 완수했다는 그 입장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169-45, 1987.10.25) p.1105

레버런 문이 책임분담이라는 이 말을 발견했다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임분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알았어요? 여기 책임분담에는 우주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해방 못 받고, 우주도 해방 못 받고, 지옥문도 이것 때문에 해방 못 받고, 사회의 모순된 모든 불의의 역사가 책임분담이라는 울타리에, 책임분담이라는 담에 걸려서 모두가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124-94, 1983.1.30) p.1105

인간의 책임분담이라는 말이 내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는 시대, 내가 떠난 후까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 책임분담이라는 말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해?' 하는 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동시에 그 사랑이 절대적인 책임분담 위에 서지 않고는 그 사랑을 못 찾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먹는 것과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근본입니다. (149-318, 1986.12.21) p.1106

통일교회가 안 나왔더라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 이래로 영계와 육계에 대한 관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수난길을 가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한 세계를 만들어 이 인간을 이렇게 비참한 운명에 몰아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일교회 교인들은 이게 인간 책임분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138-120, 1986.1.19) p.1106

만일에 타락한 인간 앞에 하나님이 책임분담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복귀하면 했지 탕감복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탕감해야 된다! 왜 탕감해야 되느냐? 인간에게는 책임분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완성해야 할 책임분담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부여된 책임을 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세계의 모든 것을 이기고, 사탄을 주관하는 자리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떨어지는 겁니다. (143-77, 1986.3.16) p.1106

Top

5) 책임분담을 수행하는 자세

① 책임분담은 모든 분야의 과정에 있다

탕감복귀 역사는 어렸을 적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또 영계에 가서도 언제나 따라다니는 겁니다. 책임분담이라는 건 따라다닙니다. 영계에 가서도 책임분담은 남아 있습니다. 영계에 가서 높은 세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차원의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책임분담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3-175, 1984.7.8) p.1106

선생님 시대에 법을 세우는 것은 책임분담법의 연장이요 확대인 것을 알고 그 법에 순응해야 됩니다. 교회의 규례 같은 것도 전부 다 책임분담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딱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야 되고, 예배 볼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학교 시간이 늦으면 그날은 점심도 안 먹고, 딱 5분 전에 가는 겁니다. 그런 놀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가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아주 과학적이였습니다. (133-154, 1987.6.16) p.1106

모든 제도가 책임분담 관하에 소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회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경배시간 지키는 것도 책임분담입니다. 그거 하나도 못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 일생 문제가 여기에서 좌우된다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133-154, 1984.6.16) p.1107

책임분담은 어디에도 있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자기 밥 먹은 모든 걸 치워야 된다는 것도 다 책임분담입니다. 책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책임분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통일교회 선생님이 책임분담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회사 같은 데도 전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원칙, 법을 세워 가지고 그 규약을 지켜야 됩니다.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는 쫓겨나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이러고 저러고 행동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133-154, 1984.6.16) p.1107

Top

② 책임분담 수행 자세

타락한 인간은 인간 책임분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창조의 97퍼센트를 전부 다 유린해 버렸습니다. 창조과정 전부가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97퍼센트에 해당될 수 있는 책임을 해주지 않고는 책임분담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란 것은 재창조역사인데, 재창조가 왜 반드시 필요하냐? 인간 책임분담 때문입니다. 인간 책임분담을 하여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창조과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탕감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수난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115-67, 1981.11.4) p.1107

책임분담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복귀의 역사요, 복귀의 역사는 재창조역사입니다. 재창조는 원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책임분담을 해야 됩니다. 책임분담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절대 순응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와가 자기 주장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불평하지 말란 겁니다. (143-113, 1986.3.16) p.110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들은 책임분담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해 봤어요? 밥먹을 때 책임분담, 숟가락 쥘 때 책임분담, 접시 씻을 때도 책임분담, 변소 가서 똥을 누면서도, 소변을 보면서도 책임분담, 걸어가면서도 책임분담을 외우라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책임분담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해와와같이 책임을 못 해 가지고 타락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4 시간 책임분담을 존중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124-103, 1983.1.30) p.1107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 책임분담권 이상의 자리에서 인간세계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하에 떨어진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다리를 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 권내에 모든 인류가 걸려 있고, 모든 세계가 걸려 있고, 역사가 걸려 있고, 과거에 영계에 간 사람, 금후에 올 후손 전체가 이 운명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원한의 타락권입니다. 그러니 재창조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투쟁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창조 과정에 필요로 하는 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97 퍼센트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97 퍼센트권 이상부터 하나님이 지배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15-67, 1981.11.4) p.1108

인간이 자기 책임분담을 못 했으니 아담 완성자가 책임분담을 해야 됩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길을 개발해 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의 길은 찾아가는 길이요, 탕감의 길은 밟아가는 길입니다. 그냥 그대로 밟아 가야 됩니다.

야곱이 탕감한 것, 예수의 탕감, 모세의 탕감노정을 오늘 통일교 문선생의 탕감노정을 통해 밟아가야 됩니다. 천릿길이 아니라도 세 발짝이나 네 발짝이라도 밟아가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귀한 것입니다. (233-306, 1992.8.2) p.1108

천사가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나를 망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복을 주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으니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 대답에 '복을 주려면 주지 왜 못 주느냐?'고 하니 책임분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씨름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복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걸고 나섰을 때 야곱은 '오냐, 좋다. 내 손가락이 빠지고 내 팔이 빠져도 결코 지지 않겠다!' 고 결심하고, 칼로 쳐도 놓지 않고 목을 잘라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했겠어요? 밤새껏 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20-228, 1968.6.9) p.1108

책임분담권의 탕감노정이라는 것은 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책임분담은 무엇을 중심삼고 해야 되느냐? 보다 하늘을 더 사랑하는 것, 보다 절대적인 신앙과 보다 절대적인 사랑을 갖지 않고는 사탄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139-279, 1986.1.31) p.1108

책임분담이라는 말에 대해 감사해 봤어요? 이 책임분담을 다 하지 못한 인간이 가는 길에 있어 해방을 추구하기 전에 거쳐야 할 탕감이라는 원한의 길이, 담이, 구렁텅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통일교회의 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 길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선생님도 이 길을 메우기 위해 몸부림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38-120, 1986.1.19) p.1108

여러분들 책임분담 완성했다고 봅니까? 아담과 해와가 책임분담을 완성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책임분담 완성한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암만 훌륭하고, 암만 대통령이고, 이 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되었더라도 책임분담 완성한 자리에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

책임분담을 완수 못한 그 권내에서는 사탄이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떼기 위해서는 탕감을 해야 됩니다. 탕감하지 않고는, 제물이 되지 않고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탕감하기 전에는 그냥 안 떨어집니다. (134-273, 1985.7.20) p.110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들은 천국가는 길을 모릅니다. 탕감길을 모릅니다. 탕감길을 알아요? 책임분담을 완성 못했기 때문에 책임분담 조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책임분담을 못 해서 사탄이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사회, 국가, 세계?영계까지 전부 다 사탄이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137-104, 1985.12.24) p.1109

5 퍼센트 인간 책임분담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책임분담과 탕감법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통일교회를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일선에 안 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세계에 가서 반대 행동을 해서 그 기반을 닦아 가지고 가인을 구해야 합니다. 가인도 사탄을 해방해줘야 합니다. 가인을 구해야 사탄이 해방됩니다. 가인을 못 찾아오게 되면 추방 안 되는 겁니다. (134-271, 1985.7.20) p.1109

우리에게 왜 탕감법이 필요하냐? 사탄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분담을 하지 않으면 사탄을 분별 못 합니다. 책임분담을 완수하지 않고는 사탄을 분별해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탕감길을 안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책임분담과 탕감법을 몰랐으면 오늘 통일교회는 성립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협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일교회가 특별한 것은 책임분담을 중심삼고 탕감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생애를 걸고 고생하는 것은 탕감길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일생 동안 왜 이 놀음을 하느냐? 언제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왜 이 놀음을 하여야 되느냐. 그것은 탕감법 때문입니다. 탕감법 때문입니다. (134-271, 1985.7.20) p.1109

Top

제 2 장

죄, 인간 타락의 내적 의미

1) 환부역조(換父易祖)가 곧 타락

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

본인이 규명한 원죄와 타락의 곡절은 인간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천사장과 불륜의 사건이었습니다. 통일원리에서의 사탄은 관념적 존재나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사탄 중심한 혈통으로 바꾼 원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 장에서 인류의 아비가 마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적 몸인 아담과 해와를 통해 실현하시려던 사랑이상을 박탈한 사랑의 간부가 곧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본인이 영계를 개척하고 우주의 근본 곡절을 규명하려고 피눈물나는 투쟁을 한 결과로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기도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5-12, 1985.8.20) p.1110

타락의 실상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성경의 말씀은 비사(比辭)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온 것이 참으로 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 기준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발전을 하고 20 세기 문명을 창건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확실치 못한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무지에는 완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242, 1969.5.4) p.1110

성서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인류 시조가 불륜한 사랑을 함으로 사탄 마귀를 중심삼고 부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직계 아들딸로 태어나야 할 가치적인 인간이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아 사탄의 아들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불러 양자되기를 기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정인 것입니다. (53-261, 1972.3.1) p.111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로마서 8 장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밖에 못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양자입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 장 44 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느니라!'하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비라고 했으니까 핏줄이, 조상이 마귀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뭐예요? 양부를 찢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선악과예요? (154-337, 1964.10.5) p.1111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사망권 내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망권 내에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8 장 44 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사탄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이 원통한 사실이 타락의 보응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74-140, 1974.11.28) p.1111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거짓 아버지인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아버지인 사탄 마귀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사탄의 아들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93) p.1111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냐? 악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타락이 뭐냐 하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데 선악과가 과일이 아닙니다. 종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를 이을 아들과 딸을 낳아 길러 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종으로 지었던 천사장이라는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이 인류의 타락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천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내용을 여러분이 원리를 들으면 대개 알 것입니다. (86-308, 1976.3.4) p.1111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더라도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박사! 다른 나무들은 무슨 나무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무슨 나무야? 같은 나무인데, 다른 나무는 무슨 나무야? 아, 물어 보잖아! 그게 뭐냐 하면 오빠 동생끼리 살면서 손을 만져도 좋고, 비벼대도 좋고, 예쁘다고 무슨 짓을 다 해도 괜찮지만,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딴 데는 다 건드려도 거기는 건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에덴동산 복판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것이고 다른 나무는 다른 나무라고 하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빠와 동생끼리 손을 만져도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오빠와 동생 둘밖에 없잖아요? 껴안고, 다 그래도 좋다 이겁니다. 아이들끼리는 몸뚱이도 만지고 다 하지요? 자라면서 집에서 다 그러잖아요? 오빠면 오빠가 그것을 아나, 뭐하나? 그렇게 다 만지고 그래도 괜찮지만,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인 남자의 막대기는 볼록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오목입니다. 그건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따먹으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사로써 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자적인지 모릅니다. (199-93, 1990.2.15) p.1112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했는데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뭐냐? 기성교회에서 성경을 조금 더 지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대번에 타락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체가 부끄러운 것이냐? 하체를 왜 가렸느냐? 입을 가리고 손을 가려야 할 텐데. 하체라고 흉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체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사랑을 유린한 부끄러움의 궁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샘이 솟아야 할 텐데 악마의 사랑을 중심삼은 거짓 사랑의 샘이 터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사랑의 터전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랑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199, 1990.5.24) p.1112

아담을 쫓아낼 때 아들딸 낳은 다음에 쫓아냈겠어요, 낳기 전에 쫓아냈겠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딸을 데리고 있으면 쫓아낼 수 있어요? 눈물을 더 많이 봐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쫓아냅니까?' 하고 붙들고 통곡을 할 텐데…. 네 사람이 한 팔씩 붙들고 야단하면 그걸 다 칼로 잘라 쳐버려야 될 거 아니예요? 죄지은 아담과 해와는 모르지만,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이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아들딸 낳기 전에 내쫓은 겁니다. 그들이 쫓겨난 후 임의로 결혼해서 둘이 맞붙어 가지고 새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낼 때 너희들 나가 결혼해서 아들딸을 낳으라고 훈시를 해서 내보냈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쫓아내 버렸겠어요? 답변해 보라구요. 하여튼 그들은 쫓겨나서 아들딸을 낳았습니다. (218-230, 1991.8.19) p.1112

이런 말을 어디 돈 주고 들을 수 있어요?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천년만년 제사 드려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통일교회의 문선생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밀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은 없지요?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선악과가 무슨 과실이에요? 그렇게 유치원생도 못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검증하고, 박사학위의 총회장이 된 문총재에게 이단(異端)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것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끝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238-213, 1992.11.22) p.1113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면, 해와가 미성년시대에 종의 사주를 받아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타락이 뭐냐?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탄이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지 사탄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아담과 해와가 제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나도 한 번 가져 봤으면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4-266, 1991.2.3) p.1113

끝날에 와 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편성해서 하나님의 한을 풀고, 천륜의 한을 푸는 동시에 인류의 한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걸 몰라 가지고 뭐 선악과를 따먹고 어쩌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틀리거든 목을 매어 가지고 한 40 일 동안 기도해 보라구요, 통일교회 문선생이 거짓말 했나. 여러분은 정상적인 핏줄을 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생활을 강조한 겁니다. 자식을 번식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156-228, 1966.5.25) p.1113

하나님은 음란을 미워합니다. 왜? 인간이 불법으로 사랑해서 천지를 뒤엎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악의 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세계에서는 독신생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자가 신령한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자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의 길을 막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불법적인 사랑으로 역사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는 교리 가지고 2 천년까지 남아졌다는 것이 용하다는 것입니다. (41-292, 1971.2.17) p.1113

우주의 근본은 탈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자라기 전, 미성년 15, 16 세라고 치고, 10 대 때에… 딱 그때입니다. 그때에 해와가 천사장 누시엘을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것이 이거 천지 이치를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얘기할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뚱해 가지고… 아담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새새끼나 잡으러 다니고, 몽둥이 들고 뱀새끼나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 새끼 잡으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자연에 흡수된 모든 것을 앞으로 주관하고 관리하고 친하려니까, 전부 다 그 동화자가 되려니까 뭐 해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 따라다니고 싶어도 힘센 남자를 따라다니지 못하고 혼자서 그늘에 앉아 쉬든지 하면, 누시엘이 속닥속닥해 가지고 유인해서 겁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거 간섭 못했느냐?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통해 주관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사랑은 주체자가 주가 아니고, 상대자가 주이기 때문에 상대자의 기원(祈願)을 중심삼고 위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면 근본이 파탄되는 겁니다. 역리적 입장에서 주관자가 되니 할 수 없이 보고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191-97, 1989.6.24) p.1114

Top

② 타락하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제일 안타까웠던 분이 누구예요? 역사를 가지고 제일 통곡하고 몸부림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 안 했으면 천지 위업을 이어받을 텐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담과 해와는 미성년시대였으니 몰랐습니다. 철부지였으니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니 통곡할 수 있어요? 모르니 몸부림칠 수 있어요? (232-114, 1992.7.3) p.1114

하나님의 성상은 남자격인 아버지 하나님과 여자격인 어머니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과 피조세계가 남자와 여자의 이성(二性)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체(體)를 입기 위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고, 둘째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둘이 하나될 수 있는 사랑의 실체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인류의 완전한 사랑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부모가 된 아담과 해와가 실체의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통해 영계와 지상세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영계와 지상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체를 쓰시고 부모의 자리에 현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3) p.1114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직계 장손의 자녀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담은 장손이고, 참아버지이고, 왕입니다. 지상나라와 천상세계의 왕입니다. 또 참부모이고 참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은 하늘나라의 왕실입니다.

그러면 아담 가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입장을 대신한 관점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대신이고, 또 하나님은 부모 대신입니다. 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1 대권, 2 대권, 3 대권을 중심삼고 가정에 착륙이 벌어지는데, 1 대권이 횡적으로 전개된 것이 할아버지이고, 2 대권이 아버지이고, 3 대권이 나입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중심삼고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실을 계대(繼代)받는 것입니다. (218-255, 1991.8.19) p.1115

참부모권, 참왕권, 참장자권, 이것이 아담과 해와가 출발해야 했던 원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왕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창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참사랑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완성한 본연의 아담의 가정 기반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218-189, 1991.7.28) p.1115

통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참사랑을 중심삼은 종적인 부모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는 뭐냐? 종적인 부모는 하나입니다. 종적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하는데 있어서는 종적관계입니다. 중심입니다. 종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해와는 뭐냐? 종적인 기준 앞에 횡적인 부모를 대신해야 됩니다. (189-113, 1989.2.5) p.1115

그러면 왜 횡적인 것이 필요했느냐? 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적 기반을 중심삼고는 낳을 수 없습니다. 횡적인 기반을 통해 번식이 필요한 겁니다. 번식, 이건 360 도를 중심삼아 이 평면 기준에 무한수가 포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식이 동서남북을 통해 이것을 종에 맞출 수 있는 이런 구형체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몸을 통할 수 있는 아담과 해와를 지은 것입니다. (187-115, 1989.2.5) p.111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를 중심하고 볼 때 부모가 거기서 나옵니다. 인류의 종지부모(宗之父母)가 나옵니다. 아담과 해와를 중심하고 거기서 인류의 참된 부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비로소 아들딸이 나옵니다.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하나님과 아들딸, 부자의 관계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188-214, 1989.2.26) p.1115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해와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하나님도 부모의 자리에서 아들딸 사랑하는 사랑 한 번 갖고 싶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해와와같이 신랑 각시 좋아하는 사랑, 사랑 한 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할아버지 사랑, 그 다음엔 나라 사랑 한 번 해보고 싶고, 세계 사랑 한 번 해보고 싶고, 다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 갖고 싶은 것을 우리 인간 세계에 전수하신 것을 이어받은 것이 여러분의 족속이요, 여러분의 민족이요, 여러분의 나라요, 이 세계요, 이 땅이요, 저나라 영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8-214, 1989.2.26) p.1115

타락하지 않고 완성의 자리까지 나갔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개인완성뿐만 아니라 우주사적인 완성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새 가정이 출발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씨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대가족 사회가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족 사회의 중심은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가정의 생활이나 일생의 노정이 역사적 전통으로 남아집니다. 그의 생활방식·풍습·관습, 그리고 생활적인 배경이 역사적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얽혀진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이상의 원천이기에 그 품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고, 떠난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21) p.1116

타락은 아담과 해와에게만 한정된 문제 같지만 그들은 인류의 조상이요, 근본되는 샘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와 미래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55) p.1116

아담과 해와의 타락은 아담과 해와만의 타락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류 역사를 총합한 입장에서의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선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악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부모로 말미암아 악한 자녀가 태어났고, 악한 자녀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종족, 악한 국가, 악한 세계가 형성되어 이 세계권 내에 50억 인류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권 내에 있는 오늘의 인류 역사는 기쁨의 역사가 아니라 슬픔의 역사요, 인류도 기쁨의 인류가 아니라 슬픔의 인류임에 틀림없습니다. (38-149, 1971.1.3) p.1116

사랑을 알게 될 때는 모든 것이 통합니다. 지상세계의 평면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영안(靈眼)이 열려 입체적인 세계까지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지각이 발달하기 전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천사장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를 파탄시킨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49) p.1116

선생님 때에 와서 타락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760) p.1116

Top

2) 타락은 사탄 중심한 혈통 전환

① 원수의 혈통을 받았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는 타락 때문에 혈통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수요 간부(姦夫)인 사탄의 사랑에 의해서 사탄의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남자의 생명체, 여자의 생명체가 사탄의 사랑에 뒤섞여서 하나가 되고 그 둘로 인해 결실된 것이 아들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딸은 사탄의 사랑, 사탄의 생명, 사탄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227-47, 1992.2.10) p.1116

타락인간은 가짜가 되었기 때문에 접붙여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은 조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양자밖에 못 되었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혈통적으로 되었다는 논리가 생긴 것입니다. 타락이 뭐냐? 혈통을 잘못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릇된 사랑으로 타락했다는 논리를 세워도 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사랑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말을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되어 있지요?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선악과가 열매예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 가지고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열매예요? 아닙니다. (157-158, 1967.4.2) p.1117

아담과 해와의 마음에 사탄이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됐으니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사탄을 용서 못하느냐. 살인강도도 용서하고 전부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사탄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까닭이 뭐냐 하면, 인류의 핏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사탄은 간부예요, 사랑의 간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56-226, 1966.5.25) p.1117

사탄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랑, 사탄을 중심한 생명, 사탄을 중심한 혈통을 안 받았다고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통일교회 부모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준 것과 같이 아담과 해와가 성숙한 후에는 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228-254, 1992.7.5) p.1117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했더라면 천지를 창조한 대왕마마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대왕마마의 아들딸이니까 그 직계의 장손 장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 왕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대표한 지상나라 왕국을 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왕권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231-27, 1992.5.31) p.1117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독생자 독생녀가 아담과 해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을 실천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기독교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창대해입니다. 깊은지 얕은지 대해(大海)의 깊이를 재려고 해도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알려야 알 수가 없으니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감투를 갖다 씌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지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231-21, 1992.5.31) p.1117

몸을 치는 놀음을 왜 하느냐? 사탄의 피, 하나님의 원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입니다. 간부입니다. 간부의 피를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아 황후가 될 수 있었던 해와가 악마의 배필이 됐고 종의 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의 비밀인데, 선생님 시대에 와 가지고 비로소 폭로됐으니, 사탄세계는 물러가야 됩니다. (172-277, 1988.1.24) p.1118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누구라구요? 하나님의 간부예요, 간부. 이런 문제를 가려 주었는데 이걸 다 덮어 놓고 천국 가겠어요? 덮어 놓고 구원받겠어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패들.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같은 사람은 벌써 다 구원받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안 합니다. (188-230, 1989.2.26) p.111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악마가 왜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은 왜 악마를 미워해요? 기독교의 논리로 말하면,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면 사탄이 원수인데 왜 사랑 못해요? 사랑의 원수를 사랑하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치리법이 없어집니다. 존재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191-43, 1989.6.24) p.1118

사탄이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을 파괴시키고 이상적 생명, 이상적 혈통을 유린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새끼를 낳아 놓은 것이 인간들입니다. 사탄의 사랑의 표시, 생명의 표시, 혈통의 표시인 그 아들딸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197-286, 1990.1.20) p.1118

사탄이 왜 지긋지긋하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도의 길을 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와 가지고 목을 누르고 등을 타고 희생시키려는 놀음을 했겠습니까? 그놈의 사탄이 뭣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빼앗아 간, 겁탈해 간 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본래 하나님을 모셔 가지고 평화의 왕국을 이루고 평화의 천지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아버지와 우리를 몰아냈다는 겁니다. 사탄이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인간을 이꼴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156-226, 1966.5.25) p.1118

그 악마가 타락시킨 것이 무엇이냐? 뭐 선악과? 선악과를 먹고 어디를 가렸어요? 입을 가렸어요, 손을 가렸어요? 하체를 가렸지요? 이것이 악을 뿌린 씨가 됐습니다. 틴에이저 시대, 성숙하지 못한 때에 타락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인간 세상의 핏줄이 거기서 뻗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종말시대에 있어서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아담과 해와같이 그늘 아래서 독자적으로 사랑의 윤리를 파괴시키고, 하늘땅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때가 되거든 사탄의 전권시대가 땅 위에 도래한 줄 알라 이겁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철퇴가 목전에 다가오는 겁니다. (200-227, 1990.2.25) p.1118

혈통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혈통을 전환하는가? 사탄 혈통을 받아 계승했기 때문에 혈통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183-308, 1988.11.7) p.1119

Top

② 혈통적인 원죄는 유전한다

타락은 혈통의 부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원죄로 유전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50) p.1119

사탄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선한 부모의 자녀로서 태어나야 할 인류가 악의 부모와 인연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악을 중심으로 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37) p.1119

불륜한 행음관계에 의해 해와는 천사장과 하나가 되었고 아담은 다시 천사장과 하나된 해와와 하나됨으로써 아담과 해와는 결국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천사장을 중심한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52) p.1119

타락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인 천사장과 하나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할 인간이 종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할 바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타락성 근성이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모두 상충적인 존재가 되어 종족과 민족을 이루었으니, 조금만 지나면 전부 다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사탄 문화권입니다.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모두 갈라지는 것은 사탄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21)

타락함으로 참부모를 잃어버렸고, 참남편을 잃어버렸고, 참자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잃어버리게 된 동기는 해와와 천사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천사장 아버지, 천사장 남편, 천사장 오빠에게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비참한 것입니다. 부잣집 따님이 자기 집 머슴하고 사는 꼴이 된 것입니다. 즉 머슴의 핏줄을 이어받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남편, 본래의 아버지, 본래의 오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여자들인 것입니다. (51-182, 1971.11.21) p.1119

혈통적으로 곡절이 맺혔기 때문에 6천 년 걸리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다 복귀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이것이 고질이 되었으니 이놈을 한꺼번에 다 뽑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년 걸려 나온 것입니다. 뭐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155-295, 1965.11.1) p.1119

죄의 기반, 타락의 기반, 악의 기반, 지옥의 기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해와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해와가 왜 타락했느냐 하는 근원을 헤쳐 보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불신해서 타락했습니다, 둘째는 자기중심적이다 이겁니다.

셋째는 자기 중심삼고 사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중심 골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같이하는 것은 사탄편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신의 사랑이요,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이세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79-198, 1975.7.27) p.1120

Top

3)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

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

사탄은 대관절 어떤 존재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탄의 정체를 똑똑히 밝혀야 합니다. 사탄이 뭐예요? 간부, 사랑의 간부라는 것입니다.

요놈의 자식이…. 그 사탄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해 가지고 낳은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분 나쁘지요? 정 믿을 수 없다면 선생님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담판기도를 한 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38-175, 1971.1.3) p.1120

우리 선조들이 사탄에게 참소받고 유린당하고 학살의 제물이 되어 나온 한을 풀어야 할 기독교 신도요,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진대, 이 사탄의 정체를 해명하여야 되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과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정, 미래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며 '오! 내 아들딸아!' 할 수 있어야만 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8-130, 1959.11.29) p.1120

하나님에게 있어서 해와는 미래의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사탄이 범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7) p.1120

사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인되는 해와를 겁탈한 간부입니다. 아담의 부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부인되는 해와를 겁탈한 간부입니다. 사탄은 사랑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데는 사탄 간부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용서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수 없습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은 사랑하되 사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됩니다. (148-294, 1986.10.25) p.1120

해와는 아담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해와를 사탄이 겁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에게 간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성교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19-158, 1968.1.1) p.1121

본래의 주인을 쫓아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 아들딸까지 모두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괴수의 입장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용서할 길이 있습니까? 결국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사랑을 중심삼고 간부지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사탄을 용서한다면 세상을 다 파탄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치기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인류는 신음과 고통의 길을 모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역사를 엮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53-338, 1972.3.6) p.1121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공인된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탄세계의 타락된 사랑의 인연으로 맺어진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핏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도에게 아버지가 내쫓기고, 어머니가 겁탈당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퇴폐물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간부의 족속, 마귀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9-102, 1967.12.31) p.1121

여러분의 사랑의 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악의 괴수가 사탄 마귀입니다. 무슨 인연을 가진 마귀냐 하면 사랑의 간부라는 것입니다. 그 간부의 피살을 이어받아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사랑이 간부의 사랑입니까? 간부의 핏줄을 통해 이어온 부정(不淨)한 핏줄의 사랑을 받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5-90, 1970.10.4) p.1121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생명과 참혈통을 이어받아 우주의 권한을 가지고 영광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사랑을 중심으로 사탄 혈통, 사탄 생명을 받은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요, 간부입니다. 여자 셋이 모인 것을 '간(姦)'자라고 쓰지요? 간부 알아요? 간부는 뭐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아 간 그를 간부라고 하는 겁니다. (213-265, 1991.1.21) p.1121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간부다. 그리고 인류는 그 간부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원수입니다. 이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에 사무친 사람이라야 하나님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142, 1966.1.9) p.1121

하나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 희망찬 대업을 꿈꾸며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대업과 생명과 이념의 모든 조건이 일시에 파탄되어 망하게 될 때 천지가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수로 등장한 것이 천사장 누시엘이었습니다. 이 누시엘을 때려잡아야 되겠나, 안 때려잡아야 되겠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아들딸을 누시엘이 자기의 아들딸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의 목을 잘라야 되느냐, 그대로 놔 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역사이래 처음으로 고심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27-60, 1969.11.23) p.1122

하나님이 바라던 왕자 왕녀의 자격을 파탄시키고, 왕자 왕녀의 가정적 사랑을 파탄시키고, 왕자 왕녀 이후의 왕손을 파탄시키고, 하나님이 이상하는 가정, 하늘나라 천국을 파탄시킨 원흉이 사탄 악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02-220, 1999.6.14) p.112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원흉이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원수입니다. 원수의 적장한테 그 나라의 왕궁에 있는 왕족, 왕족의 왕자, 왕녀가 잡혀가 종살이 하면서 그 종의 세계의 새끼를 번창시킨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자 왕녀 중심삼고 왕권 아래서 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악한 악마의 왕권 아래서 번식받은 무리와 같은 것이 타락한 인류다 이겁니다. (302-222, 1999.6.14) p.1122

Top

② 사탄은 사랑의 원수

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내를 빼앗은 간부입니다. 즉 악의 주체 사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내를 빼앗은 간부라는 것입니다. 간부라 하면 무슨 기관의 간부가 아닙니다. 사랑을 따먹은 간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35-71, 1970.10.3) p.1122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될 것이었는데, 종의 새끼가 되어 종새끼를 퍼뜨려 놓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무엇인지 알지요? 간부입니다. 간부가 뭐예요? 사랑의 강도라는 겁니다. 그건 순리를 통한 사랑의 도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랑의 강도입니다. (135-283, 1985.12.15) p.1122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하나님의 간부예요, 간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겁탈하여 그 집안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런 대원수를 놔 놓고 세계 인류는 원수를 갚지 못하는 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153-270, 1964.3.26) p.1122

여러분은 간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겁니다. 그 간부가 어떠한 간부냐? 3 대를 유린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기까지 3 대를 유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하늘나라 왕궁을 전부 다 사탄이 점령해 가지고 할머니, 자기 어머니, 자기 처까지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강탈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사탄은 이런 원수라는 겁니다. (188-230, 1989.2.26) p.1122

사랑의 원수, 사탄 마귀를 용서했다가는 천지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본연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심판하지 않고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한 사랑관계를 하나님이 제일 원수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팽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53-140, 1972.2.13) p.1123

'인간세계의 지식이 무엇에 필요하며, 권력이 뭐에 필요하며, 부(富)가 뭐에 필요하겠노. 인간 세계의 사랑이니 무슨 가정이니 무엇이 필요하겠노.' 부정해야 됩니다. 타락인간은 사탄, 간부의 피를 이어받은 혈족입니다. '퉤!' 침을 뱉아야 됩니다. (188-234, 1989.2.26) p.1123

하나님의 아들딸은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합니다. 본래의 창조의 원칙이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혈족을 타고나야 할 인간들이 원수에게 끌려가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인 사탄의 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받아 태어나야 될 텐데, 복통할 일입니다. (191-244, 1989.6.25) p.1123

사탄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인데 나는 마귀가 됐소. 그걸 인정합니다. 나는 마귀요. 그러면 당신의 원리를 보면 천사장을 짓고 아담과 해와를 지을 때 천사장인 누시엘이라는 존재를 영원한 사랑의 표준밑에서 지었소, 잠깐 일시적인 사랑의 표준으로 지었소?' 하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임시 사랑하는 표준 밑에서 너를 지었다.' 그러겠어요? 두말 없이 '영원을 중심삼고 지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나는 변했을망정 당신은 변할 수 없어야 될 게 아니요?' 하면 하나님이 '그렇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서 파괴적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은 파괴되지 않아야 될 것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는 겁니다. 딱 하나, 요걸 걸머쥐고 있다는 겁니다. (125-264, 1983.3.27) p.1123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영계에서 알고 보니 얼마나 부럽겠나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과 해와는 타락했을망정 하나님의 원리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원리원칙은 아담 타락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완성했더라면, 완성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아담이 합해 가지고 천사장 되는 누시엘을 사랑해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야 할 것이 원리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원칙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82-282, 1988.10.26) p.1123

세상에서도 범죄한 자가 자기 죄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죄짓지 않은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조그만 소년이 그 사람이 죄 범하는 현장을 보았다고 지적하게 될 때는 그 범죄자는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려면 사탄 마귀의 정체를 파헤쳐 가지고 죄상을 폭로하고 천상과 지상에서 추방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53-194, 1972.2.21) p.1124

하나님은 영원한 공법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탄을 끌어다가 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고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변호하는 것을 보고 검사의 입장에서 논고를 해 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들이 조여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타락한 천사장 말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들이 '옳소! 과연 옳소! 옳소!'라고 해야 합니다. (65-201, 1972.11.19) p.1124

Top

4) 선악과는 해와의 생식기

① 하체를 가린 것이 죄의 표시다

여러분,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사과를 따먹었는지 잘 모르지만 따먹는 데는 먼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손이 가서 따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따먹는 데는 눈, 손, 입이 동기요 행동한 실체이기 때문에 따먹고 난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손을 감추고, 입을 막아야 할 텐데, 아담과 해와는 따먹고 난 후에 하체를 가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54-62, 1972.3.11) p.1124

사람이 심정적인 자녀의 입장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커야 됩니다. 성숙되어 우주를 주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여기에 내려와 축과 하나되어 우주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에 있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것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중앙지점이 결정될 때까지,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171-11, 1987.12.5) p.1124

사랑이 먼저예요, 자각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랬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인생이 가는 길에는 담이 없고, 골짝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리의 기어가 이빨을 딱 맞추어 휙-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천리의 대출연이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여자가 자기 자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뭘 따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자기 자각! 이것이 문제가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각하는 입장,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요사스러운 사탄의 침범권, 타락성의 침범권에 있다는 것을 알지어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71-109, 1987.12.13) p.112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악마가 어디에다 뿌리를 박았느냐 하면 몸뚱이에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았는데 이들이 미성년 때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과일이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으면 손을 가리고 입을 가렸어야 할 텐데, 왜 하체를 가렸어요? 이게 사망의 함정입니다. 인류 문화를 망칠 수 있는 근원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지극히 거룩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쌍소리예요? 왜 쌍소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천지의 대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198-100, 1990.1.25) p.1125

그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못 대고 무력하게 되었어요? 무슨 타락이기에 그렇게 지독해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왜 하체를 가렸겠어요? 피를 더럽혔습니다. 피를 더럽혔다는 말은 생명을 더럽혔다는 말이요, 생명을 더럽혔다는 것은 사랑을 더럽혔다는 말입니다.

천지의 대도의 신경기관이 되어야 할 인간이 미성년기에 타락했습니다. 여자를 누가 겁탈했느냐? 종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딸, 미래에는 하나님의 황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외적인 몸이 될 수 있는 해와를 겁탈해 버렸다는 겁니다. 핏줄을 엇바꿔 놨다는 겁니다. 이런 말 처음 들을 것입니다. (200-50, 1990.2.23) p.1125

선악과가 뭐예요? 뭔지 알아요? 여자의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나 그 여자 따먹었다' 그러지요? 한국말이 묘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저 여자 따먹자'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건 마음에 직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양심에 직고해야 됩니다. 끝날엔 다 직고해야 됩니다. (137-252, 1986.1.3) p.1125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생겨요? 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는데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천대 만대 후손이 죄인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혈통적 관계입니다.

혈통적으로 죄의 뿌리를 심어 놓으면 유전 법칙에 의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랑 문제뿐입니다. 그릇된 사랑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23-167, 1969.5.18) p.1125

인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면 복귀도 하루 아침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먹이면 탕감이 될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38-164, 1971.1.3) p.1125

아담과 해와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수직선에 가서 딱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데는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디에 맞춰요? 중심에 맞춥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자 여자 생식기입니다.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남자 여자에게는 생식기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는 일생동안 그걸 하나님같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185-278, 1989.1.17) p.1125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에 하체를 왜 가렸어요? 그런 문제를 기독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뭐,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딸을 추방해 버렸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면 추방해 버렸겠느냐 이겁니다. (197-263, 1990.1.19) p.1125

해와는 두 세계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의 중간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의 방향을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악을 쳐부수고 사탄을 쳐부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을 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악을 치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이상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18, 1970.4.8) p.1126

타락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나무 열매로 압니다. 그러나 나무 열매는 인간의 가치에 대등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래 식물이라는 것은 지을 때에 모든 존재 가운데서 인간 아래에 있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이상의 것을 타락시킬 수 있는 내용의 요소를 갖게끔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166-42, 1987.5.28) p.1126

기성교회에서는 선악과 따먹은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해석은 유물론적인 것입니다. 물질을 먹고 영혼이 타락했다 하면 물질 가운데서 정신이 나온다는 공산당의 이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질을 먹고 영혼이 타락해요? 물질을 먹고 영혼이 타락할 수 있어요? 영혼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타락되었으면 말이 되지만 물질로 영혼이 타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질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것은 유물론이라는 것입니다. (41-292, 1971.2.17) p.1126

Top

② 선악과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성경에 보면 에덴동산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괜찮지만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나무는 뭐예요? 형제지간이니 손을 만지고 뭐 키스를 하고 다 해도 괜찮지만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와 생명나무,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는 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200-50, 1990.2.23) p.1126

인류 시조의 타락의 근원이 되었던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남자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걸 잘 쓰면 나라가 흥하고,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군왕이라도 잘 쓰게 될 때에는 나라가 흥하지만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집니다. 선의 열매가 맺혀야 할 곳에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아니예요? 선악과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가 선악과입니다. 독사의 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탄을 독사라고 했어요? 사탄을 왜 뱀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뱀 대가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독사의 대가리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전부 다 그걸 노리고 있지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잖아요? (227-251, 1992.2.14) p.1126

선악과는 뭐냐?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영원한 악과를 계승하는 것이요, 사랑을 잘 하면 영원한 선과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에요? 미친것들! 선악과라는 것은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226-110, 1992.2.2) p.1127

남자보다도 여자가 타락할 수 있는 소질이 많으므로 하나님이 경고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생식기가 선한 사람을 맞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악한 남자를 맞으면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여자의 생식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야 그럴 일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그럴 일이 없다 이겁니다. (221-282, 1991.10.26) p.1127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경고를 할 때 누구에게 했느냐? 아담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사춘기가 돼 가지고 나가 놀기에 바쁘고, 피곤해 가지고 잠자기에 바빴습니다. 여자는 늘 '태양볕이 따스하다! 아이고, 꽃이 핀다! 물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구나!' 하고 앉아 가지고 요런 타령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꽃과 같이 곱기를 바란다!' 이랬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도 누가 빠르냐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빠르지 않지 않다! 여자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221-280, 1991.10.26) p.1127

선악과는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기. 그것은 선의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놈과 붙으면 악한 종자를 받고 선한 놈과 붙으면 선한 종자를 받지요? 그게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피를 받았습니다. 악마가 누구냐 하면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장은 종의 대표였습니다. (209-285, 1990.11.30) p.112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경고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으로서 제일 이상적인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경고할 조건물이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젊은 남녀들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경고하는 게 뭐예요? 나가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의할 수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권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만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196-41, 1989.12.24) p.1127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뭐냐?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즉 이성에 대한 것을 아는 것, 그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로 생겨나 가지고 여자를 모르면 그건 바봅니다. 최고의 이상이 뭐냐? 남자가 가야 할 최고의 이상적 초점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어떤 여자?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여자, 젊어서도 맞고 늙어서도 맞고 영원히 맞을 수 있는 이런 여자가 아닙니까? (178-52, 1988.6.1) p.1127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제일 수고롭게 지은 것이 어디겠어요? 눈이에요, 입이에요, 코예요, 손이요? 인간들은 생각도 않고 있다는 거야. 그게 사랑의 본거지예요, 사랑의 본거지. 사랑의 본거지가 남자와 여자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본궁이었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남자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여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이 없이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의 주인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왕궁, 생명의 왕궁, 혈통의 왕궁이 어디냐? 남자 여자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당시의 성소입니다. 성소였다 이겁니다. 이것을 침범받으면 모든 것이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302-220, 1999.6.14) p.1128

이 한곳에 세 가지의 귀한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도 거기에 연결되고, 생명도 거기에 연결되고, 혈통도 거기에 연결되지요? 중대한 3 요소의 기원지가 성기입니다. (205-328, 1990.10.2) p.1128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볼 때 제일 귀한 지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책임진 사람 외에는 그 뚜껑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봉한 샘이란 그걸 말하는 겁니다. (205-328, 1990.10.2) p.1128

생명의 왕궁이고 사랑의 왕궁이고 혈통의 왕궁인 귀중한 것을 방탕아처럼 소불알 취급한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그곳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기관으로서 지성소입니다. 그것을 더럽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노정에 있어 언약궤를 더럽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 버렸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와 마찬가지인 사랑의 본거지를 더럽히는 것은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포옹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천주적인 것입니다. 신인일체권(神人一體圈)을 이루는 시금석입니다. 유한(有限)이 무한(無限)에 연결되는 인연이 주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218-133, 1991.7.14) p.1128

거룩한 남자와 거룩한 여자들이 거룩한 사랑, 거룩한 생명, 거룩한 혈통이 동해 가지고 거기에 연결되어 자녀를 낳게 될 때는 그 자녀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고 수양이 필요 없습니다.

몸 마음이 90 각도를 갖춰 사랑과 모든 것이 손실 없이 자라나 가지고 안팎이 갖춰지게 되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배워 가지고 통일교회 선생님 해먹나? 벌써 척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211-247, 1990.12.30) p.1128

선악과가 뭐야? 그건 지금까지 비밀입니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조상의 흠입니다. 그래, 조상들이 저끄렀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참조상이 나오기 전에는 이 말을 공개 못하는 겁니다. 사탄도 공개 못하고 하나님도 공개 못 해요. (191-232, 1989.6.25) p.112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5) 타락의 한, 하나님의 복귀의 심정

① 사랑의 원수, 타락의 한

타락했다는 사실은 장남 장녀를 쫓아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독자입니다. 장녀는 독녀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억만대의 독자 독녀로 태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억만대의 독자를 추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을 하나 갖고 딸을 하나 갖고 있다가 아들 하나가 죽었다 할 때,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7 대 독자의 죽음은 동네와 이웃 마을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7 대 독자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을 가진 부모들과 자식들과 형제들이 동정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건 몇 대 독자입니까? 억만대입니다, 억만대.

그래서 부자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억만대의 독자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억만대의 고통을 넘어서지 않고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탄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인데… 그 원수 사탄이한테 해와를 갖다 품겨 주고 지금까지 천번 만번 참소하면 들어주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섰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에게 품겨 놓고 복을 빌 수 있는 남자의 자리, 그 이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182-174, 1988.10.16) p.1129

사탄은 해와의 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입니다. 그 사랑의 원수가 수천 년 동안 와서 참소하더라도 조금도 싫은 표정 안 하고 지금까지 참된 주인 노릇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중심을 키워 낼 때까지는 누구든 불평을 하든지, 그것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182-246, 1988.10.23) p.1129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입니다. 이것은 문총재가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한 말인데, 악마가 도대체 뭐냐? 종이 미래에 하나님의 부인될 수 있는 사람을 겁탈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몸입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를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에 아담이 이름 지은 대로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209-40, 1990.11.25) p.1129

사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간부(姦夫)입니다. 해와는 간부(姦婦)고, 사탄은 간부(姦夫)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부인과 그 딸을 순결한 여자로서, 순결한 딸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권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비참한 심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227-47, 1992.2.10) p.1130

원수에게 끌려간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아이를 낳아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그런 모자를 결혼 전의 순수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사랑의 원수요, 사랑의 간부입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권에서는 그 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면 평화의 세계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성립되어야만 사탄은 자연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37-238, 1992.11.17) p.1130

사랑의 원수가 되었던 악마의 그 아들딸들을 원수 새끼로 취급해 가지고는 하나님 노릇을 못 합니다. 그것을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들딸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비통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까? (208-291, 1990.11.20) p.113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최고 기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원칙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수지만, 그 원수를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 이상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원수의 품에 안겼던 해와가 서자 서녀를 데리고 들어오게 될 때 아버지가 이들을 자기가 낳은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해와가 본연의 자리에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35-84, 1992.8.29) p.1130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에게 갖다 품겨 주고 복빌 수 있는 아량이 있는 남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까지 도달해요. 왜? 해와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사탄이 품고 지금까지 농락한 간부(姦婦)와 같은 것을 지금까지 6천 년 동안, 6천 년이 아닙니다. 몇만 년입니다. 인류역사를 1천만 년까지 잡잖아요? 그 동안을 그가 참소해도 지금까지 상대해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의 골짜기를 누가 알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원수에게 품겨 주고 복빌 수 있는 심정권을 넘나드는 경험을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4-302, 1989.1.1) p.1130

결혼 전날에 하나님을 버리고 원수한테 끌려가서 간부(姦婦)가 되어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살던 것을 다시 본연의, 그런 흠이 없는 자리로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할 때에 어머니를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해와보다도 더 훌륭한 어머니로 만들어야, 해와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억울하고 비통한 하나님의 심정의 흠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정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33-255, 1992.8.1) p.1131

선생님이 이 길을 갖춰 오려면 선생님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사탄 괴수한테 품겨 주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선 겁니다. 악마가 사랑의 간부이고 원수인데, 끝날에 가서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자라면, 자기의 신부까지도 희생을 시켜 사탄에게 줘 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을 해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185-133, 1989.1.3) p.1131

Top

② 사탄의 참소조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간부가 악마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악마되는 간부가 참소할 때 그를 상대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인류 앞에, 전체 인간들 앞에 사랑했다는 조건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참아 나온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타락하지 않았으면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도 하나님이 사랑해 가지고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천사장을 사랑하고 난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마가 되었을망정 당신의 창조원리, 본연의 원칙적 기준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오?' 할 때 '응!'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덜미를 거머쥐고 지금까지 참소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185-56, 1989.1.1) p.1131

사탄이 뭐라구요?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입니다. 이놈의 요사스러운 것이 천리의 대도를 파탄시켜 놓고도 뻔뻔스럽게 아직까지도 이 지구성에서 인류를 놓지 않고 갉아 먹고, 벗겨 먹고, 훑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놈을 내가 지옥에 가서 전부 다 쓰레기통에 쳐 넣을 겁니다. 놔두면 하나님께 돌아갈 본심이 있기 때문에 휙 돌아가는 겁니다.

봄철만 되면 빼빼 말랐던 나뭇가지도 아침 햇볕에, 봄볕에 움이 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자유만 주면 본심은 자연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살게 막 쳐 넣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지.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인류를 전부 다 해방시켜 하나로 만들자는 겁니다.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142-281, 1986.3.13) p.1131

우리들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투입해서 아버지의 간부에게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갚는데 총칼로 갚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고는 갚을 길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서야 본래의 창조이론에 합격된 하나님의 자리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 천사장도 본래는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 되려면 나는 타락했을망정 나 사랑했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고는 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못 가오!'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사실입니다. (120-266, 1982.10.17) p.1132

인간은 본래 창조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딸이어야 될 텐데 타락함으로 사탄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부 되는 사탄과 이마를 맞대고 싸워 나오셨습니다. 참소의 조건을 막아 가면서 지금까지 인류를 빼앗아 나오는 작전을 해 나오신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하나님인 줄 기성교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오! 천지 영광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41-301, 1971.2.17) p.1132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부입니다. 따라서 간부를 용서해 주면 천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탄 세계의 인간들은 백번, 천번 용서를 할 수 있어도 사탄만큼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대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주인인 양 임재해 있는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22-282, 1969.5.4) p.1132

사탄은 사랑을 유린한 원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한 도둑놈입니다. 사탄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해와, 하나님의 실체적 상대인 해와를 겁탈한 사랑의 원수입니다. 그런 간부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넘겨가지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용서해 주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사탄이 고맙다고 하겠어요?

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에게 넘겨 주고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34-278, 1970.9.13) p.1132

오늘날 인간 타락을 놓고 기독교인들은 뱀이 속닥거려 따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얼간이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역사상의 그 누구보다도 처량하고 안타깝고 비참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심장이 폭발하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21-141, 1968.11.17) p.1132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했던 대로 되는구나. 조금만 더 해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모든 감각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따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피흘리며 떨고 형용할 수 없는 애절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을 때 구경만 했겠나 말입니다, 칼이 있으면 역사를 베고, 이 천하를 베어 짤라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자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21-141, 1968.11.17) p.1133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아담과 해와 자신이 하나님의 내정을 살필 수 있었으면 타락할래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대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식은 부모의 깊은 심정까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 타락했겠지만 그 연령의 미급함이 타락의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심정의 미급으로 타락된 것이 아니냐? '저 분은 나를 대해 있다. 저 분은 나와 떨어지려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일체의 모든 문제에 관계돼 있다는 것을 만일 아담과 해와가 느낄 수 있었더라면 그는 타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결국 타락은 심정의 일치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과 자기들의 바람이 엇갈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는 방향이 하늘이 생각하는 것과 엇갈렸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65-173, 1972.11.19) p.1133

강도가 본래의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류입니다. 사탄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겁탈한 간부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사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간부를 용서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용서하더라도 사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을 용서하게 되면 천법이 전부 다 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1-197, 1971.2.15) p.1133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배반한 타락한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이 무엇을 배반한 줄 알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심정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배반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심정을 배반했느냐? 창조이상의 심정, 소망의 심정을 배반한 것입니다. (9-112, 1960.4.24) p.1133

사탄을 왜 대번에 못 떼어 버리느냐? 왜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면서 대번에 못 떼어 버리느냐? 핏줄이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뽑아 버리고 없애 버리면 인류를 전부 다 멸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피를 받은 것을 한꺼번에 빼 버리면 인류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까지 없어집니다. 때려 부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때려 부수고 다시 못 만드느냐? 다시 만들게 안 돼 있습니다. 사랑은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첫번이자 영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적인 대상적 사람은 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88-225, 1989.2.26) p.1134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6천년간 버티고 나왔습니까? 사탄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원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나를 처벌하려면 먼저 이 천지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비록 천사장이 받는 사랑이지만 완성기준에서 사랑해 주시려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도 천사장급 완성기준에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하나님께 언제 나를 완성단계에서 사랑해 보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기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단계의 사랑을 천사장에게 해보았습니까, 못 해보았습니까? 못 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유천지인 에덴동산에서 천사장에게도 완성단계의 사랑을 다 해줘야 책임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꼼짝 못하고 걸려 들어갑니다. (37-254, 1970.12.27) p.1134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딸의 목을 자르는 것을 수천만 번 자행해 온 천사장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천사장을 완전히 사랑해 주시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잘못하면 '하나님! 저 아무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글픈 역사의 배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통일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35-95, 1970.10.4) p.1134

하나님 앞에 효자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충신의 도리, 하나님 앞에 성인의 도리, 하나님 앞에 성자의 도리,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주류 사랑의 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어(囹圄)의 몸으로써 연금상태에 머무른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비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불쌍한 하나님이십니다. (302-226, 1999.6.14) p.1134

Top

6) 참부모의 축복과 혈통 복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메시아로서 참부모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참된 부모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하늘 앞에 쫓겨난 거짓된 부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으니, 이 핏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핏줄을 밟고 밟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혈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혈통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골수까지, 골육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장래의 아이가 될 그 씨에 하나님의 사랑과 결속된 승리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서에 그렇게 해온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참부모입니다. 그러면 참부모가 왜 필요하냐? 참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접붙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벗고 죄없는 해방된 자리에서 완성단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대행해야 할 자리가 참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참부모는 뭐냐? 종적인 참아버지 대신으로 횡적인 참사랑을 중심삼은 횡적인 부모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참아버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횡적인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요구하는 구주는 어떠한 구주냐? 타락한 부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부모의 자리에서 인류를 낳아 줄 구주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원죄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핏줄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어받으려니 메시아가 아버지로 와서 사탄세계를 이긴, 사탄이 간섭할 수 없는 초세계적인 기반에서 해와를 모시고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부의 인연을 중심삼은 가정을 중심한 아들딸을 세워 횡적으로 접붙이는 놀음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통일교회는 다릅니다. 통일교회는 핏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세계에서 반대해 봐라 이겁니다. 반대하다가는 손해 배상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169-16, 1987.10.4 본부교회) p.1135

우리 인간은 혈통적으로 사탄의 핏줄을 받았으니 그 자체로서는 하늘앞에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절대 혈통 복귀를 해 가지고 사탄이 더럽힌 핏줄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혈통 복귀가 안 되는 겁니다. 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172-45, 1988. 1. 7. 본부교회) p.1135

혈통이 다르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다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부모에 의하지 않고는 죄를 탕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역사는 타락하지 아니한, 종지조상(宗之祖上)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한 분이 올 때까지 종교의 이념을 중심으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참부모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심정권을 중심삼고 그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뿌리가 다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줄기와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여기에서 새로이 뿌리가 참부모로부터 시작되어 줄기와 가지가 나와 가지고 접붙이는 것입니다. 잘라 내고 접붙이는 겁니다. 접붙여 가지고 그것이 우주의 큰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모든 것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뿌리까지 잘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탄의 실체를 가진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까닭에 탕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탕감이란 원죄를 제거하는 것이며 원죄를 제거하는 데는 혈통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혈통적인 것은 타락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세계의 뿌리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릇된 생명을 돌이켜 놓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왜 나와야 되느냐? 사탄세계는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에덴동산에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니, 이제 참부모가 바르게 결혼시켜 줌으로써 다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저질러 놓은 일을 참부모가 청산함으로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억의 영계의 조상들마저 축복 결혼시켜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지상의 후손들의 가정기반을 통해 영계의 조상과 지상의 후손이 종적으로 하나로 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기반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연결됩니다.

먼저는 부모를 진심으로 그리워해야 됩니다. 내 생명의 동기도 부모요, 내 소망의 일체도 부모요, 내 모든 이상과 행복의 근원도 부모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셔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부모와 영원히 하나될 수 있는 아들, 딸이다'라는 신념을 자신의 존재의식을 초월할 수 있는 정도로 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근본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탄세계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랑이 물든 자리에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탄세계에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 처자,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네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네 어미나 애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한 겁니다. 전부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끌고 가는 힘을 누르고 넘어가려니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178-41, 1988.6.1. 본부교회) p.1137

혈통을 전환하는 것은 메시아가 할는지 모르나, 전환하도록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이룩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의 경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40 일 단식기도라든가 피를 토하는 죽음의 경지에 가야 혈통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9) p.1137

탕감조건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옛날에 일본에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서 일본 전부와 맞바꾸고라도 그것을 사왔다고 한다면 일본은 벌써 세계를 통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은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탕감조건을 세우는 방법을 바로 깨달아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부활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22-207, 하나님의 뜻과 세계-27) p.1137

Top

② 재림사상의 핵심은 혈통 복귀

혈통의 전환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눈물겨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에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축복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전환의 승리권을 세우는 데는 수천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노고와, 실체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의 고난의 생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 곳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축복이란 접목하는 것이며, 접목함으로써 혈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9) p.1137

혈통의 동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권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뿌리가 다릅니다. 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 뿌리가 같아야 되고, 줄기가 같아야 되고, 순이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혈통 전환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혼자서 못합니다. 참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172-55, 1988.1.7) p.1137

하나님편에서는 사탄의 거짓 사랑권에 있는 인간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빼앗아 와서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 사랑의 부모, 거짓 사랑의 조상, 거짓 사랑의 혈통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참사랑의 부모, 참사랑의 조상, 참사랑의 혈통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귀함도, 성만찬 의식도 모두 혈통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섭리를 형상적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135-12, 1985.8.20) p.1137

통일교회의 축복을 받는데 혈통 전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 전환식을 했지요? 탕감봉사니 삼일행사니….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부모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천국문을 열고 해방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행사하던 사탄은 상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혈통 전환식을 한 거 알아요? 그것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35-215, 1992.9.20) p.1138

복귀과정에는 혈통 전환이라는 절대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받을 때 혈통 전환식 했지요? 그 혈통을 전환하기 위해 성주(聖酒)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주라는 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스물한 가지의 성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것은 공중에서 열매 맺히는 것과, 땅에서 열매 맺히는 것과, 땅 아래에 열매 맺히는 것들을 중심삼고, 그 다음에는 광물세계?식물세계?동물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 이렇게 스물한 가지의 성별된 물건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참소 조건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7개월 동안 묵히는데 거기에 불상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먹었지만, 그것이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215-109, 1991.2.6) p.1138

여러분들은 혈통 전환, 이것이 실감이 안 나지요?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 가인 아벨이 언제… 선생님이 아벨이 될 때에는 여러분은 가인으로서 완전히 하나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하나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관계가 없으면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161-153, 1987.1.18) p.1138

이 어중이 떠중이들 못난 녀석들, 전부 다 뭐라고 할까, 사람 사촌 같은 것들 모아 놓고… 통일원리의 특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딸 되는 특권적인 내용을 중심삼아 사인 받고, 참부모님의 사인 받고, 참부모를 통해 혈통 전환을 했다는 입장에 서가지고 해방자라는 이름을 딱 받게 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데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발가벗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예복이 뭐냐 통일교회 원리 무장하여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특권은 다 받은 겁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214-71, 1991.2.1) p.1138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서 연결되느냐? 이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핏줄을 통해서만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정의 핏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기 전에 혈통 전환식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무의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몸뚱이는 없다 하는 자리에 서 가지고 부모님의 혈육에 다시 이어받는 결착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180-159, 1988.8.22) p.1138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때 혈통 전환식을 했지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부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혼란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한 쌍을 세운다는 심정적 기준에서 볼 때 축복에서 혈통을 더럽힐 만한 어떤 것이 있을 경우에는 큰일납니다. 이것은 형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동산에서는 미완성기에 타락한 것도 쫓아냈는데 완성의 심정적 기준에서 죄를 범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뒤통수도 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198-220, 1990.2.3) p.1139

자, 축복받을 때 여러분들 혈통 전환식을 했지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안 나왔으면 이 일이 가능해요? 창세 이후에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참부모가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참부모로부터 축복받았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통, 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전통이 뭐냐 하면 핏줄의 전통입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심은 전통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6-36, 1991.3.3) p.1139

축복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 사탄이 축복가정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선생님을 완전히 믿고 참부모님께 속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든지 서 있게 될 때 사탄이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의 심정을 중심삼고 혈통 전환한 심정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탄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149-53, 1986.11.2) p.1139

'나는 타락해서 당신의 혈통적 모든 것을 유린했지만 당신이 당신의 아들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 전환을 시켜야 될 것 아니오? 당신의 핏줄과 연결된 하나의 뿌리…. 당신이 생명의 주체라면 당신으로부터 아담이 생명의 씨를 받은 것이요.

그러니 당신으로부터 아담이 받은 생명의 씨가 해와를 중심삼고 연결되어 뿌리 될 수 있는 본연의 기준을 이루어서 그 기준을 중심삼고 당신의 혈족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내 혈족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의 혈통을 전환시켜 뿌리를 개조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오. 하늘나라에 아담 뿌리의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지, 천사장 뿌리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소? 못 들어가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97-286, 1990.1.20) p.1139

혈통 전환이라는 원통한 비운의 운명을 지닌 타락의 후손이 된 것이 기가 막히게 비통한 사실입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다해서 해방된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대해서 서슴지 않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 대해서 '아버지!'하고 부를 자신 있겠나요, 없겠나요? 자신있습니다. (197-115, 1990.1.7) p.1139

복귀도상에서 종의 종 시대에서부터 종의 시대를 거쳐 양자의 시대, 직계자녀의 시대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종의 종 시대를 거치고, 종의 시대, 양자의 시대를 거쳐 직계시대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느냐? 직계의 시대와 인연을 맺는데는 그냥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리에 의해 믿음의 기대를 거치고 실체기대를 거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거쳐야 됩니다.

즉, 메시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아들입니다. 양자와 참아들은 혈통적인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5-192, 1972.5.9) p.1140

타락인간은 혈통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미지의 사실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풀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 이겁니다. 혈통 전환도 개인권, 가정권, 민족권, 국가권, 세계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옴으로 부모에서부터 혈통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혈통이 전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이 전부 다 이런 일을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아는 메시아가 와 가지고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161-147, 1987.1.18) p.1140

타락인간은 출발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짓 부모로 시작했으니 돌아가서 참부모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을 때 혈통 전환식을 했지요? 그걸 내 생명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해서 그저 일반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사람을 회생시키는 주사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독 주사입니다. (216-107, 1991.3.9) p.114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성경 역사를 보면, 야곱은 어머니하고 하나돼 아버지를 속여 축복받고, 다말의 역사를 중심삼고도 이렇게 패륜 놀음을 했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혈통 전환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핏줄을 맑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만이 혈통을 중요시하고, 기독교만이 혈통 정화를 주요 사상으로 삼아 나왔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 전환이라는 걸 중심삼고 볼 때, 문총재는 기독교를 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을 이어받은 기독교를 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교동일(萬敎同一)이라고 했으면 왜 내가 핍박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골수사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227-349, 1992.2.16) p.1140

Top

제 3 장
탕감과 복귀의 공식

1) 모성복귀로 본 리브가, 다말, 마리아의 역사

① 해와의 타락과 리브가, 다말의 속임의 역사

타락은 어머니의 태내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복귀도 어머니의 태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가 악의 근원지가 되고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므로, 복귀에 있어서도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형제를 내세워서 장자권을 복귀하는 섭리를 행하려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가인은 아벨의 위치로 내려가야 하며, 아벨은 가인의 위치, 즉 장자의 위치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행위는 아담과 해와때의 타락행위의 반복입니다. 즉 복귀된 입장은 커녕 다시 천사가 아담을 주관한 입장에 서고 만 것입니다. (55-109, 1972.4.1) p.1141

해와가 타락할 때 누구를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엔 아담은 자기 남편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자를 부정하는 자리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아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세워 하나님 대신으로 아버지 이삭, 아담 대신 아들 에서, 이들이 모르게 축복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졌던 것을 교체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 잃어버린 축복의 장자 기업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114-17, 1981.5.14) p.1141

천사가 해와를 꼬드겼지만 이제는 거꾸로 해와가 꼬드깁니다. 그러한 놀음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게 될 때 약조물로 양 새끼를 준다는 것을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 증거물을 달라 해 가지고 보관했습니다. '내가 밴 애기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죽더라도 그것을 남겨 놓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다말은 증거물을 받아 가지고 보관했던 것입니다. (55-305, 1972.5.9) p.1142

마리아도 해와와 꼭 닮았지요? 자기의 남편이요, 오빠인 아담과 아버지인 하나님, 하나님과 오빠와 남편을 해와가 속였던 것처럼 다말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 그리고 시아버지, 남편과 오빠와 전 형제를 속인 그 내용은 모두 해와의 행위와 일치한 탕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말 자체를 중심삼고, 마리아를 중심삼고 꼭 닮았습니다. (213-309, 1991.1.21) p.1142

해와가 세 남자를 속인 것과 같이 언제나 세 남자를 속이는 겁니다. 리브가가 세 남자를 속였지요? 하나님,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을 속였습니다. 또 다말도 세 남자를 속였지요? 시아버지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속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누구를 속였어요? 마리아도 하나님, 그 다음엔 자기 부모, 자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해와가 아버지를 속이고 오빠를 속이고 남편을 속였지요? 아담이 오빠인 동시에 남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215-98, 1991.2.6) p.1142

마태복음 1 장에 4 대 음녀가 나옵니다. 거기에 밧세바가 나오지요? 다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 룻이 나오지요? 4 대 음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음녀라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웠으니 음녀입니다. 성경 갖다 한 번 잘 읽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정처(正妻)를 통해서 못 태어나는 겁니다. 첩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139-311, 1986.1.31) p.1142

성경은 거룩한 경전인데 용납하지 못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리브가와 하나되어 형에서와 아버지를 속여 축복받는 이런 놀음이 왜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또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를 중심삼고 왜 유다지파가 축복을 받게 됐느냐 하는 문제, 인륜 도덕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왜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 장에 보게 되면 4 대 음녀가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밧세바가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창세기와 맞먹는데, 역사시대에 있어 첫 페이지에 이런 여성들을 중심삼고 거룩하지 못한, 오점을 지니고 있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타락원리를 몰라 가지고는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문총재시대에 와 가지고 그걸 다 밝혀 준 것입니다. (211-137, 1990.12.30)

Top

② 다말을 중심한 복중 근본복귀

가인과 아벨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 가지고 바꿔치기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모자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해와가 아벨을 옹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 시대에 리브가가 야곱편이 되어 거짓말을 해 가지고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왜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었느냐 하는 문제도 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야곱때에 쌍태로 태어나 바꿔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중심삼고 다말의 복중에서 나올 때 싸워 가지고 바꿔치기해서, 차자가 장자를 밀치고 나온 이런 놀음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본연의 부모의 혈통적 기준에 접근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20-167, 1982.10.13) p.1143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창 25:23)'고 하신 것입니다. 두 나라로 나뉜다는 겁니다. 한 나라는 하늘나라이고, 또 한 나라는 사탄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싸워 가지고 혈통복귀를 하자니 3 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중에서 싸워 뒤집어서 복중에서부터 혈통을 계승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3 대만에 외적으로 승리했지만 내적인 승리의 기반은 다말의 복중에서 태어난 베레스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원칙입니다. (36-251, 1970.12.6) p.1143

다말의 역사를 중심삼고 볼 때 다말은 하늘의 천도를 잇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겁니다. 문총재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천사하고 생명을 걸고 싸웠지요? 환도뼈를 맞아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밤새껏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환도뼈를 맞아야 됩니다. 환도뼈를 잘못 쓴 것이 음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결혼 후에 탕감봉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탕감봉 의식이 뭐예요? 어디를 제기는 거예요? 허리를 제기는 겁니다. 이놈의 궁둥이 잘못 썼다는 거 아니예요? 이 똑똑한 문총재가 왜 그런 놀음 하느냐구요.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4-225, 1991.2.2) p.1143

옛날에 천사장이 해와를 꼬였던 것을 반대로 여자가 시아버지를 꼬여 천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이상을 상속받기 위해 자기 일신은 거름이 돼야 되고 당장 돌로 맞아 죽더라도 … 그때 유대의 법은 과부가 애기를 배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것을 각오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다의 혈통을 남기는 것이 내 소원인데 이것밖에 길이 없소. 죽이려면 죽이소!' 하며 뜻 앞에 서 가지고 죽음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각오하고 나간 겁니다. 제물적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짓고 나선 다말의 이 역사는 놀라운 여성의 역사가 됐다는 겁니다. (110-35, 1980.11.8) p.1143

예수의 조상이 거기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걸 볼 때 타락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해야 되느냐? 인류는 뱃속에서부터 더럽혀졌기에 뱃속에서부터 바꿔치는 전환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다말이 그와 같은 비운의 운명 가운데 선 겁니다. (110-35, 1980.11.8) p.1143

자, 역사 이래 처음으로 거꿀잡이로 형과 동생을 복중에서 바꿔치는 놀음이 벌어진 겁니다. 유다 때에 와 가지고 다말이라는 비법적인 행동을 한 여자로 말미암아 비로소 역사가 바로잡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말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받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기원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다말과 같은 심정적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유다 지파에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사탄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진 것을 중심삼아 전통이 이어 나온 겁니다. (72-139, 1974.6.2) p.1144

다말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혈통, 즉 축복이라는 것을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혈대를 이어 받는데 어떠한 모험이라도 하기 위해 나선 역사적인 대표 여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자리와 같으냐 하면 해와의 자리와 같습니다. 해와는 인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직계의 전통적 계대를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한시하여 파탄시켰습니다.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해와보다 나은 여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망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혈통의 계대를 남기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여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다말입니다. (58-53, 1972.6.6) p.1144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는데 아버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며느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에 의해 아들을 임신한 것입니다. 창세기 38 장을 살펴보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고 다말은 그 장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고, 이와 같은 경우 대개 유대민족의 관습으로는 그 차남에 의해 아들을 낳아야 하지만 차남도 죽었고, 삼남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의 복귀되어 온 혈통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 아기를 임신하게 하는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긍지도 버리고 생명까지도 내던질 각오를 했습니다. 그녀는 창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 그래서 농장으로 가는 유다를 유혹하여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55-114, 1972.4.1) p.1144

다말은 시아버지와 혈연관계를 맺기 위해 생명을 내 놓았습니다.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두 가문이 전부 옥살박살될 수 있는 놀음이었습니다. 다말은 그런 상황속에서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자 남편의 동생을 맞았으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어려서 그를 중심삼고는 하늘의 축복받은 혈통의 대를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말은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버리고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하늘의 축복받은 계대를 남겨야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다말의 그 마음! 그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47-124, 1971.8.22) p.1144

에서와 야곱 때를 보면 리브가의 복중에서 서로 싸웠지만 먼저 태어난 에서는 사탄편입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장자의 기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의 복중에서 싸워 베레스가 장자의 기업을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은 아들딸이 태어나는 근본인데 그 근본에서부터 바꿔쳤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바꿔친 것이 아니고 복중에서 바꿔쳤다는 것입니다. (43-199, 1971.4.30) p.1145

복중에서 바꿔쳐서 먼저 태어난 아들에 대해 사탄이 '내 아들이다!'하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중에서 바꿔치지 않고 먼저 태어나게 되면 사탄편이지만, 복중에서 바꿔쳐 가지고 먼저 태어나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면 하늘편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의 복중에서 싸워 가지고 베레스가 세라를 물리치고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기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랬으니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입니다. 베레스는 필연적으로 차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입장으로 태어났으니 선이 먼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43-199, 1971.4.30) p.1145

하늘의 축복이 귀하기 때문에 하늘의 선민사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핏줄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기 남편은 죽고 남편의 형제지간은 없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풍습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거두어야 되는데 동생이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핏줄을 이어받기 위해서 기생의 몸으로 가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 세계에 가서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남편 대신이요, 오빠 대신이요, 아버지 대신입니다. 그런 입장에 세워 가지고 장자권을… 아브라함?이삭?야곱?유다, 4 대의 모든 축복의 인연을 이어받기 위해서 다말은 목을 내 놓고 단행한 것입니다. (227-347, 1992.2.16) p.1145

사탄이 어디에서 애기씨를 심었느냐 하면 자궁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도 쌍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 복중에 두 종자가 심어진 것입니다. 그건 쌍태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다말의 복중에서 두 애기가 태어날 때에 이것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 형이 먼저 나오려고 손을 내밀 때 빨간 리본을 맨 것입니다. 이건 훗날에, 오시는 주님때에 공산주의 세계에서 전권을 대신한 독재자가 먼저 나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차 대전 시대에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오고, 소련에서는 스탈린 같은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스탈린이 1953 년에 죽었지요? 그때부터 중국하고 소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옥중에서 해방되어서 나온지 3 년만에 죽은 것입니다. 역사는 다 우연이 아닙니다. (227-349, 1992.2.16) p.1145

Top

③ 예수 노정에서의 마리아의 사명

다말은 몇 남자를 거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의 그런 절개를 이어받아 가지고 처녀의 몸으로서 정성들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처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처녀가 마리아입니다. (43-201, 1971.4.30) p.1146

마리아는 그 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다말과 같이 절개와 충절을 다하며, 귀한 하늘의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험이라도 강행할 수 있는 당돌한 입장에 섰던 여성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곧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할 때 그 마리아는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35-222, 1970.10.19) p.1146

예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느냐? 예수는 핏줄을 맑혀 가지고 왔습니다. 형제로부터 태어나 쌍동이 시대를 거쳐, 에서와 야곱을 통해 장자권을 복귀하고, 다말의 복중에서 베레스와 세라의 역사에 없는 요사스런 싸움을 통해 뒤넘이쳐 가지고 뒤바꿔져서 혈통 전환을 자궁에서부터 했다는 겁니다.

먼저 나올 형을 차버리고 나왔다 해서 베레스라고 부릅니다. 형 세라를 차 버리고 먼저 나왔다 이겁니다. 다말의 복중에서 형 세라의 손이 나왔을 때 산파가 빨강줄을 손에 매었던 것은 앞으로 이 세계의 계승자가 올 때 공산주의가 먼저 나올 것을 예시했던 겁니다. 이걸 차 버리고 장자권 복귀를 못하면 세계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140-149, 1986.2.9) p.1146

다말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것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어머니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요셉을 속여 가지고 가서 애기를 뱄지요? 아담과 해와가 그렇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타락됐으니 탕감복귀 원칙이 그렇습니다. 약혼시대에 천륜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다말의 전통을 이어 가지고 자궁에 하나님의 전통적 역사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혈대를 존중시하는 마리아에 있어서는 자기 생사지권을 넘어 내 일신이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대법에는 처녀가 애기를 배게 되면 돌멩이에 맞아 죽게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여자들은 다 생명 바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211-101, 1990.12.29) p.1146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라는 여인은 해와와 딱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 하면 정혼한 입장에 있었다 이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약혼단계에 있을 때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리브가의 전통을 이어 받아야 되고, 다말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혈통을 맑힌 여성을 대표한 기준에서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139-303, 1986.1.31) p.1147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이렇게 속인 마리아는 그 시대의 법으로 보면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잉태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으니 하늘이 요셉을 대해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하고 가르쳐 줘서 할 수 없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던 겁니다. (139-305, 1986.1.31) p.1147

천사장의 피를 받았으니 천사장과 같은 사람을 통해 예수를 잉태시킨 겁니다. 뭐, 성신이 잉태했어? 그런 수작은 그만두라는 거야, 탕감복귀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늘편에 백퍼센트 영원히 변치않는 하늘편 충신이 될 수 있는 천사장과 같은 사람을 세워 놓으면 사탄이 별안간 천사장의 자리를 취소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급 하늘편 사람을 통해 예수를 낳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장자로 태어난 겁니다. 타락한 장자권에서 새로운 핏줄로 맑혀서 하늘편 장자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 사랑에 접하게 되므로 그 핏줄이 사탄과 다르다는 겁니다. (143-104, 1986.3.16) p.1147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것은 아담과 해와와 약혼단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혼한 관계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빼앗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빼앗아야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해와를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천사장 입장입니다. 요셉은 원래 아담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천사장 입장입니까? 타락한 후손이므로 씨가 달라서 입니다. 즉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셉은 타락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면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씨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36-245, 1970.12.6) p.1147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아담과 같은 입장의 사람이 비로소 성숙해 가지고 하늘편 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대표자가 되어 가지고, 하늘편 천사장의 씨를 이어서 본연의 씨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직계 자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라구요? 아버지가 다릅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하늘편의 천사장권인데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와서 애기를 낳아 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천사장이지요? 하늘편에 충신이 될 수 있는, 타락한 천사장 이상의 천사장격이어야 됩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심정권을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이어받아 오는 것이 메시아다 이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맏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169-194, 1987.10.31) p.1148

예수가 역사적인 배후의 모든 저끄러진 걸 탕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친척 잔칫집에서 그 어머니가 예수에게 술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가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 말한 것이 기분이 좋아서 한 거예요? '친척집 잔치에서 이 수작이 뭐야? 어머니 노릇도 못 하면서…' 하고 들이 깐 것입니다. 그거 이해되지요? (139-305, 1987.11.1) p.114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는 공적으로 선 사람이니 공적인 모든 규약을, 천법을 따라 결혼하게 되어 있지, 아무렇게나 만나서 사는 사내와 여편네같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방향에 조준해 맞춰야 되고, 그 섭리의 시대에 조준해 맞춰야 됩니다. 탕감복귀에 그것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예수는 결혼 못한 겁니다. (139-307, 1987.11.1) p.1148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왔느냐? 혈통을 전환시켜 승리적 전통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복중에 임신하더라도 사탄이 '그는 내아들'이라고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심정적 전통을 이어받은 역사적인 기준 위에 국가적 차원에서 마리아가 잉태했기 때문에 해와의 실수를 탕감복귀함과 더불어, 역사적 소원인 여성들이 가야 할 그 길 앞에 결실의 자리에 서서 혈통전환, 장자복귀완성 기준의 심정권 위에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탄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다말에게 있어 베레스는 태어난 이후에 하늘편의 장자로 주장할 수 있었지 복중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39-309, 1987.11.1) p.1148

예수가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회교의 마호메트 같은 분들과 다른 것이 뭐냐? 혈통을 맑혀 온 분은 역사이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석가모니와 예수가 뭐가 달라요? 공자와 뭐가 달라요? 마호메트와는 뭐가 달라요? 예수가 그들과 다른 것은 혈통을 맑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특권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역사 이래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비로소 예수를 중심삼은 기독교의 출발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참아버지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169-194, 1987.10.31) p.1148

예수는 만민을 대해 선포하기를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누구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권은 타락한 사랑의 기준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약해 보면 가정을 중심삼은 자기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본연의 부모되는 메시아를 더 위해야 되고, 자기 아내나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탕감복귀 원칙에 있어 사탄편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가지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144-58, 1986.4.8) p.1149

축복은 남자 여자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가랴가정, 사가랴족속, 사가랴문중하고 요셉 문중, 두 가문, 가인 아벨 관계인 종족적 기반 위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혼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요셉가정은 아벨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정은 가인의 자리를 뜻합니다. (146-342, 1986.8.10) p.1149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 가인 아벨과 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형제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첫째 아내한테서 났고, 예수는 둘째 아내한테서 났습니다.

첫째 아내한테서 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가 가지고 음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자들이 전부 몸을 파는 바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를 해방해야 됩니다. 첫째 번 남편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끝날에는 탕녀, 음녀, 거리의 여인을 통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첩은 타락한 세계에서 사랑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는 본처건 무엇이건, 첩이 도리어 세도를 갖는 그런 시대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래야 되느냐? 첫째 번 것은 가인편 사랑이고 둘째 번 것은 하늘편 사랑인만큼 둘째 번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님도 둘째 번입니다. 알겠어요? (169-194, 1987.10.31) p.1149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2) 참아버님의 역사적 탕감노정

① 탕감노정을 가는 사람의 마음자세

내가 40 년 전에 40 년 후면 이러이러한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따라지 중에서도 왕따라지였습니다. 옷도 없어서 바지는 한복바지 겹바지인데 그것도 아껴 입으려고 안껍질 겉껍질을 따로 퍼런 물을 들여서 입고, 위에는 입을 것이 없으니까 미군 작업복인 푸른 옷을 입고, 신은 운동화, 그 운동화는 일본사람이 갖다준 것입니다. 그렇게 3 국의 옷을 떡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이건 다 탕감복귀다. 탕감복귀하려니 미국의 누더기, 한국의 누더기, 일본의 누더기를 내가 입고 다닌다.' 이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근사해요. (164-61, 1987.5.3) p.1149

우리 교회는 탕감복귀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탕감복귀하기 위해 사연의 길을 거치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만큼 기반을 닦았습니다. 망하지 않고 사탄의 코에 걸려서 낚여지지 않고 남아졌습니다. 이 기반은 누구를 위해 닦은 것이냐? 나를 위해 닦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 닦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일교회의 것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의 주권 속으로 넘어 와야 됩니다. 그게 모든 종교가 바라는 것입니다. (161-86, 1987.1.2) p.1150

이스라엘 승리권의 출발자, 야곱으로부터 기독교 문화권까지 4 천 년을 기반 닦은 게 실패로 돌아간 것을 레버런 문, 일대에 4 백 년 가지고 안 되겠으니, 4 십 년 동안에 어떠한 수욕을 당하더라도 이걸 돌려 맞춰,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 4 십 년 노정입니다. (149-59, 1986.11.2) p.1150

이스라엘 역사가 야곱에서부터 예수님을 거쳐 지금까지 4 천 년 역사입니다. 이 4 천 년 역사를 4 십 년에 탕감복귀 못하게 되면 흘러가는 겁니다. 다 깨지는 겁니다. 4 천 년 역사를 4 십 년에 압축시켜 전부 다 탕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반대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공산당까지 모든 것이 선생님을 반대한 겁니다. (148-288.10.25) p.1150

이스라엘 노정은 탕감복귀 노정입니다. 모세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60 만의 생사지권을 책임지고 하늘땅을 부여안고 뒤넘이친 겁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40 주야를 철야 금식하면서 석비를 받기 위한 놀음을 한 것이 얼마나 비통한 사실입니다.

모세가 편안했겠어요? 뭐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건달로 폼잡고 다니고… 대갓 집에 와서, 살면서도 그 대갓집의 역사도 모르고, 뭘하는 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눈치밥만 먹고, 눈치만 봐 왔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부끄러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41-197, 1986.2.22) p.1150

험한 사람을 보면 발도 크고 손도 큰데, 선생님의 손발을 척 보니까 고생을 안 할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몸을 갖고 태어난 분이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고생해서는 안 될 양반이 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건 탕감복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140-186, 1986.2.9) p.1150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용광로에 몇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복귀, 심정권의 복귀를 위해 자기 아들딸을 형장에 보낼 수 있는 애비가 될 때에,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눈물 없이는 안 된다 이겁니다. 천리의 대도를 닦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권 내로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앉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자리를 갖춘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피눈물이 더께가 앉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 통일교회의 기반이 닦아진 것입니다. 그 기반을 알고나면 눈물 없이 앉을 수 없고, 통회 없이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69-131, 1987.10.29) p.115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내가 일생 동안 고생했지만 내가 호화스러운 높은 자리에서 역사를 탕감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남겨두고…. 여러분이 하는 그 고생과 더불어 선생님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민족적 존경심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국가의 해방과 더불어 환희의 한날을 바라는 것이 선생님의 희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81-66, 1988.8.28) p.1151

감옥을 거치는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절망과 낙망을 갖고 갔지만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감옥 생활 이후에 찾아올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탕감복귀를 배웠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무엇이 벌어질 것이냐? 지금 당하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 뒤에 오는 새로운 역사적인 하나의 선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133-300, 1985.1.1) p.1151

책임분담 완수 못한 우리 조상의 죄로 사탄 사랑의 영역이 하늘나라의 문전 경계선까지 연결되고, 사망의 심연의 구렁텅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세계로부터 반대받으면서 국가 기준을 넘어 탕감복귀 노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미국이 민주세계의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원래의 평형선, 직접주관권과 완전히 하나된 자리에서, 세계 탕감조건을 세운 터 위에서 가인 아벨이 탕감복귀해 왔다는 겁니다. (137-249, 1986.1.3) p.1151

탕감복귀의 길은 엄숙한 겁니다. 틀림없이 40 년 동안 잃어버린 걸 찾아나오는 것입니다. 40 년 전에 기독교와 미국이 하나되어 한국을 품고 통일교회를 지원하였더라면, 세계복귀는 7 년 이내에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를 40 년 걸어 가지고, 야곱으로부터 재림시대까지 4 천 년 재탕감역사를 40 년 동안 걸어 가정을 끌고 탕감복귀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천신만고 이것을 하나 만들고 청산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명,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생명을 내 놓고 그 길을 위해 싸움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 역사노정에 이놈의 자식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놀고 별의별 요지경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회개해라 이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으로 다스릴 겁니다. (137-38, 1986.1.1)

탕감길을 가면서 불평을 했으면 이미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탕감복귀의 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탕감길은 세계적인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만민이 개인적 입장에서, 세계 50 억 인간들이 일대일로 전부 다 반대하는 자리에서, 내가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반대하는 50 억 개인, 그들이 하는 이상의 모든 것을 하겠다는 배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138-134, 1986.1.19) p.1152

2 차 대전 직후에 세계는 전부 다 장자권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통일교회 문선생과 하나되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40 년 역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만 들었더라면 한국이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삼고 신령한 단체들이 전부 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분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동산을 복귀하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단체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세례요한과 같은 운명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해방 이후 통일교회가 반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 기독교의 2 천 년 역사, 야곱으로부터 4 천 년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런 일을 40 년 동안에 탕감복귀해 온 겁니다. (138-214, 1986.1.21) p.1152

선생님은 혼자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래서 개인 복귀, 가정 복귀…. 이 일을 해 나온 겁니다. 사탄세계가 뿌린 대로 열매가 맺히는 데 열매 맺힌 이 세계에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다시 구하지 않으면 구할 길이 없습니다.

해방 직후에 선생님과 하나만 되었으면 7 년 노정을 중심삼고 일시에 개인 가인, 가정 가인, 종족 가인, 민족 가인, 국가 가인, 세계 가인, 전체 가인을 탕감복귀할 수 있었는데 믿지 않음으로 40 년이 연장된 겁니다. (138-216, 1986.1.21) p.115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기독교와 미국, 한국의 반대를 받음으로 어떤 입장에 섰느냐 하면 나라 없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동시에 민족도 없고, 종족도 없고, 가정도 없는 고아와 같은 자리에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40 년 동안 되찾아 가지고 국가적, 세계적 영적 판도 기반 위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판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판도 기반을 기독교문화권에서 인수, 전수받아 가지고 국가기준의 실체 문화권을 다시 찾고 그 기반 위에 세계의 실체 기독교문화권을 전부 다 탕감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143-176, 1986.3.16) p.1152

이스라엘 역사는 야곱시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승리한 전통적인 역사를 세계적 승리의 기반으로 기독교문화권을 통해 통일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반대함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4 천 년을 40 년을 통해서 다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40 년에 못하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40 년간이 역사시대에 있어서 대변천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위협을 느끼던 2 차 대전 직후에 사탄이 전면적으로 후퇴할 것이었는데, 모두가 사탄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사탄이 세계를 전면적으로 지배해 가지고 하늘편 통일교회를 몰아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161-220, 1987.2.15) p.1153

종의 종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것은 내적 탕감분별노정입니다. 사탄세계의 모든 종적인 탕감조건을 전부 다 세우게 되면, 사탄이 공격하려야 공격할 조건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신이 종의 종에서부터 종으로, 종에서 양자로, 양자에서 서자로 취급받고 이렇게 탕감복귀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복귀, 어머니 복귀를 해야 되고, 아담 복귀를 해야 됩니다. 남성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여성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적 탕감조건, 요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161-208, 1987.2.4) p.1153

복귀를 위해서는 남들이 어떤 간섭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확고한 주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남들은 어떤 길을 가든지 내 갈 길이 바쁩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밤에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자리잡고 편히 앉아서 밥을 먹을 여유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갖지 않고서는 복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7) p.1153

선생님은 몇십, 몇백, 몇천, 몇만이나 되는 생사의 경계선을 지켜 보면서 사탄과 대결해 왔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파도처럼 거듭거듭 몰려와도, 선생님이 세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눈알이 빠지더라도 목이 달아나더라도 출발할 때의 심정기준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9) p.1153

선생님은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스런 일이란 피할 수 있지만 이 일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완력이나 폭력을 가지고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리 원칙에 따라 하지 않으면 사방에서 몰아치는 화살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탕감조건을 세워 내적 기반을 닦아 왔음을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을 터로 하여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것은 천주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9) p.1153

내가 이제 죽는다면,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같이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누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빨리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레버런 문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주시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신받고 수난당하신 하나님을 대해 선생님 이상 사랑하고 선생님 이상 인류를 해방해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람이 이 시간 나온다면, 오늘은 영광의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37) p.1154

어떤 영통인이 문선생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기도를 하다가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매일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럽니까? 문선생을 알려면 통곡하는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는 문선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게 되면, 나는 천년 한을 품고 통곡할 수 있는 사연을 가진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들 그렇게 욕먹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안 죄로… 나만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2 천 년 동안 저끄러진 역사를 20 년 동안에 탕감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워요? 말하기가 쉬워요? (137-183, 1986.1.1) p.1154

탕감원칙을 가지고 역사시대에 하나님이 슬펐던 모든 사연과 고통을 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이 잘못해 하나님을 고생시킨 불효자인 것을 알고,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 불효 이상의 효성을 다할 수 있는 참된 효자가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수고하신 부모님의 노고를, 역사시대에 얼마나 수고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걸음 한걸음 점점점 이래 가지고 청산지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을 모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해 하나님을 해원성사시켜 드려야 됩니다. (144-274, 1986.4.25) p.1154

구세주가 도대체 뭐하러 오느냐. 정치하러 오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주님이 오게 되면, 전부 다 공중에 들려져 가지고 자기들은 떨래떨래 올라가고 지상 사람들은 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심판한다고 하는데 구세주가 뭘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딸인 동시에 인류의 부모로 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이 병이 나 가지고 죽을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아들딸을 보고 '야, 너 저 지옥으로 가라!' 하고 쳐낼 수 있나?

타락한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 그저 목이 메이고 통곡하고 자기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 주기 위해서는 무슨 놀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이 부모라 할진대, 본연의 부모의 심정을 갖고 오시는 그러한 구세주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겁니다. 심판이란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222-150, 1991.11.3) p.1154

자, 선생님하고 하나님하고 만난다면 웃고 만나겠어요, 통곡하고 만나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내 생각에는 혼수상태로 떨어질 겁니다. 눈물을 흘리겠다면 체면이 있고, 죽겠다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40 평생 한다고 했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93-77, 1989.8.20) p.1155

통일교회 문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니 다행이지. 인간의 150 만 년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한이, 저끄러지고 얽히고설킨 것을 바로잡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도 없이 굴러 나갈 이 역사적인 비참상을 누가 하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닦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통일교회 몇 년의 역사 위에 수천 년의 역사가 전개되고, 수십만 년의 역사가 배후에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를 통일교회가 탕감의 비운을 지니고 찾아 나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43-36, 1986.3.15) p.1155

내가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본연의 땅 위에 만물을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동물을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인간을 하나님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출발했으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몇 억만 배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보다 훌륭한 아들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8-291, 1995.4.3) p.1155

선생님의 이름 가운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문(文)을 이렇게 빨리 쓰면 아버지(父)가 됩니다. 그리고 선(鮮)자는 양(羊)하고 고기(魚)를 뜻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중심삼고 육지와 바다를 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明)은 해와 달입니다.

바다를 하나 만들고 육지를 하나 만드는,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드는 통일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해와 달이 하나되는 통일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268-289, 1995.4.3) p.115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② 참어머님의 간택

기독교를 통해 2천 년 동안 재림주가 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2차 대전 직후에 기독교와 미국을 중심삼은 승리적 기반 위에 선생님이 섰더라면, 선생님이 고생하겠어요? 그때 선생님을 받들었으면 어머니는 누가 되었겠어요? 성진이 어머니가 안 된다면 누가 되겠어요? 영국 여자입니다.

뜻적으로는 영국 여자입니다. 영국 왕궁이 선생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거 기독교문화권 아니예요? 미국은 영국이 낳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박사가 왜 서양 여자를 얻었으냐 하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반대함으로써 우리 어머니가 복 받았습니다. (181-217, 1988.10.3) p.1155

해와 복귀를 위해서 7수를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60년대에 세워 가지고 7년 노정을 1968년까지 거쳐 하나님의 날을 설정할 때까지 어머니는 핍박시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여자들이 전부 다 어머니 잡아먹겠다고 별의별 모략중상 다 할 때라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어머니는 모르니까 절대 아버님 말 복종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성혼식을 한 후 3년 동안 밖에 내쫓아 가지고 3년을 거치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방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다 사실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 그거 알지요? 탕감입니다. 개인 탕감노정, 가정 탕감노정을 거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139-296, 1986.1.31) p.1156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세우고, 하나님의 날까지… 1960년도에서 7년노정을 거치고 나서 1968년에 심정 일치권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날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도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기 완성급까지 7년 노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심정권이 안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1960년에 결혼했지만 7년이 지난 후 1968년 정월 초하룻날에 하나님의 날을 설정한 겁니다. 원리적입니다.

7년노정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축복가정도 7년노정을 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7년노정을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축복가정이 7년노정을 못가면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통일교회에 가정 낙원급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론적입니다. (139-311, 1986.1.31) p.1156

어머니를 모신 것은 해방 후 14년 만입니다. 1960년도입니다. 왜 14년이냐? 인간 시조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2차 7년 노정을 거치는 자리에서, 3차 7년 노정을 앞선 2차 7년 노정의 종결시대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감복귀원칙에 의해 14년의 핍박의 노정에서 한국에 착륙해 가지고 통일교회라는 제단을 만들어 기성교회와 대한민국과 싸우면서 어머니를 택해 세운 것입니다. 어머니를 택해 세운 거기서부터 지상에 비로소 착륙하는 겁니다. (143-178, 1986.3.18) p.1156

어머니는 20살이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해와가 20이내에 틴에이저(teenager) 때에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때에 타락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런 연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 복잡한 통일교회를 움직이는데, 아이고, 어머니를 택하는데 대학교 나온 박사 처녀들도 수두룩한데, 눈에 불을 켜고 선생님 상대 되겠다고 별의별 공작 다 하고 있는 것을 떡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틴에이저 여자를 찾아가야 할 운명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탕감복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145-161, 1986.5.1) p.1156

탕감복귀의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40이 되도록 창대같이 늙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나이 많은 색시도 못 얻고 열 여덟 살… 18세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대학을 나온 박사, 학사가 수두둑해서 눈을 부릅떠 가지고 쏘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여자 떼거리가 늑대와 같이 으르렁 왕왕거리는 판국에, 그들은 상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모셨으니 얼마나 요사스러운 판국이 벌어졌겠어요? (164-61, 1987.5.3) p.115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결혼하고 나서는 장모에게 '절대 3년 동안 정문 출입 못 해. 어미라고 해서 찾아오지마. 에덴동산에서 해와에게는 어미가 없었어. 정문으로 다녀서는 안 되는 거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자기 장모 앞에 사위라는 녀석이 '어머니 방에 들어올 때는 절대 뒷문으로 찾아와야지, 정문으로 못 들어와, 3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보기만 하면 그저…. (184-262, 1989.1.1) p.1157

어머니는 해와가 아담을 통해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친척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3대가 뒤에 따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종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입니다. 안 그래요? 오빠도 없거니와 아버지도 없고 혼자입니다. 두 모녀밖에 없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주님 모시기 위해 정성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표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온다고 해 가지고, 복중교에서부터 따라 나온 패들입니다. 또, 어머니는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해와적 책임을 한, 한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할머니들한테서 축복은 다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184-293, 1989.1.1) p.1157

Top

3) 8단계 탕감노정과 8정식

① 종, 횡의 8단계 탕감복귀노정

6천 년 역사는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나온 역사인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하나님의 사랑 복귀까지 8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8단계를 중심삼고 하지요? 아버지여, 개인복귀 완성하고 가정복귀 완성하고….

그것이 뭐냐 하면, 개인복귀 완성은 가정 가운데 있고, 가정복귀 완성은 종족 가운데, 종족복귀 완성은 민족 가운데, 민족복귀 완성은 국가 가운데, 국가복귀 완성은 세계 가운데, 세계복귀 완성은 천주 가운데, 천주복귀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천주적으로 하나되라는 의미입니다. (61-75, 1972.8.27) p.1157

여러분의 몸뚱이가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하나되어 있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거지, 종의 종에서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종적으로 종의 종에서부터 종?양자?서자?직계자녀, 그 다음엔 어머니?아버지?하나님, 이렇게 8단계입니다. 또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하나님, 이것도 8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종적으로 8단계이고, 횡적으로 8단계입니다. 그게 원리관입니다. 선생님의 말이 아닙니다. (189-141, 1989. 4. 1. 벨베디아 수련소) p.1158

Top

② 사탄의 활동과 8단계의 승리

사탄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 이 8단계를 중심삼고 물고 있는 것이 뭐냐? '당신, 하나님은 원칙적인 주인이고, 당신의 아들, 이상적인 아담과 해와, 즉 참부모라는 것은 원칙적인 아들인데, 그 원칙적인 아버지가 나를 지을 때에 천사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 천사장이 타락하기 전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사랑을 다 하지 않고는 당신이 원리적인 아버지로서 원리적인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못 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타락 했으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소유를 본연의 에덴에서 아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주관받을 수 있었던 모든 물건을 못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아벨이 하나되어 나를 사랑해 가지고 개인적인 사랑의 조건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 그렇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도 그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입장에 있고, 하늘땅도 그런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의 멱살을 잡는, 뭐라 할까, 목매는 줄입니다. (132-29, 1984. 5. 19. 이스트 가든) p.1158

통일교회의 원리는 단 하나의 원칙적인 길인데, 그 길이 원리의 길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8 단계를 거쳐가야 할 운명의 길이 돼 있다는 겁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까지 8 단계입니다. 8 수는 재출발 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출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135-304, 1985.12.15) p.1158

역사 이래 수많은 고난길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걸어온 이 8 단계 고난길은 역사시대에 없었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자리를 못 참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탕감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가선 안 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자리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으면 천국의 발판이 이 지상세계에 남아지지 않는다는 천리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탕감복귀는 긍정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부정의 조건에 의해서 탕감조건이 세워집니다. 그와 같이 절대 부정의 기준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8 단계가 충족되면 인류 역사의 이상향에 연결됩니다. 그 단계마다 반드시 절대 부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이상향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97) p.1159

'그 8 단계는 레버런 문이 만들어 놨지. 나는 탕감 필요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절대 아닙니다. 인간 책임분담이 사실이라면 인간 책임분담에 의해 이런 형태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한꺼번에, 21 년 동안 자동적으로 넘어올 것인데, 이렇게 담이 막혀 있으니 하나하나씩 처리해야 됩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처리해서 대치시키는 놀음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생겼고, 탕감조건이 생긴 겁니다. 그 탕감조건은 인간 책임분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124-306, 1983.3.1) p.1159

복귀노정은 개인복귀, 가정복귀, 종족복귀, 민족복귀, 국가복귀, 세계복귀, 천주복귀 · 하나님의 사랑복귀까지 8 단계를 거쳐 나가야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안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완성될 것인데, 이것이 역사시대에 종의 종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개척하면시 이어 나오는 이 과정에는 과정마다 반드시 탕감조건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탕감조건을 세움으로 사탄이 분립됩니다. 사탄 때문에 탕감조건이 필요로 하지, 사탄이 없으면 탕감조건이 필요없습니다. (161-204, 1987.2.4) p.1159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하나님까지 8 단계를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디서 이 종대를 찾아오느냐 하면 옆으로 나가서 개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중심삼고 옆으로 올라가 가인하고 싸워 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8 단계를 가인과 싸워 굴복시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내게는 사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181-211, 1988.10.3) p.1159

선생님은 이 세상 천지 가운데 이런 탕감법을 알아 가지고 개인으로부터 사랑의 초점을 맞추고 가정적 사랑, 종족적 사랑, 민족적 사랑, 국가적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럴 적마다 사탄이 이것을 격파하기 위해 온갖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핍박의 길을 갑니다. 눈물과 피를 흘려야 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그늘에 박혀야 됩니다.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사탄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운 곳을 싫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비참한 자리가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181-213, 1988.10.3) p.1159

아담은 비록 한 개인의 자리에서 타락했지만 그는 전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복귀는 세계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복귀하는 데는 일시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복귀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리를 정비하고 가정적인 환경과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인 환경까지 정비를 해야 합니다. 모두 8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상세계를 찾아가는 인간은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막혔으면 그 기준 이하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세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하나되는 길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면 소생권과 장성권의 영계까지는 영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97) p.1160

종의 종으로부터, 종으로, 양자로, 서자로, 직계 자녀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하나님까지 8 단계입니다. 8 단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회 책임자 되기 전에 그 나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방의 길이 없습니다. 종의 종이 되어 양자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서자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계 자녀로…. 이래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단계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탕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과 결투해 가지고 하나님 공판에 의한 승패 결정을 못 했으면 탕감노정을 못갑니다. 가정 탕감노정을 못 갔는데 종족 탕감노정을 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종족 탕감노정을 못 갔는데 민족 탕감노정을 갈 수 있고, 민족 탕감노정을 못 갔는데 국가 탕감노정을 갈 수 있고, 국가 탕감노정을 못 갔는데 세계 탕감노정을 갈 수 있고, 세계 탕감노정을 못 갔는데 천주 탕감노정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81-213, 1988.10.3) p.1160

선생님으로 말하면 개인 아담인 동시에 가정 아담, 종족 아담, 민족 아담, 국가, 세계, 천주 아담의 역사를 엮어 나온 겁니다. 종의 종으로부터 쭉 종적으로 8 단계를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중심삼고 그것이 8 단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횡적으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세계까지 다 품어야 되겠으니 세계 50 억 인류까지, 세계까지 종횡을 중심삼고 탕감노정을 다 거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해방권을 성사시킨다는 겁니다. 그 길이 쉬웠겠어요? (194-110, 1989. 10. 17. 한남동공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85 만 년이라고 합니다. 대략 85 만 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 기간에 종교 운동은 저 미개한 데서부터 핍박받으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종의 종으로부터 단계적으로 갈라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의 종 가운데서는, 종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하늘나라의 종의 주인이 되려면 사탄세계를 전부 합한 종의 핍박을 받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종의 종에서 종의 자리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종에서 양자의 자리로 넘어가는 데서도 반드시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 단계까지. 하나님까지 해서는 8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당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변해 나오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종교 중에는 종의 종이 되는 종교, 종의 종교, 양자의 종교, 서자의 종교, 아들의 종교, 어머니의 종교, 아버지의 종교, 참부모의 종교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는 부모의 종교가 생겨 나오는 겁니다. 끝날에 가서는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부모의 종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라는 말이 나와, 종교를 통일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참부모의 내용을 가진 종교의 교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124-69, 1983. 1. 23. 벨베디아 수련소) p.1161

Top

③ 8 정식(八定式)

종적인 탕감과 횡적인 탕감, 8 단계의 탕감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작년(1989 년) 8 월 31 일을 중심삼고 팔정식이라는 것을 서구사회 제일 높은 알래스카에 가서 했습니다.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9 월 초하루에 천부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천부주의입니다. 애원주의인 동시에 부모주의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주의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 사탄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 가는 길 앞에 사탄이 반대 안하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것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199-157, 1990. 2. 16. 중앙수련원)

팔정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종횡입니다. 종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종의 종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횡적으로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넓혀가는 겁니다. 종적 기준이 서지 않고는 횡적 원형을 그릴 수 없습니다. 중앙선이 결정 안되면 여기서 원형을 그릴 수 없습니다.

원형이 전부 다 하나의 8 단계로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989 년 9 월 1 일에 알래스카에서 끝냈습니다. 알래스카는 '알았습니까'란 뜻입니다. (215-124, 1991.2.6) p.1161

국가적 기준과 세계적, 천주적 기준을 중심삼고 팔정식을 이미 선포함으로써 종적으로 하늘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고, 횡적으로 하늘이 마음대로 지구성 어느 표면까지도 자유자재로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지구촌뿐이 아니라 지구가정을 말하고 있는 통일교회, 지구가정적 역사가 지상에 전개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전체가, 낮과 밤으로 이분되었던 세계가 이제는 일일생활권 내에 들어와 모든 것이 순간에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198-277, 1990.2.4) p.1161

팔정식이 끝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구요? 부모권 해원성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종족적인 메시아의 자리에 세워서 예수의 자리 해원성사, 아담가정의 해원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족을 통해서 부모의 실수의 기반을 전부 다 해소시킴으로 비로소 모든 사람이 태어난 고향이 하늘나라의 고향 땅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193-214, 1989. 10. 4. 한남동공관) p.1162

알래스카에서 선생님이 1989 년 8 월 31 일 선포한 것이 팔정식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 앞에 탕감이 필요없는 시대로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선생님이 가는 데나 통일교회 교인들이 가는 데는 핍박시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하늘나라에 왕국을 짓는다 하든가, 우리끼리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누가 참소 못 해. 그래서 그 기지로서 정착하는 식이 팔정식입니다. 이 팔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1989 년 9 월 1 일 천부주의를 선포했습니다. 팔정식이 끝날 때까지는 장자복귀 시대입니다. 장자권 복귀 시대입니다. 이제 완전히 장자권이 복귀 되었기 때문에, 장자권도 하늘편에 복귀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반대할 수 없는 세계적 정상권에 올라와 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밀면 미국도 밀리고, 공산세계는 밀리고 한국도 밀릴 때가 왔습니다. 일본도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193-204, 1989.10.4) p.1162

팔정식은 종적인 탕감 역사적 노정, 횡적인 개인, 가정, 민족, 국가, 세계 탕감노정, 8 단계 종횡의 노정을 거쳐 정착함으로 장자권 복귀가 벌어지고 이 땅 세계 인간 앞에는 탕감의 노정이 해소되는 겁니다.

팔정식을 함으로 그런 겁니다. 장자권이 복귀되어 부모님이 품어줌으로 부모의 사랑권 내에서 장자권 복귀를 위한 역사시대의 전쟁사, 투쟁사가 없어지고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는 탕감이 필요 없는 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팔정식을 해야 합니다. 팔정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딸을, 장자와 차자를 앞에 둔 부모가 이런 자식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모 용서권 시대가 오는 겁니다. (193-173, 1989.10.3) p.1162

팔정식을 선포한 알래스카는 유명해집니다. 이번에 내가 오면서 북극의 중앙에다 교회 지을 것을 말했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반대하거든 내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딱 북극 중앙에 다가 우리 통일교회 세계 만민을 위한 축복의 기반을 위해 일생동안 살다가 죽기 전에는 북극 통일교회와서 40 일 정성 드리고 가야 된다 하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빙산 세계에 이상 도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백 리 길, 몇천 리 길 전부 다 공중 보급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과학의 힘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부터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비행장 짓고, 살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관광지 코디악에 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 시대에 없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193-217, 1989.10.4) p.1163

Top

4) 장자권 승리와 부모권, 왕권 복귀

① 장자권 복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볼 때 장자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해야 하고, 물론 차자도 하나님 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장자권이 사탄 편이 되었고, 차자권이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꿔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중심삼고 볼 때에, 야곱이 어머니의 협조를 받아 어머니와 하나되어 에서에게 팥죽과 떡을 주어 장자의 기업을 빼앗는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 역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통일교회가 나옴으로 비로소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134-304, 1985. 8. 18. 이스트가든) p.1163

타락권을 넘어서서 장자권도 하나님 편 장자권, 차자권도 하나님 편 차자권을 이루어야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창조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만큼 그 이상도 절대적인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아 나오기 위한 역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탕감복귀하여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4-304, 1985. 8. 16. 이스트가든) p.1163

장자권 복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녹아난 것입니다. 도인들이 수없이 희생됐고, 기독교가 로마제국 4 백 년 동안 고생하며 사탄세계의 판도를 넘기 위해 피를 뿌린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서 그 굴에 들어가 봤지요? 단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조상 시체를 단하에 묻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살았다구요. 하늘이 시켰으니 그걸 하지, 누가 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이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이겁니다. 역사에서 그 공을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40-203, 1985. 2. 9. 한남동 공관) p.1163

여러분, 원리에서 가인 아벨을 볼 때 가인이 귀하냐, 아벨이 귀하냐? 누가 귀해요? 아벨이 귀하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것 잘못 알았습니다. 아벨은 동생의 자리요, 가인은 장자의 자리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벨보다도, 차자보다도 장자의 자리가 귀한 겁니다.

장자는 한 사람이지만 차자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장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장자가 왜 귀하냐 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36-126, 1985. 12. 22. 한남동 공관) p.1163

하나님이 복귀섭리를 해 나오는 데 있어서 장자를 사탄 편에 세워 나온 것이 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는 병이 났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느냐? 사랑병에 걸렸습니다. 사랑병으로 잘못돼 가지고 장자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역사는 순리적인 법도의 기준을 찾아 억만 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다시 복귀하기 위한 탕감의 한을 품고 장자권을 찾아나온 역사였던 겁니다. (136-126, 1985. 12. 22. 한남동공관) p.1164

아벨을 세운 목적이 뭐냐? 아벨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세워 집안의 전통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으음, 내가 아벨이지!' 하는데 책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벨적 위치에 있으니 그만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운 것은 장자권의 일족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복받으려면 장자권을 만들어 놓고, 그 장자가 복을 나눠주면 받아먹는 겁니다. 그 장자권은 자기가 아닙니다. 오시는 주님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중심삼고 종적인 천상세계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횡적 세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원리로 해석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이 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위해서 살라!' 고 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난 것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남자가 태어난 것도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136-130, 1985. 12. 22. 본부교회)

사탄 편은 가인입니다. 형입니다. 하늘 편은 아벨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을 사랑하고 나서야 작은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인인 맏아들은 사탄 편입니다. 맏아들이 사탄 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맏아들을 구하기 위해 아벨을 세운 것입니다. 아벨을 세워 장자권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복귀하는 데는 주먹으로 닥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됩니다. 사랑으로 녹여 가지고 복귀해야 됩니다. 사랑했다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사랑해 가지고 그들이 돌아서기 전에는 자기 아들딸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볼 때 본래 장자가 먼저 사랑받게 되어 있지 차자가 먼저 사랑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40-38, 1986. 2. 1. 본부교회) p.1164

자기 아내보다, 자식보다 사탄세계를 더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아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권을 사랑하기 전에 가인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전에 아벨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140-38, 1986. 2. 1. 본부교회) p.1164

자기가 승리하려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 가지고 장자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 장자가 동생과 같은 차자를 형님으로 모시고 모든 축복은 너로 말미암아 받겠다고 할 수 있게끔 돼야 합니다. 그리하여 장자가 차자의 자리에 들어오고, 차자가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장자가 '네가 내 대신 올라가라!' 이렇게 밀어줘야 장자권 종족에서 장자권 민족에 나가고…. 이 놀음을 해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장자가 대신 밀어줘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못 올라갑니다.

이런 원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 장자권 복귀 기준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나라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출가해야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138-204, 1986. 1. 21. 본부교회) p.1165

종교가 오늘날까지 왜 수난길을 가고 왜 종교가 역사노정에 있어 핍박을 받을 때 발전하는지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모든 영계와 종교세계, 신비의 세계의 배후에 저끄러진 사탄과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의 내용을 파헤친 활동은 역사 이래 레버런 문, 선생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심하고 통일교회에 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공식적입니다. (138-204, 1986. 1. 21. 본부교회) p.1165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7 단계, 하나님까지 가기 위해서는 8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8 단계의 과정적 장자 복귀 기반을 통해서 타락하지 않는 본래의 장자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장자요, 장녀였습니다. 장자 장녀가 원리결과주관권을 통해 직접주관권까지 장자권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되게 돼 있지, 차자적 사랑을 가지고는 연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돌아와 가지고 장자권을 복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138-182, 1984.5.1) p.1165

장자를 굴복시킬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아담과 해와도 완전한 아담과 해와인데,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해와는 본연의 천사장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원리의 기준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락해서 나쁜 입장에 있을망정 당신들이 선하고 옳은 입장에 있으면 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없소!' 라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젭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뭐냐? 당신이 보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합해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내가 차지한 장자의 권리와 기업을 찾아갈 길이 없소!'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131-182, 1984. 5. 1. 세계선교본부) p.1165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 개인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가정-원수 종족-원수 민족-원수 국가-원수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 세계의 장자권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귀섭리하는 역사적 노정인 것을 잘 아는 사탄은 그렇게 주장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31-182, 1984. 5. 1. 세계선교본부) p.1166

장자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선에 나가 싸워서 사랑으로 굴복시켜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전통이 좋은 것을 알고 자연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눈물로 회개를 해 가지고 생명을 바쳐 당신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다고 선서를 하지 않고는 가인세계의 축복권을 찾아 돌아올 길이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131-182, 1984. 5. 1. 세계선교본부) p.1166

사랑을 안 가지고는 사탄을 굴복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타락한 천사장을 사랑했다 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아들딸의 가정도 사탄을 사랑했다 하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워 사탄세계를 사랑으로 굴복시켰다는 조건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수를 전부 다 때려부순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으로 굴복시켜 가지고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141-202, 1986. 2. 22. 본부교회) p.1166

하나님은 원수를 때려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과 원수되는 사탄을 아담 대신의 자리에 선 사람으로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과 피 땀을 전부 이겨 내면서 참고참고 해서 자연굴복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돌아와서 비로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이 놓아주는 겁니다.

'아, 당신은 이제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소!' 하는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사인해야 되느냐 하면 사탄이 해야 됩니다. 사탄이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사인하고, 여러분들이 사인한 것을 참부모님이 사인해야 됩니다. 참부모님의 사인을 통해야 하나님 앞에 통과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141-202, 1986. 2. 22. 본부교회) p.1166

세계적으로 사탄을 사랑했다는 조건만 세우고 나면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사탄이 못 데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인 아벨이 바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벨권이 지금까지는 몰린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가지고 서 있는 여기에 사탄 천하는 무너져 가야 되는 겁니다. 후퇴일로일 뿐이지 여기에 대치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치했다가는 옥살박살나는 겁니다. 그게 원리관입니다. (139-278, 1986. 1. 31. 한남동 공관) p.1166

탕감노정에 있어서의 세계 장자권 복귀의 기준을 성사함으로 비로소 이 지상에 원리결과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이 참부모님 이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된 기준, 일치된 선상에는 사탄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39-285, 1986. 1. 31. 한남동 공관) p.1166

Top

② 부모권 복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면 왜 탕감이니 부모권 복귀니, 장자권 복귀니, 왕권 복귀니 하는 것이 필요하냐? 사탄의 사랑과 사탄의 생명과 사탄의 핏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데도 악마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마는 사랑이라는 엄청난 것을 중심삼고 출발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창조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는 사랑을 중심삼고 창조돼 나온 것입니다. 그 근본을 사탄이 뒤집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근본을 뒤집어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6-236, 1990.10.14) p.1167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뭐냐?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 하늘나라의 왕국과 지상왕국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안 가지고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자이고 아들인데 어떻게 돼서 왜 천국에 안 가 있고 낙원에 가 있소?' 하고 물어 보면 대답 못 합니다.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은 참부모의 완성과 사랑의 기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계에 가서 왕국을 통일하는 것이 참부모의 사명이지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만 확실히 알면 다 해방된다 그말입니다.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참부모를 보여주는 증거의 실체만 되면 다 해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면 참부모를 붙들고, 그 사람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본심을 알기 때문에 재까닥 재까닥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이 날이 그러한 전환기를 감아 넘기는 하나의 선포의 날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31-51, 1984. 4. 1. 미국) p.1168

이렇게 힘든 일이니까 역사시대에 있어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연장해 왔지, 능력 많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고를 했겠어요?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뭐 벌써 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몰랐으니 아담이 책임지고 찾아야 됩니다. 천지를 가려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냐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쫓겨났으니 복귀노정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나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총재는 눈물을 많이 흘린 대왕마마입니다.

역사를 대표해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피살을 에이면서 수난 노정을 이겨 나오고 있는 대표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권 복귀 기준과 더불어 차자권을 하나 만들어야지요? 선생님은 선생님 중심삼고 장자권?부모권 다 됐지요? 왕권까지 다 갖추었으니 딱 하나되게 되면, 어머니하고 차자하고 모자협조 기반만 이루면 마지막 판입니다. (222-141, 1991.11.3) p.1168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대행자만이 일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없더라도 자연히 천하통일입니다. 2 만 4 천쌍이상을 축복해 놓았습니다. 24 수. 삼 팔은 이십사(3×8=24), 소생-장성-완성 3 시대를 중심삼고 8 수를 찾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종족적 메시아권을 완전히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전부 다 이 뜻을 중심삼고 그 나라를 구하겠다고 밤이나 낮이나 움직이게 될 때에는 세계는 한 곳으로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또 세계적인 모든 학자 조직, 정치 조직, 모든 문화배경 조직, 레버런 문 이상 사상적인 내용을 지닌 문화적 기반이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다 끝장이 났다 이겁니다. (206-272, 1990.10.14) p.1168

Top

③ 왕권복귀

본래 아담이 완성하면 천국의 아버지가 완성되고, 해와가 안성하면 천국의 어머니가 완성되고,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되게 되면 가정적 천국의 왕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개인적 왕이고, 가정적 왕이고, 종족적 왕이고, 민족적 왕이고, 국가적 왕이고, 세계적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때에 왔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왕권을 다 밟고 하늘세계의 왕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1990 년 3 월 27 일이다 이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럼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이제 레버런 문이 바람을 일으키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130, 1990. 3. 27. 벨베디어 수련소) p.1168

자, 천부주의가 뭐냐? 첫째는 형제권 복귀, 둘째는 부모권 복귀, 셋째는 왕권 복귀입니다. 민주세계에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민주세계는 형제주의입니다. 평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형제주의인데 형제주의세계에서는 서로 싸움을 합니다. 네것, 내것 하면서 쟁탈이 벌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싸우는 개념이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그 내용이 뭐냐? 왕권을 서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예요? 왕권 아니예요? 이게 왔다갔다 하고 전부 착취하니까 잘 안돼지, 절대적인 왕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205-172, 1990.9.1) p.1168

민주세계의 정치체제는 투쟁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을 말릴 수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되는 데서부터 평화의 세계가 전개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참부모를 찾아 거기서부터 참자녀?참국가?참평화를 포함한 모든 것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5-190, 1990.9.1) p.1168

하나님주의는 참부모를 중심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주의는 수직권에 속해 있는데, 그 수직과 평형을 합해 가지고, 세계 형체 전부를 합해 구체(球體)이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입니다. 그 구체는 어디에서도 수직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 표면은 이상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표면권은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공이 굴러 가다가 멈추게 될 때, 어느 면에서도 수직과 통하는 평등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에 의해 평등한 세계, 균형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18-347, 1991.8.22) p.1169

천부주의, 하나님주의를 중심삼고 통일하는 겁니다. 참부모는 가정의 왕입니다. 가정은 여러 다른 가정들과 어울려서 자동적으로 종족이 됩니다. 그러면 종족의 왕이 나옵니다. 또 종족은 여러 다른 종족들과 합해져서 민족이 되어 민족의 왕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 세계, 천주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렇게 왕들이 연결되어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205-189, 1990.10.29) p.1169

하늘나라에 왕궁이 없습니다. 지상에도 왕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왕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지권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하늘나라의 부모권을 대신하여 이 땅 위에 나와 가지고 왕권을 세워서 전부 착취했습니다. 형제권 왕권시대는 되었지만 진짜 종적인 부모권 왕권시대가 지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6-219, 1990.10.7) p.1169

내가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듣는데 당당히 통일국개천일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왕권 복귀를 해야 된다.' '민주세계의 형제주의 시대보다도 부모주의가 낫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형제주의입니다. 형제주의 가지고는 싸움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부모가 '이놈아! 큰 놈 작은 놈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너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하는 이게 부모주의라는 겁니다. (193-159, 1989.10.3) p.1169

그래, 통일교회에서 지금 왕권 복귀라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통일가, 통일가족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가족이 뭐냐?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국의 부모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내가 나라를 대하고 세계를 대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내가 나라를 대하고 세계를 대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가정에서부터 왕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왕손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것은 사랑하고 위하는 길을 통해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다 이겁니다. (194-291, 1989.10.29) p.116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왕권을 복귀하려면 동서남북 사방에 거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왕이 오게 될 때 24 시간 365 일 언제든지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발 되는 장대를 휘젓더라도 360 도 어디든 걸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나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6-268, 1990.10.14) p.1170

만약 국가의 책임자가 원리를 아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수습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왕권 복귀라고 하는 시대로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헌법을 고쳐서 원리로 돌아가게끔 한다면 단번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198-242, 1990.2.3) p.1170

Top

5) 복귀역사 전개와 섭리국가의 사명

① 2 차 대전 이후 기독교문화의 흐름

내가 이런 탕감복귀 원리를 아는 자리에서 2 차대전 직후에 기독교만 나를 믿었더라면 이박사도 내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이박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었던 겁니다.

옛날에 로마 교황들이 왕을 축복해 주던 것과 같이 출발했더라면 대한민국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3 년 반 동안에 그 일을 했더라면…. 그러나 그렇게 안 되니까 쫙 갈라진 겁니다. (138-286, 1986.1.24) p.1170

레버런 문이 한국에 태어난 것은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앞의 식민지와 마찬가지의 입장인데, 로마는 사탄편 로마였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날에 예수님이 올 때는 그와 같은 내용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늘을 쳤던 것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거하지 않고, 청산짓지 않고는 못 넘어 갑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 세운 것이 한국입니다. 미국의 보호권 내에서 하나님의 종족권, 하나님의 아벨권 독립국가로 미국을 통해 독립을 시켜 보호권 내에 세워 가지고 기독교와 레버런 문을 가인 아벨로 하나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됐더라면 대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준을 성립시켰을 것입니다.

선생님하고 기독교하고 하나되어 대한민국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과 연결했더라면 7 년 이내에 세계를 수습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37-180, 1986.1.1) p.1170

만약 선생님이 그때에 이뤘으면 영국과 미국과 불란서가 하나되면 한국은 아담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종적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은 아담국가로서 영국을 해와국가로 거느리고 미국을 장자로 거느리는 겁니다. 미국은 뭐냐 하면, 아벨권으로서 세계 주도권, 세계 판도를 거느리는 겁니다. 세계 국가적인 주도권을 비로소 아벨적 입장에 선 미국이 가진 겁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가인적 입장인데, 가인적 입장은 미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 세계화시대를 맞추어 가지고 통일적인 기독교문화권시대 위에 주님이 와서 모자협조 기반과 연결시켰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184-252, 1989.1.1) p.1171

해와가 타락할 때 아담을 꼬드긴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탄편 해와국가가 아담국가를 강제로 삼켜서 40 년 동안 4 수 탕감노정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40 년 동안 한국이 일본의 압제를 받은 것은 4 천 년 역사를 탕감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사탄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방되느냐 하면 아담국가가 해방됩니다. 그럼으로 하늘편의 기독교문화권인 영?미?불은 완전히 하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편이 사탄이 뿌린 것을 제거해 놓고, 아담국가를 찾게 되고, 해와국가를 찾게 되고, 아벨국가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엔 가인국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늘편이 거두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일시에 하늘 복귀적 천국 개문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7년 동안에. 7수를 완성 못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는 1945년을 중심삼고 1952년까지 7년 노정에. 그렇게 됐더라면, 이승만 정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 세계가 완전히,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가 하나가 됐더라면, 지금 일본이 해와국가가 안 됩니다.

독일이 가인국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을 중심삼고 영국 해와국가, 미국 아벨국가, 그 다음엔 불란서 천사장국가가 하늘편 국가로서 하나되어 자리잡았다면 그땐 통일세계, 기독교문화권 통일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비로소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통일세계가 오는 겁니다.

왜 오느냐? 아버지 나라가, 아담국가가 현현할 수 있는 때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188-53, 1989.2.16) p.1171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한 제1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을 이어 가지고 사탄세계에서 영광의 출발과 더불어 하나님을 중심삼은 왕권을 세워야 할 것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삼고 고생하고 피 흘리는 역사를 거쳐 돌고 돌아서 미국으로 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데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아시아로 돌아오는데 영국이 잘못한 것을 일본이 탕감을 해야 됩니다.

일본문명은 영국문명과 같다는 것 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더라도 일본은 왼쪽으로 갑니다. 전부 영국의 것을 전수받았습니다. (139-116, 1986.1.28) p.1171

원리결과주관권이라는 것은 간접주관권이기 때문에 사탄이 언제나 침범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가정적으로 희생하고, 민족적으로 희생하고 국가적으로 희생하고 세계적으로 희생의 대가를 치러 나온 겁니다. 희생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희생을 치르면 그 대가로 새로운 시대가 개문되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라파 전쟁에서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6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학살로 말미암아 새로운 개문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1948년을 중심삼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의 독립이 벌어짐으로 이스라엘도 독립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3년 기간 내에 관계를 맺어 넘어간 겁니다. (68-20, 1973.7.23) p.1172

서구를 중심삼고 세계적인 기준에 가인권을 탕감복귀해 가지고 한국에다 심어야 됩니다. 한국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복판입니다. 여기에다 심어 놓았으니, 이 닻줄이 여기에 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구문명이 아시아로 향하는, 돌아오는 운세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139-285, 1986.1.31) p.1172

Top

② 해와국가 일본의 사명

섬나라 일본은 영국 문화를 백퍼센트 이어 받았습니다. 차량도 그래서 좌측통행입니다. 영국이 좌측통행이니까. 좌(左)는 일본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로 돌아들어가느냐 하면, 영국과 같은 기준을 중심삼고 탕감복귀하는데 반도의 나라 이태리와 같은 한반도에 옵니다.

한반도는 뭐냐 하면, 남자로 보면 생식기입니다. 반도입니다. 이태리가 왜 세계의 문화 창조에 역사적 공헌을 했느냐 하면 반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도는 생식기입니다. 섬나라는 여자의 음부와 마찬가지입니다. (138-308, 1986.1.24) p.1172

가인 아벨이 복귀되어 누구를 통해 들어오느냐? 어머니를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1978년서부터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것은 해와 국가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끝날에 모든 물건을 수습해서 남편 아담에게 다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타락할 때에 모든 물건을 사탄남편에게 돌려 준 걸 탕감복귀해야 되겠기 때문에, 일본은 모든 물질을 수습해서 본연의 남편되는 아담국가인 한국 앞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9-285, 1986.1.31) p.1172

일본은 서구사회의 모든 것을 가져온 겁니다. 정치풍토는 영국 것, 법률은 이태리 것, 그 다음에 군대는 독일 것, 서구사회의 모든 것을 갖다가 모방해 가지고 기반을 닦았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일본 · 독일 · 이태리를 중심삼은 여기에 대해 영국과 영국의 아들…. 영국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미국이지요? 일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독일입니다. 독일도 '야, 일본 조그만 나라가 저러니 요 서구사회는 뭐 순식간에 휩쓸겠구만, 이런 겁니다. 이래서 싸우는 겁니다.

해와국가 일본 대 독일과 마찬가지의 영국,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와 마찬가지가 천사장 국가입니다. 이것이 불란서입니다. 불란서는 왔다갔다 하지요? (188-147, 1989.2.19) p.1173

선생님이 일본을 해와국가로 세우지 않았으면 비참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기독교문화가 선생님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영국이 해와국가입니다. 아담국가는 한국입니다.

영국이 해와국가이고, 프랑스가 천사장국가이고, 독일이 아담국가로서 자동적으로 하나되어야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해와국가를 빼앗고 독일 남자국가를 빼앗아 뜻 가운데 세운 것이 통일교회를 중심삼은 아담국가 · 해와국가 · 천사장국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본을 축복한 것은 일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계를 위하고 통일교회와 한국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 통일을 위해 그 축복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합니다. (186-116, 1989.1.29) p.1173

아시아를 돌아보면 아담 나라 한국, 해와 나라 일본, 그 다음에는 세 천사장 나라….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하나님과 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볼 때 해와는 아담을 따라가야 되고 세 천사장도 아담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해와와 세 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격의 대표인 선생님이 해와국가인 일본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여 가지고, 중국을 움직이고 소련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장과 해와권을 맞는 자리로 돌아 들어왔다는 겁니다. (199-84, 1990.2.15) p.1173

일본문화권은 영국문화권입니다. 영국의 모든 문명제도를 갖다가 옮겨 온 것이 일본입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영국 같은 나라, 영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대를 다시 탕감복귀한 겁니다. 그걸 재현시키기 위한 형태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좌측통행하는 겁니다. 운전대가 전부 다 바른쪽에 있지요? 영국과 딱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섬나라니 아시아에 있어서 그것에 대비될 수 있는 나라다 이겁니다. (166-294, 1987.6.14) p.1173

인류의 문명은 세계를 일주해 가지고 다시 재림시대를 중심한 아시아권을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데는 그것이 탕감복귀원칙에 의해 문명발전 역사를 중심삼고 사탄세계를 전부 다 하늘것으로 탕감했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은 천사장국가입니다. 미국은 영국이 낳은 겁니다.

천사장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런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아시아의 영국으로 찾아드는 겁니다. 영국의 문화를 이어받은, 그와 같은 입장의 일본을 중심삼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돌아 들어와 가지고 하나되어야 됩니다. 하나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주도해 가지고 묶어 놓아야 됩니다. (166-294, 1987.6.14) p.1173

Top

③ 세계적인 로마국가 미국의 사명

미국은 로마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선생님이 왜 일본 식구와 전세계 통일교회 식구를 전부 다 미국으로 끌어 들이느냐?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간 후에 모든 제자들은 로마로 집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그것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여기서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으면서 하늘나라를 세워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34-206, 1985.7.20) p.117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내가 신문사를 만든 이유는 소수 민족을 규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디언이 사는 나라는 레버런 문의 사촌나라였습니다. 아시아는 형님이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이 동생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레버런 문은 앵글로색슨 민족과 같이 피를 흘리지 않고 탕감복귀해야 되겠습니다. CIA 와 FBI 도 '레버런 문, 이거 큰일났다' 그런다구요. 암만 큰일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제를 맺습니다. 오색인종은 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컬러가 없습니다. 색맹이란 겁니다. 그 사명을 중심삼고 이걸 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조직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알프스 산 꼭대기에 가서 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는 내 무대입니다. 내 활동무대라는 겁니다. (134-297, 1985.7.20) p.1174

예수의 십자가상에 있어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싸웠지만 내 앞에서는 하나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탕감조건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갈 것이냐? '너희들은 전부 다 지상천국으로 가야 돼!' 할 때에 '예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싸우면서 참소를 남기는 자리에서 죽어갔지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서로 화목해서 환영함으로써 부활해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원리적인 관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원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135-68, 1985.8.22) p.1174

그래서 이 미국에 있어서 지금 법정투쟁에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법정투쟁은 1977 년에 다 끝난 것인데도 선생님이 감옥에 간 것은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기독교와 자유세계를 다시 찾기 위한 수난길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4 대가 걸렸습니다.

닉슨으로부터 포드, 카터, 그 다음 레이건까지 4 대에 걸쳐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버리고 자유세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귀섭리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겁니다. 통일교회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35-178, 1985.11.13) p.1175

미국의 문명이 무슨 문명입니다. 제일 낙후한 나라입니다. 야만인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에 가면 원시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멧돼지하고 친구하여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전부 다 세계적으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역사노정에 나타났던 모든 것은 평면적으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21 세기를 향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레버런 문이 섭리할 수 있게끔 평면적으로 딱 전개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대한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탕감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136-179, 1985.12.29) p.1175

한국과 미국은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와 같은 입장입니다. 로마는 그때 태양신을 섬겼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와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보호 밑에서 지금 자주 독립한 입장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했는데, 미국은 로마 앞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입장이 아니고, 하늘편 나라로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살려주기 위한 반대시대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로마와 이스라엘이 예수 앞에 하지 못한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을 만들어 한국이 연결된 것입니다. (137-19, 1986.1.1) p.1175

선생님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아담국가 해와국가, 그 다음에는 가인국가 아벨국가 복귀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심었으니 이걸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세계적 국가적 기준에서. 한국이 아담 국가, 일본이 해와국가, 그 다음에는 미국이 아벨의 자리입니다. 장자권 복귀를 이루기 위해 주권 복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벨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사탄편적 가인국가였었는데, 일본이 해와의 자리에 섰으니, 독일이 하늘편적 가인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국가가 세계적인 무대 위에서 한 나라의 전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대가 미국입니다. (141-224, 1986.2.22) p.117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가 유대교에 환영을 못 받았던 그 시대를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로마하고 하나되어 예수를 반대하던 것과 반대입니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하나되어 있는 그 기준에 있어 기독교가 악착같이 반대하는 정부를 중심삼고 반대하는 그 자리에 서서 선생님이 탕감복귀하는 놀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일대에 국가적 판도 위에 기반을 전개시켜 대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2 세들을 통해서 영적 승리기반을 다시 실체 세계무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나선 것이 1974 년 이후의 미국작전입니다. 3 년 노정을 중심삼고 미국에 있어서 선생님이 1976 년까지의 한계선을 중심삼고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체적 전쟁을 한 거지요. (138-216, 1986.1.21) p.1175

미국 국민이 협조했더라면, 그때 닉슨만 협조했더라면 오늘날 통일교회는 일시에 세계적 기반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닉슨이 책임 못하고 꺾임으로 말미암아 닉슨에서 포드, 카터, 지금의 레이건까지 4 대를 거쳐 12 년 만에 탕감복귀했다는 겁니다.

이번 1988 년을 중심삼고 40 년 전 세계 공산권 이상의 자리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38-216, 1986.1.21) p.1176

이스라엘 민족의 1 세는 40 년 광야노정에서 다 망했지만 2 세들이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았기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2 차대전 이후 40 년 동안의 세계의 광야시대에 있어 통일교회를 중심삼아 2 세를 수습해 가지고 가나안 복지 기준을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는 소련 공산당 제일 열렬분자의 아들이 통일교회의 열렬분자가 될 것이고, 미국에 있어서 통일교회를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목사나 관리들의 아들딸들이 전부 다 통일교회 문선생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의 몇십 배로 탕감복귀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무슨 다리? 사랑의 다리. 사랑의 다리만 놓는 날에는 가라고 차버려도 결사적으로 달라붙는 것입니다. (138-275, 1986.1.24) p.1176

이번 댄버리에서 나올 때 나를 중심삼고 제리 포웰하고 하나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싸웠는데, 하나되게 해줬다구요. 전부 탕감복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선 댄버리 이후의 120 일 기간, 삼사 십이(3X4=12), 120 일 기간에 이걸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언론들은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 있어서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삼아 미국 언론의 뺨따귀를 들이 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Insight)>란 잡지를 또 월간지를 만든 겁니다. 세계 교수들을 전부 다 앞장세우기 위한 잡지를 만든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하고 워싱턴 타임즈, 명실공히 지상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판정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138-305, 1986.1.24) p.1176

미국은 영국이 낳았으니 아들입니다. 아들이 천사장이 되기 전에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가졌으니 하늘편 장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는 하늘편 장자로서 하늘편 어머니를 모셔야 될 것인데 저쪽에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로마로부터 섬나라 영국으로 떨어져 나올 때 해와 이전에는 천사장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아니라 복귀된 천사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벨적 자리입니다.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미국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138-308, 1986.1.24) p.1176

엘리야가 바알신을 굴복시킨 이후에 7 천 무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기독교를 중심삼고 7 천 명의 종족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기독교 7 천 명을 전부 다 수습해 놓은 것입니다. 7 천 명을 교육했습니다. 그 기반은 국가적 기준이니만큼 예수님을 탕감해 줘야 되고 엘리야를 탕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나오자마자 120 일 안에 그 기반 위에 그 10 배 되는 7 만 명의 세계 기반을 대표할 수 있는 탕감 기반으로서 연결시키라고 선생님이 지시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복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온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온 겁니다.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대표입니다. (147-66, 1986.8.30) p.117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40 년 전에 레버런 문과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하나됐어야 할 것을 통일교회가 재탕감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기독교의 실패를 탕감복귀해 가지고 레버런 문과 하나되어 비로소 세계적 정상인이 자유세계에 와서 기독교를 연결시키고 미국을 연결시켜서 책임하지 못했던 것을 탕감복귀하는 기준을 세워 나왔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가나안 출발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옥중 출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35-134, 1985.10.4) p.1177

미국이 자유세계를 대표하고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역사를 통해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탕감복귀의 기준을 갖추었으면, 그 미국이 가져야 할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해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참부모가 하나님 대신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부모를 모시고 세계 인류를 자기 민족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나라 가운데는 수많은 국가가 들어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종족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48-166. 1986.10.8) p.1177

통일교회는 옛날과 반대입니다. 유대교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로마가 합해 가지고 예수를 치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통일교회가 미국에서 승리권을 가져온 기반 밑에서 한국 정부하고 기독교를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와 로마가 합해서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을 오늘날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다 탕감복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환영을 받고 승리한 권을 가지고 전미국과 전기독교의 협력을 받던 레버런 문이 돌아와 통일교회와 정부가 합해 가지고 기독교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죽은 걸 탕감복귀했습니다. (161-77, 1987.1.2) p.1177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도 지금까지 한국에 이러한 영향을 내가 미쳐왔는데…. 탕감복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고 탕감하지, 따라오는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희생의 대가를 알고 만물이 내 뒤를 따르고 역사하잖아요? 세계의 깨끗한 2 세들이 내 뒤를 따라오고 그 다음에 축복받은 깨끗한 가정들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벌어집니다. (166-85, 1987.5.28) p.1178

Top

④ 탕감복귀 역사는 돌아오는 운세

탕감복귀 원칙상 역사 이래 단일민족으로서 5 천 년 역사를 짊어지고 오면서, 자주적인 국가로서 세계에 행세 못하고 피를 많이 흘려 온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많은 충신들은 간신들에 의해 희생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인류 역사노정에 있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많은 충신들이 희생된 표상적인 국가요, 종적인 대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민족은 횡적으로 비참했던 모든 사실을 종적으로 탕감하는 탕감길을, 수난의 역사를 걸어온 것입니다. (166-249, 1987.6.7) p.1178

돌아 들어오는데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천사장이 물건을 바치는 데는 그냥 그대로 하늘의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해와와 하나됨으로 바쳐져야 됩니다. 하늘 것을 사탄 것 만들었으니,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하늘편 천사장이 모든 물질을 끌고 와 가지고 해와와 하나돼야 합니다. 해와인 일본에 갖다 접붙여야 됩니다.

일본이 근세에 와서 왜 경제왕국이 되었느냐? 섭리시대에 있어서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것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120 년간, 1988 년까지, 명치유신 이후, 계산해 봐요. 1988 년 중심삼고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명년까지 120 년 간에 미국의 모든 것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166-292, 1987.6.1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로마교황청을 중심삼고 영국을 거치고 미국을 거쳐 2천 년 걸려서 이제 돌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돌아 들어오는데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탕감복귀 원칙을 중심삼고 그와 반대의 현상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나라가 영국 같은 나라에 해당하고, 영국 가기 전에 로마 반도와 같은 반도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여건을 중심삼고 그 시대에 책임 못했던 것을 세계 판도에서 실수했던 것을 탕감해 가지고 청산지었다 할 수 있는 기반을 거치지 않고는 사탄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겠기에 탕감이라는 원칙을 중심 삼고 그러한 노정을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168-310, 1987.10.1) p.1178

Top

제 4 장
탕감노정과 우리의 생활

1) 복귀의 길은 인지당행지도

① 탕감복귀는 재창조의 길

탕감복귀라고 할 때 그것은 복귀를 위한 탕감입니다. 완성을 중심으로 탕감복귀해서 완성합니다. 탕감된 뒤에 복귀를 해서 완성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탕감과 복귀는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성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탕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은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168-299, 하나님의 뜻과 세계-697) p.1179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복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일반 종교는 그저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도의 길을 찾지만 우리는 복귀해야 되는 복귀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귀는 무엇이냐? 복귀를 어떻게 하느냐?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168-324, 1987.10.1) p.1179

복귀의 길은 인간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탕감조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워야 합니다.

병난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약이 써서 먹기 싫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약은 맛이 씁니다. 쓴 것이 진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조건을 세우는 것은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복귀될 수 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탕감하여 복귀하는 길입니다. 탕감이란 타락한 경로를 따라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병난 사람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약이 써서 먹기 싫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살펴보면 좋은 약은 맛이 씁니다. 쓴 것이 진짜 약이 되는 것입니다. 탕감조건을 세우는 것은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복귀될 수가 없습니다.

탕감이라는 말을 알면 모두 제일 좋아하게 됩니다. 탕감이 없으면 복도 없습니다. 통일교회에 무한한 황금덩이가 뭐냐 하면 탕감입니다. 탕감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낱말입니다. (97-43, 1978. 2. 26.) p.1179

복귀역사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 놓고, 승리해 놓고 수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고 갈 것 같으면 성경 신구약 66권이 필요없습니다. 열 장이면 다 기록합니다. 66권이 뭐가 필요해요? 시시하다는 겁니다. 열 장도 필요없습니다. 석 장이면 전부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62-126, 1972.9.17) p.1180

탕감의 개념은 재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창조를 위한 탕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탕감은 재창조되어 가지고 본연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연의 사람이 나와야만 본연의 뜻길을 갈 사람이 생겨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 여러분들 본연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타락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탕감을 통해 재창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33-69, 1984.7.8) p.1180

아담의 타락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불신에서 타락했다 이겁니다. 불신해서. 불신이 제일 원인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주장에서부터 타락했다 이겁니다. 자아주장, 자기를 중심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한 입장에서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중심삼은 사랑권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타락의 3 대요소입니다. 불신, 자아주장, 자기 중심삼은 것, 그 다음에는 자기 중심삼은 사랑권을 꿈꿔 나온 것, 이것이 사탄의 발판이다 이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26-34, 1983.4.10) p.1180

선생님이 왜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느냐? 탕감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자신도 일생을 탕감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싫어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가야 됩니다. 자원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도 원해서 가는 겁니다. 탕감을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불평하면 탕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33-69, 1984.7.8) p.1180

우리에게는 탕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탕감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암만 하나님의 본연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탕감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이 못하니까, 할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하니까 예수 자신도 안 갈 수 없고,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133-69, 1984.7.8) p.1180

복귀의 길은 타락했던 경로의 반대 경로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탕감의 길은 타락한 자에겐 원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원상으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청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어떻게 복귀하는가 하는 확실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4-228, 하나님의 뜻과 세계-354) p.1180

Top

② 탕감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재창조는 본래 투입한 힘보다도 더 투입해야 됩니다. 수리를 하려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든다고 한 말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보다도 수리하는 것이 그 이상 들어가는 것처럼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을 탕감이라는 조건으로 치러야 됩니다. 알겠어요? 탕감이라는 관념을 알겠느냐 말입니다. (133-69, 1984.7.8) p.1181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탄에 의해 더럽혀진 이 육체, 사탄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자신의 육체를 불살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된 손과 발, 이 몸 전체를 한꺼번에 날려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더럽혀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심정을 체휼해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어버릴 수도 없는 까닭에 우리에게는 사탄과 연루된 과거의 자기를 청산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7) p.1181

복귀노정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창조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과 영계의 협조를 받으며 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구원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계가 동원돼서 재창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세계를 지으셨고, 천사들의 협조를 받으며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재료로 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61) p.118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완성은 탕감 완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탕감의 고개를 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완성의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의미에서 보면 개성 완성을 뜻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탕감 완성의 기준을 복귀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귀는 탕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복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감과 복귀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97) p.1181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는 자기들을 중심한 그릇된 사랑으로 타락했습니다. 천사장을 개입시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추방하고, 본연의 참된 아담의 인격을 추방하고, 본연의 참된 해와의 인격을 추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35-215, 1970.10.18) p.1181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이전의 아담과 해와, 죄 없는 아담과 해와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참부모를 맞이하여 참된 종족을 만들고, 참된 국가를 만들고, 참된 세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통일원리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354) p.1181

천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모시고 그를 통해 사랑의 인연을 맺고 사는 곳입니다. 이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37) p.1181

Top

2)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

① 메시아를 위한 기대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를 복귀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는 것은 원죄를 벗기 위해서입니다. 원죄를 벗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권과 사랑권 내로 새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접붙여야 됩니다.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돌감람나무를 잘라 버리고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돌감람나무와 같은 인간들을 참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체를 부정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긍정, 전폭적인 긍정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본질 본상이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화하고, 완전히 선만을 위주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여 하나의 가정, 하나의 씨족,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자는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통일교회의 식구들이 바라는 현재의 입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41-62, 1971.2.13) p.1182

믿음의 기대를 뭘로 복귀합니까? 제물로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기대는 타락성 근성을 벗는 것인데, 그 타락성 근성은 가인 아벨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타락성 근성이 복귀되려면, 타락성 근성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혈육적인 감정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예' 해야 하고 '서로 가라!' 해도 '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어 가지고 복귀가 되나요?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46-233, 1971.8.15) p.1182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실체기대가 완결된 후에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기대가 완결된 후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자리에 서는 것은 누구냐?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그 혈통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그 혈통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혈통을 바꿔쳐야 하는데 인간이 자기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47-12, 1971.8.19) p.118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이 타락함으로 첫째는 부모를 잃어버렸고, 둘째는 사탄의 피를 받았고, 셋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배움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의 기대를 이루고 실체기대를 이루어야 메시아를 바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까지 이루자는 겁니다. (54-186, 1972.3.24) p.1182

인간은 완성기준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것은 아직도 혈통적으로는 완전히 청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므로 혈통적으로는 아직 청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혈통적 청산을 하는 데는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 실체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타락한 인간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최후의 문제는 어떻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만들어 메시아를 통해 자신이 혈통전환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5-135, 1972.5.7) p.1183

믿음의 기대, 실체기대를 완성해 가지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어받아 메시아와 접붙이는 놀음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돌감람나무 되었던 것을 참감람나무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혈통을 벗어나서 선한 하나님의 혈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만 신랑 신부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원리의 길입니다. (64-16, 1972.10.22) p.1183

복귀의 길을 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걸 망하지 않게 하려니 이러한 내용을 갖추어 다 갈 수 있게 하는 책임자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입니다. 그 메시아와 접붙이면 나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로 말하면 믿음의 기대를 세워 실체기대를 완성하게 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게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것이 그말입니다. (63-340, 1972.10.22) p.1183

복귀도상에서 종의 종 시대에서부터 종의 시대를 거쳐 양자의 시대, 직계의 시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종의 종 시대를 거치고, 종의 시대, 양자의 시대를 거쳐 직계시대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느냐? 직계의 시대와 인연을 맺는데는 그냥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리에 의해 믿음의 기대를 거치고 실체기대를 거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거쳐야 합니다.

즉, 메시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아들입니다. 양자와 참아들은 혈통적인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5-192, 1972.5.9) p.1183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죽을 고생을 하라 이겁니다.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하기 위해 종새끼가 되라 이겁니다.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국 백성은 종새끼가 되라 이겁니다. 종이 되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 주인이 돼야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실체기대를 복귀해야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62-259, 1972.9.25) p.1183

여러분은 악을 굴복시키고 선을 남김으로써 악이 자동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리적으로 말하면 실체기대 완성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58-18, 1972.6.6) p.1184

이스라엘이 아무리 세계를 복귀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리를 통해 가인 아벨의 실체 복귀시대, 즉 실체기대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찾아진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삼고 가인적인 국가와 함께 즉 천사장형 국가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벨이 형인 가인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죽는 자리, 즉 맞는 자리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인연을 갖추지 않고는 복귀의 기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30-46, 1970.3.15) p.1184

복귀의 길을 가기 위해 먼저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는 자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닦아 주체적인 입장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자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되돌아 와서 실체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체기대는 무엇이냐? 아벨 앞에 가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기대입니다. 가인은 누구냐? 원수의 자식입니다. 이 가인을 통해 역사적인 투쟁이 벌어져 나온 것이요, 가인을 통해 악의 모체가 뿌리를 박은 것이요, 가인을 통해 지금까지 사망의 물결이 역사시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 모든 악의 요건과 악의 편을 여기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벨적인 입장, 즉 하늘편에 선 사람이 반드시 가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30-289, 1970.4.5) p.1184

우리가 갈 길은 두 길입니다. 그것은 가인과 자기를 위해 가는 길입니다. 원수를 위한 길까지 거쳐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가인을 수습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체기대란 무엇이냐? 아벨이 자신의 길을 닦았다 하더라도 가인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원수와 싸우며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30-338, 1970.4.6) p.1184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조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아담의 자리, 즉 소망적인 아담의 자리에 다시 선 것입니다. 이렇게 된 후에는 사탄과 싸워 실체기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자리에서 가인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0-243, 1971.2.6) p.1184

여러분은 원리를 통해 믿음의 기대와 실체기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체기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실체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메시아를 위한 기대, 즉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43-187, 1971.4.30) p.1184

Top

② 결국은 혈통복귀가 문제

아담이 믿음을 잃어버렸고 실체를 잃어버렸으니, 믿음의 기대를 찾고 실체기대를 확보한 다음에야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실체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65-314, 1973.3.4) p.1185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요동하지 않는 사람, 밤이나 낮이나 사시사철이 변하더라도 청춘시대나 장년시대, 노년시대가 되더라도 그대로 변함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일치될 수 있는 신앙의 기반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원리를 통한 실체기대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 위에 원리를 통해 실체기대가 생겨나고, 그 실체기대 위에 원리와 하나된 자리에 서면 대상가치의 심정세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갈 길입니다. (68-189, 1973.7.29) p.118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위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랑을 중심삼고 확실히 했고, 책임분담과 탕감노정, 가인 아벨문제, 혈통문제를 확실히 했다는 겁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는 메시아가 올 수 없습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만 실체기대가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와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되어야만 혈통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의 골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다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는 전부 다 그 생각이어야 됩니다. (161-149, 1987.1.18) p.1185

믿음의 기대, 실체기대, 그 다음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지요? 혈통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 승리권을 중심삼고 미국의 반대를 누르고 모든 자유세계의 어떤 나라의 반대도 이겨야 됩니다. 전세계가 나를 반대해도 선생님이 그 반대에 밀려가지 않았습니다. 원리가 다 있는데 주먹구구로 될 것 같아요? 원리원칙이 철옹성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증한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수의 나라, 악마까지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우지 못하고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로마 병정의 창을 받으면서도 그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왜 한지 알아요? 그건 개인이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인 구원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182-275, 1988.10.26) p.1185

Top

3) 왜 탕감복귀가 필요한가

① 탕감복귀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복귀노정을 가는데 왜 탕감법을 중요시해야 하느냐? 그것은 섭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인간이 다 망쳐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재창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역사를 할 때 정성을 들였으니까 나도 정성을 들이는 그 조건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을 때 놀면서, 춤추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정성 다해서 백 퍼센트 투입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던 때와 같이 내가 재창조하는 것이 복귀의 길인데 그저 놀면서 할거예요? (96-114, 1978.1.2) p.1186

원래 아담과 해와가 성장의 각 단계를 완성하는 데는 각각의 책임분담이 주어졌습니다. 한 단계의 성장기간에는 그 단계의 책임분담을, 따라서 세 단계의 성장에는 세 단계의 책임분담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으며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인간에게 똑같은 양의 책임분담을 요구하셨다면, 타락 전 본래의 위치로 우리 자신을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은 조금도 없습니다. 책임분담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대신에 우리는 탕감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711) p.1186

책임분담과 탕감은 하나는 오른쪽 입장이고 하나는 왼쪽 입장인데, 하나는 오른다리와 같고 하나는 왼다리와 같은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책임분담도 모르고 탕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못 간다는 겁니다. 책임분담과 탕감복귀를 연결해 놓지 않고는 전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해 봤어요? 탕감 싫지요?

하나님도 섭리도 다 싫지요? 오늘부터는 새로이,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자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레버런 문도 살아서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통일교회 교인들도 이걸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세계도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모두 그냥 통과하고 싶지요? 박사나 교수 자리를 그냥 해먹을 수 있어요? 그 코스를 거쳐서 박사가 돼야 박사를 해먹지. 그냥 해먹을 수 있어요? 거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이제는 알겠지요? (124-105, 1983.1.30) p.1186

사탄을 종횡으로 분별하는 데는 내적인 탕감조건과 외적인 탕감조건이 있습니다. 외적인 탕감조건은 가인 아벨 탕감조건이요, 내적인 탕감조건은 아담 탕감조건입니다. 이것을 책임분담을 중심삼고 완전히 극복해서 사탄의 지배권을 제거하게 될 때 하늘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161-207, 1987.2.4) p.1186

아담이 왜 타락을 했느냐? 아담의 타락은 책임분담을 완성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책임분담을 연결 못 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 못 시켰습니다. 타락함으로 책임분담 상실과 하나님의 사랑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161-205, 1987.2.4) p.1187

사탄을 어떻게 분별시키느냐? 탕감조건을 세울 수 있는 입장에 선 아담 대신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기준에 있어 책임분담을 완성한 자격자 된 아담의 자리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사탄과 대결하여 사탄편을 대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늘편적이고 사탄편적 사랑을 대하는 것보다도 하늘편에서 더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움으로써 분별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탕감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환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략 중상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해서라도 잘라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을 극복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책임분담을 찾는다면 틀림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절대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틀림없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탕감이 안된다는 겁니다. (161-205, 1987.2.4) p.1187

탕감조건은 무엇을 분별시키는 것이냐? 책임분담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핍박하고 공격하더라도 그걸 제거시켜 거기에 동요되지 않게 될 때 사탄은 치고 치고 하다가 물러가지 않으면 그때는 자기가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 안 되고는 가인 아벨을 탕감할 길이 없습니다. (161-205, 1987.2.4) p.1187

종적인 탕감조건은 무엇으로 세워야 돼요? 책임분담 완성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복귀 완성, 이 두 조건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네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원칙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래야 성경이 다 풀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161-213, 1987.2.4) p.1187

탕감복귀의 길은 기필코 가야 됩니다. 사탄 분립을 해야 됩니다. 사탄 분립 못하는 데에는 책임분담 완성이 없습니다. 책임분담 완성을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법이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데, 여러분들이 아담과 해와보다 나아요?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못해요, 나아요? 못한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꺼떡대고 머리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통일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48-156, 1984.10.8) p.1187

생활관념은 세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세계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해방과 부모님의 해방과 세계 해방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일교인들의 생활내용이 아니겠느냐? 해방하는 데는 탕감복귀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책임분담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완전히 정비가 되는 겁니다. (148-166, 1986.10.8) p.1188

가인 아벨은 책임분담을 완성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책임분담 완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 즉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한 것을, 기독교가 잘못한 것을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40 년 동안 부모의 자리에서 개인으로 정비하고, 가정으로 정비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개인 책임분담 탕감복귀, 사탄을 추방할 수 있는 담벽을 만들어 놓고… 책임분담 완성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세계 이상의 자리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천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창건이라는 말, 조국 창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원리적입니다. (148-163, 1986.10.8) p.1188

지금까지 이 역사를 누가 움직여 나왔어요? 사탄이 움직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아닙니다. 사탄의 영토이므로 타락한 권내에서 탕감조건을 세워 사탄을 분별하지 않고는, 추방할 수 있는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이 확대되어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닦아집니다. 그러니 분별해서 추방해 버려야 됩니다. (161-204, 1987.2.4) p.1188

사탄세계가 아무리 핍박해 봐라, 쳐 봐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점령하겠다. 무엇으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같이하십니다. 해보라구요, 같이 하시는지. 선생님은 감옥에 있거나 어떤 고문을 받는 자리에 가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싸워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야 분별될 게 아니예요? (161-213, 1987.2.4) p.1188

오늘날 통일교인들은 탕감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복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 나는 복귀라는 것은 좋지만 탕감은 싫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예요? 복귀가 먼저예요, 탕감이 먼저예요? 여러분은 복귀를 좋아하지만 탕감은 싫어합니다. 하나님편으로 보게 되면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편이에요, 사탄편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편에서는 복귀를 좋아할 수 없다 이겁니다. 탕감을 한, 탕감을 통한 후에 복귀가 있는 겁니다. (116-127, 1981.12.27) p.1188

탕감복귀, 탕감이 왜 필요해요? 탕감하지 않고는 사탄을 굴복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이 개인으로 만났으면 거기에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원리적으로 볼 때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181-214, 1988.10.3) p.1189

탕감복귀하려면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신앙이 나온 겁니다. 인류의 조상이 불신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조상이 타락한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신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이 타락한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신앙을 해야 됩니다. 절대신앙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죽으면서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신앙을 모르지요? 절대신앙의 한계가 어디냐? 생명체를 가진 내 자신과 비교하여 말하게 되면, 죽으면서도 간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때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신앙을 부정하면 죽음길을 택하는 겁니다. (126-34, 1983.4.10) p.1189

둘째는 자기부정입니다. 백 퍼센트 부정해야 됩니다. 자체부정입니다. 내 보고 싶은 눈, 내 먹고 싶은 입, 선생님은 30 세까지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126-39, 1983.4.10) p.1189

셋째는 절대사랑. 절대사랑은 원수를 소화하고 원수를 갚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원수가 자진해서 자기 나라와 자기의 모든 권한, 장자의 기업까지도 전부 다 넘겨 주어야 됩니다. 넘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6-46, 1983.4.10) p.118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탕감을 싫어하는 편은 사탄편이고 탕감을 좋아하는 편은 하나님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편이에요, 사탄편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뜻을 따라오고 있지만 복귀를 좋아하는 것은 사탄편이고, 탕감을 좋아하는 것은 하늘편인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이제부터 어느 길을 가겠어요? (116-127, 1981.12.27) p.1189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따라서 환드레이징을 했지요? '아이구, 나는 환드레이징 싫은데 이게 뭐야?' 하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걸어다니라고 할 지 모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들은 거꾸로 걸어다녀라!'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악해지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론적입니다. (133-69, 1984.7.8) p.1189

Top

4) 탕감조건은 자신이 세워야 한다

①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워줄 수 없다

탕감조건은 자신이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주관권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복귀를 위해서는 남들이 어떤 간섭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확고한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남들은 어떤 길을 가든지 내 갈 길은 바쁩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밤에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자리잡고 편히 앉아서 밥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갖지 않고서는 복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22-211, 1969.2.4) p.1190

타락은 인간이 저질렀기 때문에 탕감복귀도 인간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탕감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참부모가 와서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참부모인 것입니다.

참부모는 여러분의 생명 몇천만 개, 몇억 개를 바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부모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55-161, 1972.5.7) p.1190

인간이 타락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인간세계로부터 하나님이 추방당하셨고, 천사세계가 추방되었고, 만물세계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개인기준, 가정기준, 종족, 민족, 국가, 세계기준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천사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만물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복귀노정을 걸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00-264, 1978.10.22)

복귀의 길은 타락했던 경로의 반대 경로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탕감의 길은 타락한 자에겐 원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원상으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청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가정, 종족, 국가, 세계를 어떻게 복귀하는가 하는 확실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354) p.1190

여러분이 통일교인으로서 전도와 사업활동을 하게 될 때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중심삼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런 원칙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데 있어서 못 가겠다든가, 불평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합격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통일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레버런 문과 통일교회에 대해 불평하면서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일한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37) p.1191

탕감조건은 자기 자신이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주관권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모시고 그를 통해 사랑의 인연을 맺고 사는 곳입니다. 이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섭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92-255, 1977.4.18) p.1191

아담이 책임분담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책임분담을 감당하는데 어느 누구의 협조를 받아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후의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결정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333, 1970.3.14) p.1191

여러분이 생명 이상 간곡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픈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전부 다 자기를 투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생명력을 만국에 투입하는 놀음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절대 답변도 안 하고 모른 체 합니다.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투입이 끝날 때까지는 간섭 안 합니다. 인간 책임분담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완성하는 것 아니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기도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중간에서 간섭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도리어 반대합니다. (180-195, 1988.8.22) p.1191

승패의 기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선생님에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승패의 기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5 퍼센트의 책임분담이 있는 것입니다. (31-208, 1970.5.31) p.1191

개인의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시대의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앞에 상대되는 입장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노력하며 나가야 할 책임분담 5 퍼센트의 노정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중심삼고도 그렇고, 교회를 중심삼고도 그렇고, 나라나 세계를 중심삼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40-66, 1971.1.24) p.1191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보좌에 앉아 영광받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느냐? 인류를 구원시키느라고 매일 통곡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인류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분입니다. 비참 가운데 떨어진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잠든 인류를 깨워서 '와라! 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책임분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일을 하시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20-220, 1968.6.9) p.1192

Top

② 책임분담하는데의 마음가짐

인간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선과 악을 중심삼고 선편이냐 악편이냐 하는 것을 결정지어야 할 중간 입장에 있습니다. 또 내가 선한 방향으로 가느냐 악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제 3 자의 힘을 빌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더욱이나 책임분담을 감당하지 못해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 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9-333, 1970.3.14) p.1192

Top

5) 탕감법 없이는 사탄분립 안된다

① 나는 분수령에 서 있다

이북에서부터 이남에까지 가는 곳마다 선생님이 감옥을 몇 차례 들락날락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탕감복귀해야 돼요? 왜 사탄을 분립해야 돼요? 사탄을 분립하는 목적은 책임분담권 자유화를 위해서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가 사탄의 간섭을 받았어요? 사탄의 간섭을 받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양심은 알고 있는 겁니다. (148-199, 1986.10.9) p.1192

탕감복귀는 불가피한 겁니다. 왜 탕감복귀해야 되느냐? 왜 사탄을 분립해야 되느냐? 자연스러운 본연의 책임분담, 자유환경기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참소할 수 없고, 사탄이 인연지을 수 없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감복귀, 책임분담 완성이라는 기준은 논리적으로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굶고 앉아 있더라도 사탄세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분수령입니다. 그게 경계선입니다. (148-204, 1986.10.9) p.1192

탕감복귀의 길은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길입니다. 사탄분립을 왜 해야 되느냐? 책임분담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책임분담권은 사탄이 없는 곳입니다. 아담의 책임분담권이 그렇습니다. 아담의 책임분담권은 본래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 확실한 사상을 주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됩니다. 책임분담을 완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접붙이려면 사탄을 분립해야 됩니다. 사탄과 인연된 모든 것을 완전히 분립해야 됩니다. (148-197, 1986.10.9) p.1193

탕감복귀가 왜 생겼다구요? 타락 이후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책임분담이 없으면 탕감복귀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타락했느냐? 책임분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때 타락한 인간은 책임분담권을 사탄에게 넘겨 줬다는 겁니다. 사탄한테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분담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3-77, 1986.3.16) p.1193

만일에 타락한 인간 앞에 하나님이 책임분담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통일교회에서 주장하는 탕감복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복귀하면 했지. 탕감해야 된다! 왜 탕감해야 되느냐? 인간에게는 책임분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완성해야 할 책임분담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부여된 책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세계의 모든 것을 이기고 사탄을 주관하는 자리에 서서 당당코 사탄세계의 반대 환경을 제거시킨 그 자리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떨어지는 겁니다. (143-77, 1986.3.16) p.1193

타락한 후손인 여러분에게는 책임분담권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책임분담을 중심삼고 볼 때에 개인적인 원리결과주관권에서 개인완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랑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가졌느냐 할 때 못 가졌다는 겁니다. 탕감복귀는 왜 필요하냐 하면 사탄을 분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을 분립시키지 않고는 책임분담을 할 수 없습니다. (148-148, 1986.10.8) p.119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책임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기준입니다. 탕감복귀는 뭐냐? 책임분담을 완성할 수 있는 자유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이 침범하니 사탄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인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류를 미워하는 반면에, 우리는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인류를 너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지니고 가야 할, 그 기준을 중심삼고 일방통행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서지 않고는 사탄을 분립시킬 수 없습니다. (148-154, 1986.10.8) p.1193

탕감복귀의 길은 기필코 가야 됩니다. 사탄분립을 해야 됩니다. 사탄 분립 못하는 데에는 책임분담 완성이 없습니다.

책임분담 완성을 못하는 패들은 천국에 들어갈 법이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데, 여러분들이 아담과 해와보다 나아요? 대답해 보라구요. 못해요, 나아요? 못한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꺼떡대고 대가리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간나들! 아무나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통일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48-156, 1986.10.8) p.1194

탕감복귀는 왜 필요하냐 하면 사탄을 분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을 분립시키지 않고는 책임분담을 할 수 없습니다. (148-148, 1986.10.8) p.1194

사탄은 책임분담 못한 조건 위에 침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분담 끝나면 사탄은 추방당하는 겁니다. 책임분담 완성하면 사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137-254, 1986.10.9) p.1194

여러분들은 책임분담 완성권에 서 있어요, 미완성권에 서 있어요? 미완성권에 서 있는데 선생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탕감복귀를 왜 해야 된다구요? 책임분담하는데 본래 책임분담할 타락하기 전 책임분담권에는 사탄이 참소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침범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책임분담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감옥입니다. (148-156, 1986.10.8) p.1194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사탄세계의 감옥을 자진해서 가는 겁니다.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곳은 내가 제일 기쁨으로 환영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생을 싫어하지요? 통일교회 교인들은 고생을 좋아 합니다. 왜 좋아해요? 탕감복귀하려니…. 교만은 사탄이 부리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내려가는 자리에는 못 내려간다는 겁니다. (148-156, 1986.10.8) p.1194

사탄을 방어하려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우주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는 타락한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세계보다 자기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니 개인주의를 중심삼은 여러분은 사탄의 왕자들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사람은…. (148-161, 1986.10.8) p.1194

책임분담법이 없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책임분담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깨끗이 정리되고, 나라도 깨끗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경계선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우주적인 주관권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영계와 육계를 직접 주관하는 천상천국이요, 지상천국입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언제든지 경계선에 있습니다. 개인 중심삼은 탕감복귀의 경계선에 있어서는 사탄이 따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2-166, 1986.3.9) p.1194

통일교회 교인의 생활관념은 무엇이냐? 세계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세계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해방과 부모님의 해방과 세계 해방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일교인들의 생활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148-166, 1986.10.8) p.119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② 사탄권(타락권)을 벗어나려면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생활을 통해 지은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죄를 청산하려면 원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37) p.1195

타락해서 고장났으니 고장난 것을 고치려면, 고장나기 전의 원리원칙에 따라 갖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법도에 일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재창조역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상대를 위해 자기를 투입하지 않고 반대로 상대로 하여금 자기에게 투입하라고 한 데에서 생겼기 때문에 반대로 투입하는 일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자기를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후 인간이 걸린 병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중심삼고 사랑병이 나서, 잘못된 그 사랑병으로 사탄의 혈통을 번식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19) p.1195

다시 말하면 사탄의 핏줄을 받고 사탄의 직계 자녀로 태어난 것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병은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천지의 이치, 환경 등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자기를 중심삼고, 사랑한 데서부터 타락의 병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37) p.1195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중심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소원했다면 타락하지 않고 이상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탄권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중심삼은 관(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기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37) p.1195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렵지만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있고, 내 곁에서 가는 친구가 있고 우리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인류가 가야 할 미래의 운명길이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사탄이 자기를 중심삼고 타락했던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삼은 생각을 함으로써 타락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 제일 어려운 때는 곧 제일 어려운 사탄의 타락권을 박차고 해방될 수 있는 날이 가까워 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37) p.1195

원래 타락은 죽음의 경지에 빠진 것이므로 구원을 하기 위해 죽음의 경지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라면 남자답게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뜻길을 가는 식구들이 많아지면 세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체를 이루는 심정에 불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생사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신념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몇십, 몇백, 몇천, 몇만이나 되는 생사의 경계선을 지켜보면서 사탄과 대결해 왔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파도처럼 거듭거듭 몰려와도, 선생님이 세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눈알이 빠지더라도, 목이 달아나더라도 출발할 때의 심정 기준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9) p.1196

어떻게 해야 사탄권의 사랑과 사탄권의 혈통을 벗어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언제든지 사탄은 끌어갑니다. 반대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생각하고 생활하게 되면, 사탄은 나를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럼으로 사탄세계의 천사장권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의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으라구! 죽은 체하라는 겁니다. 저 발바닥에 자꾸 밟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37) p.1196

내가 알기로는 높은 데 올라가서 몸 마음 하나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하에 높은 마음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하나되는 길이 없습니다. 밟혀야 됩니다. 선생님도 높아질까봐 하나님이 지금까지 40 년을 발로 밟아 버린 겁니다. 밟아 버리니 자꾸 높아지려는 것이 짓이겨져 가지고 하나되는 겁니다.

삼천리반도에 돌아다니던, 김삿갓처럼. 욕을 먹고 밟히고 천대받으면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고, 그걸 다 기쁘게 소화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144-255, 1986.4.25) p.1196

사랑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내가 사탄보다 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인류 해방을 위해서 구렁텅이로 내려간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무엇으로? 밟혀 보라는 것입니다. 40 억 인류에게 다 밟혀 보라는 것입니다. 밟혀도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사랑으로 소화하는 겁니다. 이런 놀음을 해야 됩니다. (138-288, 1986.1.24) p.1196

Top

6) 신앙은 탕감법을 지켜나가는 것

① 신앙과 탕감

통일교회는 98 퍼센트, 95 퍼센트 생활적인 면이 전부 신앙입니다. 95 퍼센트 하나님이 지은 것을 잃어버렸으니 95 퍼센트 놀음을 해야 재창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5 퍼센트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95 퍼센트는 하늘이 해주고 5 퍼센트만 내가 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다시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재창조를 내가 해야 되는데 95 퍼센트 플러스 5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편안한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계 탕감노정을 다 가기 전에는…. (142-84, 1986.3.1) p.1197

선생님이 이 땅에 와 가지고 신앙세계에 남긴 위대한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책임분담과 탕감이라는 것을 이 역사의 누구도 몰랐던 것을 확실히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적인 사람은 못살고 악한 사람이 잘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겁니다. 탕감법, 가인 아벨 문제를 몰랐던 것을 이것을 확실히 해 놓았습니다. (161-153, 1987.1.18) p.1197

인간은 타락성을 상속받아 습관의 노예가 되었으며, 오늘날 종교인까지도 이러한 타습에 젖어 안일한 생활을 하는 경향입니다. 습관적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사탄의 참소조건을 제시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복귀노정을 걸어감에 따라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는 사탄은 온갖 방법을 통해 재침범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개개인이 세운 탕감조건에 의해 개인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지만 또 다시 가정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167-98, 1987.6.30) p.1197

우리가 가야 할 공식노정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공식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탕감이 필요없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탕감길을 가야 돼?' 그러는 사람은 사탄권 내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탄의 영역을 정복해야 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권을 점령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67-319, 1987.8.20) p.119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탕감복귀는 조건복귀가 아닙니다. 사실탕감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원리에는 없습니다. 조건탕감이면서 사실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복귀노정을 생각해 보면 사탄세계에서 가장 양심적인 한 사람을 세웁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신앙을 절대신앙 기대 위에 세워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착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신앙의 남자, 절대신앙의 여자, 절대신앙의 사위기대가 필요합니다. (183-164, 1988.10.31) p.1197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탕감복귀시키기 위해 종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정신을 강화시키는 방법, 삶과 인격에 대한 육체의 지배를 역전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종교가 단식, 희생적인 봉사,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등을 요구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합니다. 이는 육체의 세력을 감소시키고 육체로 하여금 정신에게 복종토록 하는 방법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육체 중심적인 생활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이 정신 중심적인 생활방식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통상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201-208, 1990.4.9) p.1198

탕감은 무엇을 중심삼고 하느냐? 탕감의 내용은 뭐냐? 사탄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문제입니다. 탕감하려면 하나님을 절대 신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절대 신봉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나가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탕감길을 가는데 있어 신앙이나 행동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206-238, 1990.10.14) p.1198

탕감노정이라는 것은 책임분담권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책임분담은 무엇을 중심삼고 해야 되느냐? 보다 하늘을 더 사랑하는 것, 보다 절대적인 신앙과 보다 절대적인 사랑을 갖지 않고는 사탄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139-279, 1986.1.31) p.1198

지금까지의 탕감복귀시대는 지나갑니다. 탕감복귀시대는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행동에 즉각적으로 걸리는 때입니다. 탕감복귀시대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1차 못하면 2차로 가기 때문에 전진적인 발전을 통할 수 있는 과정이었지만, 지금때는 탕감복귀시대를 지났으니 복귀시대입니다.

지금은 복귀시대이니만큼 잘못된 것을 뒤두고 해결할 때가 아닙니다. 즉각적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과거에 희미한 신앙개념이 있었으면 그걸 박차 버리고 선두에 설 각오를 다짐해야 합니다. (144-128, 1986.4.16) p.1198

뜻을 위해 가는 길에 선생님 자신의 생활을 중심삼고 보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하늘이 이해해 주는 그 이면적인 깊이와 폭….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그거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한 겁니다. 그들이 나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성립 안 됩니다.

하늘이 다 시켜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생각지도 않은 세계에 가는 것이고, 나를 반대하던 세계는 생각지도 않은 결과의 세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의 생애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8-129, 1986.1.19) p.1198

자기가 한 충성의 실적을 가지고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하늘 앞에 가일보 전진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욕심을 내 가지고 기도한답시고 야단 부린다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탕감복귀의 길을 중심삼고는 자기를 제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흘러가는 겁니다. 문선생이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해요? 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행치 않고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다 행하고 내가 다 하고 가르쳐 줬지요? (142-89, 1986.3.1) p.1199

하나님의 해방은 참부모와 하나되어 지상의 모든 제물 드릴 수 있는 사탄의 참소조건을 청산하지 않고는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적 소유권에 귀착하느냐? 부모와 여러분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만물이 평형선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지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137-268, 1986.1.3)

여러분들이 탕감복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책임분담이라는 숙명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히 받았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구, 통일교회 원리말씀은 좋지만 탕감복귀는 싫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반대의 길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의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138-120, 1986.1.19) p.1199

내가 왜 안 따라가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왜 촉구함을 받고 양심이 못살게 몰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냐 이겁니다. 정도가 눈 앞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할 역사, 인간이 가야 하고 내가 가야할 탕감복귀의 심각한 운명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져서는 이 길을 못 갑니다.

부모님의 등을 타고 가기 전에는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암만 파리가 더럽지만, 달리는 천리마의 배 아래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참고 가면 천리길을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꾸로라도 붙어 가야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138-120, 1986.1.19) p.1199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은 탕감복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왜 했느냐? 책임분담 노정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책임분담권을 남긴 채 인류는 신음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섰고, 그 책임분담권까지도 자유롭게 맞을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책임분담권을 자유스럽게 맞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날 역사적인 모든 타락권을 해탈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귀의 길에 못 나가는 겁니다. (142-82, 1986.3.1) p.1199

탕감복귀 완성한 사람 손들어 봐요. 이놈의 자식들, 몽둥이로 후려 맞고, 욕을 퍼먹고, 그저 홍두깨 벼락을 맞아야 할 요사스러운 패들이야. 보라구요. 이것 안 했다가는 선생님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확실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대로 영계가 변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못 하고 가게 되면 저나라에 가서 딱 걸리는 겁니다. 아무리 부처끼리 아들딸을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가 가지고는 스톱입니다.

영계에 낙원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 있어서 천국 들어가기 전의 가정 낙원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는 사랑도 못 해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자식이라고 사랑하려야 사랑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에게 '당신이 날 사랑하더니 여기 와서는 왜 그렇게 해요?'라고 하더라도 사랑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 못 합니다.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는 사랑하게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48-168, 1986.10.8) p.1200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탕감복귀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장자 복귀를 해야 할 운명으로서 내 앞에 장자 복귀의 길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을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하며 몸부림쳐 봤어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저 선생님 따라온 거지. 선생님이 어떠해서? 선생님이 좋아서. 왜 따라왔느냐? 그 따라온 동기도 원리보다도 선생님이 좋아서 따라온 것입니다. (138-134, 1986.1.19) p.1200

통일교회에 들어와 전부 다 걸터앉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정권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임자네들 언제 탕감복귀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탕감복귀하겠어요? 탕감복귀하기 위해 가라는데 언제 갔어요? (140-197, 1986.2.9) p.1200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사탄의 3 대 문이 있는데 첫째는 먹는 겁니다. 이놈의 입은 먹고 먹고 먹으면 더 좋은 것 달라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쉬는 겁니다. 잠만 자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꾸 쉬고파요. 그렇지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정욕입니다. 바람 피우려고 합니다.

통일교회에서 바람 피우고 남녀 문제가 있으면 한 군데 데려다가 휘발유 뿌려서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내가 그런 지시를 안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의 아담과 해와를 쫓아냈지요? 그 새끼들을 처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선생님 시대에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199-107, 1990.2.16) p.1200

Top

7) 탕감길은 절대복종, 절대순종의 길

종교인들은 왜 절대복종을 해야 하느냐? 절대적인 주체 앞에 절대적인 상대가 되려니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대해서는 죽더라도 절대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절대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되, 인간과 하나되어 있는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57-57, 1972.5.28) p.1201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나도 절대적인 자리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변이라면 나도 불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이라면 나도 유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면 나도 영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영생은 불가피적이요, 그것은 결과적인 귀일점이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을 당당히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생명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이상이 없다면 모두 허사라는 것입니다. (69-74, 1973.10.20) p.1201

자기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돼야 됩니다. 한 뿌리입니다. 뿌리를 잡아당기면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줄기나 가지는 자기 존재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방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승리적 기반을 닦고 자리를 잡아야 동서남북으로 자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자유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169-199, 1987.10.31) p.1201

지금까지의 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삼고 생활해 왔느냐? 예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자기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절대복종이었습니다. 절대복종! 왜 절대 복종했느냐? 절대적인 주체, 원형적인 주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삼각형적 주체의 권을 이룬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사탄권 내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사탄권 내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양심을 중심삼고 절대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과 마음이 본래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니 절대적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절대적으로 하나되게 만들려니 종교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57-114, 1972.5.29) p.1201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됩니다. 하나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은 반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악은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57-114, 1972.5.29) p.120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복귀해야 할 뜻이 있습니다. 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뜻길을 가야 돼요? 둘째번입니다. 그러면 그 둘째번의 뜻길에는 하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요만큼이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134-117, 1985.2.25) p.1202

절대적인 신앙을 해야 합니다. 통일교회를 믿느냐 할 때 절대적으로 믿고 간다고 해야 됩니다. (46-99, 1971.7.25) p.1202

절대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믿고 있는 한 종교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와 나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이라는 먼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믿는 마음을 중심삼고는 그와 평면적으로 대등한 시대권 내에 들어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2-162, 1970.7.12) p.1202

남는 것은, 절대신앙도 가고 절대복종도 가지만 최후에는 절대사랑이 남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의 제일은 뭐라구요? '사랑' 믿음도 가고 소망도 가지만 최후에는 사랑이 남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신앙도 다 갑니다. (169-130, 1987.10.29) p.1202

죽는 자리에서도 대담해야 됩니다. 죽는다고 떡 눈 감고 '난 죽었다.' 하고 있으면 벌써 딴세계에 옮겨 놓더라 이겁니다. 비약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통일교회는 그렇게 발전해온 겁니다. 기가 차고 기가 막히고 사방이 꽉 죄이고 땅에 들어갈 수도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 도 없는 그 자리를 죽음을 각오하고 밟고 넘어서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현현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소화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자체부정을 몇십 번, 몇백 번 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편에 설 수 없습니다. (126-44, 1983.4.10) p.1202

종교는 긍정 개념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선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제일 조건이 뭐냐 하면 절대신앙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임자네들 절대신앙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행의 길을 왜 가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봐야 됩니다.

오늘날 문 아무개가 와서 종교의 비밀 세계를 다 파헤치길 바라지요? '왜 고행의 길을 가야 되고, 희생해야 되느냐? 왜, 왜 절대 믿어야 돼요?' 하고 목사들을 불러 가지고 세 마디만 해도 대답 못하고, '거, 거 믿음으로써 모든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망상적인 사탄의 연막전술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126-36, 1983.4.10) p.1202

통일교회 교인들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행로를 통해 가야 하느니만큼 자기 인정, 자기 긍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부정입니다. 완전한 종교는 자기 부정에서부터, 타락한 세계의 완전 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부정하고 나라를 부정하고 종족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고 여편네 남편, 남성 여성 자체를 부정하고 내 몸과 마음 자체를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의 판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중심삼고 몸까지 부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126-34, 1983.4.10) p.1203

통일교회를 믿고 복받겠다는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을 주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일교회 자체 내의 복을 나라와 세계를 위해, 더 큰 것을 위해 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 레버런 문이 여러분의 진로를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내가 잡아당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30-61, 1983.12.11) p.120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품을 잘 타고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길에 있어 자기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세계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 1 차 십자가는 자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6-95, 1971.7.25) p.1203

자, 지금까지 책임분담의 탕감역사를 누가 다 했어요? 그것을 돈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 팔고 나라를 팔아서 갚을 수 있어요? 그럼 뭘해야 돼요?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절대복종입니다.

여러분 20 대까지는 절대복종입니다. 20 대가 되기 전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그렇게 꽁무니를 흔들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하다가. 20 대까지는 절대복종입니다. 20 대 전에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절대복종입니다. 절대복종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만약에 부모하고 하나 안 되었다간 망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안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133-136, 1984.7.10) p.1203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복종과 절대순종과 절대희생을 중심삼고 순응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야 부모가 사탄세계에서부터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세계의 남자는 천사장이니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235-293, 1992.10.25) p.1203

가나안 복귀노정에서는 선생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러기가 대양을 건널 때 왕초 기러기 앞에 절대복종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날아가!' 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죽도록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놀음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목적지에 와서 새끼 치고 다 이렇게 돼 있으니, 자기 끼리끼리 서로서로 위하고 사랑해서 한 족속을 이루어 가지고 그 족속 자체를 자랑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때 해야 할 일이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때요, 이제는 정착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15-107, 1981.11.4) p.1204

진짜 효자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진짜 충신은 간신으로 몰려서 죽더라도 나랏님에 대해 무능한 군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으로 몰려 죽으면서라도, 충신의 절개로 불쌍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군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사람이 진짜 충신입니다. 절대복종입니다. 절대복종으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참사랑의 길밖에 없습니다. (164-48, 1987.5.3) p.1204

선생님은 지금까지 '아, 너희들, 선생님의 말을 절대복종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노정을 순응해 나가야 됩니다. 역사적인 노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섭리적인 역사노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복귀섭리노정을 가르쳐준 것은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을 위해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가는 겁니다. 인류의 목적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한 점으로 결말 못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말지어 주자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통일원리요, 통일사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71-66, 1974.4.28) p.1204

Top

제 9 권

축복가정

차 례

제 1 장 참부모와 축복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 축복의 의의와 가치 · 1209
2) 참부모와 중생과 혈통전환 · 1231
3) 축복가정의 책임 · 1248

제 2 장 참부모와 축복의 역사
1) 참부모와 제 3 선민권 · 1263
2) 축복가정의 역사 · 1267

제 3 장 축복가정의 섭리적 의의
1) 36 가정 · 1290
2) 72 가정 · 1298
3) 124 가정 · 1302
4) 430 가정 · 1306
5) 777 가정 · 1313
6) 1800 가정 · 1321
7) 6000 가정 · 1324
8) 6500 가정 · 1326
9) 3 만 가정 · 1328
10) 36 만 가정 · 1337
11) 360 만 가정 · 1344
12) 3 억 6 천만가정 · 1352
13) 기성가정 축복의 의의 · 1358
14) 독신가정 축복의 의의 · 1363

제 4 장 축복가정과 입적
1) 축복가정 입적과 우리의 조국 · 1370
2) 입적을 위한 조건 · 1379
3) 사위기대 입적 통일축복 · 1394
4) 입적시대와 우리의 책임 · 1399

제 1 장
참부모와 축복

1) 축복의 의의와 가치

① 축복이란 무엇인가

㉮ 축복의 의의

축복은 참부모와 참자녀가 상봉하여 창조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3, 1967.12.27)
p.1209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플러스로 분립시킨 것이 남자인 아담이요, 마이너스로 분립시킨 것이 여자인 해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를 다시 합한 모양과 같은 것이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삼고 1 대, 2 대, 3 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 대 중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 몇 대냐 하면, 2 대인 아담과 해와의 대(代)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었더라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239, 1970.7.19) p.1209

통일교회에서 행하는 축복결혼식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혼례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식은 자기를 중심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결혼식은 하나님께 기쁨을 되돌릴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탕감하는 귀한 조건으로, 성스럽고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우리들의 결혼식이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한(恨)을 해원해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신랑 신부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임을 원리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37) p.1209

축복이라는 말은 통일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타락한 이후인 지금까지 역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심 가운데 하나의 소원으로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나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소원의 한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난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아직까지 이 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날을 찾는다면, 이 날은 역사적인 해원 성사를 할 수 있는 날이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축복의 자리가 이만큼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30－164, 1970.3.22) p.1210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그날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한 날을 고대하여 왔습니다. (19－23, 1965.1.31) p.1210

축복의 자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엮어 온 역사과정에서의 모든 슬픔을 청산지을 수 있는 자리요, 지금까지 성취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원이 새로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리요, 새로운 인간의 미래가 출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한 기점입니다. (30－166, 1987.6.5) p.1210

지금 시대는 소생, 장성의 단계를 넘어 완성 단계로 나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종(縱)으로 된 역사가 횡(橫)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즉 6천 년의 역사를 전부 한꺼번에 넘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침범권 내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사탄권을 완전히 넘어서게 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18－209, 1967.6.8) p.1210

축복은 참부모의 인연을 계승받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 선생님은 정성들이며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참부모가 사탄세계와 싸우던 그 간판을 걸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19－23, 1967.11.14) p.1210

선생님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23－317, 1969.6.8) p.1210

오늘날 여러분은 아직까지 참부모와 완전한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맺어 주기 위해 해주는 것이 통일교회의 축복입니다. (23－333, 1969.6.15) p.1210

축복 받은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선생님이 영원히 책임을 집니다. 선생님이 주관하고 지도합니다. 축복이란 이와같이 선생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38) p.1210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하늘의 전권을 옮겨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328, 1967.4.16) p.1210

축복은 천국문을 여는 것이며, 천국은 자녀를 갖추어 가지고 가정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2－266, 1963.5.25) p.1210

축복이란 영원의 보물입니다. 자손 만대를 지금부터 출발한다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럽힐 때에는 일족이 관계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어 한 국가가 연관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족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50) p.1210

축복은 역사가 추구해 온 만민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32) p.1210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정하면 천주도 정한다'는 마음으로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늘이 우리를 중심삼고 생활이념을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13－14, 1963.10.1) p.1211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적으로 공적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어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한 어느 가정만을, 어느 국가만을, 어느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15－67, 1965.2.13) p.1211

축복이란 말은 뭐냐하면 복을 비는 겁니다. 빌 축(祝) 자입니다. 복을 비는데 무슨 복이 제일 귀한 것이냐? 사랑의 복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이, 우주의 공약을 대표한 제일 핵심적인 이러한 기원이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제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것이 복을 비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결혼식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회에서 축복 받았다 하게 된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회 하에 참부모를 통해 가지고 결혼식을 해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83－226, 1976.2.8) p.1211

지금 저 영국 궁중에 있는 5백 18캐럿 짜리 다이아몬드가 옛날 아프리카에서는 돌멩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될 줄 누가 알았나 말이에요? 반짝반짝하는 걸보고, 가라스(ガラス: 유리)덩이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이 귀한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인데도 불구하고 가라스라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다가 모두들 선생님한테 말을 들은 후에야 '아! 귀하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83－240, 1976.2.8) p.1211

축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무슨 권력도 아닙니다. 아들딸이 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 가운데 제일 좋은 복이 무엇이라구요? 아들딸이 하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태어나는 겁니다. 그건 잘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혜택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산골짜기의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전선줄 같은 것, 이 송전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늘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꽉 잡아당기면 팽팽해진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하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내가 저만큼 떨어졌더라도 쑥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혜택받는다는 것입니다. (78－42, 1975.5.1) p.1211

축복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냥 하나의 남성, 혹은 하나의 여성이란 입장에서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왔다 갔던 많은 남성, 혹은 많은 여성들을 대표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 받았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을 내정적인 심정으로 체휼해야 됩니다. (30－169, 1970.3.22) p.1212

축복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때요, 6천년 간 수고해 온 하나님의 한이 그치는 때요, 이 땅에 오시어 수고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즉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세 이후 처음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때요, 만물의 환희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날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악이 다 사라지고 광명의 태양이 솟아오른 명랑한 천지를 맞이하는 날, 모든 자연이 화동하고 모든 만상이 춤을 추고 화창한 아침,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106, 1967.12.31) p.1212

선생님은 지금 현실이 이렇지만 후일 선생님이 축복한 자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세계적인 인간재(人間財)로 남아 영광을 받을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삽니다. (21-79) p.1212

Top

㈏ 축복의 가치

여러분은 섭리적으로 볼 때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축복받는 자리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상봉하는 자리입니다. 횡적으로 영원한 세계와 순간적인 세계가 상봉하는 자리입니다. (21-24, 축복과 이상가정-287) p.1212

축복은 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지극히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축복 받은 부부가 서로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먼저 선한 조상·땅·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받은 사람은 눈만 뜨면 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은 남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13-67, 1963.10.17) p.1212

축복의 자리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적당히 자기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책임지는데 있어서는 영원을 중심삼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좌우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에서 그러한 한때를 가졌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30-186, 1970.3.22) p.1212

축복은 그 가치를 알고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음으로써 제3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보니 축복을 받지 않고는 인간완성의 길에 나갈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른 취급합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처녀가 죽으면 손말명이고, 총각이 죽으면 몽달귀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06, 1967.12.31) p.1213

나라의 군왕이나 백성이나 '사인'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천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축복에 있어서도 외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과 가치를 두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1-339, 1969.1.1) p.1213

여러분이 먹고 입는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해야 할 사명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돈으로 팔겠느냐, 그럴 작정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땅을 주고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14-161, 1964.9) p.1213

축복은 전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축복해 준 것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은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참사랑을 실행하는 참아버지, 참어머니가 되라고 해준 것입니다. (41-3, 축복과 이상가정-287) p.121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축복의 자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는 누구와 관계 맺어야 하느냐? 여러분은 자기 자체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면 잘났든지 못났는지 그 부모의 형태를 닮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 중의 복입니다. (35-236, 1970.10.19) p.1213

팔십 살이 넘은 할머니들도 축복 못 받고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 가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몇 천리 밖에 남자가 있고, 몇 만리 뒤에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와 명주실을 매어서 축복의 조건이라도 받고 싶어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해내야 하니 팔자가 사나운 사람입니다. (22-18, 1969.1.1) p.1213

축복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가 2천 년 동안의 수고로 땅 위에 기반을 닦아 선택받은 민족과 교단과 자기 종족을 중심 하여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출발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족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선생님과 부자(父子)의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사탄도 꼼짝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21-14, 1968.8.13) p.1213

예수님이 2천 년 공들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가 무엇이냐?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2천 년 동안 바라던 소원 성취의 기준이 축복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하려면 신랑 앞에 신부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넘어서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76-72, 1975.1.26) p.1213

예수가 와 가지고 4천년 역사를 종결지어서 가려고 한 것이 뭐냐? 가정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정이 있었으면 종족은 자동적으로 시일이 걸려도 횡적인 면에 있어서 역사를 두고 탕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일족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의 민족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의 일국이 생겨났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정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고생한 것입니다. 33년 동안 고생을 했어도 갖지 못한 가정인데, 여러분들 축복의 가치를 알아요? 축복은 6천 년 동안 찾아 나온 한의 해결문(解決門)입니다. (141-27, 축복과 이상가정-288) p.1214

어린양 잔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축복을 받아 가정적인 구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6천 년 역사가 찾아 나온 그것입니다.

어린양 잔치를 하는 신랑 신부가 참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로 재림주의 축복을 받으면 그 가정의 구주로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19-31, 1967.12.15) p.1214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축복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천 년 동안 섭리하신 터전에 예수님을 보내어 뜻을 중심삼고 가정을 복귀했다는 승리적 기준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은 복귀섭리에 있어서 아무 공로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승리의 기준을 통하여 4천 년 복귀섭리에 공신 되었던 선조들의 은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23-235, 1969.5.25) p.1214

에덴동산에 남자 앞에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남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존재한다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끝장입니다. 통일교회의 축복의 가치가 이런 각도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상대자를 만나면 그것은 영원과 연결됩니다. 우주를 주고도, 하나님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본연의 부부의 사랑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통일교회의 참된 사랑을 맛본 자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사랑의 빛이 함께 따라다니게 되어야 합니다. 인류를, 전 우주를, 참사랑을 중심삼고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42-7, 축복과 이상가정-287) p.121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 현재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무엇이 사탄세계의 생명, 사탄적 사랑, 사탄적 이상을 내게서 완전히 빼앗아 가더라도 나는 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변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돌이켜 가지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이 아니면 내가 절대적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라도 절대 복종을 합니다. 절대 복종. '나는 금빛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굳고 변하지 않는 빛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날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축복의 한날을 바랐다는 겁니다. (91-235, 1977.2.20) p.1215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사랑만 가지면 하나님은 자연히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세계 인류를 형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종교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는 이것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 이 자리에서 받지만, 하나되는 이것을 중심삼고 확대만 하면 이 우주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91-235, 1977.2.20) p.1215

축복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점입니다. (27-85, 1989.11.26) p.1215

3·1운동에 참여했던 33인 중에'이갑성'이란 사람이 있지요? 지금 그 사람 혼자만 살아 있는데, 3·1운동을 놓고 볼 때는 그 사람이 대통령보다도 더 높아요, 안 높아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더 높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통해 축복결혼을 한 사람은 세계적인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맨 마지막에 결혼한 쌍이, 부처가 모두 눈도 하나 없고 코도 삐뚤어지고 귀도 하나 없고 팔도 하나 없는 병신 중의 상병신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세계적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체상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축복 받았다는 그 자체만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몇억만 불 주고도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아가씨들, 그거 알아요? 얼마만큼 알아요? (35-71, 1970.10.3) p.1215

Top

㉰ 축복은 인류가 거쳐가야 할 공식노정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이루어지는 합동결혼식은 통일교회에만 한정되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공식적인 노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간 시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복귀노정이 남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종교를 믿는 것도 이 때문이요, 역사가 지향해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215, 1970.10.19) p.1215

앞으로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모든 인류는 축복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만 그 기독교 자체도 축복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통일교회 레버런 문은 독선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고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축복 결혼은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영계와 육계를 연결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축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참가정과 세계평화-247) p.121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결국 최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참된 가정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찾아 나오는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참된 사람 중에서도 참된 남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참된 남자가 참된 여자를 찾아 세워 하나님을 중심삼고 성혼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된 가정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정을 부정하고 새로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적 기준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원리적인 견해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든지 이 공식적인 조건을 거쳐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5-215, 1970.10.19) p.1216

천국이상은 결혼하여 가정을 갖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모든 선남 선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천국이상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미혼자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서 재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창조이상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창조이상의 세계는 참된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아 만들어 가는 세계이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92, 1986. 5. 22) p.1216

타락이 뭐냐하면 사탄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사탄을 중심삼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그 결혼은 세계사적인 결혼입니다. 한 민족 가운데서의 결혼이 아니라 민족을 넘어 사탄세계를 초월한 자리에서의 결혼입니다. 사탄세계를 넘어서는 마당입니다. (82-95, 1976.1.1) p.1216

에덴동산에 있어서 본래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담과 해와가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식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주례 서 가지고 결혼식 해주는 것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 그것은 곧 세상에는 완성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결혼식은 바로 사랑의 전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살듯이 여러분들도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대신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랑의 전수식이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장이 해주는 결혼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외짝으로 와 가지고 결혼식 해주는 것은 전부 다 천사장으로부터 받는 결혼식입니다. (96-236, 1978.1.22) p.1217

사랑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도 하늘을 중심삼은 새로운 부모의 사랑과 관계 맺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합동결혼식을 할 때는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전수식입니다.

여기서 조성된 전통은 영원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혁명이 필요없는 새로운 전통이 이 천지간에 세워질 때, 여기서부터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종족과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어 이 지구성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67, 1970.10.3) p.1217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을 통일교회는 착수하여 재창조의 길로 인도해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날에는 세계가 하나되는 것이요, 악한 사탄세계를 하늘나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젊은이들 스스로 상대를 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인데 성경이 용납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문명과 더불어 사탄의 침식을 받고 사탄편적 자유주의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사탄이 하던 짓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유결혼을 제창한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82-115, 1976.1.1) p.1217

여기는 천도를 세우는 곳입니다. 죽더라도 원리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내 생활을 바쳐 왔는데, 이 결혼이란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적당히 하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75-284, 1975.1.12) p.1217

Top

② 축복으로 본 참된 결혼관

㉮ 참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한 것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신 분으로서 각 일성이 합체화한 일체적인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의 분성적 인격 자체들이 남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성 일체화하여 씨와같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가정과 세계평화-249) p.1218

결혼의 최고 신성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결혼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닮느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돼야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104-148, 뜻적인 자녀지도-21) p.1218

원리를 두고 볼 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였더라면 결혼식의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실체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그들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랑의 주체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상적인 입장의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터전으로서 개성을 완성하여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성은 결국 결혼을 말하는 것이요,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간 세상에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83, 1975. 4. 12) p.1218

결혼은 창조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창조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목적은 누구의 목적이냐? 아담의 목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혼을 누구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라는 뜻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뜻은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35-231, 1970.10.19) p.1218

결혼을 왜 하느냐? 아담과 해와가 스스로의 사랑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핵으로 하여, 그 핵을 중심삼고 부체(附體)로서 하나의 구형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도 그러한 사랑을 중심삼고 결착되는 것이고, 인간 남자 여자도 성숙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랑의 결착점이 벌어지고 생명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겁니다. 종적 아버지의 사랑과 횡적 부부의 사랑을 중심삼고 본연의 사랑의 씨가 비로소 연결되는 것입니다. (173-288, 1988.2.21) p.121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성숙한 아담과 해와가 사랑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성상은 아담에게 임재하고 여성성상은 해와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은 지성소와 같고, 아담의 몸은 성소와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요, 해와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성격적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담이요, 여성격적 성품을 닮은 것이 해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결혼식 하는 것이 우주의 왕권을 세우는 식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무슨 왕권이냐? 사랑의 왕권입니다. (143-236, 1988.3.19) p.1219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축과 일치되기 위해서입니다. 일치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일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일치되려고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하신 사랑을 중심삼고 영생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촉된 거기에서부터 우주의 상속권이 전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지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상속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136-39, 1985.12.20) p.1219

결혼한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에 하나되게 될 때는 이것을 뗄 자가 없습니다. 딱 붙어 가지고, 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뭐냐하면 뭐 어떻고 어떻고 해도 사랑길 찾아가는 것입니다. (180-309, 1988.10.5) p.1219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은 여자 때문이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남자 때문입니다. 이 남자 여자가 왜 하나되어야 되느냐? 하나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165-178, 1987.5.20) p.1219

절대적인 하나님도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44-219, 1986.4.24) p.1219

아담과 해와가 완전히 성숙되어 신랑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대상권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적 사랑에 의한 가정이 되었으면, 그것이 본래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고 이루었을 완성권이었습니다. 그 완성권에 나타난 아담과 해와가 되었더라면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축복 받는 자리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89, 1975.4.15) p.1219

복 중에서 제일 귀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창조의 권한을 인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던 것같이 창조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녀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위업을 횡적으로 실체권에서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그 기쁨을 대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것과 같이 만물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관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고 재창조의 권한과 주관권을 완성권에 서서 이어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란 것은 사랑의 현현을 말함과 동시에 창조권과 주관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76-45, 1975.1.26) p.1220

창조이상은 자신을 중심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심정이 주체적인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그가 동하면 내가 동하고, 그가 정하면 나도 정하여 심정적 일치점을 중심삼고 안팎이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창조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35-231, 1970.10.19) p.122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 결혼은 사랑 완성을 위해 한다

결혼 자체는 뭐예요? 결혼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남자가 보고 싶어서, 여자가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남자가 찾아야 할 사랑은 여자가 아니면 못 찾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찾습니다. 여자가 찾아야 하는 사랑은 남자가 아니면 절대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144-234, 1986.4.25) p.1220

남자가 개인완성을 하려면 상대완성을 해야 되므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는 사랑권 내에 못 나갑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됨으로 그때부터 우주와 하나님 자신을 상속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상속해 주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35-327, 1985.12.15) p.1220

결혼은 왜 하느냐 하면 자기 개인적 사랑을 완성시킴과 동시에 상대방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사랑을 완성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지상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이 사랑으로 하나된 그 기준 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위해 주니까 사랑이 오고, 사랑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5-87, 1987.5.20) p.1220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마음의 세계를 일치시키자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것은 그러한 증거를 보이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과 마음의 완성을 이루었다면 가정의 이상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이것을 이루었다면 틀림없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209-4, 축복과 이상가정-85) p.1221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혼이 자신보다 상대를 위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천지간의 모든 이치가 주체와 대상으로 이루어졌듯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천지간의 이치입니다. 남자가 오른쪽이라면 여자는 왼쪽이 되는데, 그것은 우주간의 횡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남자가 주체라면 여자는 그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상하 관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남자만을 위함도 아니요, 또 여자만을 위함도 아닌 천리의 법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리 법도를 맞출 수 있도록 생겨난 것입니다. (216-16, 축복과 이상가정-85) p.1221

여자가 남자를 맞는 것은 남자의 세계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세계를 차지하여 무엇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사랑의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85, 1982.7.26) p.1221

남자는 여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둘이 합해 가지고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혼자는 그 사랑에 접하지 못합니다. 혼자 접하더라도 그것은 일방적입니다. 입체적이고 구형적인 사랑에 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보다 높은 차원의 입체적인 사랑권 내에 점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85, 1980.12.16) p.122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 남자 여자가 하나되면 될수록 그 힘의 작용에 있어서는 위대한 중심이 생겨나 구형이 되는 것입니다. 횡적으로 연결되면 될수록 종적인 힘의 사랑의 모체가 연결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85, 1980.12.16)

결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신조를 가져야 합니다. 결혼할 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얻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알았다면, 결혼을 할 때에도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인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인 결혼관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88, 1978.6.14) p.1221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요, 초월적인 사랑이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이요, 사랑 중의 대표적인 사랑이요,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0) p.1222

신랑 신부는 돈이나 권력, 명예를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41) p.1222

인간으로 태어나서 상대를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인류같이 사랑하고, 이 세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관념이 서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한 남성으로서 한 여성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과 인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91, 1978.6.14)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맞기 위해 가야 됩니다. 인간이 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느냐?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왜? 부부가 하나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성성상으로 분립된 자체가 합성일체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144-132, 1986.4.12) p.1222

Top

㉰ 결혼은 천지합덕, 우주합일의 길

결혼은 뭐하려고 해요? 무슨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속을 발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혈통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44-80, 1986.4.8) p.1222

결혼을 왜 한다구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남자 앞에 있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요, 인류의 딸인 것을 남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인류가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서 사랑할 수 있으면, 남편될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그 반대입니다. '저건 내 남자야!'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남자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모든 남성을 대표한 남자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사랑하는 이상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로서의 오른발이 되고, 여자로서의 왼발이 돼 가지고 인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발자국을, 가정을 통해서 옮겨 놓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오른발은 남편이요, 왼발은 아내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하면 절름발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발 왼발이 완전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고 완전하지 못하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남성과 완전한 여성이 되어야 원만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것은 인류를 좋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요, 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90-26, 축복과 이상가정-87) p.122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결혼은 엄숙한 겁니다. 결혼은 하늘땅이 합하는 것이요, 동과 서가 합하는 것이요, 남과 북이 합하는 것이요, 상과 하가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둘이 하나 되어서 사랑은 어디 가느냐? 왜 사랑을 찾아가야 되느냐? 사랑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의 중심의 자리에 가 서는 겁니다. 내가 가정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불완전합니다.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 존속의 원칙에 불합격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이론적입니다. (139-64, 1986.1.26) p.1223

남녀가 합하는 것은 천지가 합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26, 1963.4.7) p.1223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평행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세계 1984.7.15) p.1223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여 포옹하는 그것 자체가 우주가 일체를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본연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8) p.1223

우리 결혼관은 '우주에서 제일 좋은 우주 양단 이불을 펴놓고 그 가운데서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소유권을 내 일대에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 소유가 오나니 그 소유는 여자의 소유가 결정됩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우주의 반입니다. 이것을 잡아채는 날에는 내 꽁무니에 우주가 달려옵니다.

또, 여자는 왜 결혼을 해야 하느냐? 남자한테 붙어 가지고 절반(180。)과 절반이 합해 가지고 둘이 우주의 가치에 대등한 작용권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통일교회 사상이 멋지다는 겁니다. (축복과 이상가정-90, 1976.12.12)

여러분, 향기 없는 꽃이 좋아요? 향기 없는 꽃에는 무관심입니다.'난 꽃이 된다면 녹색 꽃이 될 것이다' 이러겠어요? 녹색 꽃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식물원에 다녀 봐도 녹색 꽃이 없더라구요. 나뭇잎과 같은 꽃은 피나마나입니다. 그걸 보면 천지 이치가 참으로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봐서라도 하나님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잎이 전부 다 파란데 녹색 꽃이 있을 수 있어요? 단, 초록색에 가까운 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고추꽃이라는 것인데 그것도 가만히 세밀하게 살펴보면 파랗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빨간색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세상의 조화권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천지조화 창조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관은 이와 같이 멋진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 우리 통일교회 결혼관이 얼마나 멋지냐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90, 1976.12.12)

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자유결혼은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덫입니다. 그 덫에 걸리면, 죽어 사탄의 지배를 받거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사회, 특히 미국은 자유결혼의 성행으로 인하여 참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서 얼마 가지 않아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이 다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사회는 사랑이 메마른 사회가 되어 불신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지옥 같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사회 풍조를 일소하여 미국사회에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소망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과 이상가정-91, 1983.3.23) p.1224

우리 통일교회는 결혼관이 다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182-186, 1988.10.23) p.1224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③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 타락으로 거짓부모에서 태어났다

아담과 해와는 타락 때문에 혈통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수, 간부인 사탄 사랑에 의해서 사탄의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남자의 생명체, 여자의 생명체가 사탄의 사랑에 뒤섞여서 하나가 되고, 그 둘로 인해 결실된 것이 아들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딸은 사탄의 사랑, 사탄의 생명, 사탄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227-41, 1992.2.10) p.1224

성서적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인류시조가 불륜한 사랑을 함으로 사탄마귀를 중심삼고 부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직계 아들딸로 태어나야 할 가치적인 인간이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아 사탄의 아들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에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불러 양자 되기를 기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입니다. (53-261, 1972.3.1) p.1224

로마서 8 장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밖에 못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양자입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 장 44 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비라고 했으니까 핏줄이, 조상이 마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뭐예요? 양부를 찢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선악과예요? (154-337, 1964.10.5) p.1224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냐? 악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타락이 뭐냐하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데, 선악과는 과일이 아닙니다. 종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를 이을 아들과 딸을 낳아 길러 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종으로 지었던 천사장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이 인류의 타락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천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내용을 여러분이 원리를 들으면 대개 알 것입니다. (85-308, 1976.3.4) p.1225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사망권 내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망권 내에 떨어졌습니다.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8 장과 44 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사탄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이 원통한 사실이 타락의 보응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74-140, 1974.11.28) p.1225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직계 장손의 자녀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담은 장손이고, 참아버지고, 왕입니다. 지상나라와 천상세계의 왕입니다. 또 참부모이고, 참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은 하늘나라의 왕실입니다. 그러면 아담 가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입장을 대신한 관점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대신이고 또 하나님은 부모 대신입니다. 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1 대권, 2 대권, 3 대권을 중심삼고 가정에 착륙이 벌어지는데, 1 대권이 횡적으로 전개된 것이 할아버지고, 2 대권이 아버지고, 3 대권이 나입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중심삼고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실을 계대받는 것입니다. (218-255, 1991.8.19) p.1225

참부모권 · 참왕권 · 참장자권, 이것이 아담과 해와가 출발해야 했던 원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왕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창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참사랑의 기반이

[텍스트 입력]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완성한 본연의 아담의 가정 기반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218-189, 1991.7.28) p.1225

타락하지 않고 완성의 자리까지 나갔다면 아담과 해와는 개인완성 뿐만 아니라 우주사적인 완성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새가정이 출발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씨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대가족 사회가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족 사회의 중심은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가정의 생활이나 일생의 노정이 역사적 전통으로 남아집니다. 그의 생활방식?풍습?관습, 그리고 생활적인 배경이 역사적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얽혀진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이상의 원천이기에 그 품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고, 떠난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38-240, 1977.2.23) p.1226

아담과 해와의 타락은 아담과 해와만의 타락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류 역사를 총합한 입장에서의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선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악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부모로 말미암아 악한 자녀가 태어났고, 악한 자녀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종족, 악한 국가, 악한 세계가 형성되어 이 세계권 내에 50억 인류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권 내에 있는 오늘의 인류 역사는 기쁨의 역사가 아니라 슬픔의 역사요, 인류도 기쁨의 인류가 아니라 슬픔의 인류임에 틀림없습니다. (38-149, 1971.1.3) p.1226

사랑을 알게 될 때는 모든 것이 통합니다. 지상세계의 평면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 입체적인 세계까지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지각이 발달하기 전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천사장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를 파탄시킨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137-127, 1986.1.1) p.1226

이런 말을 어디 돈주고 들을 수 있어요?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천년만년 제사 드려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통일교회의 문선생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밀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은 없지요?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선악과가 무슨 과실이에요? 그렇게 유치원생도 못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검증하고, 박사학위의 총회장이 된 문총재에게 이단(異端)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것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끝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것입니다. (238-213, 1992.11.22) p.1226

본인이 규명한 원죄와 타락의 곡절은 인간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천사장과의 불륜사건이었습니다. 통일원리에서의 사탄은 관념적 존재나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사탄을 중심한 혈통으로 바꾼 원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인류의 아비가 마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적 몸인 아담과 해와를 통해 실현하시려던 사랑이상을 박탈한 사랑의 간부가 곧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본인이 영계를 개척하고 우주의 근본 곡절을 규명하려고 피눈물나는 투쟁을 한 결과로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기도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35-12, 1985.8.20) p.1227

Top

㉯ 원수의 혈통을 받았다

타락인간은 가짜가 되었기 때문에 접붙여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은 조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양자밖에 못 되었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사랑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말을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되어 있지요?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선악과가 열매예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 가지고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열매예요? 아닙니다. (157-158, 1967.4.2) p.1227

아담과 해와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됐으니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사탄을 용서 못하느냐. 살인강도도 용서하고 전부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예수를

[텍스트 입력]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용서 못하느냐? 사탄을 용서 못하는 까닭은 인류의 핏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사탄은 간부입니다. 사랑의 간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56-226, 1966.5.25) p.1227

사탄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랑, 사탄을 중심한 생명, 사탄을 중심한 혈통을 안 받았다고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했을 겁니다. 통일교회 부모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준 것과 같이 아담과 해와가 성숙한 후에는 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228-254, 1992.7.5) p.1227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했더라면 천지를 창조한 대왕마마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대왕마마의 아들딸이라는 게 그 직계의 장손 장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자 왕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대표한 지상나라 왕국을 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왕권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231-27, 1992.5.31) p.1227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독생자 독생녀가 아담과 해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데 따먹지 말아라, 한 그 말을 실천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기독교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창대해입니다. 깊은지 얕은지 대해의 깊이를 재려고 해도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싶어도 알 수가 없으니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감투를 갖다 씌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지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231-21, 1992.5.31) p.1227

몸을 치는 놀음을 왜 하느냐? 사탄의 피, 하나님의 원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입니다. 간부입니다. 간부의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아 황후가 될 수 있었던 해와가 악마의 배필이 됐고 종의 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의 비밀인데 선생님 시대에 와 가지고 비로소 폭로됐으니 사탄세계는 물러가야 됩니다. (72-277, 1988.5.20) p.1228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누구라구요? 하나님의 간부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려 주었는데 이걸 다 덮어놓고 천국 가겠어요? 덮어놓고 구원받겠어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패들!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벌써 다 구원받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을 안 합니다. (188-230, 1989.2.26) p.1228

악마가 왜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은 왜 악마를 미워해요? 기독교의 논리로 말하면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면 사탄이 원수인데 왜 사랑 못해요? 사랑의 원수를 사랑하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치리법이 없어집니다. 존재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91-43, 1989.6.24) p.1228

사탄이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을 파괴시키고 이상적 생명, 이상적 혈통을 유린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새끼를 낳은 것이 인간들입니다. 사탄의 사랑의 표시, 생명의 표시, 혈통의 표시인 그 아들딸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197-286, 1990.1.20) p.1228

사탄이 왜 지긋지긋하게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그리고 도의 길을 가려 하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와 가지고 목을 누르고 등을 타고 희생시키려는 놀음을 했겠습니까? 그놈의 사탄이 뭐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빼앗아 간, 겁탈해 간 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본래 하나님을 모셔 평화의 왕국을 이루고 평화의 천지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아버지와 우리를 몰아냈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인간을 이 꼴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무슨 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156-226, 1966.5.25) p.122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타락은 혈통의 부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원죄로 유전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혈통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혈통을 전환하는가? 사탄 혈통을 받아 계승했기 때문에 혈통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183-308, 1988.11.7) p.1228

사탄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선한 부모의 자녀로서 태어나야 할 인류가 악의 부모와 인연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악을 중심으로 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55-133, 1972.5.7) p.1229

타락이 도대체 무엇이냐? 생명의 인연이 끊어졌다 이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담과 해와가 관계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되어야 할 것인데 종과 하나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아야 할 이 인간들이 종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실감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본성을 이어받아 자기를 중심삼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늘이고 무엇이고 높은 것은 전부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91-242, 1977.2.23) p.1229

타락함으로 참부모를 잃어버렸고, 참남편을 잃어버렸고, 참자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잃어버리게 된 동기는 해와와 천사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천사장 아버지, 천사장 남편, 천사장 오빠에게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비참한 것입니다. 부잣집 따님이 자기 집 머슴하고 사는 꼴이 된 것입니다. 즉 머슴의 핏줄을 이어받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남편, 본래의 아버지, 본래의 오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여자들인 것입니다. (51-182, 1971.11.21) p.1229

악마가 타락시킨 것이 무엇이냐? 뭐 선악과? 선악과를 먹고 어디를 가렸어요? 입을 가렸어요? 손을 가렸어요? 하체를 가렸지요? 그것이 악을 뿌린 씨가 됐습니다. 청소년 시대, 성숙하지 못한 때에 타락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인간 세상의 핏줄이 거기서 뻗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종말시대에 있어서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아담과 해와같이 그늘 아래서 독자적으로 사랑의 윤리를 파괴시키고, 하늘땅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때가 되거든 사탄의 전권시대가 땅 위에 도래할 줄 알라 이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철퇴가 목전에 다가오는 겁니다. (200-227, 1990.2.25) p.1229

혈통적으로 곡절이 맺혔기 때문에 6천 년 걸리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다 복귀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이것이 고질이 되었으니 이놈을 한꺼번에 다 뽑으면 죽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 년 걸려 나온 것입니다. 뭐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155-295, 1965.11.1) p.1229

죄의 기반, 타락의 기반, 악의 기반, 지옥의 기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해와로 돌아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왜 타락했느냐 하는 근원을 헤쳐 보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는 말을 불신해서 타락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중심적이다 이겁니다. 셋째는 자기 중심삼고 사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중심 골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같이 하는 것은 사탄편이다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신의 사랑이요,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이 세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79-198, 1975.7.27) p.1230

타락이 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가 뭐냐 하면 여자의 그것입니다. 여자의 그것은 선한 남편을 만나면 선한 어머니가 되고, 악한 남편을 만나면 악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 문총재가 말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몸 마음이 싸울 수 있는 기원은 부부가 싸움의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267-240, 1995.1.8) p.1230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메시아로서 참부모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까닭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기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탄의 실체를 가진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 되는 까닭에 탕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탕감이란 원죄를 제거하는 것이며, 원죄를 제거하는 데는 혈통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혈통적인 것은 타락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1) p.1230

아담 일족에 있어서 참된 부모가 생겨나지 못하고 죄의 부모가 생겨났던 것을 탕감복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참부모의 역사를 찾아 접붙이는 것이 메시아의 사상이요, 구세주의 사상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216－34, 축복과 이상가정-241) p.1230

메시아는 누구냐? 참부모입니다. 그러면 참부모가 왜 필요하냐? 참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접붙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벗어버리고 죄없는 해방된 자리에서 완성단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35－216, 1970.10.19) p.1230

타락한 인간이 요구하는 구주는 어떠한 구주냐? 타락한 부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부모의 자리에서 인류를 낳아 줄 구주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원죄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269, 1969.5.4) p.1230

참부모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심정권을 중심삼고 그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뿌리가 다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줄기와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여기에서 새로이 뿌리가 참부모로부터 시작되어, 줄기와 가지가 나와 가지고 접붙이는 것입니다. 잘라 내고 접붙이는 겁니다. 접붙여 가지고 그것이 우주의 큰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모든 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뿌리까지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64－155, 1987.5.10) p.1231

에덴동산에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니, 이제 참부모가 바르게 결혼시켜 줌으로써 다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저질러 놓은 일을 참부모가 청산함으로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 억의 영계의 조상들마저 축복결혼을 시켜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지상의 후손들의 가정 기반을 통해 영계의 조상과 지상의 후손이 종적으로 하나로 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기반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핏줄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어받으려니 메시아가 아버지로 와서 사탄세계를 이긴, 사탄이 간섭할 수 없는 초세계적인 기반에서 해와를 모시고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부의 인연을 중심삼은 가정을 중심한 아들딸을 세워 횡적으로 접붙이는 놀음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통일교회는 다릅니다. 통일교회는 핏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세계에서 반대해봐라 이겁니다. 반대하다가는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169-37, 1987. 10. 4. 본부교회) p.1231

참부모는 혈통전환하는 새로운 축복결혼 행사를 통하여 전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사랑 · 참생명 · 참혈통으로 접붙여 참된 사람으로 구원하고, 나아가 참된 가정을 이루어 지상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참가정과 세계평화－423) p.1231

Top

2) 참부모와 중생과 혈통전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참부모는 어떤 분이신가?

㉮ 참부모는 원죄 없는 종지조상

참부모가 뭐냐?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종적인 사랑이 되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뼈와 같고, 아담과 해와는 몸과 같은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자리에서 내적인 부모가 되고, 아담과 해와는 외적인 자리에서 외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적 외적 부모가 하나된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엮어져 내적 부모를 모시게 되고 외적 부모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결탁에 의해 참부모, 즉, 완성한 인간이 성사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랑과 결탁 안 되게 되면 완성인간이 없습니다. (184－71, 1988.11.13) p.1231

참부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어 가지고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지 않고 완성기준을 넘어선 자리에 올라가야만 비로소 참부모의 기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적 견해로 본 참부모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그 견해에 합당한 자리는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30, 1969.9.21) p.1232

새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옛날 에덴동산에서의 타락한 아담과 해와는 타락한 부모이지만 앞으로 인류를 다시 낳아 주어야 할 그 부모는 타락하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본래의 부모인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뜻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품에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선의 자녀를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본래의 기준에 설 수 있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 부모는 타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22－269, 1969.5.4) p.1232

원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부모가 되어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관하는 거짓부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세우고자 했던 참부모는 없어졌습니다. 참된 인류의 조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20－117, 1968.5.1) p.1232

참부모란 어떠한 존재냐? 참부모는 전체의 소망의 상징입니다. 타락한 인류 앞에 절대적인 소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결실체요, 시대적인 중심이요, 인류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미래선상에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35-236, 1970.10.19) p.1232

참부모라는 그 이름 석 자(字)를 생각할 때, 참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치리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원이 생겨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이 결정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외적인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해원성사해 드릴 수 있는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와 더불어 살고, 참부모의 명령을 받들어 행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에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43－144, 1971.4.29) p.1232

인간의 소원은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길을 가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시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후손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부모를 만난다면 역사를 찾는 것이요, 시대를 찾는 것이요,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참부모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35-236, 1970.10.19) p.1232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때 그분은 개인으로 오시되 개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치는 온 세계 인류가 믿고 있는 신앙의 결실체요, 온 세계 인류가 바라고 있는 소망의 결실체요, 온 세계가 바라고 있는 사랑의 결실체입니다. 그 결실체에는 모든 역사노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현재-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땅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3－143, 1963.10.16) p.123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님은 인류의 부모의 위치에 서야 할 사명을 지니고 오셨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시대에는 그와 같은 입장을 탕감복귀하여 승리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세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45) p.1233

참부모는 완성된 아담으로, 아담이 실패한 제 1 의 부모 기준을 복귀해야 합니다. 또, 제 2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실패한 부모의 기준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재림시대에 있어서 선생님이 고생의 전통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영적 기대만 세웠지, 영육 아울러 세계적인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71) p.1233

우리가 알고 있는 참부모는 뭐냐? 인간 조상입니다. 인간 조상. 그러니 참부모를 자기 부모와 같이 모셔야 됩니다. (118－147, 1982.5.23) p.1233

인류는 참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축에 연결될 수 있는 원칙적인 일이 역사이래 처음 벌어진 겁니다.
역사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축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그 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참사랑입니다. (137－108, 1985.12.24) p.1233

역사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인류의 남성을 대표해서 승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선생님은 그러한 승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통일교회와 선생님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원칙을 알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30) p.1233

인류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6 천 년 전에 아담과 해와가 성혼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사탄의 후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 천 년 전에 잃어버린 하늘 편인 참부모를 다시 이 땅 위에 찾아 세워 참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통하여 중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19－203, 1968.1.7) p.1233

참부모가 뭐예요? 육신의 부모와 참부모와 무엇이 달라요? 참부모가 뭐예요? 뭐하는 것이 참부모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말할 때, 그 육신의 부모와 참부모가 무엇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바로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적 부모는 육신을 중심삼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영적 부모는 영적인 세계를 중심삼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29－99, 1983.10.1) p.1234

Top

㉰ 참사랑으로 인류를 낳아주신다

여러분은 참된 부모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하늘 앞에서 쫓겨난 거짓된 부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으니, 이 핏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핏줄을 밟고 밟고, 뽑아 버리고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혈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22-271, 1969.5.4) p.1234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세계의 뿌리 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릇된 생명을 돌이켜 놓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169-37, 1987.10.4) p.1234

혈통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골수까지, 골육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장래의 아이가 될 그 씨에 하나님의 사랑과 결속된 승리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것은 이론적으로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그렇게 해온 기록이 있다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5－163, 1970.10.13) p.1234

타락한 인간이 요구하는 구주는 어떠한 구주냐? 타락한 부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부모의 자리에서 인류를 낳아줄 구주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원죄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22－269, 1969.5.4) p.1234

참부모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심정권을 중심삼고 그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뿌리가 다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줄기와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여기에서 새로이 뿌리가 참부모로부터 시작되어 무엇이 나왔느냐? 줄기와 가지가 나와 가지고 접붙이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접붙이는 겁니다. 접붙여 가지고 그것이 우주의 큰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모든 것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뿌리까지 잘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64-155, 1987.5.10) p.1234

오늘날 만민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계 국가를 맞기 전에 참부모를 맞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후손들은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싶어하느냐? 여러분의 아들딸은 여러분의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의 핏줄을 통해 태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35－237, 1970.10.19) p.1234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세계의 뿌리 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왜 나와야 하느냐? 바로 사탄세계는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69－39, 1987.10.4) p.1235

참부모와 참부모의 자식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의 숙명적인 업(業)입니다. 이걸 누구도 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갈 길은 두 길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법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203－192, 1990.6.24) p.1235

에덴동산에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니, 이제 참부모가 바르게 결혼시켜 줌으로써 다시 뒤집어놓은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저지른 일을 참부모가 청산함으로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 억 영계의 조상들마저 축복 결혼시켜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지상의 후손들의 가정기반을 통해 영계의 조상과 지상의 후손이 종적으로 하나로 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기반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연결됩니다.

양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아들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돌감람나무를 잘라 버리고 참감람나무 순을 접붙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돌감람나무들이 참감람나무가 되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바라는 것은 참부모이고, 예수와 성신이 바라는 것은 어린양 잔치입니다. (19-164, 1968.1.1) p.1235

먼저는 부모를 진심으로 그리워해야 합니다. 내 생명의 동기도 부모요, 내 소망의 일체도 부모요, 내 모든 이상과 행복의 근원도 부모라고 하는 기준을 중심삼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셔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부모와 영원히 하나될 수 있는 아들딸이다.'라는 신념을 자신의 존재의식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30-238, 1970.3.23) p.1235

여러분은 사 온 사람들입니다. 인류를 주고, 천주를 주고 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놓고 천지를 심판하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세계의 노예 입장에 있는 여러분을 사다가 하나님의 아들딸로 세우셨습니다. 고로 여러분은 복 받은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전세계에서 여러분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에게까지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피와 땀의 대가로 사 온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의 몸을 주고 사 온 사람들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므로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식구들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약합시다. (11-164, 1961.7.20) p.1235

Top

② 중생섭리의 핵심

㉮ 거듭남의 참된 의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된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관계없는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아담과 해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밟고 넘어서서, 즉 원죄와 인연이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하나님의 곁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269, 1969.5.4) p.1236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타락권 이하에서는 아무리 구원하려 해봤자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 이상의 참된 부모를 이 땅 위에 다시 보내 가지고 그 부모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해산되는 노정을 거치게 해서, 사탄과 영원히 관계가 없게 하시고 참소하려야 참소할 수 없게 하시어서,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하나님만이 간섭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인류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 원죄가 없는 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269, 1969.5.4) p.1236

참부모가 참감람나무라면 여러분 모두는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곁순이나 곁가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지가 나와야 정상적인 생태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믿음과 사랑과 실체를 잃어버리고 무엇이 되었느냐? 혈통적으로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 하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사실적인 내용을 갈파했던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44, 1972.7.8) p.1236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이 개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44, 1978.12.15) p.1236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거듭나지(중생)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탄과 맺어 온 모든 관계를 청산 짓고 하나님과 창조본연의 관계를 맺어야 됨을 말합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44, 1982,3,16) p.1236

하나님의 섭리로 믿음을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44, 1983.4.19) p.1236

거듭나는 데는 아담과 해와보다 못해 가지고는 안 되며, 또한 근본복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데도 개인이 거듭나야 되고 가정, 민족, 국가, 세계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58-42, 1972.6.6) p.1237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라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참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통일교회는 이 세상에 필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44, 1976.2.29) p.1237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의 접을 붙일 때는, 가지를 자르고 그곳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밑둥을 잘라 뿌리만 남겨 놓고 그 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성교회가 다시 오시는 주님에 의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존 체제나 제도, 또는 모든 의식을 바꿔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44, 1982.3.20) p.1237

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은 열매는 돌감람나무의 열매이니,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목을 잘라내고 눈접을 붙여야 합니다. 만일 접붙일 수 없다면 뿌리까지 뽑아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냥 두면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밭에 뿌려져서 수많은 돌감람나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돌감람나무를 자르는 것은 새로운 참감람나무의 눈을 접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참감람나무의 눈이나 돌감람나무의 눈이, 겉으로 보아서는 똑같기 때문에 시비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림주님이 오실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실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눈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고 했던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의 밑둥을 잘라내고 참감람나무에 접목을 함으로써 돌감람나무는 모두 베어지고 참감람나무 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레버런 문이 하겠다고 하니 야단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몸이 베어지는 아픔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돌팔이 원예가가 아닐까 해서입니다. 섭리역사의 봄절기와 함께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45, 1982.3.20) p.1237

Top

㉰ 중생을 하려면

신랑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부되시는 성신의 사랑이 일체가 된 그 사랑이 나의 뼈와 살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심정 기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重生)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4-27, 1981.5.14) p.1237

여러분들은 중생(重生)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중생 받으려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타락권 내에서, 즉 사탄의 사랑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이루어지는 사랑이 더 차원 높지 않는 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난의 길이요, 종교인들이 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고, 간장이 녹아나도록 '신랑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2 천 년 동안 부르짖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몸이 터져 나가고 가슴이 찢어지고, 뼛골이 녹아나는 자리,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경지, 오직 하나님이나 예수님과만 통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성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신이 임함으로써 영적인 아기로서 재생할 수 있는 영적중생(靈的重生)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없는 한 아직 사탄세계의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천당에 못 갑니다.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114-27, 1981.5.14) p.1238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대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어차피 역사적으로 부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변명하고 스스로 세워 놓은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체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타락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권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되어야 할 생애요, 부정되어야 할 생활이요, 부정되어야 할 죽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6－278, 1959.6.7) p.1238

혈통을 전환하는 것은 메시아가 할는지 모르나, 전환하도록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이룩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의 경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40 일 단식기도라든가 피를 토하는 죽음의 경지에 가야 혈통전환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2) p.1238

세계의 만민들은 참어머니가 나타나기 전에 태어났으니 헛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붙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부를 이루었을 때 성신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짓된 사랑으로 태어났으니 참된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독교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7-192, 1966.12.18) p.1238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는 데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도 정의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에 앞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역사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거리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5) p.1238

Top

③ 참부모의 중심사상은 혈통전환

혈통적 전환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눈물겨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에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축복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전환의 승리권을 세우는 데는 수천 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노고와, 실체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의 고난의 생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 곳이 바로 여러분이 서있는 자리입니다. 축복 받는다는 것은 악의 혈통을 잘라 버리고 새롭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접붙임으로써 혈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35-178, 1970.10.13) p.1239

혈통의 동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권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같아야 되고, 줄기가 같아야 되고, 순이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혈통전환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172-55, 1988.1.7) p.1239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의 거짓 사랑권에 있는 인간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빼앗아 와서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 사랑의 부모, 거짓 사랑의 조상, 거짓 사랑의 혈통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참사랑의 부모, 참사랑의 조상, 참사랑의 혈통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귀함도, 성만찬 의식도 모두 혈통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섭리를 형상적,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135-12, 1985.8.20) p.1239

여러분들은 혈통전환, 이것이 실감이 안 나지요?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이 아벨이 될 때는 여러분은 가인으로서 완전히 하나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하나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관계가 없으면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161-153, 1987.1.18) p.1239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서 연결되느냐? 이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핏줄을 통해서만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정의 핏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 받기 전에 혈통전환식이 있는 겁니다. 그 때는 내가 아무 것도 없다는 무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뚱이는 없다 하는 자리에 서 가지고 부모님의 혈육에 다시 이어 받는 결착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180-159, 1988.8.22) p.1239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 혈통전환식을 했지요? 여러분은 아무 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부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혼란 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한쌍을 세운다는 심정적 기준에서 볼 때, 축복에서 혈통을 더럽힐 만한 어떤 것이 있을 경우에는 큰일납니다. 이것은 형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동산에서는 미완성기에 타락한 것도 쫓아냈는데 완성의 심정적 기준에서 죄를 범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뒤통수도 보고싶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198-220, 1990.2.3) p.1240

여러분, 혈통전환식을 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안 나왔으면 이 일이 가능해요? 창세이후에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느냐는 겁니다. 참부모가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로부터 축복 받았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핏줄의 전통,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심은 전통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216-36, 1991.3.3) p.1240

'나는 타락해서 당신의 혈통적 모든 것을 유린했지만 당신이 당신의 아들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전환을 시켜야 될 것 아니오? 당신이 생명의 주체라면 당신으로부터 아담이 생명의 씨를 받은 것이요, 그러니 당신으로부터 아담이 받은 생명의 씨가 해와를 중심삼고 연결되어 뿌리될 수 있는 본연의 기준을 이루어서 그 기준을 중심삼고 당신의 혈족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내 혈족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의 혈통을 전환시켜 뿌리를 개조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오. 하늘나라에 아담 뿌리의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지, 천사장 뿌리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소? 못 들어가오!'하는 것입니다. (197-286, 1990.1.20) p.1240

축복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 사탄이 축복가정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선생님을 완전히 믿고 참부모님께 속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든지 서 있게 될 때 사탄이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의 심정을 중심삼고 혈통전환한 심정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탄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149-53, 1986.11.2) p.1240

복귀도상에서 종의 종 시대에서부터 종의 시대를 거쳐 양자의 시대, 직계의 시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종의 종 시대를 거치고, 종의 시대, 양자의 시대를 거쳐 직계시대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느냐? 직계의 시대와 인연을 맺는데는 그냥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리에 의해 믿음의 기대를 거치고 실체기대를 거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거쳐야 됩니다. 즉, 메시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아들입니다. 양자와 참아들은 혈통적인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5-192, 1972.5.9) p.1240

타락인간은 혈통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미지의 사실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풀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 이겁니다. 혈통전환도 개인권, 가정권, 민족권, 국가권, 세계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돼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옴으로 부모에서부터 혈통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혈통이 전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이 전부 다 이런 일을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아는 메시아가 와 가지고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161-147, 1987.1.18) p.1241

타락인간은 출발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짓 부모로 시작했으니 원점으로 돌아가서 참부모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 받을 때 혈통전환식을 했지요? 그걸 내 생명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해서 그저 일반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사람을 회생시키는 주사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독 주사입니다. (216-107, 1991.6.9) p.1241

성경 역사를 보면 야곱은 어머니하고 하나돼 아버지를 속여 축복 받고 다말의 역사를 중심삼고도 이러한 패륜 놀음을 했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혈통전환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핏줄을 맑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만이 혈통을 중요시하고 기독교만이 혈통전환을 주요 사상으로 삼아 나왔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전환이라는 걸 중심삼고 볼 때 문총재는 기독교를 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을 이어받은 기독교를 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교통일이라고 했으면 왜 내가 핍박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골수사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227-349, 1992.2.16) p.1241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④ 혈통전환의 3 단계 과정

㉮ 성주(聖酒)식

통일교회의 축복을 받는데 혈통전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전환식을 했지요? 탕감봉행사니, 삼일행사니,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부모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천국문을 열고 해방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행사하던 사탄은 상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 받은 가정은 혈통전환식을 한 거 알아요? 그것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35-215, 1992.9.20) p.1241

여러분이 약혼식을 한 후에는 성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혼식과 성주식, 그리고 결혼식은 대관절 무엇이냐? 이것은 어떠한 전례에 따라 행하는 식이 아닙니다. 타락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징적으로 재현시켜 가지고, 그것을 탕감하기 위해 행하는 불가피한 행사인 것입니다. (35-215, 1970.10.19) p.1242

타락한 인간은 사탄세계의 거짓된 사랑으로 더럽혀진 과거의 모든 사랑을 부정하고 새로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참된 부모의 사랑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활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고는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주식은 곧 참부모의 사랑의 관문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기준을 이룰 것을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35-215, 1970.10.19) p.1242

성주식이 무엇하는 것이냐? 새로운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몸을 자기 몸 속에 투입시키는 의식입니다. 타락한 몸뚱이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받아먹고 마셔야 한다고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실체를 중심삼고 새로운 핏줄을 이어받아 원죄를 씻을 수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축복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혈통을 전환시키는 식입니다. (35-245, 1970.10.19)

혈통전환이라는 절대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 받을 때 혈통전환식 했지요? 그 혈통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주라는 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스물한 가지의 선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것은 공중에서 열매 맺히는 것과 땅에서 열매 맺히는 것과, 땅 아래에 열매 맺히는 것들을 중심삼고, 그 다음에는 광물세계·식물세계·동물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 이렇게 스물한 가지의 선별된 물건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참소조건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7 개월 동안 묵히는데 거기에 불상사가 나오면 안됩니다. (215-109, 1991.2.6) p.1242

성주식은 탕감복귀식입니다. 성주식을 하는데 이 성주식은 천사장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과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전부 다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리 놓는 겁니다. 성주식을 이렇게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리와 마찬가지인 복귀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주는 여자가 먼저 받는 겁니다. 여자가 먼저 선생님한테 경배하고 성주를 받아서 절반만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경배해야 됩니다. 이거 여자가 절반 마실 때는 남자는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여자가 어머니 자리에 있습니다. 어머니 자리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여자가 절반 마시고 남은 것을 남자에게 주어 남자가 마심으로 인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대등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113-309, 1981.5.10) p.1243

성주식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던 그 반대의 코스로 하는 겁니다. 결혼하려면 약혼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주식입니다. 그래 가지고야 결혼식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못 되었습니다. 약혼식은 아들을 찾으려는 하나님 앞에, 참부모 앞에 '타락한 아들보다 나은 아담과 해와가 됐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해와는 약혼단계였습니다. 이래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의 세계가 여기서 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인연을 연결시키는 조건을 성립시키는 것이 성주식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120－167, 1982.10.13) p.1243

성주를 마시는 데는 천사장으로부터 해와, 해와로부터 아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와가 먼저 받습니다. 해와가 없으면 남자는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복귀이기 때문에, 해와에게 성주를 받게 하고, 반만 마시고, 그 다음에 해와가 남편에게 줍니다. 성주잔을 받을 때는 아버님으로부터 받는 대신이니 절을 하고, 실제로는 3 배이지만 절을 한 번만 해도 좋습니다. 3 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반을 마시고, 그것을 남편에게. 그것을 마셨을 때는 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 그리고 천사장에게 하고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정적으로 일체화됩니다. 실제로는 그 전에 선생님이 여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여자의 손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일체화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성주를 마시면 타락의 혈통을 깨끗이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세례식과 같은 것입니다. 혈통전환식! 알겠습니까? (183－89, 1988.10.29) p.1243

천사장을 통해서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역사에 있어서는 해와가 아담을 통해서 하늘 앞에 서서 천사장 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는 것이 성주식입니다. 성주식 할 때 선생님이 여자에게 먼저 주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이 잃어버린 해와를 복귀하는 식입니다. 성주식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되고, 심정적으로 하나되고, 육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내약(內約)인 것입니다. (46－233, 1971.8.15) p.1243

성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 입회 하에, 영계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입회 하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스물한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세계와 인간의 복귀역사과정에서 형성되는 모든 물건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주를 만들 때는 영계의 영인들이 와서 제발 한 잔만 부어서 자기에게 억지로 먹게 해 달라고 합니다. 성주를 먹으면 복귀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거지로 와 가지고 자꾸만 자기들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영계를 위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지상을 위한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다려!' 하고 고생한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46－233, 1971.8.15) p.1244

성주에는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시면 부모의 사랑과 일체가 되고, 또 피와 일체가 됩니다. 이런 것이 성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35－211, 1970.10.18) p.1244

그러면 성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상징하고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술입니다. 성주에는 세 종류의 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고,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식이 없으면 원죄를 벗고 혈통을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혈통이 전환되지 않으면 완성기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주식은 그 모든 것을 탕감하는 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5－211, 1970.10.18) p.1244

성주식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사탄의 피를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를 뽑아 버리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5) p.1244

성주(聖酒)에는 사탄의 참소가 없는 만물의 요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성주를 받고, 참부모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면 사탄보다도 더 두려운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탄은 장성기 완성권을 더럽히고 유린하였는데, 축복 받은 자가 잘못되면 완성기 완성권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범한 죄가 남게 되므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29－308, 하나님의 뜻과 세계-596) p.124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성주식을 한 그 자리는 부모님이 거쳐온 모든 수난의 길을 전부 다 탕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천하를,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입장입니다. 그걸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책임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172-61, 1988.1.7) p.1244

축복가정 2 세들과 새로 들어오는 젊은 층, 축복 대상자들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축복 받게 될 때는 성주식이 필요하고, 그 외에 전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가정 2 세는 그런 성주식이 없습니다.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타락 세계의 뿌리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다 같아 보이지만 역사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과정도 달랐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도 다르고, 미래에 갈 목적지도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같다 하더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축복가정으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겁니다. (144-281, 1986.4.26) p.1244

Top

㉯ 축복 결혼식

축복식은 사랑의 전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살 듯이 여러분들도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대신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랑의 전수식이 축복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장이 해주는 결혼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외짝으로 와 가지고 결혼식을 해 주는 것은 전부 다 천사장으로부터 받는 결혼식입니다. (206-2, 축복과 이상가정-423) p.1245

결혼식이란 것은 사랑의 현현을 말하는 동시에 창조권과 주관권을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76-46, 1975.1.26) p.1245

축복 결혼식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혼례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식은 자기를 중심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결혼식은 하나님께 기쁨을 되돌릴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성스럽고 성대하게 거행돼야 합니다. 우리들의 결혼식이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한(恨)을 해원해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신랑 신부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임을 원리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37) p.1245

주례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6 천 년 섭리노정을 걷는 것입니다. 소생-장성-완성을 의미하는 노정에 21 사람, 12 사람의 들러리를 세우는 것은 3 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7 보를 가서 소생을 넘는 조건으로 3 차 경배를 해야 합니다. 이 노정은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노정입니다. 특히 아담, 예수님, 재림주의 3 시대의 과정인데 이 들러리 속을 거쳐 참부모님과 상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러리를 세우는 것은 12 지파, 24 장로의 영적 기준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경배함으로써 탕감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성수를 뿌리는데 이것은 탕감복귀한 입장에 세우기 위함이요, 그 조건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계의 조상들의 터전을 넘는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19-268, 1968.2.20) p.1245

합동결혼식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을 찾아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합동결혼식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01, 1978.12.17) p.1245

통일교회의 자랑은 합동결혼식입니다. 더구나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것보다 동서양 사람이 합해서 결혼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통일교회가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3-15, 축복과 이상가정-301) p.1245

선생님의 성혼식은 지금까지의 어떠한 결혼식보다도 성대하게 해야 하는데, 고난 중에 했기 때문에 성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성대하게 해야 할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식구들은 자기를 중심한 3 대 중 외적으로 가장 결혼을 잘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 앞에 조건을 세울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제물적인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19-70, 1967.12.26) p.1246

하나님이 베푼 연회는 사탄세계의 어느 연회보다도 거창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체로서는 그 기준에 설 수 없으니, 역사 이래 없었던 합동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19-32, 1967.12.15) p.1246

축복결혼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국경과 인종과 언어와 문화 관습을 초월한 국제 합동결혼식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혼식장은 화해의 광장이었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01, 1982.8.4) p.1246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계 민족 편성을 위해 통일교회에서 축복결혼식을 행합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01, 1982.1.21) p.1246

오늘의 이와 같은 성례식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성숙하면 이루어 주시려던 성례식인 것입니다. 창조이상의 심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식전은 창조 이후 처음 벌어진 것임을 절감해야 합니다. (9-83, 1960.4.16) p.1246

Top

㉰ 3일 행사-실체복귀식

축복을 받고 40일이 지난 후에는 3일 간에 걸쳐 실체적인 복귀식이 있습니다.

이 40일 기간은 역사적이며 총합적인 탕감기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을 중심으로 복귀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소생기도 아니고 장성기도 아닙니다. 완성기에 접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52) p.1246

아담 시대와 다음 시대는 실패의 시대입니다. 그 결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소생적인 사랑권을 계승하지 못했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장성적인 사랑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 소생, 장성의 사랑권을 이어받은 후에 라야 완성적인 성약시대권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건을 세우는 것이 3일행사의 실체복귀식인 탕감식입니다. 3일행사의 실체복귀식의 첫째 날은 구약시대의 복귀입니다. 타락한 아담, 구약권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예수님을 대신한 신랑으로서 신부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정식 궤도를 타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탕감조건을 세우는 일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552) p.1246

그러면 이제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느냐 하면, 부부하면 남편과 아내인데, 아내가 어머니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남편을 사랑으로 낳아 줘야 됩니다.

결국은 주님이 올때까지 재림주까지 해와가 낳아 줘야 됩니다. 재림주까지는 3시대를 거치는데, 아담, 예수, 재림주 3대를 거쳐 나오는 데는 누가 낳아 주느냐 하면, 여자가 낳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90-134, 1976.10.21) p.1247

그런데 상대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지금 주님이,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낳아주는 책임을 해야 될 입장에 선 것이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해와가 아담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타락을 시켰고, 예수가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예수를 잘 낳아서 책임 해야 할 마리아가 책임을 다 못 했다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복귀 해줘야 합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아담으로 낳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한 아담이 아니고는 결혼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재림시대까지 3대를 걸고 나왔기 때문에 세 사람, 3대에 걸친 해산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90-134, 1976.10.21) p.124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와가 아담을 요만큼 낳아서 키우고 거기에 또 예수를 요만큼 키운 다음에 완성단계에 들어가서 남편을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으로서의 권한을 중심삼아 가지고 해와를 사랑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해성사가 있어야 됩니다. 재림시대에 와 가지고야 비로소 남편이 되는 겁니다. 완성한 아담 자리에 서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 신랑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90-134)

선생님을 통해서 아내는 어머니의 사명을 다시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3 단계로 낳아주는 형식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낳아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여자가 위 되고 남자가 아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그거 잘해야 됩니다. (90-134, 1976.10.21) p.1247

3 일 행사의 식을 진행할 때 먼저 여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소생적 아담을 해산하는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제 2 차 아담을 해산하는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라고 같은 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낳고 나면 예수님 입장인 동시에 완성적인 입장으로 자란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남편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주체적 자리로 나간다 이겁니다. (90-134, 1976.10.21) p.1247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자가 위에 복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은 남자가 위에서 하는 겁니다. 둘이 그렇게 사랑을 끝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부로서, 이제 하늘의 상속을 받은 영원한 가정으로서 아버지의 권속이 된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부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젠 완전히 탕감복귀된 가정으로서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음을 모르면 복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복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하는 그것은 엉터리 같고 우스꽝스러운 놀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 가는 것입니다. 낙원은 대합실입니다. (90-134, 1976.10.21) p.1247

성주식은 세 어머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우는 식입니다. 성주에는 탕감의 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주를 마심으로써 내적으로 성결케 하고, 성건으로 몸을 닦음으로써 외적으로 성결케 하려는 것입니다. (19-270, 1968.2.20) p.1248

이제부터 실체의 자녀들을 번식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심정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정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낳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하늘땅을 대신할 수 있는 심정적 기준 위에서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한번 축복을 하면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세계를 대신해서 한 번 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적인 결혼입니다. 그 동안 40 일간은 4 천 년을 탕감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사실 결혼생활은 오늘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탕감기간이었습니다. (11-161, 1961.6.24) p.1248

Top

3) 축복가정의 책임

① 참부모와 일체권을 이뤄야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완성단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 선상 이상 올라가서야 비로소 원죄를 벗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기 완성급에서 벗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축복 받고 나선 이 자리는 완성기 완성급이 아니라 장성기 완성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5-233, 1970.10.19) p.1248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 셋과 그들의 대상을 포함한 아담 가정의 여덟 식구가 모두 떨어져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탕감조건을 세워 가지고 다시 완성급을 향하여 들어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가치를 세계의 그 무엇보다도 존중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거쳐야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233, 1970.10.19) p.1248

지금의 개성 완성은, 절대적인 전체 개성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완성입니다. 복귀과정에서의 조건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는 우주를 줘도 바꿀 수 없고, 남편은 우주를 줘도 바꿀 수 없고, 둘이 사랑하는 거기에 하늘땅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해 준 가정들은 이 타락권을 넘어설 때까지는 조건완성권 내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완성권이 아닙니다. 조건완성권입니다. 조건완성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영계에 가면 수속을 달리 받아야 됩니다. 수속절차를 받아 완성적 완성을 했다 하면 패스포트(passport)를 받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0-144, 1978.10.9) p.1249

'나 축복 받았으면 됐지!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지?' 그렇게 앉아 있다간 박살납니다. 축복 받은 것이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7년노정을 배웠지요?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맞추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끌려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원칙에 따라서 축복 받았다. 오늘부터 하나됐다.'고 하는데 하나예요? 또다시 부부가 재창조해야 합니다. (68-148, 1973.7.29) p.1249

서로서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원한의 부부의 구렁텅이를 메워야 할 길이 남은 것을 통일교회 축복 받은 패들이 잊어버렸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암만 안 망한다고 해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 복귀 완성의 부부를 향하여 또다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말하기를 개인복귀 완성, 그 다음에 가정복귀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68-148, 1973.7.29) p.1249

인류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6천 년 전에 아담과 해와의 성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사탄의 후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6천 년 전에 잃어버린 하늘편인 참부모를 다시 이 땅 위에 찾아 세워 그 참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통하여 중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203, 1968.1.7) p.1249

모든 시작은 참부모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 처음은 여러분이 아니라 참부모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가정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참부모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부모님의 가정처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277-250, 1996.4.18) p.1249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참부모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참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개념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부모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적인 가정을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본연적인 하나님의 창조 개념입니다. (277-250, 1996.4.18) p.1250

여러분은 이제 참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할아버지 입장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입장이고, 자기들은 장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3대가 걸쳐 같이 산다는 결론, 이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하고, 참부모가 나와 같이하고, 자기 부모가 같이하는 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31-97, 1984.4.16) p.125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은 누구라도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된 인간은 바로 심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63) p.1250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타락했으니 구주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는 뭘 할 것이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리고는 신랑되신 예수님과 실체적으로 일체화하고 심정일체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참부모와 참자녀가 상봉하는 자리, 즉 하나님이 태초에 소망하신 그 자리가 이 천지간에 벌어지면 거기서부터 새 천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15－263, 1965.10.17) p.1250

여러분 각자의 혈통적 내용이 다르고 배후가 다를지라도 부모와 닮기 위해서는 접붙이는 역사를 해야 합니다. 뒤넘이쳐서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접붙이려면 여러분 자체에 남아진 탕감노정을 다 청산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청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에게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부모를 찾아 나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시대에 신랑 신부니 어린양 잔치니 하는 것도 모두 부모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24－203, 1969.8.10) p.1250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부모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사랑 받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에게 사랑 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나서 사랑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고 사랑 받으려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전부 다 자기가 마음대로 인수해서는 사랑을 못 받는 것입니다. (133－26, 1984.7.1) p.1250

여러분은 참부모의 진짜 아들딸이에요? 참자녀는 무엇을 중심삼고 말하는 거예요? 참혈통입니다. 물론 참사랑을 통해 인연되지만 이루어지기는 참혈통을 통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혈통을 통해 연결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닮았어요? 여러분의 눈은 새파랗고 나는 새까맣고 머리카락도 다릅니다. 머리카락이 전부 하얗다는 겁니다. 나는 동양사람이고 얼굴이 편편합니다. 닮는 데에 있어서는 제일 골자만 닮습니다. 골자만 닮는데 뭘 닮느냐 하면 사탄을 이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것만 닮습니다. 그것만 닮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을 주관하여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170-237, 1978.11.21 본부교회) p.1251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근본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탄세계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랑이 물든 자리에서 사랑하면 안됩니다. 그 이상이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세계에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 처자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네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네 에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한 겁니다. 전부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끌고 가는 힘을 누르고 넘어가려니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178-97, 1988.6.1 본부교회) p.1251

오늘날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전체를 부정하는 가운데 사랑의 싹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고요. 전체를 부정하고 오직 주체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랑을 중심삼은 절대기준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109－146, 1980.11.1) p.1251

일체를 부모와 더불어 상관하고, 부모와 더불어 결정하고, 부모와 더불어 의논하고, 부모와 더불어 해결해야 합니다. (44－175, 1971.5.6) p.1251

Top

② 성(性)의 절대적인 가치관 확립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 여자의 사랑의 상징이 무엇이냐? 사랑의 종착지점이 어디냐? 남녀를 한몸 이루게 하는 성기관(性器關)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3, 1984.5.31)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서로 다릅니까? 성기관(Sexual Organ)을 포함한 그 몸이 우선 다릅니다. 그러면 남자의 성기관은 누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까? 남자의 성기관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기관이 하나는 오목하고 하나는 볼록한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둘 다 뾰족하게 하든가, 둘 다 납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생겼습니까? 모두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남자의 것은 여자가 절대 원하고, 여자의 것은 남자가 절대 원합니다. 절대로 여자 것이 남자 것이고, 남자 것이 여자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약말씀•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1251

생식기가 뭐냐하면 사랑의 왕궁이요, 영생의 생명이 탄생하는 왕궁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전통을 이어받을 혈족을, 혈통을 이어받는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왕궁, 참된 사랑의 왕궁, 참된 혈통의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곳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인이 없게 되면 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주의 공인 받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6-207, 1991.3.31) p.1252

남자 여자가, 오목 볼록이 하나되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고, 절반 되는 여자, 절반 되는 남자가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오목 볼록이 결혼해 가지고 첫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적 이상이 완성되는 정착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남자 여자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상대적 자리로서의 완성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핵입니다. 이것이 움직이게 되면 모든 우주가 왔다갔다합니다. 지상천국의 본거지요, 천상천국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이곳은 사랑의 본연지인만큼 사랑의 본궁이라 합니다. 많은 왕궁 가운데 중심 궁을 본궁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요, 그 다음에는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의 출발지요, 인간이 바라고 있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생명·혈통 모든 것의 왕궁이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이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의 본연지, 출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의 기원지입니다. 여자에게 남자가 없으면 절대 암흑이요, 남자에게 여자가 없으면 절대 암흑입니다. (263-52, 1994.8.16) p.1252

평화의 기지도 그렇고, 지상천국 천상천국 모든 것이 사랑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사랑? 남자의 사랑이에요, 여자의 사랑이에요, 남자 여자가 합한 사랑이에요? 합한 사랑입니다. 그 남녀의 사랑이 어디에서 합해요? 얼굴에서 합해요, 손끝에서 합해요? 오목 볼록에서 합하는 것입니다. (263－52, 1994.8.16) p.1252

남자가 숭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여자의 얼굴이에요? 여자의 가슴이에요? 여자의 몸뚱이에요? 어디예요? 오목이 볼록과 맞출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비적 환경이, 사회가 연결되고, 국가가 연결되고, 세계가 연결되고, 지상·천상천국, 우주가 모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세계의 철칙이고 공식입니다. (262－55, 1994.7.23) p.1252

남자 완성, 여자 완성, 하나님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본고장이 어디냐?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고, 어디에서 남자 여자를 완성시킬 수 있느냐? 그 중심 정착지가 어디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지상 위에 사랑 이상 천국을 확장,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게 눈이오, 코요, 손이오, 발이오? 어디오? 오목 볼록입니다. (261－167, 1994.6.9) p.1252

생식기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생명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혈통을 중심삼은 왕궁입니다. 제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원입니다. (216-218, 1991.4.1) p.1253

여자의 생식기가 우주적인 본원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하는 그 자리가 사랑의 본궁(本宮)이 되어 있습니다. 본연의 궁중입니다.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 첫날밤의 사랑이 사랑의 본궁의 출발입니다. 여자의 생명, 남자의 생명이 처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생명의 본궁이 그곳이요, 혈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혈통의 본궁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상천국의 본궁이요, 천상천국의 본궁이요, 인간완성의 본궁이요, 하나님 완성의 본궁입니다. (257－324, 1994.3.16) p.1253

생식기는 사랑의 왕궁입니다. 지금 그 사랑의 왕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인 것, 그렇게 귀한 것이 인간의 생식기입니다.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연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생명·사랑·혈통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것을 사탄이 더럽혔습니다. (216-176, 1991.7.28) p.1253

생식기를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세계가 된다면 그 세계가 좋은 세계일까요, 나쁜 세계일까요? 흥하는 세계일까요, 망하는 세계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정성 들여 만드신 곳이 어디겠어요? 눈일까요? 코요? 심장이겠어요? 아니면 두뇌일까요? 이것들은 전부 죽어 없어집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약말씀•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1253

내 생식기는 사랑의 본궁입니다. 내 생식기는 생명의 본궁이다, 왕궁이다 이겁니다. 내 생식기는 혈통의 왕궁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왕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본궁에 찾아가서 거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사랑의 본궁이 되어야 하고, 생명의 본궁이 되어야 하고, 혈통의 본궁이 되어야 되고, 양심의 본궁이 되어야 합니다. (280-197, 1997.1.1) p.1253

사랑이 중심이 되어, 둘이 생명의 합일체가 되어 합하는 자리, 남자의 피, 여자의 피가 한 도가니에서 하나되는 자리가 생식기입니다. 그 자리는 아들딸보다 귀하고, 남편보다 하나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보다 귀하고, 남편보다 귀하고, 부모보다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모도 무가치한 것이고, 부부도 무가치한 것이고, 아들딸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보화 중의 보화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일생 동안 자물쇠를 채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남자의 것은 여자가 갖고, 여자의 것은 남자가 지니고 있는데 각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키만 가져야 합니다. 프리섹스처럼 열 개, 스무 개 가지고 싶습니까? 문을 열어 주인이 없는 집처럼 지나가는 사람 모두 들락날락하는 폐허의 집과 같이 되고 싶습니까? (280-199, 1997.1.1) p.1254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본궁, 생식기가 뭐예요?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것 붙들고 살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딸도 전부 다 그것 붙들고 살지요? 그것 안 붙들고 사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나쁜 것이 됐어요? 쌍소리라고 하지요? 왜 쌍소리예요? 거룩한 소리입니다. 거룩한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사랑이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혈통이 나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210－101) p.1254

여자 남자의 정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우주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의 질서가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보다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머리에는 참사랑의 기원이 없습니다. 머리에 참생명의 기원이 없습니다. 머리에 참혈통의 기원이 없습니다.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생식기입니다. 그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틀림없지요? 생식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혈통이 있습니다. 그곳이 사랑의 본궁인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인간세계와 인류역사를 통해서 제일 귀한 곳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류의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203－104, 1990.6.17)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천하가 깨지고 뒤집어지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왜 거짓되고 추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했던 인간이 그 사랑을 지키고 보호하려 했던 것은 참사랑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남녀의 생식기가 이 요사스러운 사망의 물결, 사망의 법, 멸망의 지옥을 개문시킨 본궁이 되고 천도를 파탄시킨 요물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197－175, 1990.1.13) p.1254

사랑의 왕궁이 어디예요? 이런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세상이 다 틀어집니다. 아귀가 안 맞으면 온 천하에 요사스러움이 벌어집니다. 문총재가 지금까지 고심해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우주의 근본을 파헤치다보니 딱 도착한 곳이 생식기였습니다. 생식기에 도착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지의 조화가 여기에서 소용돌이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197－24, 1990.1.7) p.1255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책임성이 없이 개개인의 사랑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지고한 사랑 이상을 이룰 인간의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277-200, 1996.4.16) p.1255

인간은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장으로 자유의 주체가 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종적 관계 속에서 자아 주관, 자기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약말씀•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1255

생식기를 눈먼 장님처럼 방향을 잃은 채 사용하게 되면 지옥행이요,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사랑의 기준을 맞추어 쓰게 되면 천국 높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고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성약말씀•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1255

사랑의 기관을 함부로 다루면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왕궁이요, 사랑의 조상 동산입니다. 사랑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상천국의 기원이요, 천상천국의 기원이요, 하나님의 행복의 출발의 기원이 거기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웃음 바탕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을 찾아 가지고 하나님이 춤출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256－199, 1994.3.13) p.1255

인간이 타락할 때 사랑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기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간음하는 것을 제일 무서운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리섹스가 악마의 지옥 팽창주의예요, 천국 팽창주의예요? 지옥입니다. 지상지옥이고 천상지옥입니다. 이건 전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261－302, 1994.7.24) p.1255

문총재가 모든 진리를 탐구해서 영계 육계 탐사하고 모든 경서를 탐사해도 이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세계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내 놔주지를 않습니다. 결판 짓기 위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근본원칙이 무엇이고, 왜 태어났느냐? 남자는 여자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체 진리 중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여자 앞에 이상적인 남자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최고의 진리입니다. 우주 전체 완성한 이상의 진리의 본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 앞에 그런 여자도 우주의 진리의 본체 중의 본체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체입니다. (267-230, 1995.1.8) p.1255

축복 받은 혈통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것은 혈족의 문서, 혈통의 집문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족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순결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겁니다. (263-62, 1994.8.16) p.1256

Top

③ 이상적 부부생활이 중요

남자는 하나님의 양성적 형상을 지닌 존재요,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적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부부는 천하를 한 보자기에 싼 것과 같습니다. 고로 부부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사랑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67, 1963.10.17) p.1256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 위에서 폭발될 듯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취하고 우주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요, 인류를 위한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요, 인류의 사랑이 근원인 것입니다. (35-240, 1970.10.19) p.1256

결혼을 했다면 이미 평면적이 아닙니다. 평면적인 기반밖에 없지만, 높은 것이 낮은 것과 연결될 때는 수직적 개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평면적인 역사는 우주를 수습하고, 천주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90 각도를 이룰 때, 그것은 하늘을 땅으로 해도, 땅을 하늘로 해도, 앞을 뒤로, 뒤를 앞으로 해도, 우현 좌현, 상현 하현, 전현 후현 어느 면을 붙여도 딱 맞는 것입니다. 지상 완성기준은 영계의 모든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30-259, 1992.5.8) p.1256

하나님의 결혼식이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동시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중심삼고 타락하지 않고 만나는 그 시간이 지상천국, 천상천국 출발 기원지입니다. 3 대 왕권을 수립해야 될 그 기지가 거기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사랑의 보금자리를 못 이룹니다. (263-57, 1994.8.16) p.1256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에 대한 상대의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부간의 횡적인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간의 종적인 사랑의 관계와 달리, 나누어지면 벌써 그 온전성이 파괴됩니다.
부부간에는 절대적인 사랑의 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창조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대를 절대로 위해야 할 사랑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성약말씀 ·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p.1256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아서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상에 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화만상은 하나님에게는 향취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향취 속에 하나님은 살고 싶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 터전이 곧 부부의 사랑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만물과 우주가 화동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16-20, 축복과 이상가정-645) p.1256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3 대 사랑을 중심삼고 같이 꽃필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세계의 소원이요, 인류의 소원이요, 미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천지의 법도 앞에 역사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새로운 꽃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5-241, 1970.10.19) p.1257

남자와 여자의 사랑 완성이 우주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이 깨어지는 날에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종적인 세계가 다 결딴나게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세계 1982.7.21) p.1257

심정적인 사랑에 의해 맺어진 부부는 그 애정이 생활권을 타고 넘고 생애를 타고 넘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었음에 틀림없다고 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35-180, 1970.10.13) p.1257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지면 지상에서 백년해로를 해야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둘이지만 하나되어 돌아감으로써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몸이 하나되면 하나님과 돌게 되어 사랑의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이상세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사랑이 침범할 수 없으며 오직 참사랑만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7-20, 축복과 이상가정-653) p.1257

사람에게는 항상 자극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자극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먹는 밥도 먹을 때마다 배가 고파야 맛이 새로운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부인과 남편이 서로 보면 볼수록 더욱 보고 싶고 온종일 함께 있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23-57, 1969.5.11) p.1257

이상적 부부란 어떠한 부부냐? 최고의 예술을 실체로 전개시킬 수 있는 부부, 최고의 문학을 전개시킬 수 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최고의 이상, 최고의 문화세계를 접하기 전에 최고의 사랑으로 부부가 주고받는 달콤한 사랑이 세계 최고의 예술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생활 자체가 최고의 문학작품이요, 그 자체가 문학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270, 1969.5.4) p.1257

결혼하여 부부가 참사랑을 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근원이 되는 왕궁의 자리요, 이상을 위한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출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사랑으로 결실된 자녀가 참사랑을 중심한 부부 일체를 완성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어, 평화와 이상의 출발기지가 되는 것이며, 반쪽 되는 남자 여자들은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상대로서 신의 이상애(理想愛)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참가정과 세계평화-407) p.1257

아기를 낳는 자리는 하나님의 상현세계(上弦世界)를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내연(內緣)을 체휼시키는 놀음입니다. (224-28, 1991.11.21) p.1258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겠나, 안 보겠나? 천하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세계 50억 인류가 사랑하는 밤이 되면 눈을 감겠나, 어쩌겠나?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나?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천만사가 다 벌어질 텐데 말입니다. 할 수 없이 여편네 놀음하고, 할 수 없이 끌려가고, 할 수 없이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인생살이예요?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바라던 창조이상대로 꽃향기가 풍기는 에덴동산같이 나비와 벌이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천지에 화동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취해 잠이 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 생각해 봤어요? 한 번 그렇게 살아 보라는 겁니다. (222-252, 1991.11.3) p.1258

부부의 사랑을 통해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창조능력을 이룬 것이 자녀입니다. (52-319, 1973.2.3) p.1258

Top

④ 축복은 이상가정 완성에 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창조목적을 완성하여 창조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창조이상 실현은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후에는 아들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지 이치는 상하 전후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연결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끼리만 가지고는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이치는 상하가 겸해야 좌우가 됩니다. (85-178, 1976.3.3) p.1258

인간조상을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의 중심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가정이란 부모와 자녀,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인데, 그 묶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이상이 현현할 수 있는 기점이요, 인류 행복의 현현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일이 다 끝나는 자리요, 하나님도 모든 일의 완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가정이 왜 좋아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자유활동의 기지가 되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214-15, 축복과 이상가정-694) p.1258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찾아 나오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행복의 터전을 찾아 나오는 데에는 인간을 떠난 자리에서는 그러한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야 그 일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서적임 모든 내용을 갖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그러한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32-198, 1970.7.15) p.1259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되게 될 때 천태만상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사랑을 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일원화된 가정은 가정애가 꽃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회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족애가 되고 세계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28-170, 1970.1.11) p.1259

참된 가정은 자기 어머니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며, 자기 아버지같이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며 동생 오빠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계가 이상가정이 사는 천국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 지구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208-18, 축복과 이상가정-672) p.1259

하나님을 중심삼은 영원한 부모의 사랑, 영원한 부부의 사랑, 영원한 자녀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 것이 이상적 가정입니다. (200-19, 축복과 이상가정-672) p.1259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냐 하면,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입니다. 그러면 날 때는 어떻게 나야 하느냐? 잘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로 말하면 심정의 인연을 중심삼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이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사위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공법을 지구상에 세워 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법도가 지향하는 내용을 갖추고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 가정입니다. (24-230, 1969.8.17) p.1259

천국생활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가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정을 입체적으로 확대시킨 것뿐이지, 가정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품을 때에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남성과 여성이 하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30-83, 1970.3.1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되게 될 때 천태만상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사랑을 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일원화된 가정은 가정애가 꽃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회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면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28-170, 1970.1.11) p.1260

부자관계의 참사랑은 종적이요, 부부의 참사랑 관계는 횡적이며, 형제의 참사랑은 전후의 입장으로서 구형의 참사랑 이상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종으로 상현 하현, 횡으로는 좌현 우현, 전후로는 전현, 후현을 전체 연결한 하나의 중심점에서 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점이 구형체의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4 대 심정권인 자녀-형제-부부-부모가 일체를 완성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이 결혼하여 첫사랑을 맺는 자리가 모든 완성의 결실점이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천지인의 합덕이요, 종횡 좌우 전후 전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참된 자녀-형제-부부-부모 이상(理想)의 참사랑 완성지인 것입니다. (참가정과 세계평화-403) p.1260

한 가정을 중심삼고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최상의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권력이나 지식, 또는 명예나 돈도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을 테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부모'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모가 좋은 것이 될까요?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왜 좋은 것이 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라든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효성의 마음도 한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74) p.1260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이므로 참사랑과 연결되면 모두가 같은 몸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며, 아들딸은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3 대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조직이 천국의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우주의 중심입니다. 가정완성은 우주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 무사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전체 우주의 부모로서 사랑의 복합적인 중심 자리에 계십니다. (298-306, 1999.1.17) p.1260

통일교회 원리에서 말하는 사위기대는 3 대 사랑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할 때, 천지 창조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보살펴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적으로 이룩되어 횡적으로 연결될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사촌과 육촌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비로소 사랑의 원형이 되어 완전하게 됩니다. (216-27, 축복과 이상가정-707) p.1261

이상적인 사랑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아들딸을 갖지 못했다. 참된 형제를 갖지 못했고, 부부를 갖지 못했고, 또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곳이라야 사랑이 머무르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온다.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분으로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합니다. 축복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하는 생활을 하는 데서부터 종족이 벌어지고, 민족이 벌어지고 국가가 벌어지고, 국가가 형성되고, 세계가 형성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를 형성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중심한 통일교회는 하나의 종족과 같고, 하나의 민족과 같은 것입니다. 오색인종이 합해서 단일민족을 형성하여 세계를 누구보다도 위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하려 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100-310, 1978.10.22) p.1261

통일교회에서는 천국은 종족권 내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중심하고 부모와 형제가 하나되며, 사촌과 육촌까지 하나로 연결될 때, 완전한 3 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종족권의 사랑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하나된다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랑의 세계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할아버지나 시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 자리이고 남편대신 자리이니 사랑으로 모셔야 합니다.

또 시동생이나 시누이와도 사랑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사회로 확대되고 민족과 국가, 세계로 확대된다면, 이 세계는 죄악과 전쟁 대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니,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된 하나의 천국이요, 이상세계입니다. (216-27, 축복과 이상가정-707) p.1261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정착할 수 있는 기지는 어디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정은 우주애를 장악하고 우주의 보호 양상을 체득하면서, 우주애권(宇宙愛圈)을 확대시켜 가정을 넘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을 가야하고,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 세계를 사랑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효자 또는 열녀라고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한다면,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바로 성인(聖人)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가정-685, 1982.10.29) p.1262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고, 더 확대되어서 아담의 이상이 실현되는 하나의 이상적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 줄기, 잎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랑을 중심삼고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래로는 만민을 형제와 같이 하나의 생명체, 사랑의 생명체로 화(化)하게 해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영원한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인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치 않고 메시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아들딸이기 때문입니다. (110-213, 축복과 이상가정-46) p.1262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아담을 중심한 단일문화권(單一文化圈)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민족이 각기 다른 문화와 문명을 형성해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을 중심으로 한 단일 문화, 단일 사상, 단일 문명을 가진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문화, 역사, 풍습 , 언어, 전통 등이 모두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이란 인류애를 교육하는 대표적인 수련소입니다. 심정의 중심을 세우는 대표적인 광장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신뢰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면 전우주의 중심이 서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권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35) p.1262

통일교회의 이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도 가정이요, 결론도 가정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천주화시켜서 무한한 가치를 드러냈기에, 통일주의가 공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좋아하게 되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26-103, 1969.10.18) p.1262

이제 선생님은 가정에 대한 규범, 천국가정으로서 가져야할 생활에 대한 규범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의 노정을 걸어야 할 사람들은 원리를 중심삼고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그런 문제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책임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가정 하나 하나를 중심삼고 재차 수습해야 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조직은 가정조직입니다. 가정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주로 해오던 것을 가정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22-334, 1969.5.11) p.1262

Top

제 2 장
참부모와 축복의 역사

1) 참부모와 제 3 선민권

① 축복가정은 참부모의 새로운 종족권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 축복가정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것이 날로 발전해 나가면 새로운 민족이 됩니다. 좀더 발전하면 국가, 세계권을 이루게 됩니다. 즉, 새로운 민족, 제 3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일본인이라도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과정에 나타났던 조상으로부터 혈통을 물려받은 자녀가 아니라, 새로이 하나님에 의한 혈통권을 이어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4) p.1263

영적인 제 1, 제 2 이스라엘을 연결하여 제 3 이스라엘권을 지상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림주는 제 1 이스라엘을 대신한 제 1 가정(아담가정)과, 제 2 이스라엘을 대신한 제 2 가정(노아가정)과, 제 3 이스라엘을 대신한 제 3 가정(야곱가정)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고로 36 가정은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19-317, 1968.3.29) p.1263

앞으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제 3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축복 받지 않으면 제 3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복 받는데 있어서는 조건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도 그 조건 때문에 40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생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19-172, 1968.1.1) p.1263

축복가정의 판도가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중심삼은 주류의 가정권이 확대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부모의 인연과 천륜의 내적인 심정을 이어받은 가정이 생겨나서 횡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종족이 형성되는 것이요, 민족,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 국가의 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65) p.1263

본래 통일교회의 축복가정은 한 국가의 형성을 목표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세계를 목표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축복가정은 전민족적이요, 전국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하나의 가정이요, 여러분이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통일교회의 축복가정은 개인만을 대표한 가정이 아니고, 전세계 인류를 대표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여 전체를 대표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565) p.1264

통일교회는 남남이 모여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 이제까지의 종족관을 초월하는 새로운 종족을 형성해야 하고, 여러 종족을 합해서 단일민족을 형성해야 하고, 여러 민족을 합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상 사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와 통일교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84) p.12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복의 기점 위에 나타난 책임자, 즉 중심존재는 그 시대라는 제한된 환경에만 처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사적인 내용을 지닌 중심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축복은 부부의 인연을 갖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 또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1960 년대부터는 새로운 역사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시대로 접어듦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족이 여기에 현현할 것이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의 형성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점을 중심삼고 통일교회에서는 축복행사를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30-168, 1970.3.22) p.1264

Top

② 축복가정을 통한 제 3 이스라엘권의 편성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가정을 탄생시킴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권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1960 년부터는 하나님편의 운세가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시대를 거쳐 세계시대를 향해 나갑니다.

야곱과 같은 선생님이 가정을 중심삼아 에서와 같은 여러분과 하나되어 종족과 민족을 편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368) p.1264

제 3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어야 할 끝날에 처한 여러분들은, 최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보이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적 심정이 여러분의 내적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심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31, 1958.2.2) p.1264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식시킬 수 있는 제 2 창조주의 사명을 해야 되겠고, 즉 말씀의 번식체가 되어야 하겠고, 생명의 번식체가 되어야 하겠으며, 실체의 번식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만 하나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제 3 이스라엘의 기준입니다. 이래야만 말씀을 심어줄 수 있고, 실체를 심어줄 수 있으며, 생명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줄 알고, 말씀을 보고 느낄 줄 아는 말씀의 실체, 생명의 실체, 6 천 년의 심정을 대신한 실체가 되어 제 2 이스라엘을 재창조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내적 심정을 완전히 통한 아들딸이 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3-331, 1958.2.2) p.1265

제 3 이스라엘은 슬픔에서 부활한 민족입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슬픔의 자리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슬픔의 세계에서 사탄을 굴복시켰다는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전에 용매도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피난길을 가면서도 이 삼천만 민족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피난길을 가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이 길을 가리라! 내 맥박이 멈출 때까지 가리라! 아직까지 호흡이 끊기지 않았으니 가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 갔던 것입니다. (26-16, 1969.10.14) p.1265

세계가 하나의 심장의 움직임에 의해 하나의 형태를 갖추어 나왔고, 하늘의 심정과 예수의 피살을 통하여 역사가 흘러 나왔는데, 오늘날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실체가 여러분 자신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심정과 뛰는 심장을 소유하는 상대자가 되어야만 제 3 이스라엘로 남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런 심정을 품고 제물 되셨고, 제 2 이스라엘을 만들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각오를 가져야만 제 3 이스라엘의 선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상천국, 즉 에덴동산의 본연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3-313, 1958.1.26) p.126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의 축복가정은 옛날의 이스라엘을 중심삼고 유대교를 통하여 메시아를 희망하던 자리가 아니라, 메시아를 맞아 가지고 새로운 종족 편성을 하여 한 단계 더 전진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530, 1970.12.12)

한국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제 1 이스라엘이요, 기성교회는 제 2 이스라엘이요, 통일교회는 제 3 이스라엘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 섭리의 중심을 공격하는 것이다. (19-268, 1968.2.20) p.1265

Top

③ 제 3 이스라엘 입적은 축복으로

아브라함은 제물로써 이스라엘을 형성했으나 통일교회에서는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이다. 고로 제 3 이스라엘 입적은 축복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축복과 이상가정-530, 1967.12.29) p.1266

통일교회는 아담과 예수님이 사탄의 침범을 받아 세우지 못했던 그 절대기준을 세워 나오고 있습니다. 성혼식은 1960 년,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정권 편성을 넘어서 종족권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족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제자들이 하나된 입장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상대기준을 맺어서 가정을 만들었다면 그 제자들도 상대기준을 맺어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유대교 내에서 새로운 종족권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48) p.1266

예수님이 성혼식(聖婚式)을 올리면 12 제자는 성혼식을 올리지 않은 입장에서 먼저 예수님의 가정과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정을 중심하고 축복 받아 영육, 아울러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승리권(勝利圈)을 만들어야 합니다.

축복 받아 새로이 편성된 종족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복귀된 양자권(養子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종족권이 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48) p.1266

기독교가 영과 육을 중심삼은 완전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육적 기준을 제외한 영적 기준만을 중심삼고 제 2 이스라엘권을 이루었기 때문에 육적 기준까지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적 기준을 이루는 날이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이 한날을 소망하고 나온 기독교인들은 제 2 이스라엘의 영적 기준 위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제 3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선민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6-223, 1966.6.19) p.1266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승리하셨지만 지상에 이스라엘권을 이루지 못하셨으므로 영계의 이스라엘권을 세우시는 것도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 (19-317, 1968.3.27) p.1266

오늘날 전세계를 두고 볼 때 2 천 년 전의 국가들처럼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중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로 한국을 세우고 로마와 같은 미국을 세워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두 국가만 하나가 되면 세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기독교의 세계적 기반 위에 공산세계를 흡수하여 지상천국의 완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님에게는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할 때, 이미 세계적 기반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완성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색인종이 한 식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3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적인 나라의 기반 위에 영계와 육계를 중심삼은 하늘나라를 가질 수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제 3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가정-529, 1977.9.18) p.126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제 3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은 무리들입니다. 재림주님에 의하여 심정적 실체기대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 기대를 통하여 탕감복귀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복귀된 가정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47) p.1267

예수님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침해당했다는 것은 참부모에 의해서 거듭나야 할 모든 인류가 사탄의 침해를 받는 것이 됩니다. 부모가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그 부모의 기준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뜻만을 생각하고 출발할 수 없게 된 인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이게 되었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널리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4) p.1267

Top

2) 축복가정의 역사

① 36, 72, 124 가정의 역사

하늘의 역사는, 종족에서 민족 편성운동이기 때문에 통일교회 선생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1960 년대의 성혼식, 축복 이후부터 본격적인 종족편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36 가정으로부터 72 가정인 것입니다. 36 가정은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 유대교 역사 가운데 있어서의 조상들을 다시 찾은 겁니다. 조상의 대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 소생기반이 벌어진 그 기반 위에 72 가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72 가정은 뭐냐? 36 가정의 2 배인데, 축복가정이 있으면 언제나 가인 가정과 아벨가정의 싸움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가정을 중심삼고 아들의 가정인 장자의 가정과 차자의 가정이 하나 못 되었다 이겁니다. 언제나 가인이 아벨을 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 못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면에서 탕감조건을 세울 수 있는 가정으로 맞추어 놓은 것이 72 가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110－120, 1980.11.10) p.1267

횡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의 열두 사도 앞에 72 문도를 대표한 가정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36 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 모든 가정들 앞에 아담가정의 가인 아벨가정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대에 영향 미쳐 나온 모든 조상들이 섭리 가운데에 서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의 세계는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36 가정을 중심삼아 72 가정형을 만들어서, 가인가정과 아벨가정을 연결시킨 하나의 조상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110－120, 1980.11.10) p.1267

120 문도는 뭐냐? 승천한 후에 되어진 120 문도는 12 사도가 하나의 종족적 기준이라 했을 때, 72 문도는 민족적 기준이요, 120 문도는 세계적 국가를 대신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이런 모든 전부를 다시 탕감복귀해서 오시는 주님께서 해원성사하지 않고는 세계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 가정을 세우고 72 가정을 세워 놓았고, 이것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중심을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110－120, 1980.11.10) p.1268

36 가정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 천 년 사이에 있었던 선조들을 대신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 가정 앞에는 가인 아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입장으로 세워진 가정이 72 가정입니다. 또 12 수를 중심한 전체 수를 위해 세워진 가정이 120 가정입니다. 124 가정 중 4 가정은 세상에서 이미 결혼했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입장을 복귀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찾으려던 가정을 복귀하기 위한 것입니다. (17－216, 1967.1.1) p.1268

선생님은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3 가정을 축복해 주었고, 3 가정을 중심한 12 가정을 중심으로 36 가정, 72 가정, 120 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세계사적인 투쟁을 거쳐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삼은 3 제자와 12 제자, 70 문도, 120 문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승리적 책임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들의 입장에서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163, 1969.2.2) p.126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축복가정입니다. 세 아들은 아담가정, 노아가정, 야곱가정을 대신한 가정입니다. 36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이냐? 역사적으로 제시된 모든 탕감조건을 탕감해야 할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36 가정이 무엇이냐 하면 역사상의 각 시대에 있어서 모든 가정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내려온 모든 역사적인 탕감조건을 이 시대에 지상에서 방패막이를 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내려온 탕감조건을 막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가정이 36 가정입니다.

그러면 72 가정과 120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36 가정은 역사적인 대표의 가정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엮어져 나온 것을 대신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중심삼고 현실적인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 72 가정과 120 가정입니다. 과거로부터 바라며 나오던 가정적인 탕감조건을 막을 수 있는 가정이 36 가정이라면, 그것을 현실적인 가정의 기반으로서 막을 수 있는 가정이 72 가정과 120 가정이라는 겁니다. 72 가정은 종족과 민족을 대표한 가정이요, 120 가정은 세계를 대표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8－60, 1970.1.3) p.1268

국가 민족을 대표한 자리에 있어서 생사의 기로의 접경에서 최후의 결전을 내려야 할 숨가쁜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60 년대를 중심으로 선생님의 성혼식을 중심삼아 36 가정으로부터 72 가정으로, 120 가정으로 이렇게 쭉 발전해 나온 겁니다.

36 가정을 택하기 위해서 3 가정을 중심삼고 그 다음에 12 가정을 중심삼은 3 시대형, 즉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형을 대표로 전체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12 수라는 것이 횡적 기반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적인 입장에 있어서 영계와 연결시키는 이런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36 가정을 중심삼아 그것을 하나의 조상이 재림한 기반으로 해서 72 가정, 120 가정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72 가정은 뭐냐하면 씨족에서 민족을 편성하여 하늘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자를 택해서 세운 격이라는 겁니다. (100－171, 1978.10.14) p.1269

모세가 72 장로를 중심삼아 민족적 지도 기반을 닦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통일교회에 있어서 씨족권에서 민족권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을 중심삼고 하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합동결혼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한 개인 개인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가정들은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수많은 선조들과 민족, 국가들이 전부 다 하늘과 상극되었던 것을 터뜨려 놓기 위해서 한때 한 클럽이 되어 시대적 한 팀의 사명적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120 가정이면 120 가정이 한 팀이 되고, 430 가정이면 430 가정이 한 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모든 결혼을 중심삼고 이루어졌었던 가정들의 실패를 탕감하고, 하나의 중심적인 부활가정으로 등장시킨 것이 합동결혼식을 한 가정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0－171, 1978.10.14) p.1269

조상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이 하나됐으면 복귀됐지요? 그 복귀의 목적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세계라는 겁니다. 국가만 복귀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가 복귀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순절에 승천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명의 문도는 무엇이냐 하면, 세계적 국가대표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중심삼아 가지고는 72 가정까지 기반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중심이 되어 세계적인 국가형태입니다. 이것은 12 지파를 중심삼아 가지고 72 문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세계의 중심은 못 된다는 겁니다. (84－144, 1976.2.22) p.1269

민족을 중심삼은 72 가정 기반 위에 세계 대표 120 개 국가를 규합했더라면 예수는 이 땅 위에서 뜻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섭리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할 사명이 통일교회 책임입니다. 통일교회 책임인 동시에 통일교회 축복 받은 가정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36 가정을 중심삼고 72 가정, 120 가정이 완전히 하나돼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돼야 되는 겁니다. 형으로 보면 세계를 대표한 것이 소생이고, 그 다음 72 가정이 장성이고, 그 다음에 36 가정이 완성입니다. 이게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20 가정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1965 년에 선생님이 전세계에 성지를 택정했던 겁니다. (84－144, 1976.2.22) p.127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아 가지고 36 가정을 찾았고, 그 다음엔 72 가정을 찾아 민족적 중심으로 만들었고, 세계 국가형 120 가정과 같은 기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계 국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계 40 개국에 120 개 성지를 택정한 겁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상이 찾아졌고, 그 다음엔 72 가정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형이 찾아졌고, 세계 대표자가 찾아졌으니 세계의 국가 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시대에 있어서 사람을 찾고 땅을 찾았으니 세계적인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1965 년도 성지 택정한 이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84－144, 1976.2.22) p.1270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하는 역사를 해 나오는데 있어서 탕감복귀의 기반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36 가정과 72 가정과 120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36 가정은 종적인 선조 36 대의 축소형입니다. 그 다음에 일대(一代)가 떨어진 가인 아벨형이 72 가정입니다. 그리고 120 가정은 세계의 120 개 국가를 대표하는 가정입니다. 유엔 가입국 120 개 국가와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들어맞았습니다. (34－103, 1970.8.27) p.1270

36 가정은 타락한 인류의 조상들이 부활한 형이고, 72 가정은 그 조상들의 아들딸들이 부활한 형이고, 그 다음 120 가정은 세계의 사람들이 부활한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되면 결국 가정과 아들딸이 하나되고 세계가 하나됩니다. 그래서 120 가정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사고방식을 선생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나라를 찾아야 되고, 하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내 일족, 문씨면 문씨 종족을 동원해야 됩니다. 종족을 동원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이 딱 돼 있어야 합니다. (82－245, 1976.1.31) p.1270

재림주님은 아담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형 가정을 찾아서 조상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형 12 가정을 찾고 다음에 노아형 12 가정과 아브라함형 12 가정을 찾아 종적인 조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6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 조상들을 중심한 가인 아벨형의 가정으로 찾아 세운 것이 72 가정입니다. 그리고 120 가정은 세계 120 개 국가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2－215, 1969.2.6) p.1270

120 문도는 세계를 대표합니다. 예수님도 120 문도를 중심삼고 세계적인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못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세계를 표준하고 나가는 길 앞에 있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자기의 후손을 단계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후손을 세울 때에는 아무렇게나 마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통일교회의 36 쌍, 72 쌍, 124 쌍 합동결혼식입니다. 36 가정은 12 쌍의 3 배로서 3 시대를 대표한 것입니다. (34－262, 1970.9.13) p.1271

그러면 이 36 가정의 책임은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모든 탕감조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전통과 사상은 사탄과는 완전히 격리된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이 전통을 중심삼고 횡적인 인연을 72 가정과 120 가정이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36 가정의 책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60, 1970.1.3) p.1271

36 가정하고 72 가정은 우리 교회 내에서 한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중심삼은, 유대교를 중심삼고 민족 형성의 기반을 닦는 기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 기반을 보면, 세계사적 기독교문화권을 접선시키기 위하여 124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기반을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24 가정이 축복을 받을 때는 유엔의 가입 국가도 124 개 국가가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계 국가의 대표인 한국에 있어서 내적 탕감 요인을 확립시키는 세계사적인 조건을 세우는 이러한 축복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축복이 뭐냐? 가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가정을 중심삼은 3 가정,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이럼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탕감조건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110－123, 1980.11.10) p.1271

오늘날 통일교회 중심삼고 볼 때, 1960 년부터 3 년 간에 걸쳐 축복 받은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가정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갖지 못했던 외적인 기준을 중심한 울타리의 사명을 완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외적으로 세계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고, 혹은 민족 종족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탕감 내용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상대기준을 접속시킬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울타리의 사명을 해야 할 것이 1960 년부터 3 년 동안 축복 받은 가정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5－22, 1969.9.21) p.1271

Top

② 430 가정은 민족을 대표한 것

성지 축복 후에 430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유대민족의 애급에서의 430 년에 해당하고, 한국 역사에 있어서의 4300 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430 가정은 세계의 가정들을 대표합니다. 그 후에, 선생님이 제 2 차 세계순회 때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43 쌍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선생님은 그 43 가정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430 가정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43 가정을 430 가정과 연결시킴으로써 선생님은 한국에서 이룩했던 승리의 기반을 다시 세계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기대를 서구세계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통일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가정들은 그때에 천적인 운을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은 이 땅 위의 모든 가정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52－131, 1971.12.26) p.1272

430 가정은 무엇이냐 하면 4300 년의 역사와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 년만에 4 대를 중심삼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300 년만에 43 수의 지상기반을 거쳐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체를 대표한, 국가 민족이 하늘의 뜻 앞에 세울 수 있는 터전을 넓히기 위한 대표 가정이 430 가정입니다. 이 43 수, 즉 4 와 3 을 합하면 7 수가 되고 이것을 승(乘)하게 되면 12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430 가정을 한국에서 축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30 년만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벌어지고 이동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도 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은 강원도로 가고, 강원도 사람은 전라도로 가고, 전부 다 섞어져 대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58－59, 1972.6.6) p.1272

4,300 년 되는 해에 430 쌍을 이렇게 축복했다는 사실은 뭐냐하면, 씨족적인 한 계열의 종교의 승리적 그러한 터전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전 씨족 앞에 공통적 문을 전부 다 개방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李)씨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金)씨도, 박(朴)씨도, 어떠한 씨족도 전부 다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 길을 개문해 주는 것이 430 가정입니다. (84－146, 1976.2.22) p.1272

430 가정을 내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앞에 횡적으로 전부가 연결될 수 있는 운세권 내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결론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84－146, 1976.2.22) p.127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1968 년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때서부터 세계적 시대입니다. 우리가 1968 년에 하나님의 날을 설정했지요? 하나님의 날 설정한 그해에 430 가정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계적 시대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1969 년에 비로소 선생님이 이 한국에서 기점된 것을 세계적으로 연결해야 되겠기 때문에, 1969 년 430 가정 대신 43 가정을 세계에서 빼 가지고 축복해 준 겁니다. 그건 왜냐" 한국에서 닦아 놓은 운세를 세계로 연결한 겁니다. (84-146, 1976.2.22) p.1273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대표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 있는 모든 종족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문씨만 위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슨 성이든 할 것 없이 전체 성씨가 하늘 앞에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합동결혼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한 개개인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가정들은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수많은 선조들과 민족, 국가들이 전부 다 하늘과 상극되었던 것을 터뜨려 놓기 위해서 한때 한 클럽이 되어서 시대적 한 팀의 사명적 분담을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36 가정이 한 팀이 되고, 430 가정이면 430 가정이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모든 결혼을 중심삼고 이루어졌었던 가정들의 실패를 탕감하고 하나의 중심적인 부활가정으로 등장시킨 것이 합동결혼식을 한 가정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합동결혼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30 가정을 중심삼은 세계적인 연결체를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통일교회는 평면적으로 세계 민족권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한민족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430 쌍과 43 쌍을 세계무대의 가정적 기대로 연결시켰다는 것은, 초민족적 초국가적 기준에 있어서 새로운 초민족형성의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00-171, 1978.10.14) p.1273

세계적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430 가정을 축복해 주고 난 후에 10 개국의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남자 만나는 것이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한국 여자 만나는 것이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만민을 영광되게 하는 그 나라가 잘 됩니까, 못 됩니까? 그러므로 남자들은 영광된 아내가 되겠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국가를 넘어서 상대를 취해야 되고, 여자들은 영광된 남편이 되겠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국가를 넘어서 상대를 취해야 합니다. (26-201, 1969.10.25) p.1273

선생님이 430 쌍을 축복한 것은 세계적인 차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목표를 달성한 후, 그것은 여러분이 종족적인 차원에서 메시아가 되는 입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은 지금 죽은 예수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종족을 복귀하기 위해서 다시 온 예수의 입장에 있습니다. 430 쌍과 777 쌍 축복은 예수의 기대를 성공적으로 닦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2-193, 1971.12.29) p.1274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가 합동해 가지고 반대하던 것과 같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정상의 시대인 60 년도에 성혼식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36 가정을 전부 사탄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6 가정부터 72 가정, 120 가정, 430 가정을 중심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밀려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밀어내면서 우리는 커 나온 것입니다. (161-72, 1987.1.2)

Top

③ 777, 1800, 6000, 6500 가정의 역사

우리 합동결혼식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3 가정, 다음은 36 가정, 그 다음엔 72 가정, 그 다음엔 124 가정, 그 다음엔 430 가정, 그 다음엔 777 가정, 그 다음엔 뭐예요? 1800 가정. 마지막이 8 수예요, 8 수.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전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민족이든지 전부 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축복권 내에 들어갈 수 있게 개문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과 일본을 주체국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축복해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다 그 나라에서 뺀 것입니다.

그 터전 위에, 그런 터전이 닦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777 가정 이건 삼칠수(3?7 數)이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권 내에 있어서 마지막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 년도에 777 가정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떠한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섭리권 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에 들어가려면 상대이념을 완성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세계 민족, 혹은 씨족이라도 이 전체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그러한 대표적 식이 777 가정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7 가정은 세계복귀를 위해서 전부 흩어져 가지고 3 년 동안 있었습니다.

일본 식구들은 5 년 동안 성별했습니다. 1970 년부터 71, 72, 73, 74, 75 년 6 월 10 일에 비로소 동거하라고 선생님이 특별조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세계적 기반을 닦아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84－148, 1976.2.22) p.1274

통일교회가 부모나 형제로부터 반대 받아야 되느냐? 이 레버런 문이 가는 길에는, 우리 통일교회가 가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는 게 참이에요, 안 그러는 게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사탄세계가 갈라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기반 닦고 1 차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까지 해 가지고, 430 가정, 777 가정, 1800 가정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기반을 닦았습니다. (86－239, 1976.4.1) p.1274

그 권내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중심삼아 가지고 민족기준, 세계기준의 777 가정, 1800 가정으로 연결한 겁니다. 777 가정은 7 수 완성을 말합니다. 전체 가족을 중심삼고 세계 국가에 있어서 소생 장성 완성의 삼칠은 이십일(3×7=21)의 과정을 거쳐간 모든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은 세계에 퍼져 있으니 그 권내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21 단계로 연결시킨 겁니다. (141－209, 1986.2.22) p.1275

하나님의 날을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로소 땅 위에서 간섭하고 주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68 년서부터 국가적 가정 대 가정, 종족 대 종족의 대결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1970 년도에 777 가정까지 전부 다 3 년노정을 명령한 겁니다. 이 3 년노정은 뭐냐? 전세계의 가정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의 가정들과 하나되어 국가와 세계적 판도를 넓히는 조건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이런 기반이 닦아짐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은 1970 년도를 중심삼고 70 년도, 71 년도, 72 년도까지 3 년노정 탕감 가정기반을 중심삼고, 종족기반을 중심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6 가정, 72 가정, 120 가정, 430 가정, 777 가정까지, 그때까지 축복 받은 가정들이 가정을 중심삼고 아기를 낳아 가지고 생활기반을 닦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일시에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전부 다 갈라 가지고 남으로 북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제물 삼아서 그 나라의 종족과 민족을 구하기 위한 전국적인 3 년 탕감노정을 거쳐간 것입니다. (143－180, 1986.3.18) p.1275

그 다음에는 공격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을 중심삼고 공격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3 년노정을 전부 다 우리 가정들이 동원 됐습니다. 777 가정까지 동원했나요, 그때? 777 가정까지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아들딸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나라의 수난의 모든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서 밥을 굶으면서, 사랑하는 아들딸을, 반대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담 너머에다 포대기에 싸서 던지고 나라 살리고 오겠다면서 울며 울며 나섰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196－248, 1990.1.1) p.1275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1970 년부터 3 년 동안 777 가정까지 동원했지요? 이건 세계적입니다. 동원해 가지고 3 년 동안 고생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민족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한 어떤 가정도 통일교회의 가정을 당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의 가정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 년 동안 전부 얼마나 욕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아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밤에 가서 담 너머에 놓고 나가는 이런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었느냐? 자기 아들딸보다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아기를 고아원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내하고 갈라졌습니다. 축복해 주고서 잘살라고 한 게 아니라, 냄비 짜박지 가지고 어려운 살림을 하던 것들도 전부 다 버리고 내쫓은 것입니다. 그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뭐냐하면 수많은 성씨들, 통일교회에서 축복 받은 성씨들이 대표로 나라에 나가 가지고 종족권을 탕감복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김일성을 막고, 나라를 구하려면 통일교회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할 만큼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여편네를 버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교재가 된 것입니다. 3 년이 다 되어 가니까 맨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이 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뭐냐하면 가인 아벨 복귀입니다. (198－328, 1990.2.11) p.1276

777 가정까지 전부 동원했습니다. 집도 버리고 아기도 고아와 같이 버리고 출동명령에 의해 출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로 가기 위한 국가 총 청산 탕감의 기간이었습니다. 3 년노정을 중심삼고 분별기간을 세우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겠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삼고 김일성을 방지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충절의 도리, 충신의 도리를 다 해야 했던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애국자의 시범 가정으로 행동해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264－61, 1994.10.9) p.1276

1970 년대에 있어서 우리의 대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10 개국 이상의 축복가정을 한국에 불러다가 가나안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불러다가 전부 다 여기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777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1970 년도에 했지요? 그러한 기반을 닦아 가지고 세계권으로 통일 종족이 국가를 대표하여 10 개국에서 참가했습니다. 소생-장성-완성 9 수를 넘어선 10 수는 하나님 수요. 10 수는 12 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개국은 어차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9－237, 1973.11.26) p.1276

그 다음에는 열두 제자, 그 다음에는 36 가정, 그 다음에 70 문도와 마찬가지로 72 가정, 예수에게 70 문도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120 문도와 마찬가지로 124 가정, 430 가정, 그 다음에 777 가정, 이렇게 탕감복귀를 해서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통일의 운세는 이미 세계적 기반을 갖고 금후에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여자들은 적어도 김일성이 살던 그 이상의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앞으로 통일교회를 믿는 사람은 모두 이북 김일성이 살던 이상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777 가정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군악을 울리면서 하나밖에 없는 귀빈으로 취급해 가지고 그 나라의 관속들을 동원하여 모셔들일 때가 옵니다. (58－70, 1972.6.6) p.1276

지금까지 얼마나 복잡했어요? 믿음의 아들딸 셋을 세워야 했습니다. 777 가정까지 믿음의 아들딸 셋을 절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777 가정 이후에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천사세계에 있어서 아담권 절반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절반을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딸은 세 천사세계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오기 전에는 선생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지,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나서야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288－28, 1997.10.31) p.1277

부모님을 중심삼고 3 가정, 그 다음에는 36 가정, 그 다음에는 72 가정, 그 다음에는 124 가정, 430 가정, 그 다음에는 777 가정, 1800 가정입니다. 이게 7 수라는 겁니다. 7 수. 여기서부터 3 단계가 남습니다. 3 수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분별수라는 겁니다. 왜 3 수냐? 직선상에는 조화가 없습니다. 3 수를 통해서 여기서 면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 수를 그냥 두면 직선인데,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3 점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단계에서는 반드시 돌아가는 겁니다. 올라가서는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8－28, 1997.10.31) p.1277

한국의 모든 종씨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다 열어 놨습니다. 이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보편적인 사랑이 전체적인 사랑이니 만큼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다 열어 놔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확대하는 것입니다. 430 가정, 그 다음에 777 가정입니다. 이건 세계 무대에 서는 겁니다. 국가 무대를 넘어서 세계 무대로 가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6000 쌍은 인류를 대신하는 겁니다. 6,700 쌍입니다. 사탄세계를 7 수를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까지 해방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291-293, 1998.3.18) p.1277

선생님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천사장 복귀입니다. 믿음의 세 아들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777 가정까지 강조했습니다. 1800 쌍부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판도, 세계의 가정을 대표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1800 쌍부터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1800 쌍은 일곱 번째입니다. 7 수를 넘어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6000 쌍, 6700 쌍이 아홉 번째입니다. 3 만쌍이 수평에 나온 겁니다. 수평이 되어서는 물이 들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288-228, 1997.11.28) p.1277

축복을 했다는 것은 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늘적 혈족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세계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 혈족권에는 수많은 종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가지각색 종족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 주는 것이 430 가정 축복으로부터 777 가정 축복으로 해서 전부 다 세계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164-165, 1987.5.14) p.1277

18 수는 사탄세계의 완성수입니다. 또, 4 의 4 배인 16 도 사탄세계의 이상수입니다. 그래서 한국동란 때 유엔(UN)의 16 개국이 참석했고, 올림픽 대회도 160 개국이 참가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가입도 160 번, 161 번째입니다. 그거 세계적인 판도입니다. (251-255, 1993.10.31) p.1278

사탄은 타락할 때 가정을 중심삼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권에 가정을 묶어서 초국가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777 가정, 그 다음에 1800 가정입니다. 1800 가정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사탄 수인 6 수의 3 배, 소생-장성-완성해서 18 수입니다. 사탄세계에 있어서 1800 가정을 선생님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종족권을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그 국가 기준에 연결된 승리 기준은 세계에 연결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 1800 가정은 사탄의 주관권이 되는 600 수의 3 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워서 사탄권의 가정을 탕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1800 가정입니다. (190-275, 1989.6.19) p.1278

6000 가정은 전세계의 종적인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이, 종적인 기독교인과 횡적인 가인세계와 같습니다. 6000 가정을 선생님이 연결하게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세계가 가정적으로 공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노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장성 기준을 국가 기준에서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영적인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 실체 기준을 기독교 문화권에 연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전국적으로 부흥활동을 했는데 가는 모든 곳마다 환영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기준을 대표해서 한국에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190-275, 1989.6.19) p.1278

우리의 축복가정은 국제합동결혼식이 전통입니다. 1800 까지 중요시했지요? 6 수의 3 배수입니다. 삼육 십팔(3×6=18), 그래서 1800 가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120 가정이고 재림주는 180 가정입니다.

180 가정과 160 가정은 같은 수입니다. 4 수의 배수라는 겁니다. 사 사 십육(4×4=16), 그리고 이건 6 수의 3 배입니다. 사탄수의 완결수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들에게 종족을 160 가정 축복하라고 했지요? 원래는 180 가정인데 160 가정도 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라도 전부 다 작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160 을 생각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180 가정입니다. 일곱 번째가 1800 가정입니다. 3 가정,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430 가정, 777 가정, 1800 가정까지 7 수입니다. 7 수에서 8 수, 9 수, 10 수인 귀일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 수는 축복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92-20, 1998.3.27) p.1278

이제 선생님은 해방입니다. 형님 동생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남편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똑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다 가려서 가르쳐 나왔지요?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430 가정, 777 가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800 가정, 6000 가정, 6500 가정까지 3 차 이상 교육했습니다. 3 만가정까지 교육해서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235-124, 1992.8.29) p.1279

Top

④ 소생적 국제결혼-3 만가정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해 나오고 1992 년에는 3 만쌍 축복이 벌어졌습니다. 왜 3 만쌍이냐? 이것은 국제적입니다. 1952 년에 부모를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세계 시대를 잃어버린 것이 1992 년, 40 년 만에 세계적 축복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3 만쌍 결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시대의 소생입니다. (275-282, 1996.1.1) p.1279

1992 년의 3 만쌍 축복은 소생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인종이니 문화니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뭐냐? 아담과 해와의 사랑을 위해서 만든 것이 결혼이지요? 아담과 해와는 사탄을 중심삼고 하늘을 부정했지만,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이걸 긍정함으로 말미암아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277-135, 1996.4.7) p.1279

자기 멋대로 결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반대해 온 것이 부모라는 겁니다. 그랬으니 통일교회에서 축복권을 부모에게도 세워 준 것입니다. 사탄세계를 같이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만쌍 축복 때는 일주일 수련 받은 사람까지 다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시대에는 3 만쌍, 36 만쌍, 그 다음 젊은 청년들이 360 만쌍 결혼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누더기 판도가 된 것이 아담가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도 결혼 못 해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관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판도가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완성시대에 있어서 부모님이 해야 할 것은 직계 자녀, 청소년을 중심삼고 결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성가정의 축복은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243-325, 1993.1.26) p.1279

가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난해 3 만쌍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폭탄입니다. 3 만쌍 결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미 아비들도 아들딸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인데, 통일교회 문선생이 131 개국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고, 그 이상 세계적인 사건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243-214, 1993.1.10) p.1279

1992 년 4 월 10 일을 중심삼고 모슬렘을 비롯하여 8 개국을 축복해 줘 가지고 모슬렘까지 통일하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지요? 그 축복의 자리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슬렘도 축복 가운데 참석했습니다. 3 만쌍을 축복했다는 것은 세계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전환해 가지고 돌아와서 축복 받은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세계적으로 커버했다는 겁니다.

131 개국의 젊은 남녀 3 만쌍을 잡아다가 사진 가지고 매칭을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것을 전부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정신나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레버런 문이 정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243-247, 1993.1.17) p.1280

앞으로 가정당에는 개인이 가담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를 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종족적 메시아로서 기준만 세워 놓는다면 일족이 전부 다 한꺼번에 말려 들어오는 겁니다.

3 만쌍 축복 받은 사람들이 전부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12 쌍씩만 전도하더라도 3 년 이내에 36 만쌍 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역사적으로 3 만쌍까지 결혼시킨 사람이 세상에 나 외에 누가 있었어요? 이제는 360 만쌍까지도 해주려고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려면 하루에 만쌍씩 해도 1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계에 가서 '아버지, 인종차별이라든가 모든 복잡한 문화권을 섞어 가지고 당신이 좋아하는 통일세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하하…!' 하고 웃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똑똑한 통일교회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시대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41-137, 1992.12.20) p.1280

131 개국에서 3 만쌍이 사진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로마 교황이 할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 겁니다. '제발 선생님이 해 주소!' 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번에 커플을 만들어 주니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사진을 보고한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압니다. 통일교인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맡겨서 합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전에 할 건데….' 이럴 것입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의 교주도 하는 것입니다. 교주 하기가 쉬워요? 역사이래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레버런 문 아니예요? 퀴즈에도 나오잖아요? '역사이래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레버런 문!' 그러잖아요. (235-249, 1992.9.20) p.1280

여러분이 이제 사람 사태가 나서 도망을 다닐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한테 설명을 들었느냐 할 때 축복 받은 가정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가정한테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인 때가 온다는 겁니다. '3 만쌍 축복 받은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하고 '6000 쌍 축복 받은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할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겠어요? 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 오래 된 사람들은 축복에 대한 해설만 해 주고 다녀도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235-165, 1992.8.29) p.1280

세계의 젊은이들 3 만쌍이 한 곳에 모여서 결혼한다는 사실은 우주사적인 경사입니다. 그것은 궁전에서 어떤 왕을 중심삼고 왕자 왕녀들이 시집장가 간다고 해서 일국이 찬양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사건으로 계속되어서 1 차, 2 차, 3 차까지만 발전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큰일이 벌어집니다. (234-281, 1992.8.27) p.1281

이번에 3 만쌍을 전부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40 일만 교육받고 축복 받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둘이 합해 가지고 3 년노정 가야 됩니다. 공 안 들인 사람까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축복 받은 가정은 저렇구나!' 하고 동네방네가 사모하고 추모할 수 있는 전통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축복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12 지파와 같이 엉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중심삼은 환경과 마찬가지로 '아이고, 그 집에 가서 밥 좀 먹어 봤으면!'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실천노정의 주체자가 되게 될 때는 그 환경은 황무지가 되려야 될 수 없습니다. 민족의 결합된 함성과 남북통일의 성원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이고, 머지 않아 남북해방의 날이, 환희의 소리와 더불어 통일교회 사람들이 만세삼창을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215-107, 1990.12.29) p.1281

Top

⑤ 장성적 국제결혼-36 만가정

요즘 통일교회가 2, 3 년 동안에 세계 수준에 올라간 것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뭘 하면서 쑥 올라갔어요? 돈 벌면서 쑥 올라갔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쑥 올라갔어요? 축복입니다. 36 만쌍이 언제예요? 1995 년입니다. 3 만쌍은? 1992 년입니다. 1992 년에서 1995 년 36 만쌍입니다. 그 다음에는 360 만쌍입니다. 3 만쌍에서 36 만쌍 한다 할 때 누가 믿었겠어요? 36 만쌍 때 그런 것입니다. 36 만쌍을 하고 360 만쌍을 한 것이 3 년이 아닙니다. 2 년 반에 했습니다. 2 년 반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하라고 할 때 360 만쌍이 된다고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도 믿을랑 말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 한 손가락하고 열 손가락이 달라요, 같아요? 고개가 몇 고개예요? 열 고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3 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동안 자르딘에 가서 일하면서 제 2 세 시대를 선포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뭐냐하면 절대신앙입니다. 이제는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91-152, 1998.3.11) p.1281

3 만쌍에서 36 만쌍 된다고 할 때 그것도 안 믿다가 내가 손해 봤고, 식구들한테 전부 다 들이 맞는 것입니다. 불합격자의 낙인이 찍혔다 그겁니다. 또, 36 만쌍에서 360 만쌍 한다고 할 때 그것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360 만쌍에서 5 월 말까지 3 천 6 백만쌍을 하라고 했다는 것을 1 억 2 천만쌍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돈 사람들이에요? (291-152, 1998.3.11) p.1282

360 만쌍 결혼, 이것은 소생, 장성, 완성의 완성입니다. 3 만쌍에서부터 36 만쌍을 거쳐 완성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수위로 말하면, 물이 여섯 시간 들어와 가지고 열두 시간에 한 번씩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섯 시간 먼저 들어온 물이나 여섯 시간 후에 들어온 물이나 같은 수위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것을 밀고 들어오면 도리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앞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준화시대에 들어온 겁니다. (282-181, 1997.3.12) p.1282

어머니가 나타난 그 해를 중심삼고 3 만쌍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 축복입니다. 비로소 부모가 나와 가지고 대등한 가치에서 이걸 전세계 국가에 심기 위한 소생적 국제결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적 국제결혼이 36 만쌍입니다. 그 다음에 360 만쌍은 완성이라고요. 3 만쌍 때부터 국제결혼, 모든 종교와 모든 이 근본의 민족이 누구나 축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지고 36 만쌍에서 본격적인 장성시대를 거쳐 지금 이 360 만쌍은 불신자까지 전부 다 대등한 자리에 이걸 상속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280-215, 1997.1.1) p.1282

앞으로는 나라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곳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도하기 힘들었지요? 지금 종족시대를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나라가 들어옵니다. 대통령과 그 나라만 인정하게 된다면 360 만쌍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김일성을 다독거려 가지고 북한에 있는 청년 남녀를 중심하고 '36 만쌍 결혼식을 합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남북통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의 36 만 남자와 남한의 36 만 여자를 엇바꾸면 통일이 돼요, 안 돼요?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하고 교체결혼 하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교체결혼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있어요? 김일성이 진짜 남자면 남자, 여자를 맞추는 것은 반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240-205, 1992.12.13) p.1282

처음에는 결혼해서 7 년 간을 성별했습니다. 7 년 간 통과해야 됩니다. 탕감의 탑을 보면 이렇게 높고 긴데 점점 가까워지지요? 여기가 꼭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36 만쌍이라든가 3 억 6 천만쌍, 36 수입니다. 탕감조건을 중심삼고 역사가 이렇게 몇백 년이나 빨라져 가지고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36 쌍과 같은 360 만, 3 천 6 백만, 3 억 6 천만 이렇게 전진해 온 겁니다. 오히려 심정적으로 옛날 사람은 모두 낡고 바랜 노인이 되어 세계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귀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축복 받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의 가치를 알았을 적에는 그다지 얼빠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백 퍼센트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이라는 겁니다. 왜 3 만쌍으로부터 36 만쌍, 360 만쌍, 3 천 6 백만쌍, 3 억 6 천만쌍을 하느냐? 3 만쌍 때가 분별식입니다. 3 수를 중심삼고 세계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세계적 축복권에 있어서 분별식을 한 겁니다. (291-230, 1998.3.13) p.1283

참부모 하게 되면 벌써 레버런 문이라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참부모 하면 레버런 문 하는데, 그 이상 어떻게 더 알겠어요? 그 이상 가르쳐 줄 수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40 년 전에는 재림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66 장을 다 뒤지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재림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레버런 문을 아느냐?' 하면 그분은 36 만쌍을 결혼시키고 앞으로 360 만쌍을 결혼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오, 메시아요?'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 맞지, 사람이라는 말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275-66, 1995.11.3) p.128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 문선생이 참부모의 자리에 있어서 결혼을 해 가지고 전세계에 종족적 메시아 수십만쌍을 배치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36 만쌍을 배치하는 시대가 왔으니 그 일족이 망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미 축복을 해서 아들딸을 가지고 가정을 중심삼고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하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 이상을 못 이룬 것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집 그 다음엔 신부집을 하나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 아벨입니다. 신랑도 일족이 있지요? 남편도 남편 집 족속이 있지요? 아내도 아내의 족속이 있지요? 여기 사위 돼 가지고 그 다음엔 며느리 삼은 이것만 전부 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160 가정만 하나 만드는 날에는 일족권 내에서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는 없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274－169, 1995.10.29) p.1283

근본의 뿌리가 잘못됐으니 뿌리를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 찾기 운동이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결혼식을 잘못해서 근본을 뒤집어 놓았으니 참부모가 와 가지고 세계적인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이론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36 만쌍 축복결혼식, 그 다음엔 360 만쌍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360 만쌍 결혼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지. 이미 다 결정돼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273－247, 1995.10.29) p.1283

3 만쌍 결혼하고 나더니, 3 년 후에 36 만쌍 결혼한다고 할 때 누가 믿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하고 레버런 문밖에 몰랐습니다. 5 개월 동안에 이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360 만쌍은 문제도 아닙니다. 인도 나라의 힌두교인만 하더라도 1 억이 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회회교가 7 천만이 넘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자기, 한 나라에서 360 만쌍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심부름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푸푸푸푸!' 이러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272－161, 1995.10.1) p.1284

혼란 되고 사악된 이 모든 성 문제 개방을 주장하는 세계를 그냥 두어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철추를 가하는 겁니다. 에이즈 병이 벌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받아야 됩니다. 이 벌에 죽으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걸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세계적인 대가정 편성을 하는 겁니다. 360 만쌍을 결혼했다 할 때는 결혼한 사람들이 통일교회 결혼관을 알아보고 결혼하겠어요, 안 알아보고 결혼하겠어요? 지금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36 만쌍해서도 지금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선생 앞에 '선생님, 우리가 열한 살 열두 살 되었는데, 앞으로 어차피 결혼해야 할 텐데 통일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기성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나쁘다고, 마귀라고 그러는데 통일교회 36 만쌍은 국경을 넘어 땅 끝에서 온 사람끼리 전부 다 면회도 하지 않고 사진 가지고 결혼해도 잘 삽니다.

오늘날 우리 동네에서는 약속 결혼 해 가지고 살아 본 사람들이 결혼했다가는 일주일도 안 가서 파탄돼 가지고 사는 가정들이 있는데, 통일교회 결혼식이 옳아요?' 하고 물으면 대답하겠어요? 그게 목전에 왔다는 겁니다. (273－252, 1995.10.29) p.1284

우리가 이제 36 만쌍을 했으니, 360 만쌍을 3 년 후에 하고 또, 3 년 후에 3600 만쌍이 전부 다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세계 동네마다 통일교회 커플이 없는 동네가 있을 거 같아요? 어느 곳에나 축복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느 마을이나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곳이 연결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앉아서 전화로 세계 360 나라의 친구를 삼을 수 있는 놀음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72－138, 1995.10.1) p.1284

3 만쌍, 36 만쌍, 그리고 360 만쌍을 넘는 시대, 그러한 세계적인 기준의 해방권을 오늘에 이르러 조성하면서 만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까지 선생님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천하가 기뻐할 그 날을 맞기 위해 이를 악물고 죽음길을 걸어 왔다는 것입니다. 4 천년 역사를 4 백년에 해야 하는데, 4 백년을 살 수 없으니 생애 40 년 이내에, 생애를 걸고 이것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될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심각했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289－81, 1997.12.30) p.1284

세계에 참부모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도 3 만쌍으로부터 36 만쌍, 지금 360 만쌍을 하는 겁니다. 소생-장성단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장성단계를 넘었다는 것은 국가적 기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권, 국가를 잃어버렸던 것을 복귀할 수 있는 때에 왔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선생님을 위주로 한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를 찾아 들어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277-287, 1996.4.19) p.1285

Top

⑥ 완성적 국제결혼-360 만가정

세계적인 확대는 축복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3 만쌍으로부터 36 만쌍, 360 만쌍을 중심삼고 가정적 세계 판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개인보다도 하나님의 가정이 가는데 있어서, 참부모의 가정이 가는데 있어서 종횡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거할 수 있는 시대권을 맞이했기 때문에 '천지부모 천주안식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소생-장성-완성으로 이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통일가정들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이 환영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가서라도 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늘이 안식권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계적인 3 만쌍, 36 만쌍, 360 만쌍을 중심삼고 3 천 6 백만쌍, 3 억 6 천만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3 천 6 백만쌍, 3 억 6 천만쌍)은 내려가는 것이니 쉽다는 것입니다. 3 억 6 천만쌍이 분수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개를 넘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인류는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에서 시작하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했고, 세계에서 이루려고 했는데 선생님을 중심삼고 가정에서 승리, 나라에서 승리, 세계 판도에서 승리한 모든 것을 중심삼고 비로소 온 인류가 해방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87-108, 1997.9.19) p.1285

3 억 6 천만쌍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360 만쌍 축복은 축복에 있어서 최고의 산입니다. 산으로 말하면 에베레스트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고개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서 3 만쌍 소생에서 36 만쌍 장성, 360 만쌍 완성을 해서 3 천 6 백만쌍으로 갑니다. 전부 36 수를 말하는데 3 만쌍이 나왔습니다. 왜 3 수여야 되느냐? 3 수라는 것은 과정적인 수입니다. 어느 때든지 전환시기에는 3 면을 펼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만 6 천쌍이 아니고 3 만쌍을 한 것입니다. 3 만쌍을 중심삼고, 3 수가 언제나 분별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삼고 36 만쌍, 360 만쌍,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대표한 모든 종교권에서 '통일교회가 36 만쌍을 하고, 360 만쌍을 한다는데, 36 만쌍은 쉬웠을런지 모르지만 360 만쌍이 가능하겠느냐?'하는 겁니다. 1 년 8 개월인가 되지요? 그것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60 만쌍을 7 월 15 일을 기해서 다 넘었습니다. 오늘까지 하게 되면, 2 천 5 백만쌍이 넘는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인가, 그제까지인가? 2 천 4 백 57 만 명, 사사오입을 하게 된다면 하루 이틀이 넘어가기 때문에 2 천 5 백만이 넘었다 이겁니다. (288-16, 1997.10.31) p.1286

360 만쌍을 전부 다 해서 세계 최후의 고개를 넘어가는데 유엔, 이것을 국가 메시아를 중심삼아 넘어가야 됩니다. 360 만쌍 축복을 승리하게 될 때는 각국 나라의 메시아들이 그 나라의 각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됨으로 말미암아 유엔에 가 있는 대사를 중심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필요한 것은 참부모의 설정과 여성 유엔 가입, 청년 유엔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가인 아벨, 여성 유엔하고 청년 유엔, 학생 유엔이 가입하게 되면 통일천하의 세계가 벌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282-36, 1997.2.16) p.1286

모든 타락한 후손들의 최고 소원은 어떻게 선생님의 혈통권에 연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선생님의 아들딸이 몇 명이에요? 손자들은 얼마나 돼요? 아들딸들이 손자를 얼마나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씩만 낳아요? 모두 다 적어도 한 다스를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니그로, 시그로, 야그로 할 것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옐로우(yellow:황색)니까 야그로가 되잖아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대씨족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수많은 혈통권이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360 만쌍 가운데는 연결되지 않은 동네가 없습니다. 반드시 방방곡곡마다 한쌍씩은 있습니다. (283-108, 1997.4.8) p.1286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는 참부모님 가정을 중심삼고 떨어져 내려갔던 것을 종족으로 탕감해 올라와 가지고, 수평선으로 올라와 가지고 세계화 축복시대, 1952 년부터 1992 년까지 40 년을 지나고 1992 년부터 국제적인 축복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축복이 국제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적 기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수평적인 국제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적 기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수평적인 국제시대로 들어가 가지고 1995 년에 36 만쌍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1998 년 6 월 13 일에 4 천만쌍 축복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세계시대에 있어서 3 만쌍, 36 만쌍, 360 만쌍인데, 이 360 만쌍이 고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세계 수평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98-190, 1990.1.2) p.1286

조건에 걸리지 않도록 완전한 작전을 위해 모두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합니다. 연장하고 또 연장한 선생님의 일신이 마지막 방편이자 대책이 바로 360 만쌍에서 3 천 6 백만쌍, 3 억 6 천만쌍의 이 마지막 단계에서 책임을 완수했다는 조건을 세워 만민해방을 이룩하는 것이 선생님의 책임이요, 선생님의 사상입니다. 선생님이 갈 길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다하지 못한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면서 말입니다. (289-64, 1997.12.30) p.1287

12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12 고개를 만나 세계를 넘어가서 천하는 그 세계 품에 품기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가정에 품겨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 월 이전으로 360 만쌍 끝났다 할 때는 이미 8 월 이전에 그 때에 축복을 해 놓고 3 천 6 백만쌍은 1 년 이내에 끝내는 겁니다. 3 천 6 백만쌍 끝났으면, 또 1 년 이내에 3 억 6 천만쌍은 문제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36 억 하게 되면 36 억쌍 될 수 있는 72 억 가정이 없습니다. 50 억 인류밖에 안 됩니다. 그거 몇 번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게 된다면 2000 년 내에 세계는 갈 데 없이 가정 판도에 들이 박이지 않으면 살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83-301, 1997.4.13) p.1287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의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그 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합동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36 가정에서부터 10 수를 중심삼고 3 만쌍, 그 다음엔 36 만쌍, 그 다음엔 360 만쌍까지 정상의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분수령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힘들지, 이제는 세계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360 만쌍, 절정의 횡적 기준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종적인 기준도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전세계의 어떠한 종족, 민족, 국가를 넘어서 축복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상세계, 천사장권 세계까지 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86-164, 1997.8.9) p.1287

360 만쌍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깃발을 꽂고 전부 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깃발을 꽂고 축복하라 이겁니다. 사탄세계의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에 가입할 수 있고, 참부모의 혈족을 전부 다 상속받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깃발을 꽂고 우리 축복 받은 사람이 동네에 한 가정도 남김없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285-310, 1997.6.29) p.1287

1977 년 8 월 9 일 전까지 360 만쌍이 끝났다고 하게 되면, 선생님이 77 세 7 월 7 일 7 시 7 분 7 초까지 한 그날에 3 천 6 백만쌍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3 천 6 백만쌍 한다고 하게 되면 영계가 내려와서 강제로 때려 몰아 축복 받게 끔 끌어올 수 있는 때가 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85-240, 1997.6.5) p.1287

지금 종교는 개인구원을 말했지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가정구원과 종친구원과 국가구원과 세계구원과 천주구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구원에서 이제 세계구원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360 만쌍 하면 세계적입니다.) 영계의 조상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나 육계나 지상에서 가정생활로 참부모와 살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상 지상천국으로 천상 지상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 있는 조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불가피하게 종친연합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이것을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디면 더딜수록 선조들이 동동동 발을 굴리면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더디느냐?' 하는 겁니다. 빨리 빨리 해서 해방 받을 수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천사장권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천사장권을 축복해 주니까 천상세계에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흥진군과 대모님이 '360 만쌍 축복!'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선생님이 영계에 축복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84-164, 1997.4.16) p.1288

레버런 문의 공식 이름, 하나님이 제정한 이름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8 단계로 올라갈 것을 평면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탕감법대로, 마음대로, 세계적 가정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60 만쌍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280-77, 1996.11.1) p.1288

2 차 40 년노정이 이제는 단축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결혼하게 되면, 자유결혼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유결혼 시대, 부모님이 결정해 주면 자유스럽게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결혼을 안 해 줄 것입니다. 360 만쌍 결혼하게 된다면 몇 사람만 내가 축복 해주면 됩니다. 그런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 대, 어머니 연령 이상 되는 사람은 전부 다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 세, 18 세까지 지금 결혼해 주는 것입니다. (271-104, 1995.8.23) p.1288

축복가정을 초국가적, 초세계적, 초민족적, 초종교적 수평선에 놓고 해야 합니다. 360 만을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가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통일교회 교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한 분이 360 만쌍을 국경을 넘어서 통일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힘을 가졌다는 사실은 영원히 역사를 두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한 쌍이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 가지고 일족이 걱정하고 어머니가 따오기 춤을 추면서 결혼을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남편 대해서 잠 못 자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360 만쌍이 결혼했다는 것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선생님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소?' 했을 때 설명 못 하면 낙제 꽝입니다. (272-229, 1995.10.5) p.1288

탕감조건을 선생님이 다 지어 주었습니다. 1 주일 이내에 160 가정, 1600 가정도 축복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번 36 만가정으로 다 무르익었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36 만가정을 축복한, 72 만 명을 결혼시킨 문총재가 훌륭한 분이오, 나쁜 분이오?'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쁜 사람이다.' 하면, 그럼 나쁜 사람 밑에 세계의 대통령들이 있고, 학박사가 수두룩하고, 난다긴다하는 잘났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못나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쑥 들어가 버립니다. 세 발 장대를 가지고 휘젓더라도 어디 손 걸릴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273-170, 1995.10.22) p.1289

36 만쌍이 360 만쌍이 되고, 3 천 6 백만쌍이 되고, 3 억 6 천만쌍이 되고, 36 억쌍으로 퍼져 나갈 때 인류사회에서 처음으로 에이즈는 박멸이 되고, 신인(神人)이 일체화된 순결한 참사랑의 세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상천국 건설의 대역사 가운데, 그 실현은 필지(必至)의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71-99, 1995.8.23) p.1289

Top

제 3 장

축복가정의 섭리적 의의

1) 36 가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3 가정을 먼저 축복

1960 년에 선생님은 성혼식을 올리기 전에 36 가정 중 세 가정을 약혼시켜 가지고, 선생님이 성혼식을 올린 후에 이 세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베드로, 요한, 야곱와 같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세 자녀가 하나님의 이상권에 섰다고 하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질 수 없다는 승리적 기반을 세운 것입니다. (55-164, 1972.5.7) p.1290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 나온 게 그것입니다. 첫번째 한 것이 세 가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1960 년에 선생님이 성혼식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면 성혼식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상대를 전부 다 결정해 놓고, 선생님이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축복해 준 겁니다. 그렇게 원리의 길을 맞춰 나오는 것입니다. (89-243, 1976.12.1) p.1290

아담 앞에 3 대 천사장, 아담의 여덟 식구를 편성해야 됩니다. 3 대 자식, 믿음의 아들딸을 세움으로 해서, 결혼하면 여덟 식구 편성과 3 대 천사장을 데리고 하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문선생도 세 아들딸, 36 가정을 세워 놓고, 36 가정 약혼식을 먼저 해 놓고 결혼식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원리적입니다. 물샐틈없는 조직편성을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담이 가정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가정을 찾아야 됩니다. (126-49, 1983.4.10) p.1290

선생님을 중심삼고 보게 되면 종적인 입장의 자녀들이 되어 있고, 횡적 기반에서 우리 아이들 중 대표로 횡적 아벨의 자리에 선 것이 누구냐? 흥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번, 둘째 번이라는 겁니다. 우리 통일교회로 보게 된다면 36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세 제자, 천사장 가정을 대표한 3 수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3 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담가정, 노아가정, 야곱가정형의 36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36 가정에서 대표되는 이 세 가정 가운데 첫째 가정이 김원필입니다. 역사는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이러 이러한 배후의 내용이 영적인 세계에 되어 있지 않으면 장자의 자리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김원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이 누구냐 하면 유효원입니다, 유효원. 그리고 셋째 번이 김영휘입니다. (169-109, 1987.10.29) p.1291

세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열두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열두 사람은 역사적인 사명을 해야 되는데, 열두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열두 사람, 미래의 열두 사람, 36 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 가정이 나온 겁니다. 아담가정에서부터 노아가정까지 10 대, 노아가정에서부터 야곱가정까지 10 대, 야곱의 열두 자식, 2 천년 역사의 조상을 연결시키지 못한 것을 전부 다 압축한 것이 36 가정입니다. (89-243, 1976.12.1) p.1291

Top

② 36 가정을 세운 뜻

36 가정은 제 1 가정, 제 2 가정, 제 3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 가정은 구약시대를 상징하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결혼한 입장입니다. 제 2 가정은 신약시대를 상징하며, 신약시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택해 준 땅에서 결혼을 원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실패하고 신부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제 3 가정은 성약시대를 상징하는데, 성약시대는 완성의 시대로 하나님의 가정의 출발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섭리는 야곱이 승리한 상징적인 복귀섭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종의 시대와 양자권 시대를 탕감복귀하고, 하나님의 참자녀 시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3 시대의 노정을 상징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36 가정입니다. (55-165, 1972.5.7) p.129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6 가정 중에서 제 1 가정은 기성가정으로 구약시대에 해당하고 예수님 시대는 결혼을 바랐지만 이루지 못한 시대로 제 2 가정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제 3 가정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야곱처럼 성약시대를 상징합니다.

특히 36 가정은 선생님을 중심하고 1 대에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탕감하는 승리적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정 승리의 완성으로 3 시대를 횡적으로 1 대에 탕감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 36 가정의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65) p.1291

섭리사적으로 보면 36 가정의 제 1 가정은 아담가정을 복귀한 입장입니다. 아담가정의 가인 아벨을 포함하여 노아까지 12 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하기 위하여 12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제 2 가정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복귀한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가정에 사탄이 침범함으로써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된 12 대를 상징합니다. 야곱은 12 아들을 통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종적인 섭리를 횡적으로 탕감복귀하였는데, 36 가정에 있어서 제 3 가정이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룬 개인적 승리의 기대 위에 출발한 가정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상징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65) p.1292

36 가정은 36 대와 마찬가지입니다. 36 가정은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 가운데 있어서 조상들이 실수했던 것을 전부 찾은 형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열두 제자를 대표한 역사적인 과거?현재,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모두 탕감하고 찾은 형이 36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약시대는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청산 짓는 놀음을 하려니 36 가정을 찾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54－293, 1972.3.26) p.1292

선생님이 개인적인 승리의 기반 위에, 횡적인 가정적 탕감의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36 가정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정에서부터 승리의 터전을 닦았지요? 전통적 가정의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세운 것이 노아가정입니다.

그 다음 야곱가정, 제 3 가정은 무엇이냐? 이것은 순진한 처녀 총각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지상의 기반은 모두 탕감복귀해 가지고 완전한 것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야곱가정형의 열두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횡적 사방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36 가정을 중심삼고 전체를 대표한 입장에서 기반을 잡게 되는데, 그것이 열두 지파를 중심삼은 3 시대의 열두 형입니다. 야곱을 중심삼고 보면 소생-장성-완성의 3 시대입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되어야 합니다. (47－199, 1971.8.28) p.1292

36 가정은 역사시대에 있어서 복귀섭리의 사명을 담당했던 시대의 수많은 선한 선조들을 대표한 가정이요, 그 선조들이 종적으로 실패했던 것을 횡적으로 실체 복귀하기 위해 선조들의 부활체로서의 책임을 가진 선택받은 가정입니다. 이 36 가정은 36 억이라는 세계 인류를 대표한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40－185, 1971.2.1) p.1292

세상을 보게 되면, 가정을 가진 기성 가정하고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도 두 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 멋대로 남녀관계를 맺었다가 실패한 자들. 이렇게 세계 사람들을 나누자면 세 패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남녀관계를 맺고 가정 형태를 갖지 않은 사람,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는 순결한 처녀 총각, 이러한 내용으로 엉클어져 있는 것이 세계 인류라는 겁니다. 세계 인류를 종적으로 보면 세 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상대적 관계를 맺었지만 성사하지 못한 사람, 즉 예수와 성신이 지금까지 약혼 단계에 있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수습해 나오는 형태와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결한 처녀 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을 전부 다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종적인 역사시대를 대표해서 가정적으로 수습해 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에서 36 가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58－183, 1972.6.11) p.1293

예수가 12 제자를 찾아 아담가정에서부터 노아가정, 야곱가정까지 3 시대를 대신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36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선생님은 어느 것 하나라도 적당히 해 나온 것이 없습니다. (23－62, 1969.5.11) p.129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재림주님은 아담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형 가정을 찾아서 조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형 12 가정을 찾고, 노아형 12 가정과 아브라함형 12 가정을 찾아, 종적인 조상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22－215, 1969.2.6) p.1293

36 가정은 우리 인류역사의 조상들이 부활한 겁니다. 그 조상들이 부활해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지상세계의 인간들이 6 천 년간 종적으로 번식한 것이 횡적으로 전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묶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체 종적인 탕감에 있어서는 12 대, 대수로는 열 둘입니다. 지상에도 이 열둘로 전부 다 연결됐습니다. 지상에도 소생권이 기성가정, 장성권은 사랑 관계는 가졌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패, 그 다음에 완성권은 처녀 총각패입니다. (122－97, 1982.11.1) p.1293

36 가정은 전부 다 12 수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 대지만 12 수입니다. 가인 아벨로 해서 12 수가 됐어요? 그 다음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 대지만 아브라함?이삭?야곱을 중심삼아 가지고 12 수입니다. 이래 가지고 야곱 때에 가서 비로소 12 수의 기준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착륙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도 역시 36 가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담가정형, 노아가정형, 야곱가정형, 이것이 제 1 가정, 제 2 가정, 제 3 가정입니다. 이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역사시대의 모든 것,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 나오던 것을 전부 성약시대에 묶어 나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대표해 가지고 이들을 연결시켜서 지상에 조상들을 묶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 가정은 전부 다 조상들입니다. (164－269, 1987.5.17) p.1293

36 가정은 도대체 무슨 가정이냐? 36 가정 가운데 제 1 가정은 제멋대로 결혼한 패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연결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제 2 가정은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런 내용을 지닌 사람들을 전부 다 엮은 겁니다. 그냥 막 짝지어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왜? 세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 3 가정은 처녀 총각들입니다. 기성가정들은 제 1 가정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저 영계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 2 가정은 제 3 가정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앞으로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36 가정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 제 3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선생님한테 처음 들을 겁니다. 그래, 오시는 주님이 찾아올 곳은 어디냐? 이 기성가정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사랑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숫처녀 숫총각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148－284, 1986.10.25) p.1294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36 가정을 맺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들어가 설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요? 여기서 그걸 확대하면 전세계가 그 페이스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성가정을 소생으로 친다면 장성을 제 2 가정, 그래서 이걸 아담가정, 노아가정, 야곱가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시대에 와 가지고 비로소 평면시대, 횡적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12 지파를 중심삼고 횡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12 지파, 천상세계에 가면 열두 진주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2 지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세계에 12 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맞아야 됩니다. 열두 형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중심삼고 열두 제자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중심삼고 36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열두 가정 대표가 처녀 총각들입니다. 이걸 중심삼고 그 다음은 제멋대로 산 사람이고, 그 다음은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되었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148－284, 1986.10.25) p.1294

처녀 총각으로서 선생님한테 축복 받은 가정은 선생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적 기대에 있어서의 중심은 처녀 총각으로 축복 받은 가정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36 가정을 두고 볼 때도 제 1 가정, 제 2 가정, 제 3 가정 중에서 제 3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31－284, 1970.6.4) p.129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6 가정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를 거쳐서 열 두 아들을 중심삼은 전체적인 섭리의 터전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역사를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실수하였던 것을 현실에서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복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싸움이 36 가정을 중심삼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세상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정보다도 하나님의 사정이 더 딱하고,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잃어버린 역사적인 한을 탕감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종적인 역사를 현실에서 횡적으로 탕감복귀하여 조상들의 기원과, 조상들이 세우려 했던 기준을 다시 찾아 놓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36 가정을 축복한 것입니다. (16-60, 1965.12.26) p.1294

36 가정의 책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모든 탕감 조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모든 전통과 사상은 사탄과는 완전히 격리된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이 전통을 중심삼고 횡적인 전통의 인연을 72 가정과 120 가정이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36 가정의 책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8-60, 1970.1.3) p.1295

영계에 가게 되면 정식으로 총각 처녀가 축복 받은 것과 기성가정들이 받은 축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삼층천이 있습니다. 현 사회에도 상중하가 있듯이 영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36 가정을 놓고 볼 때, 각각 12 가정으로 아담가정, 노아가정, 야곱가정을 대신한 36 가정을 놓고 볼 때, 어느 가정이 제일 귀하냐 하면, 맨 마지막 가정이 제일 귀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안되어서 그렇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30-189, 1970.3.22) p.1295

내가 돈을 전부 다 투입해 가지고 금반지, 무슨 옷, 다 해줬습니다. 그 놀음을 왜 해요? 36 가정은 결혼비도 안 냈지요? 남의 자식들을 데려다 자기 자식 이상으로 전부 다 결혼식을 해 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반대해도 당당하게 해치웠어요, 1 차, 2 차, 3 차. 세상에 그런 놀음하면 땅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뭣이 생기나요? 선생님이 그런 배포가 없으면 이런 놀음 해먹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대한민국이 야단하더라도, 기성교회가 야단하더라도, 미국이 야단하고 전세계가 야단하더라도 끄떡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126-299, 1983.4.28) p.1295

Top

③ 3 차에 걸쳐 축복… 별별 일화가 많아

1961 년 36 가정 축복식 때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대문에 파수병을 세워 놓고 결혼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누가 아무리 떠들어도 할 일은 다 했습니다. 36 가정 부모들이 몰려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을 감옥에 잡아넣겠다고 법원에 몇십 장의 투서를 하여 선생님이 법원에 불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극성맞게 연탄가루를 뿌려가면서 통일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 12 명이 있었습니다.

통일교회는 그런 자리에서 컸습니다. 반대 받는 그 자리에서 승리의 터전을 닦아야 했던 것입니다. 반대를 받고 모험을 하는 자리에서 승리의 터전을 닦아 왔다는 겁니다. (23-317, 1969.6.8) p.1295

36 가정 합동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며칠날 당신의 아들딸이 청파동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오는 데는 이러이러한 예복을 입고와야 참석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참석하오!' 하고 척 청첩장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누가 남의 자식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얼마나 요란했는지 모릅니다. 요란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정해서 하는 겁니다. 경찰이 동원되더라도 내가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게 돼 있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안 돼 있습니다. (162-321, 1987.4.17) p.129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한국에서 36가정 결혼할 때는 자기 부모도 천사장 취급을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전부 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그저 나중에, 일주일 전에, 뭐 예복도 해 입고와야 된다는 조건을 많이 내세워서 통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고, 남의 아들딸 데려다 누가 결혼식 하느냐며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철대문을 닫고 전부 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놀음을 해서 전부 다 분별한 것입니다. (90-124, 1976.10.21) p.1296

36가정의 간부 가운데 어떤 사람의 부모가 있는데, 그는 상당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문선생 같은 사람은 석양에 지나가는 김삿갓만큼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뭐 어떻고 어떻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딸을 결혼시킬 때 내가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식에 자기 딸이 결혼한다고 당당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복을 버젓이 입고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큰일났다 싶었던 겁니다. 딸 결혼식이니 들어가긴 들어가야 할 텐데 들어갈 수 없는 판국이 되었으니 할 수 없이 통일교회 교인 앞에 와서 제발 예복을 빌려 달라고 해 가지고 예복을 입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75-216, 1975.1.5) p.1296

36가정 합동결혼식 할 때에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통첩할 수 있어요? 싫다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서 의논한다고 그 자식을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것은 뻔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면 기쁜 날 가시가 되고, 눈에 티가 되겠는데,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빤히 알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소개하게 돼 있어요? 통첩은 해야 되겠기에 결혼식하기 전날 몇 시간 전쯤 딱 도착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딸이 거룩한 결혼식을 하옵나니, 왕림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통첩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61-313, 1972.9.3) p.1296

선생님 시대에는 무슨 혁명을 했느냐 하면,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대한민국의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을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생님이 의논해 가지고 축복해 줬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생님이 주체입니다. 36가정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못 오게 했습니다. 무조건 예복을 다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야단이 벌어졌습니다.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213-17, 1991.1.13) p.1297

36가정 결혼할 때 1차 결혼 몇 시에 했나? 새벽에 했지? 한판 싸우면서 '아이고, 내 아버지 내 놔라!', '내 딸 내 놔라!' 하면서 야단했다구요. 내 아버지 내 놔라, 하니 남의 아버지 도적질한 사람이 됐고, 내 딸 내 놔라, 하니 남의 딸 도적질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래 놓고는 싸움질하면서 '야, 문 아무개야! 나와라! 네 놈이 나와서 우리 집안 망쳤고 우리딸 미치광이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모한테 승낙부터 받아야 할 텐데 결혼식날 부모한테 오려면 오라고 통첩장 내고 무슨 예복을 입고 오라고 하니 세상에 그런 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법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면 그래도 편안히 하겠지만 알고 하니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르고 하면 욕을 듣고도 '왜 그러노?' 이럴 수 있는데 욕먹을 것 뻔히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알면서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는 탕감이 안 됩니다. 눈감고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1-332, 1991.1.1) p.1297

36가정이 결혼식을 할 때, 하나는 밤에 하고, 하나는 낮에 하고, 하나는 새벽에 했습니다. 왜? 자기 아들딸을 내놓으라고 전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적으로 볼 때, 거짓 부모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참된 부모의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코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반대했지만 나라도 반대했습니다. 내가 법원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와서 결혼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 나온 것을 누구도 모를 겁니다. 선생님이 설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모험을 해 나온 겁니다. (91-259, 1977.2.23) p.129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한국에서 36 가정이 합동결혼식을 할 때, 그 사위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두 딸이 모두 통일교회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어느 학교 교장 선생인데 좋은 사윗감으로 어떠 어떠한 선생들을 골라 놓았다고 절대 합동결혼식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은 '반대를 하려면 하라. 당신네 딸들은 내가 시집을 보내 주마!' 했습니다. (22-261, 1969.5.4) p.1297

36 가정을 택할 때 그 부모들한테 선생님이 의논했나요? 남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의논도 않고, 청첩장도 내지 않고, 전부 선생님 마음대로 결혼을 시켰으니, 욕뿐만 아니라 몽둥이 찜질까지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 같았으면 옷을 찢기고 칼을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깜짝하는 사이에 후다닥 해치웠던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을 전부 끌어다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늘의 우주적인 운세를 가지고 복귀노정을 완결하는데 누구한테 의논해야 합니까? 축복해 주는데 누구한테 의논해서 합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36 가정은 무엇이냐 하면 조상들입니다. 조상이 되는 사랑을 이루는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의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18-207, 1967.6.8) p.1298

36 가정 축복도 깜깜한 밤중에 해야 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성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내 아들 내 놓아라, 내 남편 내 놓아라, 남의 아들딸 데려다가 무엇 하느냐?' 등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자기 자식 시집 장가 보내는 것은 부모 마음인데 통일교회의 선생님이 단독적으로 보낸다고 하니 아우성입니다. 바로 사탄세계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을 사탄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빼앗아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잃어버린 아들딸을 다시 찾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식을 빨리 마쳤던 것입니다. 탕감복귀역사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19-120, 1967.12.31) p.1298

Top

2) 72 가정

① 72 가정 축복의 의의

지금까지 조상들이 책임 못한 것만을 중심삼고 어그러졌느냐? 아닙니다. 조상들도 잘못을 했지만 형제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 가정 앞에 형제와 같은 입장에 가인 아벨 두 형으로 세운 것이 72 가정입니다. 72 가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야곱대까지, 지상에 횡적 기반을 닦을 때까지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가인 아벨 두 형으로 복귀된 기준에 세워 놓은 것이 72 가정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직계 조상의 가정들이 전부 다 부활된 형태의 가정이 지상에 현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중심이 결정된 것입니다. 열두 가정을 중심삼고 이스라엘 지파형의 출발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72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조상들을 중심삼은 터전이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47-200, 1971.8.28) p.1298

조상 앞에 두 아들의 가정형을 편성해야 될 섭리적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기 위해 36 수의 2 배인 72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종적인 역사노정에 있어서 아담가정에서 못 이룬 것을 가인 아벨가정이 완결 지어야 하는데 완결 짓지 못했습니다.

즉 탕감조건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 아벨가정형인 72 가정을 축복함으로써 연장되었던 종적인 섭리가 평면적인 하나의 기준점에서 승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36, 72 가정을 세움으로써 종적인 가인 아벨형의 이념적 기반이 전부 땅 위에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면적으로 종적 가정형을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전부 다 아담가정을 복귀하기 위한 형입니다. (16-62, 1965.12.26) p.129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6 대(代)가 실패했던 것을 복귀한 기준을 세운 것이 36 가정인데, 그렇게 해서 조상이 된 36 가정의 조상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해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렇게 망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후손들이 전부 싸움을 하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6 대의 아들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고 하나되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로 분립한 수, 즉 36 을 2 배한 수인 72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이 72 가정이 세워짐으로써 가인과 아벨이 싸우지 않고, 사위기대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선조의 터전을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방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72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까? (19－120, 1967.12.31) p.1299

72 가정은 36 가정의 축복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72 가정은 아담가정을 중심으로 복귀된 가인 아벨가정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가인 아벨이 완전히 하나된 기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조상으로서 완전한 부모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가인 아벨이 완전히 하나돼야 하는 것입니다. 36 가정은 조상격인 아담가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6 가정은 가인 아벨이 하나된 가정의 기반 위에 서야 부모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72 가정이 36 가정의 두 배가 되는 것도 가인 아벨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166) p.1299

72 가정이 뭐냐? 성경에 보게 되면 70 문도라 하고, 72 문도라고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 72 수가 맞는 것입니다. 12 지파를 중심삼아 가지고 6 수, 6 명의 족장들을 합하면 이육은 십이(2×6=12), 일육은 육(1×6=6), 72 라는 겁니다. 70 명이면 수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 가정이 원래 맞는 겁니다.

이 72 가정은 뭐냐하면 중심가정인 36 가정, 즉 조상가정 앞에 있는 아들딸과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상들이 뜻을 못 이룬 것은 그 조상 가정에 있어서 가인 아벨이 하나 못됨으로 말미암아 뜻이 연장됐다고 보는 겁니다. 가인 아벨, 아들딸, 형제가 하나되는 그 가정의 기반을 못 가졌기 때문에 72 가정은 뭐냐? 전체를 합해 가지고 보면 36 가정의 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 아벨가정 36 가정의 아들을 중심삼은 아벨적 36 가정과 가인적 36 가정, 합하면 72 가정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가인 아벨이 하나 못된, 역사적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대표적 가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84－144, 1976.2.22) p.1300

36 가정으로부터 72 가정, 120 가정은 한 팀입니다.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36 가정은 역대의 조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 72 가정은 아들딸을 말합니다. 120 가정은 세계 국가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열두 지파를 말합니다. 열두 지파의 세계적 분파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상하고 가인 아벨하고 열두 지파가 하나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귀역사입니다. (82－237, 1976.1.31) p.1300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열매요, 현시대의 중심이요, 미래의 출발입니다. 즉, 3 시대를 대표한 결합체라는 것입니다. 이 3 시대의 형태를 결합한 것이 36 수입니다. 12 수에다 다시 3 시대를 곱하면 36 쌍이 되는 것이요, 이 36 쌍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형의 아들딸을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72 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34－262, 1970.9.13) p.1300

가정에서 언제나 문제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에 있어서는 아담과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치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두 아들이 하나됐다 하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36 가정의 2 배가 되는 72 가정입니다. 이 72 가정은 예수님의 70 문도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70 문도를 중심삼고 종족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을 이룬 형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70 문도를 가정형으로서 복귀한 종족형이 72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6 가정과 72 가정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삼은 열두 지파와 70 문도와 같은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을 복귀한 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삼고 찾으려던 기본수가 다 찾아진 형입니다. (54－293, 1972.3.26) p.130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72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정을 완전복귀하려면, 가인 아벨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면, 가인 아벨이 완전히 하나가 된 기대 위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입니다. 이 부모의 입장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면 가인 아벨의 기대를 복귀해야 합니다. 36 가정은 조상인 것입니다. 조상이 서려면 가인 아벨이 하나된 가정의 기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36 가정의 2 배, 72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72 가정은 예수님을 중심삼고는 70 문도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하나된 지상의 탕감권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그 기대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상가정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가정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섭리역사에 있어서 그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이 됩니다. 가정복귀를 완성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72 가정까지의 축복입니다.

72 가정의 축복이 성취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지상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평면적으로도 입체적으로도 하나의 단계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해짐에 따라서, 중심적 기준이 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해져야 할 중심점이 종적인 발판으로, 완전한 역사의 승리자로 서는 것은 36 가정, 72 가정이 하나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점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요구해 나오신 중심적 선조의 승리권을 이룬 것이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기대이므로 그것을 횡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55－167, 1972.5.7) p.1301

예수가 천국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씨족이 협조하지 못 했고, 그 다음엔 열두 제자가 협조 못 했기 때문입니다. 수제자와 열두 제자가 협조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씨족을 중심삼고, 열두 제자를 중심삼고, 70 문도를 중심삼고, 나라와 국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적 기틀을 못 가진 예수, 씨족적 기틀을 못 가진 예수, 교회기반을 못 가진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0 문도가 하나 못 된 겁니다. 이 70 문도는 열두 지파를 대신한 것이요, 70 장로를 대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70 문도가 아니라 72 문도가 돼야 됩니다. 12 지파에 여섯 사람씩 잡으면 72 명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72 가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에는 72 인이라고 돼 있고 구약에는 70 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72 인이 맞는 것입니다. 70 인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7－327, 1973.7.22) p.1301

복귀역사가 뭐냐하면, 가인 아벨의 역사입니다. 가인 아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조상 앞에 두 사람씩만, 가인 아벨만 짜 넣으면 지금까지 역사 시대에 있어서 조상들이 실수했던 모든 것을 탕감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왜 실수했느냐 하면, 가인 아벨이 하나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믿음의 기대하고 실체기대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 기준을 완결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결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이 지상의 횡적 기반에 맞추기 위한 것이 72 가정입니다. (75－148, 1975.1.2) p.1301

지상천국을 이루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와 열두 제자 이것은 삼시대 소생시대•장성시대•완성시대입니다. 그걸 대표한 36 가정. 그 다음에는 72 가정. 가인 아벨이 가정을 중심삼고 싸웠으니 그걸 대표적인 입장에서 72 가정은 72 민족, 민족적인 대표라는 겁니다. (74－270, 1974.12.31) p.1301

인류 중에는 아담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형이 있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나오던 예수형의 인물들도 있으며, 또한 재림주형도 있습니다. 재림주님은 이 모든 인물형의 입장을 탕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노아형 가정을 복귀해야 하는데, 이것은 노아가 아벨형이요, 또한 예수형이요, 하나님편 둘째 아들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 아벨로 나뉘어져 복귀된 형이 72 가정인 것입니다. (22－216, 1969.2.8) p.1302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 있어서 가인이 아벨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잘못을 선조들이 아직까지 탕감하지 못하여 역사가 연장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탕감하려면 조상의 한가정, 한가정 앞에 가인과 아벨의 복종의 기준을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72 가정인 것입니다. 72 는 36 의 배수입니다. (22－193, 1969.2.2) p.130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6 가정을 세운 목적은 36 선조를 찾아 세우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36 가정을 중심으로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인 아벨형으로 벌여 놓은 것이 72 가정입니다. 야곱이 72 가족을 거느리고 애급으로 출발한 것과 같이 통일교회도 72 가정 때 그러했습니다. (13-125, 1963.11.16) p.1302

축복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36 가정 한 가정에 가인형과 아벨형을 세우면 72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12-47, 1962.9.10) p.1302

3 년 기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 대의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금년에 72 쌍을 결혼시킨 것은 무리였습니다. 몇 쌍밖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2-50, 1962.9.13) p.1302

Top

3) 124 가정

① 124 가정을 찾아 세운 뜻

예수님의 120 문도를 대신한 120 가정은 세계적인 형입니다. 120 가정은 세계의 대표형으로서 세계적인 탕감조건을 세울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120 가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기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120 개 국가가 넘으면 그때가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62, 1965.12.26) p.1302

120 가정은 세계의 모든 국가를 대표한 기준에서 세워진 가정입니다. (20-342, 1968.7.20) p.1302

재림주님은 아담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형 가정을 찾아서 조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형 12 가정을 찾고 다음에 노아형 12 가정과 아브라함형 12 가정을 찾아 종적인 조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36 가정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조상들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형의 가정으로 찾아 세운 것이 바로 72 가정입니다. 그리고 120 가정은 세계 120 개 국가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2-215, 1969.2.6) p.1303

횡적인 기준을 세워 평면적인 사방수의 세계형을 찾아 세운 것이 120 가정입니다. 이것은 120 국가를 대표한 것입니다. (13-125, 1963.11.16) p.1303

124 가정까지는 7 년노정입니다. 오늘날 120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권을 중심삼고 세계 120 개 국가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정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세계적인 모든 수가, 선생님이 120 가정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복귀된 기준이 결정된 것입니다. (54-293, 1972.3.26) p.1303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84 명과 120 명을 전부 종족권 내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적입니다. 36 가정, 72 가정, 120 가정 아니예요? 120 이라는 것은 세계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 오순절에 다락방에 120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건 세계적 대표입니다. 선생님이 124 쌍 축복할 때 유엔 국가가 124 개 국가였습니다. 그거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198-17, 1990.1.20) p.1303

12 수에 해당하는 것이 120 문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시대에 있어서 120 문도를 대신한 탕감복귀 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세계 국가의 대표자형입니다. 이것을 세워서 그 족장대표, 족장이 국가대표지요? 국가대표 기준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준을 편성하기 위해서 축복해 준 것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24 가정이다 이겁니다. 4 가정은, 이건 혹입니다. 그럼 4 가정은 뭐냐? 그건 기혼가정입니다. 왜 기혼가정을 넣었느냐? 기혼가정을 넣지 않으면 앞으로 기혼가정을 구원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4 수는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입의 형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기성가정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4 수를 축복한 것입니다. (158-170, 1967.12.27) p.1303

120 가정은 예수님 중심한 120 문도를 대신한 것입니다. 네 가정은 결혼한 기혼가정입니다. 사방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45, 1968.5.26) p.1303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게 된 것은 72 문도와 12 제자를 더해서 84 명이 하나 못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84 명을 실체로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그 탕감복귀 기반 위에 여러분들은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12, 12, 12 해서 36 가정입니다. 그것은 소생-장성-완성입니다. 이것은 세 패지만 축소시키면 한패입니다.

그 다음엔 72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반 위에 120 가정, 120 가정 기반 위에 세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120 문도가 오순절에 지상에 강림했지요? 그건 세계 대표를 상징합니다. (122-117, 1982.11.1) p.1304

예수가 유대교적 기준을 못 이룬 것이 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한 120 가정이 예수의 한을 풀어 줄 축복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 가정은 선두에 서서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출동교육을 받은 지역장들은 전부 120 가정일 것입니다. 120 가정은 희생해야 된다 이겁니다. 120 가정은 예수시대의 120 문도 입장으로 세계적인 지파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세계 120 국가를 대표한 국가적인 기대입니다. (47-202, 1971.8.28) p.1304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120 문도를 세웠지요? 120 문도는 120 가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있어서도 천상세계에 간 120 국가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 국가 대표 반열에 여러분의 혈족들이 하나씩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활동무대가 120 개 국가의 천국판도를 이어서 상속받아 가지고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기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215-129, 1991.2.6) p.1304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와 70 문도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순절에 승천하게 될 때에 120 문도가 내려와 가지고 세계적 선교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한 것이 120 국가입니다. 우리가 120 가정 축복할 때에도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24 개국이었습니다. 우리도 124 쌍인데, 4 쌍 가운데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중심삼고 범죄자였던 사람입니다. 전과 1 범, 2 범, 3 범, 4 범까지 124 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15-129, 1991.2.6) p.1304

우리에게 120 가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영계의 12 지파의 10 배를 통한 120 족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전세계의 선교국을 120 개국 아니면 160 개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때에도 120 개국의 국가 대표들이 와서 하나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족을 중심삼고 120 개국의 대표를 세워 세계적인 국가 대표형으로서 여러분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계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120 문도 기지를 잃어버린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상에서 일으켜서 묶어 가지고 완전히 하나되어야 120 대표들을 종족 앞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천상세계에 120 국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필요한 수라는 겁니다. (215-129, 1991.2.6) p.1304

하늘나라 백성을 최소한 예수님이 원하던 120 명, 120 가정은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120 가정이 뭐예요? 120 가정은 지상을 대표한 국가 대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전부 다 120 가정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하면 예수가 죽지 않고 재림할 수 있는 대신자가 되어 종족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인 종족들에게 아벨 종족을 보내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자격입니다.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215-185, 1991.2.17) p.1305

자기 아들딸과 자기 혈족과 복귀된 백성과 더불어 영원한 창조이상적 전통을, 사랑의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나라에 가서는 이것이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권위, 생명의 위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족을 처리하여 120 가정 이상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알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발가벗고 쫓겨나는 겁니다. (213-139, 1991.1.16) p.1305

예수님의 12 제자의 12 수를 십 배한 120 수는 평면적인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120 문도와 같은 수를 맞추기 위해 120 쌍 축복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120 이지만 4 방수(四方數)인 4 쌍을 더해서 124 쌍을 축복했습니다. (16-62, 1965.12.26) p.1305

120 개 국가 대표에 4 를 합해 가지고 124 쌍을 축복했는데, 종족적 중심이 결정된 기반 위에 세계적으로 124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0 개 국가 상징 터전으로서 출발했던 기독교의 전체 중심을 대표할 가정이 성립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생님을 중심삼고 개인에서 사위기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조상들을 묶고, 그 다음에는 민족을 묶고, 그 다음에는 세계를 묶는 탕감적 가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에 널려 있는 수많은 국가권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75-150, 1975.1.2) p.1305

120 문도는 세계를 대표합니다. 예수님도 120 문도를 중심삼고 세계적인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못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세계를 표준하고 나가는 길 앞에 있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자기의 후손을 단계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후손을 세울 때에는 아무렇게나 마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통일교회의 36 쌍, 72 쌍, 124 쌍 합동결혼식입니다. (34-262, 1970.9.13) p.1305

Top

② 헌공식과 120 개국 성지택정

124 쌍 성혼식 후 헌공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지 못한 개인적,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인 기반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실체로 오셔서 일해야 될 분이 재림주이십니다. 그 일을 3 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이 3 년은 자녀를 찾는 기간(종적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유대교와 유대민족을 수습해야 했듯이 부활 실체인 한 분을 세워 놓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기간입니다. (13-11, 1963.9.12) p.1306

120 가정은 세계형입니다. 1965 년에 40 개국을 중심하고 120 개 성지를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8-260, 1967.6.12) p.1306

사람을 찾은 후에는 땅을 찾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40 개국을 순회한 이유는 성지택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타락전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성지를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40 개 국가에서 105 곳의 성지를 택했습니다. 120 가정은 120 개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120 개의 성지를 택해야 합니다. (16-7, 1963.12.21) p.1306

120 가정은 뭐냐? 120 국가를 대표하는 형입니다. 그러면 하늘 조직으로 볼 때, 조상과 가정의 형태와 여기에 세계 대표자 형태를 갖추었는데 땅이 없다는 겁니다. 땅이 없으니, 하늘 앞에 있어서 사람 조직 형태는 갖추었지만 이 땅을 더럽힌 것을 하늘이 찾을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중심삼고 수를 맞추기 위해서 40 개국을 중심삼아 120 성지를 택정한 겁니다. 그래서 땅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서 기도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120 가정을 대표하고, 70 가정을 대표하고, 36 가정을 대표하고, 하늘보좌의 중심인 참부모를 대표해 가지고 몽땅 지상에 내려와 평면으로 벌어진 입장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교회를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동원해야 되고, 지금까지의 선지선열도 동원해야 되고, 다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가인형이요, 여기는 아벨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땅을 위주하고 협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협조해야 되고, 천사도 협조해야 되고, 선조도 협조해야 됩니다. (158-129, 1967.12,26) p.1306

Top

4) 430 가정

① 430 가정의 수리적인 의의

430 가정은 무엇이냐? 430 가정은 전체의 평면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를 중심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 수를 세워 선생님의 40 년 생애를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지금 통일교회 시대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씨족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민족복귀를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민족이 복귀되는 날에는 국가는 자연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9-103, 1970.2.25) p.1306

금년에 430 쌍을 축복해야 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1967 년이 단기 4 천 3 백년이므로 이것을 섭리적인 조건에 맞추어 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430 년이 걸렸습니다.

즉 43 수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43 수를 중심삼고 7 년노정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맞아 떨어져서 새로운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통일교회가 가는 길은 일취월장할 것입니다. (19-171, 1968.1.1) p.1307

4 수, 3 수라는 것은 뭐냐하면 7 수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 년 동안에 가나안 복귀를 위해 애급을 출발하던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는 겁니다. 또 그때가 한국 역사 4300 년이 되던 해라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리적 역사를 합니다. 4300 년 되는 해에 430 쌍을 이렇게 축복했다는 사실은 뭐냐하면 씨족적인, 한 계열적인 종교의 승리적 그러한 터전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전 씨족 앞에 공통적 문을 전부 다 개방시켜 놓는 것입니다. (84-146, 1976.2.22) p.1307

430 가정은 뭐냐하면, 그때 대한민국 역사가 단기 4 천 3 백년 되는 해였다는 것입니다. 4 천 3 백년 되는 해에 어떤 가정이든지, 대한민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반대한 집단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족, 어떠한 민족, 대한민국의 백성은 반대한 사람이라도, 뭐 백정 놀음을 하던 그런 후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 가정은 종족 전체가 가담할 때라는 겁니다. 전체 특정시대가 이제는 보편적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김씨 하면 김씨 문중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면 전체 김씨가 전부 줄달아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69 년도에 세계 수많은 국가를 대표해서 43 가정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독일에서 축복해 줬고, 미국에서 축복해 줬고, 일본에서 축복해 줬지요? 그것이 43 가정입니다. 상대라는 겁니다. 430 가정 국가적 가정 앞에 43 수의 상대적 가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온 세계 민족 국가도 한국의 모든 종족들이 하늘권 내에 가담하는 특혜를 입었으니, 이는 세계 민족이 가담할 수 있는 내적 기반으로 말미암아 이 상대적 기준을 연결시키면, 외적 세계의 종족도 내적 세계의 탕감기준에 있는 한국 민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31, 1978.10.4) p.130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430 가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 가나안 복지로 출발한 겁니다. 430 년에 출발한 것을 이때는 4300 년을 대표한 43 수를 맞춘 겁니다. 거기서 전부 다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데는 단위가 뭐냐하면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정단위입니다. 가정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단위가 개인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버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감옥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빼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수를 대표해서 430 쌍을 축복한 것입니다. 430 가정에는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갑니다. 선한 사람, 종교인,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12 수에서 40 수도 나오고, 30 수로 나오고, 120 수도 나오고,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달 30 일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수가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430 가정을 중심삼고 4 천 3 백년을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한 단계가 높습니다. 바로 그해가 그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은 물론이요, 세계 민족까지. 한국은 세계 대표로 전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넓혀 나오는 것입니다. (98－186, 1978.7.16) p.1308

이런 430 가정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입장에 섰다 이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 백성은 종교는 믿지 않았지만 430 가정을 중심삼고 제 3 이스라엘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권내에서 탕감조건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민이라는 것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선민권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반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430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땅과 백성을 전부 다 확대시키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땅을 심는 놀음, 성지를 택정해 놓고 그 다음엔 430 가정에 접붙이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 개국을 중심삼고 성지택정을 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 다음 번에는 세계 순회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뭘했느냐? 43 가정 축복을 했습니다. 430 가정의 대수가 되는 43 가정을 일본과 미국과 독일을 중심삼아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세계사적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수많은 믿지 않는 인류들도 이스라엘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천년 혹은 6 천년 동안 유대교나 기독교 역사를 거쳐왔지만 그렇게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믿고 오던 그 혜택, 믿지 않고 평면적 시대에의 그 혜택권 내에 가담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110－123, 1980.11.10) p.1308

축복이 뭐냐? 가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가정을 중심삼은 3 가정,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이럼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탕감조건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문제가 430 가정입니다. 세계적 축복 기준의 대표적 형으로 124 가정을 세웠지만, 대한민국을 중심삼고 볼 때 종교를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탕감 조건은 교파를 중심삼고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교파를 중심삼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외의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전부 잘라 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결국 교파를 중심삼은 주류사상권 내에 평면적으로 수많은 국가의 민족, 수많은 씨족을 전부 다 접붙여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지만, 그 종교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문이 되어 있지만 일반 사람은 빠졌다 이겁니다. 일반 사람은 가입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삼고 일반의 수많은 종족권을 여기에 접붙이기 위한 놀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430 가정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국 역사 4300 년을 대표한 430 가정인 것입니다. (110－123, 1980.11.10) p.1309

430 가정은 뭐냐? 수많은 성씨들 박씨, 김씨 등등 한국에도 수백 성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수많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을 430 가정을 통해서 열어 놓은 것입니다. 430 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국내 430 가정하고 국외 43 가정, 일본과 미국과 구라파 중에서 전부 다 합한 것으로 상대권을 이룹니다. 이래서 전세계 오색인종 앞에 있어서 430 수의 상대적 수를 결정해 가지고 43 가정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100－279, 1978.10.22) p.130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430 가정은 한국에 있어서의 4 천 3 백년을 맞춘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살인범도, 강도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생기고,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18-331, 1982.6.20) p.1309

430 가정이 통일교회에서 주력부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 40 대면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싸울 때입니다. 마흔 다섯 살까지 전부 다 기반을 닦아 가지고 대한민국의 탕감기준을 세워서 나라와 나라를 연결시키던, 40 개국을 중심삼고 120 개 성지를 택정하던 때입니다. 싸움 준비를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141-226, 1986.2.22) p.1309

430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 알아요? 원래는 작년 1967 년을 중심삼고 넘어가면서 다 해야 했습니다. 금년 2 월 22 일이 선생님이 흥남감옥에 들어간 지 만 20 년이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팎의 모든 전부가 선생님의 복귀노정 20 년을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20 년을 넘어가는 안팎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 그날을 중심삼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동참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날이 슬픈 날만이 아닙니다. 조지 워싱턴의 생일날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멋진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159-43, 1968.3.1) p.1309

430 가정은 뭐냐하면 대한민국, 이 민족의 대표입니다.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담의 입장, 아담 국가와 같은 세계적 판도 기반을 거쳐서 한국 국민이 연결된 거기에, 해와 국가형과 같은 기준의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 가정 때 비로소 일본의 구보끼 가정을 연결시킨 겁니다. 거기서부터 연결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164-269, 1987.5.17) p.1310

1968 년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날 설정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배후에 하나님의 가정들이 연결될 수 있는 판도를 다 꾸며 놓았습니다. 세계로 갈 수 있는 판도를 연결시켜 놓고야 세계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30 가정 가운데 비로소 일본을 개재시킨 겁니다. 구보끼 회장이 대표입니다. 세계적 시대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탕감적 조건을 세워 가지고 세계의 판도를 짜 나가는, 이런 승리의 발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163-145, 1987.5.1) p.1310

원리적으로 볼 때 국진이는 넷째 아들이고 일곱번 째고 결혼은 여덟 번째입니다. 그 전부가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430 가정을 국진의 상대로 한 것은 430 가정을 중심삼은 전체 성씨입니다. 세계 성씨가 그만큼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4300 년을 사람으로, 연(年)을 사람으로 탕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을 중심삼고 탕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430 가정을 전부 다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개인들이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430 수를 가정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세계 성씨를 가진 사람이 가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진이 결혼식이 얼마나 영향이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어서 동서남북이 다 채워진다 이겁니다. 선생님은 그 가운데 자리잡는 것입니다. (185-304, 1989.1.17) p.1310

430 쌍이란 뭐냐하면 4?3 수는 한국 역사의 4300 년 수에 해당합니다. 또 4 수 3 수를 승하면 12 수가 나오고, 4 수 3 수를 합하면 7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리 수에 있어서 모든 중요수, 합하고 배하는 모든 수가 7 수, 3 수, 4 수에서 전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430 쌍으로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한국이 중심이니만큼 세계 앞에 상대적 수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43 가정을 세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과 구라파와 미국에 있어서 43 가정을 세워 가지고 세계적인 상대권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전세계의 만민은 하늘과 접할 수 있는 평면적인 기반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땅끝에 있더라도 땅끝에 있는 사람이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문을 통해 가지고 한곳에 모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합동결혼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30 가정을 중심삼은 세계적인 연결체를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통일교회는 평면적으로 세계 민족권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겁니다. 한민족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30 쌍과 43 쌍을 세계무대의 가정적 기대로 연결시켰다는 것은 초민족적, 초국가적 기준에 있어서 새로운 초민족형성의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00-171, 1978.10.14) p.1311

1968 년 정월 초하루를 중심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을 이 지상에서 설정했다는 것은 통일교회로서 승리한 날입니다. 그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면 430 쌍까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날을 횡적으로, 세계적으로 연결시켜야 되겠기에, 선생님이 1969 년에 세계를 순방하면서 43 쌍을 축복해 줌으로써 10 개국을 횡적인 무대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한국에서 되어진 것을 세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승리한 것을 세계적으로 닻을 달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10 개국을 중심삼은 43 쌍의 축복인데 430 쌍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430 쌍이라는 것은 한국 역사가 4300 년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 백성을 중심삼은 축복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58-223) p.1311

36 가정 할 때도 결사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 가정 시대를 거쳐 가지고 72 가정, 120 가정 시대로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다 지상에 자리를 잡고, 430 가정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동서남북 사방 360 도에 대한 방향을 갖춰 가지고 세계적인 발전을 해 나오는 것이 통일교회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 년 동안에 수많은 인류와 수많은 종족권을 전부 다 연결시키는 가정문(家庭門)들을 사방에 열어 놨다는 겁니다. 오색인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430 가정을 중심삼은 그때서부터 세계사적인 무대를 중심 삼았던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430 가정은 뭐냐? 430 수는 4300 년 되는 해에 430 쌍을 중심삼아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430 수는 뭐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에서 가나안 복지로 가던 연수라는 겁니다. 430 년만에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사적인 가나안 복귀 출발을 하는데, 가정을 중심삼은 가나안 복귀의 세계적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00-277, 1978.10.22) p.1311

430 가정은 민족 전부가 합쳤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만이 아닙니다. 430 이라는 숫자는 4300 년 한국 역사를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적인 가나안 복지로 출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과 맞먹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길을 갈 수 있게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430 년에 민족적 출발을 하던 대신, 4300 년에 430 가정이 세계적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가나안 복지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430 가정을 중심삼고 국가 전체를 연결시키고 세계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계적인 43 쌍의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430 쌍의 상대입니다. 그건 조건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어떠한 종족이든지 연결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대표들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나라든지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1-259, 1977.2.23) p.1312

본래는 1967 년에 축복해 주려고 일본에 갔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1968 년 430 가정 축복을 해줄 때 일본 대표로 구보끼를 데려다가 먼저 축복의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먼저 일본을 축복해 준 다음 미국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적인 아담국가였던 독일을 중심삼고 4 대 국가에 하나님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섰습니다.

따라서 온 세계의 국가를 대표한 전체가 탕감조건을 세울 수 있는 승리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23-291, 1969.6.8) p.1312

여러분이 7 년 동안 선생님 노정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430 쌍까지 책임지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다 선생님에게 속합니다. 이들은 선생님의 세계복귀노정에 공헌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22-68, 1969.1.21) p.131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② 430 가정은 종족적 메시아의 가정

선생님은 430 가정을 축복할 때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성신과 같은 사명, 즉 부활한 예수와 성신의 실체로서 그 씨족을 구하는 역사를 하는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이 아닌 실체로서의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40-216, 1971.2.1) p.1312

430 가정에게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말을 했는데, 그들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 부모와 친척을 전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가정이 적어도 120 명은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중심삼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통일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34-261, 1970.9.13) p.1312

제 2 차 7 년노정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들의 가정이 아벨가정이 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노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벨가정으로서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인가정을 복귀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벨가정이 가인가정을 복귀하면 무엇이 되느냐? 종족이 됩니다.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30 가정이 이 종족적 메시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성을 띤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전부 들어맞아야 됩니다. (34-104, 1970.8.29) p.1312

1968 년도에 430 가정을 축복할 때에 선생님이 지시한 바와 같이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협회에 36 가정이 조직되어 있듯이 김씨면 김씨 가문에서 먼저 축복 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김씨 가문의 36 가정형이 있어야 됩니다. 36 가정이 못 되면 여러분이 12 가정형의 조상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부모니까 여러분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삼위기대를 이루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1-276, 1970.6.4) p.1313

430 가정이 무슨 가정이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430 가정 시대에 와 가지고는 종족적 메시아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430 가정은 어느 가정이나 전부 다 씨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재림부활할 수 있는 가정적 기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한 가정적 기반을 전민족적으로 부여한 것을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430 가정은 자기의 전 씨족을 중심삼은 메시아 가정들이다 이겁니다.

430 가정은 씨족을 중심삼은 재림한 메시아 가정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 가정에서부터 72 가정 120 가정은 선생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요. 430 가정은 사방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권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해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했던 것입니다. 중심이 된 36 가정, 72 가정을 선생님이 다 탕감했고, 120 가정을 선생님이 대번에 탕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120 명만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종적으로, 횡적으로 전부 다 탕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 명은 반드시 여러분이 씨족에 들어가서 규합해야 할 책임이 430 가정, 우리 통일교회 가정들의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거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몰랐지요? 선생님 말 들어 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지요? (84-157, 1976.2.22) p.1313

개인을 찾은 후에는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이 승리한 다음에는 가정 아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아벨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겠기에 선생님이 430 가정을 중심삼고 그걸 편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요? 430 가정이 종족적 메시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치를 통해서 불가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공식적이라는 것입니다. (39-119, 1971.1.10) p.1313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5) 777 가정

① 777 가정은 세계를 대표하는 가정

1970 년도에 10 개국의 청년남녀들 777 쌍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랑을 중심삼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종족을 편성하여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개척하는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777 가정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세계적인 국가체제를 갖추어서 그분이 계획하는 뜻 앞에 어떤 나라와 어떤 국민 앞에도 봉사할 수 있는 기본 되는 요원을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53-255, 1972.2.29) p.1314

777 가정은 세계를 대표한 가정입니다. 세계적인 가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가정을 중심삼고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교회 가정제도가 누더기와 같고 전부 다 사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적 기준인 777 가정까지 연장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원래는 430 가정으로부터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777 가정은 전세계를 대표한 것입니다. 칠, 칠, 칠, 즉 소생, 장성, 완성 1970 년도에 777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가정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여기서 빼낼 수 있는 이것은 초민족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든가 여기에 가담했던 가정을 중심삼고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430 가정까지도 잘못하면 거기에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복귀섭리의 길을 닦아 나오는 것입니다. (79-104, 1975.6.22) p.1314

우리는 국가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되겠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종이 문제가 아니요,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의 가정제도를 형성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777 쌍의 대대적인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53-190, 1972.2.20) p.1314

선생님이 1970 년에 777 쌍을 축복해 준 것은, 3 곱하기 7 은 21, 3 수와 7 수는 전체의 완성수입니다. 즉, 21 수는 3 단계도 표시하고 전체 완성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10 개국이 가담했다는 것은 세계를 대표해서 10 수를 전부 탕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파를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맺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파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초민족적인 기준에서 새로운 지파 편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놓게 된 것입니다. (54-295, 1972.3.26) p.1314

777 가정을 축복한 것은 소생 7 년, 장성 7 년, 완성 7 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십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합해 가지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인류는 어느 누구나 다 하늘나라의 가정적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전부가 가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105-156, 1979.10.14) p.1314

오늘 1971 년도를 맞이한 연두에 우리들이 반드시 다짐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통일교회는 세계의 핵심이요,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상을 하루 빨리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0 개국을 중심삼은 터전 위에서 우리는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권을 연하는데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일치될 수 있는 내용을 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 이번 777 쌍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38-213, 1971.1.3) p.1315

777 가정이 도대체 뭐냐? 이건 결혼식으로서는 마지막 결혼식입니다. 1970 년도에 통일교회가 777 쌍의 결혼식을 함으로 세계 수많은 민족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러한 터전 위에서 777 가정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가정들을, 수많은 종족들을 묶는데 있어서, 즉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가정을 묶는데 있어서 어떠한 가정, 어떠한 종족, 어떠한 민족을 막론하고 다 하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세계적 문이 열렸습니다. 777 문을 통해 들어가서 전부 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문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에 있어서는 1970 년도에 했기 때문에 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마지막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00-279, 1978.10.22) p.1315

세계는 통일교회의 운세에 들어와 점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970 년에 처음으로 국제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777 쌍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30 쌍까지는 선생님이 가서 축복해 준 것입니다. 한국에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전세계적으로 777 쌍 국제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10 개국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적 이상을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중심으로 세계의 운세는 통일운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5-171, 1972.5.7) p.1315

777 가정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니 1980 년대를 넘어가는데 있어서 선두에 서 가지고 모든 가정들의 전통을 상속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어떤 가정들이 설 것이냐? 그럼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통하는 겁니다. 777 가정은 세계의 종족적 가정을 대표한 가정들입니다.

야곱의 일족이 7 년노정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삼칠노정을 통해서 일족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있어서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종족적 편성이 777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세계가 통할 수 있는 전통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숙한 가정이 돼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참된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되고, 또 참된 부모와 자녀가 되어 가지고 하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지금 30 대 기준에 있는 여러분 777 가정이 통일교회에 있어서 가정을 대표한 가정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40 대는 틀렸고, 20 대는 미흡합니다. 30 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통일교회 역사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전통적 기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청사에 빛나는 역사적인 영웅들이 아니겠느냐, 청사에 빛나는 세계의 가정적인 조상들이 아니겠느냐. 이럴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 배경을 지닌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도 망한다면 선생님에게 항의하라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9-109, 1980.10.26) p.1316

1970 년도에 10 개국 이상을 중심삼아 가지고 777 쌍을 축복했습니다. 3 · 7 입니다. 삼칠은 이십일(3×7=21), 맞는 겁니다. 777 쌍은 전세계를 대표해 가지고 소생, 장성, 완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가정이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숫자적인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77 쌍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생님도 가정을 끌고 세계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갈 수 있고, 저 아프리카도, 어떠한 나라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도 뜻은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선생님한테 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선생님도 어떠한 나라든지 갈 수 있습니다. 1970 년도까지 777 쌍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가정이 전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한국이 반대하면 어떤 나라에라도 선생님의 가족을 거느리고 가서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세계적 시대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75-152, 1975.1.2) p.1316

통일교회 가정 가운데에서 36 가정이 그렇지 못하고, 72 가정이 그렇지 못하고, 120 가정이 그렇지 못하고, 430 가정이 그렇지 못하면 430 가정 이후엔 777 가정이지요. 777 가정은 쓰리 세븐입니다. 쓰리 세븐이라고 해 가지고 '쓰리 세븐은 세계가 좋아하는 것이고, 소생-장성-완성의 3 단계로서 21 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7 수에 3 대 단계를 가한 완벽한 최고의 완성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싸움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싸움대로 같이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그대로 품고 있고, 뜻을 중심삼고 전부 다 등한시하면서 이름만 팔아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9-98, 1980.10.26) p.1316

777 가정은 1970 년 10 월 21 일에 축복했습니다. 이게 777 가정입니다. 세계 국가를 중심삼고 10 개 나라입니다. 777 가정은 세계와 연결해야 됩니다. 쓰리 세븐(three seven) 입니다. 거기에는 민족의 구별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니 미국 사람이니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81-42, 1997.1.2) p.1317

777 가정의 축복은 1970 년도를 중심삼고 10 월 21 일, 그것은 삼 칠 이십일(3×7=21)입니다. 그래 가지고 7 수를 맞춘 것입니다. 결혼식으로서는 세계를 대표한 마지막 결혼식이다 이겁니다. 결혼식으로는 마지막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70 년대를 한계점으로 삼아 가지고 777 가정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의 결혼을 통해 혈통적으로 맺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77 가정부터는 초민족적 결혼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민족을 중심삼은 교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벌써 777 가정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통일교회에는 세계인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민족형성의 기반이 닦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77 가정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계민족형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초민족적 시대, 초종족적 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통일교회는 세계적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171, 1978.10.14) p.1317

선생님이 간 길을 여러분들도 가야 됩니다. 선생님의 길은 멀고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같은 모양으로 짧은 탕감조건이라도 세우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777 쌍은 몇 번 째 축복이냐 하면, 선생님, 3 가정 33 가정, 72 가정, 120 가정, 430 가정 그 다음에 세계순회 중에 한 43 가정하고 777 가정입니다. 그러니 국내적으로 보면 7 차 축복식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8 차 축복식입니다. 축복식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777 가정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10 월 21 일 입니다. 그것도 삼 칠 이십일(3×7=21)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내가 이제 축복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10 개국을 가담시킨 것입니다. (62-336, 1972.9.26) p.1317

통일교회 사상은 세계를 위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통일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릅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통일교회 문선생이란 사람을 보면 하는 것은 거창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세계 10 개국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777 쌍을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791 쌍을 해 주었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약혼하고 축복행사를 치를 때 군대 간다거나 아파가지고 참석 못하는 사람이 생겨서 수가 적게 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791 쌍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38-263, 1971.1.8) p.1317

통일교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77 쌍 합동결혼식 때에도,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대학원 출신인 석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 몇만 리 먼 한국에 와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왔다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2 천불이 듭니다. 한쌍에는 4 천불이 듭니다. 한국 돈으로 말하면 130 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면서 그들이 왜 한국까지 와서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미국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 쓰는 것보다 몇십 배 낫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입니다. 손해나는 일이라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통일사상에 의한 원칙 밑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딴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9-273, 1971.1.15) p.1318

선생님은 통일교회 식구들을 중심삼고 합동결혼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오직 문선생밖에 없습니다. 만일 결혼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었다는 것에 대해 상을 받게 된다면 세계 10 개국을 모아 놓고 777 쌍 합동 결혼식을 해준 것으로 일등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1－43, 1971.2.12) p.1318

지금 이 자리에는 축복 받은 777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777 가정은 아직까지 제대로 통일교회 식구도 안 된 사람들도 축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 얼룩덜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섞어 놓았는지 알아요? 그것은 이들을 세계를 대표하는 입장에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권을 이 지구성에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77 가정에는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형편이 무인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집합된 부인들만은 올바른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여자의 잘못으로 망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올바른 정성을 다하여 뛰게 된다면, 외세가 우리 때와 더불어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갈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44－302, 1971.5.24) p.1318

통일교회에서 결혼하면 40 일 동안 뭐냐? 그건 꿈도 아닙니다. 우리 일본 축복가정들이나 777 가정은 5 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전부 다 독신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윤락문제와 같은 것은 통일교회가 아니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세상은 사탄의 제물로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난문제를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니 그게 쉬운 일이에요? (85－335, 1976.3.4) p.1319

777 쌍을 중심삼아 가지고 국제결혼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섞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소생단계, 그 다음에는 장성단계, 완성단계,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섞을지 모릅니다. 지금시대는 어떤 시대라구요? 결혼국제연합시대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100－34, 1978.10.4) p.1319

광명한 아침을 앞에 놓고 1970 년 10 월 21 일을 기하여 777 쌍이 온 세계 만민 앞에 해방의 기치를 들고 나선다는 것은, 천주사적 승리의 터전이 소생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고도 놀라운 이날이 귀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느껴 보았습니까? 부모님의 나라, 부모님의 족속, 부모님의 가정, 부모님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10 개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 평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35－235, 1970.10.19) p.1319

777 가정은 삼 곱하기 칠은 이십 일, 전세계를 한꺼번에 맞춰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1970 년 10 월 21 일 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어떤 민족이라도 하늘에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3 곱하기 7 은 21, 삼 칠 수의 한의 고비를 탕감복귀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21 년노정에 있어서 영육을 중심삼고 혹은 남자 여자를 중심삼고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세계적으로, 오늘날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가정이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터전을 10 개국 중심삼고, 닦아 놓은 것이 777 가정입니다. 1960 년도 성혼식, 그 다음 믿음의 3 자녀, 그 다음에 36 가정, 그 다음에 72 가정, 그 다음에 120 가정, 그 다음에 430 가정, 그 다음에 777 가정, 이렇게 7 회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7 차로 모든 축복은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의 것은 세계의 것이요, 세계의 것은 한국의 것이 됩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한국에 닦아 놓은 개인복귀, 가정복귀, 종족복귀, 민족복귀의 기준이 나라를 복귀할 때까지는 종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58－59, 1972.6.6) p.1319

777 쌍 축복식을 거행할 때, 어떤 부모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통일교회 문교주님, 우리딸의 이름이 아무개인데 좋은 사윗감을 골라 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이 어느 사이에 이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요?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인줄 알았더니 어느새 봄이라는 겁니다.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도 없다면 어떻게 선생님이 살아가겠습니까? (38－187, 1971.1.3) p.131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777 쌍을 축복해 줄 때,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자격을 완전히 갖춘 입장에서 축복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이번 이 작전에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들도 살고, 그들에게 관계되어 있는 친척들도 여기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국적인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777 쌍 축복에 동참을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777 상 축복을 받은 신랑들은 신부가 응당히 자기 집으로 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관습에 따라 틀림없이 자기 집에 와 가지고 시부모를 모시고 형제들과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웬 걸 소식도 없이 전부 다 일선에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부작용이 있으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29, 1971.1.1) p.1320

우리가 70 년대에는 7 천년 역사의 탕감의 기원을 만들어야 되고, 한국 자체에 있어서는 남자의 위신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집을 안 사주면 책임 못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777 쌍을 세워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777 쌍을 중심삼아 가지고 선생님의 최고 좋은 집을 사겠다는 조건을 세웠고, 차도 최고 좋은 차를 사겠다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이 집을 사려고 하니까 사탄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서울에서 제일 복잡한 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탕감복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 집 하나 가지고 여태껏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팔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국가법에 걸려 가지고 돈을 치르지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판입니다. 이것도 탕감복귀해야 될 모양이지요? (38-122, 1971.1.3) p.1320

좋은 밥을 대하게 되면, 그것이 이 나라의 원수입니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것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항에 미국에서 보내 온 링컨차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777 가정 합동결혼식 때에 선물로 온 것이지만 이 차를 타야 될 것이냐? 이것을 팔았으면 딱 좋겠지만 이것은 역사상에 거룩한 눈물과 더불어 하늘의 명예를 걸고 보내 온 것이기에 이것을 파는 날에는 위신, 777 가정이 축복 받아 그런 위신도 서지 않겠으니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43-85, 1971.4.18) p.1320

이제 그 차만 떡 타고 다니게 된다면 '통일교회 문선생이 한국에서 제일 가는 차 타고 다닌다.' 하고 소문이 졸졸졸 날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났노?' 하게 되면, '어디서 나긴 어디서? 777 쌍 축복 받을 때에 선물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 차를 타더라도 그것은 내 돈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것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46-161, 1971.8.13) p.1320

Top

6) 1800 가정

① 1800 쌍을 축복하게 된 배경

1975 년 2 월 8 일 1800 쌍 합동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개인적으로 선을 보이고, 가정적으로 선을 보이는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통일교회 교인들이 이 세계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승리해서 하나의 말뚝을 박는 놀음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1 차 7 년노정, 2 차 7 년노정의 수난의 공적을 터전으로 하여서 비로소 3 차 7 년노정 위에 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면도상에 횡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위, 하나의 공격전을 펼친 것이 2 월 8 일 행사였던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77-217, 1975.4.12) p.132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800 가정 이것은 삼 육 십팔(3×6=18), 사탄세계의 3 수니까 사탄세계의 종결 수입니다. 삼 육 십팔, 1800 가정입니다. 사탄세계까지 세계의 문을 열었으니 원수세계까지 문을 연 겁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축복이 세계의 문을 연 것이 1800 가정인데, 여러분이 세계의 대표 종족적 기준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160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4 수에 4 배니까 사탄 이상수입니다. 사탄세계의 4 수. 가치와 내용으로는 같이 취급합니다.

본래는 180 가정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160 가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세계의 모든 가정들도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1－42, 1997.1.2) p.1321

1800 가정, 이것은 삼 육 십팔(3×6=18), 3 은 6 수를 대신한 3 시대를 말하는데, 이것은 6 수, 사탄수의 3 수 완성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가정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사탄세계권에 있는, 미래의 가정적 기반을 하늘과 연결시킬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4－41, 1981.5.15) p.1321

1800 가정, 16 은 4 수의 4 배입니다. 또 18 은 6 수의 3 배입니다. 이건 같은 것입니다. 4 수는 땅수입니다. 그것의 4 배는 입체수입니다. 18 은 사탄수 6 수의 3 배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3 수를 해 가지고 180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탕감과정에 있어서 180 가정이고, 1800 가정은 세계적입니다. (265－176, 1994.11.20) p.1321

사탄은 타락할 때 가정을 중심삼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권에 가정을 묶어서 초국가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777 가정, 그 다음에 1800 가정…. 1800 가정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사탄수인 6 수의 3 배, 소생-장성-완성해서 18 수입니다.

사탄세계에 있어서 1800 가정을 선생님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종족권을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그 국가 기준에 연결된 승리 기준은 세계에 연결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 1800 가정은 사탄의 주관권이 되는 600 수의 3 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워서 사탄권의 가정을 탕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1800 가정입니다. (190－275, 1989.6.19) p.1322

하나님은 수리적 하나님입니다. 우연히 뭐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가정들이 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자기들도 모르게 말려들어 오는 것입니다. 1800 가정은 삼 육 십팔(3×6=18)입니다. 전부 다 그 수입니다. 6 수를 언제나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6000 쌍 결혼한 것도, 2100 쌍도 다 원리적입니다. (126－52, 1983.4.10) p.1322

축복가정은 국제합동결혼식이 전통입니다. 1800 까지 중요시했지요? 6 수의 3 배수입니다. 삼 육 십팔(3×6=18), 그래서 1800 가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120 가정이고 재림주는 180 가정입니다. 180 가정과 160 가정은 같은 수입니다. 4 수의 배수라는 겁니다. 사 사 십육(4×4=16), 그리고 이건 6 수의 3 배입니다. 사탄수의 완결수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들에게 종족을 160 가정 축복하라고 했지요? 원래는 180 가정인데 160 가정도 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라도 전부 다 작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160 을 생각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180 가정입니다. 일곱번째가 1800 가정입니다. 3 가정,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430 가정, 777 가정, 1800 가정까지 7 수입니다. 7 수에서 8 수, 9 수, 10 수인 귀일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 수는 축복 세계화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92－20, 1998.3.27) p.1322

160 가정은 4 수의 4 배입니다. 사위기대 기반, 아담적 사위기대, 아담 자녀 사위기대를 못 이룬 것이 지상천국 개문이 불가능했던 것인데, 탕감시대에 4?4 절이라는 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 4 수의 4 배, 4 배라는 것은 사탄 이상 수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6 수가 사탄세계의 점령하는 기반이면 3 배, 소생-장성-완성, 삼 육 십팔(3×6=18), 그래서 1800 가정을 축복한 것입니다. 1800 가정은 1600 가정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사탄을 전멸시킬 수 있는 수입니다. (296－179, 1998.11.9) p.1322

예수시대는 120 가정이지만 재림시대, 세계화시대는 180 가정입니다. 그래서 1800 가정을 축복하고 6 천쌍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사탄수 6 수를 3 배 한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것을 밟고 넘어서는 수를 말했기 때문에 18 수입니다. (304－291, 1999.11.9) p.132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금년에 1800 쌍을 축복했습니다. 본래는 작년, 1974 년에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 4 월까지는 괜찮습니다. 1960 년 4 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도 4 월까지는 14 년 권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 월에 했는데, 14 년마다 그 놀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2 차 7 년노정의 종료와 더불어 전 세계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1800 쌍 축복을 한 것은 완전히 세계적 기준을 향해서 기반 닦아 넘어간 겁니다. 이 1800 쌍은 무엇이냐? 6 수 플러스 6 수 플러스 6 수 해서 18 수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탄세계를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제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 기반을 닦았으니, 이제는 국가를 중심삼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81-109, 1975.12.1) p.1323

1975 년 2 월 8 일에 있었던 1800 가정 축복, 이것은 전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전세계의 신문이라는 신문에는 다 나야 됩니다. 전세계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5 년이 역사적인 한 해인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선포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1800 쌍이 여기에 올라가야 이것이 횡적인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87-62, 1976.5.1) p.1323

1800 가정 하면 삼 육 십팔(3×6=18), 삼육수(6.6.6 數)는 무엇이냐면 사탄수의 완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세계적인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기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금년에 이르러 어떻게 하든지 1800 가정에서 한 가정을 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1800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일을 해 나온 것입니다. (79-104, 1975.6.22) p.1323

지금 유엔의 가입국가가 183 개국입니다. 우리가 1800 쌍 결혼을 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때 전환시기에 있어서 180 개 국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180, 1800 은 사탄수의 완성입니다. 6 수의 3 배이고 4 수의 4 배입니다. 사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로서 180 가정을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60 가정으로서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같은 것입니다. 도리어 4 수의 4 수가 이상수입니다.

그래서 유엔 가입도 16 수입니다. 서울올림픽 대회를 중심삼고 160 국가가 참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160 번째로 사탄세계의 종주국이 들어가고 한국은 161 번째로 출발입니다. 탕감하면 한국이 앞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272-284, 1995.10.8) p.1323

1800 쌍서부터 믿음의 아들딸을 강조 안 했습니다. 축복 세계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횡적인 것을 종적으로, 종적인 것을 횡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횡적인 것을 종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아들딸이 자기 일대에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가 되노? 아버지가 뭐가 돼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면, 아들이 되고, 형님이 뭐가 돼요?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292-114, 1998.3.28) p.1323

2 월 8 일, 선생님이 지금까지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때입니다. 한시간 반 전까지 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그때 열 시에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여덟 시 반까지 그 놀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잠 못 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는 것은 일생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장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83-226, 1976.2.8) p.1324

Top

7) 6000 가정

① 6000 가정은 종횡의 종교권을 열어 놓은 것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6000 가정은 전세계의 종적인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이, 종적인 기독교인과 횡적인 가인세계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6000 가정을 선생님이 연결하게 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세계가 가정적으로 공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성 기준을 국가 기준에서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영적인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 실체 기준을 기독교문화권에 연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전국적으로 부흥활동을 했는데 가는 모든 곳마다 환영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기준을 대표해서 한국에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190-275, 1989.6.19) p.1324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뿌리에 달린 하나의 가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뿌리를 중심삼고 줄기를 따라서 모든 가지들이 커 가게 되어 있지, 자기 자체가 클 수 있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특정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정을 중심삼은 전통, 그 기반 위에서 확대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430 가정 그 다음에는 777 가정, 1800 가정, 6000 가정, 이것은 세계의 확대적 조건의 대표로서 축복해 준 것입니다. (145-15, 1986.4.30) p.1324

6000 쌍, 6000 가정은 완전히 역사적인 이 가정문을, 전세계 공산권까지, 사탄세계까지 전부 다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창건이라는 이 기준까지 끌고 나와 가지고 미국과 사생결단을 한 것입니다. (135-178, 1985.11.13) p.1324

6000 가정을 끝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한을 해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책임 못한 것을, 미국이 책임 못한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다 했던 것입니다. (233-123, 1992.7.31) p.1324

6000 가정을 중심삼고 감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가정도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가인세계 뿐만 아니고 지옥 천상세계, 지상세계에 대해 문을 열어 주는 6 천수입니다. 6000 가정들이 문을 열어 주는 겁니다. 다 열어 줬으니까 세계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문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열어 놓았으니까 공개하는 것입니다. (281-42, 1997.1.2) p.1325

6000 가정은 사탄 6 수를 세계화한 것입니다. 그거 알아요? 3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430 가정, 777 가정, 1800 가정, 그 다음엔 6000 가정, 제일 핍박이 많은 때가 6000 가정, 9 수를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6000 가정이 제일 고생한 것입니다. (283-84, 1997.4.8) p.1325

선생님이 세계적인 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면, 일본 전체가 큰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들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탕감노정을 통과해 온 것입니다. 3 가정에서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430 가정, 777 가정, 1800 가정, 6000 가정, 이것은 세계적인 탕감의 길을 넘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결혼했지요? 그래서 결혼의 길을 통해서 탕감하는 것입니다. (234-84, 1992.8.4) p.1325

통일교회는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합동결혼식을 합니다. 통일교회는 인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에 백인 다르고, 흑인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통일교회가 위대하고, 통일교회 교인들이 다른 것이 그겁니다. 지난번에 6 천쌍 합동결혼식할 때도 내가 일본 여자들과 흑인들을 한 70 쌍 정도 결혼시켰습니다. 강제로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140-259, 1986.2.12) p.1325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면 유엔 가입국이 182 개국입니다. 183 개권 내에 들어왔습니다. 요것이 180 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80 가정보다도, 180 개 선교본부보다도 160 이 수가 적으니까, 그걸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160 수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1800 가정 중심삼고 6000 가정을 전부 다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사탄수 완결입니다. 6000 수라는 건 가정에서는 사탄과 관계없다는 수입니다. 가정이 사탄세계의 수를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해방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260-150, 1994.5.2) p.1325

문제를 일으켜라! 문제를 일으키면 문 아무개가 지게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 6 천쌍 합동결혼식 할 때도 2 천 8 백쌍, 5 천 6 백명이 전부 여기 올 때 반대하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 반대해 봐라! 어디 한 녀석이나 빠지나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반대해도 한 녀석도 안 빠졌습니다. 그런 놀음을 왜 하는 거예요? 청년세계에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문선생님이 가는 곳에 합동결혼식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일본도 반대하다가 나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을 다 아는데, 이젠 반대할 수 없다는 그런 간판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136-182, 1985.12.22) p.1325

선생님은 세계사적인 최일선에서 사탄의 총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의 총공세와 아시아의 총공세를 전부 받으면서 이런 길을 닦아 나왔지만 여러분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환영받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홈 처치에서는 동서남북에 널려 있는 그 문들을 이제 다 열어놓고, 또 잠궈 놓은 문도 열어놓고 통과해도 좋다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에서부터 둘로, 둘에서 셋으로 연결되어 한국에서의 6000 가정을 중심삼고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135-337, 1985.12.15) p.1326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대회를 얼마나 많이 해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나한테 보고도 안 합니다. 여기 6 천쌍 합동결혼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서 결혼식을 한다 하더라도 싸우고 야단하는데, 6 천쌍 결혼을 하면서도 뭐 큰소리 하나, 사고 하나 없이 깨끗이 왔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하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별의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가 고장나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전부 다 하늘이 보우하사입니다. 고마운 것이 그것입니다. (130-64, 1983.12.11) p.1326

Top

8) 6500 가정

① 6500 가정은 교체축복 케이스

사탄수의 3 배,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대표한 6 천년에 해당하는 수를 탕감하고 역사 전체 인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권 내로 전부 다 탕감해 넘어가는 수라는 겁니다. 이건 777 가정, 1800 가정은 7, 일곱번째입니다. 7 수, 7 수는 넘어가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6000 가정은 8, 6500 쌍은 6700 가정입니다. 6700 가정은 인간이 6 수를 중심삼고 7 수를 합해 가지고 청산 짓는 겁니다. 6 수로 말미암아 7 수를 아직은 못 넘어왔으므로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6500 쌍 축복을 한 것입니다. 6500 쌍은 미국 200 쌍 하고 해서 6700 쌍입니다. 그걸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9 차, 아홉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288-116, 1997.11.25) p.1326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재작년 10 월 30 일에 6500 쌍이 넘는 사람들을 교체결혼시켰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남자 여자를 얻고, 한국 사람은 일본 남자 여자를 얻은 것입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203-277, 1990.6.27) p.1326

아담국가를 대표한 한국 사람하고 해와국가를 대표한 일본 사람하고 교체결혼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어떻게 하나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국가기준에서 교체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적 가정을 연결시키는 데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으로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니까 세계적 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교체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이 통일적 운세를 맞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심삼고 시작했었는데, 하늘의 뜻을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김일성이가, 사탄세계가 침입하여 남북이 분립돼 가지고 세계가 여기서 문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졌으니 합할 수 있는 운세를 수습하지 않고는 본연지에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생님이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개천절을 중심삼고 아담국가 해와국가가 교체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조건적으로나마 가정적 국가기준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기준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194-116, 1989.10.17) p.1327

왜 이번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백 퍼센트 교체결혼 했느냐 하는 것을 알겠어요? 아담국가와 해와국가, 아담국가는 한국이요 해와국가는 일본인데, 아담과 해와 개인으로 제멋대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망신살이 뻗쳐서 세계를 잃어버렸던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뿌렸던 것이 열매로 국가적 기준에서 거두어 오는 것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탕감해 뒤집어 놓아 가지고 세계적 원칙에 있어서 아담이 위에 가고 해와가 아래로 된 여기서 2세를 중심삼고 연결된 이 사랑의 터전을 유린할 자가 사탄세계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88-313, 1989.3.1) p.1327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석으로 장식한 미인이 알몸으로 드러누워 있는 형상과 같습니다. 아무 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것을 네 명의 남자가 노리고 있습니다. 세 천사장과 완성한 하나의 아담입니다. 그 완성한 아담이 권한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이놈들, 손을 대지 마라!' 하고 교체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딸을 모두 점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아들딸, 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세 천사장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체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데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결혼이야말로 일본이 주인으로서 최고의 조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기쁨의 조건입니다. (237-249, 1992.11.17) p.1327

한일 교체결혼을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아를 넘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가정은 중국도 전부 다 개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국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본향 땅에 파견해서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으려고 아담과 해와의 일체권을 선생님이 묶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34-91, 1992.8.4) p.1327

저번에 일본의 처녀 총각 2천5백 명과 한국의 처녀 총각 3천5백 명을 교체결혼 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했습니다. 그 2천5백 명 가운데 동경대학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국회의원 비서실장이 43명이 있고 말입니다. 동대 출신은 열 몇 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 중간 대학 졸업자는 수두룩하고, 의사만 해도 한 30명 됩니다. '다 집어치우고 한국에 오는 거야!' 했습니다. 어때요? (200-122, 1990.2.24) p.1328

일본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들과 교체결혼을 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쪽이 높으냐? 교체결혼을 한 사람들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루다, 오야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장래의 중요한 책임은 누구의 어깨에 있느냐? 교체결혼을 한 사람들을 일본의 책임자로 차츰 임명하는 것이 전통적인 하늘의 관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처음 합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217-54, 1991.4.16) p.1328

요전에 우리가 교체축복할 때 일본에 구보끼나 몇몇 다른 간부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다그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몇만 명이에요? 6500쌍이면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일본에서 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 8천 명, 9천 명이 일주일 동안에 전부 밀어닥치는데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올 스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 다 무슨 바람인지도 모르게 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대사관에서는 사흘인가를 밤낮 자기 일족을 동원해 가지고 도장만 찍어 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후원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6500쌍 축복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후원한 것입니다. (198-373, 1990.2.11) p.132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독교는 원수가 개인인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개인 원수가 아닙니다. 나라 원수입니다. 나라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불이 켜지지요? 이번에 교체한 것 알아요? 개인으로 교체결혼할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함정이 벌어지지만, 오히려 그렇게 심어진 뿌리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는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되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교체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운세가 땅에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195-222, 1989.11.15) p.1328

Top

9) 3 만가정

① 3 만가정은 3 시대 3 수를 대표한 가정

작년에 3 만쌍이 축복을 받았는데 국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정치권을 초월해서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3 만쌍이면, 6 만명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흘도 아니고 하루에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130 여 개 국가에서 온 백인, 흑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전부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아무리 달라도 사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입니다. 위하여 사는 삶의 문화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천하게 살지만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전세계에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해 가지고 20 년 후에 하나의 세계,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48-183, 1993.8.3) p.1329

1992 년 8 월 25 일이 무슨 날이에요? 3 만쌍 결혼식일입니다. 통일교회 축복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20 년 동안 성별하고도 축복을 못 받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때는 뭐냐? 일주일 동안을 7 년으로 잡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자신이 틀림없이 사탄의 몸뚱이인 것을 인정하고 참부모가 와서 혈통을 전환시킨다고 믿으면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탄이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전환해야 됩니다. (251-259, 1993.10.31) p.1329

3 만쌍 결혼은 뭐냐하면, 최후의 고개를 넘는 것입니다. 3 시대, 소생시대•장성시대•완성시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3 수를 대표한 것이 3 만쌍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6 수를 넘는 것입니다. 3 수 주도권에서 6 수를 넘는 것입니다. 2 차대전을 중심삼고 영국, 미국, 불란서와 일본, 독일, 이태리, 이 전체를 탕감해야 됩니다. (245-280, 1993.3.7) p.1329

3 만쌍 축복을 역사적인 하나의 기념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정도 역사적이냐? 이건 세계사적입니다. 3 만쌍을 하고 나서는 선생님이 축복을 안 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234-287, 1992.8.27) p.1329

이번 3 만쌍 축복은 체육 올림픽과 함께 개최되어 인간 사회의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30 개국에서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3 만쌍의 선남선녀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결혼식은 21 세기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의 대도(大道)를 보여주는 장거(壯擧)가 될 것입니다. (234-237, 1992.8.22) p.1329

특히, 8 월 25 일에는 세계 전역에서 모인 약 3 만쌍이 성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가정 전통의 확립을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국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사회 문제의 해결은 가정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34-225, 1992.8.20) p.132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만가정이라는 것을 소생 · 장성 · 완성 3 수를 중심삼고, 3 수는 전체를 대표한 것입니다. 성별수입니다.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완전히 개방해 버리는 것입니다. (265－176, 1994.11.20) p.1330

부모님 앞에 있는 일 · 미 · 독은 아벨권이지만 장자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미-독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축복을 하는 겁니다. 92 년에 3 만쌍 세계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3 수라는 것은 완성수로서 하늘 수를 대표합니다. 소생-장성-완성입니다. 3 만가정을 축복했다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3 만쌍 결혼한 이후에는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반대가 휙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3 만쌍 결혼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도 없고, 국경도 없고, 민족도 없고, 문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할 때는 그 경계선을 못 넘고, 자기 나라를 중심삼고, 자기 나라에서도 자기 족속을 중심삼고 그것도 자기와 관계 있는 족속들만 찾아서 결혼했지만, 이것을 완전히 터 버린 것입니다. 국경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문화나 전부 다 터 버려 가지고 한 형제로서, 비로소 역사에 시작되는 결혼운동에 처음 가담하는 이러한 역사가 국제합동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269－300, 1995.5.1) p.1330

3 가정, 36 가정, 72 가정, 430 가정, 777 가정, 1800, 6000 가정, 6500 가정, 그 다음엔 3 만가정입니다. 이 3 만가정은 귀일수니까 세계적입니다. 소생-장성-완성시대를 건너가야 됩니다. 3 만쌍이 뭐냐하면,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출발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세계 축복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02－130, 1999.6.12) p.1330

1992 년 축복한 것이 8 월 25 일이지요? 3 만쌍을 일주일 동안에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3 대 조상에 횡적으로 하면 50 억 인류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면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말씀만 들으면 그 이후의 전체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면 아담가정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관계를 잘못한 것을 탕감복귀해 가지고 한꺼번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3－80, 1994.1.7) p.1330

선생님이 1992 년 8 월 25 일 중심삼고 3 만쌍 축복할 때 여러분 부모들에게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로서 가정적 메시아의 특권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딸들도 동일한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1 주일 동안에 참부모를 믿고, 혈통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참부모의 혈족이 돼 가지고 혈통전환?소유권전환?심정권전환을 틀림없이 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축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251－224, 1993.10.17) p.1330

이제는 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참부모와 참사랑을 중심 삼으면 됩니다. 참사랑을 통한, 참다운 사랑을 중심삼은 참된 생명, 참된 혈연적 인연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총재 앞에, 부모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상이 아닙니다. 작년에 3 만쌍을 축복한다고 할 때 기성교회 목사들이 '허허허! 저 공상가, 반미치광이' 그랬습니다. (245－160, 1993.2.28) p.1331

3 만쌍 축복해 줄 때 아무 것도 모르는 기성가정들을 일주일 수련 받게 해 가지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메시아의 자리, 아담의 자리, 재림주의 자리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242－205, 1993.1.1) p.1331

1992 년 8 월 25 일. 그날은 3 만쌍 축복식을 한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한 부모를 해방하고 같은 기준에 올려주기 때문에 타락한 후손도 그 페이스로서 같은 평등한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소생-장성-완성입니다.

3 만쌍 때는 일주일 수련 받고 맹세하면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 부모들을 해방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와 더불어 후손 전체를 해방해서 횡적 평등 가치의 기준에 서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참부모는 이렇게 해서 세계 가정의 주체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249－137, 1993.10.8) p.133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992 년 8 월 25 일을 중심으로 해서 3 만쌍의 결혼식은 누구나 똑같이 축복한 것입니다. 일주일만 원리를 듣고, 단지 참부모를 믿는다 하게 되면 축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타락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참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참부모한테 맡겼습니다. 타락하여 사탄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혈통전환, 소유권전환, 심정권전환을 하고, 틀림없이 참부모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맹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것이 3 만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복을 받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규칙을 중심삼고 형님, 언니들이 한 것을 상속한 기반 위에 축복한 것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상속받으면 그것을 상속한 선조가 관리, 보관하면서 사랑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 선조들이 가진 것과 같은 심정권을 이어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전과 달리 사탄의 세계가 해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 모두 하나되어 가면 그 경지를 넘어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3 만쌍 축복식을 했지만, 3 백 60 만, 3 억 6 천만도 문제가 아닙니다. 36 억도 인공위성을 통해 몇천 곳, 몇만 곳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인류를 축복시키면 됩니다. 제삼대의 선조들이 모두 해방되어 축복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후손과 부자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어디든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어디든지 가져가고 여기의 것도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는 평면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없습니다. (257－205, 1994.3.15) p.1331

이제는 한꺼번에 축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 주일 지나면, 7 수인 1 주일이 되면 축복해 줄 수 있다 한 겁니다. 그걸 선포한 것이 3 만쌍 축복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1 주일만에 모든 일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물이 들 때의 6 시간 전체의 연결입니다. 이게 빠지게 될 때는 6 시간 걸려서 이곳에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전통적인 사상을 훈련받고, 접목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논리적입니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258－210, 1994.3.17) p.1332

아담과 해와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통해서 만국에 통일권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3 만쌍까지 선생님을 중심삼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건 평면적인 것입니다. 같은 혜택권 내에 있다는 겁니다. 3 만쌍을 중심삼고 비로소 일주일만 수련 받고 절대 신앙만 가지면 다 축복해 준 것입니다.

하늘이 사탄편을 추방해 가지고 세계를 수습하고 비로소 천주에서 세계, 국가, 민족, 종족, 가정까지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반을 다 닦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찾아 내려오는 겁니다. 찾아 내려와서 땅 위에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됨으로서 말미암아 사탄을 추방한 가정의 기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 시대, 그때가 3 만쌍 축복을 중심삼고 3 년노정을 거치는 때입니다. (269－11, 1995.4.6) p.1332

재작년 8 월 25 일을 중심으로 해서 3 만쌍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6 시간 걸려서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쪽은 6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몇 분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주일 수련을 받고 참부모를 인정하고, 혈통전환, 소유권전환, 심정권 전환을 하겠다는 결의만 하면 그것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혈통전환, 소유권전환, 심정권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말입니다. (259－84, 1994.3.27) p.1332

3 만쌍 축복 때에는 공이 없는 사람까지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족적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 된 자들의 부모들이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반대했고, 그 종족 전체가 통일교회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극성맞게 반대한 것은 도리어 통일교회에 들어온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한 부모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242－104, 1993.1.1) p.1332

교체결혼이야말로 일본이 주인으로서 최고의 조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기쁨의 조건입니다. 이번이 교체결혼이 몇 번 째예요? 두 번째일 겁니다. 이번에 천하 제일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3 만쌍 때, 일본이 필사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탄은 일본 전체를 가지고 최대 공격을 했지만, 선생님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을 단풍처럼 물들어서 이미 전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야! 합동결혼, 멋있다!' 하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3 만쌍 결혼식의 80 퍼센트는 NHK 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237-249, 1992.11.17) p.1333

작년 8 월 25 일 3 만쌍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1 만 7 천쌍이 와서 결혼했기 때문에 일본을 문총재가 말아먹는다고 해서 반대하기 시작해 가지고 1 년 동안 두들겨 팼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금년 8 월 통일교회는 없어진다. 해체되어 가지고 흘러가는 물과 같이 자국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그럴 것 같은 사나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8-276, 1993.10.3) p.1333

역사적인 전통을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자기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참부모는 또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양심 있는 젊은 청년들은 찰떡같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만쌍의 결혼식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하루에 3 천 7 백 몇 쌍을 다 묶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3 만쌍도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은 못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랑문제를 중심삼고 이 일을 할 때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교주를 해먹는 것입니다. (241-121, 1992.12.20) p.1333

여기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손들어 봐요? 내리세요. 이번에 3 만쌍 축복에 참가한 사람들이 90 명 정도 모였다고 들었는데, 손들어 봐요? 모두 다 젊지요? 여러분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였었지요? 3 만쌍이 축복을 받으면 일본 민족이 한국 민족에게 예속된다고 생각하는 우익을 중심한 일본 경시청,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반대를 했습니다. 언론계와 하나되어 가지고 4 개월 간 쭉 반대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240-108, 1992.12.11) p.1333

기독교의 잘났다는 사람들이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24 일에 그렇게 얻어맞고는 머리가 '뻥!' 했는데, 25 일에 3 만쌍이 결혼식 하는 것을 보고는 전부 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놀음을 못 하지!' 하며 깨끗이 재정비되어 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235-191, 1992.9.20) p.1333

선생님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들딸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말을 들었으면 일을 못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끌고 넘어가야 됩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았지요? 누구나 다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죽고 사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핍박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의 3 만쌍 결혼으로 말미암아 정비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들딸이 3 만입니다. 이 3 만 명이 모두 정신나가고 멋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학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무시를 못 하는 것입니다. (235-139, 1992.8.29) p.1334

3 만쌍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총재가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다 소문났지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선포를 할 만하다 그겁니다. 메시아쯤 되기 때문에, 구세주쯤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240-250, 1992.12.13) p.1334

바닷물이 일년에 단 한 번 밀물로 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며칠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만입니다. 그렇게 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번 3 만쌍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있어서 심정권 완성 기준이란 그 바닷물과 같이 한 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 때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7 일 수련, 3 일 수련만 받으면 모두들 축복해 준 것입니다. (237-247, 1992.11.17) p.133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만쌍 결혼식 때는 평면상에 세우는 만큼 모든 세계 인류를 부모님이 책임지고 해방의 자리에 세워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주일 수련을 받고 혈통전환과 소유권전환과 심정권전환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축복을 통해서 참부모가 역사 전체를 탕감해 주며 자신들이 해방된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249－248, 1993.10.10) p.1334

이번에 3 만쌍 결혼할 때는 3 일 동안 교육만 받아도 축복에 동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조건으로 3 만쌍 축복을 받고 자기가 종족적 메시아로서 가정에 돌아가서 타락으로 제멋대로 결혼 한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3 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딸의 말을 듣겠다고 하면 축복의 자리, 아담과 해와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아들딸은 가인 아벨이고 아담과 해와는 부모의 자리에 동참하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공이 없어도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부모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의 내부에만 주고 사탄세계, 외적인 세계에는 안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0－246, 1992.12.13) p.1334

레버런 문이 7 월 3 일부터 8 월 24 일까지 '내가 참부모이고, 구세주다!'라고 선포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버런 문의 말대로 구세주가 재림한다면 레버런 문처럼 세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성교인들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3 만쌍, 6 만 명이 결혼식을 하는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기성교회에서 날고 들고 별의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하니까 '어…!'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반대하던 기성교회가 나가자빠졌습니다. (239－274, 1992.12.6) p.1334

나는 세계의 선을 볼 줄 압니다. 개인적인 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아들딸 결혼 상대를 10 년 가도 고르지 못하는데, 나는 10 초에 열 다섯쌍까지 맺어 줬습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훤히 알기 때문에 그런 놀음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을 만하지요? 3 만쌍을 결혼시켜 줬으니 말입니다. 뚜쟁이라는 말이 있지요?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하면 뚜쟁이입니다. 그렇지만 뚜쟁이가 아닙니다.

결혼은 본래 참된 부모가 시켜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걸 수습해서 전부 다 접붙여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나밖에 알지 못하니 내가 처리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45－241, 1993.3.7) p.1335

3 만쌍 결혼 때 사진을 가지고 약혼을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세계에는 없습니다. 결혼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점 자리에 서라 이겁니다. 결혼하는데 절대신앙을 가진 자리에 섰다 이겁니다.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사랑을 못 가졌지만, 이들은 국경을 넘어 가지고 사탄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의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절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와가 절대사랑을 못 했기에 절대 사랑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체를 부정하는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277－131, 1996.4.7) p.1335

3 만쌍을 할 때도 곽정환은 '3 만쌍! 6500 쌍의 5 배가 되는구만. 어떻게 합니까?' 한 겁니다. 6500 쌍도 눈을 부릅뜨고 죽는다고 야단하며 했는데, 그것도 10 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년 이내에 해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종교적으로 모슬렘이든 불교든 유교든 찾아가서 몇 쌍이라도 해야 된다!' 할 때 못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시멘트 눈이 됐습니다. 시멘트 눈을 알아요? 얼어붙은 눈을 시멘트 눈이라고 합니다. 못 한다고 했지만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294－151, 1998.6.14) p.1335

김일성이 '3 만쌍 합동결혼식을 진짜 하느냐?' 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3 만쌍을 어떻게 결혼시키느냐는 겁니다. '3 만쌍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3 만쌍 결혼식을 했으면 '그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김정일과 김일성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만쌍 결혼 사진이 청와대에는 없지만 김일성 김정일의 방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거 잘한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문을 열었고, 소련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239-42, 1992.11.23) p.1335

본래는 김일성하고 나하고 약속하기를 말이에요, 전부 다 북한에서 온 난민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산가족, 이산가족을 전부 다 만나게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교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3 만쌍을 북한에서 전부 다 환영할 터이니까 데리고 오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여름이었는데 여러분 송도 알아요? 송도 해수욕장, 해당화 피는 소나무 밭, 무한한 소나무 밭이 있는 흰 모래사장에 천막을 얼마든지 칠 수 있으니까 문총재가 원한다면 3 만쌍 그냥 그대로 북한에서 환영!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273-320, 1995.10.29) p.1336

3 만쌍 합동결혼식을 재료로 해 가지고 내가 '일성이 형님, 3 만쌍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갈 텐데 삼팔선을 열 자신이 있소?' 하니까, '있고 말고, 있고 말고! 야, 그거 멋지다!' 했습니다.

김일성이 3 만쌍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이 없잖소?' 하니까, '송도 해수욕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 솔밭에 수십 만이 들어갈 수 있소, 그러니 열명 당 텐트 하나씩만 가지고 오면 만사가 해결이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곳으로 먹을 것을 나르라는 것입니다. 원산항을 열 테니까 배로 전부 실어 나르라는 것입니다. (239-42, 1992.11.23) p.1336

3 만쌍이 북한에 들어가 송도 해수욕장에 가서 열 사람에 천막 하나씩 가지고 지내게 하려고 했습니다. 벗고 지낼 수 있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문총재가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정부에도 통보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막았느냐? 현정부가 막은 겁니다. 그래도 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천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지만 천도를 떠나면 흑암의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38-266, 1992.11.22) p.1336

이번에 3 만쌍을 김일성이 전부 다 초대했습니다. '문총재,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이 삼팔선을 열기 위한 제일 좋은 찬스요. 북한에서 3 만쌍을 전부 다 받겠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릅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북한에서 '3 만쌍을 받겠소!'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차 한대에 50 명씩 타면 몇 대예요? 3 만쌍이니까 1 천 2 백 대입니다. 50 명씩 탄 1 천 2 백 대가 쭉 가면 몇 킬로미터가 돼요? 만약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해보면 남북통일의 소요 사건이 나겠나, 안 나겠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가 이 일을 반대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처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뭘 했다는 것을 전부 다 기록해서 데이터를 내려고 합니다. (238-161, 1992.11.22) p.1336

이제는 통일교회를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회를 모르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통일교회를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세계에 나가 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할 때 '한국'이라고 하면, '3 만쌍 결혼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할 때 가보지 못했으면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할 때 '장관이었습니다.' 하면, '장관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면 전부 다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24 일에도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뱅퀴트(banquet:만찬회)를 하고 돌아오니까, 내일이 결혼식인데 4 백 명이 짝을 못 맺고 어디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 가지고 밤새껏, 네 시가 지나도록 짝을 맺어주고 나오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구요. '이런 날, 비가 오고 벼락이 치고 땅을 들었다 놓는 거기에서 3 만쌍을 부동자세로 세워놓고 축복해 주면 그거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234-289, 1992.8.27)

Top

10) 36 만가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36 만가정은 세계적인 등뼈가정

왜 36 만쌍으로 정했느냐? 우리 축복가정 가운데서 제일 중심 되는 가정이 36 가정입니다. 아담가정, 노아가정, 야곱가정을 말하는데, 이건 종적인 기준입니다. 이 세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되어 가지고 12 수를 채우는 겁니다. 여기에 3 단계를 합해 놓으면 36 수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모든 조상들, 전체 인류를 대표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등뼈, 뼈와 마찬가지입니다. 등뼈와 마찬가지의 종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뼈를 중심삼고 살이 하나되어 가지고 세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은 결혼을 잘못해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의 이름을 중심삼고 전체?전반?전권?전능의 권한을 가지고 만민 해방권을 선포하는 것이 36 만쌍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36 만쌍은 아담권, 노아권, 야곱권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담권을 완성하고, 예수님권 완성, 재림주 완성을 평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36 만쌍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36 만쌍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360 만쌍, 3600 만쌍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3 억 6 천만쌍이지요? 그걸 다 이루면 지상천국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269－55, 1995.4.7) p.1337

이스라엘 민족이 40 년 광야 노정을 지나고 7 년노정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통을 못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국이 됐지만 우리는 건국이념,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40 년노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갔으니 이 7 년노정 가운데 전부 다 건국 사상과 통일적 세계, 평화의 이념에 충만한 국민으로 결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 되는 제 1 세와 제 2 세가 가인 아벨로서 하나되어야 할 텐데 제 1 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묶느냐? 축복을 서둘러 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해주자 하는 것이 36 만쌍 결혼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기성가정이 가입하는 겁니다. 많은 기성가정들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통일교회를 반대한 사람들은 원수들입니다. 기성가정들을 축복해 준 것이 36 만쌍입니다. 1 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다 독수리 밥이 될 것인데, 죽을 것인데 살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딸, 2 세가 아벨이 돼 가지고 1 세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모와 같이 절대복종 · 절대신앙 · 절대사랑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복귀해 들어가는 겁니다. (269－216, 1995.4.23) p.1338

3 만쌍 결혼한 이후에는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반대가 휙 돌아갑니다. 그 이후 3 년만에 36 만쌍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36 수라는 것은 아담가정, 노아가정, 야곱가정까지 36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상수입니다. 그러니 36 만쌍 축복은 세계적인 모든 전체의 등골과 같은, 조상과 같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장성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세계의 가정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란된 이 가정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문제로 세계가 앓고 있는데, 통일교회가 36 만쌍 청년 남녀들을 중심삼고 새로운 가정을 편성해 가지고 그 가정들이 이상적으로 잘살아 간다고 하게 될 때에는 세계의 모든 파괴된 가정들은 여기에 전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36 만쌍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결혼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소문이 나서 한 나라에서 3 만 6 천쌍씩만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지금 5 만쌍까지 하겠다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269－300, 1995.5.1) p.1338

1995 년 25 일에는 전세계 72 만 명, 36 만쌍의 선남선녀들이 창조본연의 이상가정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 부부가 비로소 이상가정을 향한 참가정의 모델을 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271－147, 1995.8.27) p.1338

이제 36 만쌍을 해서 사탄세계가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여하에 따라 몇천만 쌍도 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 안 해도, 내가 기도 안 하고 내버려둬도 그 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넘어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예상숫자가 몇 천인가를 벌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책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내 책임! (271-255, 1995.8.28) p.1338

36 만쌍이라는 것은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3 만쌍부터 공개적인 축복을 세계적으로 한 겁니다. 거기는 국가의 제 2 인자까지 참석했습니다. 장관급 이상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들도 다 출석한 겁니다. 세계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3 만쌍에서 36 만쌍을 3 년만에 한 것은 3 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통일교인들, 여러분들 전부 다 밖에 떨어져 나가 가지고 별의별 이유 다 들면서 그걸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하고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사탄세계는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소생 가정권 세계 판도 위에 3 만쌍을 기반으로 해서 장성권 36 만쌍을 중심으로 36 만쌍은 36 가정을 세계 판도 위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272-27, 1995.8.30) p.1339

이번에 내가 36 만쌍을 축복한 것은 남미로부터 알래스카로 다니면서 황무지의 개척의 왕자와 같이 잃어버린 걸 다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수습하게 되면 36 만쌍이 고개를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적 중심삼고 나는 외적 중심삼아 가지고 이걸 정비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36 만쌍을 하게 되었습니다. (272-31, 1995.8.30) p.1339

선생님이 허재비가 아닙니다. 이거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짝을 맞춰줬습니다. 지금 벗어날 때가 됐으니 그렇지, 미리 정해 놓고 한다는 등 미친 사람으로 소문난 것입니다. 36 만쌍을 거느리고 축복해 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조화요?'해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손이 가는 겁니다. 손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사진에 척척 손이 간다는 겁니다. (272-41, 1995.8.30) p.1339

36 만쌍 축복을 위해서 피땀 흘려 가지고 8 월 25 일이 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워싱턴대회 하던 그 이상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늘 앞에 선언한 위신과 체면이 여기서 전부 다 깨져 나가느냐, 도약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고 별의별 짓을 다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선생님을 사랑하사, 선생님을 보호하사 그 외롭고 비참하게 산 문 아무개를 동정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구도 생각지 않았는데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3 만쌍에서 36 만쌍이 12 배의 수입니다. 그래서 36 만쌍은 10 배로 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종치는 소리가 땅 끝까지 울렸습니다.

또 지금 세상은 에이즈라든가 프리섹스로 말미암아 독사의 입에 손을 넣는 것같이 위험한 시대입니다. 미남자를 찾는 여자는 에이즈에 걸리고, 미인을 찾는 남자는 전부 다 에이즈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살아서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방어할 길이 없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71-214, 1995.8.28) p.1339

1992 년을 지내고 3 년 만인 95 년에 36 만쌍 축복을 했습니다. 3 만쌍에서부터, 국제적 수준의 3 만쌍에서부터 축복을 같은 자리에서 해 준 것입니다. 가인 아벨을 같은 자리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1 주일만 말씀을 듣고 절대신앙을 가지고 참부모를 모시고, 절대사랑을 가지고 참부모를 사랑하고, 절대지혜, 참부모의 지혜, 사탄세계의 지혜가 아니라, 무지가 아니라 참부모의 지혜를 가지고 뜻길을 가겠다고 결심만 하면, 1 주일만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맹세를 하게 되면 축복을 해 준다 이겁니다. 같은 자리에 세워 준다는 것입니다. (277-133, 1996.4.7) p.1340

3 만쌍 결혼했다가 3 년 후에 36 만쌍 결혼한다고 하니까 된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놀음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놀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도 이런 놀음을 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록적입니다. 사탄세계 가정 전체를 밟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장성적 기준인 36 만쌍을 승리했으니

[텍스트 입력]

사탄세계의 나라를 밟고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360 만쌍입니다. 이것은 전권시대입니다. 결혼 전권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75－282, 1996.1.1) p.1340

이번에 축복 받은 36 만쌍 가운데는 회회교 신자, 불교 신자, 유교 신자, 초종교적 신자들이 축복 받으러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축복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황족권 될 수 있는 기독교 문화권이 꼴래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전부 지옥으로 처넣어야 됩니다. (277－42, 1996.3.24) p.1340

장자권 시대, 부모권까지 왔기 때문에 명령 하에 안 움직이면 걸려 넘어갑니다. 자기 조상들이 와 처리해 주는 겁니다. 천사세계도 내려와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조상들이 와서 약주고 병주고 합니다. 통일교회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번에 전세계 종단장들이 그런 명령에, 하늘의 특명에 의해 가지고 명령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다. 종단장들한테 '축복해, 이 자식아!' 그런 꿈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 36 만쌍이니까 360 만쌍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통일교회니 유명한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274－187, 1995.10.29) p.1340

36 만쌍 결혼을 전부 다 6 개월 동안에 해결했습니다. 제 3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명을 걸고 해왔습니다. 배가 불러서 배를 쓸고 트림을 하면서 해 온 것이 아니라 배를 주리고 죽어 가면서 아들딸과 생이별하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투철한 신앙 기반이 남아 있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273－236, 1995.10.29) p.1340

이번에 36 만쌍 결혼식을 했는데, 36 만쌍이 몇 명이에요? 72 만 명을 세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일생 걸릴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다. 안돼요? 선생님이 6 개월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3 년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계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동원해 가지고 아프리카 지바에…. 여기 북쪽은, 북반구는 반대하는 겁니다. 여기가 밝으면 저쪽은 어둡고 저쪽이 어두우면 여기는 밝습니다. 지금은 저녁이 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273－50, 1995.10.21) p.1341

이번 36 만쌍 합동결혼식 할 때 얼마나, 일본에서는 이것이 실패한다고 해서 한국 기독교와 연합 운동해 가지고 여차 발표만 나오면 '때려잡자!'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이 정부로부터 전부 다 해 가지고 밀어 치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꿈같은 얘기가,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NHK 가 실황 방송을 전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돼 가지고 36 만쌍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실황으로 방송해 가지고 반대하려고 왔던 160 명 가량의 언론인들의 고개가 다 수그러들었습니다.

NHK 가 발표해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찍고 지그재그로 발표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NHK 가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계를 대표했다는, 그래도 선진국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세계적 안목에 있어서 탈락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식 발표하니 그 나머지 반대가 완전히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부시가 와 가지고 싹쓸이 한 것입니다. (272－198, 1995.10.5) p.1341

참된 가정과 이상가정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라는 이상가정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아들딸들이 이상가정을 형성하지 않기 바라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원하더라도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정치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경제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외교 능력 혹은 군사력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36 만쌍 축복입니다. (272－196, 1995.10.5) p.1341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근본을 알려주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전 세계 마을마을, 촌촌에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지상이 완전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6 만쌍이라는 건 큰 것입니다. 40 년이 되어서 어머니를 중심삼아 가지고 여성해방과 더불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것이 어머니 출현입니다. 여성해방과 더불어 3 만쌍을 축복한 것입니다. 축복의 기준으로 3 만쌍을 한 것은 세계적인 어머니와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새로운 축복 기반을 세계에서 성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소생이라면 이건 장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니 만큼 36 만쌍을 중심삼고 하늘이 섭리적 페이스로 맞춘 게 뭐냐하면 가정 문제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옥화 돼 버린 것입니다. 암만 선진 국가가 자랑하지만 가정 문제 중심삼고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겁니다. 완전히 파탄 당했습니다. 손댈 수 없다 이겁니다.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가지고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272－179, 1995.10.5) p.1342

어머니가 해와의 책임 못 한 것을 해방해 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성해방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 년권 내에 있어서 여성해방을 통해서 나라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찾아 나가는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권 내에서 36 만쌍 가정을 찾아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가정은 완전히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큰 주류의 흐름이 되어 가지고 문총재의 가정이상은 인류를 해방하고 평화의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제 전부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반대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반대하면 '들이 쳐라, 이 자식아! 문총재가 한 일이 뭐야? 세계적으로 청년 남녀들을 묶어 가지고 36 만쌍 결혼식 한 걸 몰라? 너는 뭘 했다고 그렇게 반대해! 집어치워!'하고 왕이든 누구든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네방네에 가서 어미 아비를 타고 앉아 가지고 항복시킬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권 복귀입니다. 알겠어요? (272－50, 1995.8.30) p.1342

하나님이 문선생을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안팎으로 실천해 나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실천하고 나서 가르쳐 나오는 것입니다. 36 만쌍도 그렇습니다. 36 만쌍도 된다고 하는 그 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360 만쌍도 된다는 그 위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선생님 뜻 받들어서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72－47, 1995.8.30) p.1342

36 만쌍을 했으니 이제 원리결과주관권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는 원리결과주관권 내의 장자권 복귀를 위한 싸움을 매일같이 진행해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직접주관권, 원리결과주관권을 넘어서서 직접주관권과 하나되는 겁니다. 선생님과 하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꽁무니만 붙들고 절대 하나되면 결과주관권이 분립이 안되고 통일이 되어서 승리의 패권자로서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를 중심삼고 볼 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272－95, 1995.8.30) p.1342

36 만쌍 결혼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왕권 국가 기준으로 사탄세계를 밟고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해와면 해와로서, 아내면 아내로서의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당당히 국가를 넘어서 하늘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책임분담을 완수한 것입니다. 직접주관권의 하나님의 혈통을 직접 전수 받을 수 있는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272－74, 1995.8.30) p.1342

3 만쌍 할 때도 곽정환이는 가망성이 없다고 했었지? 될지 말지 그랬지? 36 만쌍 이건 꿈나라에서 점치는 겁니다. 꿈 가운데서 점을 치니 맞을 게 뭐예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36 만쌍은 이미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겁니다. 답을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한 순간에도, 3 년 동안에 밤이 되든 어디를 가든 이 초점을 끌고 다니면서 그 초점을 놓고 중심을 맞춰서 정성들였습니다. 내 정성이 50 억 인류의 정성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머니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체는 완전한 대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상의 신념은 완전한 실체의 신념으로 하나님이 성사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멋지지요? 그 신념 그대로 됐습니다. 이제 360 만쌍은 어때요? 3 만쌍에서 36 만쌍하는 것보다 쉽고도 쉬워요. 쉽고도 쉽습니다. 세상에서 문총재를 밤이나 낮이나 부를 사람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와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수천만 대의 역사에 벌어진 조상들의 모든 전부를 용서해 가지고 부부할 수 있는 인연을 땅에서 묶어 주었습니다. (272－117, 1995.8.30) p.134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는 제멋대로 내버려뒀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장성기 완성급 고개를 못 넘었기 때문에 완성한 부모로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를 넘어갔습니다.

40 년 고개를 넘어 가지고 36 만쌍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3 만쌍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생, 장성기를 넘어갔다는 것은 사탄세계의 그 누구도 통일교회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개를 넘은 것입니다. 반대했지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72-72, 1995.8.30) p.1343

조수(潮水)가 여섯 시간만에 들어오는데 수평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축복도 일주일 교육을 받고 혈통 복귀, 소유권 복귀, 심정권 복귀를 할 수 있는 결의를 한 사람, 참부모에게 접붙여 가지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평이 될 수 있는 때는 잠깐입니다.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36 만쌍도 아무 공이 없는 사람을 선생님의 특권으로 축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268-191, 1995.4.1) p.1343

세계적 소생이 3 만쌍입니다. 세계적 장성이 36 만쌍입니다. 이것이 제 2 차입니다. 제 2 차 때 타락했기 때문에 제 2 차 때 영계와 육계를 가정을 중심삼고 묶는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부모와 선생님의 형님을 이렇게 묶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으로 어머니, 형님, 아들딸 해서 이것이 삼위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아담가정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머니의 가정을 축복해 주고 그 아들딸을 묶는 것입니다. 이것을 3 시대를 거쳐 가지고 비로소 참부모를 중심삼고 선생님의 아들딸과 여러분 가정이 가인 아벨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6 만쌍 축복하기 전에 그 전날 새벽 3 시에 그 축복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모님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연적 아담과 해와의 이상적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왕권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272-311, 1995.10.3) p.1344

충모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모님의 축복도 영계에 가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대형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준비입니다. 그것이 36 만쌍 하기 전에 새벽 3 시에 그런 일을 다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그걸 다 꿰매 가지고 깃발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영계나 육계나 상충이 없는 길을 닦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감복귀의 길입니다. (284-167, 1997.4.16) p.1344

Top

11) 360 만가정

① 360 만가정 축복으로 해방시대 맞아

참부모가 안 나왔으니 지금까지 보류하고 이 땅을 떠났던 사람들도, 참부모님이 와 가지고 축복을 받고 같이 평면상에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해방권을 대표하는 것이 360 만쌍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360 만쌍을 중심삼고 금년에 다 모이는 겁니다. (282-189, 1997.3.12) p.1344

360 만쌍 결혼, 이것은 소생-장성-완성의 완성입니다. 3 만쌍에서부터 36 만쌍을 거쳐 완성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수위로 말하면, 물이 여섯 시간 들어와 가지고 열두 시간에 한 번씩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섯 시간 먼저 들어온 물이나 여섯 시간 후에 들어온 물이나 같은 수위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것을 밀고 들어오면 도리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앞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준화시대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네가 옳고 내가 그르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울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평준화 시대가 되었으니 일률적으로 전부 다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 만쌍만 넘어가면 됩니다.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82-181, 1997.3.12) p.1344

이제는 세계가 다 달라지고 우리 때가 왔으니 세계적으로 '참부모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60 만쌍 축복 완성'이라는 겁니다. 세계화 결혼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60 만쌍을 결혼하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묻는 겁니다. '선생님! 통일교회 문선생이 하는 360 만쌍 결혼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한쌍 한쌍이 하는 결혼하고 어느 것이 참입니까? 세계의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의 풍습, 전통을 넘어서 통일적인 입장에서 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놀음을 하고 있는데 그 결혼식하고 내가 결혼해야 할 것이 어느 것이 참이요? 통일교회에 가서 결혼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결혼해야 되겠어요?' 하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282-39, 1997.2.16) p.1345

360 만쌍이 축복가정 세계 해방권을 성립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거기에 살인 강도가 없겠어요? 별의별 잡동사니가 없겠어요? 도적놈, 사기꾼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을 회개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천만 년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오는데 그 죄를 몇천만 년의 몇 배로 회개해도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사랑의 파워입니다. 참사랑의 힘을 가지고는 거짓 사랑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자동적으로 전부 흘러가는 것입니다. (280-315, 1997.2.13) p.1345

360 만쌍을 하면 통일천하가 되는데, 통일천하는 무엇을 중심삼고 돌아가느냐? 이것이 닻입니다. 지상세계의 악마의 주관 하에 습관화되고, 더럽혀져 있는 것을 청산할 수 있는 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줄을 대 가지고 여러분을 밀어내는데, 닻줄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질까봐 일족을 묶고 국가적인 메시아를 전부 다 묶어 주는 것입니다. (280-263, 1997.1.2) p.1345

160 가정은 누구 때문에 했어요? 자기 일족 때문입니다. 여기 황씨면 황씨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참부모가 그거 아니예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가정을 전부 다 책임졌습니다. 그것이 세계 판도 되었으니 가정을 넘고, 국가를 넘고, 세계까지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해방해서 전부 다 한 꿰미에 같은 가치를 중심삼고 360 만쌍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경도 없고 종교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평면적으로 전세계 마을 마을마다 같은 가정을 배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던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가정기준을 벌여놨습니다. (284-119, 1997.4.16) p.1345

통일교회에서 참부모의 자랑과 사랑은 360 만쌍 완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북통일 기준에서 동서의 분립된 서양의 문명이 지금 싸우고, 남과 북이 빈부의 차로 싸우는 모든 전부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큼 360 만쌍을 한국에서 기록을 깨뜨려 가지고 북한 앞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천운을 옮겨줄 수 있는 놀음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82-259, 1997.4.7) p.1345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놀랍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맹세의 내용은 천주적인 대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작년부터 부모님이 강연하는 강연문의 내용은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영계 해방의 축복식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360 만쌍이 끝나면 영계 축복식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영계에 갔으면 불러내서 묶어 줄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세계까지 해방되는 것입니다. (283-90, 1997.4.8) p.1346

오늘 달리 모인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모이게 한 겁니다. 아담가정의 체제, 예수가정의 체제, 재림주가정의 체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가 로마를 넘어 세계적 단계를 넘어서 하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이제 그런 자리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시대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번 360 만쌍 축복만 끝나게 되면 영계의 축복이 벌어집니다. (283-125, 1997.4.8) p.134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제 360 만쌍만 끝나는 날에는 흥진군하고 대모님을 시켜서 선생님의 축복을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독신축복 받은 사람이 저 나라에 가서 옛날의 자기 남편과 아들딸을 찾아서 재편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독신축복을 해왔습니다. (285－104, 1997.4.21) p.1346

11 월 29 일 360 만쌍은 하늘땅이 접하는 때입니다. 종적 세계와 횡적 세계가 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담가정에서 타락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횡적인 세계가 전부 다 축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다 이겁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가정완성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끌어다가 강제로 결혼시켜도 사탄이 반대 안 합니다. 강제로 축복 받고 나서는 축복이 끝나면 영원 세세토록 부모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주의 가치를 상속받는 대표적 가정이 섰기 때문입니다. (285－205, 1997.5.4) p.1346

재림주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혈통의 주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혈통에 의해서 새로운 후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가정에서 완성한 것과 같은 완성된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종족 완성과 국가 완성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3 만쌍, 36 만쌍, 360 만쌍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소생-장성-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평면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360 만쌍을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을 축복하는데 아무 것도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청소년들의 윤락문제와 무너지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간섭할 수 없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탄도 가정을 끌고 가서 끝날이 되면 가지까지 전부 다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286－234, 1997.8.11) p.1346

360 만쌍을 전부 다 초과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천 6 백만쌍입니다. 3 만쌍에서 36 만쌍, 360 만쌍, 3 천 6 백만쌍, 3 억 6 천만쌍, 그 다음에 얼마예요? 36 억입니다. 여섯 번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섯 번도 안 갑니다. 360 만쌍 하게 되면 결혼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세계적으로 요란스럽게 결혼했어?' 알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축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모릅니다. 무한한 가치권을 준 것입니다. 이제는 문총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게 돼 있습니다. 36 만쌍 한다고 할 때 '저거 미친 사람이다. 통일교회 망한다.'고 한 겁니다. 통일교회 망한다 그랬다가 360 만쌍 한다니까 '아이구, 이제 망했구만!' 하는 겁니다. '통일교회 3 년 동안 못 하고 망하게 해 주십시오. 2 년 동안에 만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성교회는 빌고 있습니다. (285－305, 1997.6.29) p.1347

금년도 이젠 8 월이 됐으니 3 분의 2 가 지났습니다. 금년 표어가 360 만쌍 축복 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여편네 도적질하고 아들딸 도적질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하는 놀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기를 3 가정으로부터 그 다음엔 36 가정, 72 가정, 124 가정, 430 가정, 777 가정, 1800 가정, 6000 가정, 6500 가정입니다. 9 번째가 6500 가정입니다.

다음에는 열 번째로 3 만쌍을 했습니다. 열한 번째는 36 만쌍입니다. 열 두 번째는 360 만쌍입니다. 그 다음엔 36 만쌍, 360 만쌍을 하게 되면 소생-장성-완성으로 거슬러 올라온 겁니다. 다 올라온 겁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세계가 다 아는 겁니다. 세계가 다 앎과 동시에, 가정 문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걸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의 힘, 경제의 힘, 종교의 힘, 어떠한 힘으로도 이걸 수습 못 합니다. (286－65, 1997.8.6) p.1347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고 성찬 먹던 것을 우리가 주일날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칠일절 전체 전권시대, 360 만쌍 가정으로 말미암아 세계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물들이 탄식했던 것을 탄식권을 벗어나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먹고 자는 것은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고 사는 시의시대(侍義時代)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준비라는 겁니다. (285－297, 1997.6.29) p.134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외형적으로는 통일교가 기독교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얼마만큼 투쟁의 역사를 거쳐왔는지 모를 겁니다. 사탄을 분립시켜 가지고 분별하기 위한 투쟁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류를 재차 하나님 품에 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개인으로부터 가정…. 8 단계를 거쳐 가지고 전세계 민족이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세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360 만쌍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 천 6 백만쌍입니다, 3 천 6 백만쌍. 이건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360 만쌍입니다. 40 년 고개를 거쳐 가지고 잃어버린 구약권과 신약권을 찾아 가지고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장자권과 부모권, 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그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장자의 책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86-70, 1997.8.6) p.1348

3 만쌍, 36 만쌍만은 요건 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360 만쌍, 분수령을 올라갔습니다. 이제부터 내려가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내려갈 때는 빠르니 그런 힘을 가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되는 것입니다. 36 만쌍에 대(對)가 될 수 있는 3 천 6 백만쌍, 이래서 3 억 6 천만쌍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탄세계의 가정의 고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적 고개가 무너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유 천지를 왕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주의입니다.

가정연합과 친족연합 위에 국가연합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4 개로서 가입하고, 그 다음에 세계시대로 넘어갈 때는 360 개 씨족을 중심삼고 360 만쌍, 3 천 6 백만쌍, 3 억 6 천만쌍, 세계 평면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지부모 천주안식권의 열두 고개 완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 열두 고개를 넘어와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나라, 지상천국에 가입할 수 있는 내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한의 고개를 넘어왔느냐 이겁니다. 열두 고개 완성하는 것은 360 만쌍입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열두 고개 완성은 360 만쌍이고, 두번째는 3 천 6 백만쌍입니다. 요거 전부 다 360 만쌍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소생, 장성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억 6 천만쌍, 이럼으로 말미암아 천지부모 천주안식권이 종결된다 이 말입니다. 다 해방권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3 억 6 천만쌍까지 가야 완전히 해방권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286-247, 1997.8.11) p.1348

360 만쌍만 넘으면 모든 해방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자랑과 사랑은 360 만쌍 축복 완수'다 그겁니다. 지금 선생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기준이 되어서 360 만쌍만 넘으면 모든 해방권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 어디 가라고 하지 않아도 문총재의 축복 이념은 세계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을 만민이 알 것이고 듣지 않으려야 듣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60 만쌍들이 귀가 닳도록 매일같이 나발을 불어 댈 것이다. 이겁니다. (280-220, 1997.1.1) p.1348

360 만쌍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거 필요없다 이겁니다. 두 천사장 가정을 소화해서 아담가정에 내놓아야 사탄세계의 가정적 흔적이라든가 아들딸이 없어짐으로 사탄이 영원히 복종하고 영원히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묶어진 것이 1992 년의 3 만쌍 축복입니다. 비로소 세계를 종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성은 36 만쌍이고 360 만쌍은 완성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위에 360 도를 전부 개방해 가지고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연결되면 천상세계에 가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흥진군이 선생님 대신 축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영계에 있는 천사장 후손이 아담가정의 동생의 자리에 서서 한 줄로 참부모의 뒤를 따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탕감복귀입니다. (280-302, 1997.2.13) p.134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번에 360 만쌍만 하게 되면 통일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필요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총재 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연설하는 내용, 설교하는 내용은 종교는 몸뚱이를 때려잡기 위해서 생긴 거라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종교가 없어집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가정, 나라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이상입니다. (271-230, 1995.8.28) p.1349

세상 끝날에 와보니 하나님도 손을 댈 수 없고, 사탄도 와보니 전부 다 적막강산(寂寞江山), 절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사탄이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왼쪽 돌아서려니 레버런 문이 전부 다 꽁무니를 쳐 가지고 가정을 다 빼앗아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360 만쌍에서 3 억 6 천만쌍 축복을 해서 가정을 전부 다 뒤집어 박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288-55, 1997.10.31) p.1349

선생님 마음 같으면 그것도 두 배를 더합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 자빠질 겁니다. 360 만쌍도 미완성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허리띠 풀고, 벌거벗고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 날을 선생님은 바라 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마음을 가져 보라는 겁니다. 행동 종착을 향해서 모진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주적이요, 자각적인 자기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심판주의 행각을 확대시키기 위한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88-39, 1997.10.31) p.1349

7 월 15 일, 360 만쌍 완료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참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몇 명 했다구요? 몇백 명밖에 못했지요? 5 백 명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일났지. 그런데 하늘이 역사한 겁니다. 8 월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천지부모 뭐예요? 천주안식권…. 그 날이 며칠이라구요? 8 월 9 일입니다. 그런 때가 또 온다는 겁니다. 영계에 문이 열려 가지고 이 지상에 행차해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월 15 일에 '360 만쌍 완료'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289-11, 1997.12.30) p.1350

Top

② 360 만쌍이 3600 만쌍으로

이번에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185 개국에서 360 만쌍을 목표한 당초 계획을 3 천 6 백만쌍이나 초과한 3 천 960 만쌍이 혈색과 종교를 초월하여, 참가정을 위한 축복결혼 의식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취지로 보나 규모로 보나 인간이 동기가 된 행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동이 되어 성사된 섭리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288-125, 1997.11.26) p.1350

3 천 6 백만쌍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360 만쌍도 못 하겠다고 했는데 3 천 6 백만쌍을 했으니, 10 배가 넘었습니다. 4 천만쌍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통일교회가 멋져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3 억 6 천만쌍은 6 개월 동안이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6 개월이면 될 텐데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안 된다 이겁니다. 3 억 6 천만쌍을 이제부터 새로이 6 개월 동안이면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선생님 같으면 되고도 남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288-101, 1997.11.16) p.1350

이것은 오늘 이 자리의 세계 언론인을 대표하여 참석한 언론인 여러분에게 레버런 문이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워싱턴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 3 회 세계문화체육대전 모든 행사와 29 일 알에프케이(RFK) 스타디움과 전세계에서 거행되는 국제합동축복결혼식 행사는 당초 360 만쌍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초 목표의 10 배 이상 초과한 3 천 6 백만쌍 이외에도 수백만쌍이 초과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범인류적 축제야말로 미래세계를 위한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고 고양시키는 인류가 결단을 촉구하는 장엄한 출발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288-139, 1997.11.26) p.135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인은 토요일, 알에프케이(RFK) 스타디움에서 있을 특별한 행사에 여러분을 직접 초대하고 싶습니다. 세계 종교의 대표적 지도자들의 축복 속에 본인과 본인의 아내는 185 개국에서 참석한 3 천 9 백 60 만쌍에 대한 축복결혼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당초 목표인 360 만쌍을 넘어서 다시 3 천 6 백만쌍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많은 부부들이 동참할 것입니다. 185 개국 대표들을 포함한 3 만쌍의 부부들이 스타디움에 참석할 것이며, 동시에 인공위성과 비디오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축복결혼의식이 연결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288-165, 1997.11.27) p.1350

원래는 360 만쌍을 하면 완전히 수평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들어가려면 그 물은 전부 다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속도가 뜬 것이 큰 강이 바다에 들어갈 때가 제일 속도가 떠요. 그래 보여요?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주체된 바닷물 앞에 완전히 흡수되겠다 그 말입니다. 천지이치를 중심삼고 전부 다 운동을 하고 다 존속하는 것입니다. 왜 빨리, 왜 3 천 6 백만쌍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게 좋으냐 하는 것은 이미 산골짜기를 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소생·장성이기 때문에 사탄권으로 말하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3 억 6 천만쌍 들어가지요? 이건 완성권입니다. (288-148, 1997.11.27) p.1351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얘기해 주면 자기들이 한 맺힌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아리랑 홀홀 단신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360 만쌍이 된다고 누가 믿었어요 곽정환? 안 믿었습니다. 다 안 믿었습니다. 나 혼자 믿었습니다. 재창조는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하기 때문에 모래 바닥에서도 수천 명을, 에스겔 골짜기의 죽은 뼈다귀를 통해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88-161, 1997.11.27) p.1351

360 만쌍의 축복과 함께 이를 수 있는 것은 복중의 자녀, 그 축복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성주를 먹입니다. 내 생애를 걸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복중에 있는 타락한 혈통과 관계가 없는 절대 순결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로서 성주를 전수하는 조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나라와 하나 되어서 하늘에 맹세하고 선포하며 성주를 먹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생, 복중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289-63, 1997.12.30) p.1351

세상에 한판 뭐가 있지요? 승부, 그래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이미 다 승리해 놨습니다. 이미 다 승리했으니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도 요전에 우리가 360 만쌍을 축복결혼 한다고 하니까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그것 거짓말이지요? 거짓말 아니예요?' 그러더라구요. 다 이루어 놓고 왔는데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7 천 2 백만 결혼 완성했다 하게 될 때는 뻗겠어요, 자빠지겠어요? 뻗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 주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288-225, 1997.11.28) p.1351

사랑이상을 다 찾은 후에는 상속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다 상속하기 위한 것이 3 만쌍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에 있어서 열두 고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만, 3 만쌍 축복은 소생, 36 만쌍은 장성, 360 만쌍은 완성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60 만쌍, 3 천 6 백만쌍을 하는데, 저 꼭대기에서 얼마나 바쁜지 하늘에서 폭포가 떨어진다구요, 폭포가. 3 억 6 천만쌍만 승리하는 날에는 세상 천지는 이 땅 위에 심정권 통일세계가 오기 때문에, 심정권에 살고 갈 가정을 중심삼은 아담가정 완성과 마찬가지니 지상 위의 지상천국에서 살다가 천상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288-328, 1998.1.1) p.1352

선생님도 지금까지 열 고개 중심삼고 열두 고개입니다. 360 만쌍이 열두 고개라는 겁니다. 열두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아리랑, 아리랑' 이것이 '사랑 애(愛)자, '마을 리(里)'자, 고개 령(嶺)' 자입니다. 사랑하는 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리고 갔다가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 알지요? 한국 민요 가운데 그 아리랑 열두 고개란 말…. 지금 내가 열 두 고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넘느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열두 고개 넘으니까 순식간에 전부 다 평준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갈 수 있는 겁니다. (289-263, 1998.1.21) p.1352

360 만가정은 축복이라는 말을 두고 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계를 360 도 돌아오는 데에도 열두 달이 걸립니다. 12 수를 중심삼고 360 만쌍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과 모든 일들이 하늘의 축복 앞에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릴 길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해방, 축복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입니다. (280-269, 1997.1.2) p.1352

복귀섭리는 열두 고개를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360 만쌍까지 열두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두 고개를 넘게 되면 본향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황금이 넘쳐흐르는 좋은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봄동산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84-260, 1997.4.18) p.1352

Top

12) 3 억 6 천만가정

① 3 억 6 천만가정 축복으로부터 제 4 차 아담권시대 출발

아담 가정은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되어 가지고 우주를 품는 그 가정의 대표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 앞에 축복받는 것은 우주사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가정들이 우주사적인 축복의 혜택권 내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실패하여 잃어버린 것을 세계 가정권에서 대등한 자리의 가치를 함께 맞기 위한 이 일이 세계 3 억 6 천만쌍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87-142, 1997.9.14) p.1352

3 백 60 만쌍부터는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3 천 6 백만쌍은 여기입니다. 이것은 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3 억 6 천만쌍입니다. 그러면 땅에 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겁니다. 땅에 오는 겁니다. 여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옛날의 아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들딸을 축복하는 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예비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적 가정으로서 책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축복을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287-144, 1997.9.14) p.1352

'3 억 6 천만쌍, 3 천 6 천만쌍을 축복했다니….'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설명하게 된다면 신구약의 모든 비밀, 인류 역사의 모든 사상적 체계의 비밀 전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면 귀가 열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될 때는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건 보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귀로 들어도 보고 싶은 것이요, 또 봤으면 또 만나서 말씀을 귀로도 듣고 싶고,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7-201, 1997.10.30) p.1353

3 천 6 백만쌍을 지나서 3 억 6 천만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7 억 2 천만 명입니다. 거기에 네 명씩만 잡더라도 사 칠은 이십팔(4×7=28), 28 억 명이 되는 겁니다. 네 명 이상도 있을 것입니다. 동양에는 네 명만 사나요? 다섯, 열 명도 삽니다. 그래서 30 억 인류가 넘기 때문에 하늘 쪽으로 볼 때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넘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힘의 비준으로 볼 때 이 수평저울로 말하면 한 쪽으로 기우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288-18, 1997.10.31) p.1353

그래서 소생 · 장성 · 완성, 3 억 6 천만쌍까지 열두 고개입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4 천만쌍을 전부 끝냈기 때문에 거기서 수평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축복가정이 4 억쌍이 된 겁니다. 3 억 6 천만쌍 축복은 지상에 있어서 평준화 축복입니다. 세계 만민 평준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반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302-132, 1999.6.12) p.135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제 '천지부모천주안식권'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적 기반, 종족적 기반을 연결시키는 세계 대 축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 만쌍, 3 천 6 백만쌍, 3 억 6 천만쌍을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사탄의 핏줄을 단절해 버려야 됩니다. 사탄 핏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청소해야 됩니다. (288-64, 1997.10.31) p.1353

이 3 억 6 천만쌍을 완성함으로써 하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를 지내고 국가 왕권 복귀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289-215, 1998.1.2) p.1353

이제는 3 억 6 천만쌍이 끝나게 될 때는 탕감이 필요하지 않은 제 4 차 아담권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자기 부모가 하나님 대신 축복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민 전부가 자기 축복한 일족들을 중심삼고 천국 직행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292-29, 1998.2.2) p.1353

이번에 3 억 6 천만쌍 축복이 끝난다면 레버런 문이 축복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해 줍니다. 이것을 제 4 차 아담권 해방시대라고 합니다. 탕감이 없습니다. 1 차, 2 차에 있어서 구약시대는 아담이 실패, 신약시대도 아담이 실패, 성약시대도 핍박받으면서 나왔지만 이제는 해방권에 들어가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가 돼 가지고 제 4 차 아담권 시대에(아담권입니다. 이 전체를, 우주를 말합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부모가 아들딸을 축복해주는 그 가정 이상, 하나님이 창조한 내적, 외적 전체 이상을 상속해 주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참부모의 대신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 안 될 수 없습니다. (290-167, 1998.2.18) p.1354

3 억 6 천만쌍을 하면 모든 담을 다 헐어 버리는 겁니다. 사탄세계의 개인적인 담, 가정적인 담, 종족적인 담, 민족적인 담, 국가적인 담, 세계적인 담, 천주적인 담, 하나님의 심정권의 담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292-54, 1998.3.28) p.1354

이 3 억 6 천만쌍 축복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세계의 자유 지상천국 환경의 막힌 담들을 헐어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전체에 막힌 것을 열어 버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가야 갈 길을 간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4-220, 1998.7.19) p.1354

지상세계에서 3 억 6 천만쌍 축복이 전부 다 끝장나게 되었으니 영계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혈통을 단절하는 겁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다 이겁니다. 참부모의 전권 시대,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참부모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고 '선한지라!' 하고 기뻐하면서 '네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름지어진다!' 하던 그런 특권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293-90, 1998.5.24) p.1354

우리가 3 억 6 천만쌍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가정으로 수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3 억 6 천만쌍은 초인류적이요, 초역사적이요, 초섭리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탄 혈통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청산하자 이겁니다. (294-208, 1998.7.19) p.1354

왕권복귀, 문총재 혼자 자유 민주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천하 일등 왕 해먹겠다고 선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왕인데 세계 국가를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못 가졌는데 세계 국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정왕입니다. 가정왕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왕! 가정왕이 생겨야 됩니다. 가정왕 되기 위해서 세계 3 억 6 천만쌍 축복을 통해서 사탄 혈통을 부정해야 됩니다. 문총재는 축복해 준, 새로이 결혼해 준 대표자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무슨 대표자냐? 왕 대표자이니 가정왕이다 이겁니다. 이제 문총재가 가정왕이라고 세계에 선포해도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295-87, 1998.8.17) p.1354

금년 표어가 뭐냐? '참하나님을 절대로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 억 6 천만쌍 축복완성과 사탄세계 혈통근절'입니다. 이제 3 억 6 천만쌍 축복이 끝난 다음에 뭘 하느냐? 에덴동산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장년이 아닙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축복가정들이 되어서 노년 장년 청년까지 왔는데, 소년시대의 기준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296-66, 1998.10.14) p.1355

전세계에 '3 억 6 천만쌍 축복완성과 사탄혈통 단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려니까 지옥문 천국문을 다 헐어 제끼는 것입니다.

옛날에 원수시하던 것들이 부모님을 맞아 가지고 모시는 환영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정에 못 모실 뿐만 아니고 종족에 못 모시고, 민족에 못 모시고, 나라에 못 모시고, 세계가 못 모셨습니다. 천하에 처음 여는 잔치 가운에 원수 된 형제, 원수 된 남녀가 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천도의 대도를 밝혀 들어간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지상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296-298, 1998.11.18) p.1355

36 가정에서부터, 지금 3 억 6 천만가정까지 다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교육을 받고 40 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된 선배 가정을 보고 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편네도 간증을 하고, 남편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살아온 생활을 다 간증하는 겁니다. 몸 마음에 걸린 것을 전부 다 직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 교육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정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내용은 뿌리를 뽑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춰 가지고는 절대 영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297-282, 1998.12.22) p.1355

그런데 축복 천주화입니다. 천주화니 영계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어요, 지상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어요? 천사장하고 사랑을 먼저 했지요? 영계해방을 서둘러야 됩니다. 3 억 6 천만쌍을 넘으면 세계적 기준을 넘기 때문에, 영계와의 인연을 넘기 때문에 영계의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경계선에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복 받은 사람 중에 마피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인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쿠자, 갱스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의별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301-160, 1999.4.25) p.1355

3 억 6 천만쌍은 원리결과주관권을 벗어난 것입니다. 세계적 시대입니다.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데려와 가지고 가서 축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악마를 치리할 수 있는 대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297-298, 1998.12.27) p.1355

우리 통일교회는 십의 3 조를 해야 됩니다. 1 조가 아닙니다. 십일조가 아닙니다. 십의 3 조를 헌납하는 이 전통을 통해서 전부가 3 수를 중심삼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자기 재산, 자기 나라, 자기 땅을 헌납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만물 물질시대, 신약시대는 자녀시대, 성약시대는 부모시대, 그 다음에는 해방시대입니다. 원한 해방시대는 하나님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시대로 넘어갈 때는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도리어 반대로, 강제적으로 당이 절대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총칼을 써서 말입니다. 우리는 무력이 아닙니다. 자진해서 총칼의 위력보다 몇십 배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절대 하나님 사랑주의의 주권을 향해서 영원히 영원히 계속해야 할 것이 이제 통일가의 전통입니다. 이제 36 가정부터 3 억 6 천만쌍까지 축복가정 전체가 합해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랑의 이상천국을 영원히 후대 앞에 연결해야 할 것이 우리 통일교회가 성사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겁니다. (302-23, 1999.5.14) p.1356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님, 오늘 1999 년 2 월 7 일, 이날은 하늘땅이 주시하는 3 억 6 천만쌍 축복을 기념하는 식이 개장되고 있습니다. 온 인류와 온 천상세계에 축복 받을 가정들이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천지의 새로운 해방의 날, 장자권 복귀와 부모권 복귀와 왕권 복귀를 넘어서 창조 본연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을 중심삼은 천지부모를 중심삼고 참된 사랑을 중심삼은 사랑의 주권의 통일세계를 향하여 바라던 아버지의 소원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세계사적 전환 시점에 처해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온 영계와 온 인류가 합심일체가 되어 에덴에 있어서 악한 조상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랑과 악한 생명과 악한 혈통을 이어받은 전인류 역사 중에 전체 사탄의 주도하에 있던 천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시대, 성약시대로서, 구약시대는 약속을 이루지 못한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이룰 수 있는 혈통적 인연을 잇지 못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의 생명과 부모의 혈통을 잇는 자리에 있어서 부자 관계가 성립될 것이어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류시조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부모의 자리에서 사탄과 혈통적 인연을 맺어 사탄 아버지, 사탄 자녀, 사탄 가정을 가지고 사탄 사랑과 사탄 생명과 사탄 혈통을 이어받은 역사적인 한의 역사가 아담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몸 마음의 싸움이 시작됐고, 부부가 싸움의 환경, 부모 자식간의 싸움의 출발, 아담 가정 제 1 대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의 살육전이 벌어졌사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가정으로부터 종족, 민족, 국가, 세계 판도까지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로 대치하여 상하의 세계, 혼돈된 말세의 이런 와중에서 오늘날 통일교회를 세워 구약시대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 신약시대에 당신의 이상의 왕권을 세우지 못한 것, 성약시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지상 미완성과 천상 미완성을 완결지어 지상에 해방적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참부모의 참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적 인연을 타락한 세계의 돌감람나무의 밭을 베어 버리고 참감람나무를 접붙여 하늘의 혈족과 연이어서는 하늘의 권속을 찾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의 이름으로 결혼 잘못한 것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참부모의 이름으로 세계 만민을 한 형제 권속으로 만들기 위한 세계합동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역사과정에 핍박의 노정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개인적 반대, 가정적 반대, 종족적 반대, 민족, 국가, 세계?하늘땅, 사탄?지옥권까지 반대하는 모든 존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중심삼은 혈통적 인연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보호하듯이 오늘 통일교회는 그런 숱한 타락된 핍박의 노정의 한을 개인으로 밟고 넘어서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사적 고개를 밟고 넘어서 3 억 6 천만쌍 인류의 전체를 대신하여 참부모의 이름으로 초종교?초인종?초문화?초국경 해방적 축하를 하늘과 땅이 같이 축복의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이 은사를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계의 2 백억을 중심삼은 150 억, 5 백억의 모든 하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지상에 3 억 6 천만쌍, 4 억이 넘는 이 쌍을 중심삼고 보면 8 억 가정 이상이 넘는, 가정에 4 사람씩만 계산해도 30 억이 넘는 이런 수기 때문에 이들은 혼란된 세계를 구하고 혼란된 역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제, 가정문제를 다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 전인류가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넘어서 모든 중심 이상의 사람들이 하늘의 권속으로 축복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사하는 것은 통일교회 그 누가 한 것이 아니요, 하늘과 영계 전체가 이뤄 주신 이 모든 승리의 패권을 길이 길이 길이 간직하시사 만세 영광의 사랑의 주권을 그려 가지고 지상·천상천국을 축복 받아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여기 3 억 6 천만쌍에 연한 모든 세계 인류들은 일심단결하여 마음의 통일, 부부의 통일, 종족의 통일, 민족의 통일, 국가의 통일, 세계의 통일, 천주의 통일, 지상 참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의 일족권 전체의 대표할 수 있는 사랑의 터에 핵심으로 세우시어서 만세에 당신이 원하던 창조이상적 사랑의 주권 지상천국 완성하기 위한 축복 받는 이 무리들이 되었사옵니다.

이들 앞에 당신이 소원하신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당신한테 전체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참다운 개체로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되고, 축복 받은 세계의 형제들과 하나되어 지상?천상천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딸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사오니 길이 길이 보호하시어서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에 전진 전진 축복을 가해 주시기를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3 억 6 천만쌍 앞에 축복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299-109, 1999.2.7) p.1358

Top

13) 기성가정의 축복의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성가정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참부모가 이룬 승리의 기반으로 기성가정은 자기 멋대로 타락하지 않고 사랑의 인연을 맺은 것과 같은 아담 가정, 자의에 의해서 사랑을 맺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때의 연령에 처한 모든 청소년들은 전부 다 하늘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가정까지도 전부 다 아담 직계자녀와 같은 입장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핏줄이 다르고 혈통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으로 접붙이는 놀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42-102, 1993.01.01) p.1358

축복은 여러분 혼자만 여기에 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가정, 참부모의 가정이 그런 구원의 중심이 됐으니 여러분은 참부모의 전통을 고스란히 과거·현재·미래까지 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준 선생님은 여러분이 완전히 부모님 대신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 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해 가지고 부모와 일치된 자리에서 축복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축복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해 줘야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후손이나 영계에 있는 사람이나 구원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약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에덴동산의 아담과 해와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지지 않고 세계적 전쟁의 최후의 전장에서 사탄세계의 가정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전사로 남아 있다는 컨셉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참부모는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공식대로 그와 같이 되어서, 참부모 대신 씨가 되어 가지고 어디든지 서서 심으면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가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94-220, 1998.07.19) p.1358

앞으로 통일교회는 가인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지금 때는 기성가정 축복, 축복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받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결혼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거짓 부모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을 중심삼아 가지고 결혼식을 잘못한 것이 지옥 행차되었으니, 이것을 반대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나와 가지고 결혼식을 잘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한국적이 아닙니다. 천주적입니다. 초민족적입니다. (274-285, 1995.11.03) p.1358

가정적으로 볼 때 타락한 세계가정, 그 다음에는 통일교회 기성가정, 그 다음에는 통일교회 축복가정이 있습니다. 이 축복가정이라는 것은 뿌리가 사탄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것이 아니라 사탄을 중심삼아 가지고 구도의 길을 통해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2 세 축복가정은 하나님과 선생님이 뿌리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일관된 승리적 기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 앞에 못 간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45-349, 1986.06.01) p.1359

여러분 각자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입장에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상의 심정 기준 위에 서면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아담과 해와의 기준을 탕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부인, 남편의 아내, 남편의 자식의 입장에서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중탕감이 필요합니다.

가정적 기대를 세우면서 개인완성을 해 나가야만 그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 개인완성의 공고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도 종족을 울타리로 세우면서, 가정완성을 향해 나가면 공고한 가정완성의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종족, 민족, 국가,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행사시에 소생-장성-완성을 의미하는 21 인, 즉 12 인의 들러리를 세웁니다. 이것은 3 수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 보를 가서 소생을 넘은 조건으로 3 차례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정은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노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진이를 먼저 결혼시킨 후에 효원이를 비롯한 축복가정이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2 지파, 24 장로의 영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배를 함으로써 탕감조건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성수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이 탕감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계의 조상들이 닦아놓은 터전을 넘는 조건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성주식은 세 어머님에게서 태어난 조건을 세우는 식입니다. 성주에는 탕감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성주를 마심으로써 내적으로 성결케 하고, 성건으로 몸을 닦음으로써 외적으로 성결케 하려는 것입니다. (19-268, 1968.2.20) p.1359

1991 년 9 월 초하루를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 선포와 더불어 환고향을 명했습니다. 환고향하지 못한 모든 일족들은 영계에 있는 자기 선조들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선조들이 바라는 것은 종족적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와 가지고 참부모가 오는 끝날에 그 뜻 앞에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인 소원입니다. 그것이 저 영계에 있는 선조들의 지금까지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나면 그 부모님의 직계자녀와 더불어 어떻게 자기가 혈연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기성가정에서부터 전부 다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축복을 해준 유(類) 가운데서 기성가정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엔 남녀 간에 있어서 관계를 가졌지만 결혼생활을 이루지 못한 패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세계로 말하면 가정을 갖지 않은 패들을 전부 다 구해줘야 됩니다. 기성가정을 구해줘야 되고, 중간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그릇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엔 직계자녀를 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길을 닦아 가지고 문을 열어 줄 수 있게끔 한 것이 36 가정입니다. 36 가정에는 아담가정?노아가정?야곱가정의 형(型)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가정이라는 것은 기성가정입니다. 본래 오시는 재림주, 참부모께서는 기성가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성가정 그 자체가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아담 완성자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242-102, 1993.01.01) p.1360

기성축복가정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성가정들이 영계에 가게 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총각 처녀가 축복받은 것과 기성가정들이 받은 축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삼층천이 있습니다. 현 사회에도 상중하가 있듯이 영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36 가정을 놓고 볼 때, 다시 말하면 각각 12 가정으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야곱 가정을 대신한 36 가정을 놓고 볼 때, 어느 가정이 제일 귀하냐 하면, 맨 마지막 가정이 제일 귀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안 되어서 그렇지,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30-189, 1970.3.22) p.1360

지금 전세계는 가정과 가정이 아닌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두고 보면 기성가정과 기성가정이 아닌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족 중에는 기성가정도 있을 것이고, 약혼했다가 파혼했다든가 연애관계에 걸려 가지고 사랑을 못 맺었다든가 하는 문제가 복잡한 중간패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순수한 처녀 총각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묶어 가지고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대를 중심삼고 하나되었다 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 가지고 맨 마지막 대의 맏아들, 즉 완성급에 선 손자가 대신 제물을 바쳐서 속죄의 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성가정에게는 종족적 메시아라는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부 다 아들딸을 길러서 필사적으로 축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낳은 여러분의 손자는 하나님 앞에 완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딸을 중심삼아 가지고 조상들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대를 제사 지내 주는 것입니다. 3 대를 해방시키는 놀음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적 견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가정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31-282, 1970.6.4) p.136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성가정하고 새로 축복받은 가정하고 선생님 가정하고 셋이 합해서 이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나라를 찾아야 예수의 소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실패했던 것을 해원성사하지 못하면 아들의 원한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원한을 풀지 못하면 아버지의 원한이 풀려요? 아들의 원한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원한이 풀려요? 부모 앞에 해원성사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생겨나요? 먼저 아들의 원한이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국가를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가 원한이 맺혔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58-196, 1972.6.11) p.1361

여러분 기성가정은 젊은 사람으로서 축복받은 가정 이상이 되지 못해 가지고는 축복받은 기성가정의 면목을 하나도 세우지 못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에덴동산에 기성가정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누더기를, 간판을 전부 다 꿰맬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36 가정에서 기성가정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1-286, 1978.11.07) p.1361

가정에 있어서 제일 걱정거리는 엄마 아빠를 중심삼은 사랑에 대한 반동적 행동만이 그 가정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그건 우리 통일교회의 원수입니다. 여기 기성가정들은 자기 아들딸한테 모든 사실을, 자기의 모든 걸 밝혀야 됩니다. 가정 윤리, 사랑을 중심삼은 사랑의 윤리를 통해 가지고 가정기반을 토착화시켜야 되겠습니다. (120-184, 1982.10.15) p.1361

이미 기성가정으로 선 그 부모들은 미국 나라의 대통령이든, 기독교 책임자이든, 가정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오시는 주님 앞에 상대적 자리에 못 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혼했다는 자체는,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바랄 수 있는 아들딸 중심삼아 가지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사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에 걸려 있습니다. 그 부모도 그렇고 그 부모의 자식들까지도 사탄세계에 다 있습니다. (145-21, 1986.4.30) p.1362

36 가정의 아담가정은 기성가정, 그 다음에 그 중간가정은 노아가정, 그 다음에 처녀 총각으로 축복받은 가정은 직계 야곱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정은 뜻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계의 사람들을 보면 기성가정이 있고, 중간 패가 있고, 완전히 순결한 처녀 총각이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이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아담 가정이 아니라 참된 아들딸, 다시 말해서 참된 처녀 총각입니다. (242 - P.104 : 1993.01.01) p.1362

12 수에 해당하는 것이 120 문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시대에 있어서 120 문도를 대신한 탕감복귀 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세계 국가의 대표자형입니다. 이것을 세워서 그 족장대표, 족장이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 기준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이 기준을 편성하기 위해서 축복해 준 것이 124 가정인 것입니다. 4 가정은 혹입니다. 그럼 이 4 가정은 뭐냐? 그건 기혼가정입니다. 왜 기혼가정을 넣었느냐? 기혼가정을 넣지 않으면 앞으로 기혼가정을 구원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4 수는 동서남북 사방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입의 형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기성가정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4 수를 갖다가 축복한 것입니다. (158 - P.170 : 1967.12.27) p.1362

원래 선생님이 축복해야 할 것은 기성가정이 아닙니다. 복귀의 과정에 있어서 기성가정을 갖추어 가지고 30 대를 중심삼고, 아담가정으로부터 노아가정 그런 것은 다 필요 업습니다. 야곱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거꾸로 아들딸들이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들딸들이 부모를 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4 억을 중심삼고, 4 수를 중심삼은 억대를 중심삼고 여러분이 거꾸로 전부 다 낚아채야 됩니다. 강제로 낚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전통적인 소생-장성-완성의 터전이 뭐냐 하면, 기성가정하고 노아가정하고 야곱가정입니다. 타락한 역사시대에 있기 때문에 아벨가정은 창조된 선민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계 도상 위에 하늘땅을 대신했으니만큼 가서 강제로 빼앗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99 - P.224 : 1999.02.17) p.1362

하늘은 공평합니다. 외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통일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축복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런 상대적인 입장에 서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 알아 가지고도 가깝거든요. 이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해 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기성가정을 축복하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다음부터는 종족적 메시아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233 - P.351 : 1992.08.02) p.1362

오늘날 기성교회의 사람들, 그것도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은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 믿으면 자기는 천당에 간다고 믿는 입장이란 겁니다. 그러나 본래의 하나님의 이상을 두고 볼 때, 천국은 혼자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가게 모두 함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43 - P.234 : 1986.03.19) p.1363

Top

14) 독신가정의 축복의의

남자는 하나님의 양성적 형상이요,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적 형상입니다. 부부는 천하를 한 보자기에 싼 것과 같습니다. 고로 부부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사랑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지극히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마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의 가정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013 - P.067 : 1963.10.17) p.1363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해와를 지으실 때, 먼저 만물을 지어 놓고, 그 만물의 중심인 아담과 해와를 영광의 실체로 지어 가지고 그들이 환희에 찬 승리를 다짐할 수 있는 축복의 한날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그 소원의 한날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일대에서 완결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드높여서 우리 스스로가, 혹은 부부가 온 천지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기쁜 날을 맞기 위해 단 한번 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030 - P.170 : 1970.03.22) p.1363

지금까지 종교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종의 역사에서부터 양자의 역사로 넘어가는 역사를 한꺼번에 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이루어 놓은 역사는 복귀역사이기 때문에, 종시대권을 복귀하고 양자시대권을 복귀해 나온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종시대권 복귀역사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 역사가 됩니다. 기독교는 양자 복귀역사를 대행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복귀역사 시대권내에 있는 수많은 종교는 소유와 상대가 허락될 수 없기 때문에 독신생활을 하고, 무엇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나 수녀나 중들에게는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간은 소유가 있지만 그 절의 주지는 소유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상대 이념을 허락치 않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지금까지 믿어 나오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고차적인 종교는 독신생활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또, 기독교를 보면 양자는 양자인데 영육을 중심삼고 이루어지는 양자가 아닙니다. 영적 기준만 이루어진 양자입니다. 육적 기준에 있어서는 종의 역사가 연장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자기의 상대를 가졌다고해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 상대까지 빼앗깁니다. 사탄은 나쁜 주인이기 때문에 나쁜 주인을 만난 자리에서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종으로서는 최고의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차적인 종교는 종의 복귀 역사권을 책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교에는 상대이념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독신 생활을 해 나온 것입니다. (061 - P.182 : 1972.08.30) p.13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의 종교는 상대불가침권을 바라 나왔습니다. 또 독신생활을 강조해 나왔습니다. 가정적인 상대이상은 선생님의 시대에 들어 와서 처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경우는 3 인의 제자로부터, 12 인의 제자와 70 인의 제자, 그리고 120 인의 문도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상적 가정의 편성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던 것을 지상에서 탕감복귀함에 따라 제 1 아담과 제 2 아담의 실패를 지상에서 탕감복귀한 후 완성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만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물복귀 조건으로 1965 년을 중심으로 세계에 120 개 성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의 흙과 돌을 씨로 해서 승리의 기대를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평면적으로 연결해 간 것입니다. (055 - P.168 : 1972.05.07) p.1364

지금까지 종교권에서는 결혼을 못 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독신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환고향을 하고, 결혼할 수 있는 가정적 축복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세계를 따라가는 가정들은 악한 가정으로, 악한 사랑, 악한 생명, 악한 혈통, 악한 양심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것은 복귀니까 참부모를 따라가게 될 때는 선한 사랑, 선한 생명, 선한 혈통, 선한 양심권의 축복받은 가정과 일족, 세계가 형제지권 내에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결혼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286 - P.041 : 1997.07.01) p.1364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가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정을 통하여, 즉 아담과 해와의 가정을 통하여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믿고, 또 부부끼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죽으면 다 각각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에 가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엄마 아빠의 심정이 좋겠어요? 그것이 천국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은 가정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에 낙원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재림주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019 - P.171 : 1968.01.01) p.1364

천국은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축복은 천국의 문을 훌쩍 넘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정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3 대의 인연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야곱의 70 가족도 3 대가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급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개체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 차의 섭리를 하셨으니 3 년 간은 봐주십니다. 개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전체의 인연을 따라가야 합니다. 개체가 부활하려면 환경적인 인연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한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을 위하여 뒤에도 기도해 주고 있는 지방 식구에게로 가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기른 믿음의 아들딸이 자라서 축복을 받을 만하게 된 후에 자기의 상대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후에 성신 앞으로 갔습니다. (012 - P.265 : 1963.05.25) p.1365

가정은 선생님을 통해서 성립됩니다. 가정이 가는 길은 여자들의 한탄길을 탕감복귀하는 길입니다. 성경역사에는 여자를 중심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종적인 역사는 주체를 찾는 역사였습니다. 6 천년 동안 아담 하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아담을 찾고 나서는 여자를 찾아야지요? 이 남자세계에 여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비참한 일도 여자와 더불어 다 했습니다. 종족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한다고 그랬지요? 횡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보면, 지금까지의 역사가 7 천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7 천년의 역사를 횡적인 기준에 세워 가지고 탕감복귀해 나오는 기간이 1 차 7 년노정 기간입니다. (047 - P.199 : 1971.08.28) p.1365

지금까지는 사탄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참부모의 사랑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므로 타락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들 타락권에 있는 인류는 최후에는 부모를 맞아 종적으로 하나가 되어, 타락권을 극복하는 길을 더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원리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녀가 짝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자기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적 중심인 부모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타락세계에 있어서 타락의 혈통을 받아 결혼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을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와 같이 복귀 노정에 있어서도 참부모가 나와서 종적 부모로 완성하는 것과 동시에 가인 아벨이 하나됨으로써 승리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장에서 축복을 이룸에 따라 타락의 한계를 처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장성기 완성급 기준을 극복합니다. 즉, 완성기 소생급 기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에게는 7 년이라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단계의 기간인 소생기간, 장성기간, 완성기간 7 년을 합하면 21 년이니까, 완성기간 7 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누구도 가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055 - P.137 : 1972.05.07) p.1366

원리적으로 볼 때 잔치하게 된다면 에덴동산에서의 잔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축복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탄의 족속들이, 이 수많은 사탄의 후손들이 이 잔칫날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먹고 야단했냐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늘의 서러움이라는 겁니다. 사탄세계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며 중요한 원천이 이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인들은 독신생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지금까지의 결혼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늘의 서러움입니다. 하늘을 슬프게 하는 조건은 남겼을망정 하늘 앞에 기쁘고 하늘 앞에 인연이 될 수 있는 어떤 점을 못 남겼다 이겁니다. (158 - P.276 : 1967.12.29) p.1366

독신축복은 영계에 가서 만날 상대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축복받는 것보다 둘이 땅 위에서 축복받는 것이 복입니다. (101 - P.307 : 1978.11.07)

남성 여성이 완전히 하나된 후에야 본연의 하나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오누이와 같이 그래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춘기가 되어서 좋아하는 것이 이 땅 위의 어떤 형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서로서로 존경하고 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히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오리지널 플러스 맨하고 오리지널 마이너스 우먼하고 둘이 부딪치는 번개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이상적 사랑입니다. (129 - P.023 : 1983.10.04) p.1366

1970 년에 처음으로 국제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777 쌍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30 쌍까지는 선생님이 가서 축복해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전세계적으로 777 쌍 국제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10 개국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적 이상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를 중심으로 세계의 운세는 통일운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땀을 흘리고 피 흘리며 수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낳고 번식하여 새로운 민족 편성을 하면, 하나의 나라는 자연히 완성됩니다. 우리들은 애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강한 자녀를 많이 낳았듯이 낳기만 하면 됩니다. 유다의 아들들과 같이 축복하여서 쌍둥이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산아제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 새로운 혈통적 기반을 넓히는 것입니다. 세계 초민족 국가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055 - P.171 : 1972.05.07) p.1367

남자가 결혼했는데, 만일 여자가 죽으면 독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축복받은 후손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입장의 사람끼리 맺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축복은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영계에 가 보면 곧 알게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복받은 사람은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잘못했을 경우에는 천사장이 이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원리를 알고 축복받아서 천국에 가면, 영계의 길은 깨끗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데는 고운 옷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을 헛디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입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055 - P.087 : 1972.04.23) p.1367

독신가정들을 축복해 주면 영계에 있는 자기들 상대자를 중심삼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시대도 오는 것입니다. 국가적 기준을 넘고 세계적 기준을 넘어가서 영계에 가 가지고 비로소 그 시대를 중심삼아 가지고 축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기성축복 받게 되면 원래는 전부 다 갈라져 가지고 축복했지요? 이제는 합해서 받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 그런 혜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쌍을 하면 영계 축복까지 하니 같이 일원화 동위권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영계에 있는 상대와 축복 받은 것입니다. (284 - P.167: 1997.04.16) p.1367

축복의 기점 위에 나타난 책임자, 즉 중심존재는 그 시대라는 제한된 환경에만 처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사적인 내용을 지닌 중심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복은 부부의 인연을 갖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어야 하고,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늘땅을 중심삼은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이면 개인이 `나는 이런 아들이 되고 이런 딸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과 딸이 가는 길은 당신이 소망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추구해 나오시던 세계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는 도중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요, 곤궁함의 곡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것을 돌파해 가지고 국가를 지나 세계로 갈 수 있는 부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030 - P.168 : 1970.03.22) p.1368

민족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민족을 위한 부부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번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가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여러분은 세계를 위한 부부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번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 없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위한 부부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번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030 - P.184 : 1970.03.22) p.1368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한 사랑의 동기가 충만한 것이 영계입니다. 영계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92 - P.181 : 1977.04.03) p.1368

우리 통일교회 가정의 두 부부는 역사상에 선 부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과정에 그런 놀음을 몇 번 하시려고 했느냐? 지금이 두 번째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은 하시려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못 했고, 타락한 것을 다시 메우기 위해서 4천 년 유대교문화권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형성을 중심삼고, 편재된 사랑으로서 전부가 화합할 수 있는 순응의 가정기반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중심삼고, 메시아에 상대될 수 있는 왕후를 맞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113 - P.181 : 1981.05.03) p.1368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아담권, 본연의 아담 권위를 대표하여 문화면에서나, 정치, 경제의 모든 면에서 대표적으로 승리한 하나의 이상적 부부로 출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혼자는 못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남자는 오른쪽 다리이고 여자는 왼쪽 다리입니다. 혼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절뚝발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118 - P.280 : 1982.06.13) p.136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정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가정 축복은 아담 가정 위에 하나님을 중심삼은 씨입니다. 그와 같이 그것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포번식이라는 거 알지요? 그 작은 세포 하나에 꽃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세포를 갖다가 심어 놓으면 꽃나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뿌리도 있는 것이요, 가지도 있는 것이요, 잎도 있는 것이요, 줄기도 있고, 꽃도 있고, 모든 형태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생각적 설계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 대신 분신이 되라고 부부를 축복해 주었는데, 아들딸을 중심삼고 그 부부는 나라와 세계를 소화하고 뿌리가 되어서, 탄소동화작용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공기를 분립시켜 뿌리에 필요할 수 있는 요소를 흡수하듯이 그럴 수 있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나무는 탄소를 흡수해 가지고 산소를 냅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어떻게 탄소를 흡수해서 산소가 나와요? 그게 조화라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세계는 냉혹하고 삭막한 세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씨를 전부 이렇게 씌워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주 사랑권 내에 플러스 성품 마이너스 성품, 사랑의 감투권 내에 들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사랑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우주와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두 쪽과 같은 그런 사랑의 보자기 가운데 하나님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요,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안식하고 싶지요? 마찬가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적 사랑의 씨입니다. 그 씨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80 - P.110 : 1988.08.07) p.1369

Top

제 4 장
축복가정과 입적

1) 축복가정 입적과 우리의 조국

① 입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입적이 뭔지 알아요? 시집가는 색시가 신랑을 따라가게 되면 적(籍)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난 본연의 적을 취소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면 남의 집으로 이사를 가니 호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입적이 뭐냐? 참된 사랑의 근원을 중심삼고 맺어진 증표입니다. (178－207, 1988.6.4) p.1370

여자가 시집가면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입적해야 됩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지요?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에 성이 어떻게 돼요? 성이 달라집니다. 아무 것도 없고 근본이 없기 때문에. 이노우에면 이노우에, 야마오카면 야마오카, 기노시타면 기노시타, 남편의 성을 따라 하나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됩니다. 사랑의 힘은 생명의 근원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슬프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웃으며 가는 것입니다. (258－244, 1994.3.20) p.1370

색시가 신랑을 따라 신랑집으로 가마를 타고 갔다고 해봅시다. 가 가지고 그 문중에 자기가 입적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자기를 중심삼은 생각으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살고 자라 나오면서 행동하던 그 행동일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받아달라고 할 수 있느냐? 받아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한 가지 행동, 시선으로부터 듣는 것, 말하는 것 등 행동하는 일체가 새로운 분야에서 출발하는 데는 조심히 따라야 됩니다. 그 조심은 무엇과 더불어? 신랑의 가문과 새로이 출발하는 그 환경에 어떻게 하면 내가 상충이 안 되고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142－160, 1986.3.9) p.137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로부터 역사를 엮어 가지고, 앞으로는 입적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적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모두 하나님같이 되고 참부모같이 되었어요?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나깨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먹으나 자나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국에서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 한국말을 배워야 되겠어요, 배우지 말아야 되겠어요? 인간은 본래 두 개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201-234, 1990.4.22) p.1371

앞으로 입적할 때가 옵니다. 선생님의 일족, 황족을 중심삼고 연결되는 여기에 여러분이 가입하기 위한 입적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적시대가 오더라도 종족복귀를 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열두 지파와 마찬가지입니다. 종족복귀하기 전에는 입적 못합니다.

사람들이 종족복귀의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저 통일교회에 먼저 들어오려고 떼거리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입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사람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것이 되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선생님을 중심삼고 선생님의 아들딸, 선생님을 중심삼은 만물을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선생님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208-339, 1990.11.21) p.1371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입적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정도 없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부모고 뭣이고, 열 식구면 열 식구가 전부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머니 아버지와 일족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조부모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자기 부부, 아들딸이 하나 되어서 위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지니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전통에 복종하면서 위하는 사랑만을 갖고 움직이는 그 세계, 위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는 평화의 기지가 생겨나지 않으려야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0-354, 1990.12.27) p.1371

입적시대로 들어가게 되어 명부를 꾸미는데 함부로 못 꾸밉니다. 홈 처치를 통하지 않고는 명단 기입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의 족보편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 받은 가정이라도 빼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늘이 제시하는 모든 일을 서둘러 해야 합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영계에 가면 영계에 가서 영원을 두고 해야 됩니다. 땅 위에서 해결 못 짓고 가게 되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143-118, 1986.3.16) p.1371

이 땅 위에 와서 뜻을 세우지 못한 예수는, 시대적인 신부의 이름을 세워서 참부모의 인연을 결정지어 가지고, 참된 자식들을 세워서 이 평면 지상에서 상속권을, 입적권을, 천국의 권한을 가지고 입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어느 기준은 마련해 놓고 가야 할 건데 그걸 못 하고 간 겁니다. 입적시키는 데는 종으로 입적시키겠어요? 직계 아들이 아니면 양자라는 이름으로라도 입적시켜 놓아야 하나님 앞에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권 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5-309, 1965.11.1) p.1372

우리는 뭘 하자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참부모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의 자리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입적하자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참부모주의 하나님주의를 중심삼아 가지고 새로운 입적이 벌어짐과 동시에 지파편성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열두 지파 등과 같이 지파편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146-230, 1986.7.1) p.1372

여러분이 이제부터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빨리 자기를 중심삼고 자기 혈족은 물론이요, 환경적 여건을 확대시키느냐 하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 속하든 고향에 돌아간 그 뿌리와 더불어 지파편성을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의 가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가지들이 책정되어서 본적에 등록하는 일이 시작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종차별이 무엇이고, 무슨 문명국이고 저개발국이고 없다 이겁니다. 영계의 선한 선조들을 중심삼고 얼마만큼 하나돼 가지고 그 선조들이 지상에 와서 이걸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금후에 여러분의 향토개발의 운동으로서 이것이 전개되는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대가 죽더라도 가지만 크면 이게 종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가 됐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새로운 가지를 어떻게 키워 가지고, 여러분의 족속들이 이 세계에 입적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느냐, 천국으로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귀향 길에 선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9-224, 1989.4.6) p.1372

앞으로 입적하는 겁니다. 남북이 통일되게 될 때는 세계 통일교회 가족들은, 축복 받은 가정들 중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한 모든 사람은 종족을 넘어 전부 다 입적할 겁니다. 선생님의 힘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된다면 말입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통일교회 충신들을 대표 민족으로, 씨받이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누가 반대하겠어요! 역사적으로 말하게 되면 한국의 독립을 위하고 한국의 환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고했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다. (197-212, 1990.1.14) p.1372

앞으로는 종족 가입시대가 옵니다. 개인 가입시대가 아닙니다. 종족 가입시대가 오는 겁니다.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그것이 지나게 되면 국가 입적시대가 오는 겁니다. 빠릅니다. 이제부터는 빠릅니다. 눈코 뜰 새가 없으리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눈코 뜰 수가 없으리 만큼 빨리 돌아가지요? 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문총재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197-363, 1990.1.20) p.1373

Top

② 입적은 나라 축복시대에 있다

통일교회 축복은 교회축복이지 국가축복이 아닙니다. 세계축복까지 3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축복시대를 지나 남북통일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중심삼은 축복시대가 국가축복시대고, 그 다음에는 지상?천상세계가 하나되는 축복시대입니다. 3대 축복권 시대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담 일대에 됐을 것을 재림시대에 와서 선생님 일대에서 전부 다 끝마쳐야 됩니다. 2000년까지 세계적 축복을 한꺼번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290-253, 1998.3.2) p.1373

통일교회 축복 받은 가정들이 성례식을 했지만, 그 성례식은 교회 내의 성례이지 국가 내에서의 성례가 아니요, 세계 내에서의 성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날도 교회의 축복, 나라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축복, 천국 가서 영원한 축복의 예식을 거쳐야만 본연의 세계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전부 간단히 편리하게 살짝해서 선생님 모르게 축복 받았다고 해도 안 통합니다. 나라 축복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에 가 가지고 대입회식과 더불어 입적식을 거쳐 가지고 열두 지파편성을 끝내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가 저 나라에 가서 좌정해야만, 자리를 잡고 앉아야만 모든 만민은 순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185-36, 1989.1.1) p.1373

통일교회 결혼도 3단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축복-나라축복, 세계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복 받은 가정들이 지금까지의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탕감조건이 없는 해방된 사람들이 결혼할 것인데 탕감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 앞에 핍박하는 나라가 있고, 나라 앞에 세계가 있는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끌고 핍박이 없는 해방된 자리에 넘어가서 하나의 통일된 세계에 있어서 아담가정에서 하늘이 축복하던 상속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권, 국가권, 세계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왕권복귀의 권을 넘어가서 사탄세계의 참소권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상세계의 해방이 벌어지므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세 번 이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285-235, 1997.6.5) p.137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복받은 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입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적해서 나라를 찾아 가지고 국가적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종족적 메시아들은 종족적 메시아들끼리 합해서 자기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그 나라를 세계에 입적시킴으로 말미암아 세계 축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268-251, 1995.4.2) p.1374

나라를 찾게 되면 입적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새로이 하나님의 혈족으로 입적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이동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의 파괴적인 면으로서 강제로 했지만, 앞으로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59-223, 1994.4.10) p.1374

입적시대가 올 때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모든 민족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정을 부정하고, 종족을 부정하고, 민족을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하고, 세계를 부정하고, 천상세계의 지옥까지도, 영계의 지옥까지도 부정하고 마귀를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긍정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으니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59-223, 1994.4.10) p.1374

지금은 나라가 없으니 교회 안에서 축복했지만, 앞으로는 나라에 입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해야 나라에 입적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입적하고 세계에 입적해 가지고 참부모와 하나되어 가지고, 참부모가 주체라면 온 세계 가정들이 객체로서 하나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을 헌납해야만 천주적 축복가정 이상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상천국, 천상천국이었느니라! 아멘! (269-65, 1995.4.7) p.1374

Top

③ 입적하려면 주권국가가 필요

나라가 없으면 국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편성을 해서 새로운 입적을 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하늘나라를 편성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애국애족하는 참되고 선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승리적 아들딸로서 자기의 족속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다 가야 천상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58-143, 1972.5.22) p.1374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못 합니다. 사망신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치면 쓰러져야 할, 죽어서도 호소할 수 없는 한스러운 길을 종교인들이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그 대표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통곡해도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분하고 원통해도 참아야 됩니다. (283-222, 1997.4.12) p.1374

내가 아들딸로 태어났더라도 입적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보류돼야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남편 되기를 원하며 하늘나라에 입적된 그 백성으로서 아내를 가지고 그 가정에서 애기를 낳고 싶다고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하루 한 시간, 한 초를 바쁘게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22-280, 1982.11.21) p.1375

여러분에게 출생신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입적입니다. 일본의 어디 어디에 태어난 일본인으로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진짜의 참부모를 중심삼고 나온 가정이 없었으니까, 종족도 없고 나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세계, 사탄 나라로부터 모두 탕감해 가지고 가정으로부터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권을 중심삼고 종교권이 아닌 세계를 하나 만들어서, 사탄이 가졌던 것을 모두 하나님 편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영계에서 지상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힘듭니다. (250－112, 1993.10.12) p.1375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권과 혈통권을 전수시키는 것이 통일교회의 축복입니다. 타락한 만민은 축복을 안 받으면 입적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뭉뚱그려서 누구나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입적하는 데는 어떻게 입적해야 되느냐? 본래는 출생시대부터 입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입적했지요? 아무 날 아무 곳에 아무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딸로 태어나 아무개 장녀면 장녀, 차녀면 차녀, 장남이면 장남, 전부 다 이름을 가지고 입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211－109, 1990.12.29) p.1375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사탄세계에 입적하고 있으니 전부 떼어서 하늘나라에 입적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거 모르고 사람들은 죽어 가지고 야단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입적하여 천국 가정으로 입적하고, 천국 종족, 천국 국가, 천국 세계에 입적해 지상천국과 통일되면 하나님의 오른팔로써 두 세계를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가려면 입적의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입적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받으러 나가는 것은 입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입적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적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주권은 부모를 대신하고, 백성은 아들을 대신하고, 국토는 물질을 대신하여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5－282, 1970.10.25) p.1375

우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축복가정의 아들딸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국가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딸의 이름을 입적할 데가 없고, 앞으로 결혼하고 승화할 때도 등록할 데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정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머물러 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권이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멤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미국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나라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물어 보지요? '어디서 왔어?' 할 때, 미국-독일-일본 등의 나라 이름을 대지요? 그 가운데 최고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가장 귀한 나라가 지상천국, 하나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나라에 속한다.'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입니다. (277－251, 1996.4.18) p.1376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교회의 교인들은 입적식 할 때가 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되어서 하늘도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때는 여러분의 입적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입적시대가 오면, 아무리 눈이 봉사요, 코맹맹이요, 곰배팔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시집을 왔다면 형님이 되는 것입니다. 맏동서가 되는 겁니다. 늦게 시집을 오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나이가 많더라고 코맹맹이요, 곰배팔이를 형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때에 이런 특수 조건들이 전부 다 패스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58－113, 1972.6.6) p.1376

남북이 통일되고 그 축복 받은 자들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입적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혈족이 되었으면 입적시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평면적으로 50억 인류가 일시에 축복 받아 입적함으로 말미암아 수천만 대의 조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평면적으로 같은 날 축복 받았지만 그 중에는 수천 대 조상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252－246, 1994.1.1) p.1376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를 복귀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땅 위에 재림해 가지고는 개인을 후원하고 가정을 후원할 수 있을 뿐이지 당당하게 권세 있는 후원은 못 합니다. 사탄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생겨나야 여러분은 입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적했어요? 여러분은 통일교회에는 입적했지만,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입적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54-277, 1972.3.26) p.1376

Top

④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른 그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상적인 주체성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사상은 절대적인 창조주의 사상과 일치되는 사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자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고 그 나라 국민이 일치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성을 갖추고 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49-93, 1971.10.9) p.1377

하나님의 조국이 어디냐? 참부모와 참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참부모의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과 그 아들딸이 있는 곳입니다. 그 참부모의 조국은 어디냐? 하나님과 자녀가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이 있는 곳이 조국입니다. 주체자와 대상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조국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조국은 어디냐? 하나님을 주체로 하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는 대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사위기대의 본향지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조국입니다. 어째서 이상적 조국이냐? 참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과 참자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이 돼 가지고 확대된 세계가 이상세계입니다. 사위기대에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124-266, 1983.2.27) p.1377

조국이라는 것은 뭐냐? 조국은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나라입니다. 종지조상의 나라입니다. 그 종지조상으로부터 사랑해 내려온 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불변하니까 그 나라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나라를 중심삼고 조국이라고 주장한 모든 사람들의 전통적인 배후를 볼 때, 이런 부모님이 사랑하는 조국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렸습니다. (173-168, 1988.2.14) p.1377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던 조국은 참사랑을 중심한 인류의 조국이며 본향입니다.

한국은 그러한 인류의 조국과 본향이 되어야 합니다. (185-131, 1989.1.3) p.1377

한 나라를 보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에 천국을 실현한다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만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어디냐? 지구성입니다. (96-15, 1978.1.1) p.1377

그러면 본향땅과 본향의 조국은 어디냐, 조국은 어떻게 되느냐? 조국은 물론 어떤 특정한 한 국가적인 기준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찾아 나오는 인류의 조국은 어디냐 하면 지구성입니다. 이 지구성입니다. 이 지구가 인류가 소망하는 조국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소망하는 인류의 조국이다 이겁니다. 과거에 수많은 역대의 우리 선조들이 희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이 소망으로서 하늘 앞에 호소하면서 간 것이 무엇이냐? '소망의 조국의 한 때가 어서 오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한 국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늘 앞에 원수인 대사탄을 심판해 버리고, 악을 제거해 버리고 선만을 위주로 한 평화의 천국을 이 지상에다 이루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의 소원이요, 지금까지 섭리노정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우리 선조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55-321, 1965.11.1) p.137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의 인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악의 투쟁도 거기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 각 나라마다 국경이 있습니다.

흑백의 인종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지간에 전부 다 분열이 벌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정세를 두고 볼 때, 오시는 주님은 국경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인종문제를 초월해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열된 가정을 전부 다 통일해야 되고, 선악이 싸우는 이 세계에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53-72, 1972.2.9) p.1378

우리의 목표는 통일세계,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의 주권,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토, 하나의 문화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으로 하나의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심정권을 이루어 이상적인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789, 1983.4.3) p.1378

그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계의 자녀들이 천명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을 가지고 그 왕권으로 치리하는 그런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한 번 형성되면 영원한 국가체제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 자신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못 됐다는 사실이 원통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나 자신이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나를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불변의 주권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72-292, 1974.9.1) p.1378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로서 자유자재로 만민, 혹은 만물세계에 자랑하며 사랑 받을 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라 없는 자는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불쌍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발판으로 할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55-79, 1972.4.23) p.1379

주권 없는 나라의 국민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31~33)'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34-337, 1970.9.20) p.1379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추만대의 후손들이 길이 찬양할 수 있는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4-193, 1964.10.3) p.1379

이제 조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조국에는 주권이 있고, 그 조국에는 국토가 있고, 그 조국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단일민족의 혈통이 인연되어 있고,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밀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자기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해 내면 해낼수록 조국광복의 터전이 자기로 말미암아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조국광복의 한날을 가까이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살아서 밀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세계사적인 축복과 천운을 우리의 것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29-40, 1970.2.16) p.1379

Top

2) 입적을 위한 조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소유권-혈통권-심정권 전환

㉮ 소유권전환

여러분은 앞으로 새로운 나라에 입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은 다음에 사람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만물을 먼저 입적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입적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역사가 6 천년 역사에 해당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만물을 통해서, 성약시대에는 부모를 중심삼고 하늘과 연결시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의 한계권 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넘어 세계권까지 확대시켜서 그런 역사를 완전히 종결짓지 않고는 완전한 복귀의 한 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3-332, 1969.6.15) p.1379

세상의 모든 물건이 타락한 부모로부터 전부 다 사탄 앞에 흘러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부모님을 중심삼고 모든 가정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소유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도 자기 것이 아니고, 아들딸도 자기 것이 아니고, 남편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담의 소유로 결정 받아야 됩니다. 해와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소유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165-284, 1987.5.27) p.1380

아담의 소유로 결정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고 난 다음에 재차 아담을 통해서 돌려 받아야 자기 소유권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 입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지상에서,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만물을 소유하고 살던 주인의 자리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상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65-284, 1987.5.27) p.1380

자기에게 있는 물건은 몽땅 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하늘 앞에 갖다 접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라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주인은 아담이 아닙니다. 하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늘을 중심삼고 주인을 삼아 가지고 나는 거기에 상대적인 존재, 대상적인 입장에 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19-214, 1991.8.29) p.1380

재산을 자발적으로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집,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선생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입적할 때 자기의 집 같은 것이 있으면 걸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더라도 세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민을 구하는 데는 국가를 전부 다 녹여서 물처럼 부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급한 때에 있어서 그렇게 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늘의 원수, 반역자입니다. 일본 나라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왕권을 부흥시켜야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는 집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충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주를 건설하는데,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하늘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6-238, 1997.8.11) p.1380

피조세계는 사탄의 소유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 소유권 회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하는 전쟁 없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족이 재산과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하늘에 입적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상에 없었던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먼저 입적하느냐에 따라서 형님이 되고 아우가 되는 것입니다. (208-346, 1990.11.21) p.138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의 이름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뜻의 평화경이 벌어지고 통일권이 벌어진 여기에 있어서 가정적으로 입적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적한 종족적 메시아가 열두 가정만 됐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든가 모든 나라가 문제없습니다. 완전히 한꺼번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가정 이후에 타락한 모든 전체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품겠다는 뜻입니다. (269-57, 1995.4.7) p.1381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빨리 종족복귀 해라! 소유권을 하나님에 돌려라! 빨리 입적해라!'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최대 희망입니다. 선조이래 수천대를 넘어서는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뼛속 깊이 새겨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미래에 있어서 일본의 여명의 아침이 지나 빛나는 태양을 맞이하는 기쁨을 체휼하게 될 것입니다. (227-107, 1992.2.10) p.1381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야 됩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통일은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을 대지 않더라도 서로가 더 빨리 입적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되느냐, 두 번째가 되느냐, 세 번째가 되느냐를 다투면서 기를 쓰고 싸울 때가 올 것입니다. (198-242, 1990.2.3) p.1381

여러분은 총생축헌납제, 헌납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에덴에서 거짓부모로 말미암아 다 빼앗아 가지 않았어요? 참사랑으로부터 몽땅. 그래서 몽땅 총생축헌납제입니다. 살아있는 물건까지 제물로써 바쳐야 됩니다. 쪼개선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기를 중심삼고 저금통장을 남기고, 아들딸 분깃을 만들어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 부부가 집을 팔아 가지고 절반만 바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 알아요? 아나니아 부부가 그랬다는 것을 알아요? 눈앞에서, 목전에서 장사 치르는 겁니다.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302-44, 1999.5.18) p.1381

'총생축헌납제' 이게 뭡니까? 타락한 거짓부모가 하늘 세계를 빼앗아 도적놈이 되었는데 참부모를 중심삼고 세계를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바쳐야 됩니다. 바치기 전에는 선생님이 주인노릇을 못 합니다. 지상의 왕권, 천상의 왕권을 세워 인계해 놓고 자리잡아 이 땅 위에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상?천상천국이 완전히 합덕(合德)이 됩니다. 합덕이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합덕, 인간합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299-48, 1999.2.1) p.1381

지금 여기의 여러분은 '총생축헌납제'를 올려야 됩니다. 해원통일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있어서 하나님 편 소유물, 사탄편 소유물로 쪼개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는 겁니다. 둘로 쪼갠 것이 오른쪽 것은 하나님 것이고, 왼쪽 것은 사탄이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벨이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히 바쳐야만 사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298-22, 1998.12.31) p.1382

Top

㉯ 혈통전환

통일교회의 원리를 중심삼고 보게 되면, 오늘날 타락한 인간은 낳자마자 지옥행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낳자마자 지옥에 입적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거짓 혈통으로 인연된 모든 후손들은 사탄에게 입적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계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종교가 나온 겁니다. 종교는 몸뚱이와 하나되고 갈라진 것과 하나되기 위한 것입니다. (272-83, 1995.8.30) p.1382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 다한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 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터전 위에 임재합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의 승리적인 기반 위에 바로 서시어서, 그가 못 다하신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되시어 만민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혈통을 전환하는 새로운 결혼 행사를 통하여 전 인류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여금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으로 접붙여 참된 사람으로 구원하고 나아가 참된 가정을 이루어 지상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282-223, 1997.3.13) p.1382

타락으로 인하여 거짓부모로부터 거짓사랑, 거짓생명, 거짓혈통을 받아 거짓된 결혼식을 한 가정으로부터 비롯된 더럽혀진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복귀하여, 참된 하나님과 참된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우리 부부가 외적으로는 두익사상을 세워 좌, 우익을 극복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주의, 즉 참사랑을 통해 양심세계와 영적 세계를 극복하여 참부모가 됨으로써 신인애 일체가 된 참사랑의 씨, 참생명의 씨, 참혈통의 씨를 접붙여 주어 큰 축복을 전수해 주는 부화의 예식이 바로 국제합동결혼식인 것입니다. (275-58, 1995.10.31) p.1382

재림주는 육신을 쓰고 오셔서 새로운 혈통관계를 편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 대가정권에서 탕감함으로써 아담가정에서 완성해야 할 참장자권, 참부모권, 참왕권을 찾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지상천국으로 전환하여 천상천국으로 입적을 보아 하나님을 중심한 지상, 천상왕권시대로 진입하여 승리와 자유와 행복과 통일의 세계를 찾아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277-211, 1996.4.16) p.1382

탕감복귀는 혈통전환, 소유권전환, 심정권전환이 3 대 목표입니다. 그런 내용을 들었지요? 혈통이 달라졌기 때문에 혈통을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서 입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혈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타락의 혈통을 이어받아 모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혈통을 연결함으로써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전환을 해야 합니다. 타락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 피가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혈통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258-287, 1994.3.20) p.1383

앞으로 소유는 누구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못 되었습니다. 악마의 소유됐던 걸 하나님의 소유로 입적시켜야 됩니다. 혈통전환을 못함으로 축복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하늘에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심정권을 반환해야 됩니다. 심정권은 일족입니다. 이것이 4 대에서 8 대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심정권입니다. 할아버지를 중심삼고 친척이 되면 4 대, 5 대 해서 그게 8 대가 되는 것입니다. (272-214, 1995.10.5) p.1383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냥 부모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혈통이 다르지요? 입적하기 전에는 상속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은 입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족보에 입적되었어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 언제 입적돼요? 축복 받는다고 다 입적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 받는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 그 자리입니다. 완성급 7 년노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중심삼고 복귀해 나가는 겁니다. (139-279, 1986.1.31) p.1383

Top

㈐ 심정권전환

천국에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가정을 갖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인 이상은 아들딸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을 다한 위에 영원의 세계에서 참부모와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공식의 내용을 완성시키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축복 받은 경우에는 천국에 가는 문은 열리지만 걸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종족의 메시아를 완성한 입장에서 입적을 해야 됩니다. (250-112, 1993.10.12) p.1383

몸과 마음의 통일세계를 갖추려면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명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수고가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해 가지고 그 경지를 찾고 나서 영계에 가지 않고는 큰일납니다. 이런 참된 사랑의 논리를 중심삼고 볼 때, 우리 인간이 거기에 일체화되어 가지고 공동일체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핏줄이 내 핏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피조세계가 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피조세계라고 하며 천하를 품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살지 않고는 천국에 입적을 못합니다. (200-230, 1990.2.25) p.1384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슬픔과 통곡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넘어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춤이 나올 수 있어야 할 텐데, 아직 그렇게 못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리워해야 할 역사적인 조건에 걸려 있고, 시대적인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의 조건을 갖지 못한 여러분은 이제 하늘과 나 사이의 그리움의 조건을 청산 지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늘의 식구로서 입적될 수 있는 날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리워하는 데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리워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세계 인류가 그리워해야 합니다. (8-114, 1959.11.22) p.1384

참부모권을 여러분도 전부 다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자녀권, 참부모권, 참왕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참부모권 일체화되는 하늘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첫째 지상천국, 둘째는 천상천국, 셋째는 왕권과 황족권입니다. 황족권은 뭐냐? 가인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가인 세계 장자권을 복귀해 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절대 복종하는 차자를 만들어 하늘나라에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황족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인까지도 타락하지 않으면 황족이 될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하늘에 갈 수 있게끔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족권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시의(侍義), 모시는 가정생활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 지상 그 다음에 왕권과 황족권을 중심한 승리의 기반 위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종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전부 다 입적이 돼야 된다, 즉 조상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274-183, 1995.10.29) p.1384

그래 참부모의 혜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천하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일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똥구더기 같은, 그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퉤! 침 뱉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아들딸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선생님까지 3 대를 거치는 것입니다.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본연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혈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분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선생님 말이 아닙니다. 섭리적 관입니다. (264-320, 1994.11.20) p.1384

Top

②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해야 한다

㉮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

이제 여러분들의 뿌리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아들딸을 중심삼은 본연의 부모권과 장자권을 중심삼고 거꾸로 틀어 넘겨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는 접선이 안 되는 겁니다. 180 도 반대로 갖다 붙여야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은 고향에 들어가서 조상을 바꿔쳐야 할 운명이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164, 1986.6.1 본부교회)

종족적 메시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담이 실패한 것을 전부 다 복귀해야 합니다. 참부모가 와 가지고 예수의 실패한 것을 복귀하고 아담의 실패한 것을 복귀한 것입니다. 아담은 가정적 기준이지만 가정적 뿌리를 아담과 해와로부터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붙들어 놓아 가지고 종족적 메시아 입장에서 자기 부모와 종족을 복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들딸 4 대입니다. 이 4 대를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뿌리가 없었던 것을 자기 부모를 중심삼고 뿌리를 대치해 주는 것입니다. (210-273, 1990.12.25) p.138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종족적 메시아는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아들딸을 묶는 것입니다. 그건 숙명적입니다.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 못해 가지고는 저 나라에 가더라도 입적을 못합니다. 설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잡아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고, 선생님이 일가 앞에서 하지 못한 역사적인 한을 풀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을 시켜 가지고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부모가 해방됨과 더불어 여러분의 부모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타락하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로 등장하는 겁니다. (220-39, 1991.10.13) p.1385

자신의 종족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역사상 없었던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입장은 제2의 참부모의 입장으로 예수의 입장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을 부여받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종족적 메시아로서 책임분담을 다해야 하는가? 첫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제1의 아담의 입장이고, 여러분은 제2의 아담의 입장에 있습니다. 부모를 복귀하여, 재창조하여 아담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이유는, 여러분들은 고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분담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아담가정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족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162, 1991.5.12 이스트 가든) p.1386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김씨면 김씨 가문의 메시아와 마찬가지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김씨 가문이면 김씨 가문, 박씨 가문이면 박씨 가문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창건함에 각 종족을 대표해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주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김씨 가문을 구해 주는 구세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김씨 가문을 대신하여 제사장적인 책임을 해야 됩니다. (155-265, 1965. 10. 31. 대구교회) p.1386

입적이 없으면 천국 국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들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마음대로 전후?좌우?상하에서 공격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부 다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부모를 해방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236-322, 1992.11.9) p.1386

왜 종족적 메시아가 필요하냐? 종족적 메시아가 없으면 가정기준을 중심삼고 전부 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고향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향은 없습니다. 가정을 전부 다 복귀해 놓고 나면 앞으로 입적시대가 옵니다. 입적시대가 오게 되면 지파 편성이 벌어지고, 입적하는 순서가 계열이 되는 겁니다. 먼저 입적하는 사람들이 형님이 돼 가지고, 그들을 조상과 같이 모실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됩니다. 전세계를 다 그렇게 만들어야 지상천국의 완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10-273, 1990.12.25) p.1386

절대적으로 종족적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제1, 제2 아담권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선생님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입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종족적 메시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은총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보물을 받는다고 해도 그 가치 있는 것을 함부로 다룹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종족만 복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192-233, 1989.7.4) p.1386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입적이 가능한 겁니다. 비로소 인간이 하늘나라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가정을 갖게 됐고, 하늘의 종족, 하늘의 민족, 하늘의 국가, 하늘의 세계를 거쳐, 천주를 거쳐 가지고 나라를 갖게 되어 그 나라에 입적함으로써 하늘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혈족이 입적되었을 것인데,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숱한 역사를 거쳐서 세계 가운데서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탕감복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계 각 나라를 책임져 가지고 그 나라를 하늘나라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69-303, 1994.11.20) p.1387

종족적 메시아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종족적 메시아가 합해 가지고 종족적 메시아를 중심삼고 내 나라를 찾는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에서, 360 도에서 축복가정이 생겨나 가지고 누가 정상에 올라가느냐 경쟁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입적하기 전에는 조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언제 밀려나게 될지 모릅니다. (269-93, 1994.10.9) p.1387

통일교회에 다니면서 20 년 동안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를 중심삼고 등급을 매기게 될 때, 그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한 사람은 기생충과 같습니다. 앞으로 입적할 때는 그 수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입적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중심삼고 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가정은 아담의 일족이지요?

아담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아담가정의 아들딸이 있고, 일족이 있으면 나라가 형성됨. 그렇게 되면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240-27, 1992.12.11) p.1387

자기의 가정을 중심삼고 아들딸이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가정에 3 대가 다 있잖아요? 자기의 종적인 기반을 중심삼고 횡적인 면에서 평형적으로 가정의 이상을 전부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수백 수천의 가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나라가 됩니다. 세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40-27, 1992.12.11) p.1387

통일교회 교단은 종족입니다. 종족이라는 겁니다. 내 피가 같이 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지으면 눈물을 지어야 되고, 내가 기뻐하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족입니다. 오색인종을 넘어서 문화배경이 다른 모든 국가 기준을 넘어 가지고 벽을 허물고 하나로 뭉친, 새로운 하늘나라의 창건을 위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거룩하게 될 때. 하늘나라의 창국(創國)이 현현하는 것이요, 그런 거룩한 창국의 민족으로서 살아갈 때. 창세계(創世界)가 벌어지는 것이요. 그 세계 위에 천주적인 지상의 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168-136, 1987.9.13. 본부교회) p.1387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종족적 메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 천주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산과 같이 큰 보물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되기만 하면 보석산 같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수도관 같은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서 내려가듯이 여러분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189-247, 1989.4.9. 벨베디아 수련소) p.1387

종족적 메시아가 싸구려인 줄 알아요? 똑똑한 선생님이 메시아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도 미치지 못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종족적 메시아란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보다도 더 귀한 가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회를 반대하고 별의별 욕설을 퍼붓던 사람까지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자리에 끌어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말하는 문 아무개는 참부모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219-150, 1991. 8. 29 국제연수원) p.1388

Top

㈏ 160 가정 완수는 필수

여러분 일족을 전부 다 축복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60 가정에서 180 가정입니다. 그래야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왔는데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어야 되겠어요? 개인 구원시대가 아닙니다. 가정과 종족과 국가와 세계가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가정적 기준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5-207, 1997.5.4) p.138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복 받은 가정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가정적 메시아를 중심삼아 가지고 160 집, 120 집을 하나 못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때는 세계적 무대에서 160 집을 하나 만듦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패한 기준을 중심삼고 땅 위에 착륙할 수 있는 가정적 메시아를 형성해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의 역사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입적이 벌어집니다. 나라에 입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 입적, 호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핍박받으면서 했지만 여러분은 핍박받지 않고 환영받으면서 160 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60 개 국가를 전부 다 반대 받으면서 한 것을 160 집에서 환영받으므로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266－182, 1994.12.25) p.1388

왕권시대에 왔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 160 국가를 중심삼고 선생님이 하나님 대신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메시아를 보내서 지금까지 구원역사를 했지만 선생님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있어서 지상에 착륙해 가지고 사탄이 없는 세상이 돼 있기 때문에 평면도상에 전세계 축복가정으로 하여금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하도록 세계에 배치했습니다. 이 종족적 메시아가 가정적 메시아를 전부 다 꿰차 가지고 나라에 입적하게 된다면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기반이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274－184, 1995.10.29) p.1388

160 국가만 하나되면 세계와 천주는 자연히 하나돼 묶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160 국가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160 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족적 메시아로서 160 집을 구원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부모가 160 국가를 완성한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돌아가게 되면 160 가정을 중심삼고 나라가 돌아가고 160 국가가 다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267－110, 1995.1.3) p.1389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담 일족을 잃어버렸습니다. 7 대입니다. 7 대만 내려가면 아담 일족을 중심삼고 지상천국 기반을 완성시킬 것인데, 7 대가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삼고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 대만 되더라도 몇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개인 소생, 가정 장성, 완성 종족입니다. 이것이 한 범주입니다. 이건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3 단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길에서는 여러분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 살아야 되고 종족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종족을 넘지 못하면 세계 국가권에 가입을 못 합니다. 종족 편성을 못하게 되면 세계 국가, 세계 판도 위에 입적 못 한다는 걸 다 알지요? 160 가정 이상 축복을 해 줘야만 하늘나라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뿐이 아닙니다. 이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275－214, 1995.12.30) p.1389

종족적 메시아가 없으면 부활할 수 있는 중생의 원리의 다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160 가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입적할 수 없습니다. 그 입적하는 것이 수천 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 억 인류가 역사적 대수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해야 됩니다. (265－142, 1994.11.20) p.1389

참부모를 중심삼고 입적하는 사람이 앞으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 나라의 조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주류 씨족을 중심삼고, 거기에 방계 되는 모든 사람을 중심삼고 이걸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적해야 됩니다. 입적은 그냥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160 가정, 혹은 180 가정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한 사람은 탈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뭐 36 가정이든 뭐든 그걸 주장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평등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수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286－247, 1997.8.11) p.1389

자아완성이란 절대 참사랑, 절대 참생명, 절대 참혈통, 절대 참양심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 타락 후에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 가지고 안착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안착했으니 우리도 참부모를 따라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 가지고 160 가정을 연결해 가지고, 160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와 지상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히 상속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입적하는 겁니다. 입적한 후에야 지상천국-천상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적한 후에야 비로소 내 나라, 내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8－88, 1995.3.5) p.1389

입적할 때에 입적한 순서로서 조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 종족적 메시아가 빨리 되어 가지고 입적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0 문도들을 전부 다 등록하려다 못했으니, 재림시대에 160 가정을 중심삼고 등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180 도 괜찮아요. 그게 전부 다 160 을 원하지, 180 을 원치 않기 때문에 160 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 6 수가 사탄수이기 때문에 사탄세계에서 완성해야겠다는 겁니다. 4 수는 이상수라는 겁니다. 4 수의 4 배는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53－83, 1994.1.7) p.1390

여러분은 어떻게 160 가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160 가정을 연결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삼고 160 국가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아담가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 160 가정이 절대 필요해요, 절대 필요 안 해요? 어째서 필요해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승리한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 없으면 선생님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 사탄세계를 해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입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8－85, 1995.3.5) p.1390

왜 160 가정이냐면 이것을 세계에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12 가정, 모세는 72 장로, 예수님은 120 문도, 재림주는 160 사두(使頭)예요, 사도(使徒)의 머리(頭)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라고 했다구요, 사두는 이번에 내가 처음 쓰는 말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말입니다. 일본이 해와 국가니 만큼 선생님이 아는 비밀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 책임자도 모르는 일을 다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 책임 못하면 모가지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160 가정을 해방하지 못하면 제 1 차 아담, 제 2 차 아담, 제 3 차 아담 승리권을 자기가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 차 아담 것만 했다면 2 차 아담, 3 차 아담과 관계를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재림주님이 1 차 아담, 2 차 아담, 3 차 아담을 다 이루어 가지고 1 차 아담권, 소생의 기반만 닦게 되면 접붙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265－127, 1994.11.20) p.1390

선생님은 40 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160 개 국가에 선교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축복 받은 가정, 통일교회 교인들은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 가지고 160 가정을 연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수정체, 결정체와 같은 겁니다. 선생님은 핍박받으면서 만들었지만 통일교회의 식구들은 핍박이 아니라 환영받으면서 자기 일족을 구도할 수 있는 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160 명을 중심삼고 축복만 받게 한다면, 그것이 비로소 나라에 입적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가나안 복지에 상륙해 가지고 나라를 모실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52－288, 1994.1.1) p.1391

세계가 선생님 말만 들었으면 1952 년부터 지상에 평화세계가, 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랬더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이 8 억입니다. 8 억의 세계 인류가 선생님 편에 있으니 종족적 메시아는 한 동네에, 한 집안의 3 대가 전부 종족적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사탄세계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중심삼고, 지금 이후에 되어질 세계를 어떻게 치리하느냐 하는 것이 헌법을 제정해서 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을 중심삼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대이동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한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 160 가정을 축복시킨 가정은 입적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1 대면 2 대, 3 대, 4 대 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조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조상을 세우면 왕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권 혈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273-46, 1995.10.21) p.1391

실적 없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36 가정, 72 가정, 120 가정 일족을 거느려 가지고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입적을 못 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36 가정이라고 위신을 내세우는데, 내세운 것이 그냥 내세운 줄 알아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사탄도 어느 누구를 붙들고 이 앞에서 공격을 할 지 모릅니다. (303-166, 1995.10.29) p.1391

Top

③ 하늘나라 지파와 족보 편성

나라를 찾게 될 때는 여러분이 전부 다 입적을 해야 됩니다. 입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족보를 꾸미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를 중심삼아 가지고 나라에 입적할 때에는 족보를 꾸며야 됩니다. 족보를 꾸밀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돌리는 겁니다. 많고 적고 간에 전부 다 정성껏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대신한 모든 것을 나라에 바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금을 왜 저렇게 많이 정한 줄 알아요? 전부 거둬들여 간다는 것입니다. 98 퍼센트까지 거둬들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나라에 바쳐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전통을 이어서 세계가 하나될 때, 축복 받을 때 세계의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돌려야 됩니다. (101-289, 1978.11.7) p.1391

여러분은 앞으로 천국에 등록하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호적에 올려야 합니다.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을 못 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우리도 비로소 핍박권인 사탄세계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을 먹으나 무엇을 하나 언제나 나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54-228, 1972.3.24) p.1392

호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세계의 호적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옥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호적에 다시 입적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언제든지 중심존재가 있으면 투입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251-273, 1993.10.31) p.1392

하늘나라에 새로운 족보가 편성될 때에 입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60 국가를 중심삼고 160 가정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입적시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설정됨으로 헌법을 중심삼고 호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 나라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160 가정이 완전히 하나되어 가지고 입적해야 됩니다.

입적할 때 모국어를 모르면 입적이 안 됩니다. 말과 문화와 생활환경이 완전히 참부모님의 문화권을 상속받고 심정문화세계를 대표한 가정으로서 마찬가지의 모양을 갖추지 않고는 천국에 입적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276-216, 1996.2.24) p.1392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왕궁법을 존중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남북이 통일된 세계의 모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할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입적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서 대학교 선생으로 입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일대에 일족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패스해야 됩니다. 영계 육계로부터 감정을 받아 가지고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45 년 동안 지시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몇 분의 일을 합격했느냐 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게 협박이 아닙니다. 두고 보라고요. 내가 명령하는 것은 내가 다 하고 승리한 조건을 세워 놓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제 1 조의 훈시의 조건으로서, 법적 조건으로서 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문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10-370, 1990.12.27) p.1392

만약 헌법을 만들어서 법률을 발표했는데, 그 법에 걸리면 감옥에 갑니다.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여자는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숨어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고하건데 남자보다 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50-344, 1993.10.15) p.1393

왜정 때에 사탄이 먼저 창씨개명(創氏改名)하는 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을 바꾸는 것이 뭐 어려워요? 왜정 때에도 갈았는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성을 바꾸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족보를 파 버리러 온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종의 족보를 파 버리고 왕궁의 궁녀 왕자의 족보에 입적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런 녀석은 망해야 합니다. 그러니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9-111, 1971.1.10) p.1393

아담 일대로부터 족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족보 편성이 처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입적시대가 온다. 그런 무섭고 놀라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90-167, 1998.2.18) p.1393

Top

④ 민족 대이동 시대가 온다

종족적 메시아로서 입적했을 때에는 한국어를 모르면 부모님의 가까운 곳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그런 때가 옵니다. 입적하는 데는 초국가적?초민족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족 대이동 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 메시아를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선생님이 말한 대로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3-48, 1994.1.1) p.1393

앞으로 입적하는 순서를 중심삼고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보따리 싸야 됩니다. 스탈린이 재림주 상징이기 때문에 사할린의 한국민족을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에 죽으라고 다 갖다 버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한국민족이 아주 끈질긴 민족입니다. 단결해 가지고 살아 남았습니다. 그때처럼 대이동하는 겁니다. 그때는 강제로 이동했지만 지금은 자원해서 이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원칙이 이런데 천국 간다고 자기들이 잘사는 데로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상천국이 현현하게 될 때는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입적한 순서대로, 선생님 측근으로부터 주욱 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보따리 싸는 것입니다. (253-299, 1994.1.30) p.1393

축복 받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은 자리에서 결혼한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들이 반대하지 않고 선생님을 환영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 가지고 종족적 메시아로서 160 가정을 규합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는 일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빨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 안 하다가는 여러분은 전부 다 쫓겨납니다. 세계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가지고 들어와서 전부 입적하게 될 때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게 된다면, 입적할 수 있는 수가 4 천만이 넘게 된다면 보따리 싸 가지고 저 남미로,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싫어도 그럴 때가 오는 것입니다. 대이동 시대가 옵니다. (274-175, 1995.10.29) p.1394

여기 다 왔던 사람들은 '이럴 수야! 나 이럴 줄이야!' 할 것입니다. 그러던 녀석들은 두고보라는 겁니다. 보따리 싸 가지고 저 남양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천만이 넘는 세계 통일교인들이 입적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한국으로 입적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따리 싸고 물러가게 됩니다.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민족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안 벌어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아 심각히 말씀을 전수 해주니 만큼 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들으라는 겁니다. 만일 죽어 가지고 여기 왔던 사람이 '왜 그때 똑똑히 말해주지 않았소?' 하고 문제삼는 겁니다. 내가 걸리지 않게 똑똑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283-211, 1997.4.12) p.1394

나라가 있어야 입적이 벌어집니다. 출생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수많은 가정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전부 다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수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다 새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북극 사람이 남극으로, 남극에서 북극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수속하는 절차에 따라서 나라와 지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이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78-327, 1996.6.23) p.1394

Top

3) 사위기대 입적 통일축복

① 3 시대 대전환 일체권 통일축복식

지상에는 참부모로 말미암아 축복 받은 패들이요, 천상에는 흥진군으로 말미암아 축복 받은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딸이 영계와 육계에서 갈라져 축복한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상의 부모님을 중심삼고 아들이 영계에서 일한 것을, 그것을 끌어내려다가 부모님이 축복하던 것을 너희들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기반과 영계에서 축복 받은 기반을 연결시켜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이 지상에서 아들딸을 축복하는 대신 영계가 천사장의 자리에서 완성할 수 있는 축복 기준 앞에 순응해야 되겠기 때문에, 흥진군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자리에서 한 조건을 세워 줘 가지고 부모님이 한 것을 전부 다 흥진군도 같이 했다 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3 시대 대전환 일체권 통일축복식 말씀)

팔십 노인이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축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대신, 흥진군도 영계에서 부모님 대신 같이 축복해 주는 시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상에 있는 아버지 자리에서 아들 되는 영계에 있는 흥진군 앞에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전수해 주고, 영계에서 축복했던 모든 기반도 선생님이 가 가지고 언제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동등한 가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평면 자리에, 아버지 앞에 아들을 끌어내 세워서 축복하든, 아버지가 천상세계 영계의 아들에게 가서 축복하든 마찬가지 가치로서 통일된 축복가정의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앞에 축복 권한을 상속해 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3 시대 대전환 일체권 통일축복식 말씀) p.1394

아버지가 영계에 가게 되면 형님이 됩니다. 또 아들이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먼저 나오니까 횡적인 면에 있어서는 형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모님 자리를 완성한 것은 아들의 자리의 완성을, 영계에 가나 지상에 가나 마찬가지 가치적 내용을 전수, 일체화시키는 놀음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영계의 장자 되는 흥진군을 불러 가지고 이와 같이 축복 받은 가정들을 세워 가지고 같이 통일적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축복 안 해주고 앞으로 흥진군이 축복하는데 흥진군이 없게 된다면 현진군이 아버지 대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갑니다. (3 시대 대전환 일체권 통일축복식 말씀) p.1395

여러분이 3 대 되는 이 아들딸, 축복 받은 가정들은 축복 받게 되면 절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참부모가 와서 구원할 수 있는 도리의 시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핏줄이 달라진 것을 완전히 전환한 3 시대의 조상을 대표한 왕권을 이어받은, 축복할 수 있는 대장들이 된 부부의 그 혈통은 천년만년 가더라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핏줄이 더럽혀진 것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빌 수 없습니다. 자기 조상과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구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핏줄이 깨끗한 핏줄이 아니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때문에 겉으로 벗겨 줘야 됩니다. 순결한 핏줄을 남겨야 됩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3 시대 대전환 일체권 통일축복식 말씀) p.1395

3 대권 내에 있는 축복 받은 여러 가정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타락의 슬픔을 맛보는 그런 혈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3 시대 대전환 일체권 통일축복식 말씀) p.1395

입적 특별수련회에 여자들이 입적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딸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들딸이 하나되어 가지고 아버지를 완전히 회개시켜 타락하지 않은 부모의 입장을 세워서 오시는 참부모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앞에 보좌에 모시고 천주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 가지고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만물과 아들딸과 자기 부부를 전부 다 바치는 이런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실권을 다시 상속받는 그 자리가 비로소 고향 땅을 갖는 출발의 자리요, 조국광복의 출발의 자리입니다. 이제 이 전체적 역사시대에 소원하던 축복가정들이 갖지 못한 전부를 탕감해 가지고, 비로소 남북통일의 이 혼란시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조국광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찾는 것이요, 본향 땅을 찾는 이런 엄숙한 과제에 출정한 병사의 어머니들이요 아들딸이니, 이 모든 하늘땅 전체가 협력해서 이 길을 완성을 향해 일방통행으로 승리에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기 위한 출정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사가 되어 가지고 하늘의 위신과 전통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가정들과 1 세 2 세 3 세가 되지 않고, 영계의 조상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가정들이 되기를 천지부모는 원하고 바랍니다.

축복 받은 장남 흥진군, 현진군, 모든 일족들 전체를 합해서 그 목적 달성에 전부 다 촌푼도 틀림없이 일체이상 완결 완성을 해방시켜 가지고 하늘땅의 승리적 왕자 왕녀가 되기를 비나이다! 아멘! (3 시대 대전환 일체권 통일축복식 말씀) p.1395

지상세계의 참부모의 승리권을 천상세계의 장자권을 대신한 흥진님을 중심삼은 승리의 전통으로 일체적 이상으로 전수하였던 것을 선포하오니, 천지의 존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영원불변의 사랑의 나라와 사랑의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품고 있는 정성, 충성, 효자, 효녀, 충신, 열녀, 성인의 도리, 성자의 도리를 다 할지어다! 맹세하나이다! 아멘! 맹세하나이다! 아멘! 맹세하나이다! 아멘! (3 시대 대전환 일체권 통일축복식 말씀) p.1396

Top

② 사위기대 입적

가정적 기반이 아니면 입적할 수 없습니다. 참부모라는 것은 가정을 중심삼고 축복의 기반을 대표한 세계적 가정이기 때문에 그와 상대권을 이루어 가지고 입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적 출생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뜻의 평화경이 벌어지고 통일권이 벌어진 여기에 있어서 가정적으로 입적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9-55, 1995.4.7) p.1396

아담과 해와가 가정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앞에 모든 것을 입적 수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삼고 여러분 나라와 전체가 들어가 가지고 하늘 앞에 입적하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타락할 때 가정 중심삼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려니까 그것을 탕감해야 됩니다.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 대통령이 있으면 그 나라를 데려다가 하늘 앞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는 날에는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84-96, 1988.12.20) p.1397

여러분은 가정을 중심삼고 입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입적 안 했지요? 앞으로 무서운 때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일에 걸리는 날에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법도라는 것입니다. (28-333, 1970.2.11) p.139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하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하늘과 부모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정과 형제를 사랑하듯이 만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의 자격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0-122, 1989.6.18) p.1397

조수(潮水)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상당히 빨리 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같이 다 만수가 되어서 교차될 때는 1분내에 교차되는 것입니다. 혜택권 내에 서 가지고 수평이 될 수 있는 것은 1분 안에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열성분자 청년들이 사탄세계의 사람하고 같은 축복자리에 서 가지고 50억 인류가 하루 저녁에 전부 다 통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대가 횡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가편성할 때에 다시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253-299, 1994.1.30) p.1397

이제는 축복 받은 날에는 일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밀어 젖혀서라도, 강제라도 축복 받으면 천국에 입적함으로 말미암아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283-295, 1997.4.13)

Top

③ 입적가정에 대한 참부모님 훈시

㉮ 순결한 혈통을 사수하라
㉯ 일심정착(一心定着)
㉰ 자녀에 대한 참사랑 실천 교육
㉱ 국경철폐와 교체결혼
㉲ 조국광복과 천국창건
㉳ 훈독경, 원리 암기
㉴ 가정맹세 실현화
㉵ 정오정착(正午定着)

Top

④ 축복가정 부인 동원과 조국광복

이제부터 가정이 책임지고 넘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후에야 입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내보내지 않는 사람은 걸립니다. 걸리면 아무리 선생님께 사정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7-264, 1970.12.27) p.1397

이제 여러분 일족이 하늘에 전부 다 입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입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 받은 가정들, 동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성가정은? 기성가정 여러분은? 기성가정은 동원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자유입니다. 또,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들도 동원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서로가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164-292, 1987.5.17) p.1398

아버지 앞에 오시는 재림주,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전통을 이어받고 부모의 전통을 이어받아 대표해 나온 것이 장자요, 장자와 장자의 전통까지 이어받은 것이 차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머니가 절대복종하고, 어머니의 명령을 맏아들이 절대복종하고, 맏아들의 명령을 동생이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이 못 된다는 것이 원리적 총관(總觀)입니다. 총관입니다. (283-56, 1997.4.8) p.1398

선생님은 하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만 하면 통곡이 벌어집니다. 천하를 통치하고 만국을 다스려야 할 하나님이 주권자 중의 주권자가 되어 만세의 대왕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만백성을 부자관계의 세계로 통치하려는 이상이 유린당한 사실, 그것이 원통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어나 모든 악한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늘이 원하던 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영광의 한 날이 우리의 목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164-216, 1987.5.16) p.1398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삼은 자주적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의 한 날은 무엇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저 영계에 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중심삼은 나라권 내에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통일교회 교인들을 고생시켰지만, 나라를 찾아 섭리적 국가권에서 나라를 가진 주권자 앞에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고 간 본연의 인간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권위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선생님은 일생을, 그걸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선생님이 고생시켰지만,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한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 심정을 기울여 일생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칠 수 있는 영광의 날을 위해 싸워 나왔던 겁니다. (164-216, 1987.5.16) p.1398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상적인 주체성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사상은 절대자인 창조주가 있으면, 그 창조주의 사상과 일치되는 사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자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고 그 나라 국민이 일치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성을 갖추고 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 형태를 보존시킬 수 있는 자격의 사람들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49-93, 1971.10.9) p.1399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에 조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하지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삼고 북한을 조국이라고 합니다. 일본사람은 일본을 조국이라고 하지요? 중국사람은 중국을 조국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민족이 전부 근원적인 국가나 조상을 중심삼고 민족을 형성했으면 그것을 중심삼고 조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세계의 조국은 몇백 개, 몇천 개가 아닙니다. 본래의 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라야 됩니다. (241-291, 1993.1.1) p.1399

우리 조국은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가운데 있는 한 고향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 있는 고향,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 있는 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이겁니다. 모스크바가 아니고 워싱턴이 아닙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과 우리 고향땅을 창건하여야 할 보물을 찾자는 것입니다. (102-260, 1979.1.14) p.1399

선생님이 누워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 나라의 집이 아니니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애착을 붙이고 뭐 잘살고 새끼들 낳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 나라의 영인들이 조국의 통일이 오기를 얼마나 바랐을꼬! 얼마나 바랐을꼬! '내가 지옥에 살더라도, 내가 천상의 낮은 곳에 있더라도, 우리 조국이 어서 생겨났으면….' 하고 바랄 거 아니예요? 그 조국이 현현할 때 자기들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사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도 그런 놀음을 해 나온 겁니다. 문을 다 열어 놓은 겁니다. 육계 영계 전부 다 하이웨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영계가 부모님에 대하여 전부 다 그런 방향을 갖춰서 하나의 나라로 진군할지어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영계가 지상을 위해 참부모님 잘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그거 아니예요? 지상의 참부모님께서 부디부디 잘 싸우셔서 영계의 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서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사탄세계에서 산 연령이 많은 것을 수치로 알아야 합니다. (164-218, 1987.5.16) p.1399

Top

4) 입적 시대와 우리의 책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입적과 참부모님의 은사

오늘날 인류는 사탄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천지의 대주인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궁둥이마저도 감추고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부끄러운 자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원수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로 배밀이를 해서 생명을 잃더라도 '이놈, 벌받아 마땅합니다.' 할 수 있는, 죽더라도 묻혀 있는 자신인지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09-292, 1990.11.30) p.1400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이 길을 찾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인생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암중모색하던 그 젊은 시절의 고통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조직을 다 만들어서, 말뿐만 아니라 실전 도상에 있어서 그것이 증거된 세계의 판도를 다 가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달려와 깃발을 받아서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209-292, 1990.11.30) p.1400

나 자신이 꽁무니를 끌고 얼마나 냄새를 피우고, 통일교회를 더럽혀 가지고 얼마나 사탄의 무대를 만들어 놓았던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선생님 앞에 몸을 펴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장자권을 해방 받아 상속받고, 왕권을 해방 받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권과 혈통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전부 구새가 먹어 가지고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이파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06-255, 1990.10.14) p.1400

여러분을 보면 껄렁패들 같은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말입니다. 축복을 받겠다고 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몇 해 동안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축복이란 그렇게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만년 공을 들이고 다음에 그 후손들이 와서 엄숙하게 천만 번의 사례를 드리면서, 또한 천상과 지상세계의 만민이 우러러보며, 그날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30-224, 1970.3.23) p.1400

문 총재 말이 거짓인가 두고 보십시오. 죽어 보라구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한번 죽어 보라는 겁니다. 저 나라의 모든 도수에 맞는 이치를 가르쳐 준 걸 알고 그 가르침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가야 할 길입니다. 문총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그 고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안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오늘날 이 망할 세상에 우리 같은 삶을 내세워 가지고 기독교가 살 길, 자유세계, 민주세계가 살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명실공히 참부모의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209-227, 1990.11.29) p.1400

'선생님을 닮아라'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닦아진 모든 복을 그냥 그대로 인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큰 고개를 넘었다면 이것을 중심삼고 같은 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은 같다는 것입니다. (199-188, 1990.2.16) p.1400

여러분 전부가 이제는 절대사랑, 절대복종 하는 입장에서야 합니다. 에덴에 있어서의 그 가정들은 자기 소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사랑과 핏줄이 하나된 자리에 서 있는 참된 아들딸만 되면 이 우주의 모든 전부가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300-303, 1999.4.1) p.1401

Top

② 축복가정의 전통을 세우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나라의 황족권을 중심삼고 편성해 나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껄렁껄렁한 패들,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불도저로 밀어버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원리 말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중심삼고 세계로 갈 때, 이 세계의 전통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이 세계의 전통을 가로막는 통일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됩니다. 눈을 감고 단행해야 됩니다. 천국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칼을 대야 할 때는 칼을 대는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라구요. 눈을 보라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빠른가 보라는 겁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틀리는 날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앞으로 세계로 향할 수 있는 시대 앞에 찾아오는 걸 생각할 때, 이제부터 엄숙히 과거를 다시 회개하면서 자기 일신을 정비하고 일 가정을 정비해야 됩니다. (184－243, 1989.1.1) p.1401

이제 앞으로는 세계가 전부 다 입적을 해야 됩니다. 열두 지파를 중심삼고, 그거 할 때는 여러분의 일생, 통일교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서 뭐 하나, 보자기 하나라도 가져갔으면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계에 기록된 컴퓨터 기록과 맞지 않게 될 때는 여러분은 못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전부 자기 자술서를 써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청산 짓고 넘어가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도 교회 축복, 남북통일 한 후의 축복, 세계 통일한 후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남북통일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세계를 넘어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가야 천국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저 나라에 가서 머무는 것입니다. (212－59, 1991.1.1) p.1401

인간의 가치적 결론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 가치적 결론의 중심이 뭐냐?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참된 사랑의 정의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사상은 사랑을 중심삼은 단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개인은 이렇게 가야 되고, 가정은 이렇게 가야 되고, 종족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딱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법도가 레버런 문의 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법도의 반영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 나라에 가서 입적이 안 됩니다. (147－194, 1986.9.21) p.1401

이젠 이론적으로 볼 때 뜻에 대해 설명할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짝을 들고 넘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로부터 역사를 엮어 가지고, 앞으로 입적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모두 하나님같이 되고 참부모같이 되었어요? 말이야 쉬운 겁니다. 자나깨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먹으나 자나 어디 가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국에서 살다가 가야 됩니다. (201－235, 1990.4.22) p.1402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야 될 그 내용이, 하늘길 앞에 반대되는 그 내용이 오늘날 인간세계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걸 털어 버려야 됩니다. 이걸 갈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탄 사랑을 중심삼고 사탄 생명, 사탄 혈통에 인연되어 가지고 모든 민족이 걸어 나온 역사적 문화 배경을 중심삼고 서로 다른 습관성, 혹은 풍습이 얼룩덜룩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논리가 그래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해야 산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표백 세탁하여, 다시 말하면 탕감해서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타락세계에서 소유하고 있던 습관성이나 죄악성이 남아 있는 한 하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213－98, 1991.1.16) p.1402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냥 그대로의 습관적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탕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섭리는 복귀섭리고 복귀섭리는 재창조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타락하기 전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본연의 자리, 영(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식도 없고, 습관도 없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김씨라든가 이씨라든가 이런 성(姓)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의 창조 본연의 기준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음 받은 모든 만물은 영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213－98, 1991.1.16) p.140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 교인들은 절대 제멋대로 못 삽니다. 자기 마음은 못 속이지요?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못 속이는 한 하늘나라의 호적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입적되는 겁니다. 내가 이 손을 한번 들면 지금 비디오테이프에 전부 다 기록되지요? 인간 세계도 이렇게 기록되거늘 하늘나라에 기록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개 축복 받은 부부가, 버튼만 한번 누르면 어려서부터, 그 조상부터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나오는 겁니다. 뭐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시간 관념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재까닥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148-290, 1986.10.25) p.1402

여자가 아무리 미녀라도 사대부 가에, 대갓집에 시집가게 되면 그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법도를 못 따르면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활이 맞지 않고 습관이 맞지 않고 풍습이 통하지 않으면 힘든 것입니다. 규례에 꽉 찬 행로를 따라 사랑하고 거기에 박자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박자를 안 맞추면 쫓겨나는 겁니다. (184-243, 1989.1.1) p.1403

절대복종! 절대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닙니다. 원리적 관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그래야 개인주의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도망간다구요! 그러니 절대복종이 필요합니다.

남?북미가 이대로만 하게 되면 남?북미는 통일됩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그것이 레일(rail; 궤도)입니다. 이 레일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혈통복귀?소유권복귀?심정권복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족을 전부 다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내 나라다. 절대적 내 나라다! 절대적으로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내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9-94, 1995.4.8) p.1403

아담과 해와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거짓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혈통을 전환하고, 소유권을 뒤집어 박았고, 일족을 망하게 했으니 여기에서는 절대 혈통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순결된 혈통을 영원히 자기 후손에게 남길 수 있게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그것을 이루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서 결혼해 가지고 절대 혈통, 절대 소유권, 절대 심정권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표어로 하는 겁니다. 3 대 표어입니다. (269-94, 1995.4.8) p.1403

Top

제 10 권

성약인의 길

차 례

제 1 장 인생관

1) 인생이 무엇이냐 · 1409
2) 인간은 원인 되는 존재가 아니다 · 1412
3) 인간의 가치는 위대하다 · 1418
4) 인간 본성의 참된 생활 · 1423
5) 참된 인간이 가는 길 · 1431

제 2 장 가정관

1)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 1440
2)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 · 1447
3) 참가정의 이상과 가치 · 1455
4) 천국은 가정단위로 들어간다 · 1463
5) 가정맹세 · 1467

[텍스트 입력]

제 3 장 국가 · 세계관
1) 인류가 추구해 온 하나의 국가 · 세계 · 1478
2) 이상사회 · 국가 · 세계의 구조 · 1484
3) 인류의 중심사상은 참사랑주의 · 1489
4)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미래 · 1495
5) 하나님 중심한 주권이 복귀되면 · 1500

제 4 장 성약인의 길
1) 참부모님의 승리권 확정 · 1506
2) 섭리적 총결산과 참부모님의 대선포 · 1509
3) 자르딘 7 대 선언과 새 에덴 창건 · 1532
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1539
5) 타락의 고개를 넘으려면 · 1541
6) 제 4 아담권 자유자주의 시대 · 1547
7) 사랑의 황족이 되라 · 1550

제 1 장
인생관

1) 인생이 무엇이냐

① 지금까지 인생문제는 미로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태어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나기는 했으되 무슨 동기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나를 낳게 한 동기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나기는 났으되 내가 나고자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살기는 살되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죽기는 죽되 내가 죽고자 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들어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자기 자신이 나고 싶어 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갖고 살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을 피할 수도 없는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해 보아야 처량할 뿐입니다. 났으니 살아야 할 운명이요, 또 그렇게 살다 가야 할 운명입니다. (7-178, 1959.9.6) p.1409

오늘날까지 철학은 역사시대를 통해 인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참된 인간의 가치, 인간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으며 인간 자체로부터 승리하여 만우주에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완성격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수많은 철인들이 나와 고심하면서 별의별 주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인간을 통해 사상체계를 세워 놓았던 모든 주의, 주장들이 이미 실험을 필하였고, 또 이미 낙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탈락해 버렸습니다. (141-125, 1986.2.20) p.1409

왜 인간이 이렇게 어영부영 살면서 죽기를 싫어하고, '왜 살아야 돼? 근원이 어떻게 돼서?' 하는 등의 의문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의문은 인간의 철학 서적을 통해서는 해결 못합니다. 철학이라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길을 개발한 것입니다.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 더불어 사는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186-12, 1989.1.24) p.1409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기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니 목적도 나만의 것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한 자리를

[텍스트 입력]

싫어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호화찬란한 자리에서 살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남아지고 싶은 나입니다. 이런 심정의 교차점을 지닌 나라는 것입니다. (7-178, 1959.9.6) p.1410

여러분들이 한 80 살 살았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밤에 자는 시간을 제하고 나면 40 년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는 것도 사는 건가요? 자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자는 것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시간 가운데 살겠다고 허덕이는 시간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밥 먹는 시간을 한 시간씩 빼 버리고 나면 어때요? 밥 먹는 데도 한 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친구 잔칫날, 이웃 동네 어른의 환갑날, 누구 죽은 날, 장사지내는 날, 병들어 누워 있는 날, 별의별 날을 다 제하고 나면 일생에서 산다고 하는 날이 절반이나 될 것 같아요? 요전에 계산해 보니까 산다고 하는 날이 7 년이 나옵니다. 그 7 년 가운데 진정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나오느냐 말입니다. (49-336, 1971.10.24) p.1410

일생이라는 건 빠릅니다. 철들어 세상 물정 알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사십이 넘고 오십이 넘어 뭐 10 년은 잠깐입니다. 10 년이면 육십 잠깐이고, 육십 되면 칠십 잠깐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188-38, 1989.2.16) p.1410

자기 운을 100 만큼 타고 난 사람이 120 만큼 살다 가면 그 후손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은 고무줄과 같아서 조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80 만큼 살다 간다면 20 만큼의 복을 남겨, 그 운세를 후손 앞에 상속해 주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8-333, 1975.6.10) p.1410

운명은 변경할 수 있지만 숙명은 변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딸로 태어난 것이 변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주권이 아무리 강하고, 그 나라의 관습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버지의 아들딸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귀의 길은 숙명적인 길입니다. (172-55, 1988.1.7) p.1410

출발을 잘못하면 난데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대해(大海)를 항해하더라도 출발한 항구에서부터 나침반을 중심삼고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성을 그려 놓고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출발한 항구가 어디냐? 모르고 있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피안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를 그려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꼬불꼬불 제멋대로 왔다갔다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제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인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172-28, 1988.1.3) p.1410

Top

②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일생을 거친 후에 나는 어떠한 곳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도 역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이런 운세에 사로잡혀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가야 할 내 자신이라 할진대, 이 몸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마음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또 이 생명은 어디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으며 내 심정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내 소원 혹은 소망과 이념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날 이 몸은 흙에 묻힘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묻히는 그날 이 마음도, 이 생명도, 이 심정도, 이 이념도, 혹은 소원까지도 같이 묻혀 버리고 말 것인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인가? 여기에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해결점과 확실한 목적관을 세워 놓지 않는 한, 이는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8-194, 1959.12.20) p.141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매미 알이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굼벵이시대, 유충시대가 있습니다. 유충시대에는 물 구덩이에 살고 혹은 땅 구덩이에 있는 구멍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가야 할 길은 그게 아닙니다.

대공(大空)을 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기 위해서는 아무리 땅 구멍을 파고 들어가거나 물에서 헤엄을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절대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유충시대에서 성충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유충시대에 날 수 있는 만반의 체제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요소인 껍데기를 벗고 정비할 수 있는 한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물 속에서 살 때는 넓적해야 되고, 물 위에 떠 다니기에 필요한 모양이 적격이겠지만, 공중에서 날게 될 때에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120-222, 1982.10.17) p.1411

우리는 무엇을 중심삼고 태어났으며, 무엇을 중심삼고 가야 될 것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동기 없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거두어질 수 없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자가 설계한 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설계의 원본도 없이 지어진 건축물은 설계자가 목적한 건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1-100, 1968.11.17) p.1411

가을 절기가 왔다는 사실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노정입니다.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은 다 여기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새로운 사랑을 중심삼은 새로운 주의와 사상, 그리고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겨울 절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겨울 절기를 통과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통과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봄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35-68, 1970.10.3) p.1412

Top

2) 인간은 원인되는 존재가 아니다

① 본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태어난 인간

본래 우리 인간은 자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면 부모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아들딸을 낳겠다는 계획 아래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의 섭리를 중심삼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은 섭리의 기원과 일치되고, 그 기원을 중심삼고 움직여 나가는 역사와 관계를 맺는 중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하나의 생명체로 이 땅 위에 보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과정에 있는 나 자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개체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하나의 개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4-155, 1970.9.6) p.1412

인간 자체가, 자기가 태어난 것이나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기원이 어디냐? 이 대우주 원칙 앞에 인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원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태어난 결과적 존재인데, 결과적 존재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신 빠진 녀석들입니다. 전부 다 미치광이라는 것입니다. (83-191, 1976.2.8) p.1412

태어나기를 왜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고, 천지만물을 왜 지었느냐 하는 문제,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지금 '아무 것도 아닌 모양의 나 같은 존재는 있으나 없으나다'하고 생각하지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데는 부모 앞에 자식이 잘났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야 못났든 잘났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병신자식을 둔 부모의 가슴이 더 아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난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본성에 사랑의 그 바탕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지음을 받았고 우주는 왜 창조되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이상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30-44, 1983.12.11) p.1412

하나님이 왜 천지만물을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 가정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 사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 국가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 세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7-266, 1978.3.19) p.1413

나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무엇을 받아 가지고 태어났느냐? 생명의 연결체로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되는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력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사랑에 의해서, 그 생명력과 사랑은 우주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서의 어떤 목적, 대우주목적의 협조체로서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생명력을 중심삼은 결합에 의해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10-72, 1980.11.9) p.1413

우리가 태어나길 왜 태어났다구요? 무엇 때문에 태어났다구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서 '꽝!' 하면 하나님의 머리에 '떵!' 하고 통할 수 있는 그 사랑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못에다 '빵!' 던지면 파문이 못 가장자리로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주 가운데 사랑을 '팡!' 던지면 온 우주에 파문이 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103-254, 1979.3.4) p.1413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다. 창조주는 누구냐? 종교세계에서 개념을 잡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어떻게 된 아버지예요? 이게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빌려 온 아버지예요, 이웃 동네 아버지예요, 뭐 양아버지예요, 무슨 부모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갓집 부모예요, 시집 부모예요? 아버지라는 말은 다양합니다. 근본을 해결 못하고는 아무리 환경이 확대된 그 세계에서 해결하려 했댔자 그것은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천만 년을 가도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져요? 나보다도, 내가 있기 전에 더 확실한 것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게 될 때는, 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정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제쳐 버리고 내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188-190, 1989.2.26) p.1413

인간은 제 1 의 원인적 존재가 아닙니다. 제 2 의 결과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근본에 들어가서 우주의 근본되는 하나님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맨 최초로 해결지어 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어머니 이상, 아버지 이상, 조상 조상 해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되지요? 이런 논리를 추구한다면 나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결정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는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88-190, 1989.2.26) p.141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연의 출발점을 바로 잡아라, 바로 찾아라 이겁니다. 인간은 결과적 존재이므로 원인의 기점에 갖다 맞춰라 이겁니다. 원인의 기점을 맞추되, 그 기점이 맹목적 기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도 지정의의 모든 양심적 작용의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도 원인적 내용 이상의 동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한번 출발한 것이 그릇되었다면 영원히 시정할 수 없습니다. (172-32, 1988.1.3) p.1414

Top

②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목적

하나님은 우주의 제일 원인이시며 삼라만상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그 목적은 바로 사랑의 구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근원이시지만,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실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며 그 대상으로부터 자발적인 사랑을 돌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상으로서 최고의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숙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참사랑의 관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근본원리인 것입니다. (166-131, 1987.6.1) p.1414

잘사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종적인 하늘 부모 앞에 효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종적인 하늘 부모 앞에 충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종적인 하늘부모 앞에 성인 이상의 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본래의 목적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58-231, 1972.6.11) p.1415

인생이 참되게 갈 길이 어디냐?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사랑에서 태어났고,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사랑의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대우주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소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인하고, 천사세계가 공인하고, 만물이 공인하고, 모든 사람이 공인하고, 우리 부모가 공인할 수 있는 대우주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83-164, 1976.2.8) p.1415

사람은 자기가 좋을 때는 부모 형제 친척을 찾아 함께 즐기고자 합니다. 좋은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것은 심정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즉 부모와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아버지를 찾아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12-104, 1962.12.16) p.1415

선생님이 언젠가 길을 가다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 '어디 가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가긴 어딜 가. 내 아들네 집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가시면 무엇을 하십니까?'하고 다시 물으니 '주는 밥을 먹고 어쩌다 닭 잡아주면 닭도 맛있게 먹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러면 먹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먹고 나면 별거 없지.' 이런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19-289, 1968.3.10) p.1415

가게의 장부를 정리할 때에도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결산을 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정리하는 데에도 수지결산을 철저히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일생 동안 산 것을 수지결산 해 보았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라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은 죽는 자리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살려고 허덕이는 것은 적자 인생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절대성을 중심삼고 심정의 세계에 있어서 흑자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19-289, 1968.3.10) p.1415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살지.'하면 그것은 낙방입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는 사람 앞에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소망의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나라는 안 나옵니다. 거기에 세계가 있을 수 있어요? 세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천지의 공약은 '이 개인주의 악당이여 물러가라!' 하고 제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주하는데 거기에 가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상적인 나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송곳 끝같이 좁은 데를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57-66, 1972.5.28) p.1415

여러분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동하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서 움직이고, 사랑을 찾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철칙을 여러분은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새들이 서로 좋아하고 짹짹거리며 날아다니는 것도 사랑 때문이며, 지남철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합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나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도 하나되기 위해서입니다. (67-159, 1973.6.1) p.1416

Top

③ 사랑 때문에 산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어디로부터,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나님 중심한)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 사랑의 길을 찾아서 사랑의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순환법 도상에서 영원히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서 이 중심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서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125-65, 1983.3.6) p.1416

내가 일생동안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이동하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드는 일이 있고, 눈물이 있고, 혹은 비참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참이 아니요, 비통이 아니요,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67-159, 1973.6.1) p.1416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절대적인 참사랑, 참사랑을 위해서 살자!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갑에 있는 손수건도 사랑을 위해서 있다, 내가 일하는 것도, 땀을 흘리는 것도 사랑을 위해, 참사랑을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참사랑을 위하고, 먹는 것도 참사랑을 위하고, 노는 것도 참사랑을 위하고, 전부 다 그러는 것입니다. (107-205, 1980.5.1) p.1416

인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개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단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세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늘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인간이 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목적이 최후에 남을 것인가? 개인을 위주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요, 가정을 위주하는 것도 흘러가는 것이요, 단체를 위주하는 것도 흘러가는 것이요, 나라를 위주하는 것도 흘러가는 것이요, 세계를 위주하는 것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나중까지 남을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신(神)과 인간(人間)이 합동해서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만이 인간 역사의 최후에까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41-323, 1971.2.18) p.1416

여러분의 마음이 최후에 안착할 수 있는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찾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해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안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최후의 종착점은 하나님을 점령하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지 못하면 만사가 허사입니다. (24-17, 1969.6.22) p.1417

인생의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늘의 중심이 되는 그분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분과 만나는데 어떤 자리에서 만나느냐, 사는데 어떤 자리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과는 중심의 자리에서 만나고 중심의 자리에서 살자는 것인데, 그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양심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는 천운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24-17, 1969.6.22) p.1417

인간이 최후에 도달하고 싶은 것은 최고 되시는 분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65-46, 1972.11.13) p.1417

본래 인간의 특권은 누구를 막론하고 천상왕국세계에 있어서 황태자로 태어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공주로 태어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본래 인간의 권위였습니다. (68-326, 1973.8.5) p.1417

심정을 통하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문화의 배경이나 역사적인 환경, 혹은 시대의 위치 여하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들로도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하늘의 목적과 땅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을 아는 데에 있어서만이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5-83, 1965.9.29) p.1417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해서 그것을 중심삼아야 됩니다.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이념에 대한 새로운 가치 혹은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이 신의 뜻과 일치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게 될 때, 그 가치관은 인간을 중심삼은 가치관과는 모체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중심삼고 세워져 있는 가치관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있어서 확실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관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그 가치관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세계로 돌아가자, 이상세계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상세계도 없는 것이요, 행복의 세계도 없는 것이요, 영원한 세계도 없는 것이요, 사랑의 세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복의 요인,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요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워하고, 이것을 찾아 나온 것이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종교라는 기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68-138, 1973.7.29) p.1418

우리 통일교회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제시함과 더불어 참부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절대적인 가치의 그 기준이 어디가 종착점이냐?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고, 영원한 사랑을 지닐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상대이상을 묶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멋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관계를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인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졌으니, 몰락되었으니 그것을 표준하여 다시 꿰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68-138, 1973.7.29) p.1418

Top

3) 인간의 가치는 위대하다

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적 가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년만년 그리워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이 보니까 요것이 우주의 근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팎 관계가 됐으니 종횡의 사랑의 세계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상하관계와 좌우관계가 되니까 종횡의 사랑의 세계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골짜기의 자리에 하나로써 단단히 묶어줄 수 있는 그 자리는 종횡의 중심 자리입니다. 요걸 묶어 놓지 않으면 종횡의 기준이 사랑의 이상형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종적인 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횡적인 것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48-224, 1971.9.19) p.1418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의 관을 소유한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상 가치의 존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 위의 피조만물 가운데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로 보면, 상대적 존재란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대적 가치'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상대적 가치라는 것은, 상대라는 말을 중심삼고 그 대상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줘 봐야 하나님 혼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투입하고 하나님 자신의 힘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소모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대상의 가치적 존재로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가치의 존재가 인간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을 두고 가치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68-134, 1973.7.29) p.1419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 때문에 지었습니다. 인간은 왜 지음 받았느냐? 사랑 때문에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이 만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딸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지음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특권입니다. (132-245, 1984.6.20) p.1419

사람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이상의 창조세계라는 것은 실체를 중심삼은 사랑의 표시가 형상으로 나타나고, 형상의 표시가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사랑을 중심삼고. 그 실체가 기뻐하면 그 형상되는 것도 자동적으로 기뻐하고, 형상되는 존재가 기뻐하면 상징적인 것도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용을 무엇이 하느냐? 사랑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166-48, 1987.5.28) p.1419

하나님이 사랑을 찾아가는 대상을 만들려고 할 때 누구를 닮게 만들겠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을 닮게 만든다면, 하나님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남자 성품이 있어야 되고 여자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닮았는데 자기 본성상에서부터 전부 다 빼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상, 보이지 않는 생각의 형태를 실체로 전개시킨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170-167, 1987.11.15) p.1419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모든 체(體)에 상징적으로 다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눈은 누구를 닮았다구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얼굴 가운데서 보게 되면 눈은 깊은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는 아담과 해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입은 만물입니다. 횡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팔 삼십이(4×8=32), 서른 두 개의 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중심삼고 4수를 중심삼고, 그 다음에 귀는 사방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 위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정보처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201-83, 1990.3.4) p.1419

얼굴은 천지창조의 주인이 자기의 형상을 다 집어넣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눈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생겨날 때 눈이 먼저 생겨나는 것입니다. 천지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에 눈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비록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인지, 비양심적인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39-247, 1971.1.15) p.1420

아무리 진리라 해도 진리의 핵심이 뭐냐?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본질적 사랑은 종적인 곳에 있는 것이요, 진리적 사랑은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지니,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아담과 해와를 보아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종적인 참의 사랑의 대상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 둘, 남자 여자의 사랑을 동서남북을 통해서 세계의 축을 갖다 맞추게 될 때는 하나님과 영계가 통하고 만세계가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179-290, 1988.8.14) p.1420

여러분은 주체와 하나되어야 되고 대상과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되면 번식이 벌어집니다. 주고받으면 반드시 번식이 벌어집니다. 그 번식될 수 있는 자리는 기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지요? 각자일 때는 주체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 가정의 주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둘이 합하면 주체가 되지 않으려 해도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42-115, 1971.2.28) p.1420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재현시킬 수 있는 운동,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운동,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이면 안 됩니다. 끝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마음, 하나님과 하나되겠다는 그 마음의 본성이 절대적이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149-237, 1986.11.23) p.1420

하나님과 인간이 박자가 맞아서 화동할 수 있는 기쁨의 박자 앞에 모든 것이 자기 모양대로 음률을 맞출 수 있고, 자기 모양대로 전부 다 상징적으로 형상적으로 춤을 추고 다 이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표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도 '아하,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잔치를 하는 잔칫날에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을 가지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피조세계의 지극히 작은 만물이 바랄 수 있는 소원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166-46, 1987.5.28) p.1420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딸을 지을 수 있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관계되고 연결될 수 있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광물도 그렇습니다. 광물세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식물세계도 암술 수술이 있고, 동물세계도 암놈 수놈이 있습니다. 전부 다리를 놓아 가지고 모든 것이 결집되어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의 내적 형상과 외적 형상입니다. (144-236, 1968.4.25) p.1421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밤과 낮을 지었느냐? 매일같이 해가 있으면 아침이 무슨 자극이 있어요? 광명한 아침이다, 빛나는 아침이다 할 때 광명하기는 뭐가 광명하고 빛나기는 뭐가 빛나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극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과제를 놓고 자극적인 상징과 형상으로 엮어지면서 조화될 수 있는 박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24-85, 1983.1.30) p.1421

여러분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타락하지 않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은 선한 부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이성성상의 주체이신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성성상을 전개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우주를 짓고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남성적 성품을 전개시킨 것이요, 해와는 하나님의 여성적 성품을 전개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한 분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40-123, 1986.2.9) p.1421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인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만일에 인간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한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창조 후 기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54-64, 1972.3.11) p.1421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들이 다 장성하여 성전이 완숙하게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 장성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성례식을 올리면 하나님과 한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하나님이 되고 우리 인간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 장 16 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본연의 인류의 참된 조상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분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4-139, 1972.3.22) p.1421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도 아버지는 위에 있고 아들은 아래에 있는 상하관계와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 아버지가 앉으신 그 자리를 나에게 한번 주세요. 나도 아버지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네 이놈, 안 된다!' 하게 되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서 그래라, 어서 그래라!' 하시면서 그 자리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인간에게 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54-89, 1972.3.20) p.1422

성경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대한 말입니다. 제아무리 큰 하나님이라 해도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사랑의 대상권이 되면, 그 사랑의 대상권과 하나되면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원칙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 영계?무형세계?실체세계, 이 전부, 즉 우주의 상속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137-67, 1985.12.18) p.1422

아담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 장 16 절에 있지요?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 본연의 사랑이 싹트는 그 자리를 지성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주적인 사랑의 성전을 짓고 사랑의 힘을 뻗어 가지고 사랑의 꽃을 피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어 가정과 세계에 번식하라고 축복해 준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21-113, 1982.10.24) p.1422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냐? 지성소가 어디냐 할 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성소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그곳이 지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최고의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136-310, 1985.12.29) p.1422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은 실체 하나님의 몸으로 지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 장 16 절을 보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말했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몸이요, 해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부인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더라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핏줄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혈족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5-313, 1985.12.15) p.142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완성단계에 이른 인간이 영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요, 집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닮아지느냐? 책임분담 완성단계에 이르러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되게 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결탁, 일체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동화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가정, 부부를 이룬다는 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힘은 하나님과 동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0-21, 1983.12.11) p.1423

인간이 완성하여 성년이 되면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함과 동시에 아담이 좋아하는 격동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최고의 신성한 성전입니다. 거룩할 성(聖)자입니다. 그래서 참사랑 가운데는 어디나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참사랑을 좋아하느냐? 참사랑만 만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성년이 되어 사랑할 때 아담과 해와의 몸은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최고의 신성한 성전을 이루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128-325, 1983.10.2) p.1423

해와가 누구냐 하면 아담의 아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임재해 있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이 두 아버지가 하나되는 겁니다. 합일(合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세계, 무형의 세계와 유형의 세계의 합일의 기점이 아담의 본성적 기준입니다. 그 본성적 기준은 무엇이냐? 돈보따리, 욕심보따리가 아닙니다. 순수한 사춘기를 통해서 모든 세포 기능이 총동원돼 가지고 하나의 촉각으로, 안테나로 나타난 그 기준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함으로써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 장 16 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는 말이 있지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소? 하면 답변이 참 멋있습니다. '여기 있다! 왜 그렇게 야단이야.'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밥을 못 먹었나? 밤에 왜 이렇게 야단이야?'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저 깊은 마음 뒷면에 서 있지! 네 마음속에 있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224-214, 1991.11.24) p.1423

Top

4) 인간본성의 참된 생활

① 마음에 동화된 생활을 해야

자기의 제일 가까운 선생이 누구냐 하면 자기 마음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보다도 귀한 것이 자기 마음이고,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한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불교로 말하면 자성을 맑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란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33-178, 1984.7.10) p.1424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희생하려고 합니다. 양보하려고 합니다. 주고도 또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100 억이 있어 길가에 나가서 전부 다 나눠주었다 해도 세계 인류를 못 도와주었기 때문에 돈이 더 있으면 더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일을 했더라도 마음한테 물으면 '더해야 되지!'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133-180, 1984.7.10) p.1424

자기 마음을 맑혀야 됩니다. 마음을 맑혀야 됩니다. 마음이 선생보다 나은 것입니다. 마음은 영원한 내 주인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므로 사(邪)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리에 속한, 공적 자리에 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33-178, 1984.7.10) p.1424

어떤 사람을 척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마음은 대번에 압니다. 벌써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가까운 선생이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천주의 주인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일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건 내 일생의 주인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133-180, 1984.7.10) p.1424

마음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보게 되면 외로운 자리 같지만 마음하고 친구 되는 시간입니다. 마음하고 앉아서 명상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남모르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133-181, 1984.7.10) p.1424

Top

② 심신일체 이루어야 완성인간

통일교회에서는 심신일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일체화시키느냐 하면 바로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배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명해 들어가면 바로 이 길이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체휼해 보면 증명되는 것입니다. (227-12, 1992.2.10) p.1424

양심이 바르다, 행동이 바르다, 심신일체권을 이루고 있다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중심삼고 하는 말이냐?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심신일체권의 결착점은 어디냐? '우선 90 도가 되라. 90 도가 되는 데는 모든 세상 가운데 수평으로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라. 서양에 가더라도, 동양에 가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표준적인 인간이 되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205-49, 1990.7.7) p.1425

인간의 귀중한 가치를 만점으로 만드는 것은 참사랑과 일체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신일체는 양심과 육신이 공명권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굽쇠의 주파수가 같을 때, 하나를 땡 치면 그 반대의 소리굽쇠가 울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참사랑으로 양심을 치면 육신이 울리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육신을 땡 치면 양심이 공명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한가운데 들어가면 가르쳐야 될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223-355, 1991.11.20) p.1425

통일교회의 용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신일체권(心身一體圈)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생애 동안에 심신일체권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천운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완성한 자기 자신을 지향하는 거기에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연결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의 기준에 있어서는 새로운 희망의 천국에 연결되는 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205-45, 1990.7.7) p.1425

심신일체를 어떻게 이루느냐? 역사를 통해서 심신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적입니다. 자기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자체의 마음과 몸이 인간 같이 싸웁니까?'라고 물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양심과 육신이, 심신 일체되지 않고 싸우고 있느냐고 물어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지에 도달한 적이 없으니까 모를지 모르지만, 통일교회 교주로서는 그런 경지를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신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223-349, 1991.11.20) p.142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종교생활은 몸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3년 내지 5년 이내에 습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불편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심신일체를 아무리 바라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제1 목표는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통일권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세계를 뛰어다녔다 하더라도 자기와 관계를 가질 길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222-340, 1991.11.7) p.1425

인간의 몸은 사탄의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아담과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 성장할 때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사랑의 힘에 의해, 이 양심 이상의 힘으로 인해 사탄에게 속아 버렸습니다. 양심도 육신의 방향에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양심 쪽에 더 힘을 줘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주게 되면, 육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양심이 육신보다 약하면 현재의 상태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든가 냉수 목욕을 하고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 길 가고 있어요? 죽더라도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고 맹세합니까?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반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갈 길, 그것은 굴복의 길입니다. 심신이 싸우는 그 이상의 굴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심신일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222-333, 1991.11.7) p.1426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오래됐다고 해서 죄를 묻어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청산지어야 됩니다. 수속을 밟아 청산해야 됩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백지화시켜서, 거기에서 새로이 부활되어 에덴동산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몸 마음이 완전히 참사랑과 하나될 수 있는 본연적인 나라고 자각할 수 있는 남성 여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향에 못 갑니다.

여러분은 고향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본연적 부모가 계시고, 본연의 우리 집이 있고, 황족권 생활을 중심삼고 만국을 처리할 수 있는 장자권 국가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곳이니, 그곳이 새로운 내 고향집입니다. 자기가 난 그 고향이 아니라 새로운 내 고향집, 본연의 집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심신일체가 돼 가지고 통일권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33-168, 1992.8.1) p.1426

암만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본연의 마음이 이렇고, 애비의 마음이 이렇고, 스승의 마음이 이렇고,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니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려고 충효하는 내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오. 그런 마음을 긍휼히 보시사 오늘 되어진 그 마음 앞에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겠지요?' 이러면 하나님이 '음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149-37, 1986.11.1) p.1426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도대체 어디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랑에 정착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남자 여자의 두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일체화되고 변하지 않는, 통일된 사랑의 가장 밑바닥에 수직으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남자 여자가 하나된, 그게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비한 기도의 경계, 영적 체험권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면 뱃속에서 '왜 부르느냐? 여기 있다, 여기!'라고 대답합니다. '여기'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입니다. 심신일체가 된 사랑의 중심점, 수직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점을 수직이라고 보면, 이것은 영점이라는 것입니다. (224-148, 1991.11.24) p.1427

심신일체가 되면 우주의 힘이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힘이 보호해 주는 몸 마음이 되면 부모도 우주의 인연을 가진 부모, 형제도 그런 인연을 가진 형제입니다. 모두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민족, 나라가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멋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런 일체권을 이루게 되면 거기서도 통합니다. 어디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때 볼이 굴러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표면 전체가 합할 수 있는 데는 수직선을 통합니다. 그래서 구형체를 이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의 어떤 곳에서도 그 수직선이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신일체권, 90 각도가 되면 어디든지 다 맞습니다. 서양사람과 동양사람,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할 것 없이 어디든지 다 맞는 것입니다. (205-53, 1990.7.7) p.1427

Top

③ 마음이 곧 스승이요, 가까운 하나님

마음은 누구냐? 내 주인입니다. 내 선생입니다. 마음은 누구냐 할 때, 마음을 닮은 몸뚱이를 낳았으니 내 몸뚱이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대신입니다. 마음은 부모 대신이요, 스승 대신이요, 그 다음에는 주인 대신입니다. (222-157, 1991.11.3) p.1427

여러분의 마음은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은 제 2 의 하나님입니다. 스승을 따라가지 말고, 통일교회 선생님을 모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때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혼자인데, 쥐새끼 소리도 안 들리고 파리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한데,'아이구, 나 요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마음이 '좋아! 좋아! 어서 해라! 하지만, 나쁜 생각하면 마음이 '이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아는 것입니다. (138-124, 1986.1.19) p.1427

마음의 가치, 내게서 마음이 얼마나 비싼 것인가를 생각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뚱이가 잘못된 곳에 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충고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다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뚱이는 언제나 마음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밟아치우고 제멋대로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라도 죽을 때까지 나에게 있어서의 전우와 같이, 스승과 같이 주체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희생을 치러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달려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217-91, 1991.5.4) p.1428

인간의 주인은 바로 자신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를 했으며, 밤이나 낮이나 나쁜 생각을 할 때는 '야 이놈!'하고 지치지 않고 끌고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려고 얼마나 안달했습니까? 이처럼 마음은 참된 주인의 모습을 지니고 나를 보호하려는 데도 배반한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우주로부터 귀한 스승으로 점지하여 받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을 여지없이 천대한 이 몸뚱이, 또 내 본연의 사랑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게 한 부모 대신 보내 준 양심을 여지없이 유린한 이 몸뚱이, 이렇게 마음의 원수가 된 이 몸뚱이를 여러분은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201-353, 1990.4.30) p.1428

이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어떤 진리보다도, 천만 배 훌륭한 스승의 말보다도 내 마음의 말을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 그 마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알 수 없는 무한대의 무엇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조의 내용입니다. (7-201, 1959.9.6) p.1428

양심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당했습니다. 일생 동안 유린당하는 양심의 사정을 여러분은 알아요? 밤이나 낮이나 나를 관리하기에 피곤한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몸이 나쁜 행동을 하려 하면 막는 것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 아니냐. 내 말 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고 합니다. 자기 앞에 제일 가까운, 부모 대신 하나님 대신 스승 대신의 존재가 양심입니다. 마음 자체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몸뚱이에게는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214-282, 1991.2.3) p.1428

여러분의 몸 마음을 중심삼고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불쌍해요? 마음은 하나님 대신입니다. 마음은 열조, 선조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스승을 대표하고, 마음은 나랏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마음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우주의 중심으로서 참된 부모의 자리에 있고, 참된 스승의 자리에 있고, 참된 주인의 자리에 있는, 참사랑을 가진 주체로 계시는 분의 대신으로 있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 마음이 이 땅 위에 있어서 나 하나를 수습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어요?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불평해요? 그저 천대받고 끌려다니면서도, 죽은 줄 알았는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도둑질이라도 하게 되면 '야, 이놈의 자식아!' 하고 또다시 살아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얼마나 농락했어요? 마음은 부모 대신이요, 마음은 스승 대신이요, 마음은 주인 대신입니다. 마음세계에는 공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3 자, 증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209-154, 1990.11.28) p.1429

나 자신에게 위대한 스승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음은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 대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을 거슬러 훈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훈계할 때는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질서적 환경에 있어서 기원이 될 수 있는 도의적인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공식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잡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중인격을 좋아해요? 마음은 선생 대신, 부모 대신, 하나님 대신입니다.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없습니다. (207-266, 1990.11.11) p.1429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신 속에 가장 소중한 스승을 일생동안 내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잘못 대우하고 짓밟고 남용합니다. 그 스승이 바로 인간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항상 우리 자신에도 도움이 되도록 말을 하며 우리를 참사랑과 연결시켜 주고자 합니다. 부모와 같이 우리의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비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는 또한 양심의 소리에 항상 거역하는 반란자가 있습니다. 그 반란자는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201-208, 1990.4.9) p.1429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 하는 것이 도의 길을 개척하던 때의 표어였습니다.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세상만사와 어떤 연관을 갖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 고 그랬습니다. (100-149) p.1429

귀중한 3 대 손님입니다. 주인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이분을 내 몸이 천년만년 모시고도 부족하다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여기에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을 위하고 싶어하지만 몸뚱이는 마음을 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154, 1990.3.30) p.1429

이처럼 마음은 참된 주인의 모습을 지니고 나를 보호하려는데도 배반한 이 몸뚱이, 우주로부터 점지해 받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스승인 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을 여지없이 천대한 이 몸뚱이, 또 내 본연의 사랑의 마음을 이을 수 있게끔 부모 대신 보내진 양심을 여지없이 유린한 이 몸뚱이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원수가 된 이 몸뚱이를 여러분은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몸 마음의 싸움을 말리기 전엔 천국이 없는 겁니다. 어느 성인도 이런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201-154, 1990.3.30) p.1429

음과 양, 성상과 형상이라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대적이지 상충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타락한 인간에게는 마음의 소리도 있고 몸의 소리도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나야 할 남자나 여자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되어서 갈라졌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의 표준상인 몸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 세계에 동화될 수 있고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갈라졌느냐 이겁니다. 몸과 마음이 갈라진 것이 마음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이상이니 통일이니 평화니 행복이니 하는 것의 기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195-304, 1989.12.7) p.1430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주인이지요? 밤에 그저 나쁜 짓 하려 해도 나타나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고, 언제든지 나타나 주인 노릇하고 어디에서든지 어머니같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스승같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몸뚱이가 원수입니다. (201-74, 1990.3.1) p.1430

하나님은 누구 닮았다구요? 남자, 여자, 우리 닮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지요? 마음 보고 싶소, 안 보고 싶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도 체(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체가 없습니다. 아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은 우주에 마음 같은 주인, 마음 같은 스승, 혹은 관리자, 마음 같은 부모로 있습니다. (197-44, 1990.1.7) p.1430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이 가책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혼자는 안 됩니다. 동서남북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의 제일 가까운 사람, 부모 앞에 통고해야 됩니다. 스승 앞에 통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기 아들딸한테, 자기 제자한테 통고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용서받을까?' 이래서 합심해서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84-301, 1989.1.1) p.1430

몸과 마음이 언제 통일될 수 있느냐? 그거 생각 안 했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생동안 몸과 마음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을 말릴 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못 말립니다. 임금도 못 말리고, 스승도 못 말립니다. 성인도 못 말립니다. 이 몸과 마음의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주인이 어디 있느뇨? 심각히 찾아봤어요? 그것이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184-211, 1989.1.1) p.1430

마음은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을 지켜 주고,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자꾸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난 그날부터, 의식을 생각할 수 있고 사회환경에 있어서 모든 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지능적 기원이 생기는 그날부터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스승도 못 따라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못 따라 주지만 난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양심은 나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라, 성인 닮아라, 애국자 닮아라, 효자 닮아라. 그와 마찬가지로 닮기를 바라는 것인데 '몸뚱이 너는 나를 닮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179-311, 1988.8.14) p.1431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통일도 참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승 중의 스승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파송해 준 내 중심입니다. 종적인 나입니다. (226-60, 1992.2.1) p.1431

Top

5) 참된 인간이 가는 길

① 인간이 찾아가야 할 길

본성의 마음이 가는 길을 가면 우주가 하나로 벌어집니다.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서는 마음과 말을 합니다. 뭘 하려고 생각하면 벌써 답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갈 길을 모르겠어요? 벌써 갈 길이 확실해서 우주의 모든 작용의 힘들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손을 끌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모든 것이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0-313, 1982.10.20) p.1431

위대한 힘의 배경을 갖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참된 인간입니다. 참된 인간은 그렇게 무한한 힘의 백그라운드(background:배경)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무한히 밀어 준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방향이 틀리면 대번에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일교회는 껄렁껄렁한 통일교회가 아닙니다. 깊고 높은 배경, 위대한 힘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중심삼고 이런 경지를 연결지어서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갈 방향감각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것입니다. (120-313, 1982.10.20) p.1431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돈만 가지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야 할,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갈 길은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깊은 속에서 본래 자기가 타고난 본질과 더불어 화합해 가지고 미래의 목적을 지향할 수 있는, 하늘이 있으면 하늘이 그 방향을 제시하게끔 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120-298, 1982.10.20) p.1431

자석은 지구의 인력을 능가한 작용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작용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지구 중력 이하의 작용으로서 그 작용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 벌써 자기가 태어난 배경을 딱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판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감각하고 판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일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20-301, 1982.10.20) p.1432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 나는 4 계절 필요 없다. 나는 봄만 필요하지,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은 싫어!' 하겠지만, 하나님한테 물어 보면 '난 4 계절을 다 좋아한다.'고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더라도 여름을 좋아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고, 가을과 겨울을 좋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눈이 오는 겨울이 되면, 하나님은 흰눈이 세계적으로 쌓인 걸 볼 때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좋다!' 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133-29, 1984.7.1) p.1432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자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홍수가 나고 벼락이 치고 할 때는 '아이구, 저거 나는 싫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허, 저거 키스하고 결혼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싫다는 사람들한테 '하하하하, 네 이 녀석들아! 못된 녀석들아!' 한다는 겁니다. (133-29, 1984.7.1) p.1432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 가운데에서도 오색인종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어, 나는 백인들만 좋아'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러면 전부 다 흰옷만 입어야 됩니다. 백인들은 전부 다 흰옷만 입어야 됩니다. 색깔 있는 옷은 전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정 옷은 왜 입어요? 색깔이 있는 옷은 왜 입어요? 그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면 울긋불긋한 게 다 있는데, 피아노 같은 것도 전부 다 시꺼먼데 왜 갖다 놓았어요? 흑판 같은 것도 왜 갖다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밤도 없어야 됩니다. 새카만 밤도 없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백인 중심이예요? 백인 위주가 뭐예요, 그게? 망할 길입니다. 그게 몇 해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겨울이 암만 길더라도 석 달밖에 못 갑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4 계절을 다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133-29, 1984.7.1) p.1432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왔다 간 과거-현재-미래의 인류를 사랑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간 영인들끼리 해방해 주는 운동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사랑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위하는 기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히 주체가 됩니다. 참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33-30, 1984.7.1) p.1432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방향을 딱 정했으면 그걸 중심삼고 있는 정력을 다 투입하는 것입니다. 피곤해 가지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귀가 듣지 못할 정도로 모든 걸 투입해야 합니다. (120-315, 1982.10.20) p.143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뭘해야 되는지 벌써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중심삼고 살고 자기 생각을 중심삼고 행동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배에 있던 쥐새끼도 파도가 심하게 치면 배가 파손될 걸 알고 벌써 줄을 타고 배가 떠나기 전에 다 부둣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갈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미도 장마가 질 걸 다 알잖아요? 개미가 행렬을 짓고 이사하는 걸 봤는데 개미들은 다 알더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공상이나 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분야를 모른다는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하게 중요한 일생문제를 하늘과 더불어 타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환경적 여건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은 어차피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298, 1982.10.20) p.1433

사람은 침착하면 마음 깊은 거기에 마음이 가라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자고 깨게 될 때에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잡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120-306, 1982.10.20) p.1433

선생님도 기도합니다. 정성을 들입니다. 언제나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은 언제 한 번 들여 가지고 써먹는 게 아닙니다. 칼은 언제나 갈아야 됩니다. 칼을 한 번 쓰고 안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갈아야 됩니다. 한 번 격해 가지고 화를 냈으면 언제나 갈아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용히 마음의 자리를 잡아 놔야 됩니다. (120-306, 1982.10.20) p.1433

심정의 세계의 중앙에 가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운동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지구도 숨쉰다는 걸 알아요? 지구도 1미터 가까이 숨을 쉽니다. 이러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구부러진 것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세계도 중앙은 전부 다 축을 중심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120-306, 1982.10.20) p.1433

모든 존재물은 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심정의 중심 복판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무한한 힘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90각도만 만들면 무한한 힘을 90각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닦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 세상의 모든 면에서 깊은 심령세계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일생동안 살아가는데 추진력을 무한히 보급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120-308, 1982.10.20) p.1434

선생님도 선생님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힘보다도 더 큰 세계적인 일을 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할 때에는 그걸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못 가져올 때에는 그걸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못 가져올 때에는 후퇴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정의 세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암만 끌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도 끝이 나고, 지식의 세계도 끝이 나고, 권력의 세계도 전부 다 붕괴될 수 있지만, 심정의 세계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세계를 중심삼고 움직여야 됩니다. (120-306, 1982.10.20) p.1434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있는 것은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만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위하는 천리의 우주의 존재세계 앞에 자기 스스로의 존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위하는데 있어서 동서양을 통할 수 있고, 고금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같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양 서양을 극복할 수 있고, 과거-현재-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극복할 수 있으니 언제나 발전할 수 있다, 동서양을 극복하니 동서양을 통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사랑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187-89, 1989.1.6) p.143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기 주장할 때는 자기 파괴, 상대 파괴, 하나님 파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통일적 이론을 발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찾아가는 최후에는,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종적인 통일을 요구하는데, 그 종적 기준이 어서 오라고 당겨 줄 수 있는 놀음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위해야 됩니다. 위하는 데서 완전히 통일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87-89, 1989.1.6) p.1434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선생님이 어떻게 통일하느냐? 무엇으로? 주먹으로,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사랑을 중심삼은 위하는 자리에서 만사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하지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위해 가는데 있어서 악마의 세계가 하늘나라로 재창조되어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그거 이론적입니다. (182-134, 1988.10.16) p.1434

Top

② 참된 인간의 갈 길

자기를 위주해 가지고 작용하자는 것은 악을 가져오지만, 전체를 위해 작용하자는 것은 발전을 가져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위해서 가는 데는 모든 것이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문을 열고, 가정도 문을 열고, 종족도 문을 열고, 민족도 문을 열고, 세계도 문을 열고, 하늘나라도 문을 열고, 사랑의 길이나 모든 길이 문을 열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무엇일 것이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해서 가는 길을 취해라, 위해서 살라, 위해 태어났다 하는 천리(天理)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33-16, 1984.7.1) p.1435

참된 인생이 가는 길은 뭐냐? 하나의 공리로 세워야 할 것은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원칙이니까 만고불변입니다. 과거-현재-미래가 없기 때문에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같은 모든 성자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오?'하면, '그게 옳습니다!' 하겠어요, '그게 옳지 않습니다.' 하겠어요? 옳다고 합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인생살이,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참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참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133-16, 1984.7.1) p.1435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륜도덕만을 중심삼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만을 중심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중심삼고는 나라를 넘지 못합니다. 나라를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천주사상을 갖지 않고는 나라를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무엇을 소개했느냐 하면, 인간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신을 소개했습니다. 성인의 반열에 동참한 사람들을 보면 신을 숭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을 빼놓고 성인이 된 사람 있어요? 또, 성인들은 인륜의 도리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천륜의 도리를 겸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33-291, 1970.8.21) p.1435

가정에서 부모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효자요,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자요,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계와 우주를 사랑하는 성자(聖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될 거예요? 성자가 될 거예요, 효자 효녀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129-99, 1983.10.1) p.1435

하나님은 짧은 생애를 살다 가는 인간 앞에 제일 좋은 표어, 제일 좋은 과제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제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을 표어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 누구도 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날에는 성인완성은 물론이요, 충신완성도 물론이요, 효자완성도 물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승리한 자리에 서는 것이요, 국가적 기반에서도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요, 세계적 기반에서도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0-157, 1978.10.9) p.143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위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인 앞에는 원수가 있지만 성인 앞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위인은 자기 민족만 사랑한 사람이지만 성인은 인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때 '너는 네 민족은 사랑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찾는 세계인류를 사랑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하면 나갈 수 없지만, 성인의 도리를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뭘하자는 거라구요? 위인 만들자는 거예요, 성인 만들자는 거예요? (38-263, 1971.1.8) p.1436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우주의 법도를 세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위해 사는 대표적인 자리에 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지식의 대왕이지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대왕이지만 능력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주인이요 대왕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해서 오면 전부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3-16, 1984.7.1) p.1436

Top

③ 위하는 법도를 세운 이유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랑이니 이상이니 행복이니 평화니 하는 말은 혼자로서는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적 관계에서 성립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과 행복과 평화는 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성사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사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행복과 평화를 완결지을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혼자 사랑해서는 무엇하며, 하나님 혼자서 이상해서는 뭣합니까? 반드시 상대적인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이러한 요건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75-315, 1975.1.16) p.1436

지혜의 왕이시고 전체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참다운 사랑이나, 참다운 이상이나, 참다운 행복이나, 참다운 평화의 기원을 주체와 대상, 이 양자 사이의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체가 계신 반면 대상이 있는데, 주체를 위하는 길과 대상을 위하는 길, 이 두 길 가운데 이상의 요건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상, 참된 사랑, 참된 평화에 있어서 주체를 중심으로 하고, 대상이 주체를 위하는 데 이상적 기원을 둘 것이냐,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가 대상을 위하는 데 이상적 기원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그 이상적 기원을 주체 앞에 대상이 위하라고 하는 입장에 세운다면, 하나님이 그러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도 자기가 어떠한 대상을 지닐 수 있는 입장에 선다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75-318, 1975.1.16) p.1437

하나 될 수 있고 평화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참된 인간은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위하는 데서부터, 참된 이상도 위하는 데서부터, 참된 평화, 참된 행복도 위하는 자리에서 성립되지, 위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몰랐습니다. (75-318, 1975.1.16) p.1437

남자 여자가 태어난 것은, 남자는 남자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위해 태어났고, 여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자기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데도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나'라는 이 사상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깨뜨려 버리면 통일의 세계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61-266, 1972.9.1) p.143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기의 가치를 자기에게서 추구하기보다는 상대에게서, 즉 상대적 기준에서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탐구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심정의 터전은 상대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 오나 그는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9-200, 1972.7.16) p.1437

하나님은 왜 위해서 존재하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느냐? 우선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 만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생명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면서 100 퍼센트 은사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본심이 그 은사를 갚는데 50 퍼센트는 주머니에 집어넣고 50 퍼센트만 갚고 싶습니까, 아니면 있는 대로 다 갚고 싶습니까? 우리의 본심이 어떻게 작용해요? 누구나 더 갚고 싶어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주는 대로 진정 사랑하는 가운데서 준 것을 안다면 100 퍼센트 이상을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100 퍼센트가 110 퍼센트로 돌아오고 그 110 퍼센트 돌아온 것은 또 그쪽에서 진정으로 주었기 때문에 120 퍼센트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이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발전과 번창이 생기는 것입니다. (73-326, 1974.8.10) p.1437

이상과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들은 이런 것이 자기의 것으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줄 아는 것, 이것이 큰 오해라는 겁니다. 사랑과 이상은 어디에서 오느냐? 대상에게서 옵니다. 대상에게서 오기 때문에 위하는 법도를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의 왕 되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법도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3-326, 1974.8.10) p.1438

영원이라는 개념, 이것은 자기를 위하는 데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밀어 주고 끌어 주는 상대적 방향이 크면 클수록 빨리 도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되는 하나님이 위해서 존재하는 법도를 세운 것은 영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5-322, 1975.1.16) p.1438

우리들 가운데 남에게 주관(主管)받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식자층에 있는 고명한 분에게서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제까지의 인간들이 위해서 존재하는 그 앞에 주관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영계의 조직을 보면 천지의 대주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유의 존재 가운데 위해 존재하는 중심존재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지배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천년만년 지배받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상적 통일권이 여기에 성립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해 존재하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5-322, 1975.1.16) p.1438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다도 귀한 사랑과 이상을 찾으려면 대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귀한 사랑과 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 고귀한 사랑과 이상을 받아들이려니 가장 위하는 자리가 아니고는 안 되므로 하나님은 위해 존재하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75-322, 1975.1.16) p.1438

사랑은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대상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살라!' 고 하는 천리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고귀한 것이 나에게로 찾아오는데, 그것을 받으려니 높이고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하는 철학'을 이루어야 사랑받는 것입니다. (142-331, 1986.3.14)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거짓사랑은 주고 보태서 장사하는 사랑이요, 주었으니 너는 그 이상 갚아라,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탄 사랑입니다. (138-172, 1986.1.21) p.143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의 본향(本鄕)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요, 위해서 나고, 위해서 살고,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향(本鄕)의 이상적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향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역사과정에 수많은 종교를 세워 가지고 훈련시켜 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종교가 온유 겸손해야 되며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영계에 돌아가야 할 인간들에게 영계의 법도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지상생활 과정에서 그 영계에 알맞도록 훈련시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보다 차원 높은 희생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평소의 생활을 통해 그 세계에 일치시키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75-320, 1975.1.16) p.1439

흔히 세상에서 말하기를, 아!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인생관(人生觀), 국가관(國家觀), 세계관(世界觀)의 확립, 그 다음엔 우주관(宇宙觀)에 대한 확립, 더 나아가서는 신관(神觀)의 확립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계통적 단계와 질서를 어디에다 둘 것이며, 그 차원적 계열(次元的 系列)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해 존재한다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보게 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은 내가 전 인류를 위해 있고, 전세계를 위해 있고, 국가를 위해 있고, 사회를 위해 있고, 가정을 위해 있고, 아내를 위해 있고, 자녀를 위해 있다는 입장에서 행복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이상의 인생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75-324, 1975.1.16) p.1439

Top

제 2 장
가정관

1)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① 가정이 왜 좋은가?

가정은 하나님의 이상이 현현할 수 있는 기점이요, 인류 행복의 현현의 기점이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일이 다 끝나는 자리요, 하나님도 모든 일의 완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가정이 왜 좋아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자유활동의 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99-305, 1978.10.1) p.1440

하나님을 중심삼은 영원한 부모의 사랑, 영원한 부부의 사랑, 영원한 자녀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 것이 이상적 가정입니다. (90-201, 1977.1.1) p.1440

인간들은 반드시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에 있어서의 종적인 역사 전체를 횡적으로 전개시켜서 대신할 수 있는 실체가 무엇이냐? 만물과 자녀와 부모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과 그들의 소유물입니다. 이것들은 가정의 한 울타리 안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29-157, 1970.2.27) p.1440

통일교회의 이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도 가정이요, 결론도 가정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천주화시켜서 무한한 가치를 드러냈기에, 통일주의가 공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좋아하게 되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26-103, 1969.10.18) p.1440

성경 66 권은 전부 다 이상적인 가정을 소원한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상적인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는 남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여자가 태어나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이상적인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서 세계에 큰소리를 친다 해도 그의 소원은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서

[텍스트 입력]

복스러운 아들딸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통일교회 교리를 박아 놓았기 때문에 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6-103, 1969.10.18) p.1440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주의냐? 가정주의입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천주주의(天宙主義)는 하늘 천(天)자에 집 주(宙)자, 즉 하늘집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천주라는 뜻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26-103, 1969.10.18) p.1441

가정은 작은 사회에 입각한 작은 국가입니다. 작은 국가요, 작은 세계요, 작은 천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나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24-230, 1969.8.17) p.1441

가정은 만고불변의 기원이며 기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도 고칠 수 없고, 형제도 고칠 수 없으며, 어느 나라 어떤 제도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고치지 못하며, 하늘 땅도, 하나님께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에는 영원히 혁명이라는 명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25-87, 1969.9.30) p.1441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냐 하면,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입니다. 그러면 날 때는 어떻게 나야 하느냐? 잘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로 말하면 심정의 인연을 중심삼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이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사위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공법을 지구상에 세워 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법도가 지향하는 내용을 갖추고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 가정입니다. (24-230, 1969.8.17) p.1441

세계가 가정을 닮아 나왔습니다. 어떤 세계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이상세계는 삼위기대, 가정의 삼위기대를 중심삼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목적이 무엇이냐?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사위기대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인간을 중심삼은 사회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인간을 닮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선생님이 지금까지 세계에 통일교회를 세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을 통해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세계라는 것은 온 세계가 하나의 사람 모양을 형성하는 세계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26-190, 1969.10.25) p.1441

가정이라는 것은 세계를 축소시킨 횡적인 기반입니다. 여기서부터 국가와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이냐? 가정은 세계의 횡적인 축소형으로 절대적인 중심 앞에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절대적인 중심이 머무를 수 있는 발판입니다. (26-258, 1969.11.9) p.1441

이 세계를 심판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개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된 가정입니다. 사탄도 무엇을 치고 나오느냐? 가정을 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하나되지 못하면 파탄되는 것입니다. 부자간에, 부부간에, 가정 전체에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가 파탄된 사람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로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30-85, 1970.3.17) p.1442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을 중심삼은 부모, 부부, 형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24-306, 1969.9.7) p.1442

가정이 왜 좋으냐? 가정에서는 사랑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곳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38-328, 1971.1.8) p.144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버지가 기뻐하면 가정 전체가 기뻐하는 것이요, 아내가 기뻐하면 가정 전체가 기뻐하는 것이요, 자식이 기뻐해도 가정 전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우주 전체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30-85, 1970.3.17) p.1442

몸과 마음을 수습하여 완전한 개인이 되어야 하고, 부부가 하나되어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30-246, 1970.3.24) p.1442

엄마와 아빠가 하나되는 날에는 그 가정은 발전하는 것이요, 자식과 부모가 하나되는 날에는 보다 차원 높은 가정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과 친척간에 하나되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는 새로운 민족 정기가 발발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을 향해 가자고 할 때는 환경적으로 전부 결속되어 국가 기준까지 충신의 혈족으로 남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74-301, 1975.1.1) p.1442

하늘나라 가정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기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는 작용이 되어져야 이상적인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66-123, 1973.4.18) p.1442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면 밖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내와 더불어 상의하고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가정입니다. 서로가 힘을 합하여 연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되면 자식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며, 우리도 이러한 가정을 만들자고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29-113, 1970.2.25) p.1442

참된 가정은 자기 어머니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며, 자기 아버지같이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며, 동생 오빠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계가 이상가정이 사는 천국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 지구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208-18, 축복과 이상가정-679) p.1443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랑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힘이 개체를 위하는 힘보다 강할수록 더 이상적인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완전히 하나로 얽어매는 그것은 사랑의 밧줄입니다. 쇠로 만든 줄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 끊어지지만 사랑의 밧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는 밥으로도 돈으로도 얽어맬 수 없습니다. 오직 부자관계의 사랑으로만 얽어맬 수 있습니다. (18-329, 1967.8.13) p.1443

혁명의 요소를 가할 수 없는 그런 기틀로 이루어진 가정은 어떠한 주의나 사상에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나 사상을 지배하고 능가합니다. 이런 기준이 세워진 가정은 십년, 백년, 천년이 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민족과 국가의 형태를 유지시키게 됩니다. (25-87, 1969.9.30) p.1443

사랑의 보따리는 무슨 보따리겠습니까? 본향의 나라에 가서 그 보따리를 풀어 보면 이상적인 남편이 튀어나오고 이상적인 아내가 튀어나옵니다.

또한 이상적인 가정이 튀어나오는 복주머니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일등 복귀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일등, 가정도 일등, 종족도 일등, 민족도 일등, 국가도 일등, 세계도 일등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일등이면 서로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도 가정도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보물단지인 사랑의 보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295, 1968.3.10) p.1443

Top

② 가정에서 사회애, 민족애, 인류애가 싹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되게 될 때 천태만상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사랑을 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일원화된 가정은 가정애가 꽃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회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28-170, 1970.1.11) p.1443

자녀 사이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해야 하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듯이 형제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할 때, 그것은 부모에게 배워야 합니다. (66-120, 1973.4.18) p.1443

이상적인 사랑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아들딸을 갖지 못했습니다. 참된 형제를 갖지 못했고, 부부를 갖지 못했고, 또한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곳이라야 사랑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옵니다. (19-314, 1968.3.17) p.1444

참사랑이 무엇이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서로가 희생하는 전통을 갖추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깨지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인연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들딸이라면 자기 부모에게 절대로 불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대해 '당신은 나를 위했다'는 입장에서 서로가 더 위해 주고 더 희생하는 자리가 넓어지게 될 때 그 가정에는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지인 것입니다. (43-323, 1971.5.2) p.1444

한 가정을 중심삼고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자식에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최상의 가치는 무엇이 될까요? 부모(父母)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권력이나 지식, 또는 명예나 돈도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을 테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부모(父母)' 이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모가 좋은 것이 될까요?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왜 좋은 것이 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이것은 자식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부의 사랑,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友愛)라든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효성의 마음도 한 가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74) p.1444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은 분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왜 부모가 제일 좋습니까? 사랑을 중심으로 한평생을 관계 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비록 절대적으로 하늘이 준 영원한 사랑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랑이 아니더라도 부부간의 상대적 관계에서 맺어질 수 있는 사랑이 된다면, 그 사랑이 그 가정에 행복과 화목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 부모를 위한 자식의 사랑입니다. 절망이 아니요, 내일의 소망으로 싹틀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그리워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자식의 사랑은 그 자식의 행복을 위한 순수하고 진실한 가치로서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73) p.1445

이렇듯 부모의 참된 사랑과 부부의 참된 사랑, 그리고 자녀의 참된 사랑이 완벽하게 구비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우리 인간세계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74) p.144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한 집안을 보더라도 그 집안의 중심이 누구냐? 연세가 많으신 분, 즉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그 증조 할아버지가 중심입니다. 운명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를 무시하게 되면 종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노망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중심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분께 먼저 갖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 해도 할아버지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횡적이기 때문입니다. (34-242, 1970.9.13) p.1445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사랑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게 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집에 울타리가 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위로는 하늘을 대표한 부모를 모시고, 횡적으로는 가정을 대표한 남남끼리 그 인연의 사랑을 부부로 묶어 이 부부들이 천륜의 법도를 받들며, 그 계대를 이으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19-305, 1968.3.10) p.1445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찾아 나오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행복의 터전을 찾아 나오는 데에는 인간을 떠난 자리에서는 그러한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야 그 일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서적인 모든 내용을 갖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그러한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32-198, 1970.7.15) p.1445

어떤 사람이 이만하면 천상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하며 행복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런 외적인 것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결정되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비례적인 슬픔을 느낄 것이요, 비례적인 불만이 그 가슴 가운데 남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1-140, 1968.11.17) p.1445

인간 조상을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의 중심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가정이란 부모와 자녀,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인데, 그 묶어진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6) p.1446

부모와 자녀, 부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모두 참사랑을 중심으로 합하기를 원하는 곳이 우리의 이상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세계적 평준화가 시작됨으로 지상천국이 출발되는 것이요, 또한 천상천국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이므로 참사랑과 연결되면 모두가 같은 몸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고, 아들딸은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3 대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조직이 천국의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우주의 중심입니다. 가정 완성은 우주 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지 무사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전체 우주의 부모로서 사랑의 복합적인 중심 자리에 계십니다.(298-306, 1999.1.17) p.1446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가정적 기대에는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아들의 사랑, 딸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된 자리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딸을 사랑하면 누구나 천국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하였습니다. 한 가정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완성한 가정은 평화의 가정이요, 이것은 천국의 기초입니다. 가정의 원동력은 참사랑입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대상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참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창조치 아니하셨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19-118, 1991.8.28) p.1446

[텍스트 입력]

인간은 부자지관계가 있어야 되고, 부부관계, 형제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세 관계가 한 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점은 하나입니다. 상하, 좌우, 전후의 중심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점이 틀리게 되면 상하, 좌우, 전후관계의 균형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 하, 좌, 우, 전 후 그리고 하나의 중심점까지 모두 7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수를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중심삼고 완전한 참사랑으로 하나되어 이 모든 전부가 완전히 구형을 이루어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287-21, 1997.8.10) p.1446

Top

2)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

① 가정은 지상천국-천상천국의 초석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 계시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 가기 위한 대합실과 같은 곳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21-199, 1968.11.20) p.1447

사위기대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초석입니다. 천국은 혼자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도 혼자서는 안 되므로 성신이 내려와야 합니다. (13-67, 1963.10.17) p.1447

천국의 기점은 개인이 아니요, 국가가 아닙니다.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 신부의 인연을 찾아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천국의 기점입니까? 가정이 천국의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30-83, 1970.3.17) p.1447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천국은 한 번 가보면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열 번 백 번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민이 공통으로 그 곳을 가고 싶어하고, 그 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 분과 같이 살고 싶어한다면 세계는 통일될 것입니다. 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가정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민족, 국가,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180, 1963.4.1) p.1447

가정천국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되어야 이루어지고, 개인천국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가정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부부가 하나되어야 하고 자녀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 뜻의 목적은 만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만민을 위하는 데서 가정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만민을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복귀될 때까지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지 않으면 만민을 구할 수 없고, 만국을 구할 수 없고, 만가정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 축복가정을 세운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708) p.1447

통일교회 원리에서 말하는 사위기대는 3대 사랑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할 때, 천지창조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보살펴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적으로 이룩되어 횡적으로 연결될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룩됩니다. 사촌과 육촌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비로소 사랑의 원형이 되어 완전하게 됩니다. (216-27, 축복과 이상가정-707) p.1448

우리 가정과 천국은 유형이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사랑으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일이 이뤄질 수 있고 생명이 연결될

[텍스트 입력]

수 있고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는 부모 앞에 사랑을 상속해 주었고, 부모는 부부 앞에 사랑을 상속해 주었고, 부부는 자식 앞에 사랑을 상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사랑을 부정해도 천국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부끼리 사랑하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천국의 핵심이 되고 이상적 모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78-1, 축복과 이상가정-707) p.1448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참부모권을 통하여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기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세계에는 참부모의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타난 흔적도 없습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의 사랑을 받고 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가정적 기대에는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아들의 사랑, 딸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된 자리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딸을 사랑하면 누구나 천국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84-6, 축복과 이상가정-706) p.1448

천국이 어디 있느냐?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간에 주고받는 그 생활적인 무대를 키우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의 생활에 이용하고 우리의 이상의 조건으로 이용하는 재미, 그 재미를 백 퍼센트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173-9, 축복과 이상가정-706) p.1448

이제 선생님은 가정에 대한 규범, 천국가정으로서 가져야 할 생활에 대한 규범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의 노정을 걸어야 할 사람들은 원리를 중심삼고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그런 문제를 책임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가정 하나 하나를 중심삼고 재차 수습해야 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조직은 가정조직입니다. 가정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주로 해오던 것을 가정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22-334, 1969.5.11) p.1448

말씀의 시대를 거치고 실체의 시대를 거친 후에야 상봉의 한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봉의 한날이 이루어진 후에야 천국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봉의 그날에는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의 심정이 내 심정이요,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그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요,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로 느껴질 수 있는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도 내 마음이요, 그의 심정도 내 심정으로 되어야 천국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완결되어야 천국가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9-251, 1968.1.15) p.1449

천국생활은 어디서부터냐? 가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정을 입체적으로 확대시킨 것뿐이지, 가정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품을 때에 이것은 세계의 남성과 여성이 하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30-83, 1970.3.17) p.1449

천국은 가정을 중심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족들로서 지켜야 할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21-77, 1968.10.20) p.1449

앞으로는 우리 통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설교 형식이 아니라 보고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그 가정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전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한 가정을 보고는 본을 받고 못한 가정을 보고는 잘되게 이끌어 주어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천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먼저 이루지 못하면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3-63, 1969.5.11) p.1449

내가 지금 교회를 안 짓는 것은 다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정, 즉 신랑 신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기 위해서 태어났고, 남자는 여자를 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잠에서 깨어 처음 눈을 뜨면서 부르는 것이 '엄마'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남편은 아내를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불러 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부인도 남편 이상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서로가 그럴 수 있는 부부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슬지락(琴瑟之樂)의 부부로서 서로를 그렇게 부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년만년 산다면 늙어도 청춘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축복가정 부부가 80 노인이 되면 선생님이 세계 일주를 시켜 줄 것입니다. (23-55, 1969.5.11) p.1449

옛날에 선생님이 통일교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면, '야, 우리 집보다 여기가 더 좋다. 보리밥을 먹어도 괜찮고, 죽을 먹어도 우리 집 밥보다 더 맛있다. 나 하룻밤만 더 재워 줘!' 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 찾아오는 친구들마다 자기 집을 버리고 그 집에 오고 싶어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천국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16-328, 1966.7.31) p.1450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둘이 하나되는 데서만 부부천국은 이뤄집니다. 하나된 것을 그 누구도 뗄 수 없으며 갈라지거나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천국이 생겨나고 가정천국을 이뤄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되어 사랑하게 되고, 그 아들딸도 어머니 아버지 같은 대상을 얻어야 가정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플러스가 되고 아들딸이 마이너스가 되면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203-19, 축복과 이상가정-704) p.1450

부부 가운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는 교회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여자는 물질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 이 셋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정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중심삼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26-101, 1969.10.18) p.1450

Top

② 가정은 참사랑의 훈련도장

천주주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합한 후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되는 가정을 이루어 그 이념을 영계와 육계에 연결시키는 주의입니다. 천주의 주(宙)자는 집 주자입니다. 집 주, 그래서 천주주의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천주는 무형세계와 실체세계를 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되지 못하고서는 천주주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주주의를 완결지키는 최종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행복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상에서나 영계에 가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6-190, 1969.10.25) p.1450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 원망(願望)이므로 만민이 쌍수를 들고 상속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을 남겨 놓음으로써 영계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완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곧 사랑의 일체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을 것이요,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이것을 상징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입체적인 면에서 하나될 수 있는 심정적인 기준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목적세계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어떠한 과정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천주의 기반이 닦아진다는 것입니다. (25-148, 1969.10.3) p.1451

가정을 중심으로 천주주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천주는 하늘땅을 총합한 것입니다. 하늘땅은 인간에 있어서 몸 마음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주체가 있으면 하나의 상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의 남자에게는 하나의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26-189, 1969.10.25) p.1451

한 가정은 사회의 윤리적(倫理的) 기반이며, 인간 세계에서 가장 본이 되고 근원적이고 일차적인 조직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사랑'이 최선의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에 둬야 되느냐 할 때에 이상세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상(理想) 사람에게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남자(남편)가 여자(아내)를 사랑하듯이, 여자(아내)가 남자(남편)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71-12, 축복과 이상가정-689) p.1451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세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리 관계로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그 나라를 사랑하고, 종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 부부는 아담과 해와, 자녀는 세계 인류를 대표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4-308, 1969.9.7) p.1451

이상세계(理想世界)가 뭐예요? 이상적이 되려면 단색(單色)보다도 알락달락한 것이 이상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색 인종(五色 人種)이 하나가 돼 가지고 사는 것이 이상적이겠어요, 오색 인종이 각각 사는 것이 이상적이겠어요? 다 같이 한데 어울려 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레버런 문'이 나와서 이런 것을 뜯어고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후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 부모의 전통을 계승해서 인류를 사랑하는 하늘가정적인 이 심정 유대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14, 축복과 이상가정-688) p.1451

여기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 봐요. 안 드는 사람이 많다구요. 여러분들 한 5 백 살 난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맡기면 어떻게 할 테야? 그래도 좋아요? 나이 많을수록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나이 적은 할아버지나 아저씨나 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사랑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정에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별이 없어야 이상세계가 아닙니까?

만일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면 그들에게 아주 친근함을 느낄 것이며, 이야기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지간에 아름다운 유대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주위의 이웃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잘 어울릴 것입니다. 형제자매와 잘 지내는 사람이 밖에 나가 이성과 교제할 때 매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육욕적인 또는 불건전한 감정을 갖지 않고 형제 자매 같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지상천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진정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194-160, 축복과 이상가정-687) p.1452

건전한 가정생활이란 조부모, 부모, 자녀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한 세대가 없다면 이 가정은 불구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상가정을 이루면 그 한 가정은 지상천국을 이루는 벽돌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가정을 지상에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깊은 사랑을 향유하는 자녀가 사회에 나오면, 예를 들면, 그가 뉴욕의 거리에 나오면 웃어른에게 아주 친근감을 갖게 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이며, 웃어른은 그들을 자기 손자같이 대할 것입니다. 어떻든 서로 이야기하고 싶고 친근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조부모를 섬기던 젊은이는 도움이 필요한 웃어른을 보면 쫓아가서라도 도와줄 것입니다. (194-16, 축복과 이상가정-687) p.1452

아버지 어머니, 부부, 자녀로 형성된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입니다. 가정적 사랑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류가 살아갈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같이, 중년은 아버지 어머니같이, 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은 형님 누나같이, 적어 보이는 사람은 동생같이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사람이란, 부모와 연령이 비슷한 사람은 부모같이 생각하고 형님과 연령이 비슷한 사람은 형님같이 생각하고, 누이와 비슷한 연령의 사람은 누이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전부 다 자기 가족같이 생각하며, 세계적인 모든 장벽과 경계선을 초월해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86) p.1452

여러분은 어디에 가더라도 그 모든 사람이 남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 부모같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그들을 붙들고 같이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16-314, 1966.7.31) p.1452

참된 가정은 자기 어머니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며, 자기 아버지같이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며, 동생 오빠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계가 이상가정이 사는 천국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 지구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기 동생이나 오빠를 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혼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대신이요, 오빠 대신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릴 수 없고 오빠를 버릴 수 없으니, 아내도 남편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품고 세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 같은 연령의 사람을 보게 되면 아버지같이 사랑하고 어머니와 같은 연령을 가진 사람은 어머니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208-18, 축복과 이상가정-685) p.1453

여러분! 가정이 왜 좋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자유활동의 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보기에는 초라해도 빛나는 사랑의 핵을 지닌 그런 내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면 부자연스럽지요? 왜 그래요? 그것은 사랑의 인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인연이 사방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격의 길입니다. (214-15, 축복과 이상가정-685) p.1453

통일교회에서는 천국은 종족권 내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할아버지를 중심하고 부모와 형제가 하나되며, 사촌과 육촌까지 하나로 연결될 때, 완전한 3 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종족권의 사랑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하나된다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랑의 세계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할아버지나 시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 자리이고 남편 대신 자리이니 사랑으로 모셔야 합니다.

또 시동생이나 시누이와도 사랑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사회로 확대되고 민족과 국가 세계로 확대된다면, 이 세계는 죄악과 전쟁 대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니,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된 하나의 천국이요 이상세계입니다. (216-27, 축복과 이상가정-707) p.1453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정착할 수 있는 기지는 어디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정은 우주애를 장악하고 우주의 보호 양상을 체득하면서, 우주애권(宇宙愛圈)을 확대시켜 가정을 넘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을 가야하고,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 세계를 사랑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효자 또는 열녀라고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한다면,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바로 성인(聖人)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85, 1982.10.29) p.145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분으로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합니다. 축복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하는 생활을 하는 데서부터 종족이 벌어지고, 민족이 벌어지고, 국가가 형성되고, 세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를 형성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중심한 통일교회는 하나의 종족과 같고, 하나의 민족과 같은 것입니다. 오색 인종이 합해서 단일민족을 형성하여 세계를 누구보다도 위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하려 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708) p.1454

가정이란 인류애를 교육하는 대표적인 수련소입니다. 심정의 중심을 세우는 대표적인 광장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신뢰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면 전우주의 중심으로 서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권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가정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연령의 사람을 자기 할아버지같이 사랑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와 동년배 사람을 자기 부모와 같이 사랑하면, 만국 공동으로 영계도 경계선이 안 생깁니다.

아들딸 연령같이 만국의 젊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딸이라 생각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천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열두 진주문이 있고 방향이 있지만 어디든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 전체에 인연맺게 하는 교재입니다. 즉, 텍스트 북(textbook)이란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84, 1985. 12. 18)

가정에 있어서 부모는 종적인 축을 완전히 계승하고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축에 횡적으로 90 도 각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축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을 중심삼고 가정은 조그마하지만 종족, 민족, 국가, 세계는 점점 더 큽니다. 사랑의 축을 중심삼고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 축소의 인연 관계를 전부 사방으로 확대시키는 데서 이상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왕자의 자리를 점령해야 합니다.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강제가 아닌 사랑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84, 1985. 12. 18) p.1454

여러분의 가정은 하늘나라의 주권을 대신한 입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주권을 대신하는 것이요, 자녀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요, 물질은 그 나라의 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나라에 충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성인의 도리를 다하는 길과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 별의별 추태스러운 것의 기원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타락권 내에 있는 부패된 가정을 수습하여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파손되고 있지만 그 가정들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5-306, 1970.10.30) p.1455

Top

3) 참가정의 이상과 가치

① 참부모, 참부부, 참사람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사랑을 가진 종적 부모입니다. 그 종적인 수직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종적 부모 하나만 그대로 두었을 때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횡적 부모를 찾아 세워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창조주는 참사랑의 종적 부모이며, 창조된 아담과 해와는 자식의 입장이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횡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의 입장에 섭니다. 그것이 내외가 하나되는 것에 의해, 내외의 공명체가 되는 거기에서 수수작용을 하면 중심이 생겨나는 것과 동시에 그 내외의 공명권의 중심이 심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183-9, 하나님의 뜻과 세계-306) p.1455

종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된 가운데 횡적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왜? 구형을 이루려니까 필요합니다. 안 그래요? 구형을 이루려니 그냥 그대로 구형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직을 중심삼고 또 횡적인 것을 중심삼고 전후 좌우가 연결되어야만 구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형이 이루어져야 마음대로 떠돌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는 축을 중심삼고, 이 우주의 대축(大軸) 앞에 상대로 편성된 자리에서 축을 중심삼고 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위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하나님의 창조적 참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축이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182-143, 1988.10.16) p.1455

기성신학에서는 창조주는 거룩한 것이고 피조물은 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적인 사랑의 주인이라면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분이 자녀를 낳더라도 길게 한 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횡적으로 전개시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낳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를 통해 가지고 낳는 것입니다. 횡적인 참사랑의 부모의 자리에 선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적인 사랑을 중심삼은 참부모 앞에 90 각도를 갖춘 횡적인 사랑을 가진 분이 참부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분은 창조주인 부모고, 한 분은 피조물의,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이상을 그리면서 지으신 몸적인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고, 참부모는 몸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적인 사랑과 횡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태어나야 할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182-258, 1988.10.23) p.1456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면서 기뻐하던, 창조하던 그 내연(內緣)을 체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딸을 못 낳아 본 사람은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고, 남편을 몰라보는 것이고, 아내를 몰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사랑했지만 미래를 열 수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시대를 대표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시대를 대표하고, 아들딸은 미래시대를 대표하는데, 이 셋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216-192, 1991.3.31) p.1456

해와는 하나님의 외적 신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는가? 그것은 번식을 위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늘리기 위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번식시켜서 뭘 하느냐? 그것은 막대한 천국 국민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도 번식이 가능한가?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으로서 일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점에 서는 수직적인 길입니다. 수직적인 길을 내려오기 때문에 수직에는 번식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번식의 횡적 기준인, 사랑의 기대인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느냐 하면, 이것은 수평이기 때문에 동서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180 도인 평면권은 무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식은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방대한 평면권에 있어서 번식시킨 자들을 영계로 데리고 가서 천국의 국민을, 영원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산지는 지상입니다. 남자 여자의 몸을 빌려서 가능하고, 영계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213-265, 1991.1.21) p.1456

천국의 백성은 영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실체를 창조했느냐? 천국의 백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면 번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적인 사랑에는 일점(一点)밖에 없습니다. 횡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돌아감으로써 360 도의 구형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구형체는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딸이 지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상에서 많은 아들딸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천상세계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많이 번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한정의 세계입니다. 광대한 세계에 빈곳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전부 채워 줄 수 있는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218-130, 1991.7.14) p.1457

원점이 무엇이냐? 참부모권, 참왕권, 참장자권입니다. 이게 아담과 해와가 출발해야 되었던 원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과 창조주, 피조물과 창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참사랑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센터입니다. 그것이 완성한 본연의 아담의 가정 기반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할 수 있는 왕궁입니다. (218-189, 1991.7.28) p.1457

우리 인간들이 자고 나서 아침에 깨어나면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를 염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밤이나 낮이나 춘하추동 변함없이, 일생동안 변함없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성, 그런 여성들이 완전히 수평선을 이루어 종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90 각도에 연결될 수 있는, 인정과 천정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사랑, 거기에 결탁시킬 수 있는 사랑의 이상경,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13-157, 1991.1.20) p.1457

내가 태어날 때에 무엇을 동원하고 태어났느냐? 본래 창조이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을 통해서 지은 실체이신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이 격동해 가지고, 완전히 백 퍼센트 끊어 가지고 하나 되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끊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완전히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완전히 끊어 가지고 그 부모의 사랑을 근거로 한 생명과 혈통,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부모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다 이겁니다. (213-157, 1991.1.20) p.1457

하나님의 창조원칙에서 여자가 태어난 것은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다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태어났는데, 중심이 뭐냐하면 상대입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중심이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중심이다 이겁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아닙니다. 출발을 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뭣 때문에 창조했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우주가 얼마나 평화로워지고,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갖고 있으니 만큼 그 상대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215-300, 1991.2.21) p.1457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결혼을 한다 할 때에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산다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모든 근원적인 느낌을 재현해 가지고 전체 만물과 더불어, 자기 상대와 더불어 통일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근원적인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느끼던 모든 이상형을 내가 전부 다 이어받은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참사랑을 들고 잡아끌면 모든 하늘땅이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것도 참사랑이 끌면 끌려오고, 아무리 가깝던 것도 멀리 보게 하려면 참사랑으로 멀리 가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216-192, 1991.3.31) p.1458

절대적인 하나님의 하나의 문화세계,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들딸들은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있어서의 왕자와 공주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삼은 왕궁입니다. 왕 중의 왕인 창조주를 중심삼은 황족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218-198, 1991.7.28) p.1458

남녀의 생식기관은 창조주로부터 이어받고,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변함이 없는 그냥 그대로 연결된 예물입니다. 하나님도 침범하지 않는 귀한 예물입니다. 선대(先代)들도 이걸 어길 수 없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걸 침범하게 될 때는 천리(天理)의 대도(大道)의 중심이 되는 사랑의 본궁을 파탄시키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악마의 혈육입니다. 순수한 본질로서 영원한 참사랑을 중심삼은 그 터전에서 태어난 것이 생명의 본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혈통의 본원지입니다. 그 생식기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요? 천지의 대도를 위해서, 천지의 대 섭리적 경륜을 위해서 나에게 준 것입니다. (193-147, 1989.10.3) p.1458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생식기를 표상해서 남자 여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를 움직이는 거기에는 인간 전체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그 둘이 하나되어 애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낳으면 뭐예요? 무얼 닮아 낳느냐? 신경 계통이 전부 달려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데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격동할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 이론적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곳, 그 생명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곳, 자기의 혈대(血代)를 자기 자식으로 연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기관이 뭐예요? 그것은 남자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뭐 마음이 먼저냐, 몸이 먼저냐? 유물이론의 철학 사조가 들어와 가지고 세계에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귀하냐, 생명이 귀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게 먼저냐? 이거 선후를 가려내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상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세웠기 때문에 상대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193-145, 1989.10.3) p.1458

남자와 여자는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남자 여자를 지은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 왜 지었느냐? 사랑 때문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이 도대체 뭐냐? 참된 사랑은 영원하면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천하고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 유일하고 영원불변성을 지니고 있는 참사랑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중심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 되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세계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13-156, 1991.1.20) p.1459

참사랑으로 성숙된 참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금자리다. (173-166, 1988.2.14) p.1459

하나님의 한이 뭐냐 하면, 자녀를 교육 못한 거고, 형제를 교육 못한 거고, 부부를 교육 못한 거고, 부모 될 수 있는 교육을 못한 것입니다. (228-34, 1992.3.1) p.1459

Top

② 참가정의 이상과 가치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복귀해 가지고 황족의 사랑을 지니고 가야 할 조국이 천국입니다. 죽어 보라구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여기에 다 걸려요. 그때 가서 '문총재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 가지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239-76, 1992.11.23) p.1459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사탄이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망치고, 미래세계를 망쳐서 3 세계의 왕권을 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4 대 심정권의 완성실체가 되어 가지고 3 대 왕권을 가진 사랑의 왕자 왕녀의 기준에서 황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형이정(元亨利貞)입니다. (239-74, 1992.11.23) p.145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체를 만나면 딸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동생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의 심정을 느끼고, 어머니의 심정을 느끼고, 새로운 아들딸의 심정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 자기 아들딸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권을 회복함으로 선악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가지고 하늘편으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해원성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가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에서 완전히 통일된 왕족,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의 왕족권을 중심삼고 사랑의 체험을 한 황족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 있는 동안 이 원칙을 중심삼고 맞추어야 됩니다. 저 나라에 가서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다른 것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238-262, 1992.11.22) p.1460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든 가정의 중심인 왕과 같이, 왕후와 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딸로서의 나는 왕자 왕녀의 도리를 이어받아 커 가지고 미래의 왕권을 전수받아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왕자 왕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통일교인은 그런 생각을 중심삼고 그런 사랑의 질서에 박자를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부모가 되고, 그런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그런 가정의 할아버지, 그런 가정의 아들이 되게 될 때는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나라의 황족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겁니다. (221-309, 1991.10.26) p.1460

우리 통일교인끼리는 자기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세계는 전후의 세계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엔 부부가 하나 되고, 좌우의 세계가 하나 돼야 됩니다. 상하 전후 좌우가 하나돼야 합니다. 상하는 자식된 도리, 전후는 형제 된 도리, 좌우는 부부의 도리. 이래 가지고 완성하게 되면 영계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화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음을 참사랑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딴 건 안됩니다. 참가정은 이와 같은 공식적 기준에 훈련된 완성된 아담가정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확대시키게 되면 동서가 하나 되고, 남자 여자가 하나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중심삼고, 주체를 중심삼고 상대가 하나 되어야 하고, 전후가 하나 되어야 하고, 상하가 하나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세계가 틀림없이 원리적인 내용을 중심삼고 참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 완결을 보느니라! 아멘! (222-321, 1991.11.6) p.1460

오늘날 인생행로는 나그네 행로인데, 여기에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체휼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것이 타락이니까 참부모의 사랑, 참형제의 사랑, 참부부의 사랑, 참아들딸의 사랑을 중심삼고 종적인 가정을 이루어 횡적인 환경을, 동서남북으로 많은 가정들을 벌여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횡을 연결시킬 수 있는 참가정의 형태를 이루어 가지고 종족권, 민족권, 국가권, 세계권으로 연결되게 할 때, 사랑으로 연결된 그 세계를 소위 천국이라 하느니라! (139-212, 1986.1.31) p.1460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확대해야 합니다. 확대해서 그것이 공식화되어 가지고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종적인 나라와 횡적인 나라를 이어받은 하늘땅의 완성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과 아담과 해와의 외적인 실체의 모든 전부를 체험할 수 있는 가정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황족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선생님이 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240-17, 1992.12.11) p.1461

참부모의 사랑, 참스승의 사랑, 참주인의 사랑입니다. 이 3 대 주체사상의 중심의 자리는 하나입니다. 참가정의 부모를 중심삼고 하나입니다. 선생님도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지요? 대통령이라도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사랑을 중심삼은 대신자가 교육하는 곳이 학교요, 부모 사랑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213-124, 1991.1.16) p.146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면 참사랑은 무엇이냐? 자기 이상의 것을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애국이 무엇이냐? 자기 생명을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도 영원히 투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 참남편이 갈 길이요, 참아내가 갈 길이요, 참아들이 가는 길이요, 참형제가 가는 길이요, 참부모가 가는 길이요, 참가정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고, 할머니가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아내가 그렇고, 아들딸이 그럴 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210-32, 1990.11.30) p.1461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흘러가 버립니다. 지식도 흘러가 버립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의 전통만은 영계에까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215-160, 1991.2.17) p.1461

아담과 해와가 아들에서 형제, 부부, 부모까지 이루었으면 아담의 아들딸도 그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딸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아들딸이 되었다면 전부 다 횡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을 텐데, 종횡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딸은 두 나라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와 지상나라, 종적인 나라와 횡적인 나라, 종적인 부모와 횡적인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종적인 부모의 내적인 모든 것과 횡적인 부모의 안팎의 모든 것을 전수 받은 것이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황족이라는 것은 두 나라를 이어받은 생활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황족이 되면 두 나라에서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완성적인 기반 위에 서는 겁니다. (240-17, 1992.12.11) p.1461

어머니 아버지 사랑은 온 세계 남성권 여성권을 대표한 꽃인 동시에 향기와 더불어 열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입니다, 대표. 어머니 아버지는 인류의 여성 남성을 대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딸은 누구냐? 후대의 수천만 인류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 가지고 아래가 위를 위하고 위가 아래를 위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본성으로 볼 때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4-270, 1991.2.3) p.1462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대신 행세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는 세계 대통령 대신 행세해야 되고, 그 아들딸은 하늘나라의 왕의 아들딸과 같이, 왕자 왕녀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정 이상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래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늘나라의 왕궁이고, 그 구성원은 하늘나라의 왕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보면 왕자 왕녀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전체 국가 세계의 왕자 왕녀의 대표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욕심 갖고 있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전우주의 왕자 왕녀의 대표입니다. 이만한 가치 있는 장소의 그 센터가 우리 가정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훌륭한 이론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중심 가정으로서 이상적 부부의 대표적인 가정임을 자부합니다.' 이럴 수 있게 될 때는 전체가 미래의 온갖 만물까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의 가정, 역사적 가정의 배후를 알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상가정의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다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216-299, 1991.4.14) p.1462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과거를 전부 다 이어받고 과거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는 현재를 배우는 것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미래를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어받느냐, 무슨 혈통을 이어받느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는 많지만 두 분이 참된 사랑으로 하나되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되어 있으니, 우리들도 저와 같이 되어서 미래를 이어받자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어받기 위해서 절대 참가정이 안 돼 가지고는 미래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이 셋을 볼 때, 그것은 우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전체 역사, 현재와 미래를 대표한 참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참가정에서 할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누나를 사랑합니다. 동물세계를 보더라도 암놈을 사랑하고, 숫놈을 사랑하고, 전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주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없어도 불안정하고, 어느 분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조부모,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참조부모를 사랑하고, 참부모를 사랑하고, 참자녀 · 참가정 · 참국가 · 참우주를 사랑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형 교과서가 가정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사랑은 미래를 위해 간다.'고 할 때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162-140, 1987.4.5) p.1463

Top

4) 천국은 가정단위로 들어간다

가정은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나라는 세계, 세계는 우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이나 세계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했다고 하면, 다 사랑했다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여러분들은 세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만큼 세계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8-11, 축복과 이상가정-715) p.1463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해와가 부모인 동시에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 되는 것이요, 우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효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도 생겨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충신과 효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같이, 주님이나 왕같이 모시고 참된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그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논리가 여기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78-11, 축복과 이상가정-715) p.1463

인간의 타락이란 무엇인가? 타락한 자녀란 무엇인가? 즉,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서 철저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체험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참부모에 의해서 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해야 됩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나라의 자격 있는 시민'이라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나라와 세계를 볼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유산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94-4, 축복과 이상가정-714) p.1463

나 혼자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남성은 한 여성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반드시 가인과 더불어 하나되어야 합니다. 상대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맞기 전에, 혹은 부부를 맞기 전에 형제끼리 하나의 상대적 기준을 갖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통일사상인 것입니다. (126-16, 축복과 이상가정-714) p.1464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상에서 천국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천상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인적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사탄세계에서의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만일 타락세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기까지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7-28, 축복과 이상가정-713) p.14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서 방울방울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소망이 있지만, 사랑이 메마르게 된다면 여러분과 그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사랑의 나라 국적에서 제명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전통 세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86-4, 축복과 이상가정-713) p.1464

여러분은 부부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자기 부부끼리 사랑하는 이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핵심이며 이상적 모토가 됩니다. (78-1, 축복과 이상가정-713) p.1464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요, 자기 아내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35-305, 1970.10.30) p.1464

「저는 유효원입니다. 지상에 있을 때 선생님의 수제자로서 협회장을 오랫동안 하고 말씀을 받아 원리강론을 집필하여 세계적 경전이 되게 하였으니, 영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영계의 삼위기대를 편성하였는데, 이기석, 유효원, 박종구 순이었습니다. 저는 실망이 되어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은 '이곳은 사랑의 세계로서 지성의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경쟁이 있는 곳이야. 이기석이가 사랑을 더 많이 소유했단다. 그래서 삼위기대의 제일 형님이 이기석이 된거야'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까지는 지성적인 면에 치우쳐 일했지만, 지상에 있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심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현재 천국에 홍진님이 계십니다. 그 분도 축복을 받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셨는데, 사위기대를 세워 비로소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84-10, 축복과 이상가정-712) p.1464

천국엔 독처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독처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절망강산입니다. 적막강산은 희망이 있으나 절망강산은 희망도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216-20, 축복과 이상가정-712) p.1465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참된 사랑을 지닌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그 참사랑을 지닌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의 완성이 지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두고 볼 때,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완성된 사랑의 주체성을 지닌 남성과 여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86-16, 축복과 이상가정-712) p.1465

천국 복귀는 누가 하느냐? 뜻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부입니다. 절대부부 · 절대신앙 · 절대실천 · 절대심정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부로부터 비로소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75-4, 축복과 이상가정-712) p.1465

천명을 받아 이 원수의 세계에서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9-9, 1970.2.15)

천국은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축복은 천국 문을 훌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정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3 대의 인연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야곱의 70 가족도 3 대가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급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12-266, 1963.5.25) p.146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래 창조원칙에 의한 천국은 가정을 중심삼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부모가 들어가고, 자식이 들어가고, 자기 일가 전체 문중이 들어가야 행복한 것이지, 부모는 지옥 가고 자식만 천국 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통일교회가 앞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닦는데 있어서 가정적인 기준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역사적인 참소 기준, 시대적인 참소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1-63, 1968.9.1) p.1465

혼자서는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천국 못 갑니다. 아담과 해와가 둘이서 타락하여 지옥문을 열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부를 맞이해 가지고서야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전부 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 가정적인 복귀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23-315, 1969.6.8) p.1466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기 때문에 여성신인 성신이 와서 어머니의 실체로 나타나 죄를 씻고 세상을 깨끗이 하면, 예수님은 다시 신랑으로서 새로운 씨를 가지고 재림해야 됩니다. 재충전하여 새로운 천지의 참부모의 혈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삼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세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6 천 년 동안 섭리해 오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21-199, 1968.11.20) p.1466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찾지 못하여 아들딸을 두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원에서 2 천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신으로 하여금 역사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199, 1968.11.20) p.1466

본래 하나님은 남편은 천국에 들어가고 부인은 지옥에 들어가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 당시의 이상의 주인공들,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종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이 생긴 것입니다. (16-33, 1965.12.26) p.1466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혼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볼 때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냐? 아닙니다. 둘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면 어머니도 들어가고, 부모가 들어가면 자식도 같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엄마 아빠가 같이 가야지, 아빠는 천국 가는데 엄마는 지옥 가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 통일교회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34-209, 1970.9.6) p.1466

천국이란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성혼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들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손자들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그 가정이 모두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식이 못 들어가도 자신만 들어가면 천국입니까? 그러나 낙원은 아무리 정다운 부부나 부모 자식이라도 헤어져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가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천당입니까? 부모를 모시고 온 가족 모두가 들어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아들은 지옥에서 죽겠다고 야단하고 있는데, 부모는 천국에서 잘 살면 되겠어요?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19-105, 1967.12.31) p.1466

하늘나라에는 절대 개인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알아보니 천국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망상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천국은 가정 단위로 가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이 같이 가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같이 살 수 있는 곳이 이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옥 가고, 어머니는 천국 가고, 누나는 지옥 가고, 동생은 천국 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천국 갔다고 해서 좋겠습니까? 천국은 가정으로서 가는 곳입니다. 가정이 가는 곳입니다. (22-271, 1969.5.4) p.1467

천국 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천국은 개인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족속을 거느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족속을 가졌다는 것은 복 받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딸이 많고 재물이 풍성하면 복 받은 가정이라고 그러지요? 이처럼 복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개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2-168, 1969.2.2) p.1467

Top

5) 가정맹세

① 가정맹세를 할 수 있는 자

가정맹세를 할 수 있는 가정은 몸 마음이 하나된 자리에 있는 가정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지 않으면 가정맹세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외우면서 기도할 때 여기에 불합격된 모든 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합치될 수 있는 것을 가해 가지고 해방의 심신통일권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261-143, 1994.6.9) p.1467

성약시대는 가정맹세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맹세를 외우는데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그게 표제입니다. 그것은 타락권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의 사랑과 거짓 생명과 거짓 혈통을 중심삼고 갈라졌던 것이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할 때는 몸 마음이 하나된 자리에서 암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 마음과 몸, 부부가 일체된 자리에서,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 하나된 자리에서 암송해야 합니다. 아들딸을 중심삼고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된 역사적 암초를 만든 것을 전부 소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부 통일되어 가지고, 심신통일·부부통일·자녀통일 기반 위에서 외워야 할 것이 이 맹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64-192, 1994.10.9) p.1467

가정맹세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탄세계의 거짓부모로 말미암은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의 인연을 가진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와 하나되어 가지고 참사랑으로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될 수 있는 기준에 선 사람만이 이 가정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64-213, 1994.11.3) p.1467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어 가지고, 부부가 하나되어 가지고, 자녀가 하나되어 가지고, 3대가 사는 가정의 사위기대 기반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출발할 수 있는 기지인 가정을 중심삼고 완전히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외우는 선서문이 가정맹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밥을 먹을 때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하고 밤이 되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기 심신이 하나되지 못해 가지고 사탄적 인연을 다시 유치시키는 입장이 되지는 않았는지 늘 체크해야 됩니다.

부부의 싸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천법에 의해 치리를 받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엄격합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됩니다. 타락한 여자들은 입을 잘 놀려야 됩니다. 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264-214, 1994.11.3) p.146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맹세는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맹세라는 것은 아무사람이나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맹세의 8개항의 서두에는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세계와 관계없는 기반에서 하는 말입니다. (263-195, 1994.10.4) p.1468

Top

② 가정맹세의 내용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첫째, '우리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한다.'입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한다는 말은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내가 만든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으로 본향땅을 중심삼고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한다는 것입니다. 본향땅입니다. 가정을 중심한 본향땅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이 있으면 고향땅으로 돌아가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고향만 찾으면 자연히 나라, 세계 전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자연히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거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260-157, 1994.5.2) p.1468

그래서 맹세문 제1은 뭐예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땅을 찾아', 그 땅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완성하기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창건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찾아와야 됩니다. 사탄 세계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라 창건입니다. (261-88, 1994.5.22) p.1469

첫 번째는 뭐냐하면 본향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해야 됩니다. 잃어버렸으니 복귀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263-148, 1994.8.21) p.1469

Top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둘째는,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사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아버지도 효자가 되고, 아들딸도 효자가 되고, 전부 다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효자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한다'입니다.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한다.'입니다. 부모가 돼 가지고 아들딸을 잘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할 때 아들자입니까? 아들을 말합니다. 성자는 뭐냐 하면, 하늘나라의 궁법과 하늘나라 법과 지상의 궁법과 지상의 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왕권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둘 다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도 왕권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세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260-157, 1994.5.2) p.1469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셔 가지고 대표적인 가정이 되고, 중심가정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는 효자 효녀, 나라에서는 충신 열녀, 세계에서는 성인, 하늘땅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하늘이 원하던 모든 것을 우리 가정에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교육과, 국가에서는 백성교육과, 세계에서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땅에서는 그 하늘나라의 일족, 가정 식구로서의 합격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60-190, 1994.5.8) p.1469

둘째는 뭐예요? 대표적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인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하나님에게 불충, 불효했던 모든 역적이 되었던 이것을 밟아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런 패가 많았고, 국가에도 그런 패가 많았고, 세계에도 그런 패가 많았고, 하늘땅에도 그런 패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전부 다 참부모와 하나돼 가지고 이러한 가정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61-88, 1994.5.22) p.1470

그 다음에는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의 도리, 성자의 도리를 전부 다 사랑을 통해서 연결시켜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의 대표적 가정입니다. 맨 꼭대기 가정입니다. 꼭대기에서 결혼하면 지상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착륙하면 중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자의 가정이요, 성인의 가정이요, 충신의 가정이요, 효자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이 씨가 됩니다. 열매는 마찬가지입니다. 천대 만대 이 원칙에 입각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263-149, 1994.8.21) p.1470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정을 참사랑을 중심하고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입니다. 여러분이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가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이루어 가지고 황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귀된 황족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축복가정이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고,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고는 사랑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은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 자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 가지고는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절대 필요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이것을 표준으로 하고 매일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목전에 다 있는 것입니다. (260-190, 1994.5.8) p.1470

셋째는, '우리가정을 참사랑을 중심하고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한다.'입니다. 요것이 아담과 해와가 첫사랑을 중심하고 이뤄야 할 것을 전부 다 이루지 못했으니 앞으로 이제 본연에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자니 뭐니 다 복귀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길러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한다'입니다. 황족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시는 재림주님의 직계자녀들은 탕감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탕감조건에 안 걸립니다. 요것은 뭐냐 하면 직계 말고 땅위에서 가인권 여인과 가인권 아들에게 남겨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중심삼고 보더라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진이 어머니와 성진이를 중심삼고 딱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인권을 전부 다 황족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생으로서, 복귀된 동생의 자리에 세워 가지고 황족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참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인정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황족권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타락한 사탄권 내에 황족을 벗어난 무리가 있다는 말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족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260-158, 1994.5.2) p.1471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완성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아버지는 2 세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가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왕과 왕후와 같이 모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랑을 맞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머니 아버지의 두 사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손자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확대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64-195, 1994.10.9) p.1471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본연적 이상형, 타락하지 아니했던 아담의 본연적 이상형인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렇게 된 가정이 그럴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셔서 천하의 대표, 예수님과 같은 세계 완성한 자리에 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사탄과는 영영 관계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사람이 원수가 돼 가지고 장자의 자리에서 하늘 편인 아벨을 죽여 나왔지만 죽여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님 입장에서 동생의 자리에서 바꾸어 쳐졌을 뿐이지 형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들을, 세계 사람들을 황족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아벨적 황족이라면 사탄세계는 가인적 황족입니다. 이 통일교회 교인들은 가인적 황족을 하나 만들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돼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대가 없고 순리적으로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261-88, 1994.5.22) p.1471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번째는, '우리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완성한다.'입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아무리 큰 가족이라도 한 가정입니다. 영계에 가면 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완성한다.'입니다. 거기에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천주적인 자유, 천주적인 평화, 천주적인 행복이 깃드는 세계를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260-158, 1994.5.2) p.1472

'우리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하나님 이상은 세계가 전부 한 가정입니다. 한 집안입니다.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완성한 사람들이 부르는 자리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한 가정이지 두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우리는 세계가 한 가족입니다. (260-191, 1994.5.8) p.1472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전세계 대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고 대가정의 평화고 대가정의 행복입니다. 전 인류가 전부 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260-192, 1994.5.8) p.1472

그 다음에 넷째 번은 뭔가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뭐예요?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 이상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 이러한 기반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이상은 대가족입니다. 가인 아벨 세계가 대가족입니다. 본연의 이상을 비로소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다 이룬 그 자리에 대가족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완성 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것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돼 있습니다. (261-89, 1994.5.22) p.1472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섯 번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한다'입니다. 전진적 발전은 매일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스톱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톱하면 전부 다 지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진적 발전을 해야 합니다.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한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 하늘과 영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 교인들이 영계를 중심삼고 매일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관해서 먼저 생각하고 영계에 대한 생각은 뒷전입니다. 그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하나돼야 합니다.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적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은 스톱하는 것입니다. 또한 촉진한다 이겁니다. 멈추는 것은 지옥과 연결되고 성장은 번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멈춤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들어올 때는 기뻐했는데 지금까지 10 년, 20 년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스톱은 내려갑니다. 스톱은 지옥으로 연결되고 성장은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스톱은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한 가지씩 플러스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전부 다 돈을 모으겠다고 야단하지만,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야단한다는 것입니다. (260-159, 1994.5.2) p.1473

우리 가정은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 주체적인 큰 천상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플러스냐 하면 영계가 플러스입니다. 마음이 플러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세계를 대표하고 마음은 영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플러스와 같고 몸은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마음세계를 몰라보는 생활을 했다가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마음을 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부정했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 주체세계와 대상세계가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 전진해 나가는 발전입니다.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촉진화, 빨리 빨리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정지하면 벌써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지는 지옥과 통하고 사망과 통하는 것입니다. 정지는 내려가서 지옥과 통하고 촉진은 발전과 통하는 것입니다.

촉진, 서두르는 것입니다. 잠만 자고 나태해 가지고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은 역사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주가 크지만 초점은 한 점과 마찬가지로 초점이 한 바퀴 돌면 이것도 한바퀴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라 이겁니다. 선생님 같이 말입니다. 자지도 않고 달려라 달려라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 세계에 내가 관계를 맺지, 생각지 않은 세계에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60-194, 1994.5.8) p.1473

가정맹세 5 번은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것은 세계가 전부다 같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땅에 전부다 주체적 하늘나라의 대상적 입장으로 하나되어야 됩니다. 하나될 뿐만 아니라 지상에 지상지옥 분야가, 사탄권이 남아 있으니 빨리 촉진시켜야 됩니다. 하루가 바쁩니다. (264-202, 1994.10.9) p.1473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섯 번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한다.'입니다. 자기만 잘살자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그러니까 천운이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천도를 움직이는,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디 가든지 우리 축복가정들은 전체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중심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260-160, 1994.5.2) p.1474

여섯 번째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사랑을 알지요?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가정으로서…' 하나님 가정과 참부모의 대신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가정은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하늘만이 축복 받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왕족이 되어 가지고 전체 사람들을 백성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가정은 천운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하늘의 모든 축복을 만민 앞에 평등하게 나눠주는 가정적 복의 기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의 가정은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지만 축복가정들이 많으니까 전세계에 확장해 가지고 하나님 가정과 참부모의 가정을 대신해서 복을 받는 기관이 되어서 나눠주겠다, 나눠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60-195, 1994.5.8) p.1474

천운을 움직이는 것이 6번이지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됩니다. 참부모님이 수난 당한 모든 전부가 자기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자기가 해방시키고 천운을 갈라주고, 천운을 옮겨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부모를 따라오는 천운을 그냥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복의 기관이 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촉진화 되고 하나돼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지상에 와 가지고 자기 나름의 복만 받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공을 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이 흡족하고 큰 천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넘겨주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행복과 자유의 환경에서, 천하를 움직일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부모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반대의 길을 다 거쳐 가지고 만민까지 천운을 이어 주기 위해 나왔으니 참부모 가정의 대표자로서 여러분들도 천운을 분배시켜 주는 가정이 되어야 참부모의 뒤를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상면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면목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61-91, 1994.5.22) p.1475

그 다음은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복의 기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의 하나된 모든 것을 갖추어 그 자리를 중심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복의 샘터가 되라는 것입니다. (264-202, 1994.10.9) p.1475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일곱 번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한다.' 입니다.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본연의 혈통입니다. 혈통이 중요합니다. 혈통이 변해서는 안 되고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정문화세계 형성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심정문화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참사랑으로 위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정문화세계 하게 되면 전체를 대표한 한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정권 종족을 말합니다. (260-160, 1994.5.2) p.1475

심정문화세계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세계나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참부모의 마음세계나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정문화세계 형성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문화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타락한 세계는 문화가 복잡다난합니다. 그것을 통해야만 개인천국, 가정천국, 종족천국, 민족천국, 국가천국?천상천국?영원한 세계의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아니고는 개인, 가정, 종족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심정문화세계가 아니고는 개인에서 천주까지 연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0-196, 1994.5.8) p.1475

우리 세계는 심정문화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의 사랑을 중심삼은 통일 가족, 한 가족입니다. 높고 낮은 것 없이 오색 인종이 하나의 가족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옵니다. 전세계가 동원해서 평균적인 생활을 정하자. 세계의 공의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느 나라를 중심삼고 정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는 북한이 저렇게 못살면 못사는 북한을 중심삼고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일본 국가가 아닙니다. 아담 국가를 중심삼고 제일 못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261-93, 1994.5.22) p.1475

심정문화세계는 본연적 하나님의 문화세계요,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문화세계입니다. 문화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하나요, 풍습도 하나요, 전통도 하나밖에 없는 이런 통일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이 개인에서도 같이 살고, 가정에도 같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1-95, 1994.5.22) p.1476

그 다음에는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심정세계입니다. 참사랑이 표면화된 세계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나 길목에서 부부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했으면 그것을 세계의 형제 앞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길목에서 기다려 가지고 모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와 같이 자기 집에 세계 가정들을 모셔 가지고 많은 것을 먹이고 많은 것을 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심정을 표면화 시켜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심정문화세계, 단일문화세계, 통일문화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하나의 세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심정문화세계가 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264-202, 1994.10.9) p.1476

㉮ 천일국 주인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절은 뭐예요? '우리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게 뭐냐 하면 에덴동산의 하나님이 창조할 그 당시 내용입니다.

성약시대를 중심하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뭐라구요? 절대복종으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신인애 일체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아들딸의 모든 권한도 자유분방의 세계 어디든 통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입니다. (301-85, 1999. 4. 16) p.1476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자체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 가정을 이루지 못해 전부다 지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참부모의 승리권으로 하나된 모든 기반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으로 넘어가는 이때이기 때문에 통일교는 참부모를 중심삼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해야 합니다. 참부모는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전통을 이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 받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하늘의 축복이 같이할 것입니다. (1996. 11. 3) p.1476

숙명적인 과제와 운명적인 과제인 모든 부자지관계 인연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인데, 무엇 중심삼고 되느냐? 뼛골에서부터, 애기씨로부터, 참사랑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 가지고 지금 몸 마음이 커 가지고 세상을 전부 다 안고, 아버지도 안고 어머니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거기에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할아버지가 말할 때는 손자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아버지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전통적으로 상속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숙명적 제안 해원! 이래야 제 8 맹세에 있어서의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 사랑으로 일체되는 것입니다. 일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지상 천상천국의 해방권입니다. (1998. 8. 28) p.1477

Top

제 3 장
국가 - 세계관

1) 인류가 추구해 온 하나의 국가, 세계

① 아담주의, 아담국가, 아담의 세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래 인간시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담가정에서의 아담은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족장이 되는 동시에 민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대표자가 되어 아담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아담주의 하나로 통일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시시껄렁한 주의들은 집어치워야 됩니다. 시시한 주의들이 나와서 세계를 교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주의를 뿌리째 전부 뽑아버려야 합니다.

주의도 아담주의, 언어도 아담 언어, 문화도 아담 문화, 전통도 아담 전통, 생활방식도 아담 생활방식, 제도도 아담 제도. 모든 것이 아담 국가의 이념제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는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하니 하나님 주의라는 것입니다. (20-123, 1968.5.1) p.1478

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가정이 아담과 해와 두 사람만의 가정이겠어요, 우주를 대표한 가정이겠어요? 그 다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가 누구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과 해와의 나라예요? 하나님과의 공동목적을 가진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확대된 것이 세계인데, 그 세계도 역시 하나님을 중심삼은 세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61-243)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인데 가정적 하늘나라에서, 종족적 하늘나라, 세계적 하늘나라, 우주적 하늘나라로 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지상에서의 세계를 내 나라로 알고, 만민을 내 형제로 알고, 세계를 중심삼고 이와 같이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의 제일 가까운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입니다. (161-225, 1987.2.15) p.1478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을 데리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나라를 버리고 내 가정을 중심삼고, 아이구! 내 아들딸이 아닙니다. 나라를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 가운데 민족이 다 들어가 있고 자기 아들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말하면, 선생님 생각은 세계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밥을 먹으며 뭘 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천상세계의 중심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참부모의 생각이요, 참된 자녀의 생각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161-225, 1987.2.15) p.1479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의 인종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악의 투쟁도 거기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 각국마다 국경이 있습니다.

흑백의 인종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지간에 전부 다 분열이 벌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정세를 두고 볼 때, 오시는 주님은 국경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인종문제를 초월해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열된 가정을 전부 다 통일해야 되고, 선악이 싸우는 이 세계에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53-72, 1972.2.9) p.1479

하나님이 확실히 있는 것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세계 인류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이 지구성을 당신이 사랑하는 국토로 만들고, 이 국토와 백성을 합해서 하나의 주권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상세계입니다. (56-192, 1972.5.14) p.1479

여러분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으니 그 나라를 찾아 이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이상의 나라, 통일의 나라인 것입니다. 만민이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도 협조하고, 종족도, 민족도, 세계도 다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을 통일할 수 있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213, 1967.6.8) p.147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소망에 찬 의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상향을 그리고 생활로 의의 법도를 세우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18-213, 1967.6.8) p.1479

보통 세계주의라 하면, 민족과 국가를 무시하고 온 세계를 하나의 국가, 온 인류를 동포로 본다는 뜻에서 그치지만, 통일교회에서 부르짖는 세계주의는 가정에서부터 그 벽을 초월합니다. 부모되시는 한 분의 하나님과 혈육의 친형제나 다름없는 같은 형제들인 온 인류가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는 세계주의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세계주의입니까? (축복과 이상가정-599, 1981. 4. 25) p.1480

천국이 어떤 것이냐? 지상천국이 어떤 것이냐? 우리 통일교회 식구와 같은 사람이 전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천국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교회 식구같이 살면 그것이 지상천국입니다. 그 세계는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세계요,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전부 다 하나되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 그게 지상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산다 이겁니다. (79-304, 1975.9.21) p.1480

앞으로 이 세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도덕문제를 전부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타락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원리 없이는 인간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이 하늘을 배반하고 역사를 끌어 나온 최후의 절망적 종말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파탄,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역사가 풀리질 않습니다.

역사가 풀리질 않으면 역사를 청산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代案)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창조와 이상 대안을 중심삼고 우리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자, 참사랑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타적인 것입니다. 사랑 상대를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는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219-266, 1991.10.11) p.1480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남자 여자를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천하의 기원, 평화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본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하고, 형님이 동생을 위하고, 동생이 형님을 위하고, 이렇게 위하는 것입니다. 위하는 사랑으로 헝클어진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영원무궁 영생적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21-212, 1991.10.24) p.1480

Top

② 그 나라는 우리 모두의 소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앙모합니다.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사랑이 존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높임받을 수 있는 곳이고, 자기 가치를 백 퍼센트 인정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25-284, 1969.10.5) p.1480

만일 지상의 국가를 복귀하는 일을 자기 생애에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영계에 가더라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통치된 실적을 가지고 영계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래의 창조기준인 것입니다. (40-131, 1971.1.30) p.1481

나는 지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뭐 돈 짜박지, 땅 짜박지, 집 짜박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방 한 칸이든 뭐든, 죽더라도 내 나라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죽어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살다 가지 못하면 그 생애는 비참한 생애가 아니냐? 그러니 죽기 전에 하루라도 그 나라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선생님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 한 날을 위해서는 수천 날의 희생을 투입하자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쉬더라도 나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외국인을 움직여서라도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못하면 외국을 통해 포위작전을 해서라도 가야 합니다. (51-340, 1971.12.5) p.1481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로서 자유자재로 만민, 혹은 만물세계에 자랑하며 사랑 받을 길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자는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불쌍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발판으로 할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55-79, 1972.4.23) p.1481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추만대의 후손들이 길이 찬양할 수 있는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4-193, 1964.10.3) p.1481

그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계의 자녀들이 천명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을 가지고 그 왕권으로 처리하는 그런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한 번 형성되면 영원한 국가체제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 자신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못 됐다는 사실이 원통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나를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불변의 주권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72-292, 1974.9.1) p.1481

주권과 나라와 국토를 세우기 위해서 인류는 주권국가를 세워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백성이 희생됐고, 수많은 나라가 망했고, 수많은 주권들이 교체되어 나온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당한 수많은 사람, 하늘편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뜻을 위해서 희생당한 모든 애혼들은 어느 한 때에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계를 이루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72-292, 1974.9.1) p.1482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을 지상에 보내어 절대적인 하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일을 진행시켜 나왔지만, 현시점에서 하나의 국가를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늘의 사람을 보내 그 일을 경영시키고, 추진시키고, 성사시키기 위해 애써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하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30-10, 1970.3.14) p.1482

주권 없는 나라의 국민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31~33)'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34-337, 1970.9.20) p.1482

예수님도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못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라의 주권을 세우고 나라를 처리해 가지고,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직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천국 가는 대합실입니다. 또, 천국은 혼자서는 못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해와, 가정 단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딸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56-201, 1972.5.14) p.148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왜 살아 남지 못하는 놀음을 했느냐? 종교를 협조해 줄 수 있는 가정도 없고, 사회도 없고, 나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입니다. 나라가 있었더라면 종족이 반대하는 자리에 서더라도 그 나라권 내에 남아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핍박을 받고, 어디 가든지 피를 흘리는 제물의 길을 걸어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가 있고 나라만 있었더라면 ,야 이놈들아,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 예-이하게 되었을 텐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56-159, 1972.5.14) p.1482

오늘날 이 땅 위에 영적 구원을 완성한 세계권, 기독교문화권의 세계가 민주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사상을 이어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선민을 택정해 가지고 틀림없이 너희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고 유대민족을 대하던 약속과 같이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가 세계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도 없이 공중에 이름만 가진 그 나라를 추구해 가지고, 동쪽에서 몰리면 서쪽으로 쫓겨가고, 북쪽에서 몰리면 남쪽으로 쫓겨가고, 방황하면서 죽음의 길을 피해 가면서 세계적인 발전을 해 나온 것이 기독교문화권의 세계입니다. (65-48, 1972.11.13) p.1483

통일교회 교인들도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세계도 하나님이 6 천 년 수고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옛날 예수시대에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의 모가지는 떨어진 지 벌써 오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은 뭐 벌써 이 세상에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불의의 사탄의 대역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세계적인 불의의 대변자인 공산주의가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일교인들, 나라 있어요? 그러니 천덕꾸러기 아니예요? 갈 곳 없는 천덕꾸러기 취급받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분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5-209, 1972.5.9) p.1483

나라가 없다면 아무리 좋고 행복한 가정이라도 황마적단이 나와 가지고 모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확실히 모릅니다. 선한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57-260, 1972.6.4) p.1483

그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한 개인은 어디 있느냐?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그런 대표적인 한 분을 모시고자 하는 사상이 재림사상입니다. 이 재림사상을 중심삼고 새로운 개인이 나오는 것이요, 새로운 가정,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의 형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사상은 여타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람은 이 사망세계에서 썩은 사체를 뽑아 버리고, 거기에 뿌리를 박고 그것을 거름 삼아 커야 됩니다. 여기서 좋다고 하는 것을 거름 삼을 줄 아는 힘을 가진 새로운 주체적인 인격을 갖추고 오는 사람입니다.

사탄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체로 삼아 부활의 권한을 다짐할 수 있는 아들이면 아들, 백성이면 백성이 지녀야 할 인격을 두고 볼 때, 이 사망의 세계, 썩은 사체와 같이 된 것을 거름 삼아클 수 있는 주체력을 가진 인격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세계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49-93, 1971.10.9) p.1483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재림주입니다. 하늘은 기준만 세워지면 때립니다. 공세를 취합니다. 그렇다고 스탈린 모양으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념, 둘째는 백성, 셋째는 주권, 넷째는 영토로 사탄을 항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과 권세와 친구와 이상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네 가지는 바로 이것을 대표한 것입니다. (12-169, 1963.3.16) p.1483

Top

2) 이상사회-국가-세계의 구조

① 인류 대가족 사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경계선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쓰는 말이 둘이예요? 아닙니다. 인종의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무엇이냐?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는 전부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딸이니까 전부 다 형제이고, 지상천국을 중심삼고 보면 백성입니다. 지상천국의 국민이라는 겁니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66-281, 1973.5.16) p.1484

완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늘과 더불어 세계적인 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여러분에게는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한국 사람 뭐 다 있지만,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내 나라입니다. 내 고향이 어디냐? 이 지구가 내 고향입니다. 난 국경 같은 것 모릅니다. 뭐 흑인, 백인 같은 것도 모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79-24, 1975.6.16) p.1484

원리는 영원한 역사를 통해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인의 권세나 국가 권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으며, 세계도 하나님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 부활된 사람들이 국가를 초월하고 세계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면 모두가 형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백인도 없고, 흑인도 없고, 황색인도 없습니다. 흑인이라고 해도 피부색만 다를 뿐 모두가 똑같습니다. 뼈도 같고, 살도 같고, 피도 같고, 마음도 같습니다. 피부색만 조금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후와 환경 때문에 달라진 것이므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02, 1975. 7. 13) p.1484

소나무를 보십시오. 극한지대로부터 온대권으로 가면서 종류가 점점 달라집니다. 소나무가 서 있는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점점 달라지며 또 그것이 출발했던 기준과 역사를 통해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곰을 보십시오. 북극의 곰은 백곰입니다. 백색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보호색이 백색이기 때문입니다. 백인종은 무엇인가 하면 북극의 백곰과 같은 것이며, 흑인종은 더운 곳의, 온대지방의 흑곰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데도 흑곰과 백곰이 서로 서로 너는 백곰이니까, 너는 흑곰이니까 하면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과 이상가정-602, 1975. 7. 13) p.1484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교회는 결혼식을 국제적으로 합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이 결혼을 합니다.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은 역사에도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호소하는 세계적 사상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보면 인간은 모두 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되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미국의 건국정신은 하나님 아래 한 국가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정신입니다. 또 지금 바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604, 1975. 7. 13) p.1485

만민은 그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 뿐이지 인간이라는 점에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흑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흑인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다시 백인 여자와 결혼해서 백인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백인의 아버지도 되고, 흑인의 아버지도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 인류가 한 아버지에 의해 태어난 한 형제라는 심정이 우러나게 하지 않으면 세계인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만대의 규합은 불가능합니다. (18-111, 1967.5.28) p.1485

전세계의 인종이 하나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국제결혼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문화권과 환경으로부터 선택된 남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사이좋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조화와 통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들은 거대한 사랑의 힘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최고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움직임과 환경에 따라서 번롱(飜弄)될 만한 사랑은 아닙니다. 최고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만이 국경을 넘고, 인종의 경계를 넘고, 문화의 경계를 넘고, 지식의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93-38, 축복과 이상가정-555) p.1485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킬 것인가? 또, 심정교류의 터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총각 처녀들을 국제결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테두리 내에서 꼬부리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념권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공산주의의 여자들은 노동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통일교회 아가씨들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7-43, 1966.11.6) p.1485

이제 앞으로는 자기 가정이 이국 민족과 하나될 수 있는 혈통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영계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결혼할 때는 국제결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 처녀 총각들은 전부 다 국제결혼을 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태어났으면 한 번 해볼 만한 것입니다. (34-73, 1970.8.29) p.1486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물질문명을 꽃피운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기준으로부터 내적인 기준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존중합니다. 서양은 외적으로는 축복받았으나 내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반면에 동양은 내적으로는 축복을 받았으나 외적 기준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380, 1975. 7. 13) p.1486

종교를 중심으로 정신면을 중요시하면 물질적인 조건을 박차 버립니다. 동양은 정신문화를 중요시해 모두가 외적기준을 박차 버렸습니다.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주워 모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외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은 동양의 물질적 조건을 모두 원조받아 서양문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정신문명도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양은 점점 서양문명, 물질문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은 또한 동양문명, 정신문명을 요구하게 되어 이것들이 서로 교체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수수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381, 1975. 7. 13) p.1486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길이 무슨 길이냐?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서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길이 어떠한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 제일 어렵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갔어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대합실에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이래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살고 그 아들이 못 사는데 누가 천국 가서 사느냐 이겁니다. 천국 가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길입니다. (72-253, 1974.6.30) p.1486

Top

② 공생-공영-공의의 사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돈이나 권력, 지식 등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을 설계하여 짓기 위해서는 벽돌도 필요하고 문짝도 필요하고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완성시키는 종합적인 완성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은 돈 많은 것, 학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54-41, 1972.3.10) p.148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고린도전서 13 장 사랑장에도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으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굴 그렇게 완전히 사랑해 봤습니까? 아내된 자 남편을 완전히 사랑해 보고, 제자된 자 스승을 완전히 사랑해 보고, 백성된 자 나라를 완전히 사랑해 봤느냐는 겁니다. 누구도 완전히 사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금형을 만들어 물건을 대량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형과 같은 참된 인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델을 본받아 참된 인간들이 세계로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54-41, 축복과 이상가정-822) p.1487

때가 되면 혼자 주장하는 시대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제일이다라고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부터는 공동세계입니다. 즉 공생?공영?공의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공생(共生)이다, 공영(共榮)이다, 공의(共義)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24-298, 1969.8.31) p.1487

공생 · 공영 · 공의주의 세계는 인류가 바라왔던 이상천국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절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는 혼자만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나 하면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활무대에 있어서 실제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입니다. (24-300, 1969.8.31) p.1487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 것이냐?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좋아하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해서 잘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전체를 대신해서 좋아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이 좋아하면 전체가 좋아하는 것이요, 한사람이 기뻐하면 전체가 따라 기뻐하는 곳이 그 세계인 것입니다. (18-102, 1967.5.28) p.1487

여러분, 왼눈과 오른눈이 보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은 공영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콧구멍도 둘이지만 한 콧구멍이 막히면 좋아요, 나빠요? 마찬가지로 귀도 하나가 막히면 좋아요, 나빠요? 병신이 좋아요, 나빠요? 다리를 잘라 버리든지 팔을 잘라 보세요.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관계를 갖춘 모든 존재물은 스스로 천지(天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인심(人心)이 천심(天心)이라는 말도 여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24-300, 1969.8.31) p.1487

Top

③ 언어도 하나

미국 돼지나 한국 돼지나 다 같이 꿀꿀하고, 참새도 똑같이 짹짹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돼지새끼 말도 아니고 소새끼 말도 아니고, 수십개국을 돌아다녀 보아도 가는 곳곳마다 말이 다릅니다. 밥을 좀 얻어먹는 데도 정말 힘이 들어요! 벙어리가 되어도 상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한 종류의 말도 쓰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만물의 영장입니까?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20-124, 1968.5.1) p.1488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남녀가 합해서 절대적인 문화를 창건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문화 창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된 하나의 언어와 글자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말과 글을 배워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문화 창조와 발전은 말과 글에 의하여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135-166, 1985. 11. 12) p.1488

앞으로는 말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통역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하는 한국말을 배우면, 선생님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건 그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74-33, 1974.11.10) p.1488

참부모의 아들딸은 그 부모가 쓰는 말을 하지 못하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세계는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서구 사회에 레버런 문이 와 가지고 이제 상당히 파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근세에 없는 새로운 종교계의 위협이요, 새로운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원어(原語) 공부에는 한국말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로 된 것을 읽으면서, 이랬다 하더라도, 한국말 원본이 이러했다 하면 몇 번이고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원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74-33, 1974.11.10) p.1488

한국의 말과 글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부모라는 말도 한국말로 처음 이름지어진 것입니다.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참부모의 사랑과 역사 이래 최초로 접붙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심삼고 말을 시작한 첫 출발이, 참부모를 중심한 사랑의 기반 위에서 한국말로 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부모란 말의 기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은 한국말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이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첫번째 장소가 한국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135-166, 1985. 11. 12) p.1489

선생님이 참부모란 말을 한국말로 처음 시작했으니 참부모란 말의 기원은 한국어가 됩니다. 참부모란 말은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한국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통일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조국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 사랑의 조국이기 때문에 사랑의 조국을 찾아가야 할 우리들은 한국말과 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인 남자와 여자들과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첫사랑의 말을 하였던 말의 기원이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 본향에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135-166, 1985. 11. 12) p.1489

한국어에는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천지 이치와 조화를 갖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법에 있어서 미국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73-75, 1988. 1. 3) p.1489

한국어는 지극히 고차원적인 종교 언어입니다. 표현이 깊고 섬세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확하고 분석적인 언어를 통해서 전부 다 캐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머리 구조가 상당히 차원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사람이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언제나 일등하지 않아요? 아마 7년 간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73-75, 1988. 1. 3) p.1489

통일세계를 향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일어로 선생님 설교집 낭독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원어로 읽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원어입니다. 오리지날 언어,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일생 동안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가서 문답하게 될 때 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소 그러겠어요? 영어로 아예 번역을 안 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한자를 집어넣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거 안 읽고 가면 큰일납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안 읽으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후대에 각자의 집에 선생님이 들어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겠어요? 생각해 봐요 어떤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73-76, 1988. 1. 3) p.1489

Top

3) 인류의 중심사상은 참사랑주의

① 아담주의는 부모주의

본래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동시에 가장도 되고, 족장도 되고, 민족장도 되고, 그 나라의 왕도 된다 이겁니다. 이 세계는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무슨 주의 세계예요? 아담주의 세계입니다. 그 주의는 뭐냐? 하나님주의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갈래갈래 찢겨졌다 이겁니다. 이래서 아담이 파괴시켜 놓은 것을, 구멍이 뻥뻥 뚫어졌으니 그걸 고쳐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구멍이 뻥 뚫어졌다는 것입니다. (155-304, 1965.11.1) p.1490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무얼 해주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결혼식을 해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들딸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편성하여, 이것을 번식시켜 종족과 민족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넓혀지면 그 세계는 하나님주의 세계인 동시에 아담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이념이 있다면 이는 아담주의 이념이요, 거기에 우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우주관이요, 천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천주관이요, 생활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생활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색인종이 알록달록하고 그런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니 수많은 민족 피부 색깔이 다른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수많은 민족의 언어가 달라졌던고? 인류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분립시켰다는 것입니다. (156-202, 1966.5.25, 한국 전주교회) p.1490

주의도 아담주의, 언어도 아담언어, 문화도 아담문화, 전통도 아담전통, 생활방식도 아담 생활방식, 제도도 아담제도, 모든 것이 아담국가의 이념제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가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하니 하나님주의라는 것입니다. (20-122, 1968.5.1) p.1490

주권보다 인권의 평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주의는 천주주의(天宙主義)요, 하나님주의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합한 주의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떼어버린 주의이며, 공산주의는 물질과 인간만을 위주한 주의입니다. 그러나 천주주의는 인간과 하나님을 합한 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을 위주한 주권의 세계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13-72, 1963.10.18) p.1490

우리는 마음의 복지를 이룰 수 있는 한 중심을 세우고, 심정의 복지를 이룰 수 있는 한 중심을 세워서 심정과 마음과 몸이 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된 후에는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세계주의보다 더 큰 천주주의 이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주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그 하나님주의를 중심삼고 몸과 마음이 하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8-30, 1959.10.25) p.1490

인간은 타락함으로 그 마음과 몸이 사탄의 거짓 사랑을 받아 자기 제일주의로 인한 불협화를 이룬 개인이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사회, 국가, 세계는 입체적으로 증폭된 갈등과 분쟁을 자체 모순으로 지니고 상호 불신과 분열, 투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소원인 자기중심주의로 인하여 민주세계는 개인 제일주의화 되어 사탄과 인류는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신의 참사랑을 중심한 통일사상과 하나님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209-109, 1991.8.27) p.149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주의는 자기를 위하라는 주의가 아닙니다. 위하려고 하는 투입주의입니다. 위하려는 주의입니다. 악마는 위하라고 하는 주의지만, 하나님은 위하려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하고 투입하고 투입할수록 저 영원한 세계의 소유권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공산세계에는 투입할수록 손해나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락을 위해 밤잠을 안 자고 피땀을 흘립니다. 하나님같이 투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9-292, 1990.11.30) p.1491

하나님주의는 무슨 주의냐? 참사랑주의입니다. 참사랑주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201-54, 1990.2.28) p.1491

부모주의는 뭐냐? 지상에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한 참부모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주의는 뭐냐? 참부모가 횡적인 부모이니 종적인 부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부모주의가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두익사상이라고 하는 말은 참부모주의요, 가디즘(godism:하나님주의)이란 종적인 하나님주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횡적 참부모주의와 종적 하나님주의, 종횡이 하나되어 가지고 하늘 생명 땅 생명, 하늘 사랑 땅 사랑, 하늘 혈통 땅 혈통이 연결되어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이중 존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 사람과 외적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내적 사람은 종적인 나요, 몸적 사람은 횡적인 나다 이겁니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224-277, 1991.12.15) p.1491

Top

② 부모주의는 참사랑주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돈이나 권력, 지식 등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을 설계하여 짓기 위해서는 벽돌도 필요하고 문짝도 필요하고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완성시키는 종합적인 완성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은 돈 많은 것, 학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54-41, 1972.3.10) p.1491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진정 가고 싶은 길이요, 우리들이 찾아 이루어야 할 나라는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재물은 천주의 것인 동시에 내 것이요, 이 시대의 것인 동시에 과거의 것이며, 동시에 미래의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울 때에 천지가 같이 울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 천지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권위와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이 현세에서 찾아야 할 최고의 욕망이요, 소망입니다. (13-31, 1963.10.16) p.1492

하나님의 이상국가의 실현, 즉 조국광복은 어디서부터 실현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상을 가진 개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사랑으로 국경을 허물고 모든 환경과 문화적인 담을 넘어 원수까지도 품자는 운동을 제시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빨간 꽃씨에서는 빨간 꽃이 핍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갚는 사탄이 악마의 씨를 뿌리면 원수를 갚는 악의 나무가 자라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선의 씨를 뿌리면 원수를 사랑하는 선의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107-18, 1980.2.21) p.1492

그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계의 자녀들이 천명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을 가지고 그 왕권을 치리하는 그런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한 번 형성 되면 영원한 국가체제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 자신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못 됐다는 사실이 원통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나라를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불변의 주권을 갖지기 못한 것을 우리는 탄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72-292, 1974.9.1) p.1492

레버런 문을 중심삼고 통일사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주의가 무슨 주의라구요? 힘내기 하는 주의예요? 참사랑주의입니다. 그 참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181-227, 1988.10.3) p.1492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예요? 정당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주의가 돼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하는 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계는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주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백년 내에 다 꺼져 버립니다. 하나님주의라야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참사랑이라는 논리 위에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도 참사랑이 필요하고, 남자 여자도 필요하고, 부부도 필요하고, 아들딸도 필요하고, 종족도 필요하고, 민족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하고, 세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177-70, 1988.5.15) p.1493

하나님주의가 도대체 어떤 주의냐? 사랑주의입니다. 사랑주의인데, 사랑주의가 도대체 어떤 주의냐? 위하라는 주의가 아니고 위하려는 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169-281, 1987.11.1) p.1493

하나님주의는 뭐냐? 개인주의도 아니요, 가정주의도 아니요, 종족주의도 아니요, 민족주의도 아니요, 국가주의도 아닙니다. 천주주의입니다. 천주주의 기반을 가진 그러한 영계를 개인주의의 울타리에 들어간 사람이 가려고 해봐야 갈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위주하고 아이쿠, 세상이야 어떻든 우리 아들딸, 그저 우리 새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밖에 없지 하는 그런 패권 내로 들어간다면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담을 누가 헐어야 되느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기 주장 세우고, 가정을 중심삼고 서로 싸움하는 것입니다. (112-211, 1981.4.12) p.1493

건강한 사람은 보통사람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소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 정신이 건강하다 할 때 무엇이든 소화해 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소화하고, 공산주의도 소화하고, 무엇이든 다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교회는 무슨 주의예요? 유니피케이셔니즘(Unificationism: 통일주의)입니다. 유니피케이셔니즘이 쉬운 거예요? 우리 사지백체를 보아도 이 몸뚱이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발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하나되어 가지고 이러기 위해서는 아! 난 눈이 싫다. 어디가 싫다 그러면 되겠어요? 다 좋다, 다 좋다 해야 됩니다. 다 소화해야 됩니다. (111-96, 1981.2.1) p.1493

하나님을 숭상하는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에서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을 쓰고 인류를 위해 아벨의 입장에서 희생 봉사하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주의입니다. (38-328, 1971.1.8) p.1493

공적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개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국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나아가서 세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러한 공적인 관리법을 중심삼고 새로운 사랑, 새로운 세계주의를 정립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주의는 인간주의가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주의도 아닙니다. 그런 주의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와 일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사를 결정짓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31-255, 1970.6.4) p.1494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민족, 혹은 오색인종이 만든 문화권이 세계를 전부 타파해 버리고 한의 문화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주의적인 가정제도, 하나님주의적인 사회제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주의적인 국가제도, 하나님주의적인 내용을 갖춘 이상세계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주의가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주의입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아담주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주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의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찾아나가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주의 자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주의라는 것은 변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서 선진국가라지만 앞으로 돈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어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런 실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선 돈 때문에 별의별 모략 중상이 벌어지고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은 특권주의적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21-156, 1968.11.17) p.1494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위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중심존재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보호하는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투입하여 잃어버리면서도 기뻐하는 참사랑만이 남자와 여자를, 부모와 자녀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므로 그 가정은 영원무궁한 영생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생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222-138, 1991.10.28) p.1494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새 세계주의가 나와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이타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이상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이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주의의 본질은 사랑이요, 그 사상은 사람의 사지백체를 움직이는 머리와도 같은 중심사상이요, 그래서 두익사상인 것입니다. (164-194, 1987.5.15) p.1494

필승목표, 필승을 하는 데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이기는 데는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건 순전히 레버런 문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좌우를 해결하기 위한 두익사상,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하고 싸움을 했던 것이 세계적으로 열매 맺히는 시대에 하나님과 부모가 나와 가지고 부모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을 중심삼고 이 두 손발이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갖고 합하느냐? 지식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합해야 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명령해야 이게 다 기뻐 움직이는 것입니다. (169-210, 1987.10.31) p.1494

오로지 남을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상을 가진, 만국 형제의 심정권을 갖춘 하나님주의입니다. 이것만이 이 세계를 통치할지어다! 아멘. (137-196, 1986.1.1) p.1495

Top

4)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미래

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하나로

하나님주의가 뭐예요? 조상주의입니다, 제일조상주의입니다. 그 다음엔 두익사상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움하는 것을 말리는 부모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주의입니다. 두익사상이 뭐냐 하면 그것은 참부모주의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부모를 알게 될 때는 이 손도 싸우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갖추어 가지고 누구의 지도 없이 천리의 대도를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고 나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사람입니다. (191-200, 1989.6.24) p.1495

원리가 없었으면 공산주의의 극복은 물론이요, 대안 제시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무엇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주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가 뭐냐? 참사랑주의입니다. 생명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투입하고도 또 투입하겠다고 하고, 자꾸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포괄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찬 우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213-89, 1991.1.14) p.1495

이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 동서문화의 분립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좌익과 우익이 하나되는데 있어서는 좌익으로도 안 되고, 우익으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두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익사상의 현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잘났다는 저 인본주의 사상, 유물주의 사상 가지고 안 됩니다. 물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의에 의한 본연의 심정을 중심삼은 신본주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동서로 분립된 이 모든 문화배경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국민이 나를 반대했지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68-112, 1987.9.13) p.1495

인류의 참평화는 우익으로도 안 되며 좌익으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익도 좌익도 그 근본적 동기가 이기주의를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할 때, 거기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해의 상충이 있고,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평화도 없습니다. (164-194, 1987.5.15) p.1496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는 좌우사상입니다. 좌우사상이 뭐냐 하면 가인 아벨의 형제 사상인데, 동양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은 부모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아시아를 중심삼고 좌우가 통일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두익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에게 '이거 잘못 됐소!' 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내 말 들어!' 하면 '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주장하는 것이 더 좋으니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 예스한다는 것입니다. (168-51, 남북통일-519) p.1496

우리가 공산주의의 본질이 무신론에 있음을 간파할 때 이를 극복하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이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주의 또는 두익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야말로 공산주의로부터 인간을 해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하는 참진리만이 하나님이 없다하는 거짓을 일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8-237, 1987.9.21) p.1496

복귀의 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좌우의 종말시대입니다. 좌우를 놓고 죽어가던 예수는 부모의 한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사상을 가지고 두익사상과 하나님을 중심삼고 좌익의 참소권을 벗어난 자리에서 통일권을 논의하여 반대로, 뒤로 돌아 가지고 무한히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천국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을 들고 나와 형제주의를 무마시키는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169-212, 1987.10.31) p.1496

오늘날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두익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주의는 나중입니다. 두익사상이 뭐냐? 좌익 우익이 싸우는데, 머리가 없으니 싸우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두익사상, 좌익사상, 우익사상, 세 사상이 합해 가지고 연합사상이 나올 게 아니예요? 그 연합사상의 주체가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머리 꼭대기가 모든 신경계통의, 중추신경의 뿌리니까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 중의 뿌리는 무엇이냐?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뿌리 중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두익사상입니다. (172-31, 1988.1.3) p.1496

좌익 우익이 늘 쌍둥이와 같이 한 품에 안겨 발길로 서로 차지 않고 젖을 나누어 먹으면서 바꿔쳐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쌍둥이가 돼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천국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서 원수들을 합하고 원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전통기반을 세워 가지고 천국 출범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원수는 개인이 아닙니다. 나라입니다. (176-71, 남북통일-522,한국 한남동 공관) p.149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참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탄세계에 전통적 기원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 아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못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김일성이도 멀지 않고, 소련도 멀지 않고, 미국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문총재의 사상만이 세계에 두익사상(頭翼思想)으로 남는 것입니다. 두익입니다. 오른편 우익을 중심삼고, 왼편 좌익을 중심삼아 가지고 머리가 처리할 수 있는 수평선상에 놔 놓고 한바퀴만 돌면 되는 것입니다. 왼쪽이 바른쪽이 되고, 바른쪽이 왼쪽이 되는 날에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176-277, 1988.5.11) p.1497

한국은 물론 전세계는 지금 가치관의 몰락으로 인해 대혼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세계를 향해 지금까지 세계적인 석학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중심한 절대가치를 주장하고 두익사상을 선포하여 좌우익의 그릇됨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계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 한국 땅에서부터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통일의 세계, 평화의 세계인 지상낙원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물론 동서의 문화적 차이와 남북의 빈부격차를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으로 해소하며, 사랑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 사회인 평화의 세계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5-52, 1989.11.3) p.1497

남북이 갈라지고 남북의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 걸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서의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종차별, 문화의 차별을 없애고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되겠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서 우주 판도 위에 딱 해 놓으면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함성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계는 이 사랑 보따리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로 싸여질 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도 이 보따리에 싸여지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익사상을 중심삼은 천주통일이라는 말이 가당한 말이니라! 아멘! (195-122, 1989.11.5) p.1497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적인 하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삼은 소유권 복귀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사탄은 먼저 알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소유권을 없애 버리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하나님 편으로 전부 다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전부 다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문선생 앞에, 하나님 앞에는 반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29-156, 1992.4.11) p.1497

지금도 소유권이 문제가 되어 있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국가가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이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여 누구의 소유이냐? 전세계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며, 전세계는 그 자녀들의 것이며, 그 자녀는 가정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데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주인은 단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는 주인이 되어 참부모에게 전수되고 참부모에 의해 자녀에게 전수돼야만이 그 소유 결정권은 하나님세계의 것이 됩니다. (183-82, 1988.10.29) p.1498

자기의 물건, 자기의 아들, 자기 부부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천사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 부정의 자리, 소유권을 부정하는 시대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니 하는 것은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국가 소유 사회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들어가지요? 돈을 벌었더라도 전부 빼앗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303, 1990.2.26) p.1498

Top

② 종교와 철학을 수습할 두익사상

철학에 있어서 관이 서로 달라, 물질이 먼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생겨났고,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관에서 민주세계가 생겨났습니다. 유심사관과 유물사관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졌는데,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전부 깨져야 됩니다. 마음과 몸이라는 것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총재가 주장하는 하나님주의니 두익사상이니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 자체가 생겨나게 될 때 주체 자체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17, 1990.2.28) p.1498

두익사상이 뭐냐 하면 완성한 아담주의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완성한 아담이 못 되었기 때문에 아담을 키워 내기 위해 사탄편 아들 하늘편 아들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서로 주인 되겠다고 싸운 것입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두익사상은 무엇을 중심한 사상이냐? 원리로 보면 간접주관권 직접주관권이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책임분담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주관권 직접주관권이 하나되는 사상입니다. 어디서 하나되느냐? 10 단계를 넘어서면서입니다. (202-270, 1990.5.25) p.1498

통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때려 가지고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때려 가지고는 한 사람도 통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위하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사랑과 생명과 피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패가 통일교회입니다. 통일교회가 뭐예요? 어떻게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주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주의이고 참부모주의입니다. 참부모주의가 뭐냐 하면 두익사상입니다. (202-334, 1990.5.27) p.1498

지금까지의 수많은 주의들이 불변의 방향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만을 중심삼고, 소련은 소련만을 중심삼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만을 중심삼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만을 중심삼고 나왔던 것입니다.

종교도 그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어느 한 때도 같은 방향을 취하지 못하고 모두 동서남북으로 제각각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조직, 어떤 책임자, 어떤 국가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개인, 가정?사회, 국가, 세계?우주, 천주 등 모든 것은 영원불변의 방향성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표한 것이 두익사상, 하나님주의라는 것입니다. (203-27, 1990.6.14) p.1499

지금 동서문제를 중심삼고 볼 때,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형태의 한 해설방법입니다. 사상적 기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상의 공백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상을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들고 나와서 제도화하고 끌고 나갈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교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3-117, 1990.6.23) p.1499

여기에 온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세계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계를 위해서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원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전, 발전,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익사상(頭翼思想)을 중심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익(右翼)과 좌익(左翼) 모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주의를 중심삼고 영계까지도 수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와 지계(地界)를 수습해서 참사랑을 위한 세계를 출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며, 원리에 합당한 것입니다. (205-95, 1990.7.7) p.1499

민주세계는 우익을 대표하고, 공산세계는 좌익을 대표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세계에 모두 센터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라고 레버런 문이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휴머니즘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주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센터입니다. 두익사상만이 전 인류의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계와 육계의 센터가 되는 것은 참부모주의입니다. (205-261, 1990.9.9) p.1499

성경에도 끝날에는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끝날에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 논리가 왜 설정됐느냐? 이것이 한 번 거꾸로 가야 됩니다. 좌우가 180 도 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큰일나거든요. 방향이 바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체사상, 두익사상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익사상은 뭐냐? 하나님주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를 찾아서는 뭘 할 것이냐? 평화주의로 재차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하나님과 만나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평화주의로 재차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서 본연적 지상천국의 출발기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생 동안 산 사람은 틀림없이 영원한 세계에 그냥 들어갑니다. 수속도 밟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206-131, 1990.10.3) p.1500

성인들도 길가에 서 가지고 머물러 있습니다. 근본을 모르니까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일교회 문총재는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어전에 직행해 가지고 직전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참부모가 제시한 기준임을 알고, 두익사상, 하나님주의 사상을 따라서 꽃 피워라 이겁니다. 이것이 심신일체 이상이었느니라! 아멘. (206-224, 1990.10.7) p.1500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좌익과 우익이 생겨났고, 바라바권이 생겼습니다. 원치 않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통일할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개인, 가정, 종족, 이스라엘이 싸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익사상을 중심삼고, 하나님주의를 중심삼고 완전히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권 앞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나라 앞에 원수인 회회교권(이슬람교권)이 생겨난 것입니다. (238-201, 1992.11.22) p.1500

Top

5) 하나님 중심한 주권이 복귀되면

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화, 그 무엇 가지고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세계나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바랄 수 없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계문화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심문제가 무엇이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온 인류가 아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곳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 지향하는 뜻을 알게 될 때는 그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요, 이상의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56-131, 1972.5.14) p.1500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바꿔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계로 가기 위한 정당한 길입니다. 인간은 보다 큰 것을 동경하는 것이지 작은 것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보다 큰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작은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35-278, 1970.10.25) p.1500

우리 통일교회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종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라도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또, 하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계까지 버리자 이겁니다. 더 멀고 큰 것을 위해 나의 가깝고 작은 것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 통일교회의 주류사상입니다. (100-79, 1978.10.8) p.1501

오늘날 민주세계가 제 3 해방을 요구한다면 공산세계에서는 제 2 해방을 요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제 2 해방, 제 3 해방의 기수가 되고, 그 원천을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주의와 사상은 어디서부터 올 것이냐? 그것은 인간세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해방을 맞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노력해 봤지만 그러한 환경도, 내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을 중심삼고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13-225, 1964.3.22) p.150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민족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세계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종교는 세계주의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좋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는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까지 좋게 하자는 주의하고,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하고 어느 주의가 더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인간도 좋아하는 주의가 좋아요, 주인을 빼 버리고 종들끼리만 좋아하는 주의가 좋아요? 종교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41-44, 1971.2.12) p.1501

최후에 남아질 사상이 무엇이냐? 세계를 위해서는 자기 나라나 백성보다도 세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운동,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운동만이 최후에 남을 수 있는 주의가 될 것이고, 사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초민족적인 운동을 세계적으로 제시하고, 초민족적으로 하늘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혹은 세계인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어떻게 모색하느냐 하는 주의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53-24, 1972.2.4) p.1501

앞으로 이 세계를 이어받을 주의 사상은 자기 국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를 구하겠다고 하는 주의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나라, 그런 새로운 운동을 중심삼은 국가와 국민이 등장하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현현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통일의 세계, 이상세계는 현현될 것입니다. 나라를 넘어서지 못한 국가관, 역사관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인계받을 수 없습니다. (51-44, 1971.11.4) p.1501

하나의 목적으로 귀일시킬 수 있는 사상은 자기를 위주로 한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 사상은 세계를 위주로 하는 세계관이요, 만국을 위주로 하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세계와 분리된 입장에서 자기의 종족을 자랑하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위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한 사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6-175, 1970.11.29) p.1502

황인종은 맏아들이요, 흑인종은 둘째 아들이요, 백인종이 셋째 아들인데 이들이 싸우는 것을 한국이 통일사상을 통해 통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주로 한 이상적 조국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평화의 세계, 하나의 세계, 통일의 세계, 승리의 세계로 세계는 수습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상에 천국을 형성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천상천국의 주체되시는 하나님을 지상에 모셔 가지고 통일된 하나의 천국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신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반 밑에서 비로소 부모와 하나됨으로써 평화의 천국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79-83, 1975.6.1) p.1502

통일교회는 도대체 뭐냐? 우익을 안고 좌익을 안고 이것을 서로 붙들고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몰려서 싸우는 투쟁의 세계를 넘어서 하늘이 인도하는 행복의 세계로, 유토피아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아서 평면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통일교회가 사상적으로 체제에 의해서 몰락하고 실패했던 것을 전부 다 수습할 수 있는 논리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이를 품어서 횡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종교를 중심삼고 종적인 기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체험의 기반을 중심삼은 초월적 실체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인간적인 면에서의 인본주의나 물본주의,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신본주의도 체계적으로 이론화시켜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짐과 동시에 종적인 면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초자연적 체험의 종교사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62-102, 1987.3.30) p.1502

모든 물질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통일교회 교인인 저 사람은 우리 공산당보다도 철저하고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안팎의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다. 공산당 자체가 저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할 수 있고, 또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볼 때에도 아, 우리 세계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기성종단들이 볼 때에도 아이고! 통일교회 교인은 우리 종단을 넘어 훌륭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우리 종단의 사람이면 좋겠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게 되면 아이고! 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은 내가 절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이 4 대 면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162-102, 1987.3.30) p.1502

Top

② 그 나라를 찾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나라는 어차피 작별을 고해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나라와 인연이 있다면 죄악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결부될 수 있는 선의 인연을 본래부터 맺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8-218, 1971.1.3) p.1503

나라가 없으면 국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편성을 해서 새로운 입적을 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하늘나라를 편성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애국애족하는 참되고 선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승리적 아들딸로서 자기의 족속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다 가야 천상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58-145, 1972.5.22) p.1503

나라가 있어야 비로소 천추만대의 우리 후손 앞에 고이 남겨 줄 수 있는 전통도 남는 것이요, 우리의 피땀 흘린 모든 노력도 남는 것이요, 하늘의 수고를 축하할 수 있는 기념탑이 이 땅 위에 생기는 것이요, 모든 영광의 흔적이 이 땅 위에 남을 수 있는 것이지, 나라가 없게 될 때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남겨진 십자가라든지 모든 문물도 하늘이 찾고자 하는 나라가 없게 될 때는 전부 다 강에 띄워야 되고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농락에 쓰러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55-339, 1972.5.9) p.1503

참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 없이는 못 받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탄세계의 사탄나라보다 나은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대신 받지, 직접 받는 자리가 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남아 있고 사탄나라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길을 여러분이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90-116, 1976.10.21) p.1503

선생님은 복귀섭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풀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 학자들 중에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레버런 문의 말씀 선집을 원어로 읽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건 통역, 벌써 번역하면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원어로 된 선생님 말씀집을 한번 읽어 봐야 할 게 아니겠어요? (161-289, 1987.2.26) p.1503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상적인 주체성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사상은 절대적인 창조주의 사상과 일치되는 사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자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고 그 나라 국민이 일치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성을 갖추고 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49-93, 1971.10.9) p.1504

본연의 땅은 어떤 곳이냐? 악이 깃드는 곳이 아니요. 악과 절연하고 넘쳐흐르는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영원한 통일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생활한 사람이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추구했지만 그러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계는 이 땅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라고 말을 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몸소 실천해서 그런 세계를 이룬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18-102, 1967.5.28) p.1504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대신한 것이 부모이며, 백성을 대신한 것이 아들딸이고, 국토를 대신한 것이 나라인 것입니다. 이 중의 어느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35-279, 1970.10.25) p.1504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무엇이냐? 근원적인 하나님과 인연 맺는 것입니다. 나라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깊이 잠든 다음에 하나님과 인연 맺어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권자는 백성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백성과 하나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번영하는 것입니다. (30-88, 1970.3.17) p.1504

한 나라를 보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에 천국을 실현한다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만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어디냐? 지구성입니다. (96-15, 1978.1.1) p.1504

아무리 큰 사회, 아무리 큰 국가라 하더라도 사람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국가는 사람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천지인(天地人)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27-185, 1969.12.14) p.1505

내가 가고 오는 것도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조국광복을 위한 건국의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혹은 하늘의 밀사로서 지령을 받아 오늘날 악한 세상에 와서 이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50-255, 1971.11.7) p.1505

6천 년 동안 하나님을 녹여 먹던 사탄이 그냥 순순히 아이고 나는 하강이요 하며 눈 내리깔고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걸레 자투리도 버리려면 아까와하지요? 걸레 자투리도 뒤집어 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버릴 것입니다. 사탄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맞추어야 됩니다. 통일교회 문선생도 중심에서 어긋나게 될 때에는 꺾여 나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발전 안 한다는 것입니다. (57-276, 1972.6.4) p.1505

통일교인들은 맨발로 나서서 조국을 창건해야 합니다.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는가? 언제 먹고, 입고, 타고 다니는 데에 정신을 쓸 수 있겠는가? 맨발로 맨손으로 개척해 나가자,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통일교회입니다. (14-201, 1964.10.7) p.1505

Top

제 4 장
성약인의 길

1) 참부모님의 승리권 확정

① 8정식(八定式)-장자권, 부모권, 왕권복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989 년 8 월 31 일(음 8 월 1 일) 알래스카 코디악>

종적인 탕감, 횡적인 탕감, 8 단계의 탕감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1989 년 8 월 31 일을 중심삼고 팔정식이라는 것을 서구사회 제일 높은 알래스카에 가서 했습니다.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9 월 초하루에 천부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천부주의입니다. 애원주의인 동시에 부모주의입니다. 부모주의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 사탄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 가는 길 앞에 사탄이 반대 안 하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것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199-157, 1990. 2. 16 중앙수련원) p.1506

개인 탕감, 가정 탕감, 종족 탕감, 민족 탕감, 국가 탕감, 세계 탕감, 천주 탕감 · 하나님의 심정적 탕감까지 8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복귀, 가정 복귀, 종족 복귀, 민족 복귀, 국가 복귀, 세계 복귀, 천주 복귀?하나님까지 8 단계입니다. 이것은 종적인 탕감노정, 횡적인 탕감노정으로 사랑을 중심삼고 상하로 전부 무사통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을 이루게 되면 이 구(球) 자체는 사랑권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성에는 사탄의 소유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자동 추방되는 것입니다. 끝장입니다. (199-188, 1990. 2. 16. 중앙수련원) p.1506

1989 년은 새로운 시대의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말입니다. 8 월말이지요? 8 개월 동안에 세계적인 탕감노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결혼식, 교체결혼식, 세계통일국개천일 선포 등 여러가지를 했지요? 총합 탕감조건을 수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8 월에 끝냈습니다. 해상, 수상까지 연결해서 말입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쭉 해나왔습니다. (193-100, 1989.8.31) p.1506

팔정식은 종적인 탕감 역사적 노정, 횡적인 개인, 가정, 민족, 국가, 세계 탕감노정, 8 단계 종횡의 노정을 거쳐 정착함으로 장자권 복귀가 벌어지고, 이 땅 세계 인간 앞에는 탕감의 노정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팔정식을 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장자권이 복귀되어 부모님이 품어 줌으로 부모의 사랑권 내에서 장자권 복귀를 위한 역사시대의 전쟁사, 투쟁사가 없어지고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는 탕감이 필요 없는 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팔정식을 해야 합니다. 팔정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딸을, 장자와 차자를 앞에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자식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모 용서권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193-173, 1989.10.3) p.1507

지금의 민주주의시대는 형제주의입니다. 원리로 말하면 가인 아벨을 중심삼은 것과 같습니다. 원리가 딱 들어맞습니다. 가인은 나중에 하나님에게 다 빼앗깁니다. 이미 머리도 빼앗기고 몸뚱이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갈 길이 없으니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삼고 민주세계를 침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열매가 맺혀도 그대로 썩습니다. 내려가니까 없어집니다. 형제권 복귀입니다. 이 형제주의는 참된 아담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205-178, 1990.9.1) p.1507

전쟁사로 꾸며 온 이 민주주의의 말로는 어떻게 해야 끝내느냐? 부모가 와야 됩니다. 부모주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수많은 종교가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섭리시대는 지나가고 애원섭리(愛援攝理)시대로 넘어가는 걸 선포한 겁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이 애원섭리시대가 뭐고 천부주의시대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팔정식이 뭔지도 모릅니다. (194-325, 1989.10.30) p.1507

천부주의를 중심삼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소화함으로 왕권수립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193-212, 1989.10.4) p.1507

Top

② 천부주의로 부모권, 왕권으로 넘어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부주의를 이루는 데는 무얼 갖고 이루느냐 할 때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룰 때를 중심삼아 가지고 사탄세계나 민주세계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 파탄입니다. 공산세계는 가정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가정은 착취기반의 터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습니다. 민주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 형성의 모든 것이 기울어졌습니다. 사회 기반이요, 국가 기반이요, 세계의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흐트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기반을 중심삼으면 우익세계와 좌익세계는 자연히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194-113, 1989. 10. 17 한남동 공관) p.1507

이제 가정절대주의시대입니다. 가정을 빼면 천부주의라는 말은 성립 안 됩니다. 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적인 것입니다. 다리를 건너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국이라는 것은 가정을 중심삼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절대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절대적인 하나님같이 부모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하나님의 이성성상, 성상과 형상이 절대적으로 분립될 수 없도록 영원히 같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4-122, 1989. 10. 17 한남동 공관) p.1508

천부주의는 가정을 중심삼은 왕권을 회복시켜 연결시킴으로 왕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천주적 왕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심입니다. 통일적 가정기반을 통해서 아담적 통일가정, 종족적 아담의 통일가정, 그겁니다. 아담의 종족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민족적 아담의 가정을 중심삼고 통일하여 이것이 쭉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일적 가정기반을 통해서 왕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194-115, 1989. 10. 17 한남동 공관) p.1508

천부주의를 선포함으로 앞으로 통일왕권주의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주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던 통일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지옥을 철폐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사랑만능권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통을 따라서 수직적 사랑이 무엇이고, 종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어떻게 연합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생활무대에 적용함으로 만국 만상세계 천상세계 어디든지 이것이 거부당할 수 있는 권을 넘어섬으로 자연히 해방의 시대가 오는 것이요, 통일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193-309, 1989.10.8) p.1508

본래 아담이 완성하면 천국의 아버지가 완성되고, 해와가 완성하면 천국의 어머니가 완성되고,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면 가정적 천국의 왕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개인적 왕이고, 가정적 왕이고, 종족적 왕이고, 민족적 왕이고, 국가적 왕이고, 세계적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때에 왔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왕권을 다 밟고 하늘세계의 왕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1990 년 3 월 27 일이다 이겁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이제 레버런 문이 바람을 일으키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130, 1990. 3. 27. 벨베디아 수련소) p.1508

아버지, 1980 년대를 중심삼아 가지고 구원섭리의 노정을 애원섭리의 노정으로 전환시키고, 형제권 원한의 탕감노정을 세워서 형제해원시대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 위에 부모해원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역사적 기원을 마련했습니다. 팔정식을 중심삼은 천부시대를 발표하고, 이상적 섭리시대를 넘어서서 하늘과 땅을 중심삼은 모든 복귀섭리의 한의 고개를 청산하고, 이제 1990 년대에는 통일가를 중심삼고 모든 것이, 아버지, 섭리권 내의 통일세계로 접어들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인 엄숙한 과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흥진군이 천상세계에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되고, 기독교의 모든 성현 현철들을 이제부터 규합하고, 이제 남북통일을 중심삼은 이런 한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때에 왔습니다. 천부주의 시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애원섭리시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망세계의 고개를 넘는 분수령을 지났으므로 하늘권에 접할 수 있는 이 시대를 기해서 통일가의 모든 씨족들이 연결되는 그 기반을 통해서 영계가 평면도상에서 교류할 수 있고, 교체할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는 섭리사를 가지게 될 때 전권적으로 영계를 중심삼은 신시대가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흥진군은 더더욱 이 시대에 있어서 하늘의 법도를 세우고 지상의 법도를 세우는 데, 선군선녀들과 120 개 국가의 왕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군왕과 충신들을 몰아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짐할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196-257, 1990.1.2) p.1509

Top

2) 섭리적 총결산과 참부모님의 대선포

① 참부모(메시아) 선포

〈1990 년 4 월 30 일 (음 4 월 6 일) 한국〉

참부모를 왜 선포할 수 있느냐?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는 가인 아벨 형제입니다.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두 아들과 마찬가지인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 아들이 싸우던 것을 화해시켜서 환영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비로소 부모의 특권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와 가지고 참부모 선포를 거국적으로 한 것입니다. (204-187, 1990.7.8) p.1509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고,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고,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하나의 희망이 싹텄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 땅에 선포한 것입니다.

1990 년 4 월 9 일 세계언론인 대회를 모스크바에서 가짐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양체제를 승리권으로 이끌고 그 터전 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을 기점으로 전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202-328, 1990.5.27) p.1509

성경의 목적은 참부모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희망찬 복음입니다.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참부모가 나오게 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어 오니까 공산당이 무너지고 북한도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둘러봐도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잘 압니다. 거기에 하늘나라가 열매를 맺고 천상지옥과 지상지옥의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사탄권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관입니다. (202-328, 1990.5.27) p.1509

공산주의는 종하고 주인주의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형제주의입니다. 형제주의이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 헤드윙은 뭐냐 하면 부모주의입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싸우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지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만 생기면 이 자식아, 왜 싸워?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흑인하고 백인하고 인종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57, 1990.5.27) p.1510

공산세계는 어때요? 선생님이 고르바초프에게 레닌의 동상과 마르크스의 동상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공산당 역사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레버런 문밖에 없습니다. 소련 공산당 간부들은 모두 우리 앞에서 하나님주의를 말해? 어떻게 저렇게 오만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생님을 미워하더라도 지금 공산세계는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무서워하던 존재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 하고 선생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02-328, 1990.5.27) p.1510

지금 지상은 어떻게 되느냐? 제 1, 제 2, 제 3 이스라엘권을 통해서 움직이던 모든 것이 참부모의 이름을 발표해 버리면 이 영역이 전부 에덴동산과 같이 되고 종교권의 모든 역사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천사세계에 있는 영들이 여기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재림할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원리결과주관권입니다. 하늘과 땅이, 종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부 영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준이 재차 연결되어 사탄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縱)이고 이것은 횡(橫)으로서 이 각도는 90 각도입니다. 90 각도는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도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타락세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90 각도가 되는 데라야만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해방입니다. 영계가 해방이고, 지상이 해방이고, 피조물도 모두 해방입니다. 거기에는 탕감노정도 없습니다. (202-8, 1990.5.1) p.1510

참부모님의 선언을 발표함으로 사탄의 권한이 없어지고 종교를 중심삼고 투쟁하던 모든 탕감법도 없어져 선한 영들이 천사세계와 맞먹기 때문에 타락 없는 세상이 되어 마음대로 지상에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통일교회를 반대하다가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는 겁니다. (202-358, 1990.5.27) p.1510

오늘 메시아에 관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전부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 놓고 왕권을 발표해 가지고 참부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뭐냐 하면 개인적 왕권이 참부모고 가정적 왕권이 참부모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인 동시에 참부모입니다. 이래서 전세계에 참부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참사랑을 중심삼게 됩니다. (202-358, 1990.5.27) p.1511

여러분은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 말은 주체적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없어져! 하면 없어집니다. 금방 내려가요.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것은 안 원해! 하면 즉시 없어집니다. 모든 주위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중심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아침해가 떠오르면 산천초목의 모든 중심이 그 태양을 향하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에센스(essence), 사랑의 에센스입니다. (202-358, 1990.5.27) p.1511

앞으로는 싸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스승이 되고 참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론적이고 명백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나는 참부모님이 선포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상속받고 세상 모든 것을 해방시킬 것이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구요. 양손을 들고 이렇게 보기 좋게 흔들어 봐요. 아, 일렁대는 파도 같구만! (202-360, 1990.5.27) p.1511

Top

② 하나님축복 영원 선포식(7-1 절)

<1991 년 7 월 1 일 서울 한남동 공관>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1991 년 7 월 1 일, 1991 년은 섭리사적 전환시기에 있어서 맨 마지막 고비의 위치를 차지한 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월에서부터 6 월까지 복잡다단한 환경을 넘어서서 새로이 7 월 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1991 년의 반을 보내고 새로이 맞는 후반기는 당신의 섭리사에 있어 정상을 넘고 새로운 소망의 한 고개를 넘어 하늘나라의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분수령의 기간인 것을 아옵니다.

이제 한국의 조국강토를 중심삼고 남북이 갈라졌던 모든 원한들, 동서의 분규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한들을 남겼던 모든 싸움의 고통들도 이제 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해소되었습니다. 거짓부모로 말미암아 심어진 모든 사안들이 참부모로 말미암아 승리적 수확을 갖춰서 공산세계와 자유세계, 이북과 남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기하여 하나님축복영원선포식을 함으로써 섭리사를 대표했던 모든 것을 하늘이 세워 나오던 조건들을 청산짓고 승리와 해방과 영광의 날을 자축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지 않고는 그 가정과 그 나라를 연결시킬 수 없는 섭리사의 전체적 뜻을 헤아려 보게 될 때, 이미 종족적 메시아가 되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참부모 일족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날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노정을 하늘이 보호함으로써 이제 1991 년 7 월 1 일을 기점으로 한스러운 역사적 탕감노정을 걷어치웠습니다. 이제 새로이 창조주 하나님과 본연의 부모 될 수 있는 횡적인 참부모를 모시고 좌우가 하나되어 남북한과 모든 종교권, 정치권이 부모권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본성세계의 해방권을 찾으려는 모든 선언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은 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본성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개인적 중심이요,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전체의 중심인 참사랑의 도리를 따라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절대적인 하나의 방향에 의한 절대적인 목적 귀결인 본연의 천국은 지상을 대표하여 지상에서 생활한 가정의 터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옵니다. 따라서 통반격파라는 엄숙한 사명적 과제를 앞에 놓고 전진명령을 하늘로부터 받았사옵니다.

결정적 이 고비를 향하여 7 월 1 일부터 자기 가정과 자기 일족을 수습하는 데 총진군하여야 할 세계사적 시대가 찾아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 월 초하루를 중심삼고 전세계적으로 종족적 메시아 선언을 신청할 수 있는 날로 책정하였사옵니다. 그것을 신청한 모든 무리들은 전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하늘 권속의 인연을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잃었던 장자권 복귀와 부모권 복귀와 왕권 기준을 가정에서부터 철축을 박아 모든 사탄,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승리의 패권을 확립해야 할 축복가정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늘 앞에는 자유세계 공산세계, 남북이 있을 수 없사옵고, 사탄이 있을 수 없사옵니다. 모든 악의 역할을 청산짓고 역사와 더불어 이것을 매장하여 버리고 승리와 해방의 천국이 지상에 도래할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선포하오니, 만세에 길이 방패를 삼으시어 주도하여 주시옵기를 오늘 7 월 1 일 이 시간에 참부모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아멘. 참부모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아멘. 참부모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칠일식을 끝냄으로서 부모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선생님이 왜 고생했겠어요? 세상을 상대로 왜 못난 놀음을 했겠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책임을 하지 못하고는 얼굴을 들고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참아버지는 사탄권을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 가정적, 종족적, 민족, 국가, 세계적 핍박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와 레버런 문을 자유세계가 반대했고 공산세계가 반대했는데, 이미 자유세계 워싱턴에서 소련의 모든 지도층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참부모와 하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월권을 행사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힘을 내서 억지로 해봐야 무너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될 때는 남북도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특정한 권력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식을 해 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짓부모로 처리했으니 참부모가 이렇게 묶어서 선포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218-7, 1991.7.1) p.1513

Top

③ 탕감해소 선포식

<1996 년 11 월 1 일 우루과이>

세계평화가정연합을 중심삼고 가정을 수습해야 합니다. 가정적 판도에서 실패했고, 국가적 판도에서 실패한 것을 오시는 재림주는 세계적 판도에서 수습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 판도에서 엮어 나가 세계적 축복으로 연결, 아담가정 자리에 세워 가지고 세계적 국가를 형성해서 왕권통일시대, 지상 천상시대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지금 대전환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모님 중심삼고 가인 아벨 세계적 민주세계와 기독교문화권 중심삼고 통일교 가정 운세를 반대하는 것 다 넘어 섰기 때문에 승리적 패권을 가지고 가정 중심삼고 세계평화가정연합 정착과 더불어 탕감해소, 그런 환경을 부모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프리섹스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섹스, 절대 참부모를 중심삼은 절대섹스를 중심삼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혈통전환은 절대섹스에서 이루어지지, 프리섹스나 중간 섹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혈통전환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세계평화가정연합에서 발표한 것은 그것이

[텍스트 입력]

넘어갈 수 있는 권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세계적 판도에서 승리한 모든 것을 어머님 대신, 축복가정들이 어머님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이 완전히 하나되어야 됩니다. 어머님과 하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프리섹스, 호모 등 이와 같은 청소년 윤리의 타락으로 가정을 수습할 수 없는 세계를 참부모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만이, 이것이 거꾸로 해 가지고 가정 형성, 국가 형성, 전부 다 지상 천상 천국 형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면상 복귀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판도를 중심삼고 개인, 가정들이 절대 어머님 아버님 중심삼고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 가지고, 어머니가 하나되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중심삼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 기독교에선 천주교(구교)와 신교가 하나되고, 하늘땅이 하나되어 그 기반 위에 어머니 중심삼아 가지고 모든 것을 탕감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평화가정연합 정착과 탕감해소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자체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상대적 가정을 이루지 못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참부모의 승리권으로 하나된 모든 기반에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으로 넘어가는 이때이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참부모를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해야 합니다.

참부모는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전통을 이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 받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하늘의 축복이 같이할 것입니다. (280-47, 1996. 11. 3. 경배식에서) p.1514

Top

④ 천지부모 천주안식권 선포(7·8절)

<1997년 8월 9일(음 7월 7일)서울>

1997년 7월 7일 7시 7분 7초를 중심삼고 360만쌍 가정 축복을 중심삼은 이날, 360만쌍 축복완성은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한다는 표어의 금년 모든 일을 성취했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한의 심정을 품고 오셨사옵니까?

아버지, 동양 서양의 문화 전체를 잃어버리고, 남북의 통일세계를 중심삼고 만국의 중심국가여야 할 조국강산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이루어서 당신의 문중이 하늘의 문중이 되어야 할 모든 전부, 혈족 자녀들이 전부 이분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섰기 때문에 또다시 공산과 민주를 중심삼고 이분된 싸움을 거쳐 40년 기간을 다시 복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일의 무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40년 기간은 섭리사의 4천 년을 대신한 기간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국, 혹은 종교와 종교신앙을 중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 왔던 사탄세계의 주권국가의 행사는 오늘 세계무대를 품은 당신의 뜻 앞에 반대되는 온 세계가 합해서 오시는 참부모를 공격하였던 40년 역사를 맞는 아버지의 슬픔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홀로, 홀로, 홀로 이 길을 개척하신 아버지의 지도 앞에 개인적인 당신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부부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가정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종족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싸움, 국가적이요, 세계적이요, 천주적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당신이 자유자재로 거(居)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이상적 자유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수난의 40년 역사를 이제는 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으로 말미암아 오늘 참부모를 중심삼고 천주안식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날은 당신의 아들되는 이 문아무개의 나이 77세를 맞이한 것이요, 1997년 7월 7일 7시 7분 7초를 중심삼고 7수를 8회 연결시킬 수 있는 초점을 맞추어 7,8수를 넘어설 수 있는 안식년과 재출발의 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통일가의 모든 무리들은 이제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하늘을 모시고, 국가를 중심삼고 하늘을 안식시키고, 세계를 중심삼고 하늘을 안식시키고, 천주를 중심삼고 하늘을 안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자유행차할 수 있는 안식적 기반이 가정으로부터 천주까지 이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지상천국의 왕권과 천상천국의 왕권이 일시에 수립될 수 있는 한계선을 넘는 때를 맞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성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와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를 대표한 어머니가 이 땅 위에 와 가지고 천사장국가 미국을 중심삼은 유엔 무대를 중심삼고 남북으로 갈라진 것을 미국을 중심삼고 통일적인 운세를 갖추어 가지고 한국에 이걸 심어 해방 기준에 있어서 민족적 해방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이

[텍스트 입력]

되어야 할 것을 염려하던 모든 것을 당신이 보호하시어서 3 차로 어머니를 중심삼고 이 땅 위에 보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로서 이번에 16 곳이라는 16 수를 넘어 이 땅 위의 고위층들을 새로이 문을 열고 개방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국적으로 이제 축복 가정이 거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북의 여자들을 중심삼고 세계의 남북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을 대표한 대회에서 환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16 수와 18 대회를 중심삼고 이런 날을 선포하게 되었고, 내일 10 일을 중심삼고는 이 나라의 모든 중추적인 무리, 세계 모든 주권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들을 중심삼고 하늘의 승리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정적 왕권시대로 접어들어 가는 이런 축복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통일교회가 가정축복에 있어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축복권을 세우심도, 아버지 수고에 의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을 어머님과 당신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반을 갖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하옵니다.

이런 기반 위에 오늘 이와 같은 참부모를 중심삼은 천지부모 천주해방권 선포를 이룰 수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도 아버지 앞에 천번 천번 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소원인 가정적 왕권시대, 국가적 왕권시대, 세계적 왕권시대와 천주적 왕권시대의 안식의 기반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어(囹圄)의 몸인 하나님을 해원성사하고, 해방적인 자리에서 사랑의 천주를 품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옵소서.

이 아들이 걸어온 이 길을 눈물과 더불어 보호하고, 돕지 못한 아버지의 서글픔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제부터 당신의 원하던 전체?전반?전권?전부의 권한을 이루시어 만국을 당신이 주관하시어서 해방천국으로 전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제 참부모의 가족으로부터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눈물자국이 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해방의 권한을 이루어 부모님의 가정으로부터 만국을 행차하는데 막힘 없이 가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세계와 사랑하는 천주를 창조이상의 특권적인 최고의 정상에서 자리를 갖출 수 있는 행차를 참부모의 이름과 더불어 당신의 해원성사와 전폭적인 해방을 선포하오니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천지부모 천주해방권을 선포하는 시간을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이를 선포하시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통일권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시옵소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이 날을 선포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까지 모든 역사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일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전에 사탄은 삼 삼 구(3×3=9). 전부 다 사탄 소유권이었습니다. 아들딸도 하나님 것이 아니요, 만물도 하나님 것이 아니요, 나라도 하나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상대로서 혈족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조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므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의 집, 안식의 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들의 이상가정이란 하나님의 안식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집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되느냐? 참사랑하고 참부모하고 참자녀, 참가정을 중심삼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심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삼은 일족,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뭐냐 하면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로 형성된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만왕의 왕입니다. 거기서 지상천국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개인에서부터 전세계 어디에든지 하늘나라까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서 쉬게 되면 전부 다 머무르는 곳이 가정일 때에는 거기에 개인과 부부와 아들딸 전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머물러 살 곳이 어디입니까? 참부모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동시에 하나님이 정좌할 수 있는 왕권의 왕자의 자리입니다. 천상세계 왕자의 자리, 지상세계의 왕자의 자리, 두 부모의 자격을 중심삼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왕자의 자리인데 그 왕자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돈 좋아했으면 한국에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식 좋아했으면 서울대학교 총장이 내가 먼저 되었을 것입니다. 총장들 가르쳐 부하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발길로 차고 왕 해먹던 사람을 심부름시켜 먹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힘?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의 힘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한국에는 세계 어떤 나라의 가정에 없는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민요를 보더라도 그 민요가 우주적입니다. 역사를 넘은 우주사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내고 옥도끼로 다듬어서,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얼마나 멋져! 천년만년 살고지고 양친부모 양친이 누구예요? 그런 꿈에, 꿈 가운데 바라던 양친을 존중한 이런 내용을 민요로 찬양한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고 지고. 집이 아무리 초라한 초가삼간을 지어도 천년만년 참부모님과 살고 싶다. 우리 한민족의 동요 이상과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반달과 같은 달, 완성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가정적 출발이 완성이 아니지만 이 세계 반달과 같은 전부 다 공중의 구름나라 인공위성 배를 타고 돗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 간다 동쪽나라 서양나라. 태양빛은 동녘에서부터 비쳐 서쪽을 비추는 것입니다.

남자는 동쪽을 상징하고 여자는 전부 서쪽인데 여자는 전부 다 동쪽 태양의 빛을 받아 가지고 남자와 같은 대등자리의 가치를 지닐지어다. 동서의 평준일치 세계가 이루어진다. 아멘. 얼마나 멋진 민족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라구요?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의 날'입니다. 천지부모입니다. 천지부모의 이상 안식권이 벌어질 때, 그런 세계가 될지어다. 생각만 해도 좋고 꿈 가운데도 좋고 일만 해도 좋고 땀 흘릴지라도 좋고 나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 것이 없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아-하고 입을 천년 벌려도 고맙고-멘 영원히 죽어 살겠다, 그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어인(御印)에 도장을 받고 하늘나라의 궁전권 내에 들어가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하늘 황족권, 하늘 백성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소원 만사 성취다 이겁니다. (287-108, 1997 년 8 월 9 일 서울) p.1517

Top

⑤ 지옥 해방과 천국 개문을 위한 선포

<1998 년 5 월 15 일, 브라질 판타날 아메리카나 호텔>

흥진군이 참부모님의 직계 자녀인 사실에 비해 기독교는 혈통이 다른 양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되어야 부모님이 완전히 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축복받은 흥진군과 기독교가 축복받아 하나되어야 참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통일교는 기독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교단적인 축복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자권이 모두 하나되어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아버지와 양자권(기독교)과 기타 종교, 그리고 비종교권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제 6 월 13 일에 1 억 2 천만 쌍이 축복받으면 3 억 6 천만 쌍의 3 분의 1 이 축복을 받게 되므로 구약시대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기독교를 중심하고 중생식과 부활식, 그리고 영생식인 축복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이미 4 인의 성인 모두를 축복해 주었고, 청평에서도 기독교 해방을 위해 정성들이고 있습니다. 제 4 차 아담권 해방의 열쇠는 전부 참부모님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상보다도 영계를 더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정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영계를 바로잡고 그 후 육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섭리의 순서입니다. 영계는 육계에 대하여 수직이요, 육계는 수평 관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직과 수평의 세계가 만남으로 지구성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안 나타나셨다면 영계란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참부모님이 오셔야 영계와 육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1518

Top

⑥ 총영계 영인 해방식 - 전체 해방 통일식의 기도

<1998 년 10 월 5 일, 브라질 상파울루>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 1998 년 10 월 5 일, 이 날은 한국에서는 추석으로 조상을 모시는 기념의 날이옵니다. 이제 한국의 청평과 이 서구사회의 상파울루의 청중과 하늘땅을 놓고 모든 피조만물과 모든 영계에 있는 영인들, 조상들과 천천만 성도들, 하나님을 위시한 땅 위의 사랑으로 지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피조만물들과 이 땅 위에 사는 온 인류가 일치권을 이룬 사랑의 결정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해 역사시대에 구약-신약-성약 해방 완성권을 향해 나오신 아버지, 슬펐던 역사를 다 거두시옵소서.

하늘의 종적인 참부모가, 천지를 창조한 이상으로 이 땅 위에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몸을 대신한 횡적인 부모가 우리의 제 1 대 조상이었음을 아옵니다. 이 분들이 가정을 중심삼고 일체권을 이루어 한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종적인 마음과 횡적인 몸이 일체를 이루어, 그 일체 된 사랑의 씨를 비로소 이 땅 위에 착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혈통과 참부모의 혈통이 연결되어 만민의 몸 마음이 하나된 자녀들을 이 땅 위에 번식해야 할 기쁨의 출발의 한 날을 맞지 못하여, 서럽고 분통한 역사적인 한의 자국을 취소시키기 위한 섭리를 지금까지 계속하여 나왔던 것을 아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한을 품으신 아버지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이 땅 위의 하나의 자식도, 하나의 딸도 갖지 못하였던 아버지는 외롭고 불쌍한 아버지였습니다.

억만대의 독자를 살려야 할아버지의 가슴을 열어보니, 이 땅 위에 조상을 갖지 못한 비참한 인류, 조상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비통했다는 사실을 이 자식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날부터 철모르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은, 순탄한 길을 갖추기 위한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의 노고의 터전을 중심삼은 참부모의 축복의 한 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잃어 버렸던 아담가정의 승리적 하나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하늘의 참사랑과 더불어 이것을 결합하지 못한 것을 다시 찾기 위한 수난의 역사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 못한 자식의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어느 한 자리에서 이 길을 피하여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고, 찾고, 찾아보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갈 길을 개척해서 다리를 놓고, 또 산을 넘어 종적인 8 단계, 횡적인 8 단계를 거쳐와서 8 정식 선포와 더불어 참부모임을 선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7·8 절을 선포함과 동시에 자르딘을 중심삼고 아버지의 창조이상이요 본연적 기준이, 아버지께서 출발하신 그 본연의 기준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과 하나님의 속성의 기준도 되고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가정적 기반을 바라시던 아버지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참부모 될 수 있는 절대부모 유일부모 불변부모 영원부모, 절대자녀 유일자녀 불변자녀 영원자녀, 절대부부 유일부부 불변부부 영원부부, 절대가정 유일가정 불변가정 영원가정을 이루는 날이, 세상은 모르지만 하늘이 고대하는 날이요, 이 역사의 최고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아는 이 자식은, 천년을 하루같이 바라던 그 날이 왔다는 것을 세상 앞에 찬양하고 싶고, 찬양해야 할 선포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르딘 기반에서 이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제 3 선언에서는 하늘을 제 1 대 창조주, 제 2 대 창조주, 제 3 대 창조주, 종족 기반을 연결하여 횡적인 터전 위에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왕권의 기준을 중심삼은 3 대 창조주의 권한을 지상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한스러우신 숙명적인 과제로 남아 있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고,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원, 불변, 숙명적인 부자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전부 다 해원성사할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이제 4 수, 4-4 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연결되고 부모의 심정을 바다로부터 연결하여, 만물의 수수의 원칙을 중심삼고 바다에서 노아 대심판도 있었지만, 심판받지 않는 바다의 기반을 중심삼고 모든 피조물을 해방적 자리에 불러모은다는 이런 뜻으로서 국가 메시아와 축복가정들을 전부 자르딘에 집합시켜서 세계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종족, 가정적 메시아의 틀을 가지고 부모를 따라 돌아가야 할 것을 밝혔사옵니다.

좌측에서 승리한 모든 것을 우측으로 돌려서 모든 것이 거리낌이 없게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따라 부모님이 행차할 수 있는 길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축복가정들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말미암아 4 대 속성을 중심삼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본향길을 찾아 갈 수 있는 자유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가 갈라진 것을 통일시키고 동서 문화의 벽을 넘고, 남북의 빈부 차이를 넘어 이제 통일된 나라의 부모를 모신 자녀의 심정을 가지고 평화의 천지와 평화의 인류를 가져야 할 통일가의 축복받은 무리로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있는 재산과 있는 땅을 모두 다 팔더라도 잃어버린 이 평화의 천국을 먼저 솔선해서 찾아야 할 것이 축복받은 아들딸이요, 축복받은 자리에 가는 모든 사람들임을 아옵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제물삼아 나라를 겨누고, 나라를 제물삼아 하늘땅을 겨누고, 하늘땅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겨누어야 할 책임이 있사옵니다.

만년 해방권의 사랑의 실체 주권을 자랑할 수 있는 영원 해방, 지상천국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출발을 이미 6 월 13 일을 통하여서 선인들과 살인마를 형제와 같이, 부모님이 통곡의 마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슬픈 마음을 억눌러 가면서 이들을 같은 자리에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는 해방의 함성이 지금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식은 알고 있습니다.

땅의 인간들은 모르오나, 천상에 있는 모든 우리 조상들과 천사세계와 모든 천천만 성도들이 그걸 알고 지상 부모님의 환경을 개척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권 가정을 남겨 가지고 이 땅 위에 주권적 모든 행태를 낳았던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을 파탄시킨 원수를 영계와 육계가 합하여서 형제지 인연을 중심삼은 부모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 땅 위에서 부모님이 해방권의 선포와 더불어 진군 명령을 받아 가지고 장자권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이신 6 월 13 일 축복한 5 대 성인을 중심삼은 그 기반과 더불어 관계되어 있는 종단 인연의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제자들과 같이 축복받은 이 무리들이 이제 최후의 전환의 한 때를 맞이해야 할 지상에 다시 형제들과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상과 지상과 더불어, 같이 충효의 도리와 전통의 그 발자국을 밟아 가는, 이 땅 위의 천사장 가정들을 이 땅에서 완성한 아담 가정에 있는 지상 축복가정 해방권 앞에 동참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는 효자의 도리, 나라에서는 충신의 도리, 세계에서는 성인의 도리, 하늘땅에서는 성자의 도리의 사랑적 인연을 같이 이어 받을 수 있게끔 하늘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하나가 되어 이 일이 영원히 가능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중심삼은 그의 따르는 제자와 그런 조상을 지닌 아담과 해와와 더불어 연결된 후대 조상들도 해방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부모님을 지상에 모신 본연의 완성적 하늘과 일체의 사랑권 혈족을 중심삼고 모시지 못했던 모든 전부가 지상 천상의 조상들이 형제지 인연, 부자지 인연의 본연적 창조이상, 종횡의 결정의 사랑의 한 가정을 중심삼은 정착점에, 지구성 전체, 온 영계 전체가 하나의 참부모를 중심삼은 우주사적인 가정적 기틀을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선포의 날에, 영계 해방, 지상 해방, 모든 가정들이 종횡무진 할 수 있고 자유 왕래할 수 있으며, 공히 활동할 시대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이제 이 모든 걸 묶어 가지고 지상 착지 활동할 것을, 온 피조만물과 더불어 참된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과 참부모의 참된 혈통적 심정권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상 천상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 승리를 위하여 출동할 것을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296-9, 1998.10.5) p.1521

Top

⑦ 참축복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해방 선포식

<1999 년 1 월 8 일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금년의 표어가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근절'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탄세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을 중심삼고는 거짓이 상대의 사이에 서지 못합니다. 작년에는 참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은 3 억 6 천만쌍 축복과 사탄세계 혈통 단절입니다. 이것이 이미 작년 9 월 30 일을 중심삼고 넘어설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온 만큼 이제는 하늘과 땅에서, 상대적 관계에서 투쟁적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개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아담의 자리에 있어 가지고 이 세계의 인류를 대축복에서 넘어섰기 때문에 본연의 아담가정들이 축복받은 자리에 섰으니 하늘과 땅의 담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은 사탄 혈통 근절입니다. 뿌리를 빼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축복의 혜택권을 이 천주, 영계와 육계에 이루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에 천사세계를 중심삼고 아담가정을 완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했으니, 아담가정에 대해서 이것을 청산해 놓고, 아담가정의 재창조 역사를 해야 됩니다. 조상들을 재창조해서 천사장 자리의 가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축복, 영계의 해방축복시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해방축복시대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은 가정을 중심삼은 천사장 자유 환경권으로 몰아 넣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은 해방권에서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계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축복을 하면 자기들이 상대를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후손에게 조상의 자리에 서서 자기 후손들을 축복의 길로 몰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인간들이 참부모를 중심삼고 이 땅에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텐데 영계에 살지 못하는 그 영들이 이 땅 위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식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에덴에서 부부를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제 축복받을 수 있는 지상에서 이 후손들의 뒤를 따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하도록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와 더불어 살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대도의 길에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다 하는 전체의 근본인 사탄혈통을 뿌리뽑는 놀음을 선생님이 세워 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 해방, 사탄 추방, 사탄 근절과 더불어 인간들의 죄의 뿌리가 거꾸로 가던 것이 전부 다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악마들과 죄인들이 갈 수 있으니, 완성하지 못함으로 전부 다 거꾸로 서 있었던 것이 선하게 되어서 바로 서 가지고 자기 급에서 천상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상 천상 그야말로 축복 천주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을 선포한 것을 이제부터 축복받은 일족이 이제부터 헌납 제물을 선생님의 생일인 2 월 20 일을 중심삼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어서의 직계 열두 명이 아니라, 72 대에서 120 대까지 예수님이 축복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참부모의 직접 주관권 내로 들어가서 사탄과 관계없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모든 선조들도 해방입니다. 사탄도 해방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족적 메시아로서 160 가정을 축복해 준 사람들은 하나의 일족을 중심삼고 그것을 자기의 일족과 연결시켜 총탕감 헌납식을 하여 그 기반 위에서 120 대 조상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60 가정은 선생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120 가정만 하게 되면 통일천하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2 대, 72 대, 그리고 120 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 대 하게 되면 전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20 대 왕들과 그 장손, 왕권을 축복함과 동시에 왕권에 있던 모든 국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데모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데모해야 하느냐 하면 참부모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참가정을 자랑하고 참혈통, 참순결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이 땅 위에서 목적을 세계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가정, 종족, 민족, 국가는 전부 다 참부모를 중심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가정적인 참부모, 가정적인 기준에서 참가정, 가정 기준에서 순결, 민족 기준에서 그와 같고, 국가 기준에서 참부모, 참가정, 참순결, 이렇게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국가 기준만 가지면 세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참부모 기준이 우리 개인에서부터 국가, 세계, 천주까지 연결되고, 참가정 기준이 연결되고, 참순결 핏줄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없었던 해방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청산하기 위한 데모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도보다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보다도, 축복 받게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부모에 대해서 참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참소 못하고 하나님도 참소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해원성사 소원성취 했다는 이러한 자리에서 지상천상천국이 착지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정연합 시대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천리원정의 탕감노정을 거쳐 선생님의 일대에 80 세까지, 60 년대부터 부모님이 40 년을 맞춰 나온 것입니다. 한국 나이로 한다면 지금 내가 80 세입니다. 생일날이 오기 전에 이것을 전부 다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298-209, 1999.1.8) p.1522

Top

⑧ 성약시대와 천상지상천국 완성 선포

<1999 년 4 월 11 일 이스트가든>

한국도 여덟 곳에서 순회강연을 했고, 어머님이 해와국가인 일본과 아들국가 미국을 책임지고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6 개 도시, 미국에서 24 개 도시, 모두 40 개의 도시에서 대회를 전부 다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책임이 모두 실패했던 것을 선생님이 책임지고 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못하고, 기독교도 못하던 것을, 비로소 선생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착지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승리, 일본의 승리, 미국의 승리를 해 가지고 장자권을 중심삼고 가인권 문명세계의 34 개국 중심삼고, 비로소 기독교 문화권이 1945 년에 책임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40 년 광야 가정가나안 복귀노정에서도 실패했던 모든 전부를 선생님이 책임지고, 전권을 쥐고 재차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상에 정착시키는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금번 순회노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성약시대와 천상천국 지상천국 완성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가정완성이라는 것과 영계의 모든 해방권을 중심삼고 볼 때, 가정 중에는 기성축복가정, 법적으로 계약하는 계약 가정, 숫처녀 숫총각 가정이 있습니다. 36 가정의 3 가정을 대표해 가지고 영계에 있어서 기성가정 축복, 법적 결혼 미완성 단계에 지상과 천상에 나누어져 있던 것을 묶어 영인 축복을 해 줌과 동시에 영계에서도 영인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3 일식을 통해서 복귀도 허락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16 세 이상 된, 지상에서 애기로 죽었던 영들이 수백억은 될 겁니다. 이들을 완전히 축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영계의 모든 조상으로부터 법적 결혼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미성년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던 모든 것을 축복해 줌으로써, 이것이 16 억 쌍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핏줄이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핏줄을 상속받은 사람이 영계나 육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재창조, 복귀역사를 지금도 탕감조건 없이 전권을 가지고 밀어 부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신념을 가진 상대적 입장에 서느냐 못 서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심된 그런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과 하나되게 될 때에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수평세계로 금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이제는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에덴에 있어서의 그 가정들은 자기 소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사랑과 핏줄이 하나된 자리에 서 있는 참된 아들딸만 되면, 이 우주의 모든 전부가 아들딸에게 상속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유권이라는 것이 전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유 중의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중심삼고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없는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어 이상과 하나되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반을 연결시켜 본연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탄세계에서도 완전히 거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다 잃어버린 것을, 이제는 가정을 중심삼고 참부모와의 혈통적 관계를 참사랑을 중심삼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라든가 무슨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혈통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면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세계적 메시아, 세계적 부모로서 국가적 부모와 종족적 부모와 가정적 부모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국가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가정적 메시아는 선생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되어 대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연의 땅을 찾아 들어가 본국을 창건하고, 거기서 종족적인 확장을 해서 세계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거쳐 가야하기 때문에 대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 월 7 일의 축복이 한국에 대한 책임, 일본에 대한 책임, 미국에 대한 책임, 가인 아벨 전부가 실패한 것을 선생님이 궤도를 바로잡아서 선생님이 전권, 승리권을 가지고 못을 박고 나오는 행사입니다. 이 참가정세계화 전진대회가 그 부흥회입니다.

그래,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라구요. 이번 축복식 때, 살인마까지 지옥의 문을 열어 축복해 준다는 말은, 하나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서 지옥문을 열고, 천국으로 오라 이겁니다. 죽은 사람 중에서 통일교회를 몇 년간 반대한 사람들까지도 영육 중심삼고 영육 결혼해 가지고 3 일행사까지, 지상에서 3 일행사까지 해라 이겁니다. 이것을 한국에서 미국 올 때, 1999 년 3 월 13 일에 승낙하고 온 것입니다.

성인될 수 있는 사람, 지옥에 가 있는 악한 편을 전부, 성인과 살인마까지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있어서 통일교회 믿는 사람은, 통일교회를 극 반대하던 남편이든 혹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해방시켜 축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인과 악인을 하나 만드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죽었던 애혼들이 자라서 16 세 이상 연령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옥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 앞에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족적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사탄은 완전히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혁명 중에 이런 혁명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세상이 변하게 되고, 영계가 축복가정으로 처리되고, 3 일행사까지 마음대로 해서 해방권이 벌어졌으니, 사탄세계의 혈족을 근절하여 영계 육계의 해방권, 하나님의 전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300-300, 1999.4.11) p.1525

Top

⑨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 축하 선포

<1999 년 5 월 30 일, 벨베디아>

당신의 원한의 근원이 되었던 사탄의 혈통을 근절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맞게 하신 그 일을 알고, 이 일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싸워온 3 억 6 천만 쌍 축복과 더불어, 이제 남겨진 모든 남녀들의 축복을 영계와 육계에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성 전체를 새로운 천국화해야 할 책임적 소행을 짊어진 이 통일가의 축복받은 무리들을 하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이들을 대표하여 선두에 서서 모진 수난 가운데 홀로 참부모로서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인적인 투쟁,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천상세계의 심정적 원수인 사탄을 추방할 때까지 싸워 오면서 나오는 데 있어서의 실패한 것을 염려하면서 보호하고 일선에 서서 같이 협조하신 아버지 앞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수고한 가정들을 중심삼고 3 억 6 천만 쌍을 축복함으로 4 억 쌍 이상의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이것이 철옹성같이 선봉이 되어서 사탄기반, 영계와 육계의 지옥 해방권을 선포하시어, 당신이 자주적인 권한을 회복할 수 있는 선언의 날들을 통하여 하늘이 협조, 승리의 기반을 참부모와 더불어, 축복가정과 더불어 같이 이루게 하여 주신 은사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반 위에, 이제 금년에 있어서의 어제 그제까지(1999 년 1 월 17 일~5 월 28 일) 끝난 부모님을 중심삼은 80 개국 순방의 대 하늘의 역사를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목적지에까지 단숨에 달려 순환 승리할 수 있는 그 날들을 기념하고, 판타날에 있어서의 천주사적인 해방과 더불어 이 축복의 기반을 중심삼고, 이제 부모님이 정성의 8 수를 중심삼은 8 회의 한국, 16 회의 일본, 24 회의 미국, 32 회의 세계, 80 개국을 중심삼고, 8 수를 맞추는 사위기대의 배수, 아담가정의 8 수, 노아가정의 8 수를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 가정 위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청산을 위하여 이와 같은 대 각성운동을 선언하면서 순회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제 그제까지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역사적인 이 중심 자리인 벨베디아에서 참부모 동서양(지구성)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게 한 모든 것이 말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벽이 근원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높고 낮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의 방패로 삼았사오니, 이것을 중심삼고 금후의 통일가의 모든 축복받은 자는 당당히 하늘의 권속으로 하늘 대신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 수행에 거리낌이 없는, 전진에 전진을 다짐할 수 있는 무리들이 될 수 있게 나왔사오니, 만복의 축복을 위하여 지상확대 승리의 권한으로 참부모의 승리의 패권 위에 연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천지부모 승리의 해방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 주권 이상을 만 우주에 선포하여 구약시대의 만물의 제물의 한을 밟고, 신약시대의 자녀의 제물의 한을 밟고, 성약시대의 부모님을 걸고 이 한을 밟고 오로지 아버님만이, 창조주만이 주인이 되시어서 사탄의 참소 조건을 완전히 전폐(全廢)한 승리의 패권, 사랑의 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나이다.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승리의 이 날과 더불어, 천상세계의 해방을 갖출 수 있는 이 일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원하오니, 받아 실천하시기를 만세에 축복하여 승리로, 승리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하나님과 참부모의 이름을 중심삼고 만민과 더불어 만물을 합한 승리의 패권국가, 전진을 다짐하는 일을 선포합니다. 만세의 한과 탄식을, 해방권을 갖추어 가지고 참부모의 이름으로 천상지상 참부모권 전체를 대신하여 이 승리의 날을 선포하오니, 만세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1999 년 5 월 30 일 벨베디아 성지) p.1526

Top

⑩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 선포

<1999 년 6 월 14 일, 서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 오늘 1999 년 6 월 14 일 오후 1 시 15 분을 기하여 여기 서 있는 참아버지의 이름과 참부모의 이름을 대신하시어서 승리한 천주해방을 선포하고, 5 월 30 일에는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 축하 선포를 한 그 기반 위에 오늘은 하늘땅을 대표한 참부모의 승리권을 중심삼고 승리환영 선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하늘 앞에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범죄하여 지었던 슬픈 역사를 남긴 모든 전부를 하나님의 가슴에 묻은 채 그 누구도 소원을, 소원을 풀 수 없는 한의 심정을 품어오신 아버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사용하지 못한 그 앞에서 참소 저주하면서 조롱했던 사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곡절이 많았던 가를 나는 압니다. 이것을 해원성사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본연의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핏줄이 연결된 사랑의 종족권을 편성하시어 가정과 민족, 국가와 세계, 나라를 거쳐 세계 땅 위에 지상천상천국의 출발을 보시려 하던 당신의 이상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입장의 모든 것을 자유 자재로 하나님이 창조권한을 가지고 재차 수습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동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을 선포하여 지구성 해방권을 선포했고, 오늘을 맞이해서는 참부모님의 지구성 천주승리축하 선포의 날을 기반으로 하여서 종적인 횡적인 기반 위에, 종적인 기반으로서 천주 참부모 승리축하 선포의 시간을 맞게 하여 주신 은사를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당신의 지도 앞에 사탄이 강제로 목을 자르고 형장에 내어 가지고 협박 공갈로 지옥 가던 이런 시대를 반대로 하여서 영계에서 축복 받은 이 가정들이 자기의 후손에게 가서 강제로라도 전부 다 약주고 병주고 하여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자유해방권 시대를 맞이하였사오니, 온 세계에 방황하는 모든 일족 족속들을 연결시킨 국가들을 수습하여 당신의 사랑의 혈연을 중심삼고 영원한 사랑의 주권 앞에 당신의 혈족임을 갖출 수 있는, 권속권을 초국가적으로 형성하여 만민해방과 더불어 천상세계의 해방과 더불어 참부모의 해방, 인류해방, 하나님의 사탄까지의 긍휼하에서 종의 자리를 다시 지움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창조이상을 하던 이상의 모든 것을 해방할 수 있는 시대를 참부모님이 아버지의 권한 앞에 이것을 봉헌해 드리오니, 그 실권이 바뀌어진 패권을 통해서 정의의 판단을 중심삼고 지상재림 천상 승천해서 자주적인 주관의 선한 사랑의 왕권을 세우고, 만왕의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왕권을 세우고, 만왕의 사랑의 영원한 영생을 지어 줘 상속시킬 수 있는 사랑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옵소서.

참부모님 지상에 그 처리를 받아 하늘 앞에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 성자의 도리를 갈 길을 교시하여 만민이 당신의 혈족과 권속의 자리가 되어 만대의 축복 받은 천국을 주관하고 지상천국 천상을 상속받은 후계자로 기르겠사오니, 이 특권적인 부귀영화를 받으시어서 선포의 날로 정하시사, 만사형통 자주적인 선의 왕권을 행사하기를 참부모님 앞에 권고 또, 권고, 또, 권고 선포, 선언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302-234, 1999.6.14) p.1527

선생님의 생애라는 것은 뜻의 해방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뜻의 해방을 위해 태어나서 뜻을 중심삼고 생애를 통해 뜻의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방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해방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감옥에, 영어의 몸이 된 것을 이 사탄 감옥세계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탄식하고 있는 만물까지 전부 해방하는 것입니다.

판타날을 중심삼고 맨 높은 데에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1998 년 5 월 13 일에서 15 일까지 특별한 정성을 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 금년에 있어서의 5 월 14 일 천주해방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미국에 돌아오신 날을 중심삼고 5 월 30 일 벨베디아에서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축하 선포일을 설정함으로 횡적인 입장이 다 닦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이 선포(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세계 앞에, 근심을 벗어나 에덴동산 가정으로부터 그 자연세계를 어디에 가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탕감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총결론은 아담완성입니다. 아담완성이 무엇이냐? 아담이 책임분담 완성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책임분담은 세계의 전통적 초석적 기준이, 가정적 초석이요, 종족적 초석이요, 민족적 초석이요, 국가적 초석이요, 지상천국 초석이요, 천상천국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의 초석이 더럽힘 당했습니다. 그걸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청소, 지상의 청소,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사장이 해와를 주관성 전도시킨 것도 거짓사랑 때문이요, 해와가 아담을 주관성 전도시킨 것도 핏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 핏줄을 더럽힌 인류를 자식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은 부모의 자리이니 숙명적인 입장인데도 불가피적으로 반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꾸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서 있는 하나님이 갈 데가 없습니다.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아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인 아담과 해와는 억만 대의 독자 독녀입니다. 억만 대의 독자 독녀를 잃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전통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아들딸을 보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길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서러움을 누가 해원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아담이 그것을 해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고생이 없습니다. 탕감이 없습니다. 단 하나, 절대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출발이 절대신앙입니다. 절대신앙을 가지고 지어 놓은 기반 위에 미래의 절대사랑의 몸을 만들고 사랑의 완성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신앙을 가지면서 절대사랑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의 사랑은, 자기보다도 억천만 배 훌륭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는 잊어버리는 역사의 탕감복귀를 되풀이하면서 수천만 년 아담완성의 가정을 찾아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고를 알고, 그 수고하신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할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천주승리 축하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봐도, 승리의 축하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하늘땅 모두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세워, 그 감사의 마음이 창조하며 바라던 소망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 부다 넘고 넘어서 안팎으로 완성한 아담이상의 자리를 굳혔다는 그 세계를 송두리째 상속받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4 차 아담과 출범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선 하나님의 마음과 참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담의 책임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상의 모든 심정과 정성의 마음으로 아담의 몇 십배 몇 백배 완성의 길을 넘어선 그 자리에서 가정을 중심삼고 효자, 나라를 중심한 충신, 세계와 성인, 성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전체 상속을 받아야 할 것이 부모님의 생애노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이것을 바쳐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서 승리, 만세의 승리,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존한 하나님이 그 이상의 승리를 바랄 수 없는 자리에 서서 상속해 줄 때, 타락의 한을 훨씬 넘은 새로운 세계의 승리의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총 결론입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사탄의 혈족은 흔적도 티도 없이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302-215, 1999 년 6 월 14 일 서울) p.1529

Top

⑪ 천지부모 천주통일해방 선포(9.9 절)

<1999 년 9 월 9 일 서울>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1999 년 9 월 9 일, 부모님의 79 세를 합하여 9 월 9 일 9 시 9 분 9 초를 중심삼고 천지에 한으로 막혀 있던 사탄의 완성수인 9 수권을 천상세계로부터 지상세계에 연결된 모든 지상천상천국에 연결된 지옥과 천국의 타락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있는 모든 전체는 사탄을 중심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복중시대로부터 막혔고, 유아시대 · 형제시대 · 약혼시대 · 결혼시대 · 부모의 시대를 거쳐 할머니시대와 여왕시대까지 남자세계 여자세계 공히 핏줄을 중심삼고 연결되어야 할 일체적 이상권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몸 마음 가운데 경계선, 복중시대로부터 경계선,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 · 결혼 · 부부 · 부모 · 조부모 · 왕권까지 전부가 막혔던 이 모든 사실들이 선과 악의 투쟁역사로 많은 하늘편에 선 아벨적인 형제권이 피를 흘려나왔고, 이 아벨을 중심삼고 가인을 역으로 굴복시켜 가지고 아벨이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찾아 가지고 사탄세계의 자녀들을 차자권으로 자연굴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핏줄이 더럽혀진 혈통의 인연을 바로잡을 수 없는 한의 역사인 것을 통일교회 교인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거짓 부모로 말미암은 이 모든 전체는 9 수에 해당하는 것이요, 하나에서부터 9 수까지는 하늘이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십의 일조권을 중심삼고 사탄수 9 수를 청산하기 위한 섭리역사를 해 나온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모든 9 수, 사탄수의 최고의 정상수를 개인적으로 굴복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굴복할 뿐만 아니라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참부모를 중심삼고 지상세계의 정비와 더불어 천상세계의 종적인 참부모 하나님을 중심삼고 일체가 되시어서 종횡의 사탄이 더럽힌 지상지옥과 천상지옥, 지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사랑을 중심삼고 주류의 천상세계의 천국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참부모의 눈물은 입체적인 것을 거쳐 가지고 개인적 시대를 지내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가정적 한계선을 뒤엎어 가지고 하나님적 최고의 가정이상을 지상에 폄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해방되고, 하나님이 자주적으로 모든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에서는 7?8 절을 중심삼고 참부모 천주안식권을 선포한 지가 만 사년을 지냈사오니 이제 4 년을 맞이하여 2000 년대를 중심삼고 사탄세계의 막힌 모든 9 수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는 2 천년대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일 10 수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1999 년이 2000 년을 맞이할 수 있는 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침없이 타락이 없는 본연의 창조이상적 아담가정 이상의 사랑을 중심삼고 종으로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끝까지 되돌아 가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구형적 통일세계를 찾으려 하는 그 본연의 뜻이 해방과 더불어 만세를 부르면서 천지해방권을 가질 수 있는 6 월 14 일을 중심삼고, 천지부모 천주승리 축하선포식을 가진 기반 위에 오늘의 이 모든 천지부모 천주통일 해방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남북통일의 운세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서문화의 격차, 동양에서는 정신적 문화의 기준이요, 물질 문명의 서구문명은 서로서로 투쟁적 개념이 있던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동서문화의 통일이요, 남북의 빈부의 격차를 통일할 수 있어서 형제지애의 부모를 중심삼은 가정이상, 통일적 종횡의 모든 사랑이상천국까지 해방권을 갖추어 가지고 지상세계의 지옥 전체, 천상세계의 지옥 전체, 지상세계의 천국 전체에 현현, 천상세계 전체에 현현할 수 있는 자유해방권을 맞은 최후의 결정적인 승리의 패권을 천주에 선포할 수 있는 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선언 앞에 절대복종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늘의 180 도 방향을 180 도 선한 방향으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인연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있어서 악한 조상 천사장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아담을 사랑하고,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천륜의 대 주체 부모 상대부모 천지부모를 반대했던 것을 이제 탕감복귀하여 절대적입장에 서서 온 인류와 만물을 절대 신봉함과 동시에 절대사랑과 절대 해방권을 따라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장까지, 지옥까지 해방할 수 있는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이 9?9 절을 선포하면서 이 내용을 밝히고 천주에 선포하오니 악한세계 선한세계는 하나님과 참부모와 일체화 되어서 선만이 남고 선만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상 지상 천상천국 천운시대, 해방시대를 맞게 허락할 것을 이제 참부모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문총재가 세계적 판도를 갖추었습니다. 미국은 천사장 국가이고 한국은 아담국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복귀역사는 모자가 협조해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모자협조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탕감역사에서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딸이 희생되어 복귀했지만 이 모든 것이 9?9 절을 선포해 가지고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운세에 들어가 통일되는 날에는 부자협조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없어도 됩니다. 어머니는 얼마든지 찾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해와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한국 미래의 통일의 이상세계와 천상천국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누가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장로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종교권은 몰라요. 그것은 참부모만이 아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부모는 무지의 사랑에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사랑이요,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부모는 완전히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민족적 귀결은 어떻게 되고, 양심의 분열을 어떻게 통일하느냐? 개인통일 가정통일, 종족, 민족, 국가, 세계?천국?하나님까지 내 손으로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하나님을 영어의 몸으로 가두어 놓았으니 참부모님은 해방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겁니다. 사탄의 왕권을 치워버리고, 장자권, 가정권, 왕권을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천상세계에 모셔와 선생님이 닦아 둔 터전에 들어와 가정통치, 종족통치, 민족통치, 국가통치, 세계통치까지 완결 지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놀음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위에 수많은 민족, 종족·혈족이 전부 360 도 위치가 다른 것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나요? 전부 다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빗방울이 떨어져 지류를 거치고 대류를 거치고 큰

[텍스트 입력]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 강이 거꾸로 흐르는 것입니다. 거꾸로 흐르니 모든 바닷물은 무한한 물이 있어 역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 산천 깊은 골짜기까지 사랑의 물결, 참의 물결, 정의의 물결, 이상천국의 유토피아의 물결이 흘러들어 가지고 세번만 들락날락하게 되면 자연히 정화됩니다. 3 년 노정만 거쳐 나가면 지상천국은 눈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국가관 대운세 전환시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태양빛은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참부모는 누가 필요하냐 하면 개인이 절대 필요합니다. 몸 마음의 싸움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르침은 참부모밖에 없으니 참부모는 수많은 인류 개개인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참부모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것이야? 참부모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내 것. 한번 해봐요. 참부모는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 된 남자 여자는 참부모님의 혈족을 이어받은 아들딸이다. 거기에는 사탄의 핏줄은 국물도 없는 것입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참부모님은 절대적으로 누구 거라구요? 참부모님을 절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 절대 완성자다, 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내 것이다. 참부모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구성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겠다. 지구성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구성과 영계와 육계를 팔아서도 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결심해야 할 것은 참부모님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다, 유일적으로 내 것이다, 불변적으로 내 것이다, 영원적으로 내 것이다 하는 결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9·9 절을 중심삼고 총탕감헌금을 해야 됩니다. 총탕감헌금은 무엇을 하느냐하면 원한과 해방식입니다. 해방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해방을 해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를 해방하고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총탕감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99 년 9 월 9 일 구구절 선포 이후 14 일 오전 7 시 15 분을 기해 지금까지의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천주통일 해방권을 맞이하여 제 4 차 아담권의 자주 자유의 해방의 시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303-253, 1999.9.9) p.1532

Top

⑫ 제 4 아담시대(이십절) 선포

<1999 년 10 월 10 일 우루과이>

1999 년 10 월 10 일은 10 월의 10 수는 하늘을 중심한 재출발수를 의미하고, 10 일의 10 수는 땅을 중심한 재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 월 10 일을 이십절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304-152, 1999.10.10) p.1532

Top

3) 자르딘 7 대선언과 새 에덴 창건

① 제 1 선언 : 새소망 농장(New Hope Farm) 선언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대상체인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야 한다." (268-262, 95. 4. 3 자르딘 새소망 농장)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찾기 위해서 사탄세계를 완전히 부정시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복귀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할례를 통해, 신약은 물론 세례를 줌으로써 불신으로 더럽혀진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약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희생함으로 자기를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투입하여 타락한 세계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려면 이 세상에 자기를 투입해 가지고 빨리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혈통전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빨리 나라를 수습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심정, 절대적인 복종이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행동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할 수 있는 사람만 되면, 통일교회 원리를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절대적인 혈통복귀, 소유권복귀, 심정복귀를 지상에서 이루어 넘어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레버런 문이 세계적으로 160 개 국가를 중심삼고 자유민주세계 및 공산세계를 수습하여 이미 승리의 패권을 쥐고, 남반부에 와서 지상천국, 이상왕권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시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 대신이요, 하나님 대신입니다. 선생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고, 하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1995 년 4 월 3 일을 중심삼고 새소망 농장(New Hope Farm)을 선언합니다. (268-262, 1995.4.3) p.1533

Top

② 제 2 선언 :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이상가정

"하나님은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절대자녀, 유일자녀, 영원자녀, 불변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절대부부, 유일부부, 영원부부, 불변의 부부로 살아야 하고, 절대부모, 유일부모, 영원부모, 불변의 부모가 되어야 하며, 절대가정, 유일가정, 영원가정, 불변의 가정으로 완성해야 한다." (98. 8. 7 자르딘 새소망 농장) p.1533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된 모든 피조세계의 본질적 사랑의,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부부, 절대자녀, 절대형제, 절대부모를 중심삼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 2 자르딘 선언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절대속성, 유일속성, 불변속성, 영원속성입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 네 가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전체 상대를 바라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니만큼, 보다 절대, 보다 유일, 보다 영원, 보다 불변. 이런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부모, 유일부모, 영원부모, 불변부모로 모셔 봤습니까? 그러한 부모가, 기원자가 있어 가지고 그 기원자가 보이지 않는 그 부모와 보이는 부부로서의 아담과 해와가 되었는데, 아담과 해와도 보이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라 하고, 만우주의 근본이라 하고, 모든 존재세계의 주체가 되는 하나의 중심이 있다 할진대, 그 중심이 바라는 이상세계는 이 땅 위의 존재세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는 천상에 있는 어떠한 이념의 세계도 아니요, 그렇다고 외적인 세계도 아닐 것입니다. 그 세계는 심정의 인연을 중심삼고 움직여낼 수 있는 정적인 흐름 앞에 전체를 걸어놓고 아들이요 딸이라 불려질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요, 창조주요, 절대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그런 내용을 갖춘 사람을 소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참된 사람, 참된 국가, 참된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참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인연 가운데 표준이 되는 인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부자의 인연입니다. 이 인연에서 비롯된 심정은 어떠한 존재의 권한에 의해서도 굽혀질 수 없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또 이 심정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권한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때 모든 존재물은 그 존재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심정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에 만천하는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진대 우리들이 바라는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하나의 절대적인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인류와 천륜 앞에 끝날이 있다 할진대, 그 끝날은 어떠한 날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날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너는 영원히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참아들딸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야 원한을 다 풀었노라 할 수 있는, 마음 턱 놓고 안위할 수 있으며 마음 턱 놓고 즐길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 아들딸이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그날, 그 때가 와야 하나님의 새로운 이념세계는 시작될 것입니다. (1998.8.7) p.1534

Top

③ 제 3 선언 : 제 1 · 제 2 · 제 3 의 창조주 선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제 1 창조주로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는 제 2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 3 의 창조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딸(아담과 해와)을 잃어버린 슬픔도 크지만 손주를 갖지 못한 한도 있다. 3 대가 제 1 창조주(하나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98. 8. 21 자르딘 새소망 농장) p.1534

하늘은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망하라고 하나요, 흥하라고 하나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위하는 사람은 중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리(天理)입니다.

아침밥을 먹게 되면 어제 저녁의 원수의 이름을 잊어버려라 그겁니다. 점심밥을 먹으려면 아침의 원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전부 다 그들을 위해 구해주겠다는 하나님 마음의 길을 따르면 천운이 그 뒤를 돌보고, 돌아서게 될 때는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원수를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원수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은 원수의 자식들이 학비 없으면 학비를 보내줬습니다. 먹지 못하면 먹을 것을 사줬습니다. 누군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중심삼은 천하를 수습할 수 있는 중심, 영원한 중심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런 논리에서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위하고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5 천 년 역사 가운데 살아 있는 성인이 문총재다! 그거 듣기 싫어하는데도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 가지고 살아 있는 성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겠어요? 자기의 마음에 높은 그 무엇이 관계되어 가지고 조상이라든가 지나가는 하늘나라에 가까운 충신의 족보 가운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찾아와서 꿈 가운데, 생각 가운데, 투입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행동 결과를 초래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p.1535

Top

④ 제 4 선언 : 숙명적 제안 해원(자르딘 새소망농장) 선언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관계다. 부자지관계는 숙명이다. 부모의 모든 한과 문제는 자식만이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이다. 입적한 가정은 다시는 불신이나 배신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간으로서 공명 통일되어야 한다." (295-167, 98. 8. 28(음력 칠팔절), 자르딘 새소망 농장)

부모의 사랑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장남 ?장녀가 있다면 자기 대신 사랑할 수 있게끔 형님들, 누나들이 자기 동생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시켜 주어야 하고, 그걸 묶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가정에 불화가 벌어지고 형제의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적 제안해원! 그것이 아담과 해와, 개체 복귀 완성을 해야 할 하나님의 소성을 중심삼고, 4 대 원칙에 절대 남자, 유일 남자, 불변 남자, 영원 남자. 또 절대 여자, 유일 여자, 불변 여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녀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불효 중의 불효요, 그 분이 찾아서 이루려는 가정에 있어서 효자를 바랐던 것이 잃어버린 장자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자의 전통을 이어 가지고 나라를 세울텐데, 나라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위해, 세계도 갖지 못했습니다.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 가지고 천상천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것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숙명적 과제를 성사 못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자르딘 선언입니다. 이것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사랑하는 주체는 자기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이 천리 원칙이, 근본이 하나님과 부자지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부부관계, 부자지관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적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자는 뼈입니다. 뼈를 중심삼고 어머니는 살입니다.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와 합하여져 구성되어 사는 것에 따라 어머니의 난자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뼈! 뼈에 대한 것이 어떻게 생겨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이냐? 아버지의 애기씨의 근본이 프로젝트입니다. 근본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어머니의 살을 받아 커 가지고 전부 다 모양 갖춰서 본래의 아버지의 애기씨로 있던 구상적 그 실체가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몸들을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커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로소 계획된 프로그램의 형태에 일체가 되어 가지고 태어난 것이 나입니다.

부부의 생활에 사랑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재가 없는 해방된 천지, 어디 가든지 그것이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적 사랑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사랑을 중심삼고 자유 생명의 결합 부부가 되어 가지고, 자유 생명의 결합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복중 생성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자유가 있다 할 때는 이것은 부모의 자유를, 사랑의 자유를 존경해야 되고, 부모의 생명적 자유, 혈통적 자유의 인연을 부정하는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시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지켜 나오던 사랑을 존중시하고,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어받고 난 후에, 그 위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살려면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모든 영양이 연결된 입장에 있어서 자랄 수 있는 자유권이 있지, 이걸 부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잘라버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길은 순리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위하면 사랑이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위에 사랑의 씨를 심어 싹이 나왔으니, 이걸 누가 키우는 것입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자체가, 자체를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디악에 가게 되면 연어가 많이 있습니다. 연어가 추운 겨울에, 11 월에 알을 낳습니다. 그렇게 추운데, 곤충도 없습니다. 조그만 고기도 없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난류를 찾아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조상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동물세계는 지금까지 전통을 따라서 수억 년이 지났지만 계속하는데, 인간은 더해야 할 텐데 그것마저 못 하고 있으니 인간이 동물보다 못 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새는 참사랑의 종(種)을 따라갑니다. 함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쌍을 짓게 되면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가정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부 규범을 만들라고 내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영계에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 세우는 법에 따라서 선생님이 없더라도 그 법을 선생님 대신 지켜 가지고 하나되어 나가면 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개인주의, 자기 존재의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체를 주장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한 혈통이 있었고, 그 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혈통을 존중하고, 역사를 존중하고, 조상을 존중하고, 조상들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인연이 뭐냐 하면, 부모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위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절대사랑, 절대아버지. 절대부모, 절대부모를 통한 절대 사랑에서부터 절대생명, 절대혈통이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뭉쳐 있습니다. 요걸 깨 자기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혈통의 대표자요,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체의 대표자, 어머니 사랑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로 받았으니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태어난 본위의 적이지, 이것도 이루지 않고 자유 행동하고 자기 욕망을 세워 가지고 멋대로 하면 망국지종이 됩니다.

숙명적인 과제와 운명적인 과제인 모든 부자지관계 인연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인데, 무엇을 중심삼고 되느냐? 참사랑을 중심삼고. 뼛골에서부터, 애기씨로부터. 그래서 태어나 가지고 지금 몸 마음 가지고 커 가지고 세상을 전부 다 안고, 아버지도 안고 어머니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거기에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할아버지가 말할 때는 손자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아버지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전통적으로 상속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숙명적 제안해원! 이래야 제 8 맹세에 있어서의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 사랑으로 일체되는 것입니다. 일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지상 천상천국의 해방권입니다. (295-167, 1998.8.28) p.1537

Top

⑤ 제 5 선언 : 가정적 4-4 절 선포

"지상세계의 완전 완벽한 섭리완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영계에도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고 지상에도 사위기대가 이루어졌다.
㉯ 부모와 자녀가 사위기대를 찾았고 이상가정의 씨를 부렸다.
㉰ 1 세대와 2 세대가 하나되었다.
㉱ 남(판타날)과 북(알래스카)이 하나되었다.(하늘과 땅이 하나됨)
㉲ 사탄혈통이 단절되고 하나님 편으로 혈통이 전환되었다." (1998 년 9. 8(4 · 4 절) 알래스카 코디악)

오늘이 1998 년이고 9 월 8 일인데, 이 모든 숫자를 더하면 44 수입니다. 아담 사위기대, 자녀 사위기대, 상대 사위기대를 넘어설 수 있는 9 수는 사탄수이고, 8 수는 출발수입니다. 19 도 20 전입니다. 전부 사탄수입니다. 그런데 전체 · 전반 · 전권 · 전능의 시대, 하나님 맘대로 할 때가 옵니다.

사탄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4 수는 언제 나타납니까? 역사적인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98 년 9 월 8 일의 합 44 일, 그래서 오늘 사사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코디악에 가 가지고 4?4 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2 세를 중심삼고 내세워 가지고. 여기 남쪽에는 국가적 메시아, 북쪽에는 어머니 나라의 가인적 메시아,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심정적인 것을 중심삼고, 그 앞에는 2 세가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북쪽에 들어가 가지고 장자 2 세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돼 가지고 비로소 그때 4?4 절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의 사위기대 착지, 아들딸 사위기대 착지를 해서 둘 다 비로소 사위기대가 착지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6 월 13 일, 성인과 살인마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탄이 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적 지상천상천국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95-268, 1998.9.8) p.1538

Top

⑥ 제 6 선언 : 총영계 영인 해방식 - 전체 해방 통일식

"모든 영인들은 아무 공적없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지상의 후손을 도와 지상천국 건설을 도와야 한다." (1998. 10. 5(음 8.15), 브라질 상파울루)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 1998 년 10 월 5 일, 이 날은 한국에서는 추석으로 조상을 모시는 기념의 날이옵니다. 이제 한국의 청평과 이 서구사회의 상파울루의 청중과 하늘땅을 놓고 모든 피조만물과 모든 영계에 있는 영인들, 조상들과 천천만 성도들, 하나님을 위시한 땅 위의 사랑으로 지은 피조만물들과 이 땅 위에 사는 온 인류가 일치권을 이룬 사랑의 결정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해 역사시대의 구약-신약-성약 해방 완성권을 향해 나오신 아버지, 슬펐던 역사를 다 거두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이신 6 월 13 일 축복한 모든 5 대 성인을 중심삼은 그 기반과 더불어 관계되어 있는 종단 인연의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제자들과 같이 축복받은 이 무리들이 이제 최후의, 전환의 한 때를 맞이해야 할 지상에 다시 형제들과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상과 더불어, 같이 충효의 도리와 전통의 그 발자국을 밟아 가는, 이 땅 위의 천사장 가정들을 이 땅에서 완성한 아담 가정에 있는 지상 축복가정 해방권 앞에 동참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는 효자의 도리, 나라에서는 충신의 도리, 세계에서는 성인의 도리, 하늘땅에서는 성자의 도리의 사랑적 인연을 같이 이어받을 수 있게끔 하늘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하나가 되어, 이 일이 영원히 가능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중심삼은 그의 따르는 제자와 그런 조상을 지닌 아담과 해와와 더불어 연결된 후대 조상들도 해방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부모님을 지상에 모신 본연의 완성적 하늘과 일체의 사랑권 혈족을 중심삼고 모시지 못했던 모든 전부가 지상 천상의 조상들이 형제지인연, 부자지인연의 본연적 창조이상, 종횡의 결정의 사랑의 한 가정을 중심삼은 정착점에, 지구성 전체, 온 영계 전체가 하나의 참부모를 중심삼은 우주사적인 가정적 기틀을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선포의 날에, 영계 해방, 지상 해방, 모든 가정들이 종횡무진할 수 있고 자유 왕래할 수 있으며, 공히 활동할 시대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이제 이 모든 걸 묶어 가지고 지상 착지 활동할 것을, 온 피조만물과 더불어 참된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과 참부모의 참된 혈통적 심정권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상 천상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 승리를 위하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출동할 것을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총영계 영인 해방식 참조)" (296-9, 1998.10.5) p.1539

Top

⑦ 제 7 선언 : 천주적 4·4 절 선언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식

(1999. 11. 8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몸 마음통일, 부부통일, 자녀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자르딘 선언에 있어서 제 2 입니다. 제 3, 제 4 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는 4·4 절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은 사위기대 완성을 통해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4·4 절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자르딘에 와서 가정훈련을 해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시대를 통일제물로 바쳐야 되고, 신약시대는 아들제물을 완전히 통일제물로 바쳐야 되고, 이제 성약시대는 부모제물을 완전히 하나가 되어 바쳐야 원한의 세계에 해방과 통일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흠뻑 축복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으니, 수도 파이프가 굵으면 물이 많이 배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성들이고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승리적 모든 파이프가 각각 천상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정성, 정성, 정성을 다해서 패자가 되지 말고 승세자가 되기를 축원하나이다.

사탄세계의 권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비로소 지상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것도 4 수입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그 다음에는 해원시대입니다. 해원시대에는 전체를 바쳐야 됩니다. 이럼으로써 그걸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받아 가지고는 비로소 아담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받았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 줘 가지고 하나님이 참부모 앞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소유권 분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304-209, 1999.11.8) p.1539

Top

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하기 위한 기독교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를 완성했기 때문에 기독교 통일만이 아니라 세계통일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명칭이 통일교회 이름을 갈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4 월 10 일부로 사용해야 됩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사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사명은 끝나고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류사상 처음으로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시대로 들어갑니다.

가정연합은 가정을 이상가정으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복귀완성하고 하늘적 이상세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283-9, 1997 년 4 월 8 일) p.1540

가정이 정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개인권을 목표로 했지 가정권을 목표로 한 종교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출가, 가정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어떤 종교든지 개인구원을 했지 가정구원, 종족구원, 국가구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가정을 중심삼고 국가구원, 세계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정착되어 세계가 통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에덴에서 바라던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들딸 중심삼아 가지고 횡적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던 종족이 되고 자동적으로 민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번 해봐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통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정과 연합된 기준에 연결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훌륭한 가정이 앞으로 출세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제부터 가정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조치도 부부일신입니다. 남편이 장이면 아내는 부책임자입니다. 그 아들딸들이 모든 실력기준에서 우수하게 될 때는, 그들을 중요한 부처에 가정적으로 배치하고 일족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인데 세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를 잊으면 평화해서 뭘 해요? 평화를 잊으면 통일해서 뭘 해요? 통일이 없으면 가정을 해서 뭘 해요? 가정은 한 가정이 아닙니다. 연합주관이 없으면 가정해서 뭘 해요? 전부 다 관계가 됩니다. 연합을 생각할 때 통일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해야 하고, 세계를 생각할 때 평화를 생각하고, 통일가정연합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세계의 대표주인이 되는, 평화의 주인이 되는, 통일의 주인이 되는, 가정의 주인이 되는 연합세계의 통일천하의 주인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3-57, 1997.4.8) p.1540

Top

5) 타락의 고개를 넘으려면

① 부모의 길과 자녀의 길은 다르다

가나안 복귀노정에서는 선생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러기가 대양을 건널 때 왕초 기러기 앞에 절대복종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날아가! 하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죽도록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놀음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목적지에 와서 새끼 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자기 끼리끼리 서로 서로 위하고 사랑해서 한 족속을 이루어 가지고 그 족속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때요, 이제는 정착시대에 들어왔습니다. (115-58, 1981.10.28) p.1541

가인 아벨은 책임분담을 완성할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분담 완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 즉 부모가 해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한 것을, 기독교가 잘못한 것을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40년 동안 부모의 자리에서 개인으로 정비하고, 가정으로 정비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개인 책임분담 탕감복귀, 사탄을 추방할 수 있는 담벽을 만들어 놓고, 책임분담 완성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이상의 자리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창건이라는 말, 조국창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원리적입니다. (148-163, 1986.10.8) p.1541

여러분들은 천국가는 길을 모릅니다. 탕감길을 모릅니다. 탕감길을 알아요? 책임분담을 완성 못했기 때문에 책임분담 조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책임분담을 못함으로 사탄이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사회, 국가, 세계, 또한 영계까지 전부 다 사탄이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137-104, 1985.12.24) p.1541

자기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돼야 됩니다. 한 뿌리입니다. 뿌리를 잡아당기면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줄기나 가지는 자기 존재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방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승리적 기반을 닦고 자리를 잡아야 동서남북으로 자유가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유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모든 내용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고는 전부 다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키(key)를 가지고 열어야 천국이 열리지,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키는 본질적 키입니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건, 다 만들어도 그것 암만 해도 안 열리지만, 이건 놋쇠로 만들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재까닥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귀한 키라는 것입니다. (260-186, 1994. 5. 8) p.154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절대적인 신앙을 해야 합니다. 참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간다고 해야 됩니다. (46-99, 1971.7.25) p.1542

Top

② 자녀의 길은 절대 순종의 길이다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됩니다. 하나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악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57-114, 1972.5.29) p.1542

여러분 전부가 이제는 절대사랑, 절대복종 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에덴에 있어서의 그 가정들은 자기 소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사랑과 핏줄이 하나된 자리에 서 있는 참된 아들딸만 되면, 이 우주의 모든 전부가 아들딸에게 상속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핏줄이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핏줄을 상속받은 사람이 영계나 육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재창조, 복귀역사를 지금도 탕감조건 없이 전권을 가지고 밀어 부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신념을 가진 상대적 입장에 서느냐 못 서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심된 그런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과 하나되게 될 때에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수평세계로 금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자체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 가정을 이루지 못해 전부다 지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참부모의 승리권으로 하나된 모든 기반에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으로 넘어가는 이때이기 때문에 통일교는 참부모를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해야 합니다. 참부모는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전통을 이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 받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하늘의 축복이 같이할 것입니다. (1996. 11. 3) p.1542

지금까지의 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삼고 생활해 왔느냐? 예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자기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절대복종이었습니다. 절대복종! 왜 절대복종했느냐? 절대적인 주체, 원형적인 주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삼각형적 주체의 권을 이룬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사탄권 내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사탄권 내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양심을 중심삼고 절대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과 마음이 본래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니, 절대적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절대적으로 하나되게 만들려니 종교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57-31, 1972.5.21) p.1543

절대신앙에는 사랑이 따라갑니다. 부자지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태어났으니 자기의 피와 살과 정성, 이 모든 것을 투입하여 자기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무한히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투입하고, 투입해 잊어버리고 무한히 투입, 영원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개인의 가정을 넘고, 종족, 세계를 넘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타락의 한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지상에 있어서 하늘이 보는 관점에서 순리적인 내용으로 전부 다 이 땅에서 풀고 가야 됩니다. 역리적 내용을 가지고 가서는 재까닥 걸립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서 누구보다 선두에 서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구보다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알지만, 영광의 출발과 영광의 생애와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연결할 다리를 놓아야 할 텐데, 그 반대의 사탄세계에서 고생으로 시작했으니 고생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 절대유일가정, 영원불변의 가정,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원한 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종족, 영원한 민족, 영원한 국가,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 지상천국을 이루고, 그것이 천상천국으로 직결되는 하나의 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손자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버지라 하고, 아들도 아버지라 하고,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동가치적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아담과 같은 자리를 만민이 갖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계를 확실히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살 수 없습니다. 땅에서 완전히 합격된 가정으로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조건에 걸리지 않고 해방직행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 갈 수 있게끔 축복했지요? 하이웨이 닦아 놨지요? 자동차가 되어 있고 기름만 준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을 다 선포했습니다. 안 되게 될 때는 '이놈의 자식' 하고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땅 위에서 합격자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합격된 자들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여보냈기 때문에 저 나라의 감옥이나 중간 영계에 가 있습니다. 지상의 중간 영계라든가 낙원가정이라든가 혹은 지옥 가정이 없게끔 깨끗이 정비해서 천국 직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나도 절대적인 자리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변이라면 나도 불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이라면 나도 유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면 나도 영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영생은 불가피적이요, 그것은 결과적인 귀일점이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을 당당히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생명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이상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복종과 절대순종과 절대희생을 중심삼고 순응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야 부모가 사탄세계에서부터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세계의 남자는 천사장이니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235-281) p.1544

선생님은 지금까지 선생님의 말을 절대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노정을 순응해 나가야 됩니다. 역사적인 노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한 섭리적인 역사노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복귀섭리노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목적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한 점으로 결말 못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말지어 주자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통일원리요, 통일사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71-64, 1974.4.28) p.1544

진짜 효자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진짜 충신은 간신으로 몰려서 죽더라도 나랏님에 대해 무능한 군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신으로 몰려 죽으면서라도, 충신의 절개로 불쌍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군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사람이 진짜 충신입니다. 절대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복종으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참사랑의 길밖에 없습니다. (164-48, 1987.5.3) p.1544

Top

③ 의무와 수칙

자르딘이 중요합니다. 그곳은 한국과는 정반대의 땅입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을 중심삼고 선생님과 국가 메시아와 종족적 메시아가 재차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공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일족권 내에 가입할 수 있는, 선생님의 혈족권 내에 가입할 수 있는 권을 중심삼고 지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하이웨이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르딘에서 40 일 수련을 받은 축복가정들은 피난민 보따리를 싸서 무엇이든지 다 팔아서 대이동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젠 남북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되어 하늘이 인정하는 홈 타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상 천상 천국의 홈 타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부모의 가정으로부터 모든 종족, 일족으로부터 축복가정이 하나되어 정착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 세계는 모든 사상적인 면에서나 완전히 우리를 안 따라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근절, 이 말은 사탄의 혈통을 빼버리고 뒤집어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팔순인 2 천 년에 들어가서는 모든 지상의 일족들은 전부 다 천국행이다 이겁니다. 사탄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옥으로부터 출애급, 탈출하는 지상세계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80 세에 출애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의 참부모 가정왕으로서의 세계 지구성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뒤를 따라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상지옥을 떠나 천국으로 대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거기는 지금의 애급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부 팔아 가지고, 보따리를 싸라는 것입니다. 피난민처럼 대이동입니다.

애급에서 살던 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애급에서 먹던 고기, 생활하던 풍부한 그 모든 것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모래사장의 바람 부는 가운데서 거지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하지만 그때 그리워한 사람은 다 망했던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적 메시아의 가정은 3 대, 7 대를 중심삼고 일족의 성씨들이 합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조국광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계가 한꺼번에 휙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과 참부모의 소유를 중심삼고 세계의 모든 것이 모여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분배해 가지고 지상 천상천국,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 소유권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가, 전 천사세계가 한꺼번에 들어가 아담가정의 부활권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가정을 이루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고 한꺼번에 부모님이 이루어준 기반을 중심삼고 조국을 찾아 들어감으로 자기의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전부 해방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한국 땅을 만일 못 사게 되면 남미 땅을 전부 사 가지고, 전부 분할해 주려고 합니다. 남미의 땅을 사면, 한국 연장의 땅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미국이 한꺼번에 한국에 이동하겠다고 하게 되면, 남미까지 세계 기독교권을 전부 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입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 종족연합, 국가연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어디 가든지 자기가 폭발적인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늘 중심으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받아 횡적으로 밀어대라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이런 일을 자신만만하게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축복 천주화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늘땅이 전부 다 주목하는 가정이니까 여기에서 해방권이 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축복받은 일족이 하나가 되어 이제 자르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우주를 사랑하던 마음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끌어들이고, 집결시켜 여기에 일방적인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가정의 최후의 종착점에 예술적인 가정의 이상을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이 자기의 가정에 왔다가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가정, 만민의 모든 책임자들, 더군다나 하늘나라의 직계 참부모의 아들딸들을 포함한 황족권이 있다고 하면 어떤 황족이든지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을 수 있는 모델적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입니다. 일족의 핵이 될 수 있는 가정, 통일적 기준을 이룰 수 있는 가정,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안다는 겁니다. 진짜 몸 마음이 하나됐어요? 저 크리스탈같이 사방이 다 비치는 것으로 한번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 압니다. 부처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의 생일을 중심삼고는 헌납제를 해야 됩니다. 총생축 헌납제인데 총생축 헌납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원한과 해방식입니다. 해방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고 해방을 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든 뭐든 다 바쳐야 됩니다. 그 바치는 행렬이 세상의 역사이래 제일 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첫 조상이 일대가 되고, 이대, 삼대 대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았던 이게 몇 대야? 5 백 명이면 5 백대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5 백대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에서 누가 이것을 완성해 가지고 먼저 그 일을, 헌납하느냐에 따라 입적하는 문제에 있어서 5 백대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세계에 가 가지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단계로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발을 구르며, 동동거리며 이놈의 자식들아! 네 재산을 전부 빨리빨리 헌납해라. 안 하거들랑, 그 재산을 밟아 치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물, 신약시대 제물, 성약시대 부모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적인 모습을 빼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합해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참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통일적 제물을 헌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체를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이 땅 위에 우리 가정으로부터

[텍스트 입력]

종족, 민족, 국가에 군림함으로 말미암아 상하관계, 좌우관계, 전후관계를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되어 전체가 일시에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하고 원통한 것을 해원성사하는 그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썩어질 것, 지옥 갈 가정을 붙들고 방어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교육이 끝나거든 일족교육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정교육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 가게 되거든 몽둥이로 후려갈겨서라도 자르딘 교육을 가야 됩니다.

축복가정은 가정을 중심삼고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자르딘 교육받는 그 기지에 와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다 찍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선생님의 역사적 조상대열에 참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진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98-209, 1999.1.8, 사탄혈통근절완성 해방선포 참조) p.1547

언제 선생님이 대이동을 명령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축복받은 식구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남미에 가서 교육받아야만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고 선생님이 일족에게 사진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미국 책임자, 주 책임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 듣지 말고, 선두에 서서 교육받으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못 가겠으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아버지 대신 와서 채워서 조건을 세우면서 이런 피난 보따리를 정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거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입적 수속을 받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닮으라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닦여진 모든 복을 그냥 그대로 인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큰 고개를 넘었다면 이것을 중심삼고 같은 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감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300-309, 1999.4.11) p.1547

Top

6) 제 4 아담권 자유자주의 시대

① 제 4 아담시대는 자연복귀시대

제 4 아담시대는 자연복귀시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탕감복귀시대가 끝났음으로 제 4 아담시대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개인 아담권을 승리해 가지고 가정아담권을 넘어 종족아담권, 세계까지 넘어설 수 있는 자유 해방권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상적 가정이 되어 부모님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부모님 대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온 메시아, 신약시대를 넘어서 성약시대에 온 메시아, 1 차아담, 2 차아담, 3 차아담의 대신가정이 됨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 만민이 천국 직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제 4 차 아담권해방 축복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4 아담의 시대가 확정되면 축복 2 세들은 부모가 직접 축복해 주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시대를 맞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지구를 중심삼은 우주가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을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까지 축하하는 분위기 일색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모든 일은 천운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운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곤 하지만 천운이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계가 수많은 선조들과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땅을 도울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해방권을 이룰 수 있고, 탈바꿈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나라에 성주(聖酒)를 뿌려야 됩니다. 성주를 먹여야 살아나지요? 타락권 해방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만물까지 먹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부 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계 지구성에 성주를 비행기로 쭉 뿌려 주면서, 전부 다는 안 하더라도 주요 도시만이라도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나라 망하라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 참된 부모, 참된 부부, 참된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을 지키고 전통적 핏줄을 이어받은 왕자 왕녀는 사탄이 상대할 세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제 1 창조주, 아담은 제 2 창조주, 손주는 제 3 창조주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생-장성-완성, 3 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정착입니다. 그래서 4 차 아담을 세움으로써 전부 다 아담 아들딸로부터 번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사랑,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창조원칙입니다. 참부모는 중심 뿌리, 중심 줄기, 중심 순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가지니까, 가지는 중심 뿌리가 필요하고, 중심 줄기가 필요하고, 중심 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뿌리의 힘을 받아 클 수가 없습니다. 또, 줄기의 영양을 받지 않고는 그 나무가 뻗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이 없으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 1 창조주, 아담은 제 2 창조주, 아담과 해와도 제 3 창조주를 거쳐 세상에 지상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에 있어서의 제 4 차 아담권 시대로 넘어가 정착해 가지고 본연의 축복과 만대의 후손이 자기 부모의 전통을 존경하고 후손이 자기 부모의 전통을 존경하고 아들딸이 하나 되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전환된 세계가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 절대유일가정, 영원불변의 가정,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원한 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종족, 영원한 민족, 영원한 국가,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 지상천국을 이루고, 그것이 천상천국으로 직결되는 하나의 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손자도 아버지라 하고, 아들도 아버지라 하고,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동가치적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아담과 같은 자리를 만민이 갖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p.1549

Top

②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

1999 년 9 월 9 일 구구절 선포이후 14 일 오전 7 시 15 분을 기해 지금까지의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천주통일 해방권을 맞이하여 제 4 차 아담권의 자주 자유의 해방의 시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p.1549

Top

③ 제 2 창조주격, 자기를 창조하는 시대

참부모와 하나되어 전통을 상속받으므로 여러분 가정이 주체적 전통으로써 만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주체성을 지닐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하늘나라에 황족권 내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3 대가 결심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부부, 아들딸까지 단계는 4 단계이고, 계열은 부부를 갖춘 것은 3 대입니다.

개인 완성하기 위해서는 뭘해야 된다구요? 창조성 완성입니다. 제 2 창조주격의 입장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체 앞에 영원한 대상격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 자체만으로라면 알겠어요? 그래서 창조주격 입장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 불가결 요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하늘 절대자 앞에 대등한 자리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37-266, 1986.1.3) p.1549

하나님을 닮는 데는 내적인 면에서는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그 사랑이 절대사랑인 동시에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라면 절대적 하나님의 대상이지. 그런 내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삼고 창조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창조성 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창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체성을 지녀 가지고 상대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재창조하게 되면, 사랑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은 자기 이상 모든 것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 투입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대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는 원리가 있지요? 공중에서 완전한 플러스가 생겨나면 마이너스는 자동적으로 따라 생겨나는 것입니다. (221-25, 1991.10.20) p.155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성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일체될 수 있는 본연적 사랑의 정의에 일체된 존재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체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창조하게 될 때는 그 상대를 짓는 데는, 이런 본성자체와 더불어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가했느냐 하면 창조성, 절대 창조성, 유일 창조성, 불변 창조성, 영원 창조성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이런 절대적인 창조성을 투입했습니다.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데 주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좀 나아요? 나은 게 뭐예요? 마음은 같지, 나을 게 뭐 있어요? 그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게 조금 다르지, 다를 거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바탕은 마찬가진데 마음대로 하자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관계성을 확대시키느냐, 무대를, 환경을 얼마나 개척하느냐 그 차이지, 마음 바탕은 같습니다. (222-303, 1991.11.6) p.1550

Top

7) 사랑의 황족이 되라

① 천국은 황족의 명예를 갖고 가는 곳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왕자 왕녀가 되어 가지고 왕과 왕후의 사랑을 받은 황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천당가겠다고 하지요? 어떻게 되나 가보라는 것입니다. 문총재의 말이 맞나, 안 맞나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이론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7-172, 1992.11.16) p.1550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왕자 왕녀로 완성해서 가정에서 아들딸을 낳아 황족권 내의 사랑을 맛보고, 그 전체를 그대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고 천당 갑니까? 예수님 혼자는 안됩니다. 예수님에게 상대가 있어요? 환경에는 상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주체로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와야 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떠드는 기성교회를 보면 천치 중에 그런 천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236-261, 1992.11.8) p.1550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직계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왕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자 왕녀의 문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냐? 왕손으로서, 황족으로서 가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 모범적인 형제지우애(兄弟之友愛)의 직계 자녀와 방계적 자녀가 되어 모범적인 하나의 일족과 국가를 형성한 자리에서 황족의 명예를 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이동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236-204, 1992.11.8) p.1551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왕권을 대신한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모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전세계의 가정을 대표한 왕과 왕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왕이 되고 왕후가 되면 좋겠지요? 그 전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자 왕녀의 전통을, 천상세계의 황족적 도리를 세워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타락해서 파괴되어 프리섹스와 같이 되었던 모든 것이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순리의 도리를 이어 가지고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재편성해야 통일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233-45, 1992.7.20) p.1551

하늘과 땅의 나라가 사랑으로써 일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황족권만 이루게 된다면 영계나 지상에 가도 모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천상천국?지상천국 사랑 일체화입니다. 사랑으로써 비로소 황족을 중심삼고 모든 전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되고 하늘의 모든 족속이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232-326, 1992.7.10) p.155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타락한 이후에 지옥이 생겨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모두 참부모의 사랑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참부모의 사랑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갔으면 만민 가정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본연적 모델의 가정 형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전통적 역사를 이어받은 황족권 사랑을 연결한 모든 가정은 하나의 중심 줄기 앞에 동서남북의 가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권 통합의 원칙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일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31-76, 1992.5.31) p.1551

왕족, 황족을 중심삼고 입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혈통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에 의해서, 원리형의 악마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소유권이 사탄 편으로 넘어간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229-253, 1992.4.12) p.1551

아담 해와는 왕의 사랑의 상대자이며 황족권을 상속할 황태자라는 것입니다. 왕자 왕녀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삼고 태어난 장남 장녀가 아담과 해와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29-57, 1992.4.9) p.1551

가정을 중심삼고 이런 천국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이것을 단단히 알아 가지고 이 전통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들딸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늘나라의 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로서 사랑하는 것을 중심삼고 너의 장래에 우리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소망이다.' 하는 전통을 심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36-159, 1992.11.4) p.1552

거짓부모가 씨를 뿌려 엉망진창이 된 사랑에 물들어 가지고 이 땅은 악마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악마의 똥구덩이를 뒤집어쓰고 있는 이걸 목욕을 시켜 가지고, 본연적 하늘나라 황족권의 낙인을 찍기 위해 가르쳐 줘야 할,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6천 년 동안, 6천 년이 뭐예요? 억만 년을 수고해 왔지만 아담과 해와 완성을 못한 것입니다. (227-279, 1992.2.11) p.1552

이제 고향에 모두 돌아가야 됩니다. 고향이 어떤 집이냐? 하늘나라의 왕궁을 대표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초가삼간일수록, 하늘나라의 황족이 왕궁을 떠나 이 산천이 그리워 찾아와서 물 좋고 산수 좋은 여기에 와서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 한 컵 떠 주게 될 때는 그것이 약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물 한 그릇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무한한 가치의 참사랑의 진액이 투입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밥을 천년을 먹더라도 병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밥을 남편 모시고 한번 먹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갈 적마다 초야가 그리워서 찾아온 하늘나라의 황족을 대표할 수 있는 집이로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222-101, 1991.10.28) p.1552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그 왕권을 왕손으로서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남 장녀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이걸 물려받을 때이기 때문에 사는 데 있어서 왕손같이 살아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말씀 들었으니 틀림없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을 위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될 때는 천국의 하나님도 여기 들어와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 된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주체되는 가정이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가정은 천국나라의 본궁으로 하늘나라를 재확장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세계 한국에서도 160개 국을 중심삼고 하늘나라를 연결시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심정적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레버런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222-101, 1991.10.28) p.1552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생명에 몸 마음이 완전히 결탁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천하의 누가 유혹하더라도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피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히 하늘나라의 본연적 왕궁을 통해서 황족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져 가지고 당당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게 될 때는 사탄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222-89, 1991.10.28) p.1553

이제 여러분들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황족이 되어야 됩니다. 황족, 아담이 그렇게 되면, 아담이 직계자녀라면 방계자녀인 그 형제 누나들은 전부 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의 사랑을 갖추어 그 권위와 위신을 당당히 지녀 가지고 생애의 노정에 보무도 당당하게 위신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본향의 나라 천국인 것을 알지어다! (220-219, 1991.10.19) p.1553

하늘나라의 국민, 하늘나라의 종족과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황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우리가 지녀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 하늘나라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황족적 심정권을 체득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게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이 왕자를 갖고 왕녀를 가지고 왕자 왕녀를 사랑 못한 것이 한입니다. 그리고 왕손을 중심삼고 손자들을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자라 나오면서 왕자 왕녀로서 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랑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중간에서, 원리결과주관권 내에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직접 의논할 수 있는, 천지창조의 대위업을 중심삼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서로 의논해 가지고 역사를 편성할 수 있는 의논 상대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220-47, 1991.10.14) p.1553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족복귀, 황족복귀 이것을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게 되면, 6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사무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하는 그 말에는 천년 역사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형님! 하는 말에는 천년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누님! 하는 말에는 천년 역사,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심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심정의 주체성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대해서 나서서 말하게 될 때는 재창조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220-14, 1991.10.13) p.1553

가정에서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정이 안 나오니 천국 민족이 생길 수 있어요? 천국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천국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은 비어 있습니다. 천국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황족권의 권위를 가지고 천지의 사랑의 중심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대신자로서, 상대자로서 갖출 수 있는 내용을 갖춰 가지고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문총재 말이 틀림없다면 기성교회 교인들은 큰일났다는 겁니다. (219-33, 1991.8.25) p.1553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왕녀로서 왕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계 전체가 존경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의 사랑의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낳기에 앞서 잉태한 그 날부터 왕자 공주를 잉태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될 때는 아침해가 떠오르는 듯한 희망의 황족, 천하 전체를 상속할 후손이 태어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한 적 없지요? (218-358, 1991.8.22) p.1554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늘땅의 왕권과 하늘땅의 부모권과 하늘땅의 장자권을 중심삼은 직계 아들딸이 되어서 이 땅 위의 왕궁이 되고 하늘나라의 왕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방계적인 모든 형제들은 직계 왕궁 전통을 횡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과 하나되어 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뭐냐 하면, 사랑을 중심삼고 황족전통을 통과한 그 가정과 일족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족생활환경, 앞에 있는 사람이나 가지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이 천국 간다 하게 될 때에 모든 만민의 가정들은 사랑을 중심삼은 황족 전통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218-222, 1991.7.29) p.155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조부모와 헤어질 수 없고, 부모와 헤어질 수 없고, 아들딸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 3 대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되어 가지고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적인 기반을 닦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은 잘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인간을 중심삼고 횡적인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영계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에 의해서 본연의 아들딸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황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들을 본연의 에덴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218-199, 1991.7.28) p.1554

세계의 주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종교를 중심삼고 하늘땅 전체를 대신한 이런 인간들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이상적인 혈육을 연결시키는 부자지관계의 사랑이상의 사랑권을 가정을 통해서 환경을 넘어 세계 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왕자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의 황족이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4-220, 1989.10.22) p.1554

내가 찾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황족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랑의 황족입니다. 여러분은 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씨가 된 것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가 다음 해에 북풍한설, 혹풍이 불어닥치는 겨울절기를 넘어가 가지고 저 남에서 불어오는 봄바람과 봄볕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싹이 태양의 빛과 더불어 방향을 갖추어 가지고 여기에서 자체 내에서 창조력을 발휘해 가지고 생명력을 빚어 낼 수 있는 씨가 되어야만 생명의 싹이 되는 겁니다. (180-62, 1988.8.20) p.1555

나의 생애에 뭘 할 것이냐?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 사랑의 무덤 가운데에서 지금 살더라도 한이 없다 이겁니다. 무덤 같은 데서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살더라도 사랑 가운데에 살면 한이 없다 이겁니다. 사랑의 무덤을 살면서 남기고 가자! 그러면 인생살이는 영원을 두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딸을 데리고 환영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락지를 못 낀 손이라면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를 끼워 줄 것이고, 옷을 못 입었다면 하늘나라의 황족들이 입는 최고의 옷을 입혀 줄 것입니다. (97-167, 1978.3.12) p.1555

Top

② 사랑의 사람이 되라

사랑에서 화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옛날 창세 전 시대의 하나님의 기쁨과, 창세 이후의 상대적 실체들이 만나서 동화되고 느끼는 자극적인 사랑의 충격과는 천지지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춤을 천년만년 추더라도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노래할 수 있어요? 혼자서 좋다고 웃을 수 있어요?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태어나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사랑을 위해서 우주세계를 통일하고 점령할 수 있는 주인의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중심삼고 나도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대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 보니 창조한 소망적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하게 되면 찾아오고, 내가 어서 오소! 하면 하나님은 뒤에 따라오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천리만리 따라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식 따라가는 부모의 기쁨이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가 화동하고 자기 이상 환영하는 걸 볼 때 부모의 만족한 세포 전체가 웃음 보따리가 되어 후두둑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215-109, 1991.2.6) p.1555

사랑을 중심삼고 참사랑을 통하면 모두 친구입니다. 바위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지가 있습니다. 창조될 때의 자신의 존재권, 모든 생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반석의 산, 모습이 아무리 장엄한 산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볼 때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을 보고 이녀석 왜 크게 되었나?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크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중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사랑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랑을 하는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183-49, 1988.10.29) p.1556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은 이렇지만 너는 나를 중심삼고 우주 앞에, 사랑의 표제로 창조된 세계 앞에서 어느 면이 기울어지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화음되는 데 있어서의 자극적인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주에는 고저의 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와 같은 면을 메우기 위해서 공동적인 이상체권 내에 존속하는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눈과 같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새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출발한 것과 지금 영원 후에 계속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 본연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182-125, 1988.10.16) p.1556

고무줄은 풍 풍 풍 소리를 내며 늘어났다가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 갑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이 고무줄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완성한 위치에 서게 되시어 '나는 고무줄 같은 참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따라간다. 네가 네 안에 강력한 힘이 있어도 그것을 끊지는 못한다. 최소한 그것을 더 보호해 줘야지. 그 가치 있는 것을 보호해 줘야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참사랑의 고무줄인 것입니다. 순종해라. 완전히 순종해라! 절대적으로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당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내 안에 돈으로 가득찬 산과 들 천지다.' 하고 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창조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다이아몬드 광산과 금광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문제없습니다. (217-255, 1991.6.2) p.1556

자식을 위하여 천년 고생을 하고 천년 십자가를 지고도 또 하겠다고 하는 부모 앞에 효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효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세계에 하나님까지도 와서 이야, 나보다 훌륭하다! 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다 주고도 십년 백년 천년을 또 주더라도 그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생활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자식, 남편이 여편네에 대해서 그런 남편,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그런 부인이 되고, 가정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고, 나라가 세계에 대해서 그럴 때 그 세계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이 천상세계에 있으라고 해도 있지 않고, 인간세계의 복판에 와서 생활하면서 전부 다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다시 창조하는 놀음이 벌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215-243, 1991.2.20) p.1556

Top

제 11 권

우주의 근본

차 례

제 1 장 우주의 근본 질서

1)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전개 · 1561
2) 우주는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1574
3) 우주의 근본은 사랑이다 · 1584
4)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 1605

제 2 장 인간 창조와 사랑이상의 완성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1) 사랑의 절대가치 · 1627
2) 생식기는 3 대 본궁, 하늘의 지성소 · · · · · · · · · · · · · · · · · · 1639
3) 신인일체와 사랑이상 완성 · 1653
4) 생식기는 최고의 신비, 최대의 관심 · · · · · · · · · · · · · · · · · · 1676
5) 생식기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 · · · · · · · · · · · · · · · 1690

제 3 장 인간의 타락과 복귀
1) 인간 타락의 내적 의미 · 1695
2) 타락의 결과 · 1713
3) 참부모와 근본복귀 · 1734

제 1 장
우주의 근본 질서

1)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전개

①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본체

㉮ 하나님은 중화적인 사랑의 본체

우주를 관찰해 보면 모두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二性性相)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물이라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고, 식물의 경우 생존과 번식은 암수를 대표하는 암술과 수술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성성상은 동물의 경우 더욱 분명합니다. 어류·조류·포유동물 등 모든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 이브는 인류의 시조입니다. 이러한 이성성상의 존재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을까요? (201-204, 1990.4.9) p.1561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뭐하려고 했겠어요?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됩니다. 남자 성품만 가졌다면 여자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도 바라보고 남자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성품을 함께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적인 자리에서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이성성상을 가진 중화적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해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맞아 언제든지 주체의 자리에 있으니 주체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위에서는 남성격입니다. 그리고 횡적이란 여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188-92, 1989.2.19) p.1561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두 분일까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어떻게 두 사람에게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또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시겠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 원리에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중화적 본체입니다. 이것은 참 멋진 결론입니다. (41-290, 1971.2.17) p.1562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남성격 주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 같으냐? 우리와 같다, 나와 같다, 여러분들 같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격이라는 말은 반드시 상대격을 개재시켜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격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체격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24-83, 1983.1.30) p.156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창조원리에서 원리강의할 때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주체로서 격위에 있어서는 중화적 존재가 되어 있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중화적 주체가 되어 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의 중화적 존재가 되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엇 중심삼고 중화되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중화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193-153, 1989.10.3) p.1562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창조를 해 가지고, 창조이상 완성을 해 가지고 뭘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도 사랑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원리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입니다. 주체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립됩니다. 남성격을 갖춘 주체적 존재다 이겁니다. (149-9, 1986.11.1) p.1562

무엇이 통일적 기원을 가져오느냐? 혼자 계신 하나님을 통일적 자리에서 무엇이 기쁘게 해주느냐? 원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서 격에 있어서는 남성격입니다. 그 남성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남성격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성격이면 주체이며 플러스인데, 상대 없이는 플러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개념 가운데 무엇 때문에 플러스 격에 있느냐?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싶다, 절대적으로 하나되고 싶다 하는 그런 바탕이 없게 될 때에는 통일이니 융합이니 화합이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근원이 없기 때문에 분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195-20, 1989.11.1) p.1562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를 지은 목적은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기뻐하느냐? 사랑을 중심삼고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다고 하였는데,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223-300, 1991.11.17) p.1562

사랑이 남자와 여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냥 두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만 연결시켜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종합해 가지고 중심에 서서 움직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화합해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움직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성성상에서부터인 것입니다.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화합하던 그것을 상대적으로 전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10-317, 1990.12.27) p.1563

통일교회 문선생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성상을 중심삼은 중화적 주체다.'라고 딱 결론을 지은 겁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남자로 보이고, 왼쪽으로 보면 여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이 그렇잖아요? 안팎으로 돼 있으니 위에서 보면 남자로 보이고, 아래서 보면 여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자도 '됐어!' 하고, 남자도 '됐어!' 한다는 것입니다. (139-56, 1986.1.26) p.1563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확실한 내용을 갖고 나오는, 과학적 논리와 같은 논리를 갖고 나오는, 그런 종교인이 나오지 않으면 종교세계를 구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하니 이렇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신다, 우주의 존재가 주체와 대상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고, 사람은 사랑의 파트너로 지었다 하는 결론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초월해서 사랑으로, 영원한 세계와 묶을 수 있는 힘의 작용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계속하는 것이 천년만년 사랑의 작용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보통의 힘 같으면 약화될 텐데 약화되지를 않습니다. (219-178, 1991.8.29) p.1563

하나님도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만능의 하나님이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할 수 있지만, 본래의 원리원칙에 있어서는 사랑은 둘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성상을 이루게 되어 있고, 사랑도 그 조건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224-155, 1991.11.24) p.1563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 계신다면 이성의 중화적 존재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중심삼고 살아왔습니다. (193-303, 1989.10.8) p.1563

원리에서 논하고 있는 이성상상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성성상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주체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절대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36-37, 1985.12.20) p.1563

원리의 총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사랑적 주체입니다. 사랑이란 이 말도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걸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됩니다. (223-160, 1991.11.10) p.1564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 이성성상을 분립한 중화적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중심삼은 중화적 존재여야 되는가? 사랑을 중심삼고 중화적 존재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격위에 있어서는 남성적 주체격이어야 합니다. (194-64, 1989.10.15) p.1564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이러한 근본 문제,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근본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입니다. 우리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라고 말하지요? 중화적 입장에서 사랑을 중심삼은 통일적 존재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중심삼고 통일적 존재라는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223-268, 1991.11.12) p.1564

남자의 사랑과 생명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사랑의 근본인 분이 하나님입니다. 원리강론에 참사랑의 기원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참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을 수정할 수 있는 주인공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아요? (224-228, 1991.11.24) p.1564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짓기 위해서는 인격적 신이어야 됩니다. 인격적 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인격적 신이 되려면 인간 같아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이런 소성이 있느니만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인간과 더불어 공동목적을 가질 수 있는 본체라면, 인간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67-243, 1987.7.21) p.1564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합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자와 남자를 합해 놓은 두루뭉수리가 아닙니다. 합해 놓았지만 주체격을 갖춘 분입니다. 이 주체격 무형의 신 앞에, 주체격을 대신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돼 가지고 그 무형의 하나님 앞에 상대격을 갖추어서 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 아담 해와의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166-208, 1987.6.7) p.1564

동양 철학에서는 인격적 신을 몰랐습니다. 인격적 신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데, 막연한 음양은 인격적 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뿌리의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렇게 됐으면 남자 여자의 모든 소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성성상, 이 논리는 위대한 논리입니다. (145-196, 1986.5.4) p.1564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피조세계는 이성성상을 닮아 나왔다

우주에 근본되는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은 주체와 대상적인 관념을 가진 존재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 원리에서 말하는 이성성상은 위대한 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데에서 존속이 벌어집니다.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 밑에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우주는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으로 되어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106-296, 1980.1.13) p.1565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성상을 닮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성성상의 분립체로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 관계, 그 다음에 상하 관계 · 전후 관계 · 좌우 관계의 상대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적 제도의 여건을 가진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106-57, 1979.12.9) p.1565

주체와 대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 주체와 대상은 인간 자체에서 만들어진 주체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바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탕이 이성성상이고, 이성성상 가운데는 본성상과 본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33-36, 1970.8.2) p.1565

주체와 대상이 있어서 서로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힘은 혼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이라 할 때, 내가 마음에 나쁘다고 느껴져도 주체가 있어야 되고, 좋다고 느껴져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의 원리에 이성성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21-344, 1969.1.1) p.1565

우리 원리로 보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입니다. 주체라는 것이 무엇을 중심삼고 성립되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횡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극적인 기반을 다방면으로 갖고 싶어서 확대 전개시킨 것이 피조세계입니다. (193-217, 1989.10.4) p.1565

어떤 씨든지 두 조각이 한 꺼풀에 씌워져 있습니다. 콩 같은 것도 두 조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는 근본 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3-232, 1972.2.28) p.1565

생명의 씨는 반드시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서 한 분의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씨의 근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씨에는 배아가 있는데, 배아에는 뿌리가 될 부분, 순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가 다 존속할 수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더라도 완성한 실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2-147, 1994.7.23) p.1566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을 합하여 연결시키면 7수가 됩니다. 이것은 단계로 보면 3단계요, 벌여 놓으면 4위기대입니다. 이 3수와 4수가 조화를 이루어 통일이 되면 7수가 됩니다. 7수는 창조목적 완성수입니다. (26-187, 1969.10.25) p.1566

우주는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를 보더라도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상대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자를 보더라도 양자와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 구성의 근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하나의 체제권으로 수습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수습되어야 합니다. 그 창조의 의지에 일체화된 상대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247-183, 1993.5.9) p.156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에서 하나님을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과학적인 분석 결과에 의해 틀림없이 그렇게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되면, 하나님의 힘이 그것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없고 대상이 없는 곳에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주체와 대상의 힘이 주고받음으로써 영존합니다. (39-166, 1971.1.10) p.1566

원리는 이성성상을 말합니다. 이성성상이 왜 필요하냐? 이성성상이 없으면 창조의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성성상이 있기에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는 뼈와 같고, 하나는 살과 같기 때문에,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그 상대세계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성성상은 창조적 묘미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27-340, 1970.1.1) p.1566

원리로 말하면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 만유원력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들어가서 그것이 전부 만유원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293-11, 1998.5.1) p.1566

남자에게는 여자의 성상이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의 이성성상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이기 때문에 여자한테도 남자한테도 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상을 가진 남편도 여자가 이성성상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인의 가슴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의 마음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256-58, 1994.3.12) p.1567

아담 해와, 남자의 조상 여자의 조상입니다. 남자의 씨앗 여자의 씨앗입니다. 반쪽 씨앗입니다. 모든 것이 한 껍데기 안에 두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된 하나님 가운데 이성성상이 있는 것인데, 그 이성성상에는 배아가 있습니다. 씨가 있고 핵이 있습니다. (253-249, 1994.1.30) p.1567

하나님도 무형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실체 상대권, 절대적인 유형의 실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성성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형의 성상을 유형의 실체로 전개하는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우주의 피조세계를 생각해 보면, 광물세계도 전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로 볼 때는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 주체와 대상의 관념이고, 원자로 볼 때는 양자와 전자가 주체와 대상의 관념입니다. (228-140, 1992.3.27) p.1567

하나님은 여자 성품도 있고 남자의 성품도 지니고 있는 이성성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남자의 성품을 모아 가지고 남자를 만들었으며, 여자의 성품을 모아 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주체와 대상으로 갈라지며, 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 이것이 다시 합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교회의 원리에서 말하는 정분합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통일교회 원리가 앞으로 철학에 있어서나 종교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41-290, 1971.2.17) p.1567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냥 그대로를 드러낸 것과 같은, 하나도 안 빼고 전부 자기를 닮은 것과 같은 모양의 아들과 딸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이성성상이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서 처음 듣는 놀라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 이게 어떠한 말이냐? 천지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144-236, 1986.4.25) p.1567

사랑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는 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둘이 화합하는 기준을 중심삼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작동할 때는 쌍쌍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다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유의 전부는 사랑이상에 화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쌍쌍이 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이라는 말을 붙였지요? (177-271, 1988.5.20) p.1568

전체를 규합해서 하나의 원칙적인 기본을 따져 보면 주체와 대상의 관계, 여기서 존재와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에 의해 존재하고 작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이것을 중심삼고 이성성상이라는 개념을 캐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성상이 그냥 있느냐? 스톱하고 있느냐, 움직이느냐? 움직인다면 어째서 움직이느냐? 왜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이익보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작용하고 운동하는데 손해보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법칙이 있다면, 우리의 이상작용이라든가 소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작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손해본다면 이것이 점점 작아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작아져 가지고는 스톱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점점 커 갑니다. (125-72, 1983.3.13) p.1568

하나님 자신은 한 몸입니다.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생각으로는 '남성격 주체의 자리다. 여성격 대상이다.' 해 가지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남성과 여성이 분립된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충격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해와가 하나님 자신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더 충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사랑의 주체되시는 하나님은 나빠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둘이 하나된 그 자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 상대가 보다 가치적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도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중심한 사랑의 제일 법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51-173, 1971.11.21) p.1568

힘이란 본래 작용하면 감소가 되는데, 사랑의 힘만은 작용하면 강해집니다. 무한히 확산된 것은 그 안에 무한히 집약된 힘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환작용의 내적인 힘을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를 적용했으니 우리 통일교회에서 이성성상의 논리가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선생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캐치해 놓았습니다. (164-87, 1987.4.26) p.1568

참사랑이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기분 좋지요? '아이고 문총재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태어났대!' 하나님 붙들고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성성상까지 선생님이 분석했습니다. 이성성상에도 또 이성성상이 있지요? 여러분도 전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나오지요? 모르면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222-179, 1991.11.3) p.1569

창조원리의 이성성상이 왜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주체이고 어떤 것이 대상이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지고 따져 가지고 더 따질 수 없을 때 돌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암만 파더라도 돌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만년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아, 이 길밖에 없구만. 더 찾을 필요 없다.' 하게 될 때 원리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3-127, 1988.2.14) p.1569

Top

③ 하나님의 우주 창조 동기는 사랑

하늘과 땅 자체도 스스로 있고 싶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의 원천에 입각하여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도 더 한층 올라가 반드시 중심적인 주체를 갖추어 하늘땅을 움직이든가, 혹은 여기에 창조를 하든가 하는 힘의 작용체, 근본의 작용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다르게 표현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명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우주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작용하고 이동하더라도 그 이동하는 데에 따라 이동하지 않고, 움직이는 상대적인 세계의 중심에서 억천만 년 움직이지 않는 중심적인 본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4-298, 1964.10.5) p.1569

우주의 근본을 헤쳐 봤을 때 하나님은 왜 생겨났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생겨났느냐. 무엇 때문에 생겨났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맹목적인 신앙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추리적인 결론에 이어서 적절한 신에 대한 내재적 성품, 외향적인 뜻에 대한 세계와의 관계, 신에 있어서의 안과밖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문제입니다. (191-13, 1989.6.24) p.1569

인간이 제1의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원인적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제2의 존재입니다. 결과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원인적 존재는 무엇이냐? 신이 있다면 신 자체가 원인적 존재이며 절대자입니다. 그러한 절대자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자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이냐? 무엇을 중심삼고 인간이나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냐?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신학에서 취급해야 되고, 철학에서 취급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과 인간,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이겁니다. (198-283, 1990.2.5) p.1569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생겨났느냐? 사랑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우주의 근본은 어떻게 이뤄졌느냐? 사랑의 씨앗이 있어 그것이 상대를 중심삼고 흡수하다 보니 하나님 자체가 성상과 형상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받은 여러분의 생명의 씨, 한 세포가 커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이 생겨나고 코가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딱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07-27, 1990.10.21) p.1570

참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깊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 참사랑의 기원이 뭐예요? 하나님, 갓(God)입니다. '갓' 하면 한국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쓰던 모자를 갓이라고 그래요. 모자는 꼭대기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서 성상과 형상이 왜 갈라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어디냐? 우주의 근본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주의 모든 요소의 진액을 종합해 태어난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207-24, 1990.10.21) p.1570

사랑의 중심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생성 이전부터 있는 유일적이요 영원적이며 불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심정의 흐름입니다. 내적인 심정이 외적으로 흐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본질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신이 바로 존재론적으로 다룬 우주생성의 근본 원인인 통일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근본 원인에서의 우주의 생성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창조였음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신은 어떻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정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심정이 있는 곳에서만 생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생명이 있는 곳에 발전 운동(창조)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바, 그 이유는 심정이란 본래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조목적은 심정을 충족시키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피조물, 특히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을 때 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성을 닮은 인간과 국가가 하나님이 창조코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상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이란 당연히 향유하도록 되어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65-258, 1972.11.26) p.1570

우주의 근본이 뭐냐?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하나님만 있었어요? 사랑이 보여요? 사랑은 실체가 없는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컨셉(concept; 개념)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사랑은 컨셉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은 컨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93-132, 1998.5.26) p.1570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느냐? 사랑 때문에 했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랑은 종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환경적 여건이 없습니다. (193-303, 1989.10.8) p.1571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무엇이 그리워서 사람을 창조했느냐? 무슨 황금이나 지식도 필요하지 않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었는냐? 즉 창조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기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혼자서는 사랑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49-149, 1986.11.21) p.1571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그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무엇이 없어서 사람을 창조했느냐? 사랑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없는데 작용하게 되면 손해가 납니다. 전부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손해나는 곳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타나면 없는 것 같은데도 뛰쳐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있는데, 남성적인 하나님이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사람입니다. (60-76, 1972.8.6) p.1571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고, 금덩이가 필요하고,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왕이기 때문에 지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권력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에게 부족했던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상대적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고는 이 창조세계와 인간세계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고는 존재세계와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표준으로 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121-100, 1982.10.24) p.1571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아무리 절대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기쁨을 느낄 수 없으며, 설령 기쁘다 하더라도 기쁨의 자극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창조를 했습니다. 절대자가 아무리 '나는 절대자다. 나는 사랑의 주인공이다. 생명의 주인공이다.'라고 한다 해도 절대자 혼자서는 사랑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천지가 내 몸 속에 있다는 생명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38-152, 1971.1.3) p.1571

하나님이 자신만 생각했다면 천지창조를 했겠어요? 창조는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예술가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술가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투입합니다. 전부를 투입하는 데서만이 완전한 걸작품이 나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했을 때 비로소 걸작품이 생겨납니다.

창조는 투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힘을 투입해야 창조가 가능합니다. 힘을 투입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투입을 하는 데서 완전한 대상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은 주체로서 대상을 만들기 위해 완전히 투입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위해 있겠다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 창조입니다. (78-111, 1975.5.6) p.1572

창조한다는 것은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투입을 했는데, 얼마나 투입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을 때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하고 장난식으로 창조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참된 생명을 완전히 투입하고, 참된 사랑을 완전히 투입하고, 참된 이상을 완전히 투입했습니다. 우리도 정성 안 들이고 피와 살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기 전과 창조하고 난 후가 다릅니다. 창조하기 전에는 자기를 생각했지만 창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상을 위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다, 아들딸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81, 1973.10.20) p.1572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사랑의 상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요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요소를 백 퍼센트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하고도 더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이 참사랑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근본원리입니다. (203-197, 1990.6.26) p.1572

사랑을 점령하려면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하느냐? 사랑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학세계에서의 자연현상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작아지지요? 자연세계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작아지지만, 참사랑의 세계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커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창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7-127, 1992.11.13) p.1572

우주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나님을 두고 볼 때 전부가 위하는 데서부터, 투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자기를 소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소모해 가지고 상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둘 다 소모하는데, 소모하고 얻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만 가지면 아무리 소모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투입하는 것은 손해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에는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소모시켜서 투입했지만, 그 대신 사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투입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커갑니다.

그렇지 않고 참사랑이 작아진다는 원리라면, 하나님 자체가 투입해가지고 소모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됩니다. 참사랑은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커가는 것입니다. (237-124, 1992.11.13) p.1573

사랑에는 창조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투입해도 소모된 에너지 이상 언제나 보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싫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위하는 길에는 싫은 마음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위하는 길에는 영원히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는 원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237-130, 1992.11.13) p.1573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삼고서 투입, 투입, 투입해야 합니다. 투입을 하면 돌고 도는 겁니다. 공기를 예로 들어서 절대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다면 그 중간의 기압이 생깁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하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퍼센트 이상 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항상 하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원칙이 그러합니다. 완전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데는 영원한 운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영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지 않으면 통일원칙을 어디에서 끄집어 낼 수 있겠습니까? 위하게 되면 빙빙 돌지요? 빙빙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 작아져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아 넓게 퍼지면 내려가지만, 점점 쓱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아담 해와의 어깨 위에 양쪽 발을 올려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5-95, 1990.7.7) p.1573

하나님이 왜 계시느냐? 무엇 때문에 계시려고 하느냐? 사랑 때문에 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를 창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본질적 이상이 사랑을 중심삼고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208-235, 1990.11.20) p.157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소원은 참되게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발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가 참소할 수 없고, 받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자리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리를 세계적으로 넓혀서 온 만민을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두려는 소기의 목적입니다. (13-249, 1964.4.12) p.1573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다고 생명이 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생명에서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의 발원지, 동기는 사랑입니다. 생명이 생겨난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86-79, 1976.3.7) p.1574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뭘 하자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우주를 내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도 다 욕심 있지요? 그 욕심, 욕망 모두를 완성하는 데는 돈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원리의 진수요, 인생철학의 근본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144-132, 1986.4.12) p.1574

Top

2) 우주는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다

① 쌍쌍제도가 우주 존재 원칙

만물은 광물세계나 식물세계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주체와 대상 관계의 인연을 통해서 이상적 분모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만물은 결과의 존재입니다. 결과의 존재는 원인적 내용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적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랑권 내에서 동서남북 상하 전후좌우를 막론하고 언제나 화합하고 화동하기 위해서 모든 광물세계도 페어 시스템(pair system;쌍쌍제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쌍쌍제도로 구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광물세계도 동물세계도 식물세계도 인간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73-35, 1988.2.1) p.1574

창조를 하는 데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모델로 했습니다. 천지만물은 동서 사방에 벌여 다리 놓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광물?식물?동물계 전부가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쌍쌍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적인 길과 횡적인 길을 쌍으로 엮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그재그하는 놈, 이렇게 운동하는 놈, 별별 형태의 작용을 거치면서 쌍쌍제도를 중심삼은 만물은 이상적 사랑을 찾아가는 인간의 교재들입니다. (173-211, 1988.2.18) p.1574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체 대상의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모든 피조물, 존재세계는 그 나름의 사랑을 절대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삼고 주고받고 하나되기 위해 주체와 대상관계, 쌍쌍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209-89, 1990.11.27) p.1574

우주에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의 인연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쌍쌍제도의 컨셉을 중심삼고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다고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 주고 받습니다. 식물세계도 반드시 암술과 수술을 중심삼고, 동물도 암놈과 수놈을 중심삼고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207-9, 1990.10.21) p.1575

광물세계도 양이온과 음이온, 전부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 개나 되는 원소도 아무것에나 가서 붙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아무리 강제로 붙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대가 되면 하나되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못하게 억지로 별별 짓을 해도, 하나님이 말려도 재까닥 붙습니다. 그거 알지요? 전부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도 그렇고 동물도, 식물도 그렇습니다. 전부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음양의 이치를 통해 있습니다. (203-295, 1990.6.27) p.1575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페어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쌍쌍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광물세계?식물세계?동물세계를 막론하고 그들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체 대상과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삼고 전부 연결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89-190, 1989.4.6) p.1575

사랑을 가지고는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세계도 쌍쌍제도입니다. 식물도 쌍쌍이지요? 동물도 쌍쌍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급은 다르지만 수직의 사랑을 중심삼고. 차원은 다르지만 이 대우주의 사랑을 중심삼고 어느 공간이든 전부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형선상의 위치에 자기 존재를 결정해 가지고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사랑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198-304, 1990.2.5) p.1575

모든 피조세계는 쌍쌍의 조직체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물세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중력을 가진 지구성 위에서도 강한 인력관계를 갖고 있는 지남석은 그 인력이 지구 중력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작용이 표면상에 나타날 뿐이지, 지남석 이외의 모든 요소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화 운동도 전류를 통한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쌍쌍제도의 중심이 뭐예요? 그 중앙에는 자기 나름대로 둘을 연결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중심축이 있나니, 그 축이 바로 사랑의 축입니다.

그래서 광물세계의 원소들도 상대기준이 되는 것끼리는 스스로 하나되지만, 상반된 원소끼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고 또 어떠한 실험실 주인이 명령을 하고 암만 천년 공을 들여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197-164, 1990.1.13) p.1575

우주는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곤충들도 수놈과 암놈이 있지요? 어떤 때는 뜰 같은 데 나가서 흙을 한번 파 봅니다. 많은 벌레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벌레가 있는데, 그것도 암놈과 수놈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끼 낳고 젖 먹입니다. 그것들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감촉하니, 이거 수놈과 암놈이 이렇게 좋아하니 그 무슨 힘 가지고 그런 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곤충세계에도 사랑이 있지요? 수놈이 암놈을 따라가고, 암놈이 절대 수놈을 따라갑니다. (191-220, 1989.6.25) p.1576

광물세계도 쌍쌍으로 돼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중심삼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이 꼭지만 딱 뽑게 되면 하나님도 끌려오고, 참부모로부터 모든 세계 인류가 전부 신경의 힘줄에 달려 끌려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쌍쌍제도로 돼 있습니다. 급은 낮지만 사랑의 천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203-244, 1990.6.26) p.1576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은 쌍쌍제도입니다. 광물세계도 쌍쌍제도여서 급은 낮지만 양이온과 음이온도 사랑을 표시하면서 엉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버런 문이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역사 이래로 처음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참사랑을 절대시하고 그것에 절대 복종하고 살겠다는 그 기원을 발표한 것은 레버런 문이 역사상에 처음입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사랑을 찾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203-103, 1990.6.17) p.1576

미물도 그 나름대로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 우주의 쌍쌍제도라는 창조이상권 내에서 같은 자리, 같은 요소를 지닌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크고 나는 작지만 둘이 하나되어 나누어 줄 수만 있으면, 억천만세가 가더라도 나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원소세계가 하나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자기 짝짝을 따라가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데데하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일치가 안 되니 이게 사고입니다. (209-189, 1990.11.29) p.157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상만사를 보게 되면, 전부 쌍쌍제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느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야! 너도 나를 닮았구나. 너도 혼자는 외롭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급은 낮지만 전부 이상적 쌍쌍제도로 전개시켜 놓은 충만한 자연박물관이다 이겁니다. 자연박물관인 동시에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어때요? 지나가면서 길가의 소나무나 그 많은 미루나무를 언제나 보듯이 그렇게 무심히 봤지요? 이것을 바라볼 때 '너도 나와 같이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쌍쌍적인 인연을 갖고 사는구나! 너와 나를 비교할 때 오늘날 나는 혼자 살고 있고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니 너한테 부끄럽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계에 이르게 되면 낙후된 인간이라도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존경할 수 있는 인간이 되면 얼마나 미화된 세계가 되겠습니까? 보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세계는 쌍쌍제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209-189, 1990.11.29) p.1577

이 우주는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세계도 플러스이온 마이너스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소가 다른 것은 아무리 과학자가 연구하고 뭘 하더라도 하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와 상대성을 이루게 되면 암만 떼어놓으려 해도 하나되는 것입니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는데, 그 쌍쌍제도의 중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식물도 전부 남성과 여성 같은 성품을 중심삼고 화합해 가지고 씨를 맺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이 합해야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놓았으니까. 그래서 정(正) 분(分) 합(合)입니다. (198-112, 1990.1.25) p.1577

여러분이 환경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환경권으로 태양?지구?공기?물을 만든 것입니다. 환경권에는 언제나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은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세계도 그렇고 동물세계도 그렇고 인간세계도 그렇습니다. 왜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느냐? 참사랑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체 없이는 사랑을 중심삼고 완성할 수 없습니다. 공식입니다. 그와 같이 완성된 조상이 지금까지는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293-225, 1998.5.26) p.1577

수놈과 암놈이 하나되어야 모든 천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놈 암놈이 하나 안 되면 천지의 조화가 생길 수 없고, 쌍쌍제도로 되어 있는 우주세계에 화동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226-15, 1992.2.1) p.1577

혼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혼자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세계는 쌍으로 존재합니다. 왜 쌍쌍제도로 되어 있느냐? 사랑 때문입니다. 무슨 사랑 때문이에요? 본연의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본연의 사랑, 참사랑 때문에 존속하는 것입니다. (248-284, 1993.10.3) p.1577

만물은 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물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쌍쌍제도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인간들이 모릅니다. 쌍쌍으로 우주를 창조한 데서 절대신앙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쌍쌍제도가 생긴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8-11, 1998.12.31) p.1577

이 세상을 가만 보면 쌍쌍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권 내는 반드시 쌍이 있습니다. 그 쌍의, 주체와 대상은 밸런스를 취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딱 되게 되면,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밸런스 기준만 되면, 세계 모든 것이 평형이 되어 딱 평면이 됩니다. 우주에 수평 얼음판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되게 될 때에는 수평 얼음판이 모나지 않고 둥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 끝은 자연히 빙글빙글 도는 데 방해될 수 있는 작용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원심력 작용을 백 퍼센트 가중할 수 있는 원형을 닮아서 하나되게 돼 있습니다. (144-213, 1986.4.24) p.1578

쌍쌍제도는 주체 대상의 개념인데 이 주체와 대상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것이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개념이 있어 가지고 주체 대상이 있고, 주체 대상이 있어서 작용을 하고, 작용이 있어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는 이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전부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아하! 이렇게 되어 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기 전에 주체 대상이, 주체 대상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힘이 있으려면 작용이 필요하고,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 대상이 있어야 되고, 주체 대상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7-119, 1993.5.1) p.1578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는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광물세계도 쌍쌍으로 되어 있고, 식물세계도 쌍쌍으로 되어 있고, 동물세계도 쌍쌍으로 되어 있고, 인간세계도 쌍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쌍쌍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251-120, 1993.10.17) p.1578

힘보다도 작용이 먼저입니다. 작용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주는 쌍쌍제도의 원칙, 공식에 서 있습니다. 쌍쌍제도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간단한가 보십시오. 광물 세계도 쌍쌍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식물도 쌍쌍제도, 동물도 쌍쌍제도, 인간도 쌍쌍제도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성성상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며 공식입니다. (299-154, 1999.2.10) p.1578

모든 창조물은 페어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오관도 전부 다 쌍쌍으로 돼 있습니다. 그들을 감지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쌍을 못 가진 것은 이 우주 창조세계에서 추방돼 없어지는 것입니다. (279-41, 1996.6.9) p.1578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쌍이니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몸뚱이와 마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양심적이고 더 선과 가까우냐? 몸뚱이보다도 마음이 선한 면에 서기 때문에 마음을 절대 따라가면 천국이요, 몸뚱이를 따라가면 파괴, 없어지는 존재, 지옥, 파멸이다 이겁니다. (303-33, 1999.7.4) p.1578

Top

② 주체와 대상은 사랑의 관계

이 우주가 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종교 세계나 모든 학문의 세계, 혹은 철학세계의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인간인데,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조차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광물세계?식물세계?동물세계 3 단계로 연결된 전부가 쌍쌍제도로 돼 있습니다. 왜 쌍쌍제도로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53-219, 1994.1.30) p.1579

우주의 근본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사랑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놈과 암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수놈과 암놈이지만 식물에게는 뭐예요? 수술과 암술입니다. 광물세계는 분자를 두고 보면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입니다. 그게 수놈과 암놈입니다. 전부가 수놈과 암놈입니다. (273-91, 1995.10.22) p.1579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용은 그냥 혼자서는 못 하는 것입니다.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작용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주 현상의 근본이 힘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도 어떠한 작용이 시작되어 조화의 세계로 확대되어 나가는데, 작용의 형성은 플러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고받는 데서 작용이 시작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데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대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15-198, 1981.11.15) p.1579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수놈과 암놈이 있습니다. 수놈과 암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자도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전부 상대적으로, 주체 대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암놈과 수놈을 만든 것을 보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뭐냐? 주체와 대상이고, 수놈과 암놈이다, 이겁니다. (278-100, 1996.5.1) p.1579

우주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주체와 대상 관계에서 모든 조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좀더 들어가 보면, 주체와 대상 관계가 왜 필요하느냐? 작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용은 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 중에서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운동하고 있지요? 선생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반드시 이 주체와 대상을 중심삼고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40-168, 1992.12.13) p.1579

주체와 대상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전기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빛이 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빛이 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작은 전구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돼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더 큰 변전소를 통해 발전소까지, 결과적인 입장이지만 근본적 발전소와 연락될 수 있는 데서만이 영원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73-331, 1974.10.13) p.1580

우주의 근본은 힘보다는 주체와 대상 관념입니다. 우주적 근본은 주체와 대상 관념에서 시작하고, 주체와 대상에게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격과 상대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격이 하나님이요, 상대격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주체이시니까 상대가 없으면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미와 사랑과 진리로써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67-50, 1973.5.19) p.1580

우주의 근본인 힘이라는 것도 물질세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적 인연과 마찬가지 형태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든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지니지 않으면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48-9, 1971.8.31) p.1580

우주의 근본 개념이 뭐냐? 철학자들도 우주의 근본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모릅니다. 참사랑! 하나님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사랑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개념 완성은 뭐냐 하면 수놈과 암놈, 음성과 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47-119, 1993.5.1) p.1580

인류의 모든, 우주의 근본이 주체와 대상,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부가 상대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을 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광물세계도 그렇잖아요? 분자면 분자도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고, 식물의 세계는 다 수술과 암술, 동물세계는 암놈과 수놈, 인간세계는 여자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상대적입니다. (260-252, 1994.5.19) p.1580

우주의 근본은 무엇이냐? 우주는 무엇에서 시작했느냐? 사랑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는 힘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작용하는 것을 보고 힘이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작용을 안합니다. 그래, 작용이 먼저예요, 힘이 먼저예요? 남자가 남자로 클 때는 사랑의 힘은 작용 안 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작용하면서 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작용하면서 점점 성년으로 커 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을 만날 때 횡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힘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작용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전에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체 대상의 관계입니다. 사람도 마음과 몸, 모든 것이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눈도 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코도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겁니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247-119, 1993.5.1) p.1581

재창조의 공식은 무엇이냐? 우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를 보더라도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상대권으로 되어 있지요? 원자를 보더라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양자와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구성의 근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 사람은 남자와 여자지요? 전부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되어서, 결국 하나의 체제권으로 수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수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의지에 일체화된 상대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47-183, 1993.5.9) p.1581

참사랑에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의 두 종류가 있는데, 우주는 이 원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주의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식물세계, 동물세계, 광물의 세계, 이 모든 전부가 주체 대상의 관계로 되어 있고, 수직과 부체 관계를 중심삼고 원형을 닮았다는 사실은, 급은 낮지만 모든 것은 사랑을 모델로 해서, 우주의 근본을 따라서 전송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17-96, 1991.5.4) p.1581

이 세계, 우주를 보십시오. 광물세계도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식물세계도 수술과 암술, 동물세계도 수놈과 암놈 다 있습니다. 요즈음은 세균까지 암컷과 수컷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전부가 사랑을 중심삼고 자기 나름의 급을 중심삼고 하나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쌍쌍제도의 우주를 보면, 이것들은 인간의 이상적 사랑이 하늘땅을 대표해서 하나될 때 같이 연결돼 가지고 받들기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처음에 기초를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해 이런 쌍쌍제도를 전부 만든 것입니다. 동물도 수놈과 암놈이 다니다가 암놈이 피해를 보면 수놈이 그저 목숨을 내걸고 사수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새끼를 보면 새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랑의 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본래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2-123, 1991.10.28) p.1581

작용이 있기 전에 우주의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중심삼고 우주의 근본되는 그분도 주체되는 마음과, 대상되는 몸이 사랑의 개념을 중심삼고 영원히 공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209-87, 1990.11.27) p.1581

우주 구성체 자체가 맹목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방대한 우주가 상대적, 주체와 대상 관계에서 대응하면서, 주고받는 운동을 하면서 영속적인 그 법도의 궤도를 따라 영속하는 것입니다. 법도의 궤도를 따라가야 영속한다는 것입니다. 법도의 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벌어집니다.

우리도 밥 먹고 소화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영양 요소가 정상적으로 혈관을 통해서 보급되어야 영속이 벌어지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보급되어야 합니다. 잘 주고 잘 받아야 영속이 벌어집니다. (182-116, 1988.10.16) p.1582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했느냐? 근본인 사랑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세계는 쌍쌍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쌍 없는 것이 없습니다. 쌍쌍제도로 꽉차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둘러싸 가지고 사랑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되는 인간을 중심삼은 사랑의 기둥을 박고 거기에 다 둥치와 같이 붙어서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창조이상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할 때 그 뜻이 권력으로 가면 망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가도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종착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5-165, 1989.1.8) p.1582

주는 것이 왜 흥하고, 줌으로 말미암아 왜 크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이 우주를 창조한 당시의 근본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려는 것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주는 것입니다. 주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는 개념으로 바뀌면 미국은 점점 커집니다. 자꾸 받으면 모든 것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원칙에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가 나를 협조합니다. 우주가 나를 협조하기 때문입니다. (183-323, 1988.11.9) p.1582

우주의 근본 90도 각도는 참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측정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세계도 다 수놈과 암놈으로 되어 있지요? 왼쪽에 있든가 오른쪽에 있든가, 양질이든가 음질이든가. 그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지고 다 자기 계열에 따라 종횡을 중심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사랑하잖아요? 여기에 종적 수직선과 횡적 평형선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자기 존재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존재하는 박물관입니다. 새들도 사랑을 중심삼고는 생명을 겁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광물세계도 그렇습니다. 원소에도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 있습니다. 원소도 전부 다 자기의 상대를 중심삼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198-360, 1990.2.11) p.1582

우주의 근본이, 운동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모든 천체세계도 태양을 중심삼고 위성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핵이 돼 가지고, 또 다른 상대적인 상응세계와 연결해 가지고, 또 이것을 중심삼고 크게 되면 또 다른 큰 세계와 연결되고, 이래가지고 전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무변광대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전부 운동하면서 하나의 구형을 위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별들이 움직이는 그 세계가 어떤 때는 컸다가 어떤 때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땅도 컸다 작았다 합니다. 그거 알아요? 컸다 작았다 합니다. (222-174, 1991.11.3) p.1583

돌아가는 데는 뭘 중심삼고 돌아가고 싶겠어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남자도 받겠다고 하고 여자도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그렇게 받겠다고 하면 이마를 맞대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서로 주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존재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주는 쪽이 주체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123-227, 1983.1.2) p.1583

여러분, 몸뚱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참마음이 있으며, 그 참마음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근본이 참사랑이기 때문에, 참사랑의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여기서 추방당합니다. 우주에서 추방당하지 않게 하려니, 하나님이 그것 전부 다 가르쳐 주려니, 남자나 여자나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 결혼이다 이겁니다. 이래서 남자 여자가 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사랑, 즉 플러스 앞에 상대가 돼야 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주고받으려면 인간이 완전해야 됩니다. (123-107, 1982.12.19) p.1583

우리가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귀착되는데, 그분은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주 출발의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남자와 여자,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계의 분자를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물계는 수술과 암술로, 동물계는 수컷과 암컷으로, 그리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박사,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것 하나 생각해 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조부모, 또 조부모, 그리고 인류의 조상되는 분과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근본되시는 하나님께 물어 보아도 전부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주가 억만 년 지나도 원리원칙으로 남기 때문에 철칙입니다. 그리고 이 철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의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79-244, 1996.9.15) p.1583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추방 당합니다. 우주 만물을 볼 때, 광물세계도 주체와 대상관계, 식물세계도 전부 수술과 암술, 동물세계도 수놈과 암놈, 인간세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의 사랑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상대인데, 이 상대를 부정했기 때문에 상대로서 알고 있는 그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방해 버리는 것입니다. 소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280-63, 1996.11.1) p.1584

Top

3) 우주의 근본은 사랑이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우주의 중심은 사랑이다

이 우주 전체, 하늘나라 전체의 중심축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요, 혈통의 근본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축을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을 중심삼고 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위치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과 관계를 맺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실적으로 존속하고 싶은 것이 모든 운동하는 것의 목적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8-79, 1990.11.17) p.1584

우주의 근본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사랑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적인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싶은 이상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복종하는 곳에 완전한 행복이 있으며, 완전한 해방이 있는 곳에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198-237, 1990.2.3) p.1584

우주의 근본의 동기가 무엇을 중심삼고 움직이겠느냐? 남자 중심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중심삼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중심삼고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는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 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대,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걸 풀지 못했습니다. (185-157, 1989.1.8) p.1584

왜 참사랑을 해야 하느냐? 우주의 근본이 참사랑의 원칙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면 우주의 모든 전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위라면 하나는 아래고, 하나가 오른쪽이라면 하나는 왼쪽이 되는 것입니다. 광물세계 · 식물세계 · 동물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서로 주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기원이 되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로 주려고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우주입니다.

이런 논리에서, 보다 차원 높은 큰 존재에 전부 다 흡수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주 존속의 원천은 어디냐? 보다 높은 사랑을 중심삼고 주고자 하는 운동권 내에서 작용하는 것이 우주적인 존재입니다. (128-291, 1983.9.11) p.1584

우주가 존속하는 원칙은 이상적인 근본의 사랑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요, 종적 횡적 모든 구형적인 전체 방향성의 운동권 내에 소속한 속성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 앞에 여러분은 어때야 합니까? 거기에 보답해야 됩니다. 상대가 돼야지요? 하나되려면 부모와 같이 상대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사랑의 상대가 될 때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없이는 완전히 통일할 수 없습니다. (288-89, 1997.11.16) p.1585

하나님을 중심삼은 인간은 하나님의 몸과 마찬가지요, 몸과 마찬가지의 실체를 상징형으로 그림자와 같이 보내준 것이 이 우주만상입니다. 이 우주만상은 무엇을 표방하고 지었느냐 하면, 하나님 자체를 표방하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상적이나, 상징적인 위치에 있을 뿐이지, 그 근본 주체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153-119, 1963.11.15) p.1585

우주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진화론도 아니요, 창조론도 아닙니다. 진화보다 먼저 창조의 개념이 있기 전에 수놈과 암놈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수놈과 암놈은 왜 생겼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이것이 공식입니다. (280-60, 1996.11.1) p.1585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랑의 파트너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상대가 여러분보다 잘나기를 바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체와 대상으로 완전히 하나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창조의 근본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둘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뒹굴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얼마나 즐거운 세계이겠습니까? (276-123, 1996.2.11) p.158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집을 지을 때는 수평이 맞아야 되고 수직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다 넘어지지요?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근본문제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에서 '아이구! 나 사랑 좋다.' 하고 노래합니까? 문총재 혼자 춤추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 미친 사람 아니예요? 손수건 하나 보면서 춤을 춘다고 해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요것 10 분의 1, 100 분의 1 되는 요만큼 되는 것을 보고 춤을 추고 웃고 하더라도 그건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창조는 상대가치의 절대기준에 해당하는 가치적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179-229, 1988.8.12) p.1585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하나님이 결혼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의 몸 가운데 성상과 형상,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들어가 우리의 마음 자리에 창조주요, 아버지 몸 자리에 창조물이 됨으로써 아버지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돈도 아닙니다. 참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을 중심삼고 형상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모르면 우주의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286-16, 1997.7.1) p.1585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을 가지고 세계의 제일 대표자가 되겠다, 권력을 가지고 제일 대표자가 되겠다, 지식을 가지고 제일 대표자가 되겠다는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근본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은 참된 사랑을 중심삼은 대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79-33, 1988.7.3) p.1586

여러분, 사랑 좋다고 그러지요? 사랑 찾아 가잖아요?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우주의 근본되는 그 공식에 맞는 사랑의 직선길, 지름길이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84-58, 1988.11.13) p.1586

이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근본이 아닙니다. 지식이 근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 이건 저세계에서 보면 퇴폐적인 뭐라고 할까? 폐물을 주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폐품 수집 다니는 사람들이 돈 모으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돈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돈 안 씁니다. (191-18, 1989.6.24) p.1586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백 퍼센트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왜 투입했느냐, 지혜의 왕인데? 완전히 투입해서 하나님은 영(零)의 자리, 무(無)가 되고 저기는 120 이 되니, 기압으로 말하면 여기는 저기압 중의 저기압인 진공상태가 되고, 저쪽은 고기압이 되니 휘익 순환작용이 일어나 자동적인 발전원칙, 자동적인 운동원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꾸 밀어넣으면 이쪽으로 해서 감싸지요? 자기를 포위하는 그런 놀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196-320, 1990.1.12) p.1586

근본은 개인입니다. 개인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종족도 전부 다 말입니다. 근본은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90 각도. 그래서 이것을 종대로 해서 참사랑, 참사랑, 참사랑, 참사랑, 참사랑 이렇게 되어서 지구성 전체가 참사랑으로 하나되며, 우주든 어느 곳이든 참사랑으로 꽉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좋아! 당신은 나와 닮았다!' 하게 되며, 어느 곳에 가도 종적으로나 횡적으로나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207-58, 1990.10.28) p.1586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우주를 넘어가더라도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낮이나 밤이나 어디를 가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죽어서나 언제든지 사랑의 관념을 떠날 수 없게 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근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지금이라도 창조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와 같은 그런 사랑의 원동력을 중심삼고 전부 가는 것입니다. (133-64, 1984.7.8) p.1586

사랑도 물론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사랑을 소유한다는 것은 혼자 못 합니다. 둘이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혼자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측정 원기가 뭐냐? 우주만상 존재세계, 영원세계에 측정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원기,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춘하추동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137-235, 1986.1.3) p.1587

왜 사랑의 줄에 매여 살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도 좋아하고 우주도 좋아하고 이 세계도 화합할 수 있는 사랑줄에 인간이 매여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랑줄에 안 매여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없는데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본이 틀렸는데 결과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역사는 이런 관계로 돼 있습니다. (138-265, 1986.1.24) p.1587

몸과 마음이 하나된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는 석가모니가 경험한 자리입니다.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는 그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면, 사랑의 구형 내의 모든 힘은 이 중심을 통하지 않고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은 작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작용은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중심삼은 축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핵심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간끼리 엮어진 사랑, 가정을 중심삼은 사랑, 가정을 중심삼고 확대된 종족, 민족, 국가의 사랑, 혹은 성인이 가르쳐 준 사랑을 가지고는 그 근본을 깨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1-113, 1986.2.19) p.1587

우주 근본에 있어서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렇게 볼 때,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생명이 먼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인데,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속하는 데는 어떤 기반 위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무슨 기반 위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평화의 기반 위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평화의 기반 설정은 무엇이 하느냐? 생명이 하느냐, 다른 무엇이 하느냐? 그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와 대상이 높고 낮음을 초월하고, 공통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질서적 단계를 초월한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뭐냐? 참된 사랑입니다. (173-84, 1989.8.20) p.1587

여러분, 세포 번식이라는 것 알지요? 이거 하나를 똑 따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눈이 나오고, 코가 나오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참사랑과 연결된 세포는 우주와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참사랑이 그래야 되느냐? 참사랑은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고, 근본인 동시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16-288, 1991.4.14) p.1587

사랑은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존재든지 인연을 갖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미물인 풀 한 포기도 반드시 사랑을 중심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광물도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을 중심삼고 생겨나서 다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89-129, 1998.1.1) p.1588

참사랑으로 이룩된 심정권은 아무리 작아도 우주와 연결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파장은 만상과 영계까지 파급되는 것입니다. 영계를 포함한 천주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원리 아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종횡, 전후적 참사랑 관계는 인간 상호간의 이상적 참사랑 관계의 근본이요, 그 완성은 4 대 심정권을 이룬 이상가정에서만 이룩됩니다. (260-128, 1994.5.1) p.1588

사랑의 본질은 뭐냐? 어떤 사랑이냐?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날 미국에 만연되어 있는 프리섹스, 하룻밤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근본의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근본의 사랑, 참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입니다. 이 우주가 생겨나기를 무엇 때문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생겨났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는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사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55-56, 1994.3.5) p.1588

왜 위해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원치 않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랑의 줄이 매여 있습니다. 사랑의 줄이 만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이 내 몸을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부가 손을 벌리고 어서어서 감아 달라고 합니다. 빨리 빨리 크자 이겁니다. 사랑의 우주를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주도 우주지만, 그건 파트너 세계지만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까지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278-142, 1996.5.5) p.1588

하나님이 매양 기쁘겠어요? 여러분은 매양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가졌을 때는 슬픔도 그 사랑으로 다 소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사랑의 절대 권한이 이 우주의 어떤 개별적 권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무엇을 가지고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의 욕구였더라 이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에서 왔습니다. 그 근본의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온 것입니다. (200-197, 1990.2.25)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요즈음의 공산주의같이 투쟁 개념에서 시작했겠느냐, 융합 개념에서 시작했겠느냐? 어떤 것입니까? 전기로 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화와 융합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조화되고 융합해 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주의 근본은, 본성이라는 것은 조화도 되고 융합되는 내용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4-111, 1983.2.1) p.1589

모든 우주 가운데에서 빚쟁이가 되지 않고, 빚을 지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 근본이 없느냐? 아닙니다. 마음에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할 수 있는 마음, 물을 보고 산야를 바라보고 들을 바라보고, 삼천리 강산, 더 나아가서는 대지구성을 바라보고 '고마워!' 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고맙게 생각하고 환경에 고맙게 생각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주인의 마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참된 주인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98-150, 1990.1.28) p.1589

Top

② 인간은 만우주의 사랑의 중심

㉮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년만년 그리워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이 보니까 요것이 우주의 근본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안팎 관계가 됐으니, 종횡의 사랑의 세계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상하관계와 좌우관계가 되니까 종횡의 사랑의 세계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 하나로 단단히 묶어 줄 수 있는 그 자리는 종횡의 중심입니다. 요걸 묶어 놓지 않으면 종횡의 기준이 사랑의 이상형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종적인 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횡적인 것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안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48-223, 1971.9.19) p.1589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의 관을 소유한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의 대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 위의 피조만물 가운데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로 보면, 상대적 존재란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대적 가치'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말입니다. 상대적 가치라는 것은, 상대라는 말을 중심삼고 그 대상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줘 봐야 하나님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남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투입하고 하나님 자신의 힘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소모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대상의 가치적 존재로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가치의 존재가 인간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을 두고 가치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68-134, 1973.7.29) p.1589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 때문에 지었습니다. 인간은 왜 지음 받았느냐? 사랑 때문에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만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딸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지음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권입니다. (132-244, 1984.6.20) p.1590

사람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이상의 창조세계라는 것은 실체를 중심삼은 사랑의 표시가 형상으로 나타나고, 형상의 표시가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사랑을 중심삼고. 그 실체가 기뻐하면 그 형상되는 존재가 기뻐하면 상징적인 것도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용을 무엇이 하느냐? 사랑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166-48, 1987.5.28) p.1590

만물지중(萬物之衆)에 유인(唯人)이 최귀(最貴)라 했습니다. 만물 중에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중심이냐? 사랑을 중심삼고입니다. 지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못 찾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못 갖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혼자서는 하나님이라도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272-275, 1995.10.8) p.1590

하나님이 천지를 누구를 위해 지었느냐?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만물지중(萬物之衆)에 유인(惟人)이 최귀(最貴)라 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적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속성에는 상속권이 있고 동위권, 동참권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접하면 아무리 높은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아무리 우주적인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랑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179-148, 1988.8.1) p.1590

오늘날 통일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전권의 하나님이라도 사랑은 상대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권을 갖춰야 합니다. 그 상대가 아담 해와입니다. (121-173, 1982.10.24) p.1590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절대자고 전지전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명사는, 혹은 좋다는 형용사는 혼자서 설정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갖춘 자리에 있어야, 좋고 행복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잘 부르는 음악가가 있어서 혼자 노래를 불렀다고 합시다.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좋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5-20, 1972.11.13) p.1591

Top

㉯ 인간성장의 길은 하나님 자신의 전개과정

인간 창조란 하나님 자신이 커 온 것을 실제로 재차 전개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흥미를 느끼고, 자극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가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기 내적인 소성을 전부 실제 형상으로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뼛속 깊은 데까지 짜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225-198, 1992.1.20) p.1591

인간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남자면 남자 자체로 완성할 길이 없고, 여자면 여자 자체로 완성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반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된 사랑을 중심삼고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완성하는 데는 누가 절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데, 하나님은 종적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아담이 완성되려면 종횡의 인연을 가져야 합니다. 종횡의 사랑의 인연을 갖지 않으면 회전운동, 구형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적으로 아담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해와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와에게도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담입니다. (145-319, 1986.6.1) p.1591

아담 해와를 두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뭐냐? 아담 해와가 아들딸로 자라 왔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자라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아기와 같은 때가 있었고, 형제와 같은 때가 있었고, 부부와 같은 때가 있었고, 부모와 같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그렇게 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같이, 부부같이, 또 아들딸같이 그렇게 창조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254-274, 1994.2.15) p.1591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지었다면, 어떤 단계로부터 지었는가? 아담 해와를 장성한 사람으로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기로부터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밴 어머니가 품어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지었다는 논리를 세우지 않고는, 이 모든 3 단계의 질서를 통한 존재의 형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유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기가 있었고, 완성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리의 도리입니다. (225-198, 1992.1.20) p.1591

아담 해와에게 유아기가 있었는데, 그 유아기는 어떤 유아기였겠는가? 무형의 하나님이 무형의 세계에서부터 유형의 과정을 거쳐 올 수 있는, 아기의 존재를 품고 키웠다는 논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 자라서 성숙해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이 청년기?장년기?노년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온 사실을, 하나님이 자라던 무형의 과정을 실체로 보기 위한 존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어야 부자일신(父子一身)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적이고, 하나는 횡적이니, 종횡일신(縱橫一身)의 이론을 취할 수 있습니다. (225-198, 1992.1.20) p.1592

사랑하는 부부, 아담 해와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형 실체가 성상 형상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되어 창조하고 부모 입장에 선 것과 같습니다. 제 1 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제 2 창조주로 만든 아담 해와가, 실체의 제 2 하나님의 입장에 선 아담 해와가 다시 아들딸을 갖고 낳음으로써 부모 입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자녀를 통해 실체 아담 해와의 유아시대?형제시대?부부시대?부모시대 등 하나님의 지나간 과거를 또다시 실체로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는 제 2 의 자기 자신입니다. (258-240, 1994.3.20) p.1592

결혼한 부부의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역사시대에 인류가 소망하던 자녀로서의 희망봉이 꽃피는 자리요, 형제로서 꽃피는 자리요, 부부로서 꽃피는 자리입니다. 이래 가지고 부부로서 사랑했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딸을 낳은 거기서부터 아담 해와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실체적 창조주의 입장이 되어 나를 중심삼고 평면적 창조주의 입장에서 아들딸을 낳은 것입니다. 제 3 창조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대신 실체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던 것을 내 실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커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녀시대 · 형제시대 · 부부시대 · 부모시대로 발전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과거사를 중심삼고 자기 아들딸을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아기시대의 제 1 창조주, 무형의 창조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 2 창조주, 볼 수 있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창조주의 자리에서 아기를 키우고 형제로 키워서 부부를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아들딸로서, 형제로서 키워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내적인 모든 요구의 실상을 실체적으로 아담 해와를 통해서 평면도상에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딸입니다. (263-148, 1994.8.21) p.1592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적 내정적인 원칙을 중심삼고 존재의 기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을 실체적으로 전개해 나오는 과정이 아담 해와 창조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주 작은 세포가 합해져서 큰 세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가 열 달 동안에 자라는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남자 여자의 형태로 갈라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명 유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리에 대해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전적 내용을 어떻게 전개시키느냐 하는 논리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본질적인 무형의 형태와 유형적인 형태의 본질이, 일체적 내용의 인연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전개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 앞에 상대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적 성상은 외적 형상과 모든 근원적인 면에서 영합도 되고, 통할 수 있는 내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이 실체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존재가 표현되어서 나타나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타난 실체라는 것입니다. 무형의 실체가 유형의 실체로 전개되느니만큼 거기에 모든 전부를 투입해야 됩니다. (225-198, 1992.1.20) p.1593

하나님이 사랑을 찾아가는 대상을 만들려고 할 때 누구를 닮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닮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을 닮게 만든다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남자 성품이 있어야 되고 여자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닮았는데 자기 본성상에서부터 전부 다 빼내서 보이지 않는 성상, 보이지 않는 생각의 형태를 실체로 전개시킨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170-167, 1987.11.15) p.1593

하나님과 인간이 박자가 맞아서 화동할 수 있는 기쁨의 박자 앞에, 모든 것이 자기 모양대로 음률을 맞출 수 있고, 자기 모양대로 전부 다 상징적으로 형상적으로 춤을 추고 이럴 수 있는 기쁨의 세계가 본연의 동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도 '아하,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이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잔치를 하는 잔칫날에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을 가지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피조세계의 지극히 작은 만물이 바랄 수 있는 소원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166-46, 1987.5.28) p.1593

아무리 진리라 해도 진리의 핵심이 뭐냐?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본질적 사랑은 종적인 곳에 있는 것이요, 진리적 사랑은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지니,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아담 해와를 보아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왜? 아담 해와는 종적인 참사랑의 대상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를 둘 다 완전히 딱, 남자 여자의 사랑을 동서남북을 통해서 세계의 축을 갖다 맞추게 될 때는, 하나님과 영계가 통하고 만세계가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179-290, 1988.8.14) p.1593

Top

㉰ 인간은 피조만물의 중심

하나님은 누구 닮았다구요? 우리 닮았습니다, 남자 여자.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지요? 마음 보고 싶소, 안 보고 싶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체(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체가 없습니다. 아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가 지금까지 없다 이겁니다. 마음 같은 우주에 마음 같은 주인, 마음 같은 스승, 혹은 관리자, 마음 같은 부모로 계십니다. (197-44, 1990.1.7) p.1594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딸을 지을 수 있는 토대입니다. 관계되고 연결될 수 있는 토대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광물도 그렇습니다. 광물세계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식물세계에도 전부 암술과 수술이 있고, 동물세계에도 암놈과 수놈이 있습니다. 전부 다리를 놓아 모든 것이 결집되어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의 내적 형상과 외적 형상입니다. 그것을 실체화시켜 남자와 여자 성상을, 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모든 형상을 부여해 상징적이고 형상적이며 실체적으로 다 드러내 가지고, 다리를 놓게끔 해서 전부 다 연결되게, 관계를 맺도록 한 것입니다. (144-236, 1986.4.25) p.1594

하나님이 피조물의 중심인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요, 지식 때문도 아니요, 권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혼자 사랑받겠다는 입장이 되면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존재가 없습니다. 결론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시 이 세계에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피조세계에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포 큰 존재가 누구냐?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여건을 갖춘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에서 제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배포를 가져야 합니다. (148-308, 1986.10.25) p.1594

하나님은 기쁨을 더하고 기쁨의 자극을 연속시키기 위하여 만물을 지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대할 적마다 가슴 깊이 스며드는 기쁨의 자극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최고의 심정을 기울여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5일 간 만물을 지은 후, 6일 째 되는 날에 기쁜 심정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본따 지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요, 지극히 귀한 존재요, 지극히 자랑스러운 존재요, 지극히 기쁜 존재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요, 지극히 사랑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9-194, 1960.5.22) p.1594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지식도 필요 없고, 능력도 권력도 필요 없고, 금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피조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영장이 되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혼자서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12-291, 1981.4.25) p.1594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모든 체에 상징적으로 다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눈은 누구를 닮았다구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눈은 얼굴 가운데서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코는 아담 해와를 상징합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은 만물입니다. 횡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 팔 삼십이(4×8=32), 서른 두 개의 이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중심삼고 4수를 중심삼고, 그 다음에 귀는 사방을 상징합니다. 이 목 위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정보처가 있습니다. (201-83, 1990.3.4) p.1595

여러분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타락하지 않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은 선한 부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이성성상의 주체이신 만큼 자기의 이성성상을 전개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우주를 짓고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남성적 성품을 전개시킨 것이요, 해와는 하나님의 여성적 성품을 전개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한 분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40-123, 1986.2.9) p.1595

만일에 인간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한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창조 후 기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54-64, 1972.3.11) p.1595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도, 아버지는 위에 있고 아들은 아래에 있는 상하관계와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버지가 앉으신 자리를 나에게 한번 주세요. 나도 아버지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네 이놈, 안 된다!' 하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서 그래라, 어서 그래라!' 하시면서 그 자리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인간에게 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54-89, 1972.3.20) p.1595

심신일체가 되면, 우주의 힘이 보호해 줍니다. 우주의 힘이 보호해 주는 몸 마음이 되면, 부모도 우주의 인연을 가진 부모, 형제도 그런 인연을 가진 형제, 이렇게 모두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민족, 나라가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멋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런 일체권을 이루면 거기서도 통합니다. 어디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볼이 굴러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표면 전체가 합할 수 있는 데는 수직선을 통합니다. 그래서 구형체를 이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표면의 어떤 곳에서도 그 수직선이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 좋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심신일체권, 90 각도가 되면 어디든지 다 맞습니다. 서양사람과 동양사람,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할 것 없이 어디든지 다 맞는 것입니다. (205-53, 1990.7.7) p.1596

본성이 가는 길을 가면, 우주가 하나로 벌어집니다.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서는 마음과 말을 합니다. 뭘 하려고 생각하면 벌써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갈 길을 모르겠어요? 벌써 갈 길이 확실해서 우주의 모든 작용의 힘들이 돕게 됩니다. 손을 끌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벌써 모든 것이 협조합니다. 그래야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0-313, 1982.10.20) p.1596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 나는 사계절 필요 없다. 나는 봄만 필요하지,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은 싫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한테 물어 보면 '난 사계절을 다 좋아한다.'고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더라도 여름을 좋아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고, 가을과 겨울을 좋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오는 겨울이 되면, 하나님은 흰눈이 세계적으로 쌓인 것을 보고 좋아할 때 '아, 나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133-28, 1984.7.1) p.1596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자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홍수가 나고 벼락이 칠 때는 '아이구, 저거 나는 싫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허, 저거 키스하고 결혼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싫다는 사람들에게 '하하하하, 네 이 녀석들아! 못된 녀석들아!' 한다는 것입니다. (133-28, 1984.7.1) p.1596

지혜의 왕이시고 전체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참다운 사랑이나 참다운 이상이나 참다운 행복이나 참다운 평화의 기원을 주체와 대상, 이 양자 사이의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체가 계신 반면 대상이 있는데, 주체를 위하는 길과, 대상을 위하는 길, 이 두 길 가운데 이상의 요건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상, 참된 사랑, 참된 평화에 있어서 주체를 중심으로 하고, 대상이 주체를 위하는 데 이상적 기원을 둘 것이냐,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가 대상을 위하는 데 이상적 기원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그 이상적 기원을 주체 앞에 대상이 위하라고 하는 입장에 세운다면, 하나님이 그러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도 자기가 어떠한 대상을 지닐 수 있는 입장에 선다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75-318, 1975.1.16) p.1597

하나 될 수 있고 평화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참된 인간은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위하는 데서부터, 참된 이상도 위하는 데서부터, 참된 평화, 참된 행복도 위하는 자리에서 성립되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위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몰랐습니다. (75-318, 1975.1.16) p.1597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것은, 남자는 남자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위해 태어났고, 여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를 자기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주장합니다. '나'라는 이 사상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깨뜨려 버리면 통일의 세계는 벌어집니다. (61-265, 1972.9.1) p.1597

자기의 가치를 자기에게서 추구하기보다는 상대에게서, 즉 상대적 기준에서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탐구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심정의 터전은 상대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9-200, 1972.7.16) p.1597

조화라는 것은 혼자 벌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재미라는 것도 혼자 벌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행복 또한 혼자 벌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자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대적인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자 앞에는 절대적인 상대자가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주체 앞에는 절대적인 대상이 있어야 행복이니, 조화니, 기쁨이니, 춤이니, 노래니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38-155, 1971.1.3) p.1597

오늘날 기성교인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 중의 영광의 주체요, 행복 중의 행복의 주체요, 모든 사랑과 생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대자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대상을 갖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합니다.

하나님도 절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절대자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대상을 갖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상대적인 존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38-155, 1971.1.3) p.1597

Top

③ 피조세계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박물관

㉮ 피조세계를 지으신 뜻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이 사랑의 이상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구조입니다.

광물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하고, 원자도 양자와 전자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작용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존속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을 중심삼고 그 중심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137-59, 1985.12.18) p.1598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주인공으로 인간 시조를 에덴동산에 지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희롱거리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미로 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지어 만물을 대표하는 중심으로 세우게 될 때까지의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온갖 정성을 다 들이시고, 또한 심혈과 당신의 생명의 핵심을 다 기울여 지으셨으며, 사랑과 애정을 몽땅 퍼부어 지으셨습니다. 어떠한 힘 가지고도 떼려야 뗄 수 없고, 갈라지려야 갈라질 수 없는 인연 가운데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으신 인간이기에 그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는 비로소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정과 행복은 그 인간을 통하여만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20-205, 1968.6.9) p.159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골수 중의 골수를 몽땅 부어 지은 인간이기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끌면 안 끌려 오실 수 없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끌으시면 안 끌려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연 가운데서 내용과 목적이 일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지어 놓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이나 시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시인이나 문인도 표현하지 못하는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요, 만물도 아니요, 오직 만물을 대표한 인간입니다. (20-207, 1968.6.9) p.1598

우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몸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관념이 성립됩니다. 우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실감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곤 합니다. 옷도 뭐가 묻으면 그저 텁니다. 그거 왜 그러는 것입니까? 내 것이니까.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이 하나되고, 몸이 하나되고, 만물이 하나되고, 이런 통일의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86-173, 1976.3.28) p.1598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몇억 광년입니다.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30만 킬로미터란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주는 그 거리를 1초 동안에 달리는 빛이 1년 걸려서 가는 거리를 천문학에서는 1광년이라 합니다. 그런 광년을 단위로 삼아 출발한 빛이 몇억 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는 지금까지 100억 광년 저세계의 별까지 발견했는데, 이제는 뭐 150억 광년 저세계의 별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 이상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대략 잡아서 210억 광년입니다. 이것은 원리적 수입니다.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그것이 하루 걸리는 것을 1광일, 한달이면 1광월, 이렇게 출발해서 1초 동안에 3억 미터, 빛의 속도가 3억 미터 갑니다. 거리로 말하면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거리입니다. 일곱 바퀴 반이나 되는 거리입니다. 딱 하면 벌써 일곱 바퀴 반을 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빛이 하루 걸려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생각이 둔해 가지고 '나 모르겠다' 할텐데 백 년이 아닌 백의 몇만 배인 1억 광년. 출발해 가지고 1억 년, 아직 가고 있는데 사람이 백 살 산다면 백만 사람이 죽어갑니다. 1억 년에 말입니다. 1억 광년이니까 백 사람이 나서 계속해서 백 년을 살다 죽어가기를 백만 사람이 죽을 그때에 가 가지고도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럼 210억 광년 하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죽고 또 살고, 백 살까지 살고, 백 살까지 살고 이렇게 2억 백만 명이 살아서 그만큼 가는데 또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둥글둥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라는 것입니다. (181-195, 1988.10.3) p.1599

Top

㉯ 만물세계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교재

참사랑의 기준을 놓고 보면, 아담 해와는 쌍쌍제도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자연동산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만물을 지어 놓은 것을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박물관입니다. 아담 해와를 교육하는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새도 수놈과 암놈, 나비도 수놈과 암놈, 전부가 쌍쌍으로 태어나 좋아하면서 새끼를 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한 플러스적 왕자가 남자요, 마이너스를 대표한 사랑의 왕녀가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생각하기를 '저 남자가 바로 나에게 필요한 남자구나!' 하고 믿게 되고, 남자 역시 여자를 대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여자구나!' 하는 것입니다. (201-161, 1990.3.30) p.1599

참사랑의 기준을 놓고 보면 아담 해와는 쌍쌍제도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자연동산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도 수놈과 암놈, 나비도 수놈과 암놈, 전부가 쌍쌍으로 되어 좋아하면서 새끼를 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56, 1990.4.30) p.160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소년시대에서 자라서 청소년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애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자는 남자에 대해서 전부 알고 보니까, 세상만사가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야 동물세계도 쌍쌍이 있고, 곤충세계도 쌍쌍이 있고, 아이구 전부가 그렇구만! 꽃세계도 그렇고, 광물세계도 그렇고.' 그거 전부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주체와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보니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렇게 이렇게 찾아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19-31, 1991.8.25) p.1600

아담 해와는 자라나면서 세상을 배워 나갑니다. 두 아들딸이 크면서 가만 보니까 세상은 쌍쌍제도로 만들어 놓은 박물관입니다. 사랑의 박물관. 이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야!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네. 파리도 수놈 암놈, 나비도 수놈 암놈, 전부 다 쌍쌍이 놀아나네. 그러고는, 좋아하고는 새끼를 치네!' 그거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200-246, 1990.2.25) p.1600

천지를 쌍쌍제도로 만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그 이상으로, 너는 새보다도 더 행복하게, 곤충보다도 더 행복하게, 너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200-57, 1990.2.23) p.1600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쌍쌍제도로 되어 있고, 쌍쌍제도로 되어 있는 이 환경은 인간을 위한 이상적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세계가 작용을 하는 것도 쌍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또 초목도 쌍을 찾아 운동하고 번식합니다. 새도 그렇고, 곤충 가운데 베짱이도 그렇습니다. 베짱이도 노래하지요? (199-309, 1990.2.21) p.1600

하나님이 만물세계를 쌍쌍제도로 지었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중심삼고 거기에 모든 요소를 전부 품고 있습니다. 자연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게끔 사랑을 교시하기 위해 지은 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노래할 때 무슨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죄가 아닙니다. 타락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천리원칙이 전부 깨져 나가니 죄지, 천리원칙 기반 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진정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단짝이다.'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199-280, 1990.20.20) p.1600

쌍쌍제도로 만들어진 이 우주는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한 박물관입니다. 살아 있는 박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에 있는 골동품같이 죽어 있는, 주인 없는 기념물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기념물입니다. (195-136, 1989.11.7) p.1601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지은 모든 물건은 다 이상적 사랑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게끔 전부 주체와 대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페어 시스템,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도 부처끼리 돼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당기잖아요? 그런 말 처음 듣지요? 실험실 선생이 아주 폭군이 되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원소를 암만 갖다 들이대더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맞으면 '붙지 말고 하나되지 말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쌍쌍제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7-271, 1988.5.20) p.1601

미물인 곤충도 사랑을 중심삼고 페어 시스템(쌍쌍제도)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물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급이 낮으면 낮은 급 나름대로 사랑을 중심삼고 번식해 가지고 이 인간과 이 우주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상을 완성할 수 있게끔 모든 체제에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293-308, 1998.6.7) p.160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에덴동산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전부가 쌍쌍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도 자연히 그걸 보고 '야! 나도 수놈 같은 남자인데, 나도 수놈같이 생겼는데 암놈 같은 것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 '해와다!' 이래 가지고 둘이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수놈과 암놈이 저렇게 하면 새끼를 낳누만!'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시집가기는 싫지만 아기는 좋아하는 여자가 많습니다. (288-304, 1998.1.1) p.1601

에덴동산의 모든 것이 쌍쌍제도로 됐기 때문에 동물들이 새끼를 치고 '암컷과 수컷이 즐거운 환경을 만들고 있구나!' 이래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해와도 '둘이 만나야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담과 해와가 자랄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남자는 와일드해서 산에 올라가고 뛰어다니는데, 여자는 매일 앉아서 구경하고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환경에서 배워 가지고 자연적으로 상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78-280, 1996.5.26) p.1601

알고 보니 세상이 쌍쌍제도인데, 아담 해와도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물세계의 사슴도 소도 전부 수놈과 암놈이 있어서 서로 좋아하고 새끼 치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도 동물세계의 곤충으로부터 새와 벌과 꽃까지도 그 놀음을 하고 있으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안다는 것입니다. (246-58, 1993.3.23) p.1601

여러분 부부는 쌍태로 태어난 오누이입니다. 에덴동산의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는 동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친구도 없고 외동딸입니다. 에덴동산에 여자 하나밖에 없고, 남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틀림없이 아담이 해와와 친구해 줘야 됩니다. 오빠와 누이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 가지고 만물의 모든 쌍쌍제도가 어떻게 번식하고 자란다는 것을 알고, 세상만사를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의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때문에, 인류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243-177, 1993.1.3) p.1602

아담 해와가 태어났을 때는 상대로, 자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형제지연인 가운데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없지요? 여자는 여자 혼자 교육받고 남자 완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받을 재료는 천지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쌍쌍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그걸 보고 '저렇게 커야 되는 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자도 그걸 보고 '저렇게 커야 되는 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모든 교재를 박물관같이 모든 자연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모두 쌍쌍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8-268, 1992.7.5) p.1602

종적인 기준에는 상대성이 옮겨져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적인 기준에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딸이 커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만물세계를 보면 전부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세계도 마찬가지요, 식물세계도 마찬가지요, 동물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세계도 남녀가 전부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세계라는 것은 사랑의 박물관, 급은 낮지만 쌍쌍제도로 된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박물관을 왜 만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만들고, 하나님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사랑의 느낌, 광물세계나 식물세계나 동물세계의 사랑의 느낌이란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238-29, 1992.11.19) p.1602

남자와 여자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때까지는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여자를 얻어야 됩니다. 전부 쌍쌍제도로 새끼치고 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봄이면 소도 그러고, 돼지도 그러고, 개도 그러고, 고양이도 그러고, 쥐도 그러고, 메뚜기도 그러는 것을 다 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눈이 뜨이는 것을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 방향이 지금까지 이렇게 45도 해서 '아이구, 내가 필요한 건 아담이구나!' 하고 '내가 필요한 건 해와구나!' 하는 것입니다. (229-321, 1992.4.13) p.1602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사랑을 핵으로 한 박물관입니다. 쌍쌍 박물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 둘이 서로 좋아하면서 열심히 집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짓고, 새끼를 낳고, 먹이는 것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내 새끼를 위해서 그 이상 몇백 배 해야지.' 이래야 합니다. 벌레들도 암수 두 마리가 전부 사랑하고 새끼 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 생명을 걸고 새끼들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229-287, 1992.4.13) p.1603

아담과 해와가 성숙함에 따라 여기서 횡적으로 돌아서 아담이 자기 상대인 줄 알고, 해와가 자기 상대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외향적으로 나가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사냥도 하고, 어디 가든지 잡아 쥐어야 합니다. 해와는 어떻습니까? 해와는 근본 성격이 다릅니다. 이러면서 커 가지고 여자로서 알 것, 남자로서 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사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물세계나 식물세계나 동물세계나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지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커 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보나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225-201, 1992.1.20) p.1603

사랑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자연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동산에 뛰는 동물을 보니 수놈과 암놈, 나비를 봐도 수놈과 암놈, 전부 쌍쌍제도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아름다운 동산에는 새가 지지배배 지저귀고 말입니다. 새가 왜 지저귀는 거예요? 수놈새 암놈새가 지저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을 부르기 위한 거예요? 새가 지저귀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파서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새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208-251, 1990.11.20) p.1603

표준적인 아담과 해와의 상대권에 서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니까, 이 우주 창조물은 페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쌍쌍제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큰 플러스이고, 만물은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작은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간과 만물이 같습니다. 인간과 만물이 공통된 절대적 주체권을 중심삼은 기준에서 평면을 잡으면 하나님이 수직으로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230-252, 1992.5.8) p.1603

참새가 짹짹거리며 깨워 주는 것이 자기가 깨는 것보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시적입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노래하는 것이 좋아요, 노래 듣는 것이 좋아요? 그건 또 얼마나 시적입니까? 자기가 짹짹 짹짹 하는 것보다도 제 삼자가 짹짹짹, 자기가 깨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깨워 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조화의 음률에 따라 소리를 달리하면서 깨워 줄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새도 내 친구입니다. 무엇이 친구되게 합니까? 쌍쌍제도를 두고 볼 때 그게 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쌍쌍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시적입니까? (177-271, 1988.5.20) p.1604

세상이 다 쌍쌍제도로써 모든 것이 번식하게 돼 있는 것을 볼 때, 아담과 해와도 성숙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숙되기 전에는 아담과 해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담과 해와 둘이 사는데, 이 둘의 성격을 보면 아담은 남성적이고 외향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뛰쳐나가서 산에 가서 토끼를 잡고 싶고, 꿩을 잡고 싶고, 노루를 잡고 싶고, 뱀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인이 되어 관리하려면, 전부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동물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물에는 무슨 물고기가 있는지 다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니까 주인이 되려면 무엇이든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62-74, 1994.7.23) p.1604

하나님이 재미를 느끼면서 창조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쌍쌍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포까지도 짝짝이 되어 좋아하고 이러는 걸 볼 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잘 나오면 붙들고 좋다고 하는데, 실물이 말하고 춤추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나 말입니다. (283-102, 1997.4.8) p.160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어 놓고 품어 길러 가는 데 있어서 종인 천사장을 지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라져 태어나서 남자는 남자로서 자라고 여자는 여자로서 커 가는 것입니다. 커서 성숙한 남자와 여자가 되어 세상을 가만히 보니 광물세계나 동물세계나 식물세계나 다 상대이상, 쌍쌍제도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 동물들도 둘이 하나되어서 저렇게 새끼치고 행복하게 사는구만. 야, 에미는 새끼들을 기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보호하는구만.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만!' 이렇게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담 해와의 이상적 발달을 위한 전시적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262-74, 1994.7.23) p.1604

참사랑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만물과 통합니다. 바위도 통하고 만물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세계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쌍쌍제도로 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는 사랑과 인연되어 하나되기 위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은 공명(共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참사랑권 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또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 등의 모든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는 길은 함부로 가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이 가는 길은 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는 참사랑의 길이나 하늘세계, 하나님으로서 찾아오는 참사랑의 길은 언제나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올 때는 인간은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만나야 되느냐? 여기에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최고로 장성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같은 자리입니다. 이 둘이 합하려면 어디에서 만나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238-31, 1992.11.19) p.1605

사랑이론을 말하다 보니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이론이 없습니다. 지식 중의 왕지식입니다. 사랑을 찾아보니 이 모든 피조세계가 쌍쌍제도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광물세계도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으로 돼 있지요? 쌍쌍입니다. 그거 뭣 때문에 쌍쌍입니까?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번식이 벌어집니다.

동물세계도 다 수놈과 암놈, 사람도 여자와 남자입니다. 그거 왜 생겨났어요? 여자 때문에 사랑이 생겨난 것도 아니요, 남자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명제를 부정하는 요사스러운 것들은 지옥의 족속들이요, 파괴의 족속들입니다. (221-257, 1991.10.25) p.1605

Top

4)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① 진화론의 근본적인 오류

㉮ 종의 구분은 엄격, 절대 제3자 개입 배척

역사가 언제부터예요? 진화를 시작하고부터예요, 그 전부터예요? 진화가 뭐예요? 참새와 멧새는 사촌입니다. 똑같습니다. 뼈다귀며 요것 조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지 생식기랑 눈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새와 멧새에게 암놈과 수놈을 엇바꿔 가지고 사랑해서 새끼 낳으라면 새끼 낳을 수 있습니까? 천년만년 한다면 새끼 낳겠나, 안 낳겠나? 원숭이와 침팬치가 천년만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새끼 낳을 수 있는지. (232-126, 1992.7.3) p.1605

참새와 멧새는 형제입니다. 어때요? 원숭이와 인간에 비하면 백 퍼센트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참새와 멧새의 쌍을 붙이면 새로운 것이 태어나요? 세상에 학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수놈 암놈이 사랑해서 새끼를 낳아 발전했다는 논리를 부정하고 외적 형태의 구성이 같다고 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식기관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물고기들은 암놈과 수놈이 붙지 않습니다. 육지에 나와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199-307, 1990.2.21) p.1605

이 태양계의 지구가 몇억 년 되었습니까? 몇억 년을 돌고 있는데 푼촌이 틀립니다. 매일 그렇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 참새와 한국 참새가 둥지트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대답해 보십시오.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이거 진화론적으로 보면 참새가 둥지 트는 것도 발전해야 될 텐데? 배우지 않고 어떻게 몇천 년 몇만 년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 어떻게 알아요? 제비는 제비대로 틀리고 참새는 참새대로, 꾀꼬리는 둥지를 가지에 매답니다. (179-246, 1988.8.12) p.1605

왕 성성이 남자와 못난 여자를 잡아다 결혼시켜 만년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사람 새끼가 나오나요? 아기가 번식될 것 같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원숭이 후손, 공산당 패들! 성성이를 인간 여자와 결혼시켰다고 공산당 세계가 기도하고 별의별 힘을 가입시켰다고 해서 새끼가 생겨날 것 같아요, 안 생겨날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공산주의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262-80, 1994.7.23) p.1606

아메바에서부터 원숭이까지 가려면 수천 종의 사랑의 문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진화론은 수많은 종의 사랑의 문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종을 통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새가 곤충과 통할 수 있습니까? 새가 동물세계를 통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랑의 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커야 된다는 사실은 다 빼 버리고 뼈다귀가 같다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낳을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더 나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사랑관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254-264, 1994.2.15) p.1606

종의 구분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수천 종이 있습니다. 수천 종의 단계를 전부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이걸 통하려면, 전부 그 종의 암컷과 수컷의 문을 통해 새끼가 나오는데, 몇천 번 낳아 가지고 나올 건데, 한꺼번에 쑥 나왔다 생각하니 이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수천 종의 사랑의 문을 아메바가 어떻게 다 통과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뼈다귀가 같다고 같아요? 같은 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친 소리 그만 하라는 것입니다. (266-39, 1994.12.4) p.1606

오늘날 이 진화론을 생각해 종의 기원을 말하게 될 때, 하나의 종이 생겨나는 데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놈과 암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광물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 합해 가지고 하나의 물질을 조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음양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수놈과 암놈으로. (213-63, 1991.1.14) p.1606

재창조는 환경 창조, 주체와 대상 창조, 그 다음에는 대응적인 발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되어 가지고 더 큰 것에 흡수되어서 반드시 사랑의 문을 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원칙에 의하면, 사랑 없는 아메바에서 이 인간세계까지 수천 단계를 거쳐 나가야 할 텐데, 그런 사랑의 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30-68, 1992.4.19) p.1607

오늘날 진화론에서 말하기를, 아메바가 발전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수컷과 암컷이 인간에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천 단계의 사랑의 길을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종별의 한계는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달려가 가지고 진화가 됩니까? (209-29, 1990.11.25) p.1607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여편네 앞에 다른 남자가 와서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고 하는 그것이 보통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종에 있어서는 그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메바는 암놈과 수놈의 사랑의 문을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종류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요? 반드시 사랑의 문을 통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진화예요? 서양놈들이 원숭이같이 생겼기 때문에 진화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의 색깔도 그렇고, 털도 다 원숭이같이 갈색이지 않습니까? (216-247, 1991.4.7) p.1607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단둘입니다. 제3자의 개입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몇 천 단계의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존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깨지지요? 일년밖에 못 삽니다. 그럴 것인데 사랑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연속적인 계열적 존재가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문을 제3자가 개입해 가지고 얼룩덜룩한 아메바를 원합니까? 원숭이와 사람이 결혼식해서 한 천 년쯤 살면 새끼가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천년 아니라 만년 가도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수작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222-185, 1991.11.3) p.1607

곤충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진화론은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권, 대상의 노정을 통한 아메바로부터 원숭이까지 몇천, 몇만 번의 사랑의 문을 통한 수컷 암컷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새도 그렇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상대 같은 거 모르니까 장난을 하고 제각기 다른 플러스가 되어 있지만, 봄이 되어 집을 만들고 상대권을 만들었을 때에는 절대적입니다. 제3자 되는 참새에 대해서는 수컷과 암컷이 함께 절대적으로 배척하는 것입니다. 암컷이 오면 수컷이 배척하고, 수컷이 오면 암컷이 배척합니다. 왜냐? 자기 상대권을 깨기 때문에, 우주 법권의 침략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배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8-338, 1991.8.22) p.1608

식물의 꽃을 보면 자기 종이 있는데 다른 것을 중심삼고 다른 종자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종의 구별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바에서 원숭이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의 논리는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구별이 엄격한데, 어떻게 수천 가지의 종의 협조를 받는 체제에서 연결시키고 발전했겠느냐 이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사랑의 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번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없으면 어떤 것도 번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사랑의 힘이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78-100, 1996.5.1) p.1608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진화했다면, 그냥 그대로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종이 다른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랑의 고개를 통하지 않으면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큰 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수천 수만의 수놈과 암놈의 사랑의 과정을 통해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의 세계에서 원칙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사랑을 중심삼고 제3자의 침범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아메바의 세계에서 더 높은 한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237-135, 1992.11.13)

진화는 별종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중심삼지 않고는 다른 것이 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종의 구별이 엄격한 것입니다. (302-181, 1999.6.13) p.1608

진화론은 한꺼번에 깨 버려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이론을 갖다 붙여 진화론을 논의한 것입니다. 사람이 원숭이 새끼라니? 이놈의 자식들! 천년만년 인간은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가 무슨 원숭이에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47가지가 다릅니다. 질적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원숭이와 사람이 살아 가지고 사람이 나와요? 원숭이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299-20, 1999.2.5) p.1608

우주는 왜 쌍쌍제도로 되어 있느냐? 저절로 됐다는 진화론도 좋습니다. 진화론에 앞서 널려 있는 사실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 번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화가 있나요? 진화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사람보다 오늘날 사람의 그것이 발전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곤충세계에서도 벌레들이 사랑하는 그것이 옛날과 오늘날과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전부 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삼고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생명의 기원이 되는 사랑의 기관을 중심삼고 그 본거지가 진화적 내용으로 발전하게 돼 있느냐? 미친 것들입니다. (191-53, 1989.6.24) p.1608

사랑세계의 종별 구분의 엄격함은 천주의 어떤 것도 범할 수 없습니다. 봄이 되어 참새 수놈과 암놈 한 쌍이 알을 낳으려고 집을 짓기 시작할 때는 제 3 자로 어떤 새 종류도, 어떤 짐승 종류도 절대로 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 첫날밤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를 거기에 참석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는 여자가 어머니 이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엄마, 살아도 엄마!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라도 남편을 맞이하는 첫날밤에는 '엄마, 오늘밤에 제발 같이 있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습니까? 제 3 자의 개입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래 인간이 맞이해야 할 사랑의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228-154, 1992.3.27) p.1609

여러분! 생식기관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구조적 발달 형태를, 그거 말하자면 참새와 멧새와 할미새는 그 모양이 딱 같습니다. 그래, 참새와 할미새가 붙으면 뭐가 나와요? 그거 가능합니까?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멋도 모르고 하는 소리지. 내가 따지면 전부 몇 마디 안 해도 대답도 못하고 낑낑거리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암놈, 수놈!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나왔다고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암놈과 수놈, 볼록과 오목이 생겼어? 왜 그걸 통해 주고받아야만 새끼가 번식되게 되어 있어? 그거 누가 설정했어요? 진화론자들이 그런 것을 설정했어요? 내적인 힘,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은 위대한, 우주관으로도 포괄할 수 없는 생명의 연합 기반을 통해서 생성이 벌어진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뭐 47 가지가 틀리다나? 이거 둘이 결혼하면 새끼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옛날에 학생 때 공산당 패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답을 못 하더구만! 이런 것은 뭐 오늘도 수백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8-24, 1990.1.25) p.1609

진화가 구조적 형태의 동위성에 의해서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 아메바와 같은 경우에도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수놈과 암놈의 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멧새와 참새가 모양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진화할 수 있습니까? 발도 같고 주둥이도 같습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봐도 구분 못 합니다. 그렇다고 멧새 암놈과 참새 수놈을 쌍붙이면 발전합니까? 백인 남자와 성성이 암놈을 결혼시키면 뭐가 나오겠어요? 새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진화론자들, 답변하라구! 생식기를 통하지 않고는 발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연구해 보십시오. 생식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모든 구성에 필요한 신경요소가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199-253, 1990.2.20) p.1609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 발전되었다고 믿는데, 아메바에 대한 예만 들어도 그놈들도 수놈 하나만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수놈과 암놈이 함께 작용해 가지고서야 더 발전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큰 문제입니다. 저급한 것에서부터 보다 높은 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놈과 암놈의 사랑 과정을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 과정을 통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와 멧새는 비슷합니다. 털색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들의 뼈를 갖다 놓고 보면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다고 참새와 멧새의 쌍을 지어 놓으면 새끼가 나옵니까? 진화론자들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안 나옵니다. 또 서양 사람들 보면 비교적 털이 많이 나 있는데 그렇다고 고릴라 암놈과 서양 남자를 결혼시켜 놓으면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146, 1990.3.30) p.1610

종의 구별은 엄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의 얘기처럼 원숭이는 인간 조상이 아닙니다.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나오는 데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수만 단계 사랑의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사랑의 법도는 동물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3 자가 개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힘의 작용에 있어서는 입력보다 출력이 작습니다. 작용하면 마이너스 되는데 어떻게 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클 수 있는 제 3 의 힘에 자기가 가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212-308, 1991.1.8) p.161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메바 옆에 딴 녀석이 와서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연결성을 지을 수 없다는 논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화라는 뜻을 말하기 전에 수놈과 암놈 생식기를 제거할 때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진화되기 전에 수놈과 암놈이 있었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는 상대적 요인의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221-291, 1991.10.26) p.1610

수컷과 암컷의 사랑 기관이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맞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진화론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아메바 쌍과 그 다음 중간 쌍이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습니까? 횡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만 가지 전부 다 어디든지 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웅세계는 벌써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삼고 생겼기 때문에 진화와는 관계없는 차원입니다. (222-39, 1991.10.27) p.1610

사랑의 세계에는 자기 상대 외에는 제 3 존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천리원칙입니다. 참새도 벌레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을 중심삼고 볼 때, 아메바에서부터 사람까지 가려면 그 사랑의 계열이 몇 천 단계예요? 곤충만 해도 수천 종이지요? 식물에서부터 동물까지 수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종이 아메바에서부터 그냥 '쑤욱'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천만에! 수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종의 구별은 엄격합니다. 뭐, 아메바에서 진화해 가지고 사람이 돼? 엉터리 같은 녀석들! (227-296, 1992.2.14) p.1611

모든 존재물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수놈이 왜 생겨났소?' 하고 묻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자연히 생겨났지.' 하는데, 그거 미친 자식들입니다. 자연히 생겨났어요? 모든 수놈과 암놈은 자기 계열을 존속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계열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뱀이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수놈과 암놈이 사랑의 문을 통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수놈과 암놈 알지요? 그게 그냥 생겨났어요? (209-193, 1990.11.29) p.1611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는데 하나되어서 대응적인 주체와 대상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환경의 주체와 대상이 대응적인 주체 대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주체와 대상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대상을 몰라보면 인연이 없습니다. 원소세계에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안 맞으면 아무리 실험실에서 갖다 붙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되면 재까닥 달라붙습니다. 놓기만 해도 달라붙습니다. (291-112, 1998.3.5) p.1611

종의 구별은 엄격합니다. 개구리 비슷한 새새끼가 개구리 세계에 가 '너 나하고 쌍엮자?' 할 때 '그러자!' 그래요? 도망가요, 싸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갈 때 무엇을 부정했느냐 하면, 사랑의 문을 거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수천 대의 사랑의 문을 전부 아메바가 거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유만부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총재 앞에 공산주의가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유가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이런 문제도 궁금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정신이 먼저예요, 물질이 먼저예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지요? 그것이 틀렸습니다. 진화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혁명을 할 것입니다. (274-67, 1995.10.29) p.1611

재창조의 환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대응세계에서 발전하는 과정이 있고, 수놈과 암놈 개념이 진화론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사랑의 종의 구별은 엄격해서 제 3 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가려면 수천 단계를 한꺼번에 도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천만 가지 사랑의 문을 통과해야 발전적인 그 씨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한꺼번에 도약해서 원숭이가 나올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245-62, 1993.2.28) p.161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만약 진화론을 인정한다면, 아메바에서부터 사람까지 몇천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단계가 같다고 그냥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몇천 가지의 사랑의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제 3 자의 침입을 허용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집간 첫날 저녁에 '어머니, 제발 여기서 같이 자요!' 하는 색시를 봤어요? 남편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싫어!' 하던 남자라도 첫날 저녁에 '아버지, 여기서 같이 자요!' 하는 남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제 3 자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물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곤충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지 원숭이 같은 종류에서 사람 같은 것이 나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239-231, 1992.11.25) p.1612

화학실험실에서 원소를 연구하는 교수가 '야! 이놈아, 이 원소하고 저 원소하고 합해라' 하고 암만 명령해도 안 됩니다. 자기 상대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대의 주체가 되어야 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원칙인데, 무책임하게 진화론을 이 우주의 형성에 갖다 붙였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존재에 내적 작용의 힘을 일으킬 수 있는 본연의 우주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117-74, 1982.2.1) p.1612

원숭이와 사람은 종자가 다릅니다. 원숭이가 문화적인 생활을 합니까? 사람은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종교가 따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원숭이가 문화를 가지고서 세계를 통일하자고 합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자기 나라로 만들거나 국경선을 만들어서 네 나라 내 나라라고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원숭이는 그저 먹기를 좋아하고 먹고 나서 번식하면 그만입니다. 사람과 원숭이는 전혀 다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박사라는 사람들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41-185, 1971.2.15) p.1612

Top

㉯ 힘의 작용 법칙과 진화론의 허구

오늘날 진화론을 적용하는데, 아메바면 아메바가 번식해 나오는 데 있어서 아메바보다도 큰 게 생겨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것보다도 크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힘이 플러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메바 스스로가 혼자서 힘을 플러스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까? 자체가 그런 힘을 가입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 더 큰 힘을 플러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가 힘을 창조하여 플러스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성립돼요? 미스터 김이라면 미스터 김, 미스터 박이라면 미스터 박이 있을 때 '내가 뭐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것은 문제없이 잡아 치운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더 큰 힘이 가해지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했더라도 한계선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스터 박이 '돌연변이에 의해 내 힘이 커지면 알리를 때려 눕힌다.'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89-73, 1976.7.11) p.1613

힘의 공식적인 원칙을 보면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들어오는 힘과 나가는 힘이 같을 수 있습니까? 힘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했는데, 작용하려고 들어오는 힘과 작용하고 난 후의 힘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소모가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하면 소모가 벌어지지요? 그러니 들어오는 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작용하고 난 후에는 힘이 언제나 작게 마련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작용하고 나면 힘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2 의 힘이 필요합니다. (55-254, 1972.5.9) p.1613

진화론자들은 아메바가 점차 진화해 고등동물인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 이상의 힘을 발휘하려면, 그 힘을 어디에서든 보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힘은 작용을 하면 반드시 소모됩니다. 여기에 힘을 보충해 주어야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8-155, 1971.1.3) p.161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체와 대상이 작용하여 현재보다 못하게 되면 작용을 안 하는 것이요, 보다 나을 수 있는 서로의 목적을 발견하면 작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심삼고 진화론을 보면, 진화하는 데도 보다 나을 수 있는 목적적인 그 무엇을 갖지 못할 때에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횡적으로 보다 강한 힘이 가중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작용할 수 있는 목적과 대상이 없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54-11, 1972.3.9) p.1613

진화론의 모순이 무엇이냐? 아메바가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점점점 커 나가기 위해서는 제 3 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윗단계, 높은 단계의 물건으로 태어나겠다!' 하려면 거기에다 어떤 무엇인가를 플러스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가해지지 않고는 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 3 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메바가 더 커갈 수 있는 힘을 창조해 가면서 아메바가 자랄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265-58, 1994.11.20) p.1613

진화론에서는 발전이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은 입력과 출력의 법칙과 반대입니다. 세상에 이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진화론은 절대 커지는 것이지요? 진화가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진화론에서는 아메바가 자연 발생해 가지고 점점 커 올라가서 원숭이로 진화, 발전하고 사람으로 진화, 발전했다고 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의 원칙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같을 때 절대로 커질 수 없습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힘의 소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37-16, 1970.12.22) p.1614

역학세계에서는 입력 출력권을 중심삼고 작동하면 반드시 로스(loss;손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향진할 수 있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진화'라는 자체가, 나아가면서 화한다는 자체가 플러스 플러스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플러스됐느냐 이겁니다. 투입한 입력보다도 출력이 커야 되는 논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작용하면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입력은 출력보다 큰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진화라는 논리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3 점 가입을 그 자체가 투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세계에는 입력보다도 큰 출력을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무한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오늘날 진화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과 여, 암술과 수술,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 합해 운동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오려면 몇천 단계의 사랑의 문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같은 녀석들! 모든 종의 원칙이라는 것은 엄격한 것입니다. 제 3 자의 개입을 허용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214-193, 1991.2.2) p.1614

진화론을 주장하려면 진화될 수 있게 하는 힘을 어디서부터인가 보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의 변혁 형태를 자기 자체에서 이뤄 연합시킬 수 있는 자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117-72, 1982.2.1) p.1614

주체와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 가지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에 어떻게 방향성과 목적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런 이론을 적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과 방향성으로 공산주의를 깨야 됩니다. 이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세계를 유린해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메바가 작용을 하면, 들어오는 힘보다 작용이 작을 텐데 어떻게 커지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큰 게 나와요? 아메바에 있어서 입력보다 출력이 작기 때문에 큰 것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제 3 의 힘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화론의 근거가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메바 자신이 제 3 의 힘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엉터리 같은 녀석들! (210-155, 1990.12.18) p.1614

진화론을 말할 때 진화되는 아메바 자체가 진화의 시작인 3 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작용하려면, 운동하려면 3 점에서 돌아오면서, 회전할 수 있는 4 점 기준을 거쳐야 됩니다. 3 점에서부터 4 점을 거쳐야 됩니다. 원형으로 주고받으며 운동하려면 3 점에서 4 점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메바 자체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360 도로 순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면 3 점의 힘은 누가 가했느냐? 그것은 이론적으로 또다른 힘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할 때 진화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방향성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진화되는 아메바 자체는 방향성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걸 볼 때 돌연변이라는 것은 미치광이 수작입니다.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요즘에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다 썩어 버린 말입니다. 뭐라고 할까, 거름더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9-187, 1990.11.29) p.1615

오늘날에는 물리학이 발달해 모든 원자에도 의식이 있다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통일교회의 이성성상 원리 말씀과 같습니다. 차원은 다르더라도 만물이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세균 같은 것도 살아먹는 겁니다. 안 그래요? 세균같이 보이지도 않는, 몇천만 분의 일밖에 안 되는 크기로 살고 있는 세균에게 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 생식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209-187, 1990.11.29) p.1615

하나님도 이 세계를 창조할 때 3 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진화론이라는 것, 진화라는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메바가 작용을 한다면,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3 점 기준을 자기 스스로 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3 점 기준은 또 다른 하나의 힘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운동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반드시 원형을 거쳐서 운동한 그 점수를 가해 구형운동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212-277, 1991.1.8) p.1615

진화론 믿는 멸종분자들. 여기에 진화론 믿는 패들 있어? 교수란 짜박지들이 그런 걸 잘 믿지? 그게 왜 그러냐? 상대가 안되는 물건을 아무리 힘을 통해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라 해도 화합작용도 안 하거니와 하나도 안돼! 왜? 이게 우주의 법입니다! 왜? 사랑이상을 중심삼고 지었고, 상대성을 가려 줬기 때문에 우주는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메바에서부터 사람이 돼요? 직선상에서는 조화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론적으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직선세계에서 어떻게 3 점을 만들어내느냐? 3 점, 4 점, 4 각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 여기서부터 조화가 벌어집니다. 원형이 어디서 나오느냐? 직선에서는 안 나옵니다. 아메바가 3 점 자체를 책정하고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자체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운동하게 되면 직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211-254, 1990.12.30) p.1615

아메바를 중심삼고 수천 계단이 사랑의 법으로 다 쌓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의 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문을 다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 3 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개를 넘어서야만 종의 번식이 가능한데, 그 문을 통해 갔느냐, 그냥 그래도 넘어가서 원숭이가 됐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암놈과 수놈이, 이 모든 광물에 있어서 원소세계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상대적 개념보다 먼저 있었느냐 할 때, 그건 나중에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주체와 대상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정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3-273, 1994.10.15) p.1616

직선상에는 조화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직선은 뭐냐 하면 2 점을 연결한 것입니다.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3 점, 4 점,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3 점을 누가 갖다 만들어 놨어요? 직선 자체가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위 3 점에 아래 3 점을 누가 갖다 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모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운동이라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역학세계에서는 입력이 출력보다 큽니다. 그러면 아메바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출력이 크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215-232, 1991.2.18) p.1616

직선상에는 조화가 없습니다. 3 점에서부터 모든 구형세계의 조화 기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화론에는 3 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무시할 수 없는 전통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직선상의 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227-267, 1992.2.14) p.1616

우주의 창조를 두고 볼 때, 직선세계에서 어떻게 3 점의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면, 진화론의 관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점을 중심삼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상대를 중심삼고 볼 때,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7-30, 1992.2.10) p.1616

진화론은 이미 지나간 폐론입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삼고 볼 때 방향성이 설정됐다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에게, 상대권에 다 공동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결정된 것입니다. 중도(中道)인 동시에 정도(正道)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 대한 논거에 해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성 제시를 못 했습니다. 제 3 의 힘을 가해서 더 큰 물건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적 힘을 아메바 자체가 개재시킬 수 있는 자주력을 가졌느냐 할 때, 없습니다. 말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은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207-256, 1990.11.11) p.1617

진화론을 결론짓고 넘어가자면 진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메바가 클 수 있는 제 3 의 힘을 자기가 창조해요, 보급 받아요? 아메바가 진화되어 크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크려면 제 3 의 힘이 가해야 할 텐데, 자기가 창조하면서 커요, 남의 힘을 받아서 커요? 창조 못 하면 힘을 받았다는 논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무턱대고 뼈다귀가 같다고 진화해? 그런 미친 녀석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갈 때는 수천 종의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의 구별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종들은 남과 여, 수놈과 암놈의 사랑의 문을 통해서만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종 사랑의 문을 통과하는 걸 잊어버리고 뼈다귀가 같다고, 닮았다고 진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수천 계급의 고개를 넘어가 가지고 발전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263-273, 1994.10.15) p.1617

태어날 때 눈을 감고 태어나요, 눈을 뜨고 태어나요? 그럼, 내가 언제 눈을 뜬다 하고 떴어요, 자연히 떴어요? 또, 엄마 젖을 먹는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지남석 줄이 있습니다. 작용하는 모든 것의 원칙적인 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작용이라는 것은 우연히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발전했다, 자연발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연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냥 그대로 자연발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원인도 없고, 동기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과도 없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동기가 제일 먼저고, 원인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왜 나왔느냐 이겁니다. 존재 그 자체가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걸 의식하고 가요? 눈은 왜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면 뜨자마자 안을 들여다봐요, 밖을 내다봐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방향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4-10, 1977.6.19) p.1617

우리는 눈 하나 놓고도 대답을 다 못합니다. 오늘날의 변증법이나 진화론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공산주의자와 싸워야 됩니다. 이제 진화론과 변증법을 깨뜨려야 됩니다. 진화론만 깨뜨려 버리면 변증법은 깨진다 이겁니다. 지금 싸움은 뭐냐? 의식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산세계는 '물질이 제일이다, 물질이 처음이다.' 하고, 민주세계에서는 '의식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눈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할 때 눈이 그냥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녀석은 미친 녀석입니다.

코는 가만히 있는데 눈은 왜 움직여요? '왜 눈이 움직여?' 할 때에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지.' 하는 것이 진화론식이고 변증법식입니다. 눈의 목적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코는 먼지가 붙어도 가만히 있는데 눈은 왜 이렇게 자꾸 깜박거리느냐 이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수분이 증발되어 마르니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수증기를 뿌려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눈썹은 왜 났어요? 먼지를 막기 위해 났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할 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었지 하는 게 진화론식이고 변증법식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됐다는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아, 미친 녀석아! 수작 마라!' 이럴 것입니다. (93-176, 1977.5.29) p.1618

Top

㉰ 사랑의 논리로 볼 때 진화론은 틀린 것

진화론을 해결해야 됩니다. 진화론이 문제입니다. 진화론의 컨셉과 실재는 공산주의가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양심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인간에게 제일 귀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귀중한 것이 하나님, 양심, 사랑입니다. 양심이 있는 것은 다 알지요? 양심이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나 들어갈 수 있고, 어디나 하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니 세포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만은 그 누가 제지하지 못합니다. 참사랑은 우주가 제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239-68, 1992.11.23) p.1618

진화론이 먼저예요, 암수의 개념이 먼저예요? 어느 쪽이 먼저예요? 실재가 먼저예요, 사랑에 대한 컨셉이 먼저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메바가 현상세계 이전에 있었겠어요, 그 이후에 있었겠어요? 아메바로부터 인간까지 발전의 연결체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사랑에 의해서 실체가 발전된다고 하는 개념은 무시하고, 그냥 진화에 의해서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35-23, 1992.8.24) p.1618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거쳐온 기독교 문화권이 제일 혼란당한 것이 뭐냐 하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삼고 나온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기독교를 망치는 데, 모가지를 매서 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환경권 내에서 주체와 대상이 되는 것이 수놈과 암놈의 쌍쌍 개념입니다. 수놈과 암놈,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 여자 컨셉인데, 이 컨셉이 먼저겠어요, 진화론이 먼저겠어요? 환경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화가 없습니다. 환경 가운데는 반드시 주체 대상이 있습니다. 광물세계에도 전자가 양자를 중심삼고 돕니다. 분자면,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 합해 운동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진화론보다도 먼저 있었겠느냐, 나중에 있었겠느냐? 먼저입니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245-49, 1993.2.28) p.1619

진화론이 먼저예요, 우주의 암놈과 수놈 개념이 먼저예요? 주체와 대상이 먼저예요? 광물세계에도 플러스이온이 있고 마이너스이온이 있어서 주체와 대상으로 전부 쌍쌍제도로 되어 있지요? 식물세계도 그렇지요? 암술과 수술 있어 가지고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입니다. 동물세계는? 수놈과 암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천리입니다. 불변의 천리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 어떠한 자의적인 힘을 가지고 종별에 대한 수놈과 암놈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든 이 땅 위에 영원히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납니다. 진화론을 집어치워라 이겁니다. 진화론 있기 전에 그런 수놈과 암놈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주의 신비스러운 비밀 중에 감추어진 비밀, 그런 비밀인데 지금까지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수놈과 암놈, 이 개념이 우주를 형성했다는, 주체와 대상 관계로 우주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이 앞서겠어요, 수놈과 암놈 개념이 앞서겠어요? 수놈과 암놈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수놈과 암놈의 개념을 혁명하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272-255, 1995.10.6) p.1619

진화론을 중심삼고 볼 때 어떻게 진화했느냐? 나만 있어 가지고, 아메바만 있어 가지고 진화했다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나만 있으면 발전하느냐? 너와 나의 좋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중심삼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이상적 주고받음에 의해 보다 차원높은 발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86-114, 1976.3.14) p.161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진화론에서는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발전했다고 봅니다. 발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단계 더 높은 생물이 그냥 그대로 환경에 적응해서 발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단계 높은 존재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놈과 암놈,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사랑 과정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놈에서 수놈으로 갔다가 다시 암놈으로 가고 또 암놈으로 가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방향성을 보면 반드시 사랑의 문을 통해서 차원 높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208-235, 1990.11.20) p.1619

진화해서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는 말이 문제입니다. 사랑이라는 관념이 진화하기 전에 있었는가, 진화한 후에 생겼는가? 어때요? 전이에요, 후예요? 전입니다. 지금은 세균까지도 부부가 있다고 하지요? 아메바가 아니라, 세균입니다. 몇 십만 배, 몇 백만 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세균의 세계에도 부부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균이 아메바가 있기 전에 있었을까? 어때요? 재미있지요? 만물이 쌍쌍제도, 짝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사랑을 중심삼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의 감성이라는 것은 진화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메바로부터 인간까지 진화하는데 수컷과 암컷이 교류하는 몇 억 단계의 등급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이건 벌써 이론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은 이제 낡았습니다. 진화론은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상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발전하게 된 기대(基臺)가 된 것입니다. (223-355, 1991.11.20) p.1620

우주는 어디로 방향이 잡혀 있느냐?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목적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진화론을 말하기 때문에 목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물은 벌써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작용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연결시켜 가는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60-12, 1994.4.11) p.1620

오늘날 진화론도 이와 같은 원칙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둘의 마음이 맞아 서로 더 큰 목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자극을 일으켜 가지고 그 목적을 중심삼고 둘이 추구해야만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둘 사이에 일어나는 자극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65-190, 1994.11.21) p.1620

진화론에 사랑 논리가 있습니까? 오목 볼록이 왜 생겨났느냐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먼저냐, 수놈과 암놈의 개념이 먼저냐? 어떤 거예요? 수놈과 암놈이 먼저입니다. 수놈과 암놈이 먼저냐? 사랑 개념이 먼저냐? 어떤 거예요? 사랑 때문에 수놈과 암놈이 생겨난 겁니다. (274-93, 1995.10.29) p.1620

우주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진화론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화보다도 먼저, 창조의 개념이 있기 전에 수놈과 암놈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수놈과 암놈은 왜 생겼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이것이 공식입니다. (280-60, 1996.11.1) p.1620

모든 존재물은 전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수놈이 왜 생겨났소?' 하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연히 생겨났지.' 하고, 또 '암놈이 왜 생겨났소?' 하면 '자연히 생겨났지.' 하는데, 그거 미친 자식들입니다. 자연히 생겨났어요? 모든 수놈과 암놈은 자기 계열을 존속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계열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뱀이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수놈과 암놈이 사랑의 문을 통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209-193, 1990.11.29) p.1621

주체와 대상 상대권은 우주가 보호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진화론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메바에서 그냥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돼야 합니다. 이 하나된 것은 또 하나의 큰 플러스가 되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떤 존재는 위로 올라가고, 어떤 존재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 전체적인 하나의 주체적 성격의 기준 앞에 자기가 맞는 상대적 주체성에 해당하는 플러스의 대상적 존재라면 플러스에 가서 붙고, 그 큰 주체에 대해 마이너스의 대상적 존재라면 마이너스에 가서 붙어, 또 다른 커다란 플러스가 되든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마이너스가 되든가 해서,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218-266, 1991.8.19) p.1621

진화론을 어떻게 격파하느냐? 학자들을 중심삼고 그 진화론이 문제입니다. 진화하기 전 원숭이의 암놈과 수놈도 진화해서 됐어요? 어때? 암놈과 수놈이 진화해 가지고 됐습니까? 모든 것이, 광물세계는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고, 식물세계는 수술과 암술이고, 저 곤충세계의 작은 벌레도 전부 다 암놈과 수놈인데, 이 암놈과 수놈이 진화해서 생겨났습니까? 진화론자에게 암놈과 수놈이 생겨난 기원이 뭐냐고 물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번식하기 위해서고,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21-145, 1991.10.23) p.1621

진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젊은 지성인들이 이 문제에 걸려 이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지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아메바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냐, 하나님이 창조한 조화냐? 양대 논리가 문총재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리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당의 무신론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괴물입니다. 그거 처단해야 됩니다. 진화가 아메바에서 시작했다면, 그보다 몇 십만 배, 몇 백만 배 작은 그런 세계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균이 있다면 거기에 암놈과 수놈이 아메바가 있기 전에 있었을까요, 후에 있었을까요? (222-78, 1991.10.28) p.1621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진화론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수놈과 암놈이 먼저 있었지요? 이 진화론이 문제입니다. 진화해 가지고 수놈과 암놈이 생겼어요, 진화되기 전에 수놈과 암놈이 생겼어요? 사랑이라는 내용을 중심삼고 실체가 생겨난 겁니다. 사랑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남자와 여자, 수놈과 암놈이 하나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진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되기 전에 사랑의 컨셉이 있어 가지고 실체가 태어났기 때문에 진화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 수놈과 암놈에 가당치 않다 이겁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223-246, 1991.11.10) p.1622

진화론을 주장하기 전에 수놈과 암놈, 사랑의 개념이 최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 이전에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위해 결혼하고, 결혼해서는 하나가되어야 합니다. 하나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사랑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진화론의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의 공식적인 일치관을 인정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진화하여 수놈 자신이 어떻게 해서 암놈이 될까 하는 관념, 또 암놈 자체가, 여자인 내가 남자가 된다 하는 관념을 어떻게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관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놈과 암놈을 생각할 때, 진화론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수놈과 암놈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느냐?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224-126, 1991.11.24) p.1622

우주에는 진화라는 관념이 없었습니다. 증가한다는 관념은 원래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의 관념으로부터 진전의 편성을 전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진화론에 앞장서는 사랑의 관념을 생각해 보더라도 거기에 연결되는 수놈과 암놈의 내용을 어떻게 진화론으로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감정은 진화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관계 없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념이 먼저다 이겁니다. 사랑의 본궁은 무엇이냐? 본궁이 뭔지 알겠어요? (224-143, 1991.11.24) p.1622

진화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광물세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동물세계에도 수놈과 암놈이 있으며, 식물세계는 수술과 암술이 있습니다. 전부 자웅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세계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괜히 생겨났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겠어요? 이게 전부 주체와 대상관계입니다. 주고받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나름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240-290, 1992.12.13) p.162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진화론이 기독교를 파괴시키는데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진화론을 내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겠소, 안 믿겠소? 문총재의 말을 믿겠소, 진화론을 믿겠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몇 천만 대를 거치는데 아메바가 그냥 그대로 몇 천 단계의 사랑의 문을 통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메바 자체가 그런 능력, 비상천(飛上天)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질 수 있습니까? (240-297, 1992.12.13) p.1622

Top

② 진화론은 이미 시대에 뒤진 사상

지금 세계의 주류사상으로 볼 때는 개념과 실재가 철학세계의 2 대 주류가 되어서 유신론과 유물론, 좌익과 우익의 투쟁으로 세계에 미친 그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좌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패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기 전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도 거기에 대비해서 그 사랑의 개념에 일치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실재는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념과 실재가 사랑에 의해서 하나될 수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는 몰랐습니다. (228-162, 1992.3.27) p.1623

지금까지 세상 학자들에게 있어서 진화론이 먼저냐,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 개념이 있기 전에 먼저 진화 개념이 있었어요? 어느 게 먼저예요? 진화론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은 이 사랑의 개념이 먼저 있고 난 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쌍방제도의 우주가 먼저 생기고, 그 가운데 형체적인 구조가 맞는 것이 진화론 형태로 맞을 뿐이지, 근본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새 종류는 형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종의 구별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참새와 멧새가 부부가 되어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메바에서부터 사람까지는 몇 천 단계의 종의 구별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쑤욱!'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천만부당입니다. 종의 구분은 절대적입니다. (228-61, 1992.3.3) p.1623

공산주의도 신이 있다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상적 개념을 어디서 찾느냐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유물론을, 절대적으로 진화론을 부정할 수 있는 확정을 지어야 되고, 몸 마음이 하나될 수 있는 확정을 지어야 되고, 이상적 출발을 나에게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통일하느냐 하는 문제가 세계사적 문제입니다.

공산 블록이 진화론을 주장했고, 창조론은 종교권이 주장해 가지고 이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블록이 주장하던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걸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세계적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에서부터 잘못되어 이런 결과가 됐으니 개인에서부터 유심 유물을 중심삼고 판정을 해야 됩니다.

진화론을 걷어치워 버리고, 절대적 하나님을 중심삼은 창조론을 중심삼고, 절대적 하나님을 중심삼은 절대 가치의 핵을 세우지 않고는 세상이 왔다갔다한다는 것입니다. (270-96, 1995.5.7) p.1623

오늘날 진화론이라든가, 유물변증법 · 인식론 · 유심론 · 유물론 등으로 인하여 세계의 사상계는 모순과 혼란에 빠지고 말았으니 절대진리를 수립해야만 절대적 가치세계의 형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가치적 존재는 영원?불변?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주 가운데서 영원, 불변, 절대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는 결론이 됩니다. (89-226, 1976.11.27) p.1624

오늘날 진화론이 사실이냐, 조화의 창조가 사실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 진화론의 방향성은 누가 결정하느냐? 자기가 결정하나요? 발전하는 그 물질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또 문제는 그 자체가 이상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느냐, 더 품어낼 수 있느냐, 플러스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과학도 해명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도 역시 사람의 욕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욕망적 방향은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것이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서 우주의 모든 원소들의 종합적 대표, 이 물질세계의 대표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11-127, 1981.2.8) p.1624

생각의 근거지가 어디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슴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생겨나기를 존재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니,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즉 기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이 동물계로부터 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이 만든 방편적인 이론입니다. 논리적인 연결을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방편적으로 갖다 붙인 말이지, 진짜 진화했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밑바탕이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정신적 조상이 아메바냐 이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전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117-68, 1982.2.1) p.1624

오늘날의 철학사상, 그 철학사상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부 맨 밑에서부터 탐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 있을까?' 하고 이론적인 추구를 해왔지만 '인간이 무엇이냐? 참된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모든 학자들, 모든 유명한 철학자들이 인간문제를 중심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진화론이나 창조설에 의한 여러 가지 학설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습니다. 이렇다 할 수 있는 결정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170-144, 1987.11.15) p.1624

모든 경서를 보면 공자도 애매합니다. 인격적 신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태어난 우리 인간의 근본인 아버지가 있을 텐데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또 불교도 만상귀일의 법을 논하지만 인격적 신을 모릅니다. 까딱 잘못하면 유물론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진화론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진화론적 견지의 발전적 신앙기준에 서기 때문에, 이것은 유물론에 접근하기 쉬운 것입니다. (198-257, 1990.2.4) p.1625

불란서혁명 이후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삼고 계몽사상을 거쳐 지금의 공산주의로까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삼고, 공산주의가 하나로 엮어져 지금까지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의 구덩이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213-65, 1991.1.14) p.1625

오늘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우주는 힘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기 전에 작용이 먼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개념에 의해 사물을 판단할 때,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131-212, 1984.5.4) p.1625

요즘 진화론 같은 것은 미국의 큰 대학에서는 강의하지 않는 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히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연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소! '자연히 돼? 자연도 주체적인 자연이 있느냐?' 하면 '그건 난 모르지' 합니다.

이따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돼서 주체적인 자연이 있느냐? '그거 그렇게 되어 있지. 생리작용이 그렇게, 발전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과법칙을 부정하는 과학 논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59-267, 1968.5.19) p.1625

이제 진화론은 흘러간 하나의 역사적 유물이 됐지만, 진화되어 발전한다고 하지요? 진화하면 거꾸로는 왜 안 됐어요? 거꾸로 될 수도 있지 않나 말입니다. 동으로도 갈 수 있고, 서로도 갈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누가 잡아줬어요? 자기가 자라면서 방향을 잡나요? 아메바에서부터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사람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차원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 방향을, 고차원을 향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누가 잡아 주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차원을 향하느냐 이겁니다. (166-212, 1987.6.7) p.1625

각 종교 경전의 결점이 뭐냐 하면 창조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논리를 중심삼고 논고를 쓰는 것입니다. 창조설이 없으니까 창조 방향과 창조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이 제멋대로고, 뭐 진화론이니 무슨 논이니를 들고 나와 자기 뜻대로 해먹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설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런데 왜 이런 악한 세계가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규명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성서라든가 역사적인 과정에, 인류역사 가운데 망한 나라들이 왜 망했느냐 하는 그 모든 기원을 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누구든지 타당성 있게 공인할 수 있는 논리적 체제를 갖춘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2-323, 1991.1.11) p.1626

절대적인 사랑 앞에는 제 3 의 상대자를 절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가 진짜라면 진화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메바도 혼자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양성과 음성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문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는 사랑의 문을 통한다는 논리, 또한 여기에는 제 3 자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천리를 생각할 때 진화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203-343, 1990.6.28) p.1626

Top

제 2 장
인간 창조와 사랑이상의 완성

1) 사랑의 절대 가치

① 인간의 남과 여

우주의 근본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창조 했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 개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상대이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습니다. (300-217, 1999.3.14) p.1627

우주의 근본이 뭐냐?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심이 뭐냐 하는 문제, 우주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217-94, 1991.5.4) p.1627

우주의 근본을 찾아가면, 주체와 대상 개념이 생겨납니다. 여기 조그마한 여자도 힘 갖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조그마한 여자의 힘이 원하는 것은, 작은 남자의 약한 힘입니까, 큰 남자의 강한 힘입니까? 남자도 그렇습니다. 남자도 작은 남자라면, 큰 여자의 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균형이 문제입니다. 수평 아니면 수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이상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상대적 이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16-9, 1991.3.3) p.1627

인간 가운데에는 뭐가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뭐냐? 씨 중의 씨, 초점은 남자와 여자를 중심삼고 누가 초점이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씨를 보더라도 두 쪽이 딱 씌워져 있습니다. 한 꺼풀 안에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주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55-79, 1994.3.6) p.162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주의 근본이 어떻게 되느냐? 원인이 없이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때, 남자와 여자가 생겨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여자가 생겨난 것은 남자를 잡아먹기 위해서입니까? 남자가 생겨난 것은 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생겨났다면, 여자도 사랑 때문에 생겨났고, 남자도 사랑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원인입니다. (283-251, 1997.4.13) p.1628

여자는 왜 태어났느냐? 사랑을 위해 태어났는데, 남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남자는 왜 태어났느냐? 여자를 위해서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천리요, 진리입니다. 이걸 변경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278-203, 1996.5.24) p.1628

여자는 태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여자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지요? 왜 여자로 태어났느냐 이겁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철학의 제일 근본이 되는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한 것입니다. 남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246-222, 1993.4.18) p.1628

근본문제에 있어서 이 우주는 쌍쌍제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공명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세웠겠느냐, 아니면 사랑을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를 세웠겠느냐? 어떤 게 먼저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요렇기 때문에 사랑이 요래야 된다고 했겠어요, 사랑이 요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요래야 된다고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226-81, 1992.2.2) p.1628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태어나기를 자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다면, 사는 것도 자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본래 태어난 근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탈선자요, 낙오자요, 타락자요, 파괴자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 배웠습니까? 자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람은 이 우주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221-313, 1991.10.27) p.1628

여자의 것은 여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名)밖에 없는 온나(女)라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조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할머니한테도, 어머니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친척 아주머니 아저씨한테도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중심성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권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창조 원칙에 근본을 둔 그러한 공식적인 기반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255-144, 1994.3.10) p.1628

씨는 한 번 하나되면, 그 둘이 하나되는 씨는 그 둘 자체에 또 다른 씨가 없습니다. 그걸 깨는 것은 우주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입장, 재창조 과정을 전부 파탄시키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는 자기 누이동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쌍둥이입니다. 태어나기를 남자 때문에 태어나고, 여자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 때문에,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자기들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그렇지요? (253-65, 1994.1.7) p.1629

참사랑을 중심삼고 내가 완성하는 데는 상대가 없어서는 안 되됩니다. 상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사랑이 있기 전에 상대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먼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친다는 것은 우주의 근본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사랑이 안착할 수 있는 곳은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만이 아니고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부를 중심삼고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우주는 나를 닮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48-53, 1993.6.20)

남자와 여자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자가 동쪽이라면 여자는 서쪽이고, 남자가 남쪽이면 여자는 북쪽입니다. 여자들이 '왜 남자는 나 같지 않아?' 이러면 못씁니다. 여자가 약하면 남자가 강해야 되고, 여자가 살살하면 남자는 왕왕해야 됩니다. 또, 남자는 어깨를 저으며 가고 여자는 궁둥이를 저으며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어깨를 젓는 것은 전부 다 휘젓는 것입니다. 그게 우주의 톤(tone)입니다. 우주에 박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167-220, 1987.7.19) p.1629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는 왜 태어났느냐? 이것이 근본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왜 하나되어야 되고, 서로 만나 뭘하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수평이 돼 가지고 구형의 중앙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는 전부 구형을 닮았습니다. 지구도 둥그래 가지고 둥둥 떠 있지요? 우주도, 태양도 전부 떠 있는 것입니다. (173-205, 1988.2.18) p.1629

남자가 왜 태어났다구요? 남자가 태어난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자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여자는 왜 태어났다구요? 남자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여자는 남자 없으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담 해와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다구요?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다구요?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국물을 마셔야 하나님이 기분 좋아합니다. 아침 · 점심 ·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이구 기분 좋다!' 합니다.

하나님이 돈 보따리 갖다 준다고 기분 좋아합니까? 지식 보따리, 권력 보따리를 필요로 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제일 귀하다고 하는 사랑 보따리에는 하나님도 홀딱 반하기 마련입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은 잘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우주의 근본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확실하지요? (148-33, 1986.10.4) p.1630

여자가 왜 태어났느냐? 남자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본성 근본과 결과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그런 가치적 존재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모든 특성을, 잡아먹으려면 자기와 닮은 것을 잡아먹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곤충들도 수놈과 암놈을 놓고 다 좋아하지요? 그거 알아요? 벌레들도 그렇습니다. 나비들도 수꽃과 암꽃이 피어서 향기를 품는 데를 좋아하지요? 수놈과 암놈이 사랑하는 운동권 내에 가서 작동을 하고 살고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03-286, 1999.9.9) p.1630

타락하지 않고 본래대로 됐으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는 왜 태어났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왜 필요합니까? 사랑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놓고 죽고 살고 야단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생의 근원입니다. 근본이 절대적 사랑, 하나의 사랑을 찾아가려고 하지 둘의 사랑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대도(大道), 천리입니다. 억천만세가 가더라도 이 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상세계에 가도 이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191-36, 1989.6.24) p.1630

어머니 생명, 아버지 생명을 무엇 갖고 핏줄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핏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을 헤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심각한 사람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91-11, 1989.6.24)

우주의 근본은 사랑, 생명, 그리고 피입니다. 그것이 나로서 결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보호체입니다. 그래서 피로써 역사성, 전통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겠지요? 사랑 가지고 있지요? 생명도 가지고 있지요? 피도 가지고 있지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합니다. (190-223, 1989.6.19) p.163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느 때 하나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문제요, 우주창조 이후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주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과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서는 하나님은 핵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해와는 뭐겠어요? 아담과 해와는 핵을 둘러싼 두 쪽과 같습니다. 여러분, 밤 같은 걸 보게 되면 두 쪽으로 되어 배아(胚芽)를 싸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핵으로 하고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사랑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177-142, 1988.5.17) p.1631

남자와 여자, 둘이 왜 만나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남자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여자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서 뭘 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하고 우주의 근본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일체 화합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합하게 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일치화, 합치화시킨 것입니다.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끼가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모의 혈육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197-143, 1990.1.13) p.1631

내가 태어난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그거 아시겠어요? 우주의 근본이 이겁니다. 사랑, 참사랑!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198-122, 1990.1.25)

둘이 하나되는 데는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하나님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아니요, 남자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아니요, 여자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참된 사랑을, 절대적 사랑을 중심삼고 통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주의 근본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없으면 고독한 하나님입니다. (144-150, 1986.4.12) p.1631

호박잎이 무엇 때문에 호흡합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이 무엇 때문에 유지되요? 사랑 때문에 입니다. 여자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남자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돈 때문에 살지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23-150, 1991.11.10) p.1631

사랑하는 여편네와 돈 백억, 천억과 바꾸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말입니다. 이 사랑은 우주의 근본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근원이 손상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입장에 있다면 이것을 무엇과 바꾸겠어요? 나라와 바꾸겠어요? (201-15, 1990.2.28) p.1631

공산당을 지지합니까, 민주세계를 지지합니까? 민주세계는 유신론입니다. 정신이 먼저다 이겁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정신과 물질이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통일론입니다. 주체와 대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 원칙은 혼자는 존속 못 한다는 것입니다. 두 존재지만 그것이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 하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면 둘인데 하나 못 되면 유일론이 안 됩니다. 전부 이원론이 되기 때문에 세계는 전부 두 세계가 벌어져 투쟁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지만 하나가 돼야 합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게 돼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274-71, 1995.10.29) p.1632

Top

② 남자와 여자를 완성시키는 것은 생식기

우주의 근본은 뭐냐 하면 남성과 여성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중심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식기 원론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캥거루니 뭐니 무엇이나 보면 낳자마자 젖 먼저 찾아갑니다. 생식기도 보면 날갯죽지 안에 있는 놈도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가요? 그거 초음파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연결시키는 우주의 근원이 만유원력입니다. 만유원력은 하나님의 본질적 힘을 말합니다. (299-154, 1999.2.10) p.163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눈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관이 달라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냐? 생식기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46-220, 1993.4.18) p.1632

남자와 여자가 왜 태어났어요? 남자라는 말은 여자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남자라는 말은 선유(先有) 조건으로 여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남자는 덩치가 크지만, 덩치 작은 여자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여자는 뭣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 남자 여자가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달라요? 손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그래요? 뭐가 달라요? 한 가지 다른 게 뭐라구요? 하나는 오목이고 하나는 볼록입니다. 그게 생식기입니다. 남자에게 절대 필요한 건 여자의 진리입니다. 여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남자의 진리입니다. 남자의 진리가 뭐예요? 여자의 진리가 뭐예요? 그거 생식기 아니예요? 그래, 생식기 맞추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생식기 왜 맞춰요? 뭣 때문에? 사랑 때문입니다. 생명을 결합하고, 핏줄을 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3원소를 전부 섞기 위해서입니다. (196-130, 1989.12.31) p.1632

남자와 여자를 완성시키는 것은 생식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눈도 하나예요, 둘이에요? 왜 둘이에요? 콧구멍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왜 둘이에요? 입술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왜 둘이에요? 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왜 둘이에요? 손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왜 둘이에요? 발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왜 둘이에요? 여자의 생식기와 남자의 생식기도 둘인가? 그것도 같아요? 다릅니다.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의 그것과 여자의 그것은 별개지요?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배고플 때 밥을 먹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 혼자서는 사용 목적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지 않으면, 영원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누가 여자를 불러요? 눈이 불러요, 머리가 불러요, 몸이 불러요, 심정이 불러요? 누가 불러요? 또, 여자는 무엇 때문에 남자를 불러요? 누가, 어느 쪽이 불러요? 입이 불러요? 사용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식기는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절대적으로 남자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는 절대적으로 여자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역사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47-203, 1993.5.9) p.1632

남자와 여자는 서로 무엇이 다릅니까? 성기관을 포함한 그 몸이 우선 다릅니다. 그러면 남자의 성기관은 누구에게 절대 필요합니까? 남자의 성기관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기관이 하나는 오목하고 하나는 볼록한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둘 다 뾰족하게 하든가, 둘다 납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생겼습니까? 모두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남자의 것은 여자가 절대 원하고, 여자의 것은 남자가 절대 원합니다. 절대로 남자의 것이 여자의 것이고, 여자의 것이 남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299-119, 1999.2.7, 성약말씀•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p.1633

평화의 기지도 그렇고, 지상천국 천상천국 모든 것이 사랑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사랑? 남자의 사랑입니다. 여자의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한 사랑입니다. 그 남녀의 사랑이 어디에서 합해요? 얼굴에서 합해요, 손끝에서 합해요? 오목 볼록에서 합하는 것입니다. (263-52, 1994.8.16) p.1633

몸 마음은 무엇을 중심삼고 통일하느냐?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참사랑만이 몸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느냐? 존재세계를 다 알고 보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는데, 철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사람이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지요? 그거 간단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사람 하면 남자와 여자 때문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를 볼 때 여자라는 동물과 남자라는 동물이 있는데, 생식기가 그렇게 생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은 하나되기 위한 것입니다. 뭣 중심삼고? 사랑 중심삼고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사랑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겨났다는 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 중심삼고 하나되느냐? 사랑 때문에 하나되니 사랑을 중심삼고 지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최대의 신비, 최대의 흥미, 최대의 취미, 최대의 관심, 최대의 매혹, 최대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최대의 망살, 반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가진 흉물단지 같은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흉물단지라는 것입니다. (219-166, 1991.8.29) p.1634

생식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상한 눈으로 봐요? '통일교회 교주가 생식기 얘기를 한다.' 하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목사가 그런 생식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침 뱉습니다. 생식기에 대해서 침 뱉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생식기에 침을 뱉고, 여자가 남자의 생식기에 침을 뱉어요? 생식기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한 생식기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장소이며, 거룩한 궁전입니다. 최고의 궁전입니다. 생명의 본성전이 생식기요, 사랑의 본성전이 생식기입니다. (285-259, 1997.6.5) p.1634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참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221-145, 1991.10.23) p.1634

아무리 볼록이 있더라도 오목이 없으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오목과 볼록,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먼저였겠어요, 사람이라는 개념이 먼저였겠어요? 그걸 생각해 가지고 똑똑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사람의 개념이 먼저예요,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의 개념이 먼저예요? 근본이 그겁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생식기관이 우주 창조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남자의 생식기가 창조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생식기가 인간 창조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1의 조상이 생식기입니다. 이 생식기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생식기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개념은 본래의 개념 다음입니다. 본래의 개념에서 갈라져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272-171, 1995.10.1) p.1634

암놈과 수놈이 생겨날 때 몸뚱이가 먼저 생겨났겠어요, 생식기라는 것이 먼저 생겨나기 시작했겠어요? 중간에 가면서 암놈과 수놈이 결정돼요, 암놈과 수놈이 결정돼 가지고 크기 시작합니까? 어때, 윤박사? 결정돼 가지고 크기 시작하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암놈과 수놈을 누가 결정했어요? 아메바가 내가 수놈이 되겠다고 해서 수놈이 될 수 있습니까? 암놈 아메바는 절대적으로 암놈 아메바고, 수놈 아메바는 절대적으로 수놈 아메바입니다.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문총재가 어머니같이 여자가 되겠다고 해서 될 수 있습니까? 벌써 생겨날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할 때 벌써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나타나기 전에 생식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남자로 될 뻔하다가 여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로 절대적이고, 여자는 여자로 절대적입니다. (197-51, 1990.1.7) p.1635

결론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제일 수고롭게 지은 곳이 어디겠어요? 눈이에요, 입이에요, 코에요, 손이에요? 인간들은 그것을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본거지입니다, 사랑의 본거지. 사랑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본궁이었다 이겁니다. 거기서부터 남자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여자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의 주인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사랑의 주인은 여자이고, 여자의 사랑의 주인은 남자입니다.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것이 사랑의 기관입니다. (302-220, 1999.7.2) p.163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순금이라는 24금은 한국 땅에서 나온 것이나, 경치 좋은 데서 난 것이나, 물 가운데서 난 것이나, 어디 산골짜기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땅에서 나온 것이나 가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려는 상대에 대해서 생식기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이고, 당신 얼굴이 나쁘니 나 싫다.'고 그래요? 사랑관계를 맺으면 곰보가 예뻐지는 것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사랑하게 되면 그 백인 여자가 흑인 남자를 흑인으로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76-87, 1996.2.4) p.1635

자기 멋대로 눈썹이 나오고, 자기 멋대로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미친 소리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이 되는 주인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몸뚱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몸뚱이가 그냥 생겨났어요? 생식기가 이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돼 있습니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191-53, 1989.6.24) p.1635

남자는 남자의 생식기를 천년만년 잘 지키는 주인이 돼야 되고, 여자는 그 생식기를 천년만년 잘 지키는 여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총재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틀림없이 지키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책임을 진 사람이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부모더라 이겁니다. 참부모는 간단합니다. 바람둥이 여자와 남자를 데려다 놓고 바람피지 않고 절대적으로 절개 지키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참부모입니다. (271-188, 1995.8.28) p.1635

Top

③ 생식기는 근본문제 해결의 출발점과 종착점

여러분 맘대로 궁둥이 더럽히면 안 돼! 여자의 것은 누가 주인이라구요? 웃지 말라구, 우주의 근본을 밝히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보라구요.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뼛골이 녹아났는지 알아요? 말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요? 천하가 갈라지고, 세계가 둘로 갈라지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177-219, 1988.5.20) p.1636

사랑의 왕궁이 어디예요? 이런 얘기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세상이 다 틀어집니다. 아귀가 안 맞으면 온 천하에 요사스러움이 벌어집니다. 문총재가 지금까지 고심해 우주의 근본을 파헤치다 보니 딱 도착한 곳이 생식기였습니다. 생식기에 도착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지의 조화가 여기에서 소용돌이 치더라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197-24, 1990.1.7) p.1636

선생님이 모든 복잡한 세계의 진리를 탐구했지요? 다 알려고 하니 하나님이 전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고 나오다 보니,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품고 있고 아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물론 놀랍고 감사했지만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95-15, 1998.8.16) p.1636

지금까지 인간이 고민한 근본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줄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지지리 고생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내가 울고불고, 뭐 영계에 들어가서 똥싸개까지 뒤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을 몰랐구나!' 했습니다. 내게 다 있습니다. 우주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주가 다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199-314, 1990.2.21) p.1636

선생님이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9년 동안이나 몸부림쳐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알고 보니 간단한 이치였습니다. '야, 요렇게 간단한 걸 몰랐구나. 다 갖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산삼 캐는 할아버지들이 태백산 같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산삼을 캐려고 돌아다니는데, 아 이거 아침에 나와서 오줌 싸고 쉬던 자리, 깔고 앉았던 자리가 삼밭이었다 이겁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돌아오다가 출발할 때 오줌싸고 담배꽁초 버린 곳에 가서 다시 그거 주워서 피겠다고 가 보니 아이쿠 삼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담배꽁초 찾아 피우는 것도 행복이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6-130, 1989.12.31) p.163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문총재가 건달식이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을 헤쳐 보니 그겁니다. 이것 다 알고 보니 세상에 이렇게 고생을, 일생 동안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기가 찹니다. 다 갖고 있었습니다,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들어가 신령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소?'할 때는 내 속에서 '오냐, 여기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천(人乃天)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191-43, 1989.6.24) p.1636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천신만고 수고한 그 배후를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것이 지나가다가 무슨 피리소리 듣듯이 해 노랫가락으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피눈물로 모든 오감, 신경의 느낌을 한 초점에 모아서 뒤넘이치며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아 오더라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것입니다. (225-281, 1992.1.26) p.1637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남은 것이 누가 보호해서 살아 남은 것 같소? 문총재가 보호해서?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천운의 보호를 받으려면 흥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땅위에 자기를 위하라고 하는 역사의 교훈을 벌여 놓은 것이 악마인데, 이것을 넘어서 본연경(本然境)에서, 신의 사상적 기반에서 근본 사상에 따라 위하는 창조의 유업을 통해 위하면서 이상을 찾아 나가려던 창조주의 본의에 일치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우주가 보호합니다. '우주가 보호한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마디 합시다. (197-253, 1990.1.19) p.1637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이 길을 찾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인생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해결해야 되고, 우주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고충까지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암중모색하던 그 젊은 시절의 고통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조직을 다 만들어서, 말뿐만 아니라 실전 도상에서 그것이 증거된 세계의 판도를 다 가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달려와 깃발을 받아서 뒤로 돌아만 서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209-292, 1990.11.30) p.1637

가장 근본의 문제는 마음과 몸이 싸우는 일로 시작하여 우주적인 보석을 매장한 기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적인 면에서 자기를 통일하는 길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사랑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우주 전부를 해독하고 나서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상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224-164, 1991.11.24) p.1637

이 우주의 존속, 역사의 존속, 국가의 존속이라든가 이상의 계승 등 모든 전체는 무엇을 중심삼고 있느냐? 여러 가지의 관계 세계를 지탱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중심 요소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식구 관계에서 그것이 통일교회 들어올 때 와 지금까지 10년, 수십 년 되면 점점 습관화가 되어 옛날에 들어올 때에 열성을 다하고 전체를 생각하던 그런 모든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자기 이익만 취할 수 있는 악마의 그물에 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3-223, 1994.1.30) p.1637

왜 원리냐? 근본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원리라는 것은 근원의 이치,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우주의 근본 문제, 그런 것들이 원리를 풀어냄으로써 모두 밝혀지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천상에 가도 그 원리의 길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안정·안식의 생애노정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되면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중대한 것입니다. (258-304, 1994.3.20) p.1638

우주의 근본이 뭐냐 하는 이 문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야단법석을 해도 가르쳐 줄 수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천하가 일일통일이 벌어질 텐데, 이것은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미지의 입장에 떨어졌으니 이 미지의 입장을 극복하고 이 선을 넘긴 사람이 아니고는, 병 나은 사람이 아니고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누구보다도 고심한 사람이 여기 이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통일교회라는 말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안 됩니다. 영계에 가면 전부가 공판정에 들어가 경매 입찰하듯이 해야 됩니다. (198-104, 1990.1.25) p.1638

만일 우주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이 세상에 절대가치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그 사회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철학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259-127, 1994.3.29) p.1638

내가 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기준에서 우주의 모든 근본을 파헤쳐 가지고 틀림없다는 자신이 섰기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일생 동안 감옥을 드나들고 매맞고 욕먹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한마디 반대 못하고 이렇게 말없이 세계를 정복해 나왔습니다. 참사랑의 중심인 하나님, 모든 힘의 근본인 하나님이 쓰러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쓰러져요? 치면 자기가 깨지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당신보다 못생기기를 바라오, 잘생기기를 바라오?' 하면 '너희들과 같지!' 같은 대답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우주의 근본이 이렇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 다음엔 '당신도 아들딸이 있으면 아들딸이 당신보다 훌륭하길 바라지요?' 하면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권위적 가치,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217-189, 1991.5.27) p.1638

문총재가 모든 진리를 탐구해서 영계와 육계를 탐사하고, 모든 경서를 탐사해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세계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놔 주지를 않습니다. 결판짓기 위한 싸움한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근본 원칙이 무엇이고, 왜 태어났느냐? 남자는 여자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체 진리 중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여자 앞에 이상적인 남자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우주 전체를 완성한 이상의 진리의 본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 앞에 그런 여자도 우주의 진리의 본체 중의 본체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체입니다. (267-230, 1995.1.8) p.1639

Top

2) 생식기는 3 대 본궁 하늘의 지성소

①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본궁

남자와 여자가 왜 생겨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돼요?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거예요? 생식기를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화통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의 완성이 벌어집니다. 참사랑이 처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하나되는 곳도 그 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핏줄이 교류해 심어지는 곳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상적 사랑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본연의 곳을 본궁이라 하는데, 누구도 그 가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228-51, 1992.3.3) p.1639

아담과 해와의 생식기 그 자리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식기는 사랑의 본궁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천지 창조의 전체, 하나님까지 완성시켜서 안식시킬 수 있는 왕궁인데, 그것이 본궁입니다. 하늘나라도 첫째가 아니요, 지상나라도 첫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궁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 자리는 또 참사랑을 중심삼은 본궁이지만, 참생명을 중심삼은 본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혈통을 중심삼은 본궁이고, 지상천국의 출발지요, 천상천국의 출발지라는 것입니다. (263-347, 1994.10.27) p.163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의 생식기가 참사랑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행위가 연결되지요? 딴 데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가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연결되고, 생명이 합쳐지는 궁전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면, 그 혈통으로부터 아들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통의 궁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231-275, 1992.6.7) p.1639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는 사랑의 궁입니다. 사랑의 왕궁입니다. 자궁이 귀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것이 귀합니까? 말해 봐요. 자궁 때문에 생식기가 생겨났어요, 생식기 때문에 자궁이 생겨났어요? 심각한 말입니다. 웃을 말이 아닙니다. 남자가 있기 때문에 자궁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자의 그것은 남자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연결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뭘 합니까? 생명의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걸 통하지 않고는 역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혈통의 연결이 안 됩니다. (245-70, 1993.2.28) p.1640

생식기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생명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혈통을 중심삼은 왕궁입니다. 제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천지가 없어지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원입니다. (216-218, 1991.4.1) p.1640

생식기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생명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혈통을 중심삼은 왕궁입니다. 제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가정,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원입니다. (216-218, 1991.4.1) p.1640

여자의 생식기가 우주적인 본원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가 사랑의 본궁(本宮)이 됩니다. 본연의 궁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 첫날밤의 사랑이 사랑의 본궁의 출발입니다. 여자의 생명, 남자의 생명이 처음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생명의 본궁이 그곳이요, 혈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혈통의 본궁이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상천국의 본궁이요, 천상천국의 본궁이요, 인간완성의 본궁이요, 하나님 완성의 본궁입니다. (257-324, 1994.3.16) p.1640

남자의 완성, 여자의 완성, 하나님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본고장이 어디냐?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고, 어디에서 남자와 여자를 완성시킬 수 있느냐? 그 중심 정착지가 어디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지상에 사랑의 이상천국을 확장,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게 눈이오, 코요, 손이오, 발이오, 어디요? 오목 볼록입니다. (261-167, 1994.6.9) p.1640

생명이 출발하는 본거지가 어디예요? 사랑의 본향 땅이 어디예요? 혈통의 본향 땅이 어디예요? 남녀의 생식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무엇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됩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혈통도 거기서부터 연결됩니다. 그 귀중한 3 대 기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218-133, 1991.7.14) p.1640

사랑의 본궁이 생식기요, 생명의 본궁이 생식기요, 혈통의 본궁이 생식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찾고 있던 참된 사랑의 기원지이며 정착지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남녀의 생명이 결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피가 엮어져 역사성을 지닌 인류라는 이 모든 혈족이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212-297, 1991.1.8) p.1640

머리보다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머리에는 참사랑의 기원이 없습니다. 머리에는 참생명의 기원이 없습니다. 머리에는 참혈통의 기원이 없습니다. 그 기원은 생식기에 있습니다. 그거 틀림없지요? 생식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혈통이 있습니다. 그곳이 사랑의 본궁입니다. 생명의 뿌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세계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제일 귀한 곳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류의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203-104, 1990.6.17) p.1641

'내 생식기는 사랑의 본궁이다, 내 생식기는 생명의 본궁이다, 왕궁이다, 내 생식기는 혈통의 왕궁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왕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본궁에 찾아가서 거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사랑의 본궁이 되어야 하고, 생명의 본궁이 되어야 하고, 혈통의 본궁이 되어야 하고, 양심의 본궁이 되어야 합니다. (280-197, 1997.1.1) p.1641

생식기는 사랑의 왕궁입니다. 지금 그 사랑의 왕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인 것, 그렇게 귀한 것이 인간의 생식기입니다. 성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생명·사랑·혈통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것을 사탄이 더럽혔습니다. (218-176, 1991.7.28) p.1641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본궁, 생식기가 뭐예요?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것 붙들고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것 붙들고 살고, 자기 부부도 그것 붙들고 살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딸도 전부 그것 붙들고 살지요? 그것 안 붙들고 사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습니까? 종자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나쁜 것이 됐어요? 쌍소리라고 하지요? 왜 쌍소리예요? 거룩한 소리입니다. 거룩한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사랑이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혈통이 나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210-101, 1990.12.1) p.1641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왕궁입니다. 첫생명의 출발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본연지입니다. 생명의 왕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왕궁입니다. 양심이 이상을 중심삼고 정착할 수 있는 기지입니다. 혈통의 기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하나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일체가 됩니다. 그런 생식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천지를 파탄시킨 괴물이 돼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걸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성들여 지은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피조만물의 핵심적인 골수를 짜내서 연결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본질이 백 퍼센트 연결되고, 생명의 본질이 백 퍼센트, 역사의 본질이 거기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행복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사랑을 중심삼은 자유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62-114, 1994.7.23) p.1641

생명의 근원지, 사랑의 근원지, 혈통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생식기입니다. 그것을 뒤집어박았기 때문에 세상의 제일 쌍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게 그릇되지 않았으면 쌍소리가 아니라 왕소리입니다. 거룩한 소리입니다. 쌍소리와 대치되는 말이 거룩한 소리지요? 참소리보다 좀더 높은 것이 뭐냐? 참소리 하게 되면 상대적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거룩한 소리는 종적, 구형적권(球形的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남자의 생식기가 사랑의 왕궁입니다. 그러니 그걸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왕궁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생겨나지요?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의 왕궁입니다. 혈통의 왕궁입니다. 거기에서 내 생명이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지요, 내 혈통의 근원지요, 내 사랑의 근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것을 통해 귀하게 여기고 위해야 했던 것입니다. (206-125, 1990.10.3) p.1642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만들었겠느냐? 제일 좋아하면서 만들고 제일 정성들여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의 몸뚱이 가운데 어디일 것이냐,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생식(生食)하는 밥쌀을 갖다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생식기라면 사는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겁니다. 생명의 생식입니다. 생명을 심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없으면 천년만년이 되어도 생명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세상은 암흑 천지, 사막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283-256, 1997.4.13) p.164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사랑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는 그 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식기입니다. 이것이 제일 천대받았습니다. 천지가 뒤집어져 제일 쌍것으로 취급했지만 복귀된 천하에서는 이것이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요, 양심의 본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라도 안 생겨나고, 이상세계의 발전도, 기원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286-170, 1997.8.9) p.1642

생식기가 왜 생겨났느냐 이겁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 때문에, 혈통 때문에, 양심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곳을 통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혈통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눈 코 등 오관을 만드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생식기를 만드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오관이 사랑을 어필하는 데예요? 그것이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이 모여 있는 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단 하나 그런 곳이 있다면 생식기입니다. 거기서 사랑?생명?혈통?양심의 제 2 의 열매가 결실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들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스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귀한 생식기를 몰랐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이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지만, 생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식기는 참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81-189, 1997.2.13) p.1642

생명의 왕궁이 어디라구요? 사랑의 왕궁이 어디라구요? 혈통의 왕궁이 어디라구요? 가정이지요? 부부지요? 부부의 사랑의 기지 아니예요?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손을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늘나라의 참된 왕자 왕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게 참생명이지요. 참된 혈통을 남겨야 됩니다. 후세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21-13, 1991.10.20) p.1643

생식기는 생명의 왕궁입니다. 왕궁이라는 것은 첫번째 근원적인 전체를 대표한 집입니다. 왕이 뭐냐? 소생-장성-완성의 중심입니다. 3 단계의 중심이 왕입니다. 그거 보면 한문도 계시 받아서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랑의 왕궁을 갖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 사랑의 왕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왕궁을 가진 사람들이 왜 걱정합니까? 불행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208-266, 1990.11.20) p.1643

왜 여러분은 역사적 전통과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사랑과 생명과 혈통, 이 셋이 최고의 전통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식기관은 그 셋을 동시에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접붙이는 곳입니다. 사랑을 접붙이고, 생명을 접붙이고, 혈통을 접붙이는 곳입니다. (230-119, 1992.4.26) p.1643

사랑하는 부부 둘이 관계를 맺는 생식기는 사랑의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사랑의 왕궁입니다. 첫 출발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생식기는 사랑의 왕궁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관념으로 본다면, 생식기는 사랑의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왕궁, 혈통의 왕궁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거기에 생명이 연결되고 혈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54-281, 1994.2.15) p.1643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지 않은 복귀된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생식기를 향해서, 온 존재세계는 자기 생명 전체를 투입해 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차원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광물은 식물에, 식물은 동물에, 동물은 더 큰 동물에, 큰 동물을 거쳐서 인간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주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했어요? 그 곳이 어떤 곳이에요?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생식기는 산 식기입니다. 생명을 먹는 식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왕궁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286-144, 1997.8.9) p.164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모든 만물세계의 최종 이상적 흡수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 남자 여자의 생식기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과 우주의 사랑이 결탁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하나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종적으로 후손들이 연결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종적으로 이어 횡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생식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269-129, 1995.4.9) p.1644

본연의 인간 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눈이 아니고, 코가 아니고, 입이 아니고, 손도 아닙니다.
어디로부터예요? 그 성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생식기입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18-179, 1991.7.28) p.1644

도가니라는 말이 있지요? 용광로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피가 도가니에서 녹아서 섞이는 자리가 어딥니까? 생식기입니다. 생명을 싣는 그릇을 생식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궁입니다, 사랑의 본궁. 하나님의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출발의 동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02-166, 1999.6.13) p.1644

여러분의 생식기도 그렇습니다. '야, 이 생식기를 통해서 아이가 창조된다' 이거 생각해 봤어요? 중대한 내용입니다. (298-180, 1999.1.1) p.1644

생식기는 '날 생(生)'자와, '밥 식(食)'자나, '심을 식(植)'자를 써도 좋습니다. 생명을 심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번식할 식(殖)'자도 괜찮습니다. 생식기(生植器)가 생식기(生殖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생명을 심는 그릇입니다. (302-181, 1999.6.13) p.1644

창조주와 피조물이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될 것이냐? 사랑입니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 생식기를 중심삼고 창조했다는 사실은 사랑의 표제를 중심삼고 창조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93-163, 1989.10.3)

역사상의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간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나 경제를 초월합니다. 타락한 세계에서도. 그런데 타락 이전의 세계에서는 어땠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궁전입니다. 궁전 중에서도 본궁입니다. 생명의 궁전도 되고, 혈통의 궁전도 됩니다. 이 3궁전의 기초가 생식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3대 왕궁을 점령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족이 됐을 것입니다. (243-275, 1993.1.28) p.1644

인간세계에서 제일 귀한 것이 사랑의 본성입니다. 사랑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 혈통의 근원지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는 사랑의 근원적 본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됐지, 본래는 생명의 근원지요, 혈통의 근원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의 가장 귀한 근원지를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일 나쁜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걸 뒤집어 박아야 됩니다. (209-230, 1990.11.29) p.1645

남자나 여자에게 있는 생식기관이라는 것은 사랑의 기관이고, 생명의 기관이고, 역사적 혈통의 기관입니다.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조상과 더불어, 이상의 나라와 더불어, 이상의 문화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세속적 인본주의로 인해 파탄시켜 놨다 이겁니다. 악마는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찾아오는 것을 알고 이걸 완전히 파탄시키기 위한 계교의 형태로서 이루어 놓았으니, 그것이 현재 미국의 세속적 인본주의다 이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것은 동물적인 세계입니다. 생식기라는 것은 뭐냐하면 사랑의 왕궁이요, 영생의 생명이 탄생하는 왕궁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전통을 이어받고 혈통을 이어받는 왕궁입니다. 참된 생명의 왕궁이요, 참된 사랑의 왕궁이요, 참된 혈통의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곳입니다.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인이 없으면 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주의 공인받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랑이 그래요? (216-207, 1991.3.31) p.1645

하나님이 이상하던 본연의, 아담 이후 타락하지 않은 그 생식기가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되어 혈통과 생명을 연결시켜야 할 본거지가 되고 본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본연의 사랑의 왕궁입니다. 사랑의 본궁입니다. (290-17, 1998.2.2) p.1645

통일교회 교주가 성(性) 교주가 됐다 하는 얘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사랑의 본궁입니다. 언제나 왕이 정주(定住)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본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식기가 본부 사랑의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278-207, 1996.5.24) p.1645

Top

②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완성시키는 기관

여러분의 생식기는 사랑을 위한 기관입니다.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랑의 기관을 혁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생식기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컨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남자와 여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되면 대번에 평화의 세계가 눈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276-130, 1996.2.11) p.1645

사람에게 있어서 생리학적으로 신경과 핏줄이 제일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생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똥통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75-74, 1995.11.3) p.1646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중심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요소, 육신적인 요소, 피의 요소, 모든 요소가 연결될 수 있는 연합기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눈의 요소도 거기에 다 달려 있지요? 이빨의 요소도 전부 어머니와 아버지 닮잖아요? 안 닮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도 다 닮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전부 다 집약해 가지고 모든 신경기관 혈통기관 전체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194-139, 1989.10.17) p.1646

우주는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거 무슨 사랑이에요? 종적인 사랑과 횡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전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구형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하•좌우•전후를 연결하는 중심은 가정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오?' 하면 '사랑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심이 어디요?' 하면 '사랑의 정착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착지가 어디요?' 하면 '생식기다!' 하는 것입니다. (279-48, 1996.6.9) p.1646

남자에게 제일 자극적이요, 신경적이요, 예민한 곳이 어디입니까? 혓바닥입니까? 맛을 보는데 아무리 예민하다고 해도 생식기 이상 예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혓바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번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먹고 싶지만 생식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생각만 하더라도 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은 먹어야 느껴지지만 사랑의 상대는 생각 가지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천리만리 무한 공간세계를 넘어서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죽더라도 또 살아서 사랑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286-275, 1997.8.13) p.1646

인간세계에서 사랑의 기원지가 어디입니까? 생명의 기원지가 어디예요? 혈통의 기원지가 어디예요? 입이요, 머리요? 어디요?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를 더럽힌, 천지를 파괴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흉악한 궁전이 되었습니다. 악의 본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짓 사랑을 심고, 여기에 거짓 생명을 심고, 여기에 거짓 핏줄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제일 천지를 판 악당이기 때문에 그게 쌍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쌍소리입니다. (200-249, 1990.2.25) p.1646

생식기라는 기관은 무슨 요술을 부리는 기관이냐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기관이요, 남자의 생명 여자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기관이요, 남자의 피 여자의 피를 혼합시켜서 연결시키는 기관이 자기 몸 가운데 있나니 그것이 생식기입니다. 맞아요? 이 근본을 파헤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갑니다.

창조를 왜 했느냐? 무엇 중심삼고 창조했느냐? 오늘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세계 도서관에 가보더라도 문선생의 처음 제창입니다. 그게 귀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모든 결말입니다. 창조를 왜 했느냐? 사랑으로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생식기를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사랑의 근원이 됩니다. (194-63, 1989.10.15) p.1647

남자와 여자가 90 각도로 합하는 곳이 어디라구요? 생식기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거기가 사랑의 본궁입니다. 눈도 아니고 머리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어디가 동합니까? 눈이 동합니까? 머리가 동합니까? 무엇이 동합니까? 생식기입니다.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본궁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본궁이고, 생명의 본궁이지요?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지요? 그 다음에 혈통이 어디서 연결돼요? 머리에서 연결돼요, 손등에서 연결돼요? (198-353, 1990.2.11) p.1647

모든 물질의 원소들이 바라는 본궁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정밀한, 이상적 감각을 갖춘 남녀의 생식기관이 최고의 희망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듣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면서도 갈 수 있는 길은 사랑의 길밖에 없습니다. 미물세계에서부터 광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우주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49-164, 1993.10.10) p.1647

주류를 따라서 가야 될 텐데 주류를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물러 퇴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만물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물 가운데 제일 정성들여 지은 것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력을 다 해서 창조한 것이 인간의 생식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요소를 합해서 재차 빚어낼 수 있는 기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곳은 세포의 왕궁입니다. 세포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49-162, 1993.10.10) p.1647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합하는 데서 사랑의 본궁이 생겨납니다. 역사적인 사랑의 궁전이 생겨납니다. 안식처가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옮길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남자의 생명, 여자의 생명이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되어 가지고 끓어 넘쳐서 폭발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발생합니다. 폭발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발력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따라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비둘기 새끼도 구구하는 폭발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듣도록 악 소리 질러도 그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193-147, 1989.10.3) p.164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좌우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생식기와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만나서 천주가 돌고 우주가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자체가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243-27, 1993.1.1) p.1648

사랑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그 사랑과 하나될 수 있도록 분립되어 태어난 것이 여자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가 사랑을 중심으로 일체화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목과 볼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합해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심신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심신일체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구요? 키스가 아닙니다. 손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를 완전히 맞춤으로써 완전히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229-251, 1992.4.12) p.1648

하나님도 사랑을 중심삼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그 숙제가 중요합니다.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느냐?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표준해서 사람을 만들었느냐, 남자는 무엇을 표준으로 만들었느냐 할 때 '남자 얼굴을 중심삼고 만들기 시작했지.' 하면 맞는 말이에요? 여자를 만드는데 '여자는 요래야 되니 여자 얼굴 보고 만들었지. 수염이 안 나고 요렇게 매끈매끈하고 키가 작게 그렇게 만들었지.' 할 때 그래요? 아닙니다. 생식기를 중심삼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된 것은 생식기를 닮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된 것은 생식기를 닮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은 문총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도서관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새로운 말입니다. (193-145, 1989.10.3) p.1648

하나님이 창조할 때 생식기를 표상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를 움직이는 거기에는 인간 전체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그 둘이 하나됨으로써 애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되어서 낳으면 뭐예요? 여자를 닮고 남자를 닮는데, 무얼 닮느냐? 신경 계통이 전부 달려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옵니다. 뿌리가 없는데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격동할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 이론적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곳, 그 생명을 연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곳, 자기의 혈대를 자기 자식으로 연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관이 뭐예요? 머리예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마음이 먼저냐, 몸이 먼저냐? 유물이론의 철학 사조가 들어가 세계에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귀하냐, 생명이 귀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게 먼저냐? 이거 선후를 가려내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상을 세울 때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세웠기 때문에 상대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3-145, 1989.10.3) p.1649

생식기 그거 뭘 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찾자는 것입니다. 여자를 찾음으로써 사랑이 생기고, 남자를 찾음으로써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이건 우주의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생겨난 것이 자기 생식기를 닮아서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 생식기를 닮아서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여자가 여자 되고, 남자가 남자 된 것은 생식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이겁니다. (280-60, 1996.11.1) p.1649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제일 나쁜 것으로 취급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뭣이에요? 지금까지 생식기를 나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사랑을 이루는 기관이 어디예요? 생식기가 뭐예요? 오목과 볼록 그것 아니예요? 오목은 뭘 하는 곳이에요? 볼록은 뭘 하는 곳이에요? 그걸 맞춤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맞추지 않으면 사랑을 모릅니다.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서 절대적으로 하나되는 데가 생식기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278-203, 1996.5.24) p.1649

남자와 여자의 상대로서 필요한 기관이 뭐예요? 키스하는 곳이에요? 몸뚱이 만지는 거예요? 무슨 기관이에요? 생식기입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생명을 심어 놓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식기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남자를 점령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데, 그 무기의 주인은 자기가 아닙니다. 그 무기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의 주인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301-74, 1999.4.16) p.1649

존재하는 것은 전부 사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위한 존재는 자기를 위해서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와 연결하지 않고는 참사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법입니다.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생식기를 중심삼고 상대와 연결될 때 완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에 연결되어야 여자가 완성하는데, 남자의 생식기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 자리에서 완성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고 사는 것입니다. (297-155, 1998.11.19) p.1650

여자는 귀와 입이 왕이 되야 합니다. 그것은 '성인 성(聖)'입니다. 어느 누구나 '성녀가 되고 싶으냐, 악녀가 되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 성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모든 여자들의 대답입니다. 그것이 '성(聖)' 자입니다. 남녀간의 성욕의 성(性)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 자지만, 이 성 자는 귀(耳)와 입(口)이 왕(王)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자의 생식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왕이 아니예요? 그것을 지키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배우지요? 그런 것은 사전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잖아요? (283-48, 1997.4.8) p.1650

하나님의 사랑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가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거 틀림없는 원리관이지요? 선생님이 멋대로 세운 이론이 아닙니다. 천지 대도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288-334, 1998.1.1) p.1650

Top

③ 생식기는 하늘이 임재하는 지성소

남자와 여자의 사랑 기관의 세포가 제일 정밀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되는 모든 사랑의 길이 통하는 그곳의 세포의 감정, 그 세계에 원소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만물, 피조세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통일되는 곳이 어디냐? 생식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고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곳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나쁜 것이 되었지만 원래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문을 열 때 세계가 열리고 문을 닫게 되면 세계가 닫히고 그것이 행복할 때, 세계가 행복하고 온 우주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기관을 통해 하나된 그 자리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물론 모든 세포의 소원이 생식기의 세포가 되는 것이지만,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전신이 동감하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248-55, 1993.6.20) p.1650

사랑의 모든 것이 골고루 성숙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안테나가 뭐냐? 뭐가 제일 높은 안테나냐? 그것은 사랑의 안테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의 안테나가 뭐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전파는 오로지 안테나를 통해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원형을 이룹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안테나입니다. 인간세계의 안테나에 하나님의 수직사랑이 접선되는 날에는 세계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포괄하고, 온 우주를 포괄하고 남을 수 있는 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세계와 영계에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게 하는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134-197, 1985.7.20) p.1651

하나님은 그 중심에 거하고 싶어하십니다. 이상적인 가정, 국가, 세계가 그 뿌리에 연결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처지입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뭐라구요? 영원한 사랑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1 대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한 왕궁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왕궁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을 중심삼고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을 처음으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생식기가 뭐라구요, 첫 번째는 사랑의 왕궁, 두 번째는 생명의 왕궁입니다. 세 번째는 혈통의 왕국입니다. 이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행복해 하고 그러지요? (248-111, 1993.8.1) p.1651

부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영원히 정착하는 때는 결혼해서 사랑하는 때입니다. 사랑할 때 어디로 사랑합니까? 입, 눈, 귀를 가지고 사랑합니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은 생식기를 나쁜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 레버런 문이 그것을 신성한 본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예요? 생식기가 없으면 참사랑 · 참생명 · 참혈통 · 참양심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 천국이 출발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거기를 통해야 자유 · 행복 · 평화의 통일세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278-153, 1996.5.5) p.1651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그게 뭐라구요? 그게 생식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생식기가 하나 못 된 것입니다. 합덕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믿어야 합니다. 내 가정 역사의 기둥이요, 내 일족의 기둥이요, 내 핏줄 역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304-164, 1999.10.10) p.1651

하나님과 인간이 어디서 만난다구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어서 사랑하는 시간, 생식기를 중심삼고 하나되는 시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망치고 하늘땅을 망쳤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모시러 나간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체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시킬까? 어떻게 봉사하고 환영할까? 어떻게 하면 참사랑 중심삼은 부부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매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246-73, 1993.3.23) p.1651

하나님같이 영원불변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같이 절대적으로 유니크하고, 영원불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랑이 정착하는 데는 생식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귀한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조부모 · 부모 · 부부,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딸도 모두 다 생식기가 하나되는 데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면 가정 전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생식기를 잡고 영원히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생식기를 점령해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식기에서 사랑 · 행복 · 자유 등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278-203, 1996.5.24) p.1652

아담과 해와의 자리는 본궁입니다. 그 아담 해와의 후손들은 그냥 궁이 될 텐데 본궁터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3 대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인 동시에 그 자리에서부터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출발하는 기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67-257, 1995.1.8) p.1652

지구세계의 피조물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의 세포가 되기 위해서 총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희생할 만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해와가 사랑의 상대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해 종적 사랑, 횡적 사랑, 여기서 회오리바람같이 되니까 땅을 팔 수도 있고, 산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세상의 악한 것을 점령할 수 있고, 사랑만이 높은 하나님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6-90, 1998.11.3) p.165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제일 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제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거기에서부터 이상천국을 확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은 절대적입니다. 한 번 결혼하게 되어 있지 두 번 결혼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245-151, 1993.2.28) p.1652

여자의 사랑의 생식기, 남자의 사랑의 생식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성의 것은 사랑의 여인이 궁전이요, 남성 것은 사랑의 남성의 궁전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만나는 것이 최고의 퀸, 킹이 되는 이상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하나의 동등한 이상적인 생활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로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128-326, 1983.10.2) p.1652

내게 제일 귀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보다도, 자기 이상적 가정보다도 이게 귀합니다. 이게 없으면 자기의 가정도 성립 안 되는 것이요, 민족도 성립 안 되는 것이요, 나라도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안 돼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이 절대 안 됩니다. 지상세계의 판도를 넘어갈 수 있는, 천상세계, 무한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생명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이고 천상천국이고 없다는 것입니다. (298-155, 1999.1.1) p.1652

교주 선생이 저런 걸 가르치니 통일교회 쌍놈이라고 욕들 하지요? 쌍놈이라 해도 좋습니다. 가짜 메달 타는 것보다 진짜 금메달 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남녀의 생식기관은 창조주로부터 이어받고,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변함이 없는 그냥 그대로 연결된 예물입니다.

하나님도 침범하지 않는 귀한 예물입니다. 선대들도 이걸 어길 수 없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걸 침범하게 될 때는 천리 대도의 중심이 되는 사랑의 본궁을 파탄시키는 악마의 혈육입니다. 순수한 본질로서 영원한 참사랑을 중심삼은 그 터전에서 태어난 것이 생명의 본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혈통의 본원지입니다.

생식기, 그 생식기가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김 아무개 때문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천지의 대도를 위해서, 천지의 대 섭리적 경륜을 위해서 나에게 준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 세계에 이상세계가 어떻게 오느냐? 생식기관을 잘 쓸 수 있는 도리를 밝혀 주지 않는 한 세상은 망합니다. 평화의 세계를 못 찾습니다. 로마를 보라구요, 미국을 보라구요, 미국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생식기관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몰랐고, 어떻게 유래되어서 창조되었다는 걸 몰랐는데, 사탄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천지의 모든 사악하고 요사스러운 사탄의 난장판을 전부 청소하기 위해서 내가 깃발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193-147, 1989.10.3) p.1653

Top

3) 신인일체와 사랑이상 완성

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랑의 결착점

우주의 사랑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서 결탁하느냐 할 때는 여기에서 논리적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어 이성성상을 분립해 가지고 중화적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중심삼고 중화적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사랑을 중심삼은 중화적 존재입니다. 격위에 있어서는 남성적 주체격을 가졌다 이겁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사랑을 중심삼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아담과 해와는 이성성상의 주체이니, 몸은 소생이고 마음은 장성인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의 몸과 몸이 하나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밑창에 있는 것이 하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지었다면 하나님이 어디서 인간과 더불어 결착될 수 있느냐?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194-64, 1989.10.15) p.165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무형의 절대적 주체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분성적 실체(分性的實體)로 아담과 해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장성하여 사랑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연결될 때 종적인 입장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과 해와가 성숙하면 하나님의 남성 성품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성 성품은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8-245, 1986.1.24) p.1654

성숙한 아담과 해와가 서로서로 사랑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성상은 아담에게 임재하고, 여성 성상은 해와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143-236, 1986.3.19) p.1654

중앙선은 그 거리가 다 같고 각도가 다 같습니다.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앙의 평형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수직도 하나요, 수직의 중심점도 하나요, 평형선이 교차되는 중심점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축의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하게 되면, 거기에 부딪치는 날에는 360 도 사방으로 가는 모든 힘의 작용이 이 점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이 폭발하면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하나돼 가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돼 있잖아요? 원리에서 논하고 있는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성성상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십니다. 그 주체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36-37, 1985.12.20) p.1654

이성성상의 실체권은 참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正)·분(分)·합(合)입니다. 하나였던 성상과 형상이 갈라졌다가 실체로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담과 해와의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도 와서 하나되고, 남자와 여자도 하나되어 전부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생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밑바닥에 있던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상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평생 틀림없는 승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250-108, 1993.10.12) p.1654

하나님은 이성성상이니까, 하나님의 남성 성상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적 아버지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네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남성 성격, 보이지 않는 성격을 보이는 성격으로 드러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몸입니다. 무형의 실체가 유형으로 실체화해서 인류의 아버지로 있는 아담의 배후에, 내적인 아버지의 입장에 서야 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139-233, 1986.1.31) p.1655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안에 임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성성상인 형상과 성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그 성상과 형상의 상대가 아담과 해와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심신일체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인간의 마음과 같은 입장이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완성된 몸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심신일체권에서 아담 해와와 더불어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이 실체적으로는, 평면적, 횡적으로는 아담 해와의 결혼식이지만, 그것이 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256-85, 1994.3.12) p.1655

아담과 해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 자리가 우리 인류의 횡적인 이상의 사랑을 중심삼고 화합하는 자리요, 90 각도를 맞추는 자리요, 초점을 설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역시 이 전후·좌우·상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디에 갖다 맞추어도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주체이시므로, 그 사랑의 초점을 맞춘 아담과 해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 조상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223-267, 1991.11.12) p.1655

아담과 해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 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 분이 한 분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남성격과 같이 돼 있으니, 그 남성 격에 상대적 입장을 취한 아들딸을 재현시켜 이들이 커서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가 될 때, 저 위에 있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내려와,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부모의 자리에 서고, 하나는 보이는 부모의 자리에 서 가지고 사랑해서 하나되기 위한 것입니다. (222-317, 1991.11.6) p.1655

하나님은 무엇을 가졌느냐 하면, 남성적 성품과 여성적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의 주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이성성상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멋진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플러스고, 보이는 것이 마이너스적 부모입니다. 안 보이는 부모는 원인적이요, 보이는 부모는 결과적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이 부모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모고, 이것은 보이는 부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횡적 부모고, 이것은 종적 부모입니다. (161-306, 1987.3.1) p.1655

하나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화해서 하나된 통일적인 입장에서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입니다. 이 우주를 대표한 한 남성과 여성은 이성성상의 총성(總性)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들이 통합한다는 사실은 이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할 수 있는 중심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49-229, 1986.11.23) p.1656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오늘날 뭐 기도를 하고, 도를 닦고, 종교를 믿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을 발견 못 합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남자면 남자도 이성성상으로 돼 있습니다. 내적 외적, 이성성상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는 완성된 남자와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지, 그 외에는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61-323, 1987.3.8) p.1656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해와는 하나님의 내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아담 속에 들어가고 해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으로 분립해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 만들고 사방을 전부 다 사랑만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나입니다. 그런데 이성성상의 분립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이 왜 분립했느냐? 사랑을 보다 자극적으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자극적이면서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것이고, 또 환경을 변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를 변화시키니까 번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적인 하나님 가지고는 번식 못 합니다. 종적인 자리는 한 자리지 두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187-94, 1989.1.6)

여자를 잘 보면, 거기에 신랑이 함께 존재합니다. 일체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요? 모든 것은 이성성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성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으로 일체를 이루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자의 중심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상대권에 있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 돕니다. 여자가 남자를 중심으로 도는 것입니다. 여자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중심에 서면 여자는 자연히 남자를 중심삼게 됩니다. (213-266, 1991.1.21) p.1656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핏줄이 관계되어야 하고, 생명이 관계되어야 하고, 사랑이 관계되어야 합니다.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혼자 마음으로 기뻐하던 것을 갈라 내고, 동서남북 자연 전체가 쌍쌍이 화동하는 그 세계에서 중심적 주인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벌여 놓은 것이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정반합(正反合)이 아니라 정분합(正分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9-276, 1990.2.20) p.165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여성성상은 해와한테 들어가고 남성성상은 아담한테 들어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내적인 이성성상에 들어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받게 됩니다. (137-88, 1985.12.24) p.1657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이성성상이지요? 이 둘이 한 뿌리를 중심삼고 들어가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들딸에서 연결됩니다. 사랑으로 연결해 가지고, 몸과 마음을 중심삼고 영을 중심삼고, 뿌리를 맞추면 여기에서 태어난 사랑의 아들딸이 지옥 가겠어요? 누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절대적인 몸, 절대적인 마음, 절대적인 영,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여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생명의 기원이요, 사랑의 기원이요, 핏줄의 기원인 생식기를 중심삼고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94-343, 1989.10.30) p.1657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도대체 뭐냐? 아담이 뭐고, 해와가 뭐냐? 타락하지 않고 아담이 완성하면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가고, 해와가 완성하면 하나님이 해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분립된 분립실체상에 들어가 갈라졌던 것을 다시 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합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자극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번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세계의 번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48-290, 1986.10.25) p.1657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종적인 아버지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는 횡적인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종적인 부모입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는 횡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참된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하는 것입니다. (199-361, 1990.2.21) p.1657

Top

② 신인애 이상(神人愛理想)의 근본원리

㉮ 신인일체를 어떻게 해명할까

선생님이 제일 고심한 것이 무엇이냐? 신인일체(神人一體)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명되지 않으면 이론적 체제가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사랑의 근본적 자리가 설정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249-223, 1993.10.10) p.1657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색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에서 결착되느냐? 이것이 결착하지 않으면, 신인애일체의 거점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간도 같이 정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인간도 사랑을 통하여 기뻐하는 그런 장이 틀린 경우에 큰일난다는 것입니다. (257-58, 1994.3.13) p.1658

선생님이 근본 문제를 추구할 때 신인일체권은 도대체 어디인지를 주욱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발점과 종결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둥처럼 번쩍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성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하늘땅이 참사랑으로 연결된다면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직은 하나입니다. 수평에 대해서 90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직단거리입니다. (250-153, 1993.10.14) p.165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결혼은 왜 하느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횡적으로 좌우, 동쪽과 서쪽을 남자와 여자라 하면, 그 남자와 여자의 참이상이라는 것은 직단거리에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면에 대하여 횡적인 사랑의 직단거리라는 것은 중앙에 한 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90 각도 이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되면, 타원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모두 같지 않습니다. 평등한 위치에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서는 것은 90 각도 외에는 없습니다. 신인일체로 하는 사랑의 결집 장소라고 하는 것은 90 각도 외에는 없습니다. (224-167, 1991.11.24) p.1658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고, 아담과 해와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횡적인 아버지입니다. 종횡이 90 각도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252-319, 1993.1.5) p.1658

문총재가 우주의 근본을 파헤쳐 들어갈 때 제일 고심한 것은,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랑이 어떻게 정착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이 한 가지를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이 위에서부터 온다면 하늘이 높고 땅이 낮다 할 때, 참사랑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찾아올 때 어떤 길을 통해서 오겠느냐? 최대의 직단거리니까 수직입니다. 이것은 수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단거리입니다. 사랑이 제일 빠르고 직단거리를 통한다 할 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접착지는 완전 수평 가운데 한 점밖에 없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211-077, 1990.12.29) p.1658

아담과 해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 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 분이 한 분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남성 격과 같으니, 그 남성 격에 상대적 입장을 취한 아들딸을 재현시켜 이들이 커서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가 될 때, 저 위에 있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내려와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부모의 자리에 서고, 하나는 보이는 부모의 자리에 서 가지고 사랑해서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222-317, 1991.11.6) p.1659

인간이 완성하면 신성(神性)을 이루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같이 온전하여 하나님적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지만 참사랑의 이상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 이상은 반드시 상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이 서로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사랑의 절대적인 대상체로 인간을 세우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을 이루려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참사랑 이상은 각각 동기가 다르게 되어, 두 사랑의 방향과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282-209, 1997.3.13) p.1659

아담과 해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 자리가 우리 인류의 횡적인 이상의 사랑을 중심삼고 화합하는 자리요, 90 각도를 맞추는 자리요, 초점을 설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역시 전후?좌우?상하 어디에 갖다 맞추어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주체이시므로, 그 사랑의 초점을 맞춘 아담과 해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 조상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223-267, 1991.11.12) p.1659

인간 완성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제일 귀하고, 인간에게도 제일 귀하고, 이 우주의 모든 존속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 모든 요인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참된 사랑입니다. 그 참된 사랑은 눈이나 입이나 오관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돌게 돼 있고, 그것을 따라서 왕래하고, 올라가도 그것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와도 그것을 따라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관을 한 초점에 결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210-317, 1990.12.27) p.165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종횡이 어디서 합해야 되느냐? 천지합덕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종적 기준 앞에서 벌어집니다. 사랑이 가는 길은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정착하느냐 하는 문제가 참 고심거리였습니다.

우주의 근본을 해명하는 데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아느냐? 수직으로 획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꼼짝 못하고 딱 여기에 서야 합니다. 거기를 떠나서 종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딱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어디 가서 도느냐 이겁니다. 돌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 천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합덕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14-232, 1991.2.2) p.1660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참사랑에 의한 신인일체입니다. 신인일체! 하나님과 사람의 일체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의 기준과 인간이 원하는 기준이 어긋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바로 정면에서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수평으로 일체가 되고, 수직으로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후 좌우 90 각도에 맞추면, 상현(上弦)과 하현(下弦)과 우현(右舷)과 좌현(左舷), 12 군데를 전부 90 도의 각도 어디에 갖다 맞추어도 꼭 맞는 것입니다. (223-346, 1991.11.20) p.1660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서 합하느냐 하는 논리를 지금까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허황된 것입니다. 상관없는 말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이름짓는 대로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몸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짓는 것입니다. 완성하게 되면 남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상이 들어가고,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실체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런 이론이 다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해야 그 욕심이 꽉차 가지고 '이젠 됐다!' 하는 것입니다. (252-119, 1993.11.14) p.1660

하나님은 사랑의 뿌리요, 생명의 뿌리요, 혈통의 뿌리요,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뿌리입니다. 아담 해와 결혼 시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일체적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참부모요,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참부모입니다. 그런 두 부모의 혈육을 받고 태어났으므로 마음은 종적인 내가 되고 몸은 횡적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신인애 일체권을 형성함으로써, 심신 일체애를 완성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되면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가 참사랑을 중심한 부부 일체를 완성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는 것이요, 그 가정은 평화와 이상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쪽 인 남자와 여자는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상대로서 신의 이상애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가치를 지닌 자로 완성시킴으로써 하나님도 참사랑의 완성을 보아 영원한 이상애가 깃드는 창조이상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254-106, 1994.2.1) p.1660

참사랑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은 그 참사랑의 상대자로 인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상은 인간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신인애일체의 절대적 사랑이상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고로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입은 대상입니다. 무형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완성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언제나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유형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전체적 이상은 인간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의 종적 관계로 실현 완성됩니다. (277-198, 1996.4.18) p.1661

Top

㉯ 신인일체의 거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서 만난다구요? 그 결착점은 사랑의 결착점, 생명의 결착점, 혈통의 결착점이 됩니다. 거기가 아니면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리가 도대체 어디예요? 어떤 생식기이고, 어디에 쓰는 생식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혈통, 피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혈통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생명, 남자와 여자의 사랑, 남자와 여자의 혈통이 이 한 점을 중심삼고 연결됩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후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05-63, 1990.7.7) p.1661

하나님의 절대사랑과 인간의 절대사랑이 상봉하는 점이 어디냐? 한 점입니다. 그게 어디라구요? 결혼해서 첫날밤 생식기가 하나되는 자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하나되느냐 이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한 기점과 인간인 아담과 해와가 이상으로 바라는 사랑의 기점이 하나될 수 있는 곳이 한 점이 아니고 두 점이 될 때는, 사랑의 방향과 목적이 둘이니 영영 하나님의 절대사랑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지었다는 것이 가짜라는 말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생겨나지요? 남자와 여자가 거기서부터 생겨나지, 키스하는 데서부터 생겨나요? 거기서부터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절대적으로 하나되기를 바라지요? 부처끼리 절대적으로 하나되고 싶어요, 적당히 하나되고 싶어요? 그 자리는 뭐냐 하면, 여자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식기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식기이고, 외적으로는 아담의 생식기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식기이고, 외적으로는 해와의 생식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종적이요, 보이는 것은 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적인 부모, 횡적인 부모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282-306, 1997.4.7) p.1661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 날이 그 자리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결혼식 날이 됩니다. 하나의 종적인 결혼식이요, 하나의 횡적인 결혼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생식기를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가 절대사랑에 착지하는 동시에 착지의 중심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처럼 마음을 중심삼고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284-56, 1997.4.15) p.1662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식기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요, 생명의 기원입니다. 남자 생명, 여자 생명, 혈통의 기원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디에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결집되느냐?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287-29, 1997.8.10) p.1662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이중의 결혼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속시키는 것이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생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족도, 인류의 역사도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도 그 문을 통과한 아이들이, 사랑받은 아이들이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290-81, 1998.2.3) p.1662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라구요?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이냐? 그 섹슈얼 오건(sexual organ;생식기)이 첫째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왕궁이 됩니다. 사랑의 본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궁입니다. 일반 가정은 왕궁이고, 이건 종적인 사랑의 본궁입니다. 얼마나 귀한 곳이냐 이겁니다. (265-269, 1994.11.23) p.1662

아담은 뭐냐?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더라면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해와도 역시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는데 남자는 플러스쪽 몸이 되고, 여자는 마이너스쪽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둘이 무엇을 중심삼고 묶어져요? 사랑을 중심삼고, 생식기를 중심삼고 묶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실체인데, 그들이 생식기를 중심삼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합니까? 몸뚱이를 통해서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완성된 아담이 된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의 집과 같이 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가운데 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197-52, 1990.1.7) p.166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종적인 참사랑의 부모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종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아담과 해와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횡적인 부모입니다. 그 두 부모가 일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곳에서 종횡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입니다. 그것이 남녀의 생식기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두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종적인 부모의 상대적인 입장에 선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양심은 종적인 자신입니다. 육신은 횡적인 자신입니다. 종횡이 무엇에 의해 하나가 되느냐? 참부모의 사랑, 창조주의 참사랑에 의해서 하나가 되면 몸과 마음은 절대 싸우지 않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250-38, 1993.10.11) p.1663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창조이상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구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인데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입 있겠어요, 없겠어요? 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엔 몸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생식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이론적으로 해결해 놓아야 됩니다. (196-41, 1989.12.24) p.1663

부부가 사랑하는 기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서 하나되느냐? 이것이 하나되는 출발점이 둘이 되면 방향도 둘이요 목적도 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기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접촉할 수 있는 출발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 같은 점이 어디냐? 심정이 아닙니다. 여자에게나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예요? 생식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일 정성을 들여서 지은 기관입니다. (267-315, 1995.2.5) p.1663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사랑의 대상을 자기보다 높게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을 어디에 가서 만날 거예요? 어디에 가서 합할 거예요? 코에서 합할 거예요? 어디겠어요?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갖고 있고 남자들이 갖고 있는 생식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본연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거기서 완성한다 이겁니다. 오목과 볼록이 하나되는 그 자리에서, 인간 완성, 즉 여자 완성, 남자 완성과 하나님 완성이 사랑을 중심삼고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61-220, 1994.6.19) p.1663

몸과 마음이 그 생식기를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출발지가 한 점이 되어야지 두 점이 되면 방향도 둘이 됩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접촉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착지가 어디냐 하면, 내적 남편과 외적 남편이 사랑으로 묶어지는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오목과 볼록에서 묶어지는 것입니다. (264-330, 1994.11.20) p.1663

인간이 성숙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관계맺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사랑의 기관을 중심삼고…. 영적으로 볼 때 아담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외적인 생식기고, 해와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내적인 생식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자의 생식기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223-19, 1991.11.7) p.1664

하나님의 결혼식이 아담 해와의 결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중심삼고 타락하지 않고 만나는 그 시간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출발 기원지입니다. 3 대 왕권을 수립해야 될 그 기지가 거기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사랑의 보금자리를 못 이룹니다. (263-57, 1994.8.16) p.1664

아담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일 비밀입니다. 알고 보니 통일교회 문교주가 생식기 해부학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생식기에서 전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니고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이 묶어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서 여자의 피와 남자의 피가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연결됩니다. 거기서부터 양심이 출발합니다. (275-68, 1995.11.3) p.1664

하나님이 볼 때 여자가 본래 누굽니까? 여자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상충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된다면 어디서 하나되어야 되겠어요? 어디예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265-256, 1994.11.23) p.1664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은 사랑의 전통이 모든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참사랑이 어디서부터 하나되어서 출발하느냐. 생식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생식기예요? 참생식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식기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267-321, 1995.2.5) p.1664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연결되는 그곳을 본향 땅으로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남녀의 생식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담과 해와의 생명과 사랑과 양심과 혈통의 뿌리인 하나님은 틀림없이 종적인 입장에서 횡적인 자리의 아담과 해와, 이들의 형상과 성상이 하나된 가운데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종적인 아버지, 횡적인 아버지는 완성한 아담입니다. (258-78, 1994.3.16) p.1664

여러분이 그 작대기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의 것은 하나님의 부인, 여왕의 것이고, 여러분 남편 것은 하나님의 스틱(stick;막대기)이라고 할까? 하나님과 같이 달렸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중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같이 하나님이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몸뚱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생식기와 같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에 그것이 달려 있지만 그것이 둘이 하나된 것으로 달렸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5-273, 1994.11.23) p.1665

남편의 생식기가 하나님의 생식기라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어디 하늘 꼭대기에 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265-104, 1994.11.20) p.1665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남녀의 생식기가 이 요사스러운 사망의 물결, 사망의 법, 멸망의 지옥을 개문시킨 본궁이 되었기 때문에, 천도를 파탄시킨 요물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는 사랑의 근본이요,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 횡적인 참부모의 사랑이 합해야 됩니다.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하기 때문에 횡적인 인간, 아담과 해와의 사랑도 직단거리를 통하는 길은 90 각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폭발되어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생명 일체 · 사랑 일체 · 혈통 일체, 이렇게 화합한 기쁨과 더불어 폭발되어 소생하는 데서 태어나야 할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해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지옥은 왜 가요? 종교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197-175, 1990.1.13) p.1665

하나님은 종적인 자리, 중앙이기 때문에 종적이요, 아담 해와는 횡적이기 때문에 둘이 어디서 합하느냐 하면, 생식기라는 기준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고, 혈통적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지요, 사랑의 근원지요, 핏줄의 근원지인 이걸 잡아당기면, 즉 핏줄을 잡아당기면 조상 핏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을 잡아당기면 조상의 생명이 달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또, 사랑줄을 잡아당기면 달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조화를 집약시켜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본부가 어디냐 하면 가장 귀한 곳입니다. 남자가 될 수 있는 성격, 여자가 될 수 있는 성격, 그것을 무엇이 갈라 놓느냐 하면 생식기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를 누가 먼저 이것과 인연맺기 위해서 지었어요? 아담도 아니요, 해와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악마는 음란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했어요? 자기의 이상적 본바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우주에서 추방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64, 1989.10.15) p.1666

남자와 여자의 그 생식기가 얼마나 귀하냐? 이것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전체의 이상을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의 주인은 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한 남편한테 그걸 허락하게 되면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이상의 사랑 때문에 천지를 지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 자기보다 잘나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바라지요? 몇천 배예요? '천 배를 바라느냐, 만 배를 바라느냐?' 하면 만 배를 바랍니다. '만 배, 십만 배?' 하면 십만 배입니다. 억만 배입니다. (263-121, 1994.8.21) p.1666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의 파트너가 피조세계의 누가 될 것 같아요? 그 파트너가 뭐예요? 남자 혼자만 파트너가 되겠어요? 여자 하나만 파트너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파트너를 원하느냐? 돈 파트너가 아니고, 지식 파트너가 아니고, 권력 파트너가 아닙니다. 사랑의 파트너를 원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하나된 그 자리를 중심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279-250, 1996.9.15) p.1666

Top

㉰ 참혈통의 뿌리는 하나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내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아담과 해와는 외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내적인 부모의 아들딸로서 사랑의 씨를 받아 태어난 인간이 돼야 할 텐데, 악마의 사랑을 중심삼고 타락함으로써 악마의 사랑, 악마의 생명, 악마의 핏줄을 이어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223-234, 1991.11.10) p.1666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아담의 자리에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해와의 자리에 계십니다.

아담은 인류 앞에서 내적인 아버지를 모신 실체 아버지로 서자는 것이고, 또 해와는 내적인 어머니의 신을 모신 실체 어머니로 서자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종적인 기준에서 횡적 기반으로 확대시키자는 것입니다. (138-245, 1986.1.24) p.1666

해와는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인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종적인데 횡적인 상대가 없습니다. 종횡을 묶어 갖지 않고는 생산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종적으로 계십니다. 종은 수직이고 수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직의 세계는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은 횡적인 기반입니다. 여기에는 사방 360 도가 되니까 면적이 있어서 생산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하늘나라를 이루는 백성을 생산하기 위해 아담과 해와라는 몸을 지은 것입니다. (203-296, 1990.6.27) p.1666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 된 아담과 하나님의 몸된 해와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천지합덕이 벌어지고, 남자와 여자, 음양의 합덕이 벌어져서 비로소 종횡에 결착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핏줄이 엉클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196-223, 1990.1.1) p.166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이 뿌리라면 아담은 새로 나오는 가지와 마찬가지고, 순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한 몸입니다. 생명의 뿌리도 하나님이요, 사랑의 뿌리도 하나님이요, 혈통의 뿌리도 하나님이요, 양심의 뿌리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뿌리가 먼저 느끼고 줄기가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265-136, 1994.10.9) p.1667

아담과 해와는 상대적 사랑의 위치에 있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해와가 결혼하는 첫날 사랑하는 그 시간, 출발지에서부터 하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된 것을 못 느낍니다.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인연을 중심삼고 창조이상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반응되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해와가 결혼해서 부부가 합덕하는 것을 말합니다. (253-211, 1994.1.23) p.1667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요, 핏줄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이 합덕하고,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이 합덕하고, 남자의 피와 여자의 피가 합덕하는 곳이 어디냐? 남자와 여자의 비밀스런 곳,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대사(大事) 중의 대사가 결혼입니다. (211-240, 1990.12.30) p.1667

하나님과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해와의 관계를 두고 보면, 우리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우리 일체의 생활적인 표준도 하나님입니다. (53-238, 1972.2.29) p.1667

아담과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과 인간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258-276, 1994.3.20) p.1667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아담은 누구냐? 하나님의 장남입니다. 평면 중의 평면이고 횡적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입니다. 그 일가에서 횡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장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사랑을 중심삼고 부자일신(父子一身)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하나되느냐? 종적인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에서 하나됩니다. 성숙해서 서로서로 사모하는 것은 종적인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263-124, 1994.8.21) p.1667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적인 아버지가 되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안팎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내적인 하나님이고, 인간은 외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이들이 부부가 되어 하늘나라의 왕궁을 창설하는 놀음이 창조유업입니다. 우주의 왕권을 중심삼은 왕궁을 설정하여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은 황족 편성이 이루어지면 지옥이 있을 수 없습니다. (140-115, 1986.2.8) p.1668

하나님과 아담이 안팎으로 하나되었다면 하나님은 내적인 하나님이요, 아담은 외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적인 하나님이요, 밖에 있는 아담은 외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41-290, 1971.2.17) p.1668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종적인 참사랑의 부모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종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아담과 해와는 참사랑을 중심삼은 횡적인 부모입니다. 이 두 부모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곳에서 종횡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입니다. 그곳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종적인 부모의 상대적인 입장에 선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양심은 종적인 자신이고, 육신은 횡적인 자신입니다. 그러면 종횡이 무엇에 의해 하나가 되느냐? 참부모의 사랑, 창조주의 참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참부모의 사랑, 창조주의 참사랑에 의해 하나되면 몸 마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250-38, 1993.10.11) p.166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창조 당시 이상하시던 참된 사랑, 위대한 참사랑을 중심삼고 인간과 관계를 맺어 하나될 수 있는 신인애일체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염려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인간의 참사랑이 주체적 참사랑과 상대적 참사랑으로 하나되어서 한 점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이 다르게 출발 되기 때문에, 두 사랑의 방향과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바라는 절대적 이상세계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5-54, 1995.10.31) p.1668

기성교회와 통일교회가 다른 것은 통일교회는 신인일체를 사랑을 중심삼고 정착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성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고 인간은 속된 것, 죄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는 곳에는 피를 많이 흘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끌어넣어 침략하고 탈취한 것입니다. 독재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볼 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249-145, 1993.10.8) p.1668

Top

③ 왜 결혼이 중요한가?

㉮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

우주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이성성상이 되어서 종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해방시키는 게 인간입니다. 또, 인간을 완성시키고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됩니다. (277-25, 1996.3.17) p.1669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이성성상 그대로 나왔으니, 한 보자기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쌍태로 태어난 오누이, 쌍둥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오누이 쌍둥이가 젖을 하나씩 나누어 먹고 서로 만지면서, 사랑을 중심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238-248, 1992.11.22) p.1669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분립되기 때문에, 그 본성이 그렇게 분립되는 거 아니예요? 남자는 성상적 하나님이고, 여자는 형상적 하나님입니다. 이 둘이 합해야, 분립된 것이 합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의 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축은 누구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축 앞에 절대 복종한다는 논리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론적입니다. (206-296, 1990.10.14) p.1669

통일적 기준의 내용이 있는 곳이 어디냐? 수직선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접붙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났으니 그 사랑은 우주와 동참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이상상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분립한 것입니다. (203-247, 1990.6.26) p.1669

결혼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신 분으로서 각일성(各一性)이 합체화(合體化)한 일률적인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의 분성적(分性的) 인격 자체들이 남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성일체화하여 씨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면서도 사랑받고, 자라면서도 사랑을 목표로 해서 자라고, 살면서도 사랑을 중심삼고 살며, 가면서도 사랑에 돌아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위하는 목표를 중심삼고 찾아가지 않으면 방향이 틀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위하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앞세우면, 아무리 이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겠다고 하더라도 남극과 북극 방향을 찾는 것과 같이 바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138-97, 1986.1.19) p.1669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혼이 자신보다 상대를 위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천지간의 모든 이치가 주체와 대상으로 이루어졌듯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천지간의 이치입니다.

남자가 오른쪽이라면 여자는 왼쪽이 되는데, 그것은 우주간의 횡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함이요, 남자가 주체라면 여자는 그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상하관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남자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여자만을 위함도 아닌 천리의 법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리법도를 맞출 수 있도록 생겨난 것입니다. (216-16, 축복과 이상가정-356) p.1670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축과 일치되기 위해서입니다. 일치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일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일치되려고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하신 사랑을 중심삼고 영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촉된 거기에서부터 우주의 상속권이 전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지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상속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136-39, 1985.12.20) p.1670

결혼을 왜 하느냐? 아담과 해와가 스스로의 사랑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핵으로 하여, 그 핵을 중심삼고 주체(附體)로서 하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도 그러한 사랑을 중심삼고 결착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도 성숙해서 거기에서 사랑의 결착점이 벌어지고, 생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입니다. 종적 아버지의 사랑과 횡적 부부의 사랑을 중심삼고 본연의 사랑의 씨가 비로소 연결되는 것입니다. (173-288, 1988.2.21) p.1670

결혼이 뭐냐 하면,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 완성의 자리고, 형제 완성의 자리고, 남자와 여자의 이상적 완성의 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상의 자리에서 하나되는 것은, 창조 전에 아담과 해와가 이성성상으로, 성상과 형상으로 있었던 것이 실체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252-118, 1993.11.14) p.1670

하나님의 무형의 이성성상이 아담과 해와 실체로 갈라졌는데, 이것이 다시 종적으로 만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하여 하나되는 순간은 미완성의 반쪽이 완성되는 순간이요, 완성품으로 합격하는 순간이요, 상대의 세계를 품는 순간입니다. 사랑의 힘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상대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5-260, 1994.3.11) p.1670

결혼이 뭐냐? 남자는 여자의 세계를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여자의 세계를 모릅니다. 또 여자는 남자의 세계를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남자가 신비롭습니다. 남자에게도 여자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신비스러운 남성과 여성 세계를 서로 점령해서 둘 다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주체 앞에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261-218, 1994.6.19) p.1671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태어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결혼은 뭐냐 하면, 반쪽 신분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남자 반쪽, 여자 반쪽이 하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점령하기 위한 놀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성성상이 됐으니,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정(正)에서 분(分)한 것이 합(合)해 가는 것입니다. (270-167, 1995.5.29) p.167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의 결혼은 누구 결혼이냐 하면,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사랑의 뿌리, 생명의 뿌리, 혈통의 뿌리, 양심의 뿌리 되는 그 뿌리가 사랑을 먼저 체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셔 놓고 남편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아담의 마음과 해와의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正)에서 분립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분합(正分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부 하나되는 것입니다. (273-84, 1995.10.21) p.1671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분으로서, 각 일성이 합체화된 일체적인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의 분성적인 인격 자체들이 남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성일체화하여 씨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말입니다. (290-53, 1998.2.2) p.1671

결혼이 뭐냐? 남성을 통해서 사랑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반품 존재인 여자가 완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통해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여자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여자의 생식기는 남자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265-101, 1994.11.20) p.1671

결혼 초야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 일생 보호해 온 자기의 몸, 그 일신을 남자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자기 일신을 갖추어서 순결한 몸을 여자에게 백 퍼센트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 남자로서의 결혼 전의 생활입니다. (250-97, 1993.10.12) p.1671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이 싹트면 절대적으로 하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적으로 분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되는 거예요? 결혼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생식기 이상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이 뭐냐 하면, 생식기관 이상 만족을 충당시키기 위한 것이 결혼이다 이겁니다. 그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속된 결론 같지만 속된 결론이 아닙니다. 속된 인간 세상에서 말하니 속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본연세계에서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성소가 어디에요? 사랑이 영원히 깃들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279-71, 1996.7.24) p.1672

여자가 남자를 찾아갈 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갑니다. 일생을 고이 단장하고 귀하게 여겨서, 무엇보다 귀한 것을 갖고 당신을 찾아갑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남자를 그리워하면, 생식기가 숨을 쉽니다. (206-141, 1990.10.3) p.1672

결혼하여 남녀가 처음 사랑하는 순간, 관계하는 시간은 자녀의 사랑의 완성의 장입니다. 형제의 심정 완성장, 부부의 심정 완성장, 미래부모의 심정 완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본궁입니다. 사랑의 근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257-100, 1994.3.13) p.1672

남자와 여자가 완성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결혼생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오목과 볼록이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 만드느냐? 남자와 여자의 오목과 볼록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으로써 하나 만드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걸 구조적으로 볼 때, 이 생식기처럼 전체의 핵적(核的)인 내용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여기에 모든 정력을 들여 지었다는 말이 됩니다. (263-261, 1994.10.15) p.1672

결혼은 뭐냐 하면, 반쪽 되는 남자와 여자가 생식기를 하나 만듦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중심삼고 완성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완성시키고, 여자는 남자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완성시키는 것이요, 참생명의 결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을 중심으로 생명이 활성화되어 둘이 합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남자의 피, 여자의 피가 한 도가니에서 하나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딸이 태어납니다. 그 자리는 아들딸보다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80-199, 1997.1.1) p.1672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여 포옹하는 것 자체가 우주가 일체를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본연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8) p.1673

복 중에서 제일 귀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창조의 권한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창조했던 것처럼 창조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녀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업적을 횡적으로 실체권에서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그 기쁨을 대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것과 같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관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고 재창조의 권한과 주관권을 완성권에서 이어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사랑의 현현을 말함과 동시에 창조권과 주관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76-45, 1975. 4. 15) p.1673

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자유결혼은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덫입니다. 그 덫에 걸리면 죽어 사탄의 지배를 받거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서구사회, 특히 미국은 자유결혼의 성행으로 인하여 참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서, 얼마 가지 않아 가정을 갖지 않은 사람이 다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사회는 사랑이 메말라 불신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지옥 같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회풍조를 일소하여 미국사회에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소망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61, 1983. 3. 23) p.1673

우리 통일교회는 결혼관이 달라요. 결혼이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182-186, 1988.10.23) p.1673

Top

㉯ 부부 사랑과 절대성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 위에서 폭발될 듯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취하고 우주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요, 인류를 위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뿌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요, 인류의 사랑이 근원인 것입니다. (35-239, 1970.10.19) p.1673

결혼을 했다면 이미 평면적이 아닙니다. 평면적인 기반밖에 없지만, 높은 것이 낮은 것과 연결될 때는 수직적 개념이 생깁니다. 평면적인 역사는 우주를 수습하고, 천주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90 각도를 이룰 때, 그것은 하늘을 땅으로 해도, 땅을 하늘로 해도, 앞을 뒤로, 뒤를 앞으로 해도, 우현 좌현 · 상현 하현 · 전현 후현 어느 면을 붙여도 딱 맞는 것입니다. 지상 완성기준은 영계의 모든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30-259, 1992.5.8) p.1674

결혼하여 부부가 참사랑을 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근원이 되는 왕궁의 자리요, 이상을 위한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출발지입니다. 이러한 참사랑으로 결실된 자녀가 참사랑을 중심한 부부 일체를 완성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평화와 이상의 출발기지가 되는 것이며, 반쪽 되는 남자와 여자는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상대로서 신의 이상애(理想愛)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259-45, 1994.3.27, 참가정과 세계평화-40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아서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상에 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화만상은 하나님에게는 향취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향취 속에 하나님은 살고 싶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 터전이 곧 부부의 사랑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만물과 우주가 화동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16-20, 축복과 이상가정-887) p.1674

남자와 여자 생식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종적인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과 인간의 이상적 사랑이 합방을 합니까? 생식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3 대 주체사상이 어디서 결탁해 뿌리를 박는다구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생식기를 중심삼고…. 결혼은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에 접붙이기 위한 것입니다.

흐린 날에 음전기와 양전기가 합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은 우주결혼의 상징입니다. 소리를 치지요? 비둘기도 사랑할 때 소리치지요? 여러분도 사랑할 때 소리쳐요? 소리나오려고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들을까봐 그저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걸 가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유리창문이 한꺼번에 와장창 하도록 소리쳐도 죄가 아닙니다. 우렛소리가 나면서 번갯불이 나는 것같이 불이 나야 됩니다. 성녀를 모시고 살고, 성남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님들은 암만 도를 닦아도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3-255, 1990.6.26) p.1674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아요? 공개적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영계에서도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손바닥에서 하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250-244, 1993.10.15) p.1674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지면 지상에서 백년해로를 해야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둘이지만 하나되어 돌아감으로써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몸이 하나되면, 하나님과 돌게 되어 사랑의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이상세계입니다. 거기에는 거짓 사랑이 침범할 수 없으며, 오직 참사랑만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7-20, 축복과 이상가정-344) p.1675

이상적 부부란 어떠한 부부냐? 최고의 예술을 실체로 전개시킬 수 있는 부부, 최고의 문학을 전개시킬 수 있는 부부입니다. 최고의 이상, 최고의 문화세계를 접하기 전에 최고의 사랑으로 부부가 주고받는 달콤한 사랑이 세계 최고의 예술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생활 자체가 최고의 문학작품이요, 그 자체가 문학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269, 1969.5.4) p.1675

가정을 예술화시켜야 됩니다. 재미있는 남편, 예술적인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잡지 같은데 좋은 것이 있으면 딱 잡아내가지고 자려고 하는 부인 앞에 멋진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감동받고 자는 아내의 모습을 꿈에 그리면 그것이 재현됩니다. 영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멋대가리 없는 부처끼리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으면, 멋질 수 있는 자세로부터 멋질 수 있는 방향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조건입니다. (271-282, 1995.8.28) p.1675

아기를 낳는 자리는 하나님의 상현세계(上弦世界)를 점령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내연(內緣)을 체휼시키는 놀음입니다. (224-28, 1991.11.21) p.1675

이렇게 부부가 아들딸을 낳아 부모의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대주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체휼적 환경을 체휼적 내용으로 전수시켜 주는 것이 아들딸의 생산입니다. 아들딸을 생산해서 고이 키워가지고 결혼시키기까지가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길러 결혼시켜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도 아들딸을 낳아 결혼을 못 시켰습니다. 이 한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223-196, 1991.11.10) p.1675

부부가 하나되어 아들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영속할 수 있습니다. 창조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 아들딸을 낳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기쁨을 평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는 아들딸과 같아야 됩니다. 아들딸과 형제의 자리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질 수 없다 이겁니다.

사랑이 함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들딸 낳으려면 이런 모든 전통을 밟고 거쳐야 하나님이 본래 창조이상으로 바라던 본연적 기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기반입니다. (223-24, 1991.11.7) p.1676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될 때 천태만상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일원화된 가정은, 가정애가 꽃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회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28-168, 1970.1.11) p.1676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이므로, 참사랑과 연결되면 모두가 같은 몸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고, 아들딸은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3 대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조직이 천국의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우주의 중심입니다. 가정 완성은 우주 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 무사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전체 우주의 부모로서 사랑의 복합적인 중심자리에 계십니다. (298-306, 1999.1.17) p.1676

평화의 팻말, 비석을 세우는 것이 여자의 절개와 남자의 지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절대 믿습니다. 이것이 수평이 돼야 합니다. 영원히 수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보물중의 보물이 뭐냐 하면, 반쪼가리였던 여자가 남편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점령했지만 하늘땅이 반쪼가리뿐이었던 것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상현, 하나님편에 하현, 아들딸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하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입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전후를 중심삼고, 비로소 가정이 정착하는 것입니다. 전후관계는 형제입니다. 형제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하관계?좌우관계?전후관계입니다. 그 기관을 완전히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게 있는 것은 뭐냐? 남자에게는 아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린다 해도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보물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2000. 9. 1) p.1676

Top

4) 생식기는 최고의 신비, 최대의 관심

① 생식기는 제일 정성들여 만든 곳

우주는 왜 쌍쌍제도로 되어 있느냐? 저절로 되어 있느냐? 오늘날 진화론도 좋습니다. 진화론에 앞서 널려 있는 사실은 뭐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 번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화가 있나요? 진화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사람보다 오늘날 사람의 그것이 발전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곤충세계도 벌레들이 사랑하는 그것이 옛날과 오늘날이 달라야 됩니다. 새들도 전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삼고 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 되는 사랑의 기관을 중심삼고 그 본거지가 진화적 내용으로 발전하게 돼 있느냐? 그것이 그냥 그대로 눈썹이 나오고, 자기 멋대로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미친 소리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우주의 근본이 되는 주인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몸이 그냥 생겨났어요? 생식기가 이거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돼 있습니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191-53, 1989.6.24) p.1677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 세포는 물질세계가 최고로 바라는 희망의 종착지입니다. 거기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접할 수 있는 고귀한 물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는 우주의 모든 정수(精髓)의 핵이, 세포가 작동해 모여 있습니다. 그 힘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통과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87-303, 1997.10.6) p.1677

생리적 감각의 집결지가 생식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일 정성을 들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연결하고 생명을 다시 창조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부관계를 하고 아들딸을 낳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든 하나님이 전체의 요소가 거기에 연결되게끔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활동하면 생명의 근본 요소가 전부 거기에 연결되어 발전소처럼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255-306, 1994.3.11) p.1677

결혼들 했어요? 신랑들 있습니까? 그리울 때는, 동물이 발정할 때는 보지 않고 냄새 맡고 자기 상대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리적인 대혁명이 벌어져야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까 영화 봤지요? 강원도 동강의 어름치라는 고기를 보면, 고기들은 생식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줄이 있습니다. 이게 생식기입니다. 암컷이 암내가 나면, 거기 가서 비비면 전기가 통해 정액을 싸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물 가운데서 어떻게 알을 까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다 좋아합니다. (301-195, 1999.4.26) p.1677

진화론으로 보면 여자와 남자의 성을 누가 구별했어요? 아메바가 했나요? 이놈의 다아윈, 그놈의 자식, 내가 멱살을 잡고 모가지를 눌러 놔야 되겠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 구조가 우리 골격 구조보다도 몇 차원이나 더 신비스럽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물으면 윤 박사는 어떻게 대답하겠어? 아, 어떻게 대답하겠어? 골격 구조보다도 더 복잡한 것이 생식기 구조다 할 때 이것이 맞아요? 더 복잡한 것이 생식기 구조입니다. (197-22, 1990.1.7) p.1678

Top

② 생식기의 주인이 서로 바뀌었다

남자의 보물은 남자 자신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의 보물은 여자가 갖고 있고, 여자의 보물은 남자가 갖고 있습니다. 엇바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여자의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여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리적 오관이 자기 것이라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남자들도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한테 묻노니, 여러분이 언제 그 주인을 만났느냐? 주인이 남편입니다. 또, 남자는 남자의 것이 자기 것이에요? 그러면 결혼이 무엇이냐? 서로 주인 찾기 위한 놀음이 결혼이다 이겁니다. 음전기와 양전기가 찾아 다니다가 벼락을 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남자 얼굴보다도 그것 때문입니다.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여자의 손이 아니라 그것 때문인겁니다. 남자나 여자끼리 결혼한다면, 남자 동성연애자니 여자 동성연애자니 그런 게 어디있습니까?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100 년도 못 가 1 대에 다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안해야 되겠어요?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결혼해야 됩니다. (162-50, 1987.3.22) p.167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자의 생식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것입니다. 남편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의 것입니다. 남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아니 세상만사를 요사스럽게 다 망쳐 버립니다. 남자가 없으면 그것을 무엇에 써요? 무엇에 쓰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275-132, 1995.12.4) p.1678

남자의 사랑의 주인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갖고 있습니다. 여자의 사랑의 주인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달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게 죄입니다. 여자가 갖고 있는 생식기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 게 큰 죄입니다. (141-172, 1986.2.21) p.1678

참된 남자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된 여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남자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여자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면 우주 전체가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남자의 보물은 여자가 다 간직하게 하고, 여자의 보물은 남자가 다 간직하게 했습니다. 생식기관이 그렇습니다. (142-335, 1986.3.14) p.1679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생식기관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달린 것이 남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자에게 달린 생식기관의 주인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 주인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달린 생식기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주인을 엇바꿔 배치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43-66, 1986.3.15) p.1679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게 한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식기지요? 여자의 생식기가 자기 거예요? 결혼한 후에는 자기의 거예요? 남편의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 달린 게 뭐예요?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여자의 만년 소유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절대적인 사랑의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사탄세계에서 바람을 피웠으면, 이걸 자르겠다고 칼을 들고 야단할 때 안 된다고 손이 붙들어 못 잘랐다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334, 1988.10.5) p.1679

남자와 여자가 통일하는 데는 키스함으로 말미암아 통일돼요? 서로 포옹하는 것으로 통일돼요? 완전통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엇바꿔준 주인을 찾아 주는 결혼생활에서부터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90-130, 1989.6.18) p.1679

남자가 있는 것은 남자 앞에 상대 되는 여자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싸움하고 떨어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제일 귀한 것의 주인을 엇바꿔 장치한 것이,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지성소입니다. 모세의 법궤를 위해 지은 것이 지성소라고 했지요? 이것을 건드리면 벼락을 맞게 돼 있습니다. 일대 만대에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주인 제사장은 오로지 남편입니다. (190-134, 1989.6.18) p.1679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두리뭉실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식기를 중심삼고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조상이요, 생명의 기원이요, 혈통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남자가 이상적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남자의 것이고, 남자의 생식기는 여자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그걸 열 수 있는 것은 자기 가 아닙니다. 여자가 자기 것을 못 엽니다. 남자의 것을 남자가 못 엽니다. 여자만이 남자의 것을 열 수 있고, 여자 것은 남자가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초점이 거기에 열매맺히는 겁니다. (193-301, 1989.10.8) p.1679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여자는 남자 때문에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주인이 엇갈려 있습니다. 이놈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자 녀석들이 바람 피우지요? 이 벼락 맞은 녀석들! 통일교회에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198-122, 1990.1.25) p.1680

여자의 오목한 그 생식기가 누구 것이에요? 그게 여자에게 필요합니까, 남자에게 필요합니까? 여자에게 절대 필요해요, 남자에게 절대 필요합니까? 남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남자의 것은 여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여자의 것은 남자가, 남자의 것은 여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참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참사랑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남자요, 참된 여자라는 것입니다. (210-108, 1990.12.1) p.1680

여자의 생식기는 누가 주인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의 것은 여자에게 필요하고, 여자의 것은 남자에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227-59, 1992.2.10) p.1680

사랑은 절대적이기를 원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파트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용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하나씩 만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254-273, 1994.2.15) p.1680

여자의 젖가슴이 누구 때문에 있다구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들딸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히프가 큰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들딸 때문입니다. 그 젖가슴의 주인은 아들딸입니다. 생식기는 어때요?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왜? 위해서 모든 것이 지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누구의 것이라구요? 남편의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라구요? 남편이 주인이지 여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남자의 그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여자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주인을 서로 엇바꿔서 아무 데도 도망을 못 가게 해 놓은 것입니다. (201-196, 1990.4.1) p.1680

여자의 그 얼굴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여자의 것은 없습니다. 자기 정면 저 아래에 있는 생식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편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를 위해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들딸을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혼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잡아야 됩니다. 종횡의 지상세계를 비로소 품을 사랑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 여자입니다. (263-180, 1994.8.23) p.1680

여자의 몸뚱이를 보면 가슴과 궁둥이는 애기 때문에, 얼굴과 그 가리는 것은 남편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무슨 주인이냐?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자 것입니다. 남자 것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세상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섹스가 어디 있습니까? 호모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도둑놈 아니예요? 도둑들은 지옥 가면 거꾸로 꽂힙니다. (290-158, 1998.2.18) p.1681

오늘 여기에 10 개국 이상의 대통령들이 왔는데, 그 나라의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통고해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 때문에 생식기를 가졌느냐, 여자 때문에 가졌느냐고 물어 보십시오.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적놈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도적놈들 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계는 평화의 세계가 눈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뜻이 사랑의 뜻입니다. 이 사랑의 뜻을 인간 앞에 전수해 주기 위해서 제일 귀중한 기관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생식기인데, 남자의 생식기는 여자 것이요, 여자의 생식기는 남자 것이다! 아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277-182, 1996.4.15) p.1681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극입니다,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입니다. 전지 충전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기관을 통해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을 채우기 때문에 인간은 매일같이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것이 안 됩니다. 일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134-200, 1985.7.20) p.1681

미국의 가족제도는 아무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도 손자 집을 마음대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하고 싶으면 먼저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이에도 '오늘밤에 사랑합시다!' 하고 허락받아요?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우리 사랑합시다!' 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의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피곤합니다. 싫어요!' 하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관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생식기의 주인은 남성이고, 남성의 생식기는 여성이 주인입니다.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246-53, 1993.3.23) p.1681

여자들, 그렇게 가슴이 큰 것이 자기 때문에 커요? 히프가 큰 것이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가진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모든 생리 생식기관이 자기 것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여자입니다.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부인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씀으로 말미암아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미국이 왜 망하는 거예요? 마약과 음란을 통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142-150, 1986.3.8) p.1682

남자가 남자 되고, 여자가 여자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식기입니다. 그것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이제부터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생식기를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세계가 된다면, 그 세계가 좋은 세계일까요, 나쁜 세계일까요? 흥하는 세계일까요, 망하는 세계일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정성들여 만드신 곳이 어디겠어요? 눈이요? 코요? 심장이겠어요? 아니면 두뇌일까요? 이것들은 전부 죽어 없어집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평화를 위한 가정연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덕과 종교 등 모든 분야를 완전히 초월하고 생식기가 하나되어 하나님까지도 박수로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 그들의 생식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의 생식기 주인은 아내이고, 아내 것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생식기의 주인이 서로 엇바뀌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79-244, 1996.9.15) p.1682

지상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곳이 어디냐? 남자, 여자들의 생식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사랑, 이것이 지성소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제일 귀한 하늘나라의 황자 계통을 이어받아야 할 이러한 왕궁샘이 사탄, 하나님의 원수의 족속을 이어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134-185, 1985.4.7) p.1682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는 생식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관을 하나님은 지혜가 있어서 엇바꿔 놨습니다.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게끔. 떨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찾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안식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야 천하 어디를 가더라도 다 화합하고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148-290, 1986.10.25) p.1682

Top

③ 참사랑은 더러운 것도 소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정성을 들여 만든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생식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게 제일 귀한 것인데, 제일 더러운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오줌 구멍이 같아요, 달라요? 장소는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거름을 씌워서 심어야 잘 자랍니다. 귀한 것일수록 좋은 거름을 많이 계속적으로 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령할 듯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거름도 일생 동안 같이 퍼붓고 있습니다. 그게 더러워요, 고마워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그게 왜 거기에 달라붙어 있느냐 이겁니다. 매일 아침 생식기는 그 냄새를 틀림없이 맡아야 되고, 소변보고 거기에 매일같이 물을 뿌려야 되니 이게 뭐예요? 천지 이치가 그렇습니다. (261-170, 1994.6.9) p.1683

가만 생각해 보면 보물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몸뚱이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본궁이 거기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본궁이 사랑 아니예요? 사랑의 진구지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가락에 있습니까? 어디예요? 남자의 무엇이에요? 여자의 무엇이에요?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인데, 그와 같은 곳에 제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소변이 어디서 나와요? 생식기에서 나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더러운 소변이 사랑에 화하게 될 때 더러운 것이 되겠어요, 깨끗한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소변을 참사랑에 젖어서 냉차 마시듯 마신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178-125, 1988.6.1) p.1683

사랑은 조화도 많습니다. 냄새도, 나쁜 것도 향수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지혜의 왕입니다. 우리의 생식기 같은 것도 제일 더러운 데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합하는 조화라 선포해서 갖다 배치한 것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제일 좋지 않은 더러운 부분에 장치한 것입니다. (194-49, 1989.10.15) p.1683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은 제일 안전지역, 제일 안전지인 동시에 제일 더러운 곳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참 지혜의 왕입니다. 인간 세상에 '사랑은 그러한 더러운 것도 지배하느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항문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소변 나오는 길과 똑같습니다. (194-175, 1989.10.22) p.1683

관계할 때, 남자 생식기가 들어오기를 바라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더러워요? 성스러운 구멍과 더러운 구멍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더럽고 냄새나는 한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한 개념입니다. 언제나 화장실에 가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사랑과 연결된 성스러운 곳이다. 모든 것이 성스럽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293-43, 1998.5.1) p.1683

가장 귀한 생식기가 더러운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줌이 어디서 나와요? 아무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모르면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물에 씻어요, 거름으로 덮어요? 거름으로 덮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거름으로 덮습니다. 땅에다 묻고 밟는다는 것입니다. (277-274, 1996.4.18) p.1684

생식기가 소변보고 대변보는 데와 제일 멀어요, 제일 가까워요? 위대한 사람은 더러운 데 가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자리에는 비료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데는 없습니다. 모래사장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된장국 맛이 나야 됩니다. 여자는 깨끗해도 괜찮지만 남자는 좀 텁텁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발 냄새가 나더라도 푸- 해야 됩니다. 너무 깨끗하면 파리도 오지 않습니다. 파리까지도 방문을 안 합니다. 거기에 개미 새끼가 붙겠어요, 무슨 새 새끼가 붙겠어요? (247-323, 1993.6.1) p.1684

결혼이 뭔가요? 생식기 맞추기 위한 운동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쌍스런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말입니다. 인간의 제일 고귀한 것이 생식기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이어지고 이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귀한 것인데 변소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는 매일같이 변기통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항문만 가 앉나요? 다 함께 앉지요? (187-70, 1989.1.6) p.1684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라고 했어요?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가장 성스러운 것이면서도 생식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에서는 소변도 나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게 우주의 신비입니다. 또 여자의 생식기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뭐예요? 항문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사용하지요? 소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참소하는 소리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영계로 가면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만큼 가장 천한 곳으로도 가서 살고 싶어해야 됩니다. (213-283, 1991.1.21) p.1684

여자의 생식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줌이 나옵니다. 똥 사촌입니다. 나도 그게 이상합니다. 세상에 그것을 왜 좋아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도 그것을 붙들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말입니다. 기가 찹니다. 그것이 뭐길래…. (295-186, 1998.8.28) p.1684

사랑은 인간에게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귀한 것인데, 그 귀한 사랑의 기관 앞에 제일 싫어하는데도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소변을 어디서 봐요? 여자나 남자나 그것이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263-95, 1994.8.21) p.1684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손가락이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무엇이 좋은 거예요? 남자에게서 무엇이 좋은 거예요? 남자 여자에게서 제일 귀한 것이 어디예요? 생식기 아니예요? 얼마나 귀하면 삼살방의 침범을 안 받고 보호하게 딱 만들어 놨겠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다가 스쳐 버리면 큰일나겠기 때문에 싹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른 데는 장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 조립할 때 이것을 어디에 갖다 장치를 했겠어요? 여기에 달겠어요? 여기다가 해 놓으면 여자와 남자가 둘이 걸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199-323, 1990.2.21) p.1685

Top

④ 생식기를 중심으로 종횡의 균형을 맞춰야

건축하는 사람들이 삼각자 하나 가지고 다 설계하지요? 쓱쓱 다 설계하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가운데 수직선 형태를 따라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리적 체의 형태, 이 체에 있어서 그게 뭐냐? 코입니다. 코 막아 보십시오. 이 코를 통해서 생명의 요소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배꼽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생식기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거꾸로 돼 있던가요? 횡적으로 돼 있나요? 나 그거 모릅니다, 여자들이 잘 알지요? 남자의 생식기가 종적으로 됐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종적인 기준을 갖춘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생명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이겁니다. (196-226, 1990.1.1) p.1685

얼굴에서 이 수평(입의 선)과 이 수직(코의 선)이 똑바른 사람은 양심이 바릅니다. 이것이 90 각도가 되는 사람은 양심이 바릅니다.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배꼽이 외로 가도 안 되고, 딱 센터라인이 되어서 턱까지 이렇게 되고, 입술이 여기 있는데 이 코가 핏줄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출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엉덩이와도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허리도 90 각도, 엉덩이도 90 각도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07-78, 1990.11.1) p.1685

눈은 횡적으로 되어 있고, 코는 종적으로 되어 있지요? 이 종적인 코를 통해서, 입과 식도를 통해서 위장까지 종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종과 횡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종적인 입이나 횡적인 눈이 찌그러졌든가 하면 벌써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도 종적인 면에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 둘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서부터, 생명의 근원은 남자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여자들이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애기 씨는 못 갖고 있지요? 아무리 유명한 미국 여자라 하더라도 애기 씨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43-272, 1993.1.28) p.1685

여러분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해 이게 어디로 통하느냐? 생식기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직의 통과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하는 곳입니다. 몸뚱이는 여기에 90 각도, 하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마음과 몸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수직적 나입니다. 몸은 수평적 나입니다. 어디로부터? 수직적 부모, 수평적 부모, 수직적 부모와 수평적 부모가 함께 나를 만들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놓은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참사랑, 참생명, 나아가 참혈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하나되어 이뤄진 것이 나입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요, 사랑을 대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평적 사랑과 수직적 사랑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 참사랑의 중심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217-152, 1991.5.19) p.1686

사람은 종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머리가 여기 있고, 생식기가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벗고 거울을 보면 남자들은 압니다. 털이 났기 때문에 저 아래 생식기까지 이게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여자도 젖이 있지만 요것이 주욱 맞아야 됩니다. 궁둥이가 커도 안 되고, 다 맞아야 됩니다. 아, 웃을 것 없습니다. 이런 것에 감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225-99, 1992.1.5) p.1686

우리의 몸은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귀도 눈도, 전부 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입도 신경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가운데에서 아래로는 배꼽과 생식기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229-241, 1992.4.12) p.1686

눈의 초점도 중심을 중심삼고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요것과 요것 맞지요? 배꼽으로부터 생식기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갖다 붙였느냐 하면, 공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명해야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226-19, 1992.2.1) p.1686

입술도 초점이 맞아야 하고, 손과 손도 맞아야 됩니다. 이거 틀리면 사고가 납니다. 입이 아무리 크더라도 콧대와 맞고 배꼽줄과 맞고, 저 아래 중요한 생식기와 맞아야 됩니다. 거울 보고 자기 자체가 맞나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다 알아야 합니다.

아이 때부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주의해야 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거 교육할 수 있는 교재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한이 없습니다. (221-227, 1991.10.25) p.1686

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을 따라서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찌그러지면 좋지 않습니다. 수직이 돼야 됩니다. 코는 아담과 해와를 상징합니다. 눈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이는 만물을 상징합니다. 이 서른 두 개는 사 팔 삼십이(4×8=32), 다 만물세계의 표시적 상징입니다. 이런 시각적인 전부가 어디 가서 열매맺히느냐 하면, 머리가 아닙니다. 생식기입니다. 갖가지 신경적인 왕궁이 생식기입니다. 그거 생리학을 연구하면 압니다. (190-130, 1989.6.18) p.1686

남자가 왜 그게 볼록이 돼요? 여자들도 전부가 볼록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명당 자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도 다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줄을 통해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연결되어 사랑의 생식기와 수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0-303, 1988.8.22) p.1687

모든 것은 전부 구형을 닮았습니다. 모든 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몸뚱이 가운데서, 인간 가운데서 제일 구형 닮은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 가운데 제일 구형을 닮은 것은 눈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생식기 주위에 있는 것. 내가 그것까지 얘기 안 했으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장, 그 다음에 방광, 그거 전부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214-56, 1991.2.1) p.1687

전부가 종으로 흘러 이게 열매될 수 있는 것이 생식기입니다. 거기에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나쁜 것, 좋은 것 거기에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쓰면 좋은 사람이 되고, 못 쓰면 제일 나쁜 사람이 됩니다. (280-97, 1996.11.11) p.1687

코끝과 이것이 맞지 않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배꼽을 통해서 생식기까지 쭈욱 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보면 털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여자들은 털이 없지요? 여자들 가슴에 털 있습니까? 남자의 털은 이렇게 두 쪽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것도 주체와 대상입니다. 둘이 하나돼야 되는 것입니다. (248-284, 1993.10.3) p.1687

코끝과 중앙이 모두 맞아야 되고 배꼽과 생식기가 다 중심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팔자가 셉니다. 삶이 평탄치 않습니다. 사람을 척 보면 이걸 가지고 눈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깨로부터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사람은 다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백 명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걷는 것이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자기 성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꿔야 됩니다. 언제든지 자리를 못 잡은 것입니다. (248-88, 1993.8.1) p.1687

머리가 서 있는 걸 보면 곧잖아요? 쭉 곧습니다. 사람의 중요한 부분이 머리와 생식기입니다. 여기서 직접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생식기, 거기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188-44, 1989.2.16) p.1687

젖이 하나돼 있느냐, 수직이 돼 있느냐? 배꼽은 중앙에 있으니 원형의 배꼽이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생식기까지 쭉 연결돼 있습니다. 물은 흐르면 어디로 갑니까? 낮은 데로 해서 어디로 가느냐? 앉아서 일할 때 제일 많이 젖는 것이 하부 중앙입니다.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털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가 다 그렇지요? 물이 거기에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297-46, 1998.11.15) p.1688

코가 잘생겨야 부자가 됩니다. 그거 알겠어요? 쓱 볼 때 들어맞아야 됩니다. 여기 전부 생식기까지, 배꼽까지 줄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찌그러지면 상대가 흔들거립니다. 결혼할 때는 발가벗고 배꼽 맞춰보고, 가슴 맞춰보고, 다 일단 맞아떨어지면, 부처끼리가 이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생식기도 찌그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수직이 안 되면 바람잡이가 됩니다. 과부가 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칙이 다 그렇습니다. (295-30, 1998.8.16) p.1688

인체에서 제일 귀한 것이 눈입니다. 눈이 제일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입니다. 심장도 둥근 것입니다. 또, 여자는 자궁이 둥급니다. 남자는 뭐예요? 남자 생식기도 둥글게 되어 있지요? 둥근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뼈가 없습니다. 뼈가 없이 살이 둥글기 때문에 미술가들은 여자 나체 그리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272-154, 1995.10.1) p.1688

얼굴을 중심삼고 배꼽으로부터 생식기까지 딱 맞아야 됩니다. 한 번 자기 몸뚱이를 병원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걸을 때는, 딱 중앙에 전달되는 무게가 같기 때문에 신바닥이 반듯하게 닳아야 됩니다. 신발을 봐서 찌그러진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반듯한 사람은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286-219, 1997.8.11) p.1688

관상을 보려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내려오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쭉 생식기와 딱 수직이 되어야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틀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젖이 한 쪽으로 틀어져도 안 되고, 배꼽이 틀어져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252-108, 1993.11.14) p.1688

앉는 것도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걷는 것도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걷는 것을 보면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몇천 명이 있더라도 다 걷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언제든지 이 꼭대기와 여기 생식기를 딱 수직에 맞추어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적인 것을 중심삼고 모든 기관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야! 남자와 여자가 내가 바라던 대로 걷는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영계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246-237, 1993.4.18) p.1688

사람을 볼 때 머리에서 주욱 내려오면 코가 있지요? 그 코를 지나고 인중을 지나고, 입술을 지나서 배꼽과 생식기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 종적인 선을 중심삼고 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횡적으로 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귀도 보고, 어깨도 보고, 걷는 것도 똑바른지 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도 함부로 걸으면 안 됩니다. 걷는 모습은 그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46-235, 1993.4.18) p.1688

인간을 두고 볼 때, 인간의 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 원형을 많이 닮은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의 눈과 심장, 그 다음엔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에는 눈 같은 것 둘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있지만, 여자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눈이 참 귀하지요? 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심장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요, 생식기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하나님을 중심삼은 감시기관입니다. (249-173, 1993.10.10) p.1689

Top

⑤ 사랑은 배워 아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표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동물을 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곤충 같은 것, 손으로 잡으면 딱 붙어 가지고 아물아물한 것들도 거기에 눈이 있고 오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수놈과 암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놈과 암놈이 무엇을 갖고 하나돼요? 초점이 뭐예요? 사랑이지요?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223-268, 1991.11.12) p.1689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프리섹스니, 성교육이니 하는데 이 미친 자식들, 그만두라는 겁니다. 동물세계에서 성교육을 합니까? 옆에만 가면 자동적으로 맞춥니다. 어떤 것은 생식기가 날갯죽지 안에 있는데, 발뒤꿈치로 그걸 맞춥니다. 자연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남철이 남북으로 통하는 것을 맞추라고 해서 맞춰요, 자동적으로 맞춰요? 자동적으로 맞춥니다. 참사랑에 일치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면, 내버려두어도 자기가 동서남북의 방향을 잘 찾아서 자동적으로 가서 맞춘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사랑할 때 어떻게 생식기를 맞춰요? 몸보다 큰 것이 생식기예요, 작은 것이 생식기예요? 작아도 몸뚱이를 끌고가서 맞춘다 이겁니다. 사랑 때문에 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좋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좋아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72-91, 1995.8.30) p.1689

모든 동물들의 수놈과 암놈의 생식기가 날갯죽지에 있고, 별의별 곳에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갖다 맞춰요? 교육이 필요합니까? 맞추는 데 교육이 필요합니까?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비비다 보니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교육한다 해서 성교육하는데, 그건 사탄의 조화통입니다.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284-122, 1997.4.16) p.1689

요즘에는 병균까지도 부부로 상대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미경으로 3 백만 배를 키워서 보는데, 거기에서 병균의 수놈을 보면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코는? 귀는? 입은? 생식기는? 그러한 조그만 것도 생식기를 맞출 줄 알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시집갈 때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면서 '아이야, 생식기는 이렇게 맞춰라!' 하고 교육해서 시집보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연히 움직이면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합덕입니다. 강제 합덕이 아닙니다. 사람은 화합해서 화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입니다. (272-74, 1995.8.30) p.1690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천지가 다 그 교재입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랑의 교재입니다. 동물 가운데는 인간이 존경해야 할 동물들도 많습니다. (180-336, 1988.10.5) p.1690

학교에 가 보면 요즘은 선생님과 학생이 싸우지요? 그것은 위하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리의 근본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보다 더 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랑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상속권이 있고, 동참권, 동거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지요? 사랑하는 아내 앞에 금덩이를 갖다 놓고는 '그것은 내 것이다.' 하고 몸뚱이만 내맡겨 주면서 '네가 좋아하는 것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이니 내 생식기만 받아라.' 그래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을 갖다 주고 아들딸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 몸뚱이, 자기 자신까지 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204-41, 1990.6.29) p.1690

Top

5) 생식기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생식기가 귀한 생식기가 될 때 천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러한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추구하는 목적은 사랑의 생식기라는 겁니다. 오목과 볼록으로 생긴 것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왜 이 생식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사랑을 위해서냐? 참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사랑,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278-271, 1996.5.26) p.1690

생식기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쓰면 지옥과 연결되고, 잘 쓰면 자연히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출발지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모든 여자와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진리를 알았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자! 이것이 우리 가정의 희망의 본거지다.' 할 수 있게 되면 모든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주적 선포와 더불어 우리는 우주적 선포의 내용을 알고 생식기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머니가, 해와가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망치는 놀음을 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아벨이 그걸 도와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어머니의 세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78-209, 1996.5.24) p.1690

지옥과 천국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공중이에요? 어디예요? 생식기입니다. 심각해야 됩니다. 이곳이 천지를 뒤집어 박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레버런 문의 원리책에 있는 타락논리를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다 알아 보십시오. 그런 답변을 못 얻어 가지고, 레버런 문이 자기들이 꿈에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놨으니 반대할 도리가 없습니다. (279-118, 1996.8.1) p.1691

제일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은 뭐냐? 천리로 정한 생식기의 반대의 길을 가면 지옥 직행이요, 그것을 반대로 정당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길을 가면 천국 높은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결론입니다. (279-121, 1996.8.1) p.1691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남녀의 생식기가 이 요사스러운 사망의 물결, 사망의 법, 멸망의 지옥을 개문시킨 본궁이 되고, 천도를 파탄시킨 요물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197-120, 1990.1.13) p.1691

생식기가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섹스 반대되는 것이 절대 섹스입니다. 절대섹스, 유일섹스, 불변섹스, 영원섹스입니다. 그 네 가지의 컨셉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것이냐! 그 둘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참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279-239, 1996.9.8) p.1691

지금 사탄세계에서는 완전히 생식기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프리섹스, 레즈비언, 마약이 판치고 있습니다. 마약은 정신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 같은 생각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것과 180 도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프리섹스가 아니라 절대 사랑의 컨셉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불변 유일의 사랑의 컨셉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런 기반을 닦으면 지상천국이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기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278-271, 1996.5.26) p.169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생식기를 잘못 썼습니다. 그걸 혁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를 내세워 여자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성연합 동원해 어머니 자리의 정착입니다. 거기에 재림주가 오는 거 아니예요? 메시아는 뭘 갖고 오느냐? 절대섹스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섹스 완성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279-269, 1996.9.22) p.1691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어디부터 봐요? 눈을 봐요, 손을 봐요, 어디를 봐요? 남자를 볼 때 어디를 보느냐 말입니다. 눈을? 그 다음에는? 얼굴, 그 다음에는? 내려가서 모든 오관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예요? 어느 기관이 제일 나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생식기가 제일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출발한 포인트와 180 도 다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참생식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짓된 생식기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사랑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278-269, 1996.5.26) p.1692

절대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키스에서? 절대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생식기에서 절대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절대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키스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이에요? 성적인 관계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섹스, 섹스가 정착되는 곳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생식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손 들어 봐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생식기가 대답하기를 '나는 두 생식기가 함께 단단히 묶어져서 절대사랑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생식기를 원합니까? 유일한 생식기를 원합니까? 불변 생식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생식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79-220, 1996.9.8) p.1692

그 생식기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남편의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음양의 이치는 수놈과 암놈입니다. 광물세계도 주체와 대상 관계, 요즘에는 박테리아까지도 수놈과 암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쌍쌍제도로 우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체는 대상을 위해서, 대상은 주체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위해서 태어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 두 남녀를 지어 놓고 성숙해서 결혼시키려고 할 때, 그 결혼식을 중심삼고 관계 맺어지는 생식기가 절대적인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절대적인 생명,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혈통을 심기 위한 본부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80-62, 1996.11.1) p.1692

타락이 무엇이냐? 근본 문제, 근본은 뭐냐? 아담과 해와가 생식기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자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 것은 해와 것이요, 해와 것은 아담 것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과 절대적인 사랑의 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걸 불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요, 상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생식기가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280-63, 1996.11.1)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절대 부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 부부는 절대 생식기를 중심삼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하는 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생겨나기를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위해서 생겨났지 위하라고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 생식기를 준 것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남자 때문입니다. 남자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 생식기를 사탄이 원한 대로 쓰면, 마음대로 원칙적인 길을 가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계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황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0-70, 1996.11.1) p.1693

어디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지 알아봅시다. 공중입니까? 어디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생식기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문선생이 발표한 《원리 강론》의 타락론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아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좋습니다. 여러분으로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과 이론을 갖고 체계를 잡아놓은 문선생의 《원리강론》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식기를 눈먼 장님처럼 방향을 잃은 채 사용하면 지옥행이요,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사랑에 기준을 맞추어 쓰면 천국 높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결론입니다. (279-256, 1996.9.15) p.1693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조상이 있고, 선한 조상이 있는데, 선한 조상이 혈족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의 대주재자인 하나님을 사탄도 무시 못 합니다. 반드시 자기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갈 때는 선한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를 파탄시키는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상의 본거지 생식기를 완전 파괴시키는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286-32, 1997.8.10) p.1693

사탄의 혈통이 어느 부분으로부터 연결되었을까요? 키스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그게 어디예요? 그 기점이 어디예요? 생식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생식기가 무서운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04-11, 1999.9.5) p.1693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뭐 하러 오목 볼록하게 만들었습니까? 볼록끼리 맺어서 결혼합니까? 오목끼리 맞춰서 결혼합니까? 세상에, 미친 자식들. 그 따위들은 1 대도 못 가서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독신생활을 강조하는 사람은 저나라에 가면, 방향이 하늘나라와 반대입니다. (304-241, 1999.11.8) p.1693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 년을 살다 돌아올 때 라반 가정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상을 도적질해 나왔습니다. 그것을 들켰다가는 벼락을 맞습니다. 그걸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런 것 알아요? 그래 종교권은 독신생활을 하라고 그랬지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요리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라 그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 순식간의 행동이 억천만세의 천지 대왕마마에게 갈고리를 걸어 해방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박기 위한 통일교회 교인들이 축복 받고 타락을 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296-204, 1998.11.9) p.1694

남미에 가서 10 만 교인을 거느린 교단의 도주에게 생식기에 대한 얘기를 두 시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 눈이 이렇게 돌아가더니 결론이 '생식기 전문가구만!' 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생식기 전문가가 못 되었기 때문에 통곡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생식기의 전문가가 못 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전문가가 못 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왱가당댕가당 하고, 부부가 그 전문가가 못 되었기 때문에 왱가당댕가당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면 하늘땅을 그 주머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2-170, 1999.6.13) p.1694

사랑의 기관을 함부로 다루면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왕궁이요, 사랑의 조상 동산입니다. 사랑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지상천국의 기원이요, 천상천국의 기원이요, 하나님의 행복의 출발의 기원이 거기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웃음 바탕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 하나님이 춤출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256-199, 1994.3.13) p.1694

사랑이 중심이 되어, 둘이 생명의 합일체가 되어 합하는 자리, 남자의 피, 여자의 피가 한 도가니에서 하나되는 자리가 생식기입니다. 그 자리는 아들딸보다 귀하고, 남편보다 하나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보다 귀하고, 남편보다 귀하고, 부모보다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모도 무가치한 것이고, 부부도 무가치한 것이고, 아들딸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보화 중의 보화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일생 동안 자물쇠를 채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남자의 것은 여자가 갖고, 여자의 것은 남자가 지니고 있는데, 각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키만 가져야 합니다. 프리섹스처럼 열 개, 스무 개 가지고 싶습니까? 문을 열어 주인이 없는 집처럼 지나가는 사람 모두 들락날락하는 폐허의 집과 같이 되고 싶습니까? (206-118, 1997.1.1) p.169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생식기를 하나님 모시는 것보다 더 잘 모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종교계에서 들으면 펄쩍 뛰고 뒤집어지겠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상 사랑을 모셔야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보다 소중하고, 세상을 주고, 천지를 주고, 하나님까지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생식기를 창조물 전체를 합한 이상으로 숭배하고,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000. 7. 1) p.1694

Top

제 3 장
인간 타락과 복귀

1) 인간 타락의 내적 의미

① 인간 타락은 사랑의 사고였다

본인이 규명한 원죄와 타락의 곡절은 인간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천사장과의 불륜의 사건이었습니다. 통일원리에서의 사탄은 관념적 존재나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사탄 중심한 혈통으로 바꾼 원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 장에서 인류의 아비가 마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적 몸인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실현하시려던 사랑이상을 박탈한 사랑의 간부가 곧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본인이 영계를 개척하고, 우주의 근본 곡절을 규명하려고, 피눈물나는 투쟁을 한 결과로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지하게 기도해 보면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135-12, 1985.8.20) p.1695

우주의 근본은 탈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자라기 전 미성년 때입니다. 15, 6 세라고 치고, 여자들 보면 10 대 때 타락하지요? 딱 그때입니다. 그때에 천사장 누시엘을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것 이거 천지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도 얘기할 줄 알고 말입니다. 아담이야 뚱해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새새끼나 잡으러 다니고…. 그렇지만, 아이들 때 다 그렇지요? 새새끼나 잡으러 다니고, 몽둥이 들고 뱀새끼나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 새끼 잡으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자연에 흡수된 모든 것을 앞으로 주관하고 관리하고 친하려니까, 전부 다 그 동화자가 되려니까 뭐 해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191-97, 1989.6.24) p.1695

타락이 뭐냐? 천리대도의 기준이, 사랑의 원축이, 천지의 축이 됐어야 할 중심 포인트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됐습니다. 여자가 자각을 하고, 천사장이 자기 자각을 함으로 인연되어서 우주의 근본을 격파한 원한의 구렁텅이가 생겨났다는 이 분통한 사실을 인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혈통적 인간의 조상이 된 데 대한 이 한을 누가 풀어 주어야 되느냐? 그건 뭐냐 하면, 왕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종이 타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의 대도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근본 기준이 저끄러진 것입니다. 결국 그 악마는 뭐냐? 사랑의 하늘나라 왕궁을 근본적으로 파탄시킨 괴수입니다. (171-114, 1987.12.13) p.1696

왜 탕감이니 부모권 복귀니 장자권 복귀니 왕권 복귀니 하는 것이 필요하냐? 사탄의 사랑과 사탄의 생명과 사탄의 핏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마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사랑이라는 엄청난 것을 중심삼고 출발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창조는 사랑 때문에 시작됐지요?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는 사랑을 중심삼고 창조돼 나온 것입니다. 그 근본을 사탄이 뒤집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근본을 다시 뒤집어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6-236, 1990.10.14) p.169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류는 투쟁의 역사를 거쳐왔는데, 왜 투쟁의 역사입니까? 선악의 투쟁역사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하나님의 이상세계의 전권을 탈취해 갔습니다. 탈취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여자와 아들딸을 겁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딸이 없습니다. 원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의 여자는 하나님의 여자요,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딸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야 하는데, 악마가 이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일 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논리가 없었다면, 인간의 근본을 깨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262-74, 1994.7.23) p.1696

태어나기를 사랑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사랑의 반대 행동 외에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뭐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태어나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태어나 서로 사랑을 이루어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착시킨 것이 타락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180 도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사랑 때문에 태어난 입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만으로는 위하는 사랑의 기반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난 근원을 부정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걸려들 수 있는 위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라는 사랑에 둘 다 걸려든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쌍쌍제도로 되어 있어서 서로가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인간도 이런 가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를 중심삼고 180 도 다르게 된 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중심삼고 되었느냐? 여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남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기관을 중심삼고 파괴의 행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43-269, 1993.1.28) p.1696

하나님은 누구며, 악마는 누구냐? 악마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랑의 간부(姦夫)입니다. 이것이 문총재로 말미암아 밝혀졌습니다. 인류 시조의 타락의 근원이 되었던 선악과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걸 잘 쓰면 나라가 흥하고,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군왕이라도 잘 쓰게 될 때에는 나라가 흥하지만,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모든 것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집니다. 선의 열매가 맺혀야 할 곳에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그게 선악과 아니예요? 선악과 다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가 선악과입니다. 독사의 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탄을 독사라고 했어요? 사탄을 왜 뱀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뱀 대가리입니다. 독사의 대가리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그걸 노리고 있지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렇잖아요? (227-251, 1992.2.14) p.1697

사람에게 제일 귀한 곳이 어디예요? 남자나 여자에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여자는 한 가지를 중심삼고 여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을 심는 기계입니다. 그거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생식기 아니예요? 사랑의 기관보다 실감이 나는 겁니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심는 도구, 그게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식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부끄럽다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말 자체가 부끄러우면 한국 사람 자격이 못 됩니다. 자랑을 해야지! (260-73, 1994.4.11) p.1697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대상이 자기보다 몇천만 배 훌륭하기를 바란다면, 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하고 경고했습니다. 그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란 여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에덴동산에서 살 때는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262-74, 1994.7.23) p.1697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겠지만 해와는 언제나 '오빠 어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갔어? 나 외로워!' 했는데 이런 해와를 천사장이 범한 것입니다. 천사장에겐 이들을 결혼할 때까지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벗고 사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동물들이 옷 입고 사나요? 생식기에 무엇을 씌워요? 부부간에 서로 부끄러워 합니까? 같이 사는 부부가 벌거벗는 것이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262-150, 1994.7.23) p.1698

타락이 뭐냐? 생식기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신랑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상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을 범해 가지고 우주의 어디를 가든지, 동물세계라든가 식물세계라든가 광물세계라든가 인간세계 어디든지, 쥐새끼 세계에서도, 어떤 벌레 세계에서도 이것을 내세우지 못하리만큼 그릇됐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쫓아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279-215, 1996.9.8) p.1698

아담과 해와의 타락도 알고 보면 이 철칙을 어긴 데서부터 연유된 것입니다. 아담이나 해와는 자신들의 생식기가 자신들의 소유인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을 따먹었다고 아담 해와를 쫓아내요? 하나님은 그처럼 엉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틀려 우주의 어디에서도 공인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광물계나 식물계나 동물계의 수컷, 암컷도 모두 사랑의 상대를 위하여 자기의 성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해와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279-246, 1996.9.15) p.1698

계명을 어겼습니다. 절대 생식기를 가지고, 절대 사랑을 가지고, 절대 위하고,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위하는 사랑의 터전을 하나님이 바랐는데, 자기를 중심하고 마음대로 행동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퉤!' 하고 침 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려면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참부모가 와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280-77, 1996.11.1) p.1698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원수가 여자입니다. 뱀의 벌어진 입같이 되어서 남자의 생식기가 들어오면 물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처에 널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생식기입니다. (281-215, 1997.2.13) p.1698

에덴에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에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석별하던 그 몇십 배, 몇백 배 통곡을 해야 됩니다. 눈물·콧물·입물의 3수가 흘러 이것이 배꼽 줄을 통해서 저 생식기를 거쳐 떨어져야 됩니다. 이 놈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한테 해와를 지어 준 건 무얼 지어 준 거예요? 외롭다고 해 가지고 여자를 지어 주고는 '선한지라' 했는데 무엇 중심삼고 '선한지라' 했어요? 여자의 무엇이에요? 생식기입니다! 볼록 앞에 오목입니다. 오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담에게 해와를 무엇 하러 만들어 줬습니까? 눈 코 얼굴입니까? 무엇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위해서 해와의 무엇을 만들었냐구요? 오목을 위해서 볼록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거기에는 사랑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볼록을 위해 오목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가치 있는 것, 사랑이 근본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296-270, 1998.8.5) p.1699

이제는 근본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천지창조가 어떻고, 인간의 시조가 어떻고 해 가지고 인간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국가, 세계가 이렇게 된 모든 전부가 타락 때문에 부정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현한다는, 이론적으로 부딪쳐서 그렇다고 인정시킬 수 있는 개인 해방, 가정 해방, 종족 해방, 민족 해방, 국가 해방, 천주 해방을 거쳐 하나님까지도 해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문제가 아담가정에서의 사랑문제, 남자와 여자와 둘이 생식기를 잘못 맞췄다는 그것이 이 천주를 폭파시켰습니다.

생식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본궁, 왕궁입니다. 그것 없으면 사랑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혈통의 역사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모든 게 1대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겠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입장에 세워 놓고, 내가 창조를 책임지고 사탄까지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때려서 굴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연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300-236, 1999.3.23) p.1699

선생님의 아담 완성의 책임이 타락이 없었던 해방된 천주적인 사랑의 왕의 자리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사탄 혈통의 모든 전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자기 위신과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생식기를 개똥 위에도 처박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천년만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는 여자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게 보기 싫기 때문에 새로운 천지를 만들자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탄인 천사장 앞에, 사랑의 질서를 파괴시킨 그것에 대해 꼭지를 따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자의 생식기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까지도 몇천만 년 감옥에 쓸어 넣었던 구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를 볼 때도 그래야 됩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해와가 그러자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천국을 뒤집어 박았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섬뜩해야 됩니다. (302-257, 1999.6.14) p.1699

남자 다섯 가운데 여자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안심이 되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한테 경계를 하겠어요? 여자 한 사람이 제일 가깝습니다. 장래의 하나님의 상대가 되고 자기의 몸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랑의 상대입니다. 계명을 주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줍니다. 집을 떠나게 될 때, 제일 가까운 사람과 제일 먼 사람이 있다면 먼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해와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그건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선한 남자를 만나면 선한 아들딸을 낳고, 마피아를 만나면 마피아의 아들딸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81-195, 1997.2.13) p.1700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투입하고 투입하다 보니, 이 우주를 포괄하고도 남을 만큼 된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이 핵을 중심삼고 이 우주 존재세계의 말단까지 사랑의 분위기로 포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에 가도 사랑의 분위기요, 지상에서도 쌍쌍제도를 중심삼고 사랑을 노래하며 살 수 있었던 우리의 인생행로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을 알아야 합니다. (209-222, 1990.11.29) p.1700

Top

② 선악과는 해와의 생식기다

해와는 여자인데, 여자의 근본이 뭐예요? '보기에 좋은' 그 존재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눈이에요? 얼굴이에요? 손이에요? 몸뚱이에요? 아닙니다. 생식기입니다. 여자는 오목이고 남자는 볼록이입니다. 하나님이 볼록한 아담을 지어 놓고, 아담 앞에 오목한 것을 지어 주셨는데, 그게 여자입니다. 왜 아담 앞에 해와를 지어 놓고 '좋은지라!'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볼 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고, 아담도 좋고, 해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뭣 중심삼고 한 말이에요? 생식기를 중심삼고 한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294-293, 1998.8.9) p.1700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고 말입니다. 그 선악과란 여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여자가 왕을 만나면 왕자를 낳는 것이요, 마피아를 만나면 마피아의 아들딸을 낳는 것입니다. 선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여자입니다. 남편이 설 자리에 여자는 같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되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더라도 사랑의 관계만 맺으면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279-316, 1996.11.10) p.1700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뭘 따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아담과 해와를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아담 아니예요? 아담의 생식기가 생명나무입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해와의 사랑을 말합니다. 마피아와 사랑하면 마피아 아들딸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열매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왕과 사랑하면 왕의 아들딸을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악마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275-218, 1995.12.30) p.1700

성경에 보면 에덴동산의 모든 나무는 따먹어도 괜찮지만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지간이니 손을 만지고 뭐 키스를 하고 다 해도 괜찮지만,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와 생명나무,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는 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200-50, 1990.2.23) p.1701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창조했느냐? 쌍쌍제도라고 했지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참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참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게 된 동기는 뭐냐? 뭐, 선악과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따위 미친 수작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원을 모르고, 죄의 뿌리가 뭔지 모릅니다. 몰라 가지고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병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따위 논리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209-214, 1990.11.29) p.1701

에덴동산에 있는 자들을 보면 여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 하나인데 천사장은 셋 있지, 아담이 있지, 하나님도 남성적입니다.

하나님 외에 네 남자가 하나의 여자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경계할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과는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72-297, 1995.10.13) p.1701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생식기입니다. 이 생식기가 뭐냐 하면 사랑의 왕궁입니다. 생명의 왕궁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혈통을 상속받는 것이 생식기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게 타락하고 나서 제일 불결한 곳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거룩한 것이겠어요, 죄악 되고 쌍것이겠어요? 모세가 만든 법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성소로 만든 곳이 생식기입니다. 타락하기 전 그 자리가 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론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216-107, 1991.3.9) p.1701

에덴동산의 아담 해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준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누구의 생식기예요? 여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마피아와 붙으면 마피아의 아들을 낳고, 왕과 붙으면 왕자를 낳습니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생식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해와를 사랑의 상대로 삼으려 하는데,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자기 이외에 네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고를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겠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경고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계명, 훈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었어요? 동산 가운데 관심을 가질 것이 선악과라는 열매겠어요, 여자겠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285-190, 1997.5.4) p.1702

타락했는데, 무엇 때문에 타락했다구요? 사랑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타락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잘못된 생식기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생식기가 없었다면 인류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생식기가 없다면 지상천국이 출발할 수 있습니까? 그 생식기가 완전한, 참된, 선한 생식기를 통해서 참된 선한 지상?천상천국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되지 못한 생식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생겨납니다. (279-213, 1996.9.8) p.1702

타락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됐기 때문에 망구지통이 되었습니다. 제일 쌍소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정성을 들여 지은 곳이 생식기입니다. 제일 정성들인 곳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다 모인 곳이며, 이상적인, 감성적인 모든 전부의 종합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궁입니다. 사랑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생명의 기원지입니다. 참사랑의 본궁이요, 참생명의 본궁이요, 참혈통의 본궁이라는 것입니다. 왕궁입니다. 자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를 통해 자궁이 생긴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아니예요? 사랑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피살이 섞이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명과 여자의 생명이 사랑을 통해 하나되는 것입니다. (253-40, 1994.1.1) p.1702

타락한 후에 다 망가진 것입니다. 가장 악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품안이 아닙니다. 그거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최고의 귀한 왕궁이 더러운 사랑의 궁, 더러운 생명의 궁, 더러운 혈통의 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식기가 말입니다. (230-134, 1992.5.1) p.1702

인간 타락의 근본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참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아기도 낳기 전에 쫓아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 타락의 시조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 과오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87-16, 1997.8.10) p.1702

여자가 어떤 남자를 안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도둑을 안으면 도둑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는 그 나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나무로 상징하여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라고 했지요? 여자들은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지요? 주의해야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경고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58-183, 1994.3.17) p.1702

선악과는 해와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대하는 대로 씨가 달라진다, 그말입니다. 선한 남자를 대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남자를 대하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본궁이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여자는 밭이지요? 도적놈이 와서 뿌려 놓으면 도적의 자식이 나오는 것이고, 왕자가 와서 뿌려 놓으면 왕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238-199, 1992.11.22) p.1703

인간이 죄를 범한 땅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남자 여자의 생식기라는 것은 본래 사랑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229-7, 1992.4.9) p.1703

선악과란 뭐냐?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게 되면 좋은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나쁜 남편을 만나면 나쁜 애기를 낳습니다. 선악과는 내가 알고 보니 여자의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그것이 뭐예요? 처녀 때는 그것 하게 되면 가슴입니다. 그건 여자의 생식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있어서는 악한 여자가 상대가 되어도 악해지지 않습니다. 선한 여자가 상대가 되면 더더욱 선해지지요? (221-315, 1991.10.27) p.1703

남자보다도 여자가 앞섰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소질이 많아 하나님이 경고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된다!'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선한 사람을 맞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악한 남자를 맞으면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여자의 생식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야 그럴 일이 있습니까? 남자에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221-282, 1991.10.26) p.1703

선악과가 뭐라구요? 선악과는 선한 남자와 관계하면 선과가 되고, 왕과 결혼하면 왕자를 낳고, 마피아장과 하게 되면 마피아장을 낳는 것입니다. 선악과, 선과 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처녀를 범할 때 따먹는다고 그러지요? 계시적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84-137, 1997.4.16) p.1703

타락이 어디로 되었느냐? 눈으로? 코로? 입으로? 손으로? 귀로? 아닙니다. 생식기로 타락했습니다. 거짓 사랑으로 거짓 사랑과 연결되어서 거짓 부모가 되었고,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거짓 생명, 거짓 사랑, 거짓 혈통, 거짓 양심이 생겨났습니다. 모두가 사탄과 하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282-230, 1997.3.26) p.170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 사랑을 잘못하면 영원한 악과(惡果)를 계승하는 것이요, 사랑을 잘 하면 영원한 선과(善果)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26-110, 1992.2.2) p.1703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 뭐냐 하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와서 배웠을 겁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그릇된다는 것 말입니다. 왜 아담과 해와를 쫓아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쫓아내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우주의 어디에서도 공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방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79-106, 1996.8.1) p.1704

우주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근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를 파탄시킨 요사스러운 근거지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실수가 천만 년의 역사를 뒤집어 박고, 하나님과 참부모와 이상세계를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기관입니다. 오줌을 쌀 적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놈아, 오줌도 바로 싸야 돼!' (281-120, 1997.1.2) p.1704

고귀한 가치를 가져야 할 인간 본연의 자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기준을 연결시킬 수 있는 궁이 어디냐? 생식기관입니다. (240-315, 1992.12.13) p.1704

Top

③ 사탄마귀는 음란으로 타락했다

사탄은 대관절 어떤 존재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탄의 정체를 똑똑히 밝혀야 합니다. 사탄이 뭐예요? 간부, 사랑의 간부입니다. 그 사탄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해 낳은 자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분 나쁘지요? 정 믿을 수 없다면 선생님의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담판기도를 한 번 해보십시오. (38-175, 1971.1.3) p.1704

사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인되는 해와를 겁탈한 간부입니다. 해와는 아담의 부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부인되는 해와를 겁탈한 간부입니다. 사탄은 사랑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데는 사탄 간부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은 사랑하되 사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야 합니다. (148-294, 1986.10.25) p.1704

우리 선조들이 사탄에게 참소받고 유린당하고 학살의 제물이 되어 나온 한을 풀어야 할 기독교 신도요,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진대, 이 사탄의 정체를 해명해야 되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과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정, 미래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며 '오! 내 아들딸아!' 할 수 있어야만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8-130, 1959.11.29) p.1704

본래의 주인을 쫓아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 아들딸까지 모두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괴수의 입장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용서할 길이 있습니까? 결국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사랑을 중심삼고 간부지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탄을 용서한다면 세상을 다 파탄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치는 날까지 하나님과 인류는 신음과 고통의 길을 모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역사를 엮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3-338, 1972.3.6) p.1705

여러분의 사랑의 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악의 괴수가 사탄 마귀입니다. 무슨 인연을 가진 마귀냐 하면, 사랑의 간부라는 것입니다. 그 간부의 피살을 이어받아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사랑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간부의 사랑입니까? 간부의 핏줄을 통해 이어온 부정한 핏줄의 사랑을 받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5-90, 1970.10.4) p.1705

하나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 희망찬 대업을 꿈꾸며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대업과 생명과 이념의 모든 조건이 일시에 파탄되어 망하게 될 때 천지가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수로 등장한 것이 천사장 누시엘이었습니다. 이 누시엘을 때려잡아야 되겠나, 안 때려잡아야 되겠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아들딸을 누시엘이 자기의 아들딸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의 목을 잘라야 되느냐, 그대로 놔 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역사 이래 처음으로 고심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27-60, 1969.11.23) p.1705

하나님이 바라던 왕자 왕녀의 자격을 파탄시키고, 왕자 왕녀의 가정적 사랑을 파탄시키고, 왕자 왕녀 이후의 왕손을 파탄시키고, 하나님이 이상하는 가정, 하늘나라 천국을 파탄시킨 원흉이 사탄 악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흉이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원수입니다. 저 원수의 적장한테 그 나라의 왕궁에 있는 왕족, 왕족의 왕자, 왕녀가 잡혀가 종살이 하면서 그 종의 세계의 새끼를 번창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와 왕녀 중심삼고 왕권 아래서 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악마의 왕권 아래서 번식된 무리와 같은 것이 타락한 인류라는 것입니다. (302-220, 1999.6.14) p.1705

성서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인류 시조가 불륜한 사랑으로 사탄 마귀를 중심삼고 부자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직계 아들딸로 태어나야 할 가치적인 인간이, 사탄 마귀의 혈통을 받아 사탄의 아들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불러 양자되기를 기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정입니다. (53-258, 1972.3.1) p.1705

로마서 8 장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양자입니다. 양자는 핏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 장 44 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비라고 했으니 핏줄이, 조상이 마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양부를 찢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선악과예요? (154-337, 1964.10.5) p.1706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거짓 아버지인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아버지인 사탄 마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사탄의 아들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293) p.1706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냐? 악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타락이 뭐냐 하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데, 선악과는 과일이 아닙니다. 종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를 이을 아들과 딸을 낳아 길러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종으로 지었던 천사장이라는 녀석이 주인의 딸을 겁탈한 것이 인류의 타락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천지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내용을 여러분이 원리를 들으면 대개 알 것입니다. (85-308, 1976.3.4) p.1706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했는데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뭐냐? 기성교회에서 성경을 조금 더 지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대번에 타락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체가 부끄러운 것이냐? 하체를 왜 가렸느냐? 입을 가리고 손을 가려야 할 텐데…. 하체라고 흉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체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사랑을 유린한 부끄러움의 궁전이 되었다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참사랑의 샘이 솟아야 할 텐데, 악마의 사랑을 중심삼은 거짓 사랑의 샘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랑의 터전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랑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199, 1990.5.24) p.1706

아담을 쫓아낼 때 아들딸 낳은 다음에 쫓아냈겠어요, 낳기 전에 쫓아냈겠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아들딸을 데리고 있으면 쫓아낼 수 있습니까? 눈물을 더 많이 봐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쫓아냅니까?' 하고 붙들고 통곡을 할 텐데. 네 사람이 한 팔씩 붙들고 야단하면 그걸 다 칼로 잘라 쳐버려야 될 거 아니예요? 죄지은 아담과 해와는 모르지만,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이 그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아들딸 낳기 전에 내쫓은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후 임의로 결혼해서 새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낼 때 너희들 나가 결혼해서 아들딸을 낳으라고 훈시를 해서 내보냈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쫓아내 버렸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들은 쫓겨나서 아들딸을 낳았지요? (218-230, 1991.8.19) p.1707

끝날에 그것을 재편성해서 하나님의 한을 풀고, 천륜의 한을 푸는 동시에 인류의 한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뭐 선악과를 따먹고 어쩌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틀리거든 목을 매고 한 40 일 동안 기도해 보면 통일교회 문선생이 거짓말 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핏줄을 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자식을 번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156-228, 1966.5.25) p.1707

하나님은 음란을 미워합니다. 왜? 인간이 불법으로 사랑해서 천지를 뒤엎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악의 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세계에서는 독신생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자가 신령한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자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의 길을 막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불법적인 사랑으로 역사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교리 가지고 2 천 년까지 남아졌다는 것이 용한 일입니다. (41-292, 1971.2.17) p.1707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직계 장손의 자녀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담은 장손이고, 참아버지이고, 왕입니다. 지상나라와 천상세계의 왕입니다. 또 참부모이고 참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은 하늘나라의 왕실입니다.

그러면 아담 가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입장을 대신한 관점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대신이고, 또 하나님은 부모 대신입니다. 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1 대권, 2 대권, 3 대권을 중심삼고 가정에 착륙이 벌어지는데, 1 대권이 횡적으로 전개된 것이 할아버지이고, 2 대권이 아버지이고, 3 대권이 나입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중심삼고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실을 계대(繼代)받는 것입니다. (218-255, 1991.8.19) p.1707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해와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하나님도 부모의 자리에서 아들딸을 한번 사랑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해와와 같이 신랑과 각시가 좋아하는 사랑, 사랑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랑, 그 다음엔 나라 사랑 한번 해보고 싶고, 다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 갖고 싶은 것을 우리 인간 세계에 전수하신 것을 이어받은 것이 여러분의 족속이요, 여러분의 민족이요, 여러분의 나라요, 이 세계요, 이 땅이요, 저 나라 영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88-185, 1989.2.26) p.1708

타락하지 않고 완성의 자리까지 나갔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개인의 완성뿐만 아니라 우주사적인 완성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새 가정이 출발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씨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대가족 사회가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족 사회의 중심은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가정의 생활이나 일생의 노정이 역사적 전통으로 남습니다. 그의 생활방식 · 풍습 · 관습, 그리고 생활적인 배경이 역사적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얽힌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이상의 원천이기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 품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고, 떠난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19) p.1708

아담과 해와의 타락은 아담 해와만의 타락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류 역사를 총합한 입장에서의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선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악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부모로 말미암아 악한 자녀가 태어났고, 악한 자녀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종족, 악한 국가, 악한 세계가 형성되어 이 세계권 내에 50 억 인류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권 내에 있는 오늘의 인류 역사는 기쁨의 역사가 아니라 슬픔의 역사요, 인류도 기쁨의 인류가 아니라 슬픔의 인류임에 틀림 없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325) p.1708

이런 말을 어디 돈 주고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천년만년 제사 드려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은 통일교회 문선생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밀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은 없지요?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무슨 과실이에요? 그렇게 유치원생도 못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검증하고, 박사학위의 총회장이 된 문총재에게 이단(異端)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단이란 것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끝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238-213, 1992.11.22) p.1708

세상에서도 범죄한 자가 자기 죄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죄짓지 않은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조그만 소년이 그 사람이 죄 범하는 현장을 보았다고 지적할 때, 그 범죄자는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려면 사탄 마귀의 정체를 파헤쳐 죄상을 폭로하고 천상과 지상에서 추방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53-194, 1972.2.21) p.1708

하나님은 영원한 공법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탄을 끌어다가 참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을 고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변호하는 것을 보고, 검사의 입장에서 논고를 해 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들이 조여 놓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타락한 천사장 말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들이 '옳소! 과연 옳소! 옳소!'라고 해야 합니다. (65-201, 1972.11.19) p.1709

Top

④ 타락으로 사탄의 혈통을 받았다

아담과 해와는 타락 때문에 혈통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수요 간부인 사탄의 사랑에 의해서 사탄의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남자의 생명체, 여자의 생명체가 사탄의 사랑에 뒤섞여서 하나가 되고 그 둘로 인해 결실된 것이 아들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딸은 사탄의 사랑, 사탄의 생명, 사탄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227-47, 1992.2.10) p.1709

타락인간은 가짜가 되었기 때문에 접붙여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은 조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양자밖에 못 되었느냐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혈통적으로 되었다는 논리가 생긴 것입니다. 타락이 뭐냐? 혈통을 잘못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릇된 사랑으로 타락했다는 논리를 세워도 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사랑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말을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되어 있지요?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선악과가 열매예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열매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157-158, 1969.4.20) p.1709

아담과 해와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하나됐으니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사탄을 용서 못 하느냐. 살인강도도 용서하고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사탄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까닭이 뭐냐 하면, 인류의 핏줄을 더럽혔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탄은 간부입니다. 사랑의 간부입니다. (156-226, 1966.5.25) p.1709

아담과 해와는 사탄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랑, 사탄을 중심한 생명, 사탄을 중심한 혈통을 안 받았다고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부모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준 것과 같이 아담과 해와가 성숙한 후에는 불러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228-254, 1992.7.5) p.1709

몸을 치는 놀음을 왜 하느냐? 사탄의 피, 하나님의 원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입니다. 간부입니다. 간부의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아 황후가 될 수 있었던 해와가 악마의 배필이 됐고, 종의 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의 비밀인데 선생님 시대에 와서 비로소 폭로됐으니 사탄세계는 물러가야 됩니다. (172-277, 1988.1.24) p.1710

하나님은 왜 악마를 왜 미워합니까? 기독교의 논리로 말하면,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원수라고 하더라도 왜 사랑 못합니까? 사랑의 원수를 사랑하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치리법이 없어집니다. 존재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91-43, 1989.6.24) p.1710

사탄이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을 파괴하고 이상적 생명, 이상적 혈통을 유린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새끼를 낳아 놓은 것이 인간들입니다. 사탄의 사랑의 표시, 생명의 표시, 혈통의 표시인 그 아들딸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197-286, 1990.1.20) p.1710

사탄이 왜 지긋지긋하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도의 길을 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와서 목을 누르고 등을 타고 희생시키려는 놀음을 했겠습니까? 그놈의 사탄이 뭣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겁탈해 간 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본래 하나님을 모셔 평화의 왕국을 이루고 평화의 천지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아버지와 우리를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와 오늘날 인간을 이꼴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무슨 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156-226, 1966.5.25) p.1710

악마가 타락시킨 것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고 어디를 가렸어요? 입을 가렸어요, 손을 가렸어요? 하체를 가렸지요? 이것이 악을 뿌린 씨가 됐습니다. 틴에이저 시대, 성숙하지 못한 때에 타락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인간 세상의 핏줄이 거기서 뻗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종말시대에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아담과 해와같이 그늘 아래서 독자적으로 사랑의 윤리를 파괴시키고, 하늘땅 무서운 줄 모르는 때가 되거든 사탄의 전권 시대가 땅 위에 도래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철퇴가 목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200-227, 1990.2.25) p.1710

혈통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혈통을 받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183-308, 1988.11.7) p.1710

타락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인 천사장과 하나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할 인간이 종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타락적 근성이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상충적인 존재가 되어 종족과 민족을 이루었으니, 조금만 지나면 전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사탄 문화권입니다.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모두 갈라지는 것은 사탄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421) p.1711

혈통적으로 곡절이 맺혔기 때문에 6천 년이 걸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다 복귀합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이것이 고질이 되었으니 이놈을 한꺼번에 다 뽑으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 걸려 나온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155-295, 1965.11.1) p.1711

죄의 기반, 타락의 기반, 악의 기반, 지옥의 기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해와로 돌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왜 타락했느냐 하는 근원을 헤쳐 보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불신해서 타락했습니다. 둘째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셋째는 자기 중심삼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중심 골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같이하는 것은 사탄편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전부가 불신의 사랑이요,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이 세계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79-198, 1975.7.27) p.1711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누구라구요? 하나님의 간부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려주었는데 이걸 다 덮어 놓고 천국 가겠습니까? 덮어 놓고 구원받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패들.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같은 사람은 벌써 다 구원받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안 합니다. (188-230, 1989.2.26) p.1711

선생님 때에 와서 타락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128-88, 1989.2.26) p.1711

Top

⑤ 뱀이 꼬였다는 말의 뜻

여자와 남자의 그것이 뭐예요? 그게 독사입니다. 독사의 함정입니다. 뱀이 속였다고 하지요? 뱀이 꼬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식기를 말한 것입니다.

여자의 생식기, 독사보다도 무서운 생식기가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남자의 생식기, 독사 같은 생식기로 꼬여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 물었다가는 큰일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합니다. 하늘나라가, 영생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227-372, 1992.2.16) p.1712

지구상에 생존하는 여자와 남자는 다 사탄의 산 독사입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남자의 자리에서 독을 뿜는 독사입니다. 잃는 날에는 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식기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성난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손을 들이밉니까? 그 사랑의 생식기를 집어넣어요? (272-37, 1995.8.30) p.1712

혈통권을 잘못 쓰면 큰일납니다. 혈통권을 쓴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그것을 잘못 쓰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바른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동산의 그 뱀이 무엇인 줄 알아요?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그건 독사의 입입니다. 입 벌린 독사입니다. 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연결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천국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생식기는 뱀의 입이요, 독을 품은 열린 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잘 꾸민 여자는 아름다운 뱀이라는 것입니다. 뱀은 주변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뱀의 입과 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생식기입니다. 원래는 그런 독을 가진 나쁜 혈통이 아니고, 독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 쓰면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권위고 뭐고 다 망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독이에요? 독을 품은 뱀의 열린 입이라는 것입니다. (228-31, 1992.3.1) p.1712

생식기가 뭐, 뱀이 뭐라구요?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그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화약 심지에 불붙여 놓고, 휘발유까지 뿌렸는데 까딱하면 폭발되기 때문에 경고한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뱀과 같습니다. 여자들 가서 남편 것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노골적인 얘기를 해야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이 무엇이라구요? 천사장의 생식기입니다. 실감나지요? 끝날이 다 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그런 면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그건 뭐라구요? 입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흥분하고, 서로가 흥분하면 그것이 벌어지지요? 그게 가만있습니까? 장가가는 것은 그거 맞추는 거 아니예요? 그거 잘못 맞추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독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304-270, 1999.11.9) p.1712

모든 여자와 남자는 아주 멋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관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독을 품은 뱀입니다. 에이즈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연결되면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생식기로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쁜 곳이 그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호랑이보다, 사자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한번만 잘못 써도 멸망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228-31, 1992.3.1) p.1713

뱀이 뭐냐 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독사의 대가리와 비슷하지요? 항상 구멍을 찾아 다닙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마치 입 벌린 독사의 굴과도 같습니다. 한번 물거나 물리면 그 독이 온몸의 핏줄에 퍼져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음란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종족, 국가가 파탄되는 길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남자들이 그것 가지고 여자들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304-162, 1999.10.10) p.1713

인류가 이렇게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화약통이라면 그런 화약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세 시간에 한번 화장실에 가면 24 시간이면 여덟 번은 화장실에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뱀 대가리야. 나와!'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진짜 생식기라면 거룩한 생식기입니다.

미인이 와서 별의별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동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경배가 아닙니다. 숭배라는 것은 경배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복종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걸 훈련받았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아들딸이 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하라는 말은 곧 생식기를 주관하라는 말입니다. (304-270, 1999.11.9) p.1713

남자의 생식기가 타락 전 천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혓바닥을 놀려 속이고, 꾀어서 완전히 지옥에 처넣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뱀 대가리 같은 것을 중심삼고 다시 타락시키는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뱀이 문다는 것입니다. 뱀을 시켜서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를 잡아먹는 것이 그것밖에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기관입니다. 그것이 천사장, 뱀 대가리 같은 남자의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287-116, 1997.9.19) p.1713

근본이 어디냐 하면, 여자와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자체가 독사의 이빨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리면 한 가정이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문 집안이라도 그거 잘못 쓰면 순식간에 깨져 버립니다. 설사 왕족이라 하더라도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끝날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29-25, 1992.4.9) p.1713

Top

2) 타락의 결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타락인간과 타락한 세계의 모습

㉮ 청소년 문제와 프리섹스

아담과 해와가 청소년, 틴에이저 시절에 나무 그늘 아래서 그렇게 타락한 것이, 세계사적으로 열매 맺는 심판의 끝날이 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세계의 청소년들이 프리섹스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프리섹스가 뭐냐? 악마의 소돔과 고모라의 함정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거기서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다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디스코 춤을 춰요? 트위스트는 뱀춤입니다. 뱀이 꼬지요? 트위스트는 꼰다는 말입니다. 악마가 뿌린 대로 세계에 이것을 창궐시켜서 인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208-263, 1990.11.20) p.1714

음행에 의해 타락했으므로 끝날의 시기에는 그대로 됩니다. 청소년들이 모두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선조가 그렇게 씨앗을 뿌렸으니 수확기에는 그처럼 청소년들이 세계를 커버하고, 세계를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오늘날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프리섹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프리섹스를 누가 주장했습니까? 아담과 해와입니다. 타락했으니까, 프리섹스의 선조는 아담과 해와입니다. (257-60, 1994.3.13) p.1714

에덴에서 프리섹스로 타락했지요? 아담과 해와가 프리섹스를 했지요? 끝날에도 프리섹스입니다. 이걸 구하지 않으면 전부 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 선생님의 생애입니다. 그것을 꿰매 가지고 건너갈 다리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빠집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전부 거기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 태평양 건너가는 이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다리를 못 놓습니다. 강을 건너간 다음에는 그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탕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절대섹스, 절대 사랑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81-293, 1997.3.9) p.1714

디스코 댄스, 무슨 술 바가지, 담배통, 그것 다 관계없습니다. 프리섹스, 관계없습니다. 호모섹슈얼, 레즈비언, 독신주의자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도 태연하게 자기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지구성이 아무리 이동한다 하더라도 동서남북이 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가 가는 방향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일 한번 해 놓으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206-62, 1990.10.3) p.1714

동서사방으로 몰아치는 이 프리섹스, 음란의 물결을 누가 막을 거예요? 향락주의, 말초신경의 향락을 찾아 나가는 이 물결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마약도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해 마약, 환각제를 찾아가는 인종지말이 됐습니다. 그게 몸뚱이에요, 마음이에요? (200-227, 1990.2.25) p.1714

지금 미국에 있어서 아이러니컬 한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는 프리섹스가 만연해 있는데도 자기 집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는 하늘 편입니다. 집을 떠나기 때문에 혈족을 벗어날 수 있고, 나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세계가 없고, 나라가 없고, 가정이 없고, 부모가 없습니다. 프리섹스를 중심삼고 호모섹슈얼이니 레즈비언이니 해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1세기 이내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악마의 마법에 걸려 신음하는 이 인류의 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이겁니다. (208-265, 1990.11.20) p.1715

히피, 이피 운동이라든가 현실에서의 윤락문제, 마약문제 등이 전부 공산주의들의 세계 전략의 한 일면으로 나타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 프리섹스라든가 호모섹스라든가 레즈비언 무브먼트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인간 권리, 인간 권위를 파탄시키는 하나의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 기반을 중심삼은 파탄, 사회 기반, 교회 기반을 중심삼은 파탄 형태가 이미 극에 도달해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국가의 어떤 힘 가지고도 방어할 수 없는 현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128-33, 1983.6.1) p.1715

미국을 내가 잘 압니다. 이 미국은 프리섹스니 뭐니 해 하루 저녁 좋아하고는 굿바이하는 사랑을 합니다. 전부 개인주의고, 자기 변명주의고, 나 위주 아니면 싫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외교적 인사이고, 눈을 마주치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외교적 인사입니다. 전부 적당주의에 의한 감정, 생활풍습입니다. (127-328, 1983.5.22) p.1715

사탄은 어떤 무기를 이용했느냐? 공기 무기를 이용했습니다. 그게 담배입니다. 다음에 액체 무기는 술입니다. 그 다음에 고체 무기는 마약입니다. 이래 놓고는 정신까지 전부 썩혀 놓습니다. 몸뚱이 썩히고, 정신 썩히고, 콧구멍으로 폐를 다 썩혀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먹는 것입니다. 담배를 안 피웁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신과 통할 수 있는 정신을 방해하는 요소인 이 세 가지는 원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사랑입니다. 프리섹스, 사랑의 질서를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 손으로 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126-70, 1983.4.10) p.1715

프리섹스, 호모섹슈얼, 레즈비언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날이 되면서 인간 역사상에 없던 것들이 노골적으로 태양 세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도 전부 완전히 파멸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지옥의 맨 밑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마약을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의 생리적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청년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도의니 질서니 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125-168, 1983.3.20) p.1715

오늘날 성 해방이니, 프리섹스니 해서 추악해진 이 세계를 문총재의 손으로 전부 뜯어고쳐서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총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나밖에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참사랑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교회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믿어도 여러분의 아들딸은 틀림없이 그런 길을 갈 수 있게끔 채찍으로 몰아서라도 안내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통고하는 바입니다. 기성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주사약이 있습니까? (209-222, 1990.11.29) p.1716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사랑을 하지 말고, 인류에게 부끄러운 사랑을 하지 말고, 이 땅 덩어리에게 부끄러운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서 히피니 이피니 뭐 프리 섹스 패들 전부가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고, 별의별 일이 있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파탄시키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해 버리고, 지구성에 사랑의 피를 토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땅 덩이에 피를 토하게 하는 것과, 인간 본연의 피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춤을 추고 뭐 어떻고 야단입니다. (93-29, 1977.5.8) p.1716

끝날에 하나님이 지상천국을 형성하고 수습해서 천상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리섹스를 중심삼고 하나밖에 없는 첫사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똥개 사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똥개 사랑의 천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70 년 역사입니다.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프리섹스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약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환락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만족에 취하다 보면, 지옥의 직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청산하느냐? 바로 문총재입니다. 참부모가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227-279, 1992.2.14) p.1716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을 중심삼고 쌍쌍으로 연결됩니다. 그 사랑을 빼 버리면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사랑의 세계에는 개인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쌍쌍 개념입니다. 곤충의 세계에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양상입니다. (287-60, 1997.8.31) p.1716

Top

㉰ 성도덕의 문란

미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고위층의 사람들이 성해방이라는 명제 아래 자기 친구들이, 변호사면 변호사협회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회의하고는 어느 호텔 들어가서 서로 여자를 바꿔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일주일만 지나면 자기의 모든 친구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1-220, 1989.6.25) p.1716

남편 없는 여자가 화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거리의 매춘부입니다. 거리의 매춘부들이 그러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루즈를 바르고 다니는데, 루즈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의 본연의 자연색이 아름답습니다. 천년을 봐도 밉지 않고 아름다운데 말입니다.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상의 빛깔을 낼 수 없습니다. 루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275-136, 1995.12.4) p.1717

가정이 망하면 근본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 가정 파탄입니다. 완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끝날에 여자들은 두 남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해방이라는 말도 나오고 말입니다. 그것을 다 꿰매 가지고, 누더기를 꿰매 비단 옷 이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혀 드려야 할 것이 참부모의 책임입니다. (304-166, 1999.10.10) p.1717

시카고도 뉴욕과 마찬가지요, 로스앤젤레스도 뉴욕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성문란, 성해방을 중심삼고 기독교의 중심되는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켜 놓으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기반 닦아 놓은 것이 몽땅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프리섹스라는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87-137, 1976.5.23) p.1717

지금 미국에서의 청소년 윤락문제를 미국 정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군사력 가지고, 경제력 가지고, 과학기술 가지고 안 됩니다. 요즘에는 성해방이라 해서 별의별 요사스러운 일이 다 벌어지지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는 참사랑이 이러니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남자와 부딪혀도 절망이고, 아들과 부딪혀도 절망이고, 부모와 만나도 절망이고, 어디 가든지 만나면 절망입니다. (183-337, 1988.11.9) p.1717

세상이 난장판이 되다 보니 에이즈라는 병이 생깁니다. 성해방이라 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 본심은 그걸 찾아서 호소하는데 그걸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 세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때려부수는 것입니다. (210-280, 1990.12.25) p.1717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성해방이니 뭐니 해서 남자의 혼란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족 상간관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파괴와 사랑의 현상이 벌어진 것은, 하늘 앞에서는 용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볼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92-175, 1998.4.12) p.1717

부부가 완전히 하나될 때는 천운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운, 사회의 운, 국가의 운, 세계의 운, 하늘땅의 운, 하나님의 사랑의 운세가 첩첩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깨는 것을 세상이 가만두겠어요? 그 종자가 멸종되는 것입니다. 천운의 보호를 받던 그 자리를 파탄시키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성해방을 말하는 이 세계를 내 손으로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정리해 왔고, 미국 사회도 문총재 외에는 그것을 치리할 수 있는 박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11-268, 1990.12.30) p.1718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다는 소문이 들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소문까지 들려오느냐? 자식이 어머니와 산다는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어 봤어요, 못 들어 봤어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소문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 세계에서는 인간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뭐 사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삼촌, 어머니를 가려요? 개는 새끼와 어미가 교미해서 또 새끼를 낳아요, 안 낳아요? 인간세계에 그런 때가 오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39-123, 1971.1.10) p.1718

요즘에는 독신생활을 강조합니다. 또 호모섹슈얼(homosexual;남자 동성애)이니 레즈비언(lesbian;여성 동성애자)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호모니 무엇이니 이것이 왜 그러냐? 그렇게 안 될 수 없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유린합니다. 자진해서 유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유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근친상간 관계니만큼 어차피 성개방이라는 시대, 프리섹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접촉하는데 그것이 먼 동네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 관계에서 벌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261-44, 1994.5.22) p.1718

지금 뉴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최고의 부자와 최하급만 남아 있지, 등뼈와 같은 중류계급은 완전히 보따리 싸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작년 1년만 해도 60만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류계급은 다 사탄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매춘부들이고, 성개방이라 하여 문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잡한 뉴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도망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호텔이란 호텔은 전부가 창녀들이 매춘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87-135, 1976.5.23) p.1718

Top

㉱ 동성애

우리 통일교회 사람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세계의 모든 악한 일을 다 소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에서 게이 무브먼트(gay movement;동성애운동)라 해 가지고, 호모섹스니 무엇이니 하는 문제가 벌어진 것을 내가 소화시킬 것입니다. 프리섹스라는 것을 내가 소화시킬 것입니다. 윤락문제, 모든 깡패소굴, 악당들, 테러들, 마피아 등을 내가 소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공산당을 내가 소화시킬 것입니다. (109-34, 1980.10.26) p.1719

미국에는 게이 무브먼트가 많잖아요? 호모섹슈얼들이 많잖아요? 그 놈의 자식들은 다 창조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원리를 아는 통일교회 교인들은 결혼 안 하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게이 무브먼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나가서 춤추면서 프리섹스해서 분해되고, 땅땅 다 깨져 가지고 집안이 다 망했지만 여러분들은 암만 춤을 추고 그러더라도 타락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섹스 될 수 있습니까? (118-109, 1982.5.9) p.1719

호모섹슈얼을 할 수 있는 법을 정하겠다구요? 법을 정해요, 법을? 그건 태양을 보기도 부끄럽고, 나무를 보기도 부끄럽고, 초목을 보기도 부끄럽고, 개새끼를 보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 그거 어떻게 인간과 같이 옷을 입고 살아? 밥을 먹고 살아? 호모섹슈얼러티를 하는 패들은 다 이단자라고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118-295, 1982.6.20) p.1719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뭐냐? 호모섹슈얼러티니 레즈비언이니 이런 것이, 상대를 부정할 수 있는 문화세계가 미국에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상대가 있나요? 남자는 옛날에 하나님을 배반한 해와를 따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지지하는 해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 여자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여자가 여왕입니다, 여왕. (119-246, 1982.9.13) p.1719

혼자 사는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여기에 레즈비언 여자와 호모섹슈얼 남자가 모였다면 선생님 말을 듣고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거 틀렸다고 레버런 문을 반대할 수 있나 말입니다.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원한 속성을 가진, 유일하고 불변의 속성을 가진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참사랑의 주체를 만날 수 없고, 참사랑의 길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24-86, 1983.1.30) p.171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호모섹슈얼, 레즈비언을 누구 손으로? 레버런 문, 내 손으로, 전부 살아서 송장되어 가는, 다 마약에 병들어서 죽어 가는 이 젊은이들을 누구 손으로 해방합니까? 내 손으로 해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섹스를 주장하고, 도박장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방해 주느냐? 미국 기독교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 교회 목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공산당을 누가 막아요, 공산당을? 레버런 문이 막을 것입니다. (124-86, 1983.1.30) p.1719

미국의 호모섹슈얼리스트나 레즈비언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것은 억측적 사랑입니다. 하면 할수록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파괴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인간 파탄, 가정 파탄, 자녀 파탄, 국가 파탄, 세계 파탄, 우주 파탄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파괴되면 자연히 없어집니다. 인간이 그렇게 될 때는 이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25-68, 1983.3.6) p.1720

지금 미국에 레즈비언이니 호모섹슈얼이니, 게이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병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사는 데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보통 부부에게 없는 병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칙을 파괴시키는 그런 성병은 벌입니다. 그래서 센터 러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센터 러브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센터 러브가 뭐예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건 영원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를 부정해서 보강할 수는 있어도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128-68, 1983.3.6) p.1720

요즈음엔 뭐 호모섹슈얼이니 레즈비언이니 해 가지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1세기도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한다 이겁니다. 미국의 문화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면 파괴적이요, 멸망할 수 있는 사탄 사랑의 문화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사랑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것을 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는 사탄 사랑 문화권에 있습니다. 통일문화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 사랑 문화권에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프리섹스 절대 반대입니다. 호모섹슈얼 절대 반대입니다. 마약도 절대 반대입니다. 전부 다 반대입니다. (134-14, 1985.1.1) p.1720

미국 여자들은 '우린 늙은 부모 필요 없어요.' 합니다. 늙은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 조부모를 말하지요? 끝날에 사탄이 그걸 만든 것입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식을 만들고 싶어하는데 사탄은 그 기반을 부수려 듭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남편이 필요 없어! 마누라도 필요 없어!' 이럽니다. 그것 참 즐거운 제도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호모섹슈얼리티, 레즈비언 이것들은 다 사탄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애기가 필요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135-115, 1985.10.4) p.1720

지금 마약을 먹고, 호모섹슈얼이니 레즈비언이니,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 지옥입니다. 그런 그물에 걸려서 사탄에게 밥이 되어 들어가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무니가 아니고 누가 구해 주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없습니다. (149-377, 1986.12.28) p.1720

남자와 여자는 횡적입니다. 수평입니다. 종적인 사랑이라는 터전을 중심삼고, 영원한 사랑을 중심삼고, 일생 사랑을 중심삼고 접붙이기 위한 것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동쪽 사람, 서쪽 사람이 중앙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들어가 이것을 접붙이려니 결혼은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미국에는 많지요? 호모섹슈얼이라든가 레즈비언 같은 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들딸 낳는 것 싫어하고 말입니다. 아들딸 못 가진 사람은 영계에 가서는 불합격자입니다. 그건 우주의 공식입니다. (163-88, 1987.4.19) p.1721

두고 보십시오. 요사스러운 프리섹스는 한날에 없어집니다. 호모섹슈얼도 한날에 없어집니다. 레즈비언,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 동물세계의 곤충새끼들도 안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요사스러운 것들도 다 꺼져 버려야 합니다. 유물사관이 다 꺼져 가는 것입니다. (188-157, 1989.2.19) p.1721

남자는 여자에 지치고, 여자는 남자에 지치고, 매일같이 사랑에 굶주려 돌아다니다 보니, 언제나 외로워 가지고 전부 호모섹슈얼이나 레즈비언이 되어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편을 먹고 전부 자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미국 국무성, 국방성이 책임지겠어요? 대통령이 책임져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207-111, 1990.11.1) p.1721

미국은 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말세에 천사장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로서의 자격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섹슈얼이니 레즈비언이 나와서 '여자들끼리 결혼하자, 남자들끼리 결혼하자!'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은 파트너십(partnership;상대관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반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기의 길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레즈비언이라든가 호모섹슈얼, 가정 파괴라는 것을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240-155, 1992.12.11) p.1721

급증하는 이혼율은 미국의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1970 년부터 1990 년까지 3 배나 뛰어 올라 6 가정당 1 가정은 이혼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0 퍼센트의 자녀들이 편부모 아래 자라나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 부부라는 세기말적 기현상마저 가일층 번져가고 있습니다. (288-197, 1997.11.28) p.1721

부도덕과 음란, 그리고 퇴폐풍조는 향락주의와 함께 가정을 조직적으로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현대인의 생각에는 전통적인 가정 이외에 동성애의 사람들도 또 다른 유형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들이 양자나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88-171, 1997.11.27) p.1721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를 가보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동성애자가 많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생리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대에 전멸되어 버립니다.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운이 추방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더 복잡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243-74, 1993.1.3) p.1722

프리섹스야말로 이 지구성에서 완전히 근절시켜야 할 사악한 풍조입니다. 이 프리섹스와 관련된 요소들은 마약·폭력·동성애·에이즈 등과 같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인자들일 뿐입니다. (288-283, 1997.11.30) p.1722

오늘날 호모섹슈얼리스트나 게이 같은 패들이 생겨나고,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고, 남편들도 별의별 짓 다 하고, 여편네들도 별의별 짓 다 하는 것은 우주의 천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형법에 의한 치리를 저나라에 가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106-112, 1979.12.16) p.1722

Top

㉱ 근친상간

근친상간 관계를 중심삼은 프리섹스, 호모섹스, 레즈비언 등 망국지종으로 멸망의 세계에 이르니 하나님이 최후의 철추를 내린 것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8 년에서 1 년 동안 잠재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들, 2 세된 아들딸의 며느리 사위를 잘 얻을 자신 있습니까? 똑똑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가, 일족이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국에까지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무지몽매한 한국의 청년들이 '그게 좋구나!' 하면 멸망의 무저갱으로 거꾸로 꽂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근친상간 관계를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고, 세계를 망하게 했느냐? 오시는 재림주님은 영원 불변한 혈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 대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상하신 그 혈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걸 사탄은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망쳐 놓았지만 레버런 문은 이걸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통일교회 문선생이 아니면 모르는 것입니다. (251-204, 1993.10.17) p.1722

통일교회는 하늘을 위한 주류입니다. 주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럽혀진 죄악 세계의 모든 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 프리섹스니 호모섹스니 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것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40 년 동안 어떻게 해서 근친상간, 프리섹스의 세상이 되었느냐? 프리섹스를 방어할 전문가는 누구냐?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시는 재림주입니다. 재림주를 중심삼고 이 끝에서 전부 돌아가야 될 텐데, 오시는 주인공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40 년 동안 다시 돌아올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미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근친상간이지요? 근친상간 관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본처가 전통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첩이 계승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첩들이 피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혼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2 차대전 이후에 여권운동과 더불어 분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혼도 할 수 있는 자유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상이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254-59, 1994.,2.1) p.1723

근친상간 관계가 온다는 것은 절대 근친상간 관계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뜻의 세계가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세계는 하나님의 뜻의 때가 오는 것을 망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뜻에 가까운 때가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은 거기에 반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61-44, 1994.5.22) p.1723

끝날에 이혼시대가 오고, 미국이 신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혼란된 입장에 처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가정에서 이루어져 해결될 것인데, 예수 가정을 추방하고, 재림주를 추방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미국, 해와 국가, 자유세계는 중심 존재를 추방했기 때문에, 프리섹스 권내에 말려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져 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와서 이 길을 돌려만 놓으면 해결될 텐데 재림주를 추방하니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 근친상간 관계 · 프리섹스 · 호모 섹스 · 레즈비언 · 마약시대로 지옥 팽창세계가 돼 버린 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탕감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266-194, 1994.12.25) p.1723

끝날에는 무슨 시대가 오느냐? 근친상간 관계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구요? 사가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신으로 잉태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무정란을 알아요? 씨가 없는 알입니다. 계란은 마찬가지인데 씨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인간은 무정란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습니다. (274-256, 1995.11.3) p.1723

마리아는 자기 언니 남편을 도적질했고, 그 아들 예수는 이복누이동생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친상간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날에는 도인들이 자극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누이동생을 겁탈하는 것이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 가정은 끙끙 앓으면서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날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뭐라구요? 근친상간입니다. 그것이 신부 된 기독교의 삶입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환경의 세계적 가정을 중심삼고, 신부된 기독교를 중심삼고 그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바꿔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람들이 첩이 정처가 되고, 정처가 첩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74-289, 1995.11.3) p.1723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기의 형님의 남편을 빼앗고, 또 아들은 자기 동생과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파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것에서 근친상간 관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혼음 사건, 프리섹스 관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275-295, 1996.1.1) p.172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마리아가 해와의 사명을 못한 것입니다. 복귀해방! 그런 것도 모르는 기독교는 끝날에 추풍낙엽, 심판 때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세상에 심판적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전부 다 불신사랑을 심판하기 위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전세계는 프리섹스,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뭐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살고,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데리고 살고, 어머니가 아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종입니다. (285-111, 1997.4.21) p.1724

근친이 누굽니까? 부자의 관계, 부부관계, 제일 가까운 사랑의 관계부터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 악한 그 세계의 사랑의 흔적을 남겨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때려치우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딸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과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오빠하고, 누이하고, 형제끼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근친상간 관계의 상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친, 절대 이상적 상대 관계를 상간 관계로 삼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 수 있는 발판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286-136, 1997.8.9) p.1724

근친상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탄과 짝꿍이 된 것입니다. 어느 미국 사람도 그걸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섭리적인 관입니다. 알겠어요? 전부 다 인생관을 180 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국가, 민족, 종족, 가정 · 개인이 다 없습니다. 전부 다 타락해 사탄과 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 움직이면 인류가 다 타락,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관점입니다. (285-171, 1997.5.1) p.1724

세례 요한도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비법적인 첩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했지만 가만 돌아보니 '세상에, 하나님이 전통적 메시아를 보냈는데 첩 자식을 보내다니!' 한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면, 예수는 자기 동생과 결혼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자기 형님의 남편을 빼앗고, 이게 뭐냐 하면 근친상간 관계입니다. 이게 드러났다가는 완전히 사가랴 가정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268-39, 1995.2.7) p.1725

왜 40 년 동안에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구요? 재림주 아니면 모릅니다. 근친상간 관계의 해제 방법, 해결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재림주 아니면 모르는데, 그 분을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근친상간 관계가 이 지상의 보통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물들어 사탄과 함께 지옥 확장세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문화도 원래는 이끌고 돌아야 하는데, 기독교 문화조차도 배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통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느냐? 이혼문제라든가 근친상간 문제는 이러한 탕감복귀원칙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일본땅으로 돌아가 이 내용을 빨리 가르쳐서 복귀를 앞당겨야 하는 것이 해와의 사명입니다. 해와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258-228, 1994.3.17) p.1725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의 누이동생은 예수의 누이동생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자매, 이종사촌간입니다. 언니의 남편인 사가랴가 마리아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친관계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재림주입니다. (258-81, 1994.3.16) p.1725

마리아 자체가 자기 언니의 남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동생과 관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친상간 관계의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결말, 탕감원칙의 결말을 봐야 하는 이러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재림주, 참부모밖에 모르는데 그 분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40 년간에 그 근친상간관계를 사탄적으로 확장하여 지옥세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58-81, 1994.3.14) p.172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딱 하나되었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 안 되어도, 사가랴가 반대하더라도 꼼짝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반대했다면, 저런 사건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형부에게 붙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동조할 수 있습니까? 근친상간관계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51-249, 1993.10.31) p.1725

요셉이 마리아를 대해서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복중에 있는 애기가 누구 애기라는 것을 그때 말했으면 일족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성신으로 잉태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애기를 배면 돌로 때려죽였지요? 이건 근친상간관계입니다. 일족이 싹쓸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세례 요한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러한 관계로 태어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몰랐겠어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곁다리로, 근친상간 관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라구?' 한 것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렇게 똑똑히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전부 다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합니다. (251-249, 1993.10.31) p.1726

탕감복귀 원칙에서 그런 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동생을 색시삼겠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의 동생이 예수 앞에 누굽니까? 자기 누이동생입니다. 배다른 누이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할 가정에 있어서 최후에 남은 근친상간 관계를 이대로 밟지 않고는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부국가인 미국과 자유세계가 기독교를 중심삼고, 신부의 터전을 갖춰 오시는 재림주를 맞았다면, 여기서 돌아갈 줄을 아는 것입니다. 오시는 신랑을 쫓아 버리니까 악마는 이걸 타고 근친상간관계를 확대해 놓은 것이 프리 섹스가 돼 버렸습니다. 근친상간 관계가 돼 버렸지요? 근친상간 관계의 자리에 가서 전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주님을 모시고 신랑과 하나되었더라면 천국으로 돌아갈 길을 알 텐데 오시는 주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쫓아냈으니 악마는 자기편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이상하는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멸망의 도가니로 쓸어 버렸습니다. 요새 에이즈로 전인류는 멸망을 예고한 자리에 들어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251-202, 1993.10.17) p.1726

엘리사벳이 자기 남편 앞에 이종사촌 마리아를 소개해 주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진국 미국이 이와 같은 과정을 끝까지 갔다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겨나지, 그냥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근친상간 관계가 왜 나오느냐? 자기 형님의 남편을 동생이 겁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친상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가정에서 레아를 집어넣은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탕감법에 타락한 해와가 없으면 복귀시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자세계에서도 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251-196, 1993.10.17) p.1726

엘리사벳이 성령이나 하늘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 남편과 자기 동생을 관계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이스라엘의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기독교 신부의 입장에 있는 미국이 재림주를 맞이했다면 하늘에 돌아갈 길을 알 터인데, 재림주님을 쫓아 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주인이 되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니, 근친상간이나 프리섹스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250-200, 1993.10.14) p.1727

마리아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는 자기와 같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형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그런 관계를 허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근친상간으로 불륜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가랴 집안에서 언니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248-144, 1993.8.1) p.1727

오늘날 끝날에 근친상간을 중심삼고 미국의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알아요? 이런 중심 존재를 중심삼고, 역사가 이것을 축으로 해서 전부가 딴 세계로 돌아가야 될 텐데, 본처를 추방해 버리고 없애

[텍스트 입력]

버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나가니 전부 다 패망적인 망국지종이 돼 버렸습니다.
근친상간 · 프리섹스 · 호모섹슈얼 · 아편 왕국 시대가 되어 다 썩어 버렸습니다. 근친상간 관계에 의해서 예수의 근원적 혈족 기준을 그렇게 바꿔쳐야 할 운명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만약 이렇게 됐더라면, 여기서 직계의 예수를 중심삼고 이것이 장자권 플러스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어, 이들이 하나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국가적 기준에서 안 됐기 때문에 세계적 종말시대에는 그와 같은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262-212, 1997.7.23) p.1727

Top

② 잘못된 성개방문화, 어떻게 수습할까?

㉮ 사랑의 질서가 문란한 끝날

참사랑이 귀한 것이므로 참사랑을 유린하는 것은 우주적인 범죄가 됩니다. 불륜?청소년들의 윤락, 가정파탄 · 근친상간 · 동성연애, 형언할 수 없는 성범죄 등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을 서럽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이상이 숭고하고 영원한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이상의 성취에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세를 당하여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결과가 그대로 결실됨으로써, 즉 심은 대로 거두는 세기말적 작태를 나타냄이라고 하겠습니다. (135-12, 1985.8.20) p.1727

미국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미국에는 참사랑의 기반이 없다 이겁니다. 나중에는 사랑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커플이 파괴되고, 형제관계가 파괴되고, 부자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로 포인트(zero point;영점)가 되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 월드 언더 갓!' 거기에 어떤 컬러도 없고, 어떤 장벽도 없고, 어떤 습관도 전통도 없어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주의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컨셉입니다. (293-152, 1998.5.26) p.1727

이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완전히 파탄시킨 것입니다. 프리섹스로부터 호모섹슈얼, 근친상간 관계로 전부 망쳐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극복해야 됩니다. 지상지옥이 되어 있으니 180 도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없이 180 도를 중심삼고 이상적 가정 토대 위에 이상적 국가가 벌어지고 이상적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61-284, 1996.6.20) p.1728

프리섹스는 악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이 지상에 흔적도 없게끔 발을 못 들여놓게 하려는 파괴적인 작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약을 통해서 정신이상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데서는 정상적인 입장의 천리의 대도의 원칙, 모든 사랑의 꽃, 사랑의 부부 이념을 찾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귀의 이상을 이루겠어요? 40 년 내에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253-303, 1994.1.30) p.1728

프리섹스와 근친상간관계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 때에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 재림주님이 와서 반드시 근친상간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시는 주님을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자유세계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부 벼랑에 열을 서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설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있었으면 저렇게 안 됩니다. 자유세계가 선생님을 쫓아내 가지고 40 년 동안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252-139, 1993.11.14)

여자 혼자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 여자들이 '나는 싫다. 나는 결혼 안 한다, 결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아이는 갖고 싶다!' 그러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조부모가 필요 없고, 부모가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 없고, 형제가 필요 없고,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지고 혼자는 살 수 없으니 남자끼리 붙고, 여자끼리 붙어 가지고, 뭐 위로? 그게 위로의 방법이에요? 어디서 근친상간이 출발했어요? 그 배후가 프리섹스입니다. (248-111, 1993.8.1) p.1728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남자나 여자는 동물적 인간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제에 있어서는 동물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 하면,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살고, 삼촌이 질녀를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 사랑권 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멸적 환경을 중심삼고 세상이 무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한집에 살면서 딸이 아버지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근친상간 관계가 20 퍼센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208-304, 1990.11.21) p.1728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애인을 빼앗아 새끼를 쳐 놓은 것을 찾아가 악마 옆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음란으로 망했고, 미국도 이제 음란으로 망합니다. 폼페이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음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3 대가 혼란이 벌어지는 근친상간의 흔적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20 퍼센트가 그렇습니다. 이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197-265, 1990.1.19) p.1729

미국이 왜 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근친상간관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20 퍼센트입니다. 이놈의 나라!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살고, 아버지는 아내가 있는데도 딸을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말세적 망할 징조가 다 찼으니 하늘로부터 원자탄이 투하되어 직격 폭탄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는 이 무서운 것을 모르는 선진국가들, 거기에 나와 통일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교회 없으면 수습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201-165, 1990.3.30) p.1729

남자는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기 딸과 자기 어머니까지도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족에 의한 근친상간 문제가 20 퍼센트가 넘습니다. 사탄이 할머니로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기 동생, 자기의 딸까지 교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러한 사탄권을 전멸시키기 위해 지옥 전체를 포위하는 작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227-71, 1992.2.10) p.1729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왼쪽, 사탄세계가 이겼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란서 혁명, 인본주의를 거쳐 무신론적 물본주의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방하고 인간을 추방하고 물건까지 추방해 가지고 따라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민주세계에 있어서 황금만능을 자랑하는, 기독교문화권의 은사를 몰라 가지고 하늘 앞에 갚을 줄 모르는, 인간적 책임 못한 이것이 동물적 인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문화 배경을 중심한 가정에서 근친상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악마의 제물이 되어 썩어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214-243, 1991.2.2) p.1729

아담은 10 대에 타락했습니다. 부모님의 승낙 없이 나무 그늘에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심었으니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10 대가 세상의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전권시대로 왔느냐? 그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오시는 참부모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262-212, 1994.7.23) p.1729

한국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이 뭐냐 하면 종족권입니다. 선조를 숭배하고 하나의 전통을, 순수혈족의 계대를 잇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아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불륜배들이 안 나오게끔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근친상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아비가 손녀를 데리고 살지 않나, 애비가 딸하고 살지 않나, 오빠가 여동생하고 살지 않나,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바람이 불어 가지고 종씨, 팔촌들끼리 결혼을 하고 이 난리입니다. 이것을 사하고 처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깨끗한 종족을 잇는 전통을 지켜 민족의 도덕관념을 계승, 양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213-154) p.1730

Top

㉯ 절대순결, 혈대를 더럽히지 말라

천대 만대 순결을 지키는 혈대를 하나님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천대 만대 직계 혈통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소망이요, 인류 시조인 아담 해와의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통적인 사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절대적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못 되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종파 싸움, 수많은 종교 싸움, 수많은 국가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249-188, 1993.10.10) p.1730

참부모는 아담과 해와가 실패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부모의 자리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심었기 때문에, 부모가 수확해서 나쁜 것은 불에 태우고, 좋은 것은 창고에 넣어 만민이 요구하는 씨를, 분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의 말씀입니다. 참사랑의 말씀입니다. 순결한 혈통의 말씀입니다.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이외에 인간으로서 찾을 길은 없습니다. 그 이외는 다 사라져 가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영원의 생애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원리 말씀은 그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256-28, 1994.3.12) p.1730

본연의 혈통을 잃어버린 데서는 심정 문화가 안 생깁니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성을 통해 연결됩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사회를 중심삼고, 국가와 세계를 중심삼고 이것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 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순결한 혈통을 남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들과의 심정문화 세계가 중단됩니다. 심정 문화세계가 안 되면, 저 방대한 천국이 내가 살 수 있는 심정적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 세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 문화권을 중심삼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0-305, 1994.5.19) p.1730

타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했느냐 하면, 음란으로부터 타락했다는 결론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론을 말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음란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순결의 신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혈통, 핏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는 전부 음란의 세계, 악마의 세계입니다. (266-22, 1994.12.4) p.1730

정결한 혈통, 순결한 혈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추방한 것과 마찬가지로 혈통이 더럽혀지면, 완전히 자기를 제거해 버리고, 타락한 사람과 같이 다시 인류의 뒤로 돌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책임자는 이러한 순결을 지켜 나오는 사람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류의 전통사상을 이어받아 상속해 나갈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이 재타락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서구사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268-110, 1995.3.31) p.1731

마약에 중독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랑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몰라요? 거짓 사랑에 중독되어 인간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남편과 사랑할 때 알기를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래야 됩니다.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야 됩니다. '보금자리를 오늘 저녁에 단장해야 되겠다' 해서 있는 정성을, 아기씨 때부터 동원해야 됩니다. 아기 때 동원하고, 형제 때 동원하고, 부부 때 동원하고, 어머니 때 동원해서 4 대 심정권을 동원한 그런 순결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273-21, 1995.10.21) p.1731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여자 하나 잘못 다루었다가는 나라도 망하고 일신도 망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하나 잘못했다가는 나라도 망하고, 자기 일족도 망하고, 선조로부터 남겨 나온 순결의 일대가 전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앞에 최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진리의 참된 본체가 뭐냐 하면 남편입니다. 남편을 대해 첫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고도 못 바꾸고, 아담을 주고도 못 바꾸는 것입니다. 완성한 하나님과 아담 두 분을 줘야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275-83, 1995.11.30) p.1731

하나님도 간섭 못 하고, 사탄도 만들어 놓은 뒤에 '야, 야! 이제 틀렸으니 나 따라갈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서 제일 귀한 순결을 지켜야 할 이런 가치적인 사랑의 본거지로 지켜왔던 그것을 사방에서 유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텐데, 할아버지로부터 아비로부터 오빠로부터 이렇게 유린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는 꿈에도 보기 싫습니다. 죽어도 싫다는 것입니다. (283-32, 1997.4.8) p.1731

몸을 점령해야 되겠다! 몸과 연결된 오관을 점령해야 되겠다! 육적인 사랑을 따라갈 거예요, 정신적인 사랑을 따라갈 거예요? 천만 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와 아들딸들은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고, 참사람과 결혼 한 후에는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 여자들? (286-161, 1997.8.9) p.1732

에덴동산에서 청소년 문제를 심었고, 잘못 결혼했으니까 뒤집어 다시 하늘편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고, 혈통을 뒤집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긍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절대 성, 순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 절대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대적 사랑 때문입니다. 유일 불변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거짓 사랑으로 이렇게 됐으니 참사랑으로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288-48, 1997.10.31) p.1732

생식기를 보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생식기를 보존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사랑의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적 기관입니다. 절대 한 방향입니다. 절대 한 방향으로 연결된 사랑의 길을 영원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소원하셨던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의 궁전인 것을 모릅니다. 사랑의 궁전, 생명의 궁전, 혈통의 궁전, 양심의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네 궁전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최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영원히 깨끗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288-67, 1997.10.31) p.1732

절대순결의 전통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더럽히는 자를 이스라엘 민족은 돌로 때려 죽였는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 독자와 독녀를 추방하던 하나님의 그 심정 앞에 다시 타락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계선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계선을 선포하는 그 날이 될 때, 남을 자들은 전부 사탄편에 남은 장자 중에서 악한 장자들입니다. (288-111, 1997.11.25) p.1732

가나안 복귀노정에서 모세를 따라 이제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권을 찾아야 합니다. 애급 430년 수난길에서 하나님의 4천 년 역사의 비참한 그 이상 비참하더라도 참고 모든 걸 넘어서 가지고 하늘 앞에 위로하고, 사죄함으로써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넘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참부모를 위로하고 그의 아들의 새로운 핏줄을 가지고 영원히 순결적 혈통을 남기겠다고 맹세해 가지고 약속한 터전 위에서부터 상속권이 벌어집니다. (288-114, 1997.11.25) p.1732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순결을 중심삼고 살지 못한 것을 전부 돌아서서 부정하고 새로운 참된 순결과 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인은 시집가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시집가고 나서는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개인적인 하늘나라, 가정적인 하늘나라, 민족, 국가, 천주적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288-146, 1997.11.27) p.173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미래의 세계는 가정의 순결을 보존하고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는 도덕률이 자리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함께 고민하는 청소년의 퇴폐와 끊임없는 마약 범죄, 증가하는 가정 파괴와 이혼, 에이즈 창궐, 성범죄 등을 정치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학교 교육이나 종교적 가르침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288-139, 1997.11.26) p.1733

앞으로 선생님이 축복할 때는 바람을 피워 절개를 유린한 사람은 안 해 줍니다. 순결한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는 결혼 안 해 줍니다. 에덴동산의 아담 해와가 자리를 잡고 천하의 공적인 자리에 나서게 될 때 타락한 아들딸을 모아서 축복해 주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 남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남자 여자든 앞으로 통일교회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순결한 처녀 총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받고 난 아들딸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선생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 자녀만 결혼시켜 주는 것입니다. (233-351, 1992.8.2) p.1733

여기서부터 여자들은 다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순결한 종교는 성문제를 절대로 거부하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죄는 뼈 밖의 죄지만 음란은 뼈 안의 죄다.'한 것입니다. 사탄권 내의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세계의 사랑을 반대해 나왔습니다. 전부 사탄세계가 되어 버릴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교와 기독교를 중심삼고 세계를 혁신해서 신부의 절개의 도리를 세워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랑 신부가 하나되면 이 두 세계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전통세계의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랑이 와서 사랑을 해 가지고 한바퀴 뱅 돌면, 이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래 기독교 문화권을 개문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잡혀가서 강간을 당하고 주권자들에게 별의별 치욕을 다 당한 것입니다. (238-276, 1992.11.22) p.1733

예수님이 만일 결혼해서 자기가 사랑하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아낙네와 사랑했다면,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딸들을 악마가 끌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셔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어떻고 어떻고 야단하지요? 순결한 예수님이 선한 남자로서 선한 여성을 맞아,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가졌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서 선한 아들딸이 태어나서 2 천 년이 지난 후에는 세계가 이미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일족입니다, 일족. 7 백 년도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슬렘, 회회교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45-45, 1993.2.28) p.1734

순결된 고차원적인 양심, 높고 넓고 깊은 양심세계의 활동 무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의 터전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영계에서 활동 무대가 크고 높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면 자꾸 좁아집니다. (275-70, 1995.11.3) p.1734

축복 받는 부부들은 자기 가정과 부부의 결합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배우자에게 영원한 신뢰와 순결을 맹세하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높은 도덕과 순결을 가르치면서 양육할 것을 약속할 것입니다. 이 부부들은 언어와 인종과 국가와 종교의 배경이 각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계평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중심한 온전한 가정으로부터 온다는 믿음 때문에 이 축복식에 동참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식전에서 구경만 하지말고 여러분 또한 관계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결혼서약을 갱신하도록 초대합니다. (288-165, 1997.11.27) p.1734

Top

3) 참부모와 근본복귀

① 근본문제 해결은 타락의 기원을 알아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도덕문제를 전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타락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원리 없이는 인간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역사를 끌어 나온 최후의 절망적 종말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파탄,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역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역사가 풀리지 않으면 역사를 청산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안(代案)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창조와 이상 대안을 중심삼고, 우리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자, 참사랑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타적인 것입니다. 사랑 상대를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는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219-266, 1991.10.11) p.1734

인류 역사의 타락의 기원은 결혼을 잘못한 것입니다. 거짓부모를 중심삼고 결혼식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윤락은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청소년 윤락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을 중심한 전체 하나님의 이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심어진 것이, 그냥 그대로 뿌려진 것이 크고 커 가지고 끝날이 되면, 이와 같은 열매가 맺을 때가 옵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 윤락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미국 자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프리섹스판이 되고, 호모 레즈비언판이 됐습니다.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이, 미국의 종교가 막을 수 있어요? 미국 정치·경제의 힘 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군사력 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손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모가 심었으니. 그 죄를 지은 동기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부모 아담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해 놓았으니, 아담이 무지 가운데서 타락했으니 아담이 이 땅에서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완성기준이 어떻게 되고 악마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세밀히 앎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302-222, 1999.6.14) p.1735

세계의 어려운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엉클어진 것이 국가, 세계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늘땅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 여자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거짓부모로 말미암아 청소년이 윤락을 하고, 아담가정을 산산조각으로 파탄시킨 것을 참부모가 와서 수습해야 합니다. 참부모가 와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혈통을 전수해서 사랑을 중심삼은 생명체,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가 되면 핏줄이 달라집니다. 문총재는 하나님의 핏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거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총재가 하는 일이 뭐냐? 청소년 문제를 중심삼고 미국·러시아·중국은 물론이고, 선진국가라는 세계 대표적 국가들이 전부 손들고 종교세계까지 손든 그것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문총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문총재밖에 없습니다. (302-226, 1999.6.14) p.1735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청소년 때 윤락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완전히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파탄시켜 나왔습니다. 그때가 끝날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현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없습니다. 국가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회관은 물론이고 종족관, 민족관, 가정관도 없습니다.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두 부정합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뭐냐 하면, 악마 천사장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부정하고, 여자가 남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끝날이 되었으니 사탄은 사탄대로 정체를 끝에 가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청소년 문제, 가장파탄을 수습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탄도 수습할 도리가 없고, 하나님도 수습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습할 수 있으면 에덴동산의 아담가정 때 수습했을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손 못 댄 하나님이 지금 망해 들어가는 이 세상을 손대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거짓부모가 이렇게 망쳐놓았으니, 미지에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참부모가 완전히 알아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비밀, 사탄의 비밀을 알아 가지고, 사탄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고소해 버려야 됩니다. '이 자식아, 네가 알고 보니 살인마구만, 이 자식!' 하고 말입니다. 암만 숨어살던 살인범이라 해도 그 증거를 댈 때는 자기 죄상을 직고하여 판정을 받고 영원한 인간세계에서 흘러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것과 딱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02-224, 1999.6.14) p.1736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한스러운 하나님을 위로해야 됩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로 말미암아 슬픔의 큰 못이 박혀 있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슬픔의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대신한 효자, 국가를 대신한 충신, 세계를 대신한 성인, 하늘땅을 대신한 성자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위로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찾아서 틀림없이 새로운 청소년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축복을 해 가지고 아담이 파탄시킨 모든 요소를 근절해야 됩니다. (302-224, 1999.6.14) p.1736

인류의 소원이 뭐냐 하면, 타락의 탈을 벗는 것입니다. 타락의 탈이 뭐냐 하면, 핏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핏줄의 타락이 뭐냐?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삼고? 사탄을 중심삼고….

아담 해와가 아들딸을 낳은 때가 타락하기 전이냐 후냐 할 때에, 타락하기 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들딸을 낳을 수 있게끔 누가 결혼식을 책임졌겠느냐? 하나님이 쫓아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사탄마귀를 중심삼고 결혼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가서 부부를 이루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사탄이 점령해 가지고 사탄의 핏줄을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체를 가렸지요? 입으로 따먹었으면 입과 손을 가려야 할 텐데 입과 손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곳이 혈통적 원한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302-220, 1999.6.14) p.1736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문총재가 '법궤 가운데 두 석판은 아담과 해와를 말한다.' 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그곳입니다. 누구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건드리다 다 망하지 않았어요? 지성소가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지팡이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본연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놓고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상징한 것이 성막입니다. 몸뚱이가 성소고 지성소가 그곳입니다. (2000. 6. 29) p.1736

Top

② 왜 참부모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거짓부모로부터 출발한 것을 참부모로부터 출발시켜야 됩니다. 거짓부모는 무엇이냐 하면 거짓 사랑에서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과 참혈통을 어떻게 이어받느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본연의 씨로 받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참부모가 없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씨, 참부모의 새로운 생명의 씨를 가져와 가지고 재차 주입해서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본연의 참감람나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종적인 부모가 하나님이고, 참부모는 횡적인 부모로서 이상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218-223, 1991.7.29) p.1737

왜 참부모가 필요하냐? 사탄의 사랑 · 생명 · 혈통 기반을 청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런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생식기 때문입니다. 본래 생식기는 사랑의 왕궁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 그 사랑의 왕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왕궁이요, 생명의 왕궁이요, 혈통의 왕궁인, 그렇게 귀한 것이 인간의 생식기입니다. 이게 더러운 거예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연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생명·사랑, 그리고 혈통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것을 사탄이 더럽혔습니다. (218-176, 1991.7.28) p.1737

아담은 본래 여러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부모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걸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통일교회 문선생의 말을 들으니 이게 사회의 정의입니까, 악입니까? 정의입니다. 천주의 원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118-147, 1982.5.23) p.1737

참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책임적인 조건을 세울 수 있어야 참부모가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를 보면 여기에 기독교, 천주교·불교·유교·모슬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불교도 여기에 닿습니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종교가 하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종 문제인데 오색 인종이 하나될 수 있습니다. (118-270, 1982.6.13) p.1737

메시아는 본연의 사랑, 참부모의 사랑을 완성한 남자로 오는 분입니다. 본연의 이상적인 대신자로 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말을 할 적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받지요? 그런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해방, 생활권에서 해방, 혈통권에서 해방받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악마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문화권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생활권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한 아담의 자리에 서니, 태어난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참부모의 사랑이 깃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조화의 근본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혈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202-283, 1990.5.25) p.1738

참부모를 중심삼은 데서부터 이상적인 역사의 출발, 새로운 문화의 출발, 새로운 사랑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이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 새로운 가정의 출발, 새로운 국가의 출발,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부모라는 말은 그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의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후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라도 망했고, 개인도 망했고, 가정도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수많은, 수억천만의 희생된 제물의 피가 호소하고 있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참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전부 다 해원성사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런 놀라운 탕감의 길을 똑바로 놓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진짜 알게 된다면 내 생명이 뭐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는 불평은 꿈에도, 천 번 죽더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67-227, 1973.6.27) p.1738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뭐냐 하면,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왕국과 지상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안 가지고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자이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 가 있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은 참부모의 완성과 사랑의 기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왕국을 통일하는 것은 참부모의 사명이지,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부모가 못 되었으니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참부모의 사랑을 받아 본 물건도 없거니와 받아 본 사람도 없고, 나타난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그런 기반이 생겨나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적이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횡적인 원리 기준, 공식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식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1-182, 1984.5.1) p.1739

모든 시작은 참부모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 처음은 여러분이 아니라 참부모입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가정을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참부모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부모님의 가정처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277-250, 1996.4.18) p.1739

선생님이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입했습니까? 피눈물을 얼마나 쏟았고, 땀을 얼마나 흘리고, 얼마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내가 밥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상세계?천상세계,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은 역사시대에 문총재 외에는 없습니다. 참부모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배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념만이 아닙니다. 실전무대에서 실제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 기반을 닦아나왔기 때문에 세계 만국이 숙연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210-363, 1990.12.27) p.1739

Top

③ 혈통 복귀는 축복을 통해 이뤄져

모든 하늘의 비밀은 문총재가 밝힌 내용이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 참부모 된다고 했는데, 참부모가 도대체 뭐예요? 참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부모입니다. 오늘날 인류, 타락한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주인양반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무슨 아버지냐?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내용 가운데 무엇을 중심삼고 부자지관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생명이 사랑에 묶여집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타락하지 아니 한 본연의 우리의 종지조상(宗之祖上)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 한몸이 되어야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 만드는 것은 남자도 하나 못 만들고 여자도 하나 못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를 필시 하나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 돼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남자가 가진 사랑과 여자가 가진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2000.3.3. 한국) p.1739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이상으로 바라던 하나님의 혈통과 직결된 핏줄을 남겨 가정출발로부터 종족, 민족, 국가형성과 세계의 평화, 지상천국을 만들고 천상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몸 가운데 살고, 가정에서 살고, 나라에서 살고, 세계에서 살고, 무한한 영계에 전부 무불능통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랑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가정은 부부끼리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극입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된 그 집에 들어와서 살기 위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만대의 하나님의 혈통으로 연결된 씨로서 결실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손자손녀라는 것입니다.

타락이 뭐냐? 하나님이 1 대라면 아담이 2 대입니다. 3 대된 핏줄의 손자를 못 가진 것이 타락입니다. 손자를 못 가진 것이 타락입니다. 타락하고 나서 아들딸을 낳았느냐, 타락하기 전에 아들딸을 낳았느냐? 타락하고 나서 아들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결혼식을 해 줬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쫓겨나 결혼해서 낳아 사탄의 새끼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60 억 인류는 하나님 앞에 추방받아 숨어서 저끄린 결혼을 통해서 낳은 핏줄이 연결된 아들딸이니 지옥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2000.3.3. 한국) p.1740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참사랑의 혈통을 만대를 넘어서 오늘날 60 억 인류, 미래의 세계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변치 않는 혈통이 되어 큰 나무의 중심뿌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줄기로부터 순까지, 산지사방에 뻗친 모든 가지가 전부 한 몸과 같이 느낄 수 있는 혈족적 연결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 나라라고 하면 나라의 천국이요, 세계라면 세계의 천국이요, 하늘땅이라면 하늘땅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부모가 못 돼 다 잃어버렸으니, 참부모가 안 된 타락한 부모는 거짓부모요, 거짓사랑이요, 거짓가정, 거짓종족, 거짓나라, 거짓세계입니다. 그래서 망살입니다, 망살. 세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섭리가 뭐냐 하면, 본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입니다. 병이 났으니 병이 나지 않은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을 어떻게 회생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된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2000.3.3. 한국) p.1740

참부모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권과 혈통권과 양심권을 중심삼고 전부 일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순이 되어 거기에서 자라 세계로 가지가 뻗으면 국가, 세계·하늘땅으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하니 정착하는 기준도 절대·유일·불변·영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정치력이 아닙니다. 수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힘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참사랑을 가지고 위하여 투입하면 보다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위해서 투입하면 그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발전하는 것입니다. 입력보다도 출력이 큰 것입니다. 왜? 우주가 그러합니다. 자꾸 나타나면 우주가 와서 붙습니다. 참사랑도 핵이 나타나면 와 붙게 돼 있습니다. 지남석도 철분이 있으면 철분 배합 비중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참사랑이 우주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317-269, 2000.2.28) p.1741

혈통의 동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권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뿌리가 다르고 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같아야 되고, 줄기가 같아야 되고, 순이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혈통전환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172-55, 1988.17) p.1741

여러분 각자의 혈통적 내용이 다르고 배후가 다를지라도 부모와 닮기 위해서는 접붙이는 역사를 해야 합니다. 뒤넘이쳐서 접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접붙이려면 여러분 자체가 남은 탕감노정을 다 청산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청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에게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부모를 찾아 나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시대에 신랑신부니 어린양 잔치니 하는 것도 모두 부모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24-203, 1969.8.10) p.1741

여러분, 혈통전환식을 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참부모가 안 나왔으면 이 일이 가능해요? 창세 이후에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까? 참부모가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참부모로부터 축복받았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통이 뭐냐 하면 핏줄의 전통입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심은 전통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216-36, 1991.3.3) p.1741

혈통적 전환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눈물겨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축복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전환의 승리권을 세우는 데는 수천 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노고와, 실체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의 고난의 생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 곳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축복받는다는 것은 악의 혈통을 잘라버리고 새롭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35-178, 1970.10.13) p.1741

축복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볼 때, 사탄의 축복가정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선생님을 완전히 믿고 참부모님께 속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든지 서 있게 될 때, 사탄이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의 심정권을 중심삼고 혈통전환한 심정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49-53, 1986.11.2) p.174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탄이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짓부모로 시작했으니 원점으로 돌아가서 참부모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을 때 혈통전환식을 했지요? 그걸 내 생명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해서 그저 일반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사람을 회생시키는 주사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독주사입니다.(216-107, 1991.3.9) p.1742

Top

④ 최후의 목표는 참가정 이상 실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자기 혼자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곳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주고 또 주고, 준 것을 다 잊고 또 주고 베풀면서 하나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참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게 됩니다. 참사랑은 나 개인의 소유일 수만은 없습니다. 참사랑은 상속받고 나면 나의 것인 동시에 만민의 것이요, 우주의 공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참사랑을 인간과 더불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요, 최고 최귀의 피조물인 인간과 심정세계에서 참사랑의 희열과 행복을 영원히 같이하고 싶어하십니다. 인간세계에서 참사랑을 완성한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사랑의 세계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참사랑의 세계는 곧 환희와 이상이 충만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확산되는 세계가 됩니다. 오늘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난문제들은 참사랑에 의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294-64, 1998.6.11) p.1742

참사랑의 참가정은 인류의 소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이 됩니다. 이러한 참가정에서 배출되는 참사랑의 참인격에 의해서만이 참된 사회, 국가, 세계의 완성이 있으며, 모든 환경권의 참조이상이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항상 지상에서의 참된 가정천국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천국에서 완성된 참사랑의 인격은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위하는 참가정으로 조화일체를 이루는 참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94-65, 1998.6.11) p.1742

인간 조상을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의 중심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가정이란 부모와 자녀,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인데, 그 묶어진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298) p.1743

가정은 하나님의 이상이 현현할 수 있는 기점이요, 인류 행복의 현현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일이 다 끝나는 자리요, 하나님도 모든 일의 완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가정이 왜 좋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자유활동의 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214-15, 축복과 이상가정-930) p.1743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찾아 나오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행복의 터전을 찾아 나오는 데에는, 인간을 떠난 자리에서는, 그러한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야 그 일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서적인 모든 내용을 갖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그러한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32-197, 1970.7.15) p.174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자관계의 참사랑은 종적이요, 부부의 참사랑은 횡적이며, 형제의 참사랑은 전후의 입장으로서 구형의 참사랑 이상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종으로는 상현 하현, 횡으로는 좌현 우현, 전후로는 전현, 후현을 전체 연결한 하나의 중심점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점이 구형체의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4 대 심정권인 자녀-형제-부부-부모가 일체를 완성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이 결혼하여 첫사랑을 맺는 자리가 모든 완성의 결실점이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천지인(天地人)의 합덕이요, 종횡 좌우 전후 전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참된 자녀-형제-부부-부모 이상(理想)의 참사랑 완성지입니다. (259-42, 1994.3.27, 참가정과 세계평화-403)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정착할 수 있는 기지는 어디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정은 우주애를 장악하고 우주의 보호 양상을 체득하면서, 우주애권(宇宙愛圈)을 확대시켜 가정을 넘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을 가야 하고,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 세계를 사랑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효자 또는 열녀라고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한다면,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바로 성인(聖人)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이상가정-924, 1982.10.29) p.1743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고, 더 확대되어서 아담의 이상이 실현되는 하나의 이상적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 · 줄기 · 잎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랑을 중심삼고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래로는 만민을 형제와 같이 하나의 생명체, 사랑의 생명체로 화(化)해 하나님을 중심한 영원한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인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치 않고 메시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아들딸이기 때문입니다. (110-213, 1980.11.18) p.1743

Top

제 12 권

환태평양 섭리

차 례

제 1 장 21 세기는 해양의 시대

1) 바다는 미래 인류의 보고(寶庫) · · · · · 1749
2) 참부모님이 행하신 해양섭리 · · · · · 1762
3) 바다에는 배울 것이 많다 · · · · · 1805

제 2 장 해양레저산업과 취미산업

1) 해양레저산업의 개발 · · · · · 1816
2) 인간과 취미생활 · · · · · 1835

제 3 장 환태평양시대와 도서국가연합 창설

1) 지금은 환태평양시대 · · · · · 1842
2) 도서국가연합의 창설 · · · · · 1853
3) 하와이 중심한 해양섭리 · · · · · 1859

제 4 장 하나님의 섭리로 본 해양문명

1) 인류문명사와 발전 추이 · · · · · 1862
2) 도서문명이 갖는 의미 · · · · · 1871
3) 해와국가로서의 일본의 사명 · · · · · 187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제 5 장 모든 문명의 결실은 반도에서
1) 반도문명과 한국 · · ·

[텍스트 입력]

때문에 선생님은 20억 불을 투입해서 20년 동안 이런 놀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8-218, 1992.4.3) p.1750

지금 수산사업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바다는 자원이 무한합니다. 새끼 물고기가 바다에 있으면 전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데, 양식을 하면 90퍼센트는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거 무한한 자원이 됩니다. 앞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식밖에 없습니다. (229-156, 1992.4.11) p.1750

연어는 바다에서 사는데, 담수에 올라와서 새끼 치잖아요?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담수어를 해수에서 기르고 해수어를 담수에서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벌레 같은 것을 일일이 잡을 수 없으니, 벌레를 죽이려면 바닷물에서 살던 것을 담수에 옮겨서 한 달만 두면 다 죽어 버립니다. 그거 간단한 것입니다. 2주일만 교체해 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담수어와 해수어를 바꿔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중심삼고 목장에서 얻는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판도는 무진장이라는 것입니다. (226-342, 1992.2.9) p.1750

사료 같은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기를 사료로 해서 무진장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양식을 해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해수를 파이프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본토까지 기름을 끌어 오지요? 몇천 리라도 파이프로 끌어 와서 해수 못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고기를 양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끼는 무진장입니다. 고기를 많이 기르면 식량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큰 못 하나만 만들면 동네가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294-175, 1998.6.14) p.1750

앞으로 양식(養殖)을 위해서는 몇 백 마일 거리라도 태평양 물을 옮겨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다 산 고기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고기 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전자동 시스템에 의해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먹이도 주고, 크게 되면 선별해 가지고, 트럭에 싣고 날라다 먹으면 되는 시대가 옵니다. (217-314, 1991.6.12) p.1751

양식을 하면 수십만 평의 목장에서 소를 길러서 파는 것보다, 혹은 우유 짜서 파는 것보다도 몇 십 배의 이익이 남습니다. 지금은 때가 좋은 때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어디든지 끌어 갈 수 있습니다. 몇백 리, 몇천 리라도 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피브이시(PVC) 파이프만 깔아 놓으면 물은 어디든지 끌어 댈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태평양의 물을 끌어다가 저 대륙 산골짜기에 양식 빌딩을 지어 가지고 무슨 고기든 양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십 층 빌딩을 지어 놓고 양식을 하더라도 사람은 안 올라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전자동적으로 먹이도 줄 수 있고, 다 큰 것은 자동적으로 선별이 되어 내려올 수 있게 만들고,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6-348, 1990.10.14) p.1751

튜나(tuna;참치), 스트립트배스(striped bass;줄무늬 농어), 새먼(salmon;연어), 크로커(croaker;민어), 플라운더(flounder;가자미) 등 비싼 고기들의 품목을 계절별로 알아두면, 바다의 고기들이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남에서 북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 계절에 맞춰, 일년 열두 달 고기를 잡아 가지고 생계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번에 광어와 민어 54마리를 잡았는데, 선생님이 절반을 잡고 나머지는 십여 명의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산사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운명을 좌우하는 세계의 경제기반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놀면서 장난으로, 혹은 무슨 취미로 하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그걸 가르쳐 줬더니 전부가 재미있어 합니다. '선생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28-226, 1983.6.27) p.1751

육지에 사는 생물들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비교해 보면 양(量)이 어떤 게 많겠어요? 지구성에는 사람이 한 40억이 살지만 바다에는 수백 억이 살 것입니다. 또 바다는 어떤 것이냐? 동양에 있는 태평양의 물이 대서양으로 가고, 대서양의 물이 저 북해로, 오대양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은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바다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원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물이 대서양으로도 가고 지중해로도 가고 어디든지 갑니다. 이렇게 생동하면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128-246, 1983.8.28) p.1752

내가 미국에서 세계적인 수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선을 만드는 공장으로선 우리 공장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금후 육지 자원이 필요한 때는 지나갑니다. 수중자원을 누가 세계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런 기술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바다는 무한한 원료의 근본지입니다. 앞으로 바다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바다 농사, 바다 양식을 해야 됩니다. (126-201, 1983.4.19) p.1752

문총재는 칠십이 넘었지만, 알래스카에 가서 킹 새먼(king salmon)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킹 새먼은 연어과인데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 중에서 최고의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만 낳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인공적으로 그 새끼들을 먹여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킹 새먼이, 연어들이 죽지 않고 매년 바다에 갔다가 돌아와서 알을 까게 되면, 연어들은 인류를 먹일 수 있는 식량 중의 식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식량이 없습니다. 튜나(tuna)회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킹 새먼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233-50, 1992.7.20) p.1752

선생님은 연어에 착안해 가지고 앞으로 인류의 식량문제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튜나를 대량으로 길러서 바다에 보내는 날에는, 튜나는 빠르기 때문에 두 달만 길러 가지고 놓아 놓으면 절대 잡혀먹히지 않습니다. 튜나는 보통 평균속도가 35 마일이고, 빨리 갈 땐 120 마일로 달립니다. 바다에서 제일 빠른 고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냐 하면, 등지느러미는 달릴 때는 쏙 들어갑니다. 옆 지느러미는 싹 하면 다른 고기가 딱 걸려듭니다. 하나의 어뢰같이 되어 있습니다. 폭탄같이 되어 있습니다. 튜나는 오대양을 무대로 사는 고기입니다. 이것을 무진장 산란시켜 가지고 바다에 보내는 날에는 인류의 식량문제가 해결되고, 공해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6-201, 1983.4.19) p.1752

지구의 3 분의 1 이 육지고 3 분의 2 가 바다라고 하는 건 알지요?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풀도 바다의 풀은 대개 다 먹습니다. 그렇지만 육지의 풀과 나무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는 육지에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물소도 있고, 물말도 있고, 물사자도 있고, 물호랑이도 있고, 물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고기 종류는 얼마나 많습니까? 백인들은 육지의 고기나 먹지, 바다의 고기는 냄새 난다고 먹을 줄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요즈음에 와 가지고 '아이구, 피시(fish;생선)가 좋대. 모든 단백질을 생선이 가졌기 때문에 고기보다 좋대'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식품이 좋다고 해 가지고 오래 살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다가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돈이 많아요? 여자들은 튜나 한 마리만 잡으면 1 년은 살고도 남을 것입니다. (108-214, 1980.10.16) p.1752

고기를 양식하면 한 집의 살림살이는 간단합니다. 2 백 평이면 한 집이 먹고 삽니다. 고기를 많이 기르면 식량입니다. 또 고기에 얼마나 영양이 많아요? 단백질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펄펄 뛰던 고기가 우리 공장에 들어오면 10 분 이내에 파우더가 됩니다. 고기는 10 분이 지나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썩습니다. 박테리아에 의해서 썩어 갑니다. 그러니까 단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기술입니다. 이것(어분)은 고성능 단백질입니다. 86 퍼센트에서 94 퍼센트가 단백질입니다. 완전히 고성능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가감해서 사료 같은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료로 무진장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294-175, 1998.6.14) p.1753

바다는 원료시장 가운데서 3 분의 2 를 차지하는 세계의 보고입니다. 틀림없지요? 바다 속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요, 없어요? 육지의 2 배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하기 때문에 2 배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는 해초가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해초가 있는 면적이 이 육지면적의 2 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또 무수한 고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겠어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땅보다도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할 것이고, 원료를 전부 다 운반해야 되겠고 그러니 교통로, 육(陸)?해(海)?공(空)의 운반로를 내가 장악할 것입니다. (89-28, 1976.3.2) p.1753

금후에 육지 자원이 필요한 때는 지나갑니다. 이제는 수중 자원을 누가 세계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런 기술을 누가 갖느냐, 이 해양 세계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무한한 원료의 근본지가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다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전부 바다농사, 바다목장, 바다양식을 해야 됩니다. (126-201, 1983.4.19) p.1753

Top

② 해저 개발, 무한자원이 거기 있다

바다는 참 신비롭고 무한한 보고(寶庫)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8-254, 1993.8.28) p.1753

바다를 좋아해야 합니다. 개척해야 합니다. 육지의 3 배나 되는 바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해저에 있는 수산자원을 누가 개발하느냐? 지상에 금은보화 석유가 있다고 하지만 바다는 육지의 3 배가 되니 3 배가 묻혀 있습니다.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집을 팔든 무엇을 하든 수역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해안의 땅이 쌉니다. 섬 같은 것은 그대로 주인노릇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사업 기지를 만들게 되면, 그 기지에 수백 척의 배가 오는 것입니다. 국가 검문소만 만들게 된다면, 고기도 세금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살 길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294-172, 1983.8.28) p.1754

지구성의 금은보화는 해저에 많습니다. 바다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들이 손댄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해저의 모든 금은보화를 얼마든지 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섬에서 바다 밑으로 몇십 리 굴을 뚫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누가 점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63-18, 1994.8.16) p.1754

'해양광산을 파야 된다.'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하면 내가 선두에서 해 보겠다 이겁니다. 내가 데리고 가서 파는 것입니다. (119-256, 1982.9.13) p.1754

바다에 가 보면 바다는 단조롭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또, 자원으로 말하더라도 육지보다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진장의 보화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좋아하는 모든 보물들이 거기에는 잠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다를 점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미국의 개척시대에 서부의 광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험을 무릅쓰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모험적이요 용맹스런 사람에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험의 고개를 몇 번이나 넘어가지 않고는 보물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들이 왔다갔다하는 항로를 소유하기 위해 싸움을 했지, 바다 속의 것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128-246, 1983.8.28) p.1754

앞으로 바다의 주인은 누구냐? 지구에 대변동이 벌어지면 바다 가운데 육지가 생겨날 수도 있고, 육지가 바다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 가운데 미국보다 더 큰 육지가 생겨난다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다 밑이라고 화산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의 200 해리 이내에 어디든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때가 올 것입니다. 바다를 중심삼고 싸우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바다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용맹하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개척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128-246, 1983.8.28) p.1754

이제 육지는 사람으로 꽉 차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세계가 불원한 장래에 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세계의 해양기지에 전부 다 통일교회 남자 무니들이 사는 것입니다. 요것만 점령하게 되면, 현재 세계의 모든 문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남자 무니들이 전부 해안에 모여 가지고, 세계의 해안을 우리가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령하는 것입니다. (116-327, 19821.1.2) p.1755

앞으로의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다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류가 해저의 보화 보물을 자기들의 모든 권력과 문화적 배경, 전통과 국력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양지역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이런 문제에 당면했는데 통일교회 교주로서, 혹은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역사적인 책임자로서 앞으로 통일교회가 머물 수 있는 기지로서 어떤 곳을 남겨 줄 것이냐? 그곳은 도심지가 아니라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감히 누구도 생각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수산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돈을 공중에 날려 버리면서도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 놀음을 계속해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는 방향의 시작에서 끝까지 크고 넓은 고속도로는 안 되더라도 소로길이라도 닦아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홀로 바다에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220-11, 1991.10.13) p.1755

한 가지 배우고, 두 가지 배우고, 세 가지 배우고, 네 가지 배우고, 다섯 가지 배우고, 여섯 가지 배우고도 또 배우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한 가지 일은 하나의 공식을 중심삼고 편성되어 있으니 많은 공식을 아는 사람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더라도 딴 사람보다 잘하는데 그것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험한 사람한테는 지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한테는 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혼자 어디 가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낚시가 없으면 내가 낚시를 만들 줄 압니다. 그런 자신을 가지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바다에 관심 갖게 되는 무대에서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을 볼 때, 안 가진 사람은 반드시 후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는 것입니다. (146-251, 1986.7.1) p.1755

Top

③ 미래는 수중시대, 바다공간을 개척한다

선생님은 미래 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있는 것은 힘듭니다. 맨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갔다 오니까 막 오금이 쑤셔서 죽겠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할 일이 많으니 나이 타령하지 말고 가야 된다. 히말라야 산 넘어가는 망아지 새끼처럼 돼야 된다.' 그랬는데 쉬기는 뭘 쉬어요? 내가 왜 바다에 관심을 갖는지 알겠어요? 장래 우리의 인류가 가는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키(key)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살자는 것입니다. 뭘하고 잘살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사는 것입니까? 맛있게 잘먹으면, 하루에 세끼 밥 먹으면 잘사는 것입니까? 뭐가 잘사는 것입니까?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해서 건강한 일생을 사는 게 잘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계를 무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기반 다 닦아놓지 않았어요? (189-295, 1989.6.17) p.1756

앞으로 해양세계를 누가 점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스페이스 시대입니다. 공중세계,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바다를 점령하고, 모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스페이스 시대에 들어가 대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싹 옷만 입고 산소만으로도 한달 동안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밥을 해 먹겠어요? 생활이 편리하려면 맛있는 고기를 장만해서 한 짐 지고 가면 반년은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물을 지고 가겠어요, 고추장을 가지고 가겠어요, 김치 단지를 가지고 가겠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189-291, 1989.6.17) p.175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모든 것을 기계가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튼만 누르면 혼자서 어디라도 항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행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만 작동시켜 놓으면 이전에 항해했던 코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도 좋고, 밤잠을 자도 좋고, 마누라를 품고 무슨 난리를 피우더라도 괜찮습니다. 배는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전자장치가 모두 빈틈없이 해주는 것입니다. 멋진 바다 밑을 보면서, '이야, 고기가 있다! 이것은 상어다. 상어가 지나간다.' 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사진으로 보는 것 이상 똑똑히 관찰해 가면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192-150, 1989.7.3) p.1756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저 바다 밑에도 가고 싶고, 높은 산에도 가고 싶고, 우주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싶지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인들 중에는 영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지요?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알고 체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25-138, 1992.1.12) p.1756

앞으로는 바다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잠수함에 대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편리하지요? 바람 안 불 때는 고요한 바다물결은 뭐라고 할까? 거기에서는 백만장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바람 안 불 때, 유리알 같은 바다에서 대양에 꿈을 실은 부부가 앉아서 옛날 혹은, 미래의 꿈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며 나간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없습니다. 만일 태풍이 분다면 30미터 이하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중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 좁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33-52, 1992.7.20) p.1756

인간은 어디든지 자유입니다. 국경도 없이 자유로이 바다에 가려면 바다에 가고, 산에 가려면 산에 가고, 수중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 가운데서 심도를 조종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살 데가 없습니다. 탱크에 물을 넣어 가라앉는 무게가 되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버튼(button;단추)으로 조작해서 물을 채우고 빼면 가라앉고 뜨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10미터 이하는 천지에 그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30미터 내려가게 되면 바람이 뭐예요? 아주 고요한 세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저 왕국입니다.

공중에 올라가면 바람도 많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야단이 벌어집니다. 기류가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비가 오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사는 것이 이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62-272, 1994.8.1) p.1757

다들 좋은 데 살고 싶어하니까 내가 지금은 잠수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멋진 장소예요?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지요? 바다 한 가운데 깊숙히,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 필요한게 잠수함입니다. 단추만 누르면 시원한 데로 내려갑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고기가 다채로운 춤동작을 하며 천천 만만 색의 아름다운 광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영계 가기 전에 그런 데서 한번 살고 싶습니까? 멋지지요?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것이지, 나 한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구도 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내가 누구 신세 하나도 안 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17-212, 1991.6.1) p.1757

바다에서 놀면 육지에서 노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수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누구나 다 요트를 갖고 물 속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또, 수중을 견학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물 속으로 다니면서 고기 떼거리, 상어 떼거리, 고래 떼거리와 같이 생활하는 시대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준비하면 세계적으로 경제권을 쥘 수 있다고 봅니다. (95-225, 1977.12.4) p.1757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산악지대로 자연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산악지대에만 있으면 사는 데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갑니다. 앞으로는 바다를 중심삼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잠수함을 연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되어가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수중 30 미터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태풍이 불어도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30 미터 아래로 들어가면 풍랑이 없습니다. 30 미터 이하에는 풍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미터 이하, 백 미터 이하라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반사기로 바다의 풍경을 보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36-309, 1992.11.9) p.1758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비행기로 뭐하러 몇 시간씩 갑니까? 태평양 바다 가운데 쇠기둥을 박고 호텔도 만드는 것입니다. 헬리콥터의 기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버튼만 삐익 누르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시간쯤 날아가는 것도 지루합니다. 한 두어 시간씩 가다가 해상호텔에 가서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태평양 위에 호텔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쯤 가서 점심을 먹고 가족들과 배타고 낚시질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203-57, 1990.6.14) p.1758

바다에 방대한 자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란서에도 만들고, 독일에서도 만들고, 명령 일하에 수십 개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시대에 필요로 하는 배라든가, 잠수 유람선이라든가를 만들어 한꺼번에 세계를 제패해서 그 분야의 경제권을 쥘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십 개 나라에서 준비해야 우리가 그 분야에서 전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상상이 돼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95-225, 1977.12.4) p.1758

배도 내가 설계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잠수함도 다섯 명이 타고 바다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 가운데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패들 한번 잘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10-39, 1990.11.30) p.1758

깨끗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 물이 전부 공해에 물들어 있습니다. 북극에는 8 백 미터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천년 전에 쌓인 맑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공해가 없습니다. 그 물은 만 년 후에도 깨끗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남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 아래에 인공적으로 얼음판의 문화 도시, 뉴욕 같은 도시를 지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거 짓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터널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만년 터널이 되고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냉수를 뿌려 놓으면 꽝꽝 얼기 때문에 자꾸자꾸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강하게 됩니다. (302-99, 1999.6.1) p.1758

얼음 아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꽃이 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 높은 산중엔 만년설이 있고, 그 중간에는 풀이 돋아 있고, 그 아래에는 꽃이 피고, 그 아래에서는 낚시질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경(仙境)인지 모릅니다. 아름답고 물 맑고 공기 좋고, 모든 생태적 조건을 골고루 갖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취미삼아 갔다가 맛을 들이게 되면 거기서 살고 싶지,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모든 전부를 투입하며 노력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20-13, 1991.10.13) p.1759

앞으로 수소를 개발하게 되면 전력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추운 저 시베리아 같은 데도 지하도시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옵니다. (194-95, 1989.10.17) p.1759

앞으로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이라든가 미국의 평원지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를 개발해야 됩니다. 북극의 얼음 덮인 세계를 먼저 점령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점령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수산사업을 시작했고, 북극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219-196, 1991.8.29) p.1759

태평양 바다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높고 낮은 수많은 끝을 알 수 없는 산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에는 무서운 샤크(shark;상어)라든가, 일본말로는 사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헤엄쳐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첩첩으로 있는 것입니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런 노정을 더듬어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서 피안의 세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생 노정입니다. (205-86, 1990.7.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깊은 게 중심이요, 높은 게 중심입니다 깊은 것은 안 보입니다. 바다 밑이 보여요? 제일 깊은 데가 바다 밑이잖아요? 에베레스트산은 만물이 보기 싫어도 아침마다 보고 저녁에도 봅니다. 비가 올까 안 올까, 일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든가 어둡든가 하면 거기를 보고, 금년에 풍년이 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를 알려고 해도 높은 데를 바라보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안 보입니다. 깊은 데는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로 딱 덮어 놨습니다. 깊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신비스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관심을 가집니다. 남자가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찾는 것입니다. (205-136, 1990.8.12) p.1759

Top

④ 에너지 보급원은 바다밖에 없다

바다의 자원이 얼마나 방대하냐 하면 이 육지가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연료 문제를 보게 되면, 유류 연료라든가 석탄 연료, 전기 연료를 중심한 시대는 지나갑니다. 전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보급처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수소를 개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4-130, 1977.7.30) p.1759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식량은 무진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왜 못 만드느냐 하면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앞으로 수소 에너지를 해결하게 될 때는 에너지는 무진장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주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얼마든지 주체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부 혼자서 먹고 살기가 심심하니까 길거리에 가는 사람보고 '어서 좀 먹고 가소. 그리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럴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살 수 있게 말입니다. (141-223, 1986.2.22) p.1760

바다 관리를 잘못하면 전쟁이 납니다. 전쟁을 하면 최후에는 수소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이 수소폭탄은 지구성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바다를 중심해서 수역의 20 킬로미터, 20 수를 중심삼고 세계 어디든지 다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303-155, 1999.8.17) p.1760

어떤 사람은 '앞으로 수소원료가 해결되는 날에는 세계가 살기 좋은 문화세계가 대번에 될 텐데 독재자가 이런 방대한 원료를 가지게 되면 세계를 전부 다 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세계를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사람은 문선생밖에 없으니 문선생한테 그 일을 맡겨야 한다.'한다고 말했습니다. (184-222, 1989.1.1) p.1760

Top

⑤ 해양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는 미래에 바다를 점령해야 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내 손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땅굴을 많이 파야 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하이웨이 프로젝트(project;계획)도 나온 것입니다. 바다 밑에 길을 뚫고 거기에 문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문을 열고 나와 고기도 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바다에 있는 기름도 파이프로 배에 직접 공급하면 그거 얼마나 멋지겠어요? 바다 밑에 석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저 버튼만 누르면 파이프가 쓱 나와 가지고 기름이 나온다면 얼마나 멋지냐 이겁니다.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그렇게 살게끔 계획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 속에서 어떻게 산소를 공급하느냐? 물 속에 산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물 속에서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바닷물 가운데 산소 비율이 얼마예요? 그걸 어떻게 다 써먹어요? 그거 문제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다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시대가 불원한 장래에 올 것입니다. (116-326, 1982.1.2) p.176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선생님 생애의 40년 1차 생활은 북반구의 선진국가들을 중심삼은, 땅을 중심삼은 수난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남미의 해양문명권을 준비해왔습니다. 열대 지방권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양시대를 닦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난 길을 닦아 나온 것이 선생님의 20년 노정입니다. (277-131, 1966.4.7) p.1760

앞으로는 바다, 물을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 그런 사상을 가지면 세계를 지배합니다. 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계 가기 전에 큰 지역을 중심삼고 물을 점령하는 사업을 착수해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도 많이 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놓으면 후세들이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6-296, 1996.3.10) p.1761

바다의 세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해양의 세계, 앞으로 이것이 천만금 갈 것입니다. 명동보다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양지역을 전부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3킬로미터 이내의 물 있는 데를 잡는 사람이 세계를 리드한다고 봅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 봅니다. (300-192, 1999.3.3) p.1761

바다를 점령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바다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그 다음에는 참부모님의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내 것입니다. 전부가 내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해야 더 좋아하잖아요? 바다와 강물이 이 세계의 생명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구름을 생성해 가지고 땅에 비를 오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289-181, 1998.1.1) p.1761

젊은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바다에서 사업할 수 있는 책임자도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대서양에 가서 24시간 그 놀음 하는 것은 바다를 사랑했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배 타는 사람은 바다에 나가면 6개월 내지 1년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여자들은 마도로스를 전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도로스가 점점 적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여자들은 남편이 바다에 나가서 반 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도 불평 안 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의 해상권을 우리가 장악해야 됩니다.

앞으로 육지보다도 바다에 주력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바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바다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73-142, 1974.8.16) p.1761

선생님은 바다 가운데로 가는 잠수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현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현대의 세계적인 사상가로서 모든 세계에 놀라운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 없는 대표자로서 나라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레버런 문이 어찌하여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금후 인류의 식량문제라든가 기아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다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17-219, 1991.6.1) p.1761

모두 알고 있기를 바닷고기는 담수에서 못살고, 담수고기는 바다에서 못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어 같은 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담수에 올라가 새끼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일이면 완전히 바뀌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3주일, 열흘 동안에 바뀝니다. 이게 공상적이예요, 실질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컴퓨터가 포켓에 집어넣게끔 작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바다의 주인이 될 거예요, 육지 주인이 될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되고 싶어요? (217-227, 1991.6.1) p.1762

북극에 가서 광산을 하고, 남극의 바다 깊은 데서 다이아몬드 광을 만들고, 황금 광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중 다이아몬드 항로에 가서 전부 파는 것입니다. 남자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파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전부 참사랑을 할 수 있다면 천길 바다 물 속에 들어가 사랑할 때는 가는 길이 힘들었을 테니까 그 사랑도 멋진 사랑일 것이 아니냐? 충격 받고 고충을 받았지만 그 이상의 사랑을 찾아서 거기까지 왔으니 말입니다. 거기서 사랑할 때 멋진 사랑이겠어요, 못난 사랑이겠어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바다 밑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늘그막에 누구나 다 죽을 터인데, 바다 밑에서 둘이 살면서 사랑하다 죽으면 행복할 겁니다. (299-186, 1999.2.15) p.1762

선생님은 평생을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양적 운세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2-117, 1962) p.1762

해양사업은 전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류를 위해서 바다로 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28-211, 1983.6.26) p.1762

Top

2) 참부모님이 행하신 해양섭리

① 북미 중심한 해양섭리

㉮ 미국 수산업

미국이 잘 살려면 젊은이들이 바다로 가야 된다는 풍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새로운 미래상이 개척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전부 장(長)이 되어 육지에 있는 모든 공장을 전부 역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육지에 있는 생산공장은 금후에 전부 자물쇠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던 공장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나라와 결탁해 가지고 세계를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 하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128-230, 1983.6.27) p.1762

바다, 해양도시 전부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몇 개월씩 안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색시들은 춤추러 다니다가 바람이 나서 보따리 싸 가지고 도망을 가니 배에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내가 돈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동부로부터 남부를 거쳐 서부까지 완전히, 부두를 다 사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거 좋아요? (123-13, 1982.12.1) p.1762

현재 미국에서의 모든 산업분야는 다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육지의 모든 자원보다도 더 방대한 기반인 해양분야, 수산업 분야인데, 그것이 완전히 몰락 상태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방대한 자원인가 생각해 보라구요. 해양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대양 속에 감추어진 모든 자원을 점령할 수 있는 후계자다 이겁니다. 3 분의 1 이 육지이고 3 분의 2 가 해양이니 3 분의 2 의 자원이 해양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획해 가지고 장래에 이것을 관리하고, 점령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그것은 종교 단체로서 해양사업을 해 가지고 세계적 조직을 가진 기반과 사상적으로 세계적 조직을 가진 기반, 그 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119-230, 1982.9.13) p.1763

해양도시가 피폐해지면 그 나라의 경제도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원을 가지고, 해양도시를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됐으니 미국정부는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해양도시의 책임자들도 젊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으니 이것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부인들이 도망 안 갈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진 젊은 부부가 필요합니다. 그건 무니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도시에서 제대로 자리만 잡는 날에는 해양도시는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 년에서 5 년 이내면 50 명이 배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50 명씩 30 곳이면 1500 개입니다. 그렇지요? 1500 개 정도의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항구를 모두 3 천여 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천여 항구에 5 십명씩 하면 15 만이지요? 그러면 미국 해역을 완전히 소화할 것입니다. 그것을 2 백만 불씩 치면 얼마예요? 3 천억불입니다. (119-235, 1982.9.13) p.176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바다에 관심 있는 우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싱 보트를 갖게끔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센터에서는 50 명의 청년남녀를 모아 가지고 해양으로 가는 기지운동을, 교육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집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해안 도시의 경향이 어떠냐 하면, 해양도시가 피폐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해서 해체되어 가므로 모든 유지들, 모든 장들은 이것을 방어해서 해양이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대번에 이런 계획을 세워 지방 유지들을 중심삼고 후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60 만 불의 돈은 그 후원회와 이 사람들의 공동명의로 보증을 세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자들이 하루에 400 불 어치씩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108-219, 1980.10.5) p.1763

뉴 호프라는 우리 배 이름은 미국 동부에서 튜나잡이로 유명하고 남미까지도 소문이 났습니다. 내가 그런 놀음을 하는 것도 수산사업을 개발하는 요원을 양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24 시간 배를 타고 나가 다니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배 타라고 하면 도망가고 말도 안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만 있으면 얘기하고 해서 4 년 5 년 지나고 7 년까지 되니까, 여자들까지도 '내가 캡틴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소를 만들고, 그 다음엔 가공공장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상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 밴(van;대형 트럭)을 중심삼은 판매훈련을 시켰습니다.

일년 동안에 그물을 짜고 배를 만들고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엔 고기를 판매하고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씨-푸드(sea-food;생선) 레스토랑까지 만들어 그런 것들을 중심삼고 7 년 동안 기반을 닦아서 지금에 와서는 수산업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궤도에 올랐다 하는 날에는 굉장한 자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110-202, 1980.11.17) p.1764

여러분 중에서 배 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구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제부터의 미국 세계는 바다에서 성공을 못합니다. 바다에서의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해상, 해저의 성공은 미국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암만 큰 소리해도 후퇴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힘들더라도 바다로 가야 합니다. 바다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다에 희망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32-304, 1984.6.26) p.1764

바다에 나가면 2 개월 이상 6 개월 동안 배를 타게 되는데 그렇게 나갔다 오면, 여편네들 전부 요즘 디스코니 트위스트니 해서 춤이나 추고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고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애들은 고아원에 집어넣어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80 퍼센트나 되니 누가 바다에 나가겠어요?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판로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바다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 이 수산사업에 손을 대면 막대한 힘의 소모가 따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수산사업에 손대 가지고 성공 기반을 만들기 전에는 세계에 대한 금후의 작전을 경제적으로 후원할 길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110-200, 1980.11.17) p.1764

미국에서 유망한 사업은 수산운수사업과 어업입니다. 수산운수사업과 어업밖에 없다는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 년 전에 배를 사 가지고 3 년 후에는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뉴욕의 바다가 어떻고, 고기가 어디 있다는 것 등 동부 해안지역에 대한 것은 대개 3 년 동안에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내가 앞으로 국가와 타협해서 양어장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양어장, 민물의 양어장, 무슨 양어장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앞에 있는 간석지에도 게에서부터 무슨 고기든지 양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방대하겠나, 얼마나 방대한 사업이 되겠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88-179, 1976.8.10) p.1765

여자들은 뱃사람을 좋아하지 않지요? 내가 왜 이 수산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이 수산업이 완전히 전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남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 일주일 이 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안 들어오게 되면, 여자들이 전부 바람을 피워 가지고 이혼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또, 파도를 만나 몇 번만 고생하면 요즈음의 미국 청년들은 바다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통일교회가 투자하고 통일교회 청년이 이 일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회 청년, 통일교회 아가씨들이야 이혼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해서 도망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배 타고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명령만 하면 어디서든지 뱃사람은 줄을 달고 몰려옵니다. 훈련되어 나갑니다. (88-250, 1976.9.20) p.1765

내가 손을 안 대면 미국 수산업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절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미국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 천 톤에 가까운 배를 사려고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배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88-326, 1976.10.3) p.1765

엊그제 배리타운에 가서 잉어를 수천 마리 잡았습니다. 연못을 푸니까 거북이가 여섯 마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놈을 허드슨 강에 놓아주었고 또 처음에 잡은 잉어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에 의해서 '너는 사랑을 통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를 걸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는 희생되지만 앞날의 미국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통일교회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인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한다. 너는 고기로 태어났지만 우리 아들딸같이, 미국 국민 누구보다 사랑하는 미국 국민과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살이 되고 마음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사랑해 주는데 그것도 싫으냐?'고 잉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잉어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들딸 대신이 되고, 사랑하는 미국 국민의 살이 된다.'고 했습니다. (93-189, 1977.5.29) p.1765

남들은 그럴 것입니다. '레버런 문, 무슨 종교 지도자가 저런 어부, 뱃놀이를 하고 수산업을 하느냐? 그거 쌍놈의 짓이지.' 할 것입니다. 내가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그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부 그렇게 훈련해서 저 아프리카의 중요한 항구 하나씩 맡아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는 세계적인 기반이 대번에 닦아집니다. 50 개국에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94-107, 1977.7.29) p.1766

바다에 방대한 자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사업장을 전세계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불란서에도 만들고, 독일에도 만들고, 명령 일하에 수십 개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시대에 필요한 배라든가, 잠수 유람선이라든가를 만들어 한꺼번에 세계를 제패하고 그 분야의 경제권을 쥘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십 개 나라에서 준비해야 우리가 그 분야에서 전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상상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일교회 교인들은 전부 배워두라는 것입니다. (95-225, 1977.12.4) p.1766

지금까지 어부들이 여덟 시간을 일했는데, 이제는 여덟 시간 이상은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수산업계가 살 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것은 황금 문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열쇠를 가지고 황금창고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대학 나온 아가씨들 전부 이 다음에 시집갈 때 선장한테 시집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96-313, 1978.2.13) p.1766

미국의 수산업계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방대하고 무한한 자원이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 기반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105-328, 1979.10.28) p.1766

아프리카 사람이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을 때 자기가 먹던 고기, 자기 입맛에 습관화된 고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그 고기가 없으면 그 손님은 가버립니다. 지금 5 대양에서 잡은 고기를 식당에 보급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 여덟 시간 일하기 때문에 다섯 시면 다 문을 닫지만, 우리는 24 시간 문을 여는 겁니다. 또, 우리와 관계돼 있는 식당에 품절이 되었으면 우리와 관계된 다른 식당에서 보급해서 채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못 당한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업계에서 '레버런 문' 하면 알아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6-253, 1986.7.1) p.1766

우리 식구들은 이 오션 처치(ocean church;해양교회)를 안 좋아합니다. 모두 수산업을 하라고 하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계획은 빨리 전 미국에 1,000 개의 일본 식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교회 535 곳을 만드는 것이 다음 계획입니다. 지금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147-25, 1986.8.20) p.1766

앞으로 각주에 우리의 수산업이 생겨나면 거기에 콘도미니엄을 하나씩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을 중심삼은 구라파 사람들, 이렇게 네 나라 사람이 한 살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출근은 달리 하더라도 돌아와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외의 일도 같이 하고 한 식구의 생활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패스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지상천국 이상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활기반을 닦아주는 일을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147-27, 1986.8.20) p.1767

왜 수산업을 하느냐? 금후에 인류 식량문제의 해결 방안은 양식(養殖)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바닷가에는 빌딩과 같이 수십, 수백 층을 지어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전부 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백 평만 가지면 한 세대가 자녀들 대학 공부시키고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때는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바닷물을 몇십 리, 몇백 리, 몇천 리 밖에서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산에다 양식 빌딩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각합니다. (191-81, 1989.6.24) p.1767

통일교회의 젊은 용사들은 언젠가는 원양어선을 타 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수산업에 대한 경험, 그것을 선생님은 멋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동경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꽁무니를 뺄 수 없습니다. (192-159, 1989.7.3) p.1767

레버런 문에게는 지금까지 식량문제 때문에 죽어 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20 년 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산업의 세계는 원료가 무진장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레버런 문을 믿습니다. 내가 그물에서부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서 지금까지 기반 닦은 것을 이 수산사업계에서 누가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온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266-120, 1994.12.22) p.1767

텍사스 농장에 가 본 사람은 손들어 봐요? 미국 사람들은 다 가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초청할까요? 거기에서 지금 메추리와 꿩, 사슴 같은 것을 사냥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자연 생칠면조가 수두룩합니다. 그 다음에는 산돼지?늑대?호랑이 같이 생긴 짐승까지 없는 짐승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냥하고 낚시하는 것을 자기들이 농장을 만들어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개척해야 됩니다. (253-114, 1994.1.9) p.1767

앞으로 제 3 사업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30 곳에 우리가 배를 열 척씩 띄워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 백 곳까지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어느 부락에 가든지 낚시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에 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불란서로부터 구라파, 이것을 전부 관광코스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낚시에 대한 전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 운전을 하면서 관광안내역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즈니스입니다. 이래놓으면 그 귀중한 손님들을 중심삼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국제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방대한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기반이 자연히 닦입니다. (122-82, 1982.10.31) p.1768

Top

㈏ 세일로 유통조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미국에서 선생님이 계획한 것이 2 대 사업입니다. 수산사업과 세일로 판매조직입니다. 요전에 무니가 수산사업 분야를 완전히 점령한다고 해서 수산업계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났던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131-250, 1984.5.4) p.1768

경제활동조직 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판매시장을 중심삼고 전국을 장악하느냐 하는 싸움이 최후에 남은 장벽입니다. 세일로 조직, 세일로라는 세계적인 기계 판매 조직을 통해 미국에서 패권을 쥐고 수산사업에서도 패권을 쥐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로 움직이게 되면, 미국이라든가 자유세계에 대한 영향권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경제기반을 닦음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언론계의 세계기반 확보를 위한 워싱턴 타임즈와 인사이트라는 월간잡지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수산사업에서 미국은 방대한 자원이 있으나 거기에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레버런 문과 통일교회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게끔 올라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기술과학을 중심삼은 제품의 판매시장 확대에 레버런 문이 미국에서 패권을 쥐었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세일로 조직을 50 개 주에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일로 시스템 자체가 국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전시장, 판매시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135-97, 1985.9.30) p.1768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경제기반을 닦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선택한 세일로 조직 전국화 운동과, 수산사업 판로의 세계적 기반을 닦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하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계공업이 현재 서구문명의 중심이라고 하면, 수산사업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수산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세일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생해서라도 여기에 투자해서 기반을 재창조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세일로는 세계 판매조직과 미국의 수산사업 패권을 위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결론은 타당한 결론입니다. (135-99, 1985.9.30) p.1768

미국에서 기술세계, 세일로 조직으로 기계공업과 수산사업에서 패권을 쥐면, 미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 연합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곤란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40 년 동안 이런 머리와 능력을 가지고 고생해 나온 것을 생각할 때,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선각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을 세우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참고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종적인 전통을 세웠으면 여러분에게는 횡적인 전통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횡적 기준까지 선생님이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세일로 조직을 통해 어떻게 급진적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35-106, 1985.9.30) p.1769

'이 수산사업이 세일로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세일로 사람을 수산사업 분야에 집어넣고 수산사업의 사람을 세일로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꿔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하나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돈 없는데 뭘 둘씩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 기회에 전부 다 합하는 겁니다. 많은 장(長)이 필요 없습니다. 한 장을 중심삼고 명령하면 천하가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5-102, 1985.9.30) p.1769

Top

㈐ 알래스카 수산업

미국은 국토를 중심삼고 삼면의 해역에 세계 4 대 어장 가운데 3 대 어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르웨이의 어장을 합치면 4 대 어장이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로부터 알래스카,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클로우스트 지역이 세계 4 대 어장 가운데 3 대 어장으로 연해 있는데, 그것은 세계 고기의 거의 전부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200 해리를 책정해 놔 가지고 완전히 주인 없는 황무지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110-200, 1980.11.17) p.176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알래스카는 바다를 중심삼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모든 자원, 어류와 원자재가 집중한 곳이 알래스카입니다. 세계의 수산자원 가운데서 80 퍼센트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 수산자원의 71 퍼센트에 해당하는 고기가 알래스카에 있는 것입니다. 수산자원에서 알래스카는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원의 획득지라면 이 툰드라 평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236-22, 1992.11.2) p.1769

요전에 알래스카에 갔더니 길이가 60 마일 되는 시커먼 카프(carp;잉어과 물고기) 떼가 몰려오는 겁니다. 너비가 10 마일이고, 깊이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해 보라구요. 그걸 보면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레버런 문은 대양 위에 그런 부(富)가 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131-263, 1984.5.4) p.1769

수산사업에 얼마나 발전을 가져왔느냐? 이제는 배에 있어서의 모든 기계는, 우리가 연구하여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어디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그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테이프만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10 년 후에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절대 비밀로 하다가 죽을 때나 아들에게 유업으로 가르쳐 줄 만한 재료를 세계 5 대양에서 무수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5 대양에 그런 근거지를 우리가 기록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계절 따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수산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5-106, 1985.9.30) p.1770

알래스카에 천 삼백만 불 들여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의 글로스터 부두도 사려고 합니다.

또, 남쪽의 앨라배마에 우리 배 공장이 있지요? 기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에 대해서나 바다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지요? 내가 10 년 동안 다 준비했습니다. (119-239, 1982.9.13) p.1770

알래스카의 서부지방, 남부지방, 동부지방에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고기는 많은데 그 처리를 못 하니까 이제 제분공장, 피시 파우더(fish powder;고기 가루) 공장을 만들 것입니다. 왜 가루를 만들어야 되느냐? 저장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암만 좋은 생선이라도 8 개월 이상 못 넘어갑니다. 냉동고기라 하더라도 8 개월 이상 되면 물을 다시 공급해야 되고, 얼음이 얼었더라도 그 얼음에 기후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들어갑니다. 바람이 들어가면 고기에서 수증기가 얼음 사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물을 끼얹어 가지고 다시 냉동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꺼냈다 냉동하게 되면 일정한 온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폐물이 되는 것입니다. (122-80, 1982.10.31) p.1770

새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선생님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우더, 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우는 일년이면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을 때 고기 먹이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잡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매해 그러한 고기 양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공해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생님이 다년간 연구해 가지고 파우더를 생산한 것입니다. (273-50, 1995.10.21) p.1770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1 년에 2 천만 명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삼고 20 여 년 전부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양산업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고기가루, 피시 파우더(fish powder)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고단위 단백질인데 어떤 동물에도 없는 영양분입니다. 이것을 가루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보관과 운반이 편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피시 파우더 1 톤을 생산 하게 된다면 30 배, 50 배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98 퍼센트가 단백질입니다. 선진국가가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96-228, 1998.11.10) p.1771

무지무지한 큰 고기가 있는 동시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는 '야, 알래스카에서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것보다도 투망질 잘 하는 서너 사람만 있으면 하루에 고기 한 배 잡는 건 문제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삯을 주고 고기를 잡아서 피시 파우더(fish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powder;고기가루)를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267-18, 1994.12.27) p.1771

앞으로는 고기를 가루로 만들어 조합해 가지고 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멋진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고기를 먹는 것이 육식보다 낫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다 압니다. 이게 미개지입니다. 미국이 손을 안 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을 선생님은 틀림없이 압니다. 돈은 내가 마련하겠지만 여기에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88-181, 1976.8.10) p.1771

캐나다로부터 소련도 그렇고 미국 자체로부터 일본, 독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이 바다에서 잡는 고기의 20 퍼센트 이상은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을 모아서 가루를 내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를 만들어서 저개발국가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 가지고 전세계 저개발국가의 사람들이 우리 통일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295-110, 1998.8.18) p.1771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는 해양 자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자원은 생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알래스카의 고기를 가공해서 팔기를 원하고, 일본 사람은 고기를 원하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 고기를 잡아서 일본에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일본 사람과, 일본 사람은 미국 정부와 교섭해 가지고 일본은 미국의 고기가 필요하고 미국은 일본 기술이 필요하니 서로 합작투자하자는 것입니다. (146-249, 1986.7.1) p.1771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해양기지, 수산업기지가 알래스카입니다. 이 알래스카와 노바스카의 포스토네비아, 그리고 멕시코만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 4 대 어장 가운데에서 3 대 어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곳이 알래스카입니다. (167-132, 1987.7.11) p.1771

앞으로 소련이 정치적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고, 일본과 독일이 연합해서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세계적인 정치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기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200 해리를 책정해 놓았지만 이곳을 중심삼은 수산물에 대해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외국에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먹더라도 랍스터(lobster;큰새우) 와 그 다음에 오늘 잡으려고 하는 할리벗(halibut;북방 해양 산의 큰 넙치), 그 다음에는 새먼(salmon;연어), 그 다음엔 트라우트(trout;송어), 이렇게 몇 가지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기는 대개 어디서 나느냐 하면, 한대지방의 한류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그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고기가 어디서 자라느냐? 이 알래스카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167-132, 1987.7.11) p.1772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고기로 사람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 해양권을 쥐면, 육지권까지 쥘 수 있다는 것이 섭리의 관입니다. 따라서 알래스카를 점령하면 모든 해양권이 점령되는 것입니다. 세계 수산 수입의 85 퍼센트가 알래스카에서 나옵니다. 5 퍼센트는 대서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 퍼센트는 태평양에서 나와서 100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168-67, 1987.9.1) p.1772

알래스카에 가면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 알지요? 연어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홍빛이 나는 것도 있고, 빨간빛 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내보내면 그것이 단물에서 새끼를 까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데 4 천 마일, 5 천 마일 5 대양을 거쳐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4 년만 되면 새끼를 깔만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여자 연어와 남자 연어가 되어 새끼를 깔 때가 됐다 하면, 어디 가서 참사랑의 대상을 만나느냐?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는 조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 법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세웠을까요? 그 연어들이 세웠을까요? 이건 신비로운 문제입니다. (169-174, 1987.10.31) p.177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알래스카의 연어를 보면, 7 월에 조그만 새끼를 까게 해 가지고 바다에 내보내면 4 천 마일에서 5 천 마일을 4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 냄새를 맞고 찾아옵니다. 오늘날 그 신비를 과학으로도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안테나를 갖고, 무슨 레이더를 가졌기 때문에 돌아와요?

고기 새끼도 고향을 4 년만에 찾아가서 새끼를 낳아 놓고는 전부 죽어 가지고 자기 몸뚱이를 새끼들의 밥이 되게 해서 크게 하는 놀음을 하는데, 만물 중에서 유인(唯人)이 최귀라고 하는 인간이 이게 뭐예요? 인간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176-324, 1988.5.13) p.1772

내가 새먼을 보고서 '새먼이 우리 통일교회 사람들과 똑같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찾아가는 패가 통일교회 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쌍쌍제도를 찾는 것이 하나님주의이고, 딱 그것입니다. 암놈 수놈이 쌍쌍이 되어서 4 년, 6 년 동안 바다에서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수놈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암놈이 올라와 가지고 비로소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웅덩이에 수놈과 암놈이 모여서 통일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약혼식같이 해 가지고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수놈과 암놈이 바다에 있을 때는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생김새는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대만 묶게 되면 수놈은 2 주일 이내에 딴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 할 정도입니다.

담수에 올라와 가지고 쌍을 짓게 되면 벌써 수놈의 형태가 수사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입이 이렇게 되고, 이빨도 이렇게 나오고, 보면 무섭습니다. 머리가 나오고 등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수놈 모양으로 말입니다. 새먼 같은 것도 우수 종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4 천 마일, 5 천 마일 바다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고향을 찾아오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신비의 수수께끼로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그만 놈이, 고향 땅에서 한 6 개월 되어 불과 15 센티 되는 치어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렇게 커 가지고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철이 되면 자기들이 벌써 새끼 가질 때를 압니다. (259-198, 1994.4.10) p.1773

새먼이 바다에 나가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다 수놈과 암놈이 와서 매칭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위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통일교회 부부들이 사랑하는데 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새먼 커플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죽어서 새끼들의 먹이가 되어 가지고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새먼입니다. 동물의 본능 세계의 전통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살고 있는 것이 새먼입니다. (271-115, 1998.8.18) p.1773

세계 4 대 어장 중에서 3 대 어장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노바스카 캐나다 지방과 알래스카주와 멕시코만 지방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수원 자재의 풍부함을 알게 된다면 미칠 것입니다. 황금맥은 몇십 년 파먹으면 끝장나지만 이것은 영원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20 년을 계획해 이제 15 년째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수산업계에서는 '문총재 이단자다.' 하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문총재 물러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단입니다. 암만 해보아야 문제는 실력입니다. (191-73, 1989.6.24) p.1773

바다에 가면 고기잡이도 합니다. 내가 안 잡아 본 고기가 없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의 고기를 다 잡아 봤습니다. 안 잡아 본 고기가 없습니다. 알래스카에서도 잡았습니다. 팬티만 입고 맨손으로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어부 세계에 가서 내가 30 분만 얘기해 주면 '아,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부잣집에서 모셔다가 좋은 방을 주고 먹이면서 '집에 돌아가지 말고 같이 살자! 1 년 동안 같이 살자!'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배 타고 사흘만 같이 다니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203-35, 1990.6.14) p.1774

세계 어획량의 75 퍼센트를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 어획량의 85 퍼센트가 알래스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알래스카는 수산의 보고(寶庫)입니다. 그곳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곳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해양산업의 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이 그럴 수 있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기지인데, 그곳은 환경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건이 좋으면 부르주아들이 다 해 먹습니다. 배가 파선되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205-319, 1990.10.1) p.1774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바람이 불어 10 미터 이상 되는 파도가 치는데도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해양경찰 본부에서 유디티(UDT)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다에 나가지 말라는 경보가 내렸습니다. 조금만 나가게 되면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돌아가라고 방송하고 야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는 작지만 용감하게 파도를 타고 나가니까 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는 안 가라앉는다는 것을 설명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게 해 놓으니까 태풍이 부는 날에 나가더라도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디티 훈련, 특전훈련(特戰訓鍊)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사를 가리지 않고 비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나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5-319, 1990.10.1) p.1774

전 세계 어획량의 75 퍼센트를 갖고 있는 미국 가운데서 85 퍼센트의 어획량을 갖고 있는 곳이 알래스카인데 알래스카는 한국식 발음으로 '알았습니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알았습니까?' 하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불고 죽음이 교차되는 위험한 곳인 것을 알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206-93, 1990.10.3) p.1774

고기들이 추운 알래스카 지방을 왜 찾아가느냐? 더운 데 있던 고기가 한대지방을 찾아가는 것을 두고 음양의 조화라고 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화합하는 곳에 가서 새끼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유동하는 것입니다. 또 담수에 있던 것은 짠물을 마셔야 새끼를 칠 수 있습니다. 참게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것이 되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화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이 그런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207-82, 1990.11.1) p.1774

선생님은 알래스카에서나 어디에서나 지금까지 밤낮없이 선두에 서 가지고 오늘날 통일의 전통을 세워 나왔습니다. 인류와 나라와 세계가 앞으로 부모님 앞에 진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모시고 영원히 따라가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220-268, 1991.10.20) p.1774

여기 알래스카는 난류와 한류가 교류되기 때문에 각종 어류가 다 모입니다. 또 여기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고기가 전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곳인데, 여기 와서 낚시질을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환상적입니다. 더욱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수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알래스카 바다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 놀음을 한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167-132, 1987.7.11) p.1775

알래스카는 관광객을 유치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됩니다. 한국은 금년에 더웠지요? 그럴 때 돈이 있으면, 알래스카로 가는 겁니다. 알래스카가 여기에서 한 여섯 시간 걸립니다. 갈 때 역바람이 불면 일곱시간 걸리지만 다섯시간, 여섯시간 거리입니다. 저녁에 비행기에서 자고 아침에 내리게 된다면, 이것이 일일활동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가 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낚시질하고 저녁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먼 산을 보면, 산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주변의 가까운 산은 눈이 다 덮여 있는 것입니다. 눈 덮인 동산 아래에 푸른 지대가 있고, 그 푸른 지대에는 꽃동산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그 아래에는 푸른 바다, 아름다운 호수 같은 바다가 있어서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경(仙境)인가 생각해 보라구요. 사방을 보면 병풍같이 고산이 둘러싸여 있고, 알래스카의 나무는 피아노 건반을 만드는 아주 곧은 나무로 산림이 우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수풀 가운데에는 보지 못한 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호수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슴이 없나, 짐승들이 많습니다. 물가를 중심삼고 많이 삽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으니까 물을 먹어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해초가 다 죽습니다. 눈이 쌓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해초를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바다와 참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슴이나 곰 같은 짐승들이 많습니다. (264-98, 1994.10.9) p.177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알래스카에 가면 4 월에도 춥기 때문에 털내복을 입어야 합니다. 앞산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면 고기가 무진장합니다. 무한정의 고기가 어디든지 헤엄치고 있습니다. 낚시를 던지면 '왁' 흥분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한번 왔다가 절대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고기를 잡는 자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는 데도 좋습니다. 편리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관도 멋집니다. 3 분의 2 가 눈으로 뒤덮인 산이고, 사는 데는 푸른 지역의 센터입니다. 바다는 푸르고 하늘에는 독수리가 날아다닙니다. (262-280, 1994.8.1) p.1775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로 가면 모스크바는 여덟 시간 걸리고, 런던은 여섯 시간 걸리고, 뉴욕은 열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곳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간의 힘을 가지고 알래스카의 평원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온상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도 거기서 기릅니다. 열대 지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236-22, 1992.11.2) p.1776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산물이 알래스카에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구요. 알래스카는 한국의 몇 배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네 배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일 큰 주(州)니까 그만큼 방대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진장의 원자재가 묻혀 있습니다. 거기의 주인은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체제 문제를 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원자재의 소모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자재를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36-22, 1992.11.2) p.1776

그래서 북극을 누가 점령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극을 점령하는 것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극이 그렇잖아요? 북극을 점령해 가지고 주체적 입장이 되면 남극점령은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253-299, 1994.1.30) p.1776

알래스카의 정신이란 말을 들었어요? 알래스카의 정신이 뭐예요? 다섯 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바다에 나갔다가 밤 열두 시에도 들어오고 한 시에도 들어오고 두 시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책임량을 못 하게 되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정을 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과정에서는 책임 못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훈련을 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 어디에 가든지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나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263-10, 1994.8.16) p.1776

Top

㉮ 양식업

여러분이, 그 지방에 수산대학의 교수가 있든가 해서 그 지방 수역에는 무슨 고기가 살고, 어느 수역에는 무슨 고기가 사나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그들이 연구한 것이 그대로 맞는지 테스트해 가지고 기록을 딱 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50 개 주의 바다를 조사해서 전부 한곳에 모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고기잡이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다를 낀 주(州)는 전체 해역, 고기잡이하는 전체 지역의 깊이와 온도를 전부 다 재 가지고 그 해역에 무슨 고기가 사는지 전부 다 조사해서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보트를 사 주는 것입니다. 삼십 몇 개 주,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주는 어장을 중심삼고 책을 만들 것이고, 만약 바다가 없거들랑 호수를 중심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양어를 전부 코치하려고 합니다. (94-109, 1977.7.29) p.1776

내가 요전에 플로리다에 갔을 때, 거기에는 습지, 악어들이 사는 습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국가와 타협해 가지고 그곳에 양어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다고기 양어장, 민물고기 양어장, 무슨 양어장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뉴욕 앞에 있는 간석지에도 앞으로 게에서부터 무슨 고기든지 양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방대한 사업이 되겠나를 생각해 보라구요. 바다 고기의 뼈로 동물의 사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료 같은 것은 잡어(雜魚)를 잡아 가지고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엔 조합(組合)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굉장한 사업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각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그래 가지고 통조림 공장을 한다면 굉장한 사업이 될 겁니다. (88-179, 1976.8.10) p.1777

남미 같은 데는 산이 없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물은 거기만 파야지, 다른 데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장사만 하고도 삽니다. 바다 물을 수중기로 만들어서 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인 힘을 가지고 터널을 파서 십리, 백리 천리까지 피싱 팜(fishing farm;양어장) 빌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의 무역센터보다 높은 빌딩이 지어질 것입니다. 판타날에 고기의 종류에 따라 빌딩에서 양식해서 컴퓨터에 자료를 딱 넣어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고기 무슨 고기 골라서 점심때 사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까닥 펄펄 뛰는 고기를 생선회를 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302-99, 1999.6.1) p.1777

지금 세계에는 물이 많은 호수가 많은데, 알래스카만 해도 호수가 2만 평 이상인 것이 3백만 개입니다. 2만 평 중심삼고 고기를 양식하게 되면 2백 세대, 3백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 3백만이면 얼마예요? 이게 2만평씩 하게 되면 6억이라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육(2×3=6), 6억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호숫가에 양식장만 만들어 주면 아프리카 사람 6억 5천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식량은 문제가 안 됩니다. 소고기 보다, 육지의 고기보다 생선이 건강에 좋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육류를, 소고기를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271-39, 1995.8.15) p.1777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 호수가 얼마나 많아요? 몇천만이 될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것이 3백만 개라면 몇천만 개는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몇백 평만 딱 만들어 물을 넣고 몇 가지 종류의 물고기만 기르면 먹고삽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모델 형태를 딱 교육시켜서 운영하게 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식량문제가 해결됩니다. 물과 땅이 있는 곳에서는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낚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289-50, 1997.12.30) p.1777

선생님이 왜 튜나에 관심을 갖느냐? 튜나 한 마리가 알을 얼마나 낳느냐 하면, 2백만 개를 낳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화되느냐 하면, 0.8퍼센트밖에 부화되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낳으면 조그만 고기들이 전부 삼켜 버린다구요. 그래서 선생님이 튜나 양식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알을 백 퍼센트 부화할 수 있는 기술만 가지면, 인류의 식량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19-63, 1982.7.3) p.1778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 넘버원이면 넘버원, 번호가 세계적으로 통일됩니다. 백 몇 번이면 백 몇 번, 혹은 오십 몇 번 그 종류 가운데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딱 전화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양식장에 내가 몇 시 몇 분에 갈 텐데, 몇 번 몇 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는 사시미(さしみ;생선회) 만드는 칼 하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시미 해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274-109, 1995.10.29) p.1778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큰 호수를 만들어, 거기에 물고기를 양식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제일 멋진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아 낚시 풀(pool)에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낚시는 일 년 열두 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7-122, 1990.11.1) p.1778

목장 같은 것 그렇게 크게 해 가지고 밥 먹고사느니보다 양식을 하면, 한 오십 평만 가지고도 한집 살림은 문제 없습니다. 높은 산에도 바닷물은 얼마든지 끌어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정 없으면 소금물 타서 염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도 양식장 만들고 그거 한 사람이 관리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미국 가 가지고 바다에 가서 그 놀음 한 것입니다. 좋은 어종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189-290, 1989.6.17) p.1778

낚시터에 고기가 없으면 양식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양식해야 됩니다. 고기를 양식해서 어디든지 운송해서 낚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후가 맞고 온도가 맞는 데서 양식장을 만들어 양식하면 어디든지 무슨 고기든지 낚시터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배로 운반해서 놓아 줘 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호랑이 사냥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늑대를 길러서 사냥터에 풀어놓고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곰 사냥도 할 수 있고 무슨 동물이든 사육해서 사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5-104, 1995.11.3) p.1778

내가 양식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활어요리가 가능한 것도 내가 코치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디어입니다. 여과장치를 해 가지고 수조의 물을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우리가 다 연구한 것입니다. 양식장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활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잡는 것만으로는 수요만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낚시질을 해서도 산채로 공급할 수 있지만, 양식을 해서 활어를 보급해야 합니다. 각 주(州)에도 양식장 만들 계획을 하고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훈련하라고 '원 호프'호를 나눠줬는데,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앞으로 배만 30 척 내지 50 척을 팔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세계적입니다. 원 호프 호만 해도 10 년 전부터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병대로부터 72 척 주문이 들어온 것도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았느냐? 이 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저 배가 낚시질을 하는 데는 제일 좋은 배다.'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해서 팔려고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배입니다. (207-120, 1990.11.1) p.1779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 15 만 명이 취직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수산산업을 해서 양식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튜나를 가두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1 월에는 갖다 파는 겁니다. 돈벌이도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깨비같이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209-317, 1990.11.30) p.1779

앞으로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땅과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이 있는 데서는 양어를 하는 겁니다. 양식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땅이 있는 곳에는 오색 가지의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한테 농사짓는 것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탕감해줘야 합니다. (246-82, 1993.3.23) p.1779

온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는 천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양식장을 만들었습니다. 공해로 인한 오존층파괴 문제를 인류의 대표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각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갈 수 없을 때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발자국 위에 자기도 발자국을 남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리의 길은 그대로 밟아 가는 길입니다. 넘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부모도 가야 하고 대대손손 몇천 대의 후손도 원리의 길은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탕감의 길입니다. (246-202, 1993.4.16) p.1779

Top

㉮ 오션 처치와 해양훈련

레버런 문을 중심삼은 통일교회는 세계적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레버런 문이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만을 위해 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관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나 바다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대담하고 용감하게 세계적인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사상을 중심삼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배경을 중심삼고 이런 체제를 갖추어 해양교회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는 것은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것은 레버런 문의 무서운 과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설정입니다. 앞으로 오션 처치를 해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바다에 나가서 훈련이나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다를 점령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점령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의 본의에 합당하게 바다를 관리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를 결속할 수 있는 무대로 삼자는 것입니다. (128-249, 1983.8.28) p.1780

배를 타고 파도를 타는 것은 사나이들이 하는 놀음입니다. 여자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거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내가 배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배 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바다를 개척해야 할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을 따라가고, 선생님을 좋아하니 그 배를 안 좋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튜나 큰 게 몇 파운드 나갑니까? 천 파운드가 넘습니다. 천 파운드짜리가 수두룩합니다.

보통 사람의 몸무게가 120 파운드라면 거의 8 배입니다. 생각해 봐요. 그런 고기를 잡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장사 중에서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그거 한 마리 잡으면 1 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 파운드 먹는다면 3 년에 한 마리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119-63, 1982.7.3) p.1780

이제 육지는 사람으로 꽉차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바다에서 사는 세계가 불원한 장래에 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뭘해야 되느냐? 세계의 해양기지에 전부 통일교회 남자 무니들이 사는 것입니다. 요것만 점령하게 되면 현재 세계의 모든 문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무니들이 전부 해안에 모여 가지고, 세계의 해안을 우리가 점령하는 것입니다. (116-326, 1982.1.2) p.1780

미국 해역에 무한한 수산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수산청에서는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누구든지 배를 2 년 반만 타면 그 사람이 배를 갖겠다 할 때, 10 퍼센트의 돈만 내면, 120 톤의 배가 200 만 불에 해당하는데 그 200 만 불에 해당하는 배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120 톤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300 개의 항구를 중심삼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특별하게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낚시배로부터 훈련하기 좋은 배를 특별히 고안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레버런 문이 고안했습니다. 배로 말하자면 하여간 미남 같은 배입니다.

고기잡이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한 척의 큰 배를 중심삼고 열 척의 배를 묶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열한 척의 배를 가지고 나가는 셈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다섯 명만 편성하게 되면 3 만 불에 해당하는 배를 준다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그만 배도 3 만 불을 받고 파는 것이 됩니다. 현재 수산도시의 개발을 위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110-202, 1980.11.17) p.1781

한곳에 60 명의 요원을 모아서 교육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30 개소에 배치하고 왔습니다. 30 곳에서 요 기준이 완성되면 300 개소로 확대시켜서,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을 책임자로 세워 해양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역사상에 없는 교회입니다. 해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배를 타고 주일날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원들이 2 년만 배타면 됩니다. 큰 어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대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도시의 시장이라든가 해양 경찰서장이 사인만 해주면 얼마든지 국가에서 배를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내가 투입하는 돈을 은행에서 대체해 가지고도 그 자금 10 퍼센트를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수천 척의 배가 생겨납니다. 그 일이 실지로 돼 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조직, 선교부를 중심삼은 판매조직을 계획하고, 구라파, 일본에서도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204, 1980.11.17) p.1781

여러분이 홈 처치를 하는데, 300 척의 보트가 뭐냐 하면 홈 처치의 보트입니다. 오션 처치(ocean church;해양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힘들거든 항구도시에서는 '원 호프라는 배가 있는 곳이 어디요?'라고 물으라구요. 그걸 항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미국의 해안에 있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람은 전부 다 알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모여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심 먹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108-217, 1980.10.5) p.1781

남미에 새우잡이 배가 30 척이 있고, 튜나잡이 배가 다섯 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중심 멤버들은 1 년 6 개월은 누구나 다 해양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일교회 책임자들은 일 년에 두 주일은 누구나 다 동원되어 해양교회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양교회의 활동을 하는데는 무슨 교회 책임자고 그것 모른다구요. 전부 다 같이 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 가서 낚시질하고 와!' 하고 지령할 것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119-256, 1982.9.13) p.1781

금년에 들어와서 4 월부터 지금까지 5 시에 일어나 밤 11 시까지 바다에 나가 배 타다 온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녀석들도 도망 다니며 숨어 가지고 잠자려고 하는데, 70 이 넘은 할아버지가 배 타고 낚시질하느냐?' 하면서 혓바닥을 내미는 것이 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죄도 큰 죄를 짓는구만. 왜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저렇게 고생시키노?'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기지 못하면 탈락이 되겠기 때문에, 세계 정상에 못 올라가겠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223-280, 1991.11.12) p.1782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따라잡을 녀석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것은 과격한 중노동과도 같습니다. 중노동 중에도 그런 중노동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 가지고 낚시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앉으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밤 12 시가 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는 12 시가 되어도 훤합니다. 새벽 1 시가 되어도 밝습니다. 새벽 5 시에 일어나 밤 12 시까지 하면 몇 시간입니까? 열아홉 시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231-308, 1992.6.21) p.1782

바다의 경계선과 육지의 경계선은 해안선입니다. 이제 바다는 육지를 연결해야 되고 육지는 바다를 연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개의 목적이 중복되는 경계선은 해안선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육지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한 때에는 해안선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해안선이 육지의 어떤 땅보다도 비싼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28-249, 1983.8.28) p.1782

수산업을 왜 할까요? 왜 앨라배마에서 배를 만들까요? 신학생들이 오션 처치(ocean church;해양교회)에 안 가겠다고 하면 여자들을 선장 만들어 가지고 여자 선장이 남자들을 데려다 뺨을 때리며 '이놈의 자식아! 나도 이 놀음하는데 남자가 뭘하는 거야?' 하게끔 할 것입니다. 남자들을 데리고 해양교회를 지도하는데 배 안 타겠다, 하면 뺨을 쳐라 이겁니다. 남자가 안 가겠다면 전부 여자 선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116-326, 1982.1.2) p.1782

Top

② 남미 중심한 해양섭리

㉮ 자르딘 새에덴 건설

자르딘이 얼마나 불편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자르딘을 어떤 곳보다도 더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서 울고, 달을 보면서도 그리워해야 되고, 해를 보면서도 그리워해야 되고, 그 해 아래 치리 받는 생명체, 모든 만물을 보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한의 하나님의 제물적인 조건이 되는 것을 전부 마음으로 씻어버려야 합니다. 자르딘은 원초지입니다. 창조물 자체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박물관같이 모여 있는 원초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지역입니다. 만물창조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원초물이 서식하는 그 곳에 가서 3 년 이상 피땀을 흘려야 합니다. 노동을 3 년 동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조국 광복을 위해서입니다. 물 가운데서 그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물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 가운데서 천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세우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303-157, 1999.8.17) p.178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된 것을 빨리 복귀해서 관리해 가지고 옛날에 멸종됐던 종자를 여기서 다시 세계에 확장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박물관, 새도 1천 5백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천 5백 가지의 박물관을 만들고 곤충 박물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면 섭리의 뜻 가운데 이곳이 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만민의 아들딸의 교육장소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르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르딘은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가 온다고 한 것입니다. (294-56, 1998.6.10) p.1783

자르딘이라는 말이 뭐예요? '타락의 자리에 들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사탄이 인류조상의 자리에 들어서 자르딘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타락의 자리에 든 인류조상은, 사탄은 판타날, '너를 판다.'는 뜻입니다. 너를 팔아서 살로브라입니다. '살려봐라' 이것입니다. 살로브라는 부활하자 그 뜻입니다. 한국말로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294-56, 1998.6.10) p.1783

브라질에서 제일 좋은 물은 황토물입니다. 황토물을 황금강이라 합니다. 한편 맑은 물은 수정, 은강이라고 합니다. 그런 두 가지 강이 합하는 삼각지대에 우리가 땅을 사서 자르딘기지를 만들었습니다. (285-136, 1997.4.21) p.1783

여기에 양어장(fishing farm)을 해도 얼마나 좋아요. 파라과이에서도 전기가 남아서 야단인데 말입니다. 호수 같은데 온도를 조절해 가지고 남방 고기를 북방에서도 얼마든지 양식할 수 있습니다.
자르딘 중심삼고 여기 미란다에 사는 고기를 북방지대에서 그냥 그대로 온도 맞춰 살게 한다면 남방 사람도 와서 구경하고 북방 사람도 구경하러 오게 마련입니다. '난 알래스카만 좋다.' 하는 건 남방에서는 낙제입니다. '알래스카도 좋지만 남방도 좋다!' 해야 합격입니다. 아침에 알래스카에서 살고 저녁에는 남미에서 살라고 할 때, 그렇게 계속해서 일생 동안 살 수 있고 그 이상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알래스카나 남방세계를 전부 다 통치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276-77, 1996.2.4) p.1783

이구아수 폭포는 하나지만 관광지로 그 이상 좋은 곳이 없습니다.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도라도도 있고, 고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낚시를 하면 고기들이 잘 무는데, 먹을 것을 주면 뛰어와서 잡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오기만 하면 거기서 살려고 야단일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레버런 문이 자르딘에 왜 관심이 있느냐?' 하다가도 와서 보고는 '야! 여기가 천국같다. 주(洲)가 그것도 모르고 아이구, 레버런 문에게 빼앗겼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79-198, 1996.8.4) p.1783

우리 자르딘 농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앵무새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앵무새도 자연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고, 타조들도 먹이를 주니까 자꾸 옵니다. 사람과 친해져 가지고 사람이 가서 먹이를 주어도 도망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지어 놓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같이 놀던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8-103, 1996.5.1) p.1784

선생님은 물을 사랑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품고 소화합니다. 자르딘에 미란다 강과 플라타 강이 있는데, 그 둘이 음양입니다. 플라타는 맑은 물인데 미란다는 흙탕물입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흙탕물이 있으면 세상같으면 도망가고 말 것인데,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용돌이 물에 맑은 물이 서슴지 않고 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세를 갖추어 가지고, 흙탕물과 더불어 화해서 빛깔이 달라졌지만 흐르고 흘러 시일이 가면 갈수록 다시 제 빛을 찾아 가지고 맑아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76-140, 1996.2.18) p.1784

물은 아무리 더럽더라도 수평을 취할 줄 압니다. 사람도 수평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자르딘에 왔다고 해서 브라질과 관련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색 인종이 사는데 말이 통하지 않지만 나는 다른 종자로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척이요, 자기 동생이요, 전부 6천 년을 떨어져 살다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다시 만났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연을 넘어 습관과 풍습이 통하지 않아도 자연으로써 반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76-90, 1996.2.4) p.1784

앞으로 이 장소가 귀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판타날에 찾아와서 이 놀음할 만큼 귀한 장소니 만큼 이 땅을 다 우리가 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살로브라도 그렇고 자르딘 땅을 다 사려고 합니다. 이곳을 중심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판타날입니다. 판타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가 됩니다. 전부 다 영계 육계가 연합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륙이, 물과 땅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물위에 풀이 있습니다. 육지와 같은 수륙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짓고 섭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293-263, 1998.6.1) p.1784

통일교회에는 자르딘 선언이 있습니다. 제 2 차 40 년 노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에덴 복귀입니다. 에덴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에덴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평형기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딘에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없었던 만물 전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 지은 이 세계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고, 동일권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르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르딘에서 축복 받은 가정들이 종적으로는 올라왔지만 횡적으로는 기준에 못 서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횡적 기준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향한 이상 가정 교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축복 받은 가정들을 새로이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광된 가정에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르딘 가정 훈련입니다. (294-319, 1998.8.9) p.1785

자르딘에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하려면 여덟 교실이 필요한데, 열두 교실 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짓게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르딘에서는 2 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강당을 중심삼고 교육기반을 피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르딘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33 개 시가 있는데 33 개 시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르딘 본부에는 초등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시스템을 가지고 그 지방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교육해서 앞으로 전국에 펼칠 수 있는 준비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2,500 명 이상 수용할 수 있고, 강당은 1 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주 33 개 도시에서 모든 화동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그 놀음 못합니다. (281-295, 1997.3.9) p.1785

자르딘의 교육 계획은 수산사업, 산림, 농사방법, 그 다음에는 공업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반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각 시 중심삼고 거기에서 본부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르딘에 지은 것과 같은 것을 확대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단과대학 중심삼고 종합대학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우루과이도 33 개 독립군이 있었는데, 한국에도 3?1 운동 독립유공자 33 명이 있었습니다. 또 남미도 33 개국입니다. 참 묘한 것이 이 자르딘이 있는 주를 중심삼고 시가 33 개 입니다. 그거 섭리적입니다. 33 인을 중심삼고 엮어 나가는 모든 내용이 완전히 자동적으로 그렇게 맞게끔 된 것이 섭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딘에는 '동양사람이 와서 자르딘에서 거점을 잡고 이름내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이 오실 메시아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자르딘에 한국사람이 와 가지고 사상적으로나 모든 것을, 혁신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분이 메시아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디언 전체가 말려 들어올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81-297, 1997.3.9) p.1785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실감납니다. 한국의 독립만세운동 지도자가 33 명입니다. 한국의 맨 밑창이 우루과이인데, 우루과이의 독립군도 33 명입니다. 남미의 나라도 33 개국이고, 지금 내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르딘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시가 서른 셋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요 도시가 33 개입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281-245, 1997.2.14) p.1786

자르딘의 4 백 킬로미터 안팎을 중심삼고 무슨 고기가 살고 있는지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모기를 쏘이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게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명예가 필요해서 그래요? 정치적 배경이 필요해서 그래요?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형제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누가 만민을 구해줘요? 어느 정치가, 어느 나라 주권이 그런 것을 생각합니까? 이런 기반을 갖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원자재를 우리가 파서 수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려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공장이 필요하면 공장을 지어 줄 것이고,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을 대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276-196, 1996.2.19) p.1786

자르딘에서 4 백 킬로미터의 땅을 얻게 되면 피시 파우더(fish powder;생선가루) 공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란서?이태리?독일?미국?일본, 선진국가가 연구해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성공했습니다. 전세계가 파우더를 만들어 가지고 식량 보급하는 길을 해결하자 이겁니다. 수송이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과 적십자사가 '우리와 같이 이것으로 세계난민을 구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딘의 4 백 킬로미터 안의 농촌에 콩 심고, 옥수수 심고, 만추카 심고, 무슨 곡식이든 심어 가지고 수확되는 전부는 여기에서 가루를 만들어 20 배 확대한 식량을 만들어 가지고 난민을 구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는 어디서 잡아요? 고기가루는 어디서 만들 것입니까? 여기에는 강이 많습니다. 호수를 만들고 낚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사주는 것입니다. 펄펄 뛰는 고기가 10 분 이내에 가루가 돼 나옵니다. 그래, 이것이 자르딘에서 환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환영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276-194, 1996.2.19) p.1786

제 3 세계의 난민들이 레버런 문이 자기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소문이 나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가지고 피시 파우더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자르딘에 농장을 만들고 가루 공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계 인류가 통일교회 신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인류들이 자르딘을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선생님이 갔던 곳, 이름 있는 곳은 다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양식해 가지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수고한 그 공적의 터전을 중심삼고 만민이 입을 모아 찬양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가지고 '하늘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함성이 세계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277-142, 1996.4.7) p.1786

브라질이나 우루과이에는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과일농사를 할 사람에게도 여기에서 모범적 농장을 만들고, 나무 심고 별의별 일을 다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는 내가 소를 300 마리 줘 가지고 그 나라에서 목장을 기부 받게 해 가지고 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160 개 국가에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양한 새끼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소는 쓰면 쓸수록 자꾸 늘어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불쌍하게 살던 사람들인데 세계적인 목장의 주인이 되고, 농장의 주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산업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하고,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는 세계판도가 딱 되어 있습니다. (266-139, 1997.12.22) p.1787

우리가 여기 올 때 천 헥타르의 땅이 70 만 불이었습니다. 70 만 불이면 소 700 마리까지 주는 것입니다. 농장까지 합해 가지고 70 만 불입니다. 그런 곳이 파라과이입니다. 거기에서는 닭도 키우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트랙터니 하는 농사에 필요한 기구가 전부다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고향,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코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땅을 팔아서 내가 땅 사는데 붙여서 사면 여러분 앞으로 그냥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 개발해 가지고 굶어죽지 않습니다. 거기 농장 가운데 유치원을 만들고, 중고등학교를 만들고 대학교까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색인종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향토를 개발하면 플러스가 상대를 재창조하는 놀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관심 있습니까? 그러면 참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하고 세계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6-139, 1994.12.22) p.178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광활한 초원지대에 무수한 과일, 무수한 새, 무수한 동물들, 없는 동물이 없습니다. 별의별 동물이 다 있습니다. 낚시를 드리우면 물 있는 데는 고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자들이 저녁 지을 때 저녁 반찬감이 없으면 강이 흐르는 뒷문 밖에서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덴뿌라(튀김)도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곳밖에 없습니다. 투망으로 한번 던졌다 하면 고기가 한 가마니도 걸립니다. (267-59, 1994.12.27) p.1787

앞으로 목장을 겸하면서 양어장도 만들고 사냥터도 만들 것입니다. 봄이 되면 수많은 고기들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미란다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중심삼고 운하를 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강이 10 개 이상의 강과 같은 면적이 되는데, 이것을 막아 봄이 되어 여기로 들어오는 고기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춘하추동, 계절을 초월한 낚시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절을 초월하여 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를 양식해 가지고 낚시터에 공급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에 판타나오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는 3 천 6 백 가지의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다가 양식장에서 양식해 가지고 3 천 6 백 개의 낚시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기들을 양식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세계 도처에 이와 같은 곳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270-55, 1995.5.4) p.1788

미국이 위에 있고 남미가 아래에 있으면, 위에 있는 미국이 싫어하는 남미, 남미에서도 미국이 제일 미워하는 브라질, 브라질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산골로 간 것입니다. 내가 자르딘이라는 곳에 가서 모기에게 뜯기면서 새를 친구 삼고, 뱀과도 친구하고, 물고기를 벗삼아 산다 이겁니다. 교주님이 맨발 벗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보면, '저거 우리 통일교회 선생님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놀음을 합니다. '그는 진짜 농부다, 어부다.'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년 6 개월 동안에, 미국에서 24 년 동안 닦아 놓은 기반을 한꺼번에 휘익 올려놓았습니다. (293-293, 1998.6.7) p.1788

브리지포트대학과 선문대를 만들고, 이제는 남미에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르딘에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 갈 수 있게 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을 거쳐야 합니다. 세상 대학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해요? 그것이 전부 잡동사니 호모, 레즈비언같이 도덕적 근본을 파괴시키는 등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기지입니다. 군대 기지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기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자리입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303-231, 1999.8.31) p.1788

Top

㈏ 판타날 성지

일본의 두 배 되는 호수가 판타날 호입니다. 판타날 호에는 3 천 6 백 가지의 고기가 있습니다. 3 천 6 백 종류의 고기가 거기에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물, 수온과 그곳의 입지조건과 환경, 모든 것이 같은 입장의 호수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고 물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분과별로 연구해 가지고 양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전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1-39, 1995.8.15) p.1788

판타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원초적인 자연이 그냥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딴 데는 종(種)의 기준이 남아 있지 않고 멸종된 것이 많은데, 단 하나 남아 있는 곳이 판타날 중심삼은 이 지역과 아마존 유역입니다. 자연 존재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초적인 모든 만물이 집약된 곳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나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와서 역사적으로 희생했던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아시대에 물고기는 심판 안 받았습니다. 심판 안 받은 고기들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만물이 탕감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닦는 놀음을 하려고 판타날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자를 더 번식시켜야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보다 종을 멸종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300-266, 1999.3.24) p.178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판타날에는 풀 종류니 고기 종류가 많습니다. 고기 종류도 3천6백 종입니다. 아마존 강에는 3천 종이 있지만 판타날에는 3천6백 종이 있습니다. 그 종류를 생각해 보라구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풀로부터 곡식과 나무 등 수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홍길동 놀음하듯 이래라 하면 이러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어 가지고 구조적인 모든 내용이 자연세계의 법도와 기후의 조건에 맞게끔 비준을 맞춰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291-164, 1998.3.11) p.1789

판타날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원초적인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걸 내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협조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해와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 메시아들을 판타날의 선두에 서서 모든 일을 진행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거 고마운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미의 살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식물, 동물을 기를 수 있게끔 후원해야 합니다. 일본이 이처럼 세계의 땅에 핏줄을 연결시키면 그곳은 자연히 일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304-255, 1999.11.8) p.1789

아마존 유역, 판타날 오지에 3천6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3천6백 종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본연적인 모든 창조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존 유역이 그렇고 파라과이 강 유역이 그렇습니다. 3천6백 종을 중심삼고 거기에 양식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지 말래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문사가 있으니까 '3천6백 종 기르는 양식장이다.' 해 가지고 소문내는 것입니다. '36개 종이 됐다. 이제 360종으로 올라간다. 360종이 몇 년에 끝난다. 3천6백 종이 몇 년에 끝난다.' 해 보십시오. 고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292-24, 1998.3.27) p.1789

판타날 같은 곳에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던져주면 어느새 깨끗해집니다. 벼락같이 깨끗하게 치워버립니다. 더러운 것이라도 언제 깨끗하게 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 종류, 별의별 것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 먹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섞여 바다의 청소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그 자체가 청소작업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전부 깨끗이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 협조체제입니다.

또, 판타날에는 부레 옥잠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의 잎 뒤를 보면 그걸 뜯어먹는 벌레들이 많습니다. 그게 전부 고기 미끼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잎을 다 갉아먹어 버릴 텐데, 그것을 잡아먹는 고기가 있어 가지고 그 풀이 사는 것입니다. (293-283, 1998.6.17) p.1790

수루비. 수루비는 뭐냐 하면, 바다에 있는 메기와 같은 고기입니다. 맨 밑창에 삽니다. 그리고 보가는 흐르는 물을 좋아합니다. 도라도도 물살이 빠른 곳에 사는 고기입니다. 이 보가는 낚시 밑감만 집어넣으면 다 없어집니다. 도라도는 뭘 물고 나오고 그렇게 못 하는데, 이것은 툭 하면 그냥 그대로 따먹습니다. 그래, 잡기 쉬운 고기예요, 잡기 어려운 고기예요? 여러분에게 잡기 어려운 것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쉬운 것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수루비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 합니다. (293-232, 1998.5.26) p.1790

식물성 고기가 있습니다, 이놈의 도라도는 돌아도 돌아도 어디 가든지 용맹스럽습니다. 이놈이 물게 되면 '쉬익' 소리가 납니다. 배에서 다섯 사람이 낚시를 멀리 던졌을 때 이게 움직거리면 낚시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 낚시를 물었는지 모릅니다. '누구 것이야? 누구 것이야?' 이러다가 자기 것을 싹 들어보고 '아이구, 내거다!'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이 아주 좋습니다. 석양의 빛, 황금빛의 고기, 그 찬란한 광경은 도라도를 잡는 재미가 아니고는 어디에서도 감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느껴 볼 만한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그런 광경을 자기 스스로 맞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293-232, 1998.5.26) p.1790

판타날은 바다와 육지, 물과 식물이 같이 사는 곳입니다. 참 묘합니다. 판타날 중심삼고 아마존강 유역에 창조 본연의 생물들이 거기에 다 남아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그냥 그대로 피해 입지 않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연스럽게 서식하면서 종별의 사슬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날은 세계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판타날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빠꾸가 악어새끼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을 때 '야, 너 배에 똥을 갖고 있지?' 이러면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벌레를 잡아먹을 때 벌레의 날개에 똥이 묻어 있고, 사람 똥이니 개똥이니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는데, 그것을 다 씻어내고 먹겠다고 해요, 통째로 삼켜요? 통째로 삼킬 줄 모르는 사람은 천하통일을 못 합니다. 통째로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도 먹고 나쁜 것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나쁜 것은 집어던지고 좋은 것만 먹겠다고 하지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옥까지 집어넣어 소화하는 것입니다. (295-186, 1998.8.28) p.1790

판타날의 물고기들은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삼켜 버립니다. 대변이 있고, 소변이 있고, 내장이 있고, 오물이 있고 한데, 그걸 그대로 통째로 삼킵니다. 머리도, 꼬리의 냄새나는 곳도 전부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째로 삼키는 자가 해방권의 세계에서 왕자가 아니겠느냐, 그럴 것이라 봅니다. (295-220, 1998.8.28) p.1790

판타날에 가서 '통째로 삼키자. 통째로 삼키자!' 물고기의 세계에 가서 통째로 삼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통째로 삼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족, 가정, 선조들, 친족들을 통째로 삼킬 수 없는 약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강자가 돼야 합니다. (295-237, 1998.8.28) p.1791

여름에 판타날에 가면, 조금만 커도 작은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상어 새끼도 대구보다 작으면 훌떡 삼켜버립니다. 서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보다 작으면 삼켜버립니다. 그거 멋지지요? 큰 종류가 작은 종류만 삼켜 버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는 전부 먹히기만 합니까?' 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물에서부터 모든 천지를 창조할 때 큰놈 작은놈, 어느 종류든 조금만 크면 전부 삼켜버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크면 작은 놈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 불평을 안 하는 것입니다. (296-90, 1998.11.3) p.1791

몽땅 삼키는 관계세계가 판타날입니다. 판타날이 뭐냐 하면 나를 판다, 팔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날 정신은 나쁜 것 좋은 것을 몽땅 삼켜 소화해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쳐 가면서 서로 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사탄세계나 선한 세계나 몽땅 삼켜 버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296-305, 1998.11.18) p.1791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이 없었던 세계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이 없었던 아담의 완성세계를 위해 모든 원수를 전부 다 수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요, 한 가정이라는 개념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키는 것입니다. 판타날의 고기세계에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삼켜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더러운 것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삼키는 것입니다. 내장의 똥이니 무엇이니 몽땅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297-170, 1998.11.19) p.1791

판타날 사상이 뭐냐 하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먹는 데 똥이 묻었든 균이 묻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균이 묻었다고 그것을 떼버리고 깨끗이 씻어 먹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망가 버려야 합니다. 똥이 아니라 독약을 먹었어도 내 배에 들어가면 몸뚱이와 화해 가지고 몸뚱이는 죽더라도 내가 소화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소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곤충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먹더라도, 독약을 먹은 고기를 먹더라도 '나는 독약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판타날 중심삼고 그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메시아인 하나님, 그 다음에 세계적 메시아인 재림주, 국가적 메시아 그 나라의 아벨왕, 종족적 메시아 아벨 종족왕, 가정적 메시아 아벨 가정왕, 이것이 아담 이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부 하나님, 재림주, 국가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가정적 메시아가 있는데 여기서 종족적 메시아가 병나면 가정적으로 대치할 수 있고, 국가적 메시아가 병나면 대치할 수 있고, 세계적 메시아가 병나면 대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날 수는 없지만 병나면 대치할 수 있는 모든 전부를 갖추어 놓아야 주체 대상이 순환운동을할 수 있는 상대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296-92, 1998.11.3) p.179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판타날을 좋아하는 것은 판타날에는 별의별 고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배운 게 뭐냐? 판타날에서 하나 배운 것은 모든 것을, 이것도 삼켜버리고 저것도 삼켜버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악어가 있다면 큰 악어는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악어를 잡아먹는 25 미터나 되는 뱀이 파라과이에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젓가락으로 콩집어먹듯이 삼켜 버리는 뱀이 있습니다. 그 뱀새끼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쭉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니 통째로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고기도 자기보다도 더 작으면 고래새끼라도 삼키는 것입니다. 입에 들어가면 다 삼켜 버립니다. 멋지잖아요? 문총재도 입 안에만 오면 무엇이든지 삼키는 전문가가 되어야 겠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여기서 살려면 삼키지 않고는, 먼지 털고 더러운 것 털고 하는 여자들은 못 살 것입니다. (301-154, 1999.4.25) p.1792

판타날은 일본 사람들 돈의 십분의 1, 백분의 1, 일만분의 1 만 가지고도 전부 살 수 있습니다. 섬나라 사람들이 만물을 가질 수 있게끔, 일본을 위해서 판타날을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것을 모르지요? 선생님은 만물의 탄식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을 보면 만물이 탄식한다고 써 있습니다. 만물의 탄식권이 인류의 탄식권입니다. 인류의 탄식권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축복을 받지 못한 것 이상 탄식할 일이 없습니다. (295-199, 1998.8.28) p.1792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문명을 다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판타날에서부터 자연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대양은 깨끗한 장입니다. 얼마나 물이 맑아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가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295-277, 1998.9.8) p.1792

뜻을 안 그날부터 영계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데는 자기 가정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만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있는 세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재창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인류와 연결하고, 인류의 사랑으로부터 지구성과 연결하고, 지구성을 연결시켜 가지고 물의 세계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판타날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있는 정성을 다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296-17, 1998.10.1) p.1792

나는 이 판타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계의 상헌 씨를 통해 박마리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심각했던 곳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원통하고 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오장육부가 끓어오르고 뼈가 우러나야 합니다. (296-43, 1998.10.11) p.1793

내가 판타날에 가서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 통일교회 교인들, 남북에 있는 사람들은 와라 한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전부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가기 위해서는 별의별 뭐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 못 타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병이 났으면 여편네와 아들이 업고라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 천만하면서 갔다고 할 때 '아이구, 망한다!'고 하겠어요? '아이구, 죽었다. 다 죽자!' 그러겠어요? 그래 놓고는 딱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길이 힘들었으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더 힘들더라도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을 수 있지만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데 백발백중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론적입니다. (299-190, 1999.2.15) p.1793

결론적으로 판타날의 영향은 금후 세계의 역사에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싸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잘못하면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정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타날에서 국가 메시아들을 교육시킨 것은 그 배후의 나라들 앞에 미리 선전하자 이겁니다. 이번 대회라든가 되어진 모든 것을 중심삼고 빠른 시일 내에 환경보호 요원이 되어서 한 180 곳에 초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거기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중심삼고, 세계 각국의 대학총장들 중심삼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 나라의 간부 요원, 행정 부처의 어디든지 중심 인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300-182, 1999.3.3) p.1793

판타날이 갖고 있는 물 세계와 관계되는 것이 피시 파우더(fish powder;고기가루)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아 가지고 식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을 중심삼고 코디악에서 연구한 것이 고기를 식량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소련이라든가 선진국가, 독일 같은 데가 전부 경쟁하면서 피시 파우더를 어떻게 식량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연구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다 나가자빠진 것입니다. (300-185, 1999.3.3) p.1793

한국에서 보면 판타날은 극과 극입니다. 일본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판타날은 지구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천성지가 있고, 근원성지가 있고, 승리성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일입니다. 근원성지가 판타날에 있는 호텔에 설치돼 있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든 뭐가 있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수상 궁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생 고생해도, 세계에 영원히 칭송 받을 수 있는 성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누가 처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304-110, 1999.9.10) p.1794

판타날에 성지가 생길 때 통일교회 교인들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끌고 찾아가야 되고, 천국을 향할 수 있는 출발의 기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일족 전체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족을 데리고 가서 조상이 통일교회에 축복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하늘 앞에 미래의 후손들과 천상의 조상들과 자기 나라의 백성들까지 하늘의 축복의 인연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계속되도록 정성 들여야 할 것이 지상천국을 완료할 때까지 축복 받은 가정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 생활을 다시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모든 전부를 부모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302-250, 1999.6.14) p.1794

판타날은 초점, 근본입니다. 근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의 가정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이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3배, 5배로 늘었습니다. 판타날 대회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 세 번을 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내년까지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 땅을 사지 않으면 10배 이상으로 비싸집니다. 그러면 일본에 탕감이 가중됩니다. (303-344, 1999.9.9 중앙연수원) p.1794

인간은 고생고생해도, 세계로부터 영원히 칭송 받을 수 있는 성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누가 처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어머니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아버지가 일어섰을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주변을 돌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변을 돌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변을 돕니다.

성지를 지키고, 성지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은 일본이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판타날의 관리를 일본의 국가 메시아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304-110, 1999.9.10 중앙연수원) p.1794

선생님이 판타날에서 얼마나 모기와 많이 싸웠는지, 몸에 모기 물린 자국 천지입니다. 모기 세계에서는 '누가 참부모의 피를 맛보나? 경주해서 달려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모기가 제일 많이 달려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낚시를 드리우더라도 큰 고기는 내 낚시에 먼저 물리고, 고기가 많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78-97, 1996.5.1) p.1794

Top

㉰ 동물박물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종의 멸종을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멸종시켰어요?

판타날에는 고기만 해도 3천6백종이 있습니다. 양식장을 만들었으니 세계의 토질이 같은 곳에서는 언제든지 번식시켜 가지고 영원히 멸종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중심삼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방대한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300-88, 1999.3.1) p.179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천 6 백 종류의 고기 양식장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아들딸이 그것 하나를 중심삼고 연구해도 3 천 6 백 종류의 박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후손들이 출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박사 논문을 쓰면 3 천 6 백 명의 박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그 놀음을 계속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만물을 얼마만큼 사랑해 지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279-39, 1996.6.9) p.1795

선생님이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종류를 전시하려고 합니다.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 자연을 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양식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표시로서 마을에 박물관을 만드는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제일 많이 모아 놓은 곳은 세계적인 관광 마을이 될 것입니다. 또 풀과 나무 종류도 그렇게 모아 가지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288-72, 1997.10.31) p.1795

수천 가지의 물고기가 배 밑에서 놀고 있는데 관심이 안 가요? 판타날만 해도 3 천 6 백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3 천 6 백 가지 양식장을 빌딩으로 만들어 넣으면 세계사람들이 전부 다 양식 박물관을 찾아보겠나, 안 보겠나?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사람 사태가 나는 것입니다. 아마존 유역, 판타날 오지에 3 천 6 백 가지 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3 천 6 백 가지 종이, 하나님이 창조한 본연적인 창조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존 유역이 그렇고 파라과이 강 유역이 그렇습니다. 3 천 6 백 종을 중심삼고 거기에 양식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지 말래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295-38, 1998.8.16) p.1795

고지에 따라 온도가 다릅니다. 바다에 사는 고기들은 온도에 따라 종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온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삼고 찾아가서 서식을 하고 알을 낳는 것입니다. 지역의 동쪽, 남쪽, 북쪽 지역이 다르더라도 온도 차이 없으면 같은 종자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기 종자가 있습니다. 주류되는 파라과이에서 남미를 종적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깊은 데는 70 미터, 1 백미터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송선이, 큰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고기가 많은 곳을 작은 강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코너에 우리가 냉동공장을 만들어 잡는 고기를 전부 쌓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전기인데 전기는 무진장 있어서 현재 어디에 팔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267-267, 1995.1.20) p.1795

고기를 자꾸 잡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양식을 해야 합니다.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판타날이라든가 아마존 강 유역의 동물들을 가지고 동물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곤충 기르는 도시가 생겨야 합니다. 종을 치면 먹고 싶은 새들이 전부 와서 먹을 수 있게 말입니다. 새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곤충 기르는 도시가 생겨야 합니다. 곤충이 없어서 전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곤충을 기르는 동네가 생기고, 새 기르는 동네, 동물 기르는 동네가 생겨야 합니다. (292-24, 1998.3.27) p.1796

물고기로 말하면 지금 판타날에 3 천 6 백 종의 고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몇 종이나 됩니까? 36 종이나 됩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3 천 6 백 종의 물고기 양식을 위해 도시 빌딩보다도 더 높은 양식장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고기 종류별로 온도 조절해 가지고, 해양세계의 고기와 담수 고기, 한대지방 고기와 열대지방 고기를 다 온도를 맞춰 컨트롤해 가지고 한 빌딩 안에 전세계의 3 천 6 백 가지 종류를 양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빌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96-188) p.1796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브라질이나 남미도 산이 많고 물이 맑기 때문에 동식물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1 천 3 백 미터 고지까지 연결된 산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짐승이라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3 천 6 백 가지의 물고기를 잡아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입장권을 파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한 번 안 와 볼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3 천 6 백 가지입니다. 그런 박물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76-201, 1996.2.19) p.179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찾아오는 사람을 교육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현대문명, 도시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대한 지역에 3천만 종류의 곤충 박물관을 만들 것입니다. 곤충학자는 전부 다 여기 와야 됩니다. 또 3천6백종의 고기를 양식할 수 있는 양식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류원을 만들고, 식물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 동물원을 만들 것입니다. 인간 동물원(human zoo)입니다. 동물원은 동물원인데 인간 동물원이다 이겁니다. (288-75, 1997.10.31) p.1796

Top

③ 한국 중심한 해양섭리

㉮ 천승호(天勝號)

선생님이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1960년대부터입니다 22년 동안 해양산업을 한 것입니다. 1963년에 천승호를 만들어 가지고 오대양으로 흘러갈 수 있게 유효민과 유효영을 시켜 바다에서 일하게 했는데 그들이 바다를 싫어했습니다. (276-314, 1996.3.10) p.1796

천승호를 만든 때가 1963년입니다. 유효영이도 배를 싫어합니다. 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싫어합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바다에서 집채같은 파도를 넘는 것을 재미로 느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죽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나이가 되어야 할 텐데 물이 무섭다고 싫어했습니다. 그 때부터 알래스카로 나갔으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 것입니까? (291-276, 1998.3.17) p.1797

선생님은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만물을 위하는 것입니다. 만물까지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위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한국의 산을 안 들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1963년부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천승호(天勝號)입니다. 세상에 배를 천승호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를 지어 왔습니다.

미국 오면서부터 배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1963년부터 배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를 탄 것입니다. 1973년, 1983년, 1993년, 24년동안 배를 탔습니다. 아침부터 밤 열두 시까지, 어떤 때는 알래스카에서는 세 시까지, 밤이나 낮이나 배를 탔습니다. 일편단심 배를 탄 것입니다. (294-54, 1998.6.10) p.1797

한국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천승호(天勝號)'입니다. 무엇이 이겼다구요? 천승호, 하늘이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 그 뜻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천승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세계의 바다를 점령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유효영이란 사나이는 '배 배!' 하다가 이 배를 만들어 주니까 나이 많아서 그런지 배 타기를 싫어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파도 칠 때는 난 못 나갑니다.' 했습니다. 어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94-175, 1998.6.14) p.1797

Top

㉯ 일흥수산

여러분은 교회 책임자들이지요? 앞으로는 회사 요원들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 가정은 마찬가지 운명이니만큼 '통일교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회사면 회사 통일교회입니다.

'통일산업' 하게 되면 통일산업교회입니다. 어제 내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일흥수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사장한테 '너는 이제부터 일흥수산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을 어머니 이상, 색시 이상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178-131, 1988.6.1) p.179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제주도에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이거 보니 안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선소를 목포로 옮겨 놓으니까 '아이구, 이거 안 되겠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일흥수산 본사도 제주도에서 서울로 옮겨야 합니다. 세상만사가 그런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수용태세가 되지 않으면 하늘도 떠나는 것입니다. (178-155, 1988.6.1) p.1797

내가 그 동안 일흥수산을 만들어 닦아라 볶아라 해 가지고 수백억을 투입했습니다. (184-156, 1988.12.27) p.1798

한국에 일흥수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11 만 몇천 명의 일본 여자들과 한국 여자들을 교육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단 부서에도 우리 조직 사람, 우리 요원이 없는 데가 없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경상남북도 대표, 전라남북도 대표,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 대표, 서울지역 대표, 경기도 대표, 이렇게 다섯 명의 부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여자들입니다. 둘을 임명했는데 셋을 더 임명해야 됩니다. (262-247, 1994.8.1) p.1798

Top

㉰ 조선소

목포사람이 불쌍합니다. 내가 전라도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전라도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전라도라고 나라도 동정 안 하고 내버려두는데, 전라도 사람이 불쌍해 목포에다가 조선소를 만들려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 조선소를 하나 샀습니다. 그 조선소가 목포에서 제일 크다고 해서 얼마나 큰가, 하고 가 봤습니다. 내가 미국의 조선소를 눈으로 다 보고 다녔습니다. 조선소를 사는데 18 억을 얘기하다가 13 억에서 8 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문총재가 물건을 잘 삽니다. 사는 데 깍쟁이입니다. 돈 깎는 데는 일등입니다. (173-139, 1988.2.14) p.1798

목포에 조선소를 만들었지요? 그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좋은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반대하지요? 반대하지만 좋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동해나 부산의 배를 독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몰려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씩 떼어 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라고 암만 제사를 해도 안 망하는 것입니다. 천운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180-333, 1988.10.5) p.1798

복은 누구나 다 받기를 바라지만 복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못 한 사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도(道)에서도 자기들 계획대로 해주길 바랐습니다. 성산포라도 그걸 빨리 했으면 내가 냉동회사를 짓고 배도 한 8 천 톤, 1 만 톤 규모로 대번에 지어 주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가 땅 사는 것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팔지 말라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비싸게 팔라고 조종을 했습니다. (188-009, 1984.2.16) p.1798

고기를 잡기 시작하면 고기 나르는 배가 있어야 되니까 자연히 운수사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석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원거리 오일탱크 배(유조선)를 몇십만 톤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조선소를 향하려면 밑창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면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려면 우리가 그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물 만드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훈련도 돼 있습니다. (262-243, 1994.8.1) p.1799

실적이 좋은 사람은 목포에 있는 우리 조선소의 기술을 가르쳐 줄 겁니다. 목포에 있는 우리 조선소가 본격적인 조선소입니다. 철로 오일탱크선, 화학선까지 만들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대표적인 나라,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6 대주를 중심삼고 그런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76-030, 1996.1.2) p.179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사업 하게 되면 대번에 자기들이 감춘 것을 적발해냅니다. 여기 폴 워너가 우리 조선소, 마린 마스터 조선소 책임자 될 때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녀서 전부 다 감춰 놓은 것을 들춰내 가지고 공격해 버렸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입니다. 배 디자인을 내가 지시합니다. 신문사의 모든 레이아웃 같은 것도 내가 지시해서 미국의 신문 올림픽 대회에서 1등 한 것입니다. 그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어떤 정부가 갖지 못한 기반을 다 닦은 것입니다. (276-103, 1996.2.4) p.1799

조선소에 가면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대번에 찾아 가지고 틀렸으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왜 이렇게 해놨어?' 하고 말입니다. 우리 앨라배마의 조선소도 내가 방문하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감춰 놓은 것을 다 적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도깨비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287-232, 1997.10.4) p.1799

앞으로 사업하는 책임자가 주체가 되었으면 대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발전시켜 조선소면 조선소의 사장을 중심삼고 직원들과 주체 대상으로서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과 하나되는 목적은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혹은 남미의 부흥, 세계를 위한 부흥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87-291, 1997.10.16) p.1799

선생님은 25년 동안 매일 배를 탔습니다. 해양 산업을 내 손으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옥포조선소를 다녀왔습니다. 이 조선소를 내가 사든가 북한에 들어가서 만주와 소련의 삼각지대에 이 이상의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찰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290-210, 1998.2.24) p.1799

우리 배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목포 조선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도 주낙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옥돔 같은 것을 잡을 배는 꽤 빨라야 됩니다. 현재보다 2배는 빨라야 됩니다. 3시간 간다면 1시간 반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 만든 원호프는 가라앉지 않는 배이기 때문에 여섯 명이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더라도 닻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살아남는 겁니다. 태풍 분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큰 배들은 가라앉지만 우리 배는 안 가라앉습니다. 그걸 내가 개발해 놨기 때문에 튜나잡이에서 세계적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활용해야 합니다. (291-279, 1998.3.17) p.1800

본래 여기서 내가 일본과 중국을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중국 배가 여기 오지 않았어요? 중국 배 때문에 조선소에 수리 공장도 만든 것입니다. 수리해 줘라 그겁니다. 배들이 고장났으면 원가로 해 주라는 겁니다. 일본사람에게도 지귀도에 낚시터 만든 것을 안내해 줘라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고관들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모슬포에 비행장도 닦은 것입니다. 중국 비행기와 일본 비행기가 자유 왕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중국 비행기, 소련 비행기, 일본 비행기 전용 비행장이다 이겁니다. (291-303, 1998.3.18) p.1800

Top

㉱ 제주도를 국제 낚시터로 개발

제주도에 대해서 선생님은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주도는 군사 요새 지역으로 앞으로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이런 것을 주욱 생각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발문제, 물론 관광 개발도 개발이지만 앞으로 나라의 운명에 있어서 바다와 접하고 있는 이 제주도가 중요합니다. (126-157, 1983.4.19) p.1800

제주도는 옛날 장개석이 군항으로 빌려주면 아시아를 자기가 점령하겠다 하던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군사 기지로서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다 이겁니다. 그런 저런 것을 전부 감안해 볼 때, 제주도는 앞으로 홍콩과 같이 국제 자유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가 자유체제가 되는 날에는 스파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지로서 제일 적격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새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쭉 생각하게 될 때, 제주도에서는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없이 사업기반을 닦아 가지고 무엇부터 시작할 것이냐 할 때, 그것이 낚시터입니다. (126-311, 1983.4.30) p.1800

제주도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관문으로서의 중요한 아시아의 길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지나해나 일본해를 거쳐 태평양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사 요새로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슬포 옆의 항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 항구가 될 수 있는 수심(水深)입니다. (126-311, 1983.4.30) p.1800

선생님이 세계를 안 가 본 데 없이 돌아다녔지만 한국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기후로 보나 산수의 아름다운 것으로 볼 때, 한국은 참 세계에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언젠가 불란서 한 시골에 가 가지고 한국 같은 풍경을 느껴 봤는데, 그 외는 아주 다릅니다. 여기는 산들을 보더라도 노년기 산들이기 때문에, 전부 꽃봉오리 같고 다 예쁩니다. 다른데 가보면, 일본도 다 보면 청년기 산이기 때문에 다 울룩불툭하고 흉합니다. 산세로 봐도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기에 자연적 혜택을 받은, 경치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169-136, 1987.10.29) p.1801

맑은 날에 한라산에 올라가면 전부 다 내려다보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 한번 일주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할 수 있는 관광 안내서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갈 시설도 없고 바다에 나가 일주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차로 일주한다는 것입니다. 차로 일주하는 것은 참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이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26-313, 1983.4.30) p.1801

한라산을 자랑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한라산을 어떻게 자랑시키느냐? 그래서 내가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비행장도 한라산 중턱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비 29(B29) 같은 것도 여기서부터 북제주로 날면 사방으로 훑어보게 하고, 항공모함도 바다로 해서 제주도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라산을 동서남북으로 구멍 뚫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격납고가 돼 가지고 전투기 같은 것도 엘리베이터 식으로 수만 대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탱크 같은 것도 산 가운데 만들 수 있습니다. (291-282, 1988.3.17) p.1801

제주도의 '제' 자는 '건널 제(濟)'자입니다. 건너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제주도 하게 되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지귀도(地歸島)라는 섬이 재미있습니다. 바다를 중심삼고 몇백 미터 기둥을 박아서 낚시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을 유리 파이프 같은 것으로 연결해 가지고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떠내려가지 않게 묻어 놓고 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낚시, 그 다음엔 골프, 사냥, 그 다음엔 카지노입니다. 그 다음엔 판매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좋은 물건을 파는 판매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산에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로 올라가고, 바다에서는 쾌속정으로 제주도를 순회하는 것이 재미있는 일입니다. 일본도 한 시간이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291-246, 1988.3.15) p.1801

산에도 올라가 보고 일주도 다 해보고 나서는 뭘 생각하겠어요? 낚시를 생각합니다. 낚시는 제주도에서 소개하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것이 뭐요?' 하면, 물론 돌도 많고, 여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많은 것이 고기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낚시터 허가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귀도를 개발하니까 그걸 중심삼고 7개 섬이 있습니다. 7개 섬에 대한 개발을 전부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시간 이내의 거리에서는 고기를 못 잡게 해야 합니다. 관광 낚시질은 하더라도 그물 가지고는 못 잡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126-313, 1983.4.30) p.180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제주도 고기가 작다고 흉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고기만 좋은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제주도 생선으로 회를 했는데, 생선회 하게 되면 편을 떠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통째로 쩌벅쩌벅 잘라 가지고 보니까 이놈의 뼈다귀가 얼마나 굳은지 모릅니다. 하긴 돌짝밭에 사는 고기가 굳어야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뼈다귀가 불거질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먹어 보니까 고기는 참 고소하더라는 겁니다. (222-277, 1991.11.3) p.1802

지귀도를 한번 주욱 돌아보니 기분이 어때요? 한국에서 겨울에도 낚시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산맥이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있는 돌들도 화산돌로 작은 고기나 벌레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물고기도 그물보다는 낚시로 잡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53-95, 1994.1.9) p.1802

제주도도 보니까, 낚시에 관계돼 있는 사람이 3 천 3 백 명이라고 하는데, 상점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몇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중류 이상입니다. 취미산업에 치중할 수 있는 사람은 중류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취미산업 관련 스포츠 상점, 거기에는 총기도 다 들어갑니다. 낚시에 쓰이는 플라이(ply;밧줄의 가닥) 같은 것은 소모품입니다. 얼마나 공장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대단한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이 같은 것은 1 년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 그 공장을 만들어 인건비가 싼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채용해서 밥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주도에 오면서 그런 면을 생각했기 때문에 9 일, 10 일에 낚시대회, 사냥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52-215, 1993.12.30) p.1802

알래스카에는 새먼(연어) 외에는 적당한 고기가 없지만 제주도는 다양합니다. 고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낚시 취향도 아주 다양합니다. 요즘은 수렵으로도 유명하지만, 낙지라는 제주도 특산물이 있습니다. 머리가 큰 아주 특별한 제주도 특산의 낙지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디악 대신 배를 가지고 낚시를 해서 취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본 사람들이 낚시하기 좋은 곳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253-95, 1994.1.9) p.1802

제주도에 가면 자리라는 고기 잡아먹잖아요? 자리 알아요? 나 요즘에 제주도 갔더니, 이건 바다에서 잡자마자 펄펄뛰는 것을 사정없이 꼬리를 잡고 초고추장 묻혀 가지고 통째로 집어 와작와작하는데, '야, 저 사람들 똥도 안 가리고 먹는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병이 안 납니다. 고기들이 먹은 것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몸에 맞는 고기를 먹으면 병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그 몸뚱이에 들어간 똥 사촌 때문에 왜 병이 나겠나 말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이상적인 재료가 들어가 가지고 김치 모양으로 익어서 맛있게 됐기 때문에 병이 안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218-89, 1991.7.2) p.1803

제주도야 이게 떨어져 나간 육지의 한 조각 아닙니까? 갈매기 새끼가 똥 싸고 말입니다. 다니기 좋아서 똥 싸고 새끼치는 곳입니다. 갈매기도 섬에서 새끼치지요? 섬은 모든 바다의 동물들이 새끼치는 곳입니다. 네 발 짐승과 같이 생긴 것들은 육지에 가서 새끼쳐야 합니다. 거북이도 그렇잖아요? 바다 속에 사는 것도 물고기 외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생식기가 없습니다. 바다 고기 가운데는 반드시 요런 점이 있습니다. 전부 줄이 있습니다. 수놈 암놈이 그것을 비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새끼 낳는 것은 전부 육지에 와서 새끼를 낳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필요한 곳입니다. (291-308, 1998.3.18) p.1803

백두산은 남편이고 한라산은 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두산은 남편 산이고, 한라산은 여자 산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으니 여자 산입니다. 안 그래요? 제주도 사람 굶어죽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거 어디 바다에 가면 먹을 풀이 없나, 제주도니까, 제사 드리는 주인이 사는 곳이니까 새벽에 바닷가에 가면 밥덩이, 사과덩이가 수두룩합니다. 여자들이 아들딸을 데리고 흰 젯밥, 사과, 이런 걸 내놓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제사는 사람 보기 전에 하니까 아침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284-247, 1997.4.18) p.180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바다를 평지로 만들든 뭘 하든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면 되지, 한라산이 무슨 문제예요? 한라산을 팔아서라도 나라를 살려야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한라산이 없어져요? 바다에 들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만년 서 있기 때문에 '한라산은 평지에 한 번 오는 것이 만민의 소원이다.' 하는 기념탑을 세우고 만민이 여기에 와서 각 나라의 왕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대통령, 만조백관들이 오고 그런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한라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미에 가 보니 한라산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291-255, 1998.3.15) p.1803

내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호랑이를 한 두쌍 기부하면 좋겠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쿠, 큰일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일년에 몇 명 잡아먹더라도 호랑이가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으르렁해 가지고 바다의 파도소리와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게 좋아요. '아이구, 파도소리는 요란하니 싫지만 산 소리는 고요해' 이게 좋아요? 그거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소리가 출렁출렁하게 된다면 산에서도 으르렁거려 가지고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나쁘지 않다 그겁니다. 일년에 몇 명씩 사람을 잡아먹더라도…. 이게 몹쓸 말이 아닙니다. 천지가 화동하는 것입니다. (145-280, 1986.5.25) p.1804

앞으로 관광지가 되면 제주도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제주도에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하면 신랑신부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전만 잘 해 놓으면 '아이고, 더운데 호텔에 어떻게 들어가자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선놀음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낚시질하면서 신혼부부끼리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대준다 이겁니다. 낚시도 대주고, 미끼도 대주고 말입니다. 그 다음 아침에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26-316, 1983.4.30) p.1804

제주도에 사냥터를 만들고 낚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올 때 한 나라에서 백 명이면 백 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평화관광낚시협회 회원이 점점 많아지면, 전부 그 목표를 위해서 매달 월정금을 내 가지고 도와주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류세계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임무를 맡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주게끔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매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사냥터와 낚시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어장도 만들고 사냥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르는 짐승이나 물고기는 사냥하고 낚시한 것을 되사서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사계절 별로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253-109, 1994.1.9) p.1804

제주도는 기후가 좋습니다. 알래스카는 겨울에는 낚시질을 못하지만, 제주도는 지금 가면 딱 낚시하기에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에 춘하추동 4 계절을 중심삼고 낚시할 수 있는 2 백 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도 곤란합니다. 50 명씩, 버스 한 대씩 데려올 수 있게끔 2 백명을 돌아가자마자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그렇게만 된다면, 저녁때는 우리의 세계적인 활동이라든가 그 지방의 낚시하는 것을 소개하고 이러면서 결국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세계의 정치문제, 외교문제, 경제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할 수 있는 재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교육을 해서 통일교회에 관심을 갖게 해 가지고 식구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 년 이내에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252-214, 1993.12.30) p.1804

세계적으로 선생님이 많은 단체들을 만들었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전부 '평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교수협의회?평화서미트클럽?평화신문협회?평화종교연합?평화여성연합 등과 같이 전부 '평화'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 제주도에서 낚시협회를 만들고 헌팅협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세계평화낚시협회, 세계평화헌팅협회입니다. 전부 '평화'입니다. (219-146, 1994.4.2) p.1804

Top

3) 바다에는 배울 것이 많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① 바다처럼 천하를 품고 살아야

바다에 다녀 보면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변합니다. 세상에서 인심(人心)은 조석변(朝夕變)이라고 했지만, 바다는 조석변이 아니라 시시변(時時變)입니다. 시간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리 날이 좋다 하더라도 어느 골목에 가게 되면 물결이 좋지만, 어느 골목에 가게 되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큰 바람은 아니지만 전부 다릅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있고 산이 있으면 산이 높고 낮음에 따라 기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다는 천태만상의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3-18, 1994.8.16) p.1805

선생님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물방울들이 전부 다이아몬드 구슬입니다. 요것이 반짝반짝하면서 '문총재 것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가치를 가진 것이 물이다.'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물이 자랑하느냐? '나 없으면 천하에 생명이 형성되지 않는다. 내가 있기 때문에 깊고 낮은 것을 수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울툭불툭한지 알아요? 그렇지만 물이 수평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보기도 천년만년 싫지 않게끔 파란빛을 냅니다. 파란빛은 위로의 색깔입니다.

왜 하나님이 파란빛을 만들었느냐? 이건 암만 봐도 피로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색깔입니다.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공중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습니다. 그거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면 전부가, 인간도 친구가 되겠지만 자연계가 다 친구입니다. 한번 그 성격을 알아 놓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격은 천태만상입니다. 오늘은 요랬다가 내일은 변해 갑니다. 그래서 인심(人心)은 조석변(朝夕變)이요, 산색(山色)은 고금동(古今同)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저녁으로 변합니다. 그거 무엇에 써먹어요? 그러니 동물만도 못한 것입니다. (177-274, 1988.5.20) p.1805

바다는 천하를 품고 삽니다. 한 곳에 모여 구름이 되어 가지고 산을 덮으면서 친구가 되고, 비를 높은 데서 뿌리니까 사방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물입니다. 물은 쉬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움직이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문총재는 바다를 사랑합니다. 자연은 속임수가 없습니다.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습니다. 높은데 있으면 이의 없이 공급해 줍니다. 문총재가 그걸 배워 가지고 이의 없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국땅에 가더라도 나보다 못 살면 내 창고를 열고 내 쌀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나눠주는 것입니다. 수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물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합니다. (300-14, 1999.3.2) p.1806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풀도 푸르고 다 푸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질식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옐로우(yellow;노랑)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싫증이 날 것입니다. 또 딴 색을 갖다놔도 얼마 안 가서 싫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린(green;푸른색)은 위로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푸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왜 그린을 좋아하느냐? 존재 세계는 그린과 더불어 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는 그린 칼라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흙은 주로 그린 칼라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나 자신은 그린 칼라를 좋아한다, 그게 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공중도 푸르고 바다도 푸른 것입니다.

전부 사람을 중심삼고 이 그린 칼라와 조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멋져요? (119-168, 1982.7.18) p.1806

바다가 잔잔할 때는 신비스럽습니다. 매혹적인 신비의 여왕같이 미녀가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바다는 은빛으로도 보이지만 비취색으로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천태만상입니다. 거기에 살랑 바람이 불면 그 물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무희가 아무리 춤을 잘 추더라도 거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댄서를 보려면 조그만 스테이지(Stage;무대)에서 구경하는데 그건 너무나 좁습니다. 반면에 바다의 스테이지는 무한입니다. 바다의 무대가 얼마나 넓습니까? 미녀와 같은, 무희와 같은 성질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는가 하면, 한번 성나면 광야에서 달려드는 호랑이나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다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미터의 물결이 몰려 오고 몰려 갈 때에는 갈매기가 우는 것은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네가 아무리 훌륭한 희극 배우라도 웅장한 내 기세 앞에는 당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위세가 당당합니다.

고요할 때 쾌속 보트가 기분 좋게 쓱 달렸지만 여기에서는 오금을 못 쓰는 겁니다. 꼬리를 젓고 대가리를 젓고 이러는 것입니다. 물결을 타고, 물결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 있지 자기 기세가 없습니다. (128-249, 1983.8.28) p.1806

자연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는 그런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다 문을 젖히고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무진장의 어족이 있습니다. 황금빛으로부터 금빛, 푸른 빛, 없는 색깔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어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속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아름다울까요? 육지도 아름답지요? 그렇지만 육지에는 꽃과 나비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새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단조롭습니다. 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호화찬란한 색깔을 지닌 아름다운 모든 수족들은 춤을 추면서 활동합니다. 그래 어디가 아름다워요? 육지가 아름다워요, 바다가 아름다워요?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감상하기 위한 특별장치가 물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딱 숨겨 두고 공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육지보다 바다에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육지보다 바다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이상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성의 역사 이래 땅 위에 나타난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관을 갖고 있는 바다 세계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다를 생각하는 사람이, 미래상을 동경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128-249, 1983.8.28) p.1807

낚싯대를 드리워 놓고 앉아 있을 때는 한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산보를 할 수 있습니까? 요만한데서 움직이고 거기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극장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있어 놀러 갈 수 있어요? 조용히 해야 하니까 음악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하고 하늘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이 하나되는 거기에 나 혼자 있으면 참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왜 자꾸 바다에 나가느냐? 영적으로, 모든 면에 이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정신이 산만해 가지고 세계선교사라든가, 교회문제 등 전체를 생각해야 될 것을 몇 분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면 전체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바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도'라는 말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79-270, 1975.9.1) p.1807

고요한 바다에서 한 쌍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가 '이놈들아, 나 죽겠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기떼가 와서 꼬리를 치고 구경하면서 좋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들이 그런 사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제발, 와 주소! 해 주소!' 해 가지고 그곳에 와서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헤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이 흰 눈이 쌓인 꼭대기에 가서 사랑을 하면 '우리 주인 양반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구만!' 하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235-277, 1992.10.11) p.1807

Top

② 바다 생활은 굉장하고 신기해

태평양을 중심삼고 '흑조(黑潮)'는 4 천 마일을 돕니다. 1 년에 4 천 마일을 돕니다. 그 도는 힘에 의해서 오대양(五大洋)이 도는 것입니다. 만일 흑조가 없다고 한다면 바다가 돌지를 않습니다. 이 흑조로 말미암아 대서양과 태평양은 오대양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여건을 통해서 오대양이 전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227-129, 1992.2.11) p.1808

아무리 강물이 크다 하더라도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가 아무리 넓게 흐른다 해도 흑조(黑潮)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흑조라는 것 알아요? 흑조라는 것은 태평양 지역을 중심삼고 4 천 마일을 원형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리면서 도는 물줄기를 말합니다. 힘차게 도는 물줄기로 말미암아 오대양의 모든 물줄기가 살아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돌 수 있어야만 바닷물의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0-201, 1991.10.19) p.1808

강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강은 어차피 대해(大海)에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대해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섞이게 마련입니다. 5 대양을 중심삼고 보면 태평양에는 흑조(黑潮)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4 천 마일을 돌고 있습니다. 물론 달의 인력(引力)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도는 흑조가 있기 때문에 5 대양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나 무엇이든 전부 들어오면 그걸 전부 섞어 가지고 하나의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다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큰 강물이 담수(淡水)를 계속적으로 몇만 년 투입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흡수하고 남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210-200, 1990.12.23) p.1808

일본의 구름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구름과 하나될 때 '미국 구름 나 싫다!' 이래요? 일본의 물이 흑조(黑潮)를 통해서 태평양에 갔는데 미국의 물이 올 때 '어구구구!'` 그래요? 태평양에는 4 천 마일의 흑조가 흐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진국 후진국이 있습니까? 나라간 경계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 세계는 이게 뭐예요? 자연운동에 반대하는 것은 다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268-26, 1995.2.7) p.1808

사랑의 세계는 어디에 가든지 다 통합니다. 태평양 물이 생각할 때 '나는 태평양 물이야. 아시아 물은 전부 오염됐기 때문에 나 싫어!' 그래요?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든 전부 꿰차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섞어 가지고 빨리 해소시켜 같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물은 아무리 공해가 심하더라도, 인류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푸를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시련을 받고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바닷물이 푸른 빛을 점령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권위와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힘은 언제나 푸를 것입니다. (214-273, 1991.2.3) p.1808

통일교회는 세계 주류의 물줄기가 되고 태평양의 흑조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태평양에서 4,500 마일의 흑조가 돌아 가지고 오대양의 물이 돌게 됩니다. 세계의 생명력을 전부 우주에서 발발시키기 위해서는 깊은 곳을 돌아가서 움직일 수 있는 원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더러운 세상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275-32, 1995.10.30) p.1809

태풍이 불어올 때 얼마나 물결이 밉고, 바람이 무서운지 알아요? 그렇지만 저 바람도 자기 사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람이 안 불면, 바다에 물결이 없으면 고기가 못 삽니다. 바람 부는 것은 바다에 산소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파도라는 것이 산소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결이 대로(大怒)하고 있더라도, 암만 바람이 불어와도 그 맛을 보면서 '네 맛을 잃지 않았구나!' 그래야 됩니다. 바다는 짠맛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레버런 문 맛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결이 밉지 않고, 몰아치는 파도가 밉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지에서만 산 사람은 저나라에 가서 이상적 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영계에 가면 고래도 타고, 고기들과 같이 헤엄칠 수 있는데 바다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걸 못 하는 것입니다. (119-252, 1982.9.13) p.1809

바다에 나가 보면 태풍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물결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섭더라도 사랑의 힘이 돛을 달고 갈 때에는 그것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0-102, 1982.11.9) p.1809

바다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은 움직이면 안 죽습니다. 그릇에라도 물을 떠놓고 움직여만 주면 영원히 안 죽습니다. 운동하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원양어업 하는 배는 한번 출항하면, 1년 6개월, 2년 치의 물을 한꺼번에 싣고 나가지만 바닷물에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물은 몇백 년 두고 먹더라도 썩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썩지 않고 정지하면 썩습니다. 그러니 물이 참 특수하지요? 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96-200, 1998.11.9) p.1809

원양어로작업을 하려면 식수를 배에 가득 싣고 갑니다. 1년 반 동안 그 물을 먹어야 합니다. 짠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움직이면 몇십 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습니다. 물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291-88, 1998.3.5) p.1809

물이 왜 흐르느냐? 수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수평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수평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63-91, 1994.8.21) p.1809

물은 언제나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바다는 아무리 파도가 크게 일더라도 수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평선을 보게 될 때 뒹굴고 싶은 것입니다. '야, 한번 뒹굴어 보자!' 이겁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뒹군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 해 봤어요? 수평선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가자빠지더라도 머리나 발이 먼저 맞지 않습니다. 수평으로 딱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수평선입니다. 인간에게는 수평선이 필요합니다. (263-90, 1994.8.21) p.1810

공기나 물은 사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진공만 생기면 세계의 공기를 동원해 가지고 싹 메워버립니다. 바다의 물도 웅덩이가 생기면 싹 밀어버리고 수평을 취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물도 사랑도 언제나 수평이 사는 방법입니다. (264-316, 1994.11.20) p.1810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물을 봅니다. 물은 순환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낍니다. 수증기가 돼 가지고, 이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 모인 것이 안개입니다. 이 물이 안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발해 가지고 구름이 되어서 세계를 도는 것입니다. 바다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단입니다. 생물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263-78, 1994.8.21) p.1810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생님은 시간만 있으면 바다에 나갔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부대낍니다. 부대끼지만, 그것이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큰 싸움을 하기 위한 시련이고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잠도 안자고 참 피로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스스로 그러한 표준을 정해 가지고 이 평행선에서 딴 데로 기울어지지 않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3-270, 1974.9.29) p.1810

공기도 움직이고, 물도 천년만년 움직이잖아요? 천년만년 움직이는데, 같은 공식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 한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이 존속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207-18, 1990.10.21) p.1810

바다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의 영역이 제한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창조주가 있다면 육지를 알고 바다를 잘 알아서 바다의 신비성을 생각하고 육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한 면만 가지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론적인 말입니다. (128-256, 1983.8.28) p.1810

바다나 육지나 모두가 사람 하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창조주의 고마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봐도 그 바다를 그저 바다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것을 재감관(再感觀)한다는 사실, 여기서 위대한 혁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기치가 여기서 싹터 오르는 것입니다. (112-306, 1981.4.25) p.1810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③ 바다는 위대한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변동이 많은 데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러면 육지보다도 바다가 더 낫습니다. 바다에는 바람도 불고 잔잔하기도 하고 풍랑이 몇 번씩 일고 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지 여행보다도 바다여행이 좋습니다. 이 땅은 다녀도 아침의 생각 그냥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육지야 아무리 다녀도 손 안 대고 점잖게 갈 수 있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변화하는 데에는 참으로 자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잔잔하게 될 때는 육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잔잔합니다. 어떤 때는 그 바닷물이 유리 같은 기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만지고 싶고, 너무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변화무쌍하지만 '나는 간다' 이런 일념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런 자극이 없어 가지고는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79-270, 1975.9.1) p.1811

바다 밑바닥을 보면, 고래 같은 것도 있지만 할리벗(halibut:넙치) 같은 고기가 있고, 캣피시(cat fish;메기)처럼 생긴 고기가 바닥에 붙어살고 있습니다. 이 캣피시같은 물고기는 몸뚱이보다 대가리도 크고 입도 큽니다. 이게 뭘 하는 것이냐? 그게 큰 물건들, 썩을 것이 흘러 들어오면 그걸 뜯어먹는 것입니다. 왕창 삼켜 버리고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자라면 벌레들을 빨아들여 먹습니다. 이렇게 정화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타날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3천6백 종입니다. 3천6백 종의 고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먹는 음식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섞여서 바다의 청소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그 자체가 청소작업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깨끗이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 협조체제입니다. 그것들이 바닷물을 맑히는 놀음을 하더라 이겁니다. 바다가 짜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고기들이 있어 가지고 더러운 것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고기 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또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293-283, 1990.6.7) p.1811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고기만이 아닙니다. 물새들도 그렇습니다. 기러기로부터 갈매기 같은 물새들이 쉬지 않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바다 표면이 아니라 중간에 떠내려가는 게 있으면 물에 들어가서 찾아 가지고 다 먹고사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 '야 구름아, 지금 저기 말라죽을 듯이 더운 데가 있으니 가자.' 이래 가지고 찬 바다공기가 가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구름을 태우고 지나가면서 물을 뿌려 주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공동 협조체제가 돼 있나 생각해 보라구요. 바람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큰일나지요? 여러분이 먹는 밥이니 빵이니 뭣이니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바다로부터 공중으로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한여름 더운 태양빛을 타고 찾아가 비를 뿌리면 그 물의 수분을 빨아들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수분, 공기의 수분이 합해 가지고 밥이면 밥이 되고, 빵이면 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거기에 우주가 움직입니다. 우주가 움직이고 협조해 가지고 빵이 된 것입니다. 그 빵 한 조각이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93-285, 1998.6.7) p.1812

바다에서 제일 짠 곳이 깊은 데일 것 같아요, 얕은 데일 것 같아요? 깊은 곳입니다. 왜? 소금물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일수록 더욱 짭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최고 궁중은 어디 있겠느냐? 짠물로 비유하자면,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거기에 왕궁이 있습니다. 맨 아래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맨 최고의 자리가 제일 깊은 바다, 제일 짠물 가운데 밑창에 있는데, 반대로 제일 깨끗한 사람은 꼭대기에 있다 이겁니다. 제일 양심적이며, 보다 세계를 위하고, 보다 전체를 위하고, 보다 높은 마음을 가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244-178, 1993.2.7) p.181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류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이 공해로 찌든 물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너와 섞이는 것이 싫다!' 하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연의 조화와 총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것입니다. 물의 성질은 더러운 것이 있어도, 자기의 본질이 더러워지더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자기 주변의 것까지 흡수해서 이것을 동일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흐르고 흘러서 더러운 것이 가라앉고 깨끗한 것이 떠서 흘러가는 동안에 맑은 물이 되어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8-292, 1991.8.22) p.1812

바다의 물결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고기는 잠을 잡니다. 물은 흐르는데 고기의 지느러미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가면서 한 자리에 서서 운동하지만 몸뚱이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지요? 여러분의 모든 핏줄들은 운동하지만 자기는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의 생명이 그 박자를 맞추는 것은 피가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인이 누가 되고 높은 것이 누가 되느냐? 보다 투입하는 사람, 보다 위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220-282, 1991.10.20) p.1812

아무리 험악한 바다 물결이 친다 하더라도 그 흐름은 반드시 주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류에 방향을 맞추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전세계가 반대하고 핍박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류를 중심삼고 완전한 주체로서 주류적인 입장에 서면 주체 대상 관계를 중심삼고 보호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249-164, 1993.10.10) p.1813

여러분은 수영하면서도 '아이, 목말라. 콜라, 맥콜 가져와!' 그래요? 물에 들어가 있으면 하루종일 물을 한 잔도 안 먹어도 됩니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세포가 물을 먹습니다. 선생님이 요전에 16 시간 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오줌 마려워서 어떻게 참아?' 하겠지만 오줌으로 나갈 것이 다 땀으로 나갑니다. 더워서 수증기로 나오기 때문에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종일 들어가 있어도 물 같은 것은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목마르면 거기서 한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고래처럼 수영을 해 보세요. 그때도 목말라요? 모래사장에 엎드려 있으니까 더워서 물먹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 물 가는 데는 공기도 갑니다. 바다 속에도 공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217-206, 1991.6.1) p.1813

세계의 바다는 언제나 움직입니다. 바람이 움직이고 다 이런 것은 그것이 번창하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태풍이 불고 물결이 수십 미터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공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야, 태풍이 부니까 바다 밑의 고기들이 기분 좋아하겠구나. 나는 어렵지만 고기가 좋아하니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62-289, 1994.8.1) p.1813

생명의 조상과 같은 것이 물입니다. 그래, 하나님 대신 물을 사랑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다를 사랑해야 합니다. 경치 좋은 데는 물이 없으면 안 되고, 수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물의 조화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물을 사랑하자 이겁니다. 물을 사랑하는 것은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건 원천적인 생각입니다. 물을 사랑하는 데 호수 물을 사랑해요, 바닷물을 사랑해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이는데 배를 타면 피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피가 썩을 수 없습니다. 전부 정화됩니다. 사실입니다. 항상 배 타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262-289, 1994.8.1) p.1813

나는 월급 안 받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삽니다. 지금도 어디에 가든지, 헬리콥터로 아프리카 오지에 갖다 내려놓더라도, 사람은 없고 동물만 살더라도 나는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에서 먹고사는 것을 배웠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먹고사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지굴에 가서도 이 놀음해서 천국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따라다니지 않아도 거지 패들을 통해서도 뜻을 이룰 수 있게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거지굴로 가라고 하면 가나요, 안 가나요? 그러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109-152, 1980.11.1) p.181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기들 보따리 안고서 편안히 앉아 먹고살겠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개척자였습니다. 개척해서 내가 선두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회사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선장이 없으면 내가 전부 데리고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아 불어오너라. 파도야 쳐라. 사나이 가는 길을 막을쏘냐. 하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 후대에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식량문제는 여기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멋진 사나이지요? 나는 그런 사나이를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살아 남을 산 영화가 나올 것이고, 역사의 소용돌이가 거기서 풀릴 것입니다.

수수께끼라도 그 이상의 수수께끼가 없는 놀음이 아니냐 이겁니다. 희비극이 교체되는, 멋진 사내들이 동경해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핑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바다에 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돋구어 줄 수 있습니다. 내일의 바다의 세계에 대한 꿈을 그릴 수 있는 원천이, 샘이 여기서 폭발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져요? (109-152, 1980.11.1) p.1814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바다로 나가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마음이 계속돼야 합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천년만년 계속해야 됩니다. 바다에 나가서 정성 들이는 것을 편안히 앉아서 하면 탕감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강들의 물이 대서양으로 모이고, 대서양은 태평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해 줄 때까지 그 정성을 들이면 나는 죽더라도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279-308, 1996.9.22) p.1814

얼굴이 까만 허드슨 강의 어부 같은 남자, 천년을 기다리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남자인데 설마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한다고는 생각 안 하지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2 천만의 굶어 죽는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땀을 흘린 허드슨 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대양 육대주를 통해서 숨을 쉬며 생각하는 그 보이지 않는 파동, 전파 같은 것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고기세계를 통하여 미래의 인류해방의 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가 있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7-21, 1993.4.21) p.1814

하나님이 절대사랑 때문에 창조한 물건들을 볼 때 재미있습니다. 미래의 복지 천국을 중심한 가정에서 생활필수요건을 갖추기에 충분하도록 다 만들어 놓았으니 얼마나 재미를 느끼겠느냐 이겁니다. 흐르는 물을 봐도 천지의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수증기 되어 가지고 순환하면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전부 협동권 내에서 상충이 아니라 전체가 협력해 가지고 인간의 이상을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활적인 무대로써 하나님의 아들딸을 이 땅 위에서 길러서 천국으로 이양하자는 것입니다. (284-47, 1997.4.15) p.1815

밤이 자나가게 되면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이 반대의 세계가 됐습니다. 통일교회에는 봄이 오고, 사탄세계에는 저녁, 밤을 향해 지나가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 사탄세계는 소망이 없습니다.

깜깜한 무소망, 절망의 세계이고, 통일교회는 절망인 줄 알고 보니 여명시대를 지나 새로운 아침이 옴으로 말미암아 선명(鮮明)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문선명 진리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 한 번 좋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선(鮮)자는 고기 어(魚)자와 양 양(羊)이니까 육지와 바다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명(明)은 공중의 해와 달, 공중을 표시했습니다. 문(文)자는 빨리 쓰면 이렇게 아비부(父)자가 됩니다. 아비 부 자와 사촌이 돼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참 아버지라는 말이 있다면 제일 가까운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배우는 것입니다. (261-64, 1994.5.22) p.1815

Top

제 2 장

해양레저산업과 취미산업

[텍스트 입력]

1) 해양레저산업의 개발

① 레저산업에는 낚시와 사냥이 적격

장래에는 레저산업이 발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이 스트레스를 푸느냐? 나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냥, 하나는 승마, 그리고 낚시입니다. 사냥이나 승마를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승마는 특정 계층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 합니다. 또 사냥도 40 세 전후에나 할 수 있지 50 세만 넘어도 힘들어서 못 합니다. 특정 계층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는 소년시대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낚시사업은 세계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7-122, 1990.11.1) p.1816

취미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카지노와 체육, 헌팅(hunting;사냥), 피싱(fishing;낚시)아닙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취미산업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막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준비한 것은 다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낚시질을 해도 고기 잡아 팔아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입니다.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취미입니다. 취미로 하기 때문에 잡아서 작은 고기는 놔주고 큰 것들은 먹는 것입니다. 먹더라도 혼자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취미입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252-295, 1994.1.1) p.1816

캐나다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돈을 80 퍼센트 이상 댈 테니 빨리 사슴농장을 확장하자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국가의 수입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인들의 병 치료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저산업을 중심삼은 사냥과 낚시밖에 없습니다. 사냥하는 사람들은 전부 배포가 두둑한 사람들입니다. 여자같이 생긴 남자들은 못합니다. 대체로 싸움깨나 하는 장군감들입니다. 그러니 활동반경이 크고 돈을 벌어도 왕창 벌고, 써도 왕창 쓰는 것입니다. (219-196, 1991.8.29) p.1816

낚시는 여름에 주로 하는 것인데 겨울에는 막힙니다. 요것을 사시사철 어떻게 윤활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디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체크하려고 합니다. 낚시는 여름에 하는 거고, 헌팅(사냥)은 겨울에 하는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이기 때문에 엇바꾸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사업을 확대하는 기간을 넓게 잡기 위해서 취미산업인 낚시질과 헌팅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팅은 추울 때 하는 것이고, 낚시는 더울 때 하는 것이니까 취미의 발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춘하추동 취미로 언제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돈 많은 사람들은 일년 동안 가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270-300, 1995.7) p.1817

낚시와 사냥은 취미입니다. 고위층, 잘사는 사람들의 취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산업을 해야 합니다. 관광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리드할 것입니다. (269-49, 1995.4.6) p.1817

취미 가운데는 사냥이 있고, 낚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험하는 것, 비행기 타는 것, 자동차 경기라든가 하이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입니다. 남미를 중심삼고 에어쇼를 한다면, 수천 비행기가 안 부딪치는 그런 쇼를 한다면 전세계가 남미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1 만 미터에서, 높은 데서부터 지상까지 몇 초 동안에 수직으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상 10 미터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자동입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별천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276-184, 1996.2.19) p.1817

여러분은 낚시가 처음이라서 모르지만 이거 한번 두 번 계속하게 되면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사냥도 처음에는 조그만 새를 잡다가 그게 재미있으면 조금 더 큰 것을 잡고, 또 더 큰 것을 잡고 하다가 엽총을 사고, 그 다음에 또 큰 것을 사고하는 것입니다. 한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높여 가게 됩니다. 인간생활에 다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세계적으로

[텍스트 입력]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대사들이 한 해에 몇 번씩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대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든지 강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여 가지고 낚시하고 사냥하면서 잔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와 있는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과 클럽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3-116, 1994.1.14) p.1817

말을 타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 사냥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못 합니다. 그러나 낚시는 연령을 초월합니다. 이건 무제한입니다. 배에 실어서 바다에 퍼뜨려 놓으면 조그마한 것 한 마리를 잡더라도 잡은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낚시관광은 앞으로 무제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제일 적지가 알래스카입니다. (205-319, 1990.10.1) p.1817

여러분 앞에 다 나라를 맡겨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세계 정상급들을 데리고 낚시하러 다니고 사냥 다니면서, 술은 먹지 않지만 노래하고 춤추며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세계 취미사업을 발전시키려고 160 국가에 배를 나눠 줘 가지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도미니엄을 지어 가지고 집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세계의 공원으로 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배가 있고, 사냥터가 있고, 그 다음엔 비행장이 있고 호텔이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취미산업을 해서 세계를 리드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 회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형, 소형 비행기를 타면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지금 대형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이름 난 휴양지는 다 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골 마을까지 갈 수 있는 비행장을 닦아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기지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소형 비행기를 세계화시키겠다 이겁니다. 160 국가에 비행장을 만들려고 현재 비행기 회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큰 비행기가 가는 곳은 전부 휴양지역이기 때문에 다 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를 만들고 헌팅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75-183, 1995.12.8) p.1818

관광사업으로 중류 이상의 사람을 엮어야 합니다. 관광을 다니는 사람은 중류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즈니스를 위한 헌팅 장소, 그 다음엔 낚시를 위한 양식 장소를 세계에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업입니다. 대서양까지 운하를 만들어서 휴양시설을 만들고, 사냥터와 낚시터를 만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물과 땅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나라든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게끔 내가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246-89, 1993.3.23) p.1818

Top

② 가라앉지 않는 배, 원 호프

원 호프는 뭐냐 하면, 바다의 일등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다른 모든 배들은 30 피트니 50 피트니 해 가지고 호화선으로 자랑하면서 나가는데, 우리 배는 작지만 빠릅니다. 쉬 쉬 쉬 하고 달려가니까 다들 조그만 배가 온다고 우습다고, '위험한데, 저것 죽으려고 온다.' 그랬습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것을 몰랐다 이겁니다. (270-64, 1995.5.4) p.1818

바다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다에 띄울 수 있는 배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떤 회사가 만든 것보다도 우리 회사가 만든 배를 두고두고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찬양할 수 있는 전통을 지닌 그런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262-243, 1994.8.1) p.1818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낚시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에는 큰배를 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여기 뉴 호프입니다. 이것은 강에도 나갈 수 있고, 바다에도 나갈 수 있는 배를 고안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뉴 호프가 유명합니다. 낚시질하고 안내할 때 유명합니다. 바다에만 다니는 보트가 아닙니다. 차를 통해서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262-240, 1994.8.1) p.181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기서 플로리다에 가려면 차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로 플로리다까지 가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차로 가면 하루 저녁에 가는 것입니다. 차로 서부에서 동부 가는 데 사흘이면 갑니다. 바다로 가려면 한 달 걸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다로 가는 데는 물결을 타고 갈 수 있게, 두 물결을 꿸 수 있게끔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8 피트 이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이하로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28 피트짜리를 중심삼고 38 피트짜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52 피트짜리도 만들고, 98 피트짜리도 만들고 108 피트짜리까지 만든 것입니다. 108 피트 보트는 알래스카의 그 거친 물 가운데서 저인망, 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262-240, 1994.8.1) p.1819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려면 그 위치를 탐지하고 방향을 잡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안개와 싸우더라도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 계기가 한 10 여 가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 계기에 집어넣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기를 컴퓨터 장치에 집어넣어 가지고 방향으로부터 지금의 위치, 바다의 깊이와 고기의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한 시스템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기계를 지금 연구 개발하여 제작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세계 각국에 경쟁이 붙어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공장을 지어 줄 테니 우리보고 제작하라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그건 우리 통일산업이 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바다의 깊이, 어족의 움직임 이게 전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신비한 것이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다시 그 장소를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을 때 어떤 코스로 가면 많이 잡히느냐? 불과 십 미터 차이에서 3 배가 잡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기의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다시 찾아가서 고기를 잡는 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한 번 고기가 잘 잡혔던 곳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백 번이라도 그 자리에 가서 자동적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코스로 갈 수 있게끔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 참 굉장한 것입니다. (134-237, 1985.7.20) p.1819

나는 이 손바닥 가지고 이런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배가 필요하면 내가 무슨 배든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잠수함까지, 소형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도록 연구시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로부터 일본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에서 층층을 중심삼고 생활할 수 있는 가정적 소형 잠수함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어 바다 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190-100, 1989.6.18) p.1820

우리에게는 밴 가정, 잠수함 가정, 우주선 가정이 있습니다. 일주일은 여기서 살고, 일주일 바다에서 살고, 또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기술을 선생님이 갖고 있습니다. 밴을 만들 수 있고, 잠수함을 만들 수 있고, 이제 우주선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276-218, 1996.2.14) p.1820

Top

③ 각광받을 미래 레저산업—낚시

㉮ 바다낚시의 재미와 맛

바다 가운데는 소드 피시라든가 노란 지느러미의 튜나도 있습니다. 큰 것은 3 백파운드나 됩니다. 150 킬로그램 정도 나갈 만큼 큽니다. 선생님의 1.5 배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 하면 수백 마리가 걸립니다. 그것이 상어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상어가 달려들면 피가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던 상어가 달려들어서 3 분의 2 는 전부 상어 밥이 됩니다. 그런 것은 충격입니다. 배 위의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도 상어한테 당해서 한 순간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버리고 맙니다. (192-152, 1989.7.3) p.1820

큰 고기가 물리면 그 바다 밑에서 진동이 그냥 파급됩니다. 이게 배에서 '꽝꽝꽝꽝'하면 골통을 해머로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수십 년간 갖은 풍상 가운데서 살아난 것들이니 얼마나 격랑을 많이 겪었겠어요? 거기서 살아 남았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벌써 다 압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상황을 봐 가지고 사람 있는 곳이 몇 미터 되는 곳이라는 것까지 측정하고 있는 판국인데, 꼭대기에서 쾅쾅 하고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221-84, 1991.10.23) p.1820

튜나잡이 같은 것은 낚시가 아닙니다. 바다의 사냥입니다. 바다의 사냥이란 말 처음 듣지요? 그거 잡기가 큰 소 하나 잡기보다 더 힘듭니다. 한 마리에 천 파운드 이상 나가는 것입니다. 5 백 킬로, 6 백 킬로, 7 백 킬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황소보다도 큽니다. 그런 것을 잡으면 신이 납니다. 잡아서 오래 두면 고기가 상하게 되니 전부 피를 뽑으면 바다는 일순간 피바다가 됩니다. 그땐 나도 '내가 참 무자비한 마음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류 해방을 위한 제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자연세계에서 잡아낸 것은 정성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길러서 제물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니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양식사업을 하고 수산업을 하는 것입니다. (219-196, 1991.8.29) p.1820

고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데 우리 같은 사람 둘이 서더라도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이 조그마한 1 밀리미터 낚싯줄에 걸려 나오니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저 뭐라 할까, 황소 같은 것이 걸려 나오는 것입니다. 낚싯줄은 조그마한데 이게 근사합니다. 여자로 생겨나서 낚시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구경이라도 한번하고 싶지 않아요? (224-211, 1991.11.24) p.1821

어제도 블랙 피시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놈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조개를 안 까먹나 이게 굉장합니다. 낚시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낚시가 블랙 피시 낚시입니다. 여러분, 게 있잖아요, 게를 둘로 잘라서 낚시에 달아 가지고 넣으면 와서 퍼뜩 하고 떼먹습니다. 걸핏하면 와서 떼먹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기 다리에 낚싯바늘을 끼워 놓으면 언제 와서 채 가는지 모릅니다. (217-208, 1991.6.1) p.1821

베드로가 어부였지요? 여러분은 어부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 바다를 몰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래스카까지 뭐 잡으려고 왔어요? 바다 밑에 엎드려 가지고 왕 노릇 하는 것이 할리벗입니다. 그건 엎드려서 먹고사는 것입니다. 눈이 안테나같이 튀어나와 가지고 바다 밑창에 사는 것이 꼭 이끼 낀 바위 덩어리 같습니다. 엎드려 있으니 조그마한 고기들은 거기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고기들이 모이니까 그 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몸을 비틀어 가지고 잡아 삼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먹고사는 것입니다 사탄과 똑같습니다. 왕사탄입니다. '천하의 나를 누가 건드려!' 합니다. 이게 낚시에 걸려 끌려오면서도 '세상에 나를 누가 건드려!' 이러면서 꿈쩍 않다가 '아이구, 큰일났다!' 이런 식입니다. 비로소 문총재한테 알래스카의 할리벗이 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여기 코디악에서 80 파운드 이상 나가는 것을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선생이 나타나 가지고야 비로소 2 백 파운드 3 백 파운드 짜리 할리벗을 잡게 된 것입니다. (206-274, 1990.10.14) p.1821

낚시질이 왜 자극적이냐 하면 피를 보기 때문입니다. 피를 보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 모릅니다. 사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피를 본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이 왜 잔인했는지 알아요? 찢겨 죽는 사람들의 피를 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을 보면 '왁!' 하고 세포가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남자로 생긴 녀석이 낚시할 줄 모르고 사냥할 줄 모르면 여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남자하고는 절대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03-57, 1990.6.14) p.1821

인간이 문화생활을 하는 데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설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극! 자극은 피를 보는 이상의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는 순간 스트레스 같은 것이 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냥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튜나 같은 것은 크기가 황소의 세 배나 됩니다. 그런 것은 작살에 맞으면 피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때 바다를 보게 되면 새빨갛게 변합니다. 그런 때는 시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보게 되면 '아, 하나님! 아,아….' 하면서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데서는 스트레스 같은 것은 쌓여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극적입니다. (192-152, 1989.7.3) p.1822

앞으로 일본 사람을 동원하는 관광사업이 미국에서는 희망적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 내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재미있는 것이 주낙인데 낚싯줄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 하면, 60마일까지 됩니다. 60마일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바다냐 하면 1천미터, 8백 미터, 5백미터 이상입니다. 그 빛깔을 보면 바로 잉크빛입니다. 그 가운데 60마일까지 나가기 때문에 고기가 물었다 하면 굉장합니다.

상어 중에는 사람을 그냥 삼킨다 하더라도 목구멍에도 안 걸릴 만큼 큰놈도 있습니다. 소드피시(sword fish;황새치)라고 하는 것도 3미터, 4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도 그냥 그대로 머리만 빼놓고 통째로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전쟁입니다. 그런 것을 만났다 하면 인사도 안하고 삼키고는 유유히 왕자같이 돌아다닙니다. (192-152, 1989.7.3) p.1822

이제는 북극에 가 가지고 얼음 위에서 잡는 겁니다. 바다사자를 얼음 위에서 잡아 올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가게 되면 블랙 마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게가 3천 파운드입니다. 내가 2백 파운드니 내 몸무게의 열 다섯 배입니다. 열 다섯 배나 되는 큰 고기가 있습니다. 3천 파운드입니다. 이제 고래도 낚시하면 걸릴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물리면 낚싯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잡았다가 도로 다 놓아준 적도 있습니다. 그거 잡았으면 전부 박물관에 갖다 세웠을 것입니다. 이놈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거 잡으려면 다섯 시간 이상 고생해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 '에라! 쓰지도 못할 것 잡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놓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고 싶은 것 다 잡아 봤습니다. (222-277, 1991.11.3) p.1822

아까 사진첩에서 할리벗 사진을 봤으면 알겠지만 이게 그 고기의 낚시입니다. 글로스터, 보스턴 해역에는 자이안트 튜나, 블루핀 튜나가 있는데, 내가 잡은 기록이 1,272파운드 짜리입니다. 길이가 18피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미터가 넘습니다. 내가 잡은 것이 14.9피트가 되니까 그놈은 황소보다 큽니다. 호랑이 큰놈은 7백 파운드쯤 나가고 황소 같은 것은 한 천 파운드 나갑니다. 그러니까 황소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약 200파운드 나가는 것 잡는데, 내 기록은 그 6배입니다, 그만하면 그 놀음놀이가 근사하죠? 2차대전 때 무슨 장군이 돼 가지고 승리하는 것보다 더 멋집니다. 그야말로 참 사내로 태어나서 낚시질하는 데는 왕자와 같은 자리인데, 한번 그 맛을 들여놓으면 여편네 팔아서라도 참석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167-136, 1987.7.11) p.1823

스트라이프트 배스(striped bass;줄무늬농어)라고 하는 멋진 고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튜나보다 더 맛있습니다. 회를 해놓으면 그 맛이 답니다. 고기가 탄력이 있고 맛이 답니다. 일본 사람은 도로(도로;튜나의 배살에 지방이 많은 부분)가 제일이라고 하지만, 이 맛을 보면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스시(すし:식초에 담근 어육, 초밥) 같은 것은 안 좋아합니다. 그거 처음에는 뱀고기를 씹는 느낌입니다. 씹어도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거 뱀고기와 같습니다. 이 고기의 맛을 보고 나서는 '회, 회! 스트라이프트 배스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낚시하러 갈 때 어머니한테 준비를 하라고 하면 스트라이프트 배스를 잡으러 가는 줄 알고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당장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가 자극적입니다. (192-152, 1989.7.3) p.1823

고기를 회쳐서 먹으면 못 먹는 고기가 없습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껍데기 벗겨 가지고 슥슥슥 하게 된다면 앉아 가지고 무슨 고추장 찍어 먹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영양이 충분하고 먹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산 세포 먹는 거지 죽은 세포가 아닙니다. 꿀떡 꿀떡 삼키고 하루 배에서 쉬게 되면 설사가 왜 나요? 먹지 못해서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훤한데 그걸 모릅니다. (191-291, 1989.6.17) p.1823

Top

㉦ 바다 낚시할 때의 요령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일 가장 자리, 제일 얕은 데는 조그만 고기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면서 점점 큰 고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고기는 조금 더 큰놈한테 잡혀 먹고, 또, 더 큰놈은 그보다 더 큰놈한테 잡혀 먹고, 잡혀 먹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고래 새끼라든가 튜너 새끼들을 보면 새끼는 딱, 같다는 것입니다. 명태 새끼나 튜너 새끼나 새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64-286, 1994.11.20) p.1823

선생님이 바다에 잘 갑니다. 바다에는 무한한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쭉 계열적으로 먹이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재미있습니다. 모두 위해서 살고 있지요? 연계관계를 가지고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큰 것이 작은 것을 먹어 주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바다에 고기로 가득차 버릴 것입니다. 먹어 주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198-232, 1990.2.3) p.1823

바다의 고기 같은 것을 보면 조그마한 고기에서부터 층층으로 잡아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들은 인간을 표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세포에 흡수되는 것이 최고의 이상입니다. 그러려니 광물은 식물 앞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포권에 점령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동물 앞에, 고급 동물은 인간 앞에 점령되는 것입니다. 맛있고 훌륭한 것은 다 인간에게 흡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세포들이 약동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딸의 사랑의 실체로서 연결되고 싶은, 사랑의 본궁을 향해 돌아가자는 소원에서 그 주인 앞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199-333, 1990.2.21) p.1824

바다에 가면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층계가 많습니다. 온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온도 1도 2도 차이에 따라서 고기 종류가 전부 달라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인간들은 모르지만 고기세계는 1도 차이가 나는 층계와 면을 따라 오대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어제까지 고기들이 무진장 많았는데, 고기 절반 물이 절반이었는데 오늘 가보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0.5도, 1도가 달라지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1도 2도 차이가 문제없지만 고기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대지방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열대지방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온대지방에 가서도 살 수 있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가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200-261, 1990.2.26) p.1824

고기들이 무는 것도 고기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족이 천 가지라면 무는 방법도 천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데로 가서 낚시하게 될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잡을 때 어떻게 무는지 딱 공식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고기가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채면 안 걸리는 것입니다. 낚시와 더불어 낚싯줄이 가니까 얼마든지 고기가 빼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면 반대로 잡아당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왼쪽으로 갈 때는 반대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자기가 언제든지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잡아당겨야 빨리 걸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입니다.

바다 낚시를 가도 그냥 수평선만 있는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이 있는 데로 가야 합니다. 돌이 있어 가지고 숨을 수 있고 거기에 먹을 수 있는 벌레들이 붙어 사는데 고기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고기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물결이 치는 것입니다. 3미터, 5미터의 물결이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가면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까이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68-307, 1995.4.3) p.1824

낚시를 넣으면 다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고기들은 노는 수온이 다릅니다.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수온이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겉으로 나올수록 수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고기들은 수면에 사는 것입니다. 해수의 온도에 따라 자연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종횡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언제나 옆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낚시질을 하려면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기가 머무는 곳, 새먼도 어디에서 낚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안 되면 못 잡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온도를 맞춰서 낚시질을 합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에는 어떤 고기들이 있는가를 벌써 압니다. 낚시를 몇 번 드리면 벌써 밑감을 건드립니다. 낚싯대를 빨리 감으면 위로 올라오고 천천히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감으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천천히 감으면서 지금 수면의 몇 분의 1에 흐르는가를 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기온에서 킹 새먼은 어느 레벨에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새먼은 보통 땅 바닥에 있습니다. 왜? 땅 바닥에 먹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벌레들이나 게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바닥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263-138, 1994.8.21) p.1825

아무리 알래스카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도 그 세계에 가서는 또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또 왕래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도 코디악에 오면 배워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잘 잡는다 하더라도 코디악에서는 안 통합니다. 코디악에 와서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엉겨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낚시 방법, 다양한 얼굴, 다양한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낚시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252-206, 1993.12.30) p.1825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를 보게 되면 태풍이 불고 배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 다 고기 세상입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틀고 옥작복작하고 그 위에서 '쾅광' 하니까 엉망진창이고, 방망이로 뭘 치는 것같이 그런 큰 진동을 느끼는 곳인데 조용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고래들이 모여서 점핑을 하지를 않나, 쇼를 하지 않나 그날은 참 역사적이었습니다. 어디 사진을 찍어 놨을 것입니다. 큰 놈, 작은 놈, 조그만 놈들이 있었는데, 고래가 크기 때문에 꽁지까지밖에 못 뛰었습니다. 꽁지만큼은 언제나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자빠지면 물위에 다 엎어져서 쓱 이러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쇼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바람이 불면 고래가 저렇게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한번 두 번만 하면 '그렇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233-306, 1992.8.2) p.1825

낚시질을 하러 바다에 가는게 아닙니다. 알래스카의 정신이 뭐냐 하면, 연어의 정신입니다. 연어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4천 마일, 5천 마일의 대해를 건너 떠났던 자기 고향을 찾아옵니다. 인간의 복귀노정을 두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억천만 리를 떠났더라도 다시 찾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상 흥분되는 낚시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다른 고기들이 물었을 때는 그저 몇 번만 감으면 나오지만, 이것은 수십 번을 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전통을 가진 사람을 잡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점핑합니다. 이렇게 점핑을 세 번만 하면 낚싯바늘이 빠집니다. 그게 알래스카의 전통입니다. 바다는 사망의 세계, 사탄세계를 상징하고 고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기 가운데 제일 용맹한 고기가 새먼입니다. (236-124, 1992.11.4) p.1826

하루는 바다에 갔는데, 태풍이 부는데도 배들이 많았습니다. 튜너(tuna;다랑어) 철이 되어 바다로 가면 한 5백 척 모인 배들이 전부 원수같이 느껴집니다. '나 혼자 한번 낚시질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날이 없습니다. 하루는 태풍 경보가 났는데 내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장한테 '이 녀석아, 내 말 들어! 안 죽어.' 이래 가지고 억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가깝지 않습니다. 두 시간 이상 걸리니까 밤 한 시에 떠납니다. 네 시에 도착하려면 한 시에 떠나야 합니다. 바람 불고 다 그러니까 이게 곱절이 걸립니다. 이래 가지고 열두 시에 출항했습니다.

생애 노정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료는 억천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날씨니 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낚싯줄을 내리니, 내리자마자 와다닥 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수많은 배 가운데 수십 마리가 물던 것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 굶주린 고기 떼들이 십리도 내다보는 눈을 가졌으니 달려들어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낚싯줄을 들이대니까 '째까닥' 무는 것입니다. 태풍이야 불겠으면 불고 말겠으면 말고, 내가 태풍을 아랑곳하겠어요? 그저 땀을 흘리면서 낚시를 했습니다. 4시간 동안 잡느라고 4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20마일을 엔진 모터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233-306, 1992.8.2) p.1826

우리 같은 사람은 낚시질 가면 벌써 고기 있는 데를 압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다 먹을 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때는 먹었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것입니다. 판이 깊으면 안 됩니다. 판이 한 곳은 깊고, 한 곳은 평평해야 됩니다. 고기는 숨기 위해서 깊은 데로 도망을 갑니다. 나와 놀더라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틀림없이 평평한 데 나와 놉니다. 오전에는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또 먹기 때문에 그 판을 봐서 '아, 여기는 어떤 고기가 있겠다!' 딱 아는 것입니다. (221-82, 1991.10.23) p.1826

내 낚시가 지금 수상에서 몇 자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기가 밑바닥에서 1 피트, 먹이를 잡아먹기 좋은 곳에 있습니다. 먹고사는 것이니까 2 피트를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철이 되면 그것이 바닥에 깔리는 것입니다. 낚시하면서 걸려고 하면 매번 걸 수 있습니다. 사사사사삭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조금만 척하면 들이 채야 합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다랑어는 바다에서 자기가 천하제일같이 자유롭게 살던 녀석들인데 그 조그만 미끼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221-81, 1991.10.23) p.1827

큰 고기를 잡으려면 밑창에 가야 합니다. 고기 중에 뛰는 놈들은 작은 것입니다. 큰놈은 안 뜁니다. '뛰어서 뭘하겠냐?' 그런 것입니다. 낚싯대를 드리우면 그런 놈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 밑창에다 한 뼘 정도 띄워 가지고 냄새 피워 놓으면 천천히 양반걸음 해서…. 고기가 헤엄치려면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수평으로 가는 데 걸리지 않게끔 한 뼘 이상 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낚시를 던지면 틀림없이 큰놈이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잡은 것이 얼마나 크냐 하면 15 파운드 30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잡은 연어 중에서 제일 큰 것입니다. 마지막 피날레로 그걸 걸어 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그물로 이것을 떠야 할 텐데 석양에 햇빛이 비치니까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물 안에 3 분의 2 가 들어가 있고 대가리만 내놓아도 뛰쳐나오는데, 용감했습니다. 그때 잘못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205-322, 1990.10.1) p.1827

낚싯줄에는 천 리나 되는 것, 십리나 되는 것, 한치 거리가 되는 것 등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낚싯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한 치쯤 되는 것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걸리는 고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당기기 시작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줄이 길고 멀면 멀수록 깊은 대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낚시꾼이라면 조그만 것이 톡톡 물어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너는 무는구나. 너희들 떼거리 자꾸 모여라.' 이렇게 해야, 그 뒤에 제일 큰놈이 몇백, 몇천 리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몇천 리 밖에 있는 한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생님도 낚시질을 곧잘 합니다. 40 일 이상 밤낮으로 해봤습니다. 내가 낚시질해서 잡으려고 하는 고기는 첫 번에 데꺽 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물어라. 송사리 떼야, 모여라!' 해 가지고 맨 나중에 지긋한 놈이 물 수 있게끔 떡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송사리 떼는 그저 왔다 가는 놈이 많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낚시질하는 주인이 돌았군 그래.' 그러면서 먹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152-32, 1963.3.3) p.1827

사냥은 목을 지키다 쏘기 때문에 야만적입니다. 날아가는 걸 쏘고 하는 것이 도의적이 아닙니다. 낚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와서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낚시는 다섯 살부터 죽는 날까지, 백살 된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도 침대에서 낚시 놓고 낚시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에 암만 챔피언이고 유명하더라도 다른 지방에 가게 되면 그 지방에서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식으로 안 하고 자기 혼자만의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배우게 되고, 또 어디 가서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등입니다. 같은 종류라도 먹는 것이 장소에 따라서,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무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에 가 가지고 다 배워야 합니다. 만국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취미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252-206, 1993.12.30) p.1828

Top

㉱ 낚시를 배우면 굶어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농사 지을 줄 알아요? 선생님은 농사지을 줄 다 압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통일교회 요원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농사지을 줄도 알고, 사냥도 할 줄 알고, 낚시질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홀몸 가지고 아프리카 부락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면 그들을 먹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줘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1년만 먹여 주게 되면 그들이 1년 후에는 벌어 먹이는 것입니다. (262-256, 1994.8.1) p.1828

열대 지방에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낚시질과 사냥은 통일교인들이 못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고기잡이를 가르쳐 줘야 하고, 사냥해서 살아 남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런 문은 피를 보고 다 그래도 당당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았습니다. 내가 동물을 잡는 것은 통일교인들을 제사장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일입니다. 낚시와 사냥을 배우면 이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냥 선교를 보내고 낚시질 선교를 보내 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해서 전세계에 퍼뜨려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낚시질하고 사냥해서 살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262-255, 1994.8.1) p.1828

한 호수를 가지고 몇천 몇만의 집이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낚시를 할 줄만 알면 그 고기는 우리 고기입니다. 낚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여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자는 엉덩이가 방석같이 큽니다. 편안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세 시간만 앉아 있으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가 고기 세 마리만 잡으면 세 아기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네 마리만 잡으면 아버지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질하는 데 가면 한 시간 이내에 열 마리도 잡을 수 있고 수십 마리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백 집이 있으면 백 여인을 중심삼고 클럽을 짜 가지고 오늘은 백 마리 잡아오자고 하면 백 마리 잡고, 2백 마리 잡겠다 하면 2백 마리 잡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몇 사람만 동원하면 되지 전체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동원해 가지고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2-251, 1994.8.1) p.1828

낚시는 간단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여자들은 바늘은 다 갖고 있습니다. 촛불을 켜 가지고 바늘을 달궈서 낚시바늘을 만든다 이겁니다. 옛날에 나는 만들어서 다 했습니다. 낚시줄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론 줄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낚싯줄은 옛날의 명주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추는 납덩이를 잘라 가지고 매달고, 찌는 수수깡 대를 잘라 가지고 매달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미끼를 끼워서 손이 낚싯대가 돼 가지고 던져 놓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진장한 것이 고기입니다. 고기는 어디든 있으니 문제없습니다.

부인들이 낚시질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낚시를 안 할 수 없고, 사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부락부락 연합을 만들어 분배해 가지고 사람들 몇씩 묶어서 짐승을 잡아다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63-45, 1994.8.16) p.1829

굶어죽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제3세계의 사람들은 낚시를 할줄 몰라서 죽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낚시질만 하면 절대 굶어죽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물이 있고, 호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무진장입니다. 그러니 잡는 것을 가르쳐 주고 양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놀음을 벌써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실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늘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촛불을 켜 놓고 바늘을 달궈 가지고 휘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끼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아기 열 명 먹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키만한 고기들이 뭅니다. 그러한 환경적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262-100, 1994.7.23) p.1829

비즈니스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1년에 2천만 명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는 데서는 농사 방법, 물 있는 데서는 양어법을 가르쳐 줘 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인들과 아이들이 낚시질을 할 줄 아는데 왜 굶어죽어요? 물이 있고 고기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죽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낚시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냥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악어니 뭐니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평화관광수렵협회도 다 세계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런 놀음을 하느냐? 내가 20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 기반을 닦아 나온 것입니다. 굶어 죽는 세계 사람들을 참부모가 책임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인류가 형제인데,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해 2 천만이 통일교회 교인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통일교회가 주도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겠어요? 농사 짓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을 한시라도 빨리 배우라 이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방법을 전수 받아 가지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253-109, 1994.1.9) p.1830

어머니들이 낚시질만 할 줄 알면 아들딸을 굶어 죽이질 않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고, 고기들이 얼마나 많고,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든지 강이 있습니다. 고기 한 마리만 잡으면 큰 것은 일주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악어를 잡게 되면 한 달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마는 말려 가지고 일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냥을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세계평화관광사냥연합회와 낚시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낚시대회를 열어서 미국 여자들 할 것 없는데 데려다가 전부 낚시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굶는 엄마들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면 어디 가더라도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물과 땅이 있으면 됩니다. 땅에서는 농사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그걸 안 가르쳐 주었다 이겁니다. 농사 짓는 법도 안 가르쳐 주고 다 착취만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침 맞고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환영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농장을 만들고 낚시터를 만들고 말입니다, 농사짓는 방법도 전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멧돼지 같은 것도 덫만 만들어 놓으면 하루에 열 마리, 백 마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254-305, 1994.2.6) p.1830

제 3 세계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낚시질만 할 줄 알았더라도, 주낙 같은 것만 놓을 줄 알았어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호수가 있고, 강이 있는 데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락에 총 한 정만 있으면 사냥을 하게 함으로써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지금 전세계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고기도 기르고,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훈련 장소로 현재 텍사스 농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을 배치해 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농사도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255-70, 1994.3.5) p.1830

산에 가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토끼도 먹고사는데 사람이 못 먹고살아요? 여러분이 시골 같은 데 가면 바다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그 강이나 바다에 고기가 많은데 잡아먹을 줄도 모릅니다. 그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냥철이 되면 사냥을 해도 괜찮습니다. 총 쏠 줄 알아요? 사냥해 먹고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곰 한 마리만 잡으면 1 년은 먹고삽니다. 그런 것을 왜 연구 안 해요? (132-214, 1984.6.1) p.1830

Top

㉱ 바다 낚시는 정신적인 것

선생님은 낚시 가서나 어디서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낚시를 오래 한 사람은 낚싯대를 열 번 늘어뜨리면 열 번 생각하고, 백 번 늘어뜨리면 백 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 번 늘어뜨리면서 백 번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쓱 가게 되면, 낚시터가 모래가 있는 곳인지 벌써 다녀보면 압니다. 전문가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추(鉛錘)를 달아 끌어 보면 모래판은 툭툭툭하고, 감탕밭은 주욱 끌려오는 것입니다. (221-84, 1991.10.23) p.1831

대개 보면 낚싯대를 하나만 놓고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두 대를 맞춰 놓습니다. 왜 두 개냐 하면 남자완성 여자완성, 즉 주체 대상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228-260, 1992.7.5) p.1831

사냥은 육체운동으로서 육체건강을 위한 것이고, 낚시는 정신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앉아서 낚시질 할 때는 자기 일생을 회상하고,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 생활에 대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위엄을 갖추고 자기 자신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낚시도(道)라고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새끼 고기들이 어미 고기가 잡혀 올라올 때 따라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 생활을 중심삼고 '아, 잡아서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딸을 중심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낚시를 몇 년만 하게 되면 잡았더라도 놓아주고 싶지, 잡은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도(道)입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52-208, 1993.12.30) p.1831

사람들이 배타고 낚시 나가게 되면 기후 좋고, 기분 좋을 때 가려고 합니다. 그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낙비가 오고 벼락을 치는 환경에서 낚시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환경적 변화, 주변의 모든 물이 어떻게 다르고, 그 물이 움직이므로 고기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은 억수같이 비오는 자리에서 낚시를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276-69, 1996.2.4) p.1831

역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가리켜 틀렸다고 말을 못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기의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낚시를 하면서 '너희들은 나 같은 남자를 처음 보지? 너희들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을 연결시켜서 어장을 중심삼고 인류 기근을 해방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창조된 본연의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의 살을 먹은 자는 나쁜 짓을 안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47-32, 1993.4.21) p.1831

선생님이 낚시를 할 때 '내가 주인이다. 다 오너라!' 하면, 고기들이 전부 몰려옵니다. 그러면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 언제나 주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잡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적인 하나님을 중심삼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색다른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보통의 빛이 난다면, 선생님은 특별한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고기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몰려오는 것입니다. (248-35, 1993.5.30) p.1832

선생님이 낚시를 가서 첫 번 잡은 고기는 놔줍니다. 하나님이 지어 가지고 놔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잡은 고기는 지금까지 먹지를 않았습니다. 2 천만의 하나님의 아들딸이 굶어 죽는데 고기가 자연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겁니다. 너를 잡아 가지고 2 천만 하나님의 아들딸을 살려 주어야겠다 이겁니다. 동물이 혹은 생물들이 생겨난 원칙이 그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낚시대회에 나가게 되면 선생님 낚시에는 잘 잡히고, 일반 사람의 낚시에는 안 잡힙니다. 정성입니다, 정성. '야, 하나님이 지은 물 박물관에 잠수해 들어갈 수 없으니 한 번 물 속에서 뛰쳐나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놔주는 기쁨을 감상하게 하라.' 그러면 자기가 잡혀 찾아오는 것입니다. (276-146, 1996.2.18) p.1832

배 타고 푸른 바다에서 고기를 잡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귀섭리, 구원섭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고기라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미끼를 좋은 것으로 꿰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든든한 줄을 매야 되고, 낚싯대도 좋아야 되고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잡아야지, 줄도 약하고 미끼도 나쁘고 낚싯대도 나쁘고 잡는 기술도 나쁘면 그것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것도 딱 고기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낚싯대와 같은 입장에서 낚시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줄을 걸고 좋은 미끼를 걸어서 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낚아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상대적인 여건이 맞아 가지고 거기에 수확이 벌어지지, 상대적 여건을 맞추지 않으면 수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7-16, 1996.3.17) p.1832

여러분은 선생님과 바다에 나가게 되면 선생님의 낚시에 고기가 잘 문다고 생각하지요? 낚시를 할 때는 다 상대같이 봅니다. 완전한 주체는 완전한 상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낚시를 할 때는 '여기에는 반드시 고기가 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번 딱 대면 이것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벌써 상대적 가치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만지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262-300, 1984.8.1) p.1832

하루종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소변도 거기서 해결합니다. 깡통을 갖다 놓고 '야, 소변을 본다. 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궁둥이를 반대로 해서 싸는 것입니다. 혼자 거기서 오줌 싸고 먹고 종일 그러는 것입니다. 25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캔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바다에서 벌거벗고 수영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렇다고 누가 흉볼 것이 있어요? 동물들은 보고 웃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새나 동물, 모든 만물도 다 똑같은 상태인데 누가 욕을 해요? 그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할 것 없습니다. 여자도 그때 가서는 앉아서 소변 안 보고 남자와 같이 서서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303-118, 1999.8.8) p.1833

알래스카에서 고기를 잡을 때 해안 경비대들이 우리가 새벽같이 나가는 것을 보고 고기잡이를 무슨 훈련같이 한다고 찾아와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하고 탄복을 하면서 칭찬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도 내가 낚시질을 제일 잘하지요? 송사리 때부터 못 잡아 본 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고래 잡으라고 하면 하루에 몇 마리는 잡을 것입니다. 튜나로부터 못 잡아본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동해안 서해안,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안 잡아본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정이 훤합니다. (211-62, 1990.12.28) p.1833

큰 소나무를 보거든 '내가 환란받던 지난 역사시대의 나를 알고, 떠나던 것을 봤던 너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문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지난날 내 친구를 저주하던 그 뜰을 이제는 사랑의 친구로 품고, 흘러가는 물도 잊어 버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젠 주인의 자리에서 다 잊고 그 물가에서 헤엄도 쳐주고, 거기에 사는 고기도 낚아 주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입니다. 비로소 에덴동산의 아담이 강에 들어가 처음으로 왕권의 대표자로서 고기를 낚아 먹지 못한 것을 탕감복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낚시질도 해서 고기를 잡아먹어도 되고, 산에 있는 토끼나 꿩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잡아서 부모를 봉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삼고, 생활을 위한 음식으로서, 생활의 재료로서 소모한다고 할 수 있는 역사를 남겨야 합니다. (221-13, 1990.12.28) p.1833

선생님은 지금까지 가장 비참한 세계로부터 모든 것을 다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농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는 뭘 심어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또, 바다에 가면 낚시에는 왕입니다. 튜나(tuna;다랑어)를 잡는 데 있어서도 '레버런 문 시스템'이라고 해서 벌써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만민이 만세를 할 때는 사진 찍어주는 카메라맨도 되고, 밥을 짓는 취사장에 들어가면 요리를 하는 주방장도 됩니다. 주인은 그렇지요? 모든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후를 엮어 온 사람이 참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29-67, 1992.4.9) p.1833

참사랑을 가졌으면 무엇이든지 통일이 가능합니다. 동물세계?식물세계, 독사까지도 전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낚시질할 때는 '고기들아! 내가 너를 잡는 것은 나를 위해 잡는 것이 아니야. 세계에서 굶어죽는 저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대신해서 잡는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손과 만민을 위해 잡는 것이니 너희들 용서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잡는 것은 먹지 않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제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그 앞에 생명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12 명이 타게 되면 3 분의 1 은 내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고기들이 알아보고 '선생님의 낚시에만 자꾸 물어!' 합니다. (278-105, 1996.5.1) p.1834

세계 사람들이 선생님을 신비스러운 사나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말도 잘하는 것입니다. 또, 신비스런 행동도 잘합니다. 내가 통일교회 교주지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어부 중의 왕어부입니다. '저 사람이 통일교회 교주인데 뭘 알까?' 하지만 현장에 가서 감독하면 10 년, 20 년 하던 사람들도 감탄합니다. 농장에 가면 농장의 일도 잘합니다. 학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신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을 만나면 더 신비스러운 사람이 레버런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비스럽게 만든다구요? 참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205-140, 1990.8.12) p.183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은 철저한 3 식주의자입니다.
후식 같은 것은 안 먹습니다. 디저트 같은 것은 테이블 위에 있어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옷도 이런 것입니다. 넥타이 같은 것은 안 맵니다. 사람들이 넥타이를 매는 돈을 모두 모아서 세계를 구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도 휴지를 두 장 이상 안 씁니다. 가능하면 한 장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정량의 소모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쓰면 죄입니다. 우리는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이 그것을 빚으로 상속받습니다. 누가 말을 해서 교육해 줘요! 교육 이전에 원리가 선생입니다. 자연이 선생이고, 바다가 선생입니다. (193-104, 1989.8.31) p.1834

산에 가면 산나물 같은 것도 훤히 압니다. 이건 무엇이고, 무엇을 해 먹고 무엇이 나쁘고, 독버섯 같은 것도 훤히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서 살 수 있는 법도 다 알고, 바다에 가면, 낚시를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압니다. 물에 고기만 있다면 틀림없이 혼자서라도 거기에 집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고기는 잡아서 소금만 가지고 산 채로 먹는 것이 맛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혼자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233-260, 1992.8.1) p.1834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이 혼자서 미국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배후의 고생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는 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선생님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학자세계로부터 문화세계?예술세계?교육세계 등 손을 안 댄 데가 없습니다. 사상세계까지도 손을 댔습니다. 그 기준에서 여러분도 여기서 교육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다갔다해요? 선생님을 40 년 가까이 따라 나온 사람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매번 새롭습니다. 제멋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확실히 알았을 경우에도 세계를 복귀하기까지는 군소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193-104, 1989.8.31) p.1835

나도 혼자는 싫습니다. 혼자 있기 싫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일하면 낚시질하는 사람, 일등 어부와 같이 있고 싶고, 산에 가면 산행하는 사람과 있고 싶고, 씨름판에 가면 씨름하는 사람과 있고 싶고, 술판에 나가면 냄새를 맡더라도, 냄새 맡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싫다 그 말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문선생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혼자는 심심해서 못삽니다. (147-312, 1986.10.1) p.1835

결혼하는 것은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둘이 딱 붙으면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저 수직의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요게 달라붙으면 수직이 쭉 내려옵니다. 머리에 갔던 피가 저 아래로 가요, 안 가요? 발 끄트머리로 갑니다. '농민 냄새 나는 발끝, 손끝을 거쳐오던 피는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이 천지의 이치입니다. 높았던 것은 낮은 데로 가야 되고, 낮은 데 있던 것은 높은 데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생도 이제 성공 다하고, 뜻을 다 이룬 다음에는 저 낮은 데, 초야에 가 묻혀 살면서 낚시나 하고 농민의 친구가 되고 어부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훈련하고 있습니다. (221-342, 1991.10.27) p.1835

하나님도 사랑의 낚시로 끌고 다니더라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의 예술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의 희극 비극이, 사랑의 모든 문화가 창조될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창조하는 독립군이 되어 보고 싶지 않아요? (195-273, 1989.12.10) p.1835

최고의 미끼, 낚시의 미끼와 같은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만민을 낚을 수 있는 하나의 미끼가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역사를 낚고, 하나님을 낚을 수 있는 미끼는 뭐냐? 하나님을 낚을 수 있는 미끼가 있다면 한번 준비하고 싶지요? 그게 사랑의 미끼입니다. 역사를 낚을 수 있고 천지를 낚을 수 있는 미끼가 있다면 그게 뭐겠느냐? 그것이 사랑이다 이겁니다. (145-227, 1986.5.11) p.1835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2) 인간과 취미생활

① 미래세계는 취미생활의 시대

앞으로의 세계는 새로운 국제경제기구 및 질서의 탄생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해지며, 인류는 풍족한 경제생활에 따른 시간적 여유를 레저(leisure)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는 대자연을 이해하고 배우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참된 삶을 즐기는 이상세계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115-177, 1981.11.10) p.1836

앞으로 사업은 레저산업이 됩니다. 기술사업 시대는 자동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이 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일을 합니다. 몇천 명이 작업하던 공장이 서넛만 가지고 밤낮 생산품을 내놓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산업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흥행산업, 유행산업, 이런 레저산업입니다. (191-73, 1989.6.24) p.1836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적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좋은 때가 옵니다. 레저산업시대, 3 차산업시대가 옵니다. 레저산업,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강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금강산보다 한국을 먼저 보고 돌아갈 것이고 한국의 부산이라든가 제주도로 해서 외적으로 돌아 가지고 금강산으로 갈 것입니다. 금강산을 보고 딴 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 봤자 재미가 없습니다. 가 보긴 가 봐야 할 텐데, 가보고 나서는 전부 낙심한다 이겁니다. 오는 손님들을 유치할 때 부산으로부터 제주도로 해서 삥삥 돌면서 백두산을 거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25-176, 1992.1.20) p.1836

지금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사장이 회사로 출근해서 일해먹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컴퓨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공위성에 의해 일본 사무실에서 하는 것과 딱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배에서 낚시질을 하고 회를 먹어가면서 '이사는 뭘 하고, 상무이사는 뭘 하고, 과장은 뭘 하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일년 열두 달 책임자는 회사 출근 안하고도 취미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해방의 자리에서 경영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91-76, 1989.6.24) p.1836

취미생활을 하려면 전부 부부간에, 또는 일족이 차를 타고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과 아들딸을 거느리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들이 한스러운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남편이 돌아다닐 때 못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252-296, 1994.1.1) p.1836

자연과 가까이 사는 농민들, 먼 곳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도하고, 도시 사람들은 과학적 최고 기술을 통해서 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큰 연구소, 큰 실험장, 농사 실험장, 어업 실험장, 사냥 실험장, 낚시 실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합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기쁨을 느끼는 취미산업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취미산업, 취미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79-58, 1996.6.9) p.1836

취미생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취미가 창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취미거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취미가 겹치고 겹치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생활입니다. (279-60, 1996.6.9) p.1837

Top

② 취미산업은 평화세계로 이끌어 가는 지름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취미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재미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입장을 다시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면 안 잤지 그 일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돈이 개재되고 환경이 개재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 취미산업, 취미연구 등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돼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나님 앞에 소유될 수 있는 물건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애용할 수 있는 물건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돈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면서 이 놀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281-263, 1997.3.9) p.1837

육십이 넘으면 고향 농촌에 돌아가 땅을 파면서 영계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영계에 갈 준비가 바쁩니다. 그러니 정성을 들여 선생님같이 농촌에 가서 묻혀 농촌을 지도하는 책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미산업, 취미생활을 마치고 영계에 가야 높은 영계에 갈 수 있고, 정서적인 사람이 되어 영계의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289-193, 1988.1.2) p.1837

앞으로는 취미산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레저산업이 아닙니다. 취미산업입니다. 레저산업 하게 되면 이권을 개재(介在)한 개념입니다. 고기를 잡는다든가 사냥을 하는 것도 전부 이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미산업으로 전개하면, 부락에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부락에서도 시즌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공장가는 사람, 회사가는 사람 등 별의별 직장이 다 있는데, 직장별로 1 백 개 클럽에서 360 개 클럽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다른 클럽이 이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짜기만 하면, 춘하추동 사계절 동안 이렇게 하면 돈 안 잃습니다. 50 퍼센트는 반환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흥미산업으로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252-201, 1993.12.30) p.1837

취미산업은 레저산업과 다릅니다. 레저는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이건 취미를 목표로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하지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겠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다들 휴가 가잖아요? 1 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미산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에 대한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선취권을 쥐는 것이 앞으로 세계의 금융계 등 인적 자원을 비롯해 모든 분야를 평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20 년 동안 계획해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 나온 것입니다. 명년 4 월이면 20 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산업과 더불어 앞으로 농사도 취미농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는 시간이 많게 되면, 노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같은 데 한 2 백평 정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로 취미농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리드하는 것입니다. (252-210, 1993.12.30) p.1838

이제 성약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대인원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대인원이 필요합니다. 세계 사람들을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배경을 넘어 연결시킬 수 있는 산업이 뭐냐? 물론 교회활동도 필요하지만, 대내와 대외의 활동을 겸해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은 취미산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52-211, 1993.12.30) p.1838

Top

③ 취미산업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선생님은 취미산업, 하비 비즈니스(hobby business;취미사업)이라는 말을 지금 새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집중시대가 오래 안 가서 끝나고 다 분산하게 됩니다. 분산시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취미산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에 와 가지고 취미산업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취미를 중심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253-015, 1994.1.1) p.183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취미산업에는 카지노도 들어가고, 운동도 들어가고, 사냥, 낚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체육대전에서도 그것들을 했지요? 세계적인 관광사업을 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세계적인 관광사업을 지금 준비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버스 회사 '고 투어(Go Tour)'를 만든 것도 그것을 위한 일환이요 준비였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관광레저산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취미산업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253-111, 1994.1.9) p.1838

앞으로 전세계 관광지에서 우리 보트를 안 탈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세계적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든 안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관광을 해야 됩니다. 휴가철에는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것을 취미산업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하비 인더스트리(hobby industry), 취미입니다. 구경다니면서 물건을 나르고 하자는 것입니다. (262-247, 1994.8.1) p.1838

관광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땅이 있으면 낚시터도 환경을 잘 가꾸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배꽁초, 빈깡통, 쓰레기는 일체 못 버리게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무공해를 위주로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취미는 취미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누구나 다 안 가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50억 인류가 다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8-75, 1997.10.31) p.1839

통일교회에 지금까지 휴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닦은 낚시터, 사냥터, 수영장이 어디 가든지 잘 되어 있습니다. 추우면 더운 지방으로 가고 더우면 추운 지방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휴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취미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핍박을 받으면서 올라왔지만 여러분은 핍박을 안 받습니다.

이제 남미에 가 가지고 선생님이 기반 닦은 데서 책임을 지고 종족들을 데려다가 훈련하게 되면 그 종족기반을 중심삼고 영계에 있는 선조들, 나라에 있는 모든 일족이 하나될 수 있는 기지가 됩니다. (266-135, 1994.12.22) p.1839

알래스카에 터전 닦고, 텍사스에 터전 닦고, 160국가에 낚시터, 사냥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낚시와 사냥은 취미입니다. 고위층, 잘사는 사람들의 취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산업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리드할 것입니다. (269-49, 1995.4.6) p.1839

세계적으로 관광사업 터전을 연결시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여야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사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을 중심삼고 외교세계의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5-106, 1995.11.3) p.1839

사람은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밥 먹고사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싸움하고 살겠어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강에 나가면 배 타고, 수상세계에서 다이빙으로부터 고기와 친구하고 노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미적 생활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미산업이라는 말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카지노를 하라고 안 합니다. 클럽을 짜는 것입니다. 한달동안 취미산업을 방문할 때는 카지노 시간은 이틀밖에 없습니다. 거쳐가는 것입니다. 카지노를 하게 되면 젊은 녀석들이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취미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만 달러를 잃었으면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30퍼센트를 돌려 줘라 이겁니다.

라스베가스라든가 애틀랜타에서 그 배후의 암흑가를 선생님이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를 잃었으면 10만 달러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복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거기에 참석해서 3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한 시간은 반드시 사상교육을 받아라 이겁니다. 카지노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더럽다는 것, 이것을 취미산업으로 해서 참부모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이상적 꿈을 그릴 수 있는 기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취미산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자르고도 또 하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손가락을 자르고도 자른 손가락으로 또 도박하는 것입니다. (276-184, 1996.2.19) p.184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교육은 정신을 대표하고 체육은 몸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 대학연맹을 통해서 앞으로 원숙된 방향으로 부모님을 중심삼고 하늘나라의 사랑의 이상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취미산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미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 가정의 세계는 취미산업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76-209, 1962.2.24) p.1840

모든 것이 취미입니다. 색다른 곳에 간다면 산이 다르고, 바위가 다르고, 나무가 다릅니다. 그것이 전부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 주인이 품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들딸이 땅위의 어디 가서든 살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277-027, 1996.3.17) p.1840

선생님이 지금까지 취미산업을 말했습니다. 세상이 전부 과학세계로서 최고의 기술을 통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중시해서 하는 말이지, 그것은 취미산업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알겠어요? 눈 취미 · 코 취미 · 입 취미 · 귀 취미 · 감촉 취미 · 몸 취미, 마음 취미?사랑 취미, 모든 종류의 취미가 있습니다. (278-95, 1996.5.1) p.1840

안식권이라는 것은 바다만이 아닙니다. 육지의 안식권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산이면 산, 경치 있는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가서는 뭘 할 것이냐?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수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모든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미산업으로 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되고 몸이 되고, 뼈가 될 것인데, 도적놈의 피살이 되게 도적놈이 도적질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본연적 사랑과 하나될 수 있는 취미산업을 역사의 대전환기로 맞아 360 만쌍 정상의 전환점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준비해 나온 것입니다. (286-141, 1997.8.9) p.1840

재미라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있는 데서 예술이라는 아름다움이라든가 귀함이라든가 가치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산업은 외적입니다 가정은 취미가정이 아닙니다. 재미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미라고 해서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은 다 좋아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미국 천지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보금자리에서 우리 부모가 산다는 것입니다. 콧노래를 부른다고 하지요? 그 곳에서 콧노래만 부르겠어요? (296-127, 1998.11.3) p.1840

사는 게 다 재미입니다, 취미라는 것은 환경적 여건을 말하는 것이고, 재미는 주체와 대상의 사랑이상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재미있습니까? 그렇다면 미친 것이 됩니다.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미래의 이상적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의 상대를 위해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입장에 세웠기 때문에 사랑권 내의 인연을 안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298-234, 1999.1.8) p.1841

공해로 오염된 농작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있는 정성을 다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섯 식구면 다섯 식구가 농사를 지어 먹지 다른 데서 사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채도 자기가 재배해서 먹고 쌀도 자기가 재배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통일교회에 맡기면 우루과이라운드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세계는 공해 때문에 다 망합니다. (252-295, 1994.1.1) p.1841

이제부터 세계는 관광산업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경제 유통구조는 다른 산업 기반을 통해 정착합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유통구조는 언제나 빨리 돕니다. 돌기 때문에 그 활용 능력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기반을 닦으려고 수안보라든가 부곡 하와이에 콘도미니엄도 짓고 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 먼 장래를 대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225-176, 1992.1.20) p.1841

Top

[텍스트 입력]

제 3 장
환태평양시대와 도서국가연합 창설

1) 지금은 환태평양시대

① 왜 태평양시대가 오는가

지금 때는 태평양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구라파 제일주의를 부르짖고 나오던 것이, 이제는 태평양을 중심삼은 무역권이 구라파를 능가하여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미국이 태평양 지역을 버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누가 잘하느냐 하면, 아시아 사람이 잘합니다. 미국 사람은 돈이 있으면 마구 쓰지요? 그러나 아시아 사람은 안 씁니다. 중국 사람의 시체를 다루면 돈이 없는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174-205, 1988.3.1) p.1842

세계문명의 방향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발달하여 갑니다. 즉 애급의 대륙문명, 로마와 그리스의 반도문명, 영국의 도서문명, 미국의 대륙문명에로, 다시 문명은 서진(西進)하여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도서문명으로, 급기야는 한반도 문명으로 집결하기 위해 아시아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속된 문화는 고차원적 문화로서 신세계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서양문명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다음은 반도문명시대입니다.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일치하는 장소입니다. 역사학자 슈펭글러가 지적했듯이, 문명은 일년의 춘하추동이 있듯이 흥망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지금 때는 대서양문명 시대가 지나가고 태평양문명의 시대입니다. (115-171, 1981.11.10) p.1842

기독교는 영적으로 세계 구도의 책임을 졌지만, 육적 기반을 흡수하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은 태평양문명권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역사의 기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영적 기독교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24-306, 1991.12.22) p.1842

미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시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몸뚱이를 잃은 아시아 대륙으로 찾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태평양문명권시대가 오는데 어찌하여 아시아 태평양문화권시대가 오느냐? 학자들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것은 레버런 문의 원리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안 찾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영적 기준만 가진 것이므로 몸을 쓰기 위해서 아시아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25-30, 1992.1.1) p.1843

예수가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무대의 기대가 없어져 아시아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거꾸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서양으로 향해야 하는데, 서양에서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탕감의 길에 일치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면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해 가지고 로마를 중심삼고 영국, 미국을 거쳐 다시 태평양 문명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태평양 문명권으로 돌아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을 세계적으로 잃어버린 곳이 아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영과 육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서양문명, 물질문명이 거꾸로 쭉 돌아서 이렇게 아시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49-132, 1993.10.8) p.1843

구약시대로부터 연장해 가지고 나오던 것을 신약시대의 영국?미국?불란서를 중심삼고 신부권 전부를 탕감복귀한 시대에 왔으니, 2차대전 직후에 통일적 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 아시아로 들어가 태평양문명권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몸뚱이를 아시아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뚱이 된 세계적 정치판도까지 아시아를 중심삼고 통일해야

[텍스트 입력]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문명권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243-296.1993.1.28) p.1843

서구문명 · 동양문명 · 아시아문명 · 태평양문명권으로 세계에 인연되어 나왔지만, 태평양문명권은 미국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문총재가 가서 남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 들어와서 동서를 결합시키고, 인도까지 수습해야 되고, 시베리아도 수습해야 합니다. 두 곳을 수습해야 합니다. (231-60, 1992.5.31) p.1843

주님은 어디서 와야 하느냐? 아시아에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아시아에서 잃어버렸으니 아시아에서 찾아야 합니다. 태평양문명권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 잃어버린 육신이 아시아 문화권 통일시대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야 역사가 깨끗이 풀립니다. (232-25, 1992.7.1) p.1843

일본은 사탄편 해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편 해와국가는 하늘편 해와국가의 모든 것을, 복을 대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구라파를 돌아서, 로마를 거치고 영국을 거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로 오는 것입니다. 로마와 같은 반도가 한반도와 맞먹고, 지중해와 같은 바다와 섬이 일본과 맞먹고, 구라파 대륙과 맞먹는 것이 아시아 대륙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대로 일주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만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태평양 문명권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251-144, 1993.10.17) p.1844

왜 2 차대전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의 몸을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재림주를 쫓아냈기 때문에 통일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이 다시 태평양 문화권을 통해 예수의 몸뚱이를 잃어버린 아시아 지역과 통일세계로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찾아 들어오는 시대가오는 것입니다. 태평양 문명권의 시대는 그래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몸뚱이를 아시아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찾아 가지고 재림주 이상을 중심삼고 이 세계를 통일해야 된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몸을 찾아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인데, 재림주님에게는 영육을 중심삼고 이미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문화권도 안팎으로 통일된 기준으로서, 주체 앞에 대상적인 기준으로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 중심삼고 통일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67-176, 1995.1.5) p.1844

왜 태평양 문명시대가 오느냐 하면, 서양문명이나 동양문명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버지로 왔는데 아버지의 몸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찾아서 영적구원과 기독교권 내에서 하나로 만들지 않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동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중심삼고, 한반도가 이태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는 지금까지 망해 보지 않았습니다. 천년이 넘도록 강대국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주님이 올 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기준을 중심삼고 돌아오는 것이 이 반도를 중심삼은 태평양시대입니다. 지중해보다 태평양시대입니다. 방대한 환경을 중심삼고 아시아에 돌아와 연결되니 그것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가 남자의 생식기라면 일본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이것이 하나 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되어야 통일천하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아담국가라 하고 일본을 해와국가라 합니다. (251-147, 1993.10.17) p.1844

앞으로 세계문명은 틀림없이 아시아를 찾아옵니다. 태평양문명권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은 물론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과학계의 학자들까지도 '태평양문명권시대가 와야 한다. 역사적 귀추는 그렇게 된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근본을 아는 사람이 나 아닙니까? 벌써 40 년 전부터 태평양문명권시대가 온다고 가르쳤지요? 그게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나만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문총재라는 사나이는 대한민국이 그걸 주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7-281, 1990.11.11) p.184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이 어느 때 합해야 되느냐? 합하는 데는 어디서 합할 것이냐? 섬나라에서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에서 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시아에서 반도국가로서 제일 미묘한 자리에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 주변을 보게 되면 소련·중공·일본·미국까지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을 중심삼고 볼 때 미국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역사는 지금 태평양문화권시대로 이양한다고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정치·경제·역사학자들이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을 결론적인 기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주역이 될 것이냐? 일본이 될 것이냐, 중국이 될 것이냐? 일본과 중국은 원수입니다. 40년 전에 원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원수입니다. 전부가 원수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중국과도 싸웠고, 소련과도 싸웠고,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다 일본을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을 대치할 수 있는 사탄편 해와국가였다는 것입니다. (196-162, 1990.1.1) p.1845

서구문명과 아시아문명권을 그냥 그대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갈 방향을 잃어버렸던 서구문명에, 석양에 기우는 해와같이 땅거미가 찾아드는 서구문명에 새 아침의 광명한 햇빛과 같은 동양문명을 연결시켜 준 이 레버런 문 대해 감사하지 않고는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망해가는 서구사회는,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문화의 배경을 가진 서구사회는 레버런 문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시아문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권에 연결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지금까지 레버런 문을 반대만했지 그걸 몰랐습니다. 레버런 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통할 수 있고, 재차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재차 하나님의 섭리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120-199, 1982.10.15) p.1845

통일교회는 셋째 번 아들입니다. 통일교회가 사실은 귀동자 중의 귀동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문명을 통일적인 내용으로 소화시켜 구라파를 하나로 화합하고 남북미를 화합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문명권밖엔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문명권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일적인 방안을 수습하여 오는 것을 아시아는 어디에서 맞을 것이냐? 일본은 잡도를 섬기고 있고, 중국과 소련은 공산화가 되었고, 단 하나 남아 있는 한국은 교파 싸움은 하고 있어도 기독교라는 울타리권 내에 있습니다. 비록 종자나무로서 심을 수는 없지만 불땔 나무로서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평양문명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환경을 직시하면서 아시아 제국서 기독교문화 배경을 거족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소련도 아니요, 오로지 한국입니다. (222-134, 1991.10.28) p.1846

아이커스(ICUS;국제과학통일회의)라든가 피 더블유 피 에이(PWPA;세계평화교수협의회)를 결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앞세우면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 미국을 안 움직였으면 중국 수뇌부의 금후 20년 이내의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변천할 것이 뻔한데 그 변천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전략가들, 전략가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대표적으로 자유세계의 20명, 중국의 20명을 중심삼고 '태평양 연안에 있어서의 중국을 중심한 금후의 소련 외교정책에 대한 규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금후의 작전 자료를 투입해 준 사람이 나입니다. (204-257, 1990.7.11) p.1846

지금은 태평양문명권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주시대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양 가운데는 모든 물이 다 들어갑니다. 강물도, 대서양 물도, 지중해 물도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흑조(黑潮)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4천 내지 5천 마일 정도의 길이인데, 이것이 돌므로 말미암아 전세계의 오대양(五大洋)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문명권시대가 올 때에는 전부가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주로 날아가지, 이것이 하나 안 되면 앞으로 '태양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이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별 세계 주인이 누구냐?' '나다!' 이겁니다. 그거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만 해도 지구의 130만 배가 되는데 이 거대한 것을 요 조그마한, 한 톨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인간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주가 웃는 것입니다. 우주가 '허허허' 하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태평양문명권시대에는 통일세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 정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주의도 안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두익사상, 하나님주의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7-46, 1990.10.28) p.1846

하늘편 어머니, 하늘 편 가인 아벨을 중심삼은 하늘 편 통일천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천하가 뭐냐? 사탄이 없는 세계입니다. 에덴동산으로 보게 된다면 타락이 없던 기준입니다. 타락한 부모 입장인 아담과 해와가 새로이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세계를 일주해서 태평양문명권시대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피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통해서 생명과 새로운 혈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될 때 비로소 통일천하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209-292, 1990.11.30) p.1846

이제 태평양문명권 시대가 옵니다. 거기에 주역의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담과 해와국가와 세 천사장 국가인데, 그것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본연적 에덴의 참부모의 명성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직행할 수 있는, 천사장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본연의 기준을, 해방권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국가적 기준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현현한다는 것입니다. (211-204, 1990.12.30) p.1847

남북통일은 동서의 빈부도 해소되고,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신문명의 중심이 동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동양에서 나왔습니다. 종교권이 성하게 되면 물질을 내버려야 합니다. 집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다 버려야 합니다. 그걸 내버리면 안 되겠으니까 끝에서부터 주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문명을 발전시킨 것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서구는 지식을 통해 가지고 알면 알수록 내 땅이라고 점령하고 다 그랬습니다. 전부 지식으로 말미암아 판도를 확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돈을 전부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기준과 물질적 기준이 일체화할 때는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문명이 아시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태평양권에서 서구문명과 아시아문명이 연합해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문명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태평양문명권시대입니다. (212-138, 1991.1.2) p.1847

태평양문명권이라는 것은 본연적 종적인 세계와 상봉하기 위한 역사적 방향이라고 모든 세계적 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참된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칙을 지어 주면 세계는 안 망하는 것입니다.

동양을 대표한 레버런 문이 미국에 와서 교육해 가지고 태평양에 빠지지 않고 무난히 건너갈 수 있는 패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서구사회 통일교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통일교회만이 태평양문명권을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을 편성하여 완성시킨 영원한 이상의 본향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6-206, 1991.3.31) p.1847

아시아 대륙에서 세계 통일권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을 중심삼고 태평양문명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하나되어 옵니다. 이렇게 볼 때, 무엇이 그 문화적 배후 기반이 되느냐? 그건 영국의 역사도 아니고, 독일의 역사도 아니고, 프랑스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기독교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218-362, 1991.8.22) p.1847

방대한 미국과 서양권이 예수님의 몸을 복귀해 가지고 하나되어 태평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신문명권인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중심삼고 하나의 세계적 지도국가 기준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지금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양문명을 백 그라운드로 하고 미래에 부흥 통일될 수 있는 기독교문명의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문화권을 수습해서 세계적인 배후 관계를 묶은 것이 세계평화종교연합의 결성입니다. (218-364, 1991.8.22) p.1847

로마 문화의 실패를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반도문명을 수습하여 하느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로마의 법왕국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평양문명권으로 오는 것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종교권을 지금, 올해 이 달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역사에 없었지요? 국제과학통일회의라든가, 피 더블유 피에이(PWPA;세계평화교수협의회)라든가, 세계언론인회의라든가, 그리고 세계평화종교연합이라든가, 세계평화연합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심신으로 분열되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분쟁하던 것을 각국을 위하여 한데 모아 가지고 일체 이상권을 중심삼고 수습하려는 단체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218-379, 1991.8.22) p.1848

모든 식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태평양문화권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아시아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주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 국가를 수습해야 합니다. 한국을 중심삼고 보면 일본과 중국이 있고 소련과 미국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나라를 중심삼고 4 대 강국이 각축전을 하면서 이 땅을 놓을 수 없게끔 된 것은 지정학적인 요지가 되어서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다방면의 국가를 연결시키고 초국가적인 핵심부를 연결시켜 동화시키고 결성하는 데 지금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저 태평양 건너 자유세계를 지도하는 미국도 이제 와서는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레버런 문이라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22-29, 1991.10.27) p.1848

태평양문명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환경을 직시하면서 아시아 제국 서 기독교문화권을 배경으로 거족적인 민족을 갖추어 가지고 수용 태세를 갖춘 나라가 있다면, 그건 일본도 아니요, 중공도 아니요, 소련도 아니요,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인류로 말하게 되면, 50 억 인류 가운데 32 억의 인류가, 5 분의 3 이상이 아시아인입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쳐오면서 한국은 종교 결실의 왕국으로 지내 왔습니다. 불교가 그렇고, 유교,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222-36, 1991.10.27) p.1848

아시아에서 한국을 중심삼고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엮어 가지고 태평양문화권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세계나 공산세계도 오려면 와라 이겁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놀음이 세계여성연합 창설, 세계평화종교연합 창설입니다. 마음과 몸이 싸우는 이것을 연합해 가지고 하나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내 개체에서 마음이 투쟁하는 역사적 과정을 다 통일시킬 수 있는 내적 인연이 연결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21-196, 1991.10.24)

여러분, 생각해 보라구요. 유색인종의 문화역사는 길고, 백인종의 문화사적인 배경은 짧습니다. 백인들은 북극에서 온 곰의 사촌들입니다. 피를 보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백인들이 가는 데는 언제나 피가 따랐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농경문화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인사회의 종말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로 가야지요?

요즘 미국의 모든 지성인들은 태평양문명시대가 온다고 그러지요? 태평양 문명시대는 황인종을 중심삼고 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급성장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레버런 문도 뻗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문화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개념을 심었습니다. 전세계에 다 심었습니다. 그렇게 심은 것은 어느 누구도 뽑을 수 없습니다. (205-261, 1990.9.9) p.1848

앞으로 황인종시대, 옐로 파워(Yellow Power)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태평양 문화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동결혼식을 해도 3 분의 2 는 황인종이 되고, 3 분의 1 이 잡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는 황인종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황인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244-135, 1993.2.1) p.1849

Top

② 태평양시대의 중심국은 한국과 일본

이제 태평양문명권이 옵니다. 미국?일본?한국?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싸움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명과 문화의 배경에서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퇴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첨단에 서 가지고 준비한 사나이가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엮고 미국을 엮고 중국을 엮고 소련을 엮었습니다. 그런 레버런 문과 미국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하나되어서 큰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 세계, 태평양 문명권서 공동운명권을 쟁취해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희망적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된다면 서구세계나 미국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202-264, 1990.5.24) p.1849

여기에 소련 사람들도 왔으니 내가 한 가지 충고하고자 합니다. 소련이 앞으로 독일이나 구라파를 위주해서 경제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다가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미국을 첫째로 하고 구라파는 둘째로 묶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라파를 제 1 로 해서 묶어 나갔다가는 큰 전쟁, 세계사적인 어려운 문제가 불원한 장래에 구라파 지역과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지역에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련 지도층은 경제적 방향을 어디까지나 미국에 두고 구라파를 묶어 나가야 합니다. 이걸 놔 버리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210-143, 1990.12.18) p.1849

앞으로 태평양문명권시대가 옵니다. 서구사회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 섬나라는 못 합니다. 일본이냐, 중국이냐? 중국은 제 3 세계, 미개지에 해당합니다.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섭리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아담과 해와로 딱 정했으니 대륙과 연결됩니다. 중국이야 믿겠으면 믿고 말겠으면 말고. 그러나 중국은 천사장권입니다. 중국에는 남자들이 많지요? 천사장. 옛날에 여자들이 없어서 발을 조르는 그런 것 있잖아요? 푸른 용 아니예요? 용이 천사장입니다. (194-347, 1989.10.30) p.1850

영국, 미국, 불란서의 연합군은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를 많이 보호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사흘만 더 연장되었더라면 기독교인 20 만이 학살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해서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2 차대전 때 한국에는 폭탄 하나 안 떨어졌지요? 일본은 북새통같이 폐허가 되었지만, 한국에는 폭탄 하나 안 떨어졌습니다. 왜? 하늘땅이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한 것입니다. (240-217, 1992.12.13) p.1850

태평양문명권은 이렇게 해서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지금 딱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미국은 하늘편 천사장이기 때문에 사탄편 천사장 3 명은 미국으로부터 지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와국가의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해와국가에는 어떤 사명이 남아 있느냐? 정조를 지키고 남편 곁에 딱 붙어 가지고 자기 존재의 색깔을 내면 안 됩니다.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본의 재산은 아시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중동을 넘어서 유럽까지 개척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250-292, 1993.10.15) p.1850

대서양 문화권시대에서 태평양문화권시대로 이동해 오는데, 여기에 주역을 하겠다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소련과 미국입니다. 그들이 주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인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하지 못합니다. 아시아 인구가 세계 50 억 가운데서 30 억에 가깝습니다. 5 분의 3 이 넘는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소화 못하는 주의는 세계를 리드할 수 없습니다. (173-219, 1988.2.18) p.1850

아시아에는 30 억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때는 태평양문화권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역사는 하천문화, 지중해문화권을 거쳐 대서양문화권을 돌아 이제 태평양문화권을 중심삼고 우주공간문화권으로 도약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연이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세계정략가들이 모색하는 문제지만, 그들에게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내가 세계에서 훌륭하다는 정략가들은 다 모아 가지고 수많은 국제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레버런 문의 사상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아니요 프랑스도 아니요 독일도 아니요 영국도 아닙니다. 소련도 아닙니다. (174-48, 1988.2.23) p.1851

다가오는 아시아 태평양시대는 하나의 이웃으로 가까워진 지구촌의 인류가 피부 색깔과 문화배경을 넘어 어울려 살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개개인의 자기 존립을 위해서도 원수를 상정할 수 없는 화합의 시대로 가도록 천운(天運)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을 중심한 굳건한 사상적 기반과 바른 가치관 밑에서 생활함으로써 새시대의 향도(嚮導)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제관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 아래 전민족적인 단합된 힘을 발휘하여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193-322, 1989.10.12) p.1851

고마운 것은 아시아 민족이 32 억이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은 백인국가입니다. 풍토적으로 볼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적 분야냐 정치적 분야나 모든 면에서 중공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소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만 잡아 삼키면 금후의 태평양 무대를 중심삼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선두권을 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21-16, 1982.10.21) p.1851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는 어차피 고립되어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륙과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 지금은 태평양을 건너 미대륙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40 년 전에 2 차대전을 중심삼고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되어 가지고 투쟁한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디로 갈 것이냐?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에 업힐 것이냐? 대륙에 접할 것이냐? 접하는 데는 어디로 접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가까운 길은 한반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시베리아를 통해서 접해도 안 되는 것이요, 중공과 접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공에 들어가 혼란한 중공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12 억의 중공 국민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또 방대한 공산세계 주도국가인 소련을 일본이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본 자체는 할 수 없이 미국을 중심삼고 한국과 연결해야 합니다. (177-14, 1988.5.15) p.1851

태평양문명권은 무엇이냐 하면 오시는 아버지주의 판도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 문화입니다. 여기서 통일적 문화권이 벌어져 결속된 문화를 종결지어야 되겠기 때문에 부모문화를 중심삼고 언어통일?문화통일, 국가통일이 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반도를 중심삼고 연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193-225, 1989.10.24) p.1851

지금 미국의 경제계나 철학계나 사상계나 할 것 없이 다 '태평양 문명권의 주역이던 미국은 다 끝났다. 동양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하고 있는데, 레버런 문 꽁무니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르쳐 주면 다 끝납니다. (195-258, 1989.12.1) p.1851

통일국가권을 이루는 결착점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아담국가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연결해 새로운 이상적인 창조 이상권에 설 수 있는 주인의 본성을 상속할 수 있는 혈통이 아담국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나라와 장자의 나라, 그리고 차자의 나라들이 하나되어서 어디를 찾아오느냐? 태평양을 넘어서 아담국가인 한국을 찾아오는데, 그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198-232, 1990.2.3) p.1852

태평양문명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환경을 직시하면서 아시아 제국에서 기독교문화 배경을 거족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수용 태세를 갖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소련도 아니요, 오로지 한국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인류의 5 분의 3 이상이 종교의 발생지인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한국은 그 종교의 결실에 있어서 왕국이 되어 왔습니다. (222-36, 1991.10.27) p.1852

태평양문명권시대는 한반도를 중심삼고 전개됩니다. 일본은 여자의 자궁과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가 잘못한 것, 영국이 잘못한 것을 전부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또, 로마 교황청이 잘못한 것을 한반도를 중심삼고 수습해야 합니다. 로마교황청 이상, 기독교 이상 되는 재림이상왕궁권(再臨理想王宮圈)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의 몸을 아시아에서 잃어버렸으니, 다시 아시아에서 기독교 문화권을 영적 육적으로 합동시켜서 통일문화권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26-134, 1992.2.2) p.185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 국가는 한국이요, 해와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천사장국가는 주변의 미국, 중국, 그리고 소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을 지배했지요? 중국도 한국을 차지하려고 합입니다. 한국을 지배하는 나라는 태평양을 지배합니다. 지금 태평양문화권시대가 도래합니다.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이 전부 발표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련도 한국, 중국도 한국, 미국도 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34-110, 1992.8.4) p.1852

한국이 이미 4 개국을 요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을 세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레버런 문과 무니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입니까? 앞으로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세계의 학자들, 경제학자, 사회과학자들은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태평양 문명권의 기지를 레버런 문이 만들어 가지고 사상적인 기지로 세워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알지어다! 아멘 입니다. 이렇게 세계에 새벽이 찾아와 가지고 태양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39-274, 1992.12.6) p.1852

남북통일은 김일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에 의해서 될 것입니다. 해와국가, 아담국가, 천사장국가를 수습함으로써 태평양문명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태평양문명권이 왜 그렇게 성립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시아에서 몸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천하 통일의 세계를 다시 복귀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태평양문명권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 3 명의 천사장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통일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290, 1993.10.15) p.1853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반도는 남자의 생식기와 같고, 일본은 여자의 음부와 같이 되어 있으며, 태평양문명권을 중심으로 볼 때 이것은 더 큰 대륙, 미국 대륙?중국 대륙?소비에트 대륙, 세계 6 대주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기준에 중심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평양문명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태평양문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지금은 중국과 일본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지세학적으로 볼 경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교차점으로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유물주의와 유신주의가 세계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곳이며, 여기에 결실체로서 악의 참부모인 김일성과 선의 참부모인 선생님이 대치하면서 서로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체화시키는, 중심체가 대륙의, 남성의 생식기처럼 생긴 반도이며, 이것은 태평양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3-223, 1991.1.21) p.1853

아시아의 반도 한국은 대륙의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합니다. 일본열도는 홋카이도(北海道)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열도는 사지를 벌리고 있는 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해와국가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역의 기지는 시모노세키와 시고쿠입니다. 시모노세키의 통행로, 그곳에서부터 서양문화가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태평양을 백으로 해 가지고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관계를 시작한 문화 수입의 길입니다. 그러나 문선생은 지구를 백으로 삼고 태평양문화, 미국 문화를, 하늘의 문화를 중심삼고 한반도 문화로 통일할 것입니다. (295-223, 1998.8.28) p.1853

Top

2) 도서국가연합의 창설

① 도서국가연합 창설 배경

우리가 갈 길은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나라를 찾는데 일본이라는 한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찾는 데는 초국가적 기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유엔(UN)을 배경으로 한 나라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말을 안 들으니까 도서국가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적 유엔입니다. 그 다음엔 반도국가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육대주 국가연합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82-185, 1997.3.12) p.185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내가 한국을 떠나 가지고 세계 판도 위에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국가적 메시아가 안 되면 세계적 메시아 자리에서 타고 넘는 것입니다. 열두 나라만 세우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국가연합,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엔과 절충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성연합과 4 대 연합, 청년연합, 학생연합, 종교연합을 유엔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새로운 유엔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엔은 이미 주인이 없습니다. 거기에 참부모의 날도 만들고, 유엔 만년 사무총장도 부모님을…. 그럴 수 있는 안팎의 모든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282-269, 1997.4.7) p.1854

지금은 왕권복귀시대이기 때문에 도서국가연합,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북미 대륙은 포기해도 됩니다. 아시아와 남미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로 묶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 정착의 섭리관을 초월하기 때문에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을 찾으면 360 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360 국가를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283-38, 1997.4.8) p.1854

유엔이 책임을 못 하니 도서국가연합과 반도국가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종교인을 중심삼고 아벨 유엔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엔은 몸뚱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사탄편을 상징합니다. 마음적 유엔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 수 없습니다. (285-282, 1997.6.15) p.1854

해와국가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국가연합을 만들고, 반도국가연합을 만들고, 대륙국가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걸어서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한 것이 효과가 나면 새로운 유엔을, 아벨 유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국가연합이라든가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86-312, 1997.8.13) p.1854

지금 도서국가연합을 창설하고, 혹은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저개발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선진국가는 불과 지 세븐(G7;서방선진 7 개국)이라든가 지 에이트(G8;선진 8 개국)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권을 중심삼고 보면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건 문제도 안 됩니다. 그걸 규합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288-206, 1997.11.28) p.1854

대이동의 시기가 옵니다. 유엔(UN)을 중심삼고 해야 하는데, 유엔이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벨 유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국가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선생님이 빨리 이상적인 세계가정을 완성하지 않으면 이상세계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길이 아닙니까?' 하면서 나서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을 중심하고 소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회의장에서도 16 명 정도는 오라고 하면 모두 선생님한테 금방 옵니다. 대회를 하고 사무총장을 참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길로 가는 사다리가 되는 것이 문선생의 가정연합입니다. (289-55, 1997.12.30) p.1855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통일,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만들 것입니다. 또 유엔대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세계평화도서국가연합. 도서국가연합을 만들어 놓았지요? 일본이 함몰되겠으니 일본을 대치할 수 있는 도서국가연합, 그 다음엔 반도국가연합, 그 다음에 대륙국가연합도 다 만들었습니다. (289-167, 1998.1.1) p.1855

섬나라인 필리핀은 미국의 해와국가입니다. 해와국가도 일본이 책임자입니다. 여기에 대만과 필리핀이 삼위기대를 이룹니다. 대만과 필리핀까지 세계적 해와국가로서, 도서국가들을 중심삼고 인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놀음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했습니다. 도서국가연합이니 반도국가연합이니 대륙국가연합이니 해서 전부 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9 월에 그걸 유엔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291-240, 1998.3.15) p.185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머니가 없더라도 대신 세울 수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책임 못 한 것을, 세계 사람들을 어머니로서 사다 먹이고 벌어 먹이지 못한 것을 너희 딸들이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빨리 복귀되어야 하느냐? 일본보다 대만?필리핀?캐나다가 빨리 복귀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안 되면 이 세 나라가 들어가 일본을 들었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나라, 도서국가연합을 만들고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유엔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293-161, 1998.5.26) p.1855

선생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코디악에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투쟁, 격전의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일본이 투쟁해야 하는데, 일본 대신 투쟁한 것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의 왕국입니다. 섬이 7 천 개 가까이나 됩니다. 그것을 하루에 한 개씩 돌아도 40 년은 걸립니다. 도서국가연합과 같은 수입니다. 그런 일본을 잘라 버리고 필리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만도 그렇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해와국가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해와국가입니다. 2 차대전 전에는 미국의 점령지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점령해서 분할되었던 것입니다. (295-209, 1998.8.28) p.1855

이제는 마지막에 왔습니다. 만약에 유엔이 반대하면 유엔을 차 버리고 내가 아벨 유엔을 만들 것입니다. 도서국가면 도서국가연합을 만들고, 반도국가연합을 만들고, 대륙국가연합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엔을 믿지 말고 우리가 아벨 유엔을 만듭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어디를 따라갈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청소년과 가정을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299-273, 1999.2.18) p.1856

Top

② 창설대회 개요

1996 년 6 월 16 일에서 18 일까지 일본 동경 게이오 플라자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세계도서국가연합 창설대회가 열렸다. 이자리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호주 및 일본을 비롯한 27 개국, 아프리카 지역의 5 개국, 유럽과 지중해 지역의 영국을 비롯한 5 개국, 서반구와 카리브해 지역의 캐나다를 포함한 15 개국 등 총 52 개국에서 캐나다의 마루리니 수상을 비롯하여 전 현직 국가원수를 포함한 100 여 명과 일본측 관계자 900 여 명이 참석했다. p.1856

Top

③ 참부모님의 창설대회 기조연설

인류역사에서 문명발전의 흐름을 조망해 볼 때, 큰 강의 주변에서 발흥한 고대 문명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을 거쳐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대륙을 통해 발전했고, 도서국가인 영국을 중심한 대서양문명의 형태로 유대-기독교 문화가 결실되었습니다. 그 후에, 문명은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 서쪽 방향으로 흘러 현재는 도서국가인 일본을 중심한 태평양시대의 문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기독교적 문명이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관으로 문명의 흐름을 개관할 때, 오늘날 도서문명으로서 하늘의 운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 세기를 결실하는 문턱에서 일본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인류역사에 주목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의 현재와 같은 부흥은 하나님을 통한 유대-기독교 섭리에 관련하여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일본이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본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갖고 있는 섭리적 책임에 대해 귀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세계평화의 실현이며, 세계평화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서국가들이 평화세계 창조를 위한 도서국가 연합으로 함께 모여 서로 이바지한다면 인류역사에 있어서 더 없는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본인은 세계평화도서연합을 창설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전 세계 도서국가들이 일본에게 주어진 천운을

[텍스트 입력]

상속받아 세계 평화 추구를 위한 그들의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세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서국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구의 표면은 육지와 바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가장 단순한 최초의 생명의 형태가 바다에서 출현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다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다가 여성의 특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육지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에 위치한 도서국가는 여성을 상징하고, 대륙과 반도국가는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도서국가가 대상성, 의존성, 자양성, 인내, 그리고 수용성 등의 여성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대륙국가는 주체성, 창조성, 그리고 공급성 등의 남성적 특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국가는 여성이 인류역사에서 점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여성은 결혼해서 전통적으로 그들의 남편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녀들을 출산함으로서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여성은 그 자신을 빛내고 꽃피웁니다. 어머니로서 여성은 자녀를 양육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국가는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45 년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섭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기독교 국가들은 그 당시 하나님 섭리의 중심 국가들이었습니다. 제 1, 2 차 세계 대전에서, 이 3 대 주요국가인 영국과 미국 프랑스는 연합군의 중심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들 3 대 주요국들이 자국을 중심삼은 국가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봉사와 희생으로 인류를 위한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 년 2 차 대전의 종전은 국제연합의 창설을 통해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세계평화의 실현이 아니라 공산주의 팽창과 기독교 국가들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붕괴를 통한 수많은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는 40 년 이상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을 겪어오면서 현재까지고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광야시대를 통과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기반한 세계평화의 비전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섭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전세계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인은 수많은 국제기구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정은 길고, 우리 모두 앞에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평화세계 실현입니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분열과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계는 조화와 통일의 기쁨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은 참사랑을 통한 것입니다. 참사랑은 통일의 요소이며 기쁨과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선결조건은 참사랑입니다.

인류가 아직도 참된 평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류가 참사랑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 가정을 출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평화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분열과 갈등, 투쟁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마음과 몸의 투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 그리고 사회들 속에서의 갈등 모두는 일상적인 면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본인은 모든 인류문제가 참사랑의 근본적인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참사랑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참사랑을 복귀하기 위해 참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림주도 참사랑을 복귀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섭리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명확한 결론입니다.

본인의 전 생애와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인류가 참사랑을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의 도덕적 타락을 목도할 때,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타락을 바라보는 것은 본인의 심정을 찢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륜과 간음의 해악은 소위 프리섹스라는 명목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슬픔은 이렇게 무책임한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알려진 비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

[텍스트 입력]

속에서 이브가 타락한 죄의 역사를 시작한 첫번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인류역사에서 여성이 이브의 타락을 탕감할 한 시대가 반드시 와야한다는 것을 섭리적인 입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 세기에 있어서 참된 해방을 추구하는 여성운동 같은 이념적인 경향은 이제 여성이 세계평화를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992 년 4 월 본인의 처와 함께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였습니다.

여성의 시대는 1990 년대에 와서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21 세기로 진전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협조, 결단과 조화의 정신이 세계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기여를 완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여성의 시대는 도서국가 시대가 여성의 특질을 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의 시대와 도서국가시대는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세계평화를 위한 일어서는 시대는 바로 도서국가가 전세계적인 협조를 위해 나아가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도서 해양국가에게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그들의 영광스럽고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서국가연합이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시작하고 확산시킬 때, 소망의 빛은 인류의 미래에 밝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도서국가는 궁극적으로 대륙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과 사랑의 관계를 찾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아마 도서국가의 생존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도서국가에서 수행된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대륙국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도서국가들의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들이 대륙의 영역에 확산될 때 세계평화 실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1 세기는 인류가 그토록 갈망해온 하늘나라의 밝은 여명이 이 땅 위에 드리울 새로운 천년이 될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연합, 세계평화종교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연합, 그리고 세계평화학생연합 등의 기구들이 세계평화도서연합과 함께 조화와 평화를 향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것을 확신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기구들은 세계평화가정연합으로 결실 맺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은 평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며 가정제도의 재구축을 통하지 않고는 전 지구적인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인종 그리고 종교를 초월한 이상에 기초하여 젊은 세대들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세계평화가정연합은 이상가정을 완성하여 지구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지구가족 이상의 역사적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서국가연합은 세계평화가정연합의 지고한 목적에 최선의 기여를 할 것입니다. p.1859

(1996. 6. 16 일본에서 하신 「21 세기에 있어서 도서국가의 역할」이란 제목의 말씀)

Top

3) 하와이 중심한 해양섭리

① 일본과 하와이

미국 역사는 동에서부터 서쪽을 향해 이동하면서 국가를 형성했고 문명의 기원을 발생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이를 중심삼고 태평양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79-72, 1975.6.1) p.1859

일본이 하와이 퍼얼 하아버(Pearl Harbor;진주만)를 왜 때렸느냐 하면, 그 배후인 미국을 때려잡지 않고는 중국이나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 진주만을 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역사가들도 그걸 모를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1-313, 1981.3.9) p.1859

조그만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걸었지요? 왜 하와이를 그렇게 공격한 줄 알아요?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사람 취급 안 하니 '두고 보자. 10 년, 20 년 뒤에 두고 보자. 너를 때려잡는다.' 이래 가지고 거꾸로 박은 것입니다. 유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10 년 공부하는 사람은 10 년동안 '너를 이겨야 되겠다.' 하고, 20 년 공부하는 사람은 20 년 동안 '너를 밟겠다.' 하면서 공부했던 것입니다. (293-292, 1998.6.7) p.186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일본 사람은 미국을 때려잡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진주만을 불법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에도 그렇게 안 쓰여 있고 일본 역사에도 그렇게 안 쓰여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불법으로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뭘했느냐? 그걸 보면, 정치적인 요소를 코치했다 그 말입니다. (111-153, 1981.2.10) p.1860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디언의 나라였지요? 하와이에 갔더니 '이야!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사람이 30 퍼센트고, 백인들이 29 퍼센트밖에 안되기 때문에 백인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 '야, 일본 사람들아! 내가 미국에서 반대 받은 반대로 탕감해라!' 하면 얼마나 멋지게 탕감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 백인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는 안되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30 퍼센트가 되는 가정과 29 퍼센트가 되는 가정들을 전부 결혼시켜 놓으면 완전히 통일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에 다 이양시키면 얼마나 복귀섭리가 쉽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와이에서 살려고 기지를 만들고 배도 사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려고 합니다. 태평양문명권이 찾아오잖아요? (216-275, 1991.4.7) p.1860

Top

② 하와이가 해양섭리의 중심이 되는 이유

하와이 가고 싶지요? 거기에 이제 천국촌을 만들려고 땅을 다 샀습니다. 집도 짓고, 배도 다 갖다 놨습니다. 그거 멋지지요? 거기는 일년 사계절 비가 안 오니 낚시터로는 세계에 없는 곳이고, 거기서는 춘하추동 계절이 한 골짜기에서 다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저쪽 편은 매일같이 비 오고 벼락을 치고 하지만 이쪽은 일년 사시사철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세계에 그런 곳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그 모든 전체를 위한 교육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1-60, 1991.10.20) p.1860

미국 식구를 시켜 하와이 섬을 점령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평화여성연합을 중심삼은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부인들이 내가 전화만 걸면 돈도 쓸 것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것과 박자를 맞춰 가지고 국민 교도의 틀을 짜 가지고 하와이 군도를 하나님이 헤엄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 하는 선생님의 놀라운 구상을 찬양으로 환영할지어다! 아멘! (221-60, 1991.10.20) p.1860

예수가 메시아로 온 곳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통일권을 위해 몸을 잃어버린 것을 찾고 영적 승리권과 더불어 기독교문명을 통해 새로운 몸적인 판도인 아시아를 통일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서구 문명이 아시아로 들어오는데 중간인 혼합, 화합문명을 중심삼고 해야 되겠기 때문에 태평양문명권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서구문명이 태평양문명을 중심삼고 융합합니다. 여기서 어디가 문제되느냐 하면, 하와이입니다. (229-298, 1992.4.13) p.1861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 역사는 동에서부터 서로 지향하는 국가를 형성했고, 문명의 기원을 발생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이를 중심삼고 태평양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79-72, 1975.6.1) p.1861

미국은 52 개 주입니다. 하와이도 하나의 주지요? 하와이에서는 본토 사람이 소수민족입니다. 그리고 다수민족이 유색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에 갔던 사람들이 오래 안 있고 본토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싸움하고 자꾸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얼마 못 가겠기 때문에, 거기에 레버런 문이 들어가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와이 섬에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레버런 문에겐 권력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217-243, 1991.6.2) p.1861

[텍스트 입력]

하와이란 말은 '해 와라!' 그런 뜻입니다. 해와하고 통합니다. 해와는 '일을 해와라.' 그런 뜻인데, 천천히 하면 `하와이가 되는 것입니다. 서구문명과 아시아문명을 중심삼고 교류하는 판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미국 영토인 줄 알았더니 일본 영토가 되어 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문총재가 이것을 하나만들기 위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교육할 것입니까? 소용돌이가 시작돼야 합니다. 하와이 영토를 중심삼고 지금 세계적인 판도를 편성하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9-298, 1992.4.13) p.1861

태평양문명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퍼시픽 림 디벨로프먼트 컴퍼니(Pacific Rim Development Company)`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도 들어가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들어가고 남태평양, 태평양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망신시키자!'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에 여기에 있는 일본여자들이 하와이에서 결혼한 여자들보다 못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륙에서 전통을 만들고, 형님으로서 이와 같은 전통을 만들었으니 따라와라!' 할 때, '예스!' 이렇게 되어야지, 반대하게 안 돼 있습니다. (216-275, 1991.4.7) p.1861

선생님이 배를 타고 하와이 간다 할 때, 하와이로 따라가야 합니다. 나라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성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백성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이 못되어 가지고 죽는 날에는 저나라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128-113, 1983.6.5) p.1861

Top

제 4 장
하나님섭리로 본 해양문명

1) 인류문명사와 발전 추이

① 문명권을 중심한 세계역사의 흐름

우리가 역사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인류 최초의 문명인 이집트문명은 나일강을 중심한 하천문명입니다. 즉 이집트문명은 나일강을 모태로 해서 발상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문명은 또 어떻게 해서 발전되었는가. 이집트인들은 '강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고 궁금해 했습니다. 항상 강 건너 저편에 가보기를 소망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집트문명을 발전시키는 정신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천문명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지중해문명이 건설되었습니다. 피안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소망의 심정이 동기가 되어 인류사회가 발전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피안을 향한 간절한 심정이 문명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5-43, 1958.12.14) p.1862

문명의 발전노정을 생각해 볼 때, 고대 문명은 열대권 문명, 지금의 문명은 온대권 문명,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은 열대 문명에 속하고 지금의 문명은 온대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온대권 문명이 봄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산주의를 중심삼은 한대권 문명이 침범해 지나가는 것입니다. (49-324, 1971.10.24) p.1862

문명의 발전단계를 보면, 이것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명이 싹트는 계절을 통하는 것입니다. 여름절기와 가을절기와 같은 계절을 통하고, 그 다음에 겨울절기와 같은 계절을 통해서 하나의 우주적인 봄절기의 문명권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우리는 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6-186, 1973.5.6) p.1862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물론 계절도 춘하추동 다 좋아하고, 사람도 소년시대?청년시대?장년시대?노년시대 다 좋아하십니다. 인간을 보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홍인종도 있고, 오색인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은 백인도 좋아하고 흑인도 좋아하고 황인도 좋아하고 홍인도 좋아합니다. 세계는 전체적인 인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상으로 볼 때 역사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발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2-100, 1974.5.26) p.1863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문명의 발전 전부를 규합해 가지고 하나의 뜻의 세계, 하나의 통일된 세계, 하나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문명이 비로소 아시아문명권과 접할 수 있는 동기, 세계사적인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섭리사적인 의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월남전쟁을 중심삼고 미국이 강력하게 책임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섭리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78-208, 1975.5.25) p.1863

앞으로는 어떤 문명시대가 오느냐? 봄절기 문명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봄절기부터 시작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름절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봄절기문명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절기문명은 왜 영원히 못 가느냐? 열매맺기 위한 모든 조화라는 것은 봄절기에 벌어지게 돼 있지, 여름에 벌어지게 안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씨가 맺히는 것은 봄절기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타락한 세계의 문명권은 씨 없는 문명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생명과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절기의 문명을 맞이해 가지고 봄절기의 문명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7-298, 1980.6.8) p.1863

인류역사에 문명 발전의 흐름을 보면, 하천 유역에서 발생한 고대 대륙문명은 그리스, 로마, 이베리아 등의 반도문명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이 반도문명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도서문명으로 옮겨졌으며, 이 도서문명은 다시 미국을 중심한 대륙문명을 거쳐 일본의 도서문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문명의 순례는 한국에서 반도문명으로 결실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섭리관입니다. (279-208, 1996.8.20) p.1863

세계 문명의 방향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발달하여 갑니다. 즉 애급의 대륙문명, 로마와 그리스의 반도문명, 영국의 도서문명, 미국의 대륙문명에서, 다시 서진(西進)하여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도서문명을 거쳐, 급기야는 한반도 문명으로 집결하여 아시아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속된 문화는 고차원적 문화로서 신세계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115-171, 1981.11.10) p.1863

Top

② 이스라엘, 로마, 영국이 실패한 이유

반도적인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 세계적인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로마입니다. 지중해는 남녀가 부부관계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천 년 이상의 역사가 지난 지금까지 세계 강국들의 중심국가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법률은 세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은 로마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통일도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는데, 로마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229-69, 1992.4.9) p.1864

육지와 섬을 보면 반도는 생식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언제나 반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베리아 반도라든가 희랍의 반도라든가 이탈리아 반도라든가 전부 반도입니다. 이탈리아문명권이 천년을 넘어도 왜 망하지 않느냐? 지중해는 딱 여자의 자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금까지 역사로부터 면면히 환난과 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게 된다면 인류 역사의 복귀라든가 구원의 해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222-48, 1991.10.27) p.1864

지금까지 교황청을 중심한 이태리가 남자 궁입니다. 독일이 중심이 아니고, 불란서가 중심이 아니고, 영국이 중심이 아닙니다. 천년 이상의 문화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곳은 이태리입니다. 법이 변치

[텍스트 입력]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태리는 남자 대신, 지중해권은 여자 대신입니다. 본연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딱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태리는 남자의 생식기와 마찬가지고, 지중해는 여자의 생식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양에서 교황청이 천하통일 할 수 있는 기준을 못 가졌기 때문에 동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19-85, 1991.8.25) p.1864

참부모가 나타나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죽었던 세상에 사탄의 사랑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온 인류를 다시 생명의 세계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시키는 싸움을 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나라가 지중해를 중심삼고 있으며, 이태리반도를 중심삼고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이스라엘나라, 여기는 그리스, 이게 이스라엘나라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섭리는 아시아 대륙을 중심삼고 나왔습니다. 동양에 인도교를 세우고, 불교를 세운 것입니다. 중국에는 유교를 세우고, 시리아라든가 혹은 이라크 같은 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삼고 조로아스터교라든가 그런 종교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삼각권 내에서 유대교를 중심삼고 세계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가 하나 못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인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모든 족속이 모세시대에 편성된 열두 지파입니다. 이게 하나 못 되었습니다. (215-251, 1991.2.20) p.1864

역사의 발전의 중심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생식기입니다. 대륙에 연결된 반도는 남자의 생식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의 생식기를 본뜬 곳은 세계 문화의 발상지요. 결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태리 반도는 남자의 생식기가 되고, 지중해는 여자의 자궁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자의 음부와 똑같지요? 지중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섭리 기준에서 문화의 기원을 통합시킨 곳입니다.

로마 문명의 위대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법률 등 로마의 문화는 지금도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반도는 남자의 생식기와 같고 지중해는 완전히 여자의 것과 같아서 그것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구라파 대륙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 중심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3-223, 1991.1.21) p.1865

지중해는 여자의 자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반도 주변에서 여자로 말하면 생식기가 달릴 수 있는 자리가 유대 나라입니다. 참 묘합니다. 여자의 자궁 제일 깊은 자리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돌아와 세계적 판도를 이루어 반도를 중심삼고 지중해를 거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거쳐서 그와 같은 반도문화권을 중심삼고 세계통합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태리를 중심삼고 통일돼야 됩니다. (191-107, 1989.6.24) p.1865

로마와 이스라엘은 동서관계, 희랍과 애급은 남북관계입니다. 유대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나라를 중심삼고 보면 전부 지중해를 중심삼고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삼고 완전히 지중해 일대가 통일됐다면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동서의 통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동서문화의 통일이 벌어졌을 것인데, 통일이 벌어지지 않고 서쪽으로 돌아 들어와 가지고 다시 동서의 통일권을 향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189-72, 1989.3.19) p.1865

지리적으로 볼 때 로마와 유대나라 사이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수단으로든지 죽음을 벗어나려 했으면 벗어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4 백 년 동안 수많은 나라 앞에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전부가 민족 정신으로 단결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포착하여 로마나라를 대하여 반기를 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모든 정치체제가 유대나라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을 넘어 퇴폐의 길을 향하는 때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위주로 하여 단결만 했더라면, 그때에 유대나라를 중심삼고 반드시 문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153-236, 1964.1.3) p.186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로마는 지중해 일대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로마와 연결되어 세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더라면, 세계는 예수님을 중심삼은 하나의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여 통일적인 기반을 완전히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더 큰 로마를 물고 있는 이스라엘나라만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 로마를 비롯한 세계를 다 낚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37-45, 1970.12.22) p.1866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일체가 되었다면 로마 법왕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체가 되어 국가를 세워 로마를 병합하고 지중해 전반에 걸친 로마 문명권을 예수님의 지휘하에 들어오게 했으면 세계 통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세계를 복귀하고 지상 천국의 이상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룩하려 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수천년 동안 죽음의 희생을 치르고 이제 겨우 세계적인 제 2 이스라엘권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같이 제 2 이스라엘권의 기독교는 지상에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속죄하는 기간으로서 2 천년 동안 방랑하면서 세계 만민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탕감의 철칙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35-170, 1970.12.25) p.1866

그 당시 지중해 문화권을 중심삼고 로마제국이 세계적인 판도를 가지고 호령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된 것은 사탄세계의 가인형 대표국가로서 로마제국을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아벨형 국가로 세워 가인인 로마제국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세계를 탕감복귀하고, 바라던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2 천년 간 되풀이되어 오늘날 미국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것이 잘 죽은 것입니까? (22-295, 1969.5.4) p.1866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를 중심삼고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가 가져갔느냐? 로마가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려니 로마 중심삼고 다시 세계를 한 바퀴 돌아 아시아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왜? 로마가 복을 전부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받을 복을 전부 로마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이태리 반도를 중심삼고, 영국을 중심삼고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2 차대전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전역을 전부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2-175, 1977.4.3) p.1866

원래는 아시아 대륙을 중심삼고,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아시아 대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대륙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대륙에서 승리해야 할 것인데, 대륙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삼은 이태리반도에 교황권을 중심삼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대륙에서 반도로 해서 돌아갈 곳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문명을 중심삼고, 이태리반도를 중심삼고 가야 합니다. 대서양문명이라는 것은 지중해문명입니다. 지중해문명권을 중심삼고 로마교황이 책임 못해 신교 구교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중해문화권의 대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중심삼고 미국으로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대서양문화권이 형성되었습니다. (188-305, 1989.3.1) p.1867

기독교문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삼고 지중해문명권의 중심이었던 희랍문명이라든가 이태리문명, 이것은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인간 위주한 종교형태를 갖추고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유일신을 중심삼은 헤브라이즘이 합류해 가지고 로마에서 일대 투쟁을 벌여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기에 로마 교황을 중심삼은 기독교세계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중심삼고 기독교는 도서문명권인 영국을, 신교를 중심삼은 영국을 기지로 해 가지고 세계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급진적인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의 터전을 중심삼고 문명은 점점점 세계를 일주하여 지중해문명권에서부터 대서양문명권을 중심삼은 영국, 그 다음에 미국문명권에서부터 태평양문명권을 중심삼고 다시 일주해 가지고 영국과 맞먹는 입장에 있는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78-309, 1975.6.10) p.186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가 아시아권 육지에 착륙해 가지고 세계 통일을 하려고 했으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갔습니다. 육지에서 반도로 쫓겨나고 반도에서 섬나라로 쫓겨나면서 다시 세계의 판도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대륙 신교문명권을 중심삼고 귀환하는 것입니다. 구교문명권으로 커 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반대를 받는 입장에 섰던 구교문명권이 새로 신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선교사업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업은 영국이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선교사업을 했습니다. 영국 선교회가 미국 신교 독립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데는 태평양문명권 내에서 이걸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이쪽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반도에서부터 로마 교황권을 중심삼고 통일천하를 어루어야 할 것인데, 대륙판도를 중심삼고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았는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로마 교황청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삼은 교황청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로마와 교황청, 기독교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계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204-159, 1990.7.8) p.1867

유대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예수의 몸뚱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다 천국이 될 것인데, 반대로 태양신으로서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로마로 거꾸로 와 가지고 태평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태평양 문화권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냥 그대로 온 게 아닙니다. 이걸 다 풀어 놓아야 그렇게 왔던 모든 사람, 영계의 선조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나오니 그걸 전부 다 가르쳐 줘 가지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283-206, 1997.4.12) p.1868

타락은 어떻게 됐느냐? 해와가 먼저 타락했고, 다음에는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천사장을 중심삼고 해와가 하나됐고, 그 다음에 아담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복귀과정에서 영국은 여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드 여왕시대에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또 여왕 시대가 뜻을 못 받들어서 여왕으로 시작한 것이 여왕으로 연결되어 여왕으로 망합니다. 영국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나라이지요? 대륙은 남성을 대신하고 섬나라는 여성을 대신합니다. 언제나 섬나라 사람은 대륙을 사모하지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여자 나라입니다. 그 여자 나라를 통해 아담국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아담을 망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통해 가지고, 영국을 통해서 아담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아들한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지배를 받아야지요?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의 문명을 전부 축복 받아 가지고 결실된 것이 미국입니다. (81-245, 1975.12.26) p.1868

Top

③ 미국은 20 세기의 로마국가

구라파 대륙에서는 미국을 신천지라 불렀고, 최초로 이곳 신천지의 소망을 품고 이민한 사람들은 곧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모시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시대의 학정 밑에서 완전히 소망을 잃고, 설사 대서양 바다 위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비장하게 출발하여 메이 플라워(May Flower)호라는 조그만 범선을 타고 57 일간의 어려운 향해 끝에 미국 뉴잉글랜드(New England)지방에 상륙한 사람들이 곧 미국의 조상 필 그림 파더(The Pilgrim Fathers;청교도단)들이었습니다. (100-246, 1978.10.14) p.1868

역사적으로 보면, 2 천 년 기독교역사에서 서구의 신교도가 신교라는 체제를 갖추어 새로운 신앙의 자유와 신앙을 중심삼은 이상의 나라를 찾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이룬 집합 민족을 대표한 신교 독립국가가 미국입니다. 옛날 구교를 중심삼은 로마 교황청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신교를 중심삼은 새로운 차원의 로마 교황청형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6 천 년 동안 세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종의 미로 거두느냐 하는 것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께도, 기독교를 대표한 예수에게도 역사적인 숙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종결지어야 할 것이 선생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81-279, 1975.12.29) p.1869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핍박의 화살을 피해 대서양을 건너 모여든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며, 퓨리턴 사상이 건국이념으로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세계의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물질적인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사탄이 하부구조를 중심삼고, 경제라는 것을 들고 칠 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국에다 막대한 경제적인 물질 축복을 해줘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떠한 민족보다도 잘살게 해준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고 세계의 어떤 나라도 따를 수 없는 최대의 권한을 부여받은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53-315, 1972.3.5) p.1869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구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려는데, 그들은 로마를 부르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희생시키고 오시는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 가지고 세계통일을 꿈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는 일방통행을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방 통행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기독교의 혁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교를 일으켜 새로운 틀을 중심삼고 이건 잘라 버리고 새순을 잡아 가지고, 구부러졌지만 중앙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니까, 다 잡아죽이니까 여기서부터 신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기독교 퓨리턴(Punitan;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이식한 아닙니까? 구라파의 신교 열혈분자들이 전부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퓨리턴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교를 위해 퓨리턴이 와 가지고 2 백 년의 역사에 비로소 신교 독립국가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전까지는 대통령 가운데 구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960 년대까지는 유엔(UN) 기구를 중심삼고 좌우가 하나될 때니 만큼, 전후 상하가 하나될 때이기 때문에 그걸 부여한 것입니다. (229-295, 1992.4.13) p.1869

신교도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청교도 신교 운동가들은 영국이 새로운 하나님 세계 건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창하고 심한 박해 속에서 신세계를 향해 출항한 것입니다.

이들이 발견한 신세계가 미국 대륙입니다. 그 당시 많은 신교도들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신교도들인 필그림 파더(Pilgrim Father)가 메이 플라워(May Flower)호를 타고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원한다며 대서양을 횡단하여 닿은 곳이 미국입니다. 그후 구라파 전역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나중에 적국이 된 독일에서 온 사람 등…. 어쨌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횡단해 미국에 이민 온 후 인디언들과 싸우며 서부로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215-199, 1991.2.17) p.1870

구교시대에 신교도들이 천주교의 핍박을 받아서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의 조국, 여러분 나라의 건국이념을 보면, 여러분의 조상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상륙하여 나라를 건국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소망하던 이상천국, 뜻의 세계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 건국사상이 지금에 와 가지고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유주의 계통이 되어 창조론을 논하지 않고 진화론을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문화권 세계에서 교회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이런 급박한 최후의 단말마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의 모험, 독립을 위한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한 모험의 길, 인디언들과 싸우던 모습과 같은 여러 가지 모험의 길을 단행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넜고, 독립전쟁 때는 생명을 바쳐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대서양을 건널 때 어떤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또, 독립전쟁 때에 약한 병사를 거느리고 싸울 때도 하나님을 따라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캡틴(Captain)으로 모시고, 하늘과 더불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따라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31-315, 1984.5.19) p.187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북미는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구교와 신교는 하나의 형제입니다. 지금 이대로 미국이 아시아에 오면, 형제는 무시해 버리고 태평양을 건너 더 먼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에 도적질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 못 합니다. 미국사람이 아시아에 올 때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하나 못 되어 싸우고 다 버리고 온 녀석들이 우리를 찾아와 도와줄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적질하러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미국사람, 이 정신 빠진 녀석들아!'하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가더라도 원수의 싹이 터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적인 왕국이고, 중국은 인구의 왕국입니다. 소련은 사상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한 그 이상 것을 찾고 있는데, 거기 가서 미국이 뭘 도와줄 것입니까? 그러니 도적질하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272-138, 1995.10.1) p.1870

미국의 제일 가까운 형제지간은 남북미로, 하나는 구교이고 하나는 신교입니다. 이것을 내 놓고 아시아와 무엇을 했댔자, 아시아의 일본이 원수고 그 다음엔 중국이 원수고 소련이 원수입니다. 태평양 권내에 있는 미국을 이웃 동네의 사람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암만 친교를 했댔자 일본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다 뒤로 자빠진다 이겁니다. 어리석다 이겁니다. 앞날을 보게 되면 남북미를 타고 가서 일본을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안아야 됩니다. (272-186, 1995.10.5) p.1871

신교 구교가 싸움을 하자 신교의 교도들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서 신교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 백 년 동안에 구라파의 모든 정수를 다 빼 왔습니다. 인맥으로부터 신앙의 골수를 전부 빼 와서는 이 태평양을 상대로 여자문화권을 중심삼고,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2 백 년 동안에 2 천년 역사를 다시 한 번 새롭게 결실시킨 것입니다. (228-222, 1992.4.3) p.1871

사탄은 미국과 일본이 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아시아의 연결도 반대하는 놀음을 합니다. 사탄은 경제문제에 집착하는 외적존재입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문제를 염두에 두고 미국법을 중심삼고 일본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견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 일본과 한국, 말레이지아, 인도,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려고 합니다. 이 위기일발적인 종말시대에 미국이 큰 오점을 범하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35-128, 1985.10.4) p.1871

Top

2) 도서문명이 갖는 의미

① 최대의 해양도서국가인 영국

고대 인류의 문명은 대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애급의 나일강변에서 태동한 인류문명은 반도문명으로 변천하여 희랍,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중해문명권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반도문명은 다시 도서문명(島嶼文明)으로 옮겨졌으니 섬나라 영국을 중심삼고 대서양문명권을 형성하였습니다. 드디어 영국의 도서문명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에서 현대문명의 기적을 이룩하여 태평양문명권을 형성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 문명권은 태평양을 건너 영국과 맞먹는 섬나라 일본에서 새로운 도서문명의 꽃을 피우고, 이탈리아 반도에 해당하는 여기 한반도에서 그 옛날 로마문명과 맞먹는 인류총화문명을 이룩하고, 아시아 대륙을 연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려는 새로운 통일문명권을 형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78-254, 1975.6.7) p.1871

하나님이 세계문명권을 서구 대륙, 나일강을 중심삼고 지중해를 거쳐, 로마를 거쳐, 영국을 거쳐, 미국 대륙문명권을 형성하였던 것을 태평양문명권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도서문명을 규합해 가지고 반도국, 즉 지중해문화권을 움직였던 로마에 해당하는 반도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 이 삼천리 반도를 중심삼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서구문명의 최후의 결실과 아시아문명의 최후의 결실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79-75, 1975.6.1) p.1872

대륙을 중심한 하나님의 뜻이 유대 민족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태리 반도를 중심삼고 세계를 제패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영국을 중심한 도서문명을 중심삼고 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미대륙이 이어받았는데, 이것이 반대로 돌아가려면 탕감을 거쳐야 합니다. 섬나라들 중심삼고 탕감해야 되고 반도나라 중심삼고 탕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륙으로 못 간다 그 말입니다. (80-255, 1975.10.24) p.1872

섭리의 판도가 로마, 이태리, 스페인 반도를 넘어, 도서문명권(島嶼文明圈)에서 대륙문명권(大陸文明圈)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삼고 아시아 대륙에서 출발했던 것이 반도를 넘고 섬을 넘어서 다시 대륙으로 온 것입니다. 로마 반도도 실패했고, 영국 섬나라도 실패했고, 미국도 실패한 것입니다. 전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27-67, 1992.2.10) p.1872

인류역사에서 문명 발전의 흐름을 보면, 하천 유역에서 발생한 고대 대륙문명은 그리스, 로마, 이베리아 등의 반도문명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이 반도문명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도서문명으로 옮겨졌으며, 이 도서문명은 다시 미국을 중심한 대륙문명을 거쳐 일본의 도서문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문명의 순례는 한국에서 반도문명으로 결실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섭리관입니다. (279-208, 1996.8.20) p.1872

서양세계를 보게 될 때, 미국은 영국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아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같은 이 미국이 영국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서양세계의 끝날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대의 해양도시권인 영국과 천사장 국가인 불란서, 이 세 나라가 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양도시가 주가 되고, 미국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천사장 나라를 끌어 가지고 육지까지 점령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제 2 차 세계대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와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나라가 해와 나라를 컨트롤하고 천사장 나라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육지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삼고 영국과 불란서가 합해 가지고 하나가 됐으니, 그 다음에는 육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를 점령하기 위한 제 2 차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과 불란서를 중심삼은 승리권을 가지고 전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반을 2 차대전에서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19-241, 1982.9.13) p.1872

복귀의 완성은 갈라진 세 사람과 나라가 하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원리적관점입니다. 그와 같은 이론이 어떤 곳에서든지 적용된다 이겁니다. 구라파를 중심삼고 볼 때 아담 국가가 어디냐? 자유체제 전체를 중심삼고 볼 때는 미국입니다. 왜? 영국이 낳았다 이겁니다. 영국은 여왕시대에 번창했습니다. 16 세기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해양도시를 개척하고 세계해양권을 장악해서 미국을 식민지로 점령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어떻게 해양권을 영국이 쥐었느냐? 해양국가인 영국은 해와국가입니다. 그것이 여자 국가이기 때문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의 해양권을 개척하고 컨트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아들 같은 것이 미국입니다. 이상적 남편을 누가 낳아야 되느냐 하면 해와가 낳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적 남편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119-241, 1982.9.13) p.1873

Top

② 영국 문명과 일본 문명의 차이

현대 20 세기의 민주주의 제도는 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국의 엘리자베드 1 세가 해양정책을 강화해 가지고 아시아는 물론이요,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전세계 곳곳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이킹(Viking)들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침략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나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떤 민족보다도 해양문화를 강화한 민족입니다. 그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해양권이 상당히 강한 입장에 있었는데, 그 이상의 표준을 중심삼고 강화운동을 해서 엘리자베드 1 세가 1593 년부터 1603 년의 기간 동안에 해양력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80-139, 1975.10.21) p.1873

영국은 도서국가로서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바이킹들에게 언제든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양 방비를 위해 훈련해 나왔습니다. 해양권을 잡지 않으면 영국은 존속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엘리자베드 여왕을 중심삼고 해양권 제패의 정책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다 일치됐던 것입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가 남미를 지배하고, 북미를 영국이 지배하게 될 때, 스페인을 외적으로 좋아하면서 내적으로 속이는 정책을 해 나왔습니다. 그것을 역사를 배워서 다 알지 않느냐 이겁니다. 스페인이 남미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페인이 북미까지 제패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양정책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80-292, 1975.11.2) p.1873

영국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대양 육대주에 해지는 날이 없다고 큰소리할 때는 로마로부터 해양을 중심삼고 도둑질하는 파이럿(pirate;해적)정신을 받아 전부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볼 때 세계를 빨리 구해야 하는 작전이 하나님의 섭리관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에 일치될 수 있는 영국 국민이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삼은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고립돼 있습니다. (99-150, 1978.9.17) p.1874

영국이 세계의 판도를 닦는 것은 로마의 문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로마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목욕을 일 년에 한번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거 야만인이지요? 추우니까, 으스스하니까 목욕을 못했습니다. 그런 영국 패들이 다 해적단의 후예들인데, 언제 목욕할 새가 있어요? 그런 영국이 로마의 문명을 이어받아서 해양 문명권을 중심삼고 세계 판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너, 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10-41, 1980.11.8) p.1874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주인이기도 하고 육지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게 모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매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대륙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일본이 원하고 있는 것은 이민정책을 통해 5 천만 명 이상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못 하면 50 년 후, 백년 후에는 큰일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9-92, 1994.3) p.1874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림했을 때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제국 때나 대영제국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영제국은 헨리 8 세의 이혼에 대한 로마 교황청의 처벌 조치를 무시하고 헨리 8 세의 주관 아래 영국 구교(성공회)를 창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부패한 로마 교황청이 있던 이탈리아 반도에서 성공회가 부흥하는 섬나라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대영제국의 전성기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다를 통한 영토 확장정책을 펼쳐 5 대양 6 대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도 대영제국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대영제국의 번성은 성공회의 부흥이요, 이는 구라파 전역에 로마교황청에 대항하는 신교운동을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215-199, 1991.2.17) p.1874

영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예요? 영국은 해적의 근거지입니다. 그렇지요? 한때 세계를 제패한 것도 범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총칼로 습격해 가지고 타고 앉은 것 아닙니까? 해적단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종교 판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다 망했을 것입니다. (207-240, 1990.11.11) p.1874

엘리자베드 여왕은 신교 지지자입니다. 웨스트민스터조약(Statute of Westminster) 33 개 조에 의해 엘리자베드 여왕이 칼빈주의 사상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가지고, 해양권 제패라는 정책을 세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지고 스페인이 해양권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기반을 닦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81-238, 1975.12.28) p.1874

영국의 엘리자베드 1 세는 1558 년에서 1603 년까지 한 50 년 기간을 중심삼고 재위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해양을 개발했습니다. 해양권을 쥐는 민족이 안 되고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벌써부터 깨달았다 이겁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영국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80-242, 1975.10.24) p.1875

당시 해양을 무대로 하여 전세계에 뻗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상대국인 영국에 선교본부를 설치하게끔 해 가지고 기독교사상을 전파시켜 나왔습니다. 영국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치는 몰랐지만, 식민지를 확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국 주권의 손길이 머무는 곳곳마다 기독교가 배후에서 사상적으로 지탱하는 놀음을 해 나왔습니다. (78-309, 1975.6.10) p.1875

어머니 나라가 영국입니다. 왜 어머니 자리냐? 대륙이 남편이라면 바다의 섬, 섬나라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섬은 언제나 대륙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언제 갈꼬? 언제 오겠노?'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이 극동인데 땅 끝과 끝에서, 그와 같은 나라가 영국의 반대인 아시아에서 나와야 합니다. 서양에서 나왔으면 반대되는 아시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입니다. (189-93, 1989.3.19) p.1875

일본은 사탄편 해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편 해와국가는 하늘편 해와국가의 모든 복을 대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거꾸로 구라파를 돌아서, 로마를 거쳐 영국을 거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로 오는 것입니다. 로마와 맞먹는 반도가 한반도이고, 지중해와 맞먹는 바다와 섬이 일본이고, 구라파 대륙과 맞먹는 것이 아시아 대륙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주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만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태평양 문명권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251-144, 1993.10.17) p.1875

일본은 영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문명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일본입니다. 영국문명을 미국에서 이어받음과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영국문명을 일본이 그냥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80-14, 1975.10.1) p.1875

영국의 대(對)가 되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문명은 영국문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기독교문명의 모든 것을 뽑아다가, 핵심만 뽑아다 일본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국가입니다. 기독교가 서양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서양문화권을 누가 지배했느냐? 사탄이 지배했기 때문에 서양문명이 찾아 들어온 일본을 중심삼고 볼 때 이것이 영국에 해당합니다. 일본에서는 좌측 통행이지요? 일본의 전성기는 120 년간입니다. 1868 년에 명치유신 출발한 것이 120 년 중심삼고 1988 년 작년까지 끝장이 나는 겁니다. (188-309, 1989.3.1) p.1875

내가 일본을 택해 주었고 독일을 택해 줬습니다. 일본을 영국 대신 세운 것입니다. 일본문명은 영국문명을 따온 것입니다. 영국의 모든 행정분야를 가져오고 독일 군대의 모든 것을 따온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좌측통행이고, 일본도 좌측통행입니다. 120 년 전 명치유신 때 일본이 영국문화를 전부 따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본을 섭리 가운데 세워 준 것입니다. 영국, 미국, 불란서가 책임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섭리사에서 실패한 녀석을 다시 세워 쓰는 법이 없습니다. (213-100, 1991.1.16) p.1876

해와인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는 육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딱 여자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해와가 낳은 남자입니다. 그렇지요? 불란서는 싸웠으니 원수입니다. 이 셋이 하나님 앞에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탄편은 뭐냐? 일본입니다. 일본의 문명은 전부 사탄이 하나님 것을 빼앗아 온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편 영국 문화를 그냥 그대로 빼앗아 온 입장입니다. 도적질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자동차가 좌측 통행입니다. (200-299, 1990.2.26) p.1876

일본은 영국의 흉내를 냈습니다. 서양 문명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법률은 로마의 것을, 군대는 독일의 것을, 문화는 영국의 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동차가 좌측통행이지요? 그것은 영국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무엇이든 하나님편의 것을 똑같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명은 모방문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그 나라를 중심삼고 모방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선진 세계의 것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본래는 선생님이 인정한 해와나라로 돌아와서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이지 일본 나라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역사는 탕감원칙의 원리권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9-132, 1993.10.8) p.1876

Top

3) 해와국가로서의 일본의 사명

① 일본은 해와국가다

섭리의 완성이 무엇이냐?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고 그 주변의 세 천사장이 하나되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 · 중공 · 소련이 세 천사장입니다.

아담은 한국, 해와는 일본, 이게 남아 있습니다. 본연의 세계는 아담과 해와 세 천사장이 하나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천사세계와 해와가 합해 가지고 아담을 추방했습니다. 본래의 에덴에서 세 천사장과 해와가 하나되어 아담을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하려면 2 차대전에서 일본과 미국과 독일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재탕감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아시아를 중심삼고 일본과 한국 이게 원수입니다. 이 원수들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201-232, 1990.4.22) p.1877

선생님이 아담국가 해와국가를 중심삼고 이것을 다시 탈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복귀시대에 와서 해와를 중심삼고 복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와 나라인 일본이 모든 경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도 일본이 필요하고, 중공도 일본이 필요하고, 한국도 일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쟁세계에서 누가 먼저 끌어당기느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결혼을 시켜 완전히 한국과 일본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것을 미국이 반대하지 않고 중공이 반대하지 않고 소련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201-232, 1990.4.22) p.1877

선생님이 지금 일본을 미국과 하나 만들고 중공과도 하나 만들고 소련과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일본은 해와로서 가인 아벨을 품고 젖을 먹이는데, 쌍둥이를 젖먹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 젖과 피와 살을 전부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참된 사랑?참된 혈통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적 관에서 선생님이 지금 계획하는 것이 뭐냐? 이번에 오면서 지시하기를 3 억 불 모금운동을 하라 한 것입니다. (201-232, 1990.4.22) p.1877

이제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성공이나 목적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성공을 요구하는 것은 전세계의 성공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단결하여 일본에 대한 천적 복귀의 사명을 수행한다면 앞으로 20 년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제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제물은 주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주관을 갖고 존재의 위치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물의 사명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의 주관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84, 1965.9.29) p.187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동경에서 제일 어려운 곳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 통일교회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설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가장 어려운 국가적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십년, 백년,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내 1 대에 이루지 못하면 2 대 3 대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파도가 휩쓸 때,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의 수에 따라 민족적인 승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5-84, 1965.9.29) p.1877

통일교회 식구들은, 일본의 통일교회와 한국의 통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양국간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역사적인 국가적 감정을 초월해서 형제와 같은 심정권을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하는 나라를 개재시켜 생각하는 입장에 섰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과 일본의 식구들은 일체가 되어 새로운 국가 복귀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이 찾아 나오신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통일식구의 세계적 사명입니다. (40-123, 1971.1.30) p.1878

한국과 일본, 한국의 통일교회와 일본의 통일교회가 하나되어 나라를 복귀했다고 할 경우, 두 국민이 결합되어진 그 전통은 금후의 역사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는 전통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고 참된 전통으로서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이 지금부터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과 한국 통일식구의 사명입니다. (40-123, 1971.1.30) p.1878

선생님은 일본의 누구보다도 일본인을 사랑합니다. 일본의 장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걱정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되는데 하고 걱정하고, 독일은 이렇게 되는데 하고 걱정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인만을 사랑하는 식의 선생님은 아닙니다. 일본인도 선생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까지도 선생님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준에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일본의 부모가 사랑 받는 이상의 입장에 서지 않고 그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극은 극과 통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우리들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만민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일본 민족이 단결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만들었을 경우에는 천국에서 칭찬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악의 주권을 탈피해서 선한 하늘의 혈통을 우리들은 남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55-97, 1972.4.23) p.1878

선생님을 중심으로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힘을 다하게 하고 일본과 공동작전 같은 것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3 년간 진심을 다하여 만물과 실체와 심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국가의 선생님이 이룬 승리의 기대를 복귀하는 기대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이 해와국가로서 어떤 사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 년 노정에서 해와를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을 다시 국가적 기준에서 탕감하는 일도 일본의 통일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5-170, 1972.4.23) p.1878

일본의 해와국가라는 명칭을 중심삼고 볼 때, 해와는 젖을 짜서 아들을 먹여야 합니다. 아벨과 가인을 먹여야 합니다. 먹여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기를 아들딸보다 더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한 계통적 인연으로 여기서 다시 아버지의 정자를 이어받아 가지고, 애기씨를 받아 가지고 다시 낳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다음에는 다시 낳을 수 없으니 접붙이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122-44, 1982.10.31) p.1879

Top

② 일본을 해와국가로 택한 이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한국의 문선생이 일본을 해와국가로 정한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일본에는 문선생을 존경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동경대 같은 데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왜 선생님, 일본이 해와국가입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해서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몇 년 뒤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라고 한 것입니다. (255-244, 1994.3.11) p.1879

일본이 해와국으로 선택된다는 원리는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귀중한 것을 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꼬리를 잡고라도 싸워서 빼앗아 가지고 본 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감의 길입니다. 탕감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벨, 가인, 해와, 아담, 사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잃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이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반대쪽에서 아벨을 중심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246-192, 1993.4.16) p.1879

2 차 대전 이후 기독교 문화권이 책임을 못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세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나 때문에 준비했던 하나님의 수고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일본을 해와국으로 택한 것입니다. 일본이 47 년 동안에 세계의 경제왕국이 된 것은 일본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해와국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와가 잃어버린 만물을 찾아올 수 있는 종합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권을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242-292, 1993.1.1) p.1879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영국과 미국과 불란서를 사탄이 쥐고 사탄세계의 나라들은 맨 꼴찌인 종의 종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총재는 버릴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이 원수 국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악마 괴수 노릇을 해 가지고 하늘나라, 하늘세계를 반대하던 그 꽁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머리를 쥐었으니 밑창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본을 해와국으로 택한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2-201, 1993.1.1) p.1879

선생님은 하늘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해 선 아담나라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자리에 섰으면 해와나라의 대표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영국을 대신한 일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갔으니, 나는 반대로 사탄이 제일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과 독일입니다. (195-205, 1989.11.15) p.1880

영국은 전부 사탄이 가져갔으니 할 수 없이 사탄이 제일 사랑하는 해와국가를 빼앗아 나온 것입니다. 탕감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우상장사의 맏아들 아브라함을 빼앗아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영국 대신, 미국을 아벨 대신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웁니다. 내가 세웠으니 내가 찾아와야 합니다. 내가 일본을 만들었으니 일본을 영국이 못 한 해와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불란서를, 제일 원수나라, 4 대국을 하나되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됐고, 아들과 어머니가 하나되고, 형님과 아우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191-122, 1989.6.24) p.1880

앞으로 세계 경제권은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일본이 쥔다는 것입니다. 왜? 일본이 해와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장국가인 미국도 일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편 천사장, 가인이 누구냐 하면 독일인데, 독일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계의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 일본입니다. (204-289, 1997.7.11) p.1880

선생님이 해와국가로 정해주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이미 납작코가 되었을 것입니다. 잡다한 신들을 믿는 민족, 명태 대가리도 믿는 일본이잖아요?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뭇신들을 섬기는 것은 사탄의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해와국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의, 사랑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쌍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어떻게 인류에게 피해를 주었던 민족이 다시 이런 짧은 기간에 축복을 받아서 만민이 부러워할 만큼 되었는가? 그것은 문선생의 내용을 모르면 풀 길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모릅니다. (190-238, 1989.6.19) p.188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제 2 차 세계대전을 중심삼고 볼 때 일본은 아시아에서 해와국가입니다. 사탄편 해와국가입니다. 야오요로즈노가미(やおよるずのがみ;뭇신들)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태의 머리까지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야오요로즈(やおよるず;수가 아주 많은)라고 하던가? 이것은 사탄편 민족, 해와국가입니다. 사탄편 해와입니다. 아마데라스 오오미가미(天照大御神)가 뭐냐? 여자입니다. 그래서 해와국가입니다. 사탄편 해와국가를 대표했습니다.

이 해와국가는 서양문물이 섭리권에 돌아오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길을 거쳐오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섬에서, 영국에서 쭉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자체는 영국에서 모든 것을 전수 받았습니다. 서양문명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전수했습니다. 전수한 곳이 두 곳이지요? 지금의 경제문제는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계승했습니다. 이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쟁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탄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188-168, 1989.2.19) p.1881

한국이라는 나라를 살리려면, 아담국가 앞에 해와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해와국가가 누가 되느냐? 기독교가 반대했으니 영국을 해와국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제일 사랑한 원수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미국을 전부 품고 있으니 맨 꼴래미가 일본입니다. 기독교문화권을 사탄이 전부 자기편으로 만들었으니, 하늘편이 취할 것을 이 사탄편 기독교문화권이 전부 다 반대하니 할 수 없이 일본을 해와국가로 택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딱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라는 안 가졌지만 선생님 개인이 한국대표로, 아담국가, 오시는 주님의 나라 대표로서 해와국가를 거느리고 가야 합니다. 일본은 해와국가, 딱 섬나라 영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아벨국가로 독일을 가인국가로 삼아 4 대 왕국을 다시 편성해서 하늘 앞에 세워 가지고 미국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188-151, 1989.2.19) p.1881

일본이 세계적인 돈을 모은 것은 해와가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돈은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를 통해 세계를 위해 투입하지 않으면 일본은 납작해집니다. 금년이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일본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일본을 위해서입니다. 일본에는 지금 2,400 조의 돈이 남아돌아 쓸 길이 없습니다. 돈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일본은 버는 길밖에 모릅니다. 쓰는 법은 모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주머니 만들어 모아 놓았다가 시집가서 남편 집에서 모두 꺼내어 나누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와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3-83, 1988.10.29) p.1881

일본이 특별히 해와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여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고생해 오지 않았어요? 일본의 여자는 남자에게 유린당하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자세도 자유롭게 하지 못할 정도의 절대 복종의 역사과정을 지내왔습니다. 특히 무사의 여자는 비참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입니다. 우선 해와국가의 상징인 일본의 아마데라스 오오미가미(あまてらすおおみかみ;天照大神)도 해와를 말합니다. 오오미가미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는 영육 함께 여성인 것입니다 일본인은 한쪽밖에 보지 않습니다. 여자는 한 쪽만 봅니다. 남편을 얻었을 때는 남편 한 사람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도 코도 귀도 입도 촉각도 모두 남편을 향합니다. (183-25, 1988.10.29) p.1882

해와국가인 일본을 따라가야 할 미국은 일본을 놓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역역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전부 해와국가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지요? 미국이 세계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물질적 소유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벨을 통하고 가인을 통하고 해와를 통하고 어머니를 통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82-228, 1988.10.23) p.1882

서구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하늘편 해와의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아시아문화권을 대표한 일본이 서구문물을 다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168-69, 1987.9.1) p.188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일본을 해와국가로 세우지 않았으면 저런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기독교문화가 선생님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영국이 해와국가입니다. 아담국가는 한국입니다. 영국이 해와국가이고, 프랑스가 천사장국가이고, 독일이 아담국가로서 자동적으로 하나되어야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가장 사랑하는 것, 해와국가를 빼앗고 독일 남자국가를 빼앗아 뜻 가운데 세운 것이 통일교회를 중심삼은 아담국가?해와국가?천사장국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본을 축복한 것은 일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계를 위하고 통일교회와 한국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통일을 위해 그 축복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합니다. (186-116, 1989.1.29) p.1882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을 일본을 중심삼고 묶으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좌익과 우익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정신을 중심삼은 종교권 내의 대표인데 완전히 정신이 결여되었고, 소련은 물질의 이상적 국가를 추구했는데 완전히 물질이 결여되었습니다. 반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와국가에게는 물질이 망하고 정신이 망한 이것을 중심삼고 외적인 몸과 내적인 생명을 위해서 젖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가 연결해야 됩니다. 미국도 살려 주어야 하고 소련도 살려 주어야 합니다. (201-219, 1990.4.19) p.1882

지금 한국 정세를 보면 주인이 없습니다. 사탄세계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미국도 주인이 없고 소련도 주인이 없고, 공산세계도 주인이 없고, 중공도 주인이 없고, 일본도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여럿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중심삼고 해와가 하나된 이후에는 그 둘이 하나님과 종적으로 일체가 되고 천사장은 아담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선생님은 아담이고 다음에는 세 천사장 나라, 세계적 대표나라가 미국과 중공 그리고 소련입니다. 또 복귀 과정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게 해와국가입니다. 이 해와국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일본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을 위해서 잘살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200-338, 1990.2.27) p.1883

끝날에는 소유권 복귀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이 세계는 통일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아담국가?해와국가?천사장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민주세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사탄권내의 아벨형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권 내의 아벨형이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해와국가이므로 아담국가의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독일, 미국, 일본이 세 나라에 경제권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182-150, 1988.10.16) p.1883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한 아담을 중심삼은 여자 하나를 놓고 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남자 넷이 둘러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해와국인데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담국가고, 소련과 중공과 미국은 세 천사장입니다. 일본은 해와국가로 벌거벗고 지금까지 40 년 동안 돈만 벌었습니다. 기생 놀음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싸움판을 벌여 가지고 돈만 벌었다는 것입니다. (259-249, 1994.4.10) p.1883

일본은 해와국가입니다. 사탄편의 여자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아마데라스오오미가미(天照大神)가 여자신 아닙니까? 이 여자신이 4 천 년 역사를 대표해서 아시아에서 주님이 올 때까지 40 년 동안을 지배한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쳐야 하기 때문에 아시아 제패 120 년 간 이런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197-267, 1990.1.19) p.1883

아담과 해와가 하나돼야 합니다. 아담국가는 오빠이고 해와국가는 동생이지요? 종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횡적으로 보면 부부관계입니다. 횡적으로는 부부관계이지만 종적인 면으로 보면 형제관계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81-310, 1988.10.3) p.1883

일본은 침략국가로서 한국이나 중국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피를 흐르게 한 민족이 해방되어 전후 40 년 간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국가가 되었느냐? 그것은 문선생이 일본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와국가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해와국가 입장입니다. 영국의 대신입니다. (256-270, 1994.3.14) p.1883

가인과 아벨을 품에 품고 젖을 먹여 이 두 자녀가 싸우지 않고서 하나될 수 있게 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딸로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와로서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시키는 것입니다. 해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경제적인 모든 것을 해와로 말미암아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영국, 섬나라인 해와국가가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시대를 오늘날, 아시아와 세계문화권이 교류되는 이때에 일본이 선생님이 택한 혜택으로 말미암아 해와국가로서 영국의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입니다. 기독교로 하여금 아벨을 환영해 가지고 부모의 정상적인 전통을 상속받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 식구와 한국 식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6-34, 1986.6.1) p.1884

일본이 왜 해와국가예요? 2 차대전 이후에 영국이 해와국가의 사명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점령했기 때문에 제일 약한 반대편의 해와를 다시 찾고 제일 악독한 독일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황폐화하고 잿더미가 된 나라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시는 재림주는 이것을 다시 수습해 세워 가지고 2 차대전에 승리한 영국?미국?불란서가 통일천하했던 기준을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40 년 동안에 그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251-147, 1993.10.17) p.1884

Top

③ 어머니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명

일본을 해와국으로 택했으므로 해와는 가인 아벨을 다시 낳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두 종류의 한국 교포가 있습니다. 남한 교포와 북한 교포, 가인 아벨이 있습니다. 이 남한 교포와 북한 교포, 가인 아벨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해와국가로 택했으니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해와국가가 안 됩니다. 복중에서는 이것을 하나 만들어야 하고, 해와는 우익세계와 좌익세계를 하나로 품어야 합니다. (244-326, 1993.2.14) p.1884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해와국가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구교와 신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이 그와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으면 해와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는 이질적인 두 아들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조총련과 남한의 민단입니다. 일본 해와국가의 뱃속에 이질적인 쌍둥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인 모두가 이것을 나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해와국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낳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조총련과 민단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여자로서 한국 민단과 조총련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 내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통일교회 멤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총련과 민단을 하나 만들기 위한 테이프를 자르지 않고는, 해와국가로서 그 아이들이 복귀되어 하나된 가인과 아벨, 형제가 되게 하지 않고는 해와의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해와는 이것을 하나 만듦으로써 아담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딸과 하나된 어머니가 아버지와 하나되는 경우에는 전세계적인 가인 아벨권, 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가 소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 달려 있습니다. 리브가나 다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웠지요? 그것을 낳아서 하나 만들지 않으면 해와국가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본 여자는 60 만의 한국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것을 소화하지 않으면 나라에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잉태한 쌍둥이를 낳아서 훌륭하게 하나로 만들 경우에는, 민단과 조총련을 하나 만들어 선생님과 하나되는 경우에는 일본이 해와국가로서 수습되는 것입니다. (255-159, 1994.3.10) p.188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조총련과 민단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해와국가가 설 수 없습니다. 그들 전부가 선생님을 대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민단과 조총련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실체인 남한과 북한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면 북한의 가짜 부모와 남한의 참부모가 조건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와가 자동적으로 이것을 안고 가서 그 전통을 한반도에 연결시키면 한일 통일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28-233, 1992.4.3) p.1885

어머니가 좌익과 우익의 아들딸을 품어야 합니다. 일본이 해와국가입니다. 일본이 섬나라 영국을 대신해서 남자와 여자를 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본연적인 나라에 들어와서 만민의 어버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다시 낳았다는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의 품에 안겼다가 낳아 줘야 합니다. (226-134, 1992.2.2) p.1885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세 천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탄편 천사장이 소련이고, 아시아적 천사장이 중국이고, 기독교권 하늘편 천사장이 미국입니다. 싸우던 세 천사장들이 비로소 하나되어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개인으로 시작하였던 세 천사장들과 하나님, 이렇게 여섯이 종적으로 합해 가지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이것은 세계가 갈라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통일의 운세를 몰아 가지고 돌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느냐? 일본이 갈라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자금은 일본이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본의 국민을 교육해 가지고 총동원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문총재밖에 없습니다. 그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의 자금은 어디서 대야 되느냐? 일본이 대야 됩니다. (226-134, 1992.2.2) p.1885

여자가 시집을 가서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 반면에 아들딸을 낳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가(一家)의 모든 경제문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심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본연의 심정권으로 전환해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일본의 해와국가를 대표한 여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들을 중심삼고 엄청난 활동들을 해 온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남자에게 차이고, 어떤 때는 부모에게 두들겨 맞는 비참한 역사적인 상황이 길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세계의 안락지, 안착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여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축복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한 사람 이상, 세 사람씩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228-167, 1992.3.27) p.1886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좌우익을 통일해서 신랑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김일성이까지 돌려놓아야 합니다. 좌우익은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복귀한 다음에는 부모권을 복귀하기 위해 김일성까지도 선생님이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한반도에서 통일권만 벌어지면 민주주의의 서양 문명과 아시아 문명이, 좌우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되는 것입니다. (228-233, 1992.4.3) p.1886

여러분이 일본 자체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해와국가의 사명을 빨리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과 남한을 앞세우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공동전선을 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명을 일본 정부는 모릅니다. 일본이 돈을 모으게 된 것은 그 돈을 선생님을 중심삼고 아시아를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229-154, 1992.4.11) p.1886

일본은 과거에 아시아 여러 국가와 원수 국가였습니다. 만주라든가 여러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지금 아시아에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40년 전에 침략 국가로서 압정을 했습니다. 그 실상을 전부 산 눈으로 봤고,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일본인의 상륙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통일교회를 앞세우면 아시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디든지 통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일본이 살 수 있는 길이지, 그 외에는 어디에도 길이 없습니다. 일본만으로는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229-154, 1992.4.11) p.1886

해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와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좌익과 우익을 누가 포용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인인 신부가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교가 예수님을 모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부교회, 신부의 나라가 그것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는 주님이 오면 세계를 전부 밟고 최고의 자리에 서서 제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여자 종교로서 남편을 맞이하면 부부가 함께 로마세계를 포용하고 양육해 가지고 천적인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재림주인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순식간에 밟아 부수고, 자기의 나라에 예속화시켜서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해와국가로 있기 때문에 좌익과 우익을 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적으로도 일본 자체가 그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해와국가의 특징입니다. (237-200, 1992.11.17) p.1887

혈통 전환과 소유권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탄의 소유권을 물려받은 일본입니다. 사탄이 주인이 되기 전에 아담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아담이 주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소유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와가 잃어버린 소유권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계로 나가 전부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을 반환하는 데는 직접 선생님한테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아들딸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복귀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29-154, 1992.4.11) p.1887

여자가 시집갈 때 알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자도 소유할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 일가 모두가 자기 가정을 의지하여 시집가는 사람의 소유권을 확대해 주고 싶은 것이 시집을 보내는 일가의 마음입니다. 그 점은 천국으로 시집을 보내는 통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종족적 주인으로서의 소유권을 관할하고, 그 권내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기반을 갖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일족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똑같이 바라는 목표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본이 해와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와국가의 전통을 한국의 여자세계로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해와권과 한국의 해와는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4월 10일 어머님의 여성해방선포 대회였습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의 여자와 일본의 여자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장자권을 복귀한 입장에서 말하면 한국의 여자가 언니 입장입니다. 그러나 복귀과정에서는 아벨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자는 고생하면서 한국의 여자에게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탄세계의 해방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은 통일교회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돌아올 여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말세에 있어서 해와국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230-281, 1992.5.8) p.1888

일본의 사명은 해와국가의 사명입니다. 해와는 어머니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본은 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나타내더라도 공산주의를 포용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본에 세계적인 경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해와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과 함께 자녀의 심정권이 사탄세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들딸과 만물을 안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와에게는 하나님의 심정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시는 주님인 완성된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담국가와 해와국가입니다. (237-188, 1992.11.17) p.188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지요? 여러분에게는 남북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남북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일본의 사명을 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37-214, 1992.11.17) p.1888

이것이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원수권을 소화하여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을 완전히 해서 해와국가로서 부끄럽지 않게끔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세계를 짊어질 수 있는 가정당(家庭堂)의 기준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숙하고 숙명적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와국가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사명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으니,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이론으로써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모두 책임을 가지고 선두에 서기를 바랍니다. (237-255, 1992.11.17) p.1888

복귀된 아담 쪽에 서서 일본이 타락한 아담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 정계에서는 북한과 교류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경제를 투입해서 남북을 통일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는 것입니다. 해와국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용사들인 여러분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가(一家)를 버리고 일족이 망하더라도 남북통일을 위해서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교회 용사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240-156, 1992.12.11) p.1888

신부인 기독교 문화권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선생님과 하나되었더라면, 이러한 탕감노정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갈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남자로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어머니에게 전수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의 실패, 해와국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47년 전의 일을 다시 탕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와인 어머님에게 한국의 여자들이 다 말려들고 일본의 여자들도 다 말려드는 것입니다. (240-156, 1992.12.11) p.1889

일본에게는 해와나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일본의 재산은 일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아담국가를 중심삼고 아시아에서 예수님의 실체권을 복귀하기 위해 해와국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해와국가는 예수님의 몸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49-137, 1993.10.8) p.1889

타락의 전환기에는, 여자가 두 사람의 남자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천사장 대신 아담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을 남편으로 둔, 천사장을 선조로 둔 역사에 있어서, 해와국가의 입장에 선 일본의 여자는 선생님을 누구보다 따르고 사모하고, 선생님에 의해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동생이 타락했으니 여동생을 구해 가지고 약혼녀로서, 그리고 장래의 부인으로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머니로, 할머니로, 여왕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 선생님의 사명입니다. (304-277, 1999.11.8) p.1889

일본과 한국은 섭리적으로 보면 한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워야 합니다. 섭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봐도 이태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에서 왕권을 중심삼고 천하통일 하려던 것을 못 했으니 한반도를 이태리 대신 세워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잃어버린 몸을 여기서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사적 기독교문화권 완성을 중심삼고 통일교와 더불어 심신일체(心身一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렇게 행차해 가지고 통일된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세계문명권으로 진출함으로써 태평양문명권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227-340, 1992.2.16) p.1889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좌우익을 통일해서 신랑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좌우익은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복귀한 다음에는 부모권을 복귀하기 위해 김일성까지도 선생님이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한반도에서 통일권만 벌어지면 민주주의의 서양 문명과 아시아 문명이, 좌우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되는 것입니다. (228-233, 1992.4.3) p.188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노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한반도를 중심삼고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 년 동안 이 민족에게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모인 민비(閔妃)까지도 잔인하게 시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일체(日韓一體)'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한반도를 중심삼고 전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 나라를 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작전을 해서 한반도를 40 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229-25, 1992.4.9) p.1890

어찌하여 일본이 경제적인 면에서 축복을 받았느냐? 세계 각국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와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땅과 사람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해와국가니 만큼 경제적으로 세계 일류를 차지할 수 있는 입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선생님이 선두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심정적으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심정을 중심삼고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62-324, 1972.9.26) p.1890

Top

제 5 장
모든 문명의 결실은 반도에서

1) 반도문명과 한국

① 세계문명의 조류

고대 인류의 문명은 대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애급나라 나일강 변에서 태동하였던 인류문명은 반도문명으로 변천하여 희랍, 그리고 이탈리아반도에서 지중해문명권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반도문명은 다시 도서문명으로 옮겨졌으니 섬나라 영국을 중심삼고 대서양문명권을 형성하였습니다.

드디어 영국의 도서문명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에서 현대문명의 기적을 이룩하여 태평양문명권을 형성했습니다. (78-254, 1975.6.7) p.1891

천사장문화권은 애급나라를 중심삼고 이루어진 나일강문명이 기원이 되어 이것이 지중해를 중심삼은 반도문명인 희랍문명을 거쳐 로마문명에서 결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운명의 발발은 서구권으로 회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79-72, 1975.6.1) p.1891

문명의 발상지가 되려면 춘하추동 사계절이 명확한 지역인 동시에 반도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반도 지역이라는 것이 뭐냐? 육지는 하늘을 상징하고 물은 바다를 상징하니 그걸 연결하는 것이 반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 이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반도지역으로서 이 세계문화에 공헌한 것이 이태리반도입니다. 이것이 과거문명의 기착지 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시대의 권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이 로마를 중심삼은 반도문명, 종합문명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집트문명 희랍문명을 거쳤습니다. 종합지가 됐다 이겁니다. (107-300, 1980.6.8) p.1891

일본은 섬나라로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양문명을 정착시켰습니다. 다음은 반도문명시대입니다.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일치하는 장소입니다. 역사학자 슈펭글러가 지적했듯이, 문명은 일년의 춘하추동이 있듯이 흥망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대서양문명 시대가 지나가고 태평양문명의 시대가 오는 때입니다. (115-171, 1981.11.10) p.189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한국은 무슨 민족이냐? 이태리반도문명권을 되돌려 맞출 수 있는, 탕감할 수 있는 문화권의 세계사적 전수를 받아야 할 민족입니다. 한국은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의 통일은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독립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것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1948 년, 한국도 1948 년, 나라가 같이 찾아진 것입니다. (139-109, 1986.1.28) p.1892

근세 아시아에서 제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세계 동서양의 문화를 흡수하고 종교를 흡수한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교로부터, 불교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단시간 내에, 이 40 년 내에 서양 문물을 흡수해 들여와 열매 맺힌 것입니다. 열매는 씨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문명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기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상적으로 안착되는 사랑의 세계로 넘어가야만 행복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에 파탄이 벌어집니다. (179-122, 1988.8.1) p.1892

언젠가 반도문명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반도문명은 이중문화로서 발전해 왔다고 했고, 일본에 화산이 터질 때는 한반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 놓으라고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배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거만하게 굴지 말고 미국 사람들 거만하게 굴지 말라 이겁니다. 태평양 양쪽 연안에서 거만하게 굴면 하나님은 둘 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미국도 얻어맞고 일본도 얻어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선생님이 기도는 안 하지만 일본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은 타당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선악의 심판으로 보면 타당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198-237, 1990.2.3) p.1892

로마 교황청을 중심삼고, 반도문명을 중심삼고 통일천하를 이루어야 하는데 로마 교황청이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 들어올 때는 반드시 섬나라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일본은 영국의 문화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일본의 번성기)이 1868 년부터 1988 년까지의 120 년간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의 120 년 기간과 마찬가지로 명치(明治), 대정(大正), 소화(昭和)까지 딱 120 년간입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1989 년 1 월에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완전히 120 년간입니다. 이 기간에 영국 문화권을 전부 이어받는 것입니다. 서양문학에서 '연극이라면 영국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현대 기계문명도 연구는 영국이 했는데 열매는 독일이 가져갔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편이기 때문입니다. (199-78,1990.2.15) p.1892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수억 년의 역사과정, 오랜 기간을 통해서 탕감해 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탕감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문총재가 이론적인 역사적 배후를 샅샅이 들추어 깨진 것은 꿰매고 뚫어진 것은 때워 가지고 타락하지 아니했던 본연적 모양을 갖추어서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 해와, 세 천사장을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와서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해야 합니다. 반도와 섬, 이탈리아 반도가 잘못하고 영국이 잘못한 것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로마교황청을 중심삼고 반도문명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새로이 미국을 중심삼고 엮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를 아시아에서 죽였으니 죽인 예수의 몸을 찾아서 만국 해방과 더불어 지상천국 이념의 나팔 소리를 이 아시아 지역에서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207-270, 1990.11.11) p.1893

그 다음에는 반도입니다. 한반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도를 탕감해야 합니다. 로마 교황청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전권을 대표한 통일교회를 중심삼은 반도문명권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 문화사 및 종교 전체를 탕감해야 할 로마 교황청과 같은 것이 생겨나려니, 공산주의 이념을 대치하여 민주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편이고 민주주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런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225-30, 1992.1.1) p.1893

한반도가 남자의 생식기라면 일본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이것이 하나 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되어야 통일천하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아담국가라 하고 일본을 해와국가라 합니다. (251-147, 1993.10.17) p.1893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원리적으로 본 반도문명의 역할

모든 역사라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문화의 발상지를 보더라도,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항구라든가 반도라든가 하는 곳이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치다 이겁니다. 희랍문명이라든가 이태리문명이라든가 하는 고대문명의 발상지를 보게 되면, 큰 바다나 반도나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문명이 그런 곳에서 발달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서로가 합류하기 때문입니다. 합류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95-23, 1977.9.11) p.1893

문명의 발생지가 지리학적으로 볼 때, 기후를 중심삼은 세계 역사학적인 면에서 발전을 했다면 이상적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춘하추동이 있는 동시에, 바다와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이상적인 지역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후적으로 춘하추동이 가미된 지역입니다. 춘하추동 사계절이 명확한 지역인 동시에 반도지역이어야 됩니다. 그 반도지역이라는 것이 뭐냐? 육지는 하늘을 상징하고 물은 바다를 상징하니 그걸 연결하는 것이 반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천지 이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반도지역으로서 이 세계 문화에 공헌한 것이 이태리 반도입니다. 이게 과거 문명의 기착지요, 지금까지 역사시대의 권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이 로마를 중심삼은 반도 문명, 종합문명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 이집트문명, 희랍문명을 거쳤습니다. 종합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107-300, 1980.6.8) p.1894

우리는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가 역사적으로 귀중한 문명을 꽃 피웠음을 압니다. 위대한 종교 이념과 사상들이 반도국가에서 많이 발생하여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도해 왔습니다. 발칸 반도에서 시발된 그리스 철학, 이태리반도에서 꽃이 핀 기독교 문화, 인도의 힌두교 문화와 철학, 아랍반도의 회교문화, 동남아반도들에서 결실된 불교 문화, 이베리아반도에서의 항해술,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의 게르만 문화 등입니다. 이처럼 반도국가는 세계 문화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79-288, 1996.9.22) p.1894

지구는 육지와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는 가장 단순한 생명의 탄생을 비롯하여 어머니의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바다는 양육하고 품어 주기 때문에 여성을 상징하며, 육지는 남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에 위치한 도서국가는 여성을 나타내는 국가이고, 대륙국가 및 대륙에 연하여 있는 반도국가는 남성을 나타내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대륙과 바다 양면의 적을 대비하는 생활에서 생긴 강인함과 용맹스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개척하고 탐험하는 진취적인 기상과 함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또 그것을 세계로 전파하였습니다. (279-208, 1996.8.20) p.1894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육지와 해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는 지리학적으로 보아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간적 위치에 있습니다. 자고로 반도는 언제나 문명 형성에 주목할 만한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고대문명이 번영했던 희랍이나 로마도 반도에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문명도 반도에서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은 금일에 있어서 세계로 확대되어 새로운 동서문명이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아의 한반도가 이 문명의 출현지입니다. (115-171, 1981.11.10) p.1894

영국이 해와국가, 미국이 아벨국가, 불란서가 천사장국가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품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그렇게 찾았으니 다음에는 아버지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나라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 나라는 오시는 재림주님 나라인데 그것이 한반도입니다.

왜 한반도냐? 그것은 이태리반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교황청을 중심삼고 잃어버린 것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이태리반도를 중심삼고 서양에서 잃어버린 것을 동양에서 찾아야 되겠기 때문에 반도인 한반도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사망과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남북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져 북쪽에는 김일성이 있고, 남쪽에는 문총재가 있고, 전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를 어버이라고 하지요? 남한에서도 문총재를 어버이라고 그러지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것을 해방할 것이냐? 대통령이 못 합니다. 이것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1-52, 1990.2.28) p.1895

지중해에 있는 로마가 천년 역사에 강대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어떻게 남아졌느냐 이겁니다. 지중해와 로마는 여자와 남자가 하나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목과 볼록이 하나된 것입니다. 한반도가 세계적인 기준에서 태평양 문명권을 중심삼고 그런 입장에서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곳이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3 개국이 문제입니다. 이 3 개국을 점령하면 아시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259-249, 1994.4.10) p.1895

한반도는 어떠한 입장에 섰느냐? 로마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 나라냐? 한국은 역사시대의 모든 종교와 인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수습해 가지고 통일적인 세계와 통일적인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책임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왜? 로마 교황청을 중심삼고, 반도를 중심삼고 세계를 움직이던 교황권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종착점시대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배경을 중심삼고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그러한 자리를 잡고 들어설 때에는 세계의 종교를 움직이고 세계 만민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서야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는 종교권이 현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는 민족권, 국가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168-312, 1987.10.1) p.1895

로마가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전통을 이어 나온 것과 같이 아시아에서 로마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이것이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지만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물론 삼국시대도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사조를, 세계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남북이 갈라진 것은 처음입니다. 남북이 싸우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중심삼고 볼 때 몸과 마음이 반도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갈라진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도에서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한국으로 주님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195-197, 1989.11.15) p.1895

일본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로마반도와 같은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륙에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초점이 한반도입니다. 그것은 인도차이나반도도 아니요, 말레이반도도 아니요, 싱가포르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극동이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은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204-161, 1990.7.8) p.1896

한국은 아담국가요, 일본은 해와국가입니다. 왜 일본이 해와국가냐?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섬은 언제나 육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여자를 상징하잖아요? 섬나라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와 일본을 중심삼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세 천사장과 같은 나라가 있으니 아시아적 천사장이 중공이고, 서구 기독교적 하늘 편 천사장이 미국이고, 악마적 천사장이 소련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장입니다. (207-270, 1990.11.11) p.1896

태평양문명권시대는 한반도를 중심삼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자의 자궁과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가 잘못한 것, 영국이 잘못한 것을 전부 탕감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 교황청이 잘못한 것을 한반도를 중심삼고 수습해야 합니다. 로마 교황청 이상, 기독교 이상, 재림이상왕궁권(再臨理想王宮圈)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의 몸을 아시아에서 잃어버렸으니, 다시 아시아에서 기독교 문화권을 영적 육적으로 합동시켜서 통일문화권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26-134, 1992.2.2) p.1896

한반도가 아담국가라면 일본은 해와국가입니다. 한국이 왜 아담국가냐? 지리적으로 보게 될 때, 한반도는 남자의 생식기와 똑같습니다. 로마가 딱 그렇습니다. 지중해는 여자의 음부와 마찬가지이고, 이태리는 남자의 생식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언제나 문화가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의 문화가 귀착해 가지고는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의 기반 위에 선 것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인 모든 것을 보더라도 로마와 지중해는 두 남녀가 합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235-80, 1992.8.29) p.1896

세계 문명의 방향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발달하여 갑니다. 즉 애급의 대륙문명, 로마와 그리스의 반도문명, 영국의 도서문명, 미국의 대륙문명에 이르고, 다시 대륙문명은 서진(西進)하여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도서문명을 거쳐 급기야는 한반도 문명으로 집결하여 아시아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속된 문화는 고차원적 문화로서 신세계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115-171, 1981.11.10) p.1896

역사의 흐름은 거기(미국대륙)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 문명권은 태평양을 건너 영국과 맞먹는 섬나라 일본에서 새로운 도서문명의 꽃을 피우고, 이탈리아 반도에 해당하는 여기 한반도에서 그 옛날 로마문명과 맞먹는 인류총화문명을 이룩하고, 아시아 대륙을 연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려는 새로운 통일문명권을 형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78-254, 1975.6.7) p.1896

태평양을 보아도 한반도가 침략 당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일본열도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자는 살과 같고 남자는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뼈와 살은 일체입니다. 그것이 두 개로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필요한 것이며, 아무리 많은 아담이 있다고 해도 해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협조하여 천주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83-164, 1988.10.31) p.1897

일본이 왜 복을 받느냐 하면, 일본은 해와국가니 만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잃어버렸던 것을 물질로부터 복귀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물질 축복을 받은 일본을 중심삼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반도를 거쳐 중국대륙으로 가야 됩니다. 중원천지로 가야 됩니다. 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중국과 인도가 문화국이요, 종교국이었습니다. 힌두교를 중심삼고, 불교를 중심삼은 문화권이 예수가 왔을 때 삼위일체가 되어 로마제국을 흡수하는 책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유대나라와 중동 아랍권이 하나됐더라면 자연히 인도와 연결됐을 것입니다. 인종 자체가 인도 사람들은 구라파계입니다. 아시아가 인도와 연결되고, 인도가 버마를 통해서 중국과 연결될 수 있어서 중국의 종교문명권을 연합해서 세계적 판도를 중심삼고 로마를 소화했더라면 하나의 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5-317, 1985.12.15) p.1897

일본은 바다에서 솟은 섬과 같은데, 여기(한국)는 대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큰 대륙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제 1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섬은 제 2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은 언제나 육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여기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 이 전체 대륙을 중심삼고 더 큰 고향의 인연을 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 고향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곳이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계에 가더라도 해방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09-19, 1990.11.24) p.1897

지금까지 현대문명이 로마를 중심삼고 1200 년의 역사를 대표해 가지고 로마의 권위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한반도를 중심삼고 새로운 천년 세계를 거쳐서 영원한 문화권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반도입니다. (168-67, 1987.9.1) p.1897

Top

2) 한반도와 섭리적 사명

① 한반도는 세계의 축소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할 숙명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 웅비할 것이요, 공산주의에 패할 때 대한민국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패망의 비참한 운명은 월남의 예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악을 대표하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대한민국은 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악마가 지배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같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한반도는 세계에서 선과 악이 가장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세계사적 지역이 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선이 악을 무찔러 승리할 때 세계의 모든 악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섭리사를 두고 이와 같이 한국 국민과 전세계 자유인이 합하여 전체적 승리를 거둘 것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129-331, 1983.12.14) p.1898

한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으로서 일찍부터 경천사상(敬天思想)에 젖어 풍요한 정신적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불교와 유교를 수용하여 그 문화를 찬란히 꽃피웠으며, 길지 않은 기독교 전래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명실공히 세계를 대표하는 열정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고등종교들이 민족의 정신문화 속에 용해되어 조화롭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실에서도 이 땅에는 제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래 경천사상이 강한 한민족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무신론의 공산주의는 한반도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한민족을 세워서 공산주의를 타파하는 시범을 세계 앞에 보일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130-13, 1983.12.18) p.1898

이 민족(한민족)의 시련은 이 민족 자체만의 것이 아니고 섭리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이것을 극복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세계사의 총합적 유산이라 일컬을 수 있는 동과 서, 남과 북의 만남, 정신과 물질, 유심과 유물의 대결과 혼돈들이 집약되어 한반도에서 소용돌이침도 마치 새 시대를 잉태한 산모의 몸부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정신계를 지도할 목적으로 보내신 분을 따르고 고난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135-238, 1985.12.11) p.1898

역사시대에 있어서 통일교회가 그 기준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삼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인 것은 한때에 써먹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독교문명권의 기수가 나와서 기독교 통일 연합운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7년 이내에 세계 기독교를 평정하는 것이 선생님의 뜻이었습니다. (135-317, 1985.12.15) p.1898

Top

② 한반도 중심한 통일문화권

로마를 중심삼고 모든 구라파 문명권이 하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도와 같은, 로마와 같은 역할이 재현되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연결시키지 않고는 이 세계문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166-294, 1987.6.14) p.1899

여러분은 한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국을 세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한국이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 전체는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땅인 만주의 요동반도를 찾아야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팔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았는데, 내가 재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옛날 고지를 못 찾겠어요? 소련이 방해해도 다 밀어제끼는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시대에 소련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주고 우리 고지를 찾기 위해서 흥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68-49, 1987.8.30) p.1899

바로 이곳의 30마일 북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이념은 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 김일성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세계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세계의 차이점을 한반도보다 더 현저하고 뚜렷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한반도는 자유와 독재, 선과 악,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투쟁하는 전세계의 축소판입니다. (168-234, 1987.9.21) p.189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 한국을 중심삼고 주변국가를 볼 때, 세계정세로 볼 때 한반도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강대국 서로에게 불리합니다. 특히 중공은 이제부터 기술과학의 발전을 촉구하고 선진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흥을 해야 할 텐데,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한국과 교제하고 싶은 것이 중공의 마음입니다. 그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안 되느냐? 일본은 침략한 국가입니다. 경제적 침략을 해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한국과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중공 자체가 북한의 남침을 원치 않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 자체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한국과 교류하려고 합니다. (170-212, 1987.11.15) p.1899

중국의 인구가 12 억입니다. 미국은 2 억 4 천만이고, 소련은 2 억 7 천만입니다. 세계를 지도하는 선진국, 내로라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얼마나 따라지였어요? 이건 따라지다 못해 못나고 불쌍한 나라입니다. 5 천년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저 중원천지가 전부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족에 대해서는 역사에도 남아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학계에서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동이족이라 해 가지고 그들이 한반도로 흘러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원천지 수많은 민족들이 대결하는 황무지 벌판에서 살고싶지 않아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이 한반도에 피신해 온 패들입니다. (172-279, 1988.1.24) p.1899

과거의 선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바라던 이상적 가정 터전을 중심삼고 종족, 민족, 국가를 편성하기 위해 남북통일의 해방을 주장하는 과정에 있으니, 그 해방의 꽃이 피는 날에는 만국에 통일의 기치가 히말라야 산상봉보다 더 높이 날릴 수 있는 역사적 자랑시대가 한반도에 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선생님이 이뤄 놓은 실적이 저주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피눈물이 엇갈리고 죽음의 고비를 밀고 나온 원한과 여기에 결정체로 엉켜 있는 역사적 실적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173-115, 1988.2.7) p.1900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는 어차피 고립되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륙과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 지금은 태평양을 건너 미대륙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40 년 전에 2 차대전을 중심삼고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되어 투쟁한 국민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디로 갈 것이냐?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에 업힐 것이냐? 대륙에 접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가까운 길은 한반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시베리아를 통해서 접해도 안 되는 것이요, 중공과 그냥 접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공에 들어가 혼란한 중공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12 억의 중공 국민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또 방대한 공산세계 주도국가인 소련을 일본이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본 자체는 할 수 없이 미국을 중심삼고 한국과 연결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177-14, 1988.5.15) p.1900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일?러전쟁이 한반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일?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세 대동아전쟁의 기원을 보면 노구교에서 일본병들이 일본 선교사를 중심삼고 한국 사람들과 사건이 벌어져 대동아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시아의 근세 동란의 기원은 모두 한국 때문입니다. 한국이 기지입니다. 중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아주 묘한 곳입니다. 소련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일본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륙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정치적 판도를 세계로 뻗쳐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만일 북한이 소련을 업고 '남북총선거 하자!' 하고 남한에서도 '삼팔선을 철폐하자!' 한다면 소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소련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련은 한반도 요새기지가 필요합니다. 이 한반도를 점령하게 된다면 일본의 목덜미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슴에도 총을 들이대게 되는 것입니다. (178-12, 1988.5.27) p.1900

지금은 문총재가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주인이 아니고 야당도 주인이 아닙니다. 4 대 강국 가운데 포위된 한반도가 4 대 주인으로 말미암아 쪼그라든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적 중심이 뭐냐 하면, 그것이 통일교회입니다. 남북을 통일하자는 말도 내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정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볼 때 남북통일을 하려면 동서남북 이 4 대국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중공까지, 소련까지 그 일을 했는데 이제 레버런 문이 박아 놓은 추를 올려 가지고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78-231, 1988.6.4) p.1901

한반도를 중심삼은 맥이다 할 때, 맥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한국의 운명, 운세와도 통합니다. 천운과 통합니다. 국운과도 통할 것입니다. 국운이 뭐냐? 나라의 운, 나라가 굴러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이 굴러가는 것은, 한국이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 자체가 맥박이 잘 뛰어 가지고 좋게 연결되는 데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의 천운과 맥박을 같이하여, 운을 협조해 가지고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78-265, 1988.6.8) p.1901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합니다. 민주세계도 무너져야 됩니다. 민주세계는 인본주의요, 공산세계는 유물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신본주의 중심삼고 세계통일을 이루고 이상적 왕권을 세우려 했는데,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되돌아와 탕감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륙을 중심삼고 영국을 탕감하고, 이태리반도에서 로마 교황청이 잘못한 것을 아시아에 와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아시아의 로마와 같은 반도를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입니다. (188-315, 1989.3.1) p.1901

이태리반도의 교황청에서 통일하지 못한 것을 반도를 통해서 통일해야 될 곳이 한반도라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일본이 4 천 년을 탕감하기 위해 40 년 동안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40 년 동안 지배받는 나라가 재림주, 아담이 올 수 있는 이상의 나라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역사 발전의 귀추로 보게 될 때, 탕감복귀의 원칙을 두고 볼 때 한반도에 재림주가 와야 된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국과 미국과 불란서가 합해 가지고 무슨 나라 찾아가느냐? 아담나라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찾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담나라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레버런 문의 생각이 아닙니다. 원리관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자동적으로 옵니다. 한국이 해와를 품어서 하나되어야 천사장들이 완전히 아담과 해와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원리관입니다. (189-96, 1989.3.19) p.1901

태평양문명권은 무엇이냐 하면 오시는 아버지주의 판도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 문화입니다. 여기서 통일적 문화권이 벌어져 하나의 결속된 문화를 종결지어야 되겠기 때문에 부모문화를 중심삼고 언어통일 · 문화통일, 국가통일이 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반도를 중심삼고 연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193-225, 1989.10.4) p.1902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지극히 미묘한 위치에 있어서 예로부터 강대국들의 세력 확대를 위한 요지가 되어 역사적인 희생을 치러 왔습니다. 동서 양극시대에 대표적인 고난을 겪은 우리 조국은 다원화와 화해의 시대를 맞았다고 해서 국익이 보장되고 민족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중심한 4 대 강국, 즉 미국?일본?소련?중국은 한반도에 각각 중요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얽혀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세계와 역사의 축소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모든 역사적 인연과 세계적 문제가 직접 간접으로 이곳 한반도에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세계문제의 축소체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문제의 해결은 한국문제의 해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193-317, 1989.10.12) p.1902

어머니가 서쪽 끝이면 아버지는 서쪽에 나타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서쪽 끝이라면 남자는 동쪽 끝이어야 합니다. 극동이라는 말도 이와 같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반도라는 곳은 남자와 여자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육지가 남자를 상징한다면 바다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섬사람들은 육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육지를 찾아 나와 상륙하게 될 때는 언제나 반도에 상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반도가 서구문명에 있어서 천여 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그 전통적 인연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세계 기독교문화권의 중심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듯이 그 반대되는 극동에 있어서도 반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196-162, 1990.1.1) p.190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일본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로마반도와 같은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륙에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초점이 한반도입니다. 인도차이나반도도 아니요, 말레이반도도 아니요, 싱가포르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극동이어야 합니다. 그런 지역은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 한반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대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연장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가운데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피를 많이 흘려야 합니다. 정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간신들로 말미암아 역사시대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더욱이나 조선조 5 백 년 기간, 6 백 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6 수를 탕감해야 합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많은 선한 피를 흘려 나온 것입니다. (204-161, 1990.7.8) p.1902

내가 통일교회의 비참한 운명길을 40 년 동안 걸어왔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가정적 기준이 이렇고 내가 바라는 나라가 이렇고, 내가 바라는 세계가 이렇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렇다 이겁니다. 그런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하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게 되면 그것은 순환하다가 틀림없이 어느 축을 중심삼고 정착하는 세계사적인 하나의 정착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수 있으면 한반도의 삼팔선을 중심삼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의 고향을 중심삼고 이걸 착지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고향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8-226, 1990.11.18) p.1903

남북이 교차된 가운데 벌어진 싸움판에서 한국의 자주 독립의 한 날을 바라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이 한반도가 새로운 총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할 입장에서 남북이 교차하는,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대표한 하나의 선진기지가 돼 버린 이런 양분된 비참한 국가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것은 한국 백성이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 백성이 책임지는데, 장래에 한국의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전통적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이런 비참상을 수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 혹은 애국자들도 많았을 것인데 수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들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의(天意)에 의한 섭리사적인 한반도가 어떻다는 걸 아는 선생님으로서는 개척의 일로(一路)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겁니다. (211-135, 1990.12.30) p.1903

남한과 일본이 합동으로 북한을 움직여서 남북통일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반도와 일본이 통일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12-140, 1991.1.2) p.1903

Top

③ 한반도 통일은 세계통일의 모형

남한을 중심삼고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반도를 중심삼고 해와국가인 일본을 하나 만들고, 중공을 하나 만들고, 소련과 미국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선생님이 다 닦았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와서 외적인 가인 세계에 기반을 닦기 위한 놀음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세계, 경제세계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돈을 쓰고 활동했습니다. 통일교회 문총재를 반대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에 몇몇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는 남북을 통일할 사람은 다 나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214-306, 1991.2.3) p.1903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이것은 세계가 갈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 통일의 운세를 몰아 가지고 돌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느냐? 일본이 갈라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자금은 일본이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본의 국민을 교육시켜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문총재밖에 없습니다. 그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의 자금은 어디서 대야 합니까? 일본이 대야 합니다. (226-134, 1992.2.2) p.190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탕감복귀에 있어서 일본은 영국이 실패한 것을 대신해서 경제 왕권을 중심삼고 아시아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참아버지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을 잃고, 반도를 잃고, 섬을 잃었으니, 그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대륙으로 되돌아가 거꾸로 이것을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대륙이 미국이고, 그 섬이 일본이고, 반도가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27-67, 1992.2.10) p.1904

아담의 원수가 해와이고, 해와의 원수가 아담이고, 아벨의 원수가 어머니 아버지이고, 가인의 원수가 어머니 아버지이고, 아벨과 가인 형제는 서로가 원수입니다. 전부 다 원수입니다. 원수들이 싸워 가지고 자리 잡으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최후의 역사를 종결 지을 곳입니다. 이것을 문화사로 보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결착점입니다. 이남과 이북이 그렇지 않아요? 공산세계를 대표해서 재림 부활한 아버지 격이 이북의 김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세계를 대표해서 기독교를 중심삼고 재림부활한 아버지 격이 문총재, 참부모입니다. 부모가 둘 나왔습니다.

이 한반도는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놓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일본은 결혼하지 않은 해와로서 오색찬란하게 단장을 한 아주 미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요걸 잡아먹고 싶어하고, 중국도 잡아먹고 싶어하고, 미국도 잡아먹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할 때와 딱 마찬가지입니다. (228-231, 1992.4.3) p.1904

하나님은 한반도를 사랑하십니다. 남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으니 이제 북한을 살려줘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살려 주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이어받기 위해 수난 당하면서 21년 동안 준비한 재물 전부를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총재에게도 북한 사람들을 선두에 세워 먹여 살리는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인 입장의 정부와 아벨 입장의 문총재가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8-235, 1992.4.3) p.1904

죽을 김일성이를 살려준 것이 문총재입니다. 형제로서 쌍둥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쌍둥이지요? 그러니 서로가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살려줘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요? 야곱이 21년만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형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에서는 축복 받은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이 섭섭하지만, 같은 형제의 자리에 서 가지고 복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권이 성립된 것입니다. 제3이스라엘권에 있는 레버런 문은 한반도의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아시아 제국권으로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시아에서 잃어버린 몸뚱이를 갖다가 접붙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228-239, 1992.4.3) p.1904

민주와 공산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지로서 남북통일이야말로 세계평화통일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본인은 세계 도처에서 오늘날까지 이 과업을 위해 전심 전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지난해, 1991년 11월에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담판을 한 것도 이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일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남북이 통일되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229-80, 1992.4.10) p.1905

한반도는 남북으로 40년 동안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폭발 위험성이 가장 큰 곳이 중동의 이스라엘 지역과 한반도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배후에 의해 부딪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사탄을 중심삼은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사탄적인 종교권입니다. 독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종교는 레버런 문의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229-125, 1992.4.11) p.1905

지금 세계는 종교를 중심삼은 중근동의 이스라엘 지역 문제와 민주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삼은 한반도의 남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사상을 배경으로 한 양대 진영의 충돌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지상의 인류는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평화의 세계로 수습할 것입니까? (229-125, 1992.4.11) p.190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가 일체화되면 가인과 아벨이 통일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새로운 이상적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서양, 동양과 서양의 일체화, 그리고 남북 일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남북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빈곤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일체화는 문제가 아닙니다. (230-300, 1992.5.8) p.1905

이 나라가 선생님을 40 년 전에 내세웠다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장자권 왕궁이 됐을 것입니다. 장자권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제 3 이스라엘권 정착국이 됐을 텐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갈라져서 싸우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문총재를 중심삼고 통일적 운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것입니다. (230-346, 1992.5.10) p.1905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우리 민족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양대 국가,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통일도 우리가 한반도 안에 앉아서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소련?중국?일본 등이 우리나라를 분단시켜 놓은 채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기존의 상황을 바꿔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일에 주변 강대국들이 방해가 아닌 협력을 하도록 우리 민족과 한국의 주체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231-8, 1992.5.11) p.1906

Top

④ 아담국 복귀를 위한 섭리적 전개

㉮ 일본, 미국, 독일을 중심한 섭리

사망의 씨를 받은 해와가 생명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아담을 중심삼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품고 나와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차대전 때 섬나라인 영국이 해와국으로서 미국이라는 아벨적인 아들을 낳아 가지고 천사장인 프랑스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對)되는 것이 섬나라인 일본인데, 일본이 해와국으로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품은 것입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기독교 파멸주의자입니다. 게르만 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가지고 정신적, 사상적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것이 히틀러 사상입니다. 그리고 왔다갔다하는 이탈리아는 천사장입니다. 사탄 마귀 어머니 앞에 두 아들과 같은 입장에 선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청산짓는 싸움이 제 2 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렇게 뿌렸으니 가을이 되면 가라지를 잘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 버리고 한 주인권 내의 기독교문화권으로 통일한 것이 제 2 차 세계대전입니다. (207-269, 1990.11.11) p.1906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하나님과 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볼 때 해와는 아담을 따라가야 하고 세 천사장도 아담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해와와 세 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격의 대표인 선생님이 해와국가인 일본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여 가지고 중국을 움직이고, 소련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장과 해와권을 맞는 자리로 돌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99-84, 1990.2.15) p.1906

한국은 아담국가요, 일본은 해와국가입니다. 왜 일본이 해와국가냐?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섬은 언제나 육지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섬나라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와 일본을 중심삼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세 천사장과 같은 나라가 있으니 아시아적 천사장이 중공이고, 서구 기독교적 하늘 편 천사장이 미국이고, 악마적 천사장이 소련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장입니다. (207-270, 1990.11.11) p.1906

영국은 해와국가입니다. 잃어버린 아담가정에서 해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못 됐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것을 복귀한 세계적 국가형태로 열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맺힌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는 언제나 육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앵글로색슨 민족 중심삼고 해와국이 낳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란서는 천사장입니다. 영국과도 싸웠고 미국과도 싸워서 원수지만 이것이 끝날에 와 가지고 연합군을 중심삼고, 영국과 미국과 불란서를 중심삼고 통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77-34, 1996.3.24) p.1907

선생님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아담국가와 해와국가, 그 다음에는 가인국가와 아벨국가의 복귀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심었으니 이걸 세계적 국가기준에서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한국이 아담국가, 일본이 해와국가, 그 다음에는 미국이 아벨의 자리입니다. 장자권 복귀를 이루기 위해서, 주권복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벨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사탄편 가인국가였는데, 일본이 해와의 자리에 섰으니 독일이 하늘편 가인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국가가 세계적인 무대 위에서 한 나라의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그 무대가 미국입니다. 자유세계의 기독교문화권인, 세계를 지도하는 미국에서 선생님을 중심삼고 일본 사람, 독일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 미국이 망하게 됐습니다. 아벨국가형이 무너지게 됐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수습해 놓지 않고는 아담국가와 해와국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아담국가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미국 사람을 교육해 가지고 독일 사람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원수나라입니다. 전부가 원수지간의 나라들입니다. (141-224, 1986.2.22) p.1907

선생님은 한국을 아담국가, 일본을 해와국가로 세워서 미국에 가 가지고 전부 만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구교와 신교가 결속된 기반 위에서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은 결속운동을 지금까지 만 12 년 동안 한 것입니다. (143-132, 1986.3.17) p.1907

해와국가가 다 하고 아담국가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천사장국가입니다. 3 대 천사장입니다. 중국은 아시아 천사장, 미국은 기독교문화권인 서양 천사장, 소련은 사탄편 천사장입니다. 세 천사장이 비로소 아담, 해와국가와 하나님과 하나되어 가지고 본연의 상속권이 인수됨으로써 타락하지 않았던 개인적 에덴동산의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와 세 천사장의 자리를 세계적으로 탕감 복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부모가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의 이름이 있는 데에는 악마의 권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참부모를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209-297, 1990.11.30) p.1908

미국은 섭리적으로 보면 창고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지식 창고, 군대 창고, 물질 창고, 과학기술 등 전부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두 세계를 위해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자체가 갖겠다고 야단입니다. 창고는 하늘이 컨트롤합니다. 그 창고를 아시아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일본이 전부 인수받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은 해와국이니 해와가 천사장과 하나돼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해와가 이러는 것은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담한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버리면 망합니다. 카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가지가 잘린 것입니다. 그거 괜히 하는 줄 알아요? 다 이런 섭리적 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왜 천사장국가야?'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재림할 때 해와국가를 중심삼고 전부 백성이 아닙니까? 기독교문화권이 그것입니다. 신부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은 천사장국가라는 것입니다. (210-185, 1990.12.19) p.1908

Top

㉯ 2 차대전 전후의 탕감복귀섭리

영국은 해와국가입니다. 미국은 해와가 아들로 낳은 것입니다. 불란서는 원수입니다. 이 셋이 연합국입니다. 그 다음에 추축국이 누구냐 하면 해와국가인 일본, 섬나라입니다. 사탄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섬나라 일본을 중심하고 독일도 사탄편 아들과 같이 극악한 것입니다. 1 차대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후에 독일이 가만 보니까,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중심삼고 불란서 영토인 월남을 순식간에 잡아먹었다 이겁니다. 또 싱가폴을 순식간에 다 잡아먹었습니다. 자기의 원수 나라를 순식간에 해치우는 것을 보니까 일본을 중심삼고 하나되면 세계를 삼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태리와 함께 삼국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태리는 천사장권이라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228-222, 1992.4.3) p.1908

기독교를 말살하겠다는 그 나라들을 중심삼고 본래의 해와국가인 영국을 대신하고, 본래의 아벨국가인 미국을 대신하고, 본래의 가인국가인 불란서를 대신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문화권을 대신한 것을 다 사탄이 가져갔으니, 아담 자리에 미국을 걸어놓고 해와를 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머리인 영국을 점령했으니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꽁무니가 되는 일본을 잡아 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미국의 꽁무니를 잡아 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독일 꽁무니를 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해와국가와 가인 아벨 국가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40 년 동안에 4 천 년을 탕감해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망하는 것입니다. (228-225, 1992.4.3) p.1909

기독교를 중심삼고 해와국가를 대표한 것이 영국입니다. 가인은 불란서입니다. 그 다음 아벨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영국이 낳은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어야 하늘편에서 싸우던 것이 반대로 복귀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영국을 중심삼고 미국은 아벨국가요, 불란서는 가인국가입니다. 이 세 나라가 하나되어 가지고 연합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편은 그 반대입니다. 일본은 사탄편 해와국가입니다. 아마데라스오오미가미(天照大御神;일본에서 섬기는 여신)가 여자신이지요? 이걸 중심삼고, 사탄편 아벨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역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6 백만이나 학살했습니다. 기독교 전체를 학살하고 이 세계를 쓸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228-282, 1992.7.5) p.1909

일본은 사탄편의 해와국가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일본을 위시해서 독일, 이태리와 3 국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로서는 프랑스와 영국을 깨는 것이 최고 목적인데, 일본이 순식간에 프랑스령인 베트남과 영국령인 싱가포르를 침공해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일본과 함께 동맹할 경우에는 아시아적 승리권을 연결할 수 있다고 독일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이겼을 경우에는 독일이 주체가 된다 이겁니다. 일본이 대륙이 아닌 해양의 나라이므로 일본은 승리한다고 해도 대륙의 주체인 자기들 뒤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57-100, 1994.3.13) p.1909

연합국과 같은 대열로 사탄편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본, 독일, 이태리, 세 나라가 추축국입니다. 동맹국을 중심삼고 볼 때 일본이 해와국입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했느냐 하면, 동양에서는 여자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동양 전체를 묶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서양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독일은 몸뚱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독일이 서양 전체를 묶어 가지고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도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독일도 먼저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태리는 혹으로 따라다니는 나라입니다. (235-49, 1992.8.28) p.1909

2 차대전 때 연합국인 영국, 미국, 불란서와 추축국인 일본, 독일, 이태리가 싸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에덴동산에서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가인 아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해와국과 외적인 해와국, 내적인 가인국과 외적인 가인국, 내적인 아벨국과 외적인 아벨국으로 커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익과 좌익입니다. (239-262, 1992.12.6) p.1909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두 번 택해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빼 놓으면 통일교회와 기독교, 통일교회와 유대교의 문화권이 갈라져 나갑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을 택했습니다. 내가 왜 미국에 가서 싸워야 되느냐 하면, 미국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일본, 해와국가를 데리고 미국이 실패한 것을 다 갖추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뿌린 죄를 세계로 열매 맺혀 가지고, 전부 무지막지하게 쳐 넣어야 합니다. 근본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담과 해와, 세 천사장입니다. 이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보게 된다면 한국이 아담국가요, 일본이 해와국가입니다. 그래서 교체결혼을 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개인적으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세계를 만들었지만, 제 2 세는 한국 민족 2 세와 일본 민족 2 세가 교체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반대만 해라 이겁니다. (197-269, 1990.1.19) p.1910

만일 미국까지 포기했더라면 자유세계, 기독교문화권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을 누가 다시 아벨의 입장에 선택했느냐 하면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차 잘못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로 인해 잘못된 것을 아벨을 통해서 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벨적 입장에 미국을 택하고, 영국 대신 해와국가로 일본을 택하고, 불란서 대신 사탄편에 있던 극악한 사탄이 제일 사랑하는 원수국가 독일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204-288, 1990.7.11) p.1910

사탄편과 하늘 편 두 종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탄편 해와국가, 사탄편 아담국가, 사탄편 천사장국가를 세워 가지고 부닥친 것이 2 차대전입니다. 여기서 사탄편이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문화권이 미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교문화권이 미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통일교회와 하나되고 문총재와 하나되었으면 오늘날 저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놓게 되면 망합니다. 이래서 선생님이 일본을 해와국가로 키우고 통일교회를 반대하던 미국을 천사장국가로 키워 온 것입니다. 그거 미국 자체가 된 게 아닙니다. 일본 자체가 된 게 아닙니다. 문총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204-164, 1990.7.8) p.1910

나는 해방 후 7 년 동안에 세계의 기독교를 통합하기 위한 책임을 하려 했습니다. 역사를 대표하여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오늘날 칠십의 졸장부가 되어 40 년 탕감노정을 거쳐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국가와 해와국가가 통일되니 미국은 하늘편 천사장, 아시아의 천사장은 중공, 그 다음에 공산당 천사장 소련입니다. 이 세 천사장이 반대하던 것이 자연굴복해 가지고 한국을 중심삼고 따라오게 될 때는 세계에서 사탄세계의 혈통을 뿌리뽑고 하늘나라의 혈통으로 교체할 수 있는 평화의 왕국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197-271, 1990.1.19) p.1910

선생님을 중심삼고 중공과 미국과 소련이 하나된다는 것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세 천사장이 하나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으로 뿌려진 것이 세계적 차원으로 발전되어 가지고 그것을 탕감복귀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담국가이고, 일본이 해와국가이고, 그 주변 국가가 3 대 천사장국가입니다.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3 대 천사장권인데, 3 대 천사장권이 어느 나라냐 하면 중국과 미국과 소련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편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다 연결됐습니다. (207-327, 1990.11.11) p.1911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주변에 세 천사장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국가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뿌렸던 모든 것을 국가적, 세계적으로 열매 맺어야 끝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국가, 해와국가, 그 옆에 세 천사장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이 아담국가와 해와국가입니다. 그리고 세 천사장은 아시아 천사장, 하늘편 기독교 천사장, 그 다음엔 세계적 악마 편 천사장을 말합니다. 이 세 천사장이 전부 모여서 해와를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해와를 다시 농락하는 날에는 세계적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끝날입니다. (208-332, 1990.11.21) p.1911

오시는 주님이 세계의 전권을 가지고 하늘땅을 치리할 기반을 전부 연결시켜 가지고 통일왕권을 중심삼고 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기독교 문화권인 미국을 중심삼고 통일교회 문선생님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권 내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총재가 맨손 들고나선 것입니다. 사탄편 해와국인 패망한 일본을 가누고 미국도 가눈 것입니다. (242-124, 1993.1.1) p.1911

Top

㈐ 아담, 해와, 천사장국가의 섭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섭리관으로 보는 아담국가 해와국가 천사장국가를 어떻게 한 나라와 같이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는 한국사람, 일본사람, 미국사람, 독일사람이 한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여기서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에 독일사람이 따로 있고, 미국사람이 따로 있고. 한국사람이 따로 있고, 일본사람이 따로 있겠어요? 한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계는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걸 묶으려면 땅에서 묶어야 합니다. 땅에서 묶어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73-71, 1988.1.3) p.1911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중국과 인도를 두 아들과 같이 품어야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그 놀음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격인 이스라엘 나라가 오시는 예수님, 신랑되시는 예수님을 아담으로 모실 수 있는 입장에서 인도와 중국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과 같이 하나되어 메시아가 아담국가의 주권을 세워야 할 것인데,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간 것입니다. 로마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반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섬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188-309, 1989.3.1) p.1912

종교가 해야 할 책임이 뭐냐하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을 닦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권을 중심삼고 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섭리적 귀결점을 하나님은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2 차대전 때입니다. 그래서 해와국가, 가인 아벨국가, 아담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아담으로 오는 아버지를 모시고 세계 정상에서 접붙이는 공작을 해 가지고 통일국을 만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193-189, 1989.10.4) p.1912

통일교회는 이색적인 4 대 문명권, 즉 아담국가와 해와국가와 천사장국가, 그리고 가인과 아벨국가, 이렇게 원수와 같은 4 대 문화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전부 배경이 다르고 상충적인 입장에 있는 그것을 전통기반으로 삼고 출발기지로 하겠다 하는 이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통일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전통기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9-234, 1983.11.6) p.1912

본래 뿌려진, 아담과 해와와 천사장이 실수한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확기의 결실로서 아담국가, 해와국가, 천사장국가를 중심삼고 탕감해 가지고 돌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을 중심삼고 영국과 미국과 불란서만 하나되었다면 한국은 아담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종적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은 아담국가로서 영국을 해와국가로 거느리고 미국을 장자로 거느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벨권으로서 세계 주도권, 세계 판도를 거느리는 것입니다. 세계 국가적인 주도권을 비로소 아벨적 입장에 선 미국이 가진 것입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가인적 입장인데 가인적 입장인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 세계화시대를 맞추어 가지고 통일적인 기독교 문화권시대 위에 주님이 와서 모자협조기반과 연결시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184-252, 1989.1.1) p.1912

문총재가 미국 가서 한 일이 뭐냐하면, 세계적 서구문명의 조류를 아시아적 조류로 전부 끌어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시아에서 도둑질해 갔지만, 이제는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끌어들이는 데 첫번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해와국가로 축복을 받았으니 아담국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과 모든 권위를 사탄세계가 빼앗아 갔으니 회복시대에서는 이 세계 조류의 역조시대(逆潮時代)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일본을 중심삼고 경제권과 모든 권한이 아시아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을 따라 한국을 거쳐 대륙으로 가 자리잡는 것입니다. (184-274, 1989.1.1) p.1913

Top

⑤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

㉮ 조국광복은 인류 모두의 소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래 인간시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담가정에서의 아담은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족장이 되는 동시에 민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대표자가 되어 아담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아담주의 하나로 통일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시시껄렁한 주의들은 집어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한 주의들이 나와서 세계를 교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주의도 아담주의, 언어도 아담언어, 문화도 아담문화, 전통도 아담전통, 생활방식도 아담생활방식, 제도도 아담제도, 모든 것이 아담국가의 이념제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가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하니 하나님 주의라는 것입니다. (20-123, 1968.5.1) p.1913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무얼 해 주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결혼식을 해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들딸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편성하고, 이것을 번식시켜 종족과 민족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넓혀지면 그 세계는 하나님주의 세계인 동시에 아담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아담주의 이념이요, 우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우주관이요, 천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천주관이요, 생활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생활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색인종이 알록달록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니 수많은 민족이나 피부색깔이 다른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수많은 민족의 언어가 달라졌는가? 그것은 인류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분립시킨 것입니다. (156-198, 1966.5.25) p.1913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의 인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악의 투쟁도 거기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각국마다 국경이 있습니다. 흑백의 인종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지간에 전부 분열이 벌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세를 두고 볼 때, 오시는 주님은 국경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인종문제를 초월해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열된 가정을 전부 통일해야 하고, 선악이 싸우는 이 세계에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53-72, 1972.2.9) p.1913

이상천국이 어떤 것이냐? 우리 통일교회 식구와 같은 사람이 전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천국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교회 식구같이 살면 그것이 지상천국입니다. 그 세계는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전부가 하나되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엔 사탄의 유혹이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 그게 지상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산다 이겁니다. (79-304, 1975.9.21) p.1914

그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계의 자녀들이 천명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을 가지고 그 왕권으로 치리하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한번 형성되면 영원한 국가체제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 자신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못 됐다는 사실이 원통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나 자신이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를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 불변의 주권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탄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72-292, 1974.9.1) p.1914

하나님의 이상국가 실현, 즉 조국광복은 어디서부터 실현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상을 가진 개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사랑으로 국경을 허물고 모든 환경과 문화적인 담을 넘어 원수까지도 품자는 운동을 제시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빨간 꽃씨에서는 빨간 꽃이 핍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갚는 사탄 악마의 씨를 뿌리면 원수를 갚는 악의 나무가 자라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선의 씨를 뿌리면 원수를 사랑하는 선의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107-18, 1980.2.21) p.1914

본연의 땅은 어떤 곳이냐? 악이 깃드는 곳이 아니요, 악과 절연하고 넘쳐흐르는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영원한 통일세계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생활한 사람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추구했지만 그러한 세계는 이 땅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라고 말을 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몸소 실천해서 그런 세계를 이룬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18-102, 1967.5.28) p.1914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민족, 혹은 오색인종이 만든 문화권의 세계를 전부 타파해 버리고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주의적인 가정제도, 하나님주의적인 사회제도, 하나님주의적인 국가제도, 하나님주의적인 내용을 갖춘 이상세계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주의가 타락하지 않는 완성한 아담주의입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아담주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주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의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찾아나가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주의 자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주의라는 것은 변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서 선진국가라 하지만 앞으로 돈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어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런 실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돈 때문에 별의별 모략 중상이 벌어지고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은 특권주의적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21-156, 1968.11.17) p.1915

남북이 갈라지고 남북의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 것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동서의 문화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인종차별, 문화의 차별을 없애고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겠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주 판도 위에 세워 놓으면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함성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이 사랑 보따리에 하나로 싸여질 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도 이 보따리에 싸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천주통일이라는 말이 가당한 말입니다. (195-122, 1989.11.5) p.1915

하나님이 확실히 있는 것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세계 인류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이 지구성을 당신이 사랑하는 국토로 만들고, 이 국토와 백성을 합해서 하나의 주권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상세계입니다. (56-192, 1972.5.14) p.1915

사람은 누구나 자기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소망에 찬 의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이상향을 그리고 생활로 의의 법도를 세우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으니 그 나라를 찾아 이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이상의 나라, 통일의 나라입니다. 만민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도 협조하고, 민족도, 세계도 다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을 통일할 수 있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213, 1967.6.8) p.1915

보통 세계주의라 하면 민족과 국가를 무시하고 온 세계를 하나의 국가, 온 인류를 동포로 본다는 뜻에서 그치지만, 통일교회에서 부르짖는 세계주의는 가정에서부터 그 벽을 초월합니다. 부모되시는 한 분의 하나님과 혈육의 친형제나 다름없는 온 인류가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는 세계주의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세계주의입니까? (98-254, 1978.8.3) p.1915

Top

㉯ 새로운 조국의 정초석을 놓자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화, 그 무엇 가지고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세계나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바랄 수 없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계문화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심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온 인류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곳을 지향하는가를 알게 될 때 그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요, 이상의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56-131, 1972.5.14) p.191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 통일교회가 다른 것이 이겁니다. 통일교회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라도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도 버려야 합니다. 또, 하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계까지 버리자 이겁니다. 더 멀고 큰 것을 위해 나의 가깝고 작은 것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 통일교회의 주류사상입니다. (100-80, 1978.10.8) p.1916

여러분은 민족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세계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종교는 세계주의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좋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는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까지 좋게 하자는 주의와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는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인간도 좋아하는 주의가 좋아요, 주인을 빼 버리고 종들끼리만 좋아하는 주의가 좋아요? 종교는 하나님까지도 좋게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41-44, 1971.2.12) p.1916

최후에 남을 사상이 무엇이냐? 세계를 위해서는 자기나라나 백성보다도 세계를 더 사랑하는 운동,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운동만이 최후에 남을 수 있는 주의가 될 것이고, 사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초민족적인 운동을 세계적으로 제시하고, 초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를 혹은 세계인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모색하느냐 하는 주의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53-24, 1972.2.4) p.1916

앞으로 이 세계를 이어받을 주의 사상은 자기국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를 구하겠다고 하는 주의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나라, 그런 새로운 운동을 중심삼은 국가와 국민이 등장하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현현할 것입니다. 나라를 넘어서지 못한 국가관, 역사관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인계 받을 수 없습니다. (51-44, 1971.11.4) p.1916

황인종은 맏아들이요, 흑인종은 둘째 아들이요, 백인종이 셋째 아들인데, 이들이 싸우는 것을 한국이 통일사상을 통해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주로 한 이상적 조국이 창건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 승리의 세계로 수습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상에 천국을 형성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천상천국의 주체되시는 하나님을 지상에 모시고 통일된 하나의 천국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신도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반 밑에서 비로소 부모와 하나됨으로써 평화의 천국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79-83, 1975.6.1) p.1917

통일교회는 도대체 뭐냐? 우익을 안고 좌익을 안고 이것을 서로 붙들고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투쟁의 세계를 넘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행복의 세계로, 유토피아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고 평면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체제에 의해서 몰락하고 실패했던 것을 통일교회가 사상적으로 전부 수습할 수 있는 논리 체제를 갖춤과 동시에 이것을 품고 횡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체험의 기반을 중심삼은 초월적 실체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의 인본주의나 물본주의,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신본주의도 체계적으로 이론화시켜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짐과 동시에 종적인 면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체험의 종교사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62-102, 1987.3.30) p.1917

여러분이 바라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나라는 어차피 작별을 고해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나라와 인연이 있다면 죄악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결부될 수 있는 선의 인연을 본래부터 맺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7-217, 1970.12.27) p.191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라가 없으면 국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편성해서 새로 입적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 하늘나라를 편성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애국애족하는 참되고 선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승리적 아들딸로서 자기의 족속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다 가야 천상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58-145, 1972.5.22) p.1917

나라가 있어야 비로소 천추만대의 우리 후손 앞에 고이 남겨 줄 수 있는 전통도 남는 것이요, 우리가 피땀 흘린 모든 노력도 남는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할 수 있는 기념탑이 이 땅 위에 생기는 것이요, 모든 영광의 흔적이 이 땅 위에 남을 수 있는 것이지, 나라가 없으면 다 허사가 됩니다. 오늘 세계 기독교에 남겨진 십자가라든지 모든 문물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나라가 없게 될 때는 전부 강에 띄워야 되고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농락에 쓰러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55-339, 1972.5.9) p.1917

참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 없이는 못 받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은 한 사람이라도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탄세계의 사탄나라보다 나은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대신 받지, 직접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참부모님의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남아 있고 사탄나라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올라가야 합니다. (90-116, 1976.10.21) p.1918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상적인 주체성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체적인 사상은 절대적인 창조주의 사상과 일치되는 사상이어야 합니다. 절대자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고 그 나라 국민이 일치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성을 갖추고 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49-93, 1971.10.9) p.1918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고, 국토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대신한 것이 부모이며, 백성을 대신한 것이 아들딸이고, 국토를 대신한 것이 나라입니다. 이 중의 어느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35-279, 1970.10.25) p.1918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무엇이냐? 근원적인 하나님과 인연 맺는 것입니다.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깊이 잠든 다음에 하나님과 인연 맺어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권자는 백성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백성과 하나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번영하는 것입니다. (30-88, 1970.3.17) p.1918

아무리 큰 국가라 하더라도 사람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국가는 사람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인(天地人)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26-183, 1969.10.25) p.1918

내가 가고 오는 것도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조국광복을 위한 건국의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혹은 하늘의 밀사로서 지령을 받아 오늘날 악한 세상에 와서 이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50-254, 1971.11.7) p.1918

Top

제 13 권

참하나님의 조국광복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차 례

제 1 장 참하나님의 조국광복

1) 참하나님이 소망하는 조국 · 1923
2) 우리의 조국을 찾아가야 한다 · 1925
3) 조국광복의 기수 · 1929
4)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군 · 1931
5) 조국광복은 참사랑으로 · 1933
6) 조국광복을 위해 가져야 할 신념과 자세 · · · · · · · · · · · · · · · · · 1936

제 2 장 가정교회는 섭리의 내적 기반

1)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 1938
2) 가정교회 활동의 시초 · 1942
3) 가정교회 활동 전개 · 1945
4) 360 호 가정교회 완성 · 1951

제 3 장 통반격파 운동을 왜 해야 하나

1) 통반격파 운동을 다시 하는 이유 · 1955
2) 승패의 마지막 보루는 통·반 · 1958
3) 남북통일 방안도 통반격파 운동 · 1962
4) 통반격파는 가정 중심삼고 해야 · 1966
5) 통반격파 활동의 조직 확대 · 1971
6) 통일운동과 여성의 역할 · 1984

제 4 장 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하라

1) 지금은 동서남북 통일의 시대 · 1988
2) 종족적 메시아 선포의 의의 · 1994
3)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준 이유 · 1995
4) 참된 심정을 본향 땅에 심자 · 2001
5)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 2003

제 5 장 재출발을 위한 우리의 자세

1) 재출발의 결심 · 2010
2) 참부모님의 전통 상속의 자세 · 2011
3) 참사랑을 심자 · 2015
4) 사랑의 뿌리를 고향에 내려라 · 2018
5) 영계의 협조와 확신 · 2019
6) 우리의 본향과 천국 입적의 길 · 2024

제 6 장 참부모가 전수하는 세계와 남북통일 교본

1) 세계와 남북통일은 참사랑으로 · 2032
2)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 · 2041
3) 참사랑은 누구나 원한다 · 2048
4) 종말시대 인류와 미국(세계)이 나아갈 길 · · · · · · · · · · · · · · · · · 2055
5)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가야 할 생애노정 · · · · · · · · · · · · · · · · · 2063

[텍스트 입력]

제 1 장
참하나님의 조국광복

1) 참하나님이 소망하는 조국

예수님도 참하나님의 조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오셨고, 선지선열들도 그 조국 건설의 역군들이었습니다. 천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완성된 남성이 와야 합니다. 하늘 땅이 공인하는 남성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번식하고 종족, 민족,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기준으로 탕감하고 접붙여서 이 세계를 하나님 주관의 조국으로 창건해야 합니다. 선지선열들이 이것을 바라고 나왔지만, 소망하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이어지는 지상천국을 건설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가던 길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15-278, 1965.10.30) p.1923

본래 인간시조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담가정에서의 아담은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족장이 되는 동시에 민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대표자가 되어 아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아담주의 하나로 통일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시시껄렁한 주의들은 집어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한 주의들이 나와서 세계를 교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주의를 뿌리째 전부 뽑아버려야 합니다. 주의도 아담주의, 언어도 아담언어, 문화도 아담문화, 전통도 아담전통, 생활방식도 아담생활방식, 제도도 아담제도. 모든 것이 아담국가의 이념 제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는 하나님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의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하니 하나님주의라는 것입니다. (20-123, 1968.5.1) p.1923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경계선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쓰는 말이 둘이예요? 아닙니다. 인종의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무엇이냐?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는 전부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딸이니까 다 형제이고, 지상천국을 중심삼고 보면 백성입니다. 지상천국의 국민이라는 겁니다. 백성이라는 겁니다. (66-281, 1973.5.16) p.1923

우리의 목표는 통일세계,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의 주권,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토, 하나의 문화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으로 하나의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심정권을 이루어 이상적인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697, 1983. 4. 3) p.1924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의 인종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악의 투쟁도 거기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 각 국마다 국경이 있습니다. 흑백의 인종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지간에 전부 다 분열이 벌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정세를 두고 볼 때, 오시는 주님은 국경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인종문제를 초월해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열된 가정을 전부 다 통일해야 되고, 선악이 싸우는 이 세계에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53-72, 1972.2.9) p.1924

그러면 본향땅과 본향의 조국은 어디냐, 조국은 어떻게 되느냐? 조국은 물론 어떤 특정한 한 국가적인 기준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찾아 나오는 인류의 조국은 어디냐 하면 이 지구성입니다. 이 지구성입니다. 이 지구가 인류가 소망하는 조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는 인류의 조국이라는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역대의 우리 선조들이 희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이 소망으로서 하늘 앞에 호소하면서 간 것이 무엇이냐? '소망의 조국의 한 때가 어서 오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한 국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늘 앞에 원수인 대사탄을 심판해 버리고, 악을 제거해 버리고 선만을 위주로 한 평화의 천국을 이 지상에다 이루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의 소원이요, 지금까지 섭리노정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우리 선조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55-321, 1965.11.1) p.1924

조국은 미국도 한국도 아닙니다. 어떠한 곳이든 가정의 편성, 종족의 편성, 민족의 편성이 이루어진 조국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수많은 국가를 밟아 오시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며 찾아 나오셨습니다. 하늘의 충신 열녀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늘을 중심한 국가와 민족, 가정을 재편성하여야 합니다. 조국광복의 해방의 날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창건이 종교인의 사명인데도 나 하나 구원받고자 하는 못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15-280, 1965.10.30) p.1924

통일교인은 개인에서 민족, 국가 기준에까지 닦아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세계 인류와 모든 국가를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광복, 자유?평등?행복의 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을 바라보고 가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조국광복의 과정에 있어서 고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인류는 통일교인을 앞세우고 가야 합니다. 통일교인이 아니면 아니 된다 할 때가 와도 3년은 수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것을 상속받을 때까지 전통을 세우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탕감조건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280, 1965.10.30) p.1925

하나님은 비참한 하나님, 하나님은 고독한 하나님,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슬픈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해방시키기 위한 기수가 되고, 일선 장병이 되고, 피를 흘려도 정통으로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도 한꺼번에 쓰러지겠다고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그 세계를 하나로 수습하기 위하여 가는 용사의 대열이 점점 커지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64-286, 1972.11.12) p.1925

이제는 섭리의 때가 어떤 환경에 왔다는 걸 알겠어요? 하늘나라의 조국이 광복되고, 하나님의 지상천국이 해방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첫째 되는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가정이라든가 자기 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피난민이 되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300-309, 1999.4.11) p.1925

하나의 하나님 주권 하에 하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대행하는 실권자니만큼 땅 위에 조국광복, 세계 통일적인 국가에 세금을 바칠 때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지갑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대로 책임을 해야 되고, 일본은 일본대로 책임을 해야 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책임을 하는데 이 세 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부모의 나라와 형님의 나라입니다. (303-157, 1999.8.17) p.1925

이제부터 강제로라도 언어통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룬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읽는데 번역물을 읽는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천상세계에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천상세계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천년 만년을 탕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고개를 못 넘은 사람은 조국광복을 했다 해도 고향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조국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증이 없습니다. 백성으로 입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303-157, 1999.8.17) p.1925

Top

2) 우리의 조국을 찾아가야 한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앙모합니다.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사랑이 존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높임받을 수 있는 곳이고, 자기 가치를 백 퍼센트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25-284, 1968.12.1) p.1926

만일 지상에서 국가를 복귀하는 일을 자기 생애에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영계에 가더라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통치된 실적을 가지고 영계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래의 창조기준인 것입니다. (40-131, 1971.1.30) p.1926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로서 자유자재로 만민, 혹은 만물세계에 자랑하며 사랑받을 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라없는 자는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불쌍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발판으로 할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55-79, 1972.4.23) p.1926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추만대의 후손들이 길이 찬양할 수 있는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4-193, 1964.10.3) p.1926

그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계의 자녀들이 천명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을 가지고 그 왕권으로 치리하는 그런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형성되면 영원한 국가체제로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 자신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못 됐다는 사실이 원통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나를 갖지 못한 것을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불변의 주권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탄식해야 되겠습니다. (72-292, 1974.9.1) p.1926

주권과 나라와 국토를 세우기 위해서 인류는 주권국가를 세워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백성이 희생됐고, 수많은 나라가 망했고, 수많은 주권들이 교체되어 나온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당한 수많은 사람, 하늘편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뜻을 위해서 희생당한 모든 애혼들은 어느 한 때에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계를 이루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72-292, 1974.9.1) p.1926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을 지상에 보내어 절대적인 하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일을 진행시켜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하나의 국가를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늘의 사람을 보내 그 일을 경영시키고, 추진시키고, 성사시키기 위해 애써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하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30-10, 1974.3.14) p.1927

주권없는 나라의 국민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31~33)'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34-337, 1970.9.20) p.1927

예수님도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못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라의 주권을 세우고 나라를 치리해 가지고, 지상에서부터 천국까지 직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천국가는 대합실입니다. 또, 천국은 혼자서는 못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 가정 단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딸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56-201, 1972.5.14) p.1927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왜 살아남지 못 하는 놀음을 했느냐? 종교를 협조해 줄 수 있는 가정도 없고, 사회도 없고, 나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없는 백성입니다. 나라가 있었더라면 종족이 반대하는 자리에 서더라도 그 나라권 내에 남아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핍박을 받고, 어디 가든지 피를 흘리는 제물의 길을 걸어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가 있고 나라만 있었더라면 '야 이놈들아,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 '예-이' 하게 되었을텐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라없는 백성입니다. (56-159, 1972.5.14) p.1927

나라가 없다면 아무리 좋고 행복한 가정이라도 황마적단이 나와 가지고 모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확실히 모릅니다. 선한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57-260, 1972.5.18) p.1927

나라가 없으면 국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편성을 해서 새로운 입적을 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하늘나라를 편성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애국애족하는 참되고 선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승리적 아들딸로서 자기의 족속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다 가야 천상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58-145, 1972.5.22) p.1927

나라가 있어야 비로소 천추만대의 우리 후손 앞에 고이 남겨 줄 수 있는 전통도 남는 것이요, 우리의 피땀흘린 모든 노력도 남는 것이요, 하늘의 수고를 축하할 수 있는 기념탑이 이 땅 위에 생기는 것이요, 모든 영광의 흔적이 이 땅 위에 남을 수 있는 것이지, 나라가 없게 될 때는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남겨진 십자가라든지 모든 문물도 하늘이 찾고자 하는 나라가 없게 될 때는 전부 다 강에 띄워야 되고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농락에 쓰러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55-339, 1972.5.9) p.1928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상적인 주체성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사상은 절대적인 창조주의 사상과 일치되는 사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자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고 그 나라 국민이 일치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성을 갖추고 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49-93, 1971.10.9) p.1928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무엇이냐? 근원적인 하나님과 인연맺는 것입니다.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깊이 잠든 다음에 하나님과 인연맺어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권자는 백성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백성과 하나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번영하는 것입니다. (30-88, 1970.3.17) p.1928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대신한 것이 부모이며, 백성을 대신한 것이 아들딸이고, 국토를 대신한 것이 나라인 것입니다. 이 중의 어느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35-279, 1970.10.25) p.1928

한 나라를 보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에 천국을 실현한다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만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어디냐? 지구성입니다. (96-15, 1978.1.1) p.1928

내가 가고 오는 것도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조국광복을 위한 건국의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혹은 하늘의 밀사로서 지령을 받아 오늘날 악한 세상에 와서 이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50-255, 1971.11.7) p.1929

자,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녹여 먹던 사탄이가 그냥 순순히 '아이고, 나는 하강이요!' 하며 눈 내리깔고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걸레 짜박지도 버리려면 아까와하지요? 걸레 짜박지도 뒤집어 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버릴 겁니다.

사탄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착같이 싸움을 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맞추어야 됩니다. 통일교회 문선생도 중심에서 어긋나게 될 때에는 꺾여 나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발전 안 한다는 겁니다. (57-276, 1972.6.4) p.1929

통일교인들은 맨발로 나서서 조국을 창건해야 합니다.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언제 먹고, 입고, 타고 다니는 데에 정신을 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맨발로 맨손으로 개척해 나가자,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통일교회입니다. (14-201, 1960.10.2) p.1929

Top

3) 조국광복의 기수

여러분들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삼천리 반도에 새로운 기수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서게 될 때, 대한민국은 우리 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채나는 눈빛을 가졌다면 그 눈빛은 영광된 조국을 직시하는 눈빛으로 화해야 됩니다. 재능과 힘이 있다면 이것을 조국광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용사가 되어 여러분 자체가 당당한 모습으로 조국광복을 위한 성별된 책임자를 대신한다는 신념을 느끼면서 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국을 세우고, 조국을 빛내고, 조국과 더불어 살고, 조국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늘 앞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했고, 한 때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엄숙한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듣고 열 가지를 생각하고, 한 번 들은 것을 가지고 열 가지 이상과 비교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운세를 여기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천 번을 망신당한다 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또는 백 번의 죽음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가겠다는 신념을 갖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걸어나온 생활 속에서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하나의 주체적인 사명자로서 자기가 맡은 한 도면 도, 일개 부락이면 부락에서 이 책임을 수행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명에 부합될 수 있는 책임을 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책임의 뒤안길에 있어 가지고는 이 길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도 해야 되고, 먹지 못 해도 해야 되고, 쫓기면서도 해야 되고, 죽더라도 결정을 내리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정적인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새로이 결심하고 나서게 될 때, 여러분의 갈 길은 당연히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을 내세워서 믿고 바라본 희망의 세계, 광명의 세계가 도리어 어둠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29-50, 1970.2.16) p.1930

인연되었던 역사와 더불어, 인연되었던 사정과 더불어 느끼기 어려운 눈물어린 심정을 느낄 적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붙안고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광복과 세계 해방의 터전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결정짓기 위해 싸움터를 향해 힘차게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의 조국을 찾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36-200, 1970.11.29) p.1930

여러분이 사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다 망하게 되는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곳에 들어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서 희생한다면, 민족을 단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계사적인 폭발적인 힘의 원천이 거기서 솟아날 것입니다. '가자, 죽여라!'고 다짐할 수 있는 사나이의 발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길이 아니고는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거든 그 길을 통해서라도 뜻을 이루고 가겠다고, 절개비를 거기에 세우고 가겠다는 하늘의 아들이 있다 할진대는, 하나님의 가슴과 뼈와 살을 한꺼번에 녹여 낼 수 있는 아들이 아니겠느냐, 조국광복의 전통적 사상은 거기에서부터 싹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49-110, 1971.10.9) p.1930

그 자리를 같이 가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같이 넘나들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희망의 조국은 그런 사람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사에 없었던 조국을 맞이하는 첫 기수가 되고 조국광복의 건국의 용사들로 등장하게 될 때는 천년만년 찬양의 무리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49-112, 1971.10.9) p.1930

오늘날 통일교회의 무리들은 김일성을 중심삼고 북한 공산당의 골수분자들이 하나되는 것보다도, 선생님을 중심삼고 더 강하게 완전히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새로운 조국광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50-215, 1971.11.7) p.1930

여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축복받은 가정의 여자들을 전부 일선으로 내몰았습니다. 미리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본부국가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여러분의 선배가정들은 전부 다 일선에 나섰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널려있는 모든 무니 여자들은 그걸 따라서 일선을 향해 출정할지어다! 아멘. (170-241, 1987.11.21) p.1931

Top

4)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군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조국광복의 한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백성에게는 8?15 를 광복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방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2 차 대전 이후 수많은 약소 민족들이 자기 일개 국가를 중심삼고 광복과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주로 하여 천지의 광복의 날과 독립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것이냐? 생각해 봤어요? 그 날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155-223, 1965.10.30) p.1931

왜정 말기에는 조국광복을 위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지하운동을 하며 일본과 투쟁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피를 토하는 자리에서, 숨이 막혀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본제국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북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처넣고 몰아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감옥가면 하나님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166-159, 1987.6.5) p.1931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세를 어떻게 하든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인류요, 인류를 이끌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므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지상에 존재하는 인류와 나라들은 어차피 한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통을 그냥 그대로 지니고는 참된 이상의 조국, 하나님이 그리는 조국의 광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72-9, 1988.1.3) p.1931

하나님의 조국광복이 우리 눈앞에 찾아온다는 시점에 있다 할 때, 오늘날 한국 강토가 하나님의 조국광복의 기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한국 민족이 잠을 자겠어요? 밥 먹고 놀겠어요? 제멋대로 하겠어요? 하지 말래도 불철주야 생명을 투입할 것입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 여편네는 물론, 자기 전체와 남한 전체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성사키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감을 갖는 대한민국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통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172-41, 1988.1.3) p.1931

그 기지가 어디냐? 반입니다. 그 반이 '개인 앞에 `너 조국광복을 했느냐?' 할 때, '그렇다. 난 하나님이 사랑하던 본연의 조국, 우리 조상이 사랑하던 조국 위에 섰다. 역대 우리 조상들이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그 자리에 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조국을 위한 부활체요, 조국광복을 바라는 소망의 부모들과 역대 조상들의 부활체요, 조국광복을 바라는 세계 만민을 축소한 부활체로서 나는 섰노라!'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173-184, 1988.2.14) p.1932

지금까지 통일교회는 집을 하나 안 지었습니다. 내가 빌딩을 지을 수 있었는데도 왜 안 하느냐?
우리 교회본부를 여의도에 짓겠다고 할 때에 정부가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본당을 짓지 못한 통일교회에서 지방교회를 지어요? 조국광복을 위하고 만민복귀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을 모실 전당을 지어 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통일가들이 자리를 잡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4-172, 1988.2.28) p.1932

그래서 부모의 날로부터, 그 날들이 조국의 광복을 공포해야 되고, 만국천하의 전통적 출발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건 사탄의 밥입니다. 그러면 이걸 일으켜 가지고 한 사람이 누구냐? 사탄이건 누구나건 전부 다 '문총재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 재림주 나라, 사랑의 구세주 나라, 하늘나라의 생명을 중심한 사랑의 중심존재, 하늘나라의 생명을 지닌 중심존재로,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에 참감람나무로 등장해서 비로소 이 통일교회 무리들을 가눌 수 있는 통일교회가 생겨났으니 이들을 중심삼고 전부 다 기성교회 사상을 잘라 버리고 접붙이는 놀음을 해 나온 겁니다. 접 안 붙이겠다고 야단이고, 자른다고 야단이지요? 잘라 버리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191-263, 1989.6.25) p.1932

오늘날 일본사람들은 복수를 하는 데는 자기 어미 하나, 형제 하나 죽였다고 해서 일생 동안 생명을 걸고 복수합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 조국광복을 위한 복귀섭리 노정에서 이런 참사를 당한 것을 아는 왕의 비통함, 백성의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된 이 인류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을 보는 하나님은 더 더욱 비통하다는 겁니다. (200-68, 1990.2.23) p.1932

하나님 것인데 거짓 사랑으로 전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데는 그냥 못 돌아갑니다. 탕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놀음을 누가 해야 되느냐? 수천 년 동안 종교를 통해서 해 봤는데 미국 기독교가 한국을 아담 나라로 보호하고 영국과 불란서와 일본과 독일 이태리까지 합해 가지고 조국광복을 시켜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를 창건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복종해 가지고 전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됩니다. (200-301, 1990.2.26) p.1932

어머님이 가는 길이 선생님같이 어려워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버님이 갈 길은 남자들이 반대해도 어려움이 없지만, 어머님이 갈 길은 반대하는 여자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걸 내가 해원성사하기 위해서도 어머니 가는 길은 여자라는 종자들을 전부 다 후원하고 자기를 밟고 어서 어서 조국광복과 천지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을 가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222-279, 1991.11.3) p.193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기의 식구들은 전부 다 나라를 버리고 왔습니다. 자기 조국을 버리고 왔습니다. 왜? 본연의 하나님이 원하는 조국 강토를 위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말 안 들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독단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는 사람입니다. 허풍선이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끝내고 온 것입니다. (233-329, 1992.8.2) p.1933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영계에 간 사람도 조국광복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상이 들어와 가지고 통일교회에 안 가면 약 주고 병 주는 놀음이 벌어집니다. 문총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선조들이, 천사세계와 선조가 하나되어 가지고 지상을 전부 코너에 모는 겁니다. 가정 문제를 중심삼고 코너에서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총재만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이 민족이 희망봉으로서 그 나라의, 조국의 기반으로서 환영하게 될 때는 천하에 무적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290-172, 1998.2.18) p.1933

Top

5) 조국광복은 참사랑으로

하늘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조국광복에 있어서 독립군으로 출전하였던 여자들이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역사를 두고 얼마나 찬양하겠어요? 타락한 해와 하나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얼마나 저주받아 왔어요? 그러나 이제 복귀시대에 있어서 여자들이 선두에 서서 조국광복을 하는데 있어서 승리적 기반을 닦았다면, 그게 얼마나 찬양받을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총칼로 이길래요, 뭘로 이길래요? 여자가 나타나면 사탄 남자 병사들이 여자의 참사랑을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여왕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김일성은 악한 왕이고, 여러분은 선한 여왕이기 때문에 자기나라의 모든 권한을 전부 갖다가 악한 왕에게 말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170-241, 1987.11.21) p.1933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돈이나 권력, 지식 등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을 설계하여 짓기 위해서는 벽돌도 필요하고, 문짝도 필요하고,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완성시키는 종합적인 완성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은 돈 많은 것, 학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143-273.3.20) p.1934

앞으로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도덕 문제를 전부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타락 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타락 원리 없이는 인간 문제가 시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이 하늘을 배반하고 역사를 끌어 나온 최후의 절망적 종말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파탄,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역사가 풀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풀어지지 않으면 역사를 청산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代案)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창조와 이상 대안을 중심삼고 우리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자, 참사랑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타적인 겁니다. 사랑 상대를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는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219-266, 1991.10.11) p.1934

미국 여자들은 선한 여왕 같습니다. 현대의 모든 미국 가정에 있어서 여자들은 여왕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미국 여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보석도 많고 힘도 셉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머니즉, 마니(money)는 한국말로는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보석이니 집이니, 미국 땅의 절반을 김일성 어깨에 메어주면 주저앉을 것입니다. 미국의 절반만 얹어 놓으면 주저앉을 것입니다. 주저 앉겠지요? 지금 그들은 배가 고파 죽어 가고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비참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후원하면 휙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선에 미국 여자들이 나서서 '우리 싸우지 말자. 배고프지? 먹을 것 보내 줄께. 차도 보내 줄께. 원하는 것 다 보내 줄께' 이러면서 자꾸 보내줘 보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자들이 갖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김일성에게 주면 김일성이 싸우자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중공을 통해서 앞으로 먹을 것도 보내 주고 입을 것도 보내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같이 잘 살게 해주고 잘 먹여 주면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무니들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고생하고 굶으면서 이북 사람에 대해 희생적으로 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쪽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때, 총칼로 무니들을 죽일 것 같아요? (170-241, 1987.11.21) p.1934

인류는 전부가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겁니다. 참사랑으로 전부 다 관계된 하나의 가족입니다. 오늘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 가족이 같이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기도 있고,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도장은 세계 대우주 가정을 연결시키기 위한 시범 교육장입니다.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관계되어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자기 형님, 자기, 이와 같은 한 가정에서 훈련된 네 종류의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훈련하는 것이 세계 가정에 접붙이기 위한 길입니다. 세계 가정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가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귀원리입니다. 재창조 원리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되면 더 큰 대상을 찾아 가지고 대응적인 상대관계를 중심삼고 주체와 대상이 되어 하나되어야 됩니다. 이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대가족화시대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중심삼고 훈련된 것을 자기 가정보다도 더 크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면, 더 사랑하면 어떤 곳에서든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보다 종족이 크니까 종족을 사랑하고, 종족보다 민족이 크니까 종족을 사랑하던 이상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보다 국가가 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이상 국가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큰 분야에 해당하는 도리를 따라 가지고 더 투입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가지고 세계로 올라갈 때에는 나라에 대해서 들이던 정성 이상 정성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투입하는 데에는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이 여기 우루과이에 왔다 할 때는 땅 끝에서 땅 끝에 왔으니까 자기나라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가정보다도, 자기나라보다도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꿈에도 통일이 됩니다. 국경이 없어집니다. 국경이 없어집니다. 이제 지구성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통일조국화시대가 되느니만큼 이와 같은 사상만 가지면 어디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 통일화 시대고, 둘째는 인류 대가족화 시대입니다. 이거 전부 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한다는 것입니다. (289-208, 1998.1.2) p.1935

세계도 조국 광복과 더불어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을 중심삼고 민족이 단결한 세계와 국가 형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문화지요? 그게 뭐냐 하면 참사랑 문화입니다. 태어나기를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태어난 것이 자기를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사랑을 전적으로 전부 다 품을 수 없습니다. 저쪽 끝까지 완전히 품으려니까 무한히 주고,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 세계에서는 월급을 받아먹고 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부를 중심삼고 총탕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시대에 있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 우주 창조의 원칙입니다. 사랑 때문에 신앙도 필요하고, 복종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은 우주적 하나님까지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투입하고 잊어버리시니 나도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신앙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백 번 죽더라도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찾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죽음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랑을 복귀할 수 없습니다. (296-50, 1998.10.11) p.1936

[텍스트 입력]

Top

6) 조국광복을 위해 가져야 할 신념과 자세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느냐? 조국광복을 위한 신념이 무엇보다도 더 높이 가슴 속에 불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6 천년 동안 하나님이 고대하던 조국을 건설하는 기수가 되고, 선봉에 선 정예부대의 한 일원으로서 개척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사명을 책임진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소망하였지만 가지려야 가질 수 없었던, 하나밖에 없고 이 한 때밖에 없는 특권적인 사명을 짊어졌다는 엄숙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가고 오는 모든 생활 전체가 조국창건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파송받은 밀사로서 늠름하고 멋지게 이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하며 나서 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지리도 몰리고 지지리도 쫓겨다녔습니다.

국가의 발판을 갖추어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제시하여 한번도 펼쳐 보지 못한 하늘의 그 뜻, 조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뜻을 한번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조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조국에는 주권이 있고, 그 조국에는 국토가 있고, 그 조국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단일민족의 혈통이 인연되어 있고,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밀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자기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해 내면 해낼수록 조국광복의 터전이 자기로 말미암아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조국광복의 한날을 가까이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살아서 밀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세계사적인 축복과 천운을 우리의 것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29-40, 1970.2.16) p.1936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서 살아왔다. 세계 도처에서 몰리고 쫓기더라도 망하지 않고 반드시 복권하는 날을 보고야 죽겠다. 우리가 못 이루고 죽어도 너희들은 그 날을 보고 죽어라!' 하고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상입니다. (18-231, 1967.6.11) p.1937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야 되겠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국을 광복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국을 광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책임 수행을 앞에 놓고 냉철히 비판해 보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들이 엮어온 생활태도는 어떤 의미의 생활이었는가를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9-35, 1970.2.16) p.1937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밀사의 대왕이십니다. 조국광복을 위하여 사탄세계에 나타나는 밀사의 대왕이요,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6 천년 동안에 한번이라도 주장한 때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맑은 양심을 통해 지시하고 인연맺기 위해 수고해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을 넓혀 가지고 일치화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로 끌고 나온 것이 6 천년 복귀섭리역사입니다. (29-48, 1970.2.16) p.1937

Top

제 2 장

가정교회는 섭리의 내적 기반

1)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홈처치라는 말을 들어 봤어요? 가정교회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교회라는 것이, 옛날에는 아무리 가정교회라는 명사를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탕감 조건이 역사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과 역사를 대표한 책임자와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무리 홈처치에 들어가 '이것을 세계 제단으로 완결지어 바칩니다.' 해도 받아 줄 수 없었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114, 1978.10.9) p.1938

지금 전 세계 통일교회에서 가정교회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개인 복귀로부터 세계 복귀까지 선생님처럼 일생을 희생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생님이 닦은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닦아 놓은 길을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360 호를 중심한 가정교회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금년부터 가정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한 운명적인 길이요, 살아서 못하면 죽어서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개인으로부터 종족, 민족이 하늘 백성으로 편성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이 모든 역사의 모든 결실을 종합해서 하나의 승리적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나온 것이 가정교회 활동인 것입니다. 내 아들딸보다도 360 집의 가인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 천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이 길을 닦아 왔지만 우리는 7 년 동안 360 집을 중심삼고 활동을 하여 승리의 조건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교회 기반이 여러분의 목전에 있으니 여러분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이 세계를 대표한 하나님의 이상적 완성이요, 오늘날 인류가 해야할 일로서 등장될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될 때, 틀림없이 지상천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가정교회란 360 호를 중심한 제단을 설정하고 그 가정교회 제단에 속한 세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드리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360 호를 중심한 가정교회를 실천 완성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면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백여 국가의 모든 탕감조건을 전부 다 세워 가지고 하늘 땅에 막힌 담을 심정적 기준으로 연결시켰으니 여러분 자신들도 그러한 세계를 축소한 형을 중심삼고 탕감조건을 세워서 현 시점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 담벽이 막히지 않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홈처치(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105-270, 1979.10.26) p.1939

선생님은 지금까지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전세계의 인류 앞에 만민들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 하나님에게까지 갈 수 있는 탕감조건을 대표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워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이름으로 그것을 백 퍼센트 상속받아서 여러분이 7 년 노정을 거쳐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일생 동안 세계무대를 이룩한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계무대를 축소시킨 발판, 제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홈처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알겠어요? (109-184, 1980.11.1)

통일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교회라는 주제를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나, 인간 전체 앞에 지극히 중요한 일이란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승리했는데 여러분은 조그마한 360 집을 중심삼은 가정교회에서 승리하지 못하겠는가?

여러분이 가정교회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진리의 교육과 사랑의 교육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레버런 문은 세계의 탕감기반을 중심삼고 각 국 나라에서 피땀 흘리는 투쟁 가운데에서 승리의 발판을 세워 놓는 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통해 승리의 그 모든 것을 상속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 무대에는 가지 않더라도 세계로 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성사했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구요? 가정교회입니다. (109-184, 1980.11.1) p.1939

그 곳이 만국의 해방된 가정의 출발 지점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인 아담과 해와의 이상적인 참사랑과 참생명의 출발이 선포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찾으러 왔지요? 홈처치 알지요? 가인 일족, 아벨 일족이

[텍스트 입력]

하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요셉의 지파와 세례 요한의 지파가 하나되어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정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족적 메시아 앞, 예수님 앞에 모든 일족이 품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패했던 가정 본연의 기준이 타락하지 않은 기준으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235-111, 1992.8.29) p.1940

가정교회 완성은 뭐냐? 새로운 문화창건을 주도하는, 아담문화를 재편성할 수 있는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심이냐? 심정적 기준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심정은 무슨 심정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마음 속에 '나는 타락했다. 복귀된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타락했다는 관념을 느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 놈의 자식, 저거 통일교회 들어가 가지고 지지리 못나게 저 모양으로 다니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새끼, 뱀장어 새끼 모양으로…'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0-54, 1980.11.8) p.1940

세계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화한 천국기반이 안 됐으니, 가정교회 조직을 통해서 선생님이 40년 동안 모든 탕감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소유 결정적 권한을 완전히 편성해 가지고 승리했다는 인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증하고 하나님이 공증한 입장에서 '승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결정을 봐 가지고야, 사랑의 승리의 소유 결정권을 사랑하는 부모는 여러분 앞에 전부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게 참부모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37-207, 1986.1.3) p.1940

여러분들 홈처치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한테 욕먹으라는 겁니다. 천대받으라는 겁니다. 천대받을 적마다, 자기 천대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대받고 욕먹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여편네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아들딸을 붙들고, 처자를 붙들고 하염없는 눈물을 밤을 새워 가면서 흘려야 됩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반대할 수 있어?'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모든 비통한 사람들보다도 더 간곡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 눈물 흘리는 자리에 서야만 이것이 골짜기가 되어 가지고 그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동정해 가지고 하나로 엉켜 나오는 겁니다. (181-286.1988.10.3) p.1940

내가 통일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일교회에 남겨 준 보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내가 일생 동안 희생길을 가서 남겨 준 보물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한테 남겨 줄 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은 뭐냐? 통일교회의 권한을 하늘 땅으로부터, 혹은 사탄과 하나님으로부터 당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보물입니다. 그럼 가정교회가 완성될 때는 통일교회라는 명사가 있을지어다, 없을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을지어다, 없을지어다? 나 외의 가정교회 미완성권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체로 이루어진 가정교회권 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든, 종교든 없습니다. 거기는 천국인이 살 곳입니다. (108-334, 1980.10.19) p.1940

여러분은 이제 부모 대신 일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신 일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한 놀음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세계적 무대에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전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한 제단과 같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제사해 가지고 연결시켰던 모든 것을 축소시킨 하나의 제단, 세계 전체 인류를 대표한 확대된 그것을 축소시킨 제단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활동적 탕감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115-82, 1981.11.4) p.1941

탕감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텐데 그냥은 발판이 없습니다. 제단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적 제단을 꾸며 가지고 승리한 이 모든 제단에서 제물을 옮겨 놓으려면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가꾸고서야 제물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물을 옮겨 놓은 것이 뭐냐 하면 가정교회라 하느니라. 아시겠어요? 가정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이, 아담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시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넘고 돌아와야 됩니다. 세계에 가서 탕감 조건을 거쳐 이 놀음 하는 건데, 그걸 축소한 겁니다. 이것이 축소해서 선생님 복을 인수할 수 있는 제단입니다. 제물은 제단을 쌓고 큰 제단에서 작을 제단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은 피 흘리는 것입니다. 홈처치가 뭐예요? 아직까지 처치라는 것은 제단을 쌓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쌓은 제단을 이어받기 위한 조그만 제단으로서 세계사적인 고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선생님은 얼마나 고생했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생했나요? 이 모든 수고와 고생으로 인해 승리의 제단을 갖고 온 것을 여러분들이 인계받으려니 여러분들도 제단 쌓아 가지고 인수인계하기 위한 것이 홈처치입니다. (122-119, 1982.11.1)

가정교회는 어디서부터? 겟세마네 십자가의 절정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골고다 산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그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때, 동정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수 많은 사람들이 동정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가지고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도망가는 베드로가 아니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할 수 있는 무리를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가졌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탕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03-214, 1979.2.25) p.1941

여기 와 가지고는 전부 다 선생님만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해 놓고 자기는 '뭐 홈처치는 싫다. 선생님 가는 데만 가겠다.'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암만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아버지의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인수할 수 있나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암만 황태자로 태어났더라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배워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이젠 인류역사 최후의 노정에 부모님 말을 하나 들으면 하나님이 '너는 효자였다.' 하는 인을 쳐 가지고 하늘나라의 효자로 천국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뭐라구요? 가정교회라는 기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효자로 가고 싶어요, 망나니로 가고 싶어요? 효자 효녀로 가고 싶지요? 홈처치를 통하지 않고는 효자 효녀의 인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국은 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이라도 불망나니는 못 들어갑니다. 효자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효자의 이름을 인침받기 위한 그것이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122-84, 1982.11.1) p.1942

통일교회 지도체제가 이제는 내가 끌고 갈 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평면적 확대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이상을 지닌 자체 종족을 중심삼고 확대하면 세계는 자연히 복귀되는 겁니다. 그 종족 확대 방법이 뭐냐 하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홈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총결산적 공판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137-207, 1986.1.3) p.1942

Top

2) 가정교회 활동의 시초

1978 년 11 월 12 일을 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메시아의 자격자로서 홈처치 구역에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나가겠다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럼 이제부터는 거기로 나가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만들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101-340, 1978.11.12) p.1942

예수님은 죽어서 승천할 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지만, 레버런 문은 살아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족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겁니다. 개인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의 메시아, 이것이 공론(空論)이 아닙니다. 땅에서 되는 그냥 그대로 영계에서도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다이아몬드 광과 같은 것에서, 누가 이 광구(鑛口)에서 많이 파먹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주 다이아몬드 광을 통일교회 교인들이 뚫는 겁니다. 홈처치로 뚫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많이 뚫느냐는 것입니다. (102-217, 1978.12.31) p.1942

지금까지 종교는 나 하나만 구원받겠다고 한 겁니다. 나 하나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개인구원을 표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종족 구원을 일시에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종족이 구원받고, 그 360 호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종교 역사상에도 없었고 인류 역사상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종교가 언제 결혼하라고 가르치고, 종교가 언제 부모와 같이 살라고 가르쳐 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준 법이 어디 있어요? 처음 나온 겁니다. 가정교회란 것은 같은 운명에 있다는 겁니다. 같이 흥할 수 있는, 전체 구원기반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굉장한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세계적인 3 단계가 가정교회로 말미암아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102-217, 1978.12.31) p.1943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이 가정교회의 기반인 360 집을 나눠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희망의 날이요, 종교가 희망하던 종착점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에서 지금까지 확보해 둔 사탄의 기지가 완전히 격파될 수 있는 출발의 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가정교회를 발표하지 못했다면 역사는 비참한 운명의 역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라는 타이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한한 복입니다. 역사 과정에 수많은 왕이 있었고 수많은 대부호가 있었고, 수많은 학자가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게 다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비록 나는 천한 몸이지만, 비록 무가치한 몸이지만 내 살아생전에 선생님으로부터 홈처치라는 이름을 중심삼고 내가 전수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09-203, 1980.11.1) p.1943

부모를 찾음과 동시에 천사세계도 찾아야 되고, 사탄세계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전부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나 영국에 가서나 전부 다,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은 홈처치, 즉 가정교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정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360 집 전부가 여러분을 메시아와 같이 모실 수 있고 여러분을 참부모와 같이 모실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사실은 전세계를 통해서 사탄이 기반 닦고 반대했던 전부를 승리의 자리에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99-262, 1978.9.25) p.1943

우리 통일교회는 가정교회를 해야 됩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 가인 종족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인 종족을 전부 다 하나 만들고 아벨 종족권을 만들지 않고는 그 종족 기반 위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이 안 생깁니다. 종족적 천국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기반이 생긴 뒤부터는 민족이 연결되는 겁니다. 종족권을 중심삼고 민족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민족을 중심삼고 국가는 종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입니다. (137-178, 1986.1.1) p.1943

일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탄세계에 이미 퍼진 50 억 인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처치(가정교회) 조직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212-14, 1991.1.1) p.1944

하나님도 우주적인 아벨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까운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지고 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딸을 사랑하고 난 후에, 아벨이 장자의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가정교회를 완성시키는 데는 이걸 몰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6-291.1982.1.2) p.1944

'통일신령협회' 할 때 신령한 것이 뭐냐 하면 타락하지 않은 본향의 세계입니다. 통일된 본연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협회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33 년 되지만 앞으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때는 세계기독교가 아니고 종교도 없어집니다. 뭐라고 할까? 가정교회, 가정교회만 남습니다. 참부모를 중심삼은 가정. 요 잎도 잎끼리 가정이지요? 요 잎하고 잎끼리, 세 잎은 세 가족, 다섯 잎은 다섯 가족이고, 이것도 가지의 한 가족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뿌리와 순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중심삼고. 뿌리를 하나님이라 하면, 사람은 싹입니다. 순과 뿌리를 중심삼고 가정조화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나무는 무한히 자라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145-150, 1986.5.1) p.1944

앞으로 통일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비참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레버런 문같이 비참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을 고생시켜 가지고, 고생을 단축시켜서 이런 비참한 운명을 일시에 한 곳에서 세계를 대표해서 넘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선생님의 소원이요, 여러분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의 기준을 필생의 목표요, 섭리의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나타난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홈처치입니다. (108-331, 1980.10.19) p.1944

아담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선생님의 소원을 풀어 줄 수 있는 탕감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홈처치(가정교회) 입니다. (114-255, 1981.10.20) p.1944

살아있는 동안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일생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다 돌파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내 생명을 얼마만큼 연장해 주면 내 있는 힘을 다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할 길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구경꾼과 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처치(가정교회) 하라는 것입니다. 홈처치라는 말이 필생의 좋은 말입니다. (107-52, 1980.1.20) p.1944

세계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조건기반이 뭐냐? 그것이 홈처치(가정교회)입니다. 세계를 대표하여, 360 도를 중심삼고, 방위 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땅에서 360 가정이 동서남북 어디든지 문을 열어 놓고, 나를 환영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고는 저나라에 가서 걸린다는 것입니다. (137-111, 1985.12.24) p.1945

금후에 여기에 방해되는 모든 조직체는 해산시킬 것이고, 전부 다 정지시킬 것입니다. 가정교회 운동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부대적입니다. 부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적 사상을 온 세계의 통일교회와 통일교회를 따르는 모든 사람 앞에 전수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07-127, 1980.4.15) p.1945

Top

3) 가정교회의 활동 전개

① 종족적 메시아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

지금까지 종교라는 것은 개인 구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나왔지만, 통일교회의 구원 목표는 종족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종족이 구원받자는 것입니다. '나 죽어 천국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종족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공의의 티켓을 받읍시다!' 이 운동이 홈처치 운동인 걸 알아야 됩니다. (101-261, 1978.11.1) p.1945

종족적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이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종족적 메시아 못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완성시대에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부모가 잘못한 모든 것을 탕감하고, 신구약의 소생, 장성 모든 것, 역사적인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불살라서 바치기 위한 것이 가정교회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을 완성시켜 승리하면 세계나 천상세계나 어디나 왔다갔다할 수 있는 패스포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2-127, 1982.11.1) p.1945

그래, 임자네 가정들이 아벨가정 노릇을 했어요? 아벨의 책임에 대해서 알지요? 아벨은 가인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가인을 구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 있어서 가정교회가 뭐예요? 가인 종족복귀한 후에 자기 종족복귀하는 역사 아니예요? 그래 임자네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인 종족복귀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가인 종족과 아벨 종족이 하나 못 되면 민족권 내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145-21, 1986.4.30) p.1945

오늘날 통일교회에 있어서는 세계적 탕감, 모든 탕감 판도를 축소해서 현실화시켜 놓은 것이 홈처치입니다. 알겠어요? 홈처치니까 가정교회지요? 이것을 종족교회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종족교회로 발전시켜 가지고…. 한국에는 각 성씨가 많잖아요? 성씨를 연결하면 민족교회가 되는 겁니다. 민족교회가 되고, 국가교회시대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홈처치를 시작했으니 종족권 처치가 벌어지고, 국가권 처치가 벌어져 나가는 겁니다. (142-84, 1986.4.30) p.1946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축복가정으로 서려면 가인 아벨 종족권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가리아가정, 요셉가정을 중심삼고 하나 만들지 못해 가지고 유대 나라와 유대교가 가인 아벨국가 기준을 못 넘어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탕감복귀할 운명이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탕감한 기준에 서야 가정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원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중심삼고 이걸 통합시키라고 했는데 가정교회 열심히 했어요? (181-279, 1988.10.3) p.1946

가정교회가 뭐냐 하면 종족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기반인데, 그 종족적 메시아의 기반은 뭐냐하면, 예수를 중심삼고 볼 때에 요셉가정과 사가리아가정 기반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사가리아가정 때문입니다. 요셉가정을 중심삼고 하나 못 됐지만 사가리아가정 중심삼고도 하나 못 됐다는 것입니다. 사가리아가정 알지요? 세례 요한가정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배가 다르지만 형제입니다. (115-82, 1981.11.4) p.1946

절망의 신음도 웃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을 홈이라고 하고 처치는 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홈처치 운동을 해야 됩니다. (105-339, 1979.10.28) p.1946

여러분은 20 년도 안 걸립니다. 순식간에 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40 개국 대신 동서남북 4 개국을 통하라는 것입니다. 4 개국에 가서 피땀을 흘리는 놀음을 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4 개국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관념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이든 어디든, 될 수 있는 대로 먼 데로, 끝에서 끝으로 동서남북 끝을 거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백인 영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상에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겠어요? 지금까지 왔다 간 선하게 살던 양심적인 영들이 지상에 내려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일족이 인연돼야 됩니다. 그래서 홈처치 시스템(가정교회 조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어떤 영도 자기와 관계된 것, 전문 분야, 경제면 경제 분야 학자를 중심으로 세계 각 나라, 120 개 국가 이상의 영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처치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미국같은 데서는 360 집 가운데 120 국가 이상의 족속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각 나라 가운데에 있는 모든 홈처치를 중심삼고 볼 때,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흑인같은 사람, 영국인같이 교만한 사람, 독일인같이 고집이 센 사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같이 개인주의적인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162-110, 1987.3.30) p.1947

통일교회가 1978 년부터 주장해 나온 것이 전통을 이어받자는 것입니다. 전통은 무슨 전통이냐?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심정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 전통을 세우기 위해 걸어 나온 60 평생의 모든 심정을 여러분들이 인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홈처치요, 그 운동이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가정교회를 안 가지면 앞으로 하늘나라에 갈 때 선생님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정교회가 전세계적으로 한 24 만이 되면 전세계의 인류를 대해 배치하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사람은 앞으로 가정교회를 배치 받을 수 있는 혜택권 내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도처에 가정교회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이동, 민족 대이동을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배치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이제 전세계로 대이동하는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114-163, 1981.10.18) p.1947

원리에 보면 동시성시대에 대한 것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40 수에 대한 것을 다 알 것입니다. 4000 년을 대신해서 400 년, 400 년을 대신해서 40 년, 40 년을 대신해서 40 일, 거기에 일주일이라는 7 수는 복귀섭리의 중심수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걸고 우리가 자기의 생명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탕감조건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40 일씩 3 년을 하면 120 일이 됩니다. 3 년 하면 삼 사 십이(3×4=12), 120 일입니다. 120 일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120 년 간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왕 해서 120 년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한 고개를 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년을 중심삼고 특별히 이 놀음을 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40 일 기간 활동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나가서 활동했지만 지금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홈처치 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167-239, 1987.7.19) p.1947

내가 이번에 지시한 것이 뭐냐? 2 세를 들어 가지고 고향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묶어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가정교회 이념을 대표할 수 있는 2 세를 데리고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 명, 20 명의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하면 살고, 24 시간 그 부락을 쥐고 별의별 짓 다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이젠 문총재를 반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세계가 점점 밀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175-9, 1988.4.6) p.1947

Top

② 심방, 봉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전개

지금까지 다년 간 활동해 나온 홈처치(가정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홈처치 기반은 가인 기반이요, 자기 일족은 아벨 기반입니다. 홈처치 기반에서 눈물과 피땀을 흘린 공적을 가지게 되면 자기 일족은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홈처치를 통해 백명만 전도해서 자기 일족한테 가게 되면 영웅아들 왔다고 그 동네가 하루 저녁에 일시에 돌아옵니다. 싸운 경력을 보고하는 겁니다. 360 집을 전부 다 배당해야 됩니다. (210-337, 1990.12.27) p.1948

지금까지 천대받았던 사람에게 당 책임자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놀던 사람이 거꾸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친척들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360 집, 여편네까지 720 명을 거느려 가지고 자기의 마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살던 720 명 가운데 뭐가 없겠어요? 일족을 거느려 가지고 잔치를 하고, 트럭에 선물을 싣고 가서 나누어주게 되면 하루 저녁에 전부 다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중심삼고 백 사람을 만들 거예요, 천 사람을 만들 거예요, 만 사람을 만들 거예요? 모두 만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면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사고입니다. 눈치를 봐 가면서 남이 먹을 것도 좀 남겨 놓고 해야지, 빨리만 하면 안 됩니다. 다 평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주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237-305, 1992.11.17) p.1948

7 월 3 일부터 9 일까지 선생님이 7 만 3 천 리, 통의 지부장들에게 전부 다 선생님의 사진을 주고 통일교회의 기를 주었지요? 그거 다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선생님이 가정교회를 발표한 지가 14 년이 됩니다. 하늘의 360 집을 찾아라! 찾으라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못 이루었으면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360 집이면 거기에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내무장관도 있을 수 있고, 외무장관도 있을 수 있고, 외교관도 있을 수 있고, 학자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종새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동네를 찾아가면 그 동네 이상의 것이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네 문중의 아무개라는 양반이 우리를 구해 준 구세주입니다' 할 때, 어머니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이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구경하겠어요, 따라서 고개 숙이겠어요? (237-305, 1992.11.17) p.194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전체 통일교회 식구들이 원리책 30 권을 사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주고 받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일주일씩 빌려 주변 삼 사 십이(3×4=12), 120 집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0 집을 중심삼고 그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간곡한 소개 내용을 첨부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앞으로 통반 격파 운동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홈처치 운동을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조원리를 강의할 때는 누구든지 책을 가져와서 창조원리를 듣는 것입니다. 책을 중심삼고 간단히 서론식으로 그 내용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책을 중심삼고 자기들이 강의하는 내용에 맞추어 가면서 전부 다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40-46, 1992.12.11) p.1949

여러분들, 요즘에 홈처치 하면서 반대 안 받아요? 자, 이건 '나 당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해도 자꾸 가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빗자루 들고 가 가지고 뜰도 쓸고 눈이 왔으면 눈 치우고,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도랑에 물이 있으면 도랑도 치우고 말입니다. 그러는데도 그 주인이 '여보, 내가 싫다는 데 왜 이래?' 하고 싸우는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 자식 뭐야!' 하고 내 대신 싸워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멋진 전쟁법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거 왜 그래요? (105-191, 1979.10.21) p.1949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앞으로 회사에 돌아가더라도 다섯 시만 되면 전부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중심삼고 홈처치 조직, 가정교회 조직을 전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활동기반을 중심삼고 믿음의 아들딸로부터 종족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발전하는 원칙입니다.

사람을 길러 봐야 자기가 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길러 봐야 됩니다. (173-335, 1988.2.21) p.1949

이제 여러분이 360 집을 홈처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역사시대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겠는가? 그런 홈처치가 한국 땅에서 생겨나겠느냐, 미국 땅에서 생겨나겠느냐, 일본 땅에서 생겨나겠느냐, 영국 땅에서 생겨나겠느냐? '가정교회 넘버원은 코리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리가 길어 가지고 이러고 가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다다다…. 이게 걷는 데 키가 커지고 이러고, 눈이 둥그레 가지고 사방을 보고 다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키도 작고 눈도 조그맣고 해서 한 곳만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길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106-277, 1980.1.1) p.1949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가정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탄세계를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을 가지고 이놈의 부패된 사탄세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세계의 부패한 이 동물적인 가정을 다 차버리는 겁니다.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전부 그렇다고 그들이 망하면서 '아이구 나 망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망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가정을 움직일 수 있고, 종족을 움직일 수 있고,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홈처치 운동을 하라는 말을 내가 한 겁니다. 이것만 끝내면, 이것만 닦아지면 세계가 당겨올 수 있는, 이것만 이루면 천국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99-187, 1978.9.18) p.1949

부모님과 심정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구하기 위한 그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거쳐 극복하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7 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7 년도 안 걸립니다. 이제 반대를 극성같이 하더라도 7 년이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던 것과 같이 정성을 들이면 7 년 이내에 여러분은 가정교회를 깨끗이 끝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세계 문제가 7 년 후에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전세계에 통일교인들이 이제 퍼져 가지고 360 집만 하게 되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들여 가지고 이것을 엮는 것입니다. (122-117, 1982.11.1) p.1950

한국 전역을 4 천만으로 잡고 가정교회를 조직하게 되면 말입니다. 집이 얼마? 한 6 백만? 오 칠 삼십오(5×7=35)…. 8 백만! 8 백만이니까 한 사람이 360 호씩 하면 2 만 2 천, 그렇지요? 식구가 2 만 2 천이면 이 홈처치(가정교회) 조직은 다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홈처치 책임자로부터 1 대, 2 대, 3 대로 계속 전도를 하게 되면 천명, 2 천 명, 몇 천명이 홈처치 운동을 하게 되는 놀음이 벌어집니다. (143-74, 1986.3.16) p.1950

승공연합의 전국 조직이 딱 되어 가지고 자기 가정에 들어가서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 문총재가 가정에 들어가서 교육하고 있나요? 배당해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홈처치(가정교회) 조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홈처치 기반만 딱 되면, 반에 열 집, 스무 집이 있는데 삼백 예순 집이니까 한 사람이 열 다섯 집씩 책임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할 것입니다. (143-327, 1986.3.21) p.1950

우리 통일가의 목적이 뭐냐 하면, 가정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 360 수에 해당하는 반을 밤이나 낮이나 전부 다…. 원리책이 있고 승공이론이 있고 통일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재료가 전부 다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찾아가 가지고 홈처치, 가정교회 활동과 더불어 승공연합의 통, 반 편성을 중심삼은 반상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정을 중심삼고 부모님 가정 사위기대, 자기 가정 사위기대가 완전히 하나돼 가지고 천하가 반대하고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갈라질 수 없다는 사랑으로 묶어지게 될 때는 거기서부터 초국가적인 천국이 출발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45-353, 1986.6.1) p.1950

선생님이 지금까지 40 년 동안 싸워 나온 모든 전체를 종합하여 결산지을 수 있는 결산장이 홈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홈처치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장에게 '오늘 나 홈처치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소!' 하면 교회에 안 나왔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홈처치 제일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홈처치가 앞으로 무슨 처치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들의 홈처치가 종족처치가 돼야 됩니다. 가정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종족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족교회만 연합하면 김씨 박씨라는 민족은 자연히 생기는 겁니다. 안 그래요? 김씨 박씨 문씨 수두룩하게 종족복귀 기반만 되게 되면 국가는 자연히 생기는 게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족교회, 민족교회, 국가교회, 세계교회, 천주교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141-221, 1986.2.22) p.1951

종족적 메시아는 가인 아벨 두 족속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 일족과 가인 일족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를 중심삼고 볼 때 요셉가정과 사가리아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들이 하나되지 못함으로 해서 예수가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가정교회하고 종족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가정과 사가리아가정이 하나된 그 위에 예수가 서는 겁니다. 그 종족적 메시아를 모시고 국가적 메시아를 모시게 되면 복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처치(가정교회)는 가인적 교회로서 종족적 메시아 기반이요, 아벨적 교회는 자기 일족입니다. 이 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족적 메시아 사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족과 완전히 하나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을 때 왔다는 것입니다. (210-181, 1990.12.19) p.1951

이제는 세계적인 때입니다. 그때는 국가적인 때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삼은 국가적인 때를 탕감복귀해 가지고 해방되었으니 핍박 없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뭐예요? 가정교회 아니예요? 가정교회 만들어 가지고 전부 했으면 종족적 메시아 얼마나 좋아요! 이제부터는 자기 믿음의 아들딸들을 전부 데려다가 교육시켜야 됩니다. 친족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아들딸들을 중심삼아서 하나되어 가지고 종족적 메시아권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딴 족속들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적 전선이 벌어집니다. (198-365, 1990.2.11) p.1951

Top

4) 360 호 가정교회 완성

① 360 호의 수리적인 의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홈처치가 뭐예요? 가정교회가 뭐예요? 모든 역사 시대의 섭리를 중심삼고 모든 국경이라든가 모든 사회제도들을 다 버리고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되면 모든 것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360 가정은 360 족속입니다. 그걸 왜 하느냐? 36 이란 12 수의 3 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2 수라는 것은 천리의 도수입니다. 이것은 영계의 열두 진주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36 가정수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3 단계 운세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천도를 풀기 위해서 다 나온 것입니다. (105-337, 1979.10.28) p.1951

가정교회의 제단은 360 호입니다. 이 360 호의 수리적 의미는 모든 수리적 가치를 상징한 내용입니다. 360 호는 원리적인 숫자로서 여기에 수리적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360 수는 36 수의 확대수로서 36 과 동일한 뜻입니다. 36 수는 12 수가 셋이 합한 수이고, 12 수는 3 수와 4 수의 곱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3 수, 4 수, 12 수, 36 수, 120 수, 360 수를 포함한 수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12 수, 신약시대 12 수, 성약시대 12 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36 수는 전역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360 수는 입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의 사방을 뜻하며, 360 도를 중심한 입체적인 내용도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있고, 12 달을 포함한 수이며, 120 개 국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60 수의 복귀는 세계복귀 뿐 아니라 역사적인 탕감노정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잃어버린 전피조세계와, 전역사, 전인류를 찾아 세워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360 호는 먼저 구역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360 호 가정교회 제단이 확정이 안 되면 원리적인 의미가 없어지고, 영계의 지상재림할 수 있는 조건적인 제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360 호 제단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60 호 제단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가정교회의 의미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360 호 가정교회 제단에서 승리하려면, 피와 땀과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360 호를 완전히 복귀하여 승리하면 선생님의 승리의 영광을 전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귀의 심정을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서신 선생님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조건인 것입니다.우리가 해야 할 360 호 가정교회는 가인형 천사세계에 해당합니다. 이 가인형 천사세계인 360 호 가정교회를 성공시키면 아벨형 천사세계인 자기의 종족은 자동적으로 복귀됩니다. 360 호 가정교회를 전도하면 가인형 천사세계의 종족적 메시아가 되고 다음에 자기 종족으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어 아벨적인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구성을 중심삼고 어디 가든지 홈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디든지 360 집 홈처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건 씨족입니다. 특정 씨족입니다. 씨족을 해방하지 않으면 특정 씨족이 생겨 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3 차 7 년 노정이 끝나고 할 일입니다. 그 일을 3 차 7 년 안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사실입니다. (105-158, 1979.10.14) p.1952

Top

② 가정교회는 섭리의 종착지

이러한 일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섭리사에 있어서 위대한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 승리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느냐? 그때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씨족적 메시아가 돼 가지고 민족을 대해서도 그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가정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참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쳐와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가졌다가 부모로부터 다시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집이 생겨나고 여러분의 세계가 생겨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터전이 바로 홈처치입니다. 요것은 뭐냐 하면 제물입니다. 요건 하나의 제단입니다. 여기서 3 대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101-338, 1978.11.12) p.1953

가정교회는 우리의 정착지다! 도대체 가정교회가 뭐냐? 홈처치는 통일교회가 핍박의 역사에 있어서 레버린 문을 중심삼고 모든 역사적 탕감기준, 즉 개인탕감 세계적 기준, 가정, 민족탕감 세계적 기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국가탕감 세계적 기준, 천주탕감 세계적 기준의 탕감노정에서 챔피언의 계승권을 이루어 기지고 전체 승리한 승인을 받아 결정해나온 것입니다. 홈처치에서만이 비로소 모든 탕감조건을 벗고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3-170, 1983.1.1) p.1953

미국을 잃어버리고, 지구성을 잃어버리더라도 참사랑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것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고, 자동적으로 지구성도 내 것이 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이구, 나 가정교회가 싫어!' 이러기도 하고 야단들입니다. 참사랑은 어려울수록 그 가치가 더 큽니다. (104-151, 1979.4.29) p.1953

지상에 사는 동안 가정교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복받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142-297, 1986.3.13) p.1953

통일교회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있나니 그게 뭐냐 하면 홈처치입니다. 홈처치 나오기 전에는 선생님이었지만, 부모님이었지만 홈처치가 나온 후에는 홈처치 완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루어야 부모님도 내 부모님 되는 것이요, 부모님의 세계가 되는 것이요, 부모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는 것이요, 부모님의 사랑이 내 사랑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122-132, 1982.11.1) p.1953

홈처치가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홈처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홈처치는 천국의 기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는 곳은 안식하는 곳이요, 행복이 깃드는 곳이요, 사랑이 깃드는 곳이요, 평화스러운 곳입니다. (106-265, 1980.1.1) p.1953

기독교가 구원이 있고 뭐 어쩌고? 통일교회를 벗어나서는 생명적 구원, 영원한 사랑을 중심삼은 인연적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환고향 길을 닦아 가지고 자기들을 전부 내세워 환고향해서 종족적 메시아 선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걸 내가 언제부터 가르쳐 주었어요? 그걸 위해서는 가인 아벨 관계를 수습해야 됩니다. 홈처치, 가정교회를 언제 얘기했어요? 7년 세월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한다고 한 것이 성공했어요? 태풍이 불어오고, 자기 발이 잘리고, 모가지가 떨어지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8-21, 1991.7.1) p.1954

가정교회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역사적인 최종의, 마라톤 대회로 말하면 최후의 마라톤 선수와 마찬가지인데 국가 대표 마라톤 선수가 그저 땀이 나니까 땀이나 닦으며 '땀 안 흘리고 뛰어야지, 땀 나면 부채질하고, 콜라도 먹고, 그저 적당히 편안히 가면 되지' 하는 것하고, 그저 땀을 흘리고 죽어 쓰러지더라도 최후까지 나가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뛰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챔피언 뒤에 있는데, 사탄세계에서는 '이놈! 쓰러져라! 저놈, 쓰러져라! 이 자식아, 밥 좀 먹고 가! 이 자식아, 쉬어!' 하며 전부 반대합니다. 영계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세계가 왔다갔다하는 가운데 하늘 땅이 응원하고 더 뛰라고 하더라도 그걸 듣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사탄세계에서 거기에 반대하며 '아, 하나님이 뭐냐? 이 자식아! 너, 밥 먹고 뛰어라! 쉬어 가! 차 타고 가지 걸어갈 게 뭐냐? 아이구 저게 뭐야' 합니다. 결승선에 가서 이기기 전까지는 사탄도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8-205, 1980.10.5) p.1954

내가 돌아오면 국가가 환영해야 됩니다. 지금은 환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하니까 내가 남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내가 14년 전부터 가정교회를 하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1978년부터 가정교회를 말했고, 통반격파를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가정과 자기만 붙들고 교회는 전부 다 뒷전으로 밀어 제쳐놓았지요? (234-160, 1992.8.10) p.1954

정상 클럽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정상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중국의 강택민을 가르친 등소평 등등…. 전부 다 지금까지 이웃 살림살이하듯이 거지패같이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꼭대기를 지져대 가지고 불 붙여 가지고 뛰쳐나올 수 있게 만들어 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놀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홈처치, 가정교회 전부 다 했으면 이 놀음 안 해도 되는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개인이 가서라도 교육을 다 시켜야 합니다. 알겠어요? 광야 노정의 그 수난 생활은 이제 안 됩니다.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서로 모략 중상하고 이러는 패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221-133, 1991.10.23) p.1954

Top

제 3 장

통, 반 격파 운동을 왜 해야 하나?

1) 통, 반 격파 운동을 다시 하는 이유

통반격파를 왜 안 하고 있어요? 임자네들이 살 길이 그겁니다. 그 운동 기반 밑에서,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던 모든 인근 자기 군?면, 자기 동네 전부 다 자기가 책임지고 통반을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 없으니까 고향에 들어가서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 군민 농민들 동원해 가지고 데모해 나옵니다. 지금 공장에서 데모한다고 야단하는데 공장 데모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목 자르면 뿔뿔이 자기 고향 돌아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결합해 가지고 데모하게 되면 만년 정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81-150, 1988.9.5) p.1955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종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통반격파 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적인 집합, 훈련을 하기 위한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서둘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시일 내에, 단시일 내에 해 가지고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면에서 세 부락만 되면 면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동시에 군 전체, 면 하나를 소화시키면 군 전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군 전체만 되게 되면 이 케이스로서 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전체의 통반격파 조직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184-325, 1989.1.2) p.1955

여러분, 선생님이 통반격파를 명령한 지 4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선생님이 돈을 대줘야 되겠어요? 애국하는데 선생님이 돈을 대줘야 되겠어요? 피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대 왔습니다.

처자와 모든 형제와 내 일족을 희생시키면서 애국해 왔습니다. 전통을 밟아야 할 통일의 무리들이 자기 자세와 처신을 망각하고 갈 길을 모르면 망국지종(亡國之種)이 되는 겁니다. 망국지종. 내 눈앞에 쓰러지는 자가 나타나리라고 보는 겁니다. (185-63.1989.1.1) p.1954

여기 정당의 당수 해먹겠다는 사람들, 자기 당일 줄 알고 있지요? 대한민국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지요? 선생님이 한국통일, 협조 안 하면, 왱가당댕가당 됩니다. 그래서 통반격파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통반격파. 이 향리를 위해서 하면 전부 다 종족의 이름으로 통반격파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깨끗이 됩니다. 이 사탄세계야 뭐 문제없습니다. 통반격파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185-73, 1989.1.3) p.1956

선생님 일대에 해방을 가져와 가지고 자유천지를 바라보며 이 3년 노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남북통일의 운세를 몰아서 철주를 박아 놓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4천만 민족을 전부 다 품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저 꼭대기의 정당 책임자가 되려고 안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님이 되고 누나가 되고 동생이 되자 하는 전략전술법이 오늘날 통반격파 운동임을 알지어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97-104, 1990.1.7) p.1956

이 3년 동안에 하늘은 버리고, 땅만 들여다 봐야 됩니다. 지옥 밑창까지 가겠다고 하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통반격파를 해 가지고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해야 됩니다. 가정 가정에 막힌 것이 뭐냐? 책임분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담을 헐어야 됩니다. 탕감복귀의 담으로 막혀 있으니

[텍스트 입력]

이걸 헐어야 됩니다. 혈통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잘라서 접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거국적으로 움직이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197-109.1990.1.7) p.1956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돼먹지 못한 녀석들은 전부 다 모가지를 따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반격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인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도 못 됩니다. 김일성을 잡는 일이 그것이고 나라 살리는 게 그겁니다. 요즘에 공산당 패들이 전부 다 지방에서 활동하는데, 지방은 내 손으로 요리해야 됩니다. 대학 교수가 유명해도 대학 교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자네들이 정신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애국자보다도 앞서야 되고, 북한의 어떤 애국자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이제 통반격파 조직을 하게 되면 김일성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노동자와 농민 조직이 통반 아니예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중앙에 돈 쓰지 말라! 통반에 써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을 하더라도 반대 안 받습니다. 알겠어요? (198-348, 1990.2.11) p.1956

복귀는 뭐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문총재가 천하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순환하는 제일 밑은 가정입니다. 통반격파입니다. 통반격파가 뭐냐? 사탄세계의 모든 가정들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침투할 이걸 전부 다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격파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204-118, 1990.7.1) p.1956

통반격파와 더불어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적기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횡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 딱 90 각도가 되어 가지고 내 어머니 아버지는 참어머니 참아버지요, 내 아들딸은 참아들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함성이 이 땅 위에 솟구치게 될 때 지상세계의 사탄권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했으니 가정에서 뒤집어 박아야 됩니다. 통반격파는 사탄세계의 가정을 전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혈통을 전복시키고 의식적인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소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208-344, 1990.11.21)

우리가 하자는 것이 통반격파입니다. 가정에서 타락하여 세계적으로 번식되었던 것을 문총재가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가정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 놓았으니, 한국의 모든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까지 뿌리박혀 있는 사탄편적 모든 사랑의 인연을 뒤집어 박자는 것입니다. '격파'입니다. 여기에는 투쟁의 개념이 있습니다. '격파'라는 말이 뭐냐면 악마를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여기서부터 통일은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209-132, 1990.11.29) p.1957

오늘날 서울을 중심삼고 문총재가 제시하는 통반격파는 가정 기준에 있어서 참부모의 아들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참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부를 만들고,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남편, 자녀의 기준을 중심삼고 일족, 일국, 일세계를 잃어버렸던 것을 재현시켜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만민을 내 아들딸로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고 선포해야만 지상에 해방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악한 세계, 흑암의 세계는 물러가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려니 하늘은 문총재에게 세계의 핍박 과정, 국가의 핍박 과정을 겪게 한 것입니다. 여기 대통령들 전부 다 내 신세 지지 않았어요? 반대하던 그들이 자연굴복하는 것입니다. (210-42, 1990.11.30) p.1957

우리는 통반격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릇된 것을 가정에서부터 뒤집어 놔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나라를 통해서 나옵니다. 나오는 데는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사탄세계의 반대의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참부모라는 말도 반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부모는 뭐예요? 참부모하고 반대 아니예요? 자기를 낳은 부모는 거짓 부모라는 말 아니예요? 그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맞습니다. 또 사탄 편에서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를 강조하면 사탄은 물러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탄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뒤집어 놓는 겁니다. (210-91, 1990.12.1) p.195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정성껏, 정성껏, 파고 고르고 정성껏 뿌려라는 것입니다. 10 년 20 년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내 가지가 되어 모르는 사이에 큰 둥지를 틀어 가지고 큰 것 자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열매를 맺어 가지고 저 나라의 높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통반격파를 해야 됩니다. (210-98, 1990.12.11) p.1958

왜 통반격파를 해야 되느냐? 복귀역사는 지금까지 타락한 세계로부터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참부모의 문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락의 문으로 나와 번식되었던 것이 전부 참부모의 문을 통해 가지고 에덴에서 출발했던 것을 중심삼고 다시 돌아 올라가야 됩니다. 돌아 올라가는 그 주류가 누구냐 하면 통일교인입니다. 돌아 올라갈 때에는 누더기 보따리짐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더럽힌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수정과 같이 맑아야 됩니다. 증류수와 같이 깨끗한 참사랑의 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현현한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될 참사랑의 후계자라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11-129, 1990.12.29) p.1958

'통반격파' 할 때 '격파'라는 말은 전투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탄세계의 이 모든 습관을 뽑아 버리자는 것입니다. 뽑아 버리고 여러분을 따라 하늘편적 습관을 여기서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천국이 사랑을 중심삼고 완성하느니라! 아멘. 그런 정병으로서, 맏아들 맏딸로서 역사시대에 새로운 여명기를 맞이하여 선포하는 데에 출전한 정병들이 통반격파 용사들입니다. (213-53, 1991.1.13)

Top

2) 승패의 마지막 보루는 통반

이제 통, 반 격파를 왜 해야 됩니까? 타락은 가정에서 했습니다. 반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통, 반입니다. 반 가운데 가정입니다, 가정격파.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듯이 아들 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3 대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된 자리에 동네의 친척과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통일권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173-122, 1988.2.14) p.1958

지금 표준은 통, 반장 격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삼고 보게 된다면 일가, 종족적 판도를 중심삼고 성사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 교인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적 판도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종족권이 사방에서 해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국에 통, 반 해방권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에 여기에서 명령을 하고 다짐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66-259, 1987.6.7) p.1959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내릴 곳은 도 조직체가 아닙니다. 도 아래 군이 있고, 군 아래 면과 리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붕 떴으니 여기는 사탄이 들어와 우거할 수 있는 터전이 닦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 반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가 통, 반을 격파하는 목표를 단일목표로 삼아야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귀의 목표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이 과거 시대나 현재 시대나 미래 시대를 막론하고 완성을 향한 목표도 하나입니다. 개인완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위해서 통, 반을 중심삼고 철옹성 같은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171-297, 1988.1.2) p.1959

지금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통, 반조직을 중심삼고 국민교육을 못 한 데 있습니다. 전부 다 조종하여 군까지 못 갔습니다. 도에서 왔다갔다하고 행정부에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국고만 소모하고 다 날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 반장을 중심삼아 가지고 모든 걸 투입하여 여기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보호해서 세포번식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포 자체가 사상무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커서 이웃동네에 하나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서로 하나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속을 해야 됩니다. (165-50, 1987.5.19) p.1959

우리가 통, 반 격파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남북통일시대를 맞아 사상과 조직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조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우리의 입장을 준비시키자는 것입니다. (남북통일-664, 1988.4.7) p.1959

지금이 중요한 마지막 고개입니다. 선생님이 일생 동안 기도한 것이 면?동(面洞)을 중심삼고 통, 반(統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세계를 완전히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기관도 아니고, 중앙청도 아니고, 어떠한 도시도 아니고, 점령하는 것은 동을 중심삼고 통과 반, 면을 중심삼고 통, 반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 그 나라의 최고의 인물들로부터 최하의 사람, 계급을 초월해서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장이라든가 지부장들도 이제는 활동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가 아닙니다. 통, 반장에 있습니다. 동을 중심으로 통, 반장이 활동무대라는 것입니다. (167-10, 1987.6.14) p.1959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전부 다, 각 정권이 통, 반장을 중심삼고 자기들이 정치적 방향이라든가 어떠한 교육을 못 해봤다는 것입니다. 민족적 교육을 못 했다는 겁니다. 사상교육을 못 했습니다. 각 도지사를 모아 놓고 하고 군수들이나 모아 놓고 하고 반에서 한 명씩 모아 가지고나 했다는 것입니다. 사상교육의 주인이 통, 반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못 박았다는 겁니다. 부평초와 마찬가지입니다. (165-224, 1987.5.27) p.1960

첫째는 통, 반장 격파문제, 그 다음엔 면 격파문제. 리까지…. 그래 놓으면 완전히 조직화될 것입니다. (165-19, 1987.5.19) p.1960

통을 중심삼아 가지고 반 소화를 어떻게 불붙이느냐 하면 문제가 이제 생사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전부 다 집이 문제입니다. 선거 때에 움직이게 할 것은 뭐냐? 도시나 시장을 중심삼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수를 중심삼아 가지고는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통, 반장을 중심삼고 반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165-17, 1987.5.19) p.1960

통, 반장 중심삼고 소화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 조직편성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통, 반장만 딱 배치해 놓으면, 그건 오래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165-323, 1987.5.27) p.1960

여러분이 일선에서 싸우는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통, 반을 중심삼고 눈물의 고개를 넘어서 정착하여야 합니다. 타락한 운명, 여기 저끄러진 이 비애의 운명을 타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협조를 안 합니다. 하늘이 여기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하늘이 떠납니다. (162-172, 1987.6.5) p.1960

여러분들이 이 운동하는데, 구두가 몇 켤레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통, 반장을 찾으려면 자동차로는 안 되는 겁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구두를 몇 켤레 버리더라도 걸어다니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하루에 세 번, 네 번 노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가 한 번밖에 노크를 못 했을 것 아닙니다. 하루에도 통, 반에 강의를 몇 번씩 가게 되면 땀에 젖게 되는데 그러면 목욕을 해야합니다. 그래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역사해주나, 안 해주나 말입니다. 불이 붙어 나가나, 꺼져 나가나 보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해보라구요. (167-40, 1987.6.14) p.196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여러분은 나가서 모든 통, 반을 격파하는 초소가 되어 가지고 같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못 해도 같은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파란불을 비추어야 될 텐데 빨간불을 비추면 되겠어요? 거기에 노란빛을 비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167-40, 1987.6.14) p.1960

선생님이 지시한 모든 초점은 확실합니다. 통, 반장, 남한에 있는 통, 반장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교인들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장이 되든가 통장이 되는 입장에 서야 하늘 앞에 기억되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166-253, 1987.6.7) p.1960

우리 목표가 간단하지요? 통, 반장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울고 불고 해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통, 반에 배치가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은 대학교 학생도 하는 겁니다. (165-305, 1987.5.27) p.1961

우리가 가정을 딱 붙들어 놓으면 됩니다. 모두가 가정 가운데 얽매인 사람들 아니예요? 가정만 붙들면 국회의원도 붙들리고, 장?차관도 다 붙들리고, 청와대의 대통령도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전체 통, 반장 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국회의원하고 국가의 중요 위정자들, 각료들 하고 군대 막료들까지도 완전히 통, 반장 운동에 움직이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싸움없이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67-21, 1987.6.14) p.1961

우리는 정치가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하자는 것은 나라를 찾자는 것입니다. 통, 반을 잡자는 것입니다. 통, 반을 잡으면 나라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167-24)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조직이라는 것은 통, 반격파를 못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지하공작 하지만 통, 반까지 들어내 가지고 격파운동을 소화하지 못 합니다. 점조직·선조직은 행정으로 조직하지만 통, 반격파는 못합니다. 통, 반격파만 하면 다 걸려듭니다. 다 무너집니다. 점조직도 걸리고, 선조직도 걸리고, 체제가 다 걸립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는 이것을 딱 해놓고 머리 숙이면 되는 것입니다. 남한 4천만이 보따리를 지고 전부 다 들어가서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것 형님 것입니다 하고 몽땅 줘 버리면 북한은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172-89, 1988.1.9) p.1961

이제 국민연합을 중심삼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통, 반격파 운동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격파운동을 위해서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의 체제, 도의 체제, 군의 체제, 면의 체제를 정립시키는 것입니다. 면을 중심삼고 전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통, 반을 중심삼고 보게 되면, 나라 체제는 큰 둘레입니다. 도 체제는 그 다음의 둘레이고, 군 체제는 그 가운데 둘레이고, 면 체제는 그 다음 둘레입니다. 반을 중심삼아 보면 통은 그 다음 둘레인 것입니다.

복귀는 개인복귀에서 가정복귀, 종족복귀, 민족복귀, 국가복귀, 세계복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체제적으로 볼 때에 국가도 국민연합처럼 전부 다 국가 조직이 있습니다. 도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군 조직이 있고 면·리(통)·반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국가 조직 체제입니다. 그러면 반은 무엇을 대표하느냐? 물론 통을 대표하지만, 이중목적이 있습니다. 직접목적은 반을 위한 것이고, 전체목적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통과 반이 전부 다 하나되는 것은 국가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구조와 마찬가지의 조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71-209, 1988.1.2) p.1962

첫 번째는 조직, 두 번째는 단결, 세 번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3대 요소입니다. 철저한 조직권내에 섬으로서 사방팔방으로의 연락을 백 퍼센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선두에 서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위치, 조직권 내의 자기의 위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없으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위치를 결정하고서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함에 따라서 그 위치가 여하히 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치 결정은 조직력을 강화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15-191, 1965.10.9) p.196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3) 남북통일 방안도 통반 격파 운동

한국을 중심삼고 세계를 통일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뭘해야 되느냐 하면 장자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총재를 중심삼고 남북통일로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미지가 다 잡혔습니다. 대통령도 남북통일하는 데는 협조하게 되어 있지, 반대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을 중심삼고 볼 때,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우기 3 파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통반격파를 해서 조종만 딱 하는 날에는 낮잠만 자더라도 발꿈치를 붙들고 '아이구, 주님! 살려주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혜의 왕 아니예요?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게 해 가지고 욕을 먹어도 망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 남느냐는 것입니다. (199-87, 1990.2.15) p.1962

통반격파를 하는 겁니다. 지하에 묻혀 있던 간첩을 내 손으로 전부 색출하여 폭파해 버리는 겁니다. 빨갱이를 추방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밤에 북한과 통신 연락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점점 깊숙히 들어갈 겁니다. 김일성이의 어떤 특공대보다도 열렬한 충신의 정기를 담아 가지고 통반격파 조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일성이가 죽든가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조직편성 완료 때까지 김일성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99-140, 1990.2.16) p.1962

남북통일을 위해서 점심 한 끼 굶어 봤어요? 오늘 여기 뭘하러 왔어요? 통반격파입니다. 남북 총선거를 하자고 할 때, 하늘나라는 꼼짝달싹 못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때가 오는지 알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200-156, 1990.2.24) p.1962

자, 그러고 다니는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는 놀고 먹으라고 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한국 사람들 일 못 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이번 7 월에는 통일교인들은 전부 다 40 일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1956 년도부터 전통적으로 영원히 개척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수련기간으로서 설정해 놓은 기간입니다.

요즘에 매년 이거 하나요? 이번에는 삼팔선 국경지대에 전부 배치해 가지고 매일같이 성가 나발 불게 해서 스피커를 통해 북한의 평양까지 들리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공산주의는 망했다는 걸 전부 다 불어 대야 되겠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싹쓸이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통반격파 책임자들이 안 돼 있으니 이걸 감정하는 그 감정부대로 파송할지어다! 아멘. 파송할지어다! 아멘. (201-316, 1990.4.29) p.1963

통일교회는 통반격파를 하지요? 복귀역사를 출발해 가지고 사탄이 먼저 침투해 들어온 개인기반, 가정기반,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가서 미국을 넘고 공산당을 넘어 가지고 돌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 들어오는데 한국 나라가 나를 반대했지요? 지금 나라는 죽 쑤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전부 대통령 해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해먹겠다고 싸워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리의 도를, 천운을 감아 가지고 한바퀴 돌아와 가지고 안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돌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판인데 통일교회 문선생이 국민들을 전부 수습하는 겁니다. (202-243, 1990.5.24) p.1963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복지에 복귀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갈 때, 자기 일족들에게 몇 번씩 가서 우리 갈 길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탄세계를 해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에 다 들어왔으니 사람을 해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202-304, 1990.5.25) p.1963

한 집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선생님이 통반격파라는 말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피곤한 줄 모르고 그 날이 찰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한 집이라도 자기 발걸음이 거쳐가야 합니다. 동서로 가고 남북으로 거치고 원형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은 가야 한다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세 번 이상 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뭘해야 한다구요? 통반격파를 북한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뽑습니다. 전대협 기독교농민회 가톨릭농민회가 데모하려고 얼마나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통반격파를 그 이상 해요? 그 이상 해야 됩니다. (202-304, 1990.5.25) p.1963

대한민국의 제일 비참한 가정 밑창을 통해 보자기에 싸 가지고 이걸 끌어 올려서 남북통일을 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디서부터냐?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정상회담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반격파입니다. 통반격파라는 말은 통반을 파괴시키라는 말입니다. 그 통반들은 자기를 위하는 통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를 위하고, 남편도 자식도 전부 자기를 위하는 세계입니다. 사탄이가 웅크리고 있으니 그것을 격파해야 합니다. (204-53, 1990.6.29) p.1963

내 나라 통일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북통일을 위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격파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찾아 가지고 세계를 복귀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한국을 중심삼고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 옛날에는 경무대를 통해 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서 자리를 못 잡았으니 내려오는 겁니다. 꼭대기를 못 잡으면 제일 밑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사탄은 그걸 압니다. 꼭대기에서 자리를 못 잡았으니 착지를 위해 밑창에 내려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못 내려오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204-182, 1990.7.8) p.1964

통반격파를 중심삼고 착지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고향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형님이 8·15 해방되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 형님이 내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형님과 어머니 아버지한테 원리 말씀 한 마디 못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일생을 전부 통일교회를 위해 가지고 피 눈물 나는 사연을 거쳐서 채워 가는 것입니다. 개인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종족을 채우고, 민족을 채우고, 국가를 채우고, 세계를 채워 가는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 사탄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천신만고의 수난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소련을 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와 통반격파를 하는 겁니다. (203-252, 1990.6.26) p.1964

통반격파를 하는 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열두 족을 흡수하라는 겁니다. 동(洞)에 가서는 열두 통(統)을 소화하고 통에 가서는 열두 반(班)을 수습하라는 것입니다. 12 단계입니다. 이제는 시(市), 군(郡), 구(區) 대개가 우리와 화하지 않았어요? 기관장이나 누구나 문총재 존경 안 하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들도 다 존경받지요? 유지가 됐지요? 유지인데 꼴래미 유지입니다. 중심 유지예요? 공산당을 대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중심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204-245, 1990.7.11) p.1964

통반격파를 함으로 말미암아 남한에 침투된 간첩은 자동적으로 적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 바퀴 구르면 치마 아래 숨어 있던 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204-321, 1990.7.11) p.1964

반대 받으며 지쳐 버린 이 거지 떼거리 같은 통일교인들을 모아 놓고 거국적인 면에서 공산당을 대치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론적 설정 기반에 서서 공산당이 공격하는 것을 백방으로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나 홀로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격파라는 것을 5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그 가치를 알고, 그 때를 알고, 그것을 실제 책임화해 가지고 내 몸과 마음으로 방패가 되어 막겠다고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총재 혼자밖에 없습니다. (207-292, 1990.11.11) p.1965

이제 통일교회가 아벨의 자리에서 남북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통일교회가 자체 정비의 착지를 못 했습니다. 통반격파라는 것이 뭐냐? 남한 땅의 가정을 중심삼고 뒤넘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타락을 가정에서부터 했습니다. 출발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적 기준에서 사상을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적 여건을 찾아가려는 하나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앞에 사탄편 외적 세계는 기를 쓰고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풍토는 자유당 때로부터 공화당, 민정당 때로 쭉 나오면서 통일교회가 조직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정착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207-330, 1990.11.11) p.1965

지금까지 5년 동안 통반격파를 뭐하려고 했어요? 한 때를 위한 것입니다.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미군 철수 안 해도 선거하자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남한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어요? 둘이 싸움만 하고, 똥을 사서 뭉개고, 설사가 나서 창자가 뚫어지게 됐는데, 약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넉가래로 밀어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밀어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밀어 치워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를 따라오든가.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제 가인 아벨이 하나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젠 똑똑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207-334, 1990.11.11) p.1965

문총재는 별의별 욕을 먹고 왔어도 망하지 않고 희망적 자리에서 통반격파, 가정을 붙들고 세계 모든 가정을 이와 같은 모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될 때는 악마는 근접도 못 하고 흔적도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어디 있어요? 지하운동하는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깨끗해집니다. (210-45, 1990.11.30) p.1965

이제부터 10년 동안은 통반격파를 해야 됩니다. 통반격파가 뭐냐 하면 남북을 중심삼고 가정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늘 아래에 은사를 뿌려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종교권을 중심삼고 이걸 뿌림으로써 그 혜택을 전세계에 펴놓았지만, 이제는 이들을 거둘 때가 왔습니다. (210-273, 1990.12.25) p.1965

우리가 하는 통반격파는 뭐냐?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의 이름으로 만국의 승리의 판도를 중심삼고 대한민국을 온 인류의 조국광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족과 공산이 하나 돼 있습니다. 참부모와 거짓부모를 중심삼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김일성이하고 우리 패가 만나고 있습니다. 안기부에서도 그거 모릅니다. 반공법에 내가 저촉되겠지만 내가 그런 놀음을 많이 해 나왔습니다. 일본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소련에도 그렇고, 전부 다 투입했습니다. (211-127, 1990.12.29) p.1966

남한에 있어서의 공산당 기지를 전부 다 격파해야 합니다. 통반격파, 알겠어요? 조수물이 어디로 먼저 가야 된다구요? 동사무소로 가면 안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채우고, 그 다음에 통(統)을 채우고, 그 다음에 동(洞)을 채우고, 군(郡)을 채우고, 서울이 다 차고, 대한민국이 꽉 차야 청와대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더라도 대통령이 나중에 죽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죽고 자기는 살겠다는 패들은 거지 패들입니다. 반 도적입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존경하고 모셔야 됩니다. (211-211, 1990.12.30) p.1966

북한 1천만 5도민을 수습해서 교회와 연결해서 남한 4천만을 중심삼고 선생님 말 들으면 남북한의 기독교 통일과 국민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격파를 서두르는 의미가 남북을 위한 통일을 위하여 나가는 첩경의 방안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1-256, 1991.1.1) p.1966

이제 통반격파만 딱 해 놓으면 김일성이 어디 뭐 해먹겠어요?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공산당은 내 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했었는데 다 처리했습니다. 최후에 남은 것은 김일성인데 이제는 남침 전쟁을 통해도 안되게 돼 있습니다. 김일성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선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거해서 떨어졌다고 전부 다 잡아 죽이겠나요? 살아 남으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13-152, 1991.1.16) p.1966

이제 마지막입니다. 1992년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보자구요. 선생님 중심삼고 전부 다 삼위기대 묶었지요? 동·통·면을 중심삼고 배치한 사람이 삼위기대이고, 선생님을 중심삼고는 사위기대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장(長)이 없는 겁니다. 통반입니다. 동·면 기준이 우리 활동 무대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중심삼고 생각했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도가 망하면 망합니다. 군이 망하면 망합니다. 제일 안전지대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동·면입니다.

만약 북괴가 점령하게 되면 어디를 점령하겠어요? 면을 점령해요, 동을 점령해요? 동을 점령할 게 뭐야, 통, 반 점령할 게 뭐야? 중앙청 점령해야지. 도 점령하고 군 점령하지, 면은 가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옛날 김일성이 패들이 면에 와서 싸웠어? 면은 거치지도 않고 전부 다 점령하지 않았어요? 안전지대입니다. (215-91, 1991.2.6) p.1966

Top

4) 통반 격파는 가정 중심삼고 해야

협회장을 통해서 12 개 지구에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참부모 선포대회를 전부 다 부락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탕감복귀는 가정이 기반입니다. 동이 아닙니다. 동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출발해 가지고 종족 민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족적 복귀의 터전이라는 것은 가정들을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반격파라는 것이 세계적 모든 운세를 국가의 운세로, 국가의 운세를 종족의 운세로, 종족의 운세를 가정의 운세로, 가정의 운세를 개인의 운세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205-334, 1990.10.2) p.1967

통반격파라는 게 가정기반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기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귀한 새 순이 나오는 곳 아니예요? 아들 딸.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순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순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들딸이 나오잖아요? 아들딸은 하늘나라의 백성 아니예요? 하늘나라의 백성 생출지, 생산지는 지구성 밖에 없습니다. 다른 별나라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205-357, 1990.10.2) p.1967

요전에 선거할 때, 우리 통일교회 사람 중에도 선거에 출마했으면 하는 것을 '이놈의 자식들 뭐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선거에 출마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공화당에서도 한 여나믄 명 추천해 달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정치 가지고 수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구원섭리는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3 천만의 정성과 열의가 모든 가정에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반격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면이 통?리로 내려가야 되고, 통?리가 반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의 모든 활동기지는 각 집인 것입니다. 거기에 씨를 심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이상의 사랑을 싹틔워 가지고, 거기서 미래의 자기 이상의 부모들의 심정을 가진 후손들을 중심삼고 새싹을 틔워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더불어 가정권 위에 심어야 됩니다. (208-160, 1990.11.17) p.1967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통반격파니 만큼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남자 여자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들 딸에서부터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일족과 친척집을 찾아 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로 소제를 해야 됩니다. 물로 소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씻어야만 되어 있으니, 그 가정에 들어가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생님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208-172, 1991.11.17) p.1967

통반격파입니다. 통, 반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어머니 아버지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아들 딸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삼촌 아줌마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이것이 문총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구의 소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대주재의 소원입니다. 누가 진실로 그 분의 소원성취의 이 일을 맡아 가지고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통반격파라는 것이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참된 어머니, 참된 아버지가 못 된 것이 하나님의 한입니다. 참된 아들딸 못 된 것이 한이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된 부부 못 된 것이 한이요, 참된 손자 못 된 것이 한입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러니 내 가정에서 이 한을 풀어 드려야 됩니다. 그 한을 풀어 드려야만 천지에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09-44, 1990.11.25) p.1968

지금 뭘 해야 하느냐 하면 통반격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천지간에 모든 본향적 하늘나라의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 할 때, 문총재가 태어난 본향의 나라가 한국이라 할 때, 한국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부부, 자녀를 품어 가지고 천지의 대맥을 틀 수 있는 하나의 기원지가 되는, 하나의 잎이 되고 가지가 될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온 천지의 소원이요 창조주의 소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가정에서 찾아 가지고 새롭게 심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통반격파라는 것을 5년 전부터 주창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앞으로 대통령을 누가 해먹든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209-108, 1990.11.27) p.1968

남북한을 해방하는 첩경이 통반격파입니다. 북한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사촌, 혹은 친척이 있다면 그를 만나게 될 때, 붙들고 울듯이 이제 가정 가정을 찾아가서 심정적으로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심정적 인연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랑스런 가정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함성과 더불어 해방의 그 날이 내 눈 앞에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참다운 형제의 인연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랑의 가정 형성을 바라는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적 통고 자로서의 사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형님이 되고, 누님이 되고, 혹은 아저씨 아줌마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대신자가 되어 가지고 그 가정을 수습하여 하나님을 모셔들일 수 있는 가정의 기틀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할지어다 하는 것이 오늘 동?통, 반을 책임지고 투신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자가 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맹세합시다! (209-111, 1990.11.27) p.1968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가정은 나라를 대표한 것이요, 가정은 세계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 반도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자기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내 아내와 같은 많은 여자들을 하나님이 부부처럼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신자로서 사랑하고, 내 아들 딸, 내 형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이상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찾고 싶었던 그 마음 기준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 투입하고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아들의 계승자가 되고 딸의 계승자가 되고 그 나라와 세계를 건국하는 독립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았으니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돌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통반격파입니다. 가정을 돌려놓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209-172, 1990.11.28) p.1969

통반격파가 뭐냐?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아무리 세계적 승리권을 다 갖추었더라도 이 선물을 어디에 갖다 주느냐?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에 주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잃어버렸으니 가정에 갖다 심어 줘야 됩니다. 가정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민족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총재는 통반격파, 가정착지! 공산당의 착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망국지종으로 가던, 지옥으로 가던 것이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탄세계는 문총재로 말미암아 다 그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뒤로 돌아서는 날에는 자동적으로 남북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플러스 앞에 하나되는 겁니다. 영계가 동원되어 가지고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209-307, 1990.11.30) p.1969

내가 남한에 있다가 북한에 들어가서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이북에서 느낀 습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5년 이상 걸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사탄의 전통적인 역사를 통해 이어받은 습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통해 하며 회개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몸부림침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명령의 전쟁마당에 들어가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반격파 노정에서 하게 된다면 이 일이 얼마나 단축된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자처해서 취해 가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야 하겠습니다. (213-56, 1991.1.13) p.1969

통반격파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승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체가.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문화 문제, 종교 문제, 사상 문제, 전체가 가정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13-341, 1991.1.21) p.1969

선생님이 얘기한 행복의 마음이라는 의미의 해피 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7년 간 계속 개발 투자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홈처치 조직입니다. 이것은 지금 통반격파 운동과 연결되어 가정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걸 점령해 버리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대중동원에는 이것 이상의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213-299, 1991.1.21) p.1970

통일교회에서는 지금 일대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반격파! 아담과 해와가 가정에서부터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에 돌아가 180 도 돌려놓아야 합니다. 180 도 돌려놔야 됩니다. (214-69, 1991.2.1) p.1970

아담과 해와가 가정에 뿌리를 놓은 것이, 악한 가정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종족, 악한 민족, 악한 국가, 악한 세계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다시 심어 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 있어서의 통반격파의 논리가 그겁니다. (214-237, 1991.2.2) p.1970

지금 뭐냐 하면, 통반격파 가정 착지입니다. 그거 선생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생사지권이 걸린 중요한 일이고, 천하를 얻느냐 잃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218-34, 1991.7.1) p.1970

나라로부터, 도로부터, 군으로부터 면을 거쳐서 통반격파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속였으니, 속인 것을 원위치 해야 됩니다. (233-121, 1992.7.31) p.1970

여러분에게 통반격파를 위해서, 14년 전부터 가정교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5년 전부터 통반격파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이 하는 통반격파를 외친 것입니다.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야 하느냐? 가정까지 내려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는 가정까지 못 갔습니다. 가 보았자, 면까지도 못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교회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구요? 반까지 가야 됩니다. (238-323, 1992.11.22) p.1970

이제는 가정을 기착지로 해 가지고 구국,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 운동이 통반격파입니다. 그래서 통, 반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반상회를 리드하라는 것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가정 가정에 우리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238-334, 1992.11.22) p.1970

가정 평화의 기지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내가 강조했습니다. 이것들도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반격파의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 같이 모시도록 교육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왕과 같이 모시도록 교육하고, 젊은 사람들은 왕자 왕녀로 자라라고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상만 집어넣으면 사탄세계에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그러면 천국과 직통하는 것입니다. (238-336, 1992.11.22) p.1970

복귀섭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족 가지고도 안 됩니다. 가정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가정에서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아들딸이 나오는 곳이 가정이니 가정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207-181, 1990.11.9) p.1971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5) 통반 격파 활동의 조직 확대

① 사회인사 중심으로 조직 확대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통반격파를 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회개시켜 가지고 우리편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선거운동 하는 이상의 운동으로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결전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8-70, 1990.11.15) p.1971

이번에 미국 연수 갔던 사람들의 친지라든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혹은 단체의 누구누구 있으면 대회에 참석시켜 가지고, 우리가 면에 세 사람씩 파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 외에 거기서 추천해 주는 사람 둘을 배치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씩 배치하고도 사람이 남으면 네 사람씩 배치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사람 하나에 추천된 사람 셋이 거기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 사람만의 단위가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준을 중심삼고 더 빨리 통반격파가 가능하고 면동격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직이 편성된다면 거기서 다른 통을 협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면이라든가 동을 중심삼고 자기 기반을 완성해서 주변의 동?면을 협조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 실적을 가진 사람은 몇 개 면, 몇 개 동 가운데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207-391, 1990.11.11) p.1971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정치가들이 문총재를 가정의 기반까지 못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통반격파 시작한 지가 5년이 되지 않았어요? 6년 째입니다. 가정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소생합니다. 면이 아니고 군이 아닙니다. 여러분같이 실력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정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6-358, 1990.10.14) p.1971

앞으로 능력 없게 되면 교회도 그만두고, 지국장이나 해먹든가 맥콜 장사를 해먹든가 하라구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손대려고 그럽니다. 1992년만 지나면 싹 정리할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 책임자들이 1년에 한 8백 명 쯤 나올 것입니다. 성화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알겠어요? 5백 명 이상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군의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걸 사탄들이 못 하게 막는 바람에 못 했지 안 그랬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18년 세월을 흘려 버렸습니다. 통반격파 다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대한민국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06-356, 1990.10.14) p.1971

우리가 활용해야 될 사람들이 미국 수련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핵심적인 요소요소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규합해 가지고 통반격파를 위한 통장 시키고 반장 시켜야 됩니다. 집들 다 있잖아요? 전부 다 통장, 이장, 반장을 시켜야 됩니다. (207-373, 1990.11.11)

다음에 선거할 때는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난 당 안 만듭니다. 당에 있는 잡동사니는 내가 모가지를 쳐 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통반격파를 해 가지고, 나라를 좀먹고 불신풍조를 일으키고 이런 사악한 무리는 내 손으로 남북통일을 중심삼고 잘라 버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할 때, 거기에 맞는 사람은 내가 후원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싸움이고 대가리 까고 하는 녀석들은 싹 쓸어 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라다운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되고, 나라를 지킬 줄 아는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보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통반격파 착지운동을 중심삼고 엮어 나가야 됩니다. 아까 몇 사람씩 하자고 했어요? 돌아가자마자 열두 사람을 타고 앉으라는 것입니다. 타고 앉은 그 열두 사람이 또 열두 사람을 타고 앉아 가지고, 요거만 하면 7만 3천리(里)가 다 우리 품에 깔리는 것입니다. (204-310, 1990.7.11) p.1972

단체를 크게 만들면 피해가 큽니다. 통일교회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에 데려가 교육한 사람들이 상중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대회를 중심삼고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반격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203-185, 1990.6.24) p.1972

여러분이 부모님으로 모신다면 사랑의 기원이 같고, 생명의 기원이 같고, 혈통의 기원이 같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닮았다는 얘기지요? 그래, 북괴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진눈깨비 내리는 날이 싫듯이 그렇게 싫어요? 그런 것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통반격파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금년 여름에 내가 돌아와 가지고 군수든 뭣이든 전부 다 만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게 되면 내 손을 거치지 않고는 군의원, 도의원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202-119, 1990.5.6) p.1972

통반격파 운동을 할 거예요, 안 할거예요? 뭘 위해서? 문총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딸과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소원만이 아닙니다. 내 아들딸의 소원이고, 내 아내의 소원이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공통적 소원으로 되어 책임을 각자 지고 있는 것이니 이 각자의 책임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200-213, 1990.2.25) p.1972

통반격파를 할 때에 문총재가 돈을 대주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돈을 내서 하기를 바래요? 돈 받아 가지고 월급받고 그 놀음하는 것이 애국자요, 굶고 춥고 알아주지 못하는 길을 가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애국자요? 답변해 보라구요? 답은 후자입니다. 이제 이만큼 알았으니 통반격파 열심히 해야 됩니다. (200-213, 1990.2.25) p.1973

내가 일본 국회의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 한 180 명은 됩니다. 내가 악당 같으면 벌써 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했을 겁니다. 내가 그 틈에는 끼기 싫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문총재가 통반격파까지 논하는 것 보니 앉아서 대한민국을 그물로 꽁꽁 싸 자기고, 투망 줄만 당기면 그 안에 있는 고기를 한꺼번에 몽땅 들어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런다.' 합니다. 그래요? (웃음) (199-300, 1990.2.21) p.1973

매일같이 뭐라구요? 노방전도! 그 다음에는 통반격파 운동! 빠른 시일 내에, 6 월까지 끝내야 되겠어요. 전부 다 동 통 반에 장(長)들을 배치해 가지고 3 박 4 일 교육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엔 제 2 차로 서둘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좋을 것입니다. 못 하는 사람들, 실적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협회장, 그거 알아야 된다구!

목표는 120 명입니다. 종족복귀,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동을 중심삼고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3 천 6 백 개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98-50, 1990.1.20) p.1973

통반격파를 위한 조직의 체계화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171-297) p.1973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교학통련 중심삼고 대학기지 격파운동입니다. 어떻게 대학이 국민연합을 중심삼고 일체가 되어 방향을 가누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사회운동입니다. 사회 유지들, 그 지방이면 지방, 행정처 혹은 정당 관리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지방유지들을 묶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지방 청년들을 묶어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겁니다. 주요 도시에 대회를 해 나가면서 통반을 격파하는 겁니다. 통반격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싸움의 격전지는 통반입니다. 통반장 교화 완성,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166-16, 1987.5.26) p.1973

통반격파라는 말은 정당들 정신차리고 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차리라는 말입니다. (213-91, 1991.1.14) p.1973

말 안 들으면 싸움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라 살리자는데 안 해?' 하고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틀어지는 사람은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무엇 갖고? 통반격파 기반을 갖고. 이게 전부 다 선거운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7-375, 1990.11.11) p.197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다년간 통반격파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은 요 한 때에 써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 봤던 겁니다. 선생님조차도 이런 준비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할 것 같아요? 큰일날 것 같지요? 큰일날 뻔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선발되어 준비된 대표라는 의식을 갖고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화산이 터져도 '나는 뽑힐 수 없다. 철옹성 같은 철주다.' 이러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계도 협조하고 국민의 마음도 자연히 거기에 수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7-375, 1990.11.11) p.1974

Top

② 지역봉사활동으로 조직 확대

아직까지 나머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지시한 것 알아요? 통반격파라는 것 알아요? 1984 년부터 시작해서 만 6 년이 되었습니다. 통반격파, 이것이 최후의 관건입니다. 이것만 전부 다 하는 날에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꽁무니에 달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지고는 세계를 지도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주의(主義)를 주장하는 겁니다. 천주주의(天宙主義) 방식! 내가 국가 지도자 선출 방법을 제시해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199-75, 1990.2.15) p.1974

목적이 뭐라구요? 통반격파입니다. 완전히 주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 책임자는 동장하고 어깨를 겨눠야 되고, 통장 반장하고 어깨를 겨눌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북 사람 중심삼고 전부 다 이런 조직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서울은 그렇습니다. (198-45, 1990.1.20) p.1974

홈처치 조직을 함으로 말미암아 통반격파가 가능하고 앞으로 소비조합이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경제권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통일교인 절대 밥 안 굶습니다.

앉아 가지고 일어난다 하게 되면 신문도 한 200 장은 한 시간 이내에 돌릴 것입니다. 새벽에 자고 있으면 답답하고 공기 탁하게,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들은 다 자라 하면서 밤의 왕자가 되어 가지고 슬슬, 암행어사가 되어 가지고 시찰 다닌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186-177, 1989.2.1) p.1974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선거준비를 위해서 통반격파를 밀고 나와야 됩니다. 통반격파. 복귀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총재는 저 삼천리반도에 널려 있는 가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문총재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저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203-363, 1990.6.28) p.1974

한 가지 우리가 약속합시다. 이게 남북통일을 위한 지도자 회의지요? 통일교회의 문선생이 지금까지 뭘했느냐 하면 말입니다. 종적으로만 길러 왔습니다. 왜? 핍박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횡적으로 묶어 가지고 앞으로 통반격파, 면과 동을 중심삼고 결속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198-124, 1990.1.25) p.1975

선생님이 5 년 전부터 무엇을 강조했느냐? 통반격파가 뭐예요? 나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통반 알지요? 동 자리까지 이번에 고희를 통해서 완전히 전국 3 천 6 백 동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여기의 10 배, 15 배, 3 만 6 천 내지 5 만통, 3 만 5 천에서 5 만 통을 전부 다 교육해야 됩니다. 통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반은 31 만입니다. 31 만 반을 교육해야 됩니다. (200-318, 1990.2.26) p.1975

Top

③ 교육 강화로 조직 확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반격파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빨을 앙앙거리면서 짖던 개들이 꼬리를 치고 좋아서 반길 수 있게끔 드나들어야 됩니다. 고향에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개가 길잡이 해야 됩니다. 밤에 가든 낮에 가든 내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천길, 만길, 발이 부르트도록 달려라 달려라 해 가지고 통반격파를 하라는 것입니다. (210-386, 1990.12.27) p.1975

대도시 부흥회와 구체적 조직 확충, 조직 만들어야 됩니다. 통반격파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193-23, 1989.7.15) p.1975

통반격파, 알겠어요? 자기 마을에, 한 종씨가 한 반씩이라고 잡으면 백 집이면 몇 반이 되나요? 반까지 내려가야 이씨면 이씨, 박씨면 박씨 해서 그 동네 전부를 움직이잖아요? 가정에서 잘못 뿌려 가지고 전부 다 망했으니 가정에서 거두고 흥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정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명을 걸고 최후의 결판을 내야 됩니다. (210-291, 1990.12.25) p.1975

교육은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씩만 교육하면 다 끝납니다. 통, 반을 중심삼고 일주일씩만 교육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동, 통, 반 요원만 다 40 일 수련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사랑방에 모이게 해 가지고, 일주일씩 계속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녁 먹고 모이고, 밤낮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시간 계획표 짜 가지고 모이는 수 중심삼고 교육해서 수련받았다는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이래서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통반격파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212-240, 1991.1.6) p.1975

통반격파라는 것은, 한 동(洞)에 평균 25 통이 있고, 그 25 통에는 반이 250 반이 있으니 대략 3 백 명으로 잡아서 3 백 명을 지금까지 7 일 수련 한 그 시간 비중을 중심삼아서 20 일씩 두 번, 40 일을 원리책을 봐 가면서 가르쳐 주고 공부시켜서 7 일 수련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다 교육해 놓고, 시험을 쳐서 50 점 이상 받은 집을 통반격파 반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듣지요? 내가 이걸 다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남한에다가 그걸 다 해 놓으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침투했던 간첩들이 적발되어서 전부 다 쫓겨 나는 겁니다. 그러면 김일성이는 남한에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213-148, 1991.1.16) p.1976

한국에도 이번에 통반격파를 중심삼은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옛날에는 무슨 대회할 때 하루에 2 천 4 백, 2 천 7 백 곳에서 한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왜 그리 조용하우?' 하고 야단입니다. 지금은 자기 아들딸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담 너머 소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이불 안에서 속삭이면서 교육할 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통반격파입니다. 반상회 이상의 반상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 명씩, 다섯 곳에 150 명이 모이면 '너희들 150 명이 감동을 받았거든, 남북통일을 원하거든 아버지 어머니 친척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 백 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 3 백 명을 중심삼아 가지고 동대회, 면대회를 지시했습니다. (214-167, 1991.2.2) p.1976

행정부처를 중심삼고 그 부인들을 통해서 통반격파를 위한 체제를 동회장으로부터 통장 반장까지 이중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교육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횡적으로 정부를 중심삼고 반장끼리 하나 되고, 통장끼리 하나 되게 되면 4 천만이 다 우리편이 되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부가 이걸 알고 나서 이거 문총재한테 빼앗겼다고 별의별 놀음 다 해봤자 안 됩니다. 그들은 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안 믿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끌려 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214-329, 1991.2.7) p.1976

통반격파는 주로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협회가 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장자권?부모권?왕권복귀는 가정 기반을 중심삼고 축복가정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 원리강의도 해야 되고, 승공강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책임자를 맡은 축복가정이 있으면 승공연합을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조직에 있어서 승공연합 사람들을 어떻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교인화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조직이 큽니다.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식구화하면 현재 우리 통일교회의 교구장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18-105, 1991.7.2) p.1976

서두르지 않고는 남북 총선거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6 개월 동안 남북 총선 준비 전국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전부 붙여서 강의합니다. 통반격파입니다. 이제 진짜 통, 반을 타고 앉아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207-364, 1990.11.11) p.1976

통반격파라는 것은 가정 기반을 중심삼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을 중심삼고, 참부모 선포 내용의 말씀을 중심삼아 가지고 감명받게 해서 이것을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테이프를 전부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상영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다 보고 간 사람이 중간중간 본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시도하면 됩니다. 전부 다 감명 깊은 얘기를 해줘 가지고 앞으로 남북통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한이 내적이고 북한이 외적입니다. 남한은 정신적 기준에 있어서 마음적 입장이고 북한은 몸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반대해 나온 겁니다. 몸이 사탄권이니까 딱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5-334, 1990.10.2) p.1977

내 명령대로 통한격파를 한번 해 보라구요. 오래 안 갑니다. 7 개월만 죽자하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한번 뛰어 보라구요. 돈도 안 듭니다. 이젠 내가 여기까지 오라는 얘기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고향에 갈 겁니다. 전부 다 가면 좋겠지만, 지금 서울의 동만 해도 3 천 3 백 개고, 통만 하더라도 1 만 2 천 개고, 반만 하더라도 12 만 개나 되는데 다 갈 수 있겠어요? 다 못 가니 추천해 가지고 가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하게 통반격파를 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문중을 대표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복은 자동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행방의 기틀이 형성되고 자유의 깃발이 휘날릴 것입니다. (209-48, 1990.11.25) p.1977

서울이 요즘 전부 다 골치입니다. 원래는 전부 고향에 가는 겁니다. 고향에 가는데, 이제 6 개월 동안 기한을 두고 전부 통반격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유력한 사람, 기성교회에 다니던 장군들, 장로급들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전부 배치하려고 합니다. 서울은 그렇게 전부 대치하려고 그럽니다. 40 일만 수련받으면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장성급들은 연대장이니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조직이라든가 대중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못 당합니다. (198-41, 1990.1.20) p.1977

사랑의 세계에는 하나님을 내 상대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를 막론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통반격파 분야에서 피땀을 흘러 가지고 기반을 다 닦아서 하나에서 백까지 꽉차게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는 도가니를 만들어 놓고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번 오시겠소?' 할 때 하나님이 와 가지고 '비켜라' 그러겠어요? '네가 안내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앉을까?' 하고 물어 보게 되어 있지 자기가 마음대로 앉을 수 있어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질서를 세운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단계를 아시니 자기가 앉고 설 자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철 안 든 사람에 대해 '그 녀석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려서 생활할 줄 아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08-211, 1990.11.18) p.1977

Top

④ 교학통련과 2 세 중심의 섭리

도별로 전 명문고 출신 전국대회를 해서 도를 중심삼고 지방 조직의 책임자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도 책임자, 군 책임자, 면 책임자, 통 책임자, 반 책임자까지 선정하게 되면 이것이 통반격파 활용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명문 중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개 서울대 고대 같은 명문대학 출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명문대학 출신 전국연합회가 자동적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214-339, 1991.2.7) p.197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래 내가 미국 가서 얘기할 때 통반격파 시대에 교수들 중심삼고, 중 고등학교 선생, 국민학교 선생까지 일일이 대담해 가지고 하게 한 것도 전부 다 학부형들과 연결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승공연합 조직을 만들고 국민연합 조직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했기 때문에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날뛰고 전부 다 사지사판을 벌여 놓은 겁니다. 그것을 혼자 다 싸우지 않았어요? (207-169, 1990.11.9) p.1978

통반격파 운동을 교수들, 중 고등학교 선생, 국민학교 선생들을 중심삼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연결시키면 다 끝납니다. 기성교회가 역사의 무엇이 어떻고 어떻고 해 가지고 반대하지만, 다 깨끗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공산당까지 전부 다 앉아서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5-297, 1990.10.1) p.1978

이래 가지고 거기에 관계돼 있는 모든 교수들 앞에 …. 무슨 교수는 고향이 어디고 전부 다 대번에 나오잖아요? 백 개 전부 다 향토학교 기반을 중심삼고 딱 만들어 가지고, 홈처치 책임자 오라고 해 가지고, 저녁은 교수들이 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해 가지고 공산당을 막기 위한 지방에 있어서의 통반격파, 리동격파를 하지 않으면 공산당 앞에 먹히게 되는 건 실제적 문제입니다. (187-21, 1989.2.7) p.1978

통반격파 그거 카프(CARP)가 주도역할을 해야 된다구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교 학생들이 돼 가지고 2 세들을 포섭해야 된다구요! (198-7, 1990.1.20) p.1978

지금 때는 학사 움직이는 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임자네들 전부 다 통반격파 책임하고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중 작전입니다. 행동부대로 지금 학사가 나섰으니 전적으로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급히 서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181-156, 1988.9.5) p.1978

요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반격파 운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뭐 면장 짜박지들, 지서장 짜박지들, 경찰서장 짜박지, 뭐 군수 짜박지들, 아무 대학 나왔다고 배통 내밀고 휘젓고 다니는 것들이 가담했습니다. 또 거기 면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대학교수들입니다. 전부 다 대학교수들이 배치돼 가지고 나라 살리려고 하는데 여기 신문기자 선생님들, 자기 고향 살리는 데에 가담할 거요. 안 할 거요? 대답해 보소. 할거예요? 나라 살리는 데는 더 해야지. 세계 살리는 데는? 나라 팔아서라도 세계를 살리겠다면 그 민족은 세계의 조상 민족이 되는 겁니다. (179-202, 1988.8.12) p.1979

나라가 필요하고 세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교수님 자신들도 수직적 사랑에 90 각도 평형선 사랑권을 중심삼은 사랑 구형의 이상을 이루어야 할 우주사적 본연의 추구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문총재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 놓으면, 딱 맞추면 어디로 가느냐? 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반격파가 뭐냐 하면 가정에 돌아가서 이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총재의 아들딸이니까 내가 세계적으로 닦은 모든 심정권, 동참 동위의 상속권과 그 가치까지 무조건 몽땅 줬으니 고향에 돌아가 집에 가서 뿌리를 내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만 내려서 수직과 딱 서면 문총재로 말미암아 세계적 정적 판도를 그냥 상속받고 동참할 수 있는 승리적 영광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론적입니다. 참부모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메시아가 절대 와야 된다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76-124, 1988.5.3) p.1979

'국민연합이든 승공연합이든 통일교회든 너희들이 일해야 할 장소는 현재의 사무실이 아니다. 통반격파 이것을 해놓고 싸워도 싸워라!'하는 것입니다. 누가 반에 가서 많이 영향을 주느냐, 누가 동에 가서 북한 해방의 용사가 되겠다는 사람을 많이 가입시키느냐. 지구장 혹은 의장단 휘하에 자기 예속 족속들을 많이 만드느냐 하는 걸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발표 안 했으면 다 깨졌습니다. 교수님들은 뭐 생각도 안 했습니다. 책임진 문총재는 얼마나 머리 썼는지 알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중앙까지도, 도든 군이든 면까지도 교수들이 통 반장 해라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전부 다 보따리 싸 가지고 가정에 가라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애국의 뿌리는 가정에 담겨야 됩니다. 면사무소, 군사무소가 아닙니다. 가정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자. 문총재가 통반격파하라는 선언 잘했소, 못 했소? 교수님들, 잘했소, 못 했소? 그러면 통반격파 하겠다고 밤을 새워 가면서 얼마나 돌아다녀 봤어요? 그거 문제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의 애달픈 심정 이상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나라를 못 살립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일족 돌아간 이상의 슬픔을 느끼지 않고는 남북통일이 안 됩니다. 난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교수님들이 집에 들어가서 손을 붙들고 눈물어리고 남북통일하자고 하는 목이 메인 한 마디는 지나가는 어떤 선생이 천 마디를 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학통련을 만들어 놓고 반 동네를 살리겠다는 그런 교수가 있거들랑 학생들과 연결시켜서 그 아들딸들을 전부 다 규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76-112, 1988.5.3) p.1979

Top

⑤ 종족적 메시아 활동과 통반 격파

본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원리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거예요?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구요. 부정할 수 있어요?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고향을 하라고 해서 자기 마을의 통반격파를 완수한 기반 위에 국가 기반 완수해야 합니다. 각 가정의 출발점을 세워서 소생-장성-완성을 통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소생이고, 통반은 종족 장성이고, 국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 셋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족을 연결할 수 없고, 국가를 연결할 수 없고, 세계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218-184, 1991.7.28) p.1980

통박격파를 왜 하느냐?

지금까지 정부가 나를 반대하는 것은 문총재가 가정까지 들어가면 큰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총재가 자리잡아야 할 곳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에는 평화의 기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냐? 가정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타락했기 때문에 가정을 올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참부모가 나와 가지고 가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203-252, 1990.6.26) p.1980

이제부터는 통반격파를 위해 전국의 3천 6백 개의 면과 통을 중심삼고 조직을 편성해 가지고 완전히 배치할 겁니다. 여기 본부에 있는 사람도 잘 알아 둬야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가 자기 고향이 아닌 사람이 여기에 참석했다가는 다 후려갈길 겁니다. 왜 그러냐? 종교 세계에 있어서 환고향하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는데 왜 안 가느냐는 거예요. (197-207, 1990.1.14) p.1980

이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해방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통반격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족을 중심삼고 통반격파, 이것이 결정되게 될 때는 공산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난 것입니다.

선생님이 국가 기준까지 실체를 중심삼고 미국을 중심삼고 닦아 와 가지고 미국 중심삼은 국가의 승리적 기반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를 거쳐 가지고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선생님이 여기에 접붙여 가지고 종족적 메시아권을 중심삼고 4천만 민족을 딱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됐다 할 때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탄이 참소할 곳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참소할 수 있는 기반을 넘어섰고, 가정으로, 종족으로 참소할 기반을 넘어섰습니다. 세 종족을 연결시키면 민족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188-315, 1989.3.1) p.1980

종족적 기반만 해결하면 민족은 자동적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것이 뭐냐 하면 통반격파 문제입니다. 통반격파는 종족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부락하게 되면 부락, 통반이 전부 다 종족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통반격파라는 말을 써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종족적 메시아가 되면 통반격파가 완료되나요. 안 되나요?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선생님이 일생을 걸고 수고한 모든 수난 길을 헤아려 가면서 눈물과 더불어 자기 고향, 부모 형제가 자기 친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눈물로서 에덴동산에서 이별해야 했던 친족들이, 다 산지사방에 있던, 수많은 원수국가들과 싸워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망할 수 있는 사탄 지역 됐던 것이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눈물로서 하나 돼 가지고 만국을 수습하고 하나의 사랑을 중심삼고 만국을 대표한 가정을 통해서 눈물로 상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해방의 깃발이 꽂히게 될 때, 만국은 그걸 중심삼고 영원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7-173, 1989.2.5) p.1981

통반격파하라는 말은 파괴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통반격파가 뭐냐? 통반 소화라고 하든가 해방이라든가 해야지' 그러겠지만 뒤집어 박아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거짓 사랑이 남아 있고, 거짓 핏줄이 남아 있고, 자기를 위하라는 거짓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미친 자식이라고 합니다. (203-252, 1990.6.26) p.1981

통반격파의 의의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 기준을 중심삼고 '사상적인 면에서 180 도 참부모의 심정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만민의 것이요. 천지의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에게 전수된 아버지의 전통을 이어서 나도 참부모의 인연을 가지고 무조건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데는 피와 살과 정성을 보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의 있는 마음씨를 본받아서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 아들 딸의 마음, 이웃인 여러분의 마을, 더 나아가서는 통반에 주게 되면 통반격파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199-374, 1990.2.21) p.1981

아담과 해와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족적인 메시아는 결국 가정정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통반격파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가정이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가정들에게 선생님의 사진을 거는 운동, 기를 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완전히 사탄세계와 하늘 편 세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가정에 참부모의 존영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218-124, 1991.7.14) p.1981

지금 통반격파에 있어서 리·통의 조직을 선생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8 만 세대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부모님의 존영과 깃발을 다 나누어 줘 가지고 7 월 3 일부터 9 일까지 참부모 선포, 구세주 선포, 메시아 선포, 재림주 선포까지 했습니다. 재림주 선포가 뭐예요? 참부모입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재림주입니다. (238-336, 1992.11.22) p.1982

본연적 심정이 폭발되는 하나의 기원이 되지 않고는 산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히말라야와 같은 산정을 넘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사랑의 힘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외부의 세계는 나라가 합해 가지고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와중을 책임지고 가서 격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혼자 싸우는 겁니다. 내가 미국 가서도 그 싸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격파! 통반격파지요? (214-114, 1991.2.1) p.1982

남북통일시대에 해야 할 첫번째는 통반격파입니다. 지금 부르짖는 것이 통반격파지요? 통반격파를 통해서 선생님 사진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의 사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12-138, 1991.1.2) p.1982

환고향하라고 했지요? 나도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꼭대기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문총재 하면 '아, 그 분은 애국자다!' 이러게 돼 있습니다. 잘났다는 사람들에게도 '이러이러하니 남북통일 총선 대비 전국대회를 하는데 반대할 거요, 지지할 거요?' 하면 '반대를 왜 하겠습니까? 지지합니다!' 하는 통첩을 다 받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통첩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반대하면 내가 힘내기를 해서 밀어 제낄 것입니다. 내가 손을 대면 서릿발같이, 암만 큰소리해도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통반격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213-51, 1991.1.13) p.1982

통반격파는 가서 총칼로 협박하고, 공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밤이나 낮이나 활동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도, 또 나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아들딸은 저 사람들을 본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통일교회를 찬양하면 술 좋아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악마가 거기 붙었다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싸우던 녀석들도 통일교회에 입교하더니 안 싸우는 것을 보고 '우리 아들 딸도 통일교회 교인들같이 되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하면 사탄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12-100, 1991.1.2) p.1983

가정에 자리를 잡으면 180 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사진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벌써 부모님 명령과 일치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걸 본 사람은 살아난 것같이 사는 것입니다. 딱 그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깃발보고 저주했다가는 앞으로 눈이 병신이 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달지 않아서 그렇지. 사진을 붙이는 것도 정성을 들여 가지고 붙이면 손가락질을 했다가는 손가락이 까부러지지 않나,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218-72, 1991.7.2) p.1983

통반격파를 위해서 가정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 가정에서부터 전부 다 잃어버렸고, 그것이 나라와 세계를 잃어버린 기원이 됐으니, 이제 선생님이 세계로부터 탕감해 가지고 대한민국 가정을 전부 다 감싸 가지고 방향 전환하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주체사상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참된 부모와 참된 스승과 참된 주인의 사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신 참부모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참된 부모니 이 땅 위의 참된 부모의 입장에서 참된 스승의 자리,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는 세계적 판도권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지금 행사를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204-125, 1990.7.1) p.1983

통반격파 조직만 완료하게 될 때는 집집마다 깃대를 꽂고 우리 통일교회 사람이 하루에 세 사람이 왔다가더라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정만 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세를 지우는 것입니다. 반대하지 말라고 신세를 지우는 것입니다. 내 신세 다 졌지요? 미국에 데려다 교육하고 말입니다. 빚을 단단히 졌는데 참부모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할 수 있어요? 선생님 중심삼고 이루어진 모든 사실, 선생님 말씀으로부터 해서 정신적 분야와 물질적 분야에서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누가 반대해요? 전부 다 나발 불고 북 치라면 나발 불고 북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선포하고 환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정상을 넘어 사탄이 지금까지 무대로 해왔던 이 지구성을 밟고 올라서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늘나라와 연결시켜 가지고 왕권 정착 선포식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꽉 내려 누르는 것입니다. 딱, 정신을 통일하게 되면 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다 제압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00-346, 1990.2.27) p.1983

통반격파 운동은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운동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를 중심으로, 통으로부터 반으로부터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 조직체로서는 통과 반만 통일하게 되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소생-장성-완성의 3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 중심삼고 수직으로는 가정과 통, 반, 횡적으로는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렇게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소생-장성-완성의 3 단계 기준을 가지고 가정 전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중심삼고 그렇게 될까요? 참부모의 사랑과 더불어 두익사상, 하나님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감으로써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 참소 조건도 밀어낼 수 없는 겁니다. (213-254, 1991.1.21) p.1984

Top

6) 통일운동과 여성의 역할

선생님이 능란하지요? 그 잘 사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무슨 뭐 통반격파니….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성해방의 전통적 역사를 한국 여성이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과 여러분들이 행동해 온 그 내용이 앞으로 세계 여성들을 움직이는 전통적 교재가 되는 것을 알지어다! 아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누가 교재가 될 수 있느냐? 편안한 자리에서 여덟 시간 잠자고, 세 끼 밥 먹고, 그 다음엔 더우니까 시원한 자리 찾아서 그늘에서 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땡볕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것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비참할수록 역사시대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감옥살이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뼛골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것입니다. 감옥살이 한 이야기, 그걸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전부 통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연이 얼마나 많아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233-262, 1992.8.1) p.1984

내가 돈 한푼도 안 대 줬습니다. 돈 대 주면 안 됩니다. 돈 대 주면 앞으로 나라가 갈 길이 막힙니다. 돈을 나라에서 백성에게 대 주어야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통일교회 교인들이 피땀을 팔아서, 피땀을 흘리고 뼈 살을 깎아서 팔아서라도 이 나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돈 안 대 주고 지금까지 해서 이젠 통반격파가 다 끝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요전에 전체를 보고 받고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에 왔습니다. 전국은 못 가고, 서울이 중심이니까 대표적으로,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순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233-179, 1992.8.1) p.1984

오늘, 말 잘 들어서 청산지어 가지고 새로운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당부하는 것은 뭐냐? 남성을 통해 실패했던 통반격파 체제를 여자를 통해서 다시 이루기 위해 지금 현재 리?통 기준을 중심삼고 전부 다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통반격파가 눈앞에 머물렀으니, 통일교회 여성들은 밤에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놀지 않고, 이 일을 먼저 해야 할 천적 의무가 있는 것을 알지어다! 아멘.
그러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233-52, 1992.7.20) p.1984

지금까지 선생님이 밤잠 안 자고 일생 동안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반격파는 자기 일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120 가정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때는 120 문도가 있었지요? 그와 같이 120 가정을 자기 휘하에 세워 놓으면 돈 같은 건 문제없습니다. 밥 먹고 살 것이 걱정이에요? 문제없습니다. 남자들, 알겠어요? 남자들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은 써먹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낳았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재차 축복받아야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32-253, 1992.7.9) p.1985

한국은 여성들을 세워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세계평화연성연합 지도자들을 지방 여성지도자로 내세운 것입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지도자들이 지방에 있어서의 군지부장이 되고 면지부장이 되고 동지부장이 되고 통지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문총재는 이것을 14 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홈처치라는 말을 중심삼고 '지방에 내려가서 일족을 수습해라!' 해서 이것을 14 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때문에 7 년 전부터 통반격파를 주장해 나왔습니다. (232-199, 1992.7.6) p.1985

다음 4 월달에는 15 만 명 여자를 중심삼고 올림픽 스타디움을 완전히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의 부인들이 통반격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못했으니 여자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만 7 년 동안 통반격파 운동을 했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내가 세 차례나 많은 돈을 써 가며 완수하라고 했는데도 못 했으니, 이제는 남자들을 믿지 못 합니다. 남자들 제외하고 여자들 동원해 가지고 해결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통반격파를 하더라도. 여편네 서명, 아들 딸 서명을 안 받으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편을 쫓아내고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여자들이 떼거리를 지어 뒷문, 옆문, 앞문 담을 타고 넘어 가지고 가서 그 집 남편을 쫓아내고 마음대로 회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224-62, 1991.11.21) p.1985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평화의 세계가 빨리 올 수 있게끔 국민을 결속해 가지고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남북통일 평화의 기준을 촉진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촉진화시키기 위한 운동이 통반격파 운동이다! 아시겠어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남침 간첩들이 숨어 있는 곳은 여자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품입니다. 여자들 치마폭에 안겨 있는 겁니다. 치마폭 아래 숨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남한에 있는 색시를 얻어서 돈 벌어다가 사돈의 팔촌까지 들어가 가지고 후원도 하고, 동네 문중들에게 인심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남한 스파이 공작비 가지고 잔치해서 후대할 수 있는, 이름있는 간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걸 격파시켜야 됩니다. (214-255, 1991.2.2) p.1985

지금까지는 할 수 없으니 남자를 시켜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정교회는 남자 위주로 해 나왔고, 지금도 남자 위주로 해 나가고 있지요? 통반격파를 남자 위주로 해서 돈을 얼마나 투입했어요? 이제는 피살을 팔아서라도 분명히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땅을 팔든가, 일족의 논을 팔든가, 일족의 돈을 모아서라도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지령이 떨어질 겁니다. 70 가정을 하게 되어 한 가정에서 1 억씩을 준비하라고 하면 70 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시대이니만큼 그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피땀을 흘려 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남편이 모르게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남편 모르게 뭘 만들라고 그랬지요? 통장, 은행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235-126, 1992.8.29) p.1986

1978 년도부터 시작했으니, 이제 14 년 째입니다. 14 년 전부터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사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가정교회를 중심삼고 통반격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기반을 중심삼고 통반격파를 하기 위해서는 리까지 전부 다 조직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을 중심삼고, 그래서 동 대회, 통 대회, 반 대회까지 다 했습니다. 12 만 명 반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계의 희망」이라는 책과 원리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전부 다 책임을 못 했습니다. 이걸 무슨 세상의 놀음 놀이 하듯이 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못 했으니 여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자기 집 살림살이만 하게 안 돼 있습니다. 여성연합을 중심삼고 동원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원된 것이 사람의 힘이에요? 맨 처음에 내가 아시아평화여성연합 발기대회를 하겠다니까, 전부 다 눈이 이렇게 돼 가지고 여자들이 뭘 하겠느냐고.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이 뭘하겠느냐고 반대한 사람들이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서니까 할 수 없었던 거지, 분위기를 보니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시대 도래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선포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성시대가 도래하나, 안 하나 두고 보라구요. (233-111, 1992.7.31) p.1986

통반격파를 1978 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4 년입니다. 14 년 동안 통반격파를 해 나온 것은 이때를 표방해 나온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이념이 통반격파의 이념입니다. 그것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색채를 달리해서 통반격파를 중심삼고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7 년, 7 년 해서 14 년이 걸렸습니다. 그전부터 준비해서 하라는 것이 선생님의 계획이었는데, 한국의 책임자들이 이것을 몰라 가지고 책임을 못 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두 번을 못 했으니, 이제부터는 여자들이 해야 합니다. (237-65, 1992.11.11) p.1986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게 될 때, 이 남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등등의 문제, 문총재는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벌써 다 준비해 가지고 통반격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몇 차례씩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206-70, 1990.10.3) p.1987

북괴의 군인을 여자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지상의 사탄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들은 천상세계의 사탄이를 쳐버리는 겁니다. 양면 작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괴의 간첩들이 와 사는 것은 여자들이 보호해서 사는 겁니다. 여자들 품에서 사는 겁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원치 않지만 여자들이 숨겨 놓고 있습니다. 요걸 격파하기 위해서 통반격파 운동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 불러다가 선생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사명을 하라고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게 되면 감옥에 처넣는 겁니다. 여기가 노라리판이 아닙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나선 길입니다. 월급 받아먹고 잘 살기 위한 터전이 아닙니다. 똥개 새끼들을 데려다가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정병을 만드는 곳입니다. (180-121, 1988.8.7) p.198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반격파를 알겠지요? 14 년 전부터 홈처치를 말했습니다. 수많은 돈을 써서 교육했습니다. 5 년 전부터 통반격파를 말했습니다. 남자를 내세워 가지고 망살이 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후로 여자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238-305, 1992.11.22) p.1987

Top

제 4 장
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하라

1) 지금은 동서남북 통일의 시대

선생님은 남북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고생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쉬울 것이니만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남북통일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해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남북통일 654, 1986.11.21)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히 해 가지고 남북통일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일선입니다. 세계의 일선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세계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우리의 뜻을 중심삼고 별의별 역사가 벌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단결해 가지고 남한만 움직일 수 있으면 영계에서 역사할 거 아니예요? 그거 누가 알아요? (165-215, 1987.5.27) p.1988

돈이 없더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 집이라도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앞길을 다 보호해 주고 책임져 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에 따라 하지 말고, 체제를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기뻐해 주지 않는 돈은 독약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울던 이상 울고 다녀야 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정성들인 이상으로 남북통일운동을 위해 울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166-183, 1987.6.5) p.1988

어떻게 통일된 체제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민주체제와 공산체제를 넘어설 수 있고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통일적인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적 기반 위에서 통일체제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체제를 형성하는 데는 이 한국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한국을 중심한 국민연합의 형태를 띤 것이 세계의 동서남북통일연합입니다. 한국이 곧 세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세계가 따라오면 모든 것이 통일적 세계 체제로 넘어갑니다. (173-67, 1988.1.3)

이제 금후의 문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념의 철저화, 둘째는 조직강화, 세째로 공동활동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 이상으로 강한 조직력과 활동력을 가지고 대결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금 발전하면 조직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94, 1965.9.30) p.1989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은 남북통일운동을 위한, 통일을 위한 운동기관입니다. 이건 국민이 연합해서 남북통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6 천만을 동원해야 합니다. 6 천만 민족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60 만을 대표해 단결해서 새로운 에덴을 향하여 6 백만, 6 천만의 단결된 기수들이 생겨나게 되면, 세계는 완전히 지상천국의 기지로 직행할 것입니다. (163-24, 1987.4.18) p.1989

통일교회에는 교회도 있고 승공연합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교학통련도 있고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뭘하자는 거예요? 남북통일만이 아닙니다. 남북해방만이 아닙니다. 인류해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166-155, 1987.6.5) p.198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북통일운동은 하나님의 전통적 사상을 중심삼고 남북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새로운 건국사상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163-165, 1987.5.1)

문제는 이것입니다. 역사의 승패권을 가름하는 최후의 격전장의 용사로 싸우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격전, 전쟁 앞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냐, 얼마나 극복해 내느냐, 생사의 교차로에서도 제 2 의 결의를 다짐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용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음 길에서도 또다시 살아서 싸울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살아서 싸울 것이다 하는 사상이 있으면 공산주의를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161-35, 1972.8.20) p.1989

아직까지 통일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책임을 다 못 했다는 것입니다. 편히 쉬고 노는 사람은 있어도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들이 없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져도 이 산천, 저 마을 골짜기마다 내 피땀이 어린 정성의 손길을 바라고 있으니 가야 합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면 종(鍾)에 줄을 연결시켜서 잡아채서 사방으로 땡그랑땡그랑 종을 울려서라도 한 곳으로 움직여 나올 수 있는 통일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남북한이 아무리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통일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길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61-237, 1972.8.31) p.1989

지금은 어떤 때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출발할 때입니다. 그런 때이기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밤을 새워 가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아무 날 아무 시에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도 통보를 해주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만 민족 전체 앞에 그들이 가든 안 가든 통고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왔는데 아직까지 통일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1-237, 1972.8.31) p.1990

신음의 박차가 가해 들어오는 숨막힌 세계적인 최후의 교차점을 향하여 찾아 들어가는 혼란된 와중에서 내 주체성을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금후의 한국에 있어서의 종교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요, 수많은 교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요, 대한민국 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는 안 됩니다. 주체와 대상을 확실히 가려 가지고, 하늘을 주체로 인간을 대상으로 완전히 가려 가지고 설 자리에 설 수 있고 처할 수 있는 자리에 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막힌 시대의 교차점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이 그 순간인 것입니다. (65-152, 1972.11.5) p.1990

남북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기 형제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남한의 정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라도 경상도가 서로 해먹겠다고 싸우는데, 그래 가지고 뭐 남북을 통일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듣기 싫겠지만 듣기 싫은 말이더라도 바른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168-230, 1987.9.20) p.1990

천운을 따라가야 됩니다. 개인적 운세, 국가적 운세도, 아시아 운세를 버리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실각되는 것입니다. 천운을 따라 아시아 운세에 보조 맞출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천운을 따라 갈 수 있어야 천운의 보호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제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문선생한테 배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결론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68-230, 1987.9.20) p.1990

남북이 통일되거든 통일된 대한민국은 당당코 세계 앞에 선두에 서서 세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전통적 사상을 남기는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주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민족 사상은 금후 20 세기를 넘어 30 세기 이후 언제까지라도 남게 되어 반드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민족으로서 남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56-273, 1972.5.18) p.199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남북통일이 무역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공산주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는 힘없이 흡수되고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태껏 몰라서 그랬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남북통일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 문제나 남북 문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삼고 세계의 이상을 소화하고, 거기서 국가 이상을 소화하고, 국가 이상에서 민족, 가정?개인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상세계의 평화적 무한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 위에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143-285, 1986.3.20) p.1991

이 시대에 있어서 바라는 것은 남북통일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통일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터전을 여러분 가정과 우리 민족과 세계에 쌓기를 하늘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실소냐?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이상, 남편 아내 사랑하는 이상, 자식 사랑하는 이상의 사랑으로 중심삼고 그 환경을 닦고, 그 사랑을 중심삼고 제물적인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상적 남북통일이 나오는 것이요, 이상적 동서문화의 통합이 벌어지는 것이요, 지옥과 천국의 해방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 가지고는 풀 수 없습니다. 사랑의 키(key: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170-103, 1987.11.8)

한국에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세계의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 무력을 사용하여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군사력만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사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604, 1986.3.14)

우리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해요? 나라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요즘도 뭐 민정당하고 신민당이 서로 대통령 해먹겠다고 싸워? 해먹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국민과 더불어 진정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물거품처럼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훗날 역사로부터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148-275, 1986.10.11) p.1991

갈라진 남과 북이 그냥 하나될 수는 없습니다. 애국 동지들이 투쟁하는 그 과정에서는 밤잠을 안 자며 시간을 초월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결의와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같이 살고 싶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싶소. 우리의 선조들, 영계 영인들과도 더불어 같이 살고 싶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남북통일을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148-277, 1986.10.11) p.1991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북한이 폐쇄사회가 돼 있기 때문인데, 그 사정을 알면 알수록 그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원수이지 그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북한을 바라보면서 목이 메어 불쌍히 사는 내 동포를 위해 눈물 흘리고, 당신들의 어려움과 더불어 나는 살고 있다고, 해방의 한날을 준비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다짐하며 통일을 위한 실천운동이 여기서 벌어진다면, 북한에 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148-268, 1986.10.11) p.1992

통일은 어디서부터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남북통일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주먹이나 힘으로? 힘으로 굴복시켜 놓으면, 나중에 저쪽 힘이 더 커질 때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방식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남 땅에 살지만 이북에 사는 그들과 진정 같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148-260, 1986.10.11) p.1992

'같이 살고 싶구려!' 하는 그 내막의 공통분모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은 역사를 초월 못 합니다. 그건 한때의 것입니다. 지식? 지식세계는 발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식의 세계에서 학문과 더불어 길이길이 같이 살고 싶구려 하는 마음이 있어요? 확실히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금전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위나 아래나 전후좌우를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초월한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분모가 무엇이냐?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148-260, 1986.10.1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혹은, 우리 인생항로를 어떻게 가야 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볼 때, 그 골자를 추린다면 효자가 가는 길, 충신이 가는 길, 성인이 가는 길, 성자가 가는 길의 근본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길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위 아래를 막론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전후좌우?주야를 초월하고 생애를 넘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사무친 삶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148-258, 1986.10.11) p.1992

삼팔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경계하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어찌합니까?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북한 사람보다도 더 고생하고, 남한 사람보다도 더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 가운데 세워진 초민족적인 애국심을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 이것이 한국을 살리는 첩경이요, 해결 방안입니다.

악한 세계와 선한 세계를 통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계의 충신 이상의 충신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을 지향해 나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세워 놓은 충신의 도리 이상의 충절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결렬된 역사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61-125, 1972.8.13) p.1992

지금 남북이 엇갈려 있습니다. 방향이 다른 입장에서 하나는 남으로, 하나는 북으로 가려고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으니,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일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주체적인 사명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남한이 하게 된다 할 때 북한이 반대할 것이고, 북한이 하게 된다 할 때 남한이 반대할 것입니다. 자기 자체를 고집하는 자리에서는 또 결렬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남한 사람 누구보다도 북한을 더 사랑하는 한국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북한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상 북한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것 밖에는 모색방안,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남한의 그 누구보다도 더 애국하는 사람, 북한의 그 누구보다도 더 애국하는 사람, 그렇게 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할 때에 거기서 통일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길이 있겠어요? 그 외에 길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61-125, 1972.8.13) p.1993

지금 남북통일을 바라고 있는데,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차원 높은 통일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는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북에서 이남에 와 가지고, 또 이남에서 이북에 가 가지고 서로가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 할 때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손해나는 자리에서는 통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플러스될 수 있는 데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서로 마이너스되는 입장에서는 하나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서로가 이익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61-73, 1972.8.27) p.1993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들보다 강한 사상의 기반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상 우리도 우리의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그들이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이상 우리도 하늘을 사랑할 수 있는 사상적인 강한 힘을 가지고 인격적인 면에서 그들을 자연굴복시킬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을 흡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적으로 감복시키고, 인생관이나 생애를 통해서 감복시킬 수 있는 인격적인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나타난 인격의 가치를 중심삼고 볼 때에,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갖지 않고는 가인 국가를 복귀할 수 없습니다. 가인 국가를 복귀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중심한 세계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복귀의 국가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46-123, 1971.8.13) p.1993

하나님의 사탄을 적과 원수로 생각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하면, 절대로 승리의 정상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사랑의 작전을 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북통일 595, 1983.4.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세계적으로 박해를 당해도, 세계적인 원수권에 서더라도,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한 줄에 하나님도 걸려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종교계의 모든 사람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승패로 갈라지는 경계선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북통일 595, 1983.4.3)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라구요? 통일입니다. 통일교회를 중심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교회가 제물이 되어 가지고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그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56-283, 1972.5.18) p.1994

통일교회가 가는 길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통일입니다. 통일이 핵심입니다. (90-64, 1976.12) p.1994

Top

2) 종족적 메시아 선포의 의의

선생님이 종족적 메시아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한국이 선생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탕감복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전부 배반한 걸 내가 탕감복귀를 해줬지만 내가 또 탕감복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188-59, 1989.2.16) p.1994

왜 종족적 메시아를 전부 다 한국과 더불어 세계에 선포했는지 알겠어요? 요걸 한국에서만 하면 세계의 국가 전부가 선생님 중심삼고 다 하나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얼마나 총동원이 되겠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다 하고 전부 눈에 불을 켜 가지고 해원성사할 수 있는, 몇 천년 몇 만년의 역사를 탕감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왔다고 전부가 내려가길 바라고 있는데, 전부 다 다리를 끊어 놓으면 되겠어요? 이젠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졌으니 자기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를 만들려니 종족적 메시아로 축복가정을 배치해 가지고 예수 완성, 자기 완성, 아담 완성, 3 대 조상 기준을 세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품을 수 있는 자유스런 환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통일이 아무렇게나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엮어 가지고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정적 기준과 종족적 기준에 연결됐으니 국가적 기준에 연결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하고 정부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219-97, 1991.8.25) p.1994

예수님이 실패한 이후 여러분에게 종족적 메시아를 위임해서 타락한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자기의 부모를 지금에 와서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천혜(天惠)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은 부모의 자리에 세운다고 하는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가 되기 위해 보내진 것이지만, 선생님은 전세계적으로 축복받은 2 만 5 천 명 이상의 축복가정들을 종족적 메시아로 발표했습니다.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228-173, 1992.3.27) p.1995

한국의 통일교회하고 일본의 통일교회는 가인 아벨로 하나되었지만 하나된 통일교회 여성들이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통일교회 단체인 국제승공연합,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등 모든 단체를 비롯하여 통일교회와 연결된 단체의 모든 여성들을 이제 갖다 바쳐야 됩니다. 어디에 갖다가 바쳐야 되느냐하면 가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가정입니다. 이것을 촉진화시키기 위해서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선생님 대신 남자들이 갔으니 여자들이 전부 다 수습해 가지고, 여자 네 명만 딱 수습해 놓으면 남자들은 그 나라의 종족적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행차를 중심삼고 모든 남자까지도 수습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230-287, 1992.5.8) p.199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땅에서 이룸이 하늘에서도 이룸이요, 땅에서의 성사가 하늘의 승리로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때가 되었고, 참부모의 이름과 더불어 오늘 거행한 모든 식전이 영계의 예수님을 중심삼고 통일적인 영계와 지상의 참부모를 중심삼고 통일적인 하나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두 세계가 하나의 참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적인 혈연관계를 통하여 묶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 확장 시대로서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부와 가정, 해와와 가인 아벨권을 중심삼은 참된 가정 기반에서 신랑의 심정을 접붙일 수 있는 세계적인, 모든 종말적인 청산 기간을 갖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246-136, 1993.4.7) p.1995

종족적 메시아가 가정적 메시아의 다리를 놓치면 중생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혁명적 사건입니다. 특권적 사건, 특사적인 사건입니다. (265-134, 1994.11.20) p.1995

Top

3)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준 이유

종족적 메시아가 뭐예요? 참사랑의 주인입니다. 참사랑의 주인, 이것은 예수님이 바랐고 아담과 해와가 바랐고 하나님도 바랐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참사랑의 주인이 되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는 말은 종족적 조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182-98, 1989.1.3, 한남동 공관) p.1995

종족적인 메시아가 뭐냐? 한 마디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왕권 자리로 올려 세우기 위한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지금까지 사랑을 중심삼고 부모가 시작해서 내가 태어난 본래의 고향인 하늘나라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향이 없습니다. 이걸 안 해주면 태어난 고향이 없습니다. 고향이 없는 곳에는 부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향이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앞으로 하늘나라의 고향의 자리에 입수(入收)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땅도 인간들이 태어난 그 모든 곳이 하늘나라에 속해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자리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리를 대신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194-121, 1989. 10.17, 한남동 공관) p.1996

종족적인 메시아는 일대에 있어서 종족을 중심삼고 고향을 안내하는 선봉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출애굽의 선봉자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이 아닙니다. 모세는 뭘 모르고 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을 찾지 않고는 고향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원리적인 사실입니다. 사탄 세계에 형님의 종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종족 자리에 오도록 형님을 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되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구해 주고 가야 그가 울타리가 되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해도 사탄이 또 물어가는 겁니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일족, 고향을 다 전도해도 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102-264, 1979.1.14, 벨베디아 수련소) p.1996

종족적인 메시아는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를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엔 고향, 고향을 찾아 세움으로 말미암아 왕권 회복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걸 싹 집어넣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 동위권에 서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고향복귀하는 것이요, 왕권복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소련이든 미국이든 태어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고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고향을 가지려니까 하늘나라의 부모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부모를 만드는 것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194-121, 1989.10.17, 한남동 공관) p.1996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수직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서남북의 감각과 전후 좌우 상하의 모든 감각을 체득함으로써 하나님이 보게 될 때, 볼 것이 없이 체험했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연의 자리에,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백방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전지한 분이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의 왕인데? (198-260, 1990.2.4, 본부교회) p.1996

수직의 자리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대신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지상에서부터 횡적인 면에서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하는 것이 이번 거사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는 내가 이제 죽더라도 반드시 세계적으로 닦아진 판도, 이 철주, 수직적 세계에 접붙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은 종족적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아벨적 문중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조상들은 생명의 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부모이기 때문에 씨를 갖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족과 어머니 아버지는 사탄세계의 씨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씨를 가지고 부딪치면 어디 가든지 통합니다. (198-267, 1990.1.4, 본부교회) p.1997

종족적 메시아는 유대교, 기독교,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전통적 모든 실패를 압축시켜 승리적 권한을 가지고 불교 유교 등 모든 종교들이 받겠다고 하는 모든 복을 총합한 자리에서 결정적 핵으로 전수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은 국가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를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가를 염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198-270, 1990.2.4, 본부교회) p.1997

자신의 종족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다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명령은 역사상 없었던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입장은 제 2 의 참부모의 입장으로 예수의 입장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을 부여받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217-125, 1991.5.12, 이스트가든) p.1997

왜 종족적 메시아로서 책임분담을 다해야 하는가? 첫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제 1 의 아담의 입장이고, 여러분은 제 2 의 아담의 입장에 있습니다. 부모를 복귀하여, 재창조하여 아담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이유는, 여러분들은 고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분담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아담가정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족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217-125, 1991.5.12, 이스트가든) p.1997

이제 여러분들의 뿌리를 정비해야 됩니다. 뿌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아들딸을 중심삼은 본연의 부모권과 장자권을 중심삼고 거꾸로 틀어 넘겨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는 접선이 안 됩니다. 180 도 반대로 갖다 붙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향에 들어가서 조상을 바꿔쳐야 할 운명이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78-99, 1988.6.1, 본부교회) p.1997

여러분들을 종족적 메시아로 보낸 것은 뭐냐? 옛날에는 예수님이 영계에서 이 지상에 종적인 과정을 통해 보냈지만, 오늘날 문총재는 하늘을 대표한 하나님 자리에서 종족을 대표할 수 있는 메시아형의 수만 가정을 세계에 파송한 겁니다. 이제는 안 망합니다. 1989 년 1 월 3 일 오후 2 시 30 분에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185-238, 1989.1.8, 본부교회) p.1998

통일교회 교단은 종족(宗族)입니다. 내 피가 같이 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지으면 눈물을 지어야 되고, 내가 기뻐하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족입니다. 오색인종을 넘어서 문화배경이 다른 모든 국가 기준을 넘어 가지고 벽을 헐고 하나로 뭉친, 새로운 하늘나라의 창건을 위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거룩하게 될 때, 하늘나라의 창국(創國)이 현현하는 것이요, 그런 거룩한 창국의 민족으로서

[텍스트 입력]

살아갈 때, 창세계(創世界)가 벌어지는 것이요, 그 세계 위에 천주적인 지상의 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168-136, 1987.9.13, 본부교회) p.1998

내가 여러분을 축복해 줬습니다. 축복이란 것은 예수보다 나은 입장을 뜻합니다. 축복받은 여러분을 사탄은 참소를 못 합니다. 남자 여자 모두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 참부모를 중심삼고 혈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사탄도 개인, 가정, 민족, 국가, 세계의 어떤 차원에서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점입니다. 절대로 참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해방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한 겁니다. (189-147, 1989.4.1, 벨베디아 수련소) p.1998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내 대신 책임지고 하게 된다면 하늘이 후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통일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던 그 시대에 후원해서 개척하던 그 역사를 영계에서 지금도 틀림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반대 받는 가운데서도 통일교회를 종족적 복귀시대로 발전시킨 하늘인데 지금은 반대 안 받으니 얼마나 발전하겠냐는 것입니다. (185-240, 1989.1.8, 본부교회) p.1998

타락한 아담과 해와가 실패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시켜서 찾아진 가정의 자격을 하늘나라의 천권을 가지고 시인 공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 선포의 목적입니다. (193-308, 1989.10.8, 본부교회) p.1998

고향, 나도 지금 고향가고 싶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따르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고향 가 가지고 전부 다 환고향 활동하게 될 때는, 그 여파가 북괴를 능가하게 될 때는 선생님의 고향은 자연히 올라오는 겁니다. 싸움하지 않고 그냥 통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조수가 그 선생님 고향을 메울 수도 있고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도당 이상의 정성을 들여 심정적인 고향, 가나안 땅을 편성하는 것이 통일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7-193, 1989.2.5, 본부교회) p.1998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종족적 메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 천주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산과 같이 큰 보물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되기만 하면 보석산 같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수도관 같은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서 내려가듯이 여러분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189-247, 1989.4.9, 벨베디아 수련소) p.1999

종족적 메시아가 싸구려인 줄 알아요? 똑똑한 선생님이 메시아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도 미치지 못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종족적 메시아란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보다도 더 귀한 가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회를 반대하고 별의별 욕설을 퍼붓던 사람까지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자리에 끌어올려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말하는 문 아무개는 참부모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219-150, 1991.8.29, 국제연수원) p.1999

여러분들은 종족적 메시아, 종족의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야곱 가정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몇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몇천 년 기다려서 맞이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종족 앞에 메시아로 임명해 가지고 보냈으니 그 메시아 종자로 얼마나 귀한 겁니까? (197-207, 1990.1.14, 본부교회) p.1999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김씨면 김씨 가문의 메시아와 마찬가지 사명을 해야 됩니다. 김씨 가문이면 김씨 가문, 박씨 가문이면 박씨 가문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창건하는데 있어서 이 종족을 대표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구주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김씨 가문을 구해 주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구세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김씨 가문을 대신하여 제사장 적인 책임을 해야 됩니다. (189-110, 1965.10.31, 대구교회) p.1999

이제 최후에 남은 종착지가 뭐냐? 해결방법은 뭐냐는 것입니다. 모든 벽을 다 헐고 처방을 하는데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것만 끝나면, 개인적 참소 조건, 가정적 참소 조건, 종족적 참소 조건, 민족적 참소 조건, 국가적, 세계적 참소 조건을 제시할 그 무엇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89-110, 1989.3.19, 세계선교본부) p.1999

여러분이 외지에 나와 수련하고 뜻을 중심삼고 열심히 활동하던 새로운 습관성을 가지고 그 동네 전체를 변혁시켜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 전체를 투입해 가지고 사랑의 대상권을 만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체를 투입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로 일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향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영계가 협조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 두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179-27, 1988.6.15, 이스트가든) p.2000

오늘 여러분은 고향에 들어가서 씨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심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하늘 땅이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가고 싶은 환경을 남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 나라에 가게 될 때, 하늘나라의 아들딸로서 사랑을 받고 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생애노정을 이제부터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197-221, 1990.1.14, 본부교회) p.2001

선생님이 '고향 찾아가라!' 하면, 고향 찾아가는 것은 새로운 씨를 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씨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씨를 심어서 새 뿌리를 박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씨를 심는 데는 거름 바가지를 갖다 퍼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을 먹으러 가야합니다. 선의의 욕을 먹고 고생들 많이 해야 됩니다. 3년만 해봐라. 3년까지 필요 없습니다. 6개월이면 다 끝난다고 봅니다. 옛날에 여러분 1차 전도 나갈 때도 고향 대신 가서 120집 만들어 교회 만들라고 내쫓아 버린 때가 있었지요? 그거 다 실패했지요? 그 다음에 홈 처치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19-158, 1991.8.29, 국제연수원) p.2000

종족적 메시아로서 가라고 하는 것은 네 종족에게 가 가지고 새로운 씨를 심어 가지고, 거기에 난 것이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참감람나무를 나게 해 가지고, 잘라서 접붙여 가지고 참감람나무 밭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족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복음이 없습니다. 나라를 찾는 것보다도, 세계를 찾는 것보다도, 하늘 땅을 찾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197-207, 1990.1.14, 본부교회) p.2000

한국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교회 문선생을 중심삼고 통일교회 교인들이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내가 종적인 데 있으면 통일교인은 횡적인 기준에서 달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기반을 닦았으니 여러분이 이 기반을 닦기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반 닦는 데는 종족들이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185-200, 1989.1.8, 본부교회) p.2000

종족적 메시아가 와서 도와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협회장! 말해 봐요. 선생님은 도와 달라는 기도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또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면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뭔지 알아요?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도 안 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202-306, 1990.5.25. 한남동 공관) p.2000

고향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자기 생활문제, 아들딸 교육문제, 이러다가는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안 나갔던 사람들은 다 망하지 않았어요? 저주받는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천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종족적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207-165, 1990.11.9, 한남동 공관) p.200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4) 참된 심정을 본향땅에 심자

개인이 안식하려면 가정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교회는 가정을 찾기 위해 싸워 나온 것입니다. 또 가정이 안식하려면 종족권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족이 울타리가 되어 가지고 불어오는 바람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책임을 대신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지 않고는 내가 편안한 가정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친척들을 중심삼고 족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족장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도 동네방네 친척들이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족장은 작전을 지휘하면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구요?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타향살이였습니다. 이제는 고향 찾아가는 겁니다. 고향 가 가지고 눈물 흘리고 정성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가서 400 년 동안 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43 년 동안 그 놀음했으니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 사탄이 참소 할 수 있는 기원을 끊어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 이상천국을 형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세계에 무엇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보따리 짐을 지고 다니더라도 우리가 제일입니다. 욕을 먹고 다니고 밤에 동네 개가 짖어도 우리가 제일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보무도 당당히 부락 천지를 사랑의 함성과 더불어 소화하는 놀음에 동참하여 전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178-139, 1988.6.1, 본부교회) p.2001

여러분은 참부모 앞에 참자녀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상속권, 동위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특권적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사랑권 내에 투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완전히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일족이 부활할 것이고 일족이 부활함에 따라서 일국이 부활할 것입니다. (177-161, 1988.5.17, 본부교회) p.2001

자기 향리를 중심삼고 새로운 씨로 심어질 수 있는 부모의 붉은 핏줄이 거기에 묻혀서 모든 산야, 산천이 그 모든 희생의 대가를 찬양할 수 있게끔, 머리를 숙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심어져 꽃이 피거든 처음 꽃은 하늘의 꽃으로, 둘째 꽃은 부모님의 꽃으로, 셋째 꽃은 자기 장남 꽃으로, 넷째 다섯째 꽃은 자기 것으로 삼겠다고 됩니다. 적당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181-273, 1988.10.3, 일화 용인공장) p.2001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면 여러분들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요! 권력자 부러워하지 말아요! 바람들지 말고,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후대를 사랑하고, 이스라엘권 우리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전통이 제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품고 교회를 출입할 때, 그들에게 흡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천 년 만에, 몇만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환고향의 기쁨을 갖고 세포와 뼛골이 울려나는 울음과 더불어 피눈물로 그 땅을 적셔서, 하늘로부터 피눈물을 적신 거룩한 땅이라는 이름이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77-228, 1988.5.20, 대구교회) p.2002

고향에 돌아가 여러분의 고향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했습니다. 40 년 동안 거지떼가 되어 돌아 들어와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가나안 7 족들이 부럽고, 가진 양 새끼가 부럽고, 집이 부러웠습니다. 천막 치고 사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러다 나라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은 겁니다. (175-34, 1988.4.6, 한남동 공관) p.2002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맨 비참한 사람들부터, 비참한 어린애들부터 사랑해 가지고 쭉 중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가정들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악마의 세계에 있더라도 앞으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운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175-31, 1988.4.6, 한남동 공관) p.2002

그러면 고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하나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들은 나가 가지고 하늘 전통을 전수하는 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본을 보여주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 동네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부락이 된다' 하는 걸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전수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135-35, 1985.8.20, 벨베디아 수련소) p.2002

선생님은 세계적 조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 이런 놀음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종족적 조상이 되기 위한 그 전통을, 그 나름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족을 위해서, 일족을 위해서 전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12 지파가 편성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전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131-62, 1984.4.1, 미국) p.2002

참된 심정을 본향 땅에 심어야 합니다. 이걸 못 심은 게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종중(宗中)의 종장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77-80, 1988.5.15, 본부교회) p.2003

'하나님은 우주의 아벨이요. 이 세계 인류는 하나님 앞에 가인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은 종의 종의 몸을 쓰고 양자, 자녀의 몸까지 써 가지고 지금까지 복귀역사를 해왔으니, 우리는 그 전통을 받아서 자기의 종족한테 가 가지고 그런 전통을 다시 제시하여 굴복시키는 역사를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어도 3 년입니다. 그래서 10 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159-237, 1986.3.3, 대전교회) p.2003

Top

5)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① 참부모님을 증거하자

만민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계 국가를 맞기 전에 참부모님을 맞이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싶어하느냐? 여러분의 새로운 아들딸은 여러분의 핏줄을 통해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님의 핏줄을 통해 태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35-237, 1970.10.19) p.2003

모든 것은 어디에 귀결되느냐? 참부모를 만나는데 귀결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소원이요, 국가의 소원이요, 섭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부모가 나타나는 때는 역사상에 한번밖에 없는 정점을 이루는 때요, 전무후무한 때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두고 보면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숨 한번 쉬는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105) p.2003

참부모란 어떠한 존재이냐? 참부모는 모든 전체의 소망의 상징입니다. 타락한 인류 앞에 절대적인 소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결실체요, 시대적인 중심이요, 60 억 인류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계 국가권의 중심입니다. 참부모는 앞으로의 이상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미래선상에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35-237, 1970.10.19) p.2003

참부모라는 그 이름 세자를 생각할 때, 참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치리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원이 생겨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이 결정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외적인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원성사해 드릴 수 있는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와 더불어 살고, 참부모의 명령을 받들어 행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에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43-144, 1971.4.29) p.2003

인간의 소원은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 길을 가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시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후손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부모를 만난다면 역사를 찾는 것이요, 시대를 찾는 것이요,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참부모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35-237, 1970.10.19) p.2004

여러분이 참부모와 완전히 하나될 때, 국가가 있는 것이요, 종족도 있는 것이요, 민족도 있는 것이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영광의 가치를 종합한 실체 기준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를 세상의 돈과 바꾸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참부모를 모시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도, 천세만세의 후손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30-237, 1970.3.23) p.2004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가 뭐냐?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종적인 사랑이 되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뼈와 같고, 아담과 해와는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자리에서 내적인 부모가 되고 아담과 해와는 외적인 자리에서 외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적 외적 부모가 하나된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엮어져 내적 부모를 모시게 되고 외적 부모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결탁에 의해 참부모. 즉 완성한 인간이 성사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결탁 안 되게 되면 완성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184-71, 1988.11.13)

Top

② 가정마다 부모님 존영 모시자

부모님 사진 붙이고 통일교회 깃발만 달면 그것은 하늘나라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권속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깃발 다는 것 저주하다가 벼락 맞은 사람 많은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선생님을 손가락질하다 손에 병나 가지고 며칠밤 기도하고 회개하고야 낫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천운이 찾아오는데 개인 운세로 막을 수 없습니다. 숙명적인 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통일교회 기(旗)를 바라봐 가지고 갈 적마다 경배하고 올 적마다 경배하고 사진보고 갈 적마다 경배하고 올 적마다 경배하면 산다는 겁니다. (219-91, 1991.8.25, 본부교회) p.2004

통일깃발을 다는 것은 지나가던 교인들이 배가 고프거든 여기 들어와서 쉬라는 표시이고 점심 때면 점심이라도 먹고 가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오니 손님을 부모님 대신 모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상은 하늘의 최고의 기준 앞에 평준화 사상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손님을 하나님 같이, 부모님 같이 모셔라 그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169-220, 1987.10.30) p.2005

문총재가 유명합니다. 나라를 위한 애국자란 말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한 공적에는 천하가 다 머리 숙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건 이상 저 분 앞에 있어서는 부처끼리 싸움 함부로 못해' 하고, 아들딸 앞에도 '야야, 저 문선생 앞에서 안돼!' 하게 된다면 그거 나쁠 게 뭐 있어요? 자기 부모 사진 이상 모심으로 조상들이 와서 조상으로 모시는 겁니다. 또한 조상들이 와서 그 집을 모실 수 있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천상세계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새벽 3시가 되면 자기들은 자지만 전부 일가 주변에 사된 악마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입니다. (219-91, 1991.8.25, 본부교회) p.200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 이후 여러분들은 선생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해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적기사를 행할 때, 장자가 환난을 당해 병들어 죽었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한 집은 그 환난이 모두 피해 갔던 것입니다. 영계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동을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130-290, 1984.2.7) p.2005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 화를 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계는 선생님 사진을 암만 포켓에 넣어 두었더라도 압니다. 이렇게 작은 조건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2-190, 1984.6.1) p.2005

이제 레버런 문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도처에 있는 위정자들 가운데는 서재에 레버런 문의 사진을 걸어 놓고 추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윤박사도 내 사진 갖다 걸었나? 매일 인사하나? 매일 키스해?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키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키스를 해줌으로 영계에 간 사람들이 내가 키스하는 바람에 동참권, 동위권을 갖게끔 하기 위해 이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냐, 네 말이 맞다' 합니다. 어때요, 윤세원? 그래 보시지요? (171-239, 1988.1.1) p.2005

선생님의 미소는 모나리자 미소 만큼이나 신비한 데가 있다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고, 또 어떤 때는 저렇고, 수십만 가지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 신비로운 모습이 영계가 여러분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경험을 대부분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계의 영인들은 다 선생님을 잘 아는데 이 사진을 보면 영계가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재료로 알기 바랍니다. (132-190, 1984.6.1) p.2005

Top

③ 종족 부흥회를 하자

앞으로는 가정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가정 부흥회는 여러분 일족을 중심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부흥회는 전체의 종족들을 대표한 부흥회입니다. 그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축복가정들이 종족을 연결시킨 그 종족을 대표한 부흥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흥회에 세계 사람이 다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통일교회는 한국이 기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종족기반을 중심삼고 세계를 대표해서 부흥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부흥회 잔치에 소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닭을 잡겠으면 닭 잡고 닭 잡은 만큼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소 잡으면 소 잡은 만큼, 소 백 마리 잡으면 소 백 마리 잡은 만큼 복 받는 것입니다. 위하는 그 심정, 자기 노력 여하에 비례해서 전부 좌우될 것입니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여러분의 선조의 해방권이 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185-141, 1989.1.3, 한남동 공관) p.2006

이제 한국통일이 가능한 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제 고향 찾아가 가지고 종족부흥회를 하면 그건 역사적인 부흥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찾자고 3?1 운동 만세를 부르던 것 이상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천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무대에서 자기의 종족을 못 움직인다면 이건 뭐 다 죽어야 됩니다. (186-232, 1989.2.5, 한남동 공관) p.2006

역사라는 것은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노정입니다. 그 진리는 참된 개인이 살 수 있는 길, 참된 가정이 살 수 있는 길, 참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 참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 참된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으로부터 세계까지의 초점이 전부 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일치되어야 세계완성, 국가완성, 종족완성, 가정완성, 개인완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맞아떨어질 수 있는 핵이 되는 말씀, 즉 진리를 갖고 오시는 분이 참부모이니,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20-25, 1968.3.31) p.2006

전세계 인류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통일교회 문총재의 가르침은 구세(救世)의 진리입니다. 인류가 영원히 필요로 하는 참사랑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재림주가 세상을 구하려고 오신다면 인류를 철창으로 심판하여서는 안 됩니다. 때려서는 단 한 사람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손이 두꺼비 등처럼 우툴두툴하고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을 정도로 수고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은 불효자식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몽둥이 가지고는 안됩니다. 심판의 대왕이요. 천지를 마음대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참사랑 없이는 천주통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사랑은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참사랑에는 있는 것입니다. (201-339, 1990.4.30) p.2007

통일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사람은 나쁘다 하게 될 때는 망합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이 여러분 앞에 말씀만 했습니까?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 전부 다 행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지식면에 있어서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모순과 상충이 없는 이념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공인하고 하나님도 공인합니다. (24-108, 1969.7.13) p.2007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부르고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참다운 부모와 참다운 자녀가 상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뇨? 참다운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이요 참다운 말씀이라 할진대, 똑같은 말씀을 천년 만년 들어도 싫증이 안 납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논리적인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원칙이면서 듣고 듣고 또 듣고 영원히 들어도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10-130, 1960.9.18) p.2007

부모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초월합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주의를 초월합니다. 사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씀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밤에 들어도 낮에 들어도, 밤에 보아도 낮에 보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한히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10-130, 1960.9.18) p.2007

내 한이 뭐냐? 살아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일교회에 입회하게끔 눈물을 흘리고 절규를 하면서 권고를 못한 불효를 남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려고 합니다. 내 일족을 전도 못 했습니다. 8 남매가 있었지만 내가 그들 앞에 원리 말씀 한 마디도 못 했습니다. 형님은 내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인복귀를 완전히 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하면 집을 팔고 소를 팔라면 소를 팔아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 형님을 대해서 원리 말씀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203-183, 1990.6.24) p.2007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부터는 등대를 세워야 합니다. 등대, 등대가 뭐예요? 밤에, 어두운 데에 불 밝히는 것입니다. 거 무슨 등대예요? 남북통일, 동서통일 등대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지의 그 불을 끄지 않도록 불을 켜야 됩니다. (181-296, 1988.10.3, 일화 용인공장) p.2007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지 말라구요. 모여 오거들랑 선생님이 1950 년대에 7 년 동안 두 시간 이상 안 자고 여러분을 밤낮으로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밤낮없이 한 7 년 동안 해보라는 것입니다. 7 년 동안 안 해도 됩니다. 4 년도 안 걸립니다. 4 개월 이내에 다 끝납니다. 내가 고향에 가게 되면 뭐 순식간에 통일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형제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똑똑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 손으로, 남의 입을 빌리지 않고 여러분의 피땀을 통해

[텍스트 입력]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정성어린 그 가르침의 태도를, 그 자세를 부모가 본받고, 형님 누나 동생들이 본받고, 조카들이 본받으면 '우리 집의 보화인 우리 아저씨, 우리 동생, 누나, 우리 아들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85-116, 1989.1.3, 한남동 공관) p.2008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원리선포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덟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밤을 새워 가지고, 내가 7년 동안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7년도 안 갑니다. 7개월만 하면 다 돌아갈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트럭에다가 뭘 싣고 갈지 모릅니다. 문중이 나를 초대하고 말입니다. (185-250, 1989.1.8, 본부교회) p.2008

선생님은 7년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밖에 안 잤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해야 됩니다. 내가 유 협회장에게 3년 반 동안 16시간씩을 강의시켰습니다. 내가 유 협회장이 힘들어 할 때는 '이놈의 자식, 누굴 죽이려고 누워 있어? 선생님한테 눕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누워 있어?' 하고 호령하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 생선을 좋아했습니다. 곤쟁이라고 하는 그 젓 냄새가 나서 그 옆에도 못 가겠는데, 그걸 맛있다고 먹던 것이 지금도 훤합니다. 지금은 쇠고기 갈비를 짝으로, 타스로 갖다 재어 놓고 먹여줄 수 있는 판국이 되었는데, 그렇게 불쌍하게 살던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그 놀음을 했습니다. (185-250, 1989.1.8, 본부교회) p.2008

Top

④ 훈독회를 조직화하라

선생님의 말씀은 선생님이 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선생님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서 언제 듣더라도 마음이 동(動)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감동 받으면 몸뚱이에 일대 혁명적 변화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289-295, 1988.2.1 본부교회 새벽집회) p.2008

모임이 있을 때에는 공부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시간만 있으면 공부입니다. 몇 백 번, 몇 천 번 읽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내가 그 상대적 실체권을 가질 때까지, 이제부터 그런 놀음을 해야 됩니다. 통일교인들은 앉아 있으면 병납니다. 병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시험치고 노력하는 겁니다. (288-41, 1997.10.31, 이스트가든) p.2008

참부모는 말씀의 조상이요, 인격의 조상이요, 심정의 조상입니다. (14-22, 1964.4.19) p.2008

훈독회는 내가 천신만고로 일생에 쌓은 모든 보물함을 민족 앞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부 다, 번역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번역 못 합니다. 내 민족 앞에 통고할 때까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훈독회를 해야 합니다. 혼자라도, 화장실에 있어도 훈독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어디를 읽었는지 기록해 주고, 주머니에 말씀 책을 넣어두고 항상 훈독회를 해야 합니다.

뜻길을 읽고, 원리를 읽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축복과 이상가정'이라든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사탄세계와 대치해 가지고 싸워 나왔던 승리의 기록이기에 모두 다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하나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사적 기념인 과거, 현재 싸워오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하나될 수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 상대적인 기준을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중심삼고, 가정을 중심삼고, 자기 일족, 7대까지, 그리고 이것을 횡적으로는 160가정, 180가정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되어서 말씀을 정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288-16, 1997.10.31) p.2009

훈독회는 모든 축복가정의 부처끼리라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한 시간씩. 만일에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12시에라도, 1시에라도 해야 합니다.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미 순회할 때도 12시가 넘어서 고단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하루라도 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 이 책은 축복가정의 내용을 전부 다 가르쳐 주고, 이상천국의 내용을 전부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두고 싸워 나온 승리의 기반을,

[텍스트 입력]

하이웨이를 닦아 놨으니, 여기에 고속도로를 세워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이 자동차가 되고, 휘발유가 되어서 최고의 스피드로 달려야 되겠습니다. (288-41, 1997.10.31) p.2009

우리 통일교회 원리의 내용을 진저리가 날 만큼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저리가 나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늘이 같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정이 직접 대중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7-251, 1980.5.19) p.2009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교한 설교집을 다 읽은 사람 손들어 봐요?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교육했어, 협회장? 선생님이 그 설교집 가운데에도 깊은 내용은 말 못 했습니다. 지금도 말 못합니다.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말씀 밑에 생명의 원천이, 생수의 원천, 물의 원천이 아닙니다. 강수(降水)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개인의 집에 생수 파이프로 걸어 가지고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 나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 통일가 무리들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그게 전부 다 고물상에 팔아먹을 책이야? (181-268, 1988.10.3) p.2009

Top

제 5 장
재출발을 위한 우리의 자세

1) 재출발의 결심

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살아 남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살아 남는 길이 그냥 그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넘어서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환고향한 거기서부터 적을 넘어서는 날에는 천국의 판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통일민족권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1 천만 심중에 환고향의 불을 지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저변에서부터 모시고 품고 형제지우애를 가지고 남한 동포와 북한 동포가 형제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거기서부터 재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가관이 없습니다. 가인 아벨시대에 국가가 있었어요? 국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가의 후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후원 있으면 둘 다 망합니다. (219-339, 1991.10.13) p.2010

요전에 분수령을 넘는다고 그랬지요? 고희 때 영계를 통하는 외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이제 문총재가 삼팔선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문턱을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행복의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990 년대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통일교회는 일사천리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고희로부터 이제 70 세니 7 천 년, 7 수를 탕감해서 8 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8 수는 해방 수, 재출발 수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산당 멸망 선포를 하고 그런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사를 끝낸 후인 7 일과 8 일이었습니다. (199-96, 1990.2.15) p.2010

이러한 난국시기가 오는 것을 하늘은 알았기 때문에 신의 뜻을 중심삼고 새로이 재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종파, 교회, 혹은 종단이 어떤 종단이냐? 통일종단이라는 것입니다. 명사 그대로 '통일'이라는 말은 지도받는 자리의 통일이 아닙니다. '거느릴 통(統)'자입니다. 거느려야 됩니다. 주체적 중심을 가지고 상대를 교육해서 주체이론의 이상적인 동반자로서 상대권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통일종단, 통일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레버런 문 한 사람의 구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성을 초월한 내용을 중심삼고 시작됐다는 사실을 오늘날의 세계가 몰랐습니다. (219-289, 1991.10.13) p.2011

효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역사이래 아무리 핍박이 사무치고, 어려운 고비길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유만만한 사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시달려 후퇴의 여념을 가지고

[텍스트 입력]

슬픈 한의 길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억천만세의 고충과 수난길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면서 결의하고 다짐하여, 내일의 희망에 벅찬 재출발의 길을 촉구해 나가면서 죽음길도 가려 갈 줄 아는 길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74-43, 1988.2.23) p.2011

세계평화연합 구성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금년 8 월 말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평화종교연합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9 월달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8 월달이 세계적인 재출발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7 월 초하룻날 하나님 축복영원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탕감노정을 전부 다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종교권까지 하나로 묶어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8 월 28 일입니다. 그때까지 선포식을 하고, 그 다음에 9 월 초하룻날에 새로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가 가던 길을 돌아서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이 선생님을 따라오는 무리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220-45, 1991.10.14) p.2011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위하려는 생을 살게 되면, 역대의 선조들의 기준을 넘어서 비로소 역사 이래에 필승의 승세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할 수 있는, 천도의 길을 가는 거인의 일생으로 출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생을 재출발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왔습니다. (201-169, 1990.3.30) p.2011

Top

2) 참부모님의 전통 상속의 자세

여러분들은 타락한 아들딸입니다. 본래 혼자만으로 그 자리에 도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참부모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다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하나될 수 있고, 거기서 참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에덴가정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없이 어떻게 참사랑과 사랑의 전통을 배울 수 있겠어요? 부모님 없이 그런 상속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131-238, 1984.5.4) p.2011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되게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상속은 사랑의 전통상에서 동등적 사랑의 가치적 위치를 찾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마음놓고 백 퍼센트 상속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효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무엇이냐? 부모의 영원한 사랑의 동참자로서 사랑의 상속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140-233, 1986.2.12) p.2012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만들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싶으냐?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 것 없이 전체 식구가 어떤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고 싶을 것이냐? 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그 집안 전체를 사랑한다면 식구들은 아버지를 내놓고 할아버지한테 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다 위하는 자가 그 사랑의 가정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보다 사랑을 가지고 위하는 자가 영원한 상속계열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41-292, 1986.3.2) p.2012

여러분의 가정에서 '효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된 사랑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되라, 애국자가 되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상속받자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성자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여 우주 전체의 상속권을 이어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전통적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타락한 인간세계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연결시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목적이라든가 구도의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결론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입니다. (142-337, 1986.3.14) p.2012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이 길을 닦아 나온 하나님의 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닦아 나온 전통을 상속해 주려니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생으로 닦아온 그 심혈에 어린 모든 복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속을 받아야만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수 앞에 상속을 받아야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뿌렸으니 십자가로 거두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눈물로 뿌렸으니 눈물로 거두어야 됩니다. (150-209, 1961.2.15) p.2012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전통에 충실해야 됩니다. 전통에 충실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진 다음에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이 전통이 아버지 앞에 옳지 못하다 할 때는, 그 전통을 전체 앞에 상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의 모순된 모든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여러분은 이러한 역사적인 인연을 상속받아 시대적인 개척자의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귀섭리에 대한 역사적인 순수한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현재의 생활적인 환경에 있어서 그런 책임을 짊어지고 미래의 새로운 이념 터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더욱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52-196, 1963.5.10) p.2013

같은 부모를 갖고 형제의 인연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의 부모의 생활과 습관과 전통을 그냥 그대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구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155-209, 1965.10.30) p.2013

훌륭한 나라를 갖고 싶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놀고 먹고 남과 같이하면서 훌륭한 나라를 갖자! 그것 얼마나 멋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마의 후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훌륭한 종족과, 민족과, 나라를 갖고자 할 때에는 일가가 아니라, 일족을, 자기 문중을 투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세계를 원할 때는 일국을 먼저 투입하는 놀음이 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섭리사적 전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172-314, 1988.1.31) p.2013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어 가지고는 전후좌우의 어떤 인연도 상속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된 남자 여자는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전수 받아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전수 받음과 동시에 자녀에게 그 사랑을 전수하는 전통 위에 생명의 축을 세워야 됩니다. (173-84, 1988.2.7) p.2013

천국은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자기를 세계에 투입하면서 세계와 연락하고 세계를 품고 세계 이상의 자리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사랑을 찾아 헤맨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내 어머니를 자랑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자랑하고, 아들딸을 자랑하고, 형제를 자랑하고, 여러분 형님들은 자랑하는 데는 이와 같은 전통을 중심삼고 이것을 나라에 확대 적용하고, 그 공식을 세계에 적용하고, 천주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 동참이요, 동위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은 어디나 동위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서 다른 것을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란 것입니다. 벼락을 맞을 겁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길이 통일교회의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175-138, 1988.4.10) p.2013

아들딸이 자기를 위하는 아들딸이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같이 하늘 땅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데 있어서 보다 강하고 보다 차원 높은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주의 후계자는 아무나 와서 못 합니다. 핏줄을 이어받아 가지고 위하는 전통적 사랑과 일치될 수 있는 아들딸이 돼야 됩니다. 보다 차원 높은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할 수 있는 아들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더 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아들딸은 모시고 살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락날락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도 높은 차원의 아들딸들이 더 위하겠다는 기준에서 상속받아야 되겠기에 장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175-185, 1988.4.16) p.2014

여러분들은 남한 땅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북한을 찾기 전에 남한은 아벨권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벨권 내에 돌아가 가지고 선생님이 이 세계 판도까지 올라가도록 당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쭉- 올라온 이 기준을 여러분이 상속받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선생님을 대표해 가지고 세계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는 국가를 대표하고 종족을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고향에 돌아가 여러분의 집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참다운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다운 부부의 사랑을 중심삼고 본연의 전통 기준을 여기다 꽉 박음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세계 기준의 뿌리가 완전히 박혀 사는 것입니다. (177-160, 1988.5.17) p.2014

교회를 뒤에 두고 전부 다 집에 가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돌아가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딸들이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얻어먹는 비렁뱅이가 돼 가지고 전부 신세지는 가운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피땀을 흘려 정의의 참된 피살의 가치를 통한 그 기반에서 아들딸을 먹여 살리고 아들딸에게 새로운 전통을 교육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일신을 투입하여 그 문중을 살리고 난 후에 문중이 나를 자리잡게 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제물로 사라져 가겠다는, 희생적 정신을 갖는 이런 상속자들이 없어 가지고는, 이 남한 땅이 천국기지로 남아질 수 있는 국가 기틀이 마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77-163, 1988.5.17) p.2014

상속은 하늘의 이름으로,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상속은 민주주의 식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국회 상속이, 수권정당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서 자기들 수단 방법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명령에 의해 되는 것이니 명령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178-38, 1988.5.27) p.2014

이번에 여러분을 전부 다 배치한 것은, 여러분이 전부 다 사랑의 주인, 사탄이 사랑하던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회복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선생님 대신 후손으로서, 당당한 전통을 이어받은 하늘의 상속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주인 노릇을 당당히 해주기를 바라서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고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반대했지만 이제는 순응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문총재 말에 따라올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179-93, 1988.7.22) p.2015

사랑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상속권을 줄 때는 부모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요? 그거 왜 그래야 돼요? 이 전통의 역사적 기원, 출발 기원에 맞아야만 올바른 씨가 되겠기 때문입니다. 요걸 몰랐다는 겁니다. (179-117, 1989.3.19) p.2015

역사상 어떤 부모도 그럴 수 없을만큼 내가 최고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런 전통을 여러분에게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하는 거예요? 이제 계절이 변합니다. 봄이 오는 겁니다. 아버님은 봄만이 아닙니다. 4 계절입니다. 그런 태도로 해 나가야 합니다. (189-117, 1989.3.19) p.2015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뭐예요? 내가 귀해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뭐라구요? 사랑이기 때문에 높은 사랑 가진 사람 앞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오면 부모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제일 높은 사랑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들딸들은 천년만년 순응하면서 그 사랑을 상속받기 위해서 산골짜기와 같은 곳을 헤매는 처지에 있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 냄새나는 거름을 뒤집어쓰고 있어도 부모를 사랑하는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효도하라'는 부모의 말은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랑을 상속받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1-222, 1989) p.201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선물로서 무엇을 남겨 놓고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천지를 주고도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선생님이 참부모라고 할 경우에 참자녀가 있다면 혈통적으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생활은 물론 환경의 모든 것까지도 수습됩니다. 부모의 대신자, 사랑의 대신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상속받고, 부모의 문화를 상속받고, 부모의 생활방식을 상속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길입니다. (190-227, 1989.6.19) p.2015

Top

3) 참사랑을 심자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둘을 하나 만드는 데는 말 가지고 안 됩니다. 둘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물질 가지고 하나되었다면 물질이 떠나게 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 3 자의 소개로 말미암아 무슨 사연을 통해서 하나됐다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하나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아니면 안됩니다. (51-75, 1971.11.1) p.2016

하나님을 중심하고 볼 때,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탄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랑을 하면 사탄도 끌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과 사랑을 주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13-95, 1963.10.23) p.2016

사랑이 위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상하 고저의 거리를 초월하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공동소유의 이념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권내에 참석할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길에 있더라!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168-197, 1987.9.20) p.2016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멀던 것이 더 멀어지나요, 가까워지나요? 사랑이 왜 좋으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 것도 극히 가까이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을 누가 정치의 힘, 군사의 힘, 문화의 힘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나요? 문화의 힘, 경제의 힘, 어떤 힘을 가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만 있으면 하나가 돼요?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왜 좋다는지 알겠어요? (96-212, 1978.1.22) p.2016

인간이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전체를 통일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완전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랑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18-328, 1967.8.13) p.2016

사랑의 마음은, 사랑의 힘은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극과 극, 반대되는 것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하고 남자는 뭐예요? 극이에요, 극이 아니예요? 여자는 여자들끼리 좋아해요? 여자 둘이 만나 가지고 말하기를 '난 네 손에 반했다. 아이구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면(웃음) 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96-212, 1978.1.22) p.2016

통일의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 위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이 통일하는데 김일성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냐? 김일성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깃든 것은 무엇이든지 받고 싶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을 수 있는 입장에서 영원히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이북도 통일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북 백성들이 사는 이상의 입장에서 영원히 줄 수 있는 기반만 잡게 되면, 공산당의 선전 따위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분야, 생활 분야, 지식 수준 등 모든 분야에서 월등해 가지고 영원히 줄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면 완전히 하나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되는 것입니다. (36-76, 1970.11.15) p.201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은 부딪치는 때마다 발전하는 것이요, 가는 곳곳마다 백승(百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원칙에 입각하게 될 때는 이 원칙이 틀리지 않는 한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살고, 이 원칙에 입각하여 희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본 이익을 내 이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더 큰 이익으로 여기고,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가치를 내 것으로가 아니라 나라의 것으로 세계의 것으로 돌리는, 이런 사상을 펴 나가는 단체가 있다면, 세계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단체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통일사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41-96, 1971.2.13) p.2017

빚지는 데서는 통일이 안 됩니다. 빚지는 데는 통일이 없습니다. 빚져 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빚져 가지고는 부흥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빚진 것을 몇 배로 이자를 쳐서 완전히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될 때, 거기에 부국(富國)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부국 중의 부국이기 때문에 빚지는 자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82-333, 1976.2.1) p.2017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랑을 찾아가야 됩니다. 돈도 모아 보고, 세계도 지배해 보고, 학자도 되어 보고, 인간들이 좋다는 것을 다 해 보니,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참된 사랑과 하나된 나 자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종적사람과 횡적사람이 일치될 수 있는 나, 이렇게 일치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종적사랑을 중심삼고 영원히 핵이 뼈와 같이 되어 가지고 그 몸뚱이가 둥글어지는, 하나되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78-112, 1988. 6. 1 본부교회) p.2017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사랑의 머슴살이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짓는 사랑의 머슴살이요, 사랑의 비밀결사대원이요, 스파이 공작 정보요원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 노릇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지 노릇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일족을 살리고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그 이상 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될 때는 부락은 말없이 자연굴복할 것입니다. (185-105, 1989. 1. 3, 한남동 공관) p.2017

참된 사랑을 중심삼은 종대 뿌리와 참된 사랑을 중심삼은 참된 종대의 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 가지고 이 땅위에서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이상의 사랑을 여러분이 땅을 위해서, 마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기준을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뿌리가 여러분에게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178-116, 1988. 6. 1 본부교회) p.2017

여러분은 참부모 앞에 참자녀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상속권, 동위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특권적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사랑권 내에 투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완전히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일족이 부활할 것이고, 일족이 부활함에 따라서 일국이 부활할 것입니다. (177-161, 1988. 5. 17. 본부교회) p.2018

선생님은 세계적 조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 이런 놀음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종족적 조상이 되기 위한 그 전통을, 그 나름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 여러분 자신들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종족을 위해서, 일족을 위해서 전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12 지파가 편성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전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빠지는 것입니다. (131-62, 1984. 4. 1. 미국) p.2018

여러분들이 고향에 갈 때에는 참된 사랑을 갖고 가야 됩니다. 참된 사랑을 가지고 고향 땅에 가서 참된 사랑을 심어서 사랑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대조(一代祖)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씨면 박씨로서 하늘나라에 접붙일 수 있는 일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들 격으로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177-161, 1988. 5. 17. 부산교회) p.2018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4) 사랑의 뿌리를 고향에 내려라

지금까지는 제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심각합니다. 내가 패자냐 승자냐를 결정지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패자의 패권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냐, 승자의 패권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냐? 어떤 것이에요? 참부모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고향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세계를 축소해 가지고 내 가정에 전부 다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나오는 부모님과 하나님의 탕감역사를 생각할 때, 사람이 찾아오면 눈물로 맞아 주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면 밤을 지새워 가면서 얘기해 주고도 지칠 줄 모르는 심정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178-116, 1988.6.1, 본부교회) p.2018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가서 400 년 동안 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43 년 동안 그 놀음했으니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기원을 끊어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가나안복지 이상천국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세계에 무엇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따리 짐을 지고 다니더라도 우리가 제일입니다. 욕을 먹고 다니고 밤에 동네 개가 짖어도 우리가 제일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보무도 당당히 부락 천지를 사랑의 함성과 더불어 소화하는 놀음에 동참하여 전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178-139, 1988.6.1, 본부교회) p.2018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거든 고향산천을 다시 바라보고 '아,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나무들, 나보다 나이 많은 강에 있는 자갈들, 그리고 뜰을 바라보면서 '잘 있었느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연을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걸 다시 해야 됩니다. 복귀입니다. 아담이 만물을 사랑하지 못 했기 때문에 만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향토에 돌아가 가지고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풀부터 모든 산천초목들까지 전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산천초목, 동물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거든 그 터전 위에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을 복귀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175-31, 1998. 4. 6 한남동 공관) p.2019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맨 비참한 사람들부터, 비참한 어린애들부터 사랑해 가지고 쭉 중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이가 많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가정들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악마의 세계에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운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175-31, 1988. 4. 6. 한남동 공관) p.2019

오늘 여러분은 고향에 돌아가서 씨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심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하늘 땅이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가고 싶은 환경을 남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 나라에 가게 될 때, 하늘나라의 아들딸로서 사랑을 받고 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생애노정을 이제부터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197-221, 1990. 1. 14. 본부교회) p.2019

Top

5) 영계의 협조와 확신

영계가 이제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왔기 때문에 선한 영인들이 지상에 정주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사탄, 악마들이 지상을 전부 분할해서 주관해 나왔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나 이젠 선한 영들이 그 지역을 빼앗아 가지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교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며 홈 처치(가정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기독교가 정성들인 이상, 회회교, 불교,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중심삼고 지상에 실체기반이 복귀됐으니 영적기반을 중심삼은 영계권을 통해서 통일교회는 전진할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69-9, 1987.10.1) p.2019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야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영계에 간 사람들을 위해 주면, 영계의 복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계를 위해서 탕감해 주고 회개하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 그 영계가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영계가 여러분을 중심삼고 전부 다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탕감과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교회를 위주로 해 나가야 됩니다. (125-50, 1983.3.1) p.2020

지상에서 가정교회 제단을 중심하고 활동하고 정성들이면, 각계 각층의 영인들이 재림하여 지상성도를 협조할 것입니다. 360 호 가정교회 제단 안에는 불교인, 기독교인, 유교인, 기타 양심있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교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재림해서 섭리의 중심인물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영인들이 재림부활할 수 있는 조건적인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210-197) p.2020

여러분이 하나 철칙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 지방에서 태어난 충신 · 애국자 · 효자 · 교회 목사들이 들인 정성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만 하면 그들이 전부 다 협조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권 이상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반대하지 않고, 영계의 협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전부 다 통일교회에 들어가라고 영적으로 협조하고, 전부 전도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179-17, 1988. 6. 15 이스트가든) p.2020

영계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랑스러운 후손들에게 협조하고 싶어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종족을 중심삼은 종파를 초월한 종교세계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따라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협조하는 데 헌신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89-278, 1989.5.1) p.2020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한 신념만 딱 갖고 나가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머니든 누구든 친척을 눌러 가지고 꼼짝 못 하게, 입을 못 떼게 압력을 가합니다. '내 말 들어라!' 하는 식입니다. 왜 그러냐? 타락한 악한 영은 물러가고, 선한 권내의 본연의 종족적 기반을 중심삼고 부모와 연결될 수 있는 국가적 기준까지 연결된 부모님과 세계적 기준까지 사탄을 밀어온 기반이 연결된 기반 위에 섰기 때문에, 사탄들은 물러가고 천사장형 영계의 모든 여러분의 조상들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184-91, 1988.12.20) p.2020

그러면 누구한테 박자를 맞춰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대로 박자를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선생님 박자에 맞춰야 되겠어요?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계가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대로 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간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안 통합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원치 않는 것을 갖다 붙이고 지시하지 않은 것을 했다가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조건에 하늘이 물러갑니다. 영계의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천사장은 협조하지 않고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169-133, 1987.10.29) p.2021

나는 하늘나라의 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모든 움직이는 비법을 알고, 하나님의 작전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레버런 문이 문제지요? 이제는 영계가 나를 협조할 때가 옵니다. 조금만 더 가다가는 불상사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69-12, 1987.10.1) p.202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지상에서는 통일교회에 들어와 기도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선조들이 나타나 가지고 전부 다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종교들이 지금까지 세계적 판도를 닦아 가지고 심정적 유대로서 종적인 행로를 닦아왔는데 그것을, 횡적 판도를 세계적으로 넓혀 놓았기 때문에, 이 세계 끝까지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영계에 간 선조들이 종족을 중심삼고 비로소 지상에 재림해서 협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홈 처치가 그러한 세계적인 판도를 축소시킨 기반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들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왔다가 협조해 주고는 돌아갔지만 이제는 지상에 정주(定住)합니다. 그런 시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정주, 알겠어요? 정주라고 해서 선생님 고향 정주가 아닙니다. 영계에 간 선한 영들이 비로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교회에 들어와 활동하는데 선한 조상들이 여러분과 같이 살며 협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복귀가 가능한 겁니다. (163-301, 1987.5.1) p.2021

천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1987 년 4 월은 새로운 빛이 소생하고 세계의 희망이 한 곳으로 모여 싹이 트는 것입니다. 영계의 영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협조할 수 있는 그날을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전부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피흘린 사람들, 제물됐던 영들이 연합해서 비로소 부모님 모시기 위한 연합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영인들을 전부 다 모셔들일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결해서 이 나라를 휙 돌려놓는 것입니다. (163-25, 1987.4.18) p.2021

이제는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계가 '한국을 돕자!' 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선영들이 세계에 널려서, 외부에서 일하여 전부 다 기반을 닦아 그 운세를 몰아가지고 돌아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선생님이 선발대가 돼 가지고 한국을 위하던 충신?열녀?애국자들이 전부 다 선생님의 꽁무니를 따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 들어와 가지고 영계에 있는 모든 종단장들을 중심삼고 기독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한국 통일운동에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163-18, 1987.4.18) p.2022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그 같은 신념을 가졌는데, 왜 여러분들에게는 영계가 협조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런 경고를 한 겁니다.

요즘은 다리가 뻣뻣하면 '이놈의 다리야! 내가 가야겠어' 그럽니다. 선생님이 그러고 다니는데 젊은 녀석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젊은 놈들이 낮잠을 자고 허송세월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62-119, 1987.3.30) p.2022

여러분이 영계에 갔을 때, 담벽이 없는 자유천지의 주인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 영계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영계의 영역은 끝이 없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다 '내가 너희들을 협조했다. 거기 책임자가 너였을 때, 너의 시대에 가서 협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친구입니다. 한 시대권 내에서 있는 동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 하듯이 영계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천국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형성 못 합니다. 천국은 참부모로부터 시작되게 돼 있지, 지금까지의 타락한 후손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지상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부활원리가 그렇지요? 부활원리가 그냥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야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계가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62-114, 1987.3.30) p.2022

세계적인 시대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입장에 있더라도 세계 최고의 성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심적인 생활을 한 사람은 어디든지 종횡무진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영적으로 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교회 움직임을 두고, 전세계의 각 나라 애국자들은 전부 다 이 땅 위에 통일교회 기반을 중심삼고 배후에 울타리를 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지고 재림해서 정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대로 말하면, 그 나라의 민족 몇 십 배, 몇 백 배가 되는 사람들이 죽어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확대공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는 국가적인 운동을 해 가지고 총동원해 가지고 영계와 더불어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희생을 각오하고 총진군 명령을 내리면 그 영들이 협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62-108, 1987.3.30) p.2022

통일교회는 영적인 개인을 동원할 수 있고, 연결적 체제를 통해 가지고 선조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종교는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정성을 들여 가지고 종적인 면에 박자와 파동이 맞아야 접선을 했지만 이제는 그 방송국 자체에 들어왔습니다. 진동판과 같은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파동이 아니고 파동을 일으키는 송신기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천 주파수로 하든가, 몇 십 주파수로 하든가, 단파로 하든가 갖다 붙이면 파장, 전파를 전부 다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방송국을 가졌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와서 나에게 협조하소서. 선한 조상이여 와서 협조하소서. 그런 바이브레이션(vibration:진동)이 필요합니다.' 하면 찌익 와서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부르더라도 움직일 수 있고, 가정을 불러도 움직일 수 있고, 종족권, 민족권, 세계권을 중심삼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발판이 지상에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 몸뚱이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돌아 가지고 전부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두 영인체가 와서 하나를 붙들고 끌게 되면 자신은 그 붙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지, 별 수 있어요? 혼자 달려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이것은 공론(空論)이 아닙니다. 이론적입니다. (162-103, 1987.3.30) p.2023

통일교회가 움직이면 마호메트가 협조하고, 유교, 불교 대표자들이 전부 다 협조하고, 하나님도 협조한다는 말은 이론적입니다. 그러니 나는 인류를 대표하고, 영계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있기에 전체가 협조를 하는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2-15, 1987.3.15) p.2023

과거에는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도 요때 밖에는 종교의 교주와 못 만났습니다. 만났다가는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전부 다 종교권을 중심삼고 지상에 재림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시대?현재시대?미래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실적을 갖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과거시대는 지금 영계에 가 있는 선한 영들, 천사들로부터 선한 영들의 시대였고, 현재시대는 부모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래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동원하고 부모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천사가 움직여 협조했고, 하나님이 움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주는 아담과 해와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61-199, 1987.2.3) p.2023

여러분들이 이제 홈 처치 운동만 하게 된다면 영계가 다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8 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홈 처치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뭐 여기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성만한 다이아몬드를 몇 개 주고도 못 바꿉니다.'왜 그와 같은 황금시대를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46-346, 1986.8.10) p.2024

지금까지 부모님에 대해 영계가 지지를 못하고 협조를 못 하는 이유는 완성한 부모의 자리는 타락한 영계가 협조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완성한 부모님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는 천사장이 후원하게 돼 있지 사탄권 내에 있는 영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모님을 협조 못 하게 돼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은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가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부모를 협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실패하였던 모든 것을 탕감하고 자녀의 자리에서 아담과 해와가 자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빠른 시일 내에 무너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46-312, 1986.7.20) p.2024

Top

6) 우리의 본향과 천국 입적의 길

① 고향은 창조본연의 세계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화, 그 무엇 가지고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세계나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바랄 수 없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계문화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심문제가 무엇이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온 인류가 아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곳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 지향하는 뜻을 알게 될 때는, 그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요, 이상의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56-131, 1972.5.14) p.2024

여러분은 민족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세계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종교는 세계주의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좋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는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까지 좋게 하자는 주의하고,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하고 어느 주의가 더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인간도 좋아하는 주의가 좋아요, 주인을 빼 버리고 종들끼리만 좋아하는 주의가 좋아요? 종교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41-44, 1971.2.12) p.2024

우리 통일교회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종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라도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도 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계까지 버리자는 것입니다. 더 멀고 큰 것을 위해 나의 가깝고 작은 것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통일교회 주류사상입니다. (100-80, 1978.10.8) p.2025

통일교회는 도대체 뭐냐? 우익을 안고 좌익을 안고, 이것을 서로 붙들고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 몰려서 싸우는 투쟁의 세계를 넘어서 하늘이 인도하는 행복의 세계로, 유토피아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아 가지고 평면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통일교회가 사상적으로 체제에 의해서 몰락하고 실패했던 것을 전부 다 수습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이를 품어 가지고 횡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종교를 중심삼고 종적인 기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체험의 기반을 중심삼은 초월적 실체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은 인간적인 면에서의 인본주의나 물본주의,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신본주의도 체계적으로 이론화시켜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짐과 동시에, 종적인 면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초자연적 체험의 종교사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62-102, 1987.3.30) p.2025

통일교회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통일교회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지금처럼 공산주의의 유물사관과 민주주의 유심사관이 싸우는 그런 세계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2-264, 1970.7.19) p.2025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늘나라에 경계선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쓰는 말이 둘이에요? 아닙니다. 인종의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무엇이냐?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는 전부가 형제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을 중심삼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딸이니까 전부 다 형제이고, 지상천국을 중심삼고 보면 백성입니다. 지상천국의 국민이라는 겁니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66-281, 1973.5.16) p.2025

나라가 없으면 국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편성을 해서 새로운 입적을 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하늘나라를 편성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애국애족하는 참되고 선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승리적 아들딸로서 자기의 족속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다 가야 천상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58-145, 1972.5.22) p.2025

가정의 천국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1백 퍼센트 존재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는다는 입장에 서게 될 때에, 그 가정이야말로 천국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격언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자기 존재의 가치가 자기의 주권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데에 있으며, 그 백성은 백성 자체를 위하기 보다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그 나라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 민족을 초월해서 서로 위해 주는 세계를 이룬다면 그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유토피아적 사랑의 세계일 것이며, 이상의 세계일 것이며, 평화의 세계일 것이며, 행복의 세계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위해 존재한다는 이 원칙을 들고 나가게 될 때는 어디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75-325, 1975.1.16) p.2026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나라를 이어 받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상적인 주체성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사상은 절대적인 창조주의 사상과 일치되는 사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자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고 그 나라 국민이 일치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성을 갖추고 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49-93, 1971.10.9) p.2026

내가 가고 오는 것도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조국광복을 위한 건국의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혹은 하늘의 밀사로서 지령을 받아 오늘날 악한 세상에 와서 이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50-255, 1971.11.7) p.2026

Top

② 천국에 입적 하려면

여러분들은 그냥 부모님 앞에 직접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혈통이 다르지요? 입적하기 전에는 상속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입적이 안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족보에 입적되었어요? 축복받는다고 입적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는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 그 자리입니다. 완성급 7년 노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중심삼고 복귀해 나가는 것입니다. (139-230, 1986.1.31) p.2026

입적시대로 들어가게 되어 명부를 꾸미는데 함부로 못 꾸밉니다. 홈 처치를 통하지 않고는 명단 기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족보편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이라도 빼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늘이 제시하는 모든 일을 서둘러 해야합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영계에 가면 영계에 가서 영원을 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해결 못 짓고 가게 되면 큰일난다는 것입니다. (143-118, 1986.3.16) p.202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그 치리 법도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생님이 변호사가 돼 주고, 선생님 가족 일족이 변호사가 돼 주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통일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어, 하나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가정으로부터 지도자까지 그럴 수 있어 가지고 변호의 범위가 참소권 보다도 많아야만 선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입적이 될 수 있지, 그 참소권보다 작아서는 입적이 될 수 없습니다. (147-331, 1986.10.1) p.2027

통일교회 교인들은 절대 제멋대로 못 삽니다. 자기 마음은 못 속이지요?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못 속이는 한 하늘나라의 호적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입적되는 겁니다.
내가 이 손을 한번 들면 지금 비디오 테이프에 전부 다 기록되지요? 인간 세계도 이렇게 기록되거늘 하늘나라에 기록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개 축복받은 부부가, 버튼만 한번 누르면 어려서부터, 그 조상부터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나오는 겁니다. 오래걸리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시간 관념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재까닥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148-290, 1986.10.25) p.2027

입적이 뭔지 알아요? 시집가는 색시가 신랑을 따라가게 되면 적(籍)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난 본연의 적을 취소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77-302, 1988.5.22) p.2027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조국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중심삼고 입적할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땅을 살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서양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가지고 대한민국에 조그마한 오막살이하고도 바꿔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85-250, 1989.1.8) p.2027

기력이 없어 가지고 그저 문턱 너머 바라보고 '아이고 늙었는데' 할만큼 늙었어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하늘 앞에 입적시켜 주고 영계 안 가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역사시대의 자기 조상들 앞에, 자기 형제들 앞에, 자기의 친척 인친간 중심삼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때를 맞은 것이 통일교회 축복가정이라는 겁니다. (186-165, 1989.2.1) p.2027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위신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족장들 만들고, 72족장 만들고 다 이렇게 해서, 새로 입적시대가 오는데 그 축에 끼워 주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실적이 있어야 끼워 주지요! (194-96, 1989.10.17) p.2028

앞으로 입적하는 겁니다. 남북이 통일되게 될 때는 세계 통일교회 가족들은, 축복받은 가정들 중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한 모든 사람은 종족을 넘어 전부 다 입적할 겁니다. 선생님의 힘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된다면 말입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통일교회 충신들을 대표 민족으로, 씨받이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누가 반대해요! 역사적으로 말하게 되면 한국의 독립을 위하고 한국의 환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고했는데 누가 반대하겠냐는 것입니다. (197-212, 1990.1.14) p.2028

앞으로는 종족 가입시대가 옵니다. 개인 가입시대가 아닙니다. 종족 가입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그것이 지나게 되면 국가 입적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빠릅니다. 이제부터는 빠릅니다. 눈코 뜰 새가 없으리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정세가 눈코 뜰 수 없으리만큼 빨리 돌아가지요? 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문총재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197-363, 1990.1.20) p.2028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야 됩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통일은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을 대지 않더라도 서로가 더 빨리 입적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느냐, 두 번째가 되느냐, 세 번째가 되느냐를 다투면서 기를 쓰고 싸울 때가 올 것입니다. (198-242, 1990.2.3) p.2028

앞으로 입적할 때가 옵니다. 선생님의 일족, 황족을 중심삼고 연결되는 여기에 여러분이 가입하기 위한 입적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입적시대가 오더라도 종족복귀를 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열두 지파와 마찬가지입니다. 종족복귀하기 전에는 입적 못 합니다. 사람들이 종족복귀의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저 통일교회에 먼저 들어오려고 떼거리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입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사람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것이 됐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선생님을 중심삼고 선생님의 아들딸, 선생님을 중심삼은 만물을 찾아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선생님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208-339, 1990.11.21) p.2028

사탄의 소유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권 회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하는 전쟁 없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족이 재산과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하늘에 입적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상에 없었던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먼저 입적하느냐에 따라서 형님이 되고 아우가 되는 것입니다. (208-345, 1990.11.21) p.2029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입적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정도 없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부모고 뭣이고, 열 식구면 열 식구가 전부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머니 아버지와 일족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조부모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자기 부부, 아들 딸이 하나 되어서 위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지니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전통에 복종하면서 위하는 사랑만을 갖고 움직이는 그 세계, 위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는 평화의 기지가 생겨나지 않으려야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0-306, 1990.12.27) p.2029

앞으로는 전부 다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갈 때는 정비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합해 가지고 부부의 일기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딸의 공인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입적을 해야 됩니다. 입적시대가 옵니다. 청산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사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심각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들은 앞으로 전부 일기를 써야 됩니다.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8-39, 1990.11.15) p.2029

이제 앞으로는 세계가 전부 다 입적을 해야 됩니다. 열두 지파를 중심삼고. 그거 할 때는 여러분의 일생, 통일교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서 뭐 하나, 보자기 하나라도 가져갔으면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계에 기록된 컴퓨터 기록과 맞지 않게 될 때는 여러분은 못 들어갑니다. (212-56, 1991.1.1) p.2029

왕족 심정권을 중심삼은 그곳은 환대 뿐, 언덕이라든가 벽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전체가 환영하고, 만년의 사랑의 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의 주인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자기 일족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족이 모두 모인 그 영예의 가치를 가지고 입적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입적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한 해방의 종족장으로서, 메시아로서, 부모로서 내가 끌어당겨 주자는 것입니다. (218-358, 1991.8.22) p.2029

하늘나라가 앞으로 지상에 건설되면 이렇게 됩니다. 헌법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체는 하늘나라에 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이로써 입적하는 날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종족이 입적할 수 있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입적하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앞에 머리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219-209, 1991.8.29) p.202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유환경 무대가 찾아온 이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권을 조성해야 할 독립군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소대장이 될 거예요, 중대장이 될 거예요, 연대장이 될 거예요, 사단장이 될 거예요, 군단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활동 여하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형님·동생·오빠·누나 한판에서 전부 다 경쟁해야 됩니다. 승리한 사람이, 등록을 먼저 하는 사람이 형님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개벽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동생이 형님이 되고, 누나가 누이동생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입적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220-251, 1991.10.19) p.2030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왕궁법을 존중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지요? 이제부터 남북이 통일된 세계의 모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할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입적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서 대학교 선생으로 입적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일대에 일족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패스해야 됩니다. 영계 육계로부터 감정을 받아 선출하는 것입니다. (210-368, 1990.12.27) p.2030

천운은 상대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전부를, 일족을 하나님에게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누가 조상이 되느냐 하면, 선두에 서서 이끄는 사람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구보키(久保木)가 통일교회 회장이지만 그걸 못하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입적하게 되면 구보키 회장이 몇 대 손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입적은 먼저 한 사람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227-97, 1992.2.10) p.2030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빨리 종족복귀 해라! 소유권을 하나님에 돌려라! 빨리 입적해라!'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최대 희망입니다. 선조이래 1천만대를 넘어서는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미래에 있어서 일본의 여명의 아침이 지나 빛나는 태양을 맞이하는 기쁨을 체휼하게 될 것입니다. (227-107, 1992.2.10) p.2030

천국 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천국에 국민이 없기 때문에 천국 국민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는 것 이외에 길이 없습니다. 천국 국민이 없으면 영계에서의 재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들딸이 아닙니다. 일본의 1억 2천만 모두 다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수많은 일본인을 여러분의 아들딸과 함께 천국 국민으로서 입적시키느냐? 그 숫자가 여러분이 영계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아무리 통일교회의 회장을 몇 십 년 하였다고 해도 모두가 허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통일교회가 반대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228-120, 1992.3.26) p.2031

참부모와 하나되어 전통을 상속받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주체적 전통으로서 만국을 치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주체성을 지닐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하늘나라에 황족권 내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3대가 결심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부부, 아들딸까지 단계는 4단계이고 계열은, 부부를 갖춘 것은 3대입니다. (228-295, 1992.7.5) p.2031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반대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 막아 주었습니다. 다 헐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얼마만큼 숭배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이 핍박시대에 선생님을 숭배하던 이상 몇 백 배 숭배할 수 있는 가정의 전통을 남기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본관에 입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들에게 여러분이 선생님을 모시던 몇 배 이상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밀려 나가는 겁니다. (184-243, 1989.1.1) p.203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입적을 해야 됩니다. 입적을 위하여 어디로 가자구요? 본향 땅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못 하게 되면, 영계에 가서 되돌아 억천만세를 돌고 돌면서 눈물과 더불어 탄식과 더불어 넘어야 할 타락권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위해서 직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소상히 여러분 앞에 말씀했으니, 그걸 잊지 말고 명심하고, 승리의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천국과 본향 땅의 본적을 세워 입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겠다는 사람 쌍수를 들어 선서하십시오. (177-351, 1988.5.22)
p.2031

Top

p.2032

제 6 장

참부모가 전수하는 세계와 남북통일 교본

1) 세계와 남북통일은 참사랑으로

세계와 남북통일을 열망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방금 시작한 새 천년은 분열과 갈등의 지난 세기의 유물이 청산되고 화해와 통일의 지구촌 한 가족의 이상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새 천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본인의 80 회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세계(전국) 도처에서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날까지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본인의 지난 생애를 돌이켜볼 때, 어느 한 때 평탄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온 민족의 수난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본인은 16 세 소년시절에 기도하던 중 홀연히 하늘의 뜻을 접한 뒤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은 인류시조가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 무지에 떨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과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 등에 대하여 무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세계 도처 공석상에서 1 만여 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참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는 12 개 종류의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이미 300 여 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헌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나 학문적인 탐구 결과로 해명한 것이 아니라 유·무형세계를 자유로이 교통하면서 원론적이며 근본적인 답을 설파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인은 이 뜻깊은 자리를 감사하면서 우리 민족의 숙원이요 세계 냉전문제의 마지막 결산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답으로서 '세계와 남북통일은 참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통일만이 아니라 이것은 타락으로 갈라진 인간의 마음과 몸의 통일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동·서 양대세계로 갈라진 전세계의 통일을 위한 모형적 노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섭리관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사안이며 따라서 섭리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인간조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본연의 세계를 다시 찾기 위한 탕감복귀섭리 역사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표를 놓고 사탄편과 하늘편의 선악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언제나 선한 편은 선령이 협조하고 악한 편은 악령이 협조하여 왔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분열의 역사는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근간이 된 유물론과 유신론의 대결로 나타난 것입니다.

2000 년 전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유대교를 기반으로 유대 종족과 민족을 통일하고 12 지파의 후손들이 살던 아랍권을 통일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사상이 중동지역과 인도지역을 거쳐 극동에까지 전파되고, 한편으로 로마 제국과 전유럽을 장악하여 예수님 당대에 통일된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교문화권을 형성하여 만왕의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이후 외적 육신의 문화권인 인본주의의 헬레니즘이 먼저 발달하여 로마의 중심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한편 내적 마음의 문화권인 신본주의의 헤브라이즘을 대표하는 기독교는 400 년 동안 로마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선과 악의 투쟁역사 배후에서 사탄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영원 · 불변 · 절대 · 유일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이상하셨던 기준도 영원 · 불변 · 절대 · 유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애초에 저를 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일시적인 사랑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사랑을 위해 세우셨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으로 세웠다고 하면 일시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는 기준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탄 앞에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무저항주의자'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천국이상의 세계를 성취할 때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여 사탄이 된 천사장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날뛰며 돌아다닌다 해도 벌하거나 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과 기준을 세워, 사탄 자신이 '아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항복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사탄을 사랑함으로써 굴복시키는 것이 복귀원리적인 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핍박을 당해도, 세계적인 원수권에 서더라도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악을 자연굴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승패로 갈라지는 경계선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적과 원수로 간주하고 그것에 대하여 복수하겠다는 사상을 가졌다고 하면, 절대로 승리의 정상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사랑의 작전을 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사탄이 역사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원수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으면 섭리는 역전되었을 것입니다. 복을 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사탄이 자연 굴복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질 수 있는 자격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시인하고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인(SIGN)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지?' 하고 물으면, '예,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대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권으로 확대하는 데에 이견은 없겠지?' 하면, '예, 그것은 원리와 원칙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게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건에 따라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섭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희생의 길, 순교의 자리, 피투성이의 경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사회, 국가, 세계에서도 이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에 의하여 극심하게 박해를 가해 온 로마 제국이 굴복당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은 개인적인 원수만을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국가라든가 나아가 원수 세계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 국가의 중심에 천국의 출발점이 있으니 거기에다 참사랑의 전통 기반을 만들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이 세워지면 이 이상의 사상, 이 이상의 소화할 주의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제하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일본?독일?미국 등 주요 섭리 4 대 국가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원수지간이고, 일본과 미국이 원수지간이며, 미국과 독일이 원수지간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데 본인은 이러한 원수관계에 있는 일본과 독일 사람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미국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잃어버리면 망하고 죽게 되니 미국을 살려야 한다며 참사랑의 도를 실천하였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사람들에게 적대관계였던 미국을 자기 조국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전통을 세우지 않고서는, 하늘이 바라는 새로운 세계 이념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참사랑의 전통을 가르친 것입니다.

원수지간의 국가들을 자기의 조국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터전과 전통을 이루어 놓지 않는 한 이 지상에 천국은 현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의 수립은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굴욕을 당하면서 죄없이 법정에 섰을 때, 미국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보수 정론지 워싱턴 타임스를 발행하고 방송국을 설립하게 하는 등 오히려 미국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근래에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미래를 염려하여 수십 종에 이르는 각종 교재를 출판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윤리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하에서 반일 지하운동을 했던 본인에게 일본민족은 원수였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한 후 본인은 일본인을 사랑했습니다. 지하독립운동을 했다고 끌어다가 모진 고문을 했던 일본경찰관들을 본인이 말 한 마디라도 한다면 모두 처형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쫓기고 있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왜 본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인과법칙에 따라서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심정적인 뜻에 따라서, 세계를 향해 참사랑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길로 이끄는 심정적 기반을 심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천명에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일제하에서 일본 천황에게도 원한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패자인 것입니다. 하늘은 망한 자를 또 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사죄하는 자에 대해서는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이 있기 때문에 패자에게 또 칼을 들어 치게 되면 친 자의 후손이 망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본인을 적대시하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도덕적으로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조국도 돌보지 않고 가인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또 기성교회가 통일교회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러나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화합하여 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늘의 뜻 앞에 세워 이북을 소화해야 됩니다. 해방 직후에 기성교회와 통일교회가 하나되었더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개인적,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인 원수 등과 대치되어 오면서 싸우지 않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러 나오면서 수난의 길을 극복해 나온 것입니다. p.2036

내외 귀빈 여러분!

이미 북한 사람들은 전국민이 다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북한은 소비에트 문명에서 온 찬바람이 불어치는 북방 문명입니다. 우리는 온대권 문명으로 그들 스스로 녹아 내릴 수 있도록 작용하지 않고는 서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두철미한 참사랑의 사상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은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삼은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큰 것을 위하자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원 몇몇 간부를 중심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적수가 나오면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환경과 화합하여 하나돼 보다 높은 차원의 상대적 기준을 이루자, 즉 가인과 아벨이 하나돼 보다 높은 부모를 맞이하자'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적으로 감복시키고, 인생관이나 인격적인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갖지 않고는 가인 국가를 복귀할 수 없습니다. 가인 국가를 복귀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중심한 세계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복귀의 국가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분단되었지만 북한과 싸우지 않고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서로가 이익될 수 있는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은 엇갈려 있습니다. 방향도 다른 입장에서 하나는 남으로, 하나는 북으로 가려고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으니,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떻게 통일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심각합니다. 그 주체적인 사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남한이 주도하게 된다 할 때 북한이 반대할 것이고, 북한이 주도하게 된다 할 때 남한이 반대할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 할 때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체를 고집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또 결렬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남한 사람이 남한을 사랑하는 이상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북한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상 남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것밖에는 모색방안,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남한의 그 누구보다도 더 애국하는 사람, 북한의 그 누구보다도 더 애국하는 사람, 그렇게 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할 때에 거기에서 초국가적인 통일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외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북한 사람보다도 더 고생하고, 남한 사람보다도 더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생 가운데 세워진 초민족적인 애국심이 남북한을 살리는 첩경이요, 해결의 방안인 것입니다.

악한 세계와 선한 세계를 통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세워놓은 충신의 도리 이상의 충절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결렬된 역사를 수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위대했습니다. 유대민족이 불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죽고 민족을 위해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인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역사 이래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 이래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았던 역사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방향을 취해 가지고 보다 차원 높은 선의 목적의 세계로 진출했던 것이 기독교문화권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남과 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무리들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진정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혹은 우리 인생 항로를 어떻게 가야 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볼 때, 그 골자를 추린다면 효자가 가는 길, 충신이 가는 길, 성인이 가는 길, 성자가 가는 길의 근본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위, 아래를 막론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전후좌우?주야를 초월하고 생애를 넘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사무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살고 싶구려' 하는 그 내막의 공통분모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은 역사를 초월 못 합니다. 그것은 한 때의 것입니다.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세계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세계에서 이 학문과 더불어 길이길이 '같이 살고 싶구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금전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위나 아래나 전후좌우를 막론하고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성을 초월한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분모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가정에서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애국자는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요, 성인은 세계 만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자는 인류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국자의 마음처럼 민족과 더불어 같이 살고 싶어하고, 민족이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이 곧 내 일이요 내 아픔이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남아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다짐할 수 있는 참된 심정의 터전이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심정의 인연을 가진 사람은 통일권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무식의 여자라도 박사와 결혼해서 사랑의 인연을 맺으면 하루아침에 박사 부인이 되지요? 이처럼 더불어 같이 살고자 하는 정의 인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오늘 통일권에 당당히 참석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될 수 있는 생활내용을 지니면,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통일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힘으로 굴복시키면, 상대편 힘이 더 커질 때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남 땅에 살지만 이북에 사는 그들과 진정 같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북한을 생각하면서 목이 메어 불쌍히 사는 내 동포를 위해 눈물 흘리고, 당신들의 어려움과 더불어 나는 살고 있다고, 해방의 한 날을 준비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다짐하며 통일을 위한 참사랑의 실천운동이 여기서 벌어진다면, 통일의 날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첫 단계로 향토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부모와 더불어 같이 살고 싶지 않고, 향토와 더불어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애국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라와 더불어 살고 나서야 세계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 살고 나서 하나님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향토를 사랑하고 그 지역사회를 사랑해야만 애국도 가능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들에게 국민과 더불어 진정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런 정치인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물거품처럼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진 남과 북이 그냥 하나될 수는 없습니다. 애국 동지들이 투쟁하는 그 과정에서는 밤잠을 안 자며 시간을 초월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결의와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같이 살고 싶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싶소' 그런 마음을 서로가 갖게 될 때에는 남북통일운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이루게 되면,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통일도 여기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문제를 염려할 때에는 세계를 대표한 자리에 서서, 60 억 인류를 대표하고 30 억 아시아인을 대표하고, 민족의 앞날, 세계의 앞날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참으로 같이 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인의 도리와 통하면 성인을 닮는 것이요, 성자의 충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 실천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뜻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본인은 생애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p.2039

내외 귀빈 여러분 !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서로가 인연을 맺게 되면 반드시 주관권과 소유권, 그 다음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역학에서는 입력보다는 출력이 작지만 참사랑의 세계에서는 입력보다 출력이 더 큰 것입니다.

참사랑은 무엇이냐? 위하는 사랑인데 주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준 것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퍼부어 주어도 지치질 않습니다. 90 세가 넘은 부모가 70 세 된 아들보고 '애야! 차 조심해라'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고, 몇 십 년 동안 그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하더라도 싫증나거나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부모가 이렇거늘 하물며 본질세계에서 부모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 지칠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대상권을 확정짓고 참사랑의 영광이 불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에, 영생의 논리를 타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84 년에 아무 죄없이 미국 감옥에 들어가 옥중 침대에 홀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을 사람이 본인밖에 없으니까 니카라과 사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인간이 어디 본인밖에 없겠습니까?

선진국을 대표한다는 미국엔 2 억 4 천만이라는 국민과 수없이 많은 교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실 수 없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신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한 인력의 사랑을 찾아가실 줄 알기 때문에 밤낮으로 세계를 위해 염려하는 본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워싱턴 타임즈를 앞세워 돕는 일을 전개하지 않았으면 남미는 사상적으로 이미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p.2039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은 이 시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남한을 통일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터전을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에 쌓기를 하늘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전부 다 깨끗이 씻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씻어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이상, 자식을 사랑하는 이상의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그 환경을 닦고, 제물적인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상적 남북통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적

[텍스트 입력]

동서문화의 통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됐던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이상적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해방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키(Key)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사랑에 의한 통일은 가정적인 사랑의 통일과 언제나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합된 사랑의 부부는 가족 뿐만 아니라 그 종족과 국가와 세계에도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되면 그 누가 헐뜯고,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화합된 가정, 화합된 민족, 화합된 정부, 화합된 세계, 화합된 하늘 땅, 화합된 참된 인간애와 하나님이 일체된 그런 세계가 참사랑의 유토피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식물이 태양빛을 생명의 요소로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에게는 사랑이 생명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참사랑과 더불어 흠모하면서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이나 천상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의 주인격으로 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가치와 그 특권적인 권한을 가진 참사랑의 주체자 혹은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이것을 잊지 말고 몸과 마음이 하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자기 부부끼리 더 높이 위할 수 있는 사랑함에서부터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람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남북통일은 이미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주체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는 힘없이 흡수되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참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남북통일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 문제나 세계적 남북 빈부격차 문제도 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삼고 세계의 이상을 소화하고, 거기서 국가 이상을 소화하고, 국가 이상에서 민족, 가정·개인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상세계의 평화적 무한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 위에는 참사랑의 평화세계가 건설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p.2040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은 40여년 전부터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통일의 근본원칙을 선언하고, 국내외에서 하나님주의를 중심한 이념운동을 토대로 주변 4대 강국에 통일의 국제적인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 각각 수백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국제승공연합, 카우사 활동 등을 통해 민간기반을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그 동안 본인이 주창해온 하나님주의는 유물론, 무신론의 상반된 가치관의 통일은 물론, 세속적 인본주의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사상계에서 검증되었습니다. p.2040

남북통일을 열망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참사랑의 하나님주의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국민사상 무장에 총 궐기합시다. 우리 자신과, 한민족과 세계평화를 위해 남북통일을 신앙화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 역사와 하늘의 소명에 떨쳐 일어나 남북통일운동에 우리 모두 앞장서는 의인과 지도자들이 됩시다. 진정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참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사랑의 온풍을 북녘땅 동포들에게 보냅시다. 특별히 인류 역사 시초에 해와의 실수로 역사가 잘못되었으니 끝날에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참사랑의 모성애로 청소년의 화해와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해 갑시다.

특히 여성의 사명은 자녀격인 청년 남녀 및 학생들을 참된 교육을 통해 참된 자녀들로 복귀해 내야 합니다. 나아가 어머니와 자녀가 합하여 본을 세워 남편까지도 교육을 통해 참된 하늘의 아들로 복귀하고 참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지상천국 이상을 복귀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말씀이 남북한이 함께 더불어 참사랑으로 만나는 그날을 앞당기는 범국민운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2041

Top

2)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 본인의 80 회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전세계 도처에서 이곳 한국을 찾아오신 각계 각층의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오늘까지 함께 하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생애를 통하여 오직 일념으로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실현을 위한 제반 난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여 왔습니다. 16 세 소년시절에 천명을 받고 낙원의 예수님을 비롯한 역대 성현들과 자유로이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명과 함께 인류구원을 위한 복귀섭리역사를 완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여 왔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진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오신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뜻 깊은 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과 완전히 하나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 무지에 떨어짐으로써 신의 실존 및 인간과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에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사후 영계의 실재와 이를 위한 준비로서 지상생활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고 살아온 본인의 생애는 한 마디로 밤과 낮을 잊고 계절도 환경도 뛰어넘으며 오로지 뜻을 성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온 길이었습니다. 본인의 80 년 생애를 뒤돌아 볼 때, 그 동안 갖은 고초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그 동안 세계 도처의 공석에서 1 만여 회의 말씀을 해왔고 이는 이미 300 여 권의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 최고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난 이 뜻 깊은 자리에서 그 동안 본인이 생각하고 가르쳐 왔던 내용의 일단을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이라는 주제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천주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도록 지어진 거대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천주의 중심된 인간은 상하, 좌우, 전후의 관계성, 즉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속에서 구형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하, 좌우, 전후인 1, 2, 3, 4, 5, 6 의 한 중앙인 제 7 의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도하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중심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사탄권 내에서 구속과 고심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유와 해방을 받아 참된 아들딸로 성장한 후에 상대를 만나 참된 부부가 되고 나아가 자녀를 낳아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노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자녀를 부정할 수 없고, 참된 부부를 부정할 수 없고, 참된 부모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우주의 원칙에 역행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참된 부모와 함께 참된 부부와 참된 아들딸로 이루어진 참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존재의 모델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참된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야 하고, 참된 부부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참된 아들딸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물리적인 힘도 아닌 균형을 만드는 하나님의 참사랑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은 투입하는 힘입니다. 주는 힘이지 받기만 하는 힘이 아닙니다. 전부를 다 주어 영점(zero point)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빈자리가 되니 영점 자리에는 무엇이든 들어와도 오케이(OK)입니다. 그래서 주는 힘이 영속하니 돌아오는 힘이 가중되어 영속함으로 영원한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으로 위하여 사는 세계는 수수작용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상대적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주고받는 작용을 통하여 참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때문입니다. 상대관계에 있어서 모든 주는 힘에 대하여 돌아오는 힘이 운동함으로서 그 중심점은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천운의 수인 세븐과 같은 참사랑의 중심위치에 하나님이 계시어 전 우주가 균형을 맞춰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운이란 이렇게 받아 가지고 돌려주는 거대한 천주적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도 흐르고 공기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빛도 흐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돌고 돌아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p.2042

내외 귀빈 여러분!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받은 것을 잘라먹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받은 것에 대해 플러스시켜 베푸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때문에 자식이 자신보다도 낮아지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보다도 훌륭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은 동생이, 동생은 형이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돌리려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며, 남편의 소원이며, 자녀의 소원이며, 만물의 소원이요, 결국 우주의 소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큰 마음으로 '천주가 나의 고향이요 나의 조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자유와 해방을 받아 천주적으로 환영받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환영받고 가정, 국가, 세계, 천주적으로 환영받고서야 결국 하나님의 참 아들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본연의 고향에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고향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천주 가운데에서도 지구성이고, 조국은 조상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지구성에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부모 형제 아들딸이 함께 산다면, 그곳이 곧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 곳에는 흑인, 황인, 그리고 백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종이 누구의 아들딸입니까? 부모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주인이 백인이라거나 흑인이라거나 황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미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부 색깔이 다른 것은 사는 지역에 따라 보호 색깔을 맞추기 위한 기후와 환경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은 지역에는 백인이 많습니다. 반대로 태양빛이 강한 아프리카 같은 데는 흑인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 색깔이나 살과 뼈의 모양이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국제합동결혼식을 통해 인류를 평등화하여 왔습니다. 자연의 순리와 원칙을 존중하다 보니 오색인종이 서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북극과 남극이 하나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황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서로의 강점을 전수받아 보다 나은 후손을 낳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태어난 고향과 조국은 다르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믿음의 본향지요 평화와 통일의 본향지란 참사랑을 중심삼은 조국과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사랑, 참생명, 그리고 참혈통입니다. 참사랑에는 참생명이 있고 참혈통이 연결됩니다. 참혈통이 연결되지 않고는 참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참생명이 연결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참생명은 참사랑과 참된 혈통의 인연 속에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통해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이 되어서 참된 사랑과 참된 생명과 참된 혈통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것입니다. 영원한 참사랑, 영원한 참생명, 영원한 참혈통의 주인이신 이상적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완전한 참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바로 이러한 참된 혈통적 전통을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직접 자유롭게 대할 수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하나님을 전과 같이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핏줄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핏줄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3 장 3 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혈통적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신인 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이 사랑의 원수요, 생명의 원수요, 혈통의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지극히 부끄럽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세계에서 프리섹스와 호모섹스가 난무하는 것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의 아들딸을 자기의 아들딸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면서 잃어버린 아들딸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입니다. 타락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하여 거짓된 씨로 복 중에 임신된 아기를 보면서 비참해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자녀가 번식하여 오늘의 60 억 타락인류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3 시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복중시대는 수중시대이며, 지상세계는 흙과 물과 공기의 시대이고, 사후의 세계는 사랑의 시대입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 속에서 영양을 받아 자란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은 지구성에서 만물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어머니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는 태양빛과 같은 빛이 밤이나 낮이나 흐르는 곳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태양계는 언제나 낮입니다. 영계도 이와 같습니다. 영계에서의 사랑의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북극이나 남극이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참사랑이 충만한 세계가 영계입니다. 영계는 춘하추동이란 계절을 통해 열매맺은 것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곳과 같기 때문에 지상세계의 삶이 결실된 곳입니다.

복귀역사 노정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참된 혈통이 연결되어 가지고 참생명으로 출생한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타락한 인류 가운데 지상이나 영계에서 하나님의 직접주관권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홀로 고독단신의 슬픈 세월을 보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도 슬프고, 만물도 슬픈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즉, 핏줄을 정화시키고, 참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어받아 해방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한 남자, 메시아를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 이후 구약시대 역사는 메시아를 맞기 위한 선민의 역사입니다. 준비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로 와서 만민을 예수의 가정과 접붙여 참혈통을 세계화시키려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역사는 재림이상으로 남아졌습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는 인류의 참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참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 천지부모의 자리를 거쳐 인류구원섭리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메시아가 출발해야 할 기점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가정보다도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더 훌륭하게 모실 수 있는 효자 효녀의 가정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참사랑을 중심한 아버지의 자리에서 참생명과 참혈통을 연결해 새로이 출발해야 하는 인류의 이상적 핵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축복결혼 가정을 연결하여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인류의 참된 부모로 오셔야 합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사탄세계의 사랑과 사탄세계의 혈통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연결된 완성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와 천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참부모의 사랑에 의하여 전인류가 새로운 축복결혼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혈통적 가정을 상속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사랑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리하여 사탄 세계의 지옥권을 해방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8단계의 복귀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중시대를 거쳐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부부시대, 부모시대, 조부모시대를 거쳐 왕과 여왕의 시대로까지 8단계를 복귀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 왕후로서 천지의 대주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본래 성장하여 남자는 여자를 만나 왕이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여왕이 되어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옥 밑창에서부터 8단계의 탕감조건 과정을 거쳐 천국까지 일체화 시켜야 하는데 이는 메시아로 오시는 참부모의 축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축복가정(bless couple)은 세상 앞에 도움되는 주체적 플러스 커플 (plus couple)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본인 역시 생애를 통해 이를 실천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절대신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의 절대적 파트너로 만드셨습니다. 절대순종은 자기 자신까지도 다 없어지며 완전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며 마침내는 자기 개념 조차 다 없어지는 제로 포인트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정 받더라도 더 사랑하고, 투입하고도 더 투입해야 원수를 참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 왔고 천지부모가 그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중심자가 되고 전체 상속자가 되고, 효자 중의 효자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등 열 식구가 살더라도 가장 위하는 자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애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릴수록 충신, 성인, 나아가 성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이래 어떤 존재보다도 참사랑을 중심삼고 더욱 위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려 오셨고 또 영원히 계속해서 잊고 투입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하는 자들의 왕이 되실 수 있고 조상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끌어온 통일교회가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종단으로 성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 원칙으로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 볼 때 본인이 인류 구도의 길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무형 세계의 억만 사탄세력이 반대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텍스트 입력]

각국의 정권이 반대하였지만 본인은 당당히 그들을 위하여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중심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그들을 위하여 살았고, 반대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투입하였으며, 반대하는 정권을 도리어 위하여 살다보니 어느새 레버런 문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의 전법과 사탄의 전법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즉 하늘의 전략은 맞고 찾아오는 것이고 사탄의 전략은 치고 잃어버리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레버런 문은 인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널려있는 오색인종을 '한 분의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합동결혼식을 통해 수천 수만 쌍의 젊은이들을 축복 결혼시켜 왔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결혼을 통해 하나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적 갈등은 없어질 것입니다.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참사랑으로 하나되면 원수였던 두 나라가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레버런 문은 영계에 있는 영인들까지 참사랑에 의하여 축복을 시켜왔습니다. 지상과 천상에 천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까지도 축복을 통해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땅 위에 있는 참부모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거짓 부모로서 죄악의 씨를 뿌려 놓았으니 메시아는 인류의 참부모로 와서 지상과 영계의 모든 인류를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잘못 되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차 혼자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하셨을 것이고 또한 타락도 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자기 책임분담은 원리 법도의 하나님으로서 일체 간섭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인류의 참부모로 와서 혈통을 더럽힌 원죄를 지닌 인간을 참사랑에 의하여 거듭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이 주도해 온 국제합동결혼식의 의미는 단순히 남녀가 배우자로서 만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연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부여받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거룩한 중생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탕감원칙을 통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 탕감시대를 거쳐 마침내 영계 해방과 지상 해방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세계가 수천 수만의 민족으로 갈라지고, 부모 부부 자녀끼리 분열되고, 종교권도 기독교 · 이슬람 · 유교 · 불교 등 4 대 문화권으로 갈라져 왔으나 지금 우리는 대 통일 가정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거쳐 완성시대인 성약시대를 거쳐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제 4 차 아담권 시대로 진입하여 천국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국가주의 시대가 지나고 세계주의 시대를 넘어 천주가 하나의 하나님 아래 하나가 되는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나아가 지구성이 전 축복가정들의 고향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천상세계는 조국이 되어 하나됨으로 영원한 조국 광복인 지상 천상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p.2047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은 새 천년을 시작할 자정에 전세계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완성"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사랑 천주화'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참사랑의 집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전체 세계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는 일이 됩니다. 천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적 입장에 있는 사랑의 집의 완성을 위해서 가정이나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같은 공식 원리의 집을 찾아 하나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집이요, 세계는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집이고 나아가 천주는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집입니다. 그 중에도 참사랑의 가정이란 거대한 하늘나라의 집, 천주의 출발점이요 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부인의 참사랑의 집이며, 부인은 남편의 참사랑의 집이고, 부모는 자녀의 참사랑의 집이고, 자녀는 부모의 참사랑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자유와 신앙의 이상이 꽃피고 열매맺는 곳이요,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된 혈통이 결착된 참된 가정이 자리잡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참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본인이 그 동안 주창해온 천지 안식권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참된 남녀가 결합된 가정이기 때문에, 참된 가정의 가치를 설파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에서 말하는 에덴동산을 이 지구상에 구현시켜야겠습니다.

이제 새로 맞이한 새 천년은 6 천년간의 구원섭리가 완결되고 창조이상을 중심한 본연의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때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값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없이 나누어 받는 조건 없는 참사랑의 시대를 말합니다. 영계와 지상이 하나로 통하여 천상과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직접주관이, 복귀된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통하여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새 시대로 열리는 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성은 인류의 고향이요 영계는 인류가 완성하여 도달해야 할 영원한 조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One nation under God)'를 넘어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천주(One cosmos under God)'로서 하늘 부모를 중심한 지구성 대가족주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 관계인 부자지인연을 마음에 새기어 '천주'즉, 영계와 지상을 '우리의 고향과 조국'으로 창건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찾아주신 전세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해동포가 서로 참된 형제자매가 되어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p.2048

Top

3) 참사랑은 누구나 원한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제 4 회 세계문화체육대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가정을 통한 참된 평화세계 구현을 위하여 본인이 생애를 두고 추구해온 각종 평화운동은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뤄드리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한 세기가 끝나고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며 출발한 새 천년의 희망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각계,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운동이 세계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일찌기 16 세 소년시절에 하늘의 뜻을 접한 이래 낙원의 예수님을 비롯한 역대 성현들과 자유로이 교통하면서, 생애를 통해 갖은 시련을 이겨내며 오직 일념으로 하나님의 뜻 성사에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지상과 천상에 자유와 평화와 해방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연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타락은 그것의 단절을 의미하며 복귀는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그 동안 설립한 각종 평화단체와 국제조직은 하나의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구상해 오신 하나님의 뜻 성사를 위한 일환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참관하셨던 국제축복행사는 타락으로 물려받은 인종 종파 국가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색인종이 한데 어우러져 참된 형제, 참된 부부로 만남은 한 분의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룩한 이상의 현실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인의 80 회 생신 축하행사와 제 4 회 세계문화체육대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대회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사랑은 누구나 원한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공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듯이, 하나님도 참된 인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도 남자나 여자 어느 한 편을 먼저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아마도 서로가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내세우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사랑만 내세우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만질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있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먼저 가지려 다투겠지만, 그것이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면 둘이 서로 하나돼 위하며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누구나 좋아할 뿐 아니라, 사랑만이 인간의 욕망을 전부 다 고르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섭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라 해도 하나님 혼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남자 혼자 또는 여자 혼자만 가지고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을 위해서 여자가, 여자의 사랑을 위해서 남자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못 생긴 남자도 못 생긴 여자도 사랑의 대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사랑의 대상이기를 원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존재를 보면 다 주체와 대상,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쌍쌍으로 돼 있습니다.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인간세계도 모두 쌍쌍제도로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러한 상대관계를 통하여 참사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절대 혼자서는 취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지만, 반면에 상대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연결된 모든 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이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주인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참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그 상대로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 모두가 주체와 대상이 하나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하나되면 이들 둘을 가를 수 없습니다.

만일 가른다면 참사랑이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혼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사랑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 여자가 사랑을 느낀다해도 그것 역시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상대인 남자로부터 연유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주인은 상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상대를 귀하게 생각하고, 상대 앞에 감사하고 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부부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근본이치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여 참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될 때, 이를 통해서 타락된 사탄혈통은 완전히 근절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이란 횡적인 수평관계만이 아니라 종적인 수직관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참사랑의 횡적 관계가 종적으로 점점 그 차원을 높이면 결국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자리가 '참사랑의 왕'인 하나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결합되고, 품기고, 사랑화 되고, 그리고 꽃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는 사랑으로 화하기를 바라고,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태어나고, 사랑을 위해서 살다가, 사랑을 위해 죽는다는 말이 됩니다. 참사랑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품고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물들은 이러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주에 가득 찬 모든 존재들은 자기 레벨에서 상대와 더불어 존재하지만, 결국 더 높은 사랑의 차원으로 흡수되어 상승하게 되는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광물은 식물에, 식물은 동물에, 결국에는 사람한테 모두 흡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잡아 먹히거나 흡수되어 더 높은 사랑의 차원으로 올라가, 마침내는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궁극의 목적지로 삼는 것은 바로 참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윈의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이러한 참사랑의 논리로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개미나 미물들마저도 참사랑을 원할 뿐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한테 가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높은 대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 먹고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취하되,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먹고 취해야 합니다. 만물 중에 길게 생긴 것들, 예를 들면 뱀장어나, 고기들이 좋아하는 지렁이 같은 것들은 대개 약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어느 레벨에서든 다 잡아 먹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주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아담과 해와를 씨로 삼아서 가정을 만들고, 종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방대한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전통을 따라서 번식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말과 찰스 다윈의 이론이 정반대이지만, 평화의 세계는 본인의 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이상을 이루는 근본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창조'라는 말에는 벌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뜻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와 대상을 통해서 지으신 창조에는 방향성과 목적관이 내재되어 있지만,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이론에는 아무런 방향성과 목적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참사랑의 목적이 있는 반면, 공산주의에는 투쟁과 파탄이 있을 뿐이어서 결국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서도 제일 귀한 존재가 인간, 즉 남자와 여자인 것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코도, 눈도, 손도, 그리고 두뇌도 아니고 사랑의 중심기관인 생식기입니다. 이 사랑의 기관으로 말미암아 우주의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생식기로 말미암아 번식되고 확산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가치있고 하나된 훌륭한 가정도 그것이 하나된 부부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된 부부로 말미암아 이상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관이야말로 사랑과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과 역사가 연결되는 엄청난 가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근본원리는 수컷과 암컷의 개념을 통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수컷, 암컷이 절대적인 사랑을 원한다면, 그 짝이 둘씩이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 절대 하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절대 남자와 절대 여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둘 만든 것이 아니고, 해와도 둘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씩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의붓아버지가 열 사람씩이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쓰레기통같은 세상입니까!

여자나 남자가 정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우주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질서가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동물처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그 중에도 참사랑의 '참'은 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일 뿐이요, 절대 하나인 것입니다. '참사랑'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 참사랑을 하실 수 있고, 참사랑의 절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생명도, 하나님의 참혈통도, 하나님의 참양심도, 참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근본 본질은 참사랑입니다.

또한 이 참사랑과 인연을 맺으려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잘 산다고 해서 참사랑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젊은 처녀 총각들이 서로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려면 하나님의 핏줄과 생명과 사랑에 관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 군사력만 가지고는 참사랑의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참사랑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사랑이란 위해 줌으로써 가능하다는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사탄의 전략이요, 목적이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지옥일 뿐입니다. 전체를 위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희생과 봉사하게 되면 모든 전부가 와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이 형제를 이루고, 부부가 되고,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단계의 사랑의 주인으로서 자리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랑의 주인되게 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보다 몇 천만 배 더 가치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을 위해 하나님은 투입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또 투입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100% 투입하신 후 100% 잊어버리시니까 계속 더 투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자기 남편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투입하고는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는 잊어버림으로써 남편을 성공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기를 계속하면 그 사랑의 단계를 높이게 되어 궁극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부자지관계를 이루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천국을 가고 싶어하지만, '나를 위하라'는 마음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작품들을 품고 위하는 데서 시작하여, 전세계 인류와 궁극에는 하나님까지 위함으로써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세 번 이상 생명을 바쳐 위하여 살겠다고 해야 됩니다. 아담 가정의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재림주 가정을 내쫓던 핍박의 모든 세월들을 탕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 번 죽어 다시 부활한 후에도, 하나님께 나를 알아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위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 지상에 있다면 그 곳이 곧 천국입니다. 이 길을 본인이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합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 것'을 주장하지만 내 것의 출발점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뿌리요, 줄기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전부 다 고아입니다. 부모에 연결되는 사랑의 사다리를 잘라 버리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기원되신 하나님을 부모로 하여 우리 인간은 아들딸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부모는 본래 자녀를 위한 사랑의 최고 주인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자지관계가 종적인 수직관계인데 비해 부부관계는 횡적인 수평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지관계와 부부관계가 서로 직각(90 도)을 이루고, 여기에 전후관계인 형제관계가 합함으로써, 모든 사랑의 관계는 구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구형입니다. 우주 전체가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이루어진 구형의 중심자리에 모든 사랑이 통일되고, 정착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 아들딸된 인간의 수직관계를 중심으로 남자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오른쪽에 자리한다면, 왼쪽은 여자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자리잡게 됩니다. 여기에 형제의 사랑이 전후 방향으로 자리잡으면, 이 모든 사랑을 중심으로 우주 전체가 균형을 취하게 되는데, 이들이 제 일 핵으로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평면적으로 눕혀 놓고 보면 사랑의 맨 뿌리에, 생명의 맨 뿌리에, 혈통의 맨 뿌리에, 그리고 양심의 맨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는 종과 횡 그리고 전후의 사랑이 하나되는데,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종족이 되고, 민족, 국가, 세계 그리고 천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가지만, 그 근본 중심은 언제나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참된 부부의 사랑의 모델이 나왔을 것이고, 이들로부터 사랑의 교육, 즉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녀를 가졌다면 누가 그 자녀를 결혼시켜 주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이 사회에서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의 결혼에 관여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통일교회에는 참부모가 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결혼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 차이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성인과 악인도 같이 결혼시켜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악한 사랑, 악한 생명, 악한 혈통들을 접붙여 승리하여 부정시킴으로써, 아벨을 죽인 가인을 제거해 버리지 않고 다 같은 자리에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조수물을 볼 때,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이 만나 수평을 이룬 때와 같이, 역사적으로 구원섭리(탕감복귀)가 종결되는 선악의 전환기에서 선인과 악인을 함께 다 축복해 줌으로써 사탄을 완전히 추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니, 이제 참부모가 바르게 결혼시킴으로써 이를 다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저질러 놓은 일을 참부모가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 억의 영계의 조상들마저 축복결혼시켜 참사랑을 중심한 본연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찾아 참된 부자지관계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8 단계의 참사랑의 모델의 주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중시대 · 유아시대 · 형제시대 · 사춘기시대(약혼시대) · 부부시대 · 부모시대 · 참조부모시대 · 참왕과 왕비의 시대를 거쳐 영원히 변치않는 참사랑의 전통을 세워 부자지관계인 참사랑의 모델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은 절대 · 유일 · 불변 · 영원함으로 자손만대의 불변된 참사랑을 중심한 모델로서 상속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는 부자일체, 부부일체, 형제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들이요, 남편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내요, 형님을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동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가 없으면,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 형님이 동생이 없으면 각각 사랑의 주인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자기보다도 높이고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는 몸 마음 일체, 가정에는 부부 일체, 형제 일체, 국가 일체권을 형성하여 8 단계 이상모델인 사랑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부부, 그리고 형제(자매) 국가들이 모두 다 이러한 참사랑을 중심으로 8 단계의 모델인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곳이 우리의 이상가정과 국가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세계적 평준화가 시작됨으로 지상천국이 출발되는 것이요, 또한 천상천국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된 2000 년대에는 세계 곳곳에 자리잡은 축복가정들이 천지부모님과 하나되어 참사랑을 중심한 새로운 가정 혁명, 세계적 도덕 혁명을 주도함으로써 온 지상과 천상에 영원한 평화와 통일의 이상천국을 창건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성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참사랑권을 이어받는 주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p.2054

Top

4) 종말시대 인류와 미국(세계)이 나아갈 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본인의 80 회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참석해 주신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본인은 오늘까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생애를 통하여 오직 일념으로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실현을 위한 제반 난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여 왔습니다. 알고보니,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진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오신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게 된 본인의 생애는 한마디로 밤도 낮도 계절도 환경도 뛰어 넘으며 오로지 뜻을 성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온 나날이었습니다. 지난 80 성상을 되돌아 볼 때, 그동안 갖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뜻 깊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에서 역사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종말에 있어서 인류와 미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섭리적 역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 종말은 사탄 주관권의 악한 역사의 종말이며 동시에 하나님 주관의 선한 역사의 출발 기점이 됩니다.

따라서 말세는 하늘 섭리의 전반을 완성시켜야 할 때입니다. 즉 개인 완성을 완결시켜야 할 끝날이요, 가정, 민족, 국가, 세계, 나아가서는 천주완성을 완결시켜야 할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노정에서 종말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이념권으로 인류를 이끌어 오셨으나 정작 인류는 스스로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 악한 역사를 정리하여 선의 입장에 서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 유일 · 영원 ·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도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류가 잃어버렸던 참된 개인, 가정 ·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참된 주권의 복귀를 통하여 천상과 지상에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그 세계를 찾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본연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 세계는 참된 부모를 중심한 참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역사 과정에서가 아니라 역사의 시초에 인류의 참된 부모와 참된 세계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이념도 어느 것 하나 참부모와 직접 인연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류는 먼저 '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부모 · 부부 · 자녀 · 백성 · 만물 · 주권 · 우주가 참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여 동하고 정할 수 있는 그날이 인간세계에 있어서 악한 세계의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이 이루어지는 때가 끝날이요, 재림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재림기에는 불 심판이나, 땅이 깨어지거나, 믿는 사람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등, 천변지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엉클어진 곡절의 비운의 역사를 탕감하여 개인으로부터 가정 · 사회, 국가를 거쳐 세계를 바로 찾아 세우는 때인 것입니다. 종적으로 잃어버린 개인, 가정 · 사회, 민족, 국가, 세계를 다시 찾아, 횡적으로 연결시켜 역사적인 개인, 가정 ·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는 때입니다. 그 날을 바라고 살아온 것이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 역사가 가야 할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계는 각종 공해 문제, 식량 문제, 나아가 종교 간의 갈등, 인종 간의 대립 등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 각종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계를 책임질 것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기 민족주의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인 미국도 범미주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울 때에는 세계를 지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희생물로 삼아서라도 세계 인류를 품고 보다 차원 높은 이상적 나라로 전진하겠다는 이념으로 단합된 어떤 민족이나 종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인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곳 미국에 와서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몰락해 가는 미국의 도덕적 위기에 강력한 경고와 함께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재 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레버런 문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보다 큰 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개인은 가정을 위하여, 가정은 종족을 위하여, 종족은 민족을 위하여, 민족은 국가를 위하여, 국가는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결국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텍스트 입력]

위해서 살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살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보다 더 위하여 사는 자가 선한 중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 희생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원수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데는 사탄도 자연굴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의 전략은 치고 빼앗기는 것이고 하늘의 전략은 맞고 빼앗아 오는 것이 공식적입니다. 본인이 전 생애를 통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세계 185 개 국가에 선교 기반을 닦게 된 것은 이러한 천리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가는 길은 쫓기는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그처럼 2 천년 역사를 거치며 순교의 핏자욱이 토양이 되어 민주세계라는 거대한 체제를 발전시켜 왔지만 오늘날은 그 원동력이 되었던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 이념을 중심삼은 국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까지 주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된 자녀를 찾아 온갖 희생의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p.2057

내외 귀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투입하며 희생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미국을 위한 것도 아니요, 기독교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이 한 개인에서 시작하였으니 구원도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 시대의 책임을 다 하겠다. 인간이 하나님께 졌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당당히 선한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내가 되겠다'고 자각하지 않고는 복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탕감복귀를 할 수 없습니다. 관념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비참한 일이 있으면, 비참함을 당하는 당사자 이상의 심정을 가져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죽어간다는 그런 심각한 심정으로 60 억 세계 인류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희생시켜서 가정을 구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런 점에서 누구도 쉽게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적 기준의 대표자로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인간 조상이 타락한 이후 구원섭리를 전개하여 오신 하나님은 아담 이후 2 천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 세우시어 그 후손 가운데서 선민을 삼으시고 새로운 가정, 종족, 민족을 편성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승리적인 기대 위에 부름받은 선민이 유대 민족이었기에 장차 메시아를 실체로 맞기 위한 주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류의 골수를 찾아가 보면 본래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못한 사명을 재현하기 위한 기준과 이념이 필요한 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부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졌음에도 유대 민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제 1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유대 민족은 흘러가 버리고 제 2 이스라엘인 기독교가 그 사명을 계승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한 목적을 중심삼고 하나님은 6 천년 섭리를 해 나오셨는데 그 섭리의 종반이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를 구원하고, 통일시키기 위한 사상이요, 본연의 이상가정을 건설할 수 있는 가르침이며, 인간 조상이 타락으로 잃어버린 위치인 참부모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서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메시아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성신의 실체인 여성신을 만나 참된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어린양 잔치 후의 신랑 신부는 참된 부부의 단계를 거쳐 참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민족과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세계와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의 행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형극의 자리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하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미래의 승리를 기약하며 로마와 반대하는 무리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일대 33 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사 역사와 더불어 남아져 그의 정신을 계승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p.2058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선상에 바로 서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강흥하지는 못 합니다.

인류문화사를 보면 고대문명의 발상은 주로 열대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마야문명, 잉카문명, 이집트문명, 인도문명, 중국의 황하문명 등 고대문명의 발상지는 아열대권 내지는 열대권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봄절기의 온대문명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할텐데 열대문명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가을절기의 양대문명권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세계를 중심한 온대문명권으로, 서양문명이 그 중심입니다. 대체로 적도를 중심삼고 볼 때, 북위 23 도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선진국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을절기의 양대문명이 끝나면서 겨울절기의 한대문명이 잠시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출현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은 소련 연방이 해체된 이후, 전후의 냉전체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유물론과 무신론은 무력화된 민주와 공산, 양대 사상의 대체 이념으로서 세계 도처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봄절기의 온대문명에서 시작했어야 할텐데 타락으로 열대문명에서 원시적인 상태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제 양대문명의 위기와 냉대문명의 위협을 뚫고 고대로부터 인류가 추구해온 진정한 봄의 문명인 온대문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한대문명의 겨울절기를 녹일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나 경제, 과학이나 지식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의 순환을 살펴보더라도 문명은 순례합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중심하고 발달한 문명은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칼을 중심한 지중해 문명으로 옮겨졌고, 이 지중해 문명은 다시 영국, 미국을 중심한 대서양문명을 지나 최후에는 미국 일본 한국을 잇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한대문명권의 극지점이고, 남쪽은 미국과 일본을 잇는 양대문명의 극지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양대문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세계사적인 봄절기, 온대문명권이 탄생된다는 것은 섭리관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대문명의 결실지로서 인류적 과제로 남겨진 남북문제와 동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를 바쳐온 레버런 문이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귀결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생애를 통해 인종과 이념과 국경을 넘어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운동을 전개해 온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길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섭리사적인 원칙이지 내가 지어낸 특별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깨달은 본인은 이론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외적으로는 오대양 육대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알래스카, 남극, 남미 33 개국, 구 소련연방 각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각 나라 등 전방위적인 선교와 사업기반을 통해 다가온 새 천년시대에 인류가 당면한 공해,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근년에는 브라질 판타날과 아마존을 중심으로 지구 환경보존에 대한 실제적인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한편 내적으로는 그 동안 국제합동결혼식 및 참가정 가치서약 운동을 통해 그 동안 약 4 억 3 천만쌍이 참여하므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대해 오시던 이상가정을 토대로 한 지상천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 온 것입니다. p.2060

내외 귀빈 여러분!

그 동안 세계는 정치, 군사, 경제에서 우월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지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일직선상에 서지 않을 때,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문명의 멸망은 좋은 예인 것입니다.

오늘날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은 과거의 로마와 같은 입장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밖으로부터의 침범보다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도덕적 타락에 기인하여 하늘의 운세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때는 노동자 농민을 주체시하던 유물론과 유물사관에 입각한 정치세력이 구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인구의 1/3, 지구 면적의 2/3 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종교인들이 득세할 때가 올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선포하고 인류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예언자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나 지금처럼 사분오열되어 계속돼온 교파 간의 갈등과 종단 간의 싸움은 하나님의 섭리에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래 전부터 전체 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을 초교파 초종파 운동에 투입하여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고, 나아가 '세계평화종교연합'을 창설하여 종단 간의 화해와 일치로 인류 평화 증진에 앞장서 온 것입니다. 근래에는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을 창설하여 그 동안 이곳 워싱턴에서 7 차에 걸쳐 '국제 훈독세미나'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인종과 종파를 초월하여 창조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점을 가져야 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심정적 관계를 회복하여 본연의 부모와 자녀의 위치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끝날은 참부모가 현현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어버린 인류가 본연의 부모를 다시 맞을 수 있는 소망의 때입니다. 따라서 참부모는 인류역사의 희망의 결실체요, 소망의 결실체이며, 승리의 결실체입니다.

통일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국제합동결혼식을 통해 세계화하여 왔습니다. 민족과 인종, 피부색을 뛰어넘어 흑인과 백인, 황인이 하나의 형제자매로 어우러져 부부가 되는 것은 지구촌을 하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 성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처럼 인류는 잃어버린 본연의 형제자매, 부부, 부자의 인연을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자식을 잃고 한탄해 오신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만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해방'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해방'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간 해방은 물론 인간의 자유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p.2060

내외 귀빈 여러분!

특별히 오늘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준비된 나라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생명을 걸고 자유의 나라를 찾아왔던 필그림 파더(Pilgrim Fathers) 들입니다. 그들은 참다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사랑하는 부모 형제 고향을 이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버리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메이플라워호가 뉴잉글랜드에 도착했던 때는 1620 년 11 월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그 해 첫 겨울을 넘기면서 함께 도착했던 102 명 중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반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이 훌륭했던 점은 후손들을 위해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을 남겨놓고 자신들은 굶어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다는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첫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와 학교를 먼저 짓고 나서야 살 집을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개척하는 노정에서 농사를 지을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언제나 앞세웠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저 유명한 최후의 격전지 밸리포지(Vally Forge)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은 전투에서 결전에 임하였던 순간 생명을 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전투에서 하나님은 미국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국왕과 국민이 합해서 싸웠지만 미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함께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자유신앙의 국가가 성립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미국은 국회가 개원될 때는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성서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성직자의 축도를 받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화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는 말을 쓰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개신교를 신봉하는 세계적인 형태를 갖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어떠합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십 퍼센트에 이르는 이혼율은 가정의 신성함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본인은 일찍이 1971 년도에 조국과 가족을 뒤로한 채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 차례 전국을 순회하면서 나는 '불이 난 집에 소방수로서 왔으며 병들어 있는 미국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서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본인은 이미 미국을 떠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셔야 할 터인데 반대로 도처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계셨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돌이켜 보니 뉴욕 맨해튼 5 번가를 거닐면서 미국을 떠나시려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없이 눈물 흘렸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본인이 예언했던 대로 도덕적으로 쇠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p.2061

여러분!

레버런 문이 왜 미국에서 반대받고 고생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본인은 하나님이 오늘날 미국을 찾아오시기까지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30 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화이트 아메리칸이나 블랙 아메리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시듯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미국의 주인입니다. 미국은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택하신 맏아들과 같은 장자권 대표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미국 땅에 주로 계시면서 그의 뜻을 이뤄주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계십니다.

한편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1982 년도에 워싱턴 타임스사를 설립하여 미국이 가야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보수 정론지로서 미국의 여론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가정 가치운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순결운동을 통해 강력한 구국 구세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를 해온 것입니다. 본인이 1965 년도에 워싱턴을 방문하여 지정해 준 백악관 근처 성지에는 지금도 밤을 새우며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음의 문을 열어 저 필그림 파더들로부터 역대 애국열사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p.2062

내외 귀빈 여러분!

방금 시작한 새 천년은 6 천년 동안 추구해오신 하나님의 구원섭리역사가 다 끝나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창조이상이 천주적으로 실현되는 때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주인을 잃어버린 만물의 탄식도 해방이 되는 때요, 오랫동안 갈라졌던 부모와 자식이 다시 만나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 지는 때요, 영계와 지상이 하나로 통하여 지상과 천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주관이 전반 전능의 권세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나아가 동서양 전체가 천지부모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우주'로서 지구성 대 가족주의 세계가 실현되는 때입니다. 이는 성경에 예언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성약시대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 번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 2 의 건국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참부모, 참가정, 참국가, 참세계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떠나시려는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6 천년 동안이나 준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 미국을 떠나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로 모신다면 가정문제, 윤리문제, 청소년문제, 인종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오색인종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미국은 지상천국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장자나라인 미국이 앞장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세계 각 국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도자적인 사명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하늘과 땅에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2062

Top

5)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가야 할 생애 노정

남북통일을 열망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방금 시작한 새 천년은 분열과 갈등의 지난 세기의 유물이 청산되고 화해와 통일의 지구촌 한 가족의 이상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새 천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본인의 80 회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세계(전국)도처에서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드립니다. 본인의 지난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어느 한 때 평탄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온 민족의 수난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본인은 16 세 소년시절에 기도 하던 중 홀연히 하늘의 뜻을 접한 뒤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인간 불행의 근본원인은 인류시조가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 무지에 떨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과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 등에 대하여 무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세계 도처 공석상에서 1 만여 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참된 인생관, 세계관?역사관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는 12 개 종류의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이미 300 여 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헌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나 학문적인 탐구 결과로 해명한 것이 아니라 유무형세계를 자유로이 교통하면서 원론적이며 근본적인 답을 설파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인은 이 뜻깊은 자리를 감사하면서 우리 민족의 숙원이요 세계 냉전문제의 마지막 결산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답으로서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가야할 생애 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p.2063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다수가 한국의 국민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조국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국가는 어디서부터 기원돼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부터 기원돼 있느냐? 이러한 모든 국가의 역사적인 기원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전부 싸움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나라가 있을 때, 그 두 나라 사이의 경계선은 지극히 원한 맺힌 경계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3 국, 제 4 국의 경계선에서보다 인접된 경계선을 중심삼고 더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며 더 많이 피를 흘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국가간, 두 민족간의 담벽이 제일 높습니다.

싸움은 언제나 몇 만리를 떨어져서 날아다니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서로 이웃한 두 국가의 경계선을 중심삼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타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투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요, 인간과 사탄과의 투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그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냐? 모든 나라가 평화의 세계를 추구하지만, 평화의 세계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인류의 공통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세계는 결과의 세계인데, 잘못된 출발 즉, 잘못된 원인으로부터 평화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기원을 극복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는 데에서만이 이상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완전하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하고, 평화로 시작하기 때문에 평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평화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 나라와 인접해 있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원수국가라고 해서 계속 미워하려 든다면 영원히 평화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아무리 이상향을 그리워하고 이상향을 향해 전진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시작된 그 동기를 부정하고 잘못된 역사를 지워 버리기 위해서는 그 반대 방향의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p.2064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 없는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나라가 있었느냐? 역사상에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나라가 있었느냐? 그런 나라의 형태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찾기 위해 수고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 나라는 과거 역사시대의 사람이 생각하던 그런 자리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맞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시대권 내에서 안팎을 갖춘

[텍스트 입력]

기준을 중심삼고 그 나라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 나라를 못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상적인 주체성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사상은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으면, 그 창조주의 사상과 일치되는 사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자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고 그 나라 국민이 일치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성을 갖추고 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대신한 것이 부모이며, 백성을 대신한 것이 아들딸이고, 국토를 대신한 것이 나라인 것입니다. 이 중의 어느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와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그 곳이 한계점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기준에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남아질 것입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하나님과 인연맺는 것입니다.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깊이 잠든 다음에 하나님과 인연맺어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권자는 백성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백성과 하나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에 천국을 실현한다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만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어디냐? 지구성입니다. 지상천국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나'를 닮았습니다. 한 나라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권, 국민, 국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천국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나'를 닮았습니다. 나 개인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도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인격체이기에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인간에게 만물이 있는 것처럼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국토는 사람한테 지배받고 국민은 주권 앞에 지배받는 것입니다. 이 국토, 국민, 주권이 국가 형성의 3 대 요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고 볼 때,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몸은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온 세계를 보면 천지인이라는 결정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하늘이 뭣이라고요? 인간의 마음과 같으니까 주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백성이고, 땅은 만물입니다. 결국 나라는 누구를 닮았느냐? 전부 나를 닮았습니다.

아무리 큰 사회, 아무리 큰 국가라 하더라도 사람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사람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인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용어로 조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이라는 말은 타락한 세계권에서 쓰여지는 말이므로 기분이 나쁩니다. 이러한 조국을 찾아 나아가는 주의를 통일교회에서는 천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그 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조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그 조국의 문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 조국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상적인 조국을 세우기 위하여 기준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그 세계는 지금 이 세계와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도 다른 것입니다. 원리주관권이니 상대기준이니 상대기대니 복귀기대섭리니 하는 중요한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바라는 나라가 건설되게 되면 통일교회 간판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회가 바라는 세계가 형성되면 통일교회가 세워 놓은 나라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민족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중심한 문화와 인격만을 위하는 종교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를 위한 종교라야 금후에 남아지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p.2066

만장하신 내외 귀빈, 신사 숙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주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주장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가라고 하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표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릇된 역사를 돌이킬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에 밀려가는 배의 닻과 같고 닻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귀섭리역사를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의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세계적인 판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나님이 제시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에 의해 제시된 그 운동의 반영체가 역사에 나타난 종교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철학은 로마나 이스라엘과 같이 압박 국가와 피압박 국가 사이에는 서로를 원수시하는 높은 담벽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 로마는 힘으로 나를 정복하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로 사랑을 가지고 너를 정복하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로마 병정들에 대해 '저들이 행한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놀라운 선언으로 나타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서로 원수시하는 것을 넘을 수 있고, 두 국가 사이의 국경을 넘을 수 있는 하나의 원형 또는 전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원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원수가 있고, 종족적인 원수가 있고, 민족적인 원수가 있고, 국가적인 원수가 있고, 세계적인 원수가 사방에서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나를 따르고 내가 가는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원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가면 가정적인 원수가 기다리고 있고, 종족적으로 가면 종족의 원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지만, 그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국가의 실현, 즉 조국광복은 어디서부터 실현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상을 가진 개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사랑으로 국경을 허물고 모든 환경과 문화적인 담을 넘어 원수까지도 품자는 운동을 제시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빨간 꽃씨에서는 빨간 꽃이 핍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갚는 사탄 악마의 씨를 뿌리면 원수를 갚는 악의 나무가 자라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선의 씨를 뿌리면 원수를 사랑하는 선의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국은 어디로부터 어떤 길로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길, 개인의 원수를 사랑하고, 가정의 원수를 사랑하고, 종족의 원수를 사랑하고, 국가, 세계의 원수를 사랑하는 전통을 남겨 놓는 길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조국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국무성이 반대했기 때문에, 국회가 반대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회에서 승리했다는 상장을 타고, 국무성에서 승리했다는 상장을 타고, 미국에서 승리했다는 상장을 탈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국무성 안에도 친구가 생기고, 국회 안에도 친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승리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온갖 반대를 극복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크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연의 이치는, 한 곳이 저기압이면 다른 한 곳은 고기압이기 마련입니다. 한 곳이 고기압이 되면 다른 한 곳은 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미 국무성이 높은 곳에서 반대할 때 내가 저기압권을 이루고 있으면 고기압은 저기압에 흡수되듯이 미 국무성은 나에게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다 보니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되었으며, 친구 가정이 생겨나고, 친구 종족이 생겨나고, 친구 나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가 나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경이 될 수 있고,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이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문총재는 하나도 볼품없는 사나이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여러분이야 아니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세상이야 나를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니 세상에 대하여 당당한 자리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는 못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낸 남자, 미남자라면 그런 사람이 미남자요. 멋장이라면 그런 사람이 멋장이요.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대하여 자신있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도취돼 가지고 활동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젊은 청년 남녀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오색 인종의 가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민족이 편성되어 하나님의 조국광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제일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미남자에게 제일 추녀를 짝맞춰 주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이상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왕자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후보자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민족의 국경을 휙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사는 날에는 모든 장벽이 다 깨져 나가고 복귀섭리역사가 단축되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보다 큰 것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일입니다. 본인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농민도 돼 보고 노동자도 돼 봤습니다.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어부가 되어서 투나(참치)도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한 평생을 살다 보니 혼자인 줄 알았는데 돌아다 보니까 영국 사람도 따라오고, 미국 사람도 따라오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밉다고 발길로 차도 저쪽에 갔다가도 또 따라오고, 저 뒤에 갔다가도 또 따라옵니다. 그러니 통일교회는 아무리 연구해 봐도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p.2069

내외 귀빈,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아무리 종족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사탄 나라의 주권이 남아 있는 한 여러분은 나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나라예요? 여러분에게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종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권이 하늘을 중심삼은 주권이 아닐 때는, 이 종족의 목을 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환영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있어서 제 1 이스라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전체가 환영할 수 있고 개인도 환영하고, 가정도 환영하고, 종족도 환영하고, 민족도, 교회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보나, 기성교회를 중심삼고 보나, 대한민국을 중심삼고 보나 전체가 환영할 수 있는 입장에 섰느냐? 그렇게 못 되었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것은 외적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중심삼은 것이 아니고 세상을 중심삼고 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류적인 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주류적인 사상을 중심삼고 하늘과 연결시켜 새로운 입체적, 혹은 평면적 내용을 갖춘 새로운 국가관을 형성해 가지고, 그 형성된 국가관을 오늘날 국가를 중심삼은 이상의 내용으로 지니고 나서지 않고는 조국광복을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해방이라는 것은 제 1 해방입니다. 이제 통일교회에 있어서는 제 2 의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제 2 의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제 2 의 해방을 맞이하면 국가와 민족은 그것으로써 소원 성취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통일교회는 제 3 의 해방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 1 해방에 의해 비로소 안팎에 있어서 지금 국가형태를 갖추었지만, 제 2 의 해방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역사과정에 있어서 민족이 비참한 노정을 거쳐야 되고, 탕감복귀 원칙에 일치될 수 있는 국민성을 가져야 되고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 나온 나라이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완전히 통일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나라의 기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북을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갈라진 남북한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 국가로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것을 통일하지 않으면 하나의 승리적 이스라엘 국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중심삼고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통일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새로운 세계주의적 사상을 갖지 않고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들고 나가자 하는 것이 오늘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통일사상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에 있어서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단결된 민족을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철석같은 신앙으로 단결된 종교국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중심삼고 남북이 통일된 국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주권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가야 할 지상의 제 1 목적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국을 찾지 못하게 될 때는 하늘을 중심삼고 사탄세계 국가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갖지 못하고는 세계의 사탄국가를 칠 수 없는 것입니다. 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 통일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통일교회 사상을 중심삼고 나라가 방향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남아진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유대교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한국에서 통일교회가 유대교와 같은 입장이라면, 통일교회 사상이 한국의 주류적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교까지 되어야 할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통일교회 사상을 국교로 만들면 공산당은 문제없습니다. p.2070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날 하늘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탄세계에 파송받은 밀사입니다. 개개인에 있어서 크고 작고, 넓고 좁고, 높고 낮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생활자체는 밀사의 생활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생사의 위협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생명 문제가 좌우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지탱시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을 찾겠다는 관념이 그 환경보다 몇 백 배 강하지 않고서는 밀사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조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조국의 원한을 풀었을 때에 온 만민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건하여 조국광복의 한날을 맞는 그때에 자기의 공로가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입장을 무시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고는 밀사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국광복을 위한 소망이 현실의 소망보다 천 배 만 배 강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만, 오늘의 생명을 바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밀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책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새로운 책임자를 다시 파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을망정 그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가 모범이 되는 입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그가 희생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한 하나님은 그 터전 위에 대신자를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죽게될 때에는 거기에서 그가 아무리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느냐? 조국광복을 위한 신념이 무엇보다도 더 높이 가슴 속에 불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6 천년 동안 하나님이 고대하던 조국을 건설하는 기수가 되고, 선봉에 선 정예부대의 한 일원으로 개척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사명을 책임진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소망하였지만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하나밖에 없고 이 한 때밖에 없는 특권적인 사명을 짊어졌다는 엄숙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자고, 가고 오는 모든 생활 전체가 조국창건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파송받은 밀사로서 늠름하고 멋지게 이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하며 나서 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텍스트 입력]

고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지리도 몰리고 지지리도 쫓겨다녔습니다. 국가의 발판을 갖추어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제시하여 한번도 펼쳐 보이지 못한 하늘의 그 뜻, 조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뜻을 한번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조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조국에는 주권이 있고, 그 조국에는 국토가 있고, 그 조국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단일민족의 혈통이 인연되어 있고,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밀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자기 스스로 빠른 시일내에 완수해 내면 낼수록 조국광복의 터전이 자기로 말미암아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조국광복의 한날을 가까이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살아서 밀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세계사적인 축복과 천운을 우리의 것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땅 위에 건설해야 됩니다. 땅 위에서 그 나라를 찾아 가지고 그 나라의 중심과 하나되어, 우리나라에서 하늘이 바라던 그 소망의 기준을 갖추어 가지고 돌아가야만 아버지 앞에 면목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라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가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면할 것이냐? 내 생명의 연한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하려고 하니 얼마나 바빠요? 거기에다 악한 사탄의 환경은 우리를 반대하고, 원수들은 우리의 길을 막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려니 언제나 밀사와 같은 행각의 노정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오는 것도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조국광복을 위한 건국의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혹은 하늘의 밀사로서 지령을 받아 오늘날 악한 세상에 와서 이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까? 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까? 국가적입니까? 세계적입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죠? 그런데 세계적인 무대로 올라가려면 혼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나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늘 땅을 중심삼고 맹세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을 자더라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침대를 갖다 모아 가지고 꼭대기에 놓고 잔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밥상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어디에 있더라도 자기 혼자 앉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수많은 인종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꼭대기의 보좌에 올라앉아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아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권한을 능가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늘의 아들딸들의 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딸을 사랑하려면 그러한 아들딸을 사랑해야지, 사탄만도 못한 아들딸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위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매일매일의 생활을 전세계와 손을 잡고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새로이 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통일전선 기반은 확고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사탄세계권 내에 있지만 하늘의 밀사다. 하늘의 한 대사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밀사가 연락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왕과 직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런 밀사의 사명과 위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국왕도 밀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런 사명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보고와 우리의 요구를 기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밀사의 입장에서 시급히 원하는 것을 보내 달라고 하면 백방으로 모험을 극복하면서라도 보내 주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런 신념을 갖고 하나님의 특권적인 영광의 아들딸인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이것을 원하니 이루어 주소서' 하면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렇게 되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병자가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어려울 때 직접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있고 그래야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p.2073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개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아닙니다. 또, 가정을 찾아가는 것이 현재의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안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일교회의 교인들, 축복받은 가정, 종족권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구, 나라고 무엇이고, 교회고 무엇이고 모르겠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낙방이라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라를 찾아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축전을 하고 축하를 할 수 있는, 승리의 개가를 올릴 수 있는 그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하나밖에 몰라야 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가자고 하면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통일교회를 위해서는 그 놀음 안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놀음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북에서는 가정의 호적을 전부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까? 사탄세계가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남편이니 아내니 부모니 자식이니 할 것 없이 전부 다 버리고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소망의 나라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찾게 될 때, 그 나라와 더불어 부모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찾지 못하게 되면 피 흘리는 부모를 봐야 되고, 피 흘리는 아내를 봐야 되고, 피 흘리는 자녀를 봐야 됩니다. 그 이상 비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찾기 전에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요,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요, 통일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부정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부딪치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을 대한 아버지의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일신을 부정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하늘을 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사회와 민족, 국가, 세계를 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와 세계를 부정하고라도 하늘을 위하는 사람이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서러운 환경에 부딪치더라도 자기 일신 때문에 서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세계, 나아가서는 하늘을 위해 서러워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사탄과의 싸움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여, 여러분이 개인으로부터 가정?사회, 민족, 국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겠으며, 국가에 나가면 그 국가의 제일 어려운 문제를 책임지고 나서서 사탄들과 싸워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녹여 먹던 사탄이가 그냥 순순히 '아이고 나는 하강이요' 하며 눈 내리깔고 돌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걸레 짜박지도 버리려면 아까와하지요? 걸레 짜박지도 뒤집어 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버릴 것입니다. 사탄이가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착같은 싸움을 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맞추어야 됩니다. 통일교회 문총재도 중심에서 어긋나게 될 때에는 꺾여 나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발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찾는 것은 세계를 찾기 위해서, 세계를 찾는 것은 영계를 위해서 입니다. 그래 가지고 뭘할 것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지상에 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 가지고, 만국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바쳐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는 맨발로 나서서 조국을 창건해야 합니다.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먹고, 입고, 타고 다니는 데에 정신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맨발로 맨손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통일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조국을 찾아나서야 할 용사입니까, 아니면 망하게 하는 망사입니까? 용사란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병사입니다. 동료들이 하지 못하고 후퇴할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용사입니다. '용' 자가 날랠 용(勇)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뛰고, 총알까지도 피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개척의 용사가 되어야 할 선봉장군이 누구냐? 그러면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터전이 어디냐? 한 나라를 이루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볼 때, 국토가 될 수 있는 터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의 재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교인입니다. 또 주권자는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장 대신자요, 면장 대신자요, 군수 대신자요, 도지사 대신자입니다. 여러분, 주체자 되었어요? 사탄세계에서 폭탄을 싣고 오거든 맨 먼저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한푼이라도 있거든 교회를 넓히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판도를 넓히고 국민을 결집시키는 데 쓰는 것입니다. 교회 책임자는 주권자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장을 대신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 사상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세워질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서로 유통하며 교류하게 될 때는 공산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아닌 새로운 나라를 추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우리의 때도 점점 가까와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누어 책임져야 할 통일의 무리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결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있어요? 삼팔선 이북을 넘어가서 이북 5 도의 시군을 중심삼고 우리의 기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이 때에 누가 저 북한 땅, 정주면 정주의 책임자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주 고을이면 정주 고을을 중심삼고 내가 책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10 년, 20 년을 준비하고, 그러다 안 되면 후손 앞에 '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그 날을 맞거든 정주 땅에 하늘의 인연을 대신한 책임자가 되어라'고 유언하며 죽을 수 있는 정성을 들이는 여러분이 되어 보았습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그것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젊은 놈들이 지방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 자식과 여편네나 데리고 히히덕거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살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죽더라도 나라는 남기고 가야 합니다. 죽더라도 자식들에게 나라는 남겨 주고 가야합니다.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소련과 만주 접경의 한 지방에 가서 공산당과 이마를 맞대고 아침 저녁 총소리를 들으면서 국경지대의 파수 역할을 하는 책임자가 되어야 하겠다. 나라가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생명을 엇바꾸더라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충절의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만점입니다. 세상이야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영계에 가면 다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사람이 부족한 걸 알아야 됩니다. 허재비 같은 남자라도 나팔을 메게 해 가지고, 혹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땅에 다니며 나팔을 불게 하고 싶은 것이 본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입을 가진, 감정을 가진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것도 20 세, 30 세의 젊은 마음과 몸뚱이를 가지고도 원리 말씀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눈알이 곪아터지도록 밤잠 안 자고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 뼈만 남더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뼈만 남은 앙상한 몸뚱이가 하늘의 사랑을 송두리째 받을 수 있는 몸뚱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냘픈 한 남성이면 남성에게 기대를 몽땅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불쌍합니다. 조국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비참했습니다. 심판하려면 개인과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불변의 기준에 서야 그 기준을 터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서 심판합니다. 조국은 최후의 소망입니다. 조국 안에는 민족도, 종족도, 가정도, 개인도 다 포함됩니다.

이 삼천리가 조국이 되었느냐?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과 성신이 바라시는 조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일편단심 수고해야 합니다.

선이란 무엇이냐? 가정을 위하여 개인이 희생하고, 종족을 위하여 가정이 희생하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종족이 희생하는 것이 선입니다. 조국광복을 위해 모두가 희생하여 조국광복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애국충신이 됩니다. 국가적 기준 앞에 충성하여 국가 기준을 세우면 가정, 종족의 기반을 닦았다는 공인을 받게 됩니다. 도의 기준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의 모든 것은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뜻은 세상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통일교인인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충신의 도리를 세우고, 또 그 실적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효자의 도리를 다하고, 그 실적을 가지고 나와서 개인, 가정, 종족, 국가, 세계적인 투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물의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투쟁을 해 가면서 민족적인 터전을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메시아와 상대적인 가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세계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지도를 받는 여러분은 민족적인 길을 닦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복의 길을 바라면서 죽어 갔습니다. 언제 되어도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죽어 갔습니다.

통일교인은 개인에서 민족, 국가 기준에까지 닦아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세계 인류와 모든 국가를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광복, 자유, 평등, 행복의 날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바라보는 관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을 바라보고 가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조국광복의 과정에 있어서 고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조국창건이라는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조국, 성신의 조국, 선지선열의 조국, 하나님의 조국, 그 조국을 이루지 못한 한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찾아야 됩니다. 조국을 찾으려면 조국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조국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은 조국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조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세계를 자기의 조국으로 삼고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국을 창건할 수 있습니다. 먹고 자고 걸어가는 모든 생활과 행동이 조국창건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에게 백주에 칼침 맞을 각오를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가지 못하기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밥을 먹어도 조국을 위해 먹고, 시집 장가를 가도 조국을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는 무리가 생겨났고, 내가 방향을 제시하면 움직일 수 있는 무리가 생겨났지만, 이것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통일교단을 희생시켜서라도 조국광복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6천년 섭리의 중심적 뜻으로 세운 가정을 받들 수 있는 교단과 민족과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이 일시에 연결될 것을 바라시며 보내신 것인데, 이것이 산산조각으로 깨졌기 때문에 다시 꿰매야 할 운명이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꿰매기 위해서는 선두에 서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도 그 소망의 나라와 더불어 잠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은 나라가 없지만, 나는 그 나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잠이 드는 것이며, 깰 때도 그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일원으로서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도 조국이라는 명제를 생각지 않고는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바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진 수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게 되면, 늦게 자더라도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국의 광복이라는 것은 시간을 중심삼은 희생의 양을 가중시켜야만 찾아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내 눈물과 정성의 양을 오늘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한푼이라도 보태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자고 기지개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아버지여 당신이 찾아가는 내일의 안식의 보금자리요, 당신이 행사하고 싶었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승리적 국가의 터전을 향하여 가는 외롭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고독한 사나이의 갈 길이 이렇게 비참한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데 하늘이 찾아 나오는 길은 더 비참한 것이 아닙니까?'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마음대로 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져서 피곤을 느끼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만일 죽는 자리에 간다면 그 자리에서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하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는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로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주류사상은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 나라를 구하는 사상입니다. 자기 행복을 구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남편을 가졌다면 그 남편은 나라를 대표한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나라를 대표한 아내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했고, 내가 이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죽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을 남기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바쁜 것입니다. 가고 나서도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쉬는 시간에 우리는 한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야, 쉬어라! 사탄 세계야 넌 안일 도식해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간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열망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특히 여성의 사명은 자녀격인 청년 남녀 및 학생들을 참된 교육을 통해 참된 자녀들로 복귀해 내야 합니다.

나아가 어머니와 자녀가 합하여 본을 세워 남편까지도 교육을 통해 참된 하늘의 아들로 복귀하고 참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지상천국 이상을 복귀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남북한이 함께 더불어 참사랑으로 만나는 그 날을 앞당기는 범국민운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2078

Top

제 14 권

참효의 생활

차 례

제 1 장 충효의 의의

1) 충효사상은 한국인의 중심사상 · 2083
2) 성인 성자는 충효의 완성자 · 2085

제 2 장 참된 충성과 효도

1) 참된 충효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스로 행하는 것 · · · · · · · · · · · 2089
2)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나라를 완성시키는 참충효 · · · · · · · · · · · · 2091
3) 참된 충효는 순종하며 위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 · · · · · · · · · · · · 2092

제 3 장 충효의 도리

1)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진정한 충효 · · · · · · · · · · · · · · · · · · · 2096
2) 대상의 마음을 읽고 참사랑을 베푸는 참충효 · · · · · · · · · · · · · · 2100
3) 무조건 순종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참효자 · · · · · · · · · · · · · 2103

제 4 장 하나님에 대한 충효

1) 하나님의 소망 · 2107
2)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절대 충효 · 2112

[텍스트 입력]

3) 예수의 충효 · 2115

제 5 장 효도와 충성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

제 6 장 충효와 참사랑의 유무는 천국행과 지옥행의 척도

제 7 장 하나님과 참부모님

1) 참부모님은 충효의 표본 · 2125

2) 참부모님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 · · · · · · · · · · · · · 2127

제 1 장
충효의 의의

1) 충효사상은 한국인의 중심사상

효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보았는데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귀한 것을 먼저 사드리지 않고는 자기 아내에게 사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옷을 해 입으려면 부모에게 먼저 해드리고 나서 해 입고, 아내나 자식들에게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부모를 모시고 먹어야 됩니다. 사탄세계의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3 년상을 모시는 것이 한국의 풍습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3 년 이상 정성들여서 부모를 모셔 보지 않고는, 천상세계에 가서 대한민국의 후손이라는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효자들이 부모의 3 년상을 모실 때에는 묘소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효의 도리를 이행했던 것이 한국의 예법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가정은 서로의 좋은 면을 갖추어 가지고 부모를 모시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26:297-1969. 11. 10) p.2083

한국인은 자고로 충효의 절개가 높은 민족입니다. 국군의 날 5?16 광장에 초대되어 장년 국군의 위용을 보고 흐뭇한 느낌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군 용사들이 사열대 앞을 지나면서 외치는 '충효'라는 구호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부르짖는 구호로서는 너무나 계시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구호를 외치는 군인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효도할 민족이기에 그 충효정신이 오늘날 국가의 중심사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심청이의 애절한 어버이를 위한 효성, 춘향이의 낭군을 위한 절개, 정몽주의 임금을 섬기는 충성, 유관순의 순국정신, 이와 같은 충효의 절개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한민족의 얼입니다.

이와 같은 충효정신과, 송죽 같은 절개는 앞으로 이루어질 지상천국의 중추적 사상과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 나라를 위해 영원히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께 영원토록 효도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민족을 놓고 아무리 시험을 쳐 보아도 한국같이 그 충효의 열과 절개가 높은 나라는 없으니 하나님은 한국을 택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00-252, 1978. 10. 19) p.2084

효자라는 것은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나와 같이 천년만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모의 마음을 잡아끄는 자가 아니고는 효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아무리 못돼 있더라도 그 자식과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효자들은 어떤 것이냐? 부모와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사가 나오잖아요? 형제들하고 같이 있기를

[텍스트 입력]

싫어합니다. 나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종자예요? 불효 종자입니다. (147-292, 1986. 10. 01) p.2084

효자는 자기의 입장을 잊어버리고 부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며 눈물어린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충신은 국가가 난세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일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군왕의 어려움을 먼저 염려하면서 충성의 도리를 다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데서 충효의 극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37-033, 1970. 12. 22) p.2084

가정에서 남자나 여자나 형제나 모두가 원하는 것은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효자가 필요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왕과 왕후 아들딸을 중심삼고 상대적 세계의 부처, 형제끼리 상하 좌우 전후가 맞아야 됩니다. 전후가 없으면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좌우 전후입니다.

형제가 절대 필요합니다. 결혼은 형제로부터 엮어나가는 것입니다. (286-268, 1997. 08. 13) p.2084

여러분은 충효의 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정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부모를 가정의 중심으로 세워 드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가지고.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한 그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언제나 몸과 마음으로 백 퍼센트 받아들이고, 백 퍼센트 순응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아들딸을 뭐라고 한다구요? 효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충효의 도리를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충효의 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1-013, 1978. 10. 28) p.2084

부모님의 소원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로서 혈통적으로 하나 된 뿌리가 없습니다. 아들딸을 낳아야 그 집안의 핏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없던 어머니 아버지의 핏줄이 나로 말미암아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이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아버지의 완성이 벌어집니다.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생명과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혈통을 딴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나한테 다시 이중으로 되는 것입니다. 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은 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완성시키는 것은 나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223-174, 1991. 11. 10) p.2085

가정이 바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나라예요, 나라. 가정이 가야 할 직행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가야 할 것은 뭐냐?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가야 할 것은 뭐냐? 세계가 갈 것은, 지상천국이 갈 곳은 천상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충신은 나라의 효자를 말합니다. 세계의 충신이 누구냐? 세계의 성인이 뭐냐 하면, 전부 세계의 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땅의 전부 다 성자가 뭐냐? 하늘땅의 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효자라는, 아들이라는 존재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280-107, 1996. 11. 11) p.2085

Top

2) 성인 성자는 충효의 완성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충효사상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충성하면 다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천황에 대해서만 충성하면 다 되느냐? 독일 사람은 독일 주권자 앞에 충성하면 다 되느냐? 혹은 미국 국민은 미국 대통령 앞에 충신의 도리만 다하면 다 통하느냐? 아닙니다.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들은 성인이 될 거요, 충신이 될 거요?' 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 충효의 도리가 중심이므로 성인은 몰라요. 충신이 되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충의 길도 중요하지만 성인의 도리를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 성인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국민이 있다면, 그 국민은 세계의 복을 인류 앞에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충신은 뭐냐 하면, 충신은 그 국가의 복을 만국민들 앞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효자는 뭐냐 하면, 그 복을 가정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01-16, 1978. 10. 28) p.2085

애국자인 충신과 성인이 뭐가 다르냐? 충신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공적으로 모든 것을 투입해서 가는 사람을 충신이라 부릅니다.

성인은 자기 민족을 넘어서 세계 인류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보다 공적인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대해 가지고 그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효의 길, 어떠한 충의 길보다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며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신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나라의 군왕을 버리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군왕이 그의 손을 붙잡고 '네가 가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아무리 사정하더라도, 군왕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버리고 세계를 향하여 성인의 도리를 완성하게 될 때는, 그 군왕을 대해 가지고 세계에 없는 충신의 도리를 다한 이상의 가치를 하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101-150, 1978. 10. 29) p.2086

애국자 속에는 수많은 효자가 들어갑니다. 효자가 됐더라도 애국자가 못 되게 될 때는 그것은 애국자의 대열에 못 올라갑니다. 효자가 못 됐더라도 애국자가 될 때는 자동적으로 효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될 때는 성인들을 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자가 못 되고 애국자가 못 되고 성인이 못 되더라도 성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아래에 품기는데, 성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애국자 가운데 최고의 애국자가 될 수 있는 어려움의 고개를 극복한 역사를 지닌 사람이어야 되고…. 효자면 효자로서, 애국자면 애국자로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려운 모든 것을 지나 가지고, 그 이상의 자리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자주력을 가진 그 기반에서 성자의 도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시일 내에 세계적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196-125, 1989. 12. 31) p.2086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의 도리, 성자의 도리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성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자의 도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상대권은 나로부터, 하늘로부터 세계로부터 우리 가정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살아생전에 이루어 맞춰갈 길입니다. 완성하는 길입니다. 나라에 말하면 나라님은 아버지 어머니 뻐입니다. 거기에 접붙여 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안 가지면 나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가정도 나라 앞에, 사탄 나라 앞에 파탄 당하는 것입니다. (285-091, 1997. 04. 21) p.2086

사랑의 생명력이 그대로 통할 수 있는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효자의 길이요, 나라의 생명력을 중심삼고 사랑하는 것이 충신의 길이요, 세계의 생명력과 사랑을 연결해서 가는 길이 성인의 길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인륜도덕을 교육해 왔다는 개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성인의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륜의 도덕 교육의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그르지 않고 옳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1-173, 1981. 02. 15) p.2086

인간 세상에 살 때에 사랑을 중심삼은 효자가 첫 번 동그라미고, 충신이 그 밖의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커 나가는 겁니다. 작을 때는 요게 작지만 커 나갑니다. 동그라미가 성인은 더 크고 성자는 더 큽니다. 그러니 요걸 딱 늘어놓으면 이 한 점은 효자입니다. 효자가 첫번 입니다. 그 다음에 충신-성인-성자, 4 단계입니다.

그 중심이 수직입니다. 수직을 중심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중심이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사랑은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앞에 효자는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나라 앞에 충신은 지옥 안 갑니다. 구세주를 믿지 않더라도 그건 자연히 가서 수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지옥 안 갑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즉, 이 말은 효자 못 된 사람이 충신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효자 되고 싶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없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효자가 좋다고 하는데,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없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큰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갖게 해주소!' 해도 천지 이치가 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자 되고 싶어도 되나요, 못 되나요? 못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충신, 성인이 되라는 겁니다. 성인의 자리는 효자, 충신의 자리보다도 나은 겁니다. (197-44, 1990. 01. 07) p.2087

부모를 사랑하고 아들딸도 사랑하는 것이 효자입니다. 그것은 첫 페이지도 사랑이요, 과정도 사랑이요, 마지막 결론의 페이지도 사랑입니다. 가정이 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핵 위에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핵이 뭐냐 하면 충신의 도리입니다. 그게 뭐냐?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충신-성인-성자, 이 모든 것이 핵은 핵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핵이 돼 있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몰랐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세어 나온 것은 앞으로 끝날 시대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점은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부부끼리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효자가 되는 겁니다. 효자가 되어 가지고 충신이 되는 겁니다. 충신이 되어 가지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돼 가지고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가 되어 가지고 모든 상속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도 내 것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진 것도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앞으로 창조할 수 있는 소망적인 미래의 것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자의 자리에 서야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것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피조만물이 고개를 들어 항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통일천하 운운할 수 있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206-175, 1990. 10. 07) p.2087

우리 인생행로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추려 보게 된다면 효자가 가는 길, 충신이 가는 길, 성인이 가는 길, 성자가 가는 길의 그 골자가 무엇이겠느냐? 길이길이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위로 아래로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전후로 좌우로 주야를 넘어서, 생애를 넘어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사무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리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148-258, 1986. 10. 11) p.2088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충신,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신, 애국자 그 위에는 뭐예요? 성인입니다.

효자란 가정에서 부모 앞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란 나라를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석가, 공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주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신(神)을 중심삼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아니라, 이익을 주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국가주의자들이 아니라 세계주의자들입니다. (54-214, 1972. 03. 24) p.2088

Top

제 2 장
참된 충성과 효도

1) 참된 충효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스로 행하는 것

쉬운 자리에서 쉬운 일을 하며 효의 도리를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지극히 어려운 자리에서 효의 도리를 감당하고자 하는 책임자, 그런 자리에 선 사람, 그런 자리에 선 아들딸이 효자가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세계적인 문제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를 책임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세계의 어떠한 민족, 어떠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의 자리라는 것은 '부모가 당하는 비참한 것을 대표적으로 책임지려하는 자리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은 제외하고 나쁜 것을 언제나 책임져야 할 길이 효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62-23, 1972. 09. 10) p.2089

주위에 널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는 그런 생활환경에서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뭇사람이 전부 다 부모를 배척하고 자기 스스로 가야 할 길을 피할 때,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할 그런 길에 있어서 부모를 위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그야말로 환경을 초월한 자리에서 효성의 도리를 했기 때문에 효자로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2-182, 1971.3.4) p.2089

비례적으로 볼 때 효자는 잘살면서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자예요, 못살면서 진짜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자예요? 「못살면서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밥 한 끼씩밖에 못 먹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의 피살까지 팔아서라도 세끼 밥을 해 주는 것이 효자예요, 세끼 밥을 먹고 남아 처리할 수 없어서 밥을 많이 담아 주면서 모시는 것이 효자예요?

어떤 것이 진짜 효자입니까? 「피살을 팔아서라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효자는 잘사는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굶고 있고, 동생이 굶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머니의 밥을 동생에게 넘겨주면서 어머니는 밤을 세워가면서 바라보는 그 아들딸은 뼈에 사무치게 아는 것입니다. 동생을 저렇게 사랑하니 나도 어머니를 따라 그 동생에게 한 푼이라도 더 협조해 주겠다고 자기 밥을 먼저 어머니에게 나누어주게 될 때 효자권, 효자의 환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전부 추방당하는 것입니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효자가 가는 길은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진짜 효자가 되는 길은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은 데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286-282, 1997.8.13) p.2090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주권과 백성과 국토를 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성과 효도로 하늘의 주권과 국토와 백성을 팔아먹고 유린한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배반한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늘의 주권과 백성과 국토를 찾아드리겠다는 신념이 뚜렷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땅과 민족과 인류와 주권을 위하여 충성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자각만 하면 아버지께서 불충, 불효, 배반한 모든 것을 잊어줄 수 있는 때니,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국토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주권을 대신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회개하는 때는 지나갑니다.

또 땅을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천천만 성도가 지금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땅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늘의 국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못하면 아담과 해와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승리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11-150, 1961.5.13) p.2090

나는 역사적인 모든 선조와 같이 또 영계에 가서 '나는 어찌하나' 하면서 한을 남기는 무리가 되지 않고, 내 일대에 있어서 이걸 종결지어서 '나는 어찌하나' 하는 이런 위치에 설 수 있는 후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하고 하나 되어 이것을 완결시키어 국가적인 충신의 기반, 국가적인 효자 효녀의 기반을 닦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통일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간섭을 안 하는 자리에서 효자가 되고 충신 열녀가 될 수 있고, 하늘이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아도 원수 사탄을 대해 복수하고 탕감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느냐는 것입ㄷ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 것을 알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이런 내 입장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내일을 향하여 '나는 어찌하나'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칠 때 나는 충신이 되었고, 효자 효녀가 되었다 할 때까지 쓰러지지 말고 기필코 이기고 나아가 주기를 부탁합니다. (153-110, 1963.10.24) p.2090

Top

2)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나라를 완성시키는 참충효

부모를 알았으면 그 부모 앞에 뭘 해야 됩니까? 효도를 해야 됩니다.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부모를 중심삼고 그 나라의 충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모가 나라를 거느리고 세계를 거느려 왔기 때문입니다.

충신이 되기 전에 효자가 되어야 하고 효자가 되기 전에 참다운 형제를 놓고 자랑할 수 있는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식구는 형제지간에 찬양할 수 있는 권을 내세운 이름입니다.

그러면 효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자인가? 옛날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거느리고 부모 앞에 효도하던 이상의 효도를 하여야 합니다. 시집 장가가기 전에는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효자 효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를 가서 부부를 이루어 가지고 그 부모 앞에 남편의 효성에 아내의 효성을 플러스시켜 둘이서 부모를 받드는 효성의 터전을 갖추어야만 참된 효도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신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충신은 혼자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부부라야 충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신이라는 팻말을 세우기 위해서는 효자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효자는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기대를 중심삼고 세 형제가 하나 되어야 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기대 알지요? 그 삼위기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삼위기대의 세 가정이 형제로서 하나 되고 다시 각 가정의 세 자녀가 규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 는 12, 열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제 1 의 기반인 것입니다. 지파, 족속, 다시 말하면 씨족 창립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30-220, 1970.3.23) p.2091

하늘의 황족이 되려면 효자-충신-성인-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훈련 장소가 가정입니다. 완성한 가정이 확대되면 이상적인 왕국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가정이 센터입니다. 남자 여자, 두 사람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적 남자와 이상적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상 가정이 확대되어서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봉사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효자가 되는 것같이 나라의 왕을 모시고 위하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요, 온 인류를 위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하고 성자는 차원이 얼마나 다르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혁명적으로 변해야 되고 수많은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93-211, 1998.5.26) p.2091

하나님은 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효자의 가정을 원합니다. 충신의 가정을 원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인의 가정을 원했습니다. 성자의 가정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한입니다. 영계에 가서 지금까지 전부 다 독신생활 하지요? 모세도 지금까지 몇천 년, 1600 년 역사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 옆에 서 가지고 시중해 주는 여자가 있다고 했지요? 그 여자가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물어 보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297-204, 1998.11.20) p.2092

나라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충고하고 가르쳐 주어서 나라에 충신이 되고 하늘에 기억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로 만들었다 할 때, 그 아들이 불효자예요, 효자예요?
「효자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면 '엄마 아빠, 나가지 말고 편안히 잘 쉬소!' 이러면서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들보다도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나와 더불어 한 사람이라도 애국할 수 있는 사람, 남북통일 할 수 있는 사람, 이북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지요.' 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게 해서 그 공을 주변의 모든 국민들이 찬양하게 될 때는 어때요?

그때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놈의 자식, 에미 애비를 그저 못살게 시켜 먹길래 못된 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성공 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칭찬받게 됐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이 효자다' 그러겠어요, ``불효자다' 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202-266, 1990.11.30) p.2092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뜻을 위해 충성을 못 하면 여러분들이 권고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래요? 뜻길은 이런데 말이에요, 하늘의 뜻은 이렇다고 보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뭐예요? 매일같이 싸움이나 하고 뭐예요?' 하면서 닦아세우는 겁니다.

그건 좋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100-153, 1978.10. 9) p.2092

부모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이며, 효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때문에 생사를 개의치 않고 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핍박과 죽음의 길도 개의치 않고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충효의 인연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0-122, 1968.5.11) p.2092

역사적인 여성이 되기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실패하여 몰린 내용들을 청산지어야 됩니다.

또한 시대적인 해와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모든 여성들을 대표해서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한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여성으로서 하나의 남성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열녀의 심정을 갖고 나서야 합니다. (30-166, 1970.3.22) p.2092

Top

3) 참된 충효는 순종하며 위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

효자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도 군왕이 살았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천 만 배의 효성이 쓸데없고, 천 만 배의 충성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간사한 패들입니다.

죽어서 큰 제사상을 해 올리는 것보다 살아서 한마디의 말로라도 위로하는 것이 낫고, 자기가 슬픔의 상대가 돼 가지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천만 가지로 진설해 놓은 그 제단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길을 추모하면서 가는 사람보다도 그 죽음길을 가기 전에 목적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51-223, 1971.11.28) p.2093

효자가 되려면 언제나 부모의 마음 방향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효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모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서로 가면 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가는 목적을 제시했다가 한꺼번에 뒤로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 번 가다가 열 번 돌아서라 하더라도 또 돌아서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항했다가는 끝까지 효자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미친 놀음을 하면 자식도 미친 놀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령이라면 미친 놀음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친 놀음하는 그 자체는 안 됐지만, 부모가 모르고 하면 모르지만 알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가 미친 놀음을 하느냐? 효자 가운데서 최고의 효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백 명의 효자가 있다면, 그 백 명 가운데 으뜸될 수 있는 효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는 미친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변덕을 사실로 알고 생명을 바쳐 가지고 그 부모의 명령 앞에 절대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효자의 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2-32, 1972.9.10) p.209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효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보다 위하고 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길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모든 이상적 작용의 주류가 참사랑이 가는 길입니다. 참사랑이 주류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방계적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효자 효녀가 되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머니 시대하고 젊은 시대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천만에요. 어머니 시대하고 젊은 시대하고 사랑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혼자 살 수 있어요? 또 남자로 태어나서 혼자 살 수 있어요? 말도 말라는 겁니다.

일년을 지내고 있다가 가는 데도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 그것은 귀한 말입니다. 백 년 살고 가는 데도 '아이고 한 시간만 더 살고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내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남편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형제들이 되어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형님은 형님이고 나는 나지. 형님, 내가 100 만 원 꿔줬는데 왜 안 줘? 사랑이고 뭣이고 나는 싫어, 돈이 제일이야!' 이런다면 그 사람은 타고난 복을 다 팔아먹는 겁니다. 타고난 복이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타고났는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우주의 복이 와서 둥지를 쳐 줄 텐데, 무자비하게 '아이고 저 짠 녀석' 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141-298, 1986.3.2) p.2094

부모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려니 효자가 필요하고, 나라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려니 애국자가 필요하고, 세계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려니 성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여러분의 아들딸이 많지만 그 아들딸 가운데, 아들 중의 아들이 누구냐? 자기를 위하여 사랑의 인연을 두터이 가진 아들을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 중의 효자를 중심삼고 부모의 갈 방향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136-205, 1985.12.29) p.2094

어머니 아버지가 똥을 싸고 그보다 더한 것을 하더라도 전부 다 자기 애기와 같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들딸이면 효자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아들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16-086, 1981.12.20) p.2094

아들딸 중에는 효자도 있을 것이고, 그저 보통의 아들도 있을 것이고 불효자도 있을 것입니다. 세 종류입니다. 최고의 효자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겨누어 가지고 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과정에 왔다 갔던 성현 현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추호라도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아들을 뗄 수 있는, 의심되는 말만 나에게 하더라도 나는 믿겠소. 믿지 못할 거라 하더라도 믿겠소. 사랑하는 부모가 제일 악한 부모가 되어 채찍질을 하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효자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받들겠소.'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73-059, 1974.7.29) p.2094

부모가 잠을 자더라도 효자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잠자고 나서는 죄인같이 회개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먹고 나서도 미안해서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효자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보면 선생님은 미친 사람입니다. 부모를 알아봤나, 처자를 알아 봤나, 형제를 돌아봤나, 친척을 알아봤나, 나라를 알아봤나…. 내가 나라를 안 알아 준 것이 아닙니다. 더 차원 높은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가려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왜정 때 눈물을 흘린 것은…. 애국자에 지지 않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62-58, 1972.9.10) p.2094

부모끼리 정말 이 길을 죽더라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식을 하나님편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해서인 것이고, 안다면 제물로서라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채찍으로 치더라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버이가 제대로만 서 있다면 자식이 구원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에 대해서 불효자가 있다면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자기의 집에 데려다가 양자로 세워야 합니다. (15-202, 1965.10.9) p.2095

Top

[텍스트 입력]

제 3 장
충효의 도리

1)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진정한 충효

신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 열녀라 합니다. 효자는 부모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을 말하고, 충신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은 영원한 생명을 걸어 놓고 충성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깃덩어리는 죽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걸어놓고, 그것을 몽땅 아버지 것으로, 신랑 것으로, 부모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만 천적인 열녀의 기준이 성립됩니다. 내 생명이 움직이고 느끼는 전체를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세계의 어떤 충신보다도, 어떤 효자 효녀보다도, 어떤 열녀보다도 더 나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탄세계에도 충신 열녀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탄세계의 충신 열녀의 기준과 같은 기준을 세운 사람을 하늘이 충신 열녀로 세우면 하나님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9-108, 1960.4.24) p.2096

효자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시대시대 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등 효자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일등 효자, 효자의 표본으로 뽑을 것이냐? 늙어서 효자 노릇을 하다 죽는 것보다도 젊어서 늙은 사람 이상의 효자 노릇을 했다면 그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효자도 천태만상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막일하는 사람, 빌어먹는 사람, 별의별 계급이 있지만 효자는 다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참된 효자가 못 됩니다. 생명을 아직까지 남기고 있는 사람은 효자 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효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효자 표창을 받았다가는 효도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한테 참소 받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효도하기 위해 길을 가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병이 났기 때문에 약을 구하러 가다가 죽은 효자도 있을 것입니다.

약을 구하러 가는 데는 자기 돈을 가지고 구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을 얻어 가지고 구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충신도 죽기 전에는 충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49-279, 1971.10.17) p.2097

효자가 되려면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죽음길, 제일 수난길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효자로서 갈 길은 무엇이냐? 형제를 나 사랑하는 이상 사랑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있듯이 형제를 위해서 있어 달라고 하는 것이 효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부모의 뜻을 얘기할 것입니다. (62-037, 1972.9.10) p.2097

효자 중의 진짜 효자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를 위해 일생 전부를 희생하고 7,80 세 고령이 되도록 효성을 다한 사람과, 젊은 청춘으로서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효자가 있다고 할 때, 누가 더 효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리 7,80 이 되도록 효자의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청춘 시대에 부모를 위해 생명을 바친 효자에게는 못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신은 죽은 후에, 생명을 바친 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자도 생명이 엇바뀌는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시대에서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48-065, 1971.9.5) p.2097

충신의 이름을 갖고 나서는 사람도 하늘을 위해 살아야 충신이란 칭호를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효자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그것을 위해 먹고, 내가 보는 것도 그것을 위해 보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그 목적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비록 그것이 슬픔과 눈물의 길일지라도 천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대신 맡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효자의 도리와 충신의 도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길을 가로 막고서 나는 땅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 다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충효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41-157, 1971.2.14) p.2097

효자나 충신은 죽을 때까지, 죽음과 같이하지 않고는 진짜 충신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충신은 죽기 전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오늘 한마디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면 충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충신이 됐더라도 이 시간에 불충하게 되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충효의 도리를 하고 가야만 충효를 다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길에 있어서는 충과 효는 그 과정이 같은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아들을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기 전까지 불효했지만 최후에 부모가 죽을 자리에 처했을 때, 지금까지 효도하던 자식은 불효하게 되고 불효한 자식이 돌아서게 되면, 효도하던 그 자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한 순간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모 앞에 효자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하루의 행동의 기준과 더불어 효자의 칭호를 갖고 등장하게 됩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 앞에 영광의 상속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64-075, 1972.10.24) p.2098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중대한 문제와 세계적인 문제에 몸을 던져서 죽어버리고 말자! 폭발해 버리고 말자! 이러한 각오를 갖는 것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멋진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최후를 마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훌륭한 곳에 가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8-280, 1967.6.12) p.2098

부모는 효자·충신·성인·성자와 같은 전진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다하고 그 후에 하나님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볼 때 '야, 그 사람 부모노릇 한다. 그 사람 선생노릇 한다. 그 사람 주인노릇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가 부모의 자격이 있고, 선생의 자격이 있다.' 할 때는 주인의 자격이 있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람들에게는 효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충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성인의 개념이 없습니다. 성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누가 원하느냐? 세계가 원하는 겁니다. 나라는 뭘 원하느냐 하면, 충신을 원합니다. 가정은 효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285-218, 1997.5.19) p.2098

참된 부모가 있다면 '너는 효자가 됐으니 충신이 되지 말라. 충신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는 그 효자에게 '너는 가정을 희생해 가지고 충신의 길을 찾아 나라를 섬겨야 되고, 성인의 도리를 다 해야 되고, 성인의 도리를 희생시켜 가지고 하늘이 바라는 길을 가야 되고, 하늘땅을 희생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애국자가 되려면 그 가정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는 세계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늘나라와 땅,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나라는 영원히 안 나오는 것입니다. (285-218, 1997.5.19) p.2099

기독교인의 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 어디든지 가겠다고 결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명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 억의 신자를 자랑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과연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고 '너를 하늘의 제단에 희생물로 바치고자 하니, 생명을 바칠 테냐?' 할 때 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고비를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 놓고 하나님을 위한 효성에 불타는 사람, 하늘을 걸고 뒤넘이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런 무리가 끝날 하늘의 혁명군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인류 앞에 그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철두철미한 사상과 일치하는 개인, 가정, 민족,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러한 개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한 개인은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도리를 다하고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늘땅의 모든 사정을 풀어 헤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너로다. 너를 바라보니 내일을 소망할 수 있고, 너를 바라보니 오늘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겠구나.' 하실 수 있는 한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너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요, 심정 중의 심정이로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역사상 선조가 많고 시대적으로 인류가 많다 할지라도 심정을 중심삼고 '너는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조상의 자리에 있다' 할 수 있는 분이 이 지상에 나타나지 않는 한,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한 슬픔의 역사는 청산될 수 없는 것이며, 그 속에 태어난 우리들은 또다시 어떤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216, 1965.10.10) p.2099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남아져야 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더라도 그것들을 남겨 줘야 됩니다.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희생하는 사람은 효자가 되는 것이요, 충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루 효자, 하루 충신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효자는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 될 수 있는 것이요, 하루 충신 역시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회개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효자, 충신으로 태어나서 효자와 충신으로 살다가 효자와 충신으로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을 비교하게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하나님 앞에 더 효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애를 바쳐 이런 일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효자의 도리를 다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효자나 충신으로 끝입니다.

'내가 효자인데, 내가 충신인데 왜 몰라주느냐'고 항거하는 사람은 그 고개에서 후퇴하는 사람입니다. 가면 갈수록 효의 도리가 남아 있고, 가면 갈수록 충의 도리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효를 다하는 것을 자기의 생활 철학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야 하늘의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35-341, 1970.11.1) p.2100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행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효자가 되고, 충신 열녀가 되는 겁니다. 효를 세울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충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편안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태민안한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형편이 최후의 고비에 부딪쳐서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최후의 역경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국운을 돌려 국난을 풀어 주는 책임과 내용을 세운 자라야만 그 나라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충의 명사, 어려울 때 효의 명사, 어려울 때 열녀라는 명사가 역사노정에 기록되는 겁니다. (151-219, 1962.12.15) p.2100

여러분의 아내에게 눈이 가는 것보다도 남북으로 분단된 여러분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분단되어 있는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북을 하나 만들고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로 분립된 이 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로 만들고는 갈라진 영계와 지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해야 할 것이 아들의 이름을 가진 효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5-160,1981.11.8) p.2100

그러므로 참된 효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역사 이래 아무리 핍박이 사무치고, 어려운 고빗길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유만만한 사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시달려 후퇴의 여념을 가지고 슬픈 한의 길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억천만세의 고충과 수난길을 극복하고 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극복하면서 결의하고 다짐하여, 내일의 희망에 벅찬 재출발의 길을 촉구해 나가면서 죽음길도 가려 갈 줄 아는 길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4-043, 1988.2.3) p.2100

Top

2) 대상의 마음을 읽고 참사랑을 베푸는 참충효

인류역사는 타락한 세상이지만 인륜 도덕을 중심삼고 나왔습니다. 그 도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부모 앞에 효자는 부모를 더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라 앞에 충신은 더더욱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사람이요, 나라를 넘어 세계 앞에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성인의 길입니다.

세계를 자기 가정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성인의 도리입니다. 성자(聖子)의 도리는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법보다 왕궁법을 중심삼고 '최고의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이 성자의 도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모든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효자는 가정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충신은 나라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도리는 세계인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천자는 하늘나라의 왕궁법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국법은 지킬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왕궁법의 도리까지는 모릅니다. 그 궁의 법까지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만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단계가 그렇습니다.

효자가 되면 나라가 환영하는 것이요, 충신이 되면 성인이 환영하는 것이요, 성인은 성자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골수는 참사랑입니다. 불변의 참사랑, 절대적인 참사랑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참사랑을 가져 가지고 절대적인 효자, 절대적인 충신, 절대적인 성인, 절대적인 성자, 절대적인 아버지 아들딸의 인연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길을 몰랐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천리와 더불어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방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6-062, 1990.10.3) p.2101

효자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충신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왕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뭐냐? 아들딸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원은 뭐냐? 그 사랑에 취해서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과 사정과 심정을 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효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의 골자가 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자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몰라 가지고 효자 돼요? 하나님의 심정이 슬픈지 기쁜지 몰라 가지고 효자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효자가 되는 길은 간단한 것입니다. 부모의 보다 고생스러운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리가 효자 되는 길입니다. (62-061, 1972.9.10) p.2101

밥상을 잘 차려다 대접하는 효자하고, 밥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사랑을 가지고 온 효자가 있다면 어떤 효자가 좋겠어요? 사랑을 가져온 효자라 해도 배고픈 어머니 앞에 먹을 것을 하나도 안 가져오면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말이 '불효자식 왔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데는 밥상 이상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통을 지고 다니는 것이 효자냐, 사랑통을 지고 다니는 것이 효자냐? 사랑이라는 것은 24 시간 시공을 초월해 있지만, 밥은 시간성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79-270, 1988.4.14) p.2102

국가를 위해 충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점에서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봉사하여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내적인 인연이 결과인 외적 세계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충성하는데 있어서 그 기점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가정에서, 그 부모의 마음과 몸 가운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22-042, 1969.1.19) p.2102

그 때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보조를 맞추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요,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탄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는 나의 있는 정성을 다해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통일교회의 사람 가운데 있다 할진대는, 그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 일치화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 또 그 수와 양에 따라서, 천운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지상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넓은 터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넓은 터전이 되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개인을 중심삼고 그런 발자취라도 남겨 가지고서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감복귀의 길입니다. (40-159, 1971.1.3) p.2102

애국자는 나라의 사랑을 받자 그 말입니다. 효자는 어머니 아버지, 일가족의 사랑을 받자는 것입니다. 일가족의 사랑을 받는 효자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이 먹고 있을 때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남이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보다 더 잘 입는 옷은 나는 안 입어야 됩니다.

노는 데서 놀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집만 아닙니다. 3 대를 중심삼고, 할아버지, 아들딸, 할머니, 그 다음에는 고모들이 있고, 어머니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녀들까지 전부 다 좋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지 않으면 효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전부 다 '저와 같은 아들이 되어야겠다, 저와 같은 누나가 되어야겠다.' 그럴 수 있어야 그 문중 가운데 효자의 칭호를 갖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298-278, 1999.1.16) p.2102

생각만 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뜻대로 안 되면 도둑질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효자 효녀는 어떤 패들이냐 이겁니다. 어떤 패들이에요? 내 배를 두둑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먹을 것까지도 남에게 먹여 줘야 됩니다. 안 먹겠다고 하면 그저 입을 벌려 가지고 먹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통일교회 충-열녀-효자-효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라놓아야 되는 겁니다. 1 년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충신이라는 것은 물론 나면서부터 타고난다는 말도 있지만, 나면서부터 그런 천성을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절개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생길에서 고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자리, 최고의 첩경이 그겁니다. 충신 열녀가 되고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첩경이 무엇이냐? 공적인 입장에서 눈물짓는 생활뿐입니다. 눈물짓고 수고의 길을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155-259, 1965.10.31) p.2103

나라를 안 가졌지만 가진 것 이상으로 그 나라의 충신이 되고, 내가 백성을 안 가졌지만 그 백성 이상으로 세계인을 사랑하겠다고 하며 일생을 하늘의 충신, 효자의 길을 다 가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죽더라도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가치 있는, 그 나라와 그 세계의 충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8-027, 1976.7.1) p.2103

참사랑을 나라에 베풀면 애국자가 되고, 부모를 향하면 효자 중의 효자가 됩니다. 세계 만민 앞에 서면 성인의 도리를 넘나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까지 가서 그러면 성자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니 하나님까지도 굽어 살필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6-049, 1988.5.3) p.2103

참사랑이 아니면 참된 효자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세속적인 사랑, 그릇된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간들이 세속적인 사랑으로부터 프리섹스니 뭐니 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랑의 기틀, 효자의 기틀, 충신의 기틀 다 깨먹습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참된 효자의 도리, 참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충신의 도리, 참된 성인의 도리, 참된 성자의 도리를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때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타락하던 개인적 가정에서 상속을 받는 데는 미래의 나라와 미래의 세계와 미래의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붙여 가지고 자동적으로 커 가면서 상속받는 것입니다. (286-300, 1997.8.13) p.2103

Top

3) 무조건 순종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참효자

할아버지가 침을 뱉든 할머니가 침을 뱉든, 어머니가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이 모르는 체하더라도 내가 할아버지를 알아주고 할머니를 알아주고 집안 전체를 알아주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역대에 남을 수 있는 효자의 반열 행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효자다. 효자 되기 위해서 이런다.' 그것은 가짜 효자입니다. 위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효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충신이냐? 모든 각료들 가운데 내가 왕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떡도 해다 주고 무엇도 해다 주고,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나 왕후를 모시는 시녀들이 전부 다 책임을 못 하더라도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해 잔소리하면서 내가 그 이상 해 가지고 그 환경이 그럴 수 있게끔 가르쳐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야지' 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보다 더 큰 나라의 왕이 있고, 천하에는 천자가 있고, 하늘나라의 왕자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한 분야의 대표밖에 못 되는 충신만 가지고는 내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204-94, 1990.7.1) p.2104

부모 앞에 효도하는 사람은 효도하는 그 천심의 마음이 핏줄기가 전부 다 동맥으로 갔다가 정맥으로 돌아 들어오듯이 끌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맨 말단에 섰다면 천리의 사랑의 힘이 동맥 쪽으로 갔다가 정맥으로 돌아 들어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자연히 움직이는 겁니다.

정맥이라는 것이 자기가 끌어당겨 들어가요, 밀려들어 가요? 밀려들어 갑니다. 그것은 복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복 받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겠다고 해도 점점 큰 심장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안 받겠다고 해도 복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효도하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통일교회 교육은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효도할 어머니 아버지가 없거든 나라를 위해서 하라 이겁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 효도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남겨 놓고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반대를 받더라도 몰래 보따리를 싸 가지고 일선 장병으로 나가 죽게 된다면 그는 효의 도리의 완성체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충의 인연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147-306, 1986.10.1) p.2104

우리 인간들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대개 자기 서러움에 북받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그렇게 못합니다. 효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죽고 내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울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진정한 충신이라면 자기의 사연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뼈에 사무쳐 있을 뿐이지 나타내 울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군왕을 위해 그런 한때를 못 가졌지만, 부모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위치에 서서 군왕보다 더 서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는 하늘이 그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자 효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자신이 슬프더라도 자신의 슬픔만을 중심삼고 서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분함이 있어도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252, 1967.6.11) p.2105

싫은 것을 좋은 것보다 더 오케이할 줄 알아야 효자입니다. 자기 일생의 귀중한 사랑을 희생시키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천상세계의 어디 가든지, 사방의 열두 진주문이 있다면, 거기에 막혀 있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열립니다.

우리 흥진 아가가 영계에 갈 때, 예수는 올드 크라이스트(Old Christ ; 나이 많은 예수)고, 우리 흥진은 뉴 크라이스트(New Christ ; 새로운 예수) 라고 결정을 해서 천상세계에 보내니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163-264, 1987.5.1) p.210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데는 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3단계 내용을 대신한, 충효의 도리를 갖춘 참다운 형제의 인연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0-44, 1971.1.6) p.2105

효도를 하는 어버이가 있다면 이 어버이는 자기보다 더 효도하는 아들을 바랄 것입니다. 그래야 할아버지가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죽을 때도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들을 자기보다 더 고생시킬 수 있는 심정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나와 더불어 수고해 오신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아들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후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못 잊을 수 있는 효도를 하게끔 하는 것이며, 나보다도 더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는 깍쟁이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사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먹고 입는 것까지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43-060, 1971.4.18) p.2105

효자를 가진 부모는 그 효자를 대할 수 있는 부모이고 사랑하는 효자를 위한 부모이지, 제 3 자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참다운 효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별의별 놀음을 하든가 인간이 별의별 놀음을 하더라도 터치할 수 없는 최후의 길을 중심삼아 가지고 깊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죽을 자리에 내세우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효자가 되었던 인간이 다시 효성의 도리를 세우게 하기 위한 하늘의 마음이요. 효자를 세우기 위한 하늘의 지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두말할 바 없는 것입니다. (62-47, 1972.9.10) p.2105

효자를 가진 부모보다도 그 부모 앞에 효자가 근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효자 효녀가 부모보다 근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보다 근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보다 각 방면으로 염려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155-253, 1965.10.31) p.2106

예수는 하나님 앞에 종의 종이 되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죽어갔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종의 종의 자리와 같은 비참한 자리에서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종의 종된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부모를 위하겠다고 할 때, 그에게 효자라는 명칭이 붙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 도덕의 골자요,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보다 종 되는 것이 보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나라를 위해서 종보다 더 극심한 종이 되는 것이 충신이 될 수 있는 길이며, 부모를 위해서 보다 종된 자리에서 희생해 가는 것이 효자의 길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88-294, 1976.10.3) p.2106

이 땅 위에 복귀섭리를 대해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정한 효자라고 명명할 수 있으려면, 아들이라든가 충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이냐? 미국에서 제일가는 갑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삐라를 뿌리며 '야, 예수 믿어라!' 하는 이런 패들? 비행기 타고 삐라를 주욱 뿌려가지고 '믿겠으면 믿고 말겠으면 말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장을 주더라도 바들바들 떨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정성을 들이며 주는 그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울 것 같아요? (155-261, 1965.10.31) p.2106

결론적으로 효자는 별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절대 신앙을 하고 그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 효자입니다. 나라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나라의 백성을 중심삼아 가지고 절대 나라님을 믿고, 절대 백성을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자기를 투입하는 데서만이 충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70-156, 1995.5.29) p.210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Top

제 4 장
하나님에 대한 충효

1)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도 되는 분이요, 하나님은 인류의 왕 중의 왕도 되는 분이요. 모든 것의 중심도 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일대일의 입장에서 한 가정을 중심삼고 보게 된다면 효자인데 그 효자는 세계적인 효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효 중에도 최고의 효요, 충 중에도 최고의 충이요. 성 중에도 최고의 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한 자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것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셋을 한꺼번에 이룬 사람입니다. 효자도 되고, 충신도 되고, 성인 중의 성인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우리는 자녀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으뜸될 수 있는 효자의 갈 길을 찾고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무리가 되자 하는 패들이, 혹은 종파가, 혹은 민족이 있다면, 그들의 갈 길은 편안한 길일 수 없습니다. 편안한 길을 찾아 나서는 데에는 그런 효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전부가 바라보면 전부가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남들은 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서뿐만이 아니라 남으로도 갔다가 동으로도 갔다가 서로도 갔다가…. 그 누가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오지 못할 놀음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놀음을 하는 종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62-033, 1972.9.10) p.2107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군왕을 위한 충신 효자 열녀는 많았는데 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충신 효자 열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 땅의 기준에 입각한 자유해방을 위해 바쳐온 것입니다. 역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근심의 대상은 되었을지라도 위안이나 기쁨의 대상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충신 효자 열녀라고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신 효자 열녀가 되는 것이 인간의 정도이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왕과 부모에게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충신 효자 열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충신 효자 열녀가 되기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11-77, 1961.1.29) p.2108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효자 효녀 충신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중에서도 최상의 기준에 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충효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가정에 평화와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자는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무너질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파탄되었으니 생명, 재산, 평화, 이상을 유린하는 자리에서는 충신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 내 일같이 안타까워했으며, 내가 언제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 위업을 느꼈으며, 내가 언제 아버지 가정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몸부림치며 싸워 보았느냐? 하느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효가 되지 못하고 불충불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18-341, 1967.10.1) p.2108

하나님은 충신 효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한을 사탄에게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을 무조건 넘겨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충신 효자를 세워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고통의 길을 걷게 함으로써 그 한을 사탄에게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13-128, 1963.12.20) p.2108

[텍스트 입력]

하나님도 해방하고 사랑 자체도 해방하는 그런 효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자리에 들어와서 '나도 효자가 한번 돼 봤으면 좋겠다.' 하고, 참부모도 '효자가 한번 돼 봤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 돼서 사랑 앞에 효자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정 사랑을 완성한 자리에 아버지로서 서고, 아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주의 근본적 사랑을 중심삼고 효자의 도리를 해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서 그 사랑 앞에 보다 차원 높을 수 있는 효자의 길을 어떻게 심을 수 있겠느냐? 심을 수 있었다면 타락도 영원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방의 해방권입니다. 그건 원리권을 능가한 것입니다. 근본 세계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앞으로 여러분이 가정이상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천상천국이 이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내적 뿌리에 아직까지 사탄의 혈통으로 더럽혀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천만 년의 역사를 거쳐 왔는데 그 몇 배, 몇 십 배, 몇 백 배 이상의 소모를 거치더라도 타락됐던 그 세계의 과거지사를 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너와 내가 합해서, 아들딸이 합해서 사랑 자체의 수고로우심을 위로할 수 있는 효자가 됐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일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헤아려야 합니다. (300-33, 1999.2.21) p.2108

하나님이 손을 들어 아담과 해와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로서 마음으로 무엇을 소망하셨을 것인가? '오! 너희는 내가 지은 대천주를 품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충신이 되어 달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이 천지간에 충신의 지조를 세우고, 그것을 억천만 년 전통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참아버지로 모신 참다운 효자효녀가 되었던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 충효지절은 전통이 되었을 것이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연결된 심정을 중심삼고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 주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를 악이 주관할 수 있다면 복귀역사, 구원역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9-105, 1960.4.24) p.2109

하나님께서 아들딸인 아담과 해와에게 바라신 것은 그들이 자라서 효자-충신-성인-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효자가 되겠다는 생각, 나라에서 충신 되겠다는 생각, 세계에서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늘땅 앞에 성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성인들은 효자가 되고, 충신, 성인, 그리고 성자가 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로써 천년만년의 역사를 못 넘깁니다. 어차피 가야할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노정입니다. 숙명은 부자지 관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숙명은 가를 수 없습니다. 운명은 대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지만 숙명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서는 가정에서 참된 부모 노릇을 못 합니다. 참된 부모라면 효자-충신-성인-성자와 같은 전진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로 하여금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87-23, 1997.8.10) p.2109

하나님이 이상하신 한 쌍의 부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하는데 타락으로 인해 영광대신 슬픔을 돌려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담과 해와의 책임뿐만 아니라 천사장의 불충도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먼저 하나님께 충효의 도리를 세워야 했는데 그 도리를 못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섭리는 충효열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효열의 심적 중심을 세워오셨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도(道)도 이것을 세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도인들은 이것을 찾아 세우기 위해 나온 것이며 예수도 충효열을 세우기 위하여 가정을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이러한 가정을 찾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가 먼저 충효열의 도를 세웠어야 했고, 충효열을 세우기 위한 제사장이 되었어야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축복가정은 충효열을 세우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 됩니다. 충도 효도 열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축복은 아버지의 소망을 상속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충효는 있었으나 열(烈)의 가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는 열을 세울 수 없고 사탄의 참소가 남아 있는 한 열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14-209, 1964.11.4) p.2110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여러분들이 하늘 앞에 완전히 서기 위해서는 한국이면 한국 한 나라에 충성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하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양반은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역경에 부딪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하나의 나라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인연을 맺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도 3 개국을 거칠 수 있는 충성의 도리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 거기에서 충성하는 그 충성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민족을 위하고, 먼저 세계를 위하고, 먼저 하늘땅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고 이것을 남기오니 하늘 것으로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것으로서, 땅 것으로서 남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죽더라도 기필코 하늘 것으로 남을 것이요, 땅의 것으로서 인류가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155-235, 1965.10.31) p.2110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할 수 있는 때가 죽은 뒤에 영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을 중심삼고 볼 때 지극히 짧은 기간, 똑딱하는 순간과 같은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효도했다는 조건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절대 필요한 아들이라는 결정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114, 1969.10.19) p.2110

하나님이 한때에 6 천 년의 한의 인연을 풀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엮어 온 역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성이 다를지라도 같은 핏줄을 가진 형제 이상의 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 아닌 부모를 모시지만 하나님을 중심삼고 자기 혈육의 부모 이상으로 그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무리입니다. 또 우리는 나라를 갖고 있지만 그 나라 이상의 충효열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무리입니다. (47-081, 1971.8.19) p.2111

이제는 최후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내 나라를 찾는 겁니다. 축복받은 가정이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 대신 횡적으로 둘러섰으니, 내 나라를 찾는데 충효의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효자 대신 충신, 충신 대신 성인, 성인 대신 성자의 팻말을 들고 하늘궁법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도, 하늘나라의 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헌법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197-087, 1990.1.7) p.2111

하나님의 마음만 아는 날에는 이 민족은 하늘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수많은 자식이 있고, 수많은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효자·효녀·충신은 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부모도 같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억울하게 맞고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것이 상정(常情)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효자 효녀를 찾으십니다. 효자 효녀를 찾아 세워 그 백성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계를 수습하여 한 민족을 찾고, 이스라엘을 세워 여기서 하나의 혈족을 찾고, 하나의 혈족을 수습하여 하나의 가정을 찾고, 하나의 가정을 수습하여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세계를 찾는 것이기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적인 한을 풀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효자이어야 합니다. 그런 효자가 나와야만 그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10:239-1960. 10. 16)

끝날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지(知)·정(情)·의(意)의 3 요소가 있고, 지와 의를 발판으로 하여 정적(情的)인 천정(天情)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적인 흐름이 있고,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천적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늘에 대한 간절함과 충효의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250, 1958.6.22) p.2111

하늘의 충신이 되려면 하늘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효자가 되려면 부모의 원수를 두고는 될 수 없으니 원수를 없애야 됩니다. 열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를 갚는 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걸고 각오하고 나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타락의 한스러운 고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슬픈 심정을 풀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6 천년 동안 고대하던 충신아, 효자야, 열녀야!' 하시며 쌍수를 들어 축복해 주실 것이며, 삼위신은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정기준이 해결되기 전에는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9-122, 1960.4.24) p.2112

하나님은 부모 중에 1 대 부모요, 왕 중에 1 대 왕이요. 이 천지를 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이요. 이상을 형성할 수 있는 1 대 조상인 분입니다. 그분을 중심삼고 효성을 하고, 그분을 중심삼고 충성을 하고, 그분을 중심삼고 성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아들딸이 돼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대기업(大基業)을 상속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에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목적입니다. (84-205, 1976.2.29) p.2112

Top

2)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절대 충효

노아 할아버지는 핍박이 심하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앞에 자식으로서 충효의 도리를 다할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환경의 비정함을 느끼고, 서러움을 당했으나 그런 때일수록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갔기에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0 년 동안을 지내 온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을 놓고 사탄세계는 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고 반대할 수 있는 대로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운 그 기준에서 노아는 추호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은 천주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세운 것이요, 우주의 정의의 인간으로 세운 것이요, 참의 승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에 반대되는 모든 원수의 요소들을 청산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18-159, 1966.6.4) p.2112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충성의 도리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과 환경이 자기를 평하면 평한 것만큼 우리의 무대는 세계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국내 사정을 중심삼고 뒤넘이치지만 환경이 편하면 편할수록 세계를 중심삼고 뒤넘이쳐야 됩니다. 세계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아들딸을 모셔 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한국에 안식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삼천만 민족이 세계를 위해서 충성의 도리를 다하고, 세계 만민이 한국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고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의 터전을 맞이하게 될 때, 비로소 한국에는 안식의 터전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55-263, 1965.10.31) p.2112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고해서 이 역사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혹은 시대적인 때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줄 수 있는 때가 왔다면 여기에서 충성하는 소같은 사람들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가운데 3 대 제물이 있나니 하나는 비둘기요,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소입니다. 지금 때는 상징적인 형으로 보게 되면 소 시대입니다. 소를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소 시대! 잡아먹기 위해서 좋아할까요? 소를 좋아하는 것은 고기 먹기 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소를 좋아하는 것도 미래에 잡아먹을 고깃덩이가 뭉쳐 있으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부려먹고 또 고기를 먹고, 먹고 먹고 또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뭣이 돼야 돼요? 돼지가 돼야지요? 「아니요」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대왕 소와 같은 이런 충성과 지성을 인간을 위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들도 소와 같은 그런 분 앞에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소 새끼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 새끼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56-017, 1965.11.2) p.2113

이 온 천지간에 나보다 더 하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거늘, 그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 혹은 동쪽이냐, 혹은 서쪽이냐? 어느 곳에 있을 것이냐? 이것을 궁금해 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인가? 궁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일 것이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냐? 그런 것이 궁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5-248, 1965.10.31) p.2113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있어서는 일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충신, 누구보다도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요만큼이라도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살다 간 영인들,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간 영인들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모든 공적인 일에 열심히 일한 이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치라도 더 해야 됩니다. 철칙이 그렇습니다. (102-098, 1978.11.26) p.2113

종의 시대에 있어서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양자시대에 있어서 생활면에서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2 대의 환경을 거치지 않고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직계 자녀와 일체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세계를 중심삼고 하늘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일을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처음 한 민족이 제 3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45-82, 1971.6.3) p.2113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그 환경에 있어서 모든 한적인 요건을 여러분의 일신으로써 이것을 탕감 해원하겠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쓰러졌다고 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지금까지 참으면서 나온 연고로, 살아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다가 쓰러진 그런 무리는 또다시 일으켜 하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요, 또 지금부터 살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요, 또 그들을 일으켜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153-255, 1964.1.7) p.2114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민족의 내적 심정을 울릴 수 있고, 천주의 내정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애정을 가진 그 효자 효녀는 깊은 비운이 감도는 자리에서도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된 왕이면 왕, 부모면 부모의 마음을 풀어 드리고 그 배후의 전부를 혼자 막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충효의 인연을 가진 사람이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혼자 천당 가겠다는 사람은 천당은 커녕 지당도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욕먹고 핍박받아 온 것이 분하고 원통하지만 그렇다고 총칼을 가지고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18-300, 1968.3.10) p.2114

여러분이 글씨를 쓸 때에 점을 하나 찍더라도 그때의 마음자세 여하에 따라 기쁠 수 있습니다. 또 그 한 점이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물건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외로운 입장을 메우고 기쁨을 얻기 위한 대상이므로 그 물건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충효의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건을 지어 놓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감상하면서 이것은 빼고 이것을 가하면 어떨까 하는 소망 가운데에 언제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9-226, 1971.1.15) p.2114

하나님을 누가 해방시켜 주느냐? 충효의 도리를 다짐하고 효성의 도리를 다하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효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한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아들딸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해방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101-255, 1978.11.1) p.2114

용기를 내서 악한 세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면서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자기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귀한 자리, 보좌,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 일생이 아니라 몇 평생을 걸쳐 그 이상의 것을 플러스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기쁨의 하사품일 것입니다.

역사를 넘어서까지 박해를 대해 자기가 맞서겠다고 하는, 그것이 영원의 역사를 대표한 효자 효녀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대해서 충성의 길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255-121, 1994. 3.10) p.2114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가정, 절대 충효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절대적인 충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대 성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세계적인 기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로서는 지상에서 아무런 역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하나님, 불쌍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레버런 문을 중심삼고 유럽 멤버들이 처음으로 그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두 다 충효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타락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그러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건설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297-202, 1998.11.20) p.2115

Top

3) 예수의 충효

예수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부딪치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인들이 악을 대하여 충성하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신의 아홉 가지 열매의 근본입니다.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면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 인내를 통해서는 자비와 양선(良善)이 나오며, 충성의 생활을 하면 온유와 겸손이 나옵니다.

예수는 타락권내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악의 요소를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천적인 사랑과 천적인 인내, 천적인 충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천국의 이념을 달성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이념인데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또 인내와 충성심이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여 현현하신 사랑의 화신체였으며, 서러운 골고다의 길에서도 만민의 고통을 염려하신 인내의 주인공이었으며, 역사상의 어느 누구보다 하늘에 대해 충성했던 충성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의 사랑, 인내심, 충성심은 어디로부터 기원한 것인가? 이것들은 예수 자신에서 기원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요, 하나님적인 가치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과 같은 사람, 전체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 대해 충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 대하여 먼저 충성하셨으며, 무한히 인내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륜을 중심삼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한히 인간 대하여 충성했던 그 사정을 체휼해야 하겠고, 이 뜻을 세우기 위해 무한히 희생해 오신 하나님의 심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또 미래의 이념을 세우기 위해 무한히 당신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심정, 무한히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체휼해야 되겠습니다. (2-344, 1957.8.4) p.2116

예수는 인류의 아버지로 왔고 성신은 인류의 어머니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육을 중심삼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부모로만 역사해 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영육을 합한 자리에서 사탄에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에게 몰려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는 사탄에게 내주고 영만이 부활했던 것입니다. 40 일 후에 부활하여 제자들을 모아 영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제 2 이스라엘을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기독교 2 천년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 1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제 1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제 1 이스라엘인 유대 나라는 예수를 죽인 죄로 망하고 제 2 이스라엘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4 천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보호하고 육성하여, 4 천년간 수고한 그 공적의 기반 위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메시아를 받들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부터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올 때까지는 독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2 천년 동안 지지리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만인류를 위해, 만민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를 형장에 세우고 피를 흘리게 하였기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권위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예수는 이런 국가권 위에 오셔서 국가를 수습하고 세계를 복귀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들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어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영계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충효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죽음길을 가면서도 만민을 대신하여 천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마 26:39)"라고 하면서 충효의 도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정성의 기준은 사탄이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영적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19-207, 1968.1.7) p.2116

예수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자리에 나아가 자기의 몸이 찢기고, 자기의 혼이 갈래갈래 찢기는 희생의 길, 사망의 고개를 넘어서면서도 아버지를 붙들고 최후까지 충효의 도리와 충신의 도리를 다짐하는 데에 있어서, 사탄세계의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자리에서 고이 죽음길을 맞아 갔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서 사탄세계에서 죽어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에 설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무엇이냐? 원수를 대해서 복을 빌었다는 사실, 그 조건을 중심삼고 사탄이 그 이상은 침범할 수 없는 방패막이로서 결정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는 하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 삼아 가지고 부활의 권한을 일으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50-201, 1971.11.7) p.2117

예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심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충효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사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복중교를 중심삼고 이스라엘의 승리적 입장을 재생하여 그 일을 다시 추진시켰던 것입니다. (24-191, 1969.8.10) p.2117

본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참다운 아들이요, 하나님의 왕자요, 또한 만민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태어난 그날부터 하나님의 왕자로 모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께 경배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길이길이 온 천주를 지배할 수 있는 하늘의 주권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난 그날부터 요셉과 마리아는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충효의 도리를 다하여 모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천법으로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16-27, 1965.12.26) p.211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는 어찌하여 부모, 즉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늘의 법도를 친히 가르쳐 주지 못했을까요?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모가 되었을 텐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자의 인연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인연으로서 충효의 도리를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충의 도리와 효의 도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모의 자리에서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219, 1965.10.10) p.2117

Top

제 5 장

효도와 충성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

1) 효도와 충성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을 점령하는 방법은 충성하는 도리밖에 없고, 부모를 점령하는 방법은 효도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14-90, 1964.6.12) p.2118

가정에서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나라의 충신의 길과 직통하는 겁니다. 나라에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성인의 길과 직통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가정에 있어서 부모를 절대 사랑하고 가겠다는 길이 효자의 길이요, 나라의 모든 국민과 주권자를 절대 사랑하고 가겠다는 길이 충신의 길이요, 세계를 절대 사랑하고 가겠다고 하는 길이 성인의 길입니다.

나라의 군왕도 성인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믿어야 됩니다. 애국자와 충신은 왕을 따라가야 되고, 효자는 애국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러면 성인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원불변 유일한 사랑, 여기 성인도 영원불변한 사랑, 군왕도 영원불변한 사랑, 충신도 영원불변한 사랑, 효자도 영원불변한 사랑, 이것은 한 코스에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개인이 가고, 가정이 가고, 종족이 가고, 나라가 가고, 전부 다 가는데 만일에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되겠고, 나라에도 충성해야 할 텐데 둘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효자의 길과 충신의 길 둘이 있을 때는 효자의 길을 버리고 충신의 길을 취하는 것이 법도에 준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 가운데는 수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99-67, 1978.7.23) p.2118

친구들이 자기의 모든 비밀 보따리를 갖다 천년만년 보관해 두어도 안심할 수 있는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제일의 친구입니다. 자기 부인, 부모, 형제를 두고도 찾아올 수 있는 친구가 되면 친구 중에서 대표적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대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에 있어서 대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자기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기 위해서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효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늘땅이 알 수 있는 효자의 인연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를 중심삼고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삼강오륜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 가정에서 나라가 알고 세계가 알 수 있는 효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효자는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혈통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효자란 가정을 중심삼고 결정되고, 충신은 나라를 중심삼고 결정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기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충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2-258, 1970.7.19) p.211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느냐 하면, 제일 주인 되는 사람은 지성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주인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학박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학박사가 와서 일을 한다면, 협조한다면 그들은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못 된다는 겁니다. 최후의 귀결점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학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역량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을 보더라도 유관순 같은 소녀가 일본이 3천만 민족을 장악해 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던 때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을 반대했는데 그때로 보게 되면 그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민족이 충성하지 못할 때에 민족을 대표해서 충성을 했고, 민족이 민족 중심삼고 정성을 들이지 못할 때 정성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상적인 지도적 권한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때가 아닌 때에,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 그 환경과 때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때와 환경이 되어 있을 때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잡아 죽일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환경이 안 되어 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그런 충성을 가지고 때가 되고 환경이 되어 있는 그때에 나서는 하늘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가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일을 한다면 이것밖에 없다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지성과 정성을 들이는 이 자리에 있어서 한 해를 지내고 이태 삼년, 그 지내는 연한에 비례해서 그 사람이 점점점 올라간다 이겁니다. (156-12, 1965.11.2) p.2119

여러분은 이순신이나 유관순 같은 사람이 애국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애국자라 할진대, 그들 이상으로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되 지금까지 그럴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였으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충성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한 해방의 선봉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당파적으로 몰리고, 쫓기고 혹은 투옥당한다 하더라도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투쟁에서 대적할 적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앞에 효를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효는 충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하나의 터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충의 도리를 다할 수 있고, 한 가정의 부모를 중심삼고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중심삼고 영원한 사랑을 축복해 주시려는 아버지의 소원 앞에,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 가지고 성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알고, 국민된 도리로써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29-110, 1970.2.25) p.2120

황공하게도 하늘은 부자의 인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나는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를 모셨느냐, 어느 정도의 효자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효자로, 국가와 민족적으로는 충신의 기개를 갖고 하늘을 대해야 합니다. 동양의 삼강오륜 같은 것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대한 충효도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는 하늘 앞에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신의 절개를 갖지 못한 자는 도저히 하늘 앞에 충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도 이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의 세계도 내용이 다르다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7-66, 1959. 7.12) p.2120

애국심은 하늘의 이상에 연결되기 때문에, 본심은 충효의 길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심과 한국의 중심이 방향이 달라요.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라 하면 일본에서는 원수입니다. 또 일본의 이토오 히로부미는 한국의 원수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인은 각 나라마다 다 있지만, 성인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인은 나라를 중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지, 세계를 중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토오 히로부미가 세계를, 아시아를 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9-247, 1992.4.12) p.212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부모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과, 지금 당장에는 효도를 하지 못하지만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민족이 바라는 최선을 추구하고 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순간을 고대하는 사람을 비교하여 볼 때, 지금 당장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지만 미래에 효도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더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종교라는 것은 미래를 추구하는 자리에서 미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요, 미래의 효성의 터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307, 1969.12.28) p.2121

애국은 나라를 중심삼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해방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효자가 되자고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사상입니다. 애국하기 전에 애부모해야 됩니다.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애국할 수 있고, 애국할 수 있는 길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사랑해 가지고 하늘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 앞에 효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139-275, 1986.1.31) p.2121

종교가 추구하는, 충효를 행할 수 있는 미래의 한 순간이란 어느 때인가?

인류가 공히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인류가 비로소 소망의 기점을 찬양할 수 있으며,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승리를 다짐하기 위해서, 그 한순간에 자기를 온 천지의 중심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가 나왔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27-307, 1969. 12.28) p.2121

Top

제 6 장

충효와 참사랑의 유무는 천국행과 지옥행의 척도

1) 충효와 참사랑의 유무가 천국행과 지옥행의 척도

아무리 요사스런 사회 환경에 부딪치더라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서, 그 부모의 품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품어 주고 위로해 주지 않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시달린 몸을 어머니 아버지 품에 기대어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될 때, 말없이 쓰다듬어 주는 엄마 아빠의 손길은 억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천하의 명장으로서 대적군을 물리친 승리의 기분을 능가하는 감사의 마음이 거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 효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상처를 입든가, 낮에 상처를 입든가를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고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쓰다듬어 주고 싸 줄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붕대나 약은 준비 못 했을망정 사랑의 붕대와 사랑의 약으로 나를 쓰다듬어 준다는 놀라운 사실, 그 자리는 평화의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힘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줄을 매 가지고 사는 부모는 피땀을 흘리고, 등이 구부러지고, 외모가 아무리 비참해도 그 마음세계에 타오르는 소망은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부딪히는 어려움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걸 뚜벅뚜벅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국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애국자의 길을 갔고 부모를 사랑하는 입장에 섰으니, 그와 같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후손으로서 지닐 수 있는 긍지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거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파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랄 때까지는 파먹고 삽니다. 철모르고 그저 공부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들고 나서는 파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몇 개월 젖 먹고는 떨어지지요? 통통통 걸어다닐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숨겨 놓은 것을 얼마든지 훔쳐 먹어도 그건 죄악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감춘 걸 애들이 재장재장 가서 꺼내 먹었다고 해서 `야! 요놈의 자식, 도적질했구나. 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받아라!' 그래요? '이 녀석 엉뚱하구만. 어떻게 그걸 알았노? 나보다 나은데!' 하면서 궁둥이를 두들겨 주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175-207, 1988.4.17) p.2123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뿌린 죄의 씨앗이 그들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로 거두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씨를 뿌린 부모가 복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사적인 부모복귀 기대를 중심삼고 충효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결정된 후에 비로소 만물의 날이 나온 것입니다. (16-259, 1966.6.19) p.2123

사랑은 내 집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천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심정적인 유발점은 부자의 관계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향리에서부터 심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향리로 돌아가서 사탄편에 서 가지고 사랑하는 수많은 효자 효녀 이상 효자 효녀의 팻말을 박아 놓아야 천사장이 아닌 선한 영인들이 지상에 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횡적으로 움직이는 영인들이 고향에서 사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서울집에 와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횡적 기반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귀입니다. (175-44, 1988.4.6) p.2123

최고의 자리에 있어서 자아도취 되어 만족하고 있는 그 무리들 앞에 몰림을 받고, 쫓김을 받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가는 몸을 부여안고 단 하나 내가 남겨야 할 유업은 무엇이며,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이며, 내가 상속시킬 수 있는 최후의 유언은 무엇이냐? 하늘을 대하여 타오르는 내 심정과 충성하고 싶은 효자의 마음, 충신의 마음, 열녀의 마음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진대 그 무리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150-153, 1961.1.9)

정의의 길을 확실히 알고 분별시켜 가는 것이 충효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가치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에 끌어당겨야 합니다. 힘이 모자라면 협박을 해서라도 밀어내라 이겁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교육을 시켜서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243-51, 1993.1.1) p.2123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후손 앞에 길이 남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영계에 가면 그 수고의 공적을 길이 찬양받을 것입니다. 이제 탕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만큼 빛나는 전통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놓인 것을 알고, 있는 정성을 다 바쳐야 되겠습니다. (38-126, 1971.1.3) p.2124

절대적으로 충효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만 여기에 반대하면 180 도 하늘나라에서 직행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프리섹스는 사탄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지상 지옥 팽창화하기 위한 악마의 계교의 사랑의 판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중심삼고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갈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절대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이 뭐예요? 그 오목 볼록을 맞추는데 절대적이다, 어머니 아버지도 절대적이다, 부부도 절대적이다, 자기 아들딸들도 절대적이다, 이걸 원하는 겁니다. (280-135, 1996.11.24) p.2124

부모는 효도하는 자식을 보고 눈물을 머금고 영원을 걸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심정권에는 그런 배후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기도하다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사라져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충효를 행하는 효자가 중심이 될 때는 부모와 자신은 눈물을 머금고 그 집을 지키며 미래의 나라의 축복이 그 가정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효자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247-32, 1993.4.21) p.212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을 위한 효자의 길은 객사의 몸이 되더라도 그 환경을 지키고 그 환경이 좋아할 수 있는 자리를 넘기고 가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280-41, 1996.10.13) p.2124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목적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있나니 그 하나님은 멀리 대해서는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주이시며, 중심 중의 중심이신 고로 그를 대해서는 충신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의무요, 책임입니다. 가까이 대할 때는 아버지이시니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 놓고야 지옥으로 보내겠으면 보내고 천당으로 보내겠으면 보내고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159-314, 1964.10.5) p.2124

미국이 세계의 대표 국가로서 책임을 하고, 여러분들은 세계 국가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하는 입장에서 결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 있어서 완전한 가인이 돼야 됩니다. 국가를 대표한 자, 세계를 대표한 자로서 완전한 가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개인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때만은 여러분이 세계사를 대표해 가지고 가인 중의 가인이 되고, 천사장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천사장이 되고, 천사장의 탕감조건을 넘어선, 하늘을 위해 충성하는 천사장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8-143, 1976.8.10) p.2124

Top

제 7 장
하나님과 참부모님

1) 참부모님은 충효의 표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라고, 혹은 '절대자의 주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 앞에 충신이라고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충신이 나오지 않았고, 하늘의 효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하늘의 열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하늘이 그를 하늘땅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축복을 해주고 싶다 할진대, 그는 최고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는 그 나라의 최고의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나라의 최고의 효자라는 이름을 가져야 할 것이며, 신앙자들을 신부라고 하였으니 그 나라의 최고의 열녀라는 칭호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6 천년 동안 복귀섭리를 해 나오셨지만 '너는 하늘땅이 생겨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에서 둘도 없는 나의 충신이다.' 하고 축복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오늘까지의 역사에서 너는 내 앞에 진정한 효자다.' 하고 축복해 준 사람이 없고, 열녀라고 축복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국가들은 하늘이 내세울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나라가 못 되었고, 이 땅의 가정들은 하늘이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참부모를 가진 가정이 못 되었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이 영원히 믿어줄 수 있는 참신랑신부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는 창세 이후 오늘까지 이 땅 위에 사는 인간들 가운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라고 내세운 사람이, 너는 천상천하를 대신한 효자라고 내세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충신이라고 내세운 사람이 없고, 열녀라고 내세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충신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참부모를 모셔 놓고 효자가 될 수 있는 그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참신랑신부가 되어 하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본연의 그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바라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9-102, 1960.4.24) p.212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세계는 부모가 그립기 때문에 그 부모가 올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주인공, 하나의 부모, 하나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6천 년 동안 수고하신 열매며 바라시는 목표물입니다. 여기에 그 부모를 대신하여 설 수 있는 심정적인 후계자가 나와야 됩니다.

심정적인 후계자. 말만 하는 후계자 말고, 모양만 같은 후계자 말고, 좋아만 하는 후계자 말고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아버지 대신 고통하고 아버지 대신 슬퍼하면서 심정적으로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세우려고 허덕이는 후계자 말입니다. 그런 무리만이 하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9-30, 1960.4.3) p.2126

오늘날까지의 역사노정은 선과 악의 투쟁이 점철된 노정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내 앞에 다가왔으니 나를 중심하고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갈라 세워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성패를 좌우할 관건을 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을 초월하여 공적인 존재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충성과 효성으로 공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수고한 선조들의 그 역사적인 위업을 계승할 자는 그들보다 공적 사명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적인 사명을 맡으려면 역사를 초월한 우주적인 충효열(忠孝烈)의 심정과 각오를 갖추어야 합니다. (11-270, 1961.12.17) p.2126

충신이라는 것이 뭐냐? 나라님 대해서 정성들이는 것이 충신이냐? 아닙니다. 백성을 나라님같이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충신인 걸 알아야 됩니다. 효자가 뭐냐? 부모를 위해서 정성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를 위하듯이 형제를 위해 정성들이는 사람이 효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성자, 하나님의 아들딸이 누구냐? 하나님을 위하듯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전부를 위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자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인류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인 미국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볼 때 '내 아들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나라의 아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듯이 인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자기를 잊고 인류를 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잊고 이 인류를 위하니 효자라는 겁니다. 그 정의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효자의 길에서부터 충신의 길로부터 성자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인의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삼은 효자의 도리를 통해서, 충신의 도리를 통해서 성자의 도리를 이루어 놓으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구요? 지상천국입니다. 이렇게 산 나라는 그냥 그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었다 이겁니다. (133-241, 1984.7.19) p.2126

Top

2) 참부모님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부모에게 불효를 한 아들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인류입니다. 불행을 초래한 장본인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하늘 앞에 말할 수 없는 불효를 했기 때문에, 불효한 자가 하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효자될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하늘의 효자가 되기를 맹세하고 나섰다고 자처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다시 한 번 분석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내 손이 하늘 앞에 얼마나 효자의 손으로서 하늘이 그리워하는 손이 되었으며 내 얼굴이 얼마나 하늘 앞에 효자의 모습으로서 하늘이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내 일신이 얼마나 효자의 촉매가 되어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어떠한 역경에 있을지라도 그 역경을 극복하면서, 효자의 가는 길을 개척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거기에는 우리가 자신을 못 갖는 것입니다. (60-19, 1972.8.1) p.2127

효자가 되려면 부모의 모든 고생을, 혹은 부모 앞에 제일 어려운 길을 골라 가지고 책임지기 위해서 나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또 그런 효자가 못 된 자식을 효자 만들고 싶은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떤 놀음을 시킬 것이냐? 죽을 놀음을 시킬 것입니다. '야야, 이거해라!' 하면서 형제들 가운데 제일 못할 놀음만 골라서 시키는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효자의 이름을 갖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효녀의 이름을 갖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니까, 남자 앞에 여자라고 전부 신부예요? 신부가 많아요? 신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부가 되려고 하는 데는 경쟁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41, 1972.9.10) p.2127

고향에 효자가 있거들랑 역사시대에 그 땅에 있었던 효자 중의 그 어떤 효자보다 더한 대왕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신이 났거든 그보다 더한 대왕충신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효자 충신이 됐다 하더라도 참부모와 횡적인 인연을 갖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횡적인 아버지가 수평으로 되게 될 때 종적인 아버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한 마이너스가 생겨나게 될 때 완전한 플러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77-347, 1988.5.22) p.2127

참부모는 뭐냐면 가정에서는 효자요, 국가에서는 충신이요, 세계에서는 성인이요, 하늘땅에는 성자의 전통적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칸셉 안 가지고는 하나님을 중심삼은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효자로 설 수 없고, 그러한 중심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루어진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삼은 충신, 그러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성인, 그러한 하늘땅에서 효자 될 수 있는 성자를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탄세계의 탕감복귀를 위해서 이와 같은 4 대 조건을 완성해서 하늘 앞에 봉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자는 뭐냐면 하늘나라의 궁전법과 하늘나라의 법과 지상의 궁전법과 지상의 나라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왕궁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궁전법과 나라법과 천상세계의 궁전법과 나라법을 완성해서 그것을 다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자의 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향땅을 찾아가서는 뭘 하느냐면, 2 번의 효자 충신 열녀가 다 되어야 됩니다. 2 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런 걸 못 가졌기 때문에 사탄의 것이었다 이겁니다. (266-145, 1994.12.22) p.2128

삼천리 반도 곳곳에서 삼천만 민족을 대신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충효를 다하겠다고 맹세하는 무리가 나타나기를 선생님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중에도 있지 않을 때에 선생님은 이런 맹세를 했고, 여러분들이 꿈에도 이런 길을 갈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선생님은 이미 이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눈물이 많다면 삼천만 민족 어느 누구 못지않게 눈물이 많습니다. 나에게 누가 나타나서 한마디만 하면 억제할 수 없는 통곡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선생님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천지가 제 아무리 넓다 해도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13-35, 1963.10.16) p.2128

여러분이 선생님을 대해서 하늘 부모와 같이 효성을 해봤습니까? 사탄세계에 왔다갔던 수많은 효자들도 그 나라에서 추모할 수 있는 효자비를 남기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또 언제 충신의 도리를 다했느냐 이겁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명을 넣어 바치기 전에는 효자가 못 되는 것이요, 충신이 못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교육을 했던 것은 그런 사람을 바라서 했는데 불구하고 표준이 전부 틀어졌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를 사랑해 봤고,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선생님의 가정을 사랑해 봤느냐. 탕감복귀 원칙에 있어서 어떠한 효자보다도, 어떠한 충신보다도 나아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이 원리가 가르쳐 주는 교시가 아니냐. 그런 기준에 서 봤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68-268, 1973.8.15) p.212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명령하는 것을 위해서 손이 구부러지도록 왜 충성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막혀 가지고 통곡이 나올 수 있는 역사의 조건을 왜 못 남기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인데 말입니다.

가정을 대신해서 부모 앞에 효도하고, 나라를 대해서 충성을 하고, 하늘을 대해서 모든 것을 했다 하는, 역사적인 승세의 권한을 가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위업을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찬스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못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땅에서부터 나라를 거쳐 천국에 들어갈 때 막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정 앞에서 막았다 이겁니다. 내 개인이 아무리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부모 앞에 효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아무리 부모 앞에 효도했더라도 나라 앞에 충성을 못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 앞에 충성했다 하더라도 인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158-143, 1967.12.26) p.2129

내가 사랑해야 할 만물의 부모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고, 나를 낳아 준 부모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고, 이 영계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지만, 선생님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효자의 자격을 대신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105-112, 1979.9.30) p.2129

세상에 처녀 총각들도 첫사랑은 못 잊는다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모두다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를지 모르겠지만, 첫사랑은 못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효성을 했다는 효자로서 기억된 아들딸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절대 떼어 버릴래야 떼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해와보다도 나은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효자 됐어요? 효자가 못 됐습니다. 효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효자의 길을 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는 효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57-153, 1972.5.31) p.2129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모 앞에 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물로써 부모를 위로하고, 짊어진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십자가의 길은 자식을 위하기에 비참하였다는 사실을 통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위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옵소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슬픔을 당하면서 나오신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효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스러웠고 너무나 도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1-35, 1970.4.12) p.2129

역사상에 어떠한 선조 누구보다도, 하늘땅을 대신해서 참부모를 모시는데 있어서 어떠한 시대 사람보다도 충효가 된다 하는 그 자각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그 환경에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기를 중심삼고 하나 되게 됩니다. (275-187, 1995.12.8) p.2130

여러분은 사회에 충성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가정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을 기르는 곳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복귀하는 데는 그냥 그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서 무슨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격이 복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충성해야 되느냐? 가정에 충성하기 전에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사회에 충성하기 전에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체요 가정과 사회는 대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서느냐? 대상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체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대상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어서 360 도 회전이 되어야 하지만 주체는 중심에 딱 한 곳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어떠한 역내의 자리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중심이 둘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망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25-126, 1969.9.30) p.2130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암만 황태자로 태어났더라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법도와 규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젠 말만 하지 말고 인류역사 최후의 노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효자였다' 하는 인을 쳐 가지고 하늘나라의 효자로 천국 보내겠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기반이 뭐라구요? 가정교회라는 기반입니다. 천국은 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이라도 불망나니는 못 들어갑니다. 효자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효자의 이름을 인침받기 위한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122-124, 1982.11.1) p.2130

가정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은 멍청이입니다. 가정천국 울타리 안에서 밖에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 가정이 되고 중심적 가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자 · 충신 · 성인 · 성자의 도리는 내가 갈 길이다 이겁니다. 천성적으로, 내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나라에서는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그 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일생 동안 자나 깨나 뜻이라는 초점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계속합니다. 천년만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승리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못 해도 국가적 메시아의 책임을 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라고 내세운 겁니다. 거기서 효자가 되어야 되고, 충신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래야 부모님을 따라 성자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283-077, 1997.4.8) p.2131

선생님이 나라를 짊어진 겁니다. 그 길에 있어 여러분이 공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의 길, 열녀의 길, 충신의 길을 닦기 위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효자는 가정에서 아들의 자리요, 열녀는 부부의 자리요, 나라를 대신한 부모의 자리는 충신입니다. 충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연결되어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220-153, 1991.10.16) p.2131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모르겠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효자 효녀가 어디 있느냐.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256-26, 1994.3.12) p.2131

Top

제 15 권

천일국 주인의 생활

차 례

제 1 장 창조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참사랑

1) 참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중심 · · · · · · · · · · · · · · · · · 2137

2) 하나님과 참부모와 일체를 이루기 위한 참사랑 · · · · · · · · · · · · · 2140

3) 하나님 사랑의 절대대상은

1) 참부모님은 충효의 표본 · 2125

2) 참부모님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 · · · · · · · · · · · · · 2127

[텍스트 입력]

제 1 장
창조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참사랑

1) 참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중심

하나님은 진리의 대왕, 선의 대왕, 참의 대왕, 사랑의 대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본래부터 있었겠어요, 생겨났겠어요? 하나님도 커 나왔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모든 것이 작은 세포에서 자라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커 나왔느냐? 사랑 때문에 커 나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커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243-278, 1993.1.28) p.2137

하나님은 참사랑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창조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혼자 못 가집니다. 혼자 사랑을 못 느낍니다. 물론 자체 내에 사랑이 있지만 원만히 화합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랑을 못 느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었더라도 향기가 나야 하고, 아무리 향기를 가졌더라도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같이 상대적 자극의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210-223, 1990.12.23) p.2137

참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근원적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은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같이 밥도 잡수시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 분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황금덩이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식의 대왕이요, 능력의 대왕입니다. (212-295, 1991.01.08) p.2137

참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이 태어날 적부터의 그 밑창까지 포괄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살고도 다 거기까지 못 가니, 저 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그것을 향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고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자라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깊이까지, 출발과 더불어 근원을 같이했다는 것입니다. 근원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이성성상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성성상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246-286 : 1993.04.20) p.2138

참사랑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행차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지백체가 사랑을 중심삼고 언제나 표면에서 하나돼도 오케이고, 내면에서 하나돼도 오케이입니다. 북에서나 남에서나 동에서나 서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지상세계에서나 아무데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화합할 수 있고, 사랑을 중심삼고 자율적으로 화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당을 하나님 대신 세우고 완전히 하나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되겠다는 것입니다. (139-200 : 1986.01.31) p.2138

하나님도 참사랑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는 하나님도 생명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도 참사랑이 있으면 왜 목숨을 바치려고 해요? 사랑이 생명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하기 시작했느냐? 사랑 때문에 존재하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었더라면 하나님도 생겨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은 쌍쌍제도입니다. 광물세계도 쌍쌍제도이고, 급은 낮지만 양이온과 음이온도 사랑을 표시하면서 엉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버런 문이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역사 이래로 처음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참사랑을 절대시하고 그것에 절대

[텍스트 입력]

복종하면서 살겠다 하신다는 그 기원을 발표한 것은 레버런 문이 역사상에 처음입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사랑을 찾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개재시키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재되지 않고는 참이라는 말, 참이라는 남자, 참이라는 여자, 참이라는 가정, 참이라는 진리, 참이라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재해야만 그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대왕이요, 선의 대왕입니다. 참의 대왕입니다. 사랑의 대왕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재시키지 않은 데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 버리고 하는 것은 사기판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재시킴으로 말미암아 참의 기준, 영원한 기준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301-38 : 1999.04.16) p.2138

그렇다면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삼고 위하려고 하는 사랑은 악마와 통하는 사랑이요, 상대를 중심삼고 위하려고 하는 사랑은 천지이치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주고 또 주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 90 세 된 할머니가 70 세가 넘은 아들에게 '얘, 아무개야, 오늘 어디 나가면 차조심 해라!' 하며 여전히 옛날 어릴 때의 아들과 같이 대해 줍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얘기를 90 세가 넘어서 하더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천만 년이 가더라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142-333 : 1986.3.14) p.2139

자기 생명까지도 투입하고 또 투입하겠다는 자리, 주고 또 주고도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서만 참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천지를 꿰뚫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도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도, 강한 마음이라도 어디든지 뚫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은 비밀의 방도 통합니다. (256-179 : 1994.03.13) p.2139

제일 빠른 속도를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창조능력과 일치된 힘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땅 끝에서 하나님도 '오소' 하면 온다는 것입니다. 못 생긴 손녀라도 손가락만 까딱하면 할아버지가 그를 따라갑니다.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301-125 : 1999.04.25) p.2139

사랑이란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광을 누린다 할 때는 자기 혼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백만장자가 되어 금밭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인연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변함없이 행복한 자리에 있는 것을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완수한 후에, 완성 단계의 기준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영광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158-296 : 1968.02.04) p.2139

참사랑은 하나님보다도 높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라도 사랑의 상대는 몇 천만 배 더 훌륭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참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대가 여러분보다 더 높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274-022 : 1995.10.25) p.2139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계에 가면 참사랑의 빛깔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영계입니다. 그 참사랑에 화하면 안 통하고 안 들리는 데가 없이 다 통합니다.

참사랑의 주인인 하나님의 솜털이 있다면 그 솜털도 참사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까딱하기만 해도 천하가 금방 다 압니다. 예민하다는 겁니다. 감정이 우주적 감정까지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304-015 : 1999.09.05) p.2139

사랑을 중심삼고 인간들이 하나님, 창조주 이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 그 길을 밟아 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주의는 참사랑주의인데, 참사랑주의는 타락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는 한 그 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 역설적인 논리를 가르쳐 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68-162 : 1995.03.31) p.2140

사랑의 길을 찾는 사람은 어떤 것을 마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내가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머물 수 있는 중심입니다. 내가 그 뜻과 하나될 수 있는 중심입니다. (103-132 : 1979.02.18) p.2140

Top

2) 하나님과 참부모와 일체를 이루기 위한 참사랑

본래 마음과 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인간의 몸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몸을 악마에게 내어 준 것입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몸은 악마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양심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양심은 항상 선을 향해 달리려 합니다. 여기에 몸은 반항합니다. 몸은 자기만 편하려 하고, 이기적이며, 본능적 요구에 따라 육욕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양심은 이 몸을 질책하여 마음에 순응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항상 피나는 갈등과 투쟁이 한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들이지 않고서는 내 몸을 정복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의 힘을 중심삼고 주체되는 마음은 대상되는 몸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일체이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말하는 완성한 인간입니다. (219-118 : 1991.08.28) p.2140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들딸이었습니다. 그 참된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나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되기 위한 원칙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되는 날에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요, 하나님이자 나요, 나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은 참사랑뿐입니다. (91-220 : 1977.2.20) p.2140

참사랑에 화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세포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체(肢體)가 돼 가지고 한몸과 같은 영원히 사랑을 호흡하고 사랑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천국이라 합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된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는 사랑이 빠졌습니다. (177-149 : 1988.05.17) p.2141

참사람은 참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사랑은 주는 사랑이며 영원히 센터를 위하겠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면 나는 참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123-328 : 1983.01.09) p.2141

참사랑은 하나님하고만 관계 맺은 사랑입니다. 자기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또 세상의 습관성, 풍습, 국민의 전통성,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그와 같은 관계를 맺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관계 맺은 사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탄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뿐만이 아니고 가정을 넘어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지상세계 천상세계까지 그것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에 젖은 모든 습관이나 전통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274-195 : 1995.11.03) p.2141

참사랑은 하나님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면 소유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상대의 것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파트너는 언제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주인입니다. (281-192 : 1997.02.13) p.214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사랑에는 하나님의 몸 마음을 절대적으로 통일시키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닮았으면 몸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몸 마음이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있느냐?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참사랑, 참사랑만이 하나님의 몸 마음을 완전히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210-132 : 1990.12.17) p.2141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권에 들어가면 욕심이 다 없어집니다. 참사랑권 내에는 상속권이 있어서 사랑의 주체되는 하나님까지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몸 마음도 내 것이 됩니다. 일체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체라는 것입니다. (213-076 : 1991.01.14) p.2141

참사랑은 하나님의 일체권에 속하는 것,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이지 사탄에게 지배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타락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직인 하나님 심정권의 원형은 남아 있지만, 혈통을 잘못 계승했기 때문에 횡적 원형이 90 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75 도, 또는 15 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고민의 쓰라림을 피할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83-42 : 1988.10.29) p.2141

참사랑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 안테나에서 강한 전파가 송출되어서 자기 방향을 따라서 만나고, 만지고, 키스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부모의 안테나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끝내 소멸되지 않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계의 선한 영들이 다 참부모를 통해 새로운 자기의 밝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17-264 : 1991.6.2) p.2142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은 참부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부모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부모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은 참부모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참부모 앞에는 천사세계도 지배받게 되어 있고, 모든 만물세계도 지배받게 돼 있습니다. 세계가 그 사랑권 안에 있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참부모는 세계 사람이 천대하는 자리에서 생겨나야 하고, 세계가 반대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생겨나야 되고, 만물세계의 어떠한 무엇보다도 귀한 자리에서 생겨나야 됩니다. 천사세계의 천사가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반대하더라도 극복하고 나와야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상적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107-92 : 1980.04.06) p.2142

참사랑은 여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앞에 생명의 씨를 심으려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릇입니다. 완전히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이라는 것은 그 그릇에 들어가는 물건과 대등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259-244 : 1994.04.10) p.2142

인간에게 참사랑과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거짓 사랑이 뭐고 참사랑이 뭐냐? 거짓 사랑은 사탄과 관계맺은 것이고, 참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맺은 것입니다. 그래, 남자도 여자도 참사랑 원해요? 본래는 참사랑을 원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참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89-075 : 1989.03.19)

여자가 여왕이 되고 남자가 왕이 되는 데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여왕 또는 남자 왕이 생겨나게 되어 있지, 참사랑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최고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둘이 딱 하나되는 여기에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결혼은 최고의 남성세계 여성세계를 이루어 하나님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세계를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는 절반밖에 안 되니 완성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260-154 : 1994.05.02) p.2142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서 하나되는 것이냐? 결혼식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참사랑의 중심인 하나님을 중심하고 딱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 마음에 들어가고 해와 마음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 몸의 결혼식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외적인 자리가 몸이요, 내적인 자리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의 핏줄이 내 핏줄입니다. (217-196 : 1991.05.27) p.2143

부부는 다 다른 데서 와서 맺어지지요? 그렇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가 되어서 나를 낳아 부자의 인연을 남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횡적인 요소 중에서 하나는 딴 데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갈라져도, 부자의 관계는 못 갈라집니다. 종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천지간에 본연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인류역사를 이어줄 수 있는 혈통적 전수의 길은 수직의 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직의 자리가 왜 필요해요? 수직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오정(午正)이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지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상적인 사랑의 이상을 중심삼은 수직관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수직적인 직단거리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부자의 관계입니다. 직단거리가 수직 외에는 없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수직이 아닙니다. 직단거리니까 수직입니다. 그 수직을 중심삼고 어머니 아버지는 동서로 직단거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도 전후로 직단거리입니다. 이것이 90 각도입니다.

이것이 면으로 보면 24 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이상적 구상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수직과 수평이 90 각도를 이룬, 전후 좌우간 모두 90 각도를 이룬 구형의 중앙 복판에, 우주 복판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중심삼고 계시냐? 참사랑을 중심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물어 보면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8-298 : 1990.02.05) p.2143

참사랑은 통하면 절대적이 될 수 있고, 유일적이 될 수 있고, 영원불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사랑에 일치된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유일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불변적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언제나 상대할 수 있는 환경권 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04-286 : 1999.11.09) p.2143

우리 통일교인끼리는 자기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세계는 전후의 세계가 하나되고, 그 다음엔 부부가 하나되고, 좌우의 세계가 하나돼야 합니다. 상하 · 전후 · 좌우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상하 · 전후 · 좌우, 이게 뭐냐? 상하는 자식 된 도리, 전후는 형제 된 도리, 그 다음에 좌우는 부부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완성하게 되면 영계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놀음을 해야 합니다. 그 놀음은 참사랑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가정은 이와 같은 공식적 기준에 훈련된 완성한 아담 가정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확대시키게 되면 동서가 하나되고, 남자 여자가 하나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중심삼고, 주체 중심삼고 상대가 하나되어야 하고, 전후, 상하가 하나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세계가 틀림없이 원리적인 내용을 중심삼고 참사랑으로 말미암아 완결을 보는 것입니다. (223-321 : 1991.11.06) p.2144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사랑의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거짓 사랑의 종착지가 소위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그것을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바운더리(boundary; 경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타락한 사랑을 복귀해서 재출발하는 것이 천국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278-030 : 1996.04.28) p.2144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하나님 사랑의 절대대상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

새로운 만물을 지어놓은 그 에덴, 새로운 만물과 더불어 영원복락을 향유해야 할 주인공 아담과 해와, 그 아담과 해와를 세워놓고 새로운 심정적인 이념을 품고 바라보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어느 한 순간 귀하지 않은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거동하는 그 한 순간 순간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순간이요, 말할 수 없이 귀한 인연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아담과 해와는 날이 감에 따라 이지와 지능이 밝아져 하나님의 본성을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는 새로운 세계를 대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는 자격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님 자신의 움직임이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말이 되고, 또한 그들이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이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한 관계와 인연권내에 있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심중으로 그리던, 하나님의 전체를 대신한 존재였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위하여 지으신 만물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세워 놓고 어떠한 한날을 고대하고 그리워하셨던가? 여섯째날까지 만물 지으시기를 다 마치셨으나 아담과 해와를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데에는 필시 아담과 해와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어 놓은 상태의 아담과 해와도 아니요,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기간도 아니요, 아담과 해와를 통하여 찾아 이루고자 하시는 한날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날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며, 아담과 해와도 기뻐할 것이며, 만물도 기뻐할 것이기에 만물도 그날을 고대하고 인간도 그날을 고대하고 하나님도 그날을 고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8-267, 1960.2.7) p.2145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자라났고, 하나님의 지성지대(至聖至大)하신 사랑의 심정 밑에서 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라는 모습이 귀엽고 사는 환경이 자유스러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니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허락하여 주신 만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요, 심부름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심정의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창조의 이념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소망의 세계를 세우시고, 아담과 해와로 말미암아 천하만상이 자유자재로 주관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인 어떠한 조건이 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심혈이 그들에게 침투되어 있고, 당신의 뼈살이 잠재해 있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심정의 흐름이 아담과 해와를 향하고 있었던 연고로, 아담과 해와에게 온 천지만물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만물을 저버린 것도 아니요, 내려주신 축복을 저버린 것도 아니요, 저버려서는 안 될 하나의 원칙을 저버렸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심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반입니다. 심정의 기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바라볼 적마다 소망의 심정이 불타올랐고, 그들을 볼 적마다 그들이 자아완성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시며 행복의 감정이 불타올랐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만물을 그들 자신이 지은 것처럼 주관하고, 즐거워하며 쓰다듬어 줄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의 심정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가 저끄러 놓은 죄상 중에서도 용납 받지 못할 크나큰 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왜? 본래 인간을 영원의 기준인 원리적인 법도에 의하여 지으신 연고로 그 기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저버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그들을 저버리면 6일 간 지으신 전피조세계의 원칙을 저버리는 동시에 영원의 기준까지 저버리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고, 영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까지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다시 한번 구원하는 섭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9-49 : 1960.4.10) p.214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탄은 해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서는 아담까지 타락시켰습니다. 즉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탕감시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유린당해 왔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섭섭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해와를 만들었느냐? 성경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3:1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뚱이가 타락해서 구원역사를 거쳐야 할 사람들도 몸뚱이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구원역사를 거쳐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 된다 하더라도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과 비교하면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백 년이고 천 년이고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대관절 무엇이냐? 아담과 해와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한 기술자와 같은 실력이 없어서는 주관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관의 능력을 주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서 아담을 컨트롤해야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몸이 되도록 만든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실체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의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실체, 즉 몸이 있어야만 보고 듣고 하겠기에 하나님의 실체가 되도록 창조한 존재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는 누구냐?

해와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실체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실체를 쓴 하나님이라면 해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아내를 얻는다니 기가 막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이요, 해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아내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해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한몸을 이루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딸이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이자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통해서 아담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궤도에서 사랑의 인연을 세우지 못한 것이 억천만대의 한의 역사요, 오늘날 이 비참한 타락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22-279 : 1969.5.4) p.2146

하나님이 왕이라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제 1 대 왕자 왕녀입니다. 하나님의 상대로서, 천주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 1 왕자와 제 1 왕녀가 우리의 첫조상인 아담과 해와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왕족심정권(王族心情圈)에 일치하는 생애를 마치고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역사 이래 어떤 종교가도, 어떤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말은 없습니다. 심정권, 장자권에 있어서 아담과 해와는 제 1 대의 장자와 장녀였습니다. 제 1 대의 참부모요, 지상왕국의 제 1 대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그 왕을 중심삼은 왕족이 지상에 남아 있다면, 지금 이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삼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텐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권을 중심삼고 수백, 수천의 민족들이 분열되고, 싸움의 와중에서 왕족권을 제압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결론입니다. (228-169 : 1992.03.27) p.2147

무형의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남성격 성품을 실체로 전개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보이게 실체로 전개해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담이고, 여성격 성품을,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실체로 전개해 놓은 것이 해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성적인 모든 것을 투입하여 실체화시킨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143-80 : 1986.03.16) p.2147

해와 때문에 본래 이상적인 아담과 해와 둘 다 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후아담으로 온 예수 앞에 타락한 해와, 즉 마리아가 예수의 아내가 될 해와를 복귀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귀하는 데는 마리아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께서 아담을 중심삼고 해와를 지을 때도 천사장이 협조했기 때문에, 복귀역사 완성을 위해서 후아담을 본따 해와를 지을 때도 천사장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해와가 복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리하여 예수와 복귀된 해와가 하나되는 놀음을 해야 합니다. 천사와 천사장의 입장인 종들이 아담의 입장인 예수를 중심삼고 해와의 입장인 딸을 창조했다면 그 딸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딸이 아니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딸과 예수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주관성 전도 문제는 해와가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여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장도 복귀해 줘야 하고, 아담도 복귀해 줘야 하고, 해와도 타락 전의 해와로 복귀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 전부를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주관성을 전도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장과 아담과 해와 이 셋을 복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까지 전부 찾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천 년 동안 소원해 나오신 뜻과 인류가 앞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원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목적점이 되어 왔고 하나님의 목적점이 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사랑을 맺고 사랑을 완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완전한 것으로의 출발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성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38-070 : 1971.01.01) p.2148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해와가 이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가정임과 동시에 인류시조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터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이라든가 낙망이라든가 혹은 탄식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지 아니하고, 기쁨과 행복만을 느끼며 영원을 소망삼고 하나님의 직접주관권내에서 하나님의 주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 전체가 저끄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복귀해야 하는데 그것을 결코 그냥 그대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창조원칙에 따라서 복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복귀역사를 보면 재창조역사를 통해서 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는 천사장이 있고, 해와가 있고,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위(四位)의 형태를 갖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재창조원칙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귀역사는 남자가 담당해 나왔던 것입니다. (46-196 : 1971.08.15) p.2148

유대 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홀로 국가와 세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는 가족을 떠나야 했고,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구원을 위해 타락하지 않은 형제가 희생해야 했듯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청을 드리고 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과 타락한 아담과 해와 사이에 중보자로 섰던 것입니다. 예수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공식적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아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52-066 : 1971.12.22) p.2148

만일 아담과 해와가 성숙하여 완성하였더라면 그들은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담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종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해와는 아버지와 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해와가 소망했던 자리는 하나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해와도 하나가 되어 아담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횡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해와 셋이 있습니다. 이 셋은 완전히 하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들이 만나겠습니까? 저 위에서, 아니면 이 아래에서? 아닙니다. 그들은 횡적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해와가 횡적으로 하나가 되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일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떼어놓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사랑의 자리에 대한 욕망이 생겨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해와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유일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해와가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중심삼은 아담과 해와 사이의 수수관계가 소원(疎遠)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뿐만 아니라 횡적으로도 창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해와를 중심한 창조이상,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해와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 그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내가 너보다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완전한 하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해와의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52-261 : 1971.01.02) p.2149

아담과 해와가 성숙해 가지고 성혼식을 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접적인 사랑권내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인간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됐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몸이자, 인류의 부모이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상대가 없이 기뻐한다면 미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상대적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한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한몸이 되어 있으면, 그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태어난 아들딸은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이자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혈족으로서 이 땅 위에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었을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맺어진 그 인연은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지상천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054-064 : 1972.03.11) p.2149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해와를 사랑하되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것이요, 해와도 아담을 사랑하되 하나님 대신 사랑한다는 관념이 여기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을 표시하는 것이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내적으로 좋아하고, 아담과 해와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내적으로 슬픔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요, 아담의 것이요, 해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5-248 : 1977.12.04) p.2150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좌익 우익이 없습니다. 통일입니다. 두익사상(頭翼思想)과 하나님주의가 필요 없이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에서부터 두익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다시 돌아갈 무엇이 없습니다. 모두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로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왕손이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몸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종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수직적인 아버지, 종적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두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본연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락했을망정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종적인 부모로서 횡적인 부모를 종적인 사랑의 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상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했으니 돌아가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7-274 : 1992.02.14) p.2150

아담과 해와가 누구를 중심삼고 결혼생활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했겠어요? 아담과 해와가 아들딸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얘, 아담과 해와야! 너희들, 같이 살아서 아들딸을 낳아라!' 해서 낳은 것이 가인 아벨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낳은 것이 가인 아벨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해서 낳은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사탄을 중심삼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34-299 : 1992.08.27) p.215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한반도가 아담 국가라면 일본은 해와 국가입니다. 한국이 왜 아담 국가냐?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남자의 생식기와 똑같습니다. 로마가 딱 그렇습니다. 지중해는 여자의 음부와 마찬가지이고 이태리는 남자의 생식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언제나 문화가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의 문화가 귀착해 가지고는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반 위에 선 것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인 모든 것을 보더라도 로마와 지중해는 남녀가 합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종합적인 문화시대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자리이니 만큼, 그 주변 나라는 같이 타락한 세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아담과 해와, 세 천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중심삼고 세 천사장은 중국과 소련과 미국입니다. 미국은 하늘편적인 천사장이고, 사탄편적인 천사장이 중국과 소련입니다. 대만과 인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딱 그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가정을 잃어버린 그때에 아담과 해와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 천사장이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것을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로마 교황청이 하지 못한 것을 수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한 뜻을 가졌지만 실패했습니다. (235-80 : 1992.08.29) p.2151

일본은 사탄편 나라입니다. 아마데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일본에서 섬기는 여성신)의 나라를 하늘나라의 해와로 몽땅 돌려야 됩니다. 차자권을 일본사람 외에 제 2 세들 앞에 빼앗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담과 해와 국가니 만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이 한일 합병할 때는 총칼을 가지고 하나 만들려고 했지만 문총재는 자유스런 환경에서 사랑으로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다섯인데, 아담이 눈이 멍청해 가지고 여자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들딸을 전부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가져야 해와를 찾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몽땅 결혼시켰기 때문에 해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일본 자체가 국가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대표한 해와 국가가 출생해서 아담 국가와 하나되는 날에는 천사장 국가인 미국까지 가담해 세 나라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265-178 : 1994.11.20) p.2151

성약시대(成約時代)라 할 때 성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서 아담과 해와의 가정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의 본연적인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타락의 혈족,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50 억 인류와 역사시대에 영계에 간 수많은 선조들까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시대에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약시대에 미치지 못하는 충성이요 정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아담을 따서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것은 아담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야 하고, 땅은 해와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 두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어머니를 중심삼고 아벨은 오른편이요, 가인은 왼편입니다. 삼각형의 선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방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가인 아벨을 뿌렸으니,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어머니와 아들딸이 심었으니 이것을 세계적으로 탕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4-233 : 1993.02.14) p.2152

참사랑의 초석을 누가 놓았느냐? 인간이 놓았느냐, 하나님이 놓았느냐 하는 문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나기 전에 광물을 짓고 식물을 짓고 곤충을 짓고 전부 다 지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맨 나중에 인간을 지었고, 맨 나중에 지은 것이 해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누구와 연결되느냐? 여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초석을 놓은 목적은 땅 위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중심삼고 어디에 가 합하느냐? 남자, 여자가 합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오목, 볼록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마음적 존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에 성상이 들어가고, 해와의 마음에 형상이 들어가 그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몸 마음이 하나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되는 것이 영육 일체와 같은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영육 일체의 남자, 영육 일체의 여자가 하나님과 하나돼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한 날, 한 시에 한 쌍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인 동시에 하나님의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분합(正分合)입니다. 정(正)에서 갈라진 것이 합(合)하는 데는 혼자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합하는 것입니다. (269-125 : 1995.04.09) p.2152

종횡을 중심삼고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면적이 생기는데, 이 면적 가운데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안팎으로 동일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의 자리에서 첫사랑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적이고 내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이 육적인, 일생적인 존재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핏줄과 몸의 핏줄을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는 하나님과 아담 완성의 모든 기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생하느니 만큼 우리 인간도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생 논리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체의 형상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완성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 절대 주체 앞에 절대 대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적인 존재가 아담과 해와입니다.

여기는 내적인 형상으로 있던 것이 실체로 갈라졌다가 다시 완전한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사랑으로 일체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마음적 실체인 하나님이 여기에 내적으로 들어오고, 몸적인 실체 아담과 해와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도 아담의 형상을, 아담도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을 닮아 가지고 지상에 정착하는 것이 가정의 기반입니다. 이것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우주의 근본입니다. (294-244 : 1998.08.05) p.2153

Top

4) 참사랑의 첫무대는 참가정

하나님은 참사랑으로 아담과 해와를 지었습니다. 그 아담과 해와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본래의 성상과 형상이 전개된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상과 형상이 실체로 나타난 것이 창조된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 올라가야 합니다. 커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되었더라면, 그들의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때문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대로 인간이 완성되었다면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38-029 : 1992.11.19) p.2153

참사랑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기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지요? 누구든지 자기 아들딸이 자기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가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상대는 횡적으로나 종적으로나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는 본연적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203-103 : 1990.06.17) p.2153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이 하나되고,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이 하나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원히 정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분합작용(正分合作用)이 3단계를 거쳐 마음적 기준과 몸적 기준이 일체 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체, 종횡으로 이상세계의 일체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신일체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일체됨으로 말미암아 실체의 하나님으로서 지상에 정착해서 번식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락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싸움이 대번에 없어집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돼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여 남자와 여자의 상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충이 없이 자동적으로 서로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가정에서 마음적인 존재가 되고, 부부는 몸적인 존재로서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294-313 : 1998.08.09) p.2153

참부부라고 하는 것은 참생명체를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가 참사랑에 의해서 결속된 부부입니다. 그런 부부가 참부부입니다. 사회는 그와 같은 인연을 가지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제권의 심정을 횡적으로 확대한 상대권이 참사회 · 참국가 · 참세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우주의 대표가 되고 싶어합니다. 참사랑을 배후로 하는 인연을 중심삼고 보면 모두가 평등하니까, 그것을 어기는 자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은 참사랑에 따라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사랑과 혈통 이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190-214 : 1989.06.19) p.2154

참사랑의 제 1 고향은 참가정입니다. 참가정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참아버지 · 참어머니 · 참남편 · 참아내 · 참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사랑의 가정 기반입니다. (215-243 : 1991.02.20) p.2154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한히 투입하고 희생하면 참사랑이 배후에 있는 한 자식은 그 참사랑에 무한히 감사하게 되고 부모는 큰 기쁨으로 그 희생의 자리를 메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적인 참사랑의 힘은 주고받는 작용을 발전시켜 참가정에서, 그리고 참세계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영생의 이상세계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사랑이 결여된 가정과 나라와 세계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온갖 불신과 반목과 불륜의 납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순수한 참사랑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자리는 참된 가정입니다. 참부모의 사랑, 참부부의 사랑, 참자녀의 사랑, 그리고 참형제의 사랑이 함께 완숙되고 실천되는 참사랑의 첫무대는 참가정입니다. 참부모의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을 배우면서 참형제의 참사랑을 통해 참나라와 참세계 인류에 대한 보편적 참사랑을 훈련시키는 평화세계의 기본 핵의 자리가 참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에 이어지는 참사랑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일관된 참사랑의 가치관으로 연결되어 나아가게 되는 역사적 연결고리의 기본단위도 참가정입니다. (288-199 : 1997.11.28) p.2154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또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 죽는다고 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 죽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누나는 동생을 위해, 동생은 누나를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 사랑을 중심삼고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가정이 참된 가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62-140 : 1987.04.05) p.2154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참사랑인데, 참사랑이 제일 좋아하는 상대적 기준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해와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입장에 세워진 것입니다. (263-177 : 1994.08.23) p.2155

레버런 문이 가르쳐 주는 참사랑의 길, 참사랑의 남자와 여자가 가고, 참가정이 가고, 참나라가 가고, 참세계가 가는 길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교본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대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135-158 : 1985.11.12) p.2155

축복받은 부처끼리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끼리 싸움을 했으면 자기 아들딸을 불러 놓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아들딸을 불러 놓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가인 아벨이 갈 전통을 어겼으니 가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벨한테, 자기 아들딸과 믿음의 아들딸이 아벨 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될 수 있는 일을 못 하고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운명입니다. 아들딸이 잘못했으면 부모한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아들딸과 부인한테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입니다. (135-038 : 1985.08.20) p.2155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을 찾아가는데, 어디서 그것을 정착시키느냐 하면 교회도 아니고 세계도 아닙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참사랑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는 종교 관념이 없습니다. 천지정교(天地正敎)도 필요 없게 됩니다. (259-062 : 1994.03.27) p.2155

Top

제 2 장
천국과 참가정

1)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사위기대와 참가정

본래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고, 모든 것이 인간을 통해 완성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신과 인간의 위신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완성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완성도 자동적으로 완결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은 만우주의 중심의 권위를 갖추고 인간은 그의 아들딸로서 한몸이 되어 하나님의 이상적 사랑의 세계가 이 지상에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서 인간의 권위를 백 퍼센트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본받아 인간도 역시 하나님을 대해서 높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92-145 : 1977.04.01) p.2156

하나님은 인간조상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만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가정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이 기준을 '사위기대완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위기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위기대가 뭐냐?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을 받아 가지고, 그분의 아들딸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80-268 : 1975.11.02) p.2156

하나님의 뜻은 창조이상을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무엇이냐? 물론 만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기도 하겠지만,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창조이상을 이루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 완성, 뜻의 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사위기대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이상도 완성되고 뜻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사위기대적 사랑기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2-174 : 1978.12.24) p.2156

사위기대는 사랑을 중심삼고 동서남북이 갖추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아담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해와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가 통일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킨 그 자리에는 아담과 해와의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아들딸의 사랑이 개재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대상 이상이라는 말도 아담을 중심삼고 보면 하늘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삼 사 십이(3×4=12), 12 수의 대상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랑을 중심삼은 사람들의 세 위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창조이상을 완성하려는 그런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의 완성, 창조이상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사위기대를 완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게 마련입니다. 하늘과 땅이 비로소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위의 축과 같고 땅은 아래의 축과 같아서 이걸 중심삼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중앙의 축을 향해 하나될 수 있는 평면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중앙에 올라가서 하나의 원형(圓形)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적 이상인 구형(球形)을 이루는 것입니다. (170-62 : 1987.11.08) p.2157

모든 것은 중앙선을 통해야 됩니다. 사람의 코는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왔을까요? 중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면 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입은 만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서른 두 개입니다. 사 팔 삼십이(4×8=32), 이빨은 서른 두 개, 이것은 전체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4 수는 동서남북이요, 8 수는 전체 수를 대신한 것입니다. 승수니까 사 팔은 삼십이,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건 만물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도 하나는 외적인 것을 잡아 들여오고, 하나는 내적인 것을 불어 버립니다. 다 사위기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는 이치입니다. (174-220 : 1988.03.01) p.2157

종횡으로 갖추어진 사랑권이 사위기대 사랑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부모가 부모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비로소 횡적인 면에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대신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짓고 느꼈던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인간 앞에 횡적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64-033 : 1972.10.22) p.2157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위기대는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위기대입니다. 그 다음엔 자녀인데 이 자녀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상대되어 있는 자녀를 낳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는 아무 곳에도 못 씁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커 나가야 합니다. 커 나가는 데 있어서 남자는 바른쪽, 여자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233-75 : 1992.07.30) p.2157

새로운 시대의 사위기대는 아담과 해와의 아들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결혼해 가지고 번성하면 결국은 사위기대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본래의 심정과 하나님이 바라시던 이상가정을 중심삼고 상대권이 새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위기대가 3 단계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해와, 아들딸입니다. 이 경우가 종적입니다. 이것이 횡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횡적으로 착륙함으로 말미암아 종적인 요소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수히 평행으로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아담이 이상했던 사위기대가 전세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정의 내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않고는 횡적인 연결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갈라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결혼해서 산다면 벌써 하나님이 오른 편에 와 있고, 자기의 아들딸은 왼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 셋이 하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0-14 : 1992.12.11) p.2158

횡적으로 보면 아담은 장남입니다. 차남이 예수님이고 완성된 아담은 3 남입니다. 종적 원리로 보면 3 남이 3 대째지요? 그래서 할아버지 입장이 제 1 대, 아버지 입장이 제 2 대, 제 3 대가 아들, 손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가던 것이 뒤로 돌아서면 손자가 할아버지 입장이 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아버지?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 의하여 절대복종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위기대, 삼대권을 완성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감복귀입니다. (258-208 : 1994.03.17) p.215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의 주체사상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상입니다. 이 주체사상 가운데서 질서적 단계를 말하면, 삼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에게 인연되어 사위기대이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랑적 이상권이 오늘날 우리 주체사상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확대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약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는 이상과 연결시키려니, 만인류를 품고 살아가려니 확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우리 인간의 번식입니다. 아담과 해와 둘을 횡적으로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사상 내용을 추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는 절대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부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 부부입니다. 자기들 부부가 참부모 대신이 되어, 참부모 대신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위기대입니다. (164-93 : 1987.04.26) p.2159

사위기대는 부모를 중심삼은 참다운 사랑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완전한 사랑의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시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인 동시에 절대적입니다. 그 사랑의 기점이라는 것은 유일이며 불변이며 절대적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적 기반 위에, 참가정의 기반 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의 신의라는 것은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적입니다. 거기에선 하나가 침범받는다는 것은 전체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위기대 자체는 사랑이 침범받을 수 있는 문제여서 자기의 생명을 능가하더라도 이것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랑의 기반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핵이 되어 확대된 것이 세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의 아담가정에서 그 아들 가정이 생겨나서, 부모의 가정과 아들 가정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위기대가 벌어졌으면 이 사위기대는 장차 영계의 사위기대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106-57 : 1979.12.09) p.2159

하나님 창조이상의 최후는 우리 원리로 말하면 책임분담을 완성해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사위기대 가정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사위기대가 필요하냐 하면 부자관계의 가정이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된 그 종적 전통을 이어받은 아담과 해와가 횡적 전통을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기점으로 해서 12 지파가 생겨났고, 그 12 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360 일과 같은 날이 확장되었듯이 모든 민족 확장을 위한 섭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창조이상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뜻길은 창조이상의 완성입니다. 창조이상의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중심삼고, 어머니를 중심삼고, 아들을 중심삼고, 딸을 중심삼은 것이 아닙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참가정을 중심삼은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는 이것이 책임분담 완성입니다. 책임분담 완성이란 것은 모든 사랑 이상을 기준으로 남자 여자가 완전히 하나되어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 모든 기준에 일치되면, 지상에서 종적인 기준으로 이어받은 모든 아담과 해와의 전통을 육신을 통해 횡적으로 비로소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딸은 하나 둘만 낳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해와 시대에 오면 동서남북으로 아들딸을 많이 낳게 되어 있습니다. (228-249 : 1992.07.05) p.2159

하나의 남자는 반드시 하나의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통일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자들은 가정을 버리고 갔지만, 버렸던 가정을 높은 차원에서 다시 찾아 새로운 터전 위에 승리의 가정으로 세우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그 가정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위기대를 형성하고서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위기대를 어디서 이루어야 되느냐? 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때 이루어야 되느냐? 자기가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국가를 맞이할 수 있는 국민이 되지 못하는 것이요,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인류가 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천국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천민(天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045-062 : 1971.06.13) p.216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은 아내를 가졌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녀자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주체되는 사람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기대 복귀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46-095 : 1971.07.25) p.2160

여러분의 아들딸은 하나님께서 수천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선지선열들을 희생시켜서 찾아진 하나의 가정을 통하여 소원의 등불과 같이 태어나게 한 귀한 아들딸입니다. 사위기대의 완성이라는 거룩한 목표의 귀일점을 각 가정의 아들딸이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아들딸에 대해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아들딸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 것입니다. (33-177 : 1970.08.11) p.2160

지금 여러분은 타락권 내에 있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에서 축복받은 가정은 올라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 사위기대가 하나 안 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을 때, 그의 부인이 잘 협조한 줄 알고 있지요? 아들딸이 얼마나 비판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루도 아니고 120 년 동안 도시락을 싸 가지고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데, 노아의 여편네가 잘 협조를 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여편네가 협조를 안 하니 아들딸이야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137-111 : 1985.12.24) p.2160

입체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상하위치, 전후위치 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굴려도 섰을 때는 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축구공을 세워 놓았을 때는 중심이 수직입니다.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기대 입체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95-201 : 1998.08.28) p.2160

부모 앞에 효자만 돼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 원리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오늘날 개인적 사위기대, 가정적 사위기대, 국가적 사위기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적 사위기대 형태를 확대한 것이 국가요, 국가적 사위기대 형태를 확대한 것이 세계요, 세계적 사위기대 형태를 확대한 것이 천주인데 그 근본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한 마리도 따라오지 않게끔 정비할 수 있는 가정 사위기대 교육이 자르던 교육입니다.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적을 잃어버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낳는 그 이상 비참한 일들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97-187 : 1998.11.20) p.2161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영원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효자가 되면 될수록 그 부모의 사랑을 몽땅 받는 것입니다. 충신이 되면 될수록 성군(聖君)의 사랑을 몽땅 받는 것입니다. 참남편이 되면 될수록 아내의 사랑을 몽땅 받는 것입니다. (83-207 : 1976.02.08) p.2161

훌륭하고 선한 남편, 선한 아내가 누구냐? 하나님 대신, 부모님 대신 절대시하는 아내로서 그런 남편을 가진 자, 남편으로서 그런 아내를 가진 자가 참된 부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부모를 절대시하고 부부를 절대시한 그 밑에 태어난 자식들을 절대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사위기대이상입니다. (147-231 : 1986.09.28) p.2161

Top

2) 참가정은 천국 백성의 생산공장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자는 우주를 주고도, 하나님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근원의 왕궁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한 데 박아 놓았어요? 궁둥이 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보호하기 좋게 돼 있어요? 모든 정력이, 전부가 거기에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재창조해 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곳이 얼마나 신비의 왕궁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생산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수직에는 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직의 자리는 한 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점, 수직의 자리에서 사랑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영계에서는 번식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적인 360 도가 필요합니다. 횡적 세계에는 동서남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지라는 것입니다. 저 나라의 백성으로 오는 사람은 곧 하늘나라의 아들딸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중심삼은 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이 저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세포와 같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근본에서 왔으니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남자들이 영계에 가면 한몸이 돼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이라 했지요? 이성성상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말미암아 본연의 하나님을 닮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혼자서는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꽃피는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서 오색가지 꽃이 만발하고 사랑의 향기가 넘쳐흐르는 그 동산 가운데서 낮잠도 자고 싶고 거동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206-137 : 1990.10.03) p.2162

생식기는 참사랑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생명을 중심삼은 왕궁이요, 참혈통을 중심삼은 왕궁입니다. 제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천지가 없어지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기원입니다. (216-218 : 1991.04.01) p.2162

하나님이 왜 아이는 하나만 낳지 많이 낳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만 낳게 되면 아담과 해와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두 사람만 살아야 됩니다. 한 가정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없어집니다. 천국을 이루려면 횡적으로 넓혀 가지고 수많은 가정들을 생산해야 하늘나라 백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번식이 없습니다. 지상의 부부는 하늘나라 백성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입니다.

다 채우려면 한번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세대를 이어서 낳아야 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늘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필요 없고, 공장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휙 날아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곳입니다. 한 발짝 움직일 때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246-69 : 1993.03.23) p.2162

선생님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일 뿐입니다. 결혼 첫날밤에 부부끼리 한창 사랑할 때 하나님이 벌써 들어와서 아담과 해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영계에서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영계의 백성을 창조하는 곳이 지상의 가정입니다. 하늘 백성을 많이 낳아 길러놓고 가는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으면 지금부터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249-323 : 1993.10.11) p.2162

지상은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입니다. 영계에서는 번식이 없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아들딸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접붙이는 역사를 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돌이켜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나라에 갈 때 시집가는 아가씨가 혼수를 해 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만큼 찾아 데리고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은 손자를 못 보았습니다.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손자를 보고자 했지만 못 본 것이 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들딸을 낳아서 길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품고 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광대무변한 하늘나라에 수천억 명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걸 아니까 일생 동안 감옥에 가면서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때를 아침으로 알고 아침을 저녁때로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국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212-309 : 1991.01.08) p.2163

인간은 전부가 사랑을 중심삼고 결혼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룬 그 기준 위에서 완전한 아들딸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권과 하나님의 형제권과 하나님 가정의 이상적인 부부권을 낳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영계에서는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영계는 중심입니다. 중심은 면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대한 천국에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평면적, 입체적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생산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국민을 만드는 분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아들딸을 많이 낳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 저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상대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상대권이 없습니다. 훌륭히 하나된 그러한 상대권을 많이, 12 개월의 12 수 이상 가져야 합니다. (255-265 : 1994.03.11) p.2163

하나님을 자랑하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자 여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번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번식해야 됩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어려 영적 오관과 육적 오관이 일체가 되어서 영원히 참사랑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남자 여자로서 영원히 만날 수 있는 남성은 영원한 인류를 대표한 왕권을 가진 왕이요, 여자는 왕권을 대한 왕후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음 가운데서 만세의 어머니요, 만세의 아버지입니다. 참사랑의 이름에는 그런 배후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돼 가지고 결혼을 통해 그 사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둘만이 아니라 종적인 하나님을 점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서로 갈라져서 어디에 와서 폭발되는지 알아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에서 폭발되어 가지고 부딪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다 보니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고 나는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내려와 보니 하나님이 사랑의 중심 핵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평으로 만들려니 아들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을 만들어 가지고도 아들딸을 못 낳은 남자 여자는 천상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아들딸을 낳아 사랑해 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이성성상, 이상적 주체되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는 아들딸을 낳아야 합니다. 아들딸을 못 낳은 사람이 양자를 들이려면 자기 아들딸을 낳은 이상 그 아들딸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아기들은 천운을 타고 옵니다. 먹을 것 다 타고납니다. 그 가운데서는 판사도 나올 것이고, 검사도 나올 것이고,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올 것입니다. 오색가지 찬란한 빛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어머니다운 데 부끄러움이 없고 아버지다운 데 부끄러움이 없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많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210-375 : 1990.12.27) p.2164

오늘날 부부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많이 낳아 가지고 들어오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저 나라에 가면 높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중심삼고 보면 사계절이 3 개월씩 열두 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삼고, 세 제자는 동서남북 대표형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이것이 사방을 갖춘 것입니다. (233-247 : 1992.08.01) p.21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상의 가정은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한 횡적인 세계입니다. 종적인 세계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횡적인 세계에서 아들딸이 많아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황족들이 번식하면 장손만 남겨 놓고 전부 백성이 됩니다. 친척이 된다는 것입니다. 친척에도 장손이 있지요? 종족들도 종족들을 합한 장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담과 해와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영원한 전통적인 왕과 왕후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세계에서는 이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구형은 무엇이냐? 천국의 백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반은 하늘의 가정기반이 아니고 지상의 가정기반입니다. 아들딸을 낳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234-165 : 1992.08.10) p.2164

Top

3) 천국 백성의 교육은 참가정에서

지상에 있는 가정은 하늘나라로 데려갈 백성을 재창조하는 공장입니다. 우리는 그 공장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영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만 딱 잡아 놓으면 아들딸을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타락해서 근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254-246 : 1994.02.13) p.2165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의 참가정입니다. 그 참가정에 세워질 수 있는 참부모, 참부모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참부부, 참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참자녀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하시는 하늘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나타나면, 그때에는 예수도 형제와 같이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8-114 : 1959.11.22) p.2165

참가정은 참남자와 참여자가 하나되어 부부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포함한 다음에 참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완전히 하나된 남자 여자가 영원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거기에서 갈라지지 않은 아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갈라진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갈라진 아이가 나옵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된 부부로부터 몸 마음이 하나된 아이가 출발한다는 것이 자동적인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참사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참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270-324 : 1995.07.23) p.2165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을 중심삼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 지상천국이요, 천상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세계에도 그런 가정, 그런 일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형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부로서,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 2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나님 대신 자기의 아들딸을 사랑하고 가는 것이 인생행로입니다. 시작도 사랑이요, 과정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교과서에 일치될 수 있는 완성품으로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26-307 : 1992.02.09) p.2165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와 당신은 같이 태어나서 자라난 오누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갈라지려야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면서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때 갈라져 나오며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복귀시대에는 반대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아들딸이 되지 못했던 것을 내 일생을 통해서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238-254 : 1992.11.22) p.216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라를 세우려면 왕이 있어야 하고 여왕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중심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혼자 들어가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5-094 : 1994.11.20) p.2166

사랑의 소유를 중심삼고는 상대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상대의 가정이 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녀의 완성, 형제의 완성, 부부의 완성, 부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본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날 참부모를 통해 재현해 가지고 알게 되고, 그것을 재차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한의 고개를 넘어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 합격자, 합격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226-173 : 1992.02.04) p.2166

기독교에서의 성신은 여자 신인데 영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두 세계를 낳아서 길러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 축복받은 여자들은 두 세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도 만들어야 하고, 사탄세계의 백성을 전부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느 한 국가의 시민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16-277 : 1991.04.07) p.2166

부모님이 언제나 나를 위한 부모님인 것을 알고, 이제라도 그 부모님의 뜻을 내가 고스란히 상속받아 가지고 앞으로 탄생하는 후손을 고이고이 길러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는 안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 바라는 것이 선생님의 소원입니다.

그 귀한 아들딸을 또 여러분 같은 아들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겠나 말입니다. 부디 나는 이랬지만 앞으로의 내 후손들은 그런 아들딸로 안 만들겠다고 정성들이고 그 아들딸을 참다운 아들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딸을 보호하면서 품고 길러 타락한 후손으로서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길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끔 내가 준비하고 모든 내용을 갖추어 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 천국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158-272 : 1967.12.29) p.2167

여러분은 자기 아들딸을 교육할 때 어머니 아버지만 사랑하는 아들딸이 되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충신이다, 애국자다, 어머니로서의 애국자가 아니라 애국자로서의 어머니, 충신으로서의 아버지다'라고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26-295 : 1969.11.10) p.2167

어머니 아버지가 잘나면 그 집 아들딸도 잘나고, 아들딸이 잘나면 그 집안에 자라는 개새끼 닭새끼도 잘나는 것입니다. 개가 짖지 못하고 닭이 울지 못한다면 그거 잘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화목한데 '그 집 개는 잘 짖어, 닭도 잘 울어!' 그래야 잘난 것입니다. 그 집 사람은 안 그런데 닭새끼는 너무도 울고 개새끼는 물기도 잘한다, 그런 집안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202-229 : 1990.05.24) p.2167

아들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 대신, 참어머니 참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한테 경배하기 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앞에 먼저 경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자기 부모입니다. 그래서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은 한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241-179 : 1992.12.24)

하나님 사랑의 주권은 절대 · 유일 · 영원 · 불변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도 그렇고, 그 나라의 백성도 그렇고, 그 나라의 만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절대 · 유일 · 불변 · 영원한 국민성으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재등록해야 합니다. 만물도 그렇게 재정비 할 때이기 때문에 전체를 반대로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돌던 것이 반대로 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주권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만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주권을 대신한 부모가 있고, 백성을 대신한 아들딸이 있고, 만물을 대신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하늘나라의 기반입니다. 그것을 전부 하나님을 위해 바쳐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큰 나라 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04-258 : 1999.11.08) p.2167

Top

4) 천국의 기반은 참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유일?불변?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분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요 불변한 분이니까 그 분의 뜻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완성될 참가정을 바라는 하나님은 인간과 일체될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시조에게 주실 계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사랑의 가정, 사랑의 전체, 제일 귀한 것을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의 조건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장과정을 거쳐 자라 올라가는 미완성 단계가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귀한 참사랑과 가정을 상속해 주시려는 조건이 계명이었습니다. 참사랑과 참가정을 상속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입니다. (283-171 : 1997.04.12) p.2168

하나님의 뜻은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타락되지 않았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과 마음이 하나되고, 여자의 몸과 마음이 하나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가정을 이뤘으면, 거기에서는 통일의 세계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하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계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확대한 것입니다. (133-259 : 1984.07.20) p.2168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 은밀히 계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사랑은 커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사랑의 가정은 지상천국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1-325 : 1987.03.08) p.2168

천국은 참가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모가 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부부의 생활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가정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완성한 아담 가정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혼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천사장 세계입니다. 그래서 참가정의 소유는 천국입니다. 참가정이 소유할 물건이요, 주인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참가정과 참주인이 참소유권을 갖는 것이 천국입니다. 가정적 주인이 소유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297-165 : 1998.11.19) p.2168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가정에 있어서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올가미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는데 그 식구가 전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 개인에 대해서, 다섯 식구면 다섯 식구에 대해서 사탄이 끌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는데 사탄의 줄을 끊어 버리고 하늘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15-049 : 1981.10.28) p.2168

부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 마음이 하나되면 그 부인은 천하의 여자 왕 중의 왕이요, 미인 중의 미인이요, 하나밖에 없는 절대•유일?불변한 영원한 내 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몸뚱이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체와 대상이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부인이 내 사랑의 소유가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될 때는 상대를 중심삼고 그 사랑도 내 것이기 때문에 주인도 내 것이 되고, 그 주인의 소유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우주가 전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사랑했다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귀족이 되고 혈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축복가정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면 별처럼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297-167 : 1998.11.19) p.2169

영광된 참가정은 지상에서도 행복하고 영계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참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나라의 중심 존재이신 하나님과 직접 같이 살 수 있는 가정이 영광된 참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좋고 또 좋고, 영원히 좋을 수 있는 참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안 좋으면 협조해 가지고 사랑의 이상적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의 이상적인 주체 대상으로서,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맞아 주었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고 위하고 존경할 수 있는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4-312 : 1998.08.09) p.2169

참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뭐냐? 하나님의 실체대상인 하나님의 몸입니다. 참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와는 부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요, 어머니와 딸인데, 한몸입니다. 종횡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97-167 : 1998.11.19) p.2169

젊은 처녀 총각들의 소원은 이상가정 완성, 즉 참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가정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298-248 : 1999.01.16) p.2169

참가정은 하나님의 눈에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춤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닐리리 동동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품고 공중에서 날면서 춤추고 싶은 것입니다. 참가정은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301-169 : 1999.04.25) p.2169

참가정은 하나님이 지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상이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완성한 아담 가정이 참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된 가정으로써 부활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사탄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인류 역사의 전쟁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도 없고, 오늘날처럼 이 세계가 여러 나라로 갈라져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뭐 전부 다른 이런 세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부모는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둘째 하나님의 생명, 셋째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을 위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탄을 중심삼은 사랑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지금까지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이 모든 전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딸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가인 아벨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30-067 : 1992.04.19) p.2170

남자도 참사랑이 아니면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되고 여자도 참사랑이 아니면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가지고야 참사랑의 커플이 될 수 있습니다. 참사랑의 커플이 돼야 이것이 참사랑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직 참사랑뿐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자기의 파트너를 만든 것입니다. 참사랑의 파트너로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걸 따 가지고 온 우주가 페어 시스템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남자의 사랑도 영원하고 여자의 사랑도 영원하고 자녀의 사랑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201-192 : 1990.04.01) p.2170

하나님을 중심삼고 살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가정이 출발되는데, 우리 가정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가정의 출발과 더불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248-012 : 1993.05.30) p.2170

하나님의 해원을 이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형제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장남의 자격, 남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안식의 장소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거지들까지도 자신의 자식으로 맞이해서 살고 싶은 안식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통일교회 축복가정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축복가정의 숙명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95-245 : 1998.08.28) p.2170

참부모의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을 배우면서 참형제의 참사랑을 통해 참나라와 참세계 인류에 대한 보편적 참사랑을 훈련시키는 평화세계의 기본 핵의 자리가 참가정입니다. (288-199 : 1997.11.28) p.2171

영계에 가면, 이상적 부부, 이상적인 참가정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하나님의 성상, 마음자리가 돼야 하고 여자는 형상이 되어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단계 더 크게 돼 가지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마음적인 면이 성상이 되고, 몸적인 면이 형상이 되어 비로소 여기서 열매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마음과 몸의 일체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의 아들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뼈가 생기고, 아담과 해와와 같은 몸뚱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해와와 같은 형상을 쓰고 보이는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지상천국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참부모가 그런 전체를 이루어 놓고 저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참부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체를 입고 모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완성하게 되면, 즉 천상세계가 완성되고 지상천국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형상을 쓰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을 중심삼고 가능합니다. 아담 가정에서 육체적으로 사랑이 하나돼 있으면, 하나님도 성상과 형상을 겸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일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계는 참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치리하는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참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씨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씨가 연결되어 지상과 천상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타락한 결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혈통은 없애 버리고 본연의 하나님의 혈통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방법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뭐냐 하면 가정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294-316 : 1998.08.09) p.2170

영계에 있는 사람들도 참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참가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리로 연결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상천국에 살던 부부들도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종교도 없고, 문화도 하나밖에 없고, 가정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센터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도 해방이고 불교도 해방이고 전부 다 해방입니다. 예수님도 가정이 필요하고, 석가모니도 가정이 필요하고, 마호메트도 필요하고, 모든 성인도 가정이 필요한데 그 가정은 누구를 말미암은 것이냐? 참부모의 가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가정들이 거짓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본연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축복가정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된 참가정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레버런 문이 사방팔방의 모든 곳에 승리적인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영계와 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가정으로부터 참세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참가정으로부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종족 · 참민족 · 참국가 · 참세계 · 참우주 · 참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9-237 : 1996.09.08) p.2172

이제 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인연이 돼 있고, 어떠한 생활과정을 거쳐 어디로 향하여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나는 무엇을 지니고 가느냐? 하나님의 근심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내 개성이 복귀돼 있으면 이 가정만으로 내가 안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가정을 중심삼은 종족이 있고, 종족을 중심삼은 민족이 있고, 민족을 중심삼은 국가와 세계 인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 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세계 끝까지 나가서 수많은 민족을 아버지 앞에 내몰아 넣고, 그 뒤에서 만민을 축복하고 갈 수 있는 한날이 나에게 오기를 고대하며 매일같이 싸워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52-192 : 1963.05.10) p.2172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하는 관념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 것인데, 천국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나 자신이 몸 마음을 중심삼고 하나로 통일돼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통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친족을 중심삼고 선한 곳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5-213 : 1965.10.30) p.2172

아담과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세계에 점령을 당했고, 사망세계를 주관하는 사탄은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이상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을 이루어 놓은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리는 바는 물론 이상적인 가정이지만 그 내심은 원수가 바라는 기준보다도, 원수가 알고 있는 그 기준보다도, 타락 전 이상시대의 가정 기준보다 더 훌륭하고 알뜰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9-128 : 1968.03.07) p.2172

예수가 이 땅 위에 와서 가르친 진리는 간단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내 아버지인 동시에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에게 자녀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동시에 자기 아버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건을 예수가 와서 비로소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156-224 : 1966.05.25) p.2173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는 신자들을 보고 신부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중심삼은 사랑의 틀에서 모든 것을 갖춘 내용을 밝히는 교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을 꾸며 나가는 교리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가정에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의 도리를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195-195 : 1989.11.15) p.2173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은 가정입니다. 예수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 하나님을 중심삼은 어린양 잔치를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66 권을 종합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희망이 무엇이냐? 예수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신부와 합한 하나님의 가정을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는 뭘 할 거예요? 가정, 즉 신랑 신부가 나오면 아들딸이 나오고, 아들딸이 나와 번식되면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됩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하나님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주의 세계인 동시에 아담과 해와주의 세계입니다. 아담과 해와주의 세계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주의 세계입니다. (160-277 : 1969.05.17) p.217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의 종착점은 참가정 완성입니다. 참가정 가운데는 참나라가 있고 참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참세계와 참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사랑의 전통으로 절대 섹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대 섹스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섹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된 대상적인 파트너와 그런 관점에서 사랑으로 일체화하는 전부는 성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281-282 : 1997.03.09) p.2173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배경을 가진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을 이루었다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엔 인종이나 문화적인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양쪽의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고 아낄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간의 갈등을 정치나 경제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종차별은 갓난아이의 요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중심한 참가정의 이상을 갖지 않고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 이상은 역시 한 분,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의 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되었으면 인류는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을 이루어 위하고 또 더 위해주는 참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국가, 참된 평화의 세계를 이미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개인의 마음과 몸이 하나돼야 합니다. 그런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가정을 이룸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참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지상기지가 되는 것이요, 나아가 참된 국가, 참된 평화세계의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참된 자유와 행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271-088 : 1995.08.22) p.2174

이제부터 데모해야 됩니다. 데모해서 참부모를 자랑하고, 참가정을 자랑하고, 참혈족을 자랑하고, 참순결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 땅 위에 온 목적을 세계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종족, 민족, 국가도 전부 참부모 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에서 가정적인 참부모, 가정적인 기준에서 참부모?참가정?참순결, 민족 기준에서 참부모?참가정?참순결, 국가 기준에서 참부모?참가정?참순결, 이것이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국가 기준에서 세계화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참부모 기준이 우리 개인에서부터 세계 천주까지 연결되고, 참가정 기준이 연결되고, 참순결 핏줄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없었던 해방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청산하기 위한 데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보다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298-221 : 1999.01.08) p.2174

Top

제 3 장
하나님과 참부모

1) 참부모는 하나님과 인류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스승 중의 제일 큰 스승입니다. 선생님 중의 대왕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로 말하자면 부모 중에서도 첫째 부모입니다. 즉, 참된 부모입니다. 왕으로서는 만왕의 왕입니다. (041-307 : 1971.02.17) p.2175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개인적인 아들, 가정적인 아들, 종족적인 아들, 민족적인 아들, 국가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찾아야 할 텐데 이렇게 찾으려면 인류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니 국가적 기준에 있는 아들권을 대표한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찾는 날 개인적 하나님의 아들,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 아들까지 전체 아들을 찾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인간 세상에 부여하기 위한 것이 메시아의 강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엔 부모의 가정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정을 찾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14-029 : 1981.05.14) p.2175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완성한 아담뿐입니다. 아담은 참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트너는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절대 여자입니다. 세계적인 여자를 대표한 것이 기독교의 신부 교회입니다. 신부 종교를 대표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주류 사상은 재림주 메시아를 중심삼은 신부 사상입니다. 참부모는 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남자도 절대적으로 하나이고 여자도 절대 하나입니다.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유일한 두 존재가 만나서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삼은 참다운 이상적 부부라는 것입니다. (248-138 : 1993.08.01) p.2175

참부모는 개인적 절대적 하나의 표적이 되고, 가정적 표적, 종족적 표적, 민족적 표적, 국가적 표적, 세계적 표적이 되어 지상?천상 천국의 하나의 중심 형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창조이상을 완성한 지상 천상 세계를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서부터 세계 하늘땅까지 통일적 중심이 됐기 때문에 개인도 접붙일 수 있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접붙일 수 있는 데로 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일생동안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개인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가정중심, 종족중심, 민족중심, 국가중심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향해 나왔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6-112 : 1994.12.22) p.2176

하나님께서 끝날에 약속하신 한 날은 부모의 날입니다.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어버린 이 땅 위의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본연의 부모를 다시 맞는 날입니다.

인류가 어떤 복귀의 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문을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을 통하기 전에는 심정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심정적으로는 이 민족과 저 민족이 통할 수 없고, 이 종교와 저 종교가 통할 수 없고, 이 가정과 저 가정이 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정과 인연 맺지 않으면 안 될 것이거늘,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중보자가 참부모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렸던 본연의 참부모를 찾아야만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59 : 1961.01.01) p.2176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와 육적인 아버지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잃어버렸으니, 세계적으로 찾을 때는 세계형의 대가정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은 어머니 문화권입니다. 신부 문화권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이 하나된 아들딸을 기독교가 품어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하면 오시는 재림주님에게 가야 합니다. 그랬으면 7년 이내에 세계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재림주가 참부모입니다. 참부모가 나와 가지고 참자녀가 나오고, 참가정이 나와야 됩니다. 참가정을 편성하는 것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가정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78-79 : 1996.05.01) p.2176

에덴동산에서 참부모가 되지 못한 게 타락입니다. 참부모가 옴으로써 시련과 핍박의 도장이 없어지게 될 때는 세상은 참부모의 도리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아들딸을 보니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평화가 있고, 불쌍해 보이지만 희망이 있고, 어려워 보이지만 기쁨을 지닌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330 : 1990.04.29) p.217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참다운 인류의 조상,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참부모의 혈족으로 우리 인류는 태어나야 했습니다.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던 인류의 참부모, 그 참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로, 인류 앞에는 승리적인 영원한 실체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해와는 승리적인 실체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슬픈 역사를 이루어 나온 원한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늘의 법도를 떠났고, 자기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한 우리 인간은 말씀에 따라서 실체를 찾고, 심정의 세계를 찾는 복귀의 노정을 더듬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만물보다도 더 악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대할 수 없는 슬픈 입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일깨워 재창조 역사를 해 나오셨습니다. 종의 자리를 거치고, 양자의 자리를 거치고, 아들의 자리를 거친 다음 승리적인 주관권을 갖추어 참부모의 자리까지 복귀해 나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4-239 : 1965.01.01) p.2177

여러분은 타락의 종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참가정 · 참사회 · 참국가 · 참주권이 어떻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 6 천년 동안 수없이 눈물지으시며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 말고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2 천년 동안 싸워온 예수와 성신 말고 영광의 예수와 성신을 알아야 합니다. 싸우는 천상세계의 천천만 성도 말고 영광 가운데 살고 영광을 누리는 천천만 성도들을 알아야 합니다. 땅 위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 말고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예수도 영광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왔다가 죽어갔습니다. 영광의 참부모를 소개하고 영광의 참아들딸을 소개하고 영광의 참백성과 참천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0-354 : 1960.11.27) p.2177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애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효자도 없었고, 성인?성자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지상에 와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효자가 나오고, 나라의 기반 위에 애국자가 나오고, 세계적 기반 위에 성인, 천주적 기반 위에 성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할 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통일교인이라면 영적 육적 모든 것을 투입하고 희생하더라도 '내가 하늘나라를 이루겠다. 애국자가 되겠다. 성인 성자가 되겠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야말로 진짜 효자요, 진짜 애국자요, 진짜 성인 · 성자다.' 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자리가 모든 통일교인의 본향입니다. (293-217 : 1998.05.26) p.2178

본래 부자(父子)라는 말은 본연의 아버지와 아들딸을 말합니다. 그러한 부자가 없으면 그 나라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만민은 평화의 세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가들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아무리 거적때기를 쓰고, 누더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무늬가 바랜 해어진 옷을 입었을망정, 또한 천길 만길 구덩이에서 기진한 모습으로 나왔을망정, 타락한 인간은 그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심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심정을 접붙여야 하느냐 하면,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접붙여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는 조건을 세운 다음, 어머니 뱃속을 통해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는 친척과 더불어 사랑의 인연을 맺고, 친척을 중심삼은 종족과 더불어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 종족은 민족과 더불어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 민족은 국가와 더불어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 국가는 세계와 더불어 심정적인 인연을 맺고, 그 세계는 하늘땅과 더불어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 하늘과 땅을 통해 하나님까지 심정의 인연을 맺었다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지, 자기 자신만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중심삼고 심정의 인연을 맺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7-129 : 1966.12.11) p.2178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된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관계없는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근본은 아담과 해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밟고 넘어서서, 즉 원죄와 인연이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할 때 타락권 이하에서는 아무리 구원하려 해봤자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 이상의 참된 부모를 이 땅 위에 다시 보내 가지고, 그 부모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해산되는 노정을 거치게 해서 사탄과 영원히 관계가 없게 하시고 사탄이 참소하려야 참소할 수 없게 하시어서,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하나님만이 간섭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인류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 원죄가 없는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22-269 : 1969.05.04) p.2179

타락한 부모의 인연으로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전통을 받아 이 세계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니 참부모가 와서 새로운 주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참가정주의입니다. 참가정주의가 나오지 않고서는 세계주의가 못 나옵니다. 이 참가정주의의 대표자는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정적인 모든 것을 상속받는 내정적인 상속자요, 외형적인 상속자, 그리고 만물 소유권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요, 몸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요,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대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와야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가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주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아무리 세계 제일주의라고 배통을 내밀고 다녀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가정주의는 부모가 가면 그 아들딸이 부모의 뒤를 영원히 따라가는 주의, 또 형님이 가면 동생이 영원히 따라가는 주의, 동생이 가면 형님이 영원히 따라가는 주의입니다. 그러니 동생의 나라가 있으면 형님의 나라가 따라가고, 형님의 나라가 있으면 동생의 나라도 따라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주의는 어떤 주의냐? 국경을 초월하고 이 모든 평면적인 세계를 초월하여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서로가 먼저 주려고 하고 받는 것을 더디 하려는 주의입니다. 그런 주의의 세계가 앞으로 올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는 무슨 큰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상세계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화할 수 있는 만민형제주의세계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21-49 : 1968.09.01) p.2179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내 가정에서 꽃 피워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냥 그대로 본향 땅으로 옮겨 놓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아버지 어머니, 참된 할아버지 할머니, 참된 부부, 참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되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평화의 가정, 왕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교재, 텍스트북이 통일교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온 분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의 가정에는 참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참부모의 아들딸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참부모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의 나라는 전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망하고, 영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할 징조로 꽉 찼지요?

참부모는 가정을 수습하고, 나라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책임이 참부모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과 참사랑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수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거짓사랑, 거짓생명의 씨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돌감람나무가 되었으니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고 참사랑에 접붙여 가지고 참사랑을 중심삼은 생명을 다시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부모의 혈족이 못 되는 것입니다. (238-73 : 1992.11.19) p.2180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천당가겠다고 하지요?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천국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본연의 이상적인 가정 형태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려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못 이루었으니 재림시대에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주는 참부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나라의 왕, 하늘땅의 왕으로 오는 것입니다. (238-44 : 1992.11.19) p.2180

선생님은 하늘땅의 전체를 대표해 개척한 참부모가 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씨와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걸 중심삼고 뿌리로부터 줄기를 거쳐 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크는 데는 천년만년 언제나 크지 않습니다. 클 때까지 크고 나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씨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300-246 : 1999.03.23) p.2180

돌아갈 수 없던 고향을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나라를 이룬 자리에서 찾을 수 있게 승리적 권한을 준 것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향길을 눈물을 머금으면서 돌아가야 합니다.

불평하면 저주받습니다. 조상들이 볼기를 치고, 앞으로 아들딸이 편안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약 주고 병 주고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19-220 : 1991.08.29) p.2180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태어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랑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를 중심삼은 사랑의 인연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부모의 아들딸이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메시아는 무엇이냐 ? 참부모입니다. 그러면 왜 참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느냐? 내가 참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은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해서 참부모의 사랑의 인연을 맺으려니 참부모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65-314 : 1973.03.04) p.2180

구세주, 그 분만 이 땅에 오면 그 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찾고 있던 개인도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찾고 있던 가정도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찾고 있던 민족, 국가, 세계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은 ``구세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구세주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완성한 세계적인 참부모의 입장에 있으니, 우리는 그 분만 모시면 참부모의 아들딸이 됩니다. 또 아들딸이 되어 키움을 받게 되면 우리도 시집 장가가서 참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1-194 : 1962.12.15) p.2181

통일교회 교인만은 세계를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한 나라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한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통일교회 운동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40 년 투쟁과정에서 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있으니 그걸 보호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딸 대신, 참부모의 아들딸 대신 살게 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판도는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24-338 : 1991.12.29) p.2181

하나님의 이상을 알지 못하고 통일의 개념을 모르는 것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지금 이때의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로서 장자권을 복귀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메시아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축복을 받고서 주위의 타락한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탄은 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89-278 : 1989.05.01) p.2181

역사상의 어떤 성인 현철, 어떤 효자 충신을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과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나는 세상을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본연적 사랑을 중심삼고 본연의 사랑에 의한 생명과 하나되고 그 생명과 하나된 혈통의 인연을 내가 전수하고, 내 아들딸을 거느린 가정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타락한 세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꿈꾸고 만들기 위해서 보낸 분이 메시아이고,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206-59 : 1990.10.03) p.2181

참부모는 가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탄이 가정을 파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혼란된 가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나라를 망쳐 놓았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나라를 망쳐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사탄에게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참부모가 필요한 것이고, 사탄이 망쳐 놓은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237-021 : 1992.11.10) p.2181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버런 문의 부부는 참부모라는 말로 전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부가 진정 참부모로서 참된 사랑, 참된 생명, 참된 혈통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 위에는 평화를 이룬 '참가정과 나'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통일과 행복의 천국이 싹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270-246 : 1995.06.07) p.2182

하나님이 사랑이상을 중심삼고 해방된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나는 해방된 천지창조의 주인이다!'하며 만세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참부모를 중심삼고 사랑의 인연을, 혈연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 거기서 혈연적 관계를 맺어 태어난 아들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들딸을 중심삼은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국가, 세계까지 형성하는 것이 창조주와 온 인류가 역사를 통한 소망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02-198 : 1990.05.24) p.2182

부모 중의 참부모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참가정의 왕, 참나라의 왕, 참세계의 왕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을 모실 수 있는 천년 태평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한국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라는 노래처럼 이 땅 위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천년만년 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통일교회 각자의 사명과 소명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77-89 : 1996.03.31) p.2182

천지에 운동하는 수많은 존재물들의 가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이며 중심이 참부모입니다. 모든 존재의 소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결실을 추구하는 원리의 원인이 되는 것이요, 시대의 중심이요,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중심 본부인 것입니다. (30-237 : 1970.03.23) p.2182

참부모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육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원점, 최초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참부모입니다. 사람을 예로 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평면적인 마음이 아니라 입체적인 마음입니다. 그 입체적 마음과 평면적 마음이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힘에 의해서 영원한 위치를 결정합니다. 참사랑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부 일체입니다. 양심에 고통이 있는 경우에는 육신도 고통을 느낍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입니다. (192-200 : 1989.07.04) p.2182

참부모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속의 아들 중에서 최고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상대 완성한 아들로서 그 아들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야 태어난다 하는 하나님의 교본을 지닐 수 있는 역사를 남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32-138 : 1992.07.03) p.2182

하나님이 보고 있는 레버런 문, 참부모의 가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치와는 천양지판입니다. 원리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너무 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레버런 문, 참부모라는 것은 역사 이래 창조시대부터 바라던 것입니다. 참부모님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바라기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라던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부터 바라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바라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면 이 세상, 피조세계는 몇 억만 년, 2억 5천만 년이니 해서 지구의 연령을 말하는데, 몇 천만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창세 전 그 이상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종교 역사입니다. 주류 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제 1 차 선민, 기독교는 제 2 차 선민, 통일교회는 제 3 차 선민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시대를 통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그 하나의 목적을 다시 찾기 위한 것입니다.

참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부자의 인연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을 직접 부를 것이 아니라 참부모를 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기점은 천상이 아니고 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새로운 천지가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와의 인연은 영계와 같은 막연한 세계에서가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연결됩니다. 참부모는 실체를 갖추어 지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는 내가 부르면 대답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동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면적인 도상에서 참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031-077 : 1970.04.19) p.2183

지상에 살아야 할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참사랑에서부터 태어나 참부모를 통해서 참된 자녀를 중심삼은 혈연관계를 거쳐서, 이 혈연적 기반을 종적으로 세계에 확대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 주체적 가정을 중심삼고 상대적 가정으로 연결된 세계상, 즉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창조이상세계입니다. (184-195 : 1989.01.01) p.2183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를 중심삼은 참부모입니다. 역사적인 만민들은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미래의 전통적 기원이 서게 됩니다. 통일할 수 있는 전통의 기원이 여기서부터라는 것입니다. 3 수의 중심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교인들은 어떠한 무리들이냐? 참부모의 교리를 가르침 받고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는 무리입니다.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역사가 찾아 나온 중심인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곳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중심인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곳입니다. 미래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참부모의 인연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역사적인 열매입니다. 나는 시대적인 중심입니다. 미래의 기원이 될 것이요, 조상이 될 것입니다. 참부모의 심정과 일치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기도를 하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통합하느냐? 참부모의 사랑으로 통합시켜야 합니다. 누구에게 통합시키느냐? 아들딸에게 통합시켜야 합니다. 그 아들딸은 누구냐?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은 아들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가 낳을 아들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3 시대의 사랑의 인연을 갖고 태어난 자리가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는 자리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을 망정 역사과정을 거꾸로 올라가 그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26-199 : 1969.10.25) p.2184

참부모와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활, 가정적인 생활, 종족적인 생활, 국가적인 생활, 세계적인 생활, 하늘땅에서의 생활,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전부가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의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도 여러분의 가정이고, 민족도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민족도 내 민족이요, 국가도 내 국가요, 세계도 내 세계요, 하늘땅도 내 하늘땅이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알아야 합니다. 전부 다 참부모와 하나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세계 인류와 더불어 살려고 하지 한 종파와 더불어 살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더불어, 이상세계 전체와 더불어 그 사랑을 중심삼고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고, 하나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시작되는 생활 방법입니다. (287-142 : 1997.09.14) p.218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 가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어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사랑의 세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참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재현시키는 것이 복귀입니다. (107-173 : 1980.04.27) p.2184

지금 모든 부모들이 '레버런 문이 참부모면 우리는 뭐야?' 하면서 야단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시는 주님은 참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신랑은 뭐가 돼요? 그것은 거짓 신랑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랑, 한 사람은 신부입니다. 본연의 에덴동산에서 이상적인 신랑은 아담이었고 신부는 해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상적인 커플이었던 것입니다. (203-98 : 1990.06.17) p.2184

불쌍한 미국 가정 앞에 참부모를 가르쳐 줬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참부모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또 참형제, 참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참가정 그 자체를 참미국이 원하는 것이요, 참세계가 원하는 것이요, 참우주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입니다. (149-304 : 1986.12.14) p.2184

왕은 자기 나라 가정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딸을 희생시키고 왕 자신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희생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하는 사람이 선군(善君)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되어 가지고 왕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래 놓으면 이 왕이 자기 대신 부모 사랑을 가지고 잘 먹이게끔 전부 다 투입하고 투입하고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군입니다. (278-173 : 1996.05.05) p.2184

참부모가 되면 참자녀가 나오고, 참가정이 나오고, 참종족이 나오고, 참나라, 참세계가 여기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참부모라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125-117 : 1983.03.14) p.2184

Top

2) 하나님은 종적 부모, 참부모는 횡적 부모

참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하나님의 마음세계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상은 참부모를 중심삼은 사랑 이상을 표제로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참부모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바라던 소원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노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종교를 세워 섭리해 나오셨습니다. 종교 가운데는 천사세계의 종교, 가인적인 종교, 아벨적인 종교, 서자적인 종교, 양자적인 종교, 서모적 종교, 양부모적 종교, 그 다음에 참어머니의 종교, 참아버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신교와 구교가 하나님 섭리의 전체 뜻을 맞추어서 세계를 지도하는 책임을 져 나오던 모든 종교권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세계, 하나의 평화세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평화세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려는 수많은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 주류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참부모와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신랑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고, 형제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모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정적 이상을 중심삼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갖춘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상하는 가정을 전면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를 넘어서서 기독교만이 세계를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주가 누구예요? 에덴에서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아버지로 이 땅에 와서 참어머니를 세워서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를 중심삼고, 혈통적 일체, 혈육의 일체를 중심삼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제1차 가정이 메시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완성한 아담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부부를 이루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을 중심삼은 아들딸을 낳고, 하나님의 일족을 낳아서 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천상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282-51 : 1997.03.10) p.2186

보이지 않는 바늘 끝이 하나님이라면, 보이는 끝은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직적인 부모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계에서 아들딸을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계에서는 생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횡적인 부모 아담과 해와를 지었느냐? 아담과 해와는 하늘나라 백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공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에는 한 초점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중심에서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밀어내야 된다는 결론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직에는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214-204 : 1991.02.02) p.2186

아기는 하나님이 낳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를 통해 낳는 것입니다. 횡적인 참사랑의 부모의 자리에 선 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참부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적인 사랑을 중심삼은 참부모 앞에 90 각도를 갖춘 횡적인 사랑을 가진 분이 참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분은 창조주인 부모고, 한 분은 피조물의,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이상을 그리면서 지으신 몸적인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고, 참부모는 몸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적인 사랑과 횡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태어나야 할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닮아야 되겠기 때문에 종적인 사랑을 자유롭게 닮게 하기 위해서 ``종적인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불교에서도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에서는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통해서 종적인 사랑 앞에 횡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그 다음에 전후의 사랑, 구형적인 이상을 그려야만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힘의 소모가 없고, 언제 작동하더라도 좋기만 하지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충이 없다는 것입니다. (182-258 : 1988.10.23) p.2186

여러분의 마음은 종적인 나요, 몸은 횡적인 나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이 점에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은 싸우잖아요? 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돼요? 참사랑이 없이는 하나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참사랑을 통해서 하나되면 그냥 천국으로 갑니다.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123 : 1990.03.27) p.2187

하늘 왕은 종적인 중심이 되어 마음자리에 오고, 지상 왕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한 아담과 해와의 이상적 결혼식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아담과 해와가 몸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결혼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혼식이요,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245-89 : 1993.02.28) p.2187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횡적 기반이 닦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부모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이렇듯 완전히 하나된 그 자리를 중심삼고 주님인 참부모가 올 때까지 끌고 나온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영적인 기독교 역사라는 것입니다. (034-093 : 1970.08.29)

여러분도 선생님이 가는 천국에 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 말대로 한 가지라도 해야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참하나님 · 참부모 · 참나라 · 참세계 · 참천국을 중심삼고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개인의 아버지요, 가정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는 나라의 아버지요, 세계의 아버지요, 온 하늘땅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가정적인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종족적인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민족, 국가, 세계적인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권위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하나님인 동시에 개인의 아버지요, 가정의 아버지요, 종족의 아버지요, 민족의 아버지요, 국가의 아버지요, 세계 하늘나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8-224 : 1978.08.01) p.2187

선생님 물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된, 타락의 침범과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난 본연의 소유 결정의 조건 기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벨, 하늘편 사랑을 중심삼고 상속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지상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소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물건을 샀다가 팔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참부모님이 내버린다는 식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산 것은 거지가 되더라도 팔려고 하지 않은 건데도 이 물건을 팔아먹은 녀석들은 이 다음에 다 법에 걸리게 됩니다.

참부모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된 소유를 결정받았지만, 이 횡적인 축복을 받은 가정들에게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사랑을 중심삼고 소유 결정을 부모로부터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날을 같이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금까지 만물로부터 자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던 것이 여기 직접주관권시대에 와서 평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이 7단계 형태가 전부 이루어져 중앙선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 7단계, 여자 7단계를 중심삼고 전부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137-270 : 1986.01.03) p.2188

구세주가 이 땅 위에 올 때는 자기의 신부를 찾아옵니다. 참된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참된 여자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삼고 비로소 역사 이래에 타락하지 않고 완성될 수 있는 종횡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적 하나님 아버지와 외적 참부모를 통해 비로소 이 땅에 착륙하여서 천국과 직통하는 길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역사 이래 세계 인류 가운데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한 시대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세계적 핍박을 받아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세계의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 종족은 전부 세계 축복가정을 통해서 전세계 160개 국의 모든 민족에 접붙여야 합니다. 그게 복귀해 가는 것입니다. 종족적으로,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는 국가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176-322 : 1988.05.13) p.2188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세계적 조건을 중심삼고 승리한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심정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 심정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는 참부모의 아들딸임에 틀림없고 아벨적 입장에 태어났지만 이 세계의 가인 무대를 굴복시킬 것이 틀림없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히 승리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실체권인 힘은 나가게 돼 있고 밀면 밀리게 돼 있습니다. (100-319 : 1978.10.22) p.2188

여러분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닙니다. 자신은 세계 전체를 대표한 중심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들딸은 부모를 대표하고 있고, 부모는 그 일가(一家)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섭리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빚을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방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한때라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효도를 하더라도 모든 역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효도한 이상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주체성을 가진 아들딸들이 참부모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251-47 : 1993.10.15) p.2188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참부모를 모셨지만, 이 땅에는 참부모의 아들딸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부모의 아들딸도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참부모의 혈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될 것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들딸이 되었으니, 우리 인류 시조가 잘못한 그것을 모두 해원성사해 주기 위해 다시 오시는 부모가 재림주요 구세주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와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미리 낳아 놓은 장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 장자가 서자와 같이 됐습니다.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연적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혈통을 받았을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딴 핏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릴 수 없습니다. (210-360 : 1990.12.27) p.2189

여러분이 노동을 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일생 동안 일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랑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던 것을 가지고 내가 취미 삼아 재미있게 하늘의 기념품을 만들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그렇게 자연을 찾아 가지고, 바다라는 바다, 오대양 육대주, 강이라는 강, 산이라는 산, 모든 경치 좋은 곳을 다 답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연의 탄식권을 해방시키겠다는 그 참부모의 생활을 따라갈 거예요, 도시에 박혀 자기 개인을 중심삼고 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를 일으키고 자녀의 정서적 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막는 부모가 돼 가지고 살 거예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선생님이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간 길을 통일교회 교인들은 자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도시 분산, 자연화한 도시세계, 자연과 화합할 수 있는 이상적 천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288-72 : 1997.10.31) p.2189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이 참 실감납니다. 한국의 독립만세운동 지도자가 33 명입니다. 한국의 반대편이 우루과이인데, 우루과이의 독립군 지도자도 33 명입니다. 남미의 나라도 33 개국이고, 지금 내가 자르딘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시가 서른 셋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요 도시가 33 개입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섭리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33 명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까지 하면 서른 네 명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 메시아와 어떻게든지 하나돼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81-245 : 1997.02.14) p.2189

Top

3)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참부모

비참하게도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참가정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에덴동산에서 뱀은 해와를 유혹했고, 해와는 아담을 유혹하여 이기적인 거짓 사랑을 이 세상에 심었습니다. 인류의 죄와 불행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사탄을 동기로 하여 맺은 불륜한 사랑의 결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인을 복귀하고 참가정을 복귀하여 참사랑과 선을 세계적 기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오로지 이 진리만이 다투고 있는 교파들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 또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본인은 50 년 전에 이 계시를 기독교인들에게 밝혔습니다. 본인은 또 하나의 분리된 교파를 만들 뜻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성교단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기반을 닦아야 했으며 지난 43 년의 수고가 그것이었습니다. 1954 년 한국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로 시작하여 일본?미국?유럽, 그리고 전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 기반 위에 우리 내외는 많은 단체를 세워 참가정 원리가 학술?언론?종교?예술?산업분야 등에서 다루어져서 이 세계를 탕감복귀할 수 있는 표본과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88-168 : 1997.11.27) p.2190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어떻게 복귀하느냐? 이것이 선생님의 환고향이라는 생각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와 국가 메시아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한 메시아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종족을 해방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이때에 선생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185 개국에 국가 메시아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국가 메시아는 예수 때의 종족적 메시아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그런 컨셉이 예수 때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본연의 천국에서는 가정으로부터 종족, 민족, 국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는 가정을 못 이루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도 가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복귀하기 위하여 참부모가 나와서 잃어버린 가정 이상의 레벨인 국가 기반 위에서 메시아를 파송한 것입니다. (282-029 : 1997.02.16) p.2190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참된 남자 · 참된 여자 · 참된 부부 · 참된 자녀의 자리를 전부다 잃어버렸습니다. 산산조각으로 다 깨졌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참다운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서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고 갈라지려야 갈라질 수 없는 참다운 부부를 이루어 참다운 아들딸을 낳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부모 참부부 참아들딸이 되어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는 하나님을 모셔 오고 온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생활제도는 만민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제도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국가관, 여기에서 논의되는 세계관,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이념은 전세계 만민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국가관이요, 세계관이요. 이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하나의 문을 향하여 끝날의 때를 바라며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참부모의 소원은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205 : 1968.01.07) p.2191

하나님의 원한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을 붙들고 우셨고 땅을 대해 우셨으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승리한 아들을 붙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못한 것이 하늘의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너는 승리한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하늘의 원한이요 슬픔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딸을 찾기에 그토록 헤매신 하나님을 붙들고 울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290 : 1958.09.14) p.2191

하나님의 날에 인간으로서 해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성하려면 인간이 완전한 주체 앞에 완전한 대상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참부모입니다. 또 하나님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해방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참부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체적 하나님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하나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부모를 중심삼고 실체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된 자리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5-333 : 1996.01.01) p.2191

선생님이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삼은 일족, 일국가, 일세계, 천상천하에 울타리를 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박힌 못을, 땅 위에서 참부모의 가슴에 박힌 못을 빼야 할 책임자가 누구냐?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최후로 해야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내세워서 세계 순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전부 어머니 대신해야 됩니다. (301-169 : 1999.04.25) p.2191

오늘날의 역사는 부모를 찾아야 하는 역사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중심삼고 창조의 목적을 완결지을 수 있는, 즉 구원의 목적을 완결지을 수 있는 참다운 부모가 있어서 그 참다운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천사들은 또 그 참부모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충성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창조원칙인데, 그것이 깨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재현시켜 가지고 탕감해야 합니다.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그 모양대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5-242 : 1965.10.17) p.2192

여러분은 부모가 소유하는 부모의 아들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아들딸이 됐다는 조건적 기준에서 뿌리는 다르지만, 그 뿌리를 잘라 버리고, 둥치를 잘라 버리고 여기에 접붙여 선생님을 중심삼고 새로운 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166-306 : 1987.06.14) p.2192

기독교만 하더라도 수백 교파로 갈라져서 교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곳이 하나님의 지체와 하나님의 발판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천국을 이루시려는 이념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실 것이냐? 할 수 없이 하나의 가정이라도 찾아오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과 직접 하나되고, 그 부모를 중심삼은 자녀가 부모와 완전히 하나되어 하나님이 그 가정의 하나의 주인이 되고, 그 가족이 주인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가정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096-15 : 1978.01.01) p.2192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부부가 되지 못했던 것을 역사시대의 모든 극복의 결과를 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참부모를 재현하는 그 잔치가 어린양 잔치입니다. 어린양 잔치를 통해 참부모가 결혼식을 가졌으면, 그 아들딸도 그 전통에 따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의 이상에, 하나님의 바라는 사랑세계에 전반적인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전체 환경적 요건까지 자기와 접촉시킬 수 있는 사랑의 해방적 왕자 왕녀로 등장하는 가정이 내가 살 수 있는 내 가정이었더라. 하나님의 가정이요, 우리 인류의 가정이요, 내 가정이었더라.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인류와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평등과 통일이 있는 사랑의 천국이었더라. (296-237 : 1998.11.10) p.2192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부모가 생겨났지요? 그래서 참부모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는 사탄을 근거로 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된 부모가 되어야 할 본연의 창조이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은 구원되어 본연의 참부모의 이상을 지상에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되느냐? 거짓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이 세계 인류가 만약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본래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원리이기 때문에 거짓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8-303 : 1990.11.21) p.2192

여러분이 아무리 충신 가정이 됐다 하더라도 나라가 없게 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충신이라도 나라가 없을 때는 역사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통해서는 나라를 찾아야 하고, 나라를 통해서는 세계를 찾아야 하고, 세계를 통해서는 천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가정을 위해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은 종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종족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부 다 희생해야 합니다. 민족은 국가, 국가는 세계, 세계는 천주, 천주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도 희생해 가지고 나에게 돌려줍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투입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갖고 나서 사랑을 보태 가지고 하늘땅의 세계를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297-211 : 1998.11.20) p.2193

인류의 해방과 더불어 하나님이 해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잃어버린 슬픔을 내가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족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일족을 잃어버렸던 슬픔을 위로하고, 일국을 내가 건국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선생님의 삶이 천주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와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면 직행합니다. 죽어도 돌아가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성시켜 하나님 자체를 영원히 사탄으로부터 해방해야 합니다. 자연 감옥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의 몸이 된 것을 해방할 수 있는 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해방 못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한 한을 품은 불쌍한 하나님이 끝날에 세계와 천주상에서 해방을 이루고 비로소 자기 자세를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은 가정사랑, 종족사랑, 민족사랑, 국가사랑, 천주사랑의 법도를 중심삼은 주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300-72 : 1999.02.21) p.2193

Top

4) 참부모는 천국의 통로

아담과 해와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 부모님의 자리라면 선생님도 영적으로 보면 부모의 자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상을 대표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땅을 통해 영계로 간 모든 영인들은 아담과 해와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니 먼저 간 영인들은 천사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마음대로 후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은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가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부모를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실패하였던 모든 것을 탕감하고 자녀의 자리에서 아담과 해와가 자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빠른 시일 내에 무너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46-312 : 1986.07.20) p.2194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고 아들딸을 사랑하면서 나라를 대표해서 보여 주고, 그 다음엔 하늘땅을 대신해서 보여 주고, 자기 친척을 대신해서 보여 주고, 어머니 아버지를 보여 주고,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 줄 수 있게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땅을 사랑하는 표본, 세계를 사랑하는 표본, 나라를 사랑하는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래에 보여 줄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만들려니 부모의 심정과 스승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가지고 소유권을 상속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 다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인의 자리에 서고 싶다 하게 됩니다. 전부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주류사상입니다. 이리로 따라가도 참스승을 만나고, 저리로 따라가도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를 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5-19 : 1990.07.15) p.2194

여러분이 남겨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참된 사랑, 참부모로부터 참된 사랑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참된 혈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이것이 틀리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못 가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그 자체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락했기 때문에 참혈통을 갖지 못했습니다. 참혈통은 축복으로만 가능합니다. 타락한 세계의 뿌리는 타락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이 접붙여 새로운 참혈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통일교회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62-63 : 1987.03.27) p.2194

중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거듭난다는 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 묻게 될 때 예수가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서 중생이라는 말을 모르느냐?' 하고 답했는데, 중생은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냐? 거짓 부모에게서 났던 사람이 참부모를 통해서 다시 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사탄세계의 사랑과 사탄세계의 생명과 사탄세계의 혈연과는 관계가 전무하다, 그것은 의식에도 없다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211-306 : 1991.01.01) p.2194

타락할 때와 반대로 참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삼고 둘이 합하여 소생-장성-완성의 자리에 복귀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의 아들딸을 영계와 육계가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의 아들딸을 하나 만들고 재림시대에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부 여기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아들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219-241 : 1991.09.08) p.2195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가정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으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찾아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참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쳐와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가졌다가 부모로부터 다시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집이 생겨나고 여러분의 세계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터전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요것은 뭐냐 하면 제물입니다. 요건 하나의 제단입니다. 여기서 3 대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101-338 : 1978.11.12) p.2195

자기의 물질을 다 자기 소유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면 사탄입니다.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사탄입니다. 본래의 하나님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데는 그냥 못 돌아갑니다. 천사장을 통해서, 해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참부모를 통해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소유권이나 소유 관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아무개 아버지라는 소유권을 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소유관념을 넘어야 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지었기 때문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부모 소유의 계통을 통한 후에, 3 단계마다 하나님에게 공증받아 가지고 참부모로부터 여러분이 소유권을 전수받아야 여러분의 소유권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0-208 : 1982.10.16) p.2195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소유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산, 아들딸, 여러분의 일신 전체를 바쳐야 합니다. 구약시대형, 신약시대형,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소유권을 결정했다 하는, '네 가정은 내 가정이요, 너희들 전부 내 물건이요, 네 아들딸은 내 아들딸이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공인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다!' 하면서 참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상속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소유권이 아니고 만물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타락의 소유로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연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121-254 : 1982.10.27) p.2195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야 합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통일은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을 대지 않더라도 서로가 더 빨리 입적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가 되느냐, 두번째가 되느냐, 세번째가 되느냐를 다투면서 기를 쓰고 싸울 때가 올 것입니다. (198-242 : 1990.02.03) p.2196

개인이 가는 길도 참부모를 통해서, 가정이 가는 길도 참부모를 통해서, 종족의 길도 참부모를 통해서, 민족의 길도 참부모를 통해서, 국가의 길도 참부모를 통해서, 세계의 길도 참부모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도 참부모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길을 참부모가 닦기 위하여 일생을 걸고 수난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9-018 : 1983.10.04) p.2196

참아담은 참부모입니다. 참부모의 언어는 참자녀들이 참부모를 통해서 인계받을 언어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참부모는 레버런 문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부모를 모른다고 보는 것입니다. (129-20 : 1983.10.04) p.2196

여러분이 낳은 아들딸은 하나님이 4 천 년 동안 준비해 낳은 메시아 예수보다 나을 수 있는 아들딸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을 받고 예수를 낳았어요? 여러분은 참부모를 통해 축복을 받고 낳았습니다. (146-22 : 1986.06.01) p.219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복은 선생님의 주장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처리해 이런 논리 체계를 간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본래 안다면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231-155 : 1992.06.02) p.2196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복중에서 절대 하나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거느린 세계 사람과 절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복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부모를 알았으니 그 참부모와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참부모를 통해 태어나야 할 모든 인류가 거짓부모를 통해 태어나서 거짓부모가 되었으니 이들을 여자들이 참부모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운동을 일으켜야만 세계는 부활되고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 세계평화여성연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가정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들딸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짓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아버지가 오면 이 참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되어 어머니와 아들딸이 거짓 아버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본연의 가정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딸이 아버지를 구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4-161 : 1993.02.01) p.2196

지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어머니·참아버지·참부모의 혈통을 받지 않고 태어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보면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참부모를 천상천국, 지상천국의 왕권의 주인으로 섬기며 친족권 내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참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자기도 결혼해서 후손을 남기고 그대로 옮겨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황족권의 사랑을 중심삼고, 체휼적인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50-49 : 1993.10.11) p.2197

승리한 참부모와 국가적으로 축복받은 가정이 하나만 되면 그 나라가 돌아가게 됩니다. 참부모와 유엔의 각 나라가 유엔에서 결정만 하면 하루저녁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결혼식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결혼만 해놓으면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횡적인 선은 오시는 재림주가 모든 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더라도 사탄은 여기를 침범 못 하는 것입니다. (255-20 : 1994.02.27) p.2197

사탄이 제일 원통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참부모를 여러분이 보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참부모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참부모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본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66-142 : 1973.04.22) p.2197

여러분의 소망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어 참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참부모가 앞으로 천하를 중심삼고 지상의 만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이니 역사의 소망이니 시대의 소망이니 하는 모든 소망의 중심이 결실할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46-167 : 1971.08.13) p.2197

원리로 보면, 참부모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 터전 위에서 만물이 지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내용을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67-148 : 1973.06.01) p.2197

양자가 직계의 자리로 나가려면 아담과 해와시대에 천사장이 가졌던 심정적인 모든 것, 시기(猜忌)라는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아들딸이 믿음의 부모 복중에 있는 아들딸을 자기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탄세계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선생님의 아들딸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복중에서부터 사랑했나 물어 보라는 겁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고, 복중에서부터 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들딸을 자기 몸뚱이보다 더 사랑했느냐? 문제는 자기보다 더 사랑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자기 아들딸보다, 자기 식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하고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게 걸렸으면 이제라도 3 년 동안에 탕감해야 합니다. (127-128 : 1983.05.05) p.2198

예수님이 종족적인 메시아로 서기 위해서는 요셉가정과 사가랴가정이 하나된 터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를 탕감해야 할 텐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이 국가를 대해서 탕감할 수 있는 민족적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족시대를 지낸 터전 위에 있습니다. 하나는 참부모님을 모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부모의 아들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자녀가 아니라 서자입니다. 양자는 핏줄이 통하지 않지만 서자는 핏줄이 통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족권을 넘어서서 전부 민족권을 향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권내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141-209 : 1986.02.22) p.2198

만물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만물은 사랑을 통해 사랑과 하나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된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그 참부모의 사랑과 인연된 기반 밑에서, 참부모의 자녀도 사랑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참부모의 아들딸의 소유권이 벌어지고, 그 아들딸의 소유권을 통해서 하나될 수 있는 만물의 기반이 사랑과 연결될 때 그 아들딸의 소유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6-286 : 1987.06.14) p.2198

예수와 아담의 해원을 성사해야 됩니다. 예수가 잘못했고 아담이 잘못해서 부모가 못 되었으니 그것을 해원성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3 대를 위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3 대입니다. 아담이 소생이고, 예수가 장성이고, 참부모의 아들딸까지 3 대권을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212-54 : 1991.01.01) p.2198

참부모의 날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자녀의 날이 생기고, 참가정의 날, 참국가의 날, 참세계의 날, 참천주의 날, 참하나님의 해방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참부모의 이름이 없어 가지고는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참부모를 먼저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눈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코가 참부모의 가슴에서 참부모의 냄새를 맡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를 만난 것을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입이 참부모의 말을 하고, 참부모의 젖을 먹고 싶었는데, 거짓 부모의 거짓말을 배워 거짓 전통을 세운 것입니다. 이 귀가 참부모의 말을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이 참부모의 가슴을 만지고, 참어머니 참아버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손이 되고 싶었는데, 거짓 부모와 원수에게 농락당해 한을 품은 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펴려야 펼 수 없고, 쥐려야 쥘 수 없는 한의 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참부모를 모시고 출발과 동시에 영원히 갈라질 수 없는 참부모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 할 몸뚱이요 마음이었는데, 역사의 한을 지니고 비참함과 원한을 품고 탄식권 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 마음이 된 현재의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성의 모든 땅도 참부모가 밟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부모의 아들딸들이 밟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68-164 : 1995.03.31) p.2199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소원성사할 수 있는 길을 계획했기 때문에 참부모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 생각에서부터 참부모를 창조했고, 참부모의 사랑과 더불어 일치될 수 있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래, 소생, 장성 과정을 거쳐서 성숙되어 가지고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이 하나님 자신의 결혼식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282-290 : 1997.04.07) p.2199

다른 아버지에게는 참사랑이 없지만 레버런 문은 참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도 좋아하고, 흑인도 좋아하고, 만물도 좋아하고, 하늘땅도 전부 좋아합니다. 우리 통일교회 가정에는 참부모?참자녀?참가정?참사회?참국가?참세계?참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참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혈통의 다리를 통해 전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을 중심삼고,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전부 참혈통입니다. 참가정은 한 언어와 문화를 갖는 것입니다. 문화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162-138 : 1987.04.05) p.2199

신·구약 성경을 다 버리더라도 참부모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형제가 나오고, 참나라가 나오고, 전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연을 통해서 기반을 닦고 그 부모가 나온 후에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땅의 조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공인하고, 사탄이 공인하고, 그 다음엔 참부모가 공인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참자녀의 날이 세계적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95-173 : 1977.11.11) p.2199

역사적인 전환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책임은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서는 것이요, 참부모 대신 자리에 서는 것이요, 참나라와 참국가, 참세계 대표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시대에 효자 중의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의 효자들이 나를 진짜 효자라고 찬양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효자가 되어야 하고, 하늘나라의 충신이 되어야 하고, 하늘나라의 성인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의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214-306 : 1991.02.03) p.2200

거짓 부모는 사탄 사랑을 중심삼고 떨어진 사랑이었지만, 참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올라가니 사랑의 세계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위대하고 영원히 평등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라도 한꺼번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여자가 일자무식이고 남자가 세계의 대학자이더라도 그러합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마음은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세계를 다 가졌더라도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44-241 : 1986.04.25) p.2200

거짓 사랑의 입장에 있는 것을 참사랑으로 찾아 돌아가려면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참부모를 통해 참사랑을 안 다음부터는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담이 없는, 모든 것을 완전히 청산한 아들딸로 태어났다는 해방적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부처끼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 부부생활을 못 했습니다.

세상의 가정, 종족, 민족은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개인적 중심, 가정적 중심, 국가적 중심, 세계의 중심적 존재를 찾아 통일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해 줬습니다. 사탄세계의 50억 인류를 망쳐 놓은 대신, 그 이상의 자격으로 불러 세운 것이 축복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중심삼고 미국이 아벨이면 여기(브라질)는 가인, 천주교권입니다. 라틴 문화권, 천주교는 가인권입니다. 형님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교, 동생을 통해야 합니다. 동생이 이 천주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교, 동생인 아벨 국가권 북미를 하나 만들어 그 위에 부모님이 와서 미국에 닦아진 모든 세력 기반을 통해 이 모든 남미 제국, 천주교 문화권을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천주교 문화권을 따라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또 통일교회가 천주교 문화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가 생겼으면 천주교 문화권이 통일교회를 통해서 가야 되고, 브라질 사람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268-196 : 1995.04.01) p.2200

종족적 메시아의 종족적 기반인 180가정은 전부를 하늘 앞에 봉헌해야 됩니다. 축복받기 전의 모든 소유, 집이니 땅이니 만물이니 소유물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축복과 더불어 아담 앞에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서지 못했고, 참부모가 주인 자리로 오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주인 자리에 서지 못했던 것을 사탄세계에서 천사장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아들을 통하고, 어머니를 통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족장을 중심삼은 전체가 헌납해야 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혈통 복귀, 소유권 복귀, 심정권 복귀를 7 대를 중심삼고 헌납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85-231 : 1997.06.05) p.2201

지옥이 둘이 있습니다.

지상지옥 천상지옥이 있지만, 천국문은 하나입니다. 지옥문이 열린다고 해서 땅에서 천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문이 하나의 천국 문입니다. (294-103 : 1998.06.14) p.2201

소유권 · 심정권 · 실체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국가와 함께, 세계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물로서 참부모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 드리고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참부모를 통해 여러분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 만물의 소유권 평면적 기대가 연결됩니다. 그곳이 지상천국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서 소유권을 지상에 연결해야 했는데, 타락했으니 탕감의 길을 거쳐서 재차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유권, 절대적인 사랑의 주권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해방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정맹세 8 번에 지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295-243 : 1998.08.28) p.2201

아무리 이상가정을 바라고, 아무리 이상적인 부모를 바라고, 아무리 이상적인 부부를 바라고, 아무리 이상적인 아들딸을 바란다 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참부모를 통해서 종합적인 완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전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참부모를 대신한 후계자로서 천하에 없었던 형제의 자리에서 같은 씨의 가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하나된 것과 같은 씨의 가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계에서 수확된 가정을 확대한 그 기반에서 모든 인간들의 새로운 후손의 씨를,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되어 뿌린 씨와 같은 가치의 씨를 만들어 놓으면, 챔피언의 기록을 인계받을 수 있는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있는 자가 세계를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힘으로 대결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힘있는 자가 힘있게끔 환경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약한 자를 전부 휩쓸어서 챔피언 십, 신기록자와 같은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승리의 결과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지구상에서 청산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301-19 : 1999.04.16) p.2201

세계 모든 가정들이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부모의 아들딸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각성이 벌어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세계적 천국이 현현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집 전체를 중심삼고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지상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46-132 : 1986.06.08) p.2202

성약시대라는 것은 전세계가 골고루 참부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입니다. 그야말로 여성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251-286 : 1993.11.01) p.2202

타락한 이 세계에, 악마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이어받은 이 세계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과 딸이 하나돼 가지고 이 세계를 수습해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잃어버렸던 가정의 혈족적 인연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국이 해방되어 환영하는 그 터전 위에서 이 온 악마의, 사탄세계의 소유권을 참사랑의 주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넘버 원 남자 여자, 넘버 원 아들딸을 중심삼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전세계 인간들은 참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상세계의 본연적 고향땅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지옥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하는 나라와 싸워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 통일교회는 세계적 메시아권의 승리를 이어받고 국가적 메시아권을 넘어서 종족적 메시아권으로 찾아 내려온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종족권을 중심삼고, 사탄 가정에 들어가 세계와 교체해야 됩니다. (210-42 : 1990.11.30) p.2202

Top

제 4 장
천일국 백성이 되는 길

1)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의 뜻을 중심삼고 하나의 사랑에 화합하여 살고, 온 하늘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면서 그 사랑을 실제 생명의 중심으로 세운 가운데 전부가 하나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과 관계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관계맺지 못하고 인간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온 피조세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시려는 그 사랑을 중심삼고 온 만물을 규합하여 하나님과 만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한 날을 소망하시면서 지금까지 6 천 년 역사를 경과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온 피조만상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이념은 이념대로 남아 있고 찾아야 할 소망의 사랑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기필코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섭리해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타락 이후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인간을 대하여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을 찾기 위하여 오랜 동안 섭리해 오셨으나 아직까지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88 : 1956.06.06) p.2203

창세 이후 지금까지 우주적인 승리의 한날을 맞지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인간을 통하여 소망하시는 그 승리의 날을 맞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인간들이 그날을 찾아드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인간을 유린하고 있는 사탄을 처치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참소하는 사탄의 세력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고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떠한 희생도 개의치 아니하시며, 어떠한 싸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개개인을 세우시기 위하여 방패가 되어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체 개체를 세우시어, 인간을 타락케 했던 원수 사탄을 분별하여 사탄이 주관하는 악의 역사를 종결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고, 하늘 앞이나 만물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오신 섭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301 : 1957.06.30) p.2204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 소망의 인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타락 전부터 품어오신 그리운 심정, 타락 전부터 품어오신 소망의 심정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는 슬픔이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 대해 하나님은 슬픔의 심정, 분함의 심정을 억제하며 그리운 마음을 다시 찾기 위하여 가인과 아벨을 세우셨으니, 그 소망을 이루어 주지 못하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슬픔만 가한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후 1600 년이란 세월을 지나 다시 노아를 세우셨으나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400 년을 지나 아브라함을 세우셨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워하던 한 사람을 만나 심정을 나누고자 하셨으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품으신 그리움의 심정을 온전히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3 대를 거치면서 수천년 동안 품어오신 그리움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야곱 가정을 세우셨으나 그 가정을 놓고도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놓으시고도 이러한 그리움의 심정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 그들의 뒤를 따라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워하시던 하나의 민족의 형태를 땅 위에 세워 놓으시고 그 민족이 도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고충을 느끼시고 슬퍼하셨으며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역사노정을 거쳐오는 동안 그리움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역사에 심어주고 세계에 심어주기 위하여 싸워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물건 하나에도 하나님의 그리움이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식구에게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리움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그리움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만상을 바라볼 때, 그 만상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만물도 그러하거니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악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한 기준을 놓고 그리워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때, 하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8-93 : 1959.11.22) p.2204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서러움의 역사과정을 거쳐 오시면서도 인류를 버리지 못하시고 붙안고 나오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해 너는 내 친아들딸이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싸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만물이 화동하는 가운데 만물의 주인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 본연의 아들딸이 나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한마디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는 죄악의 입장에서 불려질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 선의 이상 동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상동산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시에 기쁨에 도취되어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동하면 만물이 동하고, 인간이 정하면 만물이 정하게 되어 인간과 만물이 동하고 정하는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도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초월하여 일체될 수 있는 이상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와 같이 당신과 하나되기를 바라셨고, 하나된 가운데서 놀라운 사랑을 중심삼고 기쁨에 취하는 그 한 장면을 그리시면서 그러한 세계를 창조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들이 타락함으로써 이것이 자기들의 원한이 된 동시에 천륜의 원한이 되었고, 타락 이후 지금까지 그 원한에 원한을 가중시키는 슬픈 역사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대하시어 섭리하시는 최대의 희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락의 부모를 갖고 있는 인류를 다시 하나님 편에 세워 놓고 나는 그대들의 영원한 아버지요, 그대들은 나의 영원한 아들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날을 맞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역사적인 소망이요, 천륜을 대하는 천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3-26 : 1957.09.15) p.2205

오늘날 이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비젼과 의견을 갖고 살고 있고, 또 어떠한 주의 주장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늘 땅 앞에 자신 있게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최후에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주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행동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을 대신했고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위에 나오기를, 오늘날까지 역사상에 왔다 갔던 많은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대신자가 나오기를 바라며 무한한 수고와 인내를 하시며 오랜 동안 섭리해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의 서러움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주의가 없어서 서러운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서 서러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주장할 수 있는 주의가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서러움이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오늘날 이 땅과 인간 세상에 널려 있는 탄식과 고통과 사무쳐 있는 모든 원한을 제거하는 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주의 주장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섭리의 목적도 이 한 사람이요, 역사의 목적도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느껴야 하겠습니다. (3-317 : 1958.02.02) p.2206

여러분은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친구를 가져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대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형제, 부모, 부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가정을 넘어 사회, 국가, 세계적인 무대로까지 뻗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개인의 입장에서 몰아내어 믿을 수 없는 입장에 세워 놓고 인간세계의 어떠한 소망도 다 끊어 놓은 가운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믿는 사람이 합하여 즉, 형제 형제끼리, 친구 친구끼리 하나님 대신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4-146 : 1958.03.30) p.2206

레버런 문이 사탄한테 묻기를 '사탄아,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당시켜 줬느냐, 안 줬느냐?' 할 때 충당해 줬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은 모든 것을 중심삼고 타락한 사탄까지도 다 사랑하고 남을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사탄은 '당신이 가는 세계는 해방이요, 당신의 소원은 이루지 못함이 없소.' 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함이 없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참가정의 이름으로 세계는 해방될지어다!' 할 때는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아무리 강하고 얼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봄이 되었으니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탄이 악의 씨를 뿌렸던 이상 세계 끝까지, 미국 끝까지 씨를 뿌려라! 좋은 씨는 가정입니다. 사탄은 딱 하나 심었습니다. 그게 타락한 아담과 해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그걸 갈고 닦아야 합니다, 새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 미국 땅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입니다. (189-65 : 1989.03.12) p.2207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크기를 바란 것이 무엇 때문이겠느냐?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좋겠어요, 낮아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커서는 안 돼!'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싸우면 하나님이 더 정열적이겠어요, 약하겠어요? 정열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정열적인 때는 어떤 때일 것이냐? 옛날 우리 조상보다 새로운 남자 여자가 나타나서 더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숨이 차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정열적인 부부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떨어져서 살겠어요, 붙어서 살겠어요? 붙어서 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중심삼고만, 사랑에서만 영원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사랑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195-313 : 1989.12.17) p.2207

Top

2) 천일국은 본연의 고향

인간은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 가정의 형제입니다. 누군가의 부인이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가정의 부인이나 남편을 말합니다.

내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실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자극을 받기 위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제 2 의 실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상대를 필요로 해서 만들었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인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258-274 : 1994.03.20) p.2207

지금까지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모두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 사탄의 백성 · 사탄의 물건 모두가 사탄의 소유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훔쳐 갔습니다. 참부모도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참자녀 · 참나라 · 참세계로서의 소유권을 가진 적이 아직 없습니다.

참사람,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86-118 : 1989.01.29) p.2207

지금까지 하나님은 소유권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악마가 주인이 되었지, 하나님의 아들딸이 주인이 못 되었습니다. 악마와 악마의 아들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앞에 주인 대신 행세해 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놀음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회수해야 합니다. 만물이 전부 본연의 부모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부모와 참자녀 · 참나라 · 참종족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3-185 : 1990.06.24) p.2207

이제 우리는 아무개 아들딸, 아무개 형제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참부모의 아들딸이요, 세계와 천주를 해탈시킬 수 있는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신입니다. 그런 나에게 일족이 사탄의 자리에서 화살을 던졌지만, 나는 몇천 년 역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내 갖출 바를 다 갖추어서 메시아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 반대하던 일족과 부모를 찾아가서 구해 줄 수 있는 평면적 재림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지구성 천국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축복가정들이 지금까지 살아 나온 모든 행동과 생활은 다 빵점입니다. 악마의 소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자체의 해방권을 맞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옛날과 같은 습관성으로 아들딸을 품고 그대로 행복하기를 바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203-180 : 1990.06.24) p.2208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니실 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가 즉시 죽어 버렸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와 같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열매를 의미하고, 중심핵을 의미하고,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과나 복숭아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을 못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본연된 백성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된 백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15-339 : 1991.03.01) p.2208

참나라를 지상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본연의 아담과 해와에게 ``너희는 완성된 때에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하신 그 뜻을 이루고, 인간은 비로소 이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야 비로소 인류는 서로 참다운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대하여서는 참다운 효자 효녀요, 주인을 대하여서는 충신이요, 이 우주만물을 대하여서는 참다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권을 맡기시는데, 외적인 전권만이 아니고 내적인 전체의 심정의 중심까지 옮겨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도 안심하실 수 있는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5-329 : 1959.03.01) p.2208

인류 역사는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거쳐 새로운 광명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인류의 태양은 '인류의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나오기 전에는 인류의 고향인 본향 땅이 나올 수 없습니다. (16-258 : 1966.06.19) p.2208

사랑의 고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종족적 메시아의 복음이요, 희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을 중심삼고 혈통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향이 내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핏줄이 거기서 흘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왔습니다. 그 핏줄을 넓혀 가지고, 만국의 사랑의 흐름이 깨끗한 물로 되어 하늘나라라는 대해(大海)로 들어가는데, 그곳이 영계입니다.

영계는 이 땅 위의 사랑의 대해가 연결된 세계로서, 그곳이 천상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에서는 사랑의 체휼적 심정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심정은 자녀의 심정, 그 다음에는 형제의 심정입니다. 형제는 확장이고, 부부는 통합입니다. 이렇게 합해 가지고 중앙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본연적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삼고 하나 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이들이 성숙해서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실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수직이냐 하면 사랑이 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비로소 여기서 횡적인 아담과 해와가 종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랑의 실체 앞에 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정적인 정착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이 한 점을 중심삼고 완착(完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라고 했지요? 그러니 남자가 중심입니다. 왜 남자가 중심이냐 하면 아기 씨, 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는 아기씨가 없습니다. 그게 핵입니다. 사랑의 씨앗도 생명의 핵과 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하나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핵심적인 정착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는 곳입니다. (226-173 : 1992.02.04) p.2209

현재 타락권 내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가야 할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고향해야 되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는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창조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창조목적을 완성한 자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입장에서 보면, 단 둘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하늘땅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한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아들딸로 지었던 아담과 해와에게 부여한 책임이었습니다. (113-162 : 1981.05.03) p.2209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중심삼고 이것을 천국 고향으로 어떻게 대치해서 확대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를 설정한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설정함으로써 어머니는 아담 가정 대신이고, 그 다음에 자신은 예수님 대신이고 선생님은 재림주 대신이 됩니다. 3 대, 2 대, 1 대가 횡적으로 참부모권을 역사의 근원지인 자기 조상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담과 해와 대신이고,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이고, 선생님은 재림주 대신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하늘나라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토권 내에 있는 고향의 자리를 다시 복귀해 온 것입니다. (215-129 : 1991.02.06) p.2210

여러분의 고향은 고향이 아닙니다. 나라가 고향이 될 수 있는 때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나라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있던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고향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일을 해 놓으면 영계에 가서 국경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향 땅 어디에나 연결될 수 있는 지상천국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모든 국가의 호적에 입적한 것이 하늘나라로 그냥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번식한 인간의 고향이 하늘나라의 고향으로 대치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태어난 입장에서 전부 접붙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향이, 그런 국가가 복귀되면 천주가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 참부모 복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부모 복귀, 참부모가 설 수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모든 하늘나라의 조건, 천주 복귀의 기반을 완성해야 참부모가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216-131 : 1991.03.09)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참부모가 난 곳이요, 하늘나라입니다. 서울이 참부모가 난 곳이고 하늘나라예요? 그 컨셉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그 컨셉을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난 전라도 사람이야. 난 경기도 사람이야. 난 한국 사람이야. 난 미국 사람이야!' 하는 컨셉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해와는 그런 컨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69-174 : 1987.10.31) p.221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 최후에 넘어야 할 조건은 하나님을 갖고, 참부모를 갖고, 참형제를 갖고, 참백성·참나라·참세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내 형제요, 너와 나는 영원불변이라고 할 수 있는, 나눠질 수 없는 형제의 심정을 통하여 천적인 가정의 식구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 하늘은 우리의 것,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참다운 가정을 중심삼고 이 땅 위에 참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10-354 : 1960.11.27) p.2210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를 살펴보게 될 때, 하늘나라에 남아질 수 있는 백성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민족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은 어디 있으며, 그러한 물건, 그러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5-017 : 1958.11.09) p.2211

남편을 아무리 잘 얻었고 아무리 잘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하버드 대학 총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가정·사회, 국가, 세계·인류의 환영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78-263 : 1996.05.26) p.2211

천일국에서 주권과 나라와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의 하나님 왕권즉위식은 주권복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조국 정착대회는 땅 복귀요, 그 다음엔 천일국 국민으로 입적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카드를 가져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과 땅과 백성이 완비된 위에서 이러한 천일국의 만세 안착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같이 자신을 갖고, 문 총재 참부모와 같이 자신을 갖고 냅다 미는 데는 밀리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364-87, 2002.1.1) p.2211

하나님 왕권수립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부모입니다. 천일국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천일(天一)'이라는 말은 천주평화통일국(天宙平和統一國)입니다. '하늘 천(天)'자는 풀어쓰면 두 사람(二人)입니다. 두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입니다. 하늘나라와 지상의 사람, 하늘사람과 지상사람의 이중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과 몸이 이중구조로 돼 있지요? 마음 몸이 하나 돼 있나, 안 돼 있나? 싸우는 패는 천일국의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364-101, 2002.01.01) p.2211

하나님 왕권 즉위식 후에는 뭘 했느냐 하면, 한국에서 선생님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조국정착대회를 했지요? 그건 참사랑의 혈통을 이어받아라 이겁니다. 그걸 세계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천일국을 선포했지요? 천주평화통일국 그게 천일국입니다.

천일국(天一國)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예요. 하늘은 두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모가 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물도 전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천일국은 뭐냐? 곤충세계 동물세계로부터 전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안 되면 안 됩니다. 두 물건, 두 사람, 두 부모, 두 성격, 주체 대상이 하나된 곳에 본연의 발등상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지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까지 합하면 세 사람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라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기반이요, 나라의 기반이요, 세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이 생기고 종족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70-88, 2002.02.19) p.2211

오늘은 천일국 2년 11월 5일, 제43회를 맞는 참자녀의 날이옵니다. 하나님 날과 자녀의 날과, 만물의 날을 총합해 가지고 에덴동산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천상세계까지 확대한 대인류를 중심삼고 에덴의 가정 완성을 종결지을 수 있는, 천일국을 중심삼은 평화통일평정시대를 발표하였사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천주평화통일해방성화식이 끝난 가정 가정을 방문하는데 지장이 없게 방문하시어서 동거, 동락할 수 있는 시대로 같은 생활권에서 맞을 수 있게끔, 천상세계의 소원이 지상에 있고, 지상세계의 소원이 천상에 있으니, 하늘의 원대로 땅의 원대로 서로 하나 되어 평정된 기준에서, 해방된 충효의 도리를 남겨 가지고 지상에 천국중심에 조상들로 남아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천일국 평화통일 평정시대 도래를 발표했사오니 이제 영계의 한을 풀고 지상에 재림해 후손들을 협조하고, 종단장들은 종교를 중심삼고 세계에 협조할 수 있는, 불의로서 하늘을 고심 가운데서 얽매었던 모든 것을 해원성사 해방할 수 있는 자유 활동 자발적인 중심삼은 소생의 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시대를, 공히 갖출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96-158, 2002.11.05) p.2212

오늘 표어가 뭐예요? 참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천일국의 효자-충신-성인-성자의 참가정을 완성하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전체가 참가정을 중심삼은 효자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충신이요, 충신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성인이고, 성인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성자고, 성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왕권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래, 상속이라는 것은 왕권을 차지한 그 기반에서 이뤄지지, 자기에게 처해 있는 소유권이니 자기나라에 속해 있는 것은 전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어차피 작별해야 할 타락한 세계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원수의 핏줄로 연결된 더럽혀진 그 세계는 하나님이 그림자도 걸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든 악한 세계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망하고, 흥망성쇠를 거쳐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관장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400-192, 2003.1.1) p.2212

백 퍼센트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효자의 가정이 되어 보고 싶지요? 거기에 뭐가 아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대신 자기의 7 대조로부터 전부 불살라서 제물 삼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조업전이고 뭐고 나라까지 팔아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총생축헌납을 교회에 납부하라는데도 주저해 가지고 먹다가 남은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그러다가 두 부부가 즉살해 죽어 가지고 장사터에 가서 사라져 버린 것을 알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400-220, 2003.01.01) p.2213

Top

3) 천일국 백성의 태도와 자격

하나님은 그냥 외적으로 민족의 형태만 갖춘 민족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형태만 갖춘 국가를 고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을 움직일 수 있고, 국가와 주권이 있으면 그 국가의 주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심정으로 연결된 하나의 주권과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백성을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신을 어떤 목적을 위해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에 부딪치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취해야 할 태도였으며, 하나님을 대하는 심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임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노정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대한 범죄보다도 그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범죄가 컸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복귀하는 데는 무엇부터 복귀해야 할 것인가? 소원도 소원이거니와 사정, 더 나아가서 심정을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끊으려야 끊을 수 없고 나누려야 나눌 수 없는 심정의 세계를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한날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배후에서 심정의 터전을 넓히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이것을 몰랐던 선조들에 대하여서는 공분의 심정을 품고 항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엉클어진 생활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 위에서 행복한 생을 살았다고 자신의 영락(榮樂)을 노래하는 자가 있다 해도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일생 동안 어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정이 아니라 사정을 지배할 수 있는 심정입니다. 이 심정이 역사를 지배하고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나오며, 사상을 연결시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9-337 : 1959.06.21) p.2213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을 구원해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편에 있는,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나오고, 그 나라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나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어디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영계에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지상천국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중심입니다. (87-106 : 1976.05.16) p.2214

여러분이 '과거의 인간이 이랬구나. 오늘의 나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의 사정이 이랬고, 하나님의 뜻이 이랬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고, 아버지의 고통이 슬픈 아버지였으니,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제물되어 나왔으니 그 제물을 받기 위해서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슬픈 눈물로써 '아버지께서는 주기 위해서 슬퍼해 왔고, 주기 위해서 피땀 흘려 왔으나 우리 인간은 받기 위해서 죽어 왔고, 받기 위해서 눈물 흘렸고, 받기 위해서 고통받았으니,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한 날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울음으로 출발하여 기쁜 울음이 앞을 가려 내 입이 복받치는 사무친 한이 다 폭발되어 나와 가지고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야 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할 수 있는, 천하만물의 모든 복을 앞에 갖다 놓고 심정과 사정과 통할 수 있는 일체적인 이념권 내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네 아버지다.' 할 수 있는 부자의 인연을 복귀하여 인침을 받아 비로소 하늘가정을 이뤄 가지고 하늘백성을 이루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주권, 하나의 천지를 만드는 것이 인간인 내가 찾아야 할 인연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151-336 : 1963.02.05) p.2214

천국 백성 단계에 들어가야 할 운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은 역사적인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한 존재가 나를 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인 하늘나라의 동포를 위하겠다는 관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형제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부부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부모를 위하여 애쓰고자 하는 관념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주적인 관념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작정 예수를 받들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천지의 운세에 화합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섭리를 중심삼고 천국복귀의 이념을 세워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설 수 있는 아들 딸 그리고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동포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믿는 백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형제로 또 동포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의 책임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6천 년 역사를 종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늘 백성을 모았고, 신약시대에는 하늘의 자녀를 모았습니다. 이렇듯이 역사는 거꾸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1-336 : 1956.12.30) p.2214

이 땅의 어느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오늘날을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 즉 역사적인 종결?과학적인 종결?윤리와 종교적인 종결을 예고하는 세계적인 종말시대에 처해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예수님께서 외치시던 말씀, 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불변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자신을 만 우주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그 나라의 본질적인 이념의 내용을 여러분 자체의 생활에 적용하여, 그것이 여러분 생애의 실정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소망의 그 한날을 이루어 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여러분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 타락 이후 4000 년 동안 수고하신 후 예수님을 보내시어 역사하시게 한 뜻과, 예수님 이후 오늘날까지 예수와 성신을 합한 삼위신이 역사한 그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찾아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즉 천주적인 이념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불의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일신의 생활에서 투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대신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이 그 나라에 처할 수 있는 사람, 그 나라의 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먹는 문제?마시는 문제?입는 문제를 넘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오히려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부여되면, 그것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조각의 빵이 있다고 하면 그 빵을 혼자 먹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정을 대신했는데 예수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인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원인, 싸움이 벌어지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만 먹기 위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불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화살이고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려는 마음, 즉 가정불화의 조건을 타파하여야 되겠고,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모순을 밟고 올라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의식주(衣食住)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입장에 처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3-125 : 1957.10.13) p.2216

여러분은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부딪치더라도,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일신을 부정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사회와 민족, 국가, 세계를 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와 세계를 부정하고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서러운 환경에 부딪치더라도 자기 일신 때문에 서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세계,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서러워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어떠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류를 위해 수고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적 기준까지 나아가야 되겠고, 지금까지 수고해 나오신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을 위로해 드리는 하나님의 참자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보면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이 세상 끝까지라도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겠고, 나아가 애달픈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해 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사탄과의 싸움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여, 개인으로부터 가정?사회, 민족, 국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겠으며, 국가에 나가면 그 국가의 제일 어려운 문제를 책임지고 나서서 사탄들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만약 이러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보기에 당장엔 망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또 바로 그런 사람이 어느 집안이나 직장?단체, 국가의 주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효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열남 열녀의 도리를 다하고, 국왕을 위해 충신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주인이며 그 국가의 주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몸으로 화하여, 사탄까지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백성으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3-131 : 1957.10.13) p.2217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나라의 백성이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만 살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희랍문명이 로마를 위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듯이 말입니다. 로마도 자기 나라의 문명이 영국을 거쳐 현대문명을 위하여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남의 나라를 위하여서도 일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천륜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이념이 서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은 비록 조그마한 교회에 앉아 있지만 이것을 넓히면 세계를 대신할 수 있고, 나아가 천성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심정을 느꼈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계의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4-110 : 1958.03.16) p.2217

역사적인 종말시대에 우리들은 호화찬란하게 입고 배불리 먹고 사는 민족이 아니라, 역사를 대신하여 참고 봉사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거꿀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 나오던 어떠한 이념과도 반대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런 때가 와야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할 역사노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막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의 아들딸이 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참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참는 데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구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참아야 합니다. 한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위하여 참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사상이 없는 도(道)가 없습니다.

한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 때는 어떠한 때냐? 마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때입니다. 인간은 마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싸우며 그 때를 위해 찾아 나아가야 할 역사적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데는 싸움의 노정이 없을 수 없으니, 이러한 곡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싸움은 어떠한 싸움인가? 참는 자가 먼저 맞는 싸움이요, 희생하는 자가 지배받는 싸움이요,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의 역사노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선을 부르짖고 나온 사람은 어느 누구나 고통의 노정을 참지 않으면 안 되었고, 민족을 대신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10-230 : 1960.10.16) p.2217

못사는 사람은 도와줘야 합니다. 일본을 중심삼고 미국을 돕고, 미국을 통해서 굶어 죽는 아시아 사람, 불쌍한 인도 같은 데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국민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사람이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지금 한국이 비참한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한국을 도와주면 한국 백성이 날 찬양하며 좋아할 것을 알지만, 내가 한국은 안 도와주고 미국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122-282 : 1982.11.21) p.221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내 생활문화 배경에 역사시대의 흔적이 남아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순수한 본연의 백성이 못 됩니다. 사탄세계의 문화배경을 중심삼고 습관화한 그런 흔적이 하늘나라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활적 습관적 요소가 남아 있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197-286 : 1990.01.20) p.2218

백성만 돌아가면 땅은 자연히 돌아가게 됩니다. 주권만 세워지면 백성도 돌아가고 나라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버런 문은 세계적인 주권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지인 미국과 소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련이 지금까지 미국과 양극화되어 있었지만 이들조차도 세계 정상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정상을 이끌고 싶은 것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이끌고 나갈 기관차와 같은 것이 레버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주권에서 하나의 백성, 하나의 땅, 하나의 문화권이 에덴동산인데, 에덴동산에는 언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는 천국모국어(참부모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216-30 : 1991.03.03) p.2219

한 국가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대표자가 있고, 종족에는 종족의 대표자가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전체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적인 부모, 교단적인 부모, 가정적인 부모를 모시고 나아가야만 하늘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세계 인류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주적인 부모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교단적인 부모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우주적인 부모가 나타나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단적인 부모를 상봉시킬 수 있는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6 천년 동안 섭리의 뜻을 세워 나오셨으나, 교단을 중심삼고 대제사장의 책임을 지고 와야 할 재림주의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신랑 신부라는 약속권내의 섭리는 이루었으되 신랑 신부가 교단을 중심삼고 생활할 수 있는 참부모의 자리에는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부모의 위치가 결정되기 전에는 참다운 자녀들로 이루는 참다운 가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부모의 위치가 결정되기 전에는 교단적인 부모의 위치가 결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5-122 : 1959.01.04) p.2219

언제나 밝은 빛을 24 시간 발하고, 언제나 뜨거운 열을 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벌레들이 캄캄한 밤이면 전부 빛이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사랑의 힘, 밝고 뜨거울 수 있는 것을 장구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86-302 : 1976.04.11) p.2219

참아버지의 나라, 참어머니의 나라, 참장자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서 천국 백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아들딸이고 천국의 주인이다, 그런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황족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효자, 나라의 주인은 애국자인데, 이것이 죽 하나로 연결돼야 합니다. 한 길로 가야 됩니다. 효자로부터 애국자, 애국자로부터 성인, 성인으로부터 성자가 되는 것이 죽 한 방향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를 절대 필요로 한다, 어려운 자리이거나 행복한 자리이거나 같이 있겠다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부정하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면, 거기에는 탕감이 없습니다. 한번 이룬 결과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입니다. (293-209 : 1998.05.26) p.2219

여러분은 이 나라가 인정해야 참가정이 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종족이 인정하고, 이 나라의 가정이 인정하고, 이 나라의 개인이 인정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의 인정권을 넘어서야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기서 인정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갈 길은 막히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4-218 : 1985.07.20) p.2219

여러분의 약혼자가 마음에 맞지 않아도 참고 희생하고 참고 봉사하면서 가야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배우지 못할 것인데,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고생을 더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갖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그 아들딸로 만들기를 소원하는데, 약혼자가 얼굴이 조금 못생기고, 일본 사람이고, 키가 작다고 해서 '아이구, 내 맘에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 제일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보다 희생하고 보다 봉사하면 일등 천국에 간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위대한 남편이 되고, 성인 남편이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통일교회 교인이면 그만한 것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116-95 : 1981.12.20) p.2220

여자에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귀한 것이 남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제일 기쁜 것은 자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 것도 아니요, 어머니 것도 아닙니다. 이 세계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족보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딸이지만 다 국적(國籍)에 들어가 있지요? 국적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아들딸은 하늘나라의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부는 하늘나라를 대표한 남편이요, 하늘나라를 대표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이어야만 입적하게 될 때 하늘나라의 기준 앞에 박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공명(共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명적 체험을 이 땅 위에서 하지 않고는 천상세계에서는 아무리 축복을 받았더라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가졌다는 것이 제일 행복입니다. 둘이 합해서 사랑을 중심삼고 아들딸을 가졌다는 것이 제 2 의 행복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보금자리를 세계에 전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 백성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233-212 : 1992.08.01) p.2220

삼위기대는 3 대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의 3 대 제물이 있었고, 노아에게도 3 층짜리 방주가 있었지요? 전부 3 대 제물입니다. 이렇듯 제단을 쌓아 놓고 세 사람이 제물을 드리며 그 지역의 백성을 위해 충성과 성심을 다하고, 자기 아들딸을 대하여 복을 비는 심정을 갖고 그 지역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역을 맡아 3 년 동안만 움직이면 하늘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150-26 : 1958.08.17) p.2220

참사람은 전체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 사람입니다. 참사람 가운데는 참아들이 있고 참딸이 있고, 참선생 · 참친구 · 참부모 · 참형제 · 참가정 · 참나라 · 참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천국은 어떤 곳이냐? 보다 전체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124-168 : 1983.02.06) p.2220

아담과 해와는 개인에서 잘못 결혼함으로써 망했으니, 이제는 거꾸로 국가간에 있어서 2 세가 교체결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 원수를 녹여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이란 나라를 중심삼고 6 개국의 원수 나라들이, 일본?한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원수들이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의 충신 이상 새로운 나라를 소생시키기 위한 전통으로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국적인 사랑의 터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된 그 터전 위에 천국이 출범하는 것입니다. (192-85 : 1989.07.02) p.2221

천국에 가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은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장도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해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과 해와의 사랑을 받고 나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원리입니다. (243-280 : 1993.01.28) p.222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면 전체 여자를 대신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 나를 보고 있는 여자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표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손들은 틀림없이 표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본을 따라 연결되는 곳이 천상세계,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기에 합격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무사통과지만 합격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참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를 통해 완성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저 나라에는 그런 교육제도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교육받고 가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227-376 : 1992.02.16) p.2221

천국의 백성은 만민 앞에 봉사의 깃발을 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 민족을 위하여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곧 천국 백성입니다. 이러한 백성을 규합해 가지고 천국 이념을 성취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5-17 : 1958.11.09) p.2221

원수의 자식을 자기 아들딸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기성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죄와 나쁜 보따리를 전부 사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모두 가짜입니다. 그것을 안 문총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실적을 거두어 그것을 드리면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없는 우리 선조의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겠어요?

참부모가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자리를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가 이제는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이라는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참부모가 비로소 환고향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고향 하는 데는 흩어졌던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고향 가서 참부모가 자리를 잡아 결혼식을 했으니 아들딸을 결혼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다른 종교와 반대의 길을 가지만, 그릇된 종교가 아니고 정통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부모라는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부모가 가르쳐 준 그 세계와는 반대의 세계에 섰다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의 자리에서 도를 닦아 참부모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참부모는 으레 환고향을 해야 되고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부모의 아들딸도 환고향해야 되고 가정을 갖는 것은 이론적입니다. (273-289 : 1995.10.29) p.2222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내가 넘어와 있다.'하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해야 됩니다. 천주평화통일 해방성화식을 했으니 그 고개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구, 갈 길이 막막하다.'하며…. 갈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 갈지 모르고 피난보다도 지금 고통이 앞을 가리고 있어 깜깜 천지인 줄 알고 가니, 옛날에 살던 것을 중심삼고 그리워 가지고 여자들은 틀림없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에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인네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396-134, 2002.11.05) p.2222

여러분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전부를 총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맹세문도 '천일국 주인, 주인이 되는 겁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그게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러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겠지요? 맹세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맹세문에 주인이 생겼어요, 누구나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일국이라는 말은 영원히 참부모로 말미암아 생긴 말입니다.

하나님 왕권 수립해 가지고, 천지부모 안착생활권을 거쳐, 지상천상화합통일대회를 거쳐 가지고, 천주지상천상평화통일 해방성화식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96-149, 2002.11.05) p.2222

몸 마음이 하나 안 되면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암만 믿더라도 천국 못 갑니다. 싸우는 데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이 여기에서 입적 수련을 받고 축복받을 때 '정오정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 마음이 하나 안 되면 햇볕이 비칠 때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왼쪽으로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몸뚱이가 양심보다 높게 되면 왼쪽에서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이 정오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상중하가 수직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 대라면 아담이 2 대고 3 대권이 수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 대가 없습니다. 손자 손녀를 못 가진 불쌍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요, 우리의 스승 중의 스승이요, 주인 중의 주인이요, 왕 중의 왕인 천하의 대주재되시는 그 양반이 이럴 수 있는 비참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타락한 인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400-197, 2003.01.01) p.2223

Top

4) 천국의 소유권을 얻으려면 하늘백성을 많이 데려가야

여러분은 '우리는 소망의 백성을 찾아 나선 무리다. 소망의 나라를 소생시키기 위한 무리다. 우리가 손대는 날에는 나라를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국민이 소생된다. 우리는 나라의 전통적 사상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올바른 전통적 사상으로 그들과 합해 가지고 올바른 나라를 찾아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런 무리를 모집하기 위한 모병 책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사랑한 자리와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친척, 혹은 부모 형제 처자를 사랑하던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다른 의미에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찾아 나오시는 소망의 이상세계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보여 주어야 그들이 나를 따라와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모여드는 백성을 잘 연결시켜야 하늘의 조국 광복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57-179 : 1972.05.31) p.2223

하나의 백성이라는 말 가운데는 흑인, 백인, 황인종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백성은 모든 문화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모든 습관과 환경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의 백성이 되어 부모를 중심삼고 형제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세계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하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악한 사람은 언제나 남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은 가정교회 활동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수많은 종족이 있더라도 하나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6-215 : 1982.01.01) p.2223

통일교회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통일교회의 정상적인 식구로 취급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론적 기준에서 자동적으로 분별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탄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으니까, 원칙적인 사랑의 기반에서 축복받은 남자 여자로 섰으니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기준 아래가 아니라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참소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참부모님의 핏줄을 통해서 전부 본연의 혈통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 혈통권에 있을 수 있다면 사탄은 생겨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 분별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72-066 : 1988.01.07) p.2223

통일교회는 가정천국 이상을 위해서 전진하는 대표적 교회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는 나라가 깃들고 세계가 깃들고 하늘땅이 깃들고 하나님이 깃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의 혈족의 인연을 가졌으니 앞으로 돌감람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감람나무 씨를 가지고 만국 어디 가서 뿌리를 내리더라도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만국 만방을 넘어서 동일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결실을 거두어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납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었더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을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탕감의 역사가 없는 자유 해방권 내의 천국 백성을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통일교회 가정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종족권이 발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족을 천국 종족화시키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역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통일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면 잎이 강제로 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히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아침해가 떠오르는 그 세계가 목전에 다가왔으니 해방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중심삼고 위세당당하게 천지의 대주인으로 출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256 : 1990.05.24) p.2224

선생님의 소원은 하늘나라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세계에 속한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180 도 방향을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위에 자리하고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영점이 돼야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만큼 데려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 덕분에 모두 하늘나라 백성이 됐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을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는 아들딸로 교육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분의 아들딸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 나라의 재산입니다. 시집가는 색시들이 시집갈 때 살림살이 해 가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저 나라 갈 때의 선물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은 물론, 수많은 나라의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할 때는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215-182 : 1991.02.17) p.2225

원리 말씀을 통하여 사업이면 사업 분야에 있어서 전부 하늘나라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선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뭣 가지고 가느냐? 자기 가족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만 데려가면 사탄세계의 이 가인의 아들딸을 누가 구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들어간 백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을 많이 복귀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선물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나 무슨 활동이나 실적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216-135 : 1991.03.09) p.2225

영생 기반이 없어 가지고는 장구(長久)한 투쟁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흘러갑니다. 선생님은 영생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힘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어느 코너에서 죽을지 몰라요. 언젠가는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갈 때 하늘 앞에 무얼 가지고 갈 거예요? 몸뚱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두 하늘 백성을 거느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뒤에는 많은 백성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230-61 : 1992.04.15) p.2225

영계에서의 소유권은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나 데리고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재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따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몇 백만이 전도될 때가 옵니다. 통일교회에 그런 굉장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라구요. 지금 죽느니 사느니, 인생이 무엇이니, 자리를 못 잡고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돌아가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부터는 교류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 교류시대, 인근의 3, 4 개 국가를 중심삼은 교류시대, 그 다음엔 대륙간의 교류시대, 더 나아가 동서양의 교류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류하게 된다면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 국가 국가를 보게 되면 경계선에 접해 있는 국가끼리는 대개가 원수시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 부딪치는 게 많아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영계에선 암흑의 시대에 살던 사람은 다 장벽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틀 거예요? 땅 위에서 후손들이 터쳐 줘야 합니다.

그 후손들이 터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려니까 일본사람을 미워하던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아벨의 사명입니다. 먼저 안 사람이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18-227 : 1991.08.19) p.2226

저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 위에 있을 때 하늘나라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접붙여 가지고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이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이 2세들에게 이 의식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취직이다 뭐다 해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계, 하늘나라의 백성을 생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다. 지상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원칙적으로 생산했다면 전부 하늘나라의 소속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230-24 : 1992.04.15) p.2226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본업입니다. 생애에 해야 할 일 중에서 그 이상 귀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취직해 가지고 출세하거나 돈을 모았던 것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 나라에서는 돈을 모아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나라에서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1주일 이내에 무엇이든 다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 나라에 가서 복귀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아담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혼자서 아담 완성자를 찾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건 수천 수만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칠 수 없어서, 모르는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걸 대신해서 지상에서 하나님 이상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리로 수백 수천의 아담을 교화시켜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아들딸을 몇이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천만금을 가지고 잘살아 봐도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물질과 지식과 자기 생명까지, 타락한 내 생명까지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입하는 전체가 가중함에 따라서 그 가치는 비례해 가는 것입니다. (230-28 : 1992.04.15) p.2226

여러분이 얼마만큼 영원히 하늘 앞에 칭송받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하늘 백성을 수확하고 거두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거둘 수 있는 쟁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지게가 있습니다. 열렬히 말씀을 전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0-32 : 1992.04.15) p.2227

자기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가정을 확대시키는 놀음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 나라에 가서 새로이 책정되는 위치가 땅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지요?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235-58 : 1992.08.10) p.2227

자석의 엔(N)극 에스(S)극이 서로 당기라는 얘기를 하고 당기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자연적인 작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착해야 됩니다. 해와권을 중심삼고, 어머니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권을 태풍같이 불어오는 세계의 운세와 함께 가정에다 꽉 심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해산은 어머니의 해산이요, 아들딸의 해산입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자들은 해방자입니다. 남자들은 무관심적인 자유 천지권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딸이 가는 데 간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24시간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온 놀라움을 하늘땅,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수확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요즘 한국에서는 혼수 문제로 시끄럽지요? 딱 그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얼마만큼 많은 백성과 가정을 데리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가정도 백성도 없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가정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 이겁니다. 깜깜한 밤중에 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이는 게 보이지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별이 되고 싶어요? 큰 별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큰 별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백성을 얼마만큼, 가정을 얼마만큼 거느리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235-119 : 1992.08.29) p.2227

산에 가서 나물을 캐는 여인들이 좋은 나물을 뜯겠다고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저녁에 돌아올 때는 빈 광주리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 나물들을 다 집어먹고 빈 광주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실하게 차분하게 뜯는 사람은 기운이 넘쳐 가지고 뛰어다니던 여자를 집에 심부름꾼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는 백성이 없습니다. 천국은 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일교회의 문을 통해서 비어 있는 방대한 천국에 백성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메추리 모양으로 끄대기가 빠지고 할미새 모양으로 끄대기가 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꽁지를 저으면서 불쌍하게 날아다니는 할미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귀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237-303 : 1992.11.17) p.2228

하나님이 아담을 왜 지었느냐 하면, 횡적인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많은 남녀들이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정의 아들딸을 전부 이동시켜서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천국 백성을 창조, 제조하는 분공장입니다. 가정이 분공장이니까 많은 아들딸을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백성을 누가 많이 데리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하늘나라의 위계와 영광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많이 기르다 보면, 열두 가지 인간 타입, 스물네 가지 타입까지 길러 보았다면 인간을 다 사랑했다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256-238 : 1994.03.13) p.2228

이번에 내가 하와이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정착, 그 다음에는 천일국 선포와 더불어 백성….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왕권 수립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조국정착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입적 카드를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하늘 전권을 중심삼은 주권과 백성과 국민을 갖출 수 있는 천일국의 기반이 다 준비돼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적인 자기 가치 결정은 여러분이 일족을 이제 얼마만큼 하늘 앞에 수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64-131, 2002.01.01) p.2228

이제부터는 조상을 동원하는 시대입니다. 조상들을 동원해 가지고 협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천상의 구조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재림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실히 알고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하는 그들을 여러분이 기수가 돼서 방향을 먼저 잡아줘야 되고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상이 형님이에요. 지상이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조상을 동원하고 다 그러면 협조해 줄 것입니다. (370-132, 2002.02.19) p.2228

타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책임도 있고, 아담은 타락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그 타락이 가정파탄이요, 국가, 세계, 온 우주를 망쳐 놓을 수 있는 파탄입니다. 이것을 거짓부모가 만들어 놓았으니 거짓부모의 왕초인 사탄이 생겨나 가지고, 거짓부모와 하나돼 가지고, 하나님을 추방시켜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를 망친 것입니다. 그래, 정치세계가 지금까지 종교권을 희생시켜 나왔던 것인데 이제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초종교·초국가·초엔지오(NGO:비정부기구)운동을 해 가지고 질서가 뒤집어진 것을, 순차적인 방향을 세워 가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 해방의 결과로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는 데는 영계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맞춰 가지고 모든 것을 해방해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갈 때는 사탄이 더럽힌 핏자국이 남아 있는, 더럽힌 흔적을 일체 태워버리는 겁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자기 개인이니 가정이니 꽁무니에 달렸던 것을 전부 불살라 버리고, 이 성화식을 통해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서는데 그 넘어선 자리는 뭐냐 하면, 축복 중심가정! 넘어서는 데는 가정으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가정을 갖지 않으면 못 넘어섭니다. 개인은 못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도 지금 축복 완결을 위해서 야단이에요. 지상을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조들, 지상에서 살다갔던 선조들, 또 종주들, 종교의 책임자들이 지상에 재림해 가지고, 자기 종교권에 혹은 자기 일족, 종교권 혹은 씨족권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그 종교를 중심삼든가 씨족을 중심삼은 주인의 자리에서 책임소행을 완결해 가지고 넘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회는 외부 사람들을 전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족, 자기 가정에 속해 있는 종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는 양자를 구해주고, 서자를 구해주고, 직계의 자녀를 구해 가지고 하나돼서 부모를 모셔 가지고 본연의 가정 남편을, 메시아를 중심삼고 교육받아 가지고 새로운 지상의 해방된 그런 개인으로부터 천상해방권까지 완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96-127, 2002.11.05) p.2229

Top

5) 천일국 주인의 생활

① 일심-일체-일념-일화

나와 너는 마음과 몸이 하나된 같은 자리, 즉 부부일심, 부자일심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일심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아들딸은 아래에 있다면 일심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평면적으로 위치해 있어야 일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 관계가 평면선상의 자리에 서야만 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적관계에서 안팎관계. 전후 관계의 자리에 서야만 일심이 되는 것이지, 상하관계에서는 절대로 일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1-30 : 1971.02.12) p.2229

일심통일입니다. 눈이 일심돼야 되고, 코도 일심이고, 다 일심입니다. 몸과 마음도 일심이고 여자와 남자도 일심입니다. 나라의 종족도 일심이고, 나라도 일심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일심되어야 되고, 세계 대통령과 일심되고, 하나님과 일심되고, 천지의 대통령과 일심통일이 되면 세계는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일된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내 나라인 것입니다. (284-11 : 1997.04.15) p.2229

아담 해와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축복식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선이 출발되고, 진리의 일체화, 실체의 일체화, 심정의 일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일체화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라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본 아담 해와는 원래 둘이 아닙니다. 아담이 해와에게 이끌려 천법을 어겼으니 둘이 되었지 원래는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의 일체화, 실체의 일체화가 된 다음에는 심정의 일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일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날을 바라보고 나오신 것입니다. (15-263, 1965.10.17) p.2230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완전히 일체된 부부가 들어가는 곳이요, 그 일체된 부부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체가 된 가정, 종족, 민족을 전부 거느리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15-263 : 1965.10.17) p.2230

통일교회의 제일 첫째 조건이 심신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 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명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믿는 대로 실체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투입해 가지고 나타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내가 명령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한 이상 투입하니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400-203, 2003,01.01 : 천주청평수련원) p.223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와의 타락은 절대신앙, 절대사랑을 추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복귀 원칙에 있어서 양심을 붙들고 절대신앙, 절대사랑을 찾기 위해 하늘을 위하는 일념, 일편단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사는 모두 하늘과 배반되는 것이니, 이걸 끊고 절대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275-030 : 1995.10.30) p.2230

일화(一和)라는 말은 한 일(一)자에 화할 화(和)자입니다. 될 화(化)자가 아닙니다. 화할 화자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의 개성이 전부 다 다르지만,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성이 다른 민족, 개성이 다른 국가가 합해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68-232 : 1973.08.03) p.2230

일화(一和)라는 말의 화자는 본질이 변해 가면서 화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면 남자가, 여자면 여자가 변하지 않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귀하냐 하면, 본질이 변해서 화합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화합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173-241 : 1988.02.21) p.2230

일심 · 일체 · 일념. 일심은 뭐냐 하면 애천입니다. 하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일체는 뭐냐 하면 인류를 사랑해라. 그렇잖아요? 일념은 애국, 애국은 국가를 사랑하라는 말인데, 국가는 가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남자 여자 소원의 모든 골자 주류가 일심 · 일체 · 일념 사상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표제를 말할 때, 일심 · 일체 · 일념의 안착은 일념이라 해도 괜찮아요. 일심 · 일체 · 일념은 하나님과 천주…. 천주하면 다 알지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만물세계, 하늘땅이 다 들어갑니다. 천주인의 주류사상이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봐요. 일심 · 일체 · 일념은 하나님과 천주인의, 하늘땅의 집 사람의…. 다 들어갑니다. 피조만물이 다 들어갑니다. 천주인의 주류사상이다 이겁니다. 확실해요? 한번 해봐요. 일심 · 일체 · 일념은 하나님과 천주인의 주류사상이다! 그 외에는 없어요. (381-106, 2002 .06.11) p.2231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시여!

땅 위에 참부모를 보내시어 숱한 한의 고개를 탕감시켜 가지고 이제는 하늘과 땅이 공히 수평상에 설 수 있는 천상지상화합통일대회와 더불어 천상지상화합통일 해방성화식을 끝낸 후에 천상지상화합평화통일평정시대를 맞이하여 하늘과 땅이 공히 일체이상을 중심삼고 개인으로부터 천주까지 수평적 기준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완성을 중심삼고 몸 마음이 하나 되고, 일심 · 일체 · 일념을 중심삼고 화(和)할 수 있는 일화(一和)의 실체를 중심삼아 가지고, 하늘이 바라던 상대적 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사랑 이상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대상적 기준으로 창조하신 아담 해와입니다. 무형의 하늘나라의 부모와 유형의 실체 부모가 일심 · 일체 · 일념 · 일화의 통일적 기준을 중심삼고 사랑의 이상상대를 갖지 않으면 절대사랑 · 유일사랑 · 불변 ·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속성의 주류적 이상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400-189, 2003.01.01) p.2231

Top

② 순결 8 단계

구원섭리는 재창조섭리입니다. 재창조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맞는 순결한 만물, 순결한 사람, 순결한 혈통. 순결한 사랑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창조의 과정인 것입니다. 순결한 땅 위에 순결한 만물, 순결한 사람, 순결한 사랑을 세우기 위한 것이 창조의 이상, 창조목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순결한 몸뚱이를 찾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반이 되어 있는 몸뚱이를 때려 부숴 가지고 사탄을 추방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과 몸, 물질과 정신이 하나되어, 그 다음에 사탄권을 벗어나, 약혼단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3 년을 지난 후에 완성권의 축복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리로 볼 때는 인간책임 완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귀노정과 탕감노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268-114 : 1995.03.31) p.223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순결 8 단계란 순결 · 순혈 · 순애 · 순효 · 순충 · 순성인 · 순성자 · 순혼 · 순가의 도리를 다해서 참부모로 말미암아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하나님까지 8 단계의 질서를 지상에서 완성한 형태로 세움으로써, 대상적인 횡적 개인, 가정, 종족, 민족이 비로소 상대적 기준에서 일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과 실체의 천지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적 출발 형태를 확대한 세계이상의 기준으로서 품고, 한 가정 형태로 결론지을 수 있게 될 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해방되어서 하늘나라에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참부모의 사명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 · 일체 · 일념 · 일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효자가 되고, 나라 앞에 충신, 세계 앞에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해서 순결된 효성의 마음으로 '나는 영원히 참부모를 모시고 살겠나이다' 할 수 있는 무리가 되지 않고는 천일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잘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행복된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불행한 자리까지도 내가 가서, 개척의 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겠다고 할 수 있어야 천일국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참부모님이 고생하시니 나는 천 배 만 배 고생해도 좋고, 있는 모든 것을 쓸어서 그 생활권 내의 상대기준을 조성해서 참부모님을 누구보다도 더 해방된 기쁨의 자리에 세우겠다고 해야 됩니다.

자기는 극단의 극의 자리에서 고난도 소화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리고 시봉의 영광을 하늘 앞에 영원히, 후대 앞에 자랑을 남겨 주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천일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400-155, 2002.11.05 : 중앙수련소) p.2232

습관성에 사로잡혀 사탄에게 질질 끌리는 실마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것은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순결의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혈통을 받아 계승한 청결한 기반 위에, 순결한 사랑에 의해 순결한 씨를 뿌려서 순결한 자손을 맞이하는 그날의 기쁨을 생각하며 참고 넘지 않으면 안될 길이, 산의 고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것을 무겁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채우면서 넘어가기를 선생님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183-86 : 1988.10.29) p.2231

참부모는 아담 해와가 실패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부모의 자리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심었기 때문에 부모인 자가 수확해 가지고, 나쁜 것은 불에 태우고 좋은 것은 창고에 넣어 만민이 요구하는 씨를 분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의 말씀입니다. 참사랑의 말씀입니다. 순결한 혈통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부부에 대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이외에 인간으로서 찾을 길은 없습니다. 그 이외는 다 사라져 가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영원의 생애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256-28 : 1994.03.12) p.2232

혈통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결한 혈통, 순결한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 해와를 추방한 것과 마찬가지로 혈통이 더럽혀지면, 완전히 자기를 제거해 버리고 타락한 사람과 같이 다시 인류의 뒤로 돌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의 책임자는 이러한 순결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류의 전통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상속해 나가야 합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이 재타락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268-110 : 1995.03.31) p.2233

집에 들어와서는 누구보다도 부모 앞에 먼저 인사하고 효도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여자에게 더 강조된 것입니다. 왜 심청이에요? 그건 여자가 불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탕감하기 위해서, 여자 한 사람을 효자의 전통을 세우는데 넘버원 자리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천국을 이뤄 나가는데 탕감의 제 1 조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효자의 전통을 세우고 절개를 지키고 순결을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86-103 : 1997.08.09) p.2233

천국 주인이 된다는 것은 효자가 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효자 다음엔 충신-성인-성자의 가정입니다. 성자의 가정이 참가정입니다. 참가정이 되어야 천국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400-204, 2003.01.01 : 천주청평수련원) p.223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몸 마음이 하나 안돼 가지고는 앞으로 천국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원리말씀을 알고 하나되겠다고 했다면, 하나 될 때까지 저 나라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400-205, 2003.01.01 : 천주청평수련원) p.2233

여러분은 효자가 되어야 되고, 효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효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순결, 순혈, 순애를 중심하고, 가정 기반 위에 하나님 앞에 가정적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자 충신가정, 그 다음에 효자 성인가정, 효자 성자가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개인에서 천주까지 저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왕자왕녀로서의 손색이 없는 주인 대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천일국 주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2003,03.12 : 한남동국제연수원) p.2233

참부모가 모두 수습을 해서 주인자리에 봉헌을 해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담 해와가 결혼하고 난 후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소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장물구매입니다. 도적질한 물건을 사다 쓴다든가 빌려 쓴다든가 자기가 도적질해 쓰든가, 주인 아닌 자가 주인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해서 참부모 앞에 순결(純潔)-순혈(純血)-순애(純愛)의 가정을 중심삼고, 가정적 효자 충신, 가정적 효자 성인, 가정적 효자 성자를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 나라도 전부 이런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2003,03.12 : 한남동국제연수원) p.2233

축복받은 가정이 순결혈통, 순애가정을 중심삼고, 가정적 효자, 나라적 효자, 세계적 효자, 천주적 효자가 되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해야 합니다. 안팎에 있는 모든 마음도 닮았고, 몸도 닮았고, 세포도 닮았고, 일심-일체-일념-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없습니다. 일화의 입장에서 사랑은 투입해야 합니다. 투입해 가지고 만물시대로부터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천하가 기뻐하고, 천지가 화동할 수 있는 본연의 창조이상, 완성완결한 해방적 기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해야 합니다. 벼락같이 해야 합니다. (2003,03.12 : 한남동국제연수원) p.2234

Top

③ 하나님과 참부모를 위한 모심의 삶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에게 부모는 있으되 그 부모는 참부모가 아닙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살아 있는 이 때에 우주적인 부모를 모셔야 되겠고, 교단적인 부모를 모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가정적인 부모까지 모셔야 되겠습니다. 즉 3 대의 부모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형(型)이요, 교단은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형이요, 우주적인 부모는 참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형입니다.
오늘날 땅 위에 인간들이 살고 있으되 하나님이 허락한 참다운 부모의 사랑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피와 살이 상통(相通)하는 인연이 나면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지 않은 이것이 서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인 부모로부터 교단적인 부모와 우주적인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이 엉켜야만 비로소 6 천년 전체의 사랑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필히 가야 할 노정입니다. (5-122 : 1959.01.04) p.2234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전부 연결된 씨로부터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자석이 있다면, 엔(N)극은 에스(S)극을 향해 자동적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는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없는지 모르지만, 없으면 숨이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과 그 생명력에 의해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질식되어 버립니다. (104-45 : 1979.03.28) p.2234

참부모를 통해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낳느냐?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어머니의 명령에 여자들은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절대 복종해야 해요! 또 그 어머니의 말에 아들딸이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아버지, 완성한 아담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37-301 : 1992.11.17) p.2235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에덴동산의 아담 해와가 무슨 씨를 심었어요? 프리섹스 씨입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도 부모가 귀한 과자를 사 놓든가, 맛있는 게 있을 때 그것을 훔쳐먹다가 부모가 오면 감춥니다. 범죄의 부분을 감추는 것이 본성의 작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옥에 떨어졌으니 천국으로 가려면 180 도 반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핏줄을 잘못 타고나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혈통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타락 전의 자리에 가 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주인으로 보내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통해서 그걸 연결해 국가를 중심삼고 가정적으로 잘라 가지고 접붙인 자리에서 한꺼번에 뒤집어 박자는 것입니다. (279-118 : 1996.08.01) p.2235

프리 패스를 갖기 위해서는 이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것은 자식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활동은 참부모를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참부모의 아들딸로서 하는 것입니다. (117-158 : 1982.02.28)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뜻 앞에 일치되지 못할 때는 남의 아들딸입니다. 그들이 참부모의 아들딸로서 심정일체가 될 때 내 아들로서 전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남의 아들을 낳아서 길러 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 자기가 높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관이 딱 설정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부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5-274 : 1990.10.01) p.2235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려면 하나님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와 같이 하지 않으면 참부모의 아들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탕감이라는 말을 선생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언제나 탕감을 중심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게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을 풀지 못하면 낙제하는 것입니다. 10 년 아니라 천 년 가도 낙제하는 것입니다. (246-42 : 1993.03.23) p.2235

하나님을 우주의 부모로 모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상에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싸움을 하라 해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에덴동산에서 타락한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에덴동산에서 싸워 가지고 지금까지 피 흘린 노정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개인이 천국 가려면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둘이 합해 가지고, 형님과 하나되어 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가야 합니다. (105-339 : 1979.10.28) p.2236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는 마음대로 타락했고, 그 타락권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모심의 생활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모심의 생활을 하지 못한 인간들은 천상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타락의 혈통을 받아 생활했을망정 복귀의 한 노정을 탕감해 놓고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아담 해와가 모시지 못한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갔다는 조건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150-233 : 1961.04.15) p.223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일국 평화통일평정'을 선포한다 이겁니다. '천일국 평화통일평정, 어디나 같다 이겁니다. 어디나 같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평정세계시대를 발표한다.'하는 것입니다. '천일국평화통일평정도래시대 발표선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늘나라나 지상이 같다는 겁니다. 평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단장을 믿었으면, 그 종교책임자를 부르면 답변해야 됩니다. 조상을 부르면, 후손들이 진정히 천일국평화통일의 축복받은 가정이니만큼 부르면 답변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계가 지상에 자유자재로 재림할 수 있고, 지상사람의 소원이 자유자재로 선조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시대를 말한다! 그래서 평정시대 도래 발표를 선언하나이다!' '아멘' 해 봐요. 오늘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럴 때가 왔구만!' 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잠깐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동위권! 동거권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참권입니다. 동행권이나 동참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참석하고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동애권, 같이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라!' 했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나중에 통일교회는 천일국은 사랑을 중심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하면,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소원이지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 부모님과 모든 일에 동참해 가지고 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영원히 같이 사랑을 중심삼고 행복하게 자유스럽게 해방된 자리에서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천일국 평화통일, 평정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가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영계 전체가, 하늘나라 전체가 따라다니고, 지상세계와 만민이 옹위하는 가운데 주인의 자격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통을 내 일족을 통해서, 일국의 전통의 뼈와 같은 사상을 내가 시봉해야 할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96-151, 2002.11.05) p.2237

Top

6) 천주천지참부모님 승리권 상속

① 이름

지금 선생님의 설교집을 찾아보세요. 40 년 전에 한 말이나 지금 하는 말이 그냥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설교집 다 읽어 봤지요? 「예」 선생님은 예수에 대해서 지극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이라는 것은 60 년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역사 시대에 참부모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168-259, 1987.09.27)

통일교회가 세계주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계의 영인들은 전부 영계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상에서 목적을 완성해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재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활동하는 겁니다. 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첨단이 돼 가지고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수천억이나 되는 영계의 영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맞추어 가지고 영계에 딱 갖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참부모의 이름 앞에 하나의 통일된 세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161-222, 1987.02.15) p.2237

지금 전 세계 통일교회 사람들은 선생님이 한국에 갔다 하면, 벌써 한국을 중심삼고 전부가 하나 됩니다. 요사스럽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전대통령이 아프리카에 간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로 가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통일교회는 별스럽지요? 백인, 흑인, 전부 다 개의치 않고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사랑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뭐지요? 이름이 이중으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잖아요? 그냥 이름은 문선명이고, 사랑을 대표해서는 참부모입니다. 그냥 참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통일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우주적인 통일이념을 펴는데 있어서 사랑을 중심삼고 그것이 하나의 관건, 키(key)가 되어 있으니 참부모인 것입니다. (164-101, 1987.4.26) p.2237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나 혹은 흑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인들은 그게 다릅니다. 통일교회 사람들은 서양 사람하고도 결혼 잘하지요? 여러분, 서양 사람하고 결혼시켜주면 할래요, 안 할래요? 「하겠습니다.」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습니다.」 왜? 어째서? 세계를 하나 만들자니, 아담과 해와가 사랑을 잘못해서 망쳐놓았으니, 부처끼리 잘못 붙어 가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망쳤으니,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과 참부모의 이름으로 세계를 넘어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하나되어 삶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원수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164-159, 1987.5.10) p.2238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원의 뜻을 갖고 이 땅 위에 보내 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환영했어요?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참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뿌리박고, 거기에 참어머니를 중심삼고 참부모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 이 땅 위의 백의민족이 그런 영예스러운 자리에 선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걸 88 년도 올림픽대회에 비할 겁니까? (172-293, 1988.1.24) p.2238

오늘날 문총재가 참부모라는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랑을 중심삼고 막혔던 담을 헐고 역사시대를 통해서 종횡의 모든 단계적 분야를 헤치고 문을 개방시킬 수 있는 내적 심정권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승리적 기반은 내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늘땅이 기뻐해 주고, 역사가 기뻐해 주고, 시대가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기뻐해야지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를 부정해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현재-미래에 같이 기쁠 수 있는 내용으로 남아져야 됩니다. (174-189, 1988.2.28) p.2238

이것을 세우시어서 제 4 차 아담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축복 받은 가정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받은 가정들은 이제 아담에서 타락하지 않고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아들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본연적 제 4 차 아담, 지상·천상천국의 해방권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상을 넘는 이 날을 쌍십절로 정해서 여기에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아뢰옵니다.

이 날을 분별하고 이 날을 세우기 위해서, 쌍십절을 기하여 여기에 찾아와서 이 일을 제 4 차 아담권 정상을 넘는 이런 날로서 정하기를 바라서 이 날을 세워 선포하오니, 하늘이 이것과 더불어 같이 천상천하가 하나가 된 자리, 축복가정들이 하나된 자리에서 천지부모의 이름을 따라서 이런 날을 제정하는 것을 기꺼이 모든 만상과 만우주, 사탄권 전체가 순응하기를 바라는 바에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쌍십절 제 4 차 아담 해방권을 선포하나이다. 아멘! (304-157, 1999.10.10) p.2238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 나오는데 누가 싸움을 멈추게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도 못 멈춥니다. 사탄도 못 멈춥니다. 왜? 거짓부모가 이 싸움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거짓부모 이상의 자격자가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이니 내가 그만둔다.' 하고, 사탄도 '당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물러납니다.' 이래야 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역사 시대를 거쳐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80 세를 중심삼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고향 찾아가는 광야노정을 거쳐 왔던 것과 같이, 이 모든 사실을 40 년을 중심삼고 가정적 광야노정에 있어서 천국 입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적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해 줬지만 통일교회는 접붙이는 데 있어서 축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중심삼아 가지고, 지금까지 반대를 받고 별의별 놀음을 당했지만 어떤 민족이든지 환영할 수 있는 고개를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8-192, 1999.1.2) p.223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부모는 자식이 총을 맞아 죽을 자리에, 사형장에 나가게 되면, 그를 대신해서 맞아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 중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을 갖고 나왔겠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불효라는 말은 영원히 자기의 생애 가운데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참부모가 와서 고생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종아리를 보라구요. 교주님의 종아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흑인이 다 돼 있습니다. 참부모는 흑인의 아버지도 되어야 됩니다. 어부의 아버지도 되어야 됩니다. 농부의 아버지도 되어야 됩니다. 목부의 아버지도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 심정적 면에서 나서게 되면, 그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한 정을 따라서 오라 할 때 천하 지상세계는 참부모 뒤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참부모라는 이름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개인적으로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참부모는 부자지 관계, 부부 관계, 가정적으로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종족적으로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296-204, 1998.11.9) p.2239

Top

② 말씀

원리에는 3 대 심판이 있습니다. 진리심판, 인격심판, 심정심판입니다. 타락은 이 3 대 요건을 범했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통과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귀의 길은 자신이 먼저 이루고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서지 않으므로, 부모가 먼저 알지 못했으므로. 아는 것도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실행하는 것도 부모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원리는 선생님으로 인해 이미 이런 것을 이룬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리를 패스하여야 합니다. 원리를 패스하여 원리 기준에 걸리지 않을 만한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원리의 실체자가 돼야 합니다. 탕감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의 실체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조건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사탄이 언제나 나의 것이라고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실체 기준을 세우려면 사탄과 정면으로 대항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1973.07.08) p.2240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리에서는 이런 사실을 명확히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리는 타락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에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나무의 열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억천만세 인류가 이렇게 파탄의 자리와 투쟁의 노정에서 신음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습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사랑의 내용을 중심삼고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8-86, 1983.06.05) p.2240

원리는 복귀의 법도입니다. 이 원리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원리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부모를 잃어버렸기에, 그 부모를 찾아 들어가는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를 몰라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알기만 하고 구경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익히고 실천해야 됩니다. 원리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원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부모가 몸소 그 원리를 중심삼고 실천했기 때문에 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원리말씀을 중심삼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289, 1969.11.10) p.2240

통일교회는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천년 전이나 만년 후나 이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세계의 곡절의 모든 사연, 한 맺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원칙적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천사장권 복귀해방시대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못 찾는 것입니다. (1997.8.9) p.2240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려 순수한 자기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문제를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통일교회의 원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원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인의 권세나 국가 권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으며, 세계도 하나님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1975.07.13) p.2241

원리를 배웠다고 하면서 원리는 전부다 뒷방살이 시켜 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는 마음대로, 원리는 원리대로 하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가짜입니다.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원리책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6천년의 심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생에 피 흘린 투쟁의 역사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원리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볼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찾을 수 있는 사다리가 있을 것 아니냐 하며 외워 봤어요? 줄을 쳐가면서 이 한마디의 배후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뭐 하나님이 협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새로운 제도를 안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부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의 업(業)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68-101, 1973.7.23) p.2241

원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창고입니다. 원리를 들으면 큰 창고에다 고무호스를 대어서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명수의 맛을 한번 알게 되면, 그 맛에 미쳐서 입을 떼려야 뗄 수 없게 됩니다. 입을 떼려하면 입이 떨어져 나갔으면 나갔지 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벌이 꿀을 빨아먹을 때 핀셋으로 꽁무니를 잡아당기면 꽁무니가 떨어져 나갔으면 나갔지 꿀에서 입을 떼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원리에는 꿀보다도 더 달콤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90-199, 1977.1.1) p.2241

우리 '통일교회 원리의 내용'하면 진저리가 날만큼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진저리가 나도록 한 번 해보겠다고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늘이 같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정이 직접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107-252, 1980.5.19) p.2241

말씀과 전도, 여러분이 통일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장하는 동시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장하는 동시에 전도의 필요성을 언제나 강조해야 됩니다. 심정의 체휼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어떻게? 무엇으로 전도하느냐? 원리강론 책을 다 외울 정도로 낭독해야 됩니다. 무슨 페이지에는 무엇이 있고,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6-318, 1978.2.13) p.2241

Top

③ 실적

과거에는 이런 탕감노정이…. 과거에는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도 종교의 교주와 요때 밖에는 못 만났습니다. 만났다가는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전부 다 종교권을 중심삼고 지상에 재림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시대·현재시대·미래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실적을 갖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시대는 지금 영계에 가 있는 선한 영들, 천사들로부터 선한 영들의 시대였고, 현재시대는 부모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래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동원하고 부모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아담 해와에게 천사가 움직여 협조했고, 하나님이 움직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주는 아담 해와가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161-199, 1987.2.3) p.2242

실적 없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36 가정, 72 가정, 120 가정 일족을 거느려 가지고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입적을 못 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 가정이라고 위신을 내세우는데, 내세운 것이 그냥 내세운 줄 알아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사탄은 어느 누구를 붙들고 이 앞에서 공격을 할지 모릅니다. (303-166, 1999.8.17) p.2242

지금 완성한 참부모가 많은 선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훈독회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무슨 식,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이라든가 말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착과 탕감해소선포식이라든가 많은 식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해방해 가는 길을, 고개를 무너뜨리고 평탄하게 만들어 가면서 본래의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실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참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재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리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이런 탕감조건을 치르고 장벽을 때려부수면서 이룩한 승리적 권한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런 실적 선포할 아무런 기반이 없습니다. (289-64, 1997.12.30) p.2242

선조가 잘못했으면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증시간이 귀한 시간인줄 알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참고하고 대조해 가면서 자기를 키워가야 됩니다. 유정옥이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영계도 많이 지도하고 영계의 가르침을 따라온 모든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영계에서는 버리지 않아요.

또 선생님 자신도 그런 사람을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압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지 세상으로 외적인 면 봐 가지고 일을 해서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인격을 정화해 나가라, 이런 경험을 통한 간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84-322, 1997.4.20) p.2243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언젠가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 자기 일을 보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고 실천하고 나서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할 것이 없으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부정한 것까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약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4-130, 1999.9.14) p.2243

여러분은 저 사탄세계의 할렘(harlem)가, 사탄세계의 중심가에 가더라도 그걸 전부 다 삼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인들은 전부 다 거기, 세계의 제일 나쁜 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을 거치고, 미국을 거쳐 가지고, 소련을 거쳐 세계를 복귀하기 위한 길을 가니,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을 가야 할 책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그마치 4 개 국가를 거쳐가면서 봉사한 역사적 실적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간 것처럼, 반대하는 4 개 국가를 찾아서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서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을 하려니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들을 자녀로 양육한 그런 실적을 남기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120 개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서 선생님 대신 모든 나라의 말을 배워서 심정을 통한 부모되는 씨를 심는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대표한 조건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세울 수 있는 4 개 국가를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162-90, 1987.3.29) p.2243

선생님이 훌륭해요? 「예, 훌륭합니다.」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말을 잘 이해시킨다고 훌륭한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력만 가지고 천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계 앞에 할 일을 다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한 일은 선생님의 십분의 일도 안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 온 서구의 인물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레버런 문은 명실 공히 재림주가 아니 될 수 없다!'하는 이런 긍정적 판도권 내에 들어 왔습니다. 공산당을 해방하고 신음하는 인류와 이 세계를 해방하는 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메시아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런 문이 메시아라 해도 지금은 긍정할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레버런 문이 옛날에 무엇 무엇을 했다.'는 말이 최고 화제입니다. 그 단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가져야 됩니다. (163-29, 1987.4.18) p.2243

Top

7)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과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

①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 기도

천주를 품고 참부모님 천일국개문 축복성혼식을 시작하여 부부의 인연을 갖추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부모님의 전통을 본연의 창조이상에 바랐던 심정적 욕구의 희망을 완성할 수 있는, 천지의 해방 이후에 처음 축복가정이 들어가는 나라의 기틀을 출발할 수 있는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올립니다.

참사랑 · 참생명 · 참혈통의 인연으로 전수받은 모든 축복가정, 지상에 있는 아벨적 축복가정과 천상에 있는 가인적 축복가정, 우리의 조상들이 땅 위에 있는 지상의 축복 완성한 가정을 협조하고 천상세계의 하나님과 성인 성자 모두가 땅 위의 축복받은 가정을 협조하여, 동생의 자리에서 형님을 모시는 일체적 지상 완전 승리의 패권 앞에 일체가 되시어, 만세의 해방과 승리의 패권을 사랑 주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물건으로부터 대우주 전체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의 혈육적 인연을 전체 피조만물이 상속받아, 본연의 생명의 기쁨과 본연의 행복의 충만함을 가지고 작은 물건은 큰 물건을, 큰 물건은 더 큰 물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한 참부모의 몸까지 흡수통일 완성하여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들과 축복가정 만 우주의 존재를 일체화시켜 가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축복의 해방권의 천일국에 결속할 수 있는 피조만물로서 봉헌할 수 있는 출발의 때를 맞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날의 축복은 천상세계의 기쁨이요, 지상세계의 기쁨이요, 천지부모의 해방적 기쁨인 동시에 천주부모의 승리적 · 해방적 기쁨, 두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천일국 축복 지상?천상의 가정들이 일체가 되시어, 일심(一心) 일체(一體) 일념(一念) 일화(一和)의 뜻을 품고 상대적인 당신이 바라는 고향을 출발하여 이상적인 조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본성적 기준에 축복받은 천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성 해방, 승리 완결할 수 있는 천일국 백성들이 될 것을 이 시간에 특권을 가지고 천지부모와 천주부모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축복의 날의 기념을 공히 전수 상속해 주기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Top

②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 축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천일국 3년 2월 6일, 이 시간을 기하여 천상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과 지상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천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가정들이 입국할 수 있는 천리의 도리를 따라 천상 · 지상세계가 형제지인연을 세워 가지고, 가인적 형의 지상세계에 있던 모든 조상들도 축복받고 동생의 자리에 있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가정들도 축복을 받아, 형제지인연을 부모님의 핏줄을 통하여 대치해 주는 공으로 말미암아 형님 자리의 조상들이 동생이 되고 동생 자리의 지상 가정들이 형님이 되시어, 천지개벽 역사가 뒤넘이 칠 수 있는 소망의 출발의 천일국 개천일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 땅 위에서 이룬 실적, 천상에서 천주부모님이 이룬 실적, 천상 지상의 부모님이 표본이 되고 복귀노정에 수고하여 모든 자녀들을 재창조해서, 천일국 국민으로서 입적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본연의 기준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탕감복귀하여 본연의 자리에 있어서 천지부모를 모시고 자녀의 명분을 갖추어, 본연의 지상 천상 궁궐을 중심삼은 조상의 고향을 향하여 직행해 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천상 지상의 형제지인연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참부모가 이 땅 위에 공을 세워 탕감 해방하여 혈통적인 입장에서 전수해 준 모든 전부를, 여기에 서 있는 직계의 자녀들로부터 부모님의 이름과 그 말씀과 말씀의 실적과 말씀의 실적을 중심삼은 천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해방한 전체 완성의 표준을 그냥 그대로 상속받아, 천상세계에 있는 형님의 자리에 있던 이들을, 땅에 있는 동생의 자리가 형님의 자리를 대치해 가지고 천상에 있던 형님들은 동생의 자리에서 교도하여 본연의 천상세계가 뒤집어졌던 것을 바로잡아 하늘로 직행할 수 있는 이런 대도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었사옵니다.

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일심-일체-일념-일화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이상의 대상인 자녀 창조, 상대 창조, 부모 창조를 하던 모든 전부가 일체가 되어, 정착 지상가정 완성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하나님을 모시고 직접 지상에서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참부모님이 전수해 준 이 축복을, 모든 만복의 근원을 그 가정 앞에 영원히 절대·유일·불변의 사랑이상을 중심삼고 전통으로 이어받아, 후세의 만민 앞에 여기 서 있는 자녀들과 더불어 여기 같이 서 있는 축복가정들이 형제지인연을 중심삼아 가지고 가인 아벨의 형제지인연을 묶어 종횡으로 일체가 되시어, 미래의 자기 조상들과 후손들이 전부 다 횡적인 기준에서 완성하여 하늘 앞에 사위기대 완성, 가정이상의 안착 해방권으로 전진할 것을 허락하오니, 천일국 문을 활짝 열고, 360 도 문을 다 열고 어느 가정이나 부모님의 전통을 따라서 그 이름과 그 말씀과 그 실적과 그 성사한 승리의 모든 걸 상속받기 위하여 효의 도리를 다 하고 충신의 도리를 다 하고 성인·성자의 도리를 다 하는 이들 앞에 있어서 자유 지상권 내에 있어서 상속할 것을 천주부모와 천지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성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창조이상의 일념을 해방시키는 지상·천상천국의 통일국 입국 전체 해방권으로 본연의 왕권 축복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계자들이, 후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진정 보고하면서 아뢰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Top

③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 기도

아버님! 천주·천지 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봉헌하오니, 천상의 천일국 백성과 지상의 천일국 백성이 일심·일체·일념으로서 상대적 세계 통일의 가정 전체 축복의 은사의 식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주 해방권의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본연의 타락이 없었던 아담가정 완성의 뜻을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리고, 사탄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으로 말미암은 수천년의 사람 전부가 같은 자리에 해방의 동등한 축복의 은사로 당신의 품에 품길 수 있는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거행하오니, 일체 이상으로 사랑의 주권을 이루어 인류 전체를 복귀할 수 있는 은사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뢰며 보고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Top

④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 축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천일국 3 년 2 월 6 일, 이 날은 참부모님의 83 세, 60 세를 맞는 탄생의 날임과 동시에 천주·천지 참부모님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거행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날도 되옵니다.

천일국이라는 그 이름은, 본연의 하나님께서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완성된 아담 해와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모와 실체 부모가 일체가 되어 새로운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과 참혈통을 연결지어 가정 정착을 바라보던 소원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 조상이 실체권을 중심삼고 아담은 남성적 대표급, 해와는 여성적 대표급으로, 하나님은 높은 무형의 자리에 서서 상현을 대신하고, 하현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서서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사방을 갖추어, 남성 여성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천지의 무형의 부모님께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나가 되어 아담 해와 완성 기준이 되어 자녀시대를 성숙하고, 그 다음에는 약혼시대와 결혼시대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지상에 하나의 하현적 완성기준과 상현적 완성기준이 동과 서, 남자와 여자의 완성기준이 합덕할 수 있는 중심자리에 축복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무형의 천주부모와 유형의 천지부모가 사랑이상을 중심삼고 창조이상의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합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적 중심의 사랑을 중심삼고는 상현을 중심삼고는 아담 해와 하나님, 하현을 중심삼고는 아담 해와 자녀, 우현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중심삼고는 하나님 아담 아들, 좌현을 중심삼고는 하나님의 여성적인 성상과 해와의 딸을 중심삼고 사위기대 사방 전후?좌우?상하 전부가 일체이상 정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위기대의 중심인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상현 하현, 우현 좌현, 전현 후현이 일체이상을 갖추어 하나님이 1 대라면 아담 해와는 2 대요, 3 대 되는 아담 해와의 아들딸을 중심삼은 상대적 일체이상 사위기대의 안착적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부부를 중심삼은 6 수 일체와 더불어 자녀를 중심삼은 8 수권을 씨로 하여 결착하여 온 천지에 완성의 사랑이상의 가정 출발을 보려 하던 모든 전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현 하현, 우현 좌현, 전현 후현이 일체적 이상을 보지 못하고 부자인 하나님과 자녀가, 남자와 여자가, 형님과 동생이 싸우는 원수지간의 입장을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여 참사랑으로 연결된 참생명과 참혈통을 중심삼고 안착의 가정이상을 바라던 하나님의 소원이,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역으로 치고 들어와 천사장과 해와와 아담이 일체 됨으로 말미암아 천지부모의 자리를 악한 부모가 점령한 결과가 되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원수가 되었고, 남자 여자가 원수가 되었고, 하늘과 이 땅이 원수가 되었고, 형님과 동생이 원수가 되어 싸움의 결과 하나님을 고독한 영어의 자리에 가두어 놓고, 사탄 전권시대로 행차할 수 있는 슬픔의 원통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일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사로잡힌 하늘 부모와 땅 부모가 이상적 자리에서 일심 일체 합덕하여 승리의 패권적 가정의 출발을 갖추어, 만세에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무궁토록 태평성대권의 단 하나의 나라와 단 하나의 혈족과 단 하나의 민족과 단 하나의 문화세계를 창건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면에 반대되는 투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오늘날 인간 조상들의 역사는 피로 물들여 왔다는 원통하고 분한 사실을 통일교회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참아 나오신 하늘 부모 앞에 저끄러 놓은 죄상을 회개할 수 없는 자녀의 입장을 하나님이 품음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대신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탕감 고개를 넘기에 수고하신 하나님, 가정적 고개, 종족적 고개, 민족적 고개, 국가적 고개, 세계적 고개, 천주적 고개를 넘는 데 있어서 이 땅 위에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대신 희생하면서 이것을 개척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종교를 세워, 종교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권을 세워 가지고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삼고 내적 외적 가인 아벨 기준의 통일권을 중심삼고 그 위에 오시는 메시아를 중심삼은 부모의 자리를 택정하여, 가정의 승리의 패권 위에 승리적 기반을 닦아 국가적 승리의 패권을 바라고, 국가적 승리의 패권 기반 위에 승리권을 가져 세계와 천주사적인 승리권을 바라던 소원의 일념을 잃어버리신 하늘의 비통한 사실을, 저희 불충한 불효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자리에 천주부모를 계시게 한 것을 아옵니다.

천주부모의 한스러운 종교를 중심삼고 초종교 초정치 초국가 초엔지오(NGO) 초세계 하나의 나라를 이루려 한 뜻을 대신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 그 메시아가 남자 완성자로 와 가지고 잃어버렸던 해와를 찾기 위해 국가적 기준에 있어서 아담가정이 실패해 잃어버렸던 해와의 기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가정 기반 위에 민족을 넘어 국가적 기반 위에 승리의 패권을 세워, 에덴의 이상(理想)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복귀하려는 모든 뜻이, 이처럼 슬픈 어두운 세계로 굴러 떨어진 것을 안전히 모셔 가면서 홀로 밤중 가운데서도 밤중에 종의 종의 자리로부터 종의 자리,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그리하여 직계의 자녀 자리까지, 그리하여 어머니를 찾아 세워 부모의 자리까지 갖추어 가지고, 가인 아벨의 공산권과 민주세계를 수습하여 이것을 품고 본연의 아버지인 참부모 앞에 봉헌해 드려야 할 이 땅 위의 어머니, 해와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아옵니다.

그러한 해와의 사명을 중심삼고 모든 민주세계의 자유환경을 파탄시키는 사탄권 주권과 싸우면서 개인 극복,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극복, 오늘날 세계적 한계선을 넘어 극복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시어 참부모의 뒤를 이어 바꾸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천지간에 승리한 어머니 완성한 실체를 갖추어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천일국을 개문하게 되었습니다.

천일국을 개문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세계의 천국의 터전과 천상세계의 천국을 마련해 가지고, 일심-일체-일념-동화하는 사랑 이상적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참가정 정착을 하는 해방권의 이름을 다시 찾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원한 많았던 모든 탄식의 세계를 제거시켜 버리고 희망찬 미래에 승리의 사랑의 주권을 다시 건국하여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이 식전을 갖게 된 것을 감사, 감사, 감사 올리옵나이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에 있는 모든 영인들이여, 축복받은 장자권 천상권 축복가정들이여! 땅 위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가정의 아담적 아벨 자리에 축복받은 이 형제들과 형님 된 조상 된 저 나라에 가 있는 형들이 지상에 와 가지고 아벨적 동생의 자리를 형님으로 모실 수 있어 가지고 일체 됨으로 말미암아, 천상 지상 일체권을 이루어 종횡으로 천지부모를 모시어 지상에 있어서 개인시대 축복,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 축복을 평면도상에 해방적 기준과 일체의 뜻을 개인, 종족, 민족, 국가, 천주적 축복가정이 종적인 자리에 있지만, 형님과 동생의 축복의 자리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상에 있는 형님의 축복가정이 지상에 와 가지고 동생 자리에 있는 모든 축복가정을 종적인 자리에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천지개벽적 대전환 반대 복귀 전환할 수 있는 시대를 갖추어 가지고, 천주부모 천지부모 참사랑을 중심삼은 평화통일 가정왕 즉위식을 확대된 평면적 세계의 주인과 종적인 세계의 주인이 본래의 아담가정에서 일체가 되어 한 자리에 출발 못 한 것을 거꾸로 갖다 맞추어 가지고, 해방 지상 천상천국 천일국 이상권의 출발을 볼 수 있게끔 선포하여 그 간에 있어서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천주부모 천지부모 참사랑을 중심삼고 일심 일체 일념을 통하여 사랑의 대상인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사랑을 참부모로부터 참자녀 참혈통을 중심삼고 참 완성된 가정 정착을, 타락을 본 아담해와, 거짓 부모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힌 핏줄을 다 정복해 가지고 깨끗이 복귀된 그 자리에 있어서 아담가정 한 가정을 해방시키는 축복의 자리를 통하여 천지부모 참부모는 사탄의 핏줄로 더럽힌 것을 맑힐 때까지 수천억 영계와 지상의 사람들을 일심 일체 일념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천주부모와 천지부모 뱃속에 하나가 된 아들딸의 모양으로서 출발적 기준에서 천상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지옥 낙원을 해방하여, 360 도 어떤 방향이라도 하늘 보좌를 향하여 직행할 수 있는 자유 해방권을 갖게 하여 주시는, 천주?천지 참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형태의 자세를 정비한 자리에서 새로이 하나님과 참부모가 일심 일체가 되시어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행차를 만 우주에 출발할 수 있는 가정적 천국 이상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기하여 악의 권세는 뒤로 돌아야 될 것이요, 선의 권세는 앞에 서 가지고 모든 전체를 지휘 지도하여 새로운 천국 문화세계의 창건을 향하여 전진하여 하늘나라의 영화와 영광을 온 천주에 충만하게 하시어서, 만세에 축복받은 가정들이 상속받아 천상 지상 해방의 사랑의 주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기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부족함이 없는 천일국 입적한 축복가정의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날에 천주부모 천지부모 일심 일체가 된 자리에서 천국 개방 중심삼은 천일국 통일의 세계로, 일체이상의 주권의 해로 전진할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아뢰옵나니, 바라는 대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보고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p.2249

이 글들은 지난 2 월 6 일, 거행된 '천지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과 '천주?천지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즉위식'에서 하신 참부모님 기도와 축도를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p.2249

Top

제 16 권

참가정과 가정맹세

제 1 장

가정맹세 선포와 전제조건

1) 가정맹세가 나오게 된 배경

① 지금은 개인이 아닌 가정시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통일교회에서는 개인적인 '나의 맹세'를 해 나왔습니다. 1952 년을 중심삼고 기독교문화권이 신부문화권으로서 신랑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셔서 천상천국, 지상천국을 완결시키려는 것을, 세계적 무대에서 완결할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40 년 동안 다시 이것을 탕감해 돌아오는 역사를 거쳐온 것입니다. (260－181, 1994.5.8) p.2255

세상에 가정맹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역사 이래 처음 나온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맹세를 설정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이 땅 위에 타락하지 아니한 본연의 기준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모체를 다시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와 살 수 있는 지상, 천상천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적으로 이러한 맹세문을 세운 것입니다. (274－114, 1995.10.29) p.2255

지금 40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우리 가정맹세가 나왔습니다. 이 가정맹세라는 것은 역사에 없는 놀음입니다. 가정맹세가 나옴으로 지상세계 사탄가정은 앞으로에 있어서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맹세가 나온 것은 선생님이 2 차대전 승리의 기반을 잃어버린 것을 40 년을 통해서 4 천년 역사를 탕감해 가지고 복귀된 기준이 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지상 위에 설정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전부가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그 표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뭐예요? 참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되어 가지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 참혈통이 연결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266－143, 1994.12.22) p.2255

지금 통일교회는 40 년 고개를 넘고 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복귀된 가정입니다. 복귀된 가정은 개인의 심신이 통일되고, 부부가 통일되고, 자녀가 통일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들이 외워야 할 것이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는 심신이 투쟁한 가운데서는 부르지 못합니다. 부처끼리 싸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서는 안 됩니다. 심신통일, 부부통일, 자녀통일이 된 참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서 전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일체권을 이룬 자들이 불러야 할 게 가정맹세라는 겁니다. 가정맹세는 역사 이래 처음 나온 것입니다. (264－339, 1994.11.20) p.2256

우리 통일교회는 40 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 규약이 필요한데, 그 절대적 규약, 헌법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라는 말은 역사에 없습니다. 천국을 향한, 천국을 완성한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를 잘 보면, 탕감복귀 내용을 중심삼고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는 사람은 타락한 세계의 가정권 내가 아니라 완성한 가정권내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가정권이 형성됨으로 거짓사랑으로 분립된 심신의 통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마음이 하나 안 되고서는 가정맹세를 외울 수 없습니다. (264－244, 1994.11.3) p.2256

통일교인은 참부모님이 세운 가정적 전통을 세계에 과시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정맹세가 왜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런 때가 오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맹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모토(motto)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권에 돌아온 가정은 어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가정맹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중심삼고 앞으로 전세계가 따라가면 됩니다.

부모님의 승리적 방패로써 방어할 수 있는 섭리사 전체를 대표한 7 개 항목(나중에 1 개 항목이 추가되어 8 개 항목이 됨) 맹세를 중심삼고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중심삼은 신,구약 완성, 원리를 모르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정만 하나님 뜻을 중심삼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가면 천국을 완전히 넘어간다 이겁니다. (272－181, 1995.10.5) p.225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아담과 해와만 타락했다고 보았지, 형제까지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타락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정이 타락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 이제부터 맹세할 것은 뭐냐? 가정을 중심삼고 맹세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행복이나 모든 자유나 평화나 하늘땅이나 모든 전부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가정을 중심삼은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가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정만 하나 만들면 세계통일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260-152, 1994.5.2) p.2256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 안 하면 큰일납니다. 그 종족이 태어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립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됨으로 말미암아 평면적으로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완성하고, 국가적 기준에서 국가와 국가들이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개인에서부터 가정 · 종족 · 민족 · 국가 · 세계 · 천주 · 하나님, 8 단계까지 전부 다 그 완성의 터전은 이 지상의 평면, 수평선입니다.

이걸 탕감했기 때문에 개인의 집에 가나 종족의 집, 국가의 집 어디에 가나 사탄이 반대할 수 없는 자유의 지상 활동무대가 됐었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는 출발이 벌어짐으로써 지상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으니 '가정맹세'가 나온 것입니다. '가정맹세'대로 되어야 됩니다. (264-191, 1994.10.9) p.2257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맹세의 내용은 천주적인 대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작년(1997 년)부터 부모님이 강연하는 강연문의 내용은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영계 해방의 축복식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360 만쌍이 끝나면 영계 축복식을 할 것입니다. 상대가 영계에 갔으면 불러내서 묶어줄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세계까지 해방되는 것입니다. (283-90, 1997.4.13) p.2257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밀려 다녔습니다. 구름처럼 떠 다녔습니다. 기독교 문화권도 영육 아우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착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부모와 성약시대가 정착했으니까 상속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착을 하는 데서 무엇을 상속해 주느냐? 개인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맹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맹세를 철두철미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268-226, 1995.4.2) p.2257

지금까지 '나의 맹세'를 했지만, '가정맹세'는 처음입니다. 역사시대에 가정맹세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40 년 동안의 세계 탕감노정을 끝내고 전세계가 선생님을 중심삼고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차대전 직후에 이루어진 통일적 세계기독교 문화권을 전부 다 파탄시킨 것을, 선생님 중심삼고 조건적이지만 세계적으로 이 모든 패권적 기반 위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263-110, 1994.8.21) p.2257

1945 년에서 1952 년까지 7 년입니다. 이것이 1945 년에서 1952 년까지 7 년인데, 1952 년에서 1992 년까지 40 년을 연장한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삼고는 40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994 년 5 월을 중심삼고 우리가 가정선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역사적입니다. 수리적인 탕감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265-293, 1994.11.27) p.2257

부모님의 안착시대를 중심삼고 주체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완성시대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가정맹세가 필요했느니라, 필요하니라, 필요할 것이니라, 어떤 것입니까? 필요하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만년 표제가 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문을 타락한 종교의 탈을 벗고 해방의 자리에서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수많은 한이 있었다 이겁니다. 피를 흘려 가지고 이 피의 제단을 통일교회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자기는 그 피의 제단에서 이걸 밟고 넘어서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61-098, 1994.5.22) p.2258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성약시대 안착과 가정시대의 출발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 이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이라는 것은 사탄세계에서 가정적으로 싸워 가지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종족, 민족, 국가, 세계?하늘땅이 동원된 모든 전체와 싸워 가지고 승리해서 성취한 것이 성약시대입니다. 약속을 이뤄 가지고 안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타락은 뭐냐? 아담이 천사장을 지배해야 할 텐데,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늘땅의 사탄을 전부 다 굴복시키고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과 완전히 하나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선생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8-79, 1995.3.5) p.2258

1992 년을 중심삼고 세계에 다 메시아 선포를 하고, 참부모 선포를 해 나온 것입니다. 이래서 전부 다 몰아 가지고 이번 미국을 중심삼고 1993 년에 들어와서 5 월 13 일부터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미국은 전세계를 대표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 정착지가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부모를 중심삼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약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포한 것이 지상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때를 얼마나 고대하셨겠느냐 이겁니다.

역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비참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소망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참부모를 선포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요, 우주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248-175, 1993.8.3) p.2258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창세 이후에 몇 천만 년의 역사를 거쳐왔는데, 아직 그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통일교회시대에 선생님이 와 가지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약시대를 발표하고 참부모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기보다 새로운 세계를 창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사상과 성약시대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약시대는 무슨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창조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복귀섭리시대가 아니고 구원섭리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이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라는 이름은 인간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참부모의 현현이라는 것은 창조이상입니다. (248-188, 1993.9.30) p.2259

그래,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이것은 신약시대를 중심삼고 넘어 가지고 성약시대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성약시대란 하나님과 인간의 일체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일체권을 이루어 평등한 가치의 내용을 더불어 연결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종적만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해서 횡적만이 아닙니다. 종과 횡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252-154, 1993.12.29) p.2259

1972 년부터 1992 년까지 20 년 기간이 한국을 중심하고 기독교의 사명을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약시대와 맞먹는 놀음을 한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60 년도에 결혼식을 해 가지고 세계적 무대인 미국에서 해 나온 것이 전부 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관계와 딱 맞는 것입니다.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참부모가 정착하는 것이 이 기간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약시대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246-301, 1993.4.20) p.2259

성약시대는 뭐냐? 중심적 참부모의 가정이 타락권 세계에 있어서 완전히 승리하고 넘어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경에 문 총재의 가정을 때려잡겠다는 원수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싸워서 졌으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격의 챔피언이라도 올림픽광장에 나가서 지면 자기가 일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챔피언 배를 넘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234-295, 1992.8.27) p.225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와 성약시대라는 것은,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고 타락이 없는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여성은 어머니 분신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한 사람이고 해와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성한 아담 한 사람, 해와도 한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6-64, 1994.12.11) p.2259

성약시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통일은 개인에서부터입니다. 이 고개를 넘지 않으면 천년만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장자권을 복귀 못합니다. 자연굴복시켜야 됩니다. 강제굴복이 아닙니다. 설득굴복입니다.

여러분은 자연굴복이에요, 강제굴복이에요? 설득당했으니까 자연굴복해야지요? 이래 가지고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가정적 에덴에서 이루었던 것이 세계적 모든 국가가 동일한 자리에서, 몇천 년 거친 그러한 모든 승리의 패권이 일시에 가정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가정을 모델로 해 가지고 금형을 뜰 수 있는 블루 프린트(blueprint)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배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떠내기만 하면 어디에서 만들든 째까닥 째까닥 하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50억 인류의 가정이 가정적으로 접붙여 가지고 잃어버렸던 해방의 나라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성약시대, 약속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245-157, 1993.2.28) p.2260

오늘날 역사적 노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선민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와 가지고 세계적 도상에서 소생-장성-완성의 3단계 기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소생급, 기독교는 장성급, 통일교는 완성급입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권을 중심삼은 것이 구약시대라면 기독교는 신약시대, 통일교는 성약시대라는 것입니다. 성약시대는 뭐냐 하면,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느냐? 개인적으로 이루고, 가정적으로 이루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뭐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단일 혈통, 단일 사랑, 단일 생명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떠나야 됩니다. 접붙이는 놀음을 함으로써 사탄의 혈통적 인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26-275, 1992.2.9) p.2260

문제는 뭐냐? 가정이 완전해야 됩니다. 성약시대가 찾아왔으니, 가정적 가나안 복귀 완성시대인 성약시대를 맞이했으니, 말씀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완성, 정착해야 할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 흘러가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선생님이 생사지권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각에 달려 가지고 이 말씀을 남기고라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확실히 가르쳐 준 말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292-122, 1998.3.28) p.2260

2차대전 직후에 기독교 문화권과 미국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다면, 미국과 기독교 문화권이 세계를 지배할 그때에 만약 내적으로 하나됐더라면 얼마나 빨랐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역사에 대한 최대 소망의 한때고, 사탄에게는 최대의 위기일발의 시대가 2차대전 직후였습니다. 그때 기독교 문화권과 미국을 중심삼은 자유세계가 통일교회를 받아들였다면, 그때서부터 영계의 통일권을 지상의 통일권으로 일치화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관입니다. (161-220, 1987.2.15) p.2260

이제 사탄세계는 자꾸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두고보십시오. 사탄세계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갈 방향이나 중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교회는 다 갖추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통일교회가 사탄세계의 지배 하에 있었지만 교차되어 가지고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착입니다. (268-79, 1995.3.5) p.2260

성약시대라는 것은 뭐냐? 사탄주관권을 넘어서서 이루어질 세계를 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약시대는 무엇으로 완성해 나가느냐? 가정을 통해서, 축복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가정이니 노아가정이니 야곱가정이니 하는 가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시대에 와서 예수님가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가정을 편성하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편성한 것이 36가정, 72가정, 124가정입니다. 이 430가정이 한국을 대표하는데, 한국의 4300년 역사를 중심한 430가정을 중심삼고 세계 43가정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777가정은 전체 국가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1,800쌍을 거쳐 현재는 8000가정,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7000 이상의 가정으로써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발판기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약시대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12 제자와 70 문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12 사도와 70 문도, 그리고 120 문도의 실체가 가정을 중심삼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31-71, 1984.4.16) p.2261

금년(1995 년) 표어가 '참부모님 승리권을 상속받자.'입니다. 권이라는 것은 개인적 세계 판도, 가정적 세계 판도, 종족적 세계 판도, 민족적 세계 판도, 국가적 세계 판도, 세계적 세계 판도, 천주적 세계 판도, 지옥과 천국 판도입니다. 그것까지 선생님이 통일, 해방해 준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후퇴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선악의 출발이 형제지경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세계 사람들은 '지구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지구가정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지구촌은 상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는 사탄세계를 대표한 가인적 자리, 형님 자리입니다. 지구가정은 통일교회 아벨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267-254, 1995.1.8) p.2261

통일교회를 가인세계가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려면 개인 완성해야 됩니다. 개인 완성하고, 가정이념이라는 것은, 참된 남자 참된 여자는 통일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에이즈하고 관계없고, 프리섹스하고 관계없고, 호모하고 관계없고, 레즈비언하고 관계없고, 마약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 참사랑을 중심삼고 개인적인 중심 완성이요, 가정적 중심 완성이요, 종족, 세계, 천주 해방권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까지 해방시켜 가지고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의 도리, 성자의 도리를 완성해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자유 왕래할 수 있는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선생님 가르침의 목적인 인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이 숱한 사연을 엮어 가면서 세계적인 해방권을 완성시키기 위해 50 평생-일생입니다, 일생-핍박의 길, 조롱의 길, 모든 몰림의 길을 거쳐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소원할 수 있는 세계적 승리권을 온 인류 앞에 상속해 줄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갖춘 모든 것을 값없이 사랑으로써 상속할 때가 왔습니다. (267-254, 1995.1.8) p.2262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하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치된 생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일치된 가정 생활을 하다가 지상에 살던 사람이 천국 가정으로 이동해 넘어가는 것입니다. 개인구원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보면, 뭐 개인구원이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정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락이 가정에서 됐기 때문에 복귀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제 참부모를 중심삼고, 지상의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새로이 정착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금년(1995 년) 표어가 '참부모와 성약시대의 안착'입니다. 참부모님의 가정이 비로소 정착하는 것입니다. 참부모 가정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축복 받은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 민족, 국가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판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착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떠돌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연합하면 종족, 종족을 연합하면 민족, 민족을 연합하게 되면 국가 편성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중심삼은 지상천국의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260-304, 1994.5.19) p.2262

Top

③ 가정연합 창립… 세계가정화시대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사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사명은 끝나고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류사상 처음으로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시대로 들어갑니다. 가정연합은 가정을 이상가정으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복귀완성하고 하늘적 이상세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1997.4.8 한국) p.226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이 정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개인권을 목표로 했지 가정권을 목표로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출가, 가정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어떤 종교든지 개인구원을 했지 가정구원, 종족구원, 국가구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가정을 중심삼고 국가구원, 세계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3-106, 1997.4.8) p.2262

가정이 정착되어 세계가 통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에덴에서 바라던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들딸 중심삼아 가지고 횡적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던 종족이 되고 다시 자동적으로 민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83-84, 1997.4.8) p.2262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 번 해봐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입니다.

세계평화가정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평화세계는 절대로 안 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 세계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열 식구가 산다면 열 식구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서로서로가 종횡으로, 전후 좌우 입체적으로 화합하게 될 때에 이상적 평화의 세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계가정연합이 완성하여 평화 세계 창건하자! 창건이라는 것은 다시 수습해 세우자 이겁니다. (232－322, 1992.7.10) p.2263

이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가정이 근원지라는 것입니다. 가정 중심삼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종족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될 수 있는 가정이상을 완성하지 않고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00－229, 1999.3.23) p.2263

통일교회 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세계평화가정연합' 가정연합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적 가정, 중간적 하늘편 천사장 가정, 아담 가정들을 모두 수습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혼 잘못하므로 갈라졌기 때문에 결혼을 바로 해 가지고 완성급에 들어가 가지고 통일적인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던 비탈길이, 험한 히말라야 산맥들이 여기서부터 평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40년 넘어서면서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 규약인 헌법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 가정맹세라는 것입니다. 가정맹세라는 말은 역사에 없습니다. 천국을 향한, 천국을 완성한 가정맹세입니다. (264－244, 1994.11.3) p.2263

지금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알맹이가 뭐냐? 앞으로 나올 세계평화가정연합입니다.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이상 완성입니다. 창조이상의 완성이 뭐예요?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사위기대 완성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 전부가 하나되어서 하나님이 춤추면 같이 춤추고,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출 줄 알고 노래부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 완성입니다. (232－54, 1992.7.1) p.2263

2차대전 이후에 기독교 문화권이 세계 통일을 하였던 그 기준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7년 노정 위에 세계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 7년 노정에 금년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가 왔기 때문에 40년 만에 가정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평면적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세계 통일을 하려고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만 한꺼번에 하면 이와 같은 걸 전부 탕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문을 외우려면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되어야 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 안 돼 가지고는 사탄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이 맹세문은 그 위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연합이 강력히 이 맹세문을 중심삼고 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월 가정에서 초하룻날하고 보름 때는 예배 보는 것입니다. 두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265－249, 1994.11.23) p.226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연적 아담 가정 세계형 판도에 가입해야 될 시대에 들어왔으니, 전세계인들이 가정을 중심삼고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성해야 될 것이 뭐냐? 타락한 가정을 탕감복귀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가정연합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각자가 노력해 가지고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성은 아담과 해와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연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아담 혈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 비탈길을 넘는 것처럼 복귀 과정을 올라가다가 실수하면 언제든지 이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몇천만 년 몇백만 년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275-9, 1995.10.30) p.2264

인간이 부부의 사랑의 전통을 못 세웠습니다. 부모의 전통을 못 남긴 세상에, 이것을 다 실천한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두 분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민족의 자랑이요, 역사의 광명입니다.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화라는 것을 알고, 오늘 엄숙히 이 내적인 인연을 상속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정착해야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31-89, 1992.5.31) p.2264

가정이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정과 연합된 기준에 연결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가정이 앞으로 출세하는 것입니다. (264-231, 1994.11.3) p.2264

이제부터 가정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조치도 부부일신입니다. 남편이 장이면 아내는 부책임자입니다. 그 아들딸들이 모든 실력기준에서 우수하게 될 때는, 그들을 중요한 부처에 가정적으로 배치하고 일족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3-51, 1997.4.8) p.2264

앞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인데 세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를 잊으면 평화해서 뭐 해요? 평화를 잊으면 통일해서 뭐 해요? 통일이 없으면 가정을 해서 뭐 해요? 가정은 한 가정이 아닙니다. 연합주관이 없으면 가정 해서 뭐 합니까? 전부 다 관계가 됩니다. 연합을 생각할 때 통일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해야 하고, 세계를 생각할 때 평화를 생각하고, 통일가정연합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세계의 대표주인이, 또는 평화의 주인이 되는, 통일의 주인되는, 가정의 주인되는, 연합세계의 통일천하의 중심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6-20, 1992.11.2) p.2265

요즘에 지구촌이라는 말을 하지요? 지구 가정시대를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구촌도 아닙니다. 지구 가정! 오늘날 가정연합이 나온 것과 상대적인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가정연합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등한 시대에 들어왔으니, 세계는 한꺼번에 시작만 하면 일시에 세계화되는 시대에 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꿈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275-36, 1995.10.30) p.2265

오늘날 세계가 경제권을 중심삼고 하나되려고 하지요? 정치권과 문화교류, 경제와 지식과 권력 가지고 힘의 평준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 만들려고 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 만드는 역사적 통합적 중심 방안은 참사랑이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이게 경제권으로 하나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을 참사랑을 중심삼고 수습해 가지고 상하를 연결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역사적 참된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 참된 방향을 따라서 개인 인생관, 가정관,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쭉 해서 이 중앙선을 통하는 것은 참사랑의 방향성이다 이겁니다. (211-310, 1991.1.1) p.2265

재림주가 필요하고 참부모가 필요한 것은 뭐냐? 역사시대에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발전해 나온 모든 가정들이 참부모와 더불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올 때 영, 미, 불을 중심한 통일세계가 됐더라도 참부모를 중심삼고 가정 통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가정이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되게 된다면 종족은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 그래야 되느냐? 참부모는 세계적 판도 위에 오는 것입니다. 세계적 판도의 승리적 기반 위에 오시는 부모입니다. 이 분은 뭘 하기 위해 오는 것이냐? 참부모인데 가정시대의 대표적 참부모로 오시는 것입니다. 과거 종족적인 시대의 참부모로서, 민족적인 시대의 참부모로서 국가적인 시대의 참부모로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263-203, 1994.10.4) p.2265

성약시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부모대로 생겨나고 가정이 가정대로 생겨나고, 그 가정이 천하의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가 되더라도 반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선생이 싸워 이겼다는 것은 가정 환경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하늘땅이 전부 동원하는 가운데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261-66) p.2266

지구촌 시대를 넘어 지구 가정시대입니다. 지구 가정시대로 넘어가려니까 평준화된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도 선생님이 만든다면 종교 유엔하고 그 다음엔 여성의 기구를 만들 걸 선포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뉴욕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 유명한 정상급을 중심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있어서 국무성이나 모든 정책 방향이 틀린 것을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260-293, 1994.5.19) p.2266

Top

④ 가정맹세를 세운 이유

축복가정들은 전부 다 천사장 세계를 밟아야 되고, 밟아가지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끔 그냥 그대로 자기의 모든 가정이라든가 그 나라라든가 국가를 전부 다 부모의 것으로 상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1994 년) 5 월을 지내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세계, 천사장세계와 아담세계를 완연히 다르게 구분짓기 위한, 경계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가정맹세가 나온 것입니다. 이 가정맹세라는 것은 비로소 사탄세계와는 완전한 격리입니다. (266-69, 1994.12.11) p.2266

가정맹세를 할 수 있게끔 됐다는 사실이 역사상 놀라운 시대입니다. 딴 시대라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주의적 이런 생활을 했지만 가정주의 생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가게 되면 벌써 아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통일된, 같은 생활권 내에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화가 있기 때문에 편지도 필요 없지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전부 다 같은 자리에서 사는 생활 환경을 언제든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정맹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맹세문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260-309, 1994.5.19) p.2266

가정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하기 전 완성한 아담의 자리인데, 이것은 뭐냐? 타락한 부모와 타락한 부모로 말미암은 거짓사랑, 거짓생명, 거짓혈통을 받은 것이 타락한 가정인데, 여러분은 타락하기 전 완성한 아담과 해와 자리에 있는 참부모를 중심삼은 참사랑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정맹세는 뭐냐? 그 본연적인 가정의 권한 일체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이 자리에 돌아가 영원히 원칙 기반 위에서 종족이 연결되고 민족, 국가, 세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는 몸 마음이 하나 안 된 사람은 못 부르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안 된 사람은 못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딸과 하나 안 된 사람은 못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맹세문 전체가 다 흩어집니다. (261-279, 1994.6.20) p.2267

가정맹세라는 것은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의 3 절을 보면, 4 대 심정권, 3 대 왕권, 황족권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복귀할 수 있는 순서를 짜 가지고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탄세계의 거짓부모로 말미암은 거짓사랑과 거짓생명의 인연을 가진 사람은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것은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와 하나되어 가지고 참사랑으로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될 수 있는 기준에 선 사람만이 이 가정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어 가지고, 부부가 하나되어 가지고, 자녀가 하나되어 가지고, 3 대가 사는 가정의 사위기대 기반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출발할 수 있는 기지인 가정을 중심삼고 완전히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외우는 선서문이 가정맹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4-212, 1994.11.3) p.2267

가정맹세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완성한 가정의 자리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지 못한 사람은 가정맹세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 마음이 하나됐습니까? 타락 때문에 몸 마음이 갈라진 걸 알았지요? 거짓부모, 거짓사랑, 거짓생명, 거짓혈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청산해야 됩니다.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267-146, 1995.1.4) p.2267

가정맹세와 하나되어 가지고 가정에 정착하게 될 때는, 이미 자기들은 지상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적인 천상천국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를 하는 사람은 옛날 지옥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산다는 기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울고불고해서는 안 된다구요. 참사랑을 해야 됩니다, 참사랑. 가정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아들딸이 하나된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사랑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몸 마음을 갈라놓았고, 부부를 갈라놓았고, 형제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있어서 하나될 수 있는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형제가 하나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이룸으로 말미암아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260-317, 1994.5.19) p.2268

철저한 가정맹세가 필요합니다. 가정맹세에 철저화된 사람이 축복을 받아 가지고 가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가입하면 틀림없이 그 가정맹세대로 이룬 가정이라고 하늘 앞에 봉헌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 서로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판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이상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260-231, 1994.5.19) p.2268

가정맹세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사탄세계 어느 나라에 가정맹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가정맹세를 세워 이렇게 가정 전체를 대표해서 맹세해요? 맹세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는 이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걸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274-195, 1995.11.3) p.2268

가정맹세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돼야 됩니다. 전부 다 상대입니다. 몸 마음이 상대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눈이 둘인데 하나는 사탄편으로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부 다 두 종류입니다. 길을 가도 두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비판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두 종류를 먹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한 음식, 하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먹느냐 이겁니다. 빌려 먹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맹세'를 이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260-156, 1994.5.2) p.2268

오늘은 5 월 1 일입니다. 지금까지 맹세문을 갖다 경배 3 배 하고 '부모님이 다 이룬 것을 대신 상속받고 새로운 맹세문으로 옮겨갑니다.'하고 기도하라구요. 그래서 그걸 상속받고 '이런 새로운 가정맹세 시대로 옮겨지겠습니다.'해서 미안하다고 전부 빌어야 됩니다, 맹세문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맹세'와 '가정선서'는 그만두고 '가정맹세'를 하라구요. 가정 아닌 사람도 가정맹세문을 전부 다 같이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도 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260-156, 1994.5.2) p.2268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2) 가정맹세의 의의와 가치

① 가정맹세의 중요성

가정맹세문은 모든 원리의 내용을 중심삼고 가정 편성에 합당한 핵심적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기록한 것임을 알고,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는 맹세문을 술술 외워서, 자기 일신의 지금 상태와 자기 가정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 해서 안 됐으면 대번에 그것을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문을 그냥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나의 맹세'라고 했지요? 지금은 뭐라구요? 앞으로는 국가맹세, 세계맹세까지 나와야 됩니다. 뭐 가정맹세하면 전부 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말입니다. (260-305, 1994.5.19) p.2269

이 맹세문이 전부 다 복귀섭리의 골자를 뽑아서 만든 것인데, 어디 가든지 매일같이 이것을 중심삼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맹세문에 있어서 첫째는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참사랑이 뭐냐? 자기 몸 마음을 제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하나님까지 합해서 우리에게 돌려준다 이겁니다. 자기 몸 마음을 바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돼 가지고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될 때는 하나님과 하나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가지고, 모든 만사가 하늘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지상, 천상천국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5-297, 1997.6.29) p.2269

맹세문을 아침·점심·저녁 식사하고, 일어났을 때, 잘 때 이렇게 다섯 번씩 언제든지 외우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몸 마음이 싸우는 기준이 연결된 것을 전부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안 됐으면 아침밥 못 먹고, 저녁 점심 못 먹는 것입니다. 밥 먹지 말라,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문이 개인적 맹세와 다릅니다. 가정맹세입니다.

섭리의 때,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지금은 개인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든 공식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대표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체 가정을 대표해서, 어머니도 전체 가정을 대표해서, 아들딸도 전체 가정을 대표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되고, 둘째는 부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개인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맹세는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되어야 됩니다. (267-146, 95.1.4) p.2269

가정맹세의 첫째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부 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맹세 8대 항목 가운데 표제가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라는 표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뭐예요? 참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참부모의 사랑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되어 가지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 참혈통이 연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했으니 지금까지의 섭리관은 전부 다 독신생활 하라고 했고, 출가를 명령한 것입니다. 독신생활, 그 다음에 출가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타락한 가정을 품고 가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탕감복귀해서 반대의 길을 가니까 쫓겨났던 데서 다시 나와야 되고, 결혼 잘못함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결혼생활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이 참사랑을 중심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참부모의 사랑을 중심삼고 혈통적으로 인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66-143, 1994.12.22) p.2270

가정이 모든 단체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세계 통일은 양심과 몸이 하나되는 것하고, 부부가 하나되는 것하고, 아들딸이 하나되는 데서부터입니다. 세계 통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원수가 마음 앞에 몸입니다. 몸은 사탄편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만 되면 천하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어떤 성인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참부모가 나와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러면 타락했는데 왜 몸이 마음을 끌고 다니느냐 이겁니다. 타락할 때에 거짓사랑이었지만 거짓사랑의 힘이 양심의 힘보다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거 이론적으로 전부 다 분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입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260-161, 1994.5.2) p.2270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자기를 위해 살겠어요, 자식을 위해 살겠어요, 아내를 위해 살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째서? 창조원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존재하는 원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역사과정에 남겨진 존재는 자기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상대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자기보다 잘나기를 바랍니다. 잘나기를 바라는데, 몇 퍼센트 잘나기를 바래요? 10 퍼센트, 백 퍼센트, 천 퍼센트, 영원한 퍼센트? 영원한 퍼센트라는 것은 무한한 퍼센트입니다. 그러려니까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백 퍼센트만 하면 백 퍼센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60-152, 1994.5.2) p.2270

잃어버린 것을 다시 편성해서 하늘나라에 들이 맞춰야만 천상세계의 비었던 천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의 천국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맞추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만 여러분 자신들이 했댔자 안 통합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이 그러잖아요? 토지개혁을 하게 된다면 전부 다 안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으로 전부 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에 있어서 이것이 불원한 장래에 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남북미를 통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미를 통일하게 된다면 남한 북한의 통일은 순식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나라를 찾아 가지고 서게 될 때는, 그때부터는 하늘나라의 헌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하는 가정맹세 가운데서 헌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 황족권의 내용으로 헌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공식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압니다. 속일 수 없다 이겁니다. (273-46, 1995.10.21) p.2271

이런 원칙으로 헌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충신이 되고 효자가 되고 성인, 성자가 되어야 하는데 못 되었기 때문에 그거 교육하는 것입니다. 전체 교육해야 됩니다. 그건 학교에서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념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옛날 관념이 안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시대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딸 몇 대를 거쳐 가지고 이걸 시정해야 됩니다. (260-161, 1994.5.2) p.2271

'가정맹세'는 전부 다 처음에 '참사랑을 중심하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귀의 길은 하나님과 하나된 참사랑의 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가도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고, 부모님을 대신해야 됩니다. (280-38, 1996.10.13) p.2271

Top

② 가정맹세는 복귀의 총론을 집약시킨 것

'가정맹세'는 선생님의 역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선생님이 가정을 엮어 나오던 역사를 두고 한 말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첫째가 뭐예요? 환경이지요? 재창조 역사입니다. 땅을 찾아야 됩니다. 일족을 구해야 되고, 그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입니다. 그게 누구 가정이라구요? 선생님 가정입니다. 중심 가정입니다. 그 전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래서 가정에서는 효자가 돼야 하고, 나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의 성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상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세계와 연결시키겠다는 축복가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두 법입니다. 왕 법과 나라법 두 법이 있습니다. 지상천국도 왕궁법, 지상 법이 있습니다. 이 네 법을 다 알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궁에 들어가더라도 모심 받고, 나라에 가서도 모심 받고, 지상의 왕궁에 가서도 모심 받고, 나라에 가서도 모심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에서 자연굴복의 존중 승리의 패권을 찾아야 되는 것이 선생님의 길입니다. (280-35, 1996.10.13) p.2271

여러분은 가정에서 효도하고, 나라에서 충성하고, 세계에서 성인의 길을 가고, 천주에서 성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4단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는 못 하더라도, 한 단계 효자가 되더라도 그 나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생님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가정 가운데서 가정 왕좌를 지켜야 되고, 수많은 나라의 왕 중에서 충신의 왕이 돼야 하고,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왕이 되어야 하고, 수많은 성자 가운데서도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자들 가운데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상속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았다고 가정에서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280-35, 1996.10.13) p.2272

성자의 도리, 지상의 모든 종교를 통치할 수 있는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중심삼은 세계를 축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가정 따로 따로, 민족 따로 따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부가 축복의 자리,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에 서 가지고 왕권에 대해서 동서남북, 열두 진주문 360도 방향으로 어디든지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4대 심정권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4대 심정권 가운데 성자의 심정권, 성인의 심정권, 충신의 심정권, 효자의 심정권을 넘어서지 않고는 4대 심정권을 넘어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맹세' 3번입니다. (280-35, 1996.10.13) p.2272

4번이 뭐예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고…' 천주대가족입니다. 세계가 형제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하나님같이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앉았더라도 이 4번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주의 대가족을 형성해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심정입니다. 천주대가족주의자입니다. 자유와 행복과 통일과 평화를 심어 줘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선생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역사가 표제입니다. (230-35, 1992.4.15) p.2272

머리에만 넣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세계에 직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전진적 자신들이 되라 이겁니다. 전부 다 자리에 앉아 가지고 바라보고, 세상이 이렇게 요란스러운데 잠을 자고 쉴 수 있어요? 1초, 1초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더 찾느냐 이겁니다. 비가 오고 밤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상세계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세계를 중심삼고 천상세계를 수술해서 시정하는 것입니다. (280-35, 1996.10.13) p.2272

6번이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자기들이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잘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딸을 더 잘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방에 전부 다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0-35, 1996.10.13) p.2273

7번은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본연의 혈통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는 심정문화세계라구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어디 걸릴 데가 없다 이겁니다. 지옥 가도, 천국 가도 해방입니다. 이것이 복귀의 총론을 넘어서, 총론만이 아닙니다. 서론에서부터 주 내용, 결론까지 전부 다 집약시킨 것이 '가정맹세'입니다.
선생님의 이런 말을 듣게 될 때에는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나라를 다 만들어 놓고 역사를 전부 다 얘기해 주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280-35, 1996.10.13) p.2273

요즘 가정맹세문 8번이 생겼지요?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애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간단한 것입니다. 해방이 아니라 해방권입니다. 여러분 집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 여러분 세계를 지상에서 완전히 책임 져야 되는 것입니다. (293-252, 1998.6.1) p.2273

우리 통일교회는 40년 고개를 넘어서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 규약이 필요한데 그 절대적 규약, 헌법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라는 말은 역사에 없습니다. 천국을 향한, 천국을 완성한 가정맹세입니다. (264-339, 1994.11.20) p.2273

가정맹세를 잘 보면, 탕감복귀 내용을 중심삼고 완전히 해방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는 사람은 타락한 세계의 가정권 내가 아니라 완성한 가정권 내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가정권이 형성됨으로써 거짓사랑으로 분립된 심신의 통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마음이 하나 안 되고서는 가정맹세를 외울 수 없습니다. (264-244, 1994.11.3) p.2273

Top

③ 가정맹세의 중심사상은 '참사랑'

통일교회에서는 가정맹세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가정맹세는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맹세라는 것은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맹세 8개 조항의 서두에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탄세계와 관계없는 기반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 가정맹세에 참사랑을 전제조건으로 했느냐 하면, 에덴동산에서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263-194, 1994.10.4) p.2274

가정맹세를 다 설명해 줬어요? 가정맹세는 1에서 8까지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라는 것이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이 뭐예요, 참사랑? 앞으로 여러분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 안 되어 가지고 영계에 가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268-98, 1995.3.12) p.2274

참된 나와 참된 가정을 찾아야 됩니다. '가정' 하게 되면 3대를 말합니다. 할아버지하고 부모하고 부부하고 자녀입니다. 이것을 확대한 것이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필요한 것이 뭐냐? 부모?처자?형제?자녀입니다. 공식이에요, 이것. 그렇게 사랑 못 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가정맹세에 나오는 4대 심정과 3대 왕권, 황족권을 체휼 못 하면 천국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272-212, 1995.8.30) p.2274

우리 가정맹세의 처음 부분이 뭐예요? 처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사랑,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것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참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 가정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뭐냐 하면 참사랑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74-195, 1995.11.3) p.2274

전부가 상대적 관계입니다.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부작용이 벌어집니다. 원리원칙을 중심삼고 사랑이상 세계를 전개 발전시키려면 투입할 수 있는 내적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 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뻗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7－303, 1997.10.6) p.2274

가정맹세에는 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의 철저한 정신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정맹세는 그렇다구요. 찾아보라구요. 원수라는 개념은 없다구요. 사랑 이외의 내용은 없습니다. 지상천국의 내용에 적합한 기초적인 기둥과 같아요. 지상천국 건설을 위한 기초 공식이라구요. (295－245, 1998.8.28) p.2274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는 이것으로 다 넘어가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맹세, 부부의 맹세, 자녀의 맹세, 혈족의 맹세, 문중의 맹세, 국가의 맹세가 전부 '참사랑을 중심삼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참사랑은 걸릴 데가 없다 이겁니다. 참사랑이라는 말은, 투입하고 잊는 것입니다. (270－289, 1995.7.16) p.2274

Top

④ 가정맹세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정맹세를 완성하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세계가 기독교 문화권이지만 천국이에요? 지옥 중의 지옥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까워요, 천국에 가까워요? 경계선으로 본다면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 압니다. 어느 자리인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이 되어서 가정맹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부 다 참사랑이 다 들어갑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개인, 가정·아들딸을 하나 만들어서 부모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0－186, 1994.5.8) p.2275

맹세문에는 전부 다 참사랑이 들어갑니다. 참사랑은 이 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와 하나된 이후에야 이루어지지, 그 이외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맹세문을 못 하게 해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맹세문을 했지만 실제는 가정입니다.

매번 기도회 할 때 이 맹세문을 외우고 기도하라구요. 몸 마음이 하나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260－186, 1994.5.8) p.2275

참사랑이란 뭐냐?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될 수 있느냐? 사탄 혈통을 끊어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수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중심삼고 몸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몸을 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마음에 몸이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벌써 하늘나라 갈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몸을 쳐 가지고 사탄을 분립하면 자연히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 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260－186, 1994.5.8) p.2275

하나님의 마음과 몸이 싸우겠어요, 하나됐겠어요?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세계를 뒤집어 놓는 것보다 힘든 것입니다. 자기 완성이 세계를 승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몸 마음을 하나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선생님은 하이웨이를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놓고, 산에 굴을 뚫어서 하이웨이를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을 위해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 세계를 구해 주기 위해 고생했지, 나를 구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260－186, 1994.5.8) p.2275

영계와 지상에 모두 다 꿈같은 얘기가 실현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만큼 무섭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순순히 원리의 길, 뜻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상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속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상속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생님은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상속해야 됩니다!'하면 선생님이 반대하고 내달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방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3-92, 1997.4.8) p.2276

가정맹세 1, 2, 3,…. 모든 것이 원리원칙입니다.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섭리의 방향을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면 중간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맹세와 이번에 어머니가 강연하는 내용은 새로운 천주복귀의 대원칙으로서 책으로 출판해야 됩니다.

타락한 이 세계에 있어서 장자권을 복귀하여 가정정착을 이루어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발전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3-92, 1997.4.8) p.2276

참사랑을 이루었으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에게 완성이라는 말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렇지요?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완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 완성이라는 것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부부생활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데는 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적 기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한 그 모든 전체는 균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게 될 때는 오관을 집중해 가지고 사랑하지요? 눈 따로, 코 따로, 귀 따로, 입 따로 되어 가지고 사랑해요? 자기들 생식기를 꼬아 박을 때는 몸 마음이 하나되어 가지고 오관이 집중해서 행동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283-92, 1997.4.8) p.2276

이제는 내가 80이 됐습니다. 80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때라도 집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요전에 생일날도 전부 못 쇠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이 환갑도 해방시켜 나갔지만 말입니다. 극반대의 놀음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신세를 안 집니다. 부모의 자식으로서, 참된 자식으로서 매일 매시간 충고한 이 모든 내용을 중심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중심삼고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매일 천상과 지상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시켜야 됩니다. 기합을 줘 가지고 강제로라도 냅다 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를 동원하고, 영계에 있는 조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영계의 선조들이 활동하는 것에 내가 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자면서도 강의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삽니다. 어머니는 그런 선생님의 비밀을 압니다.

말씀을 다 못했으면 자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설교할 것도 전부 다 밤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의 비밀을 어머니는 압니다. 밤이라고 잠을 자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중얼거리면서 말하고 살아요. (301-83, 1999.4.16) p.2276

그래 가지고 뭘 하려는 것입니까? 자기 일족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일족에서 가정적인 메시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열두 사람 이상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중심삼고 자기 일족, 손자며느리까지 전부 다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3대, 4대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족은 뭐냐 하면, 70문도를 중심삼고 120문도까지 편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0문도를 중심삼고 사가랴가정에서 하나되어 가지고 만조백관을 중심삼고 나라 형태를 갖춰 해방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것이 종족적 책임입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참부모지요? 참부모의 가정, 참부모의 사랑, 참부모의 혈족입니다. (301-85, 1999.4.16) p.2277

국가 메시아를 배치했지요? 선생님 혼자서 그런 과정을 승리한 승리적 패권을 가지고 다 거두었기 때문에 국가적 메시아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 상대권이 되려면 그 상대세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유분방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자유권, 종족의 자유권, 국가 자유권, 세계 자유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를 찾고 그 국가 전체를 희생시켜 가지고, 그 나라와 모든 걸 팔아서라도 세계를 위해서 살게 되면 몇 십년, 50대가 넘더라도 그들이 공헌한 국가가 세계 앞에 주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요? (301-85, 1999.4.16) p.227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가르쳐 준 모든 내용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고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주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천국이 열리지 그러지 않고는 안 열립니다. 아무리 미국의 누구누구라 해도 안 됩니다.

선생님의 열쇠는 본질적인 열쇠입니다. 금으로 만들었건 은으로 만들었건 간에 그것들은 암만 해도 안 열리지만 선생님이 준 열쇠는 놋쇠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째까닥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열쇠를 만들 수 없습니다. (260-186, 1999.5.8) p.2277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과 같이 못 사는 것은 이 통일적 관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와서 삽니다. 참사랑 하게 되면 '몸 마음 하나, 부부 하나, 자녀 하나'하는 관념이 싹 집약돼 있어야 됩니다. 이 셋이 하나되면 참사랑의 가정은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하나될 때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 지상천국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나와 가정에서부터, 아들딸에서부터입니다. (260-185, 1994.5.8) p.2277

Top

⑤ 가정맹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맹세문 가운데 첫째가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다시 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한 효자가 되자, 충신이 되자, 성인이 되자, 성자의 도리를 완성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이 모든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267-193, 1995.1.8) p.2278

맹세문을 외우려면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되고, 부부가 절대적으로 하나되어야 되고, 아들딸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만 맹세문을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것을 암송하고, 그럴 때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하루에 세끼씩 밥 먹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때 생각해 가지고 내가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되는 데 있어서 있는 정성을 다했느냐? 이렇게 반성하면서 이것을 매일같이 생활의 표준으로 삼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끼리 싸움하고는 못 외우는 것입니다. 가정맹세를 외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가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방패입니다. (266-143, 1994.12.22) p.2278

잘 때 암기하고 일어나 가지고 암기하면서 오늘은 몇 조를 생각한다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고 감정하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못했으면 내일 또다시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밥을 먹고 크는 것과 같은 생활적인 요소로서, 천국의 생명적인 요소를 기준 요소로서 맹세문을 외우면서 감정해야 됩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맹세'를 못 외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을 대표한 표준이니 만큼 여기에 일치되지 않은 것은 불합격이요,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기에 표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부모들은 이것을 전부 다 암기해 가지고 세분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 환경의 사람들도 거기에 동감할 수 있게끔 리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87-130, 1997.9.19) p.2278

참된 양심을 가지고 참부모를 다시 보라구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을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는 절대 상대적 기준에서 하나되어야 할 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가정이 정착했으니, 이런 상대 기반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관념이 없어야 됩니다. 몸 마음이 하나 안 되고, 부부가 하나 안 되고, 자녀가 하나 안 되어 가지고는 맹세문을 못 외우고 선생님을 부모님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르던 부모는 이용해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말은 선생님이 듣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를 철저화할 수 있는 이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263-244, 1994.10.4) p.227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와 참부모의 자녀들이 참사랑을 상속받아 사는 세계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양심적인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가정맹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부모와 더불어 하나된 여러분은 가정맹세 외울 때에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되고, 부부가 하나되어야 되고, 자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맹세문을 외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66-31, 1994.12.4) p.2279

참사랑은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처끼리 하나되고 자녀와 하나되는 그 위에 사는 걸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맹세문에 재까닥 걸려드는 것입니다. 맹세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여기 맹세문에 하나 못 되어 있으면 엄마도 공동 책임지고, 아들도 공동 책임지고, 개인도 공동 책임지는 것입니다. (260-189, 1994.5.8) p.2279

몸 마음이 하나되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된 부부로부터 하나된 몸 마음의 아이가 출발한다는 것이 자동적인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참사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참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270-324, 1995.7.23) p.2279

가정맹세라는 것은 중심에 안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모든 전체가 하나된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면 미국나라가 중심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닙니다. 그 세계가 점점 비극과 슬픔과 고통과 원한에 사무친 세계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지옥같이 제일 어두운, 깜깜한 천지로 알았지만 이것이 아침이 되어 가지고 반대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운세가, 창조한 이상이 뭐냐 하면 가정 이상입니다. 가정 이상,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사위기대는 3 대입니다. 3 단계 벌여 놓은 것이 사위기대입니다. 하나님, 부모,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본래 공식입니다. 아담가정은 공식 가정입니다. (260-183, 1994.5.8) p.2279

말씀은 부모님이 싸워 나온 전승의 기록입니다. 승리한 전통의 기록입니다. 천주 해방권을 이룰 때까지 이 전통적 사실을 자기 생활권에 적용시켜 가지고 자기 생활을 매일같이 비판하면서 상대적 실체권을 자기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세문을 제창할 때, 맹세문을 외우면서 맹세문을 중심삼고 언제나 비판해야 됩니다. 그 말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체권이 되어 있느냐를 비판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은 깎아 내려야 됩니다. '이놈의 악당, 통일교회를 망치기 위해 들어왔다.'하는 경고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301-80, 1999.4.16) p.2279

40 년 노정을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통일교회는 이제 가정맹세를 가지고 하나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급에서 나온 것이 전국을 위한 것처럼 건국사상을 철저화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나라가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265-293, 1994.11.27) p.2280

Top

3) 가정맹세와 축복가정의 전통

① 모심으로 생활의 천국화 이룩

하나님은 망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활적인 주체성을 지니고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주인으로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심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공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꿈같은 얘기입니다. (168-111, 1987.9.13) p.228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나의 의식과 직관과 감각기관 일체까지도 아버지의 것이요, 내가 느끼고 의식하는 전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관(觀)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심정을 통해 움직이는 하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8-294, 1960.2.14) p.2280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인간이 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될 수 있는 기원을 만들지 않고는 이 악마의 세계를 청산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심의 시대, 시의(侍義)의 구원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심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공중에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권내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144-274, 1986.4.26) p.2280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자각합니까? 24 시간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까? 모심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4 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 정도 모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기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물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밥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져요? (33-230, 1970.8.16) p.2280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이었지만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161-218, 1987.2.15) p.2280

본래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시는 데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더불어 모셔야 됩니다. (150-213, 1961.4.15) p.2280

모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소망의 천국은 맞이했으나 모시고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천국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즉 생활적인 면에서 주체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6-226, 1959.5.17) p.2281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존재이시므로 그 앞에 가까이 가면 천년, 만년 주관 받더라도 더 주관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모심의 도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도 그러한 자리에서 주관 받을 수 있으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77-328, 1975.4.30) p.2281

여러분들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심의 생활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겁니다. (78-30, 1975.5.1)

하루 24 시간의 생활권내에서 내가 보고 듣고 했던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 보고 들은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보고 들어야 되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천상세계의 생활과 연결시켜 생활해야 합니다. (35-284, 1970.10.25) p.2281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항상 감별하면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려야 될 수 없고, 하늘의 법도에 어긋나려야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런 남자는 아무리 미인이 유혹하더라도 안 넘어갑니다. 거기에 동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297, 1971.2.7) p.2281

오늘날 가정을 탈피하는 불행한 청년 남녀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륜의 법도에 일치된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 가정에 좌정(座定)시킬 수 있는 천지부모가 현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1-155, 1968.11.17) p.2281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② 참부모님과 일체된 생활을 해야 한다

최후에 남아질 것은 뭐냐? 하나님 플러스 인간, 신인(神人), 신인의 삶의 길, 신인 생활관입니다. 인생관도 마찬가지로 신인 인생관, 신인 세계관, 그것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대해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본래 떨어져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어야 할 자리 그 이상의 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신인(神人)이 하나된 생활적인 무대, 세계적인 무대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65-127, 1972.11.5) p.2281

여러분은 시의시대, 즉 모심의 생활을 하는 시대에 있어서 정확한 중심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데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어길 때에는 하나님은 무척 노여워하시는 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에 못이 박혔다 빠졌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여움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님도 선생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17-287, 1967.2.15) p.2282

여러분도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삼고 하나님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128-172, 1983.6.12) p.2282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사랑하는 데는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까, 일시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래요, 죽도록 사랑하지 않을래요? 벼락을 맞아 죽더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면 죽기 전까지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7-25, 1970.12.22) p.2282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미욱해야 됩니다. 충신들은 어떻게 보면 미욱한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미련해 보입니다. 곰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팔을 잘리고도 '아이구, 여기 덜 잘랐다, 더 잘라라!'하는, 그와 같은 미욱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곰이나 멧돼지는 총에 맞아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입으로 잘라 버리고 도망갑니다. 죽음은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걸리적거리는 것을 잘라 버립니다. 그런 미욱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충신 열사는 미욱해야 합니다. 조금은 어리석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143, 1969.10.19) p.2282

레버런 문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재간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미욱하게 그저 똑바로만 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입을 좀 다물고 적당히 돌아가면 될텐데, 왜 자꾸 욕먹게끔 작용을 하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아야 한 고개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 버리고 가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리면 곧게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곧은 길을 찾아 오셨기 때문에 곧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97-257, 1978.3.19) p.2282

하나님이 그렇게 외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독한 분이시기에 내가 죽는 날까지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을 하나라도 풀어 주고, 그 분야의 한 터전이라도 확대시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나온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복수할 줄 모르고 사랑으로 참아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분의 뜻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생각하면서 비틀걸음으로 혹은 허리를 꾸부리고 배밀이를 해 가면서 이것만은 남겨야 된다고 하며 싸워 나온 것입니다. (82-47, 1975.12.30) p.2282

여러분은 이제 참부모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할아버지 입장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입장이고, 자기들은 장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3 대가 걸쳐 같이 산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하고, 참부모가 나와 같이하고, 자기 부모가 같이하는 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131-97, 1984.4.16) p.2283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부모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사랑받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나서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고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왱가당댕가당 인수해서는 사랑 못 받는 것입니다. (133-26, 1984.7.1) p.2283

여러분은 선생님의 피와 땀의 대가로 사온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의 몸을 주고 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식구들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약합시다. (11-164, 1961.7.20) p.2283

여러분은 실체의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참부모가 그리워서 울어야 합니다. 자꾸만 보고 싶어해야 합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지어 놓고, 물이라도 한 그릇 떠 놓고 모시고 싶어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물이 앞설 수 있는 심정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을 중심삼고 심정일치가 되고 선생님과 같이 호흡함으로써 선생님의 인격 기준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선생님의 과거와 거기에 얽힌 사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상속받고 인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8-75, 1971.1.1) p.2283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타락을 했고 그 타락권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모심의 생활을 못 해본 것입니다. 모시지 못한 인간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타락의 혈통을 받아 생활했을망정 복귀의 노정을 탕감해 놓고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아담과 해와가 모시지 못한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갔다는 조건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50-233, 1961.4.15) p.2283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일체로 생각하고, 참부모를 일체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 내가 산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참부모의 것이요, 참부모의 것은 참부모의 나라의 것이요, 참부모의 나라의 것이 되면 내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우주도 참부모의 것이요, 이 집도 참부모의 것이요, 나라도 세계도 참부모의 것인데, 나는 참부모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161-231, 1987.2.15) p.2284

성약시대에는 하나님 자체가 참부모의 모습을 하고 만민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통일교회를 정치에 의한 어떠한 힘을 투입하더라도 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감각을 가지고 체휼할 수 있는 권내에서 체험을 거듭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286) p.2284

인간의 소원은 참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길을 가더라도 만나야 할 사람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시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후손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부모를 만난다면 역사를 찾는 것이요, 시대를 찾는 것이요,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참부모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35-237, 1970.10.19) p.2284

참부모라는 그 이름 세 자를 생각할 때, 참부모로 말미암아 역사가 치리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원이 생겨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이 결정되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외적인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해원성사해 드릴 수 있는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와 더불어 살고, 참부모의 명령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받들어 행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사에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43-144, 1971.4.29) p.2284

하나님을 해방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중심삼고 이상경에서 인류 시조와 함께 무한한 행복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가운데 모심을 받으면서 지내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제안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종교계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불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유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회회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기독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종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합니다. (176-242, 1988.5.11) p.2284

여러분이 참부모와 완전히 하나될 때 국가가 있는 것이요, 종족도 있는 것이요, 민족도 있는 것이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영광의 가치를 종합한 실체 기준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를 세상의 돈과 바꾸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참부모를 모시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도, 천세 만세의 후손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30-237, 1970.3.23) p.2285

Top

③ 전통과 가법을 바로 세워야

선생님이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통일교회의 이름을 후세에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후세에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을 중요시하라는 교육을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5-115, 1970.10.4) p.2285

지금까지 우리는 함부로 살아왔고 말도 함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정에도 규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성이 난다고 자녀에게 마음대로 몽둥이를 들어 때리고 '이놈의 망할 자식아' 하는, 세상적인 속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두가 일신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말부터, 태도부터, 생활부터 일신된 입장에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8-252, 1970.1.22) p.2285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규명해야 하고, 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지난날 막연하게 살아온 생활을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24-28, 1969.6.22) p.2285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있습니다. 만일 부모를 위해 부모가 있다면 부모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통일교회의 원리를 중심삼고 윤리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자식을 낳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윤리의 제일조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 있고자 하는 자리가 불행한 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자리입니다. (141-19, 축복과 이상가정 765) p.2285

여러분 자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이자 아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자녀의 것이 된 후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법도가 땅 위에 남아 있고 인간 생활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고아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 보고 자식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야 '나'라는 사람이 사방(四方)을 가릴 줄 알고 위도 아래도 가릴 줄 아는 것입니다. (18-209, 1967.6.8) p.228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전통을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엔 선하고 훌륭한 후손을 남겨야 합니다. 졸장부의 후손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훌륭한 후손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운세권에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할 자리에서 새로운 은인이 나타나는 것이요, 쫓기는 자리에서 새로운 승리의 깃발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겨야 할 그 전통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만민이 기뻐할 수 있는 전통이 돼야 하고, 선한 후손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될 때 하늘 앞에 가져갈 예물이 없게 됩니다. (99-329, 1978.10.1) p.2286

우리 축복가정의 아들딸들이 3 대를 어떻게 선생님과 같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3 대가 같이 공신이 된다면 천하에 없는 저 천상세계의 공신(功臣)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딸을 안고 지금부터 교육하고 그런 사상을 집어넣기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51-269, 1971.11.28) p.2286

미래에 대해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거냐? 내가 잘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후손을 교육해야 됩니다. 후손 앞에 남겨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지도하는 나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불쌍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피난민으로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광야노정을 걸어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착해야 되겠고 정착하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나안 칠족을 멸하듯이 싸워 이기지 않으면 정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중심삼은 싸움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통일세계 1975.11) p.2286

부모는 죽더라도 천도는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 가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자기 자녀를 위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운과 세계의 운과 함께하고 나라의 운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아 낳은 귀한 자녀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박자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세계와 나라의 운세에 박자를 맞추어야 합니다. (21－87, 1968.10.27) p.2286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혈통을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타락한 혈통이 아니라 순수한 혈통을 여하히 보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진심으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에덴동산에서도 타락하였는데, 이 죄악세계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악세계에서 태어난 부모는 고생을 하더라도 축복받아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희생되더라도 2 세들을 위해 그러한 환경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550) p.2286

습관적이고 세속적인 가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훗날에는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완전해야 합니다. 현재가 문제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전해야 미래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도 이러한 한날을 갖지 못한 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과거-현재-미래가 일치될 수 있는 자리가 이상적인 자리입니다. 현재를 바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땅 위의 영원한 발판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종합점입니다. (21－77, 1968.10.20) p.2287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귀를 이룬 후에 멸망당했던 것은 그들이 기존 환경에 동화되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사치하는 생활에 모든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부잣집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또한 권력을 탐했고,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기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선민의 정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통일세계 1986.4) p.2287

습관은 제일 고질인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후 아이들을 기르면서 습관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굳어 버립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특별한 정성이나 기도를 할 시간이 없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아이들이 곁에서 떠들어대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30-125, 1970.3.21) p.2287

우리는 개인 위주가 아니고 가정 위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만 중심삼고 모든 것을 청산짓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 홀로 도(道)의 생활을 하던 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옛날에 노력했던 것의 몇 배 이상 노력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첨부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을 대해 도전해 나가는 생활은 까딱하면 지치고 후퇴하기 쉽습니다. 가정을 가졌을 때는 혼자일 때보다 몇 배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중심을 잡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후, 좌우, 상하의 관계를 가정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 형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신앙 태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27-85, 1969.11.15) p.2287

여러분은 일대(一代)를 위해 사는 가정이 되지 말고 세계와 영원을 위해 사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또, 사랑의 터전을 넓혀서 만민의 심정을 모아 촛불을 피우고 향불을 피워서 축수를 드리고, 하늘과 땅, 만민과 공동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죽겠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종자로 남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594) p.2287

가정의 전통을 세우고 축복가정은 가법(家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기준과 가정의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만일 부모가 잘못했다가 자녀들의 추궁을 받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21-87, 1968.11.3) p.2287
이제부터는 비수를 가지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해부할 것은 해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천국을 이루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본이 못 되는 사람은 세계적인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온 천주적인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30-230, 1970.3.23) p.2287
Top

제 2 장
가정맹세 각절 해설

1) 가정맹세 1 절 해설

1 절 :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地上天國)과 천상천국(天上天國)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① 천일국 주인

㉮ 천일국이란
하나님 왕권수립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부모입니다. 천일국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천일(天一)'이라는 말은 천주평화통일국(天宙平和統一國)입니다. '하늘 천(天)'자는 풀어쓰면 두 사람(二人)입니다. 두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입니다. 하늘나라와 지상의 사람, 하늘사람과 지상사람의 이중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과 몸이 이중구조로 돼 있지요? 마음 몸이 하나 돼 있나, 안 돼 있나? 싸우는 패는 천일국의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2002.01.01) p.2288

천일국에서 주권과 나라와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의 하나님 왕권즉위식은 주권복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조국 정착대회는 땅 복귀요, 그 다음엔 천일국 국민으로 입적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카드를 가져야 백성이 되는 겁니다. (2002.01.01) p.228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일국(天一國)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예요. 하늘은 두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모가 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물도 전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천일국은 뭐냐? 곤충세계 동물세계로부터 전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안 되면 안 됩니다. 두 물건, 두 사람, 두 부모, 두 성격, 주체 대상이 하나된 곳에 본연의 발등상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지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까지 합하면 세 사람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라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기반이요, 나라의 기반이요, 세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이 생기고 종족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2.02.19) p.2288

여러분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전부를 총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맹세문도 '천일국 주인, 주인이 되는 겁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그게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러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겠지요? 맹세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맹세문에 주인이 생겼어요, 누구나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일국이라는 말은 영원히 참부모로 말미암아 생긴 말입니다.

하나님 왕권 수립해 가지고, 천지부모 안착생활권을 거쳐, 지상천상화합통일대회를 거쳐 가지고, 천주지상천상평화통일 해방성화식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2.11.05) p.2289

Top

㈏ 천일국 주인의 모습과 생활

나와 너는 마음과 몸이 하나된 같은 자리, 즉 부부일심, 부자일심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일심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아들딸은 아래에 있다면 일심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평면적으로 위치해 있어야 일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 외적 관계가 평면선상의 자리에 서야만 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적관계에서 안팎관계. 전후 관계의 자리에 서야만 일심이 되는 것이지, 상하관계에서는 절대로 일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1-30 : 1971.02.12) p.2289

일심통일입니다. 눈이 일심돼야 되고, 코도 일심이고, 다 일심입니다. 몸과 마음도 일심이고 여자와 남자도 일심입니다. 나라의 종족도 일심이고, 나라도 일심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일심되어야 되고, 세계 대통령과 일심되고, 하나님과 일심되고, 천지의 대통령과 일심통일이 되면 세계는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일된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내 나라인 것입니다. (284-11 : 1997.04.15) p.2289

통일교회의 제일 첫째 조건이 심신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 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명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믿는 대로 실체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투입해 가지고 나타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내가 명령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한 이상 투입하니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3,01.01 : 천주청평수련원) p.2289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일체-일념-일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효자가 되고, 나라 앞에 충신, 세계 앞에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해서 순결된 효성의 마음으로 '나는 영원히 참부모를 모시고 살겠나이다.' 할 수 있는 무리가 되지 않고는 천일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잘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행복된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불행한 자리까지도 내가 가서, 개척의 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겠다고 할 수 있어야 천일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참부모님이 고생하시니 나는 천 배 만 배 고생해도 좋고, 있는 모든 것을 쓸어서 그 생활권 내의 상대기준을 조성해서 참부모님을 누구보다도 더 해방된 기쁨의 자리에 세우겠다고 해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기는 극단의 극의 자리에서 고난도 소화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드리고 시봉의 영광을 하늘 앞에 영원히, 후대 앞에 자랑을 남겨주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천일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02.11.05 : 중앙수련소) p.2290

천국 주인이 된다는 것은 효자가 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효자 다음엔 충신-성인-성자의 가정입니다. 성자의 가정이 참가정입니다. 참가정이 되어야 천국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2003.01.01 : 천주청평수련원) p.2290

여러분은 효자가 되어야 되고, 효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효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순결, 순혈, 순애를 중심하고, 가정 기반 위에 하나님 앞에 가정적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자 충신가정, 그 다음에 효자 성인가정, 효자 성자가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개인에서 천주까지 저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왕자왕녀로서의 손색이 없는 주인 대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천일국 주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2003.3.12 : 한남동 국제연수원) p.2290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동위권! 동거권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참권입니다. 동행권이나 동참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참석하고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동애권, 같이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라!' 했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나중에 통일교회는 천일국은 사랑을 중심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하면,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소원이지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 부모님과 모든 일에 동참해 가지고 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영원히 같이 사랑을 중심삼고 행복하게 자유스럽게 해방된 자리에서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천일국 평화통일, 평정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가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영계 전체가, 하늘나라 전체가 따라다니고, 지상세계와 만민이 옹위하는 가운데 주인의 자격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통을 내 일족을 통해서, 일국의 전통의 뼈와 같은 사상을 내가 시봉해야 할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2.11.05) p.2290

Top

②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 가정맹세 전제조건은 '참사랑을 중심'

섭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귀섭리의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복귀섭리시대가 끝나면 본연의 창조이상의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귀섭리시대가 끝난다는 말은 타락한 세계의 사탄 권한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지상과 천상세계를 직접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가정맹세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가정맹세는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맹세라는 것은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맹세의 8개 조항의 서두에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참사랑은 사탄세계와 관계없는 기반에서 하는 말입니다. (263-194, 1994.10.4) p.2291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사랑을 중심삼고 거짓생명, 거짓혈통이 연결된 세상이니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맹세에 참사랑을 전제조건으로 한 이유는, 에덴동산에서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체적 이상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루었으면 거기에는 거짓사랑과 거짓생명과 거짓혈통이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살지만 그 자체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의 출발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63-194, 1994.10.4) p.2291

가정맹세는 1에서 8까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라는 것이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 안 되어 가지고 영계에 가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268-98, 1995.3.12) p.2291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의 종주들이라든가 수많은 성현 현철들이 나왔지만 참사랑과는 하등 인연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신랑 신부의 기반을 닦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것은 뭐냐?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종족과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황족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황족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황족권의 직계 조상이 누구냐? 타락하지 아니한, 본연의 사랑과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과 참혈통의 기반을 중심삼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씨입니다. 그 씨에서 뿌리가 나오면 종대 뿌리가 될 것이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면 종대 줄기, 종대 순으로 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적으로 커짐에 따라 거기에 대응하여 횡적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면, 가정과 종족이 연결되고 민족, 국가, 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263-194, 1994.10.4) p.2292

가정맹세의 처음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사랑,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참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것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참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 가정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뭐냐 하면 참사랑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사랑은 뭐냐?
하나님하고만 관계 맺은 사랑입니다. 자기라든가 국가라든가, 또 세상의 습관성, 풍습, 국민의 전통성,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그와 같은 관계를 맺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은 사랑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관계 맺은 사랑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 사랑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뿐만이 아니고 사탄의 가정을 넘어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지상세계·천상세계까지 그것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에 젖은 모든 습관이나 전통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순수한 본연의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 기준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랑이라는 습관성, 사랑이라는 전통을 완전히 부정해야 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에서는 효자를 말하고, 나라에서는 충신을 말하고, 세계에서는 성인을 말하고, 하늘땅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말합니다. 전부 다 사랑과 관계를 맺어 연결되어 나가는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이 세상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곡절의 사랑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 복잡한 사랑으로 엮어진 생사지권, 나라가 망하고, 별의별 일이 전부 다 여기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걸 찾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사랑을 찾아가는 데 있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한 것입니다. 죽음을 결심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274-195, 1995.11.3) p.2292

하나님이 이 땅 위의 사람과 같이 못 사는 것은 이 통일적 관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와서 살게 됩니다. 참사랑 하게 되면 '몸 마음 하나, 부부 하나, 자녀 하나'하는 컨셉(concept;관념)이 싹 집약돼 있어야 됩니다. 이 셋이 하나되면 참사랑의 가정은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하나될 때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이 어디서부터냐? 나와 가정에서부터, 아들딸에서부터입니다. (260-185, 1994.5.8) p.2292

Top

㉯ 참사랑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된 사랑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교회는 참사랑의 이상(理想)으로 신인(神人)과 심신(心身)을 통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참생명·참핏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니, 우리에게도 참사랑이 있고, 참생명이 있고, 참핏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부자일신의 관계를 갖고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은 몸 마음이 참사랑으로 자연히 통일되어 있듯이 우리 인간의 몸 마음도 참사랑으로 자연히 통일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사랑·생명·핏줄을 이어받은 타락 인간의 몸은 사탄편, 마음은 하나님편의 일선에 서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201-354, 1990.4.30) p.2293

참사랑의 기원인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에서 인간에게 절대 불변의 참사랑을 상속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참사랑 안에서는 완전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므로 신의 참사랑은 그 파트너인 인간에게 완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참사랑의 속성으로 상속권, 동거권과 동참권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자녀로서 동행 동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 상호간에도 참사랑을 중심으로 상속권?동거권?동참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신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각자의 이상과 행복을 소유하며, 또한 자연스럽게 이를 선대와 후대에 전승하게 되는 것이 창조본연의 세계였습니다. (205-156, 1990.8.16) p.2293

창조본연의 인간은 그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지니고 그대로 감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감응하며, 몸은 자동적으로 마음에 공명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는 참된 통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 체감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통일체가 되는 인간의 이상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소유할 때 이룩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참사랑을 중심으로 통일되는 데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이상은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통일된 기반 위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4-270, 1990.9.2) p.2293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의 뿌리는 자기를 중심삼고 종족이라든가 우주에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사랑에 연결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이론적입니다. (229-45, 1992.4.9) p.2293

참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참사랑이라는 것은 위하는 데서 생기지 위하라 하는 데는 참사랑이 없습니다. 왜? 천지창조의 근본, 출발 당시가 주입이 아닙니다. 잡아 끌어당기는 데서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세상 만사가 자기 투입입니다. 사랑의 이상을 찾아 나온 하나님의 이 우주창조의 축이 주입에서, 이게 끌어당기는 데서가 아니라 투입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투입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참사랑의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84-71, 1997.4.15) p.2294

참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생명까지도 투입하고 또 투입하겠다는 이러한 자리,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서만 참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천지를 꿰뚫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생명의 세계도, 강한 마음도 어디든지 뚫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비밀의 방도 통합니다. (256-179, 1994.3.13) p.2294

참사랑이란 무엇이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투입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부모입니다. '내가 대학에 보냈으니까, 내가 늙으면 봉양해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그것을 수첩에 기록해서 계산서를 미리 준비하는 부모는 거짓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이상적인 효자를 대할 수 없는 부모입니다. (239-62, 1992.11.23) p.2294

참사랑이라는 것은 뭘 하느냐? 참사랑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몸 마음이 싸우는 것을 다 통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 마음이 통일 못 한 것은 참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거짓사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참사랑 아니면 하나될 길이 없습니다. 타락은 거짓사랑 때문이었으니 참사랑 아니고는 하나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9-292, 1994.4.17) p.2294

참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전체를 투입하고, 또 전체를 투입하고, 또 전체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투입하는 데서부터 참사랑의 참된 상대를 중심삼고 하나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268-13, 1995.2.7) p.2294

참사랑이라는 것은 천리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원리원칙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원리 위에 있지요? 자유도 원리주관권, 원리 위에 있지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03-165, 1999.8.17) p.2294

Top

㉰ 참사랑의 기반은 참가정

참사랑의 제 1 고향은 참가정입니다. 참가정! 거기에는 참아버지 참어머니, 참남편 참아내, 참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사랑의 가정 기반입니다. (215-243, 1991.2.20) p.2294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는 어떠한 남자 여자예요? 창조이상으로 보게 될 때 재창조과정에 맞는 남자 여자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 마음이 하나된다면 남자가 하나의 주체, 플러스가 돼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된 여자를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하나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큰 마이너스가 되든가 플러스가 되든가 해서 자녀를 중심삼고 하나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그 원칙에 따라 남자 여자가 이와 같이 주체와 대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된 것이 부모가 되고, 형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나되기 위한 3 단계의 내용을 갖추어 가지고 결속된 것이 가정입니다. (268-13, 1995.2.7) p.2295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되는 그 자체의 힘이 뭐냐? 사랑의 힘입니다. 참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의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러분 결혼할 때에 상대가 자기보다 백 배, 천 배, 만 배, 무한대로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한대, 무한대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의 대상은 무한대의 대상의 가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요, 영원하시고, 유일적인 대상의 사랑을 중심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점점 커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커 가려고 합니다. 참사랑만이 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 공식입니다. (268-13, 1995.2.7) p.2295

인간은 왜 태어났느냐?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참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주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참사랑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종적완성, 횡적완성,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종횡완성, 전후완성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249-294, 1993.10.10) p.2295

여러분은 참사람이 됐습니까? 참다운 자녀가 있느냐구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또 투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이런 기준이 참된 하나님이 창조이상의 사랑을 중심삼고 바라던 이상적인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253-66, 1994) p.2295

부모는 집의 왕이고, 종족의 중심이 종족의 왕이 되는 것이고, 민족의 중심이 민족의 왕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세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게 된다면 인간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 왕, 모든 중심의 왕이 되면 하나님도 여기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고 주체입니다. 아무리 크다 해도 이 공식에 맞아야 됩니다. (268－13, 1995.2.7) p.2295

하나님은 상대 때문에 이 우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있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요? 그래서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파트너십입니까? 사랑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주체되는 하나님이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무한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이런 관념으로 시작했으면 상대되는 파트너십도 무한히 투입하고, 무한히 주입시키고 자극시킬 수 있는 상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짓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서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존속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상대가 필요하지요?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참된 상대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중심삼고 이 땅 위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착하는 기반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입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단위입니다. 공식은 단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노래할 수 있는 정착적 출발지가 어디냐? 그것은 나라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고, 어떠한 남자도 아닙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돼 가지고 하나님의 상대적 자리에서 정착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입니다. 이상, 자유, 행복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이겁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 공식입니다. (268－13) (268－13, 1995.2.7) p.2296

참사랑을 해야 됩니다. 가정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아들딸이 하나된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몸 마음을 갈라놓았고, 부부를 갈라놓았고, 형제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하나될 수 있는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형제가 하나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이룸으로 말미암아 천상천국과 지상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260－317, 1994.5.19) p.2296

Top

③ 본향 땅을 찾아

㉮ 본향 땅의 참된 의미

본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고 싶고 마음과 더불어 몸이 가고 싶은 그러한 곳입니다. 마음이 그리워함과 동시에 몸도 그리워하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고 행복의 터전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본향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향을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흠모하다가 죽어 갔습니다. 또한 수많은 종교인들이나 철인들도 이 본향 땅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향 땅이 기필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25－74, 1969.5.11) p.2296

본연의 동산은 이상동산입니다. 유무상통하는 세계요, 형제의 감정이 만우주 어느 곳이든지 통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민족적인 감정, 혹은 국가의 어떤 주권적 차이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이상과 주의의 세계가 아닙니다. 민족의 차별, 혹은 국가의 주권 등 그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서 논의하는 세계, 인간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하는 조건의 차이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세계입니다. (7－37, 1959.7.5) p.2297

원래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본향은 어디일 것이냐? 아담과 해와가 살던 에덴동산이요, 그 마을이요, 그 산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부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인간들은 '본향!' 하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을 생각하는데, 인류가 추구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이상적인 본향이라는 것은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가 찾아 나가는 최고의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는 잃어버린 본향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본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습니다. 그들이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그 본연의 곳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23-74, 1969.5.11) p.2297

본연의 땅은 악이 깃드는 곳이 아닙니다. 악과 절연하고 넘쳐 흐르는 본연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영원한 통일세계입니다. 본향이란 행복을 노래하고 부모의 사랑과 가정의 사랑에 잠겨 천지만물을 주관하면서 천지가 기뻐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살고 싶은 곳입니다. (18-102. 1967.5.28) p.2297

우리가 본향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곳에는 누구보다 가까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있어서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고, 언제 어느 때 찾아가더라도 나를 한결같이 맞아 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동정하며 위로해 주고, 나를 기쁘게 맞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본향이 그립고 좋아서 찾아가더라도 간절히 사모하던 심정은 없어지고 도리어 탄식의 조건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향 땅에는 반드시 맞아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3-80, 1969.5.11) p.2297

본향이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본향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마을이 있고, 사랑하는 집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멀리 외국에 가 있게 되면, 그 본향의 범위는 넓어져서 조국, 즉 나라까지 본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주나 혹은 천주란 견지에서 보면, 이 세계가 내 본향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범위가 크면 클수록 그 본향의 범위도 비례적으로 커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활과정에서 잘 느낄 것입니다. (7-22, 1959.7.5) p.2297

참된 본향을 찾을 수 있는 그 조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참부모입니다. 참된 조상으로 연결된 참된 나라면 참부모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겠기 때문에 역사 이래 거짓부모로 말미암아 다 저끄러진 것을 참부모로 말미암아 복귀함으로서 지상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를 두고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이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7-321, 1995.2.5) p.2298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 동고동락한 기쁨을 지니면 틀림없이 영생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와 하나님의 가족과 황족의 일원으로서 영화스러운 하나님을 영광 중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본연의 나라요,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64-155, 1994.10.9) p.2298

본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본향 기지,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고 우리 인류 조상이 완성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천리의 대도를, 종교 지도자, 부모, 선생의 지도 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양심을 교육하자는 말 들어 봤습니까? 양심은 자기의 일생에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262-117, 1994.7.23) p.2298

여러분은 다 고향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향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본향 땅이 있으면 그 본향으로부터 본향의 족속이 벌어지고 그 족속으로부터 민족이 벌어지고, 민족으로부터 국가와 세계가 벌어지고, 그럼으로써 지상에 천국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지구성에 하나님의 본향 땅이 있다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은 것입니다. 지지리 못난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가 사는 고향도 가고 싶어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본향을 안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본향은 우리 모두의 고향인데 안 가고 싶다면 거짓말입니다. (23-152, 1969.5.18) p.2298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착지해 가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할 때는, 그곳은 인류 전체를 대표한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활을 출발한 그 가정 기지가 인류의 본향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근본 출발지가 고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그 출발지에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그런 자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 고향은 없습니다. 비로소 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되어 착지해서 출발할 수 있는 기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곳이 인류의 본향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귀는 되었지만 그 복귀된 것이 본연의 형태의 출발 기지와 같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참사랑의 기지로서 출발하려던 곳이기 때문에 인류의 본향 땅이 되는 것입니다. (289-142, 1998.1.1) p.2298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즉, 조국이 어디냐? 인류의 조국이 어디냐? 인류의 참부모가 오는 그 나라가 조국입니다. 이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조국이 어디라구요? 인류의 참부모가 오는 나라입니다. 인류의 본향 땅이 어디냐? 아프리카라든가 수많은 나라가 많지만 인류의 본향 땅은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그분이 태어난 고향이 우주와 이 역사적인 세계의 본향 땅이 되는 것입니다. (156-233, 1966.5.25) p.2299

하나님이 원하는 조국이 어디인가? 인류의 본향이 어디인가? 참부모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역사적이요, 우주적이요, 세계적인 본향 땅이 됩니다. 조상과 사상과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붓자식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 백성은 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은 안팎을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한국이 본향이고 조국이라면 모든 세계적인 문명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본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날 충성·정성·사랑·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본향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15-283, 1965.11.2) p.2299

만일 한국이 하나님이 바라는 이 세계의 본향 땅이요, 우주 만민의 조국이 된다 할진대 그 나라의 새로운 문명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나라의 언어는 세계어가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남녀는 세계적인 남녀가 될 것입니다. 본래의 부모를 중심삼고 태어났다면 언어는 하나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조국 땅, 본향 땅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면 한국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춤추게 되면 한국을 들고 춤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춤춰 본 날이 없었고, 웃어 본 날이 없었습니다. (156-233, 1966.5.25) p.2299

사랑의 본산지가 한국입니다. 인류의 사랑의 집, 사랑의 고향, 사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본향 땅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라는 이 사람은 참사랑을 중심한 절대 불변적인 가정 이상을 중심삼고 국가 형태, 세계·하늘나라, 지상·천상천국이 연결될 수 있는 직통행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합니다. (290-287, 1998.3.2)

지상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가던 곳이 영계의 천상천국입니다. 천상이 우리의 본향 땅이라는 것입니다. 천상천국은 우리의 본향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지상천국이 생겨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상천국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161-12, 1987.1.1) p.2299

Top

㉯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향 땅

그리움의 본향 땅이 어디 있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인간세계는 타락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실락원(失樂園)한 다음에 결혼해서 아들딸 낳아 가지고 번식된 50억 인류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병이 났으니 갈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건이 생겨 가지고 고아로 흘러 왔습니다. 출발이 미분명하고 목적지가 미분명합니다. 인류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 하나님이 50억 인류에게 가르쳐 주려고 선생님에게 먼저 가르쳐 준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228-220, 1992.4.3) p.2300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향 땅을 잃어버렸고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고 내가 태어났으면 살다가 죽을 때 어디서 죽습니까? 본향 땅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본향 땅에 묻히고 싶은 것입니다. 살면 어디서 살아요? 본향 땅입니다. 본향 땅에서 살 것인데 나고 보니 원수의 땅이요, 나고 보니 슬픈 땅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본거지로 삼아서 행복의 터전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야 됩니다. 가정아 지나가라, 나라야 지나가라, 세계야 지나가라, 공산주의도 지나가고 민주주의도 지나가라!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본향 땅 사랑주의, 부모의 사랑을 나눈, 피살을 같이 나눈 형제주의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막연히 그런 것을 부르짖었지만 지금은 구체적입니다. (155-32, 1964.10.6) p.2300

본향을 찾아야 됩니다. 본향이 어디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본향이 어디냐?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의 본향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계 조국의 출발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삼고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책임을 짊어지고 사명을 담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본향 땅을 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온 인류 앞에 본향 땅이 되기 위해서는, 즉 고향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이 찾아 세우는 부모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본향 땅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데 형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에는 누가 있느냐? 친척이 있어야 되고, 형제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중심삼은 소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고향을 왜 그리워 하느냐? 심정적인 내 생명의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한 고향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5-321, 1965.11.1) p.2300

'소망의 조국의 한 때가 어서 오소서!' 하늘의 한 국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늘 앞에 원수인 대사탄을 심판해 버리고, 악을 제거해 버리고 선만을 위주로 한 평화의 천국을 이 지상에다 이루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지금까지 섭리노정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우리 선조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55-321, 1965.11.1) p.2300

지금까지 인간들은 한을 품은 원통하고 불쌍한 하나님인 것을 하나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자기 아들딸로 돼 있던 것이 원수의 철책망에 걸려 가지고 '나 죽는다!'하는 이런 원성이 천지에 사무쳐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너희들이 무슨 큰소리냐, 난 잠이나 자야겠다.'하고 배를 쓸고 잠자는 하나님이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땅을 복귀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56-233, 1966.5.25) p.2301

'본향 땅을 찾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종교세계에서 지금까지 출가를 명령하고 전부 다 독신생활을 명령했지만 그 반대입니다. 환고향입니다, 환고향. 고향에 돌아가라는 이 말은 종교세계의 역사에 없던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것이 희소식 중의 희소식인데, 환고향 길을 더디한 이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64-187, 1994.10.9) p.2301

그래서 맹세문 제1은 뭐예요?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의 땅을 찾아', 그 땅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완성하기를'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창건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악마의 세계로부터 깨끗이 찾아와야 됩니다. 사탄 세계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라 창건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261-88, 1994.5.22) p.2301

고향에 돌아가서 효자 충신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모델적 가정과 나라를 이루고, 왕권을 이루어 가지고 지상?천상천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대가정 이상을 중심삼고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 만들어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된 것은 천상세계와 지상천국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흥분해 가지고 정열적인 입장에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267-153, 1995.1.4) p.2301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본향땅을 중심삼고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창건한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내가 만든다 그 말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으로 본향땅을 중심삼고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상천국을 창건한다는 것입니다. 본향 땅입니다, 본향 땅. 가정을 중심한 본향 땅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이 있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고향만 찾으면 자연히 나라와 세계 전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자연히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260-156, 1994.5.2) p.2301

환고향이란 뭐냐? 참사랑의 근원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본연지에 돌아가 가지고 그 뿌리와 더불어, 가지와 더불어, 열매와 더불어 영원히 같이 영생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자 하는 것이 본향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252-269, 1994.1.1) p.2302

어떻게 본향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본래 태어난 자리가 고향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서부터 전세계로 횡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의 사람들이 하늘편의 고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연의 아담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가정을 출발하고 종족을 출발해서 나라와 세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반 위에서 아담 조상을 복귀하고, 예수의 입장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성시대에 재림주인 참부모를 중심삼고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개념만 확실히 알고 나가면 사탄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248-27, 1993.5.30) p.2302

정착을 하는 데서 무엇을 상속해 주느냐? 개인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맹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가정맹세를 철두철미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이 가정맹세를 보면, 제 1 이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68-226, 1995.4.2) p.2302

Top

④ 본연의 창조이상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참사랑입니다. 창조이상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하자, 그게 뭐냐? 사위기대를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됐다면 만물이 전부 다 그 사랑 위에 일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령하고 창조된 피조물을 점령할 수 있는 제 2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주인이요 우리는 보이는 주인이다, 하나님은 내적 하나님이고 우리는 외적 하나님이 되자 이겁니다. 다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276-253, 1996.2.24) p.2302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사위기대 완성은 아담과 해와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상하•좌우•전후에 하나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첫째는,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인애(神人愛)완성입니다. 일체입니다.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사랑에는 사랑의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남편 앞에 여자는 영원한 남편의 소유권이요, 여자 앞에 남자는 영원한 사랑의 소유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76-253, 1996.2.24) p.2303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조이상이 뭐냐? 4 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4 위기대 완성이 뭐냐? 사랑 이상, 일체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전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랑?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의 전체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절대신앙 위에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276-299, 1996.3.10) p.2303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요, 종적인 주체요, 인간은 횡적인 주체입니다. 종횡이 하나되어야만 구성체를 완성시킵니다. 입체적인 구성체라는 것은 종횡이 하나되고, 전후가 하나되어야 됩니다. 그래, 종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부자지관계입니다. 횡적인 것, 동서관계가 부부관계요, 형제관계가 전후관계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사랑이상의 하나의 구형을 형성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중앙에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대표하고, 남편으로서 대표하고, 어머니로서 대표하고, 아내로서 대표하고, 아들로서 대표하고, 형님으로 대표하고, 동생으로 대표할 수 있는 중심 존재로 계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가 됐으면 부모의 자리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고, 그들이 부부가 됐으면 부부로서 영원히 살고 싶고, 부모가 돼 있으니 부모로서 영원히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었던 그 터전이 가정이었느니라! (267-224, 1995.1.8) p.2303

본래, 하나님의 창조이상이라는 것은, 참부모를 표준하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시작을, 전부 다 참부모를 표준해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완성하게 되는, 아담과 해와가 완성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참부모가 성혼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혼식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주인이시며 참사랑의 뿌리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참사랑을 중심삼고 인간과 이것이 하나가 돼 가지고 참사랑의 뿌리를 이 평면 세계, 인간세계에, 지상세계에 확장하기 위한 것이 창조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혈통적으로는 사탄의 피살을 받았습니다. 이 사탄의 피와 사탄의 혈통과 지옥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더라도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제거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참부모가 참사랑을 중심삼고 가질 수 있는 그 혈통적 인연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266-58, 1994.12.11) p.2304

양심은 최고의 이상을 바라고 몸뚱이도 최고의 욕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도 남자나 여자나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 이 세계의 왕이 되고, 여왕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이상입니다. 횡적으로 무한대의 중심존재가 되고,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의 최고의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과 남자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272-277, 1995.10.8) p.2304

하나님이 바랐던 창조이상이 처음에는 한 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한 알의 씨를 심는다구요. 그렇게 심어지는 한 알의 씨가 절대적인 남성의 대표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자가 퀸이고, 그러한 남자가 킹입니다. 그와 같은 킹과 퀸이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타락 세계에는 그러한 내용의 이상적인 공식 기반이 없습니다. (271-328, 1995.9.3) p.2304

사랑은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자지일체 · 부부일체 · 형제일체라는 말은 사랑을 떠나서는 없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몸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게 하나될 때는 종적인 기준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한 점에 모이는 것입니다. 종적 기준이 먼저 연결되는 것입니다.

종은 인력에 의해서 빨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횡보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자연히 와서 종적 기준이 딱 중심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되고 돌게 된다면 이 전체가 하나를 중심삼고 구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이 되고 아담과 해와는 부체가 돼 가지고 사랑의 하나의 구형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들딸이 완성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 자리가 하늘나라 가정의 사랑이상의 완성체입니다. 그 자리가 남자 여자가 이상하던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써 근원적 핵심점을 폭파 결실시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262-189, 1994.7.23) p.230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평화의 세계에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방향일치, 목적일치를 이루는 데서 그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창조이상 완성이 뭐냐?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사위기대 완성이 뭐냐? 이상적 가정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 이상가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261-289, 1994.7.24) p.2304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볼 때, 참된 남성 참된 여성을 그려 가지고 참된 사랑과 참된 생명과 참된 혈통을 연결시켜서 그것이 안착된 자리에서부터 가정이 출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혈통이 종적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되고 땅에서 정착해 가지고 횡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이 있게 되면 개인을 중심삼고 가정을 중심삼아서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사방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259-192, 1994.4.10) p.2305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부모 이상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중심 존재도 부모이므로 부모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땅 위의 부모로부터 왕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의 지상천국, 천상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권과 지상의 왕권은 안팎입니다.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하나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창조이상, 모든 천지의 목적은 부모를 중심삼은 가정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트루 맨(true man;참남성)과 트루 우먼(true women;참여성), 트루 커플(true couple;참부부), 트루 칠드런(true children;참자녀), 이 셋이 하나되어서 하나의 가정 단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된 것은 아무리 센 힘을 가하더라도 갈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265-288, 1994.11.27) p.2305

섭리사의 주류가 되는 것은 창조이상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말하지만 그 내용을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유명한 신학자한테 이런 걸 물어 보니까, 아이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의를 못 내리니까 교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표준 되는 결혼을 못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창조이상의 완성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갈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만큼 하나님의 뜻도 절대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창조이상의 완성, 이게 뭐냐? 그것은 사위기대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사위기대 완성은 뭐예요? 사랑 이상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참사랑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247-116, 1993.5.1) p.2305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천상천국의 중심이 되고 지상천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천상천국은 종적 기준이요, 지상천국은 횡적 기준인데, 이것이 하나되어 가지고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통일적 대가족 편성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269-80, 1995.4.8) p.2306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가치자로 완성시킴으로써 하나님도 참사랑의 완성을 보아 영원한 이상애가 깃드는 창조이상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254-106, 1994.2.1) p.2306

하나님의 사랑 이상이라는 것은 혼자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부모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거짓된 후손들이 아직까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상으로 세웠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중간 단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낙원에 갔느냐 하면, 결혼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모든 선조들도 전부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영계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중간 천국과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심령 상태에 해당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식구가 있으면 전부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272-289, 1995.10.13) p.2306

세계와 동화할 수 있는 핵자(核子), 모델케이스를 가정에서 완성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그것은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휘어지게 되면 4 대 심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거기에서 완성된 것이 천국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첫사랑의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앎으로써 통일교회 가정은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될까요? (257-216, 1994.3.15) p.2306

하나님의 뜻은 창조이상의 완성입니다. 창조이상의 완성은 사위기대 완성이고, 사위기대의 완성은 참사랑 이상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황족권 복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본연의 기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섭리사의 주류라는 것입니다. 창조섭리가 주류이지만 타락했으니 복귀섭리가 전부 주류가 된 것입니다. (247-143, 1993.5.1) p.2306

Top

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

㉮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출발기지는 가정

아담가정은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된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었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 인간조상은 하나님의 무형의 성품을 실체적으로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주에 전해 주는 기대 속에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와 그 자녀들은 온 인류가 따를 수 있는 근본 원리를 생활 속에서 확립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은 마음과 몸을 하나로 완성하여 하나님과 하나된 개인, 부부가 하나된 가정, 또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희망이 온 지상에 가득한 안정된 기반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전형은 가정이나 국가에 머물지 않고 세계와 전우주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천국 모형이 국가 전체로 확대되고, 국가권의 천국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세계권의 천국이 전천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288-167, 1997.11.27) p.2307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성과 인격은 가정에서부터 형성됩니다. 가정은 사랑과 인격 그리고 삶의 출발이요, 그 근본 바탕이 됩니다. 인생은 가정 기반 위에서 부모의 사랑에 의하여 태어나 아들딸의 자리로부터 부부의 자리, 부모의 자리, 조부모의 자리로 위상을 달리하는 사랑의 인격체로 완성하고, 결국 후손의 애정 속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원리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역사와 나라가 생겨나고 이상세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개인의 존재 의미도 없고, 혈대의 전승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모든 가치와 이념, 그리고 제도와 체제를 우선하는 가장 귀한 인간의 사랑과 생명의 본거지가 됩니다. (288-167, 1997.11.27) p.2307

하나님을 환영해 모셔서 참부모와 더불어 영원히 가정을 중심삼고 지상에서 살므로 말미암아 지상 가정에서 지상천국-천상천국 가정으로, 전부 다 통일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고 싶어하시는 에덴의 가정을 이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가정에서 못 살았으니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 일족이 종족적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늘땅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살 수 있는 출발 기지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상천국-천상천국의 출발 기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70-103, 1995.5.7) p.2307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이므로 참사랑과 연결되면 모두가 같은 몸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고, 아들딸은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3 대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조직이 천국의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우주의 중심입니다. 가정 완성은 우주 완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주를 사랑하면 어디든지 무사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전체 우주의 부모로서 사랑의 복합적인 중심 자리에 계십니다. (298-306, 1999.1.17) p.2307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될 때 천태 만상으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에 사랑을 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일원화된 가정은 가정애가 꽃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회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28-170, 1970.1.11) p.2308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무얼 해 주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결혼식을 해줘 가지고 아들딸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편성하여, 이것을 번식시켜 종족과 민족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넓혀지면 그 세계는 무슨 주의 세계예요? 하나님주의 세계인 동시에 아담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이념이 있다면 이는 아담주의 이념이요, 거기에 우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우주관이요, 천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천주관이요, 생활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생활관이라는 것입니다.

오색인종이 알록달록하고 그런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니 수많은 민족의 피부 색깔이 다른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수많은 민족의 언어가 달라졌을까요? 인류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분립시켰다 이겁니다. (156-202, 1966.5.25) p.2308

가정이라는 것은 세계를 축소시킨 횡적인 기반입니다. 여기서부터 국가와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이냐? 가정은 세계의 횡적인 축소형으로 절대적인 중심 앞에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절대적인 중심이 머무를 수 있는 발판입니다. (26-258, 1969.11.9) p.2308

형제를 통해서 국민이 형성되고 인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전후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납작하게 있다가 살이 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원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운드(round; 원형의 것)를 만드는 것이 형제요, 국민입니다. 형제가 확장되어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애라는 것은 세계애와 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자라는 가정은 세계의 인류를 품고 이상적인 천국,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드는 모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여기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235-268, 1992.10.11) p.2308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아담은 현재의 가정을 대표해 나오는 것이고, 아들딸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징이요,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의 상징이요, 아들딸은 미래의 상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이념을 중심삼고 한 가정에서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정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땅 위의 표면에 나와 가지고, 가정에서 할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그 가정을 치리하여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이 하나되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식된 자녀들은 두 나라의 상속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36-259, 1992.11.8) p.230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은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모델입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부부, 아기까지 4 대 계열이 있습니다. 요것을 확장하면, 세계 각 나라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부, 아기와 같은 4 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가정을, 가정은 종족을, 종족은 민족을, 민족은 국가를,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원칙을 중심삼고 외국에 나갔을 때 자기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부, 아들딸 이상, 세계 국가 앞에서는 자기 나라의 백성 이상 높이면 천국의 본궁과 일치된 자리에서 완성해 가지고 천국 나라의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2－265, 1994.1.1) p.2309

지상천국, 천상천국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3 사랑이 거기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모델이 하늘나라의 축입니다. 이상적 천국 건설의 하나의 축입니다. 지상 축입니다. 천상 축이 되어 가지고 지상의 나라, 천상의 나라가 교체되어 하늘나라를 키워 나간다면 하늘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느냐 하면 종횡의 이상 구성을 바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녀를 왜 필요로 했느냐 하면 횡적인 전후를 중심삼고 구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219－168, 1991.8.29) p.2309

하나님을 중심삼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통일되고 종적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횡적으로 가인 아벨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사랑으로 하나되고, 하나님의 본연적인 이상을 중심삼은 주체와 대상이 사랑이상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창조 세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대응적인 주체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243－323, 1993.1.28) p.2309

인간 완성은 참사랑을 중심삼아 가지고 몸 마음이 영원히 하나되고, 그런 남자 여자로서 영원한 부부의 사랑을 이룬 그 부모가 참된 부모 입장이고, 그런 부모를 중심삼은 역사는 선조로부터 천년만년 변함없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종적으로 해 가지고 횡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세계는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됩니다. 거기에서 천지합덕(天地合德)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7－58, 1990.10.28) p.2309

통일교회의 원리가 놀라운 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어떻게 하나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아담의 인격을 대신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외적인 인격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더불어 출발하는데, 하나는 종적인 출발이요, 하나는 횡적인 출발입니다. 이론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론적 설파가 가능합니다. 지금가지의 기성교회 신학을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창조주는 신성한 것이고, 피조물은 속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랑의 이론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대번에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중심삼고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226－169, 1992.2.4) p.2310

가정은 모든 인류의 남자 여자를 축소한 것입니다. 인류 하게 되면 남자 여자입니다. 가정은 모든 걸 확대할 수 있는 씨입니다. 씨에서부터 번식해 가정, 가정이 많아 가지고 가정들이 연합하여 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종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 세계, 천주까지 확대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273-48, 1995.10.21) p.2310

가정이 기관차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나고 목적지에 달려가게 되면 꽁무니에 달렸던 여러분 나라와 세계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도착되는 것입니다. (269－291, 1995.5.1) p.2310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천국 창건은 축복가정의 임무

가정맹세 제 1 절은 환경복귀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출가를 요구하고 독신생활을 요구했지만, 통일교회에서 처음으로 환고향을 명령한 것입니다. 환국이라고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교계에 이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269－105, 1995.4.9) p.2310

본향 땅을 찾아,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났으니 다 잃어버렸지요? 찾아 가지고 뭘 한다구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창조를 해야 됩니다. 잃어버렸으니 전부 다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도둑 맞았으니 다시 찾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가더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환고향을 말한 것입니다. 이건 종교계에 없는 놀음입니다. (288－323, 1998.1.1) p.2310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찾습니다. 악마는 더더욱이나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본향 땅을 찾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종교세계에서는 지금까지 출가를 명령하고 독신생활을 명령했지만 그 반대입니다. 환고향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라는 이 말은 종교세계 역사에 없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희소식 중의 희소식입니다. (264－187, 1994.10.9) p.2311

가정맹세가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참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고, 가정들이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 '본향 땅을 찾아!' 이 지구성이 본향 땅입니다. 본향 땅에서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랑길을 다 따라 온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연의 사랑을 찾아 가지고 재창건하는 것입니다. (297－209, 1998.11.20) p.2311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하나되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일치된 가정생활을 하다가 지상에 살던 사람이 천국 가정으로 이동해 넘어가는 것입니다. 개인구원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보면 뭐 개인구원이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정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락이 가정에서 됐기 때문에 복귀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지상에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없었습니다. 비로소 가정이 새로이 정착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260－304, 1994.5.19) p.2311

가정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역사상에 얼마나 좋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고 우리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땅을 중심삼고－자기 태어난 본향입니다. 고향 땅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창조이상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창조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드는 것이 창조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이상을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으니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향 땅을 중심삼고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60－188, 1994.5.8) p.2311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만들어야 됩니다. 본향 땅은 가정을 중심한 본향 땅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이 있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고향만 찾으면 자연히 나라, 세계 전부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상천국-천상천국이 자연히 이뤄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260－156, 1994.5.2) p.2311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기에 창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창건이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재창조해야 됩니다. 지상지옥이 돼 있고 천상지옥이 돼 있으니 만큼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향 땅을 찾아서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서 지상천국-천상천국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야 되니 가정맹세입니다. 이거 못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60-304, 1994.5.19) p.2312

'가정맹세'의 제 1 은 환고향입니다. 고향 땅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서 잃어버렸지요? 창조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가정이 못 했으니 아담가정이 해야 됩니다.

그 기반을 선생님이 다 닦아 줬습니다. 반대 안 받으면 지금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패권을 쥘 수 있는 능력은 자동적입니다. 어디 가서 입을 열어 말하라구요. 동네방네 자는 사람들을 깨워 가지고 모이라고 그러는데 안 모이면 홍두깨로 찜질을 해서라도, 강제로라도 끌어 모아 가지고 30 분, 한 시간, 두 시간 해대는 것입니다. 나쁜 말이거든 반대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권한을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냅다 밀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환경 여건이 짜여져 들어왔는데, 이것을 눈으로 직시하면서 행동하지 못하면 바보 천치입니다. 그 따위 것들은 거지 새끼들한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종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283-75, 1997.4.8) p.2312

우리의 일편단심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본향 땅을 찾고, 본향 조국을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건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재건은 있는 것을 뜯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재건입니다.

통일교회 패들은 재건이 아니라 창건하자 이겁니다. 이건 재료도 없고 주먹밖에 없습니다. 본향 땅이 있습니까? 본향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 창건입니다. 창건인데 무얼 재료로 하느냐? 여러분 주먹이 재료고, 여러분 몸뚱이가 재료고, 여러분 뼈다귀가 재료입니다. 이 몸뚱이를 움직이고 뼈다귀를 갈고 모든 피살을 뿌리게 될 때는 세계의 금은보화가 날아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155-53, 1964.10.6) p.2312

여러분이 가정맹세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것입니다. 타향에서 서글프게 나오던 종교권이 귀향하라고 하다니! 환향하라고 하다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다니!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283-77, 1997.4.8) p.2312

Top

㉱ 환고향과 종족적 메시아 사명 완수

개인적인 골고다를 넘고, 가정적인 골고다, 종족, 민족, 국가적인 골고다를 넘어 세계적인 골고다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앞에 세우고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앞에 서서 지금까지 우리의 갈 길을 개척해 놓고 우리를 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지 못하면 망합니다. 망해야 됩니다. 천번 만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런 본향이 창건되는 날에는 세계 사람은 우리를 조국의 백성으로 모실 것입니다.

하늘이 소원하시는 그 동산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가고 있고, 그 동산을 향하여 내일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힘과 정성을 다 바쳐 세상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면서 이 길을 가야 할 것이 우리가 타고난 생애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이 단단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55-53, 1964.10.6) p.2313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전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니까 복귀해 들어가야 합니다. 완성한 가정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본향 땅을 찾아 가지고 뭘 하자는 것이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천국-천상천국을 잃어버렸던 걸 내가 찾아 이루어야 됩니다.

본향 땅을 지금 사탄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참부모가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참부모가 와 가지고 아담가정이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 무대에 있어서 본향 땅을 찾아 복귀해 가지고 지상천국-천상천국을 완성할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선생님이 세계적 기반을 닦았으니 여러분은 종족적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266-144, 1994.12.22) p.2313

왜 종족적 메시아로서 책임분담을 다해야 하는가? 첫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제1의 아담의 입장이고, 여러분은 제2의 아담의 입장에 있습니다. 부모를 복귀하여, 재창조하여 아담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이유는, 여러분들은 고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분담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아담가정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족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 162, 1991.5.12 이스트가든) p.2313

종족적 메시아가 없으면 가정기준을 중심삼고 전부 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고향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향은 없습니다. 가정을 전부 다 복귀해 놓고 나면 앞으로 입적시대가 옵니다. 입적시대가 오게 되면 지파 편성이 벌어지고, 입적하는 순서가 계열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입적하는 사람들이 형님이 돼 가지고, 그들을 조상과 같이 모실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됩니다. 전세계를 다 그렇게 만들어야 지상천국의 완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10-273, 1990.12.25) p.2313

통일교회 교단은 종족입니다. 내 피가 같이 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지으면 눈물 지어야 되고, 내가 기뻐하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족입니다. 오색인종을 넘어서 문화배경이 다른 모든 국가 기준을 넘어서 벽을 허물고 하나로 뭉친, 새로운 하늘 나라의 창건을 위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거룩하게 될 때, 하늘나라의 창국이 현현하는 것이요, 그런 거룩한 창국의 민족으로서 살아갈 때, 창세계가 벌어지는 것이요, 그 세계 위에 천주적인 지상의 천국과 천상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 167, 1987.9.13 본부교회) p.2314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종족적 메시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 천주적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구요. 산과 같이 큰 보물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되기만 하면 보석산 같은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상속되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 172, 1989.4.9 벨베디아 수련소) p.2314

지상천국에 살던 사람이 천상세계에 들어가는 곳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어떻게 일체 되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중심삼고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고 해결지을 수 있는 최후의 종착점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체의 너와 나의 몸과 마음의 문제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는 너와 나의 문제요, 부모를 중심삼고 자식이 있으면 너와 나의 상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공통적으로 연결된 완성의 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느 누구 하나 치우치게 되면 전부가 기울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298-53, 1999.1.1) p.2314

끝날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 앞에 본향 땅을 찾을 수 있는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본향 땅에서 살 수 있는 인류가 역사적인 조국을 창건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건 이념을 갖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이라는 레테르를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왜 그런 것을 붙여 놓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동기가 없어 가지고는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을 추궁해 보면 반드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동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155-32, 1964.10.6) p.231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오늘날 통일교회 청년 남녀들을 팔방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가 급하게 될 때는 어느 분야를 갖다 맡기더라도 한번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농사나 짓고, 땅만 파고 이러면 아예 죽어 버리지 그거 뭘 하겠습니까? 땅을 팔망정 슬쩍 한번 갔다 오게 될 때는 동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해 놓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10 년 후나 20 년 후에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엉뚱한 일을 해 가지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본향 땅으로. 본향 땅으로 어서 가자! 하자! 하자! 어서 하자 전도를! 있는 힘 다해 싸움을 하자! 하자! 하자! 어서 하자! 합심하여 무엇을 하자? 참뜻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155-53, 1964.10.6) p.2315

우리는 오늘도 가야 되겠고 내일도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이 길을 오기 위해서 모듬매도 맞아 봤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감옥생활을 한 것을 세게 되면 몇 해나 될 것 같아요? 감옥에도 들어가 봤으며, 매를 맞아 피를 토해 봤으며, 설움과 핍박 가운데서 별의별 부끄러움과 참상도 당해 봤습니다. 부모의 한도, 친척의 한도, 나라의 한도, 민족의 한도, 수많은 종교의 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 그보다도 더 크고 그보다 더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왔으니 내일 또 가야 되고, 내일 가면 모레 또 가야 되겠고, 금년에 갔으면 명년에도 또 가야 되겠고, 10 년, 20 년, 40 평생을 걸어왔으면 또 생애 끝날 때까지 가야 할 본향 땅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 본향 땅은 어떤 곳이냐? 가고 싶은 곳, 가서 만나고 싶은 곳, 만나서 살고 싶은 곳입니다.

그 길은 오늘 세상만사와 내 주위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걸 알고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할 운명이 있으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는 통일의 길이요, 스승이 걸어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생애 끝까지 아니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5-53, 1964.10.6) p.2315

가정의 최후 종착점의 미화를, 예술적인 가정이상을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이 자기 가정에 왔다가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가정, 하나님도 역시 그럴 수 있는 가정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만민의 모든 책임자들, 지도자들, 더욱이 하늘나라의 참부모님의 직계 아들딸, 황족권이 있거든 그 어떤 황족권이든지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어할 수 있는 모델적 가정을 이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시대의 당면과제로서 하늘은 제시한다는 것을 알지어다! 성사할지어다! 책임진 중심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지상천국, 영원한 가정 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98-54, 1999.1.1) p.2315

Top

2) 가정맹세 2 절 해설

2 절 :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孝子), 국가에서는 충신(忠臣), 세계에서는 성인(聖人), 천주(天宙)에서는 성자(聖子)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p.2316

① 대표적 가정, 중심적 가정이 되어

㉮ 아담가정이 대표적 가정, 중심적 가정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가정에서 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고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부모로서, 두 부모가 하나된 그 위에 내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되어 가지고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는데 그 가정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 그 이상의 자리입니다. (260－189, 1994.5.8) p.2316

아담의 자리는 세계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한 자리에서 맨 꼭대기 자리입니다. 수억만 년 인류 조상의 꼭대기입니다. 처음 때는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꼭대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지상의 중심가정으로 착지해서 세계에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효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충신이 되고, 나라를 가지고 충신이 되고, 나라를 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라를 가지고 성자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것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264－187, 1994.10.9) p.2316

둘째 번이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는 충신'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천주의 중심가정은, 아담과 해와가 중심 가정이고 대표 가정입니다. 대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심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씨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축복받은, 결혼한 가정의 그 씨입니다. 그 가정의 씨는 전부 다 이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야 됩니다. (263－60, 1994.8.16) p.2316

아담과 해와는 참사랑을 절대 시봉하는 길을 통해 가지고 무사통과,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하늘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시대의 사상관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그재그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년 불파(不破)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적인 가정 확대 이상을 따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정의 모델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 가정이고 중심적 가정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아담가정은 천주사적인 대표 가정이 됩니다. 대표적 가정, 중심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맹세의 제 2 에 있는 것처럼 중심가정인 동시에 대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꼭대기,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서 아담과 해와와 하나님 셋이 합하는 것입니다. (269－78, 1995.4.8) p.2317

아담과 해와가 천지의 모든 중심입니다. 온 세계 인류를 대신한 중심 가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라 대통령의 가정이 있습니다. 세계 대통령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꽉 누르면, 세계 판도이기 때문에 8 단계로 확대되면 표준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커 가지고 축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축을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 축의 대표이기 때문에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 왕녀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하나님을 점령하고, 이 땅 위의 모든 최고의 남자 여자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상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세계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273－282, 1995.10.29) p.2317

가정맹세의 제 2 에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해서 주욱 나오잖아요?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의 도리, 성자의 도리를 전부 다 사랑을 통해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담과 해와의 대표적 가정입니다. 맨 꼭대기 가정입니다. 꼭대기에서 결혼하면 지상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착륙하면 중심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자의 가정이요, 성인의 가정이요, 충신의 가정이요, 효자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이 씨가 되어 열매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천대 만대 이 원칙에 입각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283－148, 1994.8.21) p.2317

아담과 해와의 가정이라는 하나의 기점을 중심삼고 종족은 그것의 둘레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핵심입니다. 핵이라구요. 핵은 이동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동거할 수 있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하늘 땅에 동거할 수 있는 가정적 가치의 내용을 갖추어야만 천국 들어가기에 당당한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가정은 세계 가정의 대표입니다. 시간적인 미래를 남겨 놓았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은 전세계 가정의 대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탕감복귀원칙에 의해 우리가 선 자리는 세계적 대표의 자리입니다. (263-204, 1994.10.4) p.2317

아담 가정은 대표적 가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맨 꼭대기에 계시는데 맨 꼭대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나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입니다. 대표적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심었으니 심은 것을 후대를 통해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늘땅을 중심삼고 이 중심지로 쭈욱 심어져 가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가정이지만 가정은 땅에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평면도상에서 중심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8단계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씨를 심으면 여기에서 가정이 벌어지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치의 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61-317, 1994.7.24) p.2318

아담가정에 있어서 아담과 해와에게 하늘이 축복하던 씨앗, 결혼의 씨가 그겁니다. 결혼의 씨가 그러니 만큼 오늘날 세계 가정으로서 인류가 가정을 갖게 되면 씨로부터 거두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아담가정의 내용의 씨나 오늘날 수천만 대 후손 된 씨나 그 가치는 이퀄(equal;같은, 대등한)이 됩니다, 씨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소나무면 소나무 씨 하나 심으면 세계로 퍼지더라도, 수천만 그 소나무 가운데 수억 개의 씨가 되더라도, 그 씨는 하나의 씨와 마찬가지 가치를 가지고 소나무를 배양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273-282, 1995.10.29) p.2318

Top

㉯ 축복받은 가정은 본연의 가정과 같은 가치

아담가정은 대표적이요, 중심적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부는 세계의 인류를 대표한 가정이고, 세계의 중심가정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그래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가정이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가정들이 아담가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맹세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5-253, 1994.11.23) p.2318

축복이라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가정과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씨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를 중심삼고 세 형제가 있으면 세 형제를 하나님이 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어지더라도 개체 가정은 아담가정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씨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263-196, 1994.10.4) p.2318

축복받은 가정은 명실공히 세계를 대표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대표한 가정으로서 참부모의 혈족 앞에, 종족, 민족, 국가의 수많은 혈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대신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적 가정이요 중심적 가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담과 해와의 가정과 내 가정은 같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서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263-204, 1994.10.4) p.2319

맹세문의 두 번째는 대표적 가정입니다. 대표적 가정이 뭐냐? 아담과 해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담과 해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지의 최고의 자리이고, 대표적 자리입니다. 대표적 자리가 되어 가지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딸을 번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가정은 중심적 가정입니다. 가정은 둘입니다. 남자가 둘이 아니요, 여자가 둘이 아닙니다. 짝을 끼우는 것입니다.

단일적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앞에 대표적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담과 해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담가정이 씨라 하면 우리 가정도 씨입니다. 소나무 씨는 천년만년 어디로 가든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가치, 대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을 심으면 어디에서든지 소나무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선생님이 결혼해 준 것은 세계적입니다. (273-48, 1995.10.21) p.231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축복받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김씨면 김씨의 아들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계의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해와와 같은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 가정을 중심삼고 전체를 대표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가정이 전체의 대표가 되고 아담가정의 한 점을 중심삼고 종족이 연결되고 씨족이 연결되고 세계까지 발전하여 하나 만들어서 꽉 눌러 놓으면 한 점을 중심삼고 구형과 원형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자인 아담과 같은 본연의 씨의 자리를 자기가 다시 옮겨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이루려던 종족, 민족, 국가, 세계형은 급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263-196, 1994.10.4) p.2319

참부모의 가정, 이것은 씨입니다. 씨가 완전한 씨라면 그 씨를 심어서 번식된 수억만의 가정이 있더라도 씨는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퀄입니다. 하나님이 정착하는 가정의 기준은 몇천 대 몇만 대 몇억만 대 되더라도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씨는 이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대표적 가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문 2에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라고 한 것입니다. 대표는 꼭대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종횡으로 연결하게 되면 종횡이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대표적 가정이요, 중심가정입니다. 그래 놓으면 모든 우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282-319, 1997.4.7) p.2319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은 50억 인류의 50억 분의 1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50억 인류를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가정인 아담과 해와 둘에서 출발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대표적 가정으로서 세계 가운데 모든 남자 여자에 추천해 가지고 대표자 하나 하나 남은 것을 전부 다 빼 가지고 결탁시킨 결혼입니다. 대표적 가정은 땅 위에 꼭대기에서 꽉 누르면 중심적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한, 모든 걸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상속해 주니 따라와 가지고 수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267-148, 1995.1.4) p.2320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일대일 남자 여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대표한 자리에서 결혼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사랑을 맺는 부부는 인류를 대표한 자리에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와 마찬가지 자리다 그 말입니다. 8단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계. 아담과 해와는 이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아담과 해와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266-145, 1994.12.22) p.2320

천주의 중심 가정은, 아담과 해와가 중심 가정이고 대표 가정입니다. 대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심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씨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축복받은, 결혼한 가정의 그 씨입니다. 그 가정의 씨는 전부 다 이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야 됩니다. (263-60, 1994.8.16) p.2320

축복받은 가정들이 복귀된 가정이라 할 때는 아담 가정과 그 내용의 가치가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 그 집이 가정의 왕궁입니다. 종족의 왕궁이고, 나라의 왕궁이요, 세계의 왕국이요, 천주의 왕궁입니다. 여러분, 남자한테 물어보면 왕이 되고 싶다고 하고, 여자한테 물어보면 여왕이 되고 싶다고 하지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래의 아담과 해와는 왕이고 여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대표하고 우주를 대표합니다. 가정을 대표한 것은 물론입니다. 왕과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씨입니다. 여러분은 그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같은 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둘을 데려다가 심어 놓으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가 돼 가지고 가정 왕국, 국가 왕국, 천상·지상천국 왕국 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일교회에서 참부모를 통해서 축복받은 가정이 그런 대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는 벼락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261-317, 1994.7.24)

참부모를 중심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직계 혈통권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부모의 역사성이 세상에 결실로 나타난 것이 축복가정입니다. 축복가정은 세계적입니다. 세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평면도상에서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 아래는 수많은 국가가 있고, 종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수많은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가정이 세계적 가정완성으로 통일세계를 이루어 나왔다면 그 가치와 내게 이루어진 가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씨라구요, 씨. 세계적 씨라는 것입니다. (263-206, 1994.10.4) p.2321

선생님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효자가 되고, 나라에서 충신이 되고, 세계의 성인이 되고, 천주의 성자가 된 것같이 여러분이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표적이요, 중심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아담가정은 가정의 중심인 동시에 천주의 중심입니다. 중심은 하나입니다. 대표는 꼭대기요, 중심은 수직입니다. 그것을 꽉 누르면, 가정, 종족, 민족 이 8단계를 꽉 누르면 원형이 되지요? (263-60, 1994.8.16) p.2321

황족권의 직계 조상이 누구냐? 타락하지 아니한, 본연의 사랑과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과 참혈통의 기반을 중심삼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씨입니다. 그 씨에서 뿌리가 나오면 종대 뿌리가 될 것이고, 거기서 종대 줄기, 종대 순으로 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적으로 커짐에 따라 거기에 대응하여 횡적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면, 가정과 종족이 연결되고 민족, 국가, 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뿌리, 참된 줄기와 참된 순을 중심삼고 연결된 가지들도 참사랑의 가지이니만큼 거기서 맺힌 열매는 본연적 아담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종대 뿌리가 될 수 있고, 종대 줄기가 될 수 있고, 종대 순이 될 수 있는 씨의 기원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열매-가정을 중심한 부부를 중심삼고-들을 심어 놓으면, 일족을 중심삼고 일족의 새로운 중심 뿌리가 되고 중심 줄기가 되고 중심 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63-194, 1994.10.4) p.2321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나는 하늘땅을 대신해서 섰다, 아담과 해와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주를 대표한 동시에 평면적으로는 모든 나라와 세계를 대표한 가정이다 이것입니다. 종적인 기준에서도 대표적이요, 횡적인 기준에서도 대표적인 중심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대표 가정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어서는 횡적인 세계의 중심도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같은 황족권으로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왕을 모시고, 왕의 일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천상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1-317, 1994.7.24) p.2321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고 대표적인 가정이 되고 중심가정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는 물론 효자 효녀, 나라에서는 충신 열녀, 세계에서는 성인, 하늘땅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하늘이 원하던 모든 것을 우리 가정에서는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교육과 국가에서는 백성교육과 세계에서는, 하늘땅에서는 그 하늘나라의 일족, 가정식구로서의 합격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260-189, 1994.5.8) p.2321

자고로 모든 인간은 어느 시대 어떤 곳에서 살든지, 자기가 중심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공통적 내용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욕구를 갖게 되었느냐? 그게 자기가 태어난 후에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나고 보니 그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본연적 기준에 역사성과 더불어 우리 인간에게 연결되어 이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제일의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226-7, 1992.2.1) p.2322

Top

②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

㉮ 필연적으로 가야 할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길

가정에 있어서 효자 효녀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를 위해서 몸 마음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넘고 넘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자는 뭐냐?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일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희생을 하고 하고 또 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열 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열한 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열한 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있어서 모든 것이 평화로 수습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위하여 사는 길을 빼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255-190, 1994.3.10) p.2322

가정에서는 효자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절대 하나된 아들을 효자라고 합니다. 나라의 충신은 나라의 중심 존재와 절대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존재적 실상입니다. 세계에는 성인이 있어 성인과 절대적으로 하나되고 싶어하고, 그걸 넘어서 천주에서는 하늘땅을 중심삼고는 중심인 하나님과 절대 하나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262-128, 1994.7.23) p.2322

효는 효자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이 많고 늙어 가지만 그들이 부모를 위한 향심을 따라 가지고 미래의 자기 후손들까지도, 부모에 속한 모든 형제들까지도 그 효자 앞에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한테 원하는 가정과 세계를 창건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길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하나님임을 알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망할 수 없습니다. (263-170, 1994.8.23) p.2322

하나님은 자기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높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리고 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효자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오시오!'하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무슨 일이라도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효자의 길이요, 충신의 길이요, 성인과 성자의 도리입니다. (263-183, 1994.8.23) p.2323

맹세의 제 2 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애국자, 충신이 되어야 합입니다. 효자라는 것은 땅 위의 사탄세계의 효자가 아닙니다. 역사에 없는 처음 나오는 효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가정을 잃어버린 한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를 찾기 위해 헤매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참부모라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3-204, 1994.8.21) p.2323

부모를 위해서 자기 일신의 생명을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생을 거쳐가는 사람을 참된 효자라고 합니다. 참된 효자, 효자 중의 참된 효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님을 대해서 충신이 되려면 자기 생명까지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될 때, 참된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라 하게 되면, 세계를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려고 할 수 있는, 보다 투입하고 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자 중의 성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63-275, 1994.10.15) p.2323

아내를 찾아가는 남편이 그 사랑 앞에 절대 복종한다고 한다면 아낙네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절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찾아가는 아낙네가 그렇다면 그 남편은 절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그럴 수 있는 자를 효자라고 하고, 나라 앞에 그럴 수 있는 자를 충신이라 하고, 세계 앞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하늘땅 앞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성자라고 하느니라! 아멘. 그것이 다 나를 가르쳐주기 위한 교재요, 교본이었느니라! 아, 랄랄랄 혓바닥까지 춤추면서, 멘! 뱃살, 뱃가죽, 밸까지 춤추면서 멘입니다. 맨(man)이라는 것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할 때 '아! 놀라운 사람이다.'하는 '아! 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아멘!'하라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264-140, 1994.10.9) p.2323

아무리 어렵더라도 효자의 길을 찾는 길이요, 충신의 길을 찾는 길이요, 성인과 성자의 길을 닦아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럴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는 자기 일신을 희생하더라도 가정에서 일신이 아니라 자기의 처자까지 희생하더라도 효자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 효자에 대해 부모가 합해 가지고 부모까지도 희생시켜서라도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하면 충신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충신에 대해 나라까지 희생시켜 가지고 세계를 구하겠다 할 때 성인의 도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갈 수 있는 창조의 이상입니다.

내가 효자가 되어야 되고, 충신이 되어야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자의 도리, 가정 전체를 전부 다 희생시켜서라도 성자의 도리를 다하겠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6－105, 1994.12.18) p.2324

가정에서 효자라 할 때는 전체 아들딸들 가운데서 보다 희생하면서 투입했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어떠한 종족, 국민보다 더 투입했기 때문에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도 세계를 위해서 보다 투입한 사람이 성인이 되고, 보다 하늘땅을 위해 투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은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가는 곳이므로 그렇게 못 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여기에 와서 일하는 것은 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효자-충신-열녀-성인-성자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정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식구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살다간 사람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백성이 되고 식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269－253, 1995.4.30) p.2324

완성한 나는 세계 인류를 대표한 가정에 있어서의 효자고, 역사적 국가를 대표한 충신이고, 세계를 대표한 성인이고, 하늘의 섭리의 전체를 대표한 성자가 완성한 나라는 자신을 가져야, 개인에서부터 사탄세계를 완전히 넘어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입니다. 그러한 효자-충신-성인-성자로 완성할 수 있는 나고,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가 그러한 부부적 효자요, 부부적 충신이요, 부부적 성인이요, 부부적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국가적 부부요, 그러한 세계적 부부요, 그러한 천주사적인 부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창조이상적 뜻을 완성한 가정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자신한다 하는 사람은 손들고 맹세하자구요. 그래요. 만세! 만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억만 년까지 만사형통이다 이겁니다. 길이길이 계속한다 그 뜻입니다. (270－103, 1995.5.7) p.2324

땅 위에 지상천국이 있으면 지상천국은 천상천국을 위해서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맹세는 '우리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또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투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효자가 되는 것은 충신의 도리를 받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요, 충신이 되는 것은 성인의 도리의 발판이요,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은 성자의 도리를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것까지 지나가야, 하늘까지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모습이 돼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될 때 지상에 천국 현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74－114, 1995.10.29) p.2324

위하고 또 위하는 사람은 중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효자는 뭐냐 하면, 부모를 위하고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중심 존재가 되어 가지고 가정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애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투입하고, 투입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수상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은 그곳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효자가 되고, 나라에서 충신이 되고, 세계에서 성인이 되고, 나아가서는 하늘땅에 있어서 성자의 길까지도 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75－38, 1995.10.30) p.2325

가정에서 생명을 바칠 때까지 부모를 위해 사는 사람은 효자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살겠다 하면 애국자가 되고,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구하겠다고 죽음 길을 몇 번을 가고도 또 위하겠다는 사람은 성인이 되고, 하늘땅을 위해서 살고 죽어 가면서도 위하며 가는 사람은 성자가 된다구요. 그런 사람이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275－136, 1995.12.4) p.232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된 자녀는 하나님을 중심삼은 가정왕입니다. 시작하는 그때에서부터 참된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그 왕이 나라의 충신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자 왕녀가 충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의 왕자 왕녀의 자리가 성인입니다. 성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땅의 왕자 왕녀의 자리에 가 아들딸 되겠다고 할 때에 그것이 성자의 길입니다. 성자가 될 것입니까? 성인이 될 것입니까? 왜, 어째서? 성인 앞에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자가 될 것입니까, 충신이 될 것입니까? 왜? 충신 앞에 자랑할 수 있다 그겁니다. 충신이 될 것입니까, 효자 될 것입니까? 왜? 효자 앞에 자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효자가 따라가는 충신의 길이요, 충신이 따라가는 성인의 길이요, 성인이 따라가는 성자의 길이요, 성자가 따라가는 하나님 길이라는 것입니다. (280－117, 1996.11.11) p.2325

가정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은 멍청이입니다. 가정천국 울타리 안에서밖에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가정이 되고 중심적 가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는 내가 갈 길이다 이겁니다. 내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나라에서는 충신입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그 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은 일생 동안 뜻이라는 초점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나깨나 자리에서 일어나면 계속합니다. 천년만년 계속하는 것입니다. (283－77, 1997.4.8) p.2325

참효자, 진짜 효자를 대하는 부모는 나라님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가정에서 나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시게 될 때, 아들딸도 부모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어렵게 대하는 부모를 모신 그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 얼마나 소중하게 모시고, 말 한마디라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씩 생각하는 것입니다. (285－16, 1997.4.19) p.2326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라고 하지요? 효자가 되어서는 뭘 할 것입니까? 효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위에 네 사랑을 플러스시켜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형이 벌어집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존재가 전부 다 크지요? 운동하는데 왜 커지느냐 이겁니다. 전부 다 사랑이라는 걸 중심삼고 작용하기 때문에 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53－234, 1994.1.30) p.2326

남의 남편 되고 남의 아내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들딸이 자기 아들딸이 아닙니다. 남입니다. 이 세계의 아들딸입니다. 세계의 아들딸의 부모가 되기가 쉬운 게 아니라구요. 또 스승이 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부모들 앞에 효자 효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완전히 위하는 훈련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부부로부터 자기 아들딸 앞에 갖춰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델적 형태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은 천상세계의 어디든지,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가든지 환영받는 것입니다. (252－265, 1994.1.1) p.2326

성경은 말하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했습니다. 똥개 새끼 같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을 다하고 효자-충신-열녀가 된 자리에서도 생명을 바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표준의 사람들이 타락한 세계의 효자 이상, 타락한 세계의 충신 이상 된 하늘편의 사람을 중심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생명을 잃고자 할 때는 사는 것입니다. 지옥의 밑창에 들어가 있으면 생명이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261－58, 1994.5.22) p.2326

하나님이 구원섭리를 하는 이상에는 거기서부터 전부 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 전부 생명을 바쳐서 감사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의 배반적인 역사의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타락하기 전 아담, 인류의 조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잠을 안 자고 기다릴 수 있는, 심정적으로 효자-충신-열녀 이상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261-55, 1994.5.22) p.2326

효자는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야 할 경우에는 재림주가 올 때까지 보류되어 기다리지 지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중간 영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효자가 될 것입니까, 애국자가 될 것입니까, 성인이 될 것입니까, 성자가 될 것입니까? 부모님께 효행하지 않더라도 애국자가 된 경우에는, 부모에게 효행을 완성한 것 위에 서는 것입니다. (246-188, 1993.4.16) p.2326

통일교회에서 충신이 된다면 세상에 없는 충신이 되겠습니까, 있는 충신이 되겠습니까? 효자가 돼도 세상에 없는 효자, 충신은 역사에 없는 충신, 성인이면 역사에 없는 성인, 성자면 역사에 없는 성자의 도리를 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통한 한이 해와의 하루의 실수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 때에 오늘날 우리가 통일교회에서 혈통을 전환하고 소유권을 전환하고 심정권을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심각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273-114, 1995.10.22) p.2327

사랑, 참사랑을 중심삼은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자기보다 몇천 배 나을 수 있는 사랑의 상대를 맞게 될 때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 중의 효자, 열녀 중의 열녀, 충신 중의 충신, 성인 중의 성인, 성자 중의 성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해원 못합니다. 그 이상이 되지 않고는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 봐야 낙원밖에 못 간다구요. 독신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출가를 하라고 하고, 독신생활하라고 그러는데 통일교회는 뭐예요? 출가하라고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요? 그리고 결혼하라고 하지요? 반대입니다. 어떤 연고로 그러느냐?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극복한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265-93, 1994.11.20) p.2327

하늘나라의 효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충신이 되고, 나라를 가지고 충신이 되고, 나라를 가지고 성자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것을 못 했습니다. 선생님의 한이 뭐냐 하면, 청춘시대 혈기왕성할 때에 효자의 도리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충신의 도리, 나라가 살 수 있으면 무슨 모험이라도 선두에 서 가지고 애국자로서의 피를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 봤습니다. (264-187, 1994.10.9) p.2327

내가 왜 역사를 엮어 이런 충격적인 선언과 자극적인 말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그 사정이 죽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아직까지 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청춘시대에 하나님 앞에 효자의 도리를 못 지킨 부모님의 한! 나라를 못 가져서 충신의 명예를 갖지 못한 한! 만국을 대표해서 성인의 도리를 하지 못한 한! 하늘땅의 승리의 패권을 갖추어 포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해방해서 성자의 도리를 하지 못한 그 한! 이런 한이 남아 있습니다. (264-63, 1994.10.9) p.2328

효자, 애국자, 성인, 성자 이들이 왜 필요하냐? 부모님께 효행을 하였다고 해도 길어야 1백 년 정도이고, 평생 동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부모는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평생 효행해도 1백 년 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자는 일대를 넘는 것입니다. 애국자의 전통은 조부모로부터 부모, 자기와 자기의 후손까지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인 사상은 애국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사랑한 위에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길은 애국자의 길을 초월하고, 성자의 길은 성인의 길을 초월하여 최고에 서는 것입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법률, 양국의 법률을 모두 존중하여 내외의 종횡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6-188, 1993.4.16) p.2328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참부모는 어떠한 분이냐 하면,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 이래에 처음 나타난 효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하나의 충신과 마찬가지 자리, 대표적인 충신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자의 도리를 다한 성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참부모의 사상입니다. 아들로서 효자로서, 충신으로서,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전통을 참부모를 따라서 이어받아 가지고 전세계에 아들과 딸로서 단 둘이라는 이러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대표한 아들과 딸의 자리에 가 가지고 참부모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대권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가정들이 선생님 가정과 한날 생활에 있어서의 심정적 체휼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266-89, 1994.12.18) p.2328

Top

㉯ 성인과 성자의 차이

성인과 성자의 다른 점은 뭐냐? 성자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하나로 묶여진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리에서 성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에는 성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인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인들은 외적인 상대적 세계의 도리는 가르쳐 주었지만, 내적인 주체적인 도리는 못 가르쳐 줬습니다. 왜?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성자의 도리를 부식(扶植)시키기 위한 것이 재림 사상입니다, 재림사상.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226-113, 1992.2.2) p.2328

이 세상 성인 중에 가장 중심 성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성별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조건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잉태된 그 아기는 최초의 참된 사랑을 중심한 결실체입니다. 그분은 거짓 사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자로서 태어난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아니고, 공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정권을 중심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부모시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남편이자 절대적인 형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전부 다 가정을 중심한 내용, 사랑의 내용이 그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세계에 연결한 중심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자기 중심한 생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229-221, 1992.4.12) p.2329

역사시대에 핏줄을 맑혀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은 장자,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권에서 이와 같이 혈통을 맑혀서 태어난 성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자 중의 성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4-249, 1993.11.1) p.2329

예수님은 성인 중의 성인입니다. 비로소 핏줄을 맑힘으로써 사랑의 첫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51-296, 1993.11.1) p.2329

혈통을 전환시킨 국가적 승리 판도 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적 사탄세계의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혈족관계를 놓고, 탕감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참소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국가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제1호 아들로 태어난 독생자입니다. 핏줄이 맑혀졌지요? 유사 이래로 그렇게 혈통을 맑혀 온 성인이 없습니다. 공자니, 석가니, 마호메트니, 누구누구 하더라도 그러한 전통적 배후의 혈통을 맑혀 가지고 태어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51-253, 1993.10.31) p.2329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세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와 지상세계를 함께 묶어서 천상의 왕궁법과 같은 법으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이 지켜야 할 국법이 아닙니다. 천상과 지상의 궁전법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연결되는 자리에 서는 분이 성자입니다. 전부 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229-42, 1992.4.9) p.2329

예수님은 독생성자로 참사랑을 중심삼은 1대 조상입니다. (251-298, 1993.11.1) p.2329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륜도덕만을 중심삼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만을 중심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중심삼고는 나라를 넘지 못합니다. 나라를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천주사상을 갖지 않고는 나라를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38-260, 1971.1.8) p.2329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무엇을 소개했느냐 하면 인간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신을 소개했습니다. 성인의 반열에 동참한 사람들을 보면 신을 숭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을 빼놓고 성인이 된 사람 있습니까? 또, 성인들은 인륜의 도리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천륜의 도리를 겸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33-291, 1970.8.21) p.2330

가정에서 부모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효자요,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자요,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계와 우주를 사랑하는 성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될 것입니까? 성자가 될 것입니까,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까? 그러러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129-99, 1983.10.1) p.2330

지금까지 성인의 가르침은 심신 일체권은 강력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우선 문제를 외적 세계에 둔 것입니다. 공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고 했지요? 수신을 어떻게 하고, 제가를 어떻게 하느냐? 평천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집에서부터 시작될 줄 알았지요? 평천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천하가 하나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자신으로부터 심신의 싸움입니다. 불이 자기한테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250-166, 1993.10.14) p.2330

'성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물론 하늘땅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땅의 사랑권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궁법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자는 하늘나라의 왕자이니까 하늘나라의 왕궁법도 지키고 지상세계의 왕궁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위에서 하늘나라의 왕손들도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백성들도 사랑하고, 지상나라의 왕손들도 사랑하고, 지상나라의 백성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두 세계의 궁전과 두 세계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 위의 백성도 필요하고, 이 땅 위의 왕족들도 필요하고, 저 나라의 백성도 필요하고, 저 나라의 왕족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229-183, 1992.4.12) p.2330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인들이 전부 종주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주인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정성을 들여 가지고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는 점점점 세속화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는 와중에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 종교체제가 없습니다. 블록적인 체제는 있지만 세계 전체를 커버해 가지고 수습할 수 있는 종교가 없다 이겁니다.

종교도 실험 필이다 이겁니다. 다 실험 필입니다. 정치도 실험 필이고, 모든 사상도 실험 필이고, 전부 다 실망적인 기착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려야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선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253-13, 1994.1.1) p.233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동거할 수 있는 가정이 없었고, 나라가 없었고, 세계가 없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와 같은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체도 하나님이 같이 못 살고, 가정에서도 못 살고, 나라에서도 못 살고, 세계에서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시 모셔 가지고 타락한 세계의 어떠한 효자, 어떠한 충신, 어떠한 성인, 어떠한 성자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의 모토(motto;좌우명)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6-85, 1994.12.18) p.2331

'성인(聖人)'하게 되면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성인이 돼 있는데, 성인들 가운데도 대성인이 누구냐 하게 될 때,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생명을 던지더라도 또 던지겠다고 할 수 있는 놀음을 계속해 나온 사람이 성인 중의 넘버 원이다 하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피를 흘려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2 차대전 이후에 세계를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228-45, 1992.3.3) p.2331

우리 같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각오한 몸, 하늘 앞에 맹세한 몸, 객사의 운명이라도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내 몸을 거두어 줄 수 있는 효자가 되고, 군왕이 찾아와 가지고 그 자리를 거두어 줄 수 있는 충신이 되었다면, 성인이 되었다면, 성자가 되었다면 그 이상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러진 그곳은 명승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만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축제의 터전이요, 기념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픈 자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대의 젊은이들이 새로 태어나서 그 나라를 대신해 활화산과 같이 폭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료를 통일교회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227-260, 1992.2.14) p.2331

Top

㈐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소망도 사랑을 통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모든 소망도 사랑을 통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효자의 자리에 있으면 부모를 위한 사랑을 통한 효자, 부부를 갖추었으면 사랑을 통한 부부, 사랑을 통한 부모, 이런 것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263-309, 1994.10.27) p.2331

자기 몸을 태워 가지고 희생해서 가는 곳에 가정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효자라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전체 국민이 희생돼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이 나라의 충신이 되고, 세계의 성인, 하늘땅의 성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276-159, 1996.2.18) p.2331

마음 몸이 하나되어 전우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우주의 중심존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효자' 하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를 보다 위해서 사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것이요, 나라에 있어서 나랏님과 백성을 보다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고, 세계를 중심삼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이고, 하늘땅을 중심삼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76-180, 1996.2.19) p.2332

효자라는 것은 부모의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신세를 끼치는 것입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나라에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신세를 끼치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세계에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신세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늘땅 앞에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중심삼고, 세계는 이제 부모님을 중심삼고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계 도상에 있어서 사탄세계의 효자, 사탄세계의 충신, 사탄세계의 성인, 사탄세계의 성자의 도리가 있었지만, 하늘나라를 중심삼고 효자와 충신과 성인과 성자의 도리, 표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건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266-103, 1994.12.18) p.2332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은 하늘땅을 주고 산 것과 마찬가지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 가정이 이만큼 엄청나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싸움을 하고, 주먹질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일이 지상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대표한 효자의 터전을 닦는 것이요, 충신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터전을 닦는 것이요, 성인의 터전을 닦는 것이요, 성자의 터전을 거쳐 나가서 아담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바라던 이상세계가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 나라에 가 가지고 효자들을 대한 중심 플러스, 주체가 되는 것이요, 충신의 주체가 되는 것이요, 성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요, 성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상, 여러분 나라의 이상, 충신의 이상, 성인들의 세계 이상, 하늘땅 이상, 예수님이 바라던 소원을 여러분 일신에서 탕감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국 이상, 건국 이념의 중심, 맨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266-105, 1994.12.18) p.2332

누가 성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누가 원하느냐? 세계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뭘 원하느냐 하면, 충신을 원합니다. 가정은 효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참된 부모가 있다면 '너는 효자가 됐으니 충신이 되지 말라. 충신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참된 부모는 그 효자에게 '너는 가정을 희생해 가지고 충신의 길을 찾아 나라를 섬겨야 되고, 성인의 도리를 다 해야 되고, 성인의 도리를 희생시켜 가지고 하늘이 바라는 길을 가야 되고, 하늘땅을 희생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나라는 영원히 안 나오는 것입니다. (285-218, 1997.5.19) p.2333

이상적인 인간, 인간 구성, 인격 완성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효자-충신-성인-성자와 같은 전진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다하고 그 후에 하나님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볼 때 '야, 그 사람 부모 노릇 한다. 그 사람 선생 노릇 한다. 그 사람 주인 노릇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가 부모의 자격이 있고, 선생의 자격이 있다' 할 때는 주인의 자격이 있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서구 사람들에게 효자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충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성인의 개념이 없습니다. 성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285-218, 1997.5.19) p.2333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효자가 뭐냐 하면, 일생 동안 부모를 위해서, 부모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간 사람입니다. 충신이 뭐냐 하면, 나라를 중심삼고 일생 동안 희생해 나온 사람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내 가정까지 희생한 사람입니다. 자기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도 희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딸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이라는 대가를 모르는 녀석들은 효자니 뭣이니 될 수 없습니다.

복귀심정권 내에 갈고리로 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걸어야 됩니다. 거는 데는 요만큼 가정을 걸고 남을 수 있어야 가정에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걸고 나라가 달려도 갈고리가 펴지지 않게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뚝 같아서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 거기에 걸고 꼬부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지탱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283-21, 1997.4.8) p.2333

여러분 욕심이 하나님보다 낫고 싶지요? 욕심이 그렇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고 슬퍼하는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효자면 하나님보다도 위로할 수 있는 차원이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하려는데 하나님보다 못해 가지고 위로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론적입니다. 그럴 수 있는 세계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땅입니다.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고집된 성격 가지고는 동서남북을 못 통합니다. 평면 360 도도 못 되는데 수직선으로 어떻게 거꾸로 360 도를 도나요? '동서가 축이 돼 가지고 거꾸로 360 도 돌아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못 됐습니다. (280-119, 1996.11.11) p.2333

가정 완성, 친족 완성, 국가 완성, 세계 완성, 천주 완성 하나님 해방까지! 하나님을 구해 줘야 됩니다. 불효자를 맞은 부모의 마음,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효자 중의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세계를 품은 것이, 하나님이 불쌍한 하나님인 걸 몰랐습니다. 원통하고 불쌍한 사연을 품고 나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을 생각할 때 천년만년 통곡하고 배밀이해도 그 울음을 그칠 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는 비운을 갖고 사는 효자의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이 오늘날 땅 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책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줘요? (283-215, 1997.4.12) p.2334

고생길에서 출발해서 고생의 생애로 마치고 가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풀어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는 입장에 서느냐 하는 것이 효자로서, 하늘을 향한 하늘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대해 그렇게 해서 애국심을 남기고 싶고, 성인 성자들이 완성시키지 못했던 그 세계를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완성권으로 이행시키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진지합니다. (258-106, 1994.3.17) p.2334

자기를 보고 용기를 내서 악한 세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면서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자기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귀한 자리, 보좌,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 일생이 아니라 몇 평생을 걸쳐 그 이상의 것을 플러스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기쁨의 하사품일 것입니다. 역사를 넘어서까지 박해를 대해 자기가 맞서겠다고 하는, 그것이 영원한 역사를 대표한 효자 효녀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대해서 충성의 길이 아니겠느냐? (255-121, 1994.3.10) p.2334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에서 해방 못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효자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심정세계의 해방, 왕은 충신, 성인은 앞으로 세계의 대통령, 하나님도 성자가 전부 다 효자의 도리로서 사랑의 대상자의 모든 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도 해방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283-173, 1997.4.8) p.2334

선생님은 일생 동안 불평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비판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효자의 길이, 충신의 길이 불평이 아닙니다. 비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주체 앞에 사랑 관계를 맺은 한 불평, 비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전부 다 자기 것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아내가 잘못해도 내 잘못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 당신 싫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63-105, 1994.3.21) p.2334

앞으로 개인별로 전도 실적을 통계 낼 계획입니다. 참부모와 성약시대의 안착이 뭐예요? 떠돌아다닌 하늘이 전부 다 돌아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 생활을 하려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 충신이 필요하고, 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는 효자가 필요하고, 나라에는 충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효지도(忠孝之道)가 모든 국가 형성의 기본 아니에요? 자기는 굶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을 모시고 나라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54-119, 1994.2.2) p.2335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의 도리, 성자의 도리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성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자의 도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상대권은 나로부터, 하늘로부터 세계로부터 우리 가정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생전에 이뤄 맞춰야 할 길입니다.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듣지요?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만 해줬지 여기서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가 안 되면 안 되고 충신이 안 되면 안 되고 성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있습니까? 어머니 뼈와 아버지 것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말하면 나라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뼈입니다. 거기에 접붙여 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안 가지면 나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가정도 나라 앞에, 사탄 나라 앞에 파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필요해요, 안 해요? (285-91, 1997.4.21) p.2335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는 데서는 점점 없어지고 도망갑니다. 위하고 또 위하면 자꾸 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람은 위하는 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된 남편은 위하는 데서, 참된 부모도 위하는 데서, 참된 효자, 참된 임금, 참된 나라도 위하는 데서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68-259, 1995.4.2) p.2335

Top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가정맹세 3 절 해설

3 절 :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사대 심정권(四大心情圈)과 삼대 왕권(三代王權)과 황족권(皇族圈)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① 4 대 심정권과

가정맹세 3 번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결혼하는 이 모든 전부가 부부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것이요, 부모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몸이 되기 위한 자리를 찾아 나가는 길입니다. 4 대 심정권의 완성은 인간 완성을 향해 가는 내가 갈 길입니다. (283-80, 1997.4.8) p.2335

에덴동산에 있어서 아담가정은 하나님이 이상하시는 참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 전체를 드러내기 위한 창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주체 대상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무형의 자녀-형제-부부-부모로서 참사랑의 실체 완성을 소망하여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체로서 자녀의 참사랑 완성을 바라고, 실체 가정의 형제로서 실체 부부로서 실체 부모로서 하나님의 참사랑 대상 완성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부자관계의 참사랑은 종적이요, 부부의 참사랑 관계는 횡적이며, 형제의 참사랑은 전후의 입장으로서 구형의 참사랑 이상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종으로 상현 하현(上弦下弦), 횡으로는 좌현 우현(左弦右弦), 전후로는 전현 후현(前弦後弦)을 전체 연결한 하나의 중심점에서 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점이 구형체의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259－44, 1994.3.27) p.2336

언제 4 대 심정권인 자녀-형제-부부-부모가 일체를 완성하는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이 결혼하여 첫사랑을 맺는 자리가 모든 완성의 결실점이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천지인(天地人)의 합덕이요, 종횡 좌우 전후 전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참된 자녀-형제-부부-부모 이상(理想)의 참사랑 완성지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아담과 해와 부부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실체대상인 제 2 조상이요, 그리하여 제 2 창조주 자리에 섰으므로 하나님이 제 1 창조주로서 느끼는 전체를 상속하여서, 자녀-형제-부부-부모의 자리를 하나님 대신 기쁨을 느껴 제 1 창조주의 자리를 체휼하기 위한 자녀의 번식이 제 2 창조주로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제 1 창조주요, 아담과 해와는 제 2 창조주, 아담과 해와의 자녀는 제 3 창조주의 자리가 됩니다. 제 1, 제 2, 제 3 창조주 즉 하나님?아담과 해와?자녀는 사위기대를 중심한 공식적인 범주가 되어 모든 인류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의 근본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볼 때, 상하(부자)가 연결되면 좌우(부부) 전후(형제)가 연결되어 가정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찾아 개개인의 심신이 통일된 자리요, 남자 여자가 통일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안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와 자녀가 통일된 기반이 됨으로써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희망이 결집되는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259－42, 1994.3.27) p.2336

아담과 해와로 하여금 유형실체의 제 2 창조주의 자리에서 실체적 제 3 의 창조주를 자극적으로 체휼하게 한 것이 아담과 해와의 자녀번식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대대로 자녀-형제-부부-부모의 4 대 심정권을 체휼케 하는 기반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참사랑을 완성시키는 기지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은 신인애 일체를 이루어 천지를 소유할 수 있는 완성의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상적 자녀-형제-부부-부모가 출발한 원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이 심신통일의 남자와 여자가 나올 수 있으며, 또 이상적 남녀일체를 완성한 부부를 볼 수 있으며, 이상적 부모의 출발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사랑을 중심하고 자녀-형제-부부-부모의 완성을 볼 수 있는 모델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259－42, 1994.3.27) p.2337

사람은 부모 · 부부 · 형제 · 자식입니다. 이 4 대 원칙입니다. 그건 누구나, 사람의 아들딸이 되는 한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누군가의 딸이 돼야 되고 누군가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딸이 커 가지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딸로 태어나서 형제로 크는 것입니다. 형제가 뭘 하는 것이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도 형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부가 되고, 그래 가지고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동생입니다. 해와 동생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오빠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남자는 남자의 갈 길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갈 길이 있습니다. 학교를 거치고 남자의 도리, 여자의 도리를 다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같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263-57, 1994.8.16) p.2337

가정맹세 제 3 절에서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텍스트북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목표를 중심삼고 일체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영계에도 걸리지 않고, 지상에도 걸리지 않는 해방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행복과 평화와 이상의 세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4 대 심정권이란 뭐냐? 4 대 심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가 결혼식을 하는 거기에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기씨로부터 형제 완성, 부부 완성, 부모 완성의 자리에서 아담과 해와도 자녀에서 형제로부터 부부 완성, 부모 완성을 이루고, 아담의 아들딸도 그런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3 대 창조주의 기준을 이 땅 위에 갖추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264-195, 1994.10.9) p.2337

인간은 누구나 아들딸로 태어나서 형제로 커 가지고 부부가 돼 어머니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공식 과정입니다. 이것을 못 거친 사람은 저 천상세계에 가서 불행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또 형제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자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4 대 심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263-57, 1994.8.16) p.2337

4 대 심정권이 뭐냐? 자녀의 심정권, 형제의 심정권, 부부의 심정권, 부모의 심정권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횡적인 아담과 해와는 완성권에 있어서 수직의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아들딸은 미래세계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현재-미래의 3 대 왕권을 상속하는 기반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이처럼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가정에 있어서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는 미래의 천국을 상속할 왕자와 왕녀입니다. (235-30, 1992.8.24) p.2338

가정맹세 3 번은 뭐냐? 하늘나라의 텍스트북(text book;교재)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지 못한 것이 4 대 심정권입니다. 아들 완성의 종착점, 형제 완성의 종착점, 부부 완성의 종착점, 부모 완성의 종착점이 결혼생활입니다. 결혼생활 해 가지고 거룩한 아들딸을 낳아야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천년만년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역사시대에 인류가 소망하던 자녀로서의 희망봉이 꽃피는 자리요, 형제로서 꽃피는 자리요, 부부로서 꽃피는 자리입니다. 이래 가지고 부부로서 사랑했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딸을 낳은 거기서부터 아담과 해와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 실체적 창조주의 입장이 되어 나를 중심삼고 평면적 창조주의 입장에서 아들딸을 낳는 것입니다. 제 3 창조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263-148, 1994.8.21) p.2338

부부의 자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합한 자리요, 하나님 가정에서 형제가 합한 자리요, 부부가 합한 자리요, 부모가 합한 자리입니다. 부부의 자리는 4 대 심정권을 중심하고 볼 때 자기들을 완성시켜 준 절대적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이상적 하나님의 아들을 맞게 하는 자리요, 하늘의 오빠를 맞게 하는 자리요, 하늘의 남편을 맞게 하는 자리요, 하늘의 아버지를 맞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부인도 남편에게 이와 마찬가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러한 부부는 하나님이 체휼한 것과 같이 자녀를 낳아 자기들이 자라 온 전체를 자녀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체휼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59－45, 1994.3.27) p.2338

4 대 심정권이 뭐냐? 자녀들의 소원이 뭐냐? 자녀들도 소원은 사랑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소원도 사랑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부부의 소원도 사랑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도 사랑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길을 찾아가는데, 4 대 심정이 사랑 길을 찾아가서 정착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 사랑입니다. (273－24, 1995.10.21) p.2338

종적인 하나님의 심정권에 있어서는 4 대 심정권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자녀 심정권 완성, 형제 심정권 완성, 부부 심정권 완성, 그리고 부모 심정권 완성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전부 다 그렇게 완성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4 대 심정권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해방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 천국을 창조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왕과 왕비가 자기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몰랐지요? 앞으로 천국을 상속하는 기반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종적인 4 대 심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235－30, 1992.8.24) p.2339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므로 부부는 갈라질 수 없는 것이 천리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세계를 다시 복귀하여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평화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천국은 국가천국으로, 국가천국은 세계천국으로, 또 천상천국으로 완전 해방을 보아 평화의 세계로 전개될 것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참사랑을 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근원이 되는 왕궁의 자리요, 이상을 위한 지상천국-천상천국의 출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사랑으로 결실된 자녀가 참사랑을 중심한 부부 일체를 완성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어, 평화와 이상의 출발기지가 되는 것이며, 반쪽 되는 남자 여자들은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상대로서 신의 이상애(理想愛)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사랑을 중심하고 신은 인간을 무한 가치자로 완성시킴으로 신도 참사랑의 완성을 보아 영원한 이상애가 깃드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가정이상을 세워 이상세계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295－45, 1998.8.17) p.2339

아담과 해와는 아들딸을 중심삼고 종적인 면에서 4 대 심정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가정은 종적인 것이 횡적으로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3 단계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해와가 중심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리고, 그 다음에 아들딸은 미래의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3 대 왕권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 우리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던 황족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의 황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참부모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날 참부모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센터니 만큼 부모님은 전세계 인류의 가정을 대표한 왕과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한 후대들은 그 왕권을 이어받은 자녀들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결론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 노릇을 했지만, 부모가 없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감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중심삼고 새로운 왕권이 설정되고, 지상에도 그렇게 되는 거라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플러스와 보이는 플러스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235－231, 1992.9.20) p.2340

부모 되는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 대신 실체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던 것을 내가 실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커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녀의 시대, 형제의 시대, 부부의 시대, 부모의 시대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과거사를, 자기를 중심삼고 자기 아들딸을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아기시대의 제 1 창조주, 무형의 창조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 2 창조주, 볼 수 있는 창조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리에서 아기를 키우고, 형제로 키워 가지고 부부를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아들딸로서, 형제로서 키워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내적인 모든 실상을 아담과 해와를 통해 평면 도상에서 실체적으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263-148, 1994.8.21) p.2340

4 대 심정권이 언제 완성되느냐? 아들딸이 언제 완성되느냐? 형제가 언제 완성되느냐? 부부가 언제 완성되느냐? 부모가 언제 완성되느냐? 결혼하는 그 시간입니다. 결혼하는 그 시간에 자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 3 사랑이 결실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부모는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랑 기반 위에 부모가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커 가지고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 되는 여러분은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자기 후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제 2 창조주로서 아들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1 창조주같이 만들면 됩니다. 제 1 창조는 종적 창조주이기 때문에 종적 기둥이 둘이서 합해야 됩니다. 횡적 기준은 무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적 기준은 무한히 넓어져서 원형이, 무한한 면적이 구형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형제와 부부는 땅을 대신합니다. 부부를 중심삼아 가지고 하나되게 될 때 종적 기준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이상으로 소원하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263-57, 1994.8.16) p.2340

4 대 심정권의 완성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표출화된, 과거-현재-미래의 표출화된 대상이 사랑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혼해 가지고 부부가 사랑으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되는 그 자리는 혼자서는 안 된다구요. 하나님을 중심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재되어 들어가야 부부를 중심삼은 여기에 왕의 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일체가 되지 않고는 왕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왕권이 뭐냐 하면, 왕과 여왕인데, 종적인 하나님이 개재되어야 왕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자체가 완전히 지상 위에 갓 태어난 아담과 해와와 완전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돼 가지고 아들딸들을 횡적으로 전개시킨 것은 모두 같은 하나의 사위기대를 이룬 것과 같습니다. 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들의 사위기대는 같은 모델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의 가정과 가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씨라는 것은 가치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70-258, 1995.7.16) p.2341

2 대 창조주의 기준은 약속되어 있지만 3 대 창조주인 아들딸, 손자를 못 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손자는 제 1 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제 2 하나님이 자라 나온 모든 전체를 재현시켜 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과거 전체 역사를 전개시켜서 두 세계의 사랑의 세계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입장에 선 것이 아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들딸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손자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자기 아들딸을 숭배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들딸을 잘못 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타락한 자식을 보게 된다면, 가정 탈락이라는 기막힌 사실이 벌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완성해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아버지는 2 세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가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왕과 왕후와 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랑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어머니 아버지의 두 사랑을 받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손자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확대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64-195, 1994.10.9) p.2341

보이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던 것에서 보이는 실체를 가지고 아담과 해와의 사랑하는 아들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손자를 사랑하는 자리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이 벌어집니다. 이중이 되기 때문에 결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분·합(正分合)입니다.

정(正)에서부터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할 때에 자녀로부터 형제·부부를 거쳐 가지고 부모로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거쳐 가지고 부모의 사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종횡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종적인 기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중심삼고 죽 확대돼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부모를 중심삼고 발전해 나갑니다. 이게 공식 발전입니다. 부모를 중심삼은 가정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 이겁니다. (270-258, 1995.7.16) p.2342

하나님도 성장하여 왔습니다. 무형의 마음속에 자녀-형제-부부-부모를 실체의 아담과 해와를 지어 자라는 자녀-형제-부부-부모로 이루어 제 2 자기로 체휼하심으로써 참사랑 이상을 완성한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기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이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의 자녀-형제-부부-부모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4 대 심정권을 중심하고 가정을 형성함으로 가정은 이상 심정권을 체휼하기 위한 기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같이 실체 4 대 심정권을 체휼하는 자만이 지상천국-천상천국 어디에서나 하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상적 인간들이 되기 위하여 가정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이 본연의 가정을 찾아 사랑의 보금자리를 복귀하여야 합니다. (259-44, 1994.3.27) p.2342

4 대 심정권, 3 대 왕권 알겠지요? 여러분 부부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영계에서부터 지상까지 언제든지 왕림할 수 있다 이겁니다.

4 대 심정권의 완성은 결혼해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됨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깨지면 자녀 심정권의 미완성, 형제 심정권의 미완성, 부부 심정권의 미완성, 부모 심정권의 미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는 데는 이런 심정권을 완성해서 가야 할 것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심정권을 지금까지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복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9-289, 1993.10.11) p.2342

4 대 심정권은 부부로 말미암아 사랑 일체를 이룬 데서 결실되고, 3 대 왕권은 아담과 해와가 아들딸을 낳아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낳은 후에야 3 대 왕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영계를 대표한 것은 할아버지를 대표한 하나님이고, 아담과 해와는 현재를 대표합니다. 과거-현재-미래입니다. 현재를 대표한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미래를 대표한 아들딸이 나오는데, 정(正)에서 부터 분(分)됐던 이것이 합(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270-258, 1995.7.16) p.2342

우리의 지상생활이 그냥 그대로 영계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계에 가 가지고 어떻게 횡적으로 연결되느냐? 내 가정에서 느끼던 것이 우주의 가정에서 느끼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적 부모를 중심삼고, 물론 하나님권을 중심삼고 종적 부모가 돼 있지만 횡적 부모를 중심삼고 가정에서 살다가 영원한 종적 세계, 부모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천국이니 만큼 그건 일대가 아닙니다, 수천 대가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상에서 할아버지, 부모, 자기 아들딸과 살던 것을 확대시켜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살려면 이 땅에서 누나로서, 누이동생으로서, 그 다음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 또 오빠로서, 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가정에서 느끼던 책임을 횡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연이 되어야만 화하는 것입니다. (247-308, 1993.6.1) p.2343

여러분, 이런 말은 처음 듣지요?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복귀해 가지고 황족의 사랑을 지니고 가야 할 조국이 천국입니다. 죽어 보라구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때 가서 '문 총재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하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 가지고 축복받으십시오. 그것이 제일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화합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할아버지를 하나님 대신 모셔야 됩니다.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는 50 억 인류의 가정을 중심삼은

[텍스트 입력]

왕입니다. 그 아들딸은 미래의 왕과 같이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현대 가정을 대표한 왕과 같이 모시는 부모의 도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천세 만세에 그 도리를 남기고 가는 세계가 지상천국이 되느니라, 아멘! (239-76, 1992.11.23) p.2343

Top

② 3 대 왕권과

㉮ 3 대 왕권은 창조 이상의 기본 틀

본래 아담이 완성하면 천국의 아버지가 완성되고, 해와가 완성하면 천국의 어머니가 완성되고,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되면 가정적 천국의 왕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개인적 왕이고, 가정적 왕이고, 종족적 왕이고, 민족적 왕이고, 국가적 왕이고, 세계적 왕이 되는 것입니다. (201-130, 1990. 3.27 벨베디어 수련소) p.2343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요, 아담은 지상의 왕이요, 아담의 아들은 천국과 지상의 왕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네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도 왕 되고, 우리 아버지도 왕 되고, 나도 왕 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욕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3 대 왕권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3 대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를 하늘나라의 왕같이 모시고, 자기의 아들딸을 왕자와 같이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가정이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삼은 아담가정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담의 나라가 있고 아담 세계, 아담의 하늘땅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280-167, 1996.11.24) p.2343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딸이니 만큼 하늘나라의 왕자고, 이 땅 위의 왕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인 동시에 커서는 땅 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왕궁에서의 법도를 지켜 가지고 그 도리를 전부 다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종횡·전후·좌우에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 가나, 서쪽에 가나, 남쪽에 가나, 북쪽에 가나, 앞쪽에 가나, 뒤쪽에 가나 어디를 가나 이상적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심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라는 것은 중심을 중심삼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상하 관계 어디에서든지 전부 다 핵입니다. 그런 입장을 볼 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226-258, 1992.2.9) p.2344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냐? 하늘나라가 파송한 전권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 50 억 인류의 가정의 왕이고, 자기는 미래의 왕권을 전수받으려는 왕자 왕녀입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의 과거 왕권, 현재 왕권, 미래 왕권을 전부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 전부 다 왕이 되고 싶고 여왕이 되고 싶지요? 그런 주류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상대적 형제지 심정권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계 장손을 중심삼고 왕족으로 천년만년 계승하는 것입니다. (228-282, 1992.7.5) p.2344

본연의 이상가정이 뭐냐 하면, 천부왕, 하늘나라의 왕이고 지상의 왕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고 땅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가정이 뭐냐? 과거는 하나님, 지상은 현재고, 자녀는 미래의 왕자가 됩니다. 천부왕(天父王)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고 지부왕(地父王)은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고, 자녀는 왕자, 아들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3 대를 가정으로 보게 된다면 할아버지는 하나님 대신이고, 이 지부왕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을 대표하고, 아들딸은 왕자 왕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3 시대가 전부 다 왕권을 대표한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과거를 말하게 되고, 부모는 현재를 말하고, 아들딸은 미래를 말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과거-현재-미래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219-244, 1991.9.8) p.2344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완성한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같고, 부모는 세계 가정의 왕이고, 자기 자신은 천상과 지상의 왕권을 승계하는 미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텍스트 입력]

천국의 왕권이고, 부모는 지상의 왕권입니다. 아들딸은 이것을 상속하는 왕입니다. 이와 같은 3 대 왕권이 결실되어야 할 곳이 우리 이상가정입니다. (239-185, 1992.11.24) p.2344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의 과거를 대표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특사로 보낸 우리 집안의 하늘나라 대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현재 지상천국의 왕입니다. 손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사랑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구요. 하나님도 1 대밖에 사랑 못했다는 것입니다. 2 대 손자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확대되는 것입니다. 3 대가 한 범주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하나님같이 모셔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를 세계의 왕같이 모셔야 되고, 손자를 미래의 하늘나라와 지상천국의 왕과 같이 모셔야 됩니다. 이중이 되는 것입니다. 3 대는 할아버지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구요. 이중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천상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66-147, 1994.12.22) p.2345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대신 행세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는 세계 대통령 대신 행세해야 되고, 그 아들딸은 하늘나라의 왕과 같이, 왕자 왕녀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정 이상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래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늘나라의 왕궁이고, 그 구성원은 하늘나라의 왕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보면 왕자 왕녀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전체 국가 세계의 왕자 왕녀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전체 국가 세계의 왕자 왕녀의 대표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욕심 갖고 있지요?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전 우주의 왕자 왕녀의 대표입니다. 이만한 가치 있는 장소의 그 센터가 우리 가정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훌륭한 이론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나는 중심 가정으로서 이상적 부부의 대표적인 가정임을 자부합니다.'

이럴 수 있게 될 때는 전체가 미래의 온갖 만물까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의 가정, 역사적 가정의 배후를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상가정의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다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216-299, 1991.4.14) p.2345

할아버지 왕권 시대, 그 다음에 아버지 왕권 시대뿐만 아니고 하늘나라 왕권 시대요 지상 왕권 시대를 합한 통일적인 이상이 3 대 왕권입니다. 할아버지는 1 대고, 아버지는 2 대입니다. 2 대밖에 안 됩니다. 3 대가 안 됩니다. 손자가 있어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참 묘합니다. 선생님도 아들딸을 낳아서 기르고 다 이랬지만 손자가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외로워지고 환경이 변화되어 쪼그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자하고 결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할아버지도 완성하고, 아버지도 완성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의 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가 여기까지 연결하면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이것이 하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할아버지도 완성하고, 아버지도 완성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의 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가 여기까지 연결하면 다 연결되어야 된다구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이것이 하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가정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그 하나의 모델형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직계인 왕손을 중심삼고 연결돼 가지고 가정이 횡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3 대 심정권을 체휼한 씨가 되지 않고는 확대가 불가능해요. (283-79, 1997.4.8) p.2346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3 대의 자리에 못 섰습니다. 2 대만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가정이 지금 제일 비참한 것이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아기로부터 자라서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기 친구가 누구냐 하면 손자입니다. 늙으면 노망하지요? 노망하면 아기같이 됩니다. 아기와 같이 돼 가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나게 되면 말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돼야 된다구요. 할아버지 돼 보니까 자기 아들딸보다 손자가 더 귀엽습니다. 그리운 것이 자기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들딸이 아니라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266-147, 1994.12.22) p.2346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과거를 전부 다 이어받고 과거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는 현재를 배우는 것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미래를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어받느냐, 무슨 혈통을 이어받느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는 많지만 두 분이 참된 사랑으로 하나되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되어 있으니 우리들도 저와 같이 되어서 미래를 이어받자는 것입니다. 절대 참가정이 안 돼 가지고는 미래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이 셋을 볼 때, 그것은 우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체 역사, 현재와 미래를 대표한 참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참가정에서 할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누나를 사랑하고…. 할머니가 없으면 불안정합니다. 할아버지가 없어도 불안정하고, 어느 분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조부모, 어머니 아버지, 자녀가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참조부모를 사랑하고, 참부모를 사랑하고, 참자녀 · 참가정 · 참국가 · 참우주를 사랑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형 교과서가 가정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사랑은 미래를 위해 간다.'고 할 때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162-140, 1987.4.5) p.2346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완성한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같고, 부모는 세계 가정의 왕이고, 자기 자신은 천상과 지상의 왕권을 승계하는 미래의 왕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왕권이고, 이것은 지상이지요? 이것을 상속하는 왕입니다. 이와 같은 3 대 왕권이 결실되어야 할 곳이 우리의 이상가정입니다. (239-185, 1992.11.24) p.2347

이제, 지상천국시대에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이 왕의 집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이 되어야 됩니까? 왕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왕과 왕비, 왕자 왕녀들은 그 나라의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법이 있습니다. 법 중에 왕궁법이 있습니다. 궁에서 귀족들이 사는 법이 있잖아요? 영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왕손이 얼마나 살기 힘들습니까? 선생님의 그 길, 복귀의 길을 다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안 해 보면 천국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다스릴 왕의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여왕을 모실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남자의 왕이 됩니까? 안 그래요? (232-326, 1992.7.10) p.2347

선생님의 가르침은 역사의 처음이요, 인류 희망의 시작이요, 행복과 평화의 시작입니다. 천국 모든 것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재세시에 인연 맺은 여러분 가정이 황족권에 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러한 생활을 한 경우에는 그 완성 정도에 비례하는 기준의 영계에 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계 최상의 욕망을 완성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희망은 할아버지가 왕이요 아버지가 왕이요 자녀가 왕으로서 3 대 모두 천주의 왕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완성시킨 최고의 정점에 설 수 있는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확신해야겠습니다. (249-111, 1993.10.8) p.2347

Top

㉯ 장자권, 부모권, 왕권복귀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부모인 동시에 만국의 왕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3 대 권한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아담은 첫아들, 맏아들입니다. 장자권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 장자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돼 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3 대 권한이 뭐냐? 하나는 장자권, 그 다음엔 부모권, 그 다음엔 왕권입니다. 3 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273-223, 1995.10.29) p.234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3 대 왕권은 반드시 제 1 창조주, 제 2 창조주, 제 3 창조주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3 대 왕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이고, 아담은 현재의 조상이고, 아담과 해와의 아들은 미래의 조상입니다. 조상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개념이 안 들어가면 3 대 왕권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황족권은 직계를 중심삼고 상대적 관계로써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270-287, 1995.7.16) p.2348

복귀역사의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장자권복귀 · 부모권복귀 · 왕권복귀 · 황족권복귀입니다. 장자권복귀의 목적은 부모권 복귀입니다. 부모권복귀의 목적은 왕권 복귀고, 왕권 복귀의 목적은 황족권 복귀입니다. 이것이 4 대 심정권입니다. 할아버지 · 아버지 · 자기 부부가 3 대 왕권을 상징합니다. 할아버지는 과거를 상징하고, 부모는 현재를 상징하고, 자기 부부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영계의 특권 대사로서 자기의 집에 보내진 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가정은 번창합니다. (249-306, 1993.10.11) p.2348

구원섭리 역사는 가인 아벨이 합해서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역사입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을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은 다음에는 가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상 가정을 이 지상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는 장자권 복귀고, 둘째는 부모권 복귀입니다. 이것이 하나되어야 왕권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가정이 왕궁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왕과 왕후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하는데, 두 세계의 왕권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였더라면 이상적인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가정의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황족권입니다. (246-170, 1993.4.11) p.2348

3 대 왕권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왕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지상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미래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왕인 할아버지의 훈시와 어머니 아버지의 훈시에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효자의 길보다도 충신의 길을 가려니까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아담 아들딸인 손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담은 아버지의 사랑밖에 못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아담의 아들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 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횡적으로 확대됩니다. 3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것이 사위기대입니다. 3 대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접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손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83-79, 1997.4.8) p.2348

타락이 3 대를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구약시대고, 어머니 아버지는 신약시대고, 자기는 성약시대고, 아들은 앞으로 세계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켜야 할 가정에서 부모를 잃어버렸고,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왕권은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부모권과 장자권, 왕권을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참부모가 닦아 놓았기에 이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중심한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나라의 왕권, 세계의 왕권, 천상의 왕권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종족적 메시아 칭호를 부여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종족적 왕이라는 것입니다. 종족적 참부모입니다. (210-270, 1990.12.25) p.2349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가 장손입니다. 그런데 첫째 구멍인 아담이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손권을 잃어버렸고, 부모권을 잃어버렸고, 천주의 왕이었던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3 대권 회복운동이 바로 복귀섭리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복귀섭리는 아담이 참부모권 · 참장자권을 지니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이 그러한 분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208-272, 1990.11.20) p.234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지상천국-천상천국의 왕자 왕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건 세계적입니다. 근원인 동시에 맨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에서 선한 부모가 못 나오고 악한 부모가 나왔으니, 이것을 전부 다 따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악한 부모로 시작된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226-319, 1992.2.9) p.2349

참부모와 하나되어 전통을 상속받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체적 전통으로써 만국을 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주체성을 지닐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하늘나라의 황족권 내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3 대가 결심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부부, 아들딸까지 단계는 4 단계이고 계열은, 부부를 갖춘 것은 3 대입니다. (228-295, 1992.7.5) p.2349

첫째는 형제권 복귀, 둘째는 부모권 복귀, 셋째는 왕권 복귀예요. 민주세계에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민주세계는 형제주의입니다. 평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주의인데 형제주의 세계에서는 서로 싸움을 합니다. 네 것, 내 것 하면서 쟁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싸우는 개념이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그 내용이 뭐냐? 왕권을 서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뭐예요? 왕권 아니에요? 이게 왔다갔다하고 전부 착취하니까 잘 안되지, 절대적인 왕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205-172, 1990.9.1) p.2349

민주세계의 정치세계는 투쟁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을 말릴 수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부모를 중심삼고 하나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참부모를 찾아 거기서부터 참자녀?참국가?참평화를 포함한 모든 것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5-190, 1990.9.1) p.2350

하나님주의는 참부모를 중심한 사상이라구요. 하나님주의는 수직권에 속해 있는데, 그 수직과 평형을 합해 가지고, 세계 형체 전부를 합해 구체이상(球體理想)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입니다. 그 구체는 어디에서도 수직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 표면은 이상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표면권은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공이 굴러가다가 멈추게 될 때, 어느 면에서도 수직과 통하는 평등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에 의해 평등한 세계, 균형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18-347, 1991.8.22) p.2350

하나님주의를 중심삼고 통일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가정의 왕입니다. 가정은 여러 다른 가정들과 어울려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종족의 왕이 나옵니다. 또 종족은 여러 다른 종족들과 합해져서 민족이 되어 민족의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 세계, 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왕들이 연결되어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205-189, 1990.9.1) p.2350

Top

③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 천국은 사랑의 황족권이 가는 곳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왕자 왕녀가 되어 가지고 왕과 왕후의 사랑을 받은 황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천당 가겠다고 하지요? 어떻게 되나 가보라는 것입니다. 문 총재의 말이 맞나, 안 맞나 가보면 알 거라구요. 그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이론에 맞지 않았습니다. (237-172, 1992.11.16) p.2350

아담과 해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왕이라고 하면, 아담과 해와는 그 왕의 사랑의 상대자이며, 황족권을 상속할 황태자라는 것입니다. 왕자 왕녀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삼고 태어난 장남 장녀가 아담과 해와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29-57, 1992.4.9) p.235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직계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왕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자 왕녀의 문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냐? 왕손으로서, 황족으로서 가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 모범적인 형제지우애(兄弟之友愛)의 직계 자녀와 방계적 자녀가 되어 모범적인 하나의 일족과 국가를 형성한 자리에서 황족의 명예를 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이동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236-204, 1992.11.8) p.2350

이제 여러분들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황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이 직계자녀라면 방계자녀인 그 형제 누나들은 전부 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의 사랑을 갖추어 그 권위와 위신을 당당히 지녀 가지고 생애의 노정에 보무도 당당하게 위신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본향의 나라 천국인 것을 알지어다! (220-219, 1991.10.19) p.2351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세계가 내 것이요, 세계의 인류가 내 일족이라고 사랑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하나님 대신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의 왕자 왕녀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입니다. 그 다음에는 황족권 복귀입니다.

마지막에 이 문을 다 통하지 않고는 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뿌리를 찾아가서 결과가 하나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자유천지에서 순환하는데 상충이 없고 환영 일색으로 자기를 맞아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천상세계에 가나, 지옥세계에 가더라도 그가 지나가면 전부 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253-322, 1994.1.30) p.2351

장자권 복귀가 안 되면 부모권 복귀가 안 됩니다. 본연의 형제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찾은 그 기반 위에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복귀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은 후에 부모들이, 아담과 해와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종족 중심삼은 왕권, 왕권 중심삼아 가지고 방계적인 혈족이 벌어지고 일족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황족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섭리의 전체 결론입니다. 이것은 전통적 결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246-146, 1993.4.7) p.2351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황족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황족권이 시작되려면 이렇게 살아 가지고 앞으로 선생님의 아들딸과 핏줄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의 아들딸과 사돈을 맺어야만 황족권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238-48, 1992.11.19) p.2351

완성한 가정은 무엇을 중심삼고 되느냐?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황족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정이상,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왕가(王家)가 되어야 됩니다. 왕가는 왕을 중심삼고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족권 내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옮겨가는 데가 천국인 것입니다. (244-48, 1993.1.29) p.2351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룬 후에야 황족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삼은 참사랑의 자리가 황족권의 자리입니다. 천국까지 무사통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담 가정에 대한 이상입니다. 거기에 참아들과 참딸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 완성과 부모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244-310, 1993.3.1) p.2352

장자권 복귀는 부모권 복귀요, 부모권 복귀는 왕권 복귀입니다. 왕권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황족권이 벌어집니다. 황족이라는 것은 생활무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승리해 가지고 반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넘어와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가정에서 잃어버렸으니 가정을 찾는 것입니다. (235-42, 1992.8.28) p.2352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나라의 국민, 하늘나라의 종족과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황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우리가 지녀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 하늘나라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황족적 심정권을 체득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게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이 왕자를 갖고 왕녀를 가져 가지고 왕자 왕녀를 사랑 못한 것이 한입니다. 그리고 왕손을 중심삼고 손자들을 못 가졌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자라 나오면서 왕자 왕녀로서 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못했습니다. 전부 다 중간에서, 원리결과주관권 내에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직접 의논할 수 있는, 천지창조의 대위업을 중심삼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서로 의논해 가지고 역사를 편성할 수 있는 의논 상대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220－47, 1991.10.14) p.2352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늘땅의 왕권과 하늘땅의 부모권과 하늘땅의 장자권을 중심삼은 직계 아들딸이 되어서 이 땅 위의 왕궁이 되고 하늘나라의 왕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방계적인 모든 형제들은 직계 왕궁 전통을 횡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과 하나 되어 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뭐냐 하면, 사랑을 중심삼고 황족전통을 통과한 그 가정과 일족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족 생활 환경, 앞에 있는 사람이나 가지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이 천국 간다 하게 될 때에 모든 만민의 가정들은 사랑을 중심삼은 황족 전통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218－221, 1991.7.29) p.2352

통일교회로 보면 지금까지 탕감시대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탕감시대의 역사를 걸어온 목적은 뭐냐 하면 장자권을 복귀해야 되고, 새로운 부모권을 복귀해야 되고, 새로운 왕권을 복귀해야 되고, 새로운 황족권을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중심삼고? 오늘날 인간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왕권, 어떤 가정을 중심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장자권,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부모, 하나님을 중심삼은 왕권, 하나님을 중심삼은 황족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인류가 바라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230－171, 1992.5.3) p.2353

내가 찾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황족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랑의 황족입니다. 여러분은 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씨가 된 것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가 다음 해에 북풍한설, 혹풍이 불어닥치는 겨울절기를 넘어가 가지고 저 남에서 불어오는 봄바람과 봄볕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싹이 태양의 빛과 더불어 방향을 갖추어 가지고 여기에서 자체 내에서 창조력을 발휘해 가지고 생명력을 빚어낼 수 있는 씨가 되어야만 생명의 싹이 되는 것입니다. (180－62, 1988.8.20) p.2353

Top

㈏ 황족권이란?

황족권은 뭐냐? 아담가정에 있어서 가인 형님이 있고 아벨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딸에 있어서 가인 아벨 형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가인 아벨입니다. 반드시 환경에는 언제든지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주체와 대상이 하나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그 가정을 중심삼고 타락한 세계의 가정과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족권이라는 것입니다.

형님이 중심자이기 때문에 중심이 돼 가지고 자기 직계의 형제들은 오른쪽이 되고, 복귀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은 왼쪽에 두고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가정의 형제가 하나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탄세계를 구해 주려니까 가인 아벨의 형제가 하나된 그것을 아벨로 해 가지고 사탄세계를 가인으로 하여 하나 만들어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의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동생이 순응할 수 있게 될 때에 황족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의 아들딸도 장자권 직계 자녀를 통해 가지고 차자의 자리에 세워 가지고 장자의 자리로 들어감으로써 지상천국, 천상세계에 같이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족권입니다. (270－260, 1995.7.16) p.2353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황족권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딸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의 사람들이 본래 타락하지 않은 제 1 왕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해 가지고 악마에게 엉켜져 사탄세계의 장자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파탄시키는 일을 해 나왔던 것을, 아벨이 한의 고개를 넘고 넘어 이들을 개척해 가지고 자연굴복시켜서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권을 중심삼고 천지대도가 완전히 바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참부모를 중심삼은 이런 기반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64-195, 1994.10.9) p.2353

황족권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류를 제 2 왕자와 같은 취급을 해서, 그 본처 된 레아도 라헬을 본처와 같이 모시고 본처 됐던 것이 첩과 같은 자리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늘 편으로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이 논지가, 이렇게 교체 차단돼 가지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시대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장자권?부모권?왕권?황족권을 중심삼은 이와 같은 기준을 예수시대에 와 가지고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냥 그대로 삼각대로 구멍이 뚫어졌으면 삼각대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를 막아야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침해를 해서 피해를 입혔으니 하늘도 사탄세계에 그런 피해를 입혀 가지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게 탕감복귀입니다. (262-203, 1994.7.23) p.2354

제 3 에 들어가게 되면, 4 대 심정과 3 대 왕권과 황족권이 나옵니다. 이것이 텍스트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황족권은 무엇이냐? 황족권이란 사탄세계의 이 모든 사람들은 장자로서 하나님을 파괴하던 것인데 이걸 구해 주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복귀해 가지고는 차자와 같이 사랑을 해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의 가인이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생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전세계 인류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생 입장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장자권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직계의 자녀들, 여러분 아들딸들이 사탄세계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져 있지 않고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세대도 그렇고, 사탄이 복귀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황족권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걸 집어넣은 것입니다. (265-253, 1994.11.23) p.2354

황족권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계의 아들딸들을, 악마를 동생삼는 것입니다. 황족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고는 사탄세계 가인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인도 황족권, 하나님의 차자의 사랑권 내에, 장자로서 하늘을 파탄시켰다면 장자권을 잃어버린 데는 추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형님과 부모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권 세워 가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황족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 가정이 됐지만 뭐가 남았느냐 하면, 세상이 남아 있습니다. (267-151, 1995.1.4) p.2354

황족권이 뭐예요? 지금 가정밖에 없는데 황족권은 뭐예요? 그건 가인입니다. 가인을 구해 줘야 됩니다. 세계의 왕권을, 잘못된 그것을 왕자의 도리를 대신해서 가르쳐 줘 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인 아벨을 구해서 동생 삼아 가지고 왕가의 모든 전통을 내가 가르쳐 줘서 동생 자격으로 끌고 들어가야 땅 위의 후손들도 왕손으로서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황족권이 연결되지,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가인세계가 형제의 인연을 묶을 수 없게 되면 황족권이 지상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이 황족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과 자기 가정이 형제가 하나되어 세상의 왕권을 전부 다 인계해 가지고 동생의 자리에 세워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습되면 가인 아벨이 거꾸로 하나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283-80, 1997.4.8) p.2355

황족권이라는 것이 자기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그 가인 아벨에 가인적인 부모가 있고, 가인적인 할아버지가 있지요? 그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동적으로 그 전부 다 가인권 아들을 중심삼고 그 일족 할아버지 3 대가 자연굴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황족권으로 가면, 그들도 동생의 자리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283-80, 1997.4.8) p.2355

황족권이 뭐냐? 이것은 아담과 해와의 직계 자녀가 아니고 이 타락한 세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귀되었다 하더라도 축복받은 가정 중심삼고, 여러분 아들딸 중심삼아 가지고 가인권, 종족적 메시아권, 세계 가인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복귀해서 장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탄의 반대 받던 아벨이 하늘의 장자의 자리를, 장자권을 복귀해 가지고 옛날에 장자였던 형님을 동생삼아 가지고 데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중심삼고 황족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횡적으로 원수 되었기 때문에 횡적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되어 뒤집어진 아벨이 형님이 되고 가인이 동생이 되어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하나님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 형제가 복귀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돌아가서 효자-충신-성인- 성자의 도리를 하고, 하나님이 와 이루려던 가정에 있어서의 모든 공식적인 텍스트 내용을 완성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266-147, 1994.12.22) p.2355

장자권, 다음엔 부모권, 그 다음엔 왕권, 그 다음엔 황족권입니다. 황족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하면, 큰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면 뜻을 이루고 보니까 원치 않은 여자와 아들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계 아들딸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비운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수습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쪽 패는 50 억 인류인데 이쪽 패는 아들딸 몇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 총재가 그런 입장에 있다면 열세 아들딸밖에 없습니다. 13 명밖에 없습니다. 가인 아벨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수습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벨이 전부 사랑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탕감복귀한 장자권을 다 복귀하고 나서는 그들을 자기 황족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황족과 같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황족으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249-221, 1993.10.10) p.2356

장자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차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몸뚱이가 잘못 되었지만 종적인 재림주가 와서 장자권 복귀를 해 가지고 차자권을 인정함으로써 제 1 아담, 제 2 아담도 한 몸뚱이와 같은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황족권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황족권이 뭐냐 하면, 전부 다 타락한 사탄편의 장자로 왔지만 하늘편 장자권 복귀를 원해서 승인되면 동생 되는 로열 패밀리(royal family:황족)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 몸뚱이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가 됩니다. 재림주는 엘더 선(elder son: 장자) 아담이고, 이건 영거 선(younger son:차자)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253-89, 1994.1.7) p.2356

종적인 왕권이 주체입니다. 이 종적인 왕권과 횡적인 황족권이 하나되어 가지고 보다 큰 통일된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입장에서 더 큰 플러스와 하나되어 발전하는 것이 이상세계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공식입니다. 통일교회의 이 개념 이상의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무엇이고 전부 다 레버런 문의 뒤를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246-263, 1993.4.18) p.2356

하나님도 황족권을 못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왕권만 갖추게 되면, 나라만 찾으면 황족권을 편성해 나갑니다. 대번에 헌법에 의해 가지고 주욱 질서가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그럽니다. 영계가 그것이 없습니다. 천국이 비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중심이 없으니 비어 있습니다. 이게 기가 찬 것입니다. (270-279, 1995.7.16) p.2356

50 억 인류는 장자권 직계 왕권을 이어받은 왕가의 친족들입니다. 그 황족권의 심정을 체휼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평면화된 왕족권을 중심삼고 그것을 실체화시킨 세계 통일 심정권을 체휼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참부모도 장자 위의 참부모입니다. 참부모의 왕권입니다. 이런 왕권을 중심삼고, 주변의

[텍스트 입력]

왕족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천국은 이런 가정의 형제는 물론 부모를 중심삼고, 왕권을 중심삼고, 왕족을 이끌고, 왕권을 모시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체휼하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247-265, 1993.5.9) p.2356

선생님의 말씀을 중심삼고 볼 때 얼마나 먼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혈통 내의 혈통, 심정 내의 심정을 주류적인 입장에서 수습해 놓지 않으면 영원한 주류 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주류권의 상속권을 타락한 후손들, 간부(姦夫)의 자녀들에게 접목시켜 참감람나무의 열매와 같은 가치를 인정해서 천국의 창고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말하는 것이 황족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9-319, 1993.10.11) p.2357

황족권이 뭐냐 하면 본래에 여기에 태어난 아들딸이 황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한 성약시대와 참부모시대를 발표할 때는 세계 만민을, 50억 인류를 전부 다 황족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황족권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황족권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황족권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는데 황족 되기 위해서는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개인으로부터 이 세계까지 누구보다도 아벨을 사랑했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251-169, 1993.10.17) p.2357

Top

㉱ 황족권은 직계 자녀가 아니다

황족권은 선생님의 직계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직계는 탕감을 넘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사람들이 장자권의 권한으로 모두 지옥에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을 해 왔지만, 지금은 장자권을 양도해 자기들은 차자권에 서 있는 거라구요. 원래 왕족의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차자 입장에서 왕족으로서 똑같이 인정되어 하나님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사탄에 속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참소할 일점의 무엇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신과 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가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지금 사명입니다. (258-229, 1994.3.17) p.2357

황족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은 선생님의 직계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복귀된 입장에서 보면, 복귀된 여자와 복귀된 가인, 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선생님의 직계의 자녀인 가인 아벨 어머님과 자녀가 있습니다.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귀해 왔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 되어서 복귀되면 그 가인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를 죽이면 큰일납니다. 그것이 원래의 아담가정에서는 황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황족, 황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적인 존재 앞에 끌려갔으니 원상복귀되면 원래의 권한에 접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귀된 여자와 자녀들을 황족권에 가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세계 사람을 황족권으로 만들어야 한다구요. (256-327, 1994.3.14) p.2357

황족에게는 두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황족의 법률도 지켜야 합니다. 아담의 자손 50억 인류가 황족권에 서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직계 아들딸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입니다. 절대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선생님이 있는 곳에 직행해 올 수가 없습니다. 축복가정은 사탄에게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하늘편에만 속한 가인 아벨, 장자 차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선택될는지가 문제입니다. 50억 인류가 황족권에 있다고 해도 직접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직계 혈통과 더불어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황족권과 하나되어 가인 아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성들의 최대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해서 자기의 후손을 선생님의 후손과 맺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49-114, 1993.10.8) p.2358

재림주님의 직계자녀들은 탕감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탕감조건에 안 걸립니다. 요것은 뭐냐 하면 직계 말고 땅 위에서 가인권 여인과 가인권 아들에게 남겨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중심삼고 보더라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진이 어머니와 성진이를 중심삼고 딱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인권을 전부 다 황족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생으로서, 복귀된 동생의 자리에 세워 가지고 황족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참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인정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황족권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면 타락한 사탄권 내에 황족을 벗어난 무리가 있다는 말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족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혼란하면 안 됩니다. (260-156, 1994.5.2) p.2358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의 종주들이라든가 수많은 성현 현철들이 나왔지만 참사랑과는 하등 인연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신랑 신부의 기반을 닦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것은 뭐냐?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종족과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황족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황족권의 직계 조상이 누구냐? 타락하지 아니한, 본연의 사랑과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생명과 참혈통의 기반을 중심삼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씨입니다. 그 씨에서 뿌리가 나오면 종대 뿌리가 될 것이고, 거기서 종대 줄기, 종대 순으로 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적으로 커짐에 따라 거기에 대응하여 횡적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면, 가정과 종족이 연결되고 민족, 국가, 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263-194, 1994.10.4) p.2358

지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어머니 참아버지, 참부모의 혈통을 받지 않고 태어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보면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참부모를 천상천국, 지상천국의 왕권의 주인으로 섬기며 친족권 내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참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자기도 결혼해서 후손을 남기고 그대로 옮겨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황족권의 사랑을 중심삼고, 체휼적인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250-49, 1993.10.11) p.2359

지금까지 사랑 이상을 총괄적으로 전부 다 표준으로 수습해 보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섭리사의 주류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섭리사의 주류사상이 뭐냐? 크게 보게 되면 네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이 세상의 주류사상이라든가 창조 이전의 주류사상이 첫째는 장자권 복귀입니다. 장자권의 창립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부모권이고, 셋째는 왕권, 그 다음엔 황족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아담이 장자가 되어야 되고, 아담의 형제가 황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장자가 왕이 되는 동시에 차자는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누나라든지 차자가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천년만년 이어 가지고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어 인류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의 왕권은 하나고 황족권을 중심삼고 왕권 부모권을 중심삼고 전부 다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247-134, 1993.5.1) p.2358

Top

㉱ 황족권을 중심하고 국가 편성 시대로

참부모와 하나되어 전통을 상속받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주체적 전통으로써 만국을 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주체성을 지닐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하늘나라의 황족권 내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3 대가 결심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부부, 아들딸까지 단계는 4 단계이고 계열은, 부부를 갖춘 것은 3 대입니다. (228-295, 1992.7.5) p.2359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자 왕녀로서의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형제의 교육을 받았더라면, 만민 형제의 인연을 중심삼고 만천하가 하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가 인류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서 장자권 종손을 중심삼고 형제가 횡적으로 퍼진 것이 종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 인간들은 하늘 왕궁에 있어서 왕자권, 황족권 심정을 체휼해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게 안 되어 있습니다. (226-130, 1992.2.2) p.235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나라의 황족권을 중심삼고 민족을 편성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불도저로 밀어버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원리 말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중심삼고 세계로 갈 때, 이 세계의 전통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이 세계의 전통을 가로막는 통일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 나서고, 처자를 잘라 버리던 매정한 역사시대를 회상하면서, 눈을 감고 단행해야 됩니다. 천국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칼을 대야 할 때는 칼을 대는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184-243, 1989.1.1) p.2360

여러분들 지금은 꿈같은 얘기 같지요? 그러나 가 보라구요. 악마의 사랑을 중심삼고 악마의 생명과 악마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자체가 하늘나라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권 내에 통일적으로 이상화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은 황족권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바라볼 수나 있느냐?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몇 대, 몇십 년만에 한 번 방향을 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사랑하는 본성적 흠모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그 흡력 방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년만에 그 돌아가는 운세에 자기의 운이 맞아 가지고, 몸뚱이와 마음이 맞을 때가 있거든? 그것도 아담과 해와가 15, 6 세까지 자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없으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한의 담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 버리고 평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220-18, 1991.10.13) p.2360

원래는 부부끼리 존경어를 쓰지요? 사대부의 가문에서는 천한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늘 법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개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개재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이 하늘, 천지의 이치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족권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253-323, 1994.1.30) p.2360

여자들이 잘못한 것, 남자들이 잘못한 것을 전부 다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조금만 구부러지면 사탄이 올가미를 가지고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잘못된 사람이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는 전부 다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남자 여자들이 가는 길 앞에, 일생 동안 가는 길 앞에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 대 심정권입니다. 이 점에 가서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과 황족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246-146, 1993.4.7) p.2360

아무리 고속도로가 놓였더라도 차가 없고 석유 살 돈이 없으면 면허증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소화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가정을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자동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운전자가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지면 영계에 가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반대로 나로 말미암아 보탬을 줄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황족권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정이 하늘나라의 축소체입니다. (246-79, 1993.3.23) p.2361

Top

4) 가정맹세 4 절 해설

4 절 :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天宙大家族)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① 하나님의 창조 이상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맹세 4 번은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여기서부터 행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이상적 가정에서부터 행복과 자유와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60-305, 1994.5.19) p.2361

하나님의 이상은 세계가 전부 한 가정입니다. 한 집안입니다.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완성한 사람들이 부르는 자리니까 하나님을 중심삼고 한 가정이지 두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우리는 세계가 한 가족입니다. (260-191, 1994.5.8) p.2361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완성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이상은 어디에서 완성해야 되느냐? 개인을 중심삼고 가정에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0-61, 1987.11.8) p.2361

창조이상은 무엇이냐?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말하기를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은 사위기대 완성이다.'라고 합니다. 사위기대 완성은 뜻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면에서 볼 때 뜻의 완성이다 이겁니다. 사위기대를 완성하려면 거기에는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해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여성과 남성이 합하여서 완성된 자녀를 번식했더라면, 완성된 승리를 가진 그런 창조이상의 실체, 주체, 혹은 피조세계의 중심되는 인간 완성체, 인간 완성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셨던 모든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아담 참된 해와, 즉 완성한 아담 완성한 해와, 완성한 자녀, 하나님 앞에 지어진 사위기대를 중심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됨으로 모든 창조이상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164-9, 1987.5.3) p.2361

최후에 남아질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남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인간과의 불변의 사랑, 이 사랑의 법도는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중심삼고 인간관계, 즉 인간 인간끼리의 관계와 하나님을 중심삼은 관계가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 그 세계를 왈(曰) 지상천국이라 합니다.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지상천국이라 하고, 지상천국에서 살다가 천상에 가서 영원한 이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을 천상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164-9, 1987.5.3) p.2362

'하나님의 뜻'하면 창조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이상은 무엇이냐? 창조이상은 우리 통일원리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위기대는 무엇이냐? 그것은 물론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와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면 중심, 사위기대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아담과 해와도 아니요,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위기대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연결되느냐? 무엇이 센터를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아담과 해와도 아니요, 자녀도 아닙니다. 참사랑만이, 참사랑만이 중심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2-107, 1984.5.27) p.2362

부모와 자녀가 완전한 사랑의 일체를 이룬 참가정은 영원입니다. 영원인 동시에 절대적이다 이겁니다. 그 사랑의 기점이라는 것은 유일이며 불변이며 절대적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 기반 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의 신의라는 것은,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엔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거기에선 하나가 침범받는다는 것은 전체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위기대 자체는 사랑이 침범받을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능가하더라도 이것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사랑의 기반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핵이 되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지고 확대된 것이 세계입니다. 아담가정에서 그 아들 가정이 생겨나서, 부모의 가정과 아들 가정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위기대가 벌어졌으면 이 사위기대는 미래의 영계의 사위기대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106-57, 1979.12.9) p.2362

평화의 세계를 어떻게 이루느냐? 평화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통일의 세계도 하나입니다. 왜 하나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이상, 절대적인 창조주의 창조이상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을 절대적이라고 안 합니다. 영원히 하나입니다. 하나뿐인 그런 중심적 존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위업, 창조이상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63-10, 1994.8.16) p.2363

Top

② 천주대가족

㉮ 천주대가족의 기본은 가정

아담과 해와를 참부모로 하여 번성된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어 아담 문화권의 평화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역사의 귀결은 참부모와 참사랑을 중심한 참된 가정을 찾아 세워 이를 중심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이때 중심인 참가정은 인류의 소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참가정은 참사랑과 참생명의 시원이 되며 인류의 평화와 행복의 기점이 됩니다. (294-67, 1998.6.11) p.2363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는 큰 가정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황족권으로 해 가지고 천주의 대가족을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이루었습니다. 황족들이 연결된 평화의 기준을 통해서 천주의 대형제지우애를 가진 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주대가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가족을 형성했으니 하나님도 자유와 평화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딸이 어디 막힘이 없습니다. 자유와 평화 막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막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보니까 천상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조상들은 심정적 유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283-82, 1997.4.8) p.2363

4번이 뭐예요? 천주대가족입니다. 세계가 형제입니다. 한 핏줄이라구요. 하나님같이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궁에 앉았더라도 이 4번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주의 대가족을 형성해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심정입니다. 천주대가족주의자입니다. 자유와 행복과 통일과 평화를 심어 줘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선생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역사가 표제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280-35, 1996.10.13) p.2363

하나님이 세워 나온 가정을 중심삼고 천하가 요구하는 표준을 세우려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모델형, 부부 모델형, 자녀 모델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친족대가족주의입니다. 7대가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주의로 몇백 명, 몇천 명이 한 가족 생활할 수 있는 전통적 역사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통일교회 종족적 메시아의 길과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대가족을 중심삼고, 앞으로 세계 앞에 서로가 대가족을 품어 자랑할 수 있는 경연대회 시대가 와서 가정 일족이 축복받고 일족으로 상금 받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황족이 될 것입니다. (276-180, 1996.2.19) p.2363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는 하나님의 뜻인 대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세계를 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권을 갖추어서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담가정 왕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왕권을 대표하려면 사탄세계의 모든 전부를 대가족으로 수습해서 같은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자리에 선 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라구요. 비로소 거기서 자유와 평화와, 거기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통일을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통일과 평화입니다. 우리 이념은 평화통일입니다. (267－151, 1995.1.4) p.2364

평화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를 모든 인류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으로, 가정으로부터 사회, 국가,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인류는 형제자매인 것을 깨달아 지구 대가족사회를 이룩할 때만이 실현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259－47, 1994.3.27) p.2364

Top

㉰ 공생-공영-공의사회의 핵심은 사랑

이상적인 사회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국경과 피부색을 초월하여 상호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자각하고 참부모를 중심하고 한 형제가 된 대가족 사회, 그곳은 혈통과 소유권과 심정을 복귀한 축복가정들이 참부모의 언어, 참부모의 문화 아래, 자유와 평화와 통일의 세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문화 속에서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269－155, 1995.4.17) p.2364

이상세계는 경제적으로는 공생주의, 정치적으로는 공영주의,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공의주의의 사회입니다. 공생주의란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공동소유를 중심내용으로 합니다. 공생주의 사회의 기본 전형은 가정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소유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동소유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모든 재산은 비록 법적으로는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즉 전 가족의 공동소유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가족 개개인은 각각 방과 의복, 용돈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는 전체목적과 개체목적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기반이 된 가정의 이상적인 소유형태가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된 것이 이상사회의 소유형태입니다. (271－76) p.2364

하나님과 인간의 본연의 관계는 참사랑을 중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공동소유, 전체와 나의 공동소유, 이웃과 나의 공동소유 등 여러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참사랑이 중심이 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인간이 이룩하는 이상세계에 있어서 전체목적과 개체목적은 자연스럽게 조화됩니다. 인간은 욕망도 있고 사랑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 개체목적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정한 개인소유 또는 전체목적을 해치는 개체목적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완성한 인간은 스스로의 양심과 본성에 의하여 자기분수에 맞는 소유량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참사랑에 의한 만물의 참주인의 인격 되는 이상적인 인간의 경제활동은 사랑과 감사를 저변으로 하기 때문에 과욕과 부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체목적에 배치되는, 지역이나 국가 이익이 강조될 수 없으며 또한 경제활동의 목표가 이윤 추구가 아닌 전체 복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271－76, 1995.8.22) p.2365

공영주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바탕으로 공동 참여를 해서 자유·평등·행복의 이상이 실현되는 정치를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공동정치 참여의 형식은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단위가 사랑 중심의 가족관계의 확대라고 이해할 때 대의원 후보자는 서로 적대관계일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관계로서 주변의 천거에 의하여 봉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선출단계의 과정을 거치거나 최후의 결정은 인위적인 조건이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즉 기도와 엄숙한 의식에 의해서 추첨으로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천운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므로 모두 감사하고,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71－76, 1995.8.22) p.236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공의주의는 참사랑을 중심한 보편적인 윤리 도덕을 지키며, 구성원 모두가 선과 의의 생활을 추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절대가치 아래 만민이 윤리 도덕을 보편적으로 실천하는 도의사회를 지향하는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세계는 이상가정과 완성한 인간을 전제합니다. 참사랑에 의한 이상적인 부모,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자녀의 통일적인 조화가 이상가정의 요건이 됩니다. 또한 완성한 사람은 참사랑에 의해서 심신이 조화 통일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한 사람들이 참사랑의 기지인 가정생활, 또 그 확대인 사회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는 최고의 사랑의 세계, 도의세계가 이상세계입니다. (271-76, 1995.8.22) p.2365

이상세계의 국가의 중요기관과 부서들은 공동목적 아래 서로 원만한 수수작용을 하면서 조화됩니다. 마치 인체의 여러 기관이 두뇌의 지시에 의한 공동목적 아래 합목적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협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71-76, 1995.8.22) p.2365

Top

③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

㉮ 우리 이념은 통일된 하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적·우주적 가정이 돼 가지고 자유와 행복과 통일과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가정맹세 4번입니다. 대표적 가정이 돼 가지고 전부 다 통일하는 것입니다. 4대 심정권이 그렇잖아요?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일된 4대 심정권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를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불안과 사탄세계의 혼돈과 불행한, 부자유한 환경을 수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의 넷째 번이 그겁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267-151, 1995.1.4) p.2366

가정맹세 제4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가정연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자 전부 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황족권을 완성해야 됩니다. 지금 가인세계의 사람들은 동생의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형님의 자리에서 올바로 가르쳐 줘서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편이 황족권으로 복귀됩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을 복귀해 가지고 그들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2 왕자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제1 왕자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황족권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것 안 해 가지고는 장자권이라든가 황족권이 복귀 안 됩니다. (264-201, 1994.10.9) p.2366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는 하나님의 뜻인 대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세계를 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권을 갖추어서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담가정 왕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왕권을 대표하려면 사탄세계의 모든 전부를 대가족으로 수습해서 같은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자리에 선 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로소 거기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입니다. 우리 이념은 평화통일입니다. 공산주의와 하나돼 가지고 통일하는 것입니다. (267-151, 1995.1.4) p.2366

지금까지 왔다 갔던 성현들은 외적 세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 만드느냐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교회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내적인 우리 자체로부터 어떻게 정비해서 하나 만드느냐 이겁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통일이 벌어진 그 위에 행복도 있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227-249, 1992.2.14) p.2366

통일의 기반 위에서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이 하나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회사에 가더라도 몸 마음이 세계대전을 해 가지고 자리를 못 잡는데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라는 말 자체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싸우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생문제를 놓고 고민하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 안 된 거기에 행복이 어디 있고, 평화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전부 다 이 선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행복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자유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희망도 이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찌그러지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다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공산당 패들이 말입니다, 마르크스나 헤겔 같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몸 마음도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근본인 줄 알았지,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투쟁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242-60, 1992.12.27) p.2367

천주대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 하나의 단위는 가정이지만 가인 아벨에서 그것이 한 가정만이 아닙니다. 전세계 가정들이 천주적 대가족 이상을 중심삼아 가지고, 어디 환경에 가 가지고 자기만 독불장군 되어 자기만 중심삼고 똘똘 뭉치면 안 되고, 환경을 맞추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딸 대가족입니다. 이런 대가족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족 형성의 지상세계라는 것은 천상세계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6-150, 1994.12.22) p.2367

통일이 없는 데는 자유가 없고, 통일이 없는 데는 행복이 없습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평화가 없습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 몸이 하나 안 되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마음과 몸이 싸우는데 행복해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서로가 잘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서로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밸런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처끼리 서로 잘 맞아요? 여러분 부처 둘이 아침에 싸워 가지고 종일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통일이 된 기반 위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통일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통일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231-269, 1992.6.7) p.2367

통일이 없는 데는 행복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바라는 희망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모든 평화라든가 자유까지도 그 기반 위에 서야 됩니다. 통일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이 벌어져요. 부모와 자식간도 통일 기반에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라구요. 오늘날 인류는 자유를 찾고,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어떻게 찾아요? 통일적 기반 위에서 주체와 대상, 종과 횡, 혹은 전후 좌우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대적 주체와 대상 관계에 있어서 행복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225-93, 1992.1.5) p.2368

평화라는 것은 통일의 토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 행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되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움하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곳에 평화가 있지요? 부부가 하나되지 않고서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부딪치는 데에 자유가 있습니까? 대립하는 곳에는 평화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도 통일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229-228, 1992.4.12) p.2368

아들딸이 하나되어서 평화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통일이 되는 거기에 자유가 생깁니다. 평화와 행복이 생깁니다. 내 남편까지 거기에 전부 다 춤추는 가정이 벌어지고 춤추는 행복과 평화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춤추던 사람이 다음에는 '아이구, 고마워라!' 하고, 일가가 춤추고, 나라가 춤추고, 세계가 춤춰야 하나님도 역사적인 해방의 아들딸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만국 만민이 전부 다 통일왕국의 국민으로 개선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234-219, 1992.8.10) p.2368

평화라는 것은 수평선 위에 놓여지지, 경사진 곳에 놓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자유를 찾지요? '자유! 자유다, 자유!' 그러지요? 그 자유가 어디서 살기를 바라느냐? 통일된 수평선 위에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자유가 있고, 이 위에 행복이 있고, 이 위에 평화가 있고, 이 위에 희망이 있고, 이 위에 모든 것이 있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희망, 개인의 자유가 어디 있느냐? 몸과 마음이 하나된 위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된 수평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희망도 거기에 있습니다. (254-252, 1994.2.15) p.2368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서느냐 하면 평면상이어야 합니다. 통일 위입니다. 행복도 통일 위에 서고, 희망도 통일 위에 서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자체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모두 통일 위에서가 아니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57-141, 1994.3.14) p.2368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출발이 같지 않으면 이 방향이 둘이 됩니다.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통일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 행복?자유?평화?희망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265-262, 1994.11.23) p.2368

통일된 기반 위에 서지 않고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몸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자유 보따리 갖다 놓고 그 자유를 붙들고 기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가 생겨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평탄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결여됨이 없이 충만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몸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평화가 머무를 곳이 있습니까?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좋지요? 몸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232-189, 1992.7.6) p.2369

하나된 자리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눈도 일점이 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코가 막히면 야단이지만 뚫리면 자유입니다. 귀도 자유입니다. 손도 자유입니다. 몸도 뭐도 자유입니다. 하나 안 되면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고, 통일이 없습니다. 밸런스, 평평한 데 모든 창조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뾰족한 데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267-312, 1995.2.5) p.2369

세계적으로 모두 이긴 참부모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부 다 배워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적 천국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세계적 천국을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참부모가 되려면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되어서 아담 가정이 잃어버린 이것을, 타락된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평화·행복·자유·통일·천국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다, 오케이다 이겁니다. (259-318, 1994.4.24) p.2369

이상적인 사회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국경과 피부색을 초월하여 상호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자각하고 참부모를 중심하고 한 형제가 된 대가족 사회, 그곳은 혈통과 소유권과 심정을 복귀한 축복가정들이 참부모의 언어, 참부모의 문화 아래, 자유와 평화와 통일의 세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문화 속에서 공생·공영·공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269-155, 1995.4.17) p.2369

Top

㉯ 사랑만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요소

타락이 없었다면 참사랑에 의한 아담가정은 어떻게 번성했을까요? 아담과 해와는 참사랑에 의한 이상적인 참부부가 되고 나아가 참부모가 되어 그 후손과 전인류의 참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참부모로 하여 번성된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어 아담 문화권의 평화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역사의 귀결은 참부모와 참사랑을 중심한 참된 가정을 찾아 세워 이를 중심으로 편성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때 중심인 참가정은 인류의 소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참가정은 참사랑과 참생명의 시원이 되며 인류의 평화와 행복의 기점이 됩니다. (294-67, 1995.4.17) p.2369

인류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참부모에 의한 참사랑의 혁명입니다. 근본적인 변혁 없이 인류의 행복이나 평화로운 세계는 바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들은 참부모가 중심이 된 참가정주의,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참사랑주의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그 동안 세계적으로 전개해 온 평화운동과 함께 참사랑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참사랑과 순결 운동, 그리고 국경?문화?혈색?종교를 초월한 참사랑에 의한 참가정운동 등을 교단적 행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평화는 평화로운 국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평화는 가정의 평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망해 온 권력이나 부귀나 지식이 평화와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사랑의 소유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요, 외적인 생활의 편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사랑과 더불어 있을 때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도 무한한 행복도 참사랑으로 남을 위하고 베풀 때, 그리고 베푼 것이 전체를 돌아 다시 찾아올 때만 확실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294－68, 1998.6.11) p.2370

지금 인류는 총체적 위기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만의 대비나 노력만으로는 미흡합니다. 지도자들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평화세계의 기본단위요, 전제조건인 참가정을 창조하고 지도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본인이 집전한 3억6천만 쌍 축복결혼식의 의식은 선생님이 생애를 바쳐 이상가정에 대해 교육해 온 결실의 하나입니다. 축복의식에 동참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혼약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참된 부부, 참된 부모가 되어 참된 가정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평화세계 실현을 위하여 참가정운동을 통한 역사적인 참사랑 혁명을 도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94－68, 1998.6.11) p.2370

사랑이 없는 데는 행복도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어떻게 평화스러울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평화스러우려면 오목 볼록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남자 여자, 부처끼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평화스러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큰 사고입니다.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큰 사고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빼 놓고는 모든 것이 미완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275－17, 1995.10.30) p.2370

이상이니 자유니 평화니 통일이니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자 세계, 여자 세계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사랑이 일체 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자유의 출발 기지가 어디냐?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논리가 벌어집니다. 출발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목적점, 정착점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270－268, 1995.7.16) p.2370

자유와 평화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되는 데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만 있으면 설 땅이 없습니다. 자유가 실체예요, 뭐예요? 남자 여자가 있으면 서로서로가 거리낌없이 하나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냥 둘이서는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하나 만드느냐? 자유가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자유롭고 싶으면 도망가지요? 그게 자유예요? 남편을 못 잊어 가다가도 돌아가고 싶고, 가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유예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랑을 중심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면 다 깨져나갑니다. (247－158, 1993.5.2) p.2371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나될 때, 하나된 그 자리가 자유 천지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끼리 전부 다 하나되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유가 하나 만들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그런 말이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들딸, 아기들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이 하나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를 무엇이 하나 만듭니까? 자유가 만듭니까? 무슨 주의(主義)가 하나 만듭니까?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도 그렇습니다. 박애,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247－153, 1993.5.2) p.237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국은 그 본연의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것은 천상천국 지상천국의 출발지입니다. 자유의 출발지요, 행복의 출발지요, 이상의 출발지요, 평화와 통일의 기원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267-257, 1995.1.8) p.2371

참사랑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것이요, 평화도 없는 것이요, 통일도 없는 것이요, 행복도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만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자유·평화·통일·행복 완성시대입니다. (289-206, 1998.1.2) p.2371

역사적인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개인의 마음과 몸이 하나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가정을 이룸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참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지상 기지가 되는 것이요, 나아가 참된 국가, 참된 평화세계의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참된 자유와 행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271-88, 1995.8.22) p.2371

Top

5) 가정맹세 5절 해설

5절 :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主體的) 천상세계(天上世界)와 대상적(對象的) 지상세계(地上世界)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①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

㉮ 천상세계가 주체다

5절이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천상세계의 주체의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수많은 종족, 수많은 민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족 이상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미래에 같이 살 수 있는 천상세계를 표준해서 지상도 이것에 맞추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입니다. 하나만들기 위해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지상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초가정적 기준을 중심삼고 하나된 것과 마찬가지로 땅 위에서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천상세계가 그렇듯이 언제든지 그 천상세계에 맞춰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 체휼적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영계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체휼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전부 다 복귀노정의 완성으로 짠 것입니다. (266-150, 1994.12.22) p.2372

영계 육계를 누가 통일하느냐 하면 사람을 중심삼고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전진, 매일같이 후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촉진화, 빨리 빨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한 지역에서만 살지 말고 여러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움직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춘하추동, 동서남북, 사시계절이 있어 동서남북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 나라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경이 없고 다 이렇게 통일의 세계가 되면, 마음대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 가지고 손해를 미쳐서는 안 됩니다. 촉진적인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266-150, 1994.12.22) p.2372

우주 대가족에는 영계가 있고 육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가족을 이루려면 지상천국-천상천국을 하나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1년에 한 번씩이 아닙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인 지상세계가 있습니다. 지상세계의 뭐예요?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그래 쉬지 말고 자극적이고 흥분해 가지고 발전시켜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쉴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의 대가족이 되려면 하늘땅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267-152, 1995.1.4) p.2373

타락한 이후 지상은 물론이거니와 천상의 하늘 보좌 밑까지 사탄의 활동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계, 육계의 인간들을 참소해 왔습니다. 사탄이 이런 권한을 갖고 움직여 왔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이상을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할 피조세계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사탄 앞에 몽땅 넘어가게 된 것은 창조하신 아버님 앞에 서러움을 안겨 드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뼈에 사무치게 느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282, 1956.12.16) p.2373

주체적 천상세계를 여러분은 모릅니다. 영계를 하루에 몇 번 생각하느냐? 전세계적으로 볼 때 영계에 가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현재 이 세계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계를 생각했습니까? 지금 이 세상만 생각하는 것은 꽁지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관념이 타락함으로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정은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구요. 어디가 플러스냐 하면 영계가 플러스입니다. 마음이 플러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세계를 대표하고 마음은 영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플러스와 같고 몸은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적 마음을 몰라보는, 마음세계를 몰라보는 생활을 했다가는 지옥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마음을 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부정했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260-193, 1994.5.8) p.2373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매일 천상세계가 주체가 되어 있다는 관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졌습니다. 그게 아니라구요. 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생활권이 전부 다 주체적 하늘나라를 대해 가지고 오늘날 그 상대적인 지상의 완성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미래에 가 가지고 천상세계의 완성 기반이 형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 관계라구요. 그 직접적 관계가 매일 일년 일생을 통해서 관계지어져야 저 나라에 가서 자기의 제 2 활동무대가 되고, 생거지(生居地)가 되는 것입니다. (260-305, 1994.5.19) p.2373

하나님을 중심삼은 영계가 주체입니다. 지금 영계에 연결돼 있는 모든 급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주체고, 땅의 참부모가 주체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틀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찌그러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2-320, 1998.4.27) p.2374

우리 5 번 가정맹세가 뭔가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통일입니다. 영계와 육계의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구요. 여러분이 코에 대번 걸린다구요. 선생님도 그걸 넘어서기 위해 일생을 피눈물나는 한스러운 고개를 넘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일교회의 배후에 뭐라고 할까? 후막에 잠겨 있는 비밀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구요. 또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알게 되면 짐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점심 한 끼니 얻어먹어도 눈물이 찔찔 나는 것입니다. 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탕감조건에 걸려서 역사적인 한을 전부 다 청산하기 위한 부모님들이 고생한 그걸 중심삼고 회상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고 부모님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희망찬 지상천국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참부모의 대신자로서 의기도 양양하게 천하를 자기의 무대로서, 하늘땅을 내 나라의 무대로서 비약해야 합니다. 도약이 아니라 비약하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달려서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283-242, 1997.4.13) p.2373

통일권 내에 여러분이 개인서부터 가정, 종족까지 8 단계예요. 전부 다 8 단계까지 통일적 내용을 거쳐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하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걸 간과하는 나라가 있고 주체국이 있다 할 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면 이 법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떡할 것이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구속당합니다.

영계 가게 되면 여러분 부부도 전부 다 갈라집니다. 가정의 열 식구가 있으면 다 갈라집니다. 한 곳에 못 갑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걸 다 알고 보면 천상세계의 그림자와 같이 지상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실체가 없어 가지고는 영상도 실체를 따라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되어 가는 것입니다. (284-15,1997.4.15) p.2374

영계와 지상을 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지옥으로부터 전부를 편답하면서, 답사하면서 그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은 역사적인 보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맹세의 5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대상적 지상세계는 열매와 같습니다. 여기와 이 영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입니다. 영계와 지상을 통일할 수 있는 이 사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옥 문, 천국 문이 열려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데 한 시간도 바쁘게 촉진화시켜야 됩니다. 강제라도 때려 몰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4-130, 1998.6.14) p.2374

Top

㉯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통일시켜야

아담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지상세계의 상대적인 모든 주체와 대상의 핵이고, 하나님은 천상세계의 주체와 대상의 핵입니다. 그래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두 핵이 합해져 하나의 통일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의 천국의 핵이 될 수 있는 아담과 천상세계의 가정의 주인 되는 핵이 합하는 것입니다. (269-118, 1995.4.9) p.2375

지금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시켜야 됩니다. 5번이 뭐예요?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입니다. 전진하는 것도 빨리 전진하는데, 더 뭐예요? 촉진화시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배가 고프면 '아이고, 점심 먹고 하면 좋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선생님은 그렇게 안 삽니다. 한 시간을 더 연장하려고 하지, 빨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살이라도 베어 가지고 팔아서 해야 됩니다. (280-38, 1996.10.13) p.2375

타락한 세계를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참사랑은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엮어진 나라는 전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안팎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맹세의 5번과 같이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실체세계가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계가 주체적인 세계입니다. 이 땅은 대상적인 세계입니다.

이제 두 세계가 하나되는데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빨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려 몰라는 것입니다. (295-261, 1998.9.8) p.2375

죽으면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세계도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계에 들어가서 걸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관념이 아니고 실재입니다. 선생님도 그런 세계가 사실과 같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핍박이 많아도 문제없었습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이 관념이라면 이것은 실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영계가 실재하는 것을 어떻게 실감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의 모든 현실과 마찬가지로 영계의 사실을 그보다 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방대한 세계가 영계의 세계인데 거기에는 영국 사람, 미국 사람만 가 있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 사람 가운데 심령상태가 딱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색 인종이 다 한데 모여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독일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나 옛날에 보던 세상 사람의 형태는 알지만 마음 세계를 보기 때문에 마음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세계가 더 아름다운 사람과 하나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되는 것입니다. 몇천 년, 몇만 년 전의 사람이라도 척 만나면 벌써 아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관념이나 꿈같이 알고 사실로 못 느끼잖아요? 말만이 아니고 사실로 느끼고 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면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295-261, 1998.9.8) p.2376

그 세계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영계에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들딸이 전부 보기 싫으면 되겠습니까? 전부 깊은 사랑 가운데서 화해서 사는 사람은 전부 미인미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전부 기도해 가지고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덴에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체 몸을 입고 싶어 창조한 것이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중심삼고 영계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295-261, 1998.9.8) p.2376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맹세 5번을 보면 '우리는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하여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영계를 모르면 완성시대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294-98, 1998.6.14) p.2376

영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가정맹세 5번이 뭐예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하는 것입니다. 몽둥이로 후려갈기라는 것입니다. 갈 길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말은 선생님의 생활적인 한 이면을 표시한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타락한 모든 전부를, 개인에서부터 천주까지 해서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거기에 고속도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레일을 깔아야 됩니다. 기차가 다닐 수 있는 레일까지, 비행장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가 비행장 이상이지요? 그 기지가 참가정입니다. 참부모 참가정입니다. 그 출발기지에서 얼마든지 갔다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전체를 여러분이 선생님을 모시고 했다는 것은 저 나라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이 됩니다. (296-279, 1998.11.10) p.2376

그러면 구원섭리는 무엇이냐? 영계가 하늘을 중심삼고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어떻게 달려 있게 만드느냐 하는 운동을 해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를 세워 가지고 문화배경이 다르고 급이 다르지만, 그런 형태로써 복귀섭리를 진행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계의 중심적인 역사를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되기 위해서 체제를 갖추어 나온 기반인 지상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신의 이름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의 체제를 형성해 나왔다 이겁니다. 영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도 그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영계와 육계 둘이 다 맞추어 가지고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언제 하나로 묶어지느냐? 재림시대에 와 가지고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하시는 재림주님은 영계의 모든 체제적 내용을 상속, 인수받아 지상에 와서 그 체제에 일치될 수 있는 환경으로 세상을 몰아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161-220, 1987.2.15) p.2377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것으로서 오늘도 그와 같고, 과거도 그와 같고, 미래도 그럴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며, 그 내용은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방 환경에 접하는 모든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들이 거부하지 않고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지식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은 일방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한계는 그 시대 환경에 의해서 있었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확대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나'라는 개인적 권력을 국가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무엇이 다리가 되고, 국가적 권력을 세계적 권력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다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 역시 다리가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33-128, 1992.8.1) p.2377

영계는 조상이 사는 곳이고, 육계는 후손이 사는 곳인데, 이 둘은 가인 아벨관계입니다. 영계는 천사장 세계고 육계는 아담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해서 통일되면 천상천국, 지상천국이 되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하나 안 되어 가지고는 지상천국이 하나 안 되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는 것이요, 천사장 세계와 아담세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계실 수 있는 기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55-24, 1994.2.27) p.2377

참사랑을 중심삼고 뭐라구요?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적 발전입니다. 나가는 데도 전진적 발전을 해서 촉진화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라도 내가 이 땅 위에서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꺼풀을 완전히 벗지 않으면 비상천해서 해방적인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 부활입니다. 가정이 가는 데는 세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299-46, 1999.2.1) p.2378

하나님을 중심삼고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통일적 팻말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가지고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전체 · 전반 · 전권 · 전능의 기반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본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기에서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절대신앙을 가지고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을 가지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 가지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대신 이 세계에 대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3-153, 1999.8.17) p.2378

여러분의 몸 마음의 초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몸뚱이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 동안의 습관성을 통해서 마음의 명령에 절대 순응할 수 있게 만들지 않고는 천상세계의 길에 직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부선 철로를 통해서 이북과 연결되려면 레일의 폭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과 연결되려면 레일의 폭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상세계에서 살던 폭과 영계에 가는 폭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궤도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영계의 사랑이나 지상의 사랑이 같지 않고는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242-51, 1992.12.27) p.2378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맹세 5번을 보면 '우리는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하여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영계를 모르면 완성시대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성약시대의 말씀과 더불어서 영계의 내용을 교육하려 하는 것입니다. (294-98, 1998.6.14) p.2378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려면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걸 처단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혈족이 남아진 것이 타락의 세계라는 것을 오늘날 종교권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영계의 모든 실상을 소상히 알고, 타락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의 비밀까지 사탄 비밀을 파내어 알아 가지고 이런 것을 밝힌 그 내용이 통일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갈라져서 혼란상의 상충적인 역사를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루는 모든 것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영계의 근본부터 실상에서부터 지상의 근본 인생의 근본까지 전부 다 해소해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04-214, 1999.11.8) p.2379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통일입니다. 영계와 육계의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코에 대번에 걸립니다. 선생님도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일생동안 피눈물나는 한스러운 고개를 넘은 것입니다. (283-242, 1997.4.13) p.2379

우리는 매일 지상천국을 이루어 가지고 대가족을 이루었는데, 그 대가족이 어디를 표준해 가지고 맞추어 사느냐 하면, 천상세계입니다. 천상세계가 보다 큰 대가족입니다. 가인적 대가족이, 매일같이 상대적인 세계의 대가족이 박자를 맞추어 가지고 통일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 전진적 발전이면 그렇게 하나돼 가지고 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시대에서 종족시대, 종족시대에서 민족시대, 이래서 세계화로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 중도에 해산돼 버리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일을 하나, 어디 가나, 앉으나 쉬나 언제나 주체적 영계 앞에 대상으로서 하나되어 그것이 머물지 말고 정지하지 않고 발전 발전됨으로써 가정에서 종족, 민족, 국가에서 세계 고개를 넘어야 할 입장에 서 가지고 비로소 지상천국과 천상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탄이 준동하던 것을 깨끗이 정리해 가지고 본연의 통일적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촉진화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61-90, 1994.5.22) p.2379

Top

②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 매일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하라

전진적인 발전이란 절대 멎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전진해야 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전진적 발전! 이건 동서사방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한 길이 선생님이 약속한 그대로 해 가지고 하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문을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마음이 하나 안 되고 부부가 싸우면 맹세문을 못 합니다. 아들딸을 중심삼고 하나 못 되면 외우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의 맹세문을 가졌다는 것은 천상세계 역사 이래 전부 주시하는 것입니다. 저럴 수 있는 지상의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영계 간 모든 선조들은 전부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축복을 해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비로소 선생님이 환고향을 얘기하고 만민의 해방권을 중심삼고 전부 다 같이 축복해 주기 때문에 부모도 그 케이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질서를 잡습니다. (271-290, 1995.8.28) p.2379

전진하는 데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촉진화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전진적으로 발전하는 데도 몽둥이로 후려갈겨 촉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정맹세 5번이 무엇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지상 무사통과, 천상 무사통과! 지상, 천상 지옥문 관계없고, 천국문만 들어가기 위한 행렬이 시작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라구요.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는 후려갈기라는 것입니다. 아우가 많은 형이라면 동생들을 후려갈겨서라도 축복받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들이 축복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94-105, 1998.6.14) p.2380

오늘날 통일교회 교인들은 매일같이 영계를 중심삼고 보조 맞추기를 몇 달 동안에 한 번 정도 생각하지요? 그러니 제멋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대가족을 이루었더라도 또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진적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하는 것입니다. 박자를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거기에는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천상천국 통일완성이 안 되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있다는 말입니다. 촉진화해서 거기에 맞게끔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261-90, 1994.5.22) p.2380

가정맹세 5번은 뭐예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사는데, 지상천국을 이루어 가지고 대가족을 이루었는데 그 대가족이 어디를 표준해 가지고 맞추어 사느냐 하면, 천상세계입니다. 천상세계가 보다 큰 대가족입니다. 가인적 대가족이 매일같이 상대적인 세계의 대가족이 박자를 맞추어 가지고 통일을 형성해야 됩니다. '통일을 향해'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할 것', 전진적 발전이면 그렇게 하나돼 가지고 가만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시대에서 종족시대, 종족시대에서 민족시대, 이래서 세계화로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진적'이라고 했습니다. 정지하는 날에는 미끄러집니다. 정지하는 날에는 지옥과 연결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전진해야 번영과 천국에 연결됩니다. 그 말입니다. 전진적 발전입니다. '발전'을 촉진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발전하도록 재촉시켜라 그겁니다. 전진을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겁니다. (261-90, 1994.5.22) p.2380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해야 됩니다. 통일을 향해 하나되어서 나가는데 또 전진적은 뭐냐? 통일해 가지고 가만히 노는 게 아닙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세계가, 영계가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해 가지고 정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라 이겁니다.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283-82, 1997.4.8) p.2380

5번 가정맹세가 뭐예요? '우리는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하라 이겁니다. 전진적입니다. 언제나 나가야 됩니다.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발전하는 데도 촉진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땅 위에 있어서 주체적 그 세상의 상대적 세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하늘나라의 판도와 같이 자기 사는 환경이 판도가 작지만 하늘나라의 모형적 기준을 갖출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놓아야 저 나라에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다 문 총재가 적당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와 지상세계의 모든 걸 총합해 가지고 하늘이 원하는 길이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정맹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274-114, 1995.10.29) p.2381

자라야 됩니다. 죽어 있는 것, 정지는 사망과 통합니다.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들어올 때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다. 지금 그 이상 기뻐해요? 내 기쁨을 넘어 세계의 기쁨으로 화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닙니다.

세계의 기쁨으로 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늘로 시작해 가지고 자기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으로 막혀 버렸다 이겁니다. (273-69, 1995.10.21) p.2381

가정맹세의 다섯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입니다. 전진적 발전입니다.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아 있는 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올 때 기뻐하던 그 마음이 점점 더 커 가요, 없어져요? 커 가는 것입니다.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은 죽습니다. 영계와의 상대적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시키라는 것입니다. (273-69, 1995.10.21) p.2381

촉진, 서두르는 것입니다. 잠만 자고 나태해 가지고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은 역사에 없습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일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라 이겁니다.

선생님 같이 말입니다. 자지도 않고 달려라 이겁니다. (260-193, 1994.5.8) p.2381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매일같이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지하면 사망이 벌어져요. 사망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 한 발자국이라도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상세계에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지상세계에서 촌푼도 틀리지 않게끔 전진적 발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260-305, 1994.5.19) p.2382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한다고 했습니다. 통일을 향해서 전진하면 되는데,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냅다 몰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려갈기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꾸물거려서 보조를 못 맞추거든 냅다 몰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01-83, 1999.4.16) p.2382

우리 가정맹세 5번에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이 있지요? 하나를 만들어서 전진하는 건 좋은데, 그 촉진화는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한단 말입니다. 강제입니다. 강제로 끌어다가 송아지처럼 세워 가지고 축복해 주면 축복받은 그 사람이 영계에 들어가 가지고 지옥 안 갑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제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293-318, 1998.3.18) p.2382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 주체세계와 대상세계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 전진해 나가는 발전입니다.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촉진화, 빨리 빨리 빨리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정지하면 벌써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과 통하고 사망과 통하는 것입니다. 정지는 내려가서 지옥과 통하고 촉진은 발전과 통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라 달려라 이겁니다.

선생님같이 자지도 않고 달려라 달려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생각하던 그 세계에 내가 관계를 맺거나 생각지 않은 세계에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래야 통일이 됩니다.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60-193, 1994.5.8) p.2382

Top

㉰ 참사랑의 하이웨이로 닦자

지금까지의 영계나 땅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대신 일족의 가정들을 그와 같이 청산한 후에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권의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권을 체휼하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죽음 자리에 나가면서도 이루지 못한 가정의 한을 풀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풀어 줘야 됩니다. 그 위에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기독교처럼 믿는 그런 습관적인 통일교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통일교회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중심삼고 여러분의 세속적인 가정 관념을 격파해야 됩니다. 영계와 지상세계에 있어서 그런 관념을 전부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한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292-320, 1998.4.27) p.2382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혀진 땅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 구원섭리를 해 나오고 계십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입장에 있는 인간들, 만물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지없이 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대하시기 위하여 구원섭리를 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참소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위하여, 다리를 놓아서 역사해 나오신 것이 구약시대를 거치고 신약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82, 1956.12.16) p.2383

가정맹세 5번은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다 같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늘땅에 전부 다 주체적 하늘나라의 대상적 입장으로 하나되어야 됩니다. 하나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지상에 지상지옥이, 사탄권이 남아 있으니 이것을 빨리 촉진화시켜야 됩니다. 하루가 바쁩니다. 거기에 2 대, 3 대가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점점 번식해 나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2000 년까지 딱 잘라 가지고 총진군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그런 발전을 촉구하니 급진적인 멸망의 형태가 세상에 벌어져서 전부 분립되어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걸 여러분이 죽기 전에 눈으로 잘 볼 것입니다. 복귀의 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가정들이 해야 할 사명을, 불가분의 내용을 중심삼고 맹세문으로 설정한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264－202, 1994.10.9) p.2383

축복받은 가정들이 선생님이 오기를 다 바라지요? 여러분의 집에 오기를 바래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10 년 동안 기다리는 잔칫상을 다 팔아 가지고 비축했다가 오자마자 몇 시간 이내에 잔치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집에는 선생님이 어디 가다가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못 가게 되면 차가 가다가도 그 앞에서 고장나서 그 집에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 안 들이면 어림도 없습니다.

영계를 모르면 선생님이 영계를 몰랐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영계의 아버지가 선생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비밀을 누구보다 아는 것입니다. 피난통에도 배가 고파할 때는 조상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지나가는 손님을 위해 잔칫상을 준비하게 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거짓말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아담과 해와 결혼시키기 전에는 전부 다 없습니다. 타락 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소유하고 있으면 도적놈입니다. 나라든 누구든 전부 다 도적놈입니다. 아담가정에서 결혼하기 전의 그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소유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추방한 것입니다. 쫓아낸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권, 사랑의 소유권, 가정의 소유권을 파괴시켰습니다. 이 원한을 아는 하나님 앞에, 이 원한을 아는 참부모 앞에 이것을 탕감하려면 세계 만민이 참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까지도 제물 삼아 달라고, 자기가 가진 모든 보물,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겠노라고 해서 이것을 부모의 것으로 하나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99－46, 1999.2.1) p.2384

메시아는 어떤 자리에 오느냐? 메시아는 사랑을 중심삼고, 지상의 법도 사랑할 줄 알고 하늘나라의 왕궁법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상에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합덕되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무엇으로 하나 만드느냐? 천상세계에 플러스되고 지상세계에 플러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입니다. (207－250, 1990.11.11) p.2384

성자(聖子)는 뭐냐? 성자는 하늘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자는 영계와 육계를 중심삼고, 하나님을 중심삼은 천상과 지상 왕권을 중심삼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천상의 왕궁법도 알고 지상의 나라법도 알아서 하늘땅 두 세계의 모든 법을 지키며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할 성(聖)' 자, '아들 자(子)' 자입니다. '놈 자(者)' 자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사상입니다. (207-250, 1990.11.11) p.2384

참부모님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와의 막힌 길을 다 열어 가지고 하이웨이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웨이를 지옥에서부터, 댄버리에서부터, 영계의 지옥에서부터 천상의 자리까지! (134－127, 1985.2.25) p.2384

지상세계에서부터 천상세계까지 갈 수 있는 큰 하이웨이를, 직행로를 닦자는 것입니다. 이 길은 참사랑의 길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 하이웨이를 만들어 종착과 출발이 지상과 천상에 같은 높이와 같은 넓이로 길을 닦아 보자 이겁니다. 그 목적 성사는 지상천국을 달성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135－168, 1985.11.12) p.238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명으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모든 징검다리를 치워 가지고 하이웨이를, 철교를 놓는 것입니다. 출발하면 쉬지 않고 런던까지 달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소망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만큼 어려워요? 죽고 못 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중에서 스톱할 수 없습니다. 왜? 천대받은 걸 참을 수 없습니다. 무시당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낮이 오나 밤이 오나 그걸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달리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녀석이 한 녀석도 없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인류 끝에 가 있습니다. 가서 만나 가지고 담판 지을 수 있어서 패권을 쥐어 가지고 오기 전에는 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계를 통일하고 나와 가지고 지상 싸움에서 지상통일을 한 셈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가정출발로 말미암아 다 망쳐 놓은 것을 참부모가 와 가지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전부 다 결혼을 180 도 반대한 마당에서 180 도 돌아서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71－200, 1995.8.28) p.2385

Top

6) 가정맹세 6 절 해설

6 절 :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天運)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

가정맹세 6 번이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가정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참부모님이 뭘 했느냐 해서 대신 가정이 되어 참부모님이 움직이면 천운이 따라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돼 가지고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안 된다 그겁니다. 주변에 자기와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주체적 가정이 될 것을 맹세한다 이겁니다. (267－153, 1995.1.4) p.2385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 가정으로서'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정이 돼 가지고 천주를 움직이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복될 수 있는,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라 그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원리를 전해주고 반대하더라도 같이 살아남고,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않고 그걸 통과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알려줘 가지고 점점 더 확대시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66－151, 1994.12.22) p.2385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가정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 가정과 참부모의 대신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 가정은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나만이 축복 받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왕족이 되어 가지고 전체 사람들을 백성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60－195, 1994.5.8) p.2386

하늘의 대표적 가정이 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갖다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늘땅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을 중심삼고 주변에, 하나님과 박자를 맞췄기 때문에 주변에 천운을 옮겨 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 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 가지고 부모님의 대신 가정과 하늘 심정적 통일권을 이뤄 가지고 심정문화세계가 오늘 전세계의 도상 위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세입니다. (266－103, 1994.12.18) p.238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선생님만 참부모가 아니라 여러분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큰 나무가 되었지만, 세포가 번식하듯이 여러분은 세포같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큰 나무인 선생님을 닮아서 전부 다 종자입니다. 근본을 닮은 것입니다. (259-318, 1994.4.24) p.2386

몸 마음이 하나돼야 합니다. 남자 여자,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타락함으로 몸 마음이 갈라졌고, 아담과 해와가 갈라졌고, 아들딸이 갈라진 게 통일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론적으로 깨끗이 아니까 문제없다 이겁니다. 참부모는 몸 마음 일체, 부부일체, 자녀일체로서 이상 모델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두 이긴 참부모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부 다 배워서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세계적 천국을 만들어야 하지만, 여러분은 가정적 천국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가 되려면 몸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자녀가 하나되어서 아담가정이 잃어버린 이것을, 타락한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평화·행복·자유·통일·천국의 만사형통이다, 오케이다 이겁니다. (259-318, 1994.4.24) p.2386

가정맹세 6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창조이상이 전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심정문화세계, 절대 핏줄을 더럽히지 않은 역사를 자기가 몇 대, 몇천 년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세계에서, 천상세계에서 하늘나라의 공신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292-107, 1998.3.28) p.2386

Top

② 천운(天運)을 움직이는 가정

천운이 찾아오는 길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됩니다. 천운은 영원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운은 영원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영원한 원칙을 따라 변하지 않고 돌고 돈다 이겁니다.
돌고 돌면서 인연을 맞추어 나가면서 흥망성쇠의 길을 엮어 나가는데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걸 맞추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49-151, 1986.11.21) p.2387

천운을 누가 조정하느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 종교적 술어로는 하나님이니 혹은 여러 가지 명사가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중심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존재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중심존재가 가는 길을 확실히 따라가게 될 때는 만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209-176, 1990.11.29) p.2387

천리의 운세가 돌아다니는데, 그 천리의 운세가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궤도가 있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운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위해서 사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233-81, 1992.7.30) p.2387

천운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을 통해서 환경에 따라 치우침을 받아 곁길로 흘러가 버리기도 하지만 천운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가지고 가는 길에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춘하추동 사계절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를 움직이는 천운의 도의도 불변의 궤도를 타고 인간 개인과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대하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4-57, 1990.7.1) p.2387

개인에게 운이 있듯이 가정에나 국가에도 가운과 국운이 있으며, 나아가 세계의 운, 그리고 하늘땅 전체에는 천운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을 잘 타고난 사람도 그의 가정이 기울 때는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 개인 운과 가정 운이 좋은 사람도 더 큰 국운이 기울면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위해 있는 천운의 방향과 진행에 따라서 국운이나 세계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도를 세운다는 것은 곧 개인이나 국가의 가는 길을 천운에 맞도록 하는 일입니다. (234-258, 1992.8.26) p.238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천운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하려면 반드시 내가 높은 자리에 가든가, 낮은 자리에 가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자연히 공급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와 물도 메워 주고 천운도 들어가게 되니까, 이 구덩이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237－114, 1992.11.13) p.2387

문 총재의 말 한마디면 세계가 그냥 그대로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가는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때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뭐 예언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운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모든 미래의 것, 천 년 후에 될 것도 '이렇게 될 것이다!'하는 것을 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3－161, 1992.8.1) p.2388

선생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천운의 바람이 불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저기압이 되어 있으면 고기압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최대의 저기압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의 고기압의 사랑권이 몰아치기 때문에 태풍이 붑니다. 이런 말을 믿지 않았지요? 이 천운의 바람을 잡아넣어야 합니다. (234－160, 1992.8.10) p.2388

선생님을 보고 도깨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일을 알고, 천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디로 가고, 아시아의 운이 어디로 가고, 세계의 운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얽어매 가지고 달아 놓으면 전부 다 끌려갑니다. 달리는 천리마의 궁둥이에 붙어 있는 파리는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천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천운에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만사가 오케이다 이겁니다. (233－66, 1992.7.30) p.2388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운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세계를 넘어서라 이겁니다. 천운을 갖고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운을 갖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 땅 위에 천운을 활용할 수 있는 주인이다'하는 이름을 받고, 어인(御印)을 받아 와야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세주,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하나를 놓고 전세계에서 쳐 왔지만, 정작 선한 사람은 안 칩니다. (233－66, 1992.7.30) p.2388

천운을 타려면 먼저 천운이 가는 길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곳은 만민이 좋아하는 곳, 즐기고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전부가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일이든 항상 감사하고 책임을 수행하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자기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이 천운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승리해야 합니다. (19－145, 1968.1.1) p.2388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천상천하를 대신하여, 역사를 대신하여 위하는 사랑을 가지고 만국의 사랑, 만민의 사랑의 권한,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 전체의 권한을 대신해서 자기는 그림자가 되고 이들은 태양이 되고 햇빛이 되라고 할 수 있는 모심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직접 햇빛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옮겨 갈 수 있는 힘이, 만복을 옮겨 올 수 있는, 천운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참된 사랑의 길 앞에는 동반하는 것입니다. (179－318, 1988.8.14) p.2388

이제 천운이 한국 땅에 발동할 수 있는 때가 됐으니, 여러분은 이 민족을 위해서 재창조를 하는 데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주체는 재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상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세계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나 이러한 사명이 천도라는 명제 하에, 24 시간,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작용하고 있으니,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의 봄을 맞이하여 세계를 품고 노래하며 갈 수 있는 인생행로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137－79, 1985.12.18) p.2389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기만 잘살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축복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그러니까 천운이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같이하는 것입니다.-천도를 움직이는,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한다 이겁니다. 그 말은 어디 가든지 우리 축복가정은 전체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중심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지 않았습니까? (260-156, 1994.5.2) p.2389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운을 움직이는 것'이 6번이지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됩니다. 참부모님이 수난한 모든 전부가 자기가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자기가 해방시키고 천운을 갈라 주고, 천륜을 옮겨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부모를 따라오는 천운을 그냥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복의 기관이 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촉진화되고 하나돼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지상에 와 가지고 자기 나름의 복만 받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공을 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이 흡족하고 큰 천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넘겨주고 가야 됩니다. (261-91, 1994.5.22) p.2389

Top

③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

가정맹세 6번이 뭐예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이 누구예요? 가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천국 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가 곡괭이를 들고 '이놈의 자식아! 너만 천국 올라가려고 그래? 뜻이 그랬어? 내가 통일교회가 싫다고 하면 매를 때리면서라도 죽을 때까지 충고해야 할 텐데 왜 안 했어?' 이런 일이 언젠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83-82, 1997.4.8) p.2389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복의 기관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것은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불리움을 받았으면 전세계의 전체 형제들의 가정을 나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운을 이어서 나와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구요. 가정에 있어서 가화만사성을 이루고 모든 가정들을 화합하게 해 가지고 통일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260-305, 1994.5.19) p.2390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대신가정, 참부모님이 뭘 했냐 해서 대신가정이 되어,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부모님이 움직이면 천운이 따라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돼 가지고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안 된다 그겁니다. 주변에 자기와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주체적 가정이 될 것을 맹세한다 이겁니다. (267-153, 1995.1.4) p.2390

6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창조이상이 전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심정문화세계, 절대 핏줄을 더럽히지 않은 역사를 자기가 몇 대, 몇천 년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세계에서, 천상세계에서 하늘나라의 공신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292-107, 1998.3.28) p.2390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기들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잘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딸을 더 잘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방에 전부 다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0-35, 1996.10.13) p.239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여러분이 이제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옮겨주는 놀음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계 선조들이 여러분 자신을 전부 탕감시키는 것입니다.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자꾸 막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행동 안 하는 거야, 이 자식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영계 가서 걸립니다. 중요한 하나의 계약문서입니다, 계약문서. 맹세문입니다. (266-151, 1994.12.22) p.2390

가정맹세 6 번은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복의 기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의 하나된 모든 것을 갖추어 그 자리를 중심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샘터가 되라 그 말입니다. (264-202, 1994.10.9) p.2391

콩나물은 매일 물을 주면 물은 흘러가지만 자랍니다. 여러분의 신세는 그저, 뭐라 할까요,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형편없지만 통일교회가 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일신의 신세는 비참하였지만, 댄버리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지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장된다고 생각하고 간 선생님의 길은 일약 댄버리 이후에 비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은 보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같이하사. 천도의 길이 연결돼 들어오니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되겠으니 우주가 협조해서 승리로 전진하기 마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47-197, 1986.9.21) p.2391

가정에 있어서의 효자는 뭐냐? 사랑을 중심삼은 효자입니다. 나라에서 충신이 뭐냐? 사랑을 중심삼은 충신입니다. 세계에서 성인의 가르침을 중심삼고, 4 대 성인을 중심삼고 문화권을 수습하고 세계적인 새로운 배경을 형성한 것도 사랑을 중심삼고 민족을 넘어서 세계인을 사랑하겠다는 패들이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최후에 천운에 기착하는 데 기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늘도 사랑하고 땅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늘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챔피언이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찾았습니다. (199-215, 1990.2.17) p.2391

Top

7) 가정맹세 7 절 해설

7 절 :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p.2391

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가정

가정맹세 7 번이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본연의 혈통과'입니다. 본연의 혈통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타락과 전연 인연 없는 본연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우리 세계는 심정문화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단 하난의 사랑을 중심삼은 통일 가족, 한 가족입니다. 높고 낮은 것 없이 오색 인종이 하나의 가족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옵니다. (261-93, 1994.5.22) p.2391

하나님을 중심삼은 본연의 혈통입니다. 그 본연의 혈통을 이어받으면 본연의 심정 문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본연의 혈통을 잃어버린 데는 심정문화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성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사회를 중심삼고, 국가와 세계를 중심삼고 이것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순결한 혈통을 남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들과의 심정문화세계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심정 문화세계가 안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되면, 저 방대한 천국이 내가 살 수 있는 심정적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 세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문화권을 중심삼은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60-305, 1994.5.19) p.2392

'본연의 혈통'이 뭐예요?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아 가지고 순결된 참부모의 직계 자녀의 핏줄을 천년만년 남겨야 됩니다. 이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절개를 지키고 정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인 가운데서 모든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특권입니다. 누가 손 못 댑니다. 근본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291-181, 1998.3.11) p.2392

본연의 혈통은 타락한 혈통이 아닙니다. 사탄 혈통을 근절한, 타락한 것을 탕감복귀한 혈통입니다. 접붙인 것입니다. 뿌리를 빼 가지고 접붙였으면 내 아들딸, 3 대 이후에는 본연의 혈통의 씨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접붙인 나무에서 씨를 받은 것이 본연의 참감람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 대를 지나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돌감람나무지요?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3 대를 지내 가지고 거기에서 거둔 씨를 심게 될 때 참감람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 시대를 지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301-85, 1999.4.16) p.2392

통일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본연의 혈통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후손이 아담과 해와 타락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혈통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 형성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260-196, 1994.5.8) p.2392

해와가 저지른 단 한번의 실수로 본연의 혈통을 파괴시킨 것을 억천만세에 탕감조건을 세워 가지고 찾았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남녀관계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290-312, 1998.3.4) p.2392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 번이 그겁니다. 본연의 혈통, 본연의 혈통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혈통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핏줄, 수천 대 깨끗한 핏줄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남녀가 한 순간에 저지른 타락이 이런 역사적인 세계사를, 원치 않는 세계를 영계와 육계에 벌여 놨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292-320, 1998.4.27) p.2392

본연의 혈통이 뭐냐? 타락한 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혈통과 연결된 부부지요? 아무리 자랑하더라도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연의 혈통에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위하는 생활을 통해서 심정문화세계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못 했습니다. 본연의 혈통권을 중심삼고 지상에 창조이상의 근본인 위하여 사는 방책을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정세계는 영원한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천국 쪽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본연의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97-312, 1998.12.22) p.2393

참사랑을 중심삼고 본연의 혈통과 핏줄입니다, 핏줄! 천년만년 이 후손이 더럽힘을 보지 않겠다고 정성 들여야 할 제 1 대조가 되어야 할 것이 통일교회의 축복가정들입니다. 그 앞에 있어서 다시는 타락한 것을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몇백 배의 세계적 도상에서 타락한 대표적인 가정이 되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시대로 넘어 갑니다.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못 해요. 지금은 결론말을 못 합니다. 타락한 축복가정에서 낳은 아들딸을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죄 중의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거꾸로 꽂아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녀관계의 사랑에 있어서 곁가지를 통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1-93, 1994.5.22) p.2393

Top

②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가정맹세 7 번에서 '우리는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다음에 부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를 넣어야 됩니다. 위하는 건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개인, 가정·전체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297-209, 1998.11.20) p.2393

'참사랑을 중심삼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하는 생활을 통해서 '심정문화세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정문화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문화세계요, 근본적인 문화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랑이 있다면 참사랑이 관계돼 있지 않는 것이 없는 문화세계예요. (304-273, 1999.11.9) p.2393

우리들 가운데 남에게 주관(主管)받는 것은 죽어도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제까지의 인간들이 위해서 존재하는 그 앞에 주관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영계의 조직을 보면 천지의 대주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유의 존재 가운데 위해 존재하는 중심존재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지배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천년만년 지배받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상적 통일권이 여기에 성립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해 존재하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5-322, 1975.1.16) p.2394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라. 이것이 천주 생성, 형성의 근본입니다. 하나님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천주의 모든 것을 가운데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체적, 생성의 근원, 에키스적, 핵심적인 자리에 선 그 사람은 천주, 하나님까지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영계도 선생님을 중심삼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5-176, 1994.3.10) p.2394

사랑은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대상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살라!'고 하는 천리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고귀한 것이 나에게로 찾아오는데, 그것을 받으려니 높이고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하는 철학'을 이루어야 사랑받는 것입니다. (143-277, 86.3.14) p.2394

참사랑을 중심삼고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밤이든 낮이든 천주 만주 어디에 가든지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영계의 전시장에 전시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박람회를 하는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에서는 지상에서 어떤 생애를 산 사람인지 금방 전시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꼴찌가 되고 싶습니까, 모두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최고로 찬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라구요. 최고로 찬양을 받으려 하기 전에 최고로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중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255-179, 1994.3.10) p.2394

영원이라는 개념, 이것은 자기를 위한 데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밀어 주고 끌어 주는 상대적 방향이 크면 클수록 빨리 도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되는 하나님이 위해서 존재하는 법도를 세운 것은 영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5-322, 1975.1.16) p.2394

위해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위해 사는 사람은 영계에서 자꾸 코치해 줍니다. 자꾸 새 것과 관계 맺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새 것과 관계 맺으니까 그 사람은 자연히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집니다. (292-26, 1998.3.27) p.239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될 수 있고 평화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참된 인간은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원칙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위하는 데서부터, 참된 이상도 위하는 데서부터, 참된 평화, 참된 행복도 위하는 자리에서 성립되지, 위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몰랐습니다. (75-320, 1975.1.16) p.2395

흔히 세상에서 말하기를, '아!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인생관(人生觀), 세계관(世界觀)의 확립, 그 다음엔 우주관(宇宙觀)의 확립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계통적 단계와 질서를 어디에다 둘 것이며, 그 차원적 계열(次元的系列)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해 존재한다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보게 될 때에 가장 가치있는 인생관은 내가 전인류를 위해 있고, 전세계를 위해 있고, 국가를 위해 있고, 사회를 위해 있고, 가정을 위해 있고, 아내를 위해 있고, 자녀를 위해 있다는 입장에서 행복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이상의 인생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75-324, 1975.1.16) p.2395

통일교회에 오게 되면 땅 위에서 잘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지리 못살고, 지지리 고생하다가 죽어 길가에 쓰러져 개도 안 물어갈 주검을 남겼더라도 그 자리에는 꽃이 필 날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성을 만들 것입니다. 통일교회 무리들을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시켜서 효자, 충신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안 가겠다면 후려갈겨야 되겠습니다. 발길로 차서라도 현재의 비참함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49-303, 1971.10.17) p.2395

Top

③ 심정문화세계를 완성

심정문화세계는 본연적 하나님의 문화세계요,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문화세계입니다. 문화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하나요, 풍습도 하나요, 습관도 하나요, 전통도 하나밖에 없는 이런 통일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이 개인에서 같이 살고, 가정에 같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1-93, 1994.5.22) p.2395

심정문화세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세계나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참부모의 마음세계나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정문화세계 형성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문화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타락한 세계는 뭐라 할까 문화가 복잡다단합니다. 심정문화세계가 아니고는 개인에서부터 천주까지 연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그재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했기 때문에 몇천 년 걸려 가지고도 아직까지 종착점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심정문화세계에서는 순식간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참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60-196, 1994.5.8) p.2395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 형성을 완성한다.'입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본연의 혈통입니다. 혈통이 중요합니다. 혈통이 변해서는 안 되고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정문화세계 형성을 완성한다 이겁니다. 심정문화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참사랑으로 위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심정문화세계 하게 되면 전체를 대표한 '한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정권, 종족을 말합니다. (260-156, 1994.5.2) p.2396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 타락하지 않은 순결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은 혈통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사탄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문화권을 형성해야 됩니다. 심정문화세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심정문화세계의 그 내용도 하나요, 방향도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266-153, 1994.12.22) p.2396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본연의 혈통을 잃어버린 데는 심정 문화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성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사회를 중심삼고, 국가와 세계를 중심삼고 이것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순결한 혈통을 남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들과의 심정문화 세계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심정 문화세계가 안 되면, 저 방대한 천국이 내가 살 수 있는 심정적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 세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 문화권을 중심삼은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60-305, 1994.5.19) p.2396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하나님의 혈통이 있습니다. 심정문화세계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심정문화세계에서는 모든 전부가 확대해서 화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세포들도 박자를 맞춰 가기 때문에 같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라구요.

하나님의 참사랑에 있어서, 위해서 존재하는 원칙에 있어서 일원화 돼 가지고 보다 위할 수 있는,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자기를 위하라는 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심정문화세계는 본연적 하나님의 문화세계요,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문화세계입니다. 문화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하나요, 풍습도 하나요, 습관도 하나요, 전통도 하나밖에 없는 이런 통일의 세계가 될지어다. 거기에서만이 하나님이 개인에서 같이 살고, 가정에 같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61-93, 1994.5.22) p.2396

앞으로 이상적인 세계에 있어서 주류, 혹은 그 기틀이 될 수 있는 문화의 원천은 뭐냐? 원료가 되는 문화로서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문화는 뭐냐? 심정문화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 봐도 안 되고 자식에겐 부모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내 민족이 없어서는 안 되고 내 나라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내 세계가 없으면 안 되고 내 하늘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심정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 밝아 오는 찬란한 문화라는 것은 무슨 문화냐? 심정의 문화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심정적인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151-29, 1962.10.7) p.2397

참부모와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삼은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하게 되면 가정을 중심삼은 문화입니다. 참사랑 문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사는 그 생활은 참부모의 문화권에서 살아야, 하나의 문화권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를 중심삼고,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글을 중심삼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다 불태울 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문화 전체를 앞으로 불살라 버리는 이런 때,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적 전환시대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와 하루 생활권 내에 생활하면서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와 글을 쓰지 않고 있다면 영계에서 그 이상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266-91, 1994.12.18) p.2397

통일된 말을 쓰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문화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곤란합니다. 영계에 가도 그렇습니다. 습관성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습관된 것보다도 더 새로운 것을 습관화시키면 땅에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계에 가 가지고 문제됩니다. 영계에 가 가지고 걸려 버립니다. (289-208, 1998.1.2) p.2397

도래하는 미래세계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심정문화, 참가정에 의한 사랑 문화의 세계입니다. 참사랑에 의하여 서로 위하면서 화합, 협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생·공영·공의의 세계입니다. 미래 역사는 '인류 한 형제 자매'를 염원하는 인종을 초월한 참사랑에 의한 참가정, 참부모 중심의 참가족 이상으로 '세계 한 가정'의 꿈을 실현하는 역사라야 합니다. (288-172, 1997.11.27) p.2397

참사랑을 중심삼고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동물과 말하고 모든 만물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문화입니다. 사랑 문화는 취미 문화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이 사랑입니다.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딸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사랑하고 하는 것을 세계 판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가정을 확대한 문화축전의 대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심정문화세계가 지상천국 문화라는 것입니다. 취미 문화입니다. 취미 문화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사랑의 문화입니다. 취미 문화는 지상천국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276-209, 1996.2.24) p.2398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문화세계는 심정세계입니다. 참사랑이 표면화된 세계입니다. 이래서 심정을 표면화시켜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심정문화세계, 단일문화세계, 통일문화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하나의 세계, 지상천국과 천상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심정문화세계가 되면 끝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마음대로 우리 가정들이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황족권에 들어갈 수 있는 안팎의 내용을 정비하고, 거기에 전부 다 일체화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런 맹세문을 설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264-202, 1994.10.9) p.2398

Top

8) 가정맹세 8절 해설

8절 :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애 일체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 성약시대란 무엇인가

성약시대라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하나의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통일된 세계가 되는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대표한 것입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세계를 넘고 전체를 넘어서 성약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중심삼은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세계 판도를 넘어 가지고 성약시대의 형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하나의 세계, 평화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243-262, 1993.1.17) p.2398

성약시대는 뭐냐? 참부모와 참하나님을 모시고 참하나님이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인연을 중심삼고 만국의 주체를 대신하고 만천하의 중심적 자리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전권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인간 패권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에 찬 시대가 옵니다. 빨리, 늦기 전에 이 일을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245-160, 1993.2.28) p.2398

하나님의 복귀섭리가 창세 이후에 몇 천만 년의 역사를 거쳐왔는데 아직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비로소 통일교회시대에 선생님이 와 가지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약시대를 발표하고 참부모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기보다 새로운 세계를 창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사상과 성약시대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약시대는 무슨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창조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복귀섭리시대가 아니고 구원섭리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이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라는 이름은 인간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참부모의 현현이라는 것은 창조이상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의 근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 대변혁, 대변화시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248-188, 1993.9.30) p.2399

구약시대 물건, 신약시대 아들딸, 성약시대 자기 부부,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타락으로 하나님을 지상에 모셔 놓지 못하고 사탄을 모셔 놓고 하나님과 이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 놓고 전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건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물건은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들딸은 신약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물건을 희생시켜 아들딸을 갈 길을 닦기 위한 것이요, 아들딸이 희생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올 길을 닦기 위한 것입니다. 오시는 재림주,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을 땅에 모셨으니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것은 참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211-352, 1991.1.1) p.2399

지금까지 섭리적인 성경의 역사, 6천년의 역사를 거쳐 나온 것도 이 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시대에 성약시대로 연결시켜서 지상과 천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2천년을 연장해서 신약시대를 맞아 로마 400년간의 핍박으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세계확장운동을 해 나온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확장운동으로 많은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피를 흘려 가지고 탕감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연장시켜 세계적 기준에서의 재탕감하기를 바라시고 구원의 섭리를 세계적으로 확대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를 중심삼고 넘어 가지고 성약시대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성약시대란 하나님과 인간의 일체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일체권을 이루어 평등한 가치의 내용을 더불어 연결하는 입장이 되는 거라구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종적만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해서 횡적만이 아닌 것입니다. 종과 횡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252-154, 1993.12.29) p.2399

타락해서 거짓부모가 생겼으니 참부모가 나와야 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을 공인하는 한 이것을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타락되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약(舊約), 옛날의 약속, 신약(新約),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약시대(成約時代)입니다. 논리적인 기준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성약시대는 무슨 시대냐? 사탄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타락권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모든 나라와 세계가 돌아올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내용을 확실히 앎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에 위배되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세계를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갈 길, 가정이 갈 길, 종족이 갈 길, 민족이 갈 길, 국가가 갈 길, 세계가 갈 길, 하늘나라가 갈 길까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처방해서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49-159, 1993.10.10) p.2400

지금 특별히 '시의(侍義)'라고 하는 것은 생활화 천국시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복귀역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권 내의 지배를 받는 환경에서 새로운 창조이상, 새로운 창조세계와 같은 것으로 재현해 놓자 하는 것이 구원섭리다 이겁니다. (161-218, 1987.2.15) p.2400

인류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이렇게 3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물을 희생삼아 자녀를 구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부모를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시대를 맞이하여 신랑 신부를 세워 부모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성약시대에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참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40여 년 간 고생해 온 것은 하나님을 지상에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인일체(神人一體)가 되는 것입니다. (227-94, 1992.2.10) p.2400

참부모와 성약시대라는 것은,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고 타락이 없는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여성은 어머니 분신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한 사람이고 해와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완성한 아담 한 사람, 해와도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구요. (266-64, 1994.12.11) p.2400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성약시대는 어떤 것을 말해요? 성약시대, 약속이 완성된다는 말, 인류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 못한 것은 구약이요, 결혼하기를 바랬던 것이 신약이요, 결혼하는 것이 성약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아담, 해와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생명력을 아담, 해와의 생명에 연결시켜서 핏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 아니에요? 그랬으면 참부모가 됐습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위대합니다. (291-178, 1998.3.11) p.2400

참부모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전무후무한 참부모가 현현한 시대가 성약시대라는 것입니다. (248-226, 1993.10.1) p.2401

Top

㉰ 참부모님의 승리로 성약시대 선포

1992 년을 중심삼고 세계에 다 메시아 선포를 하고, 참부모 선포를 다해 나온 것입니다. 이래서 전부 다 몰아 가지고 이번 미국을 중심삼고 1993 년에 들어와서 5 월 13 일부터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미국은 전세계를 대표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서 최종 정착지가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부모를 중심삼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약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포한 것이 지상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때를 얼마나 고대하셨겠느냐 이겁니다. 역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제 소망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선포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이요, 우주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48-175, 1993.8.3) p.2401

1972 년부터 1992 년까지 20 년 기간이 한국을 중심하고 기독교의 사명을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약시대와 맞먹는 놀음을 한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60 년도에 결혼식을 해 가지고 세계적 무대인 미국에서 해 나온 것이 전부 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관계와 딱 맞는 것입니다.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참부모가 정착하는 것이 이 기간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약시대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246-301, 1993.4.20) p.2401

성약시대는 뭐냐? 중심적 참부모의 가정이 타락권 세계에 있어서 완전히 승리하고 넘어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경에 문총재의 가정을 때려잡겠다는 원수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싸워서 졌으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격의 챔피언이라도 올림픽광장에 나가서 지면 자기가 일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챔피언 메달을 넘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234-295, 1992.8.27) p.2401

성약시대와 참부모라는 말은 사탄과 하등 관계없는 말입니다. 사탄세계에 성약시대와 참부모라는 말이 있으면 사탄은 물러가야 됩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 때 와서 전부 완성하는 것입니다. (252-130, 1993.11.14) p.2401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담시대, 예수님시대, 참부모시대입니다. 왜 3 대냐? 아담시대는 소생, 예수님시대는 장성, 참부모시대는 완성시대입니다. 이 3 대권을 중심삼고 구약시대의 에덴 복귀, 신약시대의 에덴 복귀, 성약시대의 에덴 복귀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약시대의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229-69, 1992.4.9) p.2402

성약시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통일은 개인에서부터입니다. 이 고개를 넘지 않으면 천년만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장자권을 복귀 못 합니다. 자연굴복시켜야 됩니다. 강제굴복이 아닙니다. 설득굴복입니다. 여러분은 자연굴복입니다, 강제굴복입니다? 설득당했으니까 자연굴복해야지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이래 가지고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가정적 에덴에서 이루었던 것이 세계적 모든 국가가 동일한 자리에서, 몇천 년 거친 그러한 모든 승리의 패권이 일시에 가정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가정을 모델로 해 가지고 금형을 뜰 수 있는 블루 프린트(blueprint)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배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떠내기만 하면 어디에서 만들든 째까닥 째까닥 하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50억 인류의 가정이 가정적으로 접붙여 가지고 해방의, 잃어버렸던 나라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약시대, 약속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245-157, 1993.2.28) p.2402

구약시대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만물을 희생시켰고, 성약시대는 아들을 희생시켰고, 성약시대는 부모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전부를 중심삼고 자기 가정의 부모, 자기 아들딸과 이 모든 전부를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해서 하늘로부터 사탄이 빼앗아 갔던 것을 주인 앞에 되돌리기 위한 모든 전부를, 사랑을 첨부해서 사탄세계 사랑 이상 첨부해 가지고 하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부정하는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삼을 수 있는 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청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축복가정들이 부활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걸리지 않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구약시대, 아담은 신약시대, 자기 실체는 성약시대,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삼고 180도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 앞에 있던 것이 반대로 부모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구요. 사랑을 부활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소생이고, 가정이 장성이고, 종족은 완성입니다. 이 3단계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216-204, 1991.3.31) p.2402

오늘날 역사적 노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선민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와 가지고 세계적 도상에서 소생-장성-완성의 3단계 기반과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소생급, 기독교는 장성급, 통일교는 완성급입니다. 이스라엘권을 중심삼은 것이 구약시대라면 기독교는 신약시대, 통일교는 성약시대라는 것입니다. 성약시대는 뭐냐 하면,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느냐? 개인적으로 이루고, 가정적으로 이루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뭐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단일 혈통, 단일 사랑, 단일 생명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떠나야 됩니다. 접붙이는 놀음을 함으로써 사탄의 혈통적 인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26-275, 1992.2.9) p.2403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하면 성약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들이 탕감노정 없이 종족적 메시아에게 접붙여지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담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황족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의 자리에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이 천국과 직결되고,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 아버지는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부모의 혈통으로 복귀되는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향 땅 전체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대 요건, 혈통전환, 소유권전환, 심정권전환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심정권, 3대 왕권, 황족권을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만 연결시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가정이 해야 할 마지막 임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숙명적인 임무입니다. (243-222, 1993.1.10) p.2403

참부모를 중심한 성약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삼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만민, 인류의 해방을 제시하는 이런 재림 이상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평화통일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한 성약시대를 맞는 것이 세계적으로 펼치는 축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287-14, 1997.8.10) p.2403

성약시대는 완성기준에서 축복하였기 때문에 만민이, 평면적 기준에 서서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50억 인류가, 3대 조상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3대 조상의 해방권과 축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분할적인 입장에서 전부 공동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왜냐하면 부자 관계의 인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시급한 때가 왔습니다. (252-139, 1993.11.14) p.2403

이제는 소유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만물을 희생하고,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희생하고, 성약시대에는 부모를 희생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셨으니,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의 대신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들딸은 신약시대이고 만물은 구약시대입니다.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가 몽땅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인 됐던 것을 전부 다 탕감해 가지고 본연의 주인에게 돌아와서 이것을 바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08-345, 1990.11.21) p.2404

Top

②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 하나님의 창조원칙과 절대신앙, 절대복종

에덴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말하게 될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을 절대신앙과 절대사랑과 절대복종하는 자리에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계명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신앙했고 절대사랑했고 절대복종하는 자리에서 그런 계명을 했으니, 그 상대도 그렇게 돼야만 상대와 하나될 텐데 못 했던 것을 끝날에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 천국 들어가려니까, 부모의 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니까 에덴에서 막혔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부모님의 궁둥이를 붙들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하는 자세를 가지고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절대신앙의 열매, 절대사랑의 열매, 절대복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파트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해와의 가정과 그 아들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힘도 이렇게 선생님의 벨트를 붙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통일의 승리자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282-41, 1997.2.16) p.2404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절대신앙 위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절대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창조는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사랑입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복종! 절대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까지도 존재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274-201, 1995.11.3) p.2404

하나님이 절대신앙 위에서 만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복종이라는 자기의 의식 관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로입니다. 완전히 무(無)라는 것입니다. 무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인 순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주고 없으니까 아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운동의 기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투입한 후에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282-68, 1997.3.10) p.2404

창조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 창조했다 이겁니다. 완전 진공상태가 되니까 절대 유(有)의 지극히 작은 데까지 가 붙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만 된다면, 완전히 채워 버리는 겁니다. 운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의 자리에서 자기가 투입하게 되면 투입한 그 세계는 절대의 유권(有圈), 고기압권이 완전히 점령하는 대혁명적인 운동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원칙을 이용하게 되면, 문총재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 우주를 중심삼고 투입해 나가게 될 때는 세계가 자동적으로 하나돼 가지고 고기압권이 전부 다 채워줄 수 있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싸우지 않고 자동적인 통일세계가 현현한다는 논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273-297, 1995.10.29) p.2405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절대신앙 위에 세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신앙 위에 창조한 이상세계 사랑의 안착지가 그래야 되겠기 때문에 절대신앙 위에, 절대사랑 위에, 절대복종 위에 설 수 있는 아담, 해와 가정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절대신앙 기준을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파탄해 버렸다 이겁니다. 절대사랑 기준을 유린했다 이겁니다. 절대복종 기준을 전부 다 포기해 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가요? 지옥 가야지요.

그래서 해와한테 명령한 것이 사랑입니다. 선악과가 사랑입니다. 그러니 절대신앙 위에서 결탁해 가지고 절대사랑 위에서 절대복종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찾아질 때까지 오늘날 문총재가 나와 가지고 이런 말을 이론적인 기준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너나할것없이 환경을 정비해 갈 수 있는 진리의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억천만금 이상의 부자, 오늘날 만국의 대통령보다 더 가치 있는 부자의 자리에, 왕과 왕후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73-299, 1995.10.29) p.2405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서 이상적인 절대사랑의 통일세계를 바라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상대권을 찾아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 자리에 가더라도,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대신앙 위에서 절대사랑을 찾기 위해서 절대 투입하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역사를 거쳐 나오던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양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선언의 표어로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295-181, 1998.8.28) p.2405

아담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의 상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절대사랑을 표준하고 투입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복종은 자기의 의식구조까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전부를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가치적 내용을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려가면서 투입하니까 상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를 넘게 자동적으로 둘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282-323, 1997.4.7) p.2406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신앙해야 됩니다. 절대신앙, 하나님을 절대사랑하고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상속해 줄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니까 하나님이 절대신앙 위에서, 절대사랑 위에서, 절대복종하는 자리에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 세워 놓은 것이 피조만물의 창조이상입니다.

거기에 중심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아담, 해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서 지은 그 기준이 절대믿음과 절대사랑과 절대복종입니다. 기독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뭐라구요? '사랑입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신앙 위에 만물을 지었고, 절대사랑 위에 지었고, 절대복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상대존재 의식만을 위한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바랄 수 있는 상대적인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284-135, 1997.4.16) p.2406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이 권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상대를 만들게 될 때 절대신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한 다음에 만든 것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투입한 것입니다. 절대사랑 위에서 절대신앙이요, 절대사랑 위에서 절대복종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주류 사상입니다. 영원한 영계의 주류 사상입니다. 또, 지상의 주류이기도 합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두 세계에 있어 주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컨셉(concept;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컨셉만 가지면 어디든지 통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통한다는 것입니다. (292-271, 1998.4.27) p.2406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창조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투입해서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주체적 이상권 내에 상대가 되어 가지고 하나 못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원리 말씀의 모든 내용은 선생님이 절대 믿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구요. 절대사랑하는 것입니다. 딴 무엇이 없습니다. 자기 세계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더라도 그 이상 절대사랑하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것입니다. 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생, 생명도 전부 다 투입하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관념적으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293-92, 1998.5.24) p.2407

인류의 해방과 더불어 하나님이 해방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잃어버린 슬픔을 내가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족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일족을 잃어버렸던 슬픔을 위로하고, 일국을 내가 건국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선생님의 삶이 천주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와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면 직행합니다. 죽어도 돌아가려고 안 합니다. (300-72, 1999.2.21) p.2407

사랑의 조화 주머니에 모든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가 없지 않다는 논리는 우리 통일교회 교인으로서는 천만년 연구해도 선생님 이상 연구 못 했기 때문에 부정할 길이 없다는 결론을 딱 짓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가지고 '나를 절대 믿느냐? 나를 믿습니까?' 하고 묻지요? 색시가 결혼한 첫날밤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할 때 '절대 몸 마음이 하나되어 가지고 사랑합니다. 심신일체가 되어 절대 사랑합니다. 절대 믿습니다' 그러지요? (296-94, 1998.11.3) p.2407

참부모의 사상은 간단한 것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중심삼은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신앙이요, 이것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사랑은 중심입니다. 살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종이라는 것은 실천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는 그 자체의 개념이라는 것은 더 큰 것을 이루려니까 자기를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이것이 자랄 때는 그 이상 전부 다 클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전통이 어디든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딘을 중심삼은 선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창조하던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296-31, 1998.10.11) p.2407

에덴동산의 결과주관권, 직접주관권, 책임분담 직접주관권은 사랑을 중심삼고 축복을 받아야 책임분담 완성이라는 게 원리관이지요? 그 원리관에 서게 될 때는 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닮아서 하나님이 절대신앙 위에서 절대사랑, 절대복종 위에서 이 만물을 창조했으니 인간 아담, 해와도 절대신앙으로 하나 만들고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상대적 위치에 서지 않으면 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점에서, 그 기준에서 일치가 돼 있지 하나가 틀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적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285-72, 1997.4.21) p.2407

타락이 뭐냐 하면 절대신앙을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한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사랑이상을 전부 상속해 주려니 하나님 같아야 된다구요. (282-297, 1997.4.7) p.2408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로 통하는 길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한 외길을 연결할 수 있느냐? 위하는 개념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창조한 것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다른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제로, 제로라는 것입니다. (281-217, 1997.2.13) p.2408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을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상대는 절대신앙 위에 있어야 되고, 절대복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계명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278-128, 1996.5.1) p.2408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돼 가지고 '내가 제일 높지 레버런 문이 뭐야? 통일교회 교주면 교주지 뭐야? 나하고 상관없다.'이러고 있습니다. 레버런 문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말하니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독재 왕이 하는 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독재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독재 왕입니다. 거짓 독재 왕은 사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고 주인 노릇 하지 말라고 하면 주인 노릇 안 하겠어요? 영원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293-297, 1998.6.7) p.2408

Top

㉯ 절대신앙, 절대복종하면 천국으로 직행

제 4 차 아담권을 해방해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영계에 가기 전에 이 일을 전부 다 가르쳐 주고 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절대 가정을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참사랑의 길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신앙을 못 하면 절대사랑이 심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오면 키워야 됩니다. 키우려면 자기의 모든 피살을 투입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295-163, 1998.8.19) p.2408

탕감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라는 원리 말씀 중심삼고 하늘과 땅의 그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헌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면 영원한 천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히 하늘세계를 땅에서 다 보고 느끼고 알고 사는 것입니다. (293-274, 1998.6.2) p.2408

창조할 때 절대신앙 위에서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 통일교회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 부모와 지상 부모를 모시는 자리에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창조 이상적 사랑의 가정을 중심삼고 모든 것이 일체되어 가지고 승리의 패권을 세워서 사랑의 주권 국가의 출발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303-155, 1999.8.17) p.2409

축복가정이 뭐냐 하면, 영계나 육계나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핏줄이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복귀역사를 지금부터 탕감조건 없이 전권을 가지고 밀어 제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실력을 가진 상대적 입장에 서느냐 못서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결심을 가지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으로 하나될 때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전부 수평세계로 금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사랑과 핏줄이 하나된 자리에 서 있는 참된 아들딸만 되면 이 우주의 모든 전부가 아들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300-303, 1999.4.11) p.2409

축복가정은 세계적입니다. 천주적인 것입니다. 선생님을 대행할 수 있는 직계의 아들딸과 같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축복해 줄 때는 나보다 더 잘되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마음만 가지면 선생님이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주체되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실체 사랑의 대상이 생겨난다.'고 한 것입니다. 절대신앙입니다. 절대사랑의 상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대는 사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앞에는 하나님 자신도 절대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순응하는 데서 순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01-74, 1999.4.16) p.2409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그 당시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애일체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신인애 일체권이 되어서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아들딸의 모든 권한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자유분방한 세계가 되어 가지고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301-85, 1999.4.16) p.2409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복종하지 못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참부모가 이 모든 탕감길,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부모에 대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게 되면 하늘땅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밤이나 낮이나 불러 열 번 깨우더라도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백 번을 깨우더라도 불평하면 안 합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자기 소성(素性)은 갖고 따라가는 것이지만 이건 없습니다. 하루에 몇천 번을 하더라도 순응해야 됩니다. (300－238, 1999.3.23) p.2410

하나님을 중심삼고 지상세계와 천상세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통일적 팻말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가지고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전체?전반?전권?전능의 기반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본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절대신앙을 가지고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을 가지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 가지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대신 이 세계에 대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303－153, 1999.8.17) p.2410

여러분 가정은 역사와 하늘땅을 대표한 가정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위에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가정이요, 거기에 하나님을 모신 영원한 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종족이 되고 영원한 민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될 때, 지상천국 시대로부터 천상천국으로 직결되어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295－255, 1998.9.8) p.2410

Top

㉱ 일체의 기준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하나님을 사랑에서 완성시키고 해방시켜야 할 길이 복귀의 길이요 참부모가 세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길을 간 것처럼 여러분도 부모님 앞에 그렇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길을 가야, 선생님이 수평이 되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280－33, 1996.10.13) p.2410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에덴에서 아담, 해와 앞에 부탁한 것이, 계명을 준 것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위에서 만물을 창조했으니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이거라구요. 그러니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라 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284－183, 1997.4.17) p.2410

복귀의 길이 얼마나 험해요? 거기까지 온 것을 유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요, 신랑의 자격을 못 갖는 것이요, 오빠의 자격을 못 갖는 것이요, 형제의 자격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신앙입니다. 절대신앙해야 됩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시간만 있으면 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사상으로 키워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사장 후신인데 결혼할 상대가 있습니까? 아담 몸뚱이를 잘라서 접붙여 줘 가지고 동생 같이 만들어 줘서 맺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사탄은 동생을 때려죽였지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동생을 때려죽이는 것입니까? 몽땅 살려주는 것이 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신앙하고 · 절대사랑하고 · 절대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90－321, 1998.3.4) p.2411

탕감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모든 길에 대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전부 다 이 길을 넘어가야 될 텐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사탄세계의 모든 것을 고속도로로 닦아놓았기 때문에 참부모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할 수 있는 일체적 심정권을 통하면 선생님의 뒤에 접붙임이 되어서 선생님이 개척한 길을 자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이 절대 이상의 이상에서 지었던 그 기준을 중심삼고, 참사랑의 이상을 중심삼고 지었던 그 기준을 상대적인 면에서 선생님의 상대적인 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 환경적 개인을 넘고, 종족 친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가정시대를 지내 가지고 친족시대에 들어왔습니다.
(286－161, 1997.4.16) p.2411

이분은 선한 개인적인 부모 이상의 부모요, 나라 이상의 나라요, 세계 이상의 세계요, 악한 사람들의 부모 이상, 군왕 이상의 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사랑함으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말미암아 사탄세계, 타락한 세계의 모든 흉악한 환경도 승리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이분의 뜻 앞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하나되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짐해야 하는 것이 타락한 세계를 구원, 재창조하는 통일교회의 신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7-80, 1996.3.31) p.2411

거짓사랑으로 몸 마음이 갈라진 것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참사랑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저 위에서나 그 일이 가능하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이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74-199, 1995.11.3) p.2411

절대 선생님하고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 선생님이 믿을 만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290-129, 1998.2.15) p.2411

성약시대에 가정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그래서 심신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가정 정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 천상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해방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과 전부를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292-320, 1998.4.27) p.2411

여러분하고 나하고 갈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들은 민가(民家)고 선생님의 갈 길은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종적인 자리에 가니 종적인 자리가 횡적으로 넘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따라올라 와야지요? 각도가 같아야 됩니다. 각도가 틀어지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이 종적 기준 중심삼고 절대 하나되어야 됩니다.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300-163, 1999.3.3) p.2412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가정적 기준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모든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절대신앙 위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해야 됩니다. 일가(一家)를 포기하고 일국(一國)을 포기하더라도 이 길 앞에 서 가지고 아담, 해와 앞에 계명을 명령했어도 지키지 못했던 조상의 한을 박차 버리고 해방적 승리의 가정으로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문총재가 허락할 수 있는 특사다 그겁니다. 특사, 특권적 특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죽어보십시오. 재까닥 해서 걸립니다.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74-181, 1995.10.29) p.2412

Top

③ 신인애 일체 이상을 이루어

㉮ 신인애 일체 이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참사랑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은 참사랑의 상대자로 인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상은 인간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신인애일체(神人愛一體)의 절대적 사랑이상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고로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입은 대상입니다. 무형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완성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언제나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유형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전체적 이상은 인간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의 종적 관계로 실현 완성됩니다. (277-198, 1996.4.16) p.2412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서 합하느냐 하는 논리를 지금까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걸 몰라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허황입니다, 허황! 상관없는 말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몸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게 되면 남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상이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들어가고,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실체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알 수 없는 이런 이론이 다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해야 그 욕심이 꽉 차 가지고 '이젠 됐다.' 하는 것입니다. (252-119, 1993.11.14) p.2412

인간이 완성하면 신성(神性)을 이루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같이 온전하여 하나님적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지만 참사랑의 이상은 혼자서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 이상은 반드시 상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이 서로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사랑의 절대적인 대상체로 인간을 세우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을 이루려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참사랑 이상은 각각 동기가 다르게 되어, 두 사랑의 방향과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282-209, 1997.3.13) p.2413

하나님은 사랑의 뿌리요, 생명의 뿌리요, 혈통의 뿌리요,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해와 결혼 시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마음에 들어가서 일체적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참부모요,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참부모입니다. 그런 두 부모의 혈육을 받고 태어났으므로 마음은 종적인 내가 되고 몸은 횡적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신인애일체권을 형성하므로, 심신 일체애를 완성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되면,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가 참사랑을 중심한 부부 일체를 완성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는 것이요, 그 가정은 평화와 이상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쪽 되는 남자 여자들은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상대로서 이상애(理想愛)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가치 자로 완성시킴으로써 하나님도 참사랑의 완성을 보아 영원한 이상애가 깃드는 창조이상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254-106, 1994.2.1) p.2413

심신일체를 이루고 부부일체를 이루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기반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정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 통일 일체권입니다. 거기가 통일의 기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하나님 자체도 통일합니다. 신인일체를 분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를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49-144, 1993.10.8) p.2413

창조주와 인간과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완전, 완성을 바라는 하나님은 인간과 일체 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시조에게 주실 계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성장기간을 거쳐 자라 올라가는 미완성 단계에 있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녀인 인간에게 가장 귀한 참사랑을 상속해 주시려는 조건이 계명이었습니다. (282-209, 1997.3.13) p.2413

Top

㉰ 신인일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녀의 완성 기준, 형제의 완성 기준, 부부의 완성 기준, 부모의 완성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세워지느냐? 신인일체권은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이 아들딸로 창조한 인간이 성숙해서 하나되는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 될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을 밝히는 데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249-282, 1993.10.11) p.2414

선생님이 제일 고심한 것이 무엇이냐? 신인애일체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명 안 되면 이론적으로 체제가 정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랑의 근본적 자리가 설정 안 되면 모든 것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249-223, 1993.10.10) p.2414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그게 문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색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커다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에서 결착되느냐? 이것이 결착하지 않으면, 신인애일체의 거점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간도 같이 정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인간도 사랑을 통하여 기뻐하는 그런 장이 틀린 경우에는 큰일난다는 것입니다. (257－58, 1994.3.13) p.2414

신인일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참사랑의 종적인 아버지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워요 멀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가깝기 때문에, 더욱 가까운 경우에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영계에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공기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249－31, 1993.10.7) p.2414

선생님이 근본 문제를 추구할 때 신인일체권은 도대체 어디냐를 쭉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발점과 종결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둥같이 번쩍하는 깨달음이 뭐냐?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직은 하나입니다. 수평에 대해서 90 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직단거리입니다. 90 도라구요. (250－153, 1993.10.14) p.2414

원자세계는 양자 전자를 중심삼고 돕니다. 분자세계는 플러스이온과 마이너스이온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중심을 중심삼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도 운동합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운동해요? 사랑을 중심삼고 운동합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운동을 합니다. 신인일체라는 말이 뭐냐? 합동(合同)이란 말도 씁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일체냐? 부자일체, 부부일체는 무엇을 중심삼고 한 말이에요? 사랑을 중심삼고 한 말입니다. 부자간에 부부간에 한몸이다, 일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해서 신인일체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돈 가지고, 권력가지고, 지식가지고? 그것이 사랑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참사랑, 하나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적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절대적 사랑입니다. 절대적 사랑은 무엇이냐? 영원과 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251－120, 1993.10.17) p.2415

신인일체, 하나님과 사람과의 일체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의 기준과 인간이 원하는 기준이 어긋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바로 정면에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수평으로 일체가 되고, 수직으로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후좌우 90 도에 맞추면, 상현과 하현과 우현과 좌현, 12 군데를 전부 90 도의 각도 어디에다 갖다 맞추어도 꼭 맞는 것입니다. (223－346, 1991.11.20) p.2415

결혼은 왜 하느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횡적으로 좌우, 동쪽과 서쪽을 남자 여자라 하면 그 남자 여자의 참이상이라는 것은 직단거리에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면에 대하여 횡적인 사랑의 직단거리라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90 각도 이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되면, 타원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모두 같지 않습니다. 평등한 위치에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서 서는 것은 90 각도 외에는 없습니다. 신인일체로 하는 사랑의 결집 장소라고 하는 것은 90 각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224-167, 1991.11.24) p.2415

하나님은 당신의 몸으로 아담을 먼저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체(體)를 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담의 상대자로 해와를 지어서 횡적인 사랑, 즉 부부사랑 이상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횡적 사랑이상을 실체로 완성할 신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에 결혼을 하고 첫사랑을 맺는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이 실체의 신부를 맞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부부 사랑이상이 횡적으로 결실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사랑 이상이 종적으로 임재, 동참하시므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이 한 점에서 종횡의 기점을 중심하고 출발하여 한 점에서 결실,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277－198, 1996.4.16) p.2415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 자리가 우리 인류의 횡적인 이상의 사랑을 중심삼고 화합하는 자리요, 90 각도를 맞추는 자리요, 초점을 설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역시 이 전후 · 좌우 · 상하 어디에 갖다 맞추어도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은 이성성상의 주체이시므로, 그 사랑의 초점을 맞춘 아담과 해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 조상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223-267, 1991.11.12) p.2415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이지요? 이 둘이 한 뿌리를 중심삼고 들어가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들딸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결해 가지고, 몸 마음 중심 삼고 영을 중심삼고 뿌리를 맞추어 가지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랑의 아들딸이 지옥 가겠어요? 누가 마음대로 못 해요. 절대적인 몸, 절대적인 마음, 절대적인 영,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여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생명의 기원이요, 사랑의 기원이요, 핏줄의 기원인 생식기를 중심삼고 통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94-343, 1989.10.30) p.2416

아담과 해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 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 분이 한 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남성 격과 같이 돼 있으니 그 남성격에 상대적 입장을 취한 아들딸을 재현시켜 가지고 이들이 커서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가 될 때, 저 위에 있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부모의 자리에 서고 하나는 보이는 부모의 자리에 서 가지고 사랑해서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222-317, 1991.11.6) p.2416

종횡이 어디서 합해야 되느냐? 천지합덕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종적기준 앞에서 벌어집니다. 사랑이 가는 길은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문 총재는 이 한 마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디서 정착하느냐 하는 문제가 참 고심거리였습니다.

우주의 근본을 해명하는 데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아느냐? 수직으로 획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꼼짝 못하고 딱 여기에 서야 됩니다. 거기를 떠나서 종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어디 가서 도느냐 이겁니다. 돌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 천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합덕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14-232, 1991.2.2) p.2416

문 총재가 우주의 근본을 파헤쳐 들어갈 때 제일 고심한 것이 뭐냐?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정착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이 한마디를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에서부터 온다면 하늘이 높고 땅이 낮다 할 때, 참사랑이 하늘로부터 땅에 찾아올 때 어떤 길을 통해서 오겠느냐? 최대의 직단거리니까 뭐예요? 수직이지요? 이것은 수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단거리입니다. 사랑이 제일 빠르고 직단거리를 통한다 하게 될 때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접착지는 완전 수평 가운데 한 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예요. (211-77, 1990.12.29) p.2416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서 만난다구요? 그 결착점이 어디예요? 거기는 사랑의 결착점 , 생명의 결착점, 혈통의 결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도대체 어디예요? 남자 여자의 생명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남자 여자의 혈통, 피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혈통 그리고 남자 여자의 생명, 남자 여자의 사랑, 남자 여자의 혈통이 이 한 점을 중심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후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05-63, 1990.7.7) p.2417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담과 해와가 선한 자녀를 가져 참부모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영존의 부모위(父母位)를 실체적으로 확정짓고, 하나님이 인간 혈대를 통하여 자자손손 번성함으로써 천상천국의 시민을 무한으로 두고 싶어하신 이상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77-198, 1996.4.16) p.2417

Top

㉰ 신인애 일체이상을 정착화해야

하나님이 창조 당시 이상으로 바랐던 참된 사랑, 위대한 참사랑을 중심삼고 인간과의 참사랑 관계를 맺어 하나될 수 있는 이런 신인애 일체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염려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인간의 참사랑이 주체적 참사랑과 상대적 참사랑으로 하나되어서 한 점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이 다른 두 사랑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랑의 방향과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바라는 절대적 이상세계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5-54, 1995.10.30) p.2417

결혼이 뭐냐? 자아의 완성입니다. 남자 여자의 완성인 동시에 횡적인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여기에서 자녀와 형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들어옵니다. 형제가 있고,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현 하현, 우현 좌현, 전현 후현이 하나되어 이상적 구형이 되어 하나님은 결혼하는 여기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정에 머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은, 이 스페이스에 들어간 구형의 모든 힘은 이 기준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부 중심삼고도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게 뭐예요? 자궁입니다.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거기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영 계가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252-119, 1993.11.4) p.2417

아담과 해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참사랑 이상을 저버린 불륜의 범죄입니다. 지켜야 할 계명이 필요했던 타락 전 아담과 해와는 미완성 단계, 즉 성장기간에 타락했습니다. 인류 조상의 첫사랑의 결합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완성이기도 하므로 마땅히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도, 우주 만상도 환희와 축복 속에 취하는 행복한 잔치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인간 속에서 시원(始原)을 이루면서 정착하는 행복한 의식이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체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불안에 떨었습니다. 천도를 거역하는 거짓사랑·거짓생명·거짓혈통의 근원을 만든 불륜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288-126, 1997.11.26) p.2418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담과 해와와 사탄이 결혼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한 점에서 결착하는 것입니다. 한 점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점이 되면 두 세계가 되는 것이고, 두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신인일체가 되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 방향에 나타나는 개인도 완성이요, 한 방향에 나타나는 가정도 완성이요, 한 방향에 나타나는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에 맞는 것입니다. (265-80, 1994.11.20) p.2418

기성교회와 통일교회가 다른 것은 뭐냐? 통일교회는 신인일체를 사랑을 중심삼고 정착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성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속되고 죄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될 수 있어요? 그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가는 곳은 피를 많이 흘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끌어넣어 침략하고 탈취한 것입니다. 독재자를 냈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249-145, 1993.10.8) p.2418

Top

④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 지상과 천상천국 건설은 참사랑으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무얼 해주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축복으로 결혼식을 해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들딸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편성하여, 이것을 번식시켜 종족과 민족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넓혀지면 그 세계는 무슨 주의 세계예요? 하나님 주의 세계인 동시에 아담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이념이 있다면 이는 아담주의 이념이요, 거기에 우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우주관이요, 천주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천주관이요. 생활관이 있다면 아담주의 생활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색인종이 알록달록하고 그런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니 수많은 민족 피부 색깔이 다른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수많은 민족의 언어가 달라졌던가? 인류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분립시켰다는 겁니다. (156-202, 1966.5.25) p.2418

한 나라를 보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에 천국을 실현한다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만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어디냐? 지구성입니다. (96-15, 1978.1.1) p.2419

선생님이 80 세까지 1 대에 모든 것을, 영계를 완전히 해방하는 것입니다. 지상 천상, 부처면 부처, 가정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끼리 천국 들어가야지 혼자 못 들어갑니다. 지옥문, 천국문을 다 열어 놓고 전부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선조들이 줄을 지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안내해 줍니다. 옛날에는 사탄들이 자기가 욕망하던 것을 중심삼고 구덩이를 파놓고 천년만년 못 가게 했습니다. 심부름시켜 먹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다 철폐해 버렸어요. 거짓말 같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고 보라구요. 왜? 영계의 사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후대에 가서 걸리는 것입니다. (300-74, 1999.2.21) p.2419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지옥까지 평준화시켜야 합니다. 그 길을 개척해 가지고 평화의 천국기지까지, 지옥문을 타파해 버리고 천국 문을 개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와 영계 어디든 지…. 지옥이라는 한의 그 문턱이 하나님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무너뜨려 놓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면 문 총재가 한 것이 무엇이냐? 개인적 문을,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지옥까지 막혀 있던 것을 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를 닦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지상만이 아닙니다. 영계가 전부 다 평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정적 평준화, 종족적 평준화, 민족적 평준화, 국가적 평준화, 세계적 평준화, 천주적 평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느냐? 남자와 여자의 가정 형성으로 말미암아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2-226, 1999.6.14) p.2419

참부모님은 실체세계에서 초민족적인 축복의 인연을 중심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됨으로써 지상에서 개인해방, 가정해방, 종족해방, 민족해방, 국가의 해방권이 이루어집니다. 그 해방권은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천국 사랑의 나라, 천주사랑의 나라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참부모를 중심삼은 모든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서 통괄적인 면에서 총 청산을 지어 가지고 개인축복, 가정축복, 종족축복, 민족축복, 국가축복, 세계축복, 천주까지 축복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계와 육계의 축복가정 일체화권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아담을 중심삼은 천국 이념의 기반이 역사 이래의 모든 가정들을 중심삼고 동일적인 가치의 자리에서 성립되어 지상천국의 현현과 천상천국이 현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요, 참부모는 지상을 평준화할 수 있는 횡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7·8 절을 중심삼고 천지부모 천주안식권을 선포해서 새로운 시대가 출발함으로써 9-9 절을 중심삼고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303-257, 1999.9.9) p.2420

조수(潮水)가 나갈 때는 나쁜 게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맨 나중에 나간 게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탕감복귀하기 때문에 같은 물, 같은 달을 보게 되면 중간에 서 가지고 이 둘이 들어와서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하나될 때 거기 딱 걸린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딱 한 대에 수평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완전히 추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부모는 쫓아내고 참부모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지옥을 철폐해 가지고 영계에 있는 조상들을 결혼시켜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수억, 수백 억, 수천 억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영계를 천국으로 리드하는 게 우리의 조상입니다. 지상에서 후손들은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종적으로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로 합하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 기반입니다. (300-224, 1999.3.14) p.2420

이제부터 국가, 민족적인 그룹이 연합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나라와 종족 가정이 연합해 가지고 통일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급속히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사탄들이 와서 가만히 안 두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까지 지옥 데려 가려고 했지만 천국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협조하고 조상들까지 천국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으니 해방권이 됨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미래의 세계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98-221, 1999.1.8) p.2420

영계는 참부모주의와 아담주의가 나타나기를 모슬렘 패나 공자 패나 석가 패나 다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적인 방향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도 참부모의 역사가 세계적인 기준으로 찾아 올라가게 될 때 모든 종교의 경계선은 없어지고, 통합운동이 영계의 움직임을 따라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지상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일교회가 세계주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계의 영인들이 전부 영계에 있지를 않습니다. 목적이 지상에서 완성해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재림하게 됩니다. 전부 활동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첨단이 돼 가지고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수천억이 되는 영계의 영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영계에 딱 갖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이름 앞에 하나의 통일된 세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161-222, 1987.2.15) p.2420

이제 영계의 해방권까지 이루었습니다. 영계와 지상의 평준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의 봄, 지상의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나라에 봄이 왔지만 지상은 여름이었는데 이제 지상에서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서 하늘나라의 영원히 계속할 행복의 이상, 전부를 소화하고 새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봄의 계절이 지상에 찾아오기 때문에 지상의 시대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선생님이 지금 취한 것이 뭐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비롯해서 전부 다 '평화'라는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301-288, 1999.5.5) p.2421

이제 해방시대를 맞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지구를 중심삼은 우주가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늘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까지 축하하는 분위기 일색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모든 일은 천운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천운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곤 하지만 천운이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돕는다구요. 이 말이 뭐냐하면, 하나님과 영계가 수많은 선조들과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땅을 도울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해방권을 이룰 수 있고, 탈바꿈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298-226, 1999.1.8) p.2421

Top

㉦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해방할 것입니까? 힘으로? 지혜로? 하나님 해방이 뭐냐?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에 와 가지고 좋아하고, 남한에 있던 사람들이 북한에 가게 되면 북한이 해방되고 남한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있지만 사탄세계의 가정 저 밑창까지도 좋아하는 거예요. 못사는 사람의 가정에 가더라도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면 좋아하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선생님을 중심삼고 이런 역사과정을 거쳐 나오면서 선생님이 해원성사를 얘기했는데, 해원이 뭐예요?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밑창에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해방하려면 쓰레기통까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좋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걸리면 해방 안 되는 거예요. (181-191, 1988.10.3) p.2421

참사랑을 완전히 가져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내가 재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참사랑의 완성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마음대로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직감을 가지고 전능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가지면 전부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복할 수 있고, 사탄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되지, 하나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영계에서 타락 때부터 찾기 위해 나오던 그 가치적인 모든 것을 땅에서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292-277, 1998.4.27) p.2422

선생님의 팔십 평생에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영계로부터 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탕감복귀, 해방권을 위하여 예수가 죽었던 사실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문화권으로 통일천하 될 수 있을 때는 모든 조건을 넘어왔지만 통일천하가 안 된 기반에 있어서 오시는 주인 양반을 못 모시고 반대하게 될 때는 전부 다 사탄의 올무에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총재는 광야로 쫓겨나서 혼자예요, 혼자. 우리 부모들까지도 나를 이해 못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다시 상륙해 가지고 40 여년의 역사적 모든 탕감노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211-198, 1990.12.30) p.2422

선생님 시대는 모든 것이 해방입니다. 모든 것이 해방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 해방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수많은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의 분별적 역사의 가치를 쌓고, 쌓고, 쌓아 가지고 해방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자체 되는 우리 축복가정들은 전체의 해방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물건 전체를 대신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80-292, 1997.2.13) p.2422

심정권이 얼마나 멋진 곳이냐? 억천만금을 주고도 못 삽니다. 지구 같은 다이아몬드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심정권을 중심삼고 주체와 더불어 상대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주가 내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가치 기준을 스스로 알고, 그 가운데 해방자로서 천주를 활보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전부 다 지시해 가지고 내 요청에 의해 천하만상이 화합 화답하는 자유 해방권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겁니다. 이게 통일교회의 자랑입니다. (210-320, 1990.12.27) p.2422

우리의 조상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혜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아래 영까지 전부 다 청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2 차로 될 때는 완전히 문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생-장성-완성을 넘어서면 3 차 이 2000 년까지 전부 다 부모님이 이 땅에 참부모로 와서 거짓부모에게 할퀸 모든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새로운 천지법을 발표하는 거예요, 천지해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맹세문 8 번이 생겼지요?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애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입니다. 해방이 아니라 해방권입니다. 여러분 집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 여러분 세계를 지상에서 완전히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293-252, 1998.6.1) p.2423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으려면 절대복종?절대순종?절대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생축의 제물이 되겠다는 심정 일치권을 중심삼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이상 사랑을 지녔어야 부모님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이상 사랑하는 그 사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해방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아들딸을 가짐으로 비로소 아들딸을 찬양하고 아들딸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해방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66-288, 1995.1.1)

[텍스트 입력]